

# 韓國戰爭史

第2卷（改訂版）

## 遲延作戰期

（1950. 7. 5 ~ 1950. 7. 31）

國 防 部





大統領 朴正熙







國防部長官 盧 載 鉉



國防部次官 金 容 然



合同參謀會議 議長  
陸軍大將 金 鍾 煥



各軍參謀總長



陸軍大將 鄭昇和



海軍大將 金鍾坤



空軍大將 尹子重



## 序 文

複雜多端한 周邊情勢 속에서 莫強한 國軍의 威容과 더불어 自主安保의 굳건한 態勢를 國內外에 誇示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해에 韓國戰爭史 제 2권 改訂版을 엮어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國軍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完遂한 護國의 使命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고비이었던 「遲延作戰期」의 戰鬪經緯가 이 上梓本에서 많이 補完되었기 때문이다.

무릇, 史錄이란 지난 날의 일들을 글로 엮어 남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거울로 삼는데에서 큰 意義를 찾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國防部는 韓國戰爭 3년간의 民族的 試鍊을 돌이켜 보는 가운데서 備邊方略의 活訓을 提高키 위하여 韓國戰爭史를 各 作戰期別로 公刊하여 왔으며, 既刊된 제 1권 改訂版에 이어, 이번에는 제 2권을 改訂하게 된 것입니다.

兵力 및 裝備面에서 壓倒的으로 優勢한 北傀의 南侵을 견제하며, 撤收遲延의 苦楚를 겪어야만 하였던 이 作戰期는 實로 民族의 命運이 百尺竿頭에 달린 危局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사전에 北傀의 南侵野慾을 直視하지 못하고, 漠然한 安保觀과 袖手無策의 安逸속에서 警戒와 臨戰態勢를 소홀히 한 結果이었던 것입니다.

이 冊의 發刊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朴正熙 大統領 閣下께서 거듭 強調하시는 「有備無患」의 教訓을 肝銘하며, 지난 날의 이 受難期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날, 우리 韓半島를 圍繞한 列強間의 關係가 微妙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國際關係란 항상 利害를 바탕으로 激變하는 性質의 것이라는 사실을 洞察하고, 國際潮流의 表面的인 흐름에 眩惑됨이 萬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極惡한 好戰狂으로 全世界의 指彈을 받고 있는 北傀 金日成徒黨이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의 妄想을 버리지 않는限, 韓半島의 戰爭再發의 危機는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國防力을 啓發補強하여 自疆自衛의 總力安保態勢를 다짐하면서 내일의 隆興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이 힘의 背景으로 戰爭을 事前에 抑制하고, 平和統一의 길을 開拓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本卷은 「絶對로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被動的 戰例」를 일깨워 주는 史錄이어야 하며, 「臨戰即應의 大本을 自得」하는 教範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임은 勿論, 現役軍人 여러분의 戰術練磨와 江湖諸賢의 安保隊列參與에 指標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79년 5월 30일

國防部長官 盧 載 鉉

## 發 刊 辭

韓國戰爭의 緒戰期에 있어서의 必要한 補完作業을 거듭한 本委員會는 改訂版 제 1 권에 이어, 여기 제 2 권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本卷은 遲延作戰期로서 1950년 7월 5일에 水原을 沿한 線에서부터 시작하여 7월 31일에 洛東江을 넘어서기 직전까지의 戰況을 더욱 昭詳히 網羅한 것입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이 期間이야말로 本戰爭중에서도 가장 惡戰과 苦鬪를 거듭한 難局이었습니다.

駐日 美地上軍이 當황하게 赴援하고, UN의 旗幟아래에서 自由陣營의 軍士들이 赴援하기 시작한 것도 이 期間이지만, 우리가 被動的인 立場에서 戰勢를 뒤집어 엎기에는 未裕하였던 탓으로 萬不得已 여러 곳에서 밀리는 바 되어 마침내는 時間을 벌기 위하여 最大限의 努力을 傾注하였던 것입니다.

즉, 錦江線에서, 小白山脈의 回廊에서, 東海岸에서, 그리고 西南部戰線과 洛東江 下流의 西쪽에서, 侵略軍의 壓力을 排除키 위하여 UN軍과 더불어 荆棘의 길을 걸어야 했던 國軍의 奮戰 모습을 남김없이 담고자 힘써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二九年前의 지난 옛 일이라하여 一場惡夢의 過去之事로 보아넘길 수 없는 民族의 絕叫과 念願이 응어리진 護國의 試鍊期이었던 만큼, 永劫에 걸쳐 祖國 大韓民國의 自主自立과 더불어 언제나 生生한 歷史的 教訓이 여기서 우려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既刊 제 2 권을 檢討하여 漏落된 점을 補完하고 本卷에서는 主要戰鬪와 個人의 戰功 등을 다시 깊이 파고 들었다고 自負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간 탓으로 싸움 현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建物이나 橋梁도 옛것이 아니기에 할 수 없이 그대로 現地攝影을 하게 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더우기 現地로出張나간 여러 委員들이 交通이나 宿食의 不便을 무릅쓰고 山野를 헤메는 동안 수상한 사람으로 誤認을 받아 警察官이 급히 달려오는 등의 場面도 여러번 있었던 바, 이와 같은 委員들의 報告에 接할 적마다, 우리나라의 防備態勢가 날로 增強하여진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一線이나 後方各地에出張한 우리 委員들에 對하여, 陰陽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적지 않으므로 여기 感謝의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本是, 적은 人員으로 많은 일을 분담하였기에 各 委員들은 그야말로 公休日이나 定期休暇도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自宅에서 夜間作業한 勞苦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분에게 뜨겁고 깊은 感謝의 뜻을 表하면서 發刊辭에 代하는 바입니다.

1979년 5월 30일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焜 錫



## 凡 例

1. 本卷의 編纂에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주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卷은 分類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한다.
  - 나. 章은 作戰地域으로 구분하되, 全秩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 다. 節 以下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 節—1. 2. 3. 4. 5.
    - 項—가. 나. 다. 라. 마
    - 目—(1) (2) (3) (4) (5)
    -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章 사이에는 「概說」을 章과 節 사이에는 「要旨」을 넣는다.
3. 概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期間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 나. 國內外 政治政勢의 大要.
  -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 마.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 바. 彼我政府 및 軍部の 주요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 사.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 아.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 등의 變遷에 관한 事項.
  - 자.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나.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 그 행동의 大要.
  - 다.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안에서 취급한 事項이라도 必要內容은 이본 本卷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活動에 屬하는 事項은 加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별도로 이를 추려 「後方關係史」에 실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에 의하지 않고 從前것을 사용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뒤의 것은 點線으로 표시하였다.

나. 我軍과 敵軍과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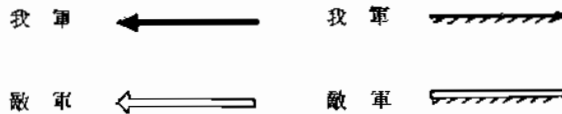
다. 行軍路와 攻擊 및 突擊方向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時期와 場所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事項은 要圖에 記錄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圖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別冊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青色, 敵軍은 赤色으로 구분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 하여 本文 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破線으로 구분한다.

例:



10.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左右)등, 한글로 써서 그 뜻이 混同될 우려가 있는 것은 漢字를 쓰기로 하였다.

11. 되도록 慣用 軍事術語를 쓰되 各軍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所屬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鬪마다 獨立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 경과의 개요」 앞뒤의 각각 「전투전의 개황」 및 「전투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3. 戰鬪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이를 제1, 제2차 등으로 그 前後를 구분키로 한다.

14. 기타 細部에 관한 事項

가. 略語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將軍 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 등에는 卷別로 일련번호를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 등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1950年 6月 25日 오전 5시 45분

50. 6. 25. 05. 45

마. 필요한 경우, 부대 記號에 있어서는 北僞軍을 NC로 표시하고 그 밖의 外國軍은 일반 慣用語를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文敎部 案과 육군대학 규정 부호 및 군특명검열단 발행의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 韓國戰爭史 第2卷 (改訂版) 目次

序文 國防部長官 盧載鉉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烟錫  
 凡例

### 遲延作戰期

概說.....( 9 )

### 第8章 京釜國道沿邊의 角逐

- 要旨.....( 35 )
1. 烏山 附近의 遭遇戰.....( 36 )
  2. 平澤—烏致院 附近의 美軍戰鬥.....( 69 )
  3. 韓·美戰線의 一般的인 趨勢.....( 109 )

### 第9章 車嶺山脈地域의 角逐

- 要旨.....( 157 )
1. 丹陽 附近 戰鬥.....( 158 )
  2. 忠州—水安堡 附近 戰鬥.....( 204 )
  3. 陰城 附近 戰鬥.....( 234 )
  4. 鎮川—清州 附近 戰鬥.....( 274 )

### 第10章 小白山脈回廊의 遲延戰

要旨.....( 329 )

2.

1. 豐基—榮州 附近 戰鬪…………… ( 330 )
2. 聞慶 附近 戰鬪…………… ( 379 )
3. 化寧場 附近 戰鬪…………… ( 422 )

## 第11章 錦江線의 防禦

- 要 旨…………… ( 457 )
1. 大平里—公州 附近의 美軍戰鬪…………… ( 458 )
  2. 大田 附近의 美軍防禦戰…………… ( 497 )
  3. 尙州—金泉 附近의 戰況…………… ( 537 )

## 第12章 東海岸方面의 角逐

- 要 旨…………… ( 559 )
1. 蔚珍 附近 戰鬪…………… ( 560 )
  2. 盈德—江口 附近 戰鬪…………… ( 581 )

## 第13章 洛東江上流地域의 角逐

- 要 旨…………… ( 605 )
1. 青松 附近 戰鬪…………… ( 606 )
  2. 安東 附近 戰鬪…………… ( 639 )
  3. 店村—幽谷—恩城 附近 戰鬪…………… ( 664 )
  4. 咸昌 附近 戰鬪…………… ( 706 )

## 第14章 西南部方面의 角逐

- 要 旨…………… ( 725 )
1. 湖南地區의 戰況 …………… ( 726 )
  2. 咸陽—安義—居昌 附近 戰鬪…………… ( 785 )

3. 陝川—勸彬里 附近 戰鬥.....( 806 )  
 4. 河東—晉州 附近 戰鬥.....( 820 )

## 第15章 海軍의 活動

- 要 旨.....( 845 )  
 1. 韓國海軍의 作戰 .....( 846 )  
 2. UN 海軍의 作戰 .....( 868 )

## 第16章 空軍의 活動

- 要 旨.....( 891 )  
 1. 韓國空軍의 作戰 .....( 892 )  
 2. UN 空軍의 作戰 .....( 907 )

## 第17章 國立警察의 活動

- 要 旨.....( 927 )  
 1. 中部 및 東部警察의 活動 .....( 928 )  
 2. 西南部警察의 活動 .....( 941 )

## 附 錄

1. 陸本作命.....( 955 )  
 2. 陸本訓令.....( 981 )  
 3. UN 決議文 및 其他.....( 990 )  
 4. 年 表.....( 994 )  
 5. 戰歿者名單.....(1007)  
 6. 索 引.....(1018)

## 狀況圖 目次

제 1 호	美地上軍의 赴援狀況 (7.6).....	(16)
제 2 호	我軍의 지연작전狀況 (7.6—31).....	(24)
제 3 호	烏山附近의 作戰地域.....	(37)
제 4 호	韓·美兩軍부대의 最初配置 (7.3~4) .....	(46)
제 5 호	烏山附近의 韓·美兩軍부대狀況 (7.5).....	(53)
제 6 호	作戰地域의 地形圖.....	(72)
제 7 호	平澤附近의 狀況 (7.6).....	(79)
제 8 호	天安附近의 狀況 (7.7~8) .....	(88)
제 9 호	全義附近의 狀況 (7.10) .....	(98)
제 10 호	美谷里附近의 狀況 (7.11) .....	(103)
제 11 호	敵의 侵攻企圖 其一 (6.29~7.6) .....	(111)
제 12 호	敵의 侵攻企圖 其二 (7.7~8.1).....	(113)
제 13 호	韓·美兩軍의 初期狀況 (7.5~6) .....	(120)
제 14 호	京釜國道邊의 韓·美兩軍狀況 (7.7~23).....	(126)
제 15 호	後方地域의 編成狀況 (7.7~17).....	(137)
제 16 호	西南部地區의 狀況 (7.24~26) .....	(148)
제 17 호	敵사단의 前方 지휘소 기습 (7.8).....	(165)
제 18 호	敵의 渡河 (7.8.23.00~9.03.00) .....	(170)
제 19 호	障地線의 崩壞 (7.11) .....	(190)
제 20 호	作戰地域과 敵의 侵攻狀況 .....	(211)
제 21 호	제 2 연대의 反擊狀況(7.9) .....	(227)
제 22 호	陰城附近戰鬪 (7.5.00.01~24.00).....	(241)
제 23 호	陰城附近戰鬪 (7.6.00.01~24.00).....	(242)
제 24 호	同樂里戰鬪 (7.6~7).....	(246)
제 25 호	제 1 사단의 最初配置 (7.8.15.00).....	(254)
제 26 호	陰城撤收 (7.10.06.00).....	(266)
제 27 호	院德里戰鬪 (7.9.12.00~24.00 .....	(287)
제 28 호	烽火山戰鬪 (7.9.12.00~24.00).....	(289)
제 29 호	文案山戰鬪 (7.9.12.00~24.00).....	(292)

제30호	院德里戰鬪 (7. 10. 08. 00~20. 00) .....	(295)
제31호	烽火山戰鬪 (7. 10. 01. 00~18. 00) .....	(297)
제32호	文案山戰鬪 (7. 10. 01. 00~16. 00) .....	(300)
제33호	孝村里戰鬪 (7. 15. 08. 00~16. 24. 00).....	(315)
제34호	壯岩里戰鬪 (7. 16. 20. 00~17. 02. 00).....	(319)
제35호	7월 18일의 戰況 .....	(338)
제36호	7월 19일의 戰況 .....	(347)
제37호	7월 20일의 戰況 .....	(358)
제38호	7월 22일의 戰況 .....	(367)
제39호	7월 23일의 戰況 .....	(374)
제40호	作戰地域과 戰鬪前 彼我의 配置狀況.....	(385)
제41호	梨花嶺의 交戰狀況 (7. 14) .....	(395)
제42호	제19연대의 戰況 (7. 15~16) .....	(407)
제43호	제17연대 제1대대의 上達里戰鬪 (7. 17~18).....	(429)
제44호	제17연대 제2대대의 東觀里 섬멸戰 (7. 21) .....	(441)
제45호	제1사단의 化寧場 부근의 戰鬪 (7. 23~24) .....	(448)
제46호	作戰地域의 道路網.....	(460)
제47호	제34연대의 最初 부대 配置 (7. 13) .....	(466)
제48호	제19연대의 最初 부대 配置 (7. 13) .....	(475)
제49호	제1대대의 역습狀況 (7. 16) .....	(481)
제50호	敵의 보급로 차단狀況 (7. 16).....	(490)
제51호	作戰地域의 道路網.....	(499)
제52호	부대配置 (7. 17).....	(503)
제53호	부대配置 (7. 19).....	(505)
제54호	美제34연대의 大田 철수狀況 .....	(525)
제55호	제27연대의 遲延戰 (7. 23~92) .....	(545)
제56호	제23연대의 蔚珍탈환 (6. 29~7. 1).....	(566)
제57호	제23연대의 蔚珍撤收 (7. 1. 08. 00~12. 00) .....	(576)
제58호	△181고지 탈환 (7. 26).....	(590)
제59호	△339고지의 戰鬪 .....	(611)
제60호	主抵抗線의 堅守.....	(613)
제61호	8월 2일의 戰況 .....	(619)

제 62호	靑松으로의 遲延戰	(624)
제 63호	8월 5일의 戰況	(629)
제 64호	7월 31일의 戰況	(648)
제 65호	戰鬪前 彼我의 配置狀況 (7. 18)	(670)
제 66호	店村—幽谷—恩城戰鬪 (22~25)	(686)
제 67호	店村—幽谷—恩城戰鬪 (26~27)	(698)
제 68호	경동貯水池 부근 戰鬪 (7. 28~28)	(710)
제 69호	湖南地區의 重要交通網	(731)
제 70호	敵의 錦江渡河狀況	(740)
제 71호	雲峰附近의 狀況 (7. 24~25)	(790)
제 72호	閔부대의 咸陽撤收狀況 (7. 28)	(799)
제 73호	月捕洞—△317 戰況 (7. 31)	(810)
제 74호	望月山—△551 攻防戰 (8. 1)	(813)
제 75호	十二里—月谷 유격대 격멸戰 (8. 3)	(816)
제 76호	쇠고개(牛峙) 戰鬪 (7. 27)	(824)
제 77호	柳樹里 및 平居洞戰鬪 (7. 30~31)	(834)
제 78호	舊湖里 및 開揚洞戰鬪 (7. 30~31)	(835)
제 79호	西海岸 封鎖作戰海域 (7. 5~15)	(851)
제 80호	各艦艇 擔當海域 (7. 12)	(852)
제 81호	海軍作命 甲제 75호에 의한 海軍의 경비海域 (7. 26)	(857)
제 82호	各艦艇 경비狀況 (7. 26)	(859)
제 83호	東海岸 함포射擊 (7. 5~17)	(870)
제 84호	浦項上陸 및 航母活動	(877)
제 85호	近接航空지원狀況	(885)
제 86호	F-51 戰鬪機의 對地攻擊作戰 (7. 5~31)	(898)
제 87호	美제 5 공군의 부대 配置 (1950. 6)	(912)
제 88호	美제 5 공군의 부대 配置 (1950. 7. 10)	(913)



# 遲 延 作 戰 期

## 概 說



# 遲 延 作 戰 期 概 說

참조 : 별책부도 제 1 호

상판도 제 1, 2 호

緒戰에서 孤軍奮鬪한 我軍은 赴援軍과 더불어 새로운 作戰을 摸索하였으나, 그들의 侵勢가 全域으로 擴大됨으로써 波瀾 많은 戰局을 이루게 되었다.

本卷은 이 遲延作戰期의 狀況展開를 담은 것인바, 여기에는 새로운 戰鬪記錄들을 발굴하여 收錄하였고, 또한 證言과 史實中心으로 體系化하였다. 따라서 이 期間의 戰況이 始終混沌과 交錯으로 一貫하니 마름 本文의 編綴을 地域別로 묶어서 彼我의 戰鬪經過를 容易하게 把握토록 하였고, 水原—平澤線에서 敵을 邀擊한 7월 5일부터 洛東江의 最後堡壘線에 이르는 同월 末까지의 狀況을 概觀하였다.

## 1. 自由盟邦의 遷起

北傀의 侵略行爲를 정지토록 命令하는 UN安保理의 제 1 차 決議는 美·蘇 兩陣營의 向背를 가름하는 契機가 되었다.

즉, 이 決議過程을 通하여 11개 同理事國의 韓國支持性向과 推移를 내다볼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중에 UN駐在 U.S.S.R 代表 Jacob A. Malik는 中國代表權문제에 계속 不參中이었고, 그 대신 駐美 韓國大使 張 勉이 非會員國으로서 唯一하게 同理事會에 參席케 됨으로써 이때부터 情勢가 韓國에 有利하게 展開될 것으로 展望되었다.

同決議案의 表決結果에 따르면, 美國, 英國, France, Norway, India, Egypt, Cuba, Ecuador, 中國의 9 개국이 贊成하고, Yugoslavia가 棄權함으로써, 9:0의 壓倒的인 多數決로 通過된 것이다. 그런데 Yugoslavia가 이때, 北傀代表를 招請하여 發言토록 하자는 엉뚱한 動議案을 내어놓음으로써 이를 表決에 붙인 결과 6:3으로 廢棄하고 말았는데, 同案에 同調한 國家는 提案國을 包含하여 India와 Egypt로 나타났고 Norway는 棄權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贊反의 性向은 本決議를 無視하고, 계속 南侵을 敢行하고 있는 北傀一黨을 共同으로 膺懲키 위하여 挺起한, 제 2 차 決議때에도 비슷한 結果를 나타냈는데, 다만 Yugoslavia가 反對로 기울었고, Egypt와 India가 棄權함으로써 최초 7:1이었으나, 뒤에 India가 贊成으로 바꾸어 결국 8:1로 通過된 것이었다.

既知의 事實이지만, 各國共產黨의 活動이 激化되면서 이미 5월 28일에는 東獨共產黨의

前衛라고 自稱하는 分子들이 西 Berlin에 侵透하여 示威과 暴動을 전개하였고, Austria의 U.S.S.R占領 地域에서는 赤軍이 增派되어 暴力과 掠奪을 일삼는 등, 이 유럽의 Europe 一帶에는 某種의 危機가 닥쳐올 것이라는 觀測아래, 超緊張狀態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때를 같이하여 東歐의 7개 衛星國駐在 U.S.S.R大使들의 本國召還과 各國共產黨 頭目들의 Moskva行이 注目を 끌었다.

또한, Asia 地域에서도 中共의 本土赤化에 뒤이어 台灣의 侵攻說이 대두되고, Philippines과 Indochina에서는 이른바 解放鬭爭이라는 名目の 게릴라活動이 날로 激化하고 있었다. 이러한 緣由로 Malik가 자리를 비우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 當時의 Stalin의 黑心인즉 이 戰爭에 대하여 傍觀의인 沈默으로 外飾하면서, 中共이 本土를 武力으로 席卷한 方式으로 南韓을 併呑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年初의 美國務長官 Acheson의 發言대로 美國이 韓國을 拋棄하지나 않을까 하는, 半信半疑속에서 侵略의 冒險을 使嗾하기에 이른 것인데, 世界各國은 이때까지 美國의 態度가 消極의인만큼, 各自의 態度도 또한, 分明치 않은 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6월 28일의 美國의 態度는 強硬하였다. 이날, 大統領 Truman은 UN駐在 美國大使 Warren R. Austin을 통해 聲明을 發表하였는데, 그 要旨에서 그는 『이 戰爭이 共產主義 侵略의 한 前驅로 看做하며…… 그 手法이 國內攪亂에서 武力侵攻으로 轉換한 것이므로, 美國은 韓國을 비롯하여 台灣과 Philippines 그리고 Indochina를 援助할 것』이라고 闡明하였다. 同時에 美國은 兩面外交를 通하여, 같은날 U.S.S.R駐在 美國大使를 通하여 『侵略者 北傀에게 影響力을 行使하여 38°線으로 撤退를 實現토록 勸誘하라.』라는 通牒을 U.S.S.R 外務省에 傳達하는 한편, 北傀의 武力侵略을 擊退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에 必要한 軍事援助를 提供한 것을 勸告』하는 제 2차 決議案을 提議하여, 이를 採擇함으로써 自由陣營의 行動統一을 促求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U.S.S.R는 Moskva放送을 通하여 26일의 安保理 제 1차 決議는 無効라고 主張하였는데, 그 理由인 즉, 自身과 北京政權(中共)의 代表등 2개의 常任委員國이 缺席하였으므로 同決議는 無効라는 억지 수작이었다. 또한, 同 제 2차 決議에 대해서도 같은 理由로써 有効로 볼 수 없다고 通報하고, 美國이 보낸 提議에 대해서는 聲明書形式의 回信을 通하여 이르기를 『① 侵略은 韓國이 한 것이기 때문에 責任은 韓國과 그 背後 操縱國에 있으며, ② 韓國事態는 內亂에 不過하므로 外國의 援助는 內政干涉이 된다. ③ 自身이 UN安保理에 不參한 것은 北京政權의 代表加入을 美國이 妨害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代表가 없는 安保理는 不法이다.』라고 하며, 露骨의인 反對意思를 表하였다.

이 兩面外交의 論爭을 頂點으로 하여, 共產衛星國들은 侵略元兇에게 加勢하고, 自由陣營은 漸次 美國을 중심으로 結束과 漸起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6월 29일에 戰線視察을 마치고 Tokyo의 極東軍司令部에 돌아간 MacArthur元帥

는 地上軍의 投入과 38°線 以北地域에 대한 海空軍의 作戰斷行만이 北傀의 侵勢를 制扼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이의 承認을 緊急히 大統領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當時, 美國의 政策背景은 地上軍의 投入을 許容할 만한 與件이 造成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제 2차 世界大戰의 終熄과 더불어 議會의 議決에 따라 國防豫算과 兵力量이 계속 削減되어, 開戰直前에는 陸軍兵力 59만 1천명에 10개사단과 9개의 전투단만을 維持하고 있었으며, 이 해 初頭부터 1개 사단을 더 減縮키로 하고, 이를 極東軍內에서 自體規制키로 하였다.

또한 이 때, JCS가 決定한 主要海外統合軍의 現況을 보면, 極東軍을 爲始하여, Alaska軍과 Carib軍 그리고 Europe軍과 太平洋軍등 5개의 統合軍으로 編成하고, 極東軍에 4개 사단과 Europe軍에 1개 사단, 그리고 나머지 5개 사단은 本國에 戰略豫備로 確保하였으며, 戰鬪團은 Hawaii와 Okinawa, 그리고 Alaska地域등에 각각 分散配置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중에서 戰線에 即刻投入이 可能な 戰鬪사단은 美極東軍의 駐日 4개 사단 및 1개 전투단이며 그 兵力은 各種支援부대를 包含하여 10만 8천명이었다. 그러나 前記한 政策으로 말미암아, 각 사단은 戰時編成에 比하여 65%水準의 減少編成을 維持하고, 이에 더하여 實兵力의 充足率은 항상 未達狀態에 있었다.

이로 因하여 각 사단은 연대마다 2개 대대로 改編하고, 砲兵대대는 2개포대로, 그리고 사단의 工兵대대는 각 중대 모두 2개 소대로 하여 全體的으로 3分の1을 減編하고, 또한 編制上的 연대 戰車중대는 사단의 戰車대대에 統合하여, M-24 輕戰車로 裝備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每年 각 부대마다 43%의 兵力을 交替하고 있었으며 또한 訓練水準도 基礎訓練을 反復하는 程度를 크게 넘지 못하여 大隊급 以下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不拘하고 당시의 JCS와 國家安保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는 極東軍師士官의 建議를 接受하자 情勢를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① 現 시점에서 U.S.S.R가 美國과 一戰을 決할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② 그들은 다만 美國의 決定을 試驗해 보기 위한 行動으로 나올 것이다. ③ 그러나 北傀는 UN의 決議에 계속 注意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Truman은 이와같은 兩諮問機關이 내린 結論을 받아들여, 30일에 이를 承認하고 즉시 聲明을 通하여 UN과 全世界에 公表하였다.

이에 따라, 極東 海·空軍은 38°線 以北地域의 北傀軍事施設을 強打하는 한편, 地上軍은 처음 1개 戰鬪단에서 다시 2개 사단의 出動이 承認되어, 本格的인 赴援態勢로 移行하였다.

이 決定過程에서 美國이 가장 憂慮한 것은 U.S.S.R의 直接的인 武力介入이었는데, 그 한 例로서 陸軍省指示 제 3호(6.30)의 末尾에 註記하기를 『本指示를 實行할 경우, U.S.S.R이 介入할지도 모르며, 그 危險性은 크다. 따라서, 本指示가 그들과의 戰爭을 容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狀況에 부딪칠 경우에는 새로운 訓令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여, MacArthur元帥의 權限을 미리 規制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決定에 대하여 당시의 世論은 外交文書의 內容이나 기타 動向으로 보아, 美國이 U.S.S.R이 이 戰爭에 介入하지 않을 것이라고 斷定하여, 이 措置를 取하였거나, 아니면 그 介入의 危險性을 무릅쓰고 斷行한 조치일 것이라고 評하였다.

다음날인 7월 1일의 安保理는 제 2次 결의에 따라, 各國이 申請한 對韓援助 內容을 檢討하였다.

이 會議에서 檢討된 內容은 첫째, 英國과 Australia, 그리고 New Zealand의 三國이 各己 日本周邊에 있는 保有海軍力을 美海軍의 指揮下에 두도록 一任함으로써 統合軍編成을 容易하게 하고, 둘째는 Ecuador 代表가 汎美理事會의 決議로써 UN의 決議를 絕對 遵守할 것을 言明하여, 그 權威와 權能을 團結된 힘으로 支持하고 나섰다. 그리고 세계로 UN會員國의 安保理 決議案에 대한 贊成 與否를 確認하였는데, 이날 現在로 59개 UN會員國中에서 32개국의 支持를 얻음으로써 共產陣營의 孤立을 實證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措置와 더불어, 自由陣營은 UN의 命令을 拒否하고 繼續 南侵하는 北傀徒黨과 그 宗主國의 陰兇性에 激忿 厭起하기에 이르고, 이어서 앞을 다투어 韓國支援에 나서게 되었다.

## 2. 駐日美軍의 出動과 韓國軍의 作戰指導

이와 함께 美 極東司令官은 本國과 協議하여, 海空軍의 出動에 이어 地上軍의 赴援을 서 들었다. 이 때, 駐日美地上軍인 제 8군(장, Walton H. Walker중장)은 제 7사단(장 David G. Barr소장)을 本州(Honshu)北部 및 北海道(Hokkaido) 一帶에, 제 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을 關東(Kanto)附近에, 제 25사단(장, William B. Kean소장)을 大阪(Osaka)附近에, 제 24단(장, William F. Dean소장)을 九州(Kyushu)에 각각 駐留시키고 있었는데, 北傀南侵의 急報에 接하자 즉각 非常態勢를 取하였다.

또한, 美極東海軍(사령관, Charles Turner Joy중장)도 제 7艦隊(사령관, Arthur D. Struble중장)의 제 77機動부대(장, 제 7艦隊사령관이 兼任)와 英國 및 Australia에서 差出한 艦隊들을 統合하여, 東西海로 出動케 하고, 30일에는 東西 兩海의 北緯41°(吉州)——北緯 39°41'(蔚川)線까지의 海上을 封鎖토록 命令하였다.

그리고, 美極東空軍(사령관, George E. Stratemeyer중장)은 日本 本州주둔의 제 5空軍(사령관, Earle E. Partridge중장)으로 하여금 出擊토록 하였는데, 該 부대의 稼動機부족으로 Johnson, 名古屋(Nagoya), 立川(Tachikawa), 橫田(Yokota), 三澤(Mizawa)의 各 基地에서 所要機를 抽出하여, 板付(Itazuke)와 蘆屋(Ashiya)의 兩 基地로 移動, Australia空軍機와 함께 우선 近接航空支援을 實施키로 하였다. 이 밖에도 臺灣과 Okinawa 一圓의 空中防衛에 任하고 있는 제 20空軍(사령관, Alvan C. Kincaid소장)의 3개 비행단과 Philippines 駐

핀의 제13空軍(사령관, Howard M. Turner소장)의 1개 비행단을 非常態勢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 중 제20空軍傘下の B-29戰爆전대가 27일에 Guam島 基地를 先發, Okinawa基地로 移動하여 戰略爆擊態勢를 취하였다. 그리고, 30일부터 38°線 以北地域에 대한 爆擊을 斷行함으로써 制空權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海空軍의 作戰地域이 擴大되고 制海와 制空權이 確保되기에 이른 30일에 MacArthur 元帥는 Washington으로부터 地上軍投入의 承認을 通報받자, 即時 제 8軍사령관 Walker중장을 통하여 제24사단장 Dean소장에게 出動命令을 下達하고, 제25사단장 Kean소장에게는 1개 전투단의 派韓과 함께 殘餘부대로써 제24사단地域의 整備를 擔當토록 하였다.

따라서, 29일 早朝부터 出動準備 態勢에 들어간 제24사단은 7월 1일에 제21연대 제 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를 先遣隊로 指名하여 重火器로 增編케한 다음, 釜山으로 空輸하였으며, 사단 主力은 이날부터 船舶편으로 海上機動을 시작하였다.

釜山에 空輸先遣된 Smith特殊任務부대는 2일 早期에 列車便으로 大田에 이르러 ADCOM의 John H. Church중장의 命令으로 安城—平澤線을 占領하고, 사단의 本隊로 맨 먼저 上陸한 제34연대도 즉시 北上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 때, MacArthur元帥의 作戰構想은, 1개 사단으로 北傀의 侵攻을 우선 阻止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出動중인 제24사단으로 하여금, 同任務를 遂行토록 함과 동시에 別途로 上陸作戰을 敢行하여 敵의 後方을 遮斷키로 作定한듯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構想은 6월 29일의 戰線視察때에 着想하여, 司令部로 돌아간 다음 具體化한듯 하였는데, 그의 回顧錄에 따르면 18世紀中葉에 Canada東部の Quebec附近에서 英國軍이 France軍의 背後에 奇襲上陸하여 成功한 戰例와 太平洋地域에서 許多하게 上陸作戰을 經驗하였던 事例들을 想起하여, 上陸作戰을 決心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指針에 따라, 極東軍사령부 作戰參謀 Edwin K. Wright소장이 主管하는 合同戰略計劃團인 JSPOG(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가 마련한, 最初의 上陸作戰計劃은 제 1기갑사단과 海兵전투단으로 하여금, 7월 22일을 前後하여 仁川附近으로 上陸을 敢行함과 동시에, 제24사단은 漢江線 北쪽으로 敵을 驅逐하고, 北進의 발판을 確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同作戰을 爲하여 제 7사단은 現位置에서 兵員을 抽出하여 우선 出動사단을 增強케 하고, 제25사단은 最初命令대로 Kyushu 北部的 整備를 強化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6일에는 제 1기갑사단장을 招致하여 同計劃을 下達하고, 上陸作戰에 착오없기를 擔부하기도 하였다.

이計劃은 제24사단의 出動과 더불어 즉시 樹立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反하여 敵은 急襲의인 侵攻으로 速戰即決을 企圖하는 듯이 보였다.

그들은 美軍이 增援되기 以前에 漢江線을 越過하여 7월 6일까지 平澤以北 지역을 占據키로 하고, 6월 30일부터 이른바 제 2차 作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北傀는 當初에 U.S.S.R와의 謀議에서 8월 15일까지의 50일 간에 이 侵略戰爭을 끝내겠다고 豪言한 듯 하였으나, 뒷날의 이른바 「祖國解放戰爭史」라는 刊行物에서는 다음과 같이 作戰段階를 設定하였다고 밝혔다.

즉, 『제 1차 作戰은 6.25~6.29간에 江陵—洪川—서울線까지, 제 2차 作戰은 6.30~7.6간에 蔚珍—忠州—平澤線까지, 제 3차 作戰은 7.7~7.20간에 盈德—開慶—大田—全州線까지 進出하고, 제 4차 作戰은 7.21~8.20간에 洛東江線에서 總攻擊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이는 당초의 侵攻計劃이 蹉跎를 빚게 됨으로써 그들의 戰鬪經過를 合理化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 結果로 侵攻線도 始終 京釜國道沿邊으로 一貫하다가 作戰末期에 이르러 數個의 方向에서 分進合擊하는 混戰相을 나타냈다.

이 最初의 衝突부터 兩者의 企圖가 이러하였으니만큼, 先制로써 急襲을 노리는 陣이 戰場을 有利하게 主導하리라는 것은 戰略上으로 보아 當然한 노릇이었다.

따라서, 緒戰期の 餘勢로 侵攻을 계속한 敵은 蔚珍—平澤線의 先占을 目標로, 東部に 제 2군단(장, 소장 金光俠), 西部에 제 1군단(장, 중장 金 雄)을 併立케 하였는데, 機動에 有利하고 要線이 重疊한 西部를 彼我的 爭奪焦點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激戰이 豫想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 侵奪時에 그들은 7개 사단을 一線에 내세웠으나, 이 要線의 侵攻에는 2개 사단을 뒤로 돌리고 5개 사단만을 先頭隊列로 내몰았는데, 이는 戰鬪地帶가 擴大되는 平澤의 南쪽地域에서 同後續사단들을 轉用코자 企圖한 때문으로 보였다. 특히 京釜國道沿邊에 主力을 指向한 것으로 보이는, 그들 제 1군단은 常套的으로 戰車隊를 先頭に 내세워 제 3, 제 4의 兩사단으로써 水原을 向하여 集中侵攻에 들어갔다.

이 때, 我軍은 收拾된 混成 6개 사단, 都合 25,000명의 兵力을 漢江—水原線에 逐次 배치하여, 赴援軍의 來著를 苦待하는 가운데에 力戰苦鬪中이었다. 동시에 新任總參謀長 丁一權소장은 7월 1일에 大田으로 移動한 ADCOM의 John H. Church 준장과 協議하여, 우선 韓·美兩軍의 整理線을 蔚珍—忠州—平澤線으로 定하고, 美軍은 國道沿邊의 西部地域을, 그리고 國軍은 中部以東地域을 分擔키로 하고, 隊伍의 整頓을 爲하여 原州의 제 6사단과 始興地區司管下의 2개 연대 및 大田의 제17연대를 急遽 轉進케 하여, 長湖院—竹山—烏山線에서 主力의 撤收를 掩護케 하였다.

또한 4일에, 駐韓美軍司令官에 任命된 제24사단장 Dean 소장은 同부사령관이 된 Church 준장의 報告를 받은 다음, 安城—平澤線에서 敵을 阻止키로 하고, 先遣한 Smith 부대를 烏山北쪽으로 推進배치케 함과 아울러, 後續北上한 1개 연대를 같은 날 下午에 該阻止線에



배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美地上軍이 北上하여 京釜國道沿邊의 占領을 서두를 무렵, 水原北쪽에서 6 일간을 挺身敢鬪로 陣地를 支撐한 我軍은 이 戰線을 引繼하고, 平澤附近으로 集結하여, 再編成코자, 4일부터 逐次撤收에 들어감으로써, 同일 下午에는 제 1사단의 撤收를 마지막으로 龍仁—水原線을 모두 내어놓게 되니, 이를 追尾한 敵은 다시 그 南쪽의 虛隙地帶를 窺視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掩護부대의 任務를 띠고 轉進한 제 6사단의 제 7연대가 陰城—無極里—同樂里線一帶에서 새로이 一線에 投入된 것으로 보이는 敵 제 15사단을 遊擊中이고, 同 제 19연대는 利川—竹山線에서 이 곳으로 繞回한 그들 제 2사단과 接觸을 維持하였다. 또한, 東海岸沿邊으로 北上한 제 23연대는 蔚珍附近에서 敵 제 5사단의 先頭와 첫 接觸에 들어갔으나, 後方に 侵透한 게릴라의 出沒로 말미암아 寧海附近으로 물러나, 다시 遲延戰을 폈고, 東部の 제 8사단은 江陵에서 炭川—丹陽間으로 後退하여, 제 6사단으로부터 中央線沿邊을 引受한 다음 여기에 대한 侵攻을 企圖하는 敵 제 12사단을 阻止中이었다.

한편, 4일에 水原에서 平澤으로 臨時指揮所를 移轉한 陸軍本部는, 즉시 主要指揮官들에게 이미 마련한 사단의 改編과 제 1군단의 創設, 그리고 中部地域으로의 轉進준비命을 下達하였다.

이리하여, 5일附로 混成 제 3, 제 5, 제 7의 3개 사단을 解編하고, 그 兵力으로써 수도, 제 1, 제 2의 3개 사단을 補強하여, 이 3개 사단으로써 제 1군단을 創設하였는데, 軍단장에는 始興地區戰鬪司令官 金弘壹 소장을 任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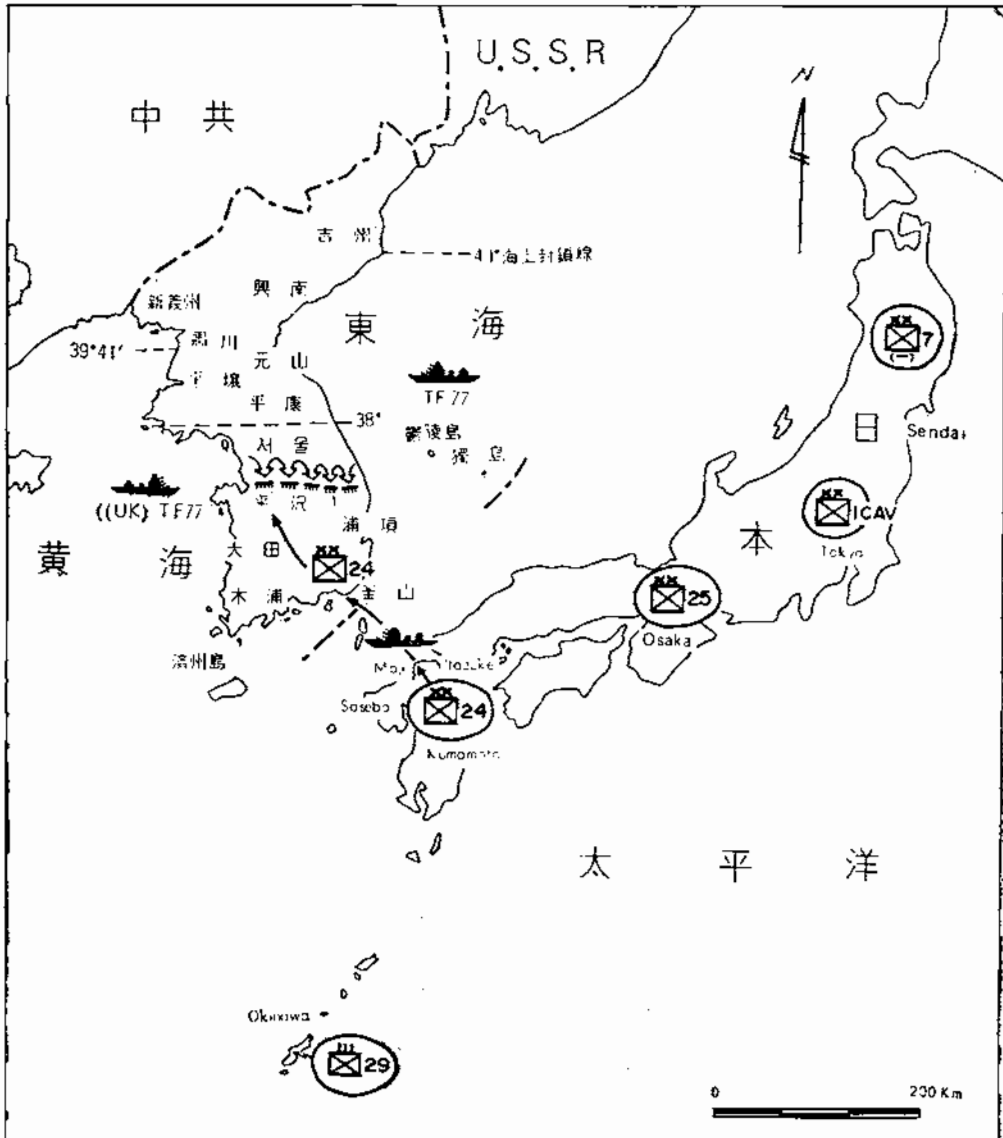
그런데, 5일 早朝부터 戰車隊를 앞세운 敵 제 4사단이 水原附近으로부터 烏山—西井里線을 向하여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烏山北쪽의 竹美고개附近을 占領한 Smith 부대와 그 後方に 있는 제 17연대가 그들과 遭遇하여 奮戰 7시간만에 兩陣地가 敵의 先頭戰車隊에 의하여 突破되고, 後續 步兵부대의 侵攻으로 同일 下午에는 西井里線까지 내어놓게 되었다.

이 緊急狀況에 接한 제 24사단장은 平澤으로 急進하여, 이 곳을 占領한 제 34연대로 하여금, 이 要線의 確保를 強調하였으나, 6일에 다시 敵侵에 밀려 咸歎—天安線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MacArthur 元帥가 기대하고 있던 反擊 과 上陸作戰은 保留될 直前に 놓이게 되었다.

한편, 水原前方에서 撤收集結中인 제 1군단은, 新陣地에 이르러 部隊增強을 계속 策하기로 하고, 5일에 移動을 개시하여 陰城附近에 제 1사단을, 鎭川附近에 수도사단을 각각 進入케 하였으며, 제 2사단은 軍단에비로 曾坪附近에 控置하였는데, 이 期間中에 離脫兵力이 계속 復歸함으로써 7일 현재 3개 사단의 戰鬪兵力이 도합 8,100명에서 19,763명으로 增加하였다.

이로써, 韓·美兩軍은 西部와 中部以東을 각각 分擔하게 되었으나, 6일에 敵이 安城—平澤線의 一角을 奪取함으로써 最初에 合意한 이 要線의 阻止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제 1군단은 陰城—鎭川線에 展開한 제 6사단의 一部를 收容하는 한편, 7일부터 이 地域으로 侵攻을 企圖하는 2개 사단규모의 敵을 反擊하고, 東海岸沿邊과 中東部の 各 사단들도 3개 사단규모의 敵과 맞서면서 且戰且退하고 있었다.

◇ 상황도 제 1호 美地上軍의 赴援狀況(7,6)



### 3. UN軍의 指揮權 統合

한편, U.S.S.R는 7월 4일字的 Gromyko聲明으로써 UN軍編成에 制動을 걸고자 하였다.

그 主張의 要旨인 즉, 첫째 韓國戰爭은 韓國人 自體의 國內問題로 看做하여 干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美軍의 撤收를 安保理에 要請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美國務長官 Acheson은 5일의 記者會見에서 Gromyko의 聲明이 事實을 歪曲한 것임을 指摘하였고, 英國首相 Clement R. Attlee도 이날 英下院에서 美國의 方針을 全幅의으로 支持하였다.

이와같은 論爭이 거듭되는 동안 UN軍 編成을 主議題로 하는 제 3차 安保理가 7일에 開催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美國은 駐日美軍의 出動과 더불어 赴援中인 英國 및 Australia의 海空軍을 單一하게 統合할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때마침 UN事務總長 Trigve Lie가 韓國支援國이 增加될 것을 豫想하여, 3일에 美國과 英國 및 France代表에게 『UN軍의 指揮는 C.C.A.K(Committee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 韓國支援協調委員會)를 通하여 施行하자.』라는 內容의 決議文草案을 配布하였다.

이에 대하여 英·佛 2개국은 同意하였으나, 美國의 JCS가 反對意思를 보였으므로 實行되지 못하였는데, 그 理由인 즉, 現地 美軍司令官이 UN과 自身의 國家로부터 2重의 指揮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作戰遂行에 지장이 클 것이므로 UN의 代理執行者이면서도 美本國의 指示만을 받게 하는, 單一指揮體系의 確立이 必要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美極東軍司令부는 13개 聯合國으로 構成된 FEC(Far Eastern Commission)를 通하여, 聯合 體制를 維持하고 있었으므로 그 傘下에 있는 會員國들은 美國에 韓國支援을 直接 要請하였고, 餘他の 會員國들도 UN보다 美國에 같은 提議를 하였으므로, JCS는 제 3차 決議以前부터 統合指揮體制를 위한 自體研究를 併行하면서 當面の 措置를 建議하였던 것이다.

그 端的인 例로서 自由中國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즉, 自由中國은 28일에 駐美大使를 通하여, 3개 戰鬪國 33,000명의 兵力과 20대의 輸送機支援을 美國에 提議하였을 때, Truman은 時急한 可用兵力이 下足하다는 理由로 이를 受諾코자 하였으나, JCS가 自由中國軍의 訓練 및 裝備의 不充分한 狀態를 들어 反對意思를 提示함으로써, 結局『中共의 介入可能性』이라는 政治的 註記를 添加하여 現地司令官에게 慎重을 期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처럼, 한 盟邦에 의한 地上軍의 支援提議를 蘇·中共의 介入을 杞憂한 나머지 拒絕되지 않을 수 없었음에 비주어 美極東軍司令官으로서의 UN에서의 決議가 내려지기 전에는 盟邦地上軍의 赴援을 期待하는 것보다도 우선, 駐日 全사단의 投入과 本土로부터의 增援으로 韓國에서의 危局을 打開코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는 이미 駐韓美軍事顧問團長 代理 W.H.S. Wright대령을 通하여, 韓國이 要請한

彈藥과 裝備을 7월 1일까지 釜山港에 荷役토록 措置하는 한편, 釜山에 軍需基地司令部(사령관, Crump Garvin준장)를 設置하여, 上陸사단의 輸送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JCS에 完全編成한 4개 사단과 1개의 空輸團 및 1개의 機甲여단이 必要하다고 提議하고, 이를 爲하여 本國으로부터 30,000명의 兵力이 緊急增員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同時에 安城—平澤線이 危殆로와진 5일에는 제24사단에 이어, 제25사단에 出動準備命令을 下達하고, 이날부터 東·西海上을 封鎖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切迫한 상황에 비추어, 그 指揮機構에 관한 適法案을 摸索中이던 UN安保理는 7일에 英·France가 共同으로 提案한 『UN軍 統合司令部 設置에 關한 決議案』을 7:0으로 可決하였다.

이 제 3차 決議文의 要旨은 『美國으로 하여금 統合軍司令部를 設置케 하고, 그 司令官을 任命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며, UN旗 사용을 許容한다.』라는 內容으로서, 이의 表決結果는 從前과 같이 Egypt와 India, 그리고 Yugoslavia가 棄權하고, U.S.S.R代表가 不參하였다.

따라서, 이 決議는 1945년 10월 24일에 51개 國에 의하여 UN憲章이 採擇된 以來로 最初의 實權行使로써 UN統合司를 編成케 된 것인만큼, UN史上 커다란 意義를 지니게 되었다. 이날, 美國代表 Austin은 賦與된 責任과 使命을 完遂하겠다고 말하였으며, Truman 역시 이를 受諾하는 즉시로 美極東軍司令官 MacArthur元帥를 UN軍統合司令官에 任命키로 한 것을 公表하였다.

그리고, UN事務總長 Trigue Lie는 UN旗를 美國代表에게 手交하고, 參戰國旗와 함께 이를 揭揚토록 하였는데, 14일에 陸軍參謀總長 Lawton J. Collins 대장이 東京에서 직접 이를 傳達하였다.

이와 더불어, 美國務省은 12일에 UN軍統合司令部가 遂行할, 要旨 다음과 같은 指針을 下達하였다. 『國際政治上의 理由로 우리의 作戰任務는 UN安保理의 支援下에 遂行된다는 事實을 계속 留意하는 것이 重要하다…… UN軍의 活動狀況을 每週 1회씩 UN에 報告하되 陸軍省과 國防省을 經유하여 國務省 및 UN駐在美國代表에게 提出토록 하라.』

이러한 一連의 過程과 더불어, 韓國의 平和恢復을 바라는 輿論은 더욱 높아갔고, 이를 위한 安保理의 決議를 支持하는 國家가 더욱 增加하여, 7월 中旬현재로 59개 會員國중 共產國을 除外한 52개 國의 支持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 參戰이 16개 國, 醫務支援이 5개 國, 物資支援이 19개 國으로 累計되었다.

그러나 가장 要緊한 地上戰鬪부대는 8월 23일 현재, 7개 國으로부터 25,000명의 支援約束을 받기는 하였으나, 距離와 輸送關係로 實兵力의 來著은 豫定日字보다 遲滯되고, 그 規模도 確實치가 없었다.

따라서, MacArthur元帥는 우선 6일에 제 8군사령관 Walker중장에게 駐韓美軍에 대한

指揮權行使를 準備토록 指示하고, 이날에 또한 제25사단의 出動을 命令함으로써, 赴援地上 兵力은 제 24, 제25의 兩 사단과 釜山의 軍需司를 合하여 18,000명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 8 군사령관은 參謀長 Eugene M. Landrum 대령과 參謀副長 William A. Collier 대령에게 司令部의 韓國移動을 指示하고, 9 일에는 戰線을 직접 視察하였다.

이 때, 美 제24사단장은 車嶺山脈—錦江線에서 敵을 阻止擊滅키로 決心하고, 戰線을 往來하던 차에 제 8 군사령관을 迎接한 자리에서 군사령부 및 제25사단의 移動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 北傀 제 4 사단이 水原—烏山—平澤—成歡線을 直衝하여, 8 일에 天安을 掠占하고, 9 일에는 全義에서 反轉하여 天安—公州線으로 進出할 氣勢를 보였으며, 全義正面에 새로 出現한 제 3 사단이 烏致院—大平里線으로 侵攻할듯 하였으므로 美 제24사단은 2개 사단의 敵과 對峙케 되었다.

이러하여 該사단의 2개 연대는 車嶺山脈線을 固守코자 全義—烏致院間에서 奮戰하였으나, 11일에는 戰線을 수습하여 錦江線에 阻止線을 占領하였다.

이처럼, 京釜國道沿邊에서 美軍의 撤收가 거듭됨에 따라, 陰城—鎭川線에서 數次의 反擊으로 2개 사단의 敵을 阻止中이던 제 1 군단도 11일 以後에 槐山—曾坪—淸州線으로 물러나서 錦江防禦線과 連繫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8, 제 6의 兩사단의 竹嶺—烏嶺—梨花嶺線을 中心으로 扇形의 阻止線을 形成하면서 時間餘裕를 稼得키로 하니, 戰線의 起伏이 均衡치 못하였다.

西部의 狀況이 이처럼 기울었으므로 美極東軍司令部는 Blue heart計劃으로 敵 後方에 上陸키로 한 제 1 기갑사단을 該戰線에 投入키로 變更하고, 10일에 이 上陸作戰計劃을 一旦保留하였다.

이로써 美極東軍의 4개 사단중 3개 사단이 赴援케 되었으니, 제25사단은 10~15일間에 釜山으로 上陸하고, 제 1 기갑사단은 浦項을 目標로 12일부터 乘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MacArthur元帥는 이미 下達한 準備命令대로 13일에 Walker중장을 駐韓美地上軍司令部로 任命하였다. 이로써 Walker중장은 이날 中으로 Dean소장으로부터 指揮權을 引受하고 이튿날인 14일에 美 제 8 군사령부를 大邱에 移設하였는데, 이날 Alfred G. Katzin 대령이 Tokyo에서 進出하여 UN旗를 手交함으로써 美 제 8 군사령관은 이날부터 UN地上軍司令部職을 兼務케 되었다.

UN軍統合司의 編成에 따라, 李承晩대통령은 15일에 韓國軍 作戰指揮權의 移讓에 관한 趣意를 MacArthur元帥에게 送翰하였으며, 이에 대한 同意가 18일에 回翰承認됨으로써 이 때부터 韓國軍의 作戰指揮도 UN軍總司令部가 統合指揮케 되었으나, MacArthur元帥는 구두로(제 8軍—一般命令 제 3호) 이를 다시 제 8 군사령관에게 移讓하여 行使토록 하였다.

또한, 赴援中인 美·英 및 Australia, Netherlands의 海·空軍도 UN軍總司令部의 直轄이 되었고, 제 8 군사령관도 UN會員國의 派韓地上軍을 受容할 態勢를 갖추었는데, 이날 현

재, 作戰중인 韓·美地上軍은 移動中인 제 1기갑사단을 습하여 美軍이 3개 사단 28,027명 이고, 韓國軍은 6개 사단 및 일부 전투부대 포함 65,000명이었다.

이 UN軍의 發足으로 我軍의 戰意가 高揚되고, 指揮權의 統合으로 作戰의 一元化를 期하게 되었으니, 戰線은 마침내 牽制抑留作戰을 本格化하기에 이르렀다.

#### 4. 遲延戰線의 變動

UN軍統合司令部의 設置에 關한 安保理의 제 3차 決議가 採擇된 다음 날, 北傀는 이에 應酬하거나 하듯이 새로운 作戰段階에 접어들었음을 強調하고 이를 위하여 前線司令部(사령관, 金 策)를 新設하는 등의 戰力強化를 斷行하였다고 牽強附會하였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이른바 제 2차作戰의 初頭에 作戰失敗한 제 2, 제 7의 兩사단장을 交替하고, 10일에는 제 2군단장을 問責解任하여 그 後任에 金武亭을 任命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14일 현재의 北傀의 戰鬪序列은 제 2군단의 6개 사단과 제 1군단의 4개 사단이며, 그 전부를 前方에 投入하고, 改編中인 사단을 包含한 3개 사단규모의 豫備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全般的인 趨勢에 비추어 北傀의 南侵機動軸線은 서울—水原線으로 부터 洛東江 上流地帶로 直衝을 企圖하는듯 하였는데, 제 1, 제 13의 兩사단을 西部에서 이 軸線으로 轉移케 함과 동시에, 제 2군단의 예비인 제 8, 제 15의 兩사단을 이에 合勢케 함으로써, 포함 6개 사단으로 小白山脈의 回廊地帶를 超越코자 하는 움직임이 그 두드러진 徵候로 指摘되었다.

그러면서도 亦是 京釜國道 沿邊의 作戰을 계속 重視하는듯, 하여 이 方向으로는 戰鬪力이 강한 제 2, 제 3, 제 4, 제 6의 既存 4개 사단에 제 105機甲사단을 배속시켜 主攻軸線의 機動力을 強化하였다. 또한 서울附近에서 改編中인 것으로 알려진 제 7, 제 9, 제 10의 3개 豫備사단의 動向이 關心事였는데, 이들은 西部戰線이 南下함에 따라 後續密着하여 湖南地帶를 넘보려는듯 하였다.

이와 같은 敵의 企圖로 보아, 此後의 遲延作戰은 더욱 樂觀을 不許할 것이 豫想되었으므로 MacArthur元帥는 5~9일間에 戰鬪부대의 緊急增援을 美 本國에 여러 차례 要請하는 한편, 자신의 上陸作戰計劃을 變更하여 3개 사단을 모두 이 正面에 投入키로 하였다.

이 增援要請의 基本事項은 駐日 4개 사단의 完全編成과 美本土의 제 2사단의 即應的인 支援, 그리고 空輸 및 海兵부대와 砲兵, 戰車, 工兵등 戰鬪支援부대의 增援이었다.

이에 대한 美本國의 措置는 JCS가 9일에 제 2사단의 支援을 內諾한데 이어, 陸軍參謀總長 Lawton J. Collins대장과 空軍參謀總長 Hoyt S. Vandenberg대장이 14일에 美 제 8군 및 極東軍사령부를 訪問한 뒤인 19일에 駐日 4개사단의 完編이 承認됨으로써 그 輪廓이 밝혀졌다. 이로써 增援부대의 규모를 把握케 된 MacArthur元帥는 새로운 上陸作戰計劃인 一名, Chromite 計劃을 完成시켜, 23일에 JCS에 이를 提出하였다.

한편, Walker중장은 Dean소장의 計劃대로 錦江線防禦에서 敵을 阻止할 決心으로, 指揮所의 開所와 함께 作命 제 1호로써 美 제24사단의 現任務를 계속 遂行시킴과 아울러, 美제 25사단으로 하여금 中部에서 苦戰中인 韓國軍을 支援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Walker중장은 제 1기갑사단이 橫須賀(Yokoska)에서 浦項을 向하여 海上移動中이므로, 늦어도 18일에는 上陸이 可能하여, 20일에는 錦江—大田線의 美 제24사단을 增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美 제25사단으로써 韓國軍을 赴援하기 위하여 中部戰線 後方에의 展開를 命令한듯 하였다. 그러나, 이 판단과는 달리, 實況에 있어서는 中部의 韓國軍보다 西部의 美 제24사단이 더욱 危急한 局面에 直面하고 있었다.

즉, 美 제24사단은 錦江線에서 決戰防禦를 遂行키로 하였던 것인데, 14~16일 間에 2개 사단규모의 敵侵에 밀리는 바 되어 大田附近에서 다시 一戰을 決하기로 하였으나, 3개 方向으로 挾攻한 敵이 19일에 大田市內로 侵入하기에 이르러, 하루를 더 支撐하다가 20일부터 撤收하고 말았다. 當初부터 侵略者들은 이른바 제 3차 作戰의 目標을 大田占領에 두었던만큼 3개 사단을 여기에 集中한듯 하였다. 그러나 제 2사단은 鎭川—淸州線에서 我수도 사단에 의하여 打撃을 받아, 侵攻隊列에서 뒤지고 있었으므로, 여기에는 合勢치 못하고 大田占據위에 報恩—黃澗線으로 그 醜鋒을 돌린듯 하였다. 後日의 俘虜證言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때 該사단이 大田侵攻에 合勢치 못하고, 遲滯되었기 때문에 前線司令官 金 策이 허둥지둥 現地로 달려가서 사단장과 軍단장을 譴責하면서, 舊態依然한 16자전법을 다시는 쓰지 말도록 強調하였다고 하며, 이 禍根은 뒷날에 延安派의 肅清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 무렵, 韓國軍의 戰線은 盈德—榮州—幽谷里—報恩線에서 小白山脈을 超越코자 하는 6개 사단의 敵을 牽制중이었으며, 다른 一面으로는 後方상황에 對處하여, 4개 사단을 再建케 함으로써 地域編成과 後方 防衛를 專擔케 하는 동시에 12일에는 제 2 軍단(장, 金白—준장)을 新設하여, 제 6, 제 8 兩사단을 이에 配屬시켰다.

그러나, 大田을 失陷한 뒤에 제 1기갑사단이 永同—黃澗線에 展開됨으로써 韓國軍 제 1 軍단은 이 線에서 戰鬥地帶를 閉鎖하고 수도, 제 1의 兩사단을 東部의 安東正面으로 轉進케 하였다. 또한, 戰鬥力이 弱화된 제 2사단을 解編하여, 各 사단에 編入하였는데 이 제 2 次의 사단 改編을 斷行한 20일부터 24일사이에 狀況이 또다시 激變하였다.

즉, 北傀는 大田을 掠占한 餘勢로써 洛東江線으로의 壓縮을 서둘렀던 것이다.

同월, 21일부터 이른바 제 4차 作戰에 들어간 그들은 盈德—安東—店村—尙州—金泉線에서 各個 侵攻을 꾀하는 한편, 西南部로 先侵한 2개 사단으로써 我軍의 側方을 威脅하면서 서울—大田線으로 後續하는 3개의 예비사단을 蘆嶺山脈의 中腹地帶로 指向시켜 前方사단을 增援코자 하였다.

이와 같은 敵情의 變化는 20일에 魁首 金日成이 내린 督戰命令 때문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 酷毒한 督戰으로 因함인지, 이때부터 手足을 죄사슬로 묶여 죽어 넘어진 北傀兵士의

## 22 遲延作戰期

비참한 屍身이 到處에서 目擊되었다.

이 때, 수도사단에 배속된 제17연대가 安東으로의 移動中에 化寧場附近에서 北傀 제15사단과 遭遇하여 17~23일까지 그들을 誘引挾擊으로 釘着시키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陸軍本部는 敵의 侵攻企圖가 突變하였음을 뒤늦게 認知하고, 東部에 轉進키로 한 제1사단을 이곳으로 急進시켜 제17연대의 戰線任務를 引受케 하였다. 그 뒤, 제17연대는 大邱 經유 安東附近으로 轉進하고, 제1사단은 美제25사단에 地帶를 引繼한 다음, 26일부터 店村正面의 제6사단 左肩으로 轉進하여, 戰線일부의 虛隙를 메꾸었다.

그리고, 수도사단은 제6사단을 增授키 위하여 店村正面에 1개 연대를 殘置하고, 2개 연대를 統合編成하여 醴泉附近에 있는 제25사단의 일부와 交替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企圖를 뒤늦게 捕捉한 軍은, 제1군단의 轉進計劃을 急히 變更하여, 醴泉—店村—咸昌線에 2개 사단을 展開하고, 1개 사단을 遲延撤收키에 解編키로 하였으니 만큼, 각 군단의 戰鬪地帶를 再調整케 되었는데, 咸昌의 제2군단(장, 劉載興중장)은 제6, 제1사단을, 安東의 제1군단(장, 金弘壹소장)은 24일까지 整齊한 수도사단 및 제8사단을 각각 統制토록 하였다.

뒤에, 確認된바로는 北傀 제2군단은 이 무렵에 後續中인 제13사단을 새로이 投入하여, 都合 3개 사단으로써 開慶—化寧場線을 超越, 洛東江 上流의 尖角地帶로 侵攻하려던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我軍의 제6사단은 鳥嶺—梨花嶺—開慶線에서 北傀 제1, 제13의 兩사단을 牽制하면서 潁江(開慶 南쪽 8km)—幽谷里—店村線에 이르렀으며, 제1사단은 北傀 제15사단을 擊碎하면서 咸昌正面에 이르러 該地域으로 分進한 제13사단의 일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美제8군사령관 Walker중장은 洛東江上流의 北岸一帶에 分進케 하였던 美제25사단을 尙州附近으로 急히 轉進시켜 제1사단과 連繫시킴으로써 尙州—金泉線에서 美제1기갑사단의 後方을 掩護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東海岸의 제3사단은 점차 兵力을 補充하면서 北傀의 제5사단 및 제766계릴라부대를 遊擊하였는데, 21일에는 盈德에 이르러 UN海軍의 艦砲支援下에 數次의 攻防激突을 거듭하고, 中央線沿邊의 제8사단은 榮州南쪽에서 安東—醴泉線으로 直衝코자하는 北傀 제8, 제12의 兩사단을 打擊中이었는데, 敵제8사단은 3개의 38齊備여단중에 最初로 改編하여 投入된 부대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激變하는 狀況에 反하여, 湖南地區에서는 再建中인 제5, 제7 兩사단의 基幹兵力과 全南北의 警察부대등이 地域防衛에 任하고 있었는데, 그 實兵力은 기타부대를 合하여도 4개 대대의 2,500명에 不過하였다.

이에, 北傀 제1군단은 錦江線까지 隱密히 後續한 제6사단을 湖南에 分進케 함으로써 그 先頭가 16일에 黃登(裡里 北쪽 4km)—群山線에 이르고, 20일에는 全州를 掠占하였다.

따라서, 該地域에 散在한 我軍은 各處에서 밀리는바 되어, 23일에는 光州에서, 26일에는



全南과 慶南의 道界에서 거둬 물러나게 되니, 敵은 이곳에서 洛東江下流로 거센 繞回進出을 노리게 되었다. 美제 8군사령관은 23일에 비로소 一團의 敵群이 西南部地域으로 機動中이라는 敵情報을 接하게 되었는데, 그 侵攻速度로 보아 3일이내에 洛東江下流線에 近迫할 것으로 判斷하고, 이에 대한 緊急對策을 講究하였다.

**最後堡壘線의 占領** : 浦項으로 上陸한 美제 1기갑사단은 19일부터 永同附近에 進出하고, 大田—沃川線에서 撤收中인 美제 24사단은 義城—軍威—金泉의 3개 地域에 集結하여 再編成하였다.

또한, 美제 8군사령관은 美제 1기갑사단의 側方을 防護토록 하기 위하여 뒤늦게 來着한 1개 연대를 黃澗附近에 배치토록 하는 한편, 報恩西쪽에 進出한 美제 25사단의 1개 연대와 作戰을 協調토록 하였다. 그러나, 險峻한 國道邊에서 美제 1기갑사단이 22일부터 永同 正面으로 侵入한 北傀 제 3사단과 激突하고, 24일에는 黃澗側方의 北傀 제 2사단과 다시 遭遇케 되었다. 敵은 이 兩通路로 直衝을 피하는 한편, 金泉—知禮間의 山間徑路를 踏破함으로써 金泉을 遮斷코자 企圖하였다.

이와 함께, 西南部에 대한 危急對策을 講究中인 美제 8군사령관은, 새로이 美제 24사단장으로 任命된 John H. Church소장을 24일에 招致하여, 金泉—晉州線의 側方을 掩護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Church소장은 再編成中인 사단을 24~26일間에 居昌—晉州線으로 逐次 展開함으로써, 25일부터 接敵이 시작되었다. 이 때의 敵情은 湖南地區 戰鬪부대를 追尾한 제 6사단이 河東—晉州線으로 指向중이고, 大田—茂朱線으로 侵入한 제 4사단은 安義—居昌間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3개의 예비사단을 그 後方에서 密接히 移動케 한 것으로 보아 西南部에 대한 集中侵攻을 圖謀한듯 하였다.

한편, 盈德을 堅守中인 제 3사단은 數次의 反擊으로 戰力の 消耗가 甚하고, 夜間戰鬪를 強要하는 敵勢에 차츰 밀리고 있었다. 그리고 榮州 南쪽에서 遲延中인 제 8사단은 2개 사단 규모의 敵侵으로 말미암아 安東防守의 危機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北傀는 8월 1일까지 安東을 占據함과 동시에 1개 사단으로써 浦項—杞溪線을 直衝하여, 제 3사단의 後方을 遮斷토록 指令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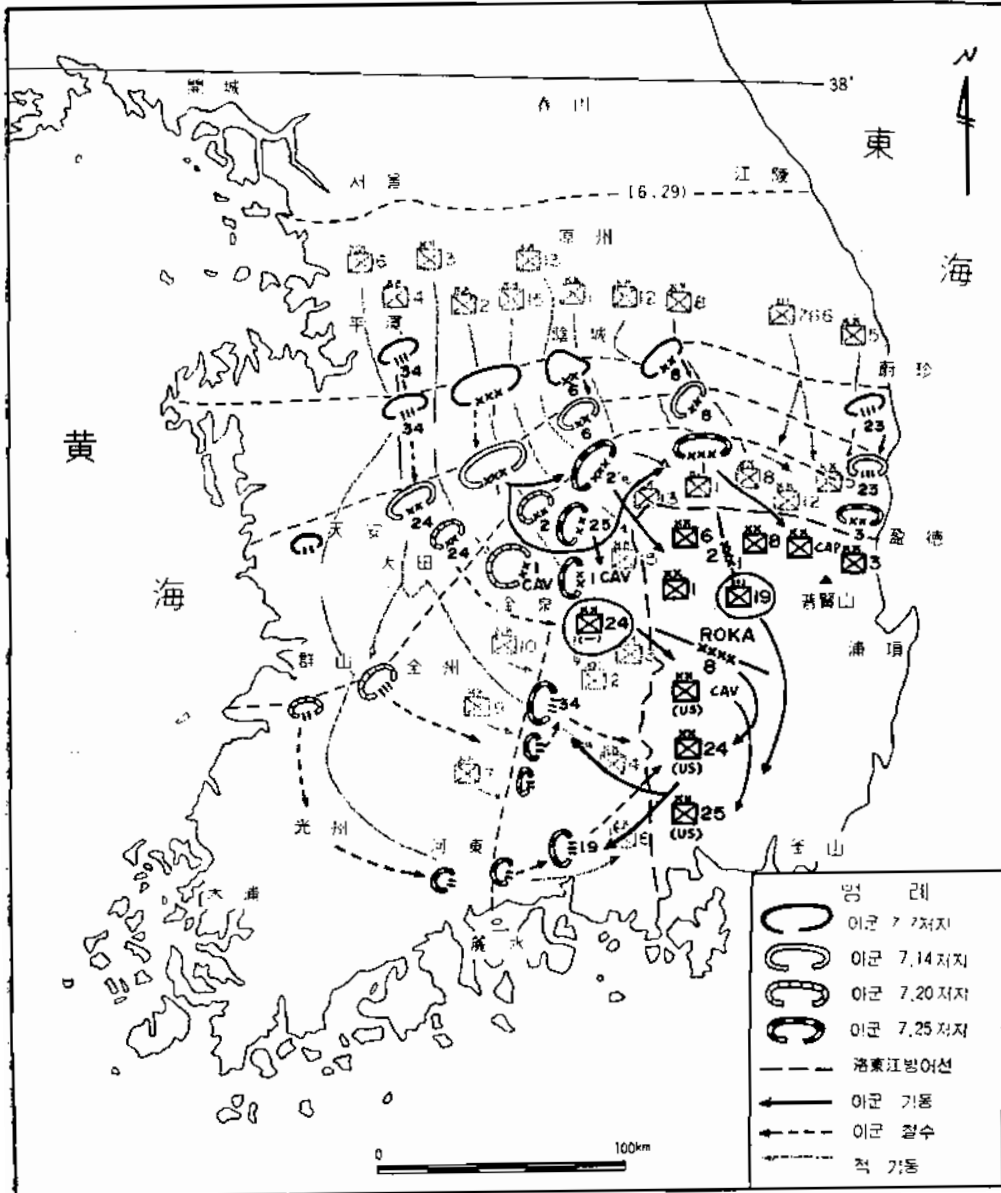
더우기, 店村—咸昌—尙州正面에서는 北傀 3개 사단이 我제 6, 제 1의 兩사단을 壓迫하면서, 再配置中인 尙州附近의 美제 25사단의 一角을 뚫고, 金泉—知禮道에서 金泉을 노리게 되어, 該戰線의 支撐도 頃刻에 달린 危機를 맞게 되었다.

이에 Walker중장은 26일에 自身の 決心으로 洛東江內線으로의 撤收준비命令을 下達하는 한편, MacArthur元帥의 意圖를 打診하였으나, 現地에 急行한 同元帥가 現戰線의 固守를 嚴命하므로 前記의 命令을 取消하고, 27일에 金泉과 尙州線의 부대를 視察하였다.

그러나, 敵勢에 밀린 美제 25사단이 31일에 尙州附近에서 물러난 다음, 美제 1기갑사단과 함께 金泉—倭館線으로, 南部通路周邊의 제 24사단은 陝川—晉州線으로, 그리고 東部の 제

8. 수도의 兩사단은 安東正面으로 각각 撤收하였으므로 戰線은 一見하여 鋸齒形의 不均衡한 形態로 變轉케 되었다. 따라서, 美제 8군사령관은 現戰線을 再整齊키로 決心하고, 8월 1일에 洛東江內線으로 撤收하여 防禦障地를 編成토록 全부대에 命令함과 동시에, 尙州附近에서 撤收中인 美제 25사단으로 하여금 三浪津을 經由, 西南海쪽으로 轉進시켜 南江과 洛東江下流의 交叉點으로부터 그 南쪽 正面을 扼守토록 하였다. 이 命令에 따라, 美제 25사단

◇ 상황도 제 2 호 我軍의 지역작전 狀況(7.6-31)



이 3일부터 該正面을 占領하고 이제까지 廣正面에서 掩護中이던 美제24사단은 제17연대를 配屬받아 그 北쪽 內線으로 撤收하여 新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리하여, 洛東江내곽의 最後堡壘線은 東海岸의 盈德에서 倭館까지 제3사단—수도사단—제8사단—제6사단—제1사단의 順으로 國軍이 分擔하고, 제1기갑사단—제24사단—제25사단의 順으로 美軍이 西南쪽 戰線을 맡게 되었는데, 大體로 整理가 마무리된 것은 8월의 3~4일間이었다.

이 遲延戰末期의 綜合的인 彼我的 戰鬥力은 敵이 1개 機甲사단과 3개 예비사단을 合하여, 14개 사단인데, 比하여 我軍은 韓·美兩軍이 8개 사단에 豫備를 아직 確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初에는 美제2사단과 제1해병여단, 그리고 제5연대전투단과 3개의 戰車대대등이 계속 增援됨으로써 이 最後堡壘의 防守에 主動性을 갖게 되었다.

要컨대, 이 30일간에 걸친 血戰苦鬪의 代價로 北傀는 漸次로 衰殘하여 집으로써, 當初의 殺氣어린 侵攻威勢가 萎縮을 보였는데, 이에 對하여 MacArthur元帥가 뒷날에 『이 遲延戰에서 我軍은 均衡을 잃고 犧牲을 強要당하였으나, 그 대신 貴重한 時間을 얻게된 것이다.』라고 述懷한 것과 같이, 我軍은 總反擊戰의 跳躍台를 着着 굳혀간 것이었다. 그런데, 本作戰末期의 彼我兵力과 戰鬥序列을 一括컨대 8월 5일 현재, 我軍이 9개 사단 및 1개 여단의 實戰鬥兵力 84,189명인데 比하여, 北傀는 11개 사단 및 2개 獨立부대로써 71,100명을 前線에 投入하였으며, 3개의 豫備사단 33,000명(推算)과 編成中인 여단등을 合하면 그 兵力은 훨씬 增加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戰車 및 裝甲自走砲車의 保有臺數는 제105機甲사단이 40대, 제1기갑연대가 19대이고, 뒤에 나타난 제16, 제17 兩기갑여단이 각각 40대씩을 保有한 것으로 나타났다.

期間中, 彼我的 戰鬥序列과 部隊別兵力現況은 別表 및 附錄과 같다.

### 5. 海·空軍의 活動

美極東海軍의 제77機動부대(사령관 Arthur D. Struble중장)와 그 直屬의 機動戰隊는 地上軍에 대한 艦砲支援과 近接航空支援 및 後方遮斷, 그리고 敵後方에 대한 戰術爆擊任務를 더고 緒戰時부터 出擊하였으며, 4일부터는 吉州—瀟川線까지 海上封鎖에 들어갔다.

그런데, 作戰初期에 該 艦載機의 出擊은 空軍과의 關係로 원활치 못하다가, 8일부터 美極東空軍司令官 Stratemeyer중장이 地上軍에 대한 航空支援을 一括 統制케 됨에 따라, 이 문제도 곧 解消되었다.

즉, 14일에 UN軍 總司令部內에 標의 選定團을 構成하여, 海·空軍의 航空支援을 統制調整토록 하였는데, 21일에는 同機構의 發展의인 解體와 더불어 새로이 標의 選定委員會를 構成하여, 同任務를 遂行케 함으로써, 그 뒤부터는 兩軍의 作戰이 圓滑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期間中, 美極東海軍의 作戰은 제77機動부대의 主力이 東海로 進出하고, 該부대에 編入한

英國과 Australia의 艦艇들은 西海에서 作戰하였는데, 3~4일간에 平壤과 海州附近에 대한 爆擊을 嚆矢로 하여, 興南—元山—平康—平澤—黃澗—晉州—順天—光州附近을 連打하였고, 18일에는 제90機動부대(사령관, J. H. Doyle소장)가 美제 1기갑사단을 浦項으로 海上輸送하는 동안, 陽動作戰의 一環으로 元山附近의 精油工場을 爆擊하였다.

또한, 直屬 戰隊는 緒戰부터 東海로 急派하여 江陵—三陟—蔚珍沿岸으로 侵透하는 遊擊부대를 遮斷하는 한편, 盈德附近에서 奮戰中인 제 3사단을 艦砲사격으로 支援하였는데, 이는 美제 1기갑사단의 浦項上陸을 掩護하기 위한 措置의 一環이었다. 이와 함께, 韓國海軍도 群山—浦項—鎭海—麗水의 4개 警備府와 釜山과 木浦의 2개 艇隊司令部로 하여금 分擔海域을 경비토록하면서, 18일과 27일에는 LST 및 輸送船을 動員하여, 木浦와 麗水에서 全南地區의 撤收兵력과 緊要物資를 釜山으로 輸送하였으며, 特히 浦項警備府에서는 普賢山附近에 侵透한 遊擊부대를 擊滅하기 위하여 15~18일간에 戰鬪대대를 急編하여 九岩山地帶에 出動하기도 하였다.

또한, 濟州島에서 發進한 제 1해병대대는 16일에 群山으로 上陸하여, 敵의 侵路를 遮斷하다가 1개 중대만을 現地の 陸軍부대에 配屬케 하고, 23일에 木浦를 經由, 麗水—南原附近으로 北上하여, 陸軍부대와 함께 協同하였다.

그리고 美極東空軍은 戰線이 混迷한 가운데 제 5空軍(사령관, Earle E. Partridge중장)과 Australia空軍의 제77대대로 하여금 緒戰期부터 近接航空支援을 遂行하였으며, 戰線이 漸次 整理됨으로써 더욱 作戰의 奏效를 거두었다.

그런데 初期에 있어서는 稼動機가 350대에 不過하였으므로 各基地의 戰鬪機를 日本 Kuy-shu 北端의 Itazuke와 Ashiya의 兩基地로 緊急 移動케 하는 한편, 本國에 戰鬪爆擊機의 增援을 要請하였고, 7일부터는 JOC와 TACC 및 TACP등의 航空支援協調體制를 完備하여 作戰의 원활을 期하였다.

이어서 8~10일간에 平澤—天安—全義線에서 北傀 제105機甲사단의 各種 車輛을 단번에 100쪽씩 破壞하는 戰果를 거두었고, 陰城—鎭川—忠州—丹陽線에서도 敵線을 強打하였다. 그러나 敵의 侵勢가 차츰 開豁地帶를 避하여, 內陸의 險峻한 溪澗으로 方向을 바꾸게 되자 美제 5공군은 滯空時間을 延長하여 探索 및 對地攻撃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하고, 大邱와 浦項, 그리고 木營飛行場을 急히 擴張改修하여 戰鬪機編隊를 移動케 하여 25일부터 近接支援을 개시하였다. 이와 함께, 美極東空軍司令官은 本國에서 增援된 戰鬪機編隊를 合하여 計 6개의 編隊로써 別途의 爆擊司令部를 編成하고, 敵後方의 軍事目標을 爆擊토록 하였는데, 大體로 24일을 前後하여 航空支援體制가 完備되었다 할 것이다.

이때, 韓國空軍은 大田과 大邱의 兩基地에서 近接支援任務를 계속 遂行하면서 群山과 光州의 兩基地에서 撤收부대를 收拾 整備中이었는데, 14일부터 UN空軍의 統合作戰計劃에 따라 大邱基地를 引繼하고 그 管轄下에서 合同作戰을 遂行케 되었다.

## 6. 國立警察의 活動

緒戰期부터 軍과 合同作戰을 벌인 前線地域의 警察은 軍의 遲延戰에 따라 後方으로 撤收하고, 道內의 警察은 治安維持 및 共匪出沒地域에 대한 探索과 擊滅戰에 協力하였다. 당시 戰鬪地帶內에서 가장 惡戰苦闘한 江原道경찰의 5개 大隊 兵力은 地域別로 警비를 分擔하다가 戰勢가 急轉하자, 곧 原州附近으로 集結케 되었으나, 交通과 通信이 困難한 麟蹄—江陵—洪川—三陟—寧越—平昌 一帶의 경찰은 北傀의 遊擊부대와 遭遇, 局地戰鬪를 벌이면서 各個 撤收하였다. 따라서, 7월 5일 현재, 該경찰 兵力의 일부는 榮州—安東附近으로 撤收하고, 2개 大隊 규모의 兵力만이 原州附近으로 集結하여, 제 6, 제 8 兩사단의 作戰을 支援하다가 忠州—淸州—大田으로 撤收하였다. 또한 東海岸의 警察은 三陟에서 春陽—日月山附近으로 철수한 다음, 26일부터 對遊擊戰을 벌이면서 8월 初에 靑松附近의 機甲연대 작전에 加擔하였다.

그리고, 서울—京畿—忠南北의 警察은 地帶內의 糧穀과 人員을 輸送하던중, 경찰司令部의 作命으로 9일부터 大田附近에 集結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때, 忠南道知事の 嚴命에 따라, 地域內의 行政官署長들은 敵이 侵入하기 直前까지 人員과 施設保護 및 物資輸送에 專力하였다. 이어서 14일에 政府의 各 行政官署가 大田에서 大邱로 移轉케 됨에 따라 警察은 一部兵力만을 뒤따르게 하고 主力은 20일까지 大田에 殘留하여, 美제24사단의 防禦戰에 協力한 다음, 大邱로 集結토록 하였는데, 이때 論山—江景線으로 撤收한 忠南경찰 1개 大隊와 全北경찰이 이곳 道界를 沿하여 敵侵을 阻止하였다. 당시 全南北道 一圓에는 4개 大隊 규모의 警察이 散在하고 있었으나, 敵이 道界를 넘어설 때까지 戒嚴地域에서 除外되고 있었으므로, 各署長의 管掌下에서 行動하였다.

그러나, 21일에 大田이 喪失되고 兩道에 戒嚴令이 宣布됨으로써 同地域의 警察은 各 사단장이 管掌케 되었다. 따라서 大田附近에서 湖南地區로 繞回한 北傀 제 6 사단이 17일에 忠南과 全北의 道界를 넘어, 21일에 全州—井邑線을 侵奪케 되었으므로, 全北경찰의 2개 大隊는 제 7 사단장의 統制下에 遲延戰을 전개하면서 南原附近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全南경찰의 2개 大隊도 제 5 사단장의 統制下에서 局地戰鬪와 治安維持에 任하다가, 25일에 求禮—順天—麗水—木浦 일대에서 各己 陸·海路를 따라 淸州—馬山—釜山線으로 撤收하고 일부는 沿岸의 島嶼에서 遊擊戰을 遂行하였다. 戰線이 洛東江內線으로 壓縮케 된 8월 1일부터 警察은 內廓의 警비를 強化하고 治安을 維持하는 한편, 靑松—普賢山地區에서 作戰中인 警察 2개 大隊는 敵제12사단의 侵攻으로 盈德—江口附近에서 제 3 사단과 合勢한 다음, 8월 中旬에 慶州—永川線으로 撤收하였다.

## 7. 國內의 一般情勢

6월 29일을 前後하여 三府는 個別로 水原을 거쳐 大田으로 移轉한 다음, 忠南道廳에 자

리잡고, 國防本部를 中心으로 戰爭物資의 緊急輸送에 協調하면서 對內外的으로 惹起되는 諸般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7월 1일에 敵情의 誤報騷動으로 李承晩大統領이 全州—木浦를 經由하여 釜山—大邱로 자리를 옮기자, 그를 뒤따라 政府要人들도 한때 全州까지 移動하였다가 大田으로 되돌아 왔는데, 때마침 UN의 韓國支援決議와 美地上軍의 赴援消息을 듣게되어 새로운 活氣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2일에는 그 先遣隊가 北上배치되고 이어서 美제24사단의 主力이 釜山에 上陸中이므로 關係 閣僚들은 이곳에서 軍을 支援하기 위한 緊急措置를 준비하고, 大邱에 있는 大統領은 4일에 『難局에 處한 國民의 奮起』를 促求하는 特別談話文을 發表하였다.

이에 呼應하여, 國會에서는 申翼熙 議長을 비롯하여 7명으로 非常委員을 選定하여 外交, 軍事, 情報, 食糧, 政治工作 등 各分野에 걸쳐 緊急措置를 推進하는 한편, UN軍과 國軍將兵을 激勵하는 Message를 採擇하였다. 또한 國會는 그 동안 行政府에 대하여 首都서울의 失陷責任을 追窮하면서 戰時內閣의 構成을 要求하였으나, 1일에 總參謀長의 交替만을 斷行하였을뿐 變動이 없었으므로 다시 이를 舉論코자 하였으나 이때, 大統領과 일부閣僚만이 大邱에 滯在하고, 그 大部分이 大田에서 事態를 收拾中에 있었으므로 國會의 要求를 貫徹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6월 30일에 大田의 市公館에서는 韓景職, 姜信明 牧師등이 主動이 되어 宗教 및 社會團體 指導層人士들을 糾合하여 國軍將兵들을 支援하기 위한 非常對策委員會를 構成하였는데, 流動하는 狀況으로 말미암아 部分的인 援護活動을 展開하다가 大邱에 이르러, 68명으로 構成된 戰時宣傳對策委員會로 擴大하여 市道別 賑起大會를 爲始한 後方의 治安維持와 五列摘發, 그리고 軍警援護活動등을 本格的으로 벌이게 되었다.

한편, 祖國의 防衛를 爲하여 敢然히 奮起한 學徒들은 各處에서 軍에 自進入隊하는 한편 別途의 學徒義勇軍으로써 수도 및 제 3사단에 編入하여, 安康—杞溪—浦項—鎭川—淸州—馬山등지에서 젊은 生命을 아낌없이 불살랐다.

이 編成과 活動은 開戰前의 學徒護國團이 根幹이 되었는데, 6월 29일에 水原에서 國防部 政訓局後援으로 最初의 非常學徒隊를 編成하여, 7월 1일에는 大田에서 大韓義勇學徒隊로, 그리고 同월 19일에는 大邱와 釜山에서 各各 同學徒義勇隊로 改編하여 募兵과 編成 업무를 擔當케 됨으로써 이 無名의 學徒義勇軍들은 8월 初旬부터 激戰地로 出戰하였다. 또한 100명의 學徒들이 渡日訓練뒤에 仁川上陸作戰에 參戰하고, 900명의 在日僑胞學徒들은 血書를 뿌리며 故國으로 달려나와 東部戰線에서 싸웠는데, 그 人員은 戰爭期間中에 道합 10만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3,000명에 達하는 無名의 學徒兵이 戰死하였다.

이와 같은 國民의 呼應으로 戰時總力體制를 確立키 위하여 軍은 8일에 總參謀長 布告제 1호로써 全南北道를 除外한 全國에 戒嚴令을 宣布하였는데, 이때 北傀는 車嶺山脈線을 超

越하여 錦江線에 近接하고 있었다.

이어서 13일에는 美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이 駐韓美軍의 作戰指揮權을 引受하고, 14일부터 大邱에서 司令部를 開所케 되었던 만큼, 陸軍本部和 함께 있었던 國防部도 이날 大邱로 移轉하여 先發部署와 慶北道廳에서 合流케 됨으로써 三府가 모두 뒤를 따랐다.

大統領은 다음날인 15일에 戒嚴令宣布에 따른 國民의 協調를 要望하는 特別談話文을 發表하고, 이날로 白性郁 內務의 後任으로 趙炳玉을 任命하였으나, 立法府의 要求事項인 舉國改闢이 아니라는 理由로 摩擦이 생기기도 하였다.

國會는 臨時會議廳을 召集하여 議員 130명의 參席裡에 7.27~8.8까지 12일동안의 會期를 갖고 緊急命令등의 追認을 비롯하여 戰時內閣構成의 促求와 外交陣의 強化, 그리고 UN韓國委員團에 보내는 Message등 20여건의 案件을 處理하고 一線軍警에 대한 支援 및 慰問活動에 나섰다. 그러나 戰線이 더욱 壓縮되어 倭鎗附近까지 北傀가 侵入하게 된 8월 18일에 三府는 다시 釜山으로 移轉하여, UN軍의 赴援을 迎接하면서 反擊作戰을 苦待하였다.

한편, 北傀는 南韓의 席捲을 前提로 7월 1일에 이른바 戰時動員令을 宣布하여 18~36歲까지의 全體公民을 強制動員하였다.

이는 不足되는 兵力을 強制로 充當키 위한 것이었는데, 그 手法이 또한 惡辣하고 狡猾하여 25,000명에 이르는 治安隊를 急編, 이들로 하여금 宣傳煽動을 꾀하다가 그 成果가 不振하자, 6일에는 새로운 黨決定을 내세워, 本格的인 強制索出動員에 의한 拉致手法으로 轉換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強制로 被拉된 南韓의 青年人員數가 20만으로 推算되었는데, 黨員과 容共分子들을 核心으로 安東, 大田, 光州여단등을 編成하여, 그 일부는 洛東江戰線에 몰아넣고, 나머지는 以北으로까지 強制로 끌고갔다.

또한, 그들은 同월 14일에, 이른바 最高人民委員會의 常任委員會決定에 따른 政令이라 하여, 『南半部 解放地區의 郡·面·里·洞의 人民委員會 選舉施行에 關하여』라는 것을 發表하고 7.25~9.13까지의 期間에 選舉를 실시하여, 郡委員 566명, 面委員 2,595명, 里委員 7,607명을 각각 選出하였다고 捏造報道하였는바, 이는 前記한 治安隊와 南勞黨員이 主動이 된 假面劇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8월 1일부터 U.S.S.R의 UN駐在代表 Malike가 安保理의 議長이 된다는 事實을 알고 7월부터는 이른바 祖國統一戰線 中央委員會라는 이름으로 UN에 보내는 聲明書의 署名運動을 전개하였다.

同聲明書에는 美國의 武力干涉을 中止하고 所謂 民族叛逆者에 대한 處斷을 要求하는 內容으로 되어 있는바, 그들은 住民들의 生存權을 威脅하면서 署名을 強要하였다. 이에 대하여 北傀는 『8월 27일 현재, 16歲以上の 南韓人口 79만명을 包含하여 都邑 130만명이 署名하였다.』라고 捏造 宣傳하였는데, 그뒤, 이 造作된 聲明書는 아무런 效果도 얻지 못하고, 廢棄됨으로써 그 陰險한 手法만이 白日下에 暴露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北傀는 外部的으로 侵略者의 罪狀을 陰蔽하려고 百方으로 手段을 다하는가 하면 內部的으로는 惡鬼와 똑같은 手法으로 無辜한 良民들을 集團的으로 大量虐殺하고 甚至於 生理葬까지 하였는데, 그 內容을 大別하면 첫째, 戰鬪부대와 함께 侵入한 治安隊로 하여금 占據地域을 재빨리 行政組織化하여 住民을 結縛하였고, 둘째, 現地 黨員 및 赤色分子들을 動員하여 이른바 委員會組織과 그 活動事業을 協調煽動토록 하고 셋째, 各里村과 各職場의 下部單位까지 細胞網을 擴大하여 逆徒들의 要求를 強制로 貫徹토록 하는 兇手를 휘두른 것이다. 그리하여 萬若, 이른바 反動分子나 非協調者가 索出되면 人民裁判이라는 울가미를 씌워 가차없이 虐殺하였는데, 이 3개월간에 投獄된 人士가 30만에 이르고, 病死, 餓死, 行方不明등을 除外한, 拉致와 虐殺로 희생된 人員이 21만명이나 되었다.

逆徒들은 또한 닥치는 대로 在庫物資를 먼저 掠取하고 쓸만한 建物과 住宅을 沒收하여 黨幹部用으로 配當하는가 하면, 食糧과 家具, 그리고 衣類等 속의 生必需品까지도 掠奪하였다. 이처럼 同族相殘의 患難을 빚은 北傀 金日成徒黨의 南侵罪科는 千古에 걸쳐, 民族의 이름으로 糾彈되고 膺懲되어야 할 것이다.

#### 8. 國際情勢의 推移

UN安保理가 韓國을 支援키로 決議한 直後에 國際舞台에서는 두 갈래의 和平調整努力이 進行되었다. 그 첫째는 安保理의 非常任國인 Egypt와 India, 그리고 Yugoslavia등이 主動이 되어, 美蘇를 說得함으로써 戰爭을 中止하기 위하여, 非公式會議을 갖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UN駐在의 外交官을 通하여 平和的 解決을 摸索하려는 것이었다. 前者의 경우, 英國大使가 U.S.S.R外務次官 Gromyko의 招請과 任意訪問形式으로 7월 6일 및 11일의 두 차례에 걸쳐 會談을 가졌는데, 會談內容에 관하여 英國側은 『中共의 UN加入問題와 韓國事態를 同時에 取扱할 수 없음』을 明白히 하고, 『停戰과 北傀의 38°線 以北으로의 撤退를 先行한 然後에 이 問題를 UN기구內에서 解決하자.』라고 主張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U.S.S.R側은 『中共政權의 代表가 參席한 安保理에서 모든 討議가 進行되어야 한다.』라고 固執하면서 一步도 讓步하지 않았다.

後者の 경우는 India首相 Nehru가 11일에 U.S.S.R首相 Josep V. Stalin과 美國務長官 Dean G. Acheson에게 各各 親書를 보내어 相互折衷을 試圖하였다.

이에 대하여 Stalin은 15일에 親書形式으로 Nehru에게 回答을 보냈는데, 18일에 發表된 兩側의 公翰內容은 India側이 『中共의 UN加入을 條件으로 韓國戰爭을 安保理 또는 그 밖에서 解決할 것.』을 提議한데 反하여 U.S.S.R側은 『即時 中共代表를 包含한 5次常任國參席下의 安保理에서 問題가 討議되는 것을 贊成한다.』라고 前提하고 이른바 『朝鮮人民의 代表로부터 事態를 聽取하는 것이 必要하다.』라는 條件을 달았다.

이와 함께 美國側도 17일에 Nehru에게 回答을 發送하였는데, 그 內容에서 『中共의 UN



加入문제가 戰爭挑發에 대한 討議의 代價로 去來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위에도 折衷이 微進하게 繼續되기는 하였으나, 結局 이 和平交渉의 努力은 挫折된 셈인데, 다만 이를 통하여 戰爭挑發의 背後에는 中共의 UN加入問題가 介在되고 있었다는 事實을 밝혀내게 되었다.

U.S.S.R의 兇計가 이러하였으니 만큼, Truman은 韓國支援의 決意를 더욱 굳히고, 侵略走狗들을 斷乎히 粉碎할 것을 다짐하는 特別聲明을 19일에 發表하였다.

그는 同聲明을 통하여 開戰前後의 一般情勢와 UN安保理의 決議 및 絶對多數國의 支持狀況등을 지적하고, 韓國에 대한 北傀의 侵略에 對處하기 위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自由諸國의 共同防衛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개項의 範圍內에서 軍事力을 增強한다는 趣旨을 闡明하였다.

『① 韓國事態에 對處하기 위하여 兵力과 裝備補給品을 加급적 빨리 MacArthur 元帥의 麾下부대에 보낸다.

② 世界情勢는 韓國에서 必要한 軍事力以上으로 우리 軍隊의 규모 및 物資補給을 大幅의 으로 增加시키기를 願하고 있다.

③ 共同防衛를 爲하여 우리와 協力하고 있는 自由諸國을 援助하여야 하며, 그들의 軍事力을 增大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國務長官 Acheson과 國防長官 Louis A. Johnson은 即刻의 으로 兵力의 增強策을 發表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① 陸海空軍 및 州防衛軍의 動員을 爲하여 召集令을 下達한다. ② 兇若의 事態에 對備하여 19~25歲까지의 總 975만명을 登錄케 한다. ③ 4개의 州防衛사단을 7월 31일까지 現役に 編入한다. ④ 事態惡化時에 250만명의 豫備役을 動員한다. ⑤ 軍事費의 增額을 議會에 要請하고 産業動員計劃을 部分的으로 斷行한다.』라는 要旨이었다.

이러한 一連의 政策決定에 따라, JCS와 關係기관은 이를 順次的으로 執行하였는데, 期間中에 取한 軍事措置를 例示하면, 먼저 全現役兵力의 半數에 動員命令을 내리고, 太平洋地區의 海軍으로 하여금 別途의 機動부대를 編成하여, Hawaii 近海로 出動케 함과 동시에 太平洋軍 全域에 警戒태세를 命令하였다.

또한, 美本土에 있는 西部陸軍司令部 麾下의 3만 兵力에 대하여서도 防空警戒태세를 命令하고, 空軍에서는 沿岸에 대한 偵察活動의 強化와 戰闘機의 增加배치 態勢를 取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強硬措置와 더불어, 美國은 24일에 『臺灣防衛는 澎湖列島를 包含한다.』라고 밝힌데 이어, 8월 1일에는 MacArthur—蔣介石 會談이 臺北에서 開催됨으로써 臺灣문제가 美極東軍의 防衛地域으로 다시 浮上하였다. 이는 韓國戰爭의 上場 進展에 따라, 國府軍이 本土上陸을 敢行한지도 모른다는 中전의 杞憂를 덜게 하고, 共產陣營에 대한 當初의 添

制策을 行動으로 誘示하려는 것이었다.

8월 初旬에 접어들어, 戰局은 洛東江線으로 압축되면서, 攻防의 決戰이 高潮에 達하였으며, UN安保理에서는 Alphabet 順序에 따라 U.S.S.R代表가 8월의 議長이 되어 8월 1일의 會議劈頭부터 中共代表의 承認이라는 엉뚱한 議案을 내밀어, 議題로 上程코자 發惡하였으나, 西方側의 反對로 꺾이는바 되었다. 그 뒤에도 議長職權을 濫用하여 一方의인 議事進行을 꾀하였으나, 결국 8월중의 7회에 걸친, 安保理의 會議에서 아무 成果도 얻지 못하고, 9월부터 英國代表에게 議長職權이 넘어가게 됨으로써 安保理는 다시 安定을 되찾게 되었다.

(別表) 彼我的 戰鬪序列(8.5)

我	軍	敵	軍
盈德—浦項正面		제 2 군단	
제 3 사단 (제 22, 23연대, 제 1, 2 독립대대)		제 5 사단 (제 10, 11, 12연대)	제 766부대
靑松—義城正面		제 12사단 (제 30, 31, 32연대)	
제 1 군단		제 8 사단 (제 81, 82, 83연대)	
수도사단 (제 1, 18, 기갑연대)		제 1 사단 (제 1, 2, 3연대)	
제 8 사단 (제 10, 16, 21연대)		제 13사단 (제 19, 21, 23연대)	
軍威—倭館正面		제 15사단 (제 48, 49, 50연대)	
제 2 군단		제 1 기갑연대	
제 6 사단 (제 2, 7, 19연대)		제 1 군단	
제 1 사단 (제 11, 12, 13연대)		제 2 사단 (제 4, 6, 17연대)	
倭館—鎭東正面		제 3 사단 (제 7, 8, 9연대)	
美 제 1 기갑사단 (제 5, 7, 8연대)		제 4 사단 (제 5, 16, 18연대)	
美 제 24사단 (제 19, 21, 34연대)		제 6 사단 (제 13, 14, 15연대)	
美 제 25사단 (제 24, 27, 35연대)		제 105機甲사단	
美 제 29연대, 제 5 보병 전투단			
美 제 1 해병여단			
韓國軍제 17연대 (美 제 24사에 배속)		前線司 豫備	
軍 豫備		제 7 사단 (제 51, 52, ?연대)	
美 제 2 사단 (제 9연대)		제 9 사단 (제 85, 86, 87연대)	
(釜山上陸中)		제 10사단 (제 25, 29, ?연대)	
		제 16, 17기갑여단	

## 第 8 章

# 京釜國道沿邊의 角逐

### 要 旨

1. 烏山 附近의 遭遇戰
2. 平澤—烏致院 附近의 美軍戰鬥
3. 韓·美戰線의 一般的인 趨勢



## 第 8 章 京釜國道沿邊의 角逐

### 要 旨

本章은 漢江—水原線에서 繼續 南下侵攻을 企圖하는 敵의 主力을 擊滅키 爲하여 美地上軍 先遣隊가 急進, 初一戰을 벌이게 된 狀況과 後續한 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의 主力이 錦江線 北쪽의 平澤—天安—鳥致院線에서 벌인 遲延戰 初期의 狀況을 收錄하였다. 또한 이 角逐戰이 벌어지는 동안 國軍은 水原 北쪽에서 平澤附近으로 撤收하여 再編成과 동시에 中部로 轉進한 다음, 西部의 美軍과 함께 遲延戰을 逐게 되는 바, 그 全般的인 趨勢를 本章에서 概觀토록 하였다.

緒戰에서 北韓은 서울 侵奪에 4개 사단을 投入하였으나 漢江線의 渡河侵攻에는 2개 사단으로 減少하였고 5일부터 再開된 水原 南쪽의 侵攻에는 戰車연대를 앞세운 1개 사단만을 내세웠다.

이때, UN의 決議에 따라 駐日美軍제 24사단이 韓國支援에 나서는 한편 그 先遣隊인 Smith 부대가 이미 4일 夜間에 烏山 北쪽에서 北上배치하고 大田의 제 17연대도 이를 支援하기 위하여 그 後方에 進入하였다. 또한 後續한 제 34연대가 이날 安城—平澤線에 配備함으로써 牙山灣을 越한 이 要線의 縱深陣地 編成을 끝내었다.

그러나 5일 무렵에 同 地域의 韓美兩軍이 敵 제 4사단의 先頭戰車隊에 의하여 突貫되면서 紛戰이 계속되었으나 이날 下午에 我軍의 力盡으로 이곳을 拂려서게 됨으로써 敵은 이날 밤에 西井里까지 侵入하여 平澤을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이 急報에 接한 제 24사단장은 戰線이 整齊될 때까지 先着한 제 34연대로 하여금 이 要線을 確保토록 強調하였으나, 同연대는 橋梁의 破壞와 砲擊으로 應戰하다가 接敵없이 6일에 이곳을 拂려나 天安附近까지 撤收함으로써 最初의 阻止計

劃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편, 地域을 美軍에 引繼하고 平澤附近에서 再編成에 들어간 國軍은, 5일 守로 始興司 管下 6개사단중 수도, 제 1, 제 2의 3개사단 만을 再編成 補強케 하고 殘餘 3개사단은 解編 統合토록 하여 새로이 創設한 제 1군단(장, 金弘遠 소장)으로 하여금 이를 掌管케 하였다. 그러나 敵의 侵勢가 西井里—平澤線에 이르자 同군단은 새로운 任務를 띠고 陰城—鎮川線으로 轉進하였고, 平澤의 陸本 臨時指揮所도 大田으로 移轉케 되었다. 이와 같이 제 1군단의 轉進과 더불어 이곳을 扼守치 못하고 물러선 제 34연대는 後續한 제 21연대의 일부 兵力을 統合하여 天安과 그 南쪽 高地에 再배치하였으나 平澤失陷의 飛報에 接한 사단장의 叱咤로 일부 兵力을 다시 北上 배치하였다. 또한 同연대장의 交待와 함께 天安의 固守를 強調하였으나 奮戰力關의 보람도 없이 9일에는 新任 연대장의 戰役과 함께 이곳도 敵의 掌中에 들어갔다.

戰況이 이와 같이 急轉하였던 만큼, 사단장은 이날 저녁에 全兵力을 錦江線 南岸으로 撤收하여 陣地를 編成토록 下命하고 제 25사단의 增援에 期待하며 後鬮를 策하였다. 이에 따라 제 34연대는 天安—公州線으로 遲延撤收하고, 두번째로 北上한 제 21연대는 再編成한 Smith 부대(同제 1대대)를 統合하여 全義—鳥致院線에서 敵을 阻止케 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北上한 제 19연대를 錦江線의 大平里 附近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敵은 天安을 據點으로 하여 제 3, 제 4, 제 6의 3개사단을 展開하여 侵勢를 廣大하면서 大田浸攻에 들어갔다.

# 1. 烏山 附近의 遭遇戰 (1950년 7월 4일 부터 1950년 7월 5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3, 4, 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美 제24사단 장 소장 William F. Dean (兼 駐韓 美 地上軍사령관) 同 부사령관 준장 John H. Church	포병사령관(임시) 준장 George B. Barth	제52포병대대 장 중령 Miller O. Perry	A포대 장 중위 Dwain L. Scott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特殊임무부대 장 중령 Charles B. Smith	지원부대	제17연대 장 대령 白仁燁(7.3부상)
B중대 장 중위 Charles Thomas	C중대 장 대위 Richard W. Dashmer	제1대대 장 소령 李寬洙	중령 金熙燾(7.4부터)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宋虎林	
		제3대대 장 소령 吳益慶	
敵 軍		我 軍	
北傀 제3사단 장 소장 李英鎬	제7연대 장 대좌 金昌鳳	제5연대 장 대좌 崔仁德	제16연대 장 대좌 朴勝熙
제8연대 장 중좌 金秉鍾	제9연대 장 대좌 金萬益	제18연대 장 대좌 金熙俊	제105 機甲사단 (7.5승격)
포병대 장 대좌 安白成	제4사단 장 소장 李權武	장 소장 柳京洙	(제107 戰車연대 基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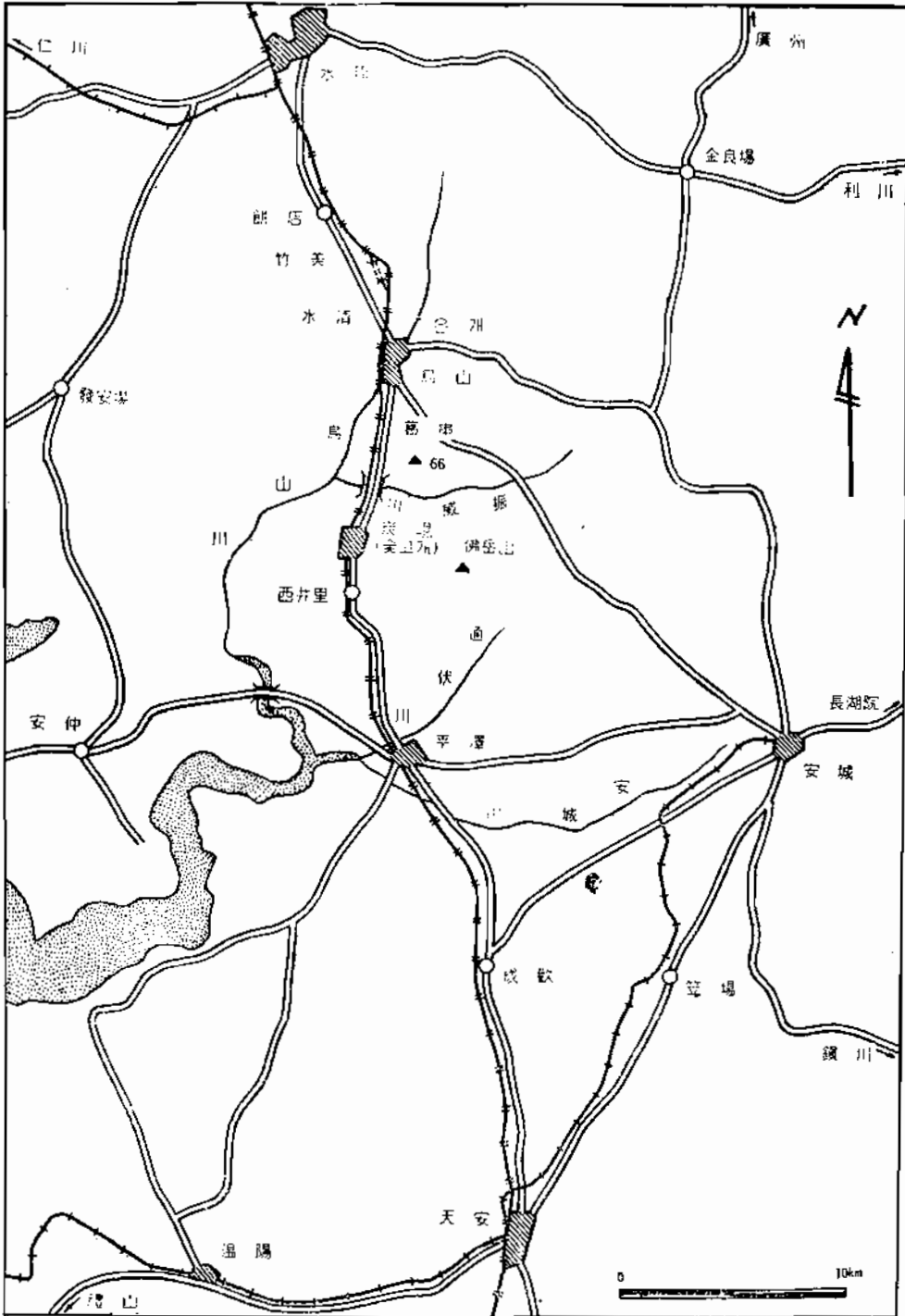
나. 전투전의 개황

本節은 北傀가 서울을 闕奪한 다음, 제 2차 侵攻을 개시함에 따라 韓國戰線에 積極介入키로한 美行政府의 措置와 더불어 그 地上軍先遣隊가 最初로 出動하여 烏山附近에서 싸우게 된 記錄과 이들을 增援한 제17연대 狀況을 엮은 것이다.

그동안 我軍은 倉洞-湫阿里의 阻止線에서 부터 美空軍의 支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鼓舞되어 力戰을 계속하면서 漢江線에 이르렀으나 아직 制空權을 確保하지 못한채 6월 29일을 맞게 되었다.

이곳 漢江線의 防守는 지금까지의 陣地를 固守하는 概念으로 부터 『美地上軍이 來到할 때까지 時間을 얻기 위하여 遲延戰을 벌인다』는 方針으로 轉換, 이때부터 始興地區戰團司令部로 하여금 撤收兵力을 수습하여 再配備토록 한 것인데, 이때 漢江線에는 東쪽으로 부터 混成제 2사단(장, 李翰林대령), 混成제 7사단(장, 劉載興준장), 混成수도사단(장, 李鍾贊대령)순으로 배치하고, 제 1사단(장, 白善燾

◇ 上韓道 제 3 호 烏山附近의 作戰地域



대령)을 水原에 그리고 璽津地區로 부터 撤收한 제17연대(장, 白仁輝대령)를 大田에 集結시켜 재편성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北傀는 南侵개시 만 3일만에 서울에 入城케 되었음을 스스로 雀躍하면서 28, 29 兩일 동안을 小康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實相 그들은 魁首 金日成의 主宰로 열린 6월 29일의 三角地謀議(서울)에서 南勞黨首 朴憲水이 豪言한 30萬地下黨員의 自然蜂起를 통한 이른바 人民解放戰爭論을 云謂하다가 期待에 어긋나자 武力侵攻戰爭으로 轉換기로 結論을 내리고 30일 부터 本格的으로 强行渡河에 들어간 것이다.

이무렵, UN과 美行政府에서는 韓國에 대한 積極支援을 다짐하고 이를 實行에 옮기고 있었으니 그 첫措置가 UN海空軍의 出動이다. 즉, 6월 28일에 美極東軍司令官 麾下의 海軍機動戰隊가 최초로 韓國海域에 出動하여 敵陸戰隊의 海上侵透를 妨害하고, 日本에 基地를 둔 戰術航空機가 漢江線의 敵에 대하여 對地攻擊을 시작하였는데, 7월 1일까지 172회의 出擊기록을 보였다.

이러한 海空軍의 支援은 敵이 漢江渡河를 企圖하던 29일에 이르러 制限된 北傀承認과 함께 北緯 41°~39°41'선까지 擴大하여 海域封鎖를 斷行함으로써 北傀의 南侵을 阻止擊滅코자하는 UN과 美行政府의 決意가 더욱 明白화된 것이다. 특히 美地上部隊의 韓國戰線에 대한 投入을 決定짓는 6월 30일(韓國時間)에 Washington의 參本部와 極東軍司令部사이의 Telecon회의에 이어서 이날 19.00, Truman대통령의 戰團團 派韓承認으로 전선의 양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 決定에 따라 이날 20.00에는 日本의 Kumamoto(熊本)附近에 있던 美제24사단 隸下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에 出動命令이 下達되고 이어서 數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2개 戰團사단의 派韓承認과 함께 全部隊가 出動態勢에 들어가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 6월 30일 早朝부터 强行渡河에 들어간 北傀는 『제 1군단과 제 2군단이 協力하여 美地上軍이 增援되기 이전에 水原以北지역에서 韓國軍을 포위섬멸 한다.』는 主任務밑에 그 侵攻方向을 永登浦—水原—平澤線으로 定하고 東쪽에 제 3사단(장, 소장 李英鎬)과 西쪽에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을 並列隊形으로 하여 南侵을 재촉하였다.

먼저 漢南洞 以東지역의 敵제 3사단은 그 隸下의 제 8연대(장, 중좌 金秉鍾)를 先頭로 하여 鷲梁津—黑石洞—銅雀洞쪽으로 渡江하여 이곳 後面의 낮은 丘陵一帶를 占據하여 牽制한 다음, 主力部隊로 하여금 梅谷里—新沙里쪽으로 直衝하여 猛속거리를 通過, 水原에이르는 街道로 그 醜鋒을 물렸다. 이때 이들을 支援하는 砲兵火力은 南山기슭에서 黑石洞—新沙里 一帶를 砲擊하였다.

그리고 汝矣島—麻浦지역에서 渡河한 그들 제 4사단은 지금까지 漢江以北에서 先頭에 나섰던 제 16연대(장, 대좌 朴勝熙)를 예비로 물리고 豫備로 後續하던 제 5연대(장, 대좌 崔仁德)를 先頭渡河부대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漢江下流인 이곳의 河幅과 河床이 漢南洞上流쪽 보다 넓은 탓인지 그들은 北岸 일대에 數臺의 戰車를 隱蔽시켜 놓고 그 直射火器로써 我方을 制壓하는 한편, 渡河부대로 하여금 거룻배와 뗏목등 可用한 모든 手段으로 이곳을 迅速히 渡河케한 다음 永登浦로 突入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 一部는 蘭芝島로부터 金浦飛行場쪽을 席捲하고 永登浦의 腰部인 梧柳洞쪽에서 威脅을 加하였다.

7월 2일 夜半에는 半破된 漢江鐵橋를 수리한 다음 이곳으로 渡河한 敵의 戰車隊가 다음날 아침에 永登浦로 侵攻하여 그들 步兵부대와 合勢함으로써 戰勢는 다시 急轉되어 갔다.

7월 3일에 漢江을 모두 渡河한 그들 兩個사단은 서울을 侵攻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투어 水原을 爭奪하려는 듯이 보였다.

이날 下午에 始興—安養선에서 敵 제 4사단이 我軍에 의하여 拒支되고 있을동안 東쪽의 제 3사단은 四列縱隊로 始興里—板橋선으로 南下中이었으나 豐德川—水原間에서 我軍의 阻止를 받고 侵攻이 一旦 頓挫되다가 다시 이곳을 뚫고 水原을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北傀는 7월 4일 日沒까지 中間目標인 水原을 兩面挾攻으로 占據하고 다시 京釜國道를 따라 烏山—平澤線까지 進出하려는 企圖를 보였다.



그들 제 3, 4兩사단을 뒤따른 것으로 보이는 제 6사단(장, 소장 方虎山)은 6월 29일에 金浦北端으로 上陸하여 仁川을 포함한 半島一帶를 占據한다음, 다른 目標을 위하여 隱密機動에 들어간듯하였으며, 제 1사단(장, 소장 崔光)은 進出速度가 늦은 中部戰線의 제 2군단(장, 소장 金光俠)을 增援하기 위하여 水原—忠州軸線으로 繞路를 企圖하였다. 또한 3일만에 겨우 春川을 占據한 그들 제 2사단(장, 소장 李靑松)이 6월 28일 뒤늦게 그곳을 出發, 兩水里쪽에서 漢江을 건넌다음 利川—龍仁—水原線으로 進出하였는데 同사단은 7월 2일에 利川에서 我제 6사단 제 19연대와 처음으로 衝突하였다.

我軍의 狀況: 말죽거리—水原道路를 따라 敵이 大舉南下中이라는 美偵察機로 부터의 誤報에 따라 水原에 있던 ADCOM요원들은 6월 30일 夜半에 급히 이곳을 떠나 大田으로 移動하고, 政府指導團人士들도 이 誤報에 놀라 한때 全州와 大邱로 자리를 옮기려는 騷動까지 벌였다.

그러나 이때 我軍은 漢江線에서 激戰을 계속하다가 7월 3일에 이르러 敵 步戰團의 攻擊을 받고 永登浦로부터 軍浦場線에 이르게 되었다.

敵의 侵攻방향이 東쪽의 말죽거리—豐德川—水原線과 西쪽의 永登浦—安養—水原의 兩個軸線인 것으로 判斷한 我軍은 이곳을 重點의으로 牽制하면서 戰況의 推移에 따라 撤收기로 하고 이날, 戰線을 整備하라는 命令을 下達하여 다음 對策을 준비토록 하였다. 그 大要에 이르기를,

『① 軍은 聯合軍의 戰鬥加入을 위하여 D일 H시부터 遲延戰을 실시, 平澤까지 撤收한다. ② 始興地區전투사령관은 선정된 5개의 阻止障地를 占領하면서 兵力을 烏山—平澤線에 集結한다. ③ 軍에미인 제 1사단은 始興地區 부대가 月岩里—彌勒洞—上光教里에 이를때까지 豐德川의 東西쪽을 確保한 다음 逐次撤收한다. ④ 제 3사단은 主力이 烏山에 이를때까지 제 1사단과 協調하여 障地를 確保한다.』는 方針이었다.

따라서 水原防守의 마지막 掩護부대로써 제 1사단(장, 白善燦대령)과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을 指名하고 主力부대가 撤收를 完了한 때까지 阻止障地를 確保토록 하였으나 狀況이 流動的이고 戰鬥力이 弱화되어 갔으므로 이를 遂行하는데 難點이 많았다.

이 方針에 따라 水原에 위치하고 있던 제 1사단은 東北쪽 通路에서 敵侵을 阻止하기 위하여 이날 下午에 이곳으로 撤收한 陸上생도대(장, 孫官道소령)와 함께 豐德川으로 躍進한 다음 障地配備에 들어갔다.

이때 同사단은 前方으로 부터 撤收한 제 3사단 예하의 제 22연대(장, 姜泰敏중령) 일부兵力과 舍營하여 3개연대를 縱深으로 배치하고 敵을 誘引코자 하였으나 이날 즉 7월 3일 밤중에는 別다른 接敵이 없었다. 또한 安養—軍浦場間의 國道 주변에는 鶯梁津—永登浦線에서 撤收한 首都 제 7, 제 2사단이 3重의 阻止線을 버리고 대비하였는데, 이때 제 2사단(장, 李翰林대령)이 제 3사단 대신으로 掩護 임무를 맡게됨에 따라 同사단은 제 5연대(장 대리, 朴基成중령)를 安養 南쪽의 △426에 그리고 제 3연대(장, 崔秀昌중령)를 果川—軍浦場의 中間인 △348에 前進배치 하고 제 16연대(장, 文容彩대령)와 배속된 步校연대(장, 俞海濶중령)를 軍浦場뒤쪽 丘稜一帶로 뿔아 이곳의 兩個도로를 遮斷토록 하였다.

따라서 掩護부대인 제 2사단의 前方에는 수도 및 제 7사단의 混成부대가 急編障地를 편성한 것인데 首都사단 예하의 제 8연대(장, 대리 李賢進중령)와 제 18연대 및 제 15연대의 混成兵力을 安養北쪽 2~4km지역에 배치하고, 제 7사단은 일부 兵力만을 收拾하여 이날 正午에 安養川南쪽 一帶에 障地를 急編토록 하였다.

我軍은 이곳에서도 別다른 接敵없이 偵察戰만을 계속하면서 이날밤을 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 4일 06.00를 기하여 그들은 豐德川(水原 東北쪽 10km)과 安養正面에서 一齊히 侵攻을 개시하였는데, 京釜國道를 따라 南下한 그들 제 4사단의 先頭부대는 戰車 12대를 앞세우고 安養附近의 我軍障地를 거쳐 後方으로 侵透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戰勢가 急轉直下하기에 이르자 我軍은 各障地에서 遂擊하면서 逐次撤收에 들어가게 되고 陸軍本部도 이날 10.00에 水原을 떠나 平澤으로 移動하였다.

安養의 首都 및 제 7사단 지역을 侵襲한 敵은 軍浦場에 이르러 我제 2사단의 遂擊을 받았으나 14.00

에는 다시 이곳을 빼앗은 다음 水原쪽으로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豊德川附近에서 扼腕대기중이던 我제 1사단은 이날 早朝에 戰車도 同伴하지 않은채로 南下中인 敵제 3사단을 맞아 一戰을 加하였으나 溢出하는 우리들 막지 못하고 金良場—新葛間의 閑餘地를 通하여 撤收길에 올랐다.

이렇게 水原 東北지역의 兩개 通路周邊에서 我軍의 掩護부대가 마지막으로 撤收를 시작함으로써 水原은 이날 下午늦게 敵의 手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로써 我軍은 漢江線으로부터 水原線까지 滿 7일간을 支撐한 셈인데, 이곳에서 各部隊가 一旦 接敵을 끊고 戰線을 離脫함으로써 水原—平澤間에는 虛隙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韓國戰線에 參戰하기 위하여 최초로 出動한 美제 24사단 諫下的 제 21연대 제 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와 大田에서 防衛任務를 遂行하던 제 17연대(장, 白仁燦대령)가 平澤 北쪽으로 移動하여 一戰을 決할 準備를 서두르고 있었다.

美地上軍 先遣隊의 出動 經緯 : 美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소장)의 特殊任務부대(Task Force)로 指名된 Smith부대(同사단의 제 21연대 제 1대대의 別稱)는 사단의 主力부대가 出發하기 전에 Kumamoto(熊本)에 있는 Camp Wood 基地를 出發하여 7월 1일 08.05에 Itazuke(板付)空軍基地에 到着하였다. 이곳에서 同사단장으로부터 『釜山에 到着하는 즉시로 Church 준장의 指示를 받으라. 만일 그들 만나지 못하면 가능한 限 北쪽에서 敵의 侵攻을 阻止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받고 出發하였는데, 이때 出動한 步兵부대의 兵力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兵力, 406명(2개중대, 장교 17, 사병 389)

(이중 戰鬪 經驗자는 6분의 1未滿)

裝備, 75mm 無反動銃 2挺

4.2" 迫擊砲 2門

2.36" Rocket砲 6門(중대당 3문)

60mm迫擊砲 4門

彈藥, 1인당 M1實彈 120發

野戰食糧, C-Ration 1인당 2日分.

Smith 부대는 7월 1일 15.00에 釜山の 水營飛行場으로 空輸된 다음 市民들의 환영속에 다시 釜山驛에서 夜間列車편으로 北上하여 다음날인 2일 08.00에 大田驛에 到着하였다.

이곳에서 大田飛行場으로 移動하여 休息을 갖는 동안 대대장은 ADCOM의 參謀인 Leroy Lutes중령의 案内를 받아 大田의 忠南道廳에서 John H. Church 준장에게 到着申告를 하고 그로부터 狀況說明을 들었던 것인데 이때 同준장은 『우리는 韓國軍을 支撐하기 위하여 왔으므로 精神의으로 더욱 그들을 支撐하라.』고 強調하였다는 것이다.

狀況說明을 듣고난 Smith 중령은 몇명의 參謀들만을 帶同하고 곧 地形偵察次 北上하였다.

大田으로부터 烏山까지 136km거리를 Jeep車로 달려 그 北쪽 4km지점의 竹莢고개에 이른 그들은 偵察을 끝내고 現地에서 陣地錮成을 爲한 口頭命令을 하달한 다음 이날 下午늦게 大田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偵察길에 西井里附近에 位置한 제 17연대를 보고 백치문제를 協議하였으나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Church준장은 偵察길에서 방금 돌아온 同대대장에게 『즉시 安城과 平澤으로 北上하여 兵力을 배치하라.』고 命令함으로써 同부대는 다음날인 7월 3일 早朝에 列車편으로 北上移動하여 正午에는 安城과 平澤附近에 각각 1개중대를 배치하고 指揮所는 平澤의 國道邊에 위치하였다.

同준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敵의 南侵速度와 方法으로 보아 韓國軍과 協議하여 이 兩個通路를 우선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適合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며, 同부대가 釜山 來襲으로부터 一次的으로 이곳에 配置될 때까지 48시간이 所要된 것이었다.

한편, Smith부대를 支援하기 위하여 日本을 出航한 美제24사단 隷下의 제52砲兵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 A砲隊는 7월 2일에 釜山에 上陸한 다음 다음날인 3일 午後에 列車편으로 大田에 到着하고, 다시 21.00에는 北上길에 올랐는데, 이날 午後에 일어난 誤爆으로 말미암아 平澤驛이 破壞됨으로써 부득이 그 南쪽에 있는 成歡驛에서 途中下車하지 않을수 없었다. 따라서 同砲兵대대는 이곳에서 各種車輛으로 바꾸어 타고 夜間移動을 개시하여 다음날 拂朝에 8km 北쪽의 平澤에 이르러 Smith 중령의 指揮下에 들어갔다.

이날 出動한 砲兵부대의 兵力과 裝備는 다음과 같다.

兵力, 134명 (장교 9, 사병 125)

(A 포대 103명, 殘餘는 本部 및 勤務砲隊員)

裝備, 105mm砲 6門(M2 A1)

0.5"機關銃 4挺

2.36" Rocket砲 4門

車輛 73臺

彈藥, 高爆彈 1,200發

豫備彈藥 2車輛分(積載)

對戰車 高爆彈(HEAT) 6發

제17연대의 出動과 誤爆事故: 大田에 駐留하고 있던 제17연대는 國防部長官으로부터 『錦江線에 배치하라』는 命令을 받고 行動中에 있었으나 6월 29일에 갑자기 이를 變更하여 『平澤으로 轉進할 준비를 하라.』는 修正命令을 받고 그 準備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措置는 이날 下午에 MacArthur元帥가 戰線을 視察하고 돌아간 다음, 李承晚대통령을 뒤따라 大田으로 내려간 韓美高位 政策 當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즉, 이때 大田의 忠南道廳에 있던 申性模가 Muccio대사와 協議하여 決定한 다음 準備命令을 내린 것으로 보였고 다음날인 30일 아침에 美國留學길에서 이곳에 到着한 丁一權중장(7.1부소장)으로 하여금 그 命令을 代行케 한 것이었다.

따라서 同연대장은 正常系統에 의하여 이루어진 命令이 아님을 알고 이날 20.00에 國防部長官에게 가서 狀況을 問談한 즉, 그는 『總參謀長이 곧 交代될 것이니 그의 指示대로 施行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丁一權소장으로 부터 狀況說明을 듣고난 다음 1개대대만을 錦江線에 殘置하고 나머지 2개대대를 大田에 다시 集結시켜 7월 1일 午前에 列車편으로 北上길에 올랐던 것이다.

이때, 연대장의 命令을 받고 現地에 남게된 제2대대(장, 宋虎林소령)는 新羅津으로부터 公州 西쪽의 『곰나루』까지 34km의 廣正面을 맡게되었는데, 東으로부터 제5중대(장, 李一洙대위) 제6중대(장 郭聖範중위) 제7중대(장, 趙慶鶴중위)를 併立배치하여 美軍이 來着할 때까지 이곳을 지키게 되었다.

이와 함께 北上길에 나선 제17연대의 2개대대 主力은 7월 1일 09.30에 大田驛을 出發하여 正午에 天安驛에 到着하였으나 行先地에 대한 追加命令이 없었던 탓으로 2시간을 遲滯하다가 얼마뒤에 다시 北上命令을 받고 平澤까지 移動하였다.

區間羅進으로 北上한 연대는 이날 下午에 平澤驛에서 下車한 다음 8km 前方의 西井里까지 徒步로 移動, 이곳에서 露營하고 다음날 陣地配備에 들어갔고 연대指揮所는 平澤의 城東國民학교에 設置하였다.

同연대장에 따르면 최초 國防部로부터 『平澤까지 前進하여 平澤—安城線을 防備하라.』는 것이 없으므로 西井里附近의 炭岷(숯고개)一帶에 兵力을 배치할 셈으로 부대를 이곳까지 移動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正午에 美顧問官 White중령으로부터 『UN軍이 到着중이니 이곳에서 함께 방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意見提示가 있었으므로 그것이 上部의 指示와 一致되는 것임을 알고 매치를 서둘렀던 것

이다.

그러나 下午에 同顧問官이 다시와서 『烏山 北쪽으로 前進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修正提議가 있었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는 Smith 중령 一行이 직접나타나서 『敵의 戰車는 문제가 없으니 연대를 烏山 北쪽으로 前進배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意見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提議를 받은 연대장은 『그것이 個人的 意見에 불과할뿐더러 이때의 狀況으로 보아 兵力이 이미 陣地에 進入중에 있고, 또한 支援火器의 보유상태와 土氣등 諸般與件이 許諾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意見에 따를수 없었다.』라고 述懐하였는데, 結局 이 配置문제는 7월 4일에 美제24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一部 調整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이날(7월 2일) Smith 중령은 竹美고개 一帶를 現地偵察한 결과 그곳이 가장 좋은 陣地인 것이라고 判斷하고 먼저 顧問官 White 중령을 통하여 자신의 意見을 提示하였던 것인데 이에 同意를 얻지 못하자 곧 大田으로가서 Church준장에게 偵察결과를 報告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同준장은 이날 밤에 Smith부대로 하여금 安城과 平澤에 分進을 命令하여 우선 道路를 遮斷토록 하였다. 이때 西井里 附近으로 先進한 제17연대의 兵力과 裝備는 다음과 같다.

兵力, 1,412명(2개대대)

(1개 대대는 錦江線에 綫置)

裝備, 81mm 迫擊砲 12門

60mm 迫擊砲 12門

2.36" Rocket砲 18門

重輕機關銃 32挺

彈藥, 1人當 小銃實彈 1基數

81mm砲彈 門當 8發

豫備彈藥, 全無

연대가 陣地配備에 들어가면 3일 午前에 平澤驛에서는 韓國軍에 輸送될 補給品의 荷役作業이 한창 進行中에 있었다. 즉, 前方 各사단에 供給될 彈藥 20輛과 一般補給品 7輛 그리고 兵力을 신고 올라간 空車 10輛등을 驛構內에 대기시켜 놓고 우선, 彈藥부터 卸下한 다음 Truck에 積載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날 15.00에 Australia空軍機 4臺가 나타나자 이 貨車를 爆擊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積載한 彈藥이 連鎖 爆發하여 삼시간에 平澤驛이 破壞되고 市內의 建物과 人命에도 많은 被害를 입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列車은 그 南쪽의 成歡驛까지만 北上할 수 있게 되고, 그 北쪽의 平澤—西井里—烏山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人員과 裝備는 成歡驛에서 바꾸어 輸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의 誤爆狀況을 직접 體驗한 제17연대 補給장교 金忠九중위는 證言하기를 『나는 연대의 兵器將校와 補給官을 兼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平澤驛에서 各種補給品의 卸下作業을 감독하였다. 15.00에 갑자기 我軍機가 나타나더니 37輛을 連結한 彈藥車에 爆擊을 加하여 爆破시켜 버렸다. 이 때문에 연대에는 補給品을 輸送할 수 없게 되었으나 倥傯히 兵力은 西井里로 가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 자신도 이때 九死一生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날의 誤爆은 水原—平澤間에서 全般的으로 實施되었으므로 陣地에 投入중이던 제17연대(-1)와 前方으로부터 撤收南下중인 軍民混合隊列에 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同연대의 被害는 兵力 200명이 死傷되고 車輛 30臺가 破損되었으며 연대장 白仁燁대령도 破片傷을 입고 後送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誤爆事故는 戰線이 流動的이어서 彼我的 識別을 할 수 없는데다가 韓國地形을 잘모르는 航空操縱士들의 過誤때문인 것으로 判明되었는데, 陸本과 ADCOM의 即刻的인 抗議로 곧 是正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4일부터 空軍支援作戰의 地域이 一部 調整되면서 美제 5戰術空軍으로부터 2개

의 戰術航空統制班(TACP)이 大田에서 地上作戰에 協調케 되었다. 이와 동시에 陸軍本部도 緊急히 訓令을 下達하여 『全部隊는 7월 5일 이후부터 白色 광목천을 利用하거나, 일정한 곳에 白色메인트를 칠하여 我軍부대임을 表識하도록하라.』고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Smith부대가 安城과 平澤으로 北上하여 배치중인 7월 3일 早朝에 美제24사단장 Dean소장은 公報業務를 위하여 韓國으로 떠나는 極東軍司令部所屬의 Ben L. Tufts 대위와 함께 Ashiya(蘆屋)空軍基地를 출발하여 10.30에 大田飛行場에 着陸하였다.

그는 곧 忠南道總內에 있는 ADCOM으로가서 Church 준장으로부터 『Smith부대는 安城과 平澤의 兩個通路를 確保토록 命令하였다.』라는 要旨의 報告를 받은 것인데, 이때 同사단장은 그의 措置에 同意하고 指揮本部の 組織과 設置문제를 묻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狀況을 把握한 다음 그는 제34연대(Jay B. Lovless대령)의 上陸과 移動狀況을 돌아보기 위하여 다시 釜山으로 내려갔는데 이날 午後에 MacArthur 元帥로부터 『7월 4일 00.01부로 全駐韓美陸軍兵力을 貴官의 指揮下에 들게 한다.』라고 示達되었다. 이와 함께 Church 준장은 부사령관으로 任命되고 ADCOM과 KMAG에 있는 22명의 장교들은 USAFIK(U.S. Army Forces in Korea)의 일반 및 특별참모요원으로 吸收되었다.

그런데 이날 Church준장이 Dean소장에게 보고한 Smith부대의 最初배치계획은 다음날인 4일에 變更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4일 08.00에 美제52포병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가 平澤에 進出하여 Smith중령의 指揮下에 들어가게 되고, 美제34연대가 이곳에 곧 當到하여 陣地를 引受할 것이 豫想되므로 Smith부대는 烏山北쪽으로 前進배치할 必要性이 생기게 된 것이다. (研究欄參照)

이러한 狀況을 看破하고 있던 同중령은 스스로 이날 午前에 安城—平澤의 兩個通路에 배치한 兵力을 平澤에 集結토록 指示하고, 砲兵대대장 Perry중령과 함께 두번째로 烏山 北쪽에 대한 地形偵察길에 나섰다.

때마침 이날은 美國의 제172회 獨立記念日이기 때문에 同부대를 平澤附近으로 集結시키는데 더욱 意義가 컸던 것으로 보였으나, 이때 砲兵부대를 包含한 全部隊를 한곳에 集結케 하있는지의 興否는 分明하지 않다.

이와 같은 事前措置는 Smith중령 獨斷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대하여 Dean소장도 『나는 그가 日本의 基地를 出發할때 “가능한 限 北쪽에서 敵의 侵攻을 阻止하라”고 命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그는 烏山北쪽으로 前進할 計劃을 세우고 스스로 地形偵察에 나섰던 것으로 본다.』라고 證言하였다.

따라서 竹美고개에 부대를 배치키로 決心한 Smith중령은 먼저 烏山까지 17km를 이날중으로 北上하여 陣地를 配備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에 輸送手段을 副대대장에게 당부하고 자신은 다시 地形偵察에 나섰다. 두번째의 偵察은 주로 砲兵과의 協調를 爲한 것이므로 同行한 Perry중령은 途中에 砲陣地를 選定하고 이어서 一行이 正午에 竹美고개에 이르러 觀測所와 步兵陣地를 確認하는 중에 敵機로부터 攻撃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 一行이 集結地로 돌아가는 길에 烏山附近에서 다시 空中攻撃을 받았으나 下午에는 平澤의 指揮所에 復歸하여 사단장의 前進배치 命命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이날 다시 釜山에서 大田으로 올라간 Dean소장은 Church준장과 함께 狀況을 검토하고 이날 14.00, 이곳에 到着한 砲司官 George B. Barth준장에게 『사단장을 대신하여 前方으로 가서 Smith부대를 指導하라.』고 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作戰計劃을 傳達토록 하였다.

이로 보건대, 同사단장의 作戰構想은 道路를 따라 侵攻하려는 敵의 企圖를 粉碎하기 위하여서는 『① Smith부대를 前方으로 進出시켜 早期에 接敵케 함으로써 그들의 南下를 可能한 限 前方에서 遲延케 하고 ② 同부대가 3일에 말았던 安城—平澤의 2개 通路에는 제34연대를 交替 배치하여 道路를 따라 南下하려는 敵의 企圖를 要扼한다. ③ 그리고 이동안 사단主力이 北上하여 錦江線에 배비를 끝냄으로써 이 地域에서 敵을 擊滅한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또한 西井里에 있는 제17연대에게도 4일에 陸軍本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命(陸本작명 제20호 1950. 7. 5後達)이 示達되었는데 이는 美地上軍 先遣隊의 推進배치에 따른 後續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① 軍은 攻勢를 準備하는 동안 一部兵力으로 烏山—安城일대의 要線 및 竹山—長湖院—堤川附近을 占領하여 再編을 完了하고 軍主力의 進出을 容易케 하려한다. ② 제17연대는 烏山 北쪽 指示된 線에 陣地를 구축하여 제1군단의 中央警戒部隊가 되라. ③ 제1군단 사령부는 平澤에 設치하라.』

이 計劃에 따라 同연대는 烏山을 중심으로 그 前後方에 兵力을 나누어 배치하고 支援부대로서의 任務을 遂行케 되었다.

## (2) 작전실시

7월 4일 : 利川—水原線에 대한 敵의 壓力이 加重되어 감에 따라 我軍은 이날 下午부터 平澤線에서 再編을 目的으로 撤收에 들어갔다. 이로 인하여 水原—平澤間에 생긴 空隙에는 韓美兩軍부대가 寸刻을 다투면서 陣地配備를 서두르고 있었다.

### 1. 美地上軍 先遣隊의 再배치

사단장을 대신하여 이날 15.00에 大田을 出發한 Barth준장은 下午늦게 平澤에 도착한 다음 Smith중령에게 『귀관이 Church준장에게 建議한 바 있는 烏山附近의 良好한 陣地를 確保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단장의 命命을 受領한 同중령은 이미 그 準備에 착수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計劃을 同준장에게 說明한 다음 部隊를 뒤따라 前方으로 나갈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Barth준장이 나중에 밝힌바에 따르면 『내가 사단장의 命命을 받고 平澤에 도착하였을때 Smith중령은 그의 부대를 이미 前方으로 出發시킨 연후였다.』라고 하여 命命이 後達된 形式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Smith중령이 이날 午前에 安城—平澤通路에 배치하였던 兩個중대를 미리 平澤附近에 集結토록 指示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推理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下午부터 비가 내리면서 水原쪽에서 南下하는 撤收隊列때문에 國道는 더욱 混雜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兵力輸送을 爲하여 後方으로부터 徵發된 各種 民間車輛들은 運轉士가 不足되어 出發이 遲滯되고 있었는데, 이때 士兵들중에 運轉經驗者들을 急히 뽑아 充當케 함으로써 夜半이 지나서야 同부대는 平澤과 西井里를 出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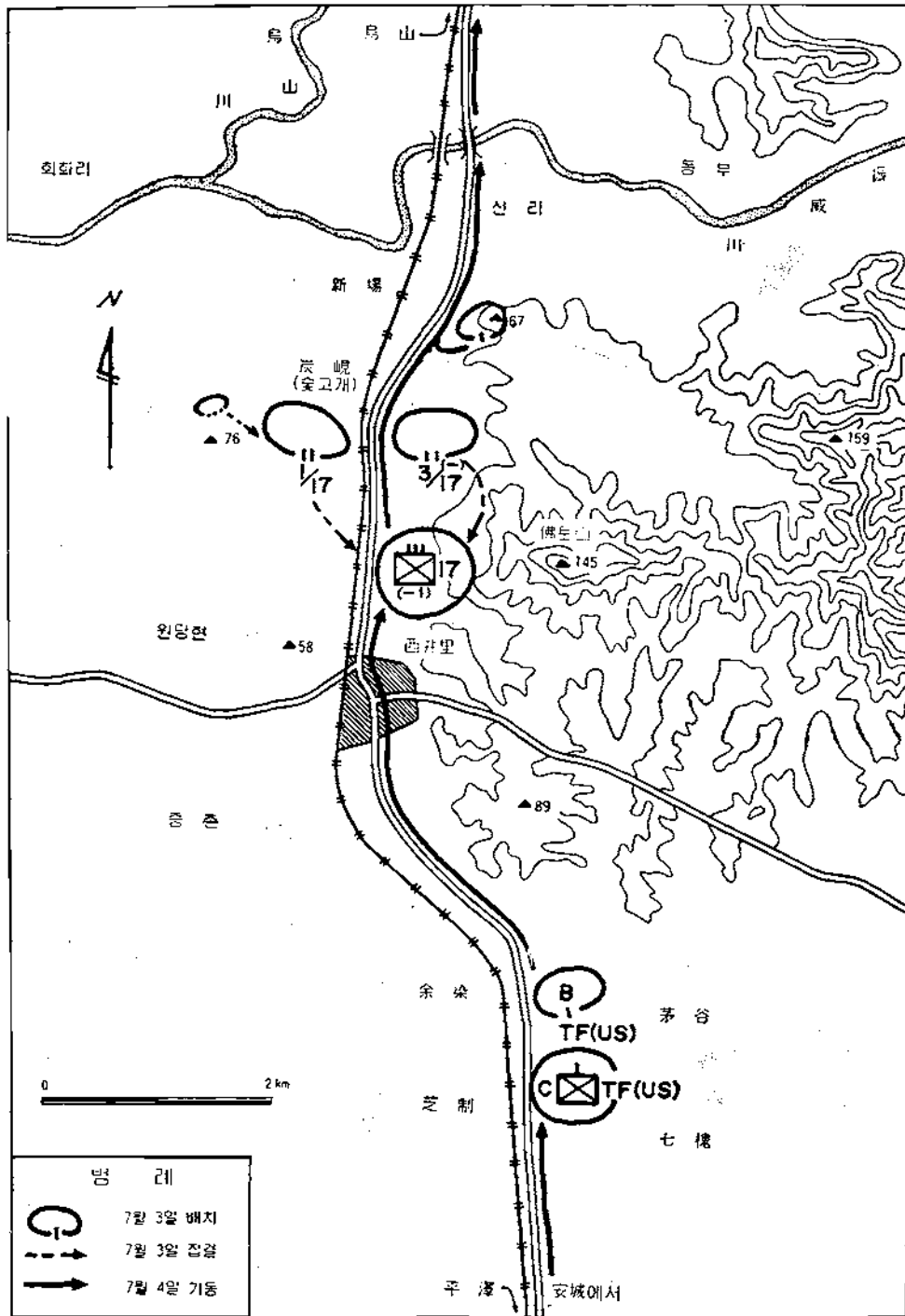
이때의 車輛支援을 맡았던 陸軍本部 作戰局 教育課長 李致業대령은 『陸軍本部가 7월 4일과 5일사이에 平澤에 잠시 머물러 있을때 나는 미리 大田으로 내려와서 落伍者를 收拾하고 車輛을 徵發하여 前方으로 보냈다. 1次는 7월 4일 아침에 70臺를, 그리고 2次는 60臺를 徵發하여 平澤으로 보냈는데, 이중에 첫번째의 것이 Smith 부대용으로 배당된 것이다.』라고 當時를 回顧하였다.

Barth준장과 Smith중령 一行은 本隊를 뒤따라 北上하면서, 烏山—平澤間의 橋梁에 爆破作業을 準備中이던 제 1工兵團(장, 尹泰日중령)의 工兵들을 發見하고 中斷토록 要求하였으나, 指揮體系가 一圓化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相當시간이 遲滯되기도 하였다.



〈韓國軍이 支援한 各種車輛으로 北上하는 Smith부대〉

◇ 상황도 제 4 초 韓·美兩軍부대의 最初配置(7.3~4)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Barth준장은 『北上길에 烏山 南쪽에서 橋梁爆破 作業中인 韓國工兵을 發見하고 “그橋梁은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니 爆破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올라갔던 것인데, 避難隊列로 囚하여 烏山까지 2時間半이 걸렸다.』라고 述及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橋梁에서는 내 말을 理解하지 못하고 作業을 繼續하였기 때문에 爆藥箱子를 강물에 집어던진 일도 있다.』라고 하였다. (研究欄參照)

또한 工兵學校를 統合指揮한 제 1 공병단의 作戰將校인 許弼殷대위는 『水原에서 마지막 撤收에 들어갈때 工兵監 崔昌植대령으로 부터 “水原一大田間의 모든 橋梁을 爆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命令을 받고 이 區間의 大小교량에 대하여 團本部로 하여금 作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作業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7월 4일 午後, 烏山 南쪽에 이르러 처음으로 美砲兵隊의 偵察組로 보이는 Jeep車 2輛을 만났다.』라고 證言하였다.

再배치를 위하여 平澤을 出發한 美地上軍의 先遣隊들은 爆破하러던 振威橋를 通過하여 烏山附近에 이른 것으로 보였으며, 이곳에서 徒歩로 各陣地에 進入하였다. 烏山 北쪽 竹美 고개 右側一帶의 步兵陣地는 晴明한 날씨에 水原까지 12km거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陣地였으나, 降雨와 夜暗으로 行動에 制約을 받았다.

이들 先遣隊는 다음날 早期에 接敵을 豫想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夜半에 一刻을 다투어 陣地配備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 2. 支援部隊의 配備

제17연대(-1)는 前날에 입은 誤爆과 연대장의 負傷으로 士氣가 沮喪되었으나 부연대장 金熙濬중령이 同연대를 指揮하여 재배비에 들어갔다.

즉, 이날 早朝에 西井里附近의 炭峴(숯고개)에서 徒歩로 8km를 北上하여 烏山 南쪽의 果樹園附近에 재배비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同연대가 移動하여 배치중이던 이날 午前에 Smith중령 一行이 地形偵察길에 이곳 葛串里(烏山 南쪽 1.5km)의 臨時 연대지휘소에 들러 同연대장 金熙濬중령에게 『제17연대도 우리와 함께 前進배치 해달라.』고 懇請하였다.

이는 前날에 白仁燁대령에게 提議한 內容과 같은 것으로써 敵의 戰車를 阻止하려면 兵力을 前方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으며, 地形上으로 보아 竹美고개 附近이 가장 適合하다는 主張이었다. 그러나 연대장 金熙濬중령은 『그러한 趣旨는 수긍이가지만, 頻繁한 부대이동으로 因한 混亂과 兵士들의 士氣문제등을 고려하여 同意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이르자 同중령은 『그렇다면 우리만이라도 烏山 北쪽으로 推進배치할 것이니 뒤에서 우리 陣地에 落伍彈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다.

同연대의 再배치문제는 前날에 陸軍本部에 이미 狀況을 보고하고 烏山부근에 배치토록 命令을 받았던 까닭으로 새로이 연대를 指揮하게 된 연대장으로서도 최초의 計劃대로 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同연대는 이날 下午에 그대로 烏山 南쪽의 葛串里附近에 再배치를 끝내고 彈藥의 推進補給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我軍機의 誤爆으로 補給이 圓滑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에 美軍부대가 烏山쪽으로 前進하고 있음을 目睹한 연대장은 그들과의 協調를 위하여 제 1대대에서 일부兵力을 抽出하여 烏山前方의 美제52포병대대와 連繫를 맺도록 하였다. 이때 Smith중령과 함께 올라간 Barth준장은 砲障地編成을 指導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제17연대의 再배치문제를 云謂하였는지는 알길이 없다.

이날의 배치狀況을 要略컨대, 同연대는 西井里로부터 8km를 北上하여 葛串里(烏山 南쪽 1.5km)—淸湖里(葛串里東쪽 1km) 附近의 果樹園을 끼고 그 東쪽에 있는 낮은 丘陵一帶에서 제 3대대(장, 吳益慶소령)를 右側으로, 제 1대대(장, 李寬洙소령)를 左側으로 배치하였다.

이곳은 地形이 比較的 平坦하고 開豁하여 敵의 戰車侵入을 막아내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Smith 부대를 近距離에서 支援할 수 있고 또한 後方に 이르는 2개의 通路를 동시에 制壓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利點을 考慮하였음인지 同연대는 東쪽의 烏山—安城間의 通路를 包含하여 연대의 觀測所가 위치한 △66까지 제11중대(장, 金宗崙중위), 제10중대(장, 安濟徵대위), 제9중대(장, 韓興중위)順으로 併立하고, 제3중대는 西쪽의 △42를 包含하여 烏山—平澤間의 國道を 담당토록 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共用火器는 일부만을 남겨 國道を 指向토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各 중대에 分割배속하였다.

이날의 배치狀況에 대하여 몇사람의 證言을 들어보면, 當時의 연대장 金熙濬중령은 『우리 연대는 烏山이 바라 보이는 西쪽의 果樹園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제 1대대를 西쪽에, 제 3대대를 東쪽에 배치하였는데, 이때 敵의 戰車를 막기 위하여 國도를 中心으로 2.36' Rocket砲 여러門을 배치 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 3중대 제 1소대장인 尹鍾漢중위는 말하되 『우리 중대는 지금의 烏山飛行場 入口에서 北쪽으로 4km쯤 올라가면 작은 橋梁이 있고 앞의 道路가 左側으로 굽어졌는데, 果樹園이 散在되어 있는 右側의 작은 高地에 연대장과 대대장이 나와서 그 굽어진 道路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敵의 戰車를 막으라”고 나에게 命令하였다.』라고 當時를 回顧하였다. 또한 연대의 重火器 배치상황에 대하여 제 3대대 제12중대장이던 鄭圭漢대위는 『우리 火器중대는 81mm追擊砲 6門과 重機 8挺을 가지고 있었는데 各중대에 모두 分割배치하고 果樹園西쪽의 國道沿邊에는 追擊砲 2門과 重機 2挺을 近接배치하여 이를 내가 직접 지휘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제 1대대 제 4중대 先任將校였던 鄭得萬중위도 『우리의 火器중대는 烏山南쪽의 果樹園이 있는 左側, 다시 말해서 國道右側에 배치하여 敵侵에 대비하였다.』라고 당시의 狀況을 述懷하였다.

또한 이날 夜間에 제 1대대 隸下의 제 1중대(장, 副대대장겸무 姜繼德대위)와 제 2중대

(장, 韓 赫중위)를 美제52포병대대가 位置한 東쪽의 은개部落(烏山 北쪽 1km)下端에 前進 배치 하여 제 1중대장으로 하여금 統合指揮토록 하였는데 이는 美軍부대와 相互協調를 이루고 연대의 前哨任務를 遂行토록 함에 있었다.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同대대장 李寬洙소령은 말하기를 『우리 대대는 戰鬥이 시작되기 전날인 7월 4일 下午에 Smith중령과 協議하여 竹美고개에 함께 배치키로 하고 이의 배치문제를 現地에서 논의하다가 敵의 便衣隊 사격을 받고 모두 原陣地로 되돌아간 일이 있다……. 그뒤에 우리는 烏山 北쪽에 배치하여 싸웠다.』라고 함으로써 同대대에서 一部兵力을 抽出하여 前進케 하였음을 立證하였다. 이에 대하여 同대대의 作戰將校였던 金熙濟중위와 제 2중대 제 2소대장이던 賓龜顯소위도 『당시 제 1, 제 2 兩個중대는 烏山北쪽의 道路右側에 배치되었는데, 이때 美砲兵대대는 우리의 左側에 있었고 대대본부와 제 3중대는 後方に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證言하였다.

要컨대, 제 17연대(-1)는 7월 2일과 3일 사이에 西井里附近으로 移動하여 이곳에서 陣地배비중 陸軍本部 作命에 따라 다시 7월 4일에 烏山附近으로 前進배치하고, 烏山 北쪽에는 2개의 前哨중대를 推進시켜 美砲兵대대와 連繫토록 하였던 것이다. 同연대로부터 6km 前方의 竹美고개 附近에 배치된 Smith 보병陣地와는 有無線手段을 講究할 사이가 없었기때문에 人便을 活用할 수밖에 없었다.

7월 5일 : Smith 부대는 降雨를 무릅쓰고 子正부터 夜間行軍을 敢行하여 03.00에 竹美고개 附近의 選定된 陣地로 進出하였으며 砲兵대대도 陣地에 進入하였다. 또한 제 17연대(-1)도 葛串里—淸湖里附近에 배치를 끝내고, 연대前方에 위치한 美軍부대와 連絡을 維持코자 하였다.

### 1. 前進陣地의 編成

2次에 걸친 地形偵察을 통하여 責任地域과 兵力 및 火器의 位置를 明示한바 있는 Smith 중령은 그의 部隊를 예정된 陣地에 進入토록 하였으나 降雨와 夜暗으로 因하여 個人據와 火器의 掩體壕 構築이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陣地構築에 들어갔던 것인데 이날 早朝에 급히 끝낸 이곳 前進陣地의 編成은 大略 다음과 같다.

먼저 C중대(장, Richard W. Dashmer대위)를 東쪽의  $\Delta 92$ 에 배치하고 同중대의 1개소대를 鐵道沿邊의 南쪽에 縱으로 위치시켜 東側方을 防護토록 하였다. 그리고 B중대(장, Charles Thomas중위)는 C중대의 左側에 있는 이곳에서 가장 높은  $\Delta 117$ 를 中心으로 배치하고 同중대 隸下의 제 3소대(장, John J. Doody중위)는 國道를 가로 질러서 西쪽의  $\Delta 100$ 에 위치시켜 竹美고개의 通路를 막도록 하였다. 이들 小銃중대를 支援하는 2挺의 75mm無反動銃은 B,C중대 地域에 各 1挺씩 배치하여 鐵道와 國道를 指向케 하고, 4.2"迫擊砲 2門은 B중대 中央의 370m 背斜面에 두어 同부대를 一般支援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곳의 歩兵陣地는 1,700m 正面에 걸쳐 예비가 없는 單線배치로 끝났던 것이다.

이와 함께 Perry중령이 指揮하는 제52포병대대 A포대(장, Dwain L. Scott중위)의 105mm 曲射砲 4門을 前進陣地로부터 1,800m 後方인 水清里入口(國道 西쪽 150m)에 位置시키고, 同포대의 제 5번포 1門은 이곳으로부터 500m 前方인 △90 下端(國道 西쪽 50m)에 두어 敵의 戰車를 直接照準케 하였다. 그러나 제 6번포 1門은 平澤에 殘置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同포병대대의 本部 및 勤務砲隊에서 차출된 4挺의 기관총과 4門의 2.36" Rocket砲도 道路와 砲陣地 주변에서 竹美고개쪽을 指向도록 한다음, 1,200發의 高爆彈은 砲隊에 集積하여 即刻 應射도록 準備하고 나머지 예비탄약은 Truck에 積載한채로 道路邊의 은폐된 곳에 대기케 하였다.

특히 問題의 敵 戰車를 破壞할 수 있는 對戰車高爆彈(HEAT)은 불과 6發뿐이었는데, 이는 同대대가 Sasebo(佐世保)를 出發할 때 모두 18發을 携帶하였으나 A포대에는 이중 6發만을 支給하였기 때문이며, 이 砲彈은 모두 直接照準을 擔當하고 있는 제 5번포에 割當한 것으로 알려졌다.

날이 밝자 步兵과 砲兵의 支援火器들은 試射와 基點射擊을 하고, 兵士들은 野戰食糧으로 朝食을 마친다음 敵의 南下를 기다렸다. 이때까지 繼續내린 비는 07.00에 이르러 가랑바와 濃霧로 바뀌면서 8km 前方의 水原附近까지 觀測할 수 있게 되었다.

## 2. Smith부대의 初戰

지난밤, 水原에서 休息과 整備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 敵 제 4사단은 이날 아침 일찌기 戰車를 先頭로 하여 다시 京釜國道를 따라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117에서 砲兵觀測將校와 함께 前方을 注視하고 있던 Smith중령은 07.30에 水原으로부터 南下중인 8호의 敵 戰車를 目擊하자 즉시 戰鬥態勢에 들어가도록 命命하고 砲陣地에도 이를 通報하였다.

對戰車戰: 敵의 先頭戰車가 08.16에 步兵陣地 前 1,800m인 餅店里的 彎曲部에 이르자 最初의 砲彈을 發射하였다. 步兵陣地에 나가 있는 觀測將校는 彈着을 調整하여 集中사격을 퍼붓도록 하였고 Smith중령은 75mm無反動銃班에게 敵의 戰車가 600m以內에 接近할 때에 射擊하도록 命命하였다. 그러나 我軍의 集中砲擊에도 불구하고 그들 戰車隊는 一列縱隊로 侵入을 繼續하여 步兵陣地로 近接하였다.

이무렵, 戰鬥指導을 위하여 砲陣地에 나가 있던 Barth중장은 前方觀測將校로부터 『曲射砲彈은 敵의 戰車에 效果가 없다.』라는 報告를 받고 美제 34연대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의 平澤到着狀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떠나갔다.

近接中인 敵의 戰車가 射距離內에 들어오자 75mm無反動銃이 一齊히 사격을 가하고 Ollie D. Connor 소위가 지휘하는 도로변의 2.36" Rocket砲組도 至近거리에서 戰車의 側面과 背面向하여 22發을 사격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效果도 없이 그들 先頭車는 08.30에 竹美고

개를 넘어섰다. 이번에는 砲陣地에서 推進배치된 1門의 105mm 直射砲로 對戰車砲彈을 發射하여 고개를 넘어 내려가는 2臺의 戰車를 破壞시켰다. 이때 擱坐된 先頭戰車는 뒤따라가는 戰車隊의 前進를 위함인듯, 道路邊으로 비켜서면서 2명의 敵兵이 砲塔平경을 열고 손을들며 먼저 나왔다. 그러나 세번째로 나오던 敵兵이 갑자기 多發銃을 휘둘러 附近에 位置하고 있던 機關銃부사수를 射殺하였다. 이에 이르자 警戒中이던 小銃手들은 即刻 應射하여 그들을 모두 射殺하였는데, 이 不意의 射擊으로 機關銃부사수는 美地上軍부대의 最初의 戰死者가 되었다.

세번째의 戰車는 곧 破壞된 2臺의 戰車를 밀어제치고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6發밖에 없는 對戰車砲彈을 모두 消盡하고 高爆彈밖에 없으므로 侵入하는 이 戰車를 막을길이 없었다. 道路邊에 위치하였던 105mm 直射砲는 敵의 3번戰車의 射擊으로 破壞되고 砲手 1명도 負傷을 입었다.

그들은 戰車 4臺를 1개소대로 編成한듯, 먼저 2개소대 8臺로 步兵진지를 超越한 다음 砲陣地쪽으로 向하고, 09.00에는 모두 33臺의 戰車가 鞍部를 通過하였는데 이때에 20여명의 戰死傷을 내었다.

步兵과 砲陣地間에 架設된 有線電話線은 戰車에 의하여 絶斷되고 無電機마저 疎通이 不良하여 Jeep車에 실린 無電機를 利用하려 하였으나 그것마저 不通이었기 때문에 狀況을 알릴길이 없었다.

砲陣地附近까지 侵入한 그들 先頭戰車隊는 我軍의 直射火器를 피하여 遮蔽된 곳에서 警戒하는듯 하다가 85mm戰車砲와 7.62mm 機關銃을 亂射하면서 이곳을 通過하려고 하였다. 이때 砲兵들은 130~150m距離에서 이들 戰車에 대하여 즉각 砲擊을 加하고 道路邊에 位置한 3門의 Rocket砲組는 Edwin A. Eversole중사의 指揮下에 猛射를 베풀었다. 빗발치는 射擊戰이 벌어지는 瞬間, 제 3번戰車가 105mm 砲擊에 命中되어 無限軌道가 絶斷되면서 擱坐되고, 나머지 戰車들은 亂射를 加하면서 이곳을 通過하여 烏山쪽으로 南下하였다.

先頭戰車隊가 闊野에서 사라진 다음 砲兵대대장 Perry 중령은 同伴한 通譯官 尹承國대위를 시켜 破壞된 戰車를 向하여 『戰車에서 나와서 投降하라.』고 외치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 反應이 없게되자 同대대장은 砲陣地에 즉각 砲擊命令을 내려 그 戰車에 3發을 命中시켰다. 그러자 砲擊에 놀란 2명의 北僞兵이 戰車에서 뛰어나와 근처의 도랑에 숨어버렸는데 마침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1개의 小銃分隊가 이를 射殺하였다. 이 戰鬪에서 Perry중령은 右側다리에 銃傷을 입었으나 後送을 拒絶하고 나무 밑에 기대앉아 계속 出現하게 될 敵의 戰車에 對備하도록 命令하였다.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尹承國대위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이날 10.00에 敵의 Tank가 나타나자 Perry중령은 砲隊를 直接 指揮하여 敵의 戰車 1臺를 破壞하였으나 이때 敵兵이 나오지 않으므로 내가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도 나오지를 않아서 대대장은

그 戰車를 破壞하도록 命令하였는데 그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射擊을 하는 바람에 Perry 중령이 銃傷을 입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後送을 拒絕하고 部隊를 指揮하였으며, 나중에 나와 함께 安城으로 撤收하였다. 그는 責任感이 강한 장교였다.』라고 述懷하였다.

先頭戰車隊가 지나간 다음, 10분뒤에 그들의 本隊로 보이는 戰車隊列이 砲陣地에 接近하자 이번에는 砲兵들이 恐怖感에 사로잡혀 陣地를 離脫하는 騷動을 벌였다.

이에 이르자 混亂에 빠진 砲隊를 바로잡기 위하여 먼저 將校들이 앞장서서 砲彈을 直接 裝填하고 下士官들의 照準으로 射擊하였는데 특히 대대장 Perry 중령과 포대장 Scott 중위의 率先垂範으로 恐怖雰圍氣가 점차 사라지면서 兵士들이 原位置로 돌아감으로써 混亂이 수습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我軍의 集中砲擊으로 다시 戰車 1臺를 破壞하였는데 이때, 塔乘한 數名の 北僞兵이 떨어져죽기도 하였다. 그들은 砲陣地에는 直接 사격을 加하지 않고 그 附近의 民家에 사격을 加하여 그곳에 저장된 300發의 砲彈을 爆破시켰다. 당시 이를 目擊한 平澤郡 烏山邑에 거주하는 孔炳旭에 의하면 『그때 道路옆에 獨立家屋이 있었는데, 北僞의 射擊으로 그 집에 火災가 일어나자 그곳에 保管되어 있는 砲彈이 連爆하여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道路를 따라 急히 南下할 속셈으로 우선 그 周邊만을 蹂躪하고 先頭戰車隊를 뒤따라 烏山쪽으로 내려갔는데, 10.15에는 本隊의 最終戰車가 이곳의 砲陣地附近을 모두 通過하였다.

이로써 Smith 부대의 對戰車戰은 2時間의 사격전끝에 步兵陣地 뒤쪽에서 2臺, 砲陣地 近傍에서 2臺를 각각 破壞함으로써 도합 4臺의 戰果를 올렸고, 輕中破한듯한 3臺의 戰車는 緩速으로 그들의 主力戰車隊를 뒤따라 내려갔다. (研究欄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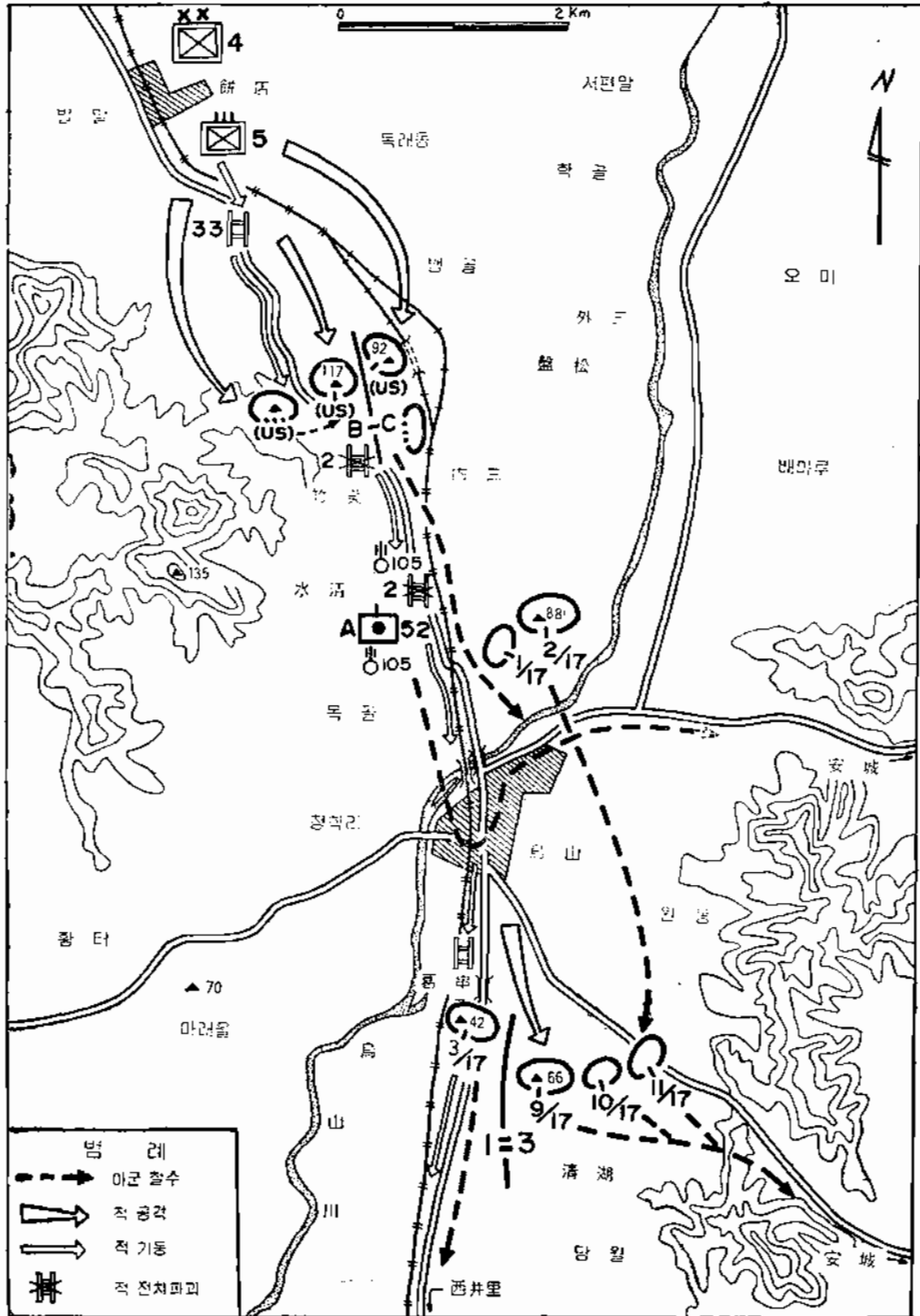
이 戰鬪에 참가한 敵의 戰車부대는 제 4사단 제 5연대(장, 대좌 崔仁德)를 지원하는 제 105機甲사단(장, 소장 柳京洙)隷下의 제 107戰車연대였다.

竹美고개의 戰鬪: 戰車隊가 步兵과 砲兵陣地를 通過하여 南下한 다음 戰線은 다시 高요하였다.

이때 竹美고개에 배치된 步兵들은 敵의 後續부대가 곧 侵攻할 것이라는 判斷아래 各自의 陣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敵의 戰車隊가 步兵진지를 通過한지 1시간뒤인 10.00에 Smith 중령은 △117로부터 水原前方에 나타난 3臺의 戰車와 車輛에 塔乘한 北僞軍의 後續부대를 目擊하였는데 그 縱隊의 길이가 數 km에 이를 것으로 推斷하였다. 이는 지난밤에 水原에서 休息과 整備를 마치고 다시 南侵을 시작한 敵제 4사단 隷下의 제 16 및 제 18연대 主力이었다.

그들 行軍縱隊가 11.45에 我軍陣地 前 900m에 이르자 同중령은 곧 射擊命令을 내렸다. 4.2''迫擊砲彈이 敵의 Truck에 命中되고 0.5''機關銃은 그들 步兵의 行軍縱隊를 向하여 猛

◇ 상황도 제 5 호 烏山附近의 韓·美兩軍 부대狀況(7.5)



射를 퍼부었다. 砲彈이 命中될 때마다 敵兵의 屍體가 空中으로 飛散되고 車輛은 박살이 나 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行軍縱隊 先頭에서 前進하던 戰車隊가 180~270m前方까지 近接하여 戰車砲와 機關銃을 亂射하기 시작하고, 火焰에 휩싸인 차량중대의 後方으로부터 다른 北傀兵의 一團이 國道兩側에 散開하여 攻擊을 개시하였다. 東쪽의 뱀골(△92 東쪽 1km)로 侵入한 一團은 C중대의 側方을 위협하면서 包圍를 꾀하는듯 하였고 國道前面의 敵도 接近하였다.

이때 △117에서 戰鬥을 指揮하던 Smith 중령은 東西로 뛰어다니면서 叱咤하다가 縱隊의 先頭戰車隊가 고개를 넘자, 特攻隊를 組織하여 이를 破壞토록하였으나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의 狀況에 대하여, 通譯官으로 派遣되었던 李駿秀는 證言하기를 『敵의 先頭戰車가 竹美고개를 넘어서면서 側方과 後方에서 戰車砲를 쏘기시작했고 이어서 北傀軍이 벌떼같이 攻擊하여 왔는데, 이때 Smith 중령은 拳銃을 메어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指揮하였다. 戰鬥중에 機關銃사수가 쓰러지면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 사격하기도 하였는데, 마치 不死鳥와 같이 보였다.』라고 述懷하였다.

12. 30에는 敵이 西쪽 國道 건너편의 △100에 侵入하였기 때문에 同중령은 그곳에 배치한 B중대의 1개소대를 △117의 中대主力과 合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敵이 兩側方에서 威脅하게 되자 그는 4.2'' 迫擊砲를 △117에 끌어올려 全面防禦에 들어가도록 命令하고, 부대대장 Floyd Martin 소령에게는 道路邊과 迫擊砲陣地에 쌓아둔 彈藥을 後方으로 運搬토록 措置하였다.

敵의 砲擊이 더욱 熾烈化함에 따라 死傷者가 增加되었다. 特히 鐵道の 東쪽 稜線으로부터 機關銃사격을 받게 된 △92의 C중대는 더 많은 損失을 보게 되었다.

이 당시 砲陣地에 있던 Perry 중령은 斷絕된 步砲間의 通信線을 修理코자 2회에 걸쳐 架設兵을 파견하였으나 敵의 便衣隊의 사격을 받아 모두 空手無爲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同중령은 13. 00에 세번째로 作戰將校보좌관으로 하여금 架設兵을 引率시켜 『敵의 射擊지점을 피하여 道路의 東쪽을 따라 새로이 通信線을 가설하라.』고 일렀으나 狀況이 急迫하여졌기 때문인지 역시 成功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14. 00에 이르러 敵은 步兵陣地의 兩側方을 完全히 包圍하고 그 一部는 後方에까지 侵入하였으며, 水原-竹美고개間的 國道에는 그들의 後續부대들이 길을 메워 南下中이었다.

이와 同時에 我步兵부대들은 이미 彈藥이 消盡되고 通信마저 杜絕되어 砲兵支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日氣不順으로 航空支援은 더욱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狀況에 直面하게 된 Smith 중령은 14. 30을 期하여 相互掩護下에 撤收키로 決心하였다. 그의 腹案은 C중대, 의무중대, 대대본부, B중대 順으로 撤收하되 經路는 鐵道 東쪽의 낮은 稜線을 따라 烏山 南쪽으로 移動하는 것이었다. 航空 및 砲兵의 支援도 없이 晝間 撤收를 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많은 損失을 보게 되었다. 繼續 亂射를 퍼붓고 있던 鐵道



너편의 敵기관총은 철수직전에 C중대의 Raymond "Bodie" Adams 중위가 던진 手榴彈으로 破壤하고 各單位隊는 東쪽 後線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맨 마지막으로 빠져게 된 B중대 제 2소대장 Carl F. Bernard 소위는 撤收命令을 받지 못하여 傳令을 중대본부에 보냈으나 『본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報告를 받고 소대장 자신이 스스로 撤收키로 決心하였다. 同소대원들은 2~3개의 彈筒 clips과 小銃만을 携帶한채 四散되어 障地를 떠나게 되었는데 迫擊砲와 無反動銃 그리고 機關銃등 共用火器는 모두 그대로 돌수밖에 없었다. 25~30명의 重傷者와 戰死者도 그 자리에 남겨 놓았으며, 輕傷者들은 함께 나오다가 行方不明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Smith 중령은 마지막 掩護부대인 B중대가 撤收준비를 끝냈을 무렵, △117를 떠나 鐵道沿邊을 따라 砲陣地쪽으로 내려가다가 砲兵대대장이 보낸 有線架設班을 만나 그들과 함께 砲陣地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 가보니 同중령이 豫想한 것과는 달리 105mm砲는 모두 무사하고 다만 Perry 중령과 士兵 1명만이 負傷을 입고 있었으므로 곧 同부대에 대하여 撤收命令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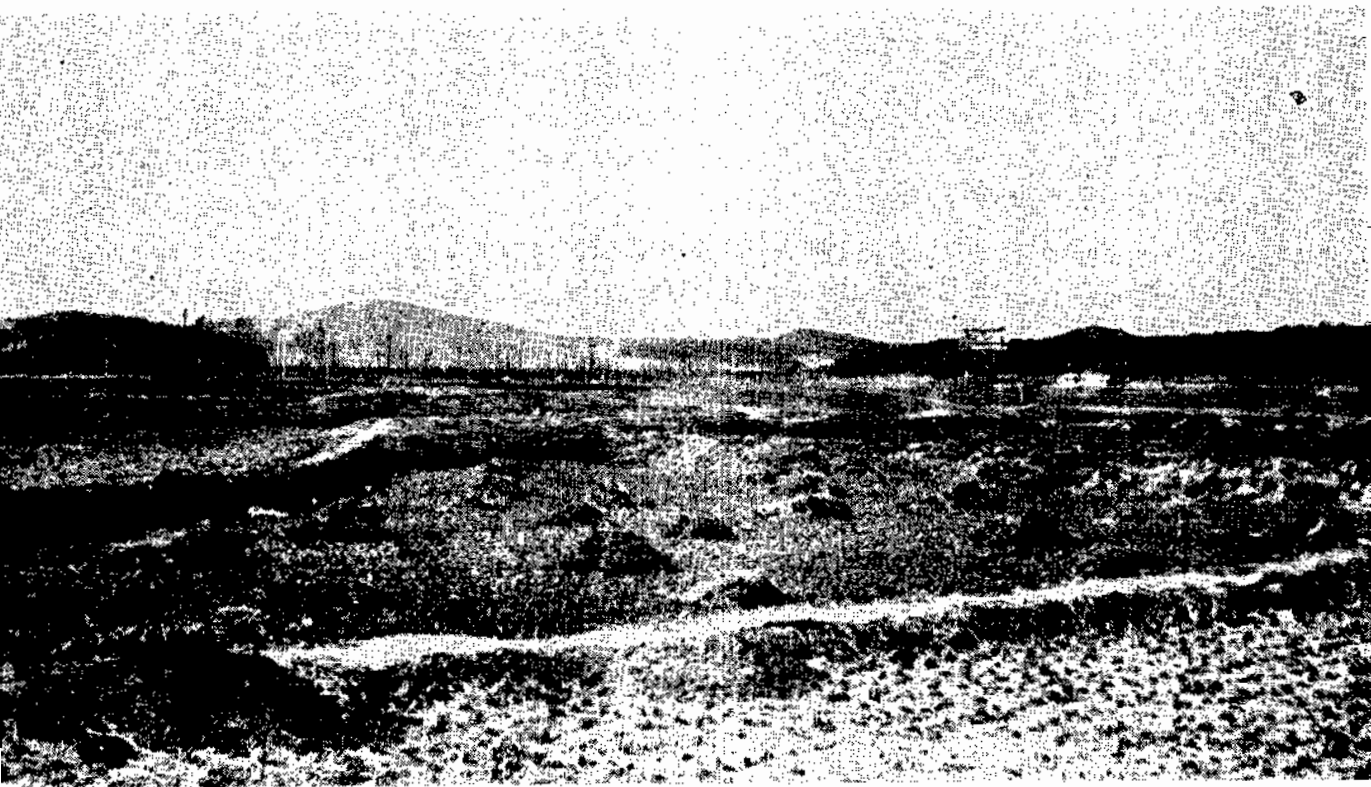
이에 砲兵들은 “照準鏡”과 “마개쇠” 그리고 “方向燈”만을 빼어 車輛에 싣고 大部分의 將兵들은 徒步로 烏山앞에 세워둔 車輛附近까지 나갔다. 그곳에 待機시킨 車輛中에 數臺가 破壤되었으므로 稼動車輛만을 골라 타고 가기로 하고 縱隊編成을 서둘렀다. Smith와 Perry兩中령을 先頭로한 行軍縱隊는 16.00에 그곳을 출발하였다.

同中령 一行은 敵의 戰車가 平澤쪽으로 南下하였을 것이라고 判斷한 鬨으로 烏山 南쪽 郊外에서 安城에 이르는 좁은 通路를 따라 빠져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갈릴길 前方에 이르렀을 때 걸목에 敵의 戰車 3臺가 버티고 있었고 戰車兵들이 나와서 休息하고 있음을 目擊하자 急히 行軍隊列을 되돌려 다시 烏山 北쪽으로 나갔다. 이곳에서 직접 安城쪽으로 갈수있는 東쪽의 小路를 따라 나가기로 한 이들은 隊列을 再編成하여 出發을 서둘렀다. 步兵陣地로부터 分散撤收한 100명을 合하여 모두 200명을 10臺의 車輛에 分乘시키고, 맨 앞에는 地形에 익숙한 尹承國대위의 誘導車와 警護車가 先導하며 烏山을 出發하였다. 이들 車輛縱隊가 安城으로 移動하는 동안 敵의 便衣隊 사적으로 混亂이 일기도 하였으나 19.00에는 美제 34연대 제 3대대(장, David H. Smith 중령)가 배치된 目的地까지 到達할 수 있었다

이 遭遇戰에서 Smith부대는 初彈을 發射할 때부터 撤收개시까지 6시간 15분을 支撐함으로써 美제 24사단 主力의 戰鬥을 準備케 하였다.

### 3. 제17연대의 狀況

美포병진지 東쪽의 은개部落(烏山 北쪽 1km) 丘陵에 前進배치된 제 1대대의 2개 중대는 國道를 따라 南下한 敵의 先頭戰車를 目擊하자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이날 10.00에 그들 先頭戰車에 대하여 먼저 美砲兵隊의 Rocket砲와 機關銃사격이 集注되었으나 이때 隣



〈烏山 北端에서 내다본 竹美고개의 遠景과 右側의 은개部落〉

接한 그들과는 連絡手段이 없었던 탓으로 300m 거리에서 炸裂하는 銃砲聲과 戰車를 目擊하고서야 사격에 들어갔다.

丘陵의 西쪽에 배치된 제 1 중대(장, 姜隱德대위)는 銃榴彈과 機關銃사격을 加하여 砲塔 平경을 열고 南下하는 敵의 戰車兵을 制壓하였으나 同중대의 左側下端에 배치된 砲組는 有效사거리가 훨씬 넘는 500m에서 사격함으로써 도리어 砲위치단을 暴露하게 되었다. 我軍의 砲擊이 아무런 效果를 보지 못하자 敵戰車는 이곳을 지나 烏山橋(烏山 北端) 앞에 이른 다음 後方으로부터 我軍陣地를 向하여 戰車砲와 機關銃을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이 戰車의 사격은 △88(烏山 北쪽 1.5km)와 은개部落 丘陵에도 命中되었다.

이 射擊으로 2門의 2.36" Rocket砲를 指揮하던 제 1 중대 제 1 소대장 李探漢중위와 士兵

1명이 重輕傷을 입었고 2명의 士兵이 戰死하였다.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同대대의 作戰 將校였던 金熙濟중위는 말하되 『이날 午前에 竹美고개附近에서 들려오는 銃擊戰소리를 듣고 Smith부대 狀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敵이 이미 侵入하여 美軍들이 分散撤收 중이었으므로 急히 烏山쪽으로 내려오다가 銃傷을 입고 내려오는 제 1 중대소속의 朴萬業중위를 만났다. 그는 “제 1 소대장 李揆漢중위가 戰車砲사격으로 重傷을 입었고 士兵 3名도 戰死傷을 입었는데, 지금 중대는 모두 本陣地로 撤收中”이라 하므로 그와 함께 대대본부로 와서 狀況을 보고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곳 前進陣地의 狀況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밝힐 길이 없으나 같은 중대 소속의 賓龜顯소위도 證言하기를 『우리 소대는 烏山 北쪽에 배치되어 戰鬪하였다. 그러나 美軍들이 우리 左側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위의



〈20年生 소나무가 우거진 △66, 제17연대 관측소가 있던 곳〉

證言을 뒷받침하였다.

이로부터 1시간뒤인 11.00에 敵의 先頭戰車隊는 제17연대 主力이 배치된 葛串里(烏山南쪽 1.5km) 500m 前方에 나타났다. 同연대는 전날에 제3중대와 제9중대(장, 韓興중위)의 2.36'' Rocket砲 6門을 國道沿邊에 集中배치하여 敵의 戰車侵入을 막도록하고, 제4중대(장, 孫昌述중위)와 제12중대(장, 鄭圭漢대위)의 重火器도 대부분 이곳에 指向토록 하였으므로 邀擊의 好機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연대는 즉각 戰鬥態勢로 들어가는 동시에 제4중대의 81mm 迫擊砲소대(장, 李弘根소위)로 하여금 그들 先頭戰車 4臺를 砲擊토록 하였다. 그러나 國道를 따라 避難民이 混雜되어 南下하고 있음을 목격한 △66의 대대 觀測所에서는 同소대에 즉각 通報하여 砲擊을 中止토록 하였다.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제1대대장이었던 李寬洙소령은 『그때 民間人들이 敵의 戰車周邊에서 道路를 따라 南下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砲擊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라고 證言하였다.

81mm砲擊에 놀란 그들 先頭戰車 4臺는 50m 간격으로 急히 接近하면서 我軍陣地 300m 前方인 葛串橋에 이르러 周邊을 警戒하는듯 하더니 곧 亂射를 加하였다. 이에 이르자 國道 左右側에 배치된 제2, 제9 兩個중대의 2.36'' Rocket 砲조가 즉각 對戰車사격에 들어갔고 81mm迫擊砲를 비롯하여 銃榴彈 및 重機까지 一齊사격을 加하였다.

이때 國道邊의 제2중대 제1소대장 尹鍾漢소위가 지휘하는 2門의 Rocket砲조는 80m거리에서 10發을 命中시켰으나 아무效果도 없이 敵戰車는 陣地側方으로 侵透하여 오히려 露出된 我軍의 砲陣地를 向하여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亂射로 4名の 2.36'' Rocket 砲조원과 3名の 小銃兵이 戰死하게 되고 대대관측소에도 직격탄이 命中되었으나 陣地를 固守하면서 계속 應射하였다. 제9중대(장, 韓興중위) 지역에 위치하였던 제12중대장 鄭圭漢대위는 2.36'' Rocket 砲가 아무런 效果가 없음을 보고 부대대장 姜隱德대위(제1중대장 겸무)와 함께 1名の 土兵을 거느리고 戰車에 接近하여 無限軌道에 M79銃榴彈을 命中시켰으나 역시 虛事였다. 敵의 先頭戰車隊는 我軍의 集中사격에도 不拘하고 西井里쪽으로 直衝 南下하고, 이어서 步兵을 동반하지 않은 20臺의 後續戰車隊가 그뒤를 따라 지나갔다. 그러나 연대는 다시 敵의 步兵부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계속 前方을 注視하고 있었는데, 15.30에 제3대대(장, 吳益慶소령) 관측소로부터 『前方 1km지점에서 美軍으로 보이는 4명이 흰 手巾을 흔들면서 南下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연대장 金熙濬중령은 즉시 제12중대(장, 鄭圭漢대위)로 하여금 그들을 訊問토록 한결과 『竹美고개로부터 分散撤收中인 美軍장교 1명(중위)과 사병 3명이 平澤으로 가는 길을 묻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그들을 後送토록 하고 即刻 戰鬥態勢突入을 命命하였다.

敵의 步兵부대들은 美軍 4명이 撤收한지 30분뒤인 16.00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이후 警戒對策도 없이 悠悠히 我軍陣地에 接近하므로 陣地에서 待機하던 國道周邊의 2개 중대가 먼저 一齊사격을 加하였다. 陣地前 300m의 葛串橋를 지난 敵의 先頭車輛이 길가에 처박히면서 行軍縱隊가 멈췄고 그들의 行動隊로 보이는 一部兵力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 66를 向하여 攻擊하였다.

同 高地의 下端에 배치된 제 9중대 제 1소대장 吳潤根중위는 33명의 소대원을 지휘하여 奮戰하였으나 溢出하는 무리를 막지 못하고 끝내 現場에서 戰死하였으며 소대원들도 分散되기에 이르렀다.

81mm追擊砲彈은 我軍機의 誤爆으로 追加補給이 中斷된데다가 對戰車戰에서 이미 砲彈을 消耗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火力支援을 할 수 없었으며 小火器의 實彈도 바닥날 상태에 있었다. 敵의 戰車隊는 이미 後方으로 南下하고, 車輛縱隊의 先頭에서 侵攻한 自走砲인 듯한 3臺는 陣地側方으로 迂回하여 我軍의 背斜面을 공격하였다. 이에 이르자 연대장은 撤收를 決心하고 17.00에 各隊로하여금 安城과 平澤間을 經由하여 天安에 集結토록 命令하였다.

撤收 命令을 받은 제 1대대장은 國道를 따라 西井里로 나가다가 19.00에 西井里의 長老教會마당과 길가에 敵의 戰車 數臺가 버티고 서있는 것을 목격하자 곧 方向을 바꾸어 西쪽의 개울을 따라 平澤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제 3대대는 그들 戰車가 아직 通過하지 않은 烏山—安城間의 開豁地를 택하였는데 이날밤 烏山으로부터 東南쪽의 8km인 東恒里附近에서 露宿하고 天安과 烏致院으로 각각 分散撤收하였다.

연대는 이날 11.00부터 17.00사이에 烏山 北쪽과 南쪽一帶에서 Smith부대에 대한 支援임무를 遂行하다가 天安으로 撤收한 다음 새로운 任務를 띠고 淸州附近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이 遲延戰으로 말미암아 敵은 平澤까지 進出하려던 企圖를 포기하고 이날 18.00에야 水原 南쪽 23km의 西井里附近까지 進出した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들이 당초에 計劃한 侵攻兇圖보다 친선 뒤진 進出速度를 나타낸 것이었다. 특히 그들이 이곳에서 美軍과 最初로 遭遇하게 된 狀況에 대하여 뒷날 洛東江戰線에서 포로가 된 前北傀제 2군단 작전참모였던 李學九중좌의 證言과 그들의 屍體에서 나온 日記手帖을 要約하면 7월 初에 美地上軍이 烏山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이 戰鬪는 全然없이 치열하였다. 그리고하여 戰線이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인하였다.

한편 美제 24사단의 先頭主力部隊인 제 34연대(장, Jay B. Lovless대령)가 이날(7월 5일) 午前中으로 모두 平澤으로 進出하여 전날 Smith부대가 맡았던 곳에 투입되었는데, 이때 제 3대대(장, David H. Smith중령)가 安城에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가 平澤 北쪽 4km지점에 각각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무렵, 前方으로부터 平澤의 제 3연대 指揮所에 당도한 Barth준장이 敵의 戰車가 不遠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豫告하고 Rocket砲를 道路邊에 근접배치하여 敵侵에 대비토록 指示하였다. 또한 同연대소속의 Charles E. Payne소위는 數名の 偵察兵과 對戰車攻擊組員을 이끌고 西井里前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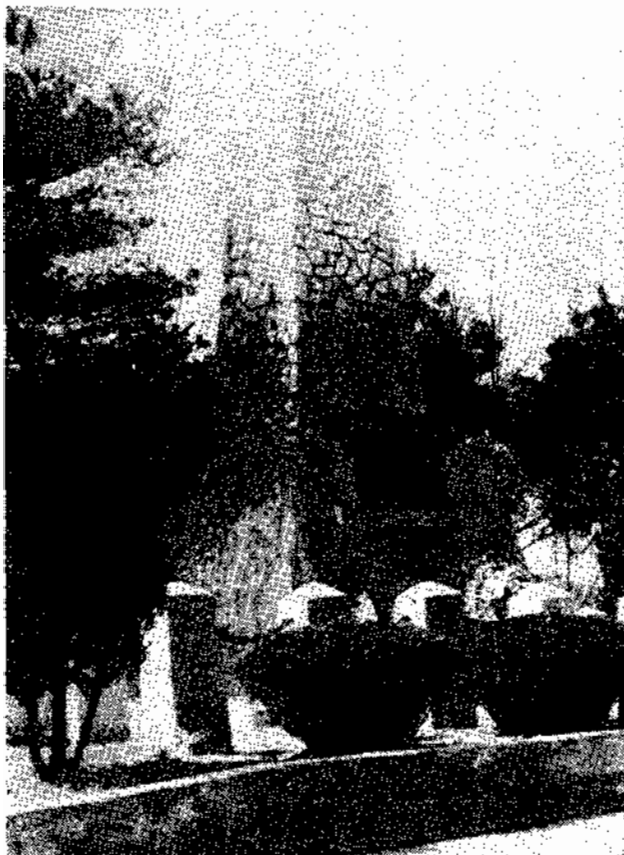
로 進出하여 敵의 戰車가 지나간 軌道자국을 發見하자 이를 수색중, 16.00에 그들과 遭遇하여 사격전 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날 夜半에 韓國軍 工兵隊가 敵의 戰車侵入을 막기 위하여 橋梁을 破壞하였으므로 同戰車 가 迂回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軌道자국을 남긴 것으로 보였으나 同소위가 이때 炭嶼附近에 이르렀을 때에는 敵의 戰車隊가 이미 西井里쪽으로 南下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 정한 Dean소장은 20.00에 平澤으로 나가 Smith 부대의 戰鬪狀況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連絡이 斷絶되어 알길이 없었고, 『敵의 戰車가 西井里前方에 나타났다.』라는 報告만을 듣고 몇가지 대책을 指示한 다음 착잡한 表情을 지으면서 밤중에 大田으로 돌아갔다.

夜半이 조금 지나서 제17연대쪽으로 빠져나간 美軍장병 4명이 美제34연대 지휘소에 나타나 最初로 Smith부대의 狀況을 알렸고, 이와 때를 맞추어 到着한 美제52포병대대장 Perry중령이 戰鬪狀況에 대 하여 보다 상세하게 報告하였다. 同중령과 함께 安城으로 撤收한 Smith중령은 86명의 장병을 引率하여 成歡을 거쳐 7월 6일 午前에 天安에 到達하였는데, 여기에서 收拾된 人員은 淸초 185명이었으나 얼마뒤에 C중대장 Dashmer 대위가 65명을 引率하고 復歸함으로써 道합 250명이 되었다.

따라서 步兵의 損失은 모두 15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 落伍兵들은 뒤에 平澤—天安—大田等 處로 나가거나 심지어는 東西海岸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2개의 소중중대 中에 특히 B중대가 더욱 損失이 컸으며, 同중대의 예비소대장 Bernard소위의 경우는 12명을 引率하여 烏山戰鬪 2일뒤인 7월



〈竹美고개에 세워진 美地上軍先遣隊의 參戰기념비〉

7 일야야 天安으로 나왔는데 途中에 5 회에 걸쳐 射擊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美제52포병대대도 15명 의 前方觀測要員을 包含하여 7월 7일 까지 道합 31명의 損失을 입었고, 收拾된 人員은 103명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天安에서 收拾된 步兵부대는 7월 6일 下午에 大田으로 보내어 9일까지 205명의 補充兵과 所要裝備를 받고 再編成을 完了하자, 다음날인 10 일에 『烏致院 北쪽에 배치된 本隊와 合勢하라.』는 命令을 받고 다시 北上케 되었다.

따라서 美제24사단의 제2梯隊로 進出한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가 7월 7일 正午에 大田을 出發하여 天安—烏致院間에 배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Smith중령은 再編成한 B,C중대만을 이끌고 全義 南쪽으로 가서 미리 그곳에 배치되었던 A,D중대와 合勢하고 대대를 統合指揮케 된 것이다. 이곳에 있던 Smith 부대의 殘餘 A,D중대는 7월 6일에 D중대장 Charles R. Alkire대위의 지휘下에 대대를 後續하여 天安까지 이르렀으나 狀況이 不利하여 그 南쪽에 逐次배치 되고 있다가 이날

全義 南쪽으로 移動하여 本隊와 비로소 合勢한 것이다.

그리고 제52모병대대는 曲射砲의 再補給을 받고 7월 14일에 大平里附近에 投入된 제19연대(장, Guy S. Meloy대령)의 文授을 위하여 다시 出動케 된다.

이때의 狀況은 同사단 隸下의 3개의 歩兵연대(제 34, 21, 19연대)가 모두 韓國戰線에 到着하여 錦江線 防禦를 준비중인 때였다. 따라서 北進은 이때까지 先頭에서 侵攻중인 제 4사단을 西쪽으로 繞回케 하고 제 3사단을 京釜軸線으로 直衝케 함으로써 全義 北쪽에서 美제 21연대와 遭遇케 되었다.

한편 제17연대(-1)는 陸軍本部 作命에 따라 7월 6일에 天安으로 集結, 다음날인 7일에 首都사단에 배속된 然後에 烏致院을 경유하여 鎭川으로 移動하고, 錦江線에 남아있던 제 2대대는 7월 11일 까지 이곳을 지키다가 美제 34연대에게 責任地域을 인계하고 3일 뒤인 7월 14일에 淸州 南쪽으로 移動하여 本隊와 合勢하였다. 同연대가 烏山附近에서 입은 損失은 7월 3일에 我軍機의 誤爆으로 200명의 死傷者가 있는 이외에 戰鬪間에 11명의 死傷을 보았으며, 敵의 戰車砲사격으로 4門의 2.36" Rocket 砲가 破壞되었다. 이 遭遇戰에서 韓美兩軍부대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Smith 부대	제 17 연 대
射 殺 42	戰 死 } 181	戰 死 2
負 傷 85	負 傷 }	負 傷 9
戰車破壞 6(研究欄參照)	失 踪 }	誤 爆 死 傷 200
	2.36"로켓砲 이상	2.36" Rocket 砲 4
	4.2"박격포 2	
	75mm RR 2	
	105mm曲射砲 5	

§ 參戰者의 證言

◇ 前任 제17연대장 白仁燁대령 (1977. 4. 20 仁川市 善仁學院에서, 예, 중장)

6월 29일 저녁에 報告次 忠南道廳에 갔더니 李承晚대통령을 비롯하여 國防部長官 申性模와 Muccio대사 그리고 Church준장 등이 作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먼저, Church준장이 地圖를 펴놓고 제17연대 狀況을 붙으면서 錦江橋와 그 周邊의 도로에 대한 경비임무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李대통령은 나에게 Church준장의 計劃에 協調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의 要請에 따라 다음날 11.00에 美軍장교와 함께 배치장소를 확인하고 行動에 들어갔으나 같은날 18.00에 다시 連絡이 와서 배치를 中斷하고 兵力을 大田에 集結토록 하였다. 丁一權소장이 錦江線배치를 中斷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疑訝心을 갖고 20.00에 다시 道廳으로 갔더니 申性模가 『總參謀長의 交待가 있을 것이니 그의 指示에 따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 연대는 제 2대대만을 錦江線에 남겨둔채, 7월 1일 午前에 天安으로 出發하였다. 行先地도 모르고 올라온 우리는 天安에서 3~4시간을 기다리다가 首都사단 고문관이던 White중령으로부터 『UN軍이 到着할 것이니 半深으로 올라가 함께 作戰해 달라.』는 傳達를 받고 비로소 韓美合同作戰 임을 알게 되었다.

7월 2일에는 西井里까지 올라와서 그 앞의 野山지대의 도로변에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美 고문 White중령이 다시와서 烏山 北쪽으로 前進 배치 해달라는 要請이 있었으나 狀況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7월 3일)에 Smith중령 一行이 나타나서 우리 연대를

前方으로 推進배치 하라면서 『75mm無反動銃을 가지고 왔으니 北傀戰車는 문제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그에게 前進배치해 줄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西井里附近에 있었는데, 이날 午後에 Australia 空軍機의 誤爆으로 다리에 負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 後任 제17연대장 金熙濬중령

(1978. 3. 15 서울市 建設共濟組合長寮에서, 예준장)

7월 3일 下午에 大田驛 輸送隊에서 軍需物資의 前方輸送을 돌보고 있다가 大田의 忠南道驛으로부터 指示를 받고 연대가 있는 西井里로 급히 올라갔다. 이때 白仁燦대령이 負傷을 입고 後送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이 연대를 指揮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우리 연대는 上部의 命書에 따라 烏山 南쪽 1~2km 지점의 栗樹園一帶로 移動하여 東쪽에 제 3대대 西쪽에 제 1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國道를 中心으로 2.36'' Rocket砲와 重火器중대의 火器들을 배치토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Smith중령이 Jeep차를 타고 와서 길가에 있는 糯米所마당에 地圖를 펴놓더니 『兵力을 앞으로 移動하여 우리와 함께 竹美고개의 左右側을 맡자.』라고 계의하여왔다. 그러나 나는 上部의 意見과 前任연대장의 計劃도 있었고 해서 그의 提議에 따르지 않고 現위치에 그대로 배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면 우리만이라도 前方으로 推進할터이니 뒤에서 落伍彈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烏山 北쪽으로 올라갔다. (이때 同중령 一行은 竹美고개에 대한 두번째의 偵察질에 나서고 있었던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런데 이날 발중에 同부대가 前方으로 推進배치되고 동시에 우리부대의 일부도 그들과 함께 烏山 北쪽으로 나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竹美고개쪽에서 요란한 銃聲이 들려오더니 갑자기 敵의 戰車 3~4대가 나타났다.

我軍은 近接하는 敵의 戰車에 猛射를 퍼부었으나 아무 効果도 없이 位置만 폭로되어 數名の 損失을 보게 되었고 그들 戰車는 後方으로 내려가 버렸다. 얼마뒤에 觀測所로부터 4名の 美軍이 내려오고 있다하기에 陣地에 인도하여 알아보니 Smith부대가 모두 分散撤收中이라는 것이었다. 그

들을 後方으로 보면 다음 30분쯤뒤에 敵의 步兵縱隊가 나타나서 力戰을 하다가 衆寡不敵으로 이날 17.00에 철수를 시작하여 天安으로 나와서 부대를 收拾하였다. 烏山附近의 戰鬪에서 느끼는 것은 그때 韓美兩軍부대를 協調하고 統制하는 기구가 있었던 것이 遺憾으로 생각한다.

◇ 제17연대 제3대대 제12중대장 鄭圭漢대위

(1978. 4. 10 慶北 茂成郡 大韓重石 理事室에서, 예, 소장)

우리 대대는 烏山邑으로부터 南쪽으로 1km지점에 있는 북송야果樹園을 끼고 右側에 배치하였다. 이때 火器중대의 共用火器는 대부분 各중대지역에 分割배치하고 나는 水冷式기관총 2挺과 81mm 迫擊砲 2門만을 지휘하여 敵의 戰車에 대비하고 있었다. 7월 5일 아침에 前方으로부터 砲聲이 일마동안 들린뒤에 갑자기 敵營의 戰車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歩兵도 同伴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없이 我軍陣地에 接近하여 왔다. 그래서 즉각 射擊을 하도록 하였으나 敵의 戰車는 砲彈에 맞고서 오히려 我軍의 Rocket砲籠에 逆射를 加하여 損失을 입혔다. 이때 나는 1개분대兵力을 道路변에 보내어 戰車의 侵入狀況을 알아 보도록한 결과, 『戰車는 後方으로 侵透했고, 前方의 美軍들이 四散되어 南下中.』이라 하였다. 얼마뒤에 美軍 4명이 우리 陣地로 撤收하여 왔는데 이들의 服裝은 카키衣服에다 短靴를 신고 있었다. 이로 보아 Smith부대는 戰鬪보다 美軍參戰이라는 示威目的이 아닌가도 생각되었다……(中略) (研究欄參照)

敵營의 敵戰車가 지나간 다음, 다시 그들 歩兵部隊가 南下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我軍은 敵과 사격전을 벌여 相當시간 遲延시킨 것으로 기억된다.

註記: 鄭圭漢대위의 證言에서 제 1대대가 西쪽, 즉 國道左側에 배치되었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 1대대 장교들에 의하면 同대대 一部分이 이곳에 있었고, 나머지는 美砲兵隊의 東쪽에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現地를 踏査한 결과, 國道左側에는 1개소대 程度만이 배치할 수 있는 △42가 있고, 그 西쪽은 모두 開豁地였기 때문에 이곳에 全대대를 배치하였다는 것은 착오일 것으로 보아 제 1대대 장교들의 證言을 정리하여 엮기로한 것이다.



◇ 제17연대 제1대대 작전참모 金熙濟중위  
(1978. 3. 25 江原道 春川市 職業訓練院에서, 예, 대령)

7월 5일 早朝에 前方에서 나는 銃聲을 듣고 Smith부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급히 올라가 보니, 이미 敵의 戰車가 들어와 있었고 美軍士兵 2名이 60mm追擊砲를 메고 내려오기에 소리쳐 불렀더니 그들은 못들은체하며 烏山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나는 美軍이 모두 分散撤收中이라 생각하고 되돌아 나오다가 제1중대 所屬의 朴萬業중위를 만났는데 그는 『제1소대장李探漢중위와 2'36'' Rocket 砲組員 3名이 敵의 직격탄에 맞아 戰死傷을 입었다, 그리고 중대는 모두 撤收中이다.』라고 傳하였다. 그때 우리 대대의 일부가 烏山北쪽의 美砲兵隊 右側에 배치되고 있었는데 이날 午後 連隊陣地로 復歸하였다.

◇ 제1공병단(육군공병학교) 黃元會중위  
(1978. 4. 13 戰史編纂委員會에서, 예, 중령)

漢江線에서 撤收할때 나는 工兵學校長의 指示에 따라 始興附近에서 鐵道上的 暗堡하나를 爆破하고 水原을 거쳐 平澤로 내려왔다. 이때 우리 工兵學校는 40명의 工兵 4기 장부후보생과 기간요원들로 構成되었는데, 제1공병단(장, 尹泰日 중령)과 協調하여 主로 京釜國道上的 橋梁을 破壞하면서 내려왔다. 校長은 내가 電氣科를 專攻했고 爆破教官이라 해서 漢江大橋를 비롯하여 重要的 橋梁을 爆破할 때마다 나에게 그 責任을 맡겼다.

7월 4일 22.00에 平澤의 城東국민학교에 위치한 美軍부대 본부로부터 連絡이 와서 校長과 함께 그곳에 갔다.

철저히 燈火管制을 해놓은 教室안에는 美軍 中장(美제24사단 砲司令官 Barth 中장인듯)과 數名의 參謀들이 地圖를 펴놓고 會議中에 있었다. 그 中장은 우리에게 Smith중령을 소개하며 『西井里附近쪽의 橋梁을 爆破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때 校長은 그의 要請을 받아들여 나에게 『現地로 가서 즉시 作業을 하라.』고 命令하였는데, 23.00에 나는 10명의 要員을 Truck에 태우고 美

軍장교가 先導하는 Jeep車를 따라 40분뒤에 現地에 到着하였다. 그들의 要求대로 나는 橋梁을 N字型으로 爆破하는데 成功하자 칭찬을 連發하였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곳으로부터 西쪽에 있는 鐵橋를 爆破하려고 하였는데 美軍들이 와서 『鐵橋는 爆破하지 말라.』고 간청하므로 作業을 中斷해 버렸다. 橋梁爆破 시간은 子正이 훨씬 넘은 때라고 생각된다.

◇ 美제52포병대대 連絡將校, 尹承國대위  
(1978. 4. 9 韓國 Ellicott 支部長室에서, 예, 중장)

나는 당시 日本에 駐屯하고 있던 美제24사단 隷下의 美제52포병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戰爭이 勃發되어 大田으로 돌아왔다. 大田의 道廳本部(國防部)에서는 通譯將校가 모자라서 물색중이었는데, 때마침 귀국한 나물 지명하여 포병대대의 連絡장교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시 因緣이 되어 同대대에 배속이 되었는데 大田에서부터 Perry중령과 함께 行動하였다.

當時 美제52포병대대는 平時編制로써 2개 砲隊만 있었고, 각포대는 6門의 105mm M2A1 曲射砲와 對戰車火器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出動한 A포대는 Scott중위 지휘하에 7월 4일 烏山으로 前進, 이날 下午늦게 竹美고개 兩쪽 2km지점의 水清里附近에 위치하였는데 大田에서 砲와 彈藥을 싣고 올라온 GMC트럭을 처리하느라고 고심하고 있기에 도로변의 초가집 담장과 헛간등을 부수고 차량을 집어넣고 벧절으로 위장隱匿토록 하였다.

이 車輛들은 나중에 敵의 砲彈에 일부가 破壞되기는 하였으나 撤收할때 有用하게 사용되었다.

7월 5일 10.00경에 北傀戰車 4대가 竹美고개를 넘어 砲陣地쪽으로 南下하면서 露出된 도로변의 砲陣地에 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民家에 쌓아둔 彈藥에도 사격을 하여 爆發시켰는데 요행이 砲陣地는 이상이 없었다. 그들 先頭戰車중에 한대가 我軍의 砲擊으로 破壞되었는데, 이때 나는 Perry중령과 함께 파괴된 戰車에 가까이 가서 投降을 권고하였으나 아무反應이 없었다. 그런 다음에 彼我間에 사격전이 벌어지면서 戰車兵이 뛰어

나와 射殺되고 Perry 중령도 敵의 銃彈으로 다리에 負傷을 입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後送을 拒絶하고 계속 砲隊를 指揮하다가 17.00에 Smith 중령을 만나 그와 함께 烏山北端에서 安城쪽으로 撤收케 되었다. 同중령은 내가 韓國地形을 잘안다고 하여 先頭Jeep車에 타고 길을 안내하라하여 10호의 車輛 陣 앞에서 出發하였는데 3시간뒤에 安城에 到着하였다.

安城에서는 먼저 病院의 協調를 얻어서 負傷者를 治療하였고, 地方有志들이 갖다준 飲食으로 배를 채운다음, 이튿날 아침 일찌기 天安으로 向하였다.

◇ 제17연대 제1대대 제3중대 제1소대장, 尹鍾漢중위

(1978. 3. 16 釜山海洋警察隊 副隊長室에서, 예, 대령)

연대는 大田에서 平澤까지 列車로 移動하였고 西井里까지는 徒步行軍으로 갔다. 하루밤을 西井里에서 자고 7월 4일에 다시 烏山南쪽 1.5km의

栗樹園一帶로 前進하여 陣地編成에 들어갔다.

그때 聯隊長의 負傷으로 副聯隊長이 연대를 指揮하였는데, 우리가 배치된 右側의 낮은고지에 연대장과 대대장이 올라와서 前方의 굽어진 國道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敵의 戰車를 막으라.』고 命수하였다. 이날은 아무일이 없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美軍이 배치되었다는 烏山北쪽에서 총성이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이로부터 3~4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20여대의 敵戰車가 나타나더니 50m간격을 두고 橋梁에 접근하여 이상유무를 살피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우리 陣地쪽으로 砲塔을 돌려 亂射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近接사격을 가하여 그들을 制壓하려하였으나 사격의 効果도 거두지 못하고 이날 下午늦게 安城을 거쳐 烏致院으로 撤收하였다.

◇ 金天壽(現地住民)

(1978. 4. 4 京畿道 平澤郡 烏山邑 內三 “竹美里”에서)

밤중에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竹美고개를 가리키며 당시의 狀況을 證言하는 現地住民〉

보니 美軍들이 우리집 뒷산의 半月峰(△117)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곧 싸움이 시작 되는구나.』 생각하고 날이 밝기전에 밥을 지어먹고 잠을 나쳤다. 내식구를 데리고 10리쯤 떨어진 外三리의 妻家를 向하여 갔는데 이날 아침에 비가 와서 盤松里(竹美고개로부터 東쪽 3km)에 들러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09.00경에 數挺의 北傀戰車가 竹美고개쪽으로 올라서면서 약 30분간 砲彈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싸우더니 곧 그치고 달았다. 그리고 銃소리가 그친 잠시 뒤에 美軍들이 우리 쪽으로 피려 나오고 있었다. 3일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 美軍 屍體가 이곳저곳에 있었고 車輛이 파괴되어 길가에 나뒹굴고 있었다

#### ◇ 孔炳旭(現地住民)

(1978. 4. 4 同 烏山군 우리 福德房에서)

내가살던 水淸里에 美砲兵隊가 들어와서 竹美고개 넘어로 砲擊을 했는데, 그 位置는 道路변에서 100~150m 안쪽으로 草家집 내채가 있던 곳이었다. 그때 曲射砲 1문은 砲陣地에서 500m 앞의 작은 언덕 아랫쪽에 있었다. 車輛들을 여러곳에 숨겨두었고 도로변의 獨立家屋에는 砲彈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北傀戰車가 들어와서 그곳에 사격을 加하여 火災가 일어나자 砲彈이 터지기시작 하였다. 平澤으로 피난을 나갔다가 7월 6일 저녁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砲陣地와 道路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機關銃과 砲彈皮를 보고 사격을 많이 한 것을 알았다.

몇일이 지난다음, 農事일로 竹美고개쪽으로 온다가보니 破爛된 北傀의 戰車가 독골入口에 2대, 水淸里부근에 1대, 竹美고개 아랫쪽에 1대 그리고 고개에 2대등 모두 6대가 있었다.

#### ◇ 前 北傀제105機甲사단 政治將校, 吳基完대위

나는 7월 2일에 修理를 끝낸 漢江鐵橋를 건너서 水原으로 왔다. 그때 나는 民靑擔當의 차내위와 함께 文化擔當 副사단장 Jeep 車를 타고 南進을 계속하였는데 水原을 지나서 5분경도 南下하였을 때에 道路右側의 산꼭대기에서 後退하는 國軍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우리는 허겁지겁 車에서 내려 몸을 숨기고 應射를 하였던 것인데 사격이 끝난 다음 보니가 Jeep車가 銃彈에 맞아 파괴

되어서 타고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副사단장 安東秀대좌가 『나와 함께 戰車를 타고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나는 사양하고 Truck을 타고 뒤따라 내려갔다. 다시 南進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에서 砲彈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지금 생각하니 竹美고개부근의 美軍부대로부터 砲擊을 받은것 같았다. 安대좌가 타고있던 바로 그 戰車에 砲彈이 命中되었고, 砲塔속에 누군가가 手榴彈을 집어넣어 爆破하였는데 功교용계도 燃料에 引火되어 그속에 타고있던 副사단장이하 乘務員 全員이 沒殺당했다. 나는 이 光景을 목격하고 경신이 아찔했다. 내가 만일 그와 함께 戰車에 타고 갔더라면 개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註: 北傀는 水原南쪽에서 死亡한 安東秀대좌를 높히 찬양하고 뒤에 이른바 전투英雄칭호를 주었다. (北傀의 祖國解放戰爭史 제 2권 참조)

## § 戰 訓

### ◇ 韓美兩軍部隊의 指揮體系

烏山附近에 前進한 韓美兩軍부대는 첫날의 兵力배치때부터 意見이 相馳되고 戰鬪間에는 相對方의 狀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러 사란을 보내어 確認해 보거나 銃聲만을 듣고 行動하기도 하였다. 이는 두말할 나위도없이 이 兩軍部隊를 統制하는 合同機體를 設置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美地上軍의 參戰에 따른 期待感과 總參謀長의 交替에 따른 指揮系統의 空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6월 30일, 總參謀長이 交替되기 전날에 實際 作戰指揮部였던 水原의 陸軍本部와는 달리 大田에 내려와 있었던 丁一權준장(7.1부, 소장)으로 하여금 美側 首腦部의 意見을 좇아 제17연대를 出動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政策背景을 알 길이 없었던 연대의 戰鬪指揮官들은 明確한 任務나 目標도 없이 北上길에 올랐으므로 당연히 그의 兵力을 剝斷運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相對적으로 Smith중령은 이미 日本의 基地를 出發한 때에 茫然하나마 『可能한 限 北쪽』이라는 制限된 거리와 地域에서 作戰任務를 遂行하도록 命令을 받았고 또한 이 特殊任務를 위하여 臨時編成을 갖추고

參戰한 것이다. 따라서 그 以上の 戰術의 支援 문제는 그의 所管이 아닌 上級기관의 合同統制事項이었으나 部隊의 規模마저 다른 現地의 指揮官끼리 이를 解決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 17연대장 金熙濬중령이 述懐한 바와 같이 『당시 韓美兩軍部隊를 統制하는 기구가 없었던 것이 遺憾』이라고 한 것은 指揮官의 苦衷을 단적으로 表現한 것인데, 이때 同연대가 遂行해야 할 最少限의 任務와 狀況만은 行動前에 明示해 주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Smith부대가 제 17연대를 統制할 수도 없을 뿐더러 部隊의 位置를 번거롭게 變換하는 것은 作戰指導上的 과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美제 24사단 砲司令官 Barth준장이 同사단장의 命을 받고 平澤北쪽 地域에서 韓美兩軍부대에 대한 指導를 擔當하게 된 것으로 보였으나 接敵 15시간전의 일이었으므로 오히려 混亂과 疲勞를 加重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Church준장의 計劃을 갑자기 변경시켜 불과 수시간전에 再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우선 美軍自體의 指揮體系가 一體化되지 못한데다가 韓美兩軍부대를 調整統制하는 上級機構가 未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戰場에서 우리는 指揮官의 交替시에 있어서 發生하기 쉬운 混亂과 作戰責任地域에 대한 戰場 心理를 엿볼 수 있었고, 上部의 애매모호하고 所信 없는 指示가 戰鬪力을 發揮하는데 적지않은 影響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 § 研究

### (1) Church준장의 最初 Smith부대 배치 계획에 대하여

本 研究제목은 MacArthur 元帥—Dean소장—Church준장—Smith중령間에 얽힌 指揮系統上的 相互 限界를 먼저 가리지 않으면 理解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前後의 命을 斷片的으로 例示하면서 事實을 밝혀보기로 한다.

美極東軍司令部 MacArthur 元帥는 6월 27일에 Church 준장으로 하여금 韓國戰線에 나아가 ADCOM의 設置를 命令하면서 『① 韓國軍의 狀況을 직접과악하여 보고할 것. ② 부수적으로 韓國軍에 대한 戰意를 鼓吹하는데 努力하라.』(전문

CT 56850과 極東軍司令部 作戰指示 1950. 6. 27)고 하였다. 따라서 同준장은 自身에게 부여된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이날 下午에 水原에 空路로 到着하자마자 總參謀長 蔡秉德소장과 만나 作戰에 대한 協議를 가졌던 것인데, 이때의 協議결과에 대해서 뒷날 그는 『韓美 聯合司令部 設置에 합의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50. 6. 27~7. 15간의 ADCOM 日誌에 나타난 Church준장의 보고—美陸軍省 戰史室 資料—에 의한 것인데,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1972. 의 제 4장 참조) 이때 兩軍首腦가 같은 建物內에 위치하여 作戰을 指導하였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두었다.

當時 空軍 總參謀長 金貞烈준장과 陸軍의 作戰局教育課長이던 李致業대령도 이를 是認하면서 『그때 兩軍首腦들이 相互協調를 위하여 한 建物 안에 있었으나 그렇다고 實行機構가 別途로 編成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同준장의 權限은 事實上에 있어서 美極東軍司令部를 代理하여 韓美兩軍을 統合調整하는 立場에 있었음이 分明하였다.

그뒤의 進展된 상황을 볼 때 MacArthur元帥는 美제 8군사령관 Walker중장을 통하여 제 24사단장 Dean소장과 ADCOM의 Church준장에게 美地上 軍派韓에 따른 細部行動指針을 電文 CX, 56978과 C, 26979로 보냈던 것인데 이를 例示해 보면 『① 제 24사단장은 部隊의 建制를 維持하여 韓國으로 移動, 當分간 極東司令의 直接 統制下에 行動하라 ② 主力에 앞서 小規模의 特殊任務부대를 空輸하여 北僞軍을 막으라. ③ 특수임무부대는 水原에 到着시키되 그것이 不可能하면 着陸地點을 釜山으로 變更輸送할 것을 Church준장에게 立命하라.』라고 되어 있다. (前揭書 제 5章)

여기에 부가하여 極東司令部參謀長 Almond소장은 『특수임무부대가 司令部의 警戒부대가 아니라 北僞軍을 격퇴시키는데 使用해야 하는 戰鬪兵力임을 強調』하고 부대輸送에 만전을 기하도록 Church준장에게 指示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사단장과 Church준장에게는 다같이 Smith부대로 하여금 早期에 接敵케 하여 그들을 阻止토록 하는 것이 至上課題로 되어 있으나 後者에게는 輸送과 韓國軍과의 協調責任이 이에 追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上部의 指示에 따라 Church 준장은 Smith부대에 대한 최초 사용腹案 즉, 安城—平澤의 兩個道路上에 배치를 命命하였던 것인데 이때의 前後狀況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Smith중령은 7월 1일에 Itazuke (板付) 기지를 出發할 때 Dean소장으로 부터 『可能한限 北쪽에서 敵을 막으라.』는 命命을 이미 받았고, ② 7월 2일 09.00, 同중령은 大田의 AD COM에서 Church준장으로부터 戰況說明을 듣고 난 다음 자청하여 前方으로 가서 地形偵察을 끝마치고 20.00에 돌아왔다. ③ 그런데 같은날 밤중에 Church준장은 Smith부대를 安城—平澤道路에 즉각 배치토록 命命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7월 4일 아침에는 누군가의 命命에 따라 다시 이 部隊를 平澤부근에 集結 統合토록 하였다. ④ 7월 3일 21.00에 Church준장은 後方에서 올라온 제52보병대대장 Perry중령에게 平澤의 Smith부대와 合勢하라는 命命을 내렸다. ⑤ 7월 3일 下午에 MacArthur元帥는 駐韓美軍司令官에 Dean소장을, 同부사령관에 Church준장을 각각 4일 00.01부로 任命하였다는 通報를 내렸다.

이로 미루어 볼때 Church 준장의 최초 배치계획은 자신에게 부여된 權限에 따라 取해진 독자적腹案이라고 볼 수 있고, 4일 00.01부터는 指揮系統이 單一化되었으므로 副지휘관으로서 Dean과 Smith의 兩個지휘관의 意圖에 따랐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7월 3일 午前에 日本에서 大田으로 空路進出한 Dean소장이 Church준장으로부터 Smith부대에 대한 배치계획을 보고받고나서 『나는 그의 計劃—安城과 平澤道路에 分派배치하는 계획—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라고 證言하였음을 볼 때 前記한 可能性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General Dean's Story, 1974, p.20), 그러나 이 最初의 배치는 불과 24시간만인 다음날(7.4)早朝에 다시뿔아 平澤附近으로 集結하여 再統合케 하였는데 이때 누구의 命命에 따라 그렇게 하였는지는 明示된 바가 없어서 推斷키 어려우나, 同소장의 證言에 따르면 『7월 4일 午後에 내가 다시 大田으로 올라왔을 때까지 先遣隊가 아직 接敵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Smith중령

은 내가 命命한 바에 따라서 烏山부근에 그의 部隊를 배치하기 위하여 偵察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라고 하였음을 볼때 Smith중령 자신이 위한 措置입을 暗示해 주고 있다.

何如間 Church준장의 獨自的 권한은 7월 4일 00.01부로 消滅케 되었으나 이모인하여 惹起된 번거로운 부대이동으로 Smith 보병부대에게는 귀중한 시간을 浪費하는 결과가 되었다.

### (2) 敵의 戰車破壞 臺數에 대하여

戰鬪가 시작되기전에 제17연대 장병들은 Smith중령과 그의 參謀들로부터 『北傀의 T-34戰車는 문제가 없다.』라는 豪言壯談을 여러번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始興地區전투군수官이었던 金弘壹소장도 『그들이 큰 소리를 치기에 어떻게되나 하고 作戰 및 工兵參謀를 현지에 보내어 관찰케하였는데 역시 破壞하지 못하였다.』라고 證言하였다.

그렇다면 이곳 竹美교개 附近에서 美軍들이 破壞한 戰車는 正確히 몇臺나 될 것인가? 이에 대한 解答은 일정치 않다. 따라서 本戰史에는 彼我が 集計한 것중에 半破壞된 것 까지를 包含한 것인데 먼저, 北傀제 105機甲사단의 政治將校였던 吳基完대위는 『烏山까지 내려올동안 모두 33臺중에 4臺가 破壞되었다.』라고 하였으며 北傀제 2군단 作戰參謀였던 李學九총좌도 이를 認證하였다. 또한 現地住民 孔炳旭(證言參照)에 따르면 破壞된 戰車는 모두 6臺라고 하였으며 Smith부대의 集計는 4臺를 完破하고 3臺는 被害를 입혔으나 烏山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臺의 破壞는 確信하나 나머지 3臺는 未知數로 남게 되었다.

### (3) 烏山—平澤間의 橋梁破壞에 대하여

烏山—平澤間에는 北으로부터 烏山橋를 비롯하여 葛中—野幕—下北—板威—炭峴(蜀谷)—茅谷—芝制—通伏橋 등 大小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에 烏山橋와 板威橋 그리고 通伏橋의 3개교량은 戰術的 價値가 비교적 큰 교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7월 5일, Smith부대가 烏山 北쪽에서 初戰을 벌이던 날에 韓國工兵은 이 地域에서 1~2개의 교량을 파괴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 Smith의 步砲부대가 前方에 배치되고 있는데 그 後方의

橋梁을 미리 파괴했다는 것은 問題點으로 대두될 만하다. Barth준장이 北上하면서 同교량의 爆破作業을 中斷케 한 것도 次後의 撤收를 考慮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當時의 실정으로 볼때, 兩軍狀況에 一致된 교량의 파괴시각과 場所를 찾아내기란 至難한 일이라는 것을 前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美軍부대가 烏山 北쪽으로 올라간 바로 그날(7월 4일 夜間)과 다음날 낮에 교량을 파괴했다.』라는 參戰者들의 共通된 意見과 橋梁의 戰術的 價値 그리고 時間空間 --Barth준장이 平澤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4일 18.00이후의 行動--을 고려할 때, 그 前後에 몇개의 橋梁破壞를 試圖한 것만은 確實하지만, 濃黑과 같은 夜暗으로 事實을 確認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美公刊史에도 韓國工兵의 구체적 活動狀況에 대하여는 明記된바 없기 때문에 參戰者들의 證言만으로 그 輪廓을 提示해 둔다.

#### (4) 美地上軍 先遣隊의 服裝에 대하여

이 戰鬪에 參戰한 제17연대 장병들 가운데는 당시 美軍들의 服裝에 대하여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例를 들면 제12중대장의 경우는 『그들이 카야키색의 服裝에다 短靴을 신은것 같다.』라고 하였고 團사관들은 『軍服이 희붉은 색깔이었다.』라고 한다. 美公刊史에도 그들의 服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內容이 記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길이 없

으나 당시의 狀況을 살펴볼 때에 ① 7월 1일, Kumamoto기지를 出發할 때 美제21연대장 Stephens대령이 Smith부대의 不足한 兵力을 다른 대대에서 긴급히 補充해 주었고, ② 이들은 韓國에 갔다가 數日內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安逸한 생각속에 있었다는 것, ③ 그리고 Church준장과 Smith중령은 美先遣隊의 參戰目的의 하나가 『韓國軍에 대한 戰意를 鼓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던 점등을 볼때에 그들 一部가 平常時 服裝을 着用하고 參戰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러나 7월 1일 下午에 釜山에 着陸했을 때의 그들의 服裝은 鐵帽을 쓰고, 野戰囊(낭)을 멘 戰鬪服차림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大田驛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도 같은 것이었다고, 當時에 案內를 맡았던 盧憲鎬중위(國防部 政訓局소속)는 證言하고 있다. 다만 7월 4일 아침에 平澤에서 Smith부대와 合流케 된 美제52포병대대원의 복장에 대해서는 言及된 바가 없다. 따라서 後方부대였던 이들에게 前方으로 나갔던 LO나 FO 또는 後方補給輸送 要員들중에서 일부가 平常時 服裝을 着用하고 있었음을 目擊하고 全體를 이렇게 推理하게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註記: 7월 7일 오전에 제34연대장 Lovless대령과 交替하기 위하여 天安에 到着한 後任 연대장 Martin대령의 服裝은 制服과 制帽에 短靴을 신고 있었다고 美公刊史는 指摘하고 있다.

## 2. 平澤一鳥致院 附近의 美軍戰團(1950년 7월 5일부터 1950년 7월 11일까지)

참조: 상 황 도 제 6~10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24사단 장 소장 William F. Dean	제3대대 장 중령 David H. Smith (7월 8일 後送)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대대 소령 Newton W. Lantron (7월 8일 부터)
제1대대 장 중령 Charles B. Smith	제63야전포병 대대 A포대
제3대대 장 중령 Carl C. Jensen (7월 11일 戰死)	제11야전포병(155mm)대대 A포대
제34연대 장 대령 Jay B. Loviess Robert R. Martin (7월 7일 부터 7월 8일 戰死)	제78전차대대 A중대
대리 중령 Robert L. Wadlington (7월 8일 부터)	제3 전투공병대대
제1대대 장 중령 Harold B. Ayres	배속부대 陸軍 독립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제6중대
敵 軍	
北傀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5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8연대 장 대좌 金 秉 鍾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포병연대
포병연대 장 대좌 安 白 成	제105전차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제107전차 연대 基幹)
제4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 나. 전투전의 개황

本節에는 Smith특수임무부대가 烏山 北쪽 竹美고개의 緒戰에서 敗한 뒤로, 美제24사단(장, William F. Dean소장)의 主力이 逐次투입되어 京釜國道에서 벌이는 遲延戰을 取扱하였다. 즉 7월 5일에 平澤부근에서 제34연대의 일부가 敵과의 交戰으로 銃擊第一營을 信號로 한 以來로 國道를 鮮血로 물들이는 熾烈한 角逐戰이 시작된 것이며, 그리하여 제21연대와 더불어 天安-全義-鳥致院을 連하는 線

을 中心으로 且戰且退케 된 결과, 7월 12일에 마침내 鎭江 南岸쪽으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그 經過의 大要이다.

**敵軍의 狀況:** 북쪽 제 1군단(장, 중장 金 雄)의 제 2단계 작전 目標線인 平澤—安城線을 점령코자, 7월 5일 새벽에 그들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이 제 105전차사단(장, 소장 柳京洙)과 함께 水原에서 南下하다가 竹美고개에서 Smith특수임무부대와 激突케 되었음은 前節에서 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同부대의 抵抗이 敵의 進擊에 그다지 큰 拘束力이 되지 못하고 다만 狂波속에 던진 一巨岩口實만을 하였던 것인데, 戰鬪力量面에서 볼 때에 同부대가 敵에게 期待하였던 打擊威力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이 부대의 不意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敵은 心理적으로 적지 않은 動搖를 일으켰으리라는 것이 當時 東京의 美軍동군 情報當路者의 觀測이었다. 敵은 漢江線을 돌파한 뒤로 竹美고개전투에서 비로소 美軍의 參戰을 確認하게 되고 가장 강력한 저항을 받아, 그들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그 攻擊의 선두에 있던 제 105전차사단의 文化副사단장 安東洙대좌를 비롯한 42명의 戰死者와 85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전차 4대가 격파되는 등의 손실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6시간에 걸쳐 격렬한 전투를 치렀던 것인만큼, 그로부터는 敵이 水原 以北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과감한 前進를 躊躇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당시의 美軍동군사령관인 MacArthur元帥가 썼던 그의 回顧錄에서 그 理由를 分析하기를, 이때 北傀軍은 「美軍이란 太平洋전쟁에서 日本軍을 敗亡시킨 莫強한 軍隊」라는 觀念이 拂拭되지 않은 상태에서 美軍이 參戰치 않을 것이라는 確信아래 挑發을 감행한 것이므로, 竹美고개에서 美軍의 참전이 確인됨에 따라 새로운 戰局에 봉착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敵은 此後로의 政勢推移에 대한 不安感이 胚胎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敵은 參戰美軍의 병력규모와 그 활동전망에 대하여 腐心하게 됨으로써 從前과 같은 戰車 단위의 挺進놀파를 斷念하고 全般적인 戰線의 均衡을 도모하면서 定石대로의 步戰協同의 공격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結論이었는데, 실제로 7월 5일 14.30에 Smith부대가 竹美고개의 진지에서 철수한 뒤에도 먼저 同진지를 突貫한 敵의 戰車가 烏山을 지나 낮중으로 西井里(平澤 北쪽 6.2km)까지 南下한 바 있으나, 그들의 當面한 목표인 平澤을 目前에 두고도, 다시 烏山으로 되돌아가 隊伍를 가다듬는 慎重性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烏山을 손에 넣은 敵은 그날 오후 늦게 제 4사단의 일부가 전차 일부와 함께 西井里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밤을 새우면서 다음 날의 平澤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狀況:** 6월 30일 美軍동군사령관 MacArthur元帥가 駐日 美제 8군사령관 Walker중장에게 『제 24사단을 韓國으로 移動시키라.』라는 명령(電文 CX56978, 1950.6.30)을 下達함에 따라 同제 8군사령부의 작전명령 제 2호(1950.7.1. 03.15 書面下達)에 의거, Smith특수임무부대가 同사단의 先遣隊로서 7월 1일 낮에 Itazuke(板付)空軍基地에서 釜山의 水營비행장으로 空輸되었거니와, 이 부대가 烏山부근에서 敵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 무렵인 4일 저녁에 사단의 主力일부인 제 2聯이 大田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제 34연대(장, Jay B. Lovless대령)로서, 同연대가 九州의 Saseho(佐世保)에 駐屯하고 있었던 터이라 비교적 乘船이 容易하였던 까닭에 7월 1일 밤에 同港에서 乘船을 끝내고, 그 이튿날 저녁에 第一着으로 釜山港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인데, 裝備는 2척의 LST便으로 3일 오후에 入港하여 밤을 새우는 荷役작업으로써 釜山驛으로 人員과 裝備를 수송한 다음, 4일 새벽에 그 제 1대대가 먼저 一대대장이 미처 合勢치 못한 가운데 一 鐵道便으로 釜山을 출발, 오후에 大田에 이르게 된 것이다.

大田에서 이 제 1대대를 맞이한 사단장 Dean소장은, 대대 主力과는 달리 이날 낮에 日本에서 空路로 大田비행장에 來着한 Harold B. Ayres중령을 空席中인 同대대장으로 任命하고, 대대를 우선 平澤으로 진출시켜, Smith부대의 後方に 제 2선 阻止障地를 확보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Ayres중령이 이끄는 제 1대대는 5일 05.00에 平澤에 진출하여, 그 北쪽 西井里와의 사이



에 있는 七槐里(平澤 北쪽 3km)—芝制里(七槐里 西쪽 2km) 부근에 國道를 중심으로 阻止진지를 점령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Smith부대가 烏山 北쪽에서 첫 交戰의 銃聲을 울리기 바로 2시간 前의 일이다.

한편, 4일 저녁에 釜山을 출발한 제 3대대와 연대본부는 5일 새벽에 — 제 1대대가 平澤에 이르렀을 무렵 — 大田에 도착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同연대를 그 제 1대대의 뒤를 따라 成歡(平澤 南쪽 8km)으로 추진토록 한바, 同日 낮에 연대는 CP를 成歡에 개입하고, 제 3대대를 安城(成歡 東北쪽 15km)에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成歡으로 진출한 제 34연대가 제 3, 제 1의 兩個대대로써 京釜國道를 따라 指向될 敵의 공격 主力과 맞서게 되었는데, 연대가 成歡에 이른 그 시각까지, 烏山부근에 있다는 Smith부대와는 아무런 交信이 없어, 同부대의 상황과 敵情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더우기 연대장 Lovless대령은 大田에서 사단장으로부터, 釜山을 먼저 출발한 제 1대대가 日下 平澤 부근에 진지를 점령중이라는 상황설명만을 들었을뿐, 그 정확한 배치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사단장이 새로이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는 Ayres중령과는 一面識도 없는 사이로서, 다만 그가 제 2차 大戰 때 Italia戰線에서 대대전투단장을 거친 31세의 「침착한 人物」이라는 評判이 나 있다는 것 外에는, 대대장의 身소과약조차도 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때에 연대는 이미 前卷(제 1권 제 7장 참조)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第 2次 大戰後의 美軍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1개 대대(제 2대대)가 없는 2개 대대의 편성으로서 7월 3일 현재 병력은 모두 1,981명이었다.

따라서 兵士의 素質은, 古參兵이 大幅 復員되었으므로, 대부분 전투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新兵이었으며 日本 占領軍으로서의 안일한 생활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훈련정도와 장미손질 및 보급상태가 未備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A중대의 예를 들어보면 全般의인 實態를 능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싸움터로 出動한 5일 현재로 A중대는 장교 5명에 사병 138명이었으며, 그들의 장미는 M1 소총과 CAR이었으나 휴대한 실탄은 1인당 80~100발 정도였다. 그 밖에 각 소총소대에 BAR 1정(탄약 200발)이 있었고 화기소대에는 60mm박격포 3문과 경기관총 3정이 있었는데, 이 경기관총 1정당 할당된 탄약은 4상자였다. 2.36"Rocket포 數門과 75mm무반동총 몇 정이 있었으나 무반동총의 실탄은 휴대치 않았으며 수류탄도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연대의 각 중대가 대체로 이와 大同小異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연대가 T-34전차로 重武裝된 北傀軍, 더우기 「서울사단」이라는 명에 청호까지 받아 기세 등등한 제 3, 제 4사단에는 敵手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北傀軍은 美軍의 軍嚴만 보고도 질겁하여 도망을 칠 것이다.』라는 弄談을 주고 받았으며, 심지어 平澤정면의 방어책임을 맡은 제 1대대장 Ayres중령조차도 『北쪽에 北傀軍이 있다고 한다. 武器를 가진 쪽은 半數성도라고 하니, 힘 안들이고 擊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의 중대장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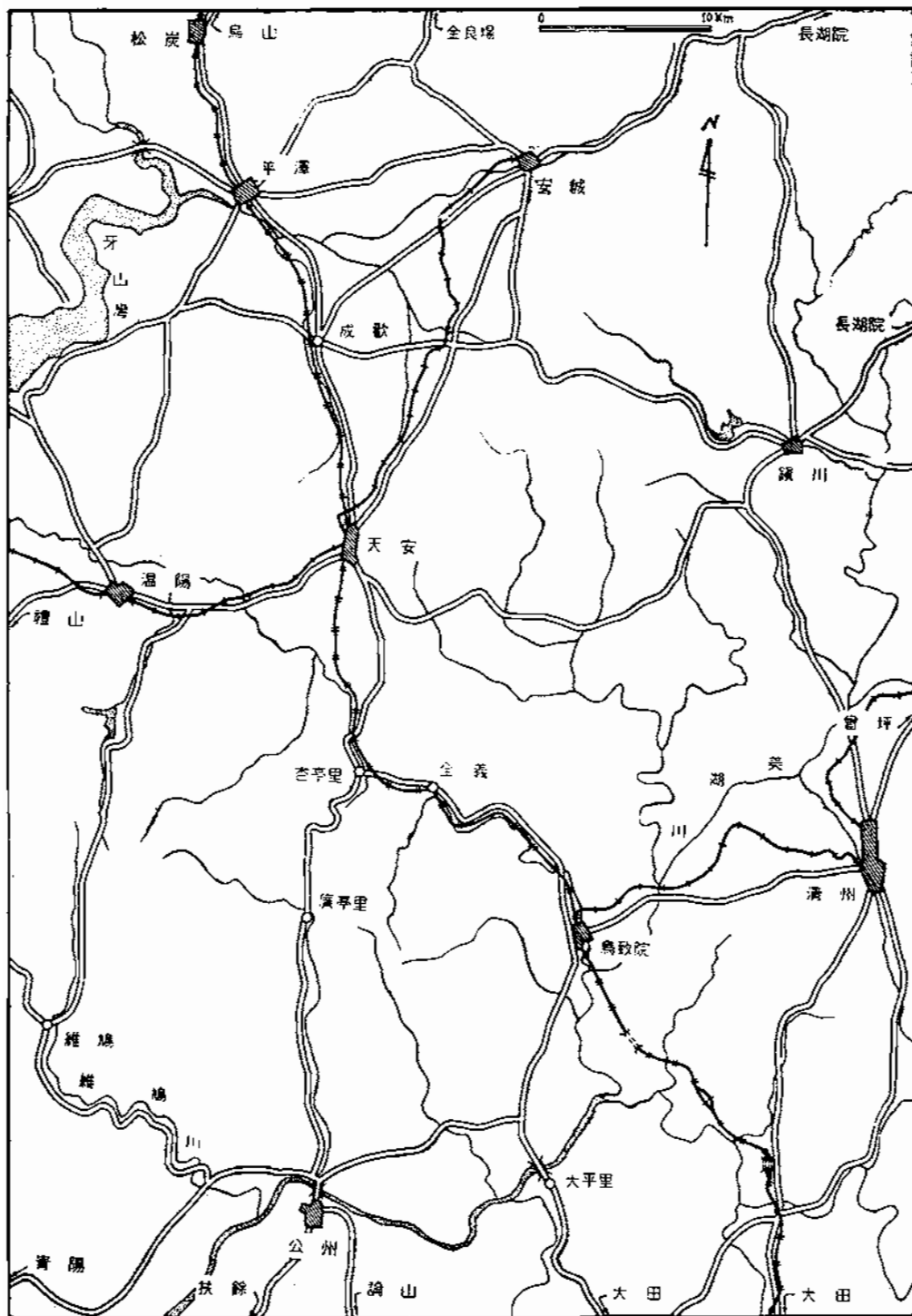
요컨대, 연대의 장비 모두가 이같은 參戰은 한낱 治安強化作用에 불과할 뿐으로서 數日안으로 原駐屯地로 복귀할 것이라는 錯覺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바, 이러한 상태의 연대가 포병이나 전차 그리고 對전차포의 지원도 없이 京釜國道上에서 敵의 主攻을 격퇴코자 自信한 것은 不幸한 일이었고 그야말로 螳螂의 一斧格이었다. 여기에 民族의 全活路를 開拓하여보고자 한 것은 그보다도 더욱 不幸하고도 슬픈일이었다.

## 다. 전투 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사단장 Dean소장은 Smith특수임무부대를 烏山부근으로 投入할 당시까지만하여도, 그 역

◇ 上 황도 제 6 호 作戰地域의 地形圖



시 北僞軍의 戰力을 대수롭지 않을 것으로 誤判한 결과, 烏山 北쪽에서 同 부대가 敵을 能히 阻止하여 시간을 얻게 된다면 그 동안 倭續할 제34연대를 安城—平澤線에 展開하여 이 연대로써 敵의 南進을 充分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듯 하였다.

그리하여 4일 오후, 제34연대 제1대대가 연대의 先發隊로서 먼저 大田에 도착하자, 사단장은 우선 이 대대로써 平澤부근에 逐次진지를 急編케 함으로써 Smith부대의 철수에 따른 掩護와 收容임무를 아울러 맡도록 應急措置한 다음, 5일 새벽에 제3대대와 연대본부가 當到하게 되자 同연대장 Lovless대령에게 이르기들,

『① 漢江을 도하한 敵은 機甲부대와 함께 水原부근에서 南下중이며, Smith특수임무부대가 烏山부근에서 그들을 阻止할 것이다.

② 貴연대의 제1대대는 平澤부근에 陣地를 設置할 것이다.

③ 제3대대로써 安城을 확보토록 하라.

④ 연대지휘소는 成歡에 위치하라.』

라고 細部事項까지 指示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단장이 安城—平澤線에 防禦線을 펴기로 한 것은, 당시 平澤—成歡—天安의 京釜國道의 방어에 主眼을 둔 사단의 當면한 任務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일 것으로 풀이 된다.

첫째, 平澤은 錦江以北지역에서 國道의 방어에 가장 有利한 地形이라고 판단한듯 하니, 그 西쪽은 牙山灣에 沿하는 安城川이 天然의 屏障으로 平澤의 西側方을 防護하는 形勢이고, 東쪽의 安城과의 사이에는 南北의 縱斷道路가 狹窄하므로 敵의 攻擊軸이 烏山—平澤의 國道上으로 指向되리라 내다 본 것이다. 따라서 敵의 立場에서는 正面공격 외에 이에 대하여 달리 迂回포위가 어려울 것이니만큼 我方으로서도 一夫當關의 要衝이라고 말할만한 곳이라는 것이다.

둘째, 安城은 京畿와 忠清內陸을 잇는 交通의 要地이니, 安城—天安의 安城線철도의 始發點이자, 東北으로 長湖院, 東南으로 鎭川, 西南으로 成歡과 天安, 西쪽으로 平澤, 北쪽으로 龍仁과 烏山으로 연결되는 放射線도로의 軸心地域이다. 그러므로 敵이 安城을 手中에 넣게 되면 그 一帶의 平野를 장악하게 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成歡이나 天安으로 直衝하여 國道의 東側方을 脅威할 수 있으며, 아울러 鎭川—淸州로 빠지는 幹線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2개 대대의 연대 擔當正面으로서도 매우 廣大하여 兵力을 分散使用하는 弊가 甚하지만 牽制와 抑留로서 逐次抵抗한다면 사단主力의 進出까지 必要한 時間을 能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단장은 安城—平澤線을 잃게 되면, 錦江以北지역에서는 敵과의 決戰을 試圖하기 위한 本防禦線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연대장 Lovless대령은 낮중으로 연대본부를 成歡邑內에 개설하는 가운데 제 3대대(장, David H. Smith중령)를 安城으로 추진시켜, 長湖院과 龍仁쪽의 도로를 방어로복하였는데, 연대에 예비병력이 없음을 勘考하여 同대대의 L중대를 뽑아 成歡에 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연대의 重박격포중대 4.2''중박격포를 前線의 兩대대에 분할배속하였다.

그리하여 제 3대대는 I, K의 2개 중대로써 安城의 東北쪽과 西北쪽의 도로를 지키게 되었으며, 제 1대대는 지휘소를 平澤 北쪽 外廓의 民家に 개설하고, C중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A, B兩個중대로써 京釜國道의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日氣가 不順하여, 비가 내리는가 하면 안개가 낮게 깔리기도 함으로써 당시 연대의 無電機로서는 成歡과 平澤 및 安城 사이의 通信疎通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有線마저도 男負女戴하는 피난민에 의하여 노곤代用品으로서인지 切斷이 되는 事例가 잦았던 탓으로 이 역시 거의 不通상태여서, 연대장의 指揮조치가 適期에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前線대대는 실제로 각 대대장의 獨自의인 판단에 따라 行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2) 작전실시

### (가) 平澤부근의 戰況(7.5~6)

7월 5일 : 이날은 美地上軍의 交戰 제 1일이자 제 34연대(장, Jay B. Lovless대령)의 參戰初日이기도 하다. 연대는 같은 날 Smith특수임무부대가 竹美고개를 피로 덮는 血戰을 벌인 것과는 달리, 큰 接敵없이 安城-平澤線을 維持하였다.

제 1대대의 상황 : 05.00에 제 1대대는 신임대대장 Ayers중령 지휘하에 平澤으로 진출하였다.

대대는 邑의 北쪽 國道沿邊의 한 民家に 지휘소를 개설하고, 그 부근에 C중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主力 A, B兩중대를 그 4km 北쪽으로 추진시켜 도로의 東쪽 七槐里부근에 B중대를, 西쪽의 芝制里부근에 A중대를 각각 배치하여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平澤에서 北으로 뻗은 國道를 장악하는 진지를 마련하여, 個人壕를 파고 박격포의 사격諸元을 확보하는 등 방어준비에 奔忙한 午前을 보내었는데 11.00前後에 사단 포병사령관 代理인 George B. Barth준장이 烏山으로부터 平澤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미 前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전날부터 사단장을 代理하여 Smith특수임무부대를 現地指導하던 중 이날 아침 北傀軍과의 交戰에서 同부대의 步砲火力이 敵의 戰車를 깨지 못하는 것을 보는 즉시 竹美고개의 戰場을 떠났던 것이다.

Barth준장은 그가 目擊한 바의 Smith부대 交戰상황을 대대장 Ayres중령에게 전하면서 아울러 이르기를 『곧 敵의 戰車가 들이닥칠 것이니, 前方을 정찰하여 警報토록 할 것이며, Rocket砲組를 推進배치하여 戰車에 대비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인 C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2.36''Rocket를 장비케 하여 Charles

E. Payne중위 지휘下에 車輛으로 國道를 따라 北上케 함으로써 敵 戰車의 南下를 막도록 하는 한편, 左一線인 A중대로 하여금 本道에 對戰車차단진지를 急編케 하였다.

그리하여 Payne중위의 소대가 西井里에 이르자, 진흙바닥의 도로상에 戰車의 轍도 흔적이 보였으므로 곧 병력을 下車케 하여 對戰車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였는데, 바로 그때 말을 탄 韓國軍 한 사람이 本道를 따라 南쪽으로 急히 달리면서 『戰車다! 戰車.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이에 同마을의 北쪽 郊外를 노려본바 1.5km정도 前方에 敵의 戰車 1대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윽고 그 戰車가 Rocket砲의 射程거리內에 접근하자 戰車를 향하여 Rocket砲를 發射함으로써 Payne소위의 소대와 敵의 戰車사이에서 첫 火力對決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34연대로서는 交戰의 初一瞥이기도 한바 그 時刻이 18.00였다.

그러나 예와 같이, 2.36''Rocket砲에 命中된 敵의 戰車는 泰然自若하였고, 오히려 거기에서 亂射한 기관총에 Kenneth Shadrick일등병이 戰死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연대가 參戰한 以後로 첫 戰死者를 내게된 셈인데, 실은 그 時刻 현재 烏山 北쪽의 Smith부대에 대한 상황이 傳하여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 이 Shadrick일등병을 사단에서도 첫 戰死者로 확인한 바 있으니, 따라서 6월 27일에 日本에서 이 戰爭 取材차로 飛來한 日本駐在 New York Herarid-Triburn紙의 女記者인 Marguerite Higgins같은 사람은 그를 『韓國戰爭에서 美軍步兵의 첫 戰死者』라는 內容의 記事를 써서 本國으로 送稿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대의 이 첫 交戰현장에 韓國工兵의 일부가 자리를 같이 하였던바, 이 공병을 지휘하던 공병학교 爆破敎官인 李昌馥중위의 證言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은 이러하였다고 한다.

『공병학교의 병력은 전날 육군본부와 함께 水原에서 平澤에 집결하였는데, 이날(5일) 午後에 육군의 명령으로 내가 對戰車특공대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40명의 병력으로써 20pound짜리 폭약을 수십개를 긴 장대 끝에 매단 對戰車공격무기를 만들어서, truck으로 平澤에서 西井里로 갔다. 西井里의 마을 於口에 가 보니, 이미 그곳에 美軍 일부가 먼저 도착하여 敵의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진 폭약을 보더니 「그런 것으로는 戰車를 파괴할 수 없다.」고 웃으면서 2.36''Rocket포를 자랑해 보였다. 그러다가 敵의 전차가 烏山쪽에서 나타나자, 그 Rocket포 몇발을 敵전차에 命中시켰다. 그러자 美兵들이 「敵이 맞았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다음 순간 그 전차에서 기관총사격의 熱火를 만나고 오히려 美兵 2명만이 傷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소총을 그 자리에 꽂아둔채 그대로 철수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손을 써 보지도 못하고, 平澤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어떤 경위로 이들 對戰車특공대가 西井里에 출동하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平澤으로 철수한 육군본부에서도 그 나름대로 京釜國道上에서 敵의 전차를 막아보려고 百方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어쨌든 Payne중위는 2.36''Rocket砲로서는 敵 전차의 敵手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Shadrick일동병의 시체를 수습하여 대대의 本陣으로 철수하고 말았으며, 同중위의 보고에 따라 대대는 이날 敵이 이미 西井里附近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Ayres중령은 대대에 공병지원이 없었으므로 그때까지 平澤에 남아 있었던 육군본부로부터 工兵 교량폭파조의 지원을 要請하여, 저녁에 지원된 李昌勳중위와 安昌植 소위 그리고 사병 2명의 폭파조로 하여금 平澤 바로 北쪽의 本道上에 있는 通伏川교량에 대한 폭파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한편, 이 동안에 A중대(장, Leroy Osburn대위)에서는 제 1 소대의 소총 1개분대에 화기 소대의 2.36''Rocket砲 3문과 기관총 1정을 증강한 도로차단조를 急編하여, 제 1 소대장 Herman L. Driskell중위의 지휘아래 A, B兩중대진지 사이의 本道上에 道路차단진지를 構築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西井里까지 敵의 戰車가 진출하였다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이렇다 할 敵情이나, 또는 烏山부근에 있다고 하는 Smith특수임무부대의 動向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다.

한편, 大田의 사단장 Dean소장은 同 Smith부대의 狀況보고를 入手치 못하여 終目토록 焦心한 나머지 몸소 前線상황을 확인코자 오후 늦게 副官인 Arthur M. Clarke중위를 帶同하고 平澤으로 달려가 20.00前後에 제 1 대대의 지휘소에 當到하였다.

그곳에서 사단장은 Barth준장을 만나, 함께 초조히 Smith부대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 이때 Barth준장 역시 竹美고개의 전투가 시작되었을때 그곳을 떠났으므로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 終無消息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Barth준장과 제 1 대대장 Ayres중령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한 결과, 이날 오전에 Smith부대가 竹美고개에서 接敵한바 있다는 것과 오후에 烏山 南쪽 西井里附近에 敵이 出現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時刻까지 平澤으로 철수한 同부대원이 없다는 것등의 事實로 미루어 보아, 同부대가 너무 北쪽에 진지를 점령한 탓으로 敵에 포위되어 全滅된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안고, 子正이 지난 뒤인 이튿날 6일 01.00에 그곳을 떠나 大田의 사단지휘소로 다시 복귀하였다.

한편, 安城으로 추진된 제 3 대대(장, David H. Smith중령)는 I, K 2 중대로써 安城邑 東北郊의 △94일대와 西北쪽의 龍仁—安城도로 변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여 敵을 기다렸으나 終日토록 敵影에 接하지 못하였다.

**Smith부대의 狀況** : 그런데 이 동안, 竹美고개에서의 緒戰에 敗한 Smith특수임무부대

(장, Charles B. Smith중령)는 前節에서 既述한 바와 같이 14. 30부터 竹美고개에서 철수를 시작하였으나, 그때 이미 敵의 戰車가 烏山을 지나 南下한 뒤였으므로 國道를 따라 平澤으로 철수치 못하고, 烏山에서 安城의 목표로 指向하여 저녁 무렵에 그곳에 집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의 제 3대대와 合勢하였지만, 당시 그곳과 成歡사이의 通信이 如意치 못하여 同부대의 철수상황을 연대에 急報치 못한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平澤의 제 1대대와 成歡의 연대, 그리고 大田의 사단지휘부등이 모두 五里嶺中에서 安塔잡게 彷徨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同부대는 安城의 道立病院에서 부상병에 대한 應急加療를 대강 끝낸 다음, 밤을 도와 부대장 Smith중령이 86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天安으로 指向하였으며, 제52포병대대장 Perry중령은 竹美고개전투에서 부상한 다리를 이끌면서 제 1대대에 그 危急을 告하기 위하여 平澤으로 jeep車를 급히 달렸다.

그리하여 Perry중령은 다음 날인 6일 01. 10前後에 平澤의 제 1대대지휘소에 當到하였고 Smith중령의 本隊는 같은 날 02. 00前後에 成歡의 제34연대 본부에 도착하였는데, 그 本隊는 그곳에 重傷者 4명을 치료차 남겨두고, 곧 天安을 거쳐 大田으로 後退하였다.

7월 6일 : 제34연대(장, Jay B. Lovless대령)는 安城—平澤線에서 天安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Barth준장의 臨機措置** : 사단장이 Smith부대에 대한 動向보고를 入手치 못한채로 不吉한 豫감만을 안고 大田으로 떠난 직후인 01. 05를 前後하여 平澤의 제 1대대 지휘소에 烏山 부근에서 本隊와 落伍되어 彷徨하던 Smith부대원 4명이 歸還하여, 비로소 同부대의 潰敗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安城에서 제52포병대대장 Perry중령이 急報함으로써 그 戰況의 輪廓이 들어나게 되었다.

이에 Barth준장과 대대장 Ayres중령은 『現진지를 固守한다.』는 方針을 굳히고, 대대의 決戰태세를 가다듬었는데, 이때 同준장은 사단장 代理로서 同대대장에게 『최선을 다하여 現진지를 固守하되, 특히 後方경계를 강화하고 退路를 확보하여, Smith부대의 前敵을 막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同준장은 제34연대장과 此後대책을 협의코자 01. 30에 成歡으로 向發하여 02. 30前後에 연대지휘소에 당도한바, 그 무렵 Smith부대가 安城으로부터 그곳을 거쳐 天安으로 떠난 다음이었다.

그리하여 同지휘소에서 처음으로 Barth준장과 연대장 Lovless대령이 合席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대장은 同준장으로부터 平澤에 있는 제 1대대의 배지상황과 그 現況을 전하여 듣게 됨과 아울러 장차 急變할 상황에 대하여 對應策을 강구케 되었다.

여기서 同준장은 『當面한 敵勢로 미루어 보아, 연대를 天安으로 집결시켜 安城과 平澤

으로 나누어진 연대병력을 한 곳에 集中함으로써 防禦力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대장에게 이의 실행을 촉구한 다음 날이 새기 전에 먼저 天安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연대장은 同준장이 前線상황에 관한 限 사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터인지라, 포병사령관 대리인 그가 보병연대장에게 작전지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勘案하여 연대장이 이를 承服하기로 하고, 04.00前後에 연대 S-3인 John J. Dunn소령을 제 1대대에 急派하여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대대는 當面한 敵과의 接觸을 유지하되,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現진지를 확보하다가 天安으로 집결하라.』

이렇게 하여 연대는 「天安에 병력을 집중하여 그곳에서 一戰을 決한다.」는 Barth준장의 方針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는 同준장이 당초 安城—平澤線을 固守하기로 한 사단장의 胸中을 깊히 헤아리지 못한 所致로, 一병력이 分散되면 各個격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 一目前의 前線상황의 打開만을 모색한 끝에 취하여진 臨機措置이라, 이로 말미암아 事態는 進展할 수 없이 變轉되기에 이르렀다.

제 1대대의 緒戰상황 : 한편, 이날 이른 새벽에 Smith부대의 戰況보고가 入手됨으로써 平澤정면에 바야흐로 風雲이 急한 것을 깨닫게 된 제 1대대장 Ayres중령은 날이 새는 즉시로 敵의 打撃第一波가 들이닥칠 것으로 내다보고, 곧 C중대의 정찰대를 제 1선중대정면에 내보내어, 03.00에 本道上的 교량(西井里 東南쪽 2.8km)을 폭파토록 하였다.

이 동안 제 1선의 B, A兩중대에서는 중대원이 烏山の 敗戰소식에 半信半疑하면서, 嶽畔에서 웅크린채 一 밤새 비가 내려 個人擦속에 물이 가득참으므로 一 밤을 지새웠는데, 병사들이 野戰식량으로 이른 朝飯을 들고있을 무렵인 04.30에 예상한대로 敵이 陣前에 나타났다.

전날 밤 西井里에서 지낸 北傀제 4사단의 先鋒이 戰車 일부를 앞세우고 曉霧가 자욱히 깔린 國道를 따라 南下한 것이다.

이때 대대장 Ayres중령은 대대지휘소를 떠나 本道上的 도로차단소에서 경계태세를 확인한 뒤 道路 西쪽의 A중대본부로 나아가는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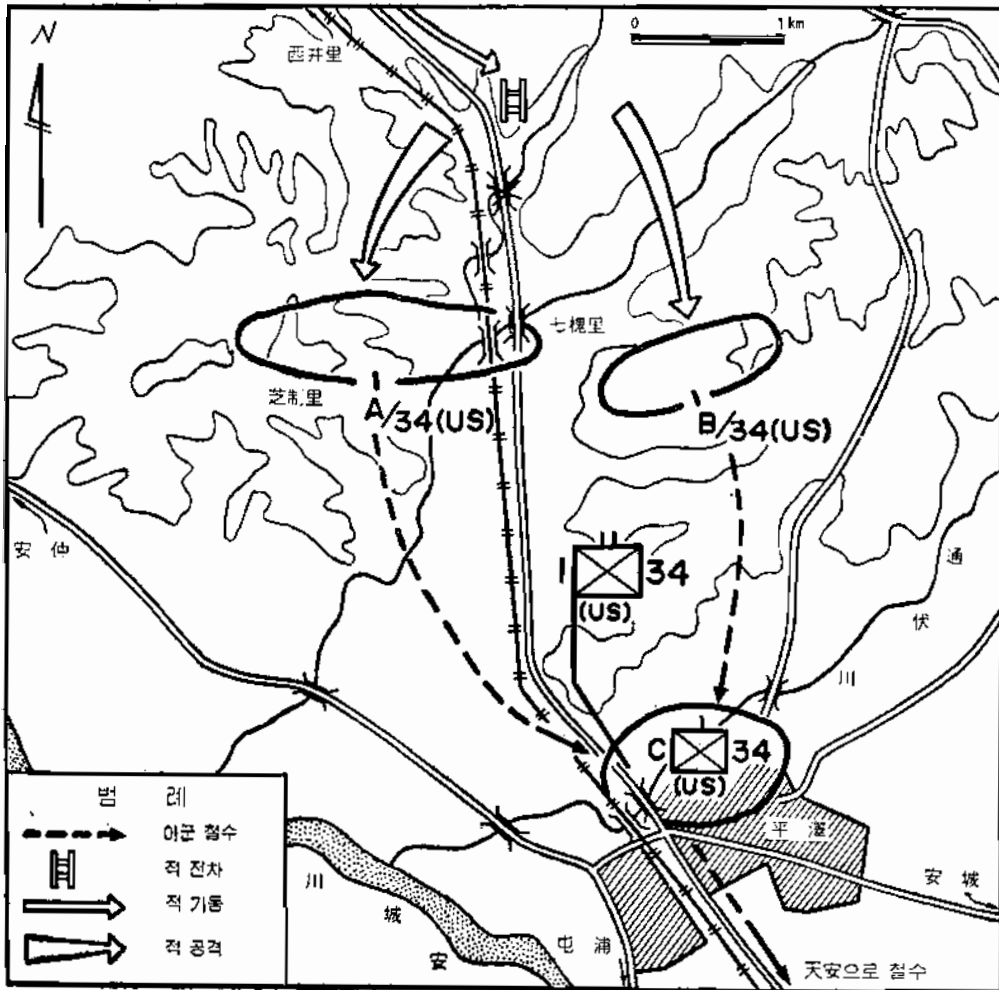
敵侵을 제일 먼저 알아채린 사람은 A중대의 中央에 진지를 점령한 제 2소대의 선임하사 Roy F. Collins상사로서, 그는 소대진지의 稜線위에서 C-Ration을 먹고 있다가 Engine騒音을 듣고, 正面을 注視한 결과 회쭈연 안개속에서 南向중인 戰車形態의 動體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곧 소대장인 Robert R. Ridley중위에게 달려가 「敵 出現」을 急報한바, 그때가 05.00였다.

소대장 Ridley중위는 『혹시 後退하는 Smith부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한 동안 그



◇ 상황도 제 7 호 平澤附近의 狀況(7.6)



敵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하였는데, 뒤따르는 二列縱隊의 보병으로서는 彼我의 분별을 할 수 없었으나 戰車가 先導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 Smith부대에는 戰車가 없었으므로 — 敵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바로 그 시각, 중대본부에서도 대대장 Ayres중령과 중대장 Leroy Osburn대위 역시 같은 생각을 한 끝에 敵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고, 즉시 전투태세에突스케 되었다. 잠시 뒤에 敵의 先頭戰車가 두시간 전에 C중대원이 파괴한 교량에 이르러, 前進를 멈추고 戰車兵이 교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戰車밖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 13대의 진차가 줄을 지어 늘어서게 되었다. 이를 노려 보고 있던 대대장은 때를 놓칠새라 4.2"박격포에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4.2"박격포가 그 戰車縱隊에 火力을 집중하여 truck 1대를 격파하자, 敵의 戰車가

85mm전차포로써 應酬하면서 끊어진 다리의 左右로 散開하여,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진지의 中대원도 하는 수 없이 물이 가득한 壕속에 뛰어 들어가 敵을 맞아 싸우게 된 바, 敵의 戰車가 개울을 건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뒤 따르던 보병 또한 도로의 左右로 展開하여 일부는 東쪽의 B중대 정면으로, 일부는 A중대 진지의 高地쪽으로 올라붙게 됨으로써 小火器의 對決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 대대의 유일한 지원 重火力이었던 4.2"박격포가 단 1명뿐이었던 觀測兵이 敵의 전차포탄이 炸裂하는 충격으로 失神하여 사격誘導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나마 입을 다물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重박격포의 지원조차 끊어진 가운데 敵이 그들 전차의 掩護아래 大대규모로써 中대의 陣前에 육박한 결과 彼我間에 射擊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中대원 중에서 敵을 향하여 사격하는 사람은 古參兵 몇몇일 뿐, 다른 병사들은 사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니, 이는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이때 병들의 소총이 대부분 비틀 맞아 노리쇠에 진흙이 끼어 있거나 分解結合이 잘못되어 擊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대원의 사격은 散發的이어서 저항다운 저항을 보이지 못하게 되니, 交戰 30여 분만에 敵의 전차가 마침내 개울을 건너서게 되었다. 그들의 공격이 한층 거세어지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본 대대장 Ayres중령은 事勢가 이미 틀렸다고 판단하고, 中대장 Osburn 대위에게 1개 소대의 엄호아래 中대主力을 現진지에서 철수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B중대의 戰況과악차 大대지휘소로 달려갔다.

대대장의 決心: 그로부터 數分뒤 大대장이 大대지휘소에 당도한바 연대 S-3인 Dunn소령이 연대장의 명령을 휴대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대대장이 그에게서 受領한 연대장의 명령에 이르기를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陣地를 지키다가 天安으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는데, 同 S-3가 大대에 急派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이날 이른 새벽에 安城으로부터 Smith부대가 도착함으로써 그 부대의 潰退소식을 듣게 되었으나 그 뒤로 平澤의 제 I 大대로부터는 아무런 報告를 入手치 못하였으므로, 연대장의 命命 전달과 더불어 同대대의 상황을 직접 확인코자 한 것이었다.

대대장이 지휘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有線으로 B중대의 戰況을 알아본바 同중대 역시 A중대와 다름이 없었다.

이에 『天安으로 撤收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있어서 그 撤收시기를 「대대장의 判斷에 따라 決定하라.」는 것으로 해석한 대대장은 同 S-3와 함께 상황을 검토한 끝에 대대를 天安으로 철수시키기로 斷案을 내리고, B중대에도 철수명령을 下達하였다.

이어서 대대는 09.00에 지휘소를 철수하여 成歡으로 移轉하는 한편, 지원중인 韓國工兵의 교량폭파조로 하여금 일선 中대가 平澤에 집결하는 즉시로 平澤 北쪽의 通伏川 교량을

폭파트럭 하였다.

이리하여 B중대가 A중대의 掩護下에 먼저 平澤으로 철수하여 C중대와 함께 대대본부의 뒤를 따라 威獸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A중대는 B중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병력을 간신히 수습하여 09.30前後에 平澤이 집결하였으며, 그곳에서 병력을 점검한바 100여명뿐이었다. 따라서 A중대는 이날의 一戰결과 40여명의 손실을 보게된 셈인데, 本道의 차단임무를 맡았던 제1소대장 Driskell중위의 道路차단조는 철수명령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敵이 左右의 縱線(A,B중대 진지)을 席捲한 다음에야 위급을 깨닫고 斷斷으로 철수하던 중, 同중위가 戰死하고 組員의 대부분이 失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하여 대대가 平澤을 빠져나가게 되자, 待機중이던 교량폭파조가 通伏川교량을 폭파함으로써 한낮을 넘기지 못한채 平澤의 喪失을 씁하게 되고 말았으니, 이태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교량을 폭파한 安昌植소위는 이렇게 述懷하고 있다.

『전날 저녁에 李昌馥중위와 함께 교량의 폭파준비를 끝내고 다터 밑에서 밤을 지냈는데, 이날 아침에 美軍中領으로부터 폭파명령을 받았다. Concrete로된 교량이어서 쉽게 폭파될 줄 알았으나 막상 點火를 하고보니 Concrete 匠間에 鐵骨이 들어있어, 완전히 절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폭약을 다시 구하여 再爆破준비를 하였는데, 그때 敵의 便衣隊가 나



〈射擊하는 4.2" 迫擊砲〉

타나서 교량을 확보코자 우리에게 사격을 加하면서 폭파작업을 妨害하였다. 거기서 내가 부상을 입는 등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끝에 2차 폭파에 성공하여 그 교량의 徑間을 완전히 절단하였다. 平澤邑內로 들어가니 병력은 이미 철수하여 버리고, 길가에 임자 없는 我軍側차량들이 수없이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남은 폭약으로 그 차량들을 폭파하면서 國道를 따라 南下하였다.』

**연대장의 措置 :** 한편, 이날 午前에 平澤에 있던 제1대대가 潰走하게 되어 느닷없이 敵이 成歡으로 들어닥치자, 연대장 Lovless대령은 Barth준장의 指示대로 安城의 제3대대(장, David H. Smith중령)에 天安으로의 철수를 명령하고, 연대본부를 天安으로 뺏아 그곳에서 제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 철수병력을 收容키로 하였다.

그리고 연대예비로 控置中인 L중대로써 成歡 南쪽에 진지를 점령케 하여 제1대대의 철수를 掩護토록 한 다음 敵과의 接觸을 유지하면서 天安으로 집결토록 아울러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낮, 그때까지 接敵상황이 없었던 제3대대(-)는 차량으로 安城—天安도로를 따라 天安에 집결케 된 바 밤이 늦은 뒤에야 집결을 완료하였으며, 제1대대는 裝備의 대부분을 平澤 北쪽의 진지에 遺棄한 채 맨몸으로 京釜國道를 따라 徒步로 南下한바 後尾의 A중대가 天安에 당도한 것은 저녁무렵이었다.

그런데 同제1대대의 철수를 兪호키로 된 L중대가 風聲鶴唳로 덩달아 놀라 同대대의 철수병력과 함께 敵과의 접촉을 유지치 못한채 天安으로 철수한 까닭으로 이날 연대는 敵情을 알지 못한 가운데 成歡마저 敵의 手中에 넘겨주게 된 셈이었다.

**遲延障地의 확보 :** 한편 이날 아침 Barth준장이 成歡을 떠나 天安에 도착한 바, 때마침 제21연대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의 잔여병력인 A중대와 D중대 및 본부중대의 일부가 列車편으로 天安驛에 도착중이었는데, 이들은 7월 1일에 Itazuke(板付)基地에서 空路로 먼저 떠난 本隊(Smith특수임무부대)를 찾아 後續중이었던 것이다.

이를 본 同준장은 제34연대가 同邑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예상아래, 이로써 天安 南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마련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직접 그 병력을 이끌고 三龍里(天安 南쪽 4km)부근의 無名高地(天安 三巨里 南쪽 1.5km, 國道 東쪽 고지)에 遲延진지를 선정하여 이를 점령토록 한 다음, 14.00를 前後하여 天安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平澤에서 철수한 제34연대 제1대대의 先發隊가 그곳에 집결중이었다.

이에 同준장은 그 대대로 하여금 제21연대 제1대대(-)와 함께 진지를 점령토록 조치한 결과, 연대장이 이를 同제21연대 제1대대 西쪽의 △106부근에 진지를 마련토록 하여 同진지에서 부대를 수습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21연대 제1대대 일부와 제34연대 제1대대가 天安—全義街道를 가운데 끼고 새로운 遲延진지를 확보케 되었다. 그러나 제34연대 제1대대가 저녁무렵에야 同진지線에

投入되어 곧 工事に着手케 되었으나, 병력 모두가 맨주먹뿐이어서 掘을 팔 手段도 없었거니와, 終日토록 28여km를 路上에서 헤맨 다음이므로 疲勞가 겹친 탓인지 工事を 하지 못한채로 밤을 지내게 되었다.

**天安의 作戰會議** : 이 동안에 成歡에서 天安으로 지휘소를 옮긴 연대장 Lovless대령은 제 1대대가 그곳에 집결하는 대로 이로 하여금 이미 Barth준장이 조치한 바에 따라 三龍里 부근에 진지를 점령한 제21연대 제 1대대(-)와 함께 遲延진지를 마련케 하여 戰列을 再編토록 하였다. 또한 安城에서 제 3대대가 집결하면 이로써 天安外廓에 방어진지를 急編하여 여기에서 主抵抗을 계속키로 하고, 天安警察署에 지휘소를 다시 開設한 16.00에 연대의 철수상황을 大田의 사단장에게 電文으로 보고 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철수 결과보고를 받은 사단장 Dean소장은 크게 놀라 곧 天安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저녁무렵 연대지휘소에서 사단장을 비롯하여 Barth준장과 연대장 및 제 1, 제 3 兩대대장이 同席한 가운데 작전 方針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단장은 그가 방어의 最逆地라고 판단한 安城—平澤線에 있어서 연대가 接觸도 없이 安城을 포기함에 따라 國道の 東側方을 露出케 되고, 또한 必守의 要地로 여기고 있던 平澤에서 어이 없게 물러나고만 것에 대하여 憤怒한 나머지 그 철수명령의 責任所在를 詰問한 바도 있으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다음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연대의 철수를 追認하고, 이어서 연대장에 이르기를 『別命이 있을 때까지 現진지를 固守하라.』라고 한 다음, 밤 중으로 大田의 사단지휘소로 復歸하였으니, 뒷날 그가 述及한 바에 의하면 이때 그의 心境은 『그 즉시로 연대를 平澤으로 北上시킨 생각이었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敵의 伏兵을 만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당초 자신의 安城—平澤線의 固守에 대한 腹案을 휘하장병에게 확실하게 納得시키지 못한 점을 거듭 自噴하였다는 것이다.

#### (나) 天安부근의 戰況(7.7~8)

**7월 7일** : 이날 終日, 天安을 圍繞한 攻防戰으로 一貫되었다.

**사단장의 措置** : 전날 밤 天安으로부터 大田에 復歸한 사단장 Dean소장은 安城과 平澤을 잃은 제 34연대로서는 사단 主力과 지원화력의 來着이 이루어지기 까지 최대한의 遲延효과를 얻는 것이 急先務라고 판단하고, 밤 중으로 14연대에 『날이 밝은 다음, 1개 중대를 京釜國道上으로 北上시켜 敵과의 接觸을 유지하여 이를 御留하면서 遲延토록 하라.』고 命令하였다.

날이 새자, 사단장은 항공정찰을 強化하여 天安 北쪽의 敵情을 수집케 하는 한편, 前線 연대장을 更迭키로 결심하고, Robert R. Martin대령을 天安으로 運來보내어 그곳의 戰況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런데 Martin대령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Europe戰線의 제44사단에서 사단장과 함께 싸운 知面의 사이로서 평소 Dean소장이 그의 果斷性和 勇敢性を 높이 평가하고 있던 터이라 同소장이 韓國戰線으로 떠나면서 극동군사령부에 그의 轉入요청을 한 것이며, 그에 따라 전날에 日本에서 大田에 도착한 것이었다.

午前中の 항공정찰 결과 安城川(安城—平澤線)以南에는 아직 敵의 戰車가 진출하지 않았고, 同河川線을 넘어선 敵의 병력 역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보고에 따라, 사단장은 전날 밤에 연대에 下達한 『1개 중대 北上命令』에 추가하여 1개 대대를 北上시키도록 명령한 다음 사단 主力의 戰線참가를 재촉하였는데, 九州의 Beppu(別府)와 Kumamoto(熊本)에 各各 駐屯중이던 제19연대와 제21연대가 Saseho(佐世保)에 집결하여 7월 4일에 船便으로 釜山에 도착한 것인바, 이들이 이날 京釜線철도를 따라 급히 北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단장은 제19연대(장, Guy S. Meloy, Jr.대령)가 大邱에 도착하는대로 그곳에 예비로 남게하고,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를 大田으로 集결케 한 바, 同연대가 正午무렵에 大田에 당도하였으므로 즉시 烏致院으로 추진하여 前線의 제34연대를 支援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24사단장 Dean소장은 사단의 全병력을 大田정면에 집중사용코자 하였지만, 그에 앞서 그는 駐韓美軍총사령관(7.4부)의 指策을 함께 遂行하여야 하였던 까닭으로 全戰線상황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어서 1개연대를 大邱에 控置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날 極동군사령부로부터 『제24사단은 1개 대대를 抽出하여 延日비행장(浦項)의 공군 제35전투비행단(장, Robert Witty대령)을 경비케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大邱의 제19연대의 제 1, 제 2 兩대대 중 제 2대대를 뽑아 急遽 浦項으로 轉進케 함으로써 그 예비병력마저 두 조각이 나게 되었는데, 당시 同제35전투비행단은 이 延日비행장을 基地로 삼기 위하여 1개 對空砲隊의 警備下에 활주로 延長工事を 실시중에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장이 左顧右眎하는 가운데 한 낮을 넘기게 되자, 午後에 항공정찰결과 다시 보고 되기를 『成歡과 安城부근에 敵의 많은 병력이 集결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安城과 平澤을 喪失한 時點에서의 天安이 지나는 重要性을 勘考하여, 安城과 成歡 두 곳의 敵이 天安을 목표로 分進合擊할 公算이 甚다고 내다 보았으니, 이는 이제 天安을 잃게 되면 당시 我軍의 抵抗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天安—禮山—洪城—長項의 西海岸도로 마저 開放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天安에 바야흐로 血雨가 急迫하였다고 판단한 결과 이미 그곳에 나가있는 Martin대령의 지휘力量에 한가닥 기대를 걸기로 하고, 15.00에 副사단장인 Pearson Menohor준장을 天安에 急派하여, 同대령으로 하여금 제34연대의 지휘권을 인수토록 하는 한편 그 연대에 側方被圍의 위협에 대한 注意를 喚起시켰다.

그리고 大田에 집결중인 포병과 戰車등 지원화력의 前線赴援을 독려한바 저녁무렵에 제 34연대 지원포병인 제63포병대대 일부와 제78전차대대 일부가 天安으로 추진되었다.

제34연대 제3대대의 北進: 한편 전날밤 1개중대를 北上시키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34연대장 Lovless대령은 해가 높이 뜬 다음인 08.10에 제3대대의 L중대(장, Archie L. Stith중위)에 연대의 情報수색(I&R)소대를 배속시켜 天安에서 成歡쪽으로 北上케 하였다.

그리하여, 전날 밤중에 安城에서 天安에 집결한 同대대의 I, K兩중대는 河邑內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차량機動隊로 편성된 수색소대의 先導로 L중대가 텅빈 邑을 지나 京釜國道를 따라 北으로 나아갔다.

同중대가 天安 北쪽 4km에 이르렀을 무렵,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電文命令을 受領하였는데, 그 뜻에 이르기를,

『제34연대장 앞. 1950. 7. 7 10. 25 發. 최소한의 수송수단으로써 1개 대대를 北進시켜, 敵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준비된 지연진지로 철수하는, 遲延行動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 항공정찰 결과에 따르면 安城川 南쪽에는 敵의 機甲부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의 나머지 主力으로 하여금 L중대를 追隨토록 조치하고, 이코말미암은 天安의 空白를 補填하기 위하여 南쪽의 三龍里부근에 遲延진지를 指定중인 제1대대의 일부를 뽑아 올려 東北쪽의 安城도로의 敵을 阻止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대대장 Smith중령이 I, K兩중대를 지휘하여 正午무렵에 앞서간 L중대의 뒤를 따라 北上하게 되었으며, 제1대대 역시 대대장 Ayres중령이 C중대를 이끌고 天安으로 진출하여 安城街道의 敵侵에 對備하는 진지를 指定케 되었다.

연대장의 交替: 이와 같이 제3대대가 天安을 떠나 北上한 다음에 大田으로부터 Martin대령이 연대지휘소에 到着하였는데, 이때에 그는 短靴에 略帽차림으로서 아무런 武裝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에 연대장 Lovless대령은 同대령과 함께 그곳에서 제3대대의 진출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바, 同대대 主力이 富堡(天安 北쪽 3.5km)北쪽 고개에 이르렀을 무렵 뜻밖에 野砲 1문이 邑內에 放棄상태로 있는 것이 밝혀져, (研究란 참조) 연대장이 이탄 골 同고개로 추진하여 직접조준사격으로써 대대를 지원토록 조치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낮을 넘어서게 되자 連絡機가 通信筒을 연대에 投下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사단장이 敵情의 急變을 알리는 것이었다.

『제34연대장 앞. 1950. 7. 7 16. 00 發. 貴부대의 前進에는 注意를 要함. 연대의 東側方과 西側方에서 敵의 큰 규모의 병력이 확인되었음. 安城부근에는 戰車(40~50대)와 차량들이 집결중이고, 微陽(安城 西南쪽 5km)과 成歡부근에도 많은 병력이 집결중임. 敵이 貴연대의 側面포위를 企圖할 것임.』

이에 연대장 Lovless대령은 이와 같이 安城부근의 敵이 天安 東北쪽으로 側方공격을 企圖할 것이라는 情報에 따라, 安城街道쪽을 막고있는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의 방어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Martin대령과 함께 同대대의 지휘소로 달려갔는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즉, 15.00에 사단장의 연대장 교대명령서를 휴대하고 大田을 떠난, 副사단장 Menoher준장과 Church준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副사단장이 연대지휘권의 인계와 인수명령서를 兩대령에게 전함으로써 그의 立會下에 연대장의 交代가 즉각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절차가 대체로 끝난 것은 18.00였다.

이렇게 하여 그 시각부터 Martin대령이 새로이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거니와, 이같은 交代가 제 1대대 지휘소에서 猝地에 이루어진 탓으로 연대 참모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으니, 이런 狀況에서 아무런 事前준비 없이 接敵中인 연대를 맡게된 Martin대령으로서 는 그 지휘에 있어서 적지 않은 困惑이 뒤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 3대대의 撤收 : 한편 이동한 天安에서 京釜國道を 따라 北上한 제 3대대(장, David H. Smith중령)는 15.00를 前後하여 그 先頭의 연대정보수색소대가 稷山(天安 北쪽 6.5km)驛 北쪽 700여m의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는데, 이때 同소대가 소속된 L중대는 그 南쪽 1.5km에, 그리고 대대 主力은 富丞부근의 고개에서 各各 진지를 急編中이었다.

이와 같이 제 1선의 수색소대가 삼거리에 이르면서부터 그 부근의 마을을 占據중인 소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소화기와 박격포사격을 받게 되었다. 1대 1의 對決인데도 不拘하고 同소대는 前進를 정지한 다음 곧 L중대진지로 철수한 바, 3명의 失蹤者를 내기까지 하였다. 敵을 輕視하면 반대로 有事時에 敵에 대한 恐怖에 사로 잡히는 바가 果는 이러 하였다.

그리하여 同소대장이 그 敵情과 아울러 소대원의 失蹤사실을 대대장에게 急報하였는데, 그때 연대 S-3인 Dunn소령이 대대의 진출상황과 진지편성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始終 대대장 Smith중령과 行動을 같이 하고 있다가 그와 같은 보고에 接하자 곧 L중대로 달려가 그 중대를 이끌고 失蹤병사를 救出코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同대대의 S-3인 Eoone Seegars소령이 한 걸음 먼저 나아가 그들 실종 병사 3명을 구하였으므로 Dunn소령은 L중대의 진출을 정지시켜 現地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토록 措置하였다.

이렇게 하여 同중대가 稷山驛 東南쪽 1km에 진지를 점령하게 된 바, 이때 그 西쪽의 內洞(稷山驛 南쪽 1km)부근으로부터 敵의 火力急襲을 받아 交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接敵상황을 대대에 보고하자 대대에서 곧 박격포사격이 지원되었는데, 그 박격포는 중대원의 머리를 겨누고 사격하는 것이었다. 이에 박격포의 사격유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Dunn소령이 대대지휘소로 달려가 사격을 중지시키코자 하였으나, 그가 富丞부근의 同대대진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그곳의 대대 主力도 敵의 側方공격을 받아 철수중이



었다.

Dunn소령은 상황의 急轉을 깨닫고, 그 길로 天安의 연대지휘소로 急遷하여 연대장에게 同대대의 철수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시작은 이미 Martin대령이 연대의 지휘권을 인수한 다음이었다.

이리하여 연대 S-3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신임연대장 Martin대령은 우선 그에게 『제 3 대대를 수습하여 당초의 대대진지를 확보하라.』라고 명령한 다음, 뒤이어 연대의 본부중대를 이끌고 직접 敵情을 확인키로 하였다.

한편, Dunn소령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 3 대대의 S-3인 Seegars소령과 더불어 天安에 집결한 同대대의 일부병력을 수습하여 곧 차량으로 이들과 함께 다시 北上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진지에 거의 이르렀을 무렵 路上에서 또 한번 敵의 急襲을 받아 先頭車의 Dunn소령과 Seegars소령이 重傷을 입게되고, 뒤 따르던 병력은 分散되었다. 그리하여 나머지 병력은 天安으로 철수케 되었으나, 부상으로 落伍가 된 Dunn소령은 이날 저녁 捕虜로 잡히는 바 되었으며, Seegars소령은 끝내 숨지게 되고 말았다.

이 동안에 天安 北쪽으로 달려나가 그 같은 상황을 확인한 연대장은 제 3 대대가 遺棄한 장비와 차량일부를 回收하여 天安으로 되돌아 가, 집결중인 同대대로 하여금 그곳에서 決戰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 Smith중령이 수습한 병력으로써 19.00에 邑의 外郭지대에 방어 진지를 새로이 점령케 된 바, (研究란 참조) 제 1 대대원과 함께 東北쪽의 安城街道와 北쪽의 京釜本道, 그리고 西쪽으로 天安驛과 鐵路를 싸안은 馬蹄形의 진지를 急編하고, 國道上의 예상戰車집근로에는 對戰車지뢰 800여 발을 埋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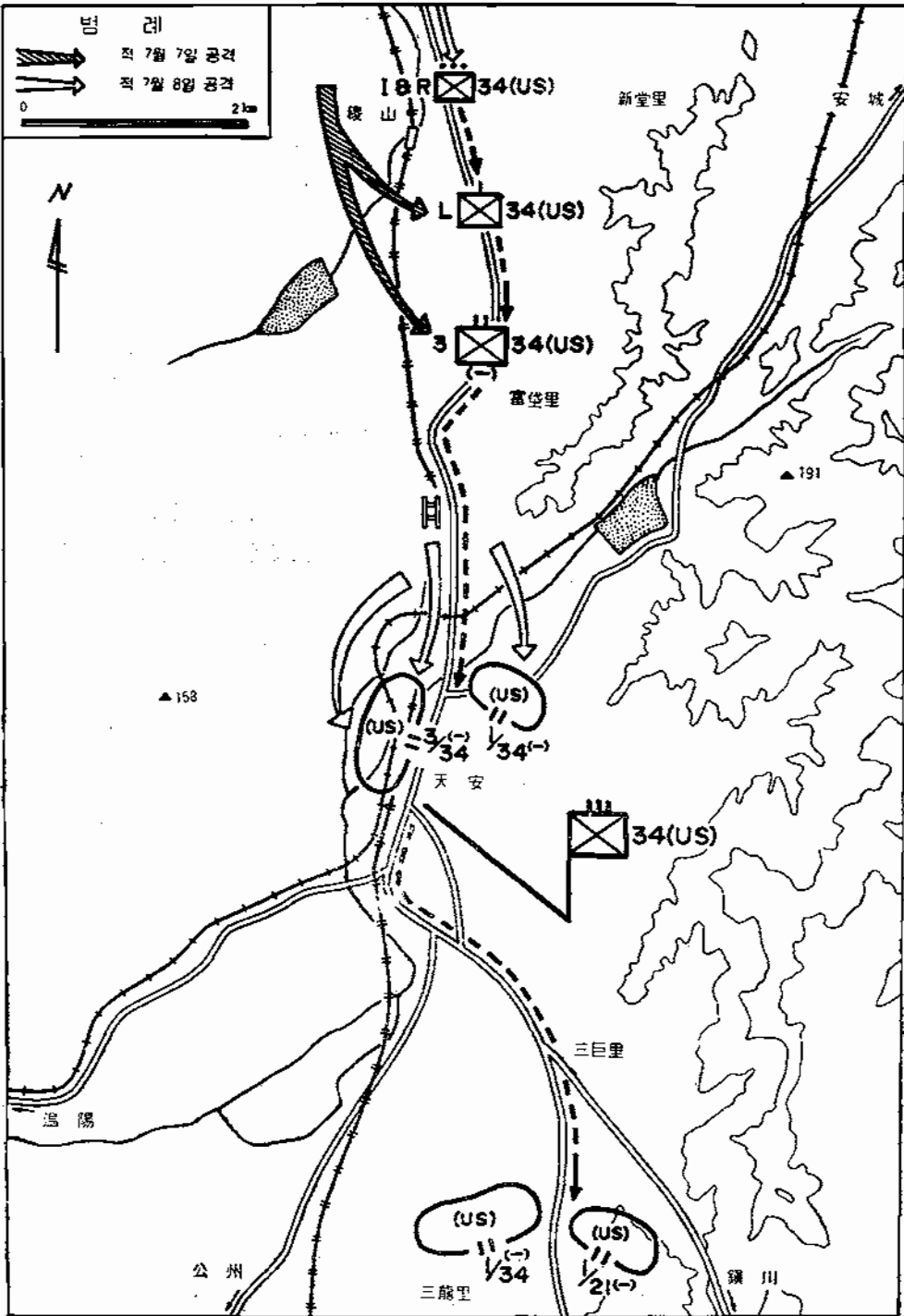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하여, 天安에서 一戰을 決하기로 다짐한 연대장 Martin대령은 연대지휘소를 제 21연대 제 1 대대와 연대의 A중대가 지연진지를 확보중인 三龍里부근으로 뺏아내려 副연대장 Robert L. Wadlington중령으로 하여금 보급책임을 맡게 하는 가운데 自身은 邑內에 남아서 부대지휘를 계속하였다.

20.00에 제 63보병대대(장, Robert H. Dawson중령)의 A포대와 제 78전차대대 A중대의 M-24輕전차 1개 소대가 支隊차 急赴하였으므로 연대장은 이들을 연대지휘소 부근에 放列케 하여 제 3 대대를 火力支援토록 하였다.

해가 지면서 敵의 壓力이 加하여졌으나 밤 동안 큰 接戰은 없었다. 子正무렵에 敵이 步戰첩동으로 한 차례 夜襲을 試圖하였는데, 이에 포병이 제 3 대대의 陣前으로 집근하는 敵의 戰車에 對전차고폭탄을 집중하여 2대를 격파함으로써 그들을 擊退하였다.

제 21연대 제 3 대대의 赴援 : 한편, 前진한 바와 같이 Kumamoto(熊本)에 駐屯중이던 제 21연대가 正午무렵에 大田에 도착하였으나, 이도 제 34연대와 마찬가지로 제 1, 제 3의 2개 대대뿐인 연대로서 그 제 1 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의 일부인 B, C兩개 중대는 이

◇ 상황도 제 8 호 天安附近의 狀況 (7.7~8)



미 Smith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되어 지난 5일에 竹美고개의 緒戰을 치르게 되었으며, 그 나머지의 A, D兩중대는 전날 天安 南쪽 三龍里부근의 遲延진지에 投入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제 3대대(장, Carl C. Jensen중령)를 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이 직접 이끌고 이날 當到한 것인데, 이에 사단장 Dean소장은 이들이 大田에 집결하는 즉시로 烏致院으로 北上케 하면서 이르되, 『烏致院부근에 遲延진지를 점령하여, 제 34연대를 지원하는 同時에 同연대와의 補給路를 확보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午後에 烏致院으로 달려간 연대는 지휘소를 그곳에 開設하고, 제 3대대를 全義(烏致院 西北쪽 10km) 東南쪽 2km의 美谷里부근에 京釜本道를 制扼하는 진지를 점령도 록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天安 南쪽에는 三龍里와 美谷里부근에 二重의 遲延진지가 逐次로 編成되었다.

7월 8일 : 드디어 이날 天安마저 喪失하게 되었다.

연대장의 戰死 : 天安에서 一戰을 決하기로 한 제 34연대장 Martin대령은 그곳에서 제 3대대(장, David H. Smith중령)와 함께 밤을 세웠다. 전날밤 子正이 지난뒤로 三龍里의 연대 지휘소와 天安의 제 3대대 사이에 通信이 곧잘 杜絶되곤하여 副연대장 Wadlington중령을 비롯한 後方의 지휘소요원들이 不安과 焦燥한 가운데 날을 밝히게 되었다.

06.00부터 天安 정면에서 敵의 공격이 再開되었다.

成歡쪽에서 國道를 타고 들이닥친 6대의 戰車를 先頭로, 敵제 16, 제 18 兩연대가 西北쪽의 京釜本道와 東北쪽의 安城街道를 따라 邑內로 突入하였는데, 이때에 이 戰車는 전날 연대가 陣前에 800여발에 달하는 對戰車지뢰를 埋設한 까닭으로 십사리 그곳을 넘어서지 못하리라 믿었던 것이지만, 그들은 意外로 그 지뢰지대를 悠悠히 通過하여 邑內에 들어서는 즉시로 擧거물과 교회등 美軍이 潛伏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건물과 차량들에 砲撃을 加하였다. — 그런데 당시 美軍의 地雷는 단 한발도 觸發되지 않았다고 하는 바, 이는 夜暗을 타서 敵이 이를 除去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敷設되거나 不良品이어서 不發한 것인지는 尙尙까지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그리하여 市街戰이 展開 되었는데, 제 3대대 병사들이 2.36" Rocket砲와 수류탄으로써 그 중 2대의 戰車를 격파하였으며 Leotis E. Heater일병 같은 병사는 단신으로 다섯발의 수류탄을 投擲하여 그 한대를 파괴하는 용맹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장병들이 死力을 다하여 버텨으로써 天安邑內에서 2시간 가까이 亂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敵의 戰車가 좁은 邑內에 뛰어들어 暴進함에 따라 지휘기능이 亂麻와 같이 얽혀들게 되자, 무엇보다도 이 戰車의 격파가 先決문제라고 판단한 연대장 Martin대령이 직접 2.36" Rocket를 들고 邑內 한 복판에서 戰車와 對決하다가 장렬하게 戰死하고 말았는데, 이때에 그의 擲藥手가 되어 연대장을 도와 함께 싸운 연대 S-3선임하사관 Jerry C.

Christenson상사가 뒷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述懐하였다는 것이다.

『연대장은 Rocket砲의 射手가 되고, 나는 탄약수가 되어 어느 건물속에서 敵의 戰車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戰車 한대가 나타나 우리가 있는 건물로 砲身을 돌렸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연대장이 그 戰車를 향하여 砲를 조준하고 내가 포탄을 裝填하여 彼我 兩쪽이 거의 同時에 發射하였다. 다음 순간, 戰車의 85mm포탄을 맞아 연대장은 몸이 두동강이 나고, 뒤에 있던 나는 그 衝擊으로 한 쪽 눈알이 튀어 나왔다.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그 눈알을 도로 주워넣은 다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결국, 연대장의 Rocket砲가 敵의 전차에 正確한 一擊을 加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채로, 연대장 自身만이 거룩한 죽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니, 이때가 08.00였다.

그리하여 Robert R. Martin대령은 제34연대장으로 赴任 하루만인 이날, 異域戰線에 피를 뿌려 散華하였거니와, 7월 11일에 美 극동군사령부에서 그에게 十字勳章(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授與함으로써 그는 이 戰爭중 연대장으로서의 첫 戰死者가 된 同時에 첫 DSC表彰者가 되었다.

한편, Christenson상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됨으로써 敵에 사로 잡히는 바 되어 전날(7일)포로가 된 연대 S-3 Dunn소령과 함께 北韓땅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도 이태 12월 어느 날 포로수용소의 寒風속에서 끝내 아까운 一生을 마쳤다고 한다. 앞서의 연대장 戰死광경은 그가 Dunn소령에게 전한 것으로서, 이러한 內容은 Dunn소령이 休戰으로 38개월의 포로생활에서 풀려나 歸還하게 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이다.

天安의 撤收: 연대장의 戰死소식이 알려지자 연대의 戰況이 질잡을 수 없이 惡化되었다. 제3대대장 Smith중령이 東奔西走로 부대를 지휘하였으나, 계속되는 敵의 增援으로 말미암아 天安의 포위태세가 굳어짐으로써 더 이상 支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09.00를 前後하여 대대장은 하는 수 없이 포령의 煙幕遮障을 요청하고, 병력을 天安에서 철수토록 명령함으로써 각기 현전선에서 離脫하여 同邑을 빠져나가게 되었으니, 同대대장이 10.00에 三龍里의 연대 지휘소에 이르러 마침내 氣盡脈盡하여 昏倒하였다고 하니 이로써 이날의 一戰樣相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Walker中將의 前線視察: 한편 이날 아침 사단장 Dean소장은 天安의 戰況을 지켜보고자 大田市內에 있는 지휘소 상황실에서 徹夜하였는데, 제34연대의 瓦解소식이 전하여지기 전인 이른 아침에 駐日 美제 8군사령관 Walker중장이 空路로 大田에 急着하였다.

同사령관은 사단지휘소에서 상황을 聽取한 다음 사단장에게 이르기를 『貴사단은 곧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目下 제8군이 韓國으로 이동중에 있으며, 主力이 도착하는 대로 本官이 駐韓美軍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言明에 接한 사단장은 군사령관과 함께 戰局의 好轉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제34연대의 戰況파악차 天安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三龍里부근의 同연대 제1대대진지에 이른

것은 10.00였는데, 거기에서 同연대장 Martin대령의 戰死보고를 받게 되고, 아울러 그 제 3대대가 天安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으니, 前線의 상황은 제 8군의 來着을 기다릴 틈을 주지않고, 줄곧 惡化—路로만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天安의 喪失을 확인한 사단장은 同연대의 副연대장 Wadlington중령으로 하여금 연대장을 代理하여 병력을 수습토록 한 다음, 烏致院에 이르는 本道를 그곳의 제21연대에 일임하고, 제63포병대대 A포대와 더불어 杏亭里 삼거리(三龍里 南쪽 10km)에서 公州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錦江으로 철수하면서 遲延戰을 벌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三龍里의 同연대 제 1대대(-)와 제21연대 제 1대대(-)는 각각 天安에서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本隊에 合勢토록 아울러 조치하였다.

이에 Wadlington중령은 10.00에 포병을 먼저 뽑아 廣亭里(杏亭里 南쪽 10km)부근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昏絶한 제 3대대장 Smith 중령을 後送케 하고, 同대대의 先任장교인 Newton W. Lantron소령에게 연대지휘소부근에서 落伍者수용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수습한 다음 이로써 廣亭里에 遲延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 1대대의 掩護下에 제 3대대가 낮동안 병력을 수습한바 모두 176명이 집결되었는데 그나마 대부분의 共用火器를 天安에 遺棄한 形便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제 3대대는 Lantron소령 지휘아래 廣亭里로 철수하여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固守진지를 점령케 하였으며, 연대지휘소는 午後에 公州에 開設하였다.

三龍里陣地의 撤收: 한편 제34연대의 제 1대대와 제21연대의 제 1대대(-)는 敵이 天安을 手中에 넣은 것으로 勝戰에 陶醉되었음인지 낮동안에는 더 이상 侵攻치 않은 까닭으로 接敵없이 三龍里의 遲延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제34연대 제 3대대와 연대본부와 廣亭里쪽으로 떠난 다음인 午後 늦게 연대장 대리 Wadlington중령의 措置에 따라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가 錦江 北岸의 水村里(公州 北쪽 5km)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 제 1대대(-)는 같은 시기에 제21연대장 Stephens대령의 명령에 의거 國道를 따라 全義로 철수하여, 그곳에서 당초 Smith특수임무부대의 後繼兵員인 同대대의 B.C 兩중대 보충병과 合勢케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D중대장 Charles R. Alkire대위의 통합지휘下에 혼성대대로 편성되어, 全義 東쪽 500m의 낮은 丘陵들을 점령함으로써 새로운 진지를 마련케 되었다. 그곳은 전날 同연대의 제 3대대(장, Carl C. Jensen중령) 점령한 진지에서 西北쪽으로 1.5km되는 곳으로서, 그 진지와 全義의 마을 사이에는 논이 가로놓여 있어 그곳을 지나는 本道와 마을을 아울러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는 瞰制의 利를 지닌 곳이었다.

사단장의 措置: 이리하여 이제 사단은 天安에서 한걸음 물러나, 제 21, 제 34 兩연대로써 敵의 攻擊路를 나누어 맡게 된 것인바, 여기서 사단장이 제34연대를 公州정면으로 철수

토록 한 것은 장차 錦江에 沿한 防禦線의 現성을 豫想한 事前措置로 보인다.

즉, 天安을 지난 國道가 杏亭里에서 곧장 東南向하여 全義—鳥致院—大平里—大田으로 이어지고, 杏亭里에 南쪽으로 갈라지는 또 하나의 道路는 廣亭里—公州—論山—大田으로 연결되는 바, 따라서 錦江 南岸의 大平里(鳥致院 南쪽 14km)와 公州(大平里 西쪽 14km)가 敵의 主 渡河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 이 두곳에서 敵의 渡河를 막기로 胸算한 것인 듯 하다.

그런데 당시 사단장으로서의 可用 병력은 大邱에 예비로 控置중인 제19연대 (2개 대대중 1개 대대는 浦項의 延日비행장 警備)와 同연대 지원포병인 제13포병대대를 除外한다면 제 21, 제34 兩연대의 각 2개 대대와 사단수색중대(실병력 輕전차 1개소대) 공병대대와 輕전차 1개중대 뿐이며, 砲兵으로서는 제63포병대대와 제11포병대대(155mm)의 각 1개 포대에 不遇하였다. 그나마 제21연대 1개 대대의 일부(Smith특수임무부대)는 大田에서 整備中이었으므로 사단은 이미 全力을 戰線에 投入한 셈이었다. 그리하여 如何히 한다면 接敵中인 병력을 뽑아 錦江방어선을 占領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여기에 또 江北쪽의 鳥致院을 早期에 拋棄할 수 없는 困厄마저 겹치게 되었다. 즉, 이때까지 右翼의 韓國軍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이 淸州(鳥致院 東쪽 16km)에 지휘소를 두고 그 首都사단(장, 李俊植준장)으로써 嶺川(淸州 北쪽 23km)부근에서 敵을 拒支중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급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鳥致院이 확보되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이에 예비인 제19연대의 轉用을 모색하던 중, 이날 午後에 美제 8군主力의 戰線投入조치의 一環으로 駐日제25사단장 William B. Kean소장이 駐韓美軍사령관인 Dean소장의 命命을 受領하기 위하여 Osaka(大阪)에서 大田으로 空輸되었으므로 同제25사단장에게 이르기를 『貴사단의 先發隊가 韓國에 도착하는 즉시로 大邱의 제19연대와 그 任務를 交代하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단장은 제25사단으로써 일단 예비임무를 수행토록 措置하고, 제19연대를 통합지휘하여 당면한 錦江방어에 專力키로 하였는데, 제34연대로 하여금 최대한 遲延효과를 거두면서 公州로 철수하여 江 南쪽에 방어진지를 점령케 하는 한편 제21연대로써 鳥致院을 확보하여 韓國軍과의 連繫을 圖謀케 하는 가운데 제19연대를 戰線에 加入시켜 大平里에 방어진지를 점령케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사단의 全力으로써 錦江線에서의 決戰을 模索하려는 方針아래 사단장은 이날 낮중에 偶別的으로 하달한 口頭명령을 종합하여 21.45에 作戰命命 제 3호를 下達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단은 어떠한 損失을 무릅쓰고라도 錦江線을 固守하려 한다.
- ② 제21연대는 鳥致院정면에서 敵의 侵攻을 阻止하라.
- ③ 제34연대는 公州로 逐次철수하면서 敵의 侵攻을 遲延하라.

- ④ 제11포병대대 A포대는 제21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⑤ 제63포병대대 A포대는 제34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⑥ 제78전차대대 A중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하라.  
 1개 소대로써 제34연대를 지원케 하라.  
 ⑦ 사단수색중대의 전차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하라.  
 ⑧ 제3공병대대는 제34연대의 철수에 따른 道路遮斷과 錦江에 架設된 모든 교량에 대한  
 폭파준비를 하라.  
 1개 중대로써 제21연대를 지원하라.』

이에 敷衍하여 사단장은 제21연대장에게 強調하되, 『반드시 烏致院을 확보하여야 한다. 右翼의 韓國軍 제1군단이 淸州에 位置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烏致院을 잃으면, 同군단의 西側背를 폭로하고 補給路를 喪失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同군단이 淸州에서 철수할 때까지만이라도 該地를 堅守하여야 한다. 그러나 貴연대는 向後 4일동안은 다른 支援을 一切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在 大田의 陸軍本部로부터 機甲연대대(장, 劉興守대령)의 騎兵 1개 중대를 配屬 받아 제34연대에 再배속시켜 同연대로 하여금 이 騎兵중대를 活用하여 天安 西쪽지역(禮山—靑陽부근)의 敵情을 수집토록 하였는데, 이는 天安을 잃게 되어 京釜 國道の 西部지역이 開放되었으므로 敵이 그 쪽으로 迂回할 가능성이 있다고 判斷한 까닭일 것이다.

그런데 이날까지, 서울을 占領한 敵제1군단(장, 중장 金 雄)의 제3, 제4兩사단은 계속 京釜本道를 따라 南下中인 것으로 推斷되고, 제2사단은 安城에서 鎭川쪽으로 東南向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제6사단만은 그 位置가 不明한 상태여서, 同사단의 動向把握이 喫緊의 急務였다. 何如든 3개대대를 缺如한 6개 대대의 사단兵力만으로써 最少限 10개 대대의 優良裝備의 敵을 큰 打擊을 받은 다음 持久하려는 것이니, 冷徹한 必勝의 算은 期待하기 힘든 것으로 보였다.

#### (다) 全義부근의 戰況(7.9~11)

7월 9일 : 이제 國道沿邊의 不利한 싸움은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가 이어 받게 되었다.

##### 1. 제21연대의 狀況

훈성 제1대대의 狀況 : 전날 天安을 手中에 넣은 敵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이 이날도 國道를 中心으로 南下하여 全義로 侵攻하였는데, 美軍의 抵抗이 점차로 거세어 지게 되자 天安以南에서는 그 前進에 신중을 期하는 듯 하였다.

따라서 全義 東쪽의 丘陵지대에 진지를 점령한 美혼성제1대대는 敵의 隻影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한낮을 넘기게 되었다.

이때에 同혼성대대를 지휘중인 D중대장 Alkire대위는 主力으로써 △134(全義驛 東쪽 1.2 km)에서 西南쪽으로 비스듬히 뻗어내려 國道에 이르는 일련의 稜線에 진지를 점령토록 하고, 그곳에서 西南쪽으로 道路와 鐵道 건너에 있는 오얏高地(全義驛 東南쪽 800m, 표고 100m정도)에 Ray Bixler중위가 이끄는 1개 소대를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이 두 진지로써 그 사이로 東南向하는 國道와 鐵道를 함께 制扼키로 한 것인데 15.00에 敵의 戰車 11대가 全義로 進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空中支援을 요청한 결과, 오래지 않아 제 5 공군의 戰爆機편대가 나타나 그 戰車에 公중공격을 加하였다. 이때에 또 전날 늦게 寶德里(全義 東南쪽 6.5km)부근의 烏川 — 全義 北쪽에서 京釜國道 및 鐵道와 함께 나란히 東南向하여 烏致院 南쪽에서 美湖川과 合流하여 錦江으로 流入하는 錦江支流 — 邊에 진지를 점령하여 지원태세를 갖춘 제 11포병대대 A 포대의 155mm 곡사포와 同혼성대대를 지원중인 4.2' 重박격포가 그들 戰車를 目標로 砲火를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16.50에 11대의 戰車중 5대가 火焰에 휩싸였으며 그 뒤를 따르던 敵의 歩兵도 함께 殲殺되었는데, 이때의 항공관측에 의하면 全義부근에서 모두 12대의 차량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公중공격에 打擊을 입고 釘着되었음인지 敵은 全義부근에 이르러 더 이상 侵攻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지원사격중인 155mm 곡사포〉



그런데 이날 제 3, 제 4 전술항공통제단의 다른 보고에 따르면, 黃昏무렵에 全義와 平澤 사이의 國道에서 200여대의 敵車輛縱隊를 捕捉하여 空中공격을 加한 결과 그중 100여대를 炎上시켰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 공격을 받은 바 있는 敵제105戰車사단(장, 소장 柳京洙)의 政治軍官인 吳基完대위가 뒷날 證言하기를, 『天安 南쪽에서 美軍 航空機 30여대로부터 5시간이나 空中공격을 받아 戰車 15대와 차량 30여대가 파괴되었다. 이것은 開戰以來 美空軍으로부터 입은 가장 큰 損失이었으며, 우리는 對空裝備를 갖추지 않고 乘勝長驅로 내닫기만 하다가 그들 航空機의 좋은 밤이 된 셈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餘波가 그들 南進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와 같이 空中공격으로 敵을 못박아 두고 있을 日暮무렵에 연대장 Stephens대령이 New York Herald-Tribune紙의 特派員인 Homer Bigart記者와 함께 제 1선인 同대대로 달려가, Alkire대위와 A중대장 Earl Babb중위 등과 더불어 그곳의 壕속에서 徹夜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全義의 마을을 점령한 敵을 咫尺에 바라보면서 颯風前夜와도 같은 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이 동안 同혼성대대의 後方인 美谷里부근에 있는 제 3 대대(장, Carl C. Jensen중령)는 전날 終日 진지工事を 실시한 끝에 이날 아침에야 진지편성을 끝내고, 박격포의 사격諸元을 확보하는 한편, 工兵 A중대의 지원을 받아 이리하여금 全義 前方의 모든 교량들을 파괴토록 하는 등 本格的인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 2. 제34연대의 狀況

한편 전날 杏亭里에서 公州로 가는 道路를 따라 철수한 제34연대(장, 대리 Robert L. Wadlington중령)는 제 3 대대로써 廣亭里부근의 진지를, 제 1 대대로써 水村里부근의 진지를 각각 확보케 하여 敵을 기다렸으나, 이날 終日토록 그 正面에서는 별다른 接敵이 없었다. 이로부터 敵은 錦江線의 돌파에 앞서 烏致院의 점령에 主眼을 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韓國軍騎兵중대의 出動: 그런데 전날 사단장 Dean소장의 조치에 따라 機甲연대 騎兵대대 제 6 중대가 大田에서 公州로 出動하였던 바, 그 경위에 대하여 당시의 중대장 朴翽均중위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우리 중대는 漢江線이 부너진 뒤로, 4일 밤을 成歡牧場에서 보내고 5일 밤을 天安에서 새웠다. 6일 저녁에 烏致院 東쪽의 變電所부근에서 연대와 合勢한 다음 7일 아침에 연대는 大田市內로, 그리고 騎兵대대는 大田비행장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8일 밤 늦게 대대장 張哲夫소령이 내게 명령하기를 「明朝, 公州로 이동하여 美제 34연대장의 작전 지휘를 맡으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날 (9일) 아침에 중대는 truck에 馬糧과 SCR-694 無電機 1대를 싣고 公州로 向發하여 오후에 그곳에 도착하였다. 제 34연대 CP(公州中學校인듯)에 가서 배속신고를 하였더니, 연대장이 「公州를 基點으로 禮山—青陽의 三角地域을 수색정찰하여 敵情을 수집, 보고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중대는 중대본

부를 公州師範學校에 定하고 公園에 無電所를 설치하여 大田의 연대와 交信을 유지하면서 禮山으로 출동할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였다.

7월 10일 : 날이 밝자, 全義부근에 때 아닌 腥風이 불기 시작하였다.

### 1. 제21연대의 狀況

훈성 제 1대대의 撤收 : 긴장한 가운데 全義 東쪽의 진지에서 밤을 지낸 연대장 Stephens 대령以下 同훈성대대원은 날이 밝는 즉시로 敵의 攻波가 들이닥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果然 그 예상이 的中하였다.

이날은 例의 새벽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려 논바닥과 道路, 그리고 後線의 구비마다 白布를 낮게 드리운듯 하여, 그로 말미암아 東西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06.00를 前後로 하여, 대대원들은 敵이 陣前으로 다가드는 騷音을 들을 수 있었으나,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敵은 이를 好機로 삼아 일부병력을 은밀히 陣前에 접근시켜, 擾亂사격을 集中함으로써 그 應酬모양을 살펴 진지의 配置상태를 탐지한 다음, 07.00에 박격포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國道 西쪽의 Bixler중위 소대 正面으로 攻擊力을 집중함으로써 그 진지에서 交戰의 銃聲이 먼저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이 4.2" 重박격포로써 同 소대를 엄호토록한 결과, 그 重박격포가 火力의 集中위력을 발휘하여 敵의 제 1波를 격퇴하였다.

그런데 이 동안 敵의 일부가 霧中에 企圖를 秘匿하여 道路 東쪽의 대대 主陣地의 東側方으로 迂回한 다음 박격포진지쪽으로 潛透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진지正面에서 敵의 戰車 1대가 안개속으로 道路의 방어선을 突破하여 그 後方으로 突進하였다.

後線위의 초진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08.00가 지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다음에야 비로소 敵이 동위에 뛰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때가 이미 늦어, 08.30를 前後하여 敵의 보병일부가 戰車와 合流하여 박격포진지를 蹂躪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초진지와 박격포진지 사이에 通信이 杜絶된 가운데 09.00에 敵의 공격이 再開되었다.

그들이 全義 마을로부터 東쪽의 대대초진지 正面으로 기어 올랐다.

이에 砲兵의 火力으로 이들을 막아내어, 어느덧 11.00를 넘기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左側의 Bixler중위 소대정면으로 그들의 衝鋒이 다시 指向된다고 연대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4.2" 박격포의 지원이 끊어져 同 소대를 掩護할 수 없었다.

Bixler중위로부터 火力支援과 增援要請이 빗발치듯 하였으나 연대장은 달리 增援手段이 없었으므로 同중위에게 陣地의 固守만을 嚴命하면서, 空中지원을 要請하여 同소대正面을 엄호토록 한바, 11.30에 出擊한 空軍機가 道路에 늘어선 敵 戰車에 Rocket彈을 퍼붓고 後線을 기어오르는 敵 頭上에 機銃掃射를 가하여 그 狂波를 잠시나마 彌縫할 수 있었다.

이같은 航空機의 地上戰參加로 박격포진지에 뛰어 들었던 敵의 戰車가 격파되고, 그들 보병 역시 芟除되었지만, 박격포들은 끝내 그 機能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까닭으로 同박격포소대원들은 前方의 主陣地로 올라가 보병과 合勢하고 말았다.

그런데 航空機가 곧 基地로 귀환하자 Bixler소대에 대한 敵의 공격이 계속되었는데, 이때에 敵의 砲火가 熾盛하여, 연대장의 無電車와 FO의 무전기가 파괴됨으로써, 바로 그 後方에 있는 제 3대대와 砲隊에서 대대의 苦戰상황을 헤아릴 길 없는 상태로 惡化되었다.

이에 대대의 진지가 瓦解되었다고 판단한 제 11포병대대 A포대가 대대의 진지에 사격을 퍼붓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主진지에 버티고 있던 연대장 以下 대대원이 壕속에서 束手無策으로 敵과 我軍의 兩쪽 砲火를 同時에 뒤집어 쓰는 逆境에 빠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主진지의 대대원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左側의 Bixler중위 소대는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마침내 敵의 包圍網속에 들게 됨으로써 12.00를 前後하여 同소대장을 비롯한 소대원 全員이 玉碎하게 되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 主진지에서는 正面의 敵의 壓力과 我軍砲火의 誤着彈에 견디다 못하여 진지를 離脫하는 병사가 續出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Stephens대령은 陣頭에 나서서 그 병사들을 수습하면서 진지固守를 督勵하였으나 결국에는 연대장과 중대장등 몇몇 장교와 병사들만이 제 1선에 남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하는 수 없이 연대장이 대대의 철수를 명령하게 되었는데, Bigart記者의 記錄에 의하면 이때가 12.05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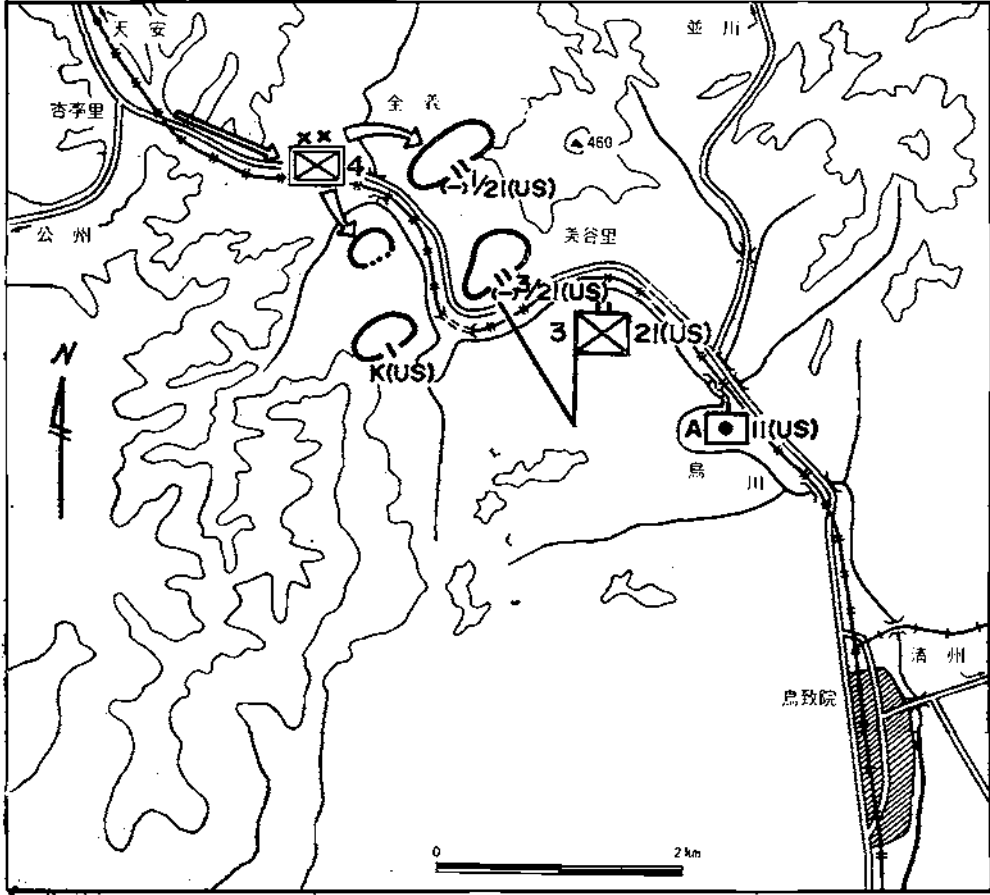
그리하여 연대장과 나머지 대대원이 同主진지 東南쪽에 가모 농인 개활지를 건너 美谷里 부근의 제 3대대(장, Carl C. Jensen중령)진지로 철수케 되었다.

그런데 그 개활지는 모두가 물이 가득한 논이어서, 그곳을 지나는 병사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논바닥에서 허우적거리거나 미끄러운 논두렁을 타고 마치 曲藝를 하듯 달려야만 하였는데, 이때에 美空軍의 jet機 2대가 나타나, 이 撤收병력을 敵으로 誤認하여 機銃掃射를 加함으로써 또 한번 二重苦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전날이래 始終 연대장과 행동을 같이한 바있는 Bigart記者는 7월 12일 New York Herald-Tribune紙에 실은 「From a Foxhole in Korea」라는 題下의 速報記事에서 말하되 『항공기의 機銃掃射가 계속되는 동안 썩은 논물이 가득한 논바닥에 얼굴을 박고 죽은듯이 옆드려 있어야 하였으니, 이들 철수병력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평생 벼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때부터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 3대대의 逆襲 : 이리하여 제 3대대진지로 철수한 연대장 Stephens대령은 대대장 Jensen 중령에게 『즉시 逆襲을 감행하여 혼성제 1대대의 진지를 奪還하라.』라고 명령한 다음, 철수병력과 함께 烏致院의 연대CP로 復歸하여 同혼성대대의 중대로 하여금 시급히 戰列을 가다듬도록 조치하였다.

◇ 상황도 제 9 호 全義附近的 狀況(7.10)



그런데 이날 저녁 鳥致院에서 이 혼성대대가 병력을 점검한 결과 A중대는 181명중 27명이 負傷을 입고 30명이 失蹤되었으며, D중대는 3명이 戰死하고 8명이 負傷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박격포는 모두 遺棄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날 이 대대는 20%의 손실을 본 셈이 되었다.

한편, 연대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제 3대대장 Jensen중령은 14.00에 제 78전차대대 A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대대 全力을 이끌고 西北쪽으로 나아가, △134부근에서 진지를 재편중인 敵을 무찌르고 당초의 혼성대대 주진지를 다시 手中에 넣었다. 그러나 國道西쪽의 Bixler중위 소대의 진지는 회복치 못한채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곳에서 防禦태세로 밤을 지새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同진지에 進入하게 되자, 그때까지 그곳에서 철수치 않았던 A와 D兩중대원 10여명을 壕속에서 구출하였는데, 어떤 壕속에서는 捕縛을 당한 병사들이 머리에 銃

탄을 맞아 죽어있기도 하여, 捕虜에 대한 虐殺을 서슴치 않는 敵의 正體가 白日下에 들어 나기도 하였다.

저녁무렵, 연대장이 제 3대대의 이와 같은 진지회복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사단장은 敵이 目下 全義에 집결중인 것으로 보아, 同제 3대대가 敵과 너무 近接한데다가 그 西南쪽의 진지 일부가 敵手中에 있는 것을 參酌한 결과 그들이 夜襲을 企圖할 公算이 크다고 판단한 나머지 20.45에 연대장에게 이르되 『상황에 따라, 賫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同제 3대대를 새벽전에 逐次진지(당초의 대대진지)로 철수토록 하라. 然이나, 本官은 烏致院의 중요성을 賫官에게 다시 한번 喚起시키는 바이다. 烏致院을 상실하면 韓國軍의 보급로를 잃게된다는 것을 銘心하라.』라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사단장은 大田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중인 同연대의 제 1대대(Smith특수임무부대)를 烏致院으로 急遽 추진하여 本隊에 合勢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 3대대로 하여금 夜暗을 타서 당초의 대대진지로 철수토록 하였다.

그런데 그 한 시간 뒤인 21.30에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贊旨의 電文을 보내었다.

『烏致院 北쪽 3km(松谷里 東쪽 高地)에 逐次저지선을 甞성하라. 不得已한 경우 이 線까지 撤收하되, 明日 하루동안은 이 線을 期必로 支撐해낼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이날 제25사단의 선발대인 제27연대(장, John H. "Mike." Michaelis중령)가 釜山에 상륙하였으므로 다음 날 중으로 大邱의 제19연대(장, Guy S. Meloy, Jr. 대령)와 임무교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同제19연대의 戰線投入에 대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烏致院 北쪽에서 최소한 하루를 더 支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結果 인듯하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단장의 조치에 따라, 제 3대대는 子正直前에 혼성대대의 진지에 遺棄된 장비들을 回收하여 原진지로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同대대가 당초의 진지를 다시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道路 西쪽의 K중대 진지에서, Bixler중위 소대진지를 손에 넣은 敵이 同중대가 그곳을 비운 틈을 타서 손에 넣은 듯, 1개 소대규모로써 그곳의 主人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K중대가 이들과 1시간 가까이 角逐戰을 벌인 끝에 同진지에서 이 敵을 몰아내고 이를 다시 차지하였다.

대대는 새로이 진지工事を 實施하고 道路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진지 補完작업으로 밤을 새웠다.

## 2. 제34연대의 狀況

그런데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敵제 3사단(장, 소장 李英鎬)은 이날 밤 늦게야 全義로 後續하여 進出한 바, 여기에서 敵제 4사단과 임무를 交代하였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國道の 제21연대 正面은 同제 3사단이 맡고, 제 4사단은 杏亭里로 되돌아가 公州道路를 따

라 제34연대를 추격키로 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따라서 이런 까닭으로 제34연대(장, 대령 Robert L. Wadlington중령)는 이날까지도 별다른 接敵없이 廣亭里와 水村里까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그 일부로써 公州경찰병력과 함께 錦江南岸에 방어진지를 마련하는 한편, 공병으로써 道路阻絶과 교량복과의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전날 公州에 도착한 騎兵제 6중대(장, 朴翊均중위)는 이날 날이 밝자 중대장이 직접 제1소대(장, 金寬燮소위)를 이끌고 한걸음 먼저 禮山으로 進出하여, 禮山國民學校를 수색 據點으로 삼아 天安—禮山도로를 수색하였으나 敵의 隻影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중대장 朴翊均중위는 저녁에 禮山支署의 警備電話로써 公州의 중대를 불러, 다음날 主力을 모두 禮山으로 집결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하여, 全義부근에서 敵을 하루 더 막아내었거니와, 이날 特記할 것은 제21연대 제3대대의 逆襲을 지원한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M-24輕戰차가 처음으로 全義 南쪽 本道에서 對전차戰을 벌였다는 것인데, 敵의 T-34전차에는 敵手가 되지 못하여 2대가 파괴되었지만, 敵의 것도 1대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美공군이 大量공중強打를 시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날 午後에 F-80 jet 機 1대가 平澤부근에서 國道를 따라 南下中인 敵의 차량縱隊를 포착코 이를 제5공군사령부에 보고한 바, 이에 제5공군이 可用한 戰爆機를 총동원하여, 그 차량중대를 空中攻擊케



〈步兵을 支援中인 M-24 輕戰車〉

한 결과 戰車 38대와 自走砲 7대 그리고 truck 117대를 파괴하였다는 戰果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 戰果의 精確한 數値는 扞置하고라도, 이러한 大量空襲은 전날에 그것과 더불어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남음이 있는 일이라, 이로부터 敵의 晝夜轉倒의 進攻方式이 비뚤되었다는 것이다.

7월 11일 : 이날로써 사단은 錦江以北에서의 抵抗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 1. 제21연대의 狀況

제 3대대의 互解 : 이날 새벽에 美谷里 부근의 진지를 다시 점령한 제 3대대(장, Carl C. Jensen중령)는 날이 미처 밝기전에 敵의 攻波를 맞이하게 되었다.

질은 曉霧中에 挑戰하는 銃聲을 울린 그들의 銳氣가 자못 날카로왔는데, 이는 漢江線을 돌파한 뒤로 줄곳 그들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을 後續하다가 前線에 새로이 그 모습을 들여다게 된 제 3사단(장, 소장 李英鎬)의 제 1營 까닭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者들은 前例없이 步·戰·砲의 協同을 이루는 가운데 대대陣地에 대한 정면 돌파와 측면 포위의 手法으로써 대대를 단번에 窮地로 몰아 넣었다.

그들은 전날 저녁에 一時 K중대의 진지를 점령하였을 때에 그 東쪽에 있는 대대主진지의 配置상황을 窺察하여 대대의 병력配備상태와 지휘소의 위치등을 事前에 看破한듯, 먼저 野砲와 重박격포로써 진지 東南쪽의 도로변에 위치한 지휘소부근에 집중포격을 加하여 통신원급소와 탄약저장소를 폭파하였다. 그리하여 通信所의 機能이 癱痺되고 탄약이 連鎖폭발케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대본부병력의 殆半이 殺傷되었다.

이와 같이 敵은 대대의 통신단절을 먼저 꺾은 다음 戰車로써 도로를 따라 中央突破를 시도하는 同時에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으로써 진지 左右의 側方을 포위공격 하였는데 이때에 또 그 일부로써 東쪽으로 멀리 迂回하여 지휘소 後方의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負傷兵의 후송이나 탄약의 再補給을 妨害하였다.

따라서 初動에 통신수단을 잃은 대대는 前方의 관측병이 좋은 目標을 눈앞에 두면서도 支援砲隊에 이를 알릴 길이 없어 발만 구르게 되었는데, 06.30前後에 戰車 4대가 지뢰지대를 뚫고 道路를 따라 突貫함으로써 戰況의 急轉直下로 紛戰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더욱고 K중대에서는 敵이 중대본부근처까지 육박하여 機關銃으로 대대의 退路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기관총을 撲滅코자 Paul R. Spear일병이 권총 하나만을 몸에 지니고 單身 기관총좌로 기어갔다, 敵兵과 正面衝突한 다음에야 비로소 권총에 실탄裝填이 아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判那 그것을 진채로 敵 기관총射手를 내려치는 格闘를 벌인 끝에 기어코 기관총을 沈黙케 하였으나 그도 곧 敵의 사격을 받아 重傷을 입었다.

이와 같은 捨身敢鬪를 한 Spear일병에게는 9월 7일에 極東軍 일반명령 제55호로 D.S.O 勳章을 수여되었거니와, 이러한 混戰상태가 正午 가깝도록 계속되니, 마침내 대대진지가 모두 유린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하는 수 없이 各個別的으로 진지에서 離脫하여 烏致院으로 철수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장 Jensen중령과 S-2 Leon J. Jacques, Jr. 중위가 敵彈으로 戰歿하는가 하면 L중대장 O'Dern T. Cox대위와 대대 S-1, S-3등이 失蹤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東南으로 빠지는 國道가 대대지휘소 후방 1km에서 敵에 차단됨으로써 일부는 南쪽으로 鳥川을 건너 退路를 찾게 되었으며, L중대 제 1소대장 Carl F. Bernard소위등 일부는 東쪽으로 敵의 도로 차단망을 강행돌파하여 午後에 烏致院에 집결하였다. Bernard소위는 본시 제 1대대의 B중대 제 2소대장으로 대대장 Smith중령과 함께 Smith특수임무부대의 일원으로 竹美고개전투에 참가하였다가 大田에서 부대 再編時에 제 3대대의 소대장이 된 靑年將校였다.

이날 烏致院에서 수습된 대대병력은 당초 667명 가운데 장교 8명과 사병 142명밖에 되지 않았다. 뒷날 洛東江線에서 攻勢로 移轉한 美軍의 제 1기갑사단 제 5기갑연대가 9월 29일에 이 美谷里지역을 다시 收復한 바, 그때까지도 많은 美軍이 이 진지의 壕 속에서 주검이 되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날의 懷絶한 血戰상황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하였거니와, 이날 대대는 지원중이던 戰車 2대가 파괴된 것을 비롯하여 병력 60%와 장비 대부분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Stephens대령은 이들 대대원 150명으로써 1개 화기중대와 3개 소총소대를 임시편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15일까지 322명이 실종중 복귀하여 병력 손실은 半減되었지만, 전날 혼성제 1대대와 함께 이날 대대가 잃은 武器는 2개 보병대대를 장비하기에 충분한 數量이었다고 하니, 이날까지 연대가 입은 打撃의 정도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1대대의 狀況** : 한편 전날밤에 사단장으로부터 烏致院 北쪽 3km線까지의 撤收를 內諾 받은 연대장 Stephens대령은 제 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가 大田에서 烏致院에 도착하는 대로 이를 그곳에 投入하여 새로운 阻止진지를 마련토록 하는 가운데, 前線의 제 3대대로 하여금 接敵을 유지하면서 철수케 함으로써 同線에서 이들을 收容하여 최대한으로 버티어 내기로 하였는데, 새벽에 Smith중령이 B, C兩중대를 이끌고 烏致院에 當到하였으므로 그곳의 A, D중대를 통합지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 1대대장 Smith중령은 여기서 비로소 全대대를 지휘케 된 바, 07.30前後에 國道를 따라 北上하여 松谷里(烏致院 西北쪽 3km) 부근의 鳥川 南岸에 있는 無名고지(표고 170m)를 점령한 다음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전날 혼성제 1대대의 交戰결과 제 3대대의 接敵철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었으



나 前述한 바와 같이 이날은 상황이 急轉하여 同대대가 正午를 넘기지 못한채 潰滅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제3, 제1 兩개대대로써 逐次阻止한다는 연대장의 당초계획이 烏有化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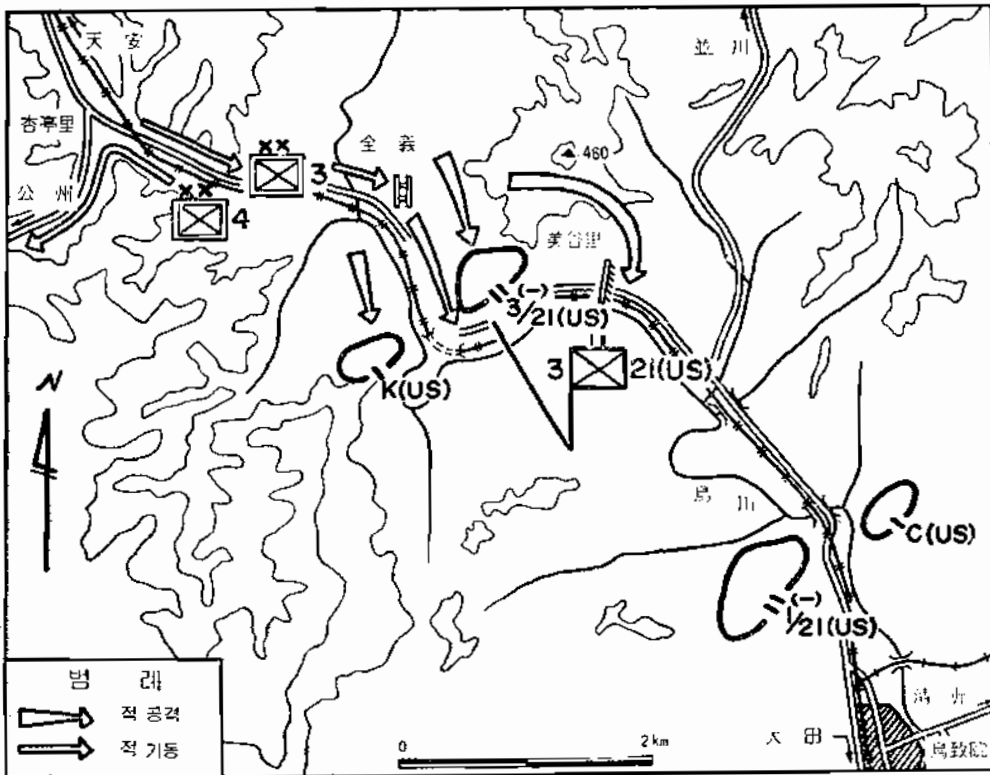
이리하여 연대장은 寶德里(松谷里 北쪽 2km)부근의 제11포병대대 A포대를 烏致院 南쪽으로 뽑아 前線支援을 계속케 하는 가운데 松谷里부근의 제1대대에 마지막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대 역시 竹美고개에서 瓦解되어 大田에서 대부분 新兵으로 補充된 것이므로 戰鬥力의 반휘를 크게 기대하지 못할 실정이었다.

그런데 敵도 이날 美谷里부근에서 頑強한 抵抗을 받은 탓인지 해가 지도록 松谷里線에 나타나지 않아 대대는 그곳에서 不安한 하루 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한편, 사단장은 大邱와 浦項의 제19연대 및 제13포병대대를 大田에 집결토록 하고, 이들이 移動하는 동안 제1선의 戰況을 지키 보았는데, 저녁이 되자 全義 南쪽 제21연대 제3대대의 참담한 敗戰보고에 接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사실상 烏致院의 운명이 時刻을 다투게 되었음을 깨닫고, 工兵으로 하여금 烏致院에서 錦江에 이르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토록 하여 同연대의 철수를 掩護케 함

◇ 上覽도 제10호 美谷里附近의 狀況(7.11)



으로써 이의 鳥致院 철수에 따른 後續措置를 강구하였다.

## 2. 제34연대의 狀況

한편, 全義에서 行首를 公州도로로 轉向한 敵제 4사단은 이날 비로소 廣亭里로 들이닥쳤다.

이에 그곳에 있는 제34연대 제3대대(장, 대리 Newton W. Lantron소령)는 輕戰끝에 곧 錦江 南쪽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水村里에 남은 제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는 제78戰車대대 A중대의 M-24輕전차 1개소대의 지원下에 마지막 지연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제3공병대대 D중대가 錦江에 이르는 도로의 교량을 모두 폭파하고 道路阻絶을 設備하는 가운데, 敵 砲火에 戰車 2대가 파괴되었을 뿐 대대는 별다른 接敵없이 밤을 넘기게 되었다.

騎兵중대의 維鳩戰鬪: 연대에 배속중인 機甲연대 騎兵제 6중대(장, 朴翊均 중위)는, 전날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날 아침 07.00에 중대主力 2개 소대가 公州를 출발하여 禮山으로 向하다가 維鳩(禮山 東南쪽 16km)에서 敵 2개 중대를 急襲함으로써 兇猛적인 타격을 加하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당시의 소대장 趙敦鐵소위의 證言에 의하면 그 상황은 이러하다.

『公州에는 중대본부요원만 남겨놓고, 主力은 모두 禮山으로 출발했는데, 錦江을 건너 山亭里(維鳩 南쪽 4km)부근에 이르니, 어느 다리 밑에 民間人 한사람이 죽어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國軍이 죽이고 갔다.」고 했으므로 彈皮를 조사해 보니 다발총탄이었다. 다시 확인해 보니 敵이 우리 jeep차를 타고와서 殺害한 것이었다. 그래서 敵이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두 下馬하여 도로를 따라 徒步로 進軍하였다. 얼마 안 가서 jeep차가 앞에서 달려오는 것이 보여 기다리고 있다가 急襲을 한 결과 敵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 잡았다. 그 者를 신문해보니 「제 6사단 遊擊백몇부대인데, 2개 중대로써 維鳩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어느 住民이 「人民軍이 지금 維鳩우체국장과 義勇소방대장을 人民裁判해서 죽인 다음, 維鳩國民學校에서 환영식을 열고 있다.」는 情報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崔文鎬소위와 함께 維鳩마을 南쪽 於口에 기관총 2정을 추진시켜 이의 掩護下에 먼저 마을 西南쪽으로 과수원이 있는 작은 高地를 점령한 다음 마을을 공격키로 하고, 도로에 沿한 堤방을 따라 은밀히 과수원고지를 점령하고 보니 敵보초 2명이 술에 취해서 졸고 있었다. 그 보초를 처치한 뒤, 高地에서 마을을 내려다본 즉, 국민학교의 校庭에 2개 중대규모의 敵兵이 모여 있었다. 그 환영식으로 접근해서 일제사격을 加하면서 들이치니, 敵이 당황해서 抵抗도 하지 못했다. 당시에 敵이 얼마나 놀랐던지 敵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기도 했다. 나는 성미가 급해서 소대원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서 敵을 쫓아 달려가다가 눈두렁 건너편에 엮드려 있던 敵 5~6명과 딱 마주치게 되었다. 반사적으로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彈丸이 없었다. 그래서

순간 機智를 발휘하여, 덮어놓고 큰 소리로 「이놈들! 손 들어라!」하고 호령했는데 그러자 그 氣勢에 놀랐던지 敵이 엉겁결에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결국 그 敵兵들은 뒤따라오던 소대원에게 射殺되었지만 그 정도로도 敵은 당황해 있었다. 그 戰鬪는 한시간만인 13.00에 우리쪽의 一方的인 승리로 끝났는데, 戰場을 정리해보니 敵의 시체 60여구가 확인되었고, 소총도 60여정이나 노획하였다. 그리고 우리 것인 jeep차 1대를 回收하고 차량 2대를 파괴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쪽의 戰死者는 한명도 없었고, 소대의 金聖經 하사 1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이때 敵은 피해 숨어있던 維鳩支署長이 돌아왔으므로 그에게 治安을 맡기고, 경찰병력을 수습해서 특히 東北쪽의 溫陽으로 가는 도로를 경계토록 한 다음 17.00쯤해서 우리는 다시 西北쪽의 禮山으로 갔다.』

이렇듯 騎兵중대(-)는 뜻하지 않은 敵을 만나 白晝의 奇襲으로써 戰果를 거두게 되었거니와, 이로써 敵제 6사단(장, 소장 方虎山)의 侵攻路가 西海岸을 따라 湖南地方으로 指向되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니, 이 사단은 그들이 서울을 占領한 뒤로 그 所在가 杳然하여, 美제 8군의 情報보고에도 이날까지 「所在不明」 혹은 「錦江 西北쪽에 예비로 控置中」이라고만 하였던 것이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제21연대 제3대대가 全義부근에서 크게 敗한 다음 날인 7월 12일 午後에 鳥致院 北쪽에 홀로 남았던 同연대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 역시 2,000여명으로 推算되는 敵으로부터 東·北·西의 三面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同연대장 Stephens대령은 그 대대로써 진지의 固守만을 고집할 경우, 전날 제3대대의 前轍을 밟게 될 것이 明若觀火한 事實이라 하여 대대를 철수시키기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同대대로 하여금 鳥致院으로 집결하여 차량便으로 錦江 南쪽의 大坪里로 철수토록 措置한 다음, 12.00에 이같은 상황을 在大田의 사단장에게 보고 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 대대장 Smith중령은 敵과의 交戰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1개 중대씩 한꺼번에 陣地에서 뿔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尾撃을 同時에 끊도록 하였다. 이에 대대는 철수중 接戰 없이 鳥致院부근에 집결하여, 연대CP부근에 敵 포탄이 炸裂하는 가운데 그곳을 떠나 車輛으로 京釜本道를 따라 錦江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전날에 제19연대를 大田으로 집결토록 명령한 사단장 Dean소장은 이 연대로써, 제21연대가 鳥致院에서 철수하는 동안에, 錦江 南岸의 大坪里부근에 진지를 점령키로 하였으나, 이들의 大田집결이 늦어져 이날 제21연대가 江을 건너 넘어설때까지도 大坪里에 當到치 못하였다.

이에 하는 수 없이, 江을 건너 제21연대가 大坪里에서 再수습된 325명의 병력으로써 (제1대대원 261명, 제3대대원 64명) 江南岸의 堤防에 沿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케 되었다.

한편 11일에 公州로 빠진 제34연대(장, 대령 Robert L. Wadlington 중령)는 먼저 錦江을 건너 제3대대로써 公州부근에 진지를 점령케 한 뒤 12일 日沒무렵에 江의 北쪽에 남겨 놓았던 제1대대를 철수시키고 21.00에 江에 가로 놓인 錦江橋를 폭파하여 徑間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이 연대 역시 제21연대와 같은 날에 모두 錦江 南쪽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11일에 維鳩에 闖入한 敵을 크게 무찌른 바 있는 騎兵중대(장, 朴翹均중위)는 이날(12일) 아침 驪山을 떠나 維鳩를 거쳐 오후에 다시 公州로 復歸하게 되었는데 22.00에 錦江北岸에 이르자 이미 교량이 파괴된 다음이므로 馬匹의 渡江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江의 西岸을 따라 밤 새 말을 달려 이튿날인 13일 새벽에 扶餘의 對岸에 이르러, 그곳에서 배를 구하여 江을 건너, 14일 아침에 公州의 제34연대와 다시 合勢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12일 오후에 錦江 南쪽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거니와,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의 2개 대대로써 敵제 3, 제 4 2개 사단을 鳥致院 北쪽에서 3일동안 遲延시킨 셈이 되었다.

그러나 12일 鳥致院을 喪失케 됨으로써 사단장 Dean소장은 憂慮한 바의 결과가 극시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東쪽의 淸州에서 敵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의 衝鋒을 막고 있던 首都사단(장, 金錫源 준장, 7월 8일 李俊植준장과 交代)도 이날 淸州에서 물러났다.

이리하여 敵은 이날 밤중으로 제 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을 大平里정면에, 제 4사단을 公州정면에 各各 展開한 다음 錦江의 渡河를 노리게 되었으며, 사단은 2개 연대로써 이들 敵 2개사단을 맞아 다시 攻防을 겨루게 된다.

## § 戰 訓

### (1) 緒戰에 있어서의 兵力運用에 대하여

우리 國防上의 一朝有事時에 있어서 海外에 있는 友邦軍이 支援하는 形態는 空中과 海上의 兩面同時 또는 個別의 두가지 밖에는 있을 수 없다. 初一擊이 空襲으로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戰爭開始에 있어서는 제24사단이 2개대대의 연대로써 建制를 維持하지 못하고 그것마저 逐次로 매우 散漫한 戰團加入의 拙劣相을 餘地없이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裝備가 充實하지 못하고 將兵들의 參戰意識도 또한 稀薄하여 『乃公이 나아가면 鎧袖一觸으로 문제없다.』는 調의 虛荒된 印象을 보여준 것은 슬픈 일이었으며 他力依存의 實相이란 大概 이와 같은 것이 常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개대대를 지휘하는 연대장의 指揮能力은 1/3의 削減이 아니라 1/2以上の 能力減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접결되지 못한 兵力을 이리저리로 糊塗하는 것은 用兵上의 重大한 過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兩頭指揮의 弊端에 대하여

平澤—鳥致院사이에서 제24사단이 一週日동안 벌인 遲延戰은 당시 사단의 力量에 비추어 最善을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34연대(장, Jay B. Lovless대령)가 7

월 6일 하루만의 阻止끝에 平澤—天安의 20km가 넘는 거리를 抵抗 한번 보이지 않고 그대로 撤收하고 말았다.

平澤정면의 同연대 제 1대대가 陣地를 早期에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且置하고라도 同대대의 예비인 C중대와 연대의 예비인 L중대등을 活用하여 보지도 못한채, 더우기 接敵이 없었던 安城의 제 3대대마저 天安으로 뺏고 말았다는 것은 敵으로 하여금 天安점령의 시간을 단축을 단축케 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 이튿날인 7일에 사단장 Dean소장이 同연대장을 更迭한 理由의 하나도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分析되는데,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게 된 素因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 사단장이 安城—平澤線의 固守方針을 취하 지휘관들에게 명확하게 周知시키지 못하고

둘째, 一線지휘관이 사단장의 意圖를 明察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部隊間에 情報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단장이 參戰榜頭에 포병사령관 내리(실은 제25사단 포병사령관임)인 Barth준장에게 지휘권의 일부를 委任함으로써 이 兩지휘관의 판단과 腹案이 相馳를 빚게 되어, 사단장의 명령대로 履行중인 연대장 Lovless대령에게 Barth준장이 掣肘를 가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에 當面한 敵情이나 장차 상황의 推移를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휘권의 委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단당은 5일 저녁에 平澤의 제34연대 제1대대 지휘소에서 Barth준장과 만났을 때, 그 時刻부터 지휘권은 自身이 되찾아 一元化를 期하였어야 마땅하였을 것이며, 不然이면 그 자리에서 그의 腹案을 확실하게 밝혀서 Barth준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충실한 分身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結論적으로 제34연대의 天安철수는 兩頭지휘의 弊端이 露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두 사람의 良將이 한 사람의 惡將보다 못하다.』는 箴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 § 研究

### ◇ 제34연대 지원野砲의 出處

本節은 주로 美제24사단의 戰鬪사항을 取扱한 것이므로 1961年版 美公刊戰史 제1집인 「South to the Noktong, North to the Yalu」를 기본자료로 삼고, 그 밖의 단편적인 記錄을 添加하여 再構成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런데 前掲書에 의하면 7월 7일에 제34연대가 天安에서 느닷없이 野砲 1문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砲의 出處나 砲種에 대하여서는 及된 바가 없어 詳考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놓고 推斷컨대, 이는 Smith특수인부대의 一員으로 7월 4일에 竹美고개로 출동한 제52포병대대 A砲隊의 제6번砲(105mm)가 아닌가 한다.

① 同포병대대장 Perry중령이 뒷날 證言한 바에 의하면(前掲書 68p) A포대 제6번포가 平澤에 먼저 도착하였으므로 同砲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砲 5문만을 竹美고개쪽으로 推進하였다고 한 點(前節 참조)

② 그러나 同砲가 平澤에 계속 남아있었는지, 또 同砲를 제34연대 제1대대가 平澤에서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同砲가 어떻게 天安으로 철수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及된 바가 없다는 點

③ 同제34연대 지원의 제63포병대대는 7월 21.00에 天安 南쪽에 도착하였으며, 그 前에는 砲兵이 지원되었다는 記錄이 없다는 點

④ 7일 낮 제34연대장 Lovless대령이 天安에서 한 포병장교로부터 砲(gun) 1문이 있다는 報告를 받고, 同砲를 直射火器로 사용토록 措置하였다는 點(前掲書 83p)

따라서 이 砲는 6일 새벽에 同포병대대장 Perry중령이 安城에서 平澤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그곳에서 同砲를 미리 뽑았거나, 아니면 同日午前 그곳의 제34연대 제1대대와 함께 天安으로 철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記錄이 전연 비치지 않은 것은, 이 砲가 홀로 本隊와 떨어져 있게 된 탓으로 — 그 理由는 알 수 없지만 — 觀測기능이 없어 사격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까닭에, 누구도 이에 대한 關心을 두지 않았던 所致로 여겨진다.

### ◇ 제34연대의 天安陣地 점령시간

本文 7월 7일자 記事의 근거가 되는 前掲書의 내용 가운데 前後의 矛盾된 점이 없지않아 이를 바로 잡아 보았다.

즉, ① 前掲書 83p에 보면, 제34연대장 Lovless대령이 天安의 연대지휘소에서 16.00發 사단장의 通信文을 받고, 그곳에 와 있던 Martin대령과 함께 그 통신문의 내용(安城부근의 敵情에 關한 것 本文 參照)을 제1대대장 Ayres중령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 同대대 지휘소로 가보니, 副사단장 Menohor준장과 Church준장이 그곳에 있었으며, 거기에서 연대장의 交代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는 바, 교대시간은 84p에서 18.00라고 하였다.

② 그리고 같은 84p에서 同연대 S-3인 Dunn소령의 행적을 추적한 바, 그는 그러한 연대장의 交代가 있기 전에 이미 前方의 제3대대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는데, 정확한 시간은 明示되지 않았지만, 同대대의 상황이 실상치 않아서 연대지휘소로 돌아간 즉, 낮선 대령(Martin대령)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며, 그 대령의 명령으로 철수중인 제3대대를 수습하여 다시 前方으로 나아가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다고 하였다.

③ 그런데 85p에 보면, 同제3대대가 天安에 방어진지를 점령한 것은 17.00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Lovless대령에 관한 記錄은 1958. 8. 7에, 그리고 Dunn소령의 것은 1954. 6. 17에 各各 얻은

本人의 證言을 土臺로 한듯 하며, 제 3대대의 진지점령에 대한 것을 1950.7.7日 同연대의 戰鬪日誌를 典據로 삼은 듯 한데, 이들 기록상에 제 1대대 지휘소의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제 3대대의 天安진지 점령시간을 17.00라고 한 대목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제 1대대 지휘소 位置 문제: 7월 7일 현재 제 1대대 지휘소가 어디에 位置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어디에도 말及된 바가 없다. 따라서 推斷컨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를 想定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同제 1대대는 전날(7월 6일)에 Barth 준장의 조치에 따라 平澤에서 철수하여, 天安南쪽의 三龍里부근에 제 21연대 제 1대대의 일부와 함께 진지를 점령하였으므로 同대대 主力과 더불어 그 지휘소를 三龍里부근에 두었으리라는 것.

둘째, 병력은 三龍里부근에 두고, 지휘소는 天安邑內에 개설하였으리라는 것.

셋째, 이날(7일) 오전에 제 3대대가 天安을 비워놓고 平澤쪽으로 北進하였기 때문에 이 空白을 補填하기 위하여 三龍里의 제 1대대일부를 天安으로 추진하였다고 보면, 午後에는 同제 1대대의 지휘소와 병력이 天安邑內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대장의 交代명령서를 傳하기 위하여 大田을 떠난 副사단장이 어찌하여 연대지휘소가 아닌 제 1대대 지휘소로 갔는가 하는 점을 勘案한다면, 제 1대대 지휘소가 연대지휘소보다 南쪽인 三龍里부근에 있었던 까닭에 그곳에 먼저 들리게 되었다는 推理가 가능하므로 同대대의 지휘소는 당시 三龍里부근에 있었다는 것이 有力觀된

다. 그러나 당시 연대장은 사단장의 通信文에 따라 天安東北쪽의 敵營이 急變한 것을 급히 알려야 할 立場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첫번째나 두번째 보다는 세번째의 경우가 오히려 더 妥當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本文에서는, 副사단장이 어떠한 까닭으로 제 1대대 지휘소로 먼저 갔는지는 밝혀지 못하였으나, 세번째의 경우로 推斷하여 同지휘소가 天安邑內에 있었던 것으로 하였다.

제 3대대의 天安진지 점령시간 문제: 앞서의 ①, ②, ③ 세가지 記錄 가운데 17.00에 제 3대대가 天安에 진지를 점령하였다는 ③은, ①에 의하면 아직 연대장의 交代가 이루어지기 前의 일이 될 것이니, 이 시간을 고집할 경우 연대장은 제 3대대의 撤收상황에는 吾不關焉으로 지휘권의 인계인수만을 하였다는, 理致에 合當치 않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②와 ③의 前後 文脈의 흐름으로 보아 제 3대대가 天安에 진지를 점령한 것은 Dunn소령이 新任연대장 Martin대령의 명령을 받고, 철수 중인 제 3대대병력을 수습하여 陣地회복차 前方으로 나아가다가 負傷을 입은 그 以後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前後가 倒錯되는 時差의 모순성을 排除하기 위하여서는 ①에 있어서 사단장 通信文의 發信時間과 연대장交代시간을 앞당기거나 ③의 제 3대대 진지점령시간을 늦추는 것 뿐이므로, 本文에서는 ③의 진지점령시간을 19.00로 고쳐잡았는데, 이 17.00는 19.00의 誤植이거나 아니면 어떤 錯誤가 아닌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 3. 韓·美 戰線의 一般的인 趨勢

참조: 별책부도 제 2, 3 호

상 황 도 제 11~16 호

本節은 京釜國道沿邊의 作戰을 美地上軍이 專擔하고, 國軍은 中部以東으로 轉進하여 美軍과 合同作戰을 벌이게된 初期의 狀況으로부터 UN軍의 統合作戰에 들어간 前後의 經過를 大략적으로 一括하였다. 따라서 이 期間동안 戰線의 激變하는 過程에서 屢次의 부대 改編과 再配備로 因하여 建制가 加減分合되고 離散無常하는 現象을 빚게 되었는바, 本節은 이를 整理하여 以下各章의 흐름을 明示하고 遲延戰의 推移를 概觀하여 全般狀況을 손쉽게 把握토록 한것이다. 따라서 細部の 戰況을 糾明하기에 앞서 本節부터 먼저 一瞥한다면 複雜無雙한 交戰의 片貌를 能히 大觀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敵의 企圖判斷

漢水以北을 掠占한 北傀는 一般情勢를 觀望하면서 새로운 謀議(前節參照)에 들어간듯 하였으나 6월 30일에 美行政府가 地上軍을 派韓키로 決定을 내린 때를 맞추어 이른바 “제 2 차 侵攻作戰”을 強行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方針을 내세웠다.

즉 『美軍이 增援되기 以前에 漢江을 強行渡河하여 永登浦—水原—平澤方向으로 打擊力을 指向하고…寧越—堤川—忠州—安城—平澤지역을 占領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이날 夜間부터 제 3, 제 4 兩사단으로 漢江線을 強行渡河하여 7월 3일에는 鷲梁津—永登浦線에 侵入한다음 橋頭堡를 擴大하고 4일에는 豊德川—水原線을 손에 넣고 5일에는 美地上軍 先遣隊와 衝突하면서 平澤線으로 壓縮코자 하였다.

#### (1) 寧越—平澤線의 侵攻

京釜國道沿邊으로 主力을 指向한 北傀는 渡河初期에 2개사단을 併立으로 侵攻하다가 金良場(水原 東쪽 20km)—水原線에 이르러 제 3사단(장, 소장 李英鎬)을 뒤로 돌리고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과 제 105機甲사단(장, 소장 柳京洙)만을 先頭로 내몰았으며 金浦半島 쪽으로 侵入한 제 6사단(장, 소장 方虎山)은 國道西쪽을 迂回하여 後續케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이와같이 漢江線을 侵奪한 後에 侵攻隊形을 變更한 것은 제 2차 侵攻線으로 지정된 寧越—平澤間의 幅이 韓半島에서 가장 좁은 120km의 正面(東海岸의 臨院津까지는 180 km) 이기때문에 西部에 密集한 4개사단中 2개사단을 돌려 뒤따르게 하다가 이線을 通過

하는 即時로 이들 사단을 車嶺山脈—錦江—小白山脈의 要地를 侵攻할 때에 投入하려는 속셈으로 보였다. 이와함께 汶山正面에서 서울의 西쪽으로 侵入한 그들 제 1사단(장, 소장 崔光)은 제 3사단의 뒤를 따르다가 金良場—長湖院을 經由, 忠州北쪽으로 繞回하여 그들 제 2군단(장, 소장 金光俠)傘下로 들어갔는데 同사단은 洪川 東北쪽에서 南下한 제 12사단(장 소장 崔忠國)과 合勢하여 7월 4일부터 6일사이에 忠州를 넘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春川에서 京春街道를 따라 南下한 그들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은 兩水里에서 漢江을 넘어 제 1군단(장, 중장 金雄)傘下로 들어간 다음, 利川—金良場線에서 竹山(安城東北쪽 15km)을 經유, 鎭川쪽으로 醜鋒을 들린 듯 하였는데, 애당초 同사단은 利川—水原線에서 我軍을 包圍코자 하였으나 豫想外로 進出이 늦어짐으로써 이와같이 그 方向을 變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뒷날 그들은 『兩水里에서 渡河한 부대는 3일에 水原北쪽과 龍仁附近에 이르러 中部의 連結線을 中斷하고 後方 左側으로 進出하였다.』라고 하여 그 遲滯事由를 變명함이 없이 侵攻方向만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제 2군단의 예비로 後續하던 제 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을 原州附近에서 無極里—同樂里—陰城前面으로 急進케 하여 4일부터 潛侵을 企圖하다가 我軍의 先遣부대의 打擊을 받고 進出이 일단 挫折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好機를 노려 投入한 同예비대가 初頭부터 失敗를 거듭하자 이에 당황한 魁首 金日成(本名, 金成柱)이 酷毒한 督戰과 더불어 제 2군단장 金光俠를 問責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목구멍에 가시”와 같은 이곳을 繼續 侵襲코자 血眼이 된 것일 것이다.

이와같이 中西部에 侵攻을 集中하는 한편, 東部에서도 侵襲을 재촉하였다. 즉, 東海岸을 따라 南下한 그 제 5사단(장 소장 馬相詰)은 江陵南쪽에서 平昌—寧越과 玉溪—三陟의 2개 方向으로 侵襲하여 寧越—蔚珍間의 太白山脈을 橫斷하고 험준한 炭田地帶와 東海街道를 차례로 掌握코자 하였으며, 前제 1경비여단을 제 8사단(장 소장 吳白龍)으로 急編하여 江陵—平昌—堤川線으로 이를 投入한 다음 中央線을 따라 侵攻을 企圖하였다.

이때에 春川에서 大敗한 제 7사단을 제 12사단으로 名稱을 바꾸어 再編成을 끝낸 다음 忠州를 侵攻케 함과 동시에 그 一部를 堤川으로 돌려 我제 6사단의 제 7연대를 追尾하면서 平昌에서 南下中인 그들 제 8사단과 合流키로 한 듯 하였다.

이와같이 敵은 各戰線에서 道路와 溪谷의 接近路를 따라 南侵을 繼續하였는데, 所謂 제 2次 侵攻에서 나타난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北傀는 西部의 제 1사단을 中部의 제 2군단으로, 中部의 제 2사단을 西部의 제 1군단으로 각각 配屬變更하여 戰線을 담당케 함으로써 撤收하는 我軍의 後方을 遮斷코자 하고,
- ② 開戰初期에 既成 7개 사단을 一線에 投入한데 比하여 5개 사단으로 縮少하고 그대신 2개 사단을 豫備로 後續케 하여 次期作戰에 轉用코자 하였다.
- ③ 또한 3개의 豫備사단중에



最初로 1개사단을 中部, 그리고 3개의 경비여단중 1개여단을 사단으로 急編하여 東部戰線에 각각 投入함으로써 이地域에서 兵力의 優位를 占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보건대, 그들의 一線投入부대는 새로운 2개사단을 合치면 開戰初의 7개사단과 比等하지만 西部에서 2개의 既成사단이 後續하니 만큼 이곳에 대한 集中侵攻이 豫想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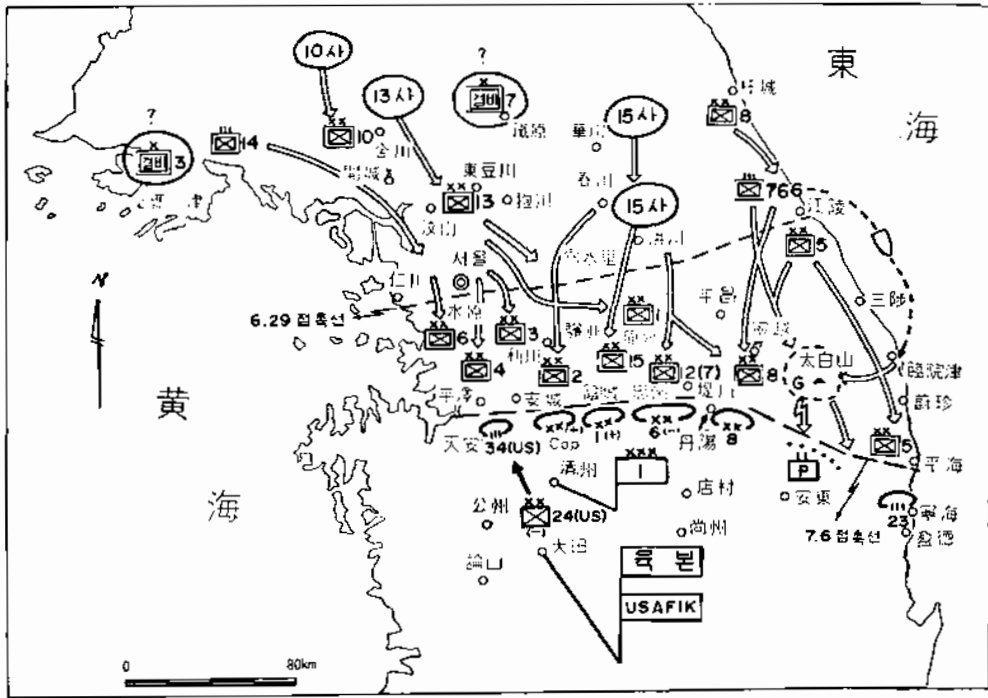
이무렵에 我軍은 東海岸의 寧海南쪽에서 제 3사단의 제 23연대(장, 金宗元 중령)가, 堤川—丹陽間에 제 8사단(장, 李正一 대령)이 각각 敵侵을 阻止中이었고,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忠州—長湖院—利川間의 75km 正面에 3개연대를 併列하여 새로이 發足을 보게된 제 1군단(장, 金弘壹 소장)의 陰城—鎮川線 展開를 掩護하면서 逐次로 撤收하고 있었다.

그런데, 5일부터 美地上軍의 先遣隊인 Smith 特殊任務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가 烏山北쪽에서 첫戰鬪에 들어가면서 美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이 京釜國道 沿邊을 分擔케되고 我제 1군단은 再編成과 동시에 中西部로 轉進, 6일부터 接敵에 들어 갔으나 같은날 同사단의 제 34연대(장, Jay B. Lovless 대령)가 安城과 平澤를 接敵없이 내어 놓음으로써 敵은 幅이 가장 좁은 이곳 侵攻線의 一角을 無血로 奪取하기에 이르렀다.

(2) 北傀의 戰線整備

이에 그들은 『6일까지 제 2차作戰을 끝냈다.』라고 하여 마치 모든부대가 豫定된 侵攻線

◇ 상황도 제11호 敵의 侵攻企圖 其一(6.29~7.6)



에 이른것 같이 煽動工作을 벌이기도하였다. 前述한바와 같이 中部로 增援된 그들 主力이 險峻한 山麓을 넘어서는 途中에 我軍의 先進掩護부대로부터 打擊을 받고 進出이 頓挫되었으나 이에 不拘하고 이른바 제 3차 侵攻方針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行動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車嶺山脈—錦紅線을 突破하여 大田과 小白山脈에서 國軍의 基本集團을 打擊하고 聞慶—論山—全州地域과 蔚珍 및 그南쪽을 占領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당시 그들의 魁首가 서울의 前線司令部(서울의 龍山으로 推定, 吳基完의 證言)에 나타나서 所謂 戰鬥方法을 提示하면서 『進出速度를 더욱 強化하라』는 督戰命令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이 侵攻企圖의 比重을 크게 보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7일부터 天安—烏致院—大田軸線에 主力을 指向하면서 同時에 數箇方向에서 侵攻을 繼續하였는데, 이때 我軍은 韓美兩軍이 戰線을 整齊한 가운데에 車嶺山脈의 回廊에서 이 驕敵을 阻止코자 하였다.

한편, 같은날 UN 安保理에서는 세번째로 韓國支援에 關한 決議文, 一統司令部設置에 대한 決議文—을 採擇하자 그들의 魁首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에 또한번 侵攻速度를 재촉하는 放送과 함께 이른바 戰線의 整備強化를 내세우는 要旨의 發表를 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複雜한 戰況 밑에 長大해가는 各戰線의 戰鬥조직을 일층 強化하기 위하여 前線司令部를 組織強化함과 동시에 補助指揮所를 軍集團으로 改編키로 하였다』라는 것이었는데, 同中間指揮機構의 設置는 每事 僞裝하여 왔으므로 그 發足日자가 分明치가 않았다(研究欄參照) 이와 함께 北傀는 前線司令官에 金 策을, 軍事委員에 金 一, 그리고 參謀長에 姜 健을 각각 任命하고, 內務省소속의 3개 경비여단을 사단으로 增編함과 동시에 新豫備사단과 海안방위부대의 編成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때 軍內部에 대한 政治活動을 強化할 目的으로 軍事委員制度를 最初로 採擇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이 이와같이 南侵中에 政治制度를 채택한 이유에 대하여 『美國의 積極的인 介入에 따른 隊伍의 急速한 擴大와 關聯하여 黨의 指導를 強化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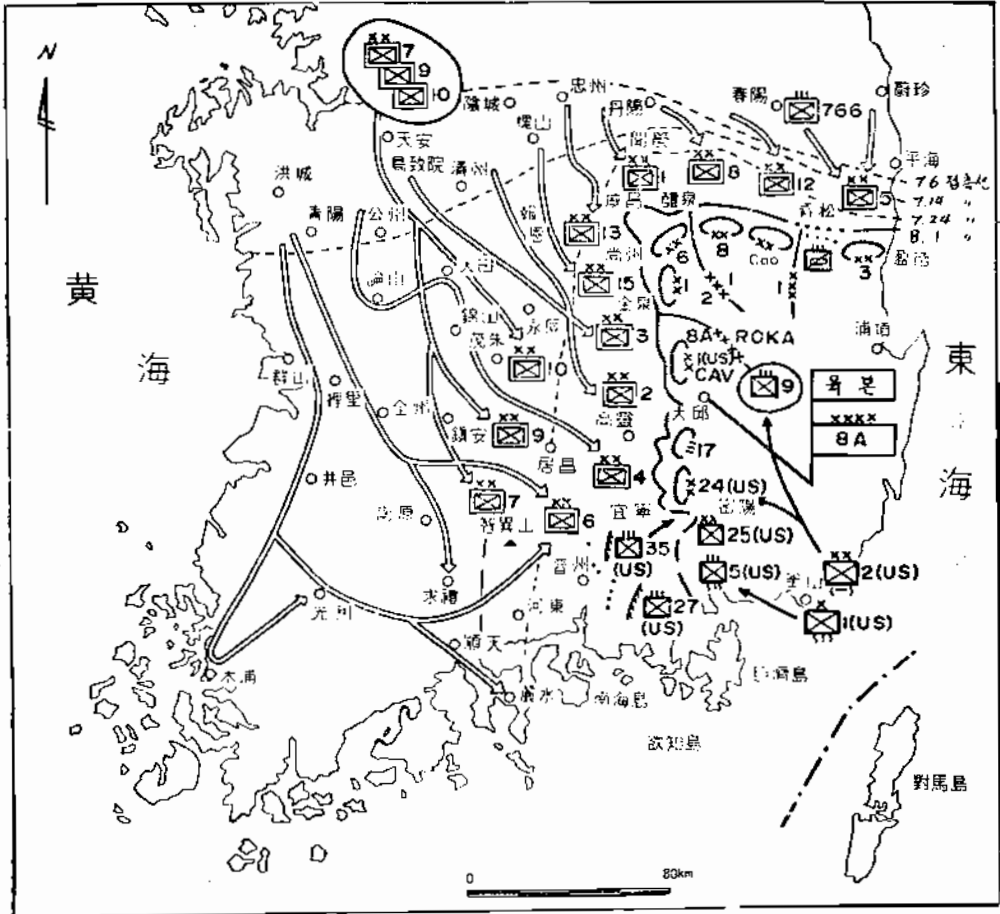
그러나 이 政治制度는 南侵期間中에 軍事와 政治의 二元組織에 따른 軋轢을 남게 되고 그것이 休戰뒤에까지 꼬리를 물고가서 肅清이라는 名目の 屠戮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丹陽—忠州—陰城—鎮川線에서 繼續的인 打擊을 받고 더 이상의 侵攻이 困難하게되자 10일에 제 2군단장 金光俠을 參謀長으로 格下시킨듯 하고 8路軍出身의 金武亭을 새로이 군단장으로 任命하는 打開策을 써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中部에서 行動한 부대들은 7월 10일까지 이地域에서 強力하게 抵抗하는 敵과 熾烈한 戰鬥을 벌였다...그들은 數次에 걸친 強力한 反擊을 해왔다...』라고하여 我軍의 反擊으로 侵攻이 遲滯되었음을 自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美제 24사단이 8일에 天安을 내어놓고 다시 10일에는 全義마저 拋棄함으로써 車嶺山脈은 敵의 掌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까지 先頭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敵제 4 사단이 全義附近에서 天安으로 反轉한 다음 公州通路를 따라 南下하는대신 後續中인 제 3 사단이 다시 北面에 나타나서 錦江線에 나서려는듯 하고, 제 6 사단 역시 天安에서 急進태세에 들어간듯 하였다.

이와같은 狀況에 直而한 美제 24사단이 12일부터 錦江線 阻止에 들어감에 따라 卓嶺山脈으로 連結된 國軍도 一步 물러서서 小白山脈 回廊의 遲延戰에 들어갔다.

◇ 上항도 12호 敵의 侵攻企圖 其二(7.7~8.1)



(3) 敵의 마지막 侵攻企圖

美제 8 군사령관이 駐韓美地上軍의 作戰指揮權을 行使하게된 다음날인 14일부터 北傀의 本格的인 錦江線 渡河侵攻이 시작되었다. 이무렵의 敵侵 제 1 선을 概括한다면 寧海(제 5 사단)—豊基(제 12사단)—丹陽(제 8 사단)—開慶(제 1, 제 13사단)—槐山(제 15사단)—淸州(제 2 사단)—烏致院(제 3 사단)—公州(제 4 사단)—洪城(제 6 사단) 線인바 이에 追加하여 西部에서 豫備로 後續하던 제 13사단(장, 소장 崔籍鎭)을 제 2군단 산하로 돌려 中部에 새로이 投入한

으로써 開戰以來 最大의 兵力을 展開하였다.

따라서 4일에 그들은 제 1사단을 西部에서 中部로 돌린다음 두번째로 豫備隊를 이곳에 投入한 것인데 이와같이 措置한것은 中部에 대한 侵攻速度를 促進할 뿐만아니라, 山間地帶를 利用케 함으로써 我空軍으로부터 打擊을 避하도록하고 또한 京釜軸線을 迂回하는것 보다 洛東江上流에 이르는 直衝線을 擇하는것이 보다 有效하기 때문인 것이다. UN軍이 統合作戰으로 접어든 14일 현재 敵의 戰鬪序列은 10개의 전투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 및 1개의 기갑연대가 侵攻梯隊로 나섰고 3개의 豫備사단이 이들 侵攻梯隊를 後續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4개의 後方防衛부대와 2개 特殊여단을 急編하면서 戰鬪力이 低下된 前方부대를 계속 增援하고 兼하여 後方을 防護하려는듯 하였는데 이때의 戰鬪序列을 보면 다음과 같다.

UN軍과 對峙한 敵의 兵力水準(7.14)

侵 攻 梯 隊	豫 備 隊	兵 力 水 準
제 2군단(中東部) 제 1, 5, 8, 12, 13, 15사단 獨立 기갑 연대	前線司예비 제7, 9, 10사단(前 제7, 제 3경비 여단을 제7, 제9사 단으로 改編)	제 2사단—공격力 喪失, 제3, 4사단—戰鬪力 75% 제1, 5, 12, 15사단—戰鬪力 激減
제 1군단(中西部) 제2, 3, 4, 6사단 제105기갑 사단	防衛부대 제24, 25, 26, 27여단  特殊부대 제16, 17여단	제6, 8, 13사단—戰鬪力 繼 續維持  兵力推算合計 70,000명 戰車推算 80~100대

錦江線을 侵攻하기 시작한 敵제3, 제4 兩사단은 大平里—公州間에 配備한 美제24사단(—1)을 14일부터 16일사이에 突破하고 大田包圍에 나섰다. 이에따라 그들 제4사단이 먼저公州의 美제34연대를 밀어내고 論山—大田通路로 迂回하여 西南部로부터 挾攻하는 한편, 제3사단은 大平里의 美제19연대를 蹂躪한다음, 迂回부대와 脛를맞추어 大田正面으로 侵攻함으로써 20일까지 이곳을 모두 占奪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그들은 『제3차侵攻作戰을 모두 끝냈다』고 豪言하고 다시 다음날부터 제4차侵攻에 들어가기 위한 方針을 내세웠는데 이른바 그內容이란 『安東—咸昌—永同지역으로 攻擊한 다음 洛東江을 넘어 終局的으로 釜山을 占領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무렵에 그들은 前線司令部를 서울로부터 中部의 水安堡(忠州南쪽 15km)에 移轉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2개군단을 손쉽게 統制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兵力投入과 侵攻을 재촉한 것으로보아 洛東江上流 地域인 店村—咸昌—尙州間의 作戰을 重要視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 魁首의 무리는 이때부터 이곳에 자리잡고 새로운 政治組織을 모두 動員하여

酷毒하게 奮戰을 하였을 것이다.

이 마지막 侵攻에 들어서면서 그들은『正面에서 壓迫을 加할뿐만 아니라 側後方으로 包圍하게 包圍하여 侵攻速度를 일층 強化한다』라는 從來의 手法을 되풀이 強調하면서 계속해서 大田—金泉間의 國道沿邊을 中心으로 主力을 指向키로 하고, 모든 예비대의 投入을 서두른것으로 보였다.

7월 24일, 我軍이 두번째로 戰線을 整備하던 무렵에, 敵은 東海岸의 盈德—靑松間에 제 5 사단과 제 766부대, 東部の 榮州—醴泉間에 제 12, 제 8 사단, 開慶—店村間에 제 1, 제 13 사단이 각각 侵攻中에 있었고, 美제 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이 配備하고있던 尙州 正面에는 제 15사단이 그리고 美제 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의 擔當地域인 黃澗—永同間에는 제 2, 제 3 사단이 突貫코자 하였다. 이와함께 그들의 제 4, 제 6 兩사단이 我軍의 虛隙地帶인 西南部쪽으로 急回轉하고 있었으니 事態는 매우 深刻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全戰線을 마지막으로 壓縮하면서 그들은 新編 豫備인 제 7 제 9의 兩사단을 西部地域에서 後繼케 하는 한편 唯一한 既成豫備인 제 10사단(장, 소장 李芳南)마저 玄風正面에 急進케 하여 渡河地點의 確保를 노리게 하였다.

이 마지막 洛東江線에 이르는동안 北傀는 예비대의 不足한 兵員을 充當키 위하여 이른바 『解放地域에서의 義勇軍』이라는 翁가미를 씌워 靑壯年들을 強制拉致하여 戰線으로 내몰게 된 것이다.

## 다. 我軍의 作戰과 戰線의 整理

### (1) 中西部에 대한 緊急對策

漢江線으로부터 水原까지 6日間(6.29~7.4)에 걸친 激戰과 그간의 對策으로 싸움터는 새로운 樣相을 보이게 되었다. 즉, 6월 30일, 敵이 漢江을 強行渡河하던날에 總參謀長이 交替되면서 變단의 緊急對策이 併行된 것이었다.

그것은 이날 午前에 總參謀長 蔡秉德소장의 命令에 따라 原州의 제 6 사단사령부를 긴급히 訪問한 作戰局長 張昌國대령이 제 6, 제 8 兩사단장에게 『① 제 8 사단은 平昌을 經유, 堤川으로 移動한다음, 中央線을 따라 敵을 阻止하라, ② 제 6 사단은 1개연대로 제 8 사단의 轉進을 掩護하면서 제 8 사단에 담당 地帶를 引繼하고 忠州地區로 轉進하라. 이와 同時에 長湖院—利川線을 掩護하라』라는 命令을 傳達하고 戰線을 整齊토록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은 제 8 사단(장, 李正一대령)이 堤川에 이룰때까지 中央方面을 막기 위하여 原州로부터 제 7 연대(장, 林富澤중령)를 急遂 神林里(堤川北西等 10km)에 배치함으로써 7월 2일에 敵제 12사단의 先頭侵入부대를 阻止하고, 다음날인 3일에

는 同연대를 陰城北쪽으로 轉進케하여 長湖院쪽에서 南下中인 그들 제15사단을 遡擊토록 하였다.

또한 同사단의 제19연대(장, 閔丙權중령)를 7월 1일에 列車와 Truck편으로 利川—昆池岩里(利川北西쪽 6km)線에 進出케하여 兩水里쪽에서 南下中인 敵제 2사단을 遡擊케하고,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사단直轄隊와함께 忠州로 移動하여 그北쪽의 南漢江線 突出部에 배치함으로써 全長 75km의 掩護正面을 擔當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제 6사단이 廣正面에서 掩護中인 2일에 陸軍本部情報局에서는 『敵의 大部隊가 洪川과 加平의 兩개 侵攻路를 따라 驪州—利川線으로 南下中』이라는 航空偵察 報告를 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該地域에 이미 제 6, 제 8兩사단을 緊急히 轉進토록 命令하였으니 만큼 이를 우연의 一致로 보고 各부대에 警報하여 此敵에 對備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大田에 있던 陸軍直轄의 제17연대(장, 白仁燁대령)도 6월 30일에 忠南道廳에 있는 國防部長官으로부터 前進命令을 받고 다음날인 7월 1일에 大田을 出發하여 平澤에 이르르게 되었는데 이때 利川近傍으로 先進中인 제19연대와 連繫를 맺지못한채로 美地上軍先遣隊의 前進를 支援케 되었다. (前節參照)

## (2) 初期의 作戰構想

6월 30일 오전에 歸國申告次 大田에 내려간 丁一權준장(7.1부, 소장 昇進)은 李承晚대통령으로부터 總參謀長職을 任命받고 곧 水原의 陸軍本部로 가서 蔡秉德소장과 交替하였다.

이때 그는 蔡소장과 함께 漢江線을 돌아본다음, ADCOM으로 Church 준장을 찾아가서 敵情에 대한 說明을 듣고, 美空軍의 支援強化와 國軍의 再整備 그리고 裝備 및 彈藥의 緊急補充 문제 등에 대하여 協議하였다.

그런데 이날 下午에 錯誤된 航空偵察報告를 받고 ADCOM이 밤중에 大田으로 移動하게 되자 新任總參謀長도 水原의 指揮部를 參謀副長에게 맡기고 任命申告 및 作戰協議次 다음날 早朝에 忠南道廳으로 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날 하루종일 Church 준장과 함께 作戰構想과 戰線의 再整理 문제를 論議하였다.

때마침 같은날인 1일 午前에 美地上軍 先遣隊가 Itazuke(板付) 基地를 出發하여 釜山의 水營으로 空輸中이므로 이에대한 輸送 및 前進배치計劃과 더불어 全般的 狀況을 再檢討하였는데 이때 兩人이 合意한 作戰構想은 大要 다음과 같다.

『① 韓國軍은 가능한限 오래 漢江線을 支撐한다. ② 狀況의 進展에 따라서 敵을 京釜國道沿邊에서 逐次로 阻止하면서 美제 24사단의 進出을 掩護한다. ③ 美제 24 사단이 進出한다음에는 美地上軍은 京釜國道를 中心으로 西部地域을 맡고, 韓國軍은 그 以東地域을 分擔한다. ④ 韓美兩軍의 最初阻止線은 가장 幅이 좁은 蔚珍—忠州—安城—平澤線으로 한다. ⑤ 이線에서 敵을 阻止하면 極東軍司令官은 仁川上陸作戰으로 敵을 包圍殲滅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作戰構想은 6월 30일 午前에 陸軍本部 作戰局長을 제 6사단에 急派하여 同사단을 轉進토록 命令한 것으로보아 그以前부터 蔡秉德소장과 Church 준장 사이에 논의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때의 狀況에 대하여 丁一權소장은 證言하되 『나는 7월 1일에 다시 大田으로 가서 하루종일 Church 준장과 會議를 하는등 바쁘게지냈다. 이때 美地上軍의 先遣隊가 來韓中이라고 하기에 우선 安城—平澤線에 배치하기로하고, 韓國軍은 忠州—蔚珍線에서 最初 敵을 阻止하기로 會議를 보았다. 그리고 美地上軍이 續續 參戰케 되었으므로 後方에 대한 防護대책이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蔡秉德소장을 慶南地區 編成管區司令官으로 任命해 줄것을 建議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兩人이 이 地域을 韓美兩軍의 阻止線으로 定한것은 첫째 正面의 幅이 가장 좁다는 것이고 둘째 長湖院—陰城軸線이 崩壞될경우, 忠州와 淸州가 威脅을 받게되며 나아가서 車嶺山脈과 錦江線 防禦에 蹉跌을 가져올지도 모르므로 최소한 忠州—陰城의 北쪽에서 敵을 阻止하려는 趣旨로 보인다. 이러한 構想이 公式化된 이날 下午에, 이미 前記한 掩護부대가 轉進하고 있었으나 아직 接敵은 없었다.

### (3) 軍의 제 1次 改編과 再配置

Church 준장은 2일 早朝, 大田에 到着한 先遣隊를 이날 밤중으로 安城—平澤線에 배치토록 命令하였다.

이보다 앞서 丁一權소장은 大田에 있는 제 17연대를 平澤에 先進토록 命令하고 2일 早朝에 水原의 陸軍本部로 복귀하는 즉시로 始興地區 戰鬪司令官에게 『軍은 聯合軍의 戰鬪加入을 爲한 時間餘裕를 얻기위하여 別命이 있을때까지 遲延戰을 實施하면서 平澤附近에 集結할 準備을 하라』라는 準備命令과 함께 5개의 阻止陣地를 明示한 陸本作命 제 18호를 下達하였다.

따라서 前述한 口頭命令은 하루가 늦은 3일에 文書命令으로 配布된 것인데, 이날 제 6사단 제 19연대가 利川附近에서 接敵이 시작되고, 國道沿邊의 板橋—軍浦場線까지 밀린 始興地區부대들도 陸本作命에 따라 撤收를 준비하였다.

또한 같은날 下午에 水原의 陸軍本部에서는 大田의 國防本部로 부터 『美제 24사단의 主力이 安城—平澤線에 배치될 것이며 그 先遣隊는 더욱 北쪽으로 前進할 것이니 美軍과 協調를 維持하라』는 通報를 받고 平澤의 제 17연대에 이를 指示하는 한편, 再昨日 韓美間에 會議한 方針에 따라 戰線을 整理키로 하였다.

그런데, 4일 早朝에 敵이 다시 水原을 向하여 南侵을 개시하자 參謀副長 金白—대령은 部隊의 改編과 再배치 計劃을 일단 마무리하여 각부대에 緊急히 口頭通報하고 平澤으로 移動하는 卽時로 각사단장단을 集束토록 이르고 本部의 移動을 準備하였다.

戰鬪間에 部隊를 改編하는 것이었으므로 먼저 作戰命令으로 각부대의 戰鬪行動을 規制

하면서 一般命令으로 部隊의 改編을 併行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陸軍本部는 4일 午前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陸本作戰 第20호(7.5)를 電文으로 示達하여 現戰線의 固守와 再整備을 命令하였다.

『① 軍은 攻勢를 準備하는동안 一部兵團으로 烏山—安城一帶의 要線과 竹山—長湖院—堤川 附近을 占領하여 再編을 完了하고 軍主力의 進出을 容易하게 하려한다.

② 제1군단(제17연대 배속)은 즉시 安城—烏山—發安場線에서 敵의 南進을 阻止하고 平澤地域에서 부대를 再整備하라.

③ 제6사단은 즉시 竹山—長湖院線에 展開하여 利川으로부터 淸州로 向하는 敵을 阻止하고 제1군단과 策應토록 하라

④ 제8사단은 즉시 南漢江 以東지역에서 南進을 企圖하는 敵을 堤川附近에서 阻止하여 該지구에서 孤立을 각오하고 固守에任하라』

이 作戰과 부대의 改編命令이 모두 다음날인 5일자로 發効케 되어있으나 水原의 喪失을 눈앞에 두고있던 始興地區司로서는 軍의 基本方針을 미리 接受하고 있었던만큼 제1군단장 名義로 同命令을 施行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날 下午늦게 水原을 占據한 敵이 例와 같이 다음날인 5일 早朝에는 필시 烏山을 向하여 다시 南侵할것이라고 내다본 同사령관은 이곳에 대한 遲延대책을 서둘러 施行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平澤地域에서 軍단의 創設과 사단의 改편을 동시에 進行키로하고 우선 一部 撤收부대로 하여금 戰線을 掩護토록 하는 軍단作戰 第1호(7.5)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軍단은 일부 兵力을 安城—烏山—發安場線에 배치하여 敵을 阻止케하는 한편 主力을 平澤南쪽에 集結하려한다.

② 수도사단장은 安城附近에서 敵의 南侵을 극력 阻止하라.

③ 제2사단장은 發安場 附近에서 敵의 迂回를 阻止擊破하라

④ 제17연대는 烏山 附近에서 南侵中인 敵을 격과하라

⑤ 각사단장은 隷下부대 兵力을 7월 6일 限 平澤附近에 集結하고 보고하라

⑥ 安城—發安場線에는 우선 兵力을 急派하라

⑦ 軍단의 임시지휘소는 7.4. 18.00이후 平澤의 北端國民學校에 둔다』

이에따라 제8연대(장, 李賢進중령)는 松田里(安城北쪽 15km)에, 그리고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는 發安場(烏山西쪽 15km)附近에 각각 急進하여 葛串里(烏山南쪽 1.5km)에 前進배치중인 제17연대(장, 金熙濬중령)와 連繫下에 敵을 阻止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兩연대는 4일 下午에 主力부대의 撤收와함께 指定된 掩護陣地로 急進하였던만큼 5일 아침까지도 제17연대와 連繫를 맺지못한채로 徹夜를 대기하고 있다가 烏山—西井里 軸線이 敵의 侵攻으로 무너지자 이날 下午에 平澤의 각사단 集結地로 合勢하였다.



군단의 編成 : 한편 4일 下午에 陸軍本部가 位置하고 있던 水原의 農林試驗所에 잠시 들렀다가 平澤으로 내려간 金弘壹소장은 北端에 있는 國民학교에 臨時지휘소를 設置하고 Smith 부대 및 美제 34연대의 赴援狀況을 지켜보면서 兵力을 收拾中이었다.

그러나 이날 午前에 平澤에 移動하는 즉시로 陸軍本部 臨時지휘소로 集合하라는 通報를 接受한바 있으므로 그는 下午늦게 平澤郡廳에 設置한 同指揮所를 찾았다. 그러나 이때 參謀 副長 金白一대령은 군단의 編成과 사단의 改編計劃을 미리 마련해놓고 사단장급 이상의 指揮官이 모이는 즉시로 새로운 補職命書와 改編內容을 알려주고 있었다. 따라서 각사단장들은 命書만을 確認하고 집결지역으로 돌아갔던 것인데 이당시 軍단장으로 任命된 金弘壹 소장은 『7월 4일 어두컴컴한 무렵에 平澤의 陸本을 찾아갔더니 金白一대령이 군단의 編成계획을 내어놓으면서 司令部의 參謀要員은 始興戰鬥司 פת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이미 計劃을 짜놓고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別다른 의견은 提示하지 않고 다만 李鍾贊대령은 몸이 弱하니 李俊植준장과 交替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라고 證言하였다.

軍단創設의 必要性은 開戰直後부터 擡頭한 셈이었다. 즉, 6월 26일에 議政府地區에 集結한 3개사단을 統合指揮하기 위하여 議政府地區 戰鬥司令部를 設置한 것이 그嚆矢였고, 다음은 같은달 29일의 漢江線의 防守을 위하여 始興地區戰鬥司令部를 두어 京釜國道沿邊의 作戰을 統轄토록 한것이 그 두번째 일이다.

따라서 이날 急編케된 제 1군단의 發足은 事實上 同사령부의 名稱을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날 發表한 編成計劃案을 보면 7월 5일 00.01부로 제 1군단을 平澤에서 創設하되 수도, 제1, 제2의 3개사단을 改編하여 軍단 隸下에 두고, 제3, 제5, 제7의 3개사단은 이날로 解編하여 前記의 3개사단에 編入하는 內容이었다.

國本一般命書 제 2호(50.7.5)와 陸本特命 제 9호로 發足を 보게된 軍단의 編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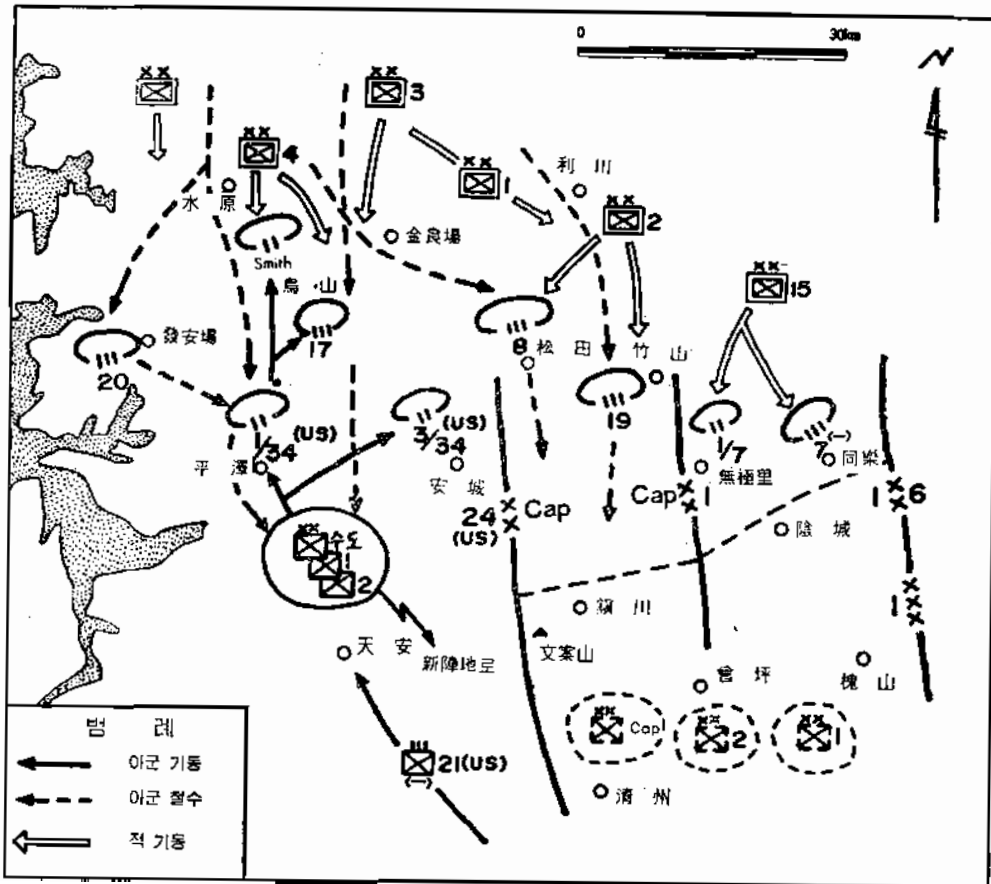
-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
- 수도사단(장, 李俊植준장)
- (장, 金錫源준장 7.7부터)
- 제 1, 제 8, 제 18연대
- 제 3, 제 9연대를 解編하여 編入한다.
- 제 1사단(장, 白善燁대령)
- 제 11, 제 12, 제 13연대
- 제 15, 제 22연대를 解編하여 編入한다.
- 제 2사단(장, 李翰林대령)
- 제 5, 제 16, 제 20연대

제25연대를 解編하여 編入한다.

이와같이 創軍以來 처음으로 軍단의 發足を 보지되었으나 戰勢가 急轉中이었으므로 각사 단별로 먼저 改編作業에 들어갔다. 이때의 改編狀況에 대하여 白善燁대령은 述懷하되 『豐德川地區로 出動하기 직전인 7월 1일 午前에 水原의 金白一대령 방에 갔더니 軍단편성과 사단의 改編계획을 黑板에 적어놓고 意見을 물었다. 그러나 나는 過去에 제5사단장을 歷任한 일이 있었기때문에 그 사단兵力을 우리사단에 統合해 주도록 要求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4일밤에 平澤에서 改編命令을 받게 되었지만 실상 그전에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하였다.

또한 軍단참모要員도 始興司를 그대로 補任하여 軍단특명 제9호(50.7.5)로 發令하였는데 副軍단장官에 劉載興준장, 參謀長官에 崔德新대령(7.7부) 人事參謀官에 金雄洙대령, 情報參謀官에 李鍾國중령, 作戰參謀官에 金鍾甲대령, 軍需參謀官에 李昌一중령, (朴丙權대령7.7부)등이었다.

◇ 상황도 제13호 韓·美兩軍의 初期狀況(7.5~6)



사단의 再配置 : 다음날인 7월 5일은 제 1군단이 正式으로 發足하는 날이었으나 아직 支援부대와 參謀部요원의 完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正常의인 機能을 發揮할 수가 없었으므로 軍단장과 參謀들은 臨時지휘소로 돌아가서 美地上軍의 戰鬪狀況을 觀望하는 한편, 각사단의 集結과 改編을 迅速히 完了하라는 軍단作命 제 2호(7.5)를 要旨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軍단 隸下의 각사단은 夜半까지 集結을 完了하고 보고하라

② 각사단의 集結地 및 制限성지역은 아래와 같다

수도사단—蛤井里(平澤東쪽 2km)

제 1사단—大弘里(成歡北쪽 2.5km)

제 2사단—客舍里(平澤西南쪽 4km)

③ 軍단지휘소는 平澤국민학교에 위치한다』

이 命令에 따라 각사단이 集結과 再編成을 서두르고 있는 동안 軍단장은 參謀두사람을 烏山北쪽의 Smith 부대가 배치된 곳에 보내어 美軍들이 2.36 “Rocket 砲”로써 敵의 T-34戰車를 破壞할 수 있는가의 與否를 確認토록 하였는데 그들 역시 同火器로서는 戰車를 파괴할 수 없었다는 事實을 還報하였다.

또한 같은날 午後에 同軍단의 參謀一行은 平澤北쪽의 民家에 設置한 美제 34연대의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 지휘소에 들렀는데, 이때 이곳에 兇히 달려온 Dean 소장이 Smith 부대의 敗退消息을 전해 듣고, 여러곳에 電話를 걸면서 怒發大發하는 모습을 目撃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5일부터 美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이 國道沿邊의 作戰에 捲어감에 따라 總參謀長은 이날 下午에 제 1군단의 移動과 제 6사단에 掩護任務 遂行을 命令하는 陸本作命 제 23호(7.6)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聯合軍은 平澤에 進出하여 強力한 防禦態勢를 取하는중임

② 제 1군단은 下記의 割當된 경로에 따라 7.6, 24.00까지 移動을 完了하라

A 경로 : 成歡—笠場—鎭川—梧倉里(車輛輸送)

B 경로 : 烏致院—淸州—蓮潭里—陰城(鐵道 및 車輛輸送)

C 경로 : 烏致院—淸州—蓮潭里(曾坪) (鐵道輸送)

軍단司令部 및 直轄부대를 위하여 烏致院—淸州間의 鐵道輸送을 준비한다

③ 제 17연대는 7.6. 13.00부로 제 1군단으로 부터 配屬을 解除하고 즉시 烏致院에 이르러 軍豫備가 되라

④ 제 6사단은 2개연대규모로 7.6, 24.00까지 正面을 固守케 하여 제 1군단의 移動을 掩護하고 該사단 지역에 移動하라』

同命令을 受領한 제 1군단장은 먼저 A경로의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鎭川에 進出, 제 6사

단의 제19연대를, 그리고 B경로의 제1사단은 陰城에 進出, 제6사단의 제7연대를 각각 統合指揮하여 南下중인 敵을 阻止 擊破토록 命令하고 C경로의 제2사단은 曾坪부근에 控置하여 兩사단을 增援토록 하였다.

다음날인 6일 早朝에 移動을 시작한 각사단은 직접지휘할 연대兵力들을 모두 掌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收拾된 兵力만으로 目的地로 向發하였는데, 移動前後의 각사단別 兵力現況은 다음과 같다.

사 단	移 動 前	目的地到後
수도사단,	2,500명	7,855명(鎭川)
제1사단,	4,000 "	5,063명(陰城)
제2사단,	1,600 "	6,845 "(曾坪)
제17연대		1,400 (鎭川)

이와함께 軍團指揮部도 이날 10.00에 成歡에 이르러 각사단의 移動狀況을 파악하였는데 같은時刻에 수도사단은 이미 이곳을 通過하여 鎭川으로 移動中이고 제1사단은 鳥致院에서 陰城으로 向하고 있었으므로 3時間을 머물러있다가 15.00에 同지휘부도 淸州로 移動하였다.

이렇게하여 國軍은 國道를 中心으로한 西部戰線을 모두 美제24사단에게 引繼하고 이날 24.00까지 鎭川以東 地域으로 移動을 完了함으로써 韓美兩軍戰線의 整齊를 疎하게 되었다.

**韓美兩軍의 作戰:** 西井里에 蝸集中인 敵이 6일 早朝에 平澤을 向하여 侵攻을 개시하자 이곳을 擔當하던 美제34연대(-1)가 몇군데에 道路障礙物만을 만들어놓고 天安으로 撤退함으로써 韓美軍間에 合意하였던 峽越—平澤線의 一角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같은 狀況에 이르자 Dean 소장은 大田에서 天安으로 急히 달려가서 同연대의 撤收經緯를 追窮하면서 即刻 反擊의 意思를 表示하였으나 잠시뒤에 이를 도리켜 現位置의 固守를 命令하였다.

이로보아 美제24사단장도 또한 平澤線을 重要視한 것으로 보였으나 당시의 狀況下에서는 “最善의 防禦는 攻擊”이라는 原則을 適用할 수가 없었다.

이當時 Dean 소장과 함께 天安으로 갔던 丁一權소장이 回顧하기를 『大田에 있을때 Dean 소장과 같은 建物內에 있었는데 平澤이 무너졌다는 報告를 받고 나는 그와함께 天安으로 달려갔다. 그는 매우 怒氣에찬 語調로 責任을 추궁하면서 天安의 固守를 命令하였다. 이때 그는 北上中인 사단 主力으로 反擊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는 大田에 돌아오자 곧 우리國軍에게도 反擊을 하도록 命令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6일) 午下늦게 緊急히 下達한 反擊命令(陸本作命 제25호 7.7확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西部戰線의 美地上軍은 安城—平澤線으로 進出中임

② 軍은 美제24사단의 공격에 호응하여 一齊히 反擊으로 移轉하려 한다.

③ 제 6 사단은 즉시 제7, 및 제19연대로 長湖院의 敵을 공격하여 該地區를 占領確保함과 동시에 제 2 연대로 松江驛(忠州北쪽 15km)의 敵을 捕捉 殲滅後 該地區를 占領確保하라.

④ 제 1 군단은 즉시 竹山(安城東北쪽 25km)線에 進出하여 該地區를 占領確保하는 동시에 제 6 및 美제24사단의 攻擊進出에 호응하라]라는 것이었으나 이는 反擊이라기보다 早期에 接敵을 維持하면서 現在의 各線上에서 敵을 阻止 擊滅하라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이당시 Dean 소장이 駐韓美地上軍 司令官으로서 全般의인 作戰을 統制하고 있었던 만큼 丁소장은 그의 意見에 協調하는 뜻에서 이같은 反擊命令을 내린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完編을 보지못하였던 제 1 군단의 경우로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대하여 金弘壹소장은 證言하여 『우리의 제 1 군단은 再編成의 途上에 있었으며, 아직 充分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決定的인 공세로 나갈리가 없었다……다만 作戰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지키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反擊해서 一刻의 시간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같이 反擊을 命令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 6 사단의 제 7 연대(장, 林富澤중령)가 4 일부터 陰城地區에서 敵제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을 邀擊하고 있을동안 제 1 사단(장, 白善樺대령)은 淸坪을거쳐 8 일에 陰城으로 移動한 다음, 同연대를 統合指揮하여 反擊에 들어갔고, 수도사단(장, 李俊植준장)은 제 6 사단의 제19연대(一) (장, 閔丙權중령)一部가 鎭川北쪽 4km에서 掩護하고 있을동안 그 兩쪽으로 移動하여 配備를 끝냄으로써 7 일부터 接敵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함께 군단에비인 제 2 사단(장, 李翰林대령)은 蓮潭里(鎭川東南쪽 8km)로 移動한 다음 2개연대를 鎭川東쪽으로 急進케하여 수도사단의 反擊作戰을 支援하였는데 이때 鎭川을 侵攻한 敵은 제 2 사단(장, 소장 崔賢)으로 判明 되었다.

이때부터 제 1 군단의 각사단들은 平海(蔚珍南쪽 30km)附近의 제 3 사단 제23연대(장, 金宗元중령)와 丹陽附近의 제 8 사단(장, 李正一대령) 및 忠州附近의 제 6 사단의 제 2 연대(장 咸炳燾대령)와 함께 且戰且退를 거듭하면서 車嶺山脈線에 이르게 된다.

陸軍本部 臨時指揮所의 動靜: 한편 4 일 午前에 水原으로부터 平澤을 向하여 移動을 시작한 陸軍本部의 車輛縱隊는 水原一烏山間에서 我軍機의 誤爆을 받고 數名の 死傷者를 내고 一部車輛이 破損되었으나 곧 收拾하여 目的地인 平澤까지 移動하였다.

參謀副長은 平澤에 到着하는 즉시로 郡廳에 臨時指揮所를 設置하고 前方梯隊만을 이곳에 남도록 하고 後方梯隊는 곧 大田으로 出發시켰다.

그가 이곳에 臨時指揮所를 設置한 이유는 첫째가 大田에 위치하고있는 總參謀長으로부터 사단의 改編 및 人事命令을 이날밤 안으로 傳達하라는 指示를 받았던 때문으로 보였으며, 둘째는 마침 이날 Smith 부대를 비롯하여 美제34연대의 2개대대 및 제52포병대대의 A포대가 陣地배비를 위하여 集結하고 있었고 美제24사단의 포병사령관 George B. Barth 준장이

同사단장의 指示를받고 進出중에 있었으므로 韓美兩軍의 協調를 위하여 이곳에 머물게 된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夜半까지 제1군단의 編成과 사단의 재편성에 汨沒하였던 까닭으로 美地上軍의 赴援狀況을 正確하게 알수없었으나 5일 早朝에는 제17연대로부터 接敵보고를 받게되고, 平澤중학교에 위치한 제1공병단(장, 尹泰日중령)에서는 美軍으로부터 工兵支援 要請이 있었다는 報告가 入手되었다.

따라서 이날 下午에는 通信 및 工兵등 美軍의 作戰을 직접 協調할수 있는 要員만을 남겨 두고 陸軍本部 臨時指揮所는 大田으로 移動하였으니, 이무렵 敵제4사단 및 제107戰車연대의 先頭가 이미 西井里에 侵入하고 있었다.

## 다. UN軍의 編成과 參戰

### (1) 編成 以前의 狀況

駐韓美地上軍 司令官을 兼任하고 있는 美제24사단장 Dean 소장은 同부사령관으로 任命된 Church 준장(前 ADCOM의 지휘관)의 助를 받아 安城—平澤線을 固守하려고 하였으나 中途에서 挫折된 사실에 憤慨하면서, 사단을 整齊하여 다시 車嶺山脈線에서 敵을 阻止키로 決心하였다.

그러나 6일에 平澤를 通過한 敵의 先頭부대가 다음날 成歡을 經由하여 8일 早朝에는 이미 天安으로 肉迫하게 되었다.

이때, 새로 赴任한 美제34연대장 Robert R. Martin 대령은 隸下의 兩개대대를 天安의 前後方에 縱深으로 배치하였는데, 敵의 戰車가 邑內에 突入하자 2.36" Rocket砲를 직접지휘하여 이에 射擊을 加하던 중에 敵의 戰車砲彈에 被擊되어 壯烈하게 戰死하고, 이곳에 배치된 대대도 敵의 兩翼包圍속에서 紛戰하다가 分散케 됨으로써 車嶺山脈의 要關인 天安이 이날 10.00를 前後하여 그들의 掌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날 午後에 美제8군사령관 Walton H. Walker 중장이 急遽 航空便으로 進出하여 Dean 소장과 함께 天安南쪽 高地에 이르러 戰況을 살핀다음, 군사령부의 移動과 美제25사단이 來襲할 것이라는 消息을 傳하고 돌아감으로써 同소장은 戰線을 다시 調整하여 錦江線의 固守防禦로 轉換코자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두번째로 進出한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를—2개대대중 제1대대인 Smith 부대는 大田에서 再編成中—全義와 鳥致院間에 배치하여 國道를 遮斷케 하고, 美제34연대(장, 대리 Robert L. Wadlington 중령)는 天安—公州道에서 敵을 阻止하면서 錦江線에 배치토록 하였으나, 北傀 제1군단은 天安을 占據하자마자 後續하던 2개사단을 展開하여 迂回機動에 들어간듯 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을 分擔한 뒤에 3일도 못되어 美軍이 平澤에서 天安까지 42km를 물러섬으로써 中西部에서 奮戰중인 我제 1군단의 側方이 露出되기에 이르렀으니 Dean 소장도 이를 念慮하여 全義와 鳥致院을 固守하라고 嚴命하였다.

그의 이와같은 命令은 鳥致院으로부터 淸州—陰城에이르는 患北線을 確保하여 我제 1군단에대한 補給支援을 圓滑히 하기위한 것이고, 또한 美제 25사단의 제 27연대(장, John H. Michaelis 중령)가 9일에 釜山으로 來着할예정이었으므로 제 24사단의 예비인 제 19연대(장, Guy S. Meloy 대령)의 任務를 一軍에비로써 2개대대중 1개대대는 浦項의 迎日飛行場경비, 나머지는 大邱에 控置—兩연대와 交替케하여 11, 12兩일사이에 제 19연대를 錦江線에 前進배치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이와같이 強調한 것으로 보였다.

9일부터 시작된 全義—鳥致院부근의 戰鬪는 美地上軍이 投入된이래 가장 熾盛을 極하였다. 이곳에서 美제 21연대는 固守에이은 反擊으로 맞섰는데 이때, M-24 輕戰車 1개소대가 최초로 戰鬪에 參加하였다. 또한 9일과 10일 兩일동안에 平澤—全義間에서 2회에걸친 美제 5공군의 近接航空支援으로 敵의 戰車를 包含하여 200대의 車輛을 破壞함으로써 그들의 衝勢를 制扼하였다.

그러나 敵이 國道沿邊과 天安—公州間의 兩개軸線을 通하여 侵攻을 계속함으로써 美제 24사단은 또다시 물러나 12일에는 錦江沿岸에 配備하기에 이르렀다. 同사단장이 天安戰鬪 다음날인 8일에 이에대한 방어命令을 下達하면서 『어떠한 代價를 치루고서라도 이 錦江의 一線을 確保하라. —Hold Kum River Line at all costs—』라고 強調한 것으로 보아 이곳의 固守決心은 確固不動한듯 하였다.

北傀도 역시 錦江線과 小白山脈線을 『不退의 線! 또는 『最後의 방어선』으로 敵情判斷한듯 하였다.

이에 대하여 뒷날 그들은 『이곳은 戰鬪지역의 特性을 고려하여 作戰에비대를 西部와 患州地域에 進入시킬 대책을 論議하였다』라고 하여 開戰以來로 최대의 力攻을 企圖하였던 事實을 밝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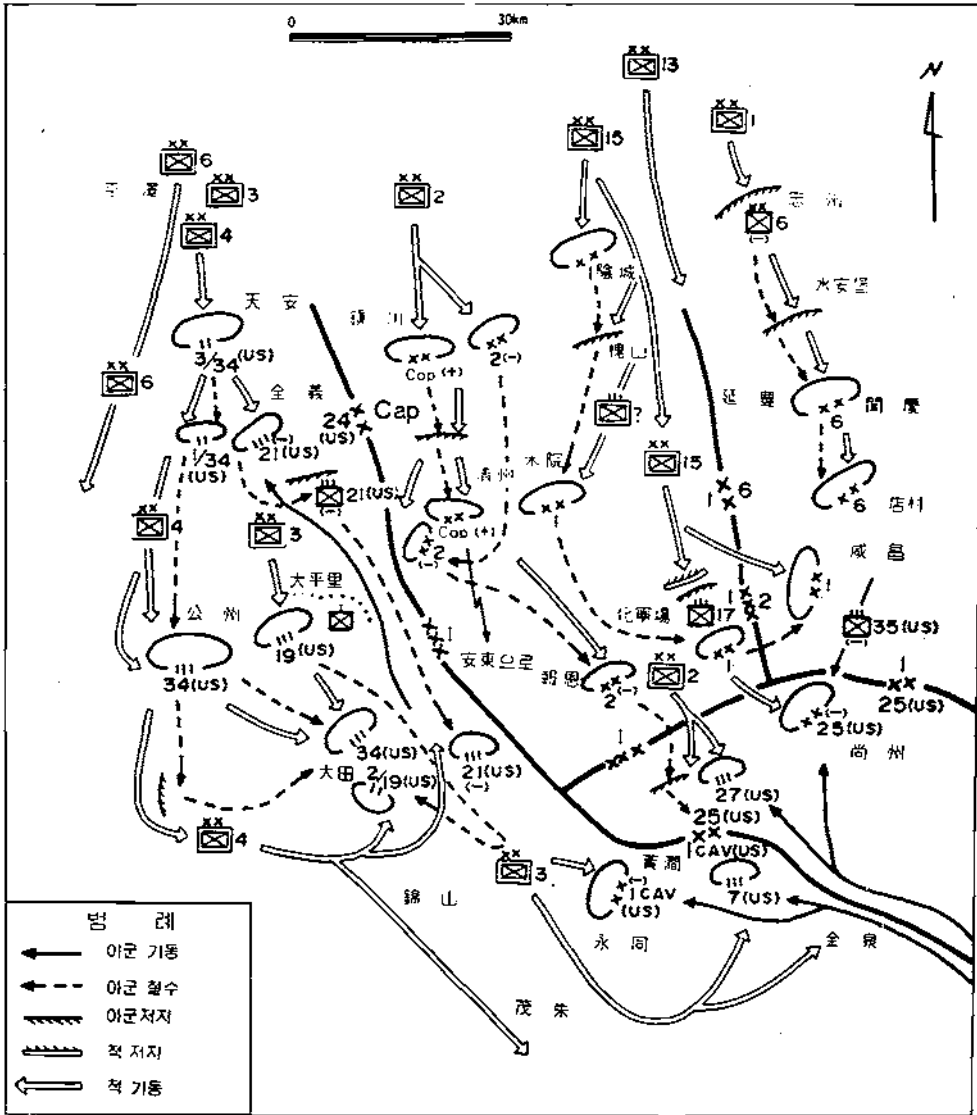
이와같이 西部地域의 戰況이 急速度로 變轉하고 있을때, 隣接한 我제 1군단의 수도, 제 1, 제 2사단은 陰城—鎭川線에서 固守와 反擊을 되풀이 하면서 敵에게 出血을 強要하고 있었다.

즉, 陰城으로 轉進한 제 1사단은 掩護중인 제 7연대를 統合指揮하여 8일부터 敵제 15사단을 擊碎하면서 11일에 浬山, 13일에 米院으로 逐次 閉止하고,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 7.7부)은 鎭川으로 轉進한 다음, 제 19연대 및 陸軍直轄의 제 17연대와 제 2사단의 제 16, 제 20의 兩연대를 統合指揮하여 이곳으로 侵入을 企圖하는 敵제 2사단을 數次的 反擊으로 擊破하였다. 그러나 이戰鬪중에 수도사단은 國道沿邊의 美제 24사단이 天安을 내어놓음으로써 西側方이 露出되어 鎭川奪還計劃을 일단 斷念하고 11일에 美湖川(鎭川右쪽 6km)南岸으로

後退하였으나 10일에 다시 美제24사단이 全義를, 그리고 12일에는 鳥致院마저 拋棄하고 錦江線에 이르므로서 同사단은 隣接의 美地上軍과 連繫를 갖기위하여 淸州南쪽 4km에 陣地를 옮겨 錦江防禦線의 上流쪽에 並列배치 하였다.

14일현재, 中東部의 遲延狀況은 東海岸의 제 3 사단 제23연대가 敵제 5 사단과 제766계탈라部隊를 맞아 寧海(平海南쪽 27km)부근에서 奮戰중이고, 제 8 사단은 丹陽戰鬪를 치문다음 追尾하는 敵제 8, 제12 兩사단을 一面 反擊하면서 竹嶺을넘어 豊基부근의 戰鬪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 6 사단은 제 1 軍단地域에서 復歸한 2개연대를 統合하여 忠州-閔慶軸線으로

◇ 상황도 제14호 京釜國道沿邊의 韓·美兩軍狀況(7.7~23)





侵入을企圖하는 敵제 1사단을 烏嶺—梨花嶺 一帶에서 막아내고 있었다.

이와같이 戰線이 激動하던 12~14일사이에 또다른 變化가 일고있었으니 그 첫째가 UN의 決議에 따른 統合軍司令部의 發足과 國軍의 作戰指揮權 移讓이고, 둘째는 戰線의 激變에 따른 두번째의 整備이다.

그런데 北僞는 이때를 前後하여 小白山脈의 回廊과 錦江線에 대한 本格的인 侵攻에 들어간듯 하였다.

## (2) UN軍司令部의 設置와 그 活動開始

UN軍의 編成과 司令部의 設置는 6월 26일과 28일(韓國時間)의 兩次에 걸친 UN安保理의 “韓國支援에 대한 決議文”을 採擇한데 이어 7월 7일에 세번째로 “統合軍司令部 設置에 대한 決議文”을 採擇함으로써 이의 實現을 보게되었다(同이사회 제476차 회의)

이는 同이사회가 6월 28일에 두번째 決議文을 採擇하자마자 곧 美國을 위시하여 Australia와 英國이 直接 海空軍을 赴援하고 이어서 各會員國들이 韓僞를 援助할 뜻을 비쳐왔으므로 이의 効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세번째의 決議文을 採擇하여(UN文書 S/1588) 史上最初로 UN軍을 派遣키로 하고 司令部設置의 根據를 마련한 것이니 그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韓國을 赴援하는 모든 會員國의 軍事 및 기타援助는 美國이 주도하는 統合軍司令部(unified command)로 하여금 管掌케 한다. ② 統合司令部의 任命을 美國에 要請한다. ③ 作戰中 參戰國의 國旗 및 UN旗를 임의로 使用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內容이다.

이決議에 따라 UN 事務總長 Trygve Lie는 이날 UN駐在 美代表 Warren R. Austin에게 UN旗를 手交하고 13일에는 極東軍司令部를 訪問하는 陸軍參謀總長 Lawton J. Collins 대장면으로 同旗를 MacArthur 元帥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Truman 大統領은 다음날인 8일에 聲明을 通하여 MacArthur 元帥를 UN軍總司令部로 任命하고 UN旗와 參戰國의 국기를 사용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이 戰爭에 參加하는 모든 UN회원국의 軍隊는 總司令部가 指揮하는 統合軍에 들어가게 되고 裝備補給品의 支援도 釜山の 軍需基地司令部(사령관 Crumph, Garvin 준장)를 通하여 遂行케 되었는데 7월末까지의 各國別 參戰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各國別 參戰狀況(7.31현재)

國 家 別	陸 軍	海 軍	空 軍
美 國	7.2(最初赴援日字) 3개사단 1개전투단	6.28(最初赴援日字) 1개艦隊 및 支援艦 艇	6.27(最初赴援日字) 1개戰術空軍 2개戰爆飛行團 1개飛行輸送부대

英 國		6. 29 航空母艦 1 隻 巡洋艦 2 隻 驅逐艦 2 隻 小型驅潛艦 3 隻	
Australia		7. 1 驅逐艦 1 隻 小型驅潛艦 2 隻	7. 2 1 개 戰鬪飛行대 1 개 飛行輸送중대
France		7. 22 小型驅潛艦 1 隻	
Netherlands		7. 16 驅逐艦 1 隻	
Canada		7. 30 驅逐艦 3 隻	7. 25 1 개 飛行輸送대
New Zealand		7. 31~8. 1 小型驅潛艦 2 隻	

한편, MacArthur 元帥는 자신이 UN軍總司令官으로 任命된날에 美제 8 군사령관 Walton H. Walker 中장으로 하여금 韓國에서 作戰指揮權을 行使할것을 命令하였다.

이에따라 同中장은 이틀전에 豫告하였던 司令部의 韓國移動을 이날부터 着手키로하고 作戰참모 William A. Collier 大령 (현직은 參謀副長)에게 『즉시 韓國으로가서 Dean 소장과 협의하여 제 8 군사령부의 位置를 選定하라』고 지시하였다.

때마침 이날은 早朝부터 敵의 先頭부대가 天安을 侵攻하고 있었던만큼 그自身도 같은날 午前에 大田으로 飛行하여 Dean 소장과 함께 戰線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이때 사령부의 位置選定을 指示받고 大田에 空路로 進出한 Collier 大령은 下午에 同소장 및 Church 中장과 協議끝에 大邱에 美제 8 군사령부를 設置키로 結論을 내리고 Tokyo에 있는 참모장 Eugene M. Landrum 大령에게 連絡하여 指揮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다음날인 9월 13.00에 開所키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제24사단장이 駐韓美地上軍사령관의 자격으로, 美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에게 同사단의 最初進出부대에 대한 運用方案을 지시하는등 그의 權限을 行使하고 있었으며, 軍사령부는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하지 않고 있었다.

12일에 戰況이 急轉하여 錦江線 防禦에 들어가면서 美 제25사단主力이 釜山을 거쳐 戰線으로 前進하기에 이르자 MacArthur 元帥는 『13일 00.01를 期하여 作戰指揮權을 引受, 統合作戰을 遂行하라』는 命令을 口頭로 Walker 中장에게 下達하였다.

이로써 美제 8 군사령관은 隸下의 2 개 戰鬪사단을 包含하여 韓國戰線에 參戰하는 UN地上軍부대들을 統合指揮하는 UN地上軍사령관을 兼任케 되었다.

이에따라 Dean 소장은 美제24사단장으로서의 基本任務만을 遂行케되고, Church 中장은

통신 및 정보要員을 除外한 殘餘 ADCOM 要員과 함께 이날 下午 Tokyo의 極東軍司令部로 돌아갔다.

이와함께 大田에 있던 陸軍本部도 13일 下午에 大邱(中央國民학교)로 移轉한다음, 다음날인 14일부터 美제 8군의 統合作戰計劃에 協調하였는데, 이때의 兵力은 戰鬥力이 半減된 美제 24사단과 새로이 來著한 美제 25사단 그리고 釜山의 軍需司를 包含한 美地上軍兵力이 18,000명이었다.

이와같이 UN軍의 派韓은 同제 2次決議에 即刻 呼應하여 參戰한 友邦軍이 中心이 되어 이루어지고, 이와함께 제 3次決議에 의거, 美極東軍司令部는 UN軍 總사령부의 機能을 同時에 發揮케 된 것인바, 各決議案의 內容 및 表決結果는 다음과 같다.

### UN安保理의 韓國支援 決議內容

#### 제 1次決議(韓國時間 50. 6. 26. 05. 00)

議題: 共產侵略 行爲停止命令에 關한 決議案 採擇

結果: 贊成 9, 反對 0, 棄權 1, 不參 1

內容: (原文 改訂版 제 1.2卷 부록 參照)

1. 敵對 行爲의 즉각 中止를 要求하고 北傀當局이 그들의 軍隊를 즉각 38°線으로 撤收시킬것을 促求한다.
2. UN韓國委員團은
  - 가. 充分히 檢討된 事態에 對한 報告를 可能한 限 遲延없이 보낼것과
  - 나. 北傀軍의 38°線으로의 撤收를 監視할것과
  - 다. 이決議案의 執行에 對하여 NU安保理에 계속 報告 할것을 要求한다.
3. 모든 會員國들은 NU이 이決議案을 執行하는데 支援을 아끼지 發給하며 北傀당국을 支援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促求한다.

#### 제 2次決議(韓國時間 50. 6. 28, 11. 00)

議題: 大韓民國에 對한 軍事援助決議案 採擇

結果: 贊成 8 反對 1 棄權 1 不參 1

內容:

安保理는 北傀軍隊의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을 平和의 破壞行爲로 規定하였으며, 北傀當局에서 戰鬥을 즉각 中止하고 그들의 軍隊를 즉각 38°線으로 撤收 시킬것을 促求하였다. 그러나 UN韓國委員團으로 부터 北傀當局이 戰鬥을 中止하지않고 있다는 사실과 國際平和와 安全을 保障할 效果의인 措施를 즉각 取하여야 할 것을 UN에 呼訴하였음을 감안하여, 大韓民國이 武力侵略을 격되하고 그 地域에서 國際平和와 安全을 恢復하는데 필요한 援助를 提供하여야 할 것을 UN會員國에게 勸告 하는바이다.

#### 제 3次決議(韓國時間 50. 7. 7.)

議題: UN統合軍司令部 設置에 對한 決議案 採擇

結果: 贊成 7, 反對 0, 棄權 3, 不參 1,

內容：

1. UN會員各國政府 및 國民이 1950年 6월 25일과 27일자 決議에 따라서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衛하고 있는 大韓民國을 援助 함으로써 이地域에 國際平和와 安全을 恢復함에 신속 強力한 支持를 歡迎하며,
2. UN會員各國이 大韓民國에 對한 援助 提供을 UN에 傳達하여 왔음을 留意하고,
3. 前記 安全保障理事會의 모든 決議에 依據하여 軍事 및 기타의 援助를 提供하는 全會員國은 如斯한 軍事, 其他援助를 美合衆國 主導下의 統合司令部로 하여금 効用하도록 건의하며,
4. 이러한 모든 軍隊의 司令官을 任命할것을 美合衆國에게 要請하고,
5. 北傀軍에 대한 作戰中에 있어서 參戰各國의 國旗와 함께 UN旗를 任意로 사용할 權限을 統合司令部에 부여하고,
6. 美合衆國은 安保理에 對하여 統合軍司令部 指揮下에 行하여지는 作戰段階에 關하여 報告를 提供할것을 要請한다.

**Walker 중장의 作戰計劃：** UN地上軍사령관으로서 作戰指揮權을 行使하게된 Walker 중장은, 13일에 最初로 自身の 作戰概念과 美제24 제25 兩사단에 對한 戰鬥任務를 包含한 作戰令 제1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제8군은 敵의 前進를 阻止하고 現 방어선을 確保하며, 狀況을 安定시켜 次期공세를 위하여 必要한 兵力을 集結한다.

② 제24사단은 敵을 錦江線에서 阻止하라.

③ 제25사단은 中部山岳地帶에서 방어중인 韓國軍을 支援하라. 동시에 1개대대르써 迎日飛行場과 浦項을 경비하라』

이는 2개사단으로 現戰線의 固守가 可能한 것으로 보고, Tokyo 附近에 있는 제1기갑사단이 18일까지 浦項으로 上陸하면 戰鬥力이 弱화된 제24사단을 우선적으로 增援하고, 이어서 錦江—小白山脈線에서 攻勢移轉으로 敵을 擊滅코자한 그의 意圖를 나타낸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赴援중인 부대들이 配備에 들어가기도전에 敵은 13일을 前後하여 錦江線을 本格的으로 渡河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美제24사단의 제21연대는 마지막으로 鳥致院에서 撤收하여 再編成에 들어가고, 이에 대신하여 제19연대(장, Guy S. Meloy 대령)가 浦項과 大邱에 控置한 2개대대를 急遽 北上케하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大平里近傍에 배치하고, 平澤—天安—公州軸線으로 遲延을 許한 제34연대를 公州前面의 錦江線에 배치하였으나 敵의 先頭는 여가를 먼저 侵襲하기에 이르렀다.

浦項의 경비에 대하여서는 『戰鬥사단의 入港과 海空軍의 基地로 活用될 것이므로 이곳의 警備를 強化하라』는 極東軍사령관의 意圖에 따라 軍에비인 제19연대에서 1개대대를 여기에 배치하여 경비중에 있었으나 狀況이 急轉하므로 Dean 소장은 8일 大田에 空路 進出한 美제25사단장 Kean 소장에게 『최초로 上陸하는 제27연대에서 1개대대를 차출하여 浦項의 迎日飛行場 경비임무를 引受토록 하라』고 指示함으로써 제19연대는 그任務를 交代하고 사

단主力과 合勢한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下에 있을때 Osaka 부근에서 船便으로 出發한 美제25사단은 10일부터 15일 사이에 釜山으로 上陸하여 中部戰線의 後方에 逐次로 進出하여 配備케 되었다.

이는 Walker 中장의 作命제 1호에 따른 것으로써 10일에 先着한 同사단의 제27연대(장, John H. Michaelis 中령)를 永川에 控置하고 이중 1개대대가 浦項경비에 나섰으나 13일에 다시 義城을 거쳐 安東으로 北上하여 我제 8사단을 增援코자 하다가 곧 이를 變更하여 黃鵠으로 轉進케 하였다.

또한 12일에 두번째로 赴援한 제24연대(장, Horton V. White 대령)는 醴泉으로 北上하여 接敵을 유지하다가 尙州로 轉進한다음 我제17연대가 담당하던 化寧場에 交替投入되고, 마지막의 제35연대(장, Henry G. Fisher 대령)는 美제24연대를 增援하는 한편 開慶의 제 6사단 地域에 1개대대를 分進하여 火力으로 支援하다가 15일부터 20일사이에 尙州—咸昌으로 轉進하고, 나머지 1개대대를 浦項에서 뿔아 제27연대에 배속함으로써 京釜國道の 敵을 牽制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初期에 美제24사단을 安東—醴泉—咸昌線으로 分進케한 것은 마음을 놓을수 없었던 韓國軍을 增援키위한 措置로 보였으나 結果의으로 中東部の 戰況보다는 美제24사단이 16일에 錦江線에서 물러나고 이어서 20~21일사이에 大田戰鬪에서 무너짐으로써 京釜軸線의 危機를 맞게되어 分散支援中인 美제25사단을 再整理코자 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때에 美제 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이 浦項으로 上陸하는 즉시로 19일부터 22일사이에 永同附近에 投入하며 美제24사단의 殘餘부대와 交代케함으로써 새로운 作戰段階에 접어들게 되었다.

**增援部隊의 投入狀況** : 애당초 MacArthur 元帥는 合同戰略計劃團인 JSPOG(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로 하여금 7월 2일부터 Blue Hearts 上陸作戰計劃을 推進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나 美제24사단이 天安까지 撤收하는 狀況에 부딪치자 10일에 이를 撤기하고 上陸사단으로 指名하였던 제 1기갑사단을 急遽 제 8군傘下로 編入시켜 赴援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의 이와같은 措置는 2개사단만으로 敵侵을 阻止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본 최초의 計劃과는 달리 戰勢가 豫想外로 急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의 戰鬪사단이 모두 韓國戰線에 出動한 다음에도 同元帥는 上陸作戰에 必要한 戰鬪부대의 增援을 JCS에 거듭要請하면서 計劃의 推進을 指示하였다.

그런데 同월 13일, 즉 美제 8군사령부가 大邱에 移轉하여 統合作戰에 들어가던날, 美陸軍參謀總長 Lawton J. Collins 대장과 空軍參謀總長 Hoyt S. Vandenberg 대장이 極東軍司令部를 訪問, UN에서 보낸 旗를 MacArthur 元帥에게 傳達하고 곧 會議에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同元帥는 自身の 上陸作戰에 대한 腹案을 說明하고 이에 必要한 支援을 要請하였다 다음날 兩대장은 大邱의 美제 8군사령부에서 Walker 中장 및 Dean 소장 그리고 丁一權

소장등과 會談하였는데 Walker 중장은 이때에 追加的인 戰鬥부대의 支援을 要請하면서 “洛東江線으로 轉換하여 橋頭堡를 形成할 수 있을것”이라는 자신의 見解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戰線狀況을 살펴보고난 Collins 대장 一行은 Tokyo로 돌아가서 이곳을 떠나기에 앞서 極東軍사령관에게 “日本에 있는 4개의 사단 이외에도 Washington의 Fortlews 기지에 있는 제 2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과 California의 Pendleton에 있는 제 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 그리고 同 Stoneman 기지의 제11공수단의 1개전투단 및 제4, 제29전투단(Okinawa 기지)등이 追加的으로 可用한 부대”라는 意見을 提示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一連의 會談을 通하여 增援부대의 限界가 豫見되므로, 同元帥는 이를 參考로하여 作戰參謀 Edwin K. Wright 소장에게 上陸作戰計劃을 樹立토록 指示함으로써, 23일에는 一名, Chromite 개략계획의 完成을 보게되었다.

그리고 Walker 중장도 3개의 전투사단 이외에는 더 可用할 增援부대가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戰線을 整齊하여 洛東江線의 固守를 다짐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期間동안 駐日美軍 4개사단의 赴援狀況을 一括하면 아래와 같다.

駐日美軍 戰調師團의 赴援狀況

사 단	原駐留地	來著期間	場 所	主 要 戰 鬪 地 域
美제 24사단 (제 19, 21, 34연대)	日本の Kyushu 中·北 部	7. 1~7. 4	釜 山	1. 烏山—平澤—天安—錦江(7. 5~7. 15) 2. 大田—永同(7. 16~7. 21) 義城—軍威—金泉에서 재면성(7. 22~23) 3. 再編成後晉州로 移動(7. 24~7. 26) 4. 安義—居昌—河東(7. 27~)
美제 25사단 (제 24, 27, 35연대)	Osaka 附近	7. 10~7. 15	釜 山	1. 安東—醴泉—咸昌(7. 13~7. 22) 2. 尙州—化寧場—黃澗(7. 23~7. 31) 3. 馬山으로 移動(8. 1~)
美제 1기갑사단 (제 5, 7, 8연대)	Kanto 附近	7. 18~7. 22	浦 項	1. 永同—黃澗—金泉(7. 20~7. 31) 2. 金泉—倭館(8. 1~)
美제 7사단 (제 17, 31 32연대)	HonShu北部 및 Hokkaido 附近	9. 15~	仁 川	1. 仁川上陸作戰에 參加(9. 15~)

以上の 4개사단중에서 美제 7사단(장, David G. Barr 소장)은 日本の 安全을 위하여 現位置에 계속 駐留하면서 韓國戰線에 先發한 3개사단에 대하여 兵力을 充當하는 補充부대의 役割을 遂行함으로써 29일현재의 兵力水準은 50%에 未達하고, 있었다.

따라서 Walker 중장은 2개사단으로 敵의 主力을 尙州—金泉線에서 阻止擊滅할 수 있을 것으로 睚다보고 이의 固守를 嚴命하였던 것이지만 점차 西南部의 危機에 直面하게되자 이에 緊急對策을 서두르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再編成중인 美제 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을 23일에 安義—居昌—晉州

線으로 急派하는 一方, 24일에 Okinawa에서 赴援한 제29연대(-1)와 黃潤에서 물러선 제25사단의 제27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를 31일에 각각 同사단에 배속하여 敵侵을 막아내도록 하였다.

또한 戰線이 洛東江線內廓으로 더욱 좁혀짐에 따라 美제25사단(-1)도 馬山으로 轉進케 되었는데, 이때 이하의 제24, 제35의 兩연대를 비롯하여 Hawaii에서 29일에 釜山으로 上陸한 제5전투단(장, Godwin L. Ordway 대령)과 8월 6일에 增援된 제1해병여단의 제5해병연대(장, Raymond L. Murray 중령)로 Kean 特殊任務部隊(美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의 이름을 딴 別稱)를 構成하여 洛東江과 南江의 合流點에서 그 南쪽一帶를 敵의 迂回溢出을 막아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美本土로부터 맨먼저 釜山으로 來著한 美제2사단의 제9연대(장, John G. Hill대령)는 최초 軍예비가되어 慶山부근에 控置하다가 31일에 美제24사단에 배속하여 靈山전투에 投入키로 하였다.

### (3) 國軍 作戰指揮權의 移讓

Tokyo 極東軍司令部는 7월 8일부터 UN軍總司令部로서의 機能을 同時에 發揮하게 되었고 大邱의 제8군사령부는 同월 13일부터 UN 地上軍作戰을 직접 擔當하는 統合軍司令부의 機能을 遂行케 되었다.

그러나 이때, 國軍의 作戰指揮權은 아직 外交의인 節次를 거치지 않고있었기 때문에 陸海空軍 總司令官을 兼任하고 있는 陸軍總參謀長이 從前대로 指揮權을 行使하고 있었는데, 14일에 陸軍本部和 美제8군사령부(大邱師範大學)가 大邱에서 同時에 開所하고 合同會議를 가짐으로써 事實上 이때부터 統合作戰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같이 韓美兩軍의 指揮本부가 實質의인 作戰會議에 들어간 다음날에 李承晚大統領은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移讓하는 書翰을 MacArthur 元帥에게 보내고, 同元帥는 3일뒤인 18일에 駐韓美國大使 Muccio를 通하여 受諾의 뜻을 表明하는 回翰을 보냄으로써 그 發効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引受한 UN軍總司令官은 總參謀長에게 作戰協調를 要望하는 口頭通報와 함께 美제8군사령관에게 一般命令 제3호(7.17)를 下達하여 國軍에 대한 作戰지휘권을 行使하도록 하였다. 즉, 同命令의 要旨에 이르되 『Walker 中장은 大韓民國大統領의 要請에 따른 UN軍 總司令官의 指示로 韓國地上軍의 作戰指揮權을 行使한다』라는 內容인바, 이의 施行日字는 同사령관의 回翰日字보다 하루를 앞당기고 있었다(研究欄 參照)

이命令이 下達되던날 Alfred G. Katzin 대령이 Tokyo로부터 제8군사령부에 急行한 다음 UN을 代表하여 Walker 中장에게 UN旗를 手交하니, 이로부터 韓國戰線에 同旗가 휘날

리제 되고 同중장은 최초의 UN 地上軍司令官이 되어 國軍의 地上軍 作戰까지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節次가 이루어질 무렵인 16일에, 國防部長官의 談話發表에 뒤이어 陸海空軍總사령관 名義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發表가 있었다.

『...우리國軍은 大統領의 署名에 의하여 7월 14일, 聯合軍의 構成一員으로 UN軍總사령관 指揮下에 들어가 확고부동한 作戰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UN軍總사령관 지시로 本官以下 軍의 主要부대가 作戰行動을 하고자 부득이 大邱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一線부대나 指揮系統에는 秋毫의 변동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앞서 8일에는 UN의 決議와 더불어 MacArthur 元帥를 UN軍總사령관으로 任命하였다는 消息을 傳해들은 陸軍本部當路者들 중에는 “韓國軍이 UN軍에 編入”이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하였다.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移讓한 李대통령의 書翰과 이에대한 MacArthur 元帥의 同意回翰內容은 이로부터 一週日뒤인 25일에 UN 駐在美國代表 Warren R. Austin에 의하여 同事務總長 Trygve Lie에게 傳達되고 또한 安保理에 이를 喚起시킴으로써 公式化되었다.

이로써 國軍의 作戰指揮權은 7월 18일을 기하여 UN軍總사령관에게 移讓하였거니와 여기에는 作戰指揮權의 移讓期間과 대상指揮官, 즉 作戰指揮權을 行使하는 單位指揮官의 限界가 模糊한 상태로 남게되었다(研究欄 參照)

作戰指揮權을 移讓할 당시의 國軍은 6개사단을 包含한 兵力이 6만 5천명이었으나, 그 뒤 제 2사단이 24일에 解編統合되고 그대신 제 3사단이 增編되어 東海岸沿邊의 作戰에 任하게 되었다.

## 라. 戰線의 波瀾萬丈

7월 中旬부터의 戰線은 UN軍의 統轄作戰으로 移行하면서 韓國軍 5개사단과 美軍 3개사단이 小白山脈線에서 洛東江의 外廓地帶로 遲延戰을 펴게되었다.

따라서 我제 1군단은 報恩—淸州線의 南쪽에서 東部로 轉進하여 새로이 發足한 제 2군단과 함께 洛東江 上流地域을 包含한 北東部 一帶를 맡게 되고, 美地上軍은 增援부대를 逐次投入하면서 金泉以南의 西南部地域으로 戰線을 調整하게 되었다.

### (1) 軍의 제 2次 改編과 再配置

제 1군단의 創設과 더불어 8개사단에서 5개사단으로 縮少 改編한 國軍은 安城—平澤線에서 熾烈한 攻防戰을 豫想하였으나 韓美間의 戰線交替로만 끝나고 말았다.

그와같은 急轉狀況下에서 사단을 改編하였으니 만큼 이의 完結을 보지 못한채로 主戰



場을 옮기게 되니 더욱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즉, 3개사단의 解編으로 예비兵力이 없는 狀況에서의 遲延戰을 피게 되고 더구나 流動하는 波瀾속에서 兵力을 補充하여 즉각 戰力化하여야 만 되었기 때문이다.

戰鬪사단의 再建 : 이와같이 戰況의 激變에 따라 兵力의 補充이 促求되고 또한 美地上軍의 參戰과 더불어 後方の 防守가 緊要하게 되었으므로 解編사단의 再建이 不可避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陸軍本部 臨時指揮所가 平澤에서 大田으로 옮긴 다음날인 6일부터 이問題가 公式化되었던 것이니 이때, 國軍의 再編成에 關與한 것으로보인 Church 준장의 同意를 얻어 7.7의 陸軍歷史日誌에는 同준장을 “國軍再編成 指揮官에 任命하였다”고 記錄됨—解編한 3개사단을 再建하고, 1개사단을 新設하는 한편 이와는 別途로 後方地區의 編成과 防衛를 위하여 暫定的으로 編成管區를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陸軍本部는 解編한 사단의 固有名稱을 살려, 먼저 3개사단을 再建하고 이와 併行하여 釜山에서 제 9 사단을 創設키로 하여 國本一般令 제 3 호(7.7)와 陸本特命 제 11 호(7.7)를 下達하였는데 그部署와 指揮官의 補任현황은 아래와 같다.

#### 再建 및 新設한 戰鬪사단

제 3 사단(大邱) (장, 劉升烈대령) (李俊植준장, 7월 10일부터)

제 23연대(大邱) 제 25연대(浦項)

제 5 사단(光州) (장, 李燭錫대령)

제 26연대(光州) 제 15연대(麗水)

제 7 사단(全州) (장, 閔機植대령)

제 3 연대(全州) 제 9 연대(南原)

제 9 사단(釜山) (장, 李鍾贊대령)

제 22연대(釜山) 제 27연대(馬山)

이 命令의 發効와 함께 李俊植준장을 수도사단장으로 부터 陸士校長으로 轉補하고 그後任에 새로이 金錫源준장을 任命하였으며 3일뒤인 10일에는 李俊植준장을 제 3 사단장으로 다시 轉補하였다.

이와같이 軍은 開戰初期와 같은 數의 8개사단을 維持하려고 試圖하였으나 戰鬪經過에 따라 各연대의 戰鬪力이 顯著하게 隔差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存續과 解編 그리고 統合을 選別하여 이의 隸屬變更을 斷行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새로이 再建과 發足을 보게된 4개사단 隸下의 各연대 狀況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제 23연대—제 3 사단 所屬인 同연대는 陸本作命 제 93 호(6.26)에의거 分散된 3개대대를

釜山에 集結待機중 7월 1일에, 그主力이 蔚珍—平海線으로 進出하여 獨立의으로 戰鬥을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軍은 國本—一般命令 제 3호(7.7)로 殘留兵力을 收拾하여 大邱에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사단을 完編코자하였으나 東海岸의 沿邊이 漸次로 危機에 놓이자 共匪擊滅中인 獨立부대들을 同사단에 增編하여 이地域에 投入키로하고 大邱에서 再建키로한 同연대는 이를 取消하여 17일에 제 3 新병교육대로 轉換하였다.

그러므로 同연대는 東海岸沿邊으로 進出한 최초의部隊가 그正統을 잇게 되었다.

제25연대—제 2사단 所屬이던 同연대는 榮州北쪽의 太白山—日月山 一帶에서 共匪擊滅中에 긴급出動命令을 받고 6월 26일에 一部兵力만을 收拾하여 彌阿里附近에 投入하였으나 그뒤 戰鬥力이 弱화되어 제 2사단의 제 5, 제 16, 제 20연대에 각각 編入하였다. 따라서 뒤늦게 集結한 1개대대 兵力은 豊基—榮州線에서 作戰中인 제 8사단에 編入하여 모두解編되기에 이르렀으므로 殘餘 幹部들을 基幹으로하여 浦項에서 再建을 試圖한 것이다.

제26연대—德裕山—智異山 一帶에 一部兵力을 投入한 제 5사단의 제 15, 제 20兩연대는 그主力이 彌阿里—奉日川線으로 進出한 다음 제 7, 제 1兩사단에 배속되어 遲延戰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뒤늦게 集結한 兵力으로 이 연대를 새로이 新設하여 光州—圓의 防衛를 담당케 하였다.

제15연대—前記한바와같이 戰線에 投入된 뒤에 改編計劃에 따라 同연대는 제 1사단의 제 13연대에 編入하였다. 이로써 제 15연대가 解編되고 西南部地域에 空白이 생겼으므로 殘留兵力을 모아 이 연대를 再建하여 麗水—圓의 防衛를 담당케 하였다.

제 3연대—수도경비사 소속이던 同연대는 6월 25일 최초의 反擊부대로 抱川地區에 投入된 뒤에 戰鬥力이 계속 弱화되었으므로 사단의 改編計劃에 따라 殘餘兵力을 모두 수도사단의 제 1연대에 編入하고 一部 基幹要員만이 全州로 내려가서 同연대를 再建하여 이곳의 防衛를 담당케 하였다.

제 9연대—제 7사단 소속으로 抱川正面을 맡았던 同연대도 戰鬥力이 계속 弱화되어 제 3연대와 함께 수도사단의 제 1연대에 編入하였고 一部 基幹要員만이 全州와 南原으로 내려가서 이 연대를 再建하여 이곳의 防衛를 담당케 하였다.

제22연대—제 3사단 소속인 同연대는 普賢山地區에서 共匪擊滅에 任하고 있던 1개대대를 현지에 남겨둔채 主力은 奉日川附近으로 進出한다음 제 1사단에 배속되어 遲延戰을 벌이면서 平澤으로 集結하였다. 이때 同연대를 사단의 改編計劃에 따라 제 1사단에 編入하였다가 곧 이를 取消하여 原所屬으로 復歸케 함으로써 淸州—黃澗—秋風嶺—大邱를 거쳐 24일에 盈德으로 轉進하였다. 따라서 7일에 國本—一般命令으로 釜山에서 再建키로 한 同연대는 17일에 제 8교육대에 吸收되고 原부대가 그 正統을 잇게 되었다.

제27연대—馬山에 位置하여 智異山의 東南쪽 共匪의 出沒지역을 管掌하던 제 3사단의 제 23연대 1개대대가 蔚珍地區에 出動한 결과 이곳에 空白을 보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제

23연대의 나머지 兵力으로 이 연대를 新設하고 馬山地區의 防衛를 담당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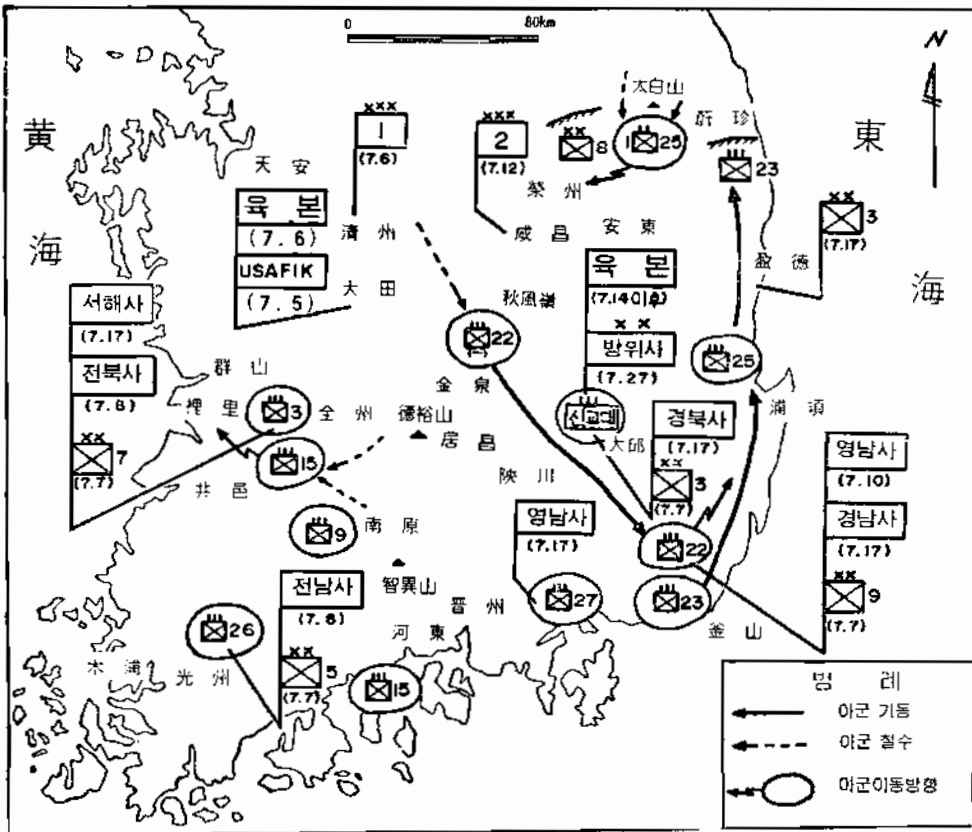
以上の 編成은 各연대의 戰力을 中心으로 存廢를 加減하였으므로 戰線의 變動에따르는 臨機措置가 必要하였다.

**編成管區의 設置와 湖南地區戰況** : 다음날인 8일은 Tokyo에서 UN軍총사령부가 發足되고, 陸軍은 이날을 期하여 全南北道를 除外한 南韓全地域에 戒嚴令을 宣布하였다.

따라서 戒嚴地域에서 除外된 全南北道の 後方編成을 強化하여 資源을 確保할 目的으로 같은날 國本一般命令 제 4호(7.8)를 下達함으로써 이곳에 두개의 編成管區를 設置하였던바, 該當地域과 指揮官의 補任현황을 보면 全州의 全北編成管區司令官에 申泰英소장을, 光州의 全南編成管區司令官에는 李應俊소장을 각각 任命하였다.

그런데 이 命令과는 別途로 釜山에 제 3군단(假稱)사령부를 設置하고 이를위인 10일에 前總參謀長 蔡秉德소장을 同군단장에 補任하였던 것이니 이는 당시 이地域이 戒嚴地區인 동시에 各種부대가 備비고 있던 까닭에 이를 統制하는 方便으로 軍단 名稱을 賦與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때에 同군단이 遂行키로 된 主要任務는 첫째, 慶南北地域에 位置한

◇ 상황도 제 15호 後方地域의 編成狀況(7.7~17)



陸士를 비롯하여 工兵, 通信, 兵器, 兵站, 憲兵 및 南山學校등 7개의 教育機關을 管掌하고 들째, 제 3 사단의 再編成과 제 9 사단의 創設을 推進하는데 있었다.

이와같이 8일에 軍단名稱으로 發足한 이 부대가 12일에는 다시 嶺南編成管區로 改稱하였던 것이니 이는 같은날에 發足한 咸昌의 제 2 軍團과 區分하고 또한 戰鬪지휘부대가 아닌 同부대로 하여금 後方支援任務만을 專擔토록 하기위한 措置로 풀이되었다(研究欄 參照)

이무렵, 戰線은 더욱 南下하여 錦江線이 무너지면서 後方에는 遊擊부대의 出沒이 激甚하게 됨으로써 軍은 後方編成의 合理的인 運用을 圖謀하고, 急激히 增加하는 兵員의 所要를 充當하기 위한 新兵의 徵集과 訓練이 焦眉의 急務가 되었다. 그리하여 作戰指揮權을 移讓하기 前날인 17일에 國本一般命令 제 15호로 4개의 編成管區(全北, 全南, 慶北, 慶南)로 개편하여 이의 任務를 專擔토록 하였으나 그것이 名目上の 編成이었으므로 所期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指揮上의 混沌단을 가져 왔다.

또한 같은날에 屋上屋格인 西海岸地區戰鬪司를 新設하고 全北編成管區司令官이던 申泰英 소장을 轉補하여 全北編成管區와 이地域의 群少戰鬪부대를 管掌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함께 蔡秉德소장을 嶺南編成管區司令官으로부터 解任하고 後任에 全南編成管區司令官인 李應俊소장을 轉補하여 慶南과 慶北의 兩編成管區를 管掌토록 하였으나 新任사령관인 李소장은 連絡不充分과 湖南地區 戰況이 緊迫하였던 때문에 全南編成司에 그대로 머물러있었고 同부사령관 職位에 있었던 劉升烈대령이 그職務를 遂行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렵에 敵제 4 사단이 論山으로 迂回하여 大田의 背後로 進出하고, 그들 제 6 사단은 全州近傍까지 侵入하는 事態에 直面하자 保留하였던 全南北道에 戒嚴令을 宣布(21일) 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軍은 西海岸地區戰鬪司로 하여금 3개의 戰鬪부대를 지휘하여 이곳의 敵을 阻止토록 하는 陸本作命 제 58호 및 제 61호, (7. 20)를 下達하였다.

이에따라 同전투사는 제 7 사단의 一部兵力으로 編成한 金(秉化)부대를 비롯하여 麗水에 있는 제 5 사단 제 15연대 제 1 대대로 編成한 李(暎奎)부대와 釜山에서 出動한 제 9 사단 제 22연대의 一部인 吳(德俊)부대 그리고 長項-群山間에서 海軍輸送船의 荷役作業을 掩護中인 제 3 해병중대를 배속받아 遲延戰을 展開코자 하였다.

이외에도 漢江線에서 撤收한 1개소대 규모의 육본소속의 特攻隊와 1개의 騎兵중대 그리고 3개의 전투경찰대대가 要路에서 獨自의으로 敵을 邀擊하고 있었다.

敵 제 6 사단의 衝勢가 裡里-全州를 侵奪하고, 21일에 全南北道の 接境인 南原-井邑線에 이를무렵, 제 5 사단의 趙(始衡)부대 (同사단 사령부 基幹要員)는 湖南線으로 北上하여 그들의 先頭를 막게되고, 李(暎奎)부대는 金羅線으로 移動, 南原에 이른다음 西海전투사의 指揮下에 들어가 戰鬪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敵은 我軍의 遲延線을 突貫한 다음, 餘勢를몰아 23일에는 光州에 突入하고 그들 一團은 全羅線沿邊의 求禮-順天線으로 直衝하였다. 이地域의 마지막을 防守하던 제 5 사단

의 一部兵力과 全南道警管下의 경찰隊들은 侵入한 敵을 遲延하면서 26일에 麗水와 欽知島를 통하여 撤收하고, 閔(機植)부대 —이는 西海전투사 管下에서 戰鬪중이던 吳, 金 兩부대와 새로 增援된 金聖恩해병대를 統合한 名稱이다—는 雲峰—咸陽線으로 移動하여 美제24사단의 作戰統制下에 들어갔다.

따라서 17일에 發足한 西海전투사는 7 일동안 名目上으로 浮動하다가 敵이 道界를 넘어선 24일에 自動解體되고 그대신 陸本作命 제65호(7. 24)에 따라 閔부대가 前記한 3 개의 戰鬪부대를 指揮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嶺南編成司는 改編 당일인 17일에 敵이 노리고있는 이른바 “退路의 목”인 馬山으로 移轉하여 湖南地區에서 撤收한 戰鬪부대를 整齊코자 하였으나 이亦是 編成上의 矛盾으로 戰鬪부대와 遊離한채, 제 9 사단의 제25연대(浦項)와 제27연대(馬山)의 創設만을 推進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電文—通으로 編成管區라는 樓閣하나만을 더한 緣故로, 21일이후 戰勢가 湖南地區에 몰아닥칠 즈음에는 戒嚴司令官의 職位를 兼한 사단장의 指揮權을 統轄하려는 二元性 때문에 戰鬪力만을 分散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뒤 戰線이 洛東江線 前面으로 壓縮됨에 따라 各戰鬪부대도 獨自的 經路를 擇하여 撤收하게되고, 各編成管區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사이에 모두 解體하여 제 2 사단의 基幹으로 發足を 보게된 大邱防衛司(사령관 李翰林대령)에 編入措置하였다(제14章 제 1 절 湖南地區의 戰況參照)

제 2 군단의 創設과 사단의 改編 : 한편 戰線의 波瀾이 高潮함에 따라 제 1 군단의 戰鬪地帶가 縮少되면서 中部의 제 6, 제 8 兩사단은 竹嶺—烏嶺—梨花嶺의 固守를 앞두고 더욱 統制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에 直面한 軍은 敵이 필시 洛東江上流에 이르는 接近捷路인 榮州—咸昌線에 集中할 것이라는 判斷아래 이에대한 策案을 強化하는 趣旨로써 12일에 咸昌에서 제 2 군단을 創設하고 金白—준장(7. 12부)을 同군단장으로 任命 한다음 제 6, 제 8 兩사단을 지휘토록 하였다.

그런데, 同군단의 創設經緯는 國本—般命令 제 4 호(7. 8)에 의거한 假稱제 3 군단(7. 10에 다시 嶺南編成管區로 改稱)의 創設計劃과 함께 成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當時 參謀副長이던 金白—대령은 8일까지 軍단과 사단 그리고 編成管區등의 創設 및 改編을 마무리한다음, 9일에 淸州로 移轉한 제 1 군단 사령부를 訪問하여, 金弘壹소장과 軍단創設計畵를 議論하였다. 그리고 10일에는 다시 延豐(聞慶北西쪽 10km)으로 가서 제 6 사단의 戰況을 살피고 11일에 梨花嶺을 넘어 咸昌에 이른것으로보아 제 2 군단의 創設計畵과 그의 任命內定은 大田을 出發하기 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研究欄 參照)

그러나 20일에 金白—준장(12일부 승진)은 다시 陸軍本部參謀副長으로 復歸하고 제 1 군단 부군단장이던 劉載興준장이 새로이 제 2 군단장으로 轉補發令함으로써 8 일만에 軍단장

職을 急遽 交替한 것이다.

이로써 軍은 2개군단과 1개直轄사단으로 指揮體系를 整理하고 21일부터 두번째로 戰線 사단의 改編을 斷行하였다.

이는 弱화된 제 2사단을 解編하여 그밖의 各 사단을 增強하고, 美제 8군의 作戰計劃에 따라 主戰場을 洛東江上流에서부터 東北部로 옮겨 次期の 洛東江防禦線 形成에 대비코자 함이었는데, 이期間동안 急激한 戰線의 變轉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軍단配屬관계가 서로 交錯되고 그 分습이 無常하였다.

이 改編은 大田이 敵의 掌中에 들어간 21일에 緊急訓令 제 8호(7.21)로 하달한다음, 國本一般命令 제20호(7.24)로 明文化하였던 것인데, 各級指揮官의 補任은 一部 연대장만을 交替하였을 뿐이며 各사단장은 變動이 없었다.

두번째의 사단改編과 兵力現況(7.24)

제 1 사단

제11연대(제 2사단 제 5연대를 編入)

제12연대(제 2사단 제20연대를 編入)

제13연대

編入以後 兵力 7,660명

제 2 사단, (解編과 同時에 大邱防衛司로 轉換)

제 5 연대(解編과 同時에 제11연대에 編入)

제16연대(제 8사단所屬으로 隸屬變更)

제20연대(解編과 同時에 제12연대에 編入)

제25연대 제 2대대(榮州附近에 集結하여 제 8사단 제21연대에 編入)

제 3 사단

제22연대(제 1, 제 2 獨立대대를 編入)

제23연대

기갑연대(永登浦학원을 編入)

編入以後 兵力 8,325명

제 6 사단

제 2 연대

제 7 연대

제19연대

兵力 6,570명

제 8 사단

제10연대

제21연대(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를 編入)

제16연대(제2사단에서 編入)

編入以後 兵力 8,154명

수도사단

제1연대

제8연대(解編과 同時에 제18연대에 編入)

제18연대(제8연대를 編入)

제17연대(配屬)

編入以後 兵力 6,709명

陸軍 戰鬥사단 總兵力 37,418명

## (2) 逐次遲延의 高潮期

7월 中旬以後의 推移는 京釜國道沿邊에서 作戰中인 美제24사단이 車嶺山脈과 錦江線에서 물러섬으로써 戰線의 急激한 變化가 일기시작 하였다.

京釜國道沿邊의 美軍戰線 : 이리하여 同사단장 Dean 소장은 大田의 固守를 決心하고 殘餘兵力으로 同市의 外廓을 防備케 하는한편, 全義—烏致院線에서 물러선 제21연대로 하여금 大田—沃川間의 鐵道터널을 包含하여 사단의 撤收路를 掩護케 하였다.

그런데 大田이 危機에 直面하고있던 18일에 Walker 중장이 大邱로부터 이곳에 進出하여 사단장에게 이르기를 『軍은 盈德—洛東江線을 固守防禦線으로 定하였으니 增援부대가 來著할때까지 小白山脈線에서 敵을 최대한 阻止할 것이며, 곧 제1기갑사단이 大田附近에 投入될 예정이니 귀사단은 20일까지 大田을 固守하라』라고 強調하였다.

그러므로 同사단장은 接戰하면서 離脫할것 까지를 考慮하여 최소한 21일까지는 이곳을 支撐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防禦개념을 굳힌듯 하였다. 그러나 이날부터 2개 사단규모의 敵이 前面과 側後方으로 부터 挾攻을 企圖하면서 19~20일간에 大田을 包圍하여 그들 主力이 市內에 侵入하기에 이르렀다. 同사단은 大田—論山의 出口와 甲川의 沿岸에서 苦戰을 계속하였으나 같은날 下午에는 唯一한 京釜國道の 撤收路마저 遮斷됨으로써 包圍속에서 놓인 작부대들은 永同을 目標로 各個分散하여 撤退하게 되었다.

이戰鬪중에 Dean 소장의 行方이 杳然하게 되었으므로 제8군사령관은 22일에 前ADCOM의 지휘관인 Church 소장(같은날 소장으로 昇進)을 그後任으로 任命하고, 大田에서 撤退中인 사단을 永同으로 進出한 美제1기갑사단(Hobart R. Gay 소장)과 交替케 한다음, 義城—軍威—金泉間에서 兵力을 收拾 再編成토록 하였다.

이로써 美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에 이어 세번째로 韓國戰線에 赴援한 美제

1기갑사단이 京釜國道沿邊을 引受하게 되었는데 同사단의 제 5기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와 제 8기갑연대(장, Raymond D. Palmer 대령)는 永同을 目標로 急히 進出하여 22일부터 敵제 3사단과 激突케 되었다. 이와함께 我제 1군단이 報恩—淸州線에서 東部로 轉進케 됨에따라 제 8군사령관은 여기에대한 側方威脅을 排除코자하여 安東에 控置한 美제 25사단의 제 27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를 急遽 黃澗西北쪽 6km에 急進케 하여 報恩—黃澗의 接近路를 遮斷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곳을 目標로 南侵한 敵제 2사단은 24일부터 同연대에 壓力을 加重하였으므로 美제 1기갑사단의 側方이 遮斷될 危險性을 안게 되었다.

이에 同사령관은 Helene호 颱風으로 22일 뒤늦게 浦項으로 上陸한 美제 7기갑연대(장, Cecil W. Nist 대령)를 黃澗으로 急進케 하여 제 27연대의 後方に 縱深配置토록 하였으나 2개사단의 敵이 永同一黃澗線에서 繼續 挾攻할 뿐만아니라 그 一部는 知禮(金泉 西南쪽 16km)로 迂回하여 金泉의 側方을 威脅함으로써 더욱 混戰을 빚게되었다. 이때에 永同一金泉間에 배치된 美軍 4개연대는 이러한 戰勢에도 不拘하고 反擊과 遡擊으로써 奮戰을 거듭하다가 30일에 이르러 이地域을 내어놓고 金泉以東쪽으로 後退하여 紛擾의 戰線을 整齊케 되었다

中東部の 韓國軍戰線 : 錦江防禦線이 崩壞될 무렵에 我제 1군단은 槐山—淸州線南쪽에서 2개사단규모의 敵을 遡擊중에 있었다. 同군단의 右一線인 제 1사단(장, 白善煥대령)은 10일까지 陰城附近에서 그들 제 15사단을 一擊한다음, 槐山으로 逐次로 撤收하여 이곳에서 13일까지 接敵을 維持하였으나 그 壓力이 漸次로 輕減되는 徵候를 보였다. 뒷날의 戰鬥經過에서 알려진 事實이지만 이때 그들의 主力은 東側方의 化寧場쪽으로 繞回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研究欄 參照)

그러나 同사단은 이러한 事實을 看破하지 못한채로 그 直南쪽으로 逐次로 遲延戰을 펴면서 槐山—米院間에 제 13연대(장, 崔榮喜대령)를 그리고 米院—淸州間에 제 11연대(장, 代理 權東贊중령)와 제 12연대(장, 金點坤중령)를 각각 배치하여 追躡하는 敵을 阻止擊滅코자 22일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동안에 그들의 活動이 顯著하게 消極化되어 다만 서로 對峙하는 戰況을 維持하였다.

이때에 敵의 主力은 富興里(米院北쪽 9km)—俗離山—化寧場軸線으로 侵透中이었다. 또한 左一線인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은 10일까지 鎭川南쪽의 烽火山—文案山線에서 數次的 反擊으로 敵제 2사단을 격파한 다음 美湖川南岸으로 轉進하여 그들을 阻止하다가 다시 國土峰(淸州南쪽 6km)一帶로 陣地를 옮겨 16일까지 이곳에서 露出된 淸州南쪽의 通路를 遮斷하고 있었다.

이때 同사단은 右로부터 제 18연대(장, 任忠植중령),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順으로 併立배치하였는데, 15일에는 이곳의 제 17연대(장, 金熙濬중령)와 舍勢한 同제 2대대(장, 宋虎林소령)를 主軸으로 超越攻擊을 試圖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 1군단의 豫備인 제 2사단(장, 李鶴林대령)은 10일까지 수도사단의 鎭川奪還作戰에 2개연대를 赴援케 한뒤 美湖川線에서 물러선 13일부터는 수도사단과 美제 19연대(장, Guy S. Meloy 대령)의 間隙인 文義(淸州南쪽 15km) 前方에 새로이 前進障地를 占領하였는데, 제 5연대(장, 金東弼중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수도사단의 제 8연대 左端으로부터 文東里(文義北西쪽 6km)의 前面에, 그리고 제 20연대(장, 朴基丙대령)을 左一線으로 하여 外川里(鳥致院東西쪽 10km)까지 占領케 하고 제 16연대는 戰鬥力이 弱化되었던관계로 品谷里(文義西쪽 4km)附近에 控置하였다.

이리하여 14일현재, 제 1군단 지휘소를 報恩에 移轉하고 제 1사단은 米院, 수도사단은 高隱里(淸州南쪽 7km), 그리고 제 2사단은 文義에 각각 指揮所를 옮겨 小白山脈을 超越하는 敵侵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제 2사단의 제 20연대와 連繫하고 있던 大平里(鳥致院南쪽 15km)附近의 美제 19연대가 14일부터 敵제 3사단의 錦江線 渡河侵攻으로 苦戰하다가 16일에 이르러 이地域을 拋棄하고 撤收함으로써 제 1군단의 西側方을 占領한 제 2사단도 一步를 물러서야 할 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틀뒤인 19일에는 大田失陷을 目前에 두고 我제 2사단이 敵제 2사단인 듯한 一團을 邀擊한 다음 文義東南쪽으로 逐次로 물러서고 수도사단은 作戰上 現障地에서 빠져나 報恩으로 集結케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에 있을때, 陸軍本部는 제 8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제 1군단의 轉進과 一部부대의 解編을 命命하는 要旨의 作戰命令 제 57호(7.20)를 下達하였다.

『① 수도사단은 現任務를 完遂하고 安東으로 移動한다음, 別命이 있을 때까지 31예비가 되라 제 17연대를 配屬하되 그 時機는 安東에 集結함과 同時에 시행된다.

② 제 17연대는 現任務를 完遂하고 安東으로 移動한다음, 수도사단장의 指揮를 받으라.

③ 제 1사단은 美제 25사단과 任務를 交代한다음 次期攻勢移轉을 준비하라.

④ 제 2사단은 別途計劃에 의거 解編하고 사령부 및 直轄부대는 大邱로 移動한다음 陸軍本部直屬이 되라』

이에 따라 제 1군단은 수도사단, 제 1사단, 제 2사단順으로 接敵離脫과 동시에 轉進을 命命하고 군단지휘부는 黃澗—尙州—安東을 거쳐 義城으로 移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6일에 미리 口頭命令(陸本作命 제 47호, 후달)을 받고 수도사단 地域에서 咸昌으로 先發한 제 17연대가 17일에 化寧場(尙州西쪽 18km)附近에 이르렀을 때에 陰城—攄山間에서 化寧場쪽으로 빠진 敵제 15사단의 先頭와 不期邂逅하여 先制奇襲으로 이를 大破함으로써 隱密히 滄東江線으로 侵透하려던 그들의 企圖를 挫折시켜버렸다.

이 不期의 一戰에서 敵의 主力을 抑留케 한 同연대는 後續하는 제 1사단과, 急遽 赴援에 나선 美제 25사단의 제 24연대(-I)가 이 戰地現場을 맡게 된 23일까지 交戰을 계속하다가 大邱

로 移動하였다.

그리고 군 예비로 指定된 수도사단은 17일부터 國土峰(淸州南쪽 6km) 一帶에서 報恩을 經由하여 安東으로 向하던중 陸軍本部의 別途 命令에 따라 제 1 연대를 제 6 사단 地域의 新機里(店村北쪽 5km)附近에 殘置하고 제 8, 제 18 兩연대를 21일에 醴泉으로 보내 美제 25사단의 제 24연대 제 3 대대와 交代하여 敵제 8 사단의 一團을 制扼토록 하였다. 그러나 同사단은 24일의 改編命令에 따라 換어졌던 各연대를 安東으로 招致하여 제 8 사단의 遲延戰을 赴援케 되었다. 한편 두번째로 轉進길에 나선 제 1 사단은 東部の 제 3 제 8 兩사단의 間隙인 春陽(榮州北東쪽 30km)附近의 阻止任務를 맡기로 하였으나 途中에서 제 17연대가 敵제 15사단을 大破하여 釘着케 하고 있었으므로 軍은 同사단에 賦與한 任務를 바꾸어서 化寧場을 要扼하고 제 6 사단의 西南쪽 虛隙을 排除케 하였다.

이와같이 수도, 제 1 兩사단이 中東部로 轉進하는 동안 제 2 사단은 一線사단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文義에서 龍山里(永同北쪽 10km)로 撤收중 追尾하는 敵제 2 사단의 主力과 一戰을 벌인 다음, 美제 25사단의 제 27연대와 交代하고 23일에 黃澗을 經由하여 列車편으로 大邱로 直向하였다. 그런데 同사단의 將兵을 태운 列車이 秋風嶺驛에 이르렀을 때에 제 3 사단의 제 22연대(장, 姜泰敏중령) 殘存兵力 300명이 이곳에 集結 待機中이었으므로 20輛의 貨車에 이들을 함께 태우고 大邱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렇게된 事由인즉, 開戰初期 제 1 사단에 뒤늦게 增援되었던 同연대가 7월 3일의 豐德川(水原北東쪽 9km)戰鬪를 치룬 뒤, 5일에 平澤에 이르렀을 때 同연대가 改編計劃에서 除外됨으로써 獨自의인 行動에 들어간 때문이었는데, 당시 兵力을 이끌고나온 同연대장 姜泰敏중령에 따르면 『우리는 平澤에서 陰城으로 갔다가 다시 曾坪으로 移動하였는데, 여기에서 제 2 사단과 함께 나오던중, 文義—報恩—化寧場을 거쳐 秋風嶺에 이르게 되었다. 1週日동안을 아무補給도 받지 못한채 山岳으로 強行軍하였기 때문에 列車에 탈무렵에는 모두 지쳐있었다』라고 當時의 經緯를 證言하였다.

이로써 京釜國道沿邊을 美地上軍이 담당한 以來, 15일간에 걸친 兩軍의 遲延戰은 徐徐히 그 終幕을 내리게 되었거니와, 이렇게 秋風嶺부근에서 中東部地域으로의 제 1 군단의 轉進과 2개사단을 再展開케 한것은 제 8 軍作戰命令 제 1 호(7.13)에 따른 것으로서 도합 8개의 韓美사단을 再整齊하기 위한 첫 措置로 풀이 되었다.

한편, 東海岸沿邊의 제 3 사단(장, 李俊植중장)은 제 23연대만으로 蔚珍南쪽에서 1일부터 遲延戰을 벌이면서 4일에 寧海에 이르렀으나 敵제 5 사단과 제 766유격부대의 繼續的인 壓力으로 16일에 풀려나 盈德으로 陣地를 옮기고 다음날 다시 밀려 盈德一帶마저 내어놓고 말았다. 이에 浦項의 危機를 맞게된 Walker 중장은 海空軍의 緊急支援으로 이驕敵을 強打케 하고 盈德의 奪還을 嚴命함으로써 21일부터 옛고 빼앗기는 爭奪戰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동안 24일에는 大邱로부터 제 22연대가 還到하고 2개의 獨立대대가 同사단에 增強됨으로써

戰鬪는 더욱 熾盛化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春陽—靑松—普賢山地區에는 機甲연대의 一部와 2개의 戰鬪警察대대가 投入되어 제 3 사단의 統制下에 對遊擊戰을 展開하고 있었다.

中央線沿邊을 따라 且戰且退하던 제 8 사단(장, 李正一大령)은 6일에 제 10, 제 21兩연대를 丹陽附近에 재배치하여 敵제 8 사단을 阻止中이었다. 여기서 同사단은 奇襲과 反擊으로 敵을 強打하면서 南漢江線 一帶에서 11일까지 攻防血戰을 벌였다. 그러나 유격부대와 合流한 敵의 一團이 後方으로 侵透하기 때문에 陣地를 竹嶺으로 옮겨 하루를 支撐하고 14일에 다시 豐基附近으로 撤收하였다. 사단은 豐基—榮州周邊의 固守를 다짐하고 追躡한 무리를 白兵血戰으로 粉碎하면서 1週日間을 支撐하였으나 그들 一團이 榮州邑內로 侵透하게 되어 作戰上 一步 물러서서 23일에 乃城江 南岸으로 撤退케 되었으며, 이로부터 사단은 제 2 사단의 제 16연대와 제 25연대 제 2 대대를 編入하여 安東까지의 逐次遲延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 제 8 사단의 一團이 榮州에서 醴泉으로 分進하고 있음을 看破한 제 8 군사령관이 이에대한 對策을 命令함으로써 金泉附近에 控置중인 美제 25사단의 제 24연대 제 3 대대가 20일에 醴泉으로 急派되었는데, 다음날인 21일에 수도사단의 제 8, 제 18 兩연대가 同美軍부대와 交替하게 되었다.

그리고 中部의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은 제 7 연대를 險城의 제 1 사단에, 제 19연대를 鎭川의 수도사단에 각각 分屬하여 增援토록 하고, 제 2 연대는 사단直轄隊와함께 忠州北쪽인 南漢江沿岸線에 배치하여 敵侵에 對備하던중, 敵제 12, 제 1 兩사단이 8일부터 強行渡河로 忠州를 圖謀코자하였다. 이에 제 2 연대가 이들을 邀擊하면서 10일에 水安堡쪽으로 撤收하고 다시 12일에는 梨花嶺으로 防禦陣을 옮기면서 遲延戰을 벌였다. 이와같은 敵 2개사단의 侵攻으로 軍은 제 1 군단에 配屬한 제 6 사단의 2개연대를 原隊復歸케 하여 同사단으로 하여금 聞慶地區를 防禦토록 함으로써 흩어졌던 각연대가 11일까지 合勢하여 烏嶺—梨花嶺線에서 敵侵을 막아내게 되었다. 그런데, 忠州附近에서 제 2 연대를 追躡한 것으로 보인 敵 2개사단중에서 제 12사단이 丹陽쪽으로 繞回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同사단 正面의 敵은 北傀제 1 사단임이 確實視되었다. 따라서 제 6 사단은 17일까지 6일동안 이地帶에서 白兵血戰으로 阻止 격파하면서 幽谷里(店村 北西쪽 5km)北쪽인 烏井山—魚龍山線에서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러나 이때 北傀는 豫備로 後續한 제 13사단을 槐山쪽에서 小白山脈을 넘어 店村—咸昌間으로 直衝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先頭가 20일에는 恩城里(店村北西쪽 15km)附近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단 正面으로 侵攻한 北傀제 1 사단 밖에도 제 13, 제 15의 兩사단이 潛侵을 企圖하여 小白山脈을 넘고있었으므로 幕谷里(店村北쪽 5km)—幽谷里—國寺峰(咸昌 西南쪽 8km)線에 제 6, 제 1 兩사단을 展開하여 敵을 要扼케 한것이니 이急轉狀況에 接한 美제 25 사단은 尙州—金泉線으로 부대를 急轉進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그동안 猫眼과도 같이 時時刻刻으로 戰勢가 變轉無雙한 過程에서 軍은 두번째 사단의 改

編과 함께 제 1군단을 中西部에서 東部로돌려 제1, 제 3 兩사단을 指揮토록 措置하였으나 이당시 제 1사단이 化寧場에서 敵제15사단을 擊碎중이었으므로 同사단을 咸昌의 제 2군단 소속으로 殘置케하고 제 1군단사령부와 수도사단만을 中東部로 轉進케 하였다. 따라서 24일에 兩개군단의 戰鬥地帶를 再調整하여 제 1군단장은 수도 및 제 8사단을, 제 2군단장은 제 1 및 제 6사단을 각각 指揮토록 하고 제 3사단은 陸軍直轄로 두었다.

이期間중에 變動된 전투부대의 指揮體系를 一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투부대의 指揮體系

日 字 및 根 據	제 1 군 단 소 속	제 2 군 단 소 속	육 군 직 할
7월 12일 陸本作命 제 42호(7.12) 國本一般命令 제 14호(7.12)	수도사단(淸州) 제 1, 8, 18연대 제 17연대(배속) 제 1사단(米院) 제 11, 12, 13연대 제 2사단(文義) 제 5, 16, 20연대	제 6사단(開慶) 제 2, 7, 19연대 제 8사단(豊基) 제 10, 21연대	제 3사단(寧海) 제 23연대
7월 20일 陸本作命 제 57호(7.20) 訓令 제 8호(7.21)	제 1사단(化寧場) 제 11, 12, 13연대 제 3사단(盈德) 제 22, 23, 기갑연대 제 1 제 2 독립대대	제 6사단(店村) 제 2, 7, 19연대 제 8사단(榮州) 제 10, 16, 21연대	수도사단(尙州—安東) 제 1연대(咸昌) 제 18연대(醴泉) (제 8연대編入) 제 17연대(化寧場)
7월 24일 陸本作命 제 67호(7.24) 國本一般命令 제 20호(7.24)	수도사단(安東) 제 1, 18연대 제 17연대(배속) 제 8사단(榮州) 제 10, 16, 21연대	제 1사단(咸昌) 제 11, 12, 13연대 제 6사단(店村) 제 2, 7, 19연대	제 3사단(盈德) 제 22, 23연대 기갑연대 제 1, 제 2 독립대대

군단지휘소의 移動狀況 ; 제 1군단은 7월 5일 平澤에서 創設한뒤, 淸州—報恩—尙州—安東을거쳐 8월 1일 義城으로, 제 2군단은 同월 12일 咸昌에서 創設한뒤 28일에 軍威로 移動하였다.

### (3) 最後堡壘線의 占領

7월 21일부터 이른바 4次작전에 들어간 北僞는 6개軸線 즉 盈德—浦項線과 安東—義城線, 그리고 尙州—軍威線과 金泉—倭館線을 비롯하여 西쪽에서는 咸陽線과 河東—晋州線 등에서 洛東江內線을 包圍의 中心部로 하면서 四角形의 兩邊上에서 壓縮을 加하려는 것이었다.

同월 23일현재, 韓美兩軍의 戰線은 盈德—覺泉—醴泉—咸昌—尙州—金泉間의 160km正面에 8개사단을 展開하고 있었으나 金泉—居昌—河東間의 西南部 120km에는 全南北地區에



〈最後堡壘를 지킨 勇將, Walker 중장〉

2개대대를 同사단에 配屬하였다. 이때 同사단은 21일에 大田에서 敗退한이래 義城—軍威—金泉間에서 兵力을 收拾하며 再編成중에 있었으나 不過 2일만에 轉進命을 받고, 다시 移動을 개시하여 24~26일간에 大邱—陝川—晉州間을 連日連夜로 強行軍한 결과 第34연대(장, Charles E. Beauchamp 대령)는 碓昌—咸陽線에, 第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第29연대를 배속받아 安義—河東線에 展開하고 第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晉州로 移動集結한 다음 陝川 北쪽으로 轉進하였다.

그런데 同사단의 展開와 함께 晉州로부터 急馳한 蔡秉德소장이 晉州—河東間의 通路에서 偵察中인 美제19연대 배속의 第29연대 第3대대(장, Harold W. Mott 중령)를 만나 함께 河東쪽으로 前進하다가 쇠고개(河東東쪽 3km)에서 敵의 一團과 不期에 衝突하여 사격전을 벌였으나 蔡소장과 同부대대장 Tony J. Raible 소령이 現場에서 戰死하고 同대대장 Mott 중령以下 3명의 參謀가 負傷을 입고 물러나게 되었으니 이때가 27일 10.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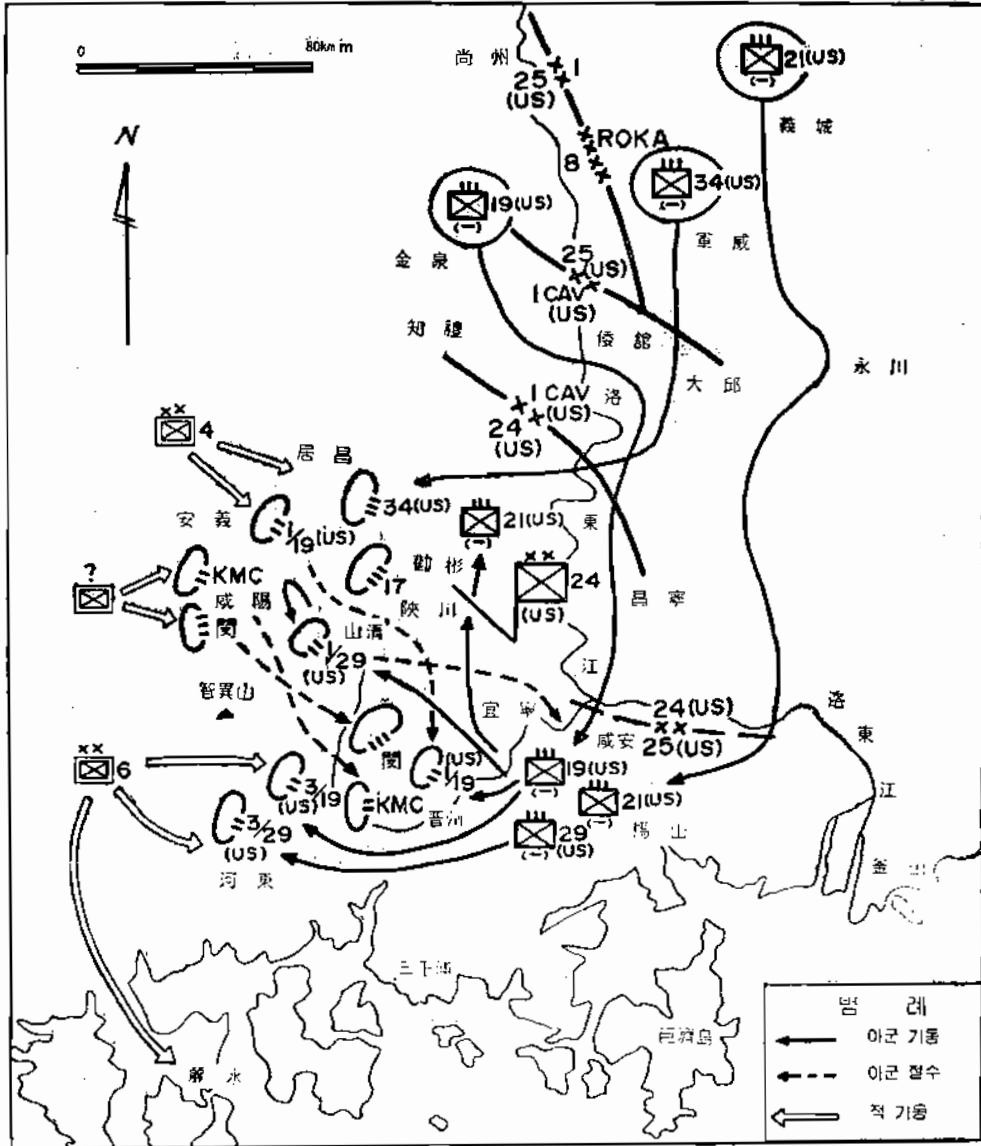
이와 함께 湖南地區에서 遲延戰을 쫓던 閔부대, 金部隊, 吳부대등이 25, 26 兩일간에 南原—雲峰—咸陽에 이르러 美제34연대와 連繫하고 求禮—順天—河東으로 나간 李부대 및 경찰一部는 美제19연대와 邂逅하였다. 蔡秉德소장을 비롯하여 數名의 美軍將校의 戰死傷에 대하여 第8군사령관은 至大한 關心을 갖고 特殊任務부대를 急編하여 投入토록 命令하고 계속

서 撤收한 群小부대 단이 敵의 繞回부대와 간신히 接觸을 維持하고 있을뿐 이었다. 이때까지 第8군은 京釜國道沿邊의 作戰에만 置重한 관계로 새로 赴援한 3개 사단을 모두 여기로 投入한 것이지만 20일에 『北傀軍의 大縱隊가 西南部地域으로 大繞回中』이라는 航空偵察 報告에 接하자 이에대한 緊急對策이 焦眉의急을 畀하게 되었다.

따라서 Walker 중장은 우선 尙州—金泉線을 再調整한 다음 西南部地域에 消防사단을 急히 投入키로 決心하는 한편, Mac Arthur 元帥에게 戰鬥사단의 追加增援을 要請하였다(研究關 參照)

이리하여 同중장은 24일에 아직 再編中인 第24사단장 Church 소장에게 知禮—碓昌—晉州線을 防止確保하라고 命令하고 같은날 Okinawa에서 赴援한 美제29연대의

◇ 상황도 제16호 西南部 地區의 狀況(7.24~26)



赴援中인 부대들도 이方面으로 救急合鋒토록 措置하였다.

그러나 豫備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東海岸의 盈德附近으로부터 南海岸의 晉州線까지 280 km 正面에 사단을 배치하게 된 사령관은 赴援中에있는 美제 2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과 美제 1해병여단(장, Edward A. Craig 준장)에 마지막 希望을 걸었으나 이兵力은 UN軍총사령부의 Chromite 計劃에 따라 上陸부대로 指定된 부대소속이었다. 그러나 倏然坐視할 수 없어 이兵力을 投入하는 一方 戰線의 縮少를 斷行하여 洛東江線內廓으로의 一大彎

弓形固守陣을 占領할 決心을 굳히고 26일에 Tokyo의 Almond 소장에게 자신의 決意를 傳하였다.

屢次에 걸쳐 上陸作戰을 構想하고 있던 MacArthur 元帥는 Walker 中將의 이와같은 作戰 구상에 놀라 다음날인 27일에 자신이 직접 大邱에 空路로 나타나 『韓國에서의 Dunkerque의 再版은 있을수 없다』라고 말하고 現戰線 그대로의 固守를 強調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때의 戰線狀況은 前述한 美제24사단이 西南部로 轉進하면서 尙州—金泉線에도 危機를 몰고갔던 것인데, 美제25사단은 尙州에 指揮所를 두고 榮州—金泉間의 閑廢線沿邊을 막고, 美제 1기갑사단은 金泉에서 제25사단의 제27연대와 함께 國道軸線에서 且戰且退하고 있었으나 我제 1군단의 抽出轉進과 더불어 狀況이 더욱 惡化되어 29일에는 尙州喪失의 危機를 맞게되었다. 이에 이르자 같은날 Walker 中將은 金泉으로 急行하여 먼저 제 1기갑사단장 Key 소장에게 撤退의 再版을 되풀이 하지않도록 命令하고 여기에서 尙州의 제25사단 지휘소로 헬機的머리를 돌려 사단장 Kean 소장과 參謀들을 모아놓고 사단의 撤收를 叱咤하면서 要旨 다음과 같이 訓示하였다.

『우리는 지금 時間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의 撤收나 後退는 있을수 없다. 우리뒤에는 더이상 물려설곳도 없다. 全부대는 敵을 混亂에 빠트리도록 反擊을 加해야 한다.

Dunkerque와 Bataan의 再版은 있을수 없으며, 釜山으로의 後退는 歷史上 가장 悲慘한 殺戮의 하나가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한다……

全將兵은 뭉쳐서싸워야 하며, 戰友의 죽음은 報復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한치의 땅이라도 敵에게 빼앗기는 者는 수많은 戰友들의 죽음에 대하여 道義的인 責任을 져야할 것이다……』

이訓示는 UN軍總사령관의 意圖를 그대로 反響한 것으로서 即刻 美제 8군隸下 全將兵들에게 示達되었는데, 當時에 普遍的으로 認識된 이 訓示의 要旨는 現戰線을 “固守하느냐, 죽느냐” —Stand or die—의 悲壯한 決意를 그대로 表現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不拘하고 31일에는 美제25사단이 溢出하는 敵을 막아내지 못하고 尙州를 拋棄한다음 그東南쪽 5km까지 물러서게 되고 金泉의 美제 1기갑사단도 陣地를 내어놓고 말았으니 現戰線의 固守는 다시 動搖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戰線이 다시 混迷속으로 접어들게되자 8월 1일에 제 8군사령관은 全軍에 洛東江 內線으로의 轉進을 命令하고 苦戰中인 尙州의 美제25사단을 即刻 馬山附近으로 移動케하여, 美제19연대가 擔當한 洛東江—南江의 交叉點 以南쪽을 把守토록 하였다. 이는 26일에 洛東江防禦에 대한 최초의 準備命令을 下達하였다가 29일에 現戰線의 固守로 바뀌었으나 다시 이날 原 命令대로 그실시를 보게된 것이니 이 5일동안의 戰線狀況은 不安과 焦燥가 그 極致에 達한 最後의 關頭그 것이었다.

한편, MacArthur 元帥가 關心을 喚起한 東海岸沿邊과 浦項의 迎日飛行場에 대한 對策은,

그동안 Dean 소장과 Walker 중장에 의하여 제19연대(7.7)와 제27연대(7.11) 그리고 제35연대(7.20)와 제7기갑연대(7.22)에서 1개대대씩 交替로 同飛行場에 派遣 하는 한편, 浦項 侵攻을 企圖하는 敵제 5 사단의 侵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東海上에서 艦砲支援을 加하도록 하였다.

이作戰末期의 國軍戰線은 제 3 사단이 數次에 걸쳐 盈德奪還作戰을 벌이던중 8월 3일에는 그南쪽의 江口(盈德 南쪽 6km)와 西쪽으로 敵이 侵入하여 浦項(盈德 南쪽 51 km)의 危機에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榮州—醴泉間을 지키던 제 8 사단은 30일에 安東北쪽 12km의 阻止線이 敵에게 突貫되기에 이르러 다시 8km 後面에 遲延障地를 占領하였으나 安東橋를 爆破한다음 8월 1일에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安東으로 轉進한 수도사단의 일부兵力도 投入되었으나 作戰上의 協調를 보지못한채 安東을 내어놓게 되고 그뒤에는 수도사단을 青松西쪽으로, 제 8 사단을 義城北쪽의 中央線沿邊으로 並立배치하였다.

이와함께 中部의 제 6, 제 1 兩사단도 店村—威昌—尙州線에서 拒戰하다가 제 6 사단은 龍基洞(軍威北西쪽 18km)을 거쳐 軍威北쪽으로, 제 1 사단은 洛東里에서 江을 건너 善山東쪽을 占領하여 橋頭堡의 北西쪽 尖角을 防守케 되었다.

이로써 倭營을 基點으로하여 그北쪽에서 盈德까지 140km正面을 國軍 5 개 사단이 맡게 되고 그以南의 鎭東里(馬山西南쪽 10km)까지 110km 正面을 美軍 3 개 사단과 配屬된 國軍 제 17 연대 그리고 赴援中인 戰鬥부대들이 投入되어 洛東江橋頭堡(일명, Walker Line)를 形成하였으니 대체로 이의 占領이 마무리된 것은 8월 4일 이었다.

여기에서 祖國의 運命을 가름하는 마지막 攻防血戰이 45일동안 繼續된다.

## § 研究

### (1) 北僞의 中間指揮 기구 設치에 대하여,

이 作戰期間(7.15~7.31)의 北僞軍指揮系統은 最高司—戰線司—軍團—軍集團—사단順인듯 하였다.

그들은 7월 8일에 『戰線司를 組織強化하고 동시에 補助指揮所를 軍集團으로 改編키로 하였다』라고 發表하고 최초로 『金策을 戰線司수官으로 任命하였다』라고 하였는데, 本來 共產黨의 術策이란 敵對行爲가 要緊할때 宣傳目的으로 軍事사항을 露出하는 者들이므로 그發足時機에 疑問이 제기된다. 먼저 魁首金日成 자신이 最高사령관이 되어 6월 25일 11.00에 對南宣戰을 布告했음에 비추어 당시 副首相兼 産業相이던 金策이 그即時 北僞軍의 指揮기구에 뛰어들지 않을수 없었음을 지

적할 수 있다. 또한 그가 開戰前인 5월 17일의 이른바 牡丹峰謀議의 6월 11일의 秘密軍事指揮官會議에 깊히 關與한 것으로보아 名目上의 前線司機構는 그들 제 1군단(장, 소장 金 雄)과 제 2군단(장, 소장 金光俠)編成을 發表한 25일 前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기 때문에 8일에 發表한 內容으로 보아 이機構를 『組織強化』하는데 重點을 둔것으로 表現하였고, 지금까지 이를 隱匿해오다가 아무런 즉, 7월 7일에 『統合司令部設置에 대한 UN의 決議』가 이루어진 때를 奇貨로 하여 그機構를 비로소 公表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들은 군단과 사단의 中間지휘 機構로 軍集團이란 것을 두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發足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8월현재 그들 제 1군단이 5개전투사단, 제 2군단이 6개전투사단을 각각 指揮하였던 것으로보아, 新設한 軍集團을 軍團格으로하고 現行



의 軍團은 軍格으로 바꾸려는 初期計劃으로 推斷되는 것이다. 뒷날 그들의 戰鬪序列에서 밝혀진바에 따르면, 제 1 段階作戰末인 9월 中旬현재 제 1 軍단이 제 1, 제 2 兩集團을 指揮하고, 제 2 軍단은 제 3, 제 4, 제 5의 3개集團을 指揮케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3 段階作戰末인 51년 6월 中旬에는 다시 軍集團을 없애고 8개 軍단을 두어 각 軍단 모두 3개의 戰鬪사단을 指揮케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제 3 軍단(假稱)의 創設과 그 呼稱에 대하여,

本來 軍단이란 限定된 地域에서 比較的 長期의 獨立作戰을 遂行하는 것이 基本任務로 되어있으나, 國本一般命令 제 4호(7.8)로 創設을 試圖한 제 3 軍단(假稱)의 경우에는 根本적으로 그 性格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當時 軍當局에서는 8월에 發足を 試圖한 제 3 軍단으로 하여금 7개의 軍事學校를 管掌케 하고, 제 3, 제 9 兩사단을 指揮下에 두도록 依命 措置하였다. 또한 補任上의 措置로 10월에는 蔡秉德소장을 제 3 軍단장에, 劉升烈대령을 同軍단에 轉補하고 그 職務를 遂行토록 하였으나 12월에 갑자기 제 3 軍단의 名稱을 嶺南 地區編成管區로 바꾸었다. 또한 같은날 全南編成管區는 光州地區編成管區로, 全北編成管區는 全州地區編成管區로 改稱하였다.

急轉하는 戰勢下에서 이와같이 4인만에 改稱하는 誤謬를 犯한것은, 제 3, 제 9 兩사단이 再編成 또는 新設중이었으므로 豫備軍단으로써 一 보통 作戰中에 軍단을 예비로 두는 경우는 없지만 一 任務를 遂行케 하려는 試圖에서 나온것이거나 아니면 東部地區의 作戰을 分擔토록 하기위하여 8월에 제 2, 제 3 兩軍단을 發足케 한것으로 보였으나 推斷컨대, Walker 중장의 戰線視察(8일) 및 그의 作戰指揮權引受(13일 00.01부)와 關聯하여 同軍단을 嶺南編成管區로 改稱케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極東司一般命令 제 3호에 의거 美제 8 軍사령관이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行使하게된 17일에 同編成管區 傘下의 제 3 사단을 陸軍直轄로 轉換하여 盈德地區作戰에 投入(이때까지 제 23연대

만이 이곳에서 戰鬪中에 있었다.) 케한 事實로 미루어보아 同사령관의 意見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3) 陸軍本部 前方指揮所인가? 제 2 軍단사령부인가?

國本一般命令 제 4호(7.8)는 5월에 發効한 同 제 2호에 뒤따른 部隊의 創設命令으로써 제 2, 제 3(假稱)兩軍단의 創設을 비롯하여 各種支援부대들의 增創設이 包含되고 있다.

이와같은 業務는 當時 陸軍本部의 參謀副長인 金白一대령에 의하여 管掌되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同대령이 9월에 大田의 陸軍本部를 出發하여 淸州의 제 1 軍단장 金弘燾소장을 만난뒤 10월에 제 6 사단 地域의 延豊(開慶北西쪽 10km)으로 가서 이곳에서 戰況을 살핀다음 11월에 咸昌에서 제 2 軍단을 創設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일까지 平澤에서 陸軍本部 臨時지휘소를 運營하고 사단의 改編에 主役을 擔當한 金白一, 姜英勳 兩대령이 그뒤 제 1 軍단 지역인 淸州-槐山을 通過하여 咸昌에 이르게 됨으로써 수도, 제 1 사단 장병들은 『陸本 前方指揮所가 咸昌으로 移動한다』라는 憶測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緣由로하여 그뒤 一部資料에는 『陸軍本部 前方指揮所 咸昌으로 移動』이라고 記述한일도 있으나 그 實에 있어서는 8일의 命令에 따라 前記한 兩人등이 제 2 軍단사령부 創設을 目的으로 移動하였던 것이므로 그와같은 推斷은 잘못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당시의 情況으로보아 參謀副長과 人事局長의 行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推測이 나올만도 하겠으나, 제 2 軍단 創設前인 12일까지 날자를 맞추어 咸昌에 到着하였다는 사실과 또 같은날자로 金白一대령을 (동일부 준장 昇進)同軍단장에, 姜英勳대령을 參謀長에 補任하여 제 6, 제 8 兩사단을 指揮케 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최초로 軍단要員으로 行動하였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또한 總參謀長이 5개사단을 指揮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구태여 2개사단만을 위해서 陸軍本部 前方指揮所를 咸昌에 設置한다는 것은 理致에 맞지않는 것이며, 더구나 軍事政策과 戰略을 立案하

여 이의 施行을 推進해 나가야 하는 陸軍本部에서 戰術指揮所같은 것을 設置運營한다는 것은 矛盾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同 前方指揮所라는 名稱은 이뒤에도 여러번 使用된 일이 있으니 실제 운영의 成果는 무엇이며 構成과 기능은 어떠한가를 研究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倉洞前方指揮所를 비롯하여 水原, 平澤, 咸昌, 金泉, 義城등이 그 代表的인 例인데, 이 중에서 倉洞에는 6월 26일 下午부터 12시간 餘를 總參謀長이 直接나가서 作戰指揮를 한 例가 있고, 水原은 陸本全體가 이곳에 머물러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性格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의 前方지휘소로서의 合當한 解釋이 나올 수 있을지 疑問視되는 것이다.

#### (4)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移讓한 日字

李承晚대통령이 MacArthur 元帥에게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移讓코자 書翰을 보낸 日字는 7월 15일이고, 同元帥가 受諾의 뜻을 書翰으로 보낸 日字는 18일이다.

이는 1976년에 原文을 公刊한 平和統一研究所의 Korean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pp.128~129에 실린 資料와 1951年度 發行 鄭一亨저, UN과 韓國問題 p.216에 根據한 것인바, UN事務總長에게 通報하여 公式化한 것도 바로 이날자인 것이다.

이와같이 兩人에의하여 公式적으로 合意를 본 것은 18일인데 17일에 美제 8군사령관이 作戰指揮權을 行使하게 되고, 總參謀長의 談話發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國軍은 14일부터 그 一員으로 行動하게 되었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問題의 焦點은, 바로 作戰指揮權을 移讓한 뒤 그 行使를 어느날자로 기준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移讓이란 同意의 뜻이 없는 限 合意로 보지 않기 때문에 大統領이 14일에 署名하고 15일자로 그 移讓書翰을 보냈건 만으로는 아무런 意義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MacArthur 元帥는 17일자로 一般命令 제 3호를 美제 8군사령관에게 下達하여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行使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인 18일자로 同意回翰을 보낸 것이다.

正常的인 節次는 의당 同意回翰 뒤엔 一般命令

이 下達되어야 하며 不然이면 같은날자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前後가 바뀌어짐으로써 基準日字의 混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당시 UN軍總사령관의 입장엔, 錦江線이 崩壞되고 大田失陷을 目前에 두고있었으므로 당연히 作戰狀況을 먼저 考慮하였을 것이다. 寸刻을 다투는 狀況下에서 敵이 好機를 틈타 더욱 不利하게 몰아세울 것이라는 것도 念頭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指揮措置를 취하고 뒤에 回翰을 보낸 것으로 推斷된다.

그러나 編史者의 立場에서는 어디까지나 兩人이 合意한 것으로 내다본 18일을 國軍의 作戰指揮權을 넘겨준 날자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一般命令의 下達過程에서 所要된 時差를 考慮할 수 있을 뿐더러 그 內容을 UN에 보내어 公式化한 것도 이날자이기 때문이다.

#### (5) 作戰指揮權의 移讓期間에 대하여

대통령의 同移讓을 要請하는 書翰은 修正없이 同意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의 書翰 內容 가운데는 移讓期間과 移讓대상, 지휘관의 限界가 模糊한 狀態로 남게되었는데 主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現 作戰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一切의 指揮權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 如斯한 指揮權은 貴下가 直接行使하거나 貴下가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作戰하도록 委任한 其他指揮官으로 하여금 代行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內容을 根據한다면 國軍의 作戰指揮權 移讓期間은 “現 作戰狀態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에는 여러가지 解釋이 나올 수 있으며, 移讓대상 指揮官도 “貴下가 委任한 其他指揮官”으로 되어 있으므로 類推해석으로 指揮建制에 混濁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課題는 國際情勢의 變化에 相應토록 研究補完해 나갈 必要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6) 北傀제 15사단의 化寧場 潛襲을 事前에 遮斷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本 研究는, 16일에 敵제 2군단사령부가 水安堡

에 設置되고 이어서 그들의 戰線司令部까지 이곳으로 옮겨 魁首 金日成이 醜毒한 督戰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제 13, 제 15 兩사단을 開慶—米院間의 45km 虛隙에 投入한다음, 洛東江上流쪽으로 直衝코자 企圖하다가 我軍의 轉進부대에 의하여 捕捉됨으로써 危機를 모면케된 戰況을 연구하는 데 있다.

我제 1사단은 11일까지 3일동안 陰城戰鬪를 치른뒤에 槐山—米院間의 遲延戰에 들어갔고 제 6사단은 烏嶺—梨花嶺線에서 敵제 1사단의 侵攻을 阻止중에 있었다. 따라서 이兩사단은 相互 連繫를 맺지못한채 제 6사단은 水安堡—開慶通路만을 遮斷하면서 店村北쪽에 이르게 되고 제 1사단은 槐山—米院—報恩通路를 中心으로 21일까지 輕微한 接敵단을 維持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은 이期間중에 延豐—恩城(加恩)—咸昌軸線에 제 13사단을, 米院—化寧場—尙州軸線에 제 15사단을 각각 재촉하여 潛侵하고 있었으니 그들 兩사단이 이小白山脈을 넘어 洛東江上流에 이를경우, 韓美兩軍의 連結線이 斷切될 뿐만아니라 開慶線의 北쪽과 南쪽으로 餘勢를 몰아 直衝하면 後方이 遮斷되어 洛東江防禦線의 形成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陸軍本部の 企圖判斷은 敵이 中部地域에 壓力을 加重하고 있다는 事實만을 重視한채, 烏嶺—梨花嶺—東飛嶺—秋風嶺등 險峻한 山岳地帶를 通過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그 要路만을 扼守토록 한듯하였으나 前述한 2개의 隘路에 대해서는 束手無策이었던 것이다.

특히 제 1사단의 경우 陰城戰鬪以來로 當面の 敵은 제 15사단인 만큼 이를 徹底히 要扼하는 遲延戰이 必要하였던 것이지만 米院前方에서 그들 主力이 化寧場쪽으로 統回한 事實을 모른채로 그 南쪽과 西쪽의 防守에만 執念하였다는 것은 用兵運用上 誤謬가 아닐수 없다.

邇然의 一致로 제 17연대가 尙州로 移動중 化寧場附近에서 이들과 不期로 遭遇하게 됨으로써 陸軍本부는 제 1사단을 즉각 이곳으로 轉進토록 命令하고 다시 그뒤 제 6사단과 連繫하여 尙州—咸昌間에 同사단을 展開케함으로써 潛侵을 企圖하는 2개사단의 敵을 要扼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美제 8군사령관도 이곳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醴泉과 開慶附近에 分進한 美제 25사단의 一部兵力을 急遽 反轉케하여 尙州附近을 防守토록 하였으니 22일 이후의 이곳에대한 對策이 多少라도 疎忽하였던들 戰勢는 急轉直下되고 말았을 것이다.

### (7) 西南部 地域에대한 美제 8군의 情報判斷

7월 5일부터 20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 美제 8군의 情報判斷은 敵제 6사단의 機動狀況에 대하여 “所在不明의 예비대” 또는 “錦江線北쪽에있는 所屬不明의 敵”이라는 內容으로 分析하고 이를 傳播하였다.

그러다가 21일에 論山附近에서 敵의 一團을 發見하고 이를 敵제 4사단의 一部로 判斷하여 極東軍司令部에 報告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실상 그들 제 6사단의 先頭는 이날 全州南쪽의 任實—新泰仁線까지 進出하고 제 4사단은 大田南쪽의 背後에 이르게됨으로써 大田이 失陷直前의 狀況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敵情判斷의 過誤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21일과 22일 兩일간은 氣象의 不良으로 航空偵察이 如意치 못함으로써 그들의 雨期를 이용한 南下機動이 加速化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23일에 淸明한 날씨를 되찾게되자 美제 8군은 제 5공군에 緊急武裝偵察을 要請하여 論山—光州 一團의 敵情을 偵探케되니, 『敵은 時速 3.2km로 西南進中이며, 그 先頭는 安義—晉州線에 到達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이 報告에 接하는 즉시로 Walker 중장은 美제 24사단을 碭昌—晉州線에 轉進케하였는데, 제 19연대는 24일夜間移動으로 晉州前方에, 그리고 제 21연대(-2)는 25일에 晉州附近에 集結하고, 제 34연대는 25일에 碭昌—安義線에 展開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統回부대의 團隊號와 兵力규모를 分析토록 指示하였으나 當時의 情報判斷은 이를 敵제 4사단으로만 識別하고 木浦附近에 車輛 10, 兵力 500, 南原附近에 車輛 26, 兵力 700, 求總附近에 兵力 800, 河東附近에 兵力 500등이 集結 또는 移動중이라고 判斷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美제 8군은 25일까지도 그들 제 6사

단을 제 4 사단으로 誤判한 것이니 이는 敵제 4 사단이 21일에 大田을 占據한다음, 錦山-茂朱方向으로 그 醜峰을 돌림과 동시에 殘餘兵力을 西南海쪽으로 迂回한 것으로 錯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誤判은 敵의 戰鬪序列에 입각한 追跡을 疎忽이하였거나 現地 戰鬪부대가 提供하는 諜報를 正確하게 分析評價하지 못한데서 惹起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湖南地區로 迂回한 2개 사단의 敵에 대하여 當時 陸軍本部 作戰局長 姜文奉대령은 『北傀軍을 湖南쪽으로 끌어내려고 그곳에 사령부를 設置하고 巨物級 人士를 두어 敵에게 큰部隊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2개 사단을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본다. 만일 그들이 主力을 釜山쪽으로 빨리 돌려 戰爭을 終結코자 하였더라면 問題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湖南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成功한 作戰이었다』라고 證言하여 오히려 敵을 이곳으로 誘導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14일부터 陸軍本部和 美제 8군사령부가 大邱에 移轉하여 繼續적으로 協調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더구나 18일부터는 統合作戰段階에 접어들게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이와같이 相異한 判斷을 내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하여서는 西南部地域의 戰況을 보다 詳細히 파헤쳐 가면서 問題의 顛末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 (8) 部隊改編 및 增創設에 관한 命令

戰時에 對備하여 平常時에 動員運用計劃을 樹立하여 두었다가 戰爭緊迫狀態에 이르면 M일 (Mobilization-Day)을 定하여 이의 動員을 命令하는 것이 通例인데 이 戰爭當時에는 이러한 計劃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人員物資, 施設등이 網羅되고 編成과 輸送 및 運用計劃까지 包含되는바, 이에대한 事前準備가 없었던 탓으로 戰線이 漢江線南岸으로 變轉한 6월 30일부터 새로운 國本一般命令으로 部隊의 改編 및 增創設에 관한 便法措置를 反復하였다.

一般命令의 意義가 部隊創設의 法的基底가 된다고 볼때 여기에는 반드시 編制와 機能을 規定하는 後繼措置가 이루어져야 하며 人員과 裝備의 補充은 TO/E에 따라 定한 期間內에 完了되어야 하지만 當時의 命令은 이와같은 節次없이 施行한 듯하였다. 또한 이를 人事特命과 混用하거나 訓令形式을 따른 예도 있었으니 史料編纂에 어려움마저 뒤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開戰初의 混亂으로 그 原文이 消滅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歷史日誌에 나타난 同命令의 一部分을 例示하여 研究에 資하고자 한다.

國本一般命令 제 1호(6.30), 陸海空軍 총사령관 兼 陸軍총참모장의 交替에 따른 補職變更에 관한 事項

註, 이는 前後의 命令과 連關하여 최초의 一般命令인 듯 推斷되므로 제 1호로 假稱하였다.

國本一般命令 제 2호(7.5), 제 1군단의 創設 및 사단의 改編

國本一般命令 제 3호(7.7), 解編사단의 再建 및 사단의 創設

國本一般命令 제 4호(7.8), 제 3군단의 創設과 부대編入, 直轄부대의 統廢合,

註, 제 2군단의 創設은 同제 4호에 根據한 것이었으나 命令의 發効를 12일로 늦추어 軍단 創設과 동시에 人事命令을 併行한 것으로 보였다.

## 第 9 章

# 車嶺山脈地域의 角逐

### 要 旨

1. 丹陽 附近 戰鬥
2. 忠州—水安堡 附近 戰鬥
3. 陰城 附近 戰鬥
4. 鎮川—清州 附近 戰鬥



## 第9章 車嶺山脈 地域의 作戰

### 要 旨

本章에서는 漢江 防禦線이 무너진 뒤로 戰線이 激動하던 時期인 1950년 7월 初旬에 中部 內陸의 車嶺山脈 回廊에서 展開된 攻防戰을 取扱케 되는 바, 이 期間中의 特徵은 短時日 內에 戰列을 整備하여 적어도 37°線 北쪽에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코자 하는 我軍과 이를 妨害하며 UN軍이 參戰하기 前에 忠淸 一圓을 攻略코자 한 敵의 승가쁜 對決樣相을 보이게 된다.

當時에 北傀는 初戰의 盛勢를 돌아 그들 제 1군단 隸下의 各師團을 京釜 國道 沿線으로 몰아 세우는 한편 中·東部 戰線의 제 2군단 兵力을 內陸으로 集約하여 자못 威力의인 攻擊을 加하였는데, 이곳 車嶺山脈 回廊으로 圍集한 兵勢를 보면 吳白龍이 이끄는 제 8사단을 江陵에서 平昌을 거쳐서 堤川쪽으로 轉進시킨 것을 비롯하여 洪川—原州 軸線으로 南下한 제 12사단(장 崔忠國)을 忠州로, 春川—龍頭里—驪州로 내려온 제 15사단(장 朴成哲)은 長湖院 쪽으로, 春川—加平—廣州 軸線으로 西南進한 제 2사단(장 崔賢)은 鎭川 北쪽으로, 그리고 水原에서 東南進한 제 1사단(장 崔光)은 제 2군단으로 配屬을 變更하여 忠州의 西北쪽으로 각각 侵攻케 하였으며 이 밖에도 제 13사단과 제 109戰車연대를 後續시키는 등 無慮 7個사단 규모의 兵力을 投入하여 集中攻擊을 劃策하였다.

이때에 我軍은 第2次 防禦線을 대체로 神林—牧溪—長湖院—竹山—安城간의 車嶺山脈 北쪽으

로 內定하여 이를 阻止擊滅코자 하였으나 初戰의 紛亂을 收拾하기도 前에 敵의 先鋒이 이 地域으로 殺到한데다 西部戰線의 UN軍이 또한 烏山 부근에서 反轉케 됨으로써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 車嶺山脈과 小白山脈의 中央地帶에 新陣地를 마련케 되었으니, 곧 UN軍은 天安과 溫湯 및 烏致院 一帶를 말고 國軍은 鎭川 以東의 中·東部 戰線을 擔當케 되는 바, 本章에서는 그 後者인 內陸의 戰況을 一括하여 取扱케 된 것이다.

이 地域의 作戰에서는 주로 通行이 容易한 侵攻 要線에 兵力을 重點적으로 配置하여 한편으로 敵을 무찌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戰列의 整備에 注力케 되는데, 이 가운데 李正一 대령이 지휘하는 제 8사단이 丹陽과 梅浦里에서 北傀 제 8사단의 侵攻을 阻止한 것과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의 제 2연대가 忠州에서 저들 제 1, 제 12사단과 對決한 것, 그리고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과 제 6사단의 제 7연대가 陰城과 同業里에서 제 15사단의 主力을 大破한 것 및 首都사단(장 金錫源 中將)이 鎭川에서 이들 제 12사단의 先鋒을 무찌른 것들은 括弧할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期間中에 戰列을 가다듬어 國軍 제 1, 제 2兩軍團이 創設되고 또한 効率的인 遲延戰을 展開하여 다음 段階인 小白山脈과 錦江 河谷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防禦線을 形成하는데 크게 寄與하게 되는 바, 以下 各節에서 그 經過의 內容을 詳述하게 될 것이다.

# 1. 丹陽 附近 戰鬪 (1950년 7월 8일부터 1950년 7월 12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4, 5 호  
상황도 제 17~19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제 1 대대	장 대위	崔 就 聖
제 10 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제 2 대대	장 대위	朴 永 燮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昌 律
제 2 대대	장 대위	鄭 順 基	지원부대		
제 3 대대	장 소령	河 炳 來	제 18 포병대대	장 소령	張 庚 石
제 21 연대	장 중령	金 容 培	야전공병대대	장 대위	金 默
		敵	軍		
北傀 제 2 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 82 연대	장 중좌	史 勢
	중장	金 武 亭	제 83 연대	장 중좌	吳 允 燮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포병연대	장 중좌	金 永 桓
제 81 연대	장 중좌	李 學 來			

## 나. 전투전의 개황

제 8 사단은 6월 27일에 江陵을 물러나서 大關嶺에 集結하였다가 다음날에 反擊을 敢行하여 市街地를 눈아래 굽어보는 外廓線을 포위하였으나 이때 마침 原州의 제 6 사단을 訪問한 陸軍本部的 작전국장 張 昌燾 대령이 口頭로 傳達한 作命에 따라서 제 6 사단의 작전임무를 引受코자 29일 06.00에는 珍富里를 출발하여 7월 2일 11.00에 堤川으로 移動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이 平昌에서 原州로 進入하지 못하고 堤川으로 轉進하기에 이른것은 敵이 이미 그 中間의 安興里로 侵入하여 進路를 遮斷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단은 지휘소를 堤川의 義林국민학교에 開設하고 제 21 연대(장, 金容培 중령)主力이 務道里 一桃花里線을 확보하여 寧越一酒泉里로부터 侵攻하는 敵에 對備하는 가운데 제 21 연대 1 개대대로 增強된 제 10 연대(장 高根弘 중령)는 神林里로 進出하여 사단의 進擊을 掩護중인 제 6 사단 제 7 연대(장, 林富澤 중령)와 交代하고 敵의 先頭와 接觸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즉각 大邱로 移動하라"는 陸本



作命이 下達되어 자연대를 또다시 堤川으로 集結케하는 즉시로 移動준비에 着手토록 하였으며, 사단 공병대대(장, 金 默대위)는 神林里—堤川間의 鐵橋와 橋梁을 폭파하였다.

7월 5일 02.00에 先發隊가 출발하면서 특별열차를 利用하는데로 主力이 後續중에 있었는데 先發隊가 大邱에, 中間梯隊가 永川에 그리고 工兵과 피란을 除外한 後方梯隊가 安東에 각각 到着한 것은 15.00였다. 이때에 大田으로 先行한 사단장은 총참모장 丁—權소장으로부터 “그러한 作命을 下達한 事實이 없으니 즉각 北上하여 堤川線을 계속 확보하라”는 作戰指示를 받았으므로 즉각 L-4연락기로 大邱에 常到하게 되었으며 사단主力은 기관차를 돌려 달고 그대로 北上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사단공병대대의 S-3 徐正雨중위가 지휘하는 爆破班은 堤川 東南쪽 1km 地點의 小河川上의 鐵橋를 비롯하여 丹陽에 이르는 사이의 大小鐵橋를 폭파하면서 南行中에 있었다.

23.00에 安東에 集結한 사단은 이곳에서 宿營하고 다음날인 6일 10.00에 출발하여 18.00에는 丹陽에 到着하였다. 이때는 이미 공병폭파반이 丹陽鐵橋를 폭파한 뒤이고 寧越—酒泉里에서 南下한 北傀 제 8사단(장, 소장 吳白龍)의 前衛가 이미 南漢江 北岸까지 南下하였을 때였다. 사단은 이곳에서 急速히 下車하여 지휘소를 丹陽중학교에 開設하고 즉각 戰鬪준비에 着手하였다.

敵軍의 狀況; 北傀는 美軍의 參戰을 契機로 金 策을 사령관으로 하는 前線 사령부를 創設하여 제 1, 제 2兩군단을 統合指揮케 하고, 38경비 제 1, 제 3, 제 7여단을 제 8, 제 9, 제 7사단으로 增編하는등 그 整備를 서둘러 이에 對峙케 하면서 侵攻을 계속하였다.

그러하여 7월 6일에는 北傀 제 1군단 隸下의 제 4사단이 水原—鳥山을 거쳐 平澤에 이르고 제 3사단이 이를 後續하였으며, 제 2사단이 春川을 侵奪하는 즉시로 西南쪽으로 迂回하여 제 1군단으로 隸屬이 변경되면서 兩水里—金良場—竹山을 거쳐 鎭川—正面으로 南下하고, 제 6사단이 仁川에 集結중에 있었다. 한편 제 2군단 隸下의 제 15사단은 군단에 비로 後續中에 있었으나 陰城正面으로 急進중이고 제 1군단으로부터 隸屬이 변경된 제 1사단이 水原 東側方으로부터 忠州正面으로, 제 12사단(제 7사단後身)이 忠州—堤川正面으로, 제 8사단(38경비 제 1여단後身)이 堤川—寧越로 부터 丹陽北쪽으로 그리고 제 5사단이 三陟—蔚珍—平海를 거쳐 寧海로 각각 侵攻中에 있었다.

이와같이 敵의 侵攻이 丹陽—忠州—陰城—鎭川—京釜街道正面으로 集中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作戰企圖는 美軍의 增援과 我軍의 戰線整備가 이루어지기 전에 迅速한 機動과 打擊으로 侵攻速度를 促進하고 車嶺山脈과 小白山脈—錦江線을 早期突破하여 韓美兩軍의 強力한 防禦線의 形成과 攻勢移轉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않고 最後의 堡壘인 釜山을 席捲코자 劃策하는데 있는듯 하였다.

그런데 뒷날 밝혀진 事實이지만 이때에 敵이 輕視한 東海岸沿道를 따라 強力한 兵力을 投入하였더라면 美軍의 艦砲사격과 空中支援이 集中되기는 하였지만 我軍이 더욱 苦戰을免치 못하였을 것이고 釜山에 대한 큰 威脅이 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니 敵의 重點使用이 當初부터 混迷相을 보인 것은 我軍의 利益이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北傀의 東翼으로서 東海岸沿道—丹陽—忠州—陰城에 이르는 正面을 담당한 제 2군단은 忠州正面으로 南下한 제 1사단을 새로히 隸屬下에 넣고 또한 군단統制下에 杆城에 控置하였던 38경비 제 1여단을 제 8사단으로 增編하여 丹陽正面으로 投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군단은 初戰부터 春川—原州—江陵攻略에서의 계속적인 作戰失敗로 군단장 소장 金光俠이 중장 金武亭과 交替케 되고 제 7사단장 소장 全 宇도 또한 소장 崔忠濤으로 바뀌는 동시에 사단 名稱을 제 12사단으로 改稱케 된 것이다. 그러하여 原州를 奪取한 제 12사단 主力은 여기에서 물러선 제 6사단(장, 金鍾五대령)을 뒤쫓아 忠州正面으로 南下하고 그 一部는 堤川으로 侵攻하여 이곳으로 南下하는 제 8사단과 連繫케 된듯하다. 그들의 作戰企圖는 제 1사단이 西部로부터 忠州正面으로 繞回하는 즉시로 이正面에 대한 侵攻任務를 該사단에 引繼하고 이곳의 제 12사단은 丹陽 正面으로 侵路를 轉換하여 그들 제 8사단을 支援케 함으로써 中央線街道에 대한 衝力을 倍加할 것으로 보였다. 이와함께 그들은 戰線의 예비인 제 13사단을 제 2군단 隸屬으로 轉換하여 忠州正面의 제 1사단을 後續支援키

로 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러한 布石은 忠州—陰城正面의 軍단主力이 鳥嶺—俗離山線의 小白山脈을 突破하고 閔慶—尙州—金泉線으로 衝勢를 集中하여 제 1 軍단의 進攻을 促進하며, 丹陽—東海岸沿道로 南侵중인 제 8, 제 12 軍 5 師단은 慶州에서 合流하여 北魏主力과 더불어 釜山을 挾擊코자 劃策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사단正面의 敵 제 8 師단은 本是 內務省소속의 保安대대를 基幹으로하여 편성한 38경비 제 1 師단이며 그 지휘소를 杆城에 두고 東海岸—華川에 이르는 38°線경비와 兩江公비의 南派 및 그 後歸를 掩護하고 있었는데 7 月로 접어들면서 사단으로 增編하여 제 81, 제 82, 제 83 連대와 砲兵連대를 隷下에 두고 사단장에는 該 師단장이던 소장 吳白龍이 就任한 듯 하다.

따라서 그 戰鬥力은 北魏의 既成사단에 比하여 높지 評價할 수는 없으나 有利한 戰況에 陶醉되고 初戰에는 參戰치 않아 打擊을 받지 않은 兵士들의 士氣와 補給이 比較的 良好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그 兵力은 開戰時까지 5,700명이었으나 사단으로 增編하면서 10,000명線으로 增強되었는데 그 兵力의 補充經緯는 推定될 수 없지만 北魏가 7 月 1 日에 所謂 戰時동원령을 내려 靑壯年을 強徵하게 된 것을 契機로 後方병력의 充員으로 이루어진 듯 하였다.

그 장비는 122mm 榴彈砲 10 門을 비롯하여 120mm 迫擊砲 12 門 82mm 박격포 60 門, 75mm 直射砲 15 門, 45mm 反戰車砲 30 門 HMG 130 挺, LMG 200 挺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敵의 作戰企圖는 戰備를 서둘러 迅速히 南漢江을 渡河한 다음 小白山脈의 震源을 이루는 竹嶺—圓의 險峻한 山嶽지대에서 我軍을 포위격멸하고 安東을 早期에 奪取코자 하는데 있는 듯 하였다.

이리하여 敵은 6 日에는 그 前方지휘소를 梅浦里부근으로 推進하고 寧越—酒泉里를 거쳐 南下한 1 개 連대규어가 道潭里對岸의 德泉里—麗泉里—德文谷里一帶에 展開하였으며 그 主力은 堤川에서 戰列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제 1 軍단의 제 1 師단과 首都사단은 陰城—鎮川附近에서 제 3 師단의 제 23 連대는 東海岸 道에서, 그리고 사 8 團은 丹陽—豊基—榮州—安東線에서, 제 6 師단은 忠州—鳥嶺—閔慶線에서 각각 遲延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軍은 車嶺山脈과 小白山脈에서 敵을 阻止하고 日本에서 移動준비중에 있는 美 제 25 師단과 제 1 기갑사단의 展開에 隨伴하여 攻勢로 移轉키로 하였다.

따라서 軍은 戰線의 整齊에 努力하였으나 兵力과 地形의 制限으로 左右隣接사단間의 連繫가 充分치 못하고 敵도 또한 兵站線의 伸張과 美軍의 參戰을 契機로 “高度의 공격速度에 猛烈한 打擊”이라는 口號아래 各主要道路를 中心으로 侵攻하므로써 彼我間에는 主要幹線道路沿邊에서의 攻防戰을 보게 되었으나 露出된 側後方에 대한 脆弱點을 지니고 있었다. 丹陽正面을 담당한 제 8 師단의 경우에 있어서 右隣接으로 寧海에 位置한 제 3 師단의 제 23 連대와 直線距離 110km의 間隔이 버러지고 左隣接인 忠州의 제 6 師단과도 40km를 相距하고 있었다.

사단은 제 21 連대(장, 金容培중령)를 一線으로 하여 敵이 이미 侵襲한 것으로 判斷되는 德泉里對岸의 古藪里부터 基村里—古音洞—深谷里—玄川里—丹陽에 이르는 南漢江沿邊의 10km에 達하는 正面에서 敵의 渡河를 阻止케 하고 제 10 連대는 사단에 비로 丹陽周邊의 境界와 不意의 敵情에 策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21 連대는 제 2 連대(장, 朴永燮대위)를 右—線으로 삼아 △696—古藪里—基村里—△664 들, 제 1 連대(장, 崔就聖대위)를 中央—線으로 삼아 △664 西쪽 稜線—古音洞—瑟吟山(△671)을 그리고 제 3 連대(장, 李昌律소령)를 左—線을 삼아 玄川里—△324線에 각각 展開하였는데 이때에 清風부근으로 一部の 敵이 潛侵하였다는 現地경찰의 露報에 接하자 제 7 中대(장, 金成彬대위)를 該地로 急派하여 사단의 西側方을 掩護케 하였다.

한편 제 10 連대(장, 高根弘중령)는 丹陽驛前의 洞窟에 지휘소를 開設하고 제 3 連대(장, 河炳來소령)가 丹陽外郭을 防護케 하는 가운데 主力은 丹陽국민학교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단은 緒戰에서의 不利에도 不拘하고 제 6사단과 더불어 建制를 維持하고 있었으나 如前히 2개연대뿐이었고 兵力 1,500명의 損失을 본딴으로 5,500명이었다. 그러나 그 損失이 1개연대 平均 250명에 達하고 있었으므로 소총중대에서는 화기소대를 解編하여 3개소총소대로 改編하고 있었다. 그런데 堤川에서 引率南下한 500명의 靑年방위대원과 一部학생중에서 250명을 뽑아 兩개연대에 그리고 250명을 사단사령부의 後方要員으로 充員하고 그와 동시에 古參兵을 一線연대로 抽出하여 戰鬪力의 補強을 꾀하였다.

한편 重要장비는 M-3 榴彈砲 13門을 비롯하여 57mm 對戰車砲 11門, HMG-23정 LMG-21정 Cal-50 기관총 30정, 81mm 迫擊砲 19門, 60mm 迫擊砲 27門, 2.36' Rocket砲 120門으로써 장비의 損失은 比較的 많지 않았으나 敵에 比하여 劣勢에 있었으며 野砲와 對戰車砲의 火力支援은 地形的인 制限으로 어려운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나 江陵에서의 圓滑한 後方撤收와 堤川에서의 政府保有糧穀의 後送으로 補給이 比較的 양호하고 土氣는 旺盛하여 戰鬪力은 初戰時에 比하여 크게 減少하지 않았다. 그反面에 隣接부대와 不連繫와, 上部의 作戰計劃, 그리고 餘他地域의 戰況을 알길이 없으므로 사단만이 孤立된 것이 아닌가하는 一殊의 不安感에 사로 잡히고 갖가지 流言蜚語가 나돌고 있었으므로 持久戰에 대한 確固한 信念에 불타지는 못하였다.

사단의 戰鬪地域은 그간에 계속된 降雨로 洪水를 이룬 蛇行狀의 南漢江이 北쪽의 障礙物이 되어 防 守에 有利하기는 하였으나 標高 1,000m를 헤아리는 小白山脈의 高山峻嶺이 聳立하고 地形이 險峻한데 다가 唯一한 機動路인 제 5번 道路마저 屈曲이 甚하고 絕壁이 둘러친 竹嶺의 險路가 彼我의 機動을 制 限하기 때문에 撤收路에 대한 不安感으로 固守防禦의 意志를 弱화하는 障害要素가 되기도 하였다.

期間中の 氣象은 開戰무렵부터 접어든 장마의 영향으로 7월 9일까지 계속 흐리거나 비가 와서 地形 條件과 더불어 視界와 射界를 크게 制限하였는데 특히 짙은 안개는 사단防禦에 큰 障礙要素가 되었다.

10~11日兩日間은 快晴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12日부터 또다시 비가 때때로 내리는 장마전선이 山 嶽地帶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사단이 丹陽에 進出하였을 무렵 接受한 陸本作命 제23호에 이르기를 『사단은 1개연대로써 原州를 공격하고 其他부대는 現戰線을 固守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하라』는 것이었으나 前날 安東에서 接受한 作命 제20호에는 『사단은 堤川부근에서 孤立을 覺悟하고 南下하는 敵을 阻止擊滅하라』는 것이었음을 想起할때 陸本에서는 必是 사단이 堤川까지 能히 北上한 것으로 알고 下達한 것으로 判斷되어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참모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다.

여기에서 論議한 결과 敵의 先遣隊가 이미 道潭里對岸의 德泉里—龜川里—德文谷里부근에 到達한 現狀下에서 全사단이 敵前渡河하여 堤川으로 進擊한 다음 原州로 進擊하는 것은 前後挾擊과 後方遮斷의 憂慮가 多分이 있으나 그릇된 作命(敵의 無電攪亂)으로 堤川에서 물러서 軍作戰에 蹉跌을 갖어 온 責任을 免할 筈 없으니 우선 1개연대만이 南漢江을 渡河하여 天柱峯을 거쳐 道路를 따라서 堤川으로 공격하되, 敵의 強力한 抵抗에 부딪칠때

에는 遲滯없이 丹陽으로 後退하여 河川防禦로써 敵을 阻止擊滅하여야 할 것이라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가 南漢江沿岸에서 防禦하는 가운데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는 對岸의 天柱峯을 占領하고 丹陽—堤川道路의 西側方을 따라 공격하며 그 進展을 보아 제21연대도 攻擊移轉키로 決心하였는데 이러한 사단장의 意圖에는 그릇된 陸本作命에 대한 확인도 없이 大邱로 移動함으로써 堤川—丹陽間의 24km에 이르는 作戰地域을 敵에게 넘겨준 自責感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리하여 大邱移動의 責任을 지고 물러선 鄭 震소령의 後任으로 새로히 사단 작전참모로 赴任한 權泰順중령이 작전계획을 成案하고 있었는데 彼我が 對峙한 狀況下에서 南漢江을 건너 南下한 避難民을 審問하던 諜報隊로부터 緊急보고가 있었다.

즉 梅浦里西北쪽의 九萬里에 있는 梅浦국민학교에 敵의 사단 前方지휘소가 推進되고 그 부근에는 寡少한 경계兵力만이 있을 뿐이고 主力은 堤川에서 南侵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장은 정보참모 陸根洙소령으로 하여금 즉자 확인토록 하였던바 堤報者는 堤川의 有志와 경찰관으로서 믿음만한 諜報라는 것이다.

이에 사사단장은 작전계획을 修正하여 제10연대의 1개대대만으로 사단지휘소를 奇襲하여 敵의 銳氣를 制壓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南漢江邊에서 敵의 渡河를 阻止擊滅하고 一部兵力으로 敵의 사단지휘소를 急襲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古藪里—瑟吟山—玄川里—△324와 淸風地區를 확보하여 敵의 渡河를 阻止하라.

③ 제10연대는 1개대대를 九萬里로 進擊시켜 敵의 사단 지휘소를 奇襲하고 主力은 사단에비로 待機하라.

④ 제18포병대대는 1개중대를 丹陽으로 推進하여 제10연대의 공격대대에 대한 直接支援태세를 갖추고 主力은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⑤ 사단 공병대대는 一部兵力으로 제10연대 공격대대의 渡河를 支援하고 主力은 사단에비로서 출동태세를 갖추라.

⑥ 接敵時까지 無電沈默을 嚴守하고 通信은 SOI에 의거하라.

⑦ 사단지휘소는 丹陽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사단 공병대대장 金 默대위는 제2중대(장, 李龍九중위)로 하여금 S-3 徐正雨중위의 監督下에 제10연대의 渡河를 위한 橋梁作業에 着手토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계속된 장마로 洪水의 물결이 滔滔히 흐르고 前날에 제3중대(장, 吳明煥중위)가 車輛부대의 徵收를 위하여 臨時로 敷設한 上津里부근의 假橋(註丹陽—堤川間의 南漢

江에 있었던 다리인데 橋脚이 없어 洪水時에는 물에 잠겨 使用이 不可能하여 前날에는 砂囊을 쌓고 車輛이 通過하였다)는 對岸의 敵情과 増水로 使用할 수 없으므로 河幅이 좁은 下津里對岸의 中坊里를 渡河點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浮橋나 架橋장비를 갖추지 못한 대대는 밧복을 엮고 부근의 나룻배를 묶어 Wire rope를 對岸에 묶고 兩岸에서 牽引하는 方式으로 渡河를 試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對岸으로 가던 兵力이 我軍을 假裝한 1개소대규모의 敵의 奇襲을 받아 밧복과 몇隻의 배를 流失한 채 南岸으로 反轉하였기 때문에 渡河준비는 그 進陞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遲滯할 수 없는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23.00에 丹陽을 출발하여 中坊里에서 먼저 渡河를 敢行한 제2중대(장, 安東勳중위)가 橋頭堡를 확보하는 가운데 3隻의 나룻배로 江을 건너 다음날 05.00에 비로소 渡河를 完了하였다.

대대는 奇襲效果를 増大키 위하여 제2중대 선임장교인 俞學聖중위가 지휘하는 尖兵소대의 誘導下에 必是 敵이 이너 侵襲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天柱峯(△579)을 迂回하여 錦繡山(△1015)溪谷의 玄谷里—下里—上里—松峴을 거쳐 角基洞 西쪽 溪谷에서 공격준비를 갖추면서 休息을 취한 다음 8일 04.00에는 공격목표인 九萬里의 梅浦國民학교를 눈아래 굽어 보는 坪洞里로 進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제21연대는 古藪里—基村里—△664—瑟吟山—玄川里—△324에 이르는 江邊에 防禦陣地를 編成하고 제10연대主力은 丹陽國民학교에 集結하여 공격대세를 갖춘 다음 명령을 待機하였으며 제18포병대대는 공격대대의 直接支援대세를 갖추는 一方 擾亂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 (2) 작전 실시

7월 8일 : 사단이 神林里에서 接敵中에 突然히 徹收함으로써 그 作戰企圖를 헤아리지 못한 敵은 堤川을 奪取하고도 계속 侵攻하지 못하고 南漢江北岸으로 이미 進出한 一部の 先遣隊마저 挑戰을 試하지 못한 채 彼我間에는 小康상태가 계속 되었는데 제10연대가 이날 末明에 그들 사단前方지휘소를 急襲함으로써 그 불길은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 1. 梅浦里의 奇襲戰

04.00에 坪洞里 南쪽稜線으로 進出한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은 先遣한 偵察隊의 보고로 梅浦國民학교에 敵의 사단前方지휘소가 分明히 位置하고 北쪽의 △257와 그 東南쪽의 △265에는 增強된 1개중대규모의 敵이 分割配置하여 前方지휘소 경계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자, 대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대대는 敵의 사단 前方지휘소를 奇襲하려 한다.

② 제2중대는 △267에서 目標를 正面 공격 하라.

- ③ 제 1 중대는 △329에서 △257의 敵을 공격하는 즉시로 제 2 중대를 掩護하라.
- ④ 제 3 중대는 △267로 進出하는 즉시로 제 2 중대를 掩護하고 △265의 敵을 牽制하라.
- ⑤ 제 4 중대는 기관총소대와 Rocket砲 소대를 제 1, 제 2 중대에 배속하라.
- ⑥ 공격개시시간은 05.00이다.
- ⑦ 대대장은 △267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視野가 트이기 시작할 무렵인 05.00에 △325北麓으로 進出한 제 2 중대의 特攻隊가 △267의 敵 埋伏組 1개분대를 撲滅하는 즉시로 대대主力은 △267로 進出하고 뒤이어 제 2 중대는 開豁地를 竊進하면서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때에 梅浦국민학교 운동장에는 100餘頭の 牽引用馬匹과 10門의 小口徑砲 그리고 小型장갑차와 補給品을 滿載한 數台의 트럭이 준비해 있었는데 南漢江에서 12km 北쪽의 깊숙한 곳에 位置하였다는 安堵感에서인지 그들은 경계를 疎忽히 한채 깊은 새벽잠에 빠져 있는듯 周邊은 山間 소부락 그대로의 靜寂에 사로 잡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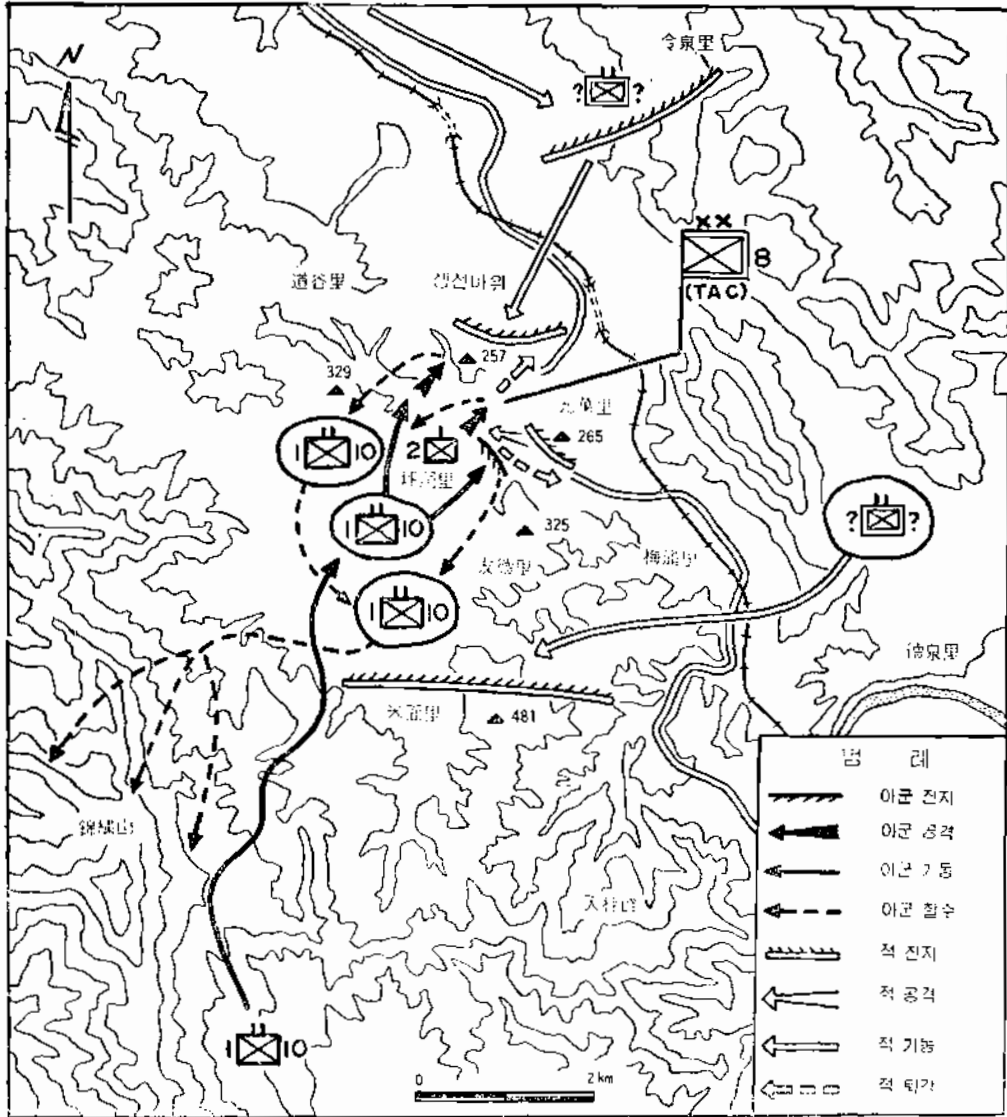
目標 100m前方의 細川堤防으로 躍進한 제 2 중대는 때마침 目標로 集注하는 81mm 迫擊砲 사격에 呼應하여 推進한 4挺의 기관총과 6門의 2.36" Rocket砲 그리고 20餘挺의 榴彈發射器가 一齊히 불을 吐하는 가운데 全火力을 集中하자 不意의 奇襲에 唐慌한 敵은 軍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右往左往 하다가 쓸어지고 高地쪽으로 潰走한 무리는 迫擊砲火에 휘말리는 殲滅的인 打擊을 입게되었는데 이때 △257의 1개중대규모의 敵만이 소총과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抵抗을 시도하였으나 俗稱 웃말의 △329東쪽 稜線으로 急進한 제 1 중대가 突進하면서 急襲하기에 이르자 그들 火力은 갈광 질광 分散되기 시작하였다.

이름을 타서 急速躍進한 제 2 중대는 目標 50m 前方에서 또 한차례 突擊준비 사격을 퍼붓고 一齊히 躍進하였는데 이때 舍泉里로 南下하고 있던 것으로 推定되는 1개대규모의 敵이 俗稱 생선바위로 急進하고 122mm 榴彈砲와 120mm 迫擊砲 사격을 集中하게 되어 先頭에서 突進하던 중대장 安東勳중위가 兇彈에 散華하였으나 이때 앞으로 달려 나간 선임장교 俞學聖중위의 “突擊앞으로”의 怒號에 힘입은 兵士들이 앞을 다투어 突進하였다.

더욱 熾盛을 띠는 敵火가 아직도 開豁地를 벗어나지 못한 중대를 에워싸고 여기저기에서 死傷者가 續出하였으나 그 先頭一團은 果敢하게 梅浦국민학교에 突入하는 즉시로 砲와 장갑차에 수류탄을 投擲하고 사격을 퍼부우면서 戰果를 擴大하였다. 이때 戰況의 推移를 지켜보면 대대장 朴致玉소령은 所期의 目的을 달성한 이상 더 머물러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제1, 제 2兩중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 戰列을 갖추듯한 △265의 敵이 제 2 중대의 退路를 遮斷하려는듯이 陣前出擊하기 시작하자 △267 東端을 확보한 제 3 중대(장, 朴龍鶴중위)는 즉각 81mm 迫擊砲의 支援下에 사격을 集中하여 이를 一舉에 擊退하였으나 敵의 砲擊은 이 △267로 延伸되고 있었다.

◇ 상황도 제17호 敵사단의 前方지휘소 기습(7.8)



한편 제 2 중대는 제 1 중대의 掩護下에 △329 東端으로 올라붙으면서 分散撤收하고 제 1 중대는 제 2 중대의 收容下에 △329 鞍部를 거쳐 물러섰는데 이때 敵의 사단前方지휘소인 梅浦국민학교 운동장에서는 補給品을 滿載한 트럭과 장갑차가 불길을 뿜고 數 많은 馬匹과 砲 그리고 敵의 屍體가 여기 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友德里 溪谷에서 一扈 병력을 收拾한 대대는 丹陽으로 急速철수키로 하고 제 1 중대로서 收容에 任케 하는 가운데 제 3 중대를 前衛로 하여 俗稱 버십이 고갯마루로 進出하였는데 이때 △481-米面里에 이르는 一帯에 敵인지 我軍인지 分辨키 어려운 障地를 觀測하게 되었다.

대대장 朴致玉소령은 출동전에 연대장 高根弘중령으로부터 제 1대대가 敵의 逆襲으로 撤收할 경우에 對備하여 제 3대대의 1개중대로써 退路를 확보하겠다는 말을 想起하고 我軍일 것으로 判斷하였으나 雙眼鏡에 비치는 兵士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여 제 3중대 1개소대를 偵察隊로 하여 확인토록 하였다.

이 偵察隊는 米面里 北쪽稜線을 타고 進出하자 頂上에서는 빨리올라 오라고 소리치므로 7部稜線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 敵들은 辱說을 퍼부우면서 一齊히 사격을 集中하므로 分散退却하기에 이르고 즉각 誘導된 敵의 砲擊이 대대周邊에서 裂炸하면서 北쪽의 敵마저 急追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敵이 이미 退路를 遮斷하고 前後에서 挾擊을 받기에 이른 것으로 判斷한 대대장 朴致玉소령은 前날의 渡河點인 下津里를 대대 集結地로 定한 다음 각 중대별로 分散하여 敵의 포위망을 突破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각 중대는 鶴峰山—錦繡山측으로 分散撤收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敵의 砲擊과 追擊이 急迫하여 負傷者도 收拾하지 못한채 撤收하여야만 하였다.

이때 제 2중대장代理 俞聖聖중위가 負傷하여 뒤 떨어지게 되자 敵에게 사로잡히는 恥辱보다도 차라리 自決하리라 決心하고 拳銃을 뽑아 들고 銃口를 머리에 대어 방아쇠를 당기려는 瞬間에 연락병이 急히 달려 들면서 “중대장님은 輕傷입니다. 能히 撤收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리치고 拳銃을 奪었으므로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連絡兵의 도움으로 主力과 떨어진채 山中을 헤매다가 뒤늦게 연대에 歸着하여 入院後送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대대는 敵의 追擊과 砲擊을 뿌리치면서 포위망과 天險을 突破하여 18.00에 下津里에 集結하였는데 이때 연대에서는 北岸에 橋頭堡도 확보하지 않은채 제 9중대(장, 朴炳奭대위)만이 南岸의 烽火臺高地를 占領하고 있어서 將兵들의 憤怒를 샀다.

이리하여 제 3중대가 下津里 西쪽高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渡河를 시작하여 21.00에는 丹陽국민학교로 集結하였는데 이때 사단前方지휘소 奇襲에 대한 憤끓이나 하는듯이 丹陽邑內를 비롯한 全戰線에 敵의 砲擊이 集中되었다.

이날 대대는 敵 100餘명을 殺傷하고 3대의 장갑차와 10門의 小口徑砲 그리고 3대의 트럭을 파괴 또는 燒却하는 戰果를 거둔 것으로 推定하였다.

그런데 이날의 奇襲에 대하여 당시의 대대장 朴致玉소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奇襲은 少數의 병력으로 迅速果敢하여야만 損失을 줄이고 큰 戰果를 擧揚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所信이고 또 共匪擊滅戰때에도 이렇게 하여 큰 戰果를 올리게 되어 내가 중위에서 대위로 特進한 事實이 있었다.

梅浦里奇襲때에도 나는 50~60명만을 選拔하여 奇襲을 敢行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全대대로써 포위 공격 하라는 것이었다.

奇襲自體는 敵의 사단前方지휘소를 축발으로 만들고 거의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



으나 成功的이었지만 연대장이 退路를 확보하여 준다는 言質만 주지 않았던들 一部自體병력으로 退路를 확보 하였을 터인데 그리하지 못함으로써 撤收時에 苦戰을 免치 못하였다.

특히 제 2 중대장 安東勲중위를 비롯한 20餘명의 部下를 잃은 것이 못내 가슴아픈 일이다』라고 하였다.

如何間에 이 梅浦里의 奇襲은 사단장 李正一대령의 果敢한 決斷의 所産으로써 제 6 사단 제 7 연대 제 2 대대(장, 金鍾洙소령)가 敢行한 同樂里의 奇襲과 더불어 軍의 제 2 단계작전의 緒戰을 裝飾하였음은 勿論 將兵들의 士氣를 크게 振作하는 契機가 되었다.

## 2. 사단장의 措置

梅浦里의 奇襲戰을 契機로 堤川에서 急速南下한 敵主力이 天柱峯—△358로 展開하고 砲擊을 開始하여 丹陽을 비롯한全陣地線에 狂風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道潭里對岸의 敵이 南漢江 渡河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자 사단장은 戰機가 바야흐로 到來한 것으로 直感하고 一戰을 決하여 이를 撲滅키로 決心한 다음 21.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2호를 下達하였다.

- 『① 敵은 今明間에 渡河를 敢行할 것으로 判斷된다.  
 ② 사단은 敵의 渡河를 阻止하고 漢江線을 계속 固守하려 한다.  
 ③ 제21지연대는 現陣地線에서 敵을 阻止하라.  
 ④ 제10연대는 1개대대로써 丹陽—外中坊里線을 확보하고 主力은 長林里에서 再編하는 즉시로 出動태세를 갖추라.  
 ⑤ 제18포병대대는 新基里에서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21연대에 있다.  
 ⑥ 공병대대는 主力(2개중대)을 즉각 출동 시켜 제21연대장 지휘下에 東側方을 掩下하라.  
 ⑦ 如何한 境遇에도 有無線을 維持하라.  
 ⑧ 사단지휘소는 23.00이후 北上里에 位置한다.』

## 3. 敵의 南漢江 渡河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는 6일 夜半以來로 제 2 대대(장, 朴永燮대위)를 右一線, 제 1 대대(장, 崔就聖대위)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 3 대대(장, 李昌律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峰郵登(△695)—古藪里—基村里—△664—琴吟山(△671)—深谷里—玄川里—△324에 이르는 10 km의 正面을 담당하고 제 7 중대(장, 金成彬대위)를 淸風(丹陽西北쪽 20km)으로 派遣하여 사단 西側方을 防護케 하면서 南漢江 沿岸線을 확보하였는데 道潭里對岸의 德泉里—麗川里—德文谷里로 侵襲한 敵의 偵察隊가 때때로 江岸에 나타나 彼我間에는 小규모의 사격전만이 되풀이 되었다.

이날 저녁무렵부터 下棟里 tunnel 高地에서 敵의 直射砲가 猛威를 떨며 陣地線을 攪亂하기에 이르자 德泉里—上津里에서는 敵影이 빈번히 出沒하면서 渡河준비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 하였다.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각대대에 즉각 戰湖태세를 取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砲兵의 制壓사격을 要請하였으나 M-3砲의 射程이 짧아 그 威力을 발휘하지 못하는듯 敵砲는 如前히 驕威를 떨고, 저녁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깊어가면서 더욱 세차게 내려 陰散한 분위기가 짙게 감돌았다.

23.30부터 드디어 道潭里西岸과 上津里로부터 敵의 渡河가 開始되었다.

연대장은 大號一聲『渡河하는 敵을 즉각 阻止擊滅하라』고 명령하면서 연대에 배속된 공병대대(一)를 제 2대대로 急進시켜 東側背를 掩護케 하였다.

제 2대대의 戰況: 제 7중대(장, 金成彬대위)를 淸風으로 派遣한 대대는 제 6중대(장, 禹敎鵬중위)를 右一線으로 하여 △695—古藪里를, 제 5중대(장, 李聲五중위)가 左一線으로 써 外陽坊의 △664를 각각 占領하고 夜間에는 江岸으로 推進하여 敵의 渡河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이날 19.00부터 敵의 砲擊이 대대正面으로 集中되면서 對岸의 敵이 尋常치 않게 움직이는 것이 觀測되기에 이르자 대대장, 朴永燾대위는 敵渡河의 徵候로 判斷하고 21.00에는 제 6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를 道潭里의 △358로 急進시키고 제 5중대의 2개소대로 基村里—外陽坊에 이르는 埋伏陣地로 進入하는 즉시로 戰鬪태세로 들어가게 하였다.

敵砲火는 間斷없이 陣地線에서 炸裂하여 그 閃光과 轟音이 시정각을 鈍化시켰다.

대대의 81mm 迫擊砲와 全 60mm 迫擊砲는 對岸에 攪亂사격을 계속하였으나 敵勢에 비하여 너무나도 微弱하여 兵士들의 가슴을 애대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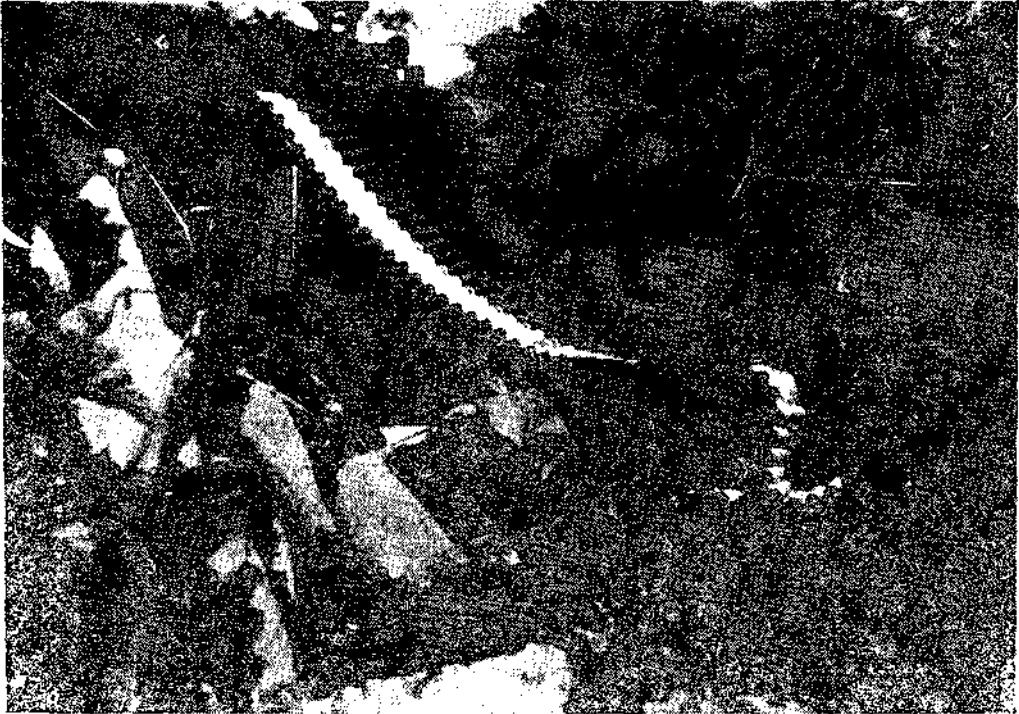
이윽고 1개중대규모의 敵이 10餘隻의 鐵舟와 뗏목으로 渡河中임이 迫擊砲의 照明彈으로 捕捉되었다.

제 6중대는 중대장 禹敎鵬중위의 명령 一下에 全火力을 集中하기 시작하고 대대의 全 迫擊砲사격이 즉각 誘導되었다.

그러나 敵은 더욱 熾烈한 砲擊을 集注하여 陣地線을 硝煙으로 뒤덮으면서 道潭里에 着岸하는 즉시로 △358 西쪽稜線으로 올라붙어 彼我間에 攻防戰이 展開되었다.

중대에 배속된 2정의 Cal-50기관총과 3門의 2.36"Rocket 砲가 敵을 強打하기 시작하였는데 계속 渡河한 敵의 增援과 德泉에서 渡河한 한무리가 古藪里로 進出하면서 挾攻하므로, 退路가 遮斷된 중대(一)는 물러서기 시작하여 敵의 포위망을 突破하고 다음날 03.00에 △695의 陣地로 轉進하여 계속적인 敵의 侵攻을 阻止하였다.

한편 △664에 據點을 확보하고 基村里—外陽坊에 이르는 江岸에 埋伏中인 제 5중대(장, 李聲五중위)의 正面은 江岸이 벼랑을 이룬 地形的인 條件때문인지 敵이 渡河를 恣行치 못하였는데 제 6중대가 △358를 물러서고 敵이 道潭里一帶를 席卷하자 대대장의 명령으로 埋



〈밀려드는 무리를 掃射하는 기관총〉

伏中인 兵力을 基村里 南쪽 稜線으로 移動시켜 古藪里溪谷으로의 潛込에 對備케 하였다.

제 1대대의 戰況 : 대대는 愁吟山(△671)에 관측소를 設置하고 △664 西쪽 稜線에서 愁吟山에 이르는 正面을 담당하였는데 제 2 중대(장, 金鍾浩중위)가 右一線으로 △664 西쪽 稜線을, 제 1 중대(장, 梁 輔중위)가 中央一線으로 深谷里 突出部一帶를 담당하였으며 제 3 중대(장, 金漢龍중위)는 예비로써 愁吟山에 據點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제 4 중대(장, 金光哲중위)는 이때까지도 江陵 공격에서 落伍한 迫擊砲소대가 복귀치 않아서 重火器중대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제 1 중대와 더불어 突出部로 進出하여 古音洞 西北쪽의 稜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下梃岷의 tunnel 高地에 布陣한 敵의 直射砲는 兩중대의 陣地를 그대로 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砲撃이 集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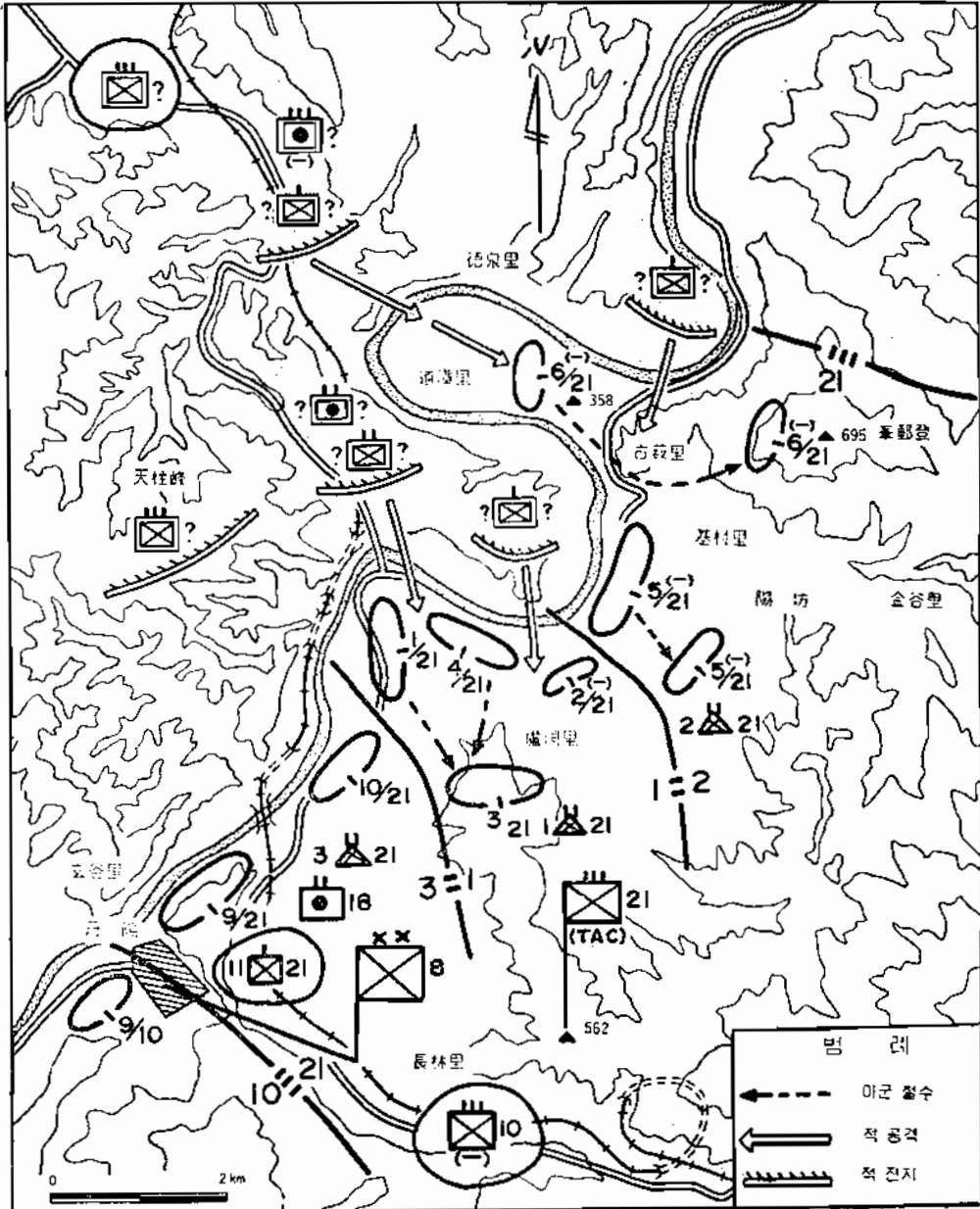
그러나 제 4 중대장 金光哲중위는 이에 覺하지 않고 Cal-50 기관총과 제 3 중대에서 배속된 2門의 60mm 迫擊砲사격을 對岸에 集中하였다.

그런데 23. 30에 道潭里의 제 2 대대陣地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리자 兩중대는 假然緊張하여 60mm 迫擊砲의 照明彈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더니 1개 중대규모가 이미 海岸에 거의 다

다왔고 2개 중대 규모가 그 뒤를 이어 渡河中에 있었다. 제1, 제4兩중대의 全迫擊砲와 기관총은 一齊히 불을 뿜기 시작하였으나 江岸에 다다른 敵은 수류탄을 던지고 多發銃을 亂射하면서 近迫하고 榴彈砲와 直射砲사격이 突出部一帶에 集中되었다.

金泳高중위가 지휘하는 제1중대 제1소대는 近接戰을 서슴치 않았으나 계속 밀려드는 敵勢에 中央이 突破되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 作戰도제18호 敵의 渡河(7.8.23, 30~9.03.00)



이에 중대장 梁輔중위는 예비로 확보한 제 2소대를急進시켜 敵을 阻止하면서 제 1소대를收容케 하였다.

그러나 敵이 突出部の 中央까지 侵攻케 되어 제 4중대는 古音洞 高地를, 제 1중대는 上里 高地를 각각 占領하고 正面을 透縮하였다. 이때에 夜暗을 틈타 古音洞 溪谷으로 侵透한 敵이 下陽坊의 제 2중대와 交戰을 벌리면서 그 一部가 盧洞里쪽으로 侵勢를 펼치자 退路渡斷을 憂慮한 大대장 崔就暹대위가 兩중대를 03.00까지 瑟吟山으로 물러서게 하였다.

한편 제 2중대는 朴東錫중위가 지휘하는 제 1소대가 下陽坊부근의 稜線에서 古音洞 溪谷을 制扼하였는데 深谷里의 突出部로 上陸한 敵이 제 1, 제 4兩중대와 交戰을 벌이자 江岸으로 堆進한 李一鎬중사가 지휘하는 埋伏組를 撤收시키고 중대에 要請하여 照明彈을 發射케 하였다.

이때에 이미 渡河한 1개소대규모의 敵이 溪谷으로 潛侵하다가 東쪽稜線으로 기어 올랐으며 南岸의 모래사장을 벗어난 1개중대규모의 무리는 古音洞 西쪽稜線으로 올라붙으면서 제 4중대의 東側方과 盧洞里 正面으로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2정의 기관총과 3門의 2.36" Rocket砲 그리고 5정의 榴彈發射器를 비롯한 全火力을 集中하여 이를 擊退코자 하였으나 夜暗을 틈탄 敵은 계속 近迫하게 되어 彼我間에는 手榴彈의 投擲戰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때에 敵의 120mm 迫擊砲火와 直射砲火가 △664 西쪽稜線一帶로 集注됨으로써 제 2중대가 混亂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金鍾浩중위는 60mm 迫擊砲火를 敵線에 集中하면서 金湧吉중위가 지휘하는 제 3소대를 外陽坊의 봉우리로 나가 敵의 側方에 사격을 集中케 하고 제 1소대를 離脫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2.30에는 관측소가 있는 高地一帶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제 3중대(장, 金漢龍중위)는 瑟吟山에 據點을 占領하고 있었는데, 古音洞으로 侵攻한 敵이 同山 北쪽稜線으로 기어 오르면서 大대主力과 盧洞里를 威脅하기에 이르자 00.30에는 盧洞里로 出擊하여 1개중대규모의 敵을 물리쳐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이로써 大대는 03.00現在로 主力이 瑟吟山一帶에 集結하고 제 2중대는 △664 西南쪽의 無名高地 一帶를 占領하고 있었다.

제 3대대의 戰況 : 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俗稱 윗터내에 관측소를 開設하고 玄川里—△324를 連한線을 확보하였다.

즉 제 10중대(장, 黃基相중위)가 右一線으로 玄川里로부터 제 5번作戰道路에 이르는 江岸一帶를 담당하고 제 9중대(장, 崔泳龜중위)가 △324를 확보하였으며 제 11중대(장, 孟寶永중위)는 大대예비로 俗稱 德尙골 西쪽稜線에 控置하여 제 5번道路를 扼守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主力의 南下와 더불어 開始된 敵의 砲擊이 全陣地線을 攪亂하기 시작하였는데 特히 제 9중대가 占領한 △324에 대한 砲擊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熾烈하여졌다.

대대장 李昌律소령은 이것을 丹陽 鐵橋부근에서의 渡河를 위한 준비사격으로 判斷하고 敵의 集中砲擊과 陣地의 制限으로 新基里로 물러선 57mm 對戰車砲의 直接支援을 연대장에게 緊急要請하였다.

21. 30에 對戰車戰중대장 徐鳳教중위가 지휘하는 2門의 57mm砲가 赴援하자 俗稱 윗터내 下端과 △324東端의 路邊으로 推進시켜 tunnel 高地와 敵의 集結예상지로 推定되는 俗稱 애실부근의 溪谷으로 사격을 集中케 하였다. 敵도 砲陣地를 목표로 應射함으로 彼我間에는 砲擊戰이 한참 계속되었으나 漸次로 誘導되는 野砲사격으로 22. 30에는 또다시 물러서야만 하였다.

23. 30무렵부터 東側方의 제2, 제1兩대대 正面에서는 “敵 渡河開始”의 急報가 계속되었으나 砲兵대대의 集中掩護를 받는 탓인지 대대 正面에서는 渡河의 徵候를 보이지 못한채 砲兵戰단이 계속대고 때때로 쏘아 올리는 照明彈에도 敵影을 捕捉하지 못하였다.

#### 4. 제18포병대대의 상황

江陵의 沙川戰鬪에서 北僞 제5사단의 肝膽을 서늘케 한바 있는 제18포병 대대는 2門의 砲를 遺棄하였으나 13門의 M-3砲를 이끌고 이 丹陽戰鬪에 參加하였다.

最初에 대대는 德尙골에 布陣하고 德泉里—梅浦里—天柱峯—基洞里에 이르는 敵域에 攪亂사격을 계속하였으나 小口徑直射砲만을 推進한듯 한 敵은 아예 對敵치 못하여 火力의 優勢를 維持하였는데 제10연대 제1대대의 奇襲戰을 契機로 急進한 敵이 梅浦里 南쪽 俗稱 새터溪谷에 野砲를 布陣하고 砲擊을 開始하게 되어 한참동안 彼我間에는 砲兵戰이 展開되었다.

그런데 120mm 迫擊砲까지 加勢한 敵의 砲火가 砲兵陣地에 集注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作命 제12호로서 대대의 新基里(丹陽東南쪽 10km) 撤收를 명령하였으나 대대장 張庚石소령은 射程을 考慮하여 北上里溪谷으로 陣地를 轉換하였다.

이로써 敵의 砲擊圈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射程이 짧은 M-3砲는 效率의인 支援의 制約을 받게 되어 敵砲를 制壓하지 못하고 주로 上津里—丹陽 北岸으로만 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渡河를 阻止하고 있었다.

#### 5. 공병대대의 상황

대대는 豊基에서 徐正雨중위가 지휘하는 橋梁쪽과반과 合勢하고 丹陽으로 進出하여 제10연대 제1대대의 南漢江渡河를 위하여 제2중대(장, 李龍九중위)로서 그 준비에 着手케 하였으나 敵의 妨害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丹陽중학교에 集結하여 待機하였다.

그런데 敵의 砲擊이 開始되면서 공격의 徵候를 보이게되자 사단장의 긴급명령으로 主力을 제21연대에 배속하였다.

즉 제1, 제3兩중대는 제1중대장 李佑彭중위의 統습지휘아래 21.00에 集結地를 출발하여 23.00에는 제21연대 관측소인 堂洞里的 △562로 進出하였는데 敵이 渡河를 開始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右一線인 제2대대를 支援코자 磨澗里를 거쳐 △664로 進出中에 있었다.

7월 9일 : 道潭里一帶를 席捲한 敵은 이곳을 橋頭堡로 하여 主力의 渡河를 掩護하는 한편 △695를 공격하고 2개중대규모는 金谷里로 侵攻하였으며, 上津里에서 渡河한 深谷里 突出部の 敵은 外陽坊一帶를 侵襲하였다. 제21연대는 且戰且退로 △695에서 물러나 △664—瑟吟山(△671)—玄川里—△324로 正面을 遞縮하고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단장은 敵이 제21연대의 右一線 正面으로 集中공격하는 徵候로 미루어 보아 一部の 兵力으로 峰郵燈—於衣谷里—小白山脈의 嶺마루를 거쳐 豊基로 迂回하여 사단의 退路를 遮斷하거나 竹嶺에서 包圍코자 圖策하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는데 이때 三陟경찰서장 金斗用중장이 지휘하는 三陟경찰대와 旌善경찰대의 1개대대兵力이 進出하기에 이르자 이를 國望峯(△1421)—小白山(△1439)一帶로 急進시켜 防禦縱心을 維持케 하였다.

그런데 敵의 계속된 砲擊과 執拗한 攻勢로 제21연대가 混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20.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14호를 下達하였다.

『① 當面の 敵 제8사단은 峰郵燈—占藪里—基村里—陽坊一帶를 占領하고 사단東側方을 계속 壓迫하고 있다.

② 사단은 제10, 제21兩연대의 作戰任務를 交代하여 此敵을 擊退하고 阻止線을 계속 확보 하려한다.

③ 제10연대는 23.00를 期하여 제21연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공격준비를 갖추라.

④ 제21연대는 交代즉시로 長林里에서 再編하고 다음명령을 待機하라.

⑤ 사단공병대대는 23.00附로 제21연대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에 長林里에 集結하라.

⑥ 제18포병대대는 23.00以後 제10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⑦ 通信保安에 留意하라.

⑧ 사단지휘소는 24.00 以後 新基里에 位置한다.』

### 1. 제21연대의 戰況

子正무렵부터 道潭里와 深谷洞 突出部로 渡河를 開始한 敵은 제6중대와 제1, 제4兩중대를 물리친 다음 橋頭堡를 확보하고 後續主力의 渡河를 掩護하여 未明무렵까지 1개연대규모가 渡河完了하는 즉시로 全正面과 東側方으로 攻勢를 指向하였다.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제2대대(장, 朴永燮대위)의 中央이 突破되고 그 右一線중대가 重圍속에 陷入될 危機에 直面하자 배속중인 사단 공병대대(一)를 奮勵하여 陰地村 南等稜線으로 急進시켜 金谷里溪谷을 制扼하면서 敵의 側背를 威脅케 하여 孤軍奮鬪중인 제6중대

(장, 禹教鵬중위)의 撤收를 掩護케 하였다. 이리하여 10.00 現在로 연대正面을 △664—瑟吟山(△671)—玄川里—△324로 整備하고 陽坊—外陽坊—下陽坊까지 侵攻한 敵과 가깝게 對峙하였는데 계속된 集中공격으로 △664마저 그들의 掌中으로 넘어가게 되어 可樂洞—瑟吟山—玄川里—△324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사단 作命 제14호에 의거하여 進出한 제10연대에 陣地線을 引繼하고 長林里에서 사단에비가 되었다.

제 2대대의 苦戰 : 이날 03.00에는 제 6중대(장, 禹教鵬중위)가 △695로 물러서고 제 5중대(장, 李聲五중위)가 그 間隙을 메꾸어 古藪里 溪谷을 防守코자 基村里쪽 稜線으로 進出하였다.

그런데 敵은 野砲와 75mm 直射砲의 砲擊에 이어 120mm와 82mm 迫擊砲사격을 △695—△664로 集中하면서 主力이 道潭里로 渡河하더니 05.00부터 △695와 基村里쪽으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695의 제 6중대 陣地는 밤새도록 계속된 敵의 砲擊으로 거의 破壞되었으며 兵士들은 들에 잠긴 塹壕속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길게 덮인 江邊의 안개가 걸리고 視野가 트일무렵에는 이미 西南쪽稜線상의 300m 距離로 接近한 敵影을 觀測하게 되었다.

禹教鵬중위는 射界가 좋은 200m 距離까지 近接시키기로 하고 沈默케 하였는데 緩慢한 傾斜를 이룬 稜線에 敵의 모습이 드러나자 비모소 “사격개시”를 명령하였다.

迫擊砲火와 기관총 火力이 集中하는 가운데 一齊사격으로 敵을 急襲하기에 이르니 그 先攻一團은 滅絶하였으나 後續한 主力은 심사리 물러서지 않고 박격포와 直射砲사격의 熱度를 더하면서 공격을 再開하였다.

중대는 또다시 불길을 터뜨리는 集中사격과 2.36" Rocket 砲火로 善防하였으나 이때 基村里的 제 5중대 正面을 突破한 2개중대규모가 古藪里 溪谷을 거쳐 金谷里 溪谷線으로 進出하면서 △695 西南쪽稜線을 타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古藪里的 江邊道路를 따라 北쪽으로 迂回한 一部는 峯郵嶺 東쪽溪谷으로 侵攻함으로써 중대는 바야흐로 敵의 重圍속에 陷入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戰況의 推移를 알게된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때마침 進出한 사단 공병대대(一)를 陰地村 西쪽 稜線상의 봉우리로 急進케 하여 上陽坊으로 물러선 제 5중대와 連繫를 維持하고 溪谷을 制禦하면서 △695 西南쪽 稜線을 指向한 敵의 側背를 強打케 하는 한편 제 6중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 6중대는 07.00에 陰地村부근으로 進出한 공병대대(一)와 더불어 南쪽에서 포위한 敵을 夾擊하면서 包圍網을 突破하여 10.00에는 △664에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基村里一帶를 확보한 제 5중대의 2개소대는 05.00에 古藪里溪谷으로 潛侵하는 1개중대규모의 무리를 捕捉하는 즉시로 60mm 迫擊砲와 기관총 그리고 2.36" Rocket 砲의 사격을 集中하여 一羈에 擊退하였으나 後續하는 敵이 直射砲와 迫擊砲의 掩護사격아래 급히 달



려들면서 兩갈래稜線으로 올라 붙고 더욱 優勢를 보였다. 守兵들은 무너진 壕속에서 上半身を 露出한채로 奮戰하였으나 敵勢에 밀리는마 되어 급히 轉換된 81mm 迫擊砲火의 掩護와 上陽坊으로 急進한 金明珥소위가 지휘하는 제 3소대의 收容下에 上陽坊으로 물러섰는데 이때 제 6중대가 △664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중대도 逐次로 據點을 마련하고 防禦에 들어갔다. 그런데 道潭里를 비롯하여 古藪里—峰郵燈—中里—金谷里—帶를 席捲한 敵은 △664로 砲擊을 集中하더니 11.00에는 增強된 1개대대규모가 北쪽의 基村里稜線과 西北쪽稜線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새벽부터 東쪽하늘이 밝아지면서 발새도룩 내리던 가랑비도 잠시 숨을 죽이는듯 하였는데 이무렵부터 또다시 검은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오르면서 天明을 가리더니 세찬 빗방울이 온 山野를 뒤덮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江邊에서의 勝敗는 이 一戰에 있음을 痛感하고 연대장에게 火急한 戰況을 보고하면서 射程이 짧아 落伍彈에 의한 損失을 甘受하는 일이 있더라도 兵士들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砲兵支援이 절대적으로 必要함을 力說하였다. 이때에 81mm 迫擊砲와 기관총을 비롯한 全火力의 集中도 아랑곳 없이 우리들은 怒濤처럼 밀려들었으나 中腹의 傾斜가 緩漫한 地點에서 敵과 부닥쳐 戰機가 무르익자 대대는 全火力의 急射로 猛打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砲兵의 初彈이 北쪽稜線에서 정확히 炸裂하자 兵士들은 빗발치는 敵의 砲火도 잊은채 上半身を 일으키며 喊聲을 질렀고 대대장은 効力射를 緊急히 要請하였다.

雨注하는 砲彈은 稜線을 불길로 뒤덮고 瞬息間에 敵影을 쓸어 버렸으나 敵의 砲擊도 應酬나 하듯이 熾盛을 떨기 시작하여 彼我의 砲聲은 雷聲이 天空을 쏘개고 霹靂이 地軸을 뒤 흔드는듯 하였다.

基村里와 石灰巖山부근의 北麓에 蟻附한채 숨을 죽이던 敵은 18.00에 榴彈砲와 直射砲 그리고 迫擊砲사격이 연대 全正面의 陣地線을 硝煙으로 휩싸는 가운데 공격을 再開하였다.

午前中에 猛威를 떨친 砲兵支援이 연대 全正面으로 擴散되어 그 威勢가 減少하기에 이르자 이 虛隙을 타고 闖入하여 森色이 짙게 깔린 19.30에는 北쪽과 西北쪽의 7部稜線 그리고 제 1대대와 間隙인 外陽坊—下陽坊으로 侵攻하여 一部가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主力은 壕를 構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近 50명에 이르는 死傷者를 낸 대대(一)는 陣頭에서 怒號하는 대대장을 中心으로 奮戰하여 敵의 侵勢를 계속 擊碎하였으나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포위로 말미암아 비내리는 陰散한 밤을 맞기에 이른 兵士들간에는 不安한 분위기가 길게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1.00에 이르러 陰地村 溪谷으로 潛侵한 一部의 무리가 多發銃사격으로 後方を 攪亂하는 가운데 北쪽과 西北쪽 稜線, 그리고 外陽坊—下陽坊의 敵이 一齊히 攻勢를 集中하자 不安感에 사로잡히고 있던 兵士들은 陣地線을 離脫하기 시작하여 近接戰도 제대로 벌리지 못한채 陣地線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공병대대의 掩護下에 可樂洞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그 一帶에 急編 陣地를 마련하여 敵의 지속적인 侵攻에 對備하였다.

제 1대대의 瑟吟山固守: 上津里에서 澗河를 強行한 敵의 壓迫으로 深谷洞 突出部에서 물러선 대대主力이 瑟吟山을, 제 2중대(장, 金鍾浩중위)가 △664 西쪽稜線을 각각 확보하고, 深谷里—古音洞으로 侵攻한 敵과 對峙한채 砲擊戰을 계속 하였는데 10.00에 右隣接인 제 2대대가 △664에서 據點防禦에 突入하자 제 2중대는 대대장 崔就聖대위의 명령으로 瑟吟山 東쪽稜線으로 陣地를 轉換함으로써 대대는 瑟吟山의 東西와 北쪽稜線을 확보하여 密集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 2대대 正面에서는 激戰이 벌어져 火焰이 치솟고 硝煙이 하늘을 덮었으나 대대 正面에서는 이때까지도 小康상태를 유지하였는데 18.00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推定되는 砲擊이 陣地線을 어지럽히는 동시에 增強된 1개대대규모가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 主力이 北쪽稜線으로 衝勢를 集中하자 이곳을 담당한 제 3중대(장, 金漢龍중위)는 즉각 誘導된 砲병 제 2중대(장, 金榮澤중위)의 直接支援下에 一齊사격으로 敵을 俗稱 上里(上里)부락 一帶에 釘着케 하였는데 이때에 2.36" Rocket 砲가 威力을 發揮하였다.

敵은 이 集中火力을 露出된 地形에서 堪當하지 못한듯이 古音洞으로 後退하고 말았는데 이윽고 제 2대대 正面으로 侵攻한 무리가 外陽坊—下陽坊으로 進出하여 直射砲와 迫擊砲의 사격으로 東側方을 威脅하기에 이르자 이에 呼應하듯 一旦 물러선 敵이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堅守不動의 決意를 가진 중대의 善戰으로 一擊에 擊退하고 어둠이 깃들 무렵에는 稱俗 上근부근의 봉우리 一帶에서 壕를 構築하는듯 하므로 여기를 目標로 迫擊砲의 사격을 集中하였다.

이때에 東쪽稜線을 담당한 제 2중대는 外陽坊—下陽坊으로 侵攻한 무리가 突出陣地를 占領한 제 3중대를 側射하므로 全火力으로써 이를 牽制하였는데 어둠이 깃들자 東側方의 溪谷에 照明彈을 계속 쏘아 올렸으며 西쪽稜線을 확보한 제 1중대(장, 梁輔중위)는 俗稱 꽃거리에서 제 3대대를 공격한 敵이 下里 西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자 60mm 迫擊砲와 기관총의 集中사격으로 이를 牽制하였다.

그런데 右隣接인 제 2대대가 可樂洞으로 물러서게 되므로서 東側背가 露出되자 제 1중대의 一部를 東南쪽稜線으로 배치를 變更하는 동시에 交代次로 進出하는 제 10연대를 掩護케 하였다.

제 3대대의 陣地變更: 제 3대대는 제 9, 제 10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제 11중대(장, 孟寶永중위)를 예비로 하여 玄川里—△324에 이르는 正面을 擔當하였는데 深谷里 突出部를 侵奪한 敵이 04.00부터 迫擊砲사격을 퍼부우면서 江邊路와 深谷里로 뻗은 北쪽稜線을 타고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제 10중대(장, 黃基相중위)는 突出部에 대한 敵을 阻止中이던 제 1, 제 4중대가 물러서자

江邊陣地를 占領한 제 1, 제 2兩소대를 後退케하여 中대관측소를 開設한 下里 西쪽 無名高地의 東北쪽과 西北쪽稜線을 占領케 하였던터이므로 즉각 應戰케 하면서 大대의 81mm 迫擊砲와 砲兵의 支援을 要請하였다.

이때에 北쪽 稜線에서 기어 오르는 敵의 先攻一團은 그 자취를 감추고 銃聲도 잠시 멈추듯 하였으나 또다시 1개중대규모가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V字型陣地를 占領한 中대의 挾擊으로 攻勢를 支撐치 못한 敵이 望風敗走함으로써 05.00에는 아침의 高요를 되찾게 되었다.

그런데 18.00에 연대 全正面에 걸쳐 砲擊을 퍼붓더니 悲吟山에 대한 공격에 呼應하듯 2개중대규모가 俗稱 뒤실과 東北쪽의 심실에서 기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敵이 北쪽 稜線을 避하고 兩쪽 稜線으로 侵攻함으로써 火力의 分散이 强要된 中대는 陣頭에서 怒號하는 中대장의 모습에 힘입어 勇戰하였으나 漸次로 熾盛을 떠는 敵의 直射砲사격으로 苦戰을 免하기 어려웠다.

이에 大대장 李昌律소령은 예비인 제11중대의 2개소대를 罫거리로 急進시켜 뒤실에서 공격중인 敵의 側背를 强打케 함으로써 西北쪽에서의 敵勢가 鈍化되었으나 새로이 投入된 2개소대규모가 北쪽 稜線으로 侵攻하게 되어 中대는 三面으로 포위된채 戰況이 時時刻刻으로 惡化되었다.

大대장은 突出된 無名高地를 더 以上확보하기 위하여 兵力의 損失을 自招하기 보다는 차라리 地形이 방어에 有利한 △511에서 決戰코자 撤收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中대는 罫거리 一帶를 확보한 제11중대(一)의 收容下에 21.00에는 △511로 물러서 계속 侵攻을 企圖하는 敵에게 火力을 集中하여 이를 擊退하였다.

이때에 △324를 占領한 제 9 중대(장, 崔泳龜중위)는 俗稱 뒤실로 迂回한 敵이 제10중대를 挾擊하자 60mm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이를 牽制하였는데 제10중대가 力不足하여 △511로 撤收하게 되자 그의 1개소대로써 景允鎬중위 統率지휘 아래 東北端을 向하여 急進케하여 防護토록 하였다.

공병대대의 赴援 ; 제21연대에 백속된 大대(一)는 06.00에 △664 (제 2 대대 관측소가 位置)로 進出하였는데 大대장 朴永燮대위의 要請으로 다시 陰地村부근으로 轉進하였다.

이때 道潭里로 渡河한 敵主力은 △695의 제 6 중대를 공격하는 一方 基村里의 제 5 중대陣地線을 突破하고 古藪里溪谷을 거쳐 金谷里로 侵襲하면서 그 一部는 中里 附近에서 △695를 挾擊하고 있었다. 공병대대(一)는 先任者인 同大隊 제 1 중대장 李佑彰중위의 指揮下에 제 3 중대(장, 吳明煥중위)를 右一線으로 제 1 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陰地村부근의 兩갈래 稜線에 各々 展開하고 中里一金谷里溪谷으로 侵入한 敵을 强打하는 한편 제21연대 제 6 중대의 側背를 威脅하는 敵에 사격을 퍼부었다.

이때, 敵의 一部는 金谷里 高地에서 抵抗하는 一方 1개중대규모가 그 高地를 넘어 上於 衣谷으로 潰走하는 것을 奇貨로 하여 제 6 중대는 退路를 끊고 △664로 撤收하였다.

이리하여 제 2 대대가 △664에서 據點防禦하게 되자 대대장의 새로운 명령으로 陰地村에서 물러서 可樂洞 東北쪽 稜線을 占領하고 敵의 迂回侵襲에 對備하면서 제 2 대대의 東側背를 掩護하였다. 그런데 제 10 연대가 進出하여 제 21 연대의 作戰任務를 引受하자 사단 作命 제 14호에 따라 대대(一)는 다음날 새벽에 新基里로 移動하였다.

## 2. 제 10 연대의 進出

제 10 연대는 사단에비로써 長林里의 大崗국민학교에 集結待機중이었는데 제 21 제 연대가 계속된 敵의 공격으로 그 戰鬥力이 低下되기에 이르자 사단 作命 제 14호에 의거하여금 제 21 연대의 작전임무를 인수케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戰鬥力이 가장 높은 것으로 定評이 있는 제 1 대대(장, 朴致玉소령)로 하여금 要衝인 瑟吟山을 확보케 하여 여기를 基點으로 反擊을 敢行키로 하고,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를 可樂洞에, 제 3 대대(장, 河炳來소령)를 玄川里로 각각 進出케 하여 제 21 연대의 陣地를 引受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20, 30에는 제 2, 제 1 兩대대가 集結地인 長林里의 大崗국민학교를 출발하고, 제 3 대대는 丹陽부근으로 集結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둠이 깃들고 계속 내린 비로 山間道路가 미끄러워 行軍速度가 不振하였다.

제 2 대대는 “파리굴” 左端의 溪谷으로 접어들어 獐峴里—磨造里를 거쳐 可樂洞으로 進出하는 즉시로 제 21 연대 제 2 대대 陣地로 進入하기 시작하여 03.00에 交代完了하고 後續한 제 1 대대는 盧洞국민학교에 一旦集結하였다가 제 21 연대 一部兵力의 誘導下에 間歇的인 砲擊을 加하고 있는 瑟吟山으로 進入하여 역시 03.00에는 제 21 연대 제 1 대대와 交代完了하였다.

한편 제 3 대대는 대 10, 제 9 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하고 中坊里—外中坊里에 이르는 丹陽 西쪽의 江岸一帶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作命 제 14호에 따라 연대가 제 21 연대의 作戰任務를 交代하기에 이르자 20, 30에는 丹陽邑內로 集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연대 S-3 殷炳元 소령 便으로 示達한 修正명령에 따라 제 21 연대 제 9 중대가 계속 △324를 확보케 됨으로서 玄川里一帶만을 담당케 되어 23.00에는 제 21 연대 제 3 대대 主力과 △511의 陣地를 交代完了하였다.

## 3. 제 18 포병대대의 상황

德尙골의 砲兵陣地가 露出되어 集中砲擊을 받기에 이르자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敵의 砲擊圈을 벗어난 新基里 停車場부근으로의 轉進을 명령하였으나 대대장 以下 거의 모든 將兵이 西北青年團出身으로 굳게 뭉친 將兵들이므로 『砲兵이 砲兵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하고 安全地帶로 물러선다면 완전히 敵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抗辯하고 이를 拒否하여 北上里溪谷으로 轉進하여 射程이 7,000m에 不過한 M-3砲의 性能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敵을 強打하였다.

그러나 峻嶺이 連이은 小白山脈의 地形條件으로 砲陣地의 制限을 받아 敵主力의 渡河點인 道潭里一帶와 敵의 野砲陣地까지의 射程이 미치지 못하여 將兵들의 憤淚를 삼키게 하였는데 이날 10,00부터는 右一線인 제21연대 제2대대가 △664로 正面을 還縮하기에 이르자 射程이 그 正面으로 미치게 되어 砲兵들은 歡聲을 지르며 砲身이 날도록 사격을 계속하여 敵을 強打하였다.

이때 각중대의 戰砲대장들은 힘이 절로 솟아 “各砲 계속 쏘”의 사격명령을 서슴치 않고 있었다.

그러나 山間에 어둠이 짙리면서 砲兵陣地가 또다시 露出되어 敵의 對砲兵사격이 시작되고 제10연대의 戰線進出로 西側方에 대한 防護가 허술하여지자 21.00에는 堂洞里 溪谷으로 逐次轉進하여 熾烈한 砲擊으로 제10, 제21兩연대의 陣地交代를 掩護하기 시작하였다.

#### 4. 경찰대대의 상황

金斗用총경이 지휘하는 三陟경찰대는 사단이 江陵에서 大關嶺을 거쳐 堤川으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그 南쪽의 臨院津에 이미 敵 제766부대와 제549부대가 上陸하여 東海街道를 遮斷하였으므로 道溪—黃地의 山嶽路를 거쳐 旌善에 도달한 다음 이곳에서 苦戰中인 崔亨植 警長 지휘하의 경찰대와 合勢하여 1개대대를 編成하고 寧越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集結中인 경찰병력과 合同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하였으나 壓到의인 敵勢에 밀려 順興—靈基를 거쳐 이날 12.00에 丹陽으로 進出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敵이 東側方으로 迂回하는 徵候를 보이자 이에 對應키 위한 兵力의 抽出로 苦心中이던터라 경찰대대의 進出을 歡迎하고 대대장 金斗用총경에게 小白山脈의 嶺마루一帶를 遮斷하여 사단의 後方을 掩護할 것을 要請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充分한 實彈과 補給支援을 받는 즉시로 機動하여 白龍寺溪谷—喜方寺를 거쳐 子正무렵에는 三陟경찰대가 國望峯(△1421)에 旌善경찰대가 小白山一帶를 각각 占領하고 敵의 迂回에 對備하였다.

7월 10일 ; 開戰以來로 계속된 지리한 霖雨가 걸린듯 오래간만에 快晴한 날씨를 맞았다.

사단장 李正一大령은 一線으로 轉用된 제10연대가 戰列을 갖추기에 이르자 基村里以西의 敵에 대하여 05.00부터 反擊을 敢行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反擊戰에 나선 제10연대는 △664를 奪取하고 基村里以西의 敵侵地域을 強襲하여 目標奪取를 目睫에 두었으나 敵의 最後發惡의인 砲擊으로 憤淚를 삼키며 물러서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날 夕陽무렵부터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여 △664—瑟吟山(△671)을 壓迫하는 가운데 丹陽을 侵奪함으로써 西側方이 露出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이날 사단에비로 轉換되어 再編中인 제21연대 主力을 北下里—北上里線으로 急進시켜, 제10연대의 西側背를 掩護하면서 제5번道路에 沿한 敵의 侵攻을 阻止케 하였다.

뒤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새로히 北傀 제2군단장이된 金武亭은 北傀 제1군단이 京釜街道와 鎭川正面에서 侵攻의 進展을 보인데 反하여 자기군단은 忠州正面을 除外한 陰城—丹陽正面에서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激怒한 나머지 總공격명령을 下達하였다는 것이다.

### 1. 제10연대의 反擊戰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연대가 一線展開를 完了하자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基村里—古音洞—深谷里를 目標로 공격을 敢行하여 基村里 以西의 敵을 驅逐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664를 奪取하는 즉시로 陽坊—外陽坊—基村里의 敵을 공격하라.

③ 제1대대는 제3대대의 1개중대를 統合지휘하여 古音洞—深谷里의 敵을 擊滅하라.

④ 제3대대는 1개중대로써 下里一帶의 敵을 격멸하고 제1대대의 공격을 支援하라.

※ 공격개시 시간은 10일 05.00이다.

⑤ 공격간 포병은 연대를 直接지원 한다.

⑥ 공격간 연대관측소는 △511에 位置한다.』

제2대대의 △664奪還: 대대는 이날 03.00에 제21연대 제2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可樂洞一帶를 확보하고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는데 △664—陽坊—下陽坊—圓에 대하여 계속된 砲擊의 延伸에 膚接하여 05.00에 제5중대(장, 金同曾중위)를 右一線 제6중대(장, 金淳基대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으며 제7중대(장, 李榮柱중위)는 可樂洞東 北쪽稜線을 확보하고 陰地村 溪谷을 制禦하여 敵의 迂回에 對備케 하였다.

제5중대는 李洪眞중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를 先鋒으로하여 △664 南쪽稜線으로 突進하고 主力은 이를 後續하였는데 7部稜線으로 進出하였을 무렵 先鋒으로 나선 제2소대가 敵砲火의 焰煙에 휩싸여 攻擊이 一時 挫折되기에 이르자 중대장 金同曾중위는 先頭로 달려 나가면서 제1, 제3兩소대를 左右側方으로 突進케 하였다. 敵火가 分散되는 刹那에 好機를 捕捉한 제2소대는 手榴탄을 一齊히 投擲하는 즉시로 敵線으로 突入하여 1개소대규모의 敵을 무찌르고 頂上을 奪取하였다.

이때에 左一線으로서 西쪽稜線을 타고 下陽坊을 目標로 突進中인 제6중대가 露出된채 敵火에 휘말려 苦戰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鄭順基대위는 제5중대에 즉각 側方을 支援토록 명령 하였다.

이에 중대장 金同曾중위는 제1, 제3兩소대로 하여금 西쪽稜線으로 進擊하면서 봉우리의 敵을 挾擊하고 60mm 迫擊砲사격을 敵線에 集中케 하자, 敵陣地가 攪亂되고 제6중대가 突進한 결과 07.00에는 △664—下陽坊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 계획에 따라 當面의 敵을 基村里 北쪽으로 驅逐코자 제5중대로서 陽坊—基村里로 제6중대로서 外陽坊으로 각각 계속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一齊히 突進하였으나 前날부터 陣地를 構築하여 砲擊을 支撐한 무리는 密集防禦 태세를 갖추고 頑強하게 抵抗함으로써 제5, 제6兩중대는 수류탄 投擲距離까지 近迫하여 寸進尺退의 紛戰을 거듭하였다. 연대의 全面的인 反擊으로 基村里 以西의 侵襲地域 全域에 걸쳐 決定的인 威脅을 받기에 이른 敵은 08.00부터 全野砲와 直射砲, 그리고 迫擊砲와 심지어는 小口徑 反戰車砲까지 動員한 듯이 全火力을 一時에 공격선으로 퍼부었다.

戰況의 推移를 지켜 보던 연대장은 對砲兵사격을 緊急히 要請하였으나 射程이 짧은 M-3砲는 敵의 砲兵陣地에 미치지 못하여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 反面에 敵火가 더욱 騷擾를 떨치자 연대장은 心驚케도 연대의 撤收를 명령하고 말았으니 이런 연대장 밑에 勝戰을 期待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는 △664로 물러서 反斜面에서 再漏하는 즉시로 제5중대를 右一線 제6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664를 확보하고, 제7중대는 계속 可樂洞 東北쪽 稜線을 占領하여 敵의 迂回에 對備하였다.

제1, 제3兩대대의 古音洞—深谷里공격: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은 下里西쪽 無名高地를 공격하는 제11중대(장, 李春植중위)를 統合지휘하여 古音洞—深谷里를 直衝키로 하고 05.00에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右一線인 제3중대(장, 林龍鶴중위)는 江邊에 길게 聳인 안개속을 一齊躍進으로 上里 東北쪽 봉우리로 進擊하여 이곳을 占據한 1개소대 규모의 敵을 一舉에 擊碎하는 즉시로 古音洞으로 突進을 계속하였는데 그 東쪽 稜線을 占據한 1개중대 규모의 무리는 背水의 陣을 친 탓인지 쉽게 물러서지 않고 迫擊砲와 기관총 사격을 集中하면서 頑強한 抵抗을 試圖하자 중대는 그 西쪽 稜線一帶에 散開한채 推進한 2.36"Rocket砲 사격을 퍼부어 敵의 虛隙을 뚫고자 하였다.

이때 左一線으로서 溪谷을 橫斷한 제2중대(장, 金益洙중위)는 上里로 突進하여 部落 西쪽 稜線으로 기어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東西 兩쪽 봉우리를 占領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一齊히 사격을 集中함으로 火網에 휩싸인 채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리게 되었다.

이당시 東쪽 봉우리에 있는 기관총이 特히 熾盛을 떨자 중대장 金益洙중위는 2門의 2.36" Rocket砲를 이끌고 10m前方의 바위까지 匍匐前進하여 사격을 퍼부어 기관총을 沈默시켰으나 敵의 集中사격과 수류탄 投擲을 받기에 이른 중대장은 10m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 負

傷하였다.

그런데 이때 下里 西쪽의 無名高地를 奪取한 제11중대가 西側方으로 急進하여 合勢하자 敵火가 分散됨으로써 兩중대는 一時에 敵線으로 楔入코자 躍進하였는데 바로 이때 一齊히 砲門을 연 敵砲의 硝煙과 轟음이 兵士들의 귀와 눈을 가려 方向感覺을 잃게 하였으며, 死傷 증가여기 저기 續出하였다.

대대장의 명령으로 각 중대가 離脫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敵의 砲擊이 退路를 好害함으로써 兵士들은 分散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悲劇을 招來하였다.

즉 제11중대의 제1소대장 鄭某중위는 敵의 砲擊圈을 벗어나 江邊道路쪽으로 물리서서 여기 저기 흩어진 兵士들을 收拾하면서 主力과 헤어진 채 撤收를 계속하였으나 방금 벗어난 煉獄의 불길로 미쳐 精神을 가다듬지 못한 그는 俗稱 꽃거리 溪谷으로 들어서지 않고 道路를 따라 계속 南下하다가 연대장 高根弘중령을 路上에서 만나게 되었다.

연대장은 그를 戰場離脫者로 看做하고 銃殺을 宣言하였다. 옆에 있던 부연대장 趙原英소령과 S-3 殷炯元소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極口 挽留하였으나 그는 拳銃을 뽑아들고 그대로 發射하였다.

그러나 7發이 모두 빗나가 致命傷을 입혀서 못하자 좌를 벌컥 내면서 돌아섰는데 이때



<激戰을 치르고 한모금의 물을 마시는 兵士>



쏟아졌던 鄭중위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높여 大韓民國萬歲를 三唱하고 自己가 所持하였던 拳銃을 뽑아 입에 물고 2-3發을 계속 發射하여 그 자리에서 自決하였던 것이다.

한편 分散撤收를 斷行한 제 1대대 主力은 瑟吟山에서 再編하는 즉시로 제 3, 제 1兩중대를 左右 一線으로 삼아 瑟吟山 一帶를 확보하고 제 2중대를 東南쪽 稜線에 控置하였는데, 중대장 金益洙중위가 後送되고 제 1소대장 李慶鎔중위가 이때에 중대장으로 起用되었다.

이때부터 彼我間에는 熾烈한 砲擊戰鬪이 계속되었는데, 연대의 果敢한 反擊으로 戰列이 흩어진 正面의 敵은 攻勢微候를 보이지 못한채 숨을 죽였으나 東北쪽의 峯郵燈과 金谷里溪谷에서는 빈번히 敵兵이 出沒하자 右一線인 제 2대대의 81mm 迫擊砲와 可樂洞 東北쪽 稜線을 占領한 제 7중대는 迫擊砲와 기관총 그리고 Rocket砲 사격을 集中하여 敵의 迂回를 牽制하였다.

## 2. 제21연대 제9중대의 戰況

해가 西녁에 기울자 敵은 全 陣地線에 걸쳐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玄川里以東의 제 10연대 正面에 대한 공격은 牽制공격인듯 그 衝勢를 集中하지 않으므로 一擊에 擊退되어 사격전만을 계속하였으나 1개대대 규모의 兪襲을 받은 제 21연대 제 9중대(장, 崔泳龜중위)가 확보한 △324의 陣地가 突破되면서 丹陽이 敵의 掌中으로 넘어갔다.

즉 江陵戰鬪에서 40~50명의 兵力損失을 본 중대는 堤川에서 學生과 청년 방위대원 20명을 充員받았으나 그 兵力이 100명에 不過하고 장교도 중대장과 景允鎔중위 뿐이어서 火器 소대를 解編하고 3개 소중소대로 再編하였는데 제 2, 제 3兩소대는 선임 하사관들이 소대장 代理 근무중에 있었다.

前날에 있던 연대의 陣地交代後에도 계속 △324를 확보한 중대는 景允鎔중위가 統合지휘하는 제 1, 제 2兩소대가 東北쪽稜線에서 丹陽에 이르는 一線을 담당하여 敵의 渡河에 對備하고 중대장은 △324頂上에 관측소를 開設하여 제 3소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사단 正面의 突出된 陣地를 占領한 중대는 敵의 甚한 砲擊圈內에 들었으나 直接的인 공격은 이날까지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夕陽무렵부터 또다시 砲擊이 熾盛을 떨자 중대장은 “또 시작하는구나”하는 程度로 가볍게 여겼는데 21.00가 조금 지났을 때, 東北쪽 稜線에서 銃聲이 울려 퍼지더니 曳光彈이 하늘 높이 치솟기 시작하고 뒤이어 景允鎔중위로부터 1개중대 규모의 敵이 공격중임이 보고 되었다.

중대장 崔泳龜중위는 즉각 60mm 迫擊砲사격을 東北端으로 集中케 하고 제 1, 제 2兩소대의 奮戰을 督勵하였는데 이때 對岸인 玄谷里에서 渡河를 強行한 2개중대 규모가 北쪽 窪地線으로 侵襲하여 稜線으로 기어 오른다는 急報가 제 2소대장 朴상사로부터 보고되

었다.

바야흐로 중대가 1개대대 규모의 敵의 挾擊을 받게된 것으로 判斷한 중대장은 예비인 제3소대를 제2소대 陣地線으로 急進하시키고 陣頭지휘에 나섰으나 이때는 이미 彼我間에 手류탄을 던지며 곳곳에서 近接戰이 벌어지고 있었다.

兵士들은 敢然히 달려 나갔으나 계속 밀려드는 敵勢로 말미암아 中央이 突破되고 一部の 무리는 後方으로 迂回하여 退路를 遮斷코자 하므로 더 以上 支撐키 어려운 것으로 判斷한 중대장은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각 소대는 離脫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撤收상황에 대하여 중대장 崔泳龜중위는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나는 我軍의 兵力규모가 큰 것으로 假裝하기 위하여 “제2, 제3兩중대는 敵을 阻止하면서 제1중대의 撤收를 掩護하는 즉시로 後續하라”고 敵이 들을수 있도록 몇번을 되풀이하여 웨치면서 丹陽쪽으로 빠졌다. 이 고함소리를 듣고 또 後續하는 主力이 있을 것으로 안듯한 敵은 중대를 追擊치 않았는데, 한참 있어도 後續하는 兵力이 없자 속은 것을 알게된 듯한 敵은 丹陽邑內쪽으로 多發銃을 亂射하면서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대는 뒷길로 해서 丹陽을 벗어났는데, 우리가 撤收한 무렵에는 연대와의 有無線이 모두 杜絶되어 連絡兵으로 通信이 維持되었던 터인지라 연대가 오늘밤에 竹嶺을 넘어 南下할 것이라는것 밖에는 모르고, 따라서 연대나 사단의 작전계획을 알질 없었던 나는 무턱대고 南쪽으로만 내려가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佳山里一道樂山(△964)을 거쳐 다음날 새벽에는 丹陽 西南쪽 20km의 赤城里에 到達하였으나 다시 南下하여 醴泉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金成彬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와 合勢하여 이곳을 防禦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왜 一線을 담당한 제10연대가 △324만을 引受치 않고 제21연대 제9중대로 하여금 계속 담당케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제10연대의 공격力을 集中케 하기 위한 措置로 推定되기도 하지만 동 중대를 제10연대의 左一線대대인 제3대대에 배속하여 有機的인 作戰을 遂行케 하였어야 할 것인데 동 중대를 소속연대의 直接지휘를 받게 한 것은 統一性의 原則의 缺한 것이며 이 正面에 대한 防護가 疎忽하였음을 端的으로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중대는 이 要地를 固守치 못하고 淸사리 敵의 掌中에 넘겨준채 연대의 지휘를 벗어나 獨斷으로 撤收하기에 이른것은 不可避한 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사단장의 措置

敵主力이 제10연대 正面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丹陽正面의 敵이 渡河를 強行하여 △324를 壓迫함으로써 丹陽失陷의 危機에 直面하자 사단장은 砲兵支援을 이곳에 集中케 하면서 예비로 轉換된 제21연대 主力을 北下里—北上里로 急進시켜 제5번 道路를 沿한 敵의 侵襲을

遮斷하여 제10연대의 西側背를 掩護케 하여 戰況의 推移에 따라서 逆襲을 敢行하여 丹陽을 奪還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합 作命 제15호를 下達하였다.

- 『① 敵은 △664—瑟吟山—玄川里—丹陽에 이르는 全正面에 걸쳐 공격중이며 特히 丹陽正面으로 공세를 集中하고 있다.
- ② 사단은 敵의 공세를 阻止하고 現戰線에서 계속 防禦하려 한다.
- ③ 제10연대는 △664—瑟吟山—玄川里線을 계속 확보하라.
- ④ 제21연대는 主力을 北下里—北上里線으로 急進시켜 敵의 侵攻을 阻止하면서 제10연대의 西側背를 掩護하고 戰況의 推移에 따라 丹陽에 逆襲한 態세를 갖추라.
- ⑤ 제18보병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되 1개 중대로서 丹陽正面을 直接支援하고 空中폭격을 위하여 白磷彈으로 目標를 指示할 準備를 갖추라.
- ⑥ 공병대대는 主力으로서 △1363—竹嶺을 확보하고 1개 중대는 砲兵 예비 陣地를 확보하라.
- ⑦ 通信保安에 留意하라.
- ⑧ 사단 지휘소는 新基里에 位置한다.』

#### 4. 제21연대의 北下里—北上里線 확보

제10연대에 陣地를 引繼한 제21연대(一제 7, 제 9 兩중대)는 12.00에 長林里 大崗국민학교에 集結하고 激戰으로 兪륙진 戰鬪을 짓으며 再編成에 着手하였는데, 이때 江陵反擊戰에서 落伍하였던 제 4 중대의 迫擊砲소대장 申榮徵중위가 소대원과 2門의 81mm 迫擊砲를 이끌고 復歸하였다.

이로써 제 4 중대는 重火器중대로서의 機能을 되찾게 되었다.

그런데, 21.00에 이르러 △324正面에서 熾烈한 銃聲에 이어 曳光彈이 하늘에 繚를 놓자 敵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判斷하고 S-3 金哲壽대위와 통신장교 姜泰弘중위는 有無線의 通信을 維持코자 努力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姜중위가 지휘하는 通信修理班이 出動하였는데 이때에 사단장으로부터 作命 제15호가 口頭로 下達되었다.

이에 연대장 俞容培중령은 제 2 대대로서 北下里의 △437을 目標로 제 3 대대로서 北上里의 斗岳山을 目標로 각각 進擊케 하여 敵의 侵攻을 遮斷키로 하였는데 丹陽의 喪失을 확인하는 즉시로 逆襲을 敢行하여 제 9 중대를 救出하며 제 1 대대는 예비로서 現位置에 控置키로 하고 各々 兩대대의 出動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21.20에는 제 2 대대(장, 朴永燮대위)가 先鋒이 되어 제 5 번 作戰路를 따라 北上하기 시작하였는데 敵은 연대의 赴援을 예측이나 한듯이 砲擊을 퍼부어 彈雨속을 뚫고 進擊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目標인 △437에 進出하였을 때는 23.00가 이미 지나고 있었다.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제 5, 제 6兩중대를 左右 一線으로 展開케 하고 金明珪소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를 △324쪽으로 나가 偵察케 하였는데 敵이 이미 그곳을 占領하고 陣地工事 中임이 확인되자 연대장에게 이 뜻을 보고하고 逆襲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 3대대(장, 李昌律소령)는 제 2대대를 後續하다가 長村里에서 稜線을 타고 斗岳山으로 進出하였는데 이때 丹陽쪽에서는 때때로 銃聲이 울리고 信號彈이 여기 저기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丹陽은 이미 敵의 手中으로 들어간 것으로 判斷되어 대대장은 行軍속도를 더욱 빨리할 것을 督勵하였으나 斗岳山 北斜面에 陣地를 占領하였을 때는 02.00를 넘어서고 있었으니 夜暗으로 行軍速度가 늦었기 때문이다.

### 5. 淸風先遣中隊의 戰況

濟州道の 共匪頭目 金達三을 射殺한 功으로 特進한 바 있는 金成彬대위가 지휘하는 제 21연대 제 7중대는 사단이 丹陽으로 進出하자 마자 “淸風에 敵情있다”는 경찰정보에 따라 사단 西側方을 掩護코자 淸風으로 急進하였는데 丹陽에서 西北쪽으로 23km가 相距한 이곳은 左隣接인 제 6사단과의 虛隙으로써 堤川에서의 道路가 江北岸에 이르고 南漢江을 渡河하면 丹陽과 忠州에 이르는 良好한 道路와 連結되는 要衝이며, 더우기 江岸이 突出되어 敵의 渡河에 上地點이기도 하였다.

중대장 金成彬대위는 6일에 이곳으로 進出하는 즉시로 飛鳳山에 관측소를 開設하고 勿台里—廣儀里에 이르는 要所에 兵力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8일 아침에 중대에 배속된 대대수색대 20명이 鄭中사 지휘아래 望月山 南端의 道里부근으로 偵察次 出動하였다가 數未詳의 敵 유격대로부터 奇襲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중대장 金成彬대위는 敵이 이미 중대의 後方으로 侵透한 現況에서 寡少한 兵力으로 敵의 渡河에 對備하는 것보다는 忠州에서 丹陽에 이르는 道路가 交叉하는 水山里에서 이 兩쪽 方面으로부터 潛侵하는 敵을 捕捉하는 것이 사단 西側方掩護에 實効가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9일 저녁에는 水山里로 移動하여 그 北쪽의 △371一帶에 제 1, 제 3兩소대를, 水山里南쪽의 無名高地에 제 2, 제 4兩소대를 각각 배치하여 道路를 掩扼케 하고 대대 수색대는 夜味山 一帶를 수색케 하였는데, 이때 到着한 보급차량편에 水山里로의 移動상황을 연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날 正午무렵에 대대 정보장교인 權寧吉중위가 달려와 연대장 金容培중령의 명령을 傳達하였는데, 그 要旨은 “누구의 명령으로 水山里로 撤收하였는가? 즉각 淸風으로 돌아가라, 명령에 不服時는 중대장을 銃殺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중대장 金成彬대위는 兵力을 水山里로 集結시키고 淸風里로 다시 進出코자 4km를 行軍하였을 무렵 이번에는 開戰때 제 2대대장으로 있다가 作戰失敗로 職位가 解除되어 연대 連絡장교로 있는 曷圭英소령이 Jeep車로 달려 와서 연대장의 새로운 명령을 다시 傳達

하기를 “淸風으로의 移動을 中止하고 水山里를 固守하라”는 것이었다.

중대는 行軍方向을 돌려 18.00는 水山里로 돌아왔는데 이때 중대장은 이곳의 敵制高地인 夜味山(△525)을 확보하기로 하고 主力을 이곳에 四周防禦陣地의 工事に 着手케 하는 한편, 대대 수색대는 德谷里쪽으로 推進시켜 一帶를 수색케 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水山里 道路邊에서 曹主英소령을 餞送하고 막 관측소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수색대가 進出한 쪽에서 銃聲이 울리더니 迫擊砲彈이 夜味山 一帶에서 炸裂하기 시작하였다.

중대장은 관측소로 달려 올라가는 즉시로 四方에 흩어져 陣地工事中인 兵力을 收拾하고 西北쪽의 後線과 西쪽의 △478로 急進시켜 陣地를 急編케 하였다.

그런데 敵의 迫擊砲사격은 漸次로 熾烈하여지더니 四方에서 攪亂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1개 중대 규모가 西北쪽 後線으로 侵透하게 되자 塹壕도 構築치 못하고 바위와 나무그루에 의지한채로 사격중이던 제1, 제4 兩소대가 무너지면서 突破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四方에서의 多發銃 사격과 信號彈으로 이미 敵에게 포위된 것으로 錯覺한 兵士들은 분대장과 소대장의 怒號도 아랑곳없이 各個로 分散함으로써 夜味山과 水山里는 敵의 掌中으로 넘어갔다.

당시의 중대장 金成彬대위는 그때의 情況을 述懷하기를 『陣地를 占領하기도 前에 當한 急作스러운 일어서 어찌할 道理가 없었다. 銃소리가 멎고 敵만이 여기 저기서 웅성거리면서 관측소쪽으로 올라오자 나는 옆에 있는 連絡兵만을 데리고 南쪽으로 推定되는 方向으로 내려가서 前날에 이미 示達하였던 集結예정지인 仙古里에 東녘이 흰허 트일무렵에 當到하였으나 그곳에는 單1名の 兵士밖에는 없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住民에게 兵士들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敵이 벌써 저밀의 부락까지 侵入하였기 때문에 몇명씩 南쪽으로 내려 가는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두명의 兵士를 이끌고 계속 내려 갔더니, 여기저기 숲속에 숨어 있던 兵士들이 모여 들어 60명 程度가 되므로 나는 2개소대로 再編하고 金潤旋중위와 朴用孚소위에 게 각각 지휘케 한 다음 地圖를 펴놓고 水山里로 侵攻한 敵이 사단 地域으로 侵襲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찿았는데, 마침내 醜狀일 것으로 判斷하고 南行을 계속하여 2일 뒤에는 이곳에 到着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마침 丹陽에서 主力과 떨어져 내려온 崔泳龜중위가 지휘하는 제9 중대와 나에게 연대장의 명령을 傳達하고 돌아간 權寧吉중위가 途中에 敵의 奇襲을 받고 九死一生으로 몸을 避하여와 있었는데 모두 同期生이어서 반갑게 만났다.

이때 權중위는 즉각 原隊復歸하여야 한다고 하고 나는 이곳에서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여야 한다고 意見이 맞았는데 마침 崔중위가 나의 意見에 同調하여서 이곳에서 敵侵을 阻止키로 合意하였다.

이리하여 權중위가 경찰의 경비진화를 통하여 2개중대의 醴泉到着을 사단에 보고하였더니, 意外로 사단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醴泉이 露出되어 걱정이었는데 참 잘 되었으니, 그곳을 계속 확보하라면서 兵力도 增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 이곳에 集結한 京畿道 경찰 병력 500명을 統合하여 混成대대를 編成하고 대대장이 되어 外廓線에 兵力을 배치하여 敵의 南下에 對備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7월 11일: 날씨는 계속 快晴하였다.

左隣接인 제 6 사단은 北傀 제 1 사단의 계속적인 壓迫으로 水安堡에서 梨花嶺으로 물러서기 시작하고, 제 1 사단은 北傀 제 15 사단의 모위 공격으로 陰城에서 槐山으로 撤收하였으며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은 文案山에서 淸州北쪽의 美湖川線으로 轉進하였다.

한편 美 제 24 사단 正面에서는 北傀 제 3, 제 4 兩사단이 烏致院—錦江線으로 進出하였으니 戰局이 바야흐로 緊迫의 度를 더하였다.

이에 軍은 錦江線을 담당한 美 제 24 사단과의 協同으로 小白山脈의 回廊에서 敵을 阻止하고 攻勢移轉의 戰機를 捕捉코자 이 山脈의 兩肩部인 竹嶺—烏嶺—梨花嶺을 담당한 제 8, 제 6 兩사단의 統合지휘를 위하여 이날 咸昌에 제 2 군단의 前身인 陸本 前方 지휘소를 開設하고 작전참모부장 金白—대령이 그 指揮에 나섰다.

한편 사단 正面에서는 전날 밤에 丹陽을 奪取한 敵의 戰列을 整備하는듯 砲擊을 全戰線에 퍼부어 陣地線을 攪亂하였으나 別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21.00에는 2개연대 규모로 總 공격으로 나섬으로써 제 10 연대의 防禦線이 動搖하기에 이르자 子正무렵에는 碧造里와 獐峴里線으로 戰線을 整理하였다.

이보다 앞서 19.00부터 30분간에 걸쳐 美 空軍 F-51 2개편대의 近接支援으로 丹陽市內에는 불기둥이 치솟고 敵砲도 한동안 沈默하였으나 將兵들이 간절히 바라던 “敵의 攻勢企圖를 霧散”시키리 만큼의 決定的인 威力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 1. 제 10 연대의 戰況

△664—瑟吟山—玄川里線으로 물러선 제 10 연대는 뛰어난 敵의 攻勢를 물리치고 不動의 태세를 固守하고 있었다.

敵은 美 空軍機의 機銃掃射와 Rocket砲 공격으로 一時 沈默하다가 20, 30부터 發作하듯 또다시 熾盛한 砲火를 퍼붓기 시작하고 21.00부터 2개연대 규모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664附近의 激戰: 제 2 대대는 제 5 중대(장, 金同晉중위)를 右一線, 제 6 중대(장, 金淳基대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664 一帶를 확보하고 제 7 중대(장, 李榮柱중위)를 계속 예비로써 可樂洞 東北쪽 後線을 占領하여 陰地村溪谷을 制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 30부터 시작된 集中砲擊에 뒤이어 上陽坊과 外陽坊에 蟻集한 무리가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東北쪽의 中里로 迂回한 一部가 陰地村의 西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三面으로 습撃하기에 이르렀다.

즉각 誘導된 제18포병대대의 掩護사격이 稜線과 溪谷을 뒤덮고 그 閃光에 敵影이 들어 내기 시작하자 대대는 一齊사격을 集中하였으나 奮戰의 銃뿌리에 밀린듯한 한 무리의 敵은 어둠과 閃光이 交叉하는 稜線과 溪谷을 타고 계속 기어 올랐다.

제 5 중대장 金同寅중위는 火力의 分散이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2정의 기관총과 51mm의 2.36" Rocket砲를 上陽坊쪽 稜線으로 推進시켜 이미 50m 距離로 接近한 敵을 強打하니 디 以上 支撐하지 못하고 退却하였는데 뒤이어 炸裂하는 中대의 迫撃砲 사격에 휘말려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衝勢가 中대의 集中火力으로 鈍化한 것을 挽回하려는듯 다시 熾烈한 砲火의 掩護아래 공격을 再起하여 波狀공세를 거듭하고 東北쪽 稜線으로 衝勢를 指向하였다.

上陽坊쪽 稜線에서는 또 한차례 敵을 躡았으나 제 2 소대(장, 李洪眞중위)만이 紛戰하는 東北쪽 稜線이 크게 威脅은 받기에 이르자 중대장은 俗稱 거북습까지 기관총과 Rocket砲를 推進하고 81mm 迫撃砲의 照明으로 敵을 捕捉하는 즉시로 側射로써 強打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中대장의 陣頭지휘에 自信을 되찾은 兵士들은 敵을 陣前에 釘着시킨 채 紛戰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左一線의 제 6 중대 正面에서는 下陽坊과 盧洞里에서 侵攻하는 敵勢에 밀려 正面을 좁히고 近接戰을 벌였는데 敵은 이 虛隙을 뚫고 계속 近迫하고 있었다.

대대장 鄭頤基대위는 迫撃砲 사격을 이곳으로 集中케 하면서 陣頭지휘에 나섰으나 이미 곳곳에서는 彼我が 뒤엉킨채 混戰상태를 빚었고 이와 때를 맞추어 주축하던 제 5 중대 正面인 上陽坊과 東北쪽 稜線의 敵도 狂亂하듯 侵勢를 더하여 감으로써 戰況이 時時刻刻으로 惡化하여 가고만 있었다.

이때 突然히 南쪽의 여기 저기서 信號彈이 솟아올라면서 多發銃 소리가 요란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敵의 一部가 南쪽으로 侵透하여 포위되고 退路가 遮斷된 것으로 速斷한 一部兵士들은 戰意가 감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 中대장으로부터 『後方으로 侵透한 敵은 極少數이며 제 7 중대가 즉각 剔抉한 것이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紛戰을 거듭 하였으나 얼마 뒤에는 敵의 衝鋒이 陣地를 突破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 저기서 兵士들이 銃劍을 겨누며 무리속으로 뛰어들어 肉薄戰을 서슴치 않았으나 陣地回復이 이미 어려운 것으로 判斷한 대대장 鄭頤基대위는 可樂洞으로의 撤收를 명령하였으니 이때가 23.00무렵이었다.

瑟吟山附近의 激戰: 제 1 대대는 前날의 反擊戰에서 進退을 보였으나 敵의 砲擊으로 물러서기에 이르자 瑟吟山의 陣地를 補強하고 夜間에는 崔錫天중위가 지휘하는 特攻隊 1개소

내가 上里부근의 敵陣地를 奇襲하여 울분을 풀기로 하였는데 계속된 砲擊으로 陣地線을 攪亂한 敵은 2개연대규모로 一齊히 연대 全正面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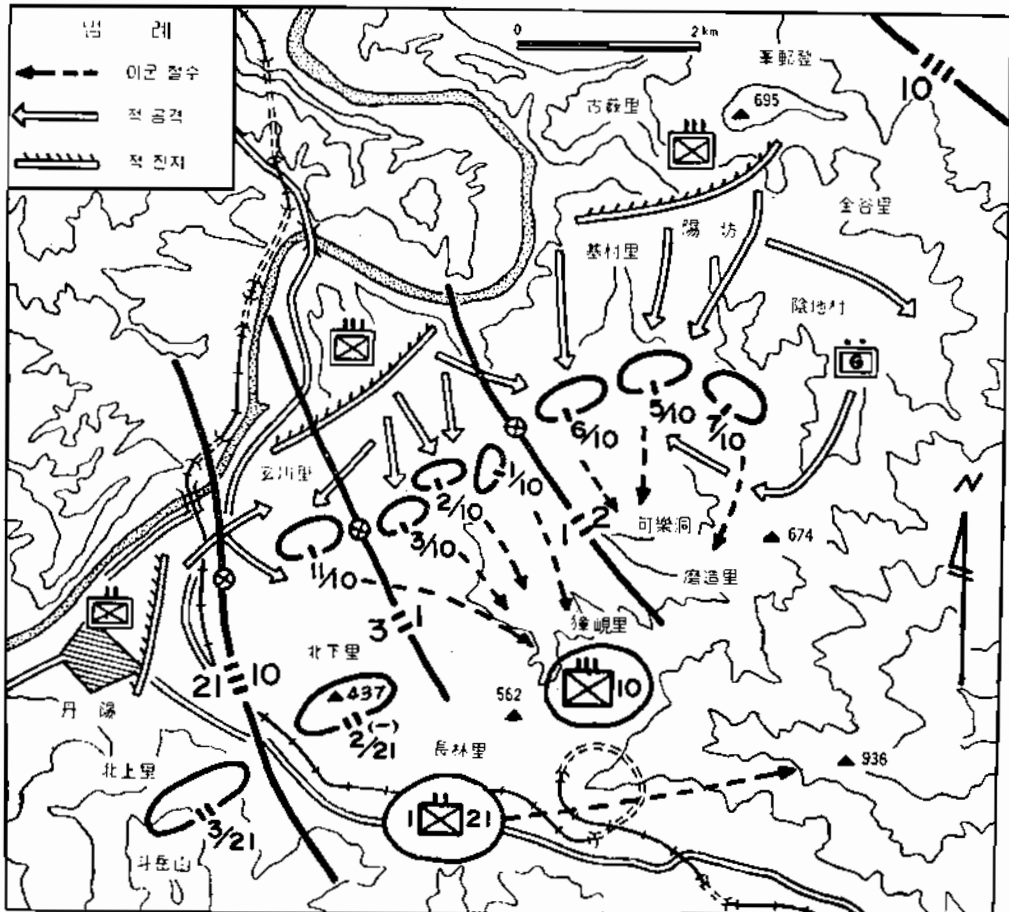
즉각 轉換된 제18포병대대의 集中支援으로 稜線과 끝짜기가 火焰으로 뒤덮히고 全火力이 一齊히 불을 쬐어 火網을 폈으나 敵은 어둠을 틈타 계속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東쪽稜線을 확보한 제1중대(장, 吳孝漢중위)는 下陽坊溪谷을 橫斷하면서 東北쪽 稜線으로 올라붙은 先攻의 一團을 一齊사격으로 물리쳤으나 敵은 直射砲를 한참동안 集注하더니 東北쪽 稜線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는 한편 그 鞍部쪽으로 侵勢를 集中함으로써 중대는 火力이 分散된채 一進一退의 紛戰을 展開하였다.

이때 西쪽稜線을 확보한 제3중대(장, 朴龍鶴중위) 正面에서는 上里-盧洞里를 공격基點으로 한 1개연대규모의 敵이 比較的 緩慢한 傾斜를 이룬 北斜面을 타고 侵攻하였다.

火網에 휩싸인 그 先鋒一團은 자취를 감추었으나 防禦上의 要衝인 이곳 瑟吟山을 기어코 奪取하려는 듯한 무리는 火焰속을 뚫고 계속 물려들었다

◇ 상함도 제19호 陣地線의 崩壞(7.11)





그러나 “敵도 별것 아니다”라는 自信心에 찬 兵士들은 무너진 壕의 一角에 의지한 채 銃列이 달아오르도록 連射를 계속하여 무리를 100m 距離에서 強打하였다.

이에 唐慌한 敵은 또한차레 直射砲를 퍼부어 陣地線에 狂風을 휘몰아치더니 火力의 疎散을 틈타 一齊히 공격을 再開하고 제 1중대 正面의 東北쪽 稜線에서 공격중인 敵도 鞍部로 侵攻하는 敵과 合流하여 侵勢를 더하여 갔다.

이에 대대장 朴致玉소령은 마야흐로 戰機가 무르익은 것으로 判斷하고 예비인 제 2중대(장, 李慶鎔중위)를 北쪽 稜線으로 推進하는 한편 SCR-300으로 각 중대장을 불러 『陣地線의 離脫이란 있을 수 없다. 각중대장은 最一線에 位置하여 最後의 一兵에 이르기까지 勇戰하라』고 激勵하는 한편 제 4중대장 康槿輝중위에게 좀더 効率的인 迫擊砲支援을 명령하였다.

砲兵사격에 呼應하여 그 間隙을 쥐잡듯이 누벼가는 81mm 迫擊砲의 掩護사격 아래 제 2중대가 北쪽 稜線으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대대火力은 더욱 緻密한 協調로써 敵侵을 또다시 制壓하기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一線으로 推進한 20餘門의 2.36" Rocket 砲가 一齊히 砲門을 열어 近迫하는 무리를 殲殺하기에 이르니 더 以上 支撐치 못한 敵은 死角을 찾아 分散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熾烈한 砲擊에 뒤이어 再開된 무리의 侵攻을 擊退하고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었으나 左右隣接인 제 2, 제 3兩대대의 陣地線이 무너짐으로써 敵의 포위망속에 陷入되어 苦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情況을 勘案한 연대장의 緊急명령으로 23.30에는 제 2중대가 先頭에 나서 포위망을 헤치는 가운데 獐峴里를 目標로 逐次로 撤收하였다.

**511附近의 激戰:** 제 3대대는 前날의 反擊으로 제 11중대(장, 李春植중위)가 下里西쪽의 無名高地를 奪取하고 上里西北쪽으로 進擊하자 後續한 제 9중대(장, 朴炳煥대위)가 이 高地를 확보하였던 터이므로 제 11중대가 물러선 뒤에도 이 高地를 계속 확보하게 되어 前날인 10일밤에는 제 10중대(장, 河相卓중위)도 또한 이곳으로 進出하여 西쪽 稜線을 占領하였으며 제 11중대는 예비로써 △511를 占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664—瑟吟山(△671) 正面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1개 중대규모의 敵이 上津里로 推進한 直射砲의 掩護下에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砲兵掩護사격에 이은 제 12중대(장, 崔根和중위)의 支援사격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그 衝勢를 阻止하였는데 21, 30에는 丹陽—△324를 奪取한 2개 중대규모가 俗稱 꽃거리 稜線으로 올라붙으면서 △511의 제 11중대 西側方을 공격하였다.

一線主力과 예비대間の 陣地線이 遮斷되고 主力이 포위망에 陷入될 威脅을 받기에 이르자 대대장 河炳來소령은 제 9, 제 10兩중대로 하여금 四周防禦로 轉換케 하고 제 11중대는 즉각 꽃거리의 敵을 邀擊토록 명령하였다.

이에따라 제 11중대 제 2소대장 鄭晉和중위가 統合지휘하는 제 2, 제 3兩소대는 81mm 迫擊砲의 集中支援下에 西北쪽 稜線으로 突進하면서 소류탄을 投擲하는 즉시로 敵線에 楔入하였

으나 敵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은채 頑強하게 抵抗함으로써 彼我間에는 近接戰이 벌어져 混戰상태에 빠졌는데 그 一部가 迂回하여 중대를 포위코자 하므로 急進한 제1소대의 收容下에 물러서 近接하는 敵과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에 負傷한 제3소대장 鄭顯燮소위가 失蹤되었는데 必是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推定되었다.

한편 無名高地一帶의 대대主力은 正面을 遞縮하고 四周防禦에 들어갔으나 이 虛隙을 틈탄 正面의 敵은 侵勢를 늦추지 않고 그 一部가 西南쪽稜線으로 迂回함으로써 稜線상의 突出進地를 확보한 제10중대 제3소대는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고 銃劍을 겨누며 무리속으로 뛰어들어 白兵戰을 벌였다. 소대장 太鎬淑소위는 뒷날 이때의 狀況을 述懐하기를 『사단內에서는 우리소대가 제일먼저 肉薄戰을 하였을 것이며 칠흙같이 어두운 밤이어서 彼我를 分揀치 못해 서로 머리를 만져보고 박박 짚은머리이면 찌르고 걸어차고 또 잡고 뒹굴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混戰亂鬪끝에 西北쪽稜線상의 敵을 一旦 물리쳤으나 玄川里溪谷과 下里쪽으로 迂回한 敵이 合流하면서 대대를 壓迫하자 無名高地의 대대主力은 孤立된채 紛戰하여야만 하였다.

제9, 제10 兩중대장은 대대장에게 撤收하기를 要請하였으나 대대장 河炳來소령은 前날의 不祥事를 想起시키면서 좀더 敢闘할 것을 當부하였는데 時間이 經過할수록 戰況이 漸次로 惡化하므로 연대장에게 緊急한 戰況을 보고하는 한편 獨斷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各々 誘導된 砲兵의 遮斷射擊下에 포위망을 헤치면서 俗稱 광과이를 거서 獐峴里로 分散撤收하고 이를 掩護한 제11중대도 後續하여 물러서니 이때가 23.00무렵이었다.

연대장의 措置 : 제3, 제2 兩대대의 防禦線이 무너지고 뒤이어 左右 兩側方이 露出된 鬪吟山의 제1대대마저 敵의 重砲속에 陷入된채 苦戰하기에 이르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제1대대의 撤收를 명령하고 俗稱 가리전-넙은들線에 收容線을 設置하여 연대 輕병대와 57mm 대전차포중대(장, 崔冕湖중위)로 하여금 分撤撤收하는 부대를 收容케 하였다.

이리하여 다음날 01.00에는 각대대의 再編이 마무리짓기에 이르자 제2대대를 △674에 제1대대를 磨造里에, 그리고 제3대대는 獐峴里를 各々 確保케하여 急編陣地를 占領토록 하고 계속적인 敵侵을 期必코 阻止토록 嚴命하면서 陣地離脫者는 假借없이 銃殺에 處할것을 宣言하기도 하였다.

## 2. 사단장의 措置

사단장은 敵이 2개연대규모로 총공격에 나서 제10연대의 防禦線이 무너지고 戰況이 緊迫하여지자 磨造里-獐峴里-北下里-北上里線에서 敵을 阻止키로 決意하고 咸昌으로 推進

된 陸本 前方指揮所에 空中支援을 緊急要請하면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6호를 23.00에 下達하였다.

『① 敵은 2개연대규모로 공격중에 있다.

② 사단은 磨造里—獐峴里—北下里—北上里線에서 이 敵을 阻止하고 戰機를 捕捉하여 攻勢로 移轉하려 한다.

③ 제10연대는 磨造里—獐峴里線을 固守하라.

④ 제21연대는 主力으로써 北下里—北上里線을 계속 확보하여 敵의 제 5번作戰路突貫을 阻止하고 1개대대를 △936로 急進시켜 제10연대를 掩護케하라.

⑤ 사단공병대대는 △1363—竹嶺線을 계속 防護하라.

⑥ 제18포병대대는 새터(新基里)로 陣地를 轉換하여 敵을 계속 強打하고 그 攻勢를 粉粹하라.

⑦ 通信保安에 留意하라.

⑧ 사단지휘소는 24.00 以後 竹嶺에 位置한다.』

### 3. 제21연대 상황

北下里—北上里線의 戰況: 제2, 제3兩대대는 前날 밤에 北下里의 △437와 北上里의 斗岳山으로 각각 急進하여 陣地를 占領하고 제10연대의 西側背를 掩護하면서 丹陽을 奪取한 敵의 中央線道路를 沿한 突貫에 對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末明에는 丹陽으로 逆襲코자 출동태세를 갖추었으나 이를 예측한 듯한 敵은 △324一帶에서 砲擊을 集中하면서 斗岳山으로 先制공격을 試圖하므로 終日토록 射擊戰이 계속되었다.

21.00에 시작된 제10연대正面에 대한 총공격에 뒤이어 제10연대의 後方을 攪亂코자 劃策하는 1개중대규모의 敵이 德尙골로 潛侵하는 것을 埋伏組가 捕捉하자 제2대대장 朴永燮 대위는 제6중대(장, 禹教鵬중위)를 北麓으로 急進시켜 이를 擊退하고 西쪽俊線으로 기어 오르는 敵을 또한 撲滅하였다.

그런데 23.00에 이르러 제10연대의 陣地線이 무너져 撤收하기에 이르자 제5중대(장, 李聲五중위)를 後谷里高地로 急進시켜 掩護케 하였는데 通信이 杜絶된 제10연대에서 이것을 敵의 後方侵透로 誤判하고 한때 混亂에 빠졌으나 사단의 統制로 곧 收拾되었다.

제10연대가 磨造里—獐峴里線을 확보하기에 이르자 제2대대는 그 左一線과 連繫를 維持하고 敵侵에 對備하고 있었다.

제1대대의 △936進出: 한편 대1제대(장, 崔就聖대위)는 연대에비로서 계속 長村里의 大崗국민학교에 集結대기중에 있었는데 23.00에 緊急히 示達된 사단作命 제16호에 의거하여 △936로 出動하였다.

俗稱 매바위 골짜기로 들어서서 南쪽 稜線으로 進出하였는데 철쭉같은 어둠이 깔리고 地形이 險峻한데다가 딱갈나무숲이 옥어져서 行軍속도가 不振한 까닭으로 頂上까지 進出하였을 때에는 이미 먼동이 틀 무렵이었다.

7월 12일 : 이무렵의 美地上軍사령관 William F. Dean 소장의 作戰概念은 美 제24사단이 錦江線을 韓國軍이 小白山脈을 계속 확보하고, 10일부터 釜山에 上陸하기 시작한 美 제25사단(장, William B. Keen소장)을 金泉—咸昌—尙州線으로 急進시켜 韓國軍을 增援하여 敵의 “金泉突貫 企圖를 粉碎하며, 不遠한 時日內에 上陸하게 될 美제 1기병사단(장, Hober R. Gay소장)은 京釜街道正面으로 進出시켜 美 제24사단을 增援케 하면서 攻勢移轉에 必要한 戰鬪力을 蓄積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軍은 이러한 美軍의 作戰方針에 呼應하여 國本一般명령 제14호로 제2군단을 創設하고 陸本작전참모부장 金白—대령을 그 軍단장으로 任命함과 동시에 陸本作命 제42호를 下達하여 제6, 제8兩사단을 同軍단에 배속하고 春陽에서 潛侵하는 敵을 遂擊중인 제2사단 제25연대 제1대대(장, 林益淳소령)를 제8사단에 배속하여 2개연대뿐인 사단의 戰鬪力 補強을 꾀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敵의 계속된 공격과 迂回로 主戰연대인 제10연대의 磨造里—獐峴里線의 防禦線이 무너지고 △936로 急進한 제21연대의 赴援도 無爲로 끝나 竹嶺으로 물러섰으나 蓮花峯쪽으로 迂回하는 敵의 壓迫으로 兜率山을 거쳐 21.00에는 豊基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날 09.00부터 30分間에 걸친 美空軍의 近接支援이 있어 敵을 強打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磨造里—獐峴里線의 防禦線이 무너지 竹嶺으로 撤退中에 있었는데 좀더 일찍 近接支援이 있었더라면 戰勢를 轉換하는 契機가 되었을 것이다.

### 1. 제10연대의 戰況

磨造里—獐峴里의 戰鬪 : 연대는 再編즉시로 △674—磨造里—獐峴里로 急進하여 02.30에는 제2대대를 右—線 제1대대를 中央—線, 그리고 제3대대를 左—線으로 하여 陣容을 갖추고 堅守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玄川里—瑟吟山—△664의 陣地線을 侵奪한 敵은 戰列을 갖추는듯 한참동안 잠잠 하더니 연대의 새로운 防禦線을 探知한듯 砲擊을 集中하면서 夜暗을 틈타 △664와 瑟吟山 사이의 溪谷을 따라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와 제3대대(장, 河炳來소령)의 間隙을 따라 金谷里 溪谷으로 侵襲하고 또 그동안 사단의 東側方을 威脅하던 2개대대규모의 무리가 陰地村溪谷을 통하여 △674의 제2대대正面으로 殺到하였다.

磨造里—獐峴里線의 제1, 제3兩대대는 즉각 溪谷一帶에 대한 野砲의 掩護사격과 △562에 관측소를 設置한 연대장의 督勵下에 이 狂勢를 꺾고 火力을 퍼부어 일단 擊退하였으나 三면으로 포위된 채 壓迫을 받은 △674의 제2대대는 中央이 突破되면서 紛戰을 거듭하였는

데 끝내 陣地를 回復하지 못하고 俗稱 가리점으로 물러서 그 南쪽稜線을 占領하는 즉시로 追擊하는 敵을 阻止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磨造里—獐峴里線으로 正面을 遞縮하고 敵과 指呼之間에 對峙한 채 激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674로 侵攻한 敵을 逆포위하고 一擊에 擊滅키로 決心한 제 1대대장 朴致玉소령은 제 1중대를 俗稱 미력이 쪽으로 突進케 하였으나 明滅하는 砲火의 閃光속에 俗稱 당아재에서 중대가 露出되기에 이르자 敵砲火에 ঝ짜이는 바 되어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서야만 하였으며 先頭에서 突進하던 중대장 吳孝漢중위가 負傷을 입었다.

그런데 제 21연대 제 1대대(장, 崔就聖대위)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936에서 銃聲이 이러나더니 激戰의 퇴오리속으로 말려드는 듯 기관총의 連射音에 이어 수류탄의 炸裂音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我軍의 銃聲이 잦아들고 多發銃과 AK소총소리만 氣勢를 더하여 가는데 하였다.

△1178附近의 激戰: △562의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竹嶺으로 이미 前方지휘소를 移動한 사단장에게 後方이 遮斷될 緊迫한 戰況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日出과 더불어 예상되는 空中支援을 契機로 劇期的인 戰況의 好轉을 期待하고 있던 터이므로 더 以上 退却하는 것이 아쉬운 感이 없지 않았으나 前後挾擊에 이어 東쪽에서 迂回하는 敵의 動向 또한 尋常치 않은 까닭으로 제 10연대를 우선 △1178호 물러서도록 決心하고 撤收를 명령하는 한편 北下里—北上里線을 확보한 제 21연대 主力을 즉각 △936로 急進시켜 侵襲한 敵을 驅逐하고 제 10연대의 再編과 陣地線의 編成을 掩護하면서 反擊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06. 30을 期하여 俗稱 가리점 一帶를 확보한 제 2대대(장, 鄭順基대위)로 하여금 아직도 채 걸이지 않은 안개속을 뚫고 △936로 공격을 敢行케 하는 一方 제 3대대로 하여금 제 1대대의 掩護下에 離脫토록 하고 뒤이어 제 1대대로하여금 迫跡하는 무리를 阻止하면서 △1178로 轉進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 2대대는 제 5중대를 先鋒으로 삼아 가리점溪谷을 타고 △936로 突進하다가 그 北쪽稜線으로 올라붙으면서 공격하는 가운데 대대 主力은 그 西北쪽 稜線上의 봉우리를 占領하고 磨造里—獐峴里를 席卷한 敵의 계속적인 侵攻을 阻止하였는데 09. 00에 이르러 東쪽하늘에 나타난 F-51 전투기 2개편대가 砲兵의 白燐彈誘導에 따라 敵線에 기중소사와 Rocket 砲 사격에 뒤이어 베이파암彈을 퍼부었다. 敵의 侵襲가 주춤하는 틈을 타서 제 1대대의 뒤를 이어 제 2대대도 逐次로 물러서기 시작하여 11. 00에는 연대 主力과 合勢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936에서 分散된 제 21지연대 제 1대대의 兵士들이 相當數가 合勢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1178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滿山이 巨岩斷崖이어서 壕를 構築할 수가 없으므로 돌을 쌓아올리고 遮蔽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敵彈에 의한 直接的인 損失보다도 跳彈에 의한 負傷者가 續出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密集防禦태세를 갖추고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阻止하였는데 그들은 險峻한 地勢를 活用하여 그 一部가 近接함으로

써 곳곳에서는 바위(岩)를 사이에 두고 수류탄이 오가는 近接戰이 벌어졌다.

이때 제10중대의 제3소대장 太鎬淑소위는 近迫하는 一群의 敵을 遡擊코자 1개분대를 이끌고 陣前으로 出擊하여 큰바위를 사이에 두고 날아드는 수류탄을 집어던지고 M-2 CAR을 쏘고는 몸을 숨겼다다가 또 쏘는 一方수류탄을 던지는 近接戰을 벌려 이 敵을 驅逐하였으나 이때에 날아는 兇彈으로 負傷하여 出血過多로 瀕死상태에 이른채 後送되었다.

이처럼 近接戰을 서슴치 않는 연대의 奮戰으로 敵의 侵勢를 阻止한채 △1178를 계속 확보하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무렵인 14.00에 峰郵燈—於谷里—俗稱 상의골로 迂回한 一部의 敵이 連花峯(△1394)一帶를 확보한 경찰대의 陣地線을 奪取하였다. 이리하여 △1178에 대한 挾擊을 憂慮한 사단장은 △1363 一帶를 확보한 사단 공병대대(-)의 掩護下에 연대를 竹嶺西南쪽의 兜率峯(△1314) 一帶로 물러서 決戰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兜率峯으로의 撤退戰: 연대는 제1대대로서 正面에서 侵攻하는 敵을 阻止케 하는 가운데 제3대대를 先頭로 하여 물러서기 시작하였는데 敵의 砲擊으로 退路가 威脅받게 되므로 秩序를 維持하지 못한채 分散撤收하여야만 하였다.

이때에 제3대대의 先發隊로써 △1363의 南쪽稜線을 거쳐 喜方寺골짜기로 들어선 제10중대 제2소대(장, 崔昌柱중위)는 이곳까지 潛侵한 敵 1개소대를 捕捉하는 즉시로 集中사격을 퍼부으니 우리는 5具의 屍體를 遺棄한채 連花峯쪽으로 潰走하였는데 이때 下達된 대대장 河炳來소령의 명령으로 後續한 중대主力과 合勢하여 喜方寺 東쪽 봉우리一帶를 확보하고 연대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이리하여 거센 빗방울이 山野를 뒤덮는 18.00에는 兜率峯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陣地를 急編하였는데 이때 竹嶺의 嶺마루 西北쪽 1km에 있는 牧場에 布陣한 제18포병대대가 敵線에 砲擊을 퍼부었으나 射程이 짧아 이미 南漢江을 渡河하여 南쪽으로 推進한 敵의 砲兵陣地까지 미치지 못함으로써 敵砲制壓의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 反面에 敵砲火는 포병대대의 陣地까지 急迫하여 火焰으로 뒤덮고 있었으니 이를 굽어보는 將兵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였다.

이때 敵도 我軍의 空中공격에 이은 계속된 砲擊과 步兵들의 抵抗으로 큰 打撃을 받은듯 계속 侵攻의 氣勢를 보이지 못하고 連花峯과 △936의 敵마저도 숨을 죽이거나 자취마저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敵의 迂回를 憂慮한 사단장은 豊基에서 戰列을 가다듬고 一戰을 決하기로 한 다음 또 다시 사단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21.00를 期하여 △942에서 물러서는 제21연대主力을 掩護하고 뒤이어 豊基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는데 前날 저녁以來로 食事를 하지 못하고 한잠도 자지 못한 兵士들은 泥濘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丹陽—竹嶺을 敵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悲哀를 씹으며 기운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 2. 제21연대의 戰況

△936附近的 激戰 : 제 1 대대(장, 崔就聖대위)가 △936을 占領하였을 때에는 東녁이 甚하게 트일 무렵이었으나 아직도 길은 안개가 깔려 咫尺을 分揀키 어려웠다.

대대장은 제 2 중대(장, 金鍾浩중위)를 右一線, 제 1 중대(장, 梁輔중위)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 3 중대(장, 金漢龍중위)를 左一線으로 각각 部署하고 北斜面을 占領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각중대는 담당地域으로 進入하여 막 陣地編成에 着手하였을 무렵부터 視野가 若干 트이게 되었다. 제 4 중대장 金光植중위가 前方을 觀測하니 1 개대대규모로 보이는 敵이 이미 50m 前方으로 近迫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기관총陣地마저 마련하여 포위망을 形成하고 있었다.

대대장 崔就聖대위는 이 보고에 接하는 즉시로 前方으로 달려 나가면서 『敵이다. 각중대 사격개시』라고 號令하였는데 대대의 끝길이 터지기도 전에 그들의 銃聲이 울러 퍼지면서 彈雨가 陣地線으로 集注하였다.

急襲을 받은 兵士들은 돌과 나무그루에 遮蔽한채 應射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는 곳곳에 配置한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붓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밀려들었다.

이때 날아든 兇彈이 陣頭에서 拳銃을 뺏아들고 怒號하는 대대장 崔就聖대위의 胸部를 貫通하였다.

그자리에 쓰러진 崔대위는 다시 벌떡 일어나면서 拳銃을 잡은 왼손(註, 오른손목은 開戰前에 負傷으로 이미 切斷)을 높이 들고 『자중대는……』하고 怒號하는 刹那에 또 一發의 銃彈이 頭部를 貫通하였다.

이때 그 앞에서 중대를 지휘중이던 梁輔중위는 대대장에게 달려들어 안아일으키니 아직도 體溫이 따스하고 알아들지 못할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所持한 壓迫帶를 꺼내 頭部를 싸매고 衛生兵을 불러 즉자 後送케 하였는데 또 한발의 兇彈이 衛生兵에게 업힌 대대장의 등을 貫通함으로써 그자리에서 護國의 神으로 散華하였다. 그의 人間性과 軍人精神을 追慕하는 당시의 제 1 중대장 梁輔중위는 그에 關하여 證言하면서 嗚咽을 禁치 못하고 있었다.

한편 대대장의 壯烈한 戰死를 傳해 들은 각 중대장은 敢然히 달려 나가면서 『대대장의 원수를 갚으라』고 怒號하면서 奮勵하였으나 그 보람도 없이 侵勢를 集中한 中央이 突破되면서 敵이 밀려들어 突破口를 擴大함으로써 兵士들은 波狀적으로 四方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險峻한 地形에서 길은 안개속에 휘말린 兵士들은 方向도 分揀치 못한채 溪谷을 徘徊하다가 뒤이어 反擊하는 제10연대 제 2 대대와 合勢하기도 하였으나 200명에 가까운 兵士들은 敵中에서 落伍하였다가 塹基에서 인대와 合勢하기도 하였다.

反擊 : 한편 前날 밤에 사단장의 명령으로 急進한 연대主力은 北下里—北上里線을 확보

하고 제10연대의 西側方을 掩護하면서 道路를 따라 突貫코자하는 2개대규모의 무리와 激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0연대가 磨造里—峴里線에서 물러서고 △936로 進出한 제1대대가 迂回한 敵에 突破되어 後方遮斷의 威脅을 받게되자 緊急히 示達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06.00에는 陣地를 轉換한 砲兵의 掩護下에 逐次로 물러서기 시작하여 09.30에는 제2대대(장, 朴永燮대위)가 右一線으로써 俗稱 매바위稜線으로 제3대대(장, 李昌律소령)가 左一線으로써 딱리굴稜線으로 각각 展開하여 △936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다.

敵은 제1대대와와 交戰에 이어 제10연대 제2대대의 공격으로 打擊을 받은 듯이 처음에는 그 抵抗이 微弱하였으므로 공격의 進展을 보았으나 磨造里—峴里線의 敵이 俗稱 가리점溪谷과 北쪽稜線으로 急進하면서 제3대대의 側背를 威脅하고 砲擊을 誘導함으로써 寸進尺退의 紛戰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漸次로 增強되는 敵勢에 밀리는 바 되어 11.00에는 제3대대가 제2대대의 掩護下에 물러서기 시작하고 뒤이어 제2대대가 △1178를 확보한 제10연대의 支援아래 이를 後續하여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敵의 遮斷射擊으로 分散된 연대主力은 이때에 示達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942에서 兵力을 收拾한 다음 기관총과 迫擊砲사격을 △936一帶로 퍼부어 계속된 敵의 侵攻을 牽制하였다. 그뒤에 제10연대가 兜率峯으로 물러서기에 이르자 △936—△1178의 敵線으로 全火力을 集中하여 攪亂함으로써 계속적인 侵攻企圖를 粉碎하였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가운데 날이 어두어지자 豊基에서 戰列을 整備키로한 사단장의 緊急명령으로 21.00에는 竹嶺을 넘어 豊基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 3. 경찰대대의 戰況

三陟 경찰서장 金斗用총경이 지휘하는 경찰대대는 國望峯—小白山一帶를 확보하였으나 공병대대가 11일에 △1363—竹嶺線을 확보함에 따라 傳達된 사단장의 指示로 蓮花峯—△1363線으로 陣地를 轉換하여 공병대대와와 連繫를 維持하면서 敵의 迂回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13.00무렵에 於衣谷里와 金谷里溪谷으로부터 潛侵하는 1개중대규모의 敵의 奇襲을 받았으나 重火器라고는 기관총 1정밖에 갖추지 못하고 M-1과 CAR 그리고 99式소총만으로 장비된 경찰대대는 陣頭에선 金斗用총경과 崔亨植경감의 指揮아래 사격을 集中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訓練이 되지 못하고 實戰경험이 不足한 이 경찰부대는 계속 수류탄을 던지고 多發銃을 連射하면서 덤벼드는 敵勢에 唐慌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雪上加霜으로 俗稱 민백이재로 迂回한 敵 一部가 多發銃을 連發하면서 後方을 攪亂하고 正面의 敵이 또한 侵勢를 더하자 별도리 없이 陣地線이 무너지면서 공병대대(一)가 확보한 △1363로 밀리다가 그 掩護下에 曠方寺골짜기로 들어섰는데 敵은 執拗하게도 이를 追擊함으로써 4~50명의 兵力損失을 보았다.



豊基에서 兵力을 收拾한 경찰대는 경비電話로 示達된 경찰作命에 따라서 榮州를 거쳐 安東으로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그 戰鬪力은 비록 보잘것 없었다 할지라도 사단後方을 확보하여 防護함으로써 사단作戰에 寄與한 功은 크다할 것이다.

#### 4. 사단 공병대대의 戰況

공병대대 제1, 제3兩중대는 제1중대장 李佑彭중위의 統合 지휘아래 △1363—竹嶺線을 확보하고 敵의 迂回에 對備하면서 사단의 防禦縱深을 維持하였다. 連花峯一帶를 확보한 경찰대대가 敵의 奇襲을 받고 물러서자 △1363를 확보한 제3중대(장, 吳明煥중위)는 Cal 50 기관총이 威力을 발휘하여 連花峯의 敵을 擊退한 다음 제10연대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그리하여 제18포병대대가 竹嶺 西北쪽의 露出된 牧場에 布陣하자 △675—△623를 連한線을 확보하고 砲兵陣地를 防護하였는데 20. 30에 砲兵대대가 豊基로 轉進하고 사단 主力이 또한 撤退하기에 이르자 그 뒤를 따라 豊基를 目標로 撤收하였다.

#### 5. 제18포병대대의 奮戰

磨造里—獐峴里線에 敵이 이미 侵攻한 然後에도 5정의 Cal 50 기관총을 부근 高地에 據置한 榑堂洞里 溪谷에서 勇戰을 거듭하던 砲兵대대는 이날 07. 00에 北下里—北上線의 제21연대 主力이 물러나서 △936로 進攻하자 新基里的 예비陣地로 移動하였다. 그러나 △936에 대한 공격이 그 進退을 보지 못하고 제21연대가 또다시 △942로 撤收하자 陣地의 露出을 憂慮한 사단장의 強硬한 명령으로 11. 00에는 竹嶺부근의 牧場으로 陣地를 轉換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竹嶺의 西北斜面으로 陣地가 露出되어 適合치 못하였으나 그밖의 地形條件으로 보아 마땅한 곳이 없을뿐만 아니라 射程을 可能한 限으로 延伸코자 하는 대대장 張庚石소령의 固執으로 이곳에 布陣케 된 것이다.

때마침 날씨가 흐리고 비안개가 짙게 끼어 다행히도 진지가 露出되지 않아 얼마동안은 敵線을 強打하였으나, 正午 무렵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으로 안개가 걸이면서 視界가 靑히 트이자 敵砲火는 이곳으로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現況을 直接 目擊하게 된 사단장은 즉각 無電으로 대대장 張庚石소령을 불러 『野砲는 사단作戰의 成敗를 左右하는 貴重한 存在이므로 즉각 陣地를 轉換하여 無謀한 損失을 避하라』고 嚴命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陣地를 轉換하여 敵을 強襲하지 못한다면 野砲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또 敵砲가 南漢江을 渡河한 以上 對砲兵戰을 벌려 이를 擊碎치 않고는 한 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苦衷을 披瀝하면서 砲手들에게 繼戰을 督勵하였다.

모든 砲手들은 上衣를 벗어던지고 手巾으로 머리머리를 두른 다음 더욱 敏銳하게 움직이면서 사격속도를 빨리 하였다.

그러나 射程이 7,200~7,600m로 制限된 M-3砲로서는 敵의 砲兵陣地를 打撃할 수 없는 反面에 敵砲火는 포병대대의 陣地後方 2~3km까지 깊숙히 날아들기만 하였다.

이러한 苦戰에도 屈하지 않고 20.00까지 陣地를 堅守不動한 砲兵의 勇戰으로 敵은 그 主力이 磨造里—獐峴里—後谷里—長林里까지 侵攻하고 그 先鋒이 △936—△1178까지 이르렀으나 여기에서 氣勢가 꺾인채로 侵攻을 계속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때 砲兵대대에서도 砲車 1대와 方向틀이 파괴되고 死傷者를 보게 됨으로써 20.30부터는 豊基를 目標로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 6. 사단 後方狀況

竹嶺에 사단 지휘소를 推進하고 陣頭지휘에 나선 사단장은 제 10, 제21兩연대가 兜率峯과 △942로 轉進하기 시작하자 14.00에는 豊基로 물러서 戰況을 檢討하고 새로운 作戰을 計劃하였다.

한편 豊基驛頭에 開設한 사단 後方 지휘소에서는 列車와 車輛에 糧穀과 彈藥을 積載한채로 後方支援을 하고 있었는데 14.00무렵에는 外廓경비를 담당한 本部중대가 豊基市內로 潛侵한 敵의 偵察隊員 6명을 射殺한 다음 主力의 豊基集結과 더불어 榮州로 轉進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7월 6일에 丹陽으로 進出한 사단은 敵의 사단 前方지휘소를 奇襲하여 肝膽을 서늘케 하고 氣勢를 올렸으나 8일 夜半부터 強行된 敵의 渡河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려야 하였다.

그러나 兵力과 火力의 劣勢로 10일에 丹陽을 喪失한데 이어 11일에는 陣地線이 무너져 다음날에는 竹嶺支脈으로 물러섰다가 豊基로 撤收하여야만 하였으나 이무렵의 다른正面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反擊戰까지 벌이고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逐次로 물러서는 遲延戰을 벌려 7일동안 支撐함으로써 全戰線에서 唯獨히 突出된 戰線을 계속 확보하게 되어 敵 제 2군단장 金武亭을 焦燥하게 한 나머지 忠州 攻路에 投入된 北傀 제12사단(제 7사단後身)을 이곳으로 轉用케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사단 主力이 豊基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G-3 權泰順중령과 제10연대 부연대장 趙原英소령의 建議를 받아들여 敵에 대한 陽動을 試圖키로 하고 모든 車輛이 竹嶺 東南端에서 榮州까지 head-light를 켜채로 밤새도록 運行케 하여 사단이 榮州로 계속 撤收하는 것으로 誤認케 하고 제10, 제21兩연대는 豊基市內 國民학교에서 戰鬪服을 비롯한 補給品 一式을 支給한 다음 充分한 給食으로 戰鬪을 셋게 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는 豊基 東南쪽을, 제10연대는 西南쪽高地群을 각각 占領케 하여 豊基를 中心으로 V字型陣地를 編成케 하고 企圖秘匿을 위하여 無電의 沈默을 命하였다.

이무렵 當面의 敵 제 8사단은 그 主力이 磨造里—獐峴里—長村里線으로 侵攻하고 그 先頭가 廻花峯—△1363—△936까지 南進하고 있었으나 砲兵대대의 奮戰으로 그 氣勢가 挫折된듯 계속侵攻의 徵候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 정보망을 통하여 入手한 諜報에 따르면 順興(豊基東北쪽 6km) 북쪽 7km에 있는 丹谷里에 200名으로 推定되는 무리가 나타났으며 또 寧越에서 南下하는 것으로 보이는 400名의 敵은 乃城北쪽 10km의 梧麗里까지 侵襲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마침 示遠된 陸本 作命 제42호에 따라 春陽에 位置한 제25연대 제 1대대(장, 林益淳소령)가 사단에 배속케 됨으로써 사단

東側方에 대한 威脅을 이 대대로 하여금 除去키로 하고 사단 主力은 豊基에서 一戰을 決하기로 作戰 方針을 굳혔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  
(1968년 6월 12일 大韓石炭公社에서, 예 대령)

우리 대대는 堤川에서 大邱로 移動하기 위하여 汽車를 타고 내려 가다가 移動명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安東에서 다시 北上하여 新林里에서 下車하였다.

이때 神林부근의 高地를 占領한 敵이 列車에 迫擊砲사격을 퍼부으므로 인대는 下車즉시로 展開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대대는 左一線으로 제2대대는 右一線으로 공격을 開始하였으나 敵의 直射砲사격으로 攻擊이 頓挫되어 △559로 불려서 防禦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에 제3중대의 正面이 奇襲을 받아 突破되자 소대장 2명이 연대장에게 銃殺되는 不祥事가 있었다.

이곳에서 2日間을 支撐하다가 丹陽으로 移動하였는데 이무렵 제21연대상황은 記憶할수가 없다.

또 堤川을 거쳐 丹陽으로 移動할때에 汽車로 갔는지 自動車로 갔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단장 李正一大령이 나를 부르다고 해서 갔더니 『梅浦里에 敵의 사단지휘소가 捕捉되었으니 朴소령이 奇襲해서 撲殺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밤에 南漢江을 渡河하여 梅浦里로 隱密하게 進擊하기 시작했는데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제3대대의 一部兵力으로 退路를 확보하겠다는 言質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退路확보를 위한 兵力배치에 대하여서는 神經을 쓰지 않았다.

7월 8일 未明에 坪洞里부근으로 進擊하자 나는 제2중대로 하여금 正面으로 사단지휘소를 공격하고 제1중대는 그 뒤쪽의 敵경계변력이 배치된 高地를 迂回공격토록 하고 제3중대는 대대에 비로써 △267를 확보하여 敵의 出擊에 對備하면서 제2중대의 공격을 支援케 하였다.

奇襲은 成功的이어서 敵의 小口徑砲와 강감차

그리고 보급수송용 트럭과 100頭의 馬匹을 殺傷, 파괴하고 敵의 지휘소要員을 거의 殲滅하는 成果를 거두었으나 急히 推進된 敵砲의 사격과 反擊으로 물러서야 하였는데 이때 제2중대장 安東勳중위가 戰死하였다.

그런데 연대장이 제3대대로 하여금 退路를 확보케 하지 않음으로써 敵에게 遮斷되고 대대는 分散된 채 丹陽으로 撤收하여야만 하였다.

그 다음에는 제21연대의 陣地를 交代하고 瑟吟山을 확보하여 反擊을 敢行하고 또 敵의 거듭된 공격을 물리쳤으나 優勢한 砲火와 兵力에 밀려 逐次的인 撤收를 계속 봉우에서 봉우리로 불려서나가 竹嶺을 거쳐 兜率峯을 확보하였으나 사단 計劃으로 豊基로 撤退하기에 이르렀다.

◇ 사단 공병대대 S-3 徐正雨중위  
(1978년 4월 21일, 辰星企業社에서, 예 대령)

공병대대가 堤川으로 撤收한 것은 7월 2일로 기억한다.

이때 제10연대는 神林里쪽으로 出動하고 제21연대는 堤川一帶의 外圍防護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神林里로 나간 제10연대가 大邱로의 移動명령을 받고 撤收하기에 이르자, 우리 공병대대는 神林里에서 堤川에 이르는 橋梁과 鐵橋를 모두 爆破하고 丹陽쪽에 이르는 全 橋梁과 鐵橋에도 爆藥을 裝置하는등 폭파준비에 着手하였다.

사단 先發隊가 5시 02.00부터 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吳明煥중위가 지휘하는 제3중대는 車輛으로 先行하여 道路를 補修하고 매마침장마로 불어난 河川渡河(車輛부대)를 支援하였는데 特別 橋梁이 없고 假橋만 있는 南漢江에서는 모래를 가마니에 넣어 假橋에 쌓아 올리고 車輛을 渡河케 하였던 것이다.

이때 나는 40명으로 編成된 爆破班을 지휘하여 21.00에 後發隊로써 堤川을 출발해서 全 橋梁과

鐵橋를 爆破하면서 南行하였는데 다음날 그러니까 6일 02.00에 丹陽에 到着하여 丹陽鐵橋를 爆破하고 豊基로 내려갔던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 北上하는 사단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丹陽鐵橋를 이미 爆破한 사실을 알게된 사단은 丹陽까지 北上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파리굴에서 脫線事故가 일어나서 一部兵力은 徒歩로 北上한 것으로 안다.

丹陽에서는 敵의 사단지휘소 奇襲次出動하는 제10연대 一部兵力의 渡河支援을 하라고 해서 내가 제 2중대를 지휘하여 그 準備에 着手하였으나 橋梁장비나 渡河支援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부근의 나뭇배를 모으고 뱃목을 엮었는데 牽引用로꾸를 묶기 위하여 北岸으로 건너가다가 我軍을 假裝한 敵偵察隊의 奇襲을 받아 뱃목의 배와 뱃목을 流失하고 말았다.

내가 여기서 分明히 말할 수 있는 것은 堤川을 출발한 사단이 北上할 때에는 丹陽鐵橋가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事實이다.

#### ◇ 제10연대 제 2대대장 趙原英소령

(1978년 3월 29일, 國際電氣株式會社에서, 예 대령)

大邱로 내려가다가 北上하여 下車한 곳은 丹陽이 아닌 堤川인 것 같다.

이때 陸本作命에 따라서 原州로 공격한다고 하여 神林里쪽으로 進擊하였는데 우리 대대는 右一線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제 2대대는 어느 골자기 깊숙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兵士들의 食事を 부탁하였으나 食糧이 없다고 拒絕함으로써 감자를 수집해서 이것을 삶아 먹이고 남은 것은 휴대케 하였다.

그리고 골자기를 따라 계속 나아갔는데 수상한 것을 잡아서 審問한 즉 敵의 연대 CP가 附近에 있다고 해서 이를 습격하여 큰 戰果를 거두기로 하였다.

그래서 연대에 이 事實을 보고하고 새로운 作戰指示를 받고자 無電連絡을 시도 하였으나 不通이어서 30分程度을 努力한 끝에 通信케 되었는데, 이때 연대장은 즉각 撤收토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대대는 온 길이 아닌 다른 小路를 따라 撤收하기 시작하여 새벽에 어느 부락에 到達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근 高地에 각 중대를 배치하고 부락 有志들을 불러 동아 食事を 준비토록 부탁하였으나 또 다시 不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이곳의 醜造場主人이 赤色分子인데 그 집에는 쌀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집 倉庫를 열어 보았더니 10餘畝의 쌀이 있어서 이 쌀로 밥을 당장에 짓게 하였다.

여기서 나는 대대 S-2 李중위에게 경찰 경비 진화를 통해서 我軍狀況을 좀 알아 보라고 하였더니, 좀 있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어느 대대인지는 몰라도 我軍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食事を 즉각 中止시키는 즉시로 그곳을 빠져 나왔는데 이 때, 山間住民들은 우리가 僞編軍인줄 알고 人共旗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는 판국이었다.

이리하여 堤川을 거쳐 丹陽으로 移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 戰 訓

### ◇ 防禦縱深에 關하여

戰鬪경험이 不足한 戰鬪初期에 있어서 廣正面을 담당하게 된 각 대대나 연대가 全兵力의 一線 배치로써 萬全을 잃는 防禦를 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인 것이라고 判斷한 지휘관들의 心境은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左右隣接사단과의 連繫를 維持하지 못한 사단으로서의 연대나 대대가 제아무리 廣正面을 넓히고 稠密하게 兵力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左右兩側方의 露出을 排除할 수 없었을 것이니 適確한 狀況과 地形判斷으로 敵이 奪取하지 않고는 다음 공격目標로 進擊할 수 없는 要衝에 防禦陣地를 編成되되 線防禦보다는 據點防禦와 縱深의 維持로써 敵의 侵攻을 制禦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全부대에 흐르는 霧靄氣가 左右

隣接사단과 連繫를 이루지 못하고 全戰線의 戰況을 알지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단만이 孤立된채 奮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단만이 이곳을 固守한 必要가 있을 것인가? 後方이 遮斷된다면 補給支援이 斷絶될 것이니 後退가 不可避하지 않은가?』라는 疑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어서 後方地域에서의 單 몇발의 銃聲에 대하여서도 敏感한 反應을 보였던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上級지휘관들은 直決處分이라는 極限의 方法으로 奮戰하도록 督勵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情況을 把握하고 連隊에서는 예비대대를 대대에서는 예비중대를 確保하여 充分한 防禦縱深을 維持하였다더라면 後方에 侵透한 一部の 유격대에 攪亂되는 不美한 狀況은 없었을 것이다.

#### ◇ 丹陽防守에 대하여

戰鬪地域內的 小邑이나 密集部落은 그 自體의 戰術的 價値의 有無를 不問하고 그의 喪失은 戰鬪員들의 士氣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丹陽의 境遇는 豊基—榮州—安東에 이르는 제 5번 作戰道路의 關門일뿐만 아니라 挾擊의 基點이 될 수도 있는 要地이므로 마땅히 이에 대한 警守에 留意하였어야 할터인데 7월 9일의 連隊 교대에서도 새로운 主戰연대인 제10연대에 이를 인계하거나 배속도하지 않은채 제21연대 제9중대가 계속 單獨으로 防守하다가 10일에 喪失함으로써 사단에비인 제21연대主力을 이 正面에 投入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사단作戰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사단에서는 7월 10일에 계획된 反擊戰에서 제10연대의 兵力集中을 위하여 取한 措置로 보여지나 이러한 境遇에는 該중대를 제10연대의 左一線 대대에 配속하여 有機的인 作戰을 遂行케 하였어야 할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제21연대의 直接指揮를 받게한 것은 丹陽의 初期喪失의 要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1개중대兵力의 淸風派遺에 대하여

사단이 丹陽으로 北上하였을 때 “淸風에 敵情 있다”는 諜報에 따라서 1개중대를 急派하였다.

單獨 戰鬪能力은 勿論 機動力과 通信장비마저

갖추지 못한 1개중대를 23km나 隔離된 地域으로 派遣하였다는 것은 當面한 狀況을 共匪擊滅戰程度로 錯覺한듯 하다.

그 중대가 1~2日間에 걸쳐 수색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토록 하였다면 適切한 措置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중대의 玉碎를 強要한 것이나 다름없는 過誤를 犯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 § 研 究

### ◇ 神林里戰鬪의 時機에 대하여

여기에서 神林里戰鬪의 時機를 學論코자함은 神林里戰鬪 그 自體의 重要性에서가 아니라 安東—永川—大邱에서 다시 北上하게 된 사단의 下車地點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參戰者들은 下車地點이 神林里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丹陽까지의 撤收經緯에 대하여서는 模糊한 證言을 하고 있다.

이問題에 대하여서는 唯一하게 保存된 사단의 “堤川地區戰鬪詳報”를 비롯하여 “부대역사자료보고”, “오뚜기 略史(註 사단史)”에 分明히 사단이 堤川에서 大邱로 移動하기에 앞서 神林里로 出動하여 제7연대(제6사단)의 作戰任務를 引受하고 敵의 侵攻을 阻止하다가 陸本作命에 따라 大邱로 移動코자 列車便으로 南下한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後發隊로서 工兵爆破班을 지휘한 工兵대대 S-3였던 徐正雨중위와 제3중대장 吳明換중위는 丹陽鐵橋의 폭파를 證言하고 있는 것이니 丹陽 以北으로의 列車北上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또한 神林里에서 제10연대에 作戰任務를 引繼한 제6사단 제7연대는 4日에는 忠州를 거쳐 陰城으로 이미 進出하고 있었으니 그 行軍長徑으로 미루어 보아 7월 3일에는 神林里를 출발하여야 하였을 것이며 또 제7연대의 合同證言에서도 연대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證言하고 있는 것이니 사단의 神林里 戰鬪는 大邱方面에서 北上한 後에 있는 것이 아니고 堤川에서 大邱로 移動하기 前에 있었던 것이고 그 下車地點이 丹陽이 었음은 틀림없는 事實이라고 할 것이다.

## 2. 忠州—水安堡 附近 戰鬪(1950년 7월 7일 부터 1950년 7월 9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6 호  
상 황 도 제 20, 21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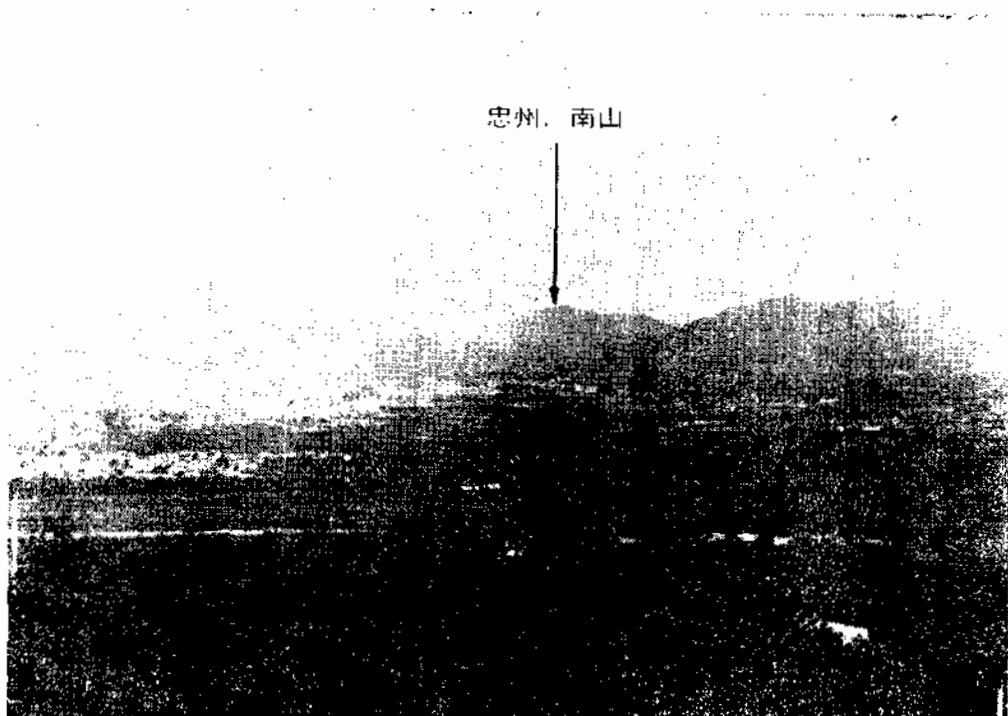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6 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제 16 포병대대	제 1 포대장 대위 金 長 根	北 傀 第 1 師團	장 소장 崔 光	제 12 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제 2 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忠州 警察署	장 총경 金 大 璧	제 1 연대	장 대좌 黃 石	제 30 연대	장 대좌 崔 赫
제 1 대대	장 중령 朴 魯 珪	隣接部隊		제 2 연대	장 대좌 金 陽 春	제 31 연대	장 대좌 金 鐵
제 2 대대	장 대위 李 鍾 基	右隣接		제 3 연대	장 대좌 李 昌 權	제 32 연대	장 대좌 朴 英
제 3 대대	장 소령 李 雲 山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포병연대	장 대좌 玄 學 奉		
(配 屬)		左隣接					
제 19 연대	제 2 대대장 소령 金 龍 起	제 1 사단	장 대령 白 善 燁				

###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이 忠州로 集結한 것은 戰爭이 勃發한지 9 일째 되는 날인 7월 3 일이었다.

當時의 戰鬪을 一瞥하면, 西部戰線에서 漢江 防禦線이 崩壞되어 敵의 先鋒이 安養—水原 地域으로 殺到함에 따라 軍當局에서는 제 1 사단을 掩護部隊로 삼아 豐德川 溪谷에 配置한 가운데 主力을 烏山—平澤 부근으로 集結시키는 한편 東部戰線의 제 8 사단을 江陵에서 大和—平昌을 거쳐 堤川으로 轉進시켜 中央線을 擔當케 하는 등, 이제 一線에서 分散된 兵力을 收拾함과 아울러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코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부림이었다.



〈忠州市街와 南山〉

그런데 이때에 敵은 繼續하여 水原—烏山 軸線으로 壓力을 加할 뿐만 아니라 春川—洪川線으로 南下한 또 다른 一群을 西南進시켜 驪州平野로 밀려드니, 西部戰線의 各사단은 緒戰의 紛亂을 收拾하기도 前에 再轉케 되어 이의 對備策이 火急한 實情이었다.

이에 陸軍本部에서는 比較的 戰力을 溫存한 제 6사단에서 2個연대를 뽑아 驪州—利川—安城地域으로 急派하여 軍主力의 撤收를 掩護케 하는 한편 車嶺山脈 回廊으로 한걸음 더 물러서서 分散兵力의 收拾과 部隊의 再編 및 陣地編成에 注力케 되었는데, 이때 마침 UN軍이 戰線에 加撥하여 京釜國道에 沿한 西部地域을 擔當케되자 國軍은 鎭川 以東의 中部戰線으로 集結하여 侵攻 要路에 兵力을 重點적으로 配置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 8사단은 堤川正面을, 제 6사단은 忠州地域을, 제 1사단은 陰城正面을, 그리고 首都사단은 鎭川地域을 各各 防守케 되거니와, 이 가운데 제 6사단은 2個연대 즉, 제 7연대(장, 林富澤中령)와 제 19연대(장, 閔丙權대령)가 이미 陰城과 鎭川 北쪽으로 各々 進出하여 機動掩護 부대로서 活動하고 있는 터이라 이 兩연대는 現地에서 該地域을 擔當한 부대와 協同케되고 忠州地域은 事實上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가 홀로 專擔케 되었던 것이다.

結局 本作戰 期間中에 忠州地域은 始終 제 2연대가 맡아 제 19연대의 제 2대대(장, 金龍起소령)와 제 16포병대대 제 1포대(장, 金長根대위)의 支援아래 北傀 제 1, 제 12兩사단과 對決케 되는 바,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展開된 이 전투는 忠州와 水安堡 사이를 오르 내리며 一進一退를 보이게 되므로 이를 環節로 묶어 一括, 取扱키로 하였다.

敵軍의 狀況 : 北傀는 中部戰線의 要域인 忠州를 攻略키 위하여 軍단규모의 兵力과 裝備를 投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戰鬪間에 確認한 바에 따르면, 제 1, 제 12사단 등 2個步兵사단에 支援부대로서 2

個포병연대를 비롯한 1個戰車연대와 1個裝甲대대 그리고 1個騎兵대대 및 Side Car 중대등이 活動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들이 여기에 侵掠의 重點을 두고 이렇듯 物量攻勢를 취한 까닭은 中部의 要衝을 確保하여 장차 嶺南으로 進出키 위한 발판을 굳히고자 한 것으로 分析되거니와, 그 侵攻樣相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니, 즉 原州에 集結한 것으로 알려진 제12사단을 直路로 西南進시켜 忠州 北쪽으로 侵攻케 한 點과 水原 부근으로 南下하였다는 제1사단을 利川—驪州 方面으로 東南進시켜 그 西側에서 協攻케 한 點 그리고 前述한 각 支援部隊들을 바로 後續시켜 協同케 한 點 등을 綜合하여 보더라도 能히 그 企圖를 看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제12사단은 開戰直後에 春川과 洪川부근에서 當사단과 對決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7사단이란 呼稱으로 全宇의 지휘아래 失敗를 거듭하게 되자 原州에서 部隊의 再編과 아울러 제12사단으로 改稱하고 指揮權을 崔忠國이 引受하였다고 하는 바, 그는 여기에서 첫 任務로 『忠州를 奪取하라.』는 嚴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제1사단은 西部戰線에서 臨津江을 건너 서울로 侵入한 부대로서 소장 崔光이 이끌고 水原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3번도로 軸線(利川—長湖院—忠州간)으로 進擊하라는 명령을 받고 東南進하였다고 하니, 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이곳 忠州를 目標로 侵攻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제2연대는 홀로 이 兩巨波를 막아서게 되었건니와, 戰後에 推計한 이들의 兵力을 綜合하여 보면 제12사단이 9,000명에 제1사단이 12,000명으로 都合 21,000명을 헤아렸으며 重要裝備은 제12사단의 경우, 122mm 野砲 17문을 비롯한 76mm 榴彈砲 32문과 45mm 反戰車砲 24문에 120mm 박격포 14문등을 確認할 뿐만 아니라 제1사단도 또한 122mm 野砲 14문에 76mm 榴彈砲 18문과 45mm 反戰車砲 36문 및 120mm 박격포 28문등으로, 적어도 이들은 我軍에 비해 7배이상의 物量을 投入하여 一舉攻陷을 노린 것이 分明하였다.

이 밖에도 步兵의 뒤를 따라 제105機甲사단 소속의 제109戰車연대로 알려진 1個戰車연대를 비롯한 各級支援부대들이 後續하였음은 既述한 바와 같으며 특히 『女子義勇軍』이라는 이름으로 少女들까지 強制로 動員한 事實을 確認하였다.

그리고 南漢江을 渡河할 때에 小形船舶과 津船등을 相當히 利用한 것으로 보아 野戰工兵이 이를 支援한 듯하며, 戰鬪間에 良民을 酷使한 點과 放火와 掠奪을 서슴치 않는 野盜의 手法은 前과 다름이 없었다.

我軍의 狀況 : 한편 사단은 7월 1일 18.00에 橫城에 位置한 指揮所를 忠州로 옮긴 뒤로 各연대를 逐次로 撤收시켜 7월 3일까지 集結完了한 다음, 제7, 제19兩연대를 機動掩護부대로 다시 西部戰線으로 派遣하고 이곳 忠州地域은 제2연대가 單獨으로 擔當케 되었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때에 연대는 忠州國民學校에 本部를 두고 主로 原州—忠州간의 19번도로 軸線에 沿한 敵情을 探索하면서 南漢江 부근에 陣地를 選定하였다.

이무렵 제16포병대대도 3個포대를 各연대에 分割配屬시킴으로써 제2, 제3兩포대는 이곳을 떠나고 제1포대만이 現地에 남아 제2연대장의 指揮아래 蓮守洞에 砲陣을 選定하여 5문의 105mm 野砲로써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步砲協同으로 南漢江과 達川江을 障壁으로 삼아 防守태세를 취하던 바, 本戰鬪가 展開되기를 전인 7월 5일 05.00에 利川方面으로 出動한 제19연대가 昆池岩里부근에서 사단규모의 敵과 激突케되자 연대의 제2대대(장, 李鍾基대위)가 現地로 躍進하여 이를 赴援케 되었으니, 結局 忠州地域에는 연대의 제1, 제3兩대대와 제16포병대대의 제1포대만이 남게된 셈이었다.

따라서 兵力의 不足을 느낀 까닭에 忠州 警察署(장, 金大壁총경) 所屬의 경찰관 187명을 統轄指揮하여 第一線에 配置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洽足하지 못한 때일뿐이었다.

사단에서도 이같은 點을 勘察하여 金鍾運중위를 募兵官으로 任命함과 아울러 4명의 下士官을 帶同



시켜 募兵活動을 展開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募集된 병력은 사단사령부와 함께 會坪으로 移動하여 後에 淸州의 新兵教育隊로 吸收되고 말았으니, 이 전투에는 加擔치 못하였다.

結果적으로 이 전투의 緒戰에는 제 2연대(-)의 1,800명과 제 1포대의 89명 그리고 경찰관 187명 등 都合 2,076명이 基本裝備단을 갖춘채로 衆敵과 맞서게 되었는데, 끝내 忠州가 失陷되자 곧 제 2대대가 復歸하고 이어서 제 19연대의 제 2대대가 水安堡로 增援하여 이때부터 增強된 연대규모의 兵力으로 對峙케 된다.

당시에 연대의 右隣接에는 제 8사단(장, 李正一大령)이 丹陽에서 防禦태세를 취하고 左隣接에는 제 7연대가 陰城 北쪽의 同樂里 부근에서 北傀 제 48연대의 主力을 擊破하여 快勝을 걸운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北傀는 漢江防禦線을 突破한 뒤로 機動性있는 追擊을 強調하면서 國軍의 再集結을 妨害하고 UN軍이 參戰하기 전까지의 決定的인 打擊을 노렸다는 것이다.

反面에 我軍은 短時日內에 戰列을 整備하여 車嶺山脈 回廊에서 一旦 敵을 阻止한 다음 適期를 捕捉하여 攻勢로 移轉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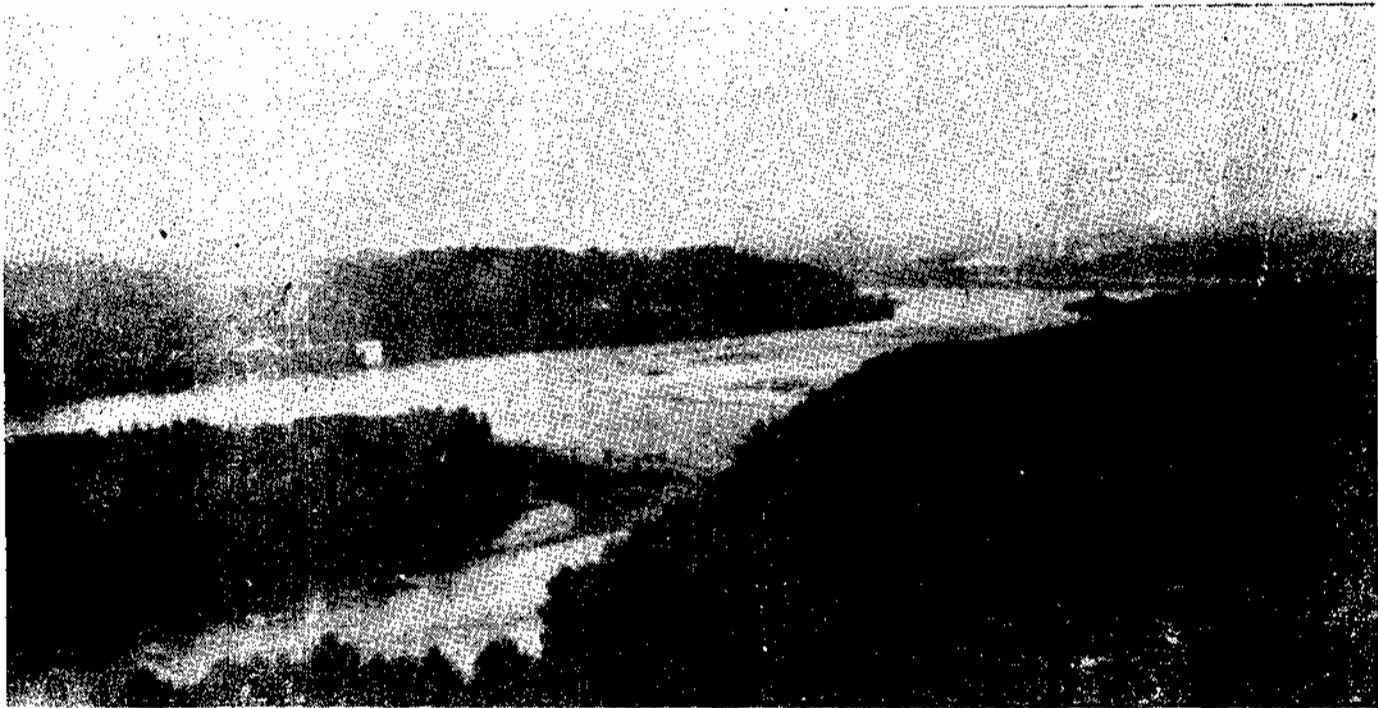
따라서 이 作戰의 一環으로 육군본부에서는 作命 제 23호(文書命令은 7월 6일 17.00附로 下達될)를 下達하여 사단의 제 7, 제 19兩연대로 하여금 軍 主力의 撤收를 掩護케 하는 한편 西部戰線의 分散兵力을 陰城—鎭川—淸州 부근으로 集結시켰는데, 당시의 計劃은 戰線이 整備되면 이 兩연대를 忠州 地域으로 反轉시켜 中部戰線을 掌握토록 措置할 豫定이었다.

그런데 敵의 侵攻이 進展을 보여 이 兩연대가 陰城과 鎭川 北쪽에서 각각 接敵한채로 現地로 急進한 제 1사단 및 首都사단과 協同되자 육군본부에서는 다시 作命 제 25호로써 제 2연대로 하여금 忠州地域을 占領, 確保토록 命令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사단장 金鐘五대령은 3個연대를 効率的으로 指揮코자 忠州에 位置한 指揮所를 會坪으로 옮기면서 제 2연대장 威炳善대령에게 口頭로 命令하기를 『사단의 主力이 復歸할 때까지 忠州地域을 固守하라』고 이르고 이어 工兵 1個중대와 제 16포병대대의 1個포대를 配屬시켜 주었다.

이로부터 제 2연대가 專擔하여 이 地域을 防守케 되었거니와, 연대장이 명령을 받고 陣地를 編成하기도 前에 또다시 사단에서 追加로 指示하기를 『1個대대를 抽出하여 제 19연대 지역으로 急派하라.』함으로써, 이에따라 연대의 제 2대대가 忠州를 떠나게 되었으니, 及其也는 2個대대로써 21km에 達하는 廣正面을 막아서게 된 것이다.

이에 연대장은 當面한 敵情과 作戰地域의 特性 및 使用兵力의 實情등을 勘案하여 効率的인 防禦對策을 摸索한 끝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腹案을 樹立하였다. 즉 南漢江과 達川江을 障壁으로 삼아 그 南쪽 江畔에 陣地를 編成키로 하되, 敵의 侵攻이 豫想되는 19번도로(原



〈彈琴臺附近的 南漢江〉

州—忠州간)와 3번도로(利川—忠州간) 軸線에 沿한 渡河地點 부근에 兵力을 重點配置하여 渡江線에서 敵을 捕捉擊滅키로 하였으며 東側의 鷄鳴山(△775) 부근은 地勢가 險한데다 江岸이 狹窄하므로 搜索중대로 하여금 機動警戒토록하고 萬一의 事態에 對備한 中대규모의 機動打撃隊를 控置키로 하였다. 그리고 砲兵은 現位置(蓮守洞)에서 砲대를 一般支援케 하되 主射擊方向을 北쪽으로 指向하여 19번도로와 對岸의 渡河地點부근에 火集點을 選定케 하고, 工兵은 이미 牧杏橋를 爆破한 만큼 達川橋와 鐵橋를 確保토록 하는 동시에 警察兵力을 비롯한 本部의 行政要員까지라도 모두 戰鬥隊員으로 活用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方案을 세운 連隊長은 敵의 侵攻徵候가 나타나기 시작한 6일 下午에 威力搜索 中인 各대대를 忠州로 集結시킴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戰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連대는 忠州地域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한 다음 別途의 命令에 依據하여 攻勢 移轉하러 한다.

② 제 3대대는 鷄鳴山—金陵洞간의 江畔陣地를 占領하여 南漢江線으로 侵攻하는 敵을 擊滅하라.

③ 제 1대대는 金陵洞—倉洞里간의 左一線 陣地를 占領하여 達川江線으로 侵攻하는 敵을 擊滅하라.

④ 搜索중대는 上宗—木伐里—寒泉里간의 東側方을 警戒하라.

⑤ 제 1 포대는 現位置에서 연대를 一般支援하되 火力의 優先權을 제 3 대대 正面으로 指向케 하라.

⑥ 工兵중대는 達川橋와 鐵橋를 警備하되 別途의 命令에 따라 地域內의 橋梁을 爆破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⑦ 警察隊는 2 個소대를 제 1 대대에 配屬하고 殘留兵力으로 主要官署를 警備하라.

⑧ 醫務중대는 鳳方洞에 연대敎護所를 設置하고 一線대대의 衛生兵까지 掌握하여 負傷者를 即刻後送케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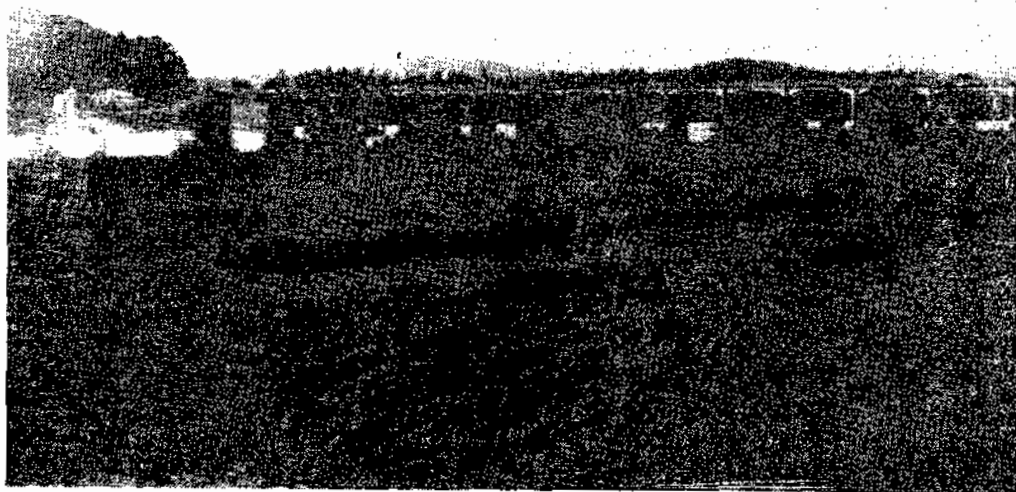
⑨ 通信隊장은 연대와 대대 간에 2 廻路의 有線과 24시간 疎通할 수 있는 無線을 確保토록 하라.

⑩ 憲兵隊장은 地域內의 交通을 統制하고 離脫兵力을 收容하라.

⑪ 연대지휘소는 忠州國民學校이며 狀況이 展開되면 나는 蓮守洞으로 나갈 것이다.』

## (2) 작전실시

7월 7일 : 사단의 指揮部가 이틀 전인 5일 17.00에 晉坪으로 떠난 뒤로 이곳 忠州地域은 제 2 연대(장, 咸炳善대령)가 專擔하여 防衛케 되었는데, 이 地域에는 아직도 敵情이 不明하여 原州와 驪州方面에서 數未詳의 敵이 南下하고 있다는 諜報 정도 以外에는 다른 情



〈牧杏橋 : 1954년 復舊〉

報가 없기 때문에 그 行方을 判斷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연대는 當面의 敵情을 파악코자 忠州 北쪽의 19번도로(利川—忠州간)와 西北쪽의 3번도로(利川—忠州간) 부근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특히 東良面(忠州北쪽의 隣接面)과 可金面(左隣接面) 一帶를 威力搜索함과 아울러 장차 防禦陣을 편성키 위한 地形을 偵察하고 있던 바, 전날 下午에 松江里(忠州北쪽 8km)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接觸한 이후로 10km內外의 인접지역에서 敵을 現認하였다는 報告가 잇달게 되자 이윽고 이날 07.00를 期하여 방어진지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즉, 南漢江과 達川江을 防禦으로 삼아 敵을 渡江線에서 阻止 擊滅할 方針 아래 제 3대대를 南漢江畔으로 推進하고 제 1대대는 西쪽의 達川江 부근으로 躍進시켜 江岸의 진지를 占領케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忠州地域으로 밀려들고 있는 敵은 北傀 제 12사단이라고 하는 바, 그 先鋒인듯한 연대규모가 벌써 牧溪(忠州 西北쪽 12km)를 지나 太古山(忠州北쪽 6km) 부근으로 集結中에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一群은 驪州에서 龍浦里(牧溪 西쪽 13km)로 내려가 계속 可金面쪽으로 南進한다는 등, 이제 忠州의 西北面 一帶에 妖雲이 감돌았다.

#### 1. 제 3대대의 南漢江畔의 陣地占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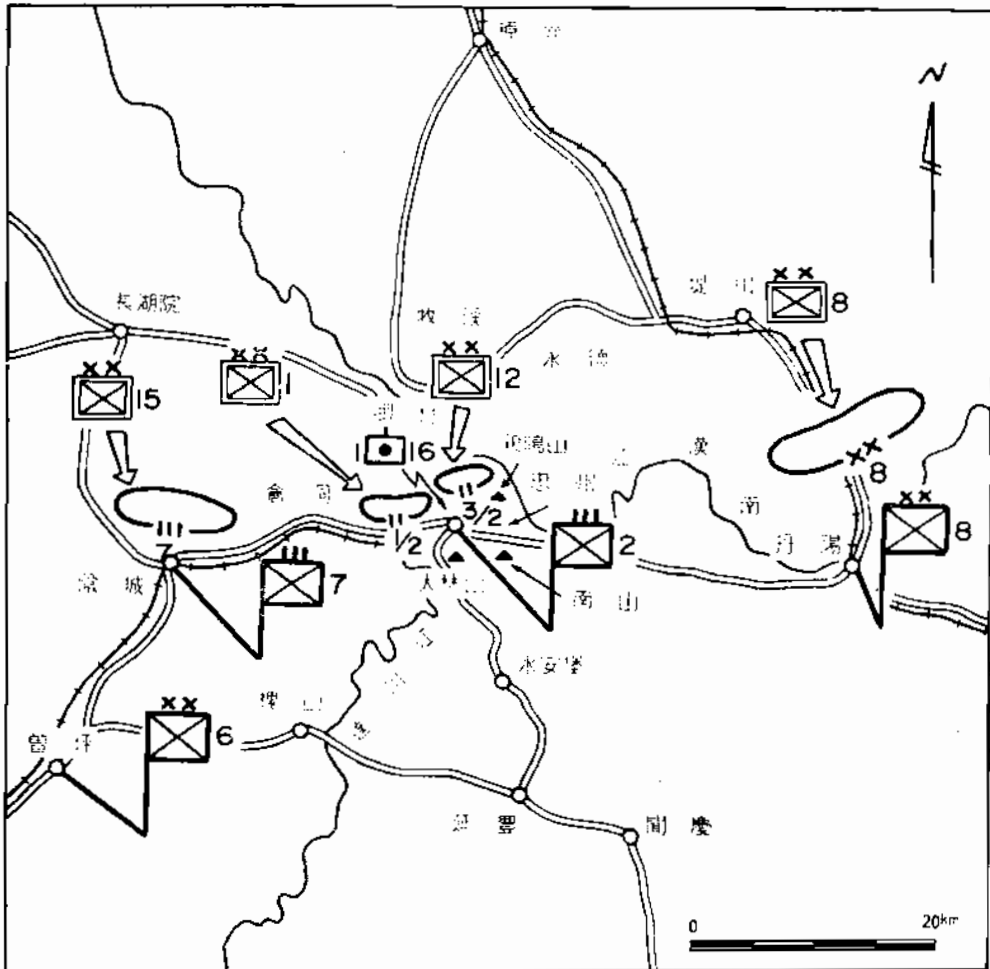
李雲山소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는 忠州로 옮긴 뒤로 3일동안을 계속하여 南漢江 北쪽 3~6km의 大田里—沙岩里—永德里 일대에서 敵情을 探索하던 바, 전날 14.00에 松江里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한차례 交戰케 된데 이어 바로 그 南쪽의 永德里 부근에서 偵察隊로 推斷되는 數未詳의 敵과 또 한차례 不規遭遇戰을 벌이는 등, 接敵事例가 잦아지자 대대의 全兵力을 卿村(南漢江北쪽 3km)으로 集結시키는 즉시 19번도로 軸線上의 要城인 沙岩里 일대에 主力을 埋伏시켜 敵의 先鋒을 捕捉 擊滅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연대에서는 이미 南漢江畔에 진지를 編成키로 方針을 세우고 『즉시 牧杏洞으로 集結하라.』는 명령을 下達함으로써, 이에 따라 兵力을 뽑아 杏亭부근에서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이날 아침에 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대대는 이제 19번도로를 地境으로 한 연대의 右一線을 擔當케 되었거니와, 이날따라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마치 江岸을 雲海로 메운듯, 四周를 뒤덮은지라 陣地의 占領이 더더욱 09.00에야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 陣容을 살펴보면, 3個중대가 모두 第一線으로 나아가 鷄鳴山(△775: 忠州 東北쪽에 솟아오른 산) 西麓의 龍谷(一名, 용골)으로 부터 龍灘洞과 牧杏洞을 거쳐 原州로 通하는 大橋인 牧杏橋부근까지 5km에 達하는 江畔에 진지를 占領하였는데, 陣前의 江幅이 대체로 200~250m를 헤아리는데다 水深이 또한 깊어 徒涉이 不可能한 까닭에 對岸에까지 射擊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兵力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渡船場 부근에 主射線을 指向토록 조

◇상황도 제 20 호 作戰地域과 敵의 侵攻狀況



치하였다.

그리하여 右第一線인 제 9중대(장, 南白峰대위)는 龍谷—岐灘里間에서 旱遷津 나무목을 막아서고 中央第一線인 제 10중대(장, 金善鎰대위)는 龍灘洞에서 龍灘津正面을 지켰으며 左第一線인 제 11중대(장, 蔡洙龍대위)는 牧杏洞에서 盤松나무목과 牧杏橋부근에 사격이 圓滑토록 兵力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金俊錫대위가 지휘하는 제 12중대는 81mm 박격포 4門을 △142直後方的 俗稱『참나무정』부근에 放列하여 대대의 全面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격태세를 갖추었으며 重機關銃 2정은 대대의 兩側方에서 交叉射擊이 可能토록 배치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留意할 사항은 대대의 現 占領陣地가 5km에 達하여 1個대대의 防禦正面으로서 過重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忠州地域의 東半部를 擔當한 대대에서 그 以東의

鷓鳴山 東쪽에 該當하는 8km 正面에 대한 警戒對策이 未洽하였다는 사실이다.

연대에서는 이 地域이 가파른 江岸絕壁으로 이어져 機動路가 殆無한 點과 敵이 北쪽에서 侵攻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重視하여 제 3대대로 하여금 北쪽 江畔에 兵力을 重點配置토록 하고 다만 1個 搜索隊로써 이 지역을 巡廻式으로 警戒토록 放任한듯 한데 그나마 相互 協助가 이루어지지 않아 宗民洞과 木代里 일부를 除外하고는 사실상 空白地帶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敵은 이 虛隙을 뚫고 一部 兵力을 投入하여 아무런 抵抗도 없이 側方에서 侵襲케 되거니와, 이 兵力配置 문제와 警戒對策에 대하여서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떻든 대대는 이같은 연대의 方針에 따라 前述한 바와같이 北쪽으로 置重하여 兵力을 배치한 가운데 방어태세로 들어갔는데, 대대장 李雲山소령은 第一線의 配置狀況을 돌아본 然後에 마지막으로 蓮守洞(忠州 北쪽의 金陵洞과 隣接한 洞)에 들러 제16포병대대의 제 1 포대장 金長根대위와 火力支援문제를 協調하고 대대의 OP로 올라와 前方을 살펴보니, 濃霧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다시 각중대에 指示하여 當面의 敵情을 報告케 한과 아울러 계속적인 진지의 補強과 특히 沙場부근까지 推進한 埋伏哨所를 철저히 偽裝토록 督勵하던 바, 이와 때를 같이하여 敵의 砲擊이 시작되고 곧 이어서 제 9중대 正面의 北쪽나루터인 早遼津부근에서 自動火器의 亂射火力이 陣前에 미쳤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敵은 이미 對岸으로 닥아섰음은 勿論이요 支援 砲兵까지 一線으로 推進되었음이 分明하거니와, 이로부터 銃擊戰이 벌어져 뚜렷한 目標이 없이 盲射의 불길이 1시간동안을 오르 내렸는데, 11.00를 지나자 小銃사격은 잦은듯이 그치고 散發的인 砲擊만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그 以後로는 다시 敵의 挑發이 없이 終日토록 現狀을 維持케 되었거니와, 다만 15.00를 前後하여 江 北쪽에서 Side Car분대가 早遼津을 비롯한 龍竈와 龍橋里 및 文山里 등 對岸의 江頭를 넘나들자 同時集中사격으로 이를 擊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이 出現한 場所가 모두 渡船場부근이라는 點과 이보다 앞서 사격으로써 대대의 配置狀況을 探索한 點 등을 종합하여 볼 때 渡河의 兇計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으며, 이 Side Car분대는 渡河地點을 미리 選定키 위한 偵察隊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무렵 이들 제12사단은 牧溪에 그 本部를 두고 대좌 崔赫이 이끄는 제30연대를 바로 제 3대대의 正面인 卿村부근으로 推進하여 渡河를 준비케 하었다고 하는 바, 이날은 侵攻준비와 아울러 南漢江 一帶에서 入手한 小形舟艇과 津船등을 모두 이곳으로 集結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1個연대를 下沼(卿村 西쪽 4km)부근으로 前進시켜 後續대세를 갖추게 하는 동시에 또 다른 一群을 忠州 東北쪽의 冠萊峰부근으로 投入하여 側方突破까지 配合한 攻擊준비를 서둘렀다고 하니, 이들은 이때에 이미 時間과 場所



〈達川江과 忠州市〉

및 方法등을 約定하고 사단규모의 兵力을 動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대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狀況을 昭詳히 파악하지 못한채로 계속하여 現陣地의 補強에만 注力하다가 날이 저물자 夜間警戒태세로 들어갔다.

## 2. 제 1대대 達川江부근의 陣地占領

한편 제 1대대는 朴魯珪중령의 지휘아래 연대의 左一線인 達川江 부근의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이곳은 제 3대대의 南漢江線 진지에 連한 忠州地域의 西半部에 該當하는 곳이다.

이 地域의 特殊性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忠州의 關門이라 할 수 있는 3번 도로가 이곳을 지나 서울로 뻗히고 報恩에서 發源한 達川江이 여기에서 南漢江으로 合流되며 또한 樂聖 于勒과 申砬장군의 逸話가 담긴 彈琴臺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陰城—槐山—淸州 등 西南쪽으로 뻗어버린 36번 도로가 여기에 直結되어 可히 作戰, 文化, 交通의 要地라 이 불만 하였다.

따라서 이 地域의 防備도 또한 莫重한데, 마침 左隣接인 제 7연대(장, 林富澤중령)가 아무런 陰城地域을 掌握하고 있는 터이라 아직 이곳에는 敵手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兵力을 達川江 河口부근으로 推進하여 그 左右兩側方의 要線을 占領키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대의 主力은 西北쪽의 敵侵要路인 漆琴洞—龍頭洞—介洞里 등 江岸의 陣地를 占領하고 左隣接연대와의 接境線 부근에 暴露된 空白地帶는 增強된 1個소대로써 機動的으로 威力搜索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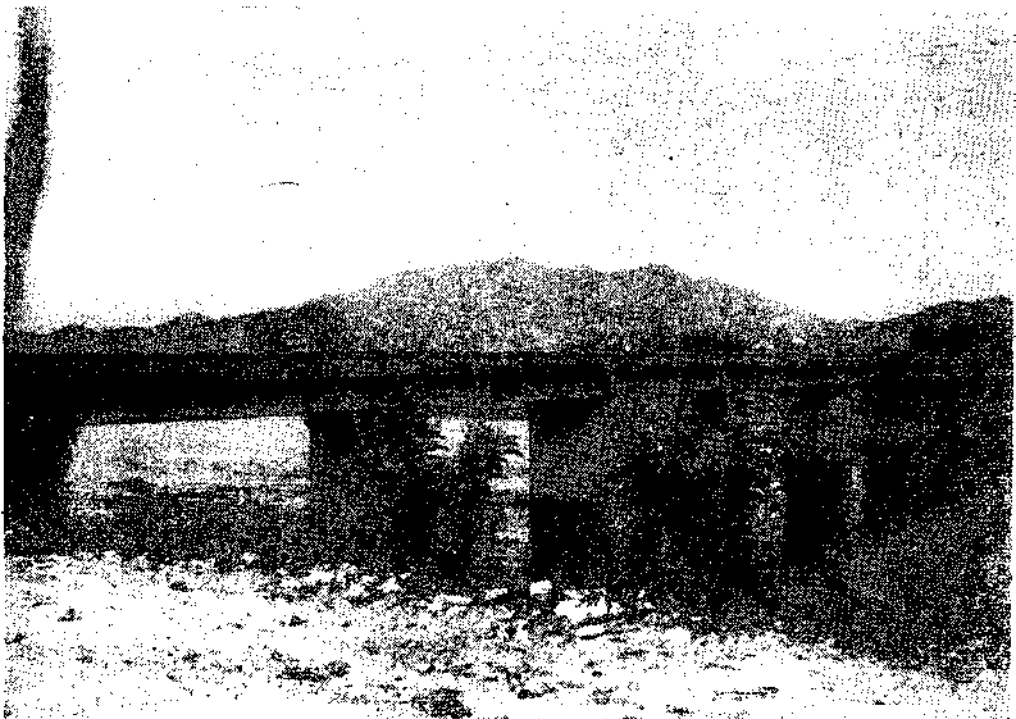
여기에서 다시 각종대의 配置狀況을 살펴보면, 崔熙人대위가 지휘하는 제 3중대는 대대

의 右第一線을 맡아 19번도로 바로 西쪽의 金陵洞으로부터 彈琴臺에 이르는 3km의 江畔陣地를 占領하였는데 中대의 防禦正面이 넓은 까닭에 連隊에서 統轄指揮키로 한 忠州警察署(장, 金大壁중경)소속의 경찰관 187명중 2個소대인 78명을 배속시켜 同中대장으로 하여금 장악케 함으로써 中대는 △149(金陵洞 北쪽 고지)와 漆琴洞간의 2km 正面만을 擔當하고 2명의 警衛(本名未詳)가 지휘하는 경찰병력은 彈琴臺의 主線線과 大門寺간의 三角突出部에 배치하여 軍警合同으로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이때에 中대장은 이 兩兵力을 장악함에 즈음하여 제 2 소대장 方仁明소위와 警察책임자를 불러 相互 긴밀히 협조토록 당부하는 동시에 重火器가 없는 경찰병력의 脆弱性을 勘案하여 中대의 機關銃 1정을 小銃 1個分隊와 함께 彈琴臺 西쪽의 警察담당지역으로 推進하여 상호 교차사격이 可能토록 배치시키고 약간의 手榴彈까지 配分하였다.

그리고 제 2 中대(장, 金寅文중위)는 達川江 西쪽의 △277 北麓에 진지를 마련하였는데 이곳은 達川—南漢 兩江이 合流되는 三角洲의 西便으로서 驪州에서 南漢江 西岸을 따라 忠州로 近接하는 捷路인 岾岫에 西北向으로 半月形진지를 占領하여 제 3 소대장 崔龍熙소위가 合水나무목을 맡고 제 1 소대장 朴東春중위는 倉洞里 正面을, 그리고 제 2 소대장 金洙觀소위는 完五洞(△205 東쪽 마을) 西北쪽 線을 각각 當하여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이때에 대장 朴魯珪중령은 이 兩中대를 第一線에 配置하는 한편 제 1 中대(장, 崔琪煥



(達川橋에서 바라본 鷓鳴山)



대위)를 達川橋 東쪽의 新村으로 集結시켜 대대의 豫備로 控置하고 여기에서 1個소대를 抽出하여 忠州와 陰城간의 3번도로 一帶를 威力搜索케 하니, 同중대의 先任將校인 李泉 중위가 그 任務를 맡아 達川橋를 넘어 大召院(忠州 西쪽 10km)까지 車輛機動으로 道路周邊을 偵察하였으며, 또한 金鎔河대위가 지휘하는 제 4 중대는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忠州驛 西쪽의 下方부락 부근에 砲陣地를 選定하여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이로써 대대는 15.00까지 陣地編成을 마치고 우선 個人壕와 重火器 진지의 작업에 着手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제 3 대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敵의 砲擊탄이 間歇적으로 이어질 뿐, 特記할만한 敵情이 없었다.

다만 이시간 現在 左隣接인 제 7 연대가 陰城 北쪽의 △644를 再占領하고 있었으니, 이는 전날 밤에 同樂里에서 北傀 제 48 연대의 主力을 擊破한 뒤로 敵의 再侵을 阻止, 擊滅키 위하여 취한 措置였거니와, 이로 미루어 본다면 대대의 正面에도 머지않은 곳에 敵이 近接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어 더욱 警戒를 철저히 한 가운데 夜間방어태세로 들어갔다.

### 3. 제 2 대대의 活動狀況

이상과 같이 제 1, 제 3 兩대대가 忠州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을 무렵인 이날 下午에 제 2 대대는 鎭川에 있었다.

대대는 開戰直後에 洪川 北쪽에서 敵의 先鋒을 무찌르던 渦中에서 대대장 文正植 소령이 戰傷을 입고 後送된 뒤로 先任중대장인 제 1 중대장 李鍾基대위가 代理(文晝命은 연대 특명 제 34호로서 7월 2 일부로 下達됨)로 대대를 지휘하여 忠州로 移動한 다음 忠州國民學校에서 野戰整備를 하던 바, 연대에서 다시 『利川方面으로 進出한 제 19 연대가 昆池岩里에서 交戰中에 있으니 1 個대대를 뽑아 支援토록 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同대대로 하여금 『驪州로 躍進하여 제 19 연대장의 指示를 받으라.』고 緊急히 措置함으로써 本隊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7월 3일 08.00에 忠州를 떠난 뒤로 當日로 驪州에 當到하여 利川에서 交戰中인 제 19 연대를 掩護코자 側方警戒에 任하던 바, 이때에 벌써 北傀 제 2 사단의 先鋒이 加平에서 西南進하여 驪州로 殺到하자 여기에서 一戰을 치르고, 이때부터 제 19 연대의 主力과 함께 閔丙權대령의 指揮下에 白岩—竹山—安城을 거쳐서 6일 10.00에 鎭川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대대는 연대와 60km나 떨어진 遠距離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 19 연대에 配屬된 터이라 忠州戰鬪의 初頭에는 加擔하지 못하고 水安堡로 물러선 直後에 急遽 復歸케 되었으니, 사실상 忠州防禦는 제 1, 제 3 대대와 直轄隊 등 1,800명의 兵力으로써 사단규모의 敵가 對決케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 2대대의 轉進經過를 回顧한 제 7중대의 제 1소대장 柳炳浩상사는 證言하기를 『우리 대대가 忠州로 이동하여 어느 국민학교에서 하루 밤을 자고 나서 연대에서 驪州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現地에 당도해서야 제 19연대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車輛機動으로 驪州에 다다르니 제 19연대의 CP는 利川에 있고 交戰地域은 利川北쪽의 昆池岩里라고 하는데 驪州쪽으로도 또한 敵이 밀려들었다.

이때에 나는 대대의 彈藥補給 책임을 맡아 利川과 驪州사이를 往來하는데 두번째로 利川에 가니 敵에게 포위되어 苦戰을 치르고 있었다. 날자는 正確히 記憶할 수 없으나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데 山으로 둘러 쌓인 利川군이 四面에서 공격을 받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대대도 제 19연대를 따라 竹山으로 빠져나오는데 어찌나 급한지 Tire가 破裂되어도 돌볼 겨를이 없이 한동안 달리다가 收拾한 일이 있으며, 대대병력이 竹山에서 集結하고 보니 45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다시 防禦陣을 急編케 되었는데, 이때부터 나는 제 7중대의 제 1소대장으로 代理勤務 명령을 받고 중대장 申榮祚중위의 지휘하에 들게 되었다.

그 뒤로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鎭川으로 이동하여 鎭川—無極里간의 593번 도로와 鎭川—廣惠院간의 585번도로 一帶에서 首都사단의 이 地域 占領을 掩護하다가 原隊로 復歸하라는 명령을 받고 水安堡로 내려오니, 이미 忠州가 敵手中에 떨어진 狀況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忠州 奪還作戰에 加擔케 되었던 것이다』라고 그 經緯를 說明하였다.

結局 대대는 忠州에서 연대의 主力이 激戰을 치르는 동안 西部戰線에서 機動掩護 부대로 活動하다가 本戰鬪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反擊의 隊列에 加擔케 된 것이다.

#### 4. 연대 搜索中隊의 活動

이상과 같이 연대는 南漢江과 達川江을 障壁으로 삼아 西北向 陣地를 마련케 되었거니와 이렇게 되고 보니 左右兩側方의 警戒對策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浮上하였다.

그 가운데에도 특히 東側方은 右隣接인 제 8사단(장, 李正—대령)이 이날 現在 梅浦里와 丹陽間에서 交戰상태에 있는데다 이와 相互 連繫치 못한 까닭에 內里—眞本里—黃江里 등 兩部隊간의 虛隙部位에 대한 敵情을 把握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對策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연대는 忠州地域의 防守에도 兵力이 不足한 形便이고 보니 該地域의 警戒對策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로되, 이를 그대로 放置할 수는 더욱 없는 일이므로 연대의 搜索中隊로 하여금 江岸을 따라 機動式으로 警戒토록 措置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文章煜중위가 지휘하는 同 중대가 그 任務를 맡아 忠州 東쪽 5km이 安林洞 부근으로 나아가 東側方을 警戒케 되었는데, 제 1소대는 여기에서 南漢江 西岸을 따라 北쪽으로 進出하여 上宗과 下宗을 거쳐서 基洞까지 威力搜索하였으며 제 2소대는 그 南쪽의 木

伐里와 寒泉里를 거쳐서 黃江里 부근까지 江岸 一帶를 警戒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特記할 사항은 이날 同 中대가 威力搜索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敵情을 收集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鷄鳴山 北쪽의 제 3 대대와도 미처 連絡을 취하지 못하였는데 사실은 이날 下午에 一團의 敵이 宗民洞 東北쪽의 冠某山 부근에 集結하고 있었으니, 千漣의 一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연대본부에서는 搜索中隊의 報告에 따라 이 地域에는 敵情이 전혀 없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었으니 敵情의 不明이 곧 敵의 存在을 否認하는 것으로 誤判한 것이다.

### 5. 제 1 포대의 蓮守洞 陣地占領

이날 現在 제 16 포병대대(장, 金 聖소령)는 사단의 兵力 配分 상황과 마찬가지로 크게 分離되어, 대대본부는 사단 사령부와 함께 會坪에 있고 제 2 포대는 제 7 연대를 따라 陰城에 位置하였으며 제 3 포대는 제 19 연대와 함께 鎭川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곳 忠州 地域에는 金長根대위가 지휘하는 제 1 포대가 연대에 配屬되어 연대장의 指導下에 蓮守洞(金陵洞과 校峴洞간의 마을)에 砲陣을 選定하였다.

이렇듯 砲隊단위로 分割配屬케 된 까닭은 각 연대의 機動空間이 廣大하므로 効果적으로 이를 支援키 위한 措置였거니와, 이렇게 되고 보니 必然적으로 1 個 포대로써 1 個 연대를 지원케 되어 敵情에 따른 火力의 同時集中이 뒤따르지 못한 문제점은 있었지만 연대장의 所信대로 步砲協同을 期할 수 있는 長點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제 1 포대가 蓮守洞에 砲陣을 마련한 것도 연대장의 直接指示에 依한 것이거니와, 이곳은 忠州 北쪽의 鷄鳴山 西側溪谷으로서 제 3 대대 正面의 19번도로 軸線에 火力의 重點을 두고 江畔의 연대 主力을 支援키로 한 것이다.

이 陣地를 占領하기 까지의 經緯를 同포대장 金長根대위의 證言을 통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리포대는 南漢江으로부터 2,000~3,000m 뒤로 떠러진 蓮守洞 부근에 砲陣을 마련하여 西北向으로 5 門의 砲를 放列하였는데 연대장이 敵의 集結地로 豫想되는 鄕村 一帶와 江 北쪽의 나루터 부근에 火集點을 選定하라고 하여 主로 敵의 渡河作戰을 粉砕키 위한 對備 태세를 취하였다.

마침 우리는 忠州로 내려올때에 南漢江에서 江을 건너지 못하여 苦心하다가 憲兵隊長 鄭剛소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渡船便에 砲와 砲車를 운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사정이 짐작되어 빈틈없는 계획을 세웠으며 步兵과도 긴밀히 협조한 바 있었다.』

이와같이 제 1 포대는 여기에서 支援態勢를 갖춘다음 江 北쪽의 旱洞—柳村—梧石里(盤松 나루터 西쪽마을) 일대에 砲撃을 加하여 豫想되는 敵의 集結과 渡河準備를 攪亂시켰다.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이날 一般命令 제 4 호(50년 7월 7일附)로써 지금까지 사단포병대

대로 불려오던 當대대를 제16포병대대로 改稱함과 아울러 同時附로 사단에 配屬함에 따라, 同포대도 또한 現位置에서 既計劃된 任務를 그대로 遂行하는 가운데 제16포병대대의 제1포대로 불리우게 되었다.

7월 8일 : 忠州의 侵奪을 노린 北傀 제12사단은 이윽고 이날 05.00를 期하여 攻破一蹴코자 덤비었다.

### 1. 敵의 渡河 進攻

拂曉의 砲擊 : 이날 01.00를 前後하여 深夜의 靜寂을 깨뜨리고 砲擊을 시작한 敵은 04.30까지 3시간 餘를 攪亂射擊으로 이어가면서 연대의 防禦陣地 全域을 威脅하더니 04.30을 넘어서자 갑자기 그 密度를 增強하여 攻擊準備사격으로 移行한듯, 歩兵火力까지 결들인 集中砲擊을 加하는데, 주로 연대의 右一線인 제3대대의 진지 一圓과 제1대대의 제3중대가 配置된 漆琴洞 부근으로 主火力을 集中하였다.

이것은 곧 南漢江을 건너겠다는 信號와 같은 것으로, 미리 그 阻止陣地를 破壞하려는 企圖가 역력히 엿보여 兩대대장은 諫下의 각 中대장에게 더욱 防守를 強化토록 奮勵하였는데, 이날도 전날과 다름없이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通視거리 3m 直前方을 헤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砲火가 또한 苛然하니 敵의 動靜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 砲擊은 특히 제3대대의 陣地 一帶로 集中된 가운데 30분 동안이나 계속되니, 有蓋壕를 마련치 못한 同대대는 掩蔽되는 丘陵이 없는 平坦한 野地에서 상당한 損失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參戰者들이 異口同聲으로 『제3대대는 싸우기도 전에 砲擊에 눅았다.』고 證言하는 點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情況을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적어도 2個대대 규모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敵의 砲兵火力이 여기에 集中되니, 대대의 全陣地가 흔들리는 듯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05.00를 넘어서자 敵의 砲火가 南쪽으로 延伸되는듯 하더니, 이번에는 제3대대의 右第一線을 맡고 있는 제9중대장 南白峰대위로부터 『중대규모의 敵이 龍谷부근의 河床으로 기어오른다.』는 急報가 들어 왔다.

初攻第一波의 擊滅 : 이것은 分明히 漆津에서 龍谷쪽으로 渡江하여 俗稱『버래』沙場을 기어오르고 있는 무리임에 틀림이 없거니와, 그 부근에 埋伏시킨 聽音哨所에서도 이들이 目前에 다다를 때까지 濃霧와 砲聲에 가려 그 渡船마저 識別치 못하다가 이를 確認하였을 때에는 이미 中대규모로써 陣前으로 殺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霧中盲射의 銃擊戰이 벌어졌는데, 대대는 미리 主射方向을 그곳으로 指向하여 最低表尺 사격이 可能토록 火網을 構成한 터이므로 同時 集中사격으로 이를 強打하였으며 특히 東端의 機關銃火力이 그 威力을 발휘하여 沙場 一帶를 휩쓸어 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제10중대 正面의 牧水부근에서 2個소대 규모가 侵攻하였으니,

이는 龍灘津을 건너 무리인 것으로 推測되는 바, 여기에서도 大同小異한 양상으로 江畔에 뛰어올라 橋頭堡를 確保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제 10, 제 11兩중대의 陣前에서 痛擊을 받아 霧中에 흩어지고 말았다.

이렇듯 대대는 敵의 先攻 第一波를 水中 또는 陣前에서 격파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다시 侵攻의 後續波가 더욱 크게 일어나 到處에서 接敵報告가 잇달았다.

**敵主力의 渡河侵攻 :** 06.00 現在の 敵侵狀況을 종합하여 보면, 初頭에 一戰을 치른바 있는 早遷津을 비롯하여 제 10중대 正面의 龍灘津과 제 11중대 정면의 牧杏津 및 盤松 나루터 등 제 3대대의 陣前에서만 보아도 연대규모를 헤아렸으며, 또한 左一線인 제 1대대 地域에서도 彈琴臺 東쪽의 遊松里(盤松나루터 南쪽 1km) 부근에서 2個중대 규모가 侵襲할 뿐만 아니라 그 西쪽의 俗稱「오목골」마을에서 數未詳의 敵이 또한 倉洞里쪽으로 渡江코자 發惡하였다.

이같은 侵攻樣相으로 미루어 볼때에 敵은 主力으로써 南漢江을 건너 忠州의 北쪽으로 侵入코자 함이 分明하거니와, 그 銳鋒이 제 3대대 地域으로 集中하고 보니 여기에서 熾烈한 激突을 보이게 되었다.

당시의 제 9중대장 南白峰대위는 이 局面을 回顧하며 證言하기를 『이날은 어떤일인지 敵이 侵襲하리라는 豫感이 들기에 江岸으로 推進한 各 聽音哨所의 哨兵에게 지시하여 서로 새소리로써 信號를 보내면서 철저히 경계토록 당부하였던 바, 이날따라 안개가 자욱한데다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높고 砲聲마저 轟然하니 사실상 江 中流에서 擊破하려던 好機를 놓치고 말았으며, 江畔에 기어오를 때에야 비로소 敵侵의 事實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一時 混線을 빚은바 있었으나 곧 收拾하여 미리 計劃된 火力으로 그 先鋒을 부찌른 다음 이제 渡江線에서 後續部隊를 擊滅키로 하였는데, 그 後續部隊는 豫想外로 大兵力일 뿐만 아니라 四周를 메운 濃霧를 틈타 一時에 渡河侵攻하니 이때부터 江畔의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고 述懷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날의 어려웠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一旦 交戰이 벌어지자 대대의 全火力이 敵線을 휩쓸었으니, 제 12중대의 제 1기관총 소대장 裴哲基소위가 이끄는 重機班은 龍谷 東쪽의 『사래실』 稜線 下端에서 水面에 잇닿는 表尺射擊으로 불을 타하는가 하면 同 제 2소대장 崔永俊소위는 牧水 나루목 부근에서 이와 交叉射擊을 加하고 또한 제 10중대의 제 2소대장 金東鎬소위와 同제 3소대장 鄭龍洵소위는 小隊員을 督勵하여 龍灘津 부근에 集中사격을 加하였으며 대대의 左第一線인 제 11중대에서도 제 1소대장 李允玉소위와 제 3소대장 崔哲柱소위가 힘을 합하여 盤松 나루목을 火網으로 뒤덮는 등 最後阻止 사격의 불꽃튀는 火力이 江畔을 메웠다.

그리고 權尙根중위가 지휘하는 81mm 박격포소대의 砲火가 對岸의 敵의 集結地를 強打할 뿐만 아니라 제 16포병대대의 제 1포대장 金長根대위는 早遷津—龍臺—文山里 溪谷 등 敵의

豫想接近路 일대에 集中砲擊을 加하니 안개속에 爆音과 불길이 솟아올라 敵의 肝膽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이 제 3대대가 南漢江畔에서 敵의 主力을 屠戮하고 있을 무렵 연대의 左一線인 제 1대대(장, 朴魯珪중령)는 如前히 達川江 左右兩側方의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拂曉의 一戰을 치른바 있었으나 이것은 小銃火力의 交換정도에 지나지 않고, 다만 同대대의 右第一線인 제 3중대 지역에서 한차례 激突이 있을 뿐이었다. 즉 崔熙大대위가 지휘하는 同중대는 19번도로 西側의 要線을 막고 있었는데 遊松里 부근에서 중대규모가 漆琴里쪽으로 渡江하자 彈琴臺에 배치된 警察까지 合勢하여 軍醫合同으로 一擊에 이를 무찔러 水中擊滅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地域은 제 3대대의 陣地와 接한 江岸의 連線으로 이시간 現在에도 敵의 壓力이 계속되어 불길이 그치지 않았다.

결국 이날의 交戰은 南漢江畔의 對決로 化하여 이곳에서 勝敗를 가름하려는 듯, 치열한 激戰이 계속되었는데 1시간 30餘分을 지나 07.00에 이르자 제 3대대의 陣地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아무리 무찔러도 一波, 또 一波로 계속 밀려는 敵은 끝내 橋頭堡를 確保하여 陣前으로 殺到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리하여 時間이 경과할수록 戰況은 漸次로 더 기우러, 제 3대대는 增援을 얻지 못한 채로 氣盡상태에 빠져들고 제 1대대의 제 3중대 진지 마저 크게 흔들리게 됨으로써 危機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忠州의 東側方에서 또다른 一團의 敵이 侵攻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側方突入의 阻止 : 이 무리는 冠某峰 골짜기에서 鶴鳴山 東側으로 越江하여 아무런 저항도 없이 一路西進하고 있었는데 그 先頭가 上宗堂 고개를 넘어선 후에야 비로소 연대의 搜索中隊가 이를 捕捉하여 不規의 遭遇戰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同搜索中隊는 제 2소대가 警戒次로 木伐里 부근에 머물고 이곳에는 제 1소대가 安林洞에서 上宗堂쪽으로 고개를 넘어러다가 不時에 遭遇케 된 터이라 오히려 不利한 溪谷에서 적은 병력으로 맞서게 됨으로써 現地에서 이를 阻止치 못하고 俗稱 『마지막재』 (鶴鳴山과 南山간의 제일 높은 고개) 부근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文字 그대로 이고개는 忠州 東쪽 4km의 마지막 關門이니, 萬一 이곳이 敵의 手中에 넘어간다면 擴開된 野地로 펼쳐져 다시 이를 阻止할만한 要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 主力의 退路마저 遮斷될 威脅을 받게 되는 까닭에 비록 1個소대의 兵力일지라도 期必코 이 고개를 固守하여만 하였다.

이에 연대장 威炳善대령은 直接 情報主任 宋大厚소령을 불러 『즉시 現地로 나아가 兵力을 糾合하여 이를 阻止하라. 곧 增援兵力을 後續措置할 것이다.』라고 指示하는 한편 本部中隊長 吳衡根중위에게 연대의 行政要員을 戰鬪編成하여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였다.

이 措置에 따라 情報主任이 現地로 달려가 보니, 果然 一夫當百의 要地에 搜索隊員들이 버티어 增強된 중대규모의 敵과 맞서고 있는지라 後續한 本部要員까지 統合하여 여기에서

이 驕醜를 一旦 阻止케 되었는데 이러한 사이에 어느덧 다시 1시간이 흘러 08.00를 넘어 서고 있었다.

이때에 第一線에서는 惡戰苦鬪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제 3 대대의 陣地가 瓦解되어 退散兵力이 19번도로로 멀리자 대대장 李雲山소령이 金陵洞 고개 마루에 버티고 서서 一聲怒號와 함께 이곳에 阻止陣地를 構成토록 督勵하였으며 제 3 중대도 또한 이에 連한 防波堤을 構築코자 하였다.

그러나 戰況은 이미 고비를 넘어, 前方과 側方에서 사단규모의 敵이 繼續적으로 狂風을 일으키니 이제 忠州의 防守는 孤燈一點火格에 이르고 말았다.

## 2. 제 2 연대의 忠州 撤收戰況

연대장의 措置 : 이상과 같이 戰況이 急轉하자 연대장은 營坪의 사단사령부에 電話를 걸어 사단장 金鐘五대령에게 이같은 狀況을 急報함과 아울러 兵力의 增援을 懇請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現戰線을 收拾키 위한 緊急措置를 講究하였다.

즉, 제 3 대대장 李雲山소령에게 『大交巖山과 金陵洞간의 阻止陣地를 固守하라.』고 嚴命하는 한편 그 直後方의 蓮守洞에 位置한 포병제 16 대대의 제 1 포대를 忠州南쪽 2km의 虎岩里 부근으로 뽑아 제 3 대대의 收拾을 掩護토록 指示하였다. 그리고 제 1 대대장 朴魯珪중령에



〈忠州鐵橋와 大林山〉

지는 西側方의 3번도로 軸線을 嚴重히 警戒하여 忠州—水安堡간의 要線을 確保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同대대의 예비인 제 1 중대(장, 崔琪煥대위)를 金陵洞 東쪽의 『금재고개』로 急派하여 苦戰中인 제 3 대대를 赴援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제 1, 제 3 兩대대와 제 1 포대가 서로 힘을 모아 一部の 陣地를 調定함과 아울러 忠州 北쪽의 金陵洞부근에 새로운 阻止陣地를 急編코자 渾身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었는데, 08. 30에 이르러 사단장으로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다.

이 명령의 要旨를 보면,

『귀연대는 現陣地를 撤收하여 忠州 南쪽에서 最大限의 遲延戰을 展開하라.

12時間 以內에 귀연대의 제 2 대대와 제 19연대의 1 個대대를 現地로 急派할 豫定이다.

此後陣地를 選定하는 즉시 報告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分明히, 現危局을 收拾하여 遲延戰을 쳐고 있으면 主力으로써 赴援하겠다는 決意의 表明이었으니, 어무렵 사단은 제 7, 제 19 兩연대가 陰城과 鎭川에서 제 1 사단 및 首都사단에 戰線을 引繼하고 있는 터이므로 장차 이 地域으로 主力을 投入할 豫定이었는데 이같이 戰況이 急轉하자 于先 先遣隊를 急派한 다음 後續措置를 取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연대장이 이 명령을 받고 撤收指針을 下達하려 할 무렵에는 惡化一路를 치닫던 右一線의 陣容이 破綻之境에 이르러 제 3 대대의 分散兵力이 忠州 市內로 밀리는가 하면 「마지막재」의 直轄隊兵力도 虎岩洞 부근으로 分散轉進케 됨으로써 體系있는 撤收가 매우 困難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그는 제 1 대대장 朴魯珪중령에게 즉시 達川江부근의 兵力을 뿔아 大林山(△317: 忠州南쪽 3km)과 丹月洞(忠州 西南쪽 3km)간에 掩護陣地를 急編토록 지시하는 한편 아직도 金陵里와 蓮守洞에서 分散兵力을 收拾하고 있는 제 3 대대장 李雲山소령을 비롯한 忠州 周邊의 모든 將兵들을 水回里로 集結토록 命令하였다.

이 명령상의 水回里란 忠州 南쪽 10km의 積抱山(△698) 부근에 있는 마을로서, 水安堡로 通하는 3번도로상의 要衝인 동시에 東쪽으로 36번도로를 따라 丹陽에 이르는 三叉路 부근이니, 이제 연대는 제 1 대대의 掩護아래 忠州에서 分散된 兵力을 여기에서 收拾키로 한 것이다.

제 1 대대의 掩護陣地 占領: 이리하여 마침내 主力으로써 撤收케 되었는데 掩護부대로 任務를 부여받은 제 1 대대는 제 3 중대를 除外한 다른 중대들이 아직 接敵치 않은 터이므로 現陣地를 離脫하여 忠州—水安堡간의 要線을 占領코자 忠州 南쪽으로 後退하였다.

先頭에 나선 제 2 중대(장, 金寅文중위)는 단숨에 △277를 넘어 龍頭洞에 集結하는 즉시로 達川橋로 달려가니, 忠州 市內에서 撤收隊列이 南으로 어지럽게 撤收하는지라 여기에서 바로 東南쪽으로 直行하여 松林洞을 지나 丹月洞에 이르자 대대장 朴魯珪중령이 3번도로 中央에 버티고 서서 그 西쪽의 『△114를 占領하라.』고 명령하여 여기에서 방어태세로 들어



갔다. 그리고 이어서 漆琴洞을 出發한 제 3 중대(장, 崔熙大대위)는 鳳方洞(忠州의 西쪽마을) 西쪽의 野地를 橫斷하여 現地에 當到하자 俗稱「싸리고개」(忠州에서 水安堡로 下行하는 3번도로상의 첫고개) 東쪽의 △181를 占領하여 제 2 중대와 戰線을 連繫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虎岩洞으로 集結한 제 1 중대(장, 崔琪煥대위)는 直洞 溪谷으로 反轉하는 즉시 그 西南쪽의 大林山(△317)을 占領케 하여, 비로소 3 個중대로써 連대장이 지시한 掩護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특히 제 3 중대는 漆琴洞에서 集結하여 南쪽으로 내려올때에 彈琴臺에 配置하였던 警察兵力까지 舍勢케 되었는데 忠州 市街부근의 鳳溪里쪽에서 數未詳의 敵이 側射火力을 취되며 退路를 遮斷코자 하였으나 一擊에 이를 擊退한 다음 直路로 野地를 橫斷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대체로 11.00까지 掩護陣地를 急編케 되었는데 이때에 忠州周邊의 分散兵力은 3 번도로와 虎岩洞 溪谷을 따라 繼續南下하였으며 東南쪽의 文化里(忠州 東南쪽 10km) 부근으로 集結한 搜索隊는 36번도로를 따라 水回里로 直行하였다.

한편 北傀 제 12사단은 南漢江 방어진이 무너진 뒤로 主力으로써 渡河하여 이時間 現在로 忠州 市內에 突入할 뿐만 아니라 東側方으로 侵襲한 무리는 南山(△636: 忠州 東南쪽 3.5 km)으로 기어올라 蒼龍寺(南山 西麓의 庵子) 溪谷으로 機銃火力을 亂射하였으며 또한 그 先頭의 一部는 제 3 대대의 後尾를 追躡하여 虎岩洞 入口부근으로 밀려들었다.

이에 大林山에 布陣한 제 1 중대의 集中火力이 그 先鋒을 強打하니, 여기에서 分散된 敵은 더 이상 近接하지 못하고 그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때부터 차츰 接敵이 끊기면서 戰線도 小康狀態로 접어들었다.

이무렵 連대장 咸炳善대령은 指揮所를 水安堡에 移設토록 指示하고 自身은 水回里에서 兵力을 收拾하던 바, 이상과 같이 接觸이 끊어지자 敵이 忠州의 占領과 더불어 再攻擊을 準備키 위한 戰列整備를 꾀하는 것으로 判斷되어 現陣地의 再調定이 時急하다고 結論지었다.

그 까닭은, 제 1 대대의 現 掩護陣地는 危局을 收拾키 위한 緊急措置인 만큼 防禦正面의 一角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東쪽의 36번도로와 洗星洞 一帶가 無防備 상태로 暴露됨으로써 側方威脅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連대의 現兵力 실정에 비추어 增援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2 個중대로써 效果的으로 阻止할 수 있는 適地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3 번도로와 36번도로가 連結되는 龍川里부근과 達川江의 支流로 에워싸인 文江里(水回里 西北쪽 3km) 一帶를 重視하여 그 南쪽의 積抱山(△698)—△326(水回里 西쪽 3 km)線에 主力으로써 阻止陣地를 編成키로 決心하고 제 1, 제 3 兩대대로 하여금 한걸음 뒤로 물러나 新陣地를 占領토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阻止陣地의 占領과 反擊의 決意: 이상과 같은 迂餘曲折끝에 이제 連대는 새로운 阻止陣地를 編成케 되었거니와, 連대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제 1 대대가 3 번도로 東쪽의 積抱山

一圖을 맡고 제 3 대대는 그 西쪽의 風峙(一名, 바람재)一△326간에서 左一線을 擔當케 되었다.

이리하여 忠州 南쪽 大林山부근에서 撤收를 掩護하던 제 1 대대는 兵力을 거두어 3 번도로를 따라 16.00에 積抱山에 다다라 그 北麓에 東으로부터 제3, 제1, 제 2 중대의 順으로 陣地를 占領하고, 水回리로 集結한 제 3 대대는 그동안 戰列을 가다듬어 제10, 제9, 제11 중대의 順으로 이에 連한 左一線 陣地를 占領하여 忠州—水安堡간의 主侵路를 要扼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將兵들은 不過 12시간 사이에 忠州를 내놓고 11km를 뒤로 물러나 現陣地를 占領케 된 사실에 대하여 痛憤함을 禁치 못하였으며 특히 연대장은 切忿하여 反擊의 機會를 捕捉코자 연대의 搜索中隊로 하여금 다시 大林山으로 올라가 敵의 動情을 探索케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진지를 마련한지 2시간이 지난 18.00에 李鍾基대위가 지휘하는 제 2 대대가 제19연대의 配屬으로부터 解除되어 水安堡에 進出하고 곧 그 뒤를 이어 同연대의 제 2 대대(장, 金龍起소령)가 또한 여기에 赴援하니, 이로부터 연대는 새로운 方案을 熟識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그동안에 사단과 通信이 杜絶되어 連絡을 취하지 못하다가 連絡將校 前에 『鎭川の 제19연대를 水安堡로 移動시킬 豫定이며, 그 先遣隊로 2個대대를 先行시킨다.』는 要旨의 사단장의 親書를 接하고 보니, 現陣地의 固守만으로서 滿足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장은 掌裏의 4個대대로써 奪還戰을 展開키로 決心하고 그 時間과 方法등을 검토한 끝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腹案을 얻게 되었다. 즉, 隸下의 제 3 대대로 하여금 現陣地를 確保케 하는 한편 다른 3個대대로써 反擊키로 하되, 配屬된 제19연대의 제 2 대대를 東北쪽으로 迂回시켜 敵의 東側背를 強襲케 하고 제1, 제 2 兩대대를 正面으로 直衝突貫케 하여 同時에 挾攻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攻擊開始線을 木伐里의 西北쪽 溪谷과 雲山洞—洗星洞간의 兩軸으로 區分하여 選定함과 아울러 공격 開始時間을 明日 05.00로 豫定하고 각대대로 하여금 적어도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모든 準備를 完了토록 하였으며 특히 제 3 대대는 現陣地를 21.00 以前에 모두 引受토록 한 點과 迂迴攻擊부대는 夜間機動으로 木伐里까지 移動할 것 그리고 공격대대의 全將兵은 一日分の 野戰食糧을 携帶할 것 등을 포함한 反擊計劃을 마련하여 水安堡의 연대지휘소에서 口頭로 이 명령을 下達하는 즉시 곧 施行에 着手토록 促求하였다.

이리하여 雪辱의 一擊을 노린 反擊準備가 속속 進行되었는데 이날 밤은 日沒과 더불어 시작된 가랑비가 계속 내렸지만 蹉跎없이 陣地의 交代가 이루어지고 제1, 제 2 兩대대는 龍川里와 水回리로 각각 集結하여 공격태세를 갖추었으며 특히 제19연대의 제 2 대대는 行路가 낯설은 暗夜의 機動에도 不拘하고 徹夜로 強行軍하여 다음날 02.30에 文化里 西쪽 마을인 新堂을 지나 木伐里를 目標를 계속 前進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이시간 現在の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채로 一方的인 攻擊準備에 嚴重하다 보니 아무도 目前에 다가선 一觸即發의 危險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7월 9일 : 이날 새벽은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가 아직도 개이지 않아 때때로 오락가락하는데 攻擊대대는 계속 前進하여 右一線인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寒泉里를 지나 木伐里 東南쪽 1.5km의 俗稱「문자골」 부근에 다다르고 있었으며 龍川리와 水回리로 集結한 제1, 제2兩대대는 마지막 點檢을 마치고 洗星洞쪽으로 向發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忠州로 集結한 敵은 여기에서 作戰의 큰 轉換을 꾀하고 있었으니, 즉 忠州를 占領한 제12사단을 東南쪽으로 轉進시켜 我 第8사단 正面의 丹陽地域을 圖謀케 하고 後續한 제1사단으로 하여금 3번도로(忠州—水安堡—間廢間)를 따라 水安堡로 進擊케 할 方針아래 그 先發隊를 각각 연대규모로 選定하여 機動路를 確保케 하였다고 하는 바, 이 部隊들이 東側에서는 이미 『마지막재』를 넘어 木伐里쪽으로 指向하고 南向部隊는 丹月洞을 지나 小香山(洗星洞 北쪽 2km) 溪谷으로 殺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忠州를 占領한 直後에 제105機甲사단 소속의 제109戰車연대로 알려진 30餘台的 戰車가 後續하여 驛前廣場에 集結중에 있으며 또한 이들 제1사단은 忠州 占領의 功을 놓치고 거의 發惡의인 狂氣에 서려 水安堡까지 急速히 侵攻코자 血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아래 연대는 아직도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채로 反擊의 칼을 메어 들었으니, 進出戰野에 暗雲이 깊이 감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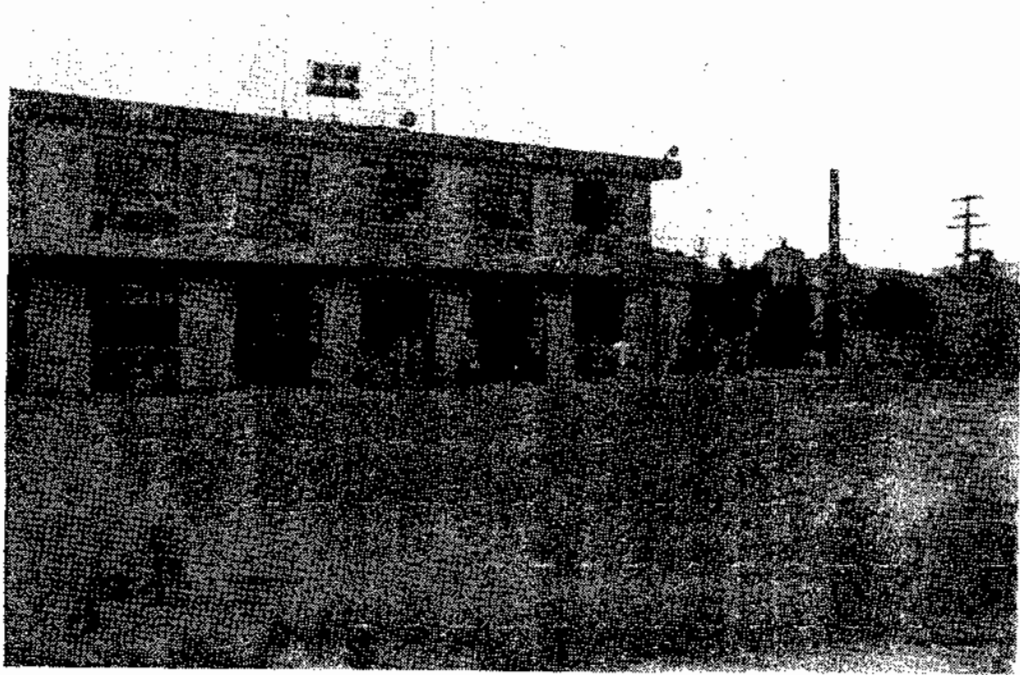
### 1. 제19연대 제2대대의 戰況

연대의 右一線에서 敵陣의 東側背를 強襲키로한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전날 18.00에 水安堡에 當到하여 제2연대에 配屬된 뒤로 곧 攻擊命令을 받고 徹夜로 強行軍 끝에 이날 새벽 04.00에 木伐里에 다다랐다.

이 機動過程에서 대대장 金龍起소령은 연대에서 지급한 地圖한장을 받아들고 生疎한 地域을 Kompas로 測定하면서 兵力을 誘導하였다고 하는 바, 이곳에 當到 하였을 때에는 疲勞가 겹치는데다 攻擊開始 1시간 前이었으므로 여기에서 아침 食事を 마치고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豫定時間에 LD를 通過하여 中間目標인 鷄鳴山(一名, 鷄足山)으로 進擊하려 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대대를一旦 停止시킨 다음 각 中대별로 疎開하여 食事を 시키되, 이곳은 攻擊開始線과는 1km이고 鷄鳴山 主峰과는 4km의 거리인 敵陣의 側後方인 만복 企圖秘匿에 留意할 것과 특히 食後에 喫煙을 嚴禁토록 하여 20分 以內에 끝나치도록 指示하였다.

그런데 10餘분이 지나자 △194 東麓의 제6중대 地域에서 담배불의 火光이 비치는듯 하더니, 곧 이어 誰何를 외치는 高喊이 터지고 마침내 敵의 小銃火力과 手榴彈이 이 一帶에



〈敵의 戰車의 集結地였던 忠州驛廣場〉

炸裂케 되었으니, 不意에 奇襲을 받은 同중대는 크게 흩어져 木伐마을 洞口밖의 대대 本部 부근으로 뛰어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山으로 붙어라.』고 嚴命을 내림과 동시에 즉각 전투태세로 突入코자 하였으나 이제 敵의 火力이 木伐마을로 指向하여 手榴彈의 連爆과 機銃射擊, 그리고 迫擊砲火까지 여기에 集中케 되고 보니, 一瞬間에 修羅場으로 변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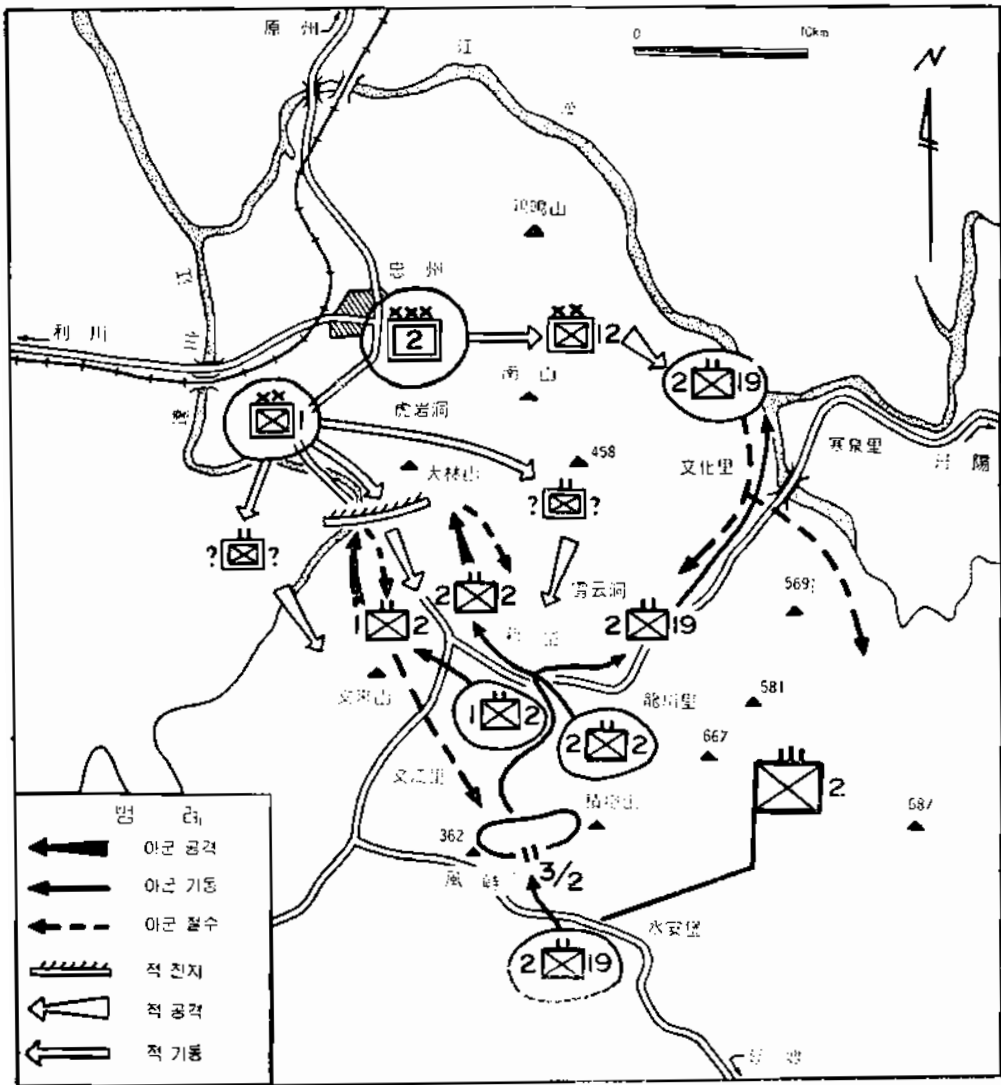
이때에 敵은 제12사단의 제31연대로서 대좌 金 鐵이 이끌고 丹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대대와 부딪쳐 直衝케 되었다고 하니, 時間이 경과할수록 敵火가 熾盛하여 死傷者가 續出할 뿐만 아니라 退路마저 遮斷됨으로써 마침내 一部の 兵士들이 南漢江(黃江里에서 鷄鳴山 東쪽으로 돌아 早遷津쪽으로 西流하는 區間)으로 뛰어들어 逆流를 헤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은 『最善을 다하여 新堂으로 集結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自身도 南漢江으로 뛰어들어 江 西岸을 따라 南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으니, 이때가 05.00로서 1시간이 채 못되는 사이에 이같은 結果를 맺고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를 回顧한 대대장 金龍起소령은 證言하기를 『그대로 더 머물다가는 한 사람도 救할 수 없을것 같아 各個로 突破하여 新堂으로 集結하라.』고 하였는데, 이곳은 南쪽으로 5km쯤

떨어진 곳으로서 水安堡로 通하는 36번도로와 接하는 場所이니 必然코 여기에 모여들 것으로 믿고 集地로 選定하였던 바, 실지로 現地에 當到하여 보니 50餘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 自身도 敵의 重鎗을 꿰고 몇 차례나 急流에 휩쓸리기도 하며 3시간 동안을 辛苦한 끝에 現地에 다다른 점으로 미루어 보아 後續兵力이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에서 待機하였는데 09.00가 되자 연대장으로부터 『水安堡로 集結하라』는 無電命令이 下達되었다. 그리하여 「原位置로 集結하라」는 案内板을 道路邊에 꽂아놓고 水安堡로 내려와 보니 뜻밖에도 大部分의 將兵들이 個人火器들 모두 携帶하고 여기에 모여있었다』라고 하였다.

◇ 상황도 제21호 제2연대의 反擊狀況(7.9)



이상과 같이 대대는 이날 아무런 成果를 거두지 못한채로 鷄鳴山 기슭에서 奇襲을 받아 苦戰을 치르다가 끝내 反轉케 되고 말았던 것이다.

## 2. 제 2연대 主力의 攻防戰況

한편 左一線으로 進出한 제 2연대 제 1, 제 2兩대대는 龍川里와 水回里를 각각 떠난 뒤로 3번도로를 따라 洗星洞 南쪽의 新堡部落 부근까지 이른 다음 여기에서 다시 左右로 展開하여 豫定된 시간인 05.00에 LD를 넘어 忠州의 直南方으로 進擊하였다.

즉 李鍾基대위가 지휘하는 제 2대대는 3번도로 東쪽의 洗星洞 溪谷으로 뛰어 올라 大林山(△317)을 目標로 躍進하고 朴魯珪중령이 지휘하는 제 1대대는 그 西쪽에서 斗應山(△459 : 塗味面の 香山里와 洗星洞 境界에 있는 山)을 目標로 西北進하였다.

이리하여 2시간이 지난 07.00에는 제 2대대가 大香山을 넘어 大林山 東側의 九陵里 부근으로 突進하고, 제 1대대가 斗應山을 無血占領한 다음 계속하여 그 北쪽 稜線을 따라 達川江 東側으로 휩쓸어 올라 가던바, 突然 倉洞(大林山 西南쪽 마을) 부근에서 一團의 敵이 小香洞—達川江간의 제 1대대 正面에 集中사격을 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先頭인 제 1중대장 崔鎮煥대위로부터 報告되기를 小香洞 北쪽의 3번도로 상에 2台的 戰車가 나타나 機銃을 휘두르며 近接하고 있다는 것이며 敵의 兵力은 대대규모 이상인 것으로 判斷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대장 朴魯珪중령은 제 1, 제 2兩중대장을 無電으로 불러 즉각 倉洞쪽으로 進擊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 兩중대가 3번도로를 橫斷하여 東北쪽으로 突進하다가 敵의 火網에 부딪쳐 20餘分 동안의 交戰끝에 反轉케 되었으니, 이제 3번도로 軸線으로 指向한 제 1대대의 進路가 막히고 말았다.

더구나 제 1중대장이 報告한 戰車란 其實은 裝甲車로서 이들이 어느덧 小香洞까지 突入하여 제 1, 제 2兩대대의 中央地帶에 버티고 서서 側背를 威脅하고 또한 이와 協同한 一部의 敵이 그 南쪽의 院堡부근으로 계속 밀려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08.00에 이르러서는 達川江 西쪽의 東幕洞 부근에서 새로운 敵이 나타나 側射火力을 加하며 西側 後方으로 渡江하려 하였다.

이와같이 대대는 攻擊開始 3시간만에 오히려 敵의 逆襲에 휘말리게 되어 攻防이 轉倒되었으니, 사실은 이때에 대대 正面의 3번도로 軸線에는 대좌 李昌權이 이끄는 北傀 제 1사단 諜下의 제 3연대가 裝甲車의 先導下에 水安堡로 南下하다가 여기에서 相衝케 되자 兩대대의 中央地帶를 突破分斷하여 退路를 遮斷코자 劃策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2대대는 아직도 이같은 敵情을 看破하지 못한채로 계속 進出하여 九陵里 고개를 넘어서게 되었으니, 비록 大林山 東쪽 稜線의 一部를 確保하였다 할지라도 盲者去杖으로 더 큰 危險속에 빠져든 結果가 되고 말았다.

연대본부에서 이상과 같은 상황을 파악한 것은 敵의 裝甲車隊가 院堡를 通過한지 30餘分이 지난 09.00였다.

이에 연대장은 즉각 任務를 轉換하여 兩대대로 하여금 △226(洗星洞 南쪽의 無名高地)와 文來山(文江里 西쪽)간의 橫隔峽線으로 불려나 阻止陣地를 急히 占領토록 措置하였으니 이 곳은 이날 攻擊開始線으로 設定하였던 新堡부근의 左右側 稜線으로서 여기에서 3번도로 軸線으로 밀려드는 狂波를 막아 보코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敵의 先頭가 이미 新堡를 通過하여 龍川里 쪽으로 殺到함으로써 文來山을 占領코자 하던 제 1대대는 文江里 南쪽으로 再轉케 되고 東北쪽으로 進出한 제 2대대는 退路가 完全히 막히고 말았으니 결국 後手로서 敵에게 被動的으로 追從하기만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敵의 先制의 効力이 漸增하여 東側의 雪云洞(洗星洞 東쪽) 溪谷에서 새로이 중대규모가 나타나 『별말』 부근으로 侵襲하는가 하면 文來山 西쪽의 八峰部落 부근에서도 대대규모가 達川江을 건너는 등 側方威脅까지 加重되어 戰況은 惡化一路를 치달게 되었다.

이무렵 연대장은 水安堡에서 一般電話線(遞信線)을 利用하여 營坪에 位置한 사단장에게 戰況報告와 아울러 兵力의 增援과 航空支援등을 要請하던 바, 이렇듯 危局을 마지하게 되자 이제 水安堡를 確保키 위한 마지막 堡壘를 占領키로 決心하고 文江里 南쪽에 集結中인 제 1대대로 하여금 積抱山—△326간의 右一線陣地인 積抱山(△698)으로 撤收하여 이곳에 配備中인 제 3대대(장, 李去山소령)와 함께 當面의 敵을 阻止擊滅토록 命令하였다. 그리고 敵線 後方에서 退路를 摸索하고 있는 제 2대대장 李鍾基대위에게는 『가능한 最善의 方策을 講究하여 水安堡로 集結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搜索중대(장, 文章煜중위)와 配屬中인 工兵 제 1중대(장, 金永根중위)등 直轄隊 兵력을 統合하여 水回里 南쪽의 風峙를 占領토록 措置하였다.

이로부터 연대는 水安堡의 防守에 힘을 기울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무렵 閔丙權대령이 지휘하는 제 19연대(一)의 主力이 現地에 當到하였다.

同연대는 鎭川에서 首都사단의 現地占領을 掩護하다가 作戰地域을 引繼하고 이곳으로 轉進케 되었거니와, 전날 夕陽에 제 2대대가 先發隊로 到着한데 이어 이날 그 主力이 急遽赴援케 된 것이다.

따라서 當到하는 즉시로 제 2연대의 現陣地를 引受케 되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同연대의 제 2대대가 이날 새벽에 木伐里에서 分散되어 水安堡로 集結中에 있었으므로 이를 統合하여 防禦態勢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敵側에서도 사단의 動靜을 窺知하였음인지 3번도로와 36번도로가 連하는 龍川里 부근까지 侵襲한 뒤로는 漸次로 挑發이 그치어 戰線은 차츰 小康상태로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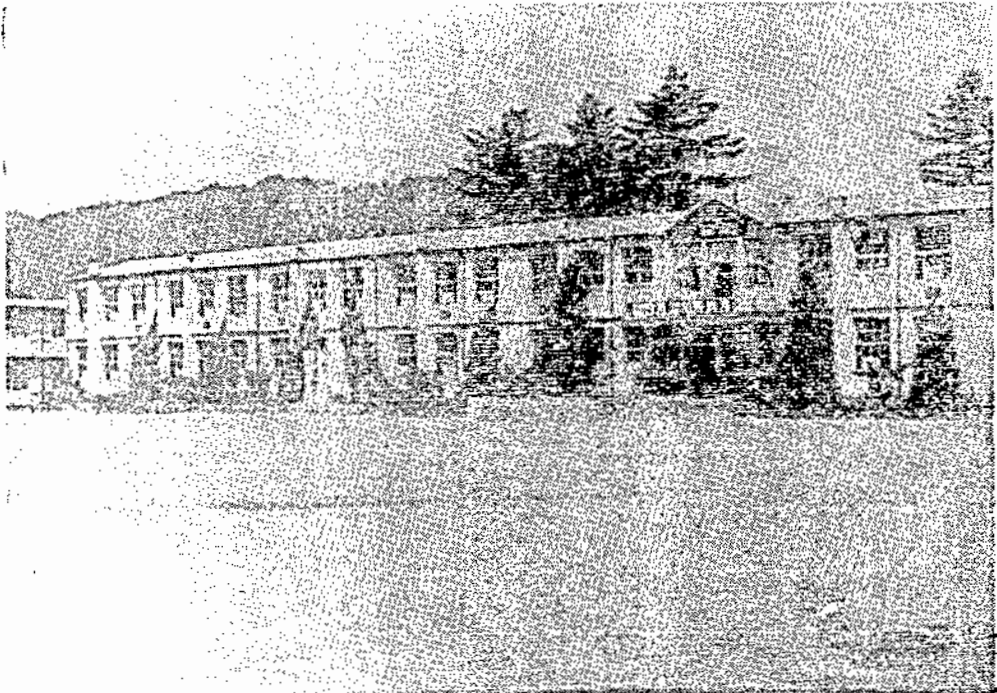
다만, 第一線의 상황과는 달리 이날 下午에 UN空軍의 敵爆機 1個編隊가 1시간 간격으로 두차례 出擊하여 忠州 부근의 敵의 集結地와 戰車 集結地등을 强打함으로써 그 氣勢를 꺾은 바 있었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8일 05.00에 南漢江畔에서 接敵한 뒤로 이날 下午까지 二晝夜에 걸친 激戰을 치르고 제19연대에 現任務를 引繼한 다음 水安堡로 集結케 되었는데 이로부터 戰鬪는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었다.

###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전투가 끝난 뒤로 제 2연대는 水安堡에서 分散兵力을 收拾하여 部隊를 再整備한 다음 10일 14.00에 下達된 師團장의 명령에 따라 指揮所를 그 南쪽 4km의 花泉里로 移動하고 兵力을 한걸음 뒤로 뺐아 延豊으로 내려가는 길목 左右兩側方의  $\triangle 610-\triangle 478$ 線에 新陣地를 마련하였다.

이때에 第一線에서는 交綏狀態로 들어가 彼我間에 偵察隊의 活動이 있을 뿐으로 表面上으로 沈默을 保持케 되었으나, 其實은 이무렵 그들은 새로운 侵攻準備에 拍車를 加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崔忠國이 이끄는 제12사단이 淸陽을 目標로 忠州를 떠난 뒤로 소장 崔光이 지휘하는 제 1사단이 제109戰車연대의 支援아래 水安堡-延豊-聞慶 軸線으로 侵攻코자 그 第一步를 내딛었다가 바로 水安堡 北쪽에서 防壁에 부딪치자 狹小한 機動空間에 計策이 窮한 나머지 여기에서 一巨 발길을 멈추고 迂回機動을 劃策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個연대로써 現陣地上에 師團의 主力을 抑留케 하는 한편 忠州의 防



〈제 2 연대의 集結地였던 오늘의 水安國民學校〉



襲責任은 步兵 1個대대를 配屬시킨 제109戰車연대장에게 맡기고 다른 2個대대를 西側方으로 크게 迂回시켜 水安堡 南쪽의 延豊으로 直進시킴과 아울러 前後方에서 同時에 包圍攻擊코자 疲勞에 지친 少年兵들에게 체격을 摧殘했다고 하는 바, 사단에서 그 企圖를 把握한 것은 敵의 主力이 林達嶺(水安堡 西쪽 6km)을 넘어 五佳里부근까지 侵襲한 11월 10.00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正面的 敵도 挑發하기 시작하여 제19연대에서는 9명으로 編成한 特攻隊(姓名未詳)가 先頭에 나타난 裝甲車 2輛을 爆破하는중 한때 交戰을 벌인바 있었으나 이상과 같이 敵의 主力이 背後로 밀려들어 退路를 威脅하는 터이라 사단에서는 劃一的인 作戰을 展開키 위하여 이날(11일) 밤에 主力으로써 間處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狀況이 急變하는 동안에 사단司令部는 會坪에서 9일밤 子正을 期하여 報恩으로 移動하였다가 바로 다음날인 10일 15.00에 다시 間處으로 移動하여 여기에서 隸下의 3個대대와 제16포병대대를 集結시켜 小白山脈 防禦線上的 一翼을 擔當하기에 이르렀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 2연대장 威炳善대령

(1978년 3월 25일, 서울自宅에서 예, 중장)

제 6사단이 忠州로 移動할 때에 우리연대가 제 1일 먼저 當到하여 忠州國民學校로 集結하였는데 重裝備도 빠짐없이 다 끌고 나왔다. 우리가 原州에서 出發하기에 앞서 民事將校인 崔一燁대위로 하여금 民間車輛을 徵發토록하여 그편에 車輛機動함으로써 兵力과 裝備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기에서 각 연대가 機動掩護부대로 出動케 됨에 따라 제19연대는 利川으로, 제 7연대는 陰城으로 각각 떠나고 우리연대가 單獨으로 忠州地域을 擔當케 되었는데 그나마 1個대대가 다시 西部戰線으로 增派되어 사실상 2個대대의 兵力으로 이 전투를 치루었다.

그런데 敵은 2個사단 규모의 兵力이 一時에 侵攻하니 力不足으로 끝내 忠州를 내놓게 되었으며, 水安堡로 물러선 뒤에 사단의 主力이 赴援하자 너무 遲延에서 反擊을 加하여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에는 아직 戰線을 整備하지 못한 狀況이라 때로는 作戰上的 蹉跌을 빚는 경우가 往往있었고 上級 사령부의 措置도 圓熟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將兵들의 精神力은 確固하여 連日連戰의 피로에도 분구하고 잘 싸워 주었으며 나 自身도 忠州에서 물러선 뒤로는 覺悟를 새롭게 하

였다. 이제는 決死的인 方法 밖에는 다른 方途가 없었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隣接部隊과의 協調문제였다. 6~7배가 넘는 敵이 前方에서 계속 밀려오는데 거의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홀로 싸웠으며 특히 右隣接인 제 8사단과 連繫코자 힘써 보았지만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忠州警察署 所屬 경찰관 200명을 統轄指揮한 일이 있었는데 兵力이 不足하여 戰線의 一部를 擔當시킨 일이 있었으며 現地の 實情을 把握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마더로 말해서 이 전투는 中部戰線으로 侵攻한 群敵을 1個대대로써 막아야 했던 어려운 時期의 한 局面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兵力은 적었지만 逐次로 遲延戰을 전개하여 損失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다음의 梨花嶺 전투에서 凱歌를 울릴 수 있었던 것이다.

### ◇ 제19연대 제 2대대장 金龍起소령(예, 대령)

(1966년 6월 23일, 在郷軍人會 事務局에서 예, 내령)

우리 대대는 이 전투의 反擊단체에서 加擔하여 忠州 東北쪽의 鷄足山(鷄鳴山의 別稱: 과거에 梧桐山, 光明山, 鷄足山 등으로 불리우다가 1958년 8월 18일 鷄鳴山으로 改稱함)으로 進擊한 일이었다.

이 전투에서 失敗하였지만 後進들에게 教訓으

로 꼭 밝혀두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夜間行動에 있어서는 企圖秘匿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담배불에 注意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 04.00에 鷄足山 부근에 當到하여 攻擊開始시간을 앞두고 아침 食事を 하게 되었는데 食後에 담배를 피우다가 敵의 奇襲을 받아 크게 狼狽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 地域은 江岸에 沿하여 機動路가 殆無한 까닭에 한번 휩쓸리자 大部分의 將兵들이 불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江中流에서 敵의 수류탄이 계속 爆發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실로 뼈를 짝는 듯한 아픔을 참기 어려웠다. 俗談에 『목에서 대전내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내 平生에 그렇게 어려운 局面을 당해 본 것은 처음 일이며 정말 미를 만할 것 같은 痛切함을 느꼈다.

그런데 다시 水安堡로 集結하고 보니 그같은 渦中에서도 損失이 輕微하여 神에게 感謝하였으며 특히 自己의 火器를 모두 携帶하고 모여든 兵士들의 모습을 대할 때 어떻게 問責을 받더라도 再結束시켜 더 訓練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다.

그 뒤로 이 兵士들이 閔慶과 幽谷동 洛東江 戰線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잘 싸워 주었다.

#### ◇ 제 2연대 제 3 중대장 崔熙大대위

(1978년 3월 30일, 서울 自宅에서 예, 대령)

나는 이 전투 당시에 彈琴臺부근에서 南漢江과 達川江이 合流하는 江畔陣地를 지켰는데 이 一帶는 地帶가 양저만 江岸이 갓파르고 水深이 깊어 감히 接近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따라서 敵은 우리의 바로 右隣接중대인 제11중대 正面의 盤松나루터로 물러 여기에서 激戰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제 3대대는 敵의 砲擊에 큰 打擊을 받아 더욱 苦戰을 치렀으며 특히 저들의 侵攻目標가 19번도로 軸線이고 보니 이곳의 確保與否가 곧 이 전투의 勝敗를 가름하는 關鍵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結局 이 地域이 突破됨에 따라 全防 禦陣이 瓦解되고 말았지만, 敵은 사단규모의 병력으로 계속적인 波狀공격을 가하니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날 새벽에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고 우리 중

대의 陣前에서도 한차례 挑發하였는데 이는 쉽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 19번도로가 쫓리고 난 뒤로는 것잡을 수 없이 전황이 急轉하여 忠州 南쪽의 大林山으로 물러나 제 3대대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당시에 우리 중대는 齷察 2個소대까지 統合하여 연대에서도 제일 強한 중대로 인정받아 忠州—水安堡간의 遲延戰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도맡아서 지켰다. 그런데 砲兵火力이 우리가 弱하기 때문에 實際 交戰에서 보다는 砲擊으로 말미암은 損失이 더 많았다.

開戰以後 나는 계속 제 8 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곳 忠州에서 제 3 중대를 맡게 되었는데 자리를 옮기면서 基幹要員 몇 사람을 帶同하여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戰地에서 指揮官을 자주 바꾸는 일은 可及의 피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안다.

#### ◇ 제 16포병대대 제 1 포대장 金長根대위

(1978년 4월 7일, 서울 水雲會館에서 예, 대령)

우리가 忠州로 移動할 때에 21.00쯤 되어 牧岑橋에 當到하니 이미 橋梁은 爆破되고 어둠속에 避難民이 雲集하여 어지럽기 이를테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砲車까지 運搬하여야 하므로 對策이 窮하여 苦心하면 바, 憲兵隊長 鄭 剛소령이 秩序를 바로잡고 나루배 두隻을 우선적으로 利用토록 案內하여 무사히 江을 건넜다.

그리하여 忠州戰團가 시작되자 우리 砲隊만 現地에 남아서 2일 동안을 支援하였는데 당시에는 105mm(M-3)野砲의 射程이 짧기 때문에 敵의 對砲兵射擊이 甚하여 상당히 애를 먹었으며 특히 彈藥將校인 朴榮濟대위가 負傷당한 場面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 전투는 매우 不利한 狀況에서 치뤄진 것 같았다. 交戰 하룻만에 忠州를 喪失하고 밤에 水安堡로 철수하였는데 그 다음날 다시 反擊한다고 하여 우리 砲隊도 30리를 前進하였다가 午後에 또다시 물러서고 말았다.

水安堡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政府의 遞信線을 利用하여 上級部隊와 有線通話에 성공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단 通信參謀인 朴升圭소령

이 直接 管掌하여 移動할 때마다 같이 使用하였으며 移動時에는 반드시 有線을 絶斷하고 機材를 破壞하여 敵이 利用치 못하도록 하였다.

그 뒤로 梨花嶺을 넘어서 開慶으로 내려 왔는데 이때까지 5門의 砲를 무사히 끌고 왔으며 여기에서 3個砲隊가 비로소 合勢하게 되었다.

## § 戰 訓

### ◇ 反擊作戰의 失敗 原因

本戰鬪에서 9일 05.00에 忠州 奪還을 目標로 反擊을 斷行하였다가 中間目標도 奪取하지 못한 채로 損失만을 더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그 原因을 分析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 無理한 計劃을 세웠다.

反擊이란 逆襲과는 달리 時間문제 보다도 敵情과 地形 그리고 攻擊力量 등을 考慮하여 確信이 있을때 그것도 綿密한 計劃과 決定的인 打擊策들을 마련하여 果敢히 推進되어야 할터인데 여기에서는 오직 忠州를 奪還하겠다는 一念에 사로잡힌 나머지 狀況判斷을 그르쳐 無理한 計劃을 세운듯하다.

둘째 : 敵情에 너무 어두웠다.

忠州 市內에 2個 步兵사단과 1個 戰車연대 등 軍단규모의 병력이 集結하고 있었는데 연대에서는 이 事實을 전혀 알지 못한 듯하며 더구나 3번도로 軸線으로 侵攻중인 敵의 動靜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知彼知己의 謀攻原理는 戰場 어디에서나 必須의 것이니, 反擊에 앞서 미리 敵情判斷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事前準備가 不足하였다.

10~15km가 넘는 機動空間에 險한 山을 끼고 있으니 能率的으로 兵力을 推進키 위한 機動計劃

과 火力支援計劃이 마련되어야 할터인데 事前準備가 不足하였으며 특히 20餘km를 달려온 兵力을 徹夜로 強行軍시켜 當日로 目標를 奪取하도록 한 것은 體力의 限界를 넘어선 것이었다.

네째 : 豫備隊의 運用이 未洽하였다.

小香山 부근에서 제 1대대가 敵의 遊襲에 밀리게 되었을 때 연대에서는 可用豫備隊가 없었으며 대대에서도 豫備中隊의 運用이 未熟하여 이를 阻止할 수 있는 適機를 놓치고 말았다. 그 결과 제 2대대가 敵中에 떨어져서 兵力이 크게 分散되어 後續對策을 講究치 못한 것이다.

다섯째 : 企圖秘匿에 失敗하였다.

제19연대의 제 2대대는 一夜로 15km를 徒步機動하다 보니 防光과 防音を 疎忽히 하여 攻擊待機地點에서 食事を 하는 愚問을 범하는가 하면 食後에 담배까지 피우는 失手를 저질러 스스로 企圖를 暴露하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奇襲을 받아 한번 거꾸어 보지도 못하고 撤收케 된 것이다.

여섯째 : 使用할 兵力에 再考가 必要하였다.

一時로 配屬된 제19연대 제 2대대를 제 2연대本部에 集結되는 즉시로 出擊部隊로 驅使한 것은 配屬部隊使用의 原則違反이다. 配屬部隊는 말하자면 客員部隊이니 되도록 濫存하면서 樹功의 機會均等を 주어야 하는데 猝地에 生疎한 時間과 場所에 投入하는 것은 이불子息 取扱이 甚한 것이다. 이불子息일수록 親子息보다 더욱 愛重하라는 것이 戰道의 原理이기도 하다.

일곱째 : 憤을 줄고자 하여 獨斷으로 兵力을 死地로 投入하지 말라. 軍사에는 義兵, 應兵, 忿兵, 食兵, 驕兵 등으로 그 性格을 區分할 수 있는데 忿兵은 敗한다고 하였다. 사람의 一時的인 憤怒는 다시 喜悅로 바꿀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고 古人은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 3. 陰城 附近 戰鬥 (1950년 7월 4일 부터 1950년 7월 10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7, 8 호  
상 황 도 제 22~26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1 군단	장 소장 金 弘 壹	제 12 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제 6 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제 1 대대	장 소령 申 鉉 洪
제 7 연대	장 중령 林 富 澤	제 2 대대	장 소령 李 茂 重
제 1 대대	장 소령 金 龍 培	제 13 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鍾 洙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振 暉
제 3 대대	장 소령 李 南 浩	제 2 대대	장 소령 安 光 榮
대전차포중대	장 대위 朴 哲 遠	제 3 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제 16 포병대대		右인접부대	
제 2 포대	장 대위 李 萬 浩	제 6 사단	
제 1 사단	장 대령 白 善 燁	제 2 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 11 연대	장 대령 崔 慶 祿	左인접부대	
제 1 대대	장대리대위 張 根 述	首都사단	장 준장 李 俊 植
제 2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	" 金 錫 源 (7.7부터)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在 命		
		敵 軍	
제 2 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 48 연대	장 중좌 金 致 九
"	중장 金 武 亭	제 49 연대	장 미 상
	(7.10부터)	제 50 연대	장 중좌 李 乙 善
제 15 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포병연대	장 대좌 李 連 燮

#### 나. 전투전의 개황

北傀는 首都 서울의 强占에 滿足치 않고 南侵의 野慾을 붓추지 않았으며, 陸軍本部는 그들을 車嶺山脈을 연한 線에서 阻止코자 하였다. 本 戰鬥은 7월 4일~10일 사이에 제 6 사단 제 7 연대(장, 林富澤 중령)와 제 1 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車嶺山脈의 回廊인 陰城부근에서 北傀 제 15 사단(장, 朴成哲)

과 激突케 된 一戰이다.

이 陰城地帶은 京釜道와 忠清北道와의 道界를 이룬 車嶺山脈의 中央部에 形成된 盆地로서 地理적으로나 交通上의 要衝이었던 까닭에 彼我間에 이곳의 先占이 곧 中部地域 制扼의 關鍵으로 보고 爭奪의 角逐을 벌리게 된 곳이다.

敵軍의 狀況: 北傀는 6월 28일 서울을 掌中에 넣고, 30일부터는 제 2차 作戰이라는 口號를 내세워 主力을 京釜街道로 집중하는 한편, 一部를 忠州, 長湖院, 安城方面으로 指向하여 中部 內陸地帶을 따라 철수하는 我軍의 退路를 차단하려는 企圖였다.

長湖院方面으로 南下한 醜敵은 北傀 제 15사단(장, 소장 朴成哲)으로써, 이들은 그간 제 2군단(장, 소장 金光俠)의 豫備가 되어 華川으로부터 春川—原州에 이르기까지 제 7사단(장, 소장 李宇)을 後繼하였던 것이나, 原州에 이르러 제 1線에 投入되었으며, 그 方向을 驪州로 돌려 7월 3일 長湖院을 거쳐 4일에는 屏岩里(陰城 北西쪽 13km)와 無極里(屏岩里 南쪽 4km)를 各各 侵攻하고 陰城—忠州方面으로 나가려는 心算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들은 急遽 長湖院方面으로 轉進중인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와 陰城北方에서 遭遇하고 一戰을 치룬데 이어, 8일에는 同연대를 作戰統制케 된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과 對戰케 된 것이다. 北傀 제 15사단은 1950년 3월 會寧에서 中共軍 出身 3개대대를 基幹으로 하여 民靑訓練所 3개 支隊를 이에 統編成한 部隊이며, 訓練程度가 낮고 戰鬪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一戰도 없이 나올 수 있었던 勝勢를 탄것이다.

그 兵力은 完全편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支援부대로 增強된 것으로 보이는 10,000餘명의 兵力을 維持하고 있는듯 하고, 裝備는 裝甲車 20대, 自走砲 11문, 122mm曲射砲 19문, 76mm曲射砲 28문, 45mm 對戰車砲 36문, 120mm와 82mm迫擊砲 106문을 保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我軍의 狀況: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陸軍本部 명령에 따라 原州—堤川間의 阻止線을 7월 1일 ~ 3일 사이에 제 8사단에 引繼하고, 사령부를 忠州로 옮긴 다음 隸下연대를 利川—忠州間에 展開케 하였는데, 利川으로 轉進한 제 19연대(장, 閔丙權 중령)가 春川으로부터 迂回한 것으로 보이는 北傀 제 2사단(장, 소장 李青松)을 遲延시키면서 鎭川方面으로 철수한 까닭에, 忠州北쪽의 南漢江邊에 展開케 한 제 2연대(장, 咸炳善 대령)와 40km의 間隔이 생기게 되었다.

사단장은 이때 忠州 中학교에서 再編成중인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를 即刻 長湖院方面으로 進出시켜 이 空間을 補填코자 하였던 것인데, 이는 當時 陸軍本部의 계획과도 一致된 결과로서, 陸軍本部는 5일 이를 作戰명령 제 20호로써 제 6사단에 下達하고 竹山—長湖院線을 확보하게 하였다.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는 7월 2일 神林(原州 南쪽 8km)에서 障地를 제 8사단에 引繼하고, 그 날 밤으로 忠州로 移動하고 있던 중 4일 밤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長湖院으로 出動케 된 것인데, 敵이 이미 여기를 占領하고 陰城—忠州方面으로 進出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의 前衛인 제 2대대(장, 金鍾株 소령)가 陰城 北方 同樂里附近에서 이들 敵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 7연대가 中央路上의 要衝에서 北傀 제 15사단의 南下를 阻止하고 있을 무렵, 水原의 陸軍本部는 平澤으로 이동하고 水原外廓에 配置된 我軍主力부대도 支離滅裂상태가 되어 南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 彼我를 識別하지 못한 Australia機의 誤爆은 이들을 더욱 困境속으로 몰아넣는 結果를 초래케 하였다. 한편, 이때 美 地上軍의 先遣隊가 烏山 北쪽에 展開하고 그후 제 24사단의 本隊가 續續 釜山에 到着하여 北上하고 있는 狀況이었다.

平澤으로 철수중에 있던 陸軍本部는 7월 5일 零時을 期하여 部隊를 整備하고 戰線을 調整하여 作戰의 轉換點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陸軍本部가 直接 管掌해 온 全部隊에 對한 作戰指揮權의 一部를 新設한 제 1군단에 移讓하고, 指揮機能을 喪失한 사단을 廢 統合시켜 指揮體制를 확립케 하는 한편으로 京釜國道로 집중된 各 部隊에 作戰地帶을 割當하여, 이때까지의 縱的인 遲延戰概念에서 橫的인 概念으로 轉換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戰線은 이때부터 橫的으로 형성되었는데, 陸軍本部는 제 8사단(장, 李正一 대령)을 丹陽地區에,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을 忠州地區에, 그리고 新設한 제 1군단 사령부 예하의 首都사단(장, 李俊植 준장)과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 및 제 2사단(장 李翰林 대령)의 3개사단을 陰城—潁川地區에 各各 展開시켜 安城—平澤地區에 展開한 美 제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과 連繫케 하였다.

그러나 敵은 5일 烏山北方의 美 地上軍 先遣隊를 一擊에 拂리치고 6일에는 安城—平澤을 위협한 까닭에 陸軍本部는 部隊를 收拾하기도 前에 大田으로 이동하게 되고, 제 1군단 사령부 및 그에 配屬된 部隊들도 急히 列車와 車輛 또는 徒步로 各己의 目標地域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 1군단의 右翼으로써 陰城地區를 防守케 된 제 1사단도 隸下部隊의 集結이나 再編成을 考慮할 餘裕도 없이 陰城을 向하여 이동하기 始作하였다.

## 다. 작전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7월 4일 20.00 長湖院을 거쳐 忠州로 철수한 사단憲兵隊 및 江原道 戰鬪警察隊로부터 『北傀 제15사단이 3일 長湖院을 침습하였다』는 報告를 받았는데 이때에 제 2연대(장, 咸炳善 대령)는 忠州北쪽 南漢江邊에, 제19연대(장, 閔丙權 중령)는 利川에 그리고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는 忠州 中학교에 各各 駐紮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敵이 그대로 南進할 경우 西部戰線이 위급해질 것임을 直感하고,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에게 『長湖院을 即刻 奪取하라』고 命令하였다.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으나, 밤이 깊어가는 이때에 敵情도 모르고 夜間에 行動한다는 것이 無謀한 일로 보고, 그는 于先 1개대대로써 敵情을 確認케 한 다음 그에 相應한 對策을 講究할 腹案임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各 大隊장과 參謀要員들에게 自身의 所見을 要旨 다음과 같이 披歷하였다.

『① 敵은 現在 長湖院線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연대는 이 敵을 破摧하고 長湖院을 확보하려 한다.

③ 제 2대대는 지체없이 該方面으로 急進하여 敵과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 兵力規模와 進出先을 보고 하라.

④ 제 1, 제 3대대는 出動態勢로써 대기하라.

⑤ 협조지시

㉠ 各隊의 機動은 車輛으로 한다.

㉡ 防光, 防音을 철저히 하라.

㉢ 移動間의 通信은 無線으로 한다.』

## (2) 작전실시

## (가) 제 7연대의 戰況(7.4~7)

7월 4일 : 제 7연대는 그간 春川地區 戰鬪를 비롯하여 神林地區(原州 南쪽 8km)戰鬪에 이르기까지 질서있는 遲延戰을 敢行하였으나, 한편 적지 않는 損失을 입었던 것이며 忠州에 이르러 비로소 兵力을 點檢하고 部隊整備를 할 수 있는 時間을 갖게 되었다.

出動에 앞서 確認된 兵力은 장교 88명 사병 1,626명으로써 開戰初에 比하여 장교 31명 사병 784명 都舍 815명의 死傷者를 내었으며, 장비는 105mm(M-3) 6문, 57mm對戰車砲 4문, 81mm迫擊砲 10문, 60mm迫擊砲 18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 1. 연대장의 戰鬪指導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開戰初부터 兵力補充의 時機를 豫見할 수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戰鬪에 임할때 마다 敵과의 正面衝突을 피하게 하고 그들을 誘引하면서 側背에서 奇襲을 加한 다음 撤收하는 것으로 兵力의 損失을 막았던 것이며, 이번 戰鬪에서도 이의 實踐을 強히 調였다.

## 2. 毛陶院附近의 遭遇戰(第 2 大隊)

제 2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연대장으로부터 명령을 受領한 即時로 각 中대를 車輛化하여 出動을 點檢하고 있던 차에, 이를 確認키 위하여 나온 사단 作戰參謀 梁仲鎬 중령으로부터 『빨리 出動하라.』는 督促을 받기도 하였는데, 연대 집결지인 忠州 中학교를 떠난 것은 22.00가 좀 지난때였다.

出發에 앞서 대대장이 각 中대장에게 하달한 命令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7.4. 22.00를 期하여 長湖院 方面으로 進出하여 南下하는 敵을 阻止擊退하려 한다.

② 제 6중대는 尖兵중대로써 대대의 500m前方에서 行軍하라.

④ 各隊의 車輛은 小型燈만을 使用하라.

⑤ 各隊의 車間 거리는 50m를 유지하라.

⑥ 기동중 敵과 遭遇時는 何時라도 對應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라.

⑦ 出動順序는 제 6, 제 5중대 대대본부, 그리고 제 8, 제 7중대 順으로 한다.

⑧ 대대장은 제 5중대와 같이 行動한다.』

대대는 正時에 尖兵중대로부터 校門을 떠나기 始作하여 行軍縱隊가 同樂里(陰城 北쪽 7km)附近에 이르렀을 때, 앞을 달리던 尖兵소대의 車輛이 停車하면서 소대장 尹銖庸 소위

가 중대장 앞으로 달려가 『前方에서 機械化部隊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었다.』고 報告하였다. 중대장은 이를 대대장에게 報告하였는데, 대대장은 옆에 있는 作戰장교 李祐熙 중위와 제 5 중대장을 바라보면서 『들었느냐?』는 表情을 지었으나 두사람 다 못 들었다는 눈치였고, 대대장 自身도 數分동안 귀에 손을대고 傾聽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대대장은 尖兵소대장 尹 소위가 緊張한 鬨으로 보고 行軍을 계속토록 促求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低速으로 달리게 하면서 前面에 대하여 한층 注意力을 집중케 하고 各車輛의 電燈을 끄게 하였다. 외냐하면 이때부터는 月光만으로서도 充分히 走行할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車輛縱隊가 다시 움직이기 始作하여 同樂里를 通過하고 山 모퉁이를 몇개인가 들었을 때 尖兵소대의 車輛에 据置한 50mm機關銃이 불을 탄하기 始作하였다. 이는 곧 兩側의 先頭部隊가 맛 부딪친 것인데, 소대장 尹 소위는 當時의 狀況을 回顧하면서 『우리 소대는 分明히 裝甲車의 騒音을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나는 口徑 50mm機關銃과 各自의 小銃에 彈藥을 裝填케한채로 조심스럽게 前進시키고 있었는데, 毛陶院의 한 山 모퉁이에서 그들 偵察隊로 보이는 裝甲車 1대와 數대의 Side car와 衝突하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런 일 이어서 本隊에 연락할 사이도 없이 即刻 射擊명령을 下達하고 그들에게 集中射擊을 加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한발의 應射도 못하고 退却하였다.』고 말 하였다.

이때 300m後方을 따르던 대대장은 갑작스럽게 銃聲이 울려퍼지자 敵과 遭遇한 것으로 判斷하고 即刻 各 중대를 下車시켜 道路 北側의 山麓으로 展開시키고 同時에 제 8 중대장 대리 申用寬 중위로 하여금 敵의 退路에 向하여 遮斷사격을 加하게 하였다. 應射가 없는 것으로 보아 必是 少數로 構成된 敵의 偵察隊 要員이겠으나, 그들이 벌써 陰城 가까이 接近하고 있음을 깨닫고, 各 중대의 配置를 조정하여 그들의 夜襲에 對備케 한 다음, 연대장에게 최초의 接觸 狀況을 報告 하였다.

그뒤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나, 지난 밤 交戰한 자리에는 裝甲車 1대와 Side car 2대 그리고 屍體 5구가 버려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7월 5일 : 이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개었다하는 장마철 特有的 날씨였다.

### 1. 연대장의 措置

제 7 연대장은 이날 02.00에 제 2 대대장으로부터 최초의 接敵보고를 받고 비로소 敵과 近接하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無極里—陰城街道가 開放된 상태임을 憂慮하고 待機시켰던 제 1 대대(장, 金龍培 소령)를 곧 이 곳으로 轉進케 하고 李南浩 소령이 지휘하는 제 3 대대를 陰城에 控置시킨 腹案을 세웠던 것이나, 05.00에 사단장으로부터 『1개대대를 鎭川으로 急進시켜 제 19 연대의 철수를 掩護케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까닭에, 出動중에 있는 제 2 대대를 鎭川으로 反轉케 하고 제 3 대대를 屏岩里 方面으로 轉進케 하였다.



연대장이 이와 같은 措置를 취하게 된 까닭은, 제 3 대대(장, 대위 河相道 대위)가 橫城 南쪽의 前川 南岸戰鬪에서 分散되었기 때문에, 연대 作戰주임 李南浩 소령을 제 3 대대장으로 任命하여 同 대대를 收拾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대장은 05.00에 제 2 대대를 毛陶院에서 反轉케 한데 이어 06.00에는 제 1, 제 3 대대의 出動을 확인하고, 08.00에는 연대본부를 陰城으로 移動시켜 3개 方向으로 分散된 各 대대의 狀況을 파악코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본부가 陰城으로 이동하고 있을 무렵, 無極里로 轉進중인 제 1 대대로부터 偵察隊로 보이는 敵 1개 中대 規模를 擊退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3時間 뒤에 油峴에서 1개 대대로 推算되는 敵의 逆襲을 받고 있다는 보고와 아울러 赴援要請을 받게 되었다.

연대장은 예비대를 확보하지 못한 탓으로 于先 연대를 直接支援하고 있는 제 2 砲兵中대(장, 李萬浩 대위)와 57mm對戰車砲中대(장, 朴哲遠 대위)를 所餘里로 推進시키고 事態를 觀察하고 있었는데, 鎭川方面으로 轉進시킨 바 있는 제 2 대대가 때에 맞게 돌아왔기 때문에 同 대대로 하여금 제 1 대대를 赴援케 하였다.

그리고 屏岩里方面으로 進出し킨 바 있는 제 3 대대에게는 敵과의 正面衝突을 피하게 하고, 有利한 地形에서는 奇襲을 加하여 最大限의 時間을 얻도록 融通性 있게 對處토록 이르고, 山岳地帶로된 연대의 中央地帶에 對하여는 地帶內를 敵制할수 있는 加葉山(陰城 北쪽 4km)에 春川 警察署長 趙圭洪 中령이 지휘하는 戰鬪 警察隊를 配置하여 警戒임무를 수행케 하는 한편, 一部 兵力으로서는 避難民의 統制와 案內를 맡게하여 一段의 戰鬪態勢를 갖추게 하였다.

이와 같이 長湖院方面으로 進出하려던 제 7 연대가 陰城地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忠州의 제 2 연대는 健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利川方面으로 轉進하였던 제 19 연대(장, 閔丙權 中령)는 敵 제 2 사단(장, 소장 崔賢)의 強壓으로 安城—鎭川方面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따라 忠州에 있던 사단 사령부도 이날 晉坪으로 이동하고 西部戰線과의 連繫를 試圖하였던 것인데, 이 무렵 陸軍本部는 作戰명령 제 23호를 하달, 제 6 사단으로 하여금 新設한 제 1 군단의 側方이동을 엄호케 하였다.

## 2. 제 2 대대의 會坪에서의 反轉

제 2 대대장은 날이 밝음과 同時에 戰利品을 後送케 하고 部隊를 整齊한 다음, 毛陶院附近까지 轉進하였는데, Jeep車를 탄 傳令이 와서 연대장의 명령이라 하면서 『대대는 곧 鎭川으로 나가 제 19 연대의 철수를 掩護하라.』고 傳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進路를 돌려 大召院에 이르렀는데, 대대의 通過를 기다리고 있던 作戰참모 梁仲鎬 中령이 『忠州로 갈 必要없이 바로 鎭川으로 直向하라.』고 하면서 연대 본부와 사단 사령부도 곧 陰城과 晉坪으로 이동하게 될 것임을 알려 주었다.

따라서 대대는 바로 鎭川으로 向하게 되었으며, 아침 食事は 營坪에서 하게 되었다. 여기서 食事準備를 하고 食事を 마치는데 한 時間이 걸려 10.00에 出發하려고 하였는데, 사단 연락장교 吳成行 대위가 황급히 달려와서 傳하기를 『鎭川은 이미 敵에게 失陷되었으니 갈 必要가 없게 되었다. 대대는 陰城으로 돌아가 연대장의 作戰指示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陰城으로 다시 反轉하게 되었으며, 제 1 대대의 東側方에서 同대대의 無極里 進出을 掩護하게 되었다.

### 3. 油峴附近的 遭遇戰(第 1 大隊)

제 1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無極里로 進出하여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6.00에 집결지에서 部隊를 出動시켰다.

偵察임무를 면 제 3 중대 제 3 소대장 李相雨 중위가 지휘하는 偵察隊가 08.00 所餘里(陰城 西北쪽 3km)를 지나 油峴(一名, 기름고개)으로 접어들려고 할때, 고개를 넘는 一團의 무리가 안개속에 가물거리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李중위는 本隊에 정지신호를 보내고, 車는 길 右側畝속에 음폐케한 다음 隊員은 道路를 廠制할 수 있는 언덕 위로 配置하여 接近하는 무리의 動態를 살피게 하였다. 그들 先頭에는 自轉車를 탄 軍人과 數名의 私服한 사람이 앞장서고, 1개 중대 규모로 보이는 兵力이 行軍隊形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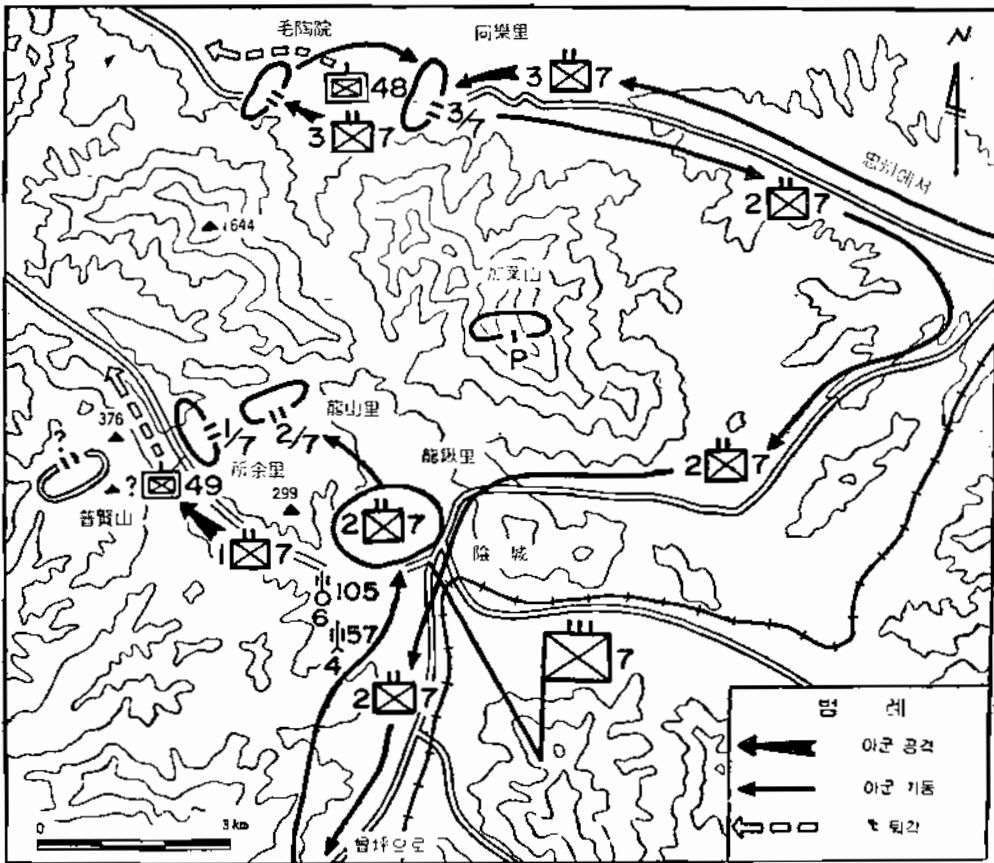
李 중위는 『我軍일지도 모르니 仔細히 살피라.』고 注意시키자 隊員들은 異口同聲으로 『背囊을 메고 帽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敵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射殺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敵은 100m 距離로 接近하면서 北德軍의 正體를 드러냈는데, 500m 뒤에 있는 本隊에 報告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들과 같이 行動하고 있는 私服차림의 사람을 除外시킬 수도 없었다. 李 중위의 『射擊開始』의 號令과 同時에 銃擊이 그들에게 集注되었고 奇襲당한 敵은 앞을 다루어 退却하려 하였으나 제 3 중대(장, 金明益 대위)가 發射한 60mm 迫擊砲彈이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하였다. 이윽고 중대장이 달려 나오고 同중대가 加勢하였을 때에는 敵은 40餘具의 屍體와 自轉車 2대를 버리고 潰散한 뒤였다.

그로부터 3時間이 지나 제 1 대대의 主力이 기름고개의 頂上部에 이르렀을 때에 敗走한 敵의 本隊로 보이는 1개대대규모가 普賢山(기름고개 西쪽의 △507) 東쪽의 險한 地形을 利用하여 砲擊을 加하면서 同대대의 前進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로 因하여 제 1 대대는 연대에 赴援을 要請하고, 기름고개 東쪽의 △385일대에 布陣하여 그들과 對峙케 되었으며, 18.00에 는 龍山里(陰城 北쪽 4km)로 轉進한 제 2 대대와 連繫하여 그들의 夜間 侵透에 對備하였다.

### 4. 同樂里附近的 攻擊戰(第 3 大隊)

제 3 대대(장, 李南浩 소령)는 제 2 대대가 毛陶院에서 鎭川을 向하여 떠난 다음 掩護部隊가 없는 가운데 屏岩里로 向하였다. 同대대가 08.00同樂里附近을 通過하고 있을때, Side car

◇ 상황도 제22호 陰城地區戰鬪(7.5.00.00~24.00)



를 先頭로한 敵의 偵察隊와 부딪치게 되어 車輻行軍으로부터 戰鬪態勢로 突入케되었는데, 마치 그 자리가 지난밤 제 2대대가 占領하였던 곳이어서 쉽게 展開하여 即刻 射擊姿勢를 取할 수 있었다. 이에 反하여 敵은 大路上에서 右往 左往하였다.

대대장 李南浩 소령은 지체하지 않고 敵의 退路에 對하여 迫擊砲彈을 集注케 하고 이어서 제 9중대(장, 鄭在甲 중위)와 제 11중대(장, 印聖勳 중위)로서 追擊케 하는 한편 제 10중대(장, 金聖培 중위)와 제 12중대(장, 柳承源 중위)의 射擊으로 攻擊中隊를 支援케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대대는 退却하는 敵을 毛陶院 北쪽까지 몰아 붙이고, 一擊에 屏岩里까지 進出코자 하였는데 17.00에 그들의 새로운 部隊가 이에 合流한 까닭에, 대대장은 日沒時까지 火力으로서만 阻止하다가 正面對決의 不利를 피하기 위하여 제 9중대를 殘置시키고, 主力은 同樂里의 舊陣地로 옮기게 하여 그들의 夜襲에 對備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제 9중대장 鄭在甲 중위의 報告에도 敵影을 發見할 수 없다고 하였다.

7월 6일 : 이날 東天이 밝자 膠着된 油峴溪谷의 東과 西에서 銃擊이 한층 熾烈度를 더 하였다. 연대장은 04.00를 期해 제 1, 제 2대대의 攻擊을 再興케 하고 無極里(陰城 西北쪽 12km)의 確保를 促求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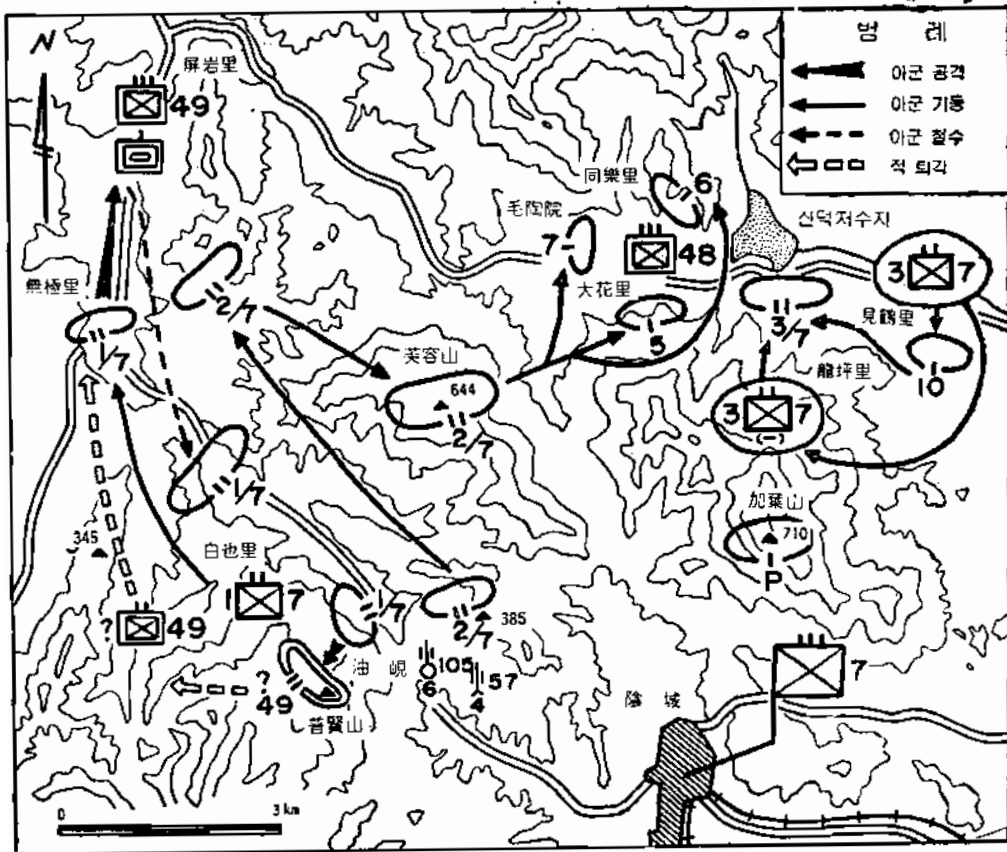
各 대대는 지난 밤사이 敵이 察知하지 못하도록 間歇的인 射擊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 1 대대가 普賢山 北端部의  $\Delta 376$ 를 제 2대대가  $\Delta 385$ 을 各各 確保하여 次期攻擊을 위한 반판을 굳히고 黎明攻擊에 對備하고 있었다.

1. 無極里附近의 攻擊戰(第1大隊)

04.00 約定된 信號에 따라 제 1, 제 2대대 및 제 2포병중대는 各種 火器의 火力을 一齊히 普賢山으로 集注시켰다. 이에 敵도  $\Delta 385$ 에 火集帶를 形成한 듯 하더니 我軍의 側背射로 말미암아 退却의 氣味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제 1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機會를 놓칠세라 81mm와 60mm의 迫擊砲로 계속 制壓토록 하고 觀測장교 沈湖殷 소위를 시켜 105mm의 砲擊을  $\Delta 346$ (普賢山 西北쪽 2km) 方向으로 延伸

◇ 상황도 제23호 陰城地區戰圖(7. 6. 00. 00~24. 00)



시킨 다음 제 1중대(장,李大鎔 중위)를 右제 1線, 제 2중대(장,吳允石 중위)를 左제 1線으로하여 普賢山을 目標로 反擊케 한 바, 敵은 벌써 同高地를 버리고 △346 方向으로 退却하는듯 하였다.

이렇듯 대대는 攻擊을 開始한지 1시간도 못되어 普賢山을 占領하고, 계속 제 2대대와 제 2포병중대의 支援을 받으면서 敗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12.00에는 無極里를 占領하였으며, 14.00에는 無極里 北쪽 2km까지 進出하였는데, 敗走一路에 있던 敵이 새로운 部隊로 增援된 듯 1개 연대규모가 裝甲車를 앞세우고 砲擊을 加하면서 대대에 壓力을 加하기 始作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대장은 無極里의 확보를 포기하고 白也里(無極里 南쪽 3km)의 △351에 陣地를 急編케 하여 防守態勢를 取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이 戰鬪에서 敵 270명을 射殺하고 6명을 포로하였으며, 45mm對戰車砲 1문, 重機關銃 9정, 輕機關銃 1정과 自動小銃 2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結우기도 하였으나, 사병 5명을 손실하였다.

## 2. 同樂里의 奇襲戰(第 2大隊)

제 2대대는 제 1대대와 併行하여 無極里를 攻擊하고, 13.00에는 同地域의 東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였으나 제 1대대가 裝甲車를 앞세운 敵의 逆襲을 받자 白也里로 철수한 까닭으로 同대대도 연대 명령에 따라 △644(加葉山 西쪽 5km)로 철수하고, 敵侵이 예상되는 山間路에 대한 防守에 임하는 同時에 屏岩里——大召院間과 無極里—陰城間的 敵情을 報告하



<제 7연대 제 2대대가 占領한 △644(芙蓉山)>



〈北傀 제48연대가 駐屯한 同樂國民學校〉

는 附加的 임무를 수행케 되었다.

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部隊를 岡高地로 이동시켜 四周防禦와 警戒가 용이하도록 配置하였으나 그의 表情은 沈痛하였다. 그가 이곳에 當到하기 얼마 前 避難民들이 많이 湧여 있던 어느 庵子앞을 지날때 『어찌하여 國軍이 敵을 보고도 싸우지 않고 逃亡치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며 어린 學生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고 한 女子의 울부짖던 소리가 마음에 걸렸던 까닭이다.

金 소령은 雙眼鏡으로 屏岩里와 無極里를 두루 살피고 忠州와 陰城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두 줄기 길을 번갈아 追跡하기 始作하여, 그 焦點이 同樂里에 이르렀을때 雙眼鏡을 내리고 손 수건으로 눈을 닦은 다음 다시 드러다 보고 있었다. 그곳은 지난 밤 敵과 최초로 마주쳤던 곳 이기도하며 或 제 3 대대가 布陣하고 있을지 모르는 同樂里였기 때문이다. 그는 몇번을 되풀이 하며 확인한 끝에 傳令을 시켜 中대장들을 召集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再확인케 하였다.

雙眼鏡에 비친 狀況을 當時 제 6 중대의 尹銖庸 소위가 말하기를 『대대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 곳은 어제밤 敵과 遭遇했던 마을인데, 軍人들이 바깥거리고 있었으며 學校 校庭에는 10餘문의 野砲가 砲口를 忠州로 向하여 放列되어 있었고, 步兵部隊의 又銃線이 秩序整然하게 列을 지어 運動場을 闊 매웠고 路上에는 裝甲車를 포함한 各種 車輛 數10대가

세워져있었다.』고 回顧하였다.

各 中대장은 敵이 完全히 無防備狀態에서 休息을 取하고 있음을 確認하자, 中대장에게 建議하되 『敵을 눈 앞에 두고 망서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두워지기 前에 처야합니다』고 攻擊할 것을 主張하였다.

中대장 金鍾洙 소령은 當時의 心情을 吐露하기를 『우리는 300餘의 小銃兵인데, 比하여 그들은 5~6倍가 넘어 보이는 大兵力에 重裝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中대장인 나로서는 慎重을 期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萬一 일이 잘못될 경우 兵力이 크게 損傷할 것은 勿論, 中대장의 명령에 抗拒하였다는 責任을 免치 못하리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各 中대장의 建議가 한결 같았고, 거기에서 얼마 前에 본 어린 學生들과 避難民들이 『이 敵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곧 攻擊키로 決心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中대장은 이 絶好의 機會를 잃게 되면 오히려 저들로부터 逢變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推察하고, 先 行動 後 報告의 決意下에 鬪을 다음과 같은 命을 下達하였다.

『① 中대는 同樂里에 侵襲한 敵을 擊滅하려 한다.

② 제 5 中대는 1 개 소대를 이곳에 殘置시키고, △220(同樂里 南쪽 1km) 北端部를 占領하여 同樂里의 敵을 擊滅하라.

③ 제 6 中대는 △216(同樂里 東쪽)의 南端部를 占領하고 同樂里의 敵을 擊滅하라.

④ 제 7 中대는 △215(同樂里 西쪽)—大花里(△215 南쪽)를 占領하고 同樂里의 敵을 擊滅하라.

⑤ 제 8 中대는 제 5 中대 地域으로 이동하여 敵의 砲陣地를 擊破하라.

⑥ 鬪조지시

㉞ 各 中대는 位置를 철저히 하고 敵에게 察知당하지 않도록하라.

㉟ 제 6 中대의 射擊開始에 맞추어 一齊히 사격을 개시하라.

㊱ 我軍間의 誤擊을 防止하기 위하여 陣地이탈을 禁한다.

⑦ 中대장은 제 8 中대와 같이 위치한다.』

명령하달이 끝난 15.00, 各 中대는 3 개 方向으로 이동하기 始作하고, 부中대장 許容尤 대위는 殘留隊長으로써 제 5 中대의 1 개 소대를 지휘하여 △644를 防禦케 되었다.

中대장 金鍾洙 소령과 81mm 迫擊砲반장 申用寬 중위는 各己 砲彈 2 발씩을 메고 △220로 이동하고 있을 때 제 6, 제 7 中대는 눈과 발, 그리고 3 번 道路를 橫斷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前進速度가 遲延하였다.

그러나 各 中대는 敵에게 發見당함이 없이 그들로부터 不逾 200~300m 밖에 앞되는 各己의 陣地로 이동 完了한 듯 하였고, 17.00 正刻 가장 먼 距離의 제 6 中대로부터 銃聲이 울려 퍼졌다.

이에 따라 제 5, 제 8 중대는 同樂 部落을 向해 小銃射擊을 集注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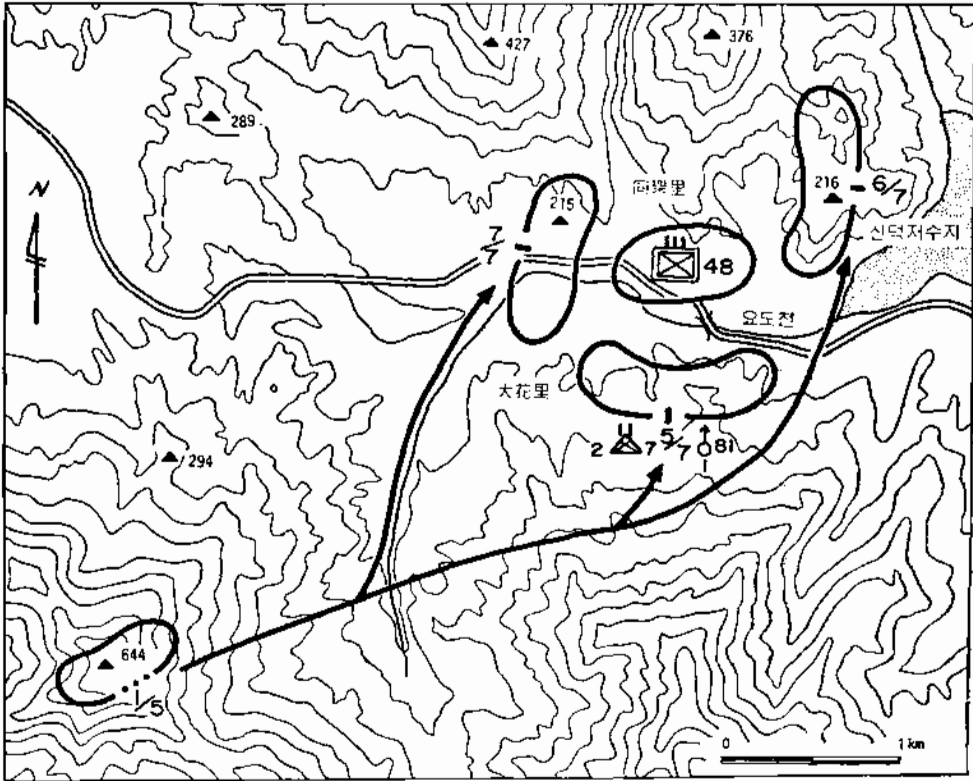
이때에 敵은 警戒兵 하나 세우지 않고 옷을 벗은채로 나무그늘밑에서 잠에 빠져 있었고 다만 그 一部가 저녁食事 준비를 위하여 民家를 몰락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때에 奇襲사격을 받은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草露와 같이 사라지거나, 救命圖生한 者들은 方向을 分揀치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하는 사이 我軍이 射擊한 鐵丸의 標的이 되어 擊殺되기도 하였는데, 이 渦中에서도 그들 砲兵만은 砲口를 제 8 중대가 있는 곳으로 돌려서 사격을 加하는 것이었다. 各 중대들이 워낙 그들에게 가까이 近接해있었던 관계로 그들이 發射한 砲彈은 相當히 遠距離에 落下하는 것 같았고 砲手들은 射距離를 조정하는 듯 砲身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대대에서는 砲板의 未着으로 아직 한발의 砲彈도 날리지 못하고, 다만 치세우고 있는 그들의 砲身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때, 피투성이가 된 부射手가 砲板을 메고 뛰어왔다.

이를 본 대대장은 迫擊砲반장 申用寬 중위에게 『네가 直接사격하라. 그것도 敵彈이 날아 오기 前에 單 한발로 그들 砲陣을 壞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全滅한다. 빨리 사격하라.

◇ 상황도 제24호 同樂里戰圖(7.6-7)





射距離는 300m이다.』라고 소리쳤다.

申用寬 중위는 砲脚이나 照準鏡(Sight)을 設置할 겨를도 없이 砲身을 砲板위에 올려 놓고 팔로 高低를 조정하면서 1발을 날렸다.

마침 이때가 그들도 距離조정이 끝난듯 砲身이 固定되고 砲手들이 砲彈을 裝填하려는 아슬아슬한 瞬間이었는데, 同중위가 發射한 제 1彈이 그들 砲陣 한 가운데 떨어지고 제 2彈, 제 3彈이 野積한 그들 砲彈에 命中되어 連鎖爆發을 일으키니, 그곳의 兵員과 彈藥箱子들은 風塵과 같이 하늘 높이 날아 버리고 말았다.

이윽고 어두움이 깔리면서 그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우글거리는 소리는 如前하여, 각 중대장으로부터 掃蕩戰을 하자는 建議도 있었으나 대대장은 我軍間의 衝突을 防止하기 위하여 現위치를 固守 하면서 警戒만은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 3. 제 3대대의 戰況

대대장 李南浩 소령은 이날 아침 아무 異狀없음을 확인하고, 毛陶院에 殘置한 제 9중대(장, 鄭在甲 중위)까지도 本隊에 合勢케 하여 08.00에는 全員을 車輛化하여 同樂里로부터 철수케 하였다.

이는 연대장의 指示에 따른 것으로써 敵을 誘引하기 위한 方法이었다. 따라서 대대장은 兵力輸送車輛이 見鶴里(陰城 北쪽 6km)附近에 이르렀을때 先頭에서부터 차례로 下車시켜 空車輛은 부대대장 趙顯默 대위의 지휘하에 陰城의 연대본부로 集結케 하고 兵力을 隱蔽된 곳으로 移動시킨 다음, 隱密하게 제 10중대(장, 金聖培 중위)만을 그곳에 殘置시켜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라』고 命命하였다. 그리고 대대 主力은 馬水里(見鶴里 南쪽 2km)—加葉山을 거쳐 龍坪里附近으로 迂回시켜 14.00에 新德貯水池 南端의 S字型으로 된 3번道路邊에 展開시켰다.

結局 대대는 아침에 철수하기 前과 거의 같은 場所로 回轉하여 配置한 것이었으나 毛陶院과 同樂里附近의 住民들이 볼 때에는 我軍이 이미 忠州로 철수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陰城을 補強키 위한 연대장의 意圖와도 符合되는 것이었다.

14.30이 지나면서 避難民의 隊列이 路上을 메웠고 한결같이 南으로 向하여 황급히 내닫고 있는 것으로 보아 敵도 가까운 곳에 接近하고 있음을 皮膚로 느끼게 하였다. 이때 毛陶院에서 왔다는 한 避難民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先發隊로 보이는 部隊가 裝甲車 3대와 Side car 5대에 分乘하여 14.00경 毛陶院을 襲侵하였는데, 그들은 「어제 이곳에서 國軍과 싸웠다.」고 하면서 國軍이 있는 곳을 알리라고 협박하였다고 하며, 또한 그들은 住民들이 「國軍은 오늘 아침 일찍 車를 타고 도망쳤다.」고 하여도 믿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나는 住民마다 異口同聲이었으니 그들도 마음이 놓인듯 本隊에 알리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빠져 나오는 중이다.』라고 하였다.

대대장은 여러 住民의 提報를 綜合分析한 결과 不遠間에 그들이 이곳을 通過하리라는 것을 각 中대에 통보하여 防守態勢를 굳게하도록 警覺心을 促求한 바 있었는데, 해질무렵 同樂里附近에서 砲聲과 銃聲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同地區로부터 一團의 兵員이 대대 前面으로 向하여 내닫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대의 左제 1線인 제11중대장 印聖勳 중위가 그들이 非武裝한 北僞軍임을 確認하여 報告하자, 대대장은 그들이 대대 火網속으로 뛰어들때까지 射擊을 保留케 하였는데, 어느 兵士의 誤發이 대대 全火器의 集中射擊을 誘發케 하였으며, 이에 놀란 敵은 어두움을 利用하여 道路 北쪽高地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 4. 연대장의 措置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敵의 움직임으로 보아 屏岩里와 無極里가 이미 그들 手中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陰城—忠州方面으로 進出하려는 그들 企圖를 看破하고 長湖院方面에 대한 攻擊을 止揚케 하는 한편 陰城地區에 대한 防守態勢를 講究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대장은 無極里까지 進出한 제1대대를 白也里로, 제2대대를 △644로 各各 철수케 하고, 3번 道路를 따라 屏岩里로 進出케 한 바 있는 제3대대도 加葉山 北端으로 迂回케 하여 陰城 확보에 重點을 두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대대는 대체로 14.00를 前後하여 계획된 陣地를 確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日沒 무렵에 제1, 제3兩대대로부터 제2대대가 同樂里附近에서 交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接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각 대대장에게 現位置 固守를 당부하고 특히 제3대대장에게는 『제2대대와와 충돌을 防止하기 위하여 夜間이동을 금한다. 그러나 天明과 더불어 제2대대와 연계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7월 7일 : 이날도 晴明한 날씨였으나 찌는듯한 무더위는 피 비린내와 시체에서 풍기는 惡臭를 더하게 하였다.

#### 1. 同樂里의 戰果擴大

연대장은 이날 05.00, 지난 日暮時부터 連絡이 杜絶되었던 제2대대로부터 『同樂里에서 敵 1개연대 殲滅』이라는 勝戰報告를 받게 되었다.

제2대대의 戰況 : 안개가 알게 깔린 同樂里의 아침은 快晴하였으나 그 周邊은 廢墟와도 같이 조용하였다. 學校 運動場에 整列했던 各種 裝備는 部分的으로 흩어졌으나 거의 어제와 같은 狀態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죽은 敵의 兵員들은 無秩序하게 흩어져 있었다.

戰場을 대체로 확인한 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05.00에 대대 作戰장교 李祐植 중위에게 『아직 正確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敵의 1개연대가 殲滅된 듯하다. 그들 裝備後送을 위하여 연

대의 全車輛이 所要될 것으로 보이니 빨리 가서 연대장에게 報告하는 同時에 軍需主任과도 협조하라.』라고 이르고, 제 7 중대는 계속 3번 道路의 遮斷과 敵의 接近을 경계토록하고 다른 3개 중대로서 마을로 壓縮해 들어가면서 搜索토록 하여 戰果를 擴大케 하였다.

잠시뒤 곳 곳에서 차려銃 姿勢를 한 兵士들 앞에 손을 든 俘虜들이 끌려나 오고 있었다. 그들은 退路를 찾지 못하고 民家의 야궁이나 헛간 또는 보릿대 더미 속이나 담배밭 곶랑등 여러 곳에 숨어 있었거나 잠들어 있던 者들로서 그 數가 모두 97명에 달하였다. 이들 중에는 少佐계급장을 단 제48연대 軍需參謀와 중대장등 幹部級 장교들도 5~6명이 끼어 있었는데, 그들의 陳述에 따르면 『제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은 제48연대(장, 중좌 金致九) 제49연대(장, 성명 未詳), 제50연대(장, 중좌 李乙善), 砲兵연대(장, 대좌 李連燮)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4일 제48연대는 屏岩里에서 忠州方面으로, 제49연대는 無極里에서 陰城方面으로 各各 進出할 계획이었으나 그날 밤 國軍과 부딪치고 물러났다가 어제 再興을 圖謀하게 되었다. 屏岩里와 毛陶院, 그리고 同樂里 住民들이 『國軍은 車를 타고 逃亡했다.』고 하는 말에 同樂里에 이르러 마을 놓고 휴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美 空軍의 폭격이 심하였기 때문에 晝間보다는 夜間活動이 強調되었고, 어제도 夕食後에는 夜間行軍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 投入된 兵力은 裝甲車와 砲兵支援부대까지 합하여 2,000餘명이었는데, 不意의 射擊에 唐慌한 나머지 銃 한자루도 갖지 못하고 右往左往하게 되었고, 그중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이 方向을 잃고 忠州方向으로 나가려다가 伏兵의 奇襲을 받아 1/3兵力을 遺棄한채 △679(毛陶院 北쪽 3km)方向으로 逃走하였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者는 몇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대장 金鍾洙 소령은 그때의 戰果에 대하여 證言하되 『이 戰鬪에서 그들 遺棄屍體는 1,000餘具를 헤아렸고, 裝備는 그들이 가졌던 大部分을 虜獲하였는데, 그 主要한 것은 122mm曲射砲 6문, 76mm曲射砲 8문, 重, 輕機關銃 41정, 拳銃과 小火器등 2,000여정, 裝甲車 10대, Side car 20대, Jeep車 20대, 2 1/2Ton車 40대, 通信裝備, 其他 등으로서, 俘虜 97명과 이들 裝備를 後送키 위하여 연대에서 車輛 20여대를 더 動員하고서도 彈藥과 補給品 그리고 小火器의 一部는 다 옮기지 못하고 現地燒却으로 處置케 하였다. 이때에 運轉兵이 不足하여 運轉경험이 있는 一般장병까지도 動員하였으나 積荷와 後送에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다.

특히 여기서 밝혀두고자하는 것은 이 戰鬪에서 우리側은 △644에서 이곳으로 移動할때에 迫擊砲의 副射手가 負傷한 것을 除外하고는 損失이 全無하였다는 것과, 虜獲한 北傀 裝備의 全部가 U.S.S.R製였다는 것을 確認한 수 있었다는데 意義가 있었다.

왜냐 하면 當時 U.S.S.R는 背後에서 北傀를 使囑하여 韓國戰爭을 이르킨 張本人이면서도 韓國戰爭은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선전을 하면서 UN軍의 派韓을 極力 反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획품등은 좋은 物的 證據가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 3대대의 戰況** : 대대는 어제 日沒時에 敵情을 확인하고 緊張狀態에서 夜間警戒에 任하였으나 이날 天明時까지 아무일도 없었다.

대대장 李南浩 소령은 左제 1線의 제 11중대(장, 印聖勳 중위)를 05.00부터 제 2대대와 連繫를 맺도록 하고, 殘餘중대로서 陣地前面을 搜索케 하였는데, 지난밤 제 11중대가 確保하고 있던 陣地前面에서 北傀軍의 遺棄屍體가 100餘具가 發見되었으며, 同樂里에 이르는 道路上의 여러 곳에서는 銃傷을 입고 逃走하려다 죽은 것으로 보이는 屍體 10餘具를 더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同대대는 05.30에 同樂里의 제 2대대와 連繫하였는데, 제 2대대의 搜索網에서 벗어나 △376方向으로 逃走하려는 醜敵 30餘명을 제 9중대가 追擊하여 5명을 사로잡고 나머지를 射殺하여 이곳의 戰鬪를 終結시켰다.

그러나 同대대는 連대장의 명령을 받고 08.00 毛陶院으로 나가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鹵獲品 後送을 掩護하였다.

**제 1대대의 戰況** : 敵은 我제 2대대로부터 입은 被害가 컸음인지 지난 夕陽때부터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니 이날 夕陽에 이르러 各 1개소대 규모의 兵力으로서 507번道路와 中村(白也里 南쪽 1km)으로 通하는 小路를 따라 偵察하는 듯이 보였으나, 그들은 제 1중대(장, 李大鎔 중위)와 제 3중대(장, 金明益 중위)에 부딪치자 戰鬪를 회피하고 숲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달았다.

△351의 대대觀測所에서 이를 보고 있던 대대장 金龍培 소령은 EE-8電話器로 各 중대 장을 呼出하여 『敵은 夜襲을 企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各 중대는 局地警戒를 強化하여 그들의 奇襲에 對備하라.』고 命命한 다음 작전장교 崔東安 중위를 帶同하고 各 중대 防禦陣地를 點檢하면서 各個壕를 補強하고 있는 兵士들을 慰勞와 激勵를 하고 一戰을 겨울 決意를 굳게 하였는데, 敵은 이날밤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連대장의 措置** : 이날 07.00 제 2대대의 戰果를 확인차 作戰地域에 나온 連대장 林富澤 중령은 于先 제 3대대를 毛陶院方面으로 進出시켜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고, 제 2대대로서 附近 周邊에 對한 搜索을 계속토록 指示한 다음 隨行한 정보주임 金東明 대위에게 俘虜와 鹵獲文書등을 現地에서 分離後送케 하고 軍需주임 趙漢燮 대위에게 鹵獲車輛과 連대의 兵力輸送車輛을 動員하여 장비를 後送케 하라 이르고, 그도 現地에서 俘虜와 裝備의 後送을 直接 지휘하였다.

連대장 林富澤 중령은 當時의 狀況을 말하되 『그때 連대에서 鹵獲한 裝備의 一部는 UN 總會에 보내지고, 나머지는 大田에서 國民 앞에 展示되었다.』

이로써 우리 國軍은 敵에게 지고만 있지 않다는 確證을 國民앞에 보이게 되었고, 또한 軍人들에게도 精神武裝을 強化하는 契機가 되었다. 連대는 이 戰鬪로 因하여 一階級 特進

의 榮光을 안게된 첫번째 部隊가 되었으며, 총참모장이 7일 現場에 나와 階級章을 달아 주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如何든 이날은 裝備後送과 戰場整理를 하는데 하루를 보내지 되었으며, 日暮에 이르러 제 2대대를 △644로, 제 3대대를 加葉山 北麓으로 철수시켜 各各 配置를 調整하고 있을때 사단 장으로부터 『제 1사단이 陰城地區를 防守키 위하여 只今 曾坪에 當到하였다. 연대는 同사단의 展開가 完了될 때까지 同사단의 作戰統制를 받도록하라.』는 電言命을 받게 되었다.

## 2. 제 1사단의 轉進參戰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제 1군단(장, 金弘壹 소장)의 右翼으로 陰城地區로 東進키 위하여 平澤附近에 集結하여 兵力을 收拾중 7월 6일 敵이 安城—平澤近郊까지 肉迫한 까닭으로 再編이 채 이루어지기도 前에 成歡(平澤 南쪽 5km)에서 列車와 車輛, 또는 徒步로 各己 陰城을 向하여 急히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陰城地區에서는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가 作戰중이었으며, 사단은 即刻 戰鬥態勢에 突入할 態勢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단, 曾坪에서 머물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陰城戰鬥에 投入되기 前에 이곳에서 最終的인 整備를 하게 되었는데, 사단이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經過를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단의 兵力收拾 : 사단은 6월 28일 敵의 重圍속에서 渡江을 強行하였기 때문에 重裝備를 江北에 遺棄하고 渡江手段의 不足으로 同일 渡江치 못한 將兵의 一部는 서울市內로 潛跡하기도 하고, 또 一部는 個人火器를 버린채 避難民의 隊列에 끼어 各個行動을 取하게 되는데 戰線은 계속 流動하였기 때문에 兵力收拾이 어려웠을뿐 아니라, 사단 左1線으로 써 延安—靑丹地域에 배치되었던 제12연대의 2개대대는 開戰當日인 25일 沿岸의 漁船을 利用하여 海上철수하여 金浦—仁川—群山등지로 分散上陸하게 된 까닭에, 6월 29일 최초 集結지인 始興에 集結한 兵力은 1,000餘명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時日이 흐르고 戰線이 京釜國道로 좁혀짐에 따라 흩어진 兵力들도 各己의 所屬을 찾아 모여들기 始作하였으며, 水原에서는 敵으로부터 幽獲한 我軍裝備인 M-1, CAR소총등이 支給되어 再起를 다짐하였는데, 이무렵 軍 作戰을 支援키 위하여 出擊한 我 空軍機의 誤爆으로 人命과 裝備의 損失을 더하게 하였다.

當時 제13연대 作戰주임 崔大明 소령은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美 空軍의 水原 誤爆으로 연대장 金益烈 대령이 重傷을 입고, 副연대장 金振權 중령, 연대政訓장교등 많은 將兵을 猝地에 잃게 되었다. 따라서 先任대대장인 金振障 소령이 1개대내兵力에 미치지 못한 인대를 지휘하여 豊德川戰鬥에 임하게 되었는데, 敵에 對處하기보다는 友軍機의 爆擊으로부터 保護받는 問題가 더 時急하게 되었다. 이때에 마침 그곳을 通過하게 된 美軍 연락장교의 助言에 따라 「원 廣木」를 求하여 Jeep車뒤에 걸게 잘라 끌게하였던 바 誤爆은 받

지 않게 되었으며, 對空布板이 支給될 때까지는 이러한 方法으로 對空布板 代用으로 使用하였다. 그래서 豐德川에서는 美軍機의 空中攻擊에 힘입어 敵 1개대대 규모의 步兵을 殲殺시켰다. 여기서 얻어진 銃 砲 등 敵 裝備만도 10餘Truck分이 되었을 것이다. 이날 夕陽때부터 水原에 敵 戰車가 侵入하기 始作하여 陸軍本部를 비롯한 始興地區 戰鬪사령부 이하의 部隊들이 앞을 다투워 南下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國道의 東側丘稜을 따라 平澤 南쪽으로 隨意철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제 1사단의 再編成 : 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7월 1일 水原에서 참모부장 金白一 대령을 만났을 때 참모부장은 黑板위에 部隊統合계획을 적어 놓고 설명하기를 『제 6, 제 8사단을 除外한 部隊는 再編組할 계획이다. 제 5사단은 제 1사단에 제 7사단은 首都사단에 各各 統合시켜 Dean 소장이 지휘하는 美 제 24사단이 展開할 때까지 漢江線에서 敵을 強力히 阻止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 무렵부터 漢江 渡河를 強行하기 始作하였기 때문에 그 施行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美軍의 先遣隊가 安城—烏山線에 展開하고 陸軍本部가 平澤으로 옮긴 다음, 指揮體制와 建制가 무너진 部隊의 改編을 斷行하기에 이르렀고, 이들 部隊를 新設한 제 1군단의 作戰統制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 命令이 該當部隊에 전달되기도 前에 陸軍本部는 大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平澤에서 新設한 제 1군단은 淸州로 이동하게 된 까닭에 同 명령은 口傳으로 各 部隊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6일 成歡에서 淸州로 이동중인 제 1군단장 金弘壹 소장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제 1사단은 제 5사단의 예하부대를 統合지휘하여 제 1군단의 右翼으로써 陰城을 直衝하라. 首都사단(장, 李俊植 준장)은 軍단의 左翼으로써 鎭川地區 防守에 임할 것이며, 제 2사단(장, 李翰林 대령)은 軍단 豫備로써 蓮潭(鎭川 南東쪽 6km)附近에 控置될 것이다.』라는 要旨의 口頭명령을 受領하고 陰城으로 이동하게 된 것인데, 위에서 提及한 바와 같은 理由에서 同 사단은 曾坪(陰城 南西쪽 20km)에 集結케 된 것이다.

사단장은 曾坪에서 各연대를 學校 또는 公共施設등에 집결시켜 部隊나 個人을 到着하는 대로 收容토록 준비하면서, 그간 戰鬪중 損失하였거나, 開戰以來 行方不明이 된 中대장 級以上 지휘관의 空席을 先任者로써 補充發令케 하고 不足되는 소대장은 先任下士官으로써 充當케하여 部隊의 建制를 이루게한 다음 2개소대 未達의 中대를 再編케 하였다.

그리고 國一命(陸) 제 2호(7.5부)로 統合케된 제 5사단 예하의 제 15연대(장, 崔榮喜 대령)를 曾坪에서 제 13연대와 統合시켜 戰鬪態勢를 갖추게 하였다. 또한 이곳에서 만나게 된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부터 陰城地區의 敵情을 들음과 아울러 陣地交代를 위한 引受 引繼 日時를 8일 15.00로 定하였는데, 이는 敵의 晝間活動이 輕微하였기 때문이며 제 7연대를 同時부로 現地에서 作戰統制키로 合意하였다.

이로써 제 1사단의 可用兵力은 6,500餘명에 達하였으며, 主要裝備는 105mm曲射砲 6문, 57mm對戰車砲 4문, 81mm迫擊砲 19문, 60mm迫擊砲 24문, 2.36"Rocket砲 37문, 50mm

機關銃 17정, 30mm機關銃 40餘정으로써 1개연대 裝備에도 未達하는 實情이었다. 여기에는 飜坪에서 統合한 제15연대와 作戰統制케된 제7연대까지를 合한 것이므로 이를 뺀다면 제1사단의 實兵力과 裝備는 훨씬 不足한 實情이었다.

#### (나) 제1사단의 戰況(7.8~10)

7월 8일 :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이날 05.00에 참모장 石柱岩 대령에게 指示하되 12.00까지 제 11, 제 12, 제 13연대順으로 陰城地區로 進入케 하라고 이룬 다음 各 연대의 大대장級 以上으로 구성된 先發隊 要員을 직접 지휘하고 地形偵察次 먼저 陰城을 向하여 先發하였다. 一行은 제 7연대 後方지휘소가 있는 甫川(陰城 西南쪽 7km)에서 同연대 수송관 安泰石 소위의 案內로 前方지휘소로 갔으며, 연대장 林富澤 중령으로부터 敵의 動向과 戰鬪狀況 그리고 部隊배치상황에 관한 Briefing을 듣게 되었다.

사단장은 自身の 사단兵力이 2개연대 규모에 該當되나 裝備面에서는 1개연대의 戰鬪力에도 미치지 못하는 實情이었고, 더구나 機動力도 없는데다가 18.00以後에는 제 7연대를 現 配置線에서 철수시킬 것을 勘考할 때, 敵을 陰城 近郊로 誘引하여 打撃을 加하는 것이 그들을 最大限 遲延시키는 最善의 方策이라고 생각한듯 陰城 北側外廓과 그 南側外廓의 要地에 阻止線을 形成케 할 것을 구상하고 10.00에는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달하였다.

『① 사단은 7.8. 15.00를 期하여 陰城地區의 防守임무를 제 6사단 제 7연대로부터 인수하고 同時부로 同연대를 作戰上統制한다.

② 제 12연대는 15.00까지 △393(陰城 東쪽 2km)—龍湫里(陰城 北쪽 1km)間에 部隊를 展開하고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라.

③ 제 11연대는 15.00까지 △299(陰城 西北쪽 3km)—足芝谷(△299 西쪽 1km)間에 部隊를 展開하고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라.

④ 제 13연대는 15.00까지 △229(陰城 南쪽 3km)와 下唐里(陰城 南西쪽 3km)間에 部隊를 展開하고 제 2 阻止線을 形成하라.

⑤ 제 7연대는 現 陣地를 계속 확보하여 제 11, 제 12, 제 13연대의 展開를 幷호하고 18.00를 期하여 甫川으로 철수하라.

⑥ 제 16포병대대 제 2 포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⑦ 제 7연대 대전차포중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⑧ 사단 공병대는 사단사령부를 警戒하라.

⑨ 탄약보급소 및 陸軍病院은 大田에 위치한다.

⑩ 사단사령부는 陰城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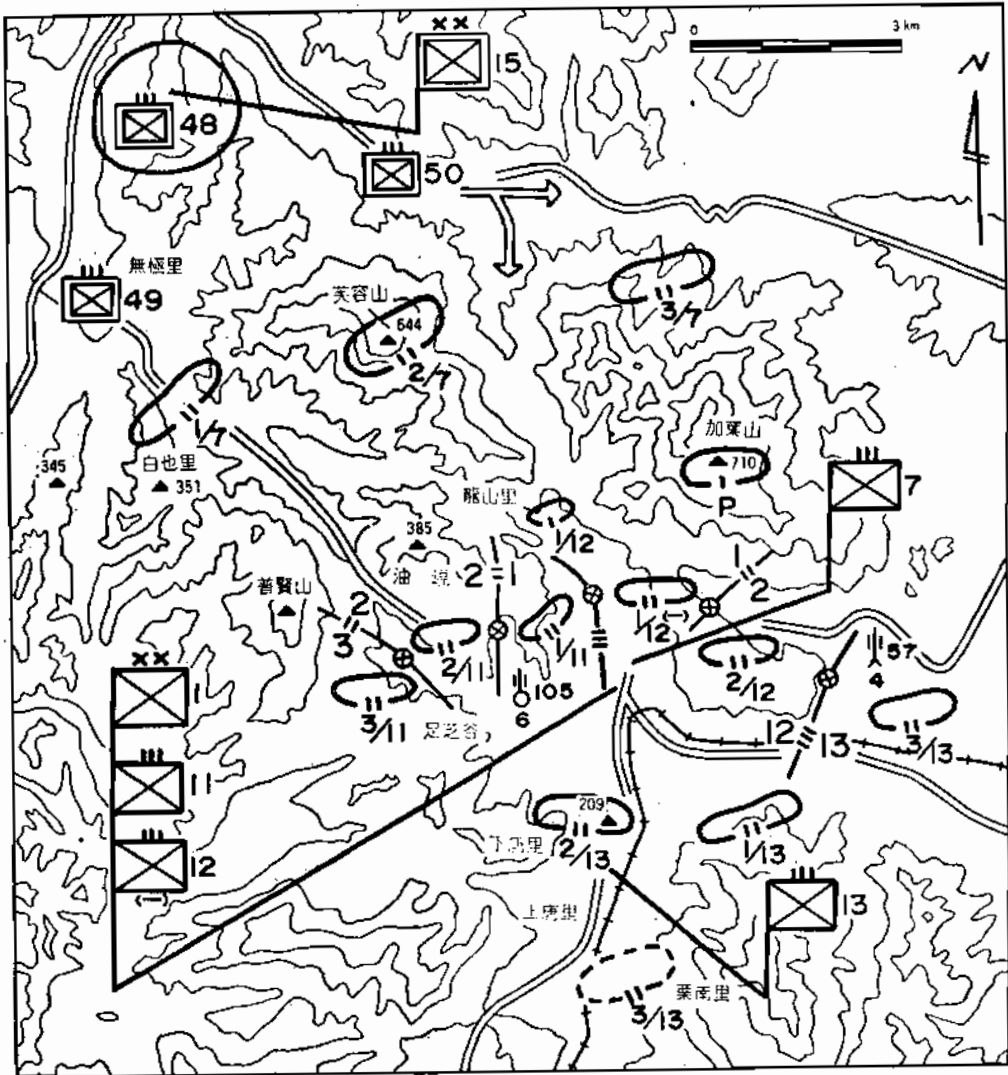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단 작전명령을 수령한 各 연대장은 예하 大대장과 함께 配當된 防禦地域의 地形偵察次 떠나고, 집결지의 各 연대는 참모장 石柱岩 대령의 區處下에 防禦陣地로 進入

키 위한 行軍이 계속되고 있었다.

1. 제12연대의 陣地編成

연대장 金點坤 중령은 地形을 偵察한 結果, 연대가 맡게된 사단의 右1線 地域은 忠州 (陰城 東北쪽 18km)에서의 接近路인 36번 道路와 屏岩里(陰城 北西쪽 15km)에서의 3번 道路가 大召院(陰城 東北쪽 9km)에서 交叉하여 36번 道路에 이어서 陰城에 이르게 되어 있으며, 屏岩里—大召院間의 毛陶院附近에서 加葉山과 △644사이를 通過하는 山間路가 막바

◇ 상황도 제25호 제1사단의 最初配置(7.8.15.00)





로 陰城에 이르고 있음에 着眼하고 제 2대대(장, 李茂重 소령)를 右제 1線으로 하여 △393(陰城 東쪽 2km)에 그리고 제 1대대(장, 申鉉洪 소령)를 左제 1線으로 하여 龍峽里(陰城北쪽 1km)附近에 展開시켜 36번 道路와 山間路를 各各 制扼할 수 있도록 15.00까지 陣地 編成을 完了케 하였다.

연대장 金點坤 중령은 陣地編成 前까지의 景위를 回想하되 『漢江 渡河의 初期에 연대는 完全히 分散된 狀態였으나 戰線의 南下와 더부러 차츰 兵力이 늘어났으며 曾坪에서는 2개 대대로 再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에는 제 2대대장 韓順華 소령이 보이지 않아서 제 3대대장 李茂重 소령을 제 2대대장으로 임명하고 3개대대 兵力을 2개대대로 調整하였다. 바로 그때에 제12연대 要員임을 自處하는 私服차림의 200餘명의 靑年이 연대로 찾아와서 騷亂을 피웠기 때문에 人事주임 金斗烈 대위로 하여금 確認케 하였던 바 이들은 제 2, 제 3대대의 士兵들로서, 25일 群山으로 上陸하여 그들의 臨機措置로 소대 및 중대를 편성하고 他部隊 落伍兵까지 糾合하여 軍部隊에 合勢코자 探問하고 있던중 제 1사단이 陰城地區로 轉進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에 이들은 그 地方 出身 兵士들이었기 때문에 混亂을 憑藉하여 능히 部隊를 離脫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戰地로 찾아 온 것은 그들이 平素부터 지니고 있었던 愛隊心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연대장은 이날 19.30 加葉山 北麓의 제 7연대 제 3대대(장, 李南浩 소령)가 연대地域을 通過하여 甫川으로 移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夜間防禦에 對備하였는데, 이때 西側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듯 하더니 뒤 따라 砲聲과 銃聲이 연대地域에 메아리쳐, 連日 行軍으로 시달린 將兵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이는 必是 제 7연대의 철수를 눈치 췌 敵이 聲東擊西의 戰法에 따라 西側에서 陽動하고 東側에서 奇襲하려는 것으로 判斷하고, 各 대대장에게 『敵의 夜襲이 예상되니 警戒를 철저히 하라.』라고 號令하고 作戰주임 梁三錫 소령에게 狀況 파악을 中斷하지 않도록 強調하였다. 이에 따라 各 대대장은 예하 중대장에게 예상되는 敵의 接近路上에 局地警戒兵力을 補強토록하여 敵襲에 對備케 하였으나, 敵影은 볼 수 없었으며 西側의 砲聲과 銃聲도 10餘分 뒤에는 사라지고 말았다.

## 2 제11연대의 初戰

연대는 사단의 左 1線으로 龍山里(陰城北쪽 2km)—陰城을 잇는 線에서 제12연대와 接하고 그 以西地域을 맡게 되었으나, 알려진 敵情에 比하여 兵力이나 裝備面에서 越等하게 劣勢하였기 때문에,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제 1대대(장, 대령 張根述 대위)를 △222 附近에 展開시켜 연대의 右제 1線으로 하고, 제 2대대(장, 鄭永洪 소령)를 所餘里(陰城西쪽 3km)

一△299間的 中央 제 1線에, 제 3대대(장, 金在命 소령)를 內洞(陰城 西쪽 3.5km)一足芝谷(所餘里 南쪽)間에서 左제 1線으로 한 逆八字型的 陣地를 編成케 하여 豫備를 確保하지 않았다.

연대는 渡江以來 여러차례 離合集散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대장이 單身으로 敵陣을 突破하여야 하는 極限狀況을 격기도 하였으나, 營坪에 集結하였을 때 單一部隊로써는 사단에서 唯一하게 3개대대의 建制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兵力도 1,300餘명에 裝備도 比較的 갖추어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연대가 敵의 主接近路로 判斷되는 507번 道路를 맡게된 것이라 察知되거나, 또한 연대장이 이곳 地理에 밝은 甫川出身이라는 點도 作用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어떻든 연대는 제 7연대가 掩護하는 가운데 15.00를 前後하여 陣地編成을 完了하고 防守 態勢를 굳히고 있을때, 연대 作戰주임 鄭龍植 소령은 사단 作戰참모 金德俊 소령으로부터 『제 7연대가 18.00를 期하여 사단의 豫備가 되어 甫川으로 集結하게 되었으니, 연대는 該部隊와 緊密하게 협조하여 同部隊의 최종 通過時間을 확인하고, 追尾할지 모르는 敵을 철저히 警戒하라.』는 電話를 받고, 연대장에게 報告함과 아울러 各 대대에게도 이를 傳達하였다.

제 2대대장 鄭永洪 소령은 제 8중대의 1개소대를 洪正杓 중위 지휘하에 油峴(所餘里 西北쪽 1km)으로 推進시켜 警戒에 임하도록 하고, 그는 大隊 觀測所인 △299에서 TS-10 送受話器로서 警戒部隊와 各 중대間에 連絡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日暮가 가까와지자 白也里의 제 7연대 제 1대대(장, 金龍培 소령)가 계획된대로 대대 前面을 通過하기 始作하고, 뒤를이은 △644의 제 2대대(장, 金鍾洙 소령)가 19.30에 完全 通過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대대장은 이를 연대에 報告함과 아울러 各 중대에도 이를 通報하고 『地域內的 제 7연대는 19.30을 期하여 完全 철수하였다. 以後 接觸하는 것은 모두 敵으로 斷定하고 措處하라.』고 嚴命하였다. 그러는 사이 500m 거리의 事物을 識別하기 어려운 薄明이 되었는데, 油峴의 洪正杓 중위가 報告하기를 『敵으로 보이는 1개소대 規模의 兵力이 油峴을 지나 대대 前面으로 向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대대장은 洪 중위가 지휘하는 警戒部隊를 △385(所餘里 北쪽 1km)의 稜線을 따라 철수 하라고 指示하고, 이를 확인키 위하여 제 6중대(장, 楊鳳植 대위) 地域으로 갔다. 同중대는 80餘명의 兵力밖에 없었으나, 대대內에서 중대장이 交替되지 않은 唯一한 中대이고 兵力도 混成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의 中心部에 配置된 것이다. 대대장이 中대 地域에 當到하였을 때에는 縱隊 隊形을 갖춘 敵의 偵察隊가 100m 거리로 肉迫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또 다시 TS-10으로써 各 중대를 呼出하여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격을 금한다』라고 명령하고 그들의 動態를 살피 본 바, 그들은 我軍이 配置되어 있음을 全然 알아 차리지 못한 듯 急行軍으로 대대地域內로 들어섰고, 또 다른 一團이 4列 密集縱隊로써 100m

뒤를 따르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대대장은 急히 送受話器를 들고 狀況을 연대에 報告하는 同時에 支援砲兵으로써 대대의 射擊開始와 때를 맞추어 그들의 退路가 되는 油峴入口와 普賢山 東麓一帶를 砲擊하도록 要請하고, 대대配置의 南端을 맡고 있는 제7중대(장, 趙文錫 중위)에게 『敵의 先頭가 중대 地域을 벗어나기 直前に 射擊을 加하라.』고 일렀다. 대대兵力의 配置線과 道路와의 距離는 10~20m에 不過하였으나 그들의 行軍縱隊가 까맣게 浮刻되었을뿐 個個人의 形態는 알아보기 어려울 程度였다. 그들 行軍縱隊의 半數가 대대防禦 正面으로 들어섰다고 判斷되었을 무렵 제7중대의 南側 尖端部에서 火光이 일면서 대대 全地域은 一時에 불 바다가 되고 제2포대장 李萬活 대위가 지휘하는 105mm曲射砲는 油峴 入口를 彈幕으로 뒤 덮고 말았다.

周圍는 벌써 어두워지고 敵影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삼시간에 銃聲이 南쪽으로 번져가면서 제3대대地域이 불 밧으로 變하였다.

제3대대장 金在命 소령은 제2대대地域에서 불 꼴이 치솟는 것을 보고 부대대장 金 召 대위로 하여금 內洞(陰城 西쪽 4km) 附近의 제11중대(장, 全泳敏 중위)를 掌握케 하는 한편으로 그는 足芝谷(陰城 西쪽 3km)의 道路邊에 배치한 제9중대(장, 李載仁 대위) 제10중대(장, 대위 尹達熙 중위) 그리고 제12중대(장, 孫炳俊 중위)를 掌握키로 하였다. 이 때 제2대대에 의해서 阻止 當한 敵은 暗中摸索으로 退走를 꾀하다가 가는 곳마다 壁에 부



〈기름고개(油峴)에 세워진 戰勝碑〉

뒤틀리는 결과가 되어 開放된 것으로 보았던 西側으로 뛰어 든 것인데, 그들은 제 3대대의 공격을 받고 完全 分散되었음이 俘虜의 陳述에서 밝혀졌다.

狀況을 注視하고 있던 연대장 崔慶錄 대령은 敵의 抵抗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退走한 것으로 判斷하고, 即刻 射擊을 中止시켰다. 그리고 각 대대장에게 『경계를 철저히 하고 射擊規律을 확립하여 不必要한 彈藥消耗을 抑制하라.』고 명령하고, 작전주임 鄭龍植 소령에게 本部要員으로써 狀況班을 편성케 하여 狀況 把握을 계속하게 하였다.

### 3. 제13연대의 제 2 阻止線 編成

연대장 崔榮禧 대령은 제 1대대(장, 金振暉 소령)를 右제 1線으로 하여 △229(陰城 南東쪽 2.5km)에, 제 2대대(장, 安光榮 소령)를 左제 1線으로 하여 新川里(陰城 南西쪽 2.5km)에 各各 展開시키고, 제 3대대(장, 崔炳淳 소령)를 豫備로 하여 栗南里(陰城 南쪽 5km)에 控置시켜 사단의 제 2 阻止線을 形成케 하였다.

그런데 右隣接의 제 6사단 제 2연대(장, 咸炳善 대령)가 이날 아침 忠州地區를 掩襲한 北傀 제 1사단의 壓力을 받고 水安堡(忠州 南쪽 13km)로 移動하였음이 뒤 늦게 알려져,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1개대대를 △295(△393 東쪽 2km) 附近에 推進시켜 사단의 東側方을 防護케 하라』는 追加 任務를 맡게 됨과 同時에 이를 위하여 對戰車砲 중대를 配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제 3대대와 對戰車砲 중대를 16.00부터 △295로 推進케 하고 경계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연대는 陣地占領에 앞서 曾坪에서 解體된 제 5사단의 제 15연대(장 崔榮禧 대령)를 統合하였는데, 本來의 제 13연대 兵力은 1개대대 兵力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제 15연대는 2개대대를 超過하는 兵力을 확보하고 있었다. 部隊名稱을 最初 제 13연대로 호칭하였으나 제 15연대가 主力을 이루고 있었던 까닭에 마침내는 國一命(陸) 제 54호(50. 8. 25)에 의거 제 15연대로 改稱케 되었다.

제 13연대는 水原에서부터 1개대대 兵力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연대장 대리 金振暉 소령을 비롯하여 제 2대대장 尹千奉 소령, 情報주임 崔大明 소령 등 領官장교가 4명이나 되었고 各 대대의 參謀要員, 중대장 그리고 小隊長들로 士兵보다 장교가 많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제 15연대와 合勢할 때에 調整되었는데, 金振暉 소령은 제 1대대장으로, 崔大明 소령은 연대 情報주임으로 補任되었다.

한편 제 15연대장 崔榮禧 대령은 金浦地區 防守임무를 遂行중 7월 3일 前 제 5사단 참모장 朴炳權 대령으로부터, 始興地區 戰鬪사령관 金弘壹 소장의 『철수 하라』는 명령을 傳해 듣고, 이때 各 대대에 철수 命을 하달하였으나 金浦半島에 上陸한 北傀 제 6사단 이 同연대를 執拗하게 뒤따라 물었기 때문에, 그들과 且戰且退를 거듭하게 되었고 이로 因하여 연대는 부득이 獨自의인 作戰을 수행하게 되었다. 撤收中에 연대는 鳥致院에서 비로소 美

軍部隊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韓國軍은 淸州—陰城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내고 지체없이 陰城을 向하여 急進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는 會坪에서 제 1사단장 白善燦 대령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가 지휘하는 제 1사단의 제 13연대에 統合케 된 것이다.

이때 연대 兵力은 淸州에서 늦게 上京한 제 15연대의 제 1대대(장, 李存一 소령)과 彌阿里 戰線에서 復歸한 同연대의 제 2대대(장, 安光榮 소령) 그리고 제 20연대 제 1대대 부대 대장 吳泰泳 대위가 지휘하는 2개 중대였는데, 제 1사단에 습치기 直前인 鳥致院에서 混成제 7사단의 一部로 편성되었던 제 3대대(장, 崔炳淳 소령)를 收容케 되어 兵力은 모두 2,000餘명에 達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4개 대대를 保有케 된 까닭으로 제 13연대를 제 1대대로 하고, 同연대의 제 1대대와 제 20연대의 2개 중대 兵力으로서는 新編한 3개 대대와 연대 본부의 不足兵力 補充에 充員하고, 제 1대대장 李存一 소령을 副연대장으로 吳泰泳 대위를 연대 軍需주임으로 各各 任命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에는 2명의 副연대장이 있게 되었으며 趙在美 중령은 前前方지휘소에서 연대장을 補佐하고 李存一 소령은 後方지휘소를 運營케 되었다.

연대는 이때에 81mm迫擊砲 13문, 60mm迫擊砲 16문, 2.36" Rocket砲 18문, 機關銃 20挺을 保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共用火器가 없는 제 1대대에게도 均等分配하여 연대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되었다.

#### 4. 제 7연대의 甫川附近 集結

제 1사단의 陣地占領을 掩護한 제 7연대는 敵과의 接觸이 없는 가운데 계획대로 18.00를 前後하여 現 配置線에서 철수하기 始作하였다.

연대장 林富澤 중령은 指揮所를 陰城에서 甫川으로 옮기고, 그 곳에 있던 後方지휘소를 道安(會坪 北東쪽 3km)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甫川附近에 集結한 제 1대대를 20.00에 연대 본부의 北쪽 △300에 配置하여 연대의 경계 임무를 담당케 하고, 철수중에 있던 제 2, 제 3대대를 제 1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21.00~22.00에 걸쳐 下唐里(新川里 南쪽 1km)—上唐里(下唐里 南쪽 1km)를 各各 確保케 하여 同사단의 西側 正面을 補強케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陰城地區의 防守임무를 제 1사단에 引繼하고, 그의 예비로 轉換케 되었으며, 加葉山의 江原戰鬪警察隊(장, 賈圭洪 중령)은 尙州方面으로 철수하였다.

#### 5. 砲兵部隊의 活躍

李萬浩 대위가 指揮하는 제 2포대와 朴哲遠 대위가 지휘하는 對戰車포 중대는 現 위치에서 제 1사단에 配屬되었다. 그런데, 對戰車포 중대는 이날 16.00 제 13연대에 再配屬되어서 연대의 제 3대대와 같이 △295로 轉進하여 사단의 東側方 防護에 입하게 되어, 제 2포대만이 陰城 外廓의 △222 南麓에 布陣케 되었는데, 日沒이 임박하였을 때 사단 作戰참모 金

德俊 소령으로부터 『敵 1개대대 규모의 密集縱隊가 507번 道路를 따라 南下하여 所餘里를 通過중이다. 砲兵은 油峴入口에 火集帶를 形成하여 그들의 退路를 遮斷하라. 砲擊은 步兵部隊의 小銃 射擊과 同時에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포대장 李萬浩 대위는 即刻 戰砲대장 李今烈 중위에게 指示하여 射擊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同포대는 이곳 地形에 익숙할 뿐 아니라 이미 射擊諸元을 確保하고 있었기 때문에 射距離와 射向만을 調整하면 언제든지 사격이 可能한 態에 있었었고, 彈藥은 사단에서의 推進補給으로 高爆彈 1,000발을 保有하고 있었다.

잠시 뒤 제11연대 地域에서 M-1소총의 曳光彈이 처웃음을 信號로 戰砲대장 李今烈 중위의 『발사』 口숨이 떨어지고, 5개의 砲門에서는 一齊히 불을 點하기 始作하였다.

當時 제2포대장 李萬浩 대위는 證言하기를 『이때 步兵部隊에서는 照明支援을 要求하였으나 照明彈이 없어서 支援하지 못 하였는데, 그때에 照明支援만 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나타난 敵을 全滅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못내 아쉬워 하였다.

## 6. 사단장의 措置

사단이 陰城地區를 確保하고 있을 무렵에는 忠州와 鎭川이 이미 敵 手中에 들어간 뒤에서 사단의 左右側方이 完全 露出되는 위협을 안게 되었다.

사단장은 곧 제13연대의 1개대대로써 사단의 東側方을 防護케 하는 同時에 甫川으로 철수중인 제7연대의 2개대대로써 사단의 西側方을 補強토록 하는 한편, 陰城에 設置한 사단 사령부의 警戒을 사단 工兵隊(장, 金永錫 소령)로써 맡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 彈藥補給施設 및 負傷患者 治療所가 大田에 있었기 때문에 不足한 車輛의 空行을 없애기 위하여, 補給品受領 車輛은 반드시 患者나 後送補給品 등을 싣고 가게하고 또한 戰鬪部隊에 對한 彈藥補給에 疎忽함이 없도록, 軍需참모 李哲熙 중령으로 하여금 철저한 監督과 統制를 加하게 하였다. 사단장은 營坪에서 全 將兵을 集合시켜 말하기를 『싸움터에서의 武器는 곧 그들의 生命이다. 銃 한자루, 實彈 한발 生産하지 못하는 이 時點에서 우리는 우리의 武器를 生命과 같이 所重히 여기고, 何時 何處에서라도 내 몸과 같이 愛重하여 使用하도록 管理를 철저히 하라.』라고 強調하였다.

7월 9일 : 連日 敗戰을 거듭하던 北傀 제15사단은 그들 左右에 隣接한 제1사단(장, 소장 崔光) 및 제2사단(장, 소장 崔賢)이 忠州와 鎭川을 各各 占領하고 계속 南下하고 있음에 刺戟되었음인지, 이날 拂曉를 期하여 砲擊을 加하면서 東과 西에서 陰城을 目標로 急襲하기 始作하였다.

사단장은 縱深이 너무 窄음에 神經을 쓰고 있던차에, 그들의 砲擊이 陰城一圓으로 번지는 것으로 보아 凶惡치 않는 狀況이 展開될 것으로 豫見하고 各 연대의 지휘본부를 安全한 곳으로 옮기도록 指示하는 同時에 사단 사령부를 馬松里(甫川 北쪽 1km)로 移動시켰다.

### 1. 제12연대의 戰況

연대는 지난 밤 敵의 夜襲에 對備키 위하여 部隊配置를 高地의 下端部로 調整하였기 때문에 個人操를 팔 겨를도 없이 地形地物만에 依存하게 되었던 것인데, 제13연대의 제3대대가 右隣接하게 되어 爆風雨 앞에 防波堤를 얻은 결과가 되었다.

제2대대장 李茂重 소령은 04.00 △393의 觀測所에서 下弦의 月光下에 비친 대대 防禦正面을 바라보고 있을때, 倭안간 砲彈이 炸裂하기 始作하더니 순식간에 대대 全域이 불 바다가 된듯 하였다.

대대 觀測所를 포함한 △393는 兵員이 隱身하기가 容易하였으나 低地帶인 道路邊에 配置된 兵員은 依支할 곳을 찾아 몸을 避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敵의 砲擊이 점차 西쪽으로 옮겨 가서 陰城으로 集中되고, 안개로 덮힌 36번 道路上에서는 敵機械化部隊의 騒音이 멀리서 들리기 始作하였다.

대대장은 이를 確認키 위하여 제13연대 제3대대와 接境한 제7중대(장, 金永先 중위)를 EE-8 野戰電話器로 呼出하였으나 手信號機가 空轉할뿐 이었고, 他 중대에서도 같은 反應이었다. 연대와도 疎通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斷線된 것으로 본 대대장은 觀測所의 運營을 제8중대장 鄭元赫 중위에게 맡게 하고, 교육관 全子烈 중위와 같이 各 중대地域을 巡行하면서 被害狀況을 直接 확인하였던 것인데, 10餘명의 死傷者를 확인하는 외에 道路邊의 兵力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地域은 掩蔽物이 없는데다 砲擊이 尤甚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安全地帶로 옮긴 것으로 본 대대장은 교육관으로 하여금 이들의 行方을 찾게하는 同時에 제5중대(장, 安桂永 중위)와 제6중대(장, 趙基伯 중위)를 다시 △393의 8分發線으로 配置하고 陣容을 가다듬고 있을때, 敵彈을 避하여 陰城 近處까지 물러섰던 제7중대가 復歸함으로써 대대는 原狀을 되 찾게 되었다.

8대의 裝甲車를 앞 세운 敵 1개대대는 我軍의 阻止線을 突破하려고 數次의 波狀攻擊을 恣行하다가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2.00를 前後하여 大召院 方面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한편 左제 1線 대대의 警戒部隊로써 龍山里(陰城 北쪽 3km)에 나가있던 제1중대(장, 禹鉉 중위)도 이날 06.00부터 山間路를 따라 侵襲한 敵의 奇襲으로 龍巖里까지 물러 서게 되었다. 대대장은 제2중대(장, 韓萬劑 대위)와 제3중대(장, 辛溶軾 중위)로써 併行攻擊케 하여 各陣地를 再確保케 하였으나, 이때 연대의 保有彈藥이 이미 바닥나게되고 彈藥受領次로 大田에 갔던 사단의 보급車輛의 歸還도 豫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14.00에는 同 2개 중대를 復元케 하고 龍巖里線을 補強하여 제11연대와 連繫케 하였다.

## 2. 제11연대의 戰況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지난 밤 戰鬪에서 얻은 俘虜의 陳述을 통하여 그들이 北傀 제15사단 제49연대라는 것을 알아낸 以外에는 別다른 情報도 入手하지 못한채 그들 13명을 情報주임 朴龍雲 대위로 하여금 사단으로 後送케 하고 각 대대장에게 命令하기를 『各 대대는 敵襲에 對備하여 防守태세를 굳게 하라.』고 한데 이어, 甫川에 집결케 된 제7연대의 제2, 제3兩대대가 연대의 西側方 掩護를 위하여 下唐里—上唐里간에 配置되었음을 알려 相互협조케 하였다.

그런데 敵은 어제 그들의 陰城 進出이 挫折당하게 되자, 同地區를 아직도 我軍이 確保하고 있음을 看破하였을 인지, 날이 밝기도 前에 陰城全域을 그들 砲火로 뒤덮고 1개연대를 어제와는 反對로 陰城의 東쪽인 사단 右1線 正面에서 侵襲을 試圖하였다. 그들은 敗退한 제48연대와 交代된 제50연대(장, 총좌 李乙善)로서 8대의 裝甲車로 增強되었음이 제12연대장 金點坤 중령이 接受한 報告內容에서 밝혀졌다.

이때에 제11, 제12兩연대의 指揮部는 陰城驛舍의 一部를 같이 쓰고 있었던 터이므로 사단 正面의 狀況을 即刻 알 수 있는 곳 이기도 하였는데, 06.00에 敵彈이 驛舍에 命中하였기 때문에 兩개 연대는 指揮所를 1km 南쪽인 梧里長橋 밑으로 옮기게 되었다.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通信장교 梁聖洙 중위로 하여금 通信線을 橋梁 밑까지 延長케 하고 각 대대와 疎通케 하도록 指示하였으나, 敵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補線作業이 遲遲不振하게 되고, 이때부터 傳令을 主通信으로 使用하게 되었다.

매 아침 제1대대장 대리 張根述 대위로부터 報告되기를 『龍山里的 제12연대의 警戒부대가 06.30에 主陣地로 철수함에 따라, 山間路로 侵襲한 것으로 보이는 敵이 主陣地帶前方으로 近接하고 그 一部가 대대 正面으로 나타나고 있다. 龍山里 一帶에 砲擊을 要請한다.』라는 內容으로서 이는 傳令에 依하여 報告되었다. 이때에 제2포대는 사단 作戰指示에 따라 36번 道路에 沿하여 제12연대 正面에 대하여 支援사격 중이고, 同연대의 제1대대는 龍山里를 目標로 攻擊중에 있었기 때문에 別段의 支援方法을 찾지 못하였다.

대대는 대대장 以下 중대장에 이르기까지 全員이 새로히 任命되었는데, 대대장 張根述 대위는 제1중대장으로부터, 4개 중대장은 각 중대의 先任장교로부터 各各 새로히 補任되었기 때문에 新編部隊와 다를 바 없었다. 연대장은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同대대를 이곳에 展開시켰던 것인데, 대대가 攻勢를 取하기도 前에 이 方面의 敵은 제12연대 제1대대의 攻擊으로 말미암아 退却하고 말았다.

이무렵 제2, 제3兩대대는 防禦陣地를 8分綫線으로 옮기던 중 敵의 砲擊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主로 507번 道路 沿邊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兩대대 모두 10명 內外의 負傷者를 내었을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例와 같이 晝間보다 薄暮나 夜間行動을 主로 하였는데,



이날도 그들은 晝間을 피하고 23.00에 다시 砲門을 열어 陰城을 向하여 東西 兩側方에서 侵攻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제 2, 제 3 兩대대는 이날 아침 陣地占領에 앞서 지난 밤의 交戰場인 所餘里 附近에서 負傷俘虜 5명을 追加한데 이어, 그들이 遺棄한 各種 小火器 100餘정을 後送하고 100餘具의 遺棄屍體를 確認하였다.

### 3. 제13연대의 戰況

연대장 崔榮喜 대령은 이날 04.00 警戒地陣에 나가있는 제 3대대장 崔炳淳 소령으로부터 『大召院方面의 敵이 04.00를 期하여 대대地域을 集中砲擊하고 있다.』는 최초 報告를 받았을뿐, 그 뒤의 상황은 通信의 斷切로 알 수 없게 되었다.

연대장은 即刻 이를 사단장에게 報告하고 大召院方面의 敵 砲兵을 制壓할 것을 要請하였는데, 사단장으로부터 『제 2 포대의 射程이 △295까지는 未達하니, 제 3 대대는 敵의 前進를 牽制하면서 編成된 陣地로 철수케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한편 대대장 崔炳淳 소령은 연대장과의 通信이 斷切되자 左隣接한 제12연대 제 2대대(장, 李茂重 소령)와 通話를 試圖하였으나 또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敵이 射程을 延伸하고 彈着群이 점차 陰城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교육관 張永鍾 중위에게 指示하되 『대대地域에 配置된 對戰車砲 중대(장, 朴哲遠 대위)를 포함한 각 중대의 被害 有無를 파악하고, 低地帶에 設置한 局地境界초소를 현재 時間부로 철수시키되 境界는 계속 強化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 正面으로 侵襲한 敵은 北傀 제15사단 예하의 제50연대로써, 이들은 지난 7월 제48연대가 敗退한 다음 비로소 戰鬪에 加擔한 것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6월 25일 南侵한 以來 처음으로 1線에 投入된 部隊인데, 當時 대대의 右側 1線인 제11중대(장 李元根 중위)의 先任장교 金銀玉 중위는 證言하기를 『우리가 陰城에 配置된 다음날 아침 敵은 砲擊을 加한 뒤 8대의 裝甲車로써 陣前으로 肉迫하였으나, 朴哲遠 대위가 지휘하는 對戰車砲 중대의 砲擊으로 그중 2대가 擱挫되고, 나머지는 攻擊과 退却을 몇차례 反復하였으나 正午에는 退却하는 氣味가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警戒陣地에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23.00를 期하여 陰城의 東과 西에서 同時에 砲擊을 加하면서 夜襲을 再起하고, 연대는 이날 그들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연대본부를 唐村(陰城 南쪽 3km)에서 九安里(陰城 南東쪽 6km)로 移動하게 되었으며, 20餘名の 死傷者를 내게 되었다.

### 4. 사단장의 指置

사단장은 敵의 砲擊이 東에서 점차 西쪽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제 11, 제12兩연대 지휘

소가 被擊되었다는 報告를 받자. 사단 사령부 및 연대의 지휘소를 安全한 곳으로 이동하게 함과 아울러 有線通信網의 補修와 死傷者의 後送, 그리고 彈藥을 推進하도록 關係 參謀에게 示達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 사령부는 06.30에 馬松里(陰城 南쪽 7km)로 이동하고, 각 연대의 지휘소도 移設하였는데, 通信線의 補修는 그들의 波狀의인 砲擊으로 因하여 正午가 지난 다음에야 소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戰傷患者 40餘명이 鹵獲武器와 같이 3대의 Tkuck으로 大田까지 後送되고, 거기에서 追送된 彈藥은 이날 늦게 각 연대로 推進補給하였다.

7월 10일: 지난 밤 夜襲을 再起한 以來 攻擊의 氣勢을 늦추지 않던 敵은 날이 밝으면서 그 熱度를 더 하여 사단의 左右側方과 前面에 壓迫을 加하고 마침내 사단의 右 1線 正面을 突破하기 始作하였다.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그들의 攻勢가 이제까지 볼 수 없으리만치 執拗하고 熾烈하였던 까닭에 제13연대 제3대대를 철수시켜 主陣地를 補強케 하고 있던 차에, 제1군단장 金弘壹 소장으로부터 『제1사단은 敵을 최대한 遲延시키면서 米院附近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이때에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은 水安堡附近에서, 首都사단(장, 金錫源 준장)은 鎭川 北쪽의 美湖川附近에서 各各 敵과 對峙하고 있는 狀況임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은 彼我의 戰況을 檢討한 결과, 사단의 左右側方이 이미 무너진 바 되었던 까닭에 陰城地區의 固守가 無意味할 뿐 아니라 劣勢한 兵力과 裝備로서는 더 以上支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06.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敵을 최대한 遲延시키면서 現 戰線에서 米院地區로 철수하려 한다.

② 제11연대

㉞ 연대는 10.06.00부로 36번 道路 左側 地帶內에서 遲延戰을 敢行하면서 吉洞(九安里 西南쪽)에 집결한 다음, 新基里(九安里 東南쪽 2km)―佳壯洞(新基里 西쪽 1km)線을 占領하여 제13연대의 철수를 掩護하라.

㉟ 제12연대의 掩護下에 米院(槐山 南西쪽 22km)으로 이동하여 사단의 西側方을 防護할 준비를 하라.

③ 제12연대

㉞ 연대는 10.06.00부로 36번 道路 右側 地帶內에서 遲延戰을 敢行하면서 九安里에 집결한 다음 槐山(陰城 南東쪽 13km)으로 이동하여 사단 豫備가 되라.

㉟ 槐山北쪽의 五龍洞(槐山 西北쪽 2km)―丁用里(五龍里 西쪽 1.5km)線에서 제11연대의 철수를 掩護할 준비를 하라.

④ 13연대

㉞ 연대는 最初 제 11, 제12연대의 철수를 掩護하라.

㉟ 제11연대의 掩護下에 米院으로 이동하여 사단 사령부와 각 연대를 收容할 준비를 하라.

- ⑤ 공병대는 제12연대가 槐山을 철수한 뒤 槐山橋를 폭파하고, 槐山南쪽의 19번 道路에 對戰車障礙物을 설치하라.
- ⑥ 제 6 사단 제 7 연대(배속부대 포함)는 10. 06. 00부로 配屬解除한다.
- ⑦ 협조지시
- ㉔ 落伍者 統制線과 수집소는 최초 吉善里(九安里 南쪽 1km)—馬松里間에, 다음은 大德里(槐山 東쪽 2km)—五龍橋(槐山 西쪽 6km)에 各各 設置운용한다.
- ㉕ 九安里부터 507번 및 19번 道路의 사용 優先順位는 다음과 같다.
1. 戰死傷者의 後送車輛
  2. 彈藥補給 車輛
  3. 步兵 部隊
  4. 通信 部隊
  5. 工兵 破壞組
- ㉖ 제 6 사단 제 7 연대는 道安에서 512번 道路를 利用하라.
- ㉗ 地帶內에 誘導兵을 설치하여 철수부대를 집결지로 유도하라.
- ⑧ 補給사항
- ㉘ 彈藥은 各 阻止線에서 계속 지원한다.
- ㉙ 補給品은 先發隊와 같이 米院으로 後送하라.
- ㉚ 軍 彈藥補給所와 陸軍病院은 大田에 위치한다.
- ⑨ 지휘 및 통신
- ㉛ 사단 지휘소는 10일 12.00부터 槐山에서 開所하며, 12일 12.00以後부터는 米院에서 開所한다.
- ㉜ 遲延戰 수행간 사단장은 掩護부대와 같이 위치한다.』

### 1. 제12연대의 遲延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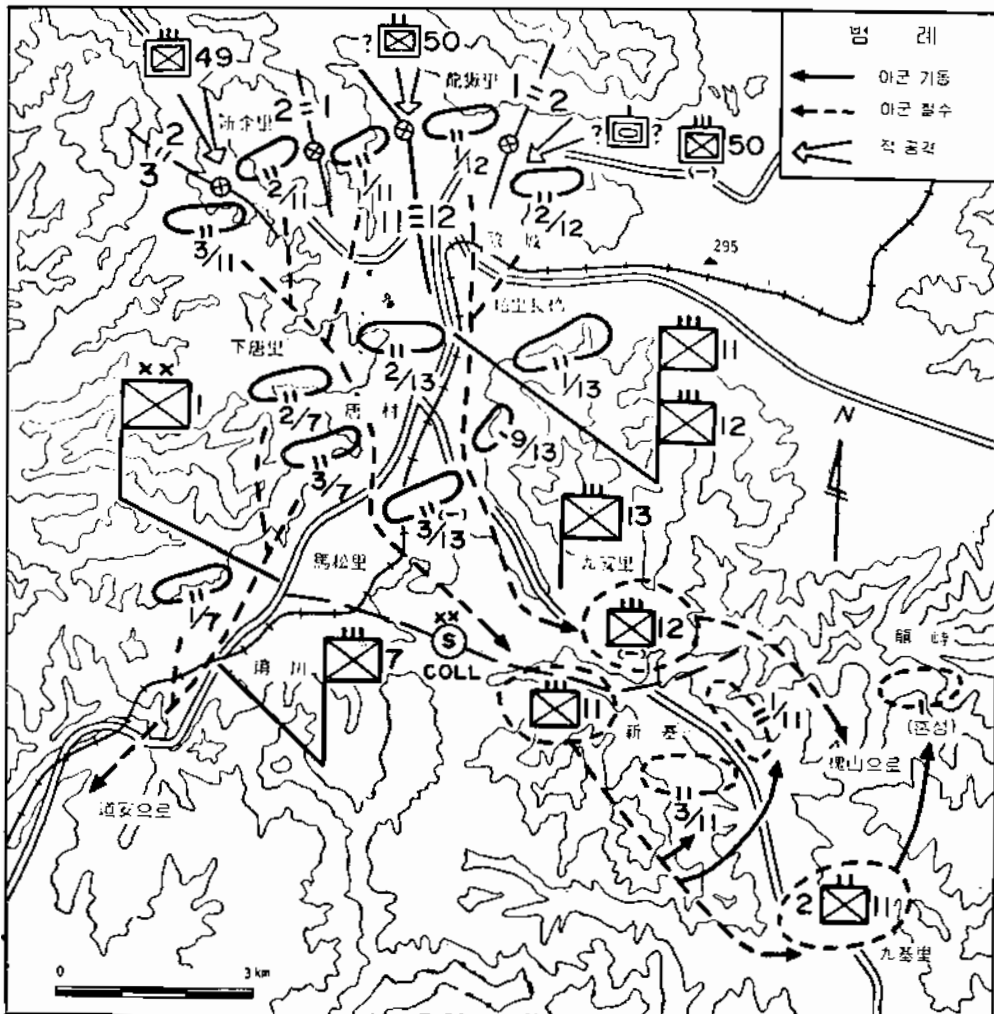
사단장으로부터 撤收명령을 受領한 연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이 명령을 下達하고 隸下 대대의 철수를 지휘하였다.

- 『① 연대는 10. 06. 00을 期하여 現 戰線에서 槐山附近으로 撤收하여 新 防禦陣地를 占領, 사단의 철수를 掩護하고 敵의 南下를 阻止코자 한다.
- ② 제 1 대대는 06. 00를 期하여 제 2 대대의 掩護下에 現 陣地에서 철수하여 九安里(陰城 南쪽 6km)에 集結하라.
- ③ 제 2 대대는 제 1 대대의 철수를 掩護하고, 제 1 대대가 陰城川을 通過한 다음 제13연대 . 의 掩護下에 九安里에 集結하라.
- ④ 협조지시

- ㉞ 各 대대의 철수로는 透明圖 參照
- ㉟ 최초 집결지에 이르는 철수로에 誘導兵을 설치하라.
- ㊱ 各 線의 先發隊要員과 補給品은 車輛이동하라.
- ㊲ 九安里—槐山間은 徒步行軍한다.
- ㊳ 철수간 발생한 患者는 사단 醫務隊(槐山중학교)에 後送하라.
- ㊴ 연대장은 철수간 제 2대대와 같이 행동한다.』

지난 밤 23.00부터 波狀的으로 攻勢를 取한 大召院方面의 敵은 날이 밝아오면서부터 점차 砲擊을 熾烈하게 하고, 裝甲車를 앞세워 坦坦大路인 36번 道路를 따라 제 2대대(장, 李茂重 소령)前面으로 肉迫하고 있었다.

◇ 상황도 제26호 陰城撤收(7.10.06.00)



연대장은 이러한 狀況을 勘案하여 그들 勢力이 輕微한 제 1 대대(장, 申鉉洪 소령)부터 撤收케 하고, 제 2 대대로서는 陰城을 向하여 치닫고 있는 敵의 先鋒을 △393 前面에서 阻止케 하였다. 그리고 제 2 대대의 철수는 △393의 南쪽이 開豁地인 때문에 別途의 掩護手段을 講究치 않고 제 13연대(장, 崔榮禧 대령)의 掩護를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12. 00에 九安里에서 部隊를 收拾하고, 20. 00에는 槐山중학교에서 部隊를 整齊케 한 다음, 11. 06. 00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槐山 北쪽의 五龍洞—丁用里線에 防禦陣地를 編成하고 제 11연대의 철수에 대비하였다.

## 2. 제 11연대의 遲延戰

敵은 사단의 右 1線에서와 같이 左 1線인 제 11연대 正面에서도 지난밤 23. 00를 契機로 날이 밝은 때까지 波狀的으로 侵攻하였으나 그때마다 제 2 포대의 集中砲火로 말미암아 그들의 企圖가 挫折되고 마침내는 正面 衝突을 피하여 豫期치 않는 곳에서 奇襲할 것을 피하였음인지 04. 00부터 普賢山 西側을 迂回하여 下唐里附近에서 陰城으로 逆攻을 試圖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였으나, 이때 下唐里를 堅守하던 제 7연대 제 2 대대(장, 金鍾洙 소령)와 맞부딪치게 되었다.

연대장 崔慶祿 대령은 이곳의 地理를 살려서 얼마간은 더 支撐이 可能할 것으로 보았으나, 大勢에 따라 06. 00부터 각 대대를 逐次的으로 철수시켜 18. 00에는 계획된 阻止陣地를 占領하고 제 13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도록 하였는데, 제 1 대대(장, 張根述 대위)는 新基里(九安里 南東쪽 4km)에 제 3 대대(장, 金在命 소령)는 佳壯洞(新基里 南쪽 1km)에 各各 配置하여 507번 도로를 遮斷하고, 제 2 대대(장, 鄭永洪 소령)는 九基里(佳壯洞 南東쪽 2km)에 控置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敵 接近의 早期경고와 阻止陣地의 欺瞞을 위하여 각 대대 前面의 要處에 1개 중대 규모의 前進陣地를 編成케 하고, 豫備인 제 2 대대에서는 1개 중대를 差出하여 龍峙(新基里 東쪽 3km)에서 연대의 右側方에 對한 警戒임무를 遂行케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제 13연대가 철수한 다음날인 12일 02. 00 敵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槐山 方面으로 철수하였으며, 이들을 제 12연대에 넘김과 同時에 松亭里(米院 西南쪽 5km)로 移動하여 사단의 西側方을 防護케 되었다.

## 3. 제 13연대의 撤收

사단의 제 2線을 形成하고 있던 제 13연대(장, 崔榮禧 대령)는 제 1線연대가 陰城을 떠난 11. 00부터 敵 제 15사단과 맞 부딪치게 되었다.

연대장은 지난 밤 敵의 砲擊이 警戒陣地에 集中하고 있을때 제 3 대대의 철수를 命令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敵의 一部는 同대대의 後面을 遮斷한 듯 하였다. 이를 모르고 철수중이

던 同대대는 △295(陰城東쪽 4km) 南麓의 忠北線沿邊에서 그들과 부딪쳐 分散되었으며, 대대장 崔炳淳 소령도 이때의 混雜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單身 철수케 되었는데, 그는 當時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일 23.00부터 敵 砲擊이 熾烈하여 대대는 △295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의 철수르는 516번 道路를 따라 陰城을 거쳐 本陣으로 철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高地의 北側에 있던 各 중대는 敵彈이 雨注하는 가운데에서도 秩序있게 그 南側으로 철수하여 鐵道를 橫斷하려 하였는데, 이때 敵의 喊聲과 함께 奇襲을 받게 되었다. 너무나 近距離에서 맞 부딪치게 되었기 때문에 彼我間 銃擊을 못하고 暗中格鬪가 벌어졌으며, 彼我의 識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철수目標가 定해져 있었기 때문에 無言中에 南쪽으로 빠져 나가 그들의 重圍를 벗어날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部隊는 分散되어 各個行動을 취하게 되었고, 대대장인 나도 單身으로 陰城川을 渡河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03.00에 編成된 陣地에 集結하고 點檢한 結果, 2개소대의 兵力이 未着하고 對戰車砲 중대(장, 朴哲遠 대위)가 보이지 않음을 確認케 되었다.

이 報告에 接한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大怒하여 即刻 이들을 救出 하도록 嚴命했고 연대장 崔榮植 대령도 대대로 하여금 對戰車砲 중대를 救出해 내라고 명령하였다. 죽음을 覺悟한 대대는 △229의 제1대대 陣地前面에서 陰城川을 再渡河하고 敵陣으로 接近하였는데, 지난 밤의 格鬪場은 조용하고 으스스무레한 달빛 아래 그들 哨兵이 街路樹나 岩石에 기대어 졸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을 銃劍으로 處置한 다음 對戰車砲 陣地를 確認하였으나 兵力과 裝備 모두가 所在을 알 수 없었는데, 06.00연대로부터 「對戰車砲 중대가 復歸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다시 철수하였다.』

敵은 이날 12.00에 陰城을 占領한 다음, 追尾하는 氣色을 들어내지 않고 있다가 23.00가 되어 또 다시 砲擊을 加하면서 연대正面으로 肉迫하기 始作하였다. 연대는 이 敵을 射擊으로써 遲延시키고 있다가 11일 01.00에 제11연대의 掩護下에 米院地區로 撤收하고, 그뒤 제11, 제12연대의 米院地區 進入을 엄호하게 되었다.

#### 4. 제7연대의 配屬解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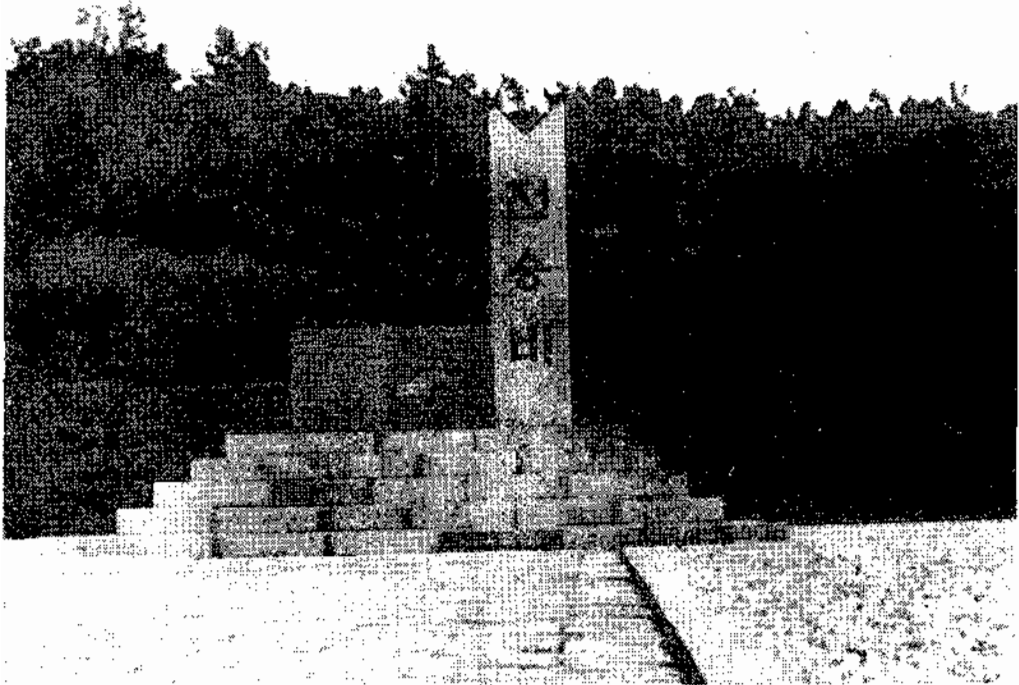
제11연대의 西南쪽 正面에서 敵의 陰城侵襲을 阻止한 제7연대(장 林富澤 중령)는 06.00 제1사단(장, 白善燁 대령)으로부터 配屬이 解除되는 即時로 예하 各 대대와 제2砲隊, 對戰車砲 중대를 道安의 後方指揮所 附近에 集結시키고, 各 隊를 車輻化하여 08.00에 512번 道路를 따라 槐山 經유 延豊地域으로 移動하여 原隊인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에 復歸하였다.

그러나 同연대는 7월 4일 이 地域에 配置된 以來 敵 제15사단을 맞아 善戰奮鬪하여

2,700餘명을 殲殺하고 170餘명을 俘獲하는 外에 2개연대 裝備를 鹵獲하는 戰果를 세워 建軍以來 처음으로 연대 全員이 1階級 特進하는 榮光을 차지하였으며, 그뒤 同연대의 戰功을 길이 빛 내기 위한 戰勝碑가 1973년 7월 7일 當時의 戰跡地인 同樂里에 세워졌으며, 이때 위협을 무릅쓰고 敵情을 軍에 알리기 위하여 同樂里에서 △644의 庵子까지 달려간 同樂國民學校의 金在玉 先生에 대한 顯忠塔이 同校 校庭에 세워져 있다.

### 5. 사단 사령부의 動靜

사단장은 12일 03.00 제11연대의 新基里—佳壯洞線 철수를 契機로 陰城地區 戰鬥를 終結하고, 同일 12.00부로 사령부를 米院에 開設한데 이어, 雙耳里(米院 北東쪽 3km)에 집결한 제13연대를 13일 06.00에 屈時—地境里(槐山 西南쪽 7km)에 展開시켜 제12연대의 槐山 철수를 掩護케하는 一方, 追尾하는 敵을 阻止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장, 대리 權東贊 중령)를 國師峰(△565—米院 西南쪽 4km)에 配置하여 사단의 西側方을 防護케 하였는데, 이무렵 제6사단은 水安堡附近에서, 首都사단(장, 金錫源 준장)은 淸州附近에서 各各 南下하는 敵과 交戰중이고 제1군단은 사령부를 報恩(米院 南쪽 17km)에 두고 있었다. 이때 陸軍本部는 大田에 위치하여 美 地上軍의 赴援을 協議하면서 제2군단 사령부 母體要員을 威



〈同樂里戰의 戰跡地에 세워진 戰勝碑〉

昌으로 移動시켜 이의 創設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에 제 1사단에서도 人事  
異動이 있었는데,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과 作戰참모 金德  
俊 소령이 各各 陸軍本部 명령  
에 따라 首都사단 要員으로 轉  
補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空席이 된 채  
11연대장에 同 연대의 부연대  
장 權東贊 중령을, 作戰참모에  
前 제 5사단 作戰참모 文亨泰  
중령을 各各 補任하고, 米院에  
서 收容한 前 제13연대 情報主  
任 崔赫基 소령을 사단 情報참  
모로, 作戰참모 補佐官으로 있  
던 尹千奉 소령을 제13연대 情  
報주임으로, 동 연대의 情報주  
임인 崔大明 소령을 作戰참모  
補佐官으로 各各 任命하는 人  
事이동이 있었으며, 또 한편으  
로 사단장은 各 연대單位로 開  
戰以來只今까지의 戰鬥경과개요를 日字別로 要圖를 添付하여 追證케 하고, 그 뒤의 戰況은 戰鬥詳報로써 保存토록 하였다.



〈同樂里國民학교 校庭一隅의 金在五先生의 顯忠碑〉

### 라. 전투후의 개황

제 1군단장 金弘壹 소장의 명령에 따라 陰城地區를 철수케 된 제 1사단은 13일부터 米院地區에 새  
로운 阻止線을 形成하고 꼬리를 풀고 뒤따른 北傀 제15사단과 對戰케 되었다.

當初 그들은 我軍의 退路를 차단할 目的으로 後方地域에 대한 侵透를 企圖하였던 것이지만 4일 제  
7연대에 依하여 陰城地區에서 阻止된 以來 8일에는 제 1사단에 이어서 同地區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인데, 그들 最高사령부는 제 2군단 隸下의 各 사단의 進出이 늦다는 理由로 10일부로 同 軍단장  
소장 金光俠을 罷職 軍團參謀長으로 降任시키고, 前 中共軍 砲兵 사령관을 지낸 바 있는 중장 金武  
亨을 그 後任으로 내세워 책적을 加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때 米院附近까지 肉迫  
하였으나, 사단의 頑強한 抵抗과 美空軍의 空中攻擊에 부딪쳐 더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였음  
인지 15일부터 사단과의 接觸을 끊고, 東側方의 險峻한 山間路를 따라 그 進路 開拓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陸軍本部는 西部地域으로 集中하였던 敵이 점차 中部—東部地域으로 移動하고 있음을 看破하고, 7월 12일부터 2군단(장, 金白—대령)사령부를 咸昌에서 常設하여 地域內의 제 6, 제 8사단을 作戰統制케 하는 한편 陸本 直轄인 제17연대를 同월 17일부터, 그리고 제 1군단 사령부 配屬下의 제 1사단을 22일부터, 各各 同 軍단 指揮하로 配屬轉換케 하였다. 따라서 제17연대와 제 1사단은 咸昌으로 各各 下命된 日字에 移動케 되었는데, 化寧場(報恩 東쪽 23km)에서 敵 제15사단과 遭遇하고 또 한차례 激突케 되었다.

期間중 제 1사단과 제 7연대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 戰 果

部隊	區分	사 살	포 로	各種砲	追擊砲	裝甲車	機關銃	車 輛	小 銃	無電機
제 7 연 대		2,707	170	24	31	7	55	65	1,087	4
제 1 사 단		236	18				7		110	2

### 損 失

部隊	區分	전 사	부 상	M-1소총	CAR소총	비 고
제 7 연 대		1/17	8/105	15	7	장비는 포격으로 파손
제 1 사 단		1/9	9/72	11	9	"

### § 參戰者의 證言

◇ 제 7연대 제 2대대장 金鍾洙 소령  
(1978. 3. 3 제 2군 사령관실에서 육군 중장)

敵이 全戰線을 휩쓸고 있을때, 제 7연대는 北傀 제15사단을 車嶺山脈의 한 줄기인 陰城地區에서 맞아, 그중 1개연대餘의 兵力을 殲殺하고 그들이 가졌던 全 裝備를 虜獲함으로써 그들의 進出速度에 制動을 加하게 하고 또한 그들 南侵計劃 全般에 걸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빛나는 戰功에 가리워진 한 女先生의 不屈한 反共精神을 紹介하고자 한다.

北傀가 38°線을 侵攻한 以來 우리는 數 많은 피난민을 目擊하고 그들과 隊列을 같이 하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國軍 勇士들 手酷한다.』든가 『잘 싸워달라』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 본 적은 있었는데, 7월 6일 陰城地區의 어느 庵子에 모인 피난민중 한 女人으로부터 『北傀軍이 學校를 占領하고 마을을 掠奪하고 있는데도 國軍은 도망만치

고 있다.』고 國軍의 無力함을 倣歎하고 詰責하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나는 △644에 觀測所를 設置하고, 部隊配置를 하였으나 얼마 前 피난민이 울부짖던 소리가 마음에 걸려, 前 대대情報官이던 尹銖膺 소위로 하여금 그 發說者를 進行케 하였던 바, 그는 同樂國民학교의 金在玉이라는 女先生이었다.

나는 그에게 『敵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傀儡軍은 至今 同樂里와 學校를 占領하고 가진 蠻行을 恣行하고 있는데도 왜 國軍은 그들을 보고만 있느냐, 장차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며 어린 學生들은 어디서 공부하라는 것이냐.』며 哀訴하는 것이었다.

女先生이 말한 同樂國民學校란 지난 밤 대대가 最初로 敵과 遭遇하였던 同樂里에 있는 학교이다 그를 둘러 보면 다음 雙眼鏡으로 그 附近을 살펴 본 바, 果然 학교 運動場에는 그들 砲와 叉銃시켜 놓은 小銃들로서 岌 차 있고, 나무 그늘 밑에는 休息을 취하고 있는 그들 兵士들에 倣해서 地面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一部 兵力이 民家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夕食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너무나 엄청난 兵力과 裝備를 갖추고 있는 그들에 比하여 300餘명의 小銃兵으로서는 감히 相對할 바가 없되었다. 그리하여 各 中대장들을 集合시켜 敵情을 확인하게 한 다음, 이에 對한 對策을 討議한 결과, 『연대장의 명령이 △644를 확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當然히 연대장의 事前承認을 받은 다음에 行動하여야 한다. 設使承認을 받는다 하여도 結果는 「잡자는 獅子의 鬚鬚을 건드린 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反對論과 『敵을 눈 앞에 두기도 어떻게 못 본척할 수 있겠는가? 그들과 싸우다가 玉碎하는 限이 있어도 싸워야 마땅하다.』는 積極論을 내 세우는 意見과 兩立하게 되었다.

兩者의 意見이 다 一理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대장인 나도 後者를 擇하여 敵과 싸우기로 決定하고 그 結果는 그들을 殲滅시켜, 當時 萎縮一路에 있던 軍의 戰意와 士氣를 振作시켰고, 나아가서는 國民으로부터 疎外 當한 軍에 대한 信賴感을 恢復케 하는데 一翼이 되었다고 보나, 그때 그 金在玉 先生과 같은 透徹한 反共精神의 所有者가 없었던들 우리는 아마 反對의 現象에서 비참한 結果를 초래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 제11연대 제6중대장 楊鳳植 대위  
(1978. 3. 18 貞陵洞 自宅에서 豫備役 중장)

當時 제6중대가 曾坪에 集結한 兵力은 80餘명이었다.

연대는 이곳에서 특별명령 제1호(50.7.7)로써 空席중인 대대장, 중대장級 지휘관을 再任命하여 지휘체제를 확립케 되었는데, 제1중대장 張根述 대위가 제1대대장 대리로, 그리고 제6, 제9, 제11중대를 除外한 중대장들이 各各 새로 任命되었다.

중대는 다음 날 午後 陰城 西北方 所餘里라는 곳에 配置되었는데, 日暮時에 油峴에 나가 있던 警戒소대(장, 洪正杓 중위)로부터 1개소대 規模의 敵이 遇過하고 있다는 報告에 이어 5分 뒤에는 1개대대 규모가 密集縱隊 隊形으로 대대 正面으로 移動하고 있다고 報告 되었으며, 대대장 鄭永洪 소령으로부터는 射擊명령이 下達될 때까지 一切 射擊을 禁한다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이 20~30m 前方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격준비태세만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 縱隊가 대대防禦地域內로 完全히 들어갔다고 생각되었을 무렵 대대장의 『射擊開始』信號와 함께 300餘個의 銃口에서 불을 쏘기 始作하였고, 路上의 敵은 悲命을 울리며 쓰러져 갔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敵을 더 追跡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이 西쪽으로 逃亡했는지 그곳에 配置된 제3대대 地域에서도 銃聲이 일기 始作하였다.

如何든 開戰以來 처음 있었던 痛쾌한 戰鬪였는데, 다음 날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대는 이 戰鬪에서 100餘명을 射殺하고 10餘명을 俘獲하는 戰果를 올렸던 것이다.

◇ 同樂國民學校 敎師 崔鍾悅  
(1978. 7. 20 同樂國民學校에서 敎務주임)

6.25戰爭이 發勃할 當時 當校에는 校長 梁德柱 선생을 위시하여 男先生 7명 女先生 2명 都合 9명이 補職되고 있었다.

7월로 접어들면서 敵이 驪州, 長糊院으로 侵入하고 있다는 風聞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休學승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各 先生은 避難處를 찾아 學校를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풀려난 9월 中旬에 復校하였는데, 金在玉이라는 女先生만이 學校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가 師範學校를 卒業하고 첫 赴任하여 1개월이 좀 지났을 무렵에 생긴 일로서, 그의 故郷은 여기서 멀지않은 陰城郡 甘谷面 舟川里(長糊院 南쪽 5km)였으나 도라가지 않고 學校에 머무러 있던중, 7월 6일 傀儡軍이 學校를 占領하고 마을에서 掠奪을 恣行하고 있는 것을 目擊한 것이다. 이때 金 敎사로부터 들은 바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언제나 다름 없이 學校에 나와 있었는데 그날 點心때가 되었을 무렵 밖이 소란하여 내다 보았더니 傀儡軍이 學校運動場으로 들어 서고 있었다. 學校밖으로 나가 숨어서 그들 動靜을 살피 보았더니, 이마을 青年團長 韓相俊이 殺害되고, 家家戶戶의 소, 돼지, 닭등이 마구 屠戮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들 눈을 피하여 無極里로 攻擊중이라는 國軍에 告하기 위하

여 △644의 險한 稜線을 몇개 넘어 同 高地의 西側 中腹에 있는 庵子까지 뛰어 갔다. 거기에는 避難民들이 뭉여 있어서 잠시 둘러서 그곳 事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때에 無極里로 進出하고 있을 것으로 알았던 國軍이 庵子 앞을 지나 △644로 가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서슴치 않고 「同樂國民學校에 敵이들어 마을 사람을 虐殺하고 家畜을 掠奪하고 있으니, 빨리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呼訴하였다.

그런데 이날 夕陽때부터 日沒時까지 同樂里는 온통 불 바다가 된듯 하였는데, 다음날 알고보니 이 마을에 侵入했던 敵은 全滅되었었다.』

金在玉 先生은 그뒤 國軍장교 李得周 소위와 結婚하여 軍人家族으로써, 江原道 麟蹄郡 南面에서 兵器대대장인 夫君을 도와 國防의 一翼을 맡고 있던중 1963년 10월 19일 哀惜하게도 一家沒殺의 不祥事를 당한 것이다.

國防部는 金 교사의 反共精神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장과 여교사」라는 映畫를 製作하여 全國에 걸쳐 上映케 하였으며, 當時 迫擊砲 班長이던 申用寬 중위는 故人이 된 金 교사의 反共精神을 後世에 길이 알리기 위하여 1968년 12월 17일 同樂國民學校 校庭에 顯忠塔을 建立하였다.

## § 戰 訓

### ◇ 健全한 部隊運用

제 7연대 제 2대대가 7월 4일 長湖院 方面으로 轉進중 毛陶院(陰城 北쪽 7km)에서 敵 偵察隊와 遭遇하여 그들을 擊退시키고 그곳에서 防守 태세를 取하였는데,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익일 05.00 그곳을 비워준채 제 19연대의 철수를 支援키 위하여 鎭川을 向하여 떠났고, 그 자리에는 兵力을 收拾중이던 제 3대대가 配置되었다. 그리하여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問題視되었던 것은 아니나, 이때에 接敵중인 대대를 反轉케 한 것이 最善의 方策이었던가에 對하여는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戰爭은 相對的인 것이고 敵은 항상 우리의 虛를 찾고 있다는 것을 銘心할때, 戰場에서의 部隊運用은 事態의 輕重과 健全한 狀況判斷에 基礎를 두어야 할 것이다.

## § 研 究

### ◇ 戰鬪 명칭 設定에 대하여

陰城附近의 戰鬪는 지금까지 一般的으로 無極里 戰鬪로써 널리 알려졌으며, 既 刊行된 여러 戰史에서도 無極里—陰城附近의 戰鬪라는 標題下에 마치 無極里에서 一大 激戰이 있었던 양 크게 浮刻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軍事教育機關에서도 開戰初期 我軍이 大勝한 戰例중의 하나로써 無極里 戰鬪를 내 세우고 있다.

그런데 實相 戰鬪內容을 살펴보면, 7월 6일 제 6사단 제 7연대 제 2대대가 同樂里(陰城 北쪽 7km)에서 裝甲車와 砲兵으로 增強된 敵 1개연대를 殲滅하고 同일 同연대의 제 1대대가 油峴(陰城 西北쪽 4km)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을 擊破한데 이어, 8일에는 제 1사단 제 11연대 제 2대대가 同 地域에서 1개중대 규모를 潰滅한 것으로 記述되어 있으며, 當時의 參戰者와 그곳 住民들도 이를 榜證하고 있다.

그렇다고 無極里(油峴 西北쪽 4km)에서 戰鬪가 없었다는 것은 勿論 아니다. 이곳의 戰鬪는 油峴附近 戰鬪의 延長으로써, 退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그들 支配下의 無極里를 一時 奪還하였다는 事實以外에 이렇다할 戰鬪狀況이 없었으며, 그들에게 逆襲으로 말미암아 2시간만에 그곳에서 白也里(無極里 南쪽 3km)로 옮겨 그들과 對峙케 되었다.

이러한 考證들을 勘考컨대, 이 附近의 戰鬪를 無極里 戰鬪라 함은 本末을 顛倒하는 것으로써, 本節에서는 이를 陰城附近의 戰鬪라고 하여 그 附近의 戰鬪를 이에 統合시켰다.

### 4. 鎭川—淸州 附近 戰鬪 (1950년 7월 6일) (1950년 7월 17일)

참조: 兪濟북도 제 9 호  
상 황 도 제 27~34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군단	장 소장 金 弘 壹	제 2 대대	장 소령 鄭 昇 和
混成수도사단	장 대령 李 鍾 贊	제 3 대대	장 소령 朴 泰 元
(수도사단으로 改稱(7.5부))		제 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준장 李 俊 植	제 1 대대	장 소령 朴 哲 用
	(7월 5일 부터)		(一名 四龍)
	준장 金 錫 源	제 2 대대	장 소령 張 春 權
	(7월 7일 부터)	제 3 대대	장 소령 金 鳳 霜
제 1 연대	장 중령 李 喜 權	배속부대	
	중령 尹 春 根	독립기갑연대	장 대령 劉 興 守
	(7월 15일 부터)	제 17연대	장 중령 金 熙 濬
제 1 대대	장 소령 張 泰 煥	제 20연대	장 대령 朴 基 丙
제 2 대대	장 소령 李 義 明	군단제 2 포병중대장	대위 金 燦 福
제 3 대대	장 소령 李 哲 源	右인접부대	
	소령 金 煌 穆	제 1 사단	장 대령 白 善 輝
	(7월 12일 부터)	左인접부대	
제 8 연대	장 중령 李 賢 進	美제 24사단장	소장 William F. Dean
제 1 대대	장 대위 姜 正 喜		
敵		軍	
제 2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 1 연대	장 대좌 未 詳
	중장 金 武 亭	제 5 연대	장 대좌 崔 勇 進
	(7월 10일 부터)	제 6 연대	장 대좌 金 廷
제 2 사단	장 소장 崔 賢		

## 나. 전투전의 개황

混成수도사단은 50年 7月 3日 漢江방어선에서 激戰을 치르고 물러난 뒤 國一命(陸) 제 2호 50年 7月 5日부에 의하여 신설한 제 1군단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首都사단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京釜國道를 東쪽으로부터 威脅하려는 北傀 제 2사단을 鎭川과 淸州에서 맞아 싸운 것이 取扱되는 12日間의 攻防戰이며 이결과 그들이 大田으로 侵攻하려던 企圖를 粉碎하는 동시에 軍의 戰線整齊를 위한 時間의 餘裕를 얻는데 寄與하게 된 것이다.

敵軍의 상황: 北傀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은 春川을 占據한 다음 서울 東쪽으로 西南進하여 漢水以北의 我軍主力을 포위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제 6사단(장, 金鍾五대령)의 打擊을 받는데에 이어 利川에서 我軍과의 衝突 및 空爆으로 손실을 입으면서도 게거름을 하여 鎭川으로 밀어 담겼다.

여기에서 그들의 이른바 제 3차 침공계획을 一瞥하면 中部以西의 我軍을 車嶺山脈과 小白山脈間에서 捕捉하려 하고 제 2사단을 中央으로 하여 鎭川-淸州를 直衝하므로써 中, 西部로 戰線을 兩斷한 다음 餘勢를 몰아 大田侵攻 때에는 左翼으로 부터 壓迫하려는 企圖로 判斷되었다.

이에 따라 同사단은 서울에 선치한 前線司令官 金策및 여기에 나타난 魁首의 狂氣어린 奮戰으로 日夜의 區分없이 戰車 10臺를 앞세우고 竹山(鎭川 北쪽 23km)으로 指向하고 7월 6일에는 제 6사단 제 19연대(장, 閔丙權중령)를 尾擊하면서 中山里(鎭川北쪽 5km)부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西쪽은 玉女峽(中山里 西쪽 2.5km)으로 부터 東쪽은 新月里(中山里 東쪽 1.7km) 사이에 展開하였는데 이 무렵 그 西側의 北傀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天安을, 제 15사단(장, 소장 朴成喆)은 陰城을 目標로 各各 南侵하고 있었다.

當面の 敵 제 2사단 병력은 春川과 利川에서 1개연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推算되었으나 그뒤 南侵中에 측차로 보충(그들은 南北韓 동시에 効力을 發生하는 戰時動員令을 7.1發令하여 이미 115,000명을 強募)하여 現제병력인 12,000명에 이르고, 주요장비는 戰車 10臺를 비롯하여 SU-76 自走砲 12臺 122mm 榴彈砲 26門, 76mm 榴彈砲 13門, 45mm 對戰車砲 43門, 120mm 迫擊砲 12門 등이다.

그들의 戰力面에 있어서는 緒戰에만 하여도 空地協同訓練이나 山岳戰까지 마친 水準級인 사단으로 評價되었으나 南侵하는 동안 3분의 1 이상의 古參이 손실되고 또 春川에서의 敗戰責任으로 사단장 李青松이 崔賢과 更迭되었다. 이와같은 魁首의 發惡으로 말미암아 上下가 恐怖분위기에 쌓이고 더욱이 補給마저 我軍의 空襲으로 斷絶되다싶이 되어 現地掠奪로 延命해야 할 상태였던 까닭에 士氣가 극도로 低下되었음이 俘虜의 진술에서 밝혀졌다.

我軍의 상황: 수도사단은 國一命(陸) 제 2호(50.7.5)에 의하여 신설된 제 1군단에 편입되면서 예하에는 제 1, 제 8, 제 18연대가 隸屬되고 이날 軍단 作命 제 1호(50.7.5)에 따라 平澤으로 集結하게 된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무렵의 사단은, 사령부만이 그 모양을 갖추었을 뿐으로 各연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把握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고 심지어 철수하는 장병으로부터 부대의 位置를 알아내야 할 程度로 未收拾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禍中에서 7월 5일에 新任한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은 平澤郡廳에 임시로 자리잡고 있는 陸軍本部로 急行하여 麾下부대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 計劃上으로는 一見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으나 실제 用兵上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直感하였다.

그는 猶豫할 수 없는 當面한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첫째는 사단장의 交臂요. 다음은 陸軍本部 作命의 履行이었다.

먼저 사단장의 補任문제에 있어서 그는 始興地區戰團司令官으로 있을 때 混成수도사단을 지휘하고

있던 李鍾贊대령이 극도로 쇠약하여 고통을 받았던 사실을 想起하고 同사단장에는 陸軍士官學校校長 李俊植준장으로 補할것을 進의하여 承認이 되었고, 다음은 陸軍本部 作命 제2호(50.7.5 10.00)에 의거 安城—發安場(鳥山 西쪽 6km)간에 阻止障地를 점령하라는 명령에 따라 干先 集結한 各사단 병력 중에서 1개연대씩을 뽑아 여기에 投入키로 하였다.

이에따라 사단은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를 龍仁부근으로 進出시키고 主力인 제1, 제18兩연대로 하여금 平澤에 집결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날 18.00에 『수도사단은 今夜內에 蛤井里(平澤東南쪽 2.5km)로 集결하라』라는 軍단 作命 제2호를 受領하였다. 이는 現戰線을 陸軍本部 直轄부대 및 美軍에게 닫기고 사단은 軍단의 예하부대로써 鎭川부근으로 轉用하기 위한 예비措置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직후에 軍단장으로부터 『사단은 鎭川으로 轉進하라』는 口頭命令을 받고 各연대는 鎭川으로 向發하였으며 부대별 이동경로와 戰力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연대—漢江線이 무너지면서 부터 分散상태에서 退却하게 되자 연대장 李喜權중령은 兵력을 수습하기 위하여 安養과 水原등에 落伍者수용소를 만들어 兵력을 수습키로 하였으나 그때마다 急追하는 戰車에 밀리는 바되어 離合集散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면서도 平澤에 集결한 中에서도 兵력을 가장 溫存하고 있는 제 1대대(장, 張泰煥소령)에 집중적으로 兵력과 장비를 보충한 다음 車輛(20臺)으로 鎭川을 向하여 先發시키고 殘餘兵력은 부연대장 金煥穆소령이 이끌고 列車편으로 後繼하였다. 이때의 연대 전병력은 800명이요, 重要장비는 81mm 迫擊砲 4門 뿐이었다.

제 8연대—陸軍本部 直轄로 잠시 있다가 사단으로 복귀하면서 東側方으로 楔入하려는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龍仁으로 急派하였음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곳으로부터 철수하여 平澤에서 再편성하였다.

이때 연대의 전 병력은 1,000명이었으며 제 2대대(장, 鄭昇和소령)에 중점적으로 보충한 관계로 제 1, 제 3대대의 병력은 불과 1~200명에 지나지 않았다.

편성을 마친 제 2대대는 列車편으로 天安을 거쳐 鎭川으로 이동하고 그밖의 兵력은 徒步軍군으로 安城을 거쳐 如土(鎭川 南쪽 4km)에서 合勢하였다.

제 18연대—戰前에 제1, 제 2兩대대는 FTC를, 그리고 제 3대대는 제 1기 사병훈련을 각각 마쳤다.

그런데, 제 1대대는 閉戰적전에 휴가 兵력이 많았고, 또한 제 3대대는 漢江을 分散渡河하여 殘存兵력은 1개중대에 미달하였다.

그러나 제 2대대(장, 張春權소령)만은 兵력 600명 및 81mm 迫擊砲 4門, 그리고 機關銃 100%를 확보하고 있어 연대의 命脈을 잇고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列車편으로 烏致院을 거쳐 淸州로 移動한 다음 이곳 師範學校에서 待機하다가 國一命(陸) 제2호(50.7.5)에 의거 제 7사단 제 3연대(병력: 500명)를 흡수하여 우선 제 2대대를 補強하였으며 그 나머지 兵력으로 제1, 제 3兩대대를 편성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이들 대대는 전투대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警戒근무요원 또는 제 2대대의 전투손실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充당하게 된다.

포병—사단면제상의 포병대대는 이미 漢江渡河前에 北岸에서 喪失되고 새로히 7월 6일에 제 1포병단이 大田에서 창설되면서 新型 105mm 榴彈砲 13門을 장비하기에 이르는데 同포병단에서 제 2포병중대로 하여금 수도사단을 직접 火력지원하게 된다.

이와같이 鎭川으로 向發한 사단의 총병력은 7,855명 규모이고, 重要장비는 105mm 榴彈砲 4門, 81mm 迫擊砲 16門, 60mm 迫擊砲 27門, Cal 50 19정이었다.

이 당시 各대는 戰鬪를 눈앞에 두었던 까닭에 부득이 停止하였을 때나 이동중이거나를 불문하고 잠시나마 休息도 原所屬如何를 가리지 못하는 兵力을 再편성하게 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은 副作用도 있었을 것이지만 檢차로 隊伍가 정비되면서부터 士氣가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

期間中, 氣候는 酷暑가 계속되고 가끔 降雨이 있었으나 河川의 氾濫등으로 인한 機動的 制約은 없었다. 그러나 마라리아 患者의 續出로 이에 대한 對策에 憂心하였다.

道路는 長湖院으로부터 鎭川을 거쳐 淸州로 縱斷하는 585번과 여기서부터 報恩—尙州—大邱로 이어지는 25번의 兩路가 京釜國道로 進入한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사단은 陸軍本部 作命 제23호(50. 7. 6)에 의한 군단장의 口頭命令으로 6日 24.00까지 平澤에서 梧倉里(鎭川남쪽 13km)로 집결한 다음 鎭川北쪽에 있던 제 6사단 제19연대(장, 閔丙權중령)의 엄호밑에 鎭川北쪽으로 北進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 18.00에 제19연대는 北傀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의 壓迫으로 中山里(鎭川北쪽 5km)까지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군단장 金弘晝소장은 군단 作命 제 3호(50. 7. 6)로 『賣사단은 급거 鎭川北쪽으로 進出하여 제 6사단의 제 9연대를 수용한 다음 이를 統合지휘하여 南侵중인 敵을 阻止하라』라고 하달하는 한편 그 자신도 淸州를 向하여 直行하였다.

前날인 7월 5일에 사단장으로 赴任한 李俊植준장은 부대를 파악할 여유도 없이 鎭川으로 달려가 때마침 이곳으로 進出中인 제 1연대(장, 李喜權중령)로 하여금 鎭川北쪽으로 躍進토록 한다음 제8, 제18兩연대를 掌握코저 하였으나 그 行方을 알 수 없었다.

이 무렵, 兩연대는 鳥致院쪽으로 부터 徒步 또는 車輛행군으로 淸州로 향하여 이동중에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18연대는 淸州에서, 해체되는 제 7사단 제 3연대를 흡수하여 再편성을 해야 하는 등으로 사단의 主力이 鎭川에 집결하려면 앞으로 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推算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當面한 사단장은, 彼我의 能力을 再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의 우려는 첫째, 兵力集中에 있어서 이미 先制의 利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과, 둘째는, 兵力과 火力에 있어서 敵이 越等이 우세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鎭川부근은 標高 100m内外의 野山과 넓은 벌판으로 현 시점에서 불매에 防者에 불리하다는 것 등이 있다.

즉, 그는 잃어가고 있는 戰場의 주도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는 잠시동안 鎭川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良好한 高地를 점령하여 병력의 집중과 士氣의 회복을 期하였다가 一舉에 敵을 포위섬멸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敵을 鎭川에서 阻止 擊破하려 함.

② 제 1연대는 鎭川에서 敵을 阻止粉碎하고 명에 의하여 遂次 지연전을 실시하라.

③ 제 8연대는 지체없이 烽火山을 점령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④ 제18연대는 지체없이 文案山을 점령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이와 동시에 그는, 사단前方指揮所를 鎭川西南쪽 5km의 驛里에 개설하였다.

## (2) 작전실시

### (가) 鎭川地區 戰鬥

7월 6일 : 30°C를 오르내리는 炎天下에 鎭川北쪽으로 躍進한 수도사단 제 1연대의 先鋒중대는 接敵을 유지하면서 이곳으로 철수하던 제 19연대의 後衛중대를 收容하였다.

鎭川北쪽의 급편진지 편성 : 10.00에 鎭川에 進入한 제 1연대장 李真權중령은 예하 제 1대대장 張泰煥소령에게 1개중대를 鎭川北쪽으로 躍進시켜 遲延戰을 하고 있는 제 19연대의 中隊와 合勢하여 급편진지를 점령, 敵의 침공을 阻止적파하라고 명령하였으며 대대장은 곧 제 1중대(장, 尹興禎중위)를 急派하였다.

이리하여 同중대는 鎭川邑을 빠져나갔는데 이때 人跡도 없는 邑內우체局的 전화 Bell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중대장 尹興禎중위는 잠시 鎭川北쪽에서 벗어나 受話器를 들었더니 『우리는 鎭川을 해방 하려 곧 들어 갈터이니 환영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놈아, 이제는 상황이 달라 졌어, 두말 말고 귀순이나 하라』라고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다.

急行軍으로 中山里(鎭川北쪽 4.5km)에 이른 중대는 제 19연대 後衛중대와 合勢한 다음 585번道路(鎭川—淸州간)를 중심으로 하여 同地 바로 南쪽에 東은 △116로부터 西는 90m 綫에 이르기까지 급편진지를 마련하고 個人壕를 파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敵은 마치 兩중대의 固着을 털어 버리려는 듯이 砲擊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威力은 세차지 못하였다.

이 무렵부터 그들의 探索隊로 보이는 1개소대규모가 前方진지까지 침투하여 散發적으로 사격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兩중대의 潛伏組에 의하여 驅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장 尹興禎중위는 敵의 舉動을 감시하기 위하여 △116로 올라가 몬지가 자욱이 일고 있는 松林리쪽을 雙眼鏡으로 眺望한 바 1개연대규모의 敵이 蟻集중에 있음을 目擊하고 대대에 이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兩중대에 敵情을 알리고 戰鬪態勢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군단장의 作戰指導 : 한편 군단장 金弘壹소장은 淸州地區로 轉進하자 敵의 상황이 사실상 漠然하였는데 사단장 李俊植준장으로부터 『松林리부근에 數未詳의 戰車를 同伴한 1개연대 규모의 敵이 집결중에 있다』는 보고에 接하자 비로소 利川으로부터 제 19연대에 追及하여 南下하던 單隊號未詳의 1개사단규모가 나타날 것이라고 推斷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整齊되지 못한 수도사단만으로는 鎭川을 支撐하기에는 力不足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陸軍本部에 병력증원을 要求하였던바 鳥致院에서 淸州로 행군중에 있는 陸軍本部 直轄 제 17연대(장, 金熙濬중령)를 作命 제 25호(50. 7. 7부)로 군단에 배속하는 한편



독립 기갑연대 장갑제 1중대(장갑차 3대 殘存) 및 同연대 徒步대대, 그리고 제 1포병단(장, 申應均대령)(新設)에서 1개중대(新型 105mm 榴彈砲 4門)를 作命 제27호(50.7.7부)로 각각 증원(명령상에는 同地域 作戰협조로 됨)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들은 배속명령을 받고 비로소 烏致院 및 大田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에 전투배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였다.

7월 7일 : 이날은 아침부터 快晴하며 彼我兩軍은 鎭川을 中心으로한 병력의 集中과 이를 阻止할 陣容의 強化를 서로 다투게 되었다.

中山里의 戰鬪 : 松林里(鎭川北쪽 8km)에 蟻集한 敵은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北傀 제 2사단 예하 제 6연대(장, 대좌 金廷)이며 이들은 이날 14.00에 포병지원밑에 585번 道路의 兩側으로 展開하여 밀려 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中山里 南쪽 稜線을 扼守하고 있던 兩중대(제 1연대 제 1중대 및 제 19연대의 후위 중대)는 그들의 兩注하는 砲擊으로 散兵壕속에서 재대로 應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敵들은 戰車와 砲에 힘을 얻었음인지 鎭川 대열로 바꾸고 戰車도 同伴하지 않은채 南下하고 있었다.

△116에서 이를 지켜보면, 중대장 尹興禎중위는 그 先頭가 至近距離에 이르렀을 때 사격을 명령하여 猛射를 加하게 되니 氣高萬丈하다 不意의 기습을 받은 敵은 中山里 北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兩중대의 위치가 폭로되면서 그들은 병력을 兩分하여 一群은 道路邊을 따라 直衝하는 한편 다른 一群은 美湖川上流의 俗稱 되마루(松林里東南 2km)에서 展開하여 東岸을 따라 迂回하여 중대의 東側方을 强打하기 시작하였다.

兩중대장은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迫擊砲하나 없는(제 19연대 後衛중대는 輕裝할 필요에서 共同火器를 후송조치) 형편으로 迂回하는 敵을 牽制할 수가 없어 다만 小火器 사격으로 接近을 막을 도리 밖에 없었다.

△125(鎭川北쪽 3km)까지 推進하여 兩중대의 戰況을 注視하던 대대장 張泰煥소령은 연대장 李喜權중령의 사전승인아래 중대장의 判斷으로 그들과 接敵을 유지하면서 遲延戰을 실시하라고 명령, 이에 따라 兩중대는 20.30에 敵의 迂回부대가 靑龍里(△116東南쪽 1km)에 이르러 同중대의 背後를 威脅하여 더 이상의 支障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중대장 尹興禎중위는 現점측선으로부터 南쪽 1km인 자레—△94.4간으로 물러나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날 航空偵察보고에 의하면 長湖院(鎭川東北쪽 30km)에는 1개사단 규모의 敵(뒤에 北傀 제 15사단으로 確認)과 戰車 36台, 砲(口徑未詳) 5門, 車輛 40台가 集結중이 있고, 또한 2개연대 규모의 敵(뒤에 北傀 제 2사단의 主力으로 確認)은 廣惠院里(鎭川北쪽 15km)에 集結하고 있다는 諜報가 있음을 볼 때 戰雲은 鎭川上空에 짙어갔다.

사단장의 突然한 交替 : 陸軍本部 일반명령 제 3호(50.7.7부)에 의거 사단장 李俊植중장

은 現職에서 떠나고 새로이 金錫源준장이 野에서 起用되었는데 交替理由는 뒤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군단장 金弘壹소장의 證言) 군단장에게도 하등의 事前 연락도 없이 人事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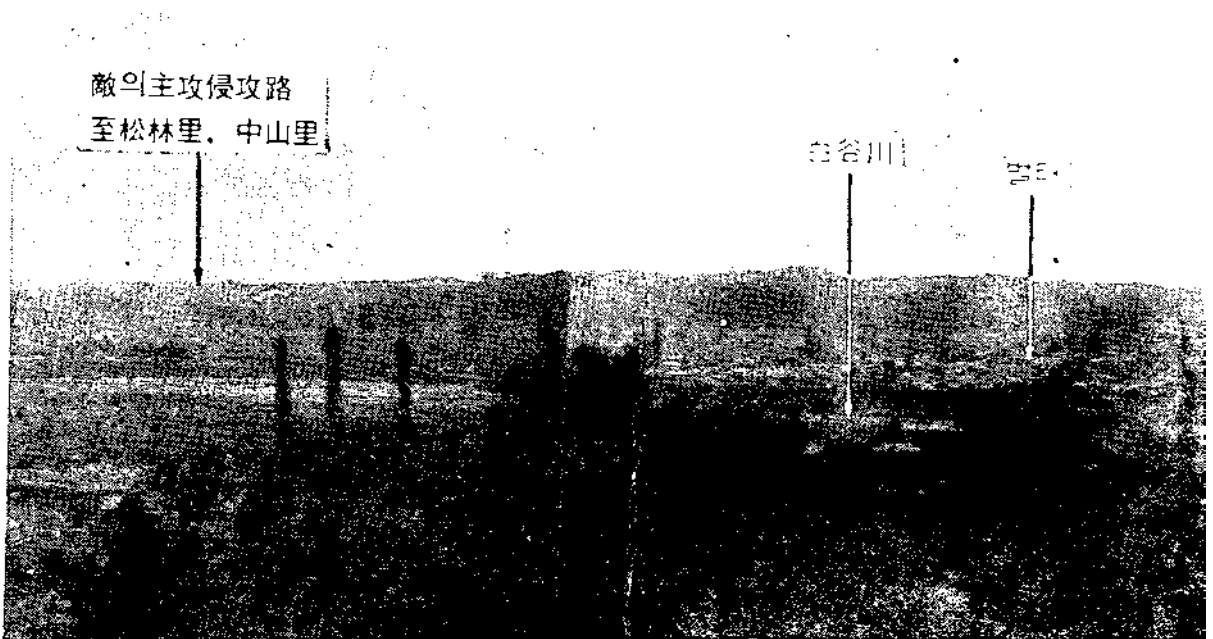
金錫源준장은 피난지 大田에서 學徒義勇軍을 모집중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무장관제로 國防部長官 申性模를 방문하였다가 수도사단을 맡아달라는 要請을 받게되어 그 길로 烏致院을 거쳐 鎭川現地로 直行하였다.

이때에 피난민대열에는 일부의 軍服입은 사람과 警察官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길가에는 落伍兵들도 보였다.

同준장은 靑車에서 내려 軍刀를 손에 쥔채 『軍, 警들은 들으라. 내가 이번에 수도사단장으로 부임하는 金錫源이다. 그대들은 생명을 바쳐 싸워야 하거늘, 지금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北傀에 쫓기어 바닷속으로라도 뛰어들 작정도 아니어늘 銃을 든 그대들의 後退로 우리의 兄弟 姊妹와 老父老母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 것인가,

돌아서라, 그리고 北으로 가자! 이 金錫源이가 앞장 설터이니 같이 가자!』라고 一場號令하니 그들은 즉시 발을 北으로 돌리고 萬歲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氣勢를 몰고 밤 늦게 驛里의 사단指揮所에 到着한 그는 『사단사령부가 이렇게 뒤에 쳐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호령하고 如士(驛里北쪽 3km)로 옮기는 한편 곧 作戰會議를 열었다.



〈鎭川 附近의 激戰場〉

그러나, 포병중대를 비롯하여 사단主力은 다음날 15.00 以後에 비로소 鎭川까지 進出할 距離에서 行軍中에 있음을 알게된 사단장은 于先 제 1연대장 李喜權중령으로 하여금 主力이 到着할 때까지 어떠한 難關을 극복하더라도 鎭川을 固守하라고 강조하였다.

7월 8일 : 이날은 아침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가끔 내렸다. 敵은 사단의 병력 집중보다도 한발 앞서 鎭川을 占據함으로써 彼我는 이로부터 3일간에 걸친 爭奪戰을 벌이게 된다.

鎭川失陷 : 이날 08.00에 敵은 大口徑砲로 공격준비사격을 퍼붓고 난 뒤 戰車를 앞세우고 제 1연대 제 1중대와 제 19연대의 1개중대가 扼守하는 자레—△94.4線을 鎧袖一觸의 氣勢로 侵襲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歩兵을 同伴한 戰車 數臺로 585번道路쪽을 直衝하고 나머지 主力群은 兩隊로 나누어 道路右側의 東城里와 左側의 沙谷里로 각각 行軍隊列을 갖추고 兩중대에 一瞥도 하지 않은채 急進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잠시 中止되었던 砲擊이 다시 시작되어 兩중대의 據點을 盲打함으로써 허술하였던 個人據는 삼시간에 무너지고 混亂속에서 分散된채 鎭川으로 빠져나가 연대主力으로 收容되었다.

이에 이르자 연대장 李喜權중령은 鎭川앞에서 東西로 흐르는 白谷川南岸의 堤防에 依支하여 阻止진지를 전령하고 戰車群으로 증강된 敵 1개사단과의 雄雄을 다투기로 하였다.

그러나 白谷川은 徒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河床이 견고하여 실사 鎭川橋를 폭파한다 할



〈鎭川邑 忠魂塔에서 北쪽을 바라본 遠景〉

지라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없었으며 堤防만이 直射火力을 피할 수 있었다.

사단에서는 鎭川橋를 파괴할 것인가에 대하여 議論이 紛紛하였는데 美고문관은 파괴를 主張한데 대하여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斷乎히 이를 一蹴하였다. 즉 『反擊시에 불편을 주고 폭파했잖아 큰 效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戰車나 砲가 어디서든지 迂回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사단 G-3 朴敬遠소령의 증언)

敵은 30분간에 걸쳐 徒涉點에 대한 공격준비사격과 煙幕彈을 퍼부어 視野를 가리게 한 다음 사격이 延伸되면서 一齊히 徒涉하기 시작하였다.

즉, 白谷川 北岸의 聖石里(鎭川東쪽 1.5km), 사미(鎭川西北쪽 1.5km), 長管里(鎭川西쪽 3km)의 세 徒涉點으로 梯波를 이루면서 건너고 말았다.

얇은 堤防의 後斜面에 壕를 파고 있던 병사들은 炸裂하는 砲火와 머리만들면 날아드는 그들의 기관총掃射에 制壓되고 戰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에 이르자 대대장 張泰煥소령은 雨注하는 彈雨를 뚫고 성산國民學校뒤에 放列한 81mm 迫擊砲 陣地로 달려가 직접 이를 指揮하였는데 灼熱한 砲筒外周에 물을 부어가며 徒涉中인 敵을 打擊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直射火器가 주춤하기에 이르자 병사들은 一齊히 堤防위에 몸을 들어 내놓은 채 닥치는대로 右往左往하는 敵을 射殺하였다.

제 1중대 제 1소대장 金益圭중위의 경우는 CAR을 집어던지고 옆에 쓰러진 병사의 M-1로 바꿔잡고 그들을 하나 하나 狙擊하다가 窮鼠齧猫格으로 發惡하는 敵彈에 頭部貫通傷을 입고 장렬하게 陣歿하였다.

그러나 衆勢에 힘입은 敵은 한때의 混亂을 곧 수습하자마자 3臺의 戰車를 鎭川橋北端의 俗稱 벌터에 바싹 달라붙어 南岸의 虛弱한 堤防을 무너뜨리는 한편 大口徑砲彈을 頭上에 炸裂시켜 연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 狂波는 다시 徒涉을 再開하였다.

연대는 밀려드는 敵勢에 부딪쳐 惡戰苦鬪한 끝에 16.50에 南岸방어線이 무너지고 四散된 상태에서 각개별로 脫出하여, 일단 △149(鎭川西南쪽 1km)의 西麓에서 병력을 수습한 다음 잣고개(烽火山西麓)로 철수하여 사단主力에 合勢하였다.

**M8 裝甲車의 突進**: 수도사단을 支援하라는 명령을 받은 독립기갑연대 장갑제 1중대장 朴容實대위는 M8 裝甲車 3대(이중 한輛은 半軌道車輛)를 이끌고 大田으로부터 제 1군단사령부가 있는 淸州에 도착하여 군단장 金弘壹소장으로부터 『鎭川으로 急行하여 사단장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同중대가 大田을 출발할 때 陸軍本部에 소속된 美고문관으로부터 『本車輛은 戰鬪用이 아니기 때문에 搜索用으로 活用하기 바랍니다』라는 쪽지를 받고 사단에 당도하였던 바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크게 반기면서 『M8 裝甲車가 搜索用인줄 알겠으나 한번 들

어가서(여기서는 鎭川을 말함) 敵을 유린하고 오라』라고 하였다.

鎭川이 눈앞에 보이는 잣고개에 이르자 이곳에는 한발앞서 나온 군단장과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 그리고 장갑대대장 朴武烈소령이 있었는데 裝甲車의 鎭川突貫을 앞에 놓고 한때 대대장은 『鎭川邑內에는 敵의 戰車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高地밀에 까지 敵이 潛入하였는데 어떻게 對戰車戰을 이 裝甲車로 할 수 있습니까?』라고 건의하였는데 연대장은 現時點에서 裝甲車의 戰術인 運用문제를 놓고 云謂할 때가 아니라고 說得하고 突貫을 명령하기에 이르렀고 同席하였던 군단장 金弘壹소장도 연대장의 措置에 沈默을 지켰다.

이리하여 해질무렵에 朴容實대위는 裝甲車 2臺만을 이끌고 잣고개를 躍出하여 鎭川邑內로 竄進하여 俗稱 사랑개(鎭川西쪽 1km로써 邑과 直線間)에 이르렀을 때 300m 앞에 敵의 戰車 3臺가 微動도 않고 停止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대장은 코끼리앞에 쥐가 되어 進退維谷에 빠졌음을 번번히 알면서도 徹甲彈과 散彈을 번갈아 戰車에 集中打를 가하면서 突進하자 休息하던 것으로 보이는 乘務員들은 허겁지겁 戰車에 뛰어 올랐고 옆에 있던 敵兵들은 散彈과 기관총사격으로 分散 潰走하고 말았다.

그러나, 敵의 戰車와 계속 對敵할 수 없음을 알아는 중대장은 즉각 裝甲車를 돌리라고 命命, 좁은 길에서 돌리다가 2臺 모두가 도랑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이때 敵도 當惑하였는지 後尾戰車만 몇발 사격하고는 그대로 도주하고 어둠이 깔린 視野에는 戰車한臺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間一髮의 위기를 면한 중대장은 도랑에 빠진 裝甲車의 엄호사격아래 敵의 戰車로 接近하였던바 마침 無限軌道 안에 있는 앞바퀴의 回轉軸에 命中彈을 맞고 움직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車內에는 戰車병이 없고 乘務員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掠奪品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이를 破壞하여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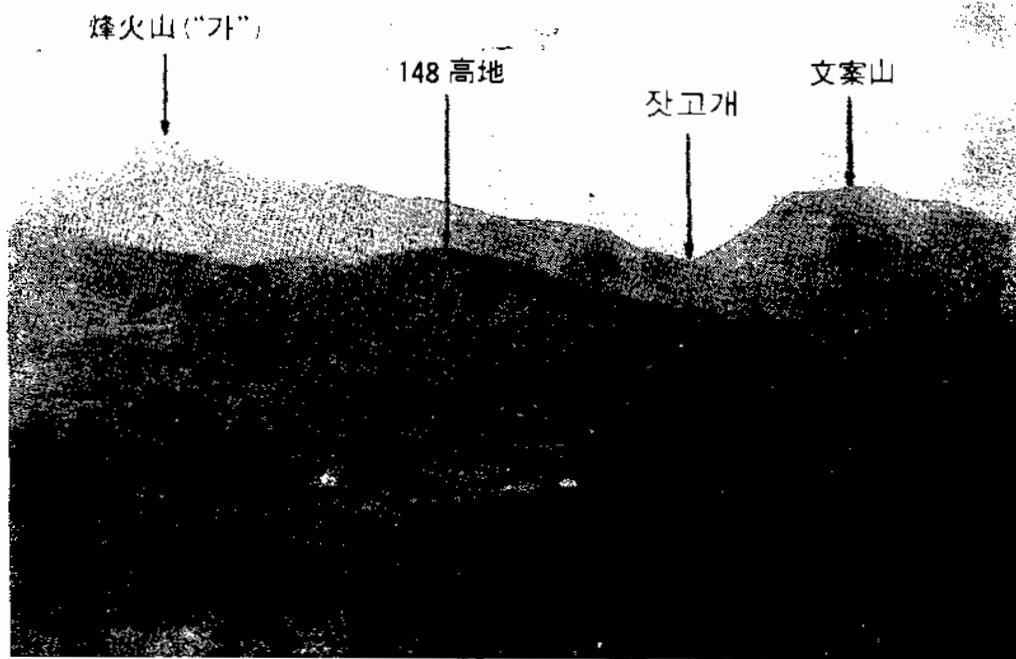
이 戰鬪에서 중대는 裝甲車 2臺, 1/4 TON車 2臺를 잃었으나 人命의 손실은 없었다.

主抵抗線의 形成: 鎭川에서 熾烈한 一戰을 치르던 15.00를 前後하여 사단主力은 如土(사단指揮所가 위치한 곳)에 續續 도착하고 있었다.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이미 鎭川의 戰勢는 기울고 있었으므로 이를 挽回하기 위하여 곧 主力을 投入하는 것이 時宜에 合當하지 못하다고 判斷한 결과 우선 行軍과 戰鬪에서 지친 兵員으로 하여금 休息을 취하게 한 다음 奪還을 期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部署하였다.

즉,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는 사단의 右一線으로서 烽火山에, 제 18연대(장, 任忠植중령)는 左一線으로서 文案山으로 각각 進入시키고 제 1 및 先着한 독립기갑연대는 兩연대의 中央인 잣고개를 扼守케 하였다.

한편 제 17연대(-2)(장, 金熙濂중령)는 사단의 예비로 하여 上桂里(如土西北쪽 2km)에



(鎭川邑(忠魂碑) 南쪽에서 바라본 激戰地)

控置하여 그들이 文案里(文案山西麓)로 부터의 溪谷接近할 企圖를 차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鎭川失陷과 거의 같은 時刻에 金燦福대위가 新型 105mm 榴彈砲 4門(1개중대)을 이끌고 如土에 奮到하자 장병들은 歡聲을 울리며 반겼으며 사단장은 이를 직접 指揮하여 土石里(如土東쪽 1km)에 放列케 하였다.

이날 밤에 燬은 鎭川을 手中에 넣고서도 裝甲車의 기습공격으로 狼狽를 보자 敵部要地인 烽火山 및 文案山을 奪取하려고 두번의 절차 夜間공격을 시도하였으나 擊退되고 碧岩里一校坡里로 물러나 밤새워 探索戰으로 사단과의 接觸을 피하였다.

제20연대의 赴援: 鎭川의 戰況이 심상치 않았을 때 軍단장 金弘杓소장은 때마침 이하의 각사단이 進자를 절령하고 戰況態勢를 갖추자 兩地區의 戰勢를 挽回키로 企圖하였는데 그 計策의 大要는 이러하다.

즉, 軍단의 예비로 蓮灘里(晉州西北쪽 1.5km)에 控置한 제2사단(장, 李翰林대령) 1개 연대를 수도사단으로 증원하여 鎭川을 東西兩面으로 夾攻하여 이를 奪取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構想에 따라 19.00 제2사단의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는 수도사단의 右翼인 △ 161.5(鎭川南쪽 3km)로 躍進하였다.

이때에 제2사단장은 同연대를 抽出한 뒤에 甞길 수도사단과의 虛隙을 메우기 위하여 예

하의 제16연대(장, 文容彩대령)를 九谷里(鎭川東南쪽 4.5km)로 進入시키는 한편 出動한 제20연대 S-1 金英鎭중위 및 통신장교 金弼相중위를 사단指揮所로 불러 兵力과 裝備상태를 물었다.

S-1 金英鎭중위는 대답하기를 『연대의 총병력은 金漢柱소령이 지휘하는 1개대대뿐이며 장비는 砲板없는 61mm 迫擊砲 4門과 경기관총 3門』이라고 하자 사단장은 『사단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通信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通信參謀로 하여금 EE-8 1台와 有線通信線 若干을 支給토록 하였다.

이때의 情景를 S-1 金英鎭중위는 證言에서 『사단장의 실정을 심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였다.

7월 9일 : 이날 새벽부터 쏟아지는 暴雨와 함께 09.00에 敵의 集中的인 砲擊을 信號로 步, 戰, 砲의 一齊공격이 主抵抗線인 烽火山 및 文案山으로 밀려 들었다.

泥濘化된 個人壕와 交通壕는 雨注하는 砲彈으로 말미암아 뒤범벅이 되는데다 死傷者가 續出하자 병사들은 恐怖에 질려 右往左往할 뿐이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거듭된 撤收와 계속된 行軍 그리고 壕과기에 병사들은 극도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行軍途中에 틈틈이 再編한 까닭으로 서로 간의 疎外感이 엉켜 기회만 있으면 隊列에서 벗어나려는 心理가 오히려 戰意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극한상황에서 병력과 장비면에서 越等이 우세한 敵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급기야는 交戰數合에 主抵抗線은 순식간에 崩壞되고 12.00에 敵은 鎭川을 中心으로 南쪽 2.5km에 이르는 半月形의 據點을 占據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장의 緊急措置 : 이리하여 主抵抗線이 무너지자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痛憤을 감추지 못한채 敵의 砲彈이 雨注하는 잣고개南麓까지 나가 軍刀를 뽑아들고 『한사람의 병사라도 이곳에서 물러날 수 없다. 너희들이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亡한다. 어서 모여라』라고 장병들을 叱咤하면서 병력수습에 나서니 슬금 슬금 뒷사람의 눈을 피하여 離脫하려던 병사들은 물론이고 이미 後退한 병사들도 되돌아와 未久에 動搖를 抑制하게 되었다.

한편, 시간을 遲滯할 수 없었던 사단장은 병력을 증강하여 一舉에 鎭川을 奪取하기로 決心하고 그의 構想을 軍단장에게 叱咤하였던바 그는 이를 승인하고 제20연대를 수도사단으로 배속하는 한편 軍단 右翼의 제2사단으로 하여금 東쪽을 掩護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7월 9일 13.30을 期하여 공격을 개시, 院德里, 烽火山, 文案山을 奪取후 鎭川을 攻略하려함.

공격간 제2사단은 사단右翼에서 協同공격할 것이다.

② 제18연대는 사단의 右一線으로서 烽火山の 敵을 擊破하고 鎭川東側을 奪取하라.

③ 제8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으로서 文案山の 敵을 擊破하고 鎭川西側을 奪取하라.

④ 제 1 연대는 독립기갑연대의 도보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585번道路부근의 敵을 直衝하여 鎗고개를 奪取한 다음 계속 鎭川을 目標로 進擊하라.

⑤ 배속부대

(가) 제 20 연대는 사단의 右側에서 院德里를 奪取후 鎭川東側方을 目標로 進擊하라.

(나) 제 17 연대는 사단의 左側에서 文案山 西쪽의 無名高地를 奪取후 敵의 迂回를 粉碎하라.

(다) 독립기갑연대 도보대대는 제 1 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라) 포병중대는 지원사격의 우선권을 제 18 및 제 8 연대에 두라.

⑥ 공격개시선은 現接觸線인 △161.5—土石里(烽火山南쪽 0.6km)—돌패기(文案山南쪽 1km)線이다.』

그런데 아무런 모든 作命의 作成과 下達要領은 사단장이 直接 樹立하고 G-3는 이를 받아 透明圖에 각대별 공격軸線이나 展開地點도 없이 공격목표만을 圖式化하여 下達 하였는데 이는 예하 연대장까지도 대부분 戰術地圖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대장 이하는 이른바 三千里地圖라고 愛稱되는 手帖에 나온 全國地圖나 農家に 붙은 全圖를 뜯어 이용한것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격개시선에 이르기까지의 機動은 물론 공격간 서로 뒤엉켜 混雜을 이루키는 例가 許多하여 作戰上 많은 阻礙을 주기도 하였다.

院德里의 戰鬪(제 16, 제 20 연대)

제 16 연대의 상황 : 사단의 右側面에서 協同攻擊하게 된 제 2 사단 제 16 연대(장, 文容彩 중령)는 九谷里로부터 溪谷을 따라 躍進하여 13.00에는 소가리(鎭川東南쪽 3km)에 이르렀다

이때 연대장의 知己였던 民間人(군사지식이 많았음)이 鎭川에서 빠져나와 提報하기를 院內 에는 自走砲 1門과 소수의 병력이 있다』라고 하여 연대장은 1개중대로 하여금 上德里를 거쳐 鎭川으로 突入하라고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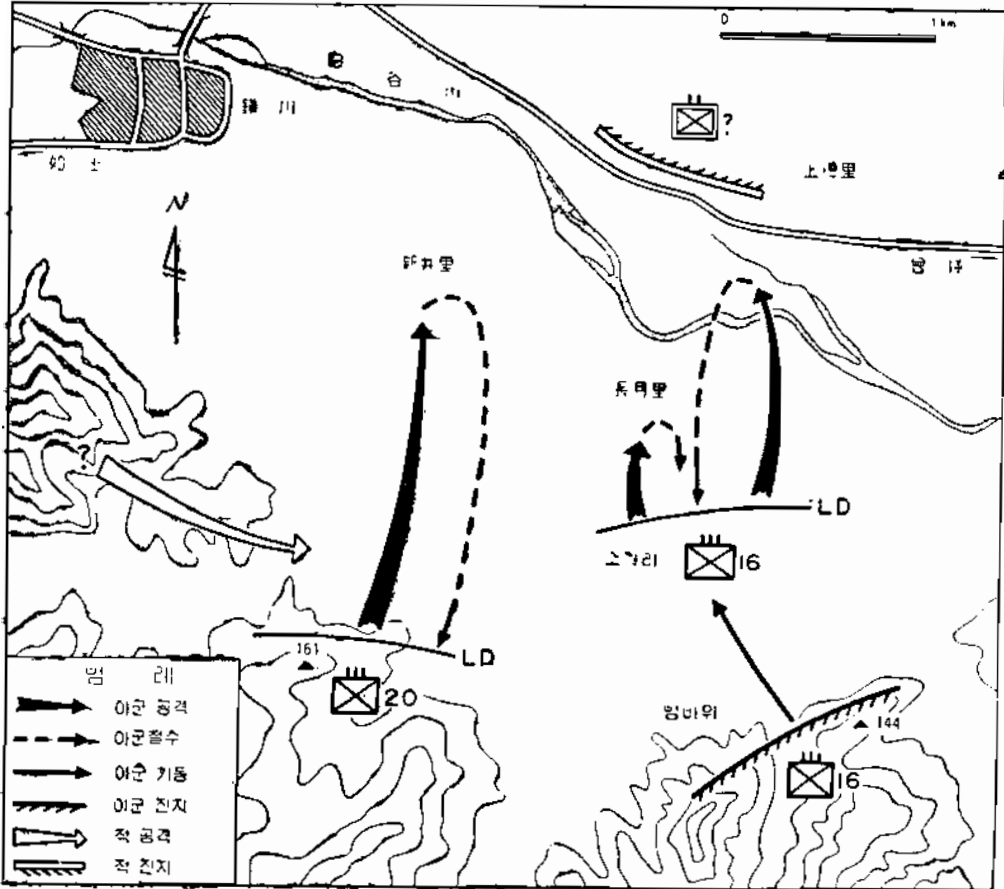
이리하여 同중대는 연대主力의 掩護아래 長月里(소가리 北쪽 1km)의 논밭을 가로질러 上德里로 直進중 △106뒤(鎭川東北쪽 1km) 부근에서 砲擊하는 彈幕사격에 중대는 分散되고 이어서 延伸한 그들의 集中砲擊으로 말미암아 연대도 展開直前에 釘着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연대장 文容彩대령은 포병지원에 대하여 사단장으로 부터 굳게 確約받은 바 있었는데도 한 발의 지원도 없자 連絡장교를 급파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 포병지원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敵은 연대가 進退兩難에 빠졌음을 알아 차렸는지 1개대대규모가 上德里에 展開하기에 이르므로써 벌판 2km를 橫斷하여야 할 연대가 運步조차 하지 못한채 공격은 頓挫되고 마침내 연대장은 累增하는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144로 물러나 급전진지



◇ 삼함도 제27호 院德里戰鬪 (7, 9, 1200~2400)



를 점령하고 後圖를 策하기에 이르렀다.

**제20연대의 상황** : 한편 金漢柱소령은 연대의 主力(1개대대)을 指揮하여 △161.5를 目標로 進出하였는데 同소령이 연대를 지휘하게 된 事由는 다음과 같다.

즉, 이보다 앞서 사단현병장교가 同高地로 올라와 연대장 朴基丙대령을 逮捕한다는 것이 었다.

연대장은 어이가 없어 『무슨 理由에서나?』라고 묻자 『귀 연대가 이미 수도사단에 배속이 되었는에도 申告조차 않는다고 사단장이 戰線을 離脫한 것으로 알고 逮捕하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연대장은 『나는 사단과 通信이 두절되어 배속관계를 알 수도 없었거니와 지금 左側의 烽火山이 敵에게 突破될 即前에 놓였는데 어떻게 指揮를 하다 말고 離脫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쳐서 보냈던바 그뒤에 다시 현병이 와서 同行을 強요하여 할 수 없이 指揮를 金

漢柱소령에게 맡기고 사단사령부로 갔던 것이다.

연대장을 맡은 참모장 金應祚중령은 사단장에게 正式申告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忠告하였다.

敵彈이 사령부의 幕舎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세번씩이나 이를 피하면서 사단장에게 申告를 마치고 그는 『귀 연대의 奮鬪를 致賀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生命없이는 現線에서 물러나서는 안돼』라고 嚴命하였다.

朴基丙대령은 뒷날 증언에서 『고급장교가 된 뒤에 正式申告를 한 記憶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申告를 마치고 돌아올 때 생각해보니 사단장으로서는 아무런 解弛되어 가고 있는 軍律을 바로 잡아 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았으며 이 결과는 곧 戰鬥力으로 나타났』라고 述懐하였다.

급히 연대로 돌아와 본측 金漢柱소령 指揮下의 연대主力은 일단 新井里(△161.5北쪽 2.5km)까지 進出하였으나 院德里로부터 潛入한 것으로 보이는 敵에 의하여 左側方에 기습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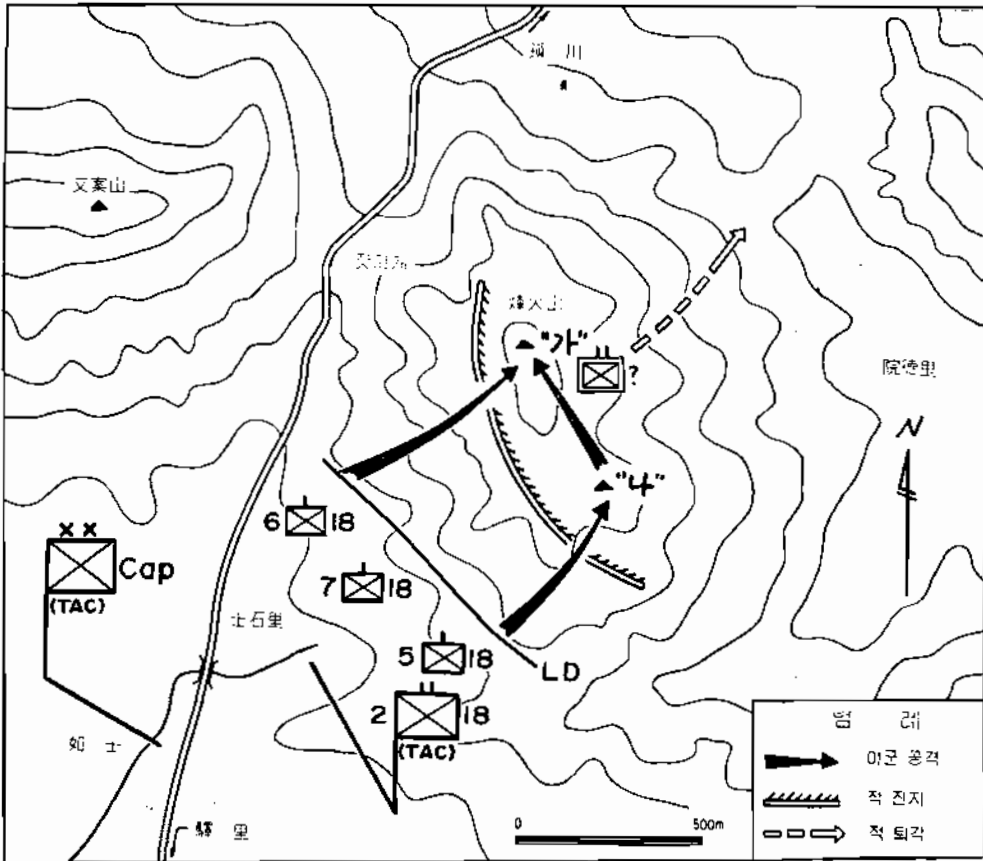
연대장 朴基丙대령은 더이상 遲滯시킬 경우에는 대대가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질 것을 우려하고 즉시 공격대대장인 金漢柱소령에게 철수를 명령하여 원위치로 물러나 陣地를 보강하였으나 다음날 아침까지 敵과의 接觸狀況은 活潑하지 아니하였다. 連續되는 退却끝에 反擊으로 나선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대개 이와 같은 것이다.

烽火山戰鬪: 烽火山은 옛날에 烽火를 올렸다고 하여 이 名稱이 붙었는데 8부陵線으로부터 頂上까지는 東, 西, 北 삼면이 急傾斜인데 比하여 南쪽은 비교적 緩傾斜이고 頂上은 12m<sup>2</sup>의 平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目標 烽火山을 奪取하기 위하여 제18연대 제2대대(장, 張春權소령)는 10.00에 驛里(如土東南쪽 3.5km 原사단사령부자리)로부터 出發하였는데 同대대가 이번 공격에 參加하게 된 까닭은 연대장 任忠植중령의 배려에서였다.

즉, 7월 8일에 대대장 張春權소령은 대대를 이끌고 如土를 通過할 때에 그곳에서 指揮하던 사단장 金錫源준장과 우연히 만나 『제18연대 제2대대입니다』라고 보고하자 사단장은 『잘 왔네 1개중대는 저쪽 高地에 또 1개중대는 이쪽 高地……』식으로 대대를 배치하려 하였다. 이에 당황한 대대장은 잠시 기다렸다가 뒤에 도착한 연대장에게 『대대를 이런 식으로 分割배치하면 建制가 짜여 있는 이 대대의 戰鬥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사단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지 이름뿐인 제1대대(장, 朴哲用소령 뒤에 四龍으로 改名)를 文案山으로 보내고 同대대는 뒤로 가서 驛里에서 休息시켰던 것인데 이날 眞價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13.30에 烽火山西麓인 土石里에서 展開한 제1대대는 透明紙에 表記한 공격目標인 烽火山을 目標로 躍進하였으나 敵의 砲火는 예상의로 微弱한데 반하여 사단을 지원하는 포병중

◇ 상황도 제28호 烽火山戰鬪 (7, 9, 12. 00~2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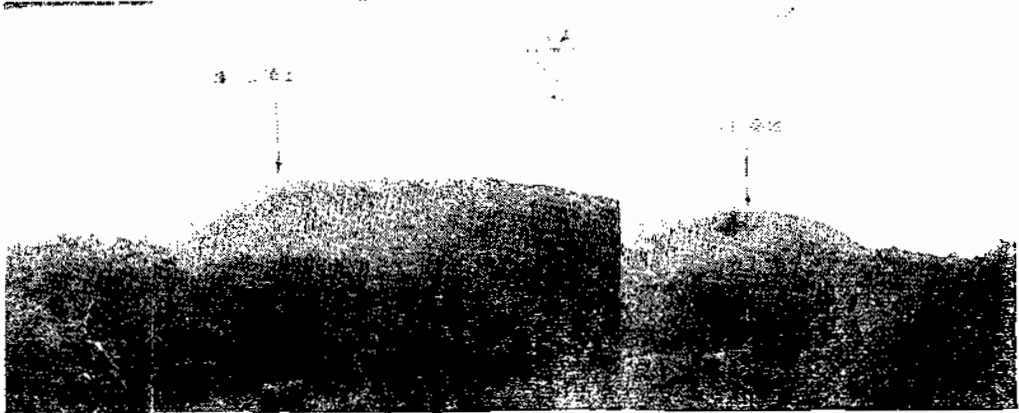
대의 포격은 정확하고 熾烈하였다.

이날 대대의 공격태형은 兩개중대로 하여금 併行 攻撃케 하고 1개중대를 예비로 한 것이다. 즉, 제 5중대(장, 孫榮鎭중위)는 烽火山의 連峰인 “나”高地를 탈취하자 곧 主峰인 “가”高地로, 그리고 제 6중대(장, 金斑雲중위)는 “가”高地로 直衝하고 제 7중대(장, 梁在民중위)는 兩중대의 사이에서 敵의 溪谷接近을 막되 언제든지 제 6중대로 扞援할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8부능선까지는 兩중대의 공격이 순조로왔으나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反應이 없어 긴장감은 한 층 더하였다.

이것은 兩중대를 火網속으로 유인하려는 그들의 속셈인듯 하였다.

과연 예측한대로 8부능선을 넘어서자마자 1개대대규모의 敵은 최후저지사격으로 보이는 火力의 집중과 手榴彈을 쏟아대기 시작하여 兩중대는 발이 묶인채 움직이지 못하였다 상황이 急轉直下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켜본 대대장 張春權소령은 중화기 중대장



〈土石里에서 바라본 烽火山〉

李龍菴중위에게 달려가 그들의 機關銃만이라도 制壓하라고 소리치고 兩공격중대장에게는 이 機倉를 놓치지 달고 突擊하라고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全火器가 “가” 및 “나”高地의 前斜面에 나와 버치된 機關銃架를 하나 하나 制壓하고 있을 때 제5중대는 “나”高地로 一齊히 突入하여 이를 奪取하였으나 “가”高地는 西麓이 急傾斜인데나 雨注하는 手榴彈으로 突進이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뒤에 敵도 또한 “나”高地를 잃자 戰意가 꺾였는지 점차로 그 抵抗意가 식어갔으며 이틈을 놓칠세라 제5중대는 그들의 七首를 찌르듯 “가”高地를 向하여 突入하였다.

이때에, 同중대장의 연락병은 전투경험이 없어 그들의 바로 코밑인데도 『중대장님 彈藥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큰소리를 치자 중대장은 『이놈아 敵이 듣는다』라고 꾸짖었는데 이때 連絡兵이 중대장 앞으로 달려가다가 敵彈에 맞아 戰死하였다.

兩중대의 挾攻으로 “가”高地를 奪取하자 대령장 張春權소령은 頂上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고 必然코 있을 敵의 逆襲에 對備하기 위하여, 각중대장에게 명명하여 四圍防禦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彈藥과 糧食을 分配하자 마자 지곡과 능선의 先鋒까지 警戒병을 潛伏시키는 등 불생틈없이 그들의 奇襲에 對處하였다.

이윽고, 해가 西山에 기울어지면서 부터 敵의 砲擊은 山野를 뒤어감을 듯이 亂舞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霪野를 배운 그들의 大群은 狂波를 이루고 烽火山으로 밀어 박쳤다.

同高地의 北쪽 0.5km의 稜線에 前進진지를 삼고 있던 제6중대장 金珽雲중위는 그들의 반격을 예측하고 지쳐있던 병사들을 奮勵하여 파놓았던 個人壕에 의지하여 대대의 有效遠切한 火力支援으로 陣前에서 이를 여러번 擊碎하였다.

그러나 搦戰에 몰린 敵은 一波가 쓰러지면 二波, 三波가 꼬리를 물고 突破口를 만들려고 發狂하였으나 그때마다 그들의 屍體로 溪谷을 메울 뿐이었다. 더욱이 同중대는 두번이나

前進陣地에서 물러나는 冒險을 한었는데 이 計略은 배치前에 大隊長과 싸고 한 戰法으로써 彼我 50m의 간격을 두고도 能히 敵을 打撃할 수 있는 重火器중대(장, 李龍濬중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同중대는 前進진지에서 물러나는 척 誘引하면 敵은 蟻集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마다 두들겨 댔던 것이며 右往左往하는 敗殘兵을 손쉽게 刺殺할 수 있었다.

중대장 金斑雲중위는 몇차례에 걸친 紛戰亂擊끝에 마침내 敵을 물리치고 또다시 그들의 狂波에 對備하기 위하여 1개소대를 이끌고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1개분대 규모의 敵이 壕속에서 코를 골며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憤恨에 찬 隊員들은 이를 모조리 射殺하였다.

중대장은 이때의 情景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들은 戰鬪에 지쳐 後退하면 자기네 上官에게 죽겠고 앞으로 나가면 我軍에게 물살당할 것이 두려워 부대를 이탈한채 잠자다가 우리에게 베죽음을 당한 것으로 안다.』라고 하였다.

文案山の 戰鬪(제8, 제17연대) : 文案山은 東쪽과 南쪽이 急傾斜인 반면에 北쪽과 西麓은 緩傾斜을 이루며 9부능선으로부터 頂上까지는 어느쪽에서나 急傾斜이고 頂上은 多少 평평하나 地形이 粗雜하다. 이날 13.30부터 俗稱 돌궤이—上柱里(如土西北쪽 1.5km)간의 공격 개시선을 躍出키로 한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는 右側에서 文案山을 直衝키로 하고 제17연대(장, 金熙濬중령)는 그 左側에서 同山西麓을 迂回하여 敵의 右側方을 擊破하게 되었다.

제 8연대의 상황 : 연대에서 戰鬪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은 제 2대대(장, 鄭昇和소령) 뿐이었는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명확한 공격軸線도 없이 地形에 따라 陣리하게 展開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때 연대까지 나와 陣頭指揮하던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상황이 危急하면 어떤 부대를 막론하고 먼저 投入하여 危機를 克服하려던 터이므로 이번에도 同대대에서 1개중대 및 同연대수변에서 우물 우물하던 연대殘餘병력을 糾습하여 文案山이 아닌 烽火山으로 공격케 함으로써 대대는 分隊使用케 되어 한때는 갖고개로 공격하던 제 1연대와 混合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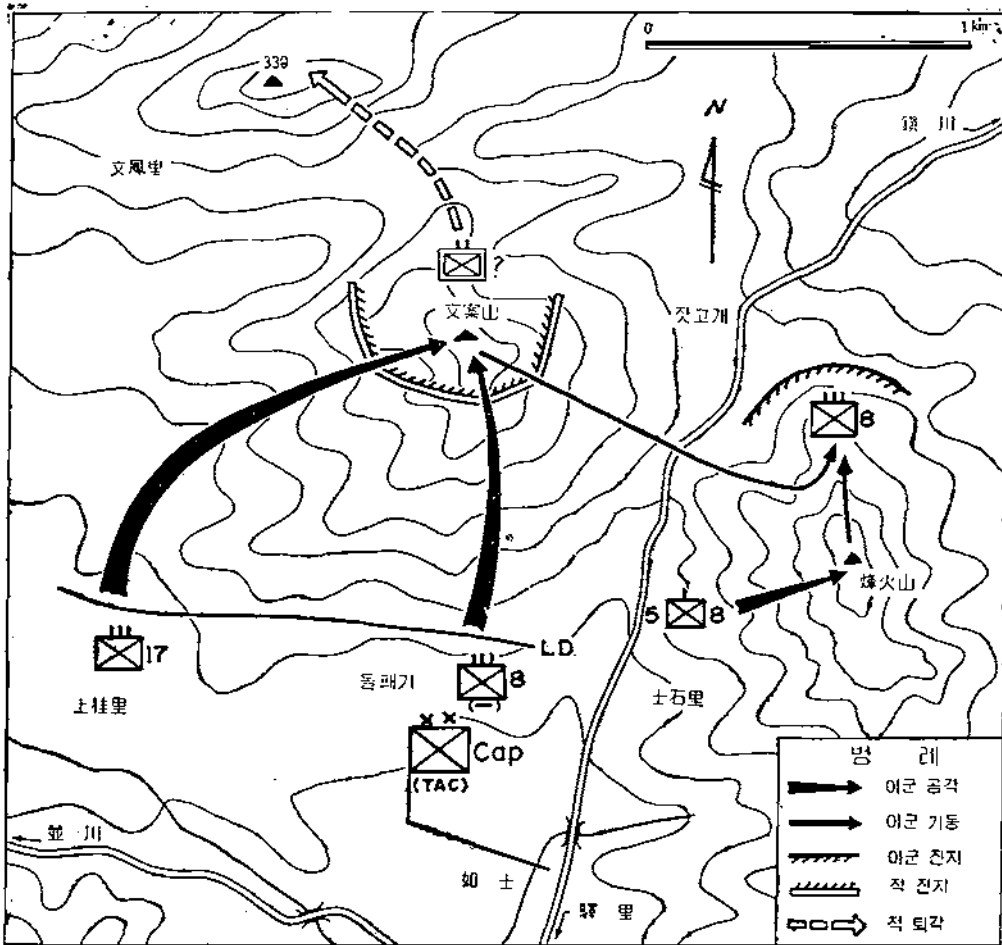
사단장은 공격에 앞서 장병들에게 『그대들은 들으라. 敵은 1개연대 뿐이고 우리는 1개사단이다, 砲彈을 피부운 터이니 어서 서 高地를 점령하라』고 激勸와 함께 오랜만에 쏘아대는 105mm 榴彈砲의 殷殷한 砲聲에 힘을 얻고 士氣가 鼓舞되었다.

煙幕으로 同高地를 遮障한 가운데 躍進하였으나 8부峻線에서 그들의 火網에 걸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때에 연대장 李賢進중령으로 부터 『제18연대는 벌써 烽火山을 탈취하였다고 사단장이 얘기하는데 우리만이 이렇게 지지시야 되겠느냐?』라고 성화같은 督促이 빗발쳤다.

대대장은 한참동안 敵을 凝視하다가 때마침 그들의 사격이 뜸한 틈을 타자 곧 突擊을 명

◇ 상함도 제29호 文案山戰鬪 (7.9, 12.00~24.00)



령하여 頂上의 一角을 手中에 넣고 말았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포병중대의 誤擊으로 말미암아 一角을 佔領한 병력에서 많은 死傷者를 내면서 分散되고 말았다.

대대장은 重火器중대장 金鍾敏중위에게 강력한 掩護사격을 명령하니 새로히 補給된 81mm 迫擊砲로 砲身이 달아오르도록 사격하였다.

이무렵 同포진지에 나타난 사단장은 『나도 한번 봐 보자』라고 한다음 몇발 쏘아보고는 『그대들은 참으로 勇敢하게 잘 쏘는구나』라고 激勵하며 士氣를 고취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이 여기까지 나타났다는 消息이 순식간에 장병에게 傳播되기에 이르자 소속대의 명예를 위하여 突進포 突進하여 目標를 탈취하고 연대장의 口頭命令으로 同대대는 烽火山으로 이동하여 제 5 중대(장, 安泰甲중위)를 吸收한 다음 제 18 연대와 함께 급편진지

를 뒀다.

**제17연대(-2)의 상황** : 사단에 배속된 同연대 제 1 대대(장, 李寬洙소령)는 右一線으로 제 1 중대(장, 金弼相중위)를, 그리고 左一線으로 제 3 중대(장, 張翊粹중위)를 내세워 併進케 하는 동시에 제 2 중대(장, 韓 赫중위)를 예비로 하여 兩중대의 中央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철수하는 도중에 大田에서 보직된 까닭에 각 중대장들과 生疎하므로 右一線, 제 1 중대의 지휘를 부대대장 安在徵대위에게 위임 하였다.

左一線 제 3 중대장 張翊粹중위는 공격 數分만에 엄지손가락에 傷處를 입었다고 하면서 尹鍾漢중위에게 중대의 指揮를 맡긴채로 뒤로 빠졌는데 이 光景을 본 병사들은 손 좀 다쳤다고 뒤로 빠진다고 不平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敵의 火力은 시간이 흐를수록 加熱하여 死傷者는 累增하기 시작하였다.

중대의 지휘를 이어받은 尹鍾漢중위는 빨리 이 火網에서 빠지는 것만이 중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判斷하고 먼저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奮戰하는 敵의 장교를 처치하기 위하여 凹地로 달렸다.

그런데 敵의 장교의 모습이 흡사 自己의 家兄과 같아 몇번이고 망설이다가 방아쇠를 당겨 射殺하고 난 뒤에 뛰어 올라가 다시 본즉 그의 兄이 아니었다.

이때에 敵의 砲彈이 炸裂하면서 破片이 그의 左腕을 負傷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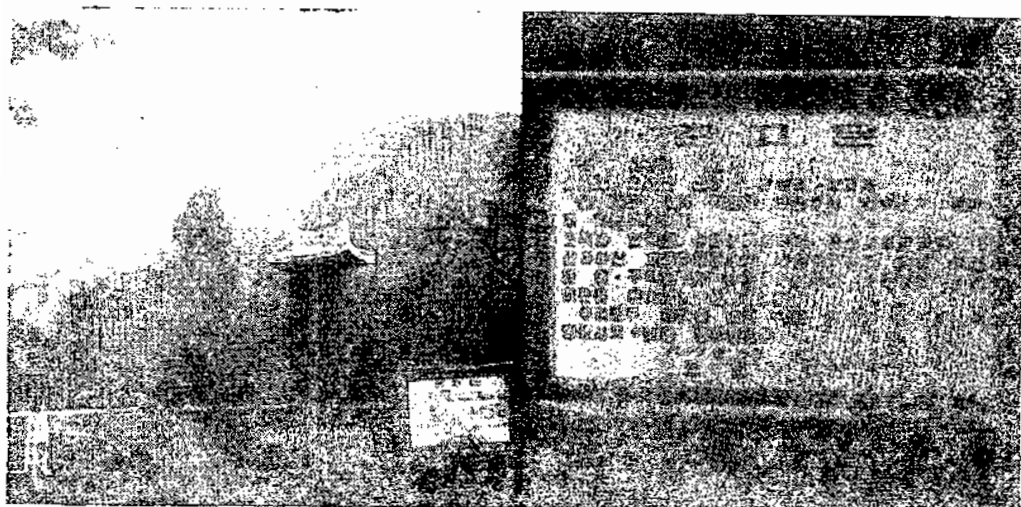
기필코 日標를 점령하고야 後送을 하겠다고 決心한 중대장은 鮮血이 낭자한 左腕을 움켜쥐고 그들의 機關銃을 파괴하기 위하여 계속 單獨으로 포복 前進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後斜面에서 그를 조여하고 있는 敵兵을 목격하였다.

敵과 稜線을 사이에 두고 對峙하기 몇분이 지났음에도 머리만 오루내릴 뿐 아무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敵이 彈丸이 떨어졌든가 아니면 故障이 났구나 생각하고 『너이놈 實彈이 떨어졌지』 하면서 잼싸게 그 自身이 拳銃實彈을 바르손만으로 장전하면서 連射하여 사살하고 접근하였던바 그놈은 쇠사슬에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무렵 右側에서 躍進하던 제 1 중대(장, 安在徵대위)도 중대장 이하 전 소대장이 戰死傷(그중 趙某중위는 戰死)하고 반이상의 병력을 손실하는 激戰을 겪으면서도 대대는 文案山の 左側稜線을 奪取하고 이와 同時刻에 躍進한 제 8 연대 제 2 대대와 連繫하였다.

**잣고개戰鬪(제 1 및 독립기갑연대)** : 독립기갑연대 徒步대대(장, 李鵬植중위)는 烽火山の 西麓을, 그리고 제 1 연대(장, 李喜權중령)는 文案山の 東麓을 目標로 13.30부터 각각 併進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이兩山에 戰力을 集中하여서인지 그들의 포격이 극성을 부렸으나 彼我的 接戰은 散發的이어서 잣고개로의 進出이 容易한듯 하였다.



〈잔고개에 세워진 參戰勇士의 慰靈碑〉

그러나 兩高地로 잇는 잔고개 앞 至近距離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兩側壕線의 달라 붙었던 數未詳의 敵으로부터의 交叉사격區內에 들어간듯 急射를 받게되자 일부 병사들이 뒷걸음질 하기 시작하였다.

이 情景에 부닥친 사단장은 中央이 突破될 것을 우려하였음인지 兩연대장에게 『포병지원을 할 터이니 한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병력을 수습하여 공격을 再開하라』고 嚴命하였다.

兩연대장은 혼어진 병력을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포병의 직접지원과 때마침 烽火出과 文案山의 防守가 崩壞直前에 놓여 敗色이 짙었던 敵이 望風敗走함으로써 同고개를 쉽게 手中에 넣고 左右兩側과 連繫를 이룩하였다.

이때에 독립기갑연대 徒步대대에서 迫擊砲사수로 參戰한 李海重병장은 證言하기를 『이 戰場에서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병사들은 상관의 눈을 피하여 슬금 슬금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한때 兩연대가 混雜이 되었다.

그러나 삼거리(如土를 탈함)의 턱 버티고 서 있는 사단장의 威嚴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殷殷한 105mm 榴彈砲소리를 듣고 든든한 마음으로 다시 세움터로 되돌아 갔다』라고 하였다.

7월 10일 : 이날은 快晴하고 무더운 날이었는데 小紛戰에서는 敵의 虛弱 걸려 連捷戰이 되 처음으로 큰 戰果를 올리는가하면 大대의인 空襲으로 사단의 士氣도 크게 회복되었



다. 그러나 敵의 衆勢에 밀려 사단의 右翼이 被役되면서 마침내 主抵抗線도 崩壞하기에 이른다.

院德里의 戰鬪(제16, 제20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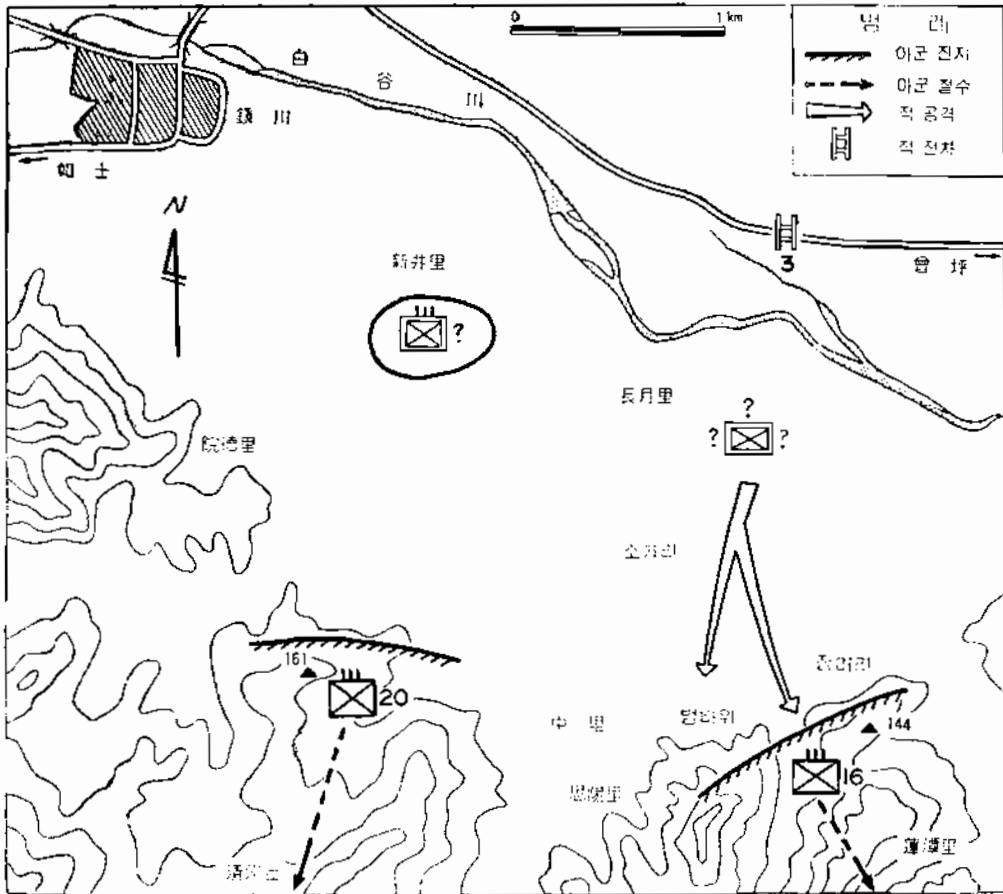
제16연대의 상황 : 이날 제16연대는 俗稱 장머리(九谷里西쪽 500m) 앞堤防까지 경계조를 내보내고 바로 南쪽의 △144에 급편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아침 06.00(日出 05.00)부터 敵은 上德里(鎭川東쪽 3km)에 戰車 3대를 放列하고 步戰砲協同의 공격을 가하여 앞은 同高地를 震該하였다.

그들은 585번道路의 突破가 거듭 失敗하자 방어선이 擴張된 사단의 右翼으로 그 銳鋒을 돌려 涼泉山(또는 梁川山이라고도 함)을 넘어 사단의 背後를 遮斷하려는 듯 하였다.

이와같이 그들의 主攻方向이 바뀌므로써 연대는 큰 兵力群을 맞게 되었는데 저녁 늦게까

◇ 상황도 제30호 院德里戰鬪 (7. 10, 12. 00~18. 00)



지 角逐戰이 벌어져 1개소대의 병력이 7명밖에 남지않는 터이었는데도 사단장(李翰林대령)이 言約한 砲火力의 支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 보낸 連絡장교마저 돌아오지 않아 彼我의 상황은 물론 側方의 상황도 전혀 알질이 없었다.

연대의 戰鬥力은 이제 限界線을 넘어 當面한 1개연대규모의 敵앞에 無力하기만 하였다.

이에 연대장 文容彩대령은 現存병력이나마 救出하여 後圖를 策하기로 하고 獨斷으로 側方연대와 連繫가 이루어지는 線까지 遲延戰을 실시키로 하였으니 이때가 17.00였다.

바로 이 무렵 사단에 보냈던 連絡장교가 당도하여 사단장의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敵은 이러한 氣味를 알아차렸는지 그 一群은 至近距離에서 연대를 壓迫하고 主力으로 보이는 一群은 俗稱 범바위(鎭川東南 4km)로 밀어 닦쳤다.

연대는 接近하는 敵을 되돌아서서 一擊을 加한 뒤 그들과 離脫하여 일단 蓮潭里(九谷里南쪽 5km)에서 부대를 수습하고 사단장의 口頭命令으로 淸州로 直行하였다.

연대는 공격을 再開할 餘裕도 없이 그들의 衆勢앞에 뒤로 물러나기에 이른렀는데 이는 軍단장 金弘憲소장의 결심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20연대의 상황: 제20연대는 夜間의 부대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elta 161.5$ 로 集中의으로 縮少배치하고 晝間에는 敵의 砲擊으로부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擴張배치하였다.

이날, 아침부터 熾盛한 敵의 砲擊과 함께 1개중대규모의 敵이 潛入하려고 꾀하였으나 이를 陣前에서 粉碎하는 한편 그들의 企圖를 알아내기 위하여 한때 長月里까지 少兵力을 潛入시켜 5명의 俘虜를 얻기도 하였으나 諷問한 결과 그들로부터 아무런 諜報도 얻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數時間동안 彼我의 사격전이 멎고 東쪽에 있는 제16연대 부근에서 간간히 彼我를 분간할 수 없는 砲彈의 炸裂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이와같이 갑자기 戰線이 고요해 짐에 不安을 느낀 연대장은 四方에 경계병을 배치하였는데 16.00에 이르러 敵의 포격이 어느때보다도 熾烈하였다.

이윽고 16.30에 1개연대규모가 범바위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1개연대규모로 추산되는 부리가 新井里에 蟻集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 朴基丙대령은 敵의 企圖가 夜間을 이용하여 어떤 迂回를 위한 計策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推斷하고, 萬一의 경우, 그들이 思陽里( $\Delta 161.5$  東쪽 1.5km)나 文德里( $\Delta 161.5$  西쪽 1.5km)로 溪谷을 따라 接近할 때에는 그들의 포위망속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고 전 병력을  $\Delta 161.5$ 로 집결시켜 연대장을 중심으로 右로 250m 左로 250m로 縮少배치하고 연대장의 號令이 전연대에 傳播되도록 하는 한편 稜線西端의 溪谷에는 하사관을 組長으로 하는 潛伏組를 내려보내 潛伏시켰다.

이리하여 앞으로 닥칠 戰鬥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사단에서는 아무런 連絡도 없었고 다만

사단장에게 申告할 때 『절대 現位置를 固守하라』는 명령만을 되새기고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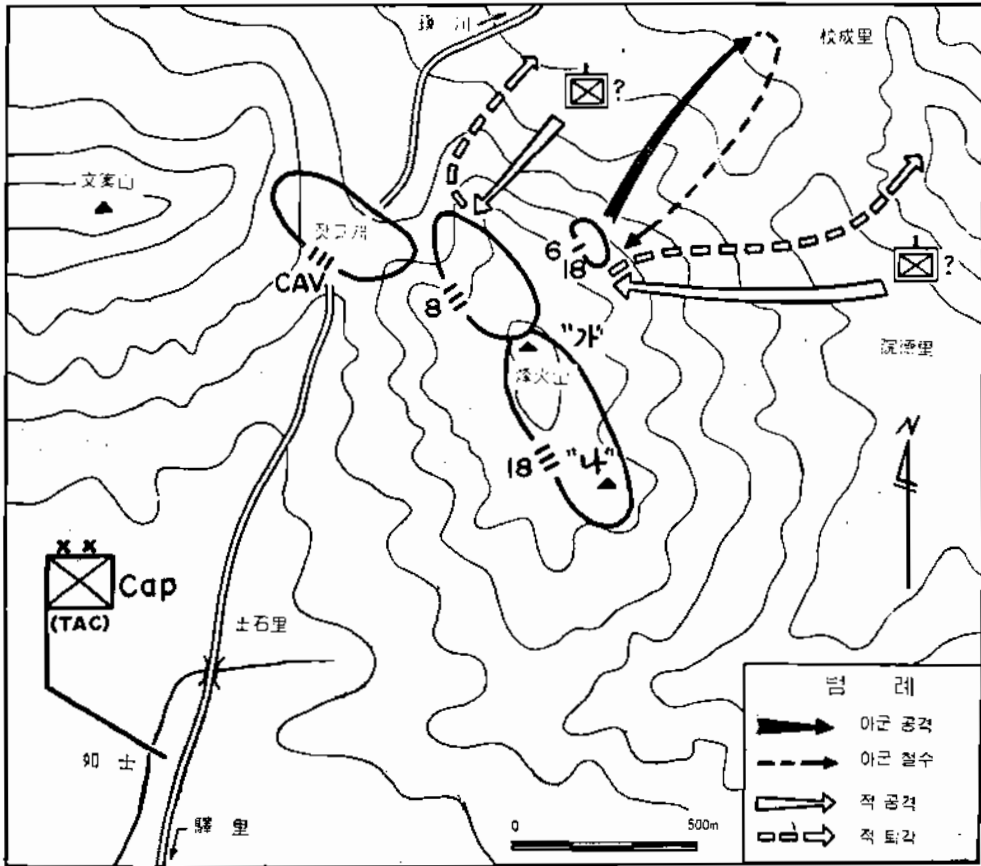
이동안에 어찌된 일인지 敵의 움직임은 緩漫하고 범바위쪽에서 潛入한듯한 1개소대규모를 몰리친 뒤부터는 또다시 긴 沈黙이 흘렀다. 그런데 18.00에 비로소 범바위의 敵 1개연대규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醜鋒이 南쪽 500m의 中里까지 이르렀다.

연대장은 즉각 『戰鬪態勢를 갖추라』라고 號令하고 그 자신도 覺悟를 새롭게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上空에 B29 및 B26 爆撃機 數編隊가 나타나 嶺川邑內는 물론이고 新井里—長月里—범바위線에 爆撃을 加하여 이곳에 蟻集한 敵의 步砲가 一瞬間에 屏息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同編隊가 살아지자 곧 F51戰鬪機가 機銃사격으로 후려갈기는가 하면 네이파암(Nepalm)彈을 쏘아붙쳐 一帶가 黑煙으로 遮障되고 敵의 悲鳴은 指呼之間에 있던 언덕에 까지 들리는듯 하였다. 그러나 地對空通信手段이 缺如했던 탓으로 좀더 戰果를 增大하지는 못하였다.

어찌든 두차례에 걸쳐 颯風이 할키고 간 탓으로 그들이 계속 南侵하기 위하여서는 상당

◇ 상황도 제31호 烽火山戰鬪 (7.10.01.00~18.00)



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烽火山の 戰鬪(제8, 제18연대): 烽火山을 主峰으로 하여 東쪽의 後線은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 이에 이어서 西쪽은 제8연대(장, 李賢進중령)가 確保하고 있었다.

제18연대의 상황: 이날 01.00에 敵은 烽火山一帶에 砲擊을 集中하고 1개연대규모가 同主峰의 東麓과 院德里쪽으로부터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主峰은 土質이 砂土이므로 마을에서 빌린 삽, 곡괭이는 물론 帶紐으로도 壕를 파기 쉬웠으나 그 반면에 근처에서 炸裂하는 轟音에도 個人壕와 交通壕가 무너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晝間에 照準한 諸元으로 사격하는듯 그 砲擊이 正確하게 主峰과 連峰을 強打하고 戰車砲의 直射로서 前斜面을 때려 이 直射砲彈만이라도 피하려고 병사들은 後斜面으로 물러가기가 일쑤였다.

대대장 張春權소령은 진지에서 離脫한 병사들을 前斜面으로 재배치하기가 바빴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3차에 걸친 그들의 저돌적인 夜間기습을 물리치고 아침해가 뜨면서 그들은 많은 屍體를 버린채 자취를 감추었다.

이리하여 戰場은 다시 颶風一過후의 고요한 적막이 흐르자 대대장은 그들로부터 當하는 싸움보다 우리쪽이 때리는 싸움으로 바꾸기로 다짐하고 연대장 任忠植중령에게 進言하기를 『이 機會를 틈타 晝間기습으로라도 鎭川邑으로 突入할 것』을 主張하자 그는 대답하되 『병사들이 너무 疲勞할 뿐만 아니라 연대의 엄청난 戰力의 劣勢로 보아 困難하니 앞에 突出해 있는 △149(鎭川西南쪽 0.5km) 즉, 그들의 前進陣地를 탈취하여 기습을 事前에 막자』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제6중대장 金瓊雲중위에게 △149를 탈취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同중대장은 17.00에 본부소대와 2개소대(화기소대포함)로 하여금 現진지에서 掩護토록 하고 2개소대를 직접 이끌고 躍出하였다. 700m앞의 校城里(△149南쪽 0.5km)에 이르기까지도 敵影이 보이지 않아 잠시 이곳에서 休憩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무렵 느닷없이 殘留부대쪽에서 霧을 뿜는듯한 銃聲이 들리더니 彼我는 사격전으로 突變하였다.

그들은 중대가 △149로 躍進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院德里쪽으로 迂回潛入한 것이다.

중대장은 잠시도 유예할 수 없음을 直感하고 곧 병력을 돌려 敵의 뒤뭇수를 치기로 決心하고 出發하려는 刹那에 敵彈이 그의 腹部를 貫通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殘留부대는 頑強한 敵勢에 밀려 後斜面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烽火山の 主峰에서 제6중대의 戰況을 지켜보던 부연대장 韓信중령은 맨발(무좀이 심하여 신을 벗고 있었음)로 『後退하면 않돼』라고 하며, 拳銃을 뽑아들고 뛰어 나가면서 소리 소리 외쳤다.

彈雨를 뿜고 殘留부대에 이른 그는 同중대를 직접 指揮하고 뒤이어 대대장 張春權소령도

1개소대불 이끌고 달려가 습격하여 敵을 물리치고 同稜線을 確保하였다.

이때에 연대 S-1 李秉衡대위는 Cal 50을 들고 직접 사격하여 밀러드는 敵의 中心部를 亂打하여 중대를 임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흘려 固執한 보람도 없이 18.00에 연대의 撤收명령에 따라 烽火山은 敵의 手中으로 넘어가기에 이르렀는데 期間中 연대는 混戰을 겪은 탓으로 戰果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연대의 손실은 50명에 이르렀다.

金瑛중위는 뒷날 證言에서 『腹部貫通으로 나는 이미 죽을 覺悟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끈질기게 連絡兵이 업고나와 지나가는 鎗車를 銃으로 威脅하고 請求로 운반하여 우선 應急治療을 한 까닭으로 살았다.

敵은 砲나 戰車를 믿고 우리를 알보고 그러는지 똑같은 공격방법을 反復하였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그들의 侵攻을 막을 수 있었다.

이번 경우의 실패는 火力支援도 없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나간 때문이고 또한 敵들도 迂回戰法을 썼던 까닭에 우리는 그 高地를 잃어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또 부연대장 韓信중령은 述懐하기를 『병력이 不足해서 連繫된 방어를 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들의 迂回를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볼때에 高級指揮官들의 지휘능력보다도 중대장이하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士氣가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의 支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많은 強兵을 水登浦戰鬪에서 잃은 것이 恨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 2대대장 張春樞소령은 證言하기를 『戰鬪에는 무엇보다도 彈藥이 필요한데 이 戰鬪에서 대대의 병기장고였던 李法魯중위는 연대支給量이 불과 一日에 100발(81mm 迫撃砲彈 기준)이었으나 每日 600발 이상을 사격할 수가 있도록 補給하였다. 뒤에 그 까닭을 알았지만 英語를 잘한 그는 鳥致院까지 나가 美軍부대로 부터 얻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戰爭에 이기기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릴 것이 없다고 칭찬해 준 일이 있다』라고 하였다.

제 8연대의 상황 :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는 이날 01.00부터 시작된 敵의 포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烽火山과 文案山에 대한 夜襲을 실시하면서 兩高地의 中央인 잣고개가 突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 陽動인듯한 1개중대규모를 바로 同고개北麓에서 牽制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戰車는 校城皇부근에 位置한 듯하며 잣고개와 烽火山을 左右로 變換아가면서 쏘아대고 大口徑砲火는 兩高地의 後斜面을 비롯하여 사단 前方指揮所까지 威脅하는 것이 目擊되었다.

밤새, 그리고 이날 늦게까지 잠시도 눈을 주지 않고 매티는 그들의 砲火(敵은 군단포병으로 增強하였으며 이에 對하여는 後述함)에 의하여 연대는 文案山 공격때보다도 많은 병력을 손실했으며 소대장, 중대장들은 다만 壕만 깊이 파라고 웨칠뿐 언제까지 이렇게 敵

火力の 防波堤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憂心이 깊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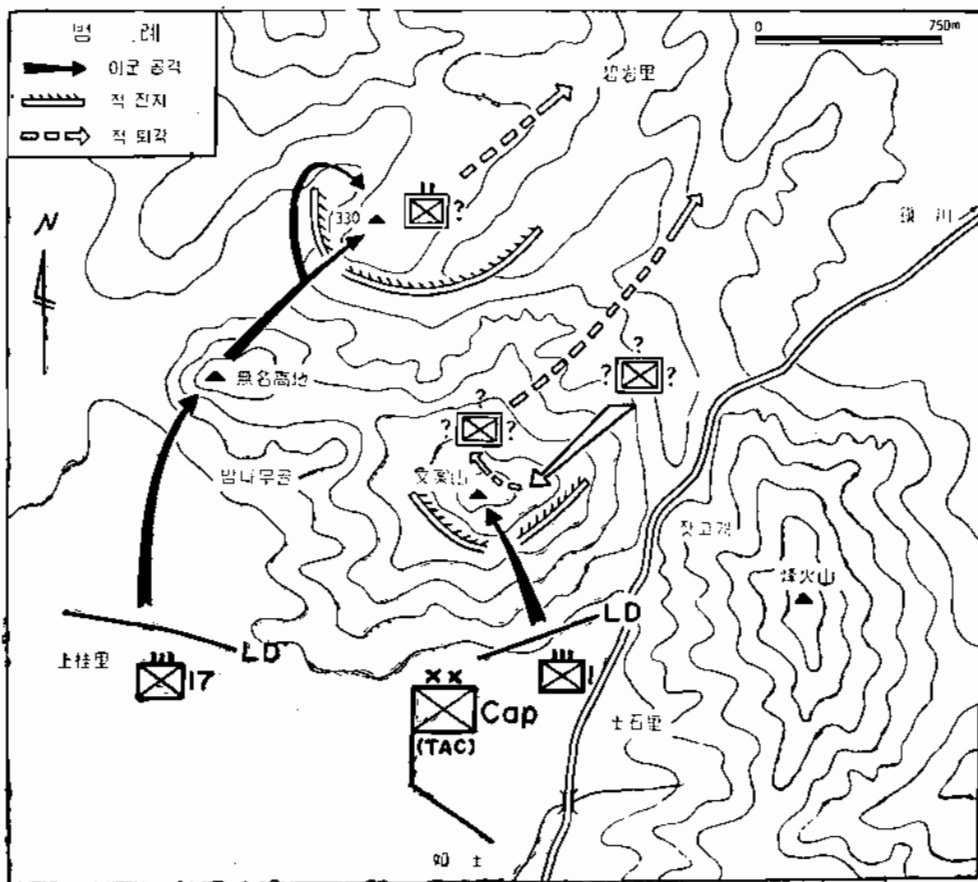
그것도 그럴것이 사단에서는 文案山이 被奪(後述)되자 이를 탈환하기 위하여 奮戰中이었으므로 연대가 現位置를 固守하는 것이 至上的 使命이었던 것이다.

이때의 憤을 지금까지 想起하고 있는 대대장 鄭昇和소령은 述懷하기를 『상급부대에서 명령을 하달할 때에는 隣接부대의 상황은 물론이요 계속적인 새로운 정보를 友軍대에 알려주어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戰鬥을 할 수 있었는데 전연 아무 諜報도 주지않아 不安하기 짝이 없었다.

예를 들면 “저 高地를 占領해” 또는 “저 高地를 固守해” 이것뿐이고 그뒤에는 아무런 명령도 없다.

當時의 與件으로 보아 通信施設이 없었던 까닭으로 그런 事例이 있겠으나 連絡兵이라도 活用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 상황도 제32호 文案山戰鬪 (7.10.01.00~16.00)



文案山の 戰鬪(제 1 및 제 17연대) : 이날 01.00에 시작된 夜間奇襲으로 말미암아 瞬間에 文案山の 防守陣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들은 같은 時刻에 감행한 烽火山潛入에 各種火力을 集中使用한데 反하여 同高地에는 기습의 效果를 노리기 위하여 한 방의 銃彈도 쓰지 않고 불시에 올라와 경계조와 潛伏組를 刺殺하고 交戰數순만에 同高地를 奪取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各個로 分散된 제 17연대는 同高地의 南麓에서 병력을 수습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여기에 나타난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타이르되 『敵이 再編하기 前에 文案山을 퇴찾아야 한다. 時間이 遲滯하면 할수록 병력의 손실이 많아지고 奪還하기 힘들다』라고 하였다.

이무렵, 그들의 熾盛한 砲彈은 사단장이 位置한 주변과 수습중에 있는 장병주변에 계속 떨어졌다.

이같은 渦中에서 제 1 및 제 17兩연대는 병력을 수습할 사이도 없이 사단에서 推進한 탄약을 보급받자마자 右로는 張泰煥소령이 指揮하는 제 1연대의 主力인 제 1대대가, 그리고 左로는 李寬洙소령이 이끄는 제 17연대 主力인 제 1대대가 각각 展開하여 砲兵火力의 支援없이 夜襲을 敢行하게 되었다.

제 1연대의 상황 : 月色도 없는 漆黑과 같은 夜暗을 타고 소리없이 前進한 제 1연대가 7부稜線에 이르기까지 敵의 銃聲은 전혀 없었고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擲과는 기척과 兵력을 再배치하는 듯한 低音聲만이였다.

대대장 張泰煥소령은 敵이 대대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確信하자, 중화기 中대장 朴贊旋중위에게 Cal 50을 앞으로 더 推進하라고 명령하였다.

드디어 9부稜線上에 展開가 이루어졌을 때 대대장은 靑色信號彈 3發을 發射하여 突擊을 명령하였다.

이와 同時에 一齊히 喊聲을 지르면서 突入하자 모든 重火器는 頂上에 불을 뿜었다.

砲床없는 61mm迫擊砲는 나무에 걸거나 鐵帽에 흙을 나져넣고 눈어림으로 갈기고 Cal 50은 頂上의 前斜面을 쓸었다.

그러나 奇襲을 받은 敵도 不整地에 既設한 壕속에서 惡練한 督戰으로 最後阻止사격인듯한 猛射와 함께 手榴彈을 쏟아내 대대는 四進五退하는 血戰을 展開하였는데 死傷者만 續出할 뿐 突破口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이르자 제 2중대장 朴圭華중위는 對戰車공격에는 無用之物이었던 2.36" Rocket포를 앞으로 빼내어 敵의 機關銃을 단숨에 撲滅하는 것을 信號로 누구의 웨침도 없이 一齊히 突入하여 紛戰亂擊끝에 文案山을 手中에 넣고 말았다. 頂上에서는 절로 大韓民國萬歲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아침해가 솟아오를 무렵에는 누가 꽃았는지 太極旗가 飄拂하고 있었다.

이 공격에서 敵의 遺棄屍體는 200具를 헤아리고 기관총 10정을 포함하여 기타 小銃類를 노획하였음을 볼 때 1개대대규모의 敵을 殲滅한 것으로 推算되었다.

彼我 기습공격으로 뺏고 뺏기는 血鬪가 連續되면서 敵도 지쳤는지 저녁무렵까지 砲擊만을 加하여 小康상태가 흘렀는데 16.00에 이르자 1개대대규모의 敵이 文案山 東麓의 碧岩 里쪽에서 高聲을 지르며 赤旗를 흔들며 騷亂을 피웠다.

이를 바라본 제 2중대장 朴圭華중위는 그들의 코대를 꺾고 말겠다고 다짐한 결과 대대장에게 모격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銳意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되어 敵의 大群은 중대의 바로 코밑까지 올라와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潛入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我軍으로 하여금 騷亂을 피우는 병력에 관심을 쏟게 하고 이틈을 다서 接近하려는 兇策을 씀으로써 我軍은 이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高地頂上에서는 순식간에 亂戰亂擊이 벌어져 混戰상태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때 제 1중대장 尹興蹟중위는 그들의 阻擊彈에 貫通傷을 입고 쓰러져 後送을 拒絕하다가 대대장 張泰煥소령의 強要로 하는 수 없이 後送되었다. 이 무렵 同중대의 나머지 병력은 모두 60명뿐이었다.

또한 제 2중대(장, 朴圭華중위)도 1개소대병력만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彈藥마저 떨어져 쓰러진 戰友나 敵의 屍體에서 彈藥을 다시 건우어 써야 할만큼 惡戰苦鬪하였다.

올분을 참지 못한 대대장 張泰煥소령은 극한 상황속에서도 縱橫으로 뛰어다니며 병사들을 督勵하고 陣頭에서 指揮하던 끝에 左側 骨盤에 貫通傷을 입고 後送됨으로써 제 2중대장 朴圭華중위가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戰鬪에 參戰한 參戰者의 증언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文案山을 점령하였을 때 敵의 屍體가운데에서 2具의 소軍將校시체를 발견하고 이를 現場에 묻은 記憶이 나는데 그들은 대대까지 내려와 作戰에 간섭한 것으로 본다. ② 敵은 한삼 파고 한번 쏘는 訓練을 받을 정도로 우수하였다. ③ 그들은 機關銃座나 꼭 지켜야 할 要地에는 장교나 사병을 불문하고 屍體에 발을 묶어 놓는 人間獸心의 악랄한 手法을 썼다. (제 2중대장 朴圭華중위 증언) ④ 文案山을 奪取하고 보니 敵屍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는데 병사들은 아무리 말려도 정신없이 敵의 屍體를 뒤져 雙眼鏡이나 拳銃을 뺏다가 奇蹟을 받은 일이 있다. (제 1중대 소대장 朴鍾熙소위 증언)』

제 17연대의 상황 : 제 17연대의 主力인 제 1대대(장, 李寬洙소령)는 夜間공격에 앞서 병력의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제 1인대로부터 1개중대가 배속되었다.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夜間전투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부대離脫을 막기 위하여 先鋒으로 前進하는 중대로부터 後尾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새끼줄로 이어 삼고 올라가도록 하였다.

대대의 接近路는 文案山의 主峰에 이르는 곳과는 달리 緩漫할 뿐만 아니라 俗稱 맏나무골(文案山西쪽 1.5km) 바로 北쪽에 있는 無名高地를 手中에 넣을때까지는 敵影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로부터 500m쯤 前進할때부터 △330(文案山 西北쪽 1.7km)의 1개대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으로부터 熾烈한 火力을 받고 엎드리게 되었다.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즉각 대대를 공격대형으로 展開하고 중화기중대(장, 李弘根중위)의 전 火力를 集中하였으며 포병중대도 一齊사격을 퍼부어 敵의 頂上을 強打하는 가운데 徐進하였다.

이무렵 대대의 火力은 完璧에 가까운 장비와 사격술을 자랑하였는데 그 까닭은 緜戰에 勇進戰鬪에서 철수할 때 鐵帽하나 버리지 않고 장비를 갖고 온데다 이번 공격에 앞서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迫擊砲彈을 補給해 달라는 중화기중대장의 건의에 『제17연대라면 砲彈을 몽땅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꼭 目標을 점령해야 하느니라』라고 激動하고 충분한 砲彈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敵도 만만치 않은 相對여서 寸土를 놓고 彼我が 進退를 거듭하였을 뿐 더 이상의 接近을 拒否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이르자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생각끝에 『저 高地(△330를 말함)가 안떨어지는데 白景燮소위가 한번 해 보게』라고 하자 그는 10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近距離까지 接近하여 銃彈의 洗禮를 퍼부었으나 機關銃을 屏息시키지는 못하였다.

白景燮소위는 『대대장님 저에게 3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능히 저 高地를 奪取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전자의 失敗를 雪恥이라도 하려는 듯이 간청하였다.

사실 30명이란 이때만하여도 1개중대에 해당하는 귀중한 병력이었으나 그의 뜻을 알아차린 대대장은 기꺼워 승인하고 古參들만 30명을 選拔하여 그에게 맡겼다.

그는 이들을 3개조로 나누어 이끌고 △330의 뒤로 돌아가 敵들이 앞만 바라보고 사격에 狂奔하고 있는 뒤통수에 銃彈을 휘드르면서 一齊히 突入하였다.

대대장은 敵의 사격方向이 달라지고 喊聲소리가 到處에서 일어나자 白景燮소위가 突入에 성공한 것으로 判斷하고 『突擊』을 위치 同高地의 頂上으로 뛰어 올랐다.

이리하여 彼我를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서로가 ینگ킨 가운데 치고 받는 白兵戰이 벌어졌는데 대대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 까닭은 이날의 暗口號가 『손들라』하면 『들었다』있는데 병사들 사이에는 낮익은 소리에 대담하다가 刺傷者가 생기는가 하면 서로 머리를 팍팍 짚았기 때문에(제17연대는 大田서 머리를 짚음)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가 짚으면 敵으로 誤認되어 사살되는 병사도 非一非再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기습적인 공격에 敵은 큰 打擊을 받았을 것이며 東天에 해가 솟자 視野에는 너지분하게 널린 敵屍 뿐이었고 피비린내가 山野를 메웠다.

뒤따라 주먹밥(朝食)을 갖고 올라간 兩대대 S-3 金禧泰중위(사단에 연락갔다가 이번 戰鬪에 參加치 못한)는 頂上에 흔어진 50餘具의 屍體와 82mm 迫擊砲 3門을 비롯하여 機關銃, 小銃등 그 數를 헤아릴 수 없이 山積해 놓고 연대에 戰果를 보고하였던바 연대장 金熙濬중령은 幽獲品을 速히 후송되라는 督掟이었다

한편 대대도 소대장 1명 외에도 10여명의 死傷者를 냈다.

南侵이래 乘勝長驅하던 그들이 이와같이 敗戰만을 거듭하자 北傀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은 『그 못된 놈(金錫源준장을 指稱)을 또 만났다』라고 투덜뎠 것을 뒷날 이곳 住民들이 듣고 傳言하였는데 그는 必是 戰前에 松岳山 戰鬪에서 제 1사단장이었던 金錫源준장으로부터 두들겨 맞았던 일을 想起하였을 것이다.

#### (나) 사단의 遲延戰

敵은 사단의 反擊에 이은 反擊으로 말미암아 1개연대규모가 潰滅 되었을 뿐만 아니라 烽火山—文案山—△330線을 사단이 掌握하기에 이르자 그들은 散發的인 探索戰과 砲擊으로 사단의 進出을 阻止하려고 狂奔하는 한편 迂回侵攻을 計策한 듯하였다.

戰車, 砲兵 및 優勢한 兵力을 갖고도 번번히 正面突破에서 失敗하자 그들은 이를 斷念하였는지 午後늦게부터는 思陽里(제20연대 地域으로 鎭川東南쪽 4km)로 主力을 돌려 그 先頭가 이미 涼泉山 北麓에 이르렀으니 사단의 背後를 遮斷하려는 企圖가 明若觀火하였다.

한편, 사단은 烽火山과 文案山을 手中에 넣기는 하였으나 追擊戰을 감행하여 戰果를 擴大할 한층의 예비대도 없었거니와 계속된 戰鬪로 병사들이 지질대로 지쳐 있어 鎭川으로 躍進할 餘力이 없었던 것이다.

이무렵부터 京釜國道方面의 美軍은 全義가 威脅받게 됨으로써 사단의 後方路는 東西兩側으로부터 挾擊될 우려가 짙었던 것이다.

現線의 固守를 다짐한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참모들의 건의 및 疲勞困憊한 예하부대의 실정, 그리고 상황의 推移 특히 右側의 威脅을 감안하고 遲延戰을 띄기로 決心하기에 이르렀는데 그의 企圖는 作命에서 나타나 있드시 淸州마저 敵에게 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첫째요, 美軍이 參戰한 이상 곧 反擊이 敢行될 것이라는 것이 그 둘째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美湖川의 南岸은 確保하여야만 위의 두가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判斷하고 要諦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7월 10일 16.00를 期하여 현 接觸線에서 離脫한 다음 美湖川 南岸에 阻止障地를 점령하고 敵을 阻止 擊滅하려함.

② 제18연대는 地帶內의 敵을 擊破하고 제 1대대로써 美湖川南岸으로 철수, 사단의 右一線으로서 新安里—外下里간을 점령하고 敵의 渡河를 抑留하라.

③ 제 1연대는 地帶內의 敵을 擊破하고 제 1제대로써 美湖川南岸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의 中央이 되어 585道路로부터 井上里간을 점령하고 敵의 渡河를 抑制하라.

④ 제 8연대는 地帶內의 敵을 擊破하고 제 2제대로써 美湖川南岸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의 左一線으로 文岩里—新垆里간을 점령하고 敵의 渡河를 抑留하라.

특히 天水川(美湖川支流)부근의 境界를 철저히 하라.

⑤ 제17연대는 제 2제대로써 제 1연대의 철수를 幷護하고 依命 酒中里에 集結하여 사단

예비가 되라.

⑥ 제20연대는 제2제대로써 現陣地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依命 永雲洞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라.

⑦ 포병중대는 煙幕으로써 사단의 이탈을 遮障한 다음 火力의 우선권은 제20 및 제17연대에 두되 제1제대에 이어 栗陽洞으로 전환하라.

⑧ 각부대는 糞間철수를 위하여 기도비익에 철저를 기하라.

⑨ 餘는 酒中里에 在함』

이리하여 사단은 배속된 제17 및 제20兩연대의 엄호밑에 主力을 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鎭川 및 同邑의 東南쪽 4km에 이르기까지 B29, B26 爆撃機에 의한 大的인 爆撃과 F51戰闘機에 의한 雨注하는 機銃사격으로 사단 철수를 엄호하게 되는데 이번 航空支援이 사단장의 要請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遇然의 一致있는지는 밝힐 길이 없다.

사단主力의 撤收: 이날 16.00를 期하여 포병중대의 煙幕彈사격을 信號로 사단主力이 敵과 離脫하기 시작하여 사단前方指揮所가 위치하고 있던 如土里를 거쳐 585번 道路를 따라 밤늦게 作命上에 명시된 阻止陣地를 각각 점령하였다.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主力이 빠진 다음에 참모장 金應祚중령과 G-3 朴敬遠소령을 내동하고 Jeep車를 달려 美湖川의 「관결橋」를 넘어 梧根場(淸州北쪽 4km)에 당도할 무렵에 한 병사가 『Light를 끄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運轉兵이 우물우물하면서 Light를 끄지 않자 달려들면서 『Light를 끄지 않으면 쏜다』고 위협하자 사단장은 車에서 내려 『勇敢한 사병이로구나』라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칭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運轉兵을 꾸짖었다.

제20연대의 苦戰: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는 한때 當面한 敵에 대한 空中爆撃과 機銃사격으로 말미암아 間一髮의 危機를 면하였으나 奮戰에 몰린 그들은 병력을 다시 수습하고 侵攻을 再開하여 思陽里의 溪谷을 따라 涼泉山으로 南下하고 있었고 正面에는 불과 1개중대규모만이 연대를 牽制하고 있었다.

思陽里쪽으로 潛伏시켰던 2名 1組의 下士官組로 부터 이같은 敵의 迂回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해가 졌을 무렵인데 東側의 九谷里(思陽里 東쪽 3km)나 西側의 烽火山에서는 가끔 流彈이 交叉할 뿐 그렇기도 熾盛하던 彼我의 砲聲도 멀고 周邊이 高요속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사단에서는 아무 連絡도 없었다.

그들의 包圍網속에 陷入하게 되자 參謀들은 『절시 사단主力이 뒤로 빠진 것 같으니 決斷을 내리시요』하고 捕捉하였으나 固守하라는 사단장의 嚴命을 받았던 연대장은 『動搖하지 말고 사단에서 別途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戰鬪위치로 돌아가라』라고 타이르고 激戰을 차루고 있었다.

그런데, 文德里쪽으로 迂回한듯한 1개중대규모가 背後로 올라와 『너희들은 包圍됐으니 降伏하라』라고 소리 소리쳤다.

연대장 朴基丙대령은 예측 못한바는 아니지만 敵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직감하고 獨斷으로 撤收를 決心, 1개중대로 하여금 南麓으로 突破口을 뚫게한 다음 一時에 敵을 左右로 驅逐하면서 驛里로 나와 비로소 사단이 절수한 사실을 알고 淸州 南쪽 郊外의 永靈洞에 집결하였다.

이곳에는 議政府와 汶山戰鬪에서 落伍하였던 장병들이 『朴基丙부대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들어 옛 戰友들과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병력이 증가되었는데 이때 陸軍本部에서는 『鎭川戰鬪에서 많은 병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되었을 뿐만아니라 보충도 없해주었는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병력이 증가되느냐?』라고 疑訝해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제17연대의 離脫: 제17연대는 前述한 바와 같이 제1연대에서 1개중대를 배속받아 △330를 扼守하고 있었으나 중일 敵影은 볼 수 없고 그들의 砲擊은 더 한층 심하였다.

이 가운데에 병사들은 전날의 쓰라린 체험을 되살려 누구의 지시가 없어도 炎天下의 暴炎을 무릅쓰고 비지땀을 흘리며 壕塹는 作業과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또한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병사들의 壕마다 찾아다니면서 『깊이 파면 팔수록 그 만큼 生命이 延長된다』라는 등으로 士氣를 鼓舞하기에 餘念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는 赴任한지가 얼마않된 까닭에 親熱할 수가 없었고 어딘가 疎外感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부대대장 安在徵대위를 帶同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初任부터 同대대에서 잔뼈가 굵어 병사들과는 骨肉之情의 紐帶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대대장은 그를 부대대장으로 活用함에 있어 대대補給所에서 보급이나 지원하는 따위를 시키지 않고 戰鬪때마다 같이 행동하여 흔히 戰場에서 병사들이 느끼는 孤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S-3 金喜泰중위로 하여금 幽獲品을 後送케 하고 잠시 잤고개를 眺望하다가 틀림없이 北僞로 보이는 隊列이 계속 南下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그는 옆에 있던 부대대장으로 하여금 보라고 하였던바 그도 敵인 것 같다고 하였다.

대대장은 下士官 2명을 뽑아 如士에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하여 그는 돌아와서 報告하되 『그곳에는 敵이 雲集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때가 22.00였다.

대대장은 참모들과 협의 끝에 鳥致院쪽으로 철수(이미 後方路는 遮斷)하기로 決心하고 배속된 제1연대의 중대장에게 『貴官은 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중대장은 『왜 우리만 남게 합니까』라고 不平을 털어 놓았으나 이를 說得하여 엄호케 하고 대대는 28km에 이르는 장거리를 山과 峻 그리고 河川을 건너 다음날(7월 11일)에 鳥致院에 到着, 이곳에서 연대가 報恩에 집결중이라는 諜報를 얻고 다시 報恩으로 가서 本隊와 合勢하였으니 그간 대대는 사단作命을 受領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로 彷徨하였던 것

이다.

연대장 金熙濟중령은 『제 1대대는 2,3일간 行方不明이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를 是認하였고 대대장 李寬洙소령은 證言하기를 『연대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鎭川에서 半數의 병력을 잃고 報恩으로 가서 연대의 예비가 되었는데 대대가 철수할 때 엄호로 남았던 중대는 그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의 撤收는 일단 끝났는데 이에 앞서 사단참모들이 사단장에게 遲延戰을 건의한 참모관단과 결심은 時宜에 尙當하였으며 鎭川戰鬪에서 사단이 보여준 臨戰無退의 精神은 戰標에 淸々였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도 충분히 立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 北傀 제 2사단 포병연대장 林憲一 총좌(준장급)가 뒤에 歸順하여 증언한 바에 따르면 『1차 공격에서 1개대대가 섬멸되고 2차공격때 또 막심한 손실을 보고 물러나야 했다. 이때 사단장(崔賢소장)은 각연대장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욕질을 하면서 또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는 후방에서 122mm 榴彈砲를 증원받고 砲支援을 再開하였는데 前面(烽火山 및 文案山을 말함)에는 소수의 병력으로 欺騙하고 사단포병 및 증원된 포병, 그리고 사단의 전 重火器를 갖고 前面을 때리면서 主力은 우회하여 후방을 차단키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迂回作戰으로 國軍의 2개연대는 投降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美空軍機 30여대가 날아와 爆撃과 機銃사격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戰車와 砲 그리고 병력의 큰 손실을 보았으며 이 틈을 타서 國軍은 감쪽같이 빠져 나갔다. 우리 포병도 며칠간 밤을 새워 쏘는 바람에 砲手들이 지쳐 近彈을 많이 내어 공격부대 병사들이 많이 죽자 政治保衛部에서 調査까지 받았으며 나는 근거서류를 없애고 그것은 연대 박격포彈이라고 발뺌을 해서 責任을 면하기도 하였다. 北傀 제 2사단은 정말 계수없는 사단이어서 春川에서 얻어맞고 또 南侵하다가 鎭川에서 또 한번 당했지요』라고 술회하였다.

7월 11일 : 이날도 暴炎이 계속되었다. 이날의 戰局을 概觀하면 西側(京釜國道)은 北傀 제 3사단이 全義를 掌握하고 國道를 따라 烏致院으로 肉迫하고 있었고 東側은 北傀 제 15사단이 槐山西北쪽 10km의 吉安에 미치고 있었다. 이때 當面한 敵은 전날의 侵鋒을 늦추지 않고 一群은 涼泉山으로 또한 一群은 戰車를 앞세우고 585번 道路를 따라 계속 南下하였으나 사단에 의한 傷處가 컸던지 그 速度가 鈍化되어 이날 08.00에야 栢倉(淸州北쪽 10km)에 나타났다. 이러한 事實을 알게된 사단에서는 항공지원을 요청한 결과 08.30부터 F51 戰鬪機 2개편대가 나타나 機銃사격과 네이파암彈을 퍼부었다.

이무렵 사단의 右隣接인 제 2사단(장 李翰林대령)과 新安里(內秀西쪽 2km)을 境界로 하여 連繫하고 左隣接인 美軍과 烏致院 부근에서 接하고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서 서로 連繫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12km의 間隙이 있었으며 이 虛隙은 그대로 放置된 상태에 있었다(뒤에 軍단은 제 2사단을 轉進시켜 空間을 메꿈). 예하 연대는 美湖川南岸에 東에서 西로

제 18, 제 1, 제 8 연대順으로 阻止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 17 연대(-2)는 當初예비로 控  
 衛하러 하였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行方不明이 되고 제 20 연대는 淸州南쪽 郊外(永雲洞 부  
 근)에서 부대정비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단은 虛弱한 橫線방어로 現線을 固守키로 한  
 것이다. 이때에 淸州市內는 軍단사령부는 물론이고 數個연대의 指揮所와 補給所가 여기 저  
 기 散在하고 그위에 걸쳐 緒戰에서 分散 落伍한 소속을 각기 달리하는 장병들이 續續 모여  
 들어市內는 마치 雜市場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각 연대는 모여든 병력으로 鎭川戰鬪에서 손실한 병력을 代充할 수 있었고 제 1  
 연대(장, 李喜權중령)는 이곳 梧根場에서 제 9 연대(장, 尹春根중령)를 흡수하여 再편성하  
 였는데 대체로 제 1 연대병력은 제 1 대대로, 제 9 연대병력은 제 2 대대로 그리고 나머지 兩  
 연대의 병력을 糾合하여 제 3 대대로 편성하고 연대장은 제 1 연대장이었던 李喜權중령이 그  
 대대로 머물렀다.

美湖川은 淸州北쪽 7km에서 東西로 흐르는 錦江의 支流이며 사단 正面의 河幅은 200m,  
 水深은 1m, 流速은 緩漫하여 人馬는 물론 戰車 및 砲도 徒涉이 가능하며 다만 河川이라는  
 心理的인 影響을 줄 뿐이고 作戰에는 彼我간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사단은 敵의 企圖를 拒否하기 위하여 팔계교(美湖川교량)를 폭파하고 이어서 14.00에는  
 사단에서 요청한 航空支援으로 梧根場 以北의 예상되는 敵의 集結地를 強打하여 또 한차례  
 의 損失을 주었다.

한편 각부대는 接敵없이 陣地를 구축하고 부대를 정비하였다.

**7월 12일** : 이날 새벽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午後에는 비가 쏟아졌다.

美湖川의 防禦: 敵은 전날 두번에 걸친 空爆으로 混亂을 이르킨듯 움직임이 活潑하지 못  
 하였으나 이날 10.00부터 北岸一圓에 그들의 偵察隊로 보이는 병력이 徘徊하면서 渡河點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었고 14.00에는 華山里(梧根場 北쪽 7km로써 美湖川北岸)에 1개연대  
 규모가 집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當面한 北傀 제 2 사단장은 예하 부대장들의 休息건의를 一蹴하  
 고 『敵의 제 1 軍단사령부가 있는 淸州를 占據해야 한다』고 發狂하였다는 것이다.

督戰에 몰린 그들은 서둘러 渡河를 피하여 華山里에 병력을 집결한 것인데 사단장 金錫  
 源중장은 軍단에 要求하여 全砲 11門으로 一齊히 集中砲擊을 加하게 하였다.

魁首들의 어거지 督戰으로 『월데로 되라』는 식으로 무질서하게 雲集하였던 그들의 1개  
 연대규모는 삼시간에 800명의 死傷者를 내는 큰 損失을 보고 支離滅裂상태로 分散된듯 하  
 였다.

이때의 情景를 포병중대장 金燦福대위는 回想하기를 『砲擊을 誘導하던 관측장교 朴昇玉소  
 위는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 파리가 藥을 먹고 메죽음을 당하는 것 같다고 表現하였고 나

自身 오랜만에 對砲兵戰과 併行하여 敵을 殲滅하여 처음으로 砲兵에 몸 담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이 入手한 諜報(航空偵察通報)에 의하면 梧根場—玉城里(如士南쪽 5km)간의 586번 道路上에 truck 9臺, 鎭川南쪽에 3臺, 그리고 成歡~鎭川간 道路에 6臺를 각각 발견하였다는 通報와 對岸의 움직임이 다시 活氣를 되찾고 있음을 볼때에 그들은 틀림없이 夜間渡河를 企圖한 것이라고 判斷하고 전부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를 강화하라고 強調하였다.

그의 이러한 判斷은 的中하여 21.00부터 敵은 步, 戰, 砲協同下에 華山里 및 梧根場으로 徒涉을 強行하려 하였다.

이때를 기다렸던 제18 및 제1兩연대는 포병의 彈幕사격과 함께 前後阻止사격으로 江中에 들어선 敵을 半途逆擊으로 쓰러나가니 그들의 初動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美湖川은 敵屍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군단장의 作戰指導: 한편 군단 指揮所에서는 군단장 金弘壹소장,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 그리고 매마침 作戰協議次 이곳을 訪問한 陸軍 陸軍本部 作戰參謀副長 金白一 대령을 맞아 作戰會議를 가졌다.

主題는 淸州固守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일부의 참모 및 지휘관들은 『병력의 손실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후퇴를 계속하면 파멸이 있을 뿐이며 그 代價는 엄청나다』라고 不退轉의 意志로 市街戰을 主張함으로써 意見이 엇갈렸다.

한참동안 默默地 듣고만 있던 군단장은 末席에 앉아 있던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에게 意見を 물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市街戰은 特殊戰인 까닭에 訓練도 少된 부대를 갖고 市街戰을 하기란 곤란할 것이며 지금의 실태로서는 잠시라도 休息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愚見으로서는 米院—馬東里—文義線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形成하는 것이 賢明한 方策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具申하였다.

그는 淸州방어는 戰術的인 面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얻고 드디어 淸州를 開放하기로 決心하기에 이르렀는데 뒷날 이 때의 心情을 回想하기를 『淸州는 市街戰을 할만한 價値가 없을 뿐더러 이날 京釜國道쪽에서는 烏致院이 이미 떨어졌던 것이다.

淸州의 地形을 보면 三面이 平野이고 東쪽은 300m内外의 野山群인데 唯一하게 남아 있는 報恩으로 가는 道路마저 그들에게 遮斷된다면 市街戰을 한 만큼의 병력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어쨌든 병력이 저달(그대로의 表現)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말며 兵力의 濫存만이 後圖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淸州南쪽에서는 敵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나의 所信이었다』라고 하였다.

結論에 이른 군단장은 군단作命 제10호(50. 7. 12부)로 밝혔는바 그 요점에 이르기를 『군단은 現線에서 敵을 최대한 擊破하고 別途命令에 의하여 수도사단은 濟州南쪽 △431—國師峰 간을 점령하는 한편 제 2 사단은 제20연대를 수도수단으로 부터 복귀시켜 군단의 左一線으로 轉進하여 美軍과의 連繫를 이룬다』라는 것이었다.

한편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군단作命제10호(50. 7. 12부)를 基礎로 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계속 美湖川 南岸에서 敵의 渡河를 粉碎하고 依命 阻止진지를 점령하려함

② 제18연대는 依命 △431—胎峰(高隱里東쪽2km)를 점령하라.

③ 제 1 연대는 依命 高隱里—駕山里간을 점령하라.

④ 제 8 연대는 依命 國師峰(高隱里西쪽 2.5km)을 점령하라.

⑤ 군단포병은 철수간 사단을 직접지원 할것이다. 』

7월13일 : 이날 아침한때는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가랑비가 내렸다.

美湖川南岸의 拋棄 : 새벽04.00 부터 그들의 煙幕彈一發을 信號로 各種 砲火가 숨 들릴사 이도 없이 炸裂하여 同江南岸은 硝煙과 煙幕으로 뒤 덮여 強行渡河의 徵候를 보였다.

이것은 이미 예측한 바이지만 병사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물소리만 나도 그들의 越江 이 아닌가? 하고 神經을 곤두세웠다.

이윽고 30분간의 効力射를 실시한다음 煙幕에 숨은 兵力群이 美湖川을 가르며 此岸으로 밀려 들었다. 이리하여 彼我는 步兵의 紛戰亂擊과 砲兵戰이 展開되기에 이르렀는데 南岸一帶는 70m內外의 벌판인데다 砂土였기 때문에 驟는 순식간에 뒤집혀져 각 연대는 全身이 露出된 상태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단장은 陣頭에 나서 數次에 걸쳐 反擊戰을 감행하여 敵을 江邊으로 밀어부치고 粉碎하고 또 粉碎하였으나 兵力의 絶對差로 말미암아 血戰 5 시간만에 사단의 主抵抗線은 무너지고 그들은 橋頭堡를 擴大하기 시작하였다.

現地戰線에 직접 나와 이 情景를 觀察하던 군단장 金弘壹소장은 敵과 離脫하여 다음 阻止진지를 점령할 時機가 到來하였음을 直感하고 수도사단장에게 군단 作命 제10호의 실행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敵과 離脫하여 18.00에는 阻止진지를 점령하고 진지구축에 注力할 수 있었다. 즉 右一線에는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가 銀杏里西北 1km의 稜線一帶를 지키고 中央線에는 제 1 연대(장, 李喜權중령)가 高隱里로부터 585번道路의 兩쪽을 扼守하고, 左一線에는 제 8 연대(장, 李賢進중령)가 南一國民學校 뒷산의 俗稱 새터로부터 秀堃里간에 각각 配備되는 한편 군단에서는 3개포병중대 중에서 2개중대로 사단을 직접지원토록 하여 仁次里(高隱里南東쪽 3.5km)에 放列하였다. 이때 사단 前方指揮所는 △135(高隱里東쪽



0.7km)에 設置하였다.

이무렵 사단장은 報恩에 집결한 제17연대(제2 및 제3兩대대)를 招致하고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는 원대인 제2사단으로 복귀시켰다. 그런데 同연대는 左一線인 제8연대와 連繫하여 鎭舞山(高隱里西쪽 5.5km)에 布陣하였다.

이날 敵은 철수하는 사단을 追尾하여 淸州로 侵入하여 同市를 占據하였으나 사단과의 接觸은 輕미하였다.

#### (다) 淸州地區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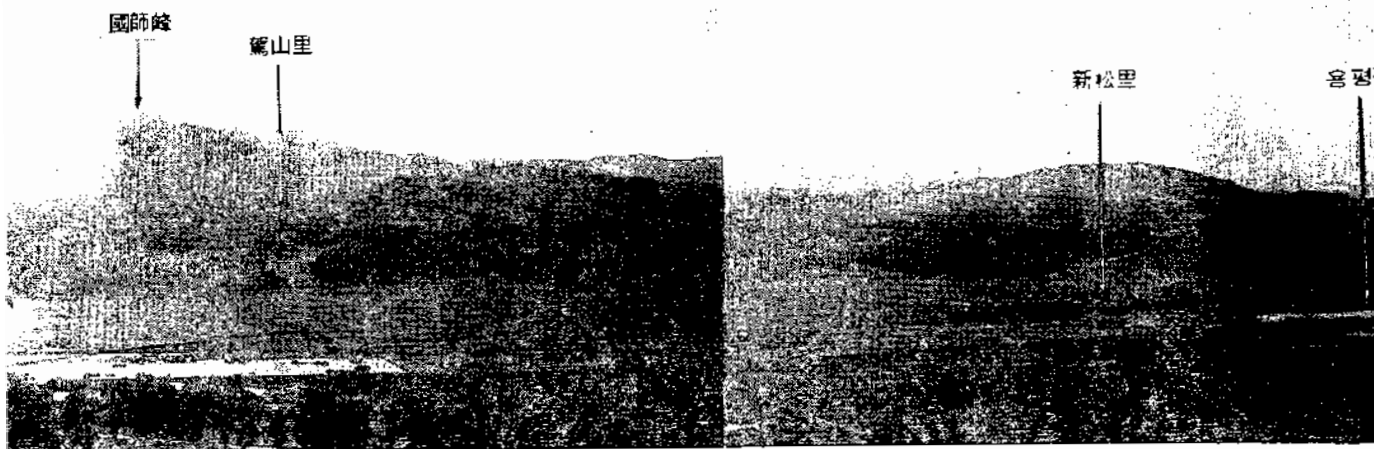
7월 14일 : 이날은 맑고 暴炎이 계속되었다.

敵은 兵力 및 補給의 補充을 위하여서인지 活潑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07.00부터 08.03까지의 航空偵察에 의하면 鎭川—梧根場간에 Truck 10餘臺가 南下中이고 梧根場에서 鳥致院 쪽으로 戰車 2대와 兵력을 滿載한 Truck 13臺가 迂回하고 있었다.

그런데 1개 대대규모의 敵이 淸州로부터 秀峯里(高隱里西쪽 4km)로 南下중이라는 通報와 함께 左一線의 제8연대(장, 李賢進중령)는 이와 激戰을 벌이게 된다.

雙樹里의 戰鬪(제18연대) : 銀杏里西北쪽 1km의 △431一圓을 扼守하고 있던 제18연대는 05.00에 胎絳으로 진지를 전환하였다.

그 이유인즉 左側의 제1연대(장, 李喜權중령)와 2km에 이르는 虛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투적인 侵攻樣相이 稜線接近을 避하고 道路接近을 戒하였고 또한 지난 밤에도 敵의 探索隊로 一群이 보이는 雙樹里(高隱里東北쪽 2km)까지 潛入하였으나 無名高地까



〈首都사단 지휘소였던 鎭舞山에서 바라본 淸州市 外郭〉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볼 때 據點방어는 각개격파될 우려에서 사단장의 승인아래 실행에 옮겨던 것이다.

貽鋒으로 옮긴뒤에 바로 北麓의 雙樹里에는 많은 피난민이 모여있다는 諜報를 듣고 대대장 張春權소령은 장교를 潛入시켜 『激戰이 예상되니 다른 곳으로 피난지를 옮기도록』 두세 번씩이나 요청하였으나 『바로 이곳이 鄭鎔錄의 나오는 피난처』라고 고집하면서 움직이지 않아 끝내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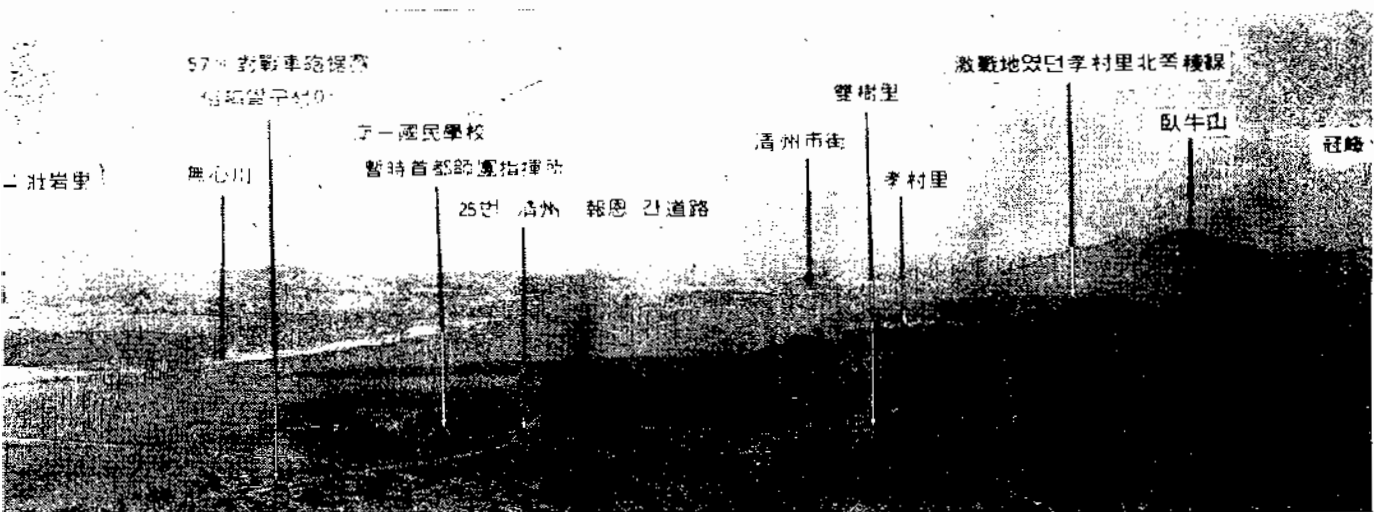
07.00에 연대장은 제 2대대장 張春權소령에게 雙樹里 앞(1km) 無名高地를 奪取하여 前進陣地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 7중대(장, 張德壽중위)로 하여금 공격케 하여 同중대는 貽鋒으로부터 稜線을 따라 進進하였다.

이리 그들은 대대의 공격을 알아 차렸는지 直射砲彈을 集注한 까닭으로 중대는 分散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貽鋒에서 중대의 進出을 注視하던 대대장은 앞에 있던 중화기중대장 李龍階중위에게 敵의 火力을 制壓하라고 명령, 同중대장은 頂上에 몸을 내던지고 직접 관측하여 迫擊砲사격을 지휘하였으나 그들은 어디에 숨겨놓고 쏘는지 계속 포탄은 頂上에서 炸裂하나 砲位置를 찾을 수가 없었다.

병사들은 중대장의 身邊을 念慮하고 後斜面으로 一時 차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勸하였으나 그들의 直射砲를 찾아 박살을 낼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無言의 굳은 자세로써 身邊을 露出한채 관측을 계속하고 있었다.



〈首都사단은 이곳에서 北傀 제 2사단을 격파하였다〉

끝내 그는 直射砲의 位置를 발견하자 連續사격으로 이를 沈黙시키고 기쁨에 넘쳐 『直射砲가 동강났다』고 歡呼聲을 올렸는데 한발의 敵彈이 炸裂하는 爆音과 함께 그 자리에는 중화기중대장 李龍歸중위가 키있던 TS-10과 손목만이 남고 屍體는 온데간데 없이 壯烈하게 散華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직사포와 我의 迫擊砲가 雌雄을 겨르는 사이에 공격중대는 目標 無名高地를 奪取하고 여세를 몰아 池北里(淸州南쪽 2.5km)까지 追擊하였다가 다시 無名高地로 돌아갔는데 이날밤에도 계속된 敵의 集中砲火에 부대대장 尹鎬重소령이 重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그런데 돌아가던 途中에 孝村里(池北里南쪽 1km)의 한 草家집에 壁을 뚫고 사격하다 중화기중대에 의하여 파괴된 直射砲 1門을 발견하였다.

國師峰의 固守(제 8연대):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는 國師峰北麓인 俗稱새터—秀竺里의 3km에 이르는 廣正面에 布陣하고 民家에서 빌린 삽과 곡괭이 그리고 帶劍으로 壕를 파고 있을 때 이곳을 訪問한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병사들을 激勵하기 위하여 『어떠한 難關에 부닥치더라도 現線을 固守해야 하며 만일에 여기가 뚫린다면 敵으로부터 포위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에 鼓舞된 將勇들은 寸土도 그들에게 더럽힐 수 없다는 굳은 覺悟이래 壕를 다지고 또 다졌다.

이 기회에 연대장 李賢進중령은 『연대의 實병력이 제 2대대(장, 鄭昇和소령) 뿐이며 장비 또한 대대전성장비의 수도 未達하는 실정으로 1개중대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자 사단장은 사단에 방금 도착한 晉州경비대대(실병력은 1개중대이고 朴培根대위가 指揮)를 보내주어 연대의 右—線(無心川과 새터간)을 삼았다.

오전에는 散發의으로 出沒하는 소규모의 敵을 擊退하였으나 15.00부터 新松里(國師峰北쪽 2.5km)에서 2개중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大口徑砲火의 掩護사격아래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晉州경비대대는 말 그대로 후방에서 경비임무나 수행하던 부대였는데 갑자기 소낙비와 같이 砲彈이 쏟아지자 當面한 敵에게는 銃한방 쓸 생각은 않고 벌써부터 들먹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대대의 左側에서 이 光景을 바라본 제 5중대장 安泰甲중위는 同중대로 달려가서 朴培根대위에게 『우리가 심心하면 저 정도의 敵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 병사들을 鎮靜시켜 같이 싸우시다』라고 勸하고 돌아갔는데 그 뒤부터는 協同하여 그들을 陣前에서 擊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자 敵은 소대규모의 突擊組를 내몰아 쓰러진 屍體를 뛰어넘어 連續波로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彼我는 사격전에 이은 白兵戰으로 몇차례의 進退를 거듭한 끝에 이를 固守하는데 奏功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연대의 병력손실도 적지 않았다.

安泰甲중위는 그들이 틀림없이 상투적인 夜襲을 試圖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대대장 鄭昇和소령에게 『그들이 夜襲할 경우에는 通信網도 전연 없는 이마당에 各個로 격파될 우려가 있으니 夜間만이라도 國師峰에서 密集방어태세를 갖추자』고 건의하였으나 사단장이 強調한 線을 물러날 수 없다고 斷乎히 이를 拒絕하였으니 이때 대대 指揮所도 同중대 바로 50m 뒤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예측한대로 敵은 다시 砲火를 集中하면서 狂波를 이루고 밀려들어 彼我는 삼시간에 手榴彈의 投擲으로 번지게 되었다. 血氣찬 중대장 安泰甲중위는 當面하는 強敵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부딪쳐야겠다고 결심하고 壕에서 나와 『중대 突擊앞으로』를 외치며 한 발 내딛는 瞬間 敵의 砲彈이 炸裂하면서 安泰甲중위와 제1소대장 金用鍵중위가 함께 쓰러졌다. 이 情景를 目擊한 대대장은 同중대로 달려나가 退却一步前의 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敵을 물리치고 現線을 確保하였다.

致命傷을 입은 安泰甲중위와 金用鍵중위는 곧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뒤에 軍의관이 말한 바에 의하면 安泰甲중위는 60군데에 破片이 박혔다고 하였다.

제1연대의 상황 : 中央一線인 제1연대는 梧根場에게 제9연대를 흡수함으로써 병력 및 장비는 다른 연대에 비하여 良好하였으나 지휘체계는 混線을免치 못하였다.

그 主因은 연대본부요원을 편성할 때에 이제까지의 참모가 두 연대를 합치면서 서열이 빠른 장교가 참모가 되고 後任이 보좌관이 됨으로써 어딘지 모르는 알력과 파벌이 생겼으니 이같은 事例은 예하 대대나 중대도 마찬가지 現象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흡수된 제9연대의 병력이 오히려 제1연대보다 強勢여서 연대를 指揮하는 연대장으로서는 큰 困難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장 李喜權중령은 前任 제9연대장(이때에는 사단 참모로 轉出) 尹春根중령을 사단으로 찾아가 연대를 맡아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므로써 사단장 金錫源준장도 이를 理解하고 陸軍本部에 건의하여 이날(명령상은 7월 15일부) 연대에 부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도 있거니와 다행히도 연대는 敵과의 交戰이 없었음을 기회로 하여 진지보장과 부대정비에 注力하였다.

제17연대의 復歸 : 제17연대(장, 金熙濬중령)의 사단復歸에는 많은 迂餘曲折이 있었다.

즉, 前述한 바와 같이 제1대대(장, 李寬洙소령)는 文案山戰鬪에서 迷兒가 되어 單獨의 行動으로 鳥致院까지 내려갔다가 報恩에서 本隊와 合勢하여 부대정비를 결하여 軍단의 예비가 되고 제2대대(장, 宋虎林소령)는 公州부근에서 美제24사단(장, Willian F. Dean소장)과 協同作戰 중 陸軍本部로 부터 原復後歸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날 밤 報恩에 도착하였던바 軍단에서는 (이때 연대본부는 수도사단과 함께 高隱里에 있었음) 즉각 연대本部가 위치하고 있는 淸州로 直行하라고 명령하여 그 길로 先發한 제3대대(軍단에 비었음)에 後續하여 淸州로 向하였다. 그러나 敵情이 五里霧中일 뿐만 아니라 報恩—淸州간에는 가끔 共匪가 出沒한다는 諜報가 있어 接敵行軍으로 이동한 까닭에 다음날 새벽 08.00에 斗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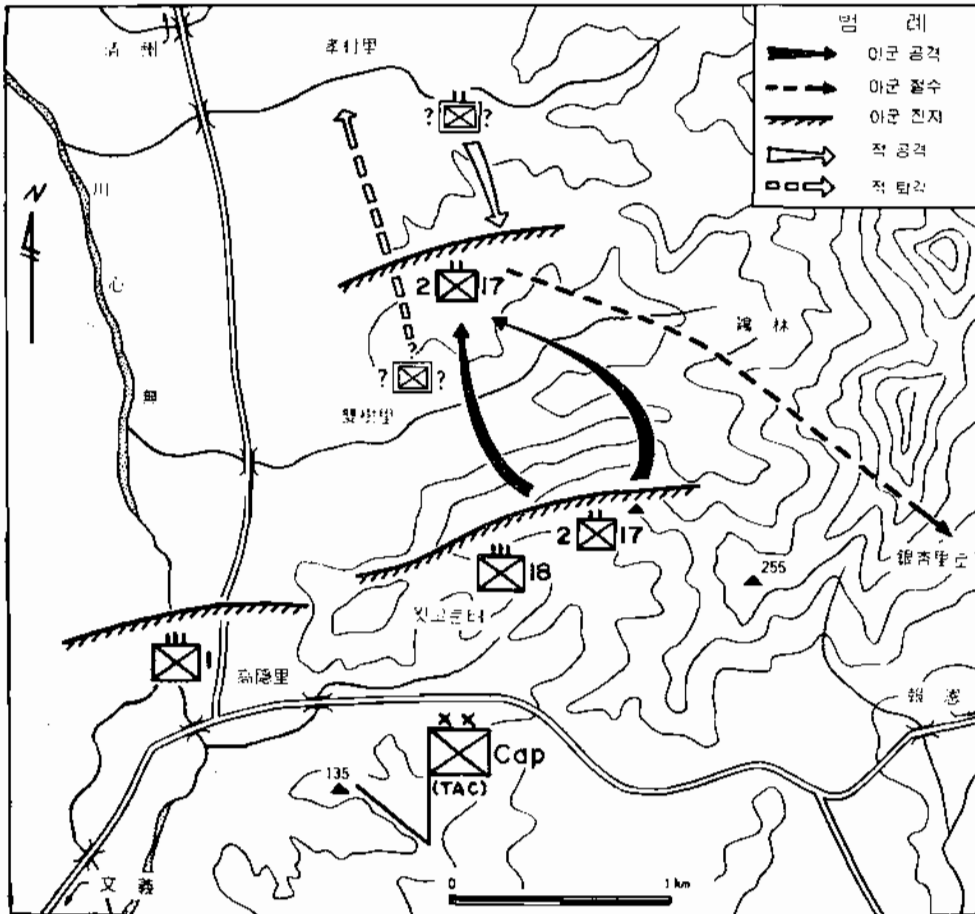
(高隱里東쪽 2.5km)에 도착하였다.

**7월 15일** : 이날 종일 구름이 낮게 깔리고 地熱은 숨이 막힌 정도로 쨌었다.

**破摧공격計劃** : 淸州를 占據한 北傀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은 이날 06.00부터 步戰砲의 총 공격으로 나왔으니 1개대대규모의 敵은 秀莖里(國師峰西쪽 3km)로 부터 茨江里(烏致院南쪽 13km) 쪽으로 西南進을 서두르고 1개연대로 推算되는 一群은 淸州에서 南下하고 있었으며 이의 先發隊로 보이는 一群은 南一國民學校의 東쪽 稜線까지 먼저 侵攻대세를 갖추고 있었다.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그들의 總攻勢가 大田包圍를 促進하기 위하여 我軍의 背後를 遮斷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현 防禦線까지 確保하기 力不足한 사단의 戰鬪力으로서는 束手無策일 뿐이었다.

◇ 상황도 제33호 孝村里戰鬪 (7. 15. 08. 00~16. 24. 00)



切齒扼腕하고 있던 이때, 군단으로부터 제17연대主力이 곧 사단에 到着할 것이라는 通報를 받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各一線연대에 이르러 『여기에서 떠물 물을 覺悟를 하자』라고 장병들을 督勵하는 한편 勇名을 떨친 同연대로 하여금 敵의 企圖를 初動에 破摧하여 버리려고 決心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그가 사단장으로 赴任할 때 참모장 요원으로 陸軍本部에 요구하였던 崔慶祿대령(前 제1사단 제11연대장)이 달려오고 뒤이어 08.00쯤에는 제17연대主力이 車輛機動으로 砂塵을 이르키며 當到하자 그는 길가에 까지 나가 마중하고 그자리에서 『敵은 1개 중대밖에 없었다. 勇敢한 제17연대는 이 앞高地에 배치되어 있는 제18 및 제1兩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目標 孝村里 및 壯岩里를 奪取하고 地帶內의 敵을 粉碎하라.

餘는 全力을 다하여 연대의 攻擊을 支援할 것이다. (제17연대 제2대대장 宋虎林소령의 證言)』라고 하였다.

孝村里의 戰鬪: 제17연대의 제1, 제3兩대대장은 肅돌릴 사이도 없이 공격명령을 받고 어리둥절하였으나 연대장 金熙禧중령은 연대의 主力이 分散되어 있는 동안 사단장과 起鬪를 같이한 때문에 그의 意圖를 이미 알고 있었던 바임으로 兩대대장에게 地形과 彼我的 상황을 說明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09.00에 공격을 개시하여 敵을 孝村里—壯岩里線에서 殲滅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右一線으로써 孝村里를 공격 奪取하라.

③ 제3대대는 左一線으로써 壯岩里를 공격 奪取하라.

④ 공격개시선은 胎峰—윗고분터—高隱里—鷲山里線임』

兩대대는 이곳 住民의 도움으로 마련한 주먹밥으로 饑饉하면서 각각 공격개시선에 展開하였다.

이와함께 군단지원포병은 一齊히 불을 댕하여 雙樹里앞 稜線으로부터 南—國民學校 및 兩目標에 대하여 공격준비사격을 퍼 부었고 主抵線上的 各연대는 可用한 火力으로 공격 부대를 엄호하였다.

敵도 연대의 공격을 阻止해 보려고 몇배나 優勢한 砲火力으로 擾亂 및 對砲兵사격으로 나와 彼我的 火力對決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熱氣는 더 해갔다

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宋虎林소령)는 제5중대(장, 李一洙중위)로 하여금 雙樹里로부터 孝村里로 躍進케 하고 제7중대(장, 趙慶鶴중위)는 右側으로 迂回하여 그들의 左側方을 찌로도록 하면서 이를 부대대장 李東皓대위로 하여금 指揮토록 하였다.

이때 제6중대(장, 郭聖範중위)는 제5중대를 追及하도록 하였다.

제18연대가 防守하고 있는 胎峰稜線을 超越하여 躍進한 제5중대는 雙樹里南쪽 논밭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南—國民學校앞에 나타난 敵의 戰車 2臺의 縱射로 소대장 1명과 10여 명의 병사가 斃어지는가 하면 當面한 敵의 阻止사격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대대장 宋虎林소령은 突進하라고 부리나게 연락병을 보냈으나 反應이 없자 追及하던 제 6 중대(장, 郭聖範중위)로 하여금 제 5 중대를 초월하여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自身도 몸을 날려 釘着된 제 5 중대로 달려갔다.

여기서 비로소 敵이 塹防을 방패삼아 병사들이 머리만 들어도 一齊히 阻擊하여 불과 50m 의 거리를 두고 躍進이 挫折되어 있는 事實을 알게된 것이다.

그는 제 5 중대장 李一洙중위에게 自身을 掩護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雨注하는 彈幕을 뚫고 右側에 散開한 소대와 迂回하고 있는 제 7 중대로 달려가 突擊을 嚴命하니 左一線중대의 戰況을 몰라 躍進을 주저하던 同중대는 一齊히 喊聲을 울리며 그들의 背後로 直衝하자 不意에 虛를 찔린 敵은 많은 屍體를 버린채 孝村里쪽으로 潰走하였다.

대대는 즉각 追擊戰으로 移行하여 散走하는 敵에게 殺傷을 강요하면서 19.00에 孝村里南 쪽 稜線을 奪取하기에 이르자 敵의 戰車도 그 사이에 北쪽으로 逃走하고 말았다.

壯岩里的 戰鬪(제 17 연대 제 3 대대): 한편 연대공격의 左一線이 되어 壯岩里를 奪取하기 위하여 躍出한 제 3 대대(장, 吳益慶소령)는 공격개시선에 展開하자 비로소 敵의 步戰砲에 밀린 제 8 연대의 제 5 중대(장, 安泰甲중위) 및 晉州경비대대(장, 朴培根대위)의 殘存병력 50여명이 奮戰을 겪으면서도 同地를 固守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各自의 本隊로 복귀시킨 다음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壯岩里까지 3km에 이르는 田畓뿐인 벌판인데다 공격 初動부터 敵의 頑強한 彈幕사격으로 前進이 不振하였다.

이무렵, 사단對戰車砲중대(장, 許鉉대위)가 南一國民學校앞에 放列하고 戰車를 強打하여 그들의 戰車砲사격이 잠시 뜸한 사이(이때 敵의 戰車는 제 2 대대로 砲口를 돌린듯)에 躍進을 再開하였으나 14.00부터 그들의 戰車砲와 그밖의 砲火力이 또다시 亂舞하여 進退維谷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나 F51戰鬪機 2 개편대가 突然 上空에 나타나 敵의 戰車에 공격을 加하는가 하더니 대대에도 機銃사격을 퍼부어 놓고 날아가 버려 끝내 막대한 병력의 손실만을 보고 공격은 挫折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同대대의 제 10 중대는 연대의 예비로써 控置된 까닭으로 병력을 濫存하고 있었는데 20.00에 연대장 金熙濬중령으로부터 제 8 연대에 배속한다는 명령을 받고 國師峰으로 갔다.

出發에 앞서 同중대장은 제 4 소대장 柳致文중위에게 尖兵소대의 임무를 맡기자 『火器소대가 어떻게 尖兵소대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반대하므로 제 1 소대장 崔泰暎소위에게 맡기려하였다. 그러나 그도 또한 『우리소대만 尖兵을 서야 합니까?』라고 不平을 하기에 이르자 중대장 自身이 직접 중대본부요원을 이끌고 나섰던 것이다. 獨立中隊의 중대장이 직접 尖兵小隊長이 되었으니 이는 非原則中에서도 가장 悖理의인 措置라고 할 것이다.

7월 16일 : 敵은 상투적인 戰法으로 道路에 沿한 正面突破를 試圖하다가 사단의 치고 물러서는 彈力있는 公방으로 말미암아 出血만을 強要당하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迂回를 企圖하면서 새벽부터 총공세로 나왔다.

즉, 그들은 一群을 龍岩洞一月午里를 거쳐 冠峰(孝村里東北쪽 3km)으로 돌려 사단의 唯一한 後方路인 25번 道路(淸州—報恩간)을 遮斷하려 하고 또한 一群은 585번 道路로, 그리고 一群은 國師峰의 西麓으로 侵攻하여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57mm對戰車砲의 奮戰 : 사단 G-3 朴敬遠소령은 어제 敵의 戰車 2臺가 南一國民學校 앞 에까지 나와 제17연대의 공격을 피물려 많은 병력의 손실을 주고 北쪽으로 潰走한 사실 및 航空偵察로 淸州에 10여臺의 戰車가 隱匿되어 있다는 通報를 받고 날이 밝기전에 57mm對戰車砲중대(장, 許 鉉대위)를 직접 이끌고 俗稱 살구정(南一民學校南쪽 0.5km) 部落의 北端까지 推進 放列케 하고 대기시켰다.

그는 對戰車砲의 威力으로는 戰車파괴가 어렵다는 사실을 開戰初부터의 체험으로 알고 있었으나 새로히 大田에서 補給된 砲일 뿐만 아니라 至近距離에서 사격할 경우에는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또한 한臺라도 擱坐시킬 경우에 병사들의 士氣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冒險을 試圖하였던 것이다.

이와함께 그는 淸州로 潛入한 敵의 戰車를 航空機로 파괴하여 줄 것을 軍단에 要求하기도 하였다. 14.00에 이르자 『敵의 戰車 6臺가 孝村里를 通過하여 亂射하며 계속 南下하고 있다』는 보고가 俗稱 윗고분터고개에 올라가 있던 그에게 傳達되었다.

그들의 戰車는 地軸을 흔들듯한 氣勢로 南一國民學校앞에 이르자 사격 目標을 찾는 듯이 두리번거리며 정지하였다.

이들 捕捉한 중대장 許 鉉대위의 『사격개시』號令이 떨어지자마자 제1번포 및 제2번포는 連續사격을 加하고 있을때 F51戰闘機가 나타나 機銃사격과 네이파압彈을 쏘아 敵車의 周邊은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火焰에 휩싸였다. 이에 戰車는 古鐵이 되었을 것이라고 병사들은 歡聲을 올렸고 한편 손에 땀을 쥐고 이를 지켜보던 朴敬遠소령과 옆에 있던 제18연대 S-3 高光道소령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불기둥이 가라앉자 한臺만 움직이지 못하고 나머지 5臺는 砂塵을 일으키면서 北쪽으로 살아지지 않는다.

擱坐한 敵의 戰車도 실은 57mm 對戰車砲의 砲擊에 의한 것인지는 空爆으로 파괴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同중대장 許 鉉대위는 애석하게도 現地에서 戰歿하고 砲만은 無事히 철수하였다. 이때의 情景에 대하여 G-3 朴敬遠소령은 『脈이 탁 풀려 말문이 막혔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孝村里의 離脫 (제17연대 제2대대) : 제2대대장 宋虎林소령은 잠시 연대로 가서 연대장 金熙濬중령에게 『敵의 戰車를 處理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돌아 갔는데 얼마뒤에 연대장으



로부터 『사단으로부터 確答을 받았으니 염려하지 말라』(前逡)라는 叢報를 받고 나무에 기대어 잠간 假眠하고 있었는데 曄하고 대대의 뒤에서 戰車砲彈이 炸裂하였다.

稜線에 올라가 바라본즉 敵의 戰車 6대가 砂塵을 이르키며 孝村里를 지나가면서 대대의 左側方를 사격하고 이와함께 1개대대규모의 敵은 대대의 右側 稜線인 冠峰(孝村里東北쪽 3km)으로 기어 오르고 正面에는 이미 1개대대규모가 달라 붙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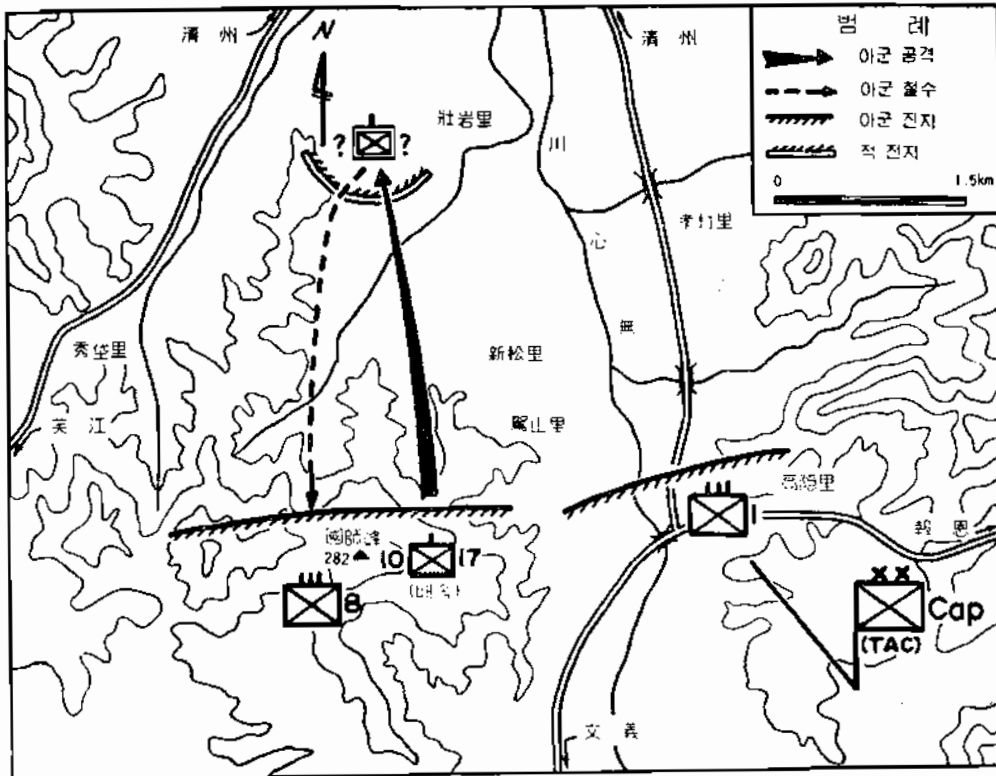
이리하여 각종대는 當面한 敵과 맞붙어 亂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상황이 切迫하게 된 대대의 右一線을 지휘하던 부대대장 李東浩대위는 戰鬪區域을 再조정하려고 제 7중대의 전 장교에게 급히 後斜面으로 集舍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同중대장 趙慶鶴중위는 波狀을 이르고 달라붙는 敵을 직접 機關銃으로 쓰러 뜨리고 있던 때였으므로 集舍에서 빠졌는데 연락병이 달려와 부대대장이 戰死하였다는 報告를 받고 달려가 본즉 부대대장을 비롯하여 集舍하였던 소대장 3명이 屍體를 分辨할 수 없을 정도로 장렬하게 陣歿하였던 것이다.

장교 한사람 없는 중대를 지휘하게 된 趙慶鶴중위는 즉각 선임하사관들로 하여금 각각 소대장을 대행케 하고 一進一退하는 激戰을 벌이다가 해질무렵에야 중대만이 孤立되어 있음을 알고 소대별로 離脫하여 銀杏里에서 本隊와 合勢하였다.

◇ 상황도 제34호 壯岩里戰鬪 (7.16, 20.00~17.02.00)



중대장의 連絡兵인 琴元永상병은 『중대장 趙慶鶴중위는 밀려드는 狂波에 機關銃을 든 채 갈겼는데 그 모습은 마치 鬼神과도 같았다. 이 戰鬪에서 중대는 40명의 戰友를 잃었고 나 도 撤收하다가 兇彈에 쓸려졌는데 精神을 차려 눈을 떴더니 大邱육군병원이 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壯岩里의 戰鬪(제17연대 제10중대): 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에 배속을 명령받은 제17연대 제10중대장은 尖兵소대장으로 夜間행군한 끝에 國師峰으로 向發하였음은 前述한바 있 거니와 深夜의 이동으로 끝내 제 4소대(장, 柳致文중위)가 本隊를 잃고 新松里(國師峰東 쪽 3km)옆의 논(田)에 潛伏하고 本隊의 行先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02.00쯤에 지나가는 女人을 붙잡고 本隊를 몰았으나 알 수 없다고 하면서 淸州市內에는 北傀들이 掠奪에 血眼이 되고 있다는 諜報만 얻고 돌려 보냈으나 04.00에 언동 이 틀 무렵에 소대가 露出될 것을 우려하고 國師峰北麓으로 이동하여 여기서 비로소 本隊와 만나 合勢하였다.

그런데 어제밤 本隊를 이끈 중대장은 길을 잘 못 들어 壯岩里쪽으로 前進하다가 앞에서 壕를 파고있는 병력을 제 8연대에서 내보낸 前哨진지인줄 알고 接近하였다가 肉迫戰이 벌어져 제 1소대장 崔泰暎소위를 비롯하여 10여명의 負傷者를 내고 이곳으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18.00에 제 8연대장은 敵이 夜間侵攻을 企圖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제17연대 제10중대로 하여금 壯岩里에 대한 威力搜索을 명령한 다음 躍進路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대장과 더불어 國師峰北麓의 中腹에 까지 내려가 地形을 정찰하는 도중에 敵彈이 중대장의 下腿部를 貫通하고 제 1소대장 李基蕃소위도 重傷을 입고 後送하게 됨으로써 柳致文中위가 중대를 지휘 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전 소대장을 선임하사로 代行케 한 다음 『내가 이제부터는 중대장이다. 한번 大韓의 男兒답게 싸워보자』라고 訓示하고 96명의 중대를 이끌고 壯岩里의 至近距離까지 潛入하여 一齊히 사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이곳까지 侵透하여 夜襲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가 奇襲을 받게되자 당황한 나머지 我軍이라고 속이려들자 중대장은 暗口號는 무엇이나?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들은 『自動小銃』 『벤또바꼬』(이날 연대의 暗口號는 『○○』 『77』이었음)라고 엉뚱한 대답이 끝나기도 前에 『敵이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射殺하라』고 웨치고 突進하자 그들은 應射도 하지 못한채 潰滅하고 말았다.

그런데 한정의 機關銃이 끝까지 버티고 氣勝을 떨자 병사 한명이 『이 새끼야』하고 手榴彈을 던지고 뛰어가 본 즉 敵의 사수는 쇠사슬에 말이 묶인채 죽어 있었던 것이다.

감감한 밤을 더듬어 대충 戰場을 정리하여 重(輕)기관총 9정, 小銃 67정을 노획하였는데 敵의 遺棄屍體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뒷날 사단에서는 1개중대가 섬멸된 것으로 추정

하였다.

다음날 02.00에 연대장으로부터 천수하라는 傳達를 받았을 때에는 한 부상병의 후송이 문제였는데 腹部에 致命的인 貫通傷을 입었던 때문이다. 그는 『나는 살 가망이 없으니 戰友들이 묻고 가 달라』고 애원하므로 하는 수 없이 그와 가장 親한 戰友로 하여금 安樂死를 시킨 다음 遺體를 묻고 『잘가라』고 默念을 올린 다음 復歸하였다.

그후 중대가 報恩에서 本隊(제17연대)와 合勢하고 부대장비를 하고 있을 때 사단장 金錫源준장이 제8연대장의 案内를 받고 방문하여 『이 중대가 이번에 赫赫한 功을 세운 柳致文 중대입니다.』라고 紹介하자 사단장은 『잘 싸웠다. 너희들같이 잘 싸운 중대는 내 일생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極讚하고 중대장을 비롯하여 전중대원에게 勳章을 주라고 명령하였으나 行政의 착오에서인지 끝내 받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 (라) 戰線整齊를 위한 撤收戰

그동안 美軍의 增強, 韓國제 2군단의 新編등으로 말미암아 戰線의 整齊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前章에서 詳述하겠거니와 이에 따라 사단은 제1군단 作命 제12호(50.7.16부)에 의하여 同월 17일 12.00까지 新陣地로의 이동을 명령받고 일단 報恩으로 進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下達된 陸軍本部 作命 제47호(50.7.16부)에 의거하여 제17연대는 17일 06.00까지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咸昌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군단의 作命에 따라 撤收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는 現在 敵과 接敵하고 있지 않는 부대부터 천수시키기로 決心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軍의 戰線整備計劃에 의거하여 當面한 敵에게 打擊을 加한후 離脫하여 報恩으로 轉進하려함.

② 제1연대 및 사단직할대는 제1계대가 되어 報恩으로 轉進하라.

③ 제18연대는 제2계대가 되어 報恩으로 轉進하라.

④ 제17연대는 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報恩으로 轉進하여 7월 17일 06.00까지 제2군단에 배속될 준비를 하라.

⑤ 제8연대는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依命 報恩으로 轉進하라.

⑥ 포병중대는 제1 및 제2兩철수계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依命 軍단으로 복귀하라.

⑦ 각 계대는 기도비익에 유의하라.』

이리하여 15.40부터 포병중대에 의한 煙幕의 遮障과 攪亂사격으로 敵과의 離脫이 시작되었으며 각대는 기도비익의 一環으로 當面한 敵에게 一齊히 사격을 加하면서 16.00에 제1 및 제2계대는 그들과 離脫하여 報恩으로 出發하였다.

그러나 엄호부대인 제8 및 제17兩연대는 轉進命令이 늦게 傳達되어 混亂을 치루게 된다 제17연대의 掩護戰: 연대의 主力인 제2대대(장, 宋虎林소령)는 孝村里에서 激戰끝에 거

의 分散된 상태에서 敵과 離脫하여 △255(高隱里 東쪽 2.3km)에서 병력을 일단 수습하고 급편진지를 점령하였을 때에는 18.30 이었다.

敵은 사단의 撤收를 알았는지 戰車數台를 이미 高隱里를 거쳐 25번道路(淸州—報恩間)를 따라 東쪽 1km까지 迂回하여 TOT사격으로 대대의 左側方을 강타하고 1개연대규모의 歩兵은 雙樹里끝까지를 따라 △255를 直衝하였는데 그들의 步, 戰, 砲공격으로 말미암아 死傷者가 50여명에 이르렀다.

대대장 宋虎林소령은 일단 掩護임무도 마쳤으므로 戰車砲의 直射彈이라도 우선 피하기 위하여 각 중대별로 內村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철수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태를 露呈하여 각개인별로 內村을 향하여 다름질치기 시작하였는데 때안인 F51戰鬪機의 2개편대가 나타나자 彼我를 분간치 못하고 兩쪽을 30분간이나 때려 대대는 물론 敵의 侵攻도 遲滯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대대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痛憤함을 이기지 못한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만일 戰車를 阻止할 수 없다고 事前에 얘기만했들 내 自身이 해결하였을 것이 아니냐?』라고 抗辯하였으나 이미 死後藥方文이 되었다.

잠시도 遲滯할 수 없었던 대대장은 병력을 수습하자 徒步로 出發시키고 負傷者와 重火器 요원 및 본부요원을 트럭 1대에 승차시켜 自身이 직접 引率하고 報恩으로 急行中 車가 뒤집혀 12명이 죽는 不運을 겪으면서 겨우 報恩에 집결하게 되었다.

제 8연대의 戰況 : 제 8연대는 20.00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敵과 熾烈한 交戰을 벌리면서도 國師峰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固守하여야 한다는 決意아래 當面한 敵을 陣前에서 擊破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右側의 사단主力이 배치된 곳에서는 쥐죽은듯이 高요할 뿐만 아니라 國師峰의 左右側道路에는 彼我를 분간할 수 없는 병력이 계속 曳光彈을 쏘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연대장은 틀림없이 敵이라고 判斷하고 부연대장 高白圭중령과 對策을 논의하고 있던 중 사단장이 보낸 連絡兵이 당도하여 쪽지를 내밀었다.

내용은 『귀 연대는 19.00를 期하여 報恩으로 撤收하라』는 사단장의 親筆이었는데 이때가 7월 17일 04.00였다.

비로소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연대장은 곧 행동으로 옮겨 逐次掩護아래 鶴頭山(國師峰南쪽 4km)을 거쳐 報恩으로 撤收함으로서 鎭川 및 淸州戰鬪의 幕은 내렸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이른바 제 3차 侵攻계획에 의하면 北傀 제 2사단은 鎭川—淸州를 조속히 占據하고 大田을 直衝하는

것이었으나 12일간에 걸쳐 사단의 抵抗으로 그 企圖가 무너지고 目標을 黃洞으로 물러가게 이르렀다.

이와같이 사단이 敵에게 打擊을 안겨주었던 것은 군단장 金弘奎소장이 後日에 증언한 바와 같이 鎭川 및 淸州線에서 최소한 7일간은 버티어내야 敵이 戰線을 整齊하는데 尙與할 수 있을 것이라는 信念 아래 作戰指導의 重點을 該地區에 指向하였던 것이 첫째이고, 사단장 金錫源준장이 側近의 강력한 勸告에도 불구하고 敵彈雨속에서 陣前에 나서 指揮함으로써 모든 장병들로 하여금 스스로 死地에라도 臨할 수 있는 勇氣를 북돋아 준 것이 그 둘째요 비록 병력은 烏合之衆으로 彈藥과 食糧보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장병들의 눈에 비친 新彈砲(105mm 榴彈砲)는 물론이고 航空機의 支援(비록 誤爆으로 손실이 있다고 하여도)과 友邦 英軍의 參戰이 士氣振作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세째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때 이 鎭川—淸州線까지 홀어져 내려올 때만 하여도 일부의 고급지휘관마저 『智異山으로 올라가 遊擊戰으로라도 敵을 擊破하겠다』라는 것이 痛憤섞인 悲壯한 覺悟이기도 하였으나 이곳의 戰鬪를 치룬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마당에서는 敵과 싸울만 하다. 여기서 後退하면 赤化가 될 뿐이고 우리가 설 땅은 없다』라는 뜻은 決意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敵은 南侵하면 할수록 발을 機關鎗에 쇠사슬로 묶어 놓아야 하는 人面獸心의 手法으로 停戰하는가 하면 戰術마저 窮하여져 같은 形式을 되풀이 하는 正面突破의 恣行과 병력의 逐次投入 그리고 不一致한 步戰砲의 運用 등으로 그들의 無能함을 여실히 露出시켰던 것이다.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18일 사단軍裝檢査를 실시하는 餘裕을 보이며 부대장비에 拍車를 加하는 한편 訓示를 通하여 期間中에 보여준 戰功을 致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은 陸軍本部 作命 제51호(50.7.18부)로써 제1군단은 수도사단을 立石里로 轉進시켜 隴山方面으로 侵入하려는 敵을 迎擊하더 紛碎하라』라는 명령에 따라 戰鬪을 대충 털어버리고 이날 늦게 立石里를 向하여 出發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1군단장 金弘奎소장

(1978년 5월 20일 光復會會長室에서, 豫, 중장)

나는 이번 戰鬪에서 7일간만 支撐하면 陸軍本部의 作戰指導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12日間이나 버티어 보았다.

初期에 李俊植준장의 방어개념은 鎭川를 境界 전지로 삼고 烽火山 및 文案山간을 主陣地로 하여 陣前에서 敵을 誘引 격파하려 한다고 나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뒤 몇시간 안되서 金錫源준장으로 교체되었는데 그는 나에게 申告조차 하지 않고 戰鬪를 指揮하였다.

그러나 7월 12일에 鳥致院이 떨어지면서 부터 군단에도 위험이 닥치기 시작하였으며 뒤에 反擊할때를 생각하고 兵力의 濫存과 시간을 버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사단의 장병들은 정말 용감하였으며 石鎭의 제2사단이 뚫려 부득히 淸州南쪽까지 내려갔다.

敵은 우리가 아주 弱한 것으로 안보고 正面突破만 하다가 失敗하고 뒤에 迂迴戰法으로 나왔는데 우리에게 장비는 고사하고 병력이라도 충실하였다면 능히 그들을 막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 ◇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

(이 證言은 本人의 自叙傳과 其他 過去에 證言한 것을 土臺로 要約한 것임을 밝힌다.)

나는 사단에 부임하자마자 지휘소를 文案山 코앞에다 옮겼는데 鎭洞공파는 포탄이 떨어지는 최전선까지 이렇게 나오면 위험하다고 2km뒤로 물러서자고 권했으나 거절하였다.

그들은 전세가 여의치 않으면 부산으로 가서 배만 타면 그만이지만 이 땅은 내 땅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합부로 후퇴만 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이 鎭川戰鬪에서 가슴 아픈것은 參戰한 용사들은 후퇴하여 내려오는 장병들을 모아 부대

를 편성한 관제로 대대장, 중대장이하의 인원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작전상의 애로도 많았거니와 戰死者와 부상병의 성명은 물론이요 그 숫자도 밝히지 못하여 地下에서 無主孤魂이 된 전사자의 가족들이 그 생사도 모르고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다.

◇ 제1연대 제1대대장 張泰煥소령  
(1978년 4월 18일, 本委員會에서, 豫, 소장)

나는 漢江방어戰때 제7사단 G-1으로 있다가 대대장으로 부임하였으며 鎭川으로 갈때는 安養, 水原을 거쳐 곧장 東쪽으로 해서 車輛 20대에 分乘하여 갔다.

安養戰鬪 때는 대대병력은 300명 가량이었으나 도중에서 우리 대대를 보충해 주어 鎭川戰鬪 때는 700명쯤 됐다.

모든 記錄에는 平澤에서 再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얘기이며 그럴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 제8연대 제2대대장 鄭昇和소령  
(1978년 3월 28일, 제1군사령관실에서, 現, 대장)

이 戰鬪를 통하여 敵의 전자운영에 있어서는 형편없이 서들었다고 보는데 만일 그들이 집중운영하여 585번道路로 밀어부쳤다면 우리는 混亂을 면하기 곤란하였을 것인데 한, 두차례 나타나서 몇발 쏘고는 도주하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勇敢性마저 결핍되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었다.

國師峰戰鬪 때에는 晉州경비대대를 배속받았을 때 죄만 부리고 몇번 反擊하는 척하고는 어느새 뒤로 빼고 말았다.

우리는 배속부대에 대한 운용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제18연대 제2대대장 張春權소령  
(1978년 3월 21일, 市內 上道洞 自宅에서, 豫, 소장)

梧根場戰鬪 때 81mm迫擊砲의 高爆彈의 TOT

사격으로 교량을 파괴하여 戰車의 침입을 阻止한 일이 있었고 그 뒤에도 항시 敵의 戰車에 대하여 自信을 갖고 있었다.

즉 對戰車장비가 없는 보병대대나 중대는 補助무기로도 얼마든지 戰車의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교육을 平素부터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 제17연대 제1대대장 李寬洙소령  
(1978년 2월 18일, 그레이트호텔에서, 豫, 대령)

安養에서 제1대대장으로 부임하였고 安城을 거쳐 鳥致院에 집결한 다음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文案山戰鬪에 참가하였다.

이 戰鬪에서 대대는 절반가량의 병력손실을 보고 鳥致院으로 갔다가 報恩에서 主力과 合勢하여 부대정비를 하였으며 이때 제2, 제3兩대대는 淸州南쪽에서 戰鬪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3일간 부대정비를 마치고 尙州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따라 대대는 先發隊로써 출발하였다.

◇ 제20연대장 朴基丙대령  
(1978년 3월 23일, 서울교육공무원훈련원에서, 豫, 소장)

사단장 金錫源준장에게 배속申告할때 『現線을 固守하라』라는 명령의에는 아무 명령도 받지 못하였으며 뒤에 안 일이지만 우리 연대는 사단 철수의 엄호를 맡았던 셈이다.

사단에서 主副食은 補給받은 바 없고 現地조달과 現地주민이 주먹밥을 지어 주었다.

사단과의 통신수단은 전혀 없었고 병력의 보충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다만 낙오되었던 병사들이 『朴基丙부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소수문하여 찾아온 병력으로 충당하였는데 지금도 나는 그때를 회상하면 軍의 命은 살아있었다고 自負한다.

§ 戰訓

(1) 사단장의 陣頭指揮

鎭川—淸州戰鬪에 참전하였던 장병으로써 사단장 金錫源준장을 보지 않은 장병은 없을 만큼 그

는 陣頭에서 指揮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猪突의이라느니 또는 舊式대의 지휘법이라느니 비난하는측도 있는듯하나 그들도 本戰鬪의 승리에 대해서는 부인 못하고 있다.

참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勇敢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砲彈이 雨注하는 데도 피하려 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그가 아니었다다면 벌써 鎮川 뒷산(烽火山—文案山線을 말함)은 멀어졌을 것이다(제 1연대 S-3 宋星三대위). 사단장은 어디서나 그들과 決戰을 시도하였고 한번도 후퇴한 말을 한적이 없다. 원시 의도대로 戰鬪가 進行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말미암아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橫的, 縱的인 協調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다고 본다(제 8연대장 李賢進중령).

軍刀를 뽑아들고 『砲彈도 金錫源이름 알아본다』라고 웨치며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堂堂하였다(제 17연대장 金熙濟중령). 解弛된대로 解弛된 軍律을 바로 잡아 보려고 부적이나 애를 썼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戰線은 무너졌을 것이다(제 20연대장 朴基丙대령). 보급지원이 잘 되지 못하여 士氣가 말이 아닌데도 뒤에 사단장이 버티고 있어 든든한 마음으로 싸웠다(독립기감인대 도보대대 박경조사수 李海重상병).』

그는 뒷날 증언에서 말하기를 『38°선에서 이곳까지 쫓겨온 패잔병들을 앞에 세워놓고 후방에서 지휘해서 될리가 없다. 그래서 앞에 나가 지휘하였다』라고 밝혔듯이 그는 사단내의 모든 장병들에게 굳은 信念을 주기 위하여 霪雨를 무릅쓰고 陣頭에 섰던 것이니 고급지휘관이 후방安全한 곳에 위치하여 제 一線부하의 行動을 直接 눈으로 지켜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保身策을 위한 自己辯明이다. 戰勞가 危急하면 危急할수록 지휘관의 挺身指揮가 無形의 示範이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하물며 通信手段이 全無한 당시의 상황아래 陣頭에서 指揮을 아니할 수 있었겠는가.

## (2) 配屬部隊의 使用法

配屬된 部隊는 隷屬부대보다도 厚하게 取扱하여야 配屬部隊가 겨우 差別없는 取扱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通例이고 또 人之常情일 것이다. 厚하게 取扱한다는 것은 곧 豫備로 控置하라는 것도 아니며 「잔사와 功을 세우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더욱 잘하여 주라는 趣旨이다. 그런 까닭으로 戰線中에서 가장 重要的 部分에 投入하여 立功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新銳部隊로 指揮官의 掌握裡에 그 矜持를 높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덧붙이고 豫備로 돌려 無用之物視하거나 가장 至難한 撤收掩護 任務를 맡기거나 하는 것은 모두 適當한 使用法이라고 볼 수 없다. 閑地에서 遊兵化하거나 死地에 投入하여 血路를 뚫게 하는 것이 모두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는 말이다. 친자식보다도 이북자식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配屬部隊를 使用하여야 마땅하다.

이 戰鬪에서는 多少의 問題되는 部分이 있는듯하니 例컨대 제 17연대는 제 1연대에서 1개 중대를, 제 8연대는 제 17연대에서 1개 중대를 각각 배속받았는데 한결같이 배속된 부대를 엄호부대로 殘置하던가 아니면 제 8연대의 경우 제 17연대 제 10중대로 하여금 威力搜索을 감행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제 17연대 제 1대대의 경우는 3일간이나 該 배속부대를 離脫하여 명령도 없이 原隊로 돌아간 사실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被배속부대장은 항상 共同單一體로 從屬시켜 均등한 勳賞이 바람직한 뿐아니라 戰鬪力의 増大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3) 市街戰의 重要性

山岳이나 河川은 自然 그것만이고 死守한다 하여도 交戰期日을 延長하는 效果밖에는 크게 期待할바 못될 것이다.

그러나 都市, 郡邑 등은 國民들의 生活의 根源地요 先祖들의 累代辛勞의 結晶體를 內包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市街戰도 시원치 않게 敵手에 넘기고 이제 또 鎮川이나 清州를 고스란히 拋棄하고 敵으로 하여금 「入城」이라는 커다란 武功을 안겨주게 하고 많은 國民들을 原野에 彷徨케 하였다. 옛부터 山에는 山城이요, 郡邑에는 城壁이요, 要地要部에는 鎭堡요 하여 반드시 固守策을 講究하였거늘 어찌하여 市街戰을 避하고 無名의

野山과 交通線만을 執着하였는지 우리의 熟考와 反省이 必要하다. 自然部落이라도 이것을 利用한다면 그 防守力이 倍加되는 것인데 여기를 버리고 原野에 고개를 들고 小穴을 파는 것으로 能事로 한다면 선뜻 納得할 수 없다. 戰國戰爭에서 어느 邑鎮을 固守하고 버틴 戰例가 있는가, 아마도 우리의 思考方式에 新風을 불어 넣을 必要가 있을 것이다.

## § 研究

### (1) 烽火山の 명칭문제

陸軍戰史 제 2권(1954년 5월 15일 발행) p. 102 및 韓國戰爭史 제 2권(1968년 12월 30일 발행) p. 398, 그리고 大韓民國地圖(1962년 10월 20일 발행)에 의하면 同山을 所乙山 또는 △415로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參戰者들도 그 山頂은 옛날에 烽火를 올렸던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烽火山이라는 것보다 所乙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鎭川邑에 確認한바 옛부터 烽火를 올렸기 때문에 邑民들이 烽火山이라고 하고 또 그 東腹에는 烽火寺라는 절까지 있다고 말하며 所乙山이란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1967년도 발행 군사지도 및 1978년 4월에 國立地理院에서 발행한 각 5000:1 지도에는 烽火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이번 鎭川戰鬪에서는 烽火山으로 통일하였다.

### (2) 갓고개慰靈碑

갓고개(鎭川郡 鎭川邑 內里)는 本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國戰爭初期에 首都師團(장, 金錫源 准將)이 主軸이 되어 破竹之勢로 밀려드는 北傀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을 肉迫으로 막아낸 激戰場이다.

뒤날 鎭川郡民들은 同戰鬪에서 散華한 無名勇士들의 忠魂을 위로하고 그 功을 길이 빛내기 위하여 이곳 갓고개에 慰靈碑을 세웠다.

註: 本來 同慰靈碑는 갓고개 마루 바로 밑(鎭川으로부터 淸州로가는 道路右側)에 세웠으나 그 후 道路工事관계로 그 앞(道路左側)에 雄壯하게 세로 세워졌다(同慰靈碑寫眞 本文 p. 294 參照)

## § 逸話

### ◇ 무진장한 彈藥의 補給

(제18연대 제2대대장 張春權소령의 證言)

戰鬪에는 무엇보다도 彈藥이 필요한데 이 戰鬪에서 彈藥과 食糧의 부족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런데 대대의 병기장교였던 李法魯중위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當時 연대의 탄약支給量이 불과 하루에 100발(81mm 迫擊砲彈기준)이 었으나 每日 600발 이상을 사격할수가 있도록 충분히 보급하였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대가 柁溪에서 戰鬪할 때는 2,000발을 쏠수있도록 지원하였다.

하도 신기하여 그 뒤에 수소문하여 알아본 결과 그는 英語를 잘 아는것을 기회로 하여 美軍부대에 교섭하여 편리를 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戰爭에 이기기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릴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준일도 있는데 그는 柁溪戰鬪에서 애석하게도 陣歿하였다.



## 第10章

# 小白山脈回廊의 角逐

### 要 旨

1. 豊基—榮川 附近 戦闘
2. 開慶 附近 戦闘
3. 化寧場 附近 戦闘



## 第10章 小白山脈 回廊의 遲延戰

### 要 旨

本章은 小白山脈의 爭奪을 놓고 被我が 激突케 된 1950년 7월 中旬의 戰鬪상황으로서, 敵은 이 線의 突破를 위하여 機械化부대를 同伴한 5개 사단을 投入하였고, 이에 對한 我軍은 2개 사단과 1개 연대로서 맞서게 되었으니 이른 바, 이를 小白山脈 回廊의 遲延戰이라고 하였으며, 同 回廊에서의 戰況을 豊基—榮州, 開慶—梨花嶺, 化寧場부근의 戰鬪로 細分하여 收錄하였다.

小白山脈은 標高 800~1,000餘의 險峻한 高地群으로 形成된 山脈으로서, 太白山脈의 太白山에서 分岐하여 西南쪽으로 橫縱하여 江原—忠北—慶北의 3개 道界를 이루면서 湖南地方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同 山脈은 嶺南地方의 防守를 위해서나 또는 이 地方을 制扼하기 위해서 必히 확보하여야 할 要線이었던 까닭에, 被我が 이의 占據를 위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는 血戰을 되풀이 하였던 것이다.

北德는 미리 짚어진 腳本에 따라 南侵을 계속하여 7월 10일에는 車嶺山脈을 沿한 忠州—陰城—嶺川—平澤線을 突破하고 다음 段階의 作戰을 서둘렀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제 4차 作戰으로서 『收退—路에 있는 韓 美 兩軍을 小白山脈과 錦江線上에서 包圍せむ 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높은 攻擊速度와 猛烈한 打撃을 持續시키기 위하여 可用한 모든 部隊를 戰線에 投入하는 한편, 占領地에서 靑少年을 強制動員하여 義勇軍이라는 美名을 세워 戰線으로 몰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戰鬪縱深과 兵站線은 날로 伸張되었는데 이에 뒤 따르야 할 兵力充員과 補給支援은 날로 減少하였으니, 이는 날로 增強된 UN空軍의 猛爆이 그들의 機動을 크게 萎縮시켰기 때문이거니와 破竹之勢와도 같았던 그들의 威力은 날로 衰退하여 戰鬪樣相을 달리하게 하였다. 一良好한 機動路 侵襲에서 山岳地侵襲으로, 晝間活

動보다 夜間活動을 主로하게 되었고, 京釜國道에 指向되었던 그들의 主力이 中央路에 集中되었음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제 8사단(장 吳白龍)과 제 12사단(장 崔忠國)을 竹嶺(豊基 西北쪽 7km)에서, 제 1사단(장 崔光)과 제 13사단(장 崔鑰鎭)을 烏嶺—梨花嶺(開慶 慶北西쪽 5km)에서 그리고 제 15사단(장 朴成哲)을 葛嶺(化寧場 北쪽 12km)에서, 제 2사단(장 崔賢)을 秋風嶺(金泉 西北쪽 15km)에서 各各 小白山脈의 橫斷을 試圖하고, 그들 最高사령관 金口成이 直接 水安堡(開慶 北西쪽 20km)로 出陣하여 재책을 加하면서 奮戰하였다.

한편 제 8군사령관 Walton H. Walker 중장은 敵의 그와 같은 狀況을 看破하고, UN軍의 支援이 이루어지고 攻勢移轉의 時機가 造成될 때까지 時間的 여유를 얻기 위한 方便으로 遲延戰을 驅使키로 作定하고, 韓國軍을 小白山脈의 回廊에, 美軍(제 24사단)을 錦江線에 展開시켰다.

이와 같은 제 8군의 方針에 따라 陸軍本部는 豊基의 제 8사단(장 李正一 대령)과 開慶의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으로써 同 山脈의 回廊을 堅守케 하고 12일에 제 2군단을 咸昌에 창설하여 兩個 사단의 作戰을 統制케 하였는데, 제 8 및 제 6사단이 各各 2개 사단의 敵과 對峙케 되었던 까닭에, 陸軍本部는 淸州—報恩地區에 展開한 제 1군단 이하의 제 17연대(장 金熙濬 중령)를 咸昌으로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을 春陽으로 轉進케 하여 제 2군단을 支援케 하였으며, 제 8군사령관은 이 무렵에 來著한 美 제 25사단으로서 同 軍단을 支援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 17연대와 제 1사단은 化寧場에서 我 後方地帶로 侵透하려는 敵 제 15사단(장 朴成哲)과 遭遇하고 目的地로의 轉進이 中斷되었던 까닭에, 제 8, 제 6사단은 且戰且退를 거듭하면서 安東—店村線으로 물러서게 되는 戰況이다.

# 1. 豊基—榮州 附近 戰鬪 (1950년 7월 18일부터 1950년 7월 23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0 호  
상 황 도 제 35~39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2 군단	장 준장	金 白 一		제 2 대대	장 대위	朴 永 燮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昌 律	
제 10 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배속부대	제 2 사단	제 25 연대	제 1 대대장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소령	林 益 淳
제 2 대대	장 대위	鄭 順 基				장 소령	鄭 寅 晄
제 3 대대	장 대위	金 淳 基		제 50 포병대대			
제 21 연대	장 중령	金 容 培		지원부대			
제 1 대대	장 소령	尹 泰 鉉		제 18 포병대대	장 소령	張 庚 石	
	소령	曹 圭 英		야전공병대대	장 대위	金 默	
		(7. 18附)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포병연대	장 중좌	金 永 桓	
장 8 제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 12 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제 81 연대	장 총좌	李 學 來		제 30 연대	장 대좌	崔 赫	
제 82 연대	장 총좌	史 勢		제 31 연대	장 대좌	金 鐵	
제 83 연대	장 중좌	吳 允 燮		제 32 연대	상 대좌	朴 英	

## 나. 전투전의 개황

7월 12일 21.00에 竹嶺線에서 물러선 사단은 소보유차량의 Headlight를 點火한채 竹嶺 東南쪽의 昌樂洞에서 榮州로 陽動하는 가운데 豊基국민학교에서 再編하는 즉시로 제 21 연대(장, 金容培 중령)를 豊基 東南쪽 一帶로, 제 10 연대(장, 高根弘 중령)를 그 西南쪽 一帶로 각각 急速進入시킴으로써 豊基를 中心으로 V字型陣地를 隱密하게 編成하였다.

사단장 李正一대령의 作戰企圖는 敵으로 하여금 사단이 榮州로 撤收한 것으로 誤判케 하여, 開鎗地를 이룬 豊基一帶로 그 主力을 誘引, 初戰에 擊滅함으로써 丹陽戰鬪의 態勢과 아울러 攻勢移轉의 契機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다.

敵軍의 狀況: 丹陽—竹嶺線을 席捲한 北傀 제 8사단은 그 氣勢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長村里附近에서 主力을 再編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 理由는 丹陽戰鬪에서 입은 兵力의 損失도 컸거니와 兵站線이 伸張되어 我軍의 制空權掌握으로 補給輸送이 크게 制限을 받게 되자, 住民들을 強徵하여, 夜間에만 牛馬車로 輸送케 되고, 食糧과 副食을 現地掠奪로 充當치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새로운 戰鬪 준비가 不可避하였을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左隣接인 제 6사단(장, 金鐘五대령)을 追尾하여 忠州를 掠奪한 北傀 제 12사단은 北傀 제 1군단에서 제 2군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北傀 제 1사단이 忠州에 到着하자, 該 사단에 攻擊任務를 引繼하고, 7월 13일에는 丹陽으로 移動하여 北傀 제 8사단에 대한 增援태세를 갖추었다.

이처럼 예비사단의 增援까지 받기에 이른 當面の 敵 제 8사단은 同 月 14일에 드디어 竹嶺을 넘어 豊基—榮州線으로 攻擊을 開始하였다.

이때 敵은 我 제 8사단의 陽動作戰에 걸려든듯, 別다른 警戒태세를 갖추지 않고 1개 연대 규모가 竹嶺을 넘어 昌樂국민학교(豊基西北쪽 4.5km)에 集結하더니, 그 先遣支隊로 推定되는 1개 대대 규모가 제 5번 作戰路를 따라 豊基를 거쳐, 13.00 무렵에 生峴橋(豊基西南쪽 2km)앞까지 當到하자, 사단은 集中砲擊과 一齊射擊으로 V字型陣地 底邊까지 侵入한 敵을 瞬息間에 殲滅시켰다.

그런데 敵은 그 다음날 02.00 무렵에 兵力을 滿載한 truck 34臺로서 竹嶺을 넘어 豊基로 侵襲하다가 또다시 捕捉되어 逐次 誘導된 集中砲擊으로 全車輛이 燃燒하고 增強된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殲滅的 打撃을 받았다.

初戰에 甚대한 打撃을 입은 敵은 조조한 나머지 15日 12.00 무렵부터 사단 全正面에 砲擊을 集中하더니, 16.00에는 左一線인 제 10연대 正面으로 공격하였으나 一擊에 擊退되자 17日까지 發惡的인 공격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춘 사단의 防禦線을 突破치 못할 뿐만 아니라, 連戰連敗의 苦盃를 마서 戰鬪力을 크게 喪失하기에 이르자, 17일 저녁무렵에는 丹陽에 集結中인 北傀 제 12사단과 攻擊任務를 交代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 사단은 開戰初期에 春川正面으로 侵攻한 北傀 제 2군단의 主戰사단이며, 中共八路軍出身의 實戰경험이 많은 兵士들로 構成되어 있어서 戰鬪力이 比較的 強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때 예비로 물러선 北傀 제 8사단은 醴泉쪽으로 迂回, 榮州를 포위하고, 사단의 退路를 遮斷하면서 安東을 攻略코자 企圖하였음이 뒷날 밝혀졌다.

이처럼 北傀 제 12사단이 一線으로 投入되기에 이르자, 사단 正面의 敵 兵力이 20,000名이고, 122mm 榴彈砲 34門, 120mm 迫擊砲 35門, 76mm 直射砲 45門, 82mm 迫擊砲 170門, 45mm 反戰車砲 90門, LMG 650정, HMG 400정, 高射기관총 30정 등을 갖추어 兵力과 裝備面에서 我 제 8사단을 壓倒하였을 뿐만 아니라, T-34 戰車 5臺와 SU-76 自走砲 4門이 제 12사단을 支援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때, 사단에서는 敵의 戰術이 從前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砲擊으로 指揮所와 觀測所의 기능을 麻痺시키고, 正面으로 공격하면서 兩翼을 포위하며 遊擊兵의 侵透로 後方を 攪亂하는 術法을 그대로 踏襲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敵을 豊基로 誘引하여 一大奇襲戰으로 擊滅키로 한 사단은 제 21연대(장, 金容培중령)를 右一戰으로 하여 俗稱 훈다리—△377—山法洞—△258線을 확보하고 제 10연대(장, 高根弘중령)을 左一線으로 하여 生峴洞—△426—將軍峯(△733)一帶를 확보하여 豊基를 中心으로 한 V字型陣地를 編成

하고 戰機의 到來를 待機하였다.

그런데 戰列의 정비를 마친듯한 當面의 北傀 제 8 사단은 제 12 사단의 增援에 힘입은 듯 7월 14일 正午무렵에는 1개연대규모가 竹嶺을 넘어 南下하여, 主力은 昌樂국민학교에 集結하고, 그 先遣支隊인 1개대대 규모가 生峴橋 앞에 이르자 全火力을 집중하여 瞬息間에 殲滅시켰다.

昌樂洞의 敵主力은 魂飛魄散하여 竹嶺을 다시 넘어 潰走하였으나, 陣地가 露出된 사단이 撤收한 것으로 速斷하거나 自體의 戰鬥力을 過信한 敵은 34량의 車輛에 兵力을 滿載하고 다음날 02.00에 竹嶺을 넘어 豊基로 侵襲하자, 제 18 포병대대의 集中砲擊과 제 21, 제 10 兩연대의 迫擊砲사격에 힘써서 또다시 潰滅함으로써 사단은 陽動으로 계획한 奇襲作戰의 効力을 十分 發揮하였다.

거듭 凱歌를 울려 戰意를 드높인 사단은 15日 16.00무렵부터 17日까지에 걸쳐 되풀이 되는 敵의 發怒의인 공격을 擊退하고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었다.

즉, 右一線인 제 21 연대는 제 2 대대(장, 朴永燮대위)가 右一線대대로서 俗稱 홀다리-△377를, 제 1 대대(장, 尹泰鉉소령)가 左一線대대로서 山法洞-俗稱 슬바위-俗稱 산오실-△258-帶를 각각 확보하고 제 3 대대(장, 李昌律소령)가 연대에비로서 △309에 控置되었는데, 15일 夕陽무렵에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順興으로 迂回하는 徵候를 보이게 되자, 제 3 대대는 池同里부근으로 急進하여 俗稱 福바위-池同里를 連하는 一帶에 陣地를 확보하고 東側背를 掩護하였다.

이때 同연대의 제 7, 제 9 兩중대는 丹陽-水山里에서 赤城里를 거쳐, 醴泉으로 任意撤收(丹陽戰鬪 參照)하였으나, 西側背인 醴泉의 露出을 憂慮하던 사단에서는 이들의 醴泉轉進보고를 接하자, 間貴대신에 사단作命 제 18호를 下達하여, 사단本部중대를 金鍾烈중위 지휘하아래 增援케 하여 混成대대를 編成하고, 제 7 중대장 金成彬대위 指揮下에 醴泉을 防護케 하였다.

한편, 同月 17일에는 順興으로 侵襲한 敵이 東元里로 迂回하자, 사단공명대대를 東村洞-△268로 急進시켜, 제 21 연대를 支援하면서 榮州에 대한 敵意를 배제케 하였다.

또한, 제 1 대대장이던 崔就聖대위가 12일에 △936 戰鬪에서 戰死하자, 始興步兵학교 OAC 派遣中에 復歸한 尹泰鉉소령을 後任 대대장으로 任命하였다.

한편, 제 10 연대(장, 高根弘중령)는 제 1 대대(장, 朴致玉소령)를 右一線대대로 하여 △426 一帶를, 제 2 대대(장, 鄭頌基대위)를 左一線대대로 하여 將軍峯(△733) 一帶를 각각 확보케 하고,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를 연대에비로 하여 △971(豊基西南쪽 6km)에 控置하였는데, 제 11 중대(장, 李春植중위)를 제 21 연대와의 間隙인 生峴洞으로 推進하여, 제 1 대대의 東側背를 掩護하면서 제 5 번 作假道路를 制扼케 하였다.

14일에 敵의 先遣支隊를 殲滅 함에 있어서 主動的인 役割을 담당한 연대는 15일 16.00에 2개 대대 규모의 敵의 猪突的인 공격으로 한때 將軍峯을 失陷하였으나, 果敢한 逆襲을 즉시 敢行하여 陣地를 回復하였으며, 16일에도 △426에서 短兵血戰으로 敵의 攻撃을 霧散시켰을 뿐만 아니라, 崔錫天중위가 지휘하는 제 3 중대 제 2 소대는 陣前出擊으로써 敵을 逆包圍하여, 30名の 무리를 屠殺하면서 8名을 俘獲하는 赫赫한 戰果를 擧揚하였다. 이리하여 士氣가 더욱 衝天한 연대는 17일 夜半까지 거둔 敵의 攻勢마저도 一揆의 水泡처럼 散散조각으로 擊碎하는 勇戰을 거듭하였다.

한편, 陸本作命 제 42호 (50.7.12 24.00)로 제 2 사단隸下 제 25 연대 제 1 대대가 7.13 00.01附로 사단에 배속케 되었다. 本是, 이 대대는 安東에 CP를 두고 日月山一帶에서 共匪擊滅戰을 벌리다가 戰爭이 勃發하자, 제 3 사단(장, 劉升烈대령)과 連絡을 維持하면서 該사단장의 勸誘로 春陽으로 出動하여 地方共匪의 跳梁을 制壓하는 한편, 東海岸으로 上陸한 北傀 제 766 부대의 內陸侵透를 阻止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단으로 배속되기에 이르자 사단作命 제 17호로 14일 15.00에는 乃城으로 轉進하여 附近一帶를 확보하고 사단의 東側方을 掩護하였는데 16일에는 그 제 2 중대(장, 蔡命新대위)가 榮州로 移動하여 사단에비가 되었다.

또한 砲兵의 再整備을 서두른 陸本에서는 新編한 제 50 포병대대의 제 1 중대를 17일附로 사단에 배속

하였는데 該중대는 105mm M-2砲 6門으로 裝備하고 있어서 火力이 增強 되었을 뿐만 아니라, 性能도 敵의 122mm 榴彈砲를 壓倒하여 對砲兵戰에서 優勢를 보일 것이어서 여적까지의 가장 큰 作戰상의 隘路를 克服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 무렵 指揮所를 大邱로 推進한 美 제 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이 7월 13일부터 在韓美軍에 대한 指揮權을 發動하기 시작 하였는데 그의 作戰概念은 『本國으로부터 攻勢移轉에 必要的인 兵力과 裝備 및 物資가 到着할때까지 釜山에서 될수 있는대로 먼곳에서 敵을 阻止한다』라는 것이었으며, 美 제 24사단이 錦江線을 韓國軍이 東海街道—小白山脈線을 각각 담당하되 美 제 25사단은 安東—醴泉—咸昌—尙州線의 제 2線에서 韓國軍을 支援하고, 不遠한 時日內에 上陸하게 될 美 제 1기갑사단을 京釜街道로 進出시켜 美 제 24사단을 支援케 하면서 可能的 限 攻勢移轉에 必要的인 相關力을 蓄積키로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美軍의 指揮體系強化에 呼應하여, 7월 12일에 咸昌에서 創設한 제 2군단은 金白—一尊장이 軍단장에, 姜英勳대령이 참모장에, 李周一대령이 작전참모에 각각 就任하여, 제 8, 제 6兩사단을 作戰指揮하게 되었다.

이때까지의 戰鬪樣相은 美軍이 防禦—邊倒로 時間稼得에만 注力하는 反面에 實戰經驗을 通하여 戰意를 다진 韓國軍은 潛伏, 奇襲, 遊擊 그리고 反擊으로 敵에게 出血을 強要하여, 그 戰鬥力을 効果적으로 減少시키는 積極戰法으로 나시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6일에 錦江의 美 제 24사단 防禦線이 무너지자 제 1사단이 米原으로, 首都사단과 제 1군단 사령부가 報恩으로 물러서고, 또 제 2군단의 左翼인 제 6사단이 聞慶에서 嶺江線으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槐山—俗離山—尙州에 이르는 接近路가 露出되기에 이르렀다.

敵의 急速侵襲으로 後方遮斷의 威脅을 받기에 이른 제 1, 제 2兩군단은 直轄偵察隊를 각각 急進시켜 敵情을 不斷히 監視케 하는 한편, 首都사단의 제 17연대를 咸昌으로 推進하여 敵營에 對備케 하였다.

17일에는 美 제 24사단이 大田外廓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防禦線을 編成하였으며, 槐山—俗離山—化寧場線의 威脅이 漸増하자 美 제 25사단은 제 24연대 제 2대대를 葛嶺으로 急進시켰으나 敵의 集中 공격을 받아 後退하였다.

이에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은 제 17연대를 化寧場으로 急進시켜 北傀 제 15사단의 銳鋒을 꺾게 하였던과 18.00에는 化寧場에서 侵襲하는 2개대대규모의 敵을 奇襲하여 殲滅시키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때 이곳에서 그들을 阻止하고 遲滯시키지 못하였다면 敵이 一瀉千里로 尙州까지 侵襲함으로써 我軍의 防禦線이 無血突破당하여, 戰況의 急轉이 不可避하였을 것이니, 一大危機를 아슬아슬하게 謀免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東海岸의 제 3사단은 16일에 寧海부터 盈德北쪽으로 물러섰으나 계속적인 壓迫으로 다음날에는 盈德을 失陷하여 化寧場의 危機에 뒤이어 東海街道에 威脅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Walker 중장은 美 제 159야포대대를 急派하고 迎日 비행장의 美 제 40전폭기대대로 하여금 제 3사단 支援을 전담케 하면서 美 제 7함대의 輕巡洋艦 1척 및 驅逐艦 4척과 英極東艦隊의 巡洋艦 1척 및 驅逐艦 2척의 艦砲支援을 긴급요청 하였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7월 16일에 제 10연대가 捕獲한 俘虜들의 『北傀 제 12사단이 17일에 제 8사단의 侵攻임무를 인수하고 18일에는 一大공격을 敢行할것』이라는 陳述을 分析評價한 결과 情報로 是認하

가에 이르자, 사단장 李正一大령은 戰機가 바야흐로 到來한 것으로 判斷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19호를 下達하였다.

『① 丹陽에 集結中인 北傀 제12사단은 當面의 敵 제8사단을 超越공격 할 것으로 判斷한다.

② 사단은 새로이 投入되는 敵의 공격을 阻止擊滅하고 現陣地線을 계속 확보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제25연대 제2중대를 統合指揮하여 池洞里—俗稱 홀다리—△377—俗稱 산으실—△258線을 계속 확보하라.

但 東村洞으로 進出한 사단공병대대와의 긴밀한 協調를 維持하여 東側背防護에 留意하라.

④ 제10연대는 生峴洞—△426—將軍峯(△733)線을 계속 확보하라.

但, 醴泉混成대대의 북귀로 露出되는 西側背 防護에 留意하라.

⑤ 醴泉에 派遣中인 混成대대는 17, 24.00까지 榮州로 復歸함과 동시에 解編한다.

⑥ 제25연대 제1대대(一)는 乃城에서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⑦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를 統合指揮하여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⑧ 사단공병대대는 主力으로소 東村洞—△268線을 계속 확보하고 1개중대는 榮州에 集結待機하라.

⑨ 敵은 SCR-300 및 609無電機를 奪取保有한 것으로 推定됨으로 交信은 반듯이 暗號를 使用하라.

⑩ 사단지휘소는 계속 榮州에 位置한다.』

## (2) 작전실시

7월 18일 : 전날밤에 戰線으로 投入된 것으로 推定되는 北傀 제12사단은 02.00에 砲兵의 支援없이 全正面에 걸쳐 奇襲하였다.

### 1. 제21연대의 戰況

敵의 기습으로 左一線인 제1대대(장, 尹泰鉉소령)는 山法洞 西南쪽의 俗稱 술바위—△258에 이르는 陣地線을 拋棄하고 安心里의 △250一帶로 無斷히 撤收하였다. 이로 因하여 제2대대마저도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고 있던 陣地를 連鎖적으로 撤收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제1대대장 尹泰鉉소령은 作戰失敗와 命令不服從의 責任을 물어 嚴重處斷되고, 연대 連絡장교 曺圭英소령이 後任대대장으로 補任되었다.

△258의 激戰 : 제1대대는 전날에 이어 제3, 제1兩중대를 左右 제1선중대로 하여 俗稱 술바위—△258에 이르는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2중대(장, 金鍾浩중위)는 대대에비로써 俗稱 선들부근을 확보하여, 제3, 제1兩중대의 間隙을 防護하였으며, 一線 중대에서는 1개 소대씩을 抽出하여 窪地線에 埋伏케 하였다.



그런데, 02.00무렵에 土城부락 河川線으로 推進한 제 3 중대 제 3 소대의 埋伏線에서 銃擊이 일어 나더니, △258南쪽과 東南쪽의 서재골로 이미 迂回한 무리가 多發銃을 連射하며 後方を 攪亂하는 가운데, 1개 대대규모의 敵이 後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一齊히 急襲하기 시작하였다.

寸前도 분간키 어려운 夜暗을 틈탄 不意의 奇襲을 받게된 대대는 즉각 81mm 迫擊砲의 照明彈으로써 敵影을 捕捉하는 즉시로 全火力을 集中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敵이 陣前으로 近迫하여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면서 밀려들어 곳곳에서는 短兵血戰이 벌어졌다.

이때, 제1, 제3 兩중대의 間隙인 俗稱산으실로 侵襲한 1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突破口를 擴大하면서 一線 兩중대의 背後로 迂回하자, 예비인 제 2 중대장 金鍾浩중위는 2개 소대를 지휘하여 先頭에서 『突擊앞으로』라고 怒聲하면서 突進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미 陣内に 侵襲하였으며 彼我間에는 混戰상태를 빚고 있었으므로, 俗稱 슬바위 後線으로 急進하여 제 1 중대를 포위한 敵을 逆포위하고 무찔러 나갔다.

그런데, 이때 俗稱 서재골과 甄岩洞쪽에서 요란스러운 多發銃聲이 울리면서 信號彈이 계속 올라 갔으며, △258에서는 무리의 重圍속에 陷入된채 混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듯 하였다.

대대장 尹泰鉉소령은 戰況이 極限상황에 이르고 退路가 이미 遮斷된 것으로 判斷하고, 연대장에게 戰況의 보고나 撤收建議도 없이 獨斷으로 撤收를 命令하고 말았다.

그러나, 右側 1선인 제 1 중대(장, 梁 輔중위)는 急進한 제 2 중대(一)의 增援과 右隣接인 제 25연대 제 2 중대(장, 蔡命新대위)의 側方支援下에 비록 混戰상태이기는 하지만 衆心一致로 敢然히 무리에 맞서 縱橫無盡으로 白兵格闘를 서슴치 않았으니 陣地線이 漸次 回復되고 있던차에 SCR-609를 通하여 대대장의 撤收명령이 거듭 下達됨으로써 陣地線을 비로소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58의 제 3 중대(장, 金漢龍중위)는 埋伏中인 제 3 소대가 急襲을 받아 分散됨에 따라 主力이 포위당하여 갑작스럽게 陣地線을 突破당하기는 하였으나 중대장을 中心으로 굳게 結束하여 頂上부근에 橢圓形陣地를 占領하고, 수류탄과 銃劍으로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렸는데 중대장 金漢龍중위는 이때의 상황을 뒷날에 말하기를 『이때 예비대인 제 2 중대를 增援하는 措置를 取하였더라면 能히 敵을 擊退하고, △258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俗稱 서재골과 甄岩洞一帶로 敵이 侵襲하였다 하더라도 打場地區와는 달리 저의 野山地帶임으로 後方遮斷의 威脅은 크게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述懐하였다.

如何間에 敵의 急襲으로 混戰상태를 빚어 苦境을 免하기는 어려웠으나, 兵士들의 戰意는 드높았고, 阿修羅처럼 怒號하는 중대장을 中心으로 力戰奮闘하고 있었는데도 대대장은 戰況을 綿密히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은채 彼我的 近接戰으로 火力支援이 不可能하고 可用 예비대가 없는것 만을 考慮하여 適切한 措置를 講究치 않은채 撤收만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 2 중대 제 2 소대가 俗稱선돌 高地를 확보하고, 該중대主力이 俗稱 술바위稜線에서 포위망을 헤치고 離脫하는 즉시로 甕岩洞으로 侵襲한 무리를 一擊에 불리치고 一帶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 1, 제 3 兩중대로 하여금 무리의 重圍를 헤쳐 逐次撤收하여 04.00 무렵에는 安心里의 △250에서 兵力을 收拾케 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尹泰鉉소령은 여기서도 큰 過失을 저지르고 있었다.

△258의 戰術的價値는 且置하고라도 右隣接인 제 2 대대가 陣地를 堅守하고 있었으니 비록 撤收는 하였다 하더라도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砲兵支援을 誘導하고 逆襲을 散行하였어야 할터인데도 △250에 陣地를 확보하고 敵의 계속 浸襲에만 對處하는 消極的인 作戰行動만 取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대장의 行爲는 隣接대대 將兵들의 憤怒를 불러 일으켰고 사단 防禦線의 整備를 서둘게 한 要因이 되었다.

△377의 激戰: 제 2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前年 연대로 배속된 제 25연대 제 2 중대(장, 蔡命新대위)가 대대로 再배속되기에 이르자, △377의 防禦를 強化코자 左제 1 선으로 起用함으로써 제 6 중대(장, 禹敎鵬중위)를 右제 1 선, 제 5 중대(장, 李聲五중위)를 中央제 1 선으로 하여 味谷洞南쪽의 俗稱흙다리高地—△377—俗稱 어은골에 이르는 一帶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02.00부터 左一線인 제 1 대대 正面으로 恣行된 敵의 急襲으로 그 右제 1 선인 제 1 중대의 俗稱 술바위高地가 포위되어 混戰상태에 빠지자, 어은골一帶를 확보한 제 25연대 제 2 중대는 예비인 제 3 소대를 南쪽稜線으로 急進시켜, 무리의 迂回를 阻止하면서 제 1 중대를 側方支援케 하였다.

제 1 대대가 撤收한 뒤에 △258一帶를 奪取하게 된 敵은 5發의 信號彈을 계속 쏘아올리면서 1개 대대규모로써 校村洞 稜線에서 一齊히 △377 正面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었다.

이에, 제 1 대대와 예비인 제 3 대대의 81mm 迫擊砲와 全自動火器는 各 陣前의 開豁地一帶를 掩襲하고 모든 小火器로써 最後阻止사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무리는 △258의 奪取로 氣勝하고 實戰경험이 많은 八路軍出身이어서인지 分明히 北僞 제 8 사단과는 달리 執拗하게 陣前에 이르는듯 하였으나 마침내는 더욱 加熱하는 最後阻止火力에 닥혀 氣勢를 잃은듯 하였다.

그런데, 이때 △258—俗稱 산오실—俗稱술바위一帶를 奪取한 一部의 무리가 東쪽溪谷을 따라 △309의 예비대대 陣地(제 3 대대는 池岡里로 出動中)를 奪取하고, 또 一部는 山法洞으로 侵襲하여 △377背後를 威脅함으로써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제 5 중대의 제 25연대 제 2 중대의 一部兵力을 抽出하여 이를 驅逐케 하였다.

이에따라, 金明珪소위가 지휘하는 제 5 중대 제 3 소대와 尹誠敏소위가 지휘하는 제 25연대 제 2 중대 제 3 소대는 △377 東南쪽稜線으로 突進하면서 射擊을 퍼붓고 手榴彈을 集中投擲하

여 무리를 壓倒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 1대대陣地를 奪取하고 戰列을 갖춘 西側方의 무리가 殺倒함에 이르러 都合 1개 연대규모의 무리에 포위된채 대대가 血戰을 거듭하게 되었으므로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防禦線의 再編이 不可避한 現狀況下에서 △377의 固守 때문에 많은 出血을 甘受할 必要가 없다고 判斷하여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蔡命新대위가 지휘하는 제25연대 제 2중대(一)가 重圍를 헤치고 離脫하는 즉시로 앞서의 2개 소대를 統合指揮하여 △309를 奪取한 1개 중대규모의 무리를 一擊에 擊碎하고 該高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主力은 俗稱 저술—백골을 거쳐 05.30 에는 新村(豊基 東南쪽 4km)一帶의 橫斷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309를 奪取하고 대대主力의 撤收를 掩護한 제25연대 제 2중대(+)는 新村으로 바로 물러서지 않고 西南쪽으로 突擊하여 鷹岩洞 高地를 奪取한 2개 소대규모를 또다시 擊碎하고 占領함으로써 敵主力이 占據한 △258를 指呼之間에 두고 近接對峙하였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서 野砲를 비롯한 全火力을 △258一帶로 集中하자 敵은 △258에 1개 중대규모만을 殘置한채 山法洞—△377부근으로 물러나서 再 공격을 준비하는듯 하였다.

제 3대대의 轉進: 연대에 비로서 △309에 控置되었던 제 3대대(장, 李昌律소령)는 敵의 一部가 順興(豊基東北쪽 7km)의 東側方을 威脅하자 16일에 池同里로 出動하여 제 10중대(장, 黃基相중위)로써 俗稱 福바위 一帶를, 제 11중대(장, 孟寶永중위)로써 池同里 一帶를 각각 확보하며 연대의 東側背를 掩護하였는데, 전날 東元里(榮州北쪽 7km)로 侵襲하였던 1개 대대규모의 敵은 사단 全正面이 걸친 一齊 공격에도 別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음으로 小康상태가 잠시 계속되었다.

그런데, 04.00 무렵에 左隣接인 제 2대대가 撤收함으로써 東西의 兩側方이 露出 孤立되기에 이르자, 대대장 李昌律소령은 福바위 부근의 제 10중대를 北上시켜 △299(池同里)에 據點을 확보케 하고 四周防禦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때 示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사단공병대대가 확보한 △268호 逐次撤收하여 제 10중대를 右제 1선, 제 11중대를 左제 1선으로 하여 一帶를 확보하였다.

이때 △268를 확보중이던 사단공병대대 제 3중대(장, 吳明煥중위)는 東村洞으로 轉進하여 該대대 제 1중대(장, 李佑膨중위)와 合勢하였다.

## 2. 제 10연대의 戰況

연대正面도 02.00에 敵의 奇襲을 받았다. 그러나, 左右一線인 제 2, 제 1兩대대는 扼守 不動의 태세를 堅持하고 이를 一巨 陣前에서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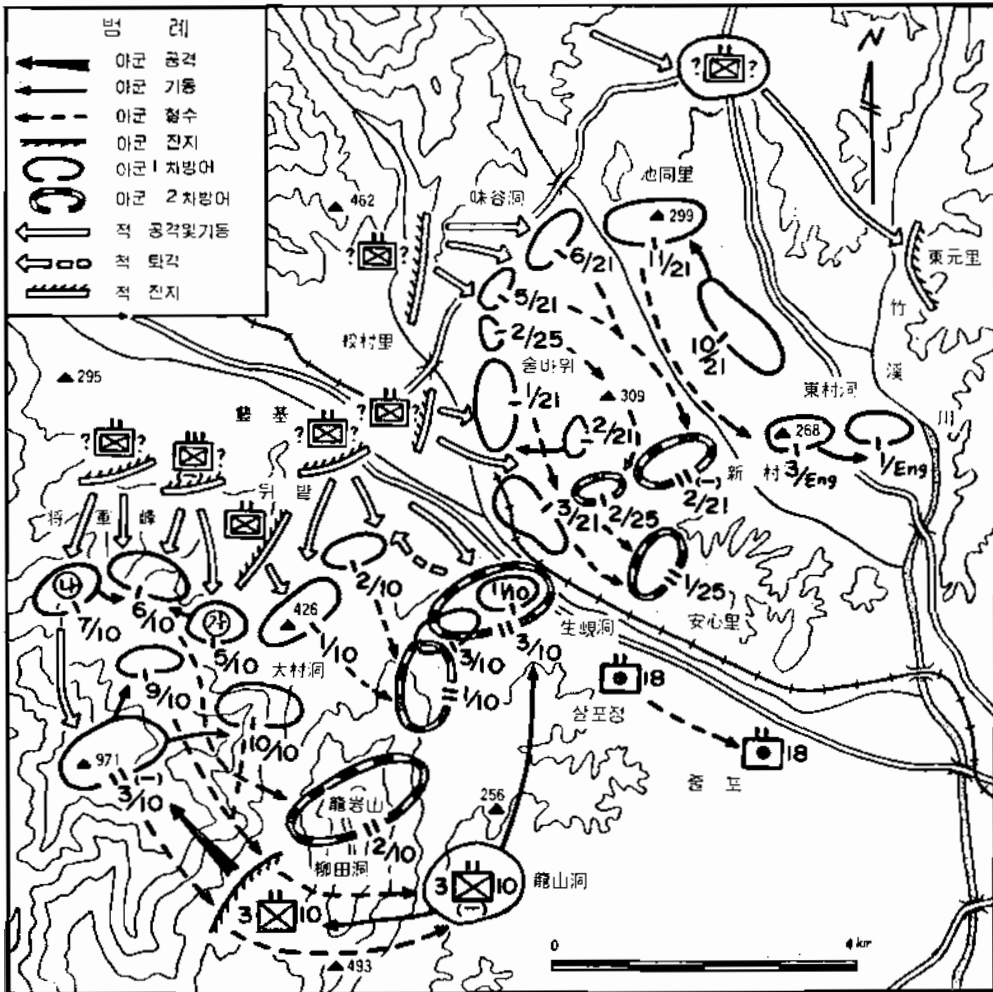
그런데, 右隣接인 제 21연대 제 1대대의 △258가 失陷됨에 따라 1개 대대규모의 새로운

무리가 대담하게도 道路線으로 侵攻하여 △426東쪽稜線과 그 背後로 迂回하면서 全正面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426의 激戰 : 右一線인 제 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전날의 敵襲을 물리치고 이날도 제 1, 제 2 兩중대를 左右 제 1선중대로 하여, 梧香골—△426의 主陣地를 계속 확보케 하고, 제 3중대(장, 朴龍鶴중위)를 대대예비로서 生峴洞 西南쪽의 俗稱 소라골稜線에 控置하였다.

그런데, 02.00에 俗稱 뒤밭으로 推進한 前哨소대陣地를 迂回한 1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426北쪽 稜線으로 近迫하여 多發銃을 亂射하고 手榴탄을 集中投擲하면서 제 1중대(장, 弓仁喆중위) 陣地를 奇襲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 2중대(장, 李慶鎔중위) 正面인 梧香골과 左隣接인 제 2대대의 將軍峰(△733)에서도 銃聲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상황도 제35호 7월 18일의 戰況



이에, 제 1 중대는 5門의 2.36"/Rocket 砲와 60mm 迫撃砲로써 後線과 溪谷을 同時에 때려 後繼부대를 遮斷하면서, 4정의 기관총을 主軸으로한 全火力으로 一齊히 濃密한 火網을 치자, 우리는 奇襲의 氣勢를 떨쳐볼 겨를도 없이 潰走하고 말았다.

이때, 梧岫골의 제 2 중대 正面에서도 우리의 急襲을 받아 左제 1 선소대가 威脅을 받았으나 前날의 陣地被奪의 汚辱을 씻고자 切齒腐心하던 中대장이 예비인 제 3 소대를 直接지휘하여 突進하면서 手榴탄 投擲과 敵中突入으로 屠戮의 白兵格鬪를 敢行하니 우리는 餘地없이 潰走하기 시작하고 中대는 60mm 迫撃砲로써 이에 指向하여 殲滅的인 打撃을 加하였다.

이처럼 敵의 奇襲一波를 無難히 擊退한 中대는 陣地를 補強하는 즉시로 決戰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때 敵砲가 驕威를 떨쳐, 陣地線을 攪亂하더니 제 21 연대의 △258 矢陷과 동시에 제 5 번 作戰路를 따라 깊숙히 侵透한 1개 中대규모의 무리가 生峴洞(豊基西南쪽 3km) 北쪽의 開豁地로 潛侵하였으며, 03.30에는 增強된 2개 中대규모가 生峴洞高地로 1개 中대규모는 中대예비인 제 3 중대가 占領한 俗稱 소라골 後線으로 侵攻하였는데 이들의 侵攻目的은 該高地의 奪取보다도 牽制공격으로 제 11 제 3 兩中대를 釘着시켜 一線으로의 增援을 遮斷하는 一方 一線中대後方으로 侵襲함으로써 前後 挾撃을 꾀하는 듯 하였다.

한편, 제 3 중대의 短兵血戰으로 潰走하였던 무리가 臥龍골에 이르러 梧岫골의 제 2 중대를 背面공격하며, 信號彈을 계속 쏘아올리자 앞서의 奇襲의 霧散으로 退却한 무리가 俗稱 갈목재에서 直射砲의 掩護下에 △426 正面과 제 5 중대(장, 金同膺 중위)가 확보한 (가)高地로 殺到하였다.

제 1, 제 2 兩中대는 中대장의 緊急 명령으로 各 據點防禦로 陣地를 轉換하여 81mm 迫撃砲의 照明下에 全火力을 集中하면서 近迫하는 무리에는 手榴탄을 投擲하고, 뒤이어 무리속으로 뛰어들어 白兵의 格鬪를 서슴치 않는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였다.

이때, 中대 작전장교 金濟湖 중위도 中대 OP 喪失을 지휘하여 防禦線一角을 담당하였다가 貫通傷을 입었다.

이처럼 一線中대의 戰況이 急迫하여지자 連대장 高根弘 중령은 예비인 제 3 中대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971의 예비陣地에서 躍進한 中대(一)는 東北쪽 後線을 따라 大村洞—俗稱 조성골로 急進하여 제 1, 제 2 兩中대의 巴後方을 掩護하면서 逆襲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待機하였다.

이때, 生峴洞을 확보한 제 11 중대(장, 李春植 중위)는 제 1 中대의 예비인 제 3 中대와 緊密한 協調를 維持하면서 果敢한 近接戰을 벌려 生峴洞—俗稱 소라골 後線 一帶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漸次로 敵이 增強되어 1개 連대규모의 무리에 포위당하여 混戰을 거듭하며 死傷者가 續出하게 됨에, 사단장 李正—대령은 제 21 연대의 陣地轉換을 勘考하여 사단防禦線의 再編이 不可避할 것으로 判斷하고, 連대장에게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連대장은 各

生峴洞—龍岩山—柳田洞線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逆襲태세를 갖추는 것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1, 제2 兩중대는 제3 중대와 제3 대대(一)의 掩護下에 무리의 포위망을 헤치고 離脫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正確하게 誘導된 野砲와 迫擊砲사격이 敵線을 強襲, 混亂시킴으로써 追擊을 遮斷하였으며, 전날 사단에 배속된 105mm M-2砲는 威力을 發揮하여 敵砲를 制壓하고 있었다.

將軍峯의 激戰: 제2 대대(장, 鄭順基대위)는 이날도 제5 중대(장, 金同僞중위)를 右제1 선, 제6 중대(장, 白南洙중위)를 中央제1 선, 그리고 제7 중대(장, 李榮茂중위)를 左제1 선으로 하여 (가)高地—將軍峯(△733)—(나)高地를 連하는 一帶를 확보하였는데, 제1 대대 正面에 대한 奇襲과 때를 같이 하여 △362(豊基西南쪽 3.5km)에서 溪谷을 따라 潛侵한 것으로 推定되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이 將軍峯正面의 제6 중대 陣地로 殺到하면서 공격하였다. 중대는 즉각 應戰하였으나 이미 陣前으로 近迫한 무리가 擲狀 수류탄을 던지면서 陣內一角으로 突入함으로 白手의 格鬪가 여기 저기서 벌어졌다. 이에 중대장 白南洙중위는 예비인 제1 소대를 이끌고 달려나가 그 一部가 突破口를 封鎖하는 가운데 무리속으로 뛰어들어 左衝右突의 勇戰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때 左右隣接인 제5, 제7 兩중대의 一部兵力이 東西 兩側方에서 突進하자, 무리의 포위망이 맥없이 풀리면서 北쪽으로 潰走하기 시작하는 好機를 잡아, 중대장의 『突擊앞으로』의 怒號一聲에 이를 追擊하여 수류탄세례와 集中사격을 퍼부어, 潰滅的인 打擊을 加하고 陣地를 回復하였다.

이리하여 한참동안은 彼我間에 小康상태를 維持하였는데 砲擊과 더불어 제1 대대 東側方에서 요란한 銃聲이 울리고 曳光彈이 계속 오르더니 대대 正面의 敵이 또다시 공격을 취하였다.

즉각 誘導된 野砲와 迫擊砲사격이 綫과 溪谷一帶를 火焰과 硝煙으로 뒤덮고 기관총의 交叉射擊이 稠密한 火網을 폈으나, 2개 대대규모의 무리는 奮戰의 銃부리에 밀린듯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계속 陣前으로 밀어 닥쳐 瞬息間에 대대 全正面이 混戰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彼我間에는 수류탄투척전이 벌어지고 곳곳에서는 튀어키며 치고 쫓는 血戰을 벌였는데 時間이 경과 할수록 무리의 勢는 더욱 增強될 뿐이었다. 이에 대대장 鄭順基대위는 據點만을 계속 확보키로 決心하고, 제5, 제7 兩중대에 “포위망을 헤치고 將軍峯으로 逐次撤攻할 것”을 緊急명령하였다.

이리하여 05.00에는 兩중대가 血路를 뚫고 頂上을 中心으로 急編陣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였는데 迂回한 一部의 무리가 예비 陣地인 △971를 奪取하고 또한 무리는 제9 중대(장, 朴丙奭대위)가 확보한 俗稱 조성골로 공격하여 增援마저도 遮斷코자 企圖하였다.

이때 緊急히 示達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6.30에는 제 5 중대가 先頭에서 包圍를 해치며 血路를 뚫고 제 6 중대가 追尾하는 무리를 阻止하는 가운데 龍岩山으로 撤攻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때가 09.30 무렵이었다.

逆襲: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는 제 11 중대(장, 李春植중위)로서 生峴洞一帶를 확보하고 제 9, 제 10 兩 중대로써 大村洞—俗稱 조성골로 出擊하여 제 1, 제 2 兩 대대의 撤收를 掩護하였으며 10.00에는 敵線을 強打하는 砲兵掩護下에 龍山洞一帶로 물러나 再編成에 着手하였는데, 15.00에는 生峴洞의 제 11 중대가 제 1 대대에 그 陣地를 引繼하고 復歸하였다.

이때, 將軍峯—△426를 奪取한 1개 연대규모의 敵은 砲擊이 集注하는 가운데 陣地工事를 서두르는듯,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一部の 무리는 △971를 占據하고 계속 挑戰하였다

이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敵이 陣地를 굳이기전에 逆襲을 敢行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1개 연대규모의 敵은 將軍峯—△426를 占據하고 據點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공격을 劃策中인 것으로 判斷된다.

② 연대는 此敵을 擊碎하고 陣地를 回復하려 한다.

③ 제 3 대대는 16.00에 공격을 開始하여 △971—將軍峯을 逐次 奪取하라.

④ 제 1 대대는 제 3 대대의 △971 奪取와 동시에 △426를 공격하라.

⑤ 제 2 대대는 공격間 龍岩山을 계속 확보하되 將軍峯—△426奪取와 동시에 △971로 進出하여 玆後 명령을 待機하라.

⑥ 공격間 제 18 포병대대 및 제 50 대대 제 1 중대는 연대를 直接支援 할 것이다.

⑦ 연대 지휘소는 龍山洞에 位置한다.』

15.40부터 砲門을 一齊히 연 砲兵의 공격준비사격이 △971—將軍峯—△426一帶를 強打하고, 16.00正刻에 逐次 延伸되기에 이르자, 이에 虞接하여 제 3 대대는 제 11, 제 10 兩 중대를 左右 공격梯隊로 하고 龍岩山 西쪽 稜線上의 공격개시선을 一齊히 躍進하면서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 2, 제 3 兩 대대의 81mm 迫擊砲가 계 掩護하는 가운데, 天浮山을 一擊에 奪取하고 東쪽과 東南쪽 稜線을 따라 陣前으로 계속 肉迫하였는데 이때까지 砲兵에 制壓되어 沈默을 지키던 敵의 迫擊砲사격이 공격선에 集注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地利를 活用하여 據點을 확보한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수류탄을 계속 굴러 떨어뜨려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展開되었으나 큰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연대장은 제 2 대대의 1개 중대를 逐次 增援토록 명령함으로써 勇猛을 자랑하는 金同曾중위가 지휘하는 제 5 중대가 逐次 出動하여, 제 3 대대의 예비로 後繼中이던 제 9 중대와 더불어 急進, 제 10, 제 11 兩 중대의 공격선을 超越하면서 突進하자 敵火는 더욱 熾盛해지며 무리는 發怒的인 抵抗을 더함으로 寸進尺退의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敵線을 突破하지 못하고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19.00에 대대의 轉進을 명령 하였다.

이에 따라서, 21.00에 龍山洞으로 물러선 대대는 再編하는 즉시로 生峴洞으로 進出하여, 연대 右一線대대가 되어, 生峴洞—俗稱 소라골—一帶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3. 사단공병대대의 狀況 : 順興으로 迂回한 敵이 제21연대의 東側背와 榮州를 威脅하기에 이르자, 대대는 사단장의 긴급명령으로 16.20,00에 제1, 제3 兩중대를 東村洞으로 急進시켜, 제1중대(장, 李佑彭중위)가 東村洞을 제3중대(장, 吳明煥중위)가 △268를 각각 확보하고 敵의 急襲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이날 06.00에 제21연대 제3대대가 △268로 轉進하여 陣地를 編成하기에 이르자, 제3중대는 東村洞으로 移動하여 제1중대와 合勢하였는데 뒤이어 示達된 사단명령에 따라서 제1중대는 竹溪川을 건너 △295—一帶를 占領하고 敵의 迂回에 대비하였다.

이때, 제2중대(장, 李龍九중위)는 榮州에서 主補給路의 확보와 補修를 담당하면서 사단 CP 境界임무를 아울러 遂行하고 있었다.

#### 4. 제18포병대대의 狀況

대대(장, 張庚石소령)는 12일에 豊基로 撤收한 以來로 俗稱 죽포(榮州西北쪽 4km)에 布陣하고 敵侵에 對備하였으나 射擊距離가 짧아 敵을 効率的으로 制壓할 수 없게 되자, 俗稱 살포정(豊基東南쪽 4km)으로 推進시켜 14~15 兩日間에 걸쳐 侵襲하는 敵을 强打하여 1개 연대규모의 敵에 殲滅의 打撃을 주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遂行하였다.

그런데 敵砲가 竹嶺부근으로 推進되기에 이르자, 丹陽戰鬪에서와 같이 射距離의 制限으로 對砲兵戰에서의 不利를 免치 못하고 있었는데, 前날에 鄭寅院소령이 지휘하는 제50포병대대의 제1중대가 105mm M-2砲 6門을 이끌고 增援하자 活氣를 되찾았으며, M-2砲는 즉각 對砲兵戰에 나서 敵砲를 制壓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이날의 砲兵戰에 있어서는 數的으로 優勢한 敵砲에 決코 뒤지지 않고, 나아가 敵砲를 制壓하기로 하였으나 敵의 奇襲으로 彼我が 近接戰을 展開함으로써 一線연대에 대한 效果的인 支援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一線연대가 敵으로부터 離脫하기 시작하자, 集中砲擊으로 무리의 陣地編成을 攪亂하고, 계속적인 攻勢企圖를 散散조각으로 粉碎하였다. 그런데 사단 防禦線이 東村洞—△268—安心里—生峴洞—龍岩山線으로 南下하기에 이르자, 12.00에는 또다시 俗稱 죽포로 轉進하는 즉시로 敵線을 强打하기 시작하였다.

#### 5. 醴泉 混成대대의 復歸

丹陽戰鬪時에 △324와 水山里에서 赤城里를 거쳐 醴泉으로 撤收한 제21연대의 제7, 제9



兩중대는 사단作命 제18호에 의거하여 긴급히 增援된 사단本部중대를 統合하여 混成대대를 編成하고, 그곳 국민학교에 지휘소를 開設하는 즉시로 外廓線에 防禦陣地를 編成하였다.

그런데 15, 12.00 무렵에 美 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가 該사단 부사단장 Wilson 준장 지휘아래 砲兵 1개 대대를 同伴하고 醴泉에 到着하였다.

Wilson 준장과 協議 끝에 外廓陣地를 美軍에 引繼하고, 대대는 生川洞으로 進出하여, 제7중대가 下鶴洞에, 제9중대가 龍山洞 一帶의 高地를 占領하고, 사단本部중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赤城里쪽으로부터 南下中인 것으로 推定되는 北傀 제12사단隸下의 2개 대대규모의 侵襲에 對備하였는데, 이때 美軍이 砲兵支援을 담당하고 1개분대의 連絡組가 生川洞 대대 CP에 派遣되어 美軍과의 協調와 連絡을 維持하고 있었다.

16일부터는 수색과 潜伏組를 北쪽과 西北쪽 5km 地點까지 推進하였는데, 敵의 偵察組 또는 유격대로 推定되는 少數兵力을 捕捉하여 射殺하였으나 主力은 到達하지 못한듯 接觸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美 제24연대 제3대대에서도 黑人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를 望日峯(△424)으로 推進시켜 수색을 敢行하였는데, 마치 訓練場에 나오거나 한듯이 敎範그대로의 動作들을 되풀이하다가 飢食시간이 되면 本隊로 復歸하였고 13.00가 되면 또다시 出動하여 午前中의 行動을 똑 같이 다시하는 바람에 將校들을 웃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17, 17.00에 『混成대대는 17, 24.00까지 榮州로 復歸하라』하는 사단 作命 제19호가 下達되고, 兵力輸送車10臺가 到着하자 대대장 金成彬대위는 즉각 Wilson 준장에게 通報하였더니, 同將軍은 作戰上의 理由를 들어 “夜間撤收는 不可하니 계속 前哨陣地를 확보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다.

이때의 狀況에 關하여 當時의 제7중대장이자 混成대대장이던 金成彬대위는 다음과 같이 述懐하였다.

『나는 作命에 따라 撤收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主張하였으나 Wilson 준장은 “醴泉外廓의 美軍陣地에서의 安全을 保障할 수 없다.”고 까지 極限함으로 경비전화를 通하여 사단 작전 참모 權泰順중령에게 보고 하였더니 “貴官은 누구의 部下인가? 명령을 不服從하면 統役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니 즉각 復歸하라”고 怒號하며 전화를 一方的으로 끊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輸送車를 生川洞에 待機시켰다가 다음날 05.00에 출발하여 10.00에 榮州에 到着하였는데 이때 美軍側에서는 別말이 없었다.

나는 水山里에서 멋대로 赤城里를 거쳐 醴泉으로 撤收한 罪와 前날에 作命을 履行하지 못한 罪로 銃殺을 覺悟하였는데 사단에서는 예상외로 사단장이나 각 참모들이 아무런 內色 없이 수고하였다고 致賀하고 수박과 참의를 山더미처럼 사다 주어서 飽食하고 14.00무렵에 제7, 제9 兩중대는 연대로 復歸하였다.

7월 19일 : 右隣接인 東海岸의 제 3 사단(장, 李俊植준장)은 17일에 失陷한 盈德을 美海·空軍과 美 제 159野砲대대의 集中支援下에 다음날 奪還하였으나, 이날 또다시 敵의 공격으로 물러섰으며 左隣接인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은 顯江 南쪽의 魚龍山—幽谷里線을 확보하여 當面の 敵 제 1 사단과 血戰을 거듭하였다.

이곳은 忠州—閔慶—店川—咸昌—尙州에 이르는 제 3 번 作戰道路上的 要衝일 뿐만 아니라, 小白山脈의 最後의 堡壘로서 여기가 무너지면 洛東江線까지의 撤收가 不可避한 곳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서슴치 않고 있었다.

한편, 사단正面에서는 前날에 새로이 投入된 北德 제 12사단의 全面공격으로 東村洞—△268—新村—△250(安心里)—生峴洞—龍岩山線으로 防禦線을 再編하였는데, 이날 中央道路의 突破를 回避한 敵은 右—線인 제 21연대의 地形的으로 脆弱한 中央—線의 제 2 대대正面과 左—線인 제 10연대의 要衝인 龍岩山으로 각각 攻勢를 集中하였다.

陣地線을 整齊한 사단은 16.30을 期하여 一齊히 逆襲을 敢行하였는데 큰 進展은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崑崙줄 모르는 사단의 戰力을 誇示하고, 무리의 계속적인 攻勢企圖를 粉碎한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 1. 제 21연대의 戰况

전날에 敵의 攻勢와 제 1 대대의 無斷撤收로 東村洞—△268—新村—甕岩洞—△250(安心里)線에서 陣地線을 整備한 연대는 池東里—△377線을 占據한 增強된 1개 연대규모의 敵과 對峙하고 砲擊戰을 계속하였다.

新村—甕岩洞의 激戰: 제 2 대대(장, 朴永燮대위)는 연대 中央—線으로서 제 5 중대(장, 李聲五중위)를 右제 1 선, 배속중인 제 25연대 제 2 중대(장, 蔡命新대위)를 左제 1 선중대로 하여 新村—甕岩洞에 이르는 綫線—帶을 확보하고 제 6 중대(장, 禹教麟중위)를 예비로 控圍하였다.

그런데 01.00에 제 6 중대가 △309로 出擊, 奇襲을 敢行하여 增強된 1개 소대규모의 敵을 一舉에 擊滅하고 頂上을 확보하였으나, 敵은 砲擊을 集中하는 가운데 1개 대대규모로 卍山法洞으로부터 逆襲함으로 즉각 誘導된 全砲兵과 迫擊砲의 掩護下에 本陣地로 復歸하였다.

이리하여 彼我間에는 한동안 沈黙이 흘렀는데, 03.30에 2개 대대규모의 敵이 △258—△309線에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 5 중대는 즉각 轉換된 砲兵과 迫擊砲의 遮斷사격아래 기관총과 2,36'' Rocket 砲를 主軸으로 한 全火力의 一齊사격으로 이를 阻止코자 奮戰하였다.

그러나 △309에서 敵制되는 野山地帶에 陣地를 占領한 중대는 △309로 推進한 直射砲火로 苦戰을 免치 못하였다.

더우기 狹少한 橫隔稜線에 占領한 陣地는 縱深을 維持하지 못하여 예비인 제 6 중대가 즉각 增援되었으나, 곳곳의 陣地線이 瞬息間에 突破되어 그 南쪽 稜線으로의 陣地轉換이 不可避하였다.

한편, 甕岩洞高地를 확보한 左제 1 선인 제 25 연대 제 2 중대는 △258에서 發進한 무리의 前後挾擊을 받았다. 중대는 즉각 據點防禦로 轉換하면서 怒號하는 중대장 蔡命新대위의 陣頭指揮下에 기관총 사격을 集中하고 砲火의 速射로서 이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우리가 계속 달려들자, 수류탄과 銃劄을 휘둘러 白兵의 格鬪를 서슴치 않아 一進一退의 血戰으로 善防하였다. 그러나 右隣接인 제 5 중대가 물러서자 東側方의 무리마저 側方 공격을 하게 되어, 중대는 重圍속에 陷入된채 苦戰하였다.

굴이 野山地帶의 突出陣地를 固守하기 위하여 兵力을 消耗할 必要가 없다고 判斷한 연대장 의 명령으로 대대장은 제 6 중대를 出擊시켜 該중대의 撤收를 掩護토록 함으로써, 05.00 무렵에는 新村 南쪽의 稜線一帶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새로운 陣容을 갖추고 敵이 계속적인 공격을 阻止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丹陽戰鬪時에 水山里에서 醴泉으로 撤收하여 제 9 중대와 더불어 混成대대를 編成하고 그곳을 防禦하던 제 7 중대(장, 金成彬대위)가 14.00에 연대를 거쳐 대대로 復歸하기에 이르자 대대는 오래간만에 3개 중대의 建制를 維持하게 되었다.

逆襲: 激戰의 회오리가 사그라지고 戰鬪를 잊은듯이 조용한 가운데 盛夏의 싱그로운만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나는 正午를 넘기자 사단장은 暴風前夜의 高요로 判斷하고 先制 공격으로 敵의 攻勢企圖를 粉碎코자 14.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口頭下達하였다.

『① 敵은 공세를 또다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② 사단은 先制공격으로 敵을 攪亂하고 攻勢企圖를 粉碎하러 한다.

③ 제 21 연대는 一部兵力으로 池同里—△309—△377—258로 공격을 敢行하라.

但 공격의 進展에 따라 別命이 있을때에는 全主力이 攻勢로 移轉할 태세를 갖추라.

④ 제 10 연대는 一部兵力으로 龍岩山—△971로 공격하되 進展에 따라 主力으로 △426—將軍峯을 공격하라.

⑤ 제 18 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 21 연대에 賦與한다.

⑥ 사단공병대대 및 乃城대대(제 25 연대 제 1 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⑦ 通信은 必히 暗號를 使用하라.

⑧ 사단 CP는 榮州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연대에비로 控置하였던 제 7, 제 9 兩중대를 각각 原隊로 復歸케 하면서 제 3 대대는 池同里를 제 2 대대는 △309—△377를, 그리고 제 1 대대는 △258를 각각 復歸토록 명령 하였다.

16.00 무렵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轉換된 全砲兵사격이 敵線을 強打하고 16.30에 一齊히 延伸되어 敵砲를 制壓하면서 敵主力의 增援을 遮斷하기 시작하자, 각 대대에서 抽出된 공격중대는 一齊히 陣地線에서 躍出하여 突進하기 시작 하였다.

제 9 중대(장, 崔泳龜중위)는 原隊復歸와 동시에 공격중대로 抽出되어 △268 北端에서 待機하고 있었는데 砲擊의 延伸에 膚接하여 一齊히 躍進하였다.

17.00무렵에는 俗稱 福바위 高地로 進擊하여 이곳에 據點을 확보한 경계무대로 推定되는 1개 소대규모를 공격하여 一舉에 擊破하고, 一路 池洞岬를 目標로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229南麓에 當到하였을 무렵, 迫擊砲사격이 공격선을 攪亂하더니 기관총의 交叉사격이 이에 加勢하여 濃密한 火網을 떠면서, 2개 중대규모의 敵이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중대는 砲火의 間斷을 利用하여 窪地線으로 躍進하는 즉시로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抵抗을 排除코자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狂亂하듯이 퍼붓는 무리의 火網에 부딪쳐 陣地線을 突破하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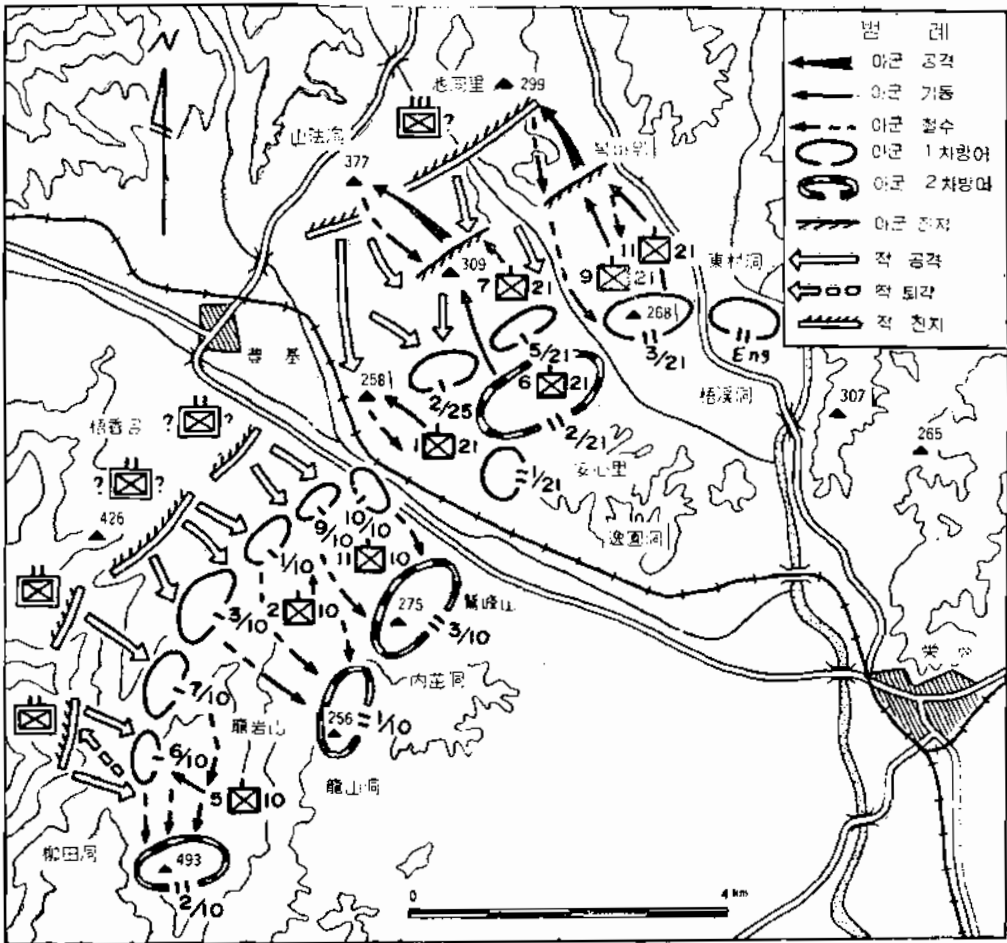
이 緊迫한 戰況보고에 接한 대대장은 즉각 撤收를 명령하면서, 제11중대(장, 孟寶永중위)를 福바위로 急進시켜 이를 收容케 하였다. 이리하여 該중대는 19.30무렵에 △268로 復歸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는데 25명의 死傷者가 發生한 反面에 射殺 50명으로 推定되는 戰果를 올렸다.

한편, 제 7 중대(장, 金成彬대위)는 제 2 대대의 공격중대로서 16.30에 新村 北쪽의 稜線을 橫斷하면서 △309로 突進하였다.

△309에서는 2개 소대규모의 敵이 迫擊砲사격에 이어 기관총사격을 集中하여 중대의 突進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醴泉으로의 轉進으로 그 동안의 激戰에 參戰치 못한 罪責感으로 戰友들의 얼굴을 對하기가 족스러웠던 兵士들은 이 공격으로 報償이나 하려는 뜻이 앞을 다투어 火網을 헤치며 突進하여, 수류탄投擲에 이어 銃劍을 휘둘러 一擊에 무리를 무찔렀다. 중대는 戰果를 擴大하는 즉시로 野砲와 迫擊砲사격의 掩護下에 最終目標인 △377를 目標로 躍進하였는데, △377—俗稱 흙다리 一帶를 占據한 1개 대대규모는 驕威를 誇示하듯 直射砲와 迫擊砲가 熾盛을 떨었다. 이때 중대장 金成彬대위는 正面공격이 無謀할 것으로 判斷하고 △377 西南쪽 稜線上의 鞍部인 俗稱 어은골을 直衝하여 敵線을 分斷기로 決心한 다음, △309西北쪽 稜線을 타고 進擊하였다.

그런데 이때 增強된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중대를 破摧코자 함인지 陣前出擊하여 包圍를 企圖함으로, 중대는 突進을 멈추고 △309西北쪽 稜線을 占領하는 즉시로 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阻止하였는데 이때 다시 그 主力이 出擊하여 兩翼을 포위하면서 거센 反擊을 恣行함으로 緊急히 示達된 대대장의 명령으로 19.00에는 逐次撤收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左一線인 제 1 대대는 제 1 중대(장, 梁輔중위)가 △250北쪽 稜線을 타고 突進하여 甕岩洞高地부근을 확보한 1개 소대규모의 敵을 突擊戰으로 一擊에 擊碎하고, 西쪽의 開豁地를 橫斷하

◇ 상황도 제36호 7월 19일의 戰況



면서  $\Delta 258$ 로 衝勢를 集中하였다. 要衝인 이 곳을 占據한 1개 中대규모의 敵은 迫擊砲와 直射砲 그리고 10정을 헤아리는 기관총사격을 集中하면서 頑強하게 抵抗하는 一方, 雲鶴洞에 集結中이던 것으로 推定되는 2개 中대규모가 我砲의 熾烈한 遮斷사격에도 不拘하고 增援코자 急進하고 있었다.

중대는 怒號하는 中대장을 先頭로 계속 躍進하였으나,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火網에 막혀 開豁地에서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때, 中대장 曹圭英소령의 緊急要請으로 즉각 轉換된 砲兵사격은  $\Delta 258$ 一帶로 集中砲擊을 퍼부우면서 迫擊砲陣地로 推定되는 一帶는 強打하여 火陷으로 뒤엎자 直射火器는 瞬息間에 침묵하였으나, 敵의 野砲는 더욱 熾盛을 떨어 中대를 十字砲火속으로 몰아 넣게되어, 中대장은 中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처럼 거의 無謀한 연대의 逆襲으로 큰 進展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連대의 戰力을 誇示하고 先制공격으로 이날의 敵의 攻勢企圖를 瓦解시킨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 2. 제10연대의 戰況

연대는 前날에 △426—將軍峯(△733)에서 轉進하여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를 右一線, 제 1 대대(장, 朴致玉소령)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를 左一線으로 각각 部署하고, 生峴洞—俗稱 범챙이—龍岩山(△383)—柳田洞에 이르는 새로운 陣地를 編成하여 將軍峯—△971—△426一帶를 占領한 1개 연대규모의 敵과 近接對峙한채 砲擊戰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 01.00 무렵에 2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俗稱 상마—俗稱 노쟁이—주막거리에 이르는 溪谷을 타고 潛侵하여 龍岩山을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龍岩山の 激戰 :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는 제 7 중대(장, 李榮珪중위)를 右제 1 선 제 6 중대(장, 白南洙중위)를 左제 1 선으로 하여 龍岩山一帶를 확보하고, 제 5 중대(장, 金同曾중위)를 대대에비로서 東南쪽稜線에 控置하였다.

그런데, 01.00무렵 2개 중대규모로 推算되는 무리가 제 6 중대의 左제 1 선소대로 殺到하면서 多發銃을 連射하고 手榴탄을 계속 投擲하면서 急襲하였다.

소대는 陣地線에서 躍出하여 金在秀중위를 先頭로 手榴탄으로 應酬하며 銃劍을 휘둘러 肉迫의 血戰을 벌였다.

그러나 예상외의 壓倒的인 敵勢에 밀려 陣地線이 突破되고 瞬息間에 混戰의 회오리속으로 달려 들었다.

急報에 接한 대대장은 예비인 제 5 중대를 增援케 하였다.

該중대는 7部稜線으로 물러선 제 6 중대를 超越하여 頂上부근으로 突進하면서 手榴탄을 集中投擲하고 左衝右突의 短兵戰을 敢行하였는데 夜暗으로 彼我的 識別이 어려운 混戰의 渦中으로 말려들자 中대장 金同曾중위는 81mm 迫擊砲의 照明彈發射를 緊急要請하였다.

要請된 照明彈이 正確히 △493 上空에서 炸裂하여 회미하게나마 敵影을 확인 하기에 이르자 중대는 성난 獅子처럼 무리에 달려들고, 뒤이어 제 6 중대마저 逆襲에 나서자 무리는 앞을 다투어 潰走함으로써 제 6 중대는 02.30 무렵에는 陣地를 完全히 回復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은 野砲와 直射砲, 그리고 迫擊砲사격을 集中하더니 연대 全正面으로 一齊히 공격 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즉각 제 5 중대를 中央제 1 선으로 起用하여 密集防禦태세를 갖추고 紛戰을 계속하여 1개 대대규모의 무리를 擊退하였으나, 右一線인 제 3 대대에 이어 제 1 대대마저 陣地를 轉換하게 되자, 연대장의 명령으로 05.00무렵에는 △493로 逐次撤收하였다.

生峴洞의 激戰 : 01.00 무렵에 龍岩山으로 指向된 敵의 奇襲이 제 2 대대의 勇戰으로 擊退되었을 무렵, 夜暗을 틈타 東北쪽의 開豁地를 橫斷하여 迂回한 2개 중대규모의 무리는 02.20에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의 生峴洞陣地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때 대대는 제9, 제10兩중대를 左右 제1선중대로 하여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11중대(장 李春植중위)를 대대에비로서 南쪽 溪谷에 控置하고 있었는데, 迂回한 무리가 東南쪽 稜線으로 올라붙으면서 多發銃사격과 信號彈의 계속 發射로 常套의인 後方攪亂 전법을 쓰자, 제11중대는 鄭普和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가 突進하면서 수류탄을 퍼붓고 肉迫戰을 敢行함으로써 一旦 驅逐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砲가 集注하여 陣地線을 攪亂하는 가운데, 梧香골에서 發進한 것으로 推定되는 1개 대대규모가 正面으로 공격하고 앞서 陽攻하다가 東側方의 河川線으로 潰走한 2개 중대가 合流하여 挾擊하였다.

대대장 金淳基대위는 迫擊砲의 照明彈 사격을 명령하면서 陣頭에 나서 兵士들의 勇戰을 激勵하였으나, 무리는 左隣接인 제1대대와와 連繫를 遮斷하고 漸次增援하여 2개 대대규모로써 포위망을 壓縮하였다.

兵士들은 短兵의 血戰을 서슴치 않았으나 機動空間이 制限되고 四面이 開豁地로 둘러싸인 獨立된 봉우리여서 兵士들이 포위망을 제치고 離脫하여 戰力이 크게 減少하자 대대장은 대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03.00 무렵에는 南쪽의 驚峯山(△275) 東北쪽 溪谷에서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驚峯一帶에 陣地를 編成하고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였다.

이때 제18포병대대는 生峴洞高地와 周邊의 開豁地로 砲擊을 集中하여, 개미 한마리도 일선 거리지 못할 壯觀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범쟁이高地의 激戰: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前날에 △426에서 撤收한 以來로 제3, 제1 兩중대를 左右 제1선으로 部署하여, 俗稱 소라골—俗稱범쟁이에 이르는 稜線一帶를 확보하고, 제2중대(장, 李慶鎔중위)를 대대에비로서 外峯庵溪谷에 控置하였다. 그런데 左右隣接에서 요란스러운 銃聲이 일기 시작하고 曳光彈이 하늘 가득히 翻을 놓아 激戰의 前奏가 高潮되는 무렵, 대대 正面에서도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稜線으로 기어 오르면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陣頭에서 阿修羅처럼 怒號하는 대대장의 指揮下에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기관총을 비롯한 全直射火器가 最後阻止사격으로 濃密한 火網을 펴고 2.36'' Rocket 砲는 무리를 지어 殺到하는 敵을 후리쳤으나, 敵은 가파른 벼랑을 타고 계속 近迫함으로써 一進一退의 激戰이 展開되었다.

이때 右隣接인 제3대대의 生峴洞을 奪取한 2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俗稱 소라골 稜線을 타고 밀려 들자, 예비인 제2중대는 대대장의 緊急명령으로 稜線으로 突進하면서 砲擊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生峴洞高地에서 또다시 西南으로 迂回한 무리가 後方을 遮斷한채 포위 공격하기에 이르러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惡化하였다.

이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제3대대가 이미 물러섬으로써 포위망속에 陷入된 제1대대

가 陣地를 固守키는 어려울 것이며, 補充이 거의 不可能한 상황下에서는 兵力의 損失만을 自招할 뿐이라고 判斷하여 대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戰鬥力이 사단에서 強하기로 定評이 있는 該대대의 명예를 위하여 대대장 朴致玉 소령은 撤收를 頑強하게 拒否하고 固守를 主張하였으나 作戰上의 理由를 들어 說得하는 연대장의 命令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重圍를 헤치고 血路를 뚫으며 逐次撤收하기 시작한 대대는 즉각 誘導된 野砲의 掩護下에 제 2중대가 先頭에서 激突하고 제 1중대가 後尾에서 追尾하는 무리를 阻止擊滅하는 가운데 內茁洞을 거쳐 04. 20에는 △256에 急編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再侵에 對備하였다.

逆襲 : 그런데 生峴洞—俗稱 범쟁이—龍岩山一帶를 占據한 敵이 正午를 지나 13. 00에 이 르도록 別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새로작 攻勢를 준비중인 것으로 判斷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장은 逆襲을 敢行키로 하고 14. 00 무렵에 要旨는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계획에 의거하여 逆襲을 敢行하러 한다.

② 제 2대대는 16. 30을 期하여 △383—△971를 逐次 奪取하고 명령에 따라 將軍峯을 공격하라.

③ 제 1대대는 別命에 따라 俗稱 범쟁이高地—△426를 逐次 공격하라.

④ 공격間 제18포병대대는 연대를 一般支援할 것이다.

⑤ 通信은 必히 暗號를 使用하라.

⑥ 연대 CP는 墨洞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제 2대대(장, 鄭順基대위)는 제18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의 延伸에 膺接하여 △493北쪽 稜線上의 공격開始線을 躍進하였다. 先頭인 제 6중대(장, 白南洙중위)는 一舉에 柳田洞을 突破하고 龍岩山(△383)의 7部稜線으로 突進하였을 무렵, 頂上부근에 據點을 확보한 1개 중대규모의 敵은 6정으로 推定되는 기관총사격과 수류탄投擲으로 중대의 突進을 阻止코자 執拗하게 抵抗하였다.

이에 중대장 白南洙중위는 5門의 2. 36"Rocket 砲를 推進하여 一齊사격으로 3정의 기관총을 沈默시키는 즉시로 先頭로 달려 나가면서 『突擊앞으로』를 怒號하였다.

이 勇姿에 크게 힘입은 兵士들은 앞을 다투어 躍進하면서 突擊사격에 이어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敵線에 怒濤처럼 楔入하는 즉시로 銃劍으로 白兵의 格鬪를 벌리자, 頑強하게 抵抗하던 무리는 戰意를 喪失한듯 俗稱 무래이 溪谷을 타고 望風敗走하였다.

이 初戰에서 중대는 60餘명의 敵을 射殺하고 75mm 直射砲 1門과 61mm 迫擊砲 2門, 그리고 기관총 4정을 幽獲하는 戰果를 擧揚하였다.

이날의 狀況에 關하여 당시의 중대장 白南洙중위는 뒷날 述懐하기를 『그때 龍岩山에서 敵의 抵抗은 아주 熾烈하였으나 兵士들은 나의 명령대로 잘 따라서 정말 勇敢하게 싸워 주



었다. 이때 마침 총참모장 丁一權소장이 戰線視察次 榮州에 와 있었는데 鹵獲品과 射殺戰果를 확인하고 二階級特進을 上申토록 指示하였으나 연대장 高根弘중령이 “軍人이 敵과 싸워 죽이고 뺏는 戰果를 올리는 것은 當然한 일인데 特進이 무슨 特進이냐”고 妨害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한편, 제 6중대가 龍岩山을 奪取하자 後續한 제 5중대(장, 金同晉중위)가 중대를 超越하면서 俗稱 섬골쪽 稜線으로 올라붙어 △971를 目標로 突進하였는데, 이때 △426—△971一帶를 占據한 敵이 迫擊砲사격에 뒤이어 野砲사격을 集注함으로 공격선이 火陷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에, 즉각 誘導된 제18포병대대(장, 張庚石소령)의 砲擊이 敵線을 強打하고 對砲兵戰이 開始되었으나 敵의 砲兵陣地가 轉換된듯 쉽사리 制壓되지 않고 계속 驕威를 떨쳐 제 5중대를 △971 7部稜線에서 釘着시켰다.

이에 대대장은 제 7중대(장, 李榮珪중위)를 柳田洞 溪谷넘어오 △971 東南쪽 稜線을 공격케 하였는데, 天浮山까지는 別抵抗없이 急進하였으나 이곳서 부터는 敵火에 휩싸여 突進이 難澁하였다.

공격의 推移를 注視하던 대대장은 연대장에 建議하여 承認을 받는 즉시로 兩중대의 離脫을 명령 하였다.

이리하여 제5, 제 7 兩중대는 龍岩山을 확보한 제 6중대의 掩護下에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白南洙중위는 龍岩山의 계속 확보를 主張하였으나 突出되고 兩翼이 敵에 포위된 狀況을 憂慮한 대대장의 명령으로 主力을 後續하여 △493로 復歸하였다.

### 3. 사단장의 措置

16.30부터 敢行한 제21, 제10 兩연대의 逆襲이 이미 陣地線을 굳힌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각각 陣地線으로 復歸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現防禦線을 계속 확보하여 敵을 擊滅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20호(50, 7, 19, 21.00)를 下達하였다.

『① 敵은 榮州를 目標로 계속 공격할 것이다.

② 사단은 現陣地線을 확보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사단 工兵대대를 7, 19, 23.00附로 統合指揮하여 現陣地線을 계속 확보하라 但 제25연대 제 2중대를 公明대대에 배속하라.

④ 제10연대는 現陣地線을 계속 확보하라.

⑤ 제25연대 제 2중대는 7, 19, 23.00附로 제21연대로 부터 사단공병대대로 배속을 변경한다.

⑥ 제25연대 제 1대대(一)는 7월 20일 未明을 期하여 順興쪽의 敵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⑦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를 統合指揮하여 사단을 一般支援하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21연대에 賦與한다.

⑧ 사단 공병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되 7, 19, 23. 00附로 제21연대에 배속한다.

⑨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⑩ 사단 CP는 榮州에 位置한다.』

7월 20일 : 이날, 美 제24사단의 大田外廓의 防禦線이 崩壞되어 大田이 失陷되기에 이르자, 美 제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同月 18일부터 迎日鶴으로 上陸하기 시작한 美 제1기갑사단을 永同으로 急進시켜 京釜街道正面을 防禦케 하고, 美 제24사단을 金泉으로 撤收하여 再編케 하였으며 槐山—尙州以西正面은 美軍이 담당하고, 韓國軍은 그以東地域단을 防禦케 하기로 하였다.

한편, 軍은 이에 呼應하여 陸本作命 제57호(50, 7, 20, 01. 00)로써 제1군단의 義城轉進준비를 명령하면서 제2사단의 解編과 동시에 제16연대를 제8사단으로, 제22연대를 제3사단으로, 그리고 제5, 제20 兩연대를 제1사단으로 각각 배속 하고 首都사단을 安東으로 轉進토록 명령 하였다.

이때 제2군단은 군단장 金白—준장이 陸本작전참모부장으로 復歸하고, 제1군단참모장 劉載興준장이 後任군단장으로 就任하였다.

이처럼 사단에는 江陵戰鬥時에 KMAG으로 復歸하여 日本까지 갔던 George D. Kessler 소령을 비롯한 美 고문관들이 돌아와 空地協同作戰이 圓滑하게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으나 때때로 出擊하는 戰鬪機가 食料와 彈藥을 運搬하는 勞務者를 敵의 유격대로 誤認하고 기총소사를 퍼붓는 일이 있어서 推進補給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1. 제21연대의 戰況

02. 00에 東村洞—△268에 대한 奇襲공격과 동시에 1개 연대규모의 敵은 연대 全正面으로 一齊히 공격하였다. 각 대대는 一進—退의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地形上의 脆弱性을 지닌 연대는 混戰상태에 빠져, 撤收를 斷行하여 △265—△307—昌津里—△276에 이르는 榮州固守를 위한 最後防禦線을 編成하기에 이르렀다.

東村洞의 戰況 : 사단 공병대대(장, 金 默파위)는 사단작명 제20호에 의거하여 제25연대 제2중대를 統合지휘하고 제21연대의 右—線으로서 助臥里—東村洞線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02. 00 무렵에 左隣接인 제3대대(장, 李昌律소령와)의 間隙인 道路邊으로 潛侵한 2개 중대규모의 敵의 奇襲을 받았다.

東村洞 西北쪽 稜線에 陣地를 확보한 공병 제3중대 제3소대(장, 高明律소위)는 敵이 多發銃을 連射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急襲하자, 즉각 應戰하였으나 무리의 공격으로 陣地線이 突破되어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에 중대장 吳明煥중위는 제1, 제2 兩소대를 直接지휘하고 달리 나가면서 阿修羅처럼 勇戰을 督勵하자, 兵士들도 敢然히 앞을 다투어 敵線에 楔入하는 즉시로 短兵血戰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三面에서 포위한채 漸次로 壓迫하는 敵勢에 밀려 東쪽의 江邊으로 물렀다. 이 무렵에야 비로소 補給된 SCR-609를 通하여 緊迫한 戰況보고에 接한 대대장 金默대위는 대대에비로 △307에 控置한 제25연대 제2중대를 즉각 出擊토록 명령 하였다. 長嶺橋를 건너 03.00 무렵에 東村洞 南쪽에 이르렀는데, 이미 이곳에 埋伏한 敵이 사격을 가함으로 중대장을 先頭로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여, 1개 소대규모의 무리를 一擊에 擊退하고 계속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東村洞高地를 확보하자 工兵 제3중대는 江邊으로 追尾한 무리를 剔抉하고 이에 合勢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陣地線을 回復하고 뒤이은 무리의 侵襲을 擊退하였으나 △268의 陣地線이 무너짐에 따라 이곳을 奪取한 무리마저 공세에 合流하게 됨으로써 混戰상태를 빚기에 이르자 緊急히 示達된 대대장의 명령으로 竹溪川을 渡河하여 △307로 逐次撤收하였다.

△268의 激戰: 제3대대(장, 李昌律보령)는 제11, 제10 兩중대를 左右 제1선중대로 部署하여 △268를 확보하고, 제9중대(장, 崔泳龜, 중위)를 대대에비로써 俗稱 오미쪽에 集結待機케 하고 있었는데, 右隣接인 東村洞의 工兵대대陣地線에서 銃聲이 울리고 手榴탄의 炸裂音이 山間에 크게 메아리치자 즉각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다.

그런데, 이때 工兵대대와의 間隙으로 急襲한 무리가 △268 南쪽으로 迂回하면서 背後를 찔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北쪽後線에서 待機중이던 1개 대대규모의 主力이 一齊히 正面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1, 제10 兩중대는 즉각 發射된 照明彈의 照明下에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으며, 全火力의 急射에 이어 무리져 달려드는 敵에게는 手榴탄을 集中投擲하면서 血雨霏霏한 紛戰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陣地線이 突破되면서 混戰상태에 빠졌고 肉迫戰이 展開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제9중대로 하여금 東側背로 侵襲한 敵을 驅逐하고 主力을 增援토록 명령 하자, 該중대는 東쪽後線을 타고 突進하면서 縱橫無盡으로 白兵의 格鬪를 벌였으나 漸次로 增援되는 敵의 包圍속에 陷入되어 거의 指揮體系가 무너지는 混戰을 거듭하였다.

더 以上の 支撐이 어렵고 兵力의 損失만을 加重할 뿐일 것으로 判斷하고 인대장에게 戰況을 보고 하는 즉시로 撤收를 명령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9중대가 接敵을 維持하는 가운데 孟賢永중위가 指揮하는 제11중대가 先頭에서 무리를 무찌르면서 梧溪洞高地로 逐次 撤收하여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急編陣地를 占領하였다.

이에 轉換된 野砲가 東村洞—△268를 強打하는 가운데 81mm 迫擊砲는 그 於間後線과 溪谷을 누벼 火焰으로 뒤덮었으며, 기관총을 비롯한 全 直射火器는 濃密한 火網을 물결튼 없이 댔으나, 무리는 그 十字砲火속을 뚫고 계속 달겨 들었다.

대대는 3개 중대를 一線展開하고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였으나 敵砲가 계속集注하여 塹壕나 交通壕도 미처 構築하지 못한 陣地線이 阿鼻叫喚의 慘穽場으로 바뀌는 가운데, 西側方으로 迂回한 무리가 포위공격함으로 또 한차례 紛戰하다가 右隣接인 公병대대의 掩護下에 05.00 무렵에는 昌津里高地로 물러섰다.

그런데, △276로 물러선 제 2대대(장, 朴永燮대위)가 연대예비로 轉換되고, 제 1대대가 右一線대대가 되어 △265로 轉進함에 따라 17.50에는 △276—昌津里에 이르는 一帶를 확보하고 左一線대대가 되었다.

이날, 제11중대장 孟寶永중위가 激戰中에 陣頭에서 지휘하다가 大腿部에 破片傷을 입고 後送되었으며 그 後任으로 제 1소대장 姜俊基소위가 중대장 代理로 任命되었다.

新村附近的 激戰; 제 2대대(장, 朴永燮대위)는 前날에 제 7중대(장, 金成彬대위)가 醴泉에서 復歸함과 동시에 배속중인 제 25연대 제 2중대(장, 蔡命新대위)가 公병대대로 배속이 변경되기에 이르자, 제 5, 제 6 兩중대를 左右제 1선중대로서 新村 南쪽 稜線一帶에 陣地를 編成케 하고, 제 7중대를 대대예비로서 그 南쪽稜線에 控置하여 그 東側方의 開豁地를 掩扼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대대의 陣地線은 그 東쪽과 北쪽이 開豁地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東西로 길쭉하게 뻗은 野山地帶이며, 더우기 左隣接인 제 1대대와 連繫를 이루지 못하여 西側方이 露出되어 있고 또 防禦從深을 維持할 수 없는 地形上의 脆弱點을 지니고 있었다.

果然, 工兵대대正面에 대한 急襲에 이어 西쪽의 巖洞高地에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쏟아져 내리듯 밀려들면서 제 7중대의 警戒소대陣地를 瞬息間에 突破하고, 포위를 試圖하면서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대대는 大號一聲『敵을 모조리 때려 잡으라』하는 대대장의 命令一下에 全火力을 集中하고, 수류탄과 銃劍의 瓦用으로 近接戰을 서슴치 않는 勇戰을 敢行 하였으나, 不利한 地形에서 增強된 1개 대대규모의 重圍속에 陷入된채 混戰을 벌렸다.

대대장은 戰術的인 價値도 없는 이 野山陣地를 固守기 위하여 果然貴重한 兵力損失을 甘受하고 決戰을 強要할 것인가를 생각 하였으나, 전날의 제 1대대장 尹泰鉉소령에 대한 嚴斷事實이 머리를 스치자, 敢히 撤收建議나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勇戰을 奮勵하였는데 각 중대장들도 이 대대장의 高충을 理解한듯, 先頭에서 白兵의 血鬪를 서슴치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 수록 戰況이 漸次로 惡化하자,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戰況을 보고 하는 즉시로 각중대에 撤收를 명령 하였다. 제 7중대의 掩護下에 血路를 啓開한 대대는 敵의 追尾를 阻止하면서 逐次로 離脫하여 △276로 撤收하였는데 17.00에 下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右隣接인 제 3대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309(榮州北쪽 1.5km)로 移動하여 연대예비가 되었다.

△250의 激戰: 제 1 대대는 前날의 대대장 處斷으로 이날까지도 무거운 霧濶속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이 대대장으로 就任한 曷圭英소령은 각 중대를 巡察하여 將兵들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래서 각 중대장은 罪責感에서 多少벗어나, 새로운 대대장을 中心으로 굳게 뭉쳐 대대의 不名譽를 씻기로 다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 1, 제 2 兩중대가 左右 제 1 선을 담당하고, 제 3 중대(장, 金漢龍중위)가 대대에 비로서 安心쪽 後線에 控置되어 縱深을 維持하면서, 露出된 西側背에 대한 防護를 담당 하였다.

그런데, 西側方으로 迂回하는 1 개 소대규모의 무리를 제 3 중대의 潛伏소대가 捕捉하였는데, 때마침 제 4 중대장 金光哲중위가 쓰아올린 81mm 迫擊砲의 照明下에 이들을 一擊에 覆滅하였다. 또한 後續중이던 그 主力이 사격을 集中하면서 달겨 들었으나 이미 전투태세에 突入한 左제 1 선의 기관총과 60mm 迫擊砲사격의 集中으로 이 역시 潰走하고 말았다.

이처럼 常套的인 奇襲이 事前에 捕捉되어 擊滅되기에 이르자 焦燥하여진 듯한 敵은 增強된 1 개 대대규모로써 02. 30 무렵에 懸岩洞쪽 後線을 타고 殺到하면서 한 무리를 執拗하게도 西側方으로 迂回시켰다. 그러나 즉각 誘導된 野砲의 掩護射擊下에 대대는 全火力을 集中하였는데 무리는 無慈悲한 督戰의 銃루리에 밀린듯, 계속 陣前으로 달겨 들어 彼我間에는 近接戰이 展開되었다.

兵士들은 前날의 올분이라도 풀려는 듯이 앞을 다투어 敵線으로 달겨 들어 短兵血戰을 敢行하였는데 그 힘찬 氣息소리가 山間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漸次로 增援되는 무리가 대대를 포위하고 混戰상태를 이루자,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대대의 情況을 여러 側面으로 參考하여 연대 防禦線의 再縮이 不可避할 것으로 判斷하고 △276로의 撤收를 명령 하였다.

이러한 연대장의 명령이 믿기 어려운듯, 각 중대장은 몇 차례씩 내대장에게 확인하면서 도리혀 固守를 建議하기로 하였으나 “撤收의 不履行 또한 명령의 不服從”이라는 대대장의 거듭된 명령으로 제 1 중대(장, 梁輔중위)가 掩護하는 가운데 무리의 포위망을 헤치고 05. 00에는 △276로 轉進하여 兵力을 收拾하였다.

그러나, 이때 順興쪽에 集結한 새로운 敵이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榮州로 急襲할 徵候를 보이자, 時急히 下達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17. 00 무렵에는 △265(榮州北쪽 3km)로 移動하여 연대 右一線으로서 陣地를 編成하기에 이르렀다.

## 2. 제 10 연대의 戰況

연대는 사단 左一線으로서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를 右一線, 제 1 대대(장, 朴致王소령)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鷲峯山(△275)－△256

—△493의 一帶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제 2대대가 확보한 突出된 △493는 主陣地라기 보다는 前哨陣地의인 性格을 띠었으며, 또한 逆襲基點으로서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02.00무렵부터 恣行된 敵의 奇襲의인 공격으로 陣地線이 유린된 연대는 제 3대대를 右一線, 제 1대대를 左一線으로 部署를 變更하여 正面을 遡縮하면서, △226—豆田洞線을 계속 확보하고, 제 2대대는 연대에비로 轉用되어 陽地村高地에 控置하였다.

△493의 激戰: 전날의 逆襲에서 復歸한 제 2대대(장, 鄭順基대위)는 제 5, 제 7 兩중대를 左右제 1선으로 하여 俗稱시루봉—△493에 이르는 一帶를 확보하고, 제 6중대(장, 白南洙중위)는 대대에비로서 東南쪽 稜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02.00무렵에 龍岩山쪽에서 窪地線을 따라 柳田洞을 거쳐 俗稱 주막거리로 潛侵한 1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제 5중대 左제 1선인 제 3소대(장, 張佑奉소위)의 兩側方을 急襲하였다. 戰前에 38°線 경비를 담당하였을때 注文津西北쪽의 漁城田里부근에서 매일 밤 潛侵하는 敵과의 實戰경험이 풍부한 소대장 張佑奉 소위는 沈着하게 陣頭에 서서, 兵士들을 激勵하는 즉시로 배속된 2정의 기관총으로 交叉사격의 火網을 치고,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면서 迫擊砲의 照明을 緊急要請하였다.

소대의 거센 抵抗에 크게 唐慌한 무리는 一旦 陣前에서 물러 났으나 이번에는 기관총 사격을 集中하면서 또다시 殺到함으로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벌어 졌다. 이에, 중대장 金同會중위는 李洪眞중위가 指揮하는 特攻隊(先願者 40명으로 編成된 精銳소대)를 急進시켜, 이를 遡擊케 하여 또다시 擊退하였다.

그런데, 이때 正面으로 近迫한 1개 대대규모의 主力이 俗稱 시루봉과 △493 鞍部쪽으로 衝勢를 集中하여, 제 5, 제 7 兩중대의 連繫를 遮斷하면서 兩중대를 각각 孤立시키고자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인 제 6중대의 出動을 명령하였다. 該중대는 이 鞍部쪽으로 急進하면서 무리의 背後를 찢러 포위망을 形成한 敵을 驅逐하면서 鞍部の 突破口를 封鎖하고 迫擊砲의 照明을 다시 要請하는 즉시로 제 1소대로 하여금 東쪽의 제 7중대를 제 3소대로 하여금 △493의 제 5중대를 각각 增援케 하고, 제 2소대로써 계속 據點을 확보케 하였다.

突進하면서 敵을 剔抉하는 제 6중대의 增援으로 旺盛한 戰意를 되찾은 제 7, 제 5 兩중대는 성난 獅子처럼 敵線으로 다시 뛰어 들어 血雨霏霏한 激戰을 벌였다. 그러나 계속 增強되는 敵勢를 勘當하기에는 力不足한 主力은 제 6중대 一部가 확보한 봉우리로 逐次轉進하였는데, 이때 대대 OP가 位置한 △255에서 요란한 銃聲이 울려 퍼지면서 信號彈이 계속 올랐다. 西側方으로 迂回한 1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대대 OP를 奇襲하고 계속 東쪽으로 侵襲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急報에 接한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연대에비로 控置중이던 57mm 對전차포중대(장, 崔

窟湖중위)를 豆田洞西쪽으로 急進시켜 이를 阻止케 하면서 대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제 6중대가 계속 據點을 확보하여 接敵을 維持하는 가운데, 제 5중대가 포위망을 해치고 △255쪽으로 急進하여, 侵襲한 敵을 剔抉하였으며, 제 7중대는 제 6중대의 後繼撤收를 掩護하면서 促稱 노루모기쪽으로 離脫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東녁이 밝아 올 무렵에 俗稱 노루모기—△255—帶를 확보하고 敵의 迂回到에 對備하면서 제 1대대를 支援하였는데, 제 3, 제 1 兩대대가 △191—△226—豆田洞—△208線으로 陣地線을 轉換하자 연대예비가 되어 △201(榮州西南쪽 5km)로 轉進하여 西側方에 대한 掩護를 담당하였다.

△256의 激戰: 제 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제 2중대(장, 李慶鎔중위)를 右제 1선으로 하여 △256 東쪽後線을, 제 3중대(장, 朴龍鶴중위)를 左제 1선으로 하여 △256頂上부근을, 그리고 제 1중대(장, 弓仁喆중위)를 대대예비로 하여 龍山洞高地를 확보하고, 西側方의 開豁地—帶를 掩護하고 있었다.

그런데 02.00무렵에 左隣接인 제 2대대 正面에서 熾烈한 交戰이 벌어지자, 대대장의 陣頭지휘아래 즉각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다.

02.30무렵에 俗稱 시루봉—△493 於間의 鞍部를 突破한 敵 主力이 시루봉背面쪽으로 迂回하면서, 그 一部는 龍山洞쪽으로 侵襲하였다. 대대장은 즉각 예비인 제 1중대의 1개 소대를 出擊시켜 이를 遊擊케 하였는데, 이때 敵砲가 △256—帶로 集注하기 시작하더니 增強된 1개 대대규모가 內峯庵쪽으로 부터 正面으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즉각 誘導된 砲兵사격과 彈幕을 퍼는 全 迫擊砲의 支援下에 全火力이 불을 吐하여, 개미한 마리조차도 얼씬하지 못할 威勢를 發揮하였다.

그 先鋒은 火陷속에 뒤덮혀 瞬息間에 자취를 감추고, 後繼하던 主力도 死角地帶로 뛰어들어 侵勢가 주춤하였다.

이때 彼我間에는 砲擊을 制壓하려는 듯이 對砲兵戰으로 移行하였는데 敵은 迫擊砲와 直射砲, 그리고 기관총사격을 集注하여 △256의 陣地線을 攪亂하더니, 여러 갈래의 공격 梯隊를 이곳 저곳으로 投入하여 火力의 分散을 꾀하면서 공격을 再開하였다.

이때는 이미 前날에 急造한 塹壕와 交通壕가 무너져, 거의 露出된 兵士들은 그 一角에 의지한채 銃列이 달아 오르도록 連射를 계속하면서 수류탄을 近迫하는 무리에 던지는 近接戰을 벌였다. 그러나 先頭가 물러서면 二波가 다시 달겨 들고, 뒤이어 三波 四波가 성난 이리때 처럼 밀어 닦쳐, 곳곳에서는 陣內戰이 벌어졌다. 제 2, 제 3 兩중대는 怒號하는 대대장 朴致玉소령의 陣頭지휘아래 계속 수류탄을 投擲하는 一方, 銃劍을 휘둘르며 左衝右突하는 奮戰을 거듭하였으나, 계속 밀려드는 敵勢에 밀리는 바 되어, △256 頂上부근에 橢圓形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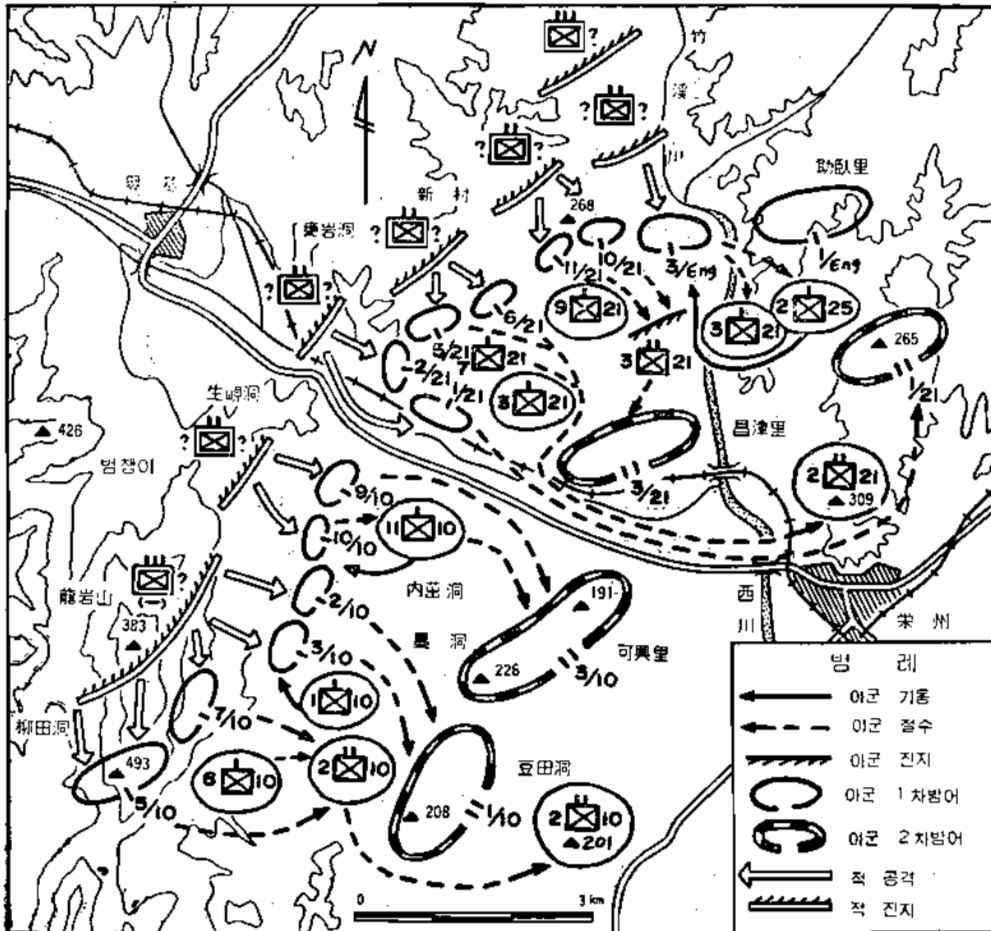
이때 △256를 다시 포위코자 迂回한 敵이 龍山洞 골짜기로 侵入하자, 대대예비인 제 1중

대장 呂仁喆중위는 81mm 迫擊砲의 照明을 要請하는 즉시로 全火力을 퍼부어 殲滅的 打擊을 주었는데, 이때 下達된 대대장의 명령으로 제 3 중대의 陣地를 回復코자 西南쪽 稜線으로 突擊을 敢行하였다. 突進한 중대는 手榴탄을 퍼붓는 즉시로 이제는 頹勢한 무리를 銃劍으로 擊殺하는 紛戰을 벌려, 西南쪽 稜線을 占據할 1개 중대규모를 驅逐하고, 主力과의 連繫를 維持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런데, 이 戰況의 急變을 눈치 챈듯한 무리는 이곳 저곳에서 信號彈을 쏘아 올리더니 陣前에서 退潮처럼 一時에 물러서고, 全 迫擊砲와 直射砲를 集中하면서 地軸을 뒤 흔드는 轟音속에 2개 대대규모로 增強된 무리가 一時에 공격을 再開하였다.

또다시 怒號하는 대대장의 陣頭指揮下에 一進一退의 紛戰을 展開하고, 즉가 誘導된 全野砲와 可用한 全 迫擊砲사격이 稜線과 溪谷, 그리고 開豁地 全域을 火焰과 硝煙으로 뒤덮어, 東녁이 틀 무렵의 새벽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상함도 제37호 7월 20일의 戰況





우리는 이 十字砲火속을 누비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계속 兩翼을 포위한채 陣前으로 달려들어, 또다시 肉塊가 飛散하는 白兵戰이 벌어졌으나 이때 사단 防禦線의 再編成이 不可避한 것으로 判斷한 사단장의 指示로 연대장은 대대의 離脫을 緊急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제 1 중대가 後續하면서 무리의 追擊을 阻止하는 가운데, 포위망을 突破하여 墨洞高地에서 제 1 중대의 離脫을 掩護하고, 豆田洞에 集結하여 兵力을 收拾하기에 이르렀다.

鷲峯山(△275)의 激戰 :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는 전날 生峴洞高地에서 불려선 以來로 제 10, 제 9 兩중대를 左右 제 1 선으로 하여, 鷲峯山—內茁洞에 이르는 稜線一帶를 확보하고, 제 11 중대(장, 李春植중위)를 대대에비로 同高地 南쪽稜線에 控置하여 東側方의 開豁地에 대한 防護를 담당케 하고 있었다.

연대 左一線인 제 2 대대正面에 대한 공격에 이어, 中央一線인 제 1 대대 正面으로 무리의 攻勢가 波及되자, 대대는 즉각 전투태세에 突入하면서 81mm 迫擊砲의 照明彈을 하늘 높이 계속 쏘아올려 경계를 強化하였다.

이때, 敵은 開豁地를 橫斷하여 內茁洞쪽 稜線으로 殺到하다가 捕捉되어 全火力의 集中 사격을 받자, 그대로 △256 東北쪽 稜線으로 侵勢를 轉換하였다.

左隣接인 제 1 대대의 果敢한 反擊으로 狼狽한 敵이 俗稱 범정이 高地로 退却하자 대대 正面에서는 小康상태를 維持하고 다만 間歇的인 砲擊만이 陣地線을 攪亂하여 濛濛한 硝煙이 一帶를 휘감고 있었다.

그런데, 2 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제 1 대대 正面으로 侵勢를 集中하여 공격을 再開하면서, 그 一部는 十字砲火에도 不拘하고 西쪽稜線으로 殺到하였으며, 2 개 소대규모는 內茁洞溪谷을 거쳐 左제 1 선인 제 10 중대의 背面으로 迂迴하여 兵士들의 戰意를 攪亂코자 하였다. 이처럼 前後兩面에서의 挾擊을 받기에 이른 同중대는 陣頭에서 阿修羅처럼 怒號하는 중대장 河相卓중위를 中心으로 毅然不屈의 氣魄으로 手榴탄을 集注하면서 短兵突入을 敢行하였다.

이에, 대대장 金淳基대위가 예비인 제 11 중대(장, 李春植중위)에 增援을 명령하자, 該중대는 內茁洞溪谷으로 急進하면서 제 10 중대를 포위한 무리를 逆포위하고, 뒤이어 대대 81mm 迫擊砲가 무리의 後續을 遮斷하게 되자, 戰勢는 瞬息間에 逆轉되어 陣內에 侵襲한 1 개 중대규모를 餘地없이 殲滅하였다.

이처럼 큰 戰果를 거두어 前날의 汚點을 씻은 대대는 3 개 중대를 一線展開하고, 제 5 번 作戰道路邊의 要地인 이곳의 重要性을 勘考한 砲兵의 優先支援으로 周邊에 濃密한 火網을 쬐자, 대대 正面에서는 무리가 萎靡하여 沈默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鐵桶같은 防禦태세로 鷲峯山陣地를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제 21 연대가 夕陽무렵에 △276 以東地域에 布陣하였는데, 제 1, 제 2 兩대대가 △226—△208 부근으로 防禦線을 再

編하게 되자, 대대는 △226로 물러나서 △191—△226—帶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 3. 乃城地區의 狀況

제25연대 제1대대(장, 林益淳소령)는 7월 13일에 사단에 배속된 뒤 乃城—帶를 확보하여 春陽쪽과 榮州에 이르는 사단의 東側方을 防護하였는데, 16일에는 그 제2중대(장, 蔡命新대위)가 榮州에 到着하여 제21연대를 거쳐 사단 공병대대에 배속되었다.

대대主力은 사단作命 제20호(50. 7. 19, 21. 00)로 이날 未明에 順興으로의 출동대세를 갖추었는데 사단正面의 空間에 點滅하는 閃光으로 미루어 激戰이 벌어지고 있는듯 하였으므로 대대장 林益淳소령이 사단에 戰況을 확인한 즉, 작전참모 權泰順중령의 『敵의 공격으로 東村洞—△268의 防禦線이 瓦解되었으니 順興공격을 中止하고 △223(榮州東北쪽 5km)—△281(△223 西北쪽 2km) —帶를 확보하여 사단 東側背를 防護하라』하는 사단作命을 奉보 받아 12. 00에 該高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下達된 國本一般명령 제20호에 의거하여 대대는 제2사단으로 부터 제8사단으로 隸屬이 變更되었다.

7월 21일 :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이 美 제25사단을 尙州正面으로, 美 제1기갑사단을 永同正面으로, 그리고 再編中인 美 제24사단을 暻州正面으로 각각 一線起用하여, 槐山—尙州線을 地境線으로 하여 그 以西正面을 美軍이 담당키로 作戰계획을 굳히었다. 軍은 이에 呼應하여 戰鬥力이 激減한 제2사단을 解編함으로써 5개 사단으로 再編하고, 제1군단을 安東으로 急進시켜 報恩에서 醴泉을 거쳐 安東으로 移動중인 首都 사단과 中央街道에서 遲延戰을 展開中인 제8사단을 지휘케 하는 한편, 제2군단에 제1, 제6 兩사단을 배속시켰으며 東海岸의 제3사단은 계속 陸本에서 直接 지휘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報恩에서 醴泉으로 進出한 首都사단의 제18연대는 美 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의 作戰任務를 引受하고, 경찰兵力 500餘名을 統合指揮하면서 醴泉의 外廓線防禦를 담당 하였다.

한편, 사단正面에서는 豊基地區를 完全히 掠取한 敵이 榮州를 目隨에 두고 最後의 攻略을 試圖하였으나, 제21, 제10 兩연대가 이를 擊退하고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 1. 제21연대의 戰況

연대는 제1대대(장, 卞圭英소령)를 右一線으로, 배속중인 공병대대(장, 金 默대위)를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3대대(장, 李昌律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265—△307—昌津里—△276를 連하는 一帶에 主陣地를 編成하고, 제2대대(장, 朴永燮대위)를 연대에 비로서 △309에 控置하였다.

각 대대는 子正무렵에 1개 중대씩을 威力수색대로 抽出하여 北쪽으로 推進시켜, 敵情을

探索하던서 때로는 奇襲으로써 敵을 攪亂케 하였다.

즉, 공병대대에서 抽出한 제25연대 제2중대(장, 蔡命新대위)가 東村洞에, 제2대대의 제7중대(장, 金成彬대위)가 △268으로 그리고 제3대대의 제9중대(장, 崔泳龜중위)가 安心里쪽으로 각각 進出하여 敵의 前哨線을 擊破攪亂하였다.

그러나, 즉각 增援된 敵의 反擊으로 逐次 撤收하였는데, 이 先制奇襲으로 敵의 常套의인 未明攻勢가 挫折된듯 萎靡沈默하였다.

그러나, 06.00무렵에는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野砲와 迫擊砲 그리고 直射砲를 △276로 集注하는 가운데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李昌律소령)는 제11중대(장, 姜俊基소위)를 右 제1선, 제10중대(장, 黃基相중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昌津里—△276를 확보하고, 威力수색임무를 遂行하고 復歸한 제9중대(장, 崔泳龜중위)를 대대에비로서 俗稱 창부부락附近에 控置하여, 一線兩중대의 間隙을 防護하면서 東側方의 江邊開豁地를 掩扼하였다.

그러나, 曇天과 濃霧로 視程이 不良한 06.00무렵에 砲擊이 熾盛을 떨더니 1개 대대규모가 一齊히 공격하였다.

대대장 李昌律소령은 이 陣地線이 榮州防禦를 위한 最後堡壘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悲壯한 決意로써 사격개시를 명령하였다.

제10중대는 野砲 및 迫擊砲의 掩護下에 8정의 기관총과 6門의 2.36"Rocket 砲를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集中하였으나, 무리는 北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稜線을 따라 正面으로 殺到하는 一方, 西側方의 開豁地를 따라 急速히 迂回하면서 △276를 포위 공격 하였다. 戰機를 看破한 中대장 黃基相중위는 즉각, 예비인 제2소대를 急進시켜 據點防禦로 轉換하는 즉시로 수류탄과 銃劍으로 血雨霏霏한 近接戰을 벌였다.

이때, 새로운 2개소대 규모가 俗稱 웃서늘기(榮州 西北쪽 3.5km)쪽 高地로 올라 붙으면서 제11중대의 昌津里陣地를 공격하고, △276 東端으로 迂回한 무리마저 昌津里로 侵勢를 擴大하자, 대대장은 예비인 제9중대에 逆襲을 명령하는 한편, 연대장에게 1개 중대의 緊急增援을 要請하였다.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예비인 제2대대의 1개 중대로 하여금, 昌津里—△276南쪽에 侵襲한 무리를 剝抉케 하는 한편, 제3대대의 奮鬪을 奮勵하였다.

한편, 대대에비인 제9중대는 俗稱 창부溪谷으로 突進하면서, 이곳으로 侵入한 무리를 一擊에 擊破하고, 一線兩중대의 東西 兩側方을 포위한 무리의 背面을 찢러 近接戰을 벌리자, 무리의 驕威가 萎縮되어 포위망이 瓦解되자 제10, 제11 兩중대는 이에 呼應하여 즉각 反擊하였다.

左衝右突하며 一騎當千의 勇戰을 거듭하는 兵士들이 怒濤처럼 急進하면서 무리를 擊殺하

는 제 7 중대(장, 金成彬대위)의 威勢에 壓倒된 무리는 戰意를 喪失하고 望風敗走하였다. 이에, 제 9 중대가 望風敗走하는 무리를  $\Delta 230$ (276北쪽 1km)로 追擊하여 그 一帶에 陣地를 확보 하였으나, 敵砲가 集注하고 安心里-梧溪洞 線의 敵이 東西 兩側方을 威脅함으로 12.00에는 예비陣地로 물러나서 예비대로서의 本然의 任務로 복귀하였으며, 增援된 제 7 중대는 무리의 再侵에 對備하여  $\Delta 276$ 南쪽의 龍頭부락에에 계속 殘留한채 西側背를 掩護하였다.

## 2. 제10연대의 戰況

前날에 激戰을 치른 연대는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를 右一線, 제 1 대대(장, 朴致玉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Delta 191$ - $\Delta 226$ -豆田洞- $\Delta 208$ 에 陣地線을 확보하고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를 연대예비로서  $\Delta 201$ 에 控置하였다.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지난 數日間에 걸친 敵의 공격이 深夜의 急襲이어서 主陣地가 번번히 포위당하게 되었음을 教訓삼아, 防禦縱深을 維持하면서 敵을 早期에 捕捉격멸키로 하고 예비인 제 2 대대主力을 敵域 깊숙히 推進시켜 埋伏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5, 제 6 兩중대가 01.00에 墨洞 北쪽稜線으로 進出하여 急編陣地를 占領하였던바, 果然 02.00무렵에 1개 소대규모를 先鋒으로 내세운 2개 중대규모의 敵이 接近하였다.

대대(一)는 그 先頭가 30m 距離로 接近하자, 全火力을 集中하는 한편, 4門의 60mm 迫擊砲로써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여 一擊에 이를 擊摧하였다.

뒤이어 砲門을 연 제 18포병대대의 野砲와 제 1, 제 3 兩대대의 迫擊砲支援사격이 敵의 反擊을 阻止하는 가운데, 대대는 陣地編成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埋伏戰의 成功으로 연대의 士氣가 크게 鼓舞되기에 이르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餘勢를 몰아 反擊키로 하고  $\Delta 256$ 의 奪取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全砲가  $\Delta 256$ 와 그 周邊의 開豁地를 強襲하는 가운데, 대대는 05.00에 現陣地線을 공격계선으로 하여, 제5, 兩 6 중대를 左右 제 1선 공격중대로 하고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增強된 1개 중대규모의 敵은 戰勢를 挽回하려는 듯이 狂氣어린 抵抗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제5, 제 6 兩중대가 兩翼을 포위하고 敵線으로 一舉에 楔入하면서 左衝右突의 血戰을 벌이자 더 支撐하지 못한 무리는 06.30무렵에 龍岩山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이로써  $\Delta 256$ 를 奪取하였는데 연대장의 새로운 명령으로  $\Delta 201$ 에 殘留한 제7, 제 8 兩중대를  $\Delta 256$ 로 急進시켜 該高地를 확보케 하고, 主力은 龍岩山으로 공격을 再開하였다.

한편, 攻勢企圖가 霧散된 敵은 2개 중대규모로서 發惡의인 抵抗을 試圖하는 한편 周邊一帶의 全曲射砲와 直射砲의 射向을 대대의 攻擊線으로 轉換하였다. 이리 因하여 대대의



〈△256를 공격하는 제5중대의 先鋒〉

공격이 잠시 停滯하였으나, 先頭에 나선 제5중대(장, 金同曾중위)가 “이곳에서의 停滯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 나를 따르라”고 怒號하며, 射彈不同一의 原則을 活用하듯 彈痕에서 彈痕으로 躍進해 나가자 兵士들로 이에 뒤따라 火焰과 彈雨속을 헤치고 射彈散布의 中心帶를 벗어나는 즉시로 巔開線을 넓혀 敵火의 分散을 꾀하면서 地步를 擴大하였다.

그러나 전날의 △256 失陷에 이어 또다시 要衝이 威脅을 받기에 이른 무리는 예비대를 增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全火力을 亂射하는 가운데 陣前破摧를 꾀하는 2개 중대 규모가 兩側方으로 迂回하기 시작하였다.

대대(一)는 가파른 벼랑에서 攻守兩面의 苦戰을 겪게되자, 砲兵의 掩護사격을 要請하고, 三面의 敵과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였다.

그러나 敵勢가 漸次로 增強되면서 그 一部가 迂回하여 退路를 遮斷코자 함으로 대대장은 逐次 撤收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苦境을 무릅쓰고 7部復線까지 突進하여 敵線을 目睫에 두고 불리셔야 하는 兵士들의 모습은 沈痛하였으나 戰況이 緊迫함으로 제5중대가 先頭에서 무리를 헤치고, 제6중대가 追擊을 阻止하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13.00에는 △256에 陣地를 확보하였다.

이때, 무리는 1개 대대규모로 逆襲을 試圖하였으나, 즉각 誘導된 砲兵掩護사격과 全火

力을 集中하는 大대의 濃密한 火網을 끊지 못하고, 무리를 撤退하고 달았으니, 마치 彼我 間에는 공을 주고 받는듯 한 戰況의 樣相을 빚고 있었다.

### 3. 사단장의 措置

한편,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제21, 제10 兩연대가 埋伏 또는 先制공격으로 敵의 深夜 攻勢企圖를 粉碎하였을뿐만 아니라, 제10연대의 果敢한 反擊으로 敵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주면서 사단 戰鬪力의 底力을 誇示하기에 이르자, 當面의 敵인 北傀 제12사단의 戰力이 限界點에 다다른 것으로 判斷하고 攻勢移轉을 考慮하여 참모회의를 긴급 召集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참모장 崔甲中중령과 작전참모 權泰順중령은 攻勢移轉을 強力히 反對하였다. 그 理由는 첫째로 敵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그 동안의 激戰으로 적지않은 兵力 및 裝備의 損失을 보았으며, 兵士들의 피로도 겹쳐, 戰鬪力이 低下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全戰線에 걸친 反擊作戰이 아닌, 사단만의 局部的인 反擊作戰이 果然 全戰線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가 疑心스럽기 때문이며, 셋째로 新兵이나 新任장교의 補充이 거의 不可能한 現況에서 反擊戰을 敢行하다가 兵力의 損失을 크게 입기라도 하면 사단에 賦荷된 遲延戰의 任務마저도 遂行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防禦를 爲主로 하되 局部的인 反擊으로 敵을 攪亂하고 戰鬪力을 蠶食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단장은 이 意見을 採擇하여 現陣地線에서 敵을 阻止擊滅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21호를 下達하였다.

『① 敵은 계속된 사단의 善戰으로 그 戰鬪力이 크게 低下한 것으로 判斷된다.

② 사단은 現防禦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先制공격과 威力수색, 그리고 埋伏을 強化하여 敵을 攪亂, 擊滅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사단공병대대를 계속 統合指揮하여 △265—△307—昌津里—△276에 이르는 現陣地線을 확보하고 東村洞—△268—安心洞에 이르는 敵域에 先制공격 또는 威力수색 대를 推進, 接敵을 維持하며 敵의 공격을 牽制하라.

④ 제10연대는 △191—△226—△208(豆田洞)에 이르는 現陣地線과 △256의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鷲峯山(△275)—龍岩山線으로 威力수색대를 推進하여 敵侵을 牽制하라.

⑤ 제21, 제10 兩연대는 57mm 對戰車砲를 사단 兵器部에 返納하고 該중대를 소총중대로 改編하라.

⑥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를 계속 統合指揮하여 俗稱 원쟁이부근에 布陣하여 敵砲를 制壓하면서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⑦ 사단 공병대대는 제21연대의 統合指揮下에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⑧ 乃城대대(제25연대 제1대대(一))는 △281—△223의 現陣地線을 계속 확보하고 사단 東側方에 대한 防護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㉑ 通信은 必히 暗號를 使用하라.

㉒ 사단指揮所는 계속 榮州에 位置한다.』

7월 22일 :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날 밤에는 豪雨로 변하였다. 그런데, 敵은 이 豪雨와 夜闇을 이용하듯, truck 20 臺로 새로운 兵力을 安心里부근으로 投入하더니, 02.00무렵에 사단규모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戰列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右一線의 防禦線이 무너져 竹溪川東岸으로 물러났고, 左一線인 제10연대는 正面뿐만 아니라 醴泉쪽에서 迂回한 2개 대대규모의 敵에게 西側背를 위협받으며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 1. 제21연대의 戰況

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 1대대(장, 曹圭英소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265에, 사단 공병대(장, 金 默대위)를 中央一線으로 하여 △307에, 그리고 제 3대대(장, 李昌律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昌津里—△276線에 각각 배치하고 각 一線대대는 埋伏組를 推進하여 防禦태세를 強化하였으며 제 2대대(장, 朴永燮대위)는 연대에 비로서 △309에 控置되어 있었는데, 제 7중대(장, 金成彬대위)는 △276 南端의 龍頭부락에서 제 3대대에 대한 支援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276의 激戰 : 제 3대대는 제 11중대(장, 대위 姜俊基소위)로써 昌津里高地를 제 10중대(장, 黃基相중위)로써 △276를 각각 확보하고, 제 9중대(장, 崔泳龜중위)로써 △230(昌津里北쪽 1km) 西南쪽稜線 一帶를, 담당케 하고, 배속중인 제 7중대의 2개 소대를 逸園洞高地로 推進시켜 埋伏과 동시에 梧溪洞—安心里에 대한 奇襲을 각각 敢行케 하였다.

그런데, 01.40무렵에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車輛으로 安心里부근으로 集結中임이 제 7중대(一)로부터 보고되자, 대대장 李昌律소령은 敵의 공격준비일 것으로 判斷하고, 연대장에게 狀況을 보고 하면서 砲兵支援을 要請하고 연대는 81mm와 可用한 60mm 迫擊砲를 集結하여, 敵을 攪亂하고 照明彈을 계속 쏘아올리므로써 무리의 공격機動을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무리는 02.00무렵에 세찬 빗발과 熾烈한 火網을 헤치며 增強된 1개 대대규모로써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 7중대(一)는 砲門을 연 제 18포병대대의 熾烈한 遮斷사격과 더불어 全火力을 集中하였으나, 무리는 계속 近迫하더니 兩翼을 포위하면서 以衆擊寡의 氣勢를 보였으므로 중대는 危地에서 脫出하여 陣地線으로 逐次 물러났다.

한편, △230 西南쪽一帶에 埋伏한 제 9중대(장, 崔泳龜중위)는 02.30무렵에 梧溪洞에서 發進하는 1개 대대규모의 敵이 東北쪽의 開豁地로 들어서는 刹那에 손기관총과 2門의 60mm 迫擊砲사격으로 그 先攻一團을 擊滅하였으나, 즉각 散開한 그 主力이 兩翼으로 공격

을 集中함으로 全火力의 速射에 이어 近迫하는 무리에 수류탄을 퍼붓고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彼我間에 熾烈한 砲擊戰이 벌어지는 가운데 陣地線에서는 塹壕와 交通壕가 무너지고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그리고 제9, 제7 兩중대를 追尾한 1개 연대규모가 陣地線으로 殺到하자, 대대는 衆心一致로 短兵血戰으로 이를 逆擊하였으나 兵力損失을 勘考한 연대장은 이 困境의 打開策으로 竹溪川 東岸에서 우선 兵力을 收拾키로 하고, 撤收를 緊急히 명령하면서, 예비인 제2대대(一)를 竹溪川 水際陣地로 急進시켜 이를 收容케 하였다.

## 2. 사단장의 措置

榮州固守를 위한 最後의 堡壘인 제21연대 제3대대의 防禦線이 무너지, 竹溪川 東岸으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309로 사단 前方 CP를 推進하고 陣頭지휘에 나섰다.

여기서 敵情을 分析한 결과 敵은 그 主攻을 △276로 指向하여 이를 掠取하고 我軍의 抵抗을 排除함으로써 榮州攻略을 促進하려는 듯이 보였다. 따라서 一部の 兵力만을 殘留한채 安心里—甕岩洞쪽으로 다시 물러서 戰列을 갖추는듯 하였으며 2개 중대규모로 推定되는 騎兵隊가 梧溪洞—東村洞—△268一帶로 遊動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左一線인 제10연대는 苦戰중이면서도 依然히 豆田洞을 中心으로 한 陣地線을 확보중이었으므로 急襲으로 要衝인 △268와 △276一帶를 奪取하여 陣地線을 확보하고 敵에게 消耗戰을 強要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223—△281一帶에서 사단의 東側方防護를 擔當한 제25연대 제1대대(一)를 즉각 △309로 移動시켜 제21연대에 배속케 하고 제21연대로써 逆襲을 敢行토록 명령 하였다.

## 3. 逆襲

이에 따라,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은 그 동안에 比較的 激戰을 치루지 않고 戰鬪力을 維持하는 單位대로 하여금 逆襲을 敢行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7. 22. 17. 50을 期하여 逆襲을 敢行하려 한다.

② 사단 公營대대(제25연대 제2중대 배속)는 梧溪洞—東村洞—△268를 奪取하라.

③ 57mm 對전차포중대는 昌津里를 奪取하고 제25연대 제1대대의 △276 공격을 支援하라.

④ 제25연대 제1대대(一)는 △276를 奪取後 계속 확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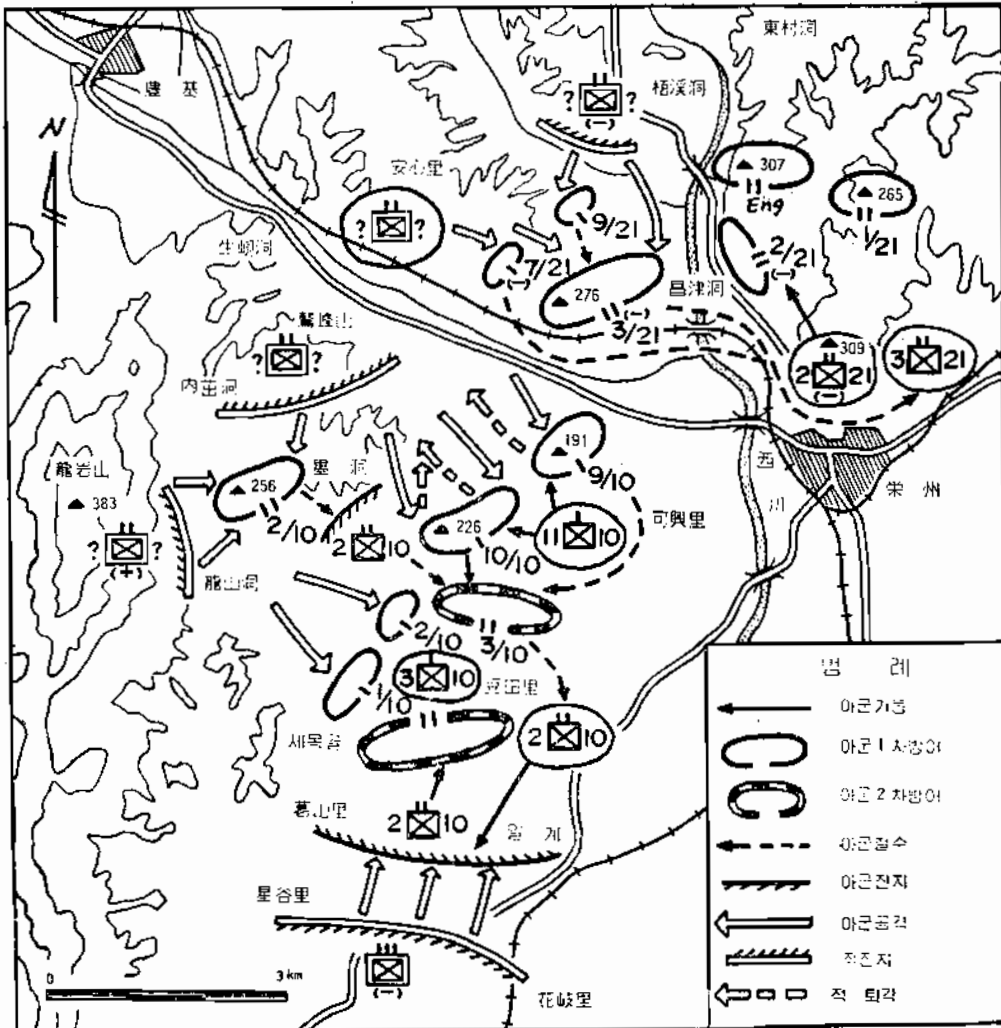
⑤ 제2대대는 제25연대 제1대대(一)의 △276奪取後, 別命에 따라 安心里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 ⑥ 제1, 제3 兩대대는 △265—△309를 계속 확보하고 別命에 따라 進擊할 태세를 갖추라.
- ⑦ 제18포병대대는 공격間 一般支援할 것이다.
- ⑧ 無電은 如何한 경우에도 暗號를 使用하라.
- ⑨ 인대지휘소는 △309에 位置한다.

△268의 奪取 : 사단공병대대는 제25연대 제2중대(장, 蔡命新대위)를 統合指揮하여 제21연대의 中央대대로서 △307一帶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逆襲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대대장 金 默대위는 제25연대 제2중대를 공격一線으로 起用하여 東村洞高地를 奪取하고, 後繼하는 工兵 제3중대(장, 吳明煥중위)로써 이를 超越하여 △268로 直衝키로 하였으며, 제1중대로써 梧溪洞高地를 牽制공격키로 하였다.

◇ 上 황도 제38호 7월 22일의 戰況



제 3대대가 竹溪川 東岸으로 撤收한 以來로 계속된 제18포병대대의 攪亂사격이 17.30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轉換되어 梧溪洞—東村洞—△268—帶를 强打하다가 17.50에 延伸되자 이에 膺接하여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工兵 제 1중대(장, 李佑彭중위)가 先鋒이 되어 長壽橋를 通過하는 즉시로 梧溪洞高地를 공격하고 제25연대 제 2중대가 이에 後續하여 竹溪川 넘어로 東村洞高地를 直衝하였다.

이곳의 무리는 砲擊에 큰 打撃을 받은듯, 1개 중대규모만이 抵抗을 試圖하였으나, 該중대의 蕩進에 크게 狼敗하여서 砲擊을 誘導하여 進路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중대장 蔡命新대위가 先頭에서 “突擊앞으로”를 怒號하는 가운데 稜線으로 올라 붙는 즉시로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敵線에 楔入하자 交叉敵舍에 무리는 四散하고 말았다.

이때 該중대를 後續하면서 공격을 支援하던 工兵 제 3중대가 이를 超越하여 東南쪽 稜線을 타고 突進하였는데, 이 곳 亦是 1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占據하고 直射砲와 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사격을 集中하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중대는 제25연대 제 2중대의 側方支援下에 地歩를 擴大하여 敵線으로 近迫하는 즉시로 수류탄 投擲戰을 벌리다가 중대장의 “突擊앞으로”의 大號一聲에 敵線으로 急襲, 短兵血戰으로 무리를 剔抉하고 19.20무렵에는 目標인 △268를 奪取하였다.

이 戰鬪에서 同중대는 敵屍 30具를 확인하고 6名의 敵兵을 俘獲하였으며 기관총 2정과 迫擊砲 1門 그리고 直射砲 2門을 鹵獲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때의 중대장 吳明煥중위는 이 戰鬪에 翻하여 述懷하기를 『가장 어려운 狀況下에서 逆襲에 成功하였다. 丹陽戰鬪 以來로 우리 중대는 步兵戰鬪를 해 왔지만 攻擊戰鬪는 처음이어서 격정을 하였는데 兵士들이 어찌나 勇敢하게 잘 싸워주는지 나 自身도 놀랐다. 敵前에 이르자 飛虎처럼 날게 敵陣으로 突入하여 瞬息間에 2개 소대규모의 敵을 殲滅하는 놀라운 戰果를 거두고, 敗走하는 敵마저도 擊滅코자 北쪽으로 急追하였으나 대대장의 명령으로 △268로 復歸하여 陣地를 編成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梧溪洞高地로 공격한 工兵 제 1중대는 예상외로 거센 敵의 抵抗에 부딪쳐 寸進尺退의 激戰을 展開하였는데 陣頭에서 지휘중이던 중대장 李佑彭중위가 貫通傷을 입고 쓸어지자 衝勢가 주춤하였는데 이때 先頭로 달려나간 제 1소대장 黃麟恰중위의 “突擊앞으로”의 怒號에 크게 힘 입어 鼓舞된 兵士들이 앞을 다투어 敵線을 突貫하면서 左衝右突의 格鬪를 벌려, 무리를 擊殺하고 20.00무렵에 目標을 奪取하였다.

이처럼 梧溪洞—東村洞—△268에 이르는 要線을 奪取, 확보하기에 이르자 砲兵은 그 周邊一帶에 불길을 퍼부어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昌津里高地의 奪取; 제21연대의 57mm 對전차포 중대(장, 徐鳳教중위)는 丹陽戰鬪以來로 연대예비대로 연대 CP경계를 담당하여 왔는데 전날에는 사단作命 제21호로 57mm 對전차포를 사단 後方 CP의 兵器部에 返納하고 소총중대로 改編하였다.

공격준비사격의 延伸과 동시에 昌津里東쪽의 竹溪川 東岸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때 先頭에서 竹溪川으로 뛰어든 중대장 徐鳳教중위는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불어난 急流에 휘말려 그대로 떠내려 갔고, 뒤이어 뛰어든 5~6명의 兵士들도 瞬息間에 자취를 감추어 버려, 救助는 姑捨間에 屍體도 찾지 못하였다.

공격 初頭에 不運을 겪은 중대는 意氣消沈하였으나, 제 1소대장 李鎧護중위는 연대장에 상황을 보고 하는 즉시로 鐵橋쪽으로 迂回하여 2정의 기관총이 掩護하는 가운데 鐵橋로 急速躍進하였다.

이때, 昌津里高地의 무리는 全火力을 集中하여 중대를 威脅함으로 兵士들은 沈木에 매달리거나 江물속으로 뛰어 드는 苦燒을 다시 겪으면서 渡河를 敢行하는 즉시로 敵線으로 突進하였다.

2개 소대규모의 敵은 무너진 壕의 一角과 나무그늘에 숨어 執拗하게 抵抗하였으나 宋濟根중위가 지휘하는 제 2소대가 側方으로 迂回하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銃劍을 끈아친채 敵線으로 突入하자 무리는 창황히 四散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20.00무렵에 目標를 奪取하였으나, 중대장을 비롯한 近 50名の 死傷者가 發生하여 戰鬥力이 크게 減退한 것을 勘考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 25연대 제 1대대(장, 林益淳소령)의 △276 奪取와 동시에 逐次撤收하여 △309 南쪽溪谷에서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276의 奪取: 제 25연대 제 1대대(장, 林益淳소령)는 7월 13일 00.01附로 사단에 배속된 以來로 乃城에서 사단 東側方을 掩護하다가 사단 作命 제 20호에 따라 榮州 東北쪽의 △223—△281로 進出하여 敵의 迂回에 對備하였는데 20일에는 國本一般명령 제 20호로서 제 2사단으로 부터 사단으로 隸屬이 變更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戰況이 急變하자 사단장의 緊急명령으로 △309로 急進하여 要衝인 △276에 대한 공격명령을 수명하였다.

地形과 敵情에 익숙치 못한 대대장 林益淳소령은 圖上研究와 望遠鏡觀測끝에 竹溪川을 渡河하여 昌津里高地를 공격하는 57mm 對戰車砲중대를 支援하면서 窺地線을 따라 △276를 공격키로 腹案을 세웠으나 竹溪川을 踏査한 결과, 水深이 깊고 急流을 이루어 徒涉이 不可能할 것으로 判斷하고, 연대장에 建議하여 榮州橋를 通過하여 제 10연대 地境인 桃花洞으로 進出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면서 榮州橋를 突破한 대대는 제 1, 제 3兩 중대를 左右 제 1선 공격중대로 部署하여 砲兵사격의 延伸과 더불어 一齊히 躍進하였다.

△276에 대한 威脅을 感得한 듯한 敵은 그 熾烈한 制壓사격에도 不拘하고, 野砲를 비롯한 迫擊砲와 直射砲사격에 이어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濃密한 火網을 퍼면서 頑強한 抵抗

을 試圖하였으나, 대대(一)는 陣頭에서 阿修羅처럼 怒號하는 대대장의 陣頭指揮下에 砲擊의 間斷을 活用하여 彈幕地帶를 벗어나, 突進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誘導된 M-2砲가 △271—△250一帶의 直射砲와 기관총陣地를 다시 制壓하기 시작하자, 이틈을 타고 대대(一)는 一路 竊進하여 西南쪽의 窪地線에서 兵力을 수습하는 즉시로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正規戰의 實戰경험이 充分치는 못하나, 오랜 동안의 共匪擊滅戰과 春陽地區에서 몇 차례의 實戰경험을 다진 兵士들은 앞을 다투어 突進하였는데, 이때 제3중대 제3소대장인 張正鉉 소위가 先頭에서 달려 나가면서 수류탄의 연속 投擲으로 敵의 기관총진지를 擊破하고, 5명의 敵을 爆殺하는 戰果를 올려, 突進路를 뚫기도 하였다.

增強된 1개 중대규모의 무리는 頑強하게 맞서 發惡의인 抵抗을 하였으나, 火焰이 뒤덮인 죽엄의 구멍텅이룬 레치고 敵線에 楔入하기에 이른 兵士들은 성난 獅子처럼 무리에게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쏘고 찌르고 걷어차는 血戰을 벌리기에 이르니, 무리는 더 支撐하지 못하고 20.30무렵에는 北쪽으로 潰走하기 시작함으로, 대대는 逸園洞高地까지 追擊하면서 戰果를 擴大하였다.

그러나 이때, △250부근에 集結한 1개 연대규모의 무리중에서 1개 대대규모가 陣前出擊함으로 緊急히 示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276로 물러나서 陣地를 急編하고 防禦態세를 強化하였다.

한편, △276의 奪取後 △250를 공격키로한 제2대대(장, 朴永燮대위)는 桃園洞으로 進出하여 待機하였는데, 공격間에 제25연대 제1대대가 確認한바에 의하면, 1개 연대이상의 규모가 集結하여, 反擊준비를 시무는 듯한 움직임을 보임으로, 공격을 일단 留保하고 長壽橋부근의 水際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 4. 제10 연대의 戰況

1개 연대규모의 敵이 02.00무렵에 빗속을 뚫고 內茁洞—龍山洞으로부터 공격을 開始하여, △256를 확보한 제2대대(장, 鄭順基대위)를 포위 공격하면서 제3, 제1兩대대 正面으로 殺到하였다.

△256의 激戰: 제2대대(장, 鄭順基대위)는 전날에 △256를 奪取하고, 龍岩山으로 계속 反擊戰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砲火와 頑強한 抵抗으로 頂上을 目睫에 두고 △256로 물러나서 突出된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는데, 02.00무렵에 內茁洞과 龍山洞으로 迂回한 1개 연대규모의 敵은 兩翼을 포위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즉각 誘導된 砲兵의 掩護사격아래 照明彈을 계속 쏘아올리는 즉시로 據點防禦에 突入하여, 近接戰으로 맞서 血戰을 벌였으나, 무리의 重圍속에 陷入되어 苦戰을 免치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敵情으로 미루어 △256의 固守는 無謀한 것으로 判斷하고,

02.30무렵에는 대대의 離脫을 命令함으로서 金同晉중위가 지휘하는 제 5 중대가 先頭에서 白兵의 格闘로 포위망을 헤치고 離脫하여, 墨洞의 稜線을 확보하는 가운데, 主力은 逐次撤收하였다.

이때 무리는 대대를 계속 追尾함으로 墨洞高地에서 또 한차례의 激戰을 벌였으나, 그 主力이 △191—△226於間과 豆田洞쪽으로 迂回하여 主抵抗線으로 殺到함으로, 대대는 거듭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201의 예비陣地로 물러나서 兵力을 收拾하고 再編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이 撤收過程에서 제 5 중대의 李洪眞중위는 特攻隊長으로서 2정의 기관총과 5門의 2.36" Rocket砲를 휴대하고 墨洞高地에 끝까지 殘留하여,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다가 該陣內로 侵襲하게 되어 물러서게 되었는데, 이때 李중위와 같이 맨 後尾에서 물러서던 孫錫根下士가 敵彈에 쏘어졌다. 李중위는 그를 부축하였으나, 그는 자기로해서 소대장마저 敵에게 사로잡힐 것을 걱정하면서自己是 이곳에서 몇 놈이라도 더 해치우고 自決하겠으니 수류탄만 남겨놓고 어서 撤收하라는 것이었다. 李중위는 달려도 보고 호통도 쳤으나 그는 決心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敵影이 30m距離로 닥아서자 李중위는 3발의 수류탄을 그에게 남겨주고, 눈물을 뿌리며 물러섰는데, 이때 CAR소총의 連發音에 이어 수류탄의 炸裂音이 계속 터졌고 뒤이어 “소대장님! 먼저 잡니다”라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수류탄의 炸裂音이 들린 뒤에는 四方이 조용하여졌다.

△226의 激戰: 제 3 대대(장, 金頂基대위)는 제 9 중대(장, 朴炳奭대위)를 右 제 1선으로 하여 △191에, 제 10 중대(장, 河桓阜중위)를 左 제 1선으로하여 △226에 각각 配置하고 제 11 중대(장, 李春植중위)는 대대에 비로서 可興里西쪽의 無名高地에 控置하여 一線중대의 間隙을 防護하면서 東側方을 掩護케 하였다.

그런데 02.00무렵부터 主陣地帶에 砲擊이 熾盛을 떠는 가운데 △256의 제 2 대대를 포위 공격하더니 그 一部는 內苗洞에서 俗稱 한 고개로 밀려들어 △191—△226於間의 溪谷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제 11 중대의 2 개 소대를 西北쪽 稜線上의 陣地線으로 急進시켜 이 敵을 邀擊하면서 제 9, 제 10 중대를 增援케 하고, 桃花洞쪽 道路邊에 埋伏하였던 1 개 소대를 예비陣地로 撤收, 待機케 하였다.

△226에서 陣頭指揮에 나선 대대장은 81mm迫擊砲를 俗稱 한고개 一帶로 集中케 하고, 照明彈을 계속 쏘아 올려, 陣前의 水田地帶로 무리가 물러드는 것을 捕捉하자, 全 直射火器의 交叉사격으로 火網을 띄 이를 阻止케 하였다.

그런데 墨洞高地로 물러나서 遲延作戰을 벌리던 제 2 대대가 主陣地帶 南쪽으로 轉進하기에 이르자, 緊要하게 追尾하던 무리중에서 1 개 대대규모가 △226 西南端의 小川堤防을 따라 제 1 대대와 間隙을 突破하려는가 하면, 正面에서 一旦 물러섰던 무리마저 배를 같이 하여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敵의 企圖는 △191—△226의 地隙과 △226豆田里의 於間으로 優勢를 集中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陣地線을 突破하고 退路를 遮斷하면서 포위코자 하는 것으로 判斷한 대대장은 △191의 제 9중대가 제 11중대主力을 統合지휘하여 正面을 遞縮하면서, 虛隙을 封鎖하고 제 11중대의 1개 소대와 左 제 1선인 제 10중대의 예비소대가 제 1대대와 協同하여, 小川을 따라 侵襲하는 무리를 擊滅케 하면서, 迫擊砲支援의 優先權을 이곳에 두었다.

漸次로 增強된 2개 대대규모의 무리는 一波에 이어 二波, 三波를 거듭 投入하여 계속 侵攻함으로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血戰이 벌어져, 阿鼻叫喚의 修羅場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제 12중대장 崔根和중위는 射擊誤差를 줄이기 위하여 △226 東쪽溪谷으로 迫擊砲陣地를 推進하고, 自身の 直接 射擊指揮下에 陣內사격을 彷彿케 하는 사격으로 敵線을 強襲하였는데, 이때의 參戰者들은 “鬼神같은 迫擊砲사격이었다”라고 일을 묻어 述懐하였다.

이와같은 迫擊砲支援으로 敵線이 좁아지기 시작하자, 대대는 기관총 사격과 Rocket砲 사격을 퍼부어 무리를 陣前에서 또다시 擊退하고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었다.

△208의 激戰: 제 1대대(장, 朴致玉소령)는 제 1, 제 2 兩중대를 左右 제 1선으로 하고, 제 3중대(장, 朴龍鶴중위)를 대대에 비로 하여 豆田里—△208에 이르는 一帶를 防禦하였다.

그런데 △256의 제 2대대에 대한 포위공격에 이어 1개 대대규모의 敵이 02.30무렵에 俗稱 노루모기稜線으로부터 正面으로 공격하더니 제 2대대를 追尾한 새로운 1개 대대규모가 제 3대대와 間隙인 웃마을과 俗稱 반지미於間의 堤防을 타고 陣地線을 突破코자 殺到하였다.

대대는 朴致玉소령의 秋霜같은 命令下에 全 迫擊砲와 기관총 그리고 Rocket砲를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集中하여, 이를 阻止코자 奮戰하였으나 무리는 계속 밀려 들면서 三面으로 合勢하였다.

平素에는 陣地線의 露出이 不可避한 迫擊砲의 照明을 파히 좋아하지 않던 대대장도 이날은 즉각 照明彈을 發射케 하고, 예비인 제 3중대를 俗稱 반지점으로 急進시켜, 侵襲하는 무리를 邀擊케 하고, 뒤이어 右 제 1선인 제 2중대(장, 李慶鎔중위)를 △208쪽으로 增援케 하였다.

俗稱 노루모기 東南쪽 開豁地에서 火網에 휩싸인 무리는 一旦 擊退되었으나, 제 2대대의 轉進을 追尾한 主力의 殺到와 때를 같이하여 侵攻을 再起하였다.

대대장의 “陣地離脫이란 있을 수 없다. 중대장은 最一線에서 陣頭指揮하라”하는 獅子吼속에 衆心一致한 대대는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려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그런데, 17.00무렵에 醴泉에서 迂回한 2개 대대규모의 새로운 敵이 花岐里—星谷里線으로 侵襲하여 西側背를 威脅하였다.

제 2대대의 赴援: 이에 연대장 高根弘중령은 △201의 예비陣地에서 再編을 마치고 待機

中인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에 즉각 出動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7.30무렵에 △201에서 躍進한 대대는 제 5 중대로 하여금 무리의 先遣支隊를 邀擊케 하면서, 19.00무렵에는 葛山里東쪽 高地—俗稱 일계 東쪽高地에 이르는 一帯에 急編 陣地를 占領하는 즉시로, 誘導된 野砲支援과 迫擊砲의 掩護사격아래 局地的인 侵攻과 攪亂을 試圖하는 무리를 擊退하였는데, 醴泉에서 直線距離 15km를 行軍한 무리는 미처 戰備를 갖추지 못한듯 그 侵勢는 보잘것 없어서 대대는 陣前出擊하여 도리혀 敵線을 攪亂하기도 하여 22.00무렵에는 陣前에서 完全히 擊退하였다.

敵의 大擧공격: 右隣接인 제21연대의 反擊戰이 奏效하여 東村洞—△268—昌津里—△276의 陣地線을 回復하고, 연대는 敵의 포위공격을 물리쳤으나, 무리는 23.00무렵에 熾烈한 砲擊을 尠부우면서 增強된 2개 연대규모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右一線인 제 3 대대(장, 金淳基대위)는 T-34戰車 5臺와 SU-76自走砲 4門의 直接支援을 받는 1개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자, △226로 正面을 遞縮하여 血戰을 거듭하다가, 명령에 따라 豆田洞 東北쪽의 俗稱 반지미稜線으로 물러나서 陽地村에 이르는 稜線一帯를 확보하였다.

한편, 葛山洞—俗稱 일계 東쪽高지를 확보하였던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는 거센 물결처럼 밀려드는 敵勢에 밀려, △201—俗稱 세목골에 이르는 線으로 正面을 遞縮하게 됨으로써, 연대는 子正이 지났을 무렵에는 豆田里를 中心으로 橢圓形陣地를 編成하고, 決戰防禦 태세에 突入하였는데, 俗稱 선바위(榮州 西北쪽 4km)附近까지 侵攻한 戰車와 自走砲가 騷威를 誇示하는 가운데 무리는 포위망을 漸次로 壓縮하고 있었다.

7월 23일: 豆田里附近에서 제10연대(장, 高振弘중령)를 完全히 포위한 敵은 T-34戰車 5臺와 SU-76 自走砲 4門, 그리고 이를 掩衛하는 對戰車砲 4門을 앞세운 1개 중대규모의 무리로서 10.00무렵에는 榮州로 侵入하고, 제21연대의 陣地線을 뚫은 무리와 제 5 번 作戰道路를 따라 後繼하는 무리가 續續 榮州로 集結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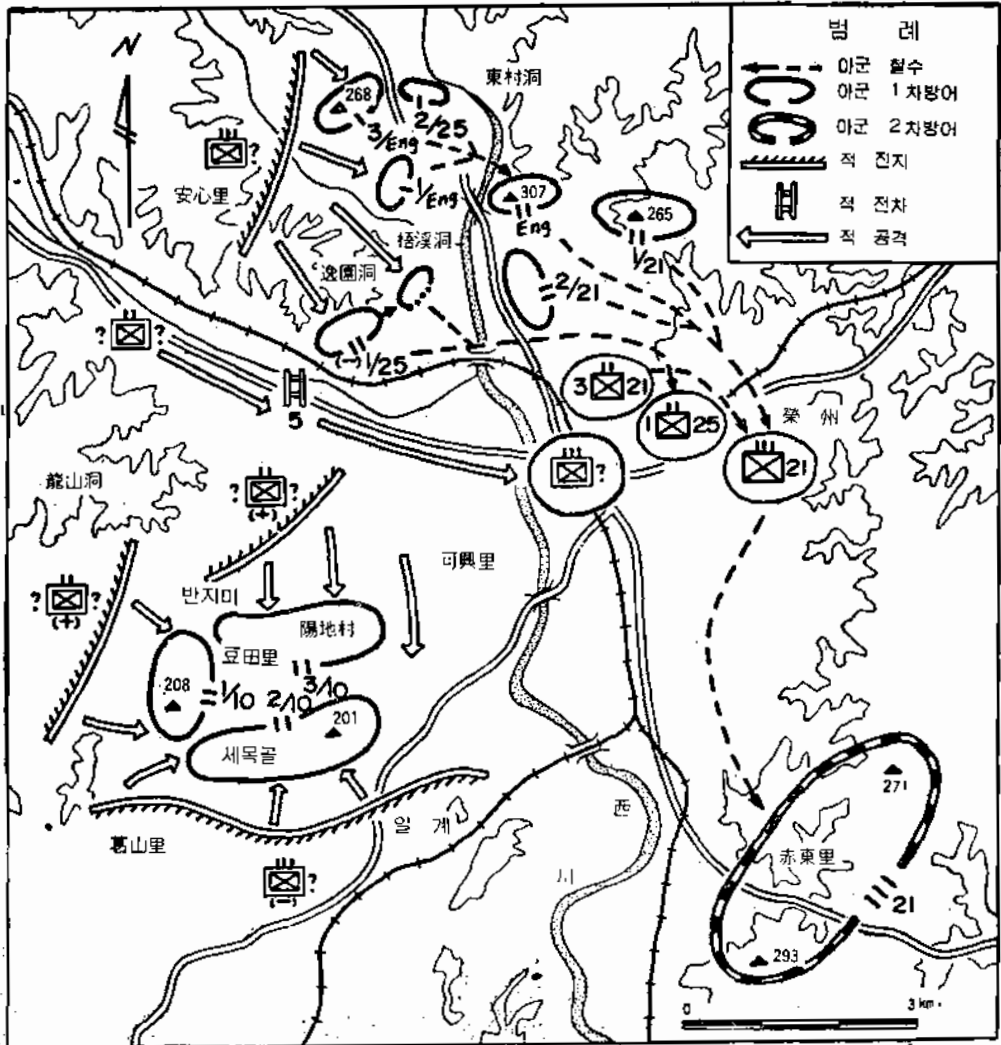
한편, 陣地線의 瓦解로 03.00무렵에 竹溪川東岸으로 轉進한 제21연대는 敵이 榮州邑을 席捲하자 東南쪽 6km에 있는 △271—赤東里—△293 一帯로 다시 물러나서 急編防禦에 突入하여 敵의 계속적인 南侵에 對備하였다.

또한, 사단의 急迫한 戰況보고에 接한 陸本에서는 12.00무렵에는 作命 제64호를 下達하여 수도사단隸下의 제18연대 一部를 急進시켜, 제10연대의 離脫을 掩護토록 명령하였다.

### 1. 제21연대의 戰況

연대는 전날 17.50에 反擊을 敢行하였는데 사단 공병대대(장, 金 默대위)가 梧溪洞—東村洞—△268를, 57mm對戰車砲 중대(장, 李鍾護중위)가 昌津里를, 그리고 제25연대 제 1 대대가 △276를 각각 奪取하여 戰勢를 換回하는듯 하였다.

◇ 上 황도 제39호 7월 23일의 戰況



그런데, 前半夜인 23.00무렵부터 제10연대 正面에 대한 大舉攻勢에 이어, 01.00무렵에는 戰車와 自走砲의 近接支援을 받는 1개 연대규모가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여 陣地線을 威脅하였다.

△268—東村洞—梧溪洞高地線의 激戰: 사단 공병대대는 前記한 高地群을 奪取하고 工兵 제 3 중대(장, 吳明煥중위)가 △268를, 제25연대 제 2 중대(장, 蔡明新대위)가 東村洞을, 그리고 工兵 제 1 중대(장, 黃麟治중위)가 梧溪洞을 각각 奪取, 확보하였다.

그런데, 01.00무렵에 野砲와 直射砲 그리고 迫擊砲사격을 陣地線一帶로 集注하는 가운데 增強된 1개 大隊규모의 무리가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즉각 사격을 集中하여 이를 阻止코자 紛戰하였으나, △268로 그 侵勢를 集中한 무리는 제 3 중대의 陣地를 瞬息間에 뚫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逐次로 東村洞으로 물러나서 제 25연대 제 2 중대와 合勢하여 橢圓形陣地를 編成하고, 수류탄과 銃劍으로 短兵格鬪를 서슴치 않았으나, 多發銃만을 장비한 무리의 先攻에 이어 수류탄만을 가진 무리가 계속 달려들고, 뒤이어 또다른 무리가 殺到함으로 兩중대는 工兵 제 1 중대의 掩護下에 窪地線을 따라 離脫하여, 竹溪川을 急速 徒涉한 다음에 △309에서 兵力을 收拾하였다.

△276의 激戰: 제 25연대 제 1 대대(一)는 전날 20.00무렵에 △276를 奪取하고 제 1, 제 3 兩중대가 左右 제 1 선이 되어 該高地를 확보하였는데, 23.00무렵에 俗稱 선바위附近 道路上에 나타난 T-34戰車 5輛와 SU-76自走砲 4門이 제 10연대 正面으로 사격을 集中하더니 01.00무렵에는 제 18포병대대의 對戰車牽制포격에도 不拘하고 △276로 사격을 集中하여 陣地線을 攪亂하는 즉시로 增強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死傷者가 續出하는 渦中에서 대대(一)는 砲兵사격의 掩護下에 敢然히 陣地線을 박차고 달려나가 사격과 수류탄 投擲, 그리고 白兵格鬪의 瓦用으로써 그 衝勢에 맞섰으나, 계속 增強되는 무리의 포위 공격으로 重圍속에 陷入하였는데, 02.00무렵에는 緊急히 示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포위망을 헤치고, 血路를 開拓하면서 水深이 들어든 竹溪川을 徒涉하여 △309부근에서 兵力을 收拾하였다.

연대의 轉進: 이처럼 연대가 竹溪川東岸의 △309부근으로 集結하였을 때, 敵은 戰車와 自走砲사격을 榮州—△309 一帶로 集注하면서 機動하기 시작하자 사단장 李正—대령의 『연대는 △271(榮州 東南쪽 5.5km)—赤東里—△293線을 확보하라』하는 명령에 따라 08.00에는 榮州부근에서 물러서기 시작하여, 11.00무렵에는 제 25연대 제 1 대대를 右—線, 제 2 대대를 中央—線, 그리고 제 3 대대를 左—線으로 하여 陣地線을 확보하고, 제 1 대대는 연대에 비로서 俗稱 장자골에 控置되었는데, 이 무렵에 배속중이던 砲兵대대는 배속해제와 同時에 復歸하여 本然의 任務로 돌아갔다.

## 2. 제 10연대의 戰况

전날 未明부터 계속된 공격을 22.00에는 完全히 擊退하였으나, 23.00무렵에는 戰車와 自走砲 그리고 醴泉에서 迂回한 무리가 主力과 合流하여 豆田洞一帶에서 연대의 三面을 포위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後方이 遮斷되고, 無援孤立의 狀況下에서 苦戰을 免하지 못하였다.

즉, 연대는 前날에 醴泉으로부터 迂回한 무리가 左—線인 제 1 대대(장, 朴致王소령)의 西側背를 威脅하자, 예비인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를 葛山里—俗稱 일제로 急進시켜 이를 擊退하였으나, 23.00부터 再開된 敵의 步戰砲의 協同공격으로 右—線인 제 3 대대(장, 金淳

基대위)가 陽地村—俗稱 반지미로, 제 2 대대가 △201—俗稱세목골로 각각 正面을 遞縮함으로써, 豆田洞의 제 1 대대를 中心으로 四周防禦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연대가 兩翼防護기능을 喪失하기에 이르자 2개 연대규모로 推定되는 敵은 거침 없이 侵襲하여 三面을 포위하고 壓迫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즉각 誘導된 全사단砲兵의 彈幕사격을 彷彿케하는 熾烈한 近接支援下에 全연대의 81mm와 60mm迫擊砲, 기관총과 2.36" Rocket砲를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發揮하여, 개미 한 마리도 얼씬 하지 못하리만큼 濃密한 火網을 퍼면서 決戰意志를 굳게 다지며 奮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첩戰의 銃우리에 밀리는 듯, 계속 梯波공격을 취하여 곳곳에서는 수류탄 投擲과 白兵의 格鬪가 벌어졌다.

각 대대는 대대장의 陣頭指揮와 예비대의 適切한 運用으로 突破口를 즉각 封鎖하고, 때때로는 果敢한 陣前出擊으로 侵勢를 꺾어 東天이 밝아 올 무렵에는 敵勢도 한풀 꺾인듯 하였다.

그러나, 제21연대가 赤東里附近으로 轉進하고, 사단지휘소가 麴泉으로 移動中이라는 事實이 알려지자, 將兵들의 戰意에 影響을 미쳐 한때 動搖의 빛이 짙게 감돌았으나 뒤이어 示達된

『① 사난은 제16연대와 제18연대가 赴援하는 즉시로 逆襲을 敢行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계속 豆田里一帶를 확보하라』하는 사단장의 명령으로 다시 戰意를 가다듬고 奮戰을 거듭하였다.

기갑부대를 先頭로 한 敵의 한 무리가 榮州로 侵襲하였을 무렵, F-80 1개 편대는 榮州를 強襲하여, 濛濛한 黑煙이 하늘을 덮었고, F-51 1개 편대는 豆田里를 에워싼 敵線을 強襲하여 兵士들의 士氣를 드높였다.

그러나, 敵의 執拗한 포위공격은 계속되어 연대는 다음날 05.00무렵에야 △188(榮州 南쪽 3km)로 急進한 제18연대 제 1 대대(장, 張春權소령)의 掩護下에 重圍속을 헤치고 離脫하기 시작하여 西川徒涉를 敢行한 끝에 金光里에서 兵力을 收拾하기에 이르렀다.

### 다.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7월 12일 21.00에 竹嶽을 불려나서 豊基邑을 中心으로 V字型陣地를 編成하고, 同월 14일에 接敵을 시작한 以來로 10일間에 걸쳐서, 當面の 北傀 제 8사단에게 1개 연대규모 以上の 打撃을 주어, 北傀 제12사단과의 交替를 強要하였으며 새로운 敵과 寸進尺退의 激戰을 거듭하여 무리의 侵勢를 遲滯케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23일에 恣行된 敵의 步戰砲協同공격으로 榮州를 失陷한데 이어 제10연대가 豆田里一帶에서 무리의 重圍속에 陷入하였으나 연대의 奮戰과 陸本作命 제64호에 의거하여 急進한 首都사단 제18연대 제 1 대대의 掩護로 24. 05.00에는 포위망을 헤치고 離脫하여 主力과 合勢하기에 이르렀다.

國本一般명령 제20호에 의거하여 제 2사단으로부터 사단으로 隷屬이 변경키로된 제16연대(장, 文容

彰대령)가 24일 23.40에 襄泉으로 進出함으로써 사단은 49년에 創設된 以來 처음으로 3개 연대를 갖춘 正規사단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단은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가 右一線으로서 △271—赤東里—△293를 확보하고,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가 左一線로서 西川 東岸一帶를 占領하여 再編하는 가운데 제16연대는 襄泉에서 反擊준비에 着手하였는데, 25일에는 제2군단으로부터 安東으로 進出한 제1군단(장, 金弘登소장)으로 배속이 변경되면서 示達된 軍단作命에 따라, 反擊을 留保한채 제21연대를 △289(襄泉東北쪽 8km)—△570에, 제16연대를 △397(襄泉北쪽 3km)—△482에 그리고 제10연대를 葛尾峯(△548)에 각각 배치하여, 乃城川 南岸에서 防禦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綠兎부대라는 別稱 아래 共匪擊滅戰에서 勇名을 떨친바 있는 제25연대 제1대대(장, 林益淳소령)가 제21연대에 編入되어 제1대대로 改編되고, 제1대대장이던 曺圭英소령이 제2대대장으로, 그리고 金道顯소령이 제3대대장으로 就任하여 새로운 陣容을 갖추었다.

한편 23일 아침에 榮州區內로 侵入한 北傀 제12사단은 我 제10연대마저 西川을 渡河하여 離脫하기에 이르자, 主力가 榮州一帶에 集結하여 戰備를 갖추는듯, 別다른 움직임 보이지 못하던니, 28일에는 그 先遣支隊가 金光里 北쪽의 △334로 侵襲하였으나, 제10연대가 乃城川을 渡河하여 이를 擊退함으로써 다시 接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소령

(1966년 7월 5일 大韓石炭公社理事室에서, 예대령)

竹嶺을 撤收한 사단은 제21연대를 右一線, 제10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豊基를 中心으로 V字型 陣地를 占領하고, 敵主力를 誘引해서 陣地線內로 몰아넣고, 一舉에 擊破함으로써 丹陽戰鬪를 雪辱코자 하였다.

이 陽動作戰이 成功하여 初戰에서 1개연대 규모를 擊碎하였으나, 그 다음부터는 激戰을 거듭하였는데 이때 戰鬪力을 크게 喪失한 北傀 제8사단은 제12사단과 交替치 않을 수 없었다.

戰鬪力을 제법 갖춘 제12사단과의 戰鬪는 더욱 熾烈하여,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물러서고, 또 逆襲을 敢行하곤 하였다.

특히, 이 戰鬪에서 우리 제1대대는 공격하는 敵을 逆包圍하여 8名의 敵兵을 俘虜하였는데, 이때 제3중대 제2소대장 崔錫天중위가 이들을 끌고 意氣揚揚해서 나에게 오자, 나는 壯하다고 稱讚하는 代身에 호되게 氣슴을 주어서 陣地線으로 쫓아 보냈다. 왜냐하면 交戰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소대지휘는 하지 않고 1개 士兵도 能히 할 수 있는 것을 소대장이 直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난들 어찌 기쁘지 않고, 그의 戰功을 致賀하여 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정말 우리 將兵들은 命수없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勇戰을 서슴치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記憶이 나는 것은 豆田洞에서 포위망을 突破하고 西川을 渡河하여 撤收할 때, 어느 대대가 阻止부대로서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게 되어 있었는데, 西川을 간신히 渡河하여 보니까 그 대대가 먼저 와서 쉬고 있어서, 憤慨한 일이 있었다. 如何間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全戰鬪力을 보조리 發揮한 壯快한 戰鬪였다.

### ◇제10연대 작전주임장교 殷炯元소령

(1978년 3월 24일 三角地에서, 예대령)

豊基—榮州戰鬪는 정말로 熾烈한 것이었다.

이 무렵에, 江陵에서 돌아갔던 美 고문관들이 復歸하여, 空地協同作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勞務者를 動員하여 推進補給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비행기가 이들에 대한 誤爆으로 損失이 많아서 補給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곳에서 記憶에 남는것은 어느날 제5번 作戰道路를 따라 애를 업은 婦人이 避難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無慈悲한 敵은 이 婦人에게 射擊을 퍼부어 쓸어 드렸다. 이때 킬었는 얘기는 입마의 가슴을 헤치고 젖을 찾다가 울음을 터뜨리는듯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將兵들은 戰爭의 慘相함을 實感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즉각 사단에 連絡하여 이 地域에 대한 모든 射擊을 中止토록 要請하고 5명의 수색대원을 選出하여 兜兒救出作戰을 벌였다.

그런데 敵이 또다시 사격을 集中하여 2명의 수색대원이 쓸어지고 도저히 아기에게 接近할 수가 없었는데 또다시 交戰이 벌어짐으로써 아기 救出作戰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 일은 永遠히 잊지 못할 것이다.

◇ 제21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장 李鍾護중위  
(1978년 4월 4일 安養 新新테니스場에서)

豊基—榮州戰鬪는 정말 熾烈하였다. 또 陽動作戰이 奏效하여 엇모르고 陣前으로 다가온 敵을 두차에 걸쳐 奇襲사격으로 때려 잡아, 北傀 제 8사단은 제12사단과 交代를 하여야 하리만큼 甚대한 打撃을 입었다.

그런데 對戰車砲중대는 地形條件과 이때까지 敵의 기갑부대가 出現하지 않아서 57mm砲는 사단에 返納하고 소총중대로 改編하여 연대 예비대로서 CP경계를 담당하였다.

敵의 大舉공격으로 榮州를 물러서기 전날에 主抵抗線이 무너지고, 竹溪川東岸으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우리중대는 昌律里로 逆襲을 敢行하게 되었다.

이 때, 竹溪川은 暴雨로 水深이 붙어 急流를 이루고 있었는데, 공격 開始와 더불어 先頭에서 물속으로 뛰어든 중대장 徐鳳教중위가 손쓸 사이도 없이 急流에 휘말려 떠내려가서 屍體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중대를 指揮하여 鐵橋를 타고 渡河하는데 敵의 기관총사격이 集中되어, 橋上에서 修羅場을 이루어 어떤 兵士는 물속으로 뛰어 들고, 어떤 兵士는 沈木에 매달리기도 하였다가 잔인히 鐵橋를 건너,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突撃을 敢行하여 目標를 奪取하였다.

그러나, 중대의 兵力損失이 큰 것을 憂慮한 연대장은 제25연대 제1대대의  $\Delta 276$ 奪取와 同時에 撤收한 명령함으로  $\Delta 309$ 로 물러나서 또다시 연대에비가 되었다.

◇ 사단 공병대대 제3중대장, 吳明煥중위

(1978년 5월 3일 徐正爾씨 사무실에서, 예대령)

敵이 順興쪽으로 迂回하여 사단東側方을 威脅하기에 이르자, 공병대대의 제1, 제3 兩중대는 東村洞— $\Delta 268$ 로 急進하여 東側背를 防護하였다.

그러나, 제21연대의 陣地線이 무너지,  $\Delta 268$ — $\Delta 250$ 線으로 轉進할 무렵에는 연대에 배속되어, 그 右—線이 되었다.

그러다가 7월 22일에 연대가 竹溪川東岸으로 물러나서 逆襲을 敢行할 때, 나는 主攻중대로서  $\Delta 268$ 를 奪取하였다.

즉, 先攻중대인 제25연대 제2중대가 東村洞高地를 奪取하자, 우리 제3중대는 이를 超越공격하였는데, SCR-536과 609가 이 무렵에 補給되어 作戰指揮가 容易하였을 뿐만아니라, 兵士들이 豫想外로 勇敢하게 잘 싸와 주어서, 敵屍 30具를 확인하고, 捕虜 6名, 直射砲와 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을 鹵獲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 § 戰 訓

◇ 逆襲에 대하여

逆襲의 目的은 陣地回復에 있으며, 이는 集中의이고 迅速果敢하여야 한다.

그런데 19일에 있는 사단의 逆襲에 있어서 제21연대는 散發의이고 消極의인 逆襲을 敢行하였다.

池洞里— $\Delta 377$ — $\Delta 250$ 等 대대별의 多目標를 賦與할 것이 아니라 單一目標를 選定하여 集中의인 逆襲을 敢行하고 逆襲의 進展에 따라 全力으로서 攻勢移轉하거나 一部兵力으로 副次的인 目標에 대하여 逆襲을 敢行하고 回復한 陣地線의 固守意志를 分明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2개 연대뿐인 사단이 兵力補充의 길이없는 狀況下에서 兵力消耗를 憂慮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나, 逆襲은 逆襲으로서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끔 作戰이 指導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萬若, 敵 攪亂이 目的이라면 小數兵力의 急襲으로 遂行되어야 하고, 逆襲이 威力搜索과 倒錯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聞慶 附近 戰鬪(1950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1 호

상 황 도 제 40~42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2군단	장 준장 金 白 一	제 1대대	장 소령 崔 柄 默
제 6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제 2대대	장 소령 金 龍 起
제 2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 3대대	장 소령 金 韓 德
제 1대대	장 중령 朴 魯 珪	제 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聖
제 2대대	장 대위 李 鍾 基	사단 工兵대대	장 소령 朴 正 采
제 3대대	장 소령 李 雲 山	사단 教育隊	장 소령 徐 延 學
제 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隣接部隊	
제 1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右隣接	
제 2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제 8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제 3대대	장 중령 李 南 浩	左隣接	
제 19연대	장 대령 閔 丙 權	제 1사단	장 대령 白 善 權
北 傀		敵 軍	
제 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포령연대	장 대좌 玄 學 奉
제 1사단	장 소장 崔 光	제 13사단	장 소장 崔 鱗 鎮
제 1연대	장 대좌 黃 石	제 21연대	장 대좌 李 承 俊
제 2연대	장 대좌 金 陽 春	(제 19, 제 23연대는 本戰鬪에 直接 加擔하지 않은것으로 判明됨)	
제 3연대	장 대좌 李 昌 權		

## 나. 전투 전의 개황

戰鬪이 勃發한지 10餘日이 지난 7월 初에 어느덧 戰線이 漢水以南으로 밀리게 되자 陸軍은 UN地  
上軍의 參戰과 더불어 車嶺山脈 回廊에서 戰線整備를 꾀하는 한편 北緯 37°線에 沿한 堤川-忠州-陰

城—鎮川—安城—平澤線에 阻止線을 形成키로 하였다.

그러나 初戰의 紛亂을 수습하기도 전에 中·西部 地域으로 殺到한 敵이 車嶺山脈을 넘어서고 보니 이제 한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小白山脈의 峻嶺과 錦江河谷을 防壁로 삼아 새로운 防禦戰을 計劃하기 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錦江線 防禦作戰』으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38°線에서 물러선 以後 처음으로 劃一的인 戰線을 형성하고 遲延戰을 展開케 되는 바, 이 作戰의 一環으로 金鐘五대령이 지휘하는 제 6사단이 開慶地域을 맡아 中部 內陸으로 侵攻한 北傀 제 1사단(장, 崔光)과 對決케 된다.

本節에서는 이 局面을 다루어, 7월 13일부터 시작된 鳥嶺과 梨花嶺의 싸움이 마침내 同월 17일에 顯江線(開慶 南쪽의 洛東江 支流) 防禦로 매듭지어지기까지의 過程을 取級케 되는데, 이 作戰地域은 忠州에서 開慶과 店村을 거쳐서 尙州에 이르는 中部의 要域으로, 萬一 이곳이 突破된다면 洛東江畔으로 물러설수 밖에 없는 兵要地誌상의 要衝인 까닭에 彼我間에 이를 重視하여 攻防血鬪를 벌이게 된다.

특히 三南의 境界이기도 한 이 地域은 太白山에서 西南쪽으로 떨어내린 小白山脈이 文羅峰(△1162)—鳥嶺山(△1017)—白華山(△1063)—長成峰(△915)등 海拔 1,000m內외의 屹立한 峻峰과 竹嶺—鳥嶺—梨花嶺—秋風嶺등 峻嶺으로 이어지면서 橫壁을 이루어 예로부터 防者의 塞微로 널리 알려진 까닭에 上下間에 이 邊域의 重要性을 크게 強調하였으며 사단으로서도 또한 이를 重視하여 固守키로 다짐하였던 것이다.

敵軍의 狀況: 제 6사단이 開慶에서 防禦態勢로 들어간 12일 現在, 當面에는 北傀 제 1사단이 水安堡(開慶 西北쪽 22km)에 集結하여 崔光의 지휘하에 尙州—咸昌—尙州 軸線으로 계속 侵攻코자 그 準備에 狂奔한 것으로 알려졌다.

同사단은 開戰 初期에 西部戰線에서 臨津江을 건너 서울로 侵入한 부대로서 漢水以北에서는 我 제 1사단(장, 白善燁대령)과 對決한 바 있었는데 漢江을 渡河한 以後에 中部의 內陸地域으로 進路를 바꾸어 廣州—驪州를 거쳐 長湖院쪽으로 南下하였다고 하는 바, 7월 8일부터 南漢江 부근에서 다시 崔忠國이 이끄는 제 12사단과 合流하여 忠州로 侵入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여기에서 이들은 小白山脈에 連한 防禦陣을 攻擊하기에 앞서 또 다시 사단단위로 分進하여 제 12사단은 右隣接인 我 제 8사단(장, 李正—대령) 正面의 丹陽地域으로 轉進하고 제 1사단 단이 사단 正面의 水安堡로 直行하였다고 하는 바, 그 隸下에는 제 1연대(장, 대좌 黃石)와 제 2연대(장, 대좌 金陽春) 및 제 3연대(장, 대좌 李昌權)등 3個 步兵연대에 이를 支援하는 사단 포병연대(장, 대좌 玄學奉)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을 支援키 위하여 柳京洙가 지휘하는 제 105機甲사단 所屬의 제 109戰車연대가 忠州를 指向한것으로 알려졌다. 我 제 2연대의 偵察隊가 忠州의 南山위에서 確認한 바에 따르면 30餘臺의 戰車가 驛前 廣場에 集結中임을 直接 目擊하였다고 하니, 이들은 後續態勢를 갖추고 있음이 分明하였다.

그뿐만아니라 本戰開 期間中에 突然 槐山쪽에서 崔鎭鎰이 이끄는 제 13사단 : 사단地域의 西側方으로 侵攻하였는데, 이들은 直接 開慶으로 侵入하지는 않았으나 側背를 威脅하면서 恩城(開慶 西南쪽 11 km)으로 殺到함으로써 사단 左側後方을 威脅하였다.

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렵 北傀는 그들 제 2군단이 緒戰에서 失敗를 거듭한데다, 中部內陸으로 指向한 侵掠速度가 不振하여 同군단장 소장 金光俠을 引貳, 中將 金武亨으로 更迭하고 西部戰線에서 1個사단을 뽑아 戰力을 增強할 뿐만아니라 戰車部隊까지 增派하여 주면서 徹적으로 몰아세웠다고 하거니와 바로 이 제 13사단이 同 增援부대로서 이곳으로 侵襲한 것이다.

따라서 各部隊가 直接, 間接으로 本戰開에 影響을 끼친것은 사실이나, 저들은 山間峻路에 機械化부대의 投入를 꺼려 躊躇하였음인지 小白山脈을 넘기 前까지는 戰車가 第一線에 나타난 일이없었으며, 또한 제 13사단도 急히 進出코자 서두른 탓인지 側背로부터 사단의 撤退를 強要한데 그침으로써 사

실상 이 전투는 正面에서 挑戰한 이들 제 1사단과 맞서 烏嶺과 梨花嶺에서 雌雄을 決하게 된 것이다.

侵攻당시에 同사단에서 動員한 總兵力을 살펴보면, 隷配屬부대를 모두 합하여 12,000명을 헤아렸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이른바 『義勇軍』이라는 美名下에 強制로 拉致한 自由民이 30%나 되었으며 특히 個人火器 마저 갖추지 않고 非武裝으로 끌려다닌 兵力만도 15% 水準을 上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主要裝備을 보면, 自走砲 12문을 비롯하여 122mm 榴彈砲 7문과 76mm 曲射砲 21문 및 45mm 反戰車砲 43문이 있을 뿐만아니라 120mm 박격포 40문에 82mm 박격포 80문등을 갖추었다고 하며 이 밖에도 裝甲車 8대와 소대 규모의 Sidecar 부대가 이를 支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7월 中旬에 접어들면서 UN空軍이 制空權을 掌握하므로 말미암아 비로스 이때부터 晝夜 竊盜의 野盜手法를 驅使케 되고 補給物資도 暗夜에만 輸送하거나 牛馬車의 小荷物로 偽裝하여 進進케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兵站線이 延長되면 日수록 負擔이 加重되어 主副食은 主로 現地住民의 所有糧穀을 收奪하여 充當함으로써 이들이 飢餓고 간 마을은 鷄犬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니, 窮鬼가 된 豺狼의 모습 그것이 었다.

그렇지만 繼續 南下함에 따라 비교적 士氣는 높았고, 또한 戰鬪間에 進지 後方으로 侵透하여 攪亂을 起한 것과 傳單을 뿌리면서 自家陶醉한 것 등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春川과 洪川에서 緒戰을 치른 뒤로 急變하는 戰況의 推移에 따라 7월 初에 忠州로 移動하여 여기에서 西部戰線의 軍主力이 撤收함에 따른 收容陣地를 確保함과 아울러 車嶺 山脈 北麓의 中原을 지키고자 하던 바, 陸軍本部에서 다시 小白山脈과 錦江河畔으로 進한 새로운 防禦線을 設定하여 統制하는 作戰을 指導기로 方針을 세움으로써 이에 따라 이곳 開慶으로 進駐를 물러서서 本戰鬪에 임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사단은 忠州에서 7월 5일 23.00에 營坪으로 移動하여 5일간을 머물다가 다시 9일 23.00에 報恩으로 轉進하여 여기에서 次期對策을 熟議하고 있었는데 移動한지 12시간 만인 10일 11.00에 육군본부로부터 『開慶地城을 防禦하라.』는 命令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무렵 사단은 3個연대로서 忠淸一圓을 分掌하여 掩護하고 있던 時期였으니 곧,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忠州에서 北進제 1사단과 紛戰을 벌이는가 하면, 林富澤중령(당시에는 중령임: 國發令제 4호로써 7월 9일附로 大령으로 特進함)이 지휘하는 제 7연대는 陰城—同梁里—油峴一帶에서 저들 제 15사단 隷下의 제 48연대를 一蹴함과 아울러 제 1사단(장, 白善燁대령)의 이곳 占領을 掩護하고 또한 丙權대령이 지휘하는 제 19연대는 鎭川에서 首都사단(장, 金錫源준장)의 이 地域 占領을 支援하는 등, 70餘km의 廣正面에 3個연대가 分離되어 機動掩護부대로서의 三面六臂의 役割을 맡고 있을 때였다.

이와같이 사단에서 二重任務를 맡게된 까닭은, 緒戰에 西部戰線의 各部隊가 昏迷를 거듭한데 反하여 사단은 比較的 兵力과 裝備를 濶存한채로 隨意撤收 함으로써 戰局을 收拾키 위하여 취한 措置인 것으로 分析되거니와, 이제 戰列을 가다듬어 새로운 作戰段階에 이르고 보니, 國軍이 擔當한 小白山脈에 進한 防禦線의 設定이 時急하여 當사단으로 하여금 이 地域의 要衝인 烏嶺과 梨花嶺을 포함한 開慶正面을 專擔토록 措置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서로 分離된 各연대의 集結과 防禦陣地의 占領이 火急하여 報恩에서 機動計劃을 마련하는 즉시로 作戰參謀 梁仲鎬중령을 現地로 急派하는 한편 사단장을 비롯한 指揮部는 이날 15.00에 開慶으로 先行하였다. 이리하여 開慶國民學校에 사단 지휘소를 마련하고 뒤이어 各연대가 繼續 이 地域으로 集結하였으니, 즉 鎭川의 제 19연대는 槐山과 水安堡를 거쳐서 사단의 右一線인 烏嶺을 占領하고 忠州의 제 2연대는 水安堡—延豐을 거쳐 左一線인 梨花嶺을 占領하는가 하면 陰城에서 甫川(陰城西南쪽 6km)으로 돌아 槐山으로 내려간 제 7연대는 開慶으로 集結하는 등, 대체로 12일 05.00까지 사단의 主力이 現地에 當到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단에 配屬된 제 16포병대대(장, 金聖 소령)도 이곳에서 支援태세를 갖추게 되었거니와



#### 〈閔慶國民학교와 主屹山〉

同대대는 忠州에서 砲隊단위로 各연대에 分屬하여 제 1 포대(장, 金長根대위)는 제 2 연대를, 제 2 포대(장, 李萬浩대위)는 제 7 연대를, 그리고 제 3 포대(장, 鄭五敦대위)는 제 19 연대를 각각 直接支援토록 하였던 바, 砲隊마다 105mm(M-3)野砲 5門을 一門도 損失없이 同伴하여 任務를 完遂한 것이다.

그리고 各연대에 配屬한 工兵中隊도 여기에서 統帥하여 대대장 朴正采소령의 指揮下에 陸軍本部에서 指示된 道路破壞 指針에 따라 梨花嶺—延慶間과 延慶—槐山간의 要所를 爆破한 다음 제 1 중대(장 金永根중위)만을 제 2 연대에 다시 配屬시켰다.

이렇듯 사단은 忠州를 떠난 뒤로 비로소 여기에서 再集結하여 主力으로써 이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陸軍本部에서는 本作戰을 企劃함에 즈음하여 創軍以來 最初로 제 1, 제 2 兩軍區를 創設케 되었으니, 7월 10일에 淸州에서 指揮部를 構成한 제 2 군단이 11일 01.00에 慶北 咸昌으로 移動하여 다음날인 12일에 여기에서 國本 一段命令 제 14호(文書命令은 7월 13일부로 下達됨)로써 正式으로 發足하는 동시에 初代 軍단장으로 金白一준장이 任命되어, 이로부터 제 6, 제 8 兩사단을 統轄한 軍단作戰을 展開케 되는 바, 그 一翼으로 軍단의 統制下에 이 전투를 치르게 된다.

戰開당시에 사단의 總兵力과 裝備는 編制上의 70% 水準을 維持하고 그가운데 重火器는 80%程度이며 發射車輛 100餘臺를 確保하고 있었다.

그리고 食糧과 燃料의 補給은 現地官署의 積極的인 協助와 後方의 推進으로 充足하였으며 彈藥의 推進도 阻滯하였다. 더구나 兵士들의 精神力은 旺盛하여 連日 連夜의 싸움에도 不拘하고 自衛不息의 기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투 直前인 12일 現在, 사단의 右隣接에는 제 8 사단(장, 李正一大령)이 竹嶺을 தாக서고 左隣接에는 제 1 사단이 米院에서 北德 제 15 사단과 맞서 遲延戰을 펴고 있었다.



## 다. 전투 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이 作戰을 北傀側에서는 이른바 그들의 『제 1 段階 제 3 次作戰』이라고 하여 標榜하기를 『急速한 攻撃과 猛烈한 追擊으로 韓國軍 및 UN軍을 大田—小白山脈線에서 擊滅하는 동시에 短時日內에 全州—論山—大田—聞慶—蔚山線까지 進出한다.』라고 그 施行方針을 내 세우고 그 時限을 7월 20일까지로 미리 定하여 책적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곧 國軍에게 再編成할수 있는 時間의 餘裕를 주지않고 決定的인 打擊을 加하여 一線에 圖謀코자 한 兇策이거니와, 當時에 陸軍本部에서도 이같은 그들의 眞意를 이미 看破한 나머지 大田으로 指揮本部를 移動함과 아울러 그 對應策을 論議한 끝에 작전명령 제 42호로써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여 先制를 挽回키로 하였다. 즉,

『① 軍은 제 1 軍단 西側의 各사단을 統合하여 中部地域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 擊滅하려 한다.

② 제 2 軍단장은 제 8, 제 6 兩사단을 統轄하여 竹嶺—聞慶間을 固守하면서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라.

㉔ 제 6 사단은 11일附로 제 2 軍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㉕ 제 8 사단은 제 25연대의 1 個大隊를 統合한체로 제 2 軍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㉖ 제 25연대의 제 1 大隊를 제 8 사단에 配屬한다. 以下省略』

제 2 軍단장 金白—준장이 總參謀長 丁—權소장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淸州의 제 1 軍단에 들러 戰況을 聽取한 다음, 關係參謀를 帶同하고 營坪—淸山—延豐—聞慶을 거쳐 24일에 當到한 것은 11일 01.00였다.

여기에서 그는 咸昌中學校에 指揮所를 開設하는 즉시로 前記 兩사단을 統轄하여 擔當地域의 防禦對策을 講究케 되니, 이것이 곧 제 2 軍단의 創設이요, 當사단이 陸本 直轄에서 同 軍단으로 配屬된 最初의 經緯이다.

그런데 당시 軍단장의 作戰構想은, 右翼인 제 8 사단으로써 中央線 鐵路에 沿한 竹嶺—淸州를 防衛케하고 左翼인 當사단으로 하여금 3 번 道路上의 要衝인 聞慶地域을 擔當케 하되, 自然의 地利로써 敵이 小白山脈을 넘기 前에 그 主力을 擊滅키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은 陸軍本部和 軍단에서 負荷된 重責을 맡고 防守 一線에 나서게 되었거니와, 사단장은 陣地를 占領하기에 앞서 當該地形을 分析하고 部隊移動에 따른 所要時間을 算出하는 동시에 兵力의 使用計劃과 制限된 機動條件下의 火力運用문제등을 檢討한 끝에 여기에서는 鳥嶺과 梨花嶺에 主眼하여 機動豫備隊를 保有한 據點防禦체제를 취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아래와 같은 作戰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제19연대를 右一線으로, 제2연대를 左一線으로, 그리고 제7연대를 豫備로 한 防禦태세를 取하여 聞慶地域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하려 한다.

② 제19연대는 現位置 貨泉里로부터 즉시 鳥嶺으로 移動하여 平川里와 鳥嶺 第一, 第二 兩關門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사단의 右一線을 固守하라.

③ 제2연대는 現位置 新豊에서 즉시 梨花嶺으로 移動하여 3번道路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左一線을 固守하라.

④ 제7연대는 現位置 槐山으로부터 移動하여 聞慶에 當到하는 즉시로 機動태세를 갖추고 別途의 命令이 있을때까지 待機하라.

⑤ 제16포병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火力의 優先權을 梨花嶺 正面으로 指向케 하라.

⑥ 工兵대대장은 사단의 主力이 通過하는 즉시로 延豊—槐山間과 梨花嶺—延豊間의 要所를 破壞하고, 別途의 命令에 따라 地域內의 主要 橋梁을 爆破할수 있도록 準備하라.

⑦ 通信중대장은 各연대의 陣地 占領과 同時에 有無線을 疏通할수 있도록 하라.

⑧ 醫務중대장은 陣安里에 사단 收容所를 設置하라.

⑨ 余는 聞慶國民學校에 位置할 것이다.』

## (2) 작전실시

7월 13일 : 이날은 흐린 날씨에 東南風을 同伴한 가랑비가 때때로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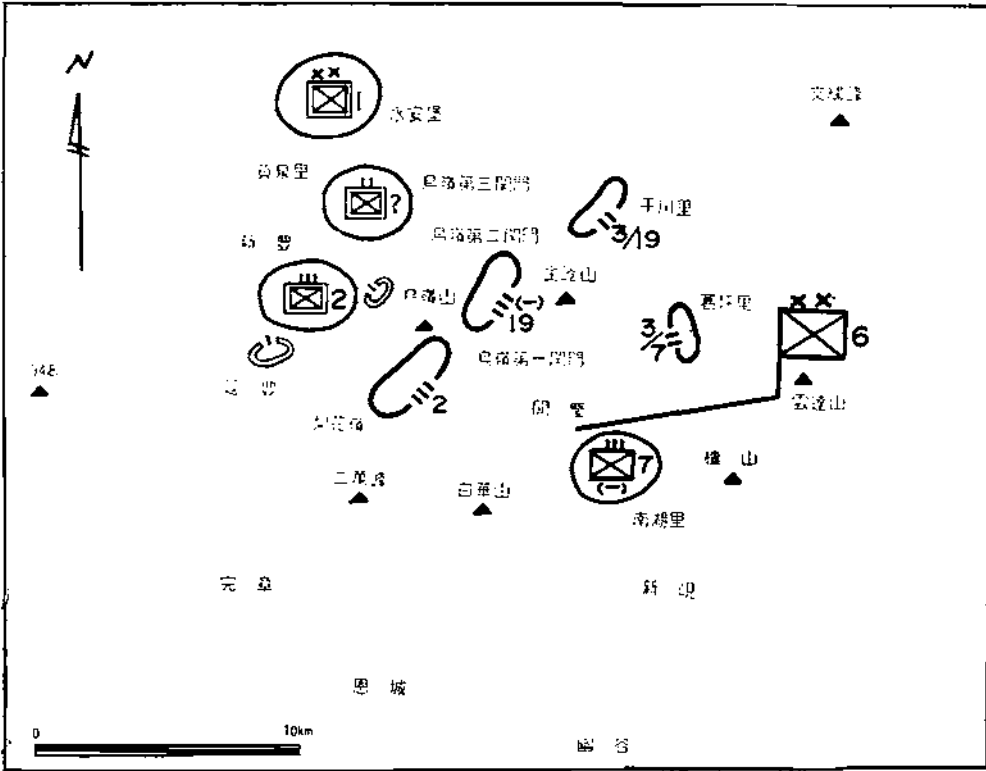
따라서 海拔高度 1,000m 內外를 헤아리는 이곳 主屹山(△1106)—鳥嶺山(△1017)—飯峰(△914 : 俗稱시루봉)으로 잇닿는 小白山脈 峻嶺에는 季節당지 않게 寒氣가 맴도는 가운데 제2, 제19兩연대의 병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陣地를 構築하고 通信網을 構成하는가하면 對戰車隊를 掘開하는등, 防禦陣地를 強化하였다.

이는 사단장이 聞慶부근의 鳥嶺과 梨花嶺에 防禦陣을 編成키로 決心하고 新豊國民學校(水安堡 南쪽 7km)에 임시 설치된 指揮所를 11일 02.00에 聞慶국민학교로 移設하는 즉시 水安堡 一帶에 배치된 사단의 主力을 逐次로 撤收케 함으로써, 전날(12일) 밤에 夜間撤收한 이 兩연대가 日出과 더불어 兵力을 調定配置하고 陣地를 補強케 되었던 것이니,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제19연대는 右一線인 鳥嶺을 맡고 제2연대는 左一線인 梨花嶺 지역을 擔當하여 各各 責任地域內의 要線을 막아 據點防禦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무렵 제7연대는 제1사단과 함께 陰城 同榮里 지역에서 快勝을 거둔 뒤로 槐山에서 配屬이 解除되어 뒤 늦게 當到함으로써 사단의 豫備가 되어 聞慶에서 機動態勢를 갖추고 있었으며, 제16포병대대는 各 砲隊단위로 分割하여 一線 兩연대의 直後方에 陣地를 選定하는가 하면 工兵대대도 또한 聞慶—延豊間의 道路要所를 爆破하는 등, 支援부대들의 活動目標도 오직 이 防守 一戰에만 集約되었다.

이것은 地域의 重要性도 있으려니와, 사단이 春川에서 물러선 뒤로 연대단위로 分進하며

◇ 상할도 제40호 作戰地域과 戰鬪前 彼我的 配置狀況



各各 다른 任務를 遂行하다가 여기에서 비로소 서로 손잡게 되는데 左右隣接사단과 併列한 連帶性있는 戰線을 形成케됨으로써 一戰을 臨한 態勢를 갖추게되었는데, 이때에 當面의 北傀 제 1사단도 또한 水安堡에서 侵攻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니, 이와 對決은 必至의 形勢 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彼我間에 威力搜索과 陣前偵察만으로 맞서, 제 2연대 지역에서 陣前에 나타난 小規模의 搜索隊를 屠戮하는 衝突이 있을 따름이었다.

### 1. 제19연대의 陣地占領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은 전날 下午까지 主力을 水安堡 東南쪽 1.5km의 安堡里 一帶에 배치한 가운데 自身은 그 直後方의 貨泉里에서 부대를 指揮하고 있다가 사단장으로부터 『사단이 閔慶 地域을 방어케 되었다.』는 通報와 함께 『귀연대는 現位置에서 兵力을 鳥嶺부근으로 신속히 뺏아 葛坪里—鳥嶺山간의 右一線 地域을 방어하라.』는 새로운 任務를 받았다.

그런데 새로이 割當된 연대의 이 責任區域은 閔慶 北쪽의 靈峰인 主屹山(△1106)이 中央에 높이 솟아 人馬의 通行路는 그 東쪽의 葛坪里 溪谷과 西쪽의 鳥嶺關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까닭에 연대장은 이 兩溪谷에 留意하면서 새로운 陣地를 占領키로 하였거니와, 특히 鳥嶺의 第三, 第二, 第一關門은 水安堡—開慶간의 捷路요 攻守간에 거의 唯一한 機動路인 까닭으로 여기에 重點을 두고 兵力을 逐次로 撤收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날 밤에 夜間徒步기동으로 2個대대를 먼저 이곳 鳥嶺關으로 隨意撤收시켰는데, 제 3대대의 掩護下에 先行한 제 1대대(장, 崔柄默소령)는 安堡里—貨泉里를 거쳐서 釜峰(俗稱가마봉) 西쪽 溪谷을 넘은 다음 上草里 부근의 第一關門(開慶 西北쪽 5km)에 다다라 그 西쪽의 △459와 惠國寺 入口에 連한 진지를 占領하였으며, 그 뒤를 따른 제 2대대(장, 金龍起소령)는 같은 경로로 轉進하여 上草里 北쪽 2km의 第二關門을 占領하였다. 즉 제 1, 제 2 兩대대가 연대의 左第一線을 맡아 鳥嶺關에 縱深陣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 兩대대를 掩護하던 제 3대대(장, 金麟德소령)는 主力이 떠난 뒤로 安堡里의 진지를 離脫하여 主屹山 東北쪽의 平川里에 당도하는 즉시로 東側으로 遁하는 葛坪里 溪谷을 막아 急編陣地를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3個대대가 各各 指示된 지역에서 警戒태세를 취한 가운데 山麓에서 徹夜하고 이날 天明과 더불어 진지를 占領케 되었으니, 이로부터 연대는 主屹山 北麓正面을 맡아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의 實兵力이 2,000명을 재 넘지 못하였으니, 이는 開戰 以後 지금까지 한사람의 補充兵도 充當받지 못한 理由도 있으려니와, 這間에 兵力運用상의 蹉跎로 말미암은 損失이 많아 絶對兵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據點방어태세를 취하여 要域에 兵力을 重點配置하고 相互連繫키 어려운 空白地帶는 警戒兵으로써 補填키로 하였다.

이 兵力運用상의 蹉跎문제에 대하여 좀더 仔細히 살펴보면, 제 1대대 제 1중대의 境遇, 중대장 朴昌樹중위가 水安堡에 있을 당시에 대대장으로부터 『忠州로 反擊하는 제 2연대를 東側에서 增援하라.』는 명령을 받고 중대 단독으로 積抱山(698 : 水安堡 北쪽 2km)을 넘어 忠州의 南山으로 進擊한바 있었는데, 敵의 逆襲에 밀려 反轉케 되자 主力은 이미 떠나고 아무런 連絡도 받지 못하여 敵의 重圍속에 孤立된채로 血路를 打開하여야만 하는 結果가 되고 말았으니, 鳥嶺에서 攻防血鬪가 高調에 達한 15일까지도 홀로 退路를 摸索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 2대대 제 5중대의 경우를 보면, 중대장 金旭篔대위가 대대장으로부터 『지금 五佳里(水安堡 西南쪽 6km)부근에 敵이 集結하고 있으니 이를 奇襲, 擊滅하라.』는 명령을 받고 石葬谷을 넘어 現地에 突入하였던 바, 이때에는 이미 敵이 그 자취를 감춘 뒤이므로 그 부근을 搜索하여 4명의 彷徨하는 者를 사로잡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중대는 여기에서 捕虜의 陳述을 통하여 연대규모의 敵이 延豊쪽으로 南行하였다는 諜報를 얻어 곧 그 眞否를 確認하였던 바, 비로소 逆包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兩중대 역시 單獨으로 退路를 摸索케 되었는데 10餘日 동안에 걸친 山岳機動으로 血路를 뚫고 幽谷에 當도하였을 때에는 이미 開慶이 敵手中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듯 中隊單位의 兵力을 臨機로 分離使用하면서 그 收容策을 講究치 못함에 따라 적은 병력을 더욱 分散시켜 定員에 殆不足하는 현상을 빚고 말았다.

이 局面을 回顧한 제 5 중대장 金旭篆대위는 述懐하기를 『撤收過程에서 部隊를 지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敵이 出現하였다는 諜報만으로 機動거리에 따른 時間使用계획과 交信對策도 없이 兵力을 分割 投入한다는 것은 慎重을 期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중대는 命令대로 五佳里를 占領하였으나 스스로 敵中에 뛰어들어 結果가 되고 말았으며 특히 閔慶地域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채 過半數의 兵力을 잃고보니 실로 안타까웠다.』고 돌이켜 보며 당시의 未盡함을 아쉬워 하였다.

이상과같이 연대는 水安堡에서 撤收하면서 一部兵力이 混線을 빚은바 있었으나 閔慶방어에 任함에 있어서는 將兵 모두가 不眠不休의 疲勞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물러설수 없다는 決意에 가득차 期必코 이 線을 固守키로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제 1, 제 2 兩대대는 上草里와 中草里간의 鳥嶺關에서, 제 3대대는 平川里에서 각각 陣地를 補強함과 아울러 소대규모의 兵力으로 陣前偵察을 實施하였는데 落照가 가까울때까지 前面에는 아무런 敵情이 없었다.

다만 제 6 중대의 제 3 소대장 金秉萬소위가 지휘한 제 2 대대 偵察隊의 報告에 따르면, 同 소대가 鳥嶺 第三關門 南쪽의 無名稜線인 825高地에 올라 前方을 살펴보니, 水安堡에서 梨



<貨泉里에서 바라본 鳥嶺 第三關門>

花嶺으로 通하는 3번道路上에는 延豊쪽으로 下行하는 車輛隊列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으나 연대의 正面에는 隻影도 없더니 日暮가 가까와지면서 現陣地 北쪽 4km의 小鳥嶺 洞口 밖에 대대규모의 一隊이 나타나 神仙峰(△967) 南쪽 溪谷으로 移動하고 있음을 確認할 뿐이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水安堡에 集結한 北傀 제 1사단은 比較的 機動路가 良好한 3번道路를 택하여 主力으로써 梨花嶺을 突破코자 企圖한 것으로 分析되거니와, 左隣接인 제 2연대 지역에서 殷殷히 들려오는 砲聲이 이를 말하여 주는듯 하였다.

이같은 狀況下에 연대는 계속 陣地를 補強하던 바, 이날 下午에 사단장의 措置로 제 7연대의 제 3대대(장, 李南浩중령)가 增派되어 사단지역의 東側方이자 연대의 東側後方인 八靈山(葛坪里 南쪽 2km)을 占領하여 함께 夜間 警戒態勢로 들어갔다.

## 2. 제 2연대의 陣地占領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이 前날 下午에 사단장으로부터 『鳥嶺山—甌峰간을 맡아 사단의 左一線을 防禦하라.』는 명령을 받은 곳은 水安堡에서 南쪽으로 7km쯤 떠러진 院豊里에서였다.

이때에 연대의 主力은 貨泉里(水安堡 南쪽 5km)부근의 △637—△586線에 配置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命令上에 明示된 新陣地와 12km나 떠러진 곳이다.

여기에서 연대는 夜間機動으로 隨意撤收케 된바, 이 새로운 責任地域은 延豊에서 聞慶으로 通하는 3번道路가 梨花嶺을 頂點으로 九折羊腸으로 뻗어 오르고 그 兩쪽이 岩壁으로 接接혀 싸인데다 특히 前後方을 瞰制한 梨花嶺은 防者의 要衝이기 때문에 軍단장이나 사단장이 強調하는 線이기도 하려니와 연대장 自身도 그 主要性을 勘案하여 여기에 兵力을 重點配置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前날 日暮와 더불어 徒步機動으로 現地를 出發하기에 앞서 朴魯珪중령이 지휘하는 제 1대대로 하여금 現陣地에서 掩護케 한 가운데 제3, 제 2대대의 順으로 撤收시킨 바, 先行한 제 3대대(장, 李雲山소령)가 延豊 三巨里에 당도하니 槐山으로 通하는 512번 道路 南쪽의 杏亭부근에서 數 未詳의 敵이 不時에 銃擊을 加하였다.

이때가 21.00를 前後한 薄暮이니, 後續한 제 2대대(장, 대리 李鍾基대위)는 新豊에 다다르고, 掩護부대인 제 3대대는 이제 現地를 離脫할 무렵이므로 3個대대가 모두 機動상태에 있었는데 그 先頭가 豫期치 못한 側後方에서 奇襲을 받게 된것이다.

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때에 北傀 제 1사단은 연대의 梨花嶺 진지 占領을 事전에 妨害코자 1個연대의 兵力을 水安堡—五佳里—松德里—積石里 軸線으로 迂回시켜 退路를 遮斷하려 하였다고 하니, 이는 寸刻을 다투는 競走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때에 연대는 我 제 1사단이 아직도 槐山을 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만큼 — 同사단은 11일 밤에 米院으로 이미 撤收하였음 — 側方의 警戒對策이 未洽하여 危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무렵 敵側에서도 先導兵力의 一部分이 現地에 當到한 까닭에 敢히 연대의 進路를 막아서지 못하고 側方에서 威脅射擊으로 攪亂코자 하는 터이라, 이를 看破한 연대장 咸炳善대령은 여기에서 主力으로 激突하느니 보다는 新陣地의 占領이 더욱 時急하다고 判斷한 결과 곧 先頭인 제 3 대대로 하여금 一面 接敵하면서 牽制토록 하는 동시에 後續대대를 急速히 撤收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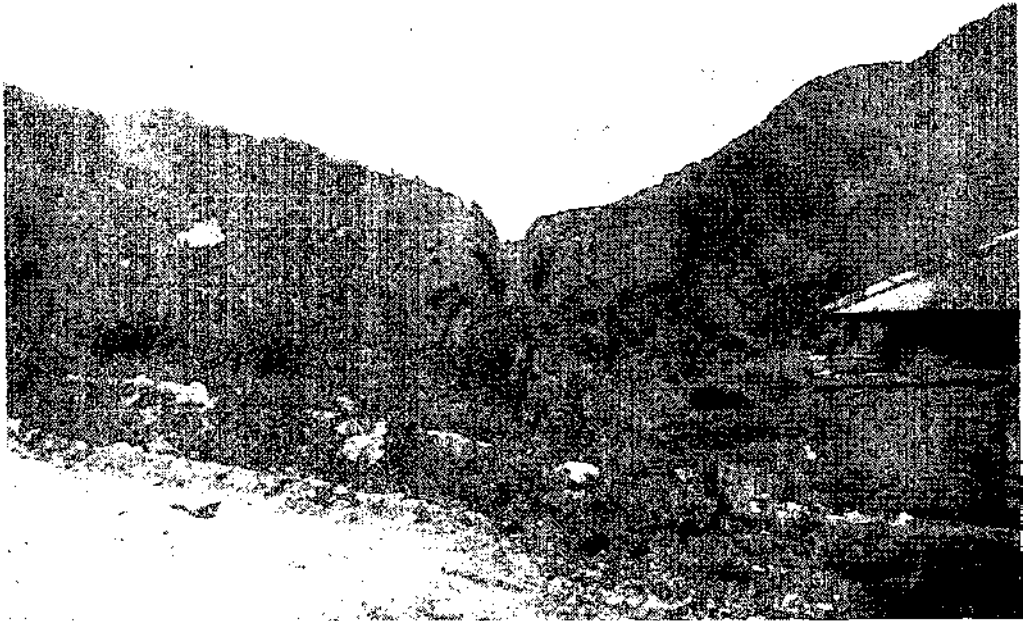
이리하여 큰 交戰없이 계속 轉進한 끝에 이날 02.00까지 新陣地를 占領케 되었는데, 제 1 대대가 右第一線을 맡아 梨花嶺 東쪽의 要光里 一帶를, 제 3 대대는 그 西쪽의 △681(俗稱새봉)에 各各 병력을 配置하여 左第一線을 擔當하였으며 제 2 대대는 여기에서 北쪽으로 1.7km 떨어진 △633에 前進陣地를 마련하였다.

이 撤收過程에서 특히 제 3 대대는 三豊里에서 主力의 轉進을 掩護하다가 마지막으로 빠져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敵의 數ჯ가 增強되어 杏村 洞口밖으로 侵襲한 2個중대 규모가 正面에서 壓力을 가할 뿐만아니라 背後의 3번道路 마저 遮斷된 까닭에 鳥嶺山 西南쪽溪谷으로 뛰어 올라 要光里—梨花嶺 軸線으로 迂回, 機動케 되었다. 이때에 대대는 後尾에서 150~200m의 거리를 두고 追躡하는 敵과 接觸을 유지하는 동시에 山間의 小徑을 따라 進路를 開拓하는 어려움까지 겹쳐, 溪谷에서 躍進하는 사이에 一時 混線을 빚은 바 있었으나 愛稱『令監』으로 불리우는 대대장 李震山 소령(당시의 대대장 가운데 제일 高齡이었던)의 機敏한 收拾으로 이를 打開하여 큰 損失없이 目的地인 △681까지 轉進케되었던 것이다.

이 같이 하여 연대는 梨花嶺에 陣地를 急編한 다음 이날 天明과 더불어 이를 再調整케 되었는데, 고개 마루의 獨立家屋(3번道路 東側)에 設定된 연대 관측소에서 咸炳善대령이 直接指揮하여 右第一線인 제 1 대대로 하여금 北쪽으로 뻗은 △1,017에 沿한 稜線에 兵力을 展開토록 하고 左第一線인 제 3 대대는 △681 西北쪽 後線 下端까지 推進配置토록 하는가 하면 제 2 대대는 別途의 命令이 있을때까지 △633의 前進據點을 確保토록 하였다. 그리고 各大隊 마다 不要不急한 裝備는 梨花嶺 南쪽의 各西里(聞慶 西北쪽 5km)로 後送하고 個人裝備 및 共用火器만을 携帶케 하였으며, 配屬된 工兵 제 1 중대(장, 金永根중위)는 道路破壞와 障礙物 敷設에 注力케 하고 支援 砲兵과 協調하는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무렵 포병 제16대대(장, 金聖소령)도 또한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2個砲隊를 第一線연대의 陣地 直後方으로 推進하여, 제 1 포대(장, 金長根대위)는 要光院 부근에, 제 3 포대(장 鄭五敬대위)는 各西里 西北쪽의 野地에 각각 5門의 砲를 放列코 支援태세를 갖추었으며 同대대장은 梨花嶺의 연대 관측소로 올라가 咸炳善대령과 함께 當面의 敵情을 分析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陣地를 編성한 다음 계속하여 이를 補強하던 바, 10.00를 前後하여



<제 1 포대 陣地였던 梨花嶺부근의 地形>

延豐쪽에서 小隊 규모의 敵이 나타나 梨花嶺 고개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前進陣地를 맡고 있는 제 2 대대장 李鍾基대위는 제 6 중대장 吳衡根중위로부터 이 報告를 받고 確認하여 보니, 果然 30餘名으로 推算되는 무리가 3 번 道路를 따라 二列縱隊로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敵의 尖兵일 것으로 내다보고 연대에 보고하는 즉시 射擊을 統制하여 그 主力을 陣前까지 誘導키로 한 바, 이들이 △633의 西側을 지나 梨花嶺 中腹에 오를때까지 後續部隊는 나타나지 않고 제 5 중대(장, 朴玄燮중위)의 陣前 100m 直前方으로 다가섰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은 敵의 偵察隊임이 分明하거니와, 이 好機를 놓칠세라 射擊開始 信號를 울리니, 一發銃聲과 함께 三面에서 쏟아진 銃砲火가 溪谷을 메웠으며 특히 제 6 중대가 3 번 道路로 뛰어 내려와 그 退路를 막고 覆滅擊을 加한 끝에 2명의 捕虜를 사로잡음과 아울러 이를 一網打盡하고 말았다.

연대장이 관측소에서 이 快報에 接하여 雙眼鏡으로 西北쪽 溪谷을 바라보니, 제 2 대대의 一部 將兵들이 原陣地로 復歸하지 않고 餘勢를 몰아 延豐쪽으로 進擊하려 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有線으로 대대장을 불러 그 無謀함을 叱責하는 동시에 各각 △633를 다시 占領토록 措置한 다음 各대대장에게 『반드시 敵의 再攻擊이 있을 것이니, 現陣地를 固守하라.』고 嚴命하였다.



이무렵 연대 情報主任 宋大厚 소령은 押送된 2명의 捕虜를 審問한 끝에, 지금 延豊地域에 4,000餘名の 敵이 集結하여 攻擊準備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과 2個대대 규모의 砲兵이 이를 支援한다는 사실, 그리고 梨花嶺의 兵力配置상황을 探索키 위하여 이날 偵察隊의 活動이 있었다는 點등의 諜報를 入手하여 연대장에게 報告하였다.

이로부터 연대는 警戒을 더욱 嚴重히하며 一戰을 決한 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그以後에는 終日토록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이 날이 저물고 彼我間에 砲兵의 攪亂射擊으로 맞선 가운데 밤이 깊어갔다.

### 3. 사단장의 措置

이상과같이 제19, 제2兩연대가 陣地를 強化하는 동안 사단 사령부에서는 이를 支援하는 한편 當面의 敵情을 分析하던 바, 一線 兩연대가 각기 據點防禦태세를 취함으로써 18km에 達하는 正面의 過半이 空白地帶로 化하여 이 補填策이 문제점으로 擡頭되었다.

당시에는 各연대 모두가 編制上 55%~60% 水準의 兵力을 겨우 確保한데다 廣正面을 맡고보니 絶對兵力의 不足으로 到處를 막고자 하면 到處에 虛隙이 생기고 특히 左右側方에는 隣接사단과의 連繫가 充分치 못한 까닭에 脆弱性이 뒤따랐다.

이에 사단장은 側方警戒을 더욱 強化코자 豫備인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에게 2個대대를 뽑아 兩側方으로 1個대대씩 各各 推進配置토록 명령하는 동시에 作戰參謀 梁仲鎬중령에게 下教隊와 工兵, 通信 등 司令部 直轄의 可用兵力을 集結시켜 新에비대를 編성한 다음, 閩慶 東側方에 配置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제7연대는 이날 下午에 제3대대(장, 李南浩중령)를 閩慶 東北쪽으로 進出시켜 主屹山 東側의 △654를 占領케 하고, 金龍培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제2연대 陣地 西側으로 나아가 黃鷄山(△563) 西麓에 진지를 편성하여 盆地里에서 閩慶으로 넘어가는 側方要路를 막아서게 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閩慶에서 指揮所의 警戒과 아울러 機動태세를 갖추고 待機토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直轄隊의 兵力으로 臨時編성한 3個小隊 84명은 下教隊長 徐廷學소령의 指揮下에 閩慶 東쪽의 檀山으로 올라가 側後方の 警戒任務를 맡았다.

한편 제16포병대대(장, 金 聖소령)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1, 제3兩砲隊를 各西면부근으로 推進하여 梨花嶺을 擔當한 제2연대 正面에 火力의 重點을 두고 直接支援토록 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槐山에서 뒤 늦게 當到한 제2포대(장, 李萬浩대위)는 閩慶 果樹園(閩慶驛 北쪽 500m)에 5門의 砲를 放列코 一般支援태세를 갖추었다.

여기에서 特記할 사항은 當時에 全軍에서 裝備를 完全히 갖추고 있는 포병대대는 오직 제16대대 뿐이었으며, 이 대대가 바로 閩慶에서 제6사단을 支援하였다는 사실이다. 同대대는 開戰 初에 春川에서 威勢를 떨친 뒤로 撤收過程에서 各砲隊 單位로 分離하여 轉進한

바 있었으나 一門의 砲도 損失치 않고 15門을 그대로 여기까지 同伴하였으며, 砲彈도 또한 各砲隊 마다 車輛 一台分の 物量을 確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대대장 金 聖소령은 回顧하기를, 『M-3 野砲(105mm)는 射程이 짧기 때문에 步兵 陣地의 直後方에서 近接支援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撤收通報를 받지 못하여 苦戰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대대 全將兵들의 砲를 아끼는 愛砲心과 몸 바친 勞力으로 여기까지 무사히 끌고 나올수 있었다고 믿는다. 忠州에서 제 6 사단이 各연대 단위로 分進케 됨에 즈음하여 제 1 포대는 제 2 연대에, 제 2 포대는 제 7 연대에, 그리고 제 3 포대는 제 19 연대에 各各 分割 配屬시켜 直接支援케 하였던 바, 모두 훌륭하게 任務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특히 李萬浩대위가 지휘하는 제 2 포대는 陰城과 槐山에서 제 1 사단을 支援하기도 하였다. 砲隊가 分散되어 있을 때에는 主로 遞信線(一般電話線)을 活用하여 指揮하였는데 아주 奏効하였으며 우리가 撤收할 때에는 반드시 電線을 絶斷하고 器材를 破壞하여 敵이 使用치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砲彈 推進이 圓滑하였던 것은 사단 軍需參謀인 黃弼周소령의 功勞가 크며, 심지어 步兵연대의 補給官들이 砲彈을 收領하여 砲陣地까지 推進하여 주면서 支援을 付託한 일도 있었다.』고 述懐하면서 제 6 사단과의 두터운 協調關係를 例擧하기도 하였다.

이상과같이 사단에서 總力을 集中하여 決戰態勢를 취한 이날 現在, 右隣接인 제 8 사단은 丹陽 東南쪽의 竹嶺에서 北魏 제 8 사단의 侵攻을 막고, 左隣接인 제 1 사단은 米院에서 防禦陣을 陣設하여 3 個 사단이 小白山脈의 主嶺을 가로 막게 되었다.

7월 14일 : 사단이 聞慶 防禦에 들어간지 이틀째 되는 이날, 當面의 北魏 제 1 사단은 이윽고 狂風을 몰아 拂曉攻擊을 敢行하였다.

이들은 사단의 左一線인 제 2 연대 正面에 攻擊의 重點을 두고, 比較的 部隊機動이 容易한 3 번道路를 따라 梨花嶺을 直貫突破코자 함으로써 他地域에서는 거의 交戰이 없고 여기에서 만이 攻防의 激突을 보게 되었다.

### 1. 梨花嶺의 攻防戰

이곳 梨花嶺은 전날 下午까지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이날 새벽에는 비가 그치고, 7월 中旬의 高山地帶의 氣象 그대로 짙은 안개가 山谷을 메워 咫尺을 分別키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曉鬮를 울고 날아든 敵의 122mm 榴彈砲와 82mm 박격포 등의 砲火가 여기에 集中하니, 연대장 威柄善대령은 드디어 敵의 攻擊이 시작된 것으로 判斷하고 各大隊로 하여금 더욱 警戒을 철저히 하도록 督勵하던 바, 靈峰에 어둠이 걸히면서 萬峯이 雲海에 잠긴 듯 그 모습을 들어 낼때에 突然 梨花嶺 北等 溪谷이 手榴彈의 爆音과 銃聲으로 가득하였다.

이 時刻이 대체로 04.30을 前後한 무렵으로 연대는 3 個대대가 모두 전날 占領한 陣地에서 對戰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延豊까지 侵襲한 北魏제 1 사단이 연대규모의 兵力을 들어



〈陣安里에서 바라본 梨花嶺 溪谷〉

濃霧를 틈타 陣前으로 바삭 다가선 다음 제2, 제3兩대대의 陣內로 뛰어들어 突擊을 감행함으로써 一瞬間에 白兵對決의 血戰場으로 化하고 말았다. 前進陣地를 맡고 있는 제2대대(장, 李鍾基대위)의 境遇를 보면, 局地 경제병으로 埋伏시킨 羅一均일병으로부터 『3번道路 부근에서 水冷式 機關銃을 끄는 소리가 난다.』는 報告를 받고 이를 確認토록 지시하였던 바, 이보다 800m나 더 올라온 側後方에서 忽然히 數未詳의 敵이 陣前으로 기어올라 手榴彈 投擲에 이은 銃擊으로 攻圍하였으며, 또한 여기에서 交戰이 시작된지 30분이 채 못되어 梨花嶺 東쪽 稜線을 占領하고 있는 제1대대의 제3중대장 崔熙大대위가 陣前에 敵의 先鋒이 侵襲하였음을 確認하였다고 하니, 이때에 이들은 이미 主力으로써 제2대대 진지의 西側을 通過하여 梨花嶺으로 殺到하고 있음이 分明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연대의 左第一線을 擔當한 제3대대(장, 李雲山소령)는 20餘分 동안의 激突끝에 一部의 兵力이 分散되어 混線을 빚는가 하면 연대 관측소에서 砲擊의 被害가 尤甚하였다.

이 局面을 돌이켜 본 제10중대장 金善鎰대위는 證言하기를 『질은 안개속에 갑자기 敵이 陣前으로 뛰어들어 肉薄對決을 벌이고 보니, 彼我를 識別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면 먼저 그 머리를 만져보고 頭髮이 손에 잡히면 我軍이요, 鬍鬚이면 敵으로 判斷하여 刺殺하는 寸劇이 演出되었으며 또한 兵力을 掌握하기가 어려워 날이 밝기 전에는 收拾할 方途가 없었다.』고 暗中血鬪의 真相을 말하였다.

이렇듯 第一線에서 苦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 연대장이 梨花嶺의 觀측소에서 前方을 살피 보니, 雲霧에 쌓인 陣地는 確認할 길이 없고 炸裂하는 銃砲聲 만이 溪谷을 메웠는데 특히

初頭에 激突한바 있는 제2, 제3兩대대와는 交信 마저 끊겨 그 情況을 把握할수가 없었다. 이러한 狀態로 3시간을 지나 어느덧 08.00을 넘어서자 漸次로 濃霧가 걸히면서 北쪽 稜線이 視野에 들어 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現陣地를 固守하고 있을것으로 믿었던 제2, 제3兩대대의 兵士들이 梨花嶺쪽으로 撤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들 본 연대장은 고개 마루로 뛰어올라 指揮棒을 빗겨들고 떨리는 怒聲으로 『一步도 물러설수 없다. 즉각 돌아서서 反擊하라.』고 大喝하는 동시에 梨花嶺 東側에 配備한 제1대대장 朴魯珪중령을 電話로 불러 『곧 逆襲을 斷行하여 △633를 奪還하라.』고 嚴命을 내리는 즉시 自身이 直接 陣頭에서 이를 指揮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이 제2중대장 金寅文중위와 제3중대장 崔熙大대위로 하여금 3번道路의 東쪽 稜線을 따라 逆襲케 하니, 陣地를 박차고 나선 兩中隊가 喊聲을 높여 西北쪽 稜線으로 突進하면서 溪谷에 暴露된 敵群을 무찔러 나갔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안개가 서서히 걸히자 고개를 오르던 병사들도 反轉하여 逆攻隊列에 加擔하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제3대대장 李雲山소령도 또한 敵線이 動搖함을 틈타 混戰中에 分散된 兵力을 收拾코자 心血을 기울이던 바, 視界가 트이자 一喝號令과 함께 제9중대장 南白峰대위와 제11중대장 蔡洙龍대위를 불러 逆攻케 하니, 이제 제1, 제3兩대대가 雪嶺의 一戰을 展開케 되었거니와 이와 步調를 같이하여 제16포병대대도 또한 2개포대로써 敵의 增援을 遮斷키 위하여 延豊 一帶에 鐵火를 퍼부으니 戰況은 바야흐로 크게 逆轉되어 갔다.

이렇듯 寡兵으로 衆敵과 맞서 苦戰을 치르면서도 一時에 轉機를 마련케 된데 대하여서는 연대장을 비롯한 全將兵들의 精魂어린 奮鬪의 結果라고 할것이다. 특히 이 地域은 兩壁이 斷崖와 層岩으로 이어진 峽谷을 이룬데다 機動路가 制限되어 敵의 무리가 到處에서 逆襲을 받을뿐만아니라 道路가 破壞되어 重裝備의 推進이 더딘 까닭에 時間이 지연되다가 逆襲을 許容케 된것으로 分析되는 바, 一旦 我軍의 逆攻에 밀려 奈落으로 떨어지게 되니, 힘겹게 밀어 올린 野砲와 裝甲車는 勿論이요 步兵火器까지 遺棄한채로 潰散되어 極度の 混亂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敵側에서는 砲擊을 더욱 增強하여 梨花嶺 一帶에 集中擊을 加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연대 관측소가 爆破되고 人事主任 金玉鉉소령이 大腿部에 重傷을 입고 쓰러지는 등, 한때 混戰相이 惹起되기도 하였으나, 연대장은 이 決定的인 好機를 놓칠세라 直接陣頭に 서서 時間餘裕를 주지 말고 계속하여 進擊토록 命令하였다.

이로부터 연대는 腥血이 뒤덮인 溪谷으로 뛰어들어 延豊 三十五里를 치 달리며 覆滅戰을 展開케 되는 바, 당시에 연대장 곁에서 이 場面을 지켜본 제16포병대대장 金聖소령은 回顧하기를 『나는 이날 아침에 연대장과 함께 있었는데 이날따라 새벽 안개가 유난히 짙어 第一線의 動靜이 궁금하기에 電話器의 bell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더니, 아마 04.30쯤 되었을까? 갑자기 △633쪽에서 手榴彈의 爆音이 連發하고 이어 到處에서 肉薄戰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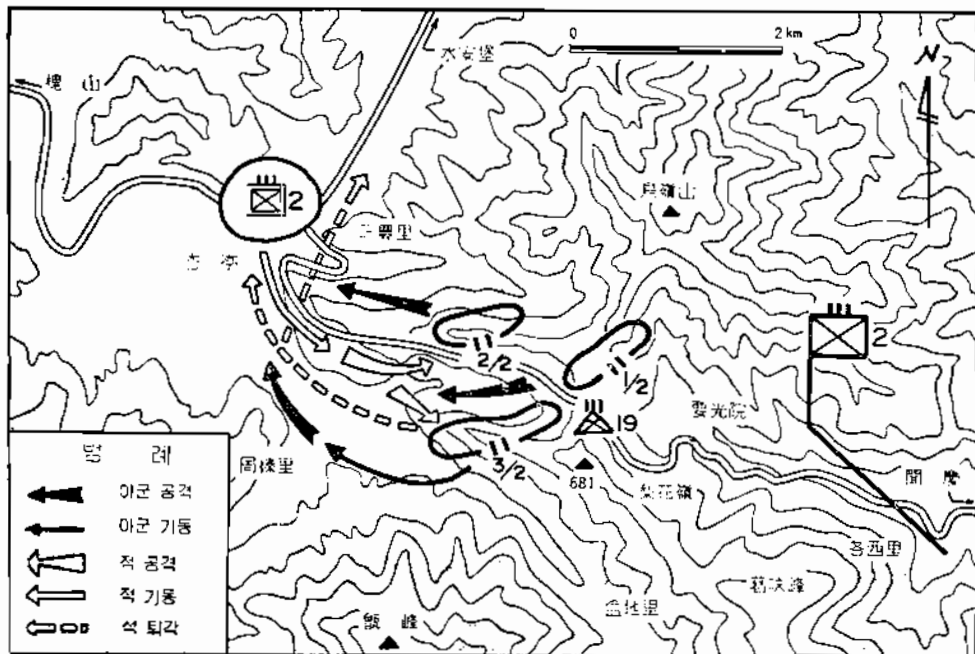
는 報告가 遲至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직 陣內射擊을 加할 時機가 아니라고 判斷하고 延豊 南쪽의 3번 道路 부근에 遮斷射擊을 쳐부으면서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바, 뜻밖에도 一線 병사들이 梨花嶺 高개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연대장이 直接 陣頭에서 指揮하였는데, 「연대장이 여기있다. 돌아서서 反擊하라.」고 嚴命을 내리니 아무도 高개로 오르지 못하였으며 특히 안개가 걷히면서 適時에 逆襲을 斷行하여 「突擊하라.」는 號令과 함께 叱咤와 督勵로써 強力히 밀고 내려가자 一瞬間에 戰況이 크게 뒤 바뀌고 말았다.』라고 快戰의 一面을 讚歎하는 것이었다.

### 2. 제 2연대의 延豊 奪還

이상과 같이 轉機를 捕捉한 연대는 제1, 제 3 兩대대로써 逆襲을 斷行하여 千仞벼랑에서 巨岩大石이 구르듯이 直衝突擊하였다. 朴魯珪중령이 지휘하는 제 1 대대는 要光院 高개에서 3번 道路로 뛰어들어 敵의 先攻一陣을 蹴破하고, 李崑山소령이 지휘하는 제 3 대대는 梨花嶺 西北쪽 稜線으로 躍進하여 그 西側背를 強打하는가 하면 제16포병대대의 제 1 포대(장, 金長根대위) 및 제 3 포대(장, 鄭五敬대위)는 豫想되는 敵의 集結中心部에 効力射를 퍼붓는등 顯眇의 여유를 주지아니 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제 2 대대(장, 李鍾基대위)는 아직도 △633에서 西斜面 陣地를 占領하고 血鬪를 벌이고 있었으니, 同대대는 初頭に 集中攻擊을 받아 陣地를 縮少한 뒤로 제 5 중대

◇ 상황도 제41호 梨花嶺의 交戰狀況 (7.14)



장 代理인 姜承鎬소위가 등(背)에 重傷을 입고 意識을 잃는가 하면 同중대의 通信兵 金相振下士가 戰死하였으며 또한 제 7중대의 羅一均일병이 負傷을 입어 대대 副官인 閔文基중위의 扶腋으로 待避하는등, 死傷者가 續出함에도 不拘하고 끝까지 이 高地를 扼守코 主力의 反擊을 苦待하였다. 그 뿐만아니라 同대대는 敵中에 孤立된채로 手榴彈과 小銃彈을 거의 消盡하여 投石으로 맞서기도 하고, 제 7중대장 崔琪煥대위는 機關銃 진지를 떡갈나무(檜木) 밑으로 이동시켜 華城(延豐 東南쪽 3km) 쪽에서 밀려드는 敵을 무찌르는 등, 비록 分散된 一部の 병사들이 撤退하기는 하였으나 大多數의 將兵들은 渾身の 力鬪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에 연대의 主力이 怒濤와 같이 攻勢로 移行하니, 敵線에 動搖가 일어나는데 △633는 도리어 그들의 退路를 막는 遮斷障地로 變貌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연대는 3個대대가 氣脈相通으로 大路上에서 困獸猶鬪格이된 驕敵을 集中強打하였는데 이 一擊에서 특히 제 2중대의 제 1소대장 崔龍熙소위는 先鋒으로 突進하여 敵의 裝甲車 3台를 攻撃함으로써 第一殊勲을 記錄함과 아울러 장병들의 士氣를 크게 鼓吹시켰다.

이때가 11.30이 되는 무렵이었는데, 연대장 咸炳善대령은 여기에서 다시 各대대장을 無電으로 불러 『延豐三巨里까지 進擊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로부터 不過 70분이 지난 12.40에 제 1대대장 朴魯珪중령으로부터 延豐을 完全히 奪還하였다는 報告가 있었다.

이에 그는 여기에서 追擊을 멈추어 部隊를 掌握함과 아울러 三峯里—△299간에 障地를 마련토록 措置한 다음 포병대대장 金聖소령과 參謀들을 偕同하고 現地로 달려가 보니, 廢墟로 변한 山村에 몇채의 家屋이 불타고 있을 뿐, 敵의 隻影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老幼와 몇사람의 婦女들이 나와 반겨줄 따름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必는 敵의 再攻擊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各대대장을 불러 部隊의 再編과 아울러 現占領 진지를 補強토록 指示하는 동시에 鹵獲品을 延豐國民학교 校庭에 集結토록 하여 이날의 戰果를 確認하여 보니, 裝甲車 3台를 비롯한 Truck 10台와 75mm擲彈砲 3門 및 同砲彈 70여발에 各種小銃 13정 등이었다. 그리고 彼我의 損失을 가름하여 보니, 敵射殺 800명에 7명의 俘虜를 사로 잡기도 하였으나 연대에서도 100餘名의 死傷者를 내고 있었다.

이와같이 연대는 梨花嶺 방어로로부터 攻勢移轉을 거치는 過程에서 崇高한 희생의 代價를 치르고 마침내 延豐까지 奪還하였으나 右隣接인 제19연대와 戰線을 連繫키 어려워 梨花嶺으로 反轉 與否를 검토하던 바, 바로 이때에 사단장 金鐘五대령으로부터 『原障地로 復歸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었다.

이로부터 연대는 정은 要塞인 梨花嶺으로 反轉케 되었는데, 3번 道路가 곳곳이 破壞되어 鹵獲裝備를 牽引할수가 없었다. 이에 연대장은 配屬中인 工兵 제 1중대장 金永根중위를

直接 불러서 『道路를 補修하려면 時間이 얼마나 所要되겠느냐?』고 물으니, 『現在の 兵力으로는 勿驚 3個月이 所要된다.』는 答辨에 『關係 없으니 곧 着手하라.』고 지시해 놓기는 하였으나 內心으로는 實行키 어려운 것으로 判斷되어 특히 3台的 裝甲車를 끌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를 運行할 運轉兵이 없기 때문에 將兵들 가운데 經驗이 있는者를 選拔하여 보았으나 지나간 日帝時에 戰車를 운전하였다는 5명의 兵士가 自進하여 나왔으며 其實에 있어서는 運轉이 如意치 아니하였다.

이렇듯 여러가지로 힘써 보았지만 促迫한 時間에 쫓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鹵獲장비를 모두 破棄케 되었는데, 그 가운데 75mm砲彈 70발은 포병대대장 金 聖소령의 指揮下에 同노획野砲로써 貨泉里부근의 敵線에 火力洗禮를 加하고 다만 小銃만을 收拾하였다.

그 뒤로 연대는 主力으로써 轉進한 끝에 이날 밤 10.00에 目的地인 梨花嶺에 還到하여 전날의 陣地를 再占領한 다음 警戒태세로 들어갔다.

### 3. 제19연대의 狀況

이상과 같이 제2연대가 激戰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는 전날 占領한 陣地에서 계속하여 이를 補完하면서 當面の 敵情을 探索하던 바, 終日토록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이 날이 저물었다. 즉, 제1, 제2兩대대는 烏嶺 第一關門과 上草里 부근에서, 제3대대는 平川里에서 各各 擔當 責任地域의 北쪽으로 소대규모의 威力 搜索隊를 파견하여 主로 水安堡로부터 陣前에 이르는 豫想接近路 一帶를 精査케 하였으나 연대의 거의 全正面에 걸쳐 敵情을 얻지 못하고, 다만 제6중대의 梁斗植소위가 이끄는 제2대대의 偵察隊가 제2연대와의 接境地帶인 烏嶺山 北麓에서 數未詳의 敵이 院豊里쪽으로 退却中임을 確認하였을 따름이다.

이는 推測컨대 梨花嶺에서 痛擊을 받아 分散된 一部の 敵이 路頭에서 彷徨하다가 山間小徑을 따라 水安堡쪽으로 潰走하고 있음이 分明하거니와, 同 偵察隊가 位置한 △825(烏嶺第三關門의 直南方高地)에서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撤退方向만을 確認하고 本陣으로 復歸하였다.

이 밖에는 아무런 接觸狀況이 없이 오직 陣地의 補強과 敵情 把握에 注力케 되었으니, 연대장 閔丙權대령은 左隣接인 제2연대의 梨花嶺 戰鬪가 高調에 達함에 비추어 當面の 一時小康은 暴風前의 靜寂현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全연대의 將兵들에게 烏嶺방어의 重要性을 再強調 하는 동시에 彈藥을 充分히 확보케 하고 通信網을 二回線씩 構成케 하는 등,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散發的인 砲擊이 간간히 이어질 뿐으로 날이 저물고 이어서 現狀態로 밤이 깊어 갔다.

## 1. 師團長の 措置

한편 사단장 金鍾五대령은 梨花嶺에서 제 2연대가 快勝을 거두었다는 報告를 받은 뒤로 반드시 敵의 再攻擊이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延豐까지 進出한 同연대로 하여금 다시 原陣地로 復歸토록 命令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날 上午에 同연대가 激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에 敵의 主 攻擊方向이 3번 道路가 되고보니 그 西쪽의 周榛里 溪谷이 脆弱地域으로 드러나 그 補填이 必要하였다.

이에 그는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에게 聞慶에 控置한 同연대의 제 2대대를 白華山(△106 2: 聞慶 西南쪽 5km)으로 推進시켜 周榛里에서 甌峰을 넘어 盆地里로 通하는 사단의 西側方을 防護토록 措置케 하는 한편 聞慶에 位置한 사단의 指揮所를 3km 南쪽의 南湖里로 移設토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豫備인 제 7연대의 3個대대를 모두 一線에 配置케 되고 사단장 手裏에는 豫備가 尠하였는 珍奇한 끝이 되고 말았으니 豫備兵力없는 사단장이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어쨌든 이 명령을 받은 同연대장은 곧 제 2대대장 金鍾洙중령에게 上里(聞慶 中學校전너마을)에 待機中인 兵力을 뽑아 白華山으로 急進케 하니, 同대대장은 대대의 將兵들을 奮勵하여 聞慶驛을 지나 馬院里 계곡으로 躍進한 끝에 14.00에 現地에 進出하여 그 西麓에 陣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작중대로 하여금 占領陣地를 強化토록 하는 한편 제 7중대(장, 金祐熙중위)에서 1個소대의 偵察隊를 選拔하여 盆地里 一帶를 威力搜索케 하였던 바, 敵의 痕跡이 보이지 않자 西側方, 특히 二萬峰과 盆地里 그리고 平田峙 부근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防守태세를 強化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에 崔籍鎭이 이끄는 北傀 제13사단이 槐山에서 聞慶쪽으로 東進하다가 바로 周榛里에서 그 南쪽의 九王峰 西側으로 進路를 돌려 사단의 西側背인 恩城(聞慶 西南쪽 11km)을 目標로 南下하고 있었으니 사단장의 判斷은 큰 錯誤가 없었으나 嶮山地帶의 峻嶺에 막혀 그 隊列을 確認치 못하였으며 사단으로서의 깊은 溪谷에서 이를 覆滅할 수 있는 千慮의 一失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蹉跎이 난것은 隣接사단과 緊密히 協調치 못한데다 上級部隊의 情報提供이 未洽하여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데 그 原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左隣接인 제 1사단과는 45km 떨어져 그 中央의 山岳地帶가 온통 空白化 함으로써 이같은 현상이 惹起되었던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다른 側面에서 一考의 餘地가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敵인 제13사단이 當사단의 作戰地域으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들은 西部戰線의 安城부근에서 東進하여 鎮川—會坪을 거쳐서 我제 1사단이 12일에 槐山을 떠난 뒤로 이곳을 通過한 다음 現地에 當到하였다고 하는바, 이로부터 사단은 北傀 제1, 제13兩



사단과 對決케 된 셈이다.

그러나 사단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狀況을 把握하지 못한채로 오직 鳥嶺과 梨花嶺의 防守에만 注力하고 있다가, 이날 夕陽에야 제 7연대의 제 2대대로부터 單隊號 未詳의 敵이 九王峰 西側에 出現하였다는 報告를 받고 비로소 側後方에 威脅이 加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리하여 側方警戒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이날 밤 22.00에 다시 南湖里 所在의 指揮本部를 그 南쪽 3km의 新峴里로 移設하였다.

**7월 15일** : 전날 밤에 非常態勢로 들어간 사단은 徹夜로 陣地를 지키고 있는데, 이날 拂曉에도 또한 濃霧가 짙게 깔려 四周를 메웠으며, 산 허리에 埋伏한 兵士들의 걸음이 젖을 정도로 濕度가 높았다.

이것은 마치 전날의 霧中激鬪를 연상케하는 陰散함이 흘러 각연대 마다 더욱 警戒를 嚴히하고 있던 바, 果然 06.00를 前後하여 狂波가 밀려드는데, 이번에는 山岳機動으로 陣前의 直前方까지 近接한 敵이 集中的으로 鳥嶺關을 突破코자 發惡하였다.

따라서 이 地域을 擔當한 제 19연대가 이를 막아 攻防激突을 벌이게 되었는데, 특히 이 地域은 森林이 鬱蒼한 主屹山(△1106)과 鳥嶺山(△1017)이 左右側方에 높이 솟은데다 안개가 짙게 덮히고 보니 처음부터 一大 混戰이 惹起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전날 血鬪를 벌인 바 있는 梨花嶺에서는 小규모의 交戰이 있을 뿐이었으며 또한 西側方의 九王峰부근으로 南下한 敵제 13사단도 側後方을 威脅하는 程度에 그 침으로써 사실상 이날의 戰鬪는 제 19연대와 제 16포병대대의 協同作戰으로 始終되었다.

### 1. 제 19연대의 戰況

제 19연대(장, 閔丙權대령)는 如前히 사단 責任地域의 東半部를 맡아 當該地域의 要衝인 鳥嶺부근에 제 1, 제 2兩대대를 配置하고 제 3대대는 그 東北쪽의 平川里로 推進한 가운데 比較的의 徒步機動이 容易한 이 兩溪谷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一戰을 決할 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이날 06.00를 前後하여 鳥嶺 第二關門을 지키고 있는 제 2대대장 金龍起소령으로부터 敵侵報告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同대대의 左第一線인 제 7중대(장, 朴能植중위) 正面에 數未詳의 敵이 侵攻하였다는 報告가 있더니, 곧 이어 續報되기를, 右第一線인 제 6중대(장, 金是鳳중위) 地域에도 어느덧 狂波가 밀려들어 激突케 되었는데 霧中の 狀況이므로 大대 正面의 敵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적어도 大대규모 以上인 것으로 推算된다는 것이며 06.30부터 벌써 混戰이 벌어져 漸次로 陣內의 白兵대결로 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騷亂은 저들 제 1사단 隸下의 제 3연대로서, 金陽春이 지



〈鳥嶺 第二關門〉

워하여 鳥嶺關 突破를 목표로 전날 밤에 水安堡에서 貨泉里로 내려와, 그 1個대대는 院豊쪽에서 鳥嶺山의 北쪽 稜線을 넘고, 그 主力은 小鳥嶺(水安堡 東南쪽 5km)에서 釜峰(△915)溪谷으로 돌아 徹夜 近迫끝에 이날 아침에 대대 正面으로 侵襲하였다 하는 바, 이같은 연대규모의 兵力이 400餘名 밖에 되지 않는 제 2대대를 集中的으로 攻圍하였던 것이니, 初頭의 混戰相을 可히 짐작할수 있을듯 하다.

더구나 同대대는 제 5중대(장, 金旭篆대위)가 水安堡에서 落後되어 아직도 歸還치 못함으로써, 제 6, 제 7兩중대와 林二鍾중위가 지휘하는 제 8중대만으로 이를 막아 霧中 激鬪를 벌이고 보니, 시간이 經過 할수록 점점 더 不利하여 갔다.

그러나 대대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第二關門의 左右側 稜線을 굳게 지킨 가운데 手榴彈 投擲과 小銃射擊 그리고 銃斃등을 휘두르며 紛鬪에 이은 血鬪의 연속으로 맞서게 되었으니 이 渦中에서 제 7중대장 朴能植중위가 負傷을 입고 또한 同小隊長 韓英權중위와 제 6중대의 제 1소대장 李龍植중위가 쓰러지는가 하면 대대 通信將校인 朴濟相중위가 重傷을 입는등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2시간쯤 지나자 서서히 濃霧가 걷히기 시작하는데 敵은 이미 그 先頭가 第二關門을 突破하여 上草里의 第一關門쪽으로 繼續 侵攻하였으며, 이를 막고자 힘쓰던 대대장 金龍起소령 마저 大腿部에 貫通傷을 입고보니 더 이상 支撐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바로 이때에 연대장 閔丙權대령으로부터 『貴대대는 신속히 現陣地를 離脫하여 中草里로 集結하라.』는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미 退路가 막힌데다 대대장 마저 重傷을 입고보니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지만 대대의 教育官 李鎭岩중위가 兵力을 收拾하여 主屹山 西麓을 따라 中草里쪽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제16포병대대의 제1포대장 金長根대위는 제2대대의 撤收를 契機로한 陣內射擊 與否문제를 놓고 망서리고 있었다.

이는 同砲隊가 전날 各西里에서 제2연대를 支援하다가 이날 아침에 鳥嶺戰鬪가 시작되면서 同대대장 金聖소령의 指示에 따라 陣安里(關慶 西쪽 3km)로 砲陣을 옮긴 뒤로 俗稱 『아리랑 고개』 西쪽 野地에 5門의 砲를 放列코 제19연대 正面의 敵을 強打하던 바, 바로 이때에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이 現地로 나와 제2대대가 撤收한다는 事實을 通報함과 아울러 上草里 溪谷에 陣內射擊을 實施토록 要請하자 마침 現地에 있던 포병대대장 金聖소령이 『아직 陣內射擊은 빠르지 않느냐』고 自身の 見解를 밝힘으로써 遲延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장은 判斷하기를, 제2대대가 轉進過程에 있음에 비추어 상당한 危險이 뒤따르리라는 點을 認定치 않는 바는 아니로되, 萬一 敵이 아무런 抵抗도 없이 主力으로써 第二關門을 通過한다면 마지막 堡壘인 第一關門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強力히 要請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2대대가 離脫하고 있는 第二關門 一帶에 砲擊을 加하게 되었거니와, 그 結果 敵의 先鋒을 꺾어 그 侵攻速度를 鈍化시킴으로써 分散兵力을 收拾할수는 있었으나 同대대에서도 10餘名의 負傷者를 내게되었다.

이 場面을 回顧한 同대대의 情報官 金永弼중위는 證言하기를 『안개가 걸히면서 우리 砲彈이 떨어지는데 아직 우리는 完全히 陣地를 離脫치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秩序없이 上草里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中間地點에서 收拾케 되었는데 이 過程에서 상당한 兵力損失을 보게되었으며 특히 대대 副官 趙勇중위가 戰死한 장면은 잊을수가 없다.

그 뒤로는 비교적 질서를 잡아 惠國寺(主屹山 西쪽의 庵子)쪽으로 빠져 나왔는데 당시에는 砲兵에 대한 원망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이런 掩護射擊이 있었기 때문에 큰 損失 없이 撤收할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述懷하였다.

이상과같이 제2대대가 撤收한 뒤로 2시간이 지난 11.00부터 이번에는 上草里의 第一關門 一帶에서 血鬪가 벌어졌다.

이 要域은 崔柄默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가 맡아 제3중대(장, 金澤洙중위)를 關門의 東쪽 稜線에, 제2중대(장, 黃宗九중위)를 그 西쪽의 △459 北麓에 各各 配置하고 제4중대(장, 李昌道중위)를 同高地의 南麓에서 이를 支援키로 하였는데, 同대대 역시 洪川에서 再編하면서 제1중대를 제3중대에 統合한 뒤로 아직까지 兵力을 充當치 못하여 1個중대가 未編成 상태에 있는 까닭에 小銃 2個중대로써 이 關門을 지키고 있던 바, 제2대대의



〈鳥嶺 第一關門과 그 北쪽溪谷〉

後尾를 追躡한 敵이 一時에 陣前으로 殺到하여 激突케 되었다.

이같은 상황아래 2個대대 규모의 敵이 이 兩중대의 陣地를 단숨에 휩쓸고자 하니 瞬息間에 血戰場으로 化하여 到處에서 白兵激鬪가 벌어졌으며, 아무리 무필려도 衆寡不敵으로 死傷者만을 더하게 되었으니, 이 激浪속에서 제 3중대장 金澤洙중위와 同제 3소대장 宋基鍾소위가 戰死하고 또한 제 2중대의 제 1소대장 金龍翰중위가 喊聲을 지르며 敵中에 뛰어 들다가 散華하는가 하면 마침내 대대장 崔柄默소령까지 그 行方이 不明하여 걸잡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때에 연대장 閔丙權대령은 作戰主任 朴柱根소령을 帶同하고 下草里 부근까지 나와 戰況을 注視하던 바, 同대대의 教育官 李桂順대위로부터 이같은 報告에 接하자 그자리에서 즉시 『貴官이 最善을 다하여 兵力을 △551로 뽑아라.』고 지시하는 한편 砲兵 제 16대대의 제 1포대장 金長根대위에게 掩護射擊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白兵對決中의 陣地離脫도 어렵거니와 砲兵도 또한 陣地를 옮겨야할 상황에 이르고 보니, 惡循環이 거듭되어 대대는 사실상 分散상태에 이르고 말았으며, 이로부터 鳥嶺鬨은 敵의 獨舞臺로 化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연대장도 下草里를 떠나지 못하고 分散兵力의 收拾에 힘쓰다가 敵砲彈의 破片에 胸部 擦過傷을 입었으나 參謀들의 扶腋을 받으며 기어이 △551 (閔慶 北쪽 2km)로 올라

그 北斜面에 陣地를 急編토록 直接지휘하였으며, 그동안에 砲兵은 聞慶 果樹園(聞慶驛 뒷산)으로 陣地를 옮겨 제1, 제2 兩포대로써 上草里一帶에 遮斷砲擊을 加하였다. 特히 제2포대(장, 李萬浩대위)는 聞慶에서 방어전이 시작된 뒤로 뒤늦게 現地에 當到하여 待機하다가 이때부터 本戰鬪에 加擔하여 積極的인 支援砲擊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努力으로 제1, 제2 兩대대가 合勢하여 △551 北麓에 새로운 陣地를 急編케 되었는데 이곳은 聞慶에 이르는 마지막 防波堤인 까닭에 將兵 모두가 不退轉의 決意로 뭉쳐 期必코 이를 固守키로 다짐하던 바, 上草里의 第一關門까지 侵襲한 敵은 再編상태로 들어간 듯, 여기에서 一旦 挑發을 그침으로써 日暮와 더불어 戰線은 交緩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상과같이 연대의 主力이 鳥嶺一帶에서 激戰을 치르는 동안에 제3대대(장, 金韓德소령)는 主屹山 東北쪽의 平川里에서 사단 東側方의 要線을 막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敵情이 없기 때문에 제10중대(장, 金斗逸중위)의 제1소대장 金尙敏중위를 隊長으로한 1個소대의 搜索隊를 選拔하여 俗稱『하늘재』고개로 올라 敵의 動靜을 살피던 바, 14.00를 期하여 突然 연대장으로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다.

이는 연대의 主力이 轉進함에 따라 홀로 孤立된 同대대를 聞慶 東北쪽의 均衡線上으로 뽑으려는 措置였거니와, 이 명령에 따라 대대는 隨意撤收하여 指示된 第二線진지인 葛坪里 뒷산을 占領하였다.

그런데 이 陣地도 연대의 主力이 布陣한 △551와는 4km나 떨어져 서로 戰線을 連繫키 어려운 狀態이고 보니, 사실상 대대 단독으로 主屹山 東쪽의 5km 正面을 맡게된 셈이었다. 다만 東側方의 警戒部隊로 사단에서 增派한 제7연대의 제3대대(장, 李南浩 중령)가 그 2km 直後方의 八盤山을 占領하고 있는 까닭에 이 대대와 相互 連絡을 취하면서 夜間 경계 태세로 들어갔다.

이상과같이 연대는 이날 鳥嶺의 第一, 第二兩關門에서 두차례에 걸친 激戰을 치른 끝에 防備의 要衝을 모두 내놓고 聞慶 周邊의 無名峻線으로 물러서고 보니, 이제 梨花嶺의 제2연대 진지가 敵中에 突出될 뿐만아니라 聞慶 防守戰線의 전반에 걸친 위험이 倍加되어 검은 구름이 감돌았다.

## 2. 제2연대의 戰況

한편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이날 梨花嶺 陣地에서 如前히 固守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地域에서는 敵情이 輕微하여 相互 偵察隊간의 가벼운 衝突이 있을 따름이었다.

즉, 연대는 전날 延豐에서 反轉한 뒤로 제1대대(장, 朴魯珪중령)를 要光里부근의 右第一線에, 제3대대(장, 李雲山소령)는 △681 北쪽의 左第一線에, 그리고 제2대대(장, 李鍾基대위)는 前進陣地인 △633에 各各 配置한 가운데 3번道路沿線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堅守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날 야침에는 散發的인 砲擊이 있을 뿐으로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었으며 09.00를 지나 濃霧가 完全히 걷힘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敵情이 없었다.

이에 연대장은 各대대장에게 擔當地域 正面의 敵情을 探索케 한바, 11.00가 넘도록 特別한 狀況이 없더니, 正午에 가까워 지면서 제 7중대(장, 崔琪煥대위)의 제 1소대장 李東元소위가 지휘하는 제 2대대의 偵察隊가 北쪽의 三豊里 溪谷에서 數未詳의 敵과 不期에 交戰이 벌어졌다는 報告가 있었다.

이곳은 바로 鳥嶺山의 西南쪽 溪谷으로서 梨花嶺 진지의 東側으로 通하는 捷路이고 보니, 전날 3번道路에서 痛擊을 받은 敵이 이번에는 側方으로 迂回하여 奇襲코자 함이 아닌가 여겨져 연대에서는 이를 注視하던 바, 더 이상의 出沒이 없이 現地에서 20餘分 동안의 銃擊戰을 벌이다가 그들이 스스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리하여 13.00에 復歸한 同 偵察隊의 報告에 따르면, △633에서 三豊里 溪谷으로 내려가다가 『심기』마을 부근에서 이들과 처음 부딪혔을 때에는 그 數交를 정확히 헤아릴수 없었으나 한결음 뒤로 물러서서 銃擊을 加하다 보니 이들은 增強된 소대규모로서 연대의 動靜을 探知하려는 探索隊인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攻擊보다도 오히려 交戰을 回避하면서 延豊 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小규모의 交戰이 있는 뒤로 다시 小康을 보이더니, 15.00에 제 3대대장 李雲山소령으로부터 報告되기를, 現陣地 西南쪽의 周榛里 溪谷에 대대규모의 敵이 盆地里쪽으로 南進中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必然코 연대의 西側背를 攻圍하려는 무리이거나 아니면 白華山(1063)을 넘어 聞慶 南쪽으로 侵襲하려는 迂回입이 分明하여 이 事實을 사단에 곧 報告하는 동시에 砲擊을 要請하여 周榛里와 甄峰 一圓을 強打케 하였다.

그리고 제 3대대로 하여금 △681 西麓에 兵力을 增強 配置토록하여 一戰을 決할 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稴村(△681 西쪽 2km) 부근에서 砲擊에 달려 자취를 감춘 敵의 行方이 杳然하였으며, 마침내 이러한 상태로 日暮가 가까워졌다.

이에 연대에서는 심상치 않은 敵의 動靜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夜間 방어태세로 들어갔는데 이날 下午에 右隣接인 제19연대가 聞慶쪽으로 크게 밀리고 보니, 이제 東西 兩側方에서 敵의 壓力이 漸次로 加重되어만 갔다.

그러나 연대는 梨花嶺의 現陣地를 계속하여 固守키로 다짐하고 各西里(梨花嶺 東南쪽 2.5 km)에 있는 연대 補給所만을 聞慶 南쪽의 南湖里로 移動시킨바 있었다.

### 3. 제 7연대의 戰況

이상과같이 제19, 제 2兩연대가 鳥嶺과 梨花嶺에서 攻防戰을 벌이고 있을때,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主力을 兩分하여 사단地域의 東西 兩側方을 警備하고 있었다. 즉, 李南浩중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는 聞慶 東北쪽의 八靈山에서 葛坪里溪谷으로 通하는 要線을 막고 金龍培중령이 지휘하는 제 1대대와 金鍾洙중령 指揮下의 제 2대대는 黃鷄山—白華山

간의 西南쪽 高地에서 側後方에 이르는 要所를 지키고 있었다.

따라서 사단에서는 1個대대의 豫備도없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工兵과 下士官教育隊 要員까지 開慶 東南쪽의 檀山 一帶에 配置함으로써 可用兵力이 전혀없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各연대 마다 1個中隊의 實兵力이 80명을 넘지 않는 형편이고 보니 絕對兵力의 不足으로 到處에 脆弱點이 露出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같은 狀況下에 20여km에 達하는 正面을 지키려는 사단장의 苦衷을 짐작할수 있거니와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鳥嶺關을 喪失한 直後에 逆襲을 執行치 못하여 痛心하는 現時點에서 雪上加霜으로 梨花嶺 附近 西南쪽의 無防備地帶로 敵이 계속 밀어들고 있다는 速報가 選至하니 側後方の 防備가 더욱 時急하여 不得已 一部의 병력을 再調整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에게 西側方의 2個대대를 西南쪽으로 移動시켜 1個대대로써 白華山을 占領케 하고 다른 1個대대로써 聖主山(南湖里西쪽 2km)을 방어토록 措置케 하는 동시에 제 2연대에서 1個중대를 뽑아 제 19연대를 增援케 하면서 開慶 北쪽의 △551를 堅守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各연대는 곧 이 方針에 따른 再배치에 着手하였는데, 제 7연대는 現在 제 2대대가 白華山의 北麓을 占領하고 있는 만큼 同대대로 하여금 그 西쪽의 平田峙까지 包含한 西向陣地를 編成하여 盆地里에서 白華山을 넘어 玉女峰에 이르는 軸線을 防禦케 하고 黃鷄山의 제 1대대를 그 南쪽으로 移動시켜 聖主山 西麓에서 南湖里에 이르는 要線을 막아 併列防禦케 하였다. 그리고 제 2연대에서 選拔된 1個중대는 △551 東南쪽의 池谷里로 躍進하여 主屹山에서 開慶邑으로 내려가는 溪谷을 막아섰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제 7연대가 사실상 사단의 左一線을 擔當케 되었으며 全般的인 陣容도 北向에서 西北向으로 크게 기울고 말았다.

어떻든 이로부터 제 7연대는 西側方의 防備에 注力하여 대체로 이날 17.00까지 陣地編成을 마친다음 陣前偵察을 實施하며 當面の 敵情을 探索하던 바, 진지를 占領한지 1시간 뒤인 18.00에 2個중대 규모의 敵이 白華山 西쪽인 平田峙를 目標로 侵襲하였다.

이 고개는 제 2대대의 제 6중대(장, 代理 尹鍊膺중위; 前중대장 鄭永三중위는 洪川에서 負傷으로 後送됨)가 지키고 있었는데 盆地里쪽에서 東南進한 敵이 白華里(白華山 南쪽마을)로 넘어 가려는듯, 二列縱隊로 登攀하자 그 九部後線에 潛伏한 同중대가 이를 陣前으로 誘導하여 一時에 掩擊하니 그 先頭가 山谷으로 흩어지면서 應射하였다. 이때부터 深山 峻嶺의 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敵은多數의 힘만을 믿고 強行突破코자 하였으나 중대의 頑強한 抵抗과 특히 제 8중대(장, 申用寬중위)의 火力支援이 奏効하여 1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이를 물리치고 말았다.

당시에 同중대를 지휘한 尹鍊膺중위는 證言하기를 『대대장으로부터 平發치고개(平田峙)를 막으라는 指示를 받고 現地로 올라가 보니 海拔 900m가 넘는 峻嶺에 외길이 南北으로

번하여 있는데 여기에서 진지를 編成한지 1시간이 채 넘기도 전에 敵이 밀려들었다.

本是 이고개는 兩側이 높은 絶壁으로 가로 막혀 이곳을 通過하지 않으면 白華山을 넘을수 없는 要衝이기 때문에 必是 敵侵이 있을것으로 豫想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아무런 警戒心도 없이 고개로 오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掩襲하였던 바 처음에는 당황한듯 하더니, 우리의 兵力이 얼마 減되는 事實을 確認한 뒤로는 突破하려고 發惡하였다. 그러나 우리 중대는 끝까지 이 陣地를 固守하고 連續 打擊을 加하였으며 또한 重火器중대의 砲擊支援이 適切하여 이를 물리칠수 있었다. 그리고 述懷하였다.

이와같이 연대는 適時에 要地를 막아 敵의 先鋒을 擊破함으로써 白華山을 確保함은 勿論이요 그 南쪽의 聖主山까지 이르는 사단의 西側方을 防護할수 있었으며, 저들은 더 이상 넘보지 못하고 退却함으로써 그 뒤로는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이 現狀態에서 밤이 깊어갔다.

그러나 實은 이때에 北傀제13사단의 主力이 연대 陣地 西쪽 6km의 거리인 院北里(九王峰 南쪽마을)로 集結하고 있었으니, 이제 前方과 側方에서 밀리는 2個사단의 敵과 맞서게 된것이다.

7월 16일 : 전날 鳥嶺을 掠取한 北傀제 1사단은 이윽고 이날 06.00를 期하여 總攻撃을 敢行하였다.

그 侵攻樣相을 보면, 鳥嶺을 占領한 부대로써 開慶 正面에 繼續的인 壓力을 加하는 동시에 2個연대 규모의 兵力을 들어 東西 兩側方으로 迂回, 侵襲코자 하였다. 즉, 그들의 豫備로 알려진 제14연대는 李昌權의 指揮下에 이날 戰地로 뛰어들어 사단 東側의 葛坪里 溪谷으로 近接하는가 하면 增援부대로 밝혀진 그들 제13사단 隸下의 제21연대는 李承俊이 이끌고 西南쪽의 白華山으로 侵襲하였으며 또한 이와 아울러 鳥嶺과 梨花嶺에서도 正面併打를 加하여 단숨에 開慶을 삼키려는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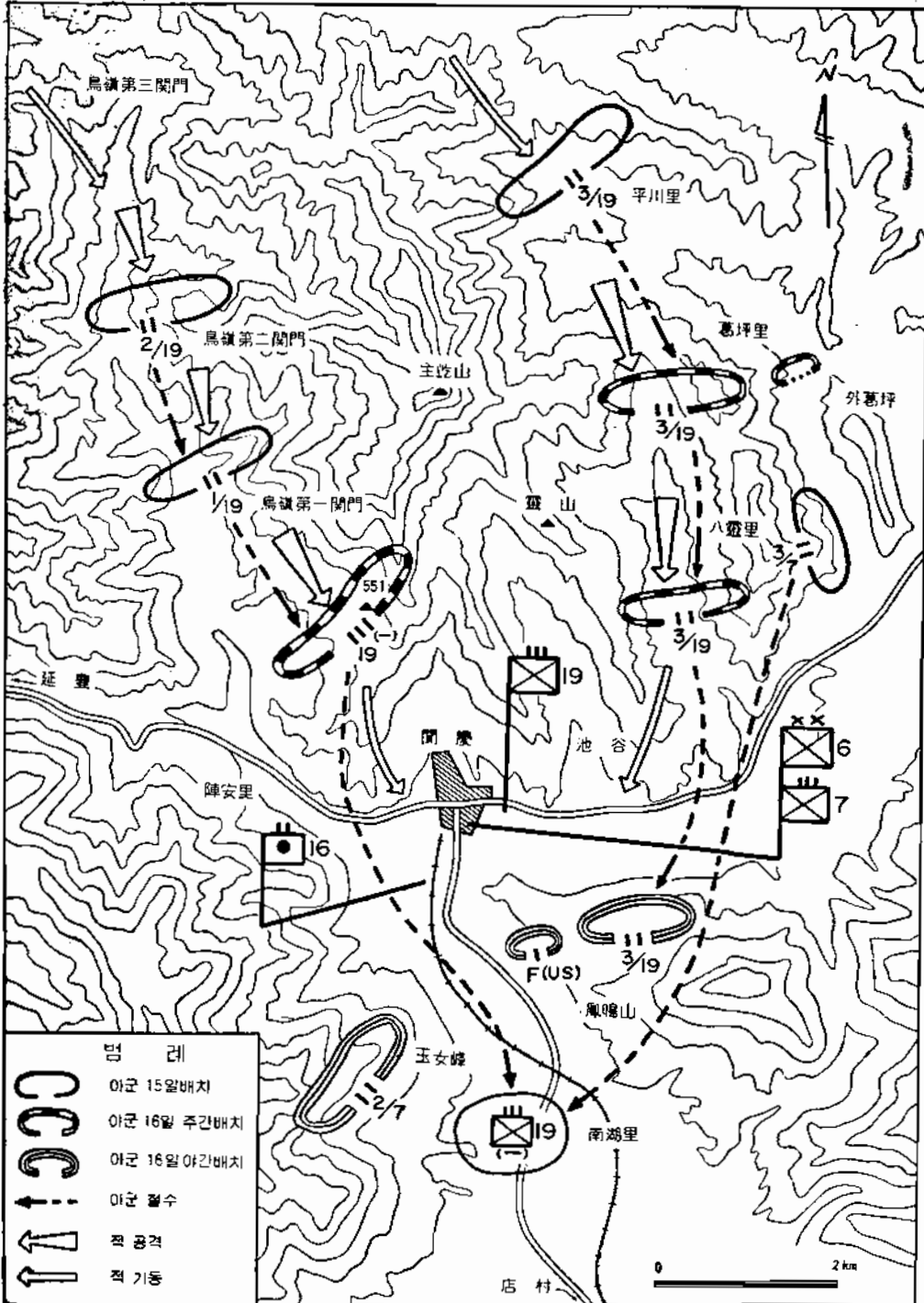
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北傀 제 2군단장 金武亭은 UN軍이 加擔하기 전에 小白山脈을 넘어야 한다고 強調하는 동시에 제 1사단장에게 제13사단 隸下의 1個연대를 뽑아 增援시키면서 早速히 開慶을 奪取토록 嚴命하였다고 하니, 이들이 中部地域의 初期進出을 얼마나 서둘렀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거니와 바로 그 衝鋒이 이날 開慶地域으로 集中된 것이다.

### 1. 제19연대의 激戰과 後退

사단의 右一線을 擔當한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는 전날 鳥嶺을 喪失한 뒤로 한걸음물러서서 葛坪里—△551—下草里 線에 陣地를 急編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여기에서 제 7연대의 제 3대대와 제 2연대의 1個중대를 增援받아 現陣地를 固守키로 다지고 있던바 이날 06.00에 右第一線인 제 3대대 地域으로 연대규모의 敵이 侵攻하였다.



◇ 상황도 제42호 제19연대의 戰況(7.15~16)



이곳은 聞慶에서 東北쪽으로 7km의 거리이며 또한 연대의 主力이 布陣한 △551와도 靈山을 中央에 두고 4km나 떨어진 곳으로서 사단 作戰地域의 右端에 突出한 俗稱『비지재 고개』(葛坪里 西南쪽 고개)부근으로, 대대는 여기에서 제 9 중대(장, 黃義哲중위)와 제 10 중대(장, 金斗逸중위)를 第一線에 配置하고 제 11 중대(장, 李庠學중위)는 外葛坪里부근으로 推進配置하는 한편 제 12 중대(장, 金德海대위)의 81mm 박격포 4門을 八靈里 溪谷에 放列시켜, 사실상 대대 單獨으로 사단의 東側方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攻擊의 확실을 側方으로 돌린 敵이 연대규모의 兵力으로 이를 휩쓸고자 하니 交戰直後부터 激突을 보여 一瞬에 攻防血鬪가 벌어졌다.

대대에서는 平川橋부근에 埋伏시킨 哨兵으로부터 敵이 나타났다는 報告를 받은 뒤로 一戰을 決할 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葛坪里 溪谷으로 밀려든 2個대대 규모가 陣前으로 殺到하자 外葛坪의 機關銃진지에서 野地를 橫斷하는 무리를 노려 機銃掃射을 加하는가 하면 『비지재고개』 西北쪽 稜線의 제 10 중대 제 2 소대는 孫觀祚소위의 號令아래 斜射의 불길을 휘두르고 또한 81mm와 60mm의 迫擊砲火가 密集群像을 強打하는등 最後阻止 射擊을 加하였으나 一波又一波의 狂濤가 마침내 射線을 넘고 陣前으로 肉薄하였다.

이리하여 『비지재고개』의 東北쪽 稜線을 扼守한 제 9 중대의 제 1 소대장 金榮默소위가 小隊員과 함께 手榴彈 激鬪를 벌이다가 쓰러지자 同중대의 先任將校인 金恒燮중위가 現地로 달려가 繼續하여 奮勵奮鬪하고 外葛坪의 金允基소위도 機關銃 사수가 重傷을 입게되자 陣地를 옮겨가며 直接사격을 加하는등 將兵 모두가 挺身力鬪를 벌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漸漸 더 不利하여 갔다.

여기에 또한 敵의 砲火가 激增하여 대대 관측소(△654 北쪽 1km)의 無名高地는 勿論이요 그 後方의 八靈里 一帶가 온통 硝煙으로 덮인바 外葛坪의 右端陣地가 무너져 一部の 敵이 側後方으로 侵襲할 뿐만아니라 연대와의 交信마저 끊어지고 보니, 이 이상 더 支撐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대장 金韓德소령은 兵力을 八靈里 南쪽으로 뺏아 제 7 연대의 제 3 대대(장, 李南浩중령)와 함께 △654—靈山線에서 이를 阻止키로 決心하고 撤收命令을 下達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敵의 主力이 龍淵里(葛坪里 東南쪽 2km)부근까지 侵襲하여 △654의 東側으로 殺到할뿐만아니라 대대陣地 周邊의 主要高地에서 PPSH-41 小銃(一名, 多發銃)으로 攪亂射擊을 配合하며 發惡하였다. 또한 진지 離脫時에 混亂이 惹起되어 11.00에 八靈里 南쪽의 洞口밖으로 集結하였을 때에는 대대의 總兵力이 300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萬一 이곳(△654—靈山線)을 지키지 못한다면 聞慶을 拋棄할수 밖에 없는 마지막 堡壘인 까닭에 힘써 兵力을 收拾하여 △460(靈山 南쪽稜線)에 急編陣地를 마련하는 즉시로 제 7 연대의 제 3 대대와 連絡을 취하면서 防守態勢를 갖추었는데 敵의 攻擊速度는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아 惡戰苦鬪의 連續으로 點綴되었다.

이때에 제 7연대의 제 3대대는 △654의 東側으로 侵攻한 敵과 맞서 打撃戰을 벌이고 있었는데 대대가 西南쪽의 △460로 轉進케 되자 左第一線인 제 9중대(장, 鄭在甲중위)로 하여금 이와 連繫토록 一部의 陣지를 調整함과 아울러 重火器중대(장, 柳承源중위)의 81mm 박격포를 光院里(聞慶 南쪽 3km)부근으로 북아 右第一線인 제 10중대(장, 金聖培중위)를 重點의 支援케 하며, 繼續 東側方의 敵을 抑留, 强打하였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兩대대는 聞慶 東北쪽으로 밀려든 攻波를 막아 擊滅戰을 展開케 되었는데, 葛坪里 陣지를 喪失한 뒤로는 敵의 壓力이 加重되어 2시간 동안의 交戰끝에 마침내 △460의 제 19연대 제 3대대가 다시 紛戰狀態에 이르고 八靈里 一帶가 敵의 獨舞臺로 化하여 이제 東端의 제 7연대 제 3대대 마저 退路가 遮斷됨으로써 危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장 閔丙權대령은 제 3대대가 △460에 이르러서야 無線交信이 疎通되어 아같은 戰況을 把握하고 사단장에게 增援을 要請하였으나 그의 手中에는 一兵의 豫備도 없으니 오직 善戰만을 當부하는 無力한 存在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551의 제 1, 제 2兩대대가 15.00부터 交戰이 시작되어 惡化一路를 치달다가 18.00 現在 聞慶 西쪽의 陣安里부근까지 밀리고 있으니, 사실상 연대의 防禦陣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이때에 사단에서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는데, 聞慶을 拋棄한다는 要旨와 함께 『제 19연대는 南湖里로 集結하되 1個대대로써 鳳鳴山 北麓에 掩護陣地를 占領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池谷里로 轉進中인 제 3대대장 金韓德소령을 無電으로 불러,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鳳鳴山으로 先行하여 그 西北쪽의 俗稱『우무실고개』부근에 掩護陣地를 急編토록 措置하는 한편 上里와 陣安里 一帶에 分散된 제 1, 제 2兩대대의 兵力을 南湖里로 集結케 하고 또한 東端의 제 7연대 제 3대대를 역시 南湖里로 철수토록 조치한 다음 自身도 聞慶橋를 건너 鳳鳴山부근으로 내려갔다.

이때가 19.00로서 夕陽이 기울 무렵이었는데 연대는 마침내 聞慶을 喪失하고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 2. 제 2연대의 撤收戰

이상과 같이 제 19연대가 苦戰을 치르는 동안에 제 2연대(장, 威炳善대령)는 如前히 梨花嶺陣지를 固守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敵의 直衝攻擊은 없었지만 左右側方의 壓力이 加重되어 漸次로 孤立狀態에 빠져 들었다.

특히 陣地 西南쪽의 盆地里 溪谷에 醜虜의 隊列이 잇달아 聞慶 南쪽으로 直指하는 듯 하니 側背의 威脅은 勿論이요 退路가 遮斷될 危險이 뒤따랐다.

이에 연대장은 前進陣地(△633)에 配置한 제 2대대(장, 李鍾基대위)를 뽑아 盆地里와 相接한 葛味峰 西쪽에 再調整 배치하는 동시에 李雲山소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를 이와 連繫

토록 하여 西向陣容으로 態勢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저들은 急速한 進出에 注力한듯, 砲擊으로써 撤退를 強要할 따름인지 接戰없이 焦燥하게 시간만 흘렸다.

이러는 사이에 隣接연대의 戰況이 크게 기울어 마침내 閔慶邑 마저 敵의 射程圈內에 들게되자 사단장 金鐘五대령은 연대를 撤收키로 決心하고 12.00를 期하여 『南湖里로 集結하라.』는 명령을 下達하였다.

이리하여 勝戰數를 올린바 있는 梨花嶺을 내놓고 물러서게 되었거니와, 제 3대대의 掩護下에 陣地를 離脫하기 시작하자 敵의 砲擊이 더욱 激增하여 이와 맞서 겨루던 제 1대대의 重火器중대장 金鎔河대위가 여기에서 散華하고 轉進間에 상당한 兵力損失을 보게되었다. 특히 金鎔河대위는 開戰初부터 重火器중대를 맡아 뛰어난 솜씨로 支援活動을 벌임으로써 上下間에 信任이 두터운 將校였는데 이날도 撤收하기에 앞서 2~3발의 非常彈만을 남겨놓고 敵線을 強打하다가 戰死케 되었다.

그러나 연대는 秩序를 잃치 않고 南湖里를 目標로 轉進케 되었는데, 主力으로써 各西里를 지나 陣安里에 다다르니 벌써 이곳에 敵火가 미치는지라 閔慶邑을 經由하지 않고 그 西쪽의 松子山(一名, 잣밭산)溪谷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敵은 烏嶺을 넘어 下草里부근으로 侵襲한 무리인것으로 推斷되는바,



〈南湖里的 集結地, 鳳鳴國民學校(1978년 7월 5일 撮影)〉

연대의 威勢가 堂堂하니 敢히 近接하지는 못하고 銃擊만을 加함으로써 後尾의 제 3 대대 兵力一部가 混線을 밟았을 뿐으로 큰 損失없이 一路南進케 되었다. 이리하여 鐵路 沿邊을 따라 馬院里를 通過한 다음 目的地인 南湖里에 당도하니 時針이 19.00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時刻은 바로 제19연대가 撤收하기 시작한 時間으로써 이제 左右一線의 兩연대가 모두 聞慶 南쪽으로 물러서게 되었거니와, 여기에서 연대는 警戒태세를 취한 가운데 次後의 戰鬪에 對備하였다.

### 3. 제 7연대의 激戰

한편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東西 兩側方의 警戒任務를 맡아 제 3 대대(장, 李南浩중령)를 東端의 △654에 配置하고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는 西側方의 白華山에, 그리고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는 그 南쪽의 聖主山 西麓에 各各 配置한 가운데 전날 平田時(白華山 西쪽 1km)에서 一戰을 치루었음은 既述한 바 있거니와, 이날은 제19연대 地域에서 紛戰이 惹起되어 東側方의 阻止障地가 瓦解됨에 따라 이 地域으로 推進된 제 3 대대는 同연대 장 閔丙權대령의 統制下에 들어가고, 제 7연대는 제 1, 제 2 兩대대로서 西側方의 防備에 注力케 되었다.

따라서 이날 연대의 主任務는 白華山과 聖主山을 막아 側後方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하는 同時에 사단 作戰地域의 動脈이라고 할수있는 3번道路를 確保하여 一線 兩연대의 流動의인 戰況에 對處한 融通性을 提供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날 上午에는 右一線인 제19연대 地域에서 交戰이 거듭됨에도 不拘하고 연대의 責任地域에서는 特記할만한 敵情이 없더니, 梨花嶺의 제 2연대가 撤收하기 시작한지 1시간 뒤인 13.00에 이르러 盆地里에서 黃鷄山을 넘어 聞慶 南쪽으로 通하는 俗稱『원두메』라 불리는 火田村 부근에 增強된 大대규모가 同山을 넘고자 東進을 재촉하였다.

이에 白華山의 西쪽 稜線을 占領한 제 2 대대의 제 7 중대(장, 金祐熙중위)가 斜射의 불길을 휘둘러 그 先鋒을 무찌르고 또한 同대대의 重火器중대(장, 申用寬중위)에서 『원두메』一帶에 集中사격을 加하는등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火力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步一步 障前으로 파고들며 同중대를 攻圍할 뿐만 아니라 제 2연대가 撤收함에 따라 虛隙이된 葛味峰 東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主力으로써 黃鷄山의 主峰을 넘어서고 말았으니, 이로부터 중대는 退路마저 遮斷될 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대의 左第一線인 제 6 중대(장, 代理 尹銖庸중위)도 14.00부터 平田時에서 大대규모의 敵과 맞서 攻防激鬪를 벌이다가 끝내 障地가 무너져 白華山쪽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이제 대대는 더 이상 支撐하기 어려운 狀況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듯 戰況이 急轉한 까닭은 제 2연대의 轉進과 때를 같이하여 梨花嶺을 占領한 敵이

盛勢를 돌아 다시 연대의 正面으로 指向한 集中攻擊을 加함으로써 惹起된 현상인 것으로 풀이되거니와, 이같은 戰況의 推移를 看破한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現地에서의 抵抗보다도 3번道路와 集結地인 南湖里를 確保하는 문제가 더 火急하다고 結論짓고 제 2대대로 하여금 玉女峰으로 撤收하여 聖主山의 제 1대대진지와 連한 強力한 側方陣地를 編成토록 命令하였다.

그러나 敵의 攻波는 미친듯이 날뛰어 이 命令을 下達한 19.00現在로 主力으로써 平田峙를 넘어서고 있었으니, 聖主山의 제 1대대(장, 金龍鎔중령)가 이를 막아 血鬪를 벌이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黃鷄山을 넘어선 대대규모가 開慶 直南方의 松子山쪽으로 밀려들어 玉女峰 北쪽의 防備對策이 時急하였다.

이로부터 연대는 兵力의 劣勢를 무릅쓰고 惡戰苦鬪를 거듭하게 되었으니, 특히 敵의 主力과 맞선 제 1대대는 聖主山 西麓에서 激鬪를 벌여 80餘명의 驕醜를 무찌르기도 하였으나 右第一線인 제 3중대(장, 金明益중위)의 제 1소대장 卓중위(本名 未詳)가 戰死하고 同중대의 先任將校인 李相雨중위가 그 뒤를 이어 白華里쪽에서 밀려드는 무리를 막다가 크게 負傷을 입는가 하면 제 1중대의 先任將校인 朴寬植중위가 奮戰中에 散華하는등 力鬪에 이은 血鬪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同대대는 一步도 물러서지 않고 腥血이 덮인 聖主山 진지를 扼守하였으며 玉女峰의 제 2대대도 또한 白華山쪽에서 侵攻하는 敵을 막아 固守不變의 態勢를 취하였다.

이렇듯 兩대대가 挺身力鬪를 벌이고 있을 무렵인 20.30에 제 3대대장 李南浩중령이 제 19연대의 配屬으로부터 解除되어 大隊員을 이끌고 南湖里에 當到하자 연대장은 곧 同대대를 馬院里(南湖里 北쪽 2km)로 躍進시켜 玉女峰의 北쪽 稜線에 阻止陣地를 急編토록 措置하니 이제 3個대대가 힘을 모아 西側方의 醜虜를 抑留, 續打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20.00를 前後하여 開慶邑이 敵手中에 떨어진 뒤로 刻一刻 그 壓力이 增強될 뿐 만 아니라 玉女峰과 聖主山에서도 交戰이 繼續되어 밤이 깊도록 銃砲聲이 그치지 않았다.

다만, 敵側에서도 大兵力이 集結中인 南湖里의 攻擊을 警戒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開慶을 占領한 뒤에 再編成 상태로 들어간 緣由인지 그 까닭은 分明치 않으나 正面에서 挑戰해 오지는 않고 側方에서 一衝一退의 挑發에 그침으로써 연대의 地域에서만 間歇적으로 交戰이 散發할 따름이었다.

#### 4. 支援部隊의 活動狀況

(가) 砲兵大隊의 激戰 : 이상과 같이 3個연대가 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을때에 제 16포병대대(장, 金聖소령)는 開慶驛 바로 北쪽의 果樹園 附近에서 一線연대의 戰況에 따른 砲擊支援에 注力하고 있었는데 제 1포대(장, 金長根대위)와 제 2포대(장, 李萬浩대위)는 3번道路西側에 位置하고 제 3포대(장, 鄭五敬대위)는 그 東側에 砲陣을 選定하여 各各 5門의

砲를 放列코 砲彈에 拘碍없이 無制限으로 砲擊을 加하였다.

특히 제 3 포대는 제 2 연대가 梨花嶺에서 撤收하기 直前까지 各西里에서 直接支援하다가 同연대가 轉進케 됨에 따라 이곳으로 先行하여 掩護射擊을 加하였으며, 제 1 포대는 鳥嶺을 넘어선 敵群을 노려 下草里 一帶를 強打하고 제 2 포대는 제 19 연대의 제 3 대대 正面으로 砲口를 指向코 葛坪里 一帶를 鐵火로 덮어씌웠다.

이렇듯 대대는 3 個砲隊로 激戰地를 쫓아 사단을 一般支援하고 있었는데, 이날 下午에 이르러 제 19 연대의 제 3 대대가 八靈里쪽으로 轉進케 되자 同연대장의 要請에 따라 제 2 포대가 이를 掩護하고, 제 1, 제 3 兩포대는 梨花嶺진지를 喪失한 以後에 西側方으로 殺到하는 敵線을 노려 盆地里와 白華山 一帶를 強打하였다.

그런데 16.00를 前後하여 突然 閔慶邑 北端의 上里 附近에서 敵의 82mm 迫擊砲彈 10餘發이 제 2 포대의 砲陣으로 連續 날아들어 陣地 中央에서 炸裂케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一瞬間에 18명의 死傷者가 續出하고 말았다.

이는 步兵과 砲兵이 相互 協助치 않아 敵情을 미리 把握하지 못한대에도 그 原因이 있으려니와 제 2 포대의 將兵들이 7월 中旬의 曝陽을 이기지 못하여 鐵帽와 上衣를 벗고 砲를 操作하다가 奇襲砲火의 破片에 말려 大部分이 頭部와 胸部에 重傷을 입고 쓰러지게 된 것이다.

이때에 鄭五敬대위가 지휘하는 제 3 포대에서 이 光景을 目擊하자 즉시 砲口를 北쪽으로 돌려 同時 集中射擊으로 이 敵火를 制壓케 되었으나 戰砲隊長 金正熙중위를 비롯한 分隊長 鄭國鍾 一等中士 및 砲隊員등 12명이 後送途中에 殞命하고 또한 다른 砲手들도 戰傷을 입어 사실상 제 2 포대의 機能이 癱痺된데다 敵이 目前에 닥다르고 보니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 新峴里(南湖里 南쪽 3.5km)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곳은 사단의 指揮所가 位置한 場所로 現地에 當到한 포병대대장 金聖소령은 사단장 金鐘五대령에게 이같은 戰況을 報告함과 아울러 一線연대의 非協助를 呼訴하기도 하였으나 當面한 危急狀況에 비치운 사단장의 慰撫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砲陣을 選定하여 支援射擊을 續開하였다.

그러하여 제 7 연대 正面의 白華山 一圓은 勿論이요, 敵의 集結이 豫想되는 閔慶邑 周邊의 要路에 集中的으로 砲擊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나) 사단工兵大隊의 活動 및 其他 : 工兵대대장 朴正采소령은 麾下의 3 個중대 가운데 제 1 중대(장, 金永根중위)를 제 2 연대에 配屬하고 제 2 중대(장, 白時旭대위)와 제 3 중대(장, 林秀一大위)를 自身이 直接 掌握하여 地域內의 機動路를 補修하고 主要橋梁을 警備하는가 하면 사단 指揮所의 警備 및 東側方의 警戒任務까지 併行하면서 一線연대를 支援하였다.

특히 제 1 중대는 제 2 연대가 撤收한 뒤로 陣安橋를 爆破한데 이어 閔慶으로 넘어드는 『아

티랑고개』에 對戰車壕를 掘鑿하고 제 3 중대는 葛坪里에서 邑內로 들어가는 『鄉校다리』를 폭파하는 등 戰況의 變轉에 따른 拒否作戰을 展開하기도 하였는데, 이날 下午에 이르러 끝내 聞慶을 喪失케 되자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撤收에 對備하게 되었다.

즉, 南湖里 南쪽의 所耶橋와 潁江의 鐵橋 및 鎮南橋를 爆破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一部兵力을 뽑아 店村으로 先行시켜 장차 사단 指揮所를 移設할 豫定인 戶西南국민학교를 警備케 하였으며 남은 兵力으로 聞慶—南湖里간의 道路 要所를 破壞케 하였다.

이렇듯 대대는 3 번 道路의 確保와 敵에 對한 拒否로 前後方을 넘나들며 눈부신 活動을 展開하였는데, 이날 밤에 사단의 主力이 撤收함에 이르러 鎮南橋를 爆破하려 할 때에는 제 1 차 點火에 失敗하여 一旦 佛井쪽으로 물러섰다가 小銃射擊으로 爆藥을 터뜨려 폭파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爆藥으로 dynamite를 使用하였기 때문에 小銃사격으로서도 爆發이 可能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거니와, 이것은 危險한 一瞬間이기도 하였다.

그 뒤로 대대는 指揮本部와 함께 店村으로 移動하여 다시 潁江線 방어전을 支援하였다.

이 밖에도 醫務部長 洪龍根중령은 陣安里에 設置한 收容所를 南湖里—新峴里—店村으로 逐次 移動하여 負傷兵의 治療와 收容 및 後送에 任하였으며 通信部長 朴升圭소령은 指揮所의 移動에 따른 有無線 疏通에 盡力하고 또한 兵站, 兵器, 憲兵, 輸送 등 支援部隊들도 各各 그 所任을 다하였다.

(다) UN空軍의 誤爆: 한편 7월 中旬부터 支援活動을 展開한 UN空軍은 그동안 주로 西部戰線에서 活動하다가 이날 下午에 聞慶 戰線이 危機에 처하자 두차레에 걸쳐 사단의 作戰地域으로 出擊하였는데, 제 1 차는 16.00를 前後하여 F-80戰爆機 1 個編隊가 延豊 上空에 나타나 梨花嶺 北쪽의 敵線을 強打한 바 있었으나 두번째로 出擊한 19.00에는 彼我를 分別하지 못하여 큰 誤爆事故를 빚고 말았다.

즉, 南湖里에 集結中인 我軍隊列을 敵으로 誤認한 나머지 네차레에 걸친 機銃掃射을 加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제 19연대장 閔丙權대령의 Jeep車를 비롯한 10餘臺의 車輛이 破壞되고 큰 混亂이 惹起되어 한동안 混線을 빚은바 있었다.

그런데 航空連絡將校는 勿論이요 對空布板마저도 없으니 그대로 待避할수밖에 없었으며 이때부터 廣木匹을 준비하여 對空布板으로 活用키로 하였다.

그 뒤로 이같은 事例는 다시 없었지만, 損失의 多寡에 關係없이 心理的인 衝擊은 적지않아 한동안 友軍機를 보고도 待避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고 하니, 戰爭初期의 聯合作戰에 未熟하였던 一局面을 보여 주는 듯 하다.

##### 5. 美제 35연대의 戰鬪加擔

聞慶 正面의 防禦陣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무렵인 이날 15.00에 美제 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 隸下의 제 35연대(장, Henry G. Fisher 대령)에서 選拔된 1개 대대 규모의 특



殊任務部隊(Task Force)가 咸昌에서 店村을 거쳐 聞慶쪽으로 急進中이었다.

그 編成을 보면, 同연대 제 2대대 所屬의 F중대와 제79戰車大隊에서 差出된 戰車 1個 소대 및 제90野砲대대의 A砲隊로서, 危機에 처한 사단을 增援키 위하여 步兵의 先導下에 鎮南橋를 넘어 南湖里로 急遽 北上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 同사단은 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으로부터 『尙州에 基地를 두고 醴泉—咸昌—報恩線에 2個연대를 展開하여 小白山脈의 要線에서 防禦戰을 펴고있는 韓國軍을 支援하라.』는 任務를 賦與받고, 제24연대를 醴泉으로, 제35연대를 咸昌으로 各各 推進한 가운데 一線의 戰況을 지켜보면서 3번道路(聞慶—店村—咸昌—尙州—金泉)의 確保를 꾀하고 있었는데 聞慶 戰線이 危殆롭게되자 그 先遣隊를 急派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同先遣隊의 先頭인 F중대가 南湖里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戰況이 크게 기울어 撤收段階에 접어들고 있었으므로, 步兵은 聞慶 南쪽의 鳳鳴山에 올라 掩護陣地를 占領하고 A砲隊의 155mm野砲는 鳳鳴鑛山 西쪽에 砲陣을 選定하였으며 戰車小隊는 다시 鎮南橋 南쪽으로 反轉하여 佛井里에서 待機하는등, 主로 3번道路 周邊에서 撤收에 對備한 掩護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듯 美제35연대의 1개대대만으로 편성한 特殊任務부대가 消極的인 態度를 취한 까닭은 同연대의 나머지 1個대대가 黃澗으로 轉進中인 제27연대에 배속됨으로써 後續措置를 講究키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이날 現在 西部戰線의 美제24사단이 錦江線에서 물러나 大田으로 集結하고 있는데다 이를 赴援키로한 제 1機甲사단이 아직도 浦項에서 上陸過程에 있었으므로 그 直後方인 尙州—永同線을 確保하는데 注力케 됨으로써 事實상 國軍을 支援할수있는 餘力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火力支援으로 사단의 撤收를 掩護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데, 다만 先頭의 F중대만은 제19연대의 제 3대대가 이곳 鳳鳴山으로 進出하자 그 左端의 一角을 맡아 繼續하여 現陣地에 머물고, 砲兵과 戰車는 이날 밤에 사단의 主力이 撤收하기에 앞서 재빠르게 店村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同중대는 제19연대의 제 3대대와 함께 鳳鳴山을 지키고 있다가 撤收命令을 받지못하여 다음날 敵의 奇襲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過程에서 一部の 兵力들이 烏嶺川(聞慶에서 潁江으로 흐르는 개울)을 건너려다가 溺死하는등 10餘名의 兵力損失을 보고 同 제 3대대를 따라 烏井山으로 빠져나왔다.

특히 이 轉進過程에서 제19연대의 將兵들은 河中에 허덕이는 兵士들을 救出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버리고 간 裝備를 收拾한 바 있었는데 그때마다 美兵들이 警戒하는 눈치를 보이는 珍奇한 現象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美제35연대는 本戰鬪에 加擔하였다는 意義만을 남기고 兵力을 거두어 尙州쪽으로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 6. 潁江(영강)防禦線의 占領

이상과 같은 戰況의 激變에 따라 사단장 金鐘五대령은 于先 戰列을 整備키 위하여 一線兩 연대를 南湖里에 集結토록 措置하고 보니, 그의 心境은 실로 錯雜하였을 것이다.

嶺南의 第一關門이라 일컫는 鳥嶺과 梨花嶺을 喪失한데 대한 責任感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果然 어디로 가야할것이며, 이대로 繼續 밀린다면 그 結果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自問自答이 腦裡에서 去來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兵力의 增援이 없고 上級司令部나 友軍의 支援이 微弱할지라도 期必코 이 戰線을 지켜야 하기에, 오직 그 一念에 沒頭한 나머지 이제 挺身報國의 길을 擇해야할 時機가 到來하였다고 斷定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表情은 연대장이나 대대장도 마찬가지였으며 一線 兵士에 이르기까지 그 氣脈이 사투쳐, 이때부터 大部分의 將兵들이 遺書를 남겨놓고 臨戰할 뿐만아니라 아예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護國의 精魂이 以後의 遲延戰과정에서 遺憾없이 발휘되어 洛東江 戰線의 防守가 可能하였음은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이날 밤 21.00에 新峴에서 開催된 野戰會議 席上에서 사단장이 強調한 不退轉의 決意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이자리에서 그는 『더 이상 後退하느니 보다 차라리 이곳에 우리의 뼈를 묻자.』고 悲壯한 決意를 表明함과 아울러 『現集結地인 南湖里에서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鳳鳴山—馬院里—玉女峰—聖主山으로 連하는 阻止障地를 占領하여 이를 死守하자.』고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19연대로 하여금 3번道路 東쪽에서 鳳鳴山 一帶를 防禦케하고 제2연대는 中央一線을 달아 南湖里正面을 방어케하는 한편 제7연대는 이에 連하여 現 占領障地인 玉女峰과 聖主山을 固守토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 事實을 軍단에 報告하는 동시에 兵力과 火力의 增援을 要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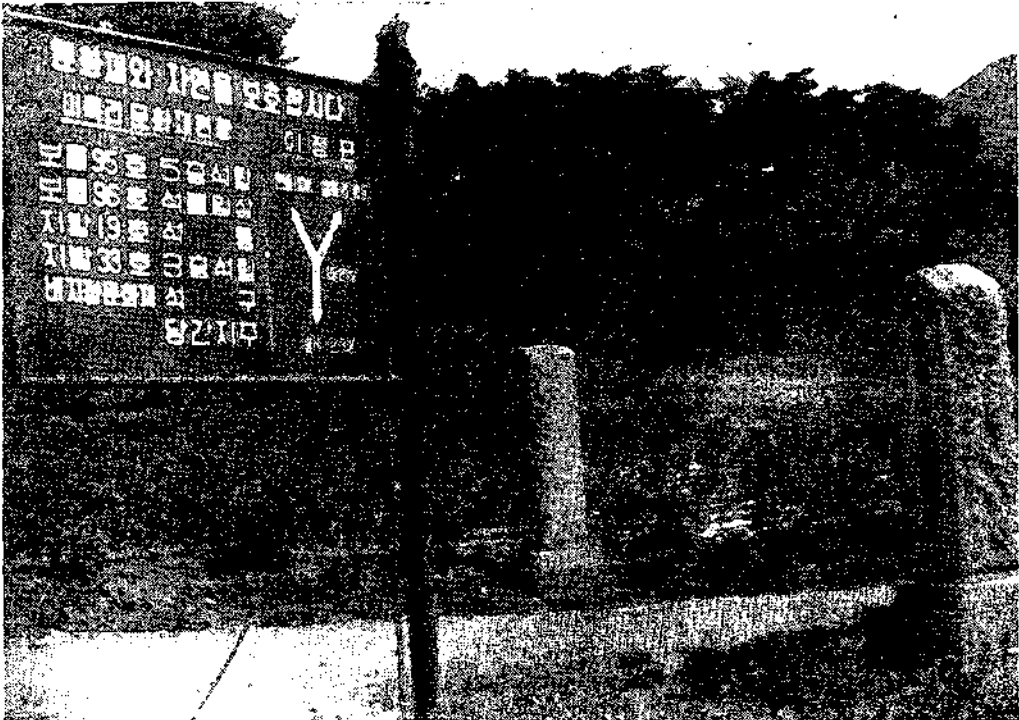
이무렵 軍단에서도 聞慶을 喪失한 以後의 對備策을 檢討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全戰線의 激動과 軍단 正面의 急轉하는 戰況에 비추어 次後의 防禦線을 어디에 選定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熟議하던 바, 이같은 報告에 接하게 되자 즉시 그 施行을 留保토록 命令하였다.

그 까닭은, 現在 西部戰線의 錦江防禦線이 瓦解되어 美제24사단의 主力이 大田으로 集結하고 있는데다 軍단의 地域內에서 活動하던 美제25사단 隸下의 제24, 제35兩연대가 尙州로 集結中에 있고, 또한 恩城 西北쪽의 上槐里와 完章里 부근으로 北傀 제13사단의 先頭가 殺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尙州 西北쪽의 化寧場부근에 單隊號 未詳의 敵이 出現하는등, 사실상 小白山脈의 방어선마저 崩壞됨으로써 설사 제6사단이 現戰線을 固守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敵中에 孤立化되는 結果를 自招할 憂慮가 있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사단에서는 一旦 陣地占領을 中止하고 現狀態에서 一 측, 제 7 연대는 玉女峰과 聖柱山에, 그리고 제 19 연대의 제 3 대대와 F 중대는 鳳鳴山에 各各 配置된 상태 一 機動態 勢를 取한채로 待機하던 바, 이로부터 3 시간이 지난 이날 밤 子正을 期하여 軍단장 金白 一 准장으로부터 『제 6 사단은 潁江線으로 撤收하라.』는 口頭命令이 下達되었다.

이 命을 받은 사단장 金鍾五 대령은 未滿함이 없지 않았으나 軍단에서 劃一的인 防禦線을 構築하려 한다는데 異論의 餘地가 없어 곧 兵力을 撤收키로 하였다. 더구나 現陣地 後方의 恩城부근에 敵의 壓力이 加重되고 있다하니 迅速한 移動이 要望되는지라 날이 밝기전 에 指示된 新陣地를 占領키로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다음날 01.00부터 逐次로 兵力을 뽑게 되었는데, 새로운 防禦陣을 編成하려는 그의 作戰構想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즉, 現在의 兵力實情으로 보아 擔當正面을 完全히 補填하려면 時間과 兵力의 餘裕가 없으므로 3 個연대를 모두 一線에 展開하여 潁江 부근의 主要 高地와 稜線으로 連한 江岸의 陣地를 占領키로 하되, 제 19 연대는 右一線을 맡아 3 번 道路東쪽의 烏井山과 大灘里를 막고 제 2 연대는 中央一線에서 魚龍山을 포함한 江南岸의 突出稜線을 擔當할 것이며 제 7 연대는 바로 敵이 밀려들고 있다는 恩城地域을 맡아 左一線을 防備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砲兵은 內佛井(俗稱 안불정)에 砲陣을 選定하여 사단을 一般支援케 하고 工兵은 1 個중대를 제 2 연대에 配屬토록 하되 사단의 主力이 撤收하는 즉시로



〈小島嶺의 分岐路〉

所耶橋와 鎮南橋를 優先으로 爆破케 하였으며 其他의 支援부대는 一旦 幽谷으로 集結하여 別途의 命을 待機토록 하는등, 全兵力을 들어 地域防禦태세를 취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方針아래 제 7연대의 제 1대대와 제 19연대의 제 3대대 및 F중대의 掩護를 받으며 南湖里에 集結中인 제 2연대를 先頭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는데, 大部分이 3번道路를 따라 鎮南橋를 건너고, 제 7연대 만이 憲兵이 案內하는 所耶橋에서 西南쪽으로 轉進하여 恩城부근으로 내려갔다.

이리하여 徹夜로 徒步移動끝에 다음날 05.00까지 各各 指示된 場所에 當到하여 陣地를 編成케 되었는데, 鳳鳴山에 位置한 제 19연대의 제 3대대와 F중대에는 撤收命令이 傳達途中에 끊기어 여기에서 하루를 더 머물다가 17일 下午에 烏井山으로 내려가 本隊와 合勢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4일동안에 걸친 聞慶附近의 戰鬪를 一旦 매듭짓고 潁江線으로 한걸음 물러서서 새로운 戰鬪에 對備하기에 이르렀다.

###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에서 本戰鬪를 一旦 매듭짓고 潁江 河畔으로 물러선 17일 現在에 隣接部隊의 戰況을 살펴보면 右隣接인 제 8사단은 竹嶺에서 北魏 제 8사단과 對決끝에 이곳을 내놓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豊基—榮州間に 要城을 確保코자 徹夜로 激戰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左隣接인 제 1사단은 米院에서 저들 제 15사단의 侵攻을 막아 13일 以後 이날에 이르기까지 固守防禦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現在의 兵力配備 상황을 表面上으로 一瞥할때에는 豊基—赤城里—麻城(聞慶 南쪽 8km—恩城—米院으로 이어지는 小白山脈 南麓의 陣地를 아직도 堅持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其實은 오히려 敵情이 輕微한 듯한 西半部에서 큰 變化가 일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까닭은, 戰鬪가 漸次로 熾烈함에 따라 各사단 마다 擔當 地域內의 要線을 防備하는데 嚴重하게 됨으로써 聞慶—米院간의 45km에 達하는 高山地帶가 거의 虛隙狀態로 化하게되자 이點을 노린 北魏 제 2군단장 金武亨이 이地域으로 2個사단을 投入하여 그중 제 13사단은 聞慶 西南쪽의 恩城을 圍謀케 하고 제 15사단은 富興里(米院 東北쪽 10km)—化北—化西—尙州 軸線으로 直貫 突入케 하니 이 兩사단이 어느덧 小白山脈을 넘어 現配置線 南쪽으로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陸軍本部에서는 이날 現在까지 이같은 敵의 企圖를 把握하지 못한채로, 다만 聞慶을 喪失한 以後에 中部地域으로 미치는 敵의 壓力이 加重된 點을 重視하여 陸本 直轄인 제 17연대(장, 金熙濬중령)로 하여금 急遽 威昌으로 移動하여 제 2군단장의 指揮下에 들도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同연대가 報恩을 出發하여 17일에 化西面으로 내려가다가 北魏 제 15사단의 先鋒과 化寧場에서 不期로 遭遇하여 뜻하지 않게 後方에서 激突케 되자 이때에야 비로소 敵의 企圖를 가늠하고 戰線을 急히 調整하기에 이르렀다. 즉, 米院의 제 1사단을 化西面으로 뽑아 尙州 正面의 防禦力을 強化하고 또한 當사단으로 하여금 恩城부근까지 防禦正面을 延張토록 하는 동시에 首都사단 隸下의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를 제 2군단에 增派하는등, 이제 제 1, 제 2軍團간의 空白地帶를 補填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潁江線으로 물러선 直後에 恩城 西쪽의 加恩面 一帶까지 包含한 18km의 戰鬪正面을 擔當케 되었거니와, 當面에는 北魏제 1, 제 13兩사단이 繼續 南侵할 氣勢를 보이고 있었다.

즉, 聞慶을 占領한 제 1사단(장, 崔光)은 3번道路를 따라 幽谷—店村 軸線으로 侵攻을 꾀하는 등, 그 先遣隊가 벌써 南湖里 부근까지 侵襲하여 麻城面 一帶에 出沒하였으며 또한 完章里(恩城 西北쪽 7km)부근까지 南下한 것으로 알려진 제 13사단(장, 崔籍讓)은 여기에서 兩分하여 一團은 恩城으로

로, 그리고 다른 一隊는 龍岩岬쪽으로 各各 分進突入코자 하는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統制한 軍단사령부도 이즈음에 忠州에서 水安堡로 옮겼다고 하며, 特히 金武亭이 強調하기를 『제 6 사단을 攻略하라.』고 외쳤다고 하니, 사단의 戰力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集中攻撃이 있으리라는 點도 未우어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어떻든 이들은 조금도 速度를 늦추지 않고 強攻策을 取하여 곧 陣前에 밀려들 徵候가 歷然하였다.

한편 사단은 이 戰鬪가 끝날 무렵인 17일 밤에 指揮所를 店村으로 移設하고 主力을 穎江부근으로 뺏아 대체로 烏井山—大灘里—佛井里—魚龍山—旺陵里—鶴泉里로 이어지는 江岸의 主要高地와 稜線에 陣地를 編成케 되었는데, 3 個연대를 모두 一線에 展開하여, 3 邊道路 東쪽의 右一線은 閔內權대령이 지휘하는 제 19연대가 맡고 魚龍山 一帶의 中央一線은 제 2연대(장, 威炳善대령)가, 그리고 恩城부근의 左一線은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가 各各 맡아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豫備隊가 없이 全兵力을 第一線에 配置케 되었거니와, 그래도 연대마다 5~6km의 擔當正面을 完全히 防備키 어려워 사단 預備인 教育隊의 基幹將兵을 제 2, 제 19兩연대에 分割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防禦正面의 理由도 있지만 아직까지 損失兵力을 充當하지 못하여 1 個연대의 總兵力이 1,500 명 水薄을 넘지 못한데 큰 原因이 있었으며 裝備面에 있어서도 緒戰 그대로의 상태에서 M-2 105mm 野砲 8 門을 補強한것 뿐이었다.

當時에 軍當局에서도 이같은 實情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保有兵力과 裝備의 不足으로 그리할수 밖에 없었다. 20일附로 겨우 제 1연대를 增援한 것을 비롯하여 제 1 사단이 後續하고 2 週日 後에는 新兵이 當到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與件下에서도 試練이 크면 클수록 將兵들의 護國精神은 더욱 공고히 굳어져 이 以上 물려서느니 보다는 차라리 이곳을 稍肯의 聖地로 삼아 나라를 지키자고 다짐하였다고 하니, 次節에서 詳述할 『店村—幽谷里 附近의 戰鬪』가 血戰譜로 點綴된 點點 보더라도 能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곧 以後의 遲延戰은 護國의 兪로 防禦를 쌓아올리게 되는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

(1965년 3월 14일, 合參議長室에서, 大將)

閔慶地域에서는 梨花嶺에서 크게 싸웠다. 이때부터 本格的으로 遲延戰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내가 原州에서 忠州로 떠나기 直前에 作戰局長 張昌圖대령으로부터 1 個연대를 뺏아달라는 付託을 받고 忠州로 옮긴 後에 제 19연대를 驪州方面으로 急派하였는데 이때에는 西部戰線의 各師團이 크게 分散되어 사실상 兵力과 裝備를 濫存한 사단은 우리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다시 제 7연대를 陰城地區로 增派한 바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劃一의인 戰線을 形成치 못하고 연대단위로 局地戰을 쳐다가 閔慶으로 集結하여 비로소 사단作戰을 전개케 되었다.

多幸히 우리는 原州를 떠나기에 앞서 寧越炭嶺

에서 200餘臺의 truck을 徵發하여 車輛으로 機動한 까닭에 重裝備와 彈藥까지도 運搬할수 있었으며 食糧 補給에도 아무런 支障이 없이 이 전투를 치루었다.

특히 記憶에 남은것은 古兵이 많은 제 2연대가 敵의 先鋒을 꺾어 凱歌를 울렸던 點과 美軍이 參戰하였던 일이다. 威炳善대령(제 2연대장)이 梨花嶺에서 反擊하여 延豐에 突入하였다는 報告와 함께 敵의 裝甲車와 75mm野砲까지 函獲하였다고 快報를 傳해 왔을때 參謀들이 歡聲지르던 모습도 只今도 눈에 선하며, 美軍이 155mm野砲 1 個砲隊를 끌고 鳳鳴嶺山부근까지 올라 왔을때 兵士들의 士氣를 鼓吹시키기 위하여 全將兵들에게 UN軍의 參戰消息을 傳達케 한일이 있었다.

이 友邦軍은 美제 25사단 所屬으로 醴泉에 1 個

大隊가 있다가 竹嶺방어선이 무너지자 이곳으로 轉進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에는 聞慶도 사실상 敵手에 떨어져 함께 苦戰을 치르며 撤收케 되었던 것이다. 同사단장 Kean 소장을 咸昌의 제 2군단 사령부에서 만나 作戰을 協議한 일이 있었는데 參戰直後에는 期待할만한 것이 못되어 失望하였다.

聞慶과 店村에서 싸울 당시에는 兵力을 充當하지 못하여 더욱 苦役을 치렀으며 特別 鳥峰 전투 시에는 兵力의 殆不足으로 全將兵이 小銃手가 되어 싸우다 시피 하였다.

누구의 強要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戰地에 뛰어들던 護國將兵들의 모습이 지금도 記憶에 생생한데, 이같은 闕魂은 높이 아로 새겨 본 받아야 할것이다.

遲延戰 과정에서 수한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참으로 잘 싸워 주었으며 누구도 살아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몸 바쳐 나라를 救한 護國英靈들의 冥福을 빈다.

#### ◇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

(1978년 3월 25일, 自宅에서, 예, 중장)

우리가 水安營에서 梨花嶺으로 撤收할 때에는 彼我間에 極度로 疲勞한 狀態에 있었다. 連日連夜 交戰과 機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연대는 大部分이 忠南出身으로, 平素에는 默默히 말이 없었지만 自己 任務에 충실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勇敢히 잘싸웠는데, 이 撤收過程에서도 敵과 接觸을 維持하면서 夜間에 徒步行軍으로 轉進케 되었지만 落伍兵 없이 陣地를 占領하였던 것이다. 특히 李雲山소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는 掩護部隊로 남았다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면서 三豊里부근에서 混線을 빚은바 있었으나 대대장의 敏腕한 收拾으로 큰 損失 없이 歸任하였다.

李雲山소령은 年齡도 높고 慎重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때 마다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아깝게도 烏林山전투에서 地雷의 폭발로 戰死하였다. 그는 실로 沈勇한 대대장 이었다.

이 전투에서도 延豊으로 反擊할때 많은 戰功을 세웠을 뿐만아니라 南湖里로 集結할때에도 끝까지 『기름봉』에 버티고 서서 主力의 撤收를 掩護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重火器중대장 金鎔河대위가 이 전투의 마지막 段階에서 戰死하였는데 그도 또한 上下間에 信任이 두터운 將校로서 너무 억울하여 所屬 대대장인 朴魯珪중령이 屍體를 안고 내려온 일이 있다.

이와같이 우리는 비록 兵力은 적지만 渾然一體가 되어 끝까지 梨花嶺전지를 固守하였는데 全般的인 戰況이 기울어 不得已 隨意撤收케 되었으며 鳥峰으로 내려올때까지 兵力補充이 안되어 힘겨운 전투를 치루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決死隊』라는 覺悟로 싸웠으며, 遲延戰 過程에서의 血戰譜는 눈을 감기전에는 잊을수가 없다.

#### ◇ 제 16포병대대장 金 聖소령

(1978년 4월 7일, 水雪會館에서, 예, 준장)

우리가 聞慶으로 集結하고 보니 砲 1門도 損失없이 15門이 모두 牽引되어 大端히 기뻐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江을 건널때에는 2~3隻의 나무배를 얹어매어 運搬해야 했고 忠州에서는 鐵路 위로 옮기기도 하였으며 배로는 一線연대를 直接支援하다가 落後되는중, 어지러운 撤收過程에서도 모두 責任感있게 끌고 나왔던 것이다.

이곳 聞慶에서는 梨花嶺싸움이 제일 컸으며 우리도 優先적으로 이를 支援하였다.

梨花嶺에서 500m쯤 南쪽으로 내려오다보면 두 채의 외만 家屋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제 1포대가 砲陣을 選定하여 사단의 左一線을 지키고 있는 제 2연대를 支援하였던 것이다.

나도 연대 관측소로 올라가 있다가 이 戰鬪狀況을 直接 目擊하였는데, 연대장 咸炳善대령이 『突擊앞으로!』를 외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며 步兵이 裝甲車를 掩襲하여 3臺를 擄獲하였으나 道路사정으로 끌지 못하고 燬破하던 記憶이 난다.

그리고 鳥嶺에서 싸우는 제 19연대를 지원하다가 失手한 일이 있었다. 연대장의 懇曲한 要請으로 近接支援 사격을 실시하였는데 彼我間에 混戰中인 상황이므로 我軍側에서도 被害를 입게되었다는 消息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

마지막 撤收段階에 이르러 제 2포대가 聞慶果

樹園에서 역시 제19연대를 支援한바 있었는데, 戰況을 잘 모르고 八靈里 溪谷에 砲火를 퍼붓다가 敵의 82mm박격포彈에 奇襲당하여 10餘名의 部下를 잃은 일이 있다.

이때에 나는 너무도 화가 나기에 사단장에게 달려가 『協助가 잘 안되어 싸울수 없다.』고 하소연 하였더니 金鐘五대령은 沈着한 語調로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지 않느냐, 勸諭를 다해서 싸우자』고 激勵하면서 담배 한개비를 내 주기에 받아 피우고 나니 오히려 罪狀한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北進過程에서도 꼭 모셔보았지만 그의 너그러운 人品을 항상 欽慕해마지 않았다.

#### ◇ 孔錫奎 報告(당시 閩慶郡麻城支署巡警) (1978년 7월 20일, 店村 自宅에서)

제 6 사단이 내려와 閩慶國民學校에 指揮所를 開設한 直後부터 우리는 軍의 作戰 統制下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人員이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直接 戰鬪에 加擔하지는 않고 主로 落伍兵을 안내하거나 避難民을 安全地帶로 誘導하고 또는 諜報를 收集하여 報告하는 등, 後方에서 軍의 作戰을 도왔는데 3일만에 戰線이 무너져 幽谷으로 撤收하였다 이때에 우리도 同途하여 내려오다 보니, 美軍이 重砲를 끌고 鳳鳴嶺山 부근까지 올라와 있었으며 UN空軍機가 나타나 閩慶驛 一帶를 爆撃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UN軍이 크게 活動하지는 않고 곧 撤收한 듯 하였으며 烏嶺川(閩慶에서 穎江으로 흐르는江)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美軍을 救出해준 일이있었다.

7월 16일인지 日字는 不確實 하지만 우리가 店村으로 撤收하면서 보니까 梧泉 뒷산(烏井山)에서 熾烈하게 싸우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主로 魚龍山에서 激戰을 展開하였다.

한가지 特記할 事項은 撤收隊의 主力이 嶺南橋(烏嶺川과 穎江이 合流되는 三角洲 바로 南쪽에 놓인 橋梁)를 건너선 뒤로 梧泉으로 들어가는 道路上에서 UN空軍이 敵의 彈藥車를 爆撃하여 連

續爆殺된 사실이 있었다.

내가 알기에는 제 6 사단이 閩慶과 店村에서 잘 싸워 주었기 때문에 洛東江 防禦線을 지킬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에 住民들도 이 戰鬪를 도와서 主副食의 推進과 彈藥을 運搬해 주기도 하였다.

## § 戰 訓

### ◇ 鐵帽着用의 重要性

野戰에서 흔히 一部の 兵士들이 鐵帽의 重壓感이 싫어서 그 着用을 忌避하거나 벗어 들고 다니는 事例를 往往 볼수 있으며, 더우기 後方의 支援部隊나 行政要員 일수록 이를 疎忽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지 警戒해야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本戰鬪 期間中에 포병제 16대대 세 2 포대의 兵士들이 7월 16일 下午에 閩慶果樹園에서 제19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曝湯에 시달린 나머지 鐵帽와 上衣를 벗고 砲를 操作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一部の 敵이 閩慶 뒷산으로 侵襲하여 82mm迫擊砲로 奇襲砲撃을 가하므로 말미암아 一瞬間에 18명의 死傷者를 내고 말았다.

이 가운데에 特히 12명의 戰死者는 大部分이 頭部에 破片傷을 입어 野戰治療로 救急하지 못하고 後送하다가 途中에 幽明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後方이라는 安達한 생각에 빠져 저지른 些少한 不注意가 結果적으로 生命까지 빼앗아간 一例로서 萬一 이 병사들이 7월 中旬의 炎天일 지라도 鐵帽를 着用하고 防彈조끼 까지 입었더라면 損失을 最少限으로 줄일수 있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撤收部隊를 効率的으로 掩護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野戰에서 鐵帽를 쓰는 까닭이 便易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護身具를 갖추는 것일진대 豫測을 不許하는 戰鬪狀況下에서 支援部隊 要員이나 行政兵이라고하여 이를 輕視하여서는 안될 일이며 항상 第一線에선 兵士와 같은 마음 가짐으로 그 着用을 習慣化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 3. 化寧場 附近 戰鬪 (1950년 7월 17일 부터 1950년 7월 25일 까지)

참조 : 변제부도 제 12, 13호  
상황도 제 43~45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군단	장 소장	金 弘 壹		제 1대대	장 소령 申 鉉 洪
제 17연대	장 중령	金 熙 濬		제 2대대	장 소령 李 茂 重
제 1대대	장 소령	李 寬 洙		제 13연대	장 대령 崔 榮 禧
제 2대대	장 소령	宋 虎 林		제 1대대	장 소령 金 振 暉
제 3대대	장 소령	吳 益 慶		제 2대대	장 소령 安 光 榮
제 1사단	장 대령	白 善 燦		제 3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제 11연대	장 중령	權 東 贊		隣接部隊	
제 1대대	장 대위	張 根 述		제 6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제 2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支援部隊	
제 3대대	장 대위	金 召		美 제 25사단	장 소장 William B. Kean
제 12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제 24연대	장 대령 Horton V. White
			敵		
제 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 49연대	장 중좌 李 鐵 英
제 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 50연대	장 총좌 李 乙 善
제 48연대	장 중좌	金 致 九		포병연대	장 대좌 李 連 燮

#### 나. 전투전의 기황

化寧場附近의 戰鬪는 1950년 7월 17일—25일까지 9일만에 걸쳐 陸軍 獨立부대인 제 17연대(장, 金熙濬 중령)와 제 1군단(장, 金弘壹 소장)에하의 제 1사단(장, 白善燦 대령)이 各各 化寧場(尙州 西쪽 20km)에서 北傀 제 15사단(장, 朴成哲)과 激突케 된 戰鬪이다.

제 17연대는 17일부로 首都사단(장, 金錫源 준장)에서 제 2군단(장, 金白一 준장)으로 配屬이 變更되어 集結地인 報恩(淸州 南東쪽 34km)을 떠나 咸昌(尙州 北쪽 17km)으로 이동중, 化寧場附近에서 尙州方面으로 침투하려는 敵 제 15사단을 捕捉하고 그들의 南下를 阻止하고 있던차에, 22일 陸軍本部 명령에 따라 同 作戰地域을 제 1사단에 引繼하고 次期 임무수행을 위하여 大邱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한편 同 作戰地域을 引受한 제 1사단은 제 1군단의 1部로써 米院(報恩 北쪽 20km)에서 春陽(榮州 東쪽 30km)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陸軍本部の 갑작스런 명령訂正으로 化寧場에서 제 17연대의 防守任務를 引受케 된 것이다. 그런데 敵 제 15사단과는 陰城地區戰鬪 以來 米院에 이르기까지 接觸을 유지하고 있던터이라, 化寧場에서 避避하게 된 것은 뜻 밖의 일이 아닐수 없었다.

化寧場은 慶尙北道 尙州郡 化西面의 한 地名으로써, 忠淸北道 報恩郡 馬老面과 接境하고 尙州(化寧場 東쪽 20km)—報恩(化寧場 西쪽 24km)의 中間地點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기는 하나, 面 所在地인 同時에 支署 및 學校등이 위치하고 小白山脈을 南北으로 가로지르는 通路의 南쪽 入口이며, 여기서 北으로 槐山(化寧場 北쪽 45km)과 富興里(槐山 南西쪽 13km)에 이르고 있어, 東西와 南北間을 연결하는 軍事上の 要衝으로 浮刻된 곳이다.

敵軍의 狀況: 北進 제 15사단은 陰城地區 戰鬪 以來로 제 1사단과 接觸하여 槐山을 거쳐 米院에 이르렀으며, 淸州方面으로 進出한 그들 제 2사단(장, 崔賢)과 같이 大田方面으로 侵襲을 들며 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의 後方차단을 試圖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제 1사단(장, 白善輝 대령)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쳐 그 뜻을 이룰수 없게 되었음인지, 15일 巨里峙(米院 北東쪽 7km)戰鬪 以來로 小康상태를 보이는듯 하더니 19일부터는 敵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한때 破竹之勢와도 같이 全 戰線을 風靡하는 듯 하였으나, 그 뒤에 制海, 制空權을 상실한데다 戰鬪正面과 縱深의 伸張으로, 機動과 補給支援이 크게 萎縮된듯 하였고, 特히 美 地上軍의 早期派兵은 그들 首腦部를 크게 當惑케 한 것으로 알려려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速戰速決을 서둘게 되었던 것이며, 美 地上軍의 増派가 이루어지기 前에 現戰線의 韓國軍과 美軍을 小白山脈과 錦江線上에서 各個擊破시켜 UN軍의 派兵을 無爲하게 하려는 術策으로, 豫備로 控置했던 部隊를 戰線에 投入하고 3개의 後方警備 여단까지도 戰鬪사단으로 改編케 하여 總攻勢에 加擔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그들은 中—東部戰線에 重點을 둔듯 그 徵候로서, 제 1군단(장, 趙鎭金 雄)의 예비인 제 13사단(장, 崔鎭鎭)과 新編한 것으로 알려진 제 8사단(장, 吳白龍)등이 7월 中旬부터 이 正面에서 捕捉되었던 것이다.

當時 이 正面의 敵 제 2군단장 金武亭은 제 5사단(장, 馬相詰)으로써 東海岸을 따라 계속 侵襲케 하고, 제 8사단과 제 12사단(장, 崔忠燮)을 豊基—榮州方面에, 제 1사단(장, 崔光)과 제 13사단을 開慶方面에 各各 投入하여 小白山脈을 一擧에 突貫하려는 氣勢였다. 그러나 이곳의 地勢를 利用한 我 제 8사단(장, 李正一 대령) 및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의 堅守로 그들의 進出이 遲遲不振하였는데, 이무렵 西部戰線의 陰城—綴川線이 米院—淸州線으로 南下함으로써, 開慶—米院間은 40餘km가 無防備 상태로 開放케 되었다. 이를 感知한 그들은 米院地區의 我 제 1사단과 交戰중인 제 15사단을 尙州로 侵透시켜, 我 제 6사단을 背後에서 挾擊케 한 다음 金泉—大邱方面으로 進出시켜 美軍의 後續부대를 遮斷시키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 15사단은 米院附近의 我 제 1사단 正面에서 攻擊하는척 陽動을 펴하면서 主力을 15일부터 富興里에서 化寧場으로 通하는 通路를 따라 尙州方面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先發隊인 제 1陣은 아무런 妨害도 받지 않는 가운데 尙州 近郊의 △273(尙州 西쪽 3km)를 占領하고 그들 主力이 到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敵 제 15사단은 陰城地區 戰鬪에서 我 제 6사단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 및 제 1사단에 依하여 喪失한 兵力과 裝備을 補充하고 整備한듯 하나 그간의 強行軍과 不充分한 補給으로 그들의 士氣는 날로 低下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地域에 投入된 그들 兵力은 9,200餘명을 헤아리게 되고 그들의 主要裝備은 122mm曲射砲 12문, 76mm曲射砲 8문, 120mm迫擊砲 12문, 82mm 및 61mm迫擊砲 59문, 76mm直射砲 4문, 45mm對戰車砲 24문외에 自動車 15대와 馬匹 60餘頭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狀況: 제17연대는 陸軍의 獨立 연대로서, 本 戰鬪에 임하기에 앞서 首都사단(장, 金錫源 준장)에 配屬되어 鎭川 및 淸州地區 戰鬪를 치룬 뒤, 次期 戰鬪에 對備하기 위하여 15일부터 제1군단(장, 金弘奎 소장)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報恩을 集結地로 하여 兵力을 收拾하고 있었다.

연대 集結地에는 鎭川地區 戰鬪에서 損失이 컸던 제1대대(장, 李寬洙 소령)가 整備중에 있었고, 高隱里(淸州 南쪽 7km) 戰鬪에 參加한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와 제3대대(장, 吳益慶 소령)는 그 일부가 收容되었을뿐 아직도 撤收중에 있는 상태였다.

이무렵 右隣接인 제1사단이 米院地區에서 敵 제15사단을, 左隣接인 제2사단(장, 李翰林 대령)이 文義(淸州 南쪽 13km)에서 敵 제2사단을 各各 阻止하고, 首都사단은 연대와 같이 報恩에서 兵力收拾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美 제24사단은 錦江 南岸에서 敵 제1군단(장, 金 雄)과 對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무렵 제2군단(장, 金白一 준장)은 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을 右翼으로 하여 榮州地區에 제6사단(장, 金錫五 대령)을 左翼으로하여 開慶地區에 各各 展開하여 北傀 제2군단(장, 金武亭 중장)隷下의 4개 사단과 對峙하고 있었다.

그간 韓國戰線에 派兵된 外國軍 地上부대는 美 제24사단에 이어, 同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이 9일 釜山에 上陸하여 北上중에 있고, 同 機甲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이 곧 到着할 것이라는 通報가 있는 가운데, 日本에 駐屯하고 있던 美 제8군은 사령부를 13일에 大邱로 이동 開設하였다.

이와 같은 彼我의 狀況을 檢討分析한 陸軍本部는 UN軍의 參戰을 目前에 둔 아메에, 萬一 敵이 中一東部 戰線을 突貫하여 早期에 金泉—大邱方面으로 進出할 경우, 赴援軍의 增派가 無爲하게 될 뿐만 아니라 東—西의 戰線이 孤立되어 各個擊破 當할 위험마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對策을 講究하기에 이른 것이다.

陸軍本部는 제17연대를 17일부터 제2군단에 配屬시킨데 이어, 首都사단과 제1사단도 차례로 中一東部 戰線으로 轉進케 한 것인데, 제17연대와 제1사단이 各各 目的地로 移動중 化寧場에서 我 後方地帶로 침투하려는 北傀 제15사단과 衝突케 된 것이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제17연대(장, 金熙濬 중령)가 陸本作命 제47호 (50.7.16)에 의거 제1구단(장, 金弘奎 소장)에서 제2구단(장, 金白一 준장)으로 配屬이 變更된 것은 17일 06.00인데 연대가 同 명령을 확인한 것은 16일 23.00가 지난 때 였다. 이때 연대는 1개 대대만이 集結하였을뿐 淸州地區 戰鬪에 參加한 2개 대대는 아직 收拾되지 않은 상태였다.

연대장은 이 事實을 軍단장 金弘奎 소장에게 報告한 然後, 제1대대를 車輛化하여 24.00에 報恩—尙州間의 25번 道路를 따라 先發케 하고, 제2, 제3대대의 集結을 준비중이었는데, 제1대대에 앞서 出發시킨 연대補給品 輸送車輛의 인솔장교 鮮于 燿중위가 翌日 09.00에 되돌아와서 報告하기를 『敵 1개 대대규모가 지난 밤 사이 化寧場(報恩 東쪽 24km)地區를 通過하여 尙州(化寧場 東쪽 20km)쪽으로 갔다.』고 한데 이어서, 14.00에는 제1대대로부터 같은 內容의 보고를 接하게 되어 비로소 敵이 我 後方地帶로 侵透하고 있음을 確認케 되었다.

事態의 深刻함을 直感한 연대장은 即刻的으로 제 1대대장에게 『대대는 現地에서 南下하는 敵을 阻止 擊退하라.』는 명령 제 1호를 下達하고, 殘餘부대는 18.00를 期하여 化寧場으로 移動하게 하였다.

이처럼 陸軍本部는 제 2군단장으로부터 敵이 化寧場을 通하여 尙州쪽으로 侵透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對한 措處로 제 2군단에 配屬한 바 있는 제 17연대를 作命 제 55호(7.19)로써 계속 제 1군단장 지휘하에 있게 하여, 同 地區로 南下하는 敵을 捕提섬멸케 함과 同時에, 제 1군단의 1개 砲隊를 포함한 首都사단을 同일부로 제 2군단장 지휘하에 들게 하였다.

## (2) 작전 실시

### (가) 제 17연대의 化寧場附近의 戰鬪(7.17~22)

7월 17일 : 연대장 金熙濬 중령이 行軍梯隊의 部隊指揮를 제 3대대장 吳益慶 소령에게 위임하고, 情報주임 柳昌薰 대위, 作戰주임 趙暎九 소령 및 顧問官을 帶同하여 化寧 國民학교에 到着한 것은 19.00가 좀 지났을 때였는데, 바로 그때 上達里(俗稱 골마 또는 新峽里라고도 함—化寧場 東쪽 4km) 溪谷에서 砲聲과 銃聲이 震動하기 始作하였다. 연대장 一行은 車에서 내릴 겨를도 없이 곧 바로 銃聲이 일고 있는 △343(化寧場 東쪽 3km)로 달려갔다.

#### 1. 제 1대대의 上達里 戰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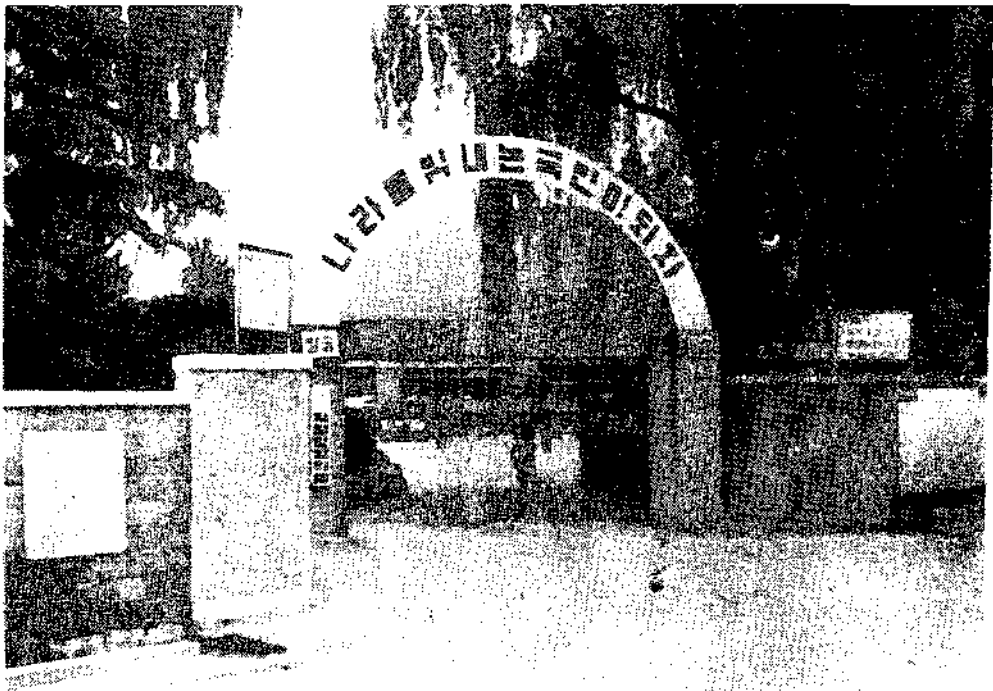
제 1대대는 지난 밤 24.00 報恩을 出發하였으나 車輛故障으로 因하여 07.00에 化寧場(新鳳里)을 通過하게 되었는데, 이때 50세쯤 되어 보이는 한 住民이 『傀儡軍이 밤새껏 우리 마을 앞을 지나 尙州쪽으로 갔으니 이 길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行軍縱隊를 制止하였다. 대대장 李寬洙 소령은 그 住民이 我軍의 行軍隊列인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것으로 보고, 지나치려 하자, 그는 中達里(세거리로 불리움—化寧場 東北쪽 4km)에 居住하는 麒麟林이라고 身分을 밝히면서, 지금 化寧支署로 由告차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대대장은 行軍縱隊를 下車시켜, 道路의 左右側 숲 속에 隱蔽케한 다음, 그와 같이 支署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支署장도 이 事實을 是認하고, 軍, 警, 青年團으로 구성된 情報隊가 그들 後續부대에 대비키 위하여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支署장은 그간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敵이 利用한 通路는 槐山에서 上達里에 이르는 977번 道路로서 上達里에서 尙州—報恩間의 25번 道路와의 接續點에서 三角을 이루고, 그 內角에 該當되는 部分에 鳳凰山(△740—化寧場 北쪽 2km) 줄기가 977번 道路를 東西로 가로막고 있어서 化寧場은 防風地帶와도 같은 곳이다. 그런데, 3일전에 襄

尙錄 대위가 지휘하는 情報隊가 咸昌에서 이곳으로 派遣되었으며, 이때부터 이곳 警察과 大韓靑年團員은 裴 대위의 指揮下에서 軍 情報隊와 合同勤務케 되었다. 그리하여 葛嶺(化寧場 北쪽 12km)을 中心으로 周邊의 豫想 接近路上에서 敵情을 수집케 되었는데, 어제 아침 化北面 光亭里(化寧場 北쪽 17km)에 傀儡軍이 侵入하여 取食하고 休息中이라는 것을 同部落 住民 李在先의 提報로 알게 되었으며, 隊長은 이를 直接 확인하고 先任下士官 尹福源 上士에게 그들의 動態을 살피도록 指示한 다음, 上部에 報告次 咸昌으로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대장 李寬洙 소령은 이들이 말하는 敵情을 事實로 받아 들이고, 이를 연대장에게 報告하는 同時에, 부대를 一團 化寧國民학교에 收容하여 團長 金鍾烈과 鄭顯默의 주선으로 아침 食事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각 중대장과 같이 靑年團장 金基榮의 案內를 받아 敵의 通過하였다는 通路를 中達里(세거리)—上達里까지 偵察하고 上谷橋(上達里 南쪽 700m)에 이르렀을때, 尙州쪽에서 自轉車을 탄 軍人 1명이 이쪽으로 接近하더니 977번 道路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았다. 대대장 一行은 上谷橋上에서 그를 붙잡고 보니, 尙州로 進出한 北傀軍의 대대장이 本隊로 보내는 傳令으로서 그가 휴대한 잡낭(雜囊)속에서 『대대는 지난 밤 少數의 國防軍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그들을 물리치고 17일 08.00에 尙州를 바라 볼 수 있는 △273(尙州 西쪽 3km)를 占領하였음.』이라는 그들 대대장이 연대장 앞으로



(제17연대 본부가 있었던 化寧國民學校)

보내는 報告書가 나왔으며, 그들이 北傀 제15사단 제48연대(장, 중좌 金致九)의 隸下임도 알게 되었다.

대대장은 이때의 時間이 12.00임을 確認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여 그들 後續부대와 1戰을 겨를 決意을 굳게 하였다.

『① 敵은 我 後方地帶로 침투할 目的으로 이미 그 一部를 尙州方面에 침투시킨데 이어 後續부대를 계속 南下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② 대대는 7.17 14.00 △343를 占領하여 化寧場으로 侵襲코자 하는 敵을 阻止擊退하려 한다.

③ 제 1 중대는 △343 東側 南半部를 占領하여 南下하는 敵을 擊滅하라.

④ 제 3 중대는 △343 東側 北半部를 占領하여 南下하는 敵을 擊滅하라.

⑤ 제 2 중대는 대대의 예비로써 △343에 집결하고 逆襲에 投入될 준비를 갖추라.

⑥ 제 4 중대는 △343에서 小銃중대를 사격으로써 支援하라.

⑦ 協調지시

㉔ 各 중대는 3分後線에 陣地를 編成하고 위장을 철저히 하라.

㉕ 陣地 進入以後에는 陣內에서의 이동을 금한다.

⑧ 補給 및 行政

㉔ 個人所持品은 집결지에서 회수 보관한다.

㉕ 彈藥은 집결지에서 支給한다.

⑨ 指揮 및 通信

㉔ 通信은 有線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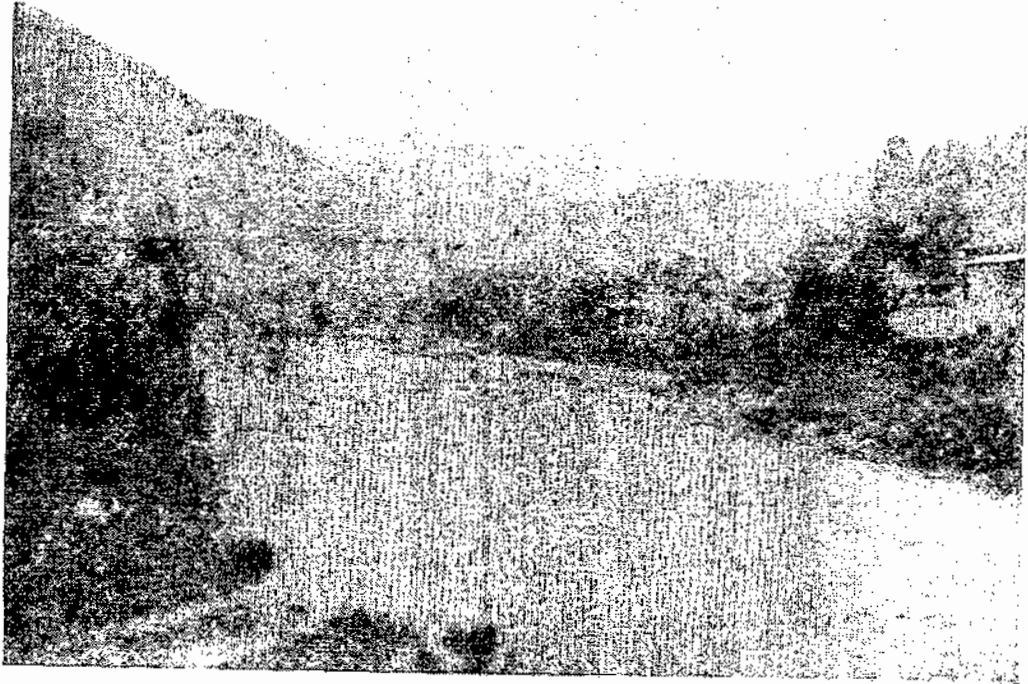
㉕ 사격開始는 赤色五星信號彈으로 한다.

㉖ 대대장은 △343에 위치한다.』

各 중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該 地域으로 이동하여 14.00까지 陣地編成을 完了하고 本隊의 到着을 기다리는 한편, 敵의 接近을 기다리고 있었다.

豫想한대로 16.00가 조금지났을때 葛嶺(化寧場 北쪽 4km)溪谷으로부터 몇대의 Side car를 先頭로한 徒步부대의 南下가 계속되었다. 그들 先頭가 上達里에 이르러 停止하고 마을앞 廣場에 集結하기 始作하였는데, 徒步부대가 集結完了하고 各種 砲와 彈藥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40餘대의 牛馬車가 當到하자 곧 休息을 取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公교롭게도 그들이 休息을 取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제 1대대가 潛伏하고 있는 △343의 東麓으로써, 거기다 東쪽으로 急傾斜를 이루고 있어서 그들의 一舉一動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은 休息에 들어가자마자 △343 東麓을 따라 흐르는 幅 20m의 愚山川으로 뛰어들어 沐浴을 하고, 食事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一團은 마을로 들어 갔다. 警戒부대로 보이는 一部 武裝兵力이 上達里 北쪽 高地와 南쪽 高地에 各 1개 分隊씩, 그리고 △343北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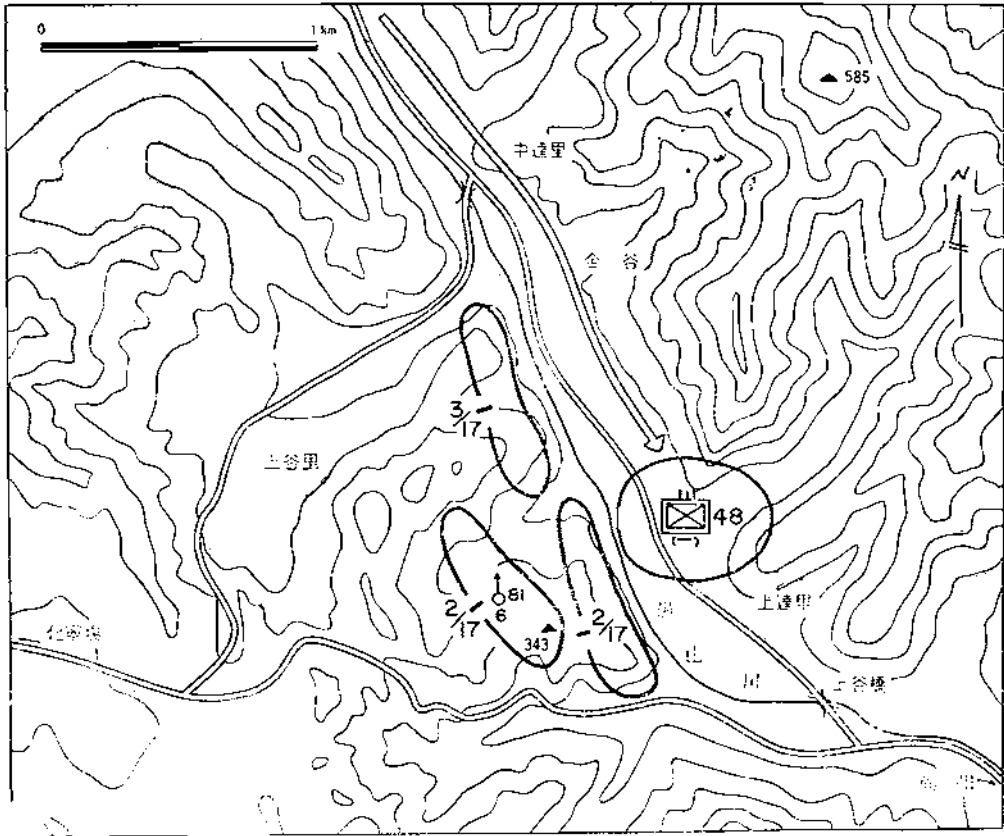
〈上達里안 愚山川〉

의 中達里—化寧場間의 사이길에 1개 分段가 配屬된 것으로 目擊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我軍이 있으리라는 것을 全然 意識하지 않은듯이 보였다.

이러는 사이에 17.00가 되자 雙眼鏡으로 그들의 動態를 始終 觀察하던 大隊장 李寬洙 소령은 射擊命令을 하달하기에 앞서 各 中隊의 戰鬪준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各 中隊장은 異口同聲으로 『81mm, 60mm 迫擊砲와 機關銃 등 共用火器의 彈藥運搬이 不振하여 現在로서는 敵에게 效果的인 射擊을 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2時間 뒤인 19.00에 彈藥運搬이 끝나고, 흩어졌던 敵들도 저녁 食事를 하기 위하여 集結地로 모여들기 始作하였다.

大隊장 李寬洙 소령은 好機를 노린새라 『사격 개시』를 大號하고, 同時에 金熙濟 중위가 發射한 赤色 5星신호탄이 하늘 높이 弧弦을 그리며, 北쪽으로 飛翔하였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兵士들은 一齊 射擊을 실시하여 숲 속에 가리웠던 砲口와 銃口에서 불을 뿜고 鐵丸은 上達里의 峽谷을 불 발로 化하게 하였다. 한편, 저녁 食事를 즐기려던 敵은 不意의 彈雨洗禮를 받게 되고, 그들 集結地는 一瞬에 修羅場이 되어 阿鼻叫喚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40餘匹의 牛馬가 銃 砲聲에 놀라 亂됨으로써 混亂을 더하게 하였다. 한발의 抵抗도 못한 敵은 오직 救命圖生만을 노려 中達里쪽으로 빠져 나가려 하였으나, 제 3中隊의 火網

◇ 상황도 제43호 제17연대 제1대대의 上達里戰鬪(7.17-18)



을 뚫지 못하고, 上谷橋쪽으로 빠져 나가려던 敵도 제 1중대의 集中사격의 標의이 되고 말았다. 대대가 1時間 가까이 集中사격을 加하고 있는 사이, 本隊에 앞서 車輛이동한 연대장 金熙濬 중령이 대대 觀測所로 나가서 作戰을 激勵하였는데, 대대장 李寬洙 소령은 연대장에게 『어두워지기 전에 擊滅戰을 展開하여 敵을 完全 殲멸시키겠다.』고 建議하였으나 연대장은 『擊滅戰은 本隊가 到着한 뒤에 하고, 우선은 敵이 夜暗을 利用하여 退却하지 못하도록 退路를 차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343에 控置한 제 2중대(장, 韓 赫 중위)를 中達里쪽으로 迂回케 하여 977번 道路와 上達里 北쪽 高地에서 그들의 北上을 막게 하고, 제 1, 제 3중대는 低地帶로 이동시켜 그들의 退却을 牽制케 하였으며, 연대장 金熙濬 중령은 18.00에 報恩을 出發케한 연대의 主力부대가 다음날 04.00以前에는 化寧場에 到着한 것으로 보고, 參謀와 顧問官을 帶同하여 化寧國民學校로 돌아갔다.

2. 化寧場附近의 情報隊 活動

情報대장 襄尙錄 대위는 전날 아침 莊岩里(化寧場 北쪽 17km)에 侵入한 敵情을 報告코

자 2½Ton車를 타고 咸昌에 있는 제 2군단 사령부에 갔다가 이날 20.00에 歸隊하였는데, 先任下士官 尹福源 上士로부터 제 17연대가 化寧場으로 移動하였다는 報告를 받는 즉시 化寧國民學校로 제 17연대장 金熙濬 중령을 訪問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의 作戰指導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가 군단으로 갈때부터 歸隊할 때까지 겪었던 狀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어제 12.00 派遣隊를 出發하여 咸昌으로 가는 途中, 西院(化寧場 東쪽 6km)을 通過할때 美 제 25사단 砲兵隊의 엄호임무를 띠고 나왔다는 제 6사단의 1개 중대 兵力을 보았다. 그리고 咸昌에서 군단장에게 化寧場附近의 敵情을 보고 하였는데, 군단장으로부터 「제 17연대가 咸昌으로 移動하기 위하여 속明間 그곳을 通過하게 될 것이니 貴官은 速히 돌아가서 同연대에 이 事實을 알리고 奇襲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 05.00에 咸昌을 出發하여 化寧場을 向하여 全速走行하고 있는데, 尙州附近에서 같은 方向으로 行軍하는 美 제 25사단 이하의 155mm砲隊와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敵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리고 다시 달려가는데, 平地里(尙州 西쪽 13km)에서 敵 行軍隊列과 300m 距離를 두고 마주치게 되었다. 車를 急左回轉시켜 農路와도 같은 險한 길을 따라 三浦里(化寧場 南쪽 12km)쪽으로 나갔는데, 이때 敵은 10餘발의 小銃사격을 加했을뿐 別로 神經을 喪는듯 尙州쪽으로 가고 있었다.』

襲 대위가 지휘하는 情報부대가 이곳에 派遣된 것은 7월 14일로서, 同월 12일부터 제 2군단장으로 任命된 金白一 준장이 군단 西側方의 防護策으로써 取한 조치였다.

이부렵 제 1군단(장, 金弘晝 소장)이 陰城—嶺川線에서 米院—淸州線으로 물러섬으로써, 40餘km의 空間이 無防備상태로 놓이게 됨을 看破한 제 2군단장은 이 點을 크게 憂慮하고 副參謀에게 『萬一 敵이 이 空間을 따라 侵襲하여 尙州를 占領할 경우, 군단 사령부와 隸下 2개 사단의 退路가 遮斷당할뿐 아니라 西部戰線도 孤立되고 말 것이다. 情報참모는 이 地域에 對한 情報活動을 強化하여 그들의 動態를 事前에 探索토록 措置하는 同時에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그리고 作戰참모는 우선 제 6사단에서 1개 대대규모를 차출케 하여 化寧場—尙州間의 25번 道路를 遮斷토록 하는 한편, 陸軍本部에 要請하여 軍 예비인 제 17연대를 支援받도록 하라.』고 指示하데서 비롯된 것이며, 情報부대나 제 17연대가 化寧場에서 敵 제 15사단과 接觸케 된 것은 遇然한 일이나님을 뒷 받침하고 있다.

7월 18일 : 전날 18.00에 報恩을 出發한 제 17연대 主力이 이날 01.00~03.00間에 化寧場附近에 도착하였다. 연대장 金熙濬 중령은 그간 확인한 敵情에 따라 제 3대대(장, 吳益慶 소령)으로써 尙州方面으로 進出한 敵을 追擊케 하고, 제 1대대로서는 계속 上達里의 殘敵을 掃蕩케 하는 한편, 淸州地區 戰鬪에서 損失이 컸던 제 2대대(장, 宋虎林 소령)를 化寧國民학교에 控置하였다.



### 1. 제 1대대의 戰果擴大

제 1대대장 李寬洙 소령은 天明과 더불어 中達里부근의 제 2중대로써 敵의 退路를 계속 차단케하는 同時에 그들 後續부대에 대한 경계임무도 아울러 수행케 하고, 제 1, 제 3중대로써 上達里로 壓縮케 하였다.

敵의 集結地였던 곳에는 그들의 屍體와 斃牛馬로써 地面를 가리웠고 그들의 裝備 또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대대장은 버려진 장비에 比하여 屍體가 적은 것으로 보아 아직 많은 敵이 마을 周邊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搜索을 계속케 하였는데, 이때 上達里 東側 高地로부터 散發의인 사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夜暗을 利用하여 上達里의 東側方으로 脫走를 꾀한 것으로 보였으나 西側斜面이 急傾斜를 이루고 地勢가 險峻하여 멀리 逃走하지 못한듯, 辱說과 射擊을 併用하면서 △585 方向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唯獨 마을 뒤편 한 地點의 機關銃座에서 亂射가 계속되는 까닭으로 대대의 搜索戰은 주춤하게 되었다.

이들 본 대대장은 제 2중대를 投入하여 이를 制壓케 하였으며, 이 機關銃座를 破壞한 特攻隊의 한 隊員은 當時의 狀況을 말하되 『敵의 機關銃陣地가 바위틈 사이에 있어서 迫擊砲 射擊으로도 制壓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特攻隊로서 그들에게 近接하여 手榴彈으로 制壓하였는데, 射手와 副射手의 反복이 석사슬로 묶기어 機關銃에 매달린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惡辣하다한은 이미 들어온 바이나, 直接 目擊하니 그들에 對한 敵愾心이 용솟음 쳤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제 1대대는 兩日間에 걸쳐 射殺 250名, 俘獲 30名, 迫擊砲 20문, 45mm 對戰車砲 7문, 小銃 1,200餘挺, 其他 數點의 通信裝備를 鹵獲하였다. 또 俘虜로부터 이들이 제 48인대의 2개 대대와 通信중대, 對戰車砲중대, 그리고 騎馬隊인 것이 밝혀졌으며, 살아 남은者들의 大部分이 負傷되고 非武裝이라고 하였다.

그뒤 대대는 제 3대대가 △585를 占領함을 契機로 연대의 예비가 되어 化寧國民학교에 集結하였다.

### 2. 제 3대대의 赴援

제 3대대장 吳益慶 소령은 化寧場 도착即時로 연대장으로부터 『尙州方面으로 侵入한 敵을 退擊하라.』는 명령을 받고 未明부터 行動을 開始하여 07.00에 葛榜里(化寧場 東南쪽 12 km)에 이르렀을때 美 제 25사단 예하의 砲兵대대를 만났는데, 이들은 尙州 西쪽을 通過時 敵으로부터 奇襲사격을 받았으나, 마침 그곳에 潛伏중인 韓國軍 제 6사단 예하의 1개 대대가 그들을 擊退하였기 때문에 큰 損失이 없었다고 하면서 同 砲兵 대대는 곧 化寧場으로 西進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제 3 대대장 吳 소령은 以上の 상황을 SCR-694 無電機로 연대장에게 報告하였는데, 연대장으로부터 『제 3 대대는 即刻 反轉하여 △585(上達里 北쪽 1km)를 攻擊하고, 의명 △468(△585 北西쪽 2km)를 攻擊할 準備를 하라.』는 명령을 受領하였으며, 따라서 同 대대는 제 1 대대와 併行하여 殘敵擊滅任務를 遂行케되었다. 그러나 同 대대의 地域에서는 非武裝한 負傷兵 10餘명을 俘獲하였을 뿐인데, 제 9 중대(장, 韓 興 중위)의 제 3 소대장 洪淳元 중위는 洞窟속에 숨은 敵 10餘명을 發見하고, 그들에게 投降하라고 의쳤으나 도리어 辱說로서 應答할 뿐이었다. 洪淳元 중위는 위협사격을 加하면서 계속 投降할 것을 勸하였으나 그들은 如前發惡할 뿐이었는데 이때 洞窟속에서 「빵」하는 소리와 同時에 洪淳元 중위가 쓸어지고 말았다. 이를 본 小隊員들은 同 洞窟에 集中사격을 加하여 그들을 射殺하였는데, 그들중 1명이 拳銃을 든 北僞軍 大尉였다. 대대는 연대장의 別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同 高地에 陣地를 編成하고 敵의 夜襲에 對備하였다.

### 3. 제 2 대대의 掩擊戰

제 2 대대(장, 宋虎林 소령)는 化寧國民학교에 集結하여 部隊整備에 任하고 있던 중 이날 15.00 연대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명령을 受領하였다.

『① 俘虜의 陳述에 따르면, 敵 제 15사단 제 49연대가 同 제 48연대에 이어 이 地域을 通過할 예정이라고 한다.

② 제 2 대대는 7. 18. 20.00까지 鳳凰山 北麓을 占領하고 이 敵을 擊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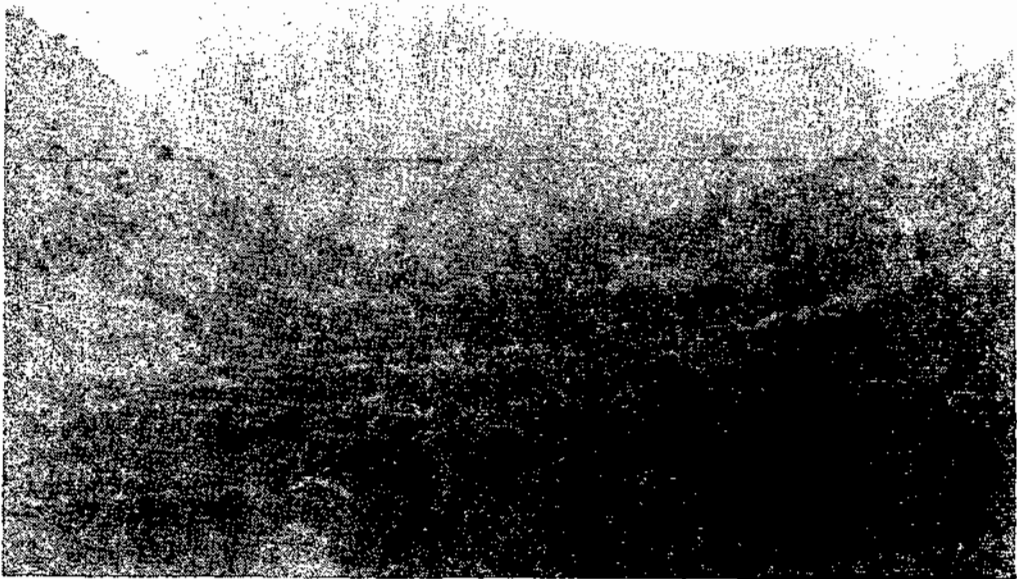
③ 各 火器의 彈藥基本휴대량은 集結地에서 支給하고 追加所要分은 要請에 의거 推進보급한다.

④ 不必要한 휴대품은 集結地에 殘置하라.

⑤ 通信手段은 有線으로 하고, 狀況이 展開되면 無線의 使用을 許容한다.』

이때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淸州南쪽의 高隱里戰鬪에서 負傷하고, 부대대장 李東浩 대위는 戰死하였기 때문에 部隊지휘를 대대 정보, 작전장교 李亨柱 중위가 代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任務를 1개 중위에게 專擔시킬 수 없었던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參謀와 중대장의 부축을 받으며 鳳凰山(化寧場 北쪽 2.5km)으로 올라갔으며, 周邊一帶의 地勢를 그 自身이 直接觀察하고 그를 隨行한 青年團員의 補充說明을 듣기로 하였는데, 그가 偵察한 地形은 다음과 같다.

鳳凰山北緣은 上谷里(化寧場 東쪽 2.5km)—長子洞(化寧場 北西쪽 5km)에 이르고 있으며 그 北쪽에 마주 바라보이는 標高 746m의 高地群은 그 南麓이 上達里(化寧場 東쪽 3.5km)—東觀里(化寧場 北西쪽 4km)에 이르고 있는데 兩高地群의 相對部位는 急傾斜를 이루고 있어서 그 사이에 깊은 溪谷이 形成되었다. 이 溪谷의 底邊은 80~150m의 狹谷에 單車路가 그 中央을 가르고, 同 道路에 併行한 愚山川은 鳳凰山 北緣을 따라 東流하고 있는데, 同



〈敵 1개연대를撲滅한 東觀里 溪谷〉

河川의 南쪽 언덕바지에는 뽕나무 밭이 있고, 山기슭에 일구어진 길다란 밭에는 담배가 심어져 있어서 그 속에 들어서기만 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芟草하였다. 이에 反하여 道路의 北側은 △746의 絕壁과 같은 南麓이 막 바로 道路와 接續되었거나 작은 물논들을 사이에 끼고 있었다.

當時 제 2대대장 宋堯林 소령은 地形偵察을 마친 所感을 回顧하기를

『내가 연대장으로부터 出動명령을 받았을 때는 전혀 싸울 意慾을 잃고 있었다. 왜냐하면 淸州 南쪽의 高隱里戰鬪에서 연대 創設以來 여섯 育成한 古兵 80餘명을 喪失한 충격이 큰데다, 내 自身이 全身打撲傷으로 身熱이 甚하고 擧動하기가 困難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敵 主力부대가 이곳을 通過한다는 情報을 入手하고서도 이를 坐視할 수는 없기 때문에, 不自由스러움을 무릅쓰고 參謀들의 부촉을 받으며 地形偵察을 하였는데, 나는 東觀里 溪谷을 보는 瞬間 敵이 이 안으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1個 연대이건 1개 사단이건간에 問題없이 擊滅시킬 수 있는 自信感을 갖게 되었으며, 部隊를 곧 鳳臺山 北麓으로 誘導케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大隊長은 각 중대를 東觀里—松內間의 愚山川 南岸 언덕을 따라 1線配置하였는데, 제 5중대(장, 李一洙 대위)를 右側 1線으로, 제 6중대(장, 郭聖範 중위)를 中央제 1線으로 그리고 제 7중대(장, 趙慶鶴 중위)를 左側 1線으로 하였다. 그리고 各個人은 散兵

察를 파고 위장을 철저히 하게하는 한편, 各種火器는 視野條件을 莫論하고 割當된 射擊區域을 自由로 사격할 수 있도록 支架를 設置케 하고 照準線을 道路上에 指向하게 하였으며, 81mm 및 60mm迫擊砲는 我軍에 對한 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그들의 退路遮斷과 道路北쪽의 隱身하기 쉬운 死角地點을 制壓하도록 하였다.

대대 觀測所를 鳳凰山頂에 設置하고 各 中대間에 有, 無線 通信이 可能하도록 網構成을 하여 戰鬪준비 태세를 갖추었는데, 翌日 天明時까지 아무런 報告事項을 接受하지 못하였다

#### 4. 연대장의 措置

연대장 金熙濬 중령은 顧問官을 帶同하고 上達里의 激戰地를 돌아보고 殘敵擊滅戰을 벌이고 있는 제 1, 제 3 대대를 激勵하였다. 그리고 그는 보다 큰 규모의 敵이 뒤 따르고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정보주임 柳昌薰 대위가 지휘하는 搜索隊를 葛嶺(化寧場 北쪽 8km)으로 急進케 하였는데, 同 대위는 14.30 自轉車를 타고 葛嶺을 넘어서는 敵 2명을 俘獲하여 연대본부로 後送하였다.

이들은 北傀 제15사단장 朴成哲이 제48연대장 中좌 金致九에게 보내는 傳令으로서, 두통의 文書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 한통의 文書는 제48연대장에게 보내는 것으로서, 『無電機나 傳令은 언제 쓰자고 中間報告를 하지않은 것인가.』라고 叱責하고, 다른 한통은 作戰명령인데, 그 內容에 이르기를 『제49연대(장, 中좌 李鐵英)와 合勢하여 敵 제 6 사단(장, 金鐘五 대령)을 挾擊하고, 金泉, 大邱方面으로 進出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연대장 金熙濬 중령은 이 函獲文書를 通하여 敵이 그들의 제48연대가 擊滅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제49연대도 不遠 이곳을 通過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은 곧 이를 各 대대에 通報케 하는 同時에 化寧國民학교에 集結하고 있는 제 2 대대(장, 宋虎林 소령)를 東觀里(化寧場 北西쪽 4km)로 轉進케 하여 이 敵을 捕捉擊滅케 하는 한편, △585의 제 3 대대로서는 同 高地를 包含한 中達里間에 조정 配置하여 제 2 대대가 展開하기 前에 侵透한지도 모르는 敵에 對備케 하고, 搜索이 끝난 제 1 대대를 化寧國民학교로 集結 待機케 하였다.

7월 19일 : 이날도 어제와 다름없이 30°C을 上廻하는 무더운 날씨였다. 그러나 變化的 變화가 있다면, 그간 連日連夜로 男負女戴한 避難民의 隊列이 葛嶺溪谷을 메웠는데, 이날을 期해 그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 溪谷은 曠野 無人之境과 같은 高요속에 묻히게 되었다.

##### 1. 제 2 대대 東觀里溪谷에 埋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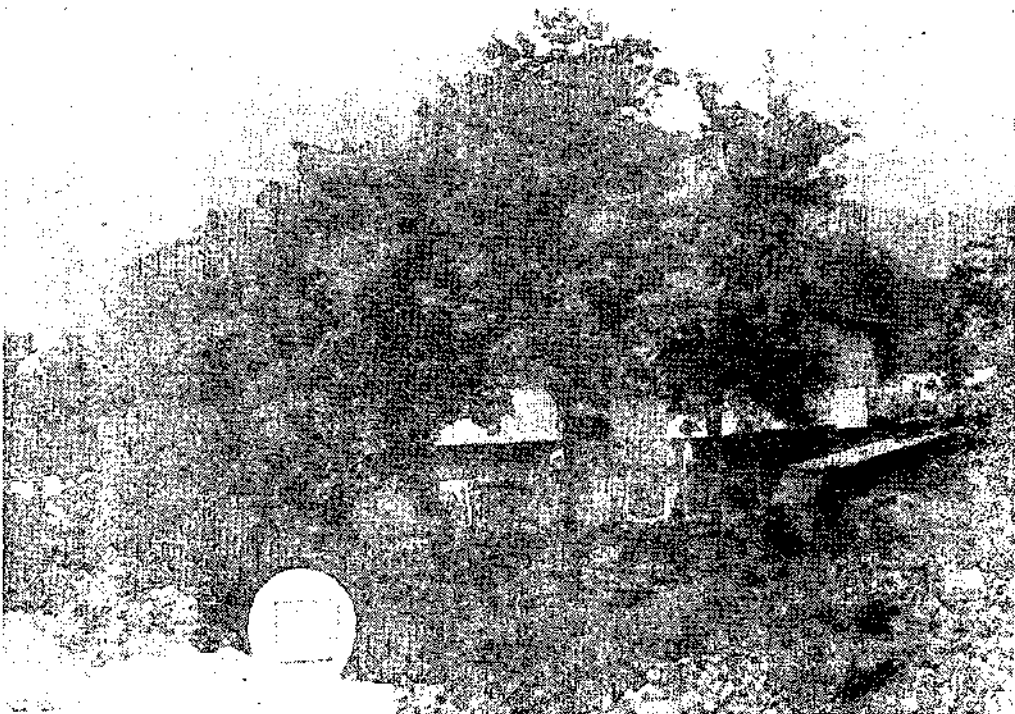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전날 늦게 陣地占領에 들어갔기 때문에 疎忽한 點도 있을 것으로 보고 06.00에 各 中대장을 EE-8電話器로 呼出한 다음, 戰鬪準備態勢를 再點檢하여 補充토록 하라고 指示하고, 아울러 地域內에 住民의 居住與否를 확인하여 無辜한 犧牲者가 發生

하지 않도록 留意하라고 強調하였다.

이에 따라 各 中대장은 責任地域內의 散兵壕와 火器위치, 彈藥 手擲彈의 保有量, 위장상태, 中대間의 交叉사격의 重疊度 및 死角地帶의 有無등을 확인하고 未備點을 補完措置하여 戰鬪준비태세에 萬全을 期하였다고 하는데, 제 5 中대 陣營의 松內里와 제 7 中대 陣營의 東觀里에는 老人 몇명이 남아서 철수를 拒否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東觀里는 20戶에 지나지 않는 작은 마을이기는 하나, 바로 제 7 中대 戰鬪地帶의 左端部에 位置하고 敵의 進路上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더욱 輕視할 수 없었다. 中대장 趙慶鶴 中위는 左제 1 線 소대장 吳秉珍 中위로 하여금 同 마을을 搜索하고 住民을 安全地帶로 避難시키도록 指示하였는데, 이 임무를 遂行한 吳秉珍 中위로부터 當時의 상황을 들어 보기로 한다.

『東觀里는 蘇鳳山 北麓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老人 2~3명이 남아 있을뿐 텅빈 마을이었다. 어느 한 집을 搜索하는데, 외양간에서 惡臭이 나기에 보았더니 北德軍 照裝을 한 屍體 3 具가 보였는데 더미로 가리워져 있었다. 이 마을 老人에게 물어보았더니 同 老人은 「며칠 前이 마을에 德露軍 10餘명이 들어와서 家家戶戶를 돌아다니면서 쌀, 보리, 밀가루등 食糧을 거두어 갔는데, 이제 이 마을에 사는 高品원이가 도끼로 그들 3명을 打殺하고 달아나버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에게 報復당할 것이 두려워 그날로 避難하였으나, 다 늙은



〈北德軍이 打殺된 東觀里〉

우리는 갈 곳도 없으려니와 가 보았자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런 일이 있을 뉘 그들 大部隊가 밤 새 이곳을 通過하였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철수할 것을 拒否하였다.

그리고 그는 『길 건너에 酒幕인 듯한 獨立家屋이 있는데, 대대 前面을 東—西로 通過하는 道路가 이 家屋이 있는 곳에서부터 急屈曲하여 傾斜를 이루면서 葛嶺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報告를 받은 중대장 趙慶鶴 중위는 제 1 소대장 吳秉珍 중위에게 同 獨立家屋에 警戒초소를 設置케 하였는데, 14.00 警戒초소에 나가 있던 卜顯世 병장이 뛰어와서 報告하기를 『말을 탄 軍人 2명이 補給品을 積載한 것으로 보이는 牛馬車 10餘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였다. 吳 중위가 卜 병장이 가르키는 곳을 보니 果然 말을 탄 傀儡軍 장교 2명이 先頭에 서고 私服차림의 2명과 그들 兵士로 보이는 10餘명이 소와 말을 몰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周圍에 대하여 警戒하는 氣色이 全然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그들은 중대 陣前으로 접어들었으며, 그 後尾의 一部는 아직도 중대 正面 밖에 있었는데, 어느 兵士의 銃口에서 硝煙이 일면서 말을 탄 1명을 水田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본 다른 散兵隊에서도 여기에 集中사격을 加하기 始作하여 瞬息間에 그들 全員을 쓰러뜨렸는데, 확인하여 보니 말을 탄 다른 1명은 보이지 않고 民間人 2명을 포함한 19명이 射殺되었으며, 소 2마리와 말 4마리도 斃死되었었다. 그리고 이 牛馬車에는 各種 彈藥과 食糧등이 積載되어 있었다.

이 報告를 받은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射殺된 敵 屍體와 말을 道路로부터 떨어진 곳에 埋葬케 하여 痕跡을 없애게 하고, 그들 補給品과 죽은 소는 다른 牛馬車에 分積시켜 연대 본부로 후송케 하였다. 그리고 鳳凰山頂에서는 全 대대지역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 6 중대 地域으로 觀測所를 옮기고, 각 중대장에게 『앞으로 명령없이 發射하는 중대는 該 중대장을 問責하겠다.』고 하여 射擊軍紀를 確立케 하는 한편 陣容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을 뉘 한줄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날씨는 금시 어두워졌고 개구리 우는 소리와 함께 밤은 깊어 갔다.

## 2. 陸本作命의 追躡

연대는 17일 敵과 不期로 遭遇한 以來 이날까지 싸움이 계속되었던 까닭으로, 當初의 명령에 대한 任務遂行을 못하고 있던 차에, 18.00 이곳을 찾은 제 1 軍단장 金弘奎 소장으로부터 『제 17연대는 陸本 作命 제 55호 (7.19)에 따라 계속 당군단 지휘하에서 化寧場으로 侵入하는 敵을 阻止 擊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 金熙濬 중령은 이 事實을 각 대대장에게 通報하는 한편, 中達里에 展開시켰던 제 3 대대(장, 吳益慶 소령)를 이날로 長子洞(東觀里 西쪽 1.5km)으로 이동시켜

연대의 左 1 線으로 하고, 平溫里(化寧場 西쪽 4km)로 侵襲하는 敵에 對備케 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제 2 대대에서 敵의 補給品 輸送隊를 殲殺시킨 以外에 別다른 상황없이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戰果 확인차 現地에 나온 陸軍本部의 黃憲親 대령은 제 1 대대의 戰功을 높이 致賀하고, 『陸軍本部는 同 대대의 全員에게 1 階級씩 特進시키기 위한 措置를 취하고 있다.』는 消息을 傳하였다.

7월 20일 : 연대장 金熙濬 중령을 비롯하여 全 連隊원은 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무더운 하루를 緊張과 焦燥속에 보냈으나, 이날은 그들의 그림자도 發見할 수 없었다.

### 1. 제 17 連대의 態勢

연대장은 敵이 東觀里에서 方向을 바꾸어 長子洞—坪溫里方向으로 迂回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中達里의 제 3 대대를 長子洞으로 이동시켜 連대의 左 1 線으로 하였다. 그리고 右 1 線인 제 2 대대와 같이 陣地工事와 彈藥補充을 하게하여 戰鬪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때 連대는 補給品 운반兵力을 따로 확보하고 있었던 까닭에, 戰鬪兵力을 충분히 休息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戰鬪力量을 最大로 發揮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態勢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連대가 璽津에서 철수하여 大田에 集結하였을때 募集한 新兵 2,000명을 烏山戰鬪以來 계속 확보하고 있었던 때문이며, 이들은 非武裝이었기 때문에 主로 補給品 운반에 活用하고, 戰鬪兵力의 損失時에 이를 補充兵으로 充用하였다.

제 2 대대의 狀況 : 제 2 대대가 配置된 愚山川 南岸의 언덕바지는 뽕나무와 雜草가 茂盛하고, 밭 이랑에는 높이 1m가 넘는 담배가 栽培되고 있어서 15m 北쪽에 있는 道路에서는 同 대대의 配置상황을 알아 窺수 없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다 壕를 파고 위장을 하였으니 埋伏하기에는 더할 나위없는 適地였으며, 各 壕마다 小銃實彈과 手榴彈이 分配되어 戰鬪準備도 철저하였다. 그리고 重火器중대의 81mm迫擊砲 6 문과 機關銃 8 정은 大대의 左, 右端部에 1/2씩 各各 分割配置하여 그들의 退路를 차단케 하고, 其他 大대의 모든 火器로서는 松內—東觀里間의 4km 道路上을 火網으로써 重疊시켜 놓고, 敵을 기다리고 있던차에 이날 日暮時 大대正面을 北上하는 Jeep車를 發見하고 한때 緊張하였는데, 이는 美軍부대에 派遣된 연락장교 李石奉 소령이 길을 잃고 잘 못 온것이라 하였다.

제 3 대대의 狀況 : 제 3 대대(장, 吳益慶 소령)는 제 9 중대(장, 韓 興 중위)를 右제 1 線으로 하여 長子洞 南쪽의 △450稜線에, 제 10 중대(장, 대리 柳致文 중위)를 左제 1 線으로 하여 제 9 중대 陣地에 左隣接한 △450稜線에 各各 展開시키고 제 11 중대(장, 대리 金東石 중위)와 제 12 중대(장, 鄭圭漢 대위)를 △582(坪溫里 北쪽 2km)에 配置하여 前方 中대를 支援할 수 있게 하였다.

제 3 대대가 占領한 이 地域은 險峻한 바위산을 이루고 있어서 敢히 발을 붙일 수 없는 狀態였으나, 長子洞—坪溫里間에는 鳳凰山과 △582와의 사이에 形成된 溪谷이 通路를 이루

고 있었다. 연대장이 제 3대대를 中達里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한 까닭도 바로 이 隘路를 遮斷하고 그들로부터 奇襲을 防止코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同 대대도 제 2대대에서와 같이 陣地工事와 彈藥推進을 完了하고 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대의 行政支援 :** 연대의 補給, 行政業務를 管掌하던 부연대장 金熙濬 중령이, 烏山 南쪽에서 負傷으로 後送된 연대장 白仁燁 대령의 뒤를 이어 연대장職을 수행케된 以後부터는 軍需주임 全禹榮 대위가 이를 主管하였다. 同 대위는 大田에서 募兵한 新兵과 徵發한 車輛으로 給食品과 補給推進을 하였기 때문에, 當時와 같이 補給事情이 어려웠던 때였음에도 不拘하고 同 연대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고 지냈는데, 特히 化寧場에서는 이마을 住民들이 自願하여 『彈藥운반 및 炊事業務는 우리가 맡을터이니 軍人は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가서 敵을 물리쳐 달라.』고 하였으며, 青年團員은 軍作戰에 협조하여 마을 自體의 警備 임무를 遂行하였기 때문에 軍은 全의으로 作戰에만 專念할 수 있었다.

이때 青年團의 一員으로써 補給推進業務를 遂行한 魚容善(當年 40세)은 當時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大韓青年團員은 團長 金基榮의 지휘하에서 主로 敵情수집, 補給品推進의 감독, 마을의 警備임무를 수행하고, 제 1리의 里長 金鐘烈과 제 2리의 里長 鄭顯默이 動員한 住民은 農協창고의 空地에 炊事場을 설치하고 食事관계를 專擔하였는데, 前方으로 推進할 때에는 그들로부터 鹵獲한 소와 말이 여기에 動員되었다.

그리고 같은 青年團員인 朴三德(當年 38세)은 그가 경영하는 藥房에 赤十字旗를 세워 軍의 治療所로 使用하게 하고 必要한 藥品을 支援하면서 그도 軍醫官 秋亨燮 중위를 도와 患者 治療의 一翼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 2. 隣接部隊의 狀況

이무렵 洛西(化寧場 東南쪽 10km)附近에 美軍 砲兵 1개 대대가 布陣하고 있음이 연대 情報課 要員에 依하여 報告되었는데, 이들은 美 제 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所屬으로 17일부터 韓國軍 제 6사단(장, 金鐘五 대령)을 支援키 위하여 同 사단隸下의 제 24연대(장, White 대령)와 같이 尙州地區에 配置되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들로부터 同 사단의 다른 연대도 韓國軍을 支援하기 위하여 義城과 金泉地區에 各各 展開한 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數명의 參謀要員을 帶同한 首都사단장 金錫源 준장이 化寧支署로 제 17연대장 金熙濬 중령을 찾아보고 激勵하는 자리에서, 『제 1군단 사령부를 비롯한 首都사단 및 제 1사단도 陸本 作命 제 57호에 의거 安東地區로 轉進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中—東部戰線에 緊張感이 감돌고 있음을 짐작케 하거니와, 이때 敵은 一部兵力



으로 湖南地區를 侵攻케 하고, 主力로서는 中—東部戰線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敵의 움직임을 看破한 제 8 군사령관 Wlaker 중장은 釜山에 上陸(7.10~15)한 美 제25사단을 義城—尙州地區에 展開하여 韓國軍 제 2군단(장, 劉波興 준장)을 支援케 하는 한편, 報恩의 제 1군단(장, 金弘勳 소장)도 安東地區로 轉進케 하였던 것인데, 이는 將次 洛東江 防禦線을 形成키 위한 措置인 同時에 韓國戰線에 派兵된 UN軍의 上陸을 保障하기 위한 措處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西部戰線의 美 제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은 嶺, 湖南의 갈림길인 大田地區의 確保를 위하여 孤軍奮鬪케 되었으며, 湖南地區에는 2개의 사단이 再編중이었으나 戰鬪兵力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로 보아서는 輕視할 수 없었던 在存이었던 各部隊을 嶺 湖南으로 兩分케 되었던 것이다.

7월 21일 : 이날 05.00 現在 各 大隊장으로부터 『異狀 없음』의 報告를 받은 連隊長 金熙濬 중령은 『놈들에게 속았구나!』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俘虜의 陳述이나 幽獲文牘에 따르면 그들 主力부대가 이 골짜기를 通過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들 文牘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旣 方向으로 迂回하였을 것으로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連隊長은 새로운 對策을 講究키로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을때 別安間 鳳凰山 넘어 東觀里 溪谷이 무너지듯 爆音과 銃聲으로 振動하였다. 連隊長은 卽刻 參謀要員을 召集하고 通信장교 金基周 대위로 하여금 前方狀況을 확인케 하였으나, 同 대위로부터 『제 3대대(장, 吳益慶 소령) 地域은 異狀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 2대대(장, 宋虎林 소령)는 沈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 1. 제 2대대의 東觀里 殲滅戰

대대장 宋虎林 소령이 連隊長에게 異狀有無를 報告하고 30餘분이 지났을때, 제 7중대장 趙慶鶴 중위가 『彼我를 識別할 수 없는 部隊가 陣前으로 接近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대대장은 곧 제 5, 제 6, 제 8중대장까지도 한 通話線에 연결케 하여 『제 7중대장이 報告한 바와 같이 대대前面으로 接近하고 있는 集團은, 尙州로 가기위한 敵의 行軍隊列로 判斷되나 어제 連隊에서 通報된 바로는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도 安東으로 가기 위하여 이곳을 通過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萬의 하나 友軍과의 誤擊이 없도록 彼我識別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변동되는 狀況을 계속 報告하고 명령에 依해서만 射擊한다는 것을 銘心하라.』라고 거듭 強調하고 그 自身도 直線거리 100m도 앞되는 道路를 注視하였다. 그러나 무슨 소리가 鈍하게 들릴뿐 안개로 가리워진 溪谷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대장은 보다 正確한 狀況을 확인한 다음 連隊에 報告한 腹案을 세웠는데, 이때 敵의 接近을 제일 먼저 發見한 제 7중대 경계哨所의 哨兵이었던 卜鎮世上兵은 當時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配置된 곳은 中隊正面 左端部에 該當되는 곳으로서 中隊陣地에서 200m 떨어진 獨立家屋이었다. 977번 道路가 이 家屋에서부터 90°角度로 구부러져 北쪽으로 向하고 있기 때문에 同 方向에 對한 觀測이 良好한 곳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敵의 接近을 警戒하도록 되었으며 敵을 發見하는 即時로 本隊에 報告하고 全員 陣地로 철수케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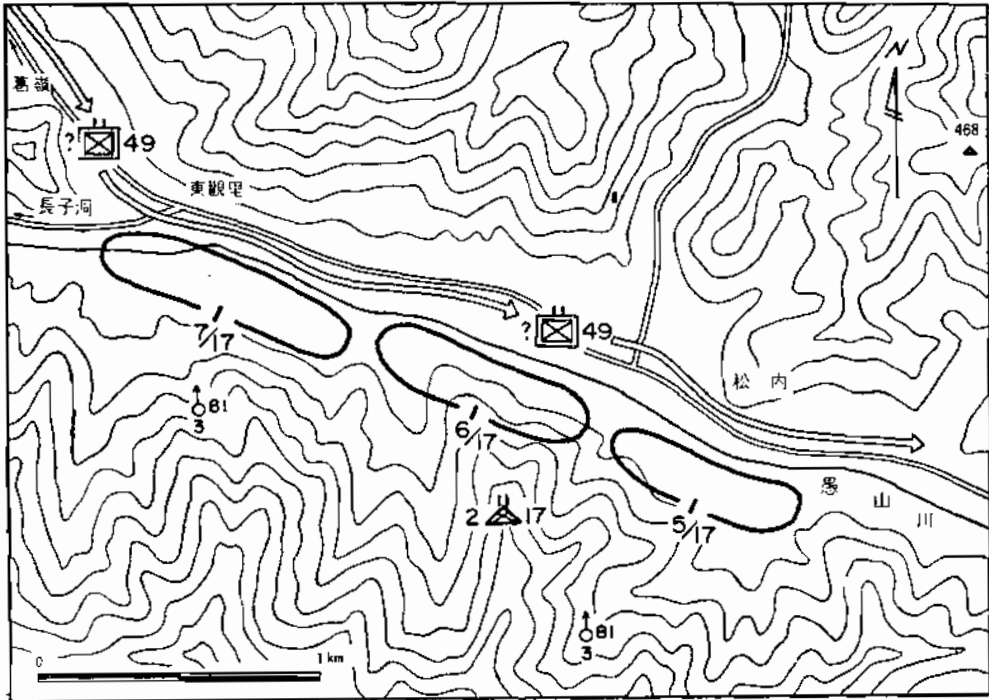
여기에 나온 警戒兵은 組長 韓甲錫 上士를 포함한 4명이었으며, 2명 1개組가 되어 警戒와 假眠을 交代로 擔當하면서 徹夜하였는데, 이날도 아무 일 없는 가운데 東天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깊은 溪谷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고 주위는 쥐 죽은듯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 寂寞을 깨고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4명은 귀를 기울이고 소리나는 곳을 확인한 바, 分明히 어떤 集團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와 수레 구르는 소리였으며, 그 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있는 곳으로 接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韓 上士가 TS-10 送受話器로 이 狀況을 中대장에 報告하고 있는 사이 그들이 10m前方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選定한 通路를 따라 陣地로 撤收하였는데, 그들도 暫時뒤에는 中隊正面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분명히 보이던 路面이 그들의 4列縱隊로 말미암아 까맣게 덮혀 갔으며, 그들은 泰然스럽게 우리가 配置된 陣前을 30~50m의 隊間距離를 유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으며, 우리 또한 눈 앞의 敵을 보면서도 방아쇠를 잠근 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어제 명명없이 發射하여, 全員 俘獲할 수 있었던 敵을 射殺하였기 때문에 中대장으로부터 「명령 없이는 射擊하지 말라.」는 嚴한 注意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狀況은 제 7, 제 6중대 및 제 5중대로 이어지면서 대대 觀測所의 대대장에게 차례로 報告되었으며, 06.30에 제 5중대장 李一洙 대위가 『그들 先頭가 中隊正面을 벗어날 段階에 이르렀으니 이에 對한 措置가 時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대장 宋虎林 소령이 이 瞬間까지 決心을 내리지 못하였던 것은 길은 안개로 因하여 彼我를 識別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報告된 內容을 分析컨대, 그들 등에 背囊같은 것을 매고 있다는 點과 그들 重機關銃과 같은 손 수레가 部隊사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點등은 我軍에서 찾아 볼 수 없는 特徵으로 浮刻되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肉眼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斷案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연대장에게 報告하여 그의 措置를 기다리기는 너무나 늦은때였으며, 더 보고만 있을때도 아님을 깨달게된 대대장은, 앞으로 發生하게 될 事態에 對한 責任은 全의으로 그에게 있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通信兵에게 연대와의 有無線網을 차단케 한 다음 『射擊 開始』를 大號하였다.

瞬間 赤色五星信號彈 3 발이 연거푸 發射되면서 東觀里-松內間의 峽谷에 集中豪雨와도 같은 鐵丸과 鐵片이 亂飛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當初에 同 溪谷의 兩側을 81mm迫擊砲와 重機關銃으로써, 各 中대間의 死角地點과 건너편 山으로 隱身할만한 곳에는 60mm迫擊砲로써, 그리고 愚山川으로 因한 死角部位에는 手榴彈으로써 各各 制壓케 하고 나머지 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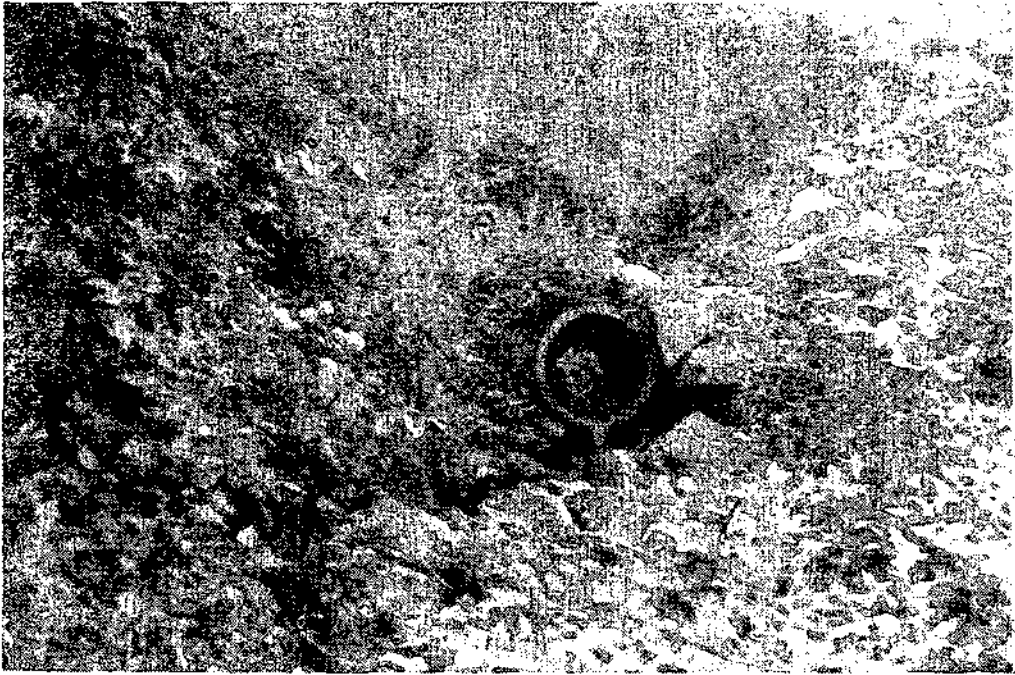
◇ 상황도 제44호 제17연대 제2대대의 東觀里성명戰



射火器로서는 977번 路上을 相互 側射로써 交叉시켜 놓았기 때문에 안개로 因하여 잘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이에는 4列密集縱隊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時間이 흘러서 08.00에는 안개도 걷히고 路上과 눈 바닥에 屍體와 장비가 겹겹이 쌓여 있음이 드러났고, 아직도 삶을 찾아 헤메는 者들이 눈에 띄었으며 그들이 北傀軍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대장 宋虎林 소령은 暴動의 不便함도 잊은듯이 中央의 제 6 중대(장, 郭聖範 중위)로서 숨어 있는 者들을 索出擊殺케 하고, 그는 高地에 서서 빨간 형집으로 만든 手旗로 敵이 도망치는 方向을 가리키며 射擊지휘를 하고 있는데, 參謀要員과 顧問官을 帶同한 연대장 金熙濬 중령이 대대 觀測所에 當到하였다. 연대장이 이른 아침에 대대 觀測所를 찾게 된 것은 狀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대장의 處事를 問責하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赤旗를 휘두르면서 射擊지휘하는 대대장과 溪谷에 펼쳐진 光景을 보고 大驚하는 表情이었다.

顧問官은 이 戰鬪場面을 보고 『내가 30년間的 軍生活을 通하여 戰鬪도 많이 해 보았고, 西部活劇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痛快한 戰鬪는 처음 보았다.』며 “Wonder-ful”의 感歎詞를 連發하고, 제 5 중대에 彈藥운반차 갔다가 戰鬪狀況을 目擊한 住民 朴武鎭(當年 22세 化西面 下松里)은 『敵이 길위의, 눈 바닥에 까맣게 쓰러져 있는데, 그중 7~8명이 道路를 橫斷하는 直徑 70cm의 排水路 土管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때 한 軍人이 그 土



〈敵 1개分隊가 숨은 排水土管〉

관앞까지 달려가서 土管속을 向하여 M-1小銃으로 8발을 連續사격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國軍들은 참으로 勇敢하였다.』고 當時의 感懷를 되씹었다.

또한 제 7중대 화기소대장 金三萬 중위도 도랑을 따라 도망치는 敵을 發見하고, 全義錫 上兵이 사격하고 있는 肩着式 輕機關銃을 빼앗아 들고 射擊을 加하면서 앞으로 나가다가 그들의 휘두르는 銃擊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는 이 戰鬪에서 唯一한 戰死者가 되었다.

대대는 14.00에 擊滅戰을 끝내고 俘虜 30명과 迫擊砲 16문, 機關銃 36정을 포함한 各種 小銃등 800餘정을 2 $\frac{1}{2}$ Ton車輛 3대에 적재하여 연대 본부로 後送하고 있을때에, 敵은 비로소 砲擊을 加하고 逆襲을 試圖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대대장은 防禦陣地를 鳳凰山 中腹으로 옮기게 하고 제 5중대를 同 高地의 背斜面에 控置시켜 그들의 逆襲에 對備케 하였는데, 그들은 砲擊으로서만 그치고 말았다.

## 2. 제 3대대의 戰況

제 3대대(장, 吳益慶 소령)가 敵의 砲擊을 받기 始作한 것은 17.00가 지나서 였다.

그들은 이 地域에 연대가 配置되었음을 비로소 알아차린듯 연대 全域에 無差別 砲擊을 加하였는데, 對砲兵火器가 없는 연대로서는 束手無策이었으며, 地形地物을 利用하여 避하는 道理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砲擊은 점차로 熾盛化하고 I 線중대地域으로 번져서

10餘명의 損失을 입게 되었다. 대대장 吳益慶 소령은 그들 砲擊으로부터 損失을 덜게 하기 위하여 제 9, 제11중대를 △582의 背斜面으로 이동시켜 壕를 파고 들어가 있게 하였는데 밤새도록 그들의 逆襲氣勢는 보이지 않았으며, 20.00분 前後하여 同 高地의 背斜面에 美 제24연대 隸下의 步兵 1개 대대가 配置될 것이라는 通報를 연대로부터 받았다.

### 3. 增援 부대의 投入通報

연대장은 敵의 砲擊으로부터의 損失을 防止하기 위하여 前方 兩側 大대의 陣地를 低地帶에서 옮기게 한 바 있으나, 그들이 全面攻勢를 取할 경우 砲兵 支援을 받지 못하는 연대로서는 到底히 堪當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陸軍本部에 打電報告하였다. 아울러 敵 제15사단 예하의 제49연대를 殲滅시켰음도 附言하였는데, 陸軍本部는 安東으로 가도록 조치한 바 있는 제1사단으로써 化寧場을 補強하겠다고 하였으며, 顧問官은 美 제24연대가 翌日中으로 이 地域에 轉進せ 될 것이며, 그 先發隊로 1개 대대가 20.00를 前後하여 坪溫里 北쪽에 投入될 것이라고 하였다.

7월 22일 : 전날 20.00以來로 조용하였던 東觀里 溪谷을 包含한 △582 一帶는 天明과 더불어 또 한차례 砲煙에 휩싸이게 되었다. 敵 제15사단장 朴成哲은 猝地에 2개 연대규모의 主力을 잃고, 失墜된 그의 體面을 恢復하려 하였음인지 이날 未明부터 1時間餘에 걸친 砲擊으로 연대 全地域을 彈雨로 뒤덮듯 하더니, 이어서 남은 1개 연대와 收拾한 敗殘兵으로써 연대前面을 위협하였다. 이때 美 제24연대를 支援하는 105mm砲兵대대도 坪溫里 北쪽에 配置된 이들 步兵 1개 대대를 支援하기 위하여 △582 北方을 向하여 砲門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이 展開되었을 때에 제1사단의 主力이 進出하였는데, 제11연대(장, 權東贊 중령)가 化寧場에, 제12연대(장, 金點坤 중령)가 坪溫里에 各各 集結하고 제15연대(장, 崔榮喜 대령)는 아직 未着상태였다.

### 2. 제17연대의 戰況

敵이 연대地域에 砲擊을 集中하고 있을 때, 美 제25사단의 105mm砲兵대대도 砲擊으로 맞았기 때문에 鳳凰山—△582—一帶는 砲火가 紛飛하고 鐵片이 雨注하였다. 特히 △582의 前後斜面은 彼我 砲兵의 彈幕地帶로 化하였기 때문에, 이 地域에 展開한 제3대대의 生死與否는 勿論 美 제24연대의 1개 대대와도 연락이 끊겨 있었다.

연대장 金熙濬 중령은 제2대대장 宋虎林 소령을 通하여 세3대대(장, 吳益慶 소령)의 狀況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同 대대에서도 不通이라는 報告를 받았으며, 아울러 同 대대는 敵 砲擊으로 士兵 13명이 負傷하였다고 하였다.

연대장은 通信장교 金基周 대위와 作戰주임 趙瑛九 소령을 帶同하고 坪溫里로 나갔는데,

길 가에 美軍 死傷者들이 즐비하였고, Ambulance로 이들을 後送하고 있었다. 이때 제 3 대대 인사장교 朴鍾漢 중위가 負傷한 다리를 절면서 보고 하기를 『부대대장 姜隱德 대위가 戰死하고 대대장 吳益慶 소령도 大腿部에 破片傷을 입고 쓰러졌다. 死傷者는 더 있을 것으로 보나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연대장은 우선 제 1 대대 부대대장 安濟徵 대위를 제 3 대대장 대리로 임명하여 同 대대를 指揮케 하고, 吳益慶 소령을 後送措置케 하였다. 그리고 顧問官은 그의 車로 朴鍾漢 중위를 비롯한 患者들을 後送시켜 많은 人命을 救出케 하였으며, 朴三德 등 住民들도 患者治療에 헌신적인 努力을 기울였다.

한편 제 3 대대장 대리로 임명된 安濟徵 대위는 △582로 올라가서 部隊를 掌握하려 하였으나, 通信장비는 파괴되고, 部隊는 흩어져 있고, 戰場整理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收拾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同 대위는 前에 同 대대의 부대대장을 歷任한 바 있는 제 12 중대장 鄭圭漢 대위에게 同 대대의 收拾을 一任하고, 그는 연대장에게 報告하되 『제 3 대대는 個人竅를 철저히 파고 있어서 損失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나 直擊彈에 依해서 장교 3명 사병 16명이 戰死하고 負傷者가 20餘명 있었으나 아직도 戰意를 喪失한 것은 아니므로 急速한 活力策이 要望된다.』라고 하였다.

연대장은 即刻 예비인 제 1 대대(장, 李寬洙 소령)로써 交代케 하고 제 3 대대를 化寧國民학교에 집결시켜 鄭圭漢 대위로 하여금 收拾케 하였다. 이때 제 3 대대의 將兵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死傷者를 내게 된 것은 敵의 砲擊이 熾盛했던 탓도 있으나, 我軍의 誤擊에 依한 損失도 적지 않았다.』고 분개하였는데, 이로써 터골(洛西 西쪽 1km)에 布陣한 美 제 25 사단 砲兵대대가 射距離를 無視하고 砲擊한 事實이 밝혀졌으며, 特히 岬(坪溫里 北쪽 1.5km)附近에 集結하고 있던 제 24 연대 隷下 1 개 대대의 損失은 더욱 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가 拂曉의 敵侵으로 混戰을 겪고 있을때 제 1 사단이 化寧場에 進出하였으며, 同 사단은 各 연대의 兩側方에서 攻撃태세를 취하였다. 同 사단의 제 11 연대는 제 17 연대 제 2 대대(장, 宋虎林 소령)의 支援下에 上達里에서 △746(鳳凰山 北쪽 3km)方向으로 제 12 연대는 제 1 대대(장, 李寬洙 소령)의 支援下에 坪溫里에서 一兄弟峰(△803 長子洞 北쪽 3.5km)方向으로 各 攻撃하여, 頑強하게 抵抗하는 敵을 葛嶺 및 兄弟峰 北쪽으로 물리침으로써 그들의 南侵 企圖를 挫折케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正常을 되찾게 되었으나 陸軍本部 명령에 따라 이날 18.00부로 現陣地를 제 1 사단에 引繼하고, 次期임무를 遂行키 위하여 大邱로 이동케 되었다.

그러나 제 17 연대의 化寧場附近의 戰鬪는 敵 제 15 사단의 尙州 攻擊을 頓挫시켰으며, 또한 그들 前線 사령관 金 策이 劃策한 이른바 제 4 차 作戰 遂行을 挫折시킨 原動力이 되었다. 이로써 我軍은 洛東江線에 防禦陣地를 編成할 수 있는 時間을 얻게 되었으며, 陸軍本部는 이를 높이 評價하고 제 7 연대(장, 林富澤 중령)에 이어 두번째로 제 17 연대장 金熙濬 중령

以下 全將兵에게 1階級씩 特進시키는 特典을 부여하였다.

한편 北傀 제15사단의 이 戰鬪는 陰城地區 戰鬪에 이어 두번째의 大敗戰으로써, 兵員과 裝備의 殆半을 상실하여 사단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南侵計劃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던 것이다. 果然 그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15사단장 朴成哲은 이로 因하여 同 職에서 罷職되고, 그의 참모장인 대좌 金 郁이 그 後任으로 임명 되었다고 하였다.

### 1. 제 1 사단의 化寧場 進出

제 1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이날 05.00 砲聲이 울려 퍼지는 坪溫里에서 제17연대장 金熙濬 중령을 만나고, 同 중령으로부터 敵情을 淸정한 다음 前衛인 제12연대(장, 金點坤 중령)를 即刻 坪溫里에서 제17연대 제 1 대대(장, 李寬洙 소령)를 超越 攻擊케 하고, 後續한 제11연대(장, 權東贊 중령)를 上達里로 進出시켜 이 正面의 敵에 對備케 한데 이어 사단 사령부를 化寧支署에 設置하였다. 그리고 後衛로서 늦게 當到한 제13연대(장, 崔榮喜 대령)는 新基(化寧場 南쪽 500m)에 控置시켜 예비로 하였다.

그리하여 同 사단은 제17연대의 支援을 받아 敵을 葛嶺 北쪽으로 물리쳤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날 18.00부로 이 地域의 防衛임무를 제17연대로부터 引受케 되었다.

제 1 사단은 여기에 進出하기 前에 陰城地區에서 北傀 제15사단과 一戰을 치룬 以來, 槐山一米院에 이르기까지 且戰且退를 되풀이 하면서 그들의 南侵을 阻止하고 있었는데, 지난 18일부터 그들의 抵抗이 눈에 띄게 消極化되었다. 사단은 이때부터 部隊整備에 注力하였는데, 陸軍本部의 戰線調整 方針에 따라 7월 21일 安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同 사단은 7월 21일 08.00에 제 12, 제11연대, 사단 사령부 및 제13연대순으로 米院을 出發하여 18.00 報恩에 集結하였으며, 여기서부터 安東까지는 車輛行軍한 예정이었으나, 車輛徵發이 如意치 못하여 報恩에서 一泊하게 되었다는데, 이날밤 陸軍本部로부터 化寧場으로 急遽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에 사단 兵力은 장교 267명 사병 4,112명으로서 道합 4,300餘명이었으며, 裝備는 81mm迫擊砲 24문, 60mm迫擊砲 20문, 2.36"Rocket砲 49문, 重, 輕機關銃이 各 21정, 自動小銃 30정에 不過하였으며, 個人火器를 所持하지 못한 士兵도 數百명이었던 것이다.

### 제11연대의 狀況

제11연대장 崔慶祿 대령이 7월 15일부 首都사단으로 轉屬함에 따라 부연대장 權東贊 중령이 연대장으로, 제 3 대대장 金在命 소령이 부연대장으로 그리고 同 대대 부대대장 金 沼 대위가 대대장으로 各各 임명되었다.

同 연대는 陰城에서 철수하여 淸州方面에서 侵入하는 敵에 對備하여 官井里(米院 西쪽

3km)에서 506번道路를 中心으로 展開하였으나, 21일 그곳을 떠날때까지 接敵이 없었고 化寧場으로 轉進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는 이날 07.00에 化寧場에 到着하였으나 곧 上達里의 △470를 占領하고 이 正面으로 侵襲하는 敵에 對備하였다.

#### 제12연대의 狀況

제12연대(장, 金點坤 중령)는 米院附近에서 사단 예비로 있다가 化寧場으로 轉進할 때에 사단의 前衛로서 部隊를 先導케 되었다. 이날 06.00에 坪溫里에 이르렀는데, △582 一帶가 砲聲으로 振動하고 25번道路上에는 悲命과 高喊을 지르는 美제24연대 所屬의 負傷兵과 彷徨하는 非武裝兵들로서 길이 차단되고 있었다.

이 慘狀을 目擊한 제2대대 작전장교 全子烈 중위는 當時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이들은 美 제24연대 所屬으로써 지휘관인 연대장을 除外한 全員이 黑人으로 構成된 部隊라고 하였다. 同 연대의 先發隊인 이들은 지난 밤 「점마」(坪溫里 北쪽 溪谷 1.5 km)附近에 集結하여 연대장 White 대령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중 이날 04.30부터 敵 砲擊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支援砲兵의 砲擊까지 겹치게 되었던 까닭에 分散되고 말았다.』 고 하였다.

그뒤 연대는 사단장 명령에 따라 제17연대 제3대대를 超越攻擊하여 敵을 葛嶺北方으로 물리치고 18.00에는 同 연대의 防禦地域을 引受하였는데, 美軍이 集結하고 있었던 「점마」附近에서 美軍이 遺棄한 各種 火器와 補給品 그리고 1/4Ton 車輛 1대를 入手하여 200餘명을 武裝시킬 수 있었다.

#### 제13연대의 狀況

제13연대(장, 崔榮喜 대령)는 사단의 後衛로서 이날 09.00 化寧場에 도착하고, 新基(化寧場 南쪽 500m)에 集結하여 사단의 예비가 되었다.

同 연대는 米院地區에서 사단의 右1線부대로서 敵 제15사단과 接觸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出血을 強要하는 一方 南下를 阻止 또는 遲延시키고 있었는데, 17일부터 그들의 攻勢는 현저하게 消極화된 점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當時 同 연대의 作戰주임 安秉健 소령은 다음과 같이 證明하였다. 『北傀 제15사단은 陰城戰鬪 以來로 米院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接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化寧場에서 또 그들과 부딪치게 되었다. 敵은 米院을 突破하고 大田方面으로 進出하려는 氣勢로 한때 米院附近까지 肉迫하였으나, 제12연대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巨里峙(米院 北東쪽 6km)北쪽으로 물러갔는데, 그뒤부터 그들의 攻勢는 消極化되었다. 그들이 이때부터 小白山脈을 橫斷하여 化寧場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單純히 部隊整備를 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當時 地圖도 없었지만 地理에 너무나 어두웠고 情報活動이



微弱하였음을 한탄 하였다.

#### (나) 제 1 사단의 化寧場附近의 戰鬪(7.23~25)

7월 23일에 제17연대(장, 金熙濬 중령)는 06.00를 期해서 尙州 경유 大邱로 떠났고, 이 地域에 對한 防守임무는 전날 18.00부로 제 1 사단이 遂行케 되었다. 따라서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主陣地를 鳳凰山—△582로 調整하고, 제12연대를 여기에 展開시키고 제11연대를 上達里로 철수시켜 977번 道路를 扼守케 하는 한편 사단의 東側方을 警戒토록 하였다.

또한 전날부로 韓國軍과 交代하여 化寧場地區를 맡기로된 美 제24연대는 그 1개 大隊가 坪溫里 北쪽에 配置되었을뿐, 그 主力은 아직 尙州 西北쪽에서 交戰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지고 있었는데, 그 大隊 마저 그들 支援砲兵 大隊의 誤擊으로 말미암아 많은 死傷者를 내고 上村里(化寧場 西쪽 2.5km)로 철수하여 兵力을 收拾하고 있었다. 그러나 射程 未達로 말성을 빚은 바 있는 同 砲兵大隊는 그뒤 願江里(化寧場 南쪽 2km)로 推進하여 支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侵襲을 企圖하다가 물러서게된 敵은 이날도 早朝부터 鳳凰山과 △582에 砲擊을 集中하면서, 그들 步兵부대로써 只今까지의 道路接近路가 아닌 險峻하고 樹木이 茂盛한 山岳地帶를 攻擊軸線으로 하여 侵襲케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585(金谷里 東쪽 1km)와 葛谷里(長子洞 西쪽 2km)까지 손쉽게 進出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 1. 제11연대의 戰況

제11연대장 權東贊 중령은 제 1 大隊(장, 대리 張根述 대위)를 金谷里의 △470에 配置하고, 연대(-1)는 上達里에 集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09.00에 제 1 大隊地域에서 銃聲이 일면서 張根述 대위로부터 『敵 1개 소대 규모가 △585(金谷里 東쪽 1km)에 나타났으며 제 1 중대(장, 대리 李德彬 중위)가 이를 發見하고 交戰중에 있다.』는 報告를 받았다.

暫時히 同 大隊地域에 그들의 120mm 및 82mm로 推定되는 迫擊砲彈이 炸裂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兵力도 增加된 듯 銃聲이 요란하였다.

연대장은 即刻 제 2 大隊(장, 鄭永洪 소령)를 △585의 東南쪽에서 攻擊케 하고, 사단 作戰참모 文亨泰 중령에게 美軍 砲兵의 支援사격을 要請케 하였다. 이리하여 同 高地의 北쪽에는 美軍 砲兵의 105mm 曲射砲彈이 集中하기 시작하고, 그 東쪽과 南쪽에서는 제 2 大隊와 제 1 大隊가 挾攻하자, 1개 大隊규모로 推算되는 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下達里(中達里 北쪽 1km)의 東側高地로 물러가고 말았다. 그러나 연대장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迫擊을 加하였으며, 美軍의 支援砲兵도 이를 追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746(鳳凰山 北쪽 3km)로 退却하여 그곳의 岩石과 地勢의 險함을 利用하여 抵拒하였다.

이로 因하여 同 연대의 攻擊은 同 高地의 7分線에서 頓挫되었으며, 彼我 銃擊만이 계

속되었다. 이때에 제 2중대(장, 李正豪 중위)의 제 1소대장 金唯成 소위는 特火點과 같은 岩石사이에서 發惡的으로 亂射하고 있는 한 機關銃座를 發見하자, 特攻隊를 編成하여 그들을 沈默시켰는데, 이 機關銃 射手도 陰城戰鬪時 본 것과 같이 최후로 발이 묶이어 機關銃座에 매달린채 죽어 있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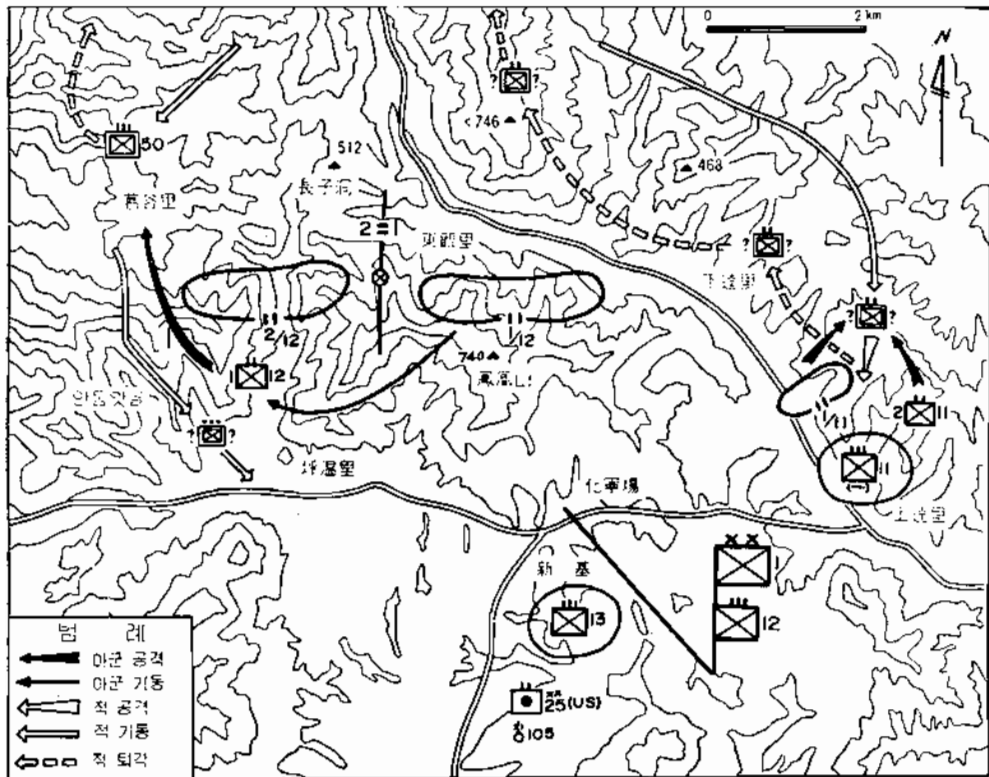
그들은 同 高地를 버리고 △871(△746 北쪽 2km)로 退走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日沒되었기 때문에 同 高地에 防禦陣地를 編成하였다.

## 2. 제12연대의 戰況

제12연대장 金點坤 중령은 제17연대로부터 引受한 防禦陣地를 各 大隊에 割當하였는데, 제 1대대(장, 申鉉洪 소령)를 右 1線으로 하여 鳳凰山에, 제 2대대(장, 李茂重 소령)를 左 1線으로 하여 △582에 各 各 展開시켜 異狀없는 가운데 하루밤을 지냈다.

그런데 그들은 攻擊준비임을 暗示라도 하듯 天明과 더불어 砲擊을 加하였는데, 砲彈의 彈着地點이 主로 鳳凰山과 △582에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攻擊目標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였으나, 이날 01.00 葛谷里 居住의 한 住民의 提報에 따르면, 砲擊과는 全然 다른 方向으로 侵襲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상황도 제45호 제 1사단의 化寧場 부근의 戰鬪(7.23~24)



그 提報內容을 보면 『敵 1개 소대규모가 이날 새벽에 葛谷里를 通過하여 「안동앗골」(坪溫里 北西쪽 1.5km)쪽으로 갔으며, 三街里(葛谷里 北西쪽 2km)方面에서 大部隊가 接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情報主任 李圭玉 대위는 정보장교 宋浩錫 중위가 지휘하는 搜索隊 要員으로써 即刻 葛谷里 「안동앗골」 및 坪溫里 一帶를 搜索하여 報告하라고 지시하고 作戰 주임 梁三錫 소령에게 이를 通報하여 對備策을 講究케 하였다.

暫時뒤 宋浩錫 중위의 搜索結果報告를 接受하였는데, 住民의 諜報가 事實대로이며, 那들 先發隊는 坪溫里에, 그리고 그들 主力은 葛谷里를 通過하였다고 하였다. 이 情報는 곧 美 제24연대 支援砲兵대대에 傳達되었으며, 105mm曲射砲의 射向을 △582의 西側方과 葛谷里 北쪽으로 돌려서 砲擊을 加하게 하였다. 그러는 사이 안개도 걷히고 樹木사이에 숨어서 抵抗하는 敵도 觀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대장 金點坤 중령은 敵을 敵制할 수 있는 地勢의 利點을 살려 攻勢로 移轉할 것을 決心하고, 사단장에게 이를 報告하는 同時에 右 1線의 제 1대대로써 제 2대대를 超越攻擊케 하였다. 그리고 坪溫里에 侵襲한 敵은 연대 搜索隊로써 擊滅케 하였으나 그들의 行方을 찾지 못하였다.

그곳 住民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坪溫里에 들어온 敵은 20餘명으로, 이 마을의 反共精神이 透徹한 盧元燮의 3父子가 農器具로써 그들 10명을 殺害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더론 기에 分散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鳳凰山과 △582를 迂回 通過하려던 敵은 住民의 申告에 依하여 그 企圖가 挫折되고 兄弟峰(△803 葛谷里 北쪽 4km)北쪽으로 退却하였다.

### 3 사단장의 措置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敵의 砲擊이 시작되었을때 이를 作戰참모 文亨泰 중령으로 하여금 美 제24연대에 通報케 하고 同 연대 支援砲兵의 支援사격을 要請케 하였다. 22일 제 17연대와 交代키로 되었던 제24연대가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에 同 사단이 이에 대신한 것인데, 砲兵支援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尙州北쪽에서 韓國軍 제 6사단을 支援하던 제24연대(-1)는 이날 夕陽때부터 化寧場으로 進入하고 제 1사단과의 陣地를 交代하게 되었는데, 同 연대장 White 대령은 제 1사단장 白善燁 대령이 陸軍本部 情報局長으로 있을때 同 局의 顧問官으로 있었기 때문에 親分이 두터운 사이였다.

사단장 白善燁 대령은 兩部隊間의 협조를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英語 解得이 가능한 제 12연대 제 2대대 작전장교 金子烈 중위를 連絡장교로하여 同 연대에 派遣하였는데, 같은날 陸軍本部로부터 『化寧場의 現陣地를 美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에 引繼하고 咸昌으로 轉進하여 제 2군단(장, 劉載興 준장)의 作戰統制를 받으라.』는 口頭명령을 受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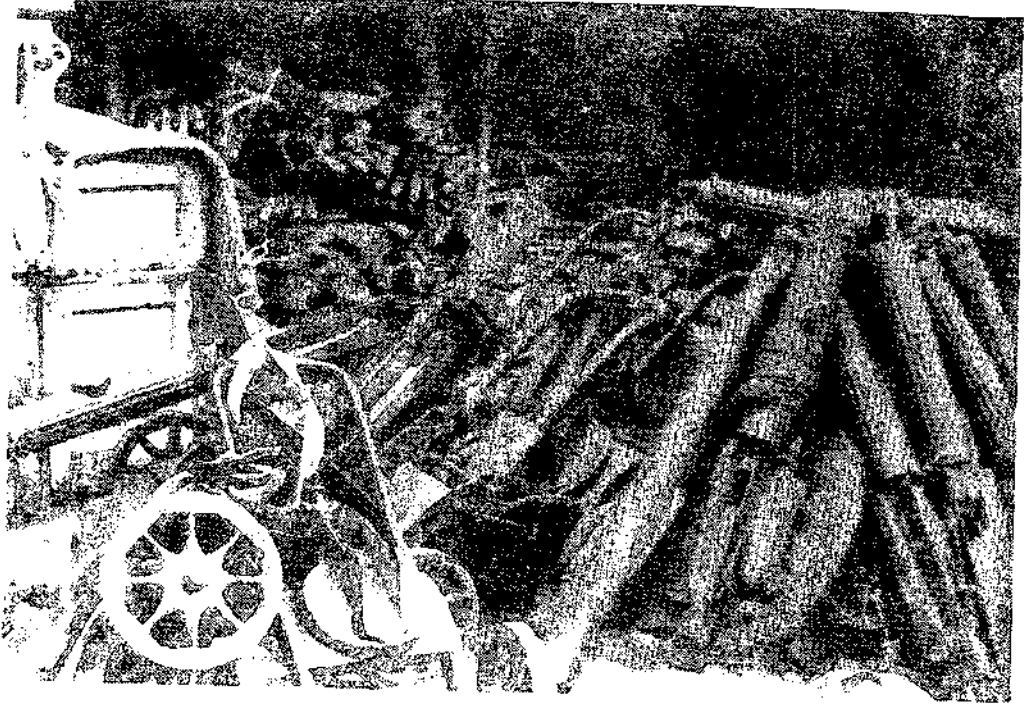
그러하여 이 事實을 예하연대와 美 제24연대(장, White 대령)에 通報하고, 25일 06.00에 陣地交代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였다.

제 1사단은 이 戰鬪에서 敵 104명을 射殺하고 13명을 俘獲하였는데, 戰死 6명, 戰傷 9명의 損失을 보았다.

### 라. 전투후의 계획

제 1사단은 예정대로 25일 06.00에 美 제24연대와 陣地交代를 完了하고, 제 6사단을 支援키 위하여 同일부로 尙川 經 慶 昌 으로 直 進 하였다.

이로써 戰線은 洛東江線으로 縮少되고, 韓國軍은 東海岸의 盈德-安東-咸興에 이르는 洛東江 上流 地域을, 그리고 美軍은 그 西側을 各 專營케 되었는데, 湖南地區는 戰鬪兵力이 없는 編成管區 사 령 部 가 없을 뿐 이었다.



〈제17연대가 鹵獲한 敵裝備〉

### § 參戰者의 證言

◇ 제17연대 제 1대대 作戰장교 金熙濟 중위  
(1978. 4.1 春川 職業訓練院에서 豫 대령)

제 1대대가 鎭川地區 戰鬪에서 많은 損失을 보

고 7.13 報恩으로 撤 收 하였는데, 이때 제 2, 3 대 대는 首都 師 단에 配 屬되어 淸州附近에서 싸 우고 있었다.

대대는 新兵(大田에서 募兵한)으로써 兵力을 補充하고 2~3일간 整備하고 있었는데, 연대장 金熙濟 중령이 제 1대대(장, 李寬深 소령)는 7.16

24.00 연대의 先發隊으로써 咸昌의 제 2군단(장 金白一 준장)지역으로 直行하라. 제 2, 제 3대대도 集結完了 即時로 後續시키겠다.』고 명령하여, 대대는 徵發한 車輛을 타고 當日로 報恩을 떠나 다음날 아침 化寧場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에 한 住民이 길을 막으면서 『傀儡軍이 지난밤 사이 槐山—上達里로 通하는 道路를 따라 尙州쪽으로 갔다. 그러나 이길은 위험하다.』고 制止하였다.

대대장과 나는 이를 確認하기 위하여 化寧支署로 갔는데, 거기에서 제 2군단 情報隊(장, 裴尙錄 대위)의 前任下士官 尹福源 上士를 만나게 되었다. 同上士도 敵 1개 대대규모가 通過하였음을 是認하면서 『대장 裴尙錄 대위는 이 事實을 군단에 報告키 위하여 어제 咸昌으로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12.00 上谷橋(化寧場 東쪽 4km)에서 그들의 傳令 1명을 俘獲함으로써 그들이 尙州近郊까지 進出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 後續부대에 對備케된 것이다.

대대장은 必然코 그들 主力부대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이를 在 報恩의 연대장에게 報告케하는 同時에 대대를 上谷里의 △343(化寧場 東쪽3km)에 展開하여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각 중대장에게 『全員 壕를 파고 敵에게 察知되지 않도록 位置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고 아울러 射擊은 명령에 의해서만 하라고 거듭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15.00경 陣地 工事を 끝냈는데, 敵은 예상한 대로 步兵 2개 대대와 砲兵 1개 대대등 1개 연대규모가 16.00에 대대 防禦陣地前面인 上達里에서 休息을 취하였다. 밤에 잤은 그들은 霰銃을 하자 警戒조치도 소홀히 한채 全員이 愚山川으로 뛰어 들어 水浴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81mm 및 60mm 迫擊砲와 機關銃등 共用火器에 對한 彈藥分配가 해질 무렵에야 끝났기 때문에 사격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간 흠어있던 敵도 저녁 食事を 하기 위하여 最初 集結地로 모이들기 시작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대대장은 『射擊 開始』의 명령을 하달하고, 赤色五輪신호탄이 하늘 높이 치솟음과 同時에 全 대대의 火力이 그들 集結地를 強打하였다.

不意의 急襲을 당한 敵은 武器에 손을 댈 겨를

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들끼리 부딪치며 쓰러졌고, 그들 裝備와 補給品 운반에 動員되었던 소와 말이 砲와 銃聲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러나 30餘分이 지났을때부터 照準사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道路의 兩側을 封鎖케 하고 現 配置상태에서 날을 밝혔다. 날이 밝은 다음 搜索戰을 展開하였는데, 그들 大部分이 夜暗을 이용하여 逃走하고, 150餘具의 屍體와 裝備등 補給品이 버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 大部分이 負傷하였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俘虜의 陳述에 따라, 뒤 늦게 당도한 제 3대대(장, 吳益慶 소령)도 이에 加勢하여 上達里—金谷里의 高地一帶를 搜索하였는데, 一部는 北쪽으로 逃走하였다고 하였다.

그뒤 대대는 연대의 豫備가 되었으나 △582에 配置되었던 제 3대대가 分散되었기 때문에 同 대대와 任務를 交代하였으며, 제 1사단에 陣地를 引繼할 때까지 연대의 左1線 대대으로써 坪溫里로 侵襲하려는 敵을 阻止擊退시켰다.

#### ◇ 化寧面 大韓青年團員 漁容善 (1978. 8. 3 化寧場에서)

6. 25가 勃發한 以來 戰勢는 나날이 國軍에게 不利한 것으로 傳해지고있었는데, 7월中旬에 접어들면서 北傀軍의 一部가 드디어 戰線의 空白地帶를 뚫고 아무런 防備가 없는 化寧場을 거쳐 尙州로 가는 것을 目擊하였다. 이보다 몇일전에 咸昌 所在의 제 2군단사령부에서 裴尙錄 대위가 지휘하는 情報隊員 20餘명이 日產 車輛을 타고 이곳에 派遣되었는데, 그는 支署장에게 大韓青年團 要員의 召集을 要求하고, 召集당한 단장 金基榮 以下 20餘명의 團員은 이때부터 軍人과 混合編成되어 情報隊員의 一員으로써 情報 수집을 하게 되었다.

나는 葛嶺附近의 潛伏哨에 配置되었는데, 16일 早朝에 化北面 光亭里(化寧場 北쪽 15km)居住의 李在先이 찾아와서 『北傀軍이 마을마다 들어와서 젊은 사람을 強制徵用하고 家畜을 약탈하고 있다. 이를 申告하기 위하여 化北支署까지 갔으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化寧支署로 가는 중이다.』라고 하였다. 이 情報는 대장 裴尙錄 대위에게 報告되

고, 同 代위는 제 2군단 사령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當日로 咸昌으로 갔다.

그뒤 제17연대가 와서 敵을 上達里와 東觀里 溪谷에서 크게 무찔렀는데, 우리 大韓靑年團員들도 단장 金基榮을 中心으로 彈藥 食事등을 推進하고 마을에 對한 自治整備등을 實施하여 軍人들의 後方活動을 벌여 주었다. 特別 同隊 團員인 朴三德은 그가 經營하는 藥房을 軍人 治療所로 提供하고 그도 患者를 돌보았으며, 避難하지 못한 婦女子들은 農協창고의 空地에 大型 釜 10餘개를 걸어놓고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제17연대는 他處로 이동하고, 제 1사단이 오고 또 美軍하고 交代하였는데, 제 1사단이 이곳을 떠난 25일, 우리도 避難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이 불려난 9월 中旬부터 住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廢墟가 된 마을과 農土를 收復하였다. 그러나 東觀里—上達里間의 住民들은 산머미처럼 쌓인 屍體에서 풍기는 惡臭 때문에 몇년간을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그뒤 整理가 되어어도 屍體가 있었던 곳은 4~5년이 지나도록 穀物이나 과일외의 열매가 열지 않았다.

#### ◇ 제17연대 제 7중대 제 1소대 제 1분대 병장 卜鎮世

(1978. 9. 11 三豊建設會社(株) 豫 上士)

내가 淸州地區 戰鬪 다음에 參加한 것이 化寧場地區 戰鬪이다.

當時 나는 제 2대대 제 7중대 제 1소대 제 1분대의 小統兵이었다. 대대가 報恩에서 化寧場으로 이동한 것은 7일 18일인데, 이날로 우리 대대는 東觀里 溪谷에 配置되었으며, 우리 小隊는 대대의 左端部를 占領하였다. 제 1소대가 配置된 左側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東觀里라고 하였다. 중대장 趙慶鶴 중위는 제 1소대장 吳乘珍 중위에게 『저 길 건너 獨立家屋에 警戒초소를 設置하고 이 마을을 搜索하라.』고 명령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警戒와 搜索임무를 遂行케 되었다.

대대 防禦陣地前面으로 977번道路가 東—西로 뻗어 있는데, 獨立家屋이 있는 左端部에서 同道路는 90°角도로 北上하여 葛嶺에 이르고 있어서 同 方向에 對한 觀測은 同 家屋에서만 可能하였

다. 그리고 東觀里는 20戶의 家屋이 있었는데, 老人 몇사람이 남아 있을뿐, 텅 빈 마을이었다.

小隊가 搜索중 어느 집에서 北僞軍 服裝의 屍體 3具를 發見하였는데, 이마을에 산다는 한 老人이 말하기를 『저들은 몇일전 마을에 들어와서, 쌀, 밀가루등 食糧을 걷기 위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이마을의 高昌根에게 도끼로 被殺당한 것이다.』고 하였다.

搜索이 끝나고 나는 警戒兵으로써 警戒哨所에 나가 있었는데, 葛嶺에서 무른 소리가 나기에 쳐다 보았더니, 北僞軍 장교 2명이 말을 타고 私服차림의 2명과 軍人 10餘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裝備와 補給品을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牛馬車 10餘頭를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警戒하는 氣色도 없이 泰然하게 중대陣前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때 우리는 명령없이 사격을 못하도록 指示받고 있었는데 어느 兵士가 방아쇠를 擊發시켰는지 銃聲이 터져나왔고, 全 小隊員의 銃口에서도 一齊히 불을 댔었다. 瞬間의인 事態였기 때문에 制止할 사이도 없이 그들을 다 쓰러뜨렸는데, 確認하여 본즉 그들 장교 1명이 보이지 않았다.

대대장 宋虎林 소령의 명령에 따라 射殺된 소는 연대본부로 後送하고 그들 屍體와 죽은 말은 길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 埋葬하였으며 路上의 찢자욱도 흙으로 덮어 그 흔적을 감추게 하였다. 그리하여各自는 原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길은 안개속을 뚫고 4列縱隊 隊形을한 行軍縱隊가 우리가 配置된 50m前方을 西에서 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勿論 彼我識別은 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어찌 명령없이 射擊한 代價로 호된 注意를 받고있는 터이라, 그들 先頭가 지난지 2時間餘가 지났어도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런데 07.30이 지났을때 『射擊 開始』를 알리는 赤色 5星신호탄이 안개 낀 東觀里 溪谷을 변경계 물드림과 同時에 同 溪谷은 地殼이 흔들리는듯 하였고 爆音은 하늘을 찌르는듯 하였다. 안개와 硝煙으로 標的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標的을 불 필요가 없었다. 各者가 말은 射擊區域에 對하여 最低表尺射擊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小統, 自動小統, 機關銃, 手榴彈, Rocket砲, 迫擊砲등 대

대의 쏘 火器는 오직 사격한 뿐이었다. 1時間이 지났을때 『射擊 中止』명령이 下達되고 안개도 완전히 걷혔는데 977번 道路와 그 周圍一帶는 屍體로써 덮혔고 惡山川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이처럼 痛快한 戰鬪를 해보기는 前無 後無였으며, 戰史上에도 이러한 경우는 드물것으로 생각한다.

#### ◇ 化寧場地區 情報派遣대장 襲尙錄 대위 (1978. 8. 3 韓國軍納組에서, 예 대령)

6. 25前까지 나는 陸軍本部 情報局員의 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陸軍本部가 平澤으로 옮기고 제 1군단(장, 金弘奎 소장)이 창설되자, 情報局 要員의 大部分이 同 軍단 情報隊員으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情報수집을 위하여 戰線을 轉轉하였는데 咸昌까지 가게 되었으며, 7월 12일에 창설된 제 2군단(장, 金白一 준장)으로 配屬轉換되었다.

이무렵 陸軍本部는 大邱에 있고 前方 指揮所가 金泉에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陸軍本部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申告次 軍단 정보참모 辛在植 중령에게 갔더니, 同 참모가 『襲 대위는 그간 手苦가 많았으니 이번에는 尙州地區 派遣대장으로 任命한다. 化寧場에는 金正淑 대위가 있으니 협조하여 敵情을 수집 報告토록 하라』고 하였다. 나는 제 1군단 隸下의 부대들이 槐山-清州 일대에 展開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터이라 『尙州에 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不必要的 措置가 아니냐?』고 反問하자, 同 참모는 『當 軍단과 西部의 제 1군단과의 間隔이 40餘km로서 이 間은 無防備狀態로 開放되어 있다. 萬一 敵이 이 空間을 따라 侵襲하여 尙州地區를 占領한다면 軍단 사령부는 勿論 제 6사단의 退路가 차단될뿐 아니라 西部戰線의 제 1군단과 美 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이 孤立되고 말것이다. 정보참모는 서둘러서 軍단 정보대를 要處에 배치하여 敵의 接近을 事前에 探索하도록 하라. 그리고 작전참모는 陸軍本部에 要請하여 陸軍의 線備인 제 17연대(장, 金熙禧 중령)의 支援을 받도록 하고 于先은 제 6사단에서 1개 대대를 차출케 하여 化寧場-尙州間의 25번 道路를 掩護케 하라.』고 한 軍단장의 強調事項을 想起시키면서 빨리 任

地로 赴任하라고 催促하였다.

그래서 14일 隊員 18명과 같이 日產車를 타고 尙州에 갔더니 化寧場에 가 있다는 金正淑 대위가 마중하면서 날 하기를 『化寧場에 가셨자 磔屨山中인데다 敵情도 없고 하여 내가 尙州에 와 있으니, 이왕 나온 것이니까 晝 대위가 化寧場으로 나가라.』하여 가게 된것이 化寧場이다.

#### § 戰 訓

##### (1) 奇襲成功의 原因에 對하여

奇襲하여 成功한 原因을 分析하여 보면 다음의 몇가지를 例示할 수 있다.

첫째, 地形을 잘 선택하였다는 것. 즉, 냇가와 一條밖에 없는 道路의 협곡을 사이에 두고 險峻한 高地에서 不時에 奇襲사격을 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地形을 적절히 利用한 까닭이다.

둘째, 企圖를 秘匿하였다는 것. 즉, 掩擊하는 部隊를 枋나무와 담배밭을 利用하여 完全히 그 所在을 隱蔽할 수 있었다.

셋째, 工事를 適時適所에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 즉 壕를 挖으로써 兵士의 姿勢를 감출 수 있었고, 敵軍으로부터 隱호할 수 있었으며, 依托이나 標定사격으로 사격의 精度를 높일수 있었으며 그림으로써 사수들의 沈着性을 기대할 수 있었다

넷째, 射擊統制가 적절하였다는 것. 즉, 敵을 發見한 即時로 사격하지 않고 敵의 主力部隊가 完全히 殺傷地帶에 들어 온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大대장의 命令下 遂 一 下 모든 火力을 同時에 集中하여 도살할 수 있었다.

다섯째, 中대장과 大대장의 指揮가 沈着하였다는 것. 즉, 敵이 나타났다는 報告에 놀라지 않고 彼我를 完全히 識別한 다음 많은 兵力이 火網속에 들어오는 것을 2時間동안이나 침착하게 기다린 다음 비로소 同時 集中사격을 퍼부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化寧場의 戰鬪는 能히 1개 대대로서 敵의 2개 연대를 殲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掩擊戰에 있어서의 좋은 凡例를 보여주고 있다.

##### (2) 砲兵의 友軍 誤擊에 對하여

이 戰鬪 末期에 있어서 美軍 砲兵이 彼我의 戰

線을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砲火를 내뿜게 하므로서 我軍에게도 손실을 입혔다는 바, 그네들의 砲兵能力에 對하여 회의감을 금할 길이 없다.

砲兵이란 砲彈의 發射時間이 빠른 것만이 能事가 아니다. 그 砲彈이 正確하게 目標를 찾아炸裂함으로써만 價値가 있는 것이어늘 虛張盛勢로 砲擊만 광광 냄으로써 得意滿滿하여서 어찌 現代 砲兵의 精粹라 할 수 있으랴. 하물며 地圖도 준비하지 못하고 射距離도 측정하지 못한채로 臨機應變으로 陣地를 占領하고 抽退하기 이룰데 없는 發射로써 我軍만이 아니라 自己에 美軍마저 殺傷하였다는 것은 大驚失色하지 않을수 없다. 먼저 砲兵의 觀測官이 앞으로 前進하여 觀測을 한然後에 目標를 선정하고 사격을 준비하였는지 알길이 없으나 여하튼 恠絶하기 짝이 없는 砲擊의 片貌를 보여준 것은 유감이었다.

## § 研 究

### ◇ 제17연대의 化寧場地區 戰鬪 경위

韓國戰爭初期에 我軍이 損失없이 敵을 大量 殺傷시킨 戰鬪는 제 6사단 제 7연대(장, 林富澤 중령)의 陰城부근의 戰鬪와 제 17연대(장, 金熙濬 중령)의 化寧場부근의 戰鬪를 代表的으로 例擧할 수 있다.

그런데 제 17연대가 化寧場부근의 戰鬪를 遂行하게 된 경위와 그 日時에 對하여서는 그 說이 區區하여 戰史에 關心을 가진 讀者에게 混沌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간 收集한 資料와 當時參戰者의 證言을 土證로 하여 定立한 內容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둔다.

『제 17연대는 化寧場附近에 侵入한 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陸本 作命 제 55호(50.7.19 16.00)에 의거 集結地인 報恩에서 化寧場으로 急進하였다』고 하는데 同 說에 따르면 化寧場附近의 戰鬪는 7월 19일 以後에 發生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제 17연대는 15일에 淸州地區 戰鬪를 끝냈으니까 報

恩을 떠날 때까지 4~5일간의 整備期間을 가진 것으로 되나, 同 연대는 淸州地區 戰鬪에 參加한 제 2, 제 3대대의 兵力收拾이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에서 예비인 제 1대대만을 先發시킨 것이다. 그리고 제 2군단의 化寧場地區 정보대장 裴尙錄 대위가 同 軍단장 金白一 준장의 명령을 받고 14일 化寧場으로 派遣되었으며, 2일 뒤에 同 地區에서 敵情을 확인하고 報告者 咸昌으로 갔을때, 軍단장으로부터 『陸軍예비인 제 17연대가 咸昌을 向해 이동중이니까 裴 대위는 빨리 돌아가서 同 연대에 敵情을 알리고 奇襲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注意를 받았으며, 歸隊길에 尙州附近에서 美 제 25사단 所屬의 155mm 砲隊를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狀況들은 16~17일間に 있었던 일로 보이며, 同 대위가 化寧場에 當到하였을 때는 이미 제 17연대 제 1대대가 △343를 占領하고 있었다.

한편 敵의 時差面에서 볼 때, 北傀 제 15사단은 陰城地區 戰鬪以來 我 제 1사단과 接觸을 유지하고 槐山-米院地區에 이르기까지 同 사단을 追躡하였는데, 15일부터 그들의 活動이 현저하게 消極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그들은 尙州方面으로 移動하기 시작한 것으로 推斷되며, 그들 先遣隊가 16~17일에 化寧場을 通過할 수 있었다는 것은 事理에 벗어나지 않은 推理이다.

따라서 제 17연대가 報恩을 떠난 것은 陸本 作命 제 55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作命 제 47호(50.7.16. 24.00)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妥當하다.

作命 제 47호는 當時 閔慶地區에서 惡戰苦鬪하고 있는 제 6사단을 支援키 위한 陸軍本部의 措置로서, 報恩의 제 17연대를 17일 06.00부로 咸昌의 제 2군단에 配屬케 한 것이고, 이에 따라 同 연대는 명령 受領即時로 報恩을 떠나 咸昌으로 이동케 되었던 것인데, 化寧場에서 南下하는 北傀 제 15사단을 捕捉하고 交戰케 된 까닭에, 陸軍本部는 이 敵의 阻止擊退가 보다 緊急課題로 보고 作命 제 55호를 하달하여 이를 追認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第11章

## 錦江線の防禦

### 要 旨

1. 大平里—公州 附近の 美軍戦闘
2. 大田 附近の 美軍防禦戦
3. 尙州—金泉 附近の 戦况



## 第 11 章 錦江線의 防禦

### 要 旨

本章에는 美 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의 錦江線 防禦戰을 主로 取扱하였다.

錦江線은 東西로 小白山脈線과 一貫되어 漢江以南의 西部地域에서 我軍의 防禦에 가장 有利한 地形으로서, 여기서 敵을 막지 못하면 洛東江線으로의 撤退가 不可避하게 되는 我軍防禦의 要線인 것이다.

따라서 平澤—鳥致院으로 逐次철수한 제 24사단이 이제 이 江을 天然障礙物로 삼아 會心의 방어선을 띄게 되었고, 北魏 제 3, 제 4 兩사단과 제 105전차사단은 京釜本道에서 乘勝長驅한 餘勢를 몰아 단숨에 이 錦江線을 뛰어넘은 뒤 一路 洛東江線으로 向하러 함으로써 彼我의 激突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당시 國軍을 支援한 美軍은 이 線에서 敵을 阻止하여 戰勢를 挽回키로 하였으나 끝내 瓦解되고 마는 것이다.

즉, 7월 12일에 錦江을 건너 그 南岸으로 철수하게 된 사단은 제 19연대와 제 34연대로써 大平里—公州정면에서 敵제 3, 제 4 兩사단의 渡河공격을 막고자 하였지만, 14일에 公州정면의 제 34연대戰線이 먼저 무너지고, 이어 16일에 大平里의 제 19연대陣地가 崩壞되는데, 이에 사단은 大田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제 34연대로써 다시 한번 敵을 막아 보려다가 敵제 3, 제 4 사단의 挾攻을 받아 20일에 收散되는 바, 開戰以後로 사단장이 실종되는 前無後無한 事件的인 悲劇으로 幕을 내리게 되니, 이것이 이 防禦作戰의 大要이다.

이 期間동안인 7월 13일에 韓國에서의 作戰지휘권을 發動하게 된 제 8군은 駐日 美 제 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으로써, 尙州정면의 國軍을 支援하여 尙州—金泉街道를 扼守토록 하고, 제 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을 京釜國道로 推進하여 제 24사단을 도와 當面한 敵의 主攻方向에서 遲延토록 하였으나, 이 제 1기갑사단이 미처 赴援되기 前에 大田이 喪失되면서 同 제 24사단의 戰列이 또한 혼어짐에 따라, 미 제 1기갑사단이 永同부근에서 제 24사단의 遲延戰을 이어받게 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제 25사단의 尙州부근 活躍相과 제 1기갑사단의 永同부근 遲延戰상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는 兩사단의 參戰初期의 活動을 網羅한 것 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제 25사단을 제 24사단과 함께 集中使用을 하지 않고 이를 尙州부근에 投入함으로써 兵力을 分散使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同 제 25사단이 7월 10일에 釜山에 上陸을 하기 시작한 뒤로 大田이 두너지는 20일까지 별다른 援敵行動을 하지 못하였다는 點을 들어, 이에 대한 用兵上의 拙劣性을 능력 追窮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 收錄된 戰況은 이와 더불어 錦江線의 早期崩壞, 그리고 大田攻防戰에서의 사단장의 실종등, 戰略的인 면에서나 戰術的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內包된 局面이라고 할 것이다.

# 1. 大平里—公州 附近의 美軍戰鬪(1950년 7월 13일부터 1950년 7월 16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4 호  
상 황 도 제 46~50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美제24사단 장 소장 William F. Dean		제63포병대대 장	
제 19 연대 장 대령 Guy S. Meloy, Jr. (7월16일 負傷)		소령 William E. Dressler (7월13일부터)	
제 1 대대 장 중령 Otho T. Winstead (7월16일 戰死)		제11포병대대(155mm곡사포)	
제 2 대대 장 중령 Thomas M. McGraij		제26대공포대대 A포대 일부	
제 34 연대 장 중령 Robert L. Wadlington		제78전차대대 A중대 일부	
제 1 대대 장 중령 Harold B. Ayres		제 3 전투공병대대	
제 3 대대 장 소령 Newton W. Lantron		사단수색중대	
제13포병대대 장 중령 Charles W. Stratton		배속부대	
제52포병대대 장 중령 Miller O. Perry		陸軍독립기갑연대 騎兵중대	
敵 軍		敵 軍	
北傀제 1 군단 장 중장 金 雄		제 5 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鎭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 7 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제 8 연대 장 대좌 金 秉 鍾		포병연대	
제 9 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제105전차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포병연대 장 대좌 安 白 成		(제107전차 연대 基幹)	
제 4 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 나. 전투전의 개황

本節은 前 제 8장 제 2절의 「平澤—烏致院부근의 戰鬪」에 이어, 美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의 이른바 「錦江 防禦戰」을 收錄한 것이다.

사단의 제 34, 제 21 兩연대가 天安과 全義부근에서 연달아 크게 패한 다음, 7월 12일에 錦江을 건너 公州와 大平里로 撤收하였음은 前章에서 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 13일에 新銳인 제 19연대를 京

釜本道上에서의 敵의 主攻擊路線으로 판단되는 大平里정면에 投入하여 여기에서 可能한 限 오래도록 遲延키로 하였으나 14일에 먼저 公州가, 이어 16일에 大平里가 各各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大田으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바, 이것이 그 經過의 大要이다.

**兵要地誌**: 錦江은 小白과 蘆嶺의 兩山脈이 잇닿는 全北 長水에서 發源하여, 山間盆地를 曲流하면서 그 上流에는 大田, 中流에는 內浦(忠北), 下流에는 全北의 各 평야를 이루고 大田의 東北西 三面을 馬蹄形으로 크게 감싸 돌아 黃海로 流入하며, 全長 401km이다.

당시 이 전투를 치른 美軍은 이 江을 大田의 核字로 보고, 그들의 南北戰爭때 南軍側의 Virginia州 Richmond를 防護한 Chickahominy江에 比喩하기도 한 것으로서, 我軍側 立場에서 보면 이는 小白山脈과 連한 全般的인 방어선의 形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실제로 大田의 확보라는 側面에서 서로 脣齒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本 戰鬪지역에서 이 江은 대체로 東에서 西로 흐르며, 세계의 主要 公路가 南北으로 이를 건너게 되어 있다.

東으로는 淸州에서 西南向한 道路가 麥浦(新羅津 北쪽 1km)에서 錦江鐵橋로써 京釜線 철교와 함께 나란히 江을 건너 新羅津을 지나 곧장 大田으로 南下하며, 中央에는 鳥致院에서 南으로 뻗은 京釜本道가 羅城里(鳥致院 南쪽 13km)에서 錦城橋로 江을 건너 大平里를 거쳐 儒城—大田으로 東南向하고, 西로는 舍亨里(天安 南쪽 12km)에서 京釜本道와 나누어진 道路가 新官里(羅城里 西쪽 12km)에서 錦江橋를 지나 公州에 이르게 된다. 公州에서는 다시 道路가 세 갈래로 갈라져, 그 하나는 東南으로 馬岩里(公州 東南쪽 7.5km)를 거쳐 儒城에서 京釜本道와 합치지고, 하나는 南으로 論山에 닿게 되며, 다른 하나는 西南으로 扶餘로 빠지게 되는데 論山에서는 다시 湖南線 철도와 並行하는 道路가 大田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公州와 大田 사이는 鷄龍山(△828)을 가운데 두고 公州—論山—大田이 三角으로 鼎立한 형세이다.

따라서 大田을 中心으로 비교적 縱線道路가 발달한 편이나, 江을 사이에 두고 彼我가 본격적인 對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橫軸이 될 公州—儒城間의 道路 일부가 —公州에서 馬岩里까지의 區間—江邊도로인 까닭에 敵의 嚴制로 말미암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大田—公州는 물론 大平里—公州間의 橫的인 連繫가 어렵게 되는 취약성을 露呈케 되는 것이었다.

당시 江의 河床幅은 500~1,000m, 流水幅은 200~300m, 水深은 1.5~3.5m, 流速은 시속 5~10km로써, 大平里부근에는 砂洲가 발달하여 높이 1.2~2.4m에, 길이 4km여의 堤防이 그 兩岸에 마주보고 있으며 이 정면에서는 평소 徒涉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이 무렵 비가 내려 水位가 다소 높아졌으므로 正常徒涉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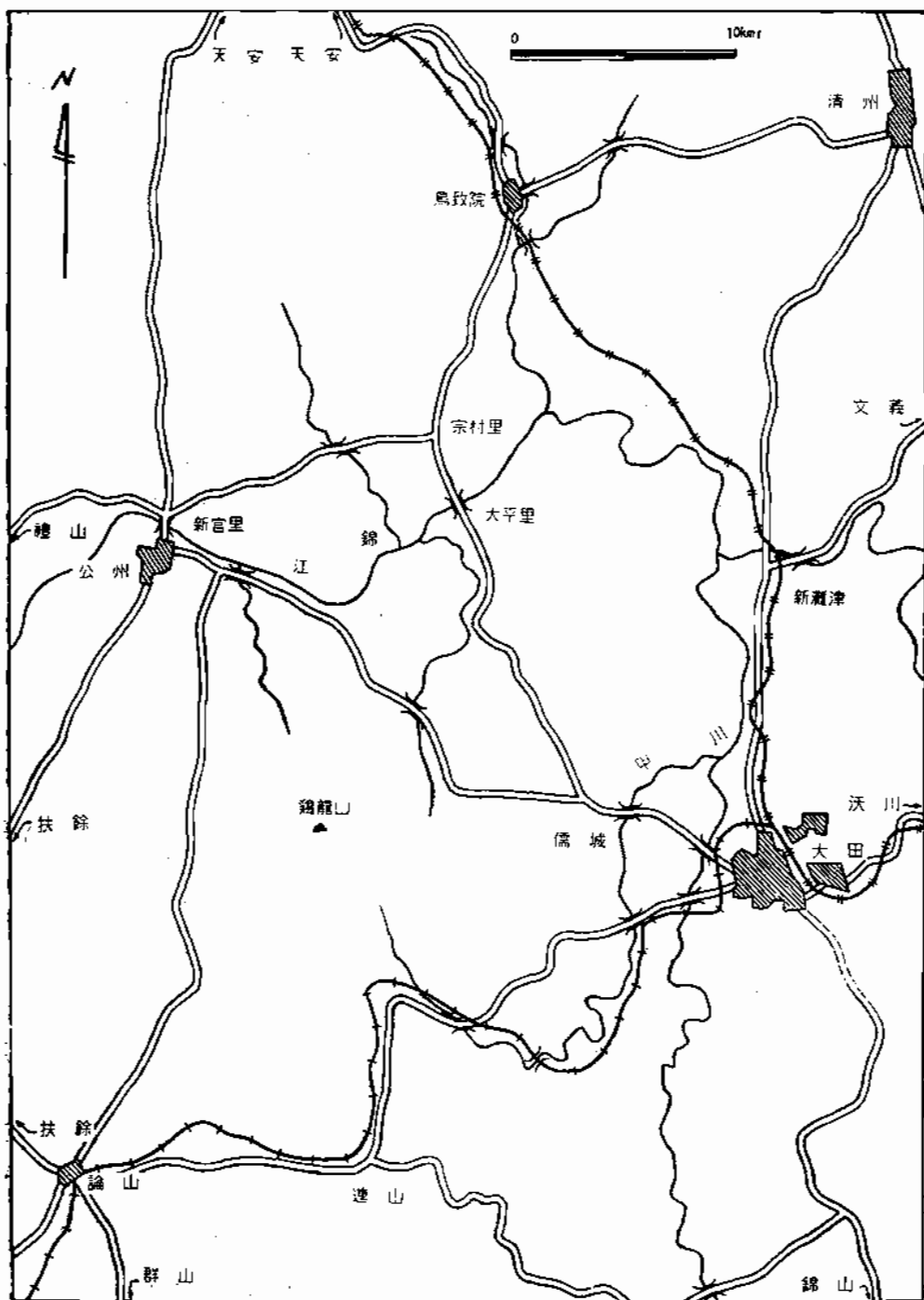
大平里에서 公州사이의 鷄龍山의 支脈과 落脈들이 江岸에 가파른 傾斜를 이루고 있어 江幅은 좁은 편이나 江心이 깊은 까닭으로 徒涉은 不可能하였으며, 이와 같은 江을 건너는 交通手段으로서, 前述한 4個處의 교량외에 新羅津정면에서 公州정면까지에 10여 곳의 渡船場의 나루배탈이 이용되고 있었다.

**敵軍의 狀況**: 平澤에서 鳥致院에 이르기까지 乘勝長驅한 敵 제3, 제4兩 사단은 12일 밤에 錦江 北岸에 展開하여 渡河 공격을 준비하게 된 바, 全義에서 舍亨里로 되돌아 公州도로로 빠진 그들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제34연대(장, Robert L. Wadlington 중령)를 뒤쫓아, 新官里부근에서 公州를 목표로 渡江을 꾀하고, 鳥致院에서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를 追尾한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은 宗村里(鳥致院 南쪽 10.5km)부근에서 大平里로 直衝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敵情判斷은 同日 즉, 12일 새벽에 제34연대의 정보수색(I&R)소대가 公州 北쪽 新官里부근의 江岸에서 渡河偵察중인 敵의 軍官 1명을 사로잡게 됨으로써, 그의 진술과 그때까지의 擧動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 얻어진 것이었다.

北傀제 4사단 제16연대 소속의 정찰대의 一員이라고 한 裴俊八소위의 진술에 의하면, 我제 34연대가

◇ 上韓道 第46番 作戰地域の 道路網



江 南岸으로 미처 철수하기 前인 11일 밤에 그들 제 16연대는 일단적 정찰대를 은밀히 江岸으로 侵透시켜 江幅과 水深 및 河床상태등을 정찰케 한 다음 12일 10.00까지 그 결과를 보고케 하였다고 하는 바, 그가 그 임무를 수행中 同日 새벽에 포로가 됨으로써 敵제 4사단이 公州정면으로 侵攻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陳述에서 밝혀지기를 그들 사단은 崑山부근에서 全義부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接戰으로 그 동안 5,000~6,000여명의 병력손실을 보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전체상 50%에 해당하는 損失을 보았음을 示唆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同사단은 40~50문의 野砲와 20여대의 T-34戰車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60~80%의 병력수준을 유지하는 제 3, 제 4兩 사단이 제 105전차사단의 50여대의 戰車지원 아래 錦江渡河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교량을 확보하지 못한 그들로서는 戰車중 重裝備의 渡河가 곤란하므로 漢江에 이어 두번째의 難關에 逢着하게 된 셈이었다.

더우기 7일부터 10일사이 平澤—天安—全義부근에서 美空軍의 空中공격을 받아 막대한 裝備의 손실을 보게 됨으로써 空間협동에 制約을 받게 되고, 따라서 裝備와 보급추진이 如意치 않아 그들의 士氣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추단되었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12일 저녁에 錦江을 건너 철수하여, 이러한 敵과 江 하나를 사이에 두고 對峙케 된 바, 同日 낮 중으로 사단수색중대로 하여금 公州에서 그 西쪽 10km되는 곳까지의 江下流에 있는 渡船場을 수색하여 나루배를 모두 파괴토록 하고, 그날 밤에 公州정면의 錦江橋를 먼저 폭파하여 徑間 일부를 파괴하였다.

이어 13일 04.00를 期하여 新羅津에서 公州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량을 일제히 폭파한 다음, 副사단장이 직접 일부병력을 이끌고 新羅津—公州사이의 渡船場시설과 나루배를 파괴하는 한편, 兵兵으로 하여금 江南쪽 지역의 모든 교량에 폭파장치를 하도록 措置하였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午前, 大邱의 제 19연대(장, Guy S. Meloy, Jr. 대령)와 제 13보병대대를 大平里부근으로 급히 추진하여, 烏致院에서 兩身瘡痍가 되어 철수한 제 21연대 兵力 325명이 점령중인 사단 右一線진지를 인수케 하고, 제 21연대는 大田비행장에 예비로 집결케 하였다.

이리하여 5~12일 사이에 이미 1,500여명의 손실을 본 사단은 南北戰爭 당시 「Chickamauga의 바위」라는 이름으로 武名을 날린바 있는 제 19연대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決戰태세를 가다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대 역시 제 1, 제 2의 2개대대 뿐—제 21, 제 34연대가 제 1, 제 3대대인 것과는 달리—이므로 前線연대는 모두 1개 대대만을 제 1선에 내세우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케 되어, 실제로 방어병력은 소총 3개 중대에도 未達하는 형편이었는데, 거기에 또 사단의 방어정면이 東쪽으로 新羅津철교로부터 西쪽으로 公州에 이르기까지 直線거리만도 30km가 넘으며 江의 굴곡을 감안한다면 무려 48km가 넘는 廣正面인 까닭으로 敵의 공격력에 미추어 볼 때에 방어라기 보다는 경계배치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었다.

더우기 사단의 右側은 한국군 제 2사단(장, 李翰林 대령)이 함께 敵을 막고 있지만 左側은 전혀 다른 부대가 없는 空白狀態이며, 8일에 天安에서 연대장이 戰死한 左一線인 제 34연대의 경우는 지휘관과 참모요원의 殆不足 현상을 빚어내어 부대운영마저 圓환을 期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쨌든, 사단이 參戰한 이래로 사단장 Dean소장이 처음으로 사단의 全力을 장악하여 이 錦江防禦에 投入하게 되었으나, 13일 현재 각 연대의 병력실황은 다음과 같은 弱勢를 보이고 있었다.

제 19연대—2,276명

제 21연대—1,100명

제 34연대—2,020명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敵軍側의 企圖:** 7월 6일, 平澤을 점령한 敵제 1군단(장, 중장 金雄)은 『小白山脈과 大田지역에서 敵軍과 UN軍을 포위섬멸하고 全州—論山—聞慶—蔚珍線으로 進出한다.』는 이른바 제 3차 작전으로 즉시 移行하여, 그들 前線司令部의 方針에 따라 天安—烏致院—大田의 돌파에 重點을 두기로 하였다는 바, 天安에서 그들 제 6사단을 西海岸쪽으로 뽑아 물리고 제 2, 제 3, 제 4의 3개 사단으로써 京釜國道의 軸線으로, 大田을 그들 작전의 최종목표로 삼아 全力을 집중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敵은 제 3사단(장, 소장 李英鎬)을 烏致院—大平里—大田으로 正面直衝케 하고,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을 그 西쪽에 展開시켜 杏亭里—公州—論山—大田으로 迂回케 하였으며, 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을 東쪽의 淸州—文義—大田으로 指向토록 하여 大田의 三面포위를 企圖하였지만, 제 3, 제 4兩 사단이 錦江 北岸에 이를 때까지 제 2사단의 진출이 遲遲不進하게 됨으로써 이 錦江渡河를 目前에 두고 그들의 당초 계획을 修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듯하다.

그리하여 그들 제 3, 제 4兩 사단으로써 大田을 攻略키 위하여 當면한 錦江線을 突破케 된 것으로서, 실제 그들의 공격상황을 분석하면, 제 3사단이 大平里정면에서 我軍을 牽制하는 가운데 제 4사단이 먼저 公州를 점령하여 論山—大田으로의 우회포위태세를 갖춘 다음, 제 3사단이 大平里정면을 돌파키로 한 듯하다. 그럼으로써 이 兩사단이 大田의 後方차단과 正面압력 효과를 同時에 노린 것인데, 渡河에 있어서 교량의 徑間이 완전히 절단된 까닭으로 漢江에서와 같은 方式의 戰車 도하는 容易치 않을 것인만큼, 그들의 輕裝보병으로 하여금 먼저 江을 건너게 하여 橋頭堡를 확보한 然後에 戰果확대와 重장비의 渡河를 모색하려 하였을 것이다.

**我軍側의 方策:** 7월 12일에 錦江의 南岸으로 撤收한 사단은 이미 8일 밤에 下達된 작전명령 제 3호(제 8장 제 2절 참조)의 概念으로 一貫하여 이 錦江線에서 最大限 敵을 저지키로 한 바, 이때 사단의 敵情판단으로서 『敵 제 4, 제 3兩 사단은 公川과 大平里에서 渡河한 다음 大田으로 分進合擊할 것이며, 제 2사단도 大田포위에 가담할 公算이 짙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京釜國道의 大平리에 防禦의 重點을 두기로 하고, 右—線연대로써 그 正面을 담당케 하는 한편, 左—線연대로써 公州정면에서 論山—大田道를 따라 遲延을 策하게 하는 가운데 예비로써 大田 東北쪽의 敵情의 變動에 따라 臨機로 對處키로 하였는데, 이러한 方針아래 이 防禦—戰에 대한 사단장의 腹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사단은 錦江線에서 최대한 오래토록 敵을 阻止하려 한다.

② 제19연대는 右一線으로 7월 12일 日沒時까지 大平里부근을 점령하고 이를 固守한다.

③ 제34연대는 左一線으로 公州부근의 現진지를 계속 확보한다.

④ 제21연대는 제19연대에 戰鬪정면을 인계한 다음, 大田비행장으로 집결 예비가 된다.

⑤ 사단 수색중대는 제34연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⑥ 左右一線의 戰鬪地境線은 九曲川(公州 東쪽 4km)으로 한다.

⑦ 포병 제13대대 A.B포대 : 제21연대 직접지원.

제52대대 A.B포대 : 제13포병대대 화력지원.

제63대대 A.B포대 : 제34연대 직접지원.

제11대대(155mm) A.B포대 : 제13포병대 화력지원.

2 문은 제63포병대대 화력지원

⑧ 제78전차대대 A포대(-)는 大田市街와 비행장 경계에 임한다.

1개 소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한다.

⑨ 제26대공포대대 A포대는 비행장의 對空방어에 임한다.

1개 소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한다.

⑩ 사단지휘소는 계속 大田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構想아래 敵의 主攻이 指向될 것으로 예상되는 京釜國道の 방어를 新銳인 제19연대에 期待하게 된 것인데, 同연대가 大邱로부터의 도착이 늦어져, 烏致院에서 江은 전년 제21연대가 12일 午後에 먼저 大平里에 진지를 점령케 되었으며, 그 이튿날 13일 正午 무렵에야 兩연대의 陣地交代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3일 낮에 이르러 제19연대(장, Guy S. Meloy, Jr. 대령)를 右一線으로, 제34연대(장, 대리 중령 Robert L. Wadlington 중령)를 左一線으로,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를 예비로 하는 방어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公州—儒城道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左右一線의 兩연대間의 橫的인 協調는 물론, 大田의 사단과 公州의 제34연대와의 連絡도 論山을 거쳐야 하게 된 까닭으로 제34연대는 거의 孤立化된 가운데 遲延戰을 遂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2) 작전실시

### (가) 公州부근 제34연대의 戰況(7.13~14)

7월 13일 : 錦江 防禦의 제1일은 戰場을 橫流하는 江 하나를 사이에 두고, 彼我間에 攻防을 준비하는 暴風의 前夜였다.

연대의 陣地編成 : 연대는 지난 8일, 天安에서 크게 敗한 결과 연대장 Robert R. Martin 대령이 戰死함으로써 副연대장 Robert L. Wadlington 중령 지휘下에 公州로 철수케 되었거

나와, 그 제 1 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가 江北쪽의 水村里부근에서 敵을 牽制하는 가운데 제 3 대대(장, Newton W. Lantron 소령)가 먼저 江을 넘어 公州부근에 阻止陣地를 마련케 되었음은 前제 8 장에서 既述한 바와 같다.

전날 12일에 제 21 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가 烏致院에서 大平里로 철수함에 따라 이제 江南岸에서 본격적인 방어태세에 들어가게 된 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으로서 九曲川(公州 東쪽 4km) 西쪽지역에서의 방어책임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는 水村里의 제 1 대대를 公州—扶餘도로상의 利仁里(公州 西南쪽 10km)로 뽑아 내려 예비로 전환토록 하고, 제 3 대대로써 계속 公州정면을 방어토록 하였는데, 이때 배속 중인 사단수색중대로써 公州 西쪽 江岸을 機動경계토록 하였으며, 직접지원중인 제 63 보병 대대로 하여금 三橋里부근에 진지를 점령케 하여, 그 火力으로써 敵의 渡河를 阻止하되 특히 제 3 대대를 重點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3 대대(장, Newton W. Lantron 소령)는 公州師範大學 西쪽의 △148에 대대 지휘소를 두고, I, K, L의 3개 중대를 北쪽 江畔에 併列배치하였는데, 이 대대의 방어정면



〈폭파되는 橋梁〉

은 東으로 九曲川에서 西로 熊津(곰나루)에 이르기까지 6km에 달하였다. 따라서 대대가 이와 같이 예비를 확보치 않고, 3개 중대 모두를 제 1선에 投入하였지만, 兵力이 半減상태인 이들 중대로써 固守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대대는 公州—論山도로에서 東쪽으로 九曲川까지의 사이에는 진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論山街道의 西쪽지역에만 K,I,L중대의 順으로 集中배치케 되었는데, 이 때문에 東側方의 論山道路에서 九曲川에 이르는 1.5km의 지역은 無防備상태로 남게 되었다.

한편, 연대의 左側方 경계임무를 부여받은 사단수색중대는 檢詳里(公州 西南쪽 5.5km)에 據點을 두고, 江의 南岸을 따라 東北으로 韓山(公州 西쪽 2km)과 西南으로 大鷲里(檢詳里 西南쪽 7km)에 이르는 10km 正面에서 陽動하게 되었다.

이때 제63포병대대는 三橋里(公州 西南쪽 5km)부근에 北으로부터 A, 本部, B, 勤務중대의 順으로 진지를 점령케 하여 公州에서 檢詳里에 이르는 예상渡河지점에 대한 사격諸元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제11포병대대로부터 증원된 155mm곡사포 2문은 鳳谷里(三橋里 東쪽 4.5km)부근에 放列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연대가 公州正面으로 敵이 渡河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그 全力을 公州—扶餘도로에 縱深으로 배치하여 持久堅守를 다짐하게 되었다.

그런데 낮에, 지난 8일의 연대장 Robert R. Martin 대령의 戰死와 제3대대장 David H. Smith 중령의 後送에 이어, 제63포병대대장 Robert H. Dawson 중령이 日射病으로 쓰러지게 됨으로써 同副대대장인 William E. Dressler 소령이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는 이제 연대장을 비롯하여 步砲 3개대대 가운데 2개 대대장이 副지휘관으로 代替된 것인데, 平澤—天安에서 입은 打撃의 餘波가 이날까지도 가시지 않았으니, 연대의 S-2와 S-3가 그간의 結晶 피로로 말미암아 혼수상태로 후송되고, 밤이 되자 公州정면 방어의 右제 1선을 맡은 제3대대 K중대원 — 40여명으로 혼합편성된 병력 — 모두가 極度の 心身衰弱으로 繼戰能力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단장의 許可를 얻어 이들을 大田으로 후송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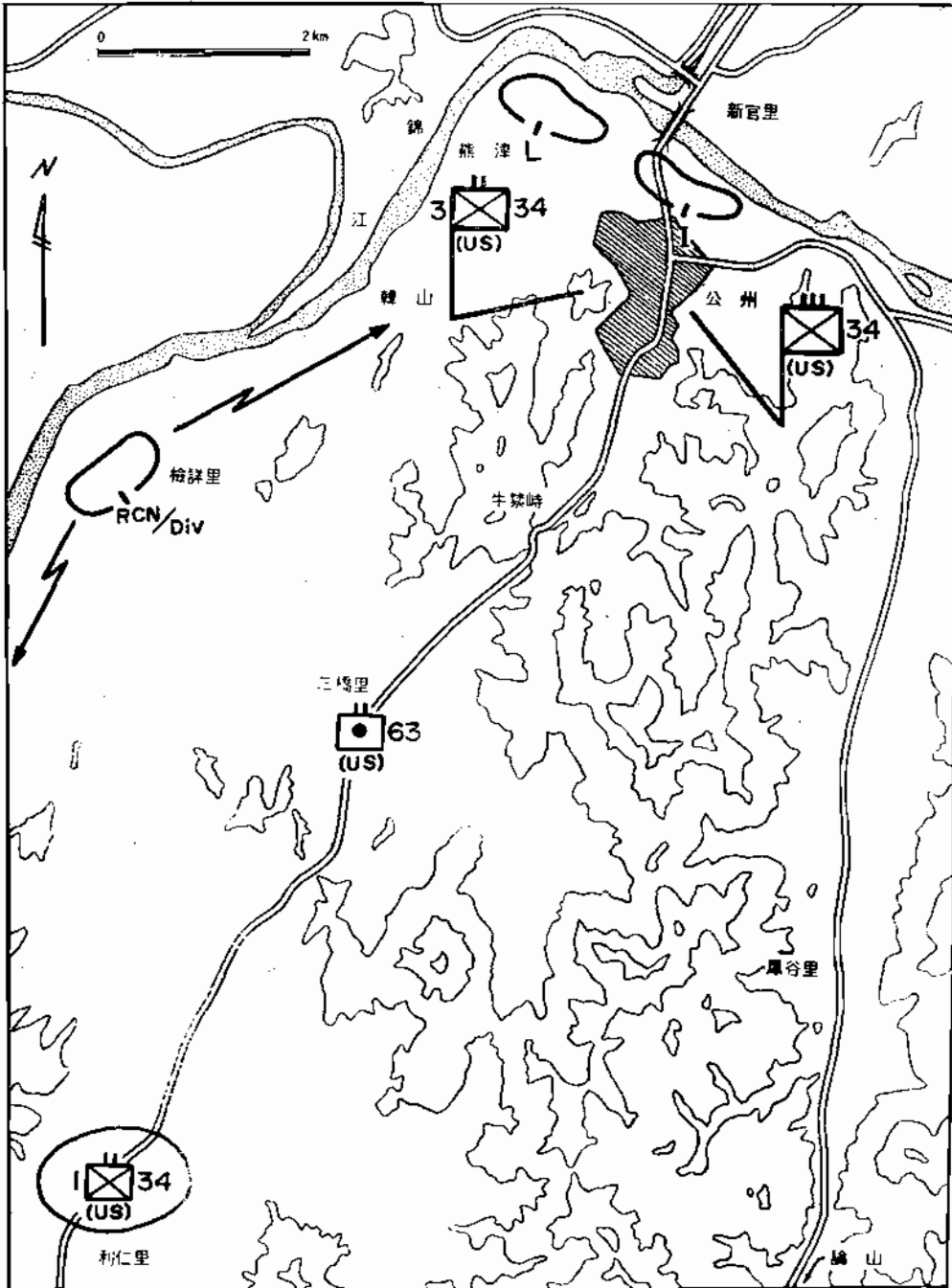
이로 말미암아 指揮部의 참모기능이 원활히 遂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K중대가 빠짐으로써 右接境線일대에 3.5km의 虛隙을 露呈케 되어, 결국 I,L의 2개 중대로써 敵1개 사단규모의 渡河를 막는 셈이 되었다.

연대의 防禦준비가 대체로 이런 모양이었거니와, 04.00에 공병 D중대가 전날 半破한 錦江橋를 다시 복과하여 1개 徑間의 橋板을 切斷하자, 天明과 더불어 江 北岸에서 敵의 기관총진지와 戰車의 移動상황을 目擊하게 되었다.

午後에 들어서면서 公州區內와 江岸에 敵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渡河의 企圖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敵의 공격준비태세가 갖추어져가는 사이, 이윽고 靜中動의 하루 해가 저물어, 밤

◇ 上 圖 第 47 號 第 34 連 隊 の 初 最 部 隊 配 置 (7.13)



이 되자 비가 내렸다.

7월 14일 : 제34연대(장, Robert L. Wadlington 중령)가 參戰한지 10일째가 되는 이날, 公州정면에 또 한 차례의 腥風이 휘돌아치기 시작하였다.

### 1. 제 3대대의 狀況

L중대의 無斷撤收 : 날이 밝자, 夜來의 비가 멎고, 蒼天에 浮雲이 悠悠하였다.

公州 北岸인 新官里부근에서 曉霧를 뚫고 戰車類의 轆轤이 요란하더니, 06.00부터 錦江橋의 東쪽 山城터에 진지를 점령한 I중대(장, 대리 Joseph E. Hicks 중위)지역에 전차포 인듯한 砲火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同교량 西쪽의 L중대(장, Archie L. Stith 중위)진지 上空에 敵의 時限砲彈이 쏟아졌으나, 그 爆發高度가 높아 실제로 殺傷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檢詳里나루터에서 收容人員 30여명의 舢舨을 利用한 敵의 奇襲渡河를 目擊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敵은 公州부근에 砲火를 집중하여 그 正面의 I,K兩중대를 火力으로 制壓하는 가운데 側後方으로의 迂回도하를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目算에 따르면 08.00~09.30사이에 모두 500여명의 敵이 渡河를 完了하였을 것으로 推計되었다.

그러나 L중대로서는 束手無策으로 그 도하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을 따름이었으니, 당시 중대의 通信手段으로서의 중대본부와 I개 분대와와의 通話가 가능한 野戰用 TS10전화기 1대 뿐으로 다른 有線시설은 架設하지도 않았으며, SCR-300과 SCR-536등 無電機는 電池가 없어 사용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2km 南쪽에 있는 대대지휘소와 傳令으로써 간신히 연락을 유지하는 형편이었으니, 병어리 병가슴 앓는 모습 그것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사실상 대대와 통신 두절상태에서 午前을 보내게 된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敵의 砲火가 점차로 熾盛하여 陣內의 중대원이 머리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數梯波의 敵 도하가 끝난 뒤인 10.00前後, 중대장 Stith중위는 『중대 後方으로 敵이 渡河한 以上, 중대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孤立상태로 진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敵의 包圍網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중대를 獨斷으로 철수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11.00가 채 못되어, 熊津부근의 진지에서 離脫하여 公州邑內를 지나 山間小路를 타고 東南쪽 鳳谷里를 목표로 後退하였는데, 午後 늦게 중대장이 鳳谷里부근에서 대대장 Lantron소령을 만나 중대의 철수경위를 보고한 바, 대대장은 중대의 無斷退却을 叱責하고 즉시 Stith중위의 중대장職位를 解除하고 말았다. 그러나 怒氣는 다시 풀 수 없으며 이 미 기울어진 戰況을 逆轉시키지는 못하였다.

I중대의 夜間철수 : 한편, 錦江橋의 東쪽 山城터 진지를 지키던 I중대(장, 대리 Joseph

E. Hicks 중위는 江北쪽에서 敵의 野砲와 박격포가 집중되는 가운데 正午까지 그대로 진지를 維持하고 있었다.

그러나 右隣의 K중대가 이미 전날 저녁에 진지를 비우고 빠져 나갔으며, 또 左隣의 L중대도 正午가 되기전에 철수하여 버린 까닭으로, 중대는 後方의 대대본부와도 일체의 연락이 杜絶된 채로 한낮을 넘기게 되었다.

그런데 午後가 되자, 南쪽 △148부근의 M중대(火器중대)원 몇명이 달려와 이르기를 『敵이 이미 背後의 公州—扶餘도로를 차단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비로소 事態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正面에서는 敵의 渡河企圖가 보이지 않았고, 檢詳里로 敵이 도하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대대로부터의 별다른 命令도 없었던 터이므로 중대장 Hicks중위는 M중대원의 提報를 半信半疑하면서 그대로 진지에서 버티고 있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중대가 그곳에서 다시 徹宵할 채비를 하던 중인 21.30에 연대에서 『鳳谷里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下達되었으므로 중대는 밤을 도와 東南쪽 山間으로 빠져 鳳谷里에 집결, 연대본부에 合勢하였다.

## 2. 제63포병대대의 被襲

敵의 渡河: 公州부근의 제1선대대에서는 終日 큰 接戰이 없었으나, 이동안 느닷없는 一陣狂風이 三橋里일대를 휩쓸었다.

즉, 그곳 道路上에 南北으로 105mm곡사포 10문을 放列중인 제63포병대대(장, William E. Dressler 소령)는 이날 아침에 公州邑內에서 移動하여 鳳谷里에 새로이 開設된 제34연대지휘소와의 通信만이 유지되었을 뿐 제3대대와는 아무런 통신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대는 아침이 되자 連絡機를 띄워 敵情을 空中觀測토록 하였는데, 同機로부터 보고되기를 『敵兵이 2척의 작은 배를 타고 檢詳里로 渡河중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에 接한 대대 S-3 Charles T. Barter 소령이 보다 有效適切한 포격목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함으로써 대대의 全砲가 계속 침묵을 지키게 되었는바, 다만 鳳谷里부근에서 그와 같은 연락기의 無電연락을 받은 제11포병대대 A포대의 155mm곡사포 2문만이 그 敵船을 목표로 砲擊을 加하였다. 그러나 이 砲陣에서도, 잠시 後에 나타난 敵 YAK機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同 연락기가 江의 上空을 떠나게 됨으로써 사격誘導가 되지 않아 砲門을 다물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砲兵이 敵의 渡河를 바라보고만 있는 동안 敵은 아무런 妨害를 받지않고 속속 江南岸 河床에 올라붙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앞서 L중대가 目擊한 그 渡河梯波로서 그 병력이 1개대대규모에 달하자 그들은 일부로써 먼저 檢詳里에 있는 사단수색중대진지를 東北쪽으로 迂回케 하여 同중대

와 포병대대 사이의 有線을 절단한 다음, 三橋里의 포병진지로 殺到하였다. 포병대대에서 이들을 처음 발견한 것은 13.00前後였는데, 포고 190m정도인 三橋里 北쪽 1km의 無名高地 위의 대대관측소에서 대대지휘소에 보고하되 『彼我를 識別할 수 없는 일단의 兵力이 目下 西쪽으로부터 관측소를 향하여 接近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당시 대대는 相當數의 敵兵이 이미 江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同관측소의 경계병에게 『敵으로 확인될 때까지 射擊을 하지 말라.』고만 명령하였을 뿐, 아무런 對敵조치도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敵이라는 사실을 同관측소경계병이 알아 차린 것은 그들이 먼저 기관총진지를 蹂躪하고, 그 銃口를 東南쪽으로 돌려 公州—扶餘도로상의 본부포대를 겨냥하여 사격을 加하게 된 다음이었다.

이리하여 砲口를 北쪽으로 向하여 公州정면으로의 敵의 本渡河가 시작되기만을 守株待兔 하던 대대는 느닷없이 西쪽에서 나타난 敵으로부터 腰背 깊숙히 一擊을 받아 어이 없게도 致命傷을 입게 되고 말았다.

대대장의 戰死 : 도로번의 본부포대원이 敵侵의 警報를 울렸을 즈음, 敵의 박격포탄이 집중되어 그 포탄에 교환대가 파괴되고 다른 포대와의 통신이 杜絶되었는데, 敵포화가 계속



〈기관총사격을 하는 美兵士〉

하여 의무대와 대대사격지휘소 및 無電車輛등을 亂打하여 同무전차량을 파괴하였다. 따라서 대대는 통신수단을 모두 잃게 되었으며, 거기에 또 탄약을 적재한 truck이 被擊되어 포탄의 연쇄폭발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본부포대는 倉卒間에 修羅場으로 突變하였다.

이런 가운데 敵의 기관총이 三橋里마을의 한 民家に 자리잡은 사격지휘소 建物에 집중되어 그 前後 兩쪽의 出入口를 막게 된 탓으로 그 안에 있던 대대장 Dressler소령이 交通壕속으로 應急待避하는 등 지휘체계가 混迷하게 됨으로써, 抵抗다운 저항도 못한채로 병사들이 各個로 포대를 離脫하여 南쪽 근무포대를 向하여 活路를 헤치기에 이르렀다.

이 渦中에서 대대장의 行方을 알 수 없게 되어 失蹤된 것으로 報告되었으나,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1953년에 바로 대대사격지휘소 부근의 한 참호속에서 그의 遺骸가 Edward L. McCall하사의 그것과 함께 발견됨으로써 이날 戰死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A砲隊의 被襲** : 한편, 본부포대가 敵의 急襲을 받아 혼란중에 빠져 있을 무렵, 그 北쪽 220여m 떨어진 곳에 105mm포사포 5문을 南北으로 도로를 따라 放列한 A포대(장, Lundel M. Southerland대위)도 또한 奇襲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敵侵상황을, 同포대원인 Fred M. Odle일병이 述懐한 바에 의하면 『느닷없이 100여명의 敵이 奇襲을 지르면서 西쪽 高地로부터 道路上의 砲陣지를 向하여 달려내려왔는데, 그 모습의 마치 Indian의 무리와 흡사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第一波는 포대원의 小火器사격으로 격퇴되었다.

그러자 물러났던 무리가 곧 다시 나타나 砲陣지의 100여m 앞까지 접근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들 보다는 앞서 박격포탄을 집중하여 熱鐵片을 亂飛케 한 바, 그로 말미암아 포대장 Southerland대위가 戰死하는 등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그리하여 포대원이 할 바를 잃고 右往左往하는 사이에 事態가 急轉直下하여 陣지를 잃게 되고 말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Lawrence A. Ray하사같은 兵士는 두번이나 敵彈에 負傷을 입으면서도 손에 든 自動小銃을 놓지않고 사격을 계속하여 달려드는 敵을 물리치고, 포대원이 빼앗긴 陣지의 일자를 회복하는 용맹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는 敵의 박격포탄의 파편으로 다시 重傷을 입고 昏倒한바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다음, 敵兵이 陣지를 에워싼 가운데 15명의 포대원을 수습하여 南쪽으로 血路를 뚫었다. 이때의 功績으로 그는 9월 7일에 극동군사령부 일반명령 제55호에 의거 DSC훈장을 받았거니와, 이날 A포대 역시 본부포대와 마찬가지로 參戰한 記錄을 남기게 되었으니 포대의 全砲를 미처 파괴치 못한채로 遺棄하게 된 것이다.

**B砲隊의 隄수** : 이와 같이 하여, 敵侵이 시작된지 한 시간이 채 못되어 A포대와 본부포대의 陣지가 유린되었는데, 이에 敵은 목표를 바꾸어 南쪽의 B포대(장, Anthony F. Stahelski 대위)로 그 衝鋒을 指向하였다.

14.15前後, 400여명으로 推算되는 무리가 同포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바, 그들은 主力으로써 본부포대陣지로부터 南으로 도로를 따라 直衝하고 그 일부로써 포대의 南쪽 도로로



迂回케 하여 退路를 차단키로 한듯, 어느 새 포대 南쪽의 근무포대와 사이인 胎封里부근에 기관총좌를 설치하여 위협사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포대장 Stahelski대위는 직접 경계병을 지휘하여 방어태세에 들어갔는데, 포대의 기관총 2정을 北쪽의 敵侵방향에 배치하여 敵襲을 막는 한편, 南쪽의 敵기관총을 撲滅함으로써 退路찾기를 모색하였다.

이렇듯 포대장이 陣頭에서 敵侵을 막아내기에 死力을 다하였지만, 차단된 南쪽의 도로가 쉽사리 뚫리지 않는 가운데 박격포탄의 집중으로 砲 2문과 無電jeep 1대, 그리고 2½ ton 견인차 1대가 파괴되는 등 손실이 急増하였다.

이에 포대장은 더 이상 진지를 버티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 15.00에 포대에 철수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道路一帶에 어지러운 敵 砲火로 말미암아 砲車를 牽引할 수가 없으므로 포대장은 나머지 砲 3문의 공기와 조준장치를 제거한 뒤, 부상병을 수습하여 병력만으로써 東쪽으로 빠져 公州—論山街道의 鳳谷里로 轉移하였으니 接近格鬪에 無力한 砲兵의 特性을 남김 없이 보여주는 기막힌 一場面이었다.

**騎兵중대의 赴援失敗** : 그런데 B포대가 敵과의 亂鬪을 벌이고 있을 무렵, 國軍의 騎兵중대가 敵 背後를 들이침으로써 同포대를 赴援한 바 있으나, 力不及으로 敵을 격퇴하지는 못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당시의 소대장 趙敦鐵소위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우리 중대가 維鳩전투(平澤—烏致院부근의 戰鬪 참조)를 치르고 公州로 復歸하다 보니 12일 밤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公州의 錦江橋가 끊어진 다음이었다. 그래서 錦江 西岸을 따라 밤중으로 말을 달려 그 이튿날 13일 아침에 扶餘對岸에 도착, 그곳에서 배를 구하여 扶餘로 渡河하였다. 扶餘에서 公州로 가다가 楛石里(扶餘 東北쪽 7.5km)부근에서 河岸정찰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美軍 6명을 만나 함께 三橋里로 갔다. 그곳에 砲진지가 있었고, 西쪽 江邊에는 美軍수색중대와 公州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중대는 牛禁峙(三橋里 東北쪽 1.8km) 南쪽에 중대본부를 두고, 牛禁峙 西쪽 고지에 경계병력을 배치하였다 14일, 중대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고개 西쪽 고지에서 射擊이 加해져서, 급히 달려가보니 敵이었다. 그 고지의 敵을 무찔렀는데 그 동안에 三橋里의 보병진지가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대를 구출하려고 달려갔으나, 이미 포대가 修羅場이 된 뒤여서 敵의 등을 찔러 포대와 합세를 하었을 뿐 敵을 격퇴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포대와 함께 그곳에서 철수하게 되고 말았는데, 105mm폭사포 5문인가 모두 공기를 뽑아 파괴하였다. 중대의 말(馬)에 美軍 부상병을 싣고, 우리 병사들은 걸어서 東쪽의 論山도로로 빠져 있는데, 도로에 나오니 美軍차량들이 待機하고 있다가 그들을 後送해 갔다. 중대는 論山으로 집결하여 그날 밤을 보낸 뒤, 그곳에서부터 美제34연대의 지휘를 벗어나, 15일 礪山—全州로 내려가, 西南地區 전투사령부의 장악下에 들게 되었다.』

한편 B포대에서 이러한 激戰을 치르는 동안, 그 南쪽의 근무포대는 『敵出現』이 飛報되는 즉시로 병력을 수습하여 東쪽으로 뿔았으므로 별다른 接敵없이 鳳谷里로 철수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포대만이 병력을 溫存케 한 셈이 되었다.

이리하여 滿身瘡痍가 된 대대는 저녁 무렵에 가까스로 論山에 접경케 되었거니와, 불과 1시간 30여분 남짓한 사이에 일어난 그 어이없는 싸움의 결과로 A,B 兩 포대의 砲 10문과 탄약을 적제한 차량 60~80대를 잃고, 11명의 장교와 125명의 사병이 失蹤되는 慘相을 보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A포대의 砲 5 문은 미처 파괴할 겨를도 없이 포탄과 함께 고스란히 進上하게 됨으로써 敵이 이를 逆利用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는데, 뒷날 사로잡은 한 敵兵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제63포병대대를 공격한 부대는 敵제 4사단 제17연로서 三橋里 부근에서 86명의 美軍을 포로로 잡고, 105mm곡사포 10문과 기타 銃火器類 17정, 그리고 차량 86대와 砲彈 多數를 노획하였다는 것이니, 이로써 대대가 입은 손실의 정도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或者은 이 뒤로 대대의 이날을 「Bastille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바, 아마도 이는 1789년의 France革命의 導火線이 된 이날 Bastille矯導所의 生地獄相을 聯想하여서 일 것이다.

### 3. 제 1대대의 逆襲

한편, 연대장 Wadlington중령은 이날 10.25 에 사단장 Dean소장으로부터 『貴연대는 敵이 渡江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진지를 選定한 다음, 逐次지연전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받게되어, 즉시 연대지휘소를 公州郡에서 鳳谷里로 移轉개설하는 한편, 철수경로인 論山 부근에 遲延진지를 선정키 위하여 연대장이 직접 現地의 지형정찰에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敵의 渡河妨害가 事不如意할 경우 제1, 제3 兩 대대로서 公州—論山—大田도로를 따라 逐次지연전을 펴기로 構想하고 現地정찰을 끝낸 다음 15.00에 鳳谷里 지휘소로 귀착하였는데, 15.30前後에 三橋里에서 철수한 제63포병대대원으로부터 同대대의 被襲상황을 報告받게 되었다.

이에 크게 놀란 연대장은 利仁里의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에 命令하기를 『대대는 즉시 三橋里로 進出하여 敵을 격멸하고, 砲兵진지의 병력과 장비를 救出하되, 日沒前까지 임무를 完遂치 못하면 論山으로 撤收하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예비인 제 1대대에 포병구출의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뒷날 대대장 Ayres중령이 술회한 바에 따르면,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기前까지는 그가 포병의 被襲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포병대대의 통신장교인 Herman W. Starling 중위는 14.00前後하여 그가 제 1대대의 지휘소로 가서 自隊의 위급을 告하고 구원을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이니, 따라서 어떤 까닭으로 그러한 긴급내용이 대대장에게 提報되지 않았는지는 詳考할 수

없으며, 兵馬控德之間에는 뜻하지 않는 錯誤와 矛盾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췌든 대대는 17.00가 지나서야 利仁里의 集結地를 박차고 도로를 따라 C중대를 先頭로 一路 北上하였다. 途中에 變다른 接敵이 없었으나, 당초의 근무포대의 진지 南쪽 100여 m에 이르자, 道路의 兩側에서 갈목을 지키고 있던 敵의 기관총과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곧 대대의 전투隊形을 取하고 一戰을 겨루고자 하였으나, 때가 이미 黃昏 무렵이 되었으므로 『日沒前까지 임무를 완수치 못하면 論山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좇아 同포대진지의 회복을 斷念하고, 利仁里의 原陣地로 退却한 다음, 그곳에서 차량 편으로 扶餘를 거쳐 論山으로 轉進하고 말았으나 夜間에는 能히 싸우지 못하는 軍隊, 그리고 그것을 미리 命令하는 指揮관이 있었다는 事實은 놀랄만 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제 1선의 방어진지 보다도 後方의 포병진지가 먼저 쑥밭이 됨으로써 左一線戰線이 맥 없이 瓦解되고 말았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연대는 다음의 遲延진지 마저 미처 마련치 못한 가운데 敵의 追擊만을 回避하면서 쫓기는 身勢가 된 결과 右一線인 제 19연대의 左側背를 早期에 弊壞와 같이 拋棄케 됨으로써 敵의 錦江線 全面突破를 助成케 하여 嶺湖의 戰局大勢를 크게 危殆롭게 하기에 이르렀다.

#### 4. 사단장의 措置

한편, 사단장 Dean소장은 이날 아침 公州정면의 敵勢와 제 34연대의 防禦力量을 견주어 보아 錦江線의 막연한 固守一邊到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보아, 同 연대로 하여금 축차진지를 선정케 하여 遲延戰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敵의 橋頭堡 확보와 신속한 戰果擴大, 그리고 大田으로의 即刻의인 攻勢, 이러한 一連의 行動을 최대한으로 阻止토록 하였으나, 이날을 넘기지도 못하고 제 63포병대대가 潰滅하였다는 보고를 接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다음 날 아침을 期하여 三橋里에 遺棄된 포병장비를 空中공격으로 파괴토록 措置하고, 全般의인 士氣를 고려하여 16.40에 各級指揮관에게 타이르되, 『사단은 곧 재강화될 것이다. 아직도 싸울 수 있는 餘力이 있으며, 狀況은 나쁜편이 아니다. 部隊間의 협조를 유지하고, 정찰을 강화하라. 現진지를 계속 확보하여 敵을 격퇴하라.』라고 慰撫調로 激勵하였다.

그런데 이날 淸州부근의 國軍제 2사단(장, 李翰林 대령)이 高隱里(淸州 南쪽 7km, 大田 東北쪽 25km)一交義間에서 敵으로부터 壓力을 받아, 大田 東北쪽이 敵에게 露出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제 21연대장 Stephens대령을 지휘소로 불러, 다음날 날이 밝는대로 大田비행장에 예비로 挖置중인 同연대를 馬達嶺(大田 東쪽 6km)부근으로 뺏아 물려, 京釜本道の 확보와 동시에 市의 東北쪽을 防護토록 措置하였다.

## (나) 大平里부근 제19연대의 戰況(7. 15~16)

7월 15일 : 전날 公州一圓을 휩쓴 妖火가 이날부터 大平里정면으로 옮겨 불게 되었다.

## 1. 제19연대의 戰況

防禦障地의 占領 : 연대는 13일 낮에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로부터 大平里부근의 진지를 인수함으로써 사단의 右一線이 되었다.

이에 연대장 Guy S. Meloy, Jr.대령은 지휘소를 鉢山里(大平里 南쪽 1km)에 開設하는 한편, 제 1대대(장, Otho T. Winstead 중령)로 하여금 제 1선방어를 담당토록 하고, 제 2대대(장, Thomas M. McGrail 중령)를 예비로 삼아 제 1대대의 後方에 두었는데, 그 일부로써 前線경계임무를 분담케 하였다.

이때에 연대를 지원케 된 제52포병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는 斗滿里(鉢山里 南쪽 2.5km)에, 그리고 제13포병대(-)와 제11포병대대(155mm)는 案山里(斗滿里 東南쪽 3.2km) 부근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이들은 제13포병대대장 Charles W. Stratton 중령의 統制下에 제 1대대의 지원에 任하였다.

그런데 당시 연대 역시 제 1, 제 2의 兩개대대뿐인 까닭으로 東西로 20km가 넘는 담당 정면의 江岸을 따라 連貫된 방어진지를 편성하기 어려우므로 敵의 예상도하지점에 대한 據點방어방식을 適用키로 하였다.

즉, 敵의 銳鋒이 鳥致院—大田의 國道를 따라 계속 指向될 것으로 내다본 결과, 제 1대대의 3개 중대를 모두 投入하여 大平里 정면의 大平堤防에 沿한 진지를 점령케 하고, 제 2대대의 일부로써 그 左右側方의 경계임무를 맡도록 하는 한편 포병으로써 同대대를 重點 지원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13일과 14일에 걸쳐 편성된 연대의 방어진지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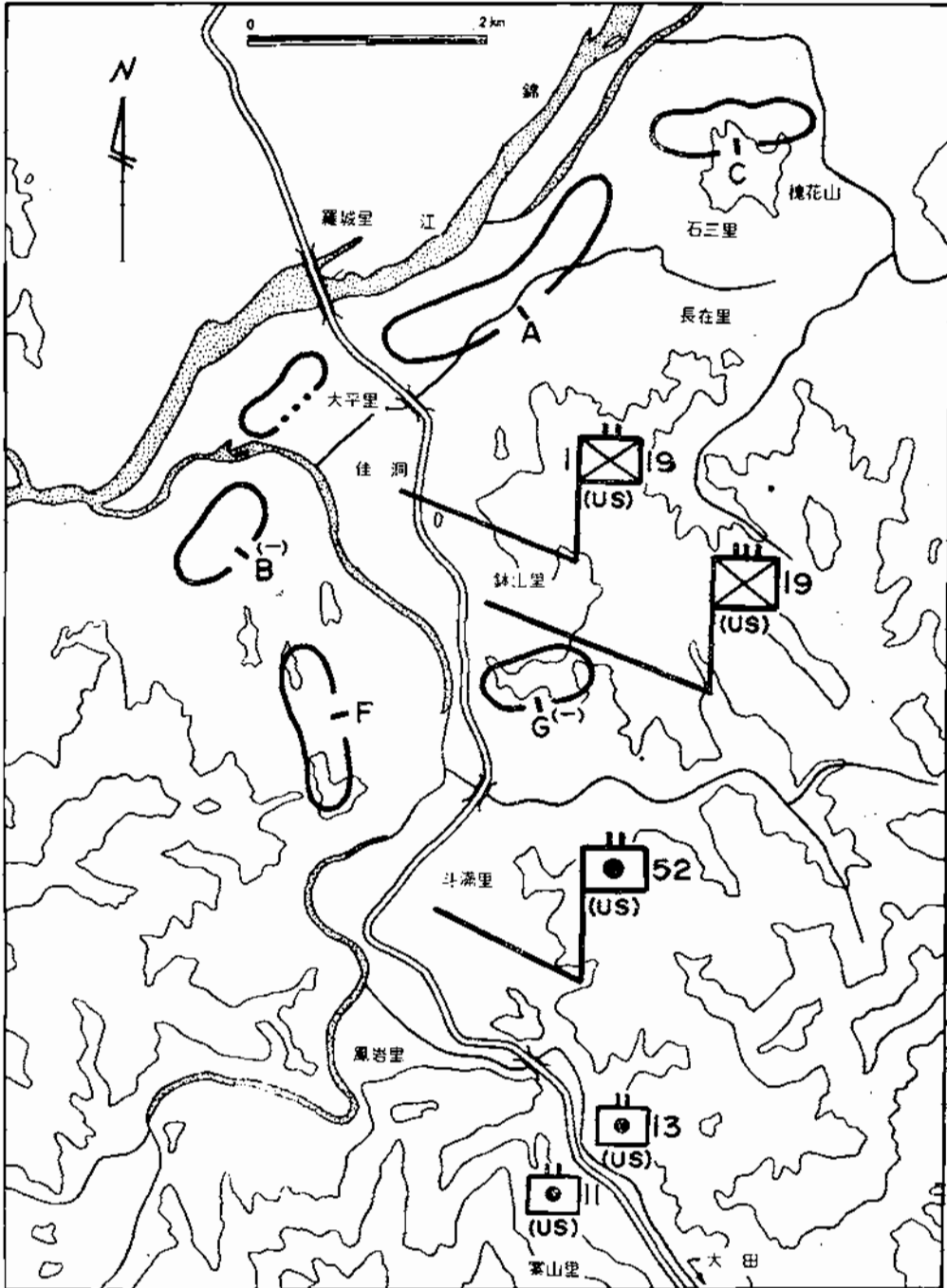
右側 경계부대 : 제 2대대 E중대.

梅芳山(新灘津 西北쪽 5km)에 경계據點을 두고, 東으로 新灘津까지, 西로 「초오개」(梅芳山 西쪽 3.5km)까지의 江 南岸을 경계하였다.

中央 방어부대 : 제 1대대.

대대지휘소를 佳洞(錦城橋 東南쪽 1.2km)에 두고, C중대를 槐花山(△200, 梅芳山 西쪽 6km)에, A중대를 石三里(槐花山 西쪽 1km)—錦城橋사이의 堤防에, 그리고 B중대를 錦城橋—聖德里(鉢山里 西쪽 1.5km, 龍秀川 西岸)에 배치하였는데, 이때 연대의 重박격포중대의 4.2"중박격포 1개 소대는 長在里(槐花山 南쪽 1km)부근에서, 1개 소대는 「윗말」(鉢山里 東北쪽 1km)부근에서 當該 정면의 제 1선중대를 支援하였다.

◇ 上항도 제48호 제19연대의 最初부대配置(7.13)



左側경계부대 : 연대 정보수색(I&R)소대.

同정보수색소대(70여명)와 공병 1개 소대, 그리고 포병 1개 포대(제13포병대대 B포대)가 제2대대 S-3요원인 Melicio Montesclaros 대위의 통합지휘하의 경계隊로서 연대左接境線부근의 江邊[“마어구“(鉢山里 西쪽 7.2km)—九曲川 河口(“마어구“ 西쪽 4km)]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또 이들과는 달리 G중대의 1개 소대가 “마어구“ 東쪽 江岸고지에서 敵情을 監視하였다.

豫備부대 : 제2대대의 G중대(-)와 F중대.

G중대(-)는 鉢山里의 연대본부 南쪽 1km의 大平里—儒城道 東쪽 고지에, F중대는 B중대진지 南쪽 1km의 道路 西쪽 고지에 前線중대의 縱深을 이루어 진지를 점령중이었다.

이리하여 연대의 步砲 병력의 대부분이 京釜本道를 따라 重點배치된 바, 이러한 진지편성으로 말미암아 제1선에서는 C중대와 E중대의 사이에 6km, B중대와 G중대 경계소대 사이에 4km의 虛弱帶點을 露呈케 되었다.

그러나 전날 14일에 公州가 敵의 掌中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左側方 경계부대의 補強이 時急하게 되었다.

豫備隊의 轉用 : 이런 상태에서 이날 07.00에 연대정보수색소대의 진지정면에 一團의 敵이 渡江을 試圖하였다.

이에 同소대는 이를 곧 연대에 보고하고,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여 이를 물리쳤다.

同소대를 지휘중인 Montesclaros대위는 이때까지 左—線인 제34연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入手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일부를 뽑아 同연대와의 連繫를 도모코자 西쪽으로 移動시켰는데, 그들이 九曲川을 넘어서자, 이미 同연대지역을 휩쓸고 東쪽으로 戰果를 擴大하려는 敵일부와 激突케 되었다.

이에 비로소 상황의 急轉을 깨닫게 된 그는 九曲川 東岸을 따라 南北으로 진지를 마련하여, 北쪽에서 錦江을, 西쪽에서 九曲川을 各各 건너 뛰려는 兩面의 敵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戰況보고에 接한 연대장 Meloy대령은 그 時刻 현재 연대의 다른 정면에서는 敵의 渡河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左側背에 대한 事前措置가 急先務라고 판단한 결과 제2대대장 McGrail중령에게 命令하기를 『대대의 예비중 일부를 뽑아 정보수색소대를 增援하되 同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現占領진지를 固守하라.』라고 하는 한편, 연대본부에서 보유중인 제78전차대대의 M-24 輕戰車 2대와 제26對空砲대대의 M-16(Cal 50對空砲 4문을 장비)半軌道車 2대를 이에 긴급증원토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同대대장은 이를 전차와 對空砲車, 그리고 G중대(-)와 H중대의 기관총 1개 소대 및 81mm 박격포 1개반을 이끌고 儒城—公州도로를 따라 급진한 다음, 그곳의 정보수색소대와 포병을 통합지휘함으로써 McGrail특수임무부대를 急編하여, 西側背의 방어에

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제 예비의 2/3에 해당하는 병력이 前線으로 投入됨에 따라 언개의 예비는 F중대밖에 남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으니 八方美人格으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兵力使用의 必然的인 貽弊라고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날 낮중으로 敵이 大平里정면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九曲川부근에서도 이 특수임무부대가 그들의 壓力을 능히 버티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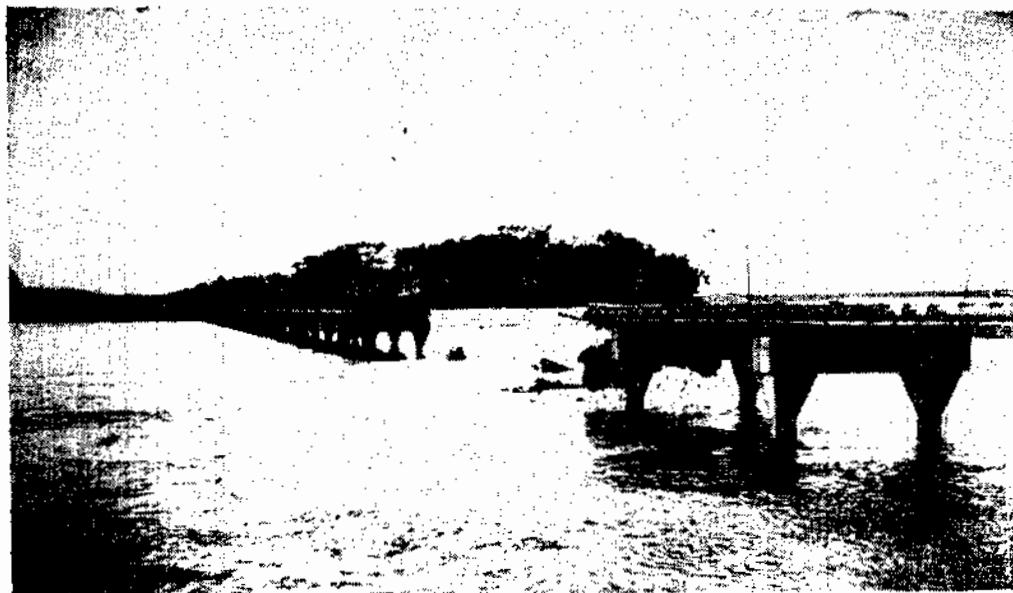
**敵의 제 1차 渡河攻擊** : 이윽고, 날이 저물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Meloy대령은 敵이 必是 야간도하를 노릴 것으로 判斷한 결과 各대대에 야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促求하는 한편 支援野砲와 박격포로써 敵이 占據中인 것으로 믿어지는 江北쪽의 마을들을 砲撃케 하여 그들의 병력집결을 방해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空中支援과 함께 실시된 이 포격으로 말미암아 江北岸의 마을 草家들이 불타 올라 그 火焰이 저물어가는 江流에 投影되기도 하였다.

황혼 무렵, 錦城橋 西쪽 제방에 진지를 확보중인 B중대 제 3소대(장, Charles C. Early 소위)는 江 건너 羅城里로 敵의 戰車 1대가 進入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대에 報告하였는데 그 동안에 8대의 戰車가 國道를 따라 後續하였다.

그 중에서 3대가 江岸으로 곧장 달려나와 砲塔을 左右로 회전하면서 同소대진지에 포격을 가하였으나, 射角이 높아 대부분의 포탄이 진지위로 지나쳐버리게 됨으로써 큰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敵의 野砲가 그 진지에 加勢하여 烈火를 퍼붓기 시작



〈파괴된 錦城橋〉

함으로써 한동안 彼我的 砲火가 江上에 어지러웠다.

佳洞의 지휘소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제1대대장 Winstead중령이 공중지원을 요청하여 敵의 화력을 제압토록 한바, 잠시 뒤에 出擊한 戰爆機 2機가 敵의 上空에 이르자 戰車 2대는 재빨리 鎗속으로 遁走하고 路上에 남아있던 1대가 그 공중공격으로 격파되었다.

그리하여 잠시 敵砲火가 沈默하게 되었으나 滯空機가 基地로 사라지자, 이번에는 보병을 滿載한 truck들이 羅城里정면의 江邊으로 모여들었다.

뒤이어 어둠이 짙어가는 河床에 전개를 끝낸 무리가 도하를 시작하였는데, 그 일부는 兵仗을 頭上에 얹고 목 부분까지 잠기는 水中으로 徒涉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끊어진 錦城橋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水泳으로 건너기도 하였는데, 그 露骨的인 企圖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本攻에 앞서 威力偵察을 兼하는 듯하였다.

이에 江邊 防禦에 推進배치한 D중대의 無反動銃과 기관총이 同時集中의 위력을 발휘하여 半途의 敵을 水中에서 擊摧하고 말았는데, 살아남은 分子들은 전차포의 掩護아래 江을 되돌아 건너 달아나거나 그대로 南岸 河床에 올라 불기도 하였다.

이 무렵, 槐花山(△200)의 C중대(장, Henry T. McGill 중위) 정면에서도 일단의 무리가 江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捕捉코, 重박격포중대(장, Elliott C. Cutler, Jr. 대위)의 화력 지원하에 중대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두 차례나 반복된 敵의 도하공격을 막아내었다. 그런데 이때에 敵의 포화가 박격포진지에 炸裂한 끝에 60mm박격포 2문을 파괴하고 다른 1문의 砲列발집판을 破損케 한 바, 이에 同박격포반의 Tabor하사 같은 병사는 발집판을 임시로 急造하여 砲身을 손으로 잡고 水筒의 물로 冷却시키면서 300여발이나 사격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정면에서 試圖된 敵의 첫번째 도하공격이 失敗로 돌아가자, 밤이 깊어지면서 交綏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 2. 제34연대의 狀況

전날 저녁에 公州에서 論山으로 철수한 제34연대(장, Robert L. Wadlington중령)는 밤을 새워 병력을 수습한 다음, 이날 아침에 馬九坪里(論山 東쪽 6km)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論山—大田도로를 따라 指向될 敵侵을 遲延키로 하였다.

그런데 敵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전날 낮에 三橋里의 포병진지를 席捲한 제16연대로써 밤중으로 公州를 점령하여 橋頭堡를 확보토록 한 다음, 이날 아침부터 나루배를 수집하여 主力의 渡河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들의 戰車등 重裝備는 공군 戰爆機의 방해로 말미암아 낮 동안에는 江을 건너지 못한듯 하였다.

이러한 重裝備의 도하에 時間이 소요된 까닭에서인지 敵은 저녁무렵에야 公州로부터 論



山街道를 따라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終日토록 敵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 3. 제21연대의 狀況

한편, 大田비행장에 예비로 집결중이던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전날 저녁의 사단장 命令에 따라 이날 06.00부터 제11포병대대의 C포대와 공병 1개 중대를 配屬하여 沃川으로 轉進하였다.

이때 연대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것으로서 제1대대가 517명, 제3대대가 132명, 그리고 연대본부인원으로 편성한 임시대대가 466명, 都合 1,200명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다. 더우기 11일에 全義부근에서 대대장이 戰死하는 등 큰 打擊을 입은 바 있는 제3대대는 殘餘인원으로써 K,M 兩 중대로 재편되어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이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이런 연대를 이끌고 飛行場을 떠난 연대장 Stephens대령은 沃川에 지휘소를 開設하고, 그 西北쪽 7km의 馬達嶺부근에 京釜本道를 制扼하는 진지를 점령하여, 大田 東北쪽에 대한 防護와 동시에 大田에서의 退路를 확보하는 임무를 아울러 맡게 되었다.

연대는 國道를 끼고 馬達嶺의 南北 兩쪽 綫에 진지를 점령하는 즉시로 공병으로 하여금 大田에서 沃川에 이르는 모든 公路上的 교량과 tunnel등에 대한 폭파를 준비토록 하였다.

7월 16일 : 防禦 제4일째인 이날, 드디어 錦江線의 崩壞를 보게 되었다.

#### 1. 제1대대의 前線狀況

敵의 제2차 渡河공격 : 이날 03.00, 고요에 잠긴 錦江 上空에 敵의 YAK機 1대가 나타나 照明彈 1발을 投下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공격개시 신호인 듯 敵의 포병이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대지휘소와 제1선진지일대에 쏟아진 敵火의 熾盛함이란 연대장 Meloy대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Europe戰線에서도 경험한 바 없는 것이었다고 述懐할 정도였다.

이어, 이렇듯 強力한 砲火의 掩護아래, 작은 배와 뗏목을 지어 渡河를 시작한 敵은 例의 徒涉과 水泳의 모습도 보였다.

이에 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그들의 도하를 막았는데, 하늘 높이 포물선을 그리며 南北으로 엇갈리는 포탄과 飛散하는 신호탄의 火片이 夜空을 수놓는 壯觀을 이루었다. 연대는 조명탄을 쏘아 올려 水面을 대낮같이 밝히는 가운데 제13, 제52, 제11의 3개 포병대대 30여문의 곡사포와 중박격포 중대의 8문의 4.2'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重火器와 小火器로써 빈틈없는 火網을 구성하여 渡江하는 敵을 타치는대로 격멸함으로써 江南쪽으로는 敵의 接岸을 허락치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여 敵이 쉽사리 江을 건너지 못하던 중, 決定的인 事態를 惹起케

하는 뜻하지 않은 糶事가 突發하였으니, 敵의 움직임이 날날이 밝혀주던 照明彈이 꺼지고 만 것이다.

이는 당시 제11포병대대의 155mm포사포 1문이 제1대대장의 지휘下에 조명지원만을 專擔하였는데, 대대가 이 砲의 照明地域에 약간의 修正을 요구한 바, 보통 1~2분이면 足할 이 要求를 過大하게 잘못 이해한 결과 砲의 架身을 移動하면서 方位角을 수정하게 된 탓으로 20여분동안이나 조명지원이 中斷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명지원이 끊겨 江上에 漆黑의 어둠이 덮히게 됨으로써 그 好機를 틈탄 敵兵이 속속 江南岸에 올라붙게 되었다. 이 攻防一戰이야말로 極히 不充分한 裝備로써 強行渡河에 成功한 一例가 될 것이고 超現代式砲兵이 그 威力을 發揮하지 못한 實例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敵의 側方侵透: 04.00에 대대 右제1선인 C중대(장, Henry T. McGill중위)진지에서 먼저 爭奪戰이 벌어졌다.

槐花山 정상에 중대본부를 두고 北쪽 江邊을 향하여 3개소대를 배치한 중대는 江北의 美湖川이 合流하는 合江里(槐花山 東北쪽 3.5km)부근에서 江을 건너 東쪽의 F중대와와 地隙을 타고 迂回한 敵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의 右側 제1소대(장, Thomas A. Maher 중위)가 東쪽으로부터 달려든 敵의 襲波를 네 차례나 물리쳤으나, 소대장 Maher중위가 頭部에 경기관총탄을 맞아 戰死하는 등 死傷者가 續出하여 진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소대선임 하사관이 12명의 소대원을 수습하여 중대본부로 철수하였는데, 중대장은 이들을 收容하여 고지 정상의 진지를 강화하였다.

그러자 敵은 더 이상 중대를 공격치 않고, 고지의 東南쪽으로 돌아 長在里的 重박격포진지로 그 楔鋒을 물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敵이 槐花山에 중대主力을 남겨 놓은채로 그 背後부터 먼저 들이치게 된 셈인데, 이와 같은 대대의 右제1선정면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左제1선정면에서도 敵의 渡河가 強行되었다.

어둠이 걸린 뒤, 龍秀川 西쪽 稜線의 B중대(장, Monroe Anderson대위)는 그 西北쪽 江岸으로 20~30명씩 무리를 지은 敵兵이 武器와 보급품을 머리에 이고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이미 300~400명의 敵이 중대진지의 西南쪽 1.5km의 한 稜線을 占據中이었다.

이에 중대장 Anderson대위는 그러한 敵情을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포병의 制壓사격을 요청하여 강 언덕에 새로운 火網을 둘러치고, 그 稜線을 강화한 바 그들 일부는 나무가지로 僞裝한채 그곳에 계속 엮드려 있는가하면, 일부는 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侵透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이 대대의 左右兩側으로 먼저 渡河한 가운데 06.00가 지나자 中央정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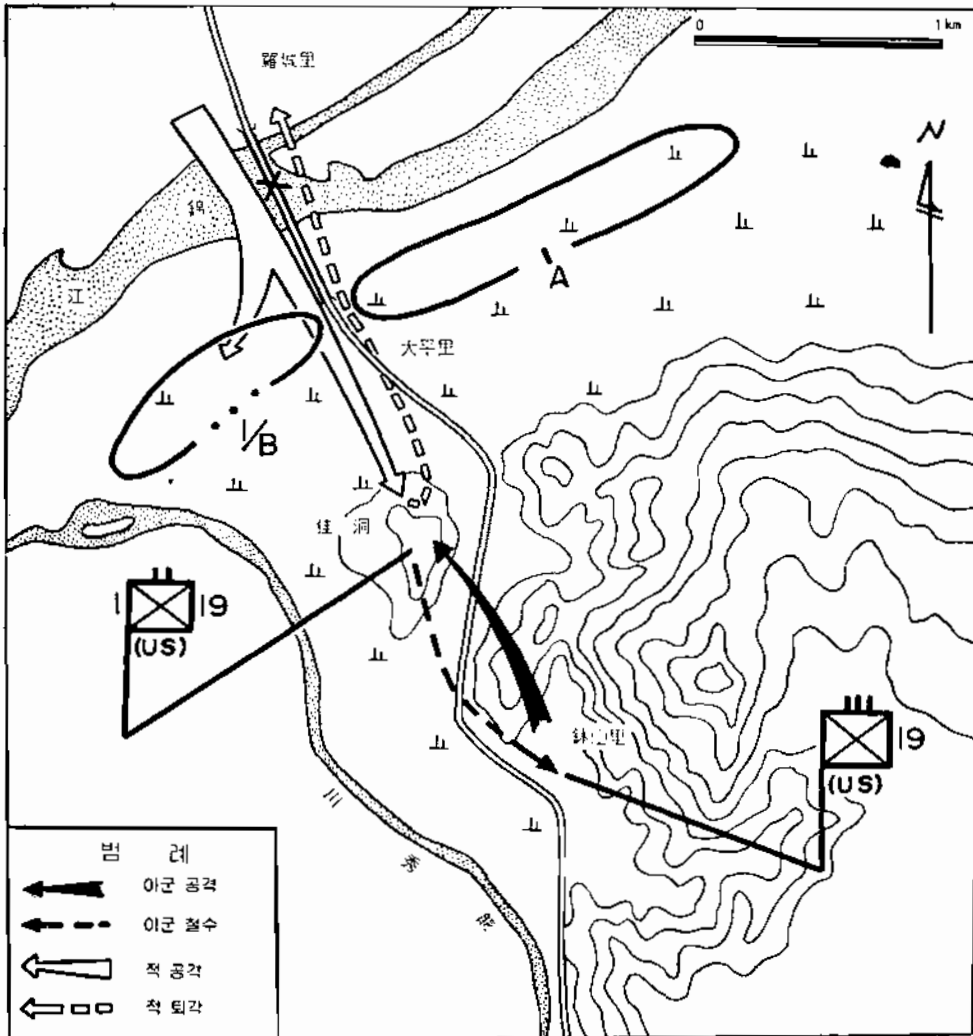
서의 壓力이 加重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대대의 逆襲 : 06.03前後에 敵의 일단이 파괴된 錦城橋의 橋脚을 엄폐물로 삼아 水泳과 徒涉으로 江을 건너 南쪽 河床에 올라붙게 됨으로써 中央 정면에서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戰車砲의 엄호아래 08.00에 A중대의 左側진지일부와 그 西쪽의 B중대 右側진지를 유린하고 이어 佳洞의 대대지휘소를 위협하였다.

이에 대대장 Winstead중령은 지휘소를 연대지휘소가 있는 鉢山리로 일단 철수시킨 다음, 병력을 얻어 그 敵을 격퇴키로 하였다.

그러하여 佳洞의 지휘소가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자, 연대장 Meloy대령은 연대본부

◇ 상황도 제49호 제1대대의 역습狀況(7.16)



중대의 일부와 그리고 예비로 확보중인 M-24輕戰車 1대와 M-16 1대를 급히 뽑아 同대대를 지원토록 긴급조치하였으며, 이의 지원을 받은 대대장은 대대본부와 연대본부중대의 수장교를 위시하여 취사병과 운전병등 技術兵들과 경계소대로써 臨時예비대를 急編한 다음, 副대대장 John M. Cook소령으로 하여금 同隊를 지휘하여 前線을 돌파한 敵을 逆襲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鉢山里에서 北쪽 佳洞을 目標로 역습을 감행한 바, 同隊長인 Cook소령과 대대 S-1인 Alan Hackett대위가 戰死하는 血戰을 벌인 끝에 09.00에 佳洞을 다시 회복하고 殘敵을 江 건너로 驅逐하고자 말았으니 傳統있는 美軍將兵의 強力한 片貌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果敢한 一擊으로 대대가 佳洞의 지휘소를 다시 확보하고, 本道를 중심으로 한 江 岸地지를 재정비케 되었는데, 이와 같이 陣中 깊숙히 侵襲한 敵을 撲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되자,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還問의 戰況을 보고하되, 日沒時까지는 現地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樂觀的인 見解를 披瀝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日沒時까지 現地지를 固守한 다음 日沒後 儒城 東쪽의 甲川 從方에 새로운 阻止地지를 占領하라.』라고 명령하게 된 바, 실제로 당시의 戰況은 연대장이 판단한 것과 같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연대장은 다시 제 1대대장을 불러 日沒까지의 進지고수에 대한 가능성 與否를 打診한 결과 그로부터 보고되기를 『대대의 防禦정면에서 공격하는 敵을 막아낼 수 있으며, 敵의 일부가 이미 江을 건넜으나만큼 대대의 現 방어능력으로서는 背後의 敵侵에 대한 對備 餘力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이미 연대장 自身도 敵이 B중대와 E중대의 西쪽 稜線을 따라 계속 南下中이라는 보고를 入手한 바 있었다.

따라서 연대가 憂慮한 바는 敵의 正面공격이 아니라 背後의 攪亂이었는데, 그와 같은 事態가 오래지 않아 現實로 닥치게 되었다.

## 2. 敵의 退路遮斷

제52포병대대의 奮戰: 제 1대대가 대대지휘소부근에 침습한 敵을 격퇴한 다음인 10.00前後부터, 斗滿里에 進지를 점령중인 제52포병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는 敵의 한 縱隊가 儒城—大平里道와 나란히 北으로 흐르는 龍秀川 西쪽 능선을 따라 南下中임을 보자, 지휘소 南쪽 가까이 있는 A포대로 하여금 즉시 砲擊토록 하는 한편 後方의 제13포병대대에 敵 近接을 警報하였다.

이리하여 A포대가 그 敵에 포격을 가하자 敵은 南으로 향하던 縱隊의 行首를 東쪽으로 돌려 同지휘소 北쪽의 B포대진지를 공격하였다.

이에 B포대는 前線을 지원중이던 곡사포 2~3문의 射向을 變換토록 하여 달려드는 敵을 직접조준사격으로써 殲殺하였다.

敵도 이에 뒤질새라 박격포사격으로 應酬하였는데, 그 첫발에 포대장과 선임하사관이 戰死하고, 계속 집중되는 포탄에 5~6명의 班長들이 負傷을 입게되었다. 포대가 이렇듯 위기에 처하게 되자, 先任장교인 William H. Steele 중위가 陣頭에 나서 일부로써 隨사격을 계속케 하는 가운데 남은 포대원을 지휘하여 圓陣을 치고 敵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그러자 敵은 同포대 정면으로 물러나 南쪽의 A포대로 공격방향을 돌렸다.

이에 대대장 Perry중령은 지휘소의 동산대와 의무대 및 사격지휘반요원들과 부근의 제19연대병사들을 臨機로 통합하여 攻擊隊를 편성하고, 이를 직접 지휘하여 B포대로 하여금 敵에 대한 직접조준사격을 계속케 하면서 오히려 그 敵을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이와 같이 單一名의 警備兵力도 없는 포병이 自力만으로써 頑強한 저항을 보이니, 敵은 포대에 대한 공격을 단념한듯 西쪽 稜線으로 다시 물러나 南쪽으로 빠졌다.

이렇듯 포병만으로 그 진지를 지켜내었거니와, 瓦解직전의 B포대를 수습한 선임장교 Steele 중위는 이때의 功績으로 이 해 9월 5일부 사단일반명령 제120호에 의거 銀星우공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敵의 補給路 차단:** 포병진지를 공격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난 敵은 11.00前後에 同진지 南쪽 750m에 있는 道路의 西쪽고지에 나타나 東쪽의 도로를 향하여 사격을 加함으로써 탄약再補給次로 儒城쪽으로 南行中인 차량들의 通行을 妨害하였다. 이러한 輕微한 火力威脅에 牽制되어 監視를 받는 車輛들의 輕妄에 뒤이어, 北쪽에서 계속 밀어닥친 차량들이 삼시간에 길을 메우는 車輛의 氾濫을 이루게 되었으니 아마도 戰鬪要員이 없는 車輛群의 唐慌이 그 主要原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대後方의 제52포병대대와 제13포병대대진지 사이의 보급로가 끊기는 危局을 맞게 되었는데, 그 도로차단地點은 斗滿里에서 西南向한 도로가 급격한 굴곡을 이루어 東南向으로 굽어지는 屈曲部에 있는 것으로서 △84(斗滿里 南쪽 750m)등 一連의 高地群을 東으로 끼고, 西쪽에는 10여m의 緩傾斜 제방으로 龍秀川과 연한 單一路上이었다.

敵은 그 道路部位를 한 눈에 敵制하는 鳳岩里(斗滿里 西南쪽 1.3km) 西쪽의 Y字形 無名고지(표고 110m정도)를 장악하여 도로를 火力로서만 占領한 셈이 되었는데, 그 고지는 龍秀川이 東쪽과 南쪽을 감싸고 있어, 敵의 立場에서 보면 방어에도 有利한 地形이었다.

바로 그 무렵, 제2대대의 S-4인 Robert E. Nash소위가 제1대대의 탄약재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儒城에서 北上중 同도로 차단지점에 이르러 그 敵의 妨害로 말미암아 진출이 저지되었다.

이에 同소위가 有線으로 鉢山里의 연대장에게 그 같은 상황을 보고한바, 연대장이 大驚失色하여 同소위에게 이르기를 『九曲川부근의 제2대대장에게 되돌아 가서 그곳의 대대병력을 뽑아 敵에 의하여 차단된 同道路를 開放토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연대장의 手中에는 달리 轉用할 병력이 없음을 감안한 措置였다.

이와 같이 하여 연대장은 전날 증강조치한 左接境線일대의 병력을 다시 뽑아 차단된 보급로를 突破도록 하고, 우선 그 차단상태를 확인코자 연대 S-3인 Edward O. Logan소령을 帶同하여 斗滿里로 급히 달려갔다.

그에 앞서 연대장은 매마침 지원된 6機の 戰爆機편대로 하여금 同도로를 차단중인 敵의 진지를 공격토록 하고, 아울러 佳洞의 제 1대대장에게 『江岸진지의 병력은 日沒後 철수시킬 예정이다. 同 철수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준비명령을 下達하였다.

**연대장의 負傷** : 연대장과 S-3가 斗滿里를 지나 그 차단지점에 이른 바, 상황은 一見 심각한 상태였으니, 路上에는 차량들이 길을 메우고 늘어서 있었으며, 대부분이 지원부대원인 병력 일부가 지휘자도 없이 제멋대로 散開하여 龍秀川 건너의 고지를 향하여 盲目的으로 사격을 퍼붓는 중이었다.

이에 연대장이 그 고지의 敵火를 排除코자 그곳의 병력을 수습하여 직접 공격대를 급편하던 중 敵彈을 다리에 맞아 負傷을 입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더 이상 實兵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연대장은 제 1대대장을 호출하여 그에게 연대의 指揮權을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道路차단선의 北쪽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지휘토록 하였는데, 그때가 13.00였다.

같은 時刻에 연대 無電車の 無線으로 大田의 사단장과 交信하게 된 S-3 Logan소령이 사단장에게 『연대장이 負傷을 입었음. 연대의 지휘권을 제 1대대장에게 위임하였음. 제52포병대대 B포대는 時急한 整備를 要하고, 보급로가 차단되어 상황이 惡化一路에 있음.』이라고 보고하자, 이에 사단장은 『本官이 보급로를 開放하기 위하여 增援조치할 것이지만 15.30以前까지는 赴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는 즉시 陣地에서 철수하여 가능한 많은 병력과 장비를 救出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交信이 끝나자마자 敵의 砲彈이 同무전차에 命中하여 이를 파괴함으로써 그 뒤로는 사단과의 通信이 일체 杜絶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연대는 사단장이 後方에서 별도로 보급로의 차단망을 粉碎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막연한 期待아래, 江岸진지의 병력철수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13.00부로 연대 지휘권의 위임과 함께 사단장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게 된 제 1대대장 Winstead중령은 江岸의 主力의 철수에 앞서 보급로의 開放이 무엇보다도 急先務라고 판단하고, 곧 佳洞의 지휘소로부터 斗滿里 南쪽으로 달려가, 그곳의 S-3에게 이르기를 『우선 차단된 보급로를 돌파하여, 救援부대와의 連繫를 도모하라.』라고 한 다음, 13.30을 期하여 全 연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진실로 一夫當關으로 萬夫가 오금을 못쓰고 고스란히 두손을 들고 만 격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江 南岸의 主陣地에 있는 병력을 그가 직접 뽑아내기 위하여 대대지휘소로 돌아가던 途中에 敵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Winstead중령이 연대의 지휘권을 위임받든지 1시간도 채 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마저 끝내 숨지게 되고마니, 이로부터 연대는 前線병력의 철수를 통제할 지휘관을 잃게 되는 破局이 겹치게 되었다.

제 1선의 撤收: 전날은 흐렸으나, 이날은 맑게 개어 暴炎이 猛威를 떨쳤는데, 한낮의 水銀柱는 體溫보다 높은 華氏 100°를 가리킬 정도였다.

연대원은 이 戰爭에 참가한 뒤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무더위속에서 敵과 싸워야하는 二重 苦를 겪게 되었다.

Winstead중령이 철수명령을 내린 그 시각까지 제 1대대원은 대부분 江岸진지에 그대로 남아 固守中이었는데, 이는 진지를 支撐하고 있기 보다는 雨注하는 敵의 포화로 말미암아 陣內에 釘着된 상태였다.

따라서 철수명령이 下達되었지만, 제 1선중대원이 그 진지에서 離脫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槐花山을 占領中인 C중대의 경우, 敵과의 싸움에서 보다는 진지에서 병력을 뽑아내는 동안에 더 많은 損失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때 同중대의 기관총사수인 Jack Arawaka하사는 바로 그의 面前에 敵의 박격포탄이 炸裂하여 全身에 무수한 破片傷을 입게됨으로써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나 끝까지 자동소총을 부여잡고 달려드는 敵에 熱鐵을 퍼부어, 중대원이 모두 고지를 떠날때까지 혼자서 싸움을 계속하였다는 바, 이 Arawaka하사와 같은 勇士의 奮戰이 있어, 그러한 艱難속에서도 能히 중대가 午後 늦게 西南쪽의 대대지휘소부근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수과정에서 敵일부의 後方攪亂과 간단없는 포격으로 말미암아 소대별로 分散하여 大平里—儒城街道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때 Augustus B. Orr소위가 이끄는 同중대의 일부는 눈을 지나던 중, 눈 바닥에 얼굴을 묻고 쓰러져 있는 敵兵 數名을 발견한 바, 그 풀속에서 거품이 떠오르는지라 모조리 射殺하고 보니, 모두가 손에 수류탄을 움켜쥐고 있어 戰死를 假裝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同중대가 鉢山里부근에 이르니, A,B兩중대의 병력이 한데 뒤섞여 本道를 따라 南下중이었는데, 同중대원이 그 本道에 들어서서 鉢山町 마을을 지날 무렵 東쪽 綫으로 부터 기관총사격을 받아 隊伍가 흩어지게 되었다.

한편, 道路 西쪽의 F중대는 그때까지 그 北쪽 B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진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제 1선의 중대들이 모두 철수하게 됨으로써 어느새 敵中에 들게 되어, 前後로 포위상태에 빠지게 되어, 그 역시 陣地離脫이 如意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에서 江岸진지에서 철수한 병력은 道路차단선 北쪽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遮斷線의 突破試圖: 이 동안, 遮斷線 北쪽에서 Winstead중령으로부터 突破명령을 받은 바 있는 연대 S-3 Logan소령은 그곳에 먼저 집결한 제 1대대 D중대의 박격포소대장 Lloyd D. Smith소위를 소대장으로하는 공격소대를 급편하여, 龍秀川 건너로 鳳岩里 西쪽 高地의

敵을 공격케 함으로써 보급路를 火力으로서만 遮斷중인 敵의 자동화기를 芟除토록 하였다. 이때 F-51 1개편대가 支援되어 3~4個所의 敵 火力거점에 대하여 機銃掃射를 加하였으나 偽裝하고 掩蔽된 그 自動火器를 制壓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空中엄호를 받으며 同공격소대가 △84 西南쪽 崖쪽의 집결지로부터 躍出하여 西쪽으로 龍秀川을 건넜으나, 敵의 거침없는 斜射와 側射로 말미암아 敵陣고지의 下麓에 올라볼기도 어려웠거니와, 傾斜가 急하여 기어오르기가 더욱 어려워 애초에 50여명으로 편성된 同소대원중 소대장 Smith소위를 따라 마지막까지 敵前으로 肉迫한 병사는 단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개천가에 엎드려 敵火를 피하기에 골몰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Logan소령은 다시 운전병과 砲兵등 일부 기술병을 糾合하여 攻擊組를 再編하고, 이 들로써 또 한번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그도 역시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두차례에 걸친 보병공격이 實効를 거두지 못하자, 同소령은 연대가 확보중인 M-24輕전차 2대를 動員하여 그들로 하여금 戰車砲로써 敵의 火力據點을 除去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戰車가 나서서 敵陣을 향하여 咆哮하게 되었으나 그들도 偽裝된 敵의 火力據點을 포착할 수 없어, 다만 砲彈만을 射耗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에 또 同소령은 斗滿里 西北쪽의 龍秀川 건너편에 진지를 점령중인 제2대대 F중대에 南쪽으로 道路를 차단한 敵을 공격토록 措置하였으나 그때 同중대는 南쪽으로의 공격은 姑捨하고 그 진지에서 離脫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敵의 포위공격을 받는 중이어서 그도 如意치가 못하였다.

이렇듯 그가 기울인 보급로開放의 노력이 모두 水泡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직접 차량으로써 道路를 따라 南으로 竊進突破를 試圖하였지만 앞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엉켜있던 탓으로 그 일마저도 實行에 옮길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咽喉部를 絞壓당한 猛獸의 마지막 몸부림 그것이었다.

### 3. 제2대대의 赴援狀況

대대장의 措置: 1시간 가까이 도로돌파를 試圖한 S-3는 이상과 같은 方法으로서는 시간만을 虛費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14.30에 그의 보좌관인 Edgar R. Fenstermacher 대위를 그의 代理로 指命하여 그곳에서 敵의 遮斷線돌파에 대한 노력을 계속토록 하는 가운데, 自身은 2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東쪽으로 迂回하여 다른 길을 찾아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山間협로를 2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16.30을 前後하여 案山里부근에 있는 제13포병대대진지에 當到하였는데, 그때 그 포병진지는 철수를 준비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때마침 연대의 補給路돌파를 지원코자 일단의 機甲縱隊를 이끌고 大田으로부터 急着한 사단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縱隊는 제78전차대대의 M-24戰車 2대를 비



못하여 제26對空砲대대의 M-16 2대(Cal 50 重기관총 각 4정)와 M-19 2대(40mm對空砲 각 2문)로 편성된 것이었다.

이에 S-3는 사단장에게 보급로의 차단상태와 그 北쪽 연대의 현상을 보고한 다음, 그 기갑중대를 지휘하여 自身이 직접 突破一線에 나서겠다고 自請하였다.

그런데 그때 副연대장인 Homer B. Chandler중령이 5대의 jeep차에 부상병을 싣고 그의 先導下에 차단선을 돌파하여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倥傯히 無事하였으나 다른 부상병들은 그 遮斷線을 지나는 동안에 한번 더 부상을 입게된 바, 滿身瘡痍이 된 그들의 모습은 文字 그대로 慘酷 그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遮斷現場의 상황이 時時刻刻으로 惡化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同 S-3에게 이르기를 『道路開放의 임무를 제 2대대장 McGrail중령에게 맡기고, 實官은 곧 儒城부근에서 새로운 逐次진지를 편성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때 McGrail중령은 그들 보다 한 걸음 앞서 同地에 도착하여 待機중이었던 것이니,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午前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 2대대의 S-4인 Nash소위가 제 1대대로 탄약을 추진하던 中 道路遮斷을 당하여 그 사실을 연대장 Meloy대령에게 보고한 바, 연대장으로부터 『제 2대대장으로 하여금 道路를 開放케 하라.』는 命을 받아 이를 九曲川부근의 同대대장에게 전달하게 되었음은 既述하였거니와, 그는 그 명령을 받는 즉시로 탄약추진을 포기하고 車輪을 돌려 儒城쪽으로 南下하였는데, 곧 敵의 銃砲擊을 받아 차량이 파괴되었다. 이에 그는 車에서 내려 徒步로써 案山里의 제13포병대대로 달려가 그곳에서 다시 jeep차 1대를 빌린 다음, 그 車便으로 儒城을 거쳐 大田—公州도로를 따라 西北向하여, 正午가 지난뒤에 九曲川 東쪽의 McGrail특수임무부대진지에 닿았다.

그리하여 同소위가 McGrail중령에게 제 1대대 後方의 도로차단상황을 報告하고, 아울러 연대장의 命을 口頭로 전달한 바, McGrail중령은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였다.

- 『① S-3의 Montesciaros대위는 연대정보수색소대와 공병 및 포병을 지휘하여 계속 현진지를 固守하라.
- ② S-4 Nash소위는 大田으로 急行하여 G중대를 수송할 차량을 구하여, 馬岩里부근으로 보내라.
- ③ G중대장 Barszcz대위는 병력을 현진지에서 철수시키, 馬岩里부근에 집결待機타가 차량이 도착하는 즉시로 本官을 追隨하라.
- ④ 本官은 案山里의 제13포병대대진지에서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하여, 九曲川부근의 진지는 본래대로 연대정보수색소대가 전담케 된 가운데, Nash소위는 차량을 구하기 위하여 大田비행장으로 急行케 되고, McGrail중령은 案山里로 달려가서 G중대의 追及을 제촉하게 되었으며, G중대는 진지를 떠나 馬岩里부근의 道路邊에

집결하여 차량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Nash소위가 飛行場에서 副사단장인 Pearson Menoher 준장의 주선으로 G중대를 수송할 차량을 구하여 馬岩里로 올려보내었을 무렵, 사단장 Dean 소장이 13.00에 있는 제19연대 S-3 Logan소령의 도로차단보고에 따라 그 突破에 필요한 기갑차량을 抽出하여 案山里로 떠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G중대보다 사단장의 기갑縱隊가 한 걸음 먼저 제13포병대대진지에 當到하게 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McGrail중령은 G중대 대신 동기갑중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機甲縱隊의 赴援失敗** : 제13포병대대진지에서 G중대의 來着을 기다리던 제2대대장 McGrail중령은 사단장으로부터 『機甲중대를 지휘하여 敵의 보급로차단선을 돌파하여 本道를 開放하고 제1대대를 구출하라.』라는 命令을 받자, 6대의 기갑차량을 이끌고 案山里에서 斗滿里쪽으로 一路北上하였다.

同중령은 戰車 1대를 선두에 내세워 縱隊를 先導케 하고 다른 1대로써 後衛를 맡도록 하였는데, 縱隊가 飛龍(斗滿里 南쪽 1km)마을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西쪽으로부터 重기 관총과 輕대전차포사격이 집중되어 進路가 막히게 되었다.

이에 縱隊는 路上에 멈추어 서서 그 敵陣을 향하여 전차포와 대공포로써 應射하였다. 이때 同대공포차에 탑승하였던 병력들은 차에서 내려 道路邊에 掩蔽하여 그 交戰의 결과만을 지켜볼 뿐이었는데 裝甲이 약한 대공포차가 敵의 대전차포에 맞아 모두 炎上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2대의 戰車만이 사격을 계속하였으나 그도 포탄이 다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路邊에 엎드려 있는 병력들을 그곳에 남겨둔채로 18.00에 다시 案山里를 向하여 後退하는 醜態를 보이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절연의 排水路에 墜한 McGrail중령도 그곳에 남게 되었는데, 그곳 北쪽 멀지 않은 路上에 연대장의 jeep차와 연대 S-3의 그것이 입자없이 遺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바, 그로 미루어 보면 당시 그의 機甲중대가 停止된 곳에서 불과 300~400m의 산 모퉁이 하나 너머에 제1대대 병력이 집결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일행도 그곳에서 敵火를 피하여 물러나게 됨으로써 機甲縱隊의 突破企圖는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내저 敵의 銃砲洗禮를 받지 않는 現代戰이란 있을 수 없거늘 敵을 過度하게 앞보다가 過度하게 恐慌狀態에 빠지게 된 것을 例證하는 一場面이었다.

**G중대의 反轉** : 한편 馬岩里부근에서 기다리던 G중대(장, Michael Barszcz대위)가 16.00가까와서야 Nash소위가 이끌고 도착한 차량편으로 案山里로 向發하였는데, 중대가 儒城에 이르니 副사단장 Menoher준장이 그들을 그곳에 下車케 하여 同마을 南쪽 甲川支流의 제방에 방어진지를 急編토록 하였다.

이에 중대는 그곳에서 京釜本道를 따라 北上하려던 밭길을 멈추고 곧 진지점령에 들어갔는데, 副사단장의 이러한 措置는 그가 前線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었던 까닭으로 大

平里정면의 瓦解에 따라 敵의 전차가 儒城으로 直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 된다.

18.00前後, 중대는 다시 『斗滿里부근의 敵 도로차단선을 분쇄하라.』는 명령을 받아 案山里로 機動한 바, 그곳의 제13포병대대진지에서 사단장 Dean소장을 만나게 되었다.

이를 본 사단장은 1시간대로써 보급로를 차단중인 敵을 南쪽에서 공격케 함으로써 敵의 注意力을 牽制키로 하고, 중대에 이르기를 『本道の 西쪽 능선을 따라 北上하여 鳳岩里 西쪽 고지의 敵을 擊破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중대가 案山里에서 도로를 따라 西北쪽으로 나아가 △227(鳳岩里 東南쪽 1km) 東麓의 路上에서 北으로 도로차단 지점이 바라보이는 산 모퉁이를 돌아서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敵의 長距離砲가 길을 가로 막았다.

중대는 19.00에 道路 西쪽의 △227을 기어올라 우선 그 頂上에 진지를 절령한 다음, 西北쪽으로 龍秀川 건너의 敵陣을 향하여 내달아 전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동안에 이미 날이 어두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사단장은 傳令을 보내어 同중대를 儒城으로 철수케 하였으니, 夜間이 되기만 하면 싸울 念頭도 내지 못하고 戰意를 喪失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遺憾千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사단장이 기우었던 보급路의 突破 노력도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이에 도로차단선 北쪽의 인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突變되어 갔다.

#### 4. 연대의 撤收

연대장의 脫出: 한편, 13.30에 下達된 연대장 代理 Winstead중령의 철수명령에 따라 연대는 斗滿里 南쪽의 도로차단지점부근으로 집결하게 되었지만 끝내 도로가 열리지 않아 그곳에 못박힌 채 시간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背後로 壓力이 加重되는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자, 東西로 가로막은 稜線을 사이에 두고 그 南쪽에서 도로의 돌파가 시도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연대兵力은 三三五五로 南쪽으로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18.00, 그 南쪽에서 McGrail중령의 機甲縱隊의 돌파기도가 霧散되었을 무렵, 그때까지 부상을 입은 연대장과 함께 道路가 끊리기만을 기다리리고 있던 연대참모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方針을 정하였다.

『① 연대장은 輕戰車에 탑승토록 하여, 그 戰車로써 차단선을 強行突破케 한다.

② 戰車가 길을 열면, 민 車輛만이 그 뒤를 따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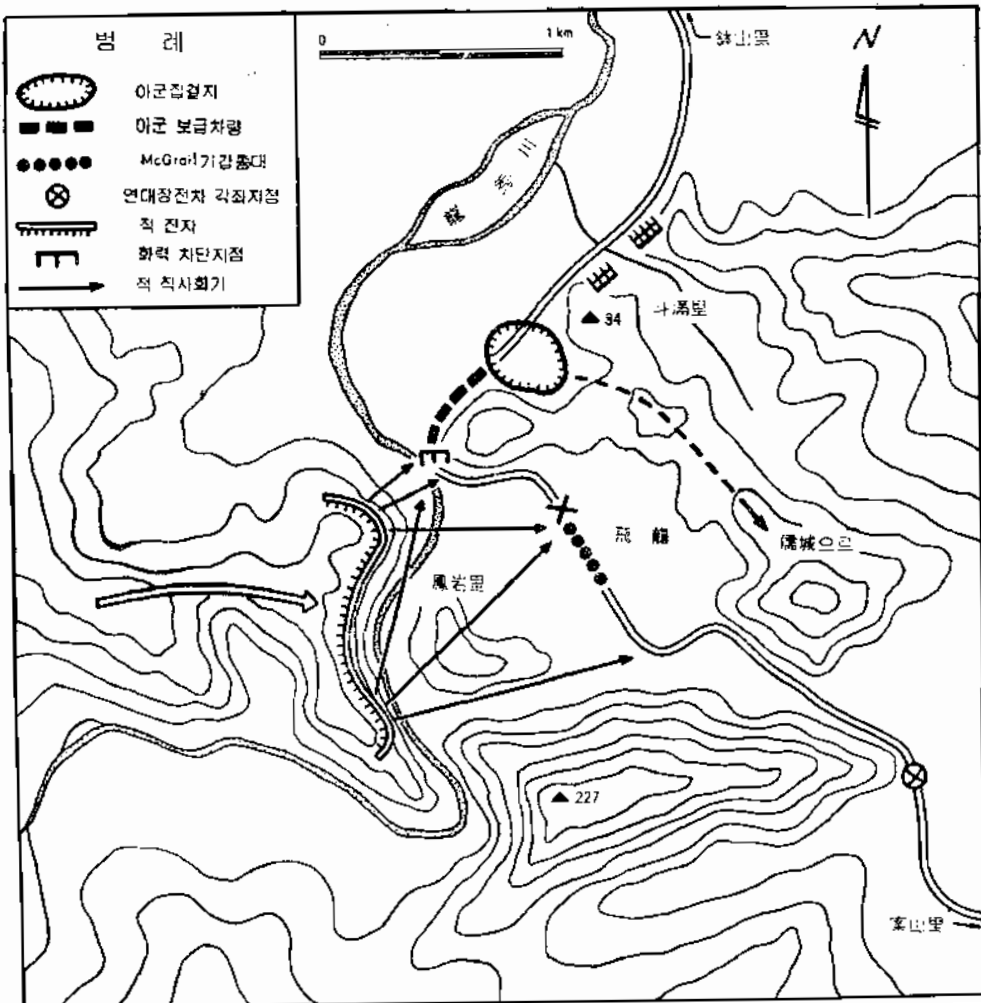
③ 나머지 병력은 S-3보좌관 Edgar R. Fenstermacher 대위가 통합 지휘하여 徒步로 철수한다.』

즉, 당시에 그곳에 M-24輕전차 1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의 裝甲과 突破力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연대장을 救出키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장을 태운 戰車가 同전차소대장 J.N. Roush중위의 지휘아래 先頭에 나서서 길을 막고있는 차량들을 밀어내고 길을 열자, 그 뒤로 제52포병대대의 105mm곡사포 1문을 끄는 견인차 1대를 비롯한 20여대의 차량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이 차량縱隊가 敵의 기관총과 대전차포 등 直射火器가 火網을 형성한 火力차단선을 뚫고 强行突破를 試圖한 바 마침내 九死中에서 一生을 얻게 되었다.

戰車가 鐵火를 뒤집어 쓰면서도 敵에 應射를 하지않고 오로지 霧進만을 거듭한 결과 그 차단선은 넘어설 수 있었지만 얼마를 더 南下하지 못하여 機關고장으로 말미암아 路上에 擱坐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그곳이 △227의 東麓이라, 敵의 火網을 가까스로 벗어난 지점이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그 차단선을 넘는 동안에 敵火에 더러 파괴되기도 하였지만

◇ 상황도 제50호 敵의 보급로 차단狀況(7.16)



일부는 同戰車와 함께 無事히 脫出할 수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전차에서 내려, 소대장 Roush중위로 하여금 燒夷수류탄으로써 同전차를 파괴토록 하였는데, 이때 △227에서 儒城을 목표로 철수중이던 G중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연대장은 同중대장 Barszcz대위에게 儒城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收容진지를 급전토록 명령한 다음, 다른 부상병들과 함께 儒城으로 後送되었다.

**殘餘兵力의 夜間撤收**: 한편, 연대장 一行의 차량중대가 敵의 遮斷線을 突破한 뒤, 그 北쪽의 혼성병력에 대한 지휘를 맡게된 Fenstermacher대위는 어두워진 다음인 20.30을 前後하여 철수준비를 시작하였다.

그곳에는 500여명의 병력과 100여대의 차량이 집결중이었는데, 차량은 무두 敝棄기로 하고, 병력은 京釜本道의 東쪽을 沿한 고지의 稜線을 따라 儒城을 목표로 철수키로 하되, 歩行이 어려운 重傷者들은 들것으로 나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차량에 휘발유를 뿌려 燒却조치하고 그 火光이 衝天하는 가운데 철수梯隊를 형성하던 중인 同대위가 敵彈을 목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또 한번 지휘자를 잃는 가운데 21.00에 남은 병력은 各己 梯隊別로 철수로를 찾아나서게 되었는데, 夜間에 地形조차 生疎한 산길을 택하여야만 되었던 그들의 참담한 情況에 대하여, 同年 7월 19일자 New York Herald-Tribune紙가 報道한 바에 의하면 그 斷面이 다음과 같았다.

『……100여명으로 推算되는 보병, 포병, 공병 및 의무대의 혼성병력이 道路 東쪽의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들중의 30여명은 부상자였으며, 들것에 누운 重傷者도 여러명 있었다. 그 重傷者는 부상을 입지않은 병사 40여명이 들것으로 운반하였는데, 산을 오르는 동안에 들것을 운반한 병사들이 隊伍를 離脫하고 말았다. 山頂에 이르러 남은 병사들은 더 이상 重傷者들을 운반해 갈 수 없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重傷者들을 그곳에 두고 떠나기로 決定되었다. 이에 Herman G. Felhoelter軍牧이 自身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남겠다고 하여 軍牧과 重傷者만이 그곳에 남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敵兵이 고지위로 뒤쫓아 왔다. 그러자 軍牧이 重傷을 입은 軍醫官 Linton J. Buttrey대위에게 그곳을 빠져나가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Buttrey대위가 간신히 몸을 움직여 그곳을 빠져 나오자, 뒤이어 들이닥친 敵兵이 부상병을 위하여 祈禱를 울리고 있는 軍牧을 殺害하였다. 본부중대의 James W.R. Haskins 上士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 보았으나,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철수병력은 밤을 도와 南下하여 儒城과 大田에 집결하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7일에 大田에서 집결재편된 병력은 당초 大平里정면에 投入된 제19연대원 900여명중 434명뿐이었다.

따라서 연대는 제 2대대의 E중대와 G중대만이 溫存하였을 뿐, 이날 하루의 전투에서

제52포병대대와 더불어 큰 손실을 보아, 연대로서의 부대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다.

E중대는 京釜線철교(錦江철교) 西쪽의 梅芳山진지에서 終日토록 敵의 隻影도 보지 못한 채로 진지만을 지키고 있다가 밤에 철수명령이 下達되어 大田으로 집결하고, G중대는 前述한 바와 같이 별다른 接戰없이 東奔西走하다가 儒城으로 집결케 된 것인데, 九曲川부근의 연대정보수색소대도 역시 밤중으로 大田으로 철수케 되었다.

한편, 道路차단선의 南쪽인 案山里부근에 있던 제 11, 제13 兩포병대대는 이의 사격을 통제하던 제13포병대대의 FDC가 11.00무렵부터 前方관측수나 보병진지의 연락장교와의 통신이 두절된 가운데 錦江의 敵도하에 상지점에 대하여 미리 확보한 諸元에 따라 사격을 계속하다가 午後 늦게 大田비행장으로 철수하였는데, 이들의 병력이나 장비에는 별다른 損失이 없었다.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헤아릴 길이 없거니와, 그 입은 損失은 死傷과 失蹤을 포함하여 제 1대대원 758명중 338명, 제 2대대원 777명 중 86명, 제52포병대대원 393명중 55명으로서 기타 연대본부와 지원 포병대대의 총원으로 따진다면 3,401명 중 650명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제 1대대 C중대의 경우에는 171명의 중대원중 122명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으며, 연대의 본부, 근무, 의무중대와 중박격포중대의 장교 34명중 17명이 이날 失蹤된 것으로 보고된바, 그중 13명이 戰死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에 또 장비의 손실도 막대한 바 있었는데, 연대본부와 제 1대대는 대부분의 차량과 重裝備를 喪失하였으며, 제52포병대는 지난 5일에 烏山부근에서 포 5문을 잃은데 이어, 이날도 9문의 105mm 곡사포 중 8문을 遺棄하였으니, 포 1문과 차량 3대만이 마지막 突破로 구출되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연대는 G중대를 儒城에 남겨 本道상에 췌기를 막게 하는 가운데 大田비행장에서 부대수습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제34연대는 駐日美제 7사단 제32연대장인 Charles E. Beauchamp대령을 새로이 연대장으로 맞이하여, 저녁에 馬九坪里부근의 진지에서 論山一大田街道를 따라 甲川 東岸으로 철수한 다음, 大田 西쪽 外廓線에 진지를 편성케 되었다.

한편,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은 大田 東쪽에서 接敵이 없는 가운데 계속 馬達嶺진지를 확보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하여, 사단은 錦江방어선을 편지 4일만인 16일 밤에 大田부근으로 철수케 되었거니와, 新銳로 自任한 제19연대마저 제34, 제21 兩연대에 이어 또 한번 참담한 敗北를 記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63, 제52 兩포병대대가 이 戰鬪에서 입은 損失은 火力의 劣勢를 면치 못한 사단에 加一層의 打撃을 안겨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욱 逆境에 처하게 되었음은 물론, 我軍의 全전선에 미친 物心兩面の 逆效

과가 또한 甚大하였으니, 이 錦江線의 崩壞는 洛東江線으로의 撤收의 첫 신호가 되고 最後關頭에 서게 된 甕鐘一聲이 되었던 까닭이다.

사단장 Dean소장은 錦江線이 무너진 이제 달리 決戰방어를 試圖할 곳이 없다는 판단아래, 京釜本道를 따라 且戰且退하는 逐次遲延을 꾀기로 作定하고, 그 이튿날인 17일에 大田비행장에서 부대를 수습중인 제19연대를 永同(沃川 東南쪽 23km)으로 뺏아내려 그곳에 지연진지를 점령케 하는 한편 제34연대로 하여금 當面한 大田敵營을 막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大田의 제34연대와 沃川의 제21연대, 그리고 永同의 제19연대가 逐次로 收容과 阻止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연전을 展開케 되었다.

이에 제19연대는 16일 밤과 17일 午前중으로 비행장에서 수습한 병력으로써 同H 午後에 永同으로 轉進케 되고, 제34연대는 B중대로써 儒城의 제19연대 G중대의 엄호진지를 引受케 하는 가운데, 主力을 나누어서 일부는 大田—儒城街道上的 萬年橋(儒城 東쪽 1km, 甲川교량)와 大田—論山街道의 佳水院橋(萬年橋 南쪽 5km, 甲川교량)의 차단에 主眼을 두고, 月坪洞(儒城 東南쪽 1.5km)과 正林洞(月坪洞 南쪽 5km)일대의 甲川 東岸에 진지를 점령케 되었다.

한편, 敵은 錦江을 渡河함에 있어서 正面의 我軍을 火力으로써 抑留하면서 側方으로 우회하여 後方を 차단하는 手法을 써서 제19, 제34 兩연대의 戰線을 돌파함으로써 錦江 南岸에 올라서게 되자, 戰車重裝備가 公州경변으로 渡河하는 동안, 그들 제4사단은 16일에 論山을 手中에 넣고 그 일부로써 西南쪽의 江梁을 席捲하여 後翼을 除去한 다음 大田을 목표로 次期 공격을 준비하는 듯 하였으며, 그 제3사단은 大平里부근에서 밤을 세워 儒城으로 直衝할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戰雲은 錦江을 넘어, 三南의 要城인 大田으로, 血雨를 몰아 急迫하게 되었다.

## § 戰 訓

### (1) 砲兵의 被襲에 대하여

7월 14일에 三橋里부근의 제63포병대대가 敵의 공격을 받아 殲滅된 것은 한마디로 同대대의 自業自得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로, 同日 아침 偵察機가 『敵이 檢詳里로 渡河한다.』고 알려주었음에도 不拘하고, 그에 대한 사격을 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渡河를 허용케 됨으로써 砲 10문을 모두 잃는 打撃을 입게된 것이니, 이는 同대대가 포병의 기본임무조차 망각한 處事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에 同대대는 제1선의 포병진지로부터의 要請사격보다는 空中관측이나 直接觀測사격을 하는 方式을 取한 듯 하였으며, 公州正面으로 敵의 本渡河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만 執着한 나머지 끝내 한 말의 사격도 하지 못한채로 自滅을 초래한 것이다.

大抵 포병은 被지원부대에 대한 火力支援을 그 기본任務로 삼는 것인바, 이 경우의 砲지원은 被지원부대(제34연대 제3대대)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대대의 自律에 의하였다고 할진대, 前方(公州)의 포병이 접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포병 또한 砲門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하물며 同대대 S-3의 『그런 敵은 신경 쓸 것 없다. 큰 목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한 바탕 하기로 하자.』는 따위의 思考方式이 은당하다고 할 것인가?

둘째로, 錦江을 渡河한 敵이 同포병진지를 白晝에 기습공격 하였다는 것은 步兵의 責任도 있 으려니와 同대대가 自體警戒을 소홀히 하였다는 證左로 볼 수 있는 것이다.

砲兵의 취약성이 바로 자체방어능력이 없다는 그것임은 常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만큼 自衛수단의 장구에도 敏感하여야 할 것이다.

한 記錄에 의하면, 제34연대 L중대가 公州부근의 진지로부터 鳳谷里쪽으로 철수할 때 同중대의 소대장 대리인 Wallace A. Wagnebreth상사가 同포병진지로 가서 한 장교에게 檢詳里부근에 敵이 渡河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그 장교는 아무

런 關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또 대대의 관측소에서 敵의 接近을 警報한 바도 있으나 『彼我를 확인할 때까지 사격을 하지 말라.』는 조치 뿐 그 경보에 따른 대응태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니, 이는 16일의 제52포병대대가 斗滿里부근에서 奮戰한 것과는 너무나 對照의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당초 偵察機의 보고가 있었을때 그 敵을 격퇴하지 않은 이상, 渡河지점의 위치로 보아 敵이 당연히 砲兵진지쪽으로 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明箭觀火의 사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同報告를 마치 彼岸의 불구경하듯 하여 時間만을 浪費함으로써 이같은 미습의 屈辱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砲兵이나 戰車의 自衛力은 編制上 弱하기 마련이므로 豫備隊등에서 警戒任務를 專擔하는 兵力의 派遣이 꼭 必要하다는 것을 實證하는 것이다.

#### (2) 제34연대의 障地編成에 대하여

제34연대는 敵이 錦江北岸에 이르기전인 12일에 대체로 진지편성을 끝낸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최초로 부대를 배치함에 있어 제1선(公州정면)에 제3대대를 내세우고, 同一軸線상의 後方 10여km에 예비인 제1대대를 控置하였으며, 그 중간에 포병을 두었는바 同포병의 瓦解를 그 前後方 어느 대대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니 이는 당시의 通信수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대배치의 타당성여부가 먼저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부대배치로 보아서는 당시에 연대는 『敵이 반드시 公州정면으로 渡河할 것이며, 그 쪽으로 渡河를 強要하여야 한다.』는 지나친 확신을 가진 듯하다.

그러나 熊津에서 西南으로 흐르는 江邊은 거의 空虛狀態로 放置한 -- 실은 사단수색중대가 檢詳里부근에 경계진지를 두고 있었다고 하나, 敵의 渡河를 막을 만한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 그것이 문제의 發端이 된 것이고 보면, 이 부대배치는 이미 前述한 위험요소를 事前에 內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34연대장 Wadlington중령은 機動방어 形態로 이 廣正面을 防禦키로 하고, 2개대대중 1개대

대를 8km後方に 控置한듯 하였으나 경제兵力의 不足과 急轉하는 당시의 狀況下에서는 이러한 形態의 방어가 活用될 수 없는 바, 그의 措置는 原則의 誤謬를 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개대대를 一線배치 하는 障地形의 防禦를 취하거나 別途로 特殊任務부대를 編成 控置하는 方法을 擇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3) 예비대운동의 重要性에 대하여

16일의 제19연대 大平里부근 전투결과를 豫備隊의 사용에 결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연대의 立場으로서는 左側의 제34연대가 무너졌으므로 그 左側方을 補強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2대대의 轉用은 時期尙早였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敵 主力의 本攻이 예상되는 大平里정면에서의 狀況의 變移에 따르는 後續手段을 잃게되고 만 것이다, 연대장 自身도 뒷날 『예비대의 2/3를 뽑아들리지만 않았더라도 敵에게 後方 보급로를 차단당하는 그러한 困境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예비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局面이라 할 수 있다.

#### (4) 後方보급로의 遮斷에 대하여

이 戰鬪는 敵의 正面突破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側方迂回와 後方遮斷을 常套로 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侵攻手法에 의하여 사단이 크게 敗한 것이다.

이 당시 美軍지휘관은 대개 正面의 敵, 특히 戰車의 방어에 苦心한 나머지 輕步兵의 側方侵透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않은 폐단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同日 아침 연대장이 제1선의 B중대와 F중대로부터 敵이 江을 건너 西南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에 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可用할 병력이 없다는 것을 理由로 後方の 도로 확보에 대한 配慮를 等閑히 하였다면, 이는 크게 지적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일단 後方이 攪亂된 뒤에 이를 恢復하기란 극히 어렵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 (5) 河川防禦의 原則에 대하여

兵學家 孫子는 攻則有餘요 守則不足이라고 하였으니 공격하는 쪽은 힘에 여유가 있으며 방어하는 쪽은 아무리兵力이 많다고 하여도 敵이 공격하지 않는 때까지 모조리 지켜야 하므로 항상兵力이 不足하여 屢絶한다는 뜻이다. 또한 兵力이 많으면서도 방어 一邊倒를 能事로 하는 쪽은 없을 것이므로 敵보다도 적은 兵力을 넓은 正面에 排列한다는 것은 到處가 弱하여지기 마련이고 十指를 十으로 分割使用하는 愚를 犯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河川線을 따라 重點없이 平等配置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戰例에서 成功한 것을 볼 수 없다. 즉, 이번 戰例같이 江 沿線에 직접배치하는 방식과 機動打擊力을 많이 확보하면서 沿岸은 警戒에만 限重하는 방식의 두가지가 있었으며, 이것을 直接배치와 後退配置로 兩區分하여도 無妨한 것이다. 筆者所見으로서의 機動性이 우수한 美軍은 최대한으로 많은 機動打擊部隊를 保有하였다가 渡河로 兩斷된 敵을 逐次로 포위격멸하는 積極戰法이 다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砲兵은 渡江中の 목표를 노릴 것이 아니라, 江北岸에 攪亂사격을 加하고 江南岸地區에는 殺傷地帶를 設定하여 계획적으로 制壓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河川防禦에 있어서는 되도록 많은 예비병력을 掌握하였다가 渡江部隊를 격멸하는 뒷바침을 하여야 될 것인데, 이 전투에서 그것이 實現되지 못한 것은 原則違反이라고 할 것이다.

執筆者の 방어방식의 樣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最前線에 소대단위의 江岸直接境界부대를 一連배치하지 않고 요점에 집중토록하여 모두 信號連絡手段을 갖추게 한다.

② 大隊區分으로 제 1선 기동타격부대를 편성하여, 靑, 黃, 赤, 白等 信號彈으로 區分한 敵의 上陸地點에 쇄도토록 한다.

③ 靑, 黃, 赤, 白等의 기동로를 미리 예정하고 교통초를 요점에 배치한다.

④ 主要한 산봉우리에 偽陣地를 설치하고 少數의 감시병만을 올려놓아 火光신호토록 한다.

⑤ 보급차량의 火光을 통제하여 北向하는 차량

은 등불을 밝힘으로써 大兵力의 移動을 假裝한다

⑤ 연대장은 제 2의 기동타격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제일선에서 迂回침투한 敵을 각개심멸토록 한다.

⑦ 포병은 연대본부와 대대본부에 가까이 位置하여 警戒력을 증강토록 한다.

⑧ 여하한 경우에도 後退한 있을 수 없고 각진지마다 사주방어로 고수토록 하며 미리 設定한 殺傷지대에 대한 空中공격을 요청한다.

## (6) 半途에 擊滅하는 방식에 대하여

河川방어에 있어서는 東西洋을 막론하고 모두 敵이 江을 건너는 中間에서 이를 격멸하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이것이 半途에 격멸하라는 뜻이다. 즉, 다시 말하면 敵의 半數만을 건너놓게 한 다음 태세가 미비하고 步險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兩斷 상태에서 각개격파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或者는 오해하여 敵이 江을 건너는 水中에서 격멸하라고 하는 때는 同意할 수 없다.

이와 같이 水中에서 도하도중에서 격파하려면 강언덕에 병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敵이 강을 건너기전에 이미 강렬한 銃砲의 火力을 받게 될 것이고 또 敵은 반드시 我方이 준비하는 方面에서 일제히 江을 건너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本 戰例에서와 마찬가지로 敵의 도하장비가 빈약하고 모든 正面에서 능히 江을 건널 수 있는 경우에는 도하지점을 우선 감시하는데 注力하였다가 급히 一部兵力을 진출시켜 이를 水中에서 격파하고 江언덕에 올라붙는 인원과 선박을 파괴하는데 치중할 것이며 감시력과 기동력, 그리고 타격력의 세가지를 조화있게 按配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本 戰例에서는 夜盜의 무리같이 夜暗을 이용하여 소수병력이 조카배를 타고 도하한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는 포병이 막연히 도강하는 좋은 목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일발의 사격도 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포병용법은 지난 제 1차세계大戰 當時 Donau 江을 많은 주정을 이용하여 하루동안에 3個사단을 건너온 그러한 敵의 목표에 대하여 적용할 방식이 거늘 도끼를 가지고 쥐잡으려는 式의 포병사용은 포병용법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거둠 말하러니와 포병은 먼저 江전널 준비를 하는 敵의 주력에 대하여 요란사격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보병重火器는 도하중의 敵을 공격하여야 한다.

그래도 교두보에 달려 붙는 자를 機動力으로 일시에 타격하라는 뜻이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美제24사단의 錦江線 방어는 아무런 凡例도 찾아 볼 수 없는 拙策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 § 研究

### (1) 제34연대의 遲延障地의 位置문제

公州에서 撤收한 제34연대가 어디에 遲延진지를 점령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美陸軍 參戰史인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에 의하면 15일 아침에 『論山바로 東쪽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고만 하였을뿐 그 위치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本文에서는 이를 馬九坪里(論山 東쪽 6km)로 잡았는데, 이는 論山에서 東쪽으로 馬九坪里까지는 論山川과 城坪川을 건 平野지대여서 방어진지의 편성이 容易치 않을 것으로 본 까닭에서이다.

그리고 15일 아침에 그곳에 진지를 편성한 뒤로 16일 저녁에 大田으로 철수하기까지 그곳에서 지탱하였는지, 아니면 論山—大田도로를 따라 지연전을 벌였는지는 분명치가 않아, 따라서 여기에서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5일 밤으로 論山을 점령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敵과 불과 6km 거리에서 接戰없이 하

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인지는 더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2) McGrail機甲縱隊의 反轉시간 문제

本文 16일 宇 記事중의 McGrail중령이 機甲중대를 이끌고 출동한 사항과 그 反轉사항에 있어서 그 典據로 한 記錄上에 時差가 있음을 밝힌다.

즉, ① 前掲書 p. 140에 보면, 14.30에 연대 S-3인 Logan소령이 그 보좌관인 Fenstermacher 대위를 그의 代理로 指命하고, 자신은 도로차단선의 北쪽에서 南쪽으로 길을 찾아 떠나 그 두시간 뒤에 제13포병진지에 닿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 同書 p. 141에서는 同소령이 그 포병진지에서, 때마침 機甲중대를 이끌고 도착한 사단장을 만나, 그가 그 중대를 지휘하기를 自諒하였지만 사단장이 그 임무를 McGrail중령에게 부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③ 같은 page에서, McGrail중령이 동기갑중대를 지휘하여 도로차단선으로 北上하다가 敵의 對戰車砲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戰車가 되돌아가게 되고 말았는데, 그 시각을 16.00라고 하였다.

以上の 세가지 記錄을 종합하면 時差의 모순이 있는바, 어느 부분이 그러한 誤謬를 범하고 있는지는 밝힐 길이 없다.

따라서 本文에서는 ③의 기록을 바로잡아 보았는데, McGrail중령이 포병진지에 도착한 시간을 16.30으로 보고, 그로부터 同機甲중대의 출동시간과 거리, 交戰시간등을 고려하여 그 反轉시간을 18.00로 하였다.

## 2. 大田 附近의 美軍 防禦戰 (1950년 7월 19일부터 1950년 7월 2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5 호  
상 황 도 제 51~54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24사단 장 소장	William F. Dean	제21연대 제 1 대대 장 중령		Charles B. Smith	
제34연대장 대령	Charles E. Beauchamp	사단수색중대			
제 1 대대장 중령	Harold B. Ayres	제 3 전부공병대대 C중대			
제 3 대대장 소령	Newton W. Lantron	제78전차대대 A중대			
대리 대위	Jack E. Smith	砲兵混成대대			
제19연대 제 2 대대 장 중령	Thomas M. McGrail	제26對空砲대대 A포대			
		敵 軍			
北傀제 1 군단 장 중장	金 雄	제 5 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 7 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제 8 연대 장 대좌	金 秉 鍾	포병연대			
제 9 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제105戰車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포병연대		제107戰車연대	基 幹		
제 4 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 나. 전투전의 개황

本節에는 前節에 이어, 美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소장)이 7월 16일에 錦江防禦線이 무너지자 17일에 大田으로 물러나 제 34연대(장, Charles E. Beauchamp대령)로써 防禦陣을 치고, 다시 한번 敵을 막아보려다가 敵의 包圍網속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苦戰 끝에 20일에 그곳을 撤收하게 되는 경과를 取扱하였으니, 이는 이 사단이 京釜本道에서 벌이는 遲延戰의 마지막 場面이기도 하다.

兵要地誌 : 大田은 1932년 以來로 忠淸南道의 道廳所在地로서, 1950년 당시 人口 130,000을 收容하

는, 南韓에서 4번째로 큰 都市이다.

그 南쪽과 東쪽은 標高 450~550m 內外인, 蘆嶺과 小白 兩山脈의 落脈들이 屏風과 같이 둘러서 있고, 西쪽과 北쪽에는 錦江의 支流가 발달하여 盆地를 이룬 곳에 자리 잡았으니, 大田川이 東南쪽에서 西北쪽으로 市街를 貫流하고, 柳等川이 南쪽에서 市街의 西쪽 外廓을 따라 北쪽으로 흐르며, 甲川이 西南쪽에서 또한 北쪽으로 흘러, 그 세 江이 合流하여 大田平野를 이룬다.

甲川을 本流로 하는 이들 河川은 新灘津부근에서 錦江에 流入하는 바, 市街 西쪽의 柳等川 沿邊과 甲川 下流는 水田地帶이며, 市街는 柳等川의 東쪽지역에서 大田川을 中心으로 形成되었다.

멀리 西北쪽의 大平里에서 儒城을 거쳐 東南向하는 京釜本道와 西南쪽에서 論山—連山으로 西北向하는 湖南國道의 두 幹線道路가 市街의 西端에서 合致되어 市中을 橫斷한 다음, 北쪽에서 淸州—新灘津으로 떨어내려 市中을 지나 錦山—安義로 이어지는 內陸 縱斷道路와 交叉하여, 東으로 沃川—永同으로 빠지게 된다.

따라서 大田은 西北, 西南, 南, 東, 北의 放射線形으로 集合되는 5개의 幹線도로와 京釜, 湖南의 兩鐵道가 연결되는 交通의 要地로서 그 重要性이 크게 浮刻되는 곳이다.

敵軍의 狀況: 7월 14일에 敵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이 公州를 점령한 뒤 15일에 論山을 席捲하고, 大平里 戰線을 지켜보면서 大田으로 東北進할 態勢를 갖추는 동안, 그들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이 16일에 大平里정면의 錦江線을 突破함으로써, 이제 이들 兩사단이 그 全力을 大田으로 集中하게 되었다.

그러나 16일 저녁에 제3사단이 大平里를 점령한 뒤로도 그 餘勢를 몰아 攻勢를 伸張하지 않고, 그 곳에서 발길을 멈추어 그들의 戰車와 野砲등 重裝備의 渡河를 기다리는 듯 하였는데, 그 무렵 江水가 불어나 重裝備을 錦江 以南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 18일까지 그 渡河作業이 계속되었다.

이에 제3, 제4 兩사단은 各各 大平里와 論山에서 戰·砲의 支援態勢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隊伍를 다시 點檢하여 공격준비를 가다듬었으니, 이때 제4사단은 公州正面을 突破하여 論山에 이르기까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지 않았고, 제3사단은 大平里정면에서 錦江을 渡河하는 過程에서 兵力에는 多少의 出血을 보았지만 裝備의 손실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錦江渡河戰에 參加한 戰力水準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前節 大平里—公州부근의 戰鬪 참조)

더우기 이들 兩사단이 公州부근의 三橋里와 大平里부근의 斗滿里일대에서 戰果를 크게 거두어 聲勢를 올린 바 있으므로 士氣가 매우 高揚되었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또 그들 政治要員이 戰士들에게 『大田만 점령하면 美軍이 降服하여 戰爭이 끝나게 될 것이므로 大田이 마지막 目標이다. 褒賞과 休養가 大田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囁語를 던져 奮戰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고 하니, 그 銳氣는 앞서의 錦江戰鬪때와는 比할 바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14일에 左一線인 제34연대(장, 대령 Robert L. Wadlington중령)의 公州 戰線이 무너진 뒤, 16일 午後에 右一線 제19연대(장, Guy S. Meloy, Jr.대령)의 大平里진지가 瓦解되자, 兩연대를 大田으로 철수시켰다.

그리하여, 大平里진부에서 연대장이 負傷을 입은 제19연대는 副연대장 Homer B. Chandler중령의 指揮下에 大田비행장에서 대장 부대를 수습하여 17일 낮에 永同으로 轉進하였는데, 그 제1대대는 대대장 Otho T. Winstead중령이 戰死하는 등 병력 殆半을 잃은 상태이며 제2대대만이 建制를 溫存케 된 까닭으로 이 대대로써 연대의 基幹을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前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단 右側의 國軍제1군단(장, 金弘壹소장)의 戰況이 浮動 상태에 있음을 勘考하여,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로써 大田 東北쪽의 防護와 아울러 後方通路의 保障을 위하여 京釜本道상의 馬達嶺(沃川 西北쪽 7km) 진지를 계속 확보토록 하는 가운데 제34연대만으로써 大田에서 당면한 敵侵을 遲延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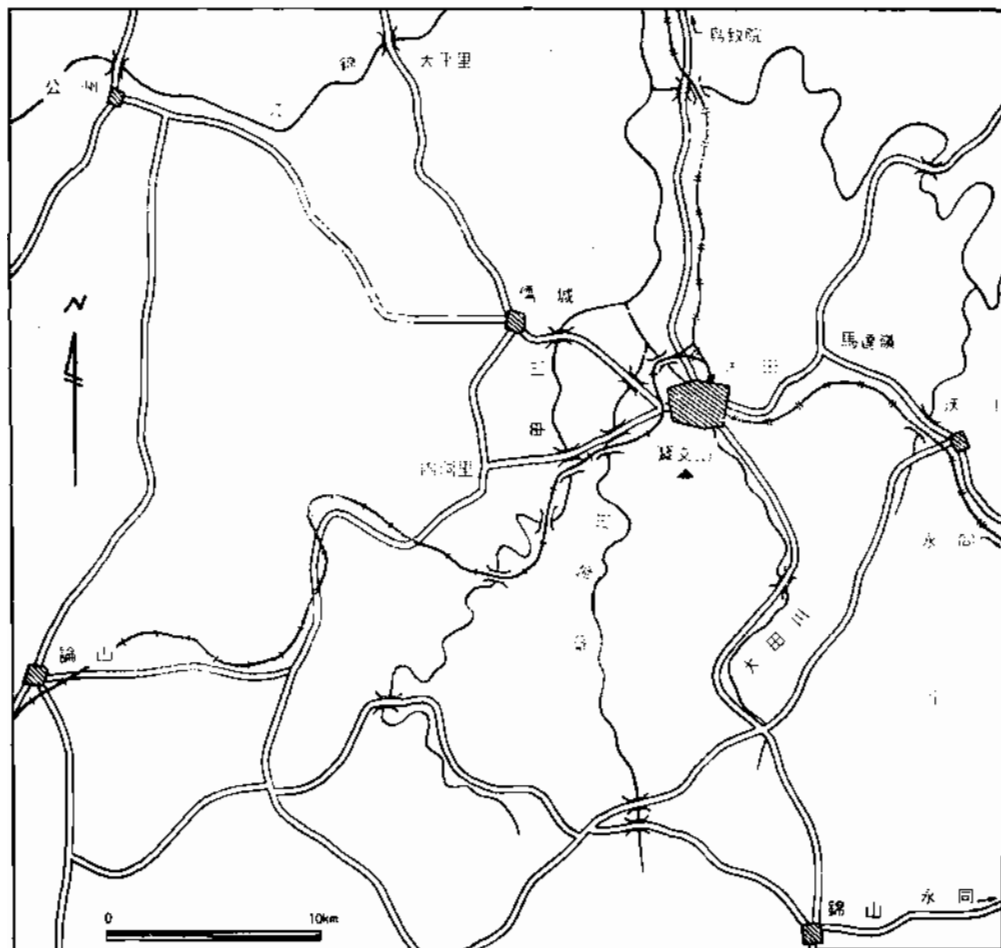
이에 제34연대는 16일에 새로이 赴任한 新任연대장 Charles E. Beauchamp대령의 지휘아래 17일 아

침에 大田 비행장에 연대지휘소를 開設하고, 儒城 東쪽의 甲川 東岸에 진지를 점령하여, 京釜本道の 制扼에 注力케 되었다. 즉, 연대는 論山 東쪽의 阻止진지에서 大田으로 천수하면서 제3대대 1중대의 1개소대를 甲川 東岸의 論山街道에 殘置하여 甲川교량인 佳水院橋를 堅固토록 하고, 제1대대를 月坪洞(儒城 東쪽 1.5km, 甲川 東岸)부근에 배치하는 한편, 제3대대를 비행장 東쪽의 丘陵지대에 예비로 控置하되, 그중 1중대를 뽕아 大田川 東쪽의 梧井洞(비행장 東쪽 2.5km)부근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대로 하여금 新灘津 도로와 京釜鐵道를 堅固토록 한 것인데, 이때 이 1중대는 또 그 1개소대를 樓德(梧井洞 北쪽 2.5km)의 鐵道 건널목에 屯駐보내어 敵情을 密報케 하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公州戰線에서 연대에 배속되어 錦江 南岸의 수색임무를 맡았던 사단수색중대는 大田집결과 同時 사단으로 復歸한 바, 사단은 이를 멀리 南쪽의 錦山에 派出시켜 後方通路에 대한 敵情을 수집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제13, 제52, 제63 및 제11의 4개포병대대에서 제63, 제52兩포병대대가 各各 公州와 大平里부근에서 潰滅의인 損失을 입었으므로 이 대대들을 모두 1개 대대로 混合編成하여 大田비행장에 진지를 점령하여, 그 正面의 제1대대를 지원케 되었다.

#### ◇ 상황도 제51호 作戰地域의 道路網



이와같이 연대는 可用한 병력 모두를 動員하였으나, 敵 主攻路로 예상되는 儒城街道에만 1개대대를 배치하였을 뿐, 敵의 다른 예상접근로인 論山街道와 淸州도로, 그리고 錦山도로의 경계태세는 한낱 警報를發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多幸한 것은 아무럼 新銳의 對戰車 火器인 3.5'Rocket砲가 새로이 사단에 보급됨으로써 實戰에 使用할 수 있게 되어, 敵의 T-34戰車에 對應手段을 마련케 되었다는 것인데, 이 Rocket砲는 당초 제2차 大戰 末期에 美軍이 개발하여 設計를 끝내었던 것이지만 終戰이 됨으로써 實物 製作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7월 3일에 MacArthur元帥의 要請에 따라 急遽 生産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8일에 그 첫 試製品이 이의 射擊指導員과 함께 California의 Travis空軍基地를 떠나 10일에 大田에 空輸되어, 應急 操作訓練을 거친 뒤 12일에 보병중대의 火器소대와 公병중대에 配屬된 것인데, 그 동안에는 實射의 機會가 없었으므로 그 性能은 아직도 未確認狀態였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敵軍側의 企圖: 敵이 平澤를 점령한 뒤인 7일부터 移行한 그들「제 3 단계 작전」의 概念은『錦江과 小白山脈線을 突破하여 大田지역과 小白山脈線에서 敵을 포위 섬멸하고, 全州—論山—聞慶—蔚珍線으로 進出한다.』는 것으로서, 그 核心目標은 大田이었다.

그리하여 그들 主攻부대인 제3, 제4 사단이 大田을 攻圍하려 한 것은 당연한 歸趨였는데 이때 그들은「大田이 美軍과 韓國軍의 最後의 堡壘」이므로 그곳에서 我軍側이 死生決斷하려 할 것이 分明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目標의 攻略에 慎重을 期하기로 한 듯, 16일에 錦江線을 突破한 뒤 17, 18 兩日동안을 공격준비로 보내었는 바, 그들의 攻略계획은 이러할 것으로 풀이된다.

『① 제 3 사단은 제105전차사단의 支援下에 京釜本道를 따라 目標의 西北쪽을 공격한다.

② 제 4 사단은 論山街道를 따라 目標의 西南쪽을 공격하되, 1개 연대로써 南쪽의 錦山道路로 迂回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한다.

③ 攻擊부대는 19일 日沒까지 甲川의 渡河공격준비를 完了한다.

④ 공격개시시간은 20일 03.00로 한다.』

그들이 本攻移行시간을 20일 새벽으로 잡은 것은 제 4 사단의 迂回부대가 大田 東쪽의 沃川街道와 錦山도로의 두 退路를 차단하는 것과 時를 맞추기로 한 것이니, 뒷날 그들 自身이 소위「祖國解放戰爭史」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제4사단의 제18연대가 연대원이 各己 1.5基數의 탄약과 3일분의 식량 및 1~2발의 박격포탄을 휴대하고, 은밀히 山嶽의 險路를 踏破하여 錦山도로로 迂回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일 낮중으로, 大平里의 제 3 사단은 公州로부터 東南進한 戰車부대와 함께 儒城을 점령하고, 제 4 사단은 論山에서 連山을 거쳐 內洞里(甲川 西쪽 4km) 부근에 이른 다음, 各各 當면한 甲川渡河를 노리면서 제18연대의 後方포위태세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렸다가

市中으로 分進合擊함으로써 我方을 市街에 몰아넣고 그 포위망을 좁혀 囊中之物로 만들어 보리라 企圖한 것이다.

**我軍側의 方策** : 당초 我軍이 錦江線을 編成할 당시 사단장 Dean소장이 構想한 大田의 防禦계획은 이러한 것이었다.

『錦江線에서 철수할 경우 右一線 第19연대는 大平里로부터 月坪洞부근으로, 左一線 第34연대는 公州—論山에서 正林洞(月坪洞 南쪽 5km)부근으로 各各 철수하여 甲川 東岸에 阻止 陣지를 다시 점령하고, 그곳에서 京釜國道와 論山街道를 따라 指向될 敵의 侵攻을 最大限으로 阻止한 다음, 逐次로 京釜本道로 철수하면서 遲延戰을 실시키로 한다.』

그러나 16일에 第19연대가 大平里戰線에서 어이없게 깨어짐으로써 일거에 錦江線이 무너지고 아울러 同연대의 繼戰能力을 喪失케 되자, 사단장은 地形的으로 보더라도 大田에서는 決戰防禦를 試圖할 形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단의 力量面에서도 이를 固守한 自信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 곧 京釜本道를 따라 遲延戰으로 移行키로 方針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그 첫 措置로서 17일 아침에 第19연대를 永同으로 뽑아 돌림으로써 同연대의 部隊整備과 同時 沃川부근에 있는 第21연대와 함께 遲延陣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敵의 戰車가 錦江을 건너 大田으로 들어닥치는 그 바로 直前に 大田에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作定하였는데, 그 時期를 19일 暮夜로 예정하였다.

이에, 사단은 우선 第34연대를 當面한 敵의 侵攻路인 京釜本道上的 月坪洞부근에 投入함으로써 사단의 철수준비가 갖추어지는 동안 敵을 遲延토록 應急措置하는 가운데, 同日(17일) 午後에 第21연대로 하여금 大田—沃川間的 道路와 tunnel의 爆破준비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저녁에 在 道廳內的 CP를 永同으로 옮기고, 沃川의 第21연대 지휘소에 사단狀況室을 併設하여 前方지휘소로 삼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여 철수준비를 실시하고 있을 무렵인 18일 아침에 第8군사령관 Walker중장이 大田비행장으로 空路來到하여, 第34연대지휘소에서 戰況을 보고받은 뒤 사단장에게 이르기를 『目下 駐日 第1기갑사단이 浦項에 上陸中이다. 同사단을 永同부근에 投入하여 京釜本道上的 방어력을 增強할 方針이다. 그러므로 同사단이 永同부근에서 部隊展開를 실시할 時間여유를 획득하는 것이 當面의 急先務이다. 따라서 尙後 2日間的 大田固守가 무엇보다도 緊要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從前의 철수계획을 변경하여 철수시간을 24시간 延長키로 하고, 그곳에서 一戰不辭의 決意를 다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단장의 腹案은 다음과 같았다.

『① 사단은 20일 日沒까지 大田에서 持久堅守하면서 增援部隊의 進出을 掩護한다.

② 第34연대는 大田지역의 모든 兵력을 통합지휘하여 敵侵을 阻止한다.

③ 第21연대는 現陣지에서 大田 東北側方의 防護와 아울러 第34연대의 撤收路를 확보한다.

④ 제 19연대는 제 2대대를 제34연대에 配屬措置한다. 同대대는 19일 12.00까지 大田集結을 要한다.

- ⑤ 사단수색중대는 제34연대대에 배속한다.
- ⑥ 제 3 전투공병대대 C중대는 제34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 ⑦ 砲兵혼성대대는 제34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 ⑧ 사단장은 제34연대와 함께 大田에 남는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副官인 Arthur M. Clarke중위와 사단 G-3 보좌관인 Richard A. Rowlands대위 및 G-4 보좌관 겸 수송장교인 Raymond D. Hatfield대위 등 참모장교 2명과 운전병 2명, 그리고 通譯 金吉峻과 함께 大田市에 남아 이 防禦戰을 現地指導키로 하였다.

이와같은 사단장의 方針에 대하여 제21연대장 Stephens대령은 연대가 맡은 大田 東北側方의 防護와 제34연대의 撤收路의 확보라는 두 가지 任務 가운데 撤收路를 확보키 위하여서는 現진지(馬達嶺)에서 細川 tunnel부근으로 진지를 移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所信을 披瀝한 바 있으나, 사단장은 철수로의 保障보다는 東北側方의 防護에 重點을 두기로 한 결과 同 연대모써 馬達嶺진지를 계속 확보토록 하였는데, 大田—馬達嶺間의 本道는 그 연대에서 定期的인 道路偵察을 실시하여 通路를 保護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防禦戰에 任하기에 앞서, 사단장이 제19연대의 제 2대대와 사단수색중대를 제 34연대에 배속조치한 바, 이의 前者는 同연대의 戰力增強을 圖謀키 위한 것이었으며, 後者는 指揮체계의 單一化를 期하고 아울러 연대장으로 하여금 現地(錦山)의 敵情보고를 신속히 入手할 수 있게 하기 위한 方便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사단수색중대를 手裡에 장악하게 된 제34연대장 Beauchamp대령은 同중대에 명령하기를 『明 19일 아침, 大田으로 집결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연대장이 지난 15일 以來로 接觸이 없는 敵제 4사단의 動向을 把握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판단한 결과, 이 중대모써 論山街道의 偵察에 轉用키로 決定한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結果的으로 敵제18연대가 錦山도로로 迂回중인 그 時刻에 錦山の 同중대가 大田으로 철수함으로써 이 錦山道路는 아무런 警報수단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開放되고 말았다.

## (2) 작전실시

### 7월 19일의 戰況 : 攻防의 第一日.

三南의 要域, 大田의 運命을 가름하는 戰雲이 때마침 불어닥친 颱風 Helene호와 함께 한 밭平野를 뒤덮었다.



1. 제34연대 제1대대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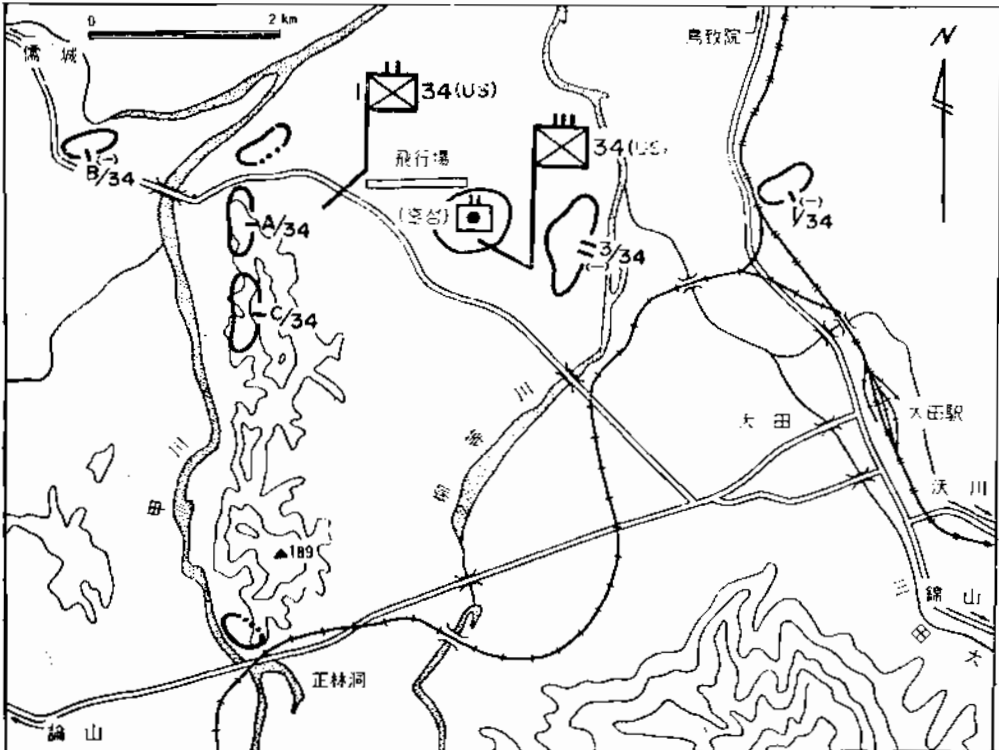
대대의 병력배치 : 大田市街 西北쪽 外廓의 甲川 東岸에서 京釜本道를 扼守케 된 제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는 17일 午前에 B중대의 2개소대로써 儒城의 제19연대 G중대진지를 引受케 하여 敵을 警報케 하는 가운데 甲川の 萬年橋를 건너 東南向하는 本道 南쪽의 △138(萬年橋 東쪽 700m)인대에 A중대를, 그리고 그 南쪽 馬峯(△193, △138 南쪽 1.2km)부근에 C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兩중대가 南北으로 흐르는 甲川 東岸의 능선을 따라 진지를 점령하여 京釜本道上으로 指向될 敵의 侵攻을 막게 되었는데, 이때 B중대의 1개소대가 本道 北쪽의 水田지대에 배치되어 그 右側方을 警戒하게 되었다.

이에 同日 午後에 대대장 Ayres중령은 지휘소를 葛馬洞(萬年橋 東쪽 1.5km)에 開設하는 한편 대대의 81mm박격포와 인대에서 支援된 4.2"重박격포진지를 同마을에 두고, 제1선의 도로변에 3.5"Rocket組를 배치하여 敵의 戰車에 對備하였다.

B중대의 撤收 : 이와같은 방어태세로써 별다른 接敵상황이 없이 18일을 넘기게 되었는데, 이날 正午가 되기전에 敵의 포탄이 대대의 主陣地와 그 東쪽後方의 大田비행장에 集中되거

◇ 상황도 제52호 부대配置(7 17)





〈Cal 30 기관총진지〉

시작하더니, 이윽고 儒城의 B중대로부터 敵의 공격이 개시되었다는 보고가 날아 들었다.

이에 대대장이 △138부근의 관측소에서 敵情을 살펴본바 儒城 西北쪽의 한 마을로부터 큰 규모의 敵 일단이 B중대를 공격중이며, 敵砲가 그곳에 放列되어 烈火를 吐하고 있는 것이 目擊되었으므로 곧 포병과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그들을 制壓토록 하였는데, 그 동안에 B중대에서는 소대장 2명이 모두 부상하는등 死傷者가 續出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그 같은 상황을 연대장 Beauchamp대령에게 보고하고, 그의 許可를 받아 B중대로 하여금 儒城에서 철수토록 措置하여, 저녁무렵에 이를 本陣에 收容한 다음 지휘소 南쪽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이리하여 儒城마저 敵手에 넘겨지게 된 대대는 이제 甲川을 사이에 두고 敵과 對峙케 되었으나, 그들이 더 이상 侵攻氣勢를 보이지 않아 一觸即發의 긴장속에서 날이 저물게 되었다.

연대장의 措置 : 그런데 儒城의 B중대로부터 接敵報告를 接한 대대장 Ayres중령이 未久에 敵의 襲波가 甲川을 휩쓸어 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14.00에 밤중으로 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可할 것이라는 의견을 具申한 바 있으나, 연대장 Beauchamp대령은 『20일까지는 現진지를 固守하여야 한다.』라고 闡明함으로써 그의 철수건의를 否認하였다.

그런데 낮중에 비행장의 연대지휘소부근에 敵의 砲火가 狂舞한 바, 그 광경을 본 사단장

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Europe戰線의 一日 砲擊量보다 많은 量」이라고 할 정도로 그 敵火가 熾盛하였고, 또 西南쪽 論山街道의 敵情이 심상치 않았으므로 어두어진 다음 비행장의 지휘소를 市內로 옮기고, 포병도 市街 南쪽으로 진지를 移轉토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지휘소는 左右一線 대대와 의 연락을 고려하여 京釜本道와 論山街道의 接合點 부근 一 忠南道廳舍 맞은편(南쪽)의 木造건물(現 大田市廳趾) 一 에 새로이 開設되었고, 포병은 北쪽과 西北쪽, 그리고 西南쪽의 三方向에 火力支援이 容易한 文昌洞(現 公設運動場 부근)에 진지를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이때 제 1대대에서도 대대장이 敵의 夜襲을 憂慮한 결과 대대수송장교로 하여금 각 소총중대의 jeep 1대, 重火器중대의 jeep 2대, 그리고 대대지휘차량과 無電차량만을 남겨놓고, 全 차량을 市內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 2. 제19연대 제2대대의 增援

論山街道의 緒戰: 이날까지 論山街道에는 I.중대의 1개소대가 甲川의 佳水院橋에 대한 경비를 맡았을 정도일 뿐 거의 無防備상태로 放置된 형편이었다.

따라서 연대장 Beauchamp대령은 전날 저녁의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增援될 제19연대 제2대대를 여기에 充用키로 腹案을 세우고 그 來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보다 먼저 10.00前後에 錦山(大田 南쪽 24km)에서 搜索據點을 확보중인 사단수색중대가 市內로 집결하였다.

이에 연대장 Beauchamp대령은 論山街道의 敵情수집에 焦慮하던 중이므로 同중대로 하여금 1개소대를 뽑아 甲川 西쪽의 論山街道를 機動偵察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곧 제2소대를 派出한 바, 10.30을 前後하여 39명의 소대원이 차량으로 論山街道를 따라 西쪽으로 나아가, 佳水院橋를 지나 그 西南쪽 4km에 이르러, 도로 양쪽에 埋伏한 敵으로부터 火力急襲을 받게 되었다.

이에 同소대는 甲川 東岸으로 反轉하여 그 敵情을 연대장에게 急報하고, 그곳의 I.중대 소대와 함께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 보고에 따라 연대장은 I.중대(장, Jack E. Smith대위)의 主力을 급히 正林洞으로 增派하여 侵敵을 막도록 하였다.

· 正午가 못미처 同중대가 道路 北쪽의 △189 西首麓에 진지를 점령하여, 甲川을 건너려는 敵과 一戰을 決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아침, 大田防禦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제34연대장에게 一任한 사단장이 永同의 사단 CP로 向하다가 沃川의 제21연대 CP에 이르러, 제34연대의 배치상대에 대한 一洙의 不安感이 가지지 않아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고 吐露하고는 발길을 돌려 大川으로 급히 되돌아 갔는데, 그가 도착한 바로 그 때에 I.중대가 甲川을 사이에 두고 敵과 交戰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니, 이로써 腥膻속에 半生을 보낸 그의 面貌에 대한 한 片

鱗을 엿볼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사단장이 正林洞으로 달려가 M-24輕戰車 2대를 지원케 하여 이의 사격을 직접 지휘하면서 同중대의 奮戰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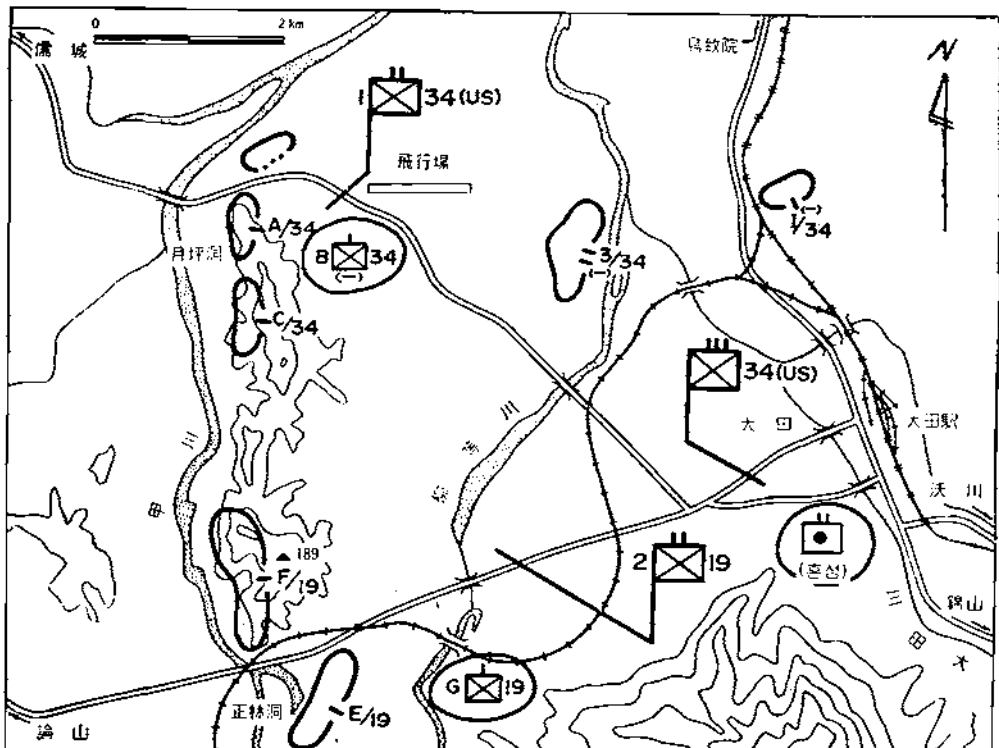
그러나 衆寡不敵이라 敵이 甲川을 건너 同중대의 陣地一角을 유린하기에 이르렀다.

대대의 逆襲: 이에 연대장이 L중대에 대한 增援을 모색하던 중, 때마침 正午가 지난 卽後 永同의 제19연대 제2대대(장, Thomas M. McGrail중령)가 大田驛 廣場에 집결하였으므로 연대장은 同대대에 『正林洞으로 急進하여 論山街道를 방어중인 L중대의 진지를 확보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대강 戰列을 점검한 대대는 13.00에 柳等川の 柳川橋를 건너 다음, G중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F중대를 右側 1선으로, E중대를 左側 1선으로 삼아 戰鬪隊形으로 展開하여 甲川으로 나아간 바, 同川의 東岸에 올라붙었던 敵을 무찌르고 L중대진지를 회복하였다.

이에 대대는 지휘소를 柳川橋 東쪽의 柳川洞에 開設하는 가운데 도로의 北쪽 △189부근의 능선에 F중대를, 그리고 그 南쪽 正林洞부근에 E중대를 配置하여, 道路를 중심으로 한 南北의 川邊 능선에 진지를 強化토록 하고, 예비인 G중대를 E중대 後方에 있는 柳等

◇ 상황도 제53호 부대配置(7.19)



川 東岸의 △93(대대지휘소 南쪽 1.8km)에 控置하였다.

이리하여 L중대와 수색중대 소대는 各各 本隊로 복귀하고, 대대가 새로이 이 論山街道를 맡게 됨으로써 이제 제34연대 甲川戰線의 左一線이 되었다. 이와같이 대대가 投入되어 이 戰線이 強化되기는 하였으나, 대대의 右제 1선인 F중대와 그 北쪽의 제34연대 제1대대의 左제 1선인 C중대와는 1km이상의 地隙이 생겨, 이를 補填치 못한채로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이 동안에 E중대는 甲川 西岸의 능선 一九峯山 支脈 一에 발판을 굳힌 敵과 對峙하여 殊死 火力로 應酬하게 되었다.

### 3. 後方遮斷을 노리는 敵의 企圖

그런데 이날 07.20에 敵의 YAK機 6대가 沃川 上空에 나타나, 그 西北쪽 3.2km에 있는 沃川川 支流의 철도교량에 爆彈 4발을 投下한 바, 그 중의 1발이 同교량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곳의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를 지원중인 제3전투공병대대 B중대가 즉시 修理에 着手하여, 正午까지 이를 復舊하였다.

그리고는 敵이 大田비행장에 대한 空襲을 加하기도 하였는데, 午後 늦게 제34연대 제1대대를 지원중이던 제26대공포대대 A포대가 儒城上空의 敵機 2대를 擊墜하였다.

이런 가운데 날이 저물자, 颶風 Helene호의 영향을 받아 驟雨를 同伴한 強風이 市街의 텅빈 거리를 휘몰아쳐 殺風景을 더하게 하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별다른 接戰은 없었으나 前線에서는 左右一線 대대진지사이의 虛隙으로 敵兵이 侵透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儒城부근에서 敵戰車의 요란한 騷音이 漆黑의 夜空을 뒤흔들고 있어, 심상치 않은 兆朕을 보였다.

그러나 市中은 무덤속과 같이 寂寞하였는데, 子正무렵 연대장에게 不安한 보고가 날아들었다. 이는 南쪽의 錦山도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으로서, 사단수색중대의 George W. Kristanoff 중위가 9명의 대원을 이끌고 차량으로 錦山街道를 偵察하기 위하여 南下하다가 上所里(大田 南쪽 9.6km) 부근에서 敵의 사격을 받아 차량이 파괴되고 死傷者가 생기게 되어, 이를 無電으로 연대장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同수색중대의 제3소대를 다시 그곳에 急派하여 敵情을 확인토록 한 바, 그 소대도 이튿날인 20일 03.00에 同地에 이르러, 같은 方式으로 진출을 저지당하였다. 그러나 夜暗으로 말미암아 敵의 규모나 도로의 차단상태 등은 밝히지 못한채로 그곳에 진지를 設營하여 밤을 새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 연대장이 「일부의 敵兵이 我軍의 心理的 교란을 획책한 것」이라고 가볍게 판단한 결과, 그에 대한 精確한 敵情수집과 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다. 연대장이 그와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이보다 앞서인 02.00에 沃川街道에서도 jeep차 1대가 敵의 伏兵을 만났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 後로도 同街道는 通行

에 별다른妨害를 받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어쨌든 이 밤중의 상황을 종합하여 分析하면, 敵이 사단의 退路가 될 沃川, 錦山の 兩街道를 차단코자 하는 徵候를 보이고 있음이 分明하였으나, 어떤 理由에서인지 이 錦山街道의 차단상황은 사단장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날을 밝히게 되었다.

7월 20일의 戰況 : 運命의 第二日.

마침내 大田이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어, 京釜國道에서 벌인 사단의 遲延戰이 보름만에 그 終幕을 告하게 되었다.

### (가) 外廓의 防禦戰況

#### 1. 제34연대 제1대대의 瓦解

대대의 陣地離脫 : 大田 南쪽의 錦山街道에서 敵出現의 報告가 확인되었을 무렵인 03.00, 西北쪽의 儒城街道에서는 敵侵攻의 신호탄이 올랐다.

먼저, 敵의 보병이 夜暗을 타서 은밀히 甲川을 건너, 일부는 本道 北쪽의 儒城평야의 隱坪쪽으로 迂回하고, 일부는 도로 南쪽의 A중대진지로 올라붙은 다음, 신호탄을 올려 葛馬洞의 대대본부 지역에 砲火를 집중케 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 것이니, 이때 甲川을 건너 戰車가 本道를 따라 穿貫함으로써 縱深깊이 攪亂하였다.

이러한 敵의 襲波가 들이닥치자 대대 S-2가 대대장 Ayers중령에게 그 敵侵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대장이 葛馬洞의 지휘소에서 前線을 둘러본 바, 좌제 1선 C중대의 정면에는 별다른 接敵이 없는듯 하므로 敵의 全面공격이 아니라 부분적인 탐색공격일 것으로 판단하고, 同 S-2에게 『動搖하지 말라.』고 이른 뒤, 상황의 推移를 注視하였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本道에 배치되어 敵의 戰車에 대비하던 A중대 火器소대의 Williams중사를 비롯한 3명의 Rocket砲組가 문득 後方(東쪽)의 道路 北邊 沙亭부근의 고지(표고 90m 정도)를 기어오르는 敵兵을 발견하였는데, 뒤 이어 A중대 主陣地인 △138東麓에도 그와같은 敵의 모습이 보였다.

이에 당황한 그들은 진지를 버리고 그 南쪽 800m의 한 民家에 위치한 대대지휘소로 달려가 敵이 背後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한 보고를 받은 대대장이 그 敵情을 확인코자 지휘소를 나서는 순간 조명탄이 피어오르면서 敵의 砲火가 지휘소주변에 집중되었다. 뒤이어 04.00, 敵兵이 지휘소에 인접한 박격포진지를 유린하고 지휘소로 달려들어 기관총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으므로 대대장은 본부요원으로써 그 敵을 막는 일방 事態의 심각성을 깨닫고 前線중대를 호출하였으나 이미 通信이 모두 杜絶된 상태였으며 벌써 병력들이 진지를 離脫하여 본부지역으로 물려드는 중이었다.

거기에 雪上加霜으로 本道를 지키던 Rocket砲組가 자리를 뜨게됨으로써 敵의 戰車가 葛馬洞앞 道路를 突破하여 비행장쪽으로 闖入하게 되고 말았다.

대대장은 『대대진지가 突破되었음. 敵의 戰車가 目下 市街로 向하고 있음.』하고, 연대장에게 急報한 다음, 百方으로 부대를 수습코자 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곳에서 대대를 撤收시키기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副대대장 Lelant R. Dunham 소령에게 이르되, 『우선 敵의 銳鋒을 피하여 부대를 수습한 다음, 後圖를 策하려 한다. 本道에는 敵의 戰車가 突入하였으므로 그를 利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貴官은 먼저 대대본부요원과 연대 擧박격포중대 및 대대 화기중대원을 先導하여 南쪽 論山街道로 南下한 뒤 그곳에서 同街道를 따라 市內로 철수하라. 本官은 S-3와 더불어 나머지 병력을 수습하여 뒤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副대대장 Dunham 소령이 본부지역에 집결한 2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밝아오는 새벽길을 재촉하게 된 바, 지난 5일 平澤 北쪽에서 있었던 敗戰의 양상이 이 대대에 또 한번 試行되게 되었거니와, 敵의 單一擊으로 戰線이 崩潰됨으로써 蕪黃罔措하여 철수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南向길에 오르게 된 탓으로 연대에서는 이 뒤로 대대의 行方은 姑捨하고 그러한 철수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이 대대가 霧散消失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연대장의 措置 :** 한편, 市中の 연대장 Beauchamp 대령은 南쪽 錦山街道의 敵情에 대한 措置를 취할 겨를도 없이 西北쪽 正面의 儒城街道로 부터 倏發警을 듣게 되었다.

제 1대대장 Ayres 중령으로부터 敵의 戰車가 市內로 突入中이라는 보고를 接한 그가 재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電話로 대대장을 불렀을 때에는 이미 有線이 杜絶된 뒤였다. 그는 通信隊의 補線班員을 急派하여 線路를 점검하여 復舊토록 한바, 잠시 뒤에 그 補線兵들이 되돌아와 보고하기를 『비행장부근의 道路에 敵兵이 橫行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이 직접 jeep차를 타고 本道를 따라 비행장쪽으로 偵察을 나갔는데, 市街 西端(지휘소 西쪽 1km)에 있는 京釜, 論山 兩도로의 分岐點을 지났을 구렵, 비행장쪽으로부터 市街로 突進中인 敵戰車와 曉暗속에서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었다. 연대장이 급히 車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戰車에서 기관총탄이 亂射되어 차량이 大破되었으나 倖倖이도 그는 가벼운 負傷만을 입었을 뿐이었다. 間一髮의 差로 위기를 모면한 그는 그 戰車를 피하여 뒤로 물러나, 分岐點으로 달려가 그곳을 경계중이던 제 3 전투공병대대 C중대의 3.5" Rocket 砲組를 이끌고 戰車와 다시 對決키로 하였다. 이윽고 戰車가 分岐點부근에 이르자, Rocket 砲가 먼저 會心의 一發을 날리어 命中시키니, 마침내 無敵을 자랑하던 그 鐵甲이 깨어져 破裂되면서 火焰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었다. — 이것이 3.5" Rocket 砲의 實射의 初一彈이었다.

이와같이 Rocket 砲로써 첫 凱歌를 올린 연대장은 急據 지휘소로 돌아가, 사단수색중대의 Rocket 砲組로써 同分岐點의 경계를 강화토록 조치한 바, 그들도 06.00 前後에 또다시 水砧橋(分岐點 西北쪽 1.8km, 柳等川다리)를 건너 들이닥치는 戰車 2대를 연이어 격파하였다.

한편 지휘소로 복귀한 연대장이 前線의 제 1대대와 의 통신연락을 다시 試圖하였으나 如



〈敵의 戰車를 노리는 3.5" Rocket砲〉

前히 不通이었다.

그런데 이때 어떤 參謀가 보고하기를 『제 1대대와 無線交信을 한바, 同대대가 尙今도 健在하여 陣지를 支撐中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敵이 同대대의 指揮차량을 노획하여 그 無線으로 僞裝報告한 것임이 뒷날 밝혀진 것으로서, 이러한 通信교란으로 말미암아 連대장의 戰況 파악에 큰 混線이 야기되었다.

**제 3대대의 增援失敗:** 이러한 동안 날이 밝아지자, 連대장은 다만 敵의 戰車만이 右一線인 제 1대대 陣지를 穿貫하였을 뿐 敵의 보병은 아직 甲川을 건너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判斷下에 비행장 東쪽 고지에 控置中인 제 3대대(장, Newton W. Lantron소령)로 하여금 그 일부로써 제 1대대와 제 19연대 제 2대대 사이의 地隙을 補填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대대는 K중대에 M(火器)중대의 일부를 증강시켜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 바, 중대가 陣지에서 躍出하여 제 1대대 陣지를 목표로 비행장을 지나던중 6대의 T-34戰車를 앞세운 1개대대 규모의 敵과 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는 제 1대대에 대한 增援임무를 포기하고 그 敵과 싸우면서 大대本陣으로 反轉하게 되었는데, 이때 先頭소대를 이끌던 Robert E. Dare상사가 혼자서 소대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그곳에서 장렬히 戰死하는 등 激戰을 치르게 되었다. Dare상사에게는 그 이듬



해 1951년 3월 20일에 D.S.C훈장이 수여되었거니와(陸軍省 一般命令 제16호) 대대는 이 중대를 본陣에 收容하여 진지를 강화함으로써 비행장에 進入한 敵의 공격에 대비하게 되었다.

## 2. 제19연대 제2대대의 撤收

한편 연대의 左一線으로서 論山街道를 지키고 있던 제19연대 제2대대(장, Thomas M. McGrail중령)는 甲川을 사이에 두고 밤이 새도록 敵과 火力戰을 反復하다가, 이날 새벽부터 同川을 넘어서려는 敵의 공격으로 치열한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道路 南쪽의 E중대는 날이 밝은 뒤에도 진지를 固守하였으나 北쪽의 F중대는 敵의 壓力을 지탱치 못하여 川邊의 主陣地에서 한걸음 물러나, △189부근을 占領케 되었는데, 06.00를 前後하여서는 그 진지마저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었다.

後方遮斷에 대한 誤報: 그런데 그 무렵 柳等川 東岸의 대대지휘소에 한 대대원이 市街쪽에서 달려와 보고하기를『市街 西쪽 入口의 도로分岐點에 敵 戰車 3대가 길을 막고 서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연대장과 수색중대원에 의하여 격파된 것으로서 그 殘骸만이 남은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미처 확인하지 않았던 報告者가 멀리서 戰車의 형태만을 본 결과, 그같은 報告를 하게 된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큰 波紋이 일어나게 되었다.

밤새도록 前線상황만을 지켜본 대대장 McGrail중령이 크게 놀라, 비로소 後方을 돌아다 보게 된 바, 멀리 보이는 市街의 上空은 朝霧에 뒤덮힌채 곳곳에서 黑煙이 치솟고 간간히 爆音마저 들리기도 하여, 그 報告의 信憑性을 더하여 주는 듯 하였는데, 그때 이미 지휘소 주위에 敵彈이 날아들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우선 지휘소 南쪽의 △93에 예비로 대기중인 G중대(장, Michael Barszcz 대위)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後方의 通路를 개척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同중대의 제2소대(장, Robert L. Herbert소위)가 일부 敵의 侵透병력이 路上에 퍼붓는 敵火를 피하면서 3.5"Rocket砲 1개組와 함께 東쪽 도로分岐點으로 나아간 바, Little소위가 이끄는 1개분대가 Rocket砲 2분과 함께 그곳을 지키고 있어, 그들과 合勢하여 그곳의 경계를 強化하게 되었다.

대대지휘소의 移勤: 한편 Herbert소위의 소대를 分岐點으로 보낸 뒤, 대대장이 이를 연대장에 보고하려 하였으나 이미 通信이 杜絶되고, 同소대와 의 연락도 없어 더욱 錯雜한 心算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葛馬洞에서 철수중인 제34연대 제1대대의 副대대장 Dunham 소령이 이끄는 先頭梯隊가 대대지휘소에 당도하여 그 대대의 崩壞상황을 傳하였다. 따라서 敵이 대대의 後方通路를 차단하였을 것이라는 可能性이 더욱 짙어졌는데 그 무렵 대대의 右제1선인 F중대가 △189부근에서 철수하여 대대지휘소로 집결하였으므로 대대장은 그들

과 함께 그 부근에 急編진지를 마련하여 연대와의 연락을 모색하였다. 11.00가 가까와지도록 五里霧中의 상태가 계속된바, 대대의 參謀들이 通路가 차단되었을 것이라는데에 見解의 一致를 보고, 대대장의 決斷을 促求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S-3 요원인 Melicio Montesclaros 대위가 나서서 自身이 後方通路를 警찰하여 市內의 연대본부와의 연락을 試圖하여 보겠노라고 自請하였다.

그리하여 同대위가 운전병과 함께 jeep를 타고 市街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대장 McGrail 중령은 그를 떠나보낸 얼마 뒤, 通路가 차단되었음이 分明하다는 판단을 굳히고, 대대를 철수키로 決斷을 내렸다.

이에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甲川진지를 지키고 있는 左側 1선 E중대를 無電으로 호출하여 『대대지휘소를 寶文山 頂上(頂上 西北쪽 1.5km, 200농선)으로 옮길 예정이다. 중대는 즉시 現진지에서 철수하여 寶文山으로 집결하라.』라는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 명령이 發信된 뒤로 무전기의 고장이 일어나 同중대와의 交通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正午가 가까울 무렵에 F중대원과 함께 지휘소를 南쪽의 寶文山 北麓으로 옮긴 대대장은 곧 S-2인 William Wygal중위를 다시 市街로 보내어 대대의 이동상황을 연대에 報告토록 하고, S-3인 Kenneth Y. Woods대위를 예비인 G중대(-)진지로 보내어 同중대를 철수시키도록 措置하였다.

그런 다음, 대대장은 본부요원과 F중대원을 이끌고, 앞서간 제34연대 제1대대와 合勢코자 寶文山頂(△458)으로 再次 이동하였는데, 同제1대대의 行方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詳述키로 한다.

대대主力의 撤收: 한편 正林洞부근의 진지에서 敵과의 큰 接戰이 없는 가운데 한나절을 보낸 E중대(장, Lindsay중위)는 대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진지를 離脫하여, 대대지휘소를 찾아 13.00前後에 寶文山 北麓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그곳의 지휘소가 山頂으로 옮긴 뒤였다.

중대는 거기서 뜻밖에 S-3의 Montesclaros대위를 만나게 되어, 그와 함께 東南쪽의 頂上으로 올라가, 대대본부와 合勢하게 되었다.

그런데 市街로 들어간 Montesclaros대위가 어찌하여 寶文山 中腹에 와 있었는지, 그간의 行跡을 더듬어보면 그 경위가 이렇하다.

午前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대와의 通信이 杜絶되어 狀況이 不明한 상태에 빠진 대대의 危局을 打開코자 自願한 그는 생이 아니면 死라는 悲壯한 決意로 論山街道를 따라 달려가 分岐點에 당도한 바, 그곳에는 앞서간 Herbert소위가 경계임무를 맡고 있었고, 거기로부터 市街까지의 通路는 安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그는 市內의 연대지휘소로 가서 대대의 現況을 보고하고, 此後의 行動指針을 要請한 결과, 연대로부터 『대대는 곧 병력을 수습하여 市內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급히 대대지휘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가 지휘소에 도착하니, 그곳의 지휘소로 사용한 건물의 앞마당에는 이미 敵이 휩쓸고 지나간듯, 어떤 民間人 한 사람이 죽어넘어져 있을뿐 인기척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空虛뿐이었다. 지휘소가 이미 南쪽의 寶文山 中腹으로 이동한 뒤였던 것이다.

지휘소의 行方을 알길이 없었던 그는 E중대의 진지를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텅 빈 참호속에 寂寞만이 감돌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車頭를 돌려 市內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途中에서 대대 S-2인 Wygal중위 — 지휘소의 移動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연대본부 를 찾아가던 — 를 만나, 비로소 그간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車를 버리고 徒步로 南쪽 寶文山 중턱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지휘소는 없었던 것이니, 거기에서 또 山頂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끝내 지휘소의 行方을 놓친 채 시간만을 虛費하게 된 그는 다시 市街를 向하여 능선을 내려가다가 때마침 그곳으로 철수중이던 E중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同중대와 함께 論山街道로 내려가 市內로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그때 눈 아래로 굽어보이는 그 街道에는 대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소대단위로 縱隊를 지어 市街쪽으로 行進중이고, 멀리 도로分岐點부근에는 戰車 1대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그들은 市街行을 포기하고, 東南쪽으로 발길을 돌려 頂上으로 올라간바, 意外로 그곳에서 대대장 일행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Montescclaros대위가 東奔西走하는 동안에, 대대가 연대본부와 合勢할 機會를 놓치게 됨으로써 이제 대대는 그곳에서 獨自의 活路를 찾아나서게 되었다.

한편, G중대는 △93에서 午前中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중대는 날이 밝자 市街入口의 分岐點에 敵의 戰車가 出現한 것을 목격하고, 뒤이어 제 2소대를 派出한 뒤로 대대와 通信이 杜絶되었다.

그리하여 별다른 接敵이 없는 가운데 중대는 60mm박격포로써 前線중대를 聲援하면서 진지에 남아 있었는데, 正午가 지난 直後 대대 S-3 Woods대위가 달려와 진지에서 철수토록 함으로써 13.00에 중대장 Barszcz대위가 철수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중대는 제 1소대로 하여금 先導케하고 火器소대, 제 3중대 順으로 그 뒤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그때까지 60mm박격포사격을 계속중이던 火器소대장이 중대장에게 『소대의 박격포탄이 아직 남았으니, 이를 射耗한 뒤에 뒤따르겠습니다. 제 3소대와 철수順位를 바꾸어 주십시오.』하고 建議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중대는 제1, 제 3소대만으로써 먼저 南쪽으로 떠났다. 그러나 火器소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박격포사격을 계속하다가 끝내 소대장과 18명의 소대원이 모두 그곳에서 玉碎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3.00 現在로 市街 西쪽의 論山街道는 완전히 空白地帶로 化하여 敵에게 開放되고 말았다.

## 3. 제34연대 제1대대의轉進

새벽에 葛馬洞부근에서 南쪽으로 철수한 제34연대 제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는 06.00 前後, F중대가 △189부근에서 요란한 銃聲을 울리고 있을 무렵, 그 先頭의 副대대장 Dunham소령이 이끄는 철수梯隊가 柳等川 西쪽의 논길을 따라 南下하여 제19연대 제2대대 지휘소부근에 이른바, 그곳에서 McGrail중령으로부터 『後方通路(分岐點)가 敵의 戰車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情報를 入手하게 되었다.

이에 副대대장은 당초 論山街道를 따라 市內로 철수키로 한 계획을 바꾸어 道路 南쪽의 寶文山麓을 타고 迂回하기로 하고, 곧장 南下하여 寶文山기슭에 올라붙게 되었다.

그리하여 11.00무렵, 그 山頂에서 뒤따르던 대대장의 일행과 合勢하여 市內로의 進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대장 Ayres중령이 頂上에서 四方을 觀望한바, 北쪽의 市街에는 黑煙이 濛濛하여 상황을 헤아릴 길이 없거니와, 東北쪽의 市街로부터 東쪽으로 빠져 멀리 南쪽으로 아득히 이어지는 錦山도로만이 한가닥 生命線과 같이 보였다.

그런데 이때 그 南쪽의 錦山도로를 따라 北上중인 一彼我를 알 수 없는 一 큰 규모의 병력 縱隊를 目擊하게 되었으므로, 대대장은 우선 이 도로의 확보가 急先務일 것으로 판단한 결과, 그곳에서 수습된 150여명의 대대원을 副대대장이 지휘토록 하여 大別里(寶文山 東南쪽 3.5km) 부근에 阻止진지를 점령케 함으로써 錦山도로를 防護토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自身은 대대 S-3인 Curtis Cooper소령과 重火器중대장 Malcolm C. Spaulding대위와 함께 傳令 1명과 無電兵 1명 및 通譯 1명, 그리고 Time紙의 Wilson Fielder, Jr.記者를 帶同하고, 市內의 연대본부를 찾아 東쪽의 錦山도로로 나섰다.

그런데 대대장의 일행이 街道에 미처 올라서기 前인 虎洞(寶文山 東北쪽 2.2km)부근에 이르러, 그 東쪽 고지에 숨어있던 敵으로부터 不意에 急射擊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장과 S-3 및 重火器중대장과 通譯만이 근처의 숲속에 終日토록 潛伏하였다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그곳을 脫出하였는데, Fielder記者는 그 몇개월 뒤에 屍體로 그곳에서 發見되었다.

한편 이 동안 副대대장 일행은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錦山도로에 阻止진지를 점령코자 寶文山의 東南麓을 타고 大別里를 목표로 進出하던 중, 얼마를 가지 못하여 數未詳의 敵遊擊隊를 만나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그 敵線과 離脫하여 舊完里(寶文山 南쪽 1.5km)로 目標을 돌리게 되었으나, 거기에서도 敵의 火力急襲을 받아 副대대장 Dunham소령이 목에 致命傷을 입는 등 死傷者가 續出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병력은 西쪽의 계곡을 따라 柳等川邊의 無愁里(舊完里 西쪽 2km)로 밀려나게 되고 말았으니, 이로써 연대와 연락을 취하려던 대대장 Ayres중령의 努力과 錦山道路에 저지진지를 점령하려던 副대대장 Dunham소령의 企圖가 함께 挫折되

었다.

이와같이 제 1 선부대들이 瓦解되어, 이날 夕陽과 더불어 저마다 각己 活路를 찾아 分散되기에 이르렀거니와, 이러한 狀況을 市中의 연대지휘부에서는 알 길이 없었으니, 大田市街地에만 執着한 나머지 集結된 兵力으로써 永同以北 地區에 持久健在를 策하지 못하고 兵力의 分散과 指揮의 斷絶만을 招來하게 되었다.

## (나) 市街戰의 展開

### 1. 연대指揮部の 狀況

敵 戰車의 市街突入 : 그러면 이동한 市中의 狀況은 어떠하였는가 ?

사단장 Dean소장은 제34연대 지휘소 一隅에서 副官인 Arthur M. Clarke중위와 陸本연락장교인 金宗平(뒤에 改名, 宗勉)대령등과 함께 밤을 새웠는데, 05.30에 지휘소 주위에서 曉霧를 뒤흔드는 小火器의 銃聲을 듣게 되었다.

사단장이 우선 戰況을 파악한 바, 儒城街道의 제 1대대(장, Harold B. Ayres중령)는 그 陣地를 확보중이고, 論山街道의 제19연대 제 2대대(장, Thomas M. McGrail중령)는 正面에서 약간의 壓力을 받고 있다는 것 뿐으로서, 전날 밤과 큰 變動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잠시 뒤에 연대장 Beauchamp대령으로부터 道路分岐點까지 近迫한 敵의 戰車를 擊破하였다는 報告가 있었지만, 그도 크게 憂慮할 바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날이 어두워지는데로 연대를 大田에서 철수시키라고 命令하고, 永同의 사단 CP에도 有線으로 이날 밤중으로 제34연대가 철수할 것임을 알려, 그곳에서 이의 對應태세를 갖추도록 아울러 指示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前線상황이 昏迷한 06.30 前後, 敵의 戰車 3대가 그 위에 步兵을 가득 싣고 儒城街道를 따라 들이닥쳤는데, 市街內에 들어서자 步兵은 戰車에서 내려 골목과 건물속으로 숨어들어 닥치는대로 銃彈을 퍼붓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狙擊兵으로 化하여 終日토록 市街를 橫行하면서 攪亂하는 것이었다.

戰車는 되돌아 市街를 빠져 나가다가 연대의 炊事場과 輸送隊가 함께 자리잡은 근무중대지역을 襲擊하였는데, 그곳에는 제19연대 제 2대대의 炊事차량등도 있었으며, 병력은 同대대의 S-4인 Robert E. Nash소위를 비롯하여 150여명이 모여있었다. 거기에 戰車 2대가 한꺼번에 들이닥쳐 전차모와 기관총을 亂射하게 되니, 한쪽에서는 탄약차량이 爆發하고, 한쪽에서는 식량차량이 炎上하여 倉庫間에 阿鼻叫喚의 修羅場으로 突變하였다.

그때 3.5" Rocket砲가 그곳에 있었으나 당황하여 아무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着眼하지 못한 까닭으로 束手無策으로 亂打를 당하기만 하였다.

한동안 그 地域을 휘저어 놓고 戰車가 다른 目標를 찾아 그곳을 떠난 다음에야, 어떤 兵士가 뒤늦게 그것을 찾아들고 戰車를 따라가 사격한다는 것이 白鱗彈으로 民家를 잘못 맞

쳐 그 집을 불태우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온 市街가 火焰에 휩싸이게 되는 결과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에 수색중대의 Rocket砲 1개조가 그 戰車를 뒤쫓아 달려갔다.

敵 戰車는 다시 의무중대본부앞에 이르러 道路邊에 세워져 있는, 負傷者를 滿載한 2대의 jeep車에 砲撃을 加하여 그 負傷兵을 모두 殺害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상을 다시 입고 길바닥에 放置된 生存者를 그대로 갈아뭇게고 지나가는 殘虐性을 보였다.

이때 그곳까지 쫓아간 수색중대의 두 兵士가 3.5" Rocket砲彈을 연달아 쏘아, 먼저 그 한 대의 열구리를 내려치고, 또 한발로써 다음 戰車의 鐵甲 한 조각을 부수었으며, 뒤이어 나타난 세번째 그것의 砲塔을 깨뜨려 놓았다.

그 결과, 첫번째 戰車는 약간 멈칫 서는 듯 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가, 驛廣場에 이르러 그 일대에 散在된 장비와 보급품등에 사격을 加하다가, 及其他 그곳에서 無限軌道가 끊어져 擱坐되고 말았는데, 戰車에서 기어나오던 戰車兵은 즉시 射殺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戰車는 그 자리에서 炎上되고, 세번째는 砲塔을 덜렁거리면서 간신히 그곳을 피하여 달아났으나, 그도 얼마를 가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렇듯 同수색중대의 Rocket砲組가 敵 戰車 2대를 격파하고, 1대에 打撃을 加하였으니 이 용감한 두 병사의 이름은 Robert B. Watkins하사와 Jack E. Lowe일명이라고 傳하여 진다.

사단장의 敵 戰車擊破 : 이 무렵 연대지휘소에 있던 사단장 Dean소장은 戰車의 轢音을 듣고 이를 확인한 바, 그 1대가 바로 지휘소앞 道路를 지나 市內에서 비행장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에 그곳에 있는 2.36" Rocket 砲 射手 1명을 이끌고 副官 Clarke중위와 함께 jeep車로 그 戰車를 뒤쫓아갔다.

그러나 戰車는 道路의 分岐點을 지나 비행장쪽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사단장이 分岐點에 當到한 바 그곳에는 제19연대 제2대대 G중대의 제2소대장 Herbert소위의 일행이 막 도착하여 있었으나, 그들은 그 戰車가 我軍의 것인줄로만 알고 對전차공격을 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곳을 경계토록 하고, 비행장쪽으로 나아가다가 그 路上에서 火焰에 휩싸인 我軍의 彈藥車뒤에 있는 敵 戰車 2대를 捕捉하여, 가까이 接近한 다음 射手에게 Rocket砲를 사격하도록 하였으나, 照準을 잘못된 탓으로 그 첫발이 빛나가고 말았다. 당시에 그들이 휴대한 포탄이 1발뿐이어서 사단장 일행은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였는데, 이리하여 사단장이 試圖한 첫 對전차공격은 失敗로 돌아가게 되었다.

正午에 敵 戰車 1대가 다시 市內로 突入하였으나 이는 제3전투공병대대 C중대의 3.5" Rocket砲組에 의하여 격파되었는 바, 그 무렵에 사단장이 또 한번 敵의 戰車를 뒤쫓아 기

어코 다른 1대를 부수었다.

즉, 13.00에 戰車 1대가 市內로 闖入하여 그 威風을 자랑하듯 지휘소 앞을 태연히 지나갔는데, 이를 본 사단장이 이번에는 공병중대의 3.5"Rocket砲組를 이끌고 뒤쫓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副官 Clarke중위와 더불어 Rocket砲 射手와 彈藥手 및 2~3명의 소총수를 거느리고 敵의 狙擊彈이 亂飛하는 가운데 jeep차로써 市街를 疾走하면서 1시간 가까이 追跡 끝에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그 戰車를 따라 잡게 되었다.

이에 Dean소장은 Recket砲사격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對備하여, Clarke중위로 하여금 Molotov cocktail—對戰車공격용 火焰수류탄—을 준비하여 건물 모서리에 待機케 한 다음, 自身이 직접 射手와 탄약수를 이끌고 어느 二層商店 건물의 이층방으로 올라가, 눈 아래 道路에 85mm砲를 바로 그 건물쪽으로 向하고 있는 戰車를 捕捉코 사격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射手가 첫발을 發射하니, 집이 무너지는 듯한 後爆風과 함께 날아간 그 一彈이 戰車의 砲塔과 胴體의 연결部位를 貫通하였다. 뒤이어 敵兵의 비명이 터져나갔는데, 사단장이 2발을 연달아 더 쏘게 하여, 마침내 그 戰車를 완전히 擊破하고 막았다.

이리하여 사단장의 울직한 心境이 어느정도 가시게 되었거니와, 이로써 사단장 自身이 3.5"Rocket砲로써 敵 戰車와 對決하여 능히 이길 수 있음을 確信하게 되고, 또한 市街地에서 보병의 掩護를 받지 않는 戰車는 無力하다는 事實을 實證하게 되었다.

敵은 市內에서 보병의 엄호없이 戰車단독으로 威勢를 부리다가 이날 중으로 모두 10대가 격파되었는데, 그 가운데 8대는 3.5"Rocket포에 의한 것이었으며, 2대는 野砲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2. 연대의 撤收준비

이와같이 사단장이 직접 陣頭에 나서 敵의 戰車를 擊破하는 垂範을 보임으로써 이날 낮 중으로 市內에 突入한 戰車를 모두 破摧하여 버렸는데, 그들이 실어다 놓은 狙擊兵과 外廓에서 侵透한 便衣隊등이 거리의 要地要部마다 出沒하면서 小火器사격을 퍼붓기도 하였지만 이로써 市街는 그런대로 靜穩을 되찾게 되었다.

사단장이 그와같이 敵의 戰車를 깨고 14.00에 연대지휘소로 復歸하여, 연대장과 함께 C-Ration을 들면서 戰況을 검토한 바, 그때까지도 甲川戰線이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時刻에 이미 敵은 甲川東岸의 제34연대 A중대와 제19연대 F중대의 진지를 奪取하여 장악중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몸을 숨긴채로 더 이상의 공격徵候를 보이지 않았던 까닭으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다.

다만, 비행장 東쪽의 제3대대의 경우, 뒤 늦게야 연대장이 下達한 제1대대로의 增援 명령이 履行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09.30부터 대대장 Lantron소령의 行方을 알 수



(大田비행장, 兩쪽으로 본 광경)

없는 異變이 생겼지만, 그 대대도 역시 敵의 散發的인 砲擊을 받은 外에는 별다른 接敵狀況 없이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同대대장은 09.30前後에 jeep車를 타고 그곳의 지휘소를 떠난 뒤로 그 行方이 杳然하였는데 11.00에 副연대장 Robert L. Wadlington중령이 그 진지에 가 본바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 그 즉시 L중대장 Jack E. Smith대위를 대대장代理로 指命하여 대대를 지휘토록 應急措置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대장 Lantron소령은 이날 敵의 포로가 된 것으로 뒷날 밝혀진 바, 이는 앞서 K중대의 增援失敗상황을 연대장에 직접보고하기 위하여 연대지휘소로 가다가 그러한 厄運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를 代理하게 된 Smith대위는 14일에 公州부근에서 L중대를 無斷철수시킨 責任을 물어 대대장이 解任조치한 同중대장 Archie L. Stith중위의 뒤를 이어 任命된 사람이었다.

**晝間撤收의 준비 :** 실상, 이 무렵 敵은 사단을 그들의 藥籠中의 物件으로 만들기 위하여 京쪽의 沃川街道와 南쪽의 錦山道路를 차단함으로써 大田에 대한 完全無缺한 포위태세가 갖추어지는 時刻까지 正面에서의 壓力을 猶豫하고 있었던 것이나, 그러한 奸計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단장은 戰況이 小康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였으니,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禍根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러하여 사단장은 市內에 남아 있는 敵의 저격병들의 攪亂策動을 勘案한 결과, 차량의



通行에 대한 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여, 연대장으로 하여금 日沒後로 예정한 철수시간을 앞당겨 晝間철수를 斷行하도록 하였다.

이에 연대장 Beauchamp대령은 즉시 S-3 William T. McDaniel소령에게 철수계획을 樹立토록 하는 한편, 연대의 모든 有無線을 모두 열어 各級부대에 철수준비명령을 下達하였다.

그리고 병력을 연대지휘소부근으로 집결케하는 철수명령서 3부를 作成하고, 傳言을 戰線대대로 派送하여 이를 傳하도록 하였는데, 左右一線의 兩대대는 이미 通信이 杜絶된지 오래인지라 그 位置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탓으로 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행장 東쪽의 제 3대대만이 15.00에 그 명령을 받아, 진지에서 병력을 뽑아 市街로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때 연대 S-3 McDaniel소령이 세운 철수계획은 『市街에 대한 敵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全員 차량機動으로 京釜本道를 따라 永同으로 철수하되, 그 순위는 제 3대대—의무중대—연대지휘부—제 19연대 제 2대대—제 1대대順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時刻에 이미 제 1대대와 제 19연대 제 2대대는 寶文山 기슭을 헤매고 있었으므로 同제 2대대의 重火器중대원 일부만이 연대지휘소에 집결되었을 뿐이어서, 그와같은 철수梯隊의 편성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듯 철수준비가 갖추어지는 동안, 사단장은 제 34연대지휘소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전술항공통제소(TACP)로 가서 航空支援상황을 알아본 바, 調整官 Hillery중위의 보고에 의하면, 空中의 航空機로서는 地上병력에 대한 彼我를 識別할 수가 없으므로 목표를 모두 擧壓할 수는 없는 處地라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戰況이 錯雜한만큼 병력보다는 敵의 전차와 포병에 대한 공격에 力點을 두도록 促求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항공觀測者로부터 報告되기를 『20여대의 차량으로 縱隊를 構成한 일단의 부대가 錦山에서 北上中.』이라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그 縱隊가 必는 錦山에 나가있는 사단 수색중대가 市内로 復歸하는 것이라고 速斷하고 그에 대한 空中攻撃을 加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뒤에 깨달았거니와 그 때 이미 同중대는 市中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날 새벽에 錦山도로의 敵情을 확인하기 위하여 上所里부근으로 出動한 그 제 3소대만이 낮동안 道路를 지키고 있다가 연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市内로 復歸하였을 뿐인데, 밤사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敵影이 날이 밝자 간데가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와같이 이날의 大田상황은 錯覺과 誤謬가 連綴된 昏迷속을 헤매는 것이었는데, 이보다 앞서인 正午무렵에도 연대장 Beauchamp대령이 포병觀測機로부터 『大田 東쪽에서 큰 縱隊가 大田으로 接近중임.』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그 方向이 「東쪽」이었는데에 연대장은 沃川街道를 聯想한 결과, 그것은 제 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가 馬達嶺진지에서 연대의 철수를 掩護하기 위하여 移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부대는 友軍이니 砲擊을 加하지 말라.』하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연대는 馬達嶺진지를 떠난적이 없

있으며, 그보다 항공관측자가 보고한 敵方向은 東쪽이 아니라 「東南쪽」의 誤報였던 것이니 이런 가운데 연대의 非勢가 時時刻刻으로 高潮되어 갔다.

사단장의 措置 : 한편 15.30을 前後하여, 연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병력이 연대지휘소부근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뜻밖에도 美제 1기갑사단(장, Hobart R. Gay소장) 제71전차대대 A중대 소속 M-24輕戰車 1개소대(5대)가 사단의 裝備철수를 掩護하기 위하여 支援되어, 永同으로부터 연대지휘소로 來着하였다.

당시 제 1기갑사단은 7월 15일에 日本의 橫須賀(Yokosuga)港에서 乘船하여 그 先發隊인 제 8기갑연대가 18일 아침에 浦項으로 上陸하였는데, 뒤이은 제 5기갑연대가 먼저 전날인 19일 저녁에 永同에 도착함으로써 前線의 제 24사단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 戰車소대를 본 사단장은 지휘소부근에 먼저 집결된 제 34연대 I중대와 제 13포병대대 B포대 및 제 63포병대의 B포대의 일부로써 先發隊를 急編케 하여 그들의 掩護下에 즉시 永同으로 發進토록 하고, 16.00에 永同의 사단지휘소를 有線으로 呼出하여 機關車를 大田驛으로 올려 보내어 그곳에 入線中인 貨車를 永同으로 廻送토록 措置하였는데, 당시 驛構內에는 10여대의 貨車에 탄약과 보급품이 滿載된채 남아 있었으나 鐵道從事員이 모두 철수한 뒤여서 그것을 끌어갈 機關車가 없었던 것이다.

사단장은 기관차를 부른 다음, 그때까지 大田市內에 함께 남아있던 사단 G-4 보좌관 Raymond D. Hatfield대위로 하여금 기관차가 도착하는 즉시로 貨車를 廻送토록 하였다.

그런 然後에 연대의 全般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대지휘소로 가서 연대장을 찾은 결과 연대장 Beauchamp 대령이 不在中이었는데, 15.30 前後에 單身 jeep車를 타고 지휘소를 떠났다는 것이며 아무도 그 行方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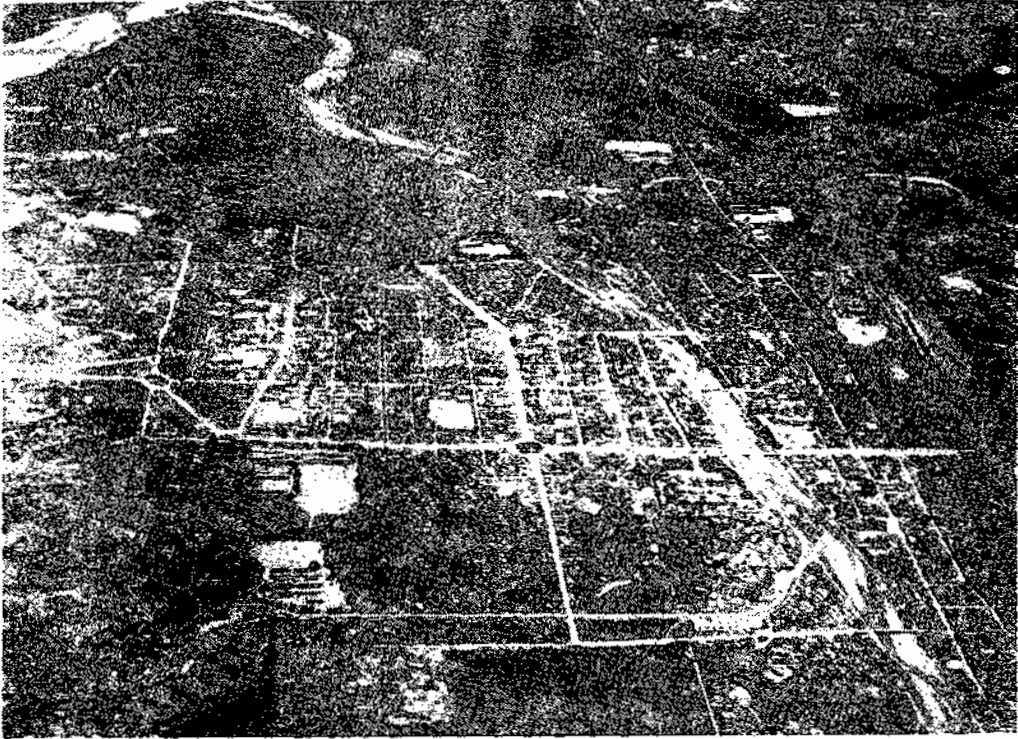
이에 사단장은 연대장이 通信이 杜絶된 제 1대대를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지만, 午前에 있었던 제 3대대장 Lantron소령의 失踪에 이은 두번째의 일이어서 正녕 不吉한 前兆가 아닐 수 없었다.

바로 그 무렵, 제 1기갑사단의 전차소대와 함께 먼저 떠난 先發隊가 市街 東端에서 敵의 사격을 받아, 先頭차량의 2~3대가 파괴되어 縱隊가 頓挫되었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이에 그는 永同의 사령부에 『戰車를 보내라. 大田市街의 東端에서 敵이 道路를 차단하였다.』라는 要旨의 電文을 보내고, 忠南道廳舍의 屋上에 올라가 四圍를 살펴보니, 보이는 것은 焰煙이요, 들리는 것은 銃砲聲이라, 그야말로 孤城落日의 形勢가 分明하였다.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깨달은 사단장은 다시 연대지휘소로 달려간바, 그때까지도 연대장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곳의 副연대장 Wadlington중령에게 『즉시 지휘소를 閉鎖하고, 沃川街道를 따라 철수하라.』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때가 17.30 前後였다. 이와같이 사단장은 三面六臂로 혼자서 東奔西走하는 怪異한 陣頭指揮相을 보여 주었다.

砲兵陣地의 被襲 : 한편, 그보다 앞서인 16.00前後에 제 3대대가 市街로 철수하자, 연대



〈當時의 大田市街〉

S-3 McDaniel 소령은 同대대의 1개 중대로써 龍頭洞(道路 分岐點 東쪽, 道路 北쪽) 부근의 丘陵地帶에 掩護진지를 점령케 하여 本隊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장 Smith 대위는 自身이 지휘하던 1개 중대를 뽑아, 직접 이를 이끌고 도로 분岐點 부근에 掩護진지를 점령하게 되었으며, 대대 主力은 철수縱隊와 合勢하여 市街를 떠날 準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도로 分岐點을 지키던 제19연대 G 중대의 제2소대는 市街 西쪽의 論山街道를 따라 東進중인 대대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分岐點을 떠나 그 東南쪽 800m의 작은 丘陵(표고 100m 정도)으로 移動하여 巔을 파면서 진지를 急縮하여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이윽고 그 敵이 分岐點 南쪽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고 공격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소대진지의 바로 東쪽 後方에 마침 제11보병대대의 155mm 곡사포 1개 포대가 진지를 점령하고 있으므로, 소대장 Herbert 소위가 同포대로 달려가, 當面한 敵情을 알리고 支援사격을 懇請한 바, 당시 그 포대는 東北쪽의 報恩도로와 北쪽의 淸州도로, 그리고 西北쪽의 京釜本道の 三方向으로만 砲口를 指向하고 있어서 西南쪽 論山街道쪽으로는 사격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Herbert 소위가 砲隊의 射向을 變換토록 請求하였으나

同포대장이 대대 S-3의 사격指示가 없는 限, 그러한 射向變換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므로 野戰電話로 同대대 S-3를 呼出코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不通이었다.

이런 가운데 敵이 先制로 박격포사격을 포대와 소대의 진지에 퍼붓기 시작하여, 그 첫발에 砲兵 數名의 死傷者를 보게 되었다.

이에 Herbert소위가 연대지휘소에 傳命을 急派하여 그 상황을 보고하고 措置를 강구토록 한 바, 그때 지휘소에서 待機중이던 제19연대 제2대대 S-2 William Wygal중위가 달려와 『砲隊가 철수할 때까지 現진지를 固守하라.』라는 命命을 傳達하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同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敵을 遲延케 되었는데, 이러한 奮戰상황을 연대지휘소에서 지켜본 사단장 Dean소장은 이 소대를 McGrail중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 제2대대의 主力인 것으로 잘못 알고 安堵의 숨을 쉬기도 하였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날의 十人十色의 遠和相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소대가 唾手奮發하여 寡兵으로써 敢然히 衆敵을 抑留하여 한동안 奮戰을 계속하였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後方의 포대가 철수를 하지 않았다. —포대원 모두가 사격에만 열중하였을 뿐, 그 누구도 사격중인 砲를 뽑아내려 하지를 않았던 것이다.

이에, 衆寡不敵으로 敵의 壓力을 더 이상 支撐할 수 없게 된 소대가 먼저 진지에서 離脫하면서 포대의 철수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소대가 진지를 비우게 되자, 敵이 재빨리 그곳을 점령하여, 市街를 향하여 박격포탄을 퍼붓는 一方,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砲隊로 衝鋒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同포대가 敵手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 報告를 接한 사단장은 副연대장 Wadlington중령에게 『즉시 逆襲하여 砲진지를 회복하고, 砲를 구출하라.』라고 命命하였다.

이에 副연대장은 연대 S-3 McDaniel소령으로 하여금 逆襲隊를 急編케 한 바, 同소령이 직접 일부병력을 이끌고 그 砲진지로 逆襲을 敢行하여 진지를 奪回한 다음, 砲車를 끌어다가 砲를 牽引하여 그 일부를 구출하였다. 이 戰功으로 뒷날 그에게 銀星武功훈장이 수여되었다. (사단 일반명령 제121호, 1950. 9. 5부)

## (다) 撤收狀況

### 1. 敵의 退路遮斷

연대장의 單獨活動: 이상과 같이 하여, 제3대대 L중대가 마지막 掩護부대로 남아 敵의 市街進入을 막는 가운데,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한 병력은 副연대장의 指揮下에 차량으로 철수를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때 연대의 撤收路인 沃川 街道에 대한 敵의 遮斷企圖가 露骨化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처음 확인한 사람은 지휘소에서 失蹤된 연대장 Beauchamp대령으로서, 그의 行方을 더듬어 보면 이러하다.

그는, 15.30 前後 제 1 기갑사단의 戰車소대의 엄호아래 철수先發隊가 출발하였을 무렵, 撤收路인 沃川街道의 道路상황을 偵察코자 jeep를 타고 市街의 東端으로 向하였는데, 途中에 사단수색중대의 輕戰車 4대와 만나게 되었다.

그 戰車들로 하여금 沃川街道의 入口(錦山도로와의 分岐點) 길목을 경계토록 조치하고, 지휘소로 復歸하다가 되돌아본 즉, 그들이 그가 指定한 위치를 떠나 沃川街道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車首를 돌려 그도 沃川街道로 그 戰車를 뒤쫓아 갔는데, 東쪽으로 市街를 벗어나 1.5km정도인 板岩洞부근에 이르러서야 戰車를 따라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戰車를 市街쪽으로 되돌리려는 순간, 느닷없이 敵의 小火器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그가 道路 北邊의 한 丘陵에 올라가 敵情을 살펴본 바, 사격방향으로 미루어 道路의 南쪽 丘陵地帶에 일부의 敵이 숨어들어 街道의 通行을 妨害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南쪽의 錦山도로로 부터 加午洞(板岩洞 南쪽 1km)마을을 지나 本道쪽으로 北上中인 큰 규모의 敵 일단을 보게 되었다.

연대장은 그들 敵이 연대의 撤收路인 沃川街道를 차단하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戰車를 재촉하여 그 東北쪽의 細川tunnel(板岩洞 東北쪽 2.8km)로 달려갔다. 이 細川 tunnel이 바로 연대의 死命을 制하는 要扼地가 될 것으로 판단한 까닭에서이다.

여기서 大田과 沃川 사이의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이 區間에는 京釜本道와 鐵道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 곳의 鐵道 tunnel이 있다. 그 하나는 馬達嶺부근의 增若tunnel(沃川 西北쪽 7km)이며, 다른 하나는 細川tunnel(增若tunnel 西쪽 1.3km)로서, 그 길이는 각각 1km와 500m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本道는 이들 tunnel위의 고개에서 峽谷을 지나야 하는 만큼, 이 두곳은 모두 道路를 차단하기에 絶好의 場所였다. 이러한 地形的인 조건을 勘案하여 당초 제21연대가 그 한 곳인 馬達嶺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여 그곳의 隘路와 tunnel를 함께 확보하게 된 것이므로, 연대장 Beauchamp대령이 이제 남은 그 한 곳인 細川tunnel地域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장이 tunnel부근에 도착한 바, 그곳에는 工兵폭파조가 tunnel의 폭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同폭파조에게 『곧 연대의 철수가 시작될 것이니, 그 縱隊가 그곳을 通過할 때까지 폭파를 猶豫하라.』고 이르고, 마침 고개를 지나던 M-16對空砲車 2대를 세워, 戰車와 함께 그 峽路와 tunnel을 경계토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진지를 점령케 하기 위하여 병력수집을 모색하였는데, 그가 本道와 tunnel을 往來하는 동안에 철수縱隊의 선발대인 연대의 I 중대와 제13포병대대 B포대 및 제63포병대대 B포대가 本道를 따라 峽路를 지나 그대로 沃川으로 빠져 나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I 중대를 놓친 뒤로는 철수 本隊가 당도하기까지 보병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

을 깨달은 연대장은 이미 그곳에 가까워진 敵의 狙擊彈소리를 들으면서, 16.30에 그 東쪽 馬達嶺부근에 진지를 점령중인 제21연대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를 찾아갔다. 增若里(增若tunnel 東쪽 500m)의 同대대지휘소에서 그 대대의 轉用을 협의코자 沃川의 同연대본부를 긴급 呼出한 바, 마침 副사단장 Pearson Menoher준장이 그곳에 있다가 연대장과 交通을 하게 되었다. 이에 副사단장이 그를 沃川으로 불러, 大田상황을 詳報토록 함으로써 그는 다시 沃川으로 달려가, 大田에서의 撤收상황과 도로차단의 위험등을 報告케 되었다.

그리하여 副사단장과 그곳의 제21연대장 Stephens대령이 비로소 제34연대가 危機에 直面한 것을 알고 對應策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21연대로서는 馬達嶺의 제1대대를 그 진지에서 뽑아내는데에 長時間이 所要되므로 頃刻을 다투는 焦眉의 救火에 나설 形便이 되지 못한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Beauchamp대령은 제21연대로부터 輕戰車 1개소대를 지원받아, 그곳에 먼저 집결된 연대의 I중대원 60명과 함께 細川 tunnel로 되돌아가 自身이 직접 그 지역을 制扼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장이 I중대원을 이끌고 tunnel로 急進한 바, 그곳에 남겨두었던 工兵복과조가 모두 屍體가 되어 길을 덮고 있었고, 戰車와 對空砲車만이 敵火를 피하여 東쪽으로 불려나 있었다. 敵이 연대장보다 한걸음 먼저 tunnel을 장악하여 진지를 굳힌 것이었다.

이를 무릅쓰고, 연대장이 I중대를 지휘하여 tunnel을 확보코자 試圖하였으나, 함께 나아가던 戰車 1대가 敵이 埋設한 爆藥으로 말미암아 路上에 攔坐되고, 어느새 박격포진지까지 마련한 敵의 火力遮斷에 tunnel로의 接近이 阻止되었다.

그리하여 연대장이 I중대원과 더불어 2시간 가까이 그 敵과 接戰을 벌이면서 tunnel지역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으나, 마침내 중대원의 탄약이 다하여 더 싸워볼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長歎息하면서 馬達嶺의 제21연대 진지로 되돌아 가게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하여 敵의 도로차단선을 粉碎하려던 연대장의 노력이 끝내 無爲로 끝나고 말았거니와, 이러한 그의 行跡을 大田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貨車의 救出失敗 : 한편, 이렇듯 敵이 沃川街道를 차단하려는 첫 움직임을 보이던 16.20, 永同의 사단지휘소는 16.00의 사단장 命令에 따라, 大田驛의 보급貨車를 뽑아내기 위하여 가까운 伊院驛(細川驛 東南쪽 7.5km)에 있는 機關車 1대에 大田機關事務所소속의 승무원(기관사) 3명과 列車護送兵 30여명을 탑승시켜 大田으로 올려 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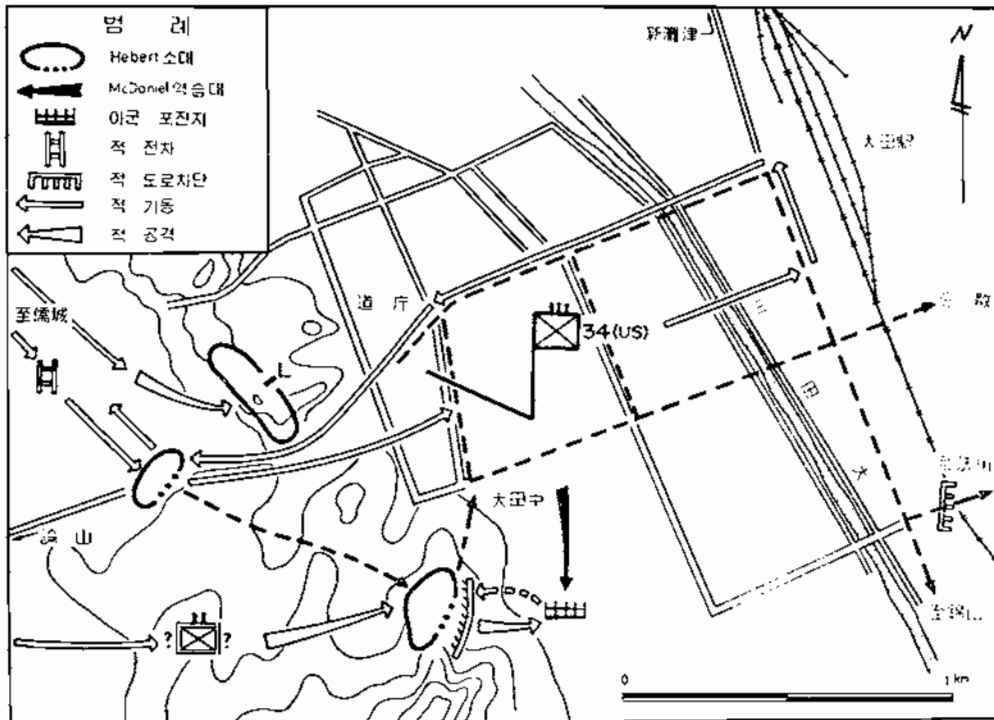
16.30前後에 이 관차가 tender(炭水車)를 앞세운 逆進형태로써 細川tunnel을 지나게 되었는데, 炭水車가 tunnel속에서 西쪽으로 머리를 내밀자 그 南쪽 稜線으로부터 敵의 火力急襲을 받아 給水槽가 破裂되었다. 이에 기관차는 雨注하는 敵火속을 突破하여 大田驛에 도착하였지만 水壓이 低下하여 貨車를 牽引할 推進力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하는 수 없

이 기관차만이 16.45에 護送兵과 함께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三丁里(細川)tunnel 西南쪽 1.5km)부근으로부터 tunnel에 이르기까지 大東川(大田川 支流) 계곡을 따라 敷設된 鐵路의 左右를 沿한 指形의 稜線에서 퍼붓는 例의 敵火를 뒤집어 쓰게 되어, 炭水車에 탄 護送兵이 그에 應射하였으나 死傷者만 續出하게 되었다. 기관차가 1.5km의 敵의 차단선을 突破하여 tunnel을 빠져나가는 동안 機關士 金錫鉉이 죽고, 玄在英이 負傷을 입게 되어, 남은 黃南湖가 혼자서 간신히 기관차를 運行하여 沃川驛으로 歸還하였는데, 그때까지 살아 남은 護送兵은 단 한사람뿐이었다고 하니, 이로써 당시의 敵 道路차단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大田驛에서 이 기관차를 기다린 사단 G-4 보좌관 Hatfield대위가 이같은 기관차의 反轉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한 바, 사단장은 17.00에 다시 永同의 지휘소를 불러 다른 기관차를 大田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Hatfield대위가 계속 驛構內에 남아 기관차를 기다리게 되었으나, 그는 끝내 기관차의 來着을 보지 못한채 그곳에서 戰死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하여, 補給貨車의 구출企圖도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거니와, 이로 미루어보면 연대가 市中에서 아직 철수縱隊를 편성하고 있는 동안인 17.00를 前後하여 敵은 이미 細川

◇ 상황도 제54호 美제34연대의 大田철수狀況



tunnel부근에 堅固한 遮斷진지를 마련하고, 사단主力을 통째로 捕捉코자 會心の 微笑를 짓고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

## 2. 包圍網속에서의 脫出

**行進路 選擇의 錯誤** : 沃川街道에서 進行되는 이러한 敵의 움직임은 알길이 없었던 연대는 副연대장 Wadlington중령 지휘아래 마지막 철수준비에 들어간 바, 지휘소앞 街道에서 차량 縱隊를 편성하는 중 어느 덧 敵의 砲火가 射程을 延伸하여 市街에 위협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박격포탄이 집결지에 떨어져 死傷者를 내게 되었는데, 이 무렵 西쪽의 分岐點부근에 엄호진지를 점령중인 I.중대로부터 『敵의 큰 규모의 일단이 비행장쪽에서 市街를 向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라고 飛報되었으므로, 사단장 Dean소장은 縱隊의 發進을 재촉하는 한편, I.중대로 하여금 本隊의 철수開始後 45分 동안을 敵을 遲延케 한 다음 縱隊를 追隨토록 조치하였다.

그런 然後에 副官 Clarke중위를 帶同하고 護衛차량(jeep) 1대를 앞세우고 연대지휘소의 營門을 나서 철수길에 올랐으니, 그때가 17.55이었다.

뒤이어 縱隊가 18.00에 發進을 시작하였다. 이를 지휘케 된 Wadlington중령은 各各 병사 5명을 탑승시킨 2대의 jeep차로써 縱隊를 先導케 하고, 自身과 領官級장교로써 梯隊를 나누어 말도록 하였는데 S-3 McDaniel소령이 後衛를 맡아 뒤따르게 되었다.

縱隊의 先頭에 선 Wadlington중령은 火焰이 소용돌이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彈藥車가 街道의 電線柱와 衝突하여 거리에 불바다를 이루어 놓았으므로 縱隊의 行進路를 바꾸어 迂回토록 하였는데, 이때 거리의 곳곳에서 敵의 기관총탄이 紛飛하였다. 이에 先導 jeep車로써 敵火를 制壓하여 通路를 開拓토록 하면서 縱隊를 誘導케 하되, 앞서가는 다른 縱隊를 찾아 追尾토록 하였다. 그런데 途中의 군데 군데에서 앞이 막혀, 그 先導車가 길을 잘 못 들게 됨으로써, 大田驛 東南쪽의 어느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Wadlington중령의 先頭梯隊와 다른 한 梯隊의 50여대에 達하는 차량이 그곳에서 길이 막혀 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大田驛을 점령한 敵兵들이 그 차량縱隊에 鐵火를 퍼부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車輛을 버리고, 120여명의 병력만이 東쪽 △126(板岩洞北쪽 1.2km) 方面으로 올라가, 東南을 指向코 산길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S-3 McDaniel소령이 敵의 포로가 되는 등 적지않은 兵力損失을 보게 되었다.

**道路遮斷線에서의 血戰** : 이와같이 縱隊의 일부가 미처 沃川街道에 이르기도 前에 分散되고 말았거니와, 제대로 길을 바로 잡아 沃川道路에 들어선 다른 梯隊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紛亂을 겪게 되었다.



제19연대 제2대대의 火器중대 일부가 先導하는 梯隊는, 驛前 광장에서 곧장 南으로 뻗어 市街의 東南端에서 錦山도로와 이어지는, 幹線도로를 따라 行進路를 잡아 沃川街道와의 分岐點에 이르러, 東쪽으로 꺾어 京釜本道로 進入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 先頭가 沃川街道로 꺾어지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正面의 道路 交會部 — 鐵路와 道路가 上下로 交叉되는 地點 — 를 차단중이던 敵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앞을 가로막았는데, 박격포탄이 先頭차량을 顛覆시켜 길을 매우게 되었다. 이에 뒤따르던 M-2 半軌道차량으로써 파괴된 先頭차량을 밀어제치고 前進를 계속하여 그곳을 突破하였으나, 그도 얼마를 못가서 운전병이 戰死함으로써 또 한번 路上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進路를 막는 바 되었으므로 중대원이 車에서 내려 논뚝을 타고 敵兵과 射擊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 Joseph S. Szito상사가 道路邊에 60mm박격포를 끌어다가 道路 南쪽의 敵을 向하여 사격하였는데, 잠시 뒤에는 81mm로써 代置하여 30여발의 煙幕彈을 敵陣에 퍼부어 敵의 눈앞을 가린 다음, 다른 半軌道車로써 길을 열게 하여 縱隊를 竄進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 縱隊의 일부는 細川tunnel부근의 차단線에서 다시 한번 熱焰을 뒤집어 쓰는 가운데 간신히 沃川으로 빠져나게 되었지만, 그를 미처 따르지 못한 일부는 차량을 燒却하고, 병력만이 道路 北쪽의 稜線으로 기어올라 各各 血路를 찾게 되었는데, 당시의 連絡將校 金宗平대령이 述懐한 바에 의하면 그 情況은 다음 要旨와 같다.

『7월 15일에 나는 大田에서 大邱로 철수하였는데, 16일에 총참모장 丁一權소장이 나를 불러 「곧 大田으로 올라가서 美제24사단장 Dean소장과 같이 근무하라. 그곳에 黃憲綴대령과 Underwood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大邱로 내려 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16일 밤을 沃川에서 보내고 17일에 大田에 들어가 道廳에서 Dean소장을 만났다. 그때 Dean소장이 내게 부여한 첫 임무는 「東側의 國軍 제1군단의 情況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18일 아침에 報廳에 가니, 제1군단 사령부가 있었다. 그 곳에서 岡군단 G-3 金鍾甲대령과 협조관계를 論議하고 그날 午後에 大田으로 복귀한 바, Dean소장은 大田비행장의 제34연대본부에 가 있었는데, 敵의 砲火가 떨어지는 활주로의 한 구석에 戰車를 세워놓고, 그 밑에 들어가 엎드려 지도를 보면서, 戰況을 파악하고 있었다. 19일이 되니, 敵이 점점 道街를 향하여 포위망을 조이는 듯 하였는데, 부근의 山 능선에 敵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市內에도 便衣隊가 出沒하였다. 그때 나의 솔직한 심정은 한시 바빠 大田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Dean소장의 情況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주머니에 C-Ration을 넣고 다니면서 끼니를 때우고 東奔西走하였는데, 수염도 깎지 못하고 팔뚝은 모기에 물려 부어 있었으며, 입은 戰衣는 온통 땀에 젖어 비록 行色은 憔悴하였지만, 조금도 不安해 하거나 당황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堂堂하고 침착한, 그야말로 百戰老將의 모습이었다. 19일 밤을 Dean소장과 함께 道廳 맞은 편 건물에서 지내었는데, 그때까지 大田에 남아 있었던 韓國사람은 나와 나의 通譯官 金煥德, 그리고 호위병 1명과

운전병 및 Dean소장의 通譯官 金吉峻, 이들이 그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20일 날이 밝자마자 敵의 戰車가 市內로 뛰어들었다. Dean소장이 Rocket砲組를 이끌고 戰車를 쫓아가 격파시키기도 하였다. 그날 18.00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지금 제19연대의 일부 병력이 沃川으로 철수하니, 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 沃川으로 가라.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金煥德 通譯과 함께 jeep차를 타고 제19연대 철수병력과 함께 市街를 빠져다가 沃川街道에 들어섰는데, 바로 그 삼거리(錦山쪽으로 가는 길과 沃川으로 꺾어지는 分岐點)에서 얼마를 가지 못하여 골다리에서 敵의 伏兵에 걸렸다. 우리가 鐵道밑의 도로를 지나 가려는데, 위의 鐵路에서 수류탄을 집어던져 탄약차를 폭발시켰다. 거기서부터 길이 막히기 시작하여, 끝내 우리는 車를 버리고 부근의 絞線으로 기어올라 흩어지게 되었는데, 내가 「한국군 대령이다. 나를 따르라. 길을 안내하겠다.」하고 외쳤지만, 美軍병사들이 나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산길을 헤맨 끝에 도중에서 병사 10여명을 만나 함께 데리고, 21일 새벽에야 沃川에 닿았다. 永同에서 그날 밤을 지내고 金泉을 거쳐 23일에 大邱로 復歸하였는데, 모두들 내가 戰死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血流가 이 沃川街道를 뒤덮게 되었거니와, 그 뒤를 이어 다른 梯隊가 路上에 불타고 있는 차량들을 밀어제치면서 細川tunnel부근의 敵 차단선에 이르게 된 바, 거기서 그들은 또한번 火力遮斷을 향하여 길이 막히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死生을 決斷코 그 차단선을 突破한 몇대의 차량만이 그 街道를 따라 빠져나갔을 뿐 나머지 차량들은 대부분 그곳에 遺棄되고, 병력만이 四散하여 제각기 活路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 細川tunnel부근의 차단선을 突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제 3전투공병대대 C중대원의 活躍이 빛나는 바, 그 하나는 Charles T. Zimmerman일병의 勇戰이며, 다른 하나는 George D. Libby중사의 殺身成仁이다.

먼저, Zimmerman일병은 jeep車を 몰고 그 遮斷線을 突破하던 중, 敵의 박격포탄에 차량이 파편되고, 負傷을 크게 입게 되었다. 그때 길가의 계곡에서 그의 일행을 노리고 사격하는 敵을 보게된 그는 負傷한 몸을 날려 敵陣으로 뛰어들었는데, 11발의 多發銃彈을 몸에 맞으면서 敵兵 5명을 죽이고, 敵의 기관총좌를 沈默케 한 것이다.

그리고 Libby중사는 그의 車輛縱隊가 敵의 烈火集中으로 말미암아 傾挫되자, 車에서 뛰어내려 排水路를 이용하여 달려드는 敵과 싸우면서 負傷을 입은 戰友를 돌보았다. 마침 M-5砲車가 지나가는 것을 세워 부상병을 싣고 機關短銃으로 道路邊의 敵을 制壓하면서 車를 달리게 한바, 도중에 몇번이나 멈추어 그와 같이 부상병을 收容하게 되니, 부상병이 車에 가득하여 砲車가 救急車로 突變하고 말았다. 이에 그는 砲車와 부상병의 運命이 오로지 運轉兵 한 손에 달렸다고 판단한 결과, 그 自身の 몸으로써 敵彈이 날아오는 쪽에서 운전병을 스스로 감싸, 敵彈을 막으면서 운전병으로 하여금 그 차단선을 轟進突破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砲車가 그곳을 突破하는 동안 雨注한 敵彈을 수없이 몸에 맞은 그는 마침내

壯烈히 散華하였지만, 그의 몸으로 保護를 받은 운전병은 無事히 車를 운전하여 沃川에 도착하게 됨으로써 負傷兵들을 救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Libby중사의 肉身은 萬里異域에서 한줌 흙으로 돌아갔으며, 그 이름은 靑史에 길이 남게 되었으니, 뒷날 그에게 自國의 最高武功勳章인 Medal of Honor가 表彰되었다. (陸軍省 一船命令 제62호, 1951. 8. 2부)

사단장의 失蹤: 한편, 大田 東쪽의 沃川街道에서 이러한 血戰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그 南쪽의 錦山道에서는 이 戰爭期間을 통하여 前無後無한 劇적인 事件이 일어난 바, 사단장의 失蹤이 바로 그것이다.

사단장은 市中の 街路上에서 撤收本隊의 發進을 확인한 다음,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護衛車와 함께 沃川街道를 찾아 나섰는데, 앞섰던 護衛車가 그 街道入口의 交叉路를 지나쳐 곧장 南쪽의 錦山도로로 잘못 들어서게 되었다.

사단장 일행은 그 分岐點을 지나치는 즉시 進路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에는 이미 敵의 狙擊彈이 集注하고 있는 중이어서, 달리는 jeep車를 되돌릴 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錦山도로를 따라 南下하다가 길을 다시 잡아 沃川街道쪽으로 行首를 바꾸기로 作定하고 계속 그 道路를 따라 南下키로 하였는데, 그것이 運命의 갈림길이었다.

일행이 沃川쪽으로 빠지는 길을 미처 찾지 못한 채, 어느 덧 分岐點에서 5km여를 南下하여, 해가 西山에 넘어갈 무렵 朗月里부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비로소 錦山도로도 敵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을 먼저 지나치려다가 敵의 急襲을 받아 파괴된 차량과 負傷兵 몇명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사단장은 부상병을 그의 專用車와 호위차에 실어 副官 Clarke중위로 하여금 앞서 떠나도록 하고, 自身은 남아있는 병력을 수습하였는데, 때마침 그곳으로 半軌道車 1대가 南下하였으므로 거기에 나머지 병력과 함께 便乘하여 Clarke중위 일행을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1.5km를 더 南下하여 道路의 屈曲部에 이른 바, 그곳에 기관총좌까지 설치한 敵의 遮斷線에 걸려 進出이 阻止되었는데, Clarke중위가 어깨에 敵彈을 맞아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그곳의 병력 17명을 수습하여,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그 西쪽 고지로 迂回하여 活路를 찾기로 하고, 어두어 질 무렵 부상병을 부축하여 道路의 西쪽 고지로 올라갔다.

高地의 頂上에 이르러 부상병을 응급치료 한 다음, Clarke중위를 앞세워 南向길을 찾던 중 負傷兵들이 渴症을 呼訴하므로 손수 水筒을 들고 어둠속을 더듬어 물을 구하려고 계곡을 내려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失神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사단장 Dean소장이 Clarke중위의 撤收隊와 離脫하게 되었는데, Clarke중위는 앞서서 길을 인도하다가 뒤늦게야 사단장이 물을 구하려 간 것을 알고 발길을 멈추어

기다렸으나, 子正이 넘고 그 이튿날 03.00가 넘도록 사단장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비로소 당황하여 사단장의 行方을 찾아 나섰는데, 어둠속에서 찾을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Clarke 중위는 그 이튿날 終日을 그 부근의 숲속을 더듬어 사단장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錦山도로를 건너 東쪽의 산길을 따라 永同쪽으로 발길을 옮겨, 23일에야 永同으로 脫出하게 되었으며, 그 뒤로 사단장 Dean소장의 行方은 오래도록 迷宮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한편, 사단장은 이날 밤 낭떠러지에 떨어져, 몇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어깨와 머리에 상처를 입어 運身이 어려웠던데다 夜踏이라 Clarke중위 일행과 만나지 못하고, 그 이튿날부터 單身으로 山野를 彷徨하는 身勢가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이튿날 같은 山에서 제19연대 제2대대 E중대의 Stanley Tabor중위를 만나 서로 依支하면서 길을 찾아 南下하게 되었으나, 錦山부근에서 敵兵을 만나 應急 避身하는 동안에 同중위와도 다시 헤어지게 되고 말았는데 Tabor중위는,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8월 4일에 敵의 捕虜가 된 바, 押送되는 途中에 友軍機의 誤爆을 받아 크게 부상을 입은데다 營養失調가 겹쳐, 北傀의 포로수용소에서 아까운 一生을 마쳤다고 한다.

사단장 Dean소장은 그 뒤로 茂朱郡 赤裳面 芳梨里의 村民 朴鍾九등의 도움을 받아가며 1개월을 더 헤맨 千辛萬苦 끝에 鎭安까지 南下하였으나, 그가 도움을 請하였던 韓斗圭(鎭



〈Dean소장과 Walker중장〉

安郡 顔川面 魯城甲)의 密告로 完州郡 上田面 雲山里에서 기어코 敵 自衛隊員에게 사로 잡히는 바 되고 말았으니, 그날이 8월 25일, 大田을 떠난지 36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리하여 敵中을 突破하여 我軍戰線으로 脫出하려 한 그의 努力이 끝내 水泡로 돌아갔거니와, 그 동안에 그가 겪은 艱難은 실로 筆舌을 絶하는 것이었으니, 낮은 땅에서 敵에게 쫓기는 몸에도 言語마저 통하지 않아, 飲食物은 얻기도 어려웠지만 食性に 맞지 않는 까닭에 방황 36일동안을 거의 冷水로 延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52세의 老軀로서 體力을 維持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敵에게 抗拒하였다고 하니, 그 超人的인 意志는 당초 86kg이던 그의 體重이 被逮 당시에 58kg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能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가 生存하여 있다는 사실은 그해 10월末 我軍이 北進하여 平壤 부근에 사로잡은 한 北 僞兵士의 陳述에서 그 실마리가 풀려지게 된 것으로서, 그때부터 그의 生死與否를 끈질기게 追跡한 결과 마침내 生存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하여 美議會는 그에게 Medal of Honor를 수여하였는데(陸軍省 一般命令 제 7 호, 1951. 2. 16부), 그로부터 3년의 포로생활을 마친 뒤인 1953. 9. 4에 板門店을 통하여 歸還하게 되었다.

그뒤 그를 密告한 韓斗圭는 28 收復 後 警察에 逮捕되어, 1954. 9. 23에 「不法逮捕罪」로 서울地法에서 5년의 懲役刑을 宣告받아 西大門矯導所에서 服役케 되었는데, 이에 Dean소장이 그의 減刑을 敷願하였다.

그리하여, 韓斗圭는 1957. 5. 21에 左翼囚轉向者로 減刑되어 出所하였으니, 大人의 襟度가 이터함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부대의 收拾 : 이렇듯 大田의 狀況은 이날 日沒과 함께 제34연대의 潰散로 幕을 내리게 되었거니와, 이제 그 撤收과정울 다시 한번 간추려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제34연대의 제 1대대는 錦山道 開放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寶文山에서 無愁里로 轉進케 될 바, 그곳에서 그 北쪽의 △93로부터 철수한 제19연대 G중대와 合勢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 400여명은 錦山—全州를 거쳐 列車便으로 23일에 南原에 도착하여 그곳의 西海岸地區전투사령부(사령관, 申泰英소장)의 철수병력과 함께 27일에 麗水에서 海軍 YMS-504, 512 兩艇을 利用하여 釜山으로 巨航한 뒤 大邱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그 뒤의 제19연대 제 2대대 主力은 寶文山에서 錦山으로 南下하였다가 산길을 타고 東쪽으로 빠져 永同으로 脫出하였는데, 대대장 McGrail중령은 21일에 永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市內의 撤收隊는 그 일부가 먼저 길을 잘못 들어 市街의 東端에서 흩어졌는데, 副연대장 Wadlington중령 등은 三五五五로 分散되어 東으로 沃川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한 바, 副연대장은 22일 이침에 永同에 도착케 되어 곧 大邱로 向發하여 부대를 수습케 되었다. 한편 길을 바로 잡아 들었던 일부는 그중의 몇몇만이 細川tunnel의 敵 차단선을 突破하였을 뿐 그도 板岩洞부근에서 潰散되어 발길을 더듬어 沃川과 永同을 指向케 되었는데, 그

발길은 23일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本隊의 철수를 掩護한 제34연대 L중대는 本隊가 모두 떠난뒤 接敵을 끊고 차량으로 本隊를 뒤따랐는데, 이 역시 市街의 到處에서 熱鐵을 퍼붓는 敵의 교란으로 길을 잘못 잡아 錦山도로로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날이 어두어질 무렵, 앞서의 사단장 일행이 만났던 敵의 도로차단선에서 그곳에 遺棄된 차량과 장비들을 수집하고, 50여명의 부상병을 포함한 150여명의 兵力을 收拾하게 되었으므로 이들 兵力을 牽引車 1대와 2 ½ ton truck 2대 및 jeep 4대에 分乘시켜 그 차단선을 突破하였는데, 사단장일행이 그곳을 막 떠나 道路 西쪽 高地의 山腹을 攀登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리하여 제 3대대장 Smith대위 일행은 그 차단선을 突破한 뒤로는 별다른 接敵없이 同 차량便으로 錦山—安義를 거쳐 淸州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電話로 釜山の 病院列車를 불러 그 열차로 釜山을 經由, 大邱로 집결하게 되었다.

한편, 細川(tunnel부근의 道路開通을 試圖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연대장 Beauchamp대령이 沃川으로 되돌아가게 되자, 그곳의 副사단장 Menoher준장은 馬達嶺에서 철수 兵力을 收容하여 後圖를 策하기로 決心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馬達嶺의 제21연대 제 1대대는 敵의 차단선과 불과 2km 남짓한 거리에서 그 진지만을 지키고 앉아서 目前의 慘景을 불구경으로 여기고만 있을 따름이었으니,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밤이 깊도록 사단장의 行方이 밝혀지지 않자, 제21연대장 Stephens대령은 副사단장에게 『大田狀況의 歸趨가 明確하여진 지금, 畢竟 敵이 馬達嶺진지마저 포위하려 할 것이니, 이대로 馬達嶺의 扼守만을 固執할 것이 아니라, 그 진지를 철수하여 遲延戰을 벌이는 것이 可할 것으로 思料된다.』는 要旨로 철수를 建議한 결과, 副사단장이 그에 同意하고, 『撤收 시기와 方法에 대하여서는 연대장의 判斷에 따라 實行하라.』라고 한 다음, 子正에 永同의 사단지휘소로 돌아가, 저녁무렵에 제 8 기갑연대를 이끌고 그곳에 도착한 세 1 기갑사단의 포병사령관 Charles D. Palmer준장과 事態수습을 協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馬達嶺의 제21연대 제 1대대(장, Charles B. Smith중령)도 그 진지에서 철수를 준비하게 되었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이리하여 사단은, 5일에 烏山 北쪽에서 緒戰에 旣한 뒤로 弱體의 3개 연대를 逐次로 投入하여 京釜本道에서 敵 3개 사단의 進出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大田의 이 참담한 敗北을 고비로 그 遲延戰에 終止符를 찍게 되고 말았다.

敵軍의 動向: 20일 저녁에 大田을 점령케 된 敵은 戰勝을 自祝하는 祝祭분위기에 쌓여 그 이튿날인 21일 하루를 보내었다. 이에 北僞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 戰鬪에서의 樹功부대라고 판단한 이른바 「서울제 3 보병사단」과 「서울제 4 보병사단」 그리고 同사단의 제 18연대 및 「서울제 105전차사단」과

空軍제 1 追擊機연대에 「親衛部隊」라는 칭호를 수여키로 決定하여, 그들의 士氣를 鼓舞하였다고 하는 바, 제 18연대에 그러한 칭호를 붙여준 것은 그 연대가 大田 南쪽을 迂回하여 後方을 차단함으로써 大田을 포위하는 殊勲을 세웠다고 본 까닭이리라.

그러나 막상 團首 金日成은 이 大田의 戰況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들 前線司令部(사령관, 대장 金策)에 호된叱責을 가하였다는 後聞이 있으니, 16일에 이미 錦江線을 突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에야 大田을 手中에 넣게 됨으로써 4일이란 時日을 虛費하였다는 點을 指摘한 것인바, 이는 그들 제 1 軍단이 目標攻略에 逡巡性을 보인 데에 原因이 있다고 看做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여 그들은 22일부터 다시 衝鋒을 내흔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제 3 사단과 제 105 전차사단의 일부만이 京釜本道를 따라 大邱를 目標로 東南進하고, 제 4 사단은 大田에서 南쪽의 錦山道路로 빠져 安義—晉州쪽으로 나섬으로써 洛東江 西部地域으로 그 蹤跡을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我軍의 動向: 한편 21일 날이 밝자, 제 21연대장 Stephens 대령이 憂慮한바대로 1개 연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細川tunnel 부근에서 東쪽으로 馬達嶺을 포위하려 하였다.

이에 그곳의 同연대 제 1 대대는 연대장의 전수명령에 따라, 즉시 공병으로 하여금 增岩tunnel을 폭파하도록 한 다음, 제 52포병대대의 掩護下에 병력을 진지에서 뽑아 沃川으로 철수하였다가, 11.00가 지난 뒤 다시 沃川을 떠나 永同으로 向하였다.

그러하여 永同 西北쪽 6.5km에서 本道를 가로지르는 錦江의 楊正橋를 건너 그 교량을 마지막으로 폭파하고, 江의 東岸에 방어진지를 다시 檢閲하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22일 正午에 제 8군 명령에 따라 同대대의 진지를 제 1 기갑사단 제 8 기갑연대에 인계하고 永同에 집결하였다.

이에 사단은 이제 제 1 기갑사단이 京釜國道를 따라 洛東江線으로의 遲延戰을 벌이게 된 가운데 永同에서 수습된 8,660명으로써 金泉을 거쳐 大邱로 轉進하여 부대를 整備하게 되었다.

사단이 大邱에 집결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 사단장 Dean 소장의 失蹤이 확실하여짐에 따라 — 제 8군은 이날 22일부로 在東京의 John H. Church 소장(7.18부 進級)을 사단장으로 補任하였다.

이리하여 Church 소장이 大邱에 空路로 到着하여 사단을 지휘케 된 바, 이 大田방어전에서 당초 참가한 병력 3,933명 가운데 1,150명의 손실을 본 것이 밝혀졌다.

즉, 48명이 戰死로 확인되고, 228명이 負傷을 입었으며, 사단장을 비롯한 874명이 失蹤된 것이다.

3개 전투대대의 損失을 보면, 제 34연대 제 1 대대는 712명중 203명을, 同제 3 대대는 666명중 256명을, 그리고 제 19연대 제 2 대대는 713명중 211명을 잃은 것으로 判明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撤收번호를 맡았던 제 34연대 L 중대의 경우 총원 153명중 107명을 잃었으며, 공병 C 중대의 경우 161명 중에서 85명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차량은 65%를 상실하였으며 제 11포병대대 A 포대는 155mm포 모두를 잃기도한 바, 大田에서 無事히 脫出한 것은 沃川街道에 遮斷網이 미처 形成되기 전에 撤收의 先發隊로 빠져나간 제 34연대 I 중대와 제 13포병대대 B 포대 및 제 53포병대대 B 포대뿐인 셈이었다.

사단이 이 戰團에서 거둔 戰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敵의 步兵에게는 그리 큰 打擊을 가하지 못한 반면 그들 重裝備에는 多少의 出血을 强襲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뒷날 사로잡힌 한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大田地區에서 그들의 76mm砲 15문과 120mm重박격포 6문, 그리고 戰車 15대가 파괴되었다고 한 바, 실제로 그들 戰車의 損失은 20여대에 達할 것으로 推算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新任사단장 Church 소장의 지휘下에 參戰 17일만에 사단이 그간의 腥塵을 씻고 부대 정비에 任하게 되었지만, 急變하는 戰局이 사단의 그러한 再編의 여유조차 허락치 않았으니, 航空偵察결과 敵제 4 사단이 大田에서 侵路를 南으로 돌려 錦山道路를 따라 安義—晉州쪽으로 指向하고 있음이 밝혀진 까닭이다.

이에 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이 24일에 미처 缺員補充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사단을 晉州쪽으로 뺏아들려 그 方面의 敵侵을 막도록 措置함으로써 사단은 同日 밤중으로 晉州로 急히 달려가 洛東江의

西南部戰線을 彌縫케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은 西南部戰線의 角逐상황을 다른 제14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 戰 訓

### (1) 사단장의 指揮措置에 대하여

사단장 Dean소장은 뒷날 그의 回顧錄인 「General Dean's Story」에서 述懐하기를,

『① 當初의 自身の 계획대로 19일 저녁에 부대를 大田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점,

② 사단수색중대를 제34연대에 배속조치한 點』

이 두가지가 大田에서 취한 自身の 指揮措置上의 失手로서 깊이 후회하는 바이라고 하였다.

前者는, 19일 저녁에 철수를 하였더라면 그러한 慘狀은 격지 않았을 것이며, 敵이 大田을 佔領하는 것도 결국은 20일 낮이어야 할 것이니, 실제로 遲延효과에는 20일 저녁의 철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意味인 듯 하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 생각할 것은, 이미 錦江防禦線이 무너지고 湖南地域이 유린된 時點에서, 戰術的인 見地에서도 防禦에 적합한 地域이 아닐 뿐 아니라 戰略的인 次元에서도 그곳을 固守하여야 할 意義가 半減된 상태인 大田에서 굳이 持久 堅守하여야 할 必要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敵이 目標을 大田에 두고 總力을 傾注하리라는 것은 自명한 理致인데, 하필이면 敵이 全力投球로써 攻奪을 노리는 곳에서 決戰을 試圖한다는 것은 敵이 要望하는데로 應하는 結果가 아니겠는가? 다만 제1기감사단의 展開시간을 延고자 함이 目的이라면 잠시 敵의 銳鋒을 피하여 遲延戰으로 그 效果를 거두는 것이 穩當하였으리라 보는 것이다.

後者는, 수색중대의 지휘권을 사단장 自身の 手裡에서 제34연대장에게 넘겨줌으로써 당초 그가 構想한 腹案과는 달리 同연대장이 그 중대를 論山街道에 轉用케 되어, 後方차단에 대한 敵情을 入手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니, 이는 當時의 美육군참모총장인 Lawton J. Collins 대장도 그의 著書인 「War in peacetime」에서 이 點을 指摘하여 『이 措置로 말미암아 Dean소장은 南北戰爭에 Robert E. Lee將軍이 Gettysburg戰鬪

에서 「눈과 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形局이 되었다.』라고 한 바 있다.

主力方向의 연대장으로 하여금 指揮의 單一化와 現地 敵情入手의 신속을 期하도록 하기 위한 그 配屬조치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지만, 그에 앞서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밝혀 同중대의 運用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 (2) 敵情의 確認에 대하여

사단이 大田에서 敵의 포위망에 빠진 것은 敵情을 確認하지 않은데다 通信杜絶로 말미암아 적절한 지휘조치를 適期에 취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 몇가지 예를 들면 첫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錦山도로의 敵情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일 새벽에 사단수색중대의 道路점찰대가 錦山道路에서 敵出現을 보고한 바 있으나 제34연대장은 이에 대한 확인과 對應措置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며, 사단장에게는 그 사실이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니, 철수시간을 3시간만 앞당겼더라면 敵의 포위망을 能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勘案할 때, 그 敵情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 20일 아침에 제34연대 제1대대의 無電線을 통한 敵의 偽裝報告에 연대지휘부가 欺瞞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無電車를 파괴하지 않은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 제1대대와는 通信이 杜絶되었음에도 傳令으로써 상황을 확인하는 方案이 강구되지 않았던 바, 심지어 사단장이 同日 午後의 철수시간이 임박하였을 무렵까지도 그 대대가 健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니, 前線狀況이 이 러할진대 後方狀況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市街 西쪽의 道路分岐點을 敵의 戰車가 차단하였다는 不確實한 報告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로 速斷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제19연대 제2대대와 제34연대 제1대대가 끝내 市中의 연대와 合勢치 못하게 되고 말았으니, 風聲鶴唳



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또 07.00에 그곳의 상황을 확인한 제19연대 제2대대 G중대의 제2소대는 그 分岐點에서 2km에 不過한 거리에 있는 同대대지휘소에 어찌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는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 (3) 제21연대의 道路確保에 대하여

18일 저녁, 사단장이 撤收시간 延期에 따른 一連의 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제21연대장이 建議한 바와 같이 同연대의 진지가 馬達嶺에서 細川 tunnel부근으로 移動되어야 옳았다고 본다. 따라서 최초의 진지 選定이나 사단장의 敵情판단에 誤謬가 있었던 점이 먼저 問題視되어야겠지만, 이 연대는 沃川街道에 定期的인 道路偵察을 실시하였는지, 또 경찰로써 敵의 道路차단企圖가 들어날 경우 그에 대한 對應策을 如何히 강구하여 두었는지 순저 알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大田-馬達嶺間의 도로확보의 責任이 제21연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時機를 놓쳤다는 理由만으로 진지에 놀러앉아 눈알의 慘狀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 研究

### (1) 사단장의 功過문제

이 大田防禦戰은 전부양상으로 볼 때, 앞서의 天安-全義-大平里전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敗戰의 그것일 뿐이나, 당시에 世人의 耳目을 집중케 한 劇的인 戰鬪로 알려졌으니, 이는 아마도 이 戰鬪결과로 사단장이 失蹤되었다는 그 한가지 사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단장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大田에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焦點이 되고 있는데, 사단장 自身은 前掲 回顧錄을 통하여 그 理由를 말하되,

『① 제34연대와 그 배속부대 戰鬪員들의 士氣를 鼓舞시키고

② 韓國軍지휘관들에게 指揮道の 示範을 보임과 아울러 韓國軍부대의 戰意를 昂揚케 하는데 寄與하며

③ 北傀軍의 戰鬪方式을 직접 觀察하여 此後의

對應策을 강구키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한 바, 여기에 敷衍하기를 『그러나 나무에 너무 接近한 탓으로, 숲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가 疑認하는 바와 같이, 사단장의 大田殘留는 그 나름의 所信을 가지고 實行한 것이지만, 이미 大田방어의 책임을 제34연대장에게 一任한 당시로서는 사단장이 반드시 大田에 남아 있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또 사단의 全般的인 配置상태를 보아 남아있어야 할 곳도 아니었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그리고 사단장의 大田殘留中의 行跡에도 비판의 素地가 없지 않는 듯 하다.

즉, 20일 午前과 午後 두 차례에 걸쳐, 사단장이 敵의 戰車를 쫓는 獵犬노릇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는 그가 失蹤이 아니라 戰死로 記錄될만한 冒險이었으니, 8일 아침에 제34연대의 新任연대장이 Robert R. Martin대령이 2.36" Rocket砲를 매고 敵의 戰車와 對決하다가 戰死한 例를 들어 보면 能히 類推할 수 있는 일이다. (제8장 제2장 平澤-鳥致院부근의 戰鬪 참조)

그러한 일은 정녕 有能한 下士官이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아, 死地에 앞장선 사단장의 용감성을 찬양하기에 앞서, 사단의 最高責任者로서의 자제와 所任을 스스로 저버린 결과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初戰당시에 우리의 指揮官중에서 과연 그와 같이 敢然히 敵의 戰車에 맞서보려한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있었던가 하는 점을 들어볼 때, 상황이 錯雜한 百尺竿頭의 危局에 직면하여 마땅히 지휘관이 陣頭에 나서는 眞勇을 보여야 한다는 主張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허물은 있지만, 일단 위기를 만나 보여준 그의 行動과 落伍된 뒤의 36일간의 行跡은 높이 評價하여 마땅하리라고 본다

더우기 美육군參戰公刊史인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의 所論에 의하면, 사단이 參戰한 5일부터 大田전투가 끝나는 20일에 이르기까지 그 15일동안에, 그들은 南北戰爭以來로 高級將校의 가장 많은 損失을 記錄하였다고 하였으니, 대강 살펴 보더라도 사단장의 失蹤을

비롯하여 연대장 2명(戰死 1명, 負傷 1명), 대대장(포병대대장 포함) 6명(戰死 3명, 入院後送 2명, 失蹤 1명) 연대 S-3 2명(失蹤 2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이 戰爭期間을 통틀어 그 類例가 없는 數字인데, 이들 모두가 陣頭 지휘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단장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이다.

## (2) 列車의 反轉문제

20일 午後에 大田驛에 列車가 突入하였다가 다시 反轉한 이른바 「列車作戰」의 真相에 대하여 記錄과 證言들이 區區하다.

지금까지 一般적으로 알려지거리는 『民間人 機關士들이 大田에서 포위된 Dean소장을 救出하기 위하여 列車를 돌아 大田으로 들어갔으나 成功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 鐵道業務를 管掌한 主務部署인 交通部側의 記錄과 실제로 大田行을 決行하였다는 本人의 證言, 그리고 그 列車의 運行과정을 지켜본 美軍側의 記錄이 서로 相異한바, 各自의 主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韓國交通動亂記」(1953년, 交通部 發行)의 記錄……『7월 20일, 大田驛 信號係인 張時景과 機關士 2명이 客車 4輛으로 救援列車를 편성하여, 美軍 20명과 함께 沃川驛을 떠나 大田驛으로 갔는데, 그 목적은 Dean소장 이하 장병들과 軍需物資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同列車가 大田驛에 도착한바, 그곳에는 同驛 構內從事員 吳恩均外 3명이 構內에 남아있는 列車를 끌고 大田을 脫出하려다가 敵의 砲彈으로 負傷을 입고 있었다. 이에 負傷者만을 태우고 機關車가 單機로 沃川으로 돌아갔다. 張時景과 機關助士 1명이 남아, 構內의 다른 기관차(미카 3229호)를 끌고 美軍과 함께 沃川으로 가다가 細川驛(細川 tunnel 東쪽 700m)에 이르기전에 敵의 사격을 받았다. 이에 張時景이 부상을 입고, 기관차는 증기의 압력이 降下하여 牽引力이 減少되었다. 이에 列車를 멈추고 貨車를 分離시킨 다음 기관차만으로써 細川驛에 도착, 그곳에서 美軍의 truck으로 沃川에 後送되었다……』

② 當時의 機關助士 玄在英의 證言……『7월 18일에 大田에서 金泉으로 철수하였는데, 20일 낮

에 美軍鐵道輸送官이 機關助士인 金載鉉과 黃南湖등과 함께 永同으로 올라가라고 하여, 永同으로 갔더니 다시 大田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듣기로는 「忠南道廳 3층에서 Dean소장과 交信이 5분전에 끊어졌으니, 그를 구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伊院驛에 가니 通譯이 大田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美軍 33명이 tender에 올라탔다. 그래서 tender를 앞쪽으로 하여 細川驛을 지나쳐자, tunnel부근의 兩쪽 능선에서 총알이 쏟아졌다. 그대로 突進하여 大田驛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아마 16.40쯤일 것이다. 美軍들이 構內를 샅샅이 Dean소장의 行方을 알 수가 없었다. 勇역이 同行을 하지 않아 발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을 하여, 鐵路가 파괴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시 永同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細川 tunnel부근에서 敵의 사격을 또 받아 金載鉉이 即死하고 내가 부상을 입었다. 黃南湖기관조사가 혼자서 기관차를 운행하여 必死의으로 脫出을 감행한 결과, 沃川驛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까지 무사히 살아 돌아온 美軍兵士는 한사람뿐이었다고 한다……』

③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1961년, 美陸軍省 發行)의 記錄……『20일 16.00前後의 사단장 命令에 따라 列車가 16.20에 伊院驛을 출발하여, 護送兵들과 함께 몇輛의 客車를 이끌고 大田驛으로 갔는데 이는 大田驛의 補給貨車를 뽑아내기 위해서였다. 細川 tunnel을 지났을 때인 16.30前後에 敵 銃擊을 받았다. 그리하여 tender(炭水車)가 破裂된채로 大田驛에 도착하게 되어, 貨車를 牽引할 상태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기관차만이 兵士일부와 함께 沃川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 시간이 16.45이며, 途中의 細川 tunnel부근에서 다시 敵의 수류탄투척과 銃擊을 받아 기관사가 죽고, 火夫가 기관차를 運行하여 沃川驛에 닿았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②③의 내용이 모두 相異하다. 따라서 이 「列車作戰」의 始末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詳考할 수가 없어, 本文에서는 ③을 줄거리로 잡아 ②의 證言으로써 潤色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分명한 것은 ①과 ②에서 모두가 「列車作戰」의 목적이 Dean소장의 救出에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3. 尙州—金泉 附近의 戰況 (1950년 7월 22일부터 1950년 7월 31일까지)

참조 : 변책부도 제 16 호  
상 황 도 제 55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 25사단	장 소장	William B. Kean	제 8 포병대대 제 64 포병대대
제 24연대	장 대령	Horton V. White	제 159 포병대대 제 90 포병대대 A 포대
제 1 대대			제 79 전차대대 A 중대
제 2 대대	장 중령	George R. Cole	제 72 전투공병대대
제 3 대대	장 중령	John T. Corley	제 1 기갑사단 장 소장 Hobart R. Gay
제 27연대	장 중령	John H. "Mike." Michaelis	제 5 기갑연대 장 대령 Marcel B. Crombez
제 1 대대	장 중령	Gilbert J. Check	제 1 대대 장 중령 John Clifford
제 2 대대	장 소령	Gordon E. Murch	제 7 기갑연대 장 대령 Cecil W. Nist
제 35연대	장 대령	Henry G. Fisher	제 1 대대 장 중령 Peter D. Clainos
제 1 대대	장 중령	Eernrad G. Teeter	제 2 대대 장 중령 Omar T. Hitchner
제 2 대대	장 중령	John L. Wilkins	제 8 기갑연대 장 대령 Raymond D. Palmer

제 1 대대	장 중령 Robert W. Kane	제82포병대대
제 2 대대	장 중령 Eugene J. Field	제99포병대대
제61포병대대		제92대공포대대 A포대
제77포병대대		제71전차대대 A중대
		제 8 전투공병대대

敵 軍

北傀제 1 사단	장 소장 崔 光	제 2 사단	장 소장 崔 賢
제13사단	장 소장 崔 鏞 鎭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105전차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나. 전투전의 개황

本節에는 美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과 제 1기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의 參戰初期의 상황을 概括하였다.

당초 제25사단은 尙州를 中心으로 中部地域의 韓國軍을 지원하고, 제 1기갑사단은 京釜國道上的의 美제24사단을 지원키로 된 것으로서, 그 활동지역과 담당임무의 차이로 보아, 이들 兩사단의 상황을 分離하여 취급함이 마땅할 것이나, 本節에서 함께 묶어 다루게 된 것은 이 兩사단이 洛東江線을 基底로 한 化寧場—尙州와 永同一金泉의 軸線에서 제 8군의 제퇴에 따라 地연전을 함께 벌인 것으로 본 까닭에서이다.

제25사단은 제24사단에 이어 두번째로 이 戰爭에 참가하게 된 駐日美제 8군 소속의 사단으로서 Osaka(大阪)지역에 駐屯중, 제 8군의 이동계획의 일환으로 7월 10일~15일 사이에 韓國에 도착하였다.

즉, 제27연대가 7월 10일에 먼저 釜山에 上陸하였으며 제24연대는 12일, 그리고 제35연대는 13일~15일 사이에 각각 上陸을 끝내었던 것이다. 이들 연대 역시 2개대대 편성이었으며 다만 제24연대만은 제 8군의 全연대중에서 유일하게 3개 대대를 모두 갖춘 연대인데, 이 연대는 연대장 Horton V. White대령만이 白人이고 나머지 연대원은 모두 黑人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지원부대로서는 2개 砲隊뿐인 3개 105mm곡사포대대(제8, 제64, 제159포병대대)와 155mm곡사포 1개 포대(제90포병대대 A포대) 그리고 M-24輕전차 1개 중대(제79전차대대 A중대)가 釜山에 함께 上陸하였지만, 이들 화력을 집중운영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즉, 이 사단은 당시 駐韓 美軍사령관 Dean소장의 명령을 받아 中部地域의 韓國軍에 대한 지원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사단지휘소를 永川에 개선하는 가운데 각 연대별로 獨立임무를 부여받아 分散되었으므로 이들 지원火力도 따라 分散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 1기갑사단 역시 駐日 제 8군소속으로서 Yokohama(橫濱)지역에 駐屯중 7월 12일~14일 사이에 乘船을 끝내고 15일에 James H. Doyle소장이 지휘하는 제90기동함대 편으로 Yokosuga(橫須賀)港을 출발하여 韓國으로 向하였는데, 당초 이 사단은 仁川에 上陸하여 敵의 後方을 차단하기로 계획된 것이나, 戰況이 急迫하여 戰線에 增援키로 된 부대로서 첫 上陸地는 釜山이었지만, 당시 釜山港이 보급

품의 揚陸으로 말미암아 兵力의 上陸이 如意치 못하여 浦項으로 回航하였다.

그리하여 先頭梯隊인 제 8기갑연대가 18일 06.10에 浦項에 첫 上陸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제 5기갑연대가 上陸케 되었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닥친 颱風 Helene號의 영향으로 東海의 波高가 높아져 제 7기갑연대는 上陸이 연기되어 22일에야 물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단은 韓國戰線에 支援된 3개 사단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日本을 떠난 부대여서, 앞서의 제 24, 제 25 兩사단이 出動할 때 그 사단들의 缺員을 먼저 充員키 위하여 이 사단에서 750명에 달하는 下士官들이 差出되었으므로 各소중대나 砲隊의 下士官이 殆不足한 실정이었다. 사단 역시 보병연대는 2개 대대뿐이었으며 2개 포대뿐인 105mm 포병 3개 대대와 155mm 1개 포대, 그리고 對空砲 1개 포대 및 輕전차 1개 중대가 그 지원부대의 모두였다.

이 사단은 浦項에 上陸하는 즉시로 大田地區의 제 24사단을 支援하기 위하여 永同으로 급히 달려가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제 25, 제 1기갑 兩사단이 對決케 된 敵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러하였다.

敵제 1사단(장, 소장 崔光)은 그들 예비인 제 13사단(장, 소장 崔籍鎭)의 지원下에 國軍제 6사단과 血戰을 벌이며 間斷 “새재”를 안간힘을 다하여 넘어서고 있었고, 敵제 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이 槐山에서 尙州로 指向中이었다. 그리고 敵제 2사단(장, 소장 崔賢)은 이때 淸州부근에서 戰車 8대를 配屬하여 大田攻圍에 參加키로 되었으나, 國軍 수도사단의 阻止로 말미암아 진출이 遲遲不進하여 大田攻略에는 참가치 못하게 되어, 報恩으로 돌아 國軍제 2사단을 追尾하여 報恩—黃澗으로 南下하려 하였다. 또한 敵제 3사단(장, 소장 李英鎬)은 大田을 戒령한뒤 일부는 沃川—永同으로, 일부는 錦山으로 迂回하여 茂朱—永同으로 分進合擊을 企圖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 25사단은 敵제 15사단 및 제 2사단과 主로 對決케 되었고, 제 1기갑사단은 敵제 3사단과 勝負를 겨루게 된 것이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제 25사단의 戰況

#### (가) 작전계획

제 25사단이 釜山에 상륙중인 7월 12일 당시 駐韓美軍사령관인 제 24사단장 Dean소장은 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제 25사단은 主力으로써 韓國軍을 지원한 준비를 갖추라. 1개 대대로써 浦項비행장을 경비토록 하고, 1개 연대를 金泉의 예비로 확보하여 大田 또는 淸州方面으로 增援할 수 있도록 하라.』

이에 사단은 제 27연대로써 安東正面의 國軍제 8사단을, 제 24연대로써 尙州正面의 同제 6사단을 지원키로 하고 제 35연대를 金泉에 예비로 확보키로 하였는데, 그 이튿날 13일 01.00부터 駐韓美軍의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제 8군이 제 24, 제 25 兩사단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明示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軍은 當面한 敵을 阻止하여 現방어선을 확보한 다음, 次期の 攻勢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려 한다.

② 제24사단은 錦江線에서 敵을 阻止하라.

③ 제25사단은 中部地域에서 敵을 遲延中인 韓國軍을 支援하라. 1개 대대로써 浦項비행장을 경비하라.』

이에 사단은 13일에 제27연대를 安東으로 推進하고, 제35연대의 제1대대로써 浦項비행장을 경비케 하는 가운데 尙州로 올려보낸 제24연대에서 제2대대를 뽑아 포병1개포대와 함께 醴泉에 投入하여 堤川—豊基—安東軸線으로 且戰且退中인 國軍제8사단(장, 李正一大령)과 忠州—聞慶—咸昌으로 逐次撤收중인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 사이의 地隙을 補填케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사단은 별다른 接敵없이 韓國軍 後方의 제2선에서 지원대세를 갖추고 待機중이던바, 18일에 제1기갑사단의 主力이 浦項에 上陸하자, 제8군이 이 사단으로 하여금 京釜國道의 제24사단을 지원토록 조치함으로써 제25사단은 尙州정면의 韓國軍의 지원에 專念케 되었다.

이에 사단지휘소를 永川에서 尙州로 이동하고, 金泉의 제35연대를 咸昌으로 추진하여 醴泉의 제24연대 제2대대는 통합지휘토록 하는 한편, 제24연대로써 尙州 西쪽의 槐山—化寧場—尙州도로의 방어에 重點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安東의 제27연대를 멀리 報恩—黃澗도로로 뽑아들려 그 정면의 敵을 지연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이제 尙州를 중심으로하여 獨自의인 방어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 (나) 작전실시

##### ① 제35연대의 狀況(7. 22~31)

제35연대(장, Henry G. Fisher 대령)는 20일에 金泉에 예비로 控置中인 제2대대(장, John L. Wilkins 중령)를 咸昌으로 추진하여 제90포병대대 A포대와 제79전차대대 A중대의 1개 소대와 함께 그 西北쪽 聞慶도로에서 敵제1사단을 阻止中인 國軍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을 지원케 되었는데, 이때 제1대대(장, Bernard G. Teeter 중령)는 계속 浦項비행장을 警備중이었다.

이에 제2대대는 主力으로써 潁江 南岸에 진지를 점령하고 F중대를 뽑아 江北쪽 제1선의 제6사단 진지에 投入하여 敵을 막도록 하였다.

22일, 敵의 壓力으로 前線의 龜裂을 보게 된바, 同중대는 隣接의 제6사단부대와 通信연락이 원활치 못한 탓으로 撤收時期를 놓치게 되어 敵의 包圍網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敵과 싸워보지도 못한채로 潁江 南쪽으로 철수케 되었는데, 이 무렵 중대의 後方을 가로막아 東西로 흐르는 江의 水位가 높아, 그 渡河과정에서 큰 苦楚를 겪기도 하였다. 중대가 江 南岸에 진출한 戰車의 엄호아래 간신히 대대 本陣에 收容된바, 그동안 戰死 6명과



< 奮戰中인 美軍 >

負傷 10명, 그리고 失蹤 21명의 損失을 보게 되었다.

23일에 제 6 사단이 江 南쪽에 진지를 새로이 점령하게 됨에 따라 대대는 포병과 전차로 하여금 계속 同사단을 지원토록 하는 가운데 尙州 北쪽 8km에 집결하여 尙州—咸昌間의 主補給路 확보 임무를 맡게 되었다.

25일, 浦項비행장을 경비중이던 제 1 대대가 연대로 復歸하였으나, 이는 그 이튿날 26일에 黃澗으로 轉進하여 그곳의 사단左一線인 제 27연대(장, John H. "Mike". Michaelis 중령)를 增援케 되었다.

29일에는 尙州 北쪽 3km로 다시 철수하였다가 30일에는 尙州 南쪽 高地로 移動하였는데 31일에는 제 1 대대와 合勢하여 玉山洞(尙州 西南쪽 15 km)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善山도로와의 分岐點을 확보하였다.

#### ② 제 24연대의 狀況(7. 22~31)

한편, 尙州 西쪽의 槐山도로에 대한 補塡책임을 맡은 제 24연대(장, Horton V. White 대령)는 22일에 제 2 대대를 化寧場(尙州 西쪽 20km)부근에 진출케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그곳에서 金熙濬중령이 지휘하는 제 17연대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 무렵 同연대는 16일과 21일에 각각 敵 제 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의 제 48, 제 49 兩연대를 利安川 계곡에서 大破한 바 있었다.

대대가 同제 17연대의 진지를 引受하기 위하여 坪溫里(化寧場 西쪽 4km)에서 北쪽의 △ 582로 향하던 중 대대를 先導하던 E중대가 敵으로부터 不意의 急射擊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뒤따르던 F중대도 零散되어 分散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報告를 接한 연대장 White대령은 크게 놀라 坪溫里로 달려가, 대대를 수습하여 이를 직접장악하게 되었다.

이 동안에 제17연대는 報恩에서 尙州로 移動中이던 제1사단(장, 白善輝 대령)에 진지를 인계하고 安東으로 轉進하였다.

따라서 연대가 제2대대를 수습하는 동안 제1사단이 鳳凰山(△740 化寧場 西北쪽 2km) —△582(鳳凰山 西쪽 3km)線에 진지를 점령하여 槐山쪽에서 南下하려는 敵제15사단을 막게 되었다.

그리하여 25일에 연대는 제1, 제2, 제3의 3개 대대 모두를 投入하여 鳳凰山—△582<sub>2</sub> 부근의 제1사단진지를 다시 인수하여 化寧場—尙州도로로의 敵侵을 阻止케 되었는데, 同제1사단은 尙州를 거쳐 咸昌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敵제1사단과 血戰中인 제6사단(장, 金鍾五대령)을 지원케 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醴泉에 배치될바 있는 제2대대는 21일에 수도사단 제18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연대에 복귀한 바 있었다.

26일부터 연대는 제159포병대대와 제64포병대대, 그리고 제90포병대대(155mm)의 1개포대의 지원을 받아 逐次지연전을 벌이게 되었으나, 제2대대가 緒戰에서 敗한뒤로 장병들의 戰意가 크게 떨어져 戰力을 제대로 발휘치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 例로서 제3대대 L중대의 경우를 들어보면, 당초 장교 4명과 사병 105명으로 진지를 점령한 그 이틀뒤에 同진지를 교대케 된 바 그때까지 진지에 남아있었던 중대병력은 장교 1명과 사병 17명뿐이었으며, 장교 3명과 사병 88명이 無斷으로 진지를 離脫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尙州 西쪽 800m에 설치한 落伍者 수용소에서 연대 S-1 John R. Woolrige 소령이 1일 평균 75명의 낙오병을 수습하였다는 것이니, 이로써 당시 연대의 實相을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일이다.

이 동안 연대는 대체로 낮에는 高地를 지키고 있다가 밤에는 後方진지로 철수한 뒤, 砲擊으로써 敵을 견제하는 전투 方式을 취하였는데, 어떤 날 밤에는 연대의 지원포병이 무려 3,000여발의 砲彈을 퍼부었다는 記錄이 있기도 하다.

30일, 연대는 尙州 西쪽 4.5km로 철수하였는데 이날 사단은 26일부터 黃澗부근의 제27연대를 지원하다가 尙州로 집결한 제35연대의 제1대대(장, Bernard G. Teeter 중령)를 後方에 投入하여 연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31일 밤, 연대는 제35연대 제1대대의 掩護下에 尙州로 철수하였는데, 이 동안 연대는 戰死 27명과 負傷 293명 그리고 失蹤 3명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진 반면, 敵 제15사단은 5,000여명의 損失을 보았을 것으로 推算되었다.

### ③ 제27연대의 狀況(7. 23~28)

John H. "Mike". Michaelis 중령이 지휘하는 제27연대는 12일에 義城을 거쳐 13일에 安東으로 진출하여 國軍제8사단(장, 李正一 대령)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나, 별다른 接敵은 없었는데, 20일에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의 戰線調整계획에 따라 尙州로 轉進하여 畝勢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21일, 연대가 尙州로 移動途中에 『黃澗으로 집결하라.』라는 修正命令을 받게 되어, 金泉을 거치 黃澗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安東에서 黃澗까지 180km를 一晝夜동안에 踏破하여 22일 저녁에 목적지인 黃澗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대에 부여된 임무는 報恩에서 黃澗을 목표로 東南下하는 敵제 2 사단을 遲延中인 國軍제 2 사단(장, 李翰林 대령)의 전선을 交代인수하여 永同一金泉本道를 扼守중인 제 1 기갑사단의 右側背를 防護하라는 것이었다.

**7월 23일** : 이날 아침 연대장 Michaelis중령은 연대의 보병 2개대대와 105mm보병 2개포대 및 M-24전차 2개소대로서 연대전투단(RCT)을 편성하여 松川을 건너 “당저”(黃澗西北쪽 5.5km)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에 지휘소를 開設하고, 黃澗-報恩도로를 따라 제 1대대(장, Gilbert J. Check중령)를 먼저 올려보내어 敵과의 接觸을 유지케 하였다.

이에 제 1대대는 17.00에 梅琴里(당저 西北쪽 4.5km) 北쪽 3km의 △309부근으로 진출하여 報恩으로부터 且戰且退중인 國軍제 2 사단과 교대하여 阻止진지를 점령케 되었는데, 대대지휘소를 △309 南쪽 1km의 道路변에 두고, B중대를 右제 1선으로 삼아 도로 東쪽 △309에, A중대를 右제 1선으로 삼아 도로 西쪽 泉峴(△309 西쪽 1km)에 배치하였으며 C중대를 지휘소 南쪽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이와같이 진지점령과 동시에 대대는 當面한 敵情을 入手코자 밤중으로 A중대에서 Joh A. Buckley중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를 뽑아 報恩도로로 北上시켰다.

이에 Buckley중위가 30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夜暗을 더듬어 나아가 報恩부근에 이른바, 그곳에서 南下中인 큰 규모의 敵縱隊를 만나게 되었다.

敵을 먼저 發見한 偵察隊는 道路의 양쪽 丘陵에 散開한 다음, 敵의 縱隊선두가 陣前의 射程거리에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全火力을 집중하는 일제사격으로써 그 敵을 躡殺하였다. 어둠속으로 은밀히 南下하던 敵은 不意의 火力急襲을 받자, 我軍의 阻止線에 부딪친 것으로 알았던지 倉惶히 行首를 다시 돌려 北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7월 24일** : 전날 밤 深夜의 一戰에서 敵을 격퇴한 소대장 Buckley중위는 必是 敵이 날이 밝는대로 戰列을 가다듬어 소대진지를 공격하려 할 것으로 내다본 결과, 곧 소대원을 수습하여 04.00에 대대의 本陣으로 反轉하였는데 그동안 6명의 失蹤을 보았다.

한편 偵察隊의 복귀로 敵情이 入手되자, 대대는 未久에 敵이 들어닥친 것으로 판단하고 扼腕待機한바 06.30에 짙은 朝霧속에 企圖를 秘匿한 敵이 陣前으로 육박함으로써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敵의 戰車 3대가 本道상으로 突破하여 B중대 後方의 대대지휘소부근에 뛰어들어 戰車砲彈을 퍼붓게 됨으로써 數臺의 차량이 파괴되고 軍醫官이 戰死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左제 1선 A중대에서는 중대장 Logan E. Weston대위가 진지에서 3.5"Rocket砲를

직접지휘하여 敵 戰車 1대를 격파하였는데, 다른 戰車의 砲彈이 그의 곁에서 炸裂하여 그 爆風으로 말미암아 귀의 鼓膜이 破裂되었다. 그는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後送을 거절하고 中대의 지휘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後送되었다.

右제 1선인 B중대정면에서는 한차례 敵의 보병공격이 失敗하자 戰車를 앞세우고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함으로써 中대의 主陣地인 △309가 세차례나 主人이 뒤바뀌는 爭奪戰을 반복하게 되었으나 끝내 中대가 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敵의 戰車는 3.5" Rocket砲에 의하여 2대가 격파되고, 대대장 Check중령의 요청에 따라 出擊한 F-80戰機의 空中공격으로 다시 3대가 격파되었는데 이로써 이날 대대진지에서 모두 6대의 戰車를 격파한 셈이었다.

이리하여 대대의 奮戰으로 낮동안 그 진지를 지켜내었으나, 날이 저물자 연대장은 敵이 正面공격에 失敗하였으므로 夜暗을 타서 포위공격을 試圖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대대를 제 2선의 제 2대대의 後方으로 은밀히 뺏아내려 栢子田(당지 北쪽 2km) 부근에 축차진지를 점령토록 措置하였다.

한편 이 동안 제 2대대(장, Gordon E. Murch 소령)는 梅琴里부근에 제 2선진지를 점령하고, 제 1선 대대의 戰況을 지켜보았는데, G중대를 道路 東쪽의 △303에, E중대를 그 西쪽의 △255에 각각 배치하여 제 1대대의 철수엄호와 동시 敵의 南進을 阻止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바, F중대와 제 79전차대대 A중대(-)가 梅琴里 南쪽에서 道路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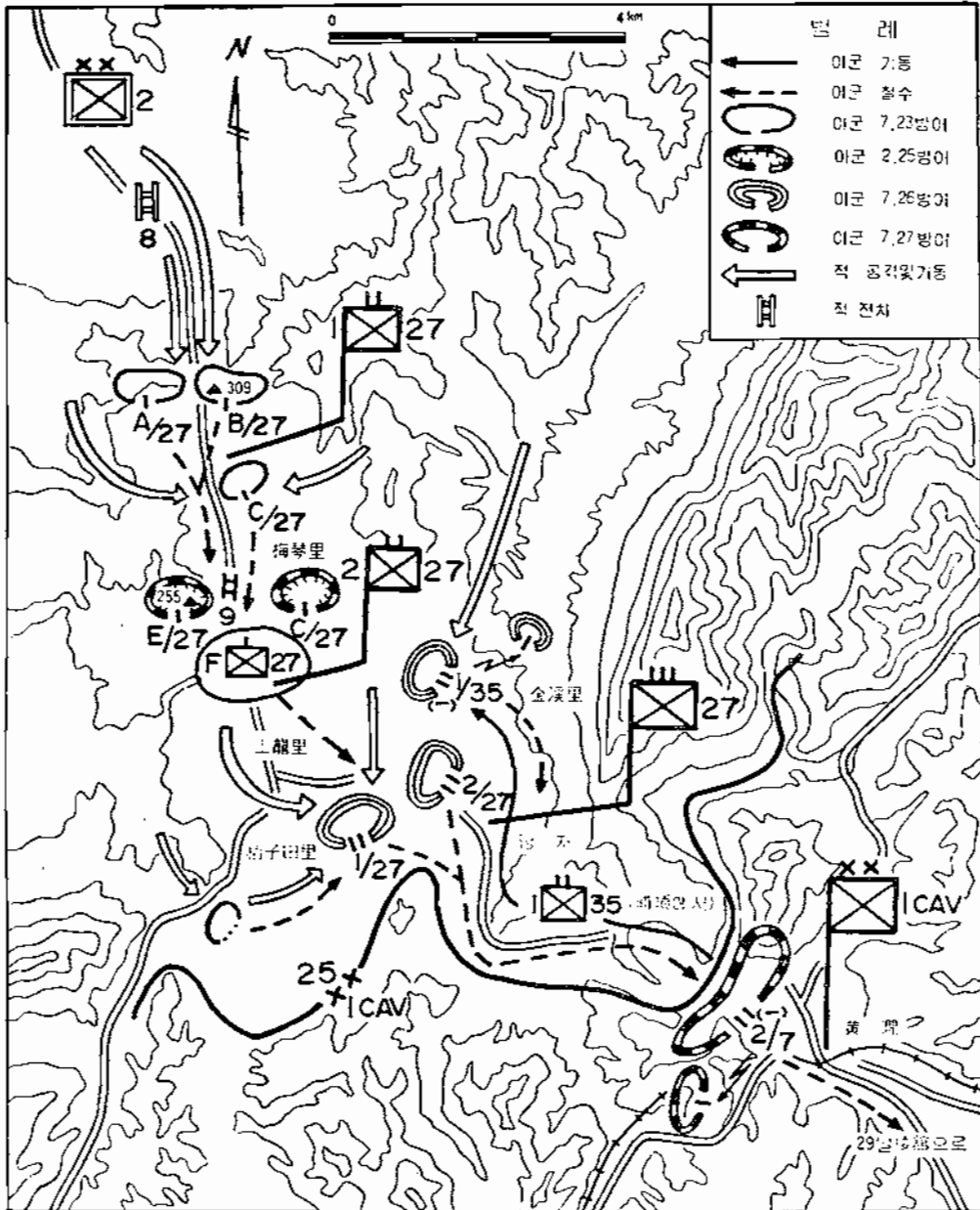
그리하여 날이 저문 뒤, 제 1대대가 은밀히 진지에서 철수하여 栢子田부근에 징결하는 동안 새로이 제 1선이 된 제 2대대는 보병과 戰車의 火力을 통합하여 그 射向東을 제 1대대의 진지로 집중하여, 敵이 同대대진지로 접근하면 그 砲火로써 殲滅키로 계획하고, 밤을 새워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7월 25일 : 날이 밝자, 과연 연대장이 豫見한 바와 같이, 敵이 제 1대대의 夜間철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2개 대대규모로써 同진지의 左右側方으로 우회하여 後方의 退路를 차단코자 하였다.

이에 제 2대대는 敵이 제 1대대의 原陣地를 감싸는 형세로써 대대와의 사이의 도로를 차단한 다음 제 1대대의 背後를 찌르려는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 대대장 Murch소령의 통제하에 제 8포병대대의 105mm포사도 12문과 제 79전차대대 A중대의 M-24 전차 9대, 그리고 대대의 81mm 및 60mm 박격포등 모든 支援火力을 동시에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또 한번 不意에 烈火를 뒤집어쓰게 된 敵은 한동안 骨片과 肉塊가 紛飛하는 修羅의 한 場面을 演出한 끝에 이윽고 濛濛한 黑煙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잠시뒤에 焰煙이 걸터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敵屍가 野地에 깔려 있었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者들이 鬩를 잃고 彷徨하는 것이 目擊되었다. 이에 대대원이 陣前으로 달려나가 그 敵兵들을

◇ 상황도 제55호 제27연대의 지연전(7.23~29)



사포잡았는데, 그 포로의 數가 30여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火力으로써 敵을 制壓한 뒤로, 敵은 전날 그들 戰車의 損失로 말미암아 그 突貫力을 驅使할 수 없었던지 대대와의 正面對決을 피하고, 대대진지의 兩側方 능선을 따라 迂回하여 앞서와 같이 退路차단코자 위협하였다.

날이 저문 뒤 敵의 박격포탄이 1分間에 8~10발정도로 대대진지에 炸裂하는 가운데 右 제 1선의 中대정면에 壓力이 계속되었으므로, 22.00에 연대장이 同대대로 하여금 栢子田부근의 제 2대대 東쪽에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子正이 가까와졌을 무렵, 예비인 F중대와 戰車의 掩護下에 G,E兩중대가 當面한 接敵을 끊고 진지에서 이탈하여 밤을 도와 “당저” 西地쪽 1km의 黃澗—報恩도로의 東쪽에 진지를 새로이 점령하였다.

7월 26일 : 이날 연대는 浦項의 비행장을 경비중이던 제 35연대 제 1대대(장, Bernard G. Teeter 중령)의 增援을 받게 되었다.

이 대대는 22일 제 7기갑연대가 浦項에 上陸함으로써 그 제 1대대에 비행장 경비임무를 인계하고 전날 사단으로 복귀한 것인데, 이 대대가 尙州로 집결하자 사단장 Kean소장이 이를 松川 北岸의 연대에 배속조치한 것이었다. 이는 연대가 黃澗으로 물러날 경우, 左隣接의 제 1기갑사단의 京釜本道에서 早期철수가 不可避하게 되므로 연대의 防禦力을 增強키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同대대가 “당저”에 도착하자 연대장 Michaelis중령은 이를 金溪里 (“당저” 北쪽 2km)로 推進하여 그 西北쪽 △374(金溪里 西北쪽 1km)부근에 진지를 점령케 함으로써 연대의 右一線으로 삼았다.

이에 대대는 主力을 △374에 두고, 1개 中대를 뽑아 錦上川계곡 東쪽의 △266(△374 東北쪽 1.5km)에 배치하여 錦上川계곡으로의 敵侵에 對備하였는데 이날은 큰 接戰이 없었다.

7월 27일 : 이날 天明과 더불어 敵이 梅琴里에서 上龍里부근으로 南下하여 연대의 左一線인 제 1대대(장, Gilbert J. Check 중령)진지에 공격력을 집중함으로써 終日 血戰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C중대의 경우는 진지를 점령한 高地의 頂上을 세차레나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血鬪가 反復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당초 100여명으로 진지를 점령하였던 中대원 가운데 40여명이 死傷하고 60여명이 남게 되었으며, B중대도 中대원이 85명으로 減少되었다.

7월 28일 : 전날은 철전중에서 하루를 더 支撐하였으나, 이날 아침 마침내 左一線대대의 C중대진지가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연대의 戰線에 龜裂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Michaelis중령은 黃澗의 제 1기갑사단 지휘소로 가서 同사단장 Gay소장에게 『연대의 抵抗能力이 限界에 다다랐으므로 연대를 貴사단의 作戰路(黃澗—金泉)를 이용하여 철수시키고자 합니다. 道路사용에 대한 협조를 要望합니다.』는 要指로 연대의 現況과 철수 취지를 알렸다. 이에 사단장은 곧 大邱의 제 8군사령부에 이를 報告하여 연대의 撤收승인 與否를 묻되, 『제 27연대로써 出血을 堪耐하고 遲延戰을 계속토록 할 것인가, 不然이면 金泉으로 철수시켜 該사단으로 복귀토록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 8군 참모장 Landrum대령이 有線으로 『제 27연대를 철수시키도록하라.』라는 사령관의 命令을 전달하였으므로 이날 밤중으로 연대가 진지에서 철수하여 黃澗을 거쳐

金泉으로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29일 새벽에 연대는 金泉 東쪽 1.5km로 철수하였는데, 同日 午後에 다시 제 8군의 명령에 따라 東으로 洛東江을 건너 倭館으로 집결하여 軍의 예비가 되었다.

이동안 연대는 戰死 53명과 負傷 221명, 그리고 失蹤 29명 등 모두 323명의 損失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敵 제 2사단은 연대와의 戰鬪로 3,000여명의 손실을 보아 春川과 淸州에 이어 또 한번 打擊을 받게됨으로써 繼戰能力을 喪失케되어, 이로부터 戰線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되고 말았다.

## (2) 제 1기갑사단의 戰況

### (가) 작전계획

7월 18일에 浦項에 상륙한 제 1기갑사단은 즉시 大田의 제 24사단을 赴援케 되었다.

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은 사단포병사령관 Charles D. Palmer준장으로 하여금 먼저 상륙을 끝낸 제 5, 제 8 兩 기갑연대를 지휘케 하여, 永同으로 急進토록 함으로써 제 24사단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제 8군사령관의 命을 受領하기 위하여 大邱의 軍사령부로 달려갔다.



<永同에 集結한 美 제 1기갑사단>

사단장이 군사령부에 當到한 바, 군사령관 Walker 중장이 사단장에게 내린 첫명령은 이러한 것이었다.

『제25사단은 永同을防禦하라. 그 後方에는 友軍이 없으므로, 特히 後方 보급로의 확보에 注意를 要한다. 食糧이 없이는 살수 있지만, 彈藥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銘心하라. 永同—大邱의 本道가 폐쇄되었을 때에는 이미 탄약이 射盡된 뒤일 것이다.』

한편, 20일 저녁에 제 5, 제 8 兩기갑연대는 포병사령관 지휘아래 永同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이날 大田에서 제24사단이 敗退하게 됨으로써 이들 연대가 永同線에 새로운 阻止진지를 점령하여 敵을 막아내어야 하게 되었다.

21일에 사단장 Gay소장이 永同으로 가서 이들 연대의 진지점령을 指導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 8군 G-3의 MacLean 중령이 사단에 명령을 전하기를 『1개 대대는 永同 西北쪽의 錦江 東岸(京釜本道上)에 진지를 점령토록 하고, 1개 대대를 永同 西南쪽 茂朱도로에 배치하라.』라는 것이었다. 이는 즉, 大田에서 東南쪽으로 이어지는 京釜國道와 錦山—茂朱를 거쳐 永同에 이르는 도로로 敵이 兩面공격을 하려 할 것이라는 判斷아래, 이들 두 도로를 함께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포병사령관 Palmer 준장은 병력을 分散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防禦力의 弱화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敵에게 쉽사리 各個突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京釜本道를 확보하여 제24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이 當面한 急先務인만큼 永同 東쪽의 방위에 유리한 地形을 선점하여 병력을 集中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見解를 사단장에게 피력하였다.

사단장도 이에 同意하고, 제 8군사령부에 MacLean 중령이 奏대한 명령의 實行與否를 재확인한 바, 同사령부는 『命令대로 실행하라.』라고 回信하였다.

이리하여, 하는 수 없이 사단은 제 8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京釜本道와 茂朱도로에 나누어 배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단의 防禦체획은 대체로 이리하였다.

『① 포병사령관 Palmer준장은 제 5, 제 8 兩연대를 지휘하여 永同을防禦하여, 敵을 최대한 遲延케 한다.

② 제 8기갑연대의 제 1대대는 京釜國도에, 제 2대대는 茂朱도로에 진지를 점령하여 敵을 阻止한다.

③ 제 5기갑연대는 永同 東쪽 △426(永同 東쪽 3km)부근에 예비진지를 점령하여 제 8기갑연대를 지원한다.

④ 제 77포병대대 및 제 92對空砲대대 A포대는 제 8기갑연대 제 1대대를 직접지원한다.

⑤ 제 99포병대대 및 제 61포병대대는 제 8기갑연대 제 2대대를 직접지원한다.

⑥ 제 72전차대대 A중대는 제 8기갑연대 제 2대대를 지원한다.

⑦ 사단지휘소는 黃稠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前線방어를 맡게된 제 8기갑연대는 22일 낮중으로 방어배치를 끝내었는데, 제

1대대는 藥木里(永同 西北쪽 5.5km) 西쪽의 錦江 東岸에, 그리고 제 2대대는 葛嶺(永同 西南쪽 5km) 부근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다.

#### (나) 작전실시

##### ① 永同부근의 戰況(7.23~25)

7월 23일 : 20일 저녁에 大田을 점령한 敵제 3사단은 21일을 大田에서 지낸 다음, 22일에 그 제8연대와 戰車일부가 沃川—永同街道를 따라 東南進하고, 제 7, 제 9의 兩연대는 南으로 錦山—茂朱로 돌아 西北進하여 永同을 목표로 分進合擊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敵의 先頭가 전날 21.00 前後하여 錦江 西岸에 진출하여 그 江 건너의 제 8가갑연대 제 1대대(장, Robert W. Kane 중령)를 노려보면서 공격준비를 갖추는 듯 하였는데 이날 아침 錦江의 渡河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가 3.5' Rocket砲로써 敵 戰車 3대를 격파하고, 이어 제77포병대대의 105mm 곡사포와 제92對空砲대대 A포대의 Cal 50 및 37mm砲등의 火力을 집중함으로써 敵의 渡江을 阻止하였다. 따라서 敵은 終日토록 江을 건너지 못하였다.

한편, 이날 茂朱도로의 제 2대대(장, Eugene J. Field 중령)는 錦山—茂朱로 迂回한 敵 제 7, 제 9 兩연대의 공격을 받아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낮 동안 대대의 陣地는 지켜내었으나, 敵의 일부가 대대의 正面에 압력을 加하여 注意力을 견제하는 사이에 다른 일부가 대대의 西北쪽으로 迂回하여 이날 밤에 대대 後方의 妙洞(葛嶺 北쪽 2.5km) 부근에 道路를 차단함으로써 대대의 增援수단을 봉쇄하는 한편 退路를 위협하였다.

7월 24일 : 제 8가갑연대(장, Raymond D. Palmer 대령)의 제 1대대는 포병지원아래 이날도 진지를 지켜내었으나, 제 2대대는 敵이 그 後方을 차단함으로써 말미암아 戰況이 急轉하였다.

제 2대대는 이날 아침에 後方의 通路가 차단된 것을 알게 되어, 곧 대대장 Field 중령 지휘하에 M-24輕戰車 3대로써 동로의 개척에 나섰다, 대대장이 負傷을 입는 가운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에 포병사령관 Palmer 준장이 永同 東쪽의 제 5가갑연대에서 1개대대를 뽑아 사단수색중대와 함께 茂朱도로의 대대를 增援토록 조치한바 同연대의 제 1대대가 사단수색중대와 함께 永同으로부터 道路의 遮斷線을 뚫고 葛嶺부근의 대대진지로 增援됨으로써 그곳의 防禦力을 증강케 되었다.

그런데 敵은 避難民을 假裝하여 我軍戰線 後方으로 侵透함으로써 砲진지의 奇襲과 通路의 차단 등 교란을 획책하였는데, 이날 제 2대대를 지원중이던 제 99 및 제 61포병대대의 진지가 敵의 襲擊을 받기도 한 것이다.

한 피난민 夫婦를 檢索한 결과 妊娠婦로 보이는 女人의 옷속에 小型 無電機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발각되었는데, 이는 그 무전기로서 美軍의 진지배치상대와 砲진지의 위치등을 報告키로 되어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은 警察병력을 動員하여 피난민의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晝間에만 指定된 通路를 사용토록 統制를 함으로써 피난민을 假裝한 五列의 侵透防止에 힘썼다.

7월 25일 : 이날 드디어 永同이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날 京釜本道上的 敵은 이를 동안 錦江의 渡河에 실패하자, 正面에서 세찬 압력을 加하면서 그 일부로써 北쪽의 松川 南岸으로 迂回하여 제 1대대의 後方을 차단코자 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 77포병대대(장, William A. Harris 중령)와 4.2" 重박격포중대(장, Rene J. Giuraud 대위)의 掩護下에 진지에서 철수하여 永同으로 불려나게 되나, 대대를 엄호하던 重박격포 중대는 박격포를 미처 뽑아내지 못하여 이를 모두 잃게 되어, 보병전투를 하면서 대대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한편, 茂朱도로의 제 2대대는 진지에 我軍포탄이 떨어져 4명의 부상자가 생기게 될 정도로 포병의 近接支援을 받는 가운데 밤 동안 진지를 지켜내었으나, 다시 後方으로 침투한 敵의 일부가 補給路를 차단코자 하였으므로 이날 天明과 더불어 진지에서 철수케 되었다.

04.30 前後하여, 後方の 敵차단선을 뚫고 主力은 永同으로 집결케 되었으나, 後衛를 맡았던 F중대와 사단수색중대 및 제 71전차대대 A중대 제 1소대는 다시 道路가 막혀, 永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同 2개중대와 전차 7대의 승무원들은 戰車를 파괴한 뒤 219명이 共用火器를 전부 遺棄한채 개인화기만을 지니고 東쪽으로 산길을 타서 철수케 되었으나, 이 전투에서 당초의 지원전차 11대중 4대만이 대대 主力과 함께 빠져나갔을뿐 7대는 敵中에 남게 되었다.

이에 永同의 제 5기갑연대 제 2대대가 다시 이 제 8기갑연대 제 2대대를 救出코자 달려가다가 先頭의 F중대가 길을 잘못잡아 敵이 장악중인 高地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중대는 敵의 일제사격을 받아 크게 敗하게 되고 말았으며, 겨우 26명만이 나중에 그 대대로 복귀하였을 뿐 나머지는 行方조차 杳然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 8기갑연대와 제 5기갑연대는 당초의 제 5연대 진지로 물러나, 함께 阻止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 제 8기갑연대 제 2대대를 지원하던 제 5기갑연대에서 모두 275명의 死傷者를 내었다.

이리하여 敵제 3사단의 先頭부대가 20.00에 永同邑內에 進入한바 그들은 곧 邑 東쪽의 高地帶에 진지를 점령하여 逆襲에 대비하는 듯 하였는데, 뒷날 捕虜의 진술에 따르면 敵은 24~25일 동안에 사단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2,000여명으로 손실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로써 同사단은 5,000명 수준으로 병력이 감소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 편제병력의 50%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 ② 金泉부근의 戰況(7. 25~31)

## 1. 黃澗부근의 狀況

한편 사단의 後發隊인 제 7기갑연대(장, Cecil W. Nist 대령)는 浦項으로 上陸을 待機하던 중 颱風 Helene號의 強襲으로 말미암아 22일에야 제82포병대대와 함께 上陸케 되었다.

이에 연대는 上陸 즉시로 제 1대대(장, Peter D. Clainos 중령)로 하여금 浦項비행장을 경비중인 제25사단 제35연대 제 1대대와 交代케 하여 浦項비행장의 경비임무를 맡도록 하고, 제 2대대(장, Omar T. Hitchner 중령)와 연대본부만이 金泉을 목표로 달려갔는데, 25일에 秋風嶺에 진지를 점령케 되었다.

이는 黃澗—金泉間의 보급로를 확보키 위한 사단장의 措置에 따른 것인데, 이날 밤 子正이 지나자 연대장 Nist대령은 『報恩도로의 제25사단 제27연대의 진지가 몰파되었다.』는 出處不明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실은, 이때 同제27연대(장, John. H. "Mike". Michaelis 중령)는 梅琴里부근에서 奮戰중이었지만, 경위를 알 수 없는 이같은 誤報가 전하여짐으로써 연대원을 크게 動搖케 하였다.

이 誤報는 及其也 「敵이 제27연대진지를 突破하고, 그 餘勢를 몰아 京釜本道로 直衝하여 곧 연대正面으로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推理를 낳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연대장 Nist대령은 전투경험이 없는 제 2대대의 現방어태세로서는 敵의 夜襲을 支撐하지 못할 것이라고 速斷케 되었다.

이리하여 연대장이 대대를 진지에서 철수토록 하는 望風敗走의 한 場面이 演出된 바, 夜間철수과정에서 또 한번 原因을 알수없는 혼란이 惹起되어 119명이라는 대대원의 行方을 잃는 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그 이튿 날 새벽에 소대선임하사관들이 대대의 原진지로 올라가 그곳에 遺棄된 火器를 回收한바, 그 수가자 기관총 14정을 비롯하여 무전기 9대, M1소총 120정, CAR 26정 BAR 7정, 60mm박격포 6 문에 달하였다고 하니, 철수과정에서의 혼란상태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일이다.

27일, 연대는 제 2대대를 다시 수습하여, 사단장의 奮勵下에 黃澗으로 진출한 다음, 그 西北쪽 松川 南岸에 진지를 점령하여 報恩도로上에서 血戰中인 제27연대의 엄호와 아울러 사단 側方을 防護케 되었다.

한편, 이 동안인 25일 밤에 제5, 제 8兩기갑연대는 永同 東쪽의 새로운 진지에서 陣前에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砲兵의 火網을 구성하여 敵을 遲延케 되었다.

그런데 26일 새벽에 수백명의 피난민이 橫隊로 들어서서 지뢰지대를 통과하여 陣前으로 접근하였는데, 그 뒤에는 4대의 敵 戰車와 敵의 보병이 피난민의 등뒤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난민으로써 地雷를 촉발케 하는 악랄한 殺人行爲를 자행하여, 地雷源의 제거를 企圖하였는데, 피난민이 隊列에서 離脫하여 달아나자 가차없이 이를 射殺하는

것이였다. 美兵들이 이를 보고서도 차마 사격을 加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난민으로써 지뢰지대를 闐開케 되었으나 그 지뢰지대를 代身하여 포병이 彈幕을 둘러쳐서 敵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자 敵은 正面突破를 斷念한듯, 일부를 永同東쪽진지에 남겨 제5, 제8兩기갑연대를 억류하는 가운데 主力을 南쪽의 茂朱로 뽑아들려 知禮(金泉 西南쪽 16km)—金泉으로 우회하여 金泉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러한 敵의 企圖는 곧 항공정찰 결과, 敵이 金泉 西南쪽의 茂朱—知禮도로로 우회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黃澗에 사단지휘소를 두고 있는 사단장 Gay소장은 사단병력을 金泉으로 뽑아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다만 그 時機가 문제였다.

그러던 28일 저녁, 前述한 바와 같이 제27연대가 敵의 壓力에 더 이상 지탱치 못하고 松川 건너 물러서게 됨에 따라, 그 뒤를 이어 사단도 29일에 金泉으로 철수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29일 아침, 사단은 黃澗에서 金泉으로 물러나, 새로운 진지를 점령케 되었으며 이때 제8군에서는 金泉 西南쪽의 知禮도로의 敵勢를 감안하여 大邱의 제24사단 제21연대의 제3대대를 제25사단에 配屬조치하여 知禮도로를 填索토록 하였다.

이에 同제21연대 제3대대가 下院里(知禮 東北쪽 6km) 부근으로 달려가 阻止진지를 점령하는 가운데, 金泉으로 집결한 사단은 지휘소를 金泉에 開設하고, 제7기갑연대를 金泉 西北쪽 9km의 △275부근에 배치하여 黃澗으로부터 敵侵을 막도록 하는 한편, 제5기갑연대를 知禮도로의 △185(金泉 西南쪽 4km) 부근에 배치하여 제21연대 제3대대의 後方に 축차진지를 점령케 하였는데, 이때 제8기갑연대는 北쪽 尙州도로의 南山里(金泉 北쪽 5km) 부근에 배치하여, 金泉의 확보에 專力키로 하였다.

## 2. 知禮부근의 狀況

사단이 金泉으로 철수한 29일 아침, 사단장 Gay소장은 먼저 사단수색중대로 하여금 西南쪽의 知禮도로를 정찰하여 敵情을 수집토록 하였다.

이에 중대는 Lester Lauer중위가 이끄는 1개소대 규모의 차량정찰대를 知禮로 내려보낸 바, 09.00 前後 知禮에 이르기 전인 途中에서 경찰병력으로부터 『知禮에 敵 1개 대대가 進入하였다.』라는 情報를 入手하게 되었다.

이에 Lauer중위는 無電으로 중대장 Charles V.H. Harvey대위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다른 1개소대를 增派키로 결심하고, 自身이 同소대를 직접지휘하여 경찰병력 14명과 함께 차량으로 知禮도로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중대장 一行은 知禮마을을 지나 그 南쪽 於口에서 Lauer중위의 소대와 合勢하였는데, 그때 그 正面에 나타난 敵의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兩소대는 正午에 知禮로 철수하여 마을 北端에 차량들모셔 도로를 가로막아 차단

선을 설치하고 敵의 動靜을 지켜본바, 敵의 기관총사격이 차단선에 집중하면서 200~300명의 敵이 南쪽으로부터 나타나 그들 偵察兵을 마을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는 81mm박격포 3문으로써 敵의 기관총좌를 覆滅하였으나 敵의 응수가 만만치 않아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一戰에서 Harry D. Mitchell하사같은 병사는 네차례나 부상을 입어 온 몸에 鮮血이 淋漓한 가운데에서 끝내 그의 박격포를 놓지않고 포탄이 다하도록 사격을 계속하였으며, 중대장 Harvey대위도 처음에 敵의 기관총에 한쪽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응급치료를 거절하고 전투지휘를 계속하다가 턱에 敵彈을 다시 맞아 끝내 그곳에서 숨지게 되고 말았는데, 撤收하라.』라는 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하여 중대의 남은 장교 3명과 병사 41명이 차량과 장비를 路上에 遺棄한채 그 근처의 高地로 올라가, 진지를 점령하여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된 다음, 산길을 타고 金泉으로 철수하여 그 이튿날 30일 아침에야 사단지휘소에 당도함으로써 知禮의 敵情을 알리게 되었으니, 29일의 전투결과 중대는 중대장을 포함하여 2명이 戰死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1명이 失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30일, 敵이 知禮에까지 이르렀다는 수색중대의 警報에 따라 사단장 Gay소장은 전날 下院里에 배치된 제21연대 제3대대와 그 後方に 진지를 점령중인 제5기갑연대 제1대대를 知禮로 추진하여 제99포병대대의 지원下에 敵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이들 兩대대가 포병과 함께 知禮로 急進한 바, 敵은 마을을 비워놓은채 그 南쪽의 高地帶를 점령하여 砲火만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에 兩대대는 제99포병대대가 그 敵에 응수하여 火力을 交換하는 가운데 知禮 마을 北쪽 고지를 점령하여 敵과 對峙케 되었다. 그런데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知禮에 먼저 당도한 敵은 제7연대로서 그들 後續부대의 來着을 기다렸던 것으로써 그들은 後續부대와 合流한 다음 일거에 金泉으로 進攻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敵이 그들의 後續부대를 기다리는 사이에 知禮에서 對峙한 채로 31일을 지내게 되었다. 이동안 분대규모의 敵이 제5기갑연대 진지 後方の 金泉부근에까지 침투하여, 사단지휘소에서 불과 1km 남짓 떠러진 곳에 있는 제8전투공병대대 본부를 기습함으로써 同대대의 副대대상등 4명이 戰死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바로 이날 31일에 荊澗으로부터 敵제 8연대가 戰車 24~25대를 앞세우고 京釜本道로 들이닥쳐 제7기갑연대를 공격하였으나, 제7기갑연대는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아 이를 阻止하였다. 즉, 이날 하루동안에 空中공격으로 13대의 戰車를 파괴한바, 다른 6대는 路上에서 炎上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니, 이와 같이 敵의 戰車殆半을 격파함으로써 銳氣를 꺾어 격퇴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날까지 사단과 對決케 된 敵제 3사단은 그들 지원 전차연대가 殲滅的인 타격을

입은 것 외에도 2,000여명의 死傷者를 본 것으로 推算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 병력은 5,000명 內外로 減少되었을 것으로 풀이되었다.

한편 사단은 23일 敵과의 첫 交戰을 치른 뒤로 31일까지 입은 損失은 모두 916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 戰死가 78명, 負傷이 419명, 그리고 失蹤이 419명인 것으로 集計되었다.

### 3. 金泉의 撤收

25일에 제 1기갑사단이 永同을 喪失하게 되자, 그 이튿날인 26일에 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洛東江線에서의 防禦作戰에 대한 腹案을 확고히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철수준비 명령을 全軍에 下達하였다.

『① 軍은 준비된 진지로 移動하여 戰況의 安定을 도모하는 한편, 次期 攻勢作戰에 필요한 지역을 확보하려 한다.

② 各級부대는 철수間 최대한으로 敵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遲延케 하라.

③ 철수時期는 後達한다.』

Walker중장은 이러한 철수계획의 內示와 더불어 大邱의 군사령부를 釜山으로 이동코자 東京의 UN軍사령부에 건의한바, 27일 10.00에 MacArthur원수가 직접 戰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사령부를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Walker중장으로부터 戰況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MacArthur원수는 現전선확보의 必要性을 강조하되, 『절대로 韓國에서 제 2의 Dunkerque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이튿날인 29일에 Walker중장은 尙州의 제 25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訓令을 하달하였다.

『二日前에 MacArthur원수가 軍을 방문하였다. 元帥는 우리 軍이 처한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가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敵의 窮極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元帥가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 軍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증원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수일내에 해병 1개 여단과 보병 2개 연대가 증원될 것이며, 앞으로도 가능한 증원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 물려설 곳이 없으므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대는 최대한의 역습으로 戰勢의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라. Bataan과 Dunkerque에서의 비극을 상기하라. 釜山으로의 후퇴는 그와 같은 殺戮만이 따를 뿐이다. 최후까지 싸워라. 寸土라도 양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간 戰友의 죽음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 나는 사단의 全 장병이 나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現전선은 확보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勝利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銘心하기 바란다.』

이 訓令은 곧 「固守냐, 죽음이냐(Stand or Die)」라고 표현되어 全軍에 전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實行 可能性 여부를 놓고 받아들이는 反響은 各人各색이었지만, 어떠한 現戰線의 固守에 대한 새로운 決意를 가다듬게 되었다.



<金泉부근에서 撤收中인 美兵들>

南部地區의 虛隙을 補填키 위한 苦肉策의 一環이었다.

이에 同사단은 金泉을 확보중인 제 1기갑사단의 掩護下에 이날 倭館으로 集結한 다음, 곧 列車便으로 三浪津을 목표로 轉進케 되었다.

한편 제 1기갑사단은 8월 1일까지 金泉을 固守하여 제25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뒤, 제 5기갑연대를 엄호부대로 삼아 洛東江을 건너 倭館으로 集結하여, 江 東岸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8월 1일 午後에 제 8군으로부터 三浪津으로 移動하라는 명령은 받은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은 이날 밤중부터 可用한 수송수단을 모두 動員하여 三浪津으로 轉進케 되었으나, 그 이동중 다시 목적지가 馬山으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三浪津을 거쳐 곧 바로 馬山으로 集結케 되었는데 사단사령부의 선발대는 2일 21.15에, 그리고 사단 主力은 3일 낮중에 馬山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지난 7월 20일에 제27연대가 安東에서 黃澗으로 機動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36시간 만에 240km를 走破하는 機動성을 보임으로써 洛東江 西南部지구의 空白상대를 彌縫케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7월 29일에 제 8군의 예비로 전환되었던 同사단의 제27연대는 그 이튿날 30일에 제24사단에 배속되어 靑州지구에 投入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제25사단이 金泉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大邱正面의 京釜國道상의 방어력이 弱화 되어 제 1기갑사단이 큰 壓력을 받게 되었다.

사단이 제25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뒤 마지막으로 사단의 主力을 뽑아내던 중 제 8기갑연대의 1개대

다시 이를 뒤인 31일, 敵이 京釜本道와 知禮도로를 따라 金泉을 목표로 壓력을 加하고 있을 무렵, 제 8군은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을 尙州에서 철수시켜 金泉 後方(東쪽 6km)에 축차진지를 점령케함으로써 大邱正面의 방어력 증강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일 새벽 同사단이 尙州 南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同日 사단이 尙州—金泉—倭館도로로 철수하여 金泉 東쪽에 集結중인 15.00에 다시 제 8군은 全軍에 洛東江 東岸으로 철수케 함과 同時에 이 제25사단으로 하여금 三浪津에 集결토록 하는 修正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이는 洛東江 西南部地區의 虛隙을 補填키 위한 苦肉策의 一環이었다.

대의 後尾엄호부대인 제 5기갑연대의 1개 대대의 큰 損失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하여 8월 3일 밤에 倭館철교와 人道橋를 폭파하고 洛東江의 東岸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倭館 北쪽 3km地點을 接戰線의 基點으로 삼아 國軍제 1사단과 連繫하여, 제 5, 제 8, 제 7기갑연대의 順으로 3개연대를 1선에 배치케 되었다. 한편, 지난 7월 29일에 사단에 배속되었던 제 24사단 제 21연대 제 3대대는 原소속대로 복귀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倭館을 中心으로 그 東쪽은 國軍이, 그 西쪽은 제 8군이 담당케 된바, 8월 4일부터 軍의 右翼인 제 1기갑사단은 敵 제 1, 제 3 兩사단과, 中央인 제 24사단은 敵제 4사단과, 그리고 左翼인 제 25사단은 敵제 6사단과 各各 본격적인 對峙상태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로부터 洛東江을 피로 물들이는 血戰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 § 戰 訓

### (1) 제 27연대의 單獨戰團에 대하여

報恩—黃澗도로의 敵제 2사단의 진출을 막고자 7월 20일에 安東의 제 27연대가 급거 轉進하여 이 敵의 阻止에 投入된 바 있는데, 이 연대는 제 25사단소속으로서 포병과 戰車를 통합한 연대전투단(RCT)을 구성하여 연대단독으로 同전투를 수행하였다.

당시 제 8군이 이 연대를 黃澗 西北쪽에 投入한 것은 京釜國道를 담당한 제 1기갑사단이 달리 轉用할 병력을 보유치 못한 까닭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 報恩도로가 黃澗에서 京釜本道와 합쳐지는 점을 들어본다면, 이 正面的 방어책임은 제 1기갑사단장에게 일임하였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同연대로 하여금 단독작전을 수행케 하기 보다는 이 연대를 제 1기갑사단에 배속조치하여 同사단장의 책임하에 지연작전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同연대장이 28일 밤에 연대의 철수를 결심하고 그 통로의 사용문제를 제 1기갑사단장과 협의하였다는 것, 그리고 사단장이 同연대의 철수허가여부를 제 8군에 확인하였다는 것, 이것은 同一한 任무를 2개 부대가 分割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 (2) 포병사령관의 戰團지휘에 대하여

제 1기갑사단의 포병사령관인 Charles D. Pai-

mer준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의 永同전투에서 제 5, 제 8 兩기갑연대를 지휘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당시 同사단에 副사단장이 없었고, 따라서 포병사령관이 副사단장의 임무를 겸한 것인지는 모르되, 포병사령관이 보병 2개연대를 지휘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못한 感이 없지 않다.

포병사령관이 보병지휘를 한 例가 없는 바는 아닌 것으로서, 제 24사단이 처음 出動하여 烏山부근에서 緒戰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도 당시 同사단 포병사령관 代理인 George B. Barth준장이 제 34연대를 일시 지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同사단장이 戰線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下의 일 이었던 것이다.

제 1기갑사단의 경우, 당초 浦項에 상륙한 제 5, 제 8기갑연대를 이끌고 포병사령관이 사단장보다 먼저 永同에 도착한 것은 理解가 가지만, 그뒤 사단장이 제 8군사령관의 命命을 受領하여 黃澗에 지휘소를 개설한 뒤로도, 同포병사령관이 계속 前線의 主力 2개연대를 지휘하였다는 것은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黃澗의 사단장이 마땅히 主力 2개연대를 직접 지휘하였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 27연대가 연대단독으로 敵제 2사단을 1주일이나 지연하였음에도, 제 5, 제 8의 2개 기갑연대가 接戰 사흘만에 永同을 내놓고 말았다는 것은 對照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第12章

## 東海岸方面의 角逐

### 要 旨

1. 蔚珍 附近 戰鬥
2. 盈德—江口 附近 戰鬥





## 第 12 章 東海岸方面的 角逐

### 要 旨

本章의 主戰團인 蔚珍附近 및 盈德—江口附近 戰鬪는 東海岸本道로 南下하는 北傀 제 5 사단의 主力을 最大限으로 阻止하면서 浦項—永川線에 대한 北傀 제 2 군단 左翼의 進出을 지연시킨 一連의 單一戰鬪로서의 特性을 띠우고 있다.

즉, 太白山脈으로 內陸과 隔離되어, 南北으로 縱走하는 海岸地帶特有的 兵要地誌에 鑑하여, 彼我間에 山脈以西의 內陸戰線과는 直接的인 戰線 連繫를 유지 못한채, 單一部隊를 始終 運用하였다.

北傀 제 5 사단은 6월 27일에 江陵을 掠占한 뒤, 遊擊兵力인 제 766 부대와 陸戰隊인 제 549 부대를 蔚珍北쪽 海岸地帶로 上陸先行케 하면서 南進을 꾀하였는데, 6월末 현재, 이 東海岸戰線의 國軍은 제 3 사단의 1 개 연대(제 23 연대)를 動員케 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제 3 사단은 北傀南侵이 시작되자, 陸本의 緊急 作命으로 제 22 연대를 서울 首都國防禦線에 急派하는 한편, 殘餘의 제 23 연대로써 東海岸戰線을 專擔케 되었는데, 이는 兵力面으로나 裝備面으로나 鷄刀로써 狂牛를 치려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

國軍으로서의 不意의 全面侵襲을 받아, 首都防衛以後의 主防禦線을 京釜國道로 置重하여, 大邱—釜山의 軸을 中心으로 洛東江의 最後堡壘를 구축하기까지의 遲延戰에 時間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제 3 사단에 대한 增援措置를 취할 겨를이 전혀 없었다.

7월 1일의 蔚珍附近戰鬪에서 비로소 正規戰의 初戰을 경험한 제 23 연대는 劣勢를 挽回할 사이도 없이 平海와 寧海로 피어난 後退를 거듭하면서도 제 22 연대가 復歸하기까지의 遲延戰에 성

공하여, 7월 19일~29일의 10일간에 걸친 盈德—江口附近 戰鬪에서 善戰하였다.

이에는 寧海地區의 防禦線부터 美 제 7 함대 및 英極東海軍 일부의 艦砲支援이 크게 奏效한 탓도 있지만, 제 3 사단은 盈德—江口間의 狹少한 땅이 정면에서 熾烈한 攻防戰을 치른 끝에 北傀 제 5 사단 主力의 南侵衝擊波를 8월상순까지 阻止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主戰場은 俗稱 丸山이라 부르는 △181 및 △207의 2개 連峰과 그 稜線일대의 敵制線이었다. 이 線의 得失로써 盈德市街地의 歸趨가 決定되었는데, 我軍으로서의 盈德市街地의 장악보다도 艦砲의 威力으로써 敵勢에 最大限의 出血을 強要하는 作戰을 常用하였다.

換言하면, 敵의 逆襲에 대하여 △181—△207線은 버릴 수 없어도 盈德周邊만은 굳이 固守치 않고, 길쭉 비어줌으로써 敵頭上의 巨彈의 洗禮를 퍼붓곤 하였다.

이로써 8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敵의 侵襲도 크게 沮喪되었는데, 이는 40%가 넘는 兵力消耗을 보충할 겨를이 없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本章의 戰鬪樣相은 期間中에 거의 類似的한 角逐의 반복이었으므로, 이를 編年體로 日別戰況을 反復敘述하기 보다는 這間의 戰況은 一括要約하고, 主戰을 이루었던 △181—△207에 대한 사단의 逆襲成功을 代表的으로 敘述함으로써, 本章의 要義를 삼는 바이다.

그리고, 浦項에 대한 敵侵의 先鋒이 東海岸戰線의 제 5 사단이 아닌, 中東部戰線의 제 12 사단이었다는 점으로 봐서도 제 3 사단의 善戰防守가 全戰線에 크게 寄與하였던 것임을 窺知하게 된다.

## 1. 蔚珍 附近 戰鬪(1950년 7월 1일)

참조: 별책부도 제 17 호  
상 황 도 제56, 57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3 사단 장 대령 劉 升 烈		제 2 대대 장 소령 白 基 千	
제 23 연대 장 중령 金 宗 元		제 3 대대 장 소령 許 亨 淳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載 烈			
北傀 제 2 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제 10, 제 12 연대 基幹)	
제 5 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제 766 부대 장 중좌 吳 振 宇	

## 나. 전투전의 개황

제 3 사단(장, 劉升烈 대령)은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1950. 6. 25~7. 4)」에 있어서, 他 사단에 비하여, 特異한 狀況下에서 作戰을 수행하였는데, 그 特異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 6월 24일 현재, 大邱 제 22 연대(장, 姜泰敏 중령)와 釜山의 제 23 연대(장, 金宗元 중령)로써 嶺南地區의 共匪격멸 및 衛戍業務를 담당하고 있던 사단은 6월 25일의 北傀南侵으로 因하여 首都圈의 방수가 殆盡되자, 陸本 作戰命令으로 제 23 연대를 서울 外廓線에 急遽출동케 하는 한편, 제 23 연대로써 東海岸沿邊을 방어케 함으로써 사단 主力을 分散使用하게 되었다.

둘째, 東海岸線의 西境을 이루는 太白山脈이 南北으로 縱走하고 있으므로 同山脈 以西의 內陸戰線과는 거의 絕緣된, 사단 獨自의인 방어정면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셋째, 圖上距離 62km에 달하는 海岸線(蔚珍—江口)이 戰線의 東쪽末端部에 開放되어 있으므로 항상 北傀陸戰隊 및 遊擊隊의 奇襲上陸을 威脅받는 不利點이 不擲하였으나, 그 反面으로 東海의 制海權을 완전히 장악한 美제 7 함대의 艦砲支援下에 사단 火力의 劣勢를 일부나마 彌縫할 수 있었다.

네째, 北傀 제 766 부대를 비롯한 遊擊兵力이 太白山脈의 疊嶺深溪로 楔入함으로써 浦項—慶州線을 一路直衝하려는 猪突之勢를 捕捉阻止키 위한 側方방어를 항상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蔚珍에서 盈德 및 江口에 이르는 本期間중(7월 1일~7월 31일)의 東海岸 전황은 南北으로 縱貫한 一連性を 띠우고 있으므로 一括叙述로써 전황 전반을 한 눈에 概觀함이 타당하겠으나,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써 우선 本節을 구체화 하자는 것이다.

첫째, 本節의 戰鬪인즉, 제 8 사단(장, 李正一 대령)이 江陵地區에서 大關嶺 以西의 內陸으로 轉進한 뒤에 蔚珍에 이르기까지의 空虛地域을 南進한 北傀 제 5 사단에 대하여, 사단의 일부로써 初擊을

加한 一戰인 동시에, 平海線(蔚珍 南쪽 30km, 盈德 北쪽 35km)에서 戰力을 일단 가다듬에, 延延戰으로 移行하는 것 作戰단계이며,

둘째, 本節의 戰鬪期間(7.1~7.4)은 改訂版 제 1권에 수록된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 10일간의 後半에 해당되므로 該기간중에 수행된 사단의 作戰상황을 서술함으로써, 緒戰期에 있어서의 東海岸戰況을 補遺케 될 것이다.

敵軍의 狀況: 南侵 3일만인 6월 27일에 江陵을 掠取한 北傀 제 5사단(장, 소장 馬相喆)은 基幹 3개 연대(제 10, 제 11, 제 12 연대)중, 제 11연대로 하여금, 我 제 8사단 主力의 撤收를 追隨케 하고, 제 10, 제 12의 2개 연대로서 海岸本道에 대한 侵攻을 계속케 하였다.

이와는 別途로 正東津里(江陵 南쪽 16km)에 上陸한 北傀 제 549부대(陸戰隊)는 江陵을 초월진출한 제 5사단 全力과 合流하였으며, 臨院津(竹邊 北쪽 23km)에 上陸한 제 766부대(장, 총좌 吳振宇)는 日月山—英陽—靑松을 向하여, 太白山脈으로 潛入하였다.

그런데, 我 제 8사단을 追隨한 제 11연대는 大關嶺—平昌—寧越로 進出한 다음 다시 사단 主力에 복귀된 듯하며, 遊擊戰을 主任務로 하는 제 766부대는 미리 太白山系속에 潛伏중인 共匪徒黨을 吸收하면서, 浦項—慶州線에 대한 楔入을 서둘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企圖를 분석컨대, 北傀 제 2군단(장, 소장 金光俠)은 東海岸戰線의 특수한 兵要地誌에 鑑하여, 제 5사단 및 제 766부대로 하여금, 獨自의인 作戰을 수행케 함으로써, 東海岸의 要衝인 盈德—浦項을 早期에 掠占케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는 秋風嶺 以東의 地域을 담당한 軍단 主力의 進出에 앞서 浦項까지의 主要 港口를 장악한 然後에 釜山攻略을 容易케 하려는 企圖입이 分明하였다.

이러한 敵勢에 비추어 그 兵力 및 裝備를 推算컨대, 初戰 3일간에 걸친 江陵까지의 戰鬪에 있어서 我 제 8사단에 의한 損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水準을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兵力	20,000명.
SU—76自走砲	16대.
122mm 野 砲	12문.
120mm 迫擊砲	18문.
82mm 迫擊砲	81문.
76mm 直射砲	36문.
45mm 反戰車砲	48문.
61mm 迫擊砲	수백문.

我軍의 狀況: 6월 25일, 陸軍本部의 緊急命令으로 제 22연대를 首都 外廓線에 急速 출동시킨 제 3사단은 殘留 基幹 1개 연대와 배속받은 2개 특수대대로서 東海岸沿邊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該地區의 敵戰力에 比하여, 劣勢를免치 못하는 사단의 戰力은 마치 棍棒으로써 狂牛를 치려는 格과 多름없는 切迫한 상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단은 北傀南侵을 豫知하지 못한 가운데 6월 25일부터 太白山以南地區의 共匪擊滅에 着手할 출동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즉, 6월 중순 현재, 太白山—普賢山—智異山에 걸친 嶺·湖南의 일부지역에는 殘存共匪와 北傀의 南派遊擊隊(장, 李承燁) 30개 組가 合流하여, 540명으로 推算되는 兵力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陸軍本部는 이 共匪를 芟除하기 위하여, 6월 24일에 출동부대의 작전회의를 浦州에서 개최하였다.

作戰局長인 姜文奉 대령의 主官으로 소집된 이 회의에는 제 3사단장 劉升烈 대령, 同 작전참모 張松賢 소령, 제 5사단 참모장 朴炳權 대령, 獨立제 1대대장 金滄舜 중령, 永登浦學院 부대장 洪聖俊 소령, 警察部隊대표 등이 참석하였는데, 제 3사단은 太白山—普賢山地區를 담당하여, 智異山地區를 담당한 他부대와 함께, 25일 05.00부터 일제히 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北傀의 全面南侵으로 이 作戰을 중지하고, 正規戰에 對應케 된 사단은 이 날 11.00에 下達

된 陸軍本部의 『1개 연대를 26일 05.00까지 서울에 차출하여 首都警備司令部에 배속케 하라.』하는 緊急命令(陸本作命 제93호)으로 제22연대의 2개 대대를 사단 참모장인 禹炳玉 중령의 지휘하에 先發시켰으며, 26일에는 殘餘 1개 대대를 同연대장인 姜泰敏 중령의 지휘하에 後續시키는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제23연대의 1개 연대단을 사단基幹으로 보유하게 된 사단장 劉升烈 대령은 獨立제 1대대 및 永登浦學院의 배속을 陸軍本部에 요청하는 동시에 제23연 대장 金宗元 중령으로 하여금, 馬山 등各地에 分散 배치중인 兵力을 釜山으로 집결시켜, 出動命令에 대비토록 하였다.

其實, 大邱에 所在한 제3사단장으로서의 北傀南侵 初日의 前線狀況에 대한 정보입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陸軍本部의 作命이 어떻게 하달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므로 當面한 조치로서는 殘餘의 基幹兵力을 집결 대기토록하는 한편, 사단의 衛戍地區에 대한 自體警戒태세를 확립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장은 6월 25일 12.00를 期하여, 慶尙南·北道 一圓에 대한 戒嚴令을 선포함과 아울러, 大邱 및 釜山을 비롯한 各 市邑의 街頭檢問을 강화케 하고, 民間 트럭 300대를 强발 확보케 하였다. 왜냐 하면, 前者는 良民을 가장한 共匪 및 赤色分子의 暗躍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함이며, 後者는 緊急出動時의 機動力을 확보키 위함이다.

사단장은 또한, 東海岸沿邊에 대한 北傀兵力의 海上侵透를 早期에 摘發키 위하여 竹邊以南의 海岸線에 沿한 各 邑面의 青年防衛隊로 하여금, 海岸監視網을 急編케 하였다.

이 急編措置는 前線의 戰況이 모호한 가운데에서도 그 일부의 情報나마 入手하는데에 奏效하였다. 즉, 6월 25일 당일, 北傀 遊擊隊로 看做되는 一部兵力이 溫洋里(竹邊南쪽 5km)의 海岸에 侵透하였으며, 그들의 輸送用으로 보이는 船舶 1척이 方魚津(蔚山灣의 東쪽 突串)前面의 海上을 南走하였다는 보고가 사단司令部에 전달되었다.

이 北傀 輸送船은 兵力 600명을 釜山부근에 侵透시키려던 것이었으나, 海軍의 제701艦(장, 崔龍男 중령)에 포착되어, 26일 01.30에 擊沈되었는데, 6월 27일에 江陵의 失陷과 함께 제8사단이 大關嶺以西의 內陸方面으로 轉進하게 되자, 東海岸戰線은 이제 사단의 戰鬪正面으로 浮刻되고 말았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제8사단의 內陸轉進은 陸軍本部의 命令에 따른 것이었으니(참조: 改訂版 제1권 江陵地區戰鬪) 이는 江陵 南쪽의 正東津里 및 臨院津에 海上侵透한 北傀 제766부대 및 제549부대에 의하여, 이미 海岸本道の 退路를 차단당하고 있었으므로, 臨機應變으로 擇할 수 밖에 없는 撤收路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江陵에서 蔚珍에 이르기까지의 92km(圖上距離)에 亘한 無防備地域을 敵에게 開放한 결과를 自招한 것이었으니, 사단의 緊急出動은 分秒를 다루는 死生의 岐路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陸軍本部는 獨立제 1대대 및 永登浦學院을 사단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제3사단장은 主力으로써 蔚珍에서 敵을 捕捉殲滅하라.』라는 作命을 하달하였다.

6월 28일 현재, 사단장 劉升烈 대령은 北傀 제5사단의 主力이 江陵以南으로 徒步로 進出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뿐, 精確한 情報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제23연대장 金宗元 중령에게 緊急出動을 명령하면서도, 敵情판단을 精確히 내리지는 못하였다.

換言하면, 제23연대는 蔚珍을 목표로 北上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의 敵과 遭遇하게 될 것인지, 暗中摸索하면서 緊急出動하는 印象을 免치못하게 되었다.

地勢 및 氣象: 蔚珍—平海間의 32km(圖上距離)에 亘한 海岸線에 廣接並行하여 太白山脈의 高嶺줄기가 縱走하고 있으므로, 이를 分水嶺으로 하여 東流하여 東海로 注流되는 大小의 河川이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음 다섯 줄기의 河川은 河幅과 水量에 비추어, 彼我의 作戰에 影響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즉, 鷹峰山(△999)에서 東南流하여 蔚珍의 南緣을 圍繞하는 南大川과 通高山(△1067)의 連嶺에서 시작된 王遊川이 2重으로 東海에 流入되면서, 相距 1.5km의 河淵을 이루고 있으며, 平

海의 東北쪽 2.8km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黃蘗川과 역시 平海의 南緣에 넓은 河床을 펴고 있는 南大川은 防者에게 有利한 地勢로 볼 수가 있었다.

또한, 正明里(平海의 北쪽 7km)부근에서 曲流하며, 北岸에 대한 敵制의 利點을 주고있는 正明川은 一旦의 阻止線을 편성하기에 適宜한 地形을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海岸本道를 다섯 매듭으로 가르는 海岸線이 防者에게 有利한 反面에 日月山(△1219) 및 白巖山(△1004)을 비롯한 險嶺이 指呼하면서 峻絶深豁한 隘脈을 이루고 있는 太白山系는 攻者의 遊擊侵透에 有利하였다.

期間중의 氣象은 不連續線의 영향으로 降雨가 잦았으며, 25°C를 오르내리는 高溫多濕한 가운데, 朝夕으로는 海岸線 特有的 안개가 끼었으므로 視界의 制限을 받았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東海岸의 要衝地인 江陵의 早期失陷은 사단의 방어정면에 대한 北傀 제 5사단의 壓力을 加重케 하였으며, 海岸本道에 대한 阻止線의 前進急編을 加速케 하였다.

本是, 江陵정면의 38°線을 담당하였던 제 8사단은 北傀에 의하여 該線이 불과당할 경우에는 仁邱里(注文津 北쪽 10km)—滿月山(△623)—漁城田里(仁邱里 西쪽 11km) 線에서 그 主力을 破摧하고, 注文津(江陵 北쪽 17km)—連谷川(注文津 南쪽 7km)間에서 그 殘勢를 포착섬멸함으로써 關東要域인 江陵을 固守할뿐만 아니라 攻勢移轉의 好機를 잡으려던 것이었으나, 勢不利하여 사단의 主力을 大關嶺 以西의 內陸방면으로 轉進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江陵以南의 海岸本道는 防壁없는 空白地域으로 開放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이에 제 3사단장은 상황전반을 종합분석한 결과, 蔚珍부근에서 敵을 최초로 포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 23연대로써 제 1차 阻止線을 急編케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결심은 다음 두 가지의 主된 이유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江陵以南의 海岸本道에 있어서 우선 三陟防守가 고려되었으나, 竹邊(蔚珍 北쪽 7km) 以北의 臨院津里 및 正東津里에 이미 海上潛入한 北傀 攻擊兵力으로 인하여, 阻止線의 急編이 阻害될 것이며,

둘째, 北傀 제 5사단 主力의 徒步行軍과 我의 車輛機動力을 감안함에 蔚珍부근에서 遭遇하게 될 公算이 컸기 때문이다.

사단 作命으로 6월 28일에 釜山을 출발한 제 23연대는 列車便으로 大邱를 경유하여, 29일 10.00에 浦項에 집결하였는데,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다시 제 1대대(장, 朴載烈 소령)를 車輛便으로 先發케 하고 제 2대대(장, 白基千 소령) 및 제 3대대(장, 許亨淳 소령)를 역시 車輛便으로 同日 15.00에 後續케 하였다.

사단장은 또한, 獨立제 1대대(장, 金淙舜 중령) 및 永登浦學院(장, 洪聖俊 소령)을 同日

17.00까지 浦項에 집결시켜, 제23연대 출동後의 戰況변동에 대비토록 하였는데, 이 2개 대대의 浦項집결은 사단 美顧問官인 Rollinse S. Emmerich 중령의 주장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즉, 사단장은 28일附로 兩 대대를 배속반자, 사단 主力의 출동뒤에 大邱와 釜山一圓의 後方경비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므로 두 地域에 각각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제23연대를 엄호함이 더욱 時急하다는 Emmerich 중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兩 대대로 하여금 긴급출동을 待機토록 한 것이다.

## (2) 작전실시

제23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3개 대대를 출동시킴에 있어, 敵情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으므로 五里霧中의 막연한 느낌이었으나, 北傀 제5사단의 主力이 蔚珍을 虜掠하기 전에 이를 先占確保하기로 결심하고, 연대 作命으로써 각 대대의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蔚珍에서 敵을 포착 선별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6월 29일 17.00까지 蔚珍을 占據하라.

③ 제2대대는 同日 20.00까지 邑南里부근으로 進出하라.

④ 제3대대는 同日 20.00까지 守山里부근으로 進出하라.

⑤ 연대 지휘소는 同日 20.00부터 老音리에 在할 것이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에서 차출한 裝발트럭으로 盈德—寧海—平海를 거쳐, 蔚珍을 향하여 海岸本道를 北上機動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대는 이 출동에 앞서, 陸軍本部 作命으로 6월 25일에 서울로 긴급출동한 제22연대에 1개 對戰車砲 중대와 2개 重火器 중대를 차출하였으므로 火力의 弱화를免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연대의 긴급출동은 一見 다급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대 主力에 앞서 先發하게 된 제1대대장 朴載烈 소령은 당초부터 確信 있는 작전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蔚珍을 목표로 하면서도 어디서 어떤 규모의 敵과 부딪치게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대機動의 前進路에 대한 敵情탐색이 요긴하다고 판단하여, 제1중대(장, 池龍泰 중위)를 1km前方에 앞세웠는데, 守山里(蔚珍 南쪽 2km) 어귀에서 최초의 敵情을 보고 받았다.

즉, 제1중대장 池龍泰 중위가 피난민과 일부 주민들이 提報하는 6월 29일 현재의 蔚珍 상황을 종합하여 市街地에는 이미 敵 일부가 侵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대장은 守山里에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연대장에게 敵情을 보고한 다음 각 중대를 守山里 西北쪽 △140에 배치하여, 海岸本道를 경계하면서 연대 主力의 進出을 기다리기를

로 하였다.

이 高地는 南大川(北쪽)과 王避川 사이에 끼어있으며 그 東緣을 따라 海岸本道가 南下하며, 北緣을 휘감고 東流하는 南大川의 支流너머로 蔚珍橋를 비롯한 市街地를 한 눈에 瞰制할 수 있으므로, 阻止線 急編의 要部로 看做되었다.

제 1대대장의 敵情報告는 연대장 金宗元 中령에게 적지않은 충격이었다. 蔚珍에 침입한 敵이 北傀 제 5사단의 主力이 아니라, 海岸線으로 상륙한 遊擊隊라 할지라도, 성급한 直突은 兵力의 손실을 自招하는 拙策이라고 판단하였음인지, 제 1대대로 하여금 守山里의 現位置에서 待機토록 하고, 제 2대대를 邑內里부근에 배치하는 한편, 제 3대대를 老岫峯에 집결시켜, 王避川 以南의 海岸本道에 3km의 縱深으로 急編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긴급출동과 동시에 蔚珍을 확보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크게 변동시켜, 다음 날인 30일에도 敵情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 07.00에 敵情의 일부를 파악하여, 蔚珍을 占據한 敵 兵力이 250명 안팎이 되는 것으로 推算할 수가 있었다.

즉, 守山里의 △140에 배치된 제 1대대의 제 2중대(장, 權五鳳 중위)가 경계중인 海岸本道를 따라, 접근하는 遊擊隊員 12명을 포착, 10분간의 銃擊으로 2명을 射殺하고 1명을 俘虜하여 訊問한 결과, 다음과 같은 敵情을 推定하게 된 것이다.

蔚珍을 掠占중인 敵은 지난 25일에 溫洋里의 前洋으로 闖入한 遊擊隊의 일부로서 本隊가 太白山中으로 潛入한 뒤에, 北傀 제 5사단의 主力이 도달할 때까지 이 곳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國軍의 反擊에 대비하는 조치로서, 蔚珍橋를 비롯한 南大川 沿岸에 兵力을 배치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연대장 金宗元 中령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邑面里 부근의 제 2대대로 하여금, 蔚珍 西北쪽으로 수색隊를 파견케 하고, 守山里 부근의 제 1대대로 하여금, 蔚珍 南正面의 蔚珍橋를 중심으로 하는 南大川 沿岸의 수비상황을 탐색케 하였다.

이 수색으로 포로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北傀 제 5사단 主力이 戰線에 출현하기 까지는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튿날 拂曉에 攻撃키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作命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明 7월 1일 04.00부터 蔚珍을 탈환하려 한다.

② 제 1대대는 蔚珍橋를 확보하는 즉시로 市街地에 突入하여 그 中心部를 탈환 확보하라.

③ 제 2대대는 古城里로 進出하여 蔚珍 北쪽의 海岸本道를 遮斷함으로써 敵 主力의 南下를 阻止하라.

④ 제 3대대는 守山里로 移動하여, 別途 命命을 待機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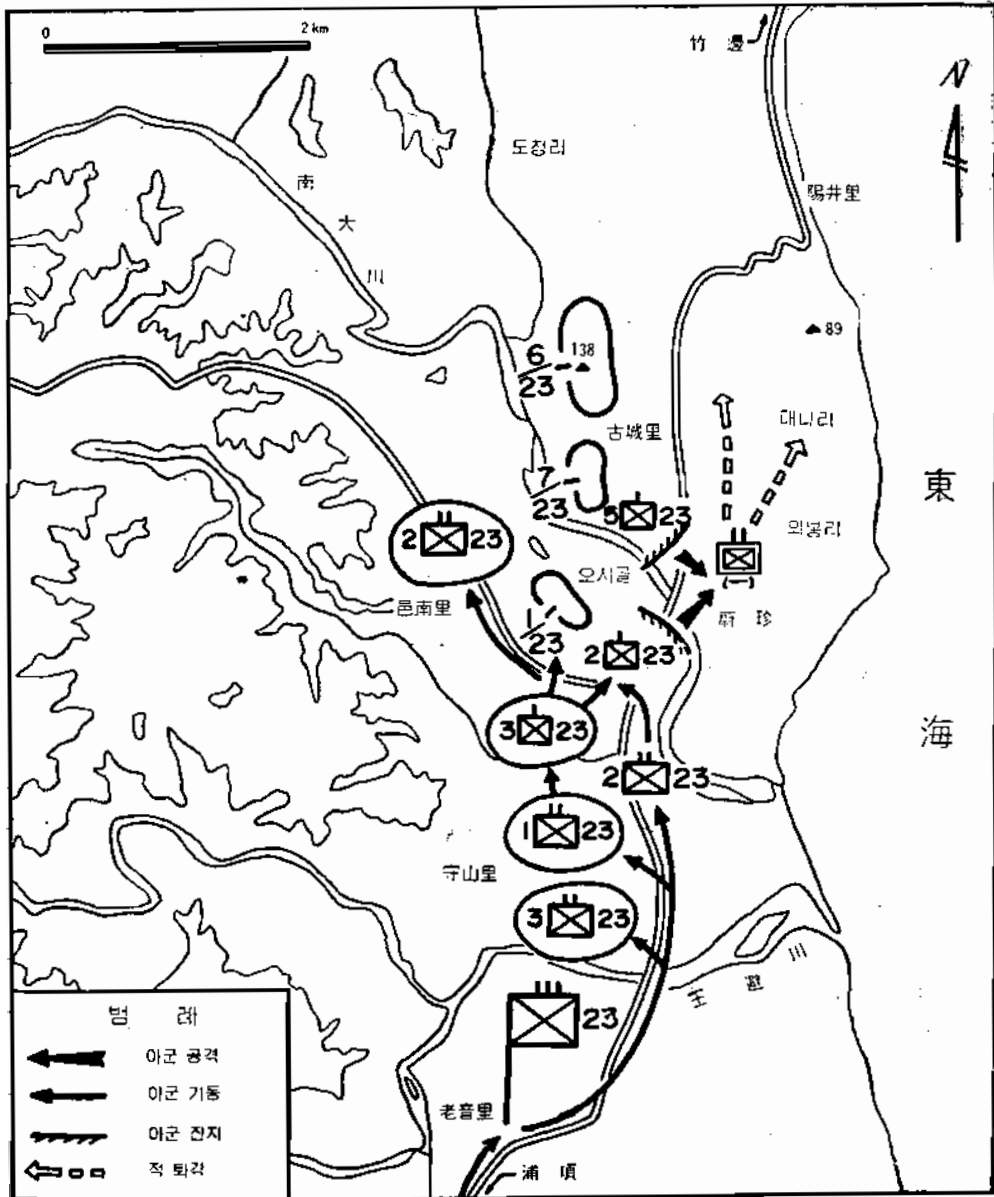
⑤ 연대본부는 제 3대대와 함께 守山里에 在할 것이다.』

이 연대 作命에 明示된 바와 같이 연대장은 蔚珍 西쪽의 邑南里에 집결한 제 2대대로 하

여금, 側面攻擊을 加하게 하는 가운데, 제 1대대로 하여금 蔚珍의 南正面으로부터 主攻을 指向케 하였으며, 제 3대대를 연대예비로 控置하여 戰況의 變化에 따라, 제 1 및 제 2 兩대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특히, 제 2대대의 古城里(蔚珍市街地의 北緣)進出은 北傀 제 5사단主力의 進出에 對備함과 아울러, 蔚珍市街地의 敵을 背面에서 포위하는 2重의 목적을 지니는 것이었다.

◇ 상황도 제56호 제23연대의 蔚珍 탈환(6.29~7.1)





그런데,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이 연대 作命을 下達함에 있어, 적어도 두 가지의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신중한 考慮를 缺한 感이 없지 않았다.

하나는 며칠 동안의 降雨로 因하여 増水된 南大川의 徒涉이 極히 難澁해졌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北傀의 正規部隊인 제 5 사단 主力을 從前의 共匪擊滅에서 상대해 왔던 入山遊擊兵力 정도의 觀念으로 遊擊하려는 것이었다.

1. 제 1 대대의 상황 : 이날, 우중충한 비구름에 덮힌 東海의 未明이 태동하는 무렵, 제 1 대대장 朴載烈 소령은 吐日里(蔚珍橋 南쪽 1km)에 대대지휘소를 추진해 놓고 있었다. 蔚珍橋의 확보가 용이치 않을뿐더러, 市街地突入時의 兵力損失이 적지않으리라는 예측으로 攻撃제 1 선에 대대에비를 腐接시켜 適時投入의 機를 逸失하지 않기 위한 지휘소의 前方추진이었다.

즉, 대대장은 전날에 蔚珍의 南正面을 직접 정찰한 결과, 南大川의 増水로 徒涉이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渡河裝備가 전혀 없는 대대로서는 蔚珍橋를 唯一한 接近路로 擇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으로써 각 중대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대대는 연대의 제 1 선이 되어, 明 7월 1일 04.00에 蔚珍에 突入, 이를 탈환 확보 하려 한다.

② 제 2 중대는 대대의 제 1 선이 되어, 蔚珍橋를 佔領함과 동시에 市街地로 突入하라.

③ 제 1 중대는 오시골의 南大川 南岸을 占領하여 敵火力의 일부를 유인 견제함으로써 제 2 중대의 突入을 幷호하라.

④ 제 3 중대는 吐日里에서 別命을 待機하라.

⑤ 重火器중대는 오시골 高地의 南緣을 占領하여, 蔚珍橋 北岸의 敵火力을 制압하라.』

이로써 대대장은 제 1 및 제 3의 2개 중대를 攻撃제 1 선에 逐次 投入키로 결심한 것인데, 敵이 蔚珍橋를 爆破할지도 모른다는 憂慮만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확신했다.

왜냐하면, 海岸本道上에서 南大川을 건너는 唯一한 橋梁인만큼, 南進을 서둘고 있는 敵이 自進해서 切斷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비추어, 대대장 朴載烈 소령은 該戰線에서 勢不利하여 물러설 때에는 장차의 作戰을 위하여, 이 蔚珍橋를 爆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음다짐 하였다.

제 2 중대의 突入 : 이날 03.50현재, 廳畔에 잠긴 蔚珍橋 南口의 左右兩쪽 堤防을 따라 待機중인 제 2 중대의 제 1 소대(장, 朴淳權 소위) 및 제 3 소대(장, 韓相浩 소위)는 중대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橋梁 주변의 地形과 接近路를 면밀히 偵察한 제 2 중대장 權五鳳 중위는 中대 集結地에서 橋梁까지의 600m間에 開放되어 있는 畚地를 은밀히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攻撃開始前의 夜闇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中대 제 1 선인 兩 소대를 미리 堤防까지 추진시켜 놓았던 것이다.

橋梁을 중심으로 구축된 800m의 堤防은 안성맞춤의 攻擊開始線이 되었다. 橋梁南口의 東쪽 堤防에 제 1소대, 西쪽 堤防에 제 3소대로 분리되어, 분대 단위의 突擊組를 각각 편성하고 대기중이었다.

마침내, 우중충한 空間을 가르듯이 대대 지휘소의 上空에 한 줄기의 赤色信號彈이 오르자 南大川의 南岸인 오시골 高地의 正斜面에 배치한 제 1중대(장, 池龍泰 중위)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砲兵支援은 없으나, 중대의 60mm 迫擊砲 2문과 연대에 남아 있는 唯一한 重火器중대인 제 8중대(장, 李一洙 중위)의 81mm 迫擊砲 8문이 橋梁 北口의 敵陣을 주로 겨냥하여 砲彈을 집중시켰다.

이 重火器중대는 지난 6월 25일, 陸軍 本部의 긴급지시로 연대의 3개 重火器중대를 서울로 출동시켜야 했던 것이나, 사단의 作戰參謀인 張松靑 소령의 建議로 간신히 남겨되었던 唯一한 支援火力인 것이었다.

蔚珍市街地를 東北쪽으로 俯瞰하는 有利한 觀測으로 목표에 的確한 彈着을 集注할 수가 있었다.

이 攻擊準備射擊이 10분간 炸裂하는 동안, 橋梁 南口의 堤防에서는 제 1 및 제 2 兩소대가 04.00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제 1소대장 朴淳權 소위는 先頭突進의 決心을 굳게 다짐하였다. 소대의 士氣를 鼓吹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04.00가 되자, 중대장 權五鳳 중위가 橋梁넘어로 曳光彈을 칼빙 M2로 連射하였다. 미리 약속된 突擊信號인 것이다.

제 1소대장 朴淳權 소위는 突擊을 號令하며, 橋上으로 挺身하면서 躍出하였다.

先發 突擊組인 제 1분대가 그 뒤를 따라 突進해 나갔다. 突擊의 成功與否는 오로지 掩護射擊에 依存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橋梁北口에 이르기까지의 길이 150m의 거리는 완전히 露出된 血路일 뿐이었다.

決死의 覺悟로 先頭에 나선 소대장 朴淳權 소위는 10m를 단숨에 뛰어, 가슴에 안고있는 무게 15kg의 砂袋를 내던지면서 橋上에 납작히 俯伏하였다.

北口의 正面에서 自動火器의 탄환이 빗발치듯이 집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뒤따르던 제 1분대원들도 각자의 砂袋를 일제히 내던지고, 그 자리에 俯伏하고 말았다.

砂袋는 중대장과 각 소대장이 苦心案出하여 이 血路를 突進함에 있어 突擊組 各員에게 후대케 한 苦肉之策이었다. 완전 露出된 단 하나뿐인 接近路를 一氣에 突破하기에는 過多한 兵力損失을 각오하더라도 敵의 火力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이상, 不可能할 것이기 때문에, 拙速보다는 掩護射擊과 呼應하여 착실한 肉迫을 擇하려는 것이었다.

분대는 砂袋를 두 겹으로 쌓아올려, 應急 遮蔽物로 삼으면서, 後續 突擊組의 進出을 기다렸다.

소대장 朴淳權 소위는 이미 右腕에 심한 擦過傷을 입었으나, 조금도 屈하지 않고, 砂袋의 틈바구니에서 正面으로 바라 보이는 北口의 敵陣을 凝視하니, 연신 불을 탄하고 있는 두개의 銃口가 曉音속으로 관측되었다.

迫擊砲의 直擊彈이 아니고서는 제압하기 힘들 것이므로 그 據點 주변에 掩護火力이 집중되는 순간마다, 各個躍進으로 砂袋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 1분대는 30m를 前進하였을 무렵에 이미 戰死 2명, 戰傷 4명의 損失을 입었으며, 더군다나 唯一한 遮蔽物인 砂袋마다 敵彈으로 因하여 터져나가게 되었으므로 突擊組의 보충이 時急하였다.

이에 제 2분대는 掩護火力이 또 한 차례, 敵 據點 일대에 자욱한 硝煙을 뿌리는 동안, 30m를 一氣에 突進하여 제 1분대와 교대하는 즉시로 砂袋를 補強하면서, 포복과 各個躍進으로 20m를 더 밀고 나갔다.

이리하여, 제 1소대는 鮮血로 얼룩진 寸進을 거듭한 끝에 橋梁北口 50m 前方까지 肉迫하였으나, 이 때에는 이미 제 3분대마저 분대장 이하 全員이 死傷하는 損失을 입었으므로 소대장 朴淳權소위는 憤淚를 삼키면서 曳光彈을 쏘올렸다. 제 3대의 後續突進을 요청하는 신호인 것이다.

제 3소대장 韓相浩 소위는 제 1소대의 淒絶한 突進상황을 確認하면서 소대의 鬪魂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소대장 자신의 先頭突進이 무엇보다도 要緊함을 마음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拂曉의 空間으로 제 1소대장의 신호인 曳光彈이 솟아 오르자, 先任下士官 黃貞元 상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先進 突擊組인 제 1분대의 先頭에서 橋上으로 躍出하였다. 역시 한 아름의 砂袋를 가슴에 안고 있었으나, 제 1소대의 경우와는 달리, 가벼운 무게였다. 제 1소대가 決死的으로 들고 나간 砂袋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先進소대가 뿌리고 나간 鮮血의 흔적을 따라, 때로는 戰友의 屍身에 의지하기도 하면서 피어린 寸進을 거듭한 소대는 戰死 5명, 戰傷 7명의 損失을 입은 끝에 手榴彈 投擲거리까지 肉迫하였다.

生死가 瞬時に 交錯되는 이 敵前 近거리에서 手榴彈投擲과 함께 白兵突入을 각오한 소대장 韓相浩 소위는 突入을 大喝하려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때에 橋梁 北口의 背面쪽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돌발하였다. 요란한 銃聲과 함께 一團의 喊聲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이제까지 目前에서 완강히 저항하던 敵兵이 일시에 무너지듯, 潰走하는 것이 目睹되었다.

소대장 韓相浩 중위는 이 絶好의 기회를 놓칠새라, 突入을 외치는 一喝下에 最先頭로 突進하니, 소대 先任下士官 黃貞元 상사를 비롯한 殘存 소대원들이 그 뒤를 따라 일제히 疾

驅前進하였다. 時刻은 06.15이었다.

2. 제2대대의 상황 : 대대는 이틀전인 29일 夜半에 邑南里 高地로 移動하여, 대대 지휘소를  $\Delta 140$ 에 설치하고, 南大川의 西畔에 각 중대를 배치한 가운데, 30일 하룻 동안, 地形 및 敵情을 探索하면서 이 날의 攻擊을 준비하였다.

대대가 점령한 進出線은 蔚珍市街地의 西北이며, 南大川의 本流를 隔하여, 古城里(蔚珍의 北쪽 500m)의 平地와 相峙하고 있었다.

대대장 白基千 소령은 우선 徒涉이 可能한 渡河接近路의 有無를 우려하였으니 이 徒涉의 可能與否는 戰鬥의 成敗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先陣으로 내세우려는 제 7중대(장, 朴永元 중위)로 하여금, 江幅 및 水深을 探查토록 하고, 제 6중대(장, 金相鉉 중위)로써 對岸의 敵情을 수색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 7중대장 朴永元 중위는 제 1소대(장, 金水生 소위) 및 제 2소대(장, 鄭世鎭 소위)에 각각 1개 분대씩을 차출케 하여, 河川西畔의 2km에 亘한 水深을 精査케 한 결과, 古城里 西北쪽 1km에서 河幅이 넓어지는 彎曲部의 水位가 胸部에 닿는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 6중대장 金相鉉 중위는 30일의 曉鬪을 이용하여, 제 2소대(장, 明大植 소위)로 하여금 1개 분대의 수색隊를 東岸으로 차출시켰던 바, 이 정면에 대한 敵의 配備가 輕微함을 認知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색결과를 보고받은 대대장 白基千 소령은 作戰의 성공을 미리 다짐하면서 翌日 다음과 같은 대대 作命을 하달하였다.

『① 대대는 明 7월 1일 04.00 南大川을 渡河하여 蔚珍의 西北側方으로 突入하려 함.

② 제 7중대는 대대의 제 1선이 되어, 04.00以前에 渡河地點의 東岸을 점령확보하라.

③ 제 6중대는 渡河와 동시에 蔚珍北쪽의 海岸本道로 進出하며 이를 장악하라.

④ 제 5중대는 제 6중대에 後續 渡河함과 동시에 蔚珍市街地로 突入하여 이를 점령하라.

⑤ 대대 지휘소는 제 5중대와 함께 渡河하여, 比後로는 제 7중대와 함께 行動할 것이다.』

이 作命과 아울러, 대대장은 각 중대에 強調하기를 『戰鬥의 成敗는 오직 철두철미한 隱密 行動에 달려있는 것인즉, 兵士一人에 이르기까지 始終 沈着果敢하라』라고 檄하였다.

제 7중대의 東岸 확보 : 전날의 日沒前까지 渡河地點의 地形偵察과 더불어, 徒涉계획을 검토한 제 7중대는 대대의 제 1선이 되어, 이날 02.30에 西畔의 待機線에서 行動을 개시하였다.

중대장 朴永元 중위로서는 대대의 攻擊開始시간인 04.00까지 徒涉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예정하였던 것이며, 수색결과로 확인된 바로는 對岸의 敵情이 輕微한듯 하므로 큰 障礙를 예상치 않아도 되겠으나, 신중을 期하기 위하여서는 亦是 각 소대를 逐次 徒涉케 하기로 하고, 제 1소대를 先發케 하였다. 분대별로 兵士相互間에 밧줄로 연결케 하며, 水深

에 의한 落伍兵이 나지 않도록 退進을 期하며, 가슴까지 차오르는 江물을 헤쳐 나갔다.

이에 이어, 제 2소대(장, 鄭世鎭 소위) 및 제 3소대(장, 李英哉 소위)도 逐次 徒涉을 완료하였으며, 이 3개 소대가 渡河를 마칠 때까지, 待機線에서 엄호임무를 맡고 있던 火器 소대(장, 黃斗淵 소위)도 마지막으로 東岸에 進出하였다.

제 2소대와 더불어, 중대본부를 東岸으로 추진한 중대장 朴永元 중위는 隱密裡의 渡河에 성공한 餘勢를 멈추지 않고, 제 1소대로써 蔚珍市街地의 西郊에 面하는 河畔一隅의 野地를, 제 2 및 제 3 兩소대로써 古城里 西北쪽의 河畔野山을 동시에 점령함으로써 渡河點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대규모가 행동하는데도, 단 한 발의 저항도 없이, 敵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怪異하게 생각한 중대장은 아직도 曉鬪에 갇혀있는 前方을 응시한 끝에, 이는 어둠때문만이 아니라, 我軍의 黎明渡河를 예기치 못한 敵이 이 側面에 대한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西岸쪽으로 懷中電燈의 신호를 보내어 後續중대의 渡河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 6 및 제 5 兩중대도 徒涉을 완료하였는데, 이 때가 03.40무렵이었다.

**제 5 중대의 側背突入:** 제 5 중대는 南大川 東岸으로 進出함과 동시에 河岸의 窪地部에 일단 進結한 뒤, 제 7중대의 제 1소대를 초월하여 일제히 進出하였다.

중대장 李一洙 중위는 대대의 정보관단과 제 7중대의 提報로 前面의 敵戰力이 微弱할 것으로 判斷하고, 攻擊開始와 동시에 短兵進入기로 결심, 제 1소대(장, 李明喆 소위) 및 제 2소대(장, 劉在弘 소위)를 동시에 左右 제 1선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 3소대(장, 崔熙錫 소위)로써 제 2소대에 後續케 하였는데, 이는 蔚珍橋로 이어지는 河邊쪽의 進出이 힘들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04.00정각, 信號와 더불어 제 1선의 兩소대는 일제히 突進하기 시작하였다.

接近路는 田畠이 잘린 開闢地이며, 그 前方에는 蔚珍市街地를 拖距하듯이 낮은 野山이 덩어리져 있었다.

이로 인하여 敵의 瞰制를 벗어날 길이 없는듯 하였으나, 接近路上의 畦畔이 曉鬪의 薄暗에 가려져 있으므로, 行動을 陰蔽하는 利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兩소대장은 각기 분대단위의 신속한 작개약진을 命하여, 攻擊開始와 더불어 일거에 70m를 突進하였는데, 뒤늦게 사격하기 시작한 敵은 野山을 중심으로 이 무렵부터 火力을 증가하였다.

특히, 중대의 右1계선인 제 2소대에 自動火力이 집중되어, 소대는 進進을 계속하지 못하고, 발투렁을 遮蔽物산아 잠시동안 釘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소대장 劉在弘 소위는 이러한 自動火力의 집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각 분대로 하여금 2人編成의 特攻組를 1개 組씩 미리 마련하여 놓고 있었는데, 그 중의 소총수인 金華峻 이동병은 모복과 약진으로 先驅一番 끝에 2발의 手榴彈으로써 1개 火器陣地를 破摧하였

으며, 그 나머지의 特攻組도 肉薄接近에 성공, 2개 陣地를 동시에 爆碎하였다.

한편, 중대의 左제 1선인 제 1소대는 2개 소대규모의 소총사격을 받았으나, 소대장 李明喆 소위는 急驅로써 그 火力을 배제키로 決心하고, 각 분대의 突進을 계속 號令한 끝에 野山의 北緣一角에 도달하는 즉시, 敵陣에 대한 側射로써 제 2소대의 突進을 엄호하는 동시에 제 3분대로써 野山의 山마루로 계속 향하게 하였다.

그런데, 野山北側面의 敵陣은 個人壕가 點在할 정도로 허술하였으므로 제 3분대는 輕微한 敵의 射擊을 一蹴하면서, 側攻의 氣勢를 밀고 나갔다.

이처럼, 鎧袖一觸의 氣概를 드높인 중대가 野山을 완전점령한 시각은 05.30무렵이었는데 중대장 李一洙 중위는 蔚珍市街地를 東쪽으로 瞰制하는 산마루에서 SCR-300으로 대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제 3소대로써 공격을 계속케 하여, 蔚珍市街地와 野山사이의 接近路를 확보토록 하였다.

제 6중대의 蔚珍北쪽 進出: 한편, 蔚珍 北쪽의 海岸本道를 장악키로 되어 있는 제 6중대는 渡河 즉시, 제 7중대가 장악한 河畔野山을 지난 다음, 敵을 경계하면서 進出하였으나, 城底洞(蔚珍 北쪽 1km)을 거쳐 古山城(성저동 北쪽 600m)에 이르기까지 전혀 敵의 動靜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 미루어, 그들은 이 背後側面에 대한 我軍의 進出을 전혀 豫期치 않고, 配備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推測되었으므로 중대장 金相鉉 중위는 △138(고산성의 東쪽)를 중대 主力으로써 점령하고, 東北쪽으로 望見되는 陽井里(성저동 東北쪽 1.6km)까지의 本道를 瞰制키로 決心하였다.

그런데 圖上판단컨대, 陽井里에 못미처 屈曲이 심한 고갯길이 良好한 利點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개 소대를 推進시키기로 하여, 제 2소대(장, 明大植 소위)에 이 任務를 부여하였다.

이에, 제 2소대장 明大植 소위는 曉天이 밝기 前에 소대를 이끌고, 대담하게도 路上으로 疾驅해 나가려 하였으나, 때마침 大型인듯 한 車輛 1대의 前照燈이 南走하고 있었으므로 本道를 피하여, 서정동의 東쪽으로 트인 低地帶를 거쳐, △89(陽井里 西南쪽 400m)에 陣地를 急編, 本道 고갯길의 두 번째 U字型 屈曲部를 瞰下하였다.

한편, 중대장 金相鉉 중위는 중대규모로써 敵의 後方이랄 수 있는 蔚珍北쪽 3km까지 潛入하였는데도 한 번의 接敵交戰도 없이 海岸本道上的 瞰制點을 占據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는 曉闇을 이용한 隱密行動 때문이라기 보다는 敵이 蔚珍방어에 專念하지 않고, 主戰部隊의 進出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屈曲진 陽井 고갯길에서 이 主戰部隊의 南下를 포착하여, 強打의 一擊을 加하기로 決心하고, 제 1 및 火器소대를 제 2소대에 後續 推進케 하였다. 이 때의 시각은 05.30 무렵이었다.

3.蔚珍市街地の奪還:06.15,蔚珍橋北口の敵陣을 背後에서 크게 擾亂한 一團의 喊聲과 銃聲은 제 5 중대가 市街地로 突入하면서 怒號하는 울림이었다.

이에 앞서, 제 5 중대는 西郊의 野山을 장악하는 즉시, 제 3 소대를 先陣으로 중대 主力을 攻撃에 投入하고, 완강히 저항하려는 國民學校 일대의 敵 散兵隊를 가볍게 一蹴한 다음, 殘敵을 격파하면서 河邊을 따라 蔚珍橋쪽으로 壓力을 加한 것이다.

제 5 중대의 이와 같은 進出은 橋梁의 血路를 肉薄寸進중인 제 2 중대의 突入을 용이케 하였다.

시각은 06.15, 決死的인 最後瞬間에 生死擇一의 跳盪을 감행한 제 2 중대 제 3 소대장 韓相浩 소위와 先任下士官 黃貞元 상사는 殘存 소대원 12명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되어 敵陣으로 疾驅突入하니, 그 氣勢는 可謂 枯葉을 휩쓰는 一陣의 突風이랄 수 있었으며, 四散하는 殘敵을 계속 追躡하여 市街地の 北郊까지 進出하였다.

이로써 제 1 대대의 先陣인 제 2 중대와 제 2 대대의 先陣인 제 5 중대는 市街地에서 敵影을 완전히 一掃하고, 蔚珍을 탈환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시각은 07.00을 갓 넘기는 무렵이었다.

이 一戰에서의 損失로서는 제 2 중대의 제 1 및 제 3 兩소대가 過半의 死傷을 입었으며 戰果로서는 敵屍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지만, 15명의 俘虜를 획득하였으므로 차후의 敵情판단에 크게 資할 수가 있었다.

俘虜는 즉시 老音里(蔚珍 南쪽 4km)의 연대지휘소로 後送되고, 訊問결과 蔚珍의 敵은 北傀 제549부대의 일부임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北傀 제 5 사단 主力이 該地區에 進出할 때까지의 前衛의 任務를 떠우고 蔚珍을 先占蟠居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들과 함께 上陸하였던 제766부대는 이미 太白山系에 潛入하여, 浦項—慶州를 목표로 踏嶺南下중이며, 東海岸本道를 徒步南進중인 北傀 제 5 사단 主力이 이날 中으로 該地區에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諜報도 획득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즉시 연대참모회의를 소집하여, 捕虜의 陳述을 검토분석한 결과 情報로서의 確度를 是認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戰을 구상하였다.

- 『① 제 2 대대로써 陽井里—△138線에서 敵의 主力을 捕捉한다.  
 ② 제 1 대대로써 蔚珍을 확보케 함과 동시에 緊急時에는 제 2 대대를 赴援케 한다.  
 ③ 제 3 대대로써 王避川 南緣에 主抵抗線을 急編케 한다.』

이로써 연대는 北傀 제 5 사단의 主力을 遮擊할 防禦縱深을 갖추게 되었는데, 정보주임 丁範鎭 대위는 竹邊(蔚珍北쪽 9km)까지의 海岸本道상의 情況을 파악키 위하여 연대수색대(장, 鄭祥萬 소위)를 출동케 하고, 작전주임 河守德 대위는 作戰上的 適切한 時機에 있어서의 橋梁을 如何히 할 것인가를 考慮하였다.

즉, 蔚珍—主抵抗線間에 있어서 防守上的 地形의인 利點으로 이용될 南大川 및 王避川에

걸려있는 大小 4개의 橋梁중, 南大川の 蔚珍橋와 王避川の 守山橋를 撤收時에 爆破하면, 敵의 進出을 크게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 수단을 모색하였으나, 兩橋 모두 橋脚과 徑間의 크기에 비추어, 工兵의 지원없이는 破壞가 困難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대는 긴급출동의 당초부터 北傀의 正規部隊를 邀擊하기에는 너무나 不備한 점이 많았다. 이처럼, 橋梁爆破의 필요성을 切感하면서도 束手無策일 수 밖에 없는 것도 그 하나의 例로 간주된다.

4. 연대의 防衛配備 : 연대의 警戒부대로 蔚珍 北쪽에서 海岸本道를 扼守하게 된 제 2대 대장 白基千 소령은 제 6 중대로써 이미 확보중인 陽井里—△138間的 고갯길에 대대 主力을 두기로 결심하고, 제 7 중대를 대나리(蔚珍東北쪽 1.2km)의 앞산에 집결시켜, 제 6 중대를 赴援케 하는 한편, 제 5 중대를 △138에 배치하여, 北쪽 丘陵地帶의 接近路에 對備케 하였다.

한편, 蔚珍 市街地의 확보와 제 2 대대에 대한 지원을 命받은 제 1 대대장 朴載烈 소령은 제 2 대대의 線이 뚫리는 경우에 市街地를 지탱기가 困難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 主力으로서 蔚珍橋를 중심으로 하는 南大川の 南岸을 확보함이 防禦上의 利點이 많을 것이라고, 연대장의 決心變更을 건의하였던바, 建議의 妥當性을 是認받았다.

이로써 제 1 대대는 牡丹里(蔚珍 南쪽 1km)에서 대대 예비로 待機중인 제 3 중대를 오시골(蔚珍 市街地의 바로 南쪽 對岸)에 추진시켜, 제 1 중대의 東側方에서 蔚珍橋 防衛를 전담케 하였으며, 蔚珍 市街地에는 제 2 중대만을 殘置시켜, 제 2 대대의 상황에 따르는 연대의 赴援命令이 下達될 때에는 이로써 충당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대장 朴載烈 소령은 이미 마음다짐하였던 蔚珍橋 爆破의 必要性을 한층 切感하고, 연대에 建議하였던바,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이에 答하기를 『사단의 工兵支援이 難望한 現況下에서는 該橋의 爆破가 不可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貴대대의 處理에 一任코자 한다.』라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다.

이 事例로서도 窺知되는바, 연대는 防者에게 靚로운 것으로 우선 一見되는 3 단계의 陣地線으로써 北傀 제 5 사단 主力을 阻止코자 하면서도, 攻者에게 打擊을 加할만한 兵甲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集中使用마저도 疏忽한바가 없지 않았으나, 제 3 단계로 계획한 王避川の 陣地線에서는 地利를 이용하여, 該地區에서의 防衛決戰을 敢行코자 하였으니,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연대 지휘소를 제 3 대대 지휘소와 함께 △140(守山橋 南쪽 2.2 km)에 설치하고, 陣地를 急編케 하였다.

이에 제 3 대대장 許亨淳 소령은 부근일대의 地形을 圖上判斷전대, 地利에 맞는 用兵의 妙를 살릴 수단 있다면 防禦一戰의 勝算도 없지 않은 것으로 自信하였으니, 그 判斷概要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海岸本道가 南走하는 守山里—치음동—金梅里間的 幹線은 北側面 및 西側面을 圍繞



하는 王避川의 本流로써 그 以西의 群岳地帶와 隔離되어 있으며, 그 地帶 또한 屈曲灣流하는 支流로써 깊은 溪澗을 수없이 이루고 있으므로 이 西側面으로는 攻者의 進出이 難澁하여 마땅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防守의 軸을 守山橋를 비롯한 그 以南의 開闊地에 置重키로 하여, 老音里(守山橋 西南쪽 800m)의 △189에 제10중대(장, 朴鍾秉 대위)를 내세워, 守山橋를 중심으로 하는 江畔일대를 制禦케 하고, 치음동(守山橋 南쪽 1km)의 開闊地를 北쪽으로 俯瞰하는 △140(山浦里의 北쪽)의 正斜面에 2개 중대를 같이 배치하였는데 제11중대(장, 宋正燁 중위)로써 右제 1선에서 海岸本道の 東側을 담당케 하고, 제 9 중대(장, 鄭名煥 중위)로써 右제 1선에서 제10중대를 엄호함과 동시에 西側方인 王避川 中流邊의 예상 接近路를 경계토록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南大川 및 王避川을 2단계의 地利로 삼아, 防守의 形틀을 일단 갖추기는 하였으나, 情報획득의 不振으로 因하여, 北傀 제 5 사단의 主力은 여전히 未知의 存在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단의 火力支援을 바랄 수없는 情況임을 知悉하고 있는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防者로서의 脆弱點이 許多함에도 不拘하고, 火力計劃을 세우지 못하고, 攻者의 접근을 경계하게 되었으니, 各급 지휘관은 오로지 兵員各己의 奮發勇戰만을 기대할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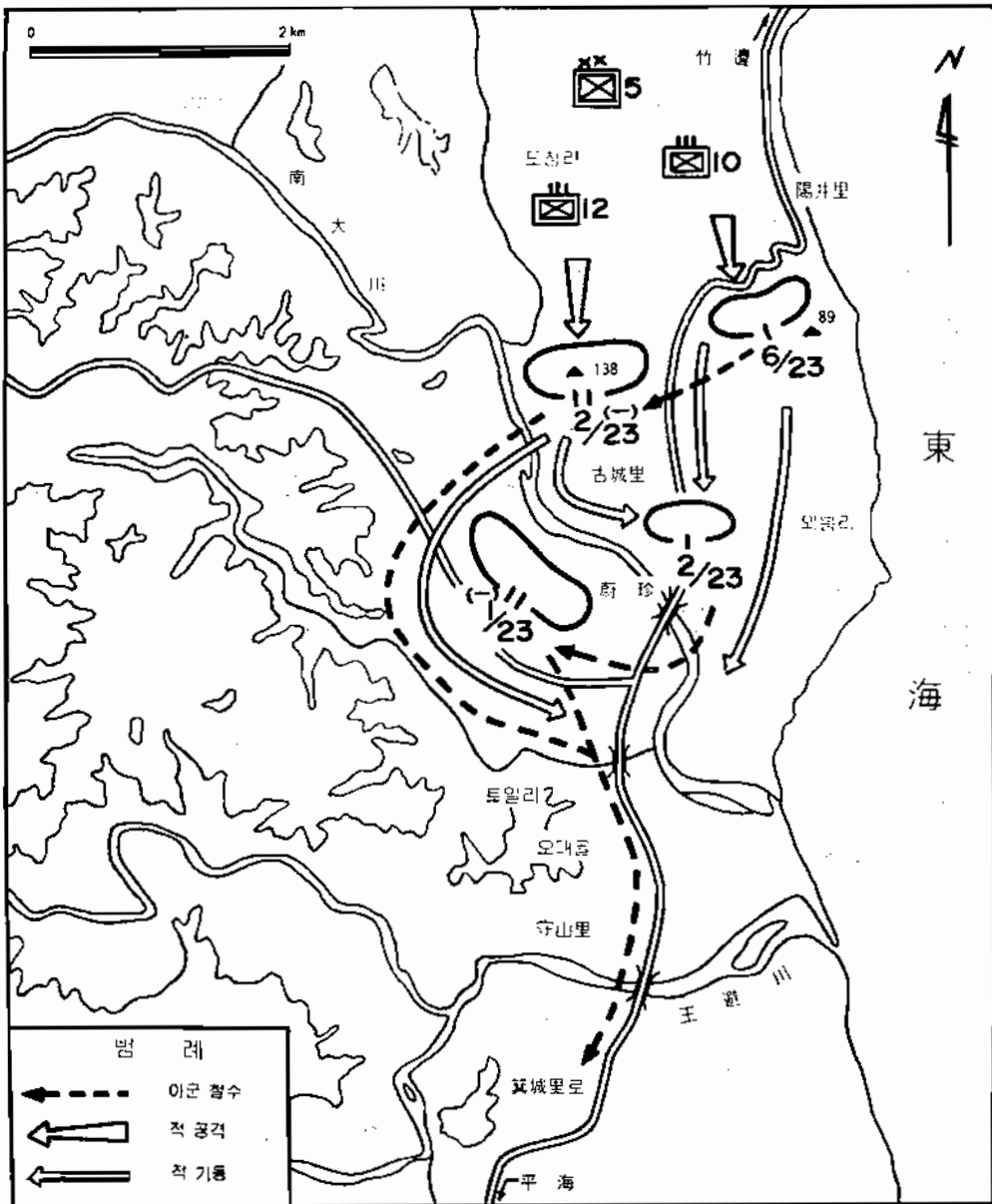
**5. 제2대대의 苦戰** : 연대의 경계부대인 제 2대대가 陽井里—△138間의 고갯길을 중심으로 防守配備를 마친 것은 이날 08.00 무렵이었는데, 이 보다 앞서 竹邊으로 向한 연대수색대는 海岸本道を 西쪽으로 벗어나, 山徑을 따라 坊築里(竹邊 西南쪽 1km)까지 挺進하였던 바, 北傀 제 5 사단 主力의 일부로 看做되는 兵甲의 규모를 비로소 目撃하고 大驚하였다.

이에 수색대장 鄭祥萬 소위는 自走砲 6대를 비롯한 偵察내용을 6명 一組의 急編 連絡組로 하여금 연대본부에 急報케 함과 동시에 그 이상의 수색이 더 필요없으리라 판단하고 수색대의 철수를 서두르기로 하였다.

한편, 수색대의 急報에 接한 연대지휘부도 北傀 제 5 사단이 앞서우고 南下中이라는 自走砲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諸元 및 性能은 물론이려니와 迎擊戰法등을 모르는 가운데 각 대대에 막연히 示達하되 『敵軍이 戰車를 동반하여 接近중임에 비추어, 각 대대는 여하한 수단으로써도 此를 擊破하여, 現線을 決死固守하라』하는 것으로만 그쳤으니, 此後의 戰況은 不問可知의 慘狀을 免치 못할 것은 自明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제6, 제7 兩중대의 상황** : 이 때, 北傀 제 5 사단(一)(장, 소장 馬相喆)은 제10, 제12 兩연대로써 竹邊에 集結하고 있었는데, 蔚珍에서 敗走한 부대의 報告로써 蔚珍상황을 知悉한 터이므로 竹邊으로부터는 사단 主力을 左右로 兩分併進케 하되 제10연대로써 海岸本道を 直行케 함과 동시에 제12연대로써는 南大川 支流邊을 沿하는 山徑으로 進出케 하기로 하였다.

삼함도 제57호 제23연대의 蔚珍撤收(7.1. 08.00~12.00)



이는 陽井—△138間의 高峯길에 我軍의 防禦線이 形成되었을 것으로 推定한 結果의 조치 일것인데, 該線을 一擊에 突破키 爲하야서는 제12연대의 側方進出로써 △138를 早速히 掠取하야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08.30, 北傀 제10연대의 尖兵중대와 더불어, 6대의 SU-76自走砲가 高峯길의 어귀에 無

限軌道の 轟音도 요란하게 출현하였다.

이 鐵甲自走砲를 처음으로 對하게 되는 防者로서는 우선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89의 완만한 正斜面에 散兵壕정도를 구축하고, 고갯길의 제 2 屈曲部位에 火力을 치중 배치하고 있던 제 6 중대 兵員은 火箭으로 應酬하기도 전에 이미 心理的인 萎縮을免치 못하였다.

이에, 중대장 金相鉉 중위는 兵員의 戰意부터 鼓舞하여야 할 필요를 切感하고, 각 소대에 大音叱號하기를 『뒤따르는 散兵만 처치하면, 戰車도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였으나, SU-76自走砲의 裝甲과 直射火力에 對敵할만한 攻擊 裝備를 전혀 갖추지 못한 중대로서는 力不及하여, 迎擊 15분만에 陣地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편, 제 6 중대에 대한 赴援任務를 띠고, 대나리에 대기중이던 제 7 중대는 敵軍出現의 急報와 아울러, 고갯길에서 울리기 시작한 銃擊聲에 俄然 긴장하여, 赴援요청을 기다리던 次에, 交戰 5분이 지날 무렵에 중대 主力으로써 제 6 중대의 左側方에 急赴하였다.

그러나, 傍若無人으로 無限軌道를 굴리며, 76mm의 自走砲를 휘두르는 驕敵의 氣勝스러운 火力에 놀려, 散兵線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제 6 및 제 7 兩중대는 初戰의 無爲를 회복할 餘力을 갖지 못한 채, 대대 지휘부가 위치한 △138로 兵員을 수습하고자, △89의 反斜面으로 일단 집결하였는데, 時刻이 09.00인 이때에 △138의 제 5 중대 정면에도 北傀제12연대의 尖兵部隊가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다.

제 5 중대의 상황 : △138은 蔚珍의 北쪽에 있어서 海岸本道를 制抱하는 마지막 關門이랄 수 있었다.

즉, 蔚珍으로 이르는 唯一한 고갯길을 東麓에 휘감고 있으며, 西쪽으로는 南大川의 支流가 습쳐져 下流로 접어드는 河洲를 下緣가잡게 瞰下하는 山塊로서 굳게 지키면 東海岸 南大川間의 너비 2.7km에 亘하여, 攻者의 通關을 단호히 阻止할 수도 있는 地利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北傀 제 5 사단도 이 要關을 一舉에 突破키 위하여, 제12연대를 내세워, 제10연대의 本道進出을 지원키로 한 것인데, 09.00를 전후하여 그 尖兵 1개 중대규모가 도청리(△138의 北쪽 1km)의 低丘陵地帶를 거쳐 출현하였다.

이 때, △138의 제 5 중대는 頂上을 중심으로 3개 소대를 中央및 左右 제 1 선에 배치하고, 右제 1 선인 제 2 소대의 정면에 火器소대의 火力을 優先키로 하고 있었는데, 09.10에 遠雷와도 같은 砲聲과 더불어, 각종 砲彈이 陣地일대를 뒤덮기 시작하였다. 個人壕와 交通壕 정도의 急編陣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음으로 겪는 集中火力이었다.

北傀 제12연대의 尖兵인 듯한 1개 중대는 더욱 2개 중대규모로 증강되어, 砲射程이 延

伸되자 곧 攻擊隊形으로 전개하면서 △138의 正斜面으로 접근하였다.

제 5 중대의 兵員은 이 지음에야 비로소 火箭을 整齊하는듯 하였으나, 一方的인 集中砲火의 初一擊에 이미 압도당한 防者로서는 對應할 戰意를 불태울 겨를도 없었다.

중대장을 비롯한 작 소대장 및 분대장들이 奮戰을 叱號하는데도 兵士들의 射擊은 照準없는 虛擊일 뿐이었다.

더구나, 제 6 및 제 7 중대의 防戰도 初一戰에서 이미 △89의 反斜面으로 萎縮당하고 있다는 긴급보고에 接한 대대장 白基千 소령은 SCR-694로써 연대 지휘부에 전황을 보고함과 아울러, 兵力保全을 위하여 南大川以南으로의 대대철수가 不可避함을 건의하였다.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경계부대의 너무나 허망한 敗色에 啞然一驚하고, 怒氣어린 투로 『그 자리에서 모두 죽는한이 있어도 버틸 때까지 버티라!』하는 強要를 서슴치 않았으나, 작전주임 河守德 대위 및 정보주임 丁範顯 대위의 『該線 고집으로 제 2 대대를 상실하기 보다는 연대主力의 再收拾이 時急한 지금, 該대대의 즉각 철수가 다음 作戰에 有利할 것이다』라는 건의에 마지 못해 제 2 대대의 철수를 是認하였다.

그러나, 北傀 제 5 사단의 主力은 이미 세차게 進出을 거듭하고 있었으니, 그 하나는 제 10 연대의 尖兵 2개 중대로써 △89를 돌파한 餘勢를 몰아, 外鳳洞(蔚珍 東北쪽 1km)으로 直進하였으며, 고결갯을 走破한 SU-76 自走砲 6대로써는 蔚珍市街地로 突入케 하는 한편, △138를 直衝한 제 12 연대의 2개 중대로써 南大川邊을 轟어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蔚珍市街地는 이날 10.00에 다시 北傀 제 5 사단에 掠取당한 바 되었으니, 제 23 연대는 同市街地를 탈환한지 3 시간만에 처음으로 南侵 正規部隊와 對決하여 初戰敗北의 痛憤을 삼키면서 南大川以南으로 戰線을 수습하였다. 이 初戰敗北을 놓고, 워라서 제 23 연대장 金宗元 중령 이하, 연대 將兵의 철수를 賁할 수 있을 것인가, 北傀徒黨의 南侵準備를 外面하고, 民主萬能의 南柯一夢에만 빠져있던 爲政者 및 軍首腦部에 그 責을 물어야 하지 않았던가.

## 라. 전투후의 개황

제 2 대대의 脆弱한 初戰상황에 비추어,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該地區의 防守概念을 時急히 修正 할 必要性을 切感하였다.

즉, 北傀 제 5 사단의 優勢한 戰力에 一方的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下에서는 南大川 및 王遊川의 두 河流가 오히려 戰線수습의 迅速성을 제약할뿐만 아니라, 退路를 迂廻차단 당하여 兵力損失을 加重케 하는 逆障礙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蔚珍상실 뒤엔 南大川을 방패삼아 一戰을 決하려던 시초의 계획을 바꾸어, 제 1 대대에 제 2 대대의 철수를 엄호케 하되, 이날 12.00를 時限으로 全兵力을 王遊川以南으로 수습하라는 作指를 내림으로써, 王遊川以北을 事實上一戰도 없이 비어주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연대의 戰線수습은 이 날중에 이것으로 一段落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蔚珍을 再掠取한 北傀 제 5 사단의 제 10연대 基幹이 乘勝의 餘勢를 몰아, 南大川을 超越하는 즉시로 砲支援下에 王避川 南岸으로의 進出을 피하였으므로 연대는 또 다시 제 3대대의 主陣地마저 비어주는 바 되어, 제 1 및 제 2 兩 대대를 箕城里(蔚珍 南쪽 22km)에, 제 3대대를 平海(箕城里 南쪽 9km)에 각각 集結시켰으니, 그 日時는 7월 2일의 05.00였다.

이처럼 長驅철수를 단행한 까닭은 첫째, 北傀 제 5 사단의 火力 및 SU-76 自走砲로 인한 부대 士氣의 低下를 감안한 것이며, 둘째로는 제 2대대가 입은 兵力損失로 因하여 再編이 時急하였으며, 세째로는 사단의 支援부대인 獨立제 1대대(장, 金添舜 중령) 및 永登浦學院(장, 洪聖俊 소령)과의 合勢가 이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王避川線을 철수함에 앞서, 사단에 支援兵力을 요청하였는데, 사단장 劉升烈 대령은 이에 대하여, 兩 부대를 연대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平海로 急進하여, 收容陣地를 急編하라고 命令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연대는 제 2대대에 永登浦學院을 편입시킴과 동시에 獨立제 1대대로써 箕城里 北쪽 3km의 無名高地에 내세워, 平海에서 제 1 및 제 3대대의 兵員을 再編하였다.

그런데, 北傀 제 5 사단은 跡을 서두르는듯이 7월 3일 04.00에 梅花里(蔚珍 南쪽 10km)에서 主力을 兩分하여, 제 10연대로써 烏山里(梅花里 東南쪽 4km) 一望洋里(烏山里 南쪽 5km)의 東海岸本道를 一氣에 走破케 하고, 제 12연대의 1개 대대로써 基陽里(梅花里的 西南쪽 3km) 一葛錦里(基陽里 西南쪽 3km) 古谷里(葛錦里 南쪽 7km)의 王避川 上流에 沿한, 太白山系의 溪谷으로 分進케 한듯하였다.

이 때, 연대는 獨立제 1대대로써 하사리(一望洋里 南쪽 2.6km) 一△212(하사리 西쪽 1.3km)에 陣地를 急編하고 있었는데, 北傀 제 10연대의 尖兵 2개 중대규모를 迎擊 20분만에 그 SU-76 自走砲 6대 및 火力에 밀리는바 되어, 箕城里로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제 3대대를 어현리(箕城里 南쪽 3.2km)에 추진시켜 이를 掩護케 하였으나, 이 역시 陣地를 支撐하지 못하여, 연대의 명령으로 寧海(盈德 北쪽 14km)까지 長驅 28km의 철수로써 戰線을 수습치 않을 수 없었다.

한편, 再編중시 仙味里(平海 西北쪽 11.5km)부근으로 추진되어, 平海의 西側面을 掩護하려던 제 1대대도 北傀 제 12연대의 1개 대대규모를 迎擊하였으나, 交戰 40분만에 그 火力에 밀리는 바 되어, 平海로 철수하였다.

平海國民學校에 연대지휘소를 두고, 제 2대대를 예비로 하고 있던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該대대로써 다투고개(平海 南쪽 3.2km)에서 최대단의 遲延戰을 敢行케 하면서, 제 1대대와 더불어 연대지휘소를 寧海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거듭되는 철수 과정에서 각 대대의 兵員은 크게 혼란을 비겼으며, 低下된 士氣와 疲勞에 지친 戰列을 가다듬기 위하여는 寧海까지의 戰線수습을 단행함으로써 次期作戰에 대비하려는 것이, 연대 및 사단 지휘부의 意圖이었다.

이로써 각 대대 및 獨立제 1대대는 7월 4일까지 寧海로 集結하여 부대를 再編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3대대장 許亨淳 소령  
(1978. 3. 28 富川市中央精密代表室에서, 豫대령)

제 23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熱意와 氣魄은 대단한 지휘관이면서도, 作戰지휘에 있어서는 多分히 獨善의이요, 無計劃의이었다.

그러므로 대대지휘에 적지않은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 例를 들면, 어떤 陣地를 점령해놓고 보면, 영웅하게도 즉시 철수하라는 등의 作戰지휘에 一貫性이 없었으며, 부대이동 때에도 항상 혼선을 빚곤 했다.

◇ 제 10중대장 朴鍾秉 대위  
(1978. 2. 10 서울 大方洞 大成社長室에서, 予대령)

本戰鬪는 한 마더로 正規戰규모의 전투를 처음으로 체험한 拙戰이었다.

敵情을 전혀 알길이 없었다. 중대장인 나 자신이 蔚珍 정면의 敵이 어떤 부대이며, 그 규모와 戰力이 어느 정도인가를 모르고 戰鬪에 임했으나 소대장 이하 중대원들은 그야말로 구름잡기의 막연한 상황속에서 對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點이 중대의 士氣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연대는 正規戰에 對備하는 아무 준비도, 支援 약속도 받지 못하고, 무턱대고 蔚珍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 하나의 例로서 중대장인 나에게 地圖 한장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대대의 作命을 받고서도 現地에 가서야 실제의 地形에 맞추어 중대를 배치하는 형편이었다.

◇ 제 6 중대 제 2 소대장 明大植 소위  
(1978. 3. 3 서울上道洞 自宅에서, 中 대령)

연대 본부는 북쪽 남침직전에 釜山市凡一洞에 있었는데, 6월 25일 14.00 무렵이 돼서야 북쪽 남침의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8일, 盈綠 북쪽에 출동하면서도 중진의 共匪討伐 정도의 觀念만인지 아니면 사단 자체의 장비 부족의 탓인지 正規戰에 대비한다는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風聞으로 들려오는 緒戰의 참담한 戰況을 들을 때마다 비로소 正規戰에 대한 不安感이 되졌으며 막연하나마 共匪討伐式으로 臨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指揮官級에 正規戰 체험자가 없었으므로 우리 소대장 및 중대장級은 教範을 들추어 正規戰의 指揮法을 서둘러 暗記해야만 했다.

蔚珍을 몇 시간동안이나마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北傀 遊擊部隊의 一部 殘留兵力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대보다 越等한 北傀 제 5사단의 主力이 일단 출현하게 되자, 소대원들은 우선 機械化된 重裝備-自走砲, 野砲, 싸마호오트등-에 大驚失色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怪物로만 보였던 것이다. 특히, SU-76 百走砲-이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명

稱이지만 이를 T-34 型戰車로 誤認하고, 士兵들은 恐怖心으로 退避할 생각부터 하는 실정이었다. 소대장인 나 자신도 束手無策일 수밖에 없었다.

연대가 寧海에 이르러 다시 한 차례의 戰鬪를 치루기는 했으나, 내가 보기에도 이 때까지는 연대와 사단間에는 아무런 連繫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연대장의 期冀指揮만이 있을 뿐이었다. 사단 사령부가 東海岸방어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翌德부터였다.

## § 戰 訓

### (1) 戰鬪情報의 未備로 因한 指揮上의 失錯

本戰鬪의 始末을 概括전대, 제 23연대장 金宗元 중령을 비롯한 각급 지휘들의 指揮上의 失錯이 두드러지게 지적되는바, 이는 오로지 戰鬪情報의 未備에서 齣來된, 당연한 결과라고 評해도 마땅할 것이다.

作戰要務令 제 126 章에

〈戰鬪情報는 未知의 敵과 作戰地域에 관한 事項을 減少시키며 作戰遂行에 內包되는 危險性을 正確히 評價하게 하고 戰鬪力을 成功의으로 使用할 수 있게 한다……〉

라고 明示돼 있는바와 같이, 指揮官은 戰鬪에 臨하기에 앞서, 戰鬪情報의 수집에 積極的이고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에도 不拘하고, 연대의 蔚珍戰鬪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데서 指揮上의 失錯을 犯하였다고 思料되는 것이다.

당시의 火急했던 상황에 비추어, 緊急出動을 서둘러야만 했던 實情이고 보면, 이 失錯의 實을 연대장에게만 물을 수는 없으나, 연대의 出動이 正規軍규모의 敵軍을 상대로 할 것임에도, 여러 參戰證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진 共匪討伐時의 對敵概念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指揮官級의 安逸한 無知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緊急時의 南大川 渡河를 考慮치 않고 제 2대대를 蔚珍 북쪽으로 추진케 하였음은 막대한 兵力損失만을 自招한 것이었으니, 이 또한 戰鬪情報의 未備로 因한 指揮上의 큰 失錯이었던 것이다.

2. 盈德—江口 附近 戰鬪(1950년 7월 19일 부터  
" " 7월 29일 까지)참조: 별책부도 제 18 호  
상 황 도 제 58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3 사단	장 준장 李 俊 植 (7월 10일 부터)	永登浦學院	장 소령 洪 聖 俊
제 22연대	장 중령 姜 泰 敏	工兵대대	장 소령 朴 基 錫
제 1 대대	장 소령 黃 明	매속부대	
제 2 대대	장 대위 張 麟 杰	강원도경찰대대	장 경무관 尹 明 運
제 3 대대	장 소령 廉 貞 泰	지원부대	
제 23연대	장 중령 金 宗 元 (7월 31일 까지)	포병제11대대	장 소령 盧 載 鉉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載 烈	美제159야포대대	C포대
제 2 대대	장 소령 白 基 千	美제40전투비행대대	
제 3 대대	장 소령 許 亨 淳	美제 7 함대 일부	
독립제 1 대대	장 중령 金 滄 舜	英 極東海軍 일부	
敵		軍	
北傀제 2 군단	장 소장 金 光 俠 중장 金 武 亭 (7월 10일 부터)	제 5 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제10, 제11, 제12연대 基幹)
		제766부대	장 총좌 吳 振 宇

## 나. 전투전의 개황

本戰鬪는 浦項 北쪽 45km의 要關인 盈德—江口地區에서 수행된, 東海岸 遲延作戰의 掉尾를 장식한 一戰이었다.

즉, 1950년 7월 4일에 제23연대(장, 金宗元 중령)를 基幹으로 平海에서 일단 再編한 제3사단(장 劉升烈 대령, 7월 9일까지)이 8월 상순에 長沙에서 海上撤收하여, 浦項으로 移轉하기에 앞서, 獨自의 遲延作戰을 수행한 마지막 防守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該戰鬪의 分水嶺을 이룬, 7월 19일~29일 사이를 前後한 攻防角逐의 상황은 각각 전투권의 개황과 전투후의 개황 및 參戰者의 證言으로써 一括概觀키로 하고, 26일에 該地區의 要關인 181高地에서 이루어진 奪還戰으로써 本節의 要義로 詳考코자 한다.

△181는 西北쪽 2.5km의 盈德과 南쪽 4.5km의 江口에 亘한 地區를 制扼하는 要部로서 彼我攻防의 焦點을 이루었다.

제3사단으로서는 該高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盈德—江口間의 主補給路를 차단당하여, 戰線調整의 機를 逸할것이며, 北傀 제5사단으로서는 該高地의 掠占이 盈德以南으로의 進出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關鍵이었다.

敵軍의 상황: 北傀 제5사단은 7월 1일에 蔚珍을 掠取한 뒤, 梅花里(蔚珍 南쪽 9km)에서 主力을 兩分하여, 望洋里—箕城里—平海의 海岸本道에 제10연대를, 葛錦里—仙味里를 거치는 太白山系의 溪澗接近路에 제12연대를 각각 進出し켰으며, 7월 11일에는 寧海(盈德 北쪽 14km)에서 勢를 다시 규합하고, 盈德地區로 향하게 하였다.

한편, 遊擊충격을 主任務로 하는 제766부대는 蔚珍에서부터 別動先行하여 太白山系로 潛跡한 뒤에 王避川 및 南大川(南)의 上流에 걸친 縱隔溪路를 一路南進하면서 浦項—永川間에 대한 攪亂을 목표로 하는듯 하였다.

北傀는 本是, 太白山系의 險峻한 地勢를 이용, 6월 25일의 全面南侵前부터 南韓출신의 遊擊隊를 10차에 걸쳐 南派하였는데, 제766부대는 日月山(△1219, 盈德 西北쪽 43km) 및 兄弟峰(△704, 盈德 西北쪽 15km)등에 蟠據중인 그 殘勢를 흡수하여 1,000명의 勢를 이룬 것으로 推算되었다.

또한, 江陵에서 我 제8사단을 大關嶺 넘어로 追接하며, 平昌—寧越—春陽으로 分派되었던 제11연대는 寧海에서 原隊로 복귀하여 사단 主力을 補強하였다.

그런데, 北傀 제2군단은 7월 10일을 前後하여, 該戰線에 대한 作戰을 크게 바꾸는듯 하였다.

즉, 南侵初戰부터 軍단장이던 金光依(소장)이 解任되고, 金武亨(중장)이 7월 10일부터 起用되는가 하면, 原州—堤川으로 進出한 제12사단을 安東으로 移轉시켜, 杞溪(浦項 西쪽 20km)로 向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分明히 東海岸戰線을 西側方에서 壓縮함과 동시에 浦項攻略의 側衝楔入을 企及하려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其實, 海岸本道로 進出중인 제5사단은 寧海로부터 遲速을 免치 못하였다.

그 이유의 첫째는 UN군의 艦砲射擊 및 空軍出擊으로 因한 兵力消耗이 急増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夜間行動을 主로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兵站線의 延伸에 따르는 補給推進이 車輛機動의 缺乏으로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었다.

我軍의 상황: 7월 4일, 平海에서 철수한 제23연대를 寧海로 수용한 사단은 新兵으로써 蔚珍以來의 兵力損失을 補償하는 한편, 제22연대의 조속한 復歸를 陸軍本部에 요청하는 동시에 永登浦學院을 獨立제 1대대에 배속시키는 조치로써 戰力整齊에 全力을 기우렸다.

또한, 戰線이 盈德으로 近接됨에 따라, 東海上에 出動중인 美해군 제7함대 일부 함정의 艦砲支援과 美제 5공군의 출격이 漸増하였으므로 사단은 이 強力한 지원화력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되었다.

사단은 再編한 제23연대와 獨立제 1대대로써 北傀 제5사단의 重壓을 배제하고 있었는데, 7월 10일에 사단장이 更迭됨에 따라, 防守概念을 一新하고, 寧海—盈德間에서 縱深깊은 遲延戰을 단행키로 하였다.

즉, 陸軍本部는 7월 9일 현재, 水原—陰城方面으로 철수중인 제22연대의 早速한 原隊復歸를 命令



함과 아울러 사단장 劉升烈 대령을 慶南編成管區司令官으로 轉補하고, 陸軍士官學校長이던 李俊植 준장을 新任사단장으로 補任하였는데, 이는 浦項을 固守하기 위하여 盈德—江口線에서 敵軍의 南進을 단호히 배제하려는 緊急措施의 一斑으로 看做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단장 李俊植 준장은 寧海를 防守하기 위한 兵力의 損失을 보기 보다는 寧海—盈德間의 海岸本道를 沿하여 3重의 逐次陣地를 陣設하여, 敵軍에게 出血을 強要키로 결심하고, 제23연대장 金宗元 중령 및 獨立제1대대장 金滄舞 중령에게 次의 다음과 같은 作命을 口頭로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寧海에서 盈德에 이르는 海岸本道를 沿하여, 最大限의 遲延戰을 수행하며, 敵에게 致命的인 出血을 強要하려함.

② 제23연대는 2개 대대로써 阻止線(가), (나), (다)를, 1개 대대로써 阻止線(라), (마)를 逐次 확보하면서, 敵을 陣前破摧하고, 7월20일 06.00 以後에 主抵抗線(바)로 集結하라.

③ 獨立제1대대는 阻止線(ㄱ), (ㄴ), (ㄷ)를 逐次 확보하면서 敵의 側攻을 배제하고, 7월 20일 06.00 以後에 主抵抗線(ㄹ)로 集結하라.

④ 期間中, 艦砲 및 空軍의 支援을 사단 前方指揮所에 요청하라.

⑤ 사단 前方指揮所는 7월 19일 06.00부터 江口에 在할 것이다.』

이 口頭作命에서 主抵抗線 集結의 時限을 7월 20일 06.00로 定한 것은 原隊復歸중인 제22연대의 該戰線 도착이 늦어도 18일까지는 可能할 것이라는 예측이 서기 때문이었다.

한편, 美 제8군사령부는 東海岸戰線의 상황을 깊은 우려로 지켜보고 있었다. 浦項의 港灣과 迎日飛行場의 귀추가 洛東江戰線의 形成에 막중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浦項의 港灣은 釜山과 함께 全戰線에 대한 兵站物資의 出入口이며, 迎日飛行場은 美 제40 전투비행대대의 基地로서 極히 重要視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45km 北쪽의 盈德—江口는 浦項防守의 마지막 關頭로서 守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 重要性에 비추어, 美 제8군사령관 Walter H. Walker 중장은 작전참모 Allen D. Maclean 중령에게 該戰線에 대한 火力支援의 可能한 모든 수단을 動員하라고 긴급지시 하였다.

이로써, 사단 수석고문관 Rollins S. Emmerich 중령은 火力支援에 관한 요청과 연락을 美 제8군사령부와 수시로 취하게 되었는데, 陸軍本部는 韓國군측의 連絡官으로서 崔德新 대령을 사단에 파견하였다.

이처럼, 美 제8군사령부의 이상한 조치로써 취해진 火力支援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砲兵支援……美 제159야포대대 C포대(105mm)

空軍支援……美 제35전투비행단의 제40전투비행대대

艦砲支援……美 제7함대의 輕巡洋艦 Juneau號, 驅逐艦 Collett號, Higbee號, Mansfield號, Dehaven號, Swenson號, 英 極東艦隊의 巡洋艦 Jamaica號, 驅逐艦 Black Swan號.

이로써 제23연대 및 獨立제1대대의 제1차 阻止線을 支援하여, 北傀 제5사단 主力의 寧海로부터의 進出을 5일간이나 阻止하였다.

즉, 제23연대는 7월12일 12.00에 목골재(寧海 南쪽 1.2km)의 東쪽 2km의 望月峰(△220) 西斜面에 제1 및 제2 兩대대로써 陣地(가)를, 목골재 西쪽 500m의 低山地帶에 제3대대로써 陣地(라)를 각각 陣設하였으며, 獨立제1대대는 가미실재(목골재 西쪽 2.5km)를 중심으로 陣地(ㄱ)를 陣設하고 있었는데, 이날 14.00에 2개 대대 규모의 敵軍이 각 정면에 출현하자, 매마침 寧海 前洋에 출동중인 Juneau號, Jamaica號, Mansfield號, Black Swan號의 5" 및 8" 巨砲가 일제히 불을 토하여, 그 接近路일대를 餘地없이 強襲하였던 것이다.

이 때, 北傀 제5사단은 제10연대로써 海岸本道를, 제12연대로써 活人山(△347, 盈德 北쪽 4km)—三和洞(活林山 西쪽 3.5km)線을 북표로 國師峰(△511, 三和洞 北쪽 3km)의 東麓 溪澗으로 進出시키

려 하였던 것인데, 그 頭上을 強打한 艦砲巨彈의 洗禮야말로 可謂 青天의 霹靂이었으리라. 江陵以來의 乘勝氣勢에 도취되어 있던 驕敵은 이 寧海에서부터 UN군의 莫強한 火力에 부딪치게 되었으니 盈德—江口地區의 攻防을 앞두고, 東海岸戰線의 樣相은 큰 變革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즉, 北傀 제5사단은 艦砲射擊의 觀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晝間行動을 小規模로 제한하고, 夜間 또는 晝間을 틀타 中대규모 이상을 投入하게 됨으로써 그 進出氣勢가 눈에 띄우게 鈍化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艦砲뿐만 아니라, 浦項의 迎日基地에서 出擊하는 美 제40전투비행대대의 近接支援도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행되었다.

그러나, 사단의 兵員損失에 따르는 兵力보충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陸軍本部 및 美 제8군사령부로서도 제22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단장 李俊植 中將은 사단 자체로서, 전투명력을 강화키 위하여, 公明대대(장, 朴基錫 소령)를 基幹으로 예비명력 500명을 急編하여, 南湖洞(江口 南쪽 3.4km) 北쪽의 丘陵일대에 대기케 하였다.

또한, 江原道警察대대(장, 尹明運 中將)를 盈德 西北쪽의 五十川 北岸으로 이르는 三和洞부근의 山間接近路에 배치하여, 敵軍 遊擊兵力의 側方침투를 봉쇄토록 하였다.

이 무렵, 제22연대(장, 姜泰敏 中將)는 鳥致院—淸州—文義를 거쳐, 黃澗으로 徒步移動중이었는데, 7월 22일 黃澗에서 때마침 驛內에 待機중이던 20輛의 列車便으로 이튿날 大邱에 도착하는 즉시로 再編하였다.

그런데, 黃澗에서 便乘한 列車은 제2사단을 수송키 위하여 待機중이던 貨物車輛이었으며, 漢江을 넘은 뒤에 連日 徒步行軍을 거듭한 제22연대는 극도의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 兵員의 損失도 또한 막심하여, 參戰者의 한 證言에 따르면 大邱에서의 再編時에 殘餘兵力이 95명밖에 안되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這間의 苦楚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95명이란, 지나치게 과장된 數자로 看做되나, 사단은 연대의 即刻投入을 일단 보류하고, 休息과 兵員補充을 서둔 뒤, 特便으로 26일에 江口로 추진하여, △181에 대한 逆襲을 감행케 하였다.

이로써 제22, 제23의 2개 연대와 獨立제1대대 및 江原道警察대대, 그리고 公明대대를 基幹으로 한 兵員으로써 盈德—江口線의 防守決戰을 8월 9일까지 敢行하고, 長沙洞(江口 南쪽 8km)으로 철수하는데, 本節의 要義를 이루는 △181 攻防戰에 이르기까지의 전투과정을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목골재—가마실재의 제1차 阻止線에서 艦砲 및 空軍出擊의 火力支援下에 北傀 제5사단의 2개 연대규모를 전제한 사단은 7월 16일의 子正이 넘을 무렵에 陣地(라)의 제23연대 제3대를 고래산 正斜面인 陣地(마)로 철수시켜, 敵軍의 侵入을 阻止케 하고, 陣地(가)의 제23연대 主力 및 陣地(ㄱ)의 獨立제1대대를 각각 陣地(나)인 △167(寧海南쪽 5km)와 陣地(ㄴ)인 △125로 철수시켜 18일의 黎明時까지 敵軍의 進出을 阻止케 하였다.

그런데, 제23연대가 집결한 陣地(나)는 寧海에서 南下하는 海岸本道가 山峽溪谷으로 접어들어, 고개넘어(峙)의 險路를 넘어서는 길목을 扼守하기에 適合한 要所임으로 北傀 제5사단 主力의 出血을 強要하려 하였으나, 獨立제1대대의 陣地(ㄴ)를 突破한 北傀 제12연대의 主力이 고래산 西麓의 溪澗으로 大舉 進出함으로써 고개넘어(峙) 以南의 海岸本道가 側方威脅을 받을 棼단아니라, 陣地(마)의 제3대대가 포위당할 우려가 커졌으므로, 제23연대장 金宗元 中將은 18일 04.00에 제3대대를 陣地(다)로 收容함과 동시에 獨立제1대대를 俗稱 버림바위골의 △157(陣地 ㄷ)로 집결시켜, 고래산 以南의 溪路를 制扼토록 하였다.

한편, 연대 主力도 또한, 이날 06.00에 △236을 主峰으로 하는 陣地(다)로 移陣하여, 海岸本道邊의 俗稱 안고 실—운터골을 扼守하려 하였으나, 北傀 제5사단 主力의 夜暗을 利用한 攻撃이 緊요함으로 다시 陣地(바)로 兵力을 수습함으로써 盈德防守의 一戰을 決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獨立제1대대도 活人山(△347, 盈德北쪽 3.6km)으로 集結케 하여, 陣地(ㄷ)을 急編케

하였는데, 이 陣地(바)—陣地(근)線은 △155(盈德 東北쪽 1.5km)로써 海岸本道邊의 俗稱 삼거리와 그 東쪽인 三溪洞일대에 걸친 接近路를 制扼하고, 活人山の 麓緣으로써 華水洞(삼거리의 西쪽)—三和洞(活人山の 西쪽 2.5km)間의 細徑을 扼守케 하는 最後防禦線이었다.

그러나, 제23연대 및 獨立제1대대는 連日거듭된 撤收로 인하여, 兵力 및 裝備의 損耗가 不尠하고 兵員의 疲勞困憊도 또한 莫大함에도 不拘하고 사단으로부터의 補充支援을 期待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戰列을 整齊할 겨를도 없이 19일의 未明에 敵의 攻擊에 또다시 밀리는바 되어 05.00에 該線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즉, 제23연대는 右谷洞(盈德 東南쪽 1km)을 前線으로 하는 △181—△207의 稜線으로, 獨立제1대대는 盈德市內를 거쳐 五十川을 渡河하여 △208로 각각 兵力을 수습하고, 盈德을 奪還키 위한 逆襲의 據點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北傀 제5사단은 19일 09.30에 盈德을 掠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23연대는 21일의 拂曉에 逆襲을 敢行하여 08.00에 同市를 奪還하였다.

그런데, 19일에 盈德을 無血로 내놓은 까닭은 敵에게 出血을 強要하기 위함이었다. 즉, 江口의 前洋에 出動중인 英海軍의 Belfast艦과 美海軍의 Higbee艦, Mansfield艦, Dehaven艦, Swenson艦의 巨砲로써 市街地 및 그 周圍일대를 強打케 하였다. 19일과 20일의 兩日間에 걸친 이 集中砲擊으로 莫大한 打擊을 입은 敵은 20일의 夜半에 일부의 兵力만 남기고, 同市에서 일단 後退하였는데, 21일 제23연대의 제3대대가 市街地로 逆襲突入할 때에는 거의 抵抗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日沒과 더불어 敵은 또다시 市街地 北쪽의 2개 接近路로 1개 연대규모를 投入하였으므로 右谷쪽의 退路를 遮斷당하기 전에 大대主力을 철수시킬 必要가 時急한 제3대대는 21.50에 △207의 西麓으로 兵力을 수습하였다.

이리하여, 제23연대는 △181—△207에 主抵抗線을 急編하여 江口에 이르는 敵의 進出路를 遮斷하기에 專念하였는데, 제22연대의 該戰線 到達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時時刻刻으로 加重되는 敵의 壓力을 排除하면서 最大의 要關인 △181를 確保하기에 血戰을 거듭하였다.

한편, 盈德—江口線을 固守하여 浦項에 대한 敵의 威脅을 排除코자 하는 美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20일에 美제 25사단장인 William B. Kean소장을 帶同하여 大邱에서 浦項에 이르러, 東海岸戰線에 대한 全般적인 狀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제3사단에 대한 예비兵力의 適時補充이 不可能한 全戰線의 現況下에서는 美海·空軍에 의한 火力支援으로써 防禦戰力을 補強하는 수밖에 없음을 足認하여, 美제 35戰團飛行團長 Robert Witty 대령으로 하여금, 제3사단 顧問官 Emerich 중령과 空軍支援에 관한 協議를 갖게 하고, 美제 159野砲대대의 1개 砲隊(C砲隊)를 7월 19일에 南湖洞(江口 南쪽 3km)으로 移動케 하였다.

이처럼, 20일을 前後하여 增強된 火力支援에 敵에게 莫大한 出血을 強要하는 가운데, 제23연대는 △181—△207線을 중심으로 하는 錦湖洞(江口 北쪽 3.5km)의 主抵抗線에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遂行하여, 五十川邊의 北岸에서의 遲延作戰을 23일까지 成功케 하였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該戰線은 東海岸의 最大兵站基地인 浦項을 防守하는데 있어서 最後의 保壘와 다름 없었다.

즉, 浦項까지의 45km 於間에 있어서 兵員의 劣勢를 天然의 地利로써 補填하며, 遲延戰

을 遂行하기에 適合한 地形條件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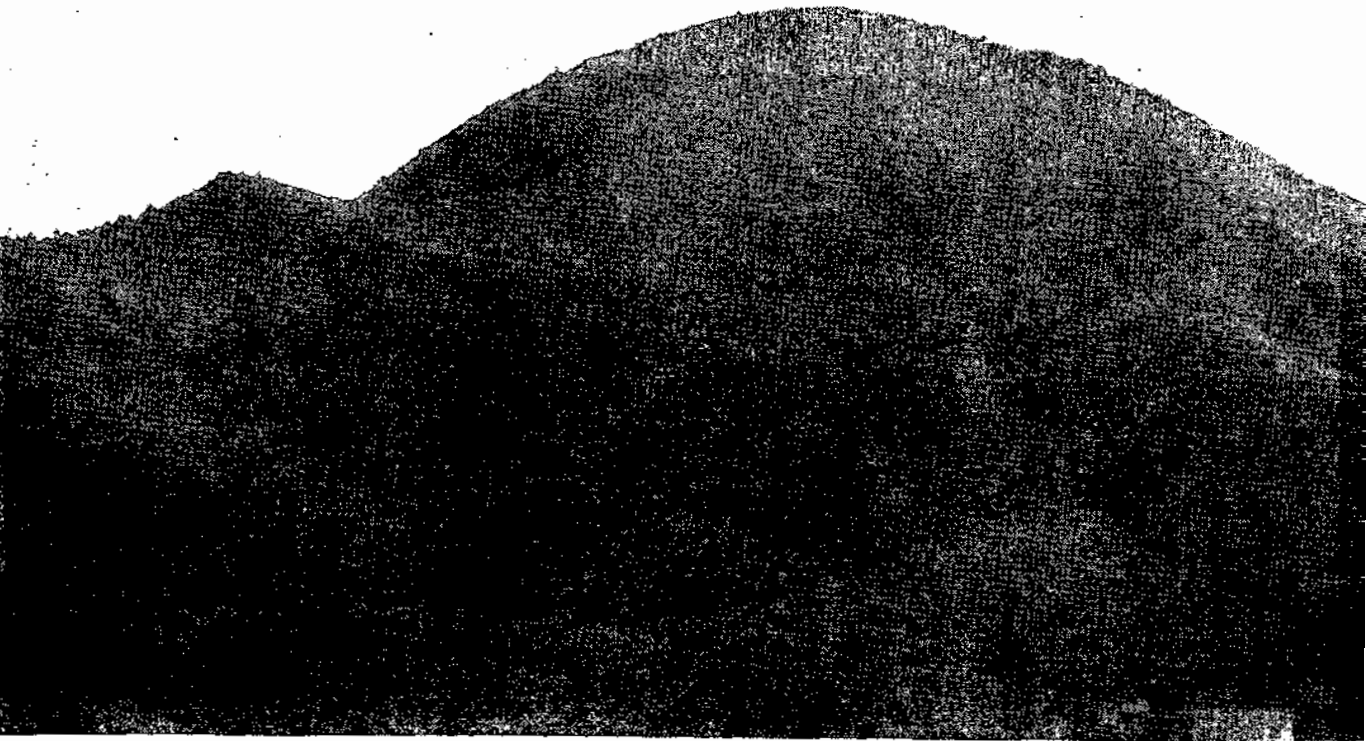
즉, 平均 河幅이 50~60m인 五十川邊을 防守에 利用하여, 唯一한 渡橋인 江口橋를 중심으로 敵의 進出을 阻止하기에 有利한 地勢를 瞥見하면 다음과 같다.

盈德에서 江口에 이르는 海岸本道는 五十川의 沿邊을 따라 南下하는데, 盈德 東쪽의 地脈은 太夫洞(盈德 東쪽 4km)—右谷洞을 底邊으로 하여 逆三角形으로 좁아지면서 江口(江口橋)를 頂點으로 하고 있으므로 我軍으로서는 密集防禦에 有利한 地勢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

美제 8 군사령관 Walker 中장이 該線의 固守를 做命한 까닭도 이 때문인데, 제 3 사단장 李俊植 中장은  $\triangle 208$ (盈德 西쪽 1.4km, 五十川의 對岸)의 獨立제 1 대대로써 敵의 側方進出을 牽制케 하고, 제 23 연대로써 太夫洞—右谷洞線을 堅守케 하였다.

이에, 제 23 연대장 金宗元 中령은 제 3 대대를  $\triangle 181$ 에, 제 2 대대를  $\triangle 207$ 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太夫洞—右谷洞線을 防禦케 하고, 제 1 대대로써  $\triangle 173$ (江口 北쪽 3.3km)에 예비로 控置하여 縱深을 編成하였는데, 戰況의 急迫에 따라, 攻防의 焦點은  $\triangle 181$ 로 集中되었다.

왜냐하면, 該高地는 逆三角形의 底邊中間에 위치하여 敵의 接近路를 一覽無餘에 瞰制할뿐



( $\triangle 181$ 의 北斜面. 1978. 11 촬영)



〈△181의 西斜面. 1978. 11 촬영〉

만 아니라, 그 南쪽에 대하여도 俯瞰의 利點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81의 得失은 곧 該戰線에서의 進退를 뜻하는 것이어서, 사단은 21일에 盈德을 다시 상실함에 이르러, 제23연대의 主力을 △181—△207線으로 수습함과 동시에 제22연대의 來到와 더불어 盈德奪還의 反擊을 加하기로 하였다.

## (2) 작전실시

그런데, △181의 제3대대(장, 許亨淳 소령)는 連日의 戰鬪에서 休息의 餘裕를 취할 수가 없어, 將兵共히 疲勞困憊의 極에 達하고 있었으므로, 24일의 拂曉무렵에 高地東麓의 제9중대(장, 鄭名煥 중위) 前哨組가 假眠상태에 빠져있을 때, 敵 2개 중대규모의 侵襲을 받아, 主障地가 包圍당하는바 되었다. 그러나, 高地의 南麓에 예비로 待機중이던 제10중대(장, 朴鍾秉 대위)의 果敢한 逆襲으로 敵 1개 중대에 殲滅的인 打擊을 加하여, 대대主力의 撤收路를 切開하고, 錦湖洞으로 일단 兵力을 수습하였다.

따라서, △207의 제2대대(장, 白基千 소령)도 敵 1개 대대규모의 東側方으로부터의 壓力으로 上錦湖(△207 南쪽 1.1km)에 이르는 稜線으로 몰려나오는바 되었으나 25일에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예비인 제 1 대대(장, 朴載烈 소령)로써 逆襲을 敢行케 하여 △181를 다시 恢復하였다. 이 逆襲은 이날 06.00에 發起되었는데, 24일의 07.00부터 砲門을 열기 시작한 江口前洋의 海軍各艦은 終日토록 △181—△207의 敵에게 巨彈을 集中하였으므로, 제 1 대대의 逆襲時에는 敵의 主力이 이미 遁走한 뒤이어서 高地恢復은 容易하게 이루어졌다.

이 한 차례의 攻防이 展開된 24일, 待望중이던 제 22연대가 大邱에서의 再編成을 마치고 江口에 增援되었다.

이에 사단장 李俊植 준장은 即日로 △150(江口 北쪽 1.5km)에 연대를 推進시켜, 別命을 待機케 하였다.

이때, 사단장의 腹案으로는 제 22연대로써 △207을 超越케 하여, 26일에 盈德을 奪還하려던 것이었으나, 25일의 夜半에 敵의 夜襲으로 또다시 △181를 잃게 되었으므로 不得已, 이에 대한 逆襲에 投入키로 하였다.

7월 26일 현재, 사단은 제 22연대를 △150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제 23연대의 主力을 △181 및 △207에서 철수시켜, 敵의 進出을 下者洞—上錦湖線에서 阻止하였는데, 제 23연대는 △172에 예비인 제 1 대대를 控置하고, 제 3 대대를 俗稱을지마의 野山에, 제 2 대대를 上錦湖洞의 稜脉에 각각 集結케 하여, 陣地를 急編하는 한편, 제 22연대의 逆襲을 支援케 되었다.

**181高地의 상황:** 사단장 李俊植 준장은 △181 및 △207의 敵이 陣地를 補強하기에 앞서 逆襲을 敢行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181 및 △207를 同時에 奪還하여, 盈德을 恢復키 위한 進出線을 확보하려 함.

- ② 제 22연대는 2 개 대대로써 △181 및 △207를 奪還하라.
- ③ 제 23연대는 現位置에서 제 22연대의 逆襲을 掩護하라.
- ④ 獨立제 1 대대는 現位置에서 계속 敵의 側方進出을 牽制하라.
- ⑤ 工兵대대는 現位置에서 別命을 待機하라.
- ⑥ 期間中 艦砲 및 空軍支援을 隨時로 要請하라.
- ⑦ 사단지휘소는 江口에 계속 在한 것이다.』

이 作命은 사단의 美顧問官인 Emerich 중령의 同意로써 艦砲 및 空軍支援의 強力한 火力을 背景으로 하는만큼, 北傀 제 5 사단의 戰力을 凋喪케 하는 出血強要를 主眼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 22연대장 姜泰敏 중령은 이날 07.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으로써 제 2 및 제 3 兩대대에게 逆襲任務를 附與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作命에 의하여 △181 및 △207을 占領하려 함.

- ② 제 3 대대는 △181를 占領하라.
- ③ 제 2 대대는 △207를 占領하라.
- ④ 제 1 대대는 △172에 集結하여 別命을 待機하라.
- ⑤ 期間中, 각 대대는 艦砲 및 空中支援을 隨時로 要請하라.
- ⑥ 攻擊開始時間은 7.26. 13.00이다.
- ⑦ 연대지휘소는 攻擊開始 2시간前에 △172로 推進될 것이다.』

즉, 연대는 제 3 대대(장, 廉貞泰 소령)를 右제 1 선으로, 제 2 대대(장, 張麟杰 대위)를 左제 1 선으로 각각 내세워, 逆襲을 敢行케 되었는데, 한낮인 13.00를 攻擊開始時間으로 定한 것은 艦砲 및 空中支援의 火力을 十分 効力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12.00부터 砲門을 열기 시작한 艦砲射擊과 더불어, 右제 1 선에 제 10 중대(장, 梁成植 대위)를, 左제 1 선에 제 11 중대(장, 文龍琪 중위)를 각각 展開시킨 제 3 대대는 13.00 正刻에 攻擊準備射擊이 △181의 北쪽으로 延伸됨에 따라, 일제히 攻擊開始線을 통과하였다.

攻擊目標인 △181는 一名 丸山이라고도 하며, 饅頭型의 둥근 모양의 頂上에서 完만한 稜狀이 사방에 흘러내림으로서 地勢는 험하지 않으나, 四周에 대한 眺望이 有利함으로 攻者로서는 敵火의 集中을 覺悟하는 수 밖에 없었다.

대대의 右제 1 선이 되어, 高地 東南쪽의 下者洞에서 攻擊을 發起한 제 10 중대는 제 1 소대(장, 金慶珍 소위)를 右제 1 선으로, 제 3 소대(장, 尹秉俊 소위)를 左제 1 선에 각각 내세우고, 제 2 소대(장, 李大植 소위)를 제 1 소대에 後續시키면서 發進하였다.

한편, 대대의 左제 1 선이 되어, 高地 西南쪽의 完만한 稜線으로 進出한 제 11 중대는 제 2 소대(장, 李晚魯 소위) 및 제 1 소대(장, 金鎮成 소위)를 攻擊제 1 선에 내세웠는데, 兩중대는 共히 輕微한 自動火器 및 소총의 抵抗을 받았을 뿐, 2개 소대규모의 殘兵을 一蹴하면서 高地의 頂上을 손쉽게 장악하였다. 1시간에 걸친 艦砲의 集中으로 敵의 主力은 이미 물려나 있기 때문이었다.

巨彈의 洗禮로 焦土化한 山麓의 到處에 屍身과 兵具의 殘骸가 累累한 가운데, 兩중대는 各々 塹壕와 交通線을 補修하면서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즉, 右제 1 선인 제 10 중대는 頂上의 北東쪽으로 完滿하게 突出한 稜線上에 제 1 및 제 2 兩소대를 배치하여, 眼下의 溪路를 制扼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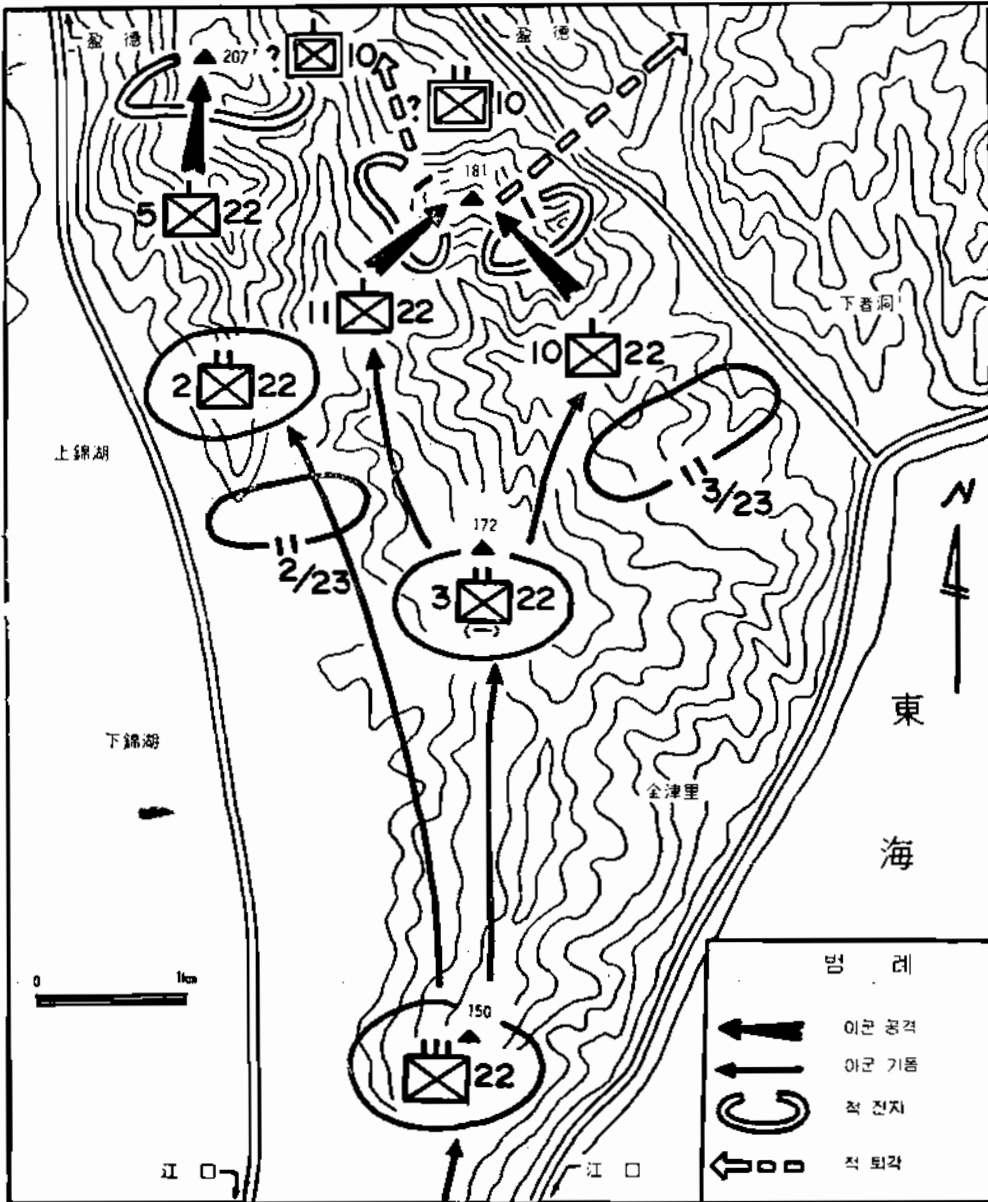
이 溪路는 盈德—下者洞間의 間道를 이루고 있는바, 盈德 東쪽의 △182(△181 北쪽 1.6 km)를 비롯한 山줄기의 接近路가 이 峽谷으로 일단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敵의 接近을 容易하게 制扼할 수 있는 地形上의 利點이 있었다.

한편 右제 1 선이 되어, 高地 西北쪽의 正斜面을 占領한 제 11 중대는 제 2 및 제 3 兩소대를 내세웠는데, 西쪽으로 觀望되는 △207과 한 줄기로 연결되는 稜線은 敵의 主攻正面이 될 것이었다.

兩중대가 陣地急變을 서두는 한낮동안, 敵은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擾亂을 피하는 砲彈이 간간히 陣地周邊에서 炸裂할뿐, 築城作業에 큰 장애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10중대장 梁成植 대위와 제11중대장 文龍琪 중위는 敵의 企圖가 夜間逆襲에 있음을 심분 洞見하고 各소대에 檄하기를 『敵은 大的으로 夜襲을 걸어들 것이다. 陣前擊滅을 期하여, 한 치라도 더 塹壕를 파라!』라고 하며, 不退轉의 굳은 決意를 거듭 強調하였다.

◇ 상함도 제58호 △181 및 △207의 奪還





夜陰이 짙어진 22.00에 果然, 熾盛한 集中砲擊과 더불어 增強된 1개 中대규모로 推算되는 敵勢가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 一波는 제10중대 正面의 溪谷을 단숨에 超越하는 氣勢로 散開하였는데, 高地의 東麓邊에 2개 分대를 내세웠던 제1소대장 金慶珍 소위는 즉각, 射擊命令을 내림과 동시에 火器소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猛烈한 火箭을 集中하였으며, 제2소대장 李大植소위도 또한 突出部位의 제3분대 陣地로 挺身하여 소대火力を 指揮하였다. 이 正面의 敵은 1개 中대로 推算되었으나, 제1 및 제2 兩소대의 適時火力에 歎息한 兵力損失을 不免하였음지, 溪谷에서 周章狼狽한 끝에 潰散하였다.

한편, 제11중대의 正面으로 몰려드는 敵勢는 2개 中대규모로 推算되었는데, 이 또한 예상대로 △207에 이르는 한줄기의 稜線을 3重의 波狀으로 超越할 氣勢이었다.

이 正面이 敵의 主攻方向이 될 것이라고 確信한 中대장 文龍琪 중위는 제3소대에 火器소대(장, 曹炳皓 소위)를 增援시켜, 防守의 主力을 置重하고 있었다.

제3소대장 金鎭成 소위는 한낱 동안에 築城工事를 서두르면서 地形을 偵察한바, 稜線이 완만한 傾斜로써 橫線을 긋고 있음에 着眼하여, 火器소대장과 協議하기를 『敵이 稜線을 超越하려는 순간을 捕捉하여 火力을 集中하자.』라고, 敵制의 利點을 十分 이용하는 火力計劃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火器소대와 더불어 소대의 火力을 限定된 射界로 結束하는 威力을 발휘하게 되어, 敵의 제1波가 稜線을 넘어서려는 순간에 일제히 熱火를 吐하면서 枯葉을 쓸듯이 단숨에 痛擊을 加하였다. 이에 뒤이어, 제2波를 또한 蕪쓰는바 되어, 2개 中대규모의 敵은 稜線을 올라서지도 못하고 退散하였다. 그러나, 高地頂上의 바로 北쪽인 8部稜線의 際涯에 陣地를 占領한 제2소대는 紛戰을 免치 못하였다.

該陣地는 眼下에 凹型으로 구비된 狹谷을 敵制하는 地利는 있으면서도 頂上에 이르는 最短의 接近路이기 때문에 敵의 直衝이 있을 것으로 豫想되었다. 그러므로 소대장 李晚魯 소위는 稜線의 際涯를 따라 火力을 배치하였는데, 攻擊準備射擊이 延伸됨과 동시에 迫擊砲彈이 계속 集中하는 가운데, 1개 中대규모가 세차게 接近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미루어 敵은 제10중대 正面에 1개 中대규모로, 그리고 제11중대의 左제1선 正面에 2개 中대규모를 동시에 投入하여 제3대대의 火力을 兩端으로 分散케 함으로써 이 最短의 直衝距離인 中央으로 突破를 敢行하려는 企圖임이 分明하였다.

그러므로 대대장 廉貞泰 소령은 제11중대장에 無電으로 命令하기를 『즉각, 中대의 예비로써 제3소대를 支援하여 敵의 侵襲을 陣前에서 擊摧하라!』하는 한편, 火器중대(장, 周甲福 중위)의 火力優先을 該正面으로 急遽 轉換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제11중대장 文龍琪중위는 中대예비로 控置중이던 제1소대(장, 李泰榮 소위)로하여금, 제3소대를 赴援케 하였으며, 火器중대장인 周甲福 중위는 제11중대의 左제1선의 稜

線前面에 集注중이던 迫擊砲를 轉換하여 제 3소대 正面의 敵을 溪谷裡에 強襲하였다.

이로써 △181의 北側 中央部位의 溪谷을 중심으로 屠戮과 相擊의 修羅場이 演出되었는데 敵勢는 좀처럼 凋喪되지 않을뿐더러, 23.00를 넘길 무렵에는 또다시 1개 중대규모로 推算되는 增援兵力이 蟄集하는듯 하였다.

轟音과 震動이 溪谷의 夜空을 흔드는 가운데, 이미 1시간餘에 걸친 血戰이 계속되고, 敵勢의 尖頭觸手が 수차에 걸쳐 陣內의 一角을 犯하게 되자, 火器소대장 周甲福 중위는 機關銃班을 직접 지휘하면서 『한 놈도 남기지 말라!』하며, 大號叱咤하던 차에 哀惜하게도 兇彈一發에 頭部를 貫通당하여 散華하니, 그 壯嚴한 순간이야말로 護國의 巨木이 쓰러지는 것과 다를바가 없었다. 이를 目擊한 機關銃班員들은 憤淚를 뿌리면서 『중대장님의 죽음을 헛되히 하지말자!』하고 絶叫하면서 銃열이 過熱되도록 連射를 거듭하였다.

血雨가 霏霏한 가운데 死鬪는 더욱 高潮하여, 彼の 增強에 맞선 我的 不退轉의 意氣가 마침내 効를 거두어 子正이 넘는 무렵에, 兵員의 優勢로서 驕氣부리던 敵도 마침내는 무수한 屍身과 兵具를 收拾할 겨를도 없이 溪谷넘어의 夜陰으로 潰散하였다.

**207高地의 상황** : 한편, △207를 담당한 제 2대대장 張麟杰 대위는 제 5중대(장, 李領濟 중위)를 逆襲 제 1선에 내세우고 제 6중대(장, 黃漢俊 중위)를 이에 後繼시킨 가운데, 上錦 湖北쪽의 攻擊開始線을 通過하였다. 이 逆襲이 時急하면서도 1개 중대만을 제 1선에 내세운 까닭은 該高地의 敵勢를 1개 중대규모로 판단하였으며 제 6중대로써 盈德에 이르는 本道 上으로 進出케 하면서, 高地의 西側方을 저절로 牽制할 수 있는 妙味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대장의 이 판단은 的中하였다. 高地의 西麓으로 北走하는 本道는 盈德의 南쪽 於口인 右谷里를 곧바로 지르는 要路임으로, 이에 대한 1개 중대의 進出은 敵에게 큰 威脅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敵火力의 일부를 흡수하여 제 5중대의 攻擊을 容易케 하는 効를 거두었으니, 逆襲은 큰 紛戰없이 成功하였다.

△207의 頂上을 奪還한 제 5중대는 1km 前方의 盈德市街地를 俯瞰하면서 防守陣地를 急編,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그 時刻은 14.20인데, 東南쪽 1.1km의 △181도 제 3대대에 의하여 이미 恢復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대장 李領濟 중위는 地形 및 敵情을 分析한 結果, 盈德市街地를 指呼之間에 瞰下하는 該高地의 重要性에 비추어, 敵의 逆襲이 強力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장 張麟杰대위에게 1개 중대의 增援을 要請하였다.

이를 是認한 대대장은 예비로 控置한 제 7중대(장, 李銀河 중위)를 즉각 急赴케하고 右谷里의 300m 前方까지 進出한 제 6중대로 하여금, △207西麓의 窪地部에서 待機토록 하였다. 이로써 제 5중대는 頂上의 北東面에 제 1소대(장, 趙源綜 중위) 및 제 3소대(장, 鄭致甲 소위)를 내세고, 제 7중대는 盈德에 面한 北西쪽 斜面에 제 2소대(장, 任光燮 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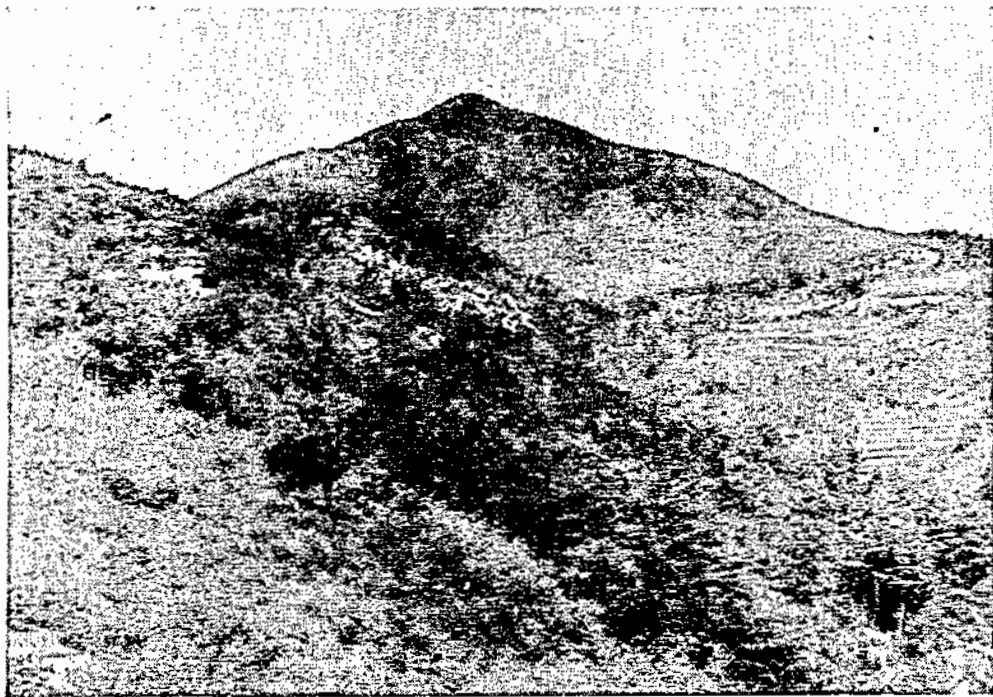
및 제 3소대(장, 李昌隴 소위)를 내세웠는데, 頂上을 중심으로는 제 5중대의 제 2소대(장, 申正秀 소위)와 제 7중대의 제 1소대(장, 孫瑞陸 소위)가 主陣地를 편성하였다.

또한, 사단顧問官인 Emerich 중령은 盈德市街地의 周邊이 觀測되는 該高地에 美軍觀測將校가 인솔하는 觀測班을 差出하여 艦砲 및 航空支援을 誘導케 하였으므로 이날 終日토록 艦砲의 巨彈이 盈德市街地를 비롯한 그 周邊일대의 敵陣에서 炸裂하였으며, 迎日飛行場에서 出擊하는 延 5개 편대의 戰鬪機가 上空을 누비기도 하였다.

이처럼, 砲·爆擊의 直接支援下에 堅忍不拔의 防守陣을 다짐한 제 2대대는 日沒까지의 4~5시간에 築城工事를 서둘렀는데, 敵陣을 強襲하는 艦砲의 巨彈이 集中炸裂할 때마다, 士兵들은 그 壯快한 威力에 도취된듯, 喊聲과 더불어 士氣를 스스로 돌우고 있었다.

그러나, 22.00에 敵의 逆襲이 시작되면서부터 高地는 熾盛한 砲火에 휩싸이고 말았다. 野砲는 물론, SU-76自走砲인듯한 直射砲가 뒤섞인 敵의 攻擊準備射擊은 主로 頂上 주변에 集中되었다.

△181에 대한 逆襲과 同時刻에 시작된 이 火力集中은 北德제 5사단의 全火力이 動員된 感이 없지않았다. 이로 미루어, 大兵力이 投入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너비 1km의 防禦正面에 出現한 敵勢는 自動火器로 增強된 1개 營대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207의 西南斜面, 1978. 11 촬영〉

즉, 高地頂上의 北쪽으로 1.3km 延伸된 稜線의 北端에서 接近하기 시작한 敵은 鈍步만을 거듭하여, 이튿날인 27일의 未明까지 陣前을 攪亂하는 射擊만을 加하다가 물러가고 말았다.

이 怪異한 行動을 分析컨대, 敵은 △181에 대한 主攻을 掩護키 위하여 △207의 防禦火力을 牽制하려던 것으로 推斷되었다.

즉, △181에 대한 主攻이 成功하면 下錦湖線까지 一氣에 進出하여, △207의 後面을 遮斷함으로써 제 2 대대의 出血을 強要하라는 企圖下에 △207에 대한 逆襲을 故意的으로 완만하게 하였으리라.

이처럼, 敵의 企圖를 판단한 제 22연대장 姜泰敏 中령은 27일에 敵의 再攻擊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제 2 및 제 3 대대에 陣地補強을 命令하는 동시에, 사단에 補給支援을 緊急要請하는 조치로써 △181—△207線의 굳은 防守를 期하였다.

### 라. 전투후의 상황

사단은 이로써 27일 현재, △181—△207線을 主軸으로 △127(太夫洞 西쪽 700m)에서 右谷洞(盈德 東南쪽 500m)에 이르는 幅 4km의 正面을 固守하였는데, 該戰線의 모양은 江口를 頂點으로 하는 逆三角形처럼 形成되었다.

그러므로 △181—△207의 固守는 곧 該戰線의 유지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右谷洞에서 指呼之間에 있는 盈德을 奪還하는 基線을 확보하는 意義도 지니는 것이었다.

사단은 美제 7 艦隊의 艦砲支援과 美제 159野砲대대의 C중대(105m/m) 및 美제 40 汎飛行대대의 直接支援下에 27일과 28일의 兩日間에 敵의 散發的인 砲擊을 制壓하면서 29일에 反擊하기로 決定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7월 29일에 盈德을 奪還하려 함.

② 제 22연대는 現線을 固守하며, 別命을 待機하라.

③ 제 23연대는 主力으로써 盈德을 占領하고, 일부로써 180高地~220高地線을 確保하라.

④ 獨立제 1 대대는 일부로써 △320를 占領하여, 敵의 側方進出을 牽制하라.

⑤ 사단 工兵대대는 150高地에 集結하여 別命을 待機하라.

⑥ 攻擊開始時間은 29일 06.00이다.

⑦ 期間중, 艦砲 및 航空支援을 隨時로 要請하라.

⑧ 사단지휘부는 계속 江口에 在할 것이다.』

이로써 사단장 李俊植 中將의 決心은 29일에 盈德을 恢復함으로써 敵을 華水洞(盈德 北쪽 3.5km) 北쪽으로 驅逐키로 굳어진 것이었다.

즉, 제 22연대로써 逆三角形의 底邊을 固守케 하는 가운데, 大灘洞(盈德 東北쪽 5.5km)—三溪洞(大灘洞 西쪽 2km) 以南의 山系를 통한 敵의 壓力을 排除하면서, 제 23연대로써 右谷洞을 超越하여 盈德을 恢復케 하고, 餘勢를 다시 北上시켜 △180(華水洞)—△220(華水洞 西쪽 1.5km)線까지 恢復함으로써 活人山(△347, 盈德 北쪽 3.7km)을 장악중인 敵의 進出을 制壓키로 한 것이다.

또한, △208(盈德 西쪽 1.5km)에서 五十川西邊의 側方防守를 담당중인 獨立제 1 대대로써 △320(一名 샷갯봉, △208 西쪽 2.8km)까지 占領케 하여, 五十川을 渡河하여 側攻을 企할지도 모르는 敵의 進出을 牽制케 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盈德—江口線의 防守를 다질한 사단은 7월 30일에 제11砲兵대대(장, 盧載鉉 소령)를 배속받아 2개 75mm 砲隊의 火力을 增強하기에 이르러 더욱 士氣를 提高하였다.

한편, 北傀 제 5사단은 그 동안의 進退를 반복하는 동안에 艦砲 및 空軍攻擊의 洗禮로 因하여 막심한 損耗를 입어, 30일 현재 40%의 兵力損失을 補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7월 29일 15.00에 제23연대의 제 2 및 제 3대대의 反擊앞에 束手無策으로 潰散하는바 되어, 活人山과 三和洞(活人山 西쪽 2.9km)間의 溪澗으로 主力을 철수시킨채 8월 4일까지 輕微한 抵抗을 보일뿐이었다.

한데, 北傀 제 2군단장인 金武亭은 제 5사단의 進出이 極히 不穩함에 激怒하여, 제 12사단으로 하여금 浦項을 側衝케 하였는데, 이것마저 26일 현재 榮州線에 머무르는 형편이었다. 이로써 東海岸戰線의 제 3사단은 8월 9일에 江口の 五十川橋를 爆破하여 사단主力이 五十川을 渡河撤收할 때까지 遲延의 時間을 稼動할 수 있었던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22연대 제 3 중대장 宋秉俊 소위

(1978. 3. 22, 서울特別市 방호담당관실에서, 예대령)

제22연대는 서울 撤收後에 原隊復歸 명령으로 淸州—陰城—피발嶺—報恩—黃澗을 거쳐, 汽車便으로 大邱에 이른 다음, 浦項—盈德地區로 출동하여 △300에서 初戰을 겪었다.

敵의 포격이 심한 가운데 激戰을 치루었는데, 江口橋를 거쳐 五十川 이남으로 철수할 때에는 막심한 辛酸을 겪어야 했다. 橋梁을 斷裂당했기 때문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부상당하여 釜山으로 후송되었다.

나의 후임으로 누가 왔는지, 기억못하겠지만, 아마 소대장중에서 한 사람이 중대장 代埋로 임명됐을 것이다.

소·중대장의 손실이 너무 빈번해서 보충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 제22연대 제 3 중대 洪素岡 하사.

(1966. 4. 11, 제33사단에서, 상사, 證言資料에서 引用)

중대 화기소대의 Rocket砲手였는데, 浦項에서 盈德으로 들어갈 때에는 日産트럭 Toyota를 탔지만, 月浦(盈德 南쪽 22km, 浦項 北쪽 18km)까지 철수할 때에는 제23연대가 엄호했는데도 참으로 침담한 고생을 겪어야 했다.

내가 맡은 Rocket砲는 2.36"였는데, 당시에는 화기소대마다 1문씩 갖추고 있었다.

月浦에서는 背水陣을 쳤다. 橋梁이 있었는데 憲兵이 다리목을 지켜 그 넘어로 빠져나가려는 兵力을 엄중히 통제했으므로 우리는不得已 다리 北쪽에 陣地를 편성하고, 사흘동안 敵을 막긴했지만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게 되자, LST로 九龍浦까지 수송되어 浦項으로 다시 轉進했다. 날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LST에 탄 것은 月浦에서 나흘째 되는 날의 새벽이었다.

浦項에서는 다시 北上하지 못하고, 저 有名한 浦項戰鬪를 계속했던 것이다.

### ◇ 제22연대 제 5 중대 金三會 중위

(1978. 6. 11, 서울江南區 自宅에서, 예대령)

서울에서 철수한 연대는 東海岸戰線에 투입되기 전에 大邱에서 再編했다. 首都圈防禦戰에서 입은 損失이 막심했으므로 새로운 作戰에 임하기 위해서는 兵員 및 裝備의 보충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대의 初戰은 △300戰鬪였다.

중대 副官이던 나는 중대본부에서 각 소대의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敵의 侵襲으로 중대본부가 위태로울 때에 옆에 있던 연락병이 쓰러지기에 그 소총을 집어들어 應戰하다가 右肩腕에 貫通傷을 입어, 浦項으로 後送당했다.

### ◇ 제22연대 제 5 중대 申正洙 중위

(1965. 4. 28, 제39사단 제119연대에서, 현대령, 證言資料에서 引用)

연대 下士官教育隊의 區隊長이던 나는 盈德地區戰鬪에서는 181高地에 배치된 제 6중대의 右제 1선인 제 2소대를 지휘했다. 이 때 연대CP는 江口에 위치해 있었다.

181高地는 盈德—江口間의 要衝임으로 彼我的 攻防이 치열하게 반복됐는데, 중대는 艦砲支援을 수시로 받기는 했으나, 砲兵支援은 극히 輕微했다.

8월 2일의 薄暮무렵에 逆襲命令을 받고 다음 날 拂曉에 攻撃했다. 이 때 나는 제 5중대장이었다. 대대의 右제 1선에서 頂上을 向했다. 탈환과 철수를 하룻동안에 세 차례나 반복한 激戰이었다. 10.00무렵에 迫擊砲의 近至彈으로 顔面에 破片傷을 입고 다리에는 多發銃傷을 입었는데, 釜山으로 後送되어 失明直前의 手術로 간신히 모면한 重傷이었다. 나중에 浦項이 敵의 侵襲을 받았다는 사실을 釜山陸軍病院에서 들었다.

#### ◇ 제22연대 제12중대 許煥 소위

(1966. 4. 22, 陸本 兵器監室에서, 현 중령 證言 資料에서 引用)

연대가 東海岸에 투입되기 前에 大邱에서 再編할 때, 제12중대의 可用兵力은 93명뿐이었다. 중대장이 缺員이고, 소대장도 護國軍출신의 소위가 한 사람뿐인 참담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중·소대장급의 손실이 많고, 보충이 잘 안되자 上사級의 古參들을 많이 現地任官시켜 소대장으로 임명했는데, 나도 당시에 上사였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어, 제12중대의 제 2소대를 맡게 되었다.

浦項으로 移動하니, 미군의 砲兵부대가 이미 進駐해 있었다.

#### ◇ 제22연대 제11중대장 文龍琪 중위

(1978. 2. 12, 農村振興公社 全州支社長室에서, 예 대령)

제22연대의 우리 제 3대대(장, 孫永乙 소령)는 서울 出動과 동시에 金浦로 投入됐는데, 敵 戰車의 출현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索砂의 뒷산으로 철수했다. 金浦平野가 眺望되고 京仁街

道를 내려다 보는 山이었다(註, 城主山인듯 함). 이 때 나는 迫擊砲소대장이었다. B-29편대가 金浦飛行場을 폭격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

대대는 다시, 水原까지 徒歩로 철수하여, 再編한 다음에 平澤으로 철수했을 때, 미 Smith부대를 여기서 봤다.

미군을 비롯한 UN군의 參戰을 실제로 확인한 셈인데, B-29의 폭격을 目睹했을 때와는 또다른 安堵感을 느낄 수 있었다.

대대는 다시 鳥致院으로 徒歩移動했는데, 이때부터 제11중대장(대리)에 임명됐다. 陰城—鐵川(일단 배치)—淸州—黃澗—피발嶺(일단 배치)으로 移動하면서 大邱로 向했는데, 銃도 제대로 봐보지 못하면서 틀러서야만 하는 敗者의 慘狀은 실로 駭지린바 있었다.

부대 兵員은 완전히 士氣를 잃고 있었다.

피발嶺에서 일단 阻止障地를 急編했을 때의 일이었다. 眼前으로 悠悠히 接近해 오는 一列縱隊의 敵勢를 봤을 때, 士兵들은 거의 恐怖心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兵을 무슨 수로 지휘할 것인가—敗戰의 지휘관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痛感했다.

黃澗에서는 汽車便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大邱에서 再編하는 즉시로 浦項을 거쳐, 車輛便으로 盈德地區에 投入됐었다.

江口에서 철수할 때에는 江口橋가 爆破된 뒤였으므로 不得已 헤엄쳐 渡河하는 형편이었으며, 제12중대는 渡江에 앞서 掩護임무를 맡아, 낮은 敵制高地에서 敵을 遊擊하다가 左肩部에 貫通傷을 입어, LST便으로 釜山까지 後送당했다.

江口橋의 爆破는 그 時機로 봐서 크게 문제돼야 할 지휘책임이었다. 헤엄쳐 渡江한 兵力이 不尠했기 때문이다.

#### ◇ 제22연대 제 3대대장 廉貞泰 소령.

(1978. 2. 16, 서울冠岳區奉天洞 自宅에서, 예 대령)

6월 30일, 水原에서 제22연대의 殘餘兵力 48명으로 연대 特攻大隊를 急編하여, 竹美嶺까지의 稜脈을 타고 철수했는데, 江口에 이르러 제 3대대를 맡게 될 때에는 600명의 兵員을 보유했었다.

7월 26일에 181고지의 逆襲을 감행하여 3일 간의 激戰을 치루었다. 부대의 士氣는 연이은 戰鬪와 飢餓로 因해, 極히 低下해 있었으므로 各 中대장으로 하여금, 兵들의 士氣를 振作케 하는 데에 무척 애썼다.

181고지에 대한 逆襲은 처음부터 苦戰이었다. 예비 兵力이 전혀 없는 것을 작오하고, 3개 中대를 共히 攻擊 제 1선에 내세웠는데, 시초부터 各 中·소대장이 戰死傷의 손실로 缺員됐기 때문에 指揮面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苦楚를 많이 겪었다.

이 전투에서 미해군 제 7함대의 艦砲射擊과 미 제 5공군의 近接支援 등의 火力支援를 많이 받기는 했으나, 我軍이 敵軍으로 誤認되어 不慮의 피해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戰線의 교차가 甚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투 3일만에 “사단에서 대대장이 陣頭에서 率先 突擊하라!”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殘餘兵力 70명을 이끌고, 陣頭指揮했는데, 이때에 제 9 中대의 제 1 소대장인 金甲泰 소위가 先頭 제 1번으로 突進해 나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8일의 19.00에 고지의 정상을 탐환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한 방어진지를 急編했는데, 21.00에 優勢한 敵의 逆襲으로 다시 被奪당했다.

그러나, 敵이 방어진지를 굳히기 전에 逆襲해 야하기 때문에 일단 물러선 자리에서 金甲泰 소위에게 有線으로 “즉시 逆襲하여 고지를 회복하라!”하고 명령하는 한편, 艦砲支援를 요청했다.

고지 後方에 대한 制壓射擊이었다. 대대장인 내가 소대장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시간을 다룬 관계도 있지만, 제 9 中대장이 缺員이기 때문이었다. 이 직후, 中대 副官이던 金應模 중위를 中대장 代理로 임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金甲泰 소대는 참으로 잘 싸웠다.

逆襲에 성공한 것이었다. 소대는 고지 頂上의 주변에 屍體를 쌓아올려, 防塞으로 삼았으며,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自動火力을 急編하는 등, 유독 士氣가 충천해 있었다.

이튿날 새벽, 稜線일대에는 100餘具의 敵屍가 확인됐는데, 이 屍體의 身分證으로 北共 제 766부대임이 밝혀졌다(註, 江東政治學院의 遊擊部隊).

대대는 다시 181고지를 확보한 餘勢를 몰아, 午前中에 盈德市街地까지를 탐환했는데, 敵軍의 反擊도 대단했다.

猛砲擊과 더불어 1개 中대가 決死적으로 逆襲하는가 하면, 盈德 바로 北쪽의 丘陵과 181고지 北쪽의 두 군데에 戰車까지도 내세워, 대대를 包圍할 氣勢로 나오는 것이었다.

盈德과 江口地區를 확보하느라, 아니면 내놓아야 하느냐의 막바지 고민이었다. 이 지음의 사단의 砲火力도 많이 強化되어, 105mm 野砲와 4.2" 重迫擊砲, 그리고 艦砲등으로 敵을 強打하여 甚한 出血을 強要했다.

대대의 戰鬪地域에서는 50m밖에 안되는 거리로 彼我 對峙하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이 181고지를 韓國의 “NIREISAN”(露日戰爭 당시의 激戰地)이라고 부르기가까지 했다.

#### ◇ 제 23연대 제 2 中대 黃真元 중사.

(1966. 9. 9 제 21사단에서, 현 대위. 證言資料에서 引用)

우리 中대가 181고지에 투입될 것은 7월 중순이었다. 날자는 확실히 기억 못한다. 이 전투에서 中대장과 소대장이 戰死했다. 中대장과 소대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다(註, 中대장은 7월 12일에 戰死한 樞五鳳 중위가 아닌지? 또한 제 3 소대장 韓相浩 소위는 戰傷으로 7.28에 後送入院되었으므로 보아, 證言의 착각인 듯 함)

수색분대를 이끌고 高地 北쪽 500m의 狹谷地帶에 이르렀을 때, 嚴眠중인 敵兵 1개 소대를 발견, 奇襲으로 그 대부분을 屠戮한 일이 있었다.

181고지 다음에는 300고지 戰鬪를 치렀는데, 給食을 운반하는 勞務者들이 敵彈으로 많이 희생됐으며, 나는 鐵砲에 소총彈을 맞았으면서도 구멍만 뚫리고, 奇蹟적으로 목숨만은 건졌으나, 高地의 中腹에서 부상하여, 浦項으로 後送됐었다.

#### ◇ 제 23연대 제 3 中대 李致洙 일등상사.

(1966. 3. 5, 陸本에서, 현 중령. 證言資料에서 引用)

당시, 나는 제 3 中대의 人事係였는데, 中대가

盈德地區에 투입되면서 배치된 곳은 盈德 西北쪽의 稜線이었다(註, 活人山과 三和洞 사이의 溪澗을 敵制하는 敵 예상接近路上的 稜線인듯 함). 중대장 徐仲錫 대위는 山間의 細徑을 내려다보는 兩쪽의 山腹을 점령하고, 敵 部隊가 접근해 오기를 기다렸는데, 正午무렵(註, 日字를 기억못하고 있음)에 1개 소대규모가 아무 경계도 없이 一列로 行軍해오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도독안에 스스로 들어오는 취미의 끝이었다. 이 敵을 충분히 끌어드린 중대는 미리 照準한 60mm迫擊砲와 機關銃으로써 一網打盡했는데, 文字 그대로 완전성결의 痛쾌한 戰果를 올릴 수 있었다.

齣珍이래의 고생을 생각하니, 시원스럽게 복수했다는 느낌뿐이었다.

#### ◇ 제23연대 제6중대 鄭龍權 하사.

(1966. 8. 5, 제23연대에서, 현 상사, 面談資料에서 引用).

通信兵이던 나는 SCR-300을 베고, 제6중대장 金相鉉 중위(註, 7.12戰死)를 수행했다.

金相鉉 중대장은 용감한 지휘관이었다. 위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6월30일(註, 日字의 착각인듯 함) 새벽에 敵이 공격해 왔을 때에 중대장 자신이 機關銃을 휘둘러 陣地를 확보한 일이 있었다. 이 때에 銃脚을 내가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그 때의 고통스럽던 아픔이 지금도 生生하다.

盈德地區에서의 戰鬪는 주로 夜間에 많았다. 我軍의 航空支援과 艦砲射擊을 피해, 낮보다 밤에 敵襲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2대대 CP는 盈德 北쪽의 高地에 있고 연대 CP는 盈德國民學校에 있었는데, 중대에 대한 보급이 아주 不振했다. 대대와 중대 간의 補給路가 敵砲火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寧海-盈德間이 敵 遊擊隊에 차단당해, 대대의 상황은 극히 不利한듯 했다. 3일간이나 空腹을 참아야만 했는데, 중대장은 포위당한 가운데서도 침착용감하게 “포위당했다고 해서 모조리 죽는 것은 아니다! 나만 믿고 따르라!” 하며, 중대원들을 鼓舞했다. 이 때, 제2대

대는 敵에게 退路를 차단당한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脫出口 돌파가 시급했는데, 중대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쉽다해서 道路를 擇하면 위험하니, 溪谷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제2소대장 明大植 소위와 더불어 2개 소대로써 뚫고나가는 도중에 장렬히 산화했다. 정말 아까운 분이었다. 10餘名の 生存者밖에 남지 않은 막심한 손실이었다. 7월 1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5.00 무렵, 海岸線으로 移動하여, 작은 漁船 4척으로 탈출했는데, 네번째의 배에 敵彈이 명중했다.

나머지 세 척으로 밤새도록 화이바帽로 물을 퍼내며 暗夜의 海上을 南下하여, 이튿날 09.00 무렵에야 江口 北쪽의 海岸에 도착, 我軍을 만나 盈德國民校에서 중대를 再編하고 盈德 北쪽 高地에 배치됐다.

이 때부터 연대의 盈德防禦作戰이 상당히 성공한 편이어서 4~5일간 지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 제23연대 제8중대 黃斗淵 소위.

(1978. 4. 5, 國防大務院 教授室에서, 예 대령)

陸士의 生徒 1期는 緒戰期에 있어서 총원 370명중 150명만이 생존하여 서울에서 철수했는데, 나는 大邱에서 소위~대위級 15명과 함께 제3사단(장, 李俊植 준장)에 보충됐다.

다시 제23연대로 보직됐는데, 연대장 金宗元 중령은 매우 거친 투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거역하는 장교는 누구를 막론하고 即決處分 하겠다!”라는 일음장을 놓고, 내게는 신고하는 即席에서 “제2대대의 重火器소대장을 하라!”하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2대대의 重火器중대 80mm迫擊砲소대장을 맡았는데, 北傀軍은 我軍의 航空機와 艦砲에 놀려, 낮보다 夜間攻擊에 重置했다.

五十川을 渡河철수할 때에는 江口橋爆破 직전에 연대본부가 허둥지둥 빠져나오는 형편이었는데, 나는 機關銃소대(LMG 3정)까지도 통합지휘하여, 연대主力의 철수를 업호했다.

이 업호임무를 수행하면서 새삼 느낀 사실이지만, 역시 古參 상사級들의 勇戰에는 감탄해 마지않았다.



새벽 02.30~03.00 사이에 五十川을 헤엄쳐 넘어, 5시간 徒步철수끝에 海邊으로 兵力을 수습했다. 앞바다에는 이미 LST 3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LST로 연대 主力과 함께 九龍浦로 철수했다.

#### ◇제23연대 제7중대 金華峻 이동병

(1966. 10. 2, 제8사단에서, 현 순위, 面談資料에서 引用).

소총수 신병으로 보충되어, 7월 3일에 峯谷洞에서 처음 實戰을 경험했다.

北傀軍의 “딱콩”대는 長銃소리가 처음에는 겁나기도 해서, 무슨 特殊한 소총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單發이며, 우리의 MI소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부터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

이 때, 연대 CP는 盈德國民校에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江口로 철수할 무렵에는 우리 중대는 寧海—浦項間의 고갯길에 배치돼 있었다. 여기서 北傀의 戰車를 처음으로 봤다.

敵은 주로 夜間에 많이 攻擊해 왔다. 日字는 기억못하지만, 어느 날 밤에 중대의 暗號가 “권총” “실탄”이었는데, “권총”이라 한 다음에 “다발총”이니 탄 소리를 하거나 하면 무조건 걸거버렸다.

그런데, 江口의 뒷산(註, 181고지인듯 함)으로 철수했을 때, 중대장 朴永元 중위가 壯烈히 戰死했다. 참으로 용감한 지휘관이었다. 칸빙에 太極旗를 달고 陣頭에서 중대원들을 鼓舞하곤 했다. 拂曉무렵에 敵이 물러가기 시작하자, 중대장은 바위위로 뛰어 오르더니 太極旗를 흔들면서 “突進!”하고 외쳤다. 이 勇姿를 우러러 본 우리 중대원들은 용기백배하여 敵을 추격했다.

그러나, 바위에 올라 號令하는 중대장의 모습은 敵의 표적이 되어, 腹部에 貫通傷을 입고 壯烈히 散華했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눈물 흘리면서 중대장의 屍身을 산발 부락까지 가마니로 만든 단가에 실어 모셨다.

중대장이 쓸어질 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후

덜지근하고 비내리는 날이었다.

#### ◇제23연대 제8중대장 李一洙 중위

(1978. 3. 18, 中央高速버스 사무실에서, 예 대령)

盈德—江口地區에서는 181고지의 西쪽을 주로 담당했는데, 우리 제2대대의 정면에는 北傀 제11연대의 제2대대가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흔히 말하기를 緒戰당시에는 우리 국군의 質이 형편없었던 것으로 잘못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 중대원들은 實戰에 있어서 상당히 용감했다. 敵愾心이 강한 편이었다.

敵은 날만 새면 물러가곤 했는데, 戰場을 정리할 때면 敵屍가 陣前에 즐비해 있었고, 목이 없고 팔다리가 잘린 屍體를 많이 볼 수 있었다. 手榴彈에 맞은 것들이었다. 夜間戰鬪에서는 攻擊과 방어를 막론하고, 手榴彈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일새없이 迫擊砲를 쏘다. 砲床이 망가질 정도로 쏘다. 나중에는 砲身만으로 쏘다. 直距離가 가깝기 때문에 砲身만으로도 照準造作이 가능했다.

戰果가 컸다. 敵屍도 많았고, 노획무기도 많았다.

#### ◇제22연대 作戰主任 金相均 중위

(1978. 7. 4, 우진개발주식회사 대표실에서, 예 준장)

大邱로 철수한 제22연대는 製粉工場터에서 일단 再編하여 盈德으로 移動했다. 本戰鬪 期間중 艦砲支援이 積極的이었으나, 처음에는 兵들의 士氣는 극도로 떨어져, 作戰에 지장이 많았다. 서울—大邱까지의 철수과정에서 고생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1고지의 攻防戰에서는 제23연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兵들의 士氣도 점차 높아졌으므로, 지휘계통이 바로 잡힌 戰鬪를 할 수가 있었다.

제22연대가 181고지에 투입된 것은 제23연대가 이 고지를 잃은 뒤에 탈환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탈환했으나, 西쪽 側面에 대한 敵의 壓力

을 排除치 못하고, 太夫洞에서 炸彈하면서 江口 바로 北쪽까지 철수했다. 이 때의 제23연대의 업호는 훌륭했다. 여기서 太夫洞線을 일단 회복했으나, 남호동으로 다시 철수했다.

181고지에서의 兵力損失은 彼我間에 막심했다. 五十川以南으로 철수한 뒤, 平野에 제23연대가 布陣하고, 우리연대는 그 東側에 배치했다. 연대間的 협조가 잘 이루어져, 제3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作戰다운 作戰을 펼 수가 있었다고 본다.

陸路를 통한 推進補給은 浦項-杞溪 및 安康線에 敵의 一部가 出沒하는 관계로 杜絶되었고, 航空補給支援과 海軍의 輸送만이 可能했다. 이틀만에 비스킷을 보급받아 空腹을 채웠다. 딱딱한 乾빵이 아니라, 甘味가 제대로 있는, 물에 녹여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제22 및 제23연대의 盈德에서의 戰鬪는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이 때, 제22연대의 副연대장은 金載圭 소령이었다.

사단은 補給상의 要害部인 삼거리를 놓고 激戰 끝에 다시 江口 北쪽으로 防禦線 1선을 회복했는데, 이 무렵에 제22연대 제3대대장이던 孫永乙 소령이 다시 연대 作戰主任으로 복귀했다.

敵은 夜襲을 強化했다. 晝間에는 我軍의 航空 및 艦砲로 막심한 打擊을 입기 때문이었다.

제2대대장 張麟杰 대위가 부상당해 後送됨과 동시에 내가 대대를 지휘했는데, 江口橋가 爆破되기 직전에 當番兵 1명만 데리고 건너올 때 白色詭章을 차라는 上部지시를 물랐기 때문에 憲兵에게 큰 困辱을 치뤄야만 했다.

한때, 이 江口橋의 爆破는 참으로 拙劣했다. 그 責任을 누가 져야하는 것인지 분명히는 말할 수가 없으나, 時機를 잘못 택한 탓으로, 江北에 殘存한 人員과 橋上에 있는 人員들이 瞬時に 많이 희생당하는 慘事였다. 江北에 殘留한 兵員은 五十川을 헤엄쳐 나오다가 或은 敵彈에, 或은 溺死로 많이 희생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印象에 남는 것은 陣地에서 眺望되는 東海岸 가까운 海上에 미 제7함대의 病院船이 떠있어, 戰傷者들을 收容하곤 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自害者가 많이 생긴 것이었다. 여하튼 부상당해 病院船에 收容되기만 하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는 戰場心理의 탓이

었다. 兵團단 아니라, 장교중에도 自害者가 있었다.

#### ◇제23연대 제2중대 林澤權 소위

(1967. 3. 9, 大韓石油公社 顧問室에서, 예 준장, 面談資料에서 引用).

대대는 제3중대 진지가 돌파당하면서부터 막심한 손실을 입고, 다시 철수했는데, 제3중대장 徐仲錫 대위가 腹部貫通傷을 입었으며, 제6중대장 金相鉉 중위도 戰傷을 입었다(註, 7월 12일에 戰死).

이에 副대대장 金尤榮 대위가 장교 決死隊를 殫精하여, 敵中 일부에 돌입하여 一擊을 加해, 대대 主力의 철수를 壓迫했다.

이 戰鬪중, 砲 및 航空支援은 전혀 없었고, 대대 자체의 81mm 迫擊砲 8문만이 唯一한 壓迫火力이었으나, 제3중대에 대한 직접지원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대대 主陣地 전면에 대한 火力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 ◇제23연대 제6중대 明大植 소위

(1978. 3. 3, 서울上道洞 自宅에서, 예 대령)

제6중대 제2소대장이었던 나는 蔚珍地區에서 철수한 뒤에 소대원들의 士氣진작에 크게 腐心해 야만 했다. 兵들은 北德 SU-76 自走砲를 戰車로 誤認하여, 그 캐터필러 소리만 들려도 不安感을 감추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蔚珍에서 철수한 뒤에 가장 치열한 戰鬪는 寧海에서였는데, 이 때까지도 사단의 작전계획이나 명령등은 전혀 없었고, 다만 연대의 即興지휘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盈德地區에 이르러서부터는 사단의 작전이 비로소 취해진 것으로 안다.

江口에서의 戰況은 참담했다. 敵補給단이 부족해서 포위당한 것이었다. 소대장인 나로서는 전반적인 상황에까지 관여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하겠지만, 중대장의 상황설명마저 전혀 없었던 사실은 당시의 지휘관급이 얼마나 敵情에 어두웠던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海岸線으로의 退路마저 차단당한 것은 큰 위험

이었다. 소대는 중대의 선봉에서 必死的인 突破를 감행했다.

#### ◇제23연대 제12중대 李英雨 상사

(1966. 10. 18, 제 5사단에서, 현 소령, 面談資料에서 引用).

제12중대의 제1소대장이던 나는 제3소대장을 겸하기도 했다. 이름은 잊었지만, 제3소대장이 戰鬪으로 後送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중대장의 보충은 아주 더딘 편이었다. 그래서 소대장의 兼務는 자주 있었고, 때로는 상사級에서 임시로 임명되기도 했다.

新兵이 보충되는 경우는 1주일 정도의 훈련으로 소총 照準法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보충병력으로 소대임무를 수행하자니, 그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北傀軍도 兵力보충에는 무척 궁색한 모양이었다. 그 兵을 잡고 보면, 대개가 16세 전후의 소년들이었다.

盈德 北쪽의 敵陣을 수색하는 중에 어느 논두렁에서 北傀兵 2명을 俘虜하고, 덩불속에 숨은 軍官(소대장 級) 1명을 위협사격끝에 잡았는데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있었다. 이들을 즉시 後送했다.

盈德防禦戰에서는 北쪽 高地에 배치됐는데 제곡을 사이에 두고 獨立제 1대대의 일부 兵力이 東쪽 稜線에 인접해 있었다. 한데, 晝間에는 航空 및 艦砲支援을 받는 우리가 優勢하고, 夜間에는 兵力이 優勢한 敵襲이 강했다.

夜間戰鬪는 主로 手榴彈戰이 치열했다. 때로는 30m의 거리를 놓고, 敵중대규모와 手榴彈戰을 벌린 일도 있었다.

#### ◇제23연대 제3대대장 許亨淳 소령

(1978. 3. 28, 富川市中央精密代表室에서, 예 대령)

181고지의 攻防戰은 참으로 치열했다. 시중, 手榴彈의 近接戰이었다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頂上을 놓고 밤에는 敵의 올라붙고, 낮에는 我軍이 탈환하는 角逐이 여러 날 반복됐다.

나는 그 이틀째 되는 戰鬪때에 부상당했는데, 연대장인 金宗元 중령의 전투지휘는 정말 殺伐하기만 했다. 攻擊이 좌절되면, 지휘관을 무조건 即決處分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대대에 임무를 부여할 때에도 1:50,000지도위에 그림을 갖기듯이 멧대로 줄을 그어놓고 “1대대는 여기 2대대는 이쪽……”하는 식으로 난폭하게 명령하곤 했다.

長沙에서 海上철수時(사단장, 金錫源 준장)에는 兪호부대로 橋頭堡를 확보하는 苦戰을 치루고 맨 나중에 철수했다.

#### ◇제23연대 제10중대장 朴鍾秉 대위

(1978. 2. 18, 서울 大方洞 自宅에서, 예 대령)

平海-寧海를 거친 철수끝에 盈德 北쪽의 野山에서 비로서 自動火力의 運用을 잘 하여 敵에게 一擊을 加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철수에만 쫓겨 士氣가 떨어져 있었던 兵들은 이 一勝으로 “共產軍도 뭣게 아니다!”라는 自信을 갖기 시작했는데, 나역시 지휘관으로서의 戰訓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攻防을 막론하고 이긴다는 것만이 士兵들에게 自信을 줌게 하며, 따라서 戰鬪도 저절로 높아진다는 사실이며, 둘째로는 銃榴彈의 지철한 집중사용이 60mm 迫擊砲와 비슷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셋째로는 敵情에 밝아야 올바르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181고지의 주변은 盈地形임으로 1개중대로써도 四周防禦가 可能했으나, 兵力의 隔差가 너무 심한 탓으로 우리 중대는 江口로 直衝해 나간 敵一部의 後方에서 포위당하기도 했다.

치열한 攻防戰이었다. 高地를 두번째 被奪당했을 때, 제22연대가 도착하여 增援됐기 때문에 逆襲이 용이했다.

그러나, 江口橋의 燬破등 상황이 急轉하는 가운데 五十川 以南으로의 철수명령이 내렸음으로 長沙洞에 이르러 海上撤收로 浦項까지 내려가게 됐다.

#### ◇제23연대 특별중대 張增維 상사

(1967. 11. 4, 제 5군단 司令部에서, 현 중령)

面談資料에서 引用).

6.25직전에 일단 除隊했으나, 6.27에 제23연대로 다시 복귀하여, 특별중대에 편입됐다. 350명의 兵力이었다.

대원 全員이 古參임으로 名射手가 많았으며, 60mm 迫擊砲도 눈길작으로 명중시킬 정도였다. 소총은 M1이 몇挺일뿐, 대부분은 日製 99식이었다. 江口로 철수했을 때, 미군의 4.2"砲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 ◇제23연대 특별중대장 朴官永 상사

(1978.4.5, 釜山影島 自宅에서, 예 대령)

제23연대 본부가 정발트릭(日製) 80대로써 盈德國民校에 도착한 것은 6월 27일 13.00 무렵이었는데, 나는 연대본부의 특명으로 연대 특별중대를 인출하고 있었다.

이 특별중대는 연대 初期에 입대하여, 상사로써 만기제대했던 古參들 중에서 다시 복귀한자를 200명 선발 急編한 別動隊였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先任者라 해서 지휘를 맡게된 것이었다. 임무는 北德의 遊擊隊를 때려잡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측의 遊擊隊였다. 28일까지 연대본부와 함께 盈德國民校에서 一泊했는데, 29일 아침에 첫 임무가 떨어졌다.

"舊水里를 거쳐 平海로 進出하되, 제2대대가 蔚珍에서 철수하면 이를 엄호하라!"하는 명령이었다. 이 무렵, 제2대대는 이미 蔚珍으로 出動하고 있었다. 이날 15.00무렵, 白巖山 중턱에서 北德 遊擊隊로 보이는 1개 소대규모와 遭遇했는데, 2시간의 전투로 간단히 물리치고, 담배 한대를 피우고 나니, 西山쪽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산밑 濶洋里에서 이 밤을 세우고, 30일에 平海로 들어가, 그 이튿날 09.00에 平海 北쪽 1.5km의 △131에 이동했다.

우리가 舊水里-白巖山으로 進路를 잡은 까닭은 敵 遊擊兵力이 英陽쪽으로 침투를 꾀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중대에 내려진 作命은 "平海-英陽間의 敵 遊擊部隊 예상 접근로 상에서 敵의 側方침투를 阻止擊滅하라!"하는 것이었다.

7월 1일 17.00 무렵, 平海의 南大川다리에서 제2대대장 白基千 소령을 만났다. 이 때부터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2대대에 배속되어, 대대主力의 철수를 엄호했는데, 특별중대의 兵力은 크게 減少돼 있었다. 그 까닭은 대원 모두가 상사출신임으로 厚浦里에 위치한 연대본부로 補職받기 위해 흩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7월 1일의 한밤중이었다. 江原道の 警察兵力(蔚珍·江陵·三陟 동地) 800명이 平海에 집결했으므로 이를 지휘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시간이 급함으로 밤중에 이들을 집합시켜, 南大川의 南岸堤防에 배치시켰다.

그 이튿날 새벽, 江津너의 陣地에서 信號彈이 솟아 오르자, 일제히 집중포격이 시작됐는데, 나로서도 처음 겪는 포격이었다. "야! 정말 야단이구나!"하는 不安感이 컸었다. 30분만에 걸친 포격이 뜰해지자, 경찰兵力은 幹道邊으로 일제히 도주했다. 명령이고 뭐고 없었다. 역시 경찰은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 중대는 鶴谷里的 뒷산에서 이틀간이나 버티었다.

7월 2일 09.00 무렵, 중위가 지휘하는 미군공병 4명이 하밤무 바로 北쪽 狹谷의 커부진 걸벽을 무파했다. 敵 戰車의 進路를 막아미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월 4일 아침에는 炳谷洞의 西쪽으로 敵이 침투하는 바람에 하밤무에 있던 중대는 포위당하고 말았다(제1 및 제2대대는 이미 철수). 하는 수 없이, 厚浦里로 빠져나와 3톤 정도의 漁船을 겨우 찾아내어, 4시간만에 寧海의 해변인 태진을 거쳐, 寧海로 철수했다.

이 때, 寧海에는 연대의 전방지휘소와 제1 및 제2 兩대대가 집결돼 있었다.

7월 5일 17.00에 盈德北쪽 1km의 이동 뒷산에서 安東路를 지켜, 盈德西北쪽 前方에 대한 경계임무를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HM G 1정, Rocket 1문을 보충받아, 盈德-安東間 20km區間을 하루 한반씩 수색정찰하면서 10일간 이 地區에서 방어했다.

7월 15일~16일의 兩일간, 제1 및 제2대대가 盈德北쪽의 高地에 阻止陣地를 편성했다.

## 第13章

# 洛東江上流地域の角逐

### 要 旨

1. 青松 附近 戦闘
2. 安東 附近 戦闘
3. 店村—幽谷—恩城 附近 戦闘
4. 咸昌 附近 戦闘



## 第 13 章 洛東江 上流地域의 角逐

## 要 旨

本章에서는 小白山脈線에서의 激戰에 이어 제 8사단이 榮州—安東線에서, 제 6, 제 1兩사단이 店村—咸昌一圓에서 血戰을 거듭하는 局面과 洛東江 橋頭堡의 形成을 위한 제 1, 제 2兩군단의 撤收狀況을 收錄한다.

戰況의 推移를 概觀컨대 我軍의 善取舊關로 小白山脈線의 突破가 遲延되자 金日成은 7월 21일에 永安堡에 設置한 그들의 所謂 前線사령부에 直接나와서 “安東—咸昌—永同의 防禦集團을 擊滅하여 洛東江以北과 以西地域을 奪取하고 洛東江을 急速渡河하여 次期侵攻에 有利한 條件을 形成한다”는 基本策略下에 奮戰하기에 이르니 北傀 제 2군단장 金武亭은 7월 26일까지 安東를 奪取토록 嚴命하면서 北傀 제 12사단이 제 5번 作戰道路로 계속 侵攻하고 예지로 轉換된 北傀 제 8사단을 醴泉으로 迂回시켜 安東를 挾擊케 하였으며 店村—咸昌正面으로는 北傀 제 1, 제 3, 제 15사단을 集中投入하여 尙州—金泉線을 突貫키로 하였다.

한편 軍은 敵의 接近路 露出로 惹起된 化寧場附近의 危機를 克服하기에 이르자 제 1군단을 安東으로 急進시켜 中央街道沿邊에서 北傀 제 8, 제 12兩사단과 對敵한 제 8사단과, 報恩에서 安東으로 轉進한 首都사단을 統合指揮하여 安東防禦에 專力케 하고 제 2군단은 제 6, 제 1兩사단을 指揮하여 店村—咸昌線에서 北傀 제 1, 제 13, 제 15사단의 猪突의인 侵襲을 擊滅하면서 金泉突貫을 阻止케 하였는데 이때 美 제 25사단이 이 正面을 增援하고 美 제 1기갑사단이 永同—金泉線

의 京釜街道를 防禦하고 있었다.

7월 29일에 乃城川渡河를 強行하면서 一齊히 攻擊에 나선 北傀 제 12사단은 我 제 8사단의 防禦線을 突破하고 醴泉으로 迂回한 北傀 제 8사단은 이곳을 防禦中인 首都사단의 제 18연대를 壓迫하였으며 東海岸으로 侵攻中인 北傀 제 5사단의 一部와 正東津 및 臨院津으로 上陸하여 內陸으로 侵襲하는 北傀 제 766부대가 英陽—靑松쪽으로 當面하기에 이르자 기갑연대와 江原道 경찰대대들이 이곳으로 急進시켜 安東東側背에 대한 防護를 強化하였다.

이처럼 三面에서 戰略的 要衝인 安東을 포위하기에 이르자 北傀 제 12사단은 同伴한 T-34戰車를 先頭로 내세워 我 제 8사단 陣地線의 中央突破를 試圖하기로 하였으나 漸次로 增強된 美 空軍의 近接支援으로 이를 擊破하면서, 最後阻止線을 계속 확보 하였으며, 北傀 제 2군단 主力의 侵攻을 맞은 我 제 6, 제 1兩사단도 玉女峰—魚龍山—鳥峰—幽谷線과 咸昌西北쪽의 國師峯一帶에서 一陣一退의 血戰을 거듭하여 敵勢를 制壓하고 있었다.

그런데 晉州正面의 危機를 契機로 洛東江線에 橋頭堡를 확보키로 한 美 제 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의 명령으로 제 1, 제 2兩군단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에 걸쳐 洛東江을 渡河하여 軍計劃에 의거한 X線上에 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安東에서 撤收한 首都사단은 靑松으로 移動하여 이곳으로 계속 侵襲를 指向한 北傀 제 12사단과 激突하기에 이르렀다.

1. 靑松 附近 戰鬪 (1950년 7월 27일 부터  
1950년 8월 5일 까지)참조 : 변책부도 제 19호  
상 황 도 제 59~63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1군단	장 소장 金 弘 壹	제 3사단	장 준장 李 俊 植
수도사단	장 준장 金 錫 源	독립기갑연대	장 대령 劉 興 守
제 1연대	장 중령 尹 春 根	제 1장갑대대	장 소령 朴 武 烈
제 1대대	장 소령 金 煌 穆	제 2기병대대	장 소령 張 哲 夫
제 2대대	장 소령 柳 桓 博	"	대리중위 朴 翊 均 (8월 4일부터)
제 3대대	장 소령 趙 成 華	제 3도보대대	장 대위 李 鵬 植
제 18연대	장 중령 任 忠 植	江原경찰	
제 1대대	장 소령 張 春 權	제 5대대	장 중경 金 麟 鎬
제 3대대	장 소령 鄭 昇 和	左인접부대	
		제 8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敵 軍		敵 軍	
제 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 12사단	장 소장 崔 仁
제 5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제 766부대	장 총좌 吳 振 宇

## 나. 전투전의 개황

東海岸戰線의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이 且戰且退로써 北傀 제 5사단(장, 馬相喆소장)의 南下를 지연시키고 있을 무렵, 敵은 1개 연대규모의 正規軍과 게릴라를 太白山脈의 盈德-安東 사이로 潛入시켜 靑松—慶州를 直衝하러 하였다.

本戰鬪는 이러한 상황下에서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와 江原경찰제 5대대(장, 金麟鎬중경)가 靑松으로 推進되어 그들의 銳鋒을 鈍化시키고, 뒤이어 該戰線으로 轉進한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에 編入된 다음에 戰鬪를 거듭하였으나, 마침내는 勢不利하여 義城으로 撤收하기까지의 戰況을 記述하



였다.

**敵軍의 상황** : 當面한 敵은 北僞 제 5사단의 제 11연대와 제 766부대(장, 吳振宇총좌)인데, 盈德과 安東을 掠占하기에 이르자 제 5 및 제 12 兩사단의 主力은 提携하여 釜山으로의 進出을 계속 企圖하고 있었다.

이 무렵, 水安堡에 나타난 魁首 金日成(本名은 成柱)은 『大道路를 따라 正面으로만 敵을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山을 타고 敵의 側背로 迂迴하여, 包圍消滅하면서 敵에게 숨들릴 사이도 주지 않은 猛追擊으로써 進攻速度를 높이라.』하는 狂言妄說으로써 侵攻日程이 예정보다 늦은데 對한 詰責을 제 1선 지휘관들에게 퍼붓고 있었다.

이에 그들은 게릴라로 養成한 제 766부대(장, 吳根宇총좌)를 周王山(靑松 東南쪽 10km)에 潛入시켜 在山共匪와 糾合하여 民心擾亂과 我軍의 兵力分散을 劃策하는 한편, 東海岸으로 南侵중인 제 5사단에서 제 11연대를 同山脈의 西麓으로 抽出하여 英陽을 거쳐 眞寶(靑松 北쪽 9km) 侵透케 하고 있었다.

當面한 敵의 戰力を 一瞥하면, 제 11연대의 병력은 3,000명이며, 주요장비는 76mm 野砲 4門, 120mm 迫擊砲 5門, 45mm 對戰車砲 5門이 있다.

제 766부대는 게릴라戰을 목표로 개인화기로써 輕裝하고, 병력은 1,400명인 것으로 推算되었다.

한편, 8월 1일에 安東을 侵襲한 北僞 제 12사단의 兵力은 8,000명이고, 주요 장비는 戰車 5대, SU-76自走砲 5門, 122mm 野砲 8門, 76mm 野砲 7門으로 判斷되었다.

그런데, 伸張된 敵의 補給路에 대한 我空軍의 遮斷爆擊이 強化되자, 彈藥을 除外한 其他 補給品은 現地收奪으로써 彌縫할 수 밖에 없으므로 一日一食의 給食마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強微한 南韓出身의 現地入隊者들의 脫出이 극심한 실정이었다.

이에 겹쳐, 苛酷한 營戰沙汰로 因하여 繼微意識마저 萎縮하였으며, 일부 極烈分子들만이 釜山占據가 日趨에 있다는 甘言利說에 眩惑되어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捕虜들의 陳述로는 兵士의 대부분이 UN군의 參戰으로 釜山까지의 進出이 不可能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我軍의 상황** :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은 7월 17일부터 東海岸의 要衝地(概說 參照)인 盈德—江口선에서 攻防의 苦戰을 겪고 있었다.

이에, 陸軍本部 및 美제 8군은 제 22연대(장, 姜泰敏중령)와 美海兵 1개대대를 急派하여 그들의 銳鋒을 鈍化하는데 奏效하였으나 盈德—安東間에 걸친 55km의 山岳 및 溪谷接近路는 開放된 상태를 免치 못하였다.

陸軍本部는 이 間隙을 重視하고, 이 무렵에 永同으로부터 大邱로 移動중인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를 作命제 57호(50.7.22부)로 제 3사단에 配屬과 동시에 眞寶로 急派하여 이 虛隙을 메우는 한편, 이 곳에서 共匪擊滅戰을 수행중인 江原道경찰 제 5대대(장, 金麟鎬총경)를 同연대에 配屬케 하였다.

이 때, 독립기갑연대의 병력은 550명이며 1개 대대는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주요 장비는 장갑차 4대, 반장갑차 1대, 그리고 200餘의 馬匹이 있었는데 馬(馬)은 戰鬪에 妨害가 되었던 까닭에 松江(眞寶 南쪽 5km)에 殘置한 뒤, 大邱로 後送하여 뒷날 騎馬 헌병대대가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江原道경찰 제 5대대는 병력 400명으로써 小火器로 장비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의 병력은 7,885명이며, 주요장비는 105mm 野砲 4門을 비롯하여 81mm 迫擊砲 16門, 60mm 迫擊砲 27門이었다.

期間中の 氣象은 暴雨가 連日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때때로 개이기도 하였으며, 山岳地帶인 까닭에 朝夕으로 濃霧가 심하여 搜索활동에 지장이 많았다. 地形은 慶北 東北部의 較險한 山岳地이므로 彼我間에 奇襲作戰의 效用을 높일 수가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은 7월 25일 本隊에 앞서 眞寶에 이르자, 연대指揮所를 眞寶 國民學校에 設置하였다.

이때, 同연대는 피백속부대인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과는 물론, 陸軍本部나 左인접한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과도 有無線이 斷絶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이 곳에서 共匪를 擊滅중인 江原경찰 제 5대대장 金麟鎬 중경으로부터 當面한 상황을 청취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26일 아침부터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英陽으로부터 南侵하기 시작 하였으므로, 대대는 △407(眞寶 東北쪽 2km)에서 이를 맞아 一戰을 벌였으나, 衆寡不敵으로 2km 南쪽의 △339를 점령하여 방수하고 있으며, 한편 院田洞(眞寶 東南쪽 12km)에서 34번道路(眞寶—盈德간)를 경계하고 있던 제 3중대는 이날, 1개 대대규모의 敵에게 공격 당하여 眞寶로 撤收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며, 또한 『대대의 후방인 梨田洞(周王山 南쪽 4km) 부근에는 靑松을 두번이나 襲擊한 제 766부대의 일부병력과 在山共匪등 都合 1,400명이 蠢動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연대장은 當面한 情況이 陸軍本部의 作命을 받을 때 『敵은 장비가 脆弱한 共匪』라고 提報받은 것과는 달리 완전 편성된 정규군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단과 連繫하여 現接觸線에서 當面한 敵을 阻止粉碎키로 決心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口頭로 不達하였다.

『① 연대는 遲滯없이 △339로부터 屏玉洞간에 急編진지를 점령하여, 陣前에서 敵을 阻止 擊破하는 한편, 地帶內에서 蠢動하는 共匪를 擊滅하려 함.

② 제 1장갑대대는 잠복—△261간을 扼守하여 敵을 阻止 擊破하라.

특히 장갑차를 老達洞으로 躍進시켜 31번道路(英陽—靑松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라

③ 제 2기병대대는 △261를 점령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라.

④ 제 3도보대대는 예비로서 연대지휘소 부근에 위치하여 차후명령에 따르라.

⑤ 江原道경찰 제 5대대는 △339를 계속 固守하며 명에 의하여 梨田洞에서 蠢動하는 敵을 擊破할 준비를 갖추라.

⑥ 연대지휘소는 계속 眞寶國民學校에 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대는 26일 23.00에 각각 阻止진지를 점령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 (2) 작전실시

7월 27일 : 이날은 아침부터 소낙비가 내렸으나, 연대는 泥濘속에서도 陣地구축에 注力하였다.

사단과의 제 1차 連繫失敗 : 이날 06.00에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江原道경찰 제 5대대의 방어상태를 돌아본 뒤에 當分間은 現線을 堅持할 수 있으리라 判斷하고, 그는 同行하였던 경찰대대장 金麟鎬총경과 장갑대장 朴容實대위에게 即席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경찰대대는 1개 소대를 抽出하여 장갑대에 배속케 할 것이며, 장갑 제 1중대장 朴容實대위는 이를 統合指揮하여, 盈德으로 躍進하는 즉시로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과 連繫하고 연대가 실시할 앞으로의 임무를 受領하라.』

이때, 연대장은 朴容實대위에게 『主任務는 사단과의 連繫에 있으므로 機動力이 빠른 장갑차로 이를 遂行하되, 배속된 경찰대는 黃腸재(1名 30리고개)에 배치하여 通路를 경계토록 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同隊가 出發하려 할 때에 我空軍의 2개 편대가 △339의 上空에 나타나 機銃射撃을 加하였는데 이 誤爆으로 경찰대대는 20여명의 死傷者를 내었다.

07.00에 장갑차 1대를 先頭로 한 朴容實대위 지휘下의 경찰 1개 소대가 黃腸재에 이르기까지 接敵은 없었으나, 고개마루에서 비로소 이 고개의 중요성을 切感하였다. 즉, 고개마루가 그들에게 被奪된다면 앞뒤가 막힐 것이라고 判斷하였는데, 경찰소대로써 掩護케 하고 자신은 경찰 1개 분대와 장갑차를 이끌고 계속 東進하였다.

이때, 그는 Jeep에 타고 있었는데, 院田洞 西쪽 1km에 이르렀을 때 數名の 敵이 徘徊하는 것을 目擊하고 계속 潛行하면서 動靜을 살렸던바, 1개 중대규모의 敵이 壕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보급물이 散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대급의 보급소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朴容實대위는 該敵을 奇襲할 것인가를 주저하다가 연대장에게 이 敵情을 보고 하였던 바 연대장은 『後圖를 策할터이니 즉각 復歸하라.』고 명령하였다.

朴容實대위는 眼前的 敵에게 一撃을 加하고 싶었으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兵員의 疲勞가 크고, 俗稱 30리고개를 다시 넘어야 할 때 이때에 그들의 追擊이 있을 경우를 憂慮치 않을 수 없었으므로 切齒扼腕하면서 歸路에 올랐다.

16.00에 黃腸재에 復歸하였는데 掩護를 맡겼던 경찰소대(一)는 눈에 띄이지 않고, 수많은 避難民들만이 眞賢쪽으로 줄지어 내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朴容實대위는 경찰분대를 앞세워 避難民의 行列을 헤치며 고개마루에서 500m쯤 내려갔을 때, 뒷쪽에서 銃撃을 받았다.

때마침 장갑차에 타고 있던 朴容實대위는 즉각 砲塔을 돌려, 37mm砲의 散彈으로서 敵을

牽制하면서 前進을 계속 하였는데 길바닥의 牛屍를 넘다가 內臟이 터지는 바람에 장갑차가 미끄러지면서 길가의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車體를 바로 잡아 全速으로 1km쯤 내려갔을 때, 任意로 철수중인 경찰소대를 만나 眞寶로 復歸하였는데, 연대장 劉興守대령으로부터는 뜨거운 激勵을 받았다.

朴容實대위는 이때의 상황을 證言하기를 『경찰소대(一)는 避難民으로 假裝한 몇 놈의 게릴라에게 奇襲당하여 철수하였던 것이며, 나는 不幸中 多幸으로 敵彈이 兩볼을 貫通하여 혀(舌)는 다치지 않았으나 이(齒)는 대부분 박수어져 그길로 後送되었다.』고 述懷하였다.

7월 28일 : 暴雨가 계속되어 山間細路는 流水가 氾濫하였다.

연대장의 措置 : 이날 △339 前面의 敵은 微動도 하지 않았으나, 避難民의 提報로 花梅洞(院前洞 北쪽 2km)에는 北傀軍으로 보이는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이 집결하고 있으며, 梨田洞(靑松 東南 12km)쪽에는 1,000명 이상의 共匪가 周王山(梨田洞 北쪽 3km)에서 下山하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兵力을 分散하는 限이 있어도 現線의 固守, 제 3사단과의 連繫, 共匪討伐 세가지를 同時에 실시하기로 決心하고 『제 2기병대대는 1개 소대로써 사단과의 連繫를 이룩하고, 江原道경찰 제 5대대는 1개 중대로써 장갑차 1대의 增援下에 梨田洞의 共匪를 掃蕩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사단과의 제 2차 連繫失敗 : 제 2기병대대장 張哲夫소령으로부터 1개 소대를 選拔하여 사단과의 連繫를 이룩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 6 중대장 朴翊均중위는 제 1소대(장, 申 廉중위)로 하여금 이 任務를 遂行토록 하였다.

同소대장 申 廉중위는 60mm 迫擊砲 1門과 單裝武裝으로 輕裝하여 08.00에 眞寶를 出發하였다.

그는 전날 장갑차가 奇襲받은 黃腸재를 피하기 위하여, 34번道路(盈德—眞寶間)의 北쪽에 겹겹이 이어진 橫斷綫과 溪谷을 가로 질러, 花梅洞 西北쪽 1.5km의 無名高地에 이르러 花梅川邊을 살렸는데 길가의 每家에 敵이 隱身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대장 申 廉중위는 任務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들과의 接觸을 避하고 梅花洞과 院前洞 사이의 300m線을 橫斷하려 하였던 바, 이번에는 1개소대 규모가 個人壕에 들어박혀 警戒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夜間에 敵中을 突破키로 일단 決心하였으나 無電機의 故障과 敵警戒망의 密度에 비추어, 주저되는 바 적지 않았다.

그러나 見敵自屈함은 勇者의 取할 바 아니라고 決意한 소대장 申 廉중위는 소대원에게 이르기를 『앞에 보이는 저 敵을 強打殲滅하고 本隊로 復歸하려 한다. 迫擊砲는 여기서 掩護하고 隊員들은 나를 따르라.』고 大號하며, 補給所로 보이는 敵의 根據地로 先陣躍出하였다.

꽤아닌 晝間에 強襲을 당한 敵은 對抗할 餘裕도 없이 周章狼狽한 끝에 30餘명의 死傷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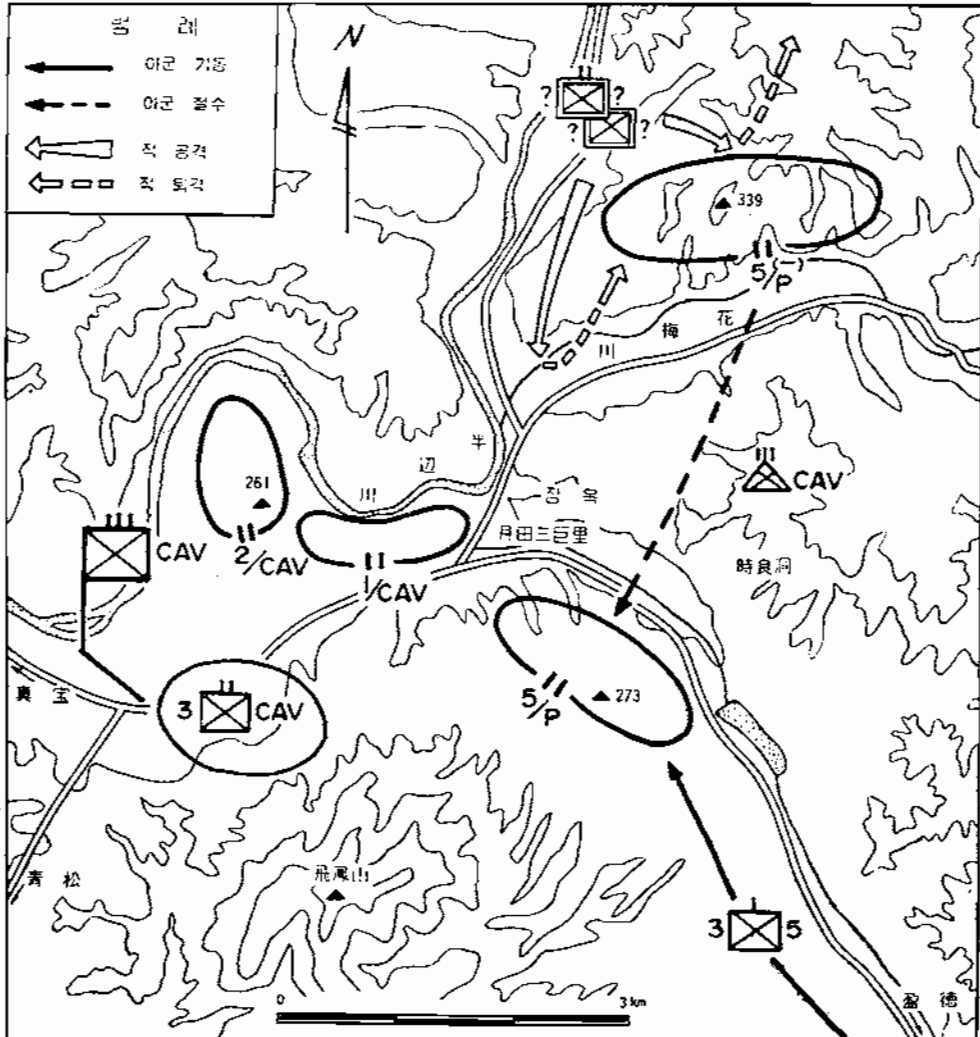
를 남긴 채, 절골(花梅洞 西北 700m)쪽으로 꼬리를 감추었으니, 그 數는 不過 5,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申 廉중위는 즉각 隊員들을 收拾하여, 寸刻을 다투어 花梅洞을 離脱하여 溪谷으로 들어섰는데, 연곡(花梅洞 北쪽 700m)으로부터 매지어 밀려드는 敵이 望見되었다.

掩護를 맡은 60mm 迫擊砲가 間斷을 두지 않고, 무리들의 復讐을 매려 分散潰走케 하고 소대는 無事히 本隊로 歸還하였다.

그러나,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申 廉중위의 報告를 받고 主任務를 忘却한 行動이라고 크게 叱責하였다.

◇ 상황도 제59호 339高地의 戰況



**梨田洞의 共匪擊滅戰** : 이날 08.00에 장갑차 1대를 同伴하고 靑松을 출발한 경찰중대는 行軍間에 반복한 수색과 洪水로 말미암아 저녁 늦게야 梨田洞 西쪽 500m에 이르렀다.

이때 尖兵으로부터 『梨田洞에 敵이 集結중이다.』라는 보고가 중대장에게 전달되었다.

중대는 곧 散開하여, 梨田洞으로 躍進하고, 장갑차는 37mm砲의 散彈을 集中하면서 村落으로 突貫하였다.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베를 지어 掠奪에만 정신이 팔린 1개대대 규모의 共匪는 수많은 屍體를 버리고 周王山쪽으로 潰走하였다.

梨田洞을 奪取한 중대는 즉각 四周防禦태세를 갖추어, 그들의 侵攻에 對備하였으나 그후 敵과의 接觸은 없었다.

捕虜들의 陳述에 의하면 共匪들은 『遊擊隊가 어찌 戰車(장갑차를 誤認)와 맞싸울 수 있느냐?』하며 指揮者의 制止에도 불구하고 끝끝이 潰散하였다는 것이며, 중대는 이 奇襲으로 100餘具의 敵屍를 確認하는 큰 戰果를 올렸다.

**7월 29일** : 전날에 이어 계속 내린 豪雨가 그치고 이날 正午부터 개기 시작하였다.

**339高地의 戰鬪** : 07.00에 2개대대 규모의 敵이 各種砲火와 더불어 339高地와 31번道路(英陽—眞寶間)를 따라 一齊히 侵攻하였다.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406(△339 南쪽 2km)에 位置하고 있었는데, 경찰제 1 및 제 2兩 중대는 200명에도 未達하는 寡兵으로 빗물이 흥건히 고인 個人竅와 粗雜한 地形을 이용하면서 敵에게 火力을 集注하였다.

그러나 時間이 지날수록 敵의 火力은 더욱 增強되고, 31번道路로 侵攻하던 그 一部가 △339의 西쪽으로 迂回하여 大대의 後方路를 遮斷하려는 듯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戰勢는 급작스럽게 不利하여졌다.

그 까닭은 該敵을 邀擊할 예비대(제 3차 連繫를 위하여 控置하였던 제 3도보대대를 抽出한 바 있음)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花梅川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 잠시라도 遲滯할 경우에는 同대대의 後方路가 斷絶되어 兵力을 徒涉시킬 기회마저 逸失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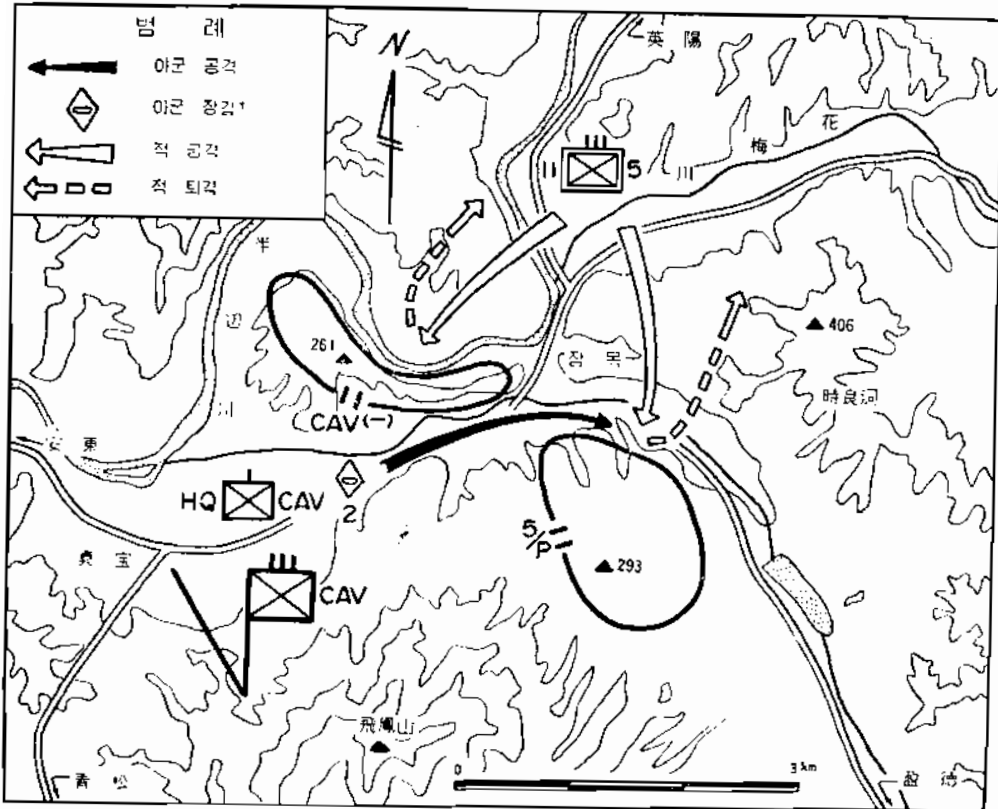
마침내, 연대장은 同대대의 撤收를 명령하여, 이날 11.00에 △273—月田三巨里間에 제 3, 제 2, 제 1중대 順으로 急編진지를 점령케 함으로써 연대의 右계 1선으로 하였다.

**사단과의 제 3차 連繫失敗(1日次)** : 연대는 數日間이나 上級 및 隣接부대와 連絡이 斷絶된 가운데, 獨立戰鬪를 遂行한 까닭에 앞으로의 對策에 苦心하였을 뿐만 아니라, 彈藥(특히 迫擊砲彈)의 枯渴로 말미암아 병사들의 士氣는 크게 低下하였다.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熟考 끝에 어떠한 難關을 무릅쓰고서라도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과의 連繫를 이루고자 다짐하며, 제 3徒步대대장 李鵬植대위에게 任務遂行을 명령하였다.

이에, 대대는 10.00에 敵中橫斷과도 같은 接敵行軍으로써 盈德으로 向하였는데, 暴雨와 피난민의 誤報로 말미암아 가끔 부대를 停止시켜야 하였으므로 저녁 늦게 黃腸峯을 넘어 黃腸洞에 이르렀다.

## ◇ 靑松 附近 戰鬪 主抵抗線의 堅守



대대장 李龍植대위는 이 곳에서 夜營키로 決心하고 進出상황을 연대에 보고하려 하였으나, 無電機의 故障으로 이루지 못하였다.

7월 30일 : 이 날, 暴雨는 계속 쏟아졌다.

**主抵抗線의 堅守** : 敵은 전날에 盈德을 再掠取하자, 이를 굳히려 함인지 이날 未明부터 砲火를 集中하고 뒤이어 1개연대 규모로써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연대主抵抗線의 앞을 東西로 흐르는 半邊川(花梅川의 本流)의 氾濫으로 徒涉이 困難하자 경찰 제 5대대의 正面으로 主攻擊을 집중하였다.

이곳은 標高 671m의 飛鳳山 줄기로서 北側에서 볼때에는 8分稜線에 이르기까지 100m內外的 稜線을 여러번 橫斷하여야 하기 때문에 攻者에게는 不利한 地形이었다.

이 地域을 固守하는 경찰대대는 共用火器도 없이, 實彈이 不足한 小銃만으로써 敵의 正規軍 부대와 맞선 것이다.

敵은 同대대를 가볍게 一蹴하고 靑松으로 直行하려는 企圖인지, 여러 橫隊의 狂波를 계속 投入하였다.

대대장 金麟鎬총경은 敵勢를 欺瞞誘키기로 다짐하고 그들의 壓力에 못이겨 밀리는 척 하면서 대대의 正面을 逐次 縮少하는 한편, 左제 1선의 제 1 및 제 2 兩중대를 물러나게 하자, 敵은 好機를 잡았다는 듯이 배를 지어 밀려 들었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Delta 273$ 를 扼守중인 제 3중대로 하여금 一齊사격을 퍼붓게 하는 한편 물러나던 兩중대로써 다시 이에 加勢케 하니, 陷井에 빠진 敵은 대대의 火網속에서 마침내 潰散하고, 殘存병력만이  $\Delta 406$ ( $\Delta 273$  東北쪽 2.5km)로 遁走하고 말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敵은 隊伍를 再정비 하였음인지 14.00에  $\Delta 273$ 를 단숨에 삼키려는 氣勢로 全砲火를 集中하면서 區間躍進으로 물려들었다.

상황을 注視하던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연대본부 행정요원으로 編組한 1개중대(實兵力은 100명)와 연대지휘소에 控置한 장갑차 2대를 月田三巨里로 躍進시켜 그들의 목덜미에 七首를 쫓게 하였다.

이를 알아차렸음인지, 그들의 砲火가 進路의 주변에 집중되었으므로 중대는 한때, 分散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2대의 裝甲車가 제빨리 敵中으로 突貫하여, 37mm砲의 散彈을 퍼부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찰 제 3중대가 反擊하였으므로 意表를 찔린 敵은 支離 滅裂끝에 수많은 屍體를 남기고  $\Delta 406$ 로 潰退하였다.

**제 3 徒步대대의 連繫失敗(2 日次):** 제 3 徒步대대(장, 李鵬植대위)는 06.00에 暴雨를 무릅쓰고 夜營地인 黃腸洞을 出發하여 盈德으로 躍進하였다.

대대장은 전날에 두 차례나 院田洞 부근에서 交戰한 사실을 想起하고, 그 周邊을 綿密히 搜索하였다. 그러나 敵情이 전혀 없으므로 이곳을 通過하여 12.00에 俗稱추매기(院前洞 東南쪽 9km)에 이르렀다.

대대장 李鵬植대위는 目前의 新安(추매기 東쪽 1km) 村落에는 敵이 있을 것이라 豫測하고, 대대를 路邊에서 待機케 한 다음, 7명으로 編組한 搜索隊를 新安으로 먼저 潛入시켰다.

그 결과, 車輛 20餘台와 10餘台的 牛馬車가 眞贋쪽으로 移動할 양으로 줄지어 있으며, 兵力은 民家에 分散하여 取食중인 사실을 探知하였다.

이에 搜索隊長은 『敵의 車輛은 우리 搜索隊보다 먼저 대대에 이르러 奇襲할지도 모른다.』고 速斷하고, 村落의 敵情도 파악하지 않은채, 射擊을 퍼부어 닥치는데로 射殺하였다.

그런데, 村落에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있었으며 搜索隊의 奇襲으로 잠시 混亂에 빠진 듯 하였으나 즉시 隊伍를 수습하고 反擊하였다.

銃聲을 들은 대대장은 搜索隊가 交戰중인 것임을 直感하고 대대를 즉각 展開하였는데, 搜索隊長이 돌아와 報告하기를 『敵을 襲擊하여 車輛 5台 및 牛馬車 全部와 이에 積載한 多數의 補給品을 燒却 또는 破壞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報告가 채 끝나기도 前에 敵이 追尾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대대장은 그들이 대대를 發見한 이상 盈德의 西側方(여기서 盈德은 8km)을 防護하기 위



하여 兵力을 增援할 것은 明若觀火하며, 이로 因하여 사단과의 連繫가 困難할 것이라 判斷하고, 當面한 敵에게 一擊을 加한 뒤에 재빨리 離脫하여, 저녁늦게 俗稱 높은 배리(△273 東南쪽 2km)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송이골(높은배리 西北쪽 1km)의 냇가에 集結중이며, 그 뒤를 이어 數未詳의 兵力이 △406의 溪谷을 따라 송이골로 내려오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대대참모들은 그들이 陣容을 갖추기 前에 擊破하자고 건의 하였으나 대대장은 『彼我的 상황이 그 간 어떻게 변했는지 不確實한 이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陷井에 빠져 兵力만 損失하게 된다.』라고 이를 制止하고 어둠을 利用하여 송이골을 突破強行하려 하였다.

그러나, 兵士 한 명이 小銃을 連發함으로써 대대의 所在가 알려지게 되어, 敵이 송이골 道路로 뛰어오르면서 一齊히 集中사격을 加하였으므로 分散상태를 免치 못한 대대는 무질서하게 飛鳳山의 南쪽 中腹을 거쳐, 다음날 아침에 俗稱 아리계(眞寶 南쪽 4.5km)로 集結하였다.

제 9 중대의 소대장인 卓燦赫소위는 이때의 情況에 관하여 『내가 敵을 目擊하였을 때, 그들은 한참 밥을 먹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우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놈들을 기습공격하였다면 큰 戰果를 올렸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悲慘한 꼴로 分散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우물쭈물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銃彈 몇發에 대대 전체가 混亂에 빠지고 말았다.』고 證言하였다.

**7월 31일** : 아침부터의 降雨가 午後부터는 개기 시작하였다.

이날의 兩隣接상황을 概觀하면, 東海岸의 盈德을 敵에게 다시 掠占당하고, 西쪽의 安東에는 北傀 제12사단이 계속 파고들어, 同邑 北쪽 4km까지 그 醜鋒이 이르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 지휘소는 丹村(義城 北쪽 8km)으로, 그리고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의 지휘소는 武陵里(丹村 北쪽 12km)로 각각 轉進하여 洛東江 南岸의 防禦線이 마련되고 있었다.

**273高地의 喪失** : 敵은 전날에 正面突破를 企圖하다가 挫折하자, 1개대대 규모로써 이날의 未明을 期하여 一齊砲擊과 더불어 연대의 右側 1선으로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273를 扼守중인 경찰 제 3 중대장은 『寸步도 물러날 수 없으며, 이 곳을 死地로 覺悟하라.』라고 叱咤督勵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散兵壕는 敵砲火의 初擊에 이미 粉碎되었으며, 隊員들은 背斜面에서 彈雨를 이리 저리 避하면서 邀擊하는 수 밖에 없었으니, 二波 三波로 밀어닥치는 狂波에 마침내 밀리는 바 되어 交戰 3시간만에 中央에 布陣한 제 2 중대의 뒤쪽인 飛鳳山의 東北쪽 稜線으로 急編陣地를 퍼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연대의 右側方에서 激戰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1개대대 규모의 敵은 잠

목(月田 三巨里 東쪽 500m)으로 接近하고 있었다.

그러나, 34번 道路(盈德—眞寶간)上的 月田 三巨里的 南쪽에 直角形으로 配置된 江原경찰 제 5 대대(장, 金麟鎬총경)의 北쪽接線은 두점의 橫隔을 이루고 있으므로 防者에게 有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목 南쪽은 400m에 이르는 開豁地이고, 여기를 橫斷한다 하여도 氾濫한 개천을 다시 건너야 하였다.

이러한 地利의 要域을 固守중인 제 1 장갑대대(장, 대리 朴道瓏대위)는 敵들이 는 가운데로 接近하자마자 側射을 加하였으며, 경찰 제 1 및 제 2 兩중대도 이와 協同하여 迫擊砲와 Cal 50으로 集中強打함으로써 挾擊당한 敵은 方田洞쪽으로 分散 潰退하였다.

큰 損失을 입은 敵은 병력의 一部를 남겨놓고, 연대와의 接觸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연대도 또한 이 戰鬪에서의 兵力損失이 不尠하였으므로 부득이 飛鳳山—月田 三巨里—無名高地(月田 三巨里 北쪽 500m)—△261를 連하는 線으로 防守陣을 縮少하기에 이르렀다.

연대의 欺瞞戰: 한편,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이날, 敵의 攻勢를 粉碎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兵力과 火力이 漸増할 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提報에 의하면 槐亭洞(靑松 東北쪽 7km)에 1개대대 규모가 集結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靑松을 合擊할 그들의 企圖인 것으로 判斷하고, S-3 丁世鎭소령에게 이에 대한 對備策을 세우라고 指示하였다.

丁世鎭소령은 熟考끝에 妙策을 講究하였는데, 연대의 主力이 月外洞(靑松 東쪽 7km)으로 集結하여, 그들의 左側背로 迂回공격할 態勢를 갖추고 있다는 諜報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敵의 兵力分散과 銳鋒의 鈍化를 期하는 欺瞞計劃을 樹立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이를 承認하여 이날 夜間에 즉각 실시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22.00, 夜間의 靜夜을 깨고 會心의 欺瞞戰術이 展開되었다. 즉, 車輛 30餘臺에 本部중대 및 일부의 경찰병력을 乘車시켜, head light도 휘황하게 機動케 하였는데, 軍歌도 드높이 大行山 南麓인 俗稱 달기(靑松 東쪽 5km)까지 일단 移動한 다음, 일부의 兵력을 殘置하고, 이번에는 全車輛의 head light를 끈 채, 소리죽여 靑松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機動하는 要領을 세번 되풀이 하였으니, 마치 大兵力이 月外洞으로 集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선 충분한 欺瞞策이었다.

그런데, 이의 成功與否를 相對的으로 確認하지는 못하였으나, 靑松을 겨냥하는 敵에게 驚戒心을 일으키게 하였을 것임을 自認하여도 無妨하리라.

8월 1일: 중일토록 快晴하였다.

이날 東쪽의 盈德에서는 제 3 사단(장, 李俊植준장)이 該地를 再奪還키 위하여 北魏 제 5 사단(장, 馬相誥소장)과 熾烈한 公방전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西쪽의 安東은 마침내 掠占 당하는 바 되어, 제 1 군단의 수도 및 제 8 兩사단은 洛東江 南岸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으나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兩쪽과의 連絡이 杜絶되어 이 상황의 變動을 알 수가 없었다.

**연대主抵抗線의 堅守** : 이날 07.00부터 1개대대 규모의 敵이 △273를 발판으로 攻擊하고 다른 1개대대 규모의 敵이 月田 三巨里를 直衝하여, 연대를 東北에서 壓縮함으로써 紛戰亂擊의 角遂戰을 惹起케 하였다.

이를 豫測하고, 眞寶前方으로 미리 推進하였던 장갑차 4대와 半장갑차 1대는 戰端이 벌어짐과 동시에 縱橫으로 奮戰하여 敵에게 強打를 加하였다.

眞寶를 장악함으로써 盈德 — 安東間의 唯一한 橫斷道路를 制壓코자 하는 敵은 屍山을 이루는 損失에도 不拘하고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이때, 無名高地(月田 三巨里 北쪽 500m)를 扼守중이던 제 1 장갑대대(장, 대리 朴道環대위)는 잠목쪽에서 侵襲하는 敵으로 말미암아 세차레나 同高地를 내어 놓기도 하였으나 月田 三巨里까지 推進한 장갑차群과의 協攻으로 그들을 擊摧하였다.

한편, 경찰제 3 중대는 △273로부터 연대의 側方을 찌르려는 1개 대대규모의 敵을 맞아, 한때는 西쪽 稜線으로 밀리기도 하였으나, 同대대 제 2 중대의 掩護下에 오히려 그들의 露出된 側方을 衝擊하여 致命的인 痛打를 加하였으므로 그 일부는 飛鳳山中북으로 迂回하려 하였다.

이 企圖를 포착한 江原道 경찰 제 5 대대장 金麟錫총경은 참막을 固守중인 제 1 중대로써 稜線마루를 先占케 하여, 허우적거리며 올라오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一舉에 毆射하여 快勝을 거두었다.

이처럼 敵은 強力한 火力과 優勢하면서도 統制되지 않은 猪突로써 마침내는 各個擊破된 것이었다.

**사단과의 제 4 차 連繫失敗** :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眞寶를 確保하고 있는 동안에 제 3 사단(장, 李俊植준장)과의 連繫을 期於히 이룩코자, 전날에는 연대 S-3 補佐官 崔春昊소위를 長으로 하여 1개 분대를 急派하였으나 이 역시 失敗하였다.

途中에서 되돌아온 崔春昊소위는 『新村(眞寶 東南쪽 7km)까지 潛入하였으나 雲集한 敵을 發見하고 하는수 없이 復歸하였다.』라는 橫說堅說로써 報告하자 大怒한 연대장은 軍法에 回附하여 處斷하라고 號令하였으나 參謀들의 건의로 뒷날의 功過에 따라 追窮키로 하였다.

이처럼 失敗를 거듭하면서도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또 다시 S-2 吉典植중위로 하여금 S-2에서 1개 분대를 編組하여 이 任務를 遂行하도록 命令하였다.

吉典植중위는 前次에 걸친 連繫企圖가 대부분 34번 道路를 中心으로 실시되다가 失敗하였음을 想起하고, 그는 高地群을 넘어 盈德에 이르기로 決心하였다.

이날 10.00, 車輛으로 眞寶를 出發한 분대는 靑松, 靑雲洞(靑松 南쪽 4km)을 거쳐 梨田洞에서 下車한 뒤, 이곳에 車輛을 待機케 하고, 徒步로 稜線을 따라 行軍하였다.

이무렵, 共匪들은 山中의 獨立家屋이나 溪谷의 到處에서 出沒하고 있었으며, 계속된 降雨로 溪谷 모두가 急流를 이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745(梨田洞 東쪽 4km)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시 暴雨가 쏟아져, 벼랑마다 瀑布를 이룬 가운데 失足하면 10餘 m나 밀려나기가 일쑤였다.

이날 밤 地名未詳의 無名高地에서 露宿하고, 다음날 06.00부터 다시 3시간쯤 行軍하였을 때, 20餘台의 車輛에서 2개 대대규모의 敵이 下車중인 것을 벼랑위에서 발견하였다.

吉典植중위는 地圖를 定置하여, 이곳이 新安임을 確認하고, 그들을 迂回하여 盈德 南쪽으로 突破하고자 하였으나, 안개가 걷히면서 바라보이는 溪谷과 稜線마다에는 敵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뒷날 알려진 바로는 전날(8월 1일)에 제 3사단이 盈德을 再奪還하게 되자 敵의 主力은 일단 山西쪽(盈德 北쪽 4km)으로 밀려났는데 이들은 盈德을 다시 掠取하기 위하여 이날 新安으로 병력을 집결하는 한편, 그 일부가 五十川의 上流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該敵으로 말미암아 盈德까지의 通路가 遮斷되자, 동대는 別途의 潛入路를 探索하다가 마침내는 失敗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吉典植중위는 이날 밤에 梨田洞으로 돌아가 待機중인 車輛으로 靑松에 이르러, 때마침 이곳으로 옮긴 연대장 劉興守대령에게 『連繫에 失敗하여 面目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연대장은 오히려 『그대들이 敵에 包圍되어 戰死하였거나 아니면 失蹤한줄 알았는데 千萬多幸이었다. 연대는 左인접의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과 連繫를 이루었으며, 作戰上 同사단으로 배속이(8월 2일에 사단장 金錫源준장이 靑松을 訪問하였을 때 配屬關係를 말한 바 있음), 변경게 되었다.』라고 분대의 勞苦를 致賀하는 것이었다.

8월 2일 : 이날 東海岸의 盈德은 제 3사단(장, 李俊植준장)이 再確保하였으나 西쪽의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은 安東을 내놓고도 戰勢가 不利하여 洛東江 南岸으로부터 5km나 물러나 △413(靑松 西北쪽 10km)—△415線에 急編방어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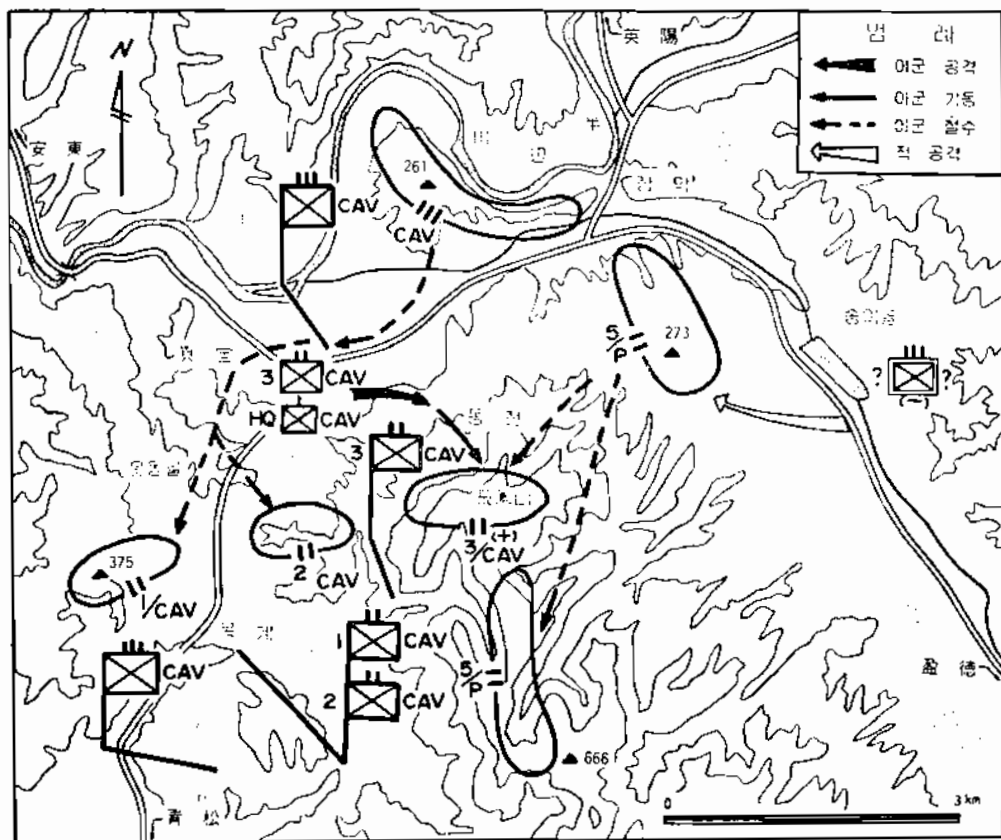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연대(장, 劉興守대령)는 兩翼으로부터 夾攻 突出하기에 이르렀다.

主抵抗線에서의 離脫 :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전날밤에 數個組의 探索隊로써 當面한 敵情이 時良洞(月田 三巨里 東쪽 2km)에서 活潑하다는 것임을 確認하고, 對策을 熟考하고 있었는데, 05.30에 右側 1선의 江原경찰 제 5대대장 金麟鎬총경으로부터 『2개대대 규모의 敵이 송이골에서 △273의 東쪽으로 移動중이다.』라는 急報에 접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敵은 連 2日間이나 正面突破를 企圖하다가 挫折되자, 이번에는 我연대의 右側背로 돌아, 31번道路(眞覆—靑松間)을 찌르려는 것이다.』라고 判斷하고, 예비로 控置한 제 3도보대대(장, 李鵬植대위)와 본부중대(장, 대위 李元春소위)로써 그들의 迂回를 막기 위하여 동천(飛鳳山 北쪽 1km)으로 躍進케 하는 한편, 그 自身도 主抵抗線의 中央인 잠막 南쪽의 無名高地로 올라가서 敵의 動態를 살폈다.

07.00에 敵의 砲火가 여느때 보다도 熾烈하게 집중되기 시작하여, 江原경찰 제 5대대의

## ◇ 상황도 제61호 8월 2일의 戰況



戰死傷者가 累增하자 負傷者의 後送을 빙자한 離脫者가 눈에 뜀게 붙어다녔.

이를 目擊한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怒氣冲天하여 『그대들은 敵을 앞에 놓고 어디로 逃避 하려 하느냐? 重傷者는 연대의 위생병이 後送할 터이니 速히 陣地로 돌아가라!』라고 大號叱咤하면서, 연대의무대장 李相鎬소령으로 하여금, 소대陣地까지 나가서 負傷者를 후송 조치토록 명령하였다.

敵은 小數의 병력으로 正面(月田 三英里)을 牽制하고, 1개연대 규모로써 △273의 稜線을 발판으로 하여 攻擊하였다.

연대는 有利한 地形을 効用하며, 장갑차의 適時適切한 運用으로써 그들의 侵勢를 크게 抑制하였다.

5대의 장갑차(1대는 半장갑차)는 月田洞一帶의 細路 및 地形을 擘中처럼 熟知하는 티이브로 34번 道路와 잠막등地를 縱橫無盡으로 疾驅하면서 그들의 앞뒤에 37mm砲의 散彈을 集注하였다.

이리하여 17.00까지 激戰이 계속되었는데, 敵勢가 점차 增強됨으로써 右側 1선의 상황이

차차 惡化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장의 措置** :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敵이 이 같은 衝勢로 계속 侵攻한다면, 이날밤 안으로 後方路가 遮斷되어, 연대의 孤立을 免치 못하리라 判斷하고, △261에 突出하여 있는 主力을 먼저 뽑아, 웃동골(眞寶 南쪽 2km)에서 南北으로 貫通한 31번道路(眞寶—靑松間)에 제 2 阻止障地를 점령한 다음, 江原道경찰 제 5 대대를 離脫시켜 연대의 主力과 連繫하여, 飛鳳山 西麓을 占領하기로 決心하였다.

연대장은 眞寶의 中心地인 三巨里로 나가서 戰況을 注視하던 차에 戰鬥가 小康상태에 접어드는 기회에, 接觸이 약간 輕微한 左제 1 선의 제 2 기병대대(장, 張哲夫소령)와 제 1 장갑대대(장, 대리 朴道環대위) 및 연대본부중대(장, 대리 李元春소위)를 우선 물러나게 하였는데, 그 後尾가 제 2 阻止障地에 이르렀을 때 연대의 撤收를 알았음인지, 敵이 總攻擊을 취하여 경찰대대의 主抵抗線에 파고 들었다.

이에 앞서, 연대장은 연대의 主力이 제 2 阻止障地를 確保할 때까지 該대대로 하여금 現線을 固守케 하였던 것인데, 이 嚴命에도 不拘하고 報告도 없이 障地를 포기하고 支離滅裂에서 내려오자 이를 目睹한 그는 『金총경! 나는 그대에게 主力이 빠질때까지 銃소리만이 라도 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것이냐?』라고 大怒詰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선 이 地域의 要域인 飛鳳山을 確保하여야 했기 때문에 제 3 徒步대대와 연대본부중대, 그리고 일부수습된 경찰병력 100여명을 該高地로 急進시켜 西쪽과 連繫토록 하고, 松江 北쪽 31번道路의 右側에 제 2 기병대대, 左側에 제 1 장갑대대를 각각 배치하여 △375까지의 障地를 점령케 하였다.

또한, 時間이 지나면서 수습된 경찰제 5 대대를 이날 늦게 飛鳳山으로부터 南쪽 3km까지의 사이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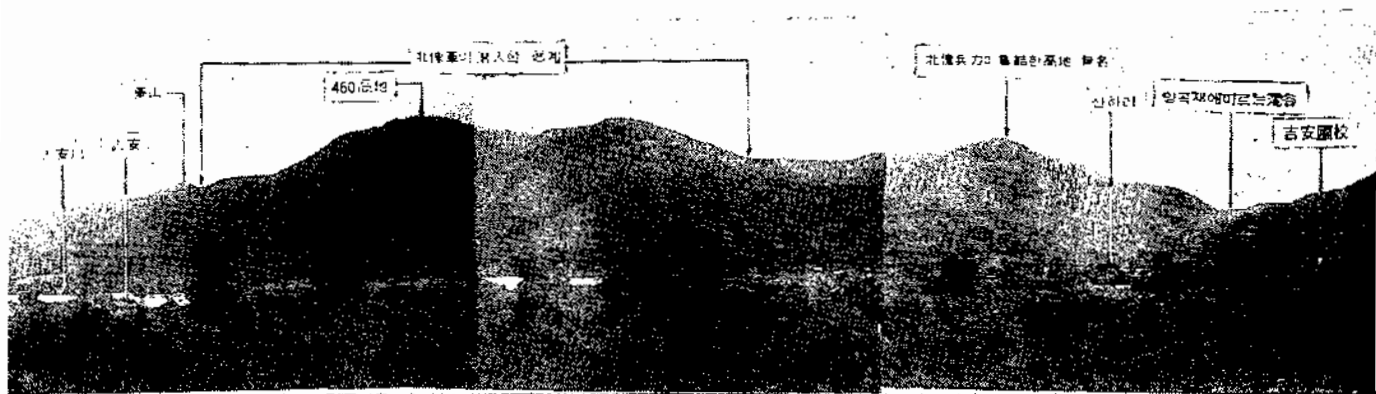
이때 연대의 지휘소는 靑松에 있었으며, 제 1 장갑 및 제 2 기병 兩대대의 지휘소는 목계(眞寶 南쪽 3km)에, 제 3 徒步대대의 지휘소는 修淨寺(飛鳳山 西南쪽 1km)에, 경찰제 5 대대의 지휘소는 翁店洞(飛鳳山 南쪽 4.5km)에 각각 위치하였다.

이 部署에 대하여 일부 參戰者들은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연대의 戰鬥정면이 무려 8km에 이르는데, 그때 연대의 총병력(경찰포함)은 불과 800명이하로서, 그들의 壓力밑에 時間마다 障地를 변경하는 상황인데도 과연 어떻게 하여 그 높은 高地에 병력을 배치했었는지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深夜인 탓으로 敵情이 惝然할 뿐만 아니라, 그때만 하여도 流行語처럼 “올라가면 무일 해, 또 이동할 터인데…”라고 하여, 兵力을 低地에 집결시켜 놓고도 명령대로 배치했다고 보고하는 例가 許多하였다.』라고

**수도사단의 左인접展開** : 한편,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은 이날, 安東 南쪽의 洛東江南



〈吉安국교에서 眺望한 靑山—양곡재〉

岸을 一時 방어하다가 제 1군단 作命 제42호(50.8.2)로 『수도사단은 臥龍山—靑山—△384線에 방어 전성하고 右인접 제 3사단과 連繫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主力은 武陵(安東 西南쪽 4km)에 집결하여, 義城을 거쳐 吉安으로 躍進하였는데, 이 때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作命 제39호(50.8.2)로써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臥龍山에서 △384에 이르는 線을 固守하려 함.
- ② 제18연대는 臥龍山—靑山간을 점령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라.  
특히 독립기갑연대와 連繫하여 敵의 侵透에 對備하라.
- ③ 제 1연대는 △384를 점령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라.  
특히, 917번道路(安東—吉安간)를 철저히 警戒하라.
- ④ 虎林부대는 사단의 中央에서 △390를 점령하여 敵을 阻止 擊滅하라.
- ⑤ 포병중대는 九水洞에 放列하여 제18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⑥ 사단 지휘부는 吉安에 위치함.』

이에 따라 각대는 이날 21.00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그 細部부서는 다음과 같다.  
즉,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는 지휘소를 九水洞에 두고, 제 1대대(장, 張春權소령)를 연대의 右一線으로써 臥龍山에, 제 3대대(장, 鄭昇和소령)를 연대의 左一線으로써 靑山에, 그리고 제 2대대(장, 金鳳相소령)를 예비로 하여 九水洞에 控置하였다.

이 때, 제 3대대는 임시 編組한 對戰車特攻소대를 제 1대대와 間隙인 洶湖(靑山 東北쪽 1.3km)으로 내보내어 警戒에 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는 지휘소를 東邊洞(吉安 西쪽 7km)에 두고, 제 1대대(장, 金煌穆소령)로써 △384를 扼守케하는 한편 제 2 및 제 3兩대대는 東邊洞에서 再編과 부대정비에 注力토록 하였다.

虎林부대는 사단 一般명령 제 5 호(50.8.2)로 임시 편성되었는데 構成要員은 사단장 金錫源준장을 欽慕하고 各處에서 參集한 경찰 및 學徒兵, 그리고 기타 靑壯年層이며, 병력은 400명이고, 장비는 2,3명꼴에 小銃 1挺이었고, 學徒兵만큼은 年少한 까닭에 사단 사령부 틀 경계토록 하였다.

**8월 3일** : 이날은 終日토록 快晴하였으며, 靑松正面은 颶風一過後의 高요함과 같이 銃聲하나 들리지 않고, 도리어 不安스러운 느낌마저 감돌았다.

**靑松北쪽의 상황** : 이날 아침, 靑松에 위치한 독립기갑연대 지휘소로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이 G-3 朴敬遠소령을 帶同하고 來訪하였다.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當面한 彼我的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主要內容은

『① 제 3 사단과의 連繫에 失敗하였고, ② 當面한 敵은 1개연대 규모의 正規軍과 1,000餘名の 共匪이며, ③ 彈藥만 解決된다면 능히 現線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寡兵으로써 잘 싸웠으며, 彈藥 및 食糧은 곧 사단에서 支援하겠다.』라고 約束하고, 吉安으로 돌아갔다.

또한, 연대장 劉興守대령도 이날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를 방문하여 當面한 敵情을 서로 交換하였다.

한편, 각 대대장은 探索隊를 계속 差出하여 敵情을 살폈는데, 제 2기병대대(장, 張哲夫소령) 正面에는 小數병력이 頻繁하게 出現할 뿐만 아니라, 해질 무렵에는 새발골(眞寶 南쪽 1.5km)에 兵力을 集結시키고 있음이 目擊되었다.

**吉安北쪽의 상황** : 敵은 8월 1일에 安東을 占據하자, 다음날 제 8 사단(장, 吳白龍소장)으로써 義城으로 進出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安東 掠取의 主役을 맡았던 제12사단(장, 崔仁소장)은 魁首 金日成으로부터 安東帥團이라는 稱號를 받고, 이날(8월 3일)밤 浦項으로 闖入할 企圖(概說 參照)아래, 계절음으로 수도사단의 主抵抗線 直前까지 潛入하여 展開하였다.

이 무렵,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은 北愧 제 8 사단을 阻止키 위하여, 모든 支援(포병, 공병, 경찰)을 該地區에 集中하였던 까닭에 吉安 北쪽의 敵情에 대하여는 사실상 知悉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도 3日동안이나 敵情이 模糊하였음에도 參謀들을 叱責하였을 뿐, 積極的인 對策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의 情況에 대하여 당시의 두 參謀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참모장 崔慶祿대령의 證言 : 『사단장이 나에게 말하기를 “참모와 일부 지휘관들이 상황을 사실 그대로 報告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일이 있는데, 例를 들면 主抵抗線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兵力을 뒤로 매놓고는 電話로만 異狀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G-3 朴敬遠소령의 證言 : 『G-3인 나로서는 무슨 對案을 세우기는 세워야겠는데, G-2로부터 전혀 敵情에 대한 말이 없으니, 난들 어찌할 수 없었다.

또한, 부대가 처음 배치되면 當面한 敵情을 파악치 못한 까닭도 있으나 이 期間동안 軍단에서도 敵情을 알려주지 않았다.

어쨌든, 이 戰鬪는 敵情이 模糊한 가운데 그들에게 主導權을 빼앗기고 있었다.』

8월 4일 : 전날에 이어, 快晴하였으나 가끔 소낙비가 내렸다.

이날,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陸軍本部 作命 제102호(50.8.4)로 제3사단으로부터 수도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제2기병대대장의 散華 : 이날,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夜間奇襲을 받았다.

01.00에 1개 연대규모의 敵이 漆黑과 같은 夜半을 이용하여, 夜間侵透를 企圖하였고 그 一群은 연대의 主抵抗線으로, 다른 一群은 飛鳳山 南쪽의 8分稜線을 타고 제3徒步대대(장, 李鵬植대위)와 江原道경찰 제5대대와 사이를 뚫고, 修淨寺(목계 東쪽 2km)의 溪谷을 따라, 同연대의 제1장갑 및 제2기병 兩대대의 지휘소가 있는 목계로 潛入하였다.

이때 그들은 경찰복으로 변장하고 侵透하였는데 그들은 兩대대의 경계병을 無聲音으로 刺殺한 다음에 通信線을 絶斷하고, 農家에 있던 제2기병대대의 지휘소로 먼저 接近하였다.

그러나, 哨兵이 이를 발견하고 發砲하자 敵은 侵透企圖가 暴露되었음을 알아 차렸는지 『대대장 나오라.』라고 소리치면서 대대장 張哲夫소령을 찾기에 血眼이 되었다.

대대장은 敵의 奇襲인을 제빨리 判斷하고, 각 종대에 지시하기 위하여 受話器를 들었으나 이미 斷絶된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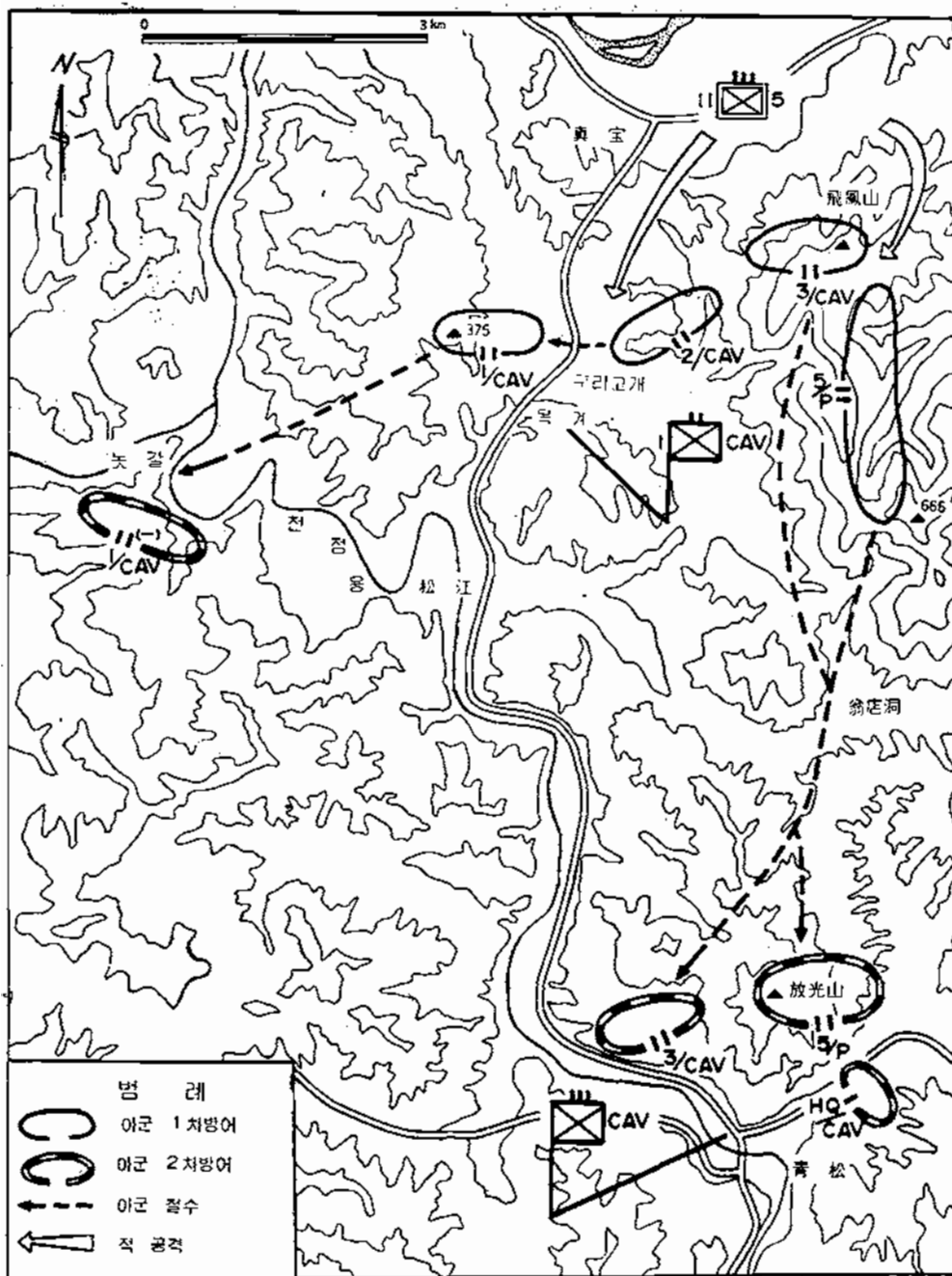
그는 옆房에 있던 S-1 尹耆炳중위와 連絡兵 安下士를 이끌고 農家를 빠져 나오면서 數名의 敵을 射殺하고 數步를 옮겼을 때, 敵彈에 쓰러졌다.

S-1 尹耆炳중위는 『대대장님, 제게 얹히십시오. 敵中이니 빠져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대장을 부축하려 하였으나 이 때 그도 腹部를 貫通당하여 그 자리에서 戰死하고, 대대장은 다시 大腿部를 貫通당하였다.

당황한 安下士가 업으려하자 대대장은 『나를 여기서 죽게 놔두고 그대는 빨리 빠져나가 대대에 이 危急을 알리라. 그리고 이 拳銃을 가지고 가서 내가 戰死하였다고 하여라.』라고 말한 뒤에 곧 陣歿하였다.

이 무렵, 목계에 가까운 곳에 있던 제1장갑대대(장, 朴道環대위)의 지휘소도 被襲되어 兪점천을 徒涉하여 靑松으로 脫出함으로써 兩대대의 지휘소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 상황도 제62호 靑松으로의 지역전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이때를 回想하며 證言하기를 『張哲夫소령은 日帝때 學兵으로 갔다가 脫出하여 中國의 黃浦軍官學校 騎兵科를 나온 훌륭한 장교였다.

그런데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은 그가 왜 戰死하는 전날에 대대의 60mm, 및 81mm 박격포, 그리고 重機關銃을 GMC에 실은 채 대대지휘소 부근에 두었다가 기습당하여 그들에게 빼앗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靑松으로의 遷延戰 : 한편, 제 1 장갑 및 제 2 기병 兩대대는 04.00부터 침공하기 시작한 2개 대대규모의 敵과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激戰을 벌였으나, 兩대대의 지휘부가 마비된대다 목계를 奇襲한 一群의 敵이 靑松으로 내려오다가 목계로 되돌아가 兩대대의 背後를 찌르므로써 앞뒤로부터 敵을 맞이하게 된 兩대대는 苦戰을 면치 못하였다.

제 2 기병대대를 지휘하던 朴翊均중위는 左제 1 선의 제 1 장갑대대와 合勢하여, 연대의 主力으로 兩面의 敵을 擊破하기로 決心하고 轉進하였는데, 俗稱 구리곡재를 突破할 때, 그들의 伏兵에 挾擊당함으로써 △375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대대隊全員이 극도로 피로에 지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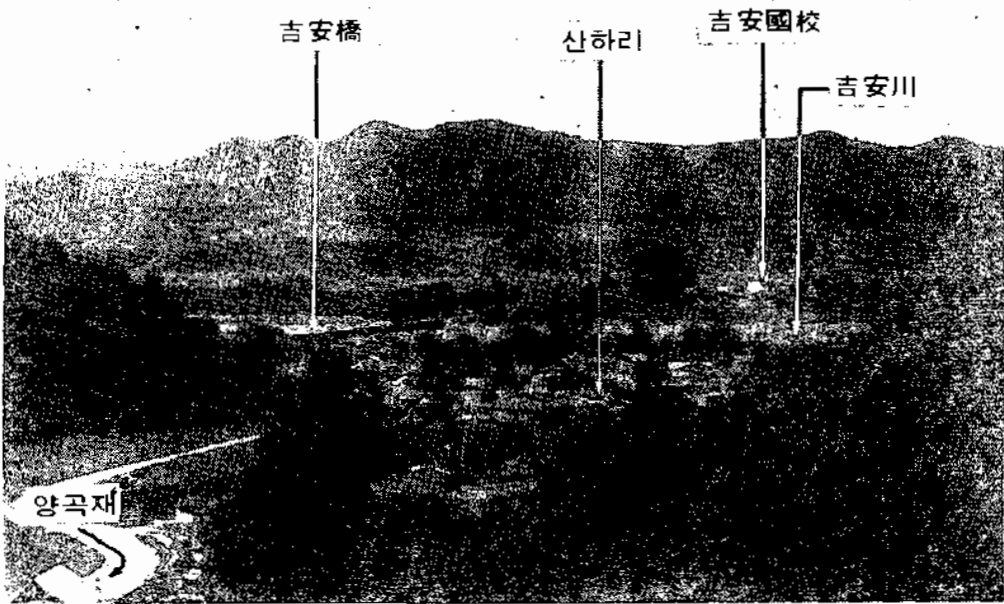
이리하여 △375에서 兩대대가 合勢하자 先任인 제 2 기병 대대장 대리였던 朴翊均중위는 연대지휘소와의 合勢를 위하여 兩대대를 이끌고 半邊川을 徒涉하여, 俗稱 눈갈(목계 서쪽 3.5km) 부근에 四周방어 태세를 갖추고, 靑松에 위치한 연대지휘소로 연락장교를 派遣하였다.

한편, 飛鳳山을 扼守중이던 제 3 徒步대대(장, 李鵬植대위)와 연대본부중대(장, 대리 李元春소위)는 목계쪽에서 사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나, 通信이 杜絶되어 彼我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이르자, 대대장 李鵬植대위는 09.00에 左제 1 선의 제 2 기병대와의 連繫는 물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교를 急派하였던 바, 『제 2 기병대대는 흔적도 없고 31번道路에는 敵이 2列縱隊로 靑松을 向하고 있다.』라는 敵情報告를 하였다.

이로써 대대장 李鵬植대위는 구리곡재線이 突破당하였음을 認知하고, 대대와 연대본부중대(일부의 경찰포함)로써 △666를 거쳐 翁店에 이르러, 江原경찰 제 5 대대 지휘소에서 연대장에게 대대의 철수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연대장은 반기면서 『兩대대(경찰대대 포함)는 곧 行動을 개시하여, 경찰제 5 대대는 放光山(靑松 北쪽 1km)을 防守하고, 제 3 徒步대대는 △254(靑松 西쪽 1km)에 急編진지를 점령하여 南下하는 敵을 濫擊하라. 그리고 연대본부중대 및 이와 行動을 같이하였던 경찰병력(100명)은 각각 원대로 복귀케 하라.』라고 命令, 이날 20.00에 兩대대는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다.

연대지휘소로 복귀한 연대본부중대(장, 대리 李元春소위)는 靑松 北쪽 700m의 無名峻線을 確保하여 연대지휘소를 警戒하였는데, 얼마 안있어 敵의 迫擊砲彈은 該지휘소에 떨어지



〈吉安 全景〉

기 시작하였다.

수도사단 지휘부의 被襲 : 吉安에 위치한 수도사단 지휘부에서는 사단장 金錫源준장 以下 全參謀가 상황실에 모여 독립기갑연대의 被襲事態를 論議하였다.

이자리에서 참모장 崔慶祿대령은 사단장에게 건의하기를 『31번道路는 그 重要性에 비추어 確保할 價値가 충분하다. 兵力運用上 독립기갑연대를 사단의 戰鬥地境線 밖에서 活用하느니 보다는 사단과 連繫하여 集中된 병력으로 當面한 敵을 擊破한다면, 능히 1개 연대규모에 불과한 31번道路上的 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단장은 이를 쾌히 승인하고, 同연대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打電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8월 5일 03.00를 期하여 靑松으로부터 逐次 遲延戰을 실시하여, △426—△429간에 진지를 점령하라.』

사단장 以下 全 참모들은 이 措置가 끝난 다음에도 同연대의 수습상황에 全神經을 쏟고 있었는데, 07.00에 지휘소 周邊에서 數發의 多發銃소리가 울리면서 120mm 迫擊砲彈이 運動場에 集中하여 通信車輛이 破壞되는 등 지휘소는 混亂을 이르켰다.

G-3 朴敬遠소령은 이 時急한 상황속에서도 참모장 崔慶祿대령에게 『뒤통수받은 저에게 말하고 사단장을 모시고 여기서 避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였는데, 사단장은 『나는 여기서 榮耀로운 죽음을 擇하리라!』라고 一言之下에 拒絕하였다.

그러나, 참모장과 참모들은 『사단장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단 전체의 문제입니다.』라고 다시 進言하여, 마침내는 끝까지 하여 吉安을 떠났다.

사단장은 俗稱 삼실(吉安 西쪽 0.5km)에 이르렀을 때, 車에서 내려 黑煙이 濛濛한 지휘소자리(吉安國民學校)를 望見다가 참모들에게 『運動場에 있는 車輻은 왜 放棄하였느냐?』라고 怒氣면 목소리로 물었다.

이때, 通信중대의 운전병 李得龍병장이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라고 나서자마자, 敵彈雨를 뚫고 달려나가 該車를 몰고 왔는데, 이를 끝까지 지켜보던 사단장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激讚하기를 『壯하도다. 나의 사랑하는 部下여!』라고 하면서 손을 꼭 잡고 參謀長에게 勳章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사단지휘부가 無秩序한 行軍으로 尹岩洞(義城 東北쪽 9km)으로 빠지고 있을 때,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의 일부 병력도 그 뒤를 따라 빠져 나감으로써, 사단의 左右側方은 사실상 空白상태가 되고 말았다.

독립기갑연대의 遲延戰: 이날 아침, 사단으로부터 5일 05.00를 期하여 靑松에서 敵과 離脫하여 遲延戰을 遂行하라는 電文이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에게 전달 되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同연대장은 이때 연대主力(제 1장갑 및 제 2기갑 兩대대)의 行方을 探知하는 한편, 飛鳳山에서 撤收중인 제 3徒步대대 및 江原道경찰 제 5대대로 하여금 敵을 阻止하도록 陣地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敵中에서 脫出한 落伍兵들을 수습하는데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동안에 연대의 主力이 늦갈에 接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現線에서 급편진지를 점령케 하고, 22.00에 作戰會議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遲延戰을 위한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8월 5일 05.00를 期하여 當面한 敵을 剔抉하고 逐次 九水洞으로 轉進하려 함

② 제 1장갑대대는 계속 現진지에서 敵을 阻止 擊滅하라.

③ 제 2장갑대대는 계속 現진지에서 敵을 阻止 擊滅하라.

④ 연대본부 및 本부중대는 제 1제대로써 05.00를 期하여 송산(九水洞 東쪽 1.5km)으로 轉進하라.

⑤ 江原道경찰 제 5대대는 제 2제대로써 當面한 敵을 擊破하고 제 1제대에 이어 제 1목표인 △392를 점령한 다음, 명에 의하여 최종목표인 노래산을 점령함과 동시에 급편진지를 편성하라.

⑥ 제 3徒步대대는 제 3제대로써 當面한 敵을 擊破하고, 제 2제대에 이어 용점선을 徒涉하여 제 1목표인 △387를 점령한 다음 명에 의하여 최종목표인 △621를 점령함과 동시에 급편진지를 편성하라.

⑦ 각 대는 기도비익에 유의하라.

⑧ 연대지휘소의 閉所시간 : 8. 5. 07. 00

余는 제 2세대가 제 1목표를 점령할 때까지 現위치(靑松)에 在하며, 제 3세대가 제 1목표를 점령할 때 이사리(靑松 西쪽 4km)로 移轉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5일) 03. 00에 사단으로부터 제 18연대(장, 任忠植중령)가 敵에게 突破당하여, 混戰(제 18연대의 戰況에서 詳述)중이라는 通報를 받게 되었고, 연대가 當面한 敵은 제 3徒步대대와 江原道경찰 제 5대대를 壓迫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개 대대규모의 敵은 月幕洞(靑松 東쪽 500m)으로부터 侵攻하고있어 이로 因하여 연대의 右側背가 危險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러므로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計劃的인 遲延戰을 위한 時機를 이미 逸失하였음을 直感하고, 靑松 北쪽의 各隊에 명령하기를 『遲滯없이 當面한 敵을 剔抉하고, 각각 최종 목표를 점령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지휘소와 본부중대는 損失없이 송산(九水洞 東쪽 1.5km)으로 移動하는데 奏功하였으나, 각대는 명령의 突發的인 變更과 執拗하게 달라붙는 敵과의 離脫에 混亂을 이끄러, 소대 또는 중대별로 응접전을 건너, 疲勞에 지친 상태로 각각 최종진지에 集結하여 布陣하기에 이르렀다.

연대 S-3 丁世鎭소령은 이때의 情況을 證言하되 『遲延戰을 펴기 위하여, 모처럼 戰術에 맞추어 秩序있게 撤收하려 하였는데, 敵의 갑작스러운 侵攻으로 말미암아 이 計劃은 水泡로 돌아갔다. 때문에 戰鬪란 언제든지 相對가 있는 법인 까닭에 이에 對處한 勇동성있는 計劃이 필요하다는 것을 切實히 느꼈다.』라고 述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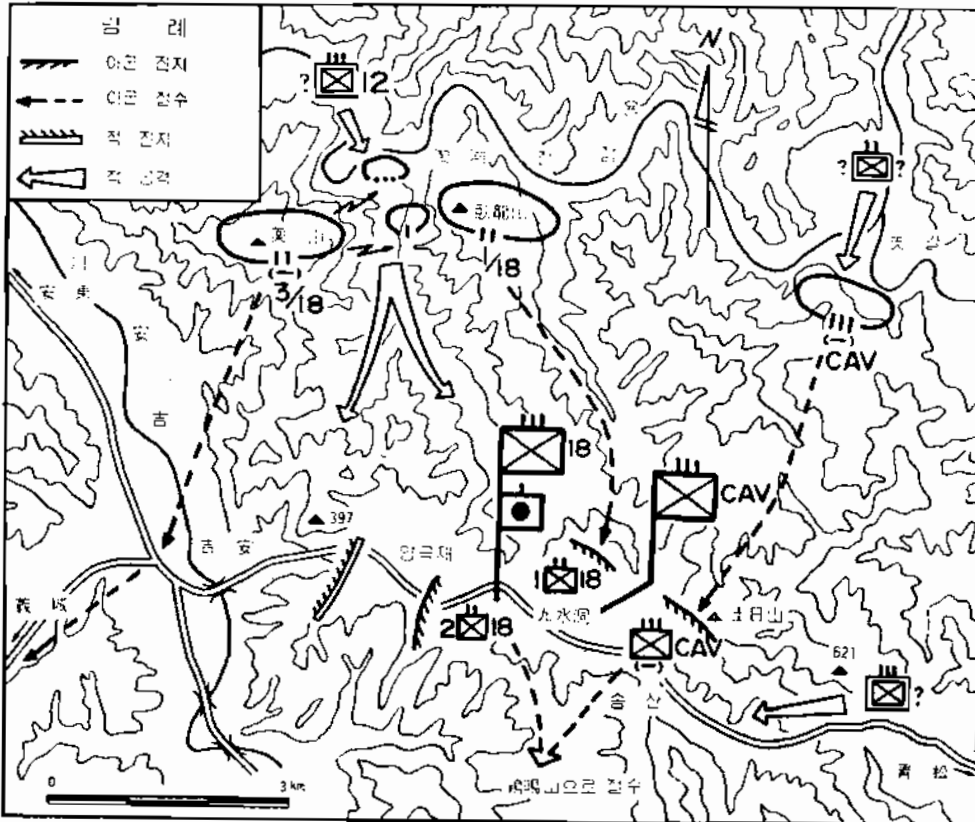
8월 5일 : 새벽부터 심한 안개가 끼었으나 午後부터는 활짝 걸히고, 가끔 소낙비가 쏟아졌다.

이날, 사단은 새벽에 제 18연대(장, 任忠植중령)의 지휘소가 襲撃되어 戰場의 主導權을 상실당한 채 主力(제 18 및 독립기갑 兩연대)의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고, 包圍網을 脫出하여 義城으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제 18연대의 被襲 : 이날 새벽, 03. 00에 연대 左제 1선에서 藥山을 防守하고 있던 제 3대대장 鄭昇和소령은 龍溪洞(藥山 南쪽 2km)의 대대보급소에 내려갔던 同대대의 부대대장 張錫錄대위로부터 電話를 받았는데, 그는 『陶淵(藥山 東北쪽 1.7km)에 前哨로 나가 있던 對戰車 特攻소대가 敵의 奇襲을 받고 全滅하였으며, 그 中の 한명만이 살아 나와서 여기에 도착하였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必是 그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判斷하고, 각 중대장을 電話로 불러 『敵이 奇襲 공격을 개시하였으니, 戰鬪태세를 갖추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잠시 부대대장의 電話가 다시 걸려와 『놈들이 여기까지 侵透』라고 미처 말을 맺기도 前에 通話가 끊기고 말았다.

◇ 上항도 제63호 8월 5일의 戰況



뒤에 알려진 바로는, 敵은 境界병도 세우지 않고 잠들어 있던 對戰車特攻소대로 潛入하여 全員을 刺殺한 뒤에 다시 大隊보급소를 습격하여 通信兵과 행정요원을 역시 刺殺하였다는 것이며, 부대대장 張錫錄대위는 가까스로 脫出하여 大隊지휘소(藥山)로 올라갔던 것이다.

敵은 溪谷으로의 侵透路가 끊리자, 1개 연대규모를 投入하여, 一隊은 △397(九水洞 西쪽 2.5km)로 侵透하고, 다른 一隊은 士日山(九水洞 東쪽 2.5km)으로 分進하여, 914번 道路(靑松—義城間)를 차단할 氣勢였으며, 일부의 小數병력은 연대의 지휘소(위치: 九水洞)로 向하였다.

07.30 연대 지휘소에서는 연대장을 비롯하여 참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침 食事를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大隊와의 通信이 斷絶(敵이 切斷)된 까닭에 對戰車特攻소대가 蹂躪당하고 그들의 醜鋒이 지휘소의 바로 至近距離까지 侵透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敵의 奇襲을 받게 되어 연대 지휘부는 일시에 혼란을 이르고 말았다.

S-1 李秉衡소령은 연대 경계소대가 배치된 無名高地(九水洞 西쪽 300m)로 달려나가 바로 앞 高地에서 기관총을 猛烈히 사격하고 있는 敵을 制壓하기 위하여 소대를 지지휘하여 2차나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3차공격을 준비중에 연대장이 急派한 제 4 중대장 趙容煜 중위가 81mm迫擊砲 2門을 갖고 支援하여 11.00에 同高地를 奪取하고 1名을 捕虜로 하였다. 이 捕虜의 陳述로써 當面한 敵은 安東을 占據한 北傀 제12사단(장, 崔 仁소장)임을 確認하였다.

연대장 任忠植중령은 연대가 이미 敵에게 包圍당하였음을 直感하고, 吉安으로 이르는 道路를 確保하기 위하여 제 2대대로 하여금, △397로 直進케 하는 한편, 제 1대대를 主抵抗線에서 △460로 轉進시켰다. 이 때 병사들은 敵에게 包圍되었다는 사실에 士氣가 萎縮되었으며 目標奪取가 頓挫되자 연대지휘소를 중심으로 제 1대대는 △460의 西쪽 400m 稜線에, 그리고 제 2대대는 九水洞 北쪽 1km의 稜線에서 힘겨운 攻防戰을 벌이게 되었다.

독립기갑연대의 戰況 : 한편,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1개 연대규모의 敵으로부터 계속 壓迫을 받고 九水洞으로 撤收하고 있었다.

이 때, 2개 대대규모의 敵이 靑松을 侵奪하고, 914번 道路(靑松—義城間)를 따라 西侵하면서 제 3 徒步대대와 江原道경찰 제 5대대를 壓迫하였고, 다른 1개 대대규모는 九水洞 北쪽 6km)로 徒涉한 뒤에 제 1장갑 및 제 2기병 兩대대를 공격하였다. 兩대대는 敵의 優勢한 火力과 氣勢에 밀려 그들과 逐次 撤收하여 연대의 全兵力은 송산(九水洞 東쪽 1.5km)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布陣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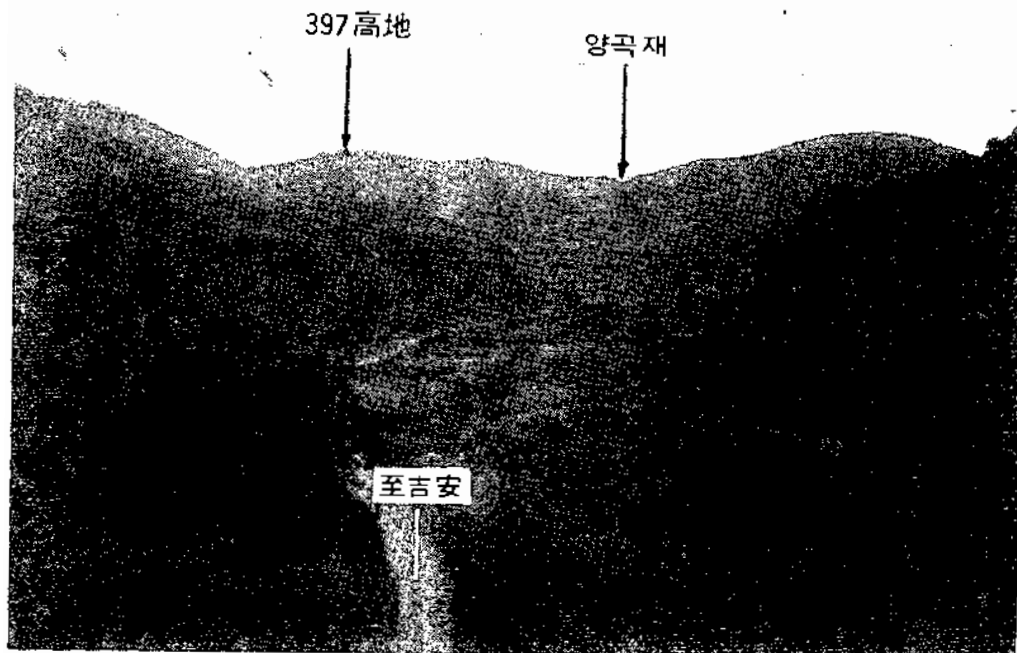
즉, 연대의 지휘소는 송산에 位置하고, 그 앞 道路에는 연대의 補給車輛 27台와 裝甲車 4台(半장갑차 1台포함)가 密集隊形으로 佇지어 있었으며, 제 1장갑 및 제 2기병 兩대대는 士日山의 南쪽 山麓에서 同高地의 頂上을 차지하고 있는 數未詳의 敵과 對峙하고 있었다.

한편, 제 3 徒步대대는 地境洞에서 道路의 兩쪽 稜線에, 그리고 江原道경찰 제 5대대는 △389에 각각 布陣하고 있었다.

이무렵, 敵은 三隊로 나누어 主力으로는 地境洞 東쪽 1.5km의 고개마루를 장악하고 일부는 北쪽의 △621와 南쪽의 △586로 각각 進出하므로써 연대의 一舉一動은 그들에게 嚴制당하고 있었다.

兩연대의 突破計劃 : 이 날 15.00부터 敵의 包圍網이 더욱 壓縮되어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는 地境洞으로부터 송산간에, 그리고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는 송산으로부터 九水洞간에 총 3km의 區間에 四周방어를 갖추었는데, 이 가운데는 제 18연대를 직접 지원하던 사단 포병중대(105mm야포 4문)을 비롯하여 兩연대의 車輛 50餘대가 補給品을 積載한 채 佇지어 있었다.





<양곡재의 眺望>

兩 연대장은 제18연대 지휘소에서 이에 대한 打開策을 熟議하고 先任인 劉興守대령이 우선 사단장 金錫源준장에게 危急한 現狀況을 無電으로 보고하였던 바, 『사단에서 곧 突破口를 뚫었으니 계속 現地를 固守하라.』라는 鼓舞的인 回信이 當到하였다.

이리하여 兩연대장은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사단으로부터는 아무런 措置가 없었다.

뒤에 알려진 바로는 사단장은 尹岩洞(義城 東北 8km)에 集結중인 제1연대(장, 尹春根중령)로 하여금 急遽 吉安으로 直衝시켰으나, 無名高地(吉安 西쪽 2.5km)—△295線에 布陣한 1개 대대규모의 敵에게 阻止당하여 躍進이 頓挫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알리 없는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은 제2대대로 하여금 突破口를 開拓기로 다짐하고, 18.00에 該대대를 양곡재(九水洞 西쪽 1.5km)로 躍進시켰으나 交々 數회에 그들의 挾擊을 받고 失敗하고 말았다.

精銳를 자랑하던 제18연대의 突破企圖가 失敗하게 되자, 독립기갑연대 제1장갑대대의 소대장인 郭應哲소위가 突破決行을 自願하였다.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1개 대대의 공격으로도 失敗한 것을 單獨行動으로 成功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疑訝해 하였으나, 그는 다시 進言하기를 『이 突破口를 뚫지 못하면 兩연대가 많은 병력과 장비를 손실하게 될 것이니, 突破에 失敗하면 차라리 敵彈에 쓰러지겠다.』라고 굳은 決意를 表明하였다.

그의 勇放性을 익히 알고 있던 연대장은 마침내 그 自願을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20.00에 先頭장갑차에 탑승한 그는 2대의 장갑차를 이끌고 勇躍 九水洞을 出發하였다.

양곡재의 300m앞에 이르자, 고개마루의 兩쪽 稜線에 숨어있던 敵은 『戰車다, 戰車다.』라고 소리치면서 一時에 당황하는 불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 氣味를 재빠르게 포착한 郭應哲소위는 突破의 機會는 바로 이때라고 判斷하고 『全速力으로 突進하라.』라고 大喝하며 37mm砲의 散彈과 機關銃으로써 敵兵을 쓸어버리면서 S字形의 屈曲된 小路를 누벼올라갔다. 突貫에 이은 突貫으로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마자 뒤 돌아 본 그는 後續하던 장갑차가 停止한 상태에서 敵과 사격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切齒扼腕하면서도 雨注하는 敵彈과 제자리에서 回轉할 수 없는 장갑차의 脆弱때문에 계속 走破하여, 單獨으로 고개를 넘어 義城에 이르는 즉시로 사단장 金錫源준장에게 兩연대의 상황을 보고 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郭應哲소위의 戰功을 칭찬하면서도 九水洞에 대한 對策은 別無한 듯 하였다.

한편, 後續하던 2대의 장갑차는 그들의 火網에 걸려 散彈으로 이에 對戰하였으나, 그들의 火力이 점점 거세어지자 突破를 斷念하고 死力을 다하여 장갑차를 되돌려 21.00에 本隊로 돌아갔다.

이에 이르자 突破企圖에 많은 時間을 遲滯한 兩연대장은 이 이상 猶豫할 경우에는 兵力의 損失만을 加增시킬 것이라고 結論을 내렸다. 이리하여 23.30에 全砲와 車輛을 破壞한 다음, 연대별로 敵과 離脫하여 義城에 集結하기로 決定하였다.

마침내 兩연대장은 사단장 金錫源준장에게 最後의 電文을 썼다.

『① 兩연대는 計劃的인 突破에 失敗하고 23.30을 期하여 各隊別로 突破하여 義城에 集結하러 함.

② 兩연대장은 作戰失敗에 대한 責任을 痛感하며 此後 通信은 斷絶함.』

독립기갑연대의 突破戰 :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송산의 지휘소로 돌아가서 각대대장 및 참모들에게 突破에 따른 명령을 다음과 같이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각대(江原경찰 제 5 대대포함)는 23.30에 車輛破壞를 위한 點火를 信號로 이로부터 1시간 뒤에 各隊別로 敵中을 突破하여 義城으로 集結하라.

② 지휘소 및 연대본부는 本官이 지휘한다.

③ 企圖秘匿에 철저를 期하며 以後 義城에 集結할 때까지 有無線은 斷絶한다.』

뒤이어 연대 S-4 朴炳順소령은 장병들이 携帶할 수 있는대로 補給品(대부분 乾빵)을 支給하고, 모든 車輛을 지휘소앞에 集結시키는 한편, 火藥類를 실은 車輛 1臺는 논(田)가운데서 破壞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點火順序는 연대장이 그의 車에 불 붙이는 동시에 一齊히 點火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쪽에서 兩연대장이 約束한 15분전(독립기갑연대장의 主張)에 요란한 爆音과 함께 火焰이 하늘에 치솟았다.

연대장 劉興守대령은 이에 遲滯할 경우에는 突破企圖가 敵에게 暴露될 것이라고 憂慮하고 自身の 車輛에 點火하였다.

各車輛(장갑차 및 半장갑차 포함)이 불붙은 뒤에 지휘부 및 연대본부중대를 이끌고 俗稱 배방(송산南쪽 300m)에 이르러 뒤돌아 보았던 바 半數의 車輛은 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옆에 있던 S-3 보좌관 張奉天중위로 하여금 1개 분대로써 완전히 點火케 하였으며, 이어서 S-4 朴炳順소령으로 하여금 火藥類를 積載한 車輛을 파괴케 하였다. 그 잠시 뒤에 M1소총의 連射로써 轟音과 함께 爆發한 彈藥의 閃光으로 周邊은 대낮처럼 밝았다.

裝備의 破壞를 確認한 연대장은 지휘부 및 본부중대를 이끌고 鷄鳴山에 이르러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와 合勢하였다. 그런데 深夜의 闇으로 서로 分揀하지 못하여 相擊直前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었는데 연대장이 『나는 독립기갑연대장이다.』라고 大聲으로 밝혔으므로 危機를 면하고, 兩隊는 송제(吉安 南쪽 11km)—九山洞을 거쳐 6일 18.00에 義城에 이르렀다.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독립기갑연대장 劉興守대령을 보자 『貴下의 突破直前に 發信한 電文을 받았오. 나로서는 다만 貴연대장병들의 努畝를 致賀할 뿐이오. 收容所를 마련하였으니 장병을 收拾하여 충분한 休息을 갖도록 하시오.』라고 慰勞와 激勵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突破戰에서 의무대장 李相昊소령은 重傷者 10名을 擔架에 싣고, 600m內外의 高地와 溪谷을 넘어 28km를 突破하였고, 경리장교 金遺腹대위는 1,500만원에 이르는 紙幣를 15명에 分擔시켜 運搬하던 중에 그 중 한명의 병사가 50m의 絶壁으로 떨어졌으므로 1時間餘에 걸친 수색 끝에 병사만을 救出하여 무사히 義城에 集結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突破直前に 我軍간의 衝突을 막기 위하여 兩연대가 共通된 暗口號를 下達하였으나 敵에게 綻露되어 彼我간에 暗口號를 忌避하였던 바, 이로 말미암아 襲擊받고 分散된 例가 許多하는가 하면, 앞을 가리는 樹木과 豪雨, 그리고 飢餓은 더욱 더 병사들을 괴롭혀었다.

이에 겹쳐, 軍事地圖가 없었던 까닭에 現地 住民들의 案内에 힘입은바 컸으나, 대부분의 住民들은 北傀軍으로 誤認하고, 案内하던 途中에 脫走함으로써 山中에서 헤메다가 10餘日 뒤에 復歸하는 병사들도 많았다.

이러한 逆境속에서 연대는 6일 15.00~24.00 사이에 義城으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는데, 突破經路가 參戰者의 證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九水洞—鷄鳴山—黃鶴山—義城일 것으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제18연대의 突破戰** :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은 이날 23.30에 敵中突破를 위한 명령의 要

旨을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5일 23.30을 期하여 當面한 敵을 擊破하고 義城으로 轉進하려 함.  
 ② 작대는 現陣地에서 敵을 擊破하고 義城으로 轉進하라.  
 ③ 포병중대는 當面한 敵에게 攪亂사격을 실시하고, 23.30에 全砲를 破壞하라.  
 ④ 근무중대는 23.30을 期하여 全車輛을 破壞하라.  
 ⑤ 작대는 企圖秘匿에 유의하며 以後 通信은 斷絶한다.  
 ⑥ 指揮部는 23.30을 期하여 閉鎖한다.』

그러나 제 3대대(장, 鄭昇和소령)와는 通信이 杜絶(後述)되어, 이 명령이 傳達되지 않았으므로 該대대는 單獨으로 행동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포병중대(장, 金燦福대위)는 直角사격으로 砲身이 닳도록 敵의 예상集結地에 猛砲擊을 加하고, 공기와 霰을 뽑아 埋沒한 다음에, 手榴彈을 砲口로 집어 넣어 破壞하는 한편, 全車輛도 같은 時刻에 破壞하였다.

이리하여 작대대는 23.30을 期하여 各各 現陣地에서 敵中을 툼고 義城으로 突破戰을 실시하였으니, 제 1대대(장, 張春權소령)는 鷄鳴山—송제—九山洞으로 直南下하여 義城으로 轉進하였고, 제 2대대는 鷄鳴山—黃鶴山을 突破하여 6일 18.00에 各各 義城에 集結하였다.

한편, 제 3대대(장, 鄭昇和소령)는 이날 03.00에 俗稱 원용계(樂山 東南쪽 2km)에서 隸下의 對戰車特攻소대가 全滅되면서부터 연대와의 有無線은 斷絶되어 同대대가 單獨으로 義城에 集結할 때까지 연대와의 連絡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대장은 대대의 통신장교로 하여금 연대를 呼出하도록 서둘렀으나, 연대에 周波數를 맞추어 놓으면 北僞軍이 中國語로 『우리는 제 12사단인데 너희들은 包圍되었으니 降伏하라.』라고 농간부리기가 일쑤였는데, 中國語通인 대대 S-2가 이를 받아 擲楡로 應酬하기도 하였다.

08.00에 대대장은 대대의 南쪽 1km의 無名高地에 1개 대대규모의 敵이 娟集하고 있음을 目擊하고, 迫擊砲로써 猛打하였으나 時間이 갈수록 南쪽 一帶의 稜線에는 敵影으로 메워졌다.

뿐만 아니라, 吉安쪽으로는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長蛇를 이루고 南下중임이 眺望되었다.

대대장은 三面의 敵에 의하여 대대가 孤立되었음을 判斷하기에 이르자, 分散되어 있는 各중대를 藥山에 集結시켜, 四周防繫태세를 갖추기로 決心하고, 대대의 右제 1선으로써 臥龍山에 나가있는 제 11중대를 吸收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該중대에 이르는 通路에는 이미 敵이 橫行하고 있는 터이므로 連絡을 유지키 위하여는 犧牲이 뒤따라야 하였다.

대대장의 苦衷을 짐작한 S-3 朴英極대위는 『이 任務에 一命을 받치겠다.』라고 決然히 自願하여 同중대를 이끌고 死線을 헤친 끝에 藥山에 到達하였다.

대대장 鄭昇和소령은 그의 이 壯舉에 대하여 感佩하기를 『나로서는 중대를 復歸시키는 것도 重要하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S-3의 任務도 또한 重要하였다.

朴英極대위가 임무를 完遂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를 다시 한번 알게 된 느낌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리고 永遠히 나는 그의 勇氣를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證言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藥山에 四周防禦로 堅持하고 있었으나 敵과의 接觸은 없었고 銃砲聲도 또한 南쪽으로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대대장은 西山에 해저물 무렵에 이르러, 彈藥 및 食糧의 濁渴과 연대로부터의 連絡이 없었던 탓으로 앞으로의 對策에 대하여 參謀들과 協議하였다.

이때 參謀들은 ① 연대로부터 連絡이 있을 때까지 現陣地를 固守하여야 한다. ② 즉시 敵을 突破하여 연대와 連絡을 이루어야 한다. ③ 연대도 撤收한 것 같으니 義城으로 빠져 나가 後策을 講究하여야 한다는 등의 意見이 區區하였는데 대대장은 義城으로의 突破戰을 敢行키로 決心하였다.

그가 이처럼 決心하게 된 까닭은 첫째, 我軍끼리의 激突을 피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전날에 사단사령부를 急襲한 敵이 대대를 放置한채 계속 南下하고 있으며 銃砲聲도 또한 南쪽으로 멀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은 必是 연대를 突破하였을 것이라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대대는 22.00에 제 9중대를 突破제대로 하고 대대본부 및 지휘부, 제10, 제11중대의 順으로 吉安을 突破하여, 914번 道路(吉安—義城간)를 거쳐 6일 14.00 義城에 이르렀는데, 吉安은 그들의 後方路임에도 아무런 接觸이 없었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은 殆半의 重火器를 잃고, 8월 6일 18.00에 義城에 集結하여, 부대정비에 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 제 1군단(장, 金弘壹소장)의 正面이 時時刻刻으로 惡化하였으며, 더우기 군단의 右一線이던 수도사단이 吉安線에서 撤收함으로써 盪德—安東 사이에는 50km의 間隔이 생겨나게 되어 北愧 제 12사단(장, 崔仁소장)은 戰車 數臺를 앞세워, 靑松을 거쳐 道坪(靑松 南쪽 20km)으로 肉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자 군단장은 南侵중인 敵의 中腹을 질러 그들의 補給路를 遮斷함과 동시에 그 背後로부터 擊破키로 決心하고, 부대정비에 臨하려던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다시 出擊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20.00에 該사단은 戰塵을 씻을 사이도 없이 吉安으로 躍進하여, 8월 8일에 同地를 재탈환하였다.

期間중 사단은 제 1군단의 一般命令 제 9호(50.8.5)로 對戰車砲중대와 공병대대를 編入하였고, 제

17연대(장, 白仁燁대령)는 陸軍本部 作命 제106호(50.8.6)로 陸軍本部 直轄에서 該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한편, 主要人事에 있어서는 陸軍本部 一般命令 제1507호(50.8.7)로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이 白仁燁대령과 交替하여 제3사단장에 轉補되었으며, 1사단 참모장 崔慶祿대령은 제1연대장 尹春根중령과 交替되고 제18연대 부연대장 韓 信중령은 제1연대장으로 補職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1군단장 金 弘 奎 소장

(1978년 4월 8일 光復會에서, 예 중장)

陸軍本部에서는 군단장의 意見을 묻지도 않음은 물론, 功過도 가리지 않은채 戰鬪指揮중인 사단장을 交替하곤 하여 사단장의 意態를 꺾기가 일수였다.

金錫源준장의 이번 交替는 靑松戰鬪에 대한 責任탓이라고 보기는 하나, 이보다 앞선 安東戰鬪 때에는 責任져야 할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 수도사단 G-3 朴 敬 遠 소령

(1978년 4월 12일 豊田호텔에서, 예 소장)

吉安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단으로부터 作命을 받아 下達하였는데, 이때 나는 잠에 醉하여 사단장 金錫源준장의 부름을 듣고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참모장 崔慶祿대령이 『作命을 下達해 야지』라고 나를 깨우려 하자, 사단장이 『피곤할텐데 그냥 자라고 두고 當身이 下達하시요』라고 말하여 나는 한시간 이상이나 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靑松戰鬪를 分析해 보면, 장비를 그대로 버려야할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며, 通信 단 계대로 維持하였다면 것처럼 당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 ◇ 독립기갑연대장 劉 興 守 대령

(1978년 4월 10일 盤浦洞自宅에서, 예 소장)

이 戰鬪期間中에 食糧은 그런대로 現地調達하였으나, 彈藥의 不足은 여아른 것이었다.

그래서, 靑松에서 九水洞으로 遲延戰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연대병기장교를 陸軍本部에 보내어 彈藥 특히 迫擊砲의 高爆彈을 받아오라고 하였던

바, 그가 돌아와서 報告하기를 作戰教育局의 某 중령이 『독립기갑연대는 밤, 낮 敗退하는 주재에 무슨 面目으로 彈藥을 달래느냐?』라고 하면서 겨우 煙幕彈 30發만을 주더라는 것이다.

이래서 轉屬가는 길에 陸軍本部로 달려가 關係장교를 붙잡아 혼을 내준 일이있다.

張哲夫소령의 陣歿에 대하여 巷間에서는 自決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아는 限은 敵彈에 散華한 것으로 안다.

### ◇ 제18연대 제3대대장 鄭 昇 和 소령

(1978년 3월 28일 제1군사령관실에서

대장)

제8연대가 1950.7.24 醴泉에서 제18연대로 編수되면서 제3대대가 됐는데, 어느 戰鬪에서나 제8연대의 軍旗를 앞세우고 突進하여 士氣를 올렸다.

그런데 靑松戰鬪에서는 대대장조차 地圖한장을 갖지 못했을 뿐더러 연대본부는 물론, 側方대대마저도 적점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야말로 暗中摸索하다가 그들의 銃탄방의 기습으로 그린 鬨을 당하고 2일간이나 연대와 孤立된채 獨斷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作命만 하여도 그저 『저 高地를 佔領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任務를 수행함에 있어 인접부대의 상황을 계속 알려야 할 것이다.

물론 現在는 이런 일이 있을수도 없다.

### ◇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 春 權 소령

(1978년 3월 21일 市内 上道洞 自宅에서,

예 소장)

제18연대가 제8연대를 吸收할 때, 병력을 物品分配하는 식으로 按配하였는데, 이런 것이 아

나라 原所屬동 郷土(即 여기서는 本家)意識을 갖게 하여야 마땅했을 것이다.

즉, 自己食口는 自己食口建制까지 있도록 해야 戰鬪力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靑松에서 그들의 包圍網을 脫出할 때, 105mm 野砲의 照明彈 20發을 꺼내 車當 1發씩 놓고, 脫出하였는데 多幸히도 間隔을 두고 照明彈이 爆發하는 바람에 谷地에서나 山頂에서 方向을 잡는데 큰 效果를 봤다.

#### ◇ 독립기갑연대 S-3 丁 世 續 소령

(1978년 2월 13일 宇進株式會社(東京支店)에 소장)

包圍당하기 直前에 연대장 劉興守대령에게 補給車輛을 먼저 靑安으로 빼자고 건의하였으나, 그는 보급은 앞에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대로 두었다가 끝내는 燒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眞寶戰鬪때 연대에는 말(馬)이 240匹 가량 있었는데 步兵戰鬪를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靑江(靑松 西北북 5km)에 두었다가 戰勢가 점차 惡化하면서 靑安으로 옮겼다가 金七龍소위가 이끌고 大邱로 가서 뒤에 騎馬憲兵隊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이 戰鬪이후부터 연대는 步兵이 되었던 것이다.

### § 戰 訓

#### (1) 警戒의 失敗에 대하여

8월 4일에 있었던 사단사령부 및 독립기갑연대 제 2기병대대 지휘소의 被襲, 그리고 8월 5일의 제18연대 제 3대대 對戰車소대의 全滅은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이며, 이로 말미암아 사단지휘체제가 마비되었음은 兩연대가 崩壞하는 결과를 招來하였고 마침내는 50km의 間隙이 생겨 그들에게 突破口를 마음대로 擴張하도록 許容하였던 것이다.

본시 被襲으로 軍作戰이나 士氣에 미치는 影響은 本戰鬪의 失敗보다 더 큰 混亂을 惹起한다는 사실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作戰의 失敗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의 失敗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MecArthur의 名言이

있다.

#### (2) 部隊掌握에 대하여

제18연대의 경우, 예하대에 사단 및 연대의 企圖나 인접부대의 상황, 그리고 敵情을 間斷없이 알려주고 또 예하대는 上級부대의 의도에 들어가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그런데 8.5. 03.00에 제 3대대와 有無線이 斷絶한 뒤부터 연대는 물론 대대에서도 아무런 對策(連絡將兵의 活用)도 강구하지 않아 同대대는 연대에서 한명의 兵力이 아쉬울때 2日間이나 遊休兵力(대대장 鄭昇和소령의 自認)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兩연대의 參戰者(특히 指揮官)들의 證言을 綜合하여 보면, 이 때 部隊掌握이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證明하고 있다.

즉 『대대장은 중대가, 중대장은 소대가 어디로 어떻게 脫出(突破란 말은 쓸수 없다고 否認)하였는지 그저 불붙이 훈이져 途中에서 離合集散하다가 住民들에게 물어 竅城으로 갔을 뿐』이라고 입을 모아 反省하고 있다.

脫出의 要諦는 指揮官을 中心으로 하여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굳은 團結심에 이루어져야 하며 分散될 때에는 自滅이 있을 뿐이다.

#### (3) 突破戰指導에 대하여

戰術上 突破실시부대는 방어 兵力의 3:1의 優勢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通常이다.

그럼에도 兩연대는 燒石에 물방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제 1차 突破에 半滅한 1개대대(제18연대 제 2대대)를, 그리고 제 2차 突破에 장갑차 3대(독립기갑연대)를 逐次投入하였으나 모두 병력의 손실만 보고 失敗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敵은 氣勝을 떨며 包圍網을 壓縮함으로써 마침내 脫出할 時機를 逸失하였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兩연대장은 各個羅進으로 脫出하기로 決定하였는데 이는 自滅을 自招하는 愚策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脫出은 부대가 써는 가장 어려운 作戰의 하나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兩연대의 脫出에 있어서 先任인 독립기갑

연대장 劉興守대령의 統合指揮밑에 敵의 脆弱한 地域을 選定하여 集中된 병력으로 果敢하게 逐次 突破를 企圖하였다면 이같은 敗退는 謀免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撤收戰이나 包圍로부터의 脫出戰은 平素에 不名譽스러운 訓練이라고 殊外할 것이 아니라, 어엿한 後退移動과 攻擊形態의 한 作戰으로 알고 訓練되어야 할 것이다.

## § 逸 話

### ◇ 運轉兵의 變車心

제18연대는 靑松戰鬪를 마치고 轉戰하다가 安康 및 杞溪戰鬪에서 幽獲한 車輛중에서 틀림없이 九水洞에서 脫出할 때 燒却한 것으로 알고 있던 同연대장의 Jeep車를 발견하였다.

연대장 任忠植중령은 놀래어 운전병에게 물기를 『그때 왜 그 車를 破壞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나에게 破壞하였다고 보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자, 운전병은 놀라는 빛도 없이 沈著하게 『사실은 너무도 이 車를 끌어서 脩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내 손으로 성냥불을 그어 뱉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옆에 서있던 모든 장병들은 눈시울이 뜨거웠다고 한다.

## § 研 究

### ◇ 수도사단 지휘부의 被襲에 대하여

現時點에서는 記錄의 未備로 말미암아 被襲된 상황에 대하여 正確히 알 수가 없으나 參戰者의

證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바 이를 土證로 하여 앞으로의 研究檢討에 參考가 되어 이와같은 前轍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G-3 朴敬遠소령의 證言: 敵의 奇襲으로 20餘名の 장병을 잃었다.

推算컨대 그들의 侵透병력은 1개 소대규모로 보며 제1연대의 正面으로 侵透한 것으로 안다.

同연대와 通信이 維持되었다면 이러한 事態에 對處할 수 있었는데 제1연대는 사단지휘부가 奇襲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混亂상태에 빠져 있었다.

제1군단장 金弘奎소장의 證言: 독립기갑연대의 제2기병대대가 交代해서 同사단에 갔을 때, 나는 사단장 金錫源준장에게 그 兵力으로 하여금 사단 지휘부를 경계시키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뒤에 사단장으로 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너이들은 수고가 많았다. 여기는 아무일도 없으니 꼭 쉬어라』라고 激勵하고 경계근무를 안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敵이 機關銃까지 들고 들어와 쓸때까지 몰랐으니 경계를 소홀히 하여 奇襲을 받은 그 責任은 크다고 본다.

참모장 崔慶祿대령의 證言: 한중의 예비대도 없었고 병력이 얼마 안되는 독립기갑연대의 제3 徒步대대를 九水洞으로 보내 사단의 右側을 경계하도록 하였고 지휘소의 경계는 사단의 행정요원과 일부의 학도병으로 臨하게 하였다.

즉, 사단지휘소를 奇襲한 敵은 左側의 제1연대가 肅진데에 原因이 있음을 注視해야 할 것이다.



## 2. 安東 附近 戰鬪(1950년 7월 30일부터 1950년 8월 1일까지)

참조 : 별제부도 제 20 호  
상 황 도 제 64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金 弘 壹	제 2 대대	장 소령 曹 圭 英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제 3 대대	장 소령 金 道 鎭
제 10 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사단공병대대	장 대위 金 默
제 1 대대	장 소령 朴 致 玉	배속부대	
제 2 대대	장 대위 鄭 順 基	제 18 포병대대	장 소령 張 庚 石
제 3 대대	장 대위 金 淳 基	제 50 포병대대	장 소령 鄭 寅 皖
제 16 연대	장 중령 金 東 洙	지원부대	
제 1 대대	장 중령 俞 義 潛	수도사단	장 준장 金 錫 源
제 2 대대	장 중령 金 憲	제 1 연대	장 중령 尹 春 根
제 3 대대	장 대위 崔 敏 燮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煌 穆
제 21 연대	장 중령 金 容 培	제 2 대대	장 소령 柳 桓 博
제 1 대대	장 소령 林 益 淳	제 3 대대	장 소령 趙 成 華
敵		軍	
北傀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亨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 12 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제 81 연대	장 중좌 李 學 來
제 30 연대	장 대좌 崔 赫	제 82 연대	장 중좌 史 勢
제 31 연대	장 대좌 金 鐵	제 83 연대	장 중좌 吳 允 燮
제 32 연대	장 대좌 朴 英	포병연대	장 중좌 金 永 恒
포병연대			

### 나. 전투전의 개황

豊基—榮州의 10km 於間에서 10日間에 걸쳐 北傀 제 8 사단과 뒤이어 交替投入된 北傀 제 12 사단의 猪突的인 侵勢를 阻止擊滅한 我 제 8 사단은 7월 23일에 榮州에서 물러서서 제 21 연대가 赤東里 부근에 배

치하여 敵의 계속적인 侵襲에 對備하는 가운데, 豆田里 부근에서 敵主力의 重圍속에 陷入된 제10연대는 陸本作命 제64호로 醴泉에서 急進한 제18연대 제1대대의 掩護下에, 24일 未明에 離脫하기 시작하여 金光里에서 兵力을 收拾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國本 一般명령 제20호에 의거하여 사단으로 隸屬이 변경키로된 제2사단 제16연대가 安東을 거쳐 瓮泉으로 進出하여 사단에 編入되는 한편 陸本作命 제67호에 따라 사단은 7월 25일부터 제2군단으로부터 제1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이리하여 3개연대의 編制를 비로소 갖추기에 이른 사단은 安東으로 進出하는 수도사단과 더불어 榮州—豊基線으로 反擊을 敢行코자 그 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北傀 제12사단이 제5번 作戰道路를 따라 正面으로 侵攻을 開始하는 한편 醴泉으로 迂回한 北傀 제8사단이 이곳의 제18연대를 壓迫하면서 安東 西側背를, 威脅하고 東海岸의 北傀 제5사단의 一部가 眞寶—靑松부근으로 侵透한 北傀 제766부대와 合流하여 安東의 東側背를 포위코자 企圖하는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은 軍단계획으로 同月 28일에는 瓮泉에 사단 CP를 開設하고 제21연대를 右—線, 제16연대를 中央—線, 제10연대를 左—線으로 하여 △289—烽煙山—梧云里—江東里—不老峯—葛尾峯—石塔洞에 이르는 一帶에 陣地를 占領하고 제915번, 제5번 兩作戰道路를 制扼하면서 乃城川南岸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29일 未明에 恣行된 敵의 一齊공격으로 紛戰의 보람없이 防禦線이 무너져 同日 20.00무렵에는 사단 CP가 新基里로 轉進하는 한편 △293(安東 東北쪽 8km)—△282—△280—△319—連谷洞—△217—道溪村—△204—△384에 이르는 一帶에 새로운 陣地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狀況 ; 이 무렵 敵은 水安堡에 所謂 前線司令部를 設置하고 金日成이 直接 이곳에 나와 督戰에 나서고 있었는데 그 基本策略은 “安東—咸昌—永同線의 防禦集團을 擊滅하여 洛東江以北과 以西地域을 奪取하면서 洛東江을 急速渡河하여 次期侵攻에 有利한 條件을 形成한다”는 것으로서 그 侵攻에 있어서는 “道路를 沿한 正面공격을 止揚하고 대담하게 山間道路를 通하여 敵(我軍)의 後方으로 迂回하면서 포위섬멸 할 것이나 侵攻速度를 加一層 높혀 時間的 餘裕를 許容치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北傀 제2군단장 金武亭은 7월 26월일까지 安東을 奪取할 것을 北傀 제12사단에 거듭 督促하였으나 我 제8사단의 善防으로 豊基—榮州線에서 近 10日間이나 遲滯케 되자 焦燥한 나머지 東海岸으로 侵攻中인 北傀 제5사단의 一部兵力을 抽出하여 內陸으로 侵透中인 제766부대와 合流케 하는 즉시로 安東 東側背를 포위케 하고 醴泉으로 迂回한 北傀 제8사단의 侵攻을 督促하여 西側方을 포위케 함으로써 安東에 대한 三面合擊을 企圖하였다.

한편 23일에 榮州를 奪取한 北傀 제12사단은 我 제8사단과의 激戰으로 입은 戰力의 再整備가 不可避하고 侵攻을 위한 補給의 推進과 醴泉으로 迂回한 北傀 제8사단 및 東海岸에서 急進中인 一部兵力과의 協同을 위하여 一部의 先遣隊 및 유격대단을 推進하여 接觸을 試圖하더니 29일 未明에는 제915번 道路線과 乃城川線에서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安東을 直接的으로 威脅하는 敵은 北傀 제12사단과 제8사단의 一部로서 그 兵力은 16,000명으로 推定되고 主要장비로는 122mm 榴彈砲 22門을 비롯하여 120mm 迫擊砲 28門, 82mm 迫擊砲 145門, 76mm 直射砲 43門, 高射기관총 25정 등을 갖춘 것으로 推斷되었다.

또한 敵의 作戰企圖로 미루어 보아 그 戰術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으로 後方侵透를 強化하여 지휘소 및 관측소의 습격과 通信遮斷으로 後方攪亂이 예상되었다.

我軍의 狀況 ; 陸本作命 제67호에 의거하여 7월 25일 15.00에 安東農林學校에 CP를 開設한 제1군단(장, 金弘壹소장)은 安東으로 移動한 수도사단(장, 金錫源준장)과 제5번 作戰道路를 沿한 一帶를 따라 逐次 遲延戰을 展開中인 제8사단(장, 李正—대령)을 指揮하여 安東防禦에 나섰다.

이때 首都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중령)는 醴泉에 이르러 美 제25사단의 제24연대 제3대대의 作戰任務를 引受하여 그곳 防護에 나서고, 제17연대(장, 金熙濬대령)는 化寧場의 危機를 克服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大邱—安東을 거쳐 醴泉으로 進出하였으나 뒤이은 陸本作命으로 居昌附近의 權彬里로 急進하였으며,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는 安東으로 進出하였다가 제 8사단을 增援코자 29일 03.00에는 烏雲山으로 急進하였다.

그러나 이때 乃城川을 渡河하면서 恣行한 敵의 一齊공격으로 제 8사단이 同日 20.00무렵에 瓮泉 南쪽一帶에 새로운 防禦線을 編成하기에 이르자, 軍단계획에 의거한 사단명령으로 醴泉—安東에 이르는 제 34번 作戰道路를 遮斷코자 豊山쪽으로 急進中에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7월 29일 未明에 敵主力이 金光里—助梯里 一帶에서 乃城川을 一齊히 渡河하면서 鶴駕山(安東 西北쪽 15km)으로 先侵한 유격대가 西側背를 攪亂하는 가운데 공격을 恣行하여 乃城川邊의 我 防禦線을 突破하였으며 제 920번 作戰道路를 따라 急進한 北傀 제 8사단의 一部는 玉泉洞—新月洞에서 乃城川을 渡河하여 西側背를 威脅코자 하였다.

이에 사단장 李正—대령은 西側背에 對한 掩護를 建議하여 제 1연대로 하여금 豊山附近에서 제 34번 道路를 遮斷케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軍단 作命 제 26호를 下達하였다.

『① 當面の 北傀 제 12사단은 俗稱 鬚골—瓮泉—烏雲山線에서 正面으로 侵攻하는 한편 一部가 禮安쪽으로 迂回하여 東側方을 威脅할 것이다. 또한 醴泉쪽으로 迂回한 北傀 제 8사단 一部는 玉泉洞—新月洞에서 乃城川을 渡河하여 西側方을 威脅할 것으로 判斷한다.

② 수도사단 제 1연대는 豊山부근에서 軍단 西側背를 掩護할 것이다.

③ 사단은 此敵을 阻止 擊滅하여 安東을 防禦하려 한다.

④ 제 16연대는 右一線으로서 △293—△282—△280線을 확보하고 禮安—安東에 이르는 제 919번 作戰道路를 制扼하라.

⑤ 제 21연대는 中央一線으로서 △319—連谷洞—△217에 이르는 一帶를 확보하고 敵의 正面공격을 擊碎하라.

⑥ 제 10연대는 左一線으로서 道溪村—△204—△394를 확보하고 鶴駕山(△711)으로 潛侵한 유격대의 跳梁을 粉碎하면서 敵을 捕捉 殲滅하라.

⑦ 사단 公병대대는 俗稱 구정기부근의 高地를 확보하고 瓮泉에 이르는 道路과괴와 障礙物의 敷設로 敵의 기갑부대 侵攻에 對備하고 對戰車공격을 專擔하라.

⑧ 제 18포병대대는 제 50포병대대의 제 1중대를 統合지휘하여 軍단 火력계획에 의거 軍단을 一般支援하라.

⑨ 通信은 如何한 境遇에도 暗號를 使用하라.

⑩ 軍단 CP는 新基里에 位置한다.』

## (2) 작전 실시

7월 30일 : 이날 未明에 敵은 主力이 瓮泉으로 부터 제21연대 正面으로 攻勢를 集中하여 中央突破를 企圖하는 가운데 禮安쪽으로 迂回한 1개연대 규모는 右一線인 제16연대 正面으로 그리고 烏雲山을 거쳐 天登山(△575)에 이른 무리는 제10연대 正面과 西側背로 각각 공격을 開始하였다.

사단은 咆哮하는 砲兵의 熾烈한 掩護下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展開하였으나 安東을 一擊에 奪取코자 驕威를 떠는 敵勢에 밀려 10.00에는 사단 CP가 新基里로부터 俗稱 미두루(安東北쪽 3km)로 移動하고 각 연대는 逐次 撤收하기 시작하여 제16연대가 枝利山(△335) - △278에 제21연대가 俗稱 사야골-梧山洞-△187에 그리고 제10연대가 峯峴-二松川洞으로 각각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軍단에비인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醴泉에서 敵의 포위망속에 陷入된채 苦戰하고 제17연대는 居昌부근으로 急進中에 있었으며 제1연대만이 豊山부근에서 北傀 제8사단의 迂回에 對備하고 있었다.

또한 安東農林학교에서 제8, 수도兩사단을 지휘중이던 제1군단 사령부는 이날 21.00에 安東을 출발하여 子正무렵에 雲山里에 새로운 지휘소를 開設하였다.

## 1. 제16연대의 戰況

연대는 開戰當時에 제2사단 소속으로서 淸州에서 議政府方面으로 出動하였다가 甚大한 打撃을 받고 栗川-鎮川-文義-報恩-安東을 거쳐 瓮泉으로 進出하여 사단으로 그 隸屬이 변경되기에 이르렀는데 初戰의 打撃과 거듭된 後退移動으로 兵士들이 戰爭恐怖症에 사로잡힌데다가, 義城附近에서 사단 政訓부장 金亭胤대위가 急募하여 實彈사격 훈련만을 겨우 마친 1,200명의 新兵을 充員하여 3개대대의 建制만을 維持한 터라 그 士氣와 戰鬥力이 다른 연대와 比較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

이를 뒷 받침하듯 29일 未明에 恣行된 敵의 공격으로 近 30%에 이르는 兵力의 損失을 보았다.

이에 文容彩대령의 뒤를 이어 연대장으로 就任한 金東洙중령은 強硬한 統率方針을 내걸고 陣頭指揮에 나서 戰意昂揚과 士氣振作을 꾀하였다.

이리하여 一線陣地에 近接한 △278에 연대 OP를 設置하고 제1대대(장, 俞義濶중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293-△260-△240 一帶를, 제3대대(장, 崔敏燮대위)를 中央一線으로 하여 △282-俗稱 한골-一帶를, 그리고 제2대대(장, 金 憲중령)가 左一線으로서 △280 一帶를 각각 확보케 하고 陣地를 固守토록 嚴命하였다.

이때 彼我間에는 熾烈한 砲擊戰이 벌어질 뿐으로 敵影이 나타나지 않자 연대장은 연대에

蔓延한 戰爭恐怖症을 拂拭하고자 각 대대에서 1개 중대씩을 抽出하여 2~3km 東北쪽의 △245—△233—俗稱 엇골재로 推進시켜 威力搜索을 敢行케 하고 뒤이어 俗稱계살—俗稱물미—俗稱 우무살線으로 埋伏組를 推進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砲兵의 遮斷사격과 全 迫擊砲의 擾亂사격 그리고 照明彈의 遠거리 照明下에 경계를 強化하면서 戰鬪態勢를 갖추었다.

그런데 04.00무렵에 2개대대 규모의 무리가 제919번 作戰道路를 沿하여 中央突破를 企圖하는 가운데 1개대대 규모는 山間小路를 따라 龍頭골로 깊숙히 迂回하면서 東側背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대대장 俞義濬중령은 埋伏組의 撤收를 명령하는 즉시로 砲兵사격을 誘導케 하면서 全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集中케 하였다.

乃城川邊에서의 奇襲의 成就로 氣勝한 무리는 더욱 민첩한 行動으로 正面에 대한 壓力을 加重하고 東側方의 무리는 俗稱 모사골로 侵襲하여 右 제1선중대의 背面을 威脅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260—△240의 突出陣地를 占領한 제2, 제3兩중대를 逐次로 물러서게 하여 △293—俗稱 장수골에 이르는 線에 陣地를 急編케 하는 즉시로 이를 追尾하여 陣內로 侵襲하는 무리와 短兵血戰을 벌였다.

俗稱 장수골 一帶에서 敵主力의 侵勢를 맞은 제3대대는 무리의 急襲으로 陣地線이 突破되면서 瞬息間에 陣內戰이 벌어졌다. 實戰의 經驗이 없는 兵士들이 唐慌하여 陣地線에서 물러섬으로써 一角이 突破되었으나 대대장 崔敏燮대위가 陣頭에 나서 흩어진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逆襲을 敢行하여 白兵의 亂鬪끝에 敵을 驅逐하고 一旦 突破口를 封鎖하였다.

그러나 무리의 거듭된 集中攻勢로 08.00무렵에는 中央이 또다시 突破되고 뒤이어 波瀾처럼 밀어닥친 主力이 突破口를 擴大함으로써 대대는 △278로 撤收하였다.

이로 因해 左右隣接인 제1, 제2兩대대가 물러서기 시작하자 대대는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이를 掩護하였다.

이처럼 제3대대 正面에 對한 集中 공격으로 防禦線이 무너지자 연대장 金東洙중령은 砲兵의 掩護와 全 迫擊砲의 遮斷사격으로 무리의 계속적인 侵襲을 牽制하는 가운데 再編케 하고 △282로 逆襲코자 하였으나 이때 示達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제2대대가 殘置부대로서 △278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枝利山(△335)으로 轉進하여 12.00무렵에는 一帶에 새로운 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 2. 제21연대의 戰況

연대가 前날 烽巖山에서 물러설때 제1대대로 改編된 제25연대 제1대대(장, 林益淳소령)가 禮安으로 任意撤收하자. 그 부대대장 許順五대위는 사단장의 直接 명령으로 truck 20餘台를 引率하여 安東을 거쳐 禮安에 이르러 兵力을 輸送한바 있는데 대대장은 그 指揮責

任으로 停權處分을 받게되어 부대대장 許順五대위가 그 代理로 指揮에 나섰다.

如何間에 제 1대대의 復歸로 建制를 갖추기에 이르자,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제 3대대(장, 金道鎭소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319一帶를 제 2대대(장, 曹圭英소령)가 左一線으로 하여 連谷洞—△217 一帶를 각각 확보케 하고 제 1대대는 연대예비로서 △278(俗稱 아래마서)에 控置하였다.

그런데 03.30무렵부터 熾烈한 砲擊이 연대 全正面으로 集注하더니 04.00무렵에는 瓮泉에서 發進한 것으로 推定되는 2개대대 규모의 무리가 제 2대대 正面으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즉각 轉換된 砲兵掩護下에 81mm迫擊砲의 照明彈을 계속 發射하면서 敵影을 捕捉하는 즉시로 全火力을 集中하자 先頭의 무리는 瞬息間에 자취를 감추었으나 後續하는 主力은 奮戰의 銃부리에 밀린듯 그 熾烈한 十字砲火속을 뚫고 성난 波濤처럼 밀어 닥쳐 彼我間에는 手榴彈投擲에 이어 곳곳에서 肉迫戰이 벌어졌다.

이에 연대장은 中央突破의 危機를 맞은 것으로 判斷하고 예비대대의 出擊을 명령하자, 제 1대대는 許順五대위의 陣頭指揮下에 德巨里溪谷으로 急進하는 즉시로 連谷洞으로 突進하면서 陣內로 侵襲한 무리를 短兵血戰으로 擊滅하였다. 이때 제 2대대가 呼應하여 逆襲을 敢行하기에 이르니 敵은 陣前으로 潰散하게 되어 陣地를 回復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 1대대로 하여금 連谷洞一帶를 계속 확보케 하고 제 2대대는 △217로 正面을 壓縮케 하여 거듭되는 무리의 波狀攻勢를 계속 擊退하여 堅守不動의 態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08.00에 이르러 右隣接인 제 16연대 陣地線이 무너지면서 迂回한 1개 대대규모의 무리가 △319의 제 3대대의 東側方으로 殺到하자 대대는 연대장의 긴급명령으로 俗稱 텃골로 逐次 撤收하여 제 1대대와 連繫를 維持하고 東面陣地를 占領하여 四周防禦로 轉換하면서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무리의 侵勢가 漸次로 増援되자 防禦線을 再編키로 한 사단장의 명령으로 10.00 무렵에는 제 1대대가 계속 接觸을 維持하는 가운데 제 3, 제 2대대의 順으로 逐次로 물러서기 시작하여 正午에는 俗稱 사야골—梧山洞—△187線에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 3. 제10연대의 戰況

연대는 豆田里(榮州西南쪽 6km)에서 敵의 포위망을 헤치고 24일에 金光里에서 兵力을 收拾하여 再編하는 즉시로 左一線연대가 되어 葛尾峯一帶를 占領하고 乃城川을 건너 反擊戰을 敢行하여 金光里 北쪽의 △334를 奪取하는 勇戰을 서슴치않아 榮州부근에서의 苦戰을 雪掃키도 하였으나 29일 未明에 恣行된 무리의 集中공격으로 紛戰의 보람없이 20.00무렵에는 道溪村—△204—△384로 轉進한 바 있다.

이에 연대는 제 1대대(장, 朴致玉소령)를 △204一帶에 제 3대대(장, 金淳基대위)를 俗稱 개신—향골 一帶에 그리고 △384에 제 2대대(장, 鄭順基대위)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처럼 연대가 3개대대를 一線展開하여 扇形陣地를 占領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은 鶴駕山 安東 西北쪽 15km)으로 先侵하여 據點을 확보한 敵 유격대의 跳梁으로부터 西側背를 掩護하기 위한 措置였다.

그런데 04.00무렵에 瓮泉으로 推進한 것으로 推定되는 敵砲가 熾盛을 떨어 陣地線을 攪亂하는 가운데 天登山—道村洞으로 侵襲한 1개연대규모의 무리가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右一線인 제 1대대는 陣前의 開豁地로 殺到하는 무리를 捕捉하는 즉시로 砲兵掩護사격을 誘導하고 全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여 무리를 十字砲火속으로 몰아넣어 一舉에 擊退하였다.

그러나 開目寺쪽 稜線을 타고 달려드는 무리가 제 1, 제 3兩대대의 間隙을 뚫고 中央을 突破코자 企圖하자, 제 3대대의 예비로서 台庄洞쪽에 控置되었던 제 10중대(장, 河相卓중위)가 急進하면서 侵襲하는 무리를 遡擊하는 즉시로 逆襲을 敢行하여 突破口를 封鎖하고 제 1, 제 3兩대대와의 連繫를 維持하였다.

한편 鳳停寺쪽 稜線으로 한 무리가 달려 들었으나 즉각 불길을 터뜨린 제 3대대의 火力에 制壓되어 陣前에 抑留된채 射擊戰이 벌어졌다.

이때 鶴駕山에 據點을 둔 것으로 推定되는 敵 유격대의 한 무리가 △233로 侵透하여 제 2대대의 左 제 1선인 제 5중대(장, 金同晉중위)를 威脅하면서 信號彈을 계속 쏘아올려 後方을 攪亂하고 兵士들의 戰意를 阻喪케 하고자 跳梁하자, 중대장 金중위는 李洪眞중위가 지휘하는 特攻隊로 하여금 이 무리를 驅逐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즉각 躍進한 特攻소대는 Rocket砲와 기관총사격을 △233로 集注하는 즉시로 공격을 敢行하였다.

1개소대규모의 敵은 기관총과 多發銃사격을 퍼부으면서 執拗하게 抵抗하였으나 怒濤처럼 밀어 닦으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銃劍을 끈아린채 달려드는 特攻隊의 威勢에 壓到되어 四散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 날아온 一發의 多發銃彈이 李洪眞중위의 腹部를 貫通하여 後送되기에 이르자 선임하사관의 怒號아래 △233를 계속 확보하고 敵의 再侵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연대는 激戰을 치루면서 陣地線을 補完하고 계속적으로 달려드는 무리를 陣前에 抑留한채 強打하여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었으나 右隣接인 제 21연대의 撤收가 強要되어 물러서기에 이르자 緊急히 示達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제 1대대가 現位置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제 2, 제 3兩대대가 逐次로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二松川洞에서 兵力을 收拾한 연대는 正午무렵에 麥峴—△200—陵洞에 이르는

一帶에 安東防禦를 위한 最後阻止線을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 4. 사단 공병대대의 戰況

대대는 俗稱 구장기부근의 高地를 占領하고 麓泉에 이르는 제 5 번 作戰道路를 파괴하고 障礙物을 敷設한 다음 제 21 연대의 57mm 對戰車砲 4 門을 배속받아 敵의 기갑부대 侵襲에 對備하였다.

제 18 포병대대와 軍단포병의 集中砲擊으로 道路線이 遮斷된 탓인지 左右隣接으로 무리가 攻勢를 集中하면서도 道路線으로는 기갑부대는 勿論 보병도 侵襲치 않음으로써 比較的 小康상태를 維持하였다.

그런데 左右隣接연대가 撤收하기에 이르자 대대는 이를 掩護한 다음 逐次로 물러서면서 道路를 파괴하고 對戰車 障礙物을 敷設하였다.

그뒤에 대대는 麥峴부근에 一旦 集結하였으나 사단 명령으로 △258(安東 東北쪽 2km)로 移動하였는데 이때 제 2 중대가 대대 작전과장 徐正雨중위의 引率下에 安東으로 轉進하였다.

#### 5. 수도사단 제 1 연대의 狀況

報恩에서 化寧場을 거쳐 幽谷里로 進出하여 21일부터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을 增援한다음 28일에 安東으로 轉進한 제 1 연대(장, 尹春根중령)는 다음날 03.00에 烏雲山으로 進出하여, 乃城川邊을 防禦중인 제 8 사단의 西側背를 掩護하였다.

그러나 이때 恣行된 敵의 一齊공격으로 該사단의 防禦線이 무너져 轉進하기에 이르자 緊急히 示達된 軍단계획에 의거한 사단장의 명령으로 醴泉쪽으로 侵襲한 敵의 迂回에 대비하여 醴泉—安東間의 제 34 번 作戰道路를 遮斷코자 豊山쪽으로 急進하였다.

이무렵 醴泉에는 제 18 연대(장, 任忠植중령)가 防守中에 있었는데 我 제 8 사단正面에 대한 北傀 제 12 사단의 공격과 더불어 迂回한 北傀 제 8 사단의 壓迫이 加重하고 後續한 그 一部가 玉泉洞—新月洞부근에서 乃城川을 渡河하여 安東을 西側方에서 威脅코자 하는 徵候를 보이기에 이르자 緊急히 取하여진 軍단措置의 一環이었다.

이리하여 이날 未明에 上里洞(豊山 東北쪽 3km)으로 進出한 연대는 제 1 대대(장, 金煌稷소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228 一帶에, 제 2 대대(장, 柳桓博소령)가 左一線으로서 △267 一帶를 각각 확보하고 小河川을 沿한 水際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제 34 번 道路를 遮斷하였으며 제 3 대대(장, 趙成華소령)는 연대에비로서 沔洞一帶에 控置하였다.

그러나 제 18 연대의 勇戰으로 이날에는 이쪽으로까지 侵襲가 指向되지 못하여 小康상태를 維持하자 작전주임장교 宋星三대위의 強力한 建議로 제 3 대대의 1 개 중대를 威力수색대로 抽出하여 竹田洞부근으로 推進하였으나 別다른 接敵없이 復歸하였다.



7월 31일 : 이날 06.00무렵에 T-34戰車 4 썰을 先頭로 한 增強된 1개연대규모의 敵이 中央一線인 제21연대正面으로 攻勢를 集中하여 陣地線을 突破하자 연대는 玉達峯(△264)에서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UN空軍機의 熾烈한 近接支援下에 逆襲을 敢行하여 10.00에는 陣地線을 回復하였다.

한편 軍단장金 弘壹소장은 醴泉의 제18연대를 抽出하여 安東 東側方防護에 轉用코자 朴 蒼岩중위가 지휘하는 軍단 直轄 偵察隊를 醴泉쪽으로 急進시켜 敵의 포위망을 擊碎하여 연대의 撤收를 掩護케 하고 豊山附近에서 遮斷陣地를 占領中인 수도사단 제1연대로 하여금 安東外廓으로 轉進시켜 安東防禦를 強化하면서 제8사단을 支援케 하였다.

그러나 이때 軍에서는 地域的으로 보아 제2군단과의 有機的인 作戰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하고 陸本作命 제89호를 下達하여 이날 09.00附로 제18연대를 제2군단에 배속하였다.

그런데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晉州正面에서의 危機에 이어 尙州一金泉正面에서도 敵勢가 漸高하기에 이르자 美 제1기갑사단이 金泉正面에서, 美 제24사단이 晉州正面에서 각각 遲延戰을 展開하는 가운데 美 제25사단을 尙州로부터 晉州正面으로 增援케 하고 韓國軍 제1, 제2兩군단은 8.1 未明까지 洛東江을 渡河하여 橋頭堡를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 1. 제8사단正面의 戰況

前날 正午무렵에 俗稱 사야골—梧山洞—△187 線으로 물러선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는 軍단 中央一線으로서 제1, 제3兩대대를 左右一線으로 展開하고 제2대대(장, 曹圭英소령)를 연대에비로 하여 △187 東南쪽稜線에 控置하였다.

陣地線의 整備와 더불어 飛來한 美 空軍機의 近接支援으로 敵은 萎靡沈默하였으나 어둠이 깃들면서부터는 砲撃을 퍼부어 陣地線을 攪亂하더니 06.00무렵에는 T-34戰車 4 썰을 앞세운 1개연대규모의 敵이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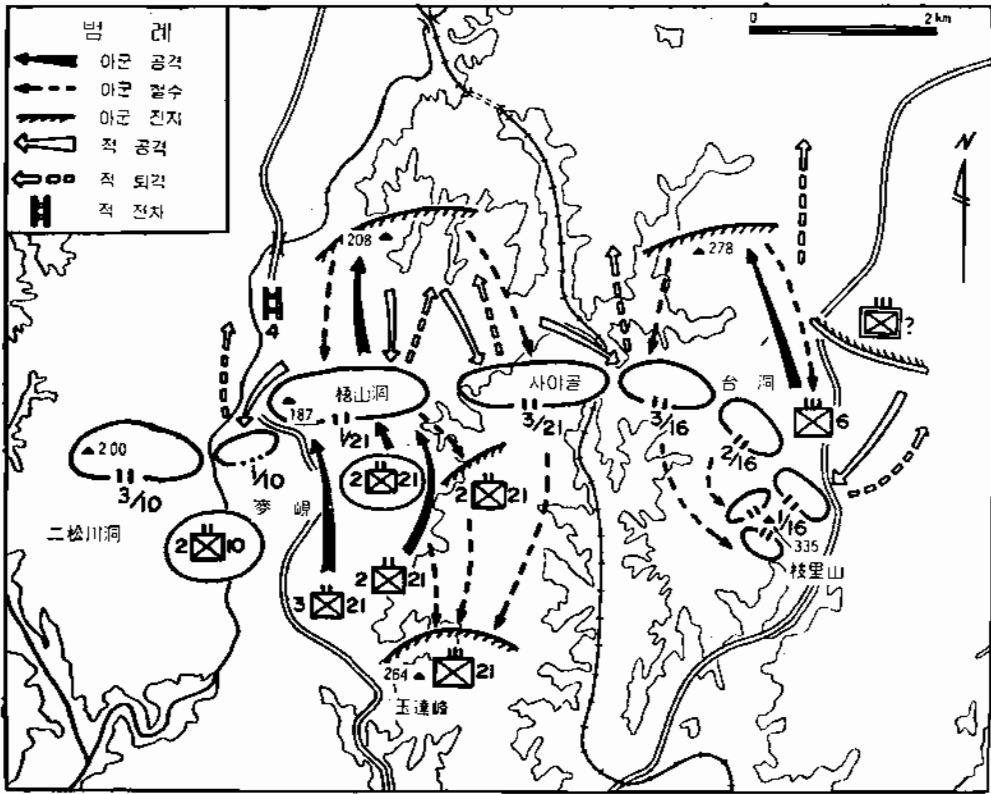
연대는 즉각 轉換된 砲兵의 支援射擊이 溪谷과 稜線 그리고 道路線을 火焰으로 뒤덮는 가운데 全 火力을 集中하여 濃密한 火網을 퍼 敵을 阻止코자 紛戰하였으나 俗稱 모시밭附近의 江邊까지 侵透한 戰車砲가 △187로 사격을 集中하여 驕威를 떨면서 무리는 梧山洞—△187正面으로 侵勢를 集中하였다.

△187의 제1대대는 大대장 代理 許順五대위의 怒號下에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였으나 漸次로 더 熾盛을 띠는 戰車砲에 壓倒되어 反斜面으로 轉進하여 砲兵의 對戰車사격을 絶叫하였다.

이 틈을 타 殺到한 무리가 後斜面까지 侵襲하자 大대는 敢然히 달려 나가면서 短兵血戰을 서슴치 않았으나 以衆擊寡로 밀리게 되었으므로 연대장은 예비인 제2대대의 出擊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突進한 제2대대는 제1대대를 超越하는 즉시로 무리속으로 달려들어 血雨霏

◇ 상황도 제64호 7월 31일의 戰況



靠한 肉迫의 血戰을 벌였다.

그러나 漸次로 増援되는 敵勢로 포위망속에 陷入될 危機를 맞자 사단장의 긴급 指示를 받은 연대장은 즉각 離脫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제 1대대의 掩護下에 제 2대대가 포위망을 헤치고 △269를 확보하여 우리의 追擊을 阻止하는 가운데 제 1, 제 3兩대대가 逐次로 撤收하여 09.00무렵에는 玉達峯 (△264)에서 兵力을 收拾하였다.

한편 梧山洞—△187一帶를 席捲한 敵은 그 一部가 戰車砲의 支援下에 제 10연대 正面으로 侵勢를 指向하고 새로운 1개연대규모는 右一線인 제 16연대 正面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緊急要請으로 飛來한 美 空軍의 F-80戰爆機 2개편대가 驕威를 떠는 T-34戰車を 強打하는 一方 露出된 우리를 強襲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제 21연대장 金容培중령은 제 2, 제 3兩대대에 逆襲을 敢行하여 梧山洞—△187線의 陣地를 回復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先攻대대로 나선 제 2대대는 △296로 急進하는 즉시로 제 7중대(장, 金漢龍중위)를 先鋒으로 삼아 梧山洞高地로 突進하여 空中 공격으로 潰滅상태에 빠진 敵을 右往左往하

는 무리를 擊碎하기에 이르니 무리는 더 支撐하지 못하고 望風敗走하였다.

이에 士氣가 衡天한 대대는 餘勢를 몰아 後續한 제 3대대와 더불어 反擊戰에 나서 2km 北쪽의 △208로 進擊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다.

그러나 이때 陣地線을 整濟하고 새로운 敵의 攻勢에 對備키로한 연대장의 긴급명령으로 梧山洞一帶로 復歸하여 제 2대대를 右一線 제 3대대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 1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사야골—梧山洞—△187線에 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右一線인 제 16령대(장, 金東洙중령)는 제 21연대가 敵의 步戰砲 協同공격으로 물려서자 緊急히 示達된 사단장의 명령으로 現陣地線을 固守키로 하고 正面을 遞縮하여 枝利山(△335)을 中心으로 한 據點防禦에 突入하였는데 이때 △293—△278線에서 1개연대규모의 敵이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즉각 誘導된 砲兵掩護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十字砲火속으로 몰아넣고 強襲하였으나 그 불길울 헤친 무리가 계속 陣前으로 殺到함으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 出擊한 空軍機의 空中공격으로 敵이 四散하기에 이르자 勝戰의 自信感을 兵士들에게 심어주기로 決心한 연대장 金東洙중령은 각 대대의 主力으로서 즉각 反擊戰을 展開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對空布板을 先頭로 한 연대主力은 제 21연대가 陣地線을 回復하였을 무렵에는 潰走하는 무리를 猛擊하여 △239—△278線을 奪取하였으나 제 21연대 主力의 隨意撤收와 더불어 물려서 原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

이 一戰으로 비로서 兵士들은 敵도 別것 아니다 라는 自信感을 갖기에 이르렀으니 보람있는 戰鬪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左一線인 제 10연대(장, 高根弘중령) 正面에서는 梧山洞一帶의 席捲과 더불어 指向된 戰車砲의 支援下에 1개대대규모의 무리가 麥峴一帶의 제 1대대 正面으로 공격을 開始하였다.

그러나 陣頭에서 阿修羅처럼 怒號하는 대대장 朴致玉소령의 陣頭指揮下에 衆心一致로 굳게 鏖戰 兵士들의 勇戰으로 敵의 거센 攻勢도 한갓 防波堤에 부딪치는 一洙의 水泡처럼 散散조각조각으로 부서졌는데 이때 飛來한 F-81戰爆機의 對地공격으로 一時에 陣前에서 潰散하고 말았으니 實로 壯快한 一戰이었다.

## 2. 수도사단의 戰況

사단장 金錫源준장은 安東防禦를 強化키로 한 軍단계획에 따라 副사단장 金應祚중령이 直接 지휘하는 混成 1개중대를 豊山으로 推進하여 敵의 側方 侵襲에 對備케 하고 이곳에서 遮斷任務를 遂行중이던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를 安東 外廓防禦에 轉用케 하였다.

즉 부사단장이 지휘하는 1개중대가 10.00에 豊山으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제 1연대는 즉

가 轉進하여 安東을 거쳐 15.00무렵에는 安東北쪽 2km線인 △253—鷲下洞에 이르는 一帯에 3개대대를 一線展開하여 安東 外廓防禦와 더불어 제 8사단에 대한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사단은 隸下 제 17연대가 前날에 居昌부근의 權彬里로 進出한데 이어 이날 陸本作命 제 89호에 따라 醴泉을 防禦中인 제 18연대(장, 任忠植중령)가 제 2군단에 배속케 됨으로써 麾下에는 제 1연대만이 殘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무렵 豊山으로 進出한 混成중대는 豊山 경찰支署에 殘留中인 경찰관 15명을 統合指揮하여 제 1연대가 확보하였던 上里洞一帶의 高地에 陣地를 編成하였는데 19.30무렵 1개대대규모의 敵이 別다른 警戒태세도 갖추지 않은채 密集隊形으로 接近하자 至近距離로 誘引하여 同伴한 57mm 對戰砲와 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사격을 一齊히 퍼부어 一擊에 擊退하였다. 이때 魂飛魄散한 敵은 제때로운 抵抗도 하지못하고 敵屍 40具를 遺棄한채 潰散하자 砲擊을 逐次 延伸하면서 계속 強打하였다.

비록 1개중대에 지나지 않는, 그것도 混成중대였지만 부사단장이 直接 지휘에 나서고 初戰에서 勝戰鼓를 드높이 울리자 兵士들의 士氣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는데 이때 金德俊 소령이 부사단장을 補佐하고 있었다.

### 3. 安東撤收 명령의 下達

美 제 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尙州正面의 美 제 25사단을 西部戰線으로 轉用하여 晉州正面에 對한 危機에 對處하는 一方 韓國軍으로 하여금 洛東江 橋頭堡를 構築키로 決心하고 제 1, 제 2兩군단의 撤收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作戰명령은 이날 19.00에 丹村에 位置한 제 1군단 사령부로 飛來한 連絡機에 依하여 傳達되었다.

그러나 이 명령문이 英文이고 透明圖가 사단에서는 使用치 않는 縮尺의 地圖여서 軍단에서는 金鍾甲대령이 그 翻譯과 五萬分之一地圖로의 轉記에 着手하고 참모장 崔德新대령은 즉각 隸下 수도, 제 8兩사단의 참모장을 召集하였다.

이리하여 20.00무렵에는 崔德新대령을 비롯하여 수도사단 참모장 崔慶錄대령, 제 8사단 참모장 崔甲中중령 그리고 軍단 작전참모 金鍾甲대령과 軍단 高문관 등이 合席하여 作戰會議를 開催하였다.

이자리에서 수도 제 8兩사단의 참모장들은 現在의 戰況이 緊急 撤收를 斷行하여야 할 만큼 危急한가?

制空權을 我軍이 完全히 掌握한 現狀況下에서 夜間撤收를 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가?

撤收路가 安東 人道橋로 制限되어 있으니 어떻게 混亂을 防止할 것인가?

首都사단이 먼저 撤收할 것인가? 제 8사단이 먼저 撤收할 것인가?

어떻게 企圖를 秘匿하고 接敵線을 離脫할 것인가? 등의 問題點을 提起하여 論難을 거듭

하였으나 相互間에 滿足할만한 結論을 얻지 못하자 뒤늦게 參席한 軍단장 金弘壹소장의 斷案으로 要旨 다음과 같은 軍단作命 제40호가 下達되었으며 이를 受領하고 兩참모장이 軍단 사령부를 떠난 것은 8월 1일 02.00무렵이었다.

『① 軍단은 洛東江南岸으로 移動하여 敵을 阻止擊滅하려 한다.

② 제 8 사단은 8.1 02.00를 期하여 수도사단 제 1 연대의 掩護下에 現 接敵線을 離脫, 同日 04.00까지 安東橋를 通過完了하라.

但 CP를 雲山里에 開設하고 主力은 一帶를 확보하여 수도사단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敵侵에 對備하고 1개연대는 軍단에비로 抽出하라.

③ 수도사단은 제 1 연대로 하여금 現陣地를 收容陣地로 하여 제 8 사단을 收容하는 즉시로 移動開始하여 洛東江을 渡河, 三巨里에 CP를 開設하고 安東-靑松街道를 확보하여 敵侵을 阻止하라.

但 新豐부근에 集結中인 제18연대를 즉각 三巨里로 移動시켜 洛東江 南岸을 확보케하라.

④ 軍단砲兵은 院里洞부근에서 제 8 사단을 直接支援하라.

⑤ 공병단은 障礙物 제18(人道橋), 제19(鐵橋) 폭과준비를 完了하고 次後명령을 待期하라.

⑥ 此命令 施行中의 有無線 通信을 嚴禁한다.

⑦ 軍단 CP는 丹村에 位置하나 8.1 12.00以後 義城에 開設한다.』

그런데 이 撤收命令의 下達過程에 對하여 證言이 區區한데 여기서 그것을 간추려 보면 軍단장 金弘壹소장은 『美 제 8 군에서 輕비행기로 直接 下達된 것이 아니고 大邱에 있는 陸本을 거쳐 7월 31일에 下達된 것으로 記憶한다. 撤收順位에 對하여서는 首都사단 掩護下에 제 8 사단이 撤收하라고 내가 명령 하았는데 兩사단의 참모장이 이 問題로 다투었는지는 모르겠다.』고 述懷하였다.

또 軍단 참모장 崔德新대령은 『安東撤收의 어려움은 美軍側의 作戰指示의 잘못으로 惹起되었던 것이다. 즉 7월 31일 19.00무렵에 美軍의 偵察機 한대가 軍단 사령부로 飛來하여 通信筒을 落下하였다. 펴보니까 英文으로 된 作命인데 8월 1일 未明까지 安東附近의 제 8, 수도兩사단을 洛東江以南으로 後退시키라는 것이었다. 後退地點과 新陣地 地域은 美軍이 쓰는 地圖로 表示되어 있어서 英文을 번역하고 縮尺을 새로 재서 五萬分之一地圖에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消費하였다. 이때 나는 수도 제 8兩사단의 참모장을 긴급히 소집하고 軍단 作命을 下達하였는데 이들이 출발한 시간이 23.00무렵이었으니까 正午무렵까지는 각 사단 CP에 到着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 施行完了까지는 不過 4時間밖에는 남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接敵中인 제 8 사단의 경우에는 作命履行이 거의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問題의 美 제 8 군의 撤收명령은 戰術教範上의 戰術을 現地狀況을 全려 考慮하지 않은채

適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敵前 夜間後退란 我軍이 制空權을 掌握하지 못하였을때만 斷行하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制空權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을때인데다가 前線의 狀況이 구태어 서둘러서 後退할 必要가 없었을 때였다.

또 軍단作命에 “수도사단은 掩護사단으로” 제 8 사단은 先發사단으로”라는 任務를 주었는데 이것이 結果的으로 雪上 加霜의 混亂을 惹起하였다.

각사단은 自己 隸下부대로 掩護하면서 撤收하라고 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단장의 後退명령이 1일 날이 쉼 무렵에야 대대장급에게 傳達되고 중, 소대장급에게는 제대로 傳達되지 못한곳이 많았다.』라고 證言하였다.

한편 제 8 사단 참모장 崔甲中중령은 『軍단에서의 참모장회의는 23.00에 시작되었는데, 夜間撤收의 問題點을 이것 저것 討議하고 더욱이 수도사단의 崔慶錄대령과 撤收順位문제로 육신 각신 하느라고 1일 02.00까지 회의를 계속 하였으나 結論을 내리지 못하자 軍단장이 斷案을 내려 決定하게 되었는데 내가 作命을 受領하고 사단에 到着하였을때는 03.00무렵이었다.』고 述懷하였다.

8월 1일 : 이날 晉州가 失陷되기에 이르자 美 제 8 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尙州의 美 제 25사단(-)을 三浪津으로 急進시켜 集結토록 하는 한편 美 제 1기갑사단은 金泉을 계속 固守토록 하였다.

이때 晉州에서 물러선 美 제 24사단 제 19연대와 美 제 25사단 제 27연대 그리고 閔부대는 群北一嶺東線에 阻止線을 확보하고 馬山防禦에 나서고 있었으며 제 2 軍단은 前날에 이미 洛東江渡河를 斷行하여 軍威에 軍단 사령부를 開設하고 그 隸下의 제 1, 제 6 兩사단은 深川里一龍基里에 각각 集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1 軍단은 이날 02.00무렵에야 각 사단참모장에게 撤收명령이 傳達됨으로써 04.00무렵부터 接敵線을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 1. 제 8 사단의 撤收

사단 참모장 崔甲中중령이 軍단 作命 제 40호를 携帶하고 사단 CP에 當到한 것은 03.00무렵이었다.

이에 사단장 李正一대령은 接敵이 輕微한 제 10, 제 21연대 順으로 撤收를 斷行하고 제 16연대는 主力의 撤收間 계속 接敵을 維持하다가 수도사단 제 1연대의 掩護下에 後衛로서 撤收케 하기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 27호를 下達하였는데 軍단 作命上의 施行完了시간의 履行이 不可能하여 06.00까지로 位意延長하였다.

『① 사단은 軍단 作命 제 40호에 의거하여 洛東江南岸에서 敵을 阻止, 擊滅하려 한다.

② 수도사단 제 1연대는 現陣地線에서 사단의 撤收를 掩護할 것이다.

③ 제10연대는 명령 受領즉시 陣地線을 離脫하여 제 5 번 作戰道路를 따라 06.00까지 安東 人道橋를 通過完了하라.

④ 제21연대는 제10연대를 後續하라.

⑤ 제16연대는 主力의 撤收間 接敵을 維持하다가 수도사단 제 1 연대의 掩護下에 제919번 作戰道路를 따라 撤收하라.

撤收後 新基洞에 集結하여 사단예비가 된다.

⑥ 제18포병대대는 중대간에 逐次撤收하면서 步兵부대의 撤收를 掩護하라.

⑦ 사단 공병대대는 군단 공병단과 緊急한 協調를 維持하여 人道橋 및 鐵橋복과준비에 萬全을 期하라.

⑧ 명령施行間의 有無線通信을 一切 嚴禁한다.

⑨ 撤收間 사단장은 人道橋 南쪽에 位置하여 10.00以後에는 雲山里에 CP를 開設한다.』 이 命令은 제10연대의 작전주임 殷炯元소령과 제21연대의 작전주임 金哲壽대위가 각각 受領하고 즉각 출발하였으나 제16연대는 通信의 不通으로 작전주임 李相煥중위가 미처 到着치 않아서 사단連絡장교인 朴勝瑠소위가 이를 携帶하고 제16연대로 출발하였다.

제10연대의 撤收 : 연대는 30일 正午무렵에 道溪村—俗稱 개실—△384線에서 撤收한 以來로 麥峴—二松川洞에 이르는 一帶에 제3, 제 1 兩대대를 左右 一線으로 하여 陣地線을 확보하고 前날에는 敵의 步戰砲 協同공격을 擊退하여 堅守不動의 태세를 계속 갖추었는데 04.00가 조금 지났을 무렵, 작전주임 殷炯元소령便에 下達된 撤收명령에 接하게 되었다.

이무렵 밤새도록 계속된 敵의 擾亂사격이 陣地線을 攪亂하였으나 敵의 侵攻은 받지 않아 小康상태를 維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장은 연대예비인 제 2 대대(장, 鄭順基대위)의 掩護下에 제 5 번 作戰道路에 隣接한 제 1 대대를 先發대대로 하고 제3, 제 2 대대順으로 撤收케 하기로 決心하고 뜻을 다음과 같은 緊急명령을 각대대 連絡장교便에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作命 제27호에 의거하여 安東 人道橋南岸으로 8.1.06.00까지 移動完了하려 한다.

② 제 1 대대는 명령受領즉시 現陣地線을 離脫하여 제 5 번 作戰道路를 利用하여 安東 人道橋를 通過하라.

③ 제 3 대대는 제 1 대대와 協助를 維持하여 後續하라.

④ 제 2 대대는 現陣地에서 主力의 離脫을 掩護다가 제 3 대대를 後續하라.

⑤ 연대 集結地는 俗稱 먼다리部落이다.

⑥ 離脫 및 移動間의 有無線通信을 嚴禁한다.

⑦ 연대 CP는 8.1 05.30以後 安東 人道橋南쪽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04.50무렵부터 麥峴一帶의 陣地線을 離脫하기 시작한 제 1 대대(장, 朴致玉소령)는 제 5 번 作戰道路를 따라 安東市內를 目標로急進하였는데 05.30무렵 그 先頭가 俗稱

메라골 부근에 이르렀을때 數不詳의 유격대로 推定되는 敵이 多發銃사격을 加하자 제 2중대(장, 李慶鎔중위)는 즉각 散開하고 集中사격을 加하여 이를 一擊에 擊退하였다.

이로부터는 敵의 別다른 抵抗을 받지 않은 대대는 安東市內로 突入하였는데 이때 곳곳의 建物壁面에는 “金錫源將軍 萬歲” “더 以上 後退는 없다. 安東을 死守한다”는 壁報가 붙여 있어서 後退하는 발거름을 무겁게 하였다.

이리하여 左一線인 제 3대대가 後續하고 主力의 離脫을 掩護한 제 2대대가 이를 뒤따라 人道橋를 通過完了하였을때는 06.40무렵이었다.

새로운 陣地編成에 앞서 全 연대장교는 俗稱 먼다리부근의 開豁地에 集結하고 연대장 高根弘중령이 막 訓示를 시작할 무렵에 天地를 震動하는 轟音과 함께 安東 人道橋의 一部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爆發하였다.

이때 人道橋 北岸의 稜線一帶를 占據한 敵이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人道橋쪽으로 밀려들던 兵士들이 堤防쪽으로 흩어지면서 阿鼻叫喚의 修羅場을 이루었다.

이에 연대는 즉각 제 1대대가 △159로 제 2대대가 俗稱 먼다리一帶에 그리고 제 3대대가 俗稱 무주무一帶에 展開하고 後續부대의 渡河掩護에 나섰다.

**제21연대의 撤收** : 연대는 제 2대대(장, 曹圭英소령)를 右一線, 제 3대대(장, 金道鎭소령)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 1대대(장, 代理 許順五대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俗稱 사야골一梧山洞一△187線을 확보하였는데 04.00가 조금 지났을 무렵 연대작전주임 金哲壽대위가 사단 作命 제27호를 携帶하고 연대 CP에 當到하였다.

이때 右隣接인 제16연대正面에 대한 공격에 이어 右一線인 제 2대대가 확보한 俗稱 사야골正面으로 1개대대규모의 敵이 공격중임이 接報되었다.

이에 연대장 金容培중령은 제 2대대가 接敵을 維持하는 가운데 △187의 제 1대대가 先發 연대인 제10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며 中央一線인 제 3대대는 즉각 陣地線을 離脫하기 시작하여 先發대대로서 제10연대를 後續하면서 제1, 제 2대대順으로 逐次撤收를 斷行기로 하고 각 대대連絡장교便에 撤收命令을 下達하였다.

이에따라 제 3대대(장, 金道鎭소령)는 05.00무렵에는 梧山洞一帶의 陣地線을 離脫하기 시작하여 제10연대의 後衛인 제 2대대를 뒤따랐고 이를 掩護한 제 1대대도 이를 後續하여 安東을 目標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過程에서 제 3대대의 右側 1선인 제10중대(장, 黃基相중위)는 敵의 공격을 받고 熾烈한 交戰을 벌이고 있을때 連絡兵을 通하여 撤收명령이 口頭로 傳達되자 『이놈아 지금 交戰中이고 右隣接인 제 2대대가 陣地를 확보한채 熾烈한 戰鬪中인데 무슨 소리냐? 당장 대대로 가서 다시 확인하라』고 돌려 보내고 陣地線을 계속 확보하였다.

黃基相중위는 開戰前날에 外泊하였다가 非常召集에 應召치 못하여 初戰에 參加치 못한 罪責感으로 언제나 率先하여 어려운 일을 도맡고 戰鬪時에는 勇戰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때



도 사단의 安東撤收를 알길 없는 그는 陣地線을 堅守한채 交戰中인 中대의 撤收명령이란 있을 수 없다는 自己 나름대로의 判斷으로 계속 陣地를 확보하면서 連絡兵의 復歸만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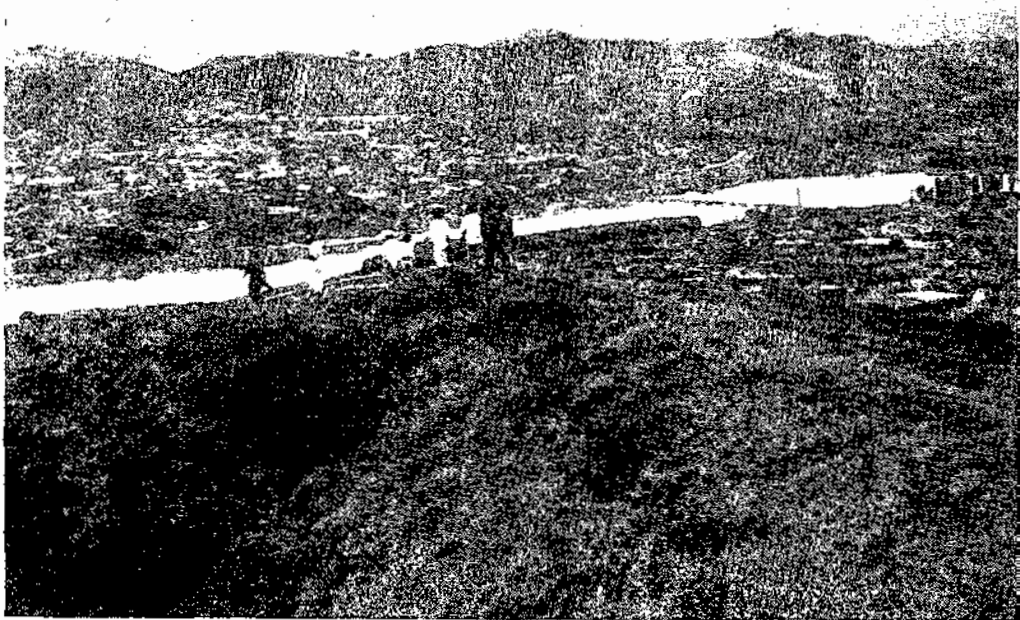
그러나 右隣接인 제 2대대마저 接敵을 維持하면서 逐次的으로 離脫하기 시작하도록 대대로 다시 간 連絡兵이 돌아오지 않자 黃중위는 中대의 撤收를 명령한 다음 自身은 그자리에서 拳銃을 뽑아들고 自決하고 말았다.

中대의 撤收명령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채 獨斷으로 中대를 離脫케 한 責任을 스스로가 졌던 것이다.

如何間에 제 10중대의 계속적인 紛戰으로 제 2대대마저 陣地線離脫을 完了한 연대는 제 3대대(一)가 先頭가 되어 安東市內에 突入하였을 때는 이미 一部の 敵이 侵入하여 이곳 저곳에서 사격을 퍼부어 撤收를 妨害하고 人道橋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北岸一帶의 丘陵을 占據한 무리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기 시작하였으나 제 3대대(一)와 이를 後續한 제 1대대의 一部는 人道橋의 通過를 強行하였다.

그러나 제 1대대의 主力인 제 2, 제 3兩중대가 미처 江岸에 當到하기 前에 人道橋는 爆破되고 말았다.

이와 同時에 當到한 제 2, 제 3兩중대와 제 2대대는 이때까지도 爆破되지 않은 鐵橋를 利



<安東 遠景>

用하여 通過코자 달려갔으나, 漸次로 增強된 敵의 기관총사격이 濃密한 火網을 펴 鐵橋의 沈木을 통한 渡河마저도 不可能하여지자 兵士들은 堤防쪽으로 밀려 한동안 右往左往하다가 무거운 裝備는 모래속에 묻어 버리고 불속으로 뛰어들어 渡河를 強行하기 시작하였다.

流水部位 400m의 洛東江은 매마침 계속된 비로 水位가 불어 北岸쪽은 急流를 이루었는데 河床마저 고르지 못하여 깊은 곳은 2m의 水位를 이루고 낮은 곳도 1m50cm~60cm에서 迅速한 渡河도 어려웠으며, 敵은 거의 照準사격을 퍼부어 死傷者와 溺死者가 續出하였다. 제2, 제3兩중대의 경우 近 50%에 이르는 兵力의 損失을 보고 무주무쪽으로 上陸하였는데, 마침 이곳에서 待機中인 車輛便으로 연대集結地인 武陵洞으로 向하였다.

한편 제8중대(장, 金光哲중위)를 先頭로 하여 제1대대主力을 後續한 제2대대(장, 曺圭英소령)는 제8중대의 一部兵力이 鐵橋를 通하여 渡河를 強行하다가 敵의 火網에 휩싸여 渡河가 挫折되자 堤防을 따라 下流쪽으로 흩어져 무거운 장비를 모래밭에 묻는 즉시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때 뒤따라 到着한 수도사단 제1연대의 兵力마저 混合되어 마치 海水浴場의 人波를 彷彿케 하면서 阿鼻叫喚의 修羅場을 이루었다.

이때 제8중대장 金光哲중위와 中榮徹중위는 溺死 直前의 많은 將兵을 救出하면서 渡河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渡河를 強行하여 武陵洞에 集結한 연대는 제3대대(장, 金道鎭소령)와 제1대대(-2)를 △227(亭上洞)―水上洞―△271(水下洞 南쪽 1km)―一帶에 陣地를 占領하고 主力은 부근 국민학교에서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제16연대의 撤收: 연대는 前날에 反擊을 敢行하여 △278부근까지 進擊하였다가 사단계획에 따라 枝利山(△375) 부근 陣地로 轉進하여 제1, 제2, 제3대대를 一線併列하고 △375―台洞쪽 稜線에 이르는 一帶에 陣地線을 확보하였다.

前날에 空軍의 近接支援과 逆襲으로 큰 打擊을 받은 敵은 공격을 敢히 再起치 못한채 砲擊만을 發惡으로 퍼부어 陣地線을 攪亂하고 있었는데 이날 04.00무렵부터 1개대대규모가 俗稱 사야골一帶의 제21연대 제1대대正面으로 牽制공격하여 連繫를 遮斷하는 가운데 1개연대규모의 무리는 枝利山正面으로 衝勢를 集中하고 一部는 東側方으로 迂回하면서 後方으로 侵透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즉각 砲門을 연 砲兵掩護下에 迫擊砲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여 濃密한 火網을 펴고 敵을 強打하였으나 무리는 이 十字砲火속을 뚫고 계속 殺到함으로써 곳곳에서는 陣內戰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까지도 사단의 安東撤收계획을 모르는 연대장은 陣頭에서 拳銃을 뽑아든채 陣地線의 固守를 大號하였다.

果然 前날의 勝戰경험으로 戰意를 드높인 兵士들은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여 陣地線을 固守하였는데 이때 南쪽의 제1연대陣地線에서 熾烈한 交戰聲에 이어 東側背와 即後方 곳곳에서 信號彈이 계속 發射되면서 多發銃聲이 울려 퍼지자 兵士들은 敵의 포위망속에

陷入된 것으로 알고 動搖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 소대장들은 怒號하는 연대장의 督勵에 따라 敢然히 陣頭로 달려 나가면서 勇戰을 서슴치 않았으나 이때 제 1 연대 陣地線의 銃聲이 잦아들면서 蘇製의 AK소총소리만이 들려오고 西側方의 제 21 연대의 右一線대대 正面을 突破한 것으로 推定되는 1 개대대 규모의 무리마저 溪谷을 橫斷하면서 左一線인 제 3 대대(장, 崔敏燮대위) 西側背로 밀려들자 대대는 緊急히 下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中央一線인 제 2 대대와 더불어 枝利山 西쪽 後線으로 正面을 遮縮하고 據點防禦에 突入하였다.

이때 사단 연락장교 朴勝瑠소위가 敵의 포위망을 헤치고 사로잡힐 危機를 몇차례나 넘기면서 연대 OP에 當到하였다.

비로소 사단의 撤收명령을 受領하기에 이른 연대장 金東洙중령은 제 2 대대를 殘置부대로 하여 제 1, 제 3 대대順으로 接敵線을 離脫토록 명령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07.00를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敵의 強壓으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벌이고 있던 각 대대는 撤收명령을 받고 제 1 대대가 先發대대로서 물러서기 시작하자 제 2, 제 3 兩대대도 連鎖的으로 앞을 다루어 撤收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미 각 중, 소대는 統制權을 벗어난채 四散하기 시작 하였고 南쪽으로 侵透한 敵이 多發銃사격을 集中하자 심지어는 北쪽으로 北上하면서 退路를 찾는 一部 兵力마저 있었다.

또한 掩護任務를 담당한 제 1 연대가 迂回한 敵의 急襲으로 陣地線이 무너지자 後退함으로써 敵이 이미 奪取한 봉우리 사이를 누비고 앞을 가로막는 敵線을 突破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四散한 兵士들은 여기 저기서 쓰러지고 무리의 포위망을 헤치지 못하여 사로 잡히는 등 그 慘相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었다.

뒷날 밝혀진 事實이기는 하지만 이때 敵에 사로 잡힌 將兵이 無慮 300名을 헤아렸으니 이 撤收過程의 亂脈相과 어려움은 미루어 推測키 어렵지 않을 것이다.

分散된 兵力이 洛東江邊에 到着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安東橋가 爆破되고 계속 侵襲한 무리가 江邊一帶의 高地를 占據한채 사격을 集中함으로 兵力을 收拾할 사이도 없이 急流에 뛰어들어 渡河를 強行하였다.

이리하여 南岸에서 兵力을 收拾하였을 때는 그 數가 不過 260名에 지나지 않는 悽慘한 상태였으나 四散한 兵力이 계속 當到함으로써 연대는 사단에 비로서 新基洞에 集結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연대는 이 撤收戰에서 장교 21명, 兵士 814명이 戰死 또는 失蹤하는 損失을 입었다.

## 2. 수도사단의 撤收

사단은 제 17 연대가 居昌附近의 權彬里로 移動하여 美 제 24 사단과의 協同으로 西部戰線을

담당하고 제18연대가 醴泉正面을 防禦하다가 陸本作命 제89호로 前날에 제2군단에 배속케 됨으로써 제1연대만이 直接指揮下에 있었다.

豊山附近에 遮斷陣地를 占領하였던 제1연대는 前날에 부사단장 金應祚중령이 지휘하는 1개중대가 進出함에 따라 安東으로 轉進하여 △253—俗稱 미두루—△182에 3개대대를 一線展開케 하여 安東 外廓防禦에 나서면서 제8사단에 대한 支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03.00가 조금 지났을 무렵 軍단 作戰會議에서 돌아온 참모장 崔慶錄대령이 軍단의 撤收명령을 사단장 金錫源준장에게 傳達하자 軍의 계속적인 後退移動에 크게 失望하고 憤慨하고 있던 사단장은 震怒하여 『都大體 後退만하면 어찌자는 것이냐? 더우기 지금 後退하여야 할만큼 危急한 狀況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安東市民에 대한 나의 體面도 있으니 絶對로 撤收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無謀하고 無知한 作戰命令이 어데 있는가』라고 大喝하였다.

그러나 참모장이 “그렇다고 固執만 피워 우리사단만이 이곳에 남아 있을 수도 없으니 命수대로 施行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고 強力히 建議함으로써 사단의 撤收명령은 東녘이 轉히 틀무렵에야 下達하기에 이르렀다.

제1연대의 撤收: 이무렵 제8사단의 右一線인 제16연대의 東翼을 迂回한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무리가 右一線인 제2대대(장, 柳桓博소령)正面으로 急襲함으로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激戰이 展開되었는데 이때 洛東江 上流쪽의 江邊을 따라 潛侵한 一部の 敵이 背面으로 侵攻하게 되어 포위망속에 陷入되었다.

이때 제2대대의 左 제1계선인 제7중대의 陣地線이 突破되기에 이르자 그 左隣接인 제2중대의 一部兵力이 急進하여 이를 封鎖하고 陣地線을 回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後方으로 侵透한 무리가 곳곳에서 多發銃을 亂射하여 兵士들의 戰意를 阻喪케 하면서 後方을 攪亂하기 시작하자 兵士들은 動搖의 빛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장 尹春根중령은 陣頭로 달려 나가면서 “北쪽에는 제8사단이 健在한다. 一部の 敵이 侵入하였을 뿐아니 모조리 때려 잡아라. 命수가 있을때까지 現陣地線을 固守하라”고 怒號하며 勇戰을 督勵하였다.

그러나 다시 제2대대正面이 突破될데 이어 제1대대(장, 金煌穆소령) 正面마저 부너지면서 混戰상태에 陷入하였는데 이때 제8사단의 撤收부대가 제5번 作戰道路를 따라 撤收하는 것을 目擊하기에 이르자 兵士들의 戰意는 急激히 低下되기 시작하더니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이 制禦하고 統制할 사이도 없이 左側으로부터 波狀的으로 離脫하여 各個各進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대장級에게는 軍단의 撤收계획과 사단 및 연대의 任務가 正確히 示達되어 있었으나, 중대장級은 軍단 계획에 따라 연대는 곧 撤收하게 될 것이라는 것 바깥은 모르고 있는 形便이었다. 다시 말하여 제8사단의 撤收掩護任務를 正確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固守

意志를 갖지 못하고 제 8 사단의 撤收부대를 觀望하자 마자 各個分散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分散撤收하기에 이른 연대는 安東市內로 突入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人道橋가 燬破된 뒤이고 敵의 一部와 유격대가 市內로 侵入한 뒤여서 곳곳에서 銃擊戰을 벌리며 市內를 벗어나는 즉시로 堤防쪽으로 突進하였는데 이때 그곳에는 제21연대의 後續대대가 江속으로 뛰어들어 막 渡河를 敢行중이었는데, 敵의 기관총사격과 깊은 水深으로 死傷者와 溺死者가 續出하는 慘相을 빚고 있었다.

이때 彈雨속을 뚫고 나타난 姓名不詳의 民間人의 案内로 연대는 徒涉點을 찾아 다른 부대에 比하여 比較的 어려움을 겪지 않고 洛東江을 渡河하여 光音洞(安東西南쪽 8km)에서 兵力을 收拾하면서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混成 중대의 撤收** : 부사단장 金應祚중령이 直接지휘하는 混成중대는 前날 10.00무렵에 豊山附近으로 進出하여 豊山 경찰支署에 殘留中인 경찰관 15名을 統合指揮하였는데 19.30무렵 醴泉쪽에서 1개대대규모의 敵이 侵攻하자 同伴한 57mm 對戰車砲 1門과 4門의 迫擊砲 그리고 3정의 기관총사격을 集中하여 무리를 一擊에 擊退하였다.

이리하여 士氣衡天한 중대는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고 上部洞一帶의 高地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이날 08.00무렵 安東쪽에서 爆音이 들린데 이어 09.00무렵에는 美空軍機의 爆擊이 지속되면서 市街地가 炎上하는 것이 觀望되자, 부사단장 金應祚중령은 無電連絡을 試圖하였으나 應信이 없어 중대의 撤收를 斷行키로 決心하였다.

이때의 狀況에 關하여 金應祚중령이 翌날 述懷하기를 『그때 豊山에 나가 있는 混成중대에는 無電機까지 있었는데 사단에서는 一言半句의 命令이나 連絡도 없이 撤收하고 말았다.



<炎上하는 安東附近>

나는 當初에 賦與받은 任務로 完遂한터라 아무 꺼리낌 없이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때 安東市內에는 불길이 치솟고 銃聲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서 敵이 이미 市內로 侵襲한 것으로 判斷하고 下流쪽에서 洛東江을 渡河키로 하고 敵이 占領한 봉우리를 공격하는 즉시로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單 1名의 損失도 없이 南岸에 到着할 수가 있었다. 地名은 記憶이 없으나 安東에서 4~50里 떨어진 국민학교에서 사단과 合勢케 되었는데 나는 사단 참모들에게 辱說을 퍼부어 주었다.』라고 하였다.

### 3. 安東 人道橋 및 鐵橋爆破

人道橋와 鐵橋에 대한 爆破는 軍단이 安東으로 轉進함과 同時에 主力이 洛東江 南岸으로 撤收할 경우에 對備하여 계획되었다.

즉 軍단은 障礙物 제18과 제19로 指定하고 嚴鴻燮중령이 지휘하는 工兵학교 敎官을 主軸으로 한 軍단 工兵團에 爆破준비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병단은 漢江橋복과를 담당하였던 爆破班이 7월 30일에 이미 爆藥裝置 作業을 끝내고 그 爆破作業을 제 8사단 공병대대에 引繼하였는데 當初의 軍단 폭과계획은 수도 제 8兩사단이 撤收完了하는 06.00로 決定하고 있었으나, 撤收부대와와 現地協調를 위하여 軍단 참모장 崔德新대령이 現場에서 爆破를 直接 指揮키로 하였다.

제 8사단의 先發연대인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와 이를 後續한 제21연대(장, 金容培중령)의 一部는 敵의 큰 妨害없이 人道橋를 通過하였으나 제21연대의 主力이 北岸에 當到하였을 무렵에는 一帶의 丘峯을 占據한 무리가 10餘정으로 推定되는 기관총사격으로 火網을 퍼 人道橋와 鐵橋를 瞰制하고 제 1연대와 제16연대를 追尾하는 듯한 敵의 銃聲이 近邊에서 더욱 요란스럽게 울려퍼지고 있었다.

이에 崔德新대령은 제 8사단장 李正一大령과 熟議한 결과 敵이 곧 當到할 것으로 判斷하게 되자 于先 人道橋를 폭과키로 하고 공병 대대장 金默대위에게 명령함으로써 대대 작전과장, 徐正雨중위가 지휘하는 爆破班이 南岸의 亭子에서 Switch를 눌렀다. 一帶을 震動하는 轟音과 함께 南岸쪽이 30m假量의 橋板(Deck)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물속으로 처 박혔으니 이때가 07.30무렵이었다.

뒤이어 계속된 敵火로 通過가 不可能하게 된 鐵橋도 爆破함으로써 미처 渡河를 하지 못한 제21연대主力과 제 1연대 그리고 제16연대兵力이 堤防쪽에서 右往左往하다가 敵前徒涉을 強行하기에 이르렀으니 熾盛을 떠는 敵火에 휩싸여 많은 兵力의 損失을 보았던 것이다.

이 安東橋의 爆破에 대하여서는 많은 參戰者가 漢江橋爆破의 再演이라고 酷評을 서슴치 않고 있으나 指揮部로서는 敵主力의 殺到가 豫見되고 이미 使用不可能하게된 橋梁의 爆破를 決心하기에 이른 것이니 그 實際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였다 하더라도 不可避한 措置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특히 군단장이나 사단장은 洛東江의 水位가 불었다 하더라도 壯丁의 목(首)部位까지 바  
 께는 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徒涉에는 支障이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如何問에 安東撤收戰과 安東橋의 爆破는 많은 敎訓을 남긴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安東을 撤收하자 熾烈한 空中支援下에 CP를 雲山里에 開設하고 陸本作命 제90호에 의거한  
 군단作命 제40호에 따라서 X線上의 九尾洞—上阿洞에 이르는 20km 正面에 제10연대를 右—線, 제21  
 연대를 左—線으로 하여 半邊川—洛東江邊에 水際陣地를 확보하여 敵의 渡河에 對備하였는데 8월 3  
 일에는 陸本作命 제91호(50.8.2 03.00)에 따른 군단作命 제41호에 의거하여 Y線上에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1군단의 左翼으로서 牛頭洞에 CP를 開設한 사단으로 古蘭洞—栢子洞—立岩洞—尹岩洞—上禾  
 洞에 이르는 24km의 正面을 담당하여 이른바 洛東江 橋頭堡를 構築하기에 이르렀는데 同월 4일에는  
 군단 참모장 崔德新대령이 새로운 사단장으로 赴任하였다.

한편 醴泉을 奪取하고 豐山에 이른 北傀 제8사단 제83연대는 洛東江을 渡河하여 仁今 洞으로 侵襲  
 함으로써 8월 2일에는 左—線인 제21연대와 接觸하기 시작하였으며, 主攻으로서 安東을 奪取한 北  
 傀 제12사단은 金日成으로부터 安東사단의 稱號를 받고 戰列을 갖추더니 4일 01.00에는 渡河를 恣行  
 하여 右隣接인 수도사단 正面으로 侵攻하기 시작하게 되어 洛東江에서의 攻防戰의 불길이 드디어 터져  
 가기에 이르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군단장 金弘晝 소장

(1964년 10월 26일 自宅에서, 예 중장)

安東撤收명령은 美 제8군에서 경비행기로 傳  
 達된 것이 아니고 大邱에 있는 陸本을 거쳐 7월  
 31일에 온 것으로 記憶한다.

撤收順位에 關하여서는 首都사단 掩護下에 제  
 8사단이 撤收하라고 命令하였는데 수도 제8兩  
 사단의 참모장들이 다투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것으로 안다.

安東川은 徒涉이 可能하였기 때문에 人道橋나  
 鐵橋의 爆破로 兵員의 損失이 더 많았다고 생각  
 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8사단장 李正—대령의 交替는 安東  
 撤收가 失敗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美 고문관측의  
 보고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安東撤收 直前에 迫擊砲와 기관총등의 裝備가  
 列車便으로 補給되었는데 李正—대령은 이것을  
 그 자리에서 補給할 수가 없어서 安東으로 後送  
 하였는데 美 고문관측에서는 中國式으로 武器를  
 받아 먹으려고 戰況이 危急한데도 각부대에 補給  
 치 않았다고 보고 하였던 것이다.

陸本에서는 나에게 調查하라는 指示가 왔으나  
 나는 調查해볼 것도 없이 내가 이미 알고있는 사  
 단장의 眞意 즉 狀況이 危急할때 새로운 武器를  
 補給하던 亡失의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陣地에서 戰況이 安定되었을때 補給하려던 것이  
 라고 報告하였다.

그러나 美 고문관들이 계속 물고 늘어져 8월  
 4일에 군단 참모장인 崔德新대령과 交替되었으  
 나 20일 後에는 李正—대령이 다시 사단장으로  
 復歸하였다.

## ◇ 제1군단 참모장 崔德新대령

(1967년 3월 14일, 朝鮮호텔에서, 예 중장)

安東撤收명령은 7월 31일 19.00무렵에 美軍 경비행기가 군단 사령부로 날아와서 通信筒으로 傳達하였다.

그 뜻은 8월 1일 末明까지 首都사단과 제8사단을 安東川以南으로 撤收시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內容이 英文으로 되고 또 透明圖가 美軍에서 쓰는 地圖의 縮尺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번역하고 透明圖를 옮겨 그리는데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다.

나는 수도, 제8兩사단 참모장을 召集하여, 군단의 撤收명령을 直接下達하였다. 그들이 자사단 CP에 到着한 것은 子正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開戰前에 渡美하여 美步兵學校에서 戰術學을 배우다가 7월 15일에 歸國하였기 때문에 美軍의 戰術에 대하여서는 좀 알고 있는데 군단에 下達된 美 제8군의 作命은 現地狀況은 全然 考慮하지 않은 戰術教範 그대로의 것이어서 混亂과 失敗를 自招한 것으로 본다.

또 군단作命上的 虛點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제8사단을 掩護케 한 것인데 이것이 結果的으로 混亂을 加重시켰던 것이다.

如何間에 나중에 밝혀 지기를 수도사단이나 제8사단에 있어서 대대장 級에게 撤收命令이 傳達된 것이 8월 1일날 날이 새 무렵이고 중, 소대장 級에게는 제대로 傳達도 되지 못한 狀況下에서 撤收를 斷行하였다는 것이었다.

安東橋의 爆破는 내가 現地에 나가 제8사단장 李正一대령의 諒解下에 08.00頃에 爆破하였는데 나 自身은 早期爆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爆破하기 前에 이미 1개중대 규모의 敵이 北岸쪽의 高地를 占據하고 기관총사격으로 人道橋나 鐵橋쪽을 敵制하고 있어서 다리의 通過가 거의 不可能하였다.

安東川은 洪水로 물이 깊었지만 下流쪽은 목에 차는 程度여서 徒涉이 可能하였으나 키가 작은 兵士들 中에는 물에 떠내려 가거나 溺死者가 좀 있었을 것이다.

## ◇ 제21연대 제8중대장 金光哲중위

(1968년 5월 1일 土地改良組合에서, 예 대령)

우리 대대는 연대의 掩護대로서 接敵을 維持하다가 뒤늦게 撤收하여 安東市內로 突入하였는데 이때 이미 敵의 유격대가 市內로 侵入해서 여기 저기서 狙擊함으로 銃擊戰을 벌리면서 突破하였다.

길가의 建物에는 “金錫源將軍 萬歲” “安東을 死守한다”라는 壁報가 붙어 있는가 하면 어떤 建物에는 “제8사단은 洛東江을 渡河하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들은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고 또 발거름이 무거웠다.

우리중대가 江邊에 到達하였을때는 이미 人道橋가 爆破되어서 一部の 兵士들은 鐵橋쪽으로 달려 갔는데 이때 부근高地를 占據한 敵이 기관총사격을 集中함으로 나는 “그리로 가면 죽는다”라고 소리쳐 兵士들을 불러 들이고 堤防을 따라 下流쪽으로 내려가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北岸쪽은 急流를 이루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깊은 곳은 2m나 되었으나 바닥이 고른 곳은 목에 차는 程度였다. 그러나 水泳을 하지 못하는 兵士들은 떠내려가기도 하여 나와 申榮徹중위는 이들을 건져주고 부축하면서 渡河를 強行하였는데 이때 敵은 물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우리에게 거의 照準사격을 하였다.

## ◇ 수도사단장 金錫源 준장

(自叙傳 老兵의 恨에서, 332頁—334頁)

7월 31일 22.00에 군단에서 作命을 받으며 오라는 連絡을 받고 참모장 崔慶錄대령이 군단에 가서 받아들인 命令은 어이없게도 『오늘 밤중으로 安東川을 건너 撤收하라』는 無謀한 作命이었다.

아무리 서둘러도 각 중대와 소대까지 命令을 傳達하려면 날이 다 밝을 것이었다. 渡河作戰은 밤중에 끝내야 한다는 것은 軍理學의 A, B, C에 屬하는 問題였다.

그래서 나는 『이따위 無謀하고 無知하고 無能한 作命이 都大體 어찌에 있단 말인가?』라고 一喝하고 作命에 應할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참모장 崔慶錄대령이 『그렇다고 상부의 命令인데 끝까지 固執만 피울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부대만 이곳에 남아있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命令의 履行을 거듭 建議함으로써 나는 憤을 참고 撤收명령을 下達하였던 것이다.

## § 戰 訓

### (1) 撤收의時機에대하여

安東撤收를 夜間에 斷行케 하기로 한 陸本이나 美 제 8군의 作戰企圖를 都是理解할 수가 없다.

安東正面의 戰況이 제 8사단의 勇戰과 수도사단의 側方掩護로 堅守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또 UN空軍의 制空權 掌握으로 인하여 무렵에는 敵의 空襲행동을 거의 封鎖하고 있었으니 空中掩護下에 夜間에 斷行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美 제 8군의 作戰命令 그대로 8월 1일 04.00까지 洛東江以南으로 撤收하였을 경우와 空中支援이 可能한 08.00무렵부터 撤收를 開始하여 12.00까지 終了하였을 경우의 8時間의 空間이 그 무렵의 戰況에 무슨 影響을 주었을 것인가?

또 企圖秘匿이야 軍事行動의 鐵則이라고는 하지만 時間에 쫓기는 그때의 狀況下에서 無電沈黙을 強要하였다는 것은 混亂과 失敗의 根源의 重要因이었다 할 것이다.

夜間撤收를 不得려 斷行하여야 할 때는 充分한 時間餘裕를 갖고 逐次의인 撤收를 取行하여야 할 것이다.

### (2) 渡河點의 확보에대하여

安東撤收의 混亂과 失敗의 原因은 根本的으로

渡河點을 확보치 않은데 있다.

渡河點인 人道橋가 安東市內 南쪽에 位置하고 接觸線이 安東으로부터 6km 相距한데다가 수도사단의 제 1연대가 外圍線을 防禦한다는 通念上의 安堵感으로 事前에 充分 考慮조차 하지 않은 듯하다.

敵의 戰術이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으로 特別히 後方攪亂을 策劃하고 있을때였으니 이에 對備하여 軍團 또는 수도사단에서는 撤收路와 要衝인 渡河點에 대한 掩護措置가 講究되었어야 하였을 것이다.

또 敵이 北岸丘陵에서 撤收부대를 攪亂할때 砲撃은 市民의 安全을 위하여 制限되었다 하더라도 建制를 維持한 제 10연대로 하여금 공격케 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充分 措置를 取하지 않은것은 크게 自省할 問題이다.

### (3) 安東市民의 疎開對策

수도사단은 安東으로 轉進한 以來로 軍官民의 協調增進과 民心의 動搖를 防止키 위하여 市民들에게 安東固守를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撤收自體도 混亂속에 몰아 넣을 程度로 뒤늦게 下達된 美 제 8군의 撤收命令으로 軍團에서는 市民疎開를 위한 何等의 措置도 取하지 못한채 兵力이 撤收하고 또 人道橋와 鐵橋를 爆破하게 되거, 市民은 避難의 질마저 끊긴 상태에서 敵侵을 맞아야 하였으니 마치 漢江橋의 爆破와 恰似한 結果를 갖어 왔다.

撤收命令을 受領한 後의 軍團으로서 는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나 安東固守를 위하여서도 激戰을 避할길 없는 이곳의 市民은 人道橋와 鐵橋에 대한 爆破준비작업에 着手한 무렵에는 疎開措置가 取해졌어야 하였을 것이다.

## 3. 店村—幽谷—恩城 附近 戰鬪(1950년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21, 22 호  
상 황 도 제 65~67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2군단	장 준장 劉 載 興	제 2대대	장 소령 崔 錫 裕
제 6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제 3대대	장 소령 金 韓 德
제 2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사단工兵대대	장 소령 朴 正 采
제 1대대	장 중령 朴 魯 珪	配屬部隊	
제 2대대	장 대위 李 鍾 基	제 1연대	장 중령 尹 春 根
	소령 徐 廷 學	제 1대대	장 소령 金 煌 穆
	(7월 21일부터)	제 2대대	장 소령 李 義 明
제 3대대	장 소령 李 雲 山	제 3대대	장 소령 姜 旻 采
제 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제 3포병대대	장 소령 朴 永 湜
제 1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協力部隊	
제 2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제 1사단	장 준장 白 善 燦
제 3대대	장 중령 李 南 浩	제 11연대	장 중령 金 東 斌
제 19연대	장 대령 閔 丙 權	제 12연대	장 대령 朴 基 丙
제 1대대	장 대위 李 桂 順	제 13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敵		軍	
北傀		포병연대	장 대좌 玄 學 奉
제 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 13사단	장 소장 崔 鏞 鎭
제 1사단	장 소장 崔 光	제 19연대	장 대좌 金 炳 喆
제 1연대	장 대좌 黃 石	제 21연대	장 대좌 李 承 俊
제 2연대	장 대좌 金 陽 春	제 23연대	장 대좌 太 炳 烈
제 3연대	장 대좌 李 昌 權		

## 나. 전투 전의 개황

本節에서는 제 6사단(장, 金鍾五대령)이 聞慶 戰鬪를 치른데 이어, 바로 그 南쪽의 店村과 幽谷 그리고 恩城 부근에서 다시 北傀 제1, 제13 兩個사단의 侵攻을 막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에 걸쳐서 展開한 戰況을 取扱케 되는 바, 이는 곧 小白山脈의 防守陣이 무너진 뒤로 洛東江을 넘어 서기 直前까지의 遲延戰 過程에서 中部戰線을 지켜낸 하나의 防禦戰이다.

期間中 20일 下午에 大田이 陷落되고 곧 이어 永同과 黃潤이 威脅을 받아 戰線이 激動하고 있을때 北傀 제 2군단은 3번도로를 따라 咸昌—尙州—金泉 軸線으로 侵攻하여 UN軍의 退路를 遮斷코자 하였는데 바로 이 戰線에서 그 북을 지킴으로써 國軍 제 1군단과 美제 24, 제 25 및 제 1機甲사단등 西部戰線의 5개사단이 戰列을 가다듬어 洛東江 沿岸에 防禦線을 形成할수 있도록 黃金의 期間을 爭取한一局面이기도 하다.

따라서 高地 한稜線 바다 血痕으로 點綴하여 1/3 이상의 兵力을 損失하면서까지 極力 抵抗케 되거니와, 마침 防禦地域 正面에는 東西로 가로지른 滎江이 에워싸여 自然障壁을 이루고 또한 烏井山을 비롯한 魚龍山—烏峰—玉女峰등 防者에게 有利한 高地가 서로 잇달는 橫隔稜線으로 뻗히어 그 地利와 砲兵 및 航空支援등의 立體作戰에 힘입어 이를 막아서게 된다.

敵軍의 狀況 : 이 地域으로 侵攻한 敵은 北傀 제 2군단 隸下의 제 1, 제 13, 제 15사단등 3 個步兵사단과 제 109戰車연대로 알려진 1 個機甲연대 및 제 1사단 所屬의 1 個砲兵연대인 것으로 判明되었는데, 이 가운데 제 15사단은 米院에서 壯岩里 溪谷을 따라 化寧場으로 내려오면서 1乃至 2 個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한 두 차례의 側方挑發에 그침으로써 사실상 사단과 正面으로 對決한 敵은 제 1, 제 13 兩사단에 그 支援部隊들이었다.

이들의 侵攻經路를 보면, 崔光이 이끄는 제 1사단은 忠州에서 永安堡—延豐—聞慶을 거쳐서 南湖里로 내려오고, 崔籍鎭이 지휘하는 제 13사단은 槐山에서 山岳機動하여 恩城西北쪽의 上槐里부근으로 南下하였다고 하는데 戰車와 砲兵은 比較的 機動路가 良好한 3번도로를 따라 제 1사단을 支援하면서 後續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本戰鬪 期間中에도 從來의 侵路 그대로 제 1사단과 戰車연대는 東側의 3번도로 軸線으로 侵攻하고 제 13사단은 西側의 恩城—籠岩里 軸線으로 밀려들었는데 다만 砲兵만은 여기에서 兩分하여 激戰地를 쫓아 分割支援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들의 基幹兵力은 제 1사단이 10,000명에 제 13사단이 12,000명 그리고 戰車연대가 700명으로 都合 22,700명을 헤아렸으며 이 밖에도 相當數의 支援部隊가 活動한 것으로 여겨졌고 또한 연대규모 이상의 非武裝한 勞務者를 強제로 動員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 補充한 新兵이 40% 水準에 이른데다 連日의 機動과 戰鬪에 지쳐있다고 하니 額面 그대로의 力量은 발휘키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였다.

그리고 裝備面에 있어서도 戰車를 비롯한 裝甲車와 Side Car나, 122mm野砲와 75mm榴彈砲에 45mm反戰車砲 및 120mm迫擊砲등, 現存裝備를 고루 具備한듯 하였지만 火力이 그렇게 越等한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의 魁首인 가짜 金日成이 本戰鬪가 시작된 이틀 後인 21일에 永安堡까지 내려와 同軍단장 金武亭에게 侵攻速度가 늦다고 호통하는 脅戰의 策적이 前線으로 미처어 거의 狂의인 挑發로 이어졌으며 따라서 그 侵攻手法도 惡辣하기 그지없었다.

더구나 西側의 그들 제 15사단이 化寧場을 넘어 尙州부근까지 이르게 되자 戰鬪 終盤에는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聞慶戰鬪가 끝난 直後인 17일에 이곳으로 移動하여 指揮所를 店村에 두고 3個연대로서 潁江線 부근에 新陣地를 編成하였는데, 당시에는 接敵狀況下에서 撤收하는 터이라 兵力을 逐次로 뽑아, 閔丙權대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를 右一線으로 烏井山(△810) 부근에, 威炳善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中央一線으로 佛井里와 魚龍山 一帶에, 그리고 林富澤대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는 左一線으로 △413—玉女峰간에 각각 配置하여 防禦태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제16포병대대(장, 金聖소령)는 幽谷里 부근에 砲陣을 選定하여 3번도로 軸線에 火力의 重點을 두고 支援態勢를 갖추게 하였는데, 同대대는 陣地構築 期間인 17, 18兩日간을 火力으로써 掩護하다가 전투가 시작되기 直前인 18日 下午에 제3포병대대와 任務를 交代하고 大邱로 떠났다.

이는 105mm(M-2) 新型野砲로 交替하려는 육군본부의 계획에 따라 推進되었거니와, 새로 任務를 引受한 제3포병대대(장, 朴永湜소령)도 現位置에서 2個포대 8門의 新型砲로써 現任務를 그대로 이어받아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105mm(M-2)野砲의 支援를 받게되었거니와, 당시에 사단의 總兵力은 砲兵 220명(12/208)과 警察 200명까지 합하여 8,000명 程度였으며 아직까지 兵力을 充當치 못한 實情이었다.

뿐만아니라 裝備面에 있어서도 砲兵을 除外한 모든 裝備과 武器가 緒戰 그대로의 상태인데다 野戰 整備 마저 뒤 따르지 못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오직 精神力으로 이 戰線을 막아서게 되는데, 육군본부나 美제 8군에서도 이같은 實情과 이 地域 確保의 重要性을 勘察하여 전투가 시작된 뒤로 兵力과 火力을 增強키로 하였으니, 21일에 首都 사단 隸下의 제1연대(장, 尹春根중령)가 增援한것을 비롯하여 美제 90포병대대의 A포대인 155mm 重砲와 제79戰車대대 A중대 所屬의 戰車(M-24) 5대가 支援하고 또한 美제 5공군의 戰爆機가 隨時로 空中에서 近接支援하였다.

그리고 이 戰鬪가 高潮에 達한 26일에는 제1사단(장, 白善燦준장)이 赴援하여 敵의 側背를 強打한 다음 西南쪽의 咸昌부근으로 侵攻하는 要線을 막아 作戰地域의 一部를 引受하였으며(제1사단의 咸昌부근 戰鬪參照) 또한 最初의 新兵인 學徒義勇軍과 警察兵力이 戰線에 加擔하기도 하였다.

이 部隊들의 規模와 參戰經緯에 대하여서는 戰鬪經過의 本文에서 昭詳히 밝히겠거니와, 結局 軍단 규모의 作戰으로 發展한 이 전투에서 사단이 그 中樞的 役割을 한것이다.

전투당시에 사단의 右隣接에는 제8사단(장, 李正一대령)이 豊基—榮州부근에서 中央線 沿域을 지키고 左隣接에는 제1사단과 美제 25사단(장, Willian B. Kean 소장)이 咸昌—尙州間에서 西側方으로 侵攻하는 敵을 막아 直接 또는 間接으로 이 전투에 寄與한 바가 크다.

## 다. 전투 경과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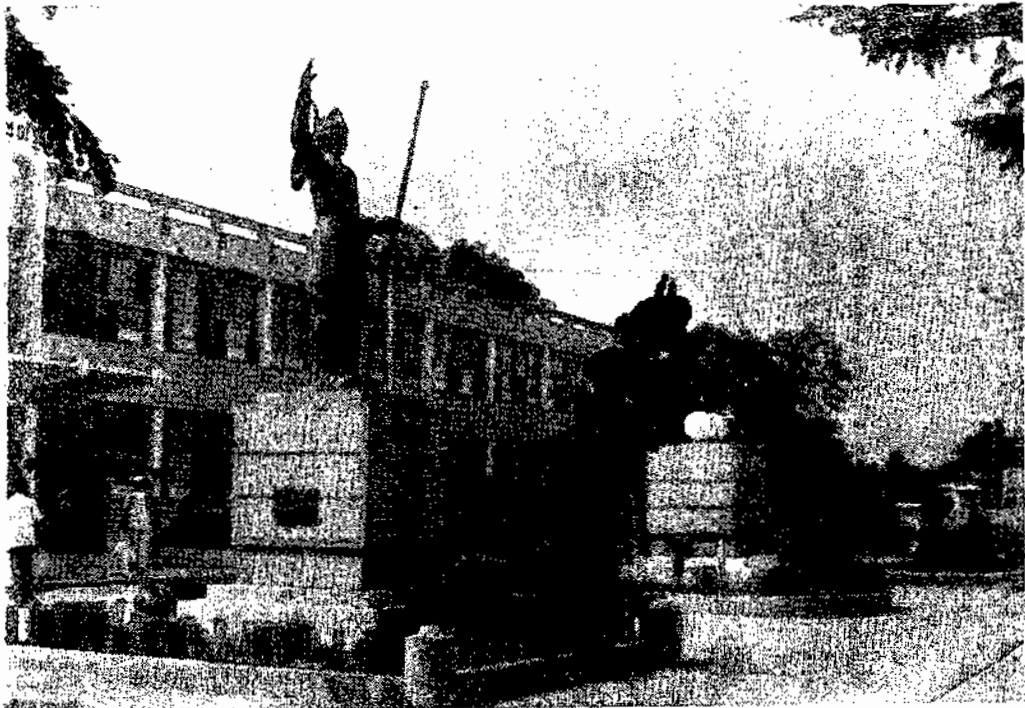
### (1) 작전계획

사단장 金鍾五대령이 17일 01.00에 軍단장으로부터 『潁江線으로 撤收하여 新陣地를 編成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았을때 사단은 北魏 제1, 제13兩사단의 強한 壓力을 받고 있었다. 즉, 이들 제1사단은 聞慶에서 3번도로를 따라 幽谷쪽으로, 西側의 제13사단은 上魏里에서 恩城쪽으로 각각 殺到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移動과 適切한 防禦陣地의 占領이 時急한 實情인데, 現在 接觸상태에 있는데다 東西에 連한 防禦正面이 18km에 達하고 보니, 3個연대의 同時撤收와 同時의 陣地 占領이 매우 困難한 형편이었다.

더구나 군단에서는 穎江線에 新陣地를 編成하라고 하였지만, 이 穎江이란 壯岩에서 發源하여 籠岩—恩城—新機—店村을 거쳐 東南쪽으로 흘러 내리는 洛東江上流의 한 줄기로서, 사단의 作戰地域內에서 北쪽으로 크지않아 半月形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萬一 그 南岸에 陣地를 編成한다면 兩側方이 暴露되어 스스로 敵의 包圍圈內에 들게 될것이므로 이 防禦陣地의 選定문제가 더 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을 비롯한 제 19연대장 閔丙權대령과 제 16포병대대장 金聖소령 그리고 情報參謀 金安—중령 및 作戰參謀 梁仲鎬중령등 主要指揮官 및 參謀들과 (당시 제 7연대장은 旺凌里에 位置한) 熟議한 끝에 대체로 다음과같은 腹案을 세웠다 즉 穎江線을 主軸으로하여 防禦陣地를 編成하되 東側의 烏井山(△810)과 西側의 △413 및 玉女峰을 여기에 連結시켜 一字形으로 連繫된 陣地를 構成키로 하였으며 兵力은 逐次로 轉進시켜 3個연대를 모두 第一線에 配置키로 하고 砲兵과 工兵등 支援부대는 3번도로 轉線을 擔當한 中央—線연대에 集中的으로 支援키로 하였다. 그리고 部隊의 機動과 運營面에 있어서는 사단내에서 下士官이 제일 많고 比較的 實戰經驗이 많은 제 2연대로 하여금 中央의 要域을 擔當케하는 동시에 現在 左—線에서 저들 제 13사단의 侵攻을 阻止하고 있는 제 7연대를 그 直後方으로 뽑아 恩城 正面에 配置키로하고 掩護部隊로 남아있는 제 19연대는 마지막으로 뽑아 東側의 烏井山으로 推進, 配置키로 하였다.



<제 2 군단의 指揮所였던 成昌中學校>

이리하여 사단의 指揮部와 제16포병대가 幽谷으로 先行한 뒤를 이어 各연대가 逐次로 轉進한 끝에 18일까지 모두 計劃된 陣地를 占領케 되자 사단은 다시 指揮所를 幽谷에서 店村의 戶西南國민학교로 移設한 다음 咸昌中學校 構內에 位置한 軍단사령부와 連絡을 維持하며 防禦態勢로 들어갔다.

結局 이 防禦의 作戰概念은 大局的인 見地에서 볼때에 遲延戰 過程의 한 段階에 지나지 않으나 사단장으로서의 3個연대를 第一線에 내세운 固守의 決意에 찬 것이었으며 특히 陸軍本部로부터 이 戰線의 確保가 緊要하다는 通報와 함께 제6사단의 善鬪를 빈다는 電文을 받고보니, 이제 將兵 모두가 決死報國의 一念으로 本戰鬪에 임하게 된 것이다.

## (2) 작전실시

7월 19일 : 제6사단이 潁江線 부근에 新陣地를 編成한지 하룻만인 이날, 中東部戰線에서는 竹嶺이 敵手中에 넘어가고 西側에서는 化寧場에서 不規 遭遇戰을 벌여 戰線이 激動하는 가운데 이 地域에서도 다시 戰火가 일어, 이제 內陸의 中樞線인 幽谷—店村—尙州 軸線의 防守 與否를 놓고 攻防對決의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단의 將兵들이 聞慶에서 물러선 뒤로 洛東江 上流의 한 줄기인 이곳 潁江線 부근에 陣地를 構築하면서 『우리의 무덤으로 알고 壕를 파자』고 다짐한 바와같이, 이 要線을 期必코 固守키로 決意하고 3個연대가 모두 第一線에 나아가 陣地의 強化에 注力하던 바, 當面의 北僞 제1, 제13兩사단은 急速한 侵攻을 노리는듯, 時間의 餘裕를 두지않고 곧 追躡하여 사단의 左一線 진지를 突破코자 하였다.

따라서 同地域을 擔當한 제7연대는 진지를 構築하기도 전에 玉女峰(恩城鑛業所 뒷산)에서 激突케 되고 그 東쪽의 제2, 제19兩연대는 이를 凝視하면서 繼續하여 진지를 補強하거나, 이렇듯 敵이 한곳으로 集中攻擊을 加한 까닭은 突破力도 문제이지만 특히 이 地域은 江 北쪽의 前進據點으로서 敵陣의 西側에 該當하기 때문에 3번도로 軸線으로 指向키 위한 本攻에 앞서 이 진지를 먼저 掠取코자 한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리하여 이날은 한편으로 敵의 侵攻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3번도로 부근의 陣地를 더욱 強化케 되는 바, 于先 사단의 兵力배치상황을 概觀한 然後에 左一線의 戰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제19연대의 烏井山 陣地占領

사단의 右一線을 擔當한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는 3번도로를 境界로하여 그 東쪽에서, 新機里(幽谷里 東北쪽 1km)에 指揮所를 두고 제1, 제2兩대대로써 烏井山(△810)—石峴(鎭南橋北쪽 500m)간의 진지를 占領하였는데, 이 地域은 潁江 東北쪽의 犬灘里와 梧泉里를 가로막은 곳으로서 사단 東側方의 山北面 一帶와 敵의 集結地로 알려진 南湖里(聞慶

南쪽 3km) 一圓을 한 눈에 瞰制할수있는 高峻線 地帶였다.

사단에서 當연대로 하여금 이와같이 江北쪽에 陣地를 編成토록 한 까닭은 右隣接인 제 8 사단과의 接境地帶가 空白으로 남아있어 醜線 부근의 敵情을 把握하지 못한데다 聞慶을 占領한 一部の 敵이 또한 東側方으로 侵襲코자 梧泉里(烏井山 西北쪽 1km)부근에 出現함으로써 이에 對備하러 한것으로 여겨지거니와, 특히 연대지역의 直後方인 店村에 사단의 指揮所가 있고 이에 連한 3번도로가 幽谷과 威昌으로 이어지니 이 地域의 確保야말로 거의 喫緊의 要務였다.

따라서 연대에서는 前方과 側方을 동시에 制御할수있는 烏井山을 택하여 그 西쪽의△295에 이르기까지 圖上 4km의 防禦正面에 陣地를 編成하였는데 崔錫洛소령이 지휘하는 제 2 대대가 그 主峰 一帶의 右第一線 陣地를 맡고 李桂順대위가 지휘하는 제 1 대대는 鎭南橋부근까지 떨어진 左側峻線을 占領하여 陣地作業에 着手하였다. 그리고 金韓德소령이 지휘하는 제 3 대대대는 聞慶에서 撤收할 당시에 掩護부대로 남아서 마지막까지 鬮鳴山을 지키고 있다가 전날 밤에야 幽谷으로 集結케 되었는데 사단에서 左隣接인 제 2 연대의 主力을 3번도로 부근에 重點配置하면서 同대대를 제 2 연대에 配屬토록 指示함으로써 이날 아침 09.00에 同연대 地域의 左第一線인 烏峰(一名, 새봉)으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연대(-)는 結局 2 個대대로서 現陣地를 補強하던 바, 이날 새벽부터 사단의 左一線인 제 7 인대가 玉女峰에서 激突케되자 연대장은 幽谷北쪽의 △267에 設定한 OP에서 兩대대로 하여금 더욱 警戒의 徹底를 期하도록 強調하는 한편 趙達珍중사가 이끄는 연대의 對戰車 特攻隊를 『돌모산』(△267北쪽 突出峻線) 기슭에 埋伏시키고 또한 梧泉里부근의 敵情을 探索토록 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地域에서는 終日토록 特記할만한 狀況이 없이 現狀대로 持續될 따름이었다.

## 2. 제 2 연대의 戰況

威炳善대령이 지휘하는 제 2 연대는 사단의 中央一線을 맡아 佛井里(幽谷 西北쪽 3km)—魚龍山(潁江南쪽 500m)간의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이 地域은 中央地帶가 標高가 높은 峻山으로 聳峙해오른 反面에 그 兩側方은 溪谷으로 이어져, 東側에는 3번도로가 鎭南橋—佛井里—幽谷으로 잇달고 西側에는 猶音里(幽谷西쪽 5km)의 깊은 溪谷이 南北으로 가름한 突出地域이었다. 그뿐만아니라 이 陣地의 바로 北端이 潁江에 沿한데다 江岸이 또한 가파른 絕壁으로 이어진 까닭에 敵의 豫想侵襲路가 兩側方이 되리라는 것을 쉽게 判斷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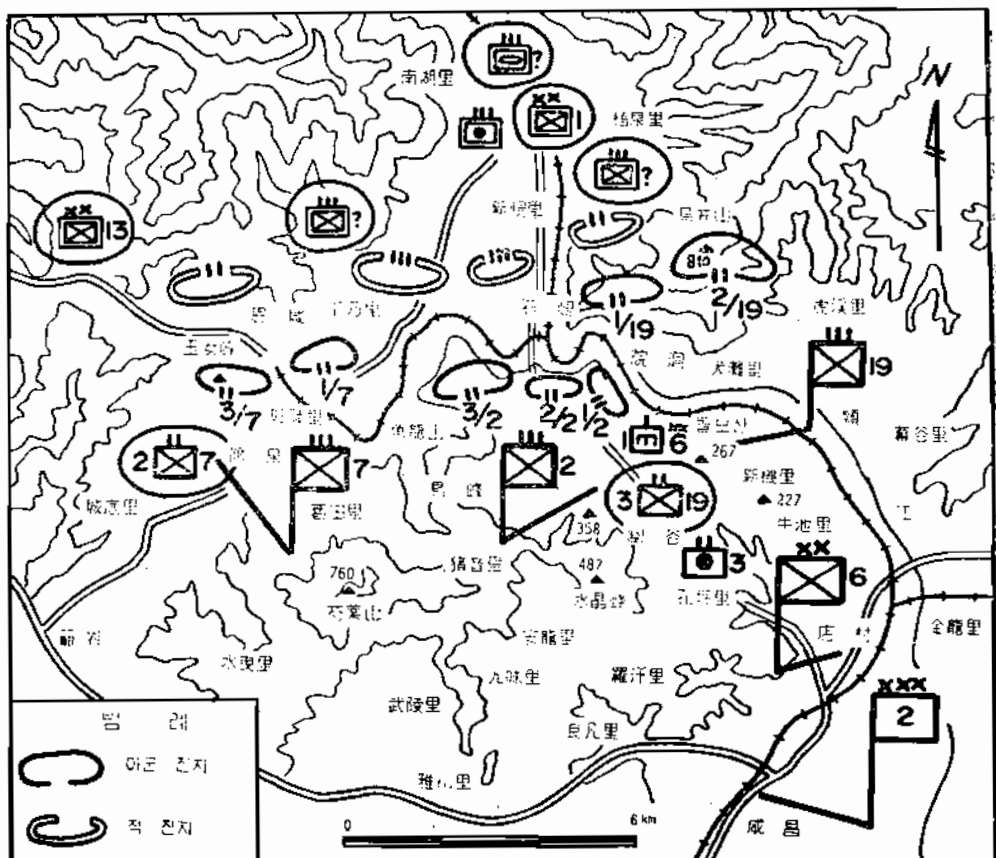
따라서 연대는 이 兩側方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제 1 대대(장, 朴魯廷중령)와 제 2 대대(장, 李鍾基대위)를 東側의 佛井里부근에 配置하여 聞慶鎭山(鎭南橋南쪽 1.5km)에서 幽谷

에 이르는 3번도로의 沿線을 制壓防守토록 하는 한편 李雲山소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는 西側의 魚龍山으로 推進하여 그 主峰에서 山水洞(△424 南쪽마을)까지 떨어내린 西斜面 陣지를 占領하는 측으로 敵의 潁江 渡河線을 막아 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指揮所는 主力 配置線의 直後方인 佛井部落에 位置하고 제 3보병대대(장, 朴永滉소령)의 제 1포대가 바로 그 南쪽의 『한작골』 부근에서 4門의 105mm(M-2) 野砲로써 支援態勢를 갖추었으며 이날부로 연대에 配屬된 제 19연대의 제 3대대는 豫備로써 幽谷에 控置하는등 中央一線의 防禦態勢를 굳게 하였다.

그런데 이날 06.00에 敵이 제 7연대 地域으로 밀려들면서 그 가운데 2箇중대 규모가 魚龍山 西麓의 △424 부근으로 侵襲하여 여기에서 一戰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는 兩연대의 相互協助를 妨害하려는 것이 分明하거니와, 이들의 侵攻方向도 그 接境地帶인 猪音里 溪谷으로 指向하여 제 3대대의 陣지를 突破코자 發惡하였다.

이에 同대대의 제 9중대(장, 南白峰대위)가 同時集中한 側射火力으로 이 무리를 山水洞 洞

◇ 상황도 제 65호 戰前前 彼我의 配置狀況 (7.18)





口밖에 抑留하여 連續打撃을 加하고 또한 대대의 81mm 박격포를 비롯한 제 1 포대의 野砲까지 畧勢하여 2시간 동안에 걸친 殲滅戰을 終 끝에 射殺 20명과 各種小銃 7정 및 無電機一臺등을 擄獲함과 아울러 이를 江北쪽의 下乃里 부근으로 擊退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무렵 연대에서는 左隣接인 제 7연대가 繼續하여 激戰을 벌이고있는 點에 비추어 이 地域에 대한 補強措置가 時急하므로 豫備로 待機시킨 제 19연대의 제 3대대를 現地로 急派하였으니, 金韓德소령이 지휘하는 同대대는 09.00부터 山水洞 南쪽의 鳥峰을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연대는 4個대대로써 佛井里—魚龍山—鳥峰간의 陣地를 더욱 強化케 되었는데 아침 한때 熱風이 지난 뒤로 特別한 敵情이 없어 그대로 現陣地를 固守하였다.

### 3. 제 7연대의 戰況(玉女峰 第一次戰)

이상과같이 제 19, 제 2兩연대가 輕微한 接敵이 있을 뿐으로, 繼續하여 陣地를 強化하고 있을때 左一線인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潁江 西쪽의 △413(旺陵里 東쪽 1km)와 玉女峰에서 增強된 연대 규모의 敵과 攻防 激突을 보게되었다.

이地域은 恩成鐵業所가 있는 旺陵里의 左右側에 標高 400m 이상의 兩高地가 突出하여 北向으로 自然障壁을 이룬곳으로서, 사단의 主力이 聞慶에서 撤收할때에 當연대가 이곳으로 先行하여 槐山方面에서 東南下한 것으로 알려진 北傀제 13사단을 여기에서 阻止, 擊滅키로 하였는데 전날 밤부터 그 先頭가 陣前에 出沒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이날 06.00를 期하여 集中攻撃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연대는 雷靈山(聞慶 西南쪽 7km)에서 轉進한 제 1대대(장, 金龍培중령)를 右第一線으로 △413에, 南湖里에서 下行한 제 3대대(장, 李南浩중령)는 左第一線으로 玉女峰에 각각 配置하고 제 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바로 그 南쪽의 鶴泉里에 있는 연대본부 부근에 豫備로 待機시킨 가운데 특히 西北쪽의 上槐里와 完章里(恩成西北쪽 7km)부근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陣地를 強化하던 바, 이렇듯 敵의 先攻 第一波가 이곳으로 밀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먼저 제 1대대의 陣地인 △413로 侵攻하여 增強된 대대규모로써 陣前에서 波狀攻撃을 加하는가 하면 또 다른 대대규모는 下乃里에서 東쪽으로 迂回하여 右隣接인 제 2인대와의 接境線을 뚫고 同高地 南쪽의 新垆부근으로 突入코자 發惡하였는데 2시간 동안의 激戰을 치르다 보니 어느덧 敵의 手효가 연대규모로 증강되고 마침내 右端의 一角이 瓦解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대대는 이때까지 砲兵의 支援을 받지 못한채로 一方的인 砲火를 무릅쓰고 苦戰을 치르는 反面에 突破口를 擴開하기 시작한 敵은 977번도로를 따라 背後로 밀려드니 걸잡을 수 없는 混亂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에 연대에서는 鶯泉里에 待機中인 제 2대대를 潁江 南쪽의 葛田里(幽谷西쪽 7km)로 急進케하여 977번도로 軸線으로 侵入한 敵의 潁江 渡河를 阻止토록 하는한편 제 1대대를 玉女峰 南쪽의 城底里로 集結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葛田里로 躍進한 제 2대대가 葛美峰(鳥峰西쪽 2km)에 新陣地를 急編하고 제 1대대는 旺陵里 溪谷을 따라 城底里로 集結하였으며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幽谷 南쪽의 孔坪里에서 急遽 移動한 제 3포병대대의 제 2포대가 武陵里(葛美峰南쪽 5km)에 當到하여 12.00부터 砲門을 여니, 이제 戰線은 한걸음 물러섰으며 보다더 密接히 連繫한 가운데 步砲協同으로 驕醜를 強打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이에 이르고 보니, 江 西쪽에는 제 3대대의 玉女峰 진지만이 突出하여 이로부터 여기에서 攻防血鬪를 벌이게 되거니와, 특히 이진지는 977번도로 軸線上의 要衝으로 萬一 이곳이 突破된다면 籠岩(咸昌 西쪽 15km)과 社谷(咸昌 西쪽 8km)으로 이어진 側背의 威脅이 뒤따르는 까닭에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指揮所를 籠岩으로 옮기고 城底里에 集結中인 제 1대대의 再編을 督勵하면서 對決態勢를 갖추었다.

이무렵 △413를 占領한 敵은 한동안 沈默을 지키더니, 이윽고 14.00에 다시 狂波를 몰아 이제 玉女峰으로 侵攻하는데 이번에는 標高 550m의 高地를 三面에서 에워싸고 包圍網을 압축하며 步一步 陣前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대장 李南浩중령은 그 九部稜線에 位置한 OP에서 直接 各중대장을 有線으로 불러 『一步도 물러설수 없으니 陣前에서 擊滅하라』고 嚴命을 내리는가 하면 東斜面의 제 11중대(장, 卮聖勳대위)와 北斜面의 제 10중대(장, 金聖培중위) 그리고 西斜面의 제 9중대(장, 鄭在甲대위) 진지에서 連續 投下하는 手榴彈이 敵線에 炸裂하고 또한 柳承源대위가 지휘하는 重火器중대의 81mm迫擊砲火가 間斷없이 連發할뿐아니라 機關銃의 斜射와 側射가 또한 불을 뿜는등, 力鬪를 거듭하였으며 이와 協同한 제 2포대(장, 房景源대위)도 時限彈으로 鐵火를 퍼부어 敵의 砲陣과 移動群像을 強打하였다.

그리하여 3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마침내 이 무리를 △413와 下槐里쪽으로 擊退케 되었으니, 대대는 이 一戰에서 21명을 射殺하고 俘虜 1명을 사로잡을 뿐만아니라 小銃 5정과 無電機 1臺를 虜獲하였으며 제 2포대에서도 Truck 5臺와 榴彈砲 2門을 破壞(砲兵의 記錄을 轉載함)하는 등의 戰果를 올렸다. 그러나 陣前 1,500~2,000m 거리에 아직도 이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다 또한 上槐里(玉峰西北쪽 4km)부근에 새로운 무리가 出現함으로써 戰雲은 바야흐로 더욱 큰 먹구름을 물고 올것만 같았다.

이무렵 대대에서는 장교 1명을 包含한 4명이 戰死하고 12명이 負傷을 입는등 一部의 兵力損失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毅然히 堅守태세를 취하였으며 더구나 제 9중대의 진지를 西側으로 延長하여 側方警戒를 強化할뿐만아니라 聞慶경찰서 所屬의 警察兵力 13명을 제 11중대에 配屬시키는 등 不退轉의 決意를 다졌다.

그런데 恒例와는 달리 이들은 이날 晝間攻擊에서 敗한 뒤로 계속 沈默을 지킴으로써 現狀에서 日暮에 접어들게 되었으니 그 兇圖는 헤아릴 길이 없으며, 다만 捕虜의 陳述에 依하여 밝혀진 內容에 따르면 이들은 山岳機動을 하는 동안에 重火器의 推進이 늦어졌다는 點과 極度の 疲勞에 지쳐있다는 點등을 勘案하여 볼때 이들은 必然코 새로운 攻擊을 준비하고 있을것으로 여겨졌다.

**7월 20일 :** 防禦 이틀째 되는 이날, 사단의 全地域가운데 오직 제 7연대 正面의 玉女峰에서만 終日토록 攻防血鬪를 벌일 뿐으로 他연대의 지역에서는 繼續하여 現陣地를 그대로 固守할 따름이었다.

### 1. 제 7연대의 戰況(玉女峰 第二次戰)

전날 攻擊에서 失敗한 敵은 아무래도 進路上의 衝壁인 玉女峰을 우선 掠取하려는듯, 이날은 大隊규모 以上の 砲兵火力과 增強된 連대규모의 兵力으로 集中攻擊을 하였다.

**警戒陣地上的 抵抗 :** 05.30부터 攻擊準備사격을 시작한 敵은 30分 동안에 걸친 砲擊으로 玉女峰과 △305(玉女峰 西쪽 1km) 一帶를 強打하더니 이윽고 06.00를 期하여 恩城川부근의 閑裕地를 橫斷하여 陣前으로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제 2포대의 集中 砲擊에도 不拘하고 전날과 다름없이 東斜面과 北斜面으로 攻圍하는 한편 또 다른 大隊규모로써 西側의△305를 공격하였다.

이 △305란 下槐里에서 鶴泉里로 넘어오는 山間捷路의 西쪽에 있는 無名高地로서 전날까지는 兵力을 配置하지 않았으나 上槐里에 敵을 現認하였다는 報告를 接한 뒤로 제 9중대의 1個소대를 이곳으로 推進하여 側方을 警戒토록 措置함으로써 사실상 大隊의 警戒陣地로 確保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大隊규모의 敵이 노린것이다.

따라서 主峰의 戰況은 전날과 大同小異한 것이었으나 이곳 警戒陣地는 同소대의 抵抗에도 不拘하고 交戰 30分만에 그들의 手中으로 들어 갔으며 더구나 경계진지 일지라도 無斷 離脫을 許容치 않은 까닭에 더욱 어지러운 混亂을 빚게되었다.

**左第一線 진지의 互解 :** 이에 大隊장 李南浩중령은 제 9중대장 鄭在甲대위로 하여금 俗稱『두부실』溪谷으로 밀려드는 敵을 阻止토록 하는한편 觀測將校를 불러 이곳으로 砲擊을 誘導케하고 또한 連대장에게 戰況을 報告함과 아울러 兵力의 增援을 긴급히 要請하였다.

이리하여 이제 西側에서의 激突을 보이게 되었는데, 大隊는 東側의 977번도로 軸線에 火力을 重點의으로 配置한 터이므로 交戰中에서 臨機로 轉換하기 힘들기 때문에 苦戰을 치르게 되었으며 이에 反하여 敵側에서는 여기에 兵力을 後續投入함으로써 戰況의 惡化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로 熾烈한 交戰이 2시간 半동안이나 계속되다가 마침내 10.00를 前後하여

제 9 중대의 진지가 瓦解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陣內의 肉迫戰으로 死傷者가 續出하고 漸次로 戰線이 밀리어 鵲泉里 溪谷이 송두리채 暴露되고 말았다.

**제 1 대대의 逆襲 :** 이 무렵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사단에 重砲의 支援과 航空支援을 要請하다가 이같은 報告에 接하자 城底里에 待期中인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에게 즉각 逆襲을 斷行하여 제 9 중대의 진지와 △305를 奪還토록 嚴達하니, 이때가 10. 30이었다.

그리하여 同대대의 제 1 중대(장, 李大鎔대위)와 제 3 중대(장, 金明益대위)가 鵲泉里를 거쳐서 『두무실』溪谷으로 西北進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戰況이 크게 기우러 現地에 進出하지마자 계곡속에서 敵의 火網에 빠져 들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제 3 대대는 玉女峰의 東側에서, 제 1 대대는 그 西側에서 각각 2 個대대 규모의 敵과 맞서 5 시간 동안에 걸친 惡戰苦鬪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제 1 대대는 제 2 중대(장, 吳允石대위)와 重火器중대(장, 金弘燮대위)까지 增派하여 대대의 全兵力으로 세차례에 걸친 力攻을 加하였으나 아무런 成果를 거두지 못한채로 死傷者단 累増케 되었으며 제 3 대대도 또한 混戰中에 40餘名의 兵力損失을 보고 말았다.

**玉女峰의 喪失 :** 이상과같이 惡循環이 거듭됨에도 不拘하고 제 3 대대장 李南浩중령은 OP에 버티고 서서 四周방어진을 마련코자 散兵을 收拾함과 아울러 제 11 중대의 一部陣地를 西南쪽으로 調定配置케 하던 바, 14. 00를 前後하여 UN空軍의 F-80 戰爆機 1 個編隊가 나타나 玉女峰 一帶에 機銃掃射를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 어이없는 誤爆事故는 실로 큰 衝擊을 던져주었으니, 同高地가 敵手中에 떨어진 것으로 그릇 判斷한 編隊長의 失手로 말미암아 OP가 날아가고 北斜面의 제 10 중대 진지에서 一大混亂이 惹起되었다.

그리하여 廣木布로 對空布板을 代用한 標識을 하였지만 아랑곳 없이 네차례의 機銃掃射가 거듭되어 이 洞中에서 韓道善대위를 비롯한 3 명이 散葬하고 5 명이 負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제 2 포대의 觀測下士官 金鍾高 二等中士가 또한 戰死하는등 死傷者가 더욱늘어나는 가운데 마침내 潰散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연대에서는 兩대대를 撤收케 되었으니, 제 3 대대는 玉女峰 南쪽 1.5km의 鵲泉里로 集結하여 병력을 收拾하는 즉시로 그 西쪽의 △387에 다시 四周防禦진지를 占領하였으며 제 1 대대는 城底里로 集結하여 穎江을 건너 다음 제 2 대대의 葛美峰 진지에 連한 △324(城底里 東쪽 1km)線에 江畔의 진지를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17. 00에는 대체로 葛美峰—葛田里—△324—△387線에 연대의 새로운 진지를 確保케 되었거니와, 敵側에서도 玉女峰을 奪取한 뒤로 再編상태로 들어간듯 陣地編成을 妨害하는 射擊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 2. 사단 사령부의 動靜

한편 이날 10.00에 初度로 巡訪한 군단장 劉載興준장이 店村의 사단 指揮所에서 戰況을 聽取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現戰線의 重要性을 強調함과 아울러 곧 제 1 연대가 增援된다는 內容과 美제 25사단의 重砲가 支援할것이라는 內定사항을 示達하면서 最善을 다하라고 激勵하였으며 또한 사단장도 兵力의 緊急補充이 要請된다는 그의 苦衷을 털어 놓으면서 특히 南湖里 부근에 敵의 戰車가 集結하고 있으니 對戰車 裝備를 支援하여 줄것과 火力增援이 긴급하다고 建議하였다.

그리고 이날 포병 제16대대(장, 金聖소령)가 店村을 떠나 大邱로 向發하였는데, 同대대는 開戰 以後 지금까지 사단과 더불어 春川—原州—忠州—陰城—聞慶등의 戰塵을 헤치며 幽谷으로 내려가다가 105mm M-2 新型 野砲의 交還計劃에 따라 國本 一般命令 제18호(7월 18일附)로써 포병제 3대대와 그 任務를 交代케되어 사단을 떠난것이다.

특히 대대는 聞慶에서 撤收하여 이곳으로 南下中에 交代 當日인 18일까지 佛井里에 砲陣을 마련코 新峴里와 鎮南橋부근으로 殺到하는 敵을 擊破한바 있으며 사단 主力의 障地占領을 火力으로써 掩護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工兵대대장 朴正采소령은 제 7 연대가 苦戰을 치르게되자 사단장의 지시에따라 제



<제 6 사단의 指揮所였던 오늘의 戶西南國民학교>

2중대장 白時旭 대위와 1個 소대의 兵力을 이끌고 城底里에서 977번도로상의 橋梁을 爆破하였으며 醫務中隊에서도 救急車을 龍岩里까지 推進하여 負傷兵들을 初療하고 後送케 하였다.

7월 21일 : 전날 玉女峰을 奪取한 敵은 이날 2個사단의 兵力과 砲兵및 戰車까지 動員하여 이윽고 總攻擊을 敢行하였다.

### 1. 제19연대의 戰況(烏井山 第一次戰)

사단의 右一線을 擔當한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는 18일 以後 이날까지 特別한 敵情이 없는 가운데 潁江 東北쪽 烏井山—石峴간의 진지를 제1, 제2兩대대로 하여금 占領케 하여 계속 補強하던 바, 이날 07.00를 期하여 北隄 제1사단 諱下의 제3연대(장, 대좌 金陽春)로 알려진 연대규모가 烏井山(△810)으로 侵攻하였다.

여기에는 崔錫洛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가 虎溪里에서 그 西斜面의 500等高線에 이르는 2,500m의 防禦正面을 지키고 있었는데 南湖里부근에서 梧泉里(烏井山北쪽 1.5km)溪谷으로 侵襲한 2個대대규모가 俗稱『가섭』이라고 불리우는 山村쪽으로 고개를 넘어 그 東斜面으로 侵攻하는 한편 다른 대대규모는 西斜面의 新峴里 溪谷으로 밀려들었다.

이리하여 3시간 동안에 걸친 熾烈한 銃擊戰이 展開되었는데 특히 西斜面의 敵은 제6중대(장, 朴能植중위)와 左側에서 支援하는 제1대대(장, 李桂順대위)의 火網속에서 痛擊을 받아 陣前에 이르지도 못한채로 潰散되고 말았으며 그 뒤를 이어『가섭』부근의 무리도 兵力을 거두어 撤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金旭篆대위)의 제1소대가 烏井山北쪽 稜線으로 追擊하여 加一擊하므로 梧泉里쪽으로 潰走하였는데, 여기에서 自動小銃 2정을 비롯한 各種小銃 10정과 700餘發의 實彈을 鹵獲하였다.

그 뒤로 左隣接인 제2연대 正面에서 그들의 主力이 苦境에 몰리자 더 이상 挑發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서고 말았다.

### 2. 제2연대의 攻防戰況

中央一線인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 地域에서는 새벽 02.00부터 交戰이 시작되었다.

魚龍山의 激突 : 深夜의 奇襲을 노린 2個대대 규모가 먼저 연대의 제3대대(장, 李雲山소령)가 맡고있는 魚龍山으로 侵攻하였는데, 이들은 下乃里부근에서 潁江을 건너 左隣接인 제7연대와 接境을 뚫고 同高地의 西麓으로 潛入하여 1個대대는 제9중대(장, 南白峰대위)의 진지를, 그리고 다른 1個대대는 그 南쪽의 鳥峰쪽으로 各其 侵襲하였다.

이 報告에 接한 연대에서는 즉각 제3포병대대(장, 朴永湜소령)에 砲擊을 要請하니, 『한작골』(幽谷南쪽 500m)의 제1포대와 雅川里(咸昌西쪽 6km)의 제2포대가 同時에 砲門을 열어(제2포대는 전날 下午에 武陵里에서 雅川里로 移動함) 集中砲擊을 加하였는데 마침 同대대에서는 猪音里로 通하는 이 溪谷 一帶에 火集點을 미리 選定한것이 그 威力을 발휘

함으로써 이들은 暗申에서 彷徨하게 되고 제 9 중대 陣前의 무리도 鰲江부근으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後退하지 않고 江南岸에서 兵力을 연대규모로 增強한 다음 05.00을 期하여 다시 督戰의 策책을 휘둘러 發蹙하였으니, 이번에는 全兵力으로 魚龍山을 攻圍하여 제 3 대대의 진지를 승두리채 삼키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40分 동안의 血鬪를 벌인 끝에 20餘명의 死傷者를 안고 그 東南쪽 1.8 km의 △583 부근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로부터 敵側에서는 盛勢를 돌아 다시 제 19 연대의 제 3 대대(장, 金韓德 소령)가 지키고 있는 烏峰으로 侵攻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그 企圖가 暴露된 까닭에 步砲의 火力으로 물리치고 말았다.

이무렵 연대장 威炳 潘대령은 內佛井里의 指揮所에서 左第一線의 戰況을 注視하던 바, 이렇듯 不利한 狀況으로 急轉케 되자 제 1 대대의 豫備인 제 2 중대(장, 李柱興 중위)를 猪音里로 急派하여 烏峰 西쪽에 阻止陣地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제 3 대대장 李雲山 소령에게 魚龍山을 奪還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07.00부터 魚龍山 奪還戰이 시작되었는데, 現在 제 3 대대가 位置한 △583로 부터 同目標까지는 標高 500m의 等高線이 서로 잇닿는데다 그 兩側方이 가파른 斜面으로 變하여 機動이 制限된 까닭에 대대 兵力의 同時攻擊이 거의 힘든 地域이었다.

따라서 제 10 중대(장, 李鍾基 대위 : 20일附로 제 2 대대장 代理勤務職을 解任하여 제 10 중대 장으로 補함)와 제 11 중대(장, 金寅文 중위) 및 제 9 중대(장, 南白峰 대위)의 順으로 逐次로 進出시켜 攻擊하였는데 敵의 抵抗이 頑強하여 5 시간 동안에 걸친 力攻을 加했음에도 不拘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 12.20을 前後하여 UN空軍의 戰爆機 1 개편대가 나타나 空中支援으로 敵陣을 強打하자 이 好機를 捕捉하여 同 目標를 奪取하니, 이때가 13.00였다.

그 뒤로 敵의 逆襲이 뒤따라 爭奪戰이 거듭되다가 17.00에 이르러서는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서 1km의 사이를 두고 대대는 南쪽에서, 敵은 北쪽에서 각각 진지를 占領함으로써 指揮之間의 對峙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동안에 제 2 중대는 연대의 左端陣地를 占領하여 제 7 연대와 戰線을 連繫하니, 이로써 이날 연대의 左第一線 戰鬪는 한 매듭을 짓게 되었다.

鎭南橋 부근의 攻防戰況—한편 연대의 右第一線을 擔當한 제 1 대대(장, 朴魯珪 중령)와 佛井里의 北쪽 高地를 占領한 제 2 대대(장, 徐廷學 소령)는 3번도로 軸線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진지를 強化하던 바, 魚龍山을 喪失한 直後인 06.00에 연대규모가 이곳으로도 侵攻하였다.

이들은 4 쪼의 戰車를 앞세우고 新峴里에서 3번도로를 따라 鎭南橋 부근으로 밀려든 다음 여기에서 鰲江을 건너려 하였는데 野砲와 戰車砲 등 火力의 掩護 아래 자못 威勢를 보이

며 白晝의 渡江을 試圖하였다.

이에 兩대대에서는 對岸의 敵線에 同時集中사격을 加하고 제 3 포병대대의 제 1 포대도 또한 西北向하였던 砲口를 돌려 戰車가 있는 推定地域을 強打하였지만 이들은 그대로 江을 건너 그 先頭의 一部가 開慶炭鑛(一名, 佛井炭鑛)부근까지 侵襲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報告에 接한 연대나 사단에서도 超非常태세로 들어가 重砲와 航空支援을 要請하고 軍단장 劉載興준장도 直接 美제 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에게 戰車를 支援토록 要求하는등, 바야흐로 勝敗를 가름하는 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시간에도 제 1, 제 2 兩대대 正面에서는 熾烈한 銃擊戰을 거듭하며 3 번도로의 爭奪을 거듭하는가 하면 李勳중위가 이끄는 對戰車砲중대는 『굴모리』(幽谷北쪽 3km)부근에서 가파른 江岸도로를 끼고 遡擊태세를 갖추었으며 연대장과 포병대대장도 『굴모리』까지 올라가 督勵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무렵 戰爆機 1個編隊가 天空의 一角을 깨치며 敵陣上空에 出現하니, 이는 美제 5 공군 소속의 F-80機로서, 機首를 鎮南橋부근으로 쫓아 戰車의 駐車地域은 勿論 이요 그 後方의 石峴 一帶까지 차례로 強打하는 것이었다.

그뿐만아니라 敵의 步兵이 밀려든 開慶炭鑛 일대와 그 南쪽의 3번도로 沿線까지 機銃掃射로 휩쓰니, 저들은 四分五裂되어 同僚의 屍體를 버리고 江中에 뛰어들거나 숲속으로 파고드는 現狀을 演出케 되었다.

이리하여 그 氣勢를 꺾게 되었거니와, 近接支援하다 보니 연대의 진지에도 그 波害가 多少 거쳐 2명이 負傷을 입고 연대장의 Jeep車가 半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美제 90야포대대의 A포대가 店村 西쪽의 茅田里로 推進되어 155mm 重砲로써 支援하자 이에 제 1대대는 陣地를 박차고 開慶炭鑛부근으로 進擊하여 江 南岸의 敵을 쓸어버리고 말았다.

이시간이 11.20으로, 交戰이 시작된지 5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에 다시 美제 79戰車대대 A중대 所屬의 1個소대가 5臺의 戰車(M-24)를 물고 赴援함으로써 이제 步·戰·砲·空의 立體的인 協同으로 戰線을 強化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제 1대대는 原陣地로 復歸하고 戰車소대는 鎮南橋 南쪽으로 推進되었으며 炭鑛부근에는 對戰車砲중대가 진지를 占領하여 江畔의 警戒과 아울러 戰車를 掩護하였다.

그 뒤로 潁江을 사이에 두고 對峙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또 한차례 UN空軍이 出擊하여 이번에는 敵의 策源地로 指目된 南湖里와 新峴里 一帶를 불 바다로 만들었으며, 이때에 제 3대대의 魚龍山 攻擊을 近接支援한 것이다.

이로써 이날 戰鬪는 一旦 매듭을 짓게 되었거니와, 이 狀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에 美제 8군 사령부에서 이戰鬪를 얼마나 重視하였는지 推察할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敵의 步戰協同부대와 正面에서 實力으로 對決하여 이를 擊破한 一局面이기도 하다.



### 3. 제 7연대의 △387 防禦

한편,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전날 玉女峰을 喪失한 뒤로 한 걸음 물리서서 新陣地를 占領하였음은 既述한바 있거니와, 여기에도 이날 새벽 02.00에 연대규모가 侵攻하였다 이 시간이 제 2연대의 魚籠山 陣地를 急襲한 시간과 같은 點으로 미루어 보아 北傀 제13사단의 策動인 것으로 여겨지거니와, 그 侵攻地域은 세 3대대(장, 李南浩중령)가 맡고있는 △387였다.

해대대는 玉女峰에서 激戰을 치르고 이곳으로 南下할때에 相當한 兵力損失을 보고 있었지만 四周防禦태세로써 不退轉의 決意를 가지고 있었는데, 敵은 다시 이곳으로 集中攻擊을 敢行한 것이다.

대대장이 뒷날 證言하기를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어디에서 죽느냐 하는 覺悟로 싸웠으며 대대장 이라고하여 後方에서 指揮하는 것이 아니라 直接 兵士들과 함께 高地에서 生死를 같이하였다.

지휘관이 現場에 나서지 않으면 움직여 지지 않는다. 이 이상 더 물러설수도 없기 때문에 거의 악에 바쳐 싸웠으며 내 記憶속에는 四周방어진을 치고 酷烈하게 싸웠다는 생각밖에 없다』라고 述懐하는 바와같이 이제 몸을 바쳐 이 高地를 지키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3배가 넘는 兵力으로서도 敵이 陣地를 敢히 突破하지 못하였으니, 02.00에 2個 대대로써 挑發하기 시작하여 08.00까지 6시간 동안을 殘酷할 뿐만아니라 1個대대 규모를 더욱 投入하여 迂回코자 試圖하기도 하였지만 모두가 徒勞에 끝나고 말았다.

이렇듯 血鬪를 反復하고 있을때 제 1대대의 제 1중대가 城底里에서 東側으로 赴援하고 또한 제 2포대의 誘導된 砲火가 그 背後를 強打하니 마침내 이들은 09.00를 前後하여 撤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 2연대 正面의 戰況이 好轉됨과 더불어 여기에서도 점차로 銃聲이 멈춰지게 되었는데, 이 場面을 回顧한 제 1중대의 제 2소대장 金俊奉중위의 證言에 따르면, 現地에 當面하였을 때 제 3대대의 將兵들은 거의 無神經속에서 手榴彈을 던지는 실정이었으며 鶴泉里 溪谷에는 敵屍가 널리어 腥血에 덮여있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제 3대대가 敵을 물리치는 동안 연대의 指揮所가 位置한 龍岩里에서는 意外의 事態가 벌어졌다.

즉 이곳은 第一線과 7km나 떨어진 後方으로서 主로 補給關係의 擔當要員들이 活動하고 있었는데 이날 03.00에 所屬未詳의 敵 200餘名이 不時에 奇襲한 것이다.

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化寧場으로 南下한 저들 제15사단 所屬의 一部兵力이라고 하거니와, 咸昌으로 通하는 進路를 探索하다가 여기에서 壁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宋廣保대위가 지휘하는 연대의 對戰車砲중대가 地理에 어두운 이들을 上栗里

(籠岩里 南쪽 1.5km) 溪谷으로 몰아 一擊하고 말았지만 側後方에 나타난 새로운 敵情에 對하여 그 對備策이 時急하였다.

이 報告에 接한 사단에서는 警察兵力 200명을 文岩里(籠岩里 東南쪽 6km)로 急派하여 籠岩里—咸昌간의 要路를 警戒케 하였으며 또한 연대에서도 대전차포중대로 하여금 上栗里부근의 側後方을 지키게 하니, 실로 사단은 三面의 狂濤를 한몸으로 막아서게 된 셈이다.

#### 4. 제 1연대의 赴援

이상과같이 사단의 3個연대가 力關에 이은 血關으로써 穎江 戰線을 지키고 있을때 尹春根 中령이 指揮하는 제 1연대가 赴援하였다.

同연대는 首都사단 隷下에서 鎭川戰鬪를 치르고 다시 淸州 南쪽 8km의 高隱里에서 이틀 동안을 防禦하다가 軍의 戰線整備 계획에 따라 東部戰線으로 移動하던 中 化寧場에서 陸本 作命 제55호(7월 19일 16.00附)로써 當군단에 配屬되었는데, 군단에서는 同時附로 사단에 配屬함으로써 이날 16.20에 咸昌에 當到하여 本戰鬪에 加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作戰參謀 梁仲鎬中령으로부터 戰況說明만을 듣고 사단장의 指示에 따라 休息케 되었다.

7월 22일 : 이날은 이른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戰線의 活動이 相當히 制限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各聯隊 地域에서는 交戰이 反復되었다.

#### 1. 제19연대의 戰況(烏井山 第二次戰)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는 전날에 이어 두번째로 烏井山(△810)에서 激突케 되었는데 이날은 04.00부터 대대규모의 敵이 暗夜降雨를 틈타 奇襲을 敢行하였다.

이들은 新峴里 溪谷에서 同高地의 西斜面으로 潛入하여 제 6중대(장, 朴能植중위)의 陣地를 集中的으로 攻撃하였는데, 이 地域은 犬灘里(幽谷北쪽 4km)로 넘어가는 捷路를 끼고 있는 까닭에 이를 重視하여 그 부근에 미리 兵力을 埋伏시킨 터이라 중대는 곧 이를 捕捉하여 火力을 加하였지만 交戰 30분만에 어느덧 陣內의 肉薄對決로 化하여 混戰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러하여 30餘名の 敵을 刺殺 또는 打殺로 무찌른 바 있으나 중대에서도 중대장을 비롯한 6명의 將兵이 現地에서 戰死하고 10餘名이 負傷을 입는등 2시간 半동안의 激戰끝에 마침내 犬灘里 쪽으로 分散,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대나 연대에서는 豫備隊가 없는 까닭에 適時에 逆襲을 加하지 못하고 火力으로써 突破地域을 強打하다가 09.00에 이르러서야 工兵대대의 제 3중대(장, 林秀一대위)를 增援받고 또한 제 1대대에서 제 2중대(장, 黃宗九중위)를 뽑아 이 兩중대로써 反擊을 加하였

다.

그리하여 4시간 동안의 力攻끝에 13.00에 同陣地를 奪還하여 烏井山과 石峴간의 陣地를 다시 連繫케 되었다.

그 뒤로 연대는 이 地域을 제 1대대(장, 李柱順대위)로 하여금 擔當케하여 現陣地를 계속 固守하기에 이르렀다.

## 2. 제 2연대의 戰況

전날 魚龍山과 鎖南橋부근에서 激戰을 치른 바 있는 제 2연대(장, 威炳善대령)는 이날 魚龍山에서 또 한차례 激突케 되었다.

이 魚龍山 陣地는 연대의 제 3대대(장, 李雲山소령)가 맡아 直後方의 烏峰을 占領한 제 19연대의 제 3대대(장, 金韓德소령)와 함께 연대전지의 左半部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 04.00에 역시 夜暗을 틈타 陣前으로 侵襲한 2個대대 규모의 敵이 同高地의 兩側方에서 가파른 稜線을 기어 올라 奇襲攻擊을 敢行하였다.

이때에 대대는 主峰 南쪽 500m의 縱隔稜線을 占領하여 西北向으로 對陣한 敵과 指呼之間에서 맞서고 있던 바, 뜻밖에 그 兩側方에서 다른 무리의 奇襲을 받고 보나, 制限된 機動空間에 混亂이 惹起되어 交戰 1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어이 없이 이 高地를 喪失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同대대가 △583(佛井里 西쪽高地)로 물러나 兵力을 收拾케 되자 이들은 다시 그 南쪽의 烏峰으로 侵攻하여 이번에는 제 19연대 제 3대대의 전지를 劫奪코자 하였다.

이에 同대대는 左側의 제 2중대(장, 李柱興중위)와 함께 이를 막아 熾烈한 交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특히 北斜面의 제 10중대(장, 金斗逸중위) 陣前에서 決定的인 打擊을 가하여 이를 擊破하고 말았다.

이 시간이 10.00로서, 차츰 날씨가 개이고 있었는데, 이무렵 연대의 東側인 3번도로 부근에서는 美제 79戰車대대 소속의 輕戰車 5臺가 鎖南橋 南쪽 버드나무 숲속에서 石峴부근의 敵陣에 砲擊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側에서는 이 이상 더 挑發하지 않아 現狀態를 堅持케 되었다.

## 3. 제 7연대의 戰況(玉女峰 第三次戰)

한편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전날 △387에서 敵을 물리친 뒤로, 이제 玉女峰을 奪還키로 方針을 세우고 그 準備를 마친다음 이윽고 이날 05.00를 期하여 雨中을 利用하여 攻擊키로 하였다. 즉, 제 1, 제 2兩대대로 하여금 潁江 南岸의 現陣地를 確保케 한 가운데 李南浩중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로써 玉女峰을 奪還키로 한것이다.

이리하여 同대대는 제 10중대(장, 金聖培중위)와 제 11중대(장, 印聖勳대위)를 앞세워 977

번도로를 따라 同高地 南麓으로 다가선 다음 恩城炭鑛으로 通하는 小路 左右側에 兵力을 展開하는 즉시로 이를 掩襲하였는데 여기에는 2個중대 규모가 布陣하여 抵抗하였지만 不意의 襲擊에 滅裂되어 交戰 30分만에 그만 下槐里쪽으로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이 一戰에서 俘虜 10명을 사로잡고 各種小銃 12정을 鹵獲함과 아울러 마침내 07.00에 玉女峰을 奪還하였는데, 여기에서 陣地를 占領한지 1시간도 채 못되어 敵의 逆襲이 뒤따라 또 다시 爭奪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대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實彈이 不足하여 苦戰을 치르다가 11.30을 前後하여 다시 밀리게 되었으니, 이는 適時에 後續措置를 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큰 失手였던 것이다.

이처럼 연대에서는 제 1대대의 제 1중대와 제 2대대의 제 5중대(장, 崔益榮대위)를 抽出하여 現地로 急派하였는데 이 兩중대가 鶻泉里에 進出하였을 때에는 이미 撤收한 뒤인지라 여기에서 힘을 모아 再攻擊케 되었으니, 이는 마치 掌中之玉을 놓치고 다시 주으려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敵이 增強되기 前에 再奪還키로 다짐한 대대(+)는 12.20에 一齊히 反擊에 나섰는데, 이 場面을 回顧한 제 1중대의 제 3소대장 徐根錫소위는 뒷날 證言하기를,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는 제 3대대가 氣盡脈盡한 상태이기 때문에 先頭에서 進擊케 되었는데 敵의 砲擊이 어찌나 甚한지 상당한 兵力損失을 보게 되었으며 陣前에서 手榴彈으로 混戰할때에도 砲擊을 멈추지 않아 苦戰을 치렀다. 그러나 끝까지 공격하여 目標를 奪取하고 보니 山野에 敵屍가 널려있었으며 이때부터 敵은 正面에서 挑戰하는 것이 아니라 迂回하여 바로 鶻泉里로 直衝하였다. 그래서 깜짝놀라 이를 阻止하려고 하였더니 撤收命令이 下達되어 原陣地로 退却하였다』라고 述懷하였으며 또한 제 5중대 제 2소대의 小銃手였던 金柱浩 二等兵은 『내 平生에 잊지 못하는 곳이 玉女峰이다. 우리는 學徒義勇軍의 第一陣으로 大田에서 志願해 가지고 店村으로 들어가 제 7연대 所屬으로 戰線에 加擔하였는데 도착한지 하루만에 小銃 分解結合만 몇번 해보고 곧 戰地로 뛰어들어 玉女峰 攻擊에 加擔한 것이다. 따라서 實戰場의 生態도 모른채로 오직 勇氣 하나만으로 突進하였는데 세번을 失敗하고 네번만에 目標를 奪取하였을 때에는 20餘具의 敵屍가 널려있는것을 보니 비로소 慘憺함을 느꼈다 이 攻擊過程에서 張世弼 同志가 自動小銃을 한손으로 비껴들고 賊聲을 지르면서 올라가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라고 지난 일을 回顧하였다.

이렇듯 대대(+)는 目標를 再奪還하였지만 연대의 計劃에 따라 撤收케 되었거니와, 여기에서 特記할 事項은 이날 攻擊에 最初로 學徒義勇軍이 參戰하였다는 사실이다.

大田에서 志願兵으로 編成된 學徒義勇軍 第一陣 180명이 21일 下午에 店村으로 南下하여 곧 제 7연대 제 2대대에 所屬되어 參戰하였다는 바, 이는 開戰以後 최초로 充當된 新兵이자 愛國青年학도의 義學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學徒兵을 補充받은 즉시 戰地로 進出し켰

다고 하니, 당시의 戰況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으리라.

어떻든 연대는 이날 玉女峰을 奪還하였으나 恩城부근의 敵勢가 增強된데다 西南쪽의 籠岩里부근에서도 또한 壓力이 加重되어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一旦城底里로 兵力을 뽑은다음 제 1연대와 現任務를 交代하고 20.00부터 咸昌으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연대는 玉女峰과 △387에서 4일 동안에 걸친 激戰을 치르고 이제 사단의 豫備로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 4. 제 1연대의 戰鬪加擔

이상과같이 이날 사단의 3個연대가 一進一退를 보인 끝에 대체로 現戰線을 緊持케 되었으나 中央地帶의 魚龍山이 敵手中에 떨어져 그 南쪽의 鳥峰이 威脅을 받는데다 西南쪽의 籠岩里와 七峰山(△598: 咸昌西쪽 12km) 부근에 敵의 出沒이 잦아지니 左一線의 제 7연대 戰線이 突出하여 漸次로 分斷될 위험이 높아졌다.

뿐만아니라 同연대는 連日의 激戰으로 말미암아 部隊의 整備가 要望되는 터인지라 사단에서는 戰線의 再調整과 아울러 同연대를 交代키로 決定하였다.

이리하여 軍단作命 제 3호(文書壽命은 7월 22일부)로써 전날 사단에 配屬된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로 하여금 제 7연대의 現任務를 引受케 하니, 연대는 제 1, 제 2兩대대로서 葛美峰—葛田里—△324간의 潁江 南쪽 진지를 引受하고 또한 그 西南쪽의 水曳里(籠岩里 東쪽 5km)부근에 새로운 警戒陣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 3대대는 店村으로 進出시켜 사단의 豫備로 待機케 하였다.

結局 潁江 北쪽의 玉女峰과 △387를 拋棄하고 江 南쪽의 진지를 西南쪽으로 더욱 延長하여 西向陣地를 占領케 된 것이다.

이로부터 제 1연대가 戰線에 加擔하여 사단의 左一線을 擔當케 되거니와, 이무렵 當面에는 北傀 제 1, 제 13兩사단 뿐만아니라 化寧場으로 侵入하다가 進路가 막힌 제 15사단이 또한 西側에서 挑發함으로써 漸次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7월 23일: 防守 5일째 되는 이날, 敵은 제 2연대 正面으로 集中的인 攻撃을 계속하여 사단의 中央地帶를 分斷突破코자 하니, 3번도로 부근과 鳥峰에서 激戰이 벌어지고 또한 이 影響이 左右의 隣接연대에까지 波及되어 사단의 全陣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 1. 제 2연대의 戰況

##### (가) 敵의 戰車隊의 越江 侵攻

開慶에서 店村으로 이어진 3번도로는 사단 作戰地域內에서 唯一하게 機械化부대의 活動이 可能的한 機動路로서 彼我間에 이를 重視하여 여기에 警戒의 重點을 두게 된 바,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가 이 軸線의 陣地를 擔當하여 제 1 제 2 兩대대를 佛井里 뒷산에 配屬하

고 또한 美제 79戰車대대 A중대의 支援을 받아 그 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 05.00에 연대규모의 敵이 戰車隊를 앞세우고 嶺南橋부근으로 밀려들었다.

이때에 江南岸에는 輕戰車(T-24) 3臺(그밖의 2臺는 幽谷에 位置)와 연대의 對戰車砲중대(장, 李勳중위)가 布陣하고 그 直後方에 있는 閑慶嶺山 부근에는 제 1대대(장, 朴魯珪중령)가 配置되어 있었는데 敵의 戰車(T-34) 7臺가 砲撃을 加하면서 破壞된 橋梁 上流에서 江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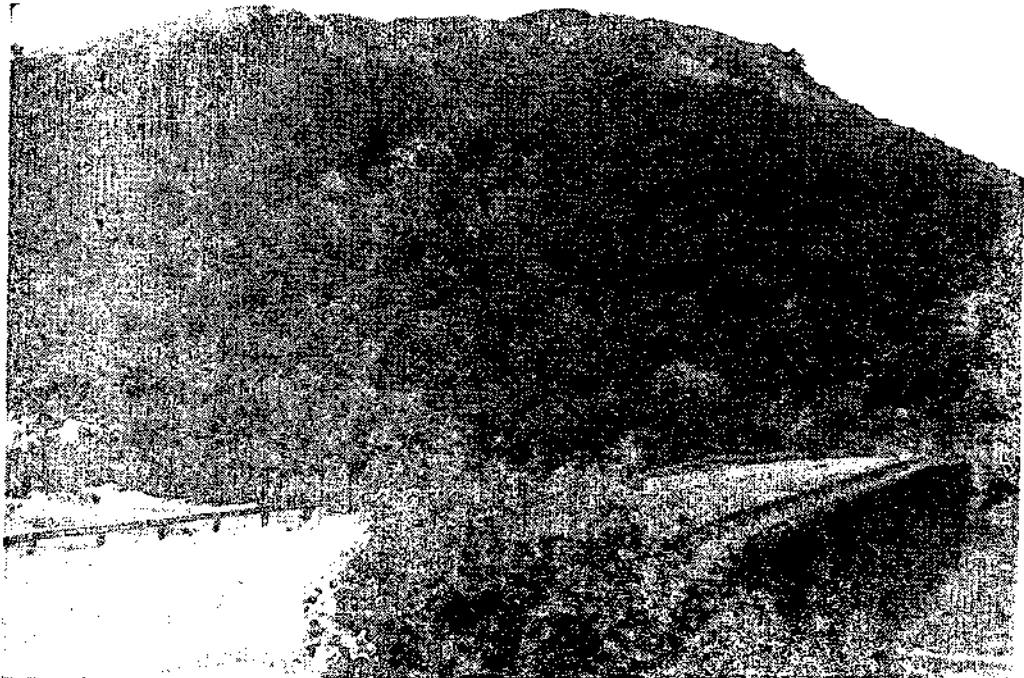
이에 戰車砲와 對戰車砲 그리고 155mm 重砲까지 合勢하여 集中砲撃을 加하였지만 敵戰車는 이에 아랑곳 없이 江을 건너 다음 連續 砲撃을 加하면서 嶺山쪽으로 侵攻하였다.

이렇게 되자 敵手가 되지 못하는 輕戰車는 幽谷쪽으로 撤退하고 이어서 對戰車砲중대가 分散될 뿐만아니라 이제 그 衝鋒이 제 1대대의 陣前으로 指向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現狀을 지키본 제 1대대에서는 敵의 後續 步兵을 阻止키로 다짐하고 現陣地를 扼守하는 한편 重火器중대의 81mm 박격포를 道路부근으로 推進하여 正面에서 그 軌道를 爆破케 하였던 바, 아무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 戰車의 機銃에 밀려 砲마저 遺棄한 채로 分散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4臺의 戰車가 外佛井(炭鑛村 南쪽 1km)을 通過하자 이번에는 2個대대 규모의 步兵이 제 1대대의 陣前으로 侵攻하였다.

이때가 07.00로서, 交戰이 시작된지 2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敵은 어느덧 橋頭堡를 確



<嶺南橋(1954년 復舊)>

保하여 陣前에서 發惡할뿐아니라 一部の 兵力을 西側의 魚龍山으로 投入하여 △583를 威脅하고 여기에 또한 側背의 戰車砲火까지 걸치고 보니, 이로부터 3個대대가 佛井山에서 惡戰苦鬪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血鬪를 계속하고 있던바 09.00에 이르러 左第一線진지인 鳥峰마저 敵手中에 떨어지고 보니, 이제 退路가 遮斷될 危機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에 사단장으로부터 『제2연대는 洞谷으로 集結하라』는 命令이 下達되고 이와 채물같이 하여 UN空軍의 戰爆機 1個編隊가 上空에 나타나 敵의 戰車를 비롯한 侵攻線 一帶를 連打하자 이를 틈타서 佛井山에서 천수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渦中에서도 제4중대 追擊砲소대의 先任下士官 劉永國중사는 잃어버렸던 81mm박격포를 다시 回收하였다고 하는 바 그의 證言에 따르면 『戰車에 밀려 砲를 잃고 차라리 敵陣中에 뛰어들어 죽자고 버르고 있을때 Z機가 날아와 痛快하게 戰車를 爆破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砲를 되찾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述說하였다.

#### (나) 鳥峰의 血鬪

한편 연대의 左第一線으로, 配屬中인 제19중대 제3대대(장 金斗逸소령)의 陣地인 鳥峰에서도 05.00에 2個대대 규모가 侵攻하여 07.00 現在까지 熾烈한 交戰이 거듭되었다.

전날 同高地 北斜面의 제10중대(장, 金斗逸중위) 正面에서 痛擊을 받고 물려선 敵은 이날 또 다시 同地域으로 대대규모를 投入하여 佛井里 溪谷으로 通하는 捷路를 끊고자 하는 한편 다른 대대규모가 猪音里 溪谷으로 돌아 西側의 제11중대(장, 李序學중위) 진지를 삼키고자 하니, 交戰 直後부터 불꽃튀는 激戰이 벌어져 2,000m 内外의 방어진지 全面이 銃砲聲과 砲煙으로 덮이고 到處에서 手榴彈의 爆音이 요란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2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제11중대의 陣地가 무너지면서 血戰場으로 돌변하고 말았으니, 數적으로 劣勢한 대대는 惡戰苦鬪를 거듭하다가 09.00를 前後하여 끝내 分散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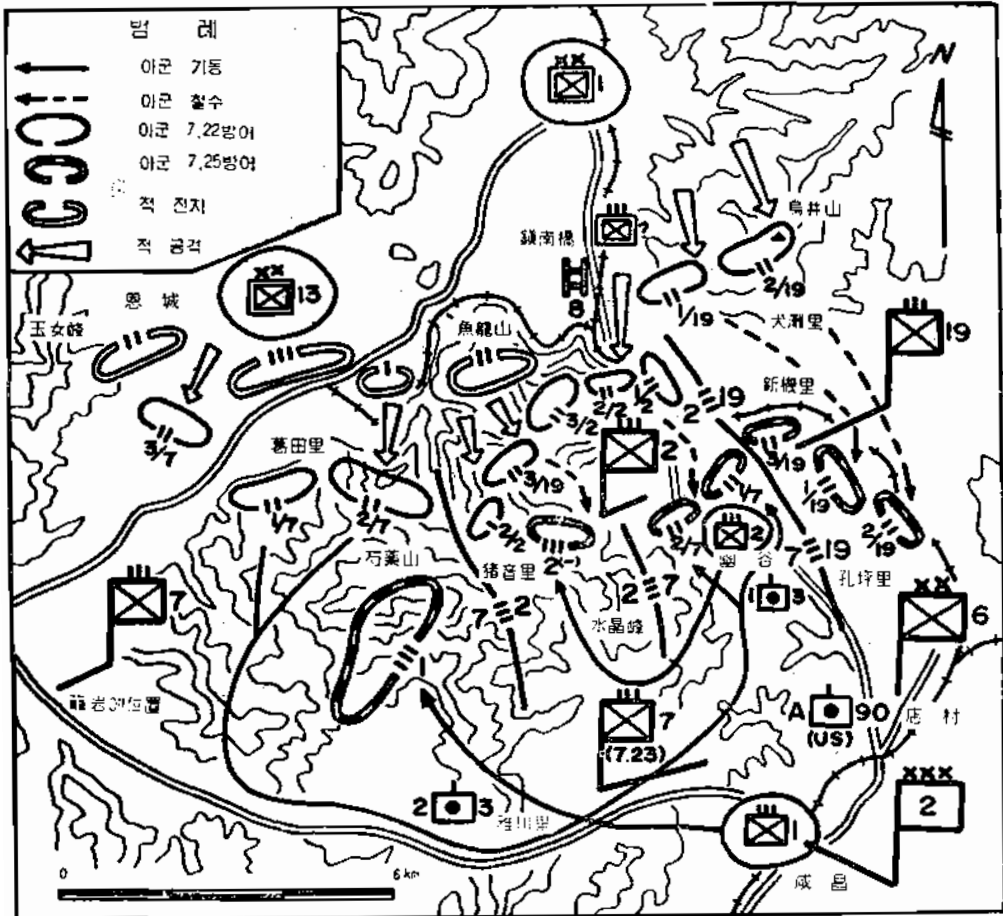
이에 대대장은 黃義哲중위가 지휘하는 제9중대로 하여금 逆襲케 하였던 바, 同중대도 또한 그 目的을 이루지 못하고 2시간 뒤에는 2km 後方인 △651로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연대의 全陣地를 한 눈에 瞰制할수 있는 鳥峰을 敵手中에 넘겨주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佛井里 溪谷이 이들의 機動路로 변하여 새로운 危機를 마지하게 되었다.

이때에 友軍의 戰爆機가 空中支援하여 右第一線의 戰車隊를 爆擊한데 이어 다시 鳥峰 一帶를 强打하자 대대는 이에 힘입어 左端의 제2중대와 함께 △651—『은점재』간의 新陣地를 占領하였다.

여기에서 이날 逆襲에 나섰던 제9중대장 黃義哲중위의 證言을 통하여 당시의 實情을 살펴보면, 그는 全中隊員 70명 가운데 少數의 行政要員을 除外한 모든 병력을 들어 攻擊에

◇ 上 황도 제66호 店村-幽谷-恩城附近 戰況(22~25일)



나섰는데 途中에 孤立된 我軍 1個小隊 병력을 만나자 서로 힘을 모아 鳥峰 西側으로 躍進하던 바, 一團의 敵이 猪音里 溪谷으로 侵入하여 이와 激突케 되었으나 力不足으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든 연대는 이날 佛井山과 함께 地域內의 제일 높은 高地인 鳥峰을 상실케 되었던 것이다.

(다) 제 7연대의 赴援

이상과같이 제 2연대가 苦戰을 치르고 있을때 사단에서는 火力으로써 이를 支援하다가 끝내 戰線이 突破되자 咸昌에 集結中인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를 急遽 店村으로 北上시켜, 『幽谷 正面의 敵을 阻止 擊滅하는 동시에 제 2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라』는 要旨의 緊急 命令을 下達하였다.

이때가 10.00로서, 戰線이 突破된 1시간 뒤이며 또한 同연대가 戰地에서 물러선지 14시



간 밖에 안되는 시간이니, 사실상 연대는 전혀 休息을 취하지 못한채로 이같은 火急한 命  
 令을 받게 된 셈이거니와, 寸刻을 다투는 危急한 상황인지라 즉각 幽谷으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제 1대대(장, 金龍培중령)를 그 北쪽 △267에, 제 2대대(장, 金鍾洙중령)를 그  
 西쪽 300高地 稜線에 각각 配置하는 한편 제 3대대(장, 李南浩중령)를 그 南쪽 2km의 孔  
 坪里에 豫備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指揮所도 孔坪里로 移動하여 사단에서 새로 配屬된 工兵隊를 掌握하고 또  
 한 美戰車중대와 協同케 되니, 이제 3번도로 軸線으로 指向한 敵과 正面으로 맞서게 되었  
 다.

그런데 當面의 敵은 院洞(幽谷北쪽 3km) 부근에서 空中爆撃을 받아 2台的 戰車를 잃고  
 聞慶炭嶺부근으로 물러선 뒤로 다시 戰車隊는 나타나지 않고, 步兵만이 佛井山—魚龍山간  
 에서 再編상태로 들어간듯 하였으며, 그동안에 제 2연대는 幽谷으로 속속 집결하였다.

그리고 다시 16.00를 前後하여 UN空軍의 전폭기 2個編隊가 炭嶺村부근과 敵의 策源地  
 로 指目된 新峴里 一帶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뒤로 戰線은 小康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幽谷으로 集結한 제 2연대는 사단장  
 의 指示에 따라 現戰線을 제 7연대에 引繼하고 烏峰 南쪽의 △651로 移動하여 제 19연대의  
 제 3대대가 맡고있는 同高地의 진지를 主力으로써 占領하였다. 이렇듯 연대는 千辛萬苦의  
 艱難을 딛고 일어서 이제 左第一線이었던 3km의 防禦正面을 擔當케 되었거니와, 여기에서  
 다시 烏峰을 奪還키 위한 反擊準備에 着手하였다.

그리고 진지를 引繼한 제 19연대의 제 3대대는 이날 24.00附로 配屬이 解除되어 原隊로  
 復歸하였다.

## 2. 사단의 戰線整備

### (가) 제 19연대의 烏井山 撤收

이상과같이 사단의 中央一線 연대가 激戰을 치르고 있을때 右一線인 제 19연대(장, 閔丙  
 權대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烏井山 진지를 確保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中央地帶의 戰線이  
 3km 後方으로 물러 서게되자 연대는 石峴里 東쪽의 側方陣地를 더욱 強化하던 바, 19.00를  
 期하여 사단장으로부터 『牛池里—新機里간의 新陣地로 撤收하여 側方警戒를 強化하라』는 要  
 令의 命令이 下達되었다.

그런데 이 新陣地란 바로 幽谷 東쪽 穎江 南岸에 沿한 곳으로서, 이제 연대는 江畔陣地  
 를 占領하여 東側으로 侵攻하는 敵을 막고자한 것이다.

그리하여 21.00부터 兵力을 逐次로 뽑아 新陣地로 轉進시킨 끝에 다음날 01.00까지 진지  
 編成을 마쳤는데, 제 2대대가 △227(新機里 東南쪽 1km)南쪽 牛池里 一帶를 占領하고 제  
 1대대가 그 北쪽 新機里 正面을 擔當하여 이날 새로히 進出한 제 7연대의 제 1대대와 戰

線을 連繫하였다.

그 뒤로 03.00에 제 2연대에 配屬된 제 3대대가 鳥峰 南쪽 △651에서 配屬이 解除되어 同陣地를 제 2연대에 引繼하고 復歸하자 이를 豫備로 保有하여 指揮所가 位置한 店村에서 待機토록 하였다.

#### (나) 제 1연대의 陣地移動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는 전날 葛美峰(△582)－△324－水曳里 간의 陣地를 占領한 뒤로 陣地를 補強中, 鳥峰을 喪失한지 2시간 뒤인 11.00에 사단에서 2km 直後方인 △760(芍藥山 北쪽 高地)와 △492(文昌里 西쪽 高地)간의 新陣地로 撤收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었다.

이리하여 逐次로 兵力을 뽑아, 제 2대대(장, 李義明소령)를 △760에, 제 1대대(장, 金煌穆소령)를 △492 一帶에 각각 配置하는 즉시로 西北向 陣地를 마련케 하니, 이때가 14.00로 서 이제 연대는 籠岩里에서 咸昌에 이르는 側方의 要線까지 包含하여 右隣接인 제 2연대와 戰線을 連繫케 된 것이다.

이때에 연대에 配屬된 제 7연대의 對戰車중대도 籠岩里에서 雅川里(咸昌西쪽 7km)로 移動하고 또한 그 西南쪽의 七峰山 부근에 있던 警察대대(200명)도 大峴里(雅川里 南쪽 3km)로 轉進케 되었으니, 이로부터 사단의 防禦陣容은 대체로 新機里－幽谷－猪音里－芍藥山－△492－大峴里 간의 半橢圓形 陣지로 縮小케 된 것이다.

7월 24일 : 사단은 전날 戰鬥에서 一步 물러선 뒤로 佛井山과 鳥峰을 奪還키 위한 方案을 검토한 끝에 이윽고 이날 06.00를 期하여 제 7, 제 2兩연대로써 反擊을 斷行하였다.

그런데 敵側에서도 이보다 1시간 뒤인 07.00에 다시 3번도로 軸線으로 指向한 逆攻에 나섬으로써 幽谷 正面에서는 제 7연대와 제 19연대가 攻防激突을 보이고 鳥峰에서는 제 2연대가 밤이 늦도록 爭奪戰을 벌이게 되었다.

바야흐로 戰鬥은 이제 3번도로가 끊리느냐 아니면 이 驕敵을 擊破하느냐의 與否를 판가름하는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 1. 제 7연대의 反擊

연대는 전날 幽谷 正面으로 進出하여 3번도로 左右側方의 △267와 △358 一帶에 新陣地를 編成하였음은 既述한 바 있거니와, 이날 새벽에 사단장으로부터 『佛井山을 奪還하라』는 反擊命令과 함께 一部の 戰鬥地境線을 再調整한다는 명령을 받게되자 3번도로 東側의 △267를 제 19연대에 引繼하고 그 西側의 △358를 金鍾洙중령이 지휘하는 제 2대대로 하여 金 確保케 하는 가운데 제 1, 제 3兩대대로써 反擊을 斷行하였다.

즉, 연대의 豫備로 孔坪里에 待機中인 제 3대대(장, 李南浩중령)를 北上시켜 中間目標인

△414(幽谷 西北쪽 2.5km)를 奪取케 하고 △267에서 陣地를 引繼한 제 1대대(장, 金龍培중령)로 하여금 그 西쪽의 △583를 奪還케 하여 兩側方에서 佛井山을 奪還할 方針아래 06.00를 期하여 一躍 西北進하였다.

이리하여 제 3대대가 佛井里 溪谷을 橫斷하는 즉시로 △414의 南麓으로 突入하여 中대규모의 敵陣을 攻擊하고 제 1대대가 계속 躍進하여 △583로 進擊하였는데, 10.30에 이르러 제 3대대가 中間目標인 △414를 奪取하였다. 그러나 제 1대대는 大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쳐 熾烈한 射擊戰만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무렵 院洞 南쪽의 『돌모산』 기슭에서 또 다른 一場面의 戰鬪가 벌어지고 있었으니, 이는 제 19연대의 正面으로서 3번도로로 侵攻한 敵의 步戰協同부대와 同연대의 제 1대대가 여기에서 激突케된 것이거니와 이 戰線이 차츰 南으로 밀림에 따라 攻擊部隊의 退路가 遮斷될 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사단에서 攻擊을 中止하고 즉시 反轉토록 지시함으로써 연대는 全兵力을 뽑아, 제 3대대로 하여금 △358 東斜面에서 幽谷으로 通하는 要線을 防守케 하는 동시에 제 1대대는 『한작골』로 集結시켜 豫備로 保有하였다.

그리하여 14.00부터 제 19연대 제 1대대의 直後方에서 縱深陣地를 強化하기에 이르렀다.

## 2. 제 19연대의 △267 防禦戰

연대는 전날 烏井山에서 撤收하여 潁江 南岸에 選定한 牛池里—新機里간의 陣地에서 사단의 東側方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 左隣接인 제 7연대가 反擊케 됨에따라 그 右第一線지인 △267를 引受하였다.

그런데 이 △267는 바로 幽谷 北쪽의 제일 높은 봉우리로서 院洞부근의 3번도로 一帶를 瞰制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標高는 높지 않으나 攻守의 要點이었다.

따라서 제 1대대(장, 李柱順대위)로 하여금 이를 專擔防禦케 하는 한편 전날 밤에 復歸한 제 3대대(장, 金韓德소령)를 新機里로 推進하여 同대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였던 바, 이날 敵의 步戰協同부대가 이 △267의 正面으로 侵攻하였다.

이때에 同 제 1대대는 제 1, 제 3兩중대를 △267의 左右側 發線에 配置하고 黃宗九중위가 지휘하는 제 2중대를 그 北쪽 『돌모산』 기슭으로 推進케 하여 3번도르를 掌握하고 있었는데 反擊部隊가 進出한 1시간 뒤인 07.00에 大대규모의 敵이 2중의 戰車를 앞세우고 院洞에서 『돌모산』쪽으로 侵攻하였다.

이무렵 院洞부근에는 연대규모의 敵이 集結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그 一部分으로 推斷되거니와, 이들은 戰車의 先導아래 『굴모리』의 橋梁부근까지 다가서고 있었다.

이에 大대의 全火力이 불을 뿜고 또한 105mm와 155mm野砲까지 合勢하여 『굴모리』와 院洞 一帶를 強打하였으며 특히 戰車가 破壞된 同 橋梁을 迂回코자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는

同時集中 火力으로 打擊을 加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攻擊이 執拗하여 10.00를 넘어서면서 부터 『돌모산』의 爭奪로 化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 9중대 正面에서 熾烈한 交戰이 展開되었는데 저들 戰車는 單獨侵攻을 꾀리는듯 現地에서 버틴채로 近接支援함으로써 이제 火力戰만을 보이던 바, 12.00를 前後하여 F-80戰爆機 2個編隊가 나타나 穎江 上空을 가로 누비며 院洞과 鎮南橋 一帶를 차례로 強打하니 이들은 支離滅裂되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대대는 20餘名の 驕醜를 射殺함과 아울러 △267를 끝까지 確保케 되었는데 이날 交戰에서 我軍側에서도 敵의 戰車砲擊으로 말미암아 제 3포병대대의 觀測將校인 咸熙熙 중위가 戰死하고 대대의 將兵 10餘名이 負傷을 입었다.

그 뒤로 연대에서는 △267의 陣地를 더욱 補強하던 바, 15.00에 이르러 사단장으로부터 現陣地를 제 1연대에 引繼하고 主力으로써 江畔陣地를 強化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이 하달됨으로써, 연대는 17.00까지 同陣地를 제 1연대 제 2대대에 引繼한 다음 제 3대대를 新機里 西北쪽의 江畔으로 推進 配置하였다.

이로부터 연대는 牛池里—△227—新機里—『돌모산』 北쪽稜線간의 東側方 陣地를 防守하기에 이르렀다.

### 3. 제 1연대의 幽谷戰鬪 加擔

이상과 같이 제 7연대와 제 19연대가 幽谷 正面에서 激戰을 벌이고 있을때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는 사단의 左一線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는데, 決戰 場所가 바로 이 幽谷 正面이 되고 보니 사단에서는 제 7, 제 19兩연대의 兵力實情을 勘案하여 一部の 陣地를 調整키로 하였다.

즉 左一線인 제 1연대로 하여금 現陣地를 1個대대로써 警戒케 하는한편 여기에서 2個대대를 뽑아 幽谷 正面의 △267와 △387를 引受케하여 3번도로 軸線상의 要域을 專擔토록 하고 그 東側의 제 19연대와 西側의 제 7연대는 各各 擔當正面을 縮少케 하여 이 地域에 대한 防禦縱深을 強化키로 한것이다.

이리하여 제 1연대장 尹春根중령이 15.00에 이 命令을 받고 제 1대대장 金煌穆소령으로 하여금 芍藥山—水曳里간의 現陣地를 確保케 하는한편 제 2, 제 3兩대대를 幽谷 正面으로 推進하여 17.00까지 陣地編成을 마쳤으니, 곧 제 2대대장 李義明소령은 제 19연대 제 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267를 占領하고 姜琬塚소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는 제 7연대 제 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358 東斜面의 陣地를 占領한 다음 佛井里 溪谷으로 指向한 防禦態勢를 取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右隣接인 제 19연대는 新機里 西北쪽으로 陣地를 延長하여 『돌모산』 北쪽 稜線에 새로운 陣地를 마련하였으며 左隣接인 제 7연대는 △358 西斜面에서 △651 東側에 이르는

2km의 防禦正面을 막아서니, 이제 3個연대가 幽谷 正面의 敵을 阻止하게 된셈이다.

그 뒤로 이날 21.00에 중대규모의 敵이 △267의 西斜面으로 奇襲을 꾀하자 제 2대대가 4명을 射殺하고 小銃 6정을 幽獲함과 아울러 院洞부근으로 이를 擊退하고 달았다.

이때에 연대의 指揮所는 孔坪里(幽谷南쪽 2km)에 位置하였는데 이날 밤 24.00에 사단의 左一線을 지키던 제 1대대가 復歸하자 이를 연대의 豫備로 待期시켰다.

그러면 同 제 1대대는 左一線 진지를 어떻게 하고 復歸하였던가? 여기에는 다음과같은 指揮部의 措置가 있었던 것이다.

즉, 陸軍本部에서는 이무렵 咸昌—店村正面이 危殆롭게 되자 제 1사단을 이곳으로 推進할 方針아래 安東에 位置한 제 5연대(장, 金東斌 중령)로 하여금 國一命(陸) 제 20호로써『咸昌으로 移動하여 제 1사단장의 指揮下에 들라』는 命令을 下達한바 있었는데 제 1사단은 化寧場에서 遲滯되어 아직 現地에 當到하지 않았으나 제 5연대가 現地에 이르게으로써 軍단장 劉載興준장이 直接 同연대로 하여금 前述한 左一線 진지를 引受케 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同연대는 車甲俊소령이 지휘하는 1個대대 兵力 300명 밖에 없는 實情이었는데 (7월 26일附로 제 1사단의 제 11연대에 統合됨) 이같은 명령을 받게되자 咸昌에서 儉安(咸昌西쪽 7km)으로 移動하여 제 1연대 제 1대대의 진지를 引受함으로써 同대대가 이날 밤에 孔坪里로 復歸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26일 15.00에 제 1사단의 先遣隊가 當到할때까지 同연대(-2)를 統轄 指揮케 되는바, 이期間中에는 特記할만한 活動이 없이 現陣地를 그대로 保有하다가 27일 以後부터 本格的으로 交戰하게 되므로 그 內容에 대하여서는 제 1사단의 咸昌부근 戰鬪에서 詳述케 될것이다.

#### 4. 제 2연대의 烏峰 奪還戰

한편 제 2연대는 이날 제 7연대와 함께 反擊을 斷行하여 烏峰을 奪還키로 하였는데, 前述한 바와같이 제 7연대는 幽谷 正面으로 反轉케 되었으나 연대의 境遇는 이와 달랐다.

전날 佛井山에서 물러선 뒤로 이곳 △651로 集結한 연대는 이날 06.00를 期하여 李雲山 소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로 하여금 이 任務를 遂行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烏峰은 地域內에서 제일 높은 瞰制高地로서 敵側에서도 이를 重視하여 增強된 大대규모의 兵力을 配置하였을 뿐만아니라 機動空間이 또한 制限되어 300명 이상의 兵力을 同時에 進出시키기에는 너무 狹小한 地域인 까닭에 攻者로서는 매우 不利한 形勢이었다.

더구나 彼我間에 고개만 들면 銃擊이 亂舞하는 對陣狀態이고 보니 白晝의 攻擊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연대는 反擊을 斷行하여 初攻 第一陣인 제 3대대의 뒤를 이어 제 1대대(장, 朴魯珪 중령)를 다시 第二陣으로 進出시킨 뿐만아니라 연대의 全火力을 集中하였는

데 敵側에서도 또한 繼續 兵力을 增強하면서 頑強히 抵抗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激烈한 攻防戰이 展開되었다. 연대는 이 一戰에서 무려 7시간의 連續攻擊을 加한 끝에 이윽고 13.00에 鳥峰을 奪還하고자 말았다.

이리하여 同高地를 占領하고 보니, 射殺된 敵屍가 300餘具나 널려있는데다 機開銃 18정을 비롯한 各種小銃 128정과 實彈 3,500여발등이 屍體옆에 그대로 放置되어있어 이를 現地에서 鹵獲하였으며 이 밖에도 俘虜 1명을 사로 잡았다.

그런데 연대에서도 70餘名의 死傷者를 보게되었으니, 이는 大部分이 敵의 砲火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연대는 여기에서 제1, 제3 兩대대로 하여금 現 占領陣地를 確保케 하는한편 제2 대대(장 徐廷學 소령)를 다시 東北쪽으로 進出시켜 △583를 奪取케 하였던 바, 15.40에 鳥峰을 넘어 超越攻擊에 나선 同대대는 魚龍山 東麓에서 增強된 대대규모의 敵과 2시간 동안을 겨루다가 日暮가 가까워지자 鳥峰 南麓은 後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연대는 이날 鳥峰을 奪還하여 日沒과 더불어 防禦태세로 들어 갔는데 이 高地는 사단의 現戰線으로부터 北쪽으로 1km쯤 突出한 形勢였다.

7월 25일 : 交戰이 시작된지 一週日째되는 이날, 北傀 제2 軍단장 金武亭은 마침내 제13 사단 까지 東쪽으로 移動시켜 사단 防禦正面의 中央地帶를 突破코자 集中攻擊을 敢行하였으니, 전날에 이어 이날도 鳥峰에서 爭奪戰이 벌어지는가 하면 幽谷 正面의 3번도로 軸線에서도 攻防이 反復되었다. 그런데 특히 鳥峰에서는 이날 02.00에 敵이 奇襲攻擊을 敢行하여 또 한차례의 爭奪을 보이고 幽谷 正面에서는 對戰車 肉薄戰까지 보게되었다.

### 1. 제2연대의 鳥峰戰鬪

제2 연대는 전날 鳥峰을 奪還한 뒤로 제1, 제3 兩대대로써 防禦態勢를 갖추었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날은 이른 새벽에 다시 敵側에서 연대규모의 兵力을 投入하여 奇襲을 노림으로써 여기에서 먼저 黎明의 格鬪를 벌이게 되었다.

이들은 潁江 南岸의 △424부근에서 猪音里 溪谷을 따라 鳥峰 西側으로 潛入하여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西斜面의 제3 중대(장, 趙重錫 중위) 陣地를 공격하는가 하면 또 다른 대대규모가 北斜面의 제3 대대 陣地를 急襲하니, 突然 搏鬪로 번지면서 큰 混亂이 惹起되었다.

이리하여 2시간 동안을 버티다가 끝내 제1 대대의 陣地가 무너져 猪音部落(一名 돈마름이)부근으로 밀리게되자 연대장은 兩대대의 兵力을 △651로 集結케하고 砲擊을 더욱 增援토록 要請하였다.

이무렵 사단에서도 제2 연대의 戰況이 急轉케되자 同연대의 主力을 一巨『은성재』(安龍里北쪽 고개) 부근으로 한 걸음 물러 뺐은 다음 05.00를 期하여 사단의 可用한 全火力 즉

제3포병대대의 105mm野砲를 비롯한 美제90포병대대의 155mm 重砲와 81mm 및 60mm 박격포까지 網羅한 同時集中 砲擊으로 鳥鋒을 中心으로 强打하였다.

이와같이 砲擊이 實施된 뒤를 이어 다시 제2연대가 逆襲을 加하였는데, 이번에는 제2대대(장, 徐廷學 소령)을 先鋒으로 삼아 06.00부터 1시간 동안에 걸친 力攻끝에 이윽고 07.00를 期하여 同高地를 再奪還케 되었거니와, 이 一戰에서 연대는 敵屍 200餘具를 確認하고 擄虜 2명과 歸順兵 1명을 押送할 뿐만아니라 迫擊砲 6문을 비롯한 機關銃 10정과 各種小銃 70정 및 各種實彈 1,500여발등을 鹵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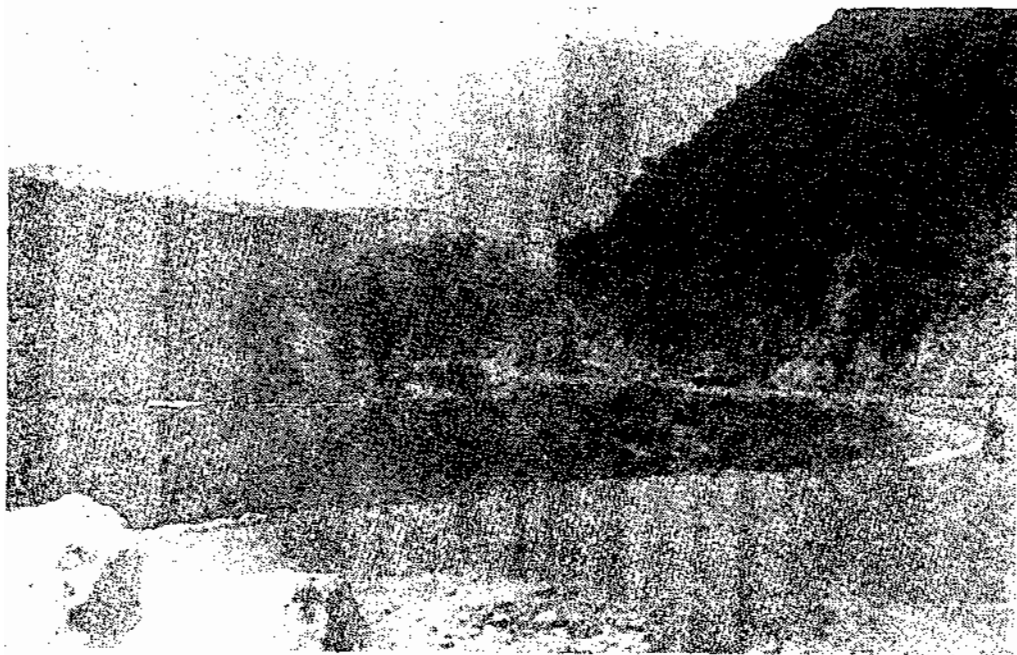
그리하여 旣標를 再奪還한 연대는 여기에 다시 防禦陣地를 改築하는 한편 제10중대(장, 李鍾基 대위)로 하여금 當烈의 敵情을 探索케 하였던 바, 同중대장이 流彈으로 幽明을 달리하였다.

그 뒤로 敵側에서는 魚龍山으로 물러나 守勢를 취함으로써 다시 對陣상태로 접어들었다

## 2. 제19연대 特攻隊의 對戰車 肉迫攻撃

한편 幽谷 正面에서는 이날 07.00에 敵의 步戰協同부대가 3번도로를 따라 院洞—幽谷 軸線으로 侵攻하였는데 『돌모산』 西麓에서 제19연대 對戰車特攻隊가 이를 攻撃하게 되었다

이 特攻隊는 제19연대장 閔丙權대령이 開戰初에 編成하여 이미 洪川 北쪽의 『말고개』에서 二威鬍를 보인 바 있는 特攻任務부대로서 이 전투 당시에는 제3대대의 補給官인 朴魯



<제19연대가 戰車를 破壞한 場所>

鳳중위의 指揮 아래 組長인 趙達珍이 등중사와 부조장 趙文鍾이 등중사 그리고 元根鎬일병, 李圭煥일병, 梁學模일병, 崔弘植일병, 羅龍洙일병등 7명의 隊員이 加擔하였다.

이 特攻隊의 編成經緯를 좀더 仔細히 살펴보면, 연대에서는 전날 2臺의 戰車와 一戰을 치른 뒤로 對戰車 特攻隊를 選拔하였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 任務를 맡은 趙達珍組長을 비롯한 12명이 志願하여 그가운데 獨子 5명을 除外하고 前記 7명으로 編成하였는 바, 연대장이 直接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나누어 주고 『그대들의 成功을 빈다』는 激勵로써 『돌모산 西麓에 配置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裝備는 각자 手榴彈 2個와 對戰車用 特殊爆彈—1 pound짜리 TNT 12개를 한데 묶어 그 가운데 수류탄을 쫓은 爆彈—한개씩을 携帶하고 4 습들이 瓶에 揮發油를 담아 들었다.

이리하여 『굴모리』의 橋梁 南쪽에서 『돌모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10m 内外의 간격으로 路邊에서 潛伏하던 바, 08.00를 前後하여 이윽고 4臺의 戰車가 敵의 先頭에서 同 橋梁부근으로 다가서자 瞬間적으로 一部の 兵士들이 潛伏地를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組長이 『눈 앞에 戰車를 놓고 어디로 갈것이나』고 奮勵하여 100m쯤 뒤로 물러나 다시 肉迫攻撃態勢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敵의 戰車砲火가 날아들어 趙文鍾중사가 現地에서 戰死하니 이때부터 全隊員이 죽임으로써 對決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돌모산』 北麓에서 또한 연대의 57mm對戰車砲火가 불을 뿜어 先頭車에 一擊을 加하자 4臺의 戰車가 同時에 멈추어 서면서 砲口를 山麓으로 指向하였는데 이를 틈타 5명의 隊員이 거의 동시에 뛰어들어 爆彈과 手榴彈을 連投하였다. 이가운데 특히 趙達珍중사는 砲塔으로 뛰어올라 降服하라고 외쳤는데 敵의 戰車兵은 砲塔을 回轉시켜 떨어뜨리고자 하였으나 路邊의 미류나무에 부딪쳐 더욱 阻塞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으며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空中에 나타난 戰爆機 1個編隊가 後續 戰車隊와 步兵群을 強打하니, 進退維谷의 陷穽으로 떨어졌다.

이 好機를 捕捉한 特攻隊는 제 3대대와 제 1연대 搜索隊의 掩護 아래 끝내 屈服을 받아 先頭車의 戰車兵을 모두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戰車兵들은 車를 버리고 院洞쪽으로 退避하여 버렸다.

그런데 現位置는 敵의 後續部隊와 1,500m 内外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第一線인 까닭에 더 이상 滯留할수가 없으므로 4臺의 戰車를 모조리 破壞해 버린다음 戰車兵만을 押送하였다.

그 뒤로 연대에서는 이날의 殊勲者 全員에게 二階級의 特進을 上申한 바 있다.

### 3. 제 1연대의 戰況

한편 제 1연대는 전날 下午에 幽谷戰線에 加擔하여 제 2, 제 3兩대대로써 『돌모산』 바로



南쪽인 △267와 △358간에 陣地를 編成한 다음 3번도로를 專擔하고 있었음은 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날 10.00에 이윅고 敵의 步戰協同부대와 一戰을 벌이게 되었다.

즉, 『돌보산』 西쪽에서 제19연대 特攻隊의 肉薄攻擊과 UN空軍의 空中爆擊에 밀려 院洞 쪽으로 물러선 敵은 다시 同一軸線을 따라 侵攻함으로써 마침내 △267의 攻防戰으로 化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4臺의 戰車를 앞세우고 △267 西쪽의 3번도로 부근까지 侵入한 敵은 集中的으로 同高地를 攻擊하는 한편 戰車隊는 幽谷으로 徐徐히 南下하면서 背後를 遮斷하려 하니, 議政府의 戰線에서 논란 바 있는 同연대의 兵士들은 戰車의 威壓에 놀려 抵抗다운 抵抗도 못한채로 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幽谷 直南方의 『장승백이』 부근에서 제2대대장 李義明소령에게 嚴命을 내려 幽谷 西北쪽의 無名稜線에 阻止陣地를 急編도록 한바, 이때에 마침 戰爆機 1個編隊가 空中支援하여 後尾의 戰車 1臺를 爆破할 뿐만아니라 그 뒤를 따르던 步兵부대를 機銃掃射로 휩쓰니, 敵線에는 混亂이 惹起되어 목숨을 救하고자 숲속으로 파고 드는가 하면 앞서 南下한 3臺의 戰車도 숨을 곳을 찾아 疾走하다가 한대는 民家の 들안으로 숨어들고 다른 두대는 路邊의 野地에 墜落하고 말았다.

그뿐아니라 이때부터 사단의 全砲兵火力이 여기에 集中하고 또한 美제90포병대대의 155mm 砲火가 불을 뿜어 △267 一帶를 強打하니 幽谷 一圓에 硝煙이 깊었다.

이때에 연대장은 特攻隊를 選拔하여 前記한 3臺의 戰車를 공격케 하였는데, 步兵의 掩護도 없이 路邊에 미끄러진 상태에서도 자못 抵抗하자 2門의 81mm 박격포와 수류탄등으로 공격하다가 연대장이 直接 現地까지 달려가 投降을 強要한 끝에 이를 모조리 사로 잡았다.

이를 契機로하여 戰意를 되찾은 연대는 마침내 主力으로써 逆襲을 加하였는데 敵은 아직도 陣地를 編成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一擊에 무찔려 △267를 다시 奪還하고 보니, 이때가 12.30으로서 交戰이 시작된지 3시간 뒤였다.

그러나 敵은 쉽사리 斷念하지 않고 15.00를 期하여 再進擊하게 되니, 이번에는 연대규모의 步兵만으로 △267를 에워싸고 무려 7시간 동안에 걸친 激戰이 反復되다가 끝내 中央地帶의 防守陣이 무너짐으로써 22.00에 幽谷 南쪽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따라서 右隣接인 제19연대는 新機里에 位置한 指揮所를 店村으로 옮기고 左隣接인 제7연대는 △358 主峰의 一部兵力을 그 東斜面으로 配置하였다.

이상과같이 사단은 이날 烏蜂을 確保하고 또한 8臺의 敵의 戰車를 破壞 또는 鹵獲하기도 하였으나 3번도로 軸線上의 要衝인 幽谷을 喪失함으로써 새로운 危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7월 26일 : 이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驟마다 불이 피어 鐵帽를 벗어서 퍼 내어야 하

고 手尾는 붙어 鈍感할 程度였다.

따라서 敵情把握과 部隊의 機動에 많은 制限을 받았지만 사단에서는 幽谷부근의 제19, 제7兩연대의 陣地를 제1연대의 現陣地에 連繫토록 하였는데 敵側에서는 이를 틈타서 雨中 攻擊을 敢行함으로써 제19, 제7, 제2연대등, 3個연대 지역에서 각각 또 한차례의 交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侵攻은 1~2個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威力搜索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擊退하였다.

### 1. 제19연대의 △227 占領

연대는 幽谷 東北쪽의 新機里를 中心으로 穎江부근에 陣地를 마련코 사단의 右一線으로 있던 次에 前述한 바와같이 幽谷이 敵手中에 떨어지게 되자 主力을 그 南쪽의 △227 一帶로 뽑아 左隣接인 제1연대와 戰線을 連繫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리니, 彼我間에 攪亂射擊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幽谷에는 벌써 敵의 機械化부대가 侵入한 것으로 알려진 까닭에 兵力을 聞慶線 鐵路를 따라 東側으로 迂回시켜 10.00에야 제1, 제3兩대대로써 同高地를 占領케 되었다.

이리하여 전날 밤에 제3대대의 제9중대(장, 金斗逸 중위)가 同高地의 西斜面 진지를 占領한데 이어 비로소 이날 10.00에 主力으로써 제1연대와 戰線을 連繫케 되었는데, 진지를 占領한 直後인 10.30에 중대규모의 敵이 어느듯 陣前에 나타났다.

이는 撤收에 迫躡한 敵이 『꽃밭모리』(新機里 南쪽 마을) 洞口 밖에서 제3대대의 陣前으로 侵襲하자 一擊을 加하여 물리치고 달았다.

그 뒤로 연대는 東南쪽의 牛池里에 配置된 제2대대에서 1個중대를 뽑아 鐵路 東쪽의 倉里부근으로 推進 配置하게 되었다.

### 2. 제7연대의 水晶峰 占領

연대는 △358 西麓에서 그 直南方의 水晶峰(△487)으로 移動케 되었는데, 이 高地는 제1연대의 제1대대가 配置된 △186(장승백이 西쪽 700m)와 東쪽으로 連結되고 西쪽으로는 제2연대의 제2대대가 配置된 △651와 한 稜線으로 이어져, 萬一 이곳이 突破된다면 店村과 咸昌이 同時에 威脅을 받게 될 要衝이었다.

따라서 연대는 여기에 縱深陣地를 編成하여 제1, 제3兩대대를 그 左右側稜線에 配置하는 한편 제2대대를 그 北쪽의 雲岩寺 부근으로 推進하여 佛井里에서 雲岩골로 通하는 要線을 막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대체로 10.00까지 新陣地를 각각 占領한 다음 방어태세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보다 1시간 뒤인 11.00에 2개중대 규모가 侵攻하였다.

이들은 佛井里 溪谷에서 水晶峰 西側으로 기어올라 威昌으로 넘어가는 安龍里 고개를 占領하려는 듯, 左隣接인 제 2연대와 接境線 부근으로 밀려들었다.

이에 左第一線인 제 3대대와 제 2연대의 제 2대대가 同時集中 火力으로 挾擊하여 1시간 동안의 交戰끝에 물리치고 말았다.

이상과같이 제 19, 제 7兩연대가 陣地 占領과 아울러 陣前의 敵을 擊破하고 있을 무렵에 中央의 제 1연대는 전날 밤에 占領한 『장승백이』 左右側 稜線의 진지를 계속 補強하는 한편 威力 搜索隊를 편성하여 幽谷부근의 敵情을 探索하던 바, 同搜索隊가 『압골』(幽谷南端의 작은 部落) 洞口 밖에서 서성대는 소대규모의 敵을 奇襲하여 그중 7명을 射殺하고 機關銃 1정과 各種小銃 4정을 鹵獲하였다.

이로부터 사단의 東半部에서는 제 19, 제 1, 제 7연대 등 3個연대가 新陣地를 마련하여 3번도로 軸線으로 侵攻하는 敵을 막아서게 되었으나 幽谷과 新機里가 敵中에 떨어져 보니 이제 이들의 砲兵火力이 사단 指揮所가 位置한 店村에까지 미치고 坦坦大路에 機械化부대의 運用이 容易케 되어 점점 더 어려운 局面으로 접어들었다.

### 3. 제 2연대의 烏峰 固守

그러나 西半部の 제 2연대와 제 5연대의 境遇는 이와 달랐으니, 제 2연대는 烏峰에서 이날 08.00부터 대대규모의 敵과 2시간 동안에 걸친 雨中激鬪를 벌였으나 끝까지 이를 固守하여 擊退함은 勿論이요 특히 제 3대대는 이날 戰鬪에서 俘虜 2명을 사로잡고 自動小銃 2정과 各種小銃 15정을 鹵獲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 5연대(장, 金東斌 중령)도 또한 사단의 左一線인 九味里—武陵里간(威昌西쪽 7km)에서 現陣地를 그대로 固守하였으며 警察대대도 雅川里에서 제 5연대와 함께 西側方 警戒陣地의 一端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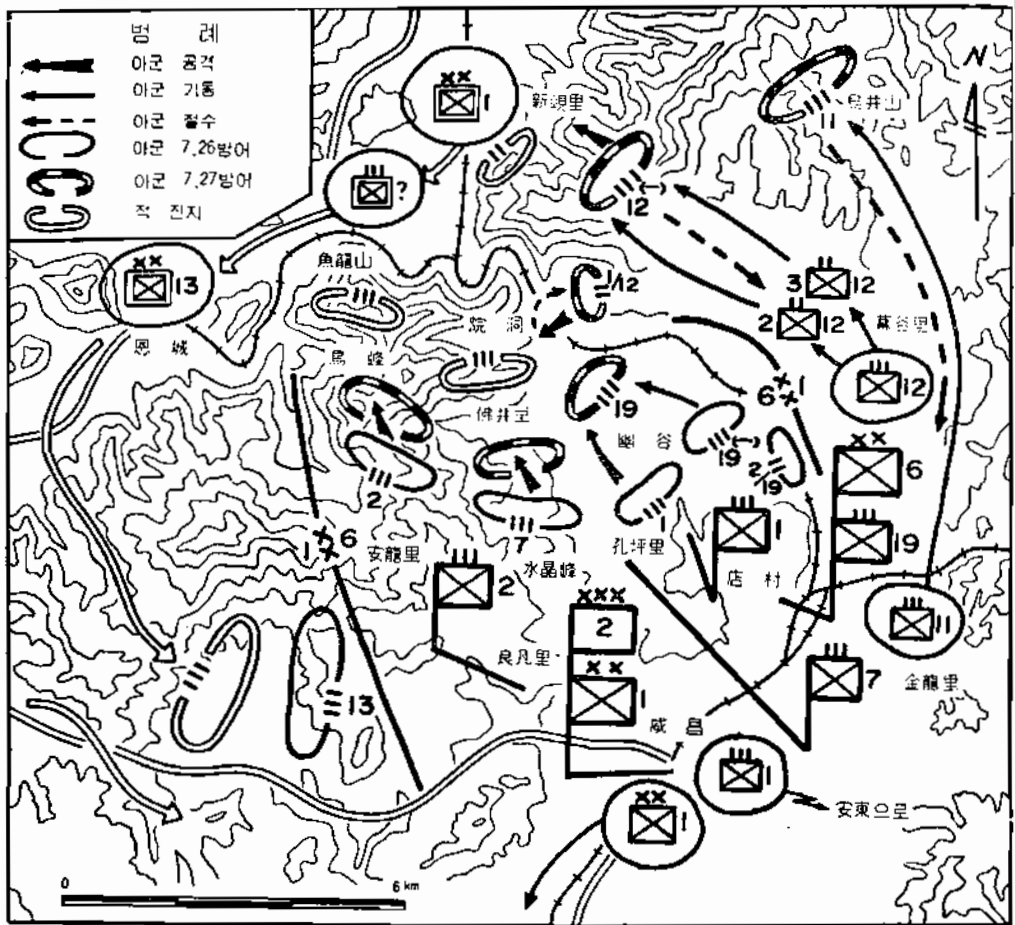
그런데 이날 16.00에 제 1사단이 主力으로써 威昌에 進出하자 軍단에서는 즉시 現 戰鬪地境線의 一部를 變更하여 烏峰 以東의 激戰地域을 當該제 6사단으로 하여금 當당케 하고 그 以西 즉, 제 5연대 지역을 包含한 威昌 西北쪽의 利安面 一帶를 제 1사단으로 하여금 擔當케 하니, 이로부터 제 5연대는 제 1사단장의 指揮下에 들게 되었다.

결국 이날부터 사단의 防禦正面이 9km로 縮小되고 제 1사단이 威昌 西北쪽 一帶를 擔當하여 이제 軍단 규모의 作戰으로 發展케 되었거니와, 同 제 1사단은 이날 夕陽에 제 5연대를 제 13연대(장, 崔榮禧 대령)와 交代시켜 제 11연대(장, 金東斌 중령 : 兵力은 제 11연대가 700명으로 많았지만 연대장은 제 5연대장이 任命됨)에 統合한 다음 反擊態勢를 갖추었다.

따라서 사단의 左隣接에는 제 15연대(8월 25일 附로 제 15연대로 改稱함)가 이날 밤부터 第一線에 나와 防禦태세를 취하고 제 11, 제 12兩연대는 다음 戰鬪에 對備케 된 것이다.

7월 27일 : 사단은 전날 新機里까지 내놓고 그 南쪽 1km의 △227와 水晶峰(△487)線으로

◇ 상황도 제67호 店村—幽谷—恩城附近 戰鬪(26~27)



물러난 바, 이날 06.00에 제 1사단이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潁江 東쪽으로 迂回하여 敵의 東側背를 攻撃하자 이보다 1시간 뒤인 07'00에 사단에서도 反擊을 斷行하여 幽谷 부근의 喪失한 地域을 모두 되찾음과 아울러 進擊을 위한 前進據點을 確保하였다.

즉, 군단에서는 사단의 現戰線이 危殆로운 것으로 내다보고 전날 咸昌으로 集結한 제 1사단(장, 白善燁 준장 : 7월 25일 附로 昇進)으로 하여금 2個연대로써 敵陣의 背後를 치게 하니, 제11, 제12兩연대가 그 任務를 맡아 潁江 東쪽으로 크게 迂回하여 大灘里와 烏井山을 占領한 다음 敵의 退路를 위협하면서 包圍擊滅할 태세를 취하자 幽谷부근까지 侵入한 敵線에는 混亂이 惹起되었으며 이를 틈타 제 6사단은 反擊을 斷行하여 新機里와 幽谷은 勿論이요 그 北쪽의 주요 高地를 모두 奪還케 되었다.

이로부터 戰線은 바야흐로 새로운 樣相을 보이게 되는 바, 사단의 이날 戰鬪經過를 記述하기에 앞서 제 1사단의 反擊狀況을 概觀하는 것이 戰況을 把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제 1 사단의 反擊狀況

제 1 사단은 이날拂曉에 제 11, 제 12兩연대를 咸昌에서 店村을 거쳐 穎江 東쪽의 金龍里(店村東쪽 2km)와 幕谷里(店村 東北쪽 5km)로 각각 推進한 다음 06.00를 期하여 反擊을 斷行하였는데 그 目標은 烏井山과 富雲嶺(烏井山 東北쪽 4km)을 占領하여 제 6 사단 正面에서 發惡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함과 아울러 이를 包圍擊滅키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金龍里를 出發한 제 11연대는 金東斌중령의 지휘아래 右一線에서 富雲嶺으로 進擊하고, 幕谷里에서 西北進한 제 12연대는 朴基丙대령의 指揮下에 烏井山으로 躍進하였는데 2 시간 後인 08.00에 이르러 左一線인 제 12연대가 먼저 烏井山을 無血占領하였다. 즉 同연대의 제 3대대(장, 李茂重 소령)가 標高 810m의 그 主峰을 占領하고 제 2대대(장, 趙成來 소령)는 犬灘里를 넘어 그 西쪽의 △486를 占領 確保한 것이다.

그리고 제 11연대는 이보다 1 시간 뒤인 09.00에 제 1, 제 2兩대대로써 富雲嶺을 占領하니 이제 兩연대가 敵의 策源地로 알려진 梧泉里와 新峴里를 한눈에 굽어볼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단은 一旦 進擊을 멈추고 敵의 逆襲에 對備한 防禦障地를 編成한 다음 13.00를 期하여 다시 제 12연대의 제 2, 제 3兩대대로 하여금 梧泉里를 攻擊케 하였는데, 이兩대대가 梧泉里 南쪽의 『적부실』 부근에서 戰車를 동반한 2個대대 규모의 抵抗에 부딪쳐 14.00부터 攻防擊鬪를 벌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날 下午까지 現地에서 交戰이 繼續되던 바, 17.00에 이르러 사단에서 이兩대대를 烏井山으로 撤收하라는 명령이 下達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18.00에는 富雲嶺의 제 11연대로 하여금 즉시 咸昌으로 反轉하라는 緊急命令이 하달되었다.

이는 軍단의 指示에 따른 사단장의 緊急措置였거니와, 그 까닭은 이날 제 1 사단이 反擊에 나선 시간과 거의 같은 무렵에 敵側에서는 主力을 反對方向인 西側으로 迂回시켜 咸昌 西北쪽의 제 13연대 正面으로 投入함으로써 오히려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交戰을 벌이게 되어 이에 對備코자 제 11연대를 急히 反轉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제 12연대 만은 繼續 現地에서 烏井山을 確保함과 아울러 제 6 사단 正面의 敵을 背後에서 攻擊토록 하니, 同연대는 제 2, 제 3兩대대로 하여금 烏井山 진지를 占領케 하는 한편 제 1대대를 그 直南쪽인 犬灘里 부근으로 뽑아 幽谷 北쪽에 있는 敵의 集結地로 알려진 院洞을 奇襲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 1대대장 申鉉洪소령이 이날 밤 21.00에 台峰에서 제 3중대(장, 辛溶弼 중위)를 先頭로 穎江을 건너 院洞을 奇襲하다가 敵의 機銃에 맞아 대대장과 同중대의 소대장 鄭基八중위가 現地에서 戰死하자 부대대장 朱汝俊대위가 兵力을 收拾하여 江 東쪽에서 敵陣의 背後를 强打하였다.

이것이 제 6 사단의 戰線에 直接加擔한 제 1 사단의 先鋒이거니와, 비록 掩襲擊破하지는 못하였을 지라도 背後의 攻擊은 이들에게 큰 衝擊을 던져주었을 것이며 더구나 제 12연대의

壓力は 이들의 行動半徑을 크게 制限하였을 것이다.

## 2. 제 6 사단의 反擊

이상과같이 제 1 사단이 이날 潁江 東쪽에서 進擊케 되자 사단은 이보다 1 시간 뒤인 07.00를 期하여 4 個연대의 兵力을 모두 이르켜 反擊에 나섰다.

그런데 敵側에서는 이날을 고비로하여 正面攻擊을 斷念한듯, 漸次로 守勢를 취함으로써 각연대 마다 1乃至 2km의 進出과 함께 前進據點을 確保케 되었다.

제19연대의 新機里 占領: 연대는 △227에서 제1, 제3 양대대를 일으켜 西北쪽의 新機里로 進擊한 끝에 交戰 2시간 동안에 俘虜 2명을 사로잡음과 아울러 目標을 奪還하였다.

그 뒤로 계속 밀고 北上하여 제1대대는 『주평』부근의 江畔陣地를 無血占領하고 제3대대는 『돌모산』을 奪取하니, 전날의 陣地였던 新機里 一帶의 要域을 모두 되찾게 된 셈이다.

그런데 이날 밤에 左隣接인 제1연대가 사단의 配屬에서 解除되자 그 陣地까지 引受하여 右第一線인 제1대대를 △267로 移動하고 牛池里의 제2대대를 『주평』부근으로 北上시켜 『돌모산』—△267간의 既設陣地를 더욱 補強하였다.

제1연대의 △267 奪還: 연대는 『장승백이』부근에서 進擊하여 一擧에 幽谷을 占領한 다음 계속 그 北쪽의 △267로 北上하여 1시간 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奪取하였는데 여기에서 5명의 捕虜와 1명의 歸順兵을 押送하고 各種小銃 7정과 實彈 1,000발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15.00에 다시 제1대대로 하여금 佛井里 溪谷 北쪽의 △414를 奪取케 하였던 바 여기에서는 2 個대대 규모의 敵이 頑強히 抵抗하여 3시간 동안의 激戰이 反復되다가 日暮가 가까워지자 △267로 撤還하였다. 그 뒤로 이날 밤 20.40에 軍단에서 『제6사단의 配屬으로부터 解除한다』는 命令과 함께 『咸昌으로 集結하는 즉시 在 安東의 首都사단으로 復歸하라』는 要旨命令이 下達되었으니, 연대는 22일에 軍단작명 제3호로써 當사단에 배속된 以來 6일 동안 參戰하다가 비로소 이날 原隊로 復歸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날 奪取한 △267를 제19연대에 引繼하고 咸昌으로 集結케 되었는데, 사단에서는 3번도로 軸線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同연대의 撤收와 동시에 사단 工兵대대의 제1중대를 △267 西쪽의 道路부근에 推進하여 配置하였다.

제7연대의 △358 奪還: 연대는 水晶峰에서 △358로 進擊하여 중대규모의 敵의 가벼운 저항을 一擧에 물리친 다음 곧 이를 占領하였는데, 이때에 右隣接인 제1연대가 △267를 攻擊하고 있었으므로 火力으로써 이를 支援하였다.

그 뒤로 제1연대의 제1대대가 △414를 攻擊하자 이와 함께 佛井里 溪谷을 橫斷하여 魚龍山 南쪽의 △583를 攻擊하다가 19.00에 다시 △358로 反轉하여 警戒態勢로 들어갔다.

제2연대의 烏蜂 確保: 한편 제2연대는 血鬪로 얼룩진 烏蜂에서 反擊에 나섰는데, 이 烏

峰이란 四方 2km內외의 廣域을 차지하고 그 中央에 屹立한 高地로서 事實상 그동안에는 연대에서 그 主峰을 비롯한 南斜面 全地만을 占領하고 있던 터이므로 이날의 제 1차 目標은 그 北麓의 抗敵을 擊滅함과 아울러 이를 完全히 確保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 1, 제 3兩대대로써 4시간 동안에 걸친 攻撃끝에 대대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이를 確保케 되었거니와, 여기에서 撤退한 무리가 魚龍山으로 合流한 뒤로는 頑強히 저항하여 다시 그 南쪽에서 指呼之間의 對陣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상과같이 사단은 이날 反擊의 第一歩를 내디더게 되었거니와, 이로부터 當面의 敵은 兵力과 火力面에 있어서 顯著하게 萎縮된 反面에 左隣接인 제 1사단 正面에서는 戰火가 漸増하여 차츰 交戰線이 西南쪽으로 移動하는 樣相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7월 28일 : 이날부터 中部戰線의 樣相이 크게 變貌하였다.

北傀 제 2군단은 聞慶—店村 軸線으로의 攻撃을 斷念한듯, 사단 正面에서의 接觸을 檢차로 끊고 主力을 咸昌 西北쪽으로 投入하여 利安川을 건너 直接 尙州로 侵攻코자 하니 이 地域을 擔當한 제 1사단이 危局을 마지하게 되었다.

이에 제 1사단은 사단 作命 제 23호로써 제 12연대의 제 3대대 만을 潁江 東쪽의 烏井山 부근에 殘留시키고 다른 全兵力을 咸昌 西쪽으로 集結시켜 이와 맞서게 되었으며 또한 제 6사단의 제 19연대 제 2대대도 이를 赴援하여 國師峰 奪還戰에 加擔하는등 이제 敵의 새로운 挑戰을 粉碎키 위하여 그 對備策을 講究하기에 이르른 것이다(本項 제 1사단의 咸昌부근 戰訓 參照).

따라서 사단은 左隣接인 제 1사단의 戰況에도 留意하면서 전반 確保한 陣地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一部의 兵力을 抽出하여 魚龍山과 △414의 敵陣에 打撃을 加하기도 하였다.

즉, 제 19연대는 2個중대의 兵力으로 △414를 攻撃하고, 제 7연대와 제 2연대는 각각 1個대대씩 抽出하여 兩側方에서 魚龍山을 攻撃하였는데 이 一帶에는 아직도 연대규모의 敵이 頑強히 抵抗하므로 제 2연대의 제 3대대가 魚龍山 南쪽의 △583 만을 占領한채로 兵力을 모두 反轉시켜 防禦태세로 들어갔다.

이로부터 사단은 現戰線을 그대로 固守하면서 다음 전투에 對備하기에 이르렀다.

### 라. 전투 후의 개황

27일을 고비로하여 敵側에서는 攻撃을 中止하고 散發的인 接觸만을 維持하면서 漸次로 守勢를 取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表面上으로 볼때에는 오랫동안의 交戰으로 말미암아 疲勞에 지친 나머지 一時的인 交綏狀態로 들어간듯 하였지만 其實은 새로운 迂回作戰을 避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北傀 제 2군단장 金武亭은 제 1사단과 제 109戰車연대를 幽谷 正面으로 投入하여 戰線의 突破와 아울러 3번도로 軸線을 打開하려다가 사단의 抵抗에 부딪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西側의 제 13사단까지 投入하여 前後 10餘日 동안에 걸친 連續攻撃을 加하였지만 步戰砲空의 立體火力에 壓倒됨으로써 이제 그 主力을 西側으로 迂





## § 參戰者의 證言

## ◇ 제19연대장 閔丙權 대령(예, 중장)

(1978년 4월 7일, 交通部長官室에서)

幽谷戰鬪는 地域 確保의 目的보다도 洛東江 防禦線을 形成키 위한 時間과의 싸움이였다.

錦江과 小白山脈의 防守陣이 무너진 뒤로 全戰線이 激動하고 있을때 우리사단이 幽谷 正面에서 北僞 제2군단의 侵攻을 阻止하였는데 당시에는 極度로 疲勞한 상태에 있는데다 兵力과 裝備面에 있어서도 不備한 條件이 많았지만 오직 將兵들의 精神力으로 이겨낸 전투이다.

戰車가 밀려들면 肉彈으로 對抗하고 한 高地 한 稜線마다 피로써 견찰하여 肉薄決鬪를 벌였던 이 전투는 開戰以後로 가장 많은 兵力損失을 본것이 事實이지만 敵에게 決定的인 打擊을 加하여 그 侵攻을 阻止함은 勿論이요 韓美聯合軍의 劃一의인 戰線形成을 可能케한 遲延戰 과정에 있어서의 決勝局面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연대가 開戰 初에 2,400여명 이었는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洛東江을 넘어 集結하고 보니 860명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撤收命令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現地에서 抵抗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非但 우리연대 뿐만아니라 사단 全將兵들의 共通된 決意였으며 특히 제2연대는 魚龍山과 鳥峰에서 血鬪를 連日 反復하면서도 끝내 戰線을 固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中部戰線에 있어서도 UN軍과 協同體制를 갖추게되어 直接 間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航空支援과 155mm 重砲의 火力支援은 對戰車 방어에 寄與度가 컸다.

우리 연대의 特攻隊가 幽谷 北쪽에서 4台的 敵의 戰車를 破壞하거나 幽獲할수 있었던 것도 航空 및 砲兵火力의 掩護射擊이 奏効하였던 것으로 判斷되며, 이같은 支援에 힘입어 步兵이 서슴치 않고 戰車와 맞섬으로써 당시로서는 可히 無敵이라고 할만한 戰車도 3번도로 軸線을 뚫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 제일 아쉬웠던 것은 左右 隣接사단의情

報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종종 兵力 運用上의 차질을 빚은 境遇가 있었는데, 이 點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部隊間의 協調體制를 더욱 發展시키는 것이 좋을것이다.

도리켜보면, 어려웠던 時期에 이듬없는 戰線에서 몸으로써 나라를 지킨 護國 將兵들의 그 큰뜻이 새삼스러히 느껴지며, 모름지기 우리는 그 精神을 이어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 제7연대 제3대대장 李南浩 중령(예, 대령)

(1978년 3월 15일, 忠南 大田 自宅에서)

遲延戰 過程에서 내가 가장 熾烈하게 싸웠던場所는 玉女峰과 매봉(鷹峰) 두 곳이다.

玉女峰은 바위가 많은데다 그 北斜面이 가파르기 때문에 攻者에게 딱 不利한 곳임에도 不拘하고 악착같이 달려들어 끝자 그대로 血鬪를 벌인 곳이다.

이때에 제11중대장 印聖勳대위가 참으로 잘싸워 주었다. 副大隊長 金載康대위도 여기에서 戰傷을 입었고 戰爆機의 誤爆事故로 가까운 部下들을 잃기도 한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覺悟하고 陣地마저 構築하지 못한 상태에서 3일 동안을 버티었는데, 3번도로 軸線인 幽谷正面이 危急하다고 하여 다시 그곳으로 移動하여 前後 10餘日 동안에 걸친 激戰을 치렀다.

당시에 敵의 主力이 제2연대의 正面으로 侵攻하여 同연대의 損失이 제일 컸다. 連日連夜로 交戰이 계속되고 보니 어느 部隊인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지만 특히 제2연대는 正面 對決의 連續이었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新型 105mm(M-2)野砲의 支援을 받았는데 房景源대위가 우리연대를 도와 効果의인 火力支援을 提供하여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어려운 局面이었는데 兵士들의 資質이 優秀하고 忠誠心이 強하여이 戰線을 막을수 있었던 것으로 믿는다.

한가지 附言하고 싶은것은, 既刊된 韓國戰爭史 第2卷에는 내가 玉女峰에서 負傷 당한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洛東江을 건너다음 8월 下旬에 鷹峰戰鬪에서 戰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 제2연대 제3중대장 崔熙大 대위(예, 대령)  
(1978년 4월 15일, 서울 宇南 Building에서)

이 전투는 北僞 제1사단과 우리연대가 鳥峰에서 10餘차례나 攻防을 反復하며 血鬪를 벌인 싸움이다.

이 鳥峰은 여섯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機動路가 制限되어 中대규모의 兵力으로 一條一條을 逐次로 攻擊하다가 밤(夜)이되면 물러서기가 일수이니, 이 과정에서 서로 極力抵抗하여 彼我間에 많은 死傷者를 보게되었다.

여기에서 제11중대장 金寅文중위가 重傷을 입고 우리중대의 朴秉學소위가 戰死하였으며 또한 軍番없는 學徒兵 10여명이 散華할 뿐만아니라 大部分의 小隊長들이 負傷을 입어 下士官이 代理하는 경우가 많았다.

敵側에서는 損傷이 더욱 甚大하여 우리가 目標을 奪取하고 보면 四方에 흩어진 屍體와 그 惡臭 때문에 推進된 주먹밥을 먹다가 嘔吐症을 일으킨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交戰이 벌어지면 屍體 옆에 엎드려 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交戰時에는 항상 手榴彈이 不足하여 애 먹었으며 나중에는 重火器의 射手가 없기때문에 自動小銃이 小隊의 共用火器 구실을 하다시피 하였다.

지금도 記憶에 생생한 것은 鳥峰을 攻擊할때에 李應濬중사가 先頭에서 突擊하여 目標을 奪取하던 場面으로, 그는 평소애 寡黙한 편이었지만 싸움터에 나서면 勇敢한 병사였다.

나도 이 전투에서 負傷을 입고 店村邑으로 後送되어 제19연대 軍醫官에게 治療를 받았는데, 후송 당시에 당번인 朴基鎬일병에게 제1소대장 趙重錫중위로 하여금 중대를 指揮토록 連絡하라고 指示하였더니, 그 後에 趙중위를 正式 中대장으로 任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 제1연대 소대장 申弘亮소위  
(1964년 8월 26일, 제1군하사관학교장, 대령)

우리 연대는 開戰 初에 議政府 正面에서 激戰을 치른 뒤로 제7사단의 兵力을 統合하여 再編한 部隊였다.

따라서 이 전투 당시에는 過去의 제1연대에게 1대대로, 제9연대가 제2대대로 각각 改編된 상태에서 尹春根중령의 指揮아래 戰線에 參加하였는데 이무렵에는 제6사단이 咸昌 正面에서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때인지라 同사단에 配屬되어 幽谷里 부근의 戰線을 擔當케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5일동안을 방어하다가 다시 安東으로 移動하였는데, 이 期間동안의 戰鬪 상황에 대하여 昭詳히 記憶할수는 없으나 한가지 分명한 것은 우리연대가 幽谷 北쪽에서 3輛의 戰車를 사로 잡았다는 事實이다.

처음에 4輛의 戰車가 佛井里에서 幽谷쪽으로 侵攻하다가 途中에 1臺는 對戰車 障礙物에 부딪쳐 머뭇거리고 다른 3臺만이 繼續 前進하더니, 갑자기 UN空軍의 戰爆機가 나타나자 先頭의 3臺가 疾走하면서 한대는 民家속으로 숨어들고 두대는 路邊으로 미끄러졌다.

이때에 연대에서 特攻隊를 選拔하여 이 3臺의 戰車를 공격하였는데, 步兵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이므로 手榴彈과 박격포를 連發하고 乃終에는 연대장이 直接 現地까지 달려와 拳銃을 쏘아대며 降伏을 強要한 끝에 이들 모두 사로 잡았던 것이다.

특히 우리는 初戰에 議政府부근에서 戰車의 威壓에 밀린 까닭에 이 괴물만 보면 당황하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때부터 그 脆弱點을 알고 새로운 自信力을 갖게되었던 것이다.

그 功勞로 軍團에서 表彰狀을 받고 당시의 新聞紙上에도 이 戰況이 보도된줄로 알고있다.

◇ 店村邑 住民 權頌吉氏

(國民運動 店村邑 委員長, 78.2.21, 開慶郡守室에서)

北僞軍이 店村부근까지 侵入한것은 7월 20일 경으로 記憶된다.

## § 研 究

## ◇ 防守의 本質

本戰鬪만을 指摘하는 것은 아니지만 防守의 本質에 대하여 一考하여 보려한다. 元來防守란 兵力이 敵보다도 劣勢한 때에 地形을 利用하여 陣地를 強化하므로써 物質的인 利益을 얻는데 있는 것이며 停止하여 敵을 기다리는데 있는 것이아니다. 그렇게되면 防守自體가 元是受動인데다가 더욱 被動的이되어 敵에게 코를 매인 黃牛모양으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게되기 마련이다.

讀史者가 이 戰鬪經過를 一閱할 때에 部隊移動을 將蔣의 말모양으로 頻繁無常하게 하여 矚目을 잡기 어려울 程度인것에 假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번 占領한 陣地는 곧 強化에 着手하므로써 敵을 阻礙하는 自信을 얻게되는 것이요, 萬若에 敵이 나의 陣地를 正面으로 攻擊하지 않고 迂迴한다면 나는 自動的으로 敵의 背後를 칠수 있는 有利한 立場에서는 것으로 觀念하고 好機에 出擊하는 氣概가 必פת한 것인데 敵이 나타나기만 하면 後退만을 例시로 하다가는 結局 自滅하고말 것이 分明하다 손쉽게 내어준 陣地를 헛들여 되찾은 戰例를 이 戰鬪을 통하여 數없이 많이 볼수 있다 高地마다 모조리 지킨다면 元來劣勢한 兵力을 더욱 分散使用하는 弊害가 至大하며 夜間에는 高地防守가 天空에 透視되는 不利가 매우크다. 敵陣地를 高地로 利用하고 夜間從透하기 쉬운 곳에 兵力使用의 重點을 指向하여야할 것인데 그러한 妙策이란 尠히 찾아볼수 없는것이 매우 유감이다 陣地의 強化없는 防守는 成立되지 않으며 高地만이 唯一한 要地要所라는 思考方式은 稚拙하다.

한 陣地를 占領시켰으면 되도록 많은 時間을주어 陣地強化에 專念케 하라 모든 곳을 끌고루지킨다는 것은 끌고루 弱하게된다는 것을 銘記하라 準備없는 逆襲이나 反擊은 燈火에 뛰어드는 불나비格이 되므로 虛張聲勢로써 아까운 兵力을 死地에 몰아넣지 말라. 再言하노니 지키는 軍사들에게 陣地強化로써 鐵甲武裝케하라. 그것없이 朝令暮改式인 兵力使用은 指揮官의 一大過誤가 甚한 것이다. 兵士들은 勇敢하였지만 師團級의 防守觀念에 問題가 있다는 말이다.

당시 關慶에 사는 누이동생이 집으로 달려와서 敵이 『새재』를 넘어섰다고 달하기에 쉬마 하면서 지켜보았더니, 3일 後에는 佛井에서 交戰中이라는 所聞이 나돌고 곧 이어 砲聲이 店村에까지 들려왔다.

그래서 家族을 거느리고 咸昌으로 避難나갔다가 一週日 만에 食糧이 떨어져서 다시 店村으로 돌아왔더니, 이때에는 幽谷에서 싸우고 있었다. 아마 鐵山 뒤의 佛井里 溪谷에서 交戰中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牟田里 果樹園과 店村 西쪽 果樹園에다 大砲를 걸어놓고 밤 낮으로 砲擊을 가하는데 밤에는 佛井里 一帶가 불바다로 변하였으며 낮에는 濼洲飛行機까지 날아와서 爆彈을 던지면 天地가 위흔들리는것 같았다. 언제인지 기억은 確實치 않으나 交戰이 한참 熾烈할때 밤에도 飛行機가 날아와서 爆彈을 投下한 일이있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大部分이 避難하고 老人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住民이 이 전투에 크게 參與하지는 못했지만 大齡青年團員 몇사람이 남아서 여러가지로 도우려고 힘써보았다.

당시에 제 6사단 將兵들은 참으로 勇敢하였다 黑人들(美제35연대 所屬인듯)도 있었지만 이들은 愼이 많아서 도망가가기 일수였으며 戰鬪가 벌어졌다면 제 6사단의 負傷兵들이 줄지어 내려오는 것을 볼때 가슴이 아팠다.

北僞는 아마 이 전투에서 數千名이 犧牲되었을 것이다. 서로 一進一退를 거듭하다가 武器를 땅속에 埋沒해 놓고 도주한 事例가 許多하였다고하는데, 하여튼 收復後에 佛井골에서 馬車 十餘台分の 古鐵을 收集한 일이 있었다.

내가 이 戰亂을 통하여 한가지 느낀것은 北僞는 戰爭準備를 完全히 해놓고 侵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들이 占領地區에 들어서면 곧 兵糧없이 收奪政策을 쓰는것을 보고 늘랐다. 사실 우리는 解放後에 아직도 秩序를 잡지 못한 實情이었음에 비추어 볼때 미리부터 이들은 脚本을짜가지고 내려온 것이 分明하였다.

4. 咸昌 附近 戰鬪(1950년 7월 26일부터  
" 7월 29일까지)참조: 별첨부도 제23, 24호  
상 황 도 제68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2 군단	장 준장 劉 載 興	제 2 대대	장 소령 趙 成 來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 3 대대	장 소령 李 茂 重
제 11 연대	장 중령 金 東 斌	제 13 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在 命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振 暉
제 2 대대	장 소령 李 斗 璜	제 2 대대	장 소령 安 光 榮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제 3 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제 12 연대	장 대령 朴 基 丙	인접부대	
제 1 대대	장 소령 申 鉉 洪 (7.27 戰死)	제 6 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	소령 韓 順 華 (7.28부터)		
敵 軍		敵 軍	
北傀 제 1 사단	장 소장 崔 光	제 13 사단	장 소장 崔 籍 鎮
제 1 연대	장 대좌 黃 石	제 19 연대	장 대좌 金 炳 喆
제 2 연대	장 대좌 金 陽 春	제 21 연대	장 대좌 李 承 俊
제 3 연대	장 대좌 李 昌 權	제 23 연대	장 대좌 太 炳 烈
포병연대	장 대좌 玄 學 奉		

## 나. 전투전의 개황

本 戰鬪는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이 제 2 군단(장, 劉載興준장)의 1部로서 1950년 7월 26일~31일까지 咸昌地區에서 北傀 제 1 사단(장, 崔 光) 및 제 13사단(장, 崔籍鎮)을 물리쳐,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의 遲延戰을 容易하게 하는 한편, 제 8 군(사령관 Walker중장)의 洛東江線 防禦障地 形成을 有利하게 한 戰鬪이다.

제 1 사단은 本 戰鬪에 임하기에 앞서 陸本作命 제 57호(50.7.20)에 의거 米院에서 安東으로 轉進중 化寧場에서 제 17연대(장, 金熙濬중령)로부터 陣地를 引受하고 北傀 제 15사단(장, 朴成哲)과 對戰케 되었는데, 다시 陸本作命 제 67호(50.7.24)를 받고 25일 同 作戰地域을 美 제 25사단 隸下의 제 24연대(장, Horton V. White대령)에 引繼함과 同時에 尙州 經由 咸昌으로 急進하여 제 6 사단을 赴援케 된 것이다.

**敵軍의 狀況:** 咸昌地區에서 最初로 當面케 된 敵은 北傀 제 13사단(장, 崔鏞鎭)으로서, 이들은 開慶 地區에 이르러 비로소 我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과 對峙케 된 新銳이다.

이들은 1950년 3월 新義州에서 제 1民靑訓練所 要員을 基幹으로 창설한 部隊이며 開戰初期에는 제 1 軍단(장, 金 雄)의 豫備로서, 一線부대를 後續하여 西部戰線을 따라 南下하였던 것인데, 速戰을 부르짖은 이른바 제 3 次作戰 遂行과 함께 戰線에 投入되어 中部戰線의 一翼을 맡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 13사단은 그들 제 1 사단과 같이 開慶地區에서 我 제 6 사단과 正面對決케 되었으며, 제 6 사단을 幽谷—店村線으로 물러서게 하였다.

그들은 餘勢를 몰아 幽谷와 店村을 위협하고, 米院地區의 제 15사단(장, 朴成哲)까지도 尙州로 侵透시켜 제 2 軍단의 後方地域을 攪亂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제 15사단은 化寧場에서 제 17연대(장, 金熙濬중령)의 掩擊으로 兵力의 殆半을 상실한데 이어 제 1 사단과 美 제 24연대에 依해서 계속 阻止당하여 化寧場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들 제 1 및 제 13사단도 UN空軍의 爆擊과 美 제 25사단 隸下의 155mm, 105mm (M-2)曲射砲 대대의 火力增援을 받고 있는 제 6 사단의 火力增強으로 因하여 正面突貫을 포기하고 迂迴機動을 試圖하기에 이르렀고, 제 13사단과 제 1 사단이 차례로 我 제 1 사단 正面에서 捕捉케 된 것이다.

제 1 사단은 開戰以來 계속 戰線을 맡고 있었던 까닭에 兵力은 50%에 未達하였고 重裝備는 殆無의 상태였으나 제 13사단은 開慶地區에 이어 두번째인 만큼 編成 當時의 12,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의 主要裝備는 122mm 曲射砲 8문, 76mm 曲射砲 30문, 45mm 對戰車砲 41문, 120mm 迫擊砲 12문, 82mm 迫擊砲 79문, 自走砲 9문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으나, 兵力은 그 半數가 占領地에서 強制動員한 新兵으로 充當되었고, 그들 重裝備는 UN空軍에 壓倒되어 그 威力을 十分 發揮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狀況:** 제 1 사단장 白海寧대령은 7월 25일 06.00에 化寧場地區 防守임무를 美 제 25사단 隸下의 제 24연대(장, Horton V. White대령)에게 引繼하고 咸昌으로 移動중, 同일 尙州에서 國防長官 申性模와 總참모장 丁一權 소장으로부터 准장으로 昇進發令狀을 받음과 同時에 准장 階級章이 授與되었다.

그리하여 제 1 사단은 翌日 12.00 咸昌에 到着하였는데, 國一命(陸) 제 20호에 依하여 統合키로 된 제 5 연대(장, 金東斌중령)와 제 20연대(장, 朴基丙대령)를 同 地域에서 만나고, 當日로 제 5 연대를 제 11 연대에, 제 20연대를 제 12연대에 各各 統合 再編케 하여 제 2 軍단(장, 劉載興准장)의 右翼으로서, 제 6 사단(장, 金鐘五대령)의 前面을 위협하는 敵의 後方遮斷 임무를 遂行케 되었다. 同 사단은 이를 위하여 제 11연대를 金龍里(咸昌 北東쪽 4km)로 제 12연대를 幕谷里(金龍里 北쪽 4km)로 各各 移動시켜 攻擊준비를 서둘러 하였는데, 이때 제 13연대(장, 崔榮淸대령)는 제 5 연대가 제 11연대와 統合하기에 앞서 配屬되었던 儉安里(咸昌 西쪽 5km)에 展開시켜 軍단의 西側方 防禦임무를 遂行케 하였던 것이다.

27일 06.00 同 사단은 제 11연대를 右一線, 제 12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颯江 東側地帶에서 開慶 奪還을 目的으로 攻擊하여 제 11연대는 富雲嶺(△692—金龍里 北쪽 12km)을 거쳐 11.00에 外於里(富雲嶺 西쪽 4km)에 이르고, 제 12연대는 烏井山(△870—幕谷里 北西쪽 5km)을 거쳐 10.00에 梧泉里(△810 北西 西쪽 1km)에 이르렀으나, 이때부터 그들의 集中 砲火를 받게 되어 各 연대의 進出이 頓挫되고 말았다.

이무렵 제 6 사단은 제 1 연대(장, 李喜權중령)와 105mm M-2 曲射砲로 裝備된 제 3 砲兵대대(장, 朴永湜소령)의 赴援으로 敵은 烏峰(咸昌 北西쪽 8km) 芍藥山(咸昌 西北쪽 9km)線에서 阻止하고 있었으

며, 美 제25사단 隸下의 155mm 및 105mm(M-2) 砲兵대대들도 店村—咸昌間에 布陣하여 제 6사단 正面을 支援하고, UN空軍도 間斷없는 爆撃을 加하여 그들의 機動에 制動을 加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况에 敵은 正面突貫을 試圖하는 外에 一部 兵力으로써 我軍의 後方攪亂을 企圖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况에 敵은 正面突貫을 試圖하는 外에 一部 兵力으로써 我軍의 後方攪亂을 企圖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况에 敵은 正面突貫을 試圖하는 外에 一部 兵力으로써 我軍의 後方攪亂을 企圖하게 되었다.

이러한 敵의 움직임을 看破한 제 1군단장 劉載興준장은 軍단 西側方에 對한 防守態勢가 허술함을 確認하고, 이 正面의 補強을 決心하기에 이르렀으며, 比較的 敵과의 接觸이 輕微한 軍단 右翼의 제 1사단을 左翼으로 轉換키로 하고, 23.00에 同 사단에 명령하여 이를 施行케 하였다.

이때에 제 1사단의 兵力은 제 5, 제20연대의 統合으로 7,133명에 達하였으며, 空隔중인 指揮官도 充當되어 지휘체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무렵부터 補給支援체제도 점차 正常化되어 M-I 小銃을 비롯한 各種 裝備의 補充補給도 이루어져서 어느 때보다 士氣가 旺盛하였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제 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軍단장 劉載興준장으로부터 『該 사단은 聞慶 攻擊을 中斷하고 咸昌으로 철수하여 軍단西側方 防護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受領하였다. 그러나 이때 左 1線의 제12연대가 新峴里(△810 西쪽 2.5km)—△295(新峴里 南쪽 1.5km)—一帶에서 그들 後 續부대를 牽制하고 있었기 때문에, 當場에 철수시키기는 困難한 것으로 보고 제 6사단장 金 鐘五대령과 協議下에 同 연대를 該地域에 계속 殘置시켜 同 사단의 作戰統制下에 들게하는 代身, 同 사단 제19연대의 1개 대대를 配屬받기로 하여 軍단장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제 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곧 제11연대와 配屬된 제19연대 제 2대대(장, 崔錫洛소령)를 咸昌으로 철수케 하고 軍단의 西側方에 대한 防禦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대에 그 要旨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① 敵은 제 6사단 前面을 掩襲하는 一方, 그 一部로서 我 後方地帶를 攪亂시킬 目的으로 992번道路를 따라 東進하고 있는 것으로 推斷된다.

② 사단은 50.7.28 06.00를 期하여 현재 제13연대가 占領하고 있는 △366(咸昌西쪽 6km)—國社峰(△338—咸昌南西쪽 7km)間의 防禦障地를 補強하고, 992번道路를 따라 侵襲하는 敵을 阻止 擊退코자 한다.

③ 제13연대

㉞ 利安川南쪽 障地를 28. 06.00부로 제11연대에 引繼하고, 國社峰의 1개 대대를 同時 부로 同 연대에 配屬하라.

㉟ 연대(-1)는 △366—△212(△366 南쪽 1.5km)를 占領하여 東進하는 敵을 阻止 擊退하라.

④ 제11연대

㉒ 配屬 : 제 13연대 제 3대대

제 19연대 제 2대대

㉓ 연대(+2)는 支坪里(△212 南西쪽 1.5km)—東幕里(支坪里南쪽 3.5km)間을 占領하여 東進하는 敵을 阻止 擊退하라.

㉔ 제 12연대

연대는 27. 22.00부로 現地에서 제 6사단의 作戰統制를 받아라.

㉕ 협조지시

㉖ 隣接부대와 相互 협조하라.

㉗ 포병지원은 30일 以後부터 可能하다.

㉘ 보급 및 행정 : 現行 節次에 따른다.

㉙ 지휘 및 통신

㉚ 有線을 主通信手段으로 한다.

㉛ 사단사령부는 제 2군단사령부와 같이 咸昌중학교에 위치한다.』

이리하여 제 1사단은 28일 06.00부로 제 2군단의 左翼으로서 軍단 西側方의 △366—東幕里間을 防守케 되었다.

## (2) 작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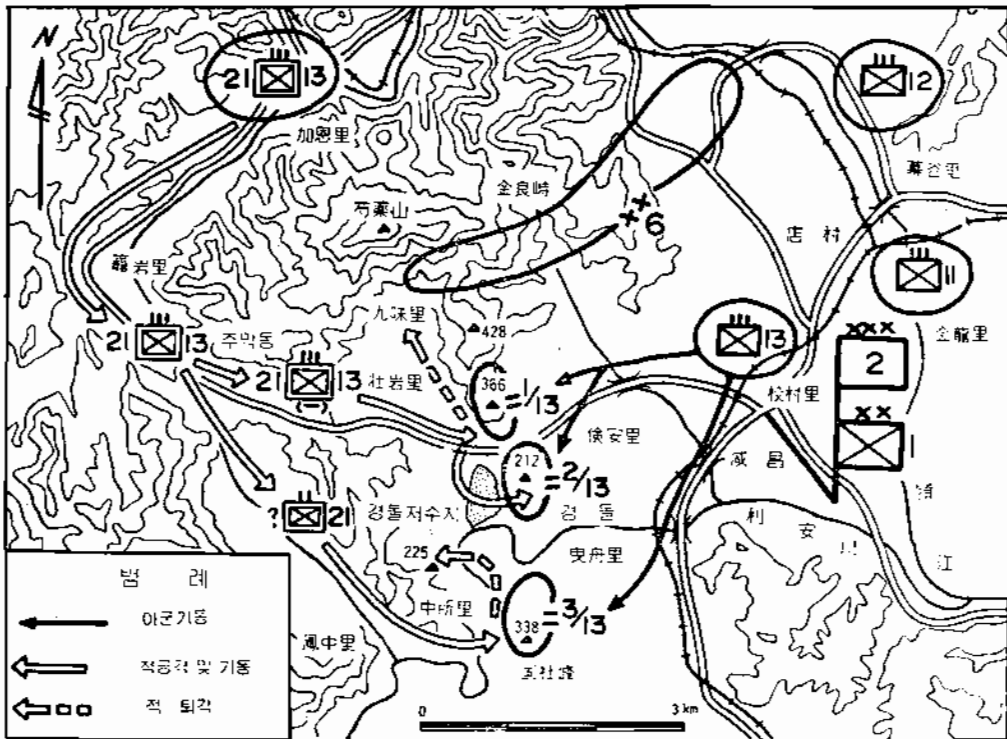
7월 28일 : 제 1사단이 軍단의 左翼으로서 軍단의 西側方을 防守케 된 것은 이날 06.00부터이나, 제 13연대(장, 崔榮喜대령)가 咸昌에 到着하는 即時로 이 地域을 제 5연대(장, 金東斌중령)로부터 引受하여 隸下 대대를 展開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生疎한 곳이 아니었으며 이 方面의 敵情 또한 同 연대로부터 報告받고 있었다.

사단 情報참모 崔赫基소령이 지금까지 알려진 敵情을 綜合分析하여 사단장에게 報告한 내용에, 『敵은 我 後方地帶의 攪亂을 目的으로 지난 밤부터 裝甲車를 同伴한 연대규모의 兵力을 977번道路를 따라 침투시켰으며, 이들이 酒幕洞(咸昌 西쪽 15km)에 이르러서 1隊를 992번道路를 따라 雅川(咸昌西쪽 8km)쪽으로 直行케 하고, 다른 1隊로서는 無名道路를 따라 東幕里(咸昌 南西쪽 7km)쪽으로 侵襲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同 소령은 그들이 이와 같은 迂回機動을 하게 된 까닭을 『我軍의 抵抗이 頑強하였던 까닭에 正面突貫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을 것이고, 또한 이무렵 咸昌 西側에 展開되었던 美 제 25사단 隸下의 부대들이 他處로 轉進하고 이 地域의 我軍配置가 稀薄한 것을 알아차린 때문일 것이다.』라고 풀이 하면서, 그들이 곧 陣前에 到達할 距離에 있음을 強調하고 제 11연대의 陣地占領을 促求하였다.

### (가) 제 13연대의 경동 貯水池附近의 戰鬪

제 13연대장 崔榮喜대령은 咸昌에 到着한 26일 15.00에 제 5연대장 金東斌중령으로부터 陣地를 引受하여 992번道路를 中心으로 제 1대대(장, 金振暉소령)를 △366(咸昌西쪽 6km)

## ◇ 상황도 제68호 경동貯水池부근 戰鬪(7.27--28)



에, 제 2대대(장, 安光榮소령)를  $\Delta 212$ ( $\Delta 366$  南쪽 2km)에 各各 展開하고 제 3대대(장, 崔炳淳소령)를 具陵里(咸昌西쪽 3km)에 控置시켜 예비로 하였는데, 27일 夕陽에 旺陵里(咸昌北西쪽 12km)와 加恩里(旺陵里 南쪽 1km)附近의 住民들이 陣前으로 몰려와서 말하기를 『魏僞軍이 우리 마을에 集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날 밤으로 이 道路를 따라 南侵할 것으로 보인다.』고 敵의 動靜을 提報한데 이어서, 陣前에서 偵察活動을 하고 있던 연대 偵察隊로부터 『22.00에 裝甲車를 同伴한 1개 연대규모의 敵이 酒幕洞(咸昌西쪽 12km)에서 2隊로 나누어 1隊는 992번 道路를 따라 雅川里쪽으로, 다른 1隊는 酒幕洞에서 無名 道路를 따라 東進하고 있다.』고 報告하였는데, 이 無名 道路는 酒幕洞—東幕里(咸昌南西쪽 7km)를 거쳐 3번 道路에 接續되어 咸昌이나 尙州로 갈 수 있는 道路이다.

제 13연대장 崔榮喜대령이 제 5연대장 金東斌중령으로부터 陣地를 引受할 때 地形을 살펴본 바, 992번 道路 北쪽은  $\Delta 366$ 이고 그 南쪽은  $\Delta 212$ 이나,  $\Delta 212$  西側에 幅 500m 길이 2km의 景洞貯水池(일명, 雅川貯水池)가 北—南으로 가로지르고, 同貯水池의 南쪽 水門에 맞닿아 있는 利安川은 水幅 50~80m, 水深 150cm로서 東幕里에서 4km를 北流하여 同貯水池의 水門이 있는 部位에서 東流하여 洛東江으로 注入하고 있어서 雅川里—東幕里間의 6km는 天然의 要塞와도 같았기 때문에 992번 道路의 扼守에만 重點을 둔 配置를 하였다. 그런



데 偵察隊로부터 『敵이 酒幕洞에서 2隊로 分進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고, 即時로 제 3대대를 國社峰으로 急遽게 하여 中村里(國社峰 西쪽 2km)―東幕里間의 渡河地點을 封鎖케 하고 同時에 제 1, 제 2대대에 對하여도 敵의 侵襲상황을 通報하여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제 1대대의 戰況 : 992번 道路를 따라 東進한 敵의 先頭는 04.00 雅川里(일명, 감바우)에서 제 1대대(장, 金振暉소령)의 左계 1線으로서 △366의 南麓에 埋伏한 제 3중대(장, 白南垣대위)와 맞부딪치게 되었다.

제 3중대장 白南垣대위는 그들 裝甲車 騒音으로 그들이 接近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대대장에게 報告함과 同時에 全 중대원에게는 勿論 同 地域에 配置된 對戰車砲소대(장 趙鳳來 중위)에게도 射擊態勢를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 그들의 動靜을 注視하였으나, 金屬성을 울리는 소리가 近接하고 있을 뿐 事物을 식별할 수 없었다.

중대장 白南垣대위는 그들이 20m 가까이 接近하였다고 느껴졌을 때 『射擊 開始』를 大號하고, 同時에 曳光彈을 連續 發射하여 道路上의 目標物을 指摘하였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57mm 對戰車砲 2문에서 火焰이 噴出하였고, 各種 火器의 砲火가 992번 道路上에 集注하기 시작하였다. 그들도 必死의인 應射로서 對抗하였으나 날이 밝아오기 전에 鎗聲이 점차 줄어들었고, 992번 道路上에는 破壞된 裝甲車 1대와 30餘具의 屍體가 버려져 있을 뿐이었다.

제 2대대의 戰況 : 제 2대대(장, 安光榮소령)의 正面에는 鏡淵貯水池가 가로 놓여있기 때문에 敵의 主接近路를 992번 道路로 보았고, 따라서 同 대대도 여기에 重點을 두었던 것인데, 지난밤 연대장 崔榮禧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 6중대(장, 金國柱대위)를 △212 南쪽으로 轉換시켜, 前面의 黑鉛鑛山과 △212를 연결시켜주는 同 貯水池의 堤防을 警戒토록 하라고 任務를 賦與하였다.

제 6중대장 金國柱대위는 即刻 部隊를 同 高地의 南쪽 稜線으로 移動시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제 1대대 前面에서 鎗戰이 벌어지고 있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陣地編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東天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地域은 貯水池와 利安川으로 둘러싸인 곳여서 唯獨 안개가 짙었으며 5m 前方의 事物識別이 어려울 程度였다. 이런 까닭으로 중대장이 直接 돌아다니며 各個 散兵壕의 위치를 選定하고 警戒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山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있으면서 잠시 뒤에 두 사람이 안개속에서 떠올랐다. 중대장은 낮은 姿勢로 散兵壕의 兵士들과 같이 그들의 器動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들은 AK小銃을 어깨에 메고 高地로 向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敵의 哨兵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붙잡게 하였는데, 그들은 北隗 제13사단 제21연대(장, 대좌 李承俊) 所屬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우리 연대는 어제밤 旺陵里를 出發하였으며, 1개 대대는 中間地點에서 떨어져 나갔는

데, 그들은 南쪽 方向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 咸昌을 目標로한 2개대대는 裝甲車 4대를 앞세우고 雅川里까지 갔는데, 國防軍의 奇襲사격으로 말미암아 分散되고 말았으며, 우리는 道路 南쪽 山으로 뛰어들었는데 이 앞의 貯水池로 因하여 길을 잃고 同 貯水池의 湖畔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 一行은 170餘명이나 建制가 없는 混成部隊이며, 아침 食事を 하기 위하여 鏡洞마을을 占領하였으나 住民의 大多數가 避難하였는지 몇 家口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살려줄 것을 哀願하였다.

한편, 제 6 중대장 金國柱대위로부터 狀況보고를 받은 대대장 安光榮소령은 제 7 중대로서 992번 道路를 계속 扼守케 하고 제 5, 제 6 중대로서 同 마을을 包圍할 腹案을 세웠다. 그리하여 제 6 중대에게는 『現 配置線을 壓縮시켜 同 마을을 3面에서 包圍하라.』고 명령하고, 예비인 제 5 중대(장, 鄭點棒중위)를 利安川 堤防에 展開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도록 이른 다음 그 自身도 제 6 중대 地域으로 나가서 部隊지휘를 하였다.

대대장 安光榮소령이 08.00에 제 5, 제 6 중대의 配置가 끝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마을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敵의 움직임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避難하지 못한 住民도 몇 家口 있다는 事實을 俘虜의 陳述에서 알게 되었으나, 이 局面을 더 持續시킬 수 없는 것으로 斷案을 내린 대대장은 제 5, 제 6 중대장에게 射擊 명령을 下達하였다.

대대장의 射擊명령에 따라 兩個 중대의 火器에서 一齊히 불을 뿜어냈으며, 鏡洞마을은 瞬息間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應射할 겨를도 없이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이에 다 쓰러졌고 搜索戰으로 民家에 숨어있던 15명을 俘獲함으로써 鏡洞마을의 戰鬥은 我軍의 一方의인 사격으로 끝났다.

當時 제 6 중연장 金國柱대위는 그때를 回想하면서 『開戰以後 戰鬥다운 戰鬥을 해보지 못하고 咸昌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北傀 제13사단을 맞아 속이 후련하도록 싸웠다.』고 하였다.

연대장의 措置 : 제13연대장 崔榮禧대령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利安川 以南의 陣地와 國社峰의 제 3 대대를 이날 06.00부로 제11연대(장, 金東斌중령)에 引繼하고, △366—△212 間에서 992번 道路를 따라 東進하는 敵을 擊退시켰는데, 그들의 一部가 △428를 占據하고 右隣接한 제 6 사단 제 2 연대(장, 咸炳善대령)와의 虛隙을 따라 侵襲을 꾀하였기 때문에, △366의 제 1 대대로서 △428를 攻擊 占領케 하고, △212의 제 2 대대로서는 △366로 轉進케 하여 제 6 사단의 左側方을 위협하는 敵에 對備케 하였다.

#### (나) 제11연대의 國社峰戰鬥

사단의 左 1線으로서 支坪里(鏡洞里 南쪽 1km)—東幕里間의 防守임무를 遂行케 된 제11연대(장, 金東斌중령)가 06.00 國社峰을 占領하였을 때, 안개로 가리워진 利安川邊에서 銃聲이 요란하였다. 이는 06.00부로 作戰統制 케 된 제13연대 제 3 대대(장, 崔炳淳소령)가 利

安川을 渡河하여 曳舟里(△366 北쪽 1km)로 侵入하려는 敵을 發見하고 交戰중이었던 때문이다.

연대장 金東弼 중령은 狀況을 파악할 餘裕도 없이 于先 제19연대 제2대대(장, 崔錫洛 소령)로서 제13연대 제3대대를 赴援토록 하고, 제1대대(장, 金在命 소령)를 同 高地의 北쪽에, 제3대대(장, 鄭永洪 소령)를 그 南쪽에 各各 展開시켜 防禦態勢를 갖추게 하였는데, 同 연대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제5연대를 統合 再編한 部隊이기 때문에 戰鬥狀況에 앞서, 再編상황을 當時의 연대장 金東弼 중령을 通하여 들어 보기로 한다.

『제5연대는 鎭川, 淸州, 文義地區 戰鬥을 치르는 사이 많은 死傷者와 離脫者가 생겨서 咸昌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2개 중대 兵力에 不過하였다. 연대는 文義地區 戰鬥을 끝으로 安東으로 移動하였는데, 陸軍本部로부터 「제5연대는 咸昌에서 제1사단(장, 白善燁 준장)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7월 24일 咸昌으로 갔으나 제1사단은 보이지 않고 제2군단장 劉載興 준장으로부터 「제5연대는 빨리 玉女峰을 攻擊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當日로 992번 道路를 따라 西進하였으나, 이때는 戰線이 이미 烏峰—芍藥山線으로 물러선 뒤여서 儉安里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제6사단의 左翼에 連하여 陣地를 編成게 되었는데, 26일 14.00에 제2군단 作戰참모 李周一 대령이 現地로 나와서 「제5연대는 即時로 現陣地를 제1사단 제13연대(장, 崔榮禧 대령)에 引繼하고 咸昌으로 돌아가서 제1사단장의 作戰지휘를 받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同 대령의 말에 따라 陣地를 제13연대에 引繼하고 咸昌으로 돌아갔으며 咸昌에서 제1사단 제11연대에 統合되었다.

이 때에 統合方針으로서 部隊명칭은 兵力이 많은 部隊의 것을 따르게 하고, 지휘관은 兩個 部隊 중 先任者로서 任命토록 되어 있었는데, 제5연대의 兵力은 300餘명에 不過하였기 때문에 제11연대의 제2대대로 編入시켜 1개 대대를 編成하고, 대대장에는 제5연대의 李斗璜 소령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의 兵力으로서는 제1, 제3대대를 編成하였는데 제1대대장은 부연대장이던 金在命 소령을, 제3대대장은 제2대대장이던 鄭永洪 소령을 各各 任命하고, 이때까지 대위로서 대대장職을 代行한 張根述 대위와 金 召대위는 各各 副대대장으로 補職變更하였다. 또한 제5연대 제1대대장이던 車甲俊 소령을 연대 作戰주임으로 補職하고 鄭龍植 소령(只今까지의 作戰주임)을 同 補佐官으로 調整함으로써 연대는 중대장級 以上 지휘관 및 參謀陣容의 補充을 보게 되었으며, 指揮官인 연대장에는 先任인 내가 補任되고 부연대장에는 이때까지 연대장職을 遂行해 온 權東贊 중령이 임명되었다.』고 統合 경위를 말하였다.

**配屬部隊의 利安川邊 戰鬥:** 제13연대 제3대대(장, 崔炳淳 소령)가 國社峰(△338)을 占領한 것은 이날 04.00인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 때 同 高地 兩側方의 利安川邊이 갑자기 소란하였기 때문에 대대장 崔炳淳 소령은 이를 제10중대(장, 金周鳴 대위)로 하여금 확인

케 하였던 바, 잠시 뒤에 同 중대장 金周鳴대위로부터 『夜暗과 안개 때문에 識別할 수 없으나 어떤 集團이 利安川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渡河하고 있다.』고 報告되었다.

대대장 崔炳淳소령은 集結地 具陵里(咸昌西쪽 2km)를 떠나기에 앞서 연대장 崔榮喜대령으로부터 『我 後方地帶를 攪亂코자 東進하는 敵의 1部가 酒幕洞에서 無名道路를 따라 東幕里쪽으로 侵襲하고 있다.』는 敵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들이 敵임을 쉽사리 알수 있었으나 萬一의 경우를 위하여 계속 그들의 動態를 살피게 하는 한편, 各 중대를 展開시켜 同 高地의 西端部를 壓縮케 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아직도 渡河중이고, 渡河를 完了한 1部는 堤防위에 集結하여 人員과악을 하느라고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간혹 抑揚이 강한 北쪽 말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敵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게 되었다.

1次 集結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1개 중대규모의 兵力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曳舟里(國社峰 北쪽 1km)쪽으로 向하고 있음을 확인한 대대장 崔炳淳소령은 더 지체할 수 없다고 判斷하고 陣頭로 뛰어나가서 『射擊 開始』를 大號하였다.

瞬間 利安川邊의 寂寞은 깨지고 銃砲聲이 山川을 震動시켰는데, 이때에 제19연대 제2대대(장, 崔錫洛소령)가 여기에 加勢하였으니, 利安川邊은 마치 鐵雨가 쏟아지는듯 하였다.

曳舟里쪽으로 가던 敵은 한발의 應射도 못한채 分散 逃走하였고 中所里(國社峰 西쪽 1km)에서 渡河를 서두르고 있던 敵은 渡河를 中止하고 곧 射擊으로 對應하였으나, 날이 밝았을 때에는 50餘具의 屍體가 堤防위와 江邊에 遺棄되었음이 發見되었을 뿐 그들의 行跡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戰鬪에서 제13연대 제3대대는 사병 7명을, 제19연대 제2대대는 사병 5명을 各 各 損失하였다.

연대장의 措置: 제11연대장 金東斌중령은 제13연대 제3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가 利安川을 渡河하려는 敵을 擊退시킨 뒤, 渡河한 1部는 제1대대(장, 金在命소령)와 제3대대(장, 鄭永洪소령)로서 搜索擊滅케 하였는데, 제1대대가 支坪里(國社峰 北쪽 2km)쪽으로 逃走하는 무리를 發見하고 追擊하였으나 △225(支坪里 西쪽 500m)에 凝集한 敵의 妨害射擊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救命圖生을 許容하는 바가 되고 말았다.

그뒤 연대장은 部隊를 整齊하여 支坪里—東幕里間에 展開시켰는데, 이날 夕陽에 연대 偵察隊의 報告에서 敵의 一團이 鳳中里(東幕里 西쪽 4km)에서 下屹里(鳳中里 南쪽 2km)로 渡河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本部가 위치한 中村里(咸昌 南쪽 3km) 附近에 控置시킨 제2대대(장, 李희瑛소령)를 △413(東幕里 西쪽 3km)로 直衝케 하여 그들을 利安川 西쪽으로 擊退케 하였으며, 그도 作戰지휘차 Jeep車를 타고 △413로 가는 途中, 담배밭 고랑사이로 도망치는 北傀軍 중위 1명을 붙잡아 사단 사령부로 後送하기도 했다.

#### (다) 제12연대의 復歸

제12연대(장, 朴基丙대령)은 이날 20.00부로 제6사단 配屬에서 解除되어 23.00 小岩里

(咸昌 南西쪽 1km)에 集結하고 部隊整備를 하게 되었으며, 제11연대에 配屬되었던 제 6사단 제19연대 제 2대대도 同時부로 配屬解除되어 原隊復歸하였다. 제12연대도 26일 제20연대의 統合으로 漢江 北方에서 철수以後 비로소 3개 대대의 建制를 유지하고 指揮體制를 確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제20연대도 제 5연대가 轉戰한 것과 같은 經路를 밟으면서 많은 兵力을 損失하였기 때문에 咸昌에 이르렀을 때에는 1개 대대兵力에도 未達하였던 까닭에, 제12연대 제 2대대에 編入케 되었으며, 同 部隊를 지휘한 金漢柱소령이 文義地區戰鬪에서 負傷後送되었기 때문에, 咸昌에서 補充된 趙成來소령이 그 後任으로 發令되었다. 그리고 제 2대대장이던 李茂重소령은 새로히 編成한 제 3대대장으로 임명되고, 제 1대대는 從前과 같이 申鉉洪소령으로 하여금 지휘케 하였던 것인데, 同 소령이 27일 院洞(店村 北쪽 5km)부근 戰鬪에서 戰死하였기 때문에 韓順華소령이 그 後任으로 임명되었으며, 연대장에는 朴基丙대령이, 그리고 부연대장에는 金點坤중령이 各各 補任되었던 것이다.

7월 29일 : 3번 道路와 烏峰(새봉)에 主力을 集中시키던 敵이 我軍의 集中的인 砲火로 因하여 正面突貫이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였음인지, 전날 제13사단 제21연대가 軍團 西側方에서 侵襲을 試圖한데 이어서 같은 날 夕陽때부터는 제 1사단 隸下의 제 1연대(장, 대좌 黃石)와 제 2연대(장, 대좌 金陽春)가 그들의 西側戰線인 제 1사단 正面에서 發見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의 作戰計劃上에 變化가 일고 있음을 暗示하는듯 하였다. 이에 對備하여 제 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지난 밤 제 6사단에서 復歸한 제12연대를 제13연대와 제11연대의 空間인 992번 道路와 利安川間에 展開시켜 이 正面의 防守態勢를 強化케 하였다.

#### (가) 제13연대의 頂재山 부근의 掩擊戰

제13연대(장, 崔榮禧대령)는 전날 992번 道路를 따라 侵襲을 試圖한 北僞 제13사단 隸下의 제21연대(장, 대좌 李承俊)를 물리치고, 제 1대대(장, 金振暉소령)를 △428(△366 北쪽 2km)로, 제 2대대(장, 安光榮소령)를 △366(일명 頂재山)로 各各 推進시켜 陣地를 編成케 하는 한편, 제11연대에 配屬시킨 바 있는 제 3대대(장, 崔炳淳소령)를 △181(△366 東쪽 2km)로 移動시켜 敵襲에 對備케 하였는데, 이때까지 3번 道路上에 主軸을 두고 제 6사단 正面으로 侵襲한 敵 제 1사단(장, 崔光)에하의 제 1연대와 제 2연대가 △760(△428 北西쪽 3km)와 壯岩里(△366 西쪽 5km)쪽으로 迂回하여 潰走한 제21연대의 敗殘兵과 合勢하고 지난 밤 한차례 夜襲을 恣行한데 이어 이날 黎明을 期하여 또 한차례 연대 前面을 掩襲하였다.

제 1대대의 戰況 : 제 1대대장 金振暉소령은 △428에 陣地를 編成하고 右隣接한 제 6사단의 제 2연대(장, 咸炳善대령)와 連繫하여 銀峙(일명 은점재-△428 北쪽 2.5km)와 △760쪽의 敵襲에 對備케 하였는데, 이날 05.00 △760쪽에서 砲聲이 울리는가 하였더니 같은 時

刻에 △428의 西北쪽 下端部에서는 敵의 銃聲과 賊聲이 메아리쳤다.

대대장 金振暉소령은 即刻 사격명령을 下達하고, 한편으로 연대를 통하여 제 6사단 支援砲兵대대에 對하여 射擊要請을 하게 하였는데, 이때 제 3포병대대(장, 朴永凝소령)는 8문의 105mm(M-2) 曲射砲로서 제 6사단 前面의 支援要請에 呼應하기에도 力不足한 實情이었다.

따라서 同 대대는 自體保有 火器에 依存할 道理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때 대대가 保有한 大口徑 火器는 81mm 迫擊砲 2문, 60mm 迫擊砲 6문, 그리고 2.36" Rocket砲 8문이 그 全部였으며 거기에 機關銃 8정이 附加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敵은 砲擊과 銃擊을 混雜시키면서 攻勢를 되풀이 한 끝에 안개가 갠 무렵에는 7分 稜線까지 肉迫하였으나 이때부터는 鐵丸과 鐵片이 그들 머리 위로 集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100餘의 屍體를 遺棄한채 九味里(△428 西北쪽 1km)北쪽으로 사라졌으며, 그들은 爆擊과 砲擊이 甚한 晝間을 피하여 主로 夜襲을 피하였던 터이라 이날도 亦是 날이 밝자 敗退하고 말았는데, 俘虜의 陳述에 따르면 그들의 殆半은 占領地인 南韓에서 強制動員한 少年兵들로서, 계속되는 시달림과 不充分한 補給으로 士氣가 極度로 沮喪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대에서도 그들 砲擊으로 因하여 장교 3명 사병 36명의 負傷者를 내게 하였다.

제 2대대의 戰況 : 제 2대대(장, 安光榮소령)는 △366에 陣地를 編成하고, 연대의 對戰車 防禦계획의 一環으로 △366南쪽에 配置한 57mm 對戰車砲 2문과 協調된 射擊을 할 수 있도록 各 中隊의 2.36" Rocket砲 10문, 81mm 迫擊砲 6문의 火集點을 △366의 南端과 경동貯水池 北端間의 992번 道路上에 指向케 하고, 제 8중대의 鄭昊鎡소위가 지휘하는 4정의 重機關銃으로서 대대 前面을 掩護할 수 있도록 配置하여 敵襲에 對備케 하였는데, 그날 밤 敵은 道路로 나타나지 않고 △428와 △366의 中間地點의 突破를 試圖하다가 右제 1線의 제 5중대(장, 鄭點棒중위)에 依해서 擊退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날 이른 아침 1개 연대규모로 推算된 敵은 4대의 裝甲車를 앞세우고 대대의 左제 1線 前面을 掩護하였다. 그들은 全砲火를 △366의 南端部에 集注시켜 이곳을 一舉에 突進하려는 態勢인것 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366와 경동貯水池가 接續되는 直線距離 500m의 險路를 通過하기란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이 목을 注視하고 있던 對戰車砲 소대장 趙原來중위는 그들 先頭 裝甲車가 100m 距離로 接近하였다고 判斷되었을 때 『射擊 開始』를 외쳤다. 同時에 2문의 對戰車砲가 砲門을 열었는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속에서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리고 잇달아 Rocket砲와 81mm 迫擊砲의 砲彈도 同 地點에서 炸裂하여 불꽃을 이루게 하였는데, 그들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계속 死線으로 뛰어들고 있음이 불빛속에 비쳤다. 그리고 銃聲은 점차 번져서 右제 1線 中隊인 제 5중대(장, 鄭點棒중위)를 거쳐 제 1대대 前面으로 飛火하였는데, 그들은 左衝右突하면서 血路를 찾아 北쪽으로 또는 南쪽으를 滑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아옴과 때를 같이하여 銃聲도 멎었다. 992번道路上에는 불에 그을린 裝甲車의 殘骸가 3개 서 있고 그 週邊路面은 屍體로 가리웠는데, 피로 물들인 경돌貯水池에도 30餘具의 屍體가 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을 突破하려는 그들의 執念이 執拗하였음을 엿볼 수 있거니와, 이 戰鬪에서 7명을 俘獲하였는데, 이들 陳述에서 이들이 北傀 제 1사단 要員임을 확인하고 또한 그들이 正面衝突을 피하여 迂回機動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戰鬪에서 대대는 金熙堯중위를 포함한 11명을 損失하고 20餘명을 後送시켜야 했다.

#### (나) 제 12연대의 경돌貯水池 부근의 戰鬪

제 12연대(장, 朴基丙대령)는 전날 제 6사단(장, 金鐘五대령)의 作戰統制에서 解除되어 같은날 23.00 小岩리로 철수하여 部隊整備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 04.00 사단장 白善燁준장의 緊急명령에 따라 경돌貯水池 東側地帶를 占領케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 朴基丙대령은 27일 院洞부근의 穎江 渡河作戰時 損失이 컸던 제 1대대를 集結地에 殘置시켜 부연대장 金點坤중령의 管掌下에 再編케 하고, 제 2대대(장, 趙成來소령)와 제 3대대(장, 李茂重소령)를 경돌貯水池 東側으로 轉進시켜, 제 2대대는 △212의 北緣에, 제 3대대를 그 南緣에 各各 展開케 하였는데, 이때 제 13연대는 北傀 제 1사단 隸下의 제 2연대와 銃擊과 砲擊을 交換하고 있었다.

同 연대 作戰地域의 正面에는 경돌貯水池가 가로 놓여 있고, 992번道路의 北쪽은 제 13연대가 그리고 利安川 南쪽은 제 11연대가 各各 展開하고 있어서 敵이 侵襲하기 困難한 곳이기도 하나, 992번道路 및 △212의 南端部와 接續된 경돌貯水池의 水門部分을 補強하기 위한 措處로서 同 연대가 이 地域으로 急遽케 된 것이다.

그런데 제 13연대가 그들의 黎明 侵攻을 一敗塗地化시켰기 때문에 敵影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연대장 朴基丙대령은 그들의 1部는 992번道路의 南쪽 숲속에 隱身하여 혼어진 兵員을 收拾하면서 再興을 圖謀하고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제 2, 제 3대대장에게 『1개 중대씩 陣前으로 推進시켜 警戒陣地를 설치케 하고 아울러 敵情을 탐색보고 하라.』고 명령하였다.

제 2대대의 戰況: 제 2대대장 趙成來소령은 제 5중대(장, 安桂永중위)와 제 7중대(장, 韓普錫중위)를 △212 北緣에 展開시키고 제 6중대(장, 趙基伯대위)를 黑鉛鑛山(標高 △270)으로 推進시켜 警戒 및 敵情을 탐색 보고케 하였다.

제 6중대장 趙基伯대위가 992번道路로 迂回하여 黑鉛鑛山으로 進入하였는데, 그 山麓에 죽은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敵 屍體 50餘具가 外傷은 보이지 않으나 불에 그을린듯 까맣게 된채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當時 同 중대의 火器소대장 洪載希중위는 이를 보고 『우리가 이 地域에 오기 前에 美 제 25사단 隸下의 부대들이 配置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必是 이들이 敵과 遭遇하고 火陷 放射器나 Napalm彈과 같은 油沼彈을 使用하여 그들을 擊殺시킨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

는데, 이러한 光景은 △366나 雅川里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Napalm彈에 依해서 殺害된 것으로 推察된다.

어떻든 제 6 중대는 아무런 妨害없이 08.00에 陣地를 編成하고, 李珪鉉중위가 지휘하는 제 3 소대가 搜索偵察의 임무를 遂行케 되었는데, 同 偵察隊가 同高地의 南쪽으로 내려섰을 때 때아닌 煙氣가 오름을 目擊하고, 煙氣의 出處를 확인한 바, 蓮洞(일명 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소대장 李珪鉉중위는 仔細히 觀察하였는데, 아무리 보아도 住民은 보이지 않고 1개 중대 규모로 보이는 北傀軍들이 아침 食事준비를 하고 있는 光景이었다. 이 마을의 三面은 山이고 오직 트인 곳은 鏡淵貯水池에 面한 東쪽 뿐이었다.

李 중위는 傳令으로 하여금 敵情을 중대장에게 報告케 하고 그들의 動靜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들 步哨가 近處에 있었음인지, 중대장에게 報告차 뛰어 가던 傳令이 그들 銃擊으로 大腿部에 貫通傷을 입고 山 밑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이를 發見한 偵察隊는 銃擊을 가한 그들 步哨 2 명을 射殺하고 말았다.

食事준비에 餘念이 없던 敵들은 갑작스런 銃聲에 놀라 家家戶戶에서 뛰어나와 山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方向感覺도 없는 듯 하였으나 3面의 山을 따라 흩어졌고 東쪽으로 뛰는 者는 보이지 않았다.

李 중위는 遲滯없이 『射擊 開始』를 외치면서 CAR(M-2) 소총을 連發시켰다. 30餘명으로 推算되는 敵은 偵察隊가 配置된 前面으로 뛰어 오다 全員 擊殺되었으나 殘敵은 뒤 늦게 달려온 중대의 赴援兵力과 같이 追擊하였는데 그 行跡을 찾지 못하고 18.00 警戒陣地로 복귀하여 그들 夜襲에 對備하였다.

제 3대대의 戰況: 제 3대대장 李茂重소령은 제 9 중대(장, 대리 黃二龍중위)와 제 10 중대(장, 權保衡중위)를 △212의 南緣에 展開시키고 제 11 중대(장, 康永傑대위)를 主陣地 前方 標高 △250에 推進시켜 警戒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同 高地는 蓮洞의 바로 南쪽에 위치하여 東西로 橫隔을 이루면서 鏡淵貯水池 水門으로 突出하고 △212의 南端部와 接續한 연대正面 제일의 敵 接近路이다. 뿐만 아니라 제 11 연대 前面의 利安川 渡河地點을 敵制할 수 있는 要衝이기도 하다.

중대장 康永傑대위는 東西로 가로 놓인 △260의 東쪽 高地에 제 1 소대를 西쪽 高地에 제 2 소대를 各各 展開시키고 제 3 소대로 하여금 利安川邊에 沿한 同 高地의 南쪽 地帶로부터 搜索偵察을 實施케 하였다.

08.00 제 6 중대가 展開한 黑鉛鑛山과의 溪谷에서 銃擊이 울려 퍼진 10分 뒤에 1個 分隊 규모가 안개 속에서 醜態를 드러냈는데, 그들은 北傀軍임이 分明하였다. 중대장 康永傑대위는 제 1 소대에 射擊명령을 下達하여 그들을 擊殺시켰는데 바로 이때에, 西쪽 高地의 제 2 소대 地域 南쪽에서 銃聲이 요란하였다. 제 2 소대장 報告에 따르면 『偵察隊가 제 2 소대 陣地의 南端部를 偵察중 △225(支坪里 西쪽 1km)로부터 銃擊을 받고 交戰중』이라고 하였는데



△225는 제11연대 戰鬪地境線內에 있는 高地였다.

중대장 康永傑대위는 이를 即刻 대대장 李茂重소령에게 報告하고 제11연대의 支援을 要請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뒤 同 연대의 支援下에 偵察隊를 복귀시켰는데, 同 소대장 康冕燮 중위가 戰死하고 士兵 7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다.

제 1 대대의 戰況 : 제 1 대대장 韓順華소령은 元來 제 2 대대장으로서 靑丹(海州 東南쪽 20 km)에서 初戰을 치르고 金浦半島로 철수한 以後로는 本隊와 떨어져 獨白的인 戰鬪를 遂行하게 되었던 것인데, 韓順華소령은 當時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金浦半島에서 1部兵力은 白 文대위의 指揮下에 水原으로 갔으며, 殘餘兵力은 나와같이 船便으로 群山에 上陸하여 裡里까지 가게 되었으나, 裡里機關庫가 爆撃당한 7월 17일 陸軍本部가 大田에 있음을 확인하고 同일로 大田으로 가게 되었으며, 西大田의 軍 補給所에서 제12연대 補給受領車輛을 만나고 米院에서 本隊와 合勢케 되었다.

이때 나와 같이 復歸한 兵力은 1개소대에 不過하였으며, 나는 그간의 身病때문에 연대 본부에 남아서 療養하고 있던 중 27일 제 1 대대장 申鉉洪소령의 戰死로 내가 그 後任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同 대대는 韓順華소령의 指揮하에 再編成되고, 연대 본부에 대한 警戒임무를 수행하는 一方 연대의 豫備로서 次期 任務를 待命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外廓警戒 임무를 遂行중이던 제 2 중대(장, 韓萬炯대위)가 이날 俘虜 36명을 俘獲하여 한때 緊張感을 감돌게 하였는데, 當時 부대대장 朱汝俊대위가 證言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전날 敬洞部落에 侵襲한 敗殘兵들로서, 退路를 잃고 숲속에 숨어 있었으나 逃走할 機會를 찾지 못한데다 며칠간 食事を 못하여 더 견딜 수 없어서 投降하게 된 事實임을 확인하고, 대대는 비로소 正常을 되찾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연대가 洛東江 防禦線으로 進入할 때까지 交戰狀況이 없었다.』고 하였다.

#### (다) 제11연대 利安川 西岸으로 轉進

제11연대(장, 金東弼중령)는 전날 제 6 사단 제19연대 제 2 대대(장, 崔錫洛소령)와 제13연대 제 3 대대(장, 崔炳淳소령)를 原隊로 돌려보내고, 제 1 대대(장, 金在命소령)를 支坪里—國杜峰間에, 제 3 대대(장, 鄭永洪소령)를 연소곡(東幕里西쪽 1km)에, 그리고 제 2 대대(장, 李斗璜소령)를 △413에 各各 展開시켜 利安川을 渡河하려는 敵을 阻止케 하였다.

敵 제13사단 제21연대는 我 제 2 군단 後方地域으로 隱密하게 侵襲할 目的으로 籠岩里를 迂回하여 東進하였던 것이다. 敬洞貯水池와 利安川의 障壁에 부딪치고 제13연대의 善防으로 말미암아 瓦解分散되고 말았는데, 이날은 敵 제 1 사단이 그 뒤를 이어 迂回 侵透를 試圖하였다.

그러나 그들 亦是 제13연대의 掩擊으로 因하여 各個 分散되고 말았는데 그중 1部가 992 roadway 南쪽으로 스며들듯 제12연대가 敬洞貯水池 西쪽 地帶에서 接敵한데 이어, △225(支

坪里 西쪽 1km)에서도 그들이 蠢動하고 있음이 目擊되었다. 이러한 차에 제12연대장 朴基丙대령으로부터 『귀 作戰地域內의 △225에 潜伏한 것으로 보이는 敵이 연대의 警戒陣地에 對하여 側背射를 加하여 연대의 作戰活動에 支障을 超來케 하고 있다. 그들의 制壓을 要望한다.』는 通報를 받았는데 이때 △413의 제2대대장 李斗璜소령으로부터 『鳳中里(下屹里 北西쪽 2km)에 兵員으로 보이는 集團이 보인다.』는 報告를 받게 되었다.

연대장 金東斌중령은 그들이 必은 이날 未明에 992번道路를 따라 侵襲한 敵 제1사단의 敗殘兵으로 보고 이를 사단장 白善燁준장에게 報告하는 한편, 그들이 隱身處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先制하는 것이 將次 作戰에 有利한 것으로 判斷하고 國社鋒의 제1대대(장, 金在命소령)의 掩護下에 제2, 제3대대를 利安川 西側地帶로 轉進시켜, 제3대대(장, 鄭永洪소령)는 △225—△247(中所里 西쪽 1km)間을, 제2대대(장, 李斗璜소령)는 △399(下屹里 西쪽 1km)를 各各 占領케 하여 地域內의 殘敵을 搜索 擊滅케 하였다.

제3대대의 戰況: 제3대대(장, 鄭永洪소령)는 제1대대(장, 金在命소령)의 掩護下에 전날 敵이 渡河한 地點인 曳舟里에서 利安川을 渡河하고, 제9중대(장, 金衡錄중위)로서 △225를, 그리고 제10중대(장, 楊鳳植대위)로서 △247를 各各 奪取케 하였는데, 제9중대가 △225를 攻取하였을 때는 同 高地의 敵은 逃走한 뒤이고, 제1대대(장, 金在命소령)의 集中砲火에 擊殺된 것으로 보이는 10具의 屍體가 遺棄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10중대도 10.00에 △247를 占領하였으나 地域內에서는 敵影을 發見하지 못하고 鳳中里를 내려다 보이는 于基里(△247 北쪽 1km)까지 進出하였는데, 그곳 住民들의 말에 따르면 『敵은 鳳中里에서 아침 食事を 하고 銀尺山(△632—鳳中里 西쪽 2km) 方向으로 潛跡하였으며, 그들은 몹시 지쳐 있는 것으로 보였고, 300餘명으로 推算된 兵員의 殆半이 南韓에서 強制動員한 것으로 보이는 少年들이었다.』고 하였다.

제2대대의 戰況: 제2대대(장, 李斗璜소령)도 利安川을 渡河하여 黑鉛鑛山인 △399에 陣地를 編成하고, 右隣接한 제3대대와 無名道路를 사이에 두고 接境케 되었는데, 그들은 我軍의 配置상황을 探索하려는 듯, 小규모의 偵察隊로서 探索을 試圖하였던 때문에 대대 陣前에서 몇차례의 接戰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무렵 그들은 兪사어 없는 友邦軍의 空中攻擊과 砲擊으로 말미암아 殆半의 兵員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기에다 그들이 劃策했던 我後方地域으로의 侵透가 容易치 않음을 깨닫고 이날부로 銀尺山으로 潛入하여 兵力收拾과 再編成을 서둘고 있다고 밝혀졌다.

#### (라) 사단장의 措置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諜下부대의 報告를 通하여 敵主力의 攻擊軸線이 3번道路線上에서 992번道路線上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看破하고, 3번道路線上에 指向되고 있는 空中支援 및 火力支援의 優先權을 軍단 西側正面으로 轉移시켜 줄 것을 軍단장 劉載興준장에게 建議하는 한편, 3개 연대를 △428—△413間에 1線으로 展開시켜 北쪽은 제6사단의 左1

線부대와 連繫를 맺게 하고, 南쪽은 利安川의 渡河를 防止케 하여 그들의 東進을 阻止케 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主攻方向이 제 1사단 正面으로 옮겨짐에 따라, 同 사단에 對한 航空支援도 이때부터 本格化 되었으며 증대 單位까지 黃, 白의 對空布板이 支給된 것도 이무렵이었다. 그리고 30일에는 新型(M-2) 105mm 曲射砲 6분으로 構成된 1개 砲隊의 直接支援을 받게 되었으며, 그간 負傷 또는 落伍로 部隊를 離脫했던 兵力이 續續 復歸함으로써 사단의 戰力은 날로 增強되어 갔다.

그런데 이무렵 左, 右隣接의 戰線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던 까닭에 戰線은 또 한차례 南下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兵力의 劣勢를 地勢의 利點으로 補充하고 장차 攻勢移轉을 위한 時間的 여유를 얻는 方便으로서 8월 1일을 期하여 韓國軍을 포함한 全 聯合軍을 現戰線에서 철수시켜 洛東江線에 防禦障地를 形成케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 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敵과의 接觸이 輕微한 제 12연대(장, 朴基丙대령)를 31일 先發隊로서 洛東里(尙州 南東쪽 13km)로 急進케 하여 主力의 洛東江 渡江준비를 서둘러 하였다.

#### 라. 전투후의 개황

제 1사단은 咸昌地區에서 제 2군단의 左翼으로서 軍단 後方地域으로 侵襲하려는 敵 제 13 및 제 1사단을 차례로 물리치고 戰勢를 好轉케 하였으나, 이무렵 全般的인 戰勢는 我軍에게 不利하게 展開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 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洛東江線을 최후의 堡壘로써 決戰할 것을 決意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攻勢移轉을 위한 時間을 얻기 위하여, 그의 作戰統制下에 있는 韓美兩軍을 8월 1일을 期하여 現 阻止線에서 철수시켜 洛東江線에 새로운 防禦障地를 占領케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제 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31일 右隣接한 제 6사단의 철수를 幷호하는 一方 같은 날 敵과의 接觸이 輕微한 제 12연대로 하여금 사단의 渡河地點과 渡河장비를 確保하도록 洛東里(尙州東쪽 13km)로 先發시키고, 主力은 8월 1일 夜暗을 利用 咸昌地區를 철수케 하였는데, 尙州附近에서 美 제 25사단 隸下부대로부터 한차례의 訊問이 있었을 뿐 3일 洛東江을 渡河完了할때까지 敵으로부터 아무런 妨害도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同 사단은 제 2군단의 右翼으로서 洛井里(尙州南東쪽 15km)—倭館間을 北—南으로 제 12, 제 11, 제 13연대 順으로 展開시키고, 同 사단의 右側은 제 6사단이, 左側은 美 제 1機甲사단이 各各 隣接하게 되어 開戰以後 처음으로 協調된 防禦障地를 編成케 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13연대 제 2대대장 安 光 榮 소령  
(1978. 3. 22 崔榮喜 外交分科 委員長室에서,  
豫소장)

우리는 元來 제 5사단 隸下의 제 15연대였으나 7월 8일 曹坪에서 제 1사단에 統合되어 제 13연대로 呼稱케 되었으며, 그 以後 陰城, 米院, 化

寧場地區 戰鬥을 치르고 同월 26일 咸昌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咸昌에는 제 2군단(장, 劉載興준장) 사령부가 있었고, 그 북쪽에 제 6사단(장, 金鍾五대령)이 配置되어 敵 제 1 및 제 13사단과 對峙하고 있었으며, 우리보다 먼저 當到한 제 5연대(장, 金東斌중령)가 儉安里에서 제 2군단의 西側方 防護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제 13연대(장, 崔榮喜대령)는 제 5연대가 遂行한 임무를 引受케 되었으며, 空間에 陣地交代를 하게 되었던 까닭에 제 2대대에서 6명의 死傷者가 發生한 不詳事가 있었다.

한편, 제 5연대는 咸昌에서 제 11연대에 統合되었고, 이날 咸昌에 당도한 제 20연대는 제 12연대에 統合되었으며, 이들 제 11, 제 12연대는 다음날 瀕江 東側地帶에서 聞慶쪽으로 攻擊케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部隊를 兩分케 되었는데, 이때 敵은 3번 道路線上에서 正面突貫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음인지 軍團의 西側方에서 侵襲을 試圖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敵의 企圖를 看破한 제 2군단장 劉載興준장은 제 1사단의 聞慶攻擊을 中斷시키고, 군단의 西側方을 補強케 하였다.

따라서 제 1사단장 白善燾준장은 제 11연대와 제 12연대를 27일과 28일에 各各 咸昌으로 철수시켜 992번 道路 南쪽의 鏡洞貯水池와 利安川邊에 展開케 하고 제 13연대를 同 道路의 北쪽 △428와 △366로 調整配置하여 右側의 제 6사단과 連繫케 하였는데, 제 11, 제 12연대가 이 地域으로 進入하기에 앞서 제 13연대는 軍團 後方地域을 攪亂시킬 目的으로 992번 道路를 따라 은밀하게 침습한 北僞 제 13사단 隷下의 제 21연대(장, 李承

俊)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때에 우리 대대는 992번 道路 南쪽의 △212를 그리고 제 1대대(장, 金振暉소령)는 △366를 포함한 992번 道路를 各各 占領하고 있었는데, 28일의 未明에 제 1대대 地域에서 統整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연대장으로부터 『경동貯水池의 南端部에 對한 境界를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경동貯水池의 南端部에 水門이 있는데 이 部分이 貯水池 西側의 黑鎔鎔山과 △212를 連結시켜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對한 對備策을 講究케 하였던 것이다.

제 7중대는 992번 道路邊으로 展開시켜 제 1대대와 協調하여 道路따라 侵襲하는 敵을 擊退하도록 하고, 제 6중대를 鏡洞貯水池의 南端部로 이동시켜 境界에 임하게 하였는데, 이때는 어둠과 안개로 因하여 咫尺을 分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07.30 날씨는 晴明하였으나, 안개는 아직 가지지 않았는데, 제 6중대장 金國柱대위로부터 『敵兵 2명을 俘獲하였는데, 그들 陳述에 따르면 그들 1개 중대규모가 鏡洞마을을 占領하고 休息을 취하는 한편 食料준비를 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게 되었다.

即時로 敵情을 확인한 다음, 제 6중대로서는 鏡洞마을 山쪽에서 壓縮해 가도록 하고 豫備로 控置시킨 제 5중대를 마을 前面인 南쪽의 利安川堤防에 展開시켜 그들의 退路를 遮斷케 하였다. 이와 같은 配置가 完了되었을 때에는 안개가 길러고 마을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敵도 드러났다. 나는 곧 射擊명령을 下達하고 兩個 중대의 射向을 同 마을에 集注시켰는데 그들의 應射는 없었다.

## 第14章

# 西南部方面의 角逐

### 要 旨

1. 湖南地區의 戰況
2. 咸陽—安義—居昌 附近 戰鬪
3. 陝川—勸彬里 附近 戰鬪
4. 河東—晉州 附近 戰鬪



## 第 14 章 西南部方面의 角逐

### 要 旨

本章에는 7월 16일 이후 北魏의 大田侵攻과 때를 같이하여 湖南지역을 侵奪하기 시작하였으나 國軍은 이를 拒支할 狀況에 있지 못하였던 관계로 不過 11일만에 이 지역을 敵手에 넘기고 逐次 嶺南西部지역에서 痛恨의 遲延戰을 敢行한 그 間의 戰況을 收錄하였다.

즉, 陸軍本部는 7월 8일 湖南配備를 위하여 全南北道에 編成관구사령부를 急編하고 제 5, 제 7 兩개사단의 再建을 도모하였으나 急迫한 敵侵에 對應하기 위한 戰力을 갖추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赤手空拳의 이들 부대는 滅敵의 意志만을 불태웠으나 逐次로 後退하지 않을수 없어 南原에 集結할수 있었던 부대는 雲峰—咸陽間에서, 그리고 求禮와 順天으로 물러난 부대는 河東—晉州에서 渾身의 努力으로 敵侵을 阻止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敵은 我軍의 虛隙을 질러 단숨에 湖南지역을 奪권하자 다음으로 嶺南西南部로 直衝하기 위하여 晉州와 馬山을 掠取하고 나아가 大邱後方으로 進出을 꾀하여 全州—光州를 占領한뒤 順天에 이른 그들 제 6사단으로 하여금 晉州—馬山을 軸線으로 攻波를 指向케 하고 동시에 그들이 한때 大田에 控置한 제 4사단을 그 左翼에 전개하여 長溪와 南原으로부터 安義 및 咸陽에 이르게 한 다음 居昌—陝川方面으로 醜鋒을 돌렸다.

그러므로 이에 당면한 我軍으로서는 危局을 마저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도 軍首腦部는 束手無策이어서 苦肉之計로 湖南지역에서 撤收하는 閔부대(장, 閔繼植 대령)와 甯부대(장, 甯德俊 대령) 그리고 해병 金聖恩부대(장, 金聖恩 중령) 및

金부대(장, 金秉化 소령)의 殘存兵力으로 雲峰—咸陽을 防守케 하고 한편 河東—晉州間은 求禮와 順天 동지에서 晉州로 물러난 弱小한 兵力으로이 에 當面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戰況으로 하여 敵의 危脅이 西南部戰線에서 漸高하게 되자 당시 美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遲滯할 수 없다고 判斷, 大田防禦에서 큰 損失을 입은 美제 24사단을 미처 整備도 하지 못한 채 急遽 居昌—河東간 廣域 戰線으로 轉用조치하였으며, 이에 赴援한 甯사단은 後續한 美제 29연대를 配屬받아 이들과 合勢하여 에라 제 34연대를 居昌에, 그리고 殘餘 제 19연대와 제 29연대(배속)를 安義—花山間과 晉州—河東方面에 配置하여 韓國軍과 協同作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대 역시 勝勢를 몰아 侵攻을 계속하는 北魏 제 4, 제 6 兩개사단의 공격을 막지를 못해 安義—居昌에서, 또는 河東—晉州에서 遲延戰을 펴기에 이르렀고 이에 隨伴하여 劣勢인 國軍 역시 咸陽과 安義에서 물러나 晉州로 撤收하며 이들과 같이 遲延戰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本章은 바로 이와같은 彼我的 상황 밑에서 전개되는 戰局 推移속에서 당초 力不足인 國軍이 湖南지역을 지탱하기에 노력한 11일간의 戰況을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으로 閔부대와 美軍의 雲峰—咸陽—安義에서의 遲延戰을, 이에 이어서 美제 34연대가 주로 담당한 居昌防守와 이들 當面에 增援된 韓國軍 제 17연대의 妙山에서의 戰鬪, 그리고 韓國軍과 美軍이 合同한 河東—晉州부근에서의 방어전을 取扱하게 되어 이를 詳述하였다.

# 1. 湖南地區의 戰況 (1950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참조: 변책부도 제 25 호  
상 황 도 제 69, 70 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西海岸지구 전투		閱부대	장 대령 閔 機 植 (7.20에 改稱)
사령관 소장 申 泰 英 (兼 全北編成관구 사령관)		獨立대대	장 소령 金 秉 化 (7.20에 金부대로 改稱)
신편제 7사단 장 대령 閔 機 植		吳부대	장 대령 吳 德 俊
제 3연대 장 중령 朴 炫 洙		全北경찰전투사	사령관 경무관 尹 箕 炳
신편제 9연대 장 중령 俞 海 瀟		全南지구편성관구	사령관 소장 李 應 俊
신편제 30연대 장 중령 金 龍 周		신편제 5사단 장 대령 李 炯 錫	
陸本특공대 장 소령 裴 東 傑		신편제 15연대 장 중령 金 炳 徽	
機甲연대기병중대 장 중위 朴 翺 均		李부대 장 중령 李 瑛 奎	
高吉勳부대(해병) 장 소령 高 吉 勳		신편제 26연대 장 중령 李 白 雨	
(7.22에 金聖恩 부대로 改稱)		全南경찰전투사	사령관 경무관 金 應 權
金聖恩부대 장 중령 金 聖 恩			
敵 軍		我 軍	
北傀제 4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제 14연대 장 대좌 韓 日 來	
제 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 15연대 장 대좌 金 顯 基	
北傀제 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포병연대 장 중좌 林 海 民	
제 13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 나. 전투전의 개황

7월 5일 이후 京釜國道沿邊의 美제 24사단이 逐次로 平澤—天安—全義—公州—大田선을 따라 遲延 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러 그 以西지역은 敵侵앞에 거이 開放된 狀態에 있었다. 더구나 國軍主力이 東



部와 中部에서 遲延戰을 벌이는 동안 美제 24사단은 錦江線과 大田에서 물러나 沃川—永同으로 撤收함으로써 湖南지역은 無防備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破局에 直面한 陸本은 同월 8일을 前後하여 이지역에서 제5, 제7兩개사단을 新編하게 되나 新兵으로 急編된데다가 武裝力이 全혀 없었던 까닭에 이지역 防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채 撤收하게 된다.

따라서 危機가 急迫하자 陸本은 一部の 基幹要員으로 附부대를 編成케 하고 海軍대와 뒷부대 그리고 李漢宗부대로 하여금 急遽 이를 赴援케 하여 接敵을 維持케 하나 그 總勢는 1개연대규모에 지나지 않아 마침내 北傀제 6사단의 進襲을 阻止하지 못하고 小白山脈 以東지역으로 물러나므로서 湖南지역은 敵侵 10일만에 敵手에 넘기는바 되었다.

本節은 이들부대가 活動을 전개하기 시작한 同월 16일부터 南原—求禮—順天線 以西지역을 喪失하기까지의 戰況을 다룬것으로 그 以前의 彼我상황을 本項에서 取扱하였다.

敵軍의 狀況: 6월 28일, 北傀는 南校 3일만에 서울을 占據하고 7월 6일에는 平澤을 強占하여 대체로 蔚蔭—丹陽—忠州—陰城 以北 38°선 以南 全地域을 席捲하기에 이르자 또다시 이른바 제3期作戰을 펴 一擊에 全土를 掌握하려고 劃策하였다.

따라서 北傀는 同월 8일 南侵當時에 漢江下流에서 渡河하여 金浦半島와 仁川을 蹂躪하는데 앞장섰던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을 계속 그들 右翼에 投入하여 天安에서 西쪽으로 分進케 하고 美제 24사단을 追躡하여 天安—大田—唐陽—咸陽 軸線을 따라 侵攻하려는 그들 제4사단(장, 소장 李權武)과 連絡을 유지하면서 急速히 西海岸과 湖南지역으로 突出하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北傀제 6사단은 少數의 警察兵力만이 扼守하는 禮山과 洪城 그리고 靑陽을 同월 12일까지 차례로 侵攻, 同월 16일에는 恩山(扶餘西北쪽 6km—笠浦(江景西쪽 11km)間 錦江北岸에 進出하고 渡河를 준비하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그 西쪽 長項에 侵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我軍의 別다른 抵抗을 받음이 없이 錦江을 건너게된 이들은 大田攻略에 血限이된 그들 제3, 제4兩개사단과 先陣을 다투는듯이 그 主力을 裡里—全州—光州로 指向하였다.

이리하여 계속 衝勢를 몰아 同월 19일에는 裡里와 群山을 占據하여 3일뒤에는 全州를 侵奪하고 다음날에는 光州에 이르므로서 同월 24일까지 湖南全지역을 짓밟아 地方赤衛隊과 野合하여 良民虐殺을 비롯한 갖은 蠻行을 서슴치 아니하였다.

敵情이 이러한에도 不拘하고 同월 18일부터 韓國軍을 作戰統制한 美제 8군사령부의 G-2는 西海岸을 따라 侵透하는 敵의 正體를 가리지 못한채 다만 所在不明의 예비대이거나 北傀제 4사단의 일부로 看做하다가 同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이 敵이 北傀제 6사단임을 確認한 것이다.

我軍의 狀況: 6월 25일, 湖南지역에 配備된 제5사단(장, 李應俊 소장)은 예하 2개연대中 제15연대(장, 崔榮禧 대령)를 全州에, 제20연대(장, 朴基丙 대령)를 光州에 각각 駐屯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의 出動으로 이 지역에는 아무 配備가 없었는데, 陸軍本部는 이 지역이 共匪出没지역임을 감안하여 즉시로 湖南지구전투사령부를 新設하고 同日附로 李燭錫 대령을 사령관에 任命한바 있었다.

이와같은 조치로 同월 27일에 光州에 赴任한 李대령은 우선 兵力の 獲得策으로 全南北道 一圓에서 除隊군인 및 舊 護國軍 要員과 靑年방위내원들을 소집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위하여 全州 지방에는 股額約 소령을 派遣하게 되었다.

그런데, 同월 7일에 陸軍本部는 이미 同월 5일부로 斷行한 부대 改編으로 解體된 부대가운데 제5, 제7兩개사단을 再建기 위한 緊急조치(國本—一般命令 제3호 및 陸本特命 제11호)로써 새로이 제5사단장에 李燭錫 대령을 任命하고 『부대 본부를 光州에 設置한다음 제15연대를 順天에서, 제26연대를 光州에서 新編하라.』고 하였다.

또한 제7사단장에 閔鐵植 대령을 任命하여 『부대 본부를 全州에 設置하고 제3연대를 全州에서, 제9연대를 南原에서 急編하라.』고 하였으며 同時에 제15연대장에 金炳徽 중령, 제26연대장에 李白雨 중

령, 제 3연대장에 朴炫洙 중령, 제 9연대장에 俞海濤 중령을 자기 發令하였다.

이리하여 다음날(8일)에는 全南北道에 編成管區사령부를 設置하고 同일부로 全南지구編成管區사령관에 李應俊 소장을, 그리고 全北지구編成管區사령관에 申泰英 소장을 任用조치 하였다.

이와같은 陸軍本部的 措置로 當時 光州에서 任務을 수행하고 있던 李燾錫 대령은 즉시로 그의 사령부를 제 5사단사령부로부터 轉換하고 예하연대장이 陸軍本部에 의하여 任命된 사실을 모른채 李瑛奎 중령을 제 15연대장으로 하여 사단 新編에 着手하는바 되었으나, 나머지는 大田에서 各個別로 命令을 수령하였던 까닭에 行動을 같이 하지 못하고 同월 10일을 前後하여 個別的으로 列車과 自動車便으로 任地로 向發케 되었다.

특히 이때에 李應俊 소장은 李亨根 준장을 참모장으로 同途 赴任하였으며, 申泰英 소장은 元容德 준장을 참모장에 任命하였는데, 陸軍本部는 이를 追認하였다.

따라서 全南北一圓에서의 2개사단 新編업무는 本格化된 셈인데, 이때 光州에서 全州에 派遣된 殷碩杓 소령은 閔職植 대령의 來着으로 이미 소집한 장병들으로써 新編제 7사단에 充員하고 光州로 復歸하였으며, 또한 順天에서 제 16연대를 新編하고 있던 李瑛奎 中領은 스스로 同연대장직을 金炳徽 중령에게 넘기고 그 자신은 副연대장직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편, 湖南지역에서의 상황이 이와같이 전개되고 있는것과는 別途로 6월 29일에 光州에서 舊제 5사단 제 20연대소속으로 出動제 3 掃隊를 지휘하여 始願에 進出한 李召東 소령은 同연대장 朴基丙 대령으로부터 『제 3 陸軍病院(光州)에 收容중인 患者들을 恢復 즉시 이들을 糾合하여 유격전을 준비하라.』라는 要旨의 命令을 받고 곧 戰傷者 후송 列車便에 光州에 되돌아 갔으니 이때가 7월 8일이었다.

光州에 到着한 李소령은 제 5사단이 이곳에서 新編중인 사실을 모른채 곧 제 20연대의 再建에 着手하여 入院중인 同연대소속 장병들에게 退院後 前線복귀를 督勵하고 이미 退院한 장병들과 같이 住民들에게 國軍이 健在함을 示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李소령은 얼마뒤 李燾錫 대령으로부터 이곳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忠告에 따라 제 26연대 新編에 參與하는바 되었다.

이리하여 全北지구에서는 新編제 7사단이 主軸이 되어 그에하 제 3, 제 9 兩개연대가 全州에서 자기 編成要員을 充員키 위한 徵募사업이 전개되고 全南지구에서는 新編제 5사단 예하제 26연대가 光州에서, 제 15연대가 順天에서 急編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각 사단은 이를 위하여 蒸餾장병을 각 郡단위로 派遣 예비역장병들의 召集은 물론 一般壯丁들의 應召업무까지도 強行케 되었다.

이 募兵사업에는 당시 全州를 거쳐 順天으로 철수한바 있었던 申翼熙, 李範奭 등의 時局장연도 奮勵하는바 되어 각 지역에서 다수의 義勇學徒들이 參加하였다.

同월 13일까지 대체로 完了된 각 사단의 編成사항을 살피면 제 7사단의 제 3연대는 2,500명, 제 9연대는 3,600명이고 제 5사단 예하 제 15연대는 800명, 제 26연대는 1,000명에 達하였다.

그런데, 이들가운데 武器를 所持한자는 각 연대장을 따라 이곳으로 철수한 장병들과 病院에서 退院한 자들로 全體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新兵이었으므로 당장의 急先務가 訓練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각 연대는 이후 小銃, 대신 木銃을 만들었으며 그나마 마련할 수 없었던 부대는 徒手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陸軍本部는 7월 9일 제 7, 제 5 兩개사단의 실정을 헤아리지 못한채 兩개사단장에게 자기 『1개대대의 戰鬥兵力을 陸本으로 急派하라.』는 命令을 下達하기에 이르러 新編제 7사단은 1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抽出하여 張泰明 대위에게 지휘케 하고 出動케 하는 동시에 『可用한 모든 兵器를 大田地區로 急送하라.』는 電文을 제 5사단에 보내었으므로 新編제 5사단장은 지역 방어에 全力하려는 一部의 反對意見에도 不拘하고 당시 大田防守의 중요성을 들어 모든 可用兵器를 모조리 急送하는 한편 제 26연대장 李白雨 중령에게 『武裝 1개대대를 急編하여 陸本으로 急派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李白雨 중령은 李召東 소령에게 『舊제20연대 장병으로써 1개대대를 편성하여 陸本을 赴援하라.』는 賈督의 命令을 下達하였는데, 이로써 李召東 소령은 750명을 選拔하여 微發차량 20대로 當日 光州를 出發하여 南原—全州—論山 經유 大田에 到着한다음 大田女中에 부대를 收容하였던바 곧 實施 陸軍本部의 大邱 移動으로 다시 大邱로 向發케 되고 이후 G-3의 區處를 받아 永川으로 出動케 되었다.

또한 以後에 湖南지역에 敵侵이 시작되자 陸軍本部에서는 『井邑方面에 1개대대를 急送하라.』는 電文을 제 5사단에 보내었으므로 同사단장은 사령부의 全將兵中에서 志願者를 뽑기로 하였는데, 대대장에는 本部사령인 趙始衡 소령이 自進하여 志願하였으며 本部중대요원을 비롯한 軍부부대 요원도 모두 新편대대에 참가하여 井邑을 目標로 北進하게 된다.

그러므로 新편제 5사단은 敵의 侵攻에 當面하여 武裝없는 兵力만이 남게된 셈인데, 新편제 7사단의 경우는 이 무렵 開戰初 汝山쪽으로 出動한바 있었던 步兵학교 教導隊(장, 金秉化 소령)가 全州로 撤收하여 合勢케 되었기 때문에 대대규모의 戰力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한편 이 무렵에 海軍本部는 國防部지사로 群山港에 保管中인 政府米의 搬出 수송임무를 수행케 되어 濟州島에서 待機中인 砲兵대(사령관, 申鉉俊 대령)의 일부를 群山으로 出動케 되었는데, 이로써 高吉勳 소령이 지휘하는 1개대대(300명)가 同월 15일에 濟州에서 FS艇便으로 群山을 目標로 航進하고 있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敵軍의 企圖** : 北傀는 제 2 단계의 侵攻작전에 이어 곧 제 3 단계작전으로 移行한듯 하였는데, 이것이 뒤에 그들 스스로가 밝힌 이른바 제 3차작전(7.7~24)으로 그 方策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작전목표 : 南半部의 軍이 방어선을 構築하기전에 신속히 錦江—小白山脈을 突破하여 蔚珍—開慶—論山—全州선을 占領한다.』

작전방침 : 天安—烏致院—大田 方向에 主攻을 指向하고 그들을 包圍섬멸 한다.』라는 것이었다.

당시 西部전선에 배치되어 利川—鎭川—淸州에 이르는 軸線 以西를 담당하여 南侵을 계속한 北傀제 1군단(장, 중장 金 雄)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더이상 밝혀진바 없으나 『後方으로 迂回하여 主力軍을 보위 섬멸한다.』라는대 當面한 戰術목표를 두었다고 그들 「正義의 祖國解放戰爭史」에서 數術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 제 1군단은 韓國軍 제 8, 제 6개사단을 強壓하여 東部—中部에서 南進하는 그들 제 2군단(장, 중장 金武亭)과 策應하고 天安—大田으로 直衝하였다.

이점을 念頭에 두고 기간중의 작전경과를 살펴보면, 그들 제 1군단의 작전기도는 大略 다음과 같이 結論할 수가 있다.

즉, 그들은 京釜間의 國道를 따라 天安—大田軸線으로 공격을 계속하되,

① 제 6 사단은 軍단 右翼에 配備되어 天安—禮山—長項, 靑陽을 占領하고 곧 錦江을 漕渡 계속 咸悅—裡里—全州를 공격하는 同時에 光州로 南進하여 南海岸으로 迂回한다.

② 제 4 사단은 中央右翼으로 天安—公州—論山—大田으로 공격한다.

③ 제 3 사단은 中央左翼으로 天安—烏致院—大田으로 공격한다.

④ 제 2 사단은 左翼으로 제 2 軍단과 連携하여 利川—鎭州—報恩—永同으로 공격한다.

⑤ 제 105 기갑사단은 京釜國道로 계속 南進하면서 제 3, 제 4 兩개 사단을 주로 지원한다.

이는 한마디로 緒戰에서의 勝勢를 몰아 突貫進出 한다는 것인데, 그들로서는 赴援한 美軍의 主力뿐만이 아니라 再編하는 韓國軍이 京釜國道上에 偏重되어 있을 것이라는 前提下에 對策을 세웠을 것으로 보아 다음 세가지의 機動方策을 예상할 수 있었다.

첫째 : 그들은 美제 24 사단의 戰力을 過大 평가하여 제 3, 제 4 兩개 사단을 그 正面에 두어 牽制케 하고 제 6, 제 2 兩사단을 자기 左右에서 迂回케 하여 退路를 위협하여 撤退를 強要하는 것.

둘째 : 我軍의 戰力을 과소평가하여 大田부근에서 美軍과 再編中인 韓國軍을 포위 섬멸하는 同時에 제 6 사단으로 하여금 南側方으로 迂回케 하여 되도록 빨리 我軍後方으로 進出하려는 것.

셋째 : 이상의 2개 方案을 配合하여 제 6, 제 4, 제 3, 제 2의 4개 사단이 分進과 더불어 大田을 2개 사단으로 合擊케 한다는 我軍의 主力이 震駭하는 틈을 타서 단숨에 湖南一帶와 永同으로 突出하려는 것.

그런데 실제로 敵제 3 사단은 제 4 사단과 같이 7월 7일에 天安에서 南進하여 大田을 合擊하고 제 6 사단은 같은날 天安에서 西쪽으로 分進하여 錦江을 渡河한 다음 全州—光州로 侵攻하였으며, 제 2 사단은 鎭川—淸州北쪽으로 侵攻한다는 報恩을 거쳐 黃澗으로 南侵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그들은 세번째 方策을 채택한 것으로 推測된다.

我軍의 方策 : 그러나 이때에 我軍의 지휘부는 이러한 敵의 作戰構想을 看破하여 근본적인 對應策을 강구할 情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미 前述한바와 같이 韓國軍의 主力은 거의 緒戰에서 崩壞되어 계속 水原—平澤으로 分散 撤退하는바 되었으므로 이들의 前線 收容은 敵이 계속 南侵하는 情況下에서 당장에 실시되어야할 命題였다. 7월 5일 美제 24 사단의 烏山—平澤間에서의 參戰으로 힘을 얻은 韓國軍은 비교적 建制를 유지한 제 1, 제 2, 首都의 3개 사단을 基幹으로 하여 제 1 軍단을 創設하고 곧 사 6 단과의 間隙인 陰城—鎭川을 沿하는선에 轉換 대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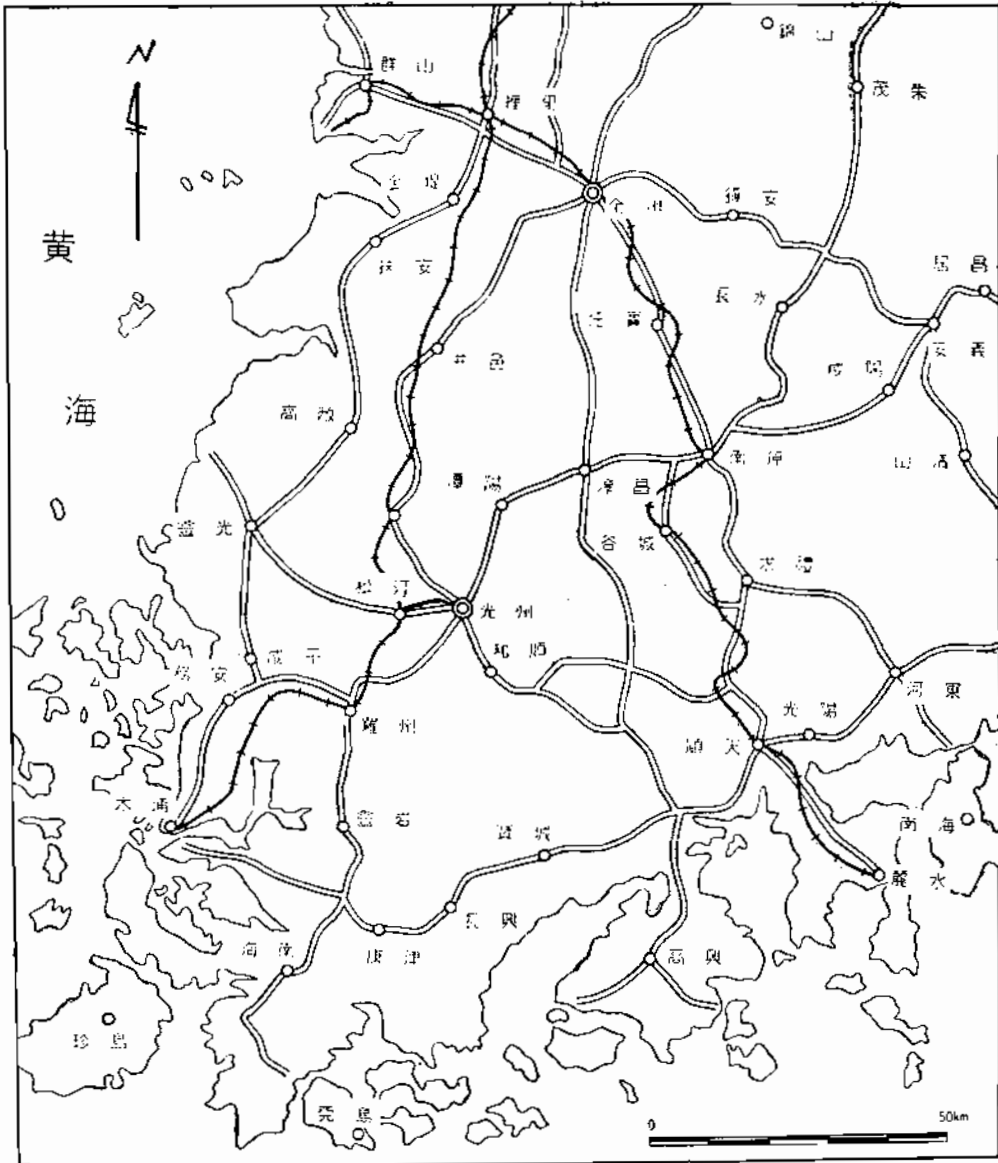
따라서 戰線의 계속 南下할 경우에 對備한 조치를 取할 여유를 갖지 못한채 前線을 拒支하는데만도 힘겨운바가 되었다.

그러나 同월 7~8일에 이르러서도 戰況은 계속 惡化되어 西部戰線을 담당한 美제 24 사단이 敵侵을 저지하지 못하고 축차로 京釜國道를 따라 물러나 錦江線에 방어진을 形成할 단

계에 이르자 陸軍本部는 湖南지역과 嶺南지역에 대한 일단의 後方配備와 부대再建 및 增編策으로 이미 5일부로 解體된바 있는 제 5사단을 光州에서, 제 7사단을 全州에서, 그리고 제 9사단을 釜山에서 각기 新編케 하였으며 同월 8일에는 嶺南 및 全南北編成管區 사령관을 任命하고 사단編成을 支援케 하였다.

이같은 일이있은 다음 陸軍本部는 戰線이 계속 南下하자 同월 12일에 全南北兩개編成管區사령부를 光州와 全州地區編成관기 사령부로 改稱하고 兩개地區編成관기 사령관에게 地域

◇ 상황도 제69호 湖南地區의 重要交通網



防어임무를 부여하여 지역내 각급 軍警부대를 지휘케 하였다.

따라서 湖南지역에 敵侵이 시작된 同월 16일 상황은 全州에 全州地區編成관구사령부와 신편제 7사단(제3, 제9연대)이, 그리고 光州에는 光州地區編成관구사령부와 신편제 5사단(제15, 제26연대)이 名目上으로 配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들부대는 當面의 부대編成이 急務인 까닭에 敵侵에 對備한 彼我的 能力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방어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신편제 5, 제 7兩개사단의 立場에서 보면 編成관구사령부가 있으므로서 屋上架屋의 格이 되었으며, 더구나 猝地에 急編된 터이므로 그 權限의 限界와 직무의 向方도 明白하지 못하였으니 부대간의 橫的인 연락은 물론이요 사령부와의 縱的인 지휘체제도 有名無實 그것이였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들부대의 전투 역시 부대指揮에 의한 戰力發揮부다도 各자 個人的 敵氣心發揮 如何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2) 작전실시

敘述上의 便宜上 다음과 같이 地域別로 戰況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黃登—裡里—群山부근의 戰況 (7. 16~19)
- (나) 全州—金堤—任實—南原부근의 戰況 (7. 19~20)
- (다) 井邑—長城—光州부근의 戰況 (7. 20~23)
- (라) 求禮—順天—筏橋부근의 戰況 (7. 24~26)
- (가) 黃登—裡里—群山부근의 戰況 (7. 16~19)

7월 16일 : 美제 24사단은 大平里—公州사이의 形成한 錦江방어선이 이날을 고비로 하여 崩壞되기 시작하자 곧 大田防守로 轉換하였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北傀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大平里—大田으로 侵犯하는 그들 제 3사단과 協同하여 論山경유 大田南쪽으로 迂回하고 美제 24사단의 後方을 위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論山은 美軍이 물러간뒤 곧 敵手中에 들어갔으며 그 右翼에 전개된 北傀제 6사단은 이 氣勢에 便乘하여 江景—長項선에 進出하려는듯 계속 南進하고 있었다. 따라서 湖南지역에도 突風이 휘몰아 쳤는데, 全北지구에서 편성중인 제 7사단 예하 2개연대(제3, 제9연대)는 非무장인 까닭에 이날을 期하여 兵力保全策으로 後方으로 移動케 되고 基幹 1개대대만이 濟州에서 群山에 上陸한 海병대의 高吉勳부대와 提携하여 渡涉이 不可 能한 錦江下流에서 決戰의 意志를 불태우게 된다.

### 1. 新編제 7사단 예하연대의 移動

이날까지 대체로 編成을 마친 新編제 7사단은 兵力만을 新兵으로 充員되었을뿐 赤手空拳

그것이였다.

당초에 陸軍本部가 湖南지역에서 제5, 제7兩사단을 新編한 것은 戰線예비를 急速히 確保하고 나아가 지역방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수 있는데, 敵侵이 臨迫한 이날까지도 이들 사단을 武裝케 하는 아무런 手段方法도 없었던 것이니 後方에 미리 貯藏한 武器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新편제 7사단장 閔機植 대령은 경비전화를 통해 陸軍本部(7.13에 大邱로 이동)에 수차 武器와 탄약을 요청하게 되었지만 無爲로 돌아가자 그는 마침내 예하 2개연대의 後方이동을 건의하고 무장을 갖춘 사단사령부 요원을 포함한 1개중대 규모만이 現地에 殘留하여 지역방어에 임할 決心을 具申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어떠한 支援策도 마련할 수 없었던 陸軍本部는 드디어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指示를 下達하였다.

『① 제3, 제9연대를 즉시 釜山으로 移動케 하라.

② 기간요원으로 1개대대를 抽出하여 지연전을 敢行하라.』

이 지시가 언제 下達되었는지는 더이상 밝힌바가 없으므로 헤아릴길이 없거니와 어쨌든 閔機植 대령은 이날 아침에 全州에 所在하는 제3연대장 朴炫洙 중령과 제9연대장 俞海瀾 중령을 불러 『當日로 연대兵力을 引率하고 晉州로 이동하라.』고 이르게 되었다.

同時에 作戰참모 李 龍 소령에게 이들부대의 이동에 따른 列車를 手配케 하였으니 이때부터 新編제 7사단은 兵員 訓練으로부터 撤收업무로 轉換케 되었다.

따라서 이 命令을 受領한 2개연대는 곧 送達된 지시로 徒步기동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그 骨子は 다음과 같다.

『제3연대 : ① 全州—順天—河東—晉州 경유 釜山으로 移動한다.

② 全州—順天간은 鐵道便을 이용하되 기타구간은 차량 및 徒走로 이동한다.

9계연대 : ① 南原—雲峰—咸陽—晉州 경유 釜山으로 移動한다.

② 徒步기동을 原則으로 한다.』

이로부터 2개연대는 사단사령부와 分離되어 연대장 재량下에 부대이동에 들어가 각기 當日의 目的地를 向해 이날 中에 出發케 됨으로써 新편제 7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白南權 중령, G-1 李賢進 중령, G-2 鄭陸地 중령, G-3 李 龍 소령, G-4 河甲淸 중령 등 참모요원과 뒤늦게 合勢하게 된 進歩兵학교교도 대를 主軸으로한 기간장병 300餘명만이 殘留케 되었다.

## 2. 高吉勳해병대의 赴援

한편 海本作命甲 제58호로 7월 15일 濟州港을 出航한 高吉勳 소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500명은 이날 08.00에 群山에 入港하고 海洋大學에 지휘소를 開設하여 兵力을 校舍에 收容

한 다음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부대의 士氣는 해병대에서 뽑힌 精銳이므로 매우 드높았으나 武裝은 全員 99식소총이고 共用火器로는 LMG 3정, HMG 2정, 61mm박격포 3문이 그 全部였는데, 編成은 3개의 步兵중대와 1개의 수색대로 되어있었다.

이날 當面의 敵情으로는 北傀제 6사단 제13연대로 判斷되는 敵이 天安을 占據한 뒤로 西海岸의 長項線을 따라 南侵하고 있어 다음날에는 對岸인 長項까지 侵入할 기세였으며, 我軍상황으로는 海軍의 群山경비부의 金鍾琪 소령이 동경비부의 장병 약간명과 仁川경비부에서 撤收한 48명, 그리고 제17연대 요원 59명으로 混成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高吉勳 소령은 부대를 정비하면서 이들과의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出動目的이 『群山港에 所藏된 政府米를 LST安東號에 積載하는 것을 警備하라.』라는 것이므로 當日은 群山港의 保安을 主로 擔當하였다.

### 3. 全州編成管區사령관의 조치

이날 論山이 失陷되어 湖南지역에도 危機가 急迫하자 全州編成管區사령관 申泰英 소장은 錦江南岸의 防守를 위하여 19.30에 全州관구作命 제 1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이러하였다.

『① 今朝 群山에 上陸한 海병대는 群山일대를 방어할 것이다.

② 新편제 7사단 및 軍관구사령부 본부중대는 龍安面—熊浦面 일대를 방어하라.

③ 全北경찰은 高山—江景間을 방어하라.』

이와같이 하여 當面의 敵侵을 坐視할 수 없었던 그는 決斷코 敵을 격멸하리라고 다짐하였으나 이때에 新편제 7사단은 陸軍本部지시로 非武裝인 예하 2개연대의 後方으로의 移動이 進行中에 있었으며, 단지 兵力이라고는 1개중대규모의 기간요원만이 殘留하여 부대를 정비하는 실정이고 全北경찰 역시 700명규모의 전투경찰을 急編하고 있었다.

이밖에 사령관은 民心의 動搖를 방지하기 위하여 『UN군이 속속參戰하고 있으니 戰勢는 곧 好轉될 것이다. 각자는 所任을 다해 國難을 克服하라.』라는 요지의 布告文을 傳播하는 一方, 기관장회의를 開催하여 敵侵에 따른 非常對策을 마련하고 각 기관인 非常待機와 檢問, 그리고 物資統制 및 金融기관의 資金凍結조치를 取하게 하였다.

한편 이날 사령관은 公州로부터 기갑연대의 騎兵중대(장, 朴翊均 중위)가 馬匹 100頭와 함께 全州로 이동하였으므로 『내 命令에 따라라.』고 지시하고 即時 黃登(裡里北쪽 7km)으로 出動케 하였으나 軍馬와 兵力의 休息 및 犒餼가 時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밤늦게야 目的地로 向發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이 상황이 激動하기 시작하자 그는 해질무렵 참모장 元容德 준장을 裡里로 急派하고 軍警부대를 지휘케 하는 조치도 아울러 取하였으나 이때까지 新편 제 7사단소속 사령부



기간병력과 관구사령부 본부중대 兵力은 각자 携帶한 탄약이 평균 2~3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出動단계에는 이르지 못한채 우선 편성만을 完了하고 急遽 裡里로 轉進하는바 되었다.

그런데, 이달까지 裡里에 이룬 元준장은 경찰과 騎兵만을 장악하고 시내를 경비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7월 17일 : 이날 敵은 江景을 侵奪하고 계속 湖南지역으로 南侵할 氣勢를 보였다.

陸軍本部는 이와같은 戰況의 突變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適切한 方策을 찾지 못한채로 新編中인 지역配備부대의 自體力量에 依支할 수밖에 없으므로 全北지역은 敵侵앞에 風前燈火格이 되고 말았다.

1. 全州地區編成관구사령부의 動向 : 美제 8 군사령관 Walker중장은 7월 15일 李承晚 대통령이 韓國軍의 作戰지휘권을 MacArthur元帥에게 移讓함에 따라 이날을 기하여 全戰線의 韓國軍을 지휘하는바 되었으나 湖南지역의 防守에는 아무런 對策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가운데 陸軍本部는 계속된 戰勢의 退潮로 東部와 中部에 전개된 제1, 제2군단의 戰線수습에 보다 重點을 두고 있어서 湖南지역은 앞서 조치한바 姑息的인 彌縫策 그대로였다.

더구나 全北지구에 配備된 全州지구편성관구사령부와 신원 제7사단에 대하여서는 相互관계를 明示한 命令도 없이 臨機應變할 것을 期待하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각기 獨自의인 경향을 띠게 되어 兩者間의 意氣投合에만 依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閔機植 대령은 申泰英 소장과와 관계를 밝혀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즉, 全州以北지역 방어에 對한 책임은 申泰英 소장에게 있었다. 당시에 나는 오직 제7사단을 편성하는것이 本任務였는데, 나에게 지역방어 임무가 있었던 것은 全州가 失陷된 다음부터이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날 申泰英 소장 命令에 따라 사단이 保存하는 1중대규모의 基幹兵力을 裡里로 轉進케 한것은 先權의 意中을 外面할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령관 申泰英 소장은 裡里로 出動한 신원제7사단兵력과 본부중대要員에게는 독립대대라는 名稱도 부여하였는데, 이날 아침 江景에 敵이 侵入하였다는 급보에 接하자 곧 陸軍本部에 이를 보고하여 所要兵력과 탄약의 急送을 要請하고 全州방어의 決意를 굳혔다.

2. 陸軍本部의 조치 : 이와같이 되어 全北지역에도 敵侵으로 因한 突風이 일어났다고 할 것인데, 이날 陸軍本部는 戰況의 推移에 따른 부대의 新編이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取하게 되었다. (國本一般命令 제15호 7.17)

즉, 全州지구편성관구사령부를 全北編成관구사령부로 改編하여 신원제7사단을 廢合, 그 예하 제3연대를 제1교육대로 그리고 제9연대를 제2교육대로 改稱하여 直轄케 하였으

며, 또 光州지구편성관구사령부를 全南編成관구사령부로 改編하는 同時에 新편제 5 사단을 吸收 該예하 제15연대를 제 5 교육대로, 제26정연대를 제 3 교육대로 하여 그 지휘하에 두었다.

또한 同日부로 申泰英소장을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여 이들 兩개편성관구사령부를 統轄케 하였는데, 이 조치에 따라 李亨根 준장(光州지구편성관구참모장)이 全北編成관구사령관에 元容德 준장(全州지구편성관구참모장)이 應北編成관구사령관에 各各轉補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湖南지역의 실정을 헤아리지 못한 조치였고 또한 命命 전달이 圓滑치 못하였던 관계로 當面의 危急한 狀況處理에만 沒頭한 被命者들은 戰況의 急迫性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떠날수 없다고 하여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기도 하였다.

## 2. 逐次阻止진지의 急編

전날 裡里로 挺身한 元容德 준장은 08.00무렵 江景에 侵入한 敵情을 入手하자 이들이 江景—裡里街道를 따라 全州로 直衝할 것으로 보고 곧 裡里에서 待機中인 全北경찰 제1, 제 3 兩개대대와 忠南경찰 混成중대(중대규모)를 望城, 龍安지역(江景西南쪽 4km)으로, 騎馬중대(장, 朴翊均 중위)를 黃登으로, 독립대대를 熊浦(黃登西쪽 8km)—羅浦(能浦南西쪽 5km)로 推進케 하여 진지를 占領토록 하였다.

警察부대의 상황 : 이날 微發차량便과 徒步이동으로 威悅에 進出한 全北경찰 제1, 제 3 대대는 국장 尹箕炳 경무원의 지휘밑에 10.00에 龍安面 校洞里的 舞鶴山일대에서 진지를 急編하였으며 뒤늦게 舍鬪한 忠南경찰 混成중대도 이들과 連繫하여 진지를 占領하고 國道를 따라 南下할 것으로 보이는 敵侵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江景에서는 寡兵으로써 敵의 重圍속에서 力戰하다가 끝내 물러나지 않고 全員이 陣歿한 國立경찰의 壯烈한 一場面도 있었다.

즉, 江景署長 鄭成鳳 경감이하 全署員 66명은 同월 15일에 北傀가 대거하여 江景으로 肉迫中이라는 情報를 入手하고 일단 全州로 이동하여 捲土重來를 꾀하다가 전날에 아직 江景에는 敵의 主力이 다다르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江景을 收復키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들은 7시간에 걸쳐 戰鬪훈련을 실시한 다음 同일 17.00에 署長 진두지휘로 江景으로 進駐하고 시가의 要地要部를 占領하여 索敵에 任하였다.

그리하여 시가를 徘徊中인 지방共匪 5명을 檢覈하고 이날 03.00에는 무장怪漢 10명을 捕捉하는등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마침내 我軍을 가장한 敵의 奸計에 빠져 1,000명으로 推算되는 敵에게 포위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하여 重圍에 빠진것을 깨달은 署長이하 全署員은 署構內에 籠城하여 血戰 18시간을 계속하다가 끝내 탄약이 바닥이나 이에 血路를 打開코자 肉迫戰을 敢行하여 포위망의 突破를 시도하였으나 無爲로 돌아가 全員이 死而有榮을 함

께 하게 되었다.

한편 錦江北岸상황을 살펴본다. 同월 12일이래로 敵侵을 阻止하던 忠南경찰 제 1대대(장, 尹錫烈 총경)가 敵의 強壓에 못이겨 靑陽을 거쳐 錦江을 건너 이날 13.00에 全北 礪山(江景南東쪽 11km)으로 이동하여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밖에 忠南特경대(장, 洪仁出 경감)는 이날 長項으로 南侵하는 敵을 阻止코자 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舒川지역에 이동집결한 公州, 靑陽, 保寧, 洪城, 唐津, 瑞山署등 각서 混成兵力 200명과 같이 방어선을 펴다가 이때 長項으로 進出한 해병대의 지휘아래 庇仁 城內里(長項北쪽 15km)로 出擊하고 이곳을 占據中인 推定 1,500명의 敵과 對戰하다가 결국에는 滅敵의 氣概는 드높았으나 敵勢가 頑強하여 이날 07.00에 錦江을 渡河한다음 群山으로 일단 물러나게 되었다. (國立경찰의 활동 참조)

**騎兵중대의 활동** : 전날 全州에서 다시 裡里로 轉進하게 된 기갑연대소속 騎兵중대(장, 朴翊均 중위)는 이날 10.00에 軍警부대의 督勵에 임한 元容德 준장의 지시로 黃登(裡里北쪽 5km)까지 進出하였다. 이때에 민간인을 가장한 敵의 一團이 지방공비와 內通한듯 시내에 潛入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때부터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는데, 敵을 發見할 수가 없어 日沒時까지 시가와 주위일대에서 민심을 수습키 위한 方途로 騎馬隊의 示威를 하다가 夜暗이 깊어지자 시가 北쪽에서 野營하였다.

**陸本特攻隊의 활동** : 한편 이날 裴東傑 소령이 거느리는 27명의 陸本特攻隊는 6월 30일 以來로 유격활동을 전개하면서 公州를 거쳐 裡里로 이동하였는데, 때마침 裡里에서 상황을 살피던 申泰英 소장과 만나게 되었다. 이때에 裴소령은 그로부터 『경찰보고에 의하면 江景은 이미 敵手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귀관은 부대원과 함께 江景에 潛入하여 侵攻한 敵의 규모를 살피라.』는 要旨의 命令을 수령케 되었다.

이에 그는 해질무렵에 黃登과 威悅을 거쳐 江景 南쪽 彩雲山에 潛入하는데 성공하고 정찰활동에 들어 갔던바 晝間에 江景을 탈출치 못한 민간인과 경찰등 250명을 救出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틀 提報에 따라 占據中인 敵이 2,000명규모임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밤이 어두어짐을 기다려 市內의 數個處에서 敵을 요란한 다음 敵 20명을 사살하는 외에 쌍안경, 拳銃, CAR 각 1개를 노획하고, 救出한 경찰 및 민간인과 같이 이곳을 떠나 裡里로 撤收하고 申소장에게 敵情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陸本特攻隊는 6월 29일에 裴東傑 소령(陸本감찰감실 조사과장)이 水原에서 조직한 것으로 그 경위와 그 간의 환약상은 다음과 같다.

즉, 同월 28일 彌阿里 阻止線의 崩壞로 말미암아 이곳 戰線에 出動한바 있었던 裴 소령은 장병 400명을 引率하고 解放村쪽으로 後退하였으나 漢江大橋의 爆破로 水泳과 小舟艇으로 漢江을 간신히 渡河하여 다음날 이들과 같이 水原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당시 이곳으로 이동한 陸本으로부터 反擊命令을 수령하고 장병 65명과 같이 蠶梁津 쪽으로 出動하여 夜間에 서울에 潛入, 敵 25명을 射殺한 다음 7월 1일 麻浦에서 박선(栗島) 경유 永登浦로 漢江을 건너었다.

이 戰鬪에서 特攻隊는 장병 각 1명씩의 損失이 있었으나, 남은 63명은 敵中潛入의 戰訓을 살려 계속 유격전을 전개키로 다짐하고 3일에는 龍仁부근에서 南下하는 敵보급부대를 기습하여 車輛 2대를 파괴하였다. 그 以後에도 이들의 활동은 눈부신바 있었는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6일~7일 사이에는 客舍里(平澤南쪽 4km) 부근에서 敵 30명을 사살하고 27명을 사로잡은 戰果가 있었으나 이 戰鬪에서 36명의 隊원이 行方不明된 損失이 있었다.

10일에는 殘存 34명으로 公州로 撤收하고 美제34연대와 合同작전을 전개하여 美軍 Jeep차 12대와 기갑연대소속 장갑차 1대를 敵中에서 救出하였다.

11일에는 역시 公州전투에서 北傀軍官 1명을 사살하고 拳銃 1정과 실탄 14발을 노획한 然後에 扶餘로 물러나 敵 수색대와 조우하여 交戰끝에 22명을 사살하였다.

15일에는 論山으로 이동하여 北傀의 포로가된 美제34연대소속 美車 6명을 救出하였다.

**獨立대대 상황** : 전날 늦게 裡로 出動한 이 대대는 제3, 제9兩연대의 撤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들과 同行한자가 많았으므로 그 규모는 3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휴대한 탄약이 少量이므로 추진보급 없이는 싸울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元준장의 鼓舞로 이날 10.00에 지시된 熊浦로 進出하여 錦江南邊을 경계하면서 徹夜하였다.

### 3. 제30연대(假稱)의 新編

신편제 7사단 예하 제3, 제9兩연대의 編成과 後方移動은 前述한바와 같거니와 이날 全北지구에서는 또 제30연대(장, 金龍周 중령)가 南原에서 編成을 보게 되었다.

이 연대의 편성은 陸軍本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데 特色이 있거니와 그렇다고 全北編成판구사령부의 自體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편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開戰초기에 步兵학교 참모장이었던 金龍周 중령은 同월 28일에 陸軍本部로부터 金浦지구로 出動한바 있는 自隊兵力을 지휘하라는 特命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곳으로 急赴하였으나 이미 부대는 그 行方이 杳然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戰線의 南下에 追隨하여 水原을 거쳐 平澤으로 撤收한 다음, 이곳에서 李應俊 소장 및 李亭根 준장과 合勢할 수 있었다.

이때에 그는 李소장으로부터 『後方으로 물러나는 兵力을 收容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받게 되었으므로 즉시로 임무수행에 나서 무장兵力 1개중대규모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들을 引率하게 된 그는 먼저 大田에 이르고 이곳에서 다시 徵發車輛에 의해

안전지대라고 판단된 南原으로 불려나 부대지휘소를 郡廳에 定하고 假稱 제30연대를 編成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南原인근 각면에 1명씩의 장교를 急派하고 壯丁들을 徵募하여 이날까지 都合 1,500명으로 부대 編成을 完了할 수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陸軍本部나 所轄 編成관구사령부에 보고된바 있기에 陸軍歷史日誌(45~50)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全北一帶 落伍兵으로 步兵학교 간부일부가 南原에서 제30연대를 편성하고 부대본부를 南原에 設置하다.』

어쨌든 제30연대(假稱)의 編成은 金龍周 중령, 着想으로 臨機로 措置된 것이며 陸軍本部도 이를 追認한 것이다.

#### 4. 高吉勳해병대의 長項出動

群山海洋대학 교사에서 一夜를 보낸 高吉勳해병대는 群山海軍 경비부로부터 이날 아침에 敵 1개대대규모가 野砲의 支援을 받으면서 長項北쪽 7km지점에 南下하고 있다는 情報을 入手하게 되었다.

이에 高吉勳 소령은 政府米의 LST積載가 進行中인 群山港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公敵의 南侵을 阻止키로 決心하고 중대장들과 수색대장을 소집한 다음 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1개대대로 推算되는 敵은 우세한 砲兵을 同伴하고 大川으로부터 南進하여 群山을 占領할 企圖인듯하다. 부대는 이 敵을 공격 殲滅하려 한다.

② 제 2중대는 長項上陸 즉시로  $\Delta 152$ 高地를 占領하라.

③ 제 1중대는 占領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 3중대는 예비로서 長項에 待機하라.

⑤ 대대본부는 09.0以後부터 長項에 位置한다.』

이리하여 同 해병대는 5척의 民間船舶편으로 13.30에 長項港에 上陸한다음 지휘소를 市內에 설치하는 즉시로 예비대를 제외한 兩중대를 北쪽으로 進擊케 하였던바 이들은 얼마뒤에 公 玉山洞(長項北쪽 3.5km)부근  $\Delta 50$ 를 占領케 되었는데, 이때 別命으로 敵情수집임무를 띠고 錦川쪽으로 나갔던 搜索소대(장, 金鍾植 중위)가 敵 1개중규모가 南下中인 것을 目擊하고 急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부대장은 敵을 先制공격으로 殲滅키로 決心하고 12.30에 제 1중대로 하여금  $\Delta 50$ 와  $\Delta 42$ ( $\Delta 50$  西쪽 0.5km)에서 제 2중대를 支援케 하여 中台山( $\Delta 101.7$ )을 공격하였던바 공격에 나선 제 2중대는 高地 中腹에서 이미 同高地를 占領한 優勢한 敵의 反擊에 부딪쳐 血戰 6시간만에 탄약이 耗盡되어 공격이 挫折되었다.



수습하면서 住民들의 협조를 얻어 給食을 서두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敵은 我軍이 미처 진지를 占領하기도 전에 江景으로부터 2,000명규모로 推算되는 兵力으로 江景—裡里間 도로에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07.00에는 熊浦對岸인 新成里에서 錦江을 渡河한듯한 또 하나의 무리를 確認하였다.

이와같은 敵情으로 미루어보아 北傀는 天安에서 西海岸을 따라 南進한 것으로 믿어지는 그들 제 6 사단이 錦江下流 北쪽일대를 席捲한 다음 湖南침공을 위하여서는 먼저 錦江渡河라는 難題에 부딪치리라고 내다보고 다음과 같은 計略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推斷되었다.

즉, 敵은 당시에 大田을 直衝하는 제 4 사단의 일부로 하여금 公州에서 論山을 요란하는 사이에 이들의 도움을 얻어 靑陽을 거쳐 扶餘—江景 對岸에 이른 일부를 이곳에서 錦江을 渡河시켜 계속 南進토록 하는 한편 形成된 虛隙을 利用하여 舒川부근으로 南侵한 또다른 일부병력을 錦江下流에서 漕渡케하여 我軍의 背後에서 侵攻을 하려는 것으로 推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侵攻기도가 어떻게 이에 對應하기 위한 我軍의 戰力은 警察兵力을 모두 합쳐도 1개연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兵力이 分散되어 相互의 通信不通過 더불어 戰況의 混迷만을 거듭하였다.

## 2. 警察부대의 江景收復

舞鶴山(江景西쪽 5km) 기슭校洞里에서 一夜를 보낸 全北경찰 제1, 제 3兩대대와 忠南경찰대의 混成兵力은 이날 05.00에 江景에서 南進中인 一團의 敵을 捕捉하고 이를 遂擊하게 되자 彼我사이에는 사격전이 熾烈하게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敵은 我軍側의 抵抗이 意外로 강한 탓인지 交戰 10시간만에 江景으로 退却하였으므로 이에 追擊을 加한 결과 사살 35명과 多發銃 若干을 鹵獲하고 江景으로 突入한 다음 市街 行進으로 경찰의 健在함을 誇示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녁무렵에 이르러 敵의 衝鋒이 또다시 反復되면서 優勢한 火力을 同伴한 2개연대규모가 肉迫하므로 탄약이 바닥난 경찰부대는 더이상 支撐치 못하고 礪山과 校洞里로 각기 分散되어 물러나면서 속자로 遲延戰을 시도하게 되었다.

## 3. 獨立대대의 逆襲

한편 이날 元容德 준장이 直接지휘로 熊浦로 轉進한 獨立대대는 早朝부터 數個대로 分散하여 聖堂里(江景西쪽 8km)—西浦里(群山東北쪽 7km)間 21km에 達하는 錦江南岸 경비에 任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河川 경비는, 敵이 鴨綠 錦江下流에서 渡河를 시도할 것이라고 判斷하게 되므

로서 이를 發覺하는 즉시로 격퇴할 수 있다면 漕渡만이 可能한 이들의 渡河를 多少나마 遲延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江景—群山間의 錦江下流에는 黃山나루(江景—扶餘世道面), 다근이나루(龍頭里—菁浦里), 帝城(帝城里—笠浦), 熊浦나루(熊浦—新城里), 羅浦나루(羅浦—龍山里) 수하나루(西浦里—互草里) 등 6개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곳은 이미 江北에서 江南으로 避離하려는 住民들의 渡船때문에 江邊 일대는 混雜한 상황 그대로였다.

正午까지 江邊에는 敵影을 찾아 볼수 없었으나 午後에 이르자 民間人을 假裝하여 帝城나루, 熊浦나루, 羅浦나루에서 渡河한듯한 數未詳의 敵이 熊浦부근에 出現하여 江邊을 경비하는 我軍側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이들과 交戰 30분만에 탄약이 떨어지자 더이상의 抵抗이 困難하다고 판단한 결과 後圖를 策하기로 단안을 내려 작대에 傳令을 急派하여 수래재(熊浦南쪽 5km)를 目標로 물러나게 하여 兵力을 수습한다음 敵情만을 銳意감시하게 되었다.

그러자 敵은 日沒 가까이에 이르러 熊浦에 橋頭堡를 確保하고 對岸인 新成里로부터 연대 규모가 渡河에 成功한듯 일대에 敵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急報에 接한 元容德 준장은 Jeep車로 官元里(黃登西쪽 5km)에 나가 부대를 督勵하여 敵을 逆襲토록 命令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數發의 銃擊만을 加하였을 뿐으로 그밖에 別다른 妙策을 講究하지 못하였다.

#### 4. 騎兵중대의 戰況

黃登에서 一夜를 보낸 騎兵중대는 正午에 이르기까지 警察 및 獨立대대의 戰況을 모르고 있었는데, 13.00무렵 敵이 江景에서 黃登을 向해南進할 것이라는 情報을 入手하게 되어 경찰混成兵力 1개소대와 같이 黃登北쪽 2km 地點일대에 진지를 占領하고 國道를 따라 南進할 것으로 보이는 敵을 阻止키로 하였다.

그런데, 20.00무렵에 이르러 敵의 小型車輛 1대가 石佛(黃登西北 6km)쪽에서 南進하는 것을 目擊하자 이들이 가까이 近接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襲擊하여 2명을 사살하고 차에 싣고 있던 兵站물자를 幽獲하였던바 여기에는 多量의 슬과 떡, 그리고 菓子등이 滿載되어 있었다.

이로써 敵情을 推斷하면 敵은 역시 부대간의 通信이 如意치 못한듯 我軍을 輕視한 나머지 그들의 先頭가 黃登南쪽에 이른것으로 보고 보급품 추진의 任務를 면車輛을 南下케한 것으로 헤아릴 수 있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前方에 推進한 경찰부대가 黃登으로 물러나게 되고 뒤따라 대대 규모의 敵이 黃登으로 殺到하려는 氣勢인데, 이에 중대장 朴翊均 중위는 이들의 南進을 遲延키로 決心하고 兵力을 계속 그곳에 전개한 다음 不足한 탄약을 획득하기 위하여 곧 裡里로



가서 상황은 살피게 되었다.

이때가 12.00인데, 그는 이곳에서 탄약은 커녕 경찰少數만이 시내를 경비하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그는 지체없이 黃登으로 가서 全員에게 實情을 알리고 휴대한 탄약이 消盡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을 固守키로 하였던 것이다.

### 5. 사령관의 措置

전날부터 裡里경찰서 構內에 位置하면서 戰勢를 大觀하던 西海岸지구전부사령관 申泰英 소장은 全北지구가 드디어 危機에 휩싸이게 되자 滿腔의 感憤을 안고 非常對策을 摸索하는데 腐心하였다.

그러나 可用兵力이나 탄약의 缺乏때문에 이 敵侵을 끝까지 阻止하기에는 力不足하다고 내다본 사령관은 이날 24.00에 陸本에 再三 兵力과 탄약의 支援을 要請하고 또한 全南현성 판구사령부(사령관, 李應俊 소장)에게도 경찰兵力의 支援을 至急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에 앞서 그는 群山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병대에 急報하여 求援을 講하기도 하였으니 大廈가 將倒하고 決水가 將潰하러 할새 兇將한 사람이 一劍을 빼어든들 어찌 이 崩壞를 支撐하며 이 濁流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 6. 高吉勳부(해병)대의 상황

부대장 高吉勳 소령은 전날 群山해군경비부 요원들과 合勢하여 長項에서 錦江을 渡河할 것으로 보이는 敵에 對備키로 決心하고 이날 01.00에 全兵力을 江邊에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敵은 江北일때에 砲陣地를 占領하고 群山과 그 周圍에 射擊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병대는 계속 敵의 渡河공격을 저지키 위한 江邊방어에 專力하였는데, 07.00에 1개野砲대대의 增援을 받은듯한 1개연대규모가 新成里(群山東北쪽 22km)에서 錦江을 건너 裡里로 南下中이라는 敵情을 入手하게 되었다.

이때에 高소령은 長項을 占領한 敵이 晝間에는 對岸에서 渡河를 敢行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일부兵力을 群山에 殘置시켜 해군경비부와 合同으로 江邊방어에 임하게 하는 한편 群山을 占據코자 東南쪽으로 迂回할 것으로 豫想되는 敵에게 主力으로 對備키로 決心하고 이에 對한 索敵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따라서 그는 09.00에 제 3 중대(장, 李鳳出 중위)를 群山市의 경비에, 그리고 제1, 제 2 兩개중대를 開井里(群山東南쪽 4km) 부근일대의 探索을 命命하는 한편 수색소대(장, 金鍾植 중위)를 桃岩里—群山 街道에 沿한 錦江南岸일대를 수색케 하였다.

이로써 제1, 제 2 兩중대는 이날 大野面 山月里(群山東쪽 9km) 부근일대까지 수색하였으나 敵을 發見치 못하고 20.00에 群山으로 還到하였다. 한편 수색소대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19.00무렵에 助村洞(群山東쪽 3.5km) 製紙工場부근에서 一團의 敵을 目睹하게 되었다. 이에 즉시 이를 本隊에 傳令으로써 急報하고 6명의 隊員을 私服으로 變裝시켜 要所에 潛伏케하는 등 계속 現地에 남아 敵情을 수집하였다.

그런데, 부대장 高吉勲소령은 밤이 깊어서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 申泰英 소장으로부터 『裡里가 危急하니 즉시로 救援하라.』는 要旨의 急電을 받았다.

당시에 해병대는 海軍本部로부터 追後下達된 命令으로 群山에서 되도록 持久하다가 LST 安東號로 撤收키로 되어 있어 이미 群山港에서 政府米의 搬出작업을 마친 安東號가 계속 外港에서 待機하고 있었는데, 그는 상황을 綜合하여 1개중대를 裡里로 出動시켜 陸軍부대를 增援케하고 主力으로는 艦艇의 安全 범위내에서 敵의 群山 侵入을 遲延키로하는 腹案을 새우게 되고 그 즉시로 부부隊長 金秉鎬 대위의 指揮아래 제 3 중대를 裡里로 當日中에 急派하는 조치를 取하였다.

7월 19일 : 이날 敵은 礪山—益山(裡里東北쪽 8km)—參禮(裡里東南쪽 8km)와 黃登—裡里로 衝勢를 指向한 다음 群山에 上陸하여 계속 勝勢를 몰아 全州와 金堤(裡里南쪽 14km)로 侵攻하였다. 이에 劣勢인 軍警부대는 死而不還의 각오로써 지연전을 펴면서 이의 阻止에 힘썼으나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한채 결국 全州—金堤선北쪽의 대부분을 喪失하는바 되었다.

### 1. 礪山—益山—完州의 상황

전날에 江景에 突入하여 한때 敵을 물리친바 있었던 警察混成부대는 저녁무렵에 再開한 敵의 攻세로 말미암아 主力은 龍安(江景東南쪽 4km)쪽으로 물러났으나 그 일부는 礪山(江景東南쪽 9km)쪽으로 後退하여 逐次로 지연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江景에서 敵에게 壓倒된 全北경찰 제1, 제 3兩대대와 忠南경찰混成 1개중대는 指揮체제가 흩어진채 각기 上級者를 따라 南쪽으로 물러나게 된 것인데, 그 하나의 通路가 礪山을 거쳐 場基里(全州北쪽 13km)와 參禮(全州北쪽 9km)로 이어진다.

경찰의 일부가 江景에서 물러나 처음으로 부대를 수습한 곳이 礪山인데, 당시 이곳에는 我軍兵力이 全無한 가운데 17일 忠南靑陽에서 이동한 忠南경찰의 일부만이 있었으므로 이날 아침에 이들과 습勢케 되고 얼마뒤에 『礪山을 固守하라.』는 申泰英 소장의 命令을 받게 되어 진지를 占領하였다.

그러나 11.00에 2개중대로 推算되는 敵이 重火器의 火力을 加하면서 侵攻함으로써 總勢 300명에 지나지 않은 경찰은 마침내 진지를 支撐치 못하고 隨意로 益山으로 물러나 지연전을 펴기에 이르렀으나 탄약의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결국 敵이 追及하기도전에 場基里(益山東南쪽 11km)로 移動하여 完州署 管內 경찰과 合同으로 遊擊戰을 전개키로 되었다.

이무렵의 敵情을 概觀하면 龍安과 新成里에서 錦江을 넘은 敵이 黃登—裡里를 차례로

手中에 넣고 계속 南進할 氣勢였으며 또 群山쪽에서는 해병대의 海上撤收로 말미암아 錦江을 넘어선 敵이 여기를 占據한 다음 黃登—裡里로 南下한 1개연대규모의 敵과 合勢하려는 듯 하였다.

**全南경찰 1개대대의 赴援** : 19.00에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은 이날 역시 陸軍本部에 前後 3차에 걸친 急電으로 탄약의 推進보급을 要請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措置가 뒤따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 全南편성관구사령관 李應俊 소장에게 요청한 兵力支援이 奏効하는바 되어 全南경찰 1개대대(400~500명 규모)가 全州에 進出하였으므로 申소장은 이들을 곧 益山으로 進發케 하여 『敵을 阻止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곧 정발차량에 分乘하여 參禮경유 益山을 目標로 前進하였으나 그곳까지 進出하기도 前에 敵과 遭遇하여 彼我間에 한때 激戰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당시에 上空에 나타난 友軍空軍機의 誤爆으로 말미암아 큰 損失을 보게되어 부대는 더 이상 전투를 계속치 못하고 22.00에 參禮로 後退하였다가 얼마뒤에는 또 東山(參禮南쪽 3km)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 2. 熊浦—黃登—裡里的 상황

**騎兵중대의 移動** : 이날 早朝에 공격을 再開한 1개연대규모의 敵은 경찰의 逐次저지線을 차례로 一蹴하고 계속 黃登으로 衝鋒을 指向하고 있었다.

당시에 黃登에 配備된 騎兵중대(장, 朴翹均 중위)는 이날 05.00 에 경찰일부와 合勢하여 전날밤부터 同地 北쪽에 진지를 占領하고 있다가 그들 先鋒인듯한 대대규모로 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前述한바와 같이 이들부대 역시 補給을 받지못하여 少량의 탄약만을 携帶하고 있는 實情이었는데 이런 까닭으로 중대장 朴중위는 계속 이곳을 固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격으로 敵을 요란한뒤 裡里로 後退하게 되었으니 탄약없는 銃火器란 한낱 鋼鐵棒과 다를바 없었다.

**獨立대대의 撤收** : 한편 전날에 熊浦쪽에서 敵의 錦江渡河를 저지하지 못하고 수레재(峙)로 물러나 兵力을 수습한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 독립대대는 이날 아침 해뜰무렵 敵의 大學侵襲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數個대로 分散되어 裡里를 向하여 隨意撤收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부대가 축차의 저지진지도 마면치 못하고 撤收를 거듭한 것은 탄약없이 싸울수 없을뿐더러 江景에서 裡里로 直向하는 또다른 敵情이 있었으며 이들이 裡里를 占領하여 後方을 차단하기 이전에 이곳으로 轉進하여 善後策을 강구하기 위함이었다.

대대장은 獨斷에 의하여 실시된 이 撤收는 09.00가 지나서야 끝나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이미 裡里에도 南侵이 臨迫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混亂속에 해병 1개중대(100명 규모)가 경

찰과 습勢하여 이곳 경비와 撤收하는 부대의 엄호에 任하고 있었다.

뒤이어 이곳에 騎兵중대도 습勢하는바 되었으므로 부대는 이들과 連繫하고 진지를 急編하였다.

해병대의 救援 : 그런데, 먼저 이곳에 配備된 해병 1개중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즉, 群山에 지휘소를 開設한 해병대의 高吉勳 소령은 전날에 申泰英 소장으로부터 지원要請을 받는 즉시로 제 3중대(장, 李鳳出 중위)를 裡里를 急派한바 있었는데, 이들은 '차량기동으로 당일내로 目的地에 도착하고 市內 某旅館부근에서 徹夜하였다.

이날 大韓婦人會에서 마련한 주먹밥으로 朝食을 마치고 命命을 待機하던 이들은 『長新里에서 敵을 저지하라.』는 要旨의 命命을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으로부터 수령하고 08.00에 長新里(裡里 西쪽 3km)로 進入하여 진지를 急編하고 있었다.

裡里的 失陷 : 당시에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 申泰英 소장은 我軍前線의 崩壞로 因한 急速 侵攻으로 말미암아 裡里가 위태롭게 되자 우선 前方으로부터 裡里로 물러나는 부대를 엄호하고 다음에 裡里를 防守키로 方針을 세워 이곳에 先着한 해병대로써 新連隊 7사단 獨立중대의 撤收를 엄호키로 하고, 또한 먼저 前線에서 이곳으로 물러난 일부경찰로써 일부의 육군混成兵力과 같이 龍洞(裡里 北쪽 3km)으로 推進하여 黃登쪽에서 撤收하는 부대를 엄호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경찰은 계속된 전투로 피로가 겹쳐 士氣가 低下된듯 하였으며 共用火器를 包含한 예비탄약을 自意로 軍부대에 引繼하는 등 지휘상의 亂脈相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兵力은 指揮를 벗어나기도 하였으며 이곳에 先着한 2개소대규모의 陸軍兵力만으로 急速 裡里 北쪽으로 出動하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이우렵에 裡里防守에 임하게 된 부대는 前述한 해병제 3중대와 이들 兵力분이 있는데, 敵의 先鋒인듯한 한 무리는 이때에 이미 裡里 北쪽 丘陵일대와 西쪽 長新里 高地를 先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부대는 目的地에 侵入하기도 前에 서로 衝突케 되었으나 劣勢인 兩개부대는 優勢한 敵을 감당치 못하여 且戰且退하였으니 이때가 대체로 09.00무렵이었다.

이당시 裡里 西쪽으로 挺進한 해병제 3중대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金秉鎬 대위 陣頭지휘로 얼마뒤에 長新里에 이른 중대는 곧 마을부근高地에 障地를 占領하고 제 1소대(장, 金漢守 소위)로서 永萬里(長新里 西쪽 1km)부근 高地의 敵을 目標로 공격케 한바 그 高地頂上에는 正體不明의 一團이 赤旗를 꽂고 機關銃을 준비하고 待機하는듯 하였다. 3개 方向에서 高地頂上으로 進擊하게 될 소대는 濃霧로 視界가 흐려 이부대 兵士가 着用한 服裝이 國軍것과 같았기 때문에 友軍인가 半信半疑하면서도 사격없이 음밀히 그들에게 接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도 또한 해병대를 識別하지 못하고 그들의 後續부대로 誤認하였으므로 한때 彼我는 서로 對話까지 나누는등의 寸劇까지 있었다.

결국 彼我가 識別되기에 이르자 該高地에 突入한 중대는 敵이 미처 對抗하기도 전에 물러나는바 되었으나 敵도 이를 알아차리고 소대를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激戰끝에 소대장이하 5명이 사로잡히는 損失을 입게 되었다.

이 結果로 소대는 分潰상태로 중대진지로 복귀하는바 되었으나 이때 金秉鎬 대위는 敵情의 增加로 戰勢가 危急하다고 판단하고 중대의 철수를 隨意로 斷行하게 되었는데, 이무렵 裡里에는 敵의 重壓때문에 前方에 推進이었던 陸軍부대도 隊伍가 흩어진채 逐次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에 申소장은 裡里의 防守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해병대장에게 『木川浦(裡里 南쪽 1 km)에서 撤收부대를 엄호하라.』라고 命命한 다음 急히 車警부대의 裡里撤收를 決意하고 그 自身도 그間 이곳에 開設한바 있는 前方사령부와 같이 全州(裡里 東南쪽 18km)를 目標로 東南進하게 되었다.

이때가 대체로 14.00였는데, 얼마뒤에 1개연대로 推算되는 敵이 4대의 戰車를 앞세우고 北쪽에서 裡里로 突入하여 我軍을 追尾함에 이르러 戰勢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제 7사단獨立대대를 비롯한 騎兵중대와 全北경찰은 자기 分散되어 參禮 및 東山(全州 西北쪽 7km)으로 물러났으나 해병대는 急遽 木川浦에서 萬頃江 北岸 堤防에 背水の 陣을 치고 이곳으로 撤收하는 友軍의 渡江을 끝까지 엄호하다가 상황의 急轉으로 萬頃橋를 건너 金堤(裡里 南쪽 14km)로 後退하였는데, 이때 兵力일부는 水泳으로 江을 건너려 하다가 3명이 溺死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27명으로 獨自의인 遊擊戰을 전개한 陸本特攻隊도 또한 裡里에서 敵兵 12명을 射殺하고 해병대와 같이 金堤로 물러나 유격전을 계속하였다.

### 3. 群山の 상황

전날에 1개중대를 裡里로 轉進케 하고 2개중대만으로 群山을 防守하던 해병 高吉勲부대는 敵情의 惡化로 緊張된 가운데 一夜를 보냈는데, 高소령은 敵이 東南쪽으로 부터 群山을 포위하고 市內에 侵入하려는 氣勢에 놓이자 海上撤收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날 05.00에 海上에서 待機하는 安東號를 群山飛行場 近海로 回航토록 連絡하는 즉시로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대대는 일부兵力을 裡里로 出動시켜 계속 지연전을 감행케 하면서 海上으로부터 撤收하려 한다.

② 철수開始는 07.00이고 집결지는 群山飛行場이다.

- ③ 제 1 중대는 群山철수後 곧 開寺里부근 高地를 占領하고 대대 철수를 엄호하라.  
 ④ 수색소대는 別命時까지 群山市內에 殘留하여 敵情을 수집하라.  
 ⑤ 제 3 중대는 裡里부근에서 축차 지연전을 전개하여 南侵하는 敵을 섬멸하라.  
 ⑥ 대대본부는 19일 07.00以後에 群山 飛行場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는 徹夜 임무를 수행 중인 수색대에 撤收命을 傳達키 위하여 急히 副官 崔偵周 소위와 대원 1名을 수색대로 急派하였으나 裡里쪽에서 奮戰 중인 제 1 중대에게는 出動時에 內示만으로 알리고 구체적인 命을 傳할 方途가 없어 그들 裁量에 맡기는바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 1 중대가 開寺里 高地를 先占하여 엄호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群山에서 撤收하기 시작하여 이날 10.00에는 群山飛行場 南端 해안에 集結하였는데, 이날 早朝에 수색대에 連絡을 위하여 急派된 崔소위는 수색대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助村洞에 이르다가 敵의 狙擊을 받아 대원 1명과 같이 戰死하였다. 따라서 수색대에게는 作命을 傳達할 수 없었으나 이때에 土城山(助村洞부근 △76)에서 潛伏 중인 수색대장 金鍾植 중위가 그 屍體를 發見하는 즉시 陳斗台 兵曹長을 본대본부로 急派하였다.

그런데, 急派한 陳兵曹長으로 부터 시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連絡을 받지 못한 金중위는 다시 傳命을 보내 부대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얼마뒤 소대에 복귀한 傳命으로부터 부대의 撤收命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색대는 부대와 合勢하기 위하여 申英徹 二等兵曹의 2명을 殘置시켜 敵情을 감시케하고 群山市內로 돌아갔으나 이때에는 앞서 부대로 急派한 兵曹長의 行方이 모연하고 벌써 부대가 飛行場으로 向發한 다음이어서 地方赤色分子와 野合한 敵의 유격대만이 出沒하는 實情이었다.

金중위는 이때 아무리 急迫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陳兵曹長을 찾도록 指示하고 殘置한 대원에게 連絡하기 위하여 또다시 3명의 대원을 抽出하여 보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이들은 귀대하지 않았다.

이에 더이상 遲滯할 수 없다고 판단한 金중위는 消防車에 全대원을 乘車시켜 市內를 脫出하였으므로 이를 阻止하려는 敵의 銃聲은 이들이 市內外廓인 米龍洞(群山 南쪽 4km)을 벗어날때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이리하여 群山飛行場에 집결한 대대는 群山지구에서 敵射殺 6명, 포로 1명의 戰果를 거두고 결국 이들이 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상황의 惡化로 말미암아 이날 11.00에 民船을 利用코 海上에 碇泊한 安東號에 乘船 完了한다음 木浦를 向해 出航케 되었으니 群山은 이로부터 完全히 敵手에 들어가게 되었다.

#### 4. 九萬里—東山의 상황

이날 敵의 裡里 侵入으로 각개 分散된채 全州를 指向하여 東쪽으로 불려나게 된 西海司

소속 獨立대대와 경찰混成부대는 일단 參禮에서 측차로 合勢하여 軍부대의 主導下에 阻止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때가 20.00였는데, 이무렵 益山으로 轉進하여 南侵하는 敵을 阻止코자 한 全南경찰이 益山—參禮道를 따라 南進하는 敵의 공격을 받아 參禮로 물러나고 있어 金소령은 이들과도 合勢키로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兵力은 指揮體系가 混迷하고 裡里에서 물러난 兵力역시 疲勞가 甚甚데다가 携帶한 탄약을 나누어 가졌다고는 하나 決戰을 펴기에는 充分치 못한 상태였다.

또한 益山쪽에서 完州 楊基里로 물러나 再編中인 경찰混成兵力도 곧 이어 追擊하는 敵으로 말미암아 萬頃江을 건너 九萬里(全州 北쪽 7km)로 後退하였다.

그리하여 當時의 我軍戰線은 九萬里—參禮線이었는데 22.00에 參禮로 衝鋒을 들린 敵 2개 대대규모의 狂波로 말미암아 參禮阻止線이 무너지게 되어 이곳 配備 兵力은 東山(參禮 南쪽 3.5km)으로 또 물러나게 됨으로써 彼我는 한때 萬頃江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優勢한 敵의 強壓으로 九萬里—東山線이 崩壞되어 24.00에 또 다시 全州外廓으로 물러남으로써 湖南의 要衝인 全州 또한 防備없이 敵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申泰英 소장은 이러한 敵情으로 미루어 보아 全州防守가 可憐이 없다고 判斷한 결과 撤收를 決心하고 22.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군은 明 02.00을 期하여 任實, 井邑의 각 北쪽高地로 移動하여 後圓를 策하려 한다.

② 憲兵隊는 일부를 全州에 殘置한 다음 新興里(全州 東南쪽 8km)로 急行하여 교통統制에 任하라.

③ 全南경찰대는 즉시 曠畝峙(任實 北쪽 8km, 新興里 南쪽 1km)에 진지를 占領하여 軍警부대의 撤收를 擁護하라.

④ 九萬里 및 東山方面의 경찰부대는 全州를 撤收하고 任實 北쪽高地線을 確保하라.

⑤ 萬頃 및 金堤方面의 軍警부대는 자기 井邑으로 撤收하여 該지역을 방어하라.

⑥ 餘는 20일 02.00以前까지의 全州에 位置할 것이나 03.00以後에는 任實北端에 位置한다.』

##### 5. 金堤—南浦의 상황

裡里를 侵犯한 敵은 계속 衝勢를 몰아 다시 全州와 井邑을 目標로 자기 2개대대규모를 先鋒으로 投入함으로써 裡里에서 井邑에 이르는 侵路上의 要地인 金堤가 또한 風前燈火格이 되었다.

裡里에서 敵의 追擊을 받아 萬頃江으로 밀렸다가 다시 國道를 따라 南쪽으로 後退케 된 海병제 3중대(장, 李鳳出 중위)와 경찰混成부대, 그리고 陸本特攻隊(장, 裴東傑 소령)는 이날 全州外廓에 敵이 殺到할 무렵 金堤로 後退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敵은 이들 後尾를 따라 侵攻을 계속하여 22.30에는 金堤를 包圍함으로써 상황의 急變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急報에 接한 全南편성관구사령관 李應俊 소장은 즉시로 井邑(金堤 南쪽 km)에 控置하였던 全南경찰 1개중대를 金堤로 急派하여 赴援케 하였는데, 이들이 곧 金堤에 當到함에 이르러 敵은 이것을 大兵力의 增援으로 誤認하였음인지 戰列이 흩어져 한때 撤收하는 氣色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赴援兵力의 규모를 알아차렸음인지 再次 金堤를 포위하고 砲火를 集中하므로 劣勢를 벗어날 수 없었던 我軍은 유격전으로 이들에 對抗하다가 측차로 敵陣을 突破하고 井邑(金堤 南쪽24km)으로 또 다시 물러나는 바 되었다.

이때가 深夜인 24.00인데, 이로써 이곳 方面의 我軍은 通信의 不通으로 결국 西海岸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를 벗어나는바 되고 더구나 敵侵을 阻止할 方途가 없었던 까닭에 戰禍는 계속 南쪽으로 擴大되는 結果를 招來하고야 말았다.

이와같은 戰況으로 말미암아 全南地區에도 突風이 휘몰아치게 되었는데 敵은 裡里—光州間의 侵攻을 위하여 먼저 後方을 교란한 然後에 正面突破를 시도한듯 이날 早朝에 民間服으로 變裝한 北傀유격대원 50명이 龍垆里(法聖浦 北쪽 7km)海岸에 上陸하여 부근일대의 경찰支署를 襲擊하였다.

또한 萬頃江을 사이에 두고 한때 彼我戰線이 形成되었을 무렵에는 소대규모의 敵兵이 漁港 南浦里(金堤 西쪽 7km)에 上陸하여 金堤쪽으로의 侵透를 꾀함으로써 我軍의 金堤防守를 困難케 하였다.

그런데, 龍垆里에 上陸한 敵은 急遽出動한 靈光경찰대의 善戰으로 포위되어 끝내 殲滅되고야 말았으니 그들의 奸計가 早期에 綻露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全州—任實—南原부근의 戰鬪 (7.20~24)

7월20일 : 이날 未明에 勝勢를 몰아 魏鋒을 全州 및 光州에 이르는 兩개國道를 따라 指向함으로써 裡里에서 全州로 측차로 물러나게된 軍경부대는 이를 阻止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任意로 遲延戰을 먹면서 南原을 目標로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1. 全州의 失陷 : 전날밤부터 全州를 공격하기 시작한 敵은 深夜에 이르러 그 兵力이 더욱 增強된듯 我軍陣地에 砲火를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敵砲彈이 灼裂하는 가운데 全州를 防守하던 軍·경부대는 이날 02.00를 期하여 예정대로 측차로 陣地에서 離脫하여 撤收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

이때에 益山—參禮—全州道를 따라 물러나면서 지연전에 참가한바 있는 경찰 1개중대는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면서 指定된 曠畝를 占領하고 全北경찰 混成兵力 2개중대규모는 03.00에 龍雲峙(任實 北쪽 2.5km)를 占領하고 兵力을 전개하여 我軍의 撤收를 擁護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가 南原으로 移動하였으며 또 신원제 7사단 獨立대대와 騎兵중대가 사령부를 따라 물러났으나 이 撤收에서 閔機植 대령은 신원제 7사단사령부요원들과 같이 全州에 있는 각 銀行保有貨幣의 搬出을 주선하고 아울러 그間 落伍兵과 國軍入隊를 自願한 壯丁을 모아 훈련한바 있는 200명을 引率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敵은 이날 04.00부터 全州市內에 突入하여 이를 強占하였는데 이때의 戰況을 알지 못한채로 市內에 殘留한 大部分의 市民들은 敵에 의하여 拘禁상태에 빠지는 悲運을 맞이하게 되었다.

敵은 여기를 占據하자 推算 1개연대규모의 兵力을 任實로 通하는 國道에 投入한듯 12.00에는 任實北쪽에서 先發隊로 보이는 한 무리가 蟾津江上流를 渡河코자 試圖하였다. 따라서 이날 早期에 晝時를 占領한 全南경찰은 敵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龍雲時로 물러나 全北경찰과 合勢하여 이 一帶에서 進지를 占領하고 敵의 南進을 阻止코자 하였다. 그런데, 敵은 蟾津江上流南岸에서 곧 撤收하고 더이상의 南侵을 中止한듯 하였으나 그 까닭은 分明치 아니하다.

2. 閔부대呼稱의 公認 : 이날 02.00에 申泰英 소장은 南原으로 移動하여 사령부를 경찰서에 開設하고 軍·경부대의 撤收상황과 敵情을 검토하면서 此後方策을 강구키로 하였다.

이와 同時에 全州에서 南原으로 後退한 閔機植 대령은 즉시 南原中學校에 지휘소를 設置하였는데, 이때 金秉化 소령이 지휘하는 獨立대대 역시 이곳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그런데 申泰英 소장은 이날 13.00에 이르러 그間 여러차례 陸軍本部에 兵力과 탄약을 要請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데 對한 不滿을 直訴하고 아울러 陸軍本部의 今後 作戰지도 方針이 如何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元容德 准장과 같이 大邱로 向發하였다.

따라서 南原에는 신원제 7사단장이 當面한 상황을 처리하여야 할 處地에 놓여다 할 것인데, 이에 이르자 그는 全州로부터 撤收한 落伍兵과 이곳에서 부대를 編成中인 제30연대(假稱)로부터 基幹 武装兵力 1개소대 규모를 統合 지휘하고 전투부대를 編成하였던바 그 兵力이 600명에 이르고 共用火器는 輕機 4정, 迫擊砲(60mm, 81mm) 7문에 達하였으나 소총탄을 비롯한 實彈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이에 閔대령자신은 이 부대를 呼稱하여 閔부대라고 하였으나 陸軍本部는 이를 뒤인 22일에 同부대를 閔부대라고 呼稱하였다. 따라서 20일 17.00에 陸軍本部는 申泰英 소장이 元容德 准장과 같이 任地를 떠난 사실도 모르고 全州가 失陷되었다는 急報에 接하자 實情을 把握 치도 못한채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58호를 下達하였다.

『① 西海岸을 南下한 敵은 裡里—全州에 侵入 계속하여 南進하고 있음.

② 軍은 일부兵力으로써 該敵을 공격하여 이를 阻止하려 함.

③ 金秉化 소령은 麾下兵力 1개대대 2개중대를 인솔하여 西海岸地區전투사령관의 지휘

를 받아 南下하는 敵을 섬멸하라.

④ 西海岸地區전투사령관은 金秉化 소령이 인솔하는 兵力을 統合지휘하여 당면의 敵을 공격하라.』

이와같은 陸軍本部의 作命을 수령하게 된 閔대령은 즉시로 當面의 敵情을 살폈던바 경찰 부대는 敵의 공격이 없는 가운데 龍雲時부근 高地일대에서 계속 진지를 確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敵情에 變動을 그때마다 곧 報告하도록 要求하고 일부병력을 樊樹里(任實 南쪽 8km)로 出動케 하였다.

그런 兪후에 그는 지휘소에 임시로 연결한 警備電話가 울리기에 수화기를 들게 되었는데 이때 全州에 進入한 敵이 我軍상황을 探知하려 한듯 國軍장교를 假裝하고 我軍의 配置상황을 물었다는 것이다. 뒷날 閔대령이 밝힌바에 의하면 이에 그는 通話者가 北傀지휘관임을 알아차리고 『任實—南原사이에는 2개연대의 增援兵力이 配置되어 敵을 阻止키로 하였다.』고 應答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僞計에 빠졌음인지 敵이 이날 공격을 續開하지 않은것으로 미루어 헤아릴수 있었다.

3. 騎兵중대의 轉進 : 한편 黃登戰鬪에 이어 지연전에 참가하여 이날 南原으로 後退한 騎兵중대(장, 朴翊均 중위)는 陸軍本部의 지시로 原隊에 復歸하기 위하여 正午무렵에 全員 馬匹과 함께 咸陽 敬유 大邱로 向發 하였다. 그러므로 중대는 이날중에 大邱에 集結하여 原隊인 기갑연대와 合勢할 수 있었다.

4. 陸軍本部의 조치 : 이날 日暮무렵에 大邱에 到着한 申泰英 소장과 元容德 준장은 곧 陸軍本部를 찾아 총참모장 丁一權 소장 및 국방부장관 申性模와 面談하고 湖南지방에서의 戰況을 보고한 다음 必要한 兵力과 탄약의 긴급 補充을 要請하였다.

이에 陸軍本部에서는 西部에서의 南侵을 지연치 못할 경우에 惹起될 사태의 深刻性을 파악하고 즉시로 大邱에 控置한 金秉化부대를 急派 조치하여 1개대는 張泰明 대위, 1개대는 趙在俊 중위에게 지휘케하고 긴급탄약을 호송하여 南原으로 出動케 하였는데, 그 兵力은 모두 증강된 소대규모이며 兵器(M1)와 탄약은 3대의 貨車輛에 적재할 수 있는 分量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탄약을 3대의 車輛에 적재하고 徵發차량 10대에 分乘하여 申소장 및 元준장과 같이 이날 23.00에 大邱를 떠났다.

같은 시간에 陸軍本部는 全南編成관구사령관 李應俊 소장과 慶南編成관구사령관에게 兵方의 一部를 南原으로 赴援토록 하는 作命제61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

를  
『① 全州에 侵入한 敵은 任實쪽으로 南侵中이므로 이곳을 配備중인 少數兵方은 경찰과 合同으로 苦戰하고 있음.

② 全南編成관구사령관은 예하兵力 500명을 南原에 急派하여 西海岸地區전투사령관의 지

휘를 받도록 하라.

③ 慶南編成관구사령관은 보병 1개대대를 編成하여 즉시 南原에 急派시켜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④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은 前記 兩개부대를 統合지휘하여 적극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라.』라고 하였다.

7월 21일 :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은 특히 氣象이 惡化되어 友軍航空機가 出擊치 못하였다.

當面の 敵은 이날 09.00부터 탐색전을 벌이다가 하더니 夜暗과 더불어 공격을 再開한듯 蟾津江上流를 渡河하여 경찰만이 配備된 진지를 強壓하므로 이를 감당할 처지가 못된 경찰 混成부대는 接觸만을 유지하였을뿐 또다시 隨意로 물러나게 되었다.

1. 申泰英 소장의 戰線復歸 : 전날 陸軍本部로부터 少數의 兵力과 少量의 火器 및 탄약단을 얻는데 그친 申泰英 소장은 金秉化부대(金부대)를 直率하고 張泰明 대위 및 趙在俊 중위가 引率하는 兵力으로 하여금 貨物차량을 호송케 하여 이날 02.00무렵에 共匪가 出沒하는 大邱에서 花園(大邱 西쪽 10km)—高露(花園 西쪽 20km)—居昌(高靈 西쪽 30km)경유 咸陽(居昌西南쪽 20km)에 到着하자 곧 이 消息을 閔機植 대령에게 急報하였다.

이로부터 金부대는 곧 南原으로 急行하여 閔부대와 合勢하였으나 그가 얻게된 武器와 탄약 역시 閔부대가 引受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當時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 G-4였던 金龍紀 중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證言하고 있다.

『申泰英 소장과 元容德 준장이 갑자기 大邱로 出張하였을때 그 眞意를 모르고 있던 閔機植 대령은 상황이 急迫한데 두분이 자리를 비웠다고 야단이였다. 이로부터 얼마가 지난뒤 咸陽에서 電話가 왔다가에 받아보니 申泰英 소장이 많은 火器와 탄약을 가지고 왔으니 引受하라는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날도 어두운데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올수도 있는데 공연히 사람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였지만 별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閔機植 대령에게 事由를 알리고 Jeep차로 出發하려니까 申 소장에게 傳達하라면서 一通의 私信을 手交하였다.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당시의 두분사이로 미루어 申·元 兩人을 가리켜 戰線을 無斷으로 離脫한 者라고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것이 分明하였다. 共匪로부터의 威脅이 예상되는 智異山 北쪽길을 夜間에 Jeep車로 달려 咸陽에 갔더니 申·元 兩人이 어느 旅館에서 묵고 있었다. 그러면서 날이 밝거던 陸軍本部에서 얻어온 火器와 탄약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南原의 상황이 급한데 이럴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곧 그것을 引受하여 南原으로 갔다. 그런데, 앞서 閔機植 대령이 준 편지는 申 소장에게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내용으로 보아 申 소장과 閔대령 사이의 對立이 더욱 惡化될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가 모두에게 利로움이 못될것이라는 나 나름대로의 判斷이 있었기 때문

이다. 나는 南原에 도착하자 인수한 火器와 탄약을 閔대령에게 引繼하고 私信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렸다. 이로부터 閔부대는 急募한 壯丁들에게 武器를 지급하고 南原驛前 廣場에서 훈련을 強行하였는데 나이 어린 學生들이 自進하여 入隊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훈련받는 모습에는 눈물이 났다.』

推測컨데 이상의 證言으로 보아 陸軍本部가 急派한 1개대대규모의 兵力은 金龍紀 중령과 같이 南原에 이르고 곧 閔부대를 赴援하였을 것이고 申泰英 소장과 元容德 준장은 咸陽에서 일단 休息을 取한 다음 南原으로 復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申 소장과 閔대령 관계가 이려하였던 까닭에 南原으로 돌아간 뒤에도 西海岸지구 전투사령관으로서의 指揮權 行使에는 적지않은 難關이 있었을 것이다.

2. 李瑛奎부대의 支援: 전날에 陸本作命 제61호를 수령케 된 全南編成관구사령관 李應俊 소장은 戰況의 推移로 미루어 敵이 南原을 占據하고 順天으로 直衝할 경우 後方이 차단될 것이 分明하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南侵을 극력 지연토록 하여야 한다고 判斷하고 즉시로 順天配備 제15연대장 金炳徽 중령에게 『南原으로 赴援하라.』는 要旨의 出動命을 下達하였다.

그렇지만 이 命은 이때 연대본부에 있던 副연대장 李瑛奎 중령이 수령하였으므로 그는 곧 제2연대장 金弼相 소령에게 出動준비를 下命한 다음 그와 더불어 300명을 陣頭 指揮하여 南原으로 北進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15연대의 情況은 다음과 같았다.

前述한바와 같이 順川에 赴任한 金炳徽 중령은 먼저 이곳에 到着한 副연대장 李瑛奎 중령에게 趙南喆 소령 및 金弼相 소령과 같이 제1, 제2대대를 新編케 하고 自身은 漢江南岸 방어時에 입은 戰傷때문에 이를 治療하기 위하여 金鐘五소령과 같이 麗水에 이르고 제3대대를 이곳에서 編成하고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실제에 있어서 연대장은 李瑛奎 중령이 代理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下에서 李중령은 順天에서 士官學校生徒 一期生과 護國軍出身 장교를 기간으로 하여 軍門을 志願入隊한 學徒兵을 吸收 제1대대(장, 趙南喆 소령)과 제2대대(장, 金弼相 소령)를 編成하고 부대를 訓練하고 있었는데 그 總勢는 M1소총으로 武裝한 兵力이 40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共用火器는 기관총 2정, 2.36" Rocket砲 2문이 그 全部였다.

따라서 李중령은 제2대대를 骨幹으로 300 명을 嚴選한 다음 殘餘는 趙南喆 소령에게 맡겨 殘留케 하고 이사실을 연대장에게 보고한 然後에 列車便으로 當일에 出動한 것이니 부대가 南原에 進入한 것은 09.00였다.

그리하여 李瑛奎부대로 命名케 된 이부대는 南原에 移動하고 閔부대의 G-3참모인 李龍 소령의 區處를 받아 列車에 乘車한채로 出戰에 對備하는바 되었다.

3. 제30연대(假稱)의 移動: 1,500명의 新兵으로 부대를 新編하여 훈련에 精進하고 있던 同연대(장, 金龍周 중령)는 이날 敵侵이 압박하자 閔總植 대령으로부터 『後方지역으로 移

動하라.』는 目標없는 後退命令을 받았다.

당시에 연대는 제3, 제9, 제15, 제26의 4개연대가 同월 17일에 陸軍本部에서 제1~제4 교육대로 改稱되는 조치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대로의 名稱으로 있었는데, 그 編成은 3개대대로 구성되어 제1대대장에는 姜仁燾 소령(兼 副연대장)이, 제2대대장에는 金光淳 소령이, 그리고 제3대대장에는 朴寬榮 대위가 각기 任命되어 있었다.

연대는 이 撤收命令을 수령하자 곧 부대 이동준비를 完了하고 補給品은 自動車로, 각대는 徒步로 이동키로하고 이날 午前中에 南原을 떠나 求禮경유 晉州로 向發하였으니 이들이 龜浦에 到着한 것은 同월 28일이었다.

7월 22일 : 이날도 當面の 敵은 井邑을 指向하는듯 하였으나 彼我間에는 蟾津江을 中心으로 소규모의 탐색전만이 계속되었다. 이런가운데 해병 1개대대가 別命으로 麗水에 上陸하여 閔부대를 赴援케 되었다.

1. 敵軍의 상황 : 20일에 全州를 手中에 넣은 다음 계속 狂波를 南原쪽으로 몰아붙친 當面の 敵은 이날도 역시 任實 北쪽에서 我軍의 動靜에 關於하여 注視하는듯 큰 규모의 侵攻은 없었는데, 井邑으로 指向한 敵의 攻波는 14.00에 泰仁(井邑 東北쪽 11km)을 유린한 다음 井邑을 노렸으며, 同時에 新泰仁(井邑 北쪽 11km, 泰仁 西北쪽 5.5km)에는 群山 및 裡里로 부터 南下한 것으로 보이는 기갑부대를 포함한 北傀제 6사단 主力이 集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6.00에는 金堤에서 南侵한 것으로 보이는 1개중대규모가 古阜(井邑 西쪽 8.5km)에 突入하므로 이곳을 防守하던 경찰대와 激戰을 전개한 끝에 17.00에는 드디어 이곳을 占據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德裕山일대에서 出沒하던 共匪 2개중대 규모가 鎭安(全州 東쪽 24km)을 襲擊하였으나 여기를 지키던 경찰대는 士氣가 극도로 低下된채 一戰도 試圖하지 못하고 長水(任實 東北쪽 21km)로 撤收하는바 되었다.

이상과 같은 敵情으로 미루어 보건대 湖南지역을 攻略한 敵은 우선 主力으로써 光州를 侵奪하고 이어서 南海岸을 迂回하여 順天 西쪽 일대에 進出할 때까지 다른 무리를 任實 北쪽에 控置하였다가 南原—順天間의 我軍側方을 同時에 合擊하려고 企圖하고 있음이 分明하였다.

그러나 我軍지휘부는 이와같은 敵情分析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企圖를 粉碎할 根本的인 대책이 없던 까닭에 戰況은 敵이 主導하는바에 따라 追隨되는 惡循環만을 거듭하였다.

2. 我軍의 상황 : 이날 08.00에 西海岸地區사령관 申泰英 소장은 赴援부대의 來着에도 不拘하고 當面の 敵情으로 미루어 現兵力으로서는 敵侵을 阻止할 方途가 없다고 判斷한 결과 現戰線에서 可能的 限 遲延토록 하다가 事不如意하면 德裕山—智異山—白雲山을 沿하는 선으로 물러나 險峻한 地勢를 利用코 遊擊戰으로 移行키로 決心하였다.

이때의 申泰英 소장의 管轄下에 있는 西部戰線은 대체로 茂朱(任實 東北쪽 35km)—鎭安—任實—井邑—高敞을 연결하는 形勢를 보였으나, 軍이 實際로 配兵된 곳이란 任實正面과 井

邑 두곳만으로서 그 나머지는 거의 開放된 실정이었으며 그나마 井邑正面의 상황은 正確히 알지 못하는 形便이었다.

더구나 全北지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茂朱—鎭安—長水(鎭安 南쪽 20km)부근은 行政 경찰만이 지역방어에 任하는 까닭에 그 脆弱性이 比할데 없었다.

當面の 戰況으로 보아 이 戰線의 持久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인데, 그것은 國軍의 主力과 美軍이 配備된 東部와 中部戰線의 西側方에 該當하는 이곳이 露出될 경우, 戰勢가 急轉될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에 이의 掩護는 我軍作戰上의 艱難한 要請이기도 하였다.

이에 그는 任實 東쪽에서 지역방어에 任하는 경찰과 이를 支援할 것으로 예상되는 美軍을 右地區隊로, 閔부대를 左地區隊로 分類하면서 要旨 다음과 같은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 作命 제 1호를 下達하였다.

『① 西海岸지구 전투부대는 軍主力方面의 攻勢를 助成하기 위하여 그 西側翼을 엄호하려 한다.

② 右地區隊(경찰부대 및 美軍일부)는 鎭安 北쪽 및 그 西쪽高地 일대를 占領하여 當面の 敵을 阻止한 다음 逐次로 地연진으로 移行하면서 長水쪽으로 牽制抑留하라.

③ 左地區隊(閔부대, 李瑛奎부대)는 閔부대장 指揮下에 任實 北쪽高地線을 占領하여 西쪽으로부터의 敵의 侵透를 牽制하면서 當面の 敵을 阻止하라. 萬不得已할 경우 地연진을 旣南原—雲峰에서 逐次진지를 점령한 然後에 咸陽 西쪽을 固守하라.

④ 해병대대는 咸陽에서 別命을 待期하라.

⑤ 余는 咸陽에 位置할 것이다.』

이때에 麗水에 上陸한 海兵隊(高吉勳부대)는 이 命을 받지 못한채로 다만 海軍本部 作命에 따라 行動하고 있었다.

3. 李瑛奎부대의 出動: 南原驛에서 乘車한 채로 밤을 새운 李瑛奎부대는 閔機植 대령으로부터 當面の 敵情을 설명받아 이날 08.30에 또다시 任實 北쪽으로의 列車運行으로 北上케 되었으나 이때의 상황은 任實까지 運行이 可能하였으므로 그 이상은 北進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대는 任實에서 全員下車하여 龍雲峙일대를 占領하였는데, 이때 여기에 陣地를 占領하고 있어야할 경찰混成부대의 所在를 알지 못하여 合勢할 수가 없었다.

이 後에 부대는 敵의 大규모 侵攻이 없었으므로 계속 진지를 占領하면서 終日 索敵에 나섰으며 蟾津江을 사이에 두고 彼我が 서로 對峙하게 되었다.

4. 해병대의 赴援: 한편 同월 20일에 群山에서 海上撤收를 한 高吉勳부대(一)는 다음날에 木浦에 入港하여 裡里를 거쳐 陸路로 물러난 제 3해병중대를 收容(다음項 참조)하게 되었거니와 當日 또다시 『麗水에 上陸한다음 敵侵을 阻止하라.』는 要旨의 海本作命을 수령하게 되었다.

따라서 高吉勳부대 全員은 21일 18.00에 木浦를 떠나 이날 08.00에 麗水港에 入港하였

다. 이때에 海軍本部에서는 濟州島에서 待機中인 海軍대사령관 申鉉俊 대령에게 特命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참모장 金聖恩 중령으로 하여금 高吉勳부대의 지휘권을 引受케 하는 同時에 1개중대를 增援하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金聖恩 중령은 控置한 兵力中 제 7중대(장, 安昌寬 중위)를 指揮하고 FS 堤川號에 搭乘한다음 이날 06.00에 濟州港을 떠나 航海끝에 18.00에는 目的地인 麗水에 入港하였다.

그리하여 金중령은 高吉勳부대와 合勢하는바 되어 이부대의 지휘권을 引繼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부대呼稱 또한 金聖恩부대로 改稱케 되고 高吉勳 소령은 任務인계를 마치자 이날중에 船便으로 釜山으로 떠났다.

이무렵에 海軍本部에서는 金聖恩부대의 戰力을 補強코자 補給品과 함께 M1소총 및 迫擊砲와 同實彈등을 急遽 釜山에서 FS永登浦號에 積載하여 麗水로 急派함으로써 부대원 全員은 AK소총과 多發銃으로 무장한 北傀兵을 相對로 싸우기에는 너무나 舊式인 99式소총 대신에 M1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이때에 海軍本部는 부대장에게 『實隊는 寶城方面으로 出動하여 南侵하는 敵을 阻止하라.』는 要旨의 作命을 下達하였으므로 곧 出動코자 하여도 대원들은 새로이 支給된 M1소총의 操作法을 모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教育이 時急한 問題였다.

이와같이 판단한 金중령은 船上에서 全대원에게 M1소총의 分解結合으로부터 射擊에 이르는 全과정을 強行履修케 하였는데, 이때 同實彈의 補給상황은 절대 수량이 不足하여 1인당 8발씩만이 支給되는 形便이므로 전투에는 그 性能을 자랑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부대는 出戰준비를 進行하고 있던바 22.30에 이르러 突然 南原에 있는 閔부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話를 받게 되었다.

『本人은 實隊를 指揮하는 榮光을 가지게 되었음. 急遽 南原을 目標로 北上하기 바랍.』

金중령은 이상과 같은 命令을 수령하자 當初 그가 海軍本部로부터 받은 作命 內容과는 相異하였으므로 즉시로 이사실을 海軍本部에 進보로 報告하게 되었는데, 얼마뒤에 海軍本部 역시 앞서의 命令을 修正하여 『閔機植 대령의 指揮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대는 全대원을 荷役에 動員하여 23.40부터 船舶에 積載한 食糧등 補給品을 準備한 列車에 移載하는 작업을 徹夜로 실시하였다.

**7월 23일** : 이날 當面의 敵은主力으로 하여금 井邑을 直衝하려는 가운데 任實正面에서는 牽制에만 置重한듯 하므로 全州一任實 國道부근의 戰況은 커다란 變動이 없었다.

閔機植 대령은 이날 麗水로부터 赴援한 海軍대와 또 釜山에서 西北進한 吳德俊 부대를 依命 統合지휘하게 되자 敵을 反擊코자 命令을 下達하였으므로 我軍상황은 대체로 이들의 부대기동이 主가 되었다.

1. 閔부대장의 作戰構想 : 이날 閔機植 대령은 전날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 申泰英 소장의 咸陽 轉進으로 該지역에서의 그 傘下 각부대를 統合지휘하게 되었는데, 美8군에서는 이날 Jackson대위를 고문관으로 閔부대에 急派하고 美軍상황全般에 걸쳐 연락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따라서 閔부대상황은 美8군사령부에 알리는바 되고 또한 美8군의 작전지도 方針이 陸軍本部를 경유함이 없이 고문관 經由로 閔機植 대령에게 傳達되었다.

이런 상황下에서 通信手段의 缺如에 따르는 不安要素를 排除할 수 있었으며 閔部隊의 戰況을 把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날 金聖恩부대와 前述한 陸本作命 제61호에 의거 釜山으로부터 吳德俊부대가 10.20~15.00사이에 南原에 進出하자 當面의 敵情으로 判斷하여 全州에는 일부의 敵만이 殘留할 것으로 보고 이들부대를 李瑛奎부대와 같이 合勢케하여 反擊으로 轉換케함으로써 全州를 奪還키로 決心하였다.

그러므로 閔부대장은 이날 그의 決心을 陸軍本部에 알리고 16.00에 金秉化부대로 하여금 南原으로 復歸케 하여 부대를 정비케 한다는 要旨 다음과같은 反격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부대는 24일 03.00에 일제히 敵을 反擊하여 全州를 占領하고 南侵하는 敵을 阻止하며 한다.

② 李瑛奎부대는 반격 右一線이 되어 해병대와 協同하고 全州의 敵을 驅逐한 다음 이를 占領하라.

③ 해병대대는 공격 左一線이 되어 李瑛奎부대와 協同, 全州의 敵을 驅逐한 다음 이를 占領하라.

④ 吳德俊부대는 예비대가 되어 계속 南原에서 待機하라.

2. 金聖恩부대의 北上進出 : 전날 麗水에 上陸하여 出動준비를 마친 金聖恩부대는 이날 03.00에 列車便으로 出發한 다음 10.20에 南原에 進出하였다.

그런데, 裡里 전투에서 失蹤된 金漢壽 소위의 4명이 敵에게 사로잡혀 後送되는 途中에 敵地를 脫出하여 南原으로 着歸하였으므로 이를 收容하고 敵中突破의 勞를 慰撫하였다.

이리하여 閔機植 대령으로부터 命令을 待機하던바 16.00에 前記반격命令을 수령하게 되자 부대는 다시 列車便으로 17.00에 떠나 1시간뒤에는 斃樹里(南原 北쪽 13km)에 이른 다음 敵情이 없으므로 任實을 目標로 北進하였는데, 부대가 任實에 당도한 것은 다음날 01.20이었다.

3. 吳德俊부대의 赴援 : 陸軍本部는 湖南지역에서의 戰況이 惡化되기에 이르자 同월 20일에 당시 慶南編成관구사령관 李鍾贊 대령에게 『보병 1개대대를 南原에 急派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下達한바 있음은 前述한바 같거니와 이러한 조처로하여 急編된부대가 吳德俊부대였는데, 이부대가 해병대에 이어 이날 15.00에 南原에 進出하여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本은 이부대는 同월 7일에 제5, 제7사단이 光州와 全州에서 新編될때를 같이하여 釜山에서 新編케된 제9사단(장, 李鍾贊 대령)을 母體로 誕生된 부대로써 당시에 그 예하에 있는 제23연대(장, 李裕成 중령)가 釜山에서, 제27연대(장, 金益烈 대령)가 馬山에서 新兵을 모집하여 각기 編成中에 있었다.

이때 陸軍本部로부터 口頭命을 받아 同사단의 참모장으로 赴任한 吳德俊대령은 곧 前記作命을 수령하였으므로 同월 17일에 陸軍本部 조치에 의거 제8교육대로 呼稱케 된 제23연대의 精銳兵力, 退院者 그리고 學徒兵中에서 650명을 선발한 다음 洪淳龍 중령을 대대장으로 하여 4개중대를 編成하고 洪碩杓, 朴正瑞 兩대위 등을 중대장에 補하였으며, 孫官道, 芮哲壽, 李俊鶴 세소령등을 각기 參謀에 部署한바 있었다.

이리하여 부대는 釜山 倉庫에 保管中인 M1소총으로 武裝하고 微發車輛 20대에 分乘하여 同월 21일에 馬山으로 向發하였다.

부대는 이곳에서 제9교육대로 命名된 제27연대兵力中의 일부를 뽑아 補充하고 다음날인 22일에 列車便으로 晉州에 進出하여 하루를 보낸 다음 이날 進出한 것이다.

그러나 부대원의 資質은 充分한바 못되어 晉州 再編時에는 兵力이 1,000명에 達하였으나 移動中에 많은 離脫者를 보게된듯 南原進出時에는 그 兵力이 700명線을 上廻하였다.

閔機植 대령은 吳德俊부대의 赴援을 얼마 이날 지체없이 會心의 反擊戰을 決行키로 決心한 것이지만 將兵들의 疲勞度를 考慮하여 우선예비로 南原에 控置한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南原에서의 情況은 한때 活氣에 차있었으나 全南지구에서의 상황이 刻一刻으로 惡化되어 이날 17.00에 光州가 敵手에 떨어지고 계속 그들의 隄鋒이 和順(光州 東南쪽 10km)과 羅州(光州 西南쪽 20km)를 指向하였으며, 또한 그의 一隊는 長城(光州 北쪽 16km)에서 分進하여 2대의 戰車를 앞세우고 潭陽(長城 東쪽 17km)에 侵入한 다음 南原을 直衝코자 淳昌경찰을 驅逐하고 있었으니, 이들이 任實正面에서의 敵과 서로 呼應한다면 南原 또한 支撐키 어려운 상황으로 一變하게 될 것이다.

7월 24일 : 이날을 前後하여 當面의 敵은 攻勢로 移轉하여 兩面에서 南原을 壓迫하므로 閔부대는 결국 계획한 反擊을 한번 꺾보지도 못한채 阻止戰으로 전환하다가 마침내 雲峰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1. 閔부대장의 決心變更 : 이날 金秉化부대를 비롯하여 李瑛奎부대와 吳德俊부대, 그리고 金聖恩해병대의 合勢로 全州를 奪還코자 한 閔機植 부대장은 이날 01.00에 李瑛奎 부대장으로부터 『當面의 敵은 蟾津江을 渡河하여 南進中이며 그 兵力은 1개연대규모로 推算된다.』는 要旨내용의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당시 李瑛奎부대는 任實 北쪽 龍雲寺와 蟾津江南岸일대에서 탐색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同時에 경찰로부터도 전날 潭陽을 유린한 敵이 淳昌(南原 西쪽 20km)으로 肉迫하고 있다는 정보를 入手하였다.

이때 고문관인 Jackson대위로 부터도 제8군의 作戰方針이라고 하여 『現段階로 미루어 一

部の 反擊戰은 無爲하니 축차진지를 占領하여 遲延戰으로 西部전선을 持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忠告하기도 하였다.

이에 閱부대장은 前後의 一般戰勢를 大局적으로 綜合判斷한 결과 전날의 命命을 撤回하고 새로운 對策을 마련키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任實부근을 占領한 모든 부대에게 命命하기를 『즉시 南原으로 撤收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때가 02.00였다.

2. 李瑛奎부대의 상황 : 李부대는 이날도 전날에 이어서 蟾津江 南쪽 高地일대를 占領하고 當面的 敵과 對峙中이었는데, 敵은 拂曉에 이르러 從前까지의 沈默을 깨고 突然 火力을 發揮하면서 到處에서 江을 건너 공격태세를 取하므로 이 사실을 閱부대장에게 보고한 다음 우세한 敵에게 壓到된채로 接敵을 유지하면서 早晨에 獐樹里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부대는 여기에서 分散된 兵力을 수습코자 하였으나 곧 이어 續行되는 敵의 追擊으로 말미암아 急遽 南行列車便으로 南原경유 求禮로 물러나는바 되었는데, 이때가 대체로 09.00였다.

이때에 閱부대와의 通信의 杜絶로 南原의 상황은 알질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위의 부대행동은 隨意에 맡겨지는바 되어 자연 閱부대장의 지휘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通信連絡이 軍의 神經이라고 할진대 이러한 危急時에 相互連絡의 杜絶은 결국 指揮의 混迷錯綜과 部隊의 支離滅裂을 招來케 하는 根源이 되는것을 如實히 보여주는 것이다.

3. 金聖恩부대의 掩護 : 金聖恩부대는 任實로 進出하는 즉시로 陣地를 占領키로 하였는데 이날 02.00에 南原에 位置한 閱부대장으로부터 공격中止 命命과 同時에 즉시 南原으로 復歸하라는 命命을 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부대는 敵과 一戰도 시도하지 못하고 다시 列車便으로 04.00에 南原에 還到하였는데, 이때에 吳德俊부대는 淳昌으로부터 南原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코자 出擊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한동안 南原驛에서 待機하던 金부대장은 09.00에 閱부대장으로부터 口頭命命을 받았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責부대는 즉시 南原 東北쪽 高地 일대를 占領하고 撤收하는 부대를 엄호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金聖恩부대는 곧 목표인 東北쪽 高地로 移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목표의 陣地를 占領하려는 刹那에 敵의 砲聲이 殷殷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閱부대 主力은 南原을 뒤로 하고 撤退를 재촉하기 시작하였는데 一門의 砲도 保有하지 못한 軍隊의 悲憤이 果然 어찌하였으랴.

이러한 狀況속에서 海兵부대가 △200~△52(南原 北쪽 2km)를 占領하였을 때에는 閱부대의 主力이 南原에서 이미 물러나게 되었으며 淳昌으로부터 侵襲한 그들의 先鋒이 이미 南原 一角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海兵부대는 이미 엄호의 任務를 達成하였으므로 逐次로 물러나 雲峰(南原 東쪽

12km)을 目標로 強行軍하게 되었다. 이때에 부대는 30°을 넘는 炎熱을 극복하고 30리의 산길을 넘었으며 雲峰에 당도하게 된 것은 이날 13.40이었다.

4. 吳德俊부대의 상황: 閔부대의 豫備隊로서 南原에 控置된 吳德俊부대는 이날 01.00에 閔繼植부대장으로부터 『任實에 進出하여 공격부대를 增援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받자 곧 待機하는 차량에 分乘하여 任實을 目標로 北進케 되었다.

그러나 부대가 鑿樹里를 지나고 있을 무렵에 追達된 命令에 이르기를 『敵이 光州로부터 河東으로 進出하니 그 方面을 막으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즉시 西原으로 還到하였는데, 이때 孫官道 소령이 敵의 電話를 盜聽한 결과 그들이 淳昌으로부터 侵襲하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대는 敵을 先制공격하기 위하여 곧 上洞里(南原 西쪽 3.5km)로 急進하여 兵力을 전개한바 敵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道路를 따라 悠然하게 南原으로 指向한듯이 進擊하는 것이었다.

부대는 곧 이들에게 火力을 集中하여 많은 손실을 주었으나 그들도 또한 頑強성을 보였으므로 交戰 1시간만에 부대는 결국 이들의 相對가 되지 못한 까닭으로 四散하는바 되고 將校의 怒號와 대장부의 大喝도 아랑곳없는 가운데 三三五五로 雲峰方向으로 潰退하는 바 되었다. 兵力과 火力에 있어서 顯隔한 差가 있을진대 그 싸움의 結果가 곧 以卵投石格이 된다는 것은 어찌할 道理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다) 井邑—長城—光州부근의 戰鬪 (7.20~23)

7월 20일: 當面の 敵은 전날에 裡里를 侵奪하자 계속 狂波를 휘몰아 全州와 金堤를 同時에 侵攻하였음은 이미 前述한바와 같다. 이때의 그들은 우선 全州를 攻略한 然後에 光州를 直衝하려는 것은 自明하였으므로 全州가 떨어진 다음부터는 一路 光州를 指向하는 그들의 侵鋒이 金堤—井邑道에 沿하여 더욱 熾盛을 極한 것은 차라리 當然視되기도 하였다.

1. 戰況의 개요: 그레나 이에 當面케 된 我軍의 配備는 전날 金堤에서 敵의 重圍를 뚫고 井邑으로 물러난 해병제 3중대(장, 李鳳出 중위)와 27명의 陸本特攻隊(장, 裴東傑 소령), 그리고 全南경찰 1개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날 전투에서 탄약 携帶量을 거의 射耗한 상태인데 접친 給食의 中斷때문에 士氣가 低下되어 있어서 敵과의 正堂堂한 對戰이란 쏠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敵侵을 阻止할 수 없는 悲憤속에서 이날 井邑에 이른 것인데, 여기에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의 連絡 또한 杜絶된 까닭으로 此後行動에 대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 까닭으로 金堤로 赴援한바 있는 全南경찰 1개중대는 스스로 이날 12.00에 原隊로 復歸하는바 되고 殘餘부대들은 자기 부대장의 意圖에 따라 隨意로 行動하고 있었다.

敵은 我軍상황이 이와같이 金堤—井邑 사이가 거의 開放되었으므로 何等의 저항을 받음 없이 精銳 1개연대규모로 이날 오후에는 泰仁(井邑 北쪽 10km)—新泰仁(泰仁 西北쪽 6km)에 突入하였으며 이미 그의 先鋒을 井邑으로 指向하였다.

따라서 이날 敵은 全北지역을 거의 席捲하고 이어서 그의 魔手를 全南지역으로 伸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때 全南지역 역시 我軍配備라고는 이름만인 全南編成관구 사령부가 있었을 뿐으로 空虛하기 이를데 없었다.

2. 全南編成관구사령부의 動向: 이날 04.00에 全州가 敵手에 떨어지고 西海岸전투사령부를 移設하는등 상황의 惡化로 말미암아 井邑으로 南進중인 敵情치리에 대하여서는 자연히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의 指揮範圍를 벗어나는바 되고 全南編成관구(사령관, 李應俊 소장)가 傘下 軍·警부대 지휘 當面치 않을수 없었다.

이날의 사령부사정을 一瞥하면 사령관 李應俊 소장은 李亨根 준장, 安東瀟 중령, 崔英聲 소령, 朴昌錄 대위 등으로 사령부를 구성하고 지휘소를 道廳에 設置하고 있었는데, 이때 李亨根 준장은 同월 17일 陸軍本部의 拙劣 人事異動조치로 全北編成관구사령관에 轉補되어 있었으나 그대로 同職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李炯錫 대령 역시 同일부조치로 新編제 5사단장에서 解任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事實을 알지못한 채로 朴昇日 중령(참모장), 朴楠杓 소령, 徐慶澤소령, 李昌範 대위, 洪淳鳳 중령 등 참모를 部署하여 계속 사령부를 유지하고 예하 제15연대(제 5 교육대), 제 26연대 제 3 교육대)를 形式上 지휘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編成관구사령부와 新編 제 7사단 관계와 마찬가지로 實兵없는 幹部陣의 組織만으로서 沃土富庫의 自力保衛을 聲言하는 꼴이 되었으니 可謂 螳螂의 一斧格이라고 할만 하였다.

그런데, 陸軍本部는 전날인 19일에 全南지구에서 新編된 제 15, 제 26연대가 敵侵에 當面하여도 武裝할 길이 막히자 당초계획을 斷念하고 새로운 계획을 案出한듯 兩개연대로 하여금 教育隊로 發展케 한것이니 이는 當面한 不足兵力을 充當키 위한 임시 조치로 보였다.

3. 사령관의 조치: 이때 光州에 配備된 제 26연대(제 3 교육대)는 李白雨 중령(前陸本人事局次長)을 연대장으로 하여 光州지방의 中學生 1,000명을 모집 제 1대대(장, 趙始衡 소령) 제 2대대(장, 殷碩杓 소령), 제 3대대(장, 金文洙 소령)를 編成하고 있었으며 武裝이란 警察로부터 入手한 99식 소총數 10정과 光州病院(제 3 陸軍病院)에 入院중인 患者가 携帶하였던 M1소총이 全部였던 까닭에 각대대는 10%정도만이 소총을 소지할 수 있었으며 연대에는 단 1정의 기관총을 保存하는 실정에 있었다.

이날 사령관 李應俊 소장은 敵이 泰仁과 新泰仁에 侵入하였다는 情報을 入手하자 未久에 이敵이 全南지역으로 亂入할 것으로 내다보고 곧 李炯錫 대령과 對策을 論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敵의 侵攻을 遲延키로 方針이 定해지고 뒤이어 陸軍本部로 부터도 『井邑方面으로

1개대대를 急送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었으므로 李燭錫 대령은 곧 志願者로 하여금 부대장을 삼아 1개대대를 急編하여 井邑方面으로 急送키로 하고 사단사령부의 全將兵을 後庭에 集합시킨다음 직접 志願者를 選出한 結果 대대장에는 사단본부사령(제 1 대대兼務) 趙始衡 소령만이 손을 들어 志願하였다.

뒤따라 본부중대要員을 비롯한 근무부대요원들도 이 臨時대대에 참가하기를 自願하였으므로 趙始衡 소령은 이에 제 1 대대의 新兵中에서도 志願者 一部를 抽出하여 補充하고 부대를 編成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제26연대는 全火器를 趙始衡대대에 넘겨 400명을 武裝케 하였으며 이로부터 徹夜로 대대의 활동준비는 進行되었다.

7월 21일 : 날이 밝자 敵은 공격을 再開하고 井邑을 또다시 侵襲코자 함에 이르러 刻一刻으로 全南지역에도 危機가 漸高되었다.

1. 해병제 3 중대의 木浦轉進 : 전날 井邑으로 물러나 부대를 정비하게 된 해병제 3 중대는 이날 08.00에 南侵中인 敵의 尖兵으로 推斷되는 騎兵들이 地方共匪와 合勢하여 推定 1개 소대규모가 市內에 潛入하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이들은 이미 탄약이 枯渴된 상태이고 보급 또한 全然 받은바 없었던 까닭에 이들과 一戰을 시도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同부대는 즉시 現地를 벗어나는 바 되고 그로부터 木浦를 向한 強行軍을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木浦에 當到한 것은 이날 17.00였다.

以後 이 同부대는 이곳에서 群山으로부터 海上撤收한 本隊와 合勢하고 當日 木浦를 出港하여 다음날 本隊와 같이 麗水에 進入한 다음 또다시 南原으로 出動하고 同부대를 赴援하였다.

2. 제26연대(제 3 교육대) 제 1 대대의 出動 : 전날의 조치로 하여 갈재(峙)로 出動케 된 제26연대 제 1 대대장(趙始衡 소령)는 해병제 3 중대가 木浦로 轉進하였다는 急報에 接하는 가운데, 이날 08.30에 全員 光州경찰서에 물러 가마니속에 넣어 保管中인 99식 소총 5탄 2,000발을 지급받아 차량 10대에 分乘코 갈재를 向해 北進하였다.

이리하여 부대는 3시간이 소요된 기동끝에 接敵없이 全南北道の 道界일뿐만 아니라 嶺山脈을 南北으로 貫通하는 險峻한 갈재(峙)에 進出하였으며, 이어서 井邑으로 北進하였는데, 이때 그의 先發隊는 井邑에서 偵察隊로 보이는 少數의 敵과 接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대는 井邑가까이에서 대대장 命令一下에 全員 散開하고 突進하여 敵을 사격으로 驅逐한 다음 곧 井邑 北쪽 俗稱 말고개에 進出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부대는 이곳에 머문채 敵情을 警戒하면서 徹夜 扼守하는바 되었는데, 이날 新泰仁에서 西部로 分進한 一團의 敵은 古阜(井邑 西北쪽 8km)로 계속 南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경찰 1개소대가 配備되었을 뿐으로 이를 阻止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四街里에서 바라본 오늘의 長城 갈재의 遠景>

7월 22일 : 當面의 敵은 再編에 여유가 없는듯 한동안 잠잠하더니 午後가 되자 一齊히 공세를 펴 井邑과 古阜를 攻略코자 南侵을 계속함으로써 彼我が 激突케 되자 결국 我軍의 阻止線은 崩壞되고 마침내 蘆嶺山脈 北쪽지역을 거의 敵手에 넘기는바 되었다.

1. 全南編成사령관의 조치 : 사령관 李應俊 소장은 敵의 魔手가 湖南지역으로 뻗었을 때부터 全南지역이 결코 安全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赴任이래 新編中인 제 5 사단의 編成업무를 도와 이에 沒頭하면서도 수시 李炯錫 대령과 會同하고 難局打開方案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노력의 하나가 全南지역이 被侵될때를 假定한 住民들이 避難조치와 政府財産의 保護였는데, 이날 光州지역에도 危機가 急迫하자 地方官署와 協議하여 麗水와 木浦등에 보관中인 政府米를 서둘러 搬出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光州에 所在하는 全南紡織工場의 在庫品인 廣木 전량을 이날 徵發조치하고 搬出이 용이한 麗水로 後送하였다.

한편 사령관은 敵의 銳鋒이 全北지역을 휩쓸어 계속 南下하기에 이르자 이를 全南北 道界에서 殲滅하고 그들의 南進을 阻止키로 決心하였다. 그러나 이미 新編제 5 사단 제 26연대 (제 3 교육대)에는 可用兵力이란 全無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날 早朝에 그는 全南경찰국장 (全南경찰전투사령관) 金應權 경무관을 불러 『敵을 全南北 道界에서 殲滅하라.』는 要旨의 緊急 命令을 下達하였다.



<당시 이곳에 配備된 부대는 趙始衡대대와 경찰부대 뿐이었다. 앞에 있는 建物이 四街里의 일부이고 멀리의 稜線이 갈재가 있는 靑嶺山脈이다.>

당시에 全南경찰은 각쪽에서 15명씩을 抽出하여 전투경찰을 編成하고 全北경찰사병관의 지휘를 받아 作戰에 참가하고 있어서 이미 그 일부가 全北지역으로 出動하고 있었으므로 그 殘餘만이 光州에 控置되어 있었다.

2. 제26연대(제3교육대) 제1대대의 戰鬪: 전날 井邑 北쪽까지 進出한 趙始衡대대의 400명은 대대장의 陣頭지휘를 받아 이날 새벽부터 말고개 일대에 壕를 構築하고 縱深으로 방어진지를 編成하여 決戰 태세를 굳혔다.

그러나 14.00에 金嶺로부터 南進한 것으로 판단되는 敵2개대대 兵力이 井邑에 侵入한 氣勢에 있었으며 또한 이대 新泰仁에는 裡里 및 群山으로부터 移動한 것으로 推測되는 敵의 步兵부대와 기갑부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敵情속에 이날 20.00가 되자 泰仁에서 南進한 敵은 新泰仁에서 進出한 일부와 合勢한듯 戰車 4대를 앞세워 井邑으로 突入하기 위하여 대대가 占領한 말고개 일대에 直射砲을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敵砲彈은 壕에 命中하여 破壞되고 新兵들은 겁에 질려 散散되는 가운데 損失이 累增하였다.

이리하여 말고개의 阻止線은 무너지고 대대는 戰果도 헤아리지 못하고 分遣상태가 되어 물러나게 되었으나 대대장의 敢鬪로 長城갈재(井邑南쪽 11km)에서 간신히 兵力을 수습할

수가 있었다.

3. 全南경찰의 出動: 이날 金應權 경무관은 命令受領 즉시로 光州署長 李濟旭 총경에게 경찰전투부대를 지휘하라 指示하고 『長城갈재로 出動하라.』라고 命令하였는데, 이때의 경찰兵力의 總勢는 400~500명이 었으나 무장은 M1과 99式 소총뿐 그나마 3명중 1명만이 이를 携帶할 수 있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경찰부대는 곧 차량에 分乘하고 갈재에 이른 다음 이날 오전中에 頂上부근 일대를 中心으로 兵力을 2線에 配置하여 제 1線에는 武裝한 者를 제 2線에는 非武裝인 者를 전개하여 阻止線을 形成하였다.

그러나 이날 古阜를 扼守하던 경찰부대는 侵攻한 敵을 감당할 수가 없어 交戰 數分만에 敗退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17.00에 古阜에서 高敵(古阜南쪽 21km)으로 물러나는바 되었다.

4. 陸本特攻隊의 轉進: 그런데, 이날 陸本特攻隊(장, 裴東傑 소령)는 井邑에서 유격전을 계속 전개하기 위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으나 趙如衡대대의 말고개 점령과 때를 같이하여 井邑西北쪽 新泰仁으로부터의 侵路上에 潛伏하였다.

이들의 企圖는 井邑으로 侵入하려는 敵을 기습하기 위한 것인데, 20.00가 되자 그들의 先發隊인듯한 무리가 차량 3대에 分乘하고 接近하고 있음을 捕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대는 이를 섬멸코자 道路에 돌을 깔아 障礙物을 急造하고 待機하다가 그 先頭차량이 장애물에 接觸, 一時 停車하는 瞬間에 일제히 사격으로써 그 先頭차량을 공격하였다.

이에 敵은 奇襲을 받아 차량을 遺棄하고 어둠속에 사라졌으며, 차량 또한 大破된듯 可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부대는 기도가 暴露되고 더이상 여기에서 戰果를 擴大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곧 兵力을 수습하여 長城갈재로 急遷 물러나게 되었는데, 부대장은 부대사정으로 보아 續戰이 至難하고 더이상 戰線이 南下할 경우에 對策이 窮할 것으로 판단한결과 陸軍本部로 復歸키로 決心한다음 이날 子正을 期하여 戰線을 隨意로 버서나게 되었다.

따라서 부대는 그뒤에 全州南쪽을 通過하여 同월 24일 居昌으로 轉進하고 同월 27일에는 居昌—安義부근에서 敵과 遭遇하여 交戰하고 敵사살 12명의 戰果를 끝으로 大邱에 복귀할 수 있었다.

7월 23일: 이날 末明에 공격을 再開한 敵으로 말미암아 이를 支撐할 수 없었던 我軍警부대는 추차의 지연전을 감행하였으나 결국 光州를 이날로 敵手에 넘기는바가 되고 다음으로 光州—和順사이 노래재(峙)로 물러나 지연진지를 占領하는바 되었다.

1. 新편제 5사단장의 조치: 北傀가 南侵을 시작한 이틀뒤에 陸軍本部 特命을 받아 光州로 赴任한 李弼錫 대령은 당초에 光州가 無防備상태에서 短時日내에 敵侵威脅에 直面하리라고는 豫測하지 못한듯, 前述한바 陸軍本部의 後策없는 兵力抽出조치에 順應한 까닭에 신



편제 5사단의 自衛力은 極히 微弱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 急激한 戰況의 惡化로 全南지역에도 危機가 닥치오자 陸軍本部에 직접 光州防衛에 必要한 兵力과 탄약을 여러차례 要請한바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敵侵 阻止만을 强要할뿐 後繼조치가 뒤따르지 않았으므로 進退兩難에 처해 있었다 할 것인데, 이날 그는 當面의 노력으로 자신이 國防部長官 申性模와 通話에 성공하게 되었으므로 各 戰況을 보고하고 무기와 탄약지원이 不可하다면 敵戰車를 포함한 기계화부대를 저지할 수 있도록 爆藥단이라도 急送하여 줄것을 懇請하였다.

뒷날 李대령이 밝힌바에 따르면 그는 이에 대한 조치는 커녕 『肉彈으로 勇敢하게 싸우세요.』라는 말만을 남겼을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啞然할뿐 더이상 上部로부터의 지원을 期待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 5사단이 編成될때 부터 兵力獲得方案의 하나로 당시 濟州島에 駐屯하는 海軍대사령관 申鉉俊 대령에게 그 編成요원에 대한 支援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조치로 말미암아 申鉉俊 대령은 전날에 濟州島에서 共匪擊滅작전에 任한 前西北青年團員 150명을 선발하여 非武裝인재 民船으로 濟州港을 떠나 제 5사단을 赴援케 하였는데, 이날 이들은 麗水에 上陸하고 待機하다가 그後 李炯錫 대령이 高興半島로 撤退한다는 소식에 接하게 됨으로써 다시 乘船하여 鳳岩里(高興半島 最西南端)로 直行하여 李대령과 合勢할 수 있었다.

2. 長城갈재 阻止線의 崩壞 : 전날 제 26연대 제 1대대는 長城갈재(峙)로 물러나 兵力을 수습하였다고는 하나 混亂이 極에 達하여 지휘가 困難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趙始衡 대대장은 陣頭에서 號令을 連發하고 戰列에서 離脫하는 者 없도록 하였는데, 이때 경찰부대가 赴援하였음을 알고 곧 부대 兵力을 나누어 갈재 北쪽傾斜面의 道路邊 突出部 마다 전개할 수가 있었으니 이때가 이날 02.00무렵이었다.

이와같이 되어 長城갈재의 阻止線은 形成된 셈이나 脆弱하기 이룰데 없어서 戰車를 앞세워 南侵하는 敵에 의하여 04.00에는 突貫되는바 되고 그의 先鋒은 長城(갈재南쪽 19km)을 또다시 指向하여 侵透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부대는 四散된 상태로 축차로 光州로 물러나는바 되었는데, 이때 狀況에 대하여 뒷날 趙始衡 소령이 밝힌 내용要旨는 다음과 같다.

『深夜가 되어 敵이 공격하기에 集中사격을 加하였다. 그랬더니 한동안은 잠잠한데 深夜로 因하여 敵情을 確認할 수가 없어 그대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으니 兵力은 그대로 있는데 敵이 前方에 드문 드문 놓여 있는것이 發見되었다. 그러나 敵의 銃聲은 갈재 바로 南쪽 四街里(갈재南쪽 3km)에서 들렸으므로 이로 미루어 敵主力은 後方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어찌할바를 몰랐던 나는 敵을 突破기로 決心하고 兵力을 몰아 敵의 哨所인듯한 것을 소대병력으로 공격하니 순식간에 突破되었으므로 부대는 갈재에서 山

을 넘어 白羊寺(갈재 東南쪽 9km)로 가 부대를 정비하였는데, 이때의 兵力은 200명으로 줄었다.』

이와같이 되어 光州防守의 要衝인 長城갈재의 阻止線은 무너지고 11.30에는 光州가 敵砲의 射擊圈內에 들어 市內에는 散發的으로 敵彈이 떨어져 炸裂하는바 되었다.

3. 全南編成團구사령부 및 제5사단의 後退: 이날 새벽에 갈재를 넘어 南侵하는데 성공한 敵은 10.00무렵 長城(光州 北쪽 16km)을 占據하고 계속 그 醜鋒을 光州로 指向하는바 되었다.

이러한 敵情속에서 11.30에는 光州가 敵砲의 射程圈에 들어 散發的으로 砲擊을 받게 되었으며 15.00에는 그들 先頭인듯한 1개소대규모가 光州市內에 突入하였다가 軍·警 混成부대에 의하여 격퇴되는 戰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앞서 사령관 李應俊 소장은 和順경유 順天으로 後退키로 決心하게 되고 이로말미암아 光州는 사령부와 그 小數의 軍警만이 合同하여 경비에 任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敵의 光州侵攻을 目前에 두고 이 어려운 難局을 打開케 되었던 것인데, 그는 이때에 全南道廳 別館에서 撤夜로 陸軍本部에 空軍機의 援호요청을 하다가 그 실시가 없음에 失望하고 軍이 光州를 防守치 못할바에는 住民들의 安全단이라도 圖謀키로 作心하여 光州放送局에 새벽부터 單身으로 나가 敵의 공격이 迫頭하였으니 즉시 避難하라. 最後脫出者를 爲하여 客車로 組成된 一列車을 南部驛에 待機시킨다.』라는 要旨의 生放送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무렵에 전날에 出動한 趙始衡부대와와는 連絡이 杜絶되어 있어서 그의 상황은 알지 못한채로 殘餘 2개대대의 非武裝인 新兵을 如何히 撤收케 할 것인가에 대하여 腐心하였는데, 그 까닭은 이미 同월 19일의 陸軍本部 조치로 제26연대(제3교육대)가 解散되어 있었음을 이날에야 알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제26연대장 李白雨 중령에게 곧 陸軍本部의 조치사항을 알리고 『계속 軍과 더불어 남아있기를 願하는 者만을 뽑아 順天一馬山으로 撤收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로써 연대장은 新兵中 大韓青年團員, 학생, 청년防衛隊원을 기간으로 부대원들 다시 嚴選하는바 되고 殷碩杓 소령으로 하여금 『武裝한 경찰을 지휘 和順 驛(峙)에서 援호하라.』고 하였다.

상황이 急變하는 동안 當面의 數은 長城에서 戰車 2대를 앞세워 2개대대로 推算되는 兵力으로 光州를 直衝코자 南進하고 있었으며 17.00에는 그 一團이 潭陽(長城東쪽 17km)을 侵犯하고 淳昌으로 東進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단장 李燭錫 대령은 李應俊 소장과 李亨根 준장과 同行으로 敵이 光州를 突入하기 寸前에 光州를 脫出하고 Jeep차로 和順경유 筏橋(光州南쪽 50km)로 移動하게 되었으며, 이와 同時에 제26연대(제3교육대) (一)는 依命 차량 10대에 分乘하여 李白雨 중령 直率로 筏橋로 물러나 부대를 정비하였다.



<和順쪽에서 본 和順널재의 眺望, 앞에 보이는 道路가 당시의 舊道路이다>

또한 이 移動에 수반하여 和順널재에서 撤收부대를 엄호키로된 殷碩杓 소령은 이때 널재로 물러난 경찰 1개소대 兵力을 收容하고 진지를 急編한 다음 主力의 移動을 한동안 엄호하다가 이들 부대의 이동을 확인한 다음에야 待機하는 차량으로 筏橋로 물러났으니 이때가 다음날인 새벽이었다.

4. 제 5사단장 조치: 이날 아침에 筏橋로 물러나 지휘소를 開設하고 一泊한 제 5사단장은 다음날(24일) 아침에 李應俊 소장으로부터 『順天부근의 상황이 急迫하니 戰鬥要員을 急派하라.』는 要旨의 긴급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그는 李白雨 중령과 相議하여 和順널재에서 撤收부대의 엄호임무를 完遂한 殷碩杓 소령을 招致하고 『앞서 연대전성時 기간將兵中 殘餘兵力을 抽出하여 즉각 順天으로 赴援하라.』고 하였는데, 殷소령은 이에 即應하여 경찰로부터 일부의 銃器를 引受받아 步兵 30명을 引率하고 順天으로 直行하였다.

또한 그는 이때를 같이하여 李白雨 중령에게 命令하여 『新兵을 安全하게 後送하라.』한 다음 參謀要員들에게는 筏橋 防守對策에 萬全을 期하게 하였는데, 이 조치에 따라 李白雨 중령은 陸路가 敵으로부터 威脅받기 前에 順天—河東—晉州경로를 밟아 後方지대로 新兵들은 安全하게 移動키로 決心, 正午무렵에 要員 數名과 같이 全員 차량에 分乘시켜 筏橋를

出發하였다.

이당시 後退目標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하여 一部에서는 河東경유 晉州方面으로 直行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사단장은 끝까지 全南一隅에 健在하면서 反擊의 機會를 助成할 것이라는 信念으로 編成관구사령관 一行과 分離 行動케 되었으며 또한 제 5 사단을 解體한다는 내용의 風聞을 憲兵參謀 洪淳鳳 中령으로부터 보고받고 각 참모들에게 自田行動할 것을 傳達하였다.

그런데 이때 濟州島로부터 筏橋로 赴援한바 있는 西北青年團員 150명이 高興半島에 이르러 李대령을 따라 行動하기를 自願하였으며 지휘부와 같이 제 26연대(제 3 교육대)要員 50명도 筏橋에 남아 있기를 自願하고 일부 경찰兵力과 같이 筏橋에 侵入하려는 敵에 對備하였다.

이때에 順天에는 敵이 侵入하였다는 情報이 入手되었으며 더구나 河東大橋가 破壞되었다는 소식을 傳聞하게 되었으며 그는 所信대로 高興半島에 빠져 海上 移動을 斷行하여 부근 島嶼에서 以後에 反攻作戰을 전개키로 決心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곧 副官 鄭虎林 대위를 麗水로 急派하여 船便을 주선하고 鳳岩里(高興半島西端)에 待機케 하도록 조치한 다음 麾下장병들에게 自身의 意思단을 내세워 따르게 할 수단은 없다고 判斷하고 高級副官 李昌範 대위로 하여금 各員의 決意을 묻게 하였다.

이로써 判明된바는 濟州島로부터 赴援한 西北青年團員 全員과 참모 및 殘餘사령부기간장과 全員이 李대령과 生死를 같이 하여 隣近으로 물러났다가 時機를 보아 捲土重來의 反攻作戰에 참가할 것을 志願하였으므로 이에 그는 光州 撤收時에 이곳으로 撤出한 일부의 戰略物資(廣木)를 실은 차량을 鳳岩里로 先行케 하여 待機하는 船舶에 적재토록하고 이어 住民들의 避難 대책을 마련, 筏橋를 떠났는데, 이때가 대체로 12.00였다.

이리하여 筏橋를 빠져나온 사단장은 2시간만에 鳳岩里에 當到하고 裴만침 鄭대위가 준비한 民間大船型舶 5척에 일부의 物質과 같이 分乘하여 14.00에 이곳을 出港함으로써 一同은 全土가 敵에게 유린된 斷腸의 서름을 안고 欲知島로 向發하는바 되었다.

#### (라) 求禮—順天—筏橋부근의 狀況 (7. 24~26)

7월 24일 : 光州는 我軍의 無防備로 하여 전날밤 失陷되었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求禮—順天—筏橋선이 또다시 危脅받게 되었다. 따라서 湖南全지역은 敵이 거의 席捲하는바 되었으며, 이로부터 戰線은 東쪽으로 急速히 移動되는 가운데 蟾津江 西側에서 彼我는 激突하게 되었다.

1. 阻止線上의 我軍配備 : 전날의 我軍이 光州에서 물러나자 敵은 뒤이어 텅빈 光州에 侵入하는바 되었는데, 이날 02.00에 그들은 장갑차 10대와 戰車 1대로 增援된 推算 2개 중대규모로 하여금 羅州를 一氣에 攻略코자 南侵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一部로는 光州에서 물러나는 我軍을 追跡하여 和順을 直衝코자 南進하였다.

따라서 그들 先鋒은 때를 같이하여 和順 嶺(峙)에 進出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곳에 配備되어 我軍의 撤收를 엄호하던 경찰부대의 집중사격을 받아 한때 進出없이 阻止된 바 있었다.

그러나 경찰부대는 戰車를 同伴한 後繼부대의 強攻을 받아 和順으로 축차 撤收하는바 되고 그뒤 다시 筏橋로 물러났는데 이러한 상황속에 敵은 이날 08.00에 和順에 侵入하고 계속 東侵할 기세를 보였다.

한편 이무렵에 全州로 부터 南侵한 敵은 任實北쪽에서 一齊히 蟒津江上流를 渡河하고 계속 南進하고 있었으며 또한 潭陽으로부터 東進한 그들 一團은 淳昌에서 南原으로 直衝코자 侵奪을 계속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하여 그들은 12.00에 南原을 四周에서 包圍할 태세를 갖추면서 一部の 기동부대가 市內에 突入하였으므로 力不足인 我軍各부대(團부대, 營부대, 金聖恩부대대)는 前述한바 雲峰으로 물러났고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도 咸陽으로 移動하는바 되었다. (以下, 咸陽—安義—居昌부근 戰鬥 참조)

그러므로 南原을 侵奪하게 된 敵은 東쪽으로는 雲峰으로, 南쪽으로는 谷城(南原南쪽 12 km)과 求禮(南原南쪽 20km)로 進出하기 위한 侵路을 개척한 셈인데, 이때 谷城에는 少數의 경찰만이 守備하는 상황이었으며 求禮口(新月里)에는 한때 團부대를 지원코 任實로 出動한바 있는 李莢奎부대(제15연대 제1, 제2대대소속)가 隨意로 이곳으로 불려나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 我軍은 谷城과 求禮, 그리고 順天 및 筏橋에만 配備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데, 前述한 事由로 하여 共이 축차로 戰線에서 물러나게 된 全南編成관구사령부 傘下 各부대가 一時 敵侵을 지연키 위해 陣地를 急編하는 것이어서 이 地域은 脆弱하기 이룬데 없었다.

그런데 求禮와 順天은 敵의 立場에서 본다면 이곳을 占領치 않고서는 東進하여 다음으로 慶南지역으로 侵攻할 수 없는 要衝이었으며 我軍 또한 이곳을 早期에 敵에게 波奪될 경우에는 退路가 封鎖되어 破局을 招來할뿐 아니라 後方配備 또한 迅速을 期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곳의 持久는 切實하였던 것이다.

陸軍本部는 이러한 作戰上의 要請으로 이날 15.00에 作命제65호를 긴급히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敵은 全南北道를 攪亂한 뒤 곧 慶尙道로 侵入할 企圖이므로 軍은 美軍부대의 赴援時 까지 現전선을 確保하려한.

② 李應俊 소장은 美軍이 赴援할때까지 예하 軍·警부대를 統合指揮하여 順天—南原間要點을 確保하라.

③ 閔機植 대령은 예하 陸·海軍부대를 統合指揮하여 求禮北쪽 要點을 確保하라.

④ 兩개부대는 敵전차의 前進를 阻止하기 위하여 對戰車壕 구축 및 교량파괴등 方策을 다하라.』

이상과 같이 되어 陸軍本部 또한 南原—求禮—順天이 敵의 侵攻을 지연케 하는 要衝입을 인정하고 이의 防守를 下命한 것인데, 이와같은 조치는 當面의 戰況으로 보아 決意만을 앞세웠을뿐 실제에 있어서 我軍은 이들 據點조차 防守하기에 힘겨운바가 없지 않았다.

李應俊 소장은 전날밤 求禮 및 順天의 防守가 時急하다고 판단하고 지휘소를 光州에서 順天으로 移動하였거니와 그는 移動즉시로 각지에서 이곳으로 물러난 경찰 1,500명을 糾合하여 3개대로 전부편성케 하였는데, 이날 早朝에 그 가운데 1개대를 求禮口(新月里)로, 1개대를 長興으로 出動케 하여 該지역을 방어케 하였으며, 殘餘 1개대로는 신원제 5사단 사령부를 따라 筏橋로 移動한 步兵 90명과 함께 鶴口(順天西北쪽 12km)부근으로 정진케 하여 順天을 敵侵으로부터 持久키 위한 조치를 取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陸軍本部로부터 作命 受領以前에 이미 그와같은 조치를 取한셈인데, 그는 午後에 求禮부근의 戰況을 살피고자 李亨根 준장과 같이 求禮로 挺進하여 경찰부대 상황을 살피는 한편 李瑛奎부대를 訪問하여 『河東—求禮間 通路를 封鎖하라.』는 要旨의 命을 직접 下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李瑛奎부대는 이날 19.00에 경찰부대의 상황은 알지 못한채로 龍頭里(求禮東쪽 3km)부근 104.4高地에 兵力을 전개하여 陣地를 占領하는바 되었다.

2. 敵의 侵攻상황 : 敵의 侵攻은 我軍만을 追跡하여 東進하는데만 止치지 않았다. 이날 그들은 光州를 占領하자 全南지역을 掌握하려 한듯 08.00에 高敵으로부터 南侵하는 그들의 別動隊가 前述한 龍垵里(靈光北쪽 11km)에 2次로 上陸한 小隊규모의 增援을 받아 靈光를 포위하고 경찰대를 공격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단지 행정경찰 1개소대兵力이 守備에 임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곧 羅州(靈光南쪽 26km)로 물러나는바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羅州는 失陷된 다음이어서 退路가 차단되었으므로 이들은 佛甲山(△517)으로 潛入하고 이로부터 유격전을 시도하였다.

이런가 하면 光州에서 南侵하는 敵은 羅州를 占據한 다음 새로이 增援된듯 推斷되는 2개 중대규모와 戰車 3대를 靈岩쪽으로 投入하고 계속 南侵하는가 하면 木浦에 이르는 國道上에는 또한 推定殘餘 2개중대규모와 戰車 6대, 그리고 장갑차 10대를 投入하여 侵攻하였다.

이로부터 靈岩에는 14.00에 敵이 出現하여 이곳 守備의 경찰대를 擊破하는바 되고 14.30에는 木浦가 敵으로부터 威脅을 받아 이곳 守備에 任한 海軍경비부와 경찰은 이들을 阻止하지 못한채 15.00에 LST로 撤收하는바 되었는데, 이때 木浦港에 保管된 一部の 政府米를 미처 搬出치 못한 까닭에 敵手에 들어갔음이 뒷날에 判明되기도 하였다.

또한 敵은 이무렵에 靈岩에 突入하고 경찰부대를 驅逐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곳 配備의 경찰은 4km 南쪽인 月出山(△809.7)으로 물러나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다시 海南으로 撤

收, 한때 우실재(海南東쪽 2.2km)에서 海南경찰과 合勢하여 敵을 阻止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그들에 포위되어 산길을 따라 道岩灣(우실재東쪽 10km)으로 빠져 捲土重來를 다짐하면서 漁船을 이용하여 靑山島로 向發하였으니 이때가 15.30이었다.

따라서 敵은 때를 같이하여 海南과 康津을 占領하는바 되고 다음으로 長興(康津東쪽 11km)을 侵奪코자 東侵을 계속하였다.

南쪽에서 敵의 侵攻상황이 이와같았을때 順天北쪽 谷城에서는 19.00에 淳昌으로부터 南侵한 것으로 推斷되는 敵이 侵入하였으며, 뒤이어 22.00에는 廣川(順天北쪽 28km)일대까지 進出하고 있었다. 따라서 求禮口(新月里) 부근에 配備되었던 경찰부대는 急遽 順天으로 물러나 곧 廣川에서 南侵하는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依命 出動하였다.

7월 25일 : 我軍의 據點방어세태는 脆弱상태 그대로였던 까닭에 敵이 侵攻하자 곧 무너져 이날 求禮와 順天 그리고 筏橋가 차례로 敵手에 들어갔다.

1. 李瑛奎부대의 轉進 : 정날에 求禮에서 河東(求禮東南쪽 28km)間 通路의 封鎖임무를 擔當한 李瑛奎부대는 이날 새벽 부대장 李瑛奎 중령이 업무연락차 晉州로 出他하였기 때문에 부대지휘는 金弼相 소령에 委任되고 있었다.

따라서 金弼相 소령이 이날 李瑛奎부대를 지휘하여 계속 龍頭里부근 104.4高地에 兵力을 配置하고 敵情을 監視하고 있었는데, 敵은 徹夜로 南原에서 기동한듯 이날拂曉에 求禮를 奪取코자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求禮口(新月里)에 配備되었던 全南경찰부대는 現地 行政경찰만을 殘留시키고 이미 전날에 鶴口쪽으로 轉進한 다음이었으며 求禮 또한 落伍경찰 일부가 求禮를 경찰과 合勢하여 地方共匪등 五列의 파괴行動에 대비하고 있었다.

敵이 邑內에 近迫하자 이틀가운데 일부는 求禮口로 隨意로 물러났으며, 또한 그 일부인 50명은 全南경찰의 보안과장 孫錫玟 총경을 따라 싸우지도 못한채 求禮를 拋棄하고 李瑛奎 부대가 占領한 龍頭里로 물러났는데, 이무렵 敵은 求禮에 侵入하자 我軍이 龍頭里에 配備된 것을 探知한듯 一齊히 砲擊을 龍頭里에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金弼相 소령은 상황을 판단하여 부대의 安全을 圖謀코자 부대를 撤收키로 決心하고 곧 경찰兵力과 같이 河東에 이르는 道路를 따라 일단 花開場에 이르러 부대를 정비하는바 되었다.

그런데, 敵은 이때 求禮를 侵奪하고 東쪽으로 물러난 李瑛奎부대를 追尾하여 東進하고 있었으므로 金소령은 곧 이들 차량부대를 阻止할 목적으로 孫총경에게 『花開川 橋梁을 끊으라.』고 지시하는바 되었으며 이지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敵의 先鋒인듯한 기동부대가 차량 3대에 分乘하고 花開場으로 接近한 것이다.

부대는 이를 發見하자 즉시 兵力을 支署가 있는 돌담에 은밀히 전개하고 부대장 사격信號에 따라 一齊히 사격을 이들에게 集中하였는데, 敵은 이때 我軍을 發見하지 못한듯 미처

對備할 수 없었던 까닭에 不過 3~4명만이 기동不能의 차량에서 下車하여 行跡을 감추었을 뿐, 沒殺을 免할길이 없었다.

그러나 부대는 이 전투가 있는지 얼마뒤에 그들 主力이 後續하여 壓倒하였으므로 戰死者 8명(學徒兵)만을 確認하였을뿐 戰果를 헤아리지 못하고 急히 山길로 빠져서 河東쪽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들이 河東에 集結完了한 것은 2시간뒤인 이날 15.00였으나 兵力은 半減된 150명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동중에 新兵過半數가 부대를 離脫한 것으로 推斷할 수 있었다.

3. 順天부근의 戰況 : 이날 早朝부터 順天부근에도 求禮口(新月里)와 廣川으로 밀어닥친 優勢한 敵侵으로 말미암아 危機가 切迫하였다.

그러므로 李應俊 소장은 順天에 集結한 全兵力을 전날부터 鶴口로 推進케 하고 光州에서 最短경로를 侵路로 선택하여 順天으로 侵攻할 것으로 예상되는 敵을 阻止케 한것인데, 이때의 當面의 我軍情勢는 軍警혼성兵力 1개중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士氣는 極도로 低下되어 있었다. 더구나 指揮體系도 確立되지 못한 관계로 敵이 出現하기만 하면 命숨없이 任意로 戰線을 離脫하는 者가 續出하였으니 실제로 陣지를 固守하고 命숨에 따르는 2개소대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곳으로 赴援한 殷碩杓 소령은 憲兵장교인 朴昌錄 대위 및 洪淳鳳 중령(憲兵參謀)과 함께 兵力을 수습하여 계속 陣지를 占領하였으나 이날 12.00에는 敵의 侵入으로 兵力이 分潰된채 順天北쪽 2km인 365高地 일대로 불려나게 되었다.

한편 이날 李應俊 소장은 麗水에서 제15연대(제5교육대) 殘存兵力과 같이 政府財産의 疎開조치에 專念하던 金炳徽 중령을 順天으로 불려 그에게 順天 防守에 合勢케 하였는데, 이에 金炳徽 중령은 麗水에서의 船積作業을 金鍾五 소령에게 委任하고 그 즉시로 탄약 1箱子를 Jeep에 싣고 단독 順天으로 挺進하였다.

이때가 12.00무렵인데, 그는 順天에 進入하자 곧 우체국으로 李應俊 소장을 찾아 『河東大橋가 切斷되는등 退路가 차단된 現時點에서는 後策을 강구하여 麗水로 물러날 수 밖에 없다.』라고 進言하고 우선은 携帶한 탄약을 推進하기 위하여 365高地로 나가 朴昌錄 대위와 協調하게 되었다.

뒷날 金炳徽 중령이 밝힌바에 의하면 이때 李應俊 소장의 지휘소인 우체국과 市內에는 都合 500명이 넘는 경찰관이 集結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 365高地에는 30명의 兵士와 같이 朴昌錄 대위가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워 헤아리면 그가 奮勵한 軍人만이 일부의 경찰과 合勢하여 順天防守에 任하였을뿐 각지로 부터 撤收한 各署 경찰들은 탄약이 떨어져 烏合之卒 그대로의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에 筏橋쪽으로부터 敵의 「사이도카」부대가 順天에 侵入하여 사령관을 비롯한 참모요원들은 敵과 交戰 危機一髮상태에서 順天—麗水間의 街道를 따라 속차로 麗水로



물러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365高地에 配備된 一部兵力은 退路가 막히는바 되어 각자 光湯과 麗水를 指向하여 敵을 迂回하거나 혹은 突破하고 現地를 脫出하게 되었으니 敵은 조직적인 我軍의 抵抗없이 順天을 侵奪하기에 이르렀다.

敵의 順天侵入 상황에 대한 金炳徵 중령의 證言要旨는 다음과 같다.

『나는 高地에서 朴昌錄 대위를 만나자 큰 車輛을 둘러보았으나 2분도 못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理由인즉 敵이 市內에 이미 侵入하고 있으므로 나갈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자가 거짓말하는줄 알고 一喝하였으나 정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高地에서 급히 내려와 車를 타고 나가는데 敵의 「사이드카」가 前方 100m에 나타나 射擊을 集中하였다. 따라서 나는 이를 避하기 위하여 Jeep를 遺棄한채 부근 삼(麻) 밭으로 급히 避身한 다음 열 개 울을 따라 東川를 건너 갔으나 이때 운전수는 行方을 알길이 없었다. 나는 이때 合勢한 3명의 兵士와 같이 順天철도국 뒷산에 이르니 市內 곳곳에는 北傀旗가 올라가 있으며 麗水에 이르는 街道에도 敵의 「사이드카」가 거리를 누비고 있는 反面에 我軍이라고는 發見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나는 어느 民家에 들러 農民으로 變裝하고 14.00頃 順天을 脫出하여 南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 全南지구에서 我軍 最後의 據點인 順天은 결국 敵이 掌握하는바 되었는데, 이때 365高地에서 南侵하는 敵을 阻止코자 한 朴昌錄 대위는 敵과 交戰中에 南쪽으로부터 侵入한 또다른 敵이 順天에 突入하였다는 것을 알고 挾攻될 危機에 處하자 順天을 迂回하여 光陽쪽으로 隨意 撤收한다음 그뒤에 몇일만에 海岸으로 빠져 民船을 이용코 三千浦로 向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되어 順天配備의 軍·警부대는 결국 여기를 敵手에 넘기는바 되어 潰退케 되었는데, 이때 李亨根 中장은 이에 事前對備하여 昇州郡과 麗川郡의 境界인 月山里(順天東南쪽 8km)—鸚鵡山(△343)을 연결하는 稜線을 방어선으로 하고 順天으로부터 隨意撤收한 경찰兵力 1개대규모를 急編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李應俊 소장은 順天에서 물러나자 月山里에서 잠시 머물러 前線에서 後退하는 兵力을 收容하였으나 상황의 惡化로 麗水로 다시 물러났으니 이때가 23.00였다.

4. 陸軍本부의 作戰指導 : 한편 이날 15.00에 陸軍本부는 湖南지역에서의 戰況에 대하여서는 그 實相을 알지못한채로 混迷만을 거듭하고 있었으니 그例가 同日 00.01부로 下達된 作命 제69호였다.

즉 이시간에 閔機植 대령은 南原에서 雲峰으로 이미 물러나 있었으며 李應俊 소장은 前逃한바 順天에서 敵의 包圍網을 뚫고 脫出直前이었다.

그런데 陸軍本부는 이 作命에서 이르기를 『① 軍은 敵을 擊破하고 光州를 確保하려함. ② 閔機植 대령은 에하부대 및 吳德俊부대를 統合 지휘하여 南原—谷城—光州로 前進하여 該지역을 奪還하라.』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陸軍本部作命에 對하여 뒷날 閔機植 대령은 『陸軍本部로부터 受領한 作命은 언 제나 실제와는 맞지않는 것이어서 實踐에 옮길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으니 軍首腦部가 얼마나 湖南지구의 戰況에 對하여 等閑視하였는가는 이로 미루어 헤아릴 수 있었다.

7월 26일 : 전날 麗水로 脫出한 李應俊 소장은 이날까지도 麗水를 固守코자 하였으나 戰況은 계속 惡化되었다. 아침에 全南編成관구사령부와 그 麾下 軍·警부대는 敵이 侵攻하는 가운데 麗水에서 海上으로 撤收하고 馬山 및 釜山等地로 分散退却하는 바 되었다.

1. 제15연대(제5교육대) 제3대대의 轉進 : 前述한바 편성時의 제15연대는 順天에 본부를 設置하고 있었으나 그이하 2개대대는 본부와같이 順天에서, 殘餘 1개대대는 麗水에서 編成한바 있었다. 따라서 麗水의 대대가 바로 제3대대(장, 金鍾五 소령)인데, 이때의 同대대의 編成過程은 다음과 같다.

즉 麗水로 赴任한 金鍾五 소령은 즉시로 陸士生徒 1기생(7.10任官)과 議國軍으로부터 現役復歸한 장교들을 중대장으로 任命하여 新兵(學徒兵) 700~800명을 徵募하여 舊제14연대 자리에서 4개중대를 編成하고 徒手各個훈련을 실시한 것인데, 상황이 不利하게 되자 麗水에 保管中인 政府米를 비롯한 軍需物資의 搬出에 따른 船舶 積載임무를 이들에게 附課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李瑛奎부대가 任實로 出動한 以後부터 연대장 金炳微 중령의 直接 지휘를 받아 連日 그 作業을 強行하여 이날 早朝까지 倉庫에 있는 全量을 急派된 海軍수송선에 搭載할 수 있었고 또한 全州—南原—光州등지로 부터 疎開된 多量의 物資를 搬出하는 것도 助役하였다.

이리하여 임무를 完遂한 同대대는 상황이 急迫하자 이날 06.30에 待機中인 FS艦로 待避하게 되었다.

2. 全南編成관구사령부의 轉進 : 한편 전날에 麗水로 물러난 李應俊 소장은 深夜 月山里에서 隨意로 물러나 麗水로 集結한 警察兵力을 急編하여 또다시 麗水를 防守키로 決心하였다.

따라서 그는 전날에 敵地를 脫出하는데 성공하여 麗水에 이른 金炳微 중령을 비롯한 장병들과 같이 경찰混成부대(대대규모)를 督勵하여 麗水北쪽 石泉寺 뒷 稜線에 전개케 하고 이로부터 麗水에 侵入하려는 敵을 擊滅키로 하였다.

이때가 05.30이었는데, 敵은 30분밖에 麗水로 侵入하고 이미 그의 先遣부대가 경찰과 衝突하여 火力을 集中하였다.

그러나 경찰부대는 李소장의 期待와는 달리 且戰且退하였으므로 麗水는 及其也危局에 當面케 되었으며 이로부터 全南編成관구사령부와 경찰兵力 600명은 敵의 砲彈이 市內에 落下하는 惡상황에서 LST인 汶山號에 塔乘하고 PC型 艦艇 白頭山號(함장, 崔龍男 중령)의 엄호에 힘입어 07.30에 內港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써 湖南全域은 敵이 侵入하기 시작한지 11일만에 席捲하는바 되어 그들로 치면 記錄的인 戰勝이 된 反面에 國軍으로서는 참을수 없는 撲辱의 記錄을 남기게 되었다.

### 라. 전투후의 概況

7월 24일에 南原이, 다음날인 25일에는 求禮와 順天을 그리고 26일에는 麗水를 차례로 喪失하게 되어 戰線은 또다시 慶南지역으로 물러나는바 되었거니와 이때(26일) 또한 北쪽인 長水가 少數경찰의 扼守속에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의 侵攻을 받고야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北僞는 西南部 戰線에서 湖南과 嶺南의 地境을 이루는 德裕山(△1508)—智異山(△1918)—白雲山(△1218)線으로 進出하였으며 다음으로 이 險峻한 地勢를 가로 지르는 4개의 通路인 長溪里(全州東쪽 31km)—安義(咸陽北쪽 11km)와 南原—雲峰—咸陽 및 求禮—河東, 順天—河東등을 侵路로 삼아 嶺南지역으로 侵攻할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이에 이르자 그들은 洛東江 北쪽과 西쪽 지역으로 急速히 進出키 위한 이론바 제 4차 作戰(7.21~8.20)을 完遂코자 長溪里—安義사이 侵路에 새로이 그들 제 4사단을, 餘他的 그 南쪽 侵路에는 全州—光州동 湖南지역을 席捲한 제 6사단(장, 소장 方虎山)을 계속 전개하고 一氣에 馬山—釜山으로의 侵攻을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德裕山—智異山—白雲山線은 攻者와 防者間에 重要な 要衝이 된 셈인데, 당시의 我軍 配置는 長溪里—安義間에는 單 一兵의 配置도 없었으며, 南原—雲峰—咸陽間에는 南原으로부터 劣勢를 挽回하지 못하고 축차로 물러난 연대규모의 閔부대(金秉化부대, 吳德俊부대, 金聖恩부대 統合지휘)가 接敵만을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求禮—河東間은 李瑛奎부대가 少數의 兵力으로 지연전을 감행하였으며, 順天—河東間은 完全히 開放된 實情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不拘하고 陸軍本部는 束手無策인채로 同월 25일 16.00에 作命제70호를 下達하고 前總參謀長 蔡秉德 소장을 嶺南西部지역으로 急派하여 閔鐵植부대와 李應俊부대를 統合 지휘토록 한 다음 嶺南지역으로 侵入하는 敵을 저지격멸케 하는 臨機의 便法을 썼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무렵에 美 8 군 또한 德裕山—智異山—白雲山線 防守에는 對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同월 24일에 그들은 戰線西側에 急迫한 敵情을 비로소 크게 憂慮하게 되어 당시 再編成中인 美24제사단(장, John H. Church준장)을 急遽 西南方에 轉用 配備토록 하였다.

이로써 美제24사단은 다음날(25일)까지 세하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를 晉州로 移動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美제19연대는 다음날(26일)에 그 일부를 安義로 전개하는 바 되었으며, 뒤따라 美제34연대(장, Charles E. Beauchamp 대령)도 居昌(安義東北쪽 8km)으로 移動 전개되었다.

이와함께 美 8 軍은 同월 24일 沖繩에서 赴援한 제29연대이하 제1, 제3 兩개대대를 晉州로 急派하여 19연대를 增援토록 하므로써 그 제3대대(장, Harold W. Mott중령)가 다음날에 제19연대장으로부터 『河東을 確保하라.』는 要旨의 命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南原—雲峰—咸陽으로 물러난 閔부대는 北쪽에서 美제19연대와 그리고 晉州로 挺身한 蔡秉德 소장은 제29연대 제3대대와 連繫하게 되었다.

이상이 本戰況 이후의 彼我的 全般상황인데, 敵은 결국 我軍配備의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峻嶺을 넘어 嶺南지역으로 侵入케 되었으며 我軍은 咸陽—居昌부근과 河東—晉州부근에서 또한차례 이들과 激突케 된다.

따라서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나 閔부대 그리고 李瑛奎부대 상황에 대하여서는 다시 學論되므로 本項에서는 重復을 避하기 위하여 다루지 않았거니와 이에서 除外되는 각부대의 그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 1 교육대(舊신편제 3연대): 全州—順天—河東—晉州—釜山으로 移動하여 東萊(원예학교) 有樂國民學校에 收容된 다음 新兵은 모두 제 3 사단에 引繼하고 나머지 기간요원은 제 2 훈련소로 編成하여 短期新兵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2 교육대(舊신편제 9연대): 南原—順天—光陽—河東—晉州—釜山으로 移動한 다음 新兵은 모두 一線사단에 引繼하고 기간요원은 大邱로 移動하여 8월 8일에 陸本直轄의 제 3 사단에 하로써 제 25연대를 編成하였다.

제 30연대(假稱): 南原—晉州—龜浦로 移動하고 8월 4일에 陸本作命제 95호로 永川으로 出動, 유격연대로 改稱하여 戰鬪를 벌이게 되었다.

제 3 교육대(舊제 26연대): 茂橋—順天—晉州—馬山—釜山으로, 일부는 順天—麗水(海路)—釜山으로 移動하고 뒤에 大邱로 가서 再編成한다음 8월 10일 正式으로 제 26연대의 團隊號를 받아 安康으로 出動하였다.

제 5 교육대(舊제 15연대): 順天—河東—晉州—馬山—釜山(李瑛奎부대)으로 일부는 麗水에서 海路 巨濟島에 일단 上陸하였다가 다시 釜山으로 移動, 8월 14일 제 2 훈련소에 併合케 되었다.

全南編成관구사령부: 麗水에서 海路馬山으로 移動 즉시 解體되었다.

신편제 5 사단사령부: 高興半島의 鳳岩里에서 民船 5 척으로 濟州島에서 赴援한 西北青年團員 150명과 같이 欲知島로 向發하였는데, 撤收中에 해군함정을 만나 西北青年團員 150명을 무장시킬 소총 150정을 인수받았으므로 이들은 欲知島에서 逆上陸할 戰鬪訓練을 실시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와같은 사실로 因하여 「日本으로 避難하려 한다」는 一部로 부터의 謀略을 받는다 되었는데, 이로써 釜山으로 直行케 되고 特務부대장 金昌龍 중령이 西北青年團員들과 知面이 많았던 관계로 그가 이들 青年이 日本으로 도망갈자가 아니라고 保障하므로써 無事하게 되었다.

그러나 李瑛錫 대령은 이와같은 일로 맥이 빠져 이들을 解散시키느바 되었으니 戰時에도 이와같은 謀略이 盛行한 것은 遺憾된 일이다.

한편 長城갈재(峙) 戰鬪에서 退路가 차단되어 白羊寺에서 부대를 정비하게 된 신편제 26연대 제 1대대(장, 趙始衡 소령)의 그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趙始衡 소령은 白羊寺에서 兵力을 수습하자 탄약이 消盡되어 再補給없이는 戰鬪行爲가 不可하고 더구나 食糧문제가 困難하다고 판단하여 軍番없는 新兵들의 歸家조치를 取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應하여 부대를 떠나는 者는 不過 5~6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타는 全員 부대와 끝까지 行動하기를 願하였다는 것이다. 그위 상황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우리부대는 白羊寺를 떠나자 光州가 失陷되는날 潭陽을 거쳐 順天으로 가기 위하여 玉渠로 갔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谷城—求禮—鳳頭山(절)(求禮西南쪽 10km)에 들어가니 谷城경찰서원 60여명이 유격진을 벌이고 있었다. 부대이동은 友軍機의 爆擊때문에 주간 행동이 禁物이었으므로 모두 夜間에 실시하여야만하였다. 鳳頭寺에서 우리는 다시 槐木(鳳頭山南쪽 5km)으로 이동하여 敵 「사이도카」 2대를 공격 파괴한다음 白雲山으로 들어가 良田面에 이르러 地方共匪를 공격하였다. 그뒤에 智巽山을 넘어 雙溪寺 東쪽 18km인 德山을 거쳐 山淸—宜寧—狽骨山—威安—馬山으로 撤收, 我軍과 合勢하였는데 이때가 8월 初旬이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新編제 7 사단장 閔繼禧 대령

(1978년 4월 7일, 新堂洞自宅에서, 예매장)

서울에서 물러난 다음 나의 任務는 全州에서 새로이 제 7 사단을 編成하는 것이었으나 戰勢가

惡化되어 湖南지역에도 敵의 魔手が 미쳐 編成中인 3개연대를 撤收케 하였으며 또한 全州지방에 있는 國家財産을 後送 조치하였다.

부대편성에 있었던는 步兵학교 기간요원 600명

으로 하여 대체로 10,000명 가량을 募兵으로 充當하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全羅道는 比較的 安全하 곳이었다.

全州가 失陷될 무렵 이들의 撤收로 兵力은 없는데 여기에서 兪계 8군조직으로 增援된 것이 海兵 1개대대와 李瑛奎부대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金秉化부대 였으며 이를 습쳐 闕부대라고 하였던 것이다.

예로써 闕부대는 이때부터 兪계 8군작전계획에 따라 지역방어를 담당하였으니 全州까지의 방어 책임은 申泰丞 소장에게 있었으며 그 以後는 나에게 있었던 셈이다.

全州가 떨어지자 敵을 阻止하는데 束手無策이었던 申소장과 同참모장 元容德 준장은 陸本處事에 不滿을 품고 兵力 및 火器를 긴급要請하기 위하여 大邱로 가는바 되었으나 이때 申性模 국방부장관은 無斷으로 職務를 遺棄하였다 하여 크게 詰責한 것으로 안다.

闕부대가 美軍과의 合同作戰 命令을 받은것은 咸陽부근이며 陸軍本部에서의 命令은 恒常 제때에 傳達되지 않아 敵이 侵入한 다음에야 그 지역을 방어하라 하였으니 상황이 맞지 않아 作戰에 차질이 많았다.

#### ◇제 7사단 제 3연대 李鍾泰 소령

(1978년 4월 11일 小公洞에서, 예대령)

6.25당시 나는 步兵학교 火器學科에 있으면서 기관총 부班장이었다. 2~3일後에 나는 金浦지구 전부사령부에 배치되었다가 撤收하여 陸本(平澤)에 가니까 大田에 集結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大田으로 가니 또 全州로 가라기에 그곳으로 내려갔다.

全州에서 시작한 任務가 新兵을 모집하는 것으로 소속은 제 3연대 제 2대대 부대대장이고 대대장은 金秉化 소령이었다.

내가 처음 담당한 募兵地區는 茂朱였으므로 그곳으로가서 15일정도 경과하는 동안 700명 程度의 壯丁을 모집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경찰이 徵發한 20여대의 貨物車로 全州로 이들을 수송하여야 하였는데 茂朱에서 全州로 가는데는 두개의 코스가 있었다.

이때 경찰은 하나의 수송코스를 定하여 달라기

에 그중 하나만을 알렸다가 뒤에 나는 任意로 코스를 바꾸어 全州로 갔다.

이와같이한 까닭은 共匪의 襲襲을 避하기 위한 것으로 차낸 조치였는데 全州에 到着하여 傳聞한 바에 의하면 共匪들은 우리가 移動한다는 경로의 要所에 埋伏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竊돌이로 경찰서를 襲擊하고 많은 損失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部에서는 우리 一行이 공격받은 것으로 알고 모두들 야단들이었다는 것이다.

全州에 到着하자 나는 제 2대대장 發令이 났는데 이때 대대원의 구성은 新兵이 80%이고 軍服을 입은이는 겨우 20%, 裝備 또한 20%程度에 지나지 않았다.

대대의 兵力은 700명程度였으니까 연대는 2,000명 정도였다고 생각되며 훈련에 있어서는 편성 직후부터 대대별로 제식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뒤 부대는 撤收命令으로 南原—求禮—光陽—河東 경유 釜山으로 移動하였는데 接敵 상황은 求禮에서 若干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 吳부대장 吳德俊 대령

(1978년 3월 29일 盤浦 ATP 35동 304호,

예소장)

水原에서 나는 陸本으로부터 『釜山에 내려가 사단을 編成하여 湖南 西部에 我軍이 없으니 그곳으로 出動하여 敵을 阻止하라.』는 命令을 받았다.

그러므로 釜山으로 直行하게 되었는데, 釜山에 도착하여 경비대시절 병사구가 있던 자리에 가니 李鍾賢 대령이 사령관에 임명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사단장도 참모장도 아닌 妙한 位置에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不準없이 사명감에서 사단을 編成하기 시작하였는데 부대편성의 基準으로 삼은것은 後退한 兵力과 退院한 患者, 學徒兵 등 650명이었다.

이리하여 兵力은 약 1,500명에 達하였으나 훈련할 사이도 없이 陸本으로부터 『敵이 任實까지 南侵하였으니 南原—任實로 出動하라.』는 命令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창고에 保管하고 있는 包裝상태 그대로의 M1소총, 칸빈소총, 99식소총 등을 지급받아 1,000명만을 무장시켜 急遽 馬山—晉州를 거쳐 出動하였는데, 장비의 정비는 晉州

에 가서야 完了할 수 있었다.

뫼부대는 이와같이 하여 誕生된 것으로 李鍾贊 대령하고는 出動을 계기로 헤어진 것이다.

南原에 이르러 任實에 進入하니 陸本命令이 『敵이 光州로 해서 河東으로 進出한다. 그러니 이를 막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대는 다시 南原으로 내려와 咸陽—山濟로 撤收하였다가 다시 安義—郡北으로 갔다. 이때의 兵力은 600명 정도였으니 撤收도중에 政損失이 많았던 것이다.

◇ 뫼부대 제 4 중대장 朴正瑞 대위  
(1978년 3월 4일 槿榮物產에서, 예대령)

나는 6.25 당시 士官학교 生徒들과 行動하다가 撤收케 되어 7월 10일 生徒들을 任官시키고 학교가 解散케 되었으므로 新設中인 釜山의 제22연대(赤崎)에 갔다.

이곳에서 新兵을 모집하여 겨우 훈련채비를 끝내게 되었을때 나는 사령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니 孫官道 소령이 먼저 가서 나를 끌어들이던 모양인데, 이때 함께간 이는 洪頌約, 朴春世, 洪소위 등이었다.

여기에서 晉州로 가라는 指示를 받아 우리들 一行은 本隊와는 別途로 馬山을 거쳐 차량으로 晉州로 갔다. 晉州에 도착하자 우리는 다시 敵侵을 阻止하기 위하여 南原으로 進出한 다음 某학교에 주둔하니 다시 南原北쪽으로 出動하라는 指示를 받았다.

04.00~05.00경 南原北쪽으로 이르러 兵力을 配臚하였는데, 이때 南原에서는 兵力이 撤收하는 列車의 汽笛소리가 들렸다.

7.18~20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배치된 곳은 개활지였으며 敵이 400~500m까지 接近하고 直射砲를 마구 집중하자 兵力은 命命도 없는데 四散되기 시작하였다.

뫼부대의 出動은 孫官道가 敵이 侵入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先制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敵은 無警戒狀態로 道路를 따라 行進하고 있었다. 훈련된 부대라면 이때 相當한 戰果를 올렸지만 烏合之衆이라 1시간 정도의 교전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 기갑연대 騎兵중대장 朴翊均 중위  
(1978년 2월 10일, 榮進상사에서, 예대령)

우리 중대는 公州에서 撤收한 다음, 咸悅—黃登에 이르렀는데, 당시 馬匹은 100~120頭였으며 소대장은 金寬燮 소위, 崔致湖 중위, 趙敦徹 중위였다.

저녁에 탄약이 없어 裡里에 가보았는데 이미 그곳에는 兵力이 撤收한 다음이라 아무도 없었으므로 나는 우리부대만이 包圍된 形勢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해병대 및 경찰과 같이 있다가 22.00에 敵의 차량 1대를 공격하여 전과를 올린 然後에 다음날 새벽 敵의 主力부대가 공격하였으므로 撤收하였다. 그 뒤에 부대는 裡里에서 잠시 市街戰을 하다가 陸本지사로 大邱로 갔다.

◇ 全南編成관구사령관 李應俊 소장  
(1964년 10월 27일 安岩洞自宅에서, 예증장)

光州에서 順天으로 撤收한 나는 곧 本部를 設臚하고 前方에 配置된 경찰이나 군인들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참모들을 데리고 巡視하였다. 그리하여 돌아와 보니 모든 官廳이나 우체국이 텅비어 있었으므로 그 이유를 알아보니 모두가 撤收하였다는 것이다.

大邱에 와 보니 2개분대 정도의 步哨兵들은 그대로 있는데—그後 參謀가 와서 馬山과 電話가 된당시에 나는 蔡秉德이와 通話를 할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으나 如何한 나는 當面の 戰況을 說明해 주었다.

이와같이 하여 順天에서 하루저녁을 지내고 새벽에 깨우기에 일어나니 敵이 順天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敵彈이 마구 날아오는 가운데 敵과 拳銃으로 對戰하면서 간신이 順天을 脫出할 수가 있었다. 이때 憲兵 文德俊 대위는 차를 타고 그대로 나갔으면 될것을 급하니 차에서 내리다가 敵彈에 맞아 戰死하였다.

그後 麗水로 撤收한 나는 順天에서 命命없이 麗水로 철수한 경찰이 있는가를 알아보니 있다하기에 그 지휘자를 불러 40平生 처음 그에게 체책을 加해 命命없이 撤收해서야 되느냐고 叱責하였

더니 그는 우리가 巡視하는 것을 보고 撤收하는 것으로 誤認하여 우리도 곧 撤收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金炳燾 중령도 敵에게 包圍되어 變裝하고 麗水로 빠졌다.

#### ◇ 제 5사단 사령부 高永洙 상사

(1978년 2월 20일, 聯合鐵鋼전무실에서, 예대위)

長城고개에 敵이 出現하자 西北青年團員, 學生, 青年방위대원으로 구성된 의용군이 出動하였다. 戰車가 온다는 소식은 새벽에 들었는데, 李炯錫 대령은 이때 徹夜陸軍本部에 空軍支援을 요청하다가 새벽이 되자 나와같이 放送局에 가 放送으로 市民들의 避難을 勸하고 있었다.

放送을 마치자 市內에 나오니 市民들은 騷亂하였으며 경찰서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李炯錫 대령은 침착한 態度로 市民들의 避難상황을 지켜보는 여유를 보여 感銘을 받았다.

#### ◇ 제 15연대 S-3 金弼相 소령

(1978년 3월 27일 湖南에철련社長室에서, 예소장)

漢江이 爆破된 뒤 나는 爆破되지 않은 鐵橋를 건너서 다음에 始興을 거쳐 水原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戰勢가 惡化되어 徒歩로 平澤—大田으로 撤收하였다. 이때 벽보를 보니 제 5사단장 李應俊 소장이 光州로 갔다가에 그길로 光州로 가 제 5사단 본부를 찾게 되었다. 왜냐하면 제 5사단이 出動할때 나의 職責은 사단의 作戰참모보좌관이었던 관계로 原隊에 復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의 소속이 제 15연대가 되었으므로 順天에 가서 부대 編成에 착수하고 生徒 1기생과 호국군 출신장교를 기간요원으로 삼았다.

이와같이 하여 학도義勇軍, 生徒 1기 호국군장교 約 300명과 기관총 2정, 로켓砲 2문 M1소총으로 대대를 編成할부령 上部로부터 全州로 支援하라는 긴급 命명을 받았다.

이리하여 任實로 北行한 다음 전화를 받으니 北傀軍이 나올 정도였는데 다시 우리는 順天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李應俊 소장이 求禮에 오

셨으며 李亨根 준장은 우리에게 『河東쪽으로 나가는 길을 막으라.』고 命命하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이미 경찰도 撤收하였기 때문에 우리부대가 最終撤收부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부대는 求禮 東南쪽 龍頭岬에 이르러 兵力을 配置하였는데 李英奎중령은 晉州로 가서 부대 撤收用 차량을 求해 온다고 하여 없었다.

이때 부대는 내가 지휘케 되었는데 求禮에서 敵砲擊이 시작되었으므로 撤收를 決心하고 河東을 向해 떠났다.

이리하여 부대가 花開場에 가니 李英奎 중령이 차량 5대를 보내왔는데, 나는 全南경찰보안과장에게 『마지막 부대가 철수하였으니 다리를 끊으라.』라고 지시하고 잠시 휴식하고 있었다.

이때 敵이 無警戒로 차량에 乘車하고 다가왔으므로 즉시 散開하고 이들에게 一齊사격을 集中하였다. 敵은 당황한 나머지 미처 應射하지 못한채 차에서 3~4명만이 下車하고 逃避할 정도로 戰果가 컸다.

그러나 이에 後續한 敵이 우리에게 사격을 집중하기에 이르러 학도병 7~8명의 損失을 낸다음 戰場도 정리치 못하고 山으로 撤收하여 河東으로 갔다.

#### ◇ 신편제 5사단 고급副官 李昌範 대위

(1967년 10월 12일 當위원회에서, 예대령)

제 5사단은 光州에서 撤收할때 解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光州에서 모집한 兵力을 추려 10대에 태우고 筏橋를 通過해서 順天으로 가니까 憲兵들이 앞을 막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兵力을 國防部에 引繼하여야 된다고 說得하고 다시 떠나 馬山으로 갔는데 馬山에 이르니 또 憲兵들이 저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이들에게 사실을 설명하여 納得을 시킨다음 憲兵의 안내에 따라 憲兵司令部를 찾았다. 그뒤에 우리는 戒嚴사령부에 들어가서 당시 馬山埠頭에 位置한 李應俊 소장의 지시를 받아 주둔하는바 되었다.

光州에서 筏橋로 부대가 빠졌을 때 李炯錫 대령은 『全南지구에서 戰鬪다운 전투 한번 없이 물러났으니 나는 게릴라 戰을 하겠다. 당신이 高級副官이니 장교들을 잘 說得하라.』는 命命을 주었다.

따라서 나는 이와같은 내용을 즉시로 장교들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장교들은 모두 『正規戰을 하다가 죽어도 억울한데 게릴라戰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눈치였다. 따라서 나는 장교들의 不參의사를李大령에게 傳達하니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西北靑年團員 150명이 있으니 나 혼자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같이 되어 나는 順天으로 해서 馬山으로 떠나게 된것이고 사단장은 海路로 해서 欲知島로 갔다.

#### ◇ 제15연대 제1대대장 金鐘五 소령

(1978년 3월 15일 南大門宇南빌딩 503호실에서, 예준장)

나는 7월中旬에 李應俊 소장, 李亨根 준장, 몇명의 장교와 같이 全州로 해서 順天으로 갔다. 당시 나의 任務는 麗水에서 兵力이 撤收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到着 즉시 이곳 船舶을 장악 統制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임무로하여 李始榮 副統領과 국회의원 一行을 해군艦船便으로 避離시킬 수 있었다. 그뒤에 李應俊 소장과 李亨根 준장도 麗水로 왔는데, 이때 兵力이라고는 30~40명程度이고 경찰이 100여명이 있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란 工兵의 梁宗益 소령이었다.

그뒤 나는 船舶便으로 馬山을 거쳐 釜山으로가 一週日後에 다시 金炳徵 중령과 같이 濟州島로 갔다.

#### ◇ 憲兵학교 金益淳 대위

(1965년 5월 25일 憲兵監室에서, 예대령)

平澤으로 撤收한 나는 友軍機의 誤爆으로 우리 指揮所가 큰 損失을 입게된 것을 目擊하였다. 그뒤에 大田으로가 命命을 받은것이 全南編成관구 사령부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光州로 갔는데, 당시의 兵力이란 장교는 50명정도이고 士兵은 그렇게 많지 못하였다. 이때 李炯錫 대령이 지금의 步兵학교 자리에서 地方 壯丁들을 몰아가지고 연대編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된것이 워낙하면 申泰英 소장과 元容德 준장이 全北에서 임의로 撤收하고 大邱로 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뒤 敵이 井邑까지 侵入하였을때 제 5사단 工

兵 1개대대를 出動시켜라 해서 보냈더니 한번은 奪還을 하고 그했는데 出動한 경찰은 모두 도망을 갔다.

이때 敵은 자동차를 戰車모양 偽裝을 하여 侵攻하였으므로 我軍은 이를 戰車로 誤認하고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井邑에서 撤收했다.

光州에는 全南紡織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砲彈이 集中하게 되자 우리는 光州에서 撤收, 和順 鏡游 筏橋쪽으로 돌아갔으며 이때 李炯錫 대령이 壯丁들을 解散시켰다.

그뒤 順天에 가 兵力을 수습해 가지고 있는데 李應俊 소장이 일부를 鶴口(順天一和順間)쪽 配置하여 求禮쪽에서 南侵하는 敵을 막으라 하였으며 또한 筏橋쪽에는경찰 1개중대를 配置하였다.

#### ◇ 高부대장 高吉勳 소령

(1965년 9월 1일 土地改良聯合會長室에서, 예소장)

6.25直前 나는 濟州島에서 情報參謀와 作戰參謀를 兼하고 있었는데, 이때 裝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金龍國 중위와 같이 서울로 出張하고 國防部 및 海軍本部에 들러 萬方으로 노력하던중 6.25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國防部와 海軍本部의 大田撤收와 더불어 大田까지 갔으며 여기에서 濟州島로 復歸하였는데, 부대에 가니 이때 이미 群山出動이 下命된 다음이었다. 따라서 나는 即刻 1개대대를 編成하여 LST로 濟州를 떠나 群山에 上陸하고 몇일동안 群山港에서 쌀을 搬出하는 것을 支援해 주고 그 다음에 群山 맞은편 長項에 敵이 왔다는 情報에 따라 이를 阻止키로 決心하여 그리로 갔다. 그뒤 LST가 쌀을 모두 積載하고 外港으로 나간것을 確認한 다음에 우리는 長項에서의 진투를 中斷하고 群山으로 건너와 이번에는 群山을 방어하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鎭江下流에서 渡江하여 裡里를 侵入하였으므로 부대는 退路가 막혀 그들에게 包圍되기에 이르렀다.

戰況이 이러하였으므로 나는 부대와 같이 群山을 撤收하게 되었으나 1개중대는 裡里에서 陸軍에 配屬되어 싸우다가 陸路로 木浦로 빠져 나왔다.



## ◇ 高吉勳부대 情報隊 金聖殷 一等兵曹

(1965년 4월 26일 仁川警備隊에서, 예대령)

高吉勳부대가 出動할때 나는 情報隊 소속이었다. 이때 隊長은 金鍾植 중위였고, 偵察隊長은 陳斗台 兵曹長이었다.

부대가 群山에 上陸하자 우리 情報隊 20명은 敵情을 수집하기 위하여 長項市內에 들어가 北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가느라니 側面에서 北隸군 1개중대 규모가 高地로 올라가는 것을 目擊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곧 부대本部에 이를 알리기 위하여 撤收하는데 질경지부근 100m에서 또 敵과 不期에 遭遇하는바 되어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곧 本部로 復歸하고 敵情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얼마뒤에 1개중대가 敵을 공격하고는 匪기관총으로 이들을 엄호하였는데 이때 우리들의 개인화기란 老朽한 99식 소총뿐으로 오래 사용하니 實彈이 나가지 않아 무척 안타까웠다.

이와같이 우리는 火力面에서 敵과 對比할 수 없도록 弱하였기 때문에 곧 長項을 撤收하고 群山으로 다시 가지 않을수가 없었다.

## § 戰 訓

## (1) 指揮統一의 原則

全南北兩道에는 山단장이라는 직책위에 編成관 구사령관(소장級)과 副사령관(준장級)을 두어 지휘의 混亂相을 보이게 하였다. 編成관구라는 것이 직책내용에 있어서 그 限界가 明確하지 못하고 事事件件 山단장을 拘束하고 牽制하는바가 적지 아니할듯하니 急造한 지휘관이 많이 있으면 萬事亨通하리라는 安易한 陸軍本部의 處事는 珍中에서도 又一珍이라고 할 것이다. 有能한 지휘관 두사람 보다도 無能한 지휘관 한사람이 必要하다는 것이 指揮統一의 原則일진대, 그리고 兵力과 裝備은 赤手空拳으로 號令만하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思考方式이라면 이야말로 噴飯之愚昧性이 甚한 것이다.

編成관구사령부라는 것이 무엇하는 것인지에 대한 當時의 陸軍本部의 眞意가 分明치 않으나

推測컨대 다음과 같은 廣範圍한 軍政事項이라고 할 것이다.

- (가) 民間人力의 군대 戰力化
- (나) 總力戰태세의 強化擴充
- (다) 政府재산의 疎開와 搬出
- (라) 徵發업무
- (마) 民防空對策과 疎開문제
- (바) 戒嚴令下의 軍政업무의 一切사항

그러나 嚴密한 見地에서는 戒嚴令上의 책임자가 軍의 山단장, 山단장級 지휘관이 지 臨機로 變성한 現성관구사령관의 所轄이 못되며 法務系統이나 경찰系統의 法的呼應을 받지 못한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純粹한 山단장의 적책에 한부로 干涉하는 老物的인 존재가 되기 쉬웠을 것이다. 戰勢危急한 存亡之秋의 긴급處事라고 일단 諒解할 수도 있지만 必要하다면 平時부터 미리 法的 근거있는 것으로 構想하여 두는것이 마땅할 것이다.

## (2) 誤導된 先入觀을 버리라

大田戰鬪以來로 아무런 까닭도 없이 『全南北道는 安全한 지대이다.』라는 風聞이 나돌아 李始榮 副統領의 가족一行이나 기타 要人들이 光州에 豫告없이 來到하여 軍職임자와 道知事등을 啞然失色케하고 兵力이나 裝備上 여기가 完全히 無防備 상태이므로 嶺南쪽으로 모시도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軍고위당국자의 이러한 根據없는 先入觀이 UN군에도 反映되어 싸움한번 제대로 할수 없는 烏合之衆의 徒手格鬪로써 湖南支撐을 기대한 動機가된듯 하다. 眞實로 텅 빈머리의 所有者들이 당시의 軍當路系統이 아니었는가 疑心되는 바이다.

## (3) 理論과 現實은 다르다

光州가 危殆롭게 되자 제 5 山단장은 경찰부대에 命令하여 最後의 一人까지 모조리 長城갈채를 固守할 것을 命令하는 同時에 당시 小銃이 3人到 1정밖에 없는것이 實情이었으므로 『三線으로 500m거리를 두고 縱深배치 하라. 제 一선이 소총을 가지고 싸우다가 至近거리에 敵이 近迫하면 제 二선에 소총을 인계하고 제 四선이 되라.

제二선이 가지고 있는 소총도 이에 準하여 逐次抵抗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제一선이 무너지자 제二, 제三선도 그대로 後退하고 말았으니 호신용 소총을 위급시에 인제하여 즐만한 聖人君子는 없다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空理空論과 實戰은 다르다는 것을 느낀바 있다고 뒷날 사단장이 述懐하였다.

#### (4) 靑少年들은 潛在戰力이다.

戰勢가 惡化되자 光州 시내의 男女學生들은 街頭示威를 벌리고 사단사령부 正門앞을 通過하면서 『우리에게 武器를 달라!』라고 絶叫하였다는 것이다. 軍인들마저 武裝이 貧弱하고 備蓄彈藥도 없는 그 당시의 실정이고 보니 사단장이하 參謀들은 이 靑年들의 대열을 有口無言으로 다만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매우 처량하고도 바보스럽게만 보였을 것이다.

武器와 탄약도 重要하지만 이렇게 仰天大呼하는 靑少年들의 存在價値야 말로 더욱 所重한 潛在戰力인 것이다.

#### (5) 毅然한 憲兵의 모습과 避難民의 隊列

다음은 제 5 사단장이 一部의 參謀陣을 거느리고 光州에서 後退할때의 所見의 一端이나 戰訓的 가치가 있으므로 이欄에 取扱하였다.

『(가) 無人의 空虛市街를 한바퀴돌고 金應權경찰국장과 같이 市南角에서 脫出하는데 端正한 容姿의 憲兵이 毅然하고도 沈着한 모습으로 交通整理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果然 어떠한 交通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마지막에 能히 脫出하였는지 지금 생각하여도 未安스럽기 그지없다.

(나) 光州南쪽에 고개길이 있는데 男負女戴한 避難民의 대열이 있어서 無顏하기 짝이 없었고

“무슨 罪가 있어서·이모양이냐”하는 斷喝의 恨을 禁치 못하였다. “싸움은 이겨놓고 보아야 한다”라는 安保觀을 되성기도 하였다.

(다) 右翼要人들의 避難을 위하여 客車만의 列車一輛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는데 該列車 기관수는 敵의 銃聲이 가까와 질무렵까지 乘客을 기다렸으나 驚恐한 사람도 타지 않는 空車를 물고 간신히 脫出하였다는 것이다. 有事時에 高位高官보다도 이러한 一線公務員들이 직무에 더욱 忠實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稀貴한 金玉은 사람이 모르는 곳에 있으리라”라고 느끼는 同時에 平時부터의 준비 없는 臨機조치는 그 實行性도 또한 稀薄하기 십다고 느꼈다.

(라) “戰爭에 참가한 우리모든 生存軍인들은 理由如何를 막론하고 國民과 歷史의 罪人이다, 무고한 國民들의 生命財產을 能히 保全케 하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祖上이 남겨주신 沃土三千里를 能히 溫全히 收復하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이 避難民들의 대열을 헤치면서 超越通過하는 모든 軍人들의 피의 絶叫였을 것이다.』

## § 研 究

### ◇ 麗水撤收日字 및 貨物明細에 관하여

麗水에서 我軍이 海上撤收하게된 日字에 관하여 陸軍戰史는 1950년 7월 26일로 밝히고 있는데 反하여 海軍史 作戰簡 제 1호는 同년 7월 27일 07.30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兩史料에는 1일간의 착오가 있는 셈이다. 그시각에 있어서는 대체로 一致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1일인데, 이를 糾明할 他의 資料가 없으므로 本報는 陸軍戰史를 따라 1950년 7월 26일로 하였다.

## 2. 咸陽—安義—居昌 附近 戰鬪 (1950년 7월 26일부터 1950년 7월 2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6호  
상 황 도 제71, 72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		美제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사령관 소장 申 泰 英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嶺南西部지구방위사령관(假稱)		제34연대	장 대령 Charles E. Beauchamp
소장 蔡 秉 德 (1950. 7. 25 16. 00부터)		제29연대 제 1 대대장 중령 Wesley C. Wilison	
閔부대(舊신편제 7 사단)	장 대령 閔 穢 植	裝備(美軍제외) : 81m/m 6문, 60m/m 13문, 重기관총 14정, 경기관총 15정, 차량 45대	
金부대(金秉化부대)	장 소령 金 秉 化		
吳부대(吳德俊부대)	장 대령 吳 德 俊		
해병대(金聖恩부대)	장 중령 金 聖 恩		
敵 軍		我 軍	
北傀제 4 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兵力 : 2,000명	
제 5 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裝備 : 122m/m 12문, 120m/m 18문, 76m/m 36문, 45m/m 48문, 自走砲 18문, 戰車 23대	
제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砲兵연대	장 대좌 金 俊		

## 나. 전투전의 개황

7월 24일, 南原 防守에 실패한 閔부대 指揮下의 金秉化부대(金부대)와 吳德俊부대(吳부대), 그리고 해병 金聖恩부대는 西戰司作命제 1호(7.22. 8000부)에 依據 雲峰으로 移動하여 지연전을 계속 敢行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長溪—安義間을 侵略로 擇한 北傀제 4사단(장, 李權武)主力이 安義에 이어 居昌과 咸陽으로 接近하게 되자, 閔부대는 後方을 차단하기 전에 急遽 咸陽방어로 轉換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므로, 閔부대는 美제 24사단 제 19연대와 協同하여 安義와 咸陽에서 一戰을 치른 뒤에 山淸—晉州의 軸線으로 兵力을 收拾하였다. 한편, 居昌방면에 配備중이던 美제 34연대도 戰勢를 挽回하지 못하여 陔川방면으로 물러나는바 되었으니 이것이 본 전투의 大要이다.

敵軍의 상황 : 北傀제 6사단이 順天까지 進出한 7월 25일 현재, 그 예하 제 13연대는 木浦로, 제 14연대는 寶城으로, 제 15연대는 順天으로 각각 分進하였는데, 이날 다시 晉州—馬山으로의 侵略을 피하여 順天에서 合流한 것으로 보였다.

실상, 그들은 8월 15일까지 釜山攻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단장 方虎山은 이때 手下들에게 말하되 『敵은 士氣가 극도로 弱화되고 있으니 다음에는 晉州와 馬山에서 殲滅할 것이다. 이로써 敵의 補給線을 누르는 것이 되어 전쟁의 마지막 版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要旨의 豪言妄發을 서슴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美제 8군은 이 무렵, 木浦에 戰車 10대를 수반한 500명이, 南原에는 26대의 車輛과 700명이, 求禮에는 數未詳의 차량과 戰車를 동반한 800명이, 그리고 河東에는 500명이 작기 侵略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었다.

더구나, 本戰鬪의 主된 敵인 제 4사단의 行方을 探索함에 있어서 는 단지 西南部전선 3,300m<sup>2</sup>지역에 分散되었을 것이라고만 推測하고 있었다.

한편, 北傀는 大田에서 美제 24사단의 防禦線을 뚫은 다음, 精銳부대인 제 4사단을 정비하여, 거의 開放상태에 놓인 小白山脈의 西側인 錦山—茂朱—鎮安—長水를 차례로 침범하고, 제 6사단의 順天 進出과 時를 같이하여 그 左翼에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뒤에 判明된바로는, 大邱防備에 注力하는 我軍의 西南쪽 側背를 노려 主力을 長溪—安義선에, 일부를 南原—咸陽선에 각기 전개하여, 一舉에 安義와 咸陽, 그리고 居昌을 掠占하고, 이를 발판 삼아 洛東江 西岸으로의 進出을 피하였다.

我軍의 상황 : 敵侵 11일단(7.16~26)에 湖南全域을 喪失하고, 또다시 그 狂波가 嶺南지역 西南部로 미치게 됨에 戰勢는 危局을 맞게 되었음에도, 이 方面의 我軍은 總勢 1개 연대규모로써 敵侵略의 일부인 南原—咸陽間에서 그들과의 接觸을 維持하면서 且戰且退로 지연전을 계속할 따름이었다.

7월 24일 12.00를 前後하여 雲峰으로 축차 철수한 閔부대(金부대모함)와 吳부대, 그리고 해병대는 閔總植 대령의 지휘아래, 敵의 急追를 阻止키 위하여, 地勢가 險峻한 長橋里(雲峰 西쪽 4km)—科笠里(雲峰 西쪽 4.5km)—內村(南原 東쪽 7km)선에서 일단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치는 當面의 危急을 수습하려는 指揮部의 意志이었을뿐, 각부대의 兵員은 거듭된 後退로 極度の 疲勞에 지쳐 있었으며, 新兵이 대부분인 까닭에 戰意 또한 굳지 못하여 任意로 隊伍를 離脫하는 傾向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부대간의 通信網이 확보되지 않아 橫的인 협조체계는 勿論, 縱的인 지휘계통조차도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南原으로부터의 敵의 砲擊이 漸增하고, 兵員의 士氣沮喪으로 陣容의 脆弱을免치 못한

뿐만 아니라, 白雲山(△1279) 및 智異山(△1915)등지의 共匪들이 이 때를 노리고 我軍의 後方을 차단하려 획책하였으므로, 閔機楨대령은 다음날인 25일에 부대를 撤收시켜 새로이 閔부대를 500高地(雲峰 西쪽 1.5km)에, 해병대를 그 南쪽인 雲峰고개에, 金부대를 680高地(雲峰 南쪽 2.5km)를 각각 占領케 하였다. 그런데, 敵情은 여전히 混迷하고, 陣容의 통일을 期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彼我를 識別하지 못하는 友軍機의 誤爆이 빈번한 가운데 北傀 제 4사단 主力이 長溪에서 六十嶺을 넘어, 安義와 咸陽을 指向하고 있다는 情報을 入手하게 되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당시, 閔부대의 南原철수에 앞서 咸陽으로 이동한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 申泰英소장은 湖南지역에서와 같이 陸軍本部로부터 명확한 行動지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惝惝한 상태를免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湖南에서의 固守방어 概念을 止揚하고, 鎭安, 長水間의 別動隊인 경찰혼성부대와 閔부대로써 德裕山—白雲山—智異山의 山嶽지대에서 되도록 敵을 纏着시킨 다음, 시간을 벌어 조직적인 방어진지를 急編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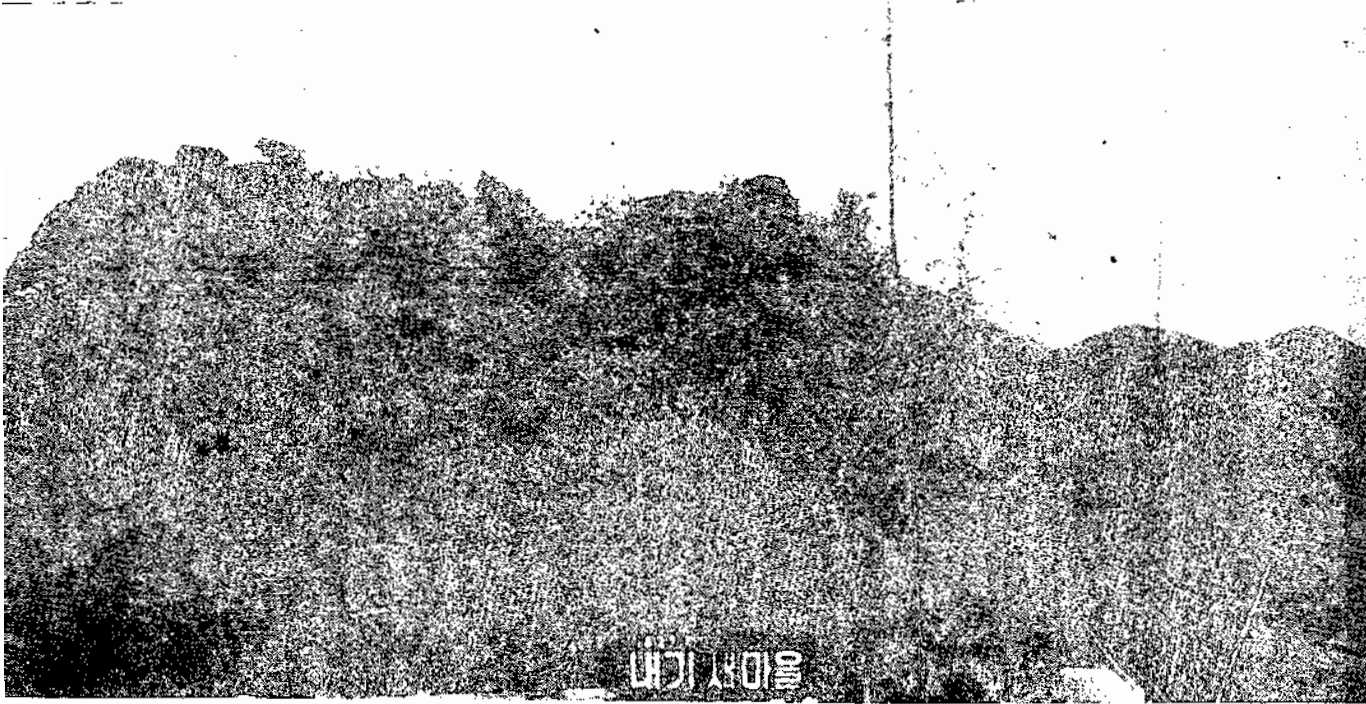
그러나, 連絡이 杜絶되어 상황을 파악치 못할 뿐만 아니라, 避難民의 隊列에 끼어 물러서는 兵員數가 累增하였으므로 우선 이들을 收容하여 咸陽에서의 방어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陸軍本部를 7월 24일 15.00부터 閔부대를 直轄하게 되고, 그 이튿날에는 蔡秉德소장을 鎭南西部지구의 방어사령관에 任命하여, 閔부대와 李應俊부대(全南지구 編成管區傘下의 통합兵力)를 指揮토록 하였으므로, 앞서 설치된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는 이로써 作戰지휘系統에서 除外되었다. 閔부대는 이날 咸陽으로 撤收중이었는데, 매마침 現地에 나온 蔡소장이 撤退를 不許하고 固守방어를 強調하였다. 이처럼, 我軍作戰계획은 後圖보다도 窮餘之策에서 臨機便法의 彌縫단을 일삼는 印象이 짙었다.

한편, 이 무렵에 美제 8군사령관 Walker중장은 西南部전선에 대한 威脅이 漸高되자, 戰況全般에 미칠 영향이 甚大하리라 판단하고, 예비로 控置중인 美제 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7월 22일부터))을 24일에 該戰線으로 急派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의 제19연대(-)가 25일에 晉州로 이동하는 즉시로 제 1대대(장, Rober L. Rhea중령)의 A중대를 安義(咸陽 北쪽 11km)에, 대대 殘餘를 水東 花山里(咸陽 東쪽 5km)에 進出토록 하였는데, 사단의 계획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① 제34연대를 居昌에 配備하고 北傀 제 4사단 侵攻에 대비하여 居昌—陝川에서 이를 遲延케 한다.



<南原쪽에서 본 雲峰고개(峙)의 入口>

② 제16연대를 安義—晉州에 전개하여, 敵 侵을 阻止하되, 事不如意할 경우에는 逐次로 山淸—晉州—群北으로 撤收, 지연전을 계속한다.

③ 赴援兵方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 兵方을 增援한다.』

美제24사단은 이와 같은 構想으로써 閔부대와 協同케 되고, 비로소 該戰線에 대한 防守 對策을 세우고자 한 것이니, 晩時之嘆이 없지도 않았다.

## (2) 작전실시

7월 26일 : 이 날, 雲峰부근의 我軍은 堅守태세를 갖추지 못한채, 安義로부터의 壓力을 받기 시작하였다. 상황에 쫓긴 閔부대는 咸陽으로 이동하여, 이 곳으로 進入한 美軍과 함께 雲峰—咸陽—安義부근에서 一戰을 또 다시 치르게 되었다.

### 1. 雲峰—咸陽부근의 戰況

吳부대의 철수 : 전날부터 500高地(雲峰 西北쪽 1.5km) 부근일대에서 진지를 急竊하고, 一 夜를 보낸 吳부대(장, 吳德俊 대령)는 부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咸陽으로 이 동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雲峰에서의 我軍의 戰列이 이날을 고비로 약간 흔들렸는데, 閔



< 閔부대는 이곳으로 撤收하여 兵力을 展開하였다. >

機植 대령은 當面의 危機를 克服코자 해병金聖恩부대를 계속 雲峰고개에 내세워, 敵의 進出을 지연키로 하였으나 戰況은 전혀 好轉되지 않았다.

당초, 吳부대는 陸軍本部로부터 『南原으로 出動, 閔부대를 支援하라.』라는 命令을 받았으나, 南原進出과 더불어 機植 대령의 隨處를 받아 戰鬪에 참가하고 있었을뿐, 閔부대와는 連絡이나 配屬관계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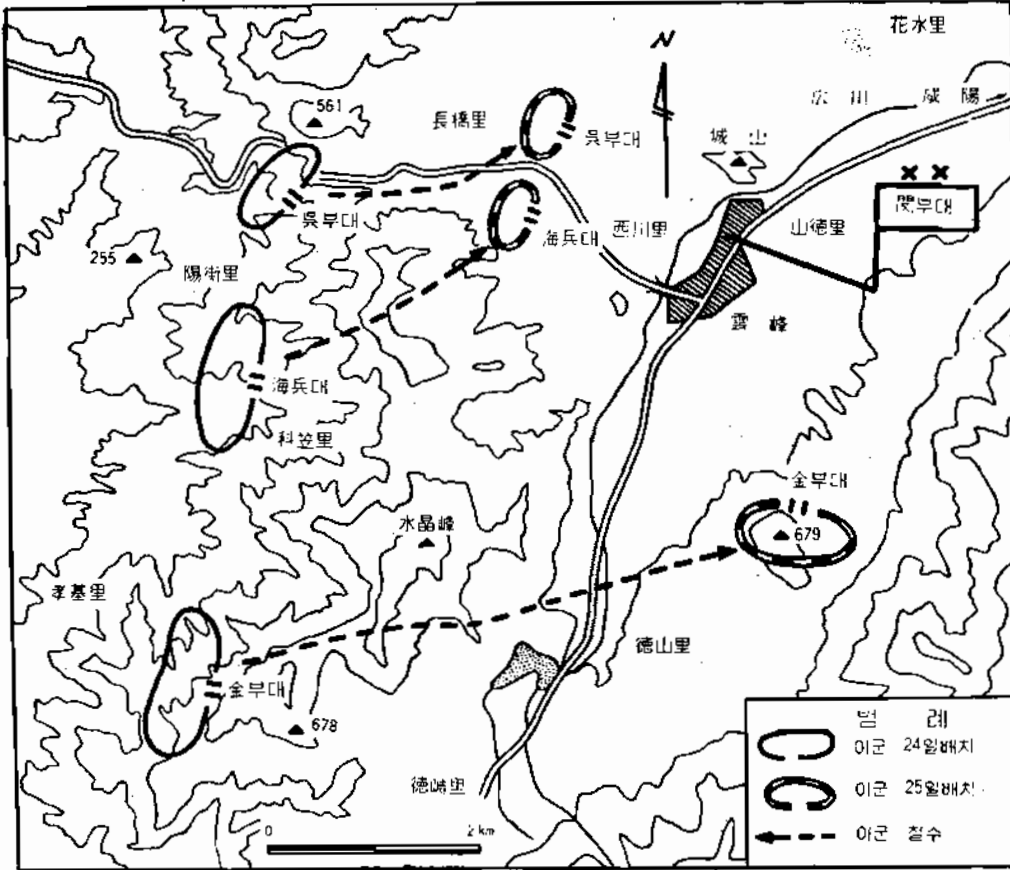
때문에 兩부대는 對等한 부대 관계에서 전투에 臨한 것이라고 할것인데, 陸軍本部는 現地의 實情을 파악하지 못한채로, 閔부대장에게 『예하 및 吳부대를 統合지휘하여 南原—谷城—光州로 前進하여, 該地帶를 확보하라.』(7.25일부 作命제69호 참조)라고 하였으며, 吳부대장에게는 別途로 『河東쪽이 危險하니 이를 막으라.』하는 各別命令을 下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命令은 전달方法의 잘못으로 兩부대장 서로가 알지못한 까닭에 機植 대령은 吳부대를 統合코자 하였으며, 吳德俊대령은 陸軍本部의 命令대로 行動하려 한 것이다.

吳德俊 대령은 또한 新兵의 進退이탈이 눈에 띄이게 늘어나자, 現地에서의 부대정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中대장들에게 咸陽으로의 부대이동을 命令하였다.

時急한 現況下에서의 유일한 방적으로 취한 조치인데 이튿날, 天明과 더불어 이동하기

◇ 상황도 제 71 호 雲峰부근의 狀況 (7.24~25)



시작한 該부대는 일부만을 차량으로 기동하고, 대부분의 兵力을 徒歩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도중에서 落伍者가 續出하였다.

閔부대의 咸陽이동 : 吳부대의 철수로 雲峰방어의 陣容에 일부의 虛隙이 생기자, 인접한 해병대는 물론, 그 南쪽의 全부대 역시 動搖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기타의 각 단위부대들도 任意로 雲峰으로 集結하기 시작하였다.

閔機植 대령은 이러한 動搖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該線을 방어키로 하였던, 당초의 方針을 바꾸어 咸陽에서 全兵力을 再次 收容키로 決心하고, 全부대장과 配屬부대인 해병金聖恩부대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當面の 敵은 南原에서 再編中인것으로 판단되나 그 先發隊로 보이는 일부가 수색대와 共匪를 앞세워 雲峰으로 침투하려 한다. 또한 入手된 情報에 의하면 長溪로부터 南侵中인 敵은 目下 安義를 直衝하고 있다는 情報이다.

② 昨日, 晉州에 進入한 美제 24사단 예하연대가 安義—花山里로 前進하여, 赴援하게 될



것이다.

③ 부대는 當面한 敵의 侵攻을 阻止하면서, 撤收兵力을 收容함과 동시에 咸陽을 방어하려 한다.

④ 金부대는 雲峰에서 咸陽으로 이동하여, 철수부대의 兵力을 수용하고 待命하라.

⑤ 해병대는 別命時까지 계속 雲峰을 방어하라.

⑥ 지휘소는 金부대와 함께 咸陽으로 이동하여 국민학교에 위치할 것이다.』

이때가 12.00무렵인데, 金부대는 뒷부대에 뒤이어 咸陽으로 이동케 되었으며, 閔부대 본부도 車輛便으로 이동하는 즉시, 咸陽 국민학교에 지휘소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河東方面에서는 蔡秉德소장이 赴援중인 美제29연대 제3대대(장, Harold W. Mott 중령)를 誘導하여 院田(晉州 西쪽 15km)으로 進出하고 있었으며 전날에는 蔡秉德을 수행하여 該地區를 視察한 丁來赫 중령이 撤收중인 李暎奎부대의 30명을 河東에서 수용하고, 急募한 청년방위대 300명으로 一戰하였는데, 이날 새벽에 殘存兵力 13명을 거느리고 院田—晉州로 이동하고 있었다.

해병대의 雲峰방어 : 한편, 閔부대의 咸陽이동뒤에 단독으로 雲峰을 방어하게 된 金聖恩 부대는 전날에 이어, 雲峰고개일대에서 뒷부대와 連繫하고 있었다. 즉, 4개 중대 가운데 제3, 제7의 兩步兵중대와 중화기중대(제1중대)를 전개하고, 제2중대로써 閔부대본부를 경계하였는데, 이날 通信이 不通인 까닭으로 뒷부대의 이동을 命書에 의한 것으로 誤判하여 隨意로 雲峰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때, 閔機植대령이 이를 재빨리 制止하여 雲峰에서 철수부대를 계속 엄호케 함으로써, 해병대는 阻止부대로써 다시 전날의 陣地로 復歸케 되었다.

이에, 해병대는 전날部署 그대로 雲峰고개(雲峰 西쪽 1.5km)를 다시 占領하고, 晝間정찰을 強化하였는데, 이들 정찰대는 接敵이 없는 가운데 南原近郊까지 침투하여 敵情을 探索하였다.

그런데, 이날 20.00무렵 安義부근의 상황이 惡化됨에 따라 閔부대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命書가 下達되었다.

『① 해병대대는 現진지를 철수하여 種牛場을 目標로 집결하라.

② 세부에 관하여서는 後達한다.』

上記命書를 수령한 해병대는 즉시 兵力을 일단 雲峰으로 撤退시켜, 부대를 掌握한 다음에 2시간뒤에는 指定된 種牛場(雲峰 東쪽 1km)으로 집결을 完了하였다.

그러나, 이 집결직후에 다시 『발령재를 占領 방어하라.』는 要旨命書가 後達되었으므로 해병대는 發령재(峙)(雲峰 東쪽 9.5km)로 強行軍하였다.

이로써, 부대는 雲峰을 포기하고 夜間철수를 시작하였는데, 이 行軍에서 1명의 落伍者도 없이 다음날 05.20에 全員 目的地에서 진지를 急編하고, 終日토록 南原—咸陽간의 侵

路로 따라 突進할것이 豫想되는 敵情을 探索하였다.

吳부대 및 金부대의 상황 : 한편 이 날, 咸陽으로 이동하여, 雲峰에서 撤收하는 兵力을 수용한 閔부대장은 이곳을 先占하고 있던 경찰 및 청년방위대를 흡수하였으며, 때마침 該地에서 相逢한 西海岸지구전투사령관 申泰英소장으로 부터, 이날을 期하여 美軍이 該戰線에 赴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吳德俊대령과 協議한 끝에 咸陽을 占有키로 方針을 세워, 이미 수용된 兵力을 다시 雲峰—咸陽간에 配備키로 決心하였다.

吳부대 및 金부대의 混成兵力인 1개 中대는 吳부대의 朴正瑞소령과 金秉化소령의 지휘 下에 다시 팔령재로 進出하여, 日沒時까지 落伍兵을 수용하면서 진지를 急編하였다.

그러나, 咸陽의 지휘부는 팔령재의 夜間방어보다도 咸陽의 陣을 보다 強化키로 方針을 變更하였으므로, 該중대는 이날 22.00에 다시 復歸하였으며, 이 時刻에 前述한바 海병대가 種牛場을 거쳐 팔령재로 이동케 된 것이다.

## 2. 美軍의 赴援

美제24사단 제19연대 제1대대의 花山里, 安義배치 : 前述한바, 美제 8군은 西南方面에 대한 2개 사단 규모의 敵의 威脅을 排除키 위하여, 예비인 美제24사단을 該線으로 急遽轉用하였는데, 사단은 大田방어에서 입은 傷痕을 아직도 恢復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즉, 22일에 大邱로 撤退한 同사단은 同日까지 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의 行方이 不明한 가운데, John H. Church 소장이 新임사단장에 就任하였으나, 損失 人員과 장비를 補充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再出動時의 장비는 編制에 比하여 60~70%가 不足하였으며, 兵力도 3개연대 모두가 相當한 不足을 免치 못하였다.

Church 소장은 美제 8군사령부의 作命으로 24일밤에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를 急遽 晋州로 이동시켰는데, 同연대는 晋川進出과 同時에 제1대대(장, Robert L. Rhea 중령)를 花山里(咸陽 東쪽 5km)로 北上케 하였다.

이로써 該대대는 이날 山淸 경유, 花山里로 進出하여, A중대를 安義(花山里 北쪽 11km)에, 殘餘의 全兵力을 花山里일대 高地에 전개하였다.

제34연대의 居昌進出 : 한편, 사단은 前記조치의 일환으로 軍威와 義城등지에 分散되어 있던 제34연대(장, Charlese E. Beauchamp 대령)를 이날 居昌(安義 東北쪽 8km)으로 이동시켜 居昌—陝川간을 방어케 하고, 사단 CP를 陝川으로 이동 開設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이날부터 居昌—河東間의 90km의 正面을 담당케 된 셈인데, 通常 사단의 방어正面을 10~15km로 하는 美軍으로서는 不得已한 비상조치인 것이며, 그만큼 可用兵力의 不足을 克服하면서 西側方에 刻—刻으로 加重되는 敵의 壓力에 대비치 않으면 안되었던 美제 8군의 悲壯한 상황을 窺知케 하는 一面이 아닐 수 없다.

美제 34연대(-)는 居昌으로 進出하자, 2개대대中 제 3대대를 연대본부부근에 예비로 控置하고, 제 1대대를 安義—居昌街道부근의 山岳지대(居昌 西쪽 4km)에 配備하였으며, 이미 該地에 배치중인 居昌경찰과 청년방위대의 混成 1개대대(-)를 그 西南쪽 丘陵지대로 진지를 옮겨 美軍과 協同케 하였다. 이로써 咸陽부근의 花山里에는 美19연대의 主力이, 安義에는 그 예비인 A중대가, 그리고 그 東쪽인 居昌에는 美제 34연대가 각기 진지를 占領하여 該線에서 지연전을 계속중인 閔부대와 長溪—安義에서 축차 撤收중인 경찰부대를 赴援케 되었으니, 이때가 대체로 正午 무렵이었다.

7월 27일 : 이날, 雲峰—咸陽간의 팔령재(峙)는 해병대에 의해 扼守되는 가운데, 그 北쪽 長溪—安義사이의 侵路를 따라 침공하는 敵으로 말미암아 戰況의 急變을 보기 시작하였다.

### 1. 安義부근의 戰況

敵의 侵攻상황 : 北傀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1개 연대를 先鋒으로 삼아 步砲 協同으로 長溪로부터 安義를 直衝코자 하였는데, 뒤에 判明된 이들의 侵攻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7월 20일에 大田을 掠占한 該사단은 이른바 義勇軍이란 美名下에 現地強徵한 1,000명을 補充받아 23일 아침부터 錦山街道로 南進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 6 및 제 3 兩사단은 淸州와 金泉을 指向하고 있었는데, 그 中間에서 安義—居昌 正面으로 投入하기 위하여, 錦山에 이르러 1,000명의 新兵을 다시 充員받은 다음, 25일에 該地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전차인대는 보병부대가 洛東江畔에 도달할 때까지 錦山에 계속 控置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長溪—安義의 通道路를 主力의 侵路로 선택한 듯 하였으며, 이에 比하여 我軍의 當面配備는 허술할 따름이었으니, 단지 當面에는 24일 咸陽으로 이동한 西海岸지구 전투사령관 申泰英소장의 激勵를 받은 경찰混成부대(대대규모)가 茂朱, 鎮安등지로 부터 축차 撤收타가, 全北과 慶南의 道境界인 六十嶺고개(安義 西쪽 15km)에서 險峻한 地利를 얻어, 防備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野砲와 迫擊砲등 重火器로 支援된 연대 규모의 敵은 車輛便으로 機動하여, 이날 未明에 該고개를 突破하려는 듯이 05.00부터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防者인 경찰부대는 道路를 따라 거의 二列縱隊로 接近하는 敵勢에 잠시 壓到당하기도 하였으나, 곧 陣容을 가다듬어 소총火力을 加하여 相當한 戰果를 올렸다. 그러나, 兵員과 火力이 優勢한 敵에게 밀리는바 되어 경찰부대는 마침내 安義로 分散 撤收하게 되었으니, 長溪—安義의 通路는 스스로 開放당하여 慶南 西北部의 要衝인 安義로 指向하는 敵勢를 阻止할 길이 막연하였다.

吳부대 및 金부대의 出動 : 閔機植대령은 경찰부대의 報告로 六十嶺이 突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 咸陽우체국으로 달려가 陸軍本部에 상황을 急報하고, 申泰英소장 및

吳德俊대령과 協議한 결과, 吳부대와 金부대를 安義방어에 轉用키로 決心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命命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敵은 今朝 長溪—安義道를 따라 南侵중임.

② 昨日 赴援한 美제19연대의 1개 中대가 현재 安義에서 방어에 임하고 있으며, 海병대는 拔령재를 계속 堅守中임.

③ 부대는 安義에서 美軍과 協同하면서 이 敵을 격멸하려 한다.

④ 吳·金 兩개 부대는 즉시 安義로 出動하여 美軍과의 協同으로 진지를 急編하라.

⑤ 부대 出動은 차량에 의하라.

⑥ 지휘부는 계속 咸陽에 位置할 것이다.』

이로써 吳부대와 金부대는 또다시 安義로 出動케 되었거니와 그 兵力은 現당시에 比하여, 거듭된 落伍者의 수용과 정비에도 不拘하고 모두 70~80%에 지나지 않았다.

車輛機動으로 安義로 向한 兩부대는 30분동안 기동 끝에 倉坪里(咸陽 北쪽 5km)를 경유 吳부대는 468高地(安義 西쪽 2km)에, 金부대는 그 西쪽에 인접한 421高地일대에 전개하고 美제19연대 제 1대대의 A중대와 함께 安義 西쪽에서 南北으로 진지를 急編하였는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밝혀진바가 없지만, 前後상황으로 미루어 대체로 正午 무렵이라고 推理된다. 그러나, 安義로 急迫중인 敵의 進出速度에 比하여, 이 진지편성은 이미 때늦은感が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敵을 安義 침공에 앞서 數未詳의 탐색대를 침투시킨듯, 아직 充分히 態勢를 굳히지 못한 金부대를 공격하고, 연이어 後續부대로써 吳부대를 攪亂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兩부대는 追急중에서도 부대장의 號令一下에 火箭을 집중하였는데, 敵은 我軍의 配備상황의 威力搜索함이 우선의 목적이었음인지 數分間의 交戰만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敵은 美제19연대 제 1대대의 A중대 진지前方에도 出現 探索하는 執着性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때가 14.00로 A중대는 이때에 美제29연대 제 1대대(美제19연대 배속)와 진지를 교대하고 있었다.

#### 美제29연대의 赴援과 陣地의 交代

이날, 淸州에 위치한 美제24사단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이미 전날에 美제 8군의 조치로 24일에 Okinawa(沖繩)로 부터 釜山에 到着한 美제29연대 제1, 제 3兩대대를 배속받게 되었는데, 연대장 Moore 대령은 제 1대대를 咸陽—安義에, 제 3대대를 河東方面에 각각 配備키로 결심하고, 제 1대대장 Wesley E. Wilison 중령에게 상황이 危急하니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르기를 『午前中에 花山里와 安義부근의 美제19연대 제 1대대 진지를 引受하라.』라고 하였으며, 美제19연대 제 1대대장에게는 『진지를 美제29연대 제 1대대에게 引受하는 즉시로 淸州로 집결하라.』고 命命하였다.

이 때가 10.00무렵인데, Wilson 중령의 제 1대대는 車輛으로 丹城—山淸으로 機動하여, 1시간 半뒤에는 花山里에서 제19연대 제 1대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이 진지 교대시에 사용할 수 있는 支援火力은 포당 연막탄 2발이 전부인 4.2" 박격포 1개 소대가 있었을뿐, 포병이나 戰車는 물론 空中支援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晋州의 제19연대 본부와의 통신수단은 車輛傳言에 依存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陣地교대에 앞서 B중대로 하여금 安義의 제19연대 A중대진지를 인수토록 하기 위하여 임시로 Rhea 중령의 대대에 配屬하였던 까닭에, 이에 Rhea 중령은 Wilson 중령대대의 D중대(重火器중대)에서 35명의 增援을 받아 이들을 支援토록 조치하였다.

이르써, Rhea 중령의 제19연대 제 1대대는 午後 일찌기 安義로 直行하였으며, A중대에게는 『B중대에 진지를 인계하는 즉시, 花山里로 집결하라.』고 命令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에 美제19연대 A중대는 이미 敵과 接戰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진지교대는 5시간이상이나 지연되고, 16.00에야 本隊를 찾아 出發할 수가 있었다.

이들이 3km가량 기동하였을때, 吳부대 및 金부대와 交戰中 敵潛伏부대의 奇襲을 받아 6대의 자동차가 大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격포등 중화기의 일부를 遺棄하였으며 중대의 기동隊列은 混亂되어 終乃 그 일부만이 다음날 아침에 居昌으로 撤收하는 結果를 낳고야 말았다.

한편, 花山里에서 진지를 인수한 美제29연대 제 1대대장은 이 무렵 仁接부대와의 連繫를 유지하기 위하여, S-3보좌관 Frankiwan 소위를 居昌으로 보내어 美제34연대와 접촉케 하였으며, 또한 S-2 San C. Holliday 중위를 咸陽으로 急派하여 閔부대와 접촉케 하였으나, 美제34연대와는 連繫할 수 없었다.

즉, 연락차량 2대를 急派하였는데, 花山里에서 南江 右岸도로를 거쳐, 安義 2~3km의 交叉路에 이르렀을 때, 民家に 潛伏한 敵의 奇襲으로 2명이 戰死하고, 3명만이 安義로 되돌아가 상황을 急報케 된 것이다.

이처럼 兩 대대는 惡상황下에서 진지를 교대하였으니, 防備의 虛隙은 더욱 심각하여질 따름이었다.

吳부대 및 金부대의 撤收: 敵은 17.00부터 吳부대와 金부대가 占領한 468高地와 421高地 일대에 각종 野砲와 直射火力을 집중하더니, 薄暮무렵에는 2개 대대규모가 增強되어 더욱 狂亂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兩 부대는 처음으로 체험하는 敵의 激烈한 砲擊속에서도 진지를 지켜, 그들 공격 제 1파를 一時 격퇴한바 있으나, 20.00에 이르러 그 後續波가 加一層 熾盛을 부리게 되어 新兵이 대부분인 吳부대는 마침내 陣勢를 지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吳부대는 花山里로 兵方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일부가 차량으로 花山里 北쪽 6km에 이르렀을 때, 咸陽을 迂回 침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驕敵의 기습을 받아 적지않은 損失을 입었다.

따라서 부대는 山中에서 隊伍를 再整備하고 역습하였으나, 敵을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吳부대와 인접하였던 金부대는 初一戰에서 相當한 戰果를 올린 바 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은 吳부대의 紛擾로 側方을 露出당하고 말았다.

이에, 부대장은 즉시 일부를 右側方으로 전환하였으나, 夜半인지라 彼我를 分辨할 수가 없는 가운데 兵力을 集中할 수가 없으므로, 戰勢의 恢復이 힘들 것으로 判斷하고 德岩里(咸陽 北쪽 6km)로 轉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敵의 追尾가 急한터라, 咸陽에 殘留하였던 일부 兵力이 增援을 받으면서 咸陽으로 끝내 撤收하고 말았다.

**美제29연대 제1대대 B중대의 苦戰:** 敵은 吳부대 및 金부대에 대한 攻擊과 더불어, 美제29연대 제1대대 B중대(장, John C. Hughes 중위)가 占領한 371高地에서도 狂波를 이루었다.

진지를 인수하기가 바쁘게 공격을 받게 된 중대는 인접한 閔부대의 상황을 알지 못한채, D중대의 迫擊砲 및 重機銃의 支援을 받는 가운데, 韓國에서의 緒戰을 善戰으로 장식하여 相當한 시간 이곳을 固守하였다. 그러나 어둠이 깔리면서부터 三面으로 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중대는 四周방어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밤이 깊어감에 따라 戰勢는 더욱 惡化되기만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難局을 打開키 위하여 南江 건너의 安義 東쪽 239高地(安義 東쪽 1km)로의 撤收를 決心하고, 진지 轉換을 命令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먼저 장교 2명과 사병 16명을 南江 넘어로 先發시켰으나, 殘餘兵力은 敵의 自動火力에 막혀, 退路突破에 惡戰苦鬪 끝에 18명만이 이날 24.00에 居昌으로 수용되었을 뿐, 殘餘의 215명의 중대원(D중대 요원도 포함)은 끝내 敵中에 갇혀 다음날부터는 全員이 戰死 失蹤된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렇듯 安義에서의 激戰이 전개될 무렵, 대대장 Wilson 중령은 통신의 不通으로 B중대 상황이 不明한 채 當面한 상황처리에 癡心하였는데, 수차에 걸친 連絡兵 파견마저 도중에서 挫折되는바 되어, 끝내는 該중대의 救出을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 2. 居昌부근의 戰況

**陸本特攻隊의 活動:** 湖南지구의 戰況에서 戰述한 바와 같이, 襄東傑대위가 지휘하는 陸本特攻隊는 이날 大邱로 復歸하는 途中, 居昌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전날 美제34연대의 2개 대대가 進出하자, 該隊는 청년방위대 및 경찰대와 合同하여 美軍이 佔領한 진지 南쪽에서 徹夜 警戒하다가 이날 陸軍本부의 金益權 대위일행이 閔부대의 戰況을 파악키 위하여 當地에 派遣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該隊는 이들을 案内키 위하여 청년방위대 및 경찰의 混成兵力 1개중대와 함께, 상황이 不明한 安義로 向發하였다.

이들이 682高地(居昌 西쪽 2km) 北麓—俗稱새재(△682高地 南쪽 1km)의 小路를 經由하여 鳳山里(새재 南쪽 2km)까지 進出하였을때, 安義에서 撤收하는 뒷부대원 30명을 만나 이들을 收容하고 계속 安義로의 道路를 開拓코자 하였다. 그러나 鳳山里—安義間의 山徑에 접어들었을 때 一團의 敵과 조우하는바 되어, 즉각 交戰이 전되었었다.

이 때가 대체로 20.00 무렵이었는데, 兵員이 劣勢인 該隊는 敵의 有力한 火力을 감당치 못하여 居昌으로 다시 撤收하게 되었다.

**美제34연대의 상황 :** 安義에서의 戰況이 激變한 이날, 居昌에 配備된 美제34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 3대대를 예비로 하고, 제 1대대로 하여금 居昌 西쪽 稜線을 계속 占領하고 있었다.

그러나, 午後에 이르러 항공연락장교로부터 『安義에 이르는 道路 주변에 敵의 戰車와 차량의 이동이 頻繁하다.』라는 要旨의 항공정찰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으므로, 驕敵이 不遠하여 正面에 나타나리라는 想定下에 진지 강화와 安義—居昌사이의 唯一한 道路 閉鎖에 注力하였다. 그러므로 연대는 一線에 新銳인 제 3대대를 내세우기 위하여, 제 1대대 진지를 제 3대대가 인수토록하고, 山間 狹徑인 俗稱잡백—소곡간 진지를 補強하였는데, 이날 後半夜의 子正까지도 接敵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연대의 정찰대는 夜半에 진지 前方 3km의 549高地에서 敵情을 감시하던 차에 敵戰車 7대가 安義로부터 北上하는 것을 發見하고 急報하였으므로 연대장은 곧 이를 全부대에 下達하여 徹夜로 警戒태세를 강화케 하였다.

**7월 28일 :** 安義에서의 阻止線이 無力하게 무너져, 敵侵은 또다시 居昌과 咸陽 兩쪽으로 擴大되는 危局속에서 이날이 밝았다.

### 1. 咸陽부근의 戰況

**關부대장의 조치 :** 전일부터 시작된 뒷부대와 金부대의 隨意철수는 敵에게 侵路를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安義에 侵入한 醜鋒은 一路 居昌으로 指向케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咸陽을 一氣에 침탈코자 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당시, 咸陽에서 當面작전을 지휘중인 閔機植대령은 前記 兩 부대와와의 연락의 杜絶로 그 상황을 파악할 길이 없었는데, 咸陽으로 복귀한 金부대원의 急報를 받고서야 비로소 安義 저 지선이 突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所在를 알 수 없는 뒷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여러 차례 노력하다가 申泰英소장과 협의하여, 敵이 밤사이에 我軍을 뒤따라 咸陽으로 近迫하리라고 판단한 결과, 해병대가 아직 팔령재를 방어하고 있는 時點에서의 咸陽의 持久堅守가 切實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咸陽에 控置한 金부대원과 철수兵力을 再編하여, 安義—居昌가도로 급거 出動케 하였으며,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본부중대로 이들을 增援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混成 1개 중대는 이날 04.00무렵에 다시 北上하여 龍坪里(咸陽 北쪽 4km) 부근

에 阻止진지를 占領하였다.

해병대의 轉進: 閔부대장은 安義로부터의 위협이 漸高함에 따라, 咸陽방어책에 腐心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咸陽이동을 08.30에 命令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즉시로 咸陽으로 이동하되, 1개 중대를 계속 鎭守하여 固守토록 하라.』라는 것이었다.

이에, 金聖恩부대는 곧 제 3 중대(장, 李鳳出 중위)를 계속 現地에 남게하여, 雲峰을 거쳐 咸陽으로 侵攻하리라고 믿어지는 敵을 지연케하는 한편, 主力으로써 咸陽으로 徒步이동토록하였다.

이 이동을 完了한 것은 대체로 12.00가 좀 지나서였는데, 이 때 이들의 增援을 苦待하던 閔機植대령은 다시 出動命令을 下達한바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① 敵은 27일 安義를 占領하고, 그 主力은 계속 咸陽을 指向하고 있음.

② 吳부대 및 美軍 1개 중대는 交戰中, 敵에게 包圍되어 目下 連絡이 杜絶된 상태임.

③ 부대는 掌握된 全兵力으로써 安義를 目標로 進擊하여, 吳부대 및 美軍을 救出하려 함.

④ 해병대는 1개 중대를 咸陽에 控置하여 閔부대의 예비로 하고, 그 나머지 兵力으로 北上하여 安義를 收復한 다음 吳부대 및 美軍중대와 連繫하라.

⑤ 부대지휘소는 계속 咸陽에 位置한다.』

이리하여, 해병대는 제 7 중대(장, 安昌寬 중위)를 咸陽에 남게두고, 나머지 主力(제 1, 제 2 중대)으로써 즉시 出動하였는데, 얼마뒤에 이들은 咸陽北쪽 4km에서 安義方面으로부터 南進하는 대대규모의 敵과 接戰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대장은 즉시, 該地域에서 이미 接敵중인 陸軍혼성부대장과 作戰을 協議하여, 부대본부를 安義—咸陽間의 道路 左側인 俗稱 새미마을에 設置하고, 제 1 중대(重火器중대)를 60mm 박격포 3문과 함께 부근에 布陣케 한 다음, 제 2 중대(장, 金光植 중위)를 輕機 소대 배속으로 그 北쪽 500~600m 前方의 東西를 連하는 稜線일대에, 그리고 수색소대를 그 左側高地에 각각 전개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미 左제 1선 北쪽의 俗稱 주곡까지 侵奪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대가 進出하자 곧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기 시작하더니 2개 중대로 推算되는 무리가 左제 1선 稜線상의 高地를 占領할 기도인듯, 공격을 자행하였다.

이때가 대체로 15.10인데, 제 2 중대장은 이에 그들이 개활지로부터 進襲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全火力을 집중함과 아울러, 중화기중대에 요청하여 진지전방일대에 사격을 가하도록 한바, 敵은 意外로 강한 抵抗에 惝惑한듯이, 23具의 屍體를 遺棄하고 황급히 退散하였다.

이처럼 出動初一擊에서 敵을 制壓하자 敵은 제 2 중대 정면을 피하는듯 하면서도 잠시뒤인 18.50에 다시 左제 1선인 수색대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색대는 一步도 물러서지 않고 敢鬪하였으며, 인접 제 2 중대의 1 개 분대가 急遽增援하는 反擊의 勢로써 오히려 陣前出擊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3 문의 迫擊砲가 適時의 威力을 떨침으로써 驕敵을 無難히 擊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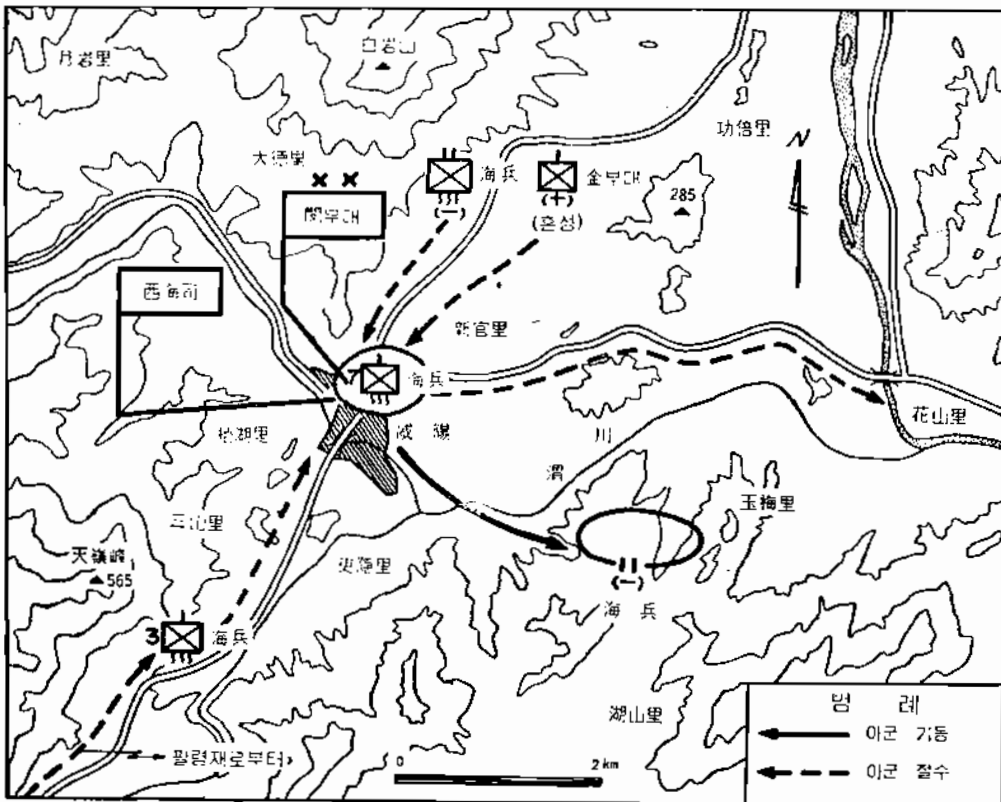
閔부대의 花山里配備 : 한편, 이때 判령제를 接管중인 海병제 3 중대로 부터 『數未詳의 敵의 一團이 判령제에 接近하고 있다.』라는 要旨의 敵情이 閔부대장에게 보고되었다.

이 敵情에 비추어, 閔대령은 安義로 부터 南下中인 敵은 또다시 後續부대로써 執拗한 공격을 시도할 것이고, 判령제를 突破한 무리가 이들과 咸陽을 合擊할 경우, 現兵力으로서는 咸陽을 支撐할 能力이 不足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海병대의 安義進出에 뒤이어, 判령제를 방어중인 海병 1 개 중대의 咸陽이동을 命命한 다음, 出動부대를 除外한 나머지 全부대에게 水東面 花山里부근으로의 이동을 命命하였다.

상황은 다시 激動하는 가운데, 예비대인 海병 제 7 중대는 저녁무렵에 判령제에서 복귀한 海병 제 3 중대와 함께 別命으로 철수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305高地(咸陽 南쪽 2km)를 占領하였으며, 이 사이에 咸陽의 殘置부대는 무사히 花山里로 이동할수 있었다.

◇ 상황도 제72호 閔부대의 咸陽撤收 狀況(7.28)



그런데 이때, 전날의 安義전투뒤에 부대所在마저 알길이 없었던 吳부대가 花山里 美軍진지부근에서 兵力을 逐次로 수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閔부대장은 곧 該부대를 收容하고 20.00에 이르러서는 金부대를 당시 美제29연대 제1대대가 占領한 390高地(花山里東北2km)에 連한 西쪽 稜線에, 吳부대를 314高地(花山里 南쪽 1.5km)에 각각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閔부대는 且戰且退로 이동하였으나, 兵員의 士氣低下와 體力의 疲勞困憊는 막심할 뿐으로, 戰列의 整備에 적지않은 亂調을免치못하였다.

부대의 撤收: 이무렵 入手된 情報에 따르면 雲峰으로부터 咸陽을 指向중인 敵은 이미 咸陽 西南쪽 2km까지 急迫하고 있음이 確認되었으므로, 閔부대장은 別段의 應急조치가 없는 限, 現상황으로서는 兵力의 損失만을 自招할뿐이며 事後對策에도 利로움이 없다고 보고 인접 美제29연대 제1대대장과 부대철수에 따른 兪호를 協議하여 부대의 山淸이동을 마침내 決行하였으니, 이때가 대체로 20.40이었다.

이에, 吳부대는 수용 兵力 200명으로 山淸—晉州로 移動하고, 金부대는 당시 咸陽 北쪽으로 出動한 일부 兵力을 차량으로 일단 花山里로 이동케 한 다음 次차로 山淸으로의 부대를 철수하게 되었으나, 해병대의 철수는 命令傳達이 如意치 않아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

즉, 金聖恩부대장은 命令을 수령하자 곧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抽出하여, 接敵中인 제1, 제2兩개 중대와 搜索소대의 철수를 兪호케 하였는데, 이에 出動한 李—龍소위가 지휘하는 同중대의 제1소대는 渭川을 渡河한 다음 새미마을 北쪽의 제2중대진지에 이르러 부대주력의 철수를 兪호하였다. 그러나 左제1선 高地에 配備된 搜索소대는 傳令이 暗夜로 因하여 경로를 잘못 선택한 탓으로 철수命令을 傳達받지 못하였으며, 2次로 破滅한 傳令마저도 搜索소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金부대장은 數名의 要員을 직접 帶同하고 現地에 急行하여 副官 李永虎 소위를 搜索소대에 보내어 부대철수를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해병대는 우선 집결을 마친 제2중대, 제1중대, 그리고 본부중대를 山淸으로 이동케 하고, 이어서 제2, 제7중대가 소대별로 分離된채 山淸으로의 철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美제29연대 제1대대의 상황: 한편 花山里에 진지를 占領한 美제29연대 제1대대장 Wilson 중령은 이날 아침까지도 安義에 進出한 B중대의 戰況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連絡이 두절된 B중대와 連結를 위하여 전날부터 밤새도록 계속 傳令을 差出하는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傳令은 敵 伏兵의 襲擊을 받아 되돌아오곤 하였다.

이날 역시, 여러 차례 傳令을 破滅하고, 終日도록 상황을 打開코자 하면서 저녁부터 시작된 閔부대의 상황을 注視하였다.

결국, B중대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閔부대의 水東移轉과 더불어 蓮花山(花山里 北쪽 1km)에서 철수하여 490高地를 占領하였는데 閔부대가 철수를 완료한 뒤에는 367高地(花山里 東南쪽 3km) 일대에서 이튿날까지 진지를 확보하였다.

## 2. 居昌부근의 戰況

美제34연대의 居昌撤收 : 美제34연대장 Beauchamp 대령은 이날 아침 역시 정찰대로 부터 『安義를 占領한 것으로 보이는 敵이 계속 兵力을 增強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는 當面の 敵이 居昌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分析하여, 現 방어 상태로서는 진지의 脆弱性を 免할 수 없으리라고 判斷하고 방어선의 正面에 있는 虛隙을 좁히기로 하였다.

美陸軍참전선인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에 該연대장은 이와같은 決心에서 『제 3대대를 安義통로에 제 1대대(-)를 陝川통로에, 그리고 제 1중대를 金泉통로에 各各 배치하여, 三面 4.2km에 걸쳐 진지를 形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헤아리면, 그는 비단 安義통로를 따라 침공하는 敵뿐만 아니라, 金泉方面의 敵情과 또한 後方を 차단당할 경우까지도 대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진원하기 위하여 4.2 중박격포를 진지 北端에, 5문의 105'폭사포를 東南端에 配置하여 決戰태세를 取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부대사정에 박추어 그 戰力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다.

즉, 該연대는 前述한바 大田전투이래 인원 및 장비를 補充받지 못하여, 總兵力 1,150명 중, 대대는 350명에 不過하고, 通信장비와 共用火器도 絕對量이 不足한 상태이며, 병사들은 진지를 構築키 위한 삽이나 곡괭이등의 개인장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투복과 鐵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日沒후렵에 연대의 砲兵관측소는 安義쪽으로부터 居昌으로 接近하는 長蛇의 敵軍 隊列을 發見하였다. 이에 제13야포대대 A포대의 105mm砲 5문은 日沒뒤까지 砲擊을 加하였으며, 그 사이에 연대장은 敵의 예상 접근正面에 兵力을 增援조치 하였다.

얼마뒤 연대장은 사단으로부터 상황을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陝川으로 急行하여 『예상한대로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제 3대대를 居昌 東南쪽의 준비된 진지로 이동시키려한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이에 同意하지 않고 『계속 居昌을 固守하라.』라고 嚴命하였으므로, 연대장은 該대대장에 내렸던 철수명령을 황급히 취소 조치하였다.

이 때문에 제 3대대는 命숨이 뒤바뀌는 가운데, 철수하였던 진지로 다시 進入하였으며 연대장은 다음날 아침 03.00에 居昌으로 복귀하였다.

이로부터 1시간뒤에 敵은 2개 方向에서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因하여 北쪽의 I 중대가 退路를 차단당하게 되었으므로, 제 1대대(-)는 이를 打開코자 즉각 反擊하였으나, 該중대를 끝내 救出하지 못하고 居昌 東側方으로 물러나는바 되었다.

연대장은 이러한 隨意철수를 制止코자 노력하였으나, 이날 새벽에 제 3대대마저 진지를

突破당하여 後方의 포진지까지 敵의 소총탄이 集中하는등 상황이 惡化되었으므로 戰勢를 만회할 길이 없어 居昌을 비우고 추차 山際里(咸陽 東쪽 20km)로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대장은 이 철수에서 工兵隊로 하여금 居昌—陝川間의 道路의 要所를 파괴케 하여, 무리들의 追尾를 阻止케 하였는데, 이 조치는 크게 奏效하여 뒤에 밝혀진바, 이곳으로 侵入한 北魏 제 4 사단의 제 18연대는 洛東江에 進出할때까지 砲부대의 기동이 遲滯되어, 박격포를 唯一한 支援火器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경찰 및 기타부대의 상황 : 전날에 이어, 美제 34연대와 함께 居昌 南쪽 外廓에 진지를 占領한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이날, 襄東傑대위의 陸本特攻隊와 合勢하여 진지를 強化하였다.

그러나 저녁무렵부터 시작된 敵의 居昌侵入으로 말미암아, 戰技가 아직도 未熟한 이들 混成부대로서는 너무나 큰 試鍊이었던 까닭에, 美軍陣勢의 動搖와 더불어 지휘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襄東傑대위는 이 危局을 수습코자, 寡兵으로써 特攻隊를 조직하여, 夜暗을 이용하여 敵陣에 突入하는 등 數次에 걸쳐 敵을 攪亂하였으나, 戰況의 退潮는 결국 막지 못하여 다음날 새벽에 大邱로 轉進케 되고,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山際里과 陝川동지로 철수하면서 부대를 수용하였다. 이로써 26일부터 이날까지의 3일간에 걸친 當面의 敵에 대한 牽制抑留策은 커다란 成果없이 끝나고 말았다.

#### 라. 전투후의 개황

7월 28일, 閔부대장 指揮下의 閔부대, 金부대, 海병대가 咸陽을 撤收한뒤 花山里부근 水東지역에서의 방어 역시 優勢한 敵軍의 追尾에 밀려 다음날에는 山淸경우 淸州까지 逐次로 後退하게 되었다.

이때, 求札方面으로부터 侵入한 北魏 제 6 사단은 河東을 掠取한 다음, 연이어 院田(淸州 西쪽 22km)을 거쳐 淸州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當面의 戰線으로 扞援한 美제 19연대는 배속받은 美제 29연대 제 3대대의 殘存兵力과 合勢하여 이곳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閔부대는 계속 金부대를 指揮하여 그 一翼을 담당, 당일 淸州 北쪽 山淸가도에 진지를 占領케 되었으며, 海병 金聖恩부대는 30일에 美軍에 配屬되어 새로 BAR 8정과 SCR동신기 3대 등의 장비를 補強하고 南江 南쪽 방어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水東지역에서 撤收한 閔부대는 淸州이동뒤에 부대를 정비할 수가 없었으므로 31일에 馬山으로 이동하고자야 새로운 임무에 加擔될 수가 있었다.

한편, 閔부대와 함께 水東지역에서 敵을 阻止코자 하던 美제 29연대 제 1대대는 같은날 山淸에서 부대를 수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淸州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부대는 이날 山淸에 接近하는 敵情을 入手하고 淸州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선 重火器를 撤收케 하고, 丹城(山淸 南쪽 14km)으로 南下하면서, 上空에 出現한 연락기로 부터 『閔부대는 咸安(淸州 東쪽 28km)으로 이동하라』라는 要旨의 通信文에 接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의 기동은 계속되었으나, 途中에 韓國海軍의 첩보대 要員으로 부터 『모든 美軍부대가 철수해버린 淸州에 敵이 侵入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一驚한 대대장은 淸州를 避해 山淸을 擇하여, 咸安으로 이동기로 決心하고, 千辛萬苦끝이 이날 늦게 宜寧통로에 이르고 다음날인 30일 02.00에는 馬雙里(咸安 西쪽 21km)까지 進出하였다.

또한, 居昌에서 지역전을 했던 美제34연대는 그 뒤, 山際里에서 陝川으로 다시 물러나, 예마침 이곳으로 進出한 美제21연대 제 I 대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占領하였으며 30일에는 韓國軍제17연대와도 승勢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 西海岸지구전투사 金道淵 소위

(1978. 3. 8 乙支路 5街 꽃다방에서, 예소령)

나는 南原에서 4일을 보내고, 7월 20일경에 咸陽으로 갔다. 우리 부대에는 新兵이라고는 없었으며 編成당시 그대로의 兵員이었다.

咸陽에서는 某국민학교에 駐留하면서 해병대와 함께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였고 그 다음에는 咸陽—山淸에서 敵과 싸우고 晉州로 撤收하였다.

#### ◇ 閔부대 金秉化부대, 중대장 趙在俊 중위

(1978. 3. 14 湖南전기 會長室에서, 예소장)

南原에서 雲峰으로 撤收할 때에, 해병대는 엄호부대로 起用되었을뿐 아니라, 그 前에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해병대를 계속 엄호부대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閔機植 대령과 金聖恩 중령사이에 見解差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閔부대에 10개 중대가 있었는데 잘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金秉化부대 이하 중대장이었다.

南原에서 後退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은 잘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중대에 學徒兵들이 많이 配置되었던 것으로 안다. 安義에서 추력을 타고 나오다가 學徒兵들이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아 損失이 많았다.

#### ◇ 吳부대 중대장 朴正瑞 대위

(1978. 3. 4 槿榮物産株 代表理事室에서, 예 대령)

나는 南原에서 吳德俊 대령의 권고로 後退키로 하고, 撤收하다 보니 道路변에 我軍이 遺棄한 장구가 흩어져 있기에, 이것을 整理하면서 南原市內를 거치지 않고 咸陽에 갔다.

이때, 나는 해병대가 부러칠수에 秩序정연한 것을 보고 부러웠는데, 나의 중대는 그렇지가 못하여 咸陽에 이르니 兵力은 不過 40~50명 정도가 남았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閔부대를 만나 統合되어 다시 出動하여 兵力을 雲峰고개에 配置하니, 分散 後退하는 兵力이 있기에 이들을 수용하여 兵力을 보충하였다.

敵은 이 때, 南原에서 河東쪽을 공격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나는 다시 咸陽으로 撤收하였다. 吳德俊 대령이 나보고 迫擊砲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命을 받아 出動한 곳이 安義로서 여기에서 우리는 美軍에 배속되었다.

우리가 配置된 곳은 安義 北쪽의 300高地로 美軍은 居昌쪽을 砲擊하였으며, 또 다른 美軍들이 續續 安義쪽으로 北上하고 있었다. 나는 交戰中에 예감이 이상하여 뒤돌아 보니 兵力이 없기에 獨斷으로 後退命을 下達하고 경찰차에 分乘하고 南下하였다. 途中 美軍은 戰鬪가 熾烈하였던지, 차를 버리고 後退하였으므로 우리도 하는 수 없이 全員차에서 下車하고 山을 넘었다. 여기에서 나는 대대장도 만나게 되고, 兵力을 수습하면서 山淸을 거쳐 晉州로 갔다.

#### ◇ 新권제 9연대장 俞海濤 대령

(1978. 3. 13 西大門 신사洞 1—77 自宅에서, 예 소장)

내가 湖南지방에서 撤收 부대를 인솔하여 晉州 某국 民학교에 묵고 있었는데, 蔡秉德 소장이 이곳에 와서 나보고 자기가 晉州방면의 總防위사령관이니 자기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다.

나는 이때 大邱로 가기 위하여 제비하다가 釜山으로 撤收키로 決心하고 있었다. 蔡秉德 소장이 某旅館에서 나를 부르기에 그 곳으로가니 『貴官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하면서 놀라는 눈치였다. 이 때, 蔡소장은 朴炫洙 대령, 張斗權 대령, 李相國 중령 등과 같이 아침식사를 하다가 나에게 내 命을 받으라면서 『貴官이 지금부터 晉州방위사령관이다.』라고 하기에 나는 『당

장 할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의 말씀이 『첫째로 淸州의 방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고 둘째 市民들의 撤收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셋째로 市中에 布告文을 作成해서 붙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알겠다고 하니 잠간동안 가만이 있다가 그는 나에게 『지금 閔부대가 南原에 와 있는데 반격한다고 하니 나와 함께 가 보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에 應하여 Jeep차 뒤에 타고 가느라니 威陽 못미처 撤收하는 부대에 孫官道 소령이 있어, 그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蔡소장은 孫소령에게 後退할 수 없다고 마구 야단이었다. 이일이 있는 다음, 威陽에 가니 兵力은 烏合之衆 그것이어서 指揮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

威陽에서 兵力을 集結시키기에 노력한 다음, 一行이 南原쪽으로 가고 있노라니, 申泰英 소장과 또 마주쳤다. 蔡소장은 申소장으로 부터 대충 상황을 듣고는 『威陽에 가서 兵力의 後退를 막으시오.』라고 이르고는 閔鐵植 대령을 찾으려고 또 前進하였다.

雲峰 가까이까지 가다가 蔡소장은 閔대령을 찾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河東쪽이 급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閔대령에게 後退하지 못한다고 傳하라.』라고 하고는 나를 남겨둔채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뒤에 나는 閔대령을 만나서 그와같이 威陽으로 撤收하였는데, 이 곳에 到着하자, 그는 우체국으로 가서 陸軍本部로 電話를 걸어 상황을 說明하고는 부대지휘관관계를 문의하는 것 같았으므로, 나는 申소장과 元容德준장과 議論해서 상황을 잘 처리하라고 忠告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閔대령에게 나의 任務가 있으니 가야겠다고 하고, 그곳을 떠나 淸州로 갔으나 이 때에는 벌써 蔡소장이 戰死한 다음이었다.

#### ◇ 해병수색대장 金鍾植 중위

(1965. 6. 15 해병제 1 상륙사단 참모장실에서, 에대령)

우리 부대가 南原에서 雲峰으로 撤收도중에 1개 중대를 雲峰고개에 잔류시켜 방어하라는 命을 받았다. 그러므로 제 3중대가 고개에 남아 지키는 가운데 제 1, 제 2, 제 7의 3개 중대는 고개 밑 某국민학교 교정에 집결하였는데, 이때 友

軍機의 誤爆때문에 校庭에 있던, 陸軍의 탄약을 적재한 차가 火災를 일으켰으며 수색대원 數名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해병들은 實彈不足으로 많은 苦生을 체험한지라, 불타는 차에 용감히 기어올라 탄약을 撤出하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雲峰에서의 指揮系統이 마비됨으로써 우리는 命을 받을 수가 없었다. 다른 부대가 撤收하니 우리도 하는 수 없이 撤退하는데, 이때 金秉鎬대위가 앞에서 가고 있노라니 蔡秉總 소장이 탑승한 Jeep차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몹시 怒하여 우리에게 後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다시 오는 길을 되돌아 갔다.

그 뒤, 부대는 威陽으로 가서 威陽—安義間의 中間지점에 兵力을 配置하라는 命을 받았다. 이에 부대는 安昌寬 중위의 중대를 사단 예비로 남겨둔채 1개 보병중대와 화기중대(제 1 중대), 그리고 우리 수색대만이 出動하였으며, 이때 李鳳出 중위의 제 3 중대는 아직 雲峰 警備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부대 右側에는 金부대가 配置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敵과의 交戰이 시작되자, 그 부대는 아무 연락없이 撤退하였으므로, 우리도 隨意로 물러나는바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내려오는데 民家가 있어 상황을 물으니, 國軍인지 人民軍인지 알 수 없는 兵力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다시 道路邊에 나와 지나가는 추적이 있기에 안을 보니, 金聖恩부대장이 타고 있었다. 이 분의 얘기가 아직 수색대와 제 1 중대의 1개 소대가 撤收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대장이 부관 李永虎소위를 보내어 撤收命을 전달하려 간 사이, 나와 부대장은 같이 있으면서 두 시간을 보냈으나 아무런 消息이 없었다. 나와 부대장은 더 이곳에서 지체할 수 없어서, 그 즉시 그곳을 빠져 山淸으로 왔는데, 이 곳에는 이미 고립된 부대들이 먼저 撤退하여 집결하고 있었다.

## § 戰 訓

### (1) 指揮體系의 一元化

閔鐵植대령은 南原전부대부터 金秉化부대(金부

대) 외에 해병 金聖恩부대와 吳부대를 統合지휘하였다. 그러나 吳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는 그 權限이나 限界가 모호하여, 同一作戰을 수행하는데 支障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 듯 하다.

즉, 해병대의 경우에는 配屬관계가 明確하였으나, 吳부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으며, 陸軍本部の 조치마저도 亂調을 이루어, 當面の 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一貫된 指揮體系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當初부터 吳부대는 閔부대를 支援하는 立場에서 出動하고 있어서, 始終 陸軍本부로부터의 직접 指示에 따라 行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陸軍本부는 兩부대에 別個 命令을 주는 등 번잡을 避하지 못하였으며, 또 亂調을 이루어 兩부대의 行動을 規制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7월 25일 16.00부 作命으로 陸軍本부는 蔡秉德 소장에게 閔부대를 指揮토록하였으나, 通信의 杜絶로 말미암아 실제에 있어서는 同戰鬪가 끝날 때까지 指揮체제는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 (2) 西海地區전투사령부(西戰司)의 解體조치의 지연

7월 24일 以後 陸軍本부는 閔부대(신전제 7사단)를 麾下에 두고 있던 西海岸지구전투사령부에 대한 別段의 조치 없이 閔부대에게 直接 下命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西戰司는 有名無實한 기구로 남게 되었는데, 陸軍本부로서는 閔부대를 直轄하는 특시로 西戰司에 대하여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研究

### (1) 閔부대의 雲峰철수 日字에 대하여

陸軍戰史제 3권에서 閔부대의 雲峰철수 日字를 7월 25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海兵戰鬪상보(咸陽—晉州지구전투)에서는 26일 까지도 해병 金聖恩부대가 제 2중대를 『사단에 비로써 雲峰사단 지휘소부근에 位置하였음.』이라고 取扱하고 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前者의 記述이 통신의 不通過 混迷한 戰況으로 말미암아 當時 閔부대本부의 咸陽이동을 앞당겨 推理하였던 것으로 보아지므로 後者를 採擇하고 그 日字를 7월 26일로 하였다.

### (2) 蔡秉德 소장의 戰線視察에 대하여

參戰者들은 모두 蔡秉德 소장이 咸陽戰線에 進出하여 撤退하는 장병들에게 怒聲大號하였다고 證言한다.

晉州에서의 宿營中에 蔡소장과 만나, 그의 勸告로 咸陽까지 함께 갔다는 俞海濶 대령의 證言이 그러하고, 孫官道 소령의 證言 역시 이와 一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병대의 廉泰福 一等兵曹(제 7중대 선임하사)도 1966년 2월 24일의 證言에서 『雲峰고개를 넘어 咸陽으로 가는데 蔡 소장과 마주쳤다. 여기에서 그는 金秉鎬 대위(부부대장)에게 敬禮도 받지 않고 부대철수를 詰資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자들은 그의 戰線시찰 日字에는 言及함이 없으므로, 그 사실 自體는 認定하되 日字를 밝힘에 있어서는 前記證言에 따른 當時의 戰況에 맞추고 또한 다음 要旨의 證言을 根據로 하였다.

申東雨(국방부장관 부관): 『7월 24일로 기억하는데, 蔡소장에게 河東으로 出戰하라는 장관 親書를 내가 傳達하였다.』

白慶和(蔡소장 未亡人): 『主人이 다시 싸우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집을 나간지 3일만에 전사소식을 들었습니다.』

丁來赫(예 중장, 당시 신전제 9사단참모): 『釜山에서 新兵모집에 힘쓰고 있던중 7월 23일에 申性模장관이 蔡소장에게 보낸 私信을 본 일이 있다. 25일에 河東에 가보았으나 友軍의 상황도 敵의 動靜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河東이 전술적으로도 要衝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蔡소장은 河東을 방어할 決心을 했다. 그래서 내가 河東에 남아 방어하기로 하고, 蔡소장은 晉州로 돌아가게 하였다.』

3. 陝川—勸彬里 附近 戰鬪(1950년 7월 30일부터  
1950년 8월 3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27 호  
상 황 도 제 73~57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美 제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제 3대대 장 소령 全 禹 榮	北傀 제 4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제 16연대 장 대좌 朴 勝 熙
제 17연대 장 대령 金 熙 濬	隣接部隊	제 5연대 장 대좌 崔 仁 德	제 18연대 장 대좌 金 熙 俊
제 1대대 장 중령 李 寬 洙	美 제24사단 제 34연대 장		
제 2대대 장 중령 宋 虎 林	대령 Charles E. Beauchamp		

## 나. 전투전의 개황

北傀 제 4사단(장, 소장 李權武)은 大田을 侵奪한 뒤 錦山, 安義로 直衝하여 7월 29일에는 居昌을 占據하고 계속 東쪽으로 醜鋒을 돌렸다.

이에 洛東江 西部가 크게 威脅을 받게되자, 美 제 8군사령관 Walter H. Walker중장은 敵이 쉽게 洛東江線에 이를 것으로 보고 馬山方面으로 移動中이던 제 17연대(장, 金熙濬 대령)를 德岩里(高靈 西쪽 12km)로 急遽 轉進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 17연대는 勸彬里(陝川北쪽 0km) 附近에서 8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一進一退하다가 玄風(昌寧 北쪽 18km)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것이 本 전투경과의 大要이거나, 本節에서는 여기에 제 17연대가 玄風으로 철수하여 洛東江 沿岸을 경계하면서 豫備隊인 제 7중대(장, 趙慶鶴 대위)로써 九二里(玄風 南쪽 8km)附近에서 我軍의 動靜을 살피던 敵의 先發隊의 한무리를 격멸한 전황을 附記하였다.

敵軍의 狀況: 敵 제 4사단은 南侵前에 鎭南浦에 주둔한 正規 보병부대로, 그동안 서울—烏山—平澤 등의 전투에서 數次 UN空軍의 爆擊을 받아 많은 兵力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大田戰鬪이후 現地에서 2,000명 内外의 新兵을 보충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兵力이 年少하고 戰鬪經驗이 없는 強制募兵으로 充當하였던 것이며, 開戰初부터 편성된 古兵은 1/3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이들 古兵으로 하여금 新兵을 奮戰케 함으로써 侵攻의 교배를 재촉하였다.

그들의 補給은 주로 현지 住民으로부터의 收據에 依하는 것이며 主要 장비의 損失로 戰鬪力의 低下



를免치 못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7월 23일 錦山을 떠난 제 4사단은 26일 安義를 거쳐 居昌을 指向하여 29일 拂曉에는 이곳을 점거한 다음 계속 東進하여 短時日內에 洛東江線을 圖謀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즉, 그들은 먼저 사단 諜下 제18연대(장, 대좌 金熙俊)로 하여금 陝川쪽으로 진출하여 美 제21연대 제1대대(장, Chares B. Smith 중령)를 침공케 하고 제5연대(장, 대좌 崔仁德)는 居昌에서 黃江(洛東江 支流)을 따라 南進하여 「장도峰」(居昌 東南쪽 6km)을 奪取한 다음 △317와 明猶山(△383, 감도峰 南쪽 3km)의 美 제34연대(장, Charles E. Beanchamp)를 공격코자 하였다.

本 전투에 참가한 敵 제5연대의 병력은 1,800명이며 主翼 지원화기는 아래와 같다.

76mm 야 포 4문

120mm 박격포 5문

82mm 박격포 12문

45mm 대전차포 6문.

한편 南쪽에서 美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을 위협한 敵 제6사단(장, 소장 方虎山)은 7월 22일 全州를 출발한지 하루만에 光州를 侵奪하고 24일에는 木浦—寶城—順天—麗水 方面에 각각 1개연대를 分進토록 하여 西南海岸地域을 席捲하였다.

그뒤 이들은 順天에서 다시 合勢하여 27일에는 河東을 유린함으로써 晉州를 壓迫하기에 이르렀다.

我軍의 狀況: 7월 하순 敵이 거의 無防備狀態였던 湖南地方을 席捲하자, 美 제8군은 防禦配置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7월 24일,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Dean 소장의 후임으로 이틀 前인 7월 22일에 美 제24사단장으로 부임한 John H. Church 소장을 大邱의 美 제8군사령부로부터 同사단을 晉州—咸陽—居昌線에 配屬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Church 소장은 7월 25일 아침 일찍 諜下의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를 晉州에 配屬하고 이날 17.00를 前後하여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도 또한 晉州로 移動토록 하였으며, 다음날인 26일에는 美 제34연대(장, Charles E. Beauchamp 대령)를 義城—軍威線에서 뽑아 居昌으로 轉進토록 함과 동시에 사단사령부도 大邱에서 陝川으로 移轉하였다.

또한 7월 초, 병력부족으로 MacArthur 元帥가 本國에 要請한 11개대대중 최초의 증원부대로서 韓國戰線에 참가한 美 제29연대의 제1 및 제3대대가 24일 釜山港에 도착하자, 25일 晉州로 急進하여 제19연대장 Moore 대령의 指揮下에 들어갔다.

이후 同 대령은 이 제3대대(장, Harold W. Mott 중령)를 당시 慶南地區 編成管區司令官인 蔡秉德 소장과 함께 河東에 進出토록하고 제1대대(장, Wesley E. Wilson 중령)는 安義 南쪽 陰陽里에 배치하여 제19연대 제1대대(장, Robert L. Rhea 중령)와 交代토록 하였다.

그러나 數日이 못되어 居昌—咸陽—河東線이 瓦解되자, Walker 중장은 이러한 趨勢가 계속되다가는 敵이 數日內에 洛東江線에 이를 것을 憂慮하고, 7월 29일 陸本作命 제79호에 따라 馬山을 目的地로 安東에서 大邱로 이동 중인 제17연대를 急遽 德岩里(高靈 西쪽 12km)쪽으로 轉進토록 함으로써 美 제34연대를 지원케 하였다.

그런데 29일, 居昌에서 철수한 美 제34연대는 평균 350명의 제1 및 제2대대로서 총병력은 1,150명이고 大田戰鬪以來 전혀 장비를 보충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實例로 交換器와 無電器도 없고 迫擊砲와 Rocket砲, 그리고 機關銃등 共用火器는 30%線을 넘지 못 하였으며, 隊員들 中의 一部는 服裝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 하였다. 또한 藥를 파기 위한 工具도 부족하고 오직 小銃만이 유일한 個人用武器였다.

그러나 勤彬里附近에서 美 제34연대를 지원하다가 同聯隊의 진지를 인수한 제17연대는 瓮津戰鬪로부터 烏山—鎮川—化寧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戰鬪 經驗을 쌓은 古兵들이 많았고 補給이 良好하여 士

氣도 왕성하였다.

연대의 총병력은 기간요원 1,200명 외에 大田에서 모집한 青年防衛隊員 1,200명을 包含하여 모두 2,400명인데, 이들 青年방위대원들은 이곳에 이를 때까지 탄약 및 보급품운반등을 맡아 왔다. 연대의 主要 火器는 아래와 같다.

81mm 박격포 17門

60mm 박격포 13門

重 機 關 銃 10挺

輕 機 關 銃 17挺

期間中 氣象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朝夕에는 山嶽의 영향으로 비교적 서늘하고 戰開始日인 7월 31일은 가랑비가 내렸으나 밤 늦게부터 개었으며, 아침으로 濃霧가 끼었기때문에 機動에 多少 영향이 있었다.

勸彬里 附近의 地勢는 居昌으로부터 陝川에 이르는 黃江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데 北쪽에서 흐르는 加川이 加川里(勸彬里 西쪽 6km)에서 合流하고 東北쪽에는 宿星山(△899)의 支脈이 斜行하며, 西쪽에는 望日山(△620)과 月峴山(△616)이 屹立하여 있다. 特別히 月峴山의 北麓은 急傾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加川里 西南쪽의 明旭山과 △317는 敵의 攻擊目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勸彬里는 居昌—高靈—陝川의 中間地點에 위치한 交通의 要地로써 東으로는 玄鳳(昌寧 北쪽 18km)을 經유 大邱에 이르고, 西로는 居昌을 지나 湖南地方 및 大田에 連結되며 南으로는 陝川에 닿게 된다. 따라서 機械化部隊를 비롯한 各種砲의 機動에 거의 制限을 주지 않았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7월 28일 12.00부로 하달된 陸本作命 제79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西海岸地區로 침입한 敵의 一部는 河東에서 晉州—馬山으로 侵透를 기도하고 있다.

② 我軍 및 美軍은 四川 西北方에서 該敵을 激擊중에 있다.

③ 軍은 一部兵力을 이동시켜 該敵을 殲滅하려 한다.

④ 제 1군단장은 예하 首都師團 제17연대를 즉시 馬山을 目標로 移動케 하라.

⑤ 제17연대는 즉시 馬山에 이동하여 침입하는 敵을 포착 殲滅하라.

⑥ 제17연대장 및 美軍 선임고문관은 在 晉州 美軍部隊長과 긴밀히 연락 협조하라.』

이로써 安東에 있던 제17연대는 首都사단을 벗어나 馬山으로 轉進키 위하여 大邱에 이동하였는데 또다시 긴급 수정된 陸本作命 제86호를 받게 되었다.

本 作命은 29일 21.00부로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軍은 一部兵力을 美 제24사단에 配屬하려 한다.

② 제17연대를 美 제24사단에 배속한다. 연대는 德岩里로 移動하는 즉시로 제24사단장의 指揮을 받으라.

③ 美 제24사단에서는 德岩里에 案內將校를 派遣할 것이다.

④ 大邱로부터의 輸送은 美 제 8군에서 派遣한 自動車輻에 依하라.

⑤ 德岩岷 도착까지 有線 사용을 禁한다.

⑥ 通信軸線은 大邱—高靈—陝川 道이다.』

이는 前項 戰鬪前의 概況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美 제 8 군사령관의 要請으로 긴급히 이루어진 것인데, 本 命令에 依하여 제17연대는 29일 午後 늦게 大邱를 出發, 高靈을 거쳐 德岩岷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후 연대는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의 작전 계획에 따라 勸彬里로 移動, 다음날 05.00를 期하여 吾南國民學校에 연대 主力을 位置하게 하고 제 1대대를 前方으로 進出케 하였는데, 12.00를 前後하여 美 제34연대의 前方인 △551(勸彬里 西쪽 3km) 西側 稜線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29일, 居昌에서 철수한 美 제34연대는 한때 山際里(德岩里 西쪽 4km)附近의 山地 帶로 물러섰다가 곧 反轉하여 明塘山(△383, 居昌 東南쪽 8km) 西北稜線에 主力을 配置하고 △317(加川里 西쪽 1km)에 나머지 1개대대를 投入시켜 제17연대의 前方에서 加川—明塘山線을 防守하고 있었다.

## (2) 작전 실시

**7월 31일** : 전날 10.00를 前後하여 甘斗峰(居昌 東南쪽 6km)을 점령한 北傀 제 4사단 제 5연대(장, 대좌 崔仁德)는 이날 17.00를 期하여 明塘山— △317로 各各 1개대대규모로써 攻撃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美 제34연대(장, Charles E. Beauchamp 대령)는 居昌에서의 激戰으로 喪失된 不名 譽를 씻고자 必발치는 敵 砲擊속에서도 1시간여를 버티면서 격전을 벌였으나 끝내 勢 不利하여 물러서고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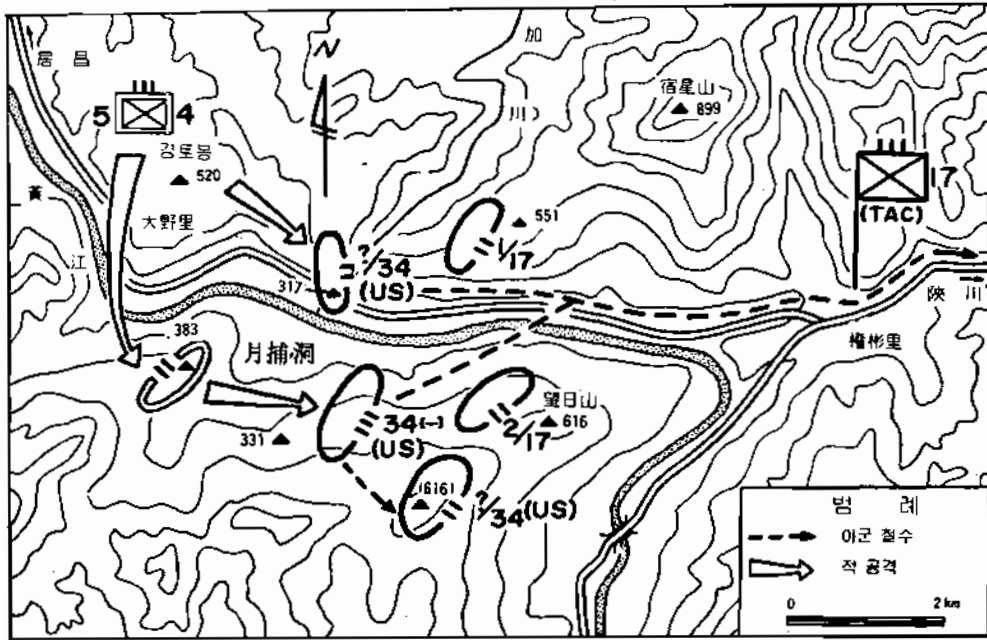
그뒤 연대장 Beauchamp 대령은 明塘山(△383)의 1개대대를 뽑아 月峴山(△611) 西쪽 斜面에 배치하고 계속 追尾하는 敵을 저지코자 하였다.

이동안 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날부터 △551 西쪽 稜線에서 扼腕待機中이던 제17연대 제 1대대(장, 李寬洙 중령)는 同 高地의 최남단 △357 東쪽 斜面에 重火器를 배치하여 △317로 侵襲하는 무리에 射擊을 集中하였으나 그들은 狡攻氣勢를 늦추지 않고 계속 肉追하였다.

狀況이 이에 이르자 美 제34연대장 Beauchamp 대령은 19.00를 前後하여 사단장 Church 소장에게 『현상태로서는 陣地를 도저히 堅守할 수 없다.』는 意見を 具申함에 따라 사단장은 美 제34연대를 물러서게 하고 그 대신 제17연대로 하여금 敵을 저지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7연대장 金熙濬 대령은 제 1대대(장, 李寬洙 중령)를 현 陣地인 △551에 그 대로 두고, 이때까지 연대의 豫備로써 勸彬里에 있던 제 2대대(장, 宋虎林 중령)를 望日山 東쪽 2km 西麓으로 進出토록 하였으며, 美 제24사단에서 支援한 155mm 1개 砲隊 5門

## ◇ 상황도 제73호 月捕洞 - △317戰況(7.31)



은 杏亭里(望日山 北쪽 1km)에서 月捕洞을 向하여 放列토록 하였다.

이때에 제 3 대대(장, 全禹榮 소령)는 勸彬里의 最初陣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편 美 제 34연대장은 제 17연대 제 2 대대가 望日山 西麓에 투입되자 20.00를 前後하여 月峴山 西쪽稜線에 있던 1개 대대를 頂上으로 옮기고 △317의 1개 대대와 연대지휘소는 陝川으로 철수토록 하였는데, 그 意圖하는 바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分明치 않다.

**敵의 偵察兵 捕獲**: 이 당시 △357 南麓에서 敵의 阻止를 다짐하고 있던 제 17연대 제 4 중대(장, 張昌述 대위)는 300m 南쪽의 居昌-勸彬里 街道에서 勸彬里 쪽으로 疾走하는 敵의 Side car 1대(2명 탑승)를 발견하였다.

연대는 지난 化寧場戰鬪에서도 그들의 Side car를 捕獲하여 많은 情報을 入手한 바 있는 터이므로 이에 對한 관심이 많았으며, 중대는 이를 能히 射殺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대대를 通하여 연대에 보고하였다.

이 報告에 接한 연대장 金熙濬 대령은 이들을 陣內 깊숙히 誘引한 다음 사로 잡기로 하고 『그냥 통과시키되 계속 감시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이 Side car가 勸彬里에 도달하여 陝川가는 道路를 따라 비탈길을 내려가려 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은 自身이 직접 도로에 나아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연대본부요원을 지휘하여 이를 단번에 포획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必是 중요한 諜報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연대지휘소로

압송하여 訊問토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諜報를 入手하게 되었다.

- ① 이들 side car兵은 北魏 제 4사단 제 5연대의 偵察隊員으로서 我軍의 動靜을 탐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 ② 이날 밤 그들 제 4사단의 暗口號가 “菊花” “無窮花”이고,
- ③ 이들은 居昌에서부터 줄곧 美軍과 交戰하였기 때문에 韓國軍이 이 地域에 투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즉, 敵의 本隊가 이날 밤 계속 공격하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은 연대장은 決戰의 好機를 맞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들 5연대에 하달하는 한편, 더욱 진지를 補強하고 陣前수색을 강화토록 하였다.

8월 1일 : 明塘山과 △317를 奪取한 敵은 01.00를 前後하여 제 17연대의 주저항선인 △551—望日山을 向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 1. 제 1대대의 전황

이미 △551西쪽 稜線一帶에 阻止陣地를 형성한 제 1대대는 △317의 美 제 34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待機하고 있었던 바, 전날 18.00, 연대장으로부터 敵의 企圖와 暗口號를 通報받은 대대장 李寬洙 중령은 이를 즉시 全大隊에 전파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① 全將兵은 敵의 暗口號를 숙지하라.
  - ② 敵을 陣內 깊숙히 誘引하여 포위 격멸 하라.
  - ③ 陣地를 보강하고 陣前搜索을 더욱 강화하라.
  - ④ 화기중대장은 敵의 進路에 全火力을 集中할 수 있도록 稠密하게 火網을 구성하라.』
- 이에 따라 화기중대장 孫昌述 대위는 중대 선임장교 鄭得萬 대위와 박격포소대장 李弘根 대위를 불러 日沒前에 박격포 및 기관총 진지를 선정하고 사격계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뒤 鄭得萬 대위는 △357 西쪽斜面 下端에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고 예상접근로를 향하여 겨냥토록 하였으며, 李弘根 대위는 △357 南쪽斜面 8부능선에 박격포를 배치하여 加川里一帶를 制壓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였다.

이날 01.00부터 △317에서 공격을 개시한 敵은 03.00를 前後하여 대대 방어 진지 최남단으로 접근하였다. 이에哨兵이 즉시 誰何하자, 豫想대로 그들이 「菊花」라고 對答하므로 無窮花라고 응답하였다. 其實 이날 밤 연대의 暗口號는 「손들었」「들었다」였었다.

周圍는 대체로 고요하고 야적 殘月이 있었지만 한여름의 茂盛한 樹陰으로 彼我間 서로 쉽게 識別할 수 없었다. 더우기 敵의 一部가 美軍服裝을 한 까닭에 그들을 判別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敵 또한 韓國軍이 이 지역에 투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터이었다.

數分後에 敵 1개중대 병력이 放心한 채로 陣內에 接近하였다. 그들 중 先頭兵力은 5m 전

방까지 왔는가 하면 握手까지 請하는 奇現象이 벌어졌다.

바로 이순간, 대대장 李寬洙 중령은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대의 全 火器가 事前에 계획된 諸元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加하자, 不意에 기습을 받은 敵은 몹시 당황하여 退路를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대대의 火網을 벗어나지 못하고 大部分이 사살되고 말았다.

이 戰鬪로 대대는 1truck 이상의 무기를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고, 그때까지 月峴山 頂上에서 苦戰中이던 美 제34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 戰鬪를 勝利로 이끈 연대장 金熙濶 대령에게는 韓國軍 최초로 美國 銀星勳章이 授與되었다.

## 2. 제 2대대의 전황

전날 20.00, 美 제34연대가 月峴山 西쪽 稜線에서 철수 함에 따라 望日山 西麓에 투입된 제 2대대는 연대로부터 『이날 밤 夜暗을 이용하여 敵이 침공할 徵候가 있다.』라는 情報를 入手하고 投入 즉시 陣地를 보강하는 한편, 搜索活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날 03.00에 敵은 豫想한 대로 제 1대대의 공격과 함께 제 2대대의 정면에도 공격을 加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熙濶 대령은 望日山 西쪽에서 有利한 지형을 確保하고 있던 대대로 하여금 先制로써 反擊을 加하도록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宋虎林 중령은 望日山 西쪽 6부능선에서 하단으로 공격케 하고 敵이 稜線下端에서 上端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면 일제히 사격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敵의 先鋒이 대대의 주저항선인 望日山 西쪽 稜線下端에 進出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宋虎林 중령은 敵의 主力이 陣內에 들어 올 때까지 『企圖를 秘匿하라.』고 強調하여 그들의 本隊를 有效射距離內로 유인 하였다. 好機를 捕捉한 대대장은 射擊命令을 내렸다. 主抵抗線상의 모든 화기가 일제히 鐵火를 吐하였다. 不時에 急襲사격을 당한 그들은 必死의 발악相을 보였으나 그들은 마침내 많은 死傷者를 내고 一部가 明塘山 쪽으로 潰走하였다.

그뒤 대대는 望日山 西麓의 陣地로 철수하여 敵의 再侵에 대비하였다.

## 3. 연대의 陣地 轉換

加川里와 望日山 西麓로부터 △317와 明塘山쪽으로 敗走한 北傀 제 5연대는 한숨들린 다음 07.00를 前後하여 공격을 再開하였다.

즉, △317의 1개대대규모는 加川里쪽에서 제 1대대를 위협하고, 明塘山の 다른 1개대대규모는 月峴山을 侵攻함으로써 望日山(△616)前方의 제 2대대와 月峴山(△616)頂上の 美 제34연대의 殘存大隊가 위협에 直面하였다.

09.00부터 明塘山에서 侵攻을 개시한 그들 1개대대규모는 月峴山の 美 제34연대 陣地를

손에 넣자 제 2대대를迂回하여 望日山 南쪽으로 急進함으로써 연대와 대대지휘소까지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대의 후방지역마저 威脅을 받게 되자, 연대장 金熙濬 대령은 그때까지 勸彬里에 豫備隊로 두었던 제 3대대(장, 全禹榮 소령)를 望日山으로 急進케 하여 연대의 背後를 攪亂하려는 氣勢를 挫折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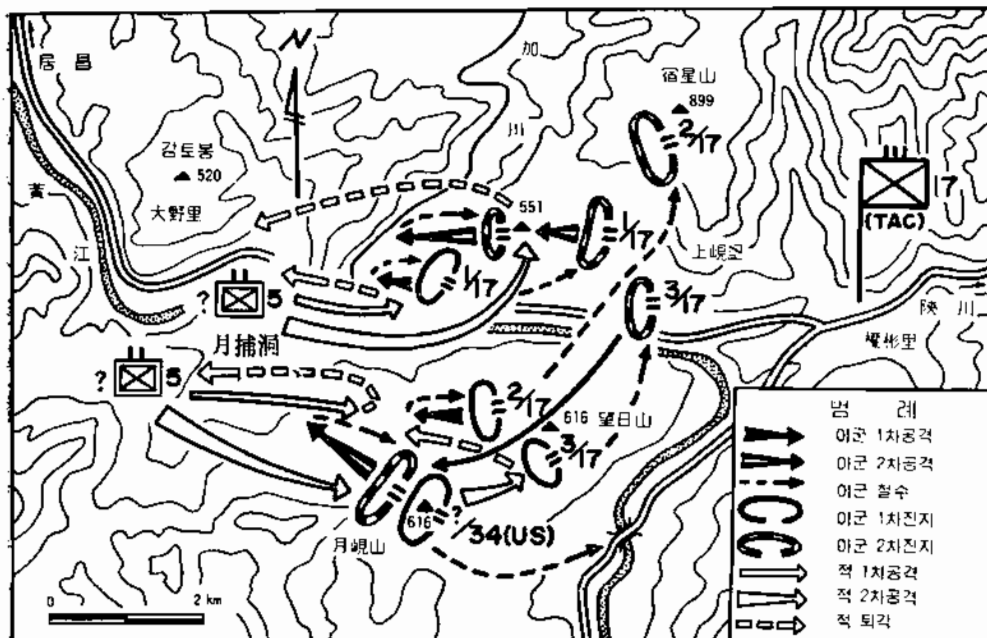
그러나 敵은 제 3대대의 공격축선을 피하여 계속 望日山과 △551에 近接하므로 연대장은 제 1 제 2兩대대가 그들 포위권내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제 2대대는 09.30에 宿星山(△899, 勸彬里 西北쪽 4km) 南쪽稜線으로 제 1대대는 10.00에 △551東쪽 稜線下端으로 各各 철수토록 命令하였다.

이동안 望日山으로 急進한 제 3대대는 연대후방에 침입한 敵을 격퇴하고 月峴山까지 進出하였으나 △551에서 제 1대대가 철수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上峴리(勸彬里 西쪽 3km) 附近으로 철수하였다. 이는 연대장이 戰線의 均衡을 유지하고 指揮幅을 좁혀 再攻擊을 준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였다.

#### 4. 再攻擊

10.00를 前後하여 宿星山—上峴里線으로 철수한 제17연대는 銳氣를 되찾은 뒤 12.00를 期하여 敵의 掌中에 들어간 △551와 望日山을 奪還하기 위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 상황도 제74호 望日山 —△551攻防戰(8.1)



즉 연대장은 제 1 및 제 3 대대를 공격제대로하여 加川里와 望日山 쪽으로 反攻토록하고 제 2 대대는 예비대로 宿星山 南麓에 控置하였다.

△551로 공격을 개시한 제 1 대대는 同 고지가 불과 몇시간 前까지만 하여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므로 그 近傍의 지형에 익숙하였던 반면에, 敵은 수차에 걸친 공격으로 出血이 적지 않았던 터이므로 쉽게 同 고지를 奪取할 수 있었다.

14.00에 △551를 다시 장악한 제 1 대대는 이어 加川線까지 尾擊하여 敵을 멀리 大野里(△317 西쪽 2km)쪽으로 驅逐한 다음 16.00를 期하여 방어에 유리한 △551로 되돌아 갔다.

한편 제 3 대대는 14.00에 望日山을 점령하고 月峴山의 敵陣을 돌파하여 15.00에는 月捕洞까지 進出한 다음 殘敵을 격멸하였으며, 16.00를 期하여 望日山 西쪽 稜線을 確保키로 하였다.

### 5. 德岩里 철수

17.00를 전후하여 明塘山과 大野里를 目標로 一旦 退却한 敵은 그동안에 입은 打擊이 적지 않았음에도 奮戰에 부닥친 탓인지 18.00부터 제 1 대대가 확보중인 △551를 다시 奪取하려는 뜻이 보였다.

이에 연대장은 방어상 유리한 △551를 끝까지 確保키로 하였으나 美 제24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20.00를 期하여 德岩里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 뒤에 연대는 계속되는 敵侵에 對備코자 즉시 陣地構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에 美 제24사단장으로부터 다시 『제17연대는 玄風으로 移動하라.』는 命令이 하달되었으니, 緒戰以來로 該사단은 後方으로의 機動的 名手라는 呼稱을 선사할만 하였다.

이에 宋虎林 중령을 비롯한 전 대대장은 『敵을 막아내기에는 이보다도 더 有利的 地形이 다시 없다.』는데 意見을 모으고 現陣地를 固守할 것을 연대장에게 강력히 具申하는 한편 너무도 激憤한 나머지 命令 傳達次로 연대에 당도한 連絡將校를 門밖으로 내쫓기까지 하였으나 上司의 命令인지라 不得已 이곳에서 移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이날 밤 子正에 德岩里를 출발한 다음, 高靈을 거쳐 洛東江을 건너 玄風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美 제 8군사령관 Walker 중장이 모든 UN地上軍에게 『8월 1일을 期하여 洛東江線으로 철수하라.』고 命令을 함으로써 美 제24사단장이 同연대들이 이곳에서 撤收토록 한 것이었다.

8월 21일 : 전날 子正, 美 제24사단에서 支援한 車輛으로 德岩里를 出發한 제17연대는 夜間撤收에 익숙치 못하여 차량의 headlight를 그대로 켜채로 移動하다가 美 空軍으로부터 空襲까지 받았으나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이날 未明에 玄風을 거쳐 倉洞(玄風 西쪽 4km)에 도착하였다.



그뒤 연대는 이곳 求智國民學校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제 1 제 3兩대대를 倉洞 西北쪽 牛山洞—道東洞—烏舌洞을 連하는 洛東江 突出部에 配置하여 高靈쪽에서 洛東江에 이를 敵艇에 對備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 2대대는 예비로써 一部를 「대리산」(△408, 倉東 北쪽 2km)에 位置토록 하고, 一部는 倉洞의 연대본부와 함께 控置토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居昌—陝川—高靈等地의 주민 일부에 共匪와 內通하는 자가 있어 開戰以前에도 智異山을 中心으로 暗躍하고 있었다.

이들은 北傀의 全面 南侵과 더불어 湖南地方을 掌握하고 洛東江線까지 突出하자, 재빨리 遊擊隊를 편성하여 我軍의 退路를 차단하거나 通信網을 파괴하였으며 때로는 南侵하는 敵의 긴감이로서 避難民隊列에 끼어 後方攪亂을 꾀하기도 하였다.

연대가 洛東江 以東으로 移動하자 北傀는 이들 遊擊隊를 先發隊로 편성하여 高靈郡 牛谷面 容基洞에서 洛東江을 건너 巨南(十二里 西쪽 7km)을 경유 十二里로 潛入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수천명의 피난민들 틈에 끼게하여 我軍의 動靜을 敵軍에게 內通토록 하였다.

**8월 3일** : 地方共匪의 一團이 그 선발대로서 은밀히 洛東江을 건너, 十二里 一帶에서 暗躍하고 있다는 情報가 入手되자, 연대장 金熙濬 대령은, 아침 일찍 豫備隊인 제 2대대장 宋虎林 중령을 불러 대대의 一部兵力으로 이 무리들을 剔抉토록 하였다.

이에 제 2대대장은 즉시 제 7중대장 趙慶鶴 대위를 지휘소로 불러 『玄風과 昌寧의 中間地點인 十二里 一帶에 지방공비의 一團이 잠입하여 出沒中이므로 이 무리들을 적발하라.』고 嚴命하였다. 중대장 趙慶鶴 대위는 즉시 日産 truck 5대에 중대병력을 分乘시켜 倉洞에서 出發하여 道路를 따라 十二里로 向하였다.

10.00에 十二里 부근에 도착한 중대장은 十二里를 目標로 포위망을 형성하고 압축하던 중 수천명의 피난민이 무리를 지어 昌寧쪽으로 南下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렇듯 豫想外의 상황에 부딪친 중대장은 이 피난민 사이에서 赤色分子를 索出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즉시 小隊長들을 모이게 한 뒤 새로운 方案을 講究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十二里 一帶의 住民代表들을 소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赤色分子 또는 수상한 者들을 索出하는데 協力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 마을대표들은 異口同聲으로 『只今 十二里 一帶에는 피난민 뿐이며 地方共匪들은 이미 오늘 아침 일찍 琵琶山으로 올라갔고 이곳 피난민 가운데에는 그들에게 붙잡혀 갔다가 돌아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陳述에 따라 중대는 十二里 外廓의 包圍網을 풀고, 大舍面 青年團長 文正勳과 마을대표 2명의 案内로 琵琶山을 目標로 急向키로 하였다.

그러하여 進擊도중 後川里(十二里 東北쪽 2km)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붙잡혔다가 脫出하였다는 이지방 주민을 만나 그로부터 『지금 敵이 月谷 뒷산 대나무밭 부근 齋室에서 中食을

하고 피로하여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提報를 얻게 되었다.

중대장은 곧 文正勳과 계 1소대장 吳秉珍 대위外 2명을 平服으로 갈아입게 한 다음 △436(月谷 뒷산, 비실산 支脈) 北쪽 능선을 타고 頂上으로 올라 가 그들의 動靜을 탐색토록 하고 중대를 後川에서 △436 西北쪽 7부능선으로 은밀히 進出토록 하였다.

이윽고 4명의 정찰대는 △436 頂上을 넘어 대나무밭까지 搜索한 다음 報告하되 『대나무밭 사이에 匪團들이 潛伏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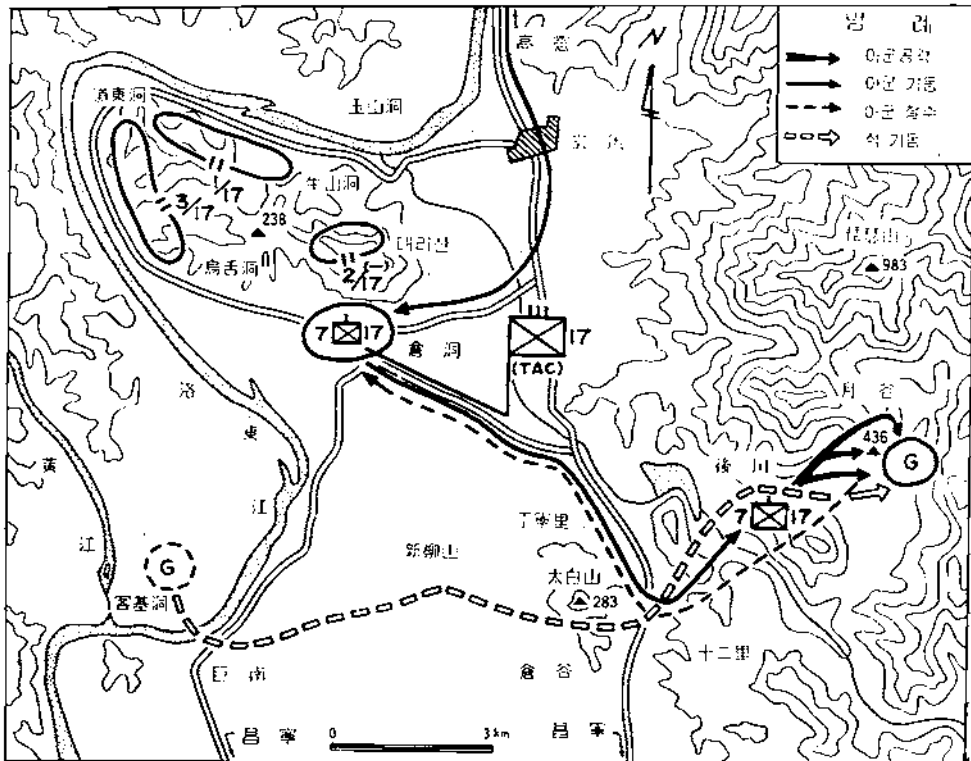
이 報告에 接한 中隊長은 즉시 중대를 △436정상까지 進出시킨 뒤 各 小隊로 하여금 北, 西, 南 二面에서 포위 공격토록 하였다.

또한 중대에서 보유하고 있던 60mm박격포 2門은 △436 西쪽斜面에 배치하여 同高地 東南쪽 開豁地를 向하여 集中射擊을 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뒤 중대는 △436를 넘어 대나무밭을 가운데 두고 三面에서 포위망을 압축하던 중, 150m 前方에서 敵의 경계병인 듯한 人影을 발견하고 일제히 사격을 加하였으나 끝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 못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사격을 중지시킨 뒤 自身이 先頭에서 몇사람의 隊員과 함께 포복으로 능

◇ 상황도 제75호 十二里—月谷 유격대 擊滅戰



선을 내려가 대나무밭 주위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그는 100m 前方에 1.5m 담으로 둘러싸인 낮은 기와집 한채를 目擊하자 “바로 이집이 月谷齋室일 것이다”는 心證을 굳힌다음, 즉시 中隊로 하여금 그 月谷齋室을 포위 공격토록 하였다.

중대장의 突擊命令이 떨어지자 中隊의 全火器는 月谷室을 向하여 일제히 불을 뿜었으며, 제 1소대(장, 吳秉珍 대위)는 굳게 잠긴 大門을 手榴彈으로 부수고 月谷齋室 안으로 뛰어 들었다.

이로서 미처 對抗할 겨를도 없이 奇襲을 받은 敵을 대부분 射殺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은 전날 洛東江을 건널때물에 젖은 옷을 말리느라, 全衾이 內衣만 걸치고 있었으며 戰鬪經驗마저 없는 地方共匪들이므로 아무런 경계방책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있다가 我軍에게 一網打盡된 것이다.

이리하여 이날 午前 十二里를 출발한 제 7 중대는 12.00前後 琵琶山入口 月谷리의 月谷齋室에서 30分間의 奇襲攻擊끝에 敵 6명을 捕虜로 하고 40명을 사살하였으며 小銃 50정을 노획하였다.

그뒤 연대본부로 압송된 이들 포로에 의하면, 이들은 北傀 제 4사단의 선발대로서 피난민을 가장하여 먼저 洛東江을 건넌다음 敵에게 渡河地點을 誘導할 수 있도록 琵琶山頂上에서 烽火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北傀 제 4사단은 陝川과 高靈을 점령하고 洛東江線을 突破하기 위하여 渡河地點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 라. 전투후의 개황

大田에서 錦山街道를 따라 南下한 다음 7월 29일에 居昌을 장악한 北傀 제 4사단은 一路, 大邱를 목표로 東進코자 企圖하였으나 뜻밖에 勸彬里一帶에서 제 17연대에 길이 막혀 8월 1일까지 領控되었다가 연대가 洛東江線 以東으로 철수하자 敵은 高靈—陝川을 占據하고 洛東江線에 이르게 되었다.

이 당시 敵은 早速히 洛東江을 도하하기 위하여 先發隊를 은밀히 도하시켜 도하지점을 선정, 보고토록 하였으나 이것마저 제 7 중대에 의하여 全滅됨으로써 江을 도하하려던 그들의 企圖가 一時 좌절되었다.

그러나 8월 初 敵은 끝내 昌寧 西쪽에서 江을 건너 그곳의 美 제 24사단과 또 한차례의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 戰鬪를 치룬뒤에 제 17연대는 8월 2일 玄風 西쪽 洛東江 突出部로 나아가 계속 敵侵에 對備하다가 8월 7일 제 1군단(장, 金弘壹 소장)作命에 依하여 이곳을 떠나 密陽—大邱를 거쳐 靑松 南方의 九山洞으로 轉進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 제17연대장 金熙濬 대령

(1978. 2. 11 建設共濟組合에서, 예 소장)

우리 연대는 7월 하순 安東에서 大邱를 거쳐 勸彬里로 갔는데, 그곳 國民學校에 예비대인 제 3대대를 位置케 하고 연대 CP를 支署안에 정했다. 나는 그 支署에서 美 제24사단장 Church 少將을 만났다. 당시 연대병력은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2,400명 內外였을 것이다.

敵은 北傀 제 4사단이며 이곳에서 1,000명 內外의 병력손실을 본 것으로 안다.

그때에 우리 연대가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戰鬪前에 敵 side car兵을 捕獲하여 敵의 企圖와 暗口號를 探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side car는 居昌으로부터 勸彬里로와서 다시 陝川가는 道路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내가 직접 본부중대원을 지휘하여 붙잡았다.

十二里戰鬪는 敵 先發隊가 洛東江을 건너 侵透한 것인데, 제 2대대장 宋虎林 중령에게 任務를 주어 결국 제 7중대장 趙慶鶴 대위가 殊勲을 세웠다. 그때 중대장이 아주 적절한 狀況判斷으로 40여명의 敵을 全滅시켰다.

## ◇ 제 1대대장 李寬洙 중령

(1978. 2. 14 龍山 Grace Hotel에서, 예 대령)

7월달 우리 대대는 加川 東쪽 高地一帶에 배치되었다. 대대의 左側에는 美 제34연대가 있었는데 午後에 敵의 공격을 받고 철수함으로써 그 陣地를 우리 3중대가 맡았다.

그때 우리 대대가 크게 이긴 것은 戰鬪前에 勸彬里로부터 陝川가는 道路上에서 敵 side car兵을 체포함으로써 敵의 暗口號를 우리가 事前에 알고 敵을 陣內로 유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이 전투에서 敵은 1개중대 이상의 병력을 잃었을 것이다.

## ◇ 제 2대대장 宋虎林 중령

(1978. 4. 12 自宅에서, 예 중장)

연대는 化寧場에서 安東으로 갔다가 다시 高靈을 지나 德岩里로 갔다.

安東에서 大邱까지는 列車로 大邱에서 德岩里까지는 美軍 truck으로 갔으며 途中에 오래 쉬거나 잔일이 없다.

金熙濬 대령은 安東에서 大邱로 오는중 命命受領을 위하여 어딘지 갔기 때문에, 先任 대대장인 내가 연대를 인솔하였다. 애당초 우리 연대는 馬山으로 가기 위하여 安東을 出發했는데 결국 德岩里로 오게 됐다.

德岩里에 왔을때, 美軍을 만났으며, 이곳에서 西쪽으로 더 나아가서 敵과 遭遇하게 되었는데 나는 연대장을 대행하여 재빨리 제 1대대를 前方에 내 보내고 제 2, 제 3대대는 연대본부와 함께 위치토록 하였다.

다음날 연대장 金熙濬 대령이 도착하여 우리 대대에게 敵 背後를 치라고, 하면서 前方으로 進出시켰는데, 2시간쯤 뒤 우리 대대가 온 길을 되 돌아보니, 산 비탈과 계곡을 이용하여 연대본부 쪽으로 急進하는 兵力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는 我軍의 철수병력이 아니고 敵의 攻擊隊列인 것이라고 判斷하고 제 5중대(장, 李一洙 대위)와 제 6중대(장, 郭聖範 대위)로 하여금 격멸토록 하였는데 敵 通信將校 1명을 사로잡고 30여명을 사살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대는 제획에도 없었던 역습을 하여 뜻밖에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만일 그때 우리가 이 敵을 못 막았다면 연대 CP 및 연대의 후방지역이 甚大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우리 연대는 이곳에서 4~5일 있다가 玄風으로 철수했는데, 그때 연대장을 비롯 全 大隊長이 한사코 철수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이곳이 지형적으로 대단히 유리했고, 또 실제로 많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것은 철수명령을 가지고 온 연락장교를 호되게 꾸짖어 쫓아 보낸 일이다.

## ◇ 제 7중대장 趙慶鶴 대위

(1978. 2. 17 興仁商街에서, 예 대령)

우리 대대는 居昌 쪽에서 싸우다가 玄風으로 왔는데 敵의 先發隊가 피난민 틈에 끼어 우리 뒤를 쫓아 洛東江을 건너왔다.

玄風에 도착한 다음날 연대장 幕숨에가보니 연대장 金熙濬 대령과 대대장 宋虎林 중령이 함께

앞아서 50,000:1地圖上에서, 十二里 一帶에 圓을 그리면서 「이 一帶의 “빨갱이”를 모조리 소탕하라」고 하였다.

이에 즉시 중대에 돌아와 5대의 日産 truck에 중대원을 分乘시켜 十二里로 向하였다. 그곳에 가보니까 數千名의 避亂民이 昌寧쪽으로 내려가고 있어 도저히 이 많은 사람을 檢索할 수는 없었다.

하는 수 없어, 나는 마을 대표들을 만나 그들 스스로 共匪들을 찾아내도록 하였는데 青年團長과 里長等 代表들이 異口同聲으로 共匪들은 이미 이른 새벽「비슬산」쪽으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그후 우리 중대는 青年團長의 안내를 받으면서 琵琶山으로 올라가는 도중 後川里에서 한 老人을 만났다.

其 老人은 「조금 더 가면 月谷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 뒤에 대나무밭이 있으며, 그 대나무밭 가에 齋室이 있는데 지금 수십명의 적이 그 齋室에서 점심을 지어먹고 낮잠을 자고 있으니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마을 앞으로 가지 말고 月谷 뒷산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仔細히 일러 주었다.

나는 이 老人의 提報에 따라 중대를 月谷 뒷산 西쪽斜面에서부터 高地頂上으로 은밀히 올라가 다시 대나무밭을 향하여 三面에서 포위공격토록 함으로써 한명의 我軍損失도없이 敵의 先發隊인 지방공비 40명을 사살하고 6명을 포로로 하였다. 그런데 捕虜中에는 麗嶺叛亂事件時 제14연대 所屬인 小隊長 1명이 끼어 있었으며 12살된 어린아이라도 있었다.

우리는 이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들이 北傀 제4사단의 先發隊이며 洛東江渡河地點을 찾아 本隊에 연락토록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제4중대 박격포소대장 李弘根 대위

(1978. 3. 16 大韓商工會議所에서, 예 대령)

우리 중대는 居昌에서 靈彬里로 가는 道路로부터 北쪽으로 300m, 加川에서 東쪽으로 700m 떨어진 △357일대에 배치되었으며, 연대본부는 우리 중대로부터 2km쯤 뒤에 있었다.

우리가 美軍을 쉽게 救出할 수 있었던 것은 事전에 北傀軍의 暗口號를 알았기 때문이다.

지역 식사를 먹을 무렵 우리 소대에서 멀리 보이는 道路를 따라 靈彬里 쪽으로 敵 side car가 지나가기에 즉시 大隊로 보고했는데 「그냥 통과시키라」는 指示가 다시 내려왔다. 나중에 들으니 연대수색중대에서 이들을 사로 잡았다고 하였다.

그 side car가 지나간 뒤 2시간쯤 되어서 우리는 박격포의 사격제원을 산출해 두었는데 밤 11.00에 敵이 예상했던대로 침공하여 왔다. 당시 우리 연대의 暗口號는 “손불엇” “불엇다”였고 敵의 暗口號는 “菊花” “無窮花”였는데, 우리 소대 先任下士官인 柳中上가 敵의 暗口號를 재치있게 활용함으로써 敵을 5m가까이 誘引할 수 있었다. 初戰은 별로 치열하지 않았으며, 子正이 넘었을 때 우리의 기습으로 격전이 전개되었고 마침내 2truck 이상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敵은 이튿날 再次 공격해왔는데 이때 나는 負傷을 입고 후송되었다.

#### ◇ 제2대대 정보장교 李幸柱 대위

(1978. 4. 22 稅友會館에서, 예 준장)

우리 대대는 安東에서 점심을 먹고 車輛으로 大邱로 갔는데 다시 이곳을 떠나 靈彬里에 도착하였을 때는 몹시 어두웠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Carbine M2를 지급받았으며 美軍에서 支援된 155mm砲陣地 옆에 대대본부가 위치하였다.

우리 대대는 이곳에서 이튿밤을 자고 다음날 낮에 前方에 투입되었으나 左側方의 美軍部隊가 무너짐으로써 별 전투없이 후퇴하였다.

그뒤 계속 예비대로 있었으며 해가 질 무렵 이곳에서 德岩里 근방으로 철수하였다가 다시 美軍 車輛으로 玄風으로 갔는데 移動途中 美 空軍으로부터 공습을 받기도 하였다.

玄風에 도착하여 조금 지나니 날이 새었으며 그날 午前에 어떤 높은 산에 배치됐는데 우리 대대가 예비대라고 하였다.

玄風에서 몇일 있다가 다시 密陽을 거쳐 安熙 쪽으로 이동하였다.

4. 河東—晉州 附近 戰鬪(1950년 7월 25일부터  
1950년 7월 31일까지)참조: 별책부도 제 28 호  
상 황 도 제 76~78호

##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嶺南 전성관구사령부 사령관	소장 蔡 秉 德	제 2 대대	장 중령 Thomas M. McGrail
閔부대	장 대령 閔 穢 植	배속부대	
제 3 연대	장 중령 朴 炫 洙	美제 29연대	
제 9 연대	장 중령 俞 海 濬	제 1 대대	장 중령 Wesley E. Wilson
제 30 연대	장 중령 金 龍 周	제 3 대대	장 중령 Harold W. Mott
배속부대		美제 13포병대대	장 중령 Charles W. Stratton
李부대	장 중령 李 暎 奎	右인접부대	
海兵隊	장 중령 金 聖 恩	美제 1 기갑사단	장 소장 Hobart R. Gay
美제 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제 19 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제 1 대대	장 중령 Robert Rhea		
敵 軍		我 軍	
北傀 제 4 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北傀 제 14 연대	장 대좌 韓 日 來
제 6 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 15 연장	장 대좌 金 顯 基
제 13 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砲兵연대	장 중좌 林 海 民

## 나. 전투후의 개황

本 戰鬪는 嶺南地區 前성 관구사령부(사령관, 蔡秉德소장)가 美제 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의 일부 병력과 協同하여, 湖南의 海岸線을 거쳐 河東으로 迂回侵攻하는 北傀 제 6 사단(장, 소장 方虎

山)을 濼擊하여 晉州를 失陷하기까지의 7일간의 遲延戰을 다루었다.

敵軍의 狀況: 北傀 제 6사단은 7월 23일에 光州를 占據한 뒤, 이른바 그들의 4차 侵攻으로 河東 및 晉州를 거쳐 洛東江線으로의 侵入을 企圖하여, 同월 25일에 그 主力으로써 順天 및 光陽을 掠取하고 河東으로 接近하고 있는 중이고, 一隊은 智異山西麓의 細路를 따라 花開場을 거치면서, 그의 先發隊으로써 新院里(河東의 對岸)에 이르러 河東을 挾擊케 할 態세를 갖추고 있었다(湖南地區戰鬪 參照).

河東에 進出한 戰力은 花開場으로 迂回한 北傀 제 6사단의 일부로써 兵力은 1,000명, 主要裝備는 T-34戰車 2대를 비롯하여 122mm 및 76mm 榴彈砲 各 2門, 120mm 迫擊砲 2門, 그리고 45mm 對戰車砲 7門으로 推算되었는데 晉州戰鬪 때에는 1개 사단 규모로 增強된 것으로 判斷되었다.

즉, 위에 알려진 바로는 이 무렵 그들의 兵力은 10,000명에 이르고, 主要裝備는 T-34戰車 4台, SU-76自走砲 18門, 122mm 榴彈砲 14門, 76mm 野砲 38門, 그리고 122mm 迫擊砲 22門인 것으로 밝혀졌다.

我軍의 상황: 陸軍本部는 作命 제 70호(50.7.25)로써 前任 參謀總長이던 蔡秉德소장으로 하여금 兩原-河東線에서 李應俊부대와 閔繼植부대를 統合指揮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通信手段이 杜絶된 状況下에서 李應俊부대는 順天으로부터 麗水로 撤收중이며, 閔繼植부대는 雲峰으로부터 咸陽으로 遲延戰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湖南地區戰鬪 參照).

이러한 까닭으로 河東地區에는 新編 제 5사단 제 15연대의 일부 병력(장, 李暎奎 중령) 100명만이 分散된 상태에서 三三五五로 集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때, 美제 8군사령관 Walker중장은 23일에 湖南方面으로 迂回한 敵이 時速 3.2km로 前進하여, 그 先頭가 安義 및 晉州에 到達(이는 錯誤이며 이날 敵은 全州 및 光州에 集結중)하였을 것이라는 情報報告에 接하고 전날 金康부근에 集結하여 정비중에 있던 美제 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을 급히 晉州로 轉進시키기로 決心하였다.

이에 따라, 該사단의 제 19연대(-1)는 24일 밤에 晉州로 移動하고, 이어서 25일 저녁에는 沖繩를 發進한 제 29연대(-1)가 該地로 躍進하여 제 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에 배속되었다.

이들 兩연대의 戰力을 一瞥하면, 제 19연대(-1)의 實戰鬪兵力은 600명이고, 裝備는 T/E의 35%이며, 연대장 Ned D. Moore 대령은 25일에 부임하였으므로 아직 연대의 실정도 익숙치 못하였다.

또한, 제 29연대(-1)는 7월 15일에 沖繩로부터 出動命을 받았는데, 연대장 및 연대본부는 새로운 연대편성을 위하여 基幹人員으로 殘留하고, 제 1 및 제 3兩대대만이 25일에 晉州에 到着하였으며, 兵力 및 裝備는 100%에 가까웠다.

그러나, 訓練상태는 零點照準이나 迫擊砲의 시험사격도 못하였고 심지어는 機關銃의 手入마저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 (1) 작전계획

申性模 國防部長官은 7월 24일에 嶺南면성관구 사령관으로 補職된 蔡秉德소장의 申告를 받고, 『河東은 湖南과 嶺南을 連結하는 要域이며 晉州 및 泗川으로 이르는 通路이니 필히 防守하여야 한다.』라고 재삼 力說하였다.

蔡秉德소장은 한때 敗戰의 責任을 痛感하고 失意에 빠져 있었으나, 이처럼 莫重한 作戰任務가 賦與되자 生氣를 되찾은 듯이 기뻐하고 다음날 아침에 丁來赫중령을 帶同하고 河東으로 달려갔다.

여기서 現地를 偵察한 그는 該地區의 重要性을 再認識하였으나 이에 비추어 該郡이 全然 防備태세가 없었음을 비로소 알고 慨嘆해 마지 않았다.

이때, 그의 苦衷을 알아챈 丁來赫중령은 『제가 이곳에 남아 情報를 수집하면서 밀려 내 려오는 부대를 수습하여 방어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快히 승 인하고 그를 남긴채 淸州로 돌아갔다.

그는 그 길로 美제 19연대장 Ned D. Moor대령을 방문하여 『湖南地區로부터 東侵中인 敵 을 河東에서 막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強調하고, 自身도 河東으로 갈 것이라고 表明하였다 이리하여 兩者간에는 河東을 固守하기로 合議가 이루어졌는데, 蔡秉德소장은 攻擊梯隊의 顧問으로 隨行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에 陸軍本部로부터 作命 제72호(50.7.25 23.00)가 下達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 과 같다.

- 『① 河東方面으로 南下한 敵은 1개 大隊규모이며 若干의 裝甲차를 同伴하고 있음. 軍은 該敵을 河東에서 阻止 擊滅하려 함.  
 ② 嶺南전성관수 사령관은 遲滯없이 河東으로 躍進하여 東侵하는 敵을 擊滅하라.  
 ③ 行政事項: 장갑차 공격時에는 휘발유병(휘발유 充塡)을 사용할 것.  
 ④ 전투지휘소의 위치를 보고하라.』

그러나 蔡秉德소장에게는 手下兵力이 전혀 없었으며, 매마침 그의 곁에 있던 朴炫洙중령 (新編제 3 연대장)과 副官 李相國소령 및 金永赫대위를 隨行시켰을 뿐이었다.

## (2) 작전실시

### (가) 河東부근의 戰鬪

7월 26일: 4일전부터 계속 내린 비로 대부분의 河川은 氾濫하여, 車輛機動은 물론 航空 支援까지도 制限받았다.

河東의 失陷: 單身으로 河東에 남았던 丁來赫중령은 彼我의 상황을 전혀 아는 바 없었는 데, 日沒무렵에 花開場쪽으로부터 李嘆奎부대가 分散撤收하였다.

이들 30여명을 收容하는 한편 現地에서 募兵한 民兵 300명을 습하여, 1個隊를 編組한 다음, 河東橋의 東岸에 배치하고 淸州에서 援軍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그의 判斷으로서는 花開場이 25일 12.00에 敵手中에 들어갔기 때문에 17.00쯤에는 이곳 河東으로 들이닥칠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 以前에 援軍이 到着하기를 一刻如三秋의 느낌으로 苦待하였다.

그런데, 22.00가 되자 병사들은 제각기 『敵이 나타났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丁來赫중령은 陣前의 接近路를 望見한즉, 틀림없이 1개 大隊규모의 敵이 縱隊行 軍으로 接近하고 있으며 그 先頭는 이미 豆谷里(河東北쪽 700m)에 到達하고 있었다.



該敵을 단 1分間만이라도 遲滯시키기로 決心한 그는 至近距離까지 敵을 誘引하여 사격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10餘分간 射擊戰을 벌였는데 그사이에 병사들은 任意로 離脫하므로써 마침내는 12~3명의 남게되어 이들 殘存병력만을 이끌고 23.00에 河東을 빠져 晉州로 向하였다.

뒷 날, 丁來赫중령은 證言에서 『河東에서 撤收할 때까지 李暎奎중령(李暎奎부대장이라고 불렀음)을 만난 記憶이 없으며, 다음 날 새벽에 院田洞(晉州 西쪽 12km)에서 蔡秉德소장과 만났을 뿐이다.』라고 述懷하였다.

**美제29연대 제3대대의 出擊**: 한편, 이와 거의 같은 時刻에 美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은 河東이 失陷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배속된 제29연대 제3대대장 Horald W. Mott중령에게 河東으로 進出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同대대장은 연대장에게 건의하기를 『대대는 전투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砲兵과 重迫擊砲의 支援도 없이 戰鬪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곤란한 상태인 바 공격보다는 오히려 방어가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대장은 『完全히 편성된 대대의 現戰力으로 能히 敵을 阻止할 수 있다.』라고 무마하며 그의 具申을 棄却하였다.

대대장 Mott중령은 날이 새기 前에 河東으로 躍進하기로 다짐하고 該地까지에 이르는 道路상황을 圖上 研究하였다.

河東까지의 接近路는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晉州—院田洞—河東에 이르는 主道路이요, 다른 하나는 晉州로부터 海岸을 따라 泗川, 昆陽, 辰橋를 거쳐 河東에 이르는 迂回道路이었다.

이때, 同席하였던 蔡秉德소장은 河東을 往復하면서 觀察한 道路網에 대하여 說明하기를 『兩 道路는 모두 狹少한 細路일 뿐만 아니라, 主道路는 正谷里 西쪽 1km의 德川江이 氾濫하여 昆陽으로 迂回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일렀다.

이날 00.30에 대대는 車輛機動으로 晉州를 出發하였는데, 道路를 가로지른 수 많은 도랑에 車輛이 빠지는가 하면, 前方에 대한 搜索을 마치고서야 대대가 進出하였던 까닭에 이를 數次 反復한 끝에 院田洞에 到着하였을 때에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기에서 河東으로부터 撤收중인 丁來赫중령의 一行을 만나, 비로소 전날밤에 河東이 敵의 手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蔡秉德소장은 丁來赫중령의 奮戰을 致賀하고 晉州로 돌아가 休息을 취하라고 하였다.

한편, 敵情을 알게된 대대장 Mott중령은 隊員들에게 食事を 하도록하고 부대대장 Raibl 소령과 앞으로의 對策을 熟議한 끝에 그는 이 상황밑에서 河東으로 進出한다는 것은 火藥을 걸머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 될 것이라고 結論을 내리고 연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現 위치에서 방어할 것을 건의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無電이 故障났으므로 부대대장을 晉州로 急派하는 수 밖에 없었다.

연대지휘소에 이른 Raibl소령은 연대장 Mott대령에게 彼我的 상황을 보고한 뒤 現地에서 방어와 增援병력의 急派를 具申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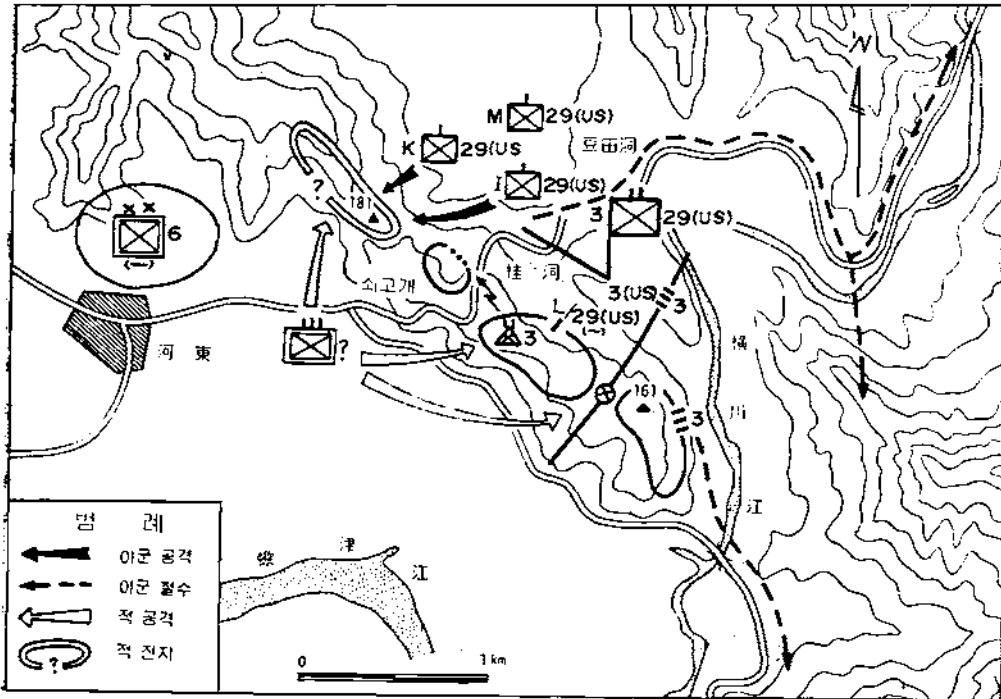
잠시 동안의 熟考뒤에 연대장은 斷乎히 이르되 『나의 決心에는 變함이 없다. 대대는 遲滯없이 河東을 공격 奪取하라.』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增援문제는 곧 到着할 砲兵중대와 戰術航空統制班을 增派하겠다.』라고 約束하였다.

이렇듯 Raibl소령이 晋州를 往復하는 사이에 意外로 많은 時間을 浪費하게 됨으로써 대대가 橫川里(河東 東北쪽 8km)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대대장 Mott 중령은 訓練되지 않은 병력으로써 夜間에 接觸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서 野營키로 하였다.

이 때, 1명의 空軍장교가 航空統制班과 無電車를 이끌고 當到하였는데, 그의 任務는 다음날에 있을 空中攻擊을 지시하는 한편, 연대본부와의 通信連絡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그 無電機는 故障난 것이었다.

제30연대의 併進: 蔡秉德소장은 美제29연대 제3대대와 함께 河東으로 躍進키로 하였으나, 萬一에 敵이 南海岸의 街道로 侵攻할 때에는 同대대의 連絡路가 遮斷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河東으로의 進出計劃이 水泡로 돌아갈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 상황도 제76호 쇠고개(牛橋)의 상황(7.27)



바로 이 때, 閔부대 諫下的 제30연대(장, 金龍周 중령)(연대병력은 불과 1개 중대)가 晉州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연대장을 招致하여 出擊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同연대는 美제 29연대 제 3대대와 함께 晉州를 出發하여 昆陽에 이르러, 이로부터 美軍과 分進하여 南海岸의 街道를 따라 辰橋(昆陽 西쪽 7km)를 거쳐 一路 이남 坂 안으로 蟾津江의 江口인 俗稱 섬방까지 直進하여 野營하였다.

그런데, 同연대장 金龍周중령은 이곳에 到達할 때까지 河東이 失陷된 사실과 併進중인 美軍의 進出線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었다.

7월 27일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아침 08.00에는 濃霧마저 활짝 걷히어 날씨가 맑았다.

쇠고개(牛峙)의 被襲 : 08.45에 美제 3대대(장, Harold W. Mott 중령)은 橫川리의 野營地에서 河東을 向하여 躍出하였다.

行軍序列은 L중대(前衛), 대대본부, K중대, M중대, I중대(後衛)의 順이었으며, 前衛인 L중대에게는 M중대에서 1개 소대를 增援하여 先導의 임무를 맡겼다.

대대장 Mott중령이 L중대장 George F. Sharra대위로 하여금 前衛의 重責을 맡긴 까닭은 그가 제 2차 세계대전중 Africa 및 獨逸戰線에서 小銃중대장으로 活躍한 戰歷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대대가 한 시간 남짓, 接敵行軍을 하여 L중대가 쇠고개(牛峙)에 이르렀을 때, 最先頭에 나섰던 중대장 Sharra대위는 敵兵 10여명이 앞쪽 稜線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目擊하고, 중화기 소대장에게 사격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2문의 75mm 無反動銃으로 該敵을 사격하였으나 命中하지 않았다.

중대장 Sharra대위는 敵이 쇠고개(牛峙)를 先占할 경우에는 河東으로 이르는 通路가 막힐 것이라고 直感하고, 각 소대로써 쇠고개(牛峙)의 고개마루로 突進케 하여, 通路의 兩쪽을 一舉에 奪取하였다.

蔡秉德소장과 同行중인 대대장 Mott중령은 중대장 Sharra대위의 戰況보고를 받고, 단숨에 쇠고개(牛峙)로 달려가 地形과 敵의 動態를 살핀 다음, L중대장에게 『고갯마루의 兩쪽을 계속 堅持하여 09.45에 있을 航空支援과 함께 河東으로 공격하라.』라고 명령하였다.

用意周到한 L중대장 Sharra대위는 공격에 앞서 그들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소대장에게 명령하여 散兵線를 파고 있었다.

이 무렵, 제30연대장 金龍周중령이 指揮하는 1개 중대는 △151(쇠고개 마루에서 南쪽으로 400m)로 進出하여, L중대와 連繫하였다.

蔡秉德소장의 陣歿 : 대대장 Mott중령에 이어 대대참모들이 쇠고개(牛峙)에 올랐고, 뒤이어 蔡秉德소장의 一行(朴炫洙중령, 金相國대위, 金永赫중위)도 뒤따라 올라갔다.

이리하여, 쇠고개(牛峙)마루에 指揮官과 參謀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었으므로 敵에게 좋

은 目標가 되어 버렸다.

L중대장 Sharra대위는 병사들의 作業을 督勵하다가 北쪽 △181에 敵兵이 右往左往하는 것을 目擊하고, 대대장에게 이를 가리키자, 그는 대대의 後尾에서 뒤따르던 부대대장 Raibl 소령을 無電으로 불러, K중대를 該高地로 投入하라고 명령하여 該중대는 桂洞(쇠고개 東쪽 1km)에서 散開하여 躍進하였다.

이 때의 상황에 관하여 朴炫洙중령은 證言하기를 『나는 △181의 병력이 李暎奎부대의 一部가 아닌가 하고, 友軍간에 사격전이 되는 時分 알고 마음이 조마조마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대대장 Mott 중령은 河東쪽에서 S字形의 길을 따라 쇠고개(牛峙)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2列縱隊로 接近하고 있음을 發見하고, 方今 K중대를 散開시키고 이곳에 當到한 부대대장 Raibl 소령에게 『저 敵을 注視하라.』라고 指示하였다.

이 時, 蔡秉德소장도 이 敵을 雙眼鏡으로 目擊하였으나 彼我를 分揀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掠奪한 我軍服裝으로 混着하였기 때문이었다.

L중대장 Sharra대위는 全隊員에게 戒令을 發하여 敵이 至近距離로 接近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敵은 쇠고개(牛峙)에 我軍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의 尖兵으로 보이는 先頭가 40m 앞에 이르렀을 때, 蔡秉德소장은 『너이들은 敵이나? 我軍이나?』라고 高喊을 질렀다.



<쇠고개(牛峙)의 全景>

이러자 마자, 그들은 對答도 없이 곧 散開하여 道路兩쪽의 도랑으로 뛰어 들었다.

瞬間에 L중대장 Sharra대위는 『사격개시』를 외쳐 機關銃, 小銃의 一齊사격을 퍼부었다.

奇襲을 받은 敵은 發狂의으로 應射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初彈은 미처 避身하지 못한 蔡秉德소장의 頭部를 貫通하여 그 자리에서 戰歿하고 옆에 있던 대대장 Mott 중령, 부대대장 Raibl 소령, 대대 S-2도 重傷을 입었다.

이로부터 敵의 迫擊砲彈이 雨注하여 戰術航空統制班의 無電車輛과 대대 指揮車輛이 破壞됨으로서 대대 指揮가 마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09.45에 2개 編隊의 航空機가 同대대의 공격을 支援하기 위하여 上空에 飛來하였으나, 地上의 無電機가 破壞되는 바람에 連絡조차 이루지 못한채 돌아가 버렸다.

L중대의 血戰: 敵은 한때 대대가 混亂에 빠져 있음을 알아 차렸는지 맹렬한 砲擊의 支援를 받으며, 道路의 右側後線을 固守하고 있는 Morrissey소대로 殺到하였다.

그럼에도 同소대는 그들의 狂波를 陣前에서 擊退 또 擊退하면서 K중대의 공격에 加勢하는 餘裕를 보였다.

이때 쇠고개(牛峙)의 左側後線에 배치된 L중대의 主力도 潮水와 같이 밀려드는 敵을 맞아 一進一退하는 熾烈한 激戰을 벌였는데 그들을 敵制할 수 있는 地形的인 利點과 중대장 Sharra대위의 不退轉의 지휘에 힘입어 當面한 敵을 潰滅하고 맞은쪽 Morrissey소대에 緊要하게 달라붙는 敵을 털어 버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L중대장은 K중대의 左側소대가 離脫하여 L중대쪽으로 밀려 내려오자 『本隊로 돌아가 △181를 奪取하라.』라고 號令하였다.

12.00에 L중대 부관 Philips중위로부터 行방불명 되었던 대대장 Mott 중령을 찾았다고 보고하여 중대장 Sharra대위가 달려갔던 바 대대장은 그에게 대대의 지휘를 委任하면서 敵으로부터 대대를 離脫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각대와 연락이 杜絶된데다 제각기 激戰의 도가니속에 휘몰아치 지휘가 마비된지 오래였다.

L중대장 Sharra대위는 손실이 激增하고 있는 자신의 중대만이라도 우선 그들과 離脫시켜 병력을 수습한 뒤에 再起할 것을 決心하고 중대를 桂洞으로 뺐다.

그러나, 쇠고개(牛峙)右側に 나가 있는 Morrissey소대는 連絡을 하지 못하였는데 뒤에 單獨행동(後述)으로 敵中을 突破하고 빠져 나와 合勢하였다.

△181奪取의 失敗: 한편 K중대는 △181를 奪取하기 위하여 △49로부터 散開하여 躍進 또 躍進하여 同高地의 中腹에 이르렀을 때는 쇠고개(牛峙)에서 激戰을 치른 L중대의 Morrissey소대가 敵의 右側方으로 衝撃을 加하여 目標의 奪取는 용의한 듯 하였다.

그러나 敵은 時間이 흐를수록 兵力과 火力이 점차 增強하여 중대의 進出은 7分後線에서 못박힌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대대 S-3 Flynn대위는 대대장이 行方不明이 되고 부대대장마저 晉州로 後送되자 이 危機를 자신이 직접 打開하기로 다짐하고 桂洞으로 달려가 중화기중대로 하여금 K중대의 공격을 사격지원토록 조치한 뒤에 I중대를 찾아 L 및 K중대의 間隙으로 投入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중화기중대의 火力支援 밑에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敵은 陣地를 굳힌 뒤였던 까닭에 얼마안가 그들의 火網에 걸려 孤立한 상태에서 右往左往한다가 마침내는 兩중대장이 行方不明되면서 많은 死傷者를 남긴채 隊伍가 흩어져 桂洞쪽으로 밀려났다.

한편 K중대의 左側에서 併攻하던 L중대의 Morrissey소대는 一進 一退의 激戰을 치르며 目標 △181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K 및 L兩중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공격계시선으로 물러나 쇠고개(牛峙)의 右側稜線을 固守하고 있었다.

이무렵 소대의 殘存병력은 소대장 Morrissey중위 以下 12명, 彈藥은 個人當 數發씩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물러드는 敵에게 몇발 남지 않은 手榴彈으로 對抗하던 중 대대 S-3 Flynn대위가 敵彈雨를 뚫고 必死的으로 올라가 同소대를 이끌고 桂洞으로 빠져 나갔다.

제30연대의 分散 : 제30연대장 金龍周중령은 蔡秉德소장의 最後를 지켜본 다음, 곧 激戰中인 L중대의 後斜面을 가로 질러 △161로 달려갔다.

敵과의 交戰은 점차 加熱化하고 그들의 迫擊砲彈은 露出된 연대로 集中強打함으로써 이를 避하려는 병사들은 右往左往하여 死傷者는 續出하였다.

연대장은 이 高地를 固守하지 않으면 敵에게 美제 3대대의 左側方을 暴露하게 될 것이라고 判斷하고 小銃뿐인 火力으로 그들의 接近企圖를 陣前에서 擊碎하고 또 擊碎하였다.

병사들은 嶺, 湖南各지구에서 募兵한 訓練되지 않은 新兵들이 있음에도 寸土를 놓고 밀고 냉기는 血戰을 하면서도 同高地를 堅持하였으나, 세차게 밀어닥친 그들의 狂波와 隈下에서 激戰중인 右제 1선의 美제 3대대에서 갑자기 動搖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병사들은 불뿔이 隊列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연대장 金龍周중령은 大呼一聲으로 『이놈들아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들이 지켜야 할 땅은 바로 여기다!』라고 외쳐 일부의 병력은 되돌아 서기도 하였으나 兵力은 半減된데다 彈藥마저 떨어진 現 상태에서 高地의 支撐을 固執한다는 것은 병력의 손실만을 自招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後圖를 策하기로 다짐하고 연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 때에는 右제 1선의 美제 3대대의 主力은 桂洞으로 逐次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同연대는 끝내 戰列을 회복하지 못한채 하나, 둘씩 자개로 分散된 상태에서 晉州로 빠져 나가기에 이른다.

晉州로의 離脫 : 美제 29연대 제 3대대는 敵의 壓縮으로 쇠고개(牛峙)로부터 無秩序하게 離脫하게 되자 1개 대대규모의 敵은 곧 追躡하여 桂洞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L중대장 Sharra대위는 桂洞에 이르러 중대를 收拾하였는데 그는 同중대만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錯覺하고 車輛으로 同地를 出發하여 晉州로 向하였다.

途中에서 河東으로 달려가던 美제13포병대대의 B포대를 만났는데, 同 포대장은 연대장 Moore대령의 명령을 받고 제3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08.00에 晉州를 出發하였으나 道路가 不良할 뿐만 아니라 偵察을 반복하느라고 몇번이나 前進를 멈춰가며 더듬어 왔기 때문에 遲滯되었다는 것이다.

同포대장은 L중대장으로부터 細密하게 敵情과 我軍의 상황을 듣자 晉州로 돌아가기로 決心하고 砲를 들리다가 105mm野砲 1門과, 牽引車 4臺가 논두렁에 빠져 하는수 없이 砲의 공이를 빼서 放棄하고 L중대와 함께 晉州로 돌아갔다.

한편, 대대 S-3 Flynn대위는 L중대의 Morrissey소대를 이끌고 桂洞에 이르자 그곳에는 중대장을 잃은 I 및 K중대의 병력 60여명이 모여 있어 이들과 함께 잠시 休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數를 헤아릴 수 없는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고 分散되어 그는 사병 10명을 이끌고 28일 아침에 晉州에 到着하였다.

또한 I중대의 Applegate상사는 99명의 병사를 이끌고 橫川江을 따라 南쪽으로 내려가 露梁津(河東 東南쪽 18km)에서 漁船을 타고 麗水로 갔다가 韓國海軍의 哨戒艇에 救出되어 釜山으로 輸送되기도 하였다.

제19연대 G중대의 搜索戰: 이날 아침에 제19연대 G중대장 Barszcz대위는 연대장 Moore대령으로부터 晉州—河東간에 竄動할지도 모를 共匪들을 掃蕩하며 後方地域경계에 임하라는 명령을 받고 中隊員 78명을 車輛에 分乘시켜 河東으로 向하던 中 玉亭里(院田 西쪽 4km)에 이르러 三三五五로 흩어져 내려오는 L중대의 殘存兵力 50여명과 만났다.

그들은 개천을 건너고 논바닥을 헤쳐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內衣(샤츠와 팬츠)와 신발이외에는 걸친 것이 없었고 무기는 M1 및 권총 각 한자루 뿐이었다.

중대장은 그들로부터 더 많은 落伍兵이 내려올 것이라는 병사들의 말에 따라 중대를 그곳 道路 兩쪽에 경계병을 배치하여 收拾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效果를 걸우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날(28일) 새벽 04.00에 대대 S-3의 Montesclaros대위가 來到하자 晉州 西쪽을 방수하라는 대대장 McGrail중령의 명령을 받고 復歸하였다.

美제19연대장의 決心: 제19연대장 Moore대령은 이날 午前까지도 河東進擊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는줄 알고 있었고, 午後에 後送된 제29연대 제3대대 부대대장 Raibl소령이 첫 보고를 하였을 때도 상황을 樂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 續續 到着하는 脫出한 장병의 말을 듣고 비로소 戰況의 전모를 알게 된 그는 大驚失色하고 사단장 Church소장에게 河東戰鬪의 顛末을 보고하고 그의 承認밑에 일단 同戰鬪는 매듭짓기로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院田洞—昆陽以西는 敵에게 開放하는 바가 되기에 이르렀다.

연대장 Moore대령은 즉각 제29연대 제3대대의 收拾에 나서 同대대의 殘存兵力 354명을 再編成하여 K 및 L兩중대로 補充하고 뒤이어 29일에는 K중대를 제19연대 제2대대로, 그

리고 I 중대를 同연대 제 1 대대로 各各 배속하였다.

이날 단 하루의 河東부근 戰鬥에서 韓國軍側 으로서는 巨星 蔡秉德 소장이 散華하고 金龍 周중령이 指揮하는 제 30 연대에서 50여명(推算)이 戰死하였다.

한편 美軍의 損失은 이때 確認된 바에 의하면 戰死 2명(K 및 M 중대장) 負傷 52명(이중에는 대대장, 부대대장, 대대 S-1, 同 S-2가 포함되어 있음), 行方不明 349명이었고 장비는 車輛 30대와 全共用火器 및 全 通信器具, 그리고 個人火器였다.

이때 行方不明되었던 I 중대장은 그들에 俘虜되었다가 이해 10월에 平壤에서 脫出에 成功하여 原隊로 復歸하였다.

한편 이해 9月末에 美제 25사단은 河東을 收復하고 調査한 바에 의하면 314구의 美軍屍體를 發見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桂洞과 豆田洞사이의 개천과 논바닥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위에 晋州戰鬥에서 俘虜한 敵은 河東에서 美軍俘虜 100餘名을 보았다고 陳述하였다.

#### (나) 晋州부근의 戰鬥

當面한 戰線의 危機: 7월 28일에 美제 8군의 情報報告는 軍의 西側方 즉, 居昌 및 晋州 쪽으로 各各 1개사단 규모의 敵이 侵攻하고 있다는 徵候를 잡았음에도 이에 대한 信憑性을 굳히지 못하고 다만 北傀의 제 4사단이 晋州로 東進하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美제 8군은 이에 對한 對備策으로 戰力이 半減된 美제 24사단의 主力을 該地로 急派하는 彌縫策을 썼는데 실은 北傀軍중 가장 精銳를 자랑하는 이른바 제 4 및 제 6兩사단은 韓·美兩軍이 大邱正面에 主力을 두고 힘겨운 防守戰을 하고 있을때 그들은 西側方의 얽은 幕을 뚫기 위하여 先發隊는 院田(晋州 西쪽 12km)에 이르므로써 晋州의 危機는 風前燈火와도 같았다.

이 무렵에 晋州를 둘러싼 방어태세를 一瞥하면 美제 19연대 지휘부는 邑內에 있었고 同연대 제 2대대 G 중대는 院田洞에서 晋州街道를 遮障하고 있는 한편 연대의 主力은 安義에서 晋州로 轉進하고 있었다.

또한 河東부근 戰鬥에서 극심한 損失을 보고 撤收한 美제 29연대 제 3대대는 前述한 바와 같이 邑內에서 再編중이었는데 戰鬥力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한편 團부대 및 美제 29연대 제 1대대는 安義線에서 北傀 제 4사단을 맞아 遲延戰을 수행하면서 晋州 西北쪽으로 接近중에 있었고 河東으로부터 分散 撤收한 李暎奎 및 金龍周兩부대는 부대 名稱을 붙이기에도 곤란한 상태에서 邑內에서 再編成을 하고 있었으나 所在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晋州에서의 緒戰에는 韓國軍부대로써 建制가 維持되고 戰鬥力을 發揮할 수 있는 부대란 한개의 부대도 없었던 것이다

美제 19연대장의 措置: 제 19연대장 Moore대령은 28일 正午에 연대의 主力이 晋州로 集結하자 無風地帶나 다름없는 晋州街道로 侵攻하고 있는 敵에 對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河東으로부터 侵攻하는 敵을 遊擊하여 이를 阻止擊破하려 함.

② 제 1 대대는 舊湖里(晉州 南쪽 10km)로 進出하여 昆陽으로부터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하라.

③ 제 2 대대는 院田洞(晉州 南西쪽 16km)으로 進出하여 晉州로 直衝하는 敵을 阻止擊滅하라.

④ 제 29연대 제 1 대대는 安義에서 계속 敵을 擊滅하고 명에 의하여 撤收하라.

⑤ 제 29연대 제 3 대대는 계속 現位置(晉州 邑內)에서 再編하고 명에 의하여 出擊할 준비를 갖추라.

⑥ 제 13포병대대(-1)는 제 19연대 제 1 및 제 2 兩대대에 火力의 우선권을 두라.』

이러하여 7월 28일 13.00에 各隊는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제 19연대 제 2 대대는 現地偵察 결과에 따라 연대장 Moore대령의 諒解밑에 1개 중대를 院田으로 進出시켜 前進진지로 삼고, 主力은 柳樹里에 布陣함으로써 左제 1선의 제 1 대대와 連繫가 이루어졌다.

7월 29일 : 이날은 아침부터 暴雨가 쏟아지고 午後에는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었다.

韓國海兵隊의 轉進 : 전날 20.30에 閔機植부대장으로부터 『海兵隊는 戰鬪를 中止하고 遲滯없이 晉州로 轉進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徒步行軍으로 이날 16.40에 晉州에 到着하여 金城國民學校 校舍에서 부대의 整備를 하는 한편 休息을 취하고 있었다.

美제 19연대 제 2 대대의 初戰 : 10.00에 모타사이클 3대를 앞세운 1개 대대규모의 敵이 晉州街道를 따라 院田洞을 거쳐 제 2 대대(장, Tomas H. McGrail 중령)의 前進陣地인 俗稱 면소담(院田 東쪽 0.6km)으로 直進하였다.

그러나 同陣地를 扼守하고 있던 F 중대는 중화기중대와 協同遊擊으로 交戰數合에 그들을 潰退시켰다.

이때 敵은 晉州에 이르기까지는 我軍이 없을 것이라고 推斷하였는지 坦坦大路를 가듯이 前衛도 세우지 않고 侵攻하다가 F 중대의 伏兵에 阻止 擊破되었던 것이다.

비로소, 그들은 同중대의 位置를 알게 되자 小數의 병력을 앞에 내세워 F 중대를 牽制하고 1개 대대규모의 敵은 同중대를 北쪽으로 迂回하여 連絡路를 遮斷할 計策으로 나갔다.

F 중대장은 敵을 擊破하였을 뿐만 아니라 早期에 展開하도록 強要하고 대대장 McGrail 중령에게 交戰상황을 보고 한 뒤에 그의 명령에 따라 街道와 竝行한 南쪽 稜線으로 철수하여 柳樹里(院田洞 東쪽 7km)에서 本隊와 合勢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上空에 나타난 航空機는 柳樹里 以西에서 活動하는 敵의 車輛과 行軍縱隊를 猛打하여 200명을 射殺하고 車輛 25대를 破壞함으로써 그들의 侵攻速度를 얼마간 遲滯시키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날 同대대의 左제 1선인 제 1 대대(장, Robert L. Rhea 중령)에서는 敵과의 接觸

이 없었다.

**美戰車隊의 增援** : 이날 새벽에 韓國戰爭 勃發이래 최초로 Fowler중위가 이끄는 M-26 Pershing戰車 3대가 晉州에 到着하였다.

美제19연대장 Moore대령은 千軍萬馬의 增援軍을 얻을과 같이 기뻐하였으나 Fowler중위의 說明을 듣고는 크게 失望하고 晉州橋의 南岸으로 推進시켰다.

그가 失望한 까닭은 同戰車는 開戰 4일째인 6월 28일에 美제 8군 兵器參謀 Olaf P. Winingstad대령이 東京에 所在하는 兵器倉庫를 샅샅히 뒤져 이를 發見하고 緊急히 大修理하여 7월 16일에 釜山港으로 보내 이곳에 到着하자 마자 晉州로 急送하였는데 fan belt가 日製古品이어서 過熱하기 일췌였고 이로 말미암아 長距離走行은 곤란하여 新品이 到着하기를 기다려야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은방이 砲臺나 다름바 없었던 것이다.

**7월 30일** : 이날 午前에는 가랑비를 뿌렸고 午後부터는 소낙비가 쏟아졌다.

敵은 晉州로 潛入을 試圖하였고 我軍은 晉州를 固守하기 위한 防禦편성을 서둘렀다.

**閔부대의 晉州轉進** : 閔부대(부대장 閔機植대령)는 逐次 遲延戰을 遂行하여 山淸에 이르렀을때 陸軍本部 作命 제86호(50.7.27 21.00)에 의거 韓國軍 제17연대(장, 金熙濬대령)가 該地區로 躍進함으로써 同부대는 이날 늦게 晉州로 轉進하여 沙村里—板門里線에 連하여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때 閔부대는 指揮所를 柳谷洞(晉州 西北쪽 2km)에 자리잡고 同부대의 主力을 이룬 제 3연대(장, 朴炫洙중령)의 제 2대대(장, 金秉化소령)(병력 700명, 장비는 全兵力의 20%가 小火力뿐임)는 山淸으로부터 沙村里—雨水里間을 점령하였고, 나머지 병력(제 1 및 제 3대대)은 同대대의 左右에 布陣하였다.

이 무렵에 閔부대 諜下의 實態를 보면 제 3연대장 朴炫洙중령은 蔡秉德소장을 隨行하다가 河東에서 負傷하여 馬山으로 後送되었고, 제 9연대장 俞海濬중령은 蔡秉德소장의 명령을 받고 咸陽으로 달려가 閔부대장을 만나 『이 이상 後退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뜻을 傳達한 뒤 晉州로 돌아가 패마침 蔡秉德소장의 戰歿消息을 듣자 그 길로 釜山으로 갔다.

그런데 同연대의 병력은 麗水에서 船便으로 釜山으로 간 뒤였다.

또한 제30연대장 金龍周중령은 河東부근 戰鬥를 마친뒤 蘆石樓에서 休息하다가 馬山으로 빠졌다.

이런 까닭에 閔부대 諜下의 3개 연대장은 모두 빠져 나갔으니 同부대에서 戰鬥力을 發揮할 수 있는 병력은 金秉化소령이 指揮하는 제 3연대 제 2대대 뿐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날부터 閔부대는 美제19연대장 Moore대령의 作戰統制下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는데 병사들은 各地區에서 募兵한 까닭에 輜糧가 非武裝이었고 계속된 戰鬥와 行軍 그리고 補給의 不良으로 士氣는 극도로 低下하고 있었다.

**海兵隊의 美軍配屬** : 海兵隊(장, 金聖恩중령)는 이날 01.00부에 의거 閔부대로부터 美제

19연대에 배속이 변경될과 동시에 同연대장 Moore대령으로부터 新粟里—望晉山간의 防守를 명령받았다.

이리하여 邑內 金城國民學校 校舍에서 42시간의 休息을 마치고 出動準備를 서두르고 있을 때 美제19연대로부터 BAR 8挺과 SCR-300 3挺을 支給받았는데 이는 美軍에게서 받은 최초의 장비일뿐 아니라 韓國海兵으로서의 처음 만져보는 武器였던 것이다.

海兵隊는 13.40에 晉州橋를 건너 晉州驛에 이르자 隊長 金聖恩중령은 병사들의 士氣를 돋우기 위하여 美제19연대장으로부터 받은 防禦명령을 공격명령(實際로는 命令에 遵守)으로 바꾸어 下達하여 공격명령으로 15.40에 各各 진지를 점령하였다.

防禦陣성은 新粟里—望晉山사이에 左로부터 右로 제 3 및 제 7兩중대를, 그리고 그 중앙의 뒤에는 지휘부와 예비로 控置한 제 2중대를 배치하였다.

이때 左제 1선은 美제19연대 제 1대대와 連繫가 이루어졌다.

16.00부터 敵의 攻擊準備 사격으로 보이는 砲擊이 雨注하기 시작하고 15분뒤부터는 左제 1선 美軍地域에서 熾烈한 사격전이 展開되었다.

隊長 金聖恩중령은 望晉山の 戰術的인 價値를 인식하고 全面방어 態勢를 갖추고 東奔西走하면서 배치상태와 火網을 再點檢하고 있었는데 1개 대대규모의 敵이 美軍의 強力한 火力에 밀려 望晉山으로 파고 들자 無名高地(望晉山南쪽 0.5km)에 내보냈던 搜索隊를 흡수하여 戰鬪態勢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17.00부터 彼我的 交戰은 加熱하여 몇차례나 泥田鬪狗의 白兵戰으로 그들과 맞섰다.

四進五退시키는 熾烈한 激戰은 밤이 깊도록 계속하였으나 有利한 地形과 咫尺을 分煉할 수 없는 暗夜, 그리고 暴雨를 이용하여 主抵抗線을 固守하였다.

반면에 敵도 피의 값은 찾아야 하였는지 奮戰에 몰린 醜敵들은 無名高地의 背斜面에 잘 거머리같이 執拗하게 달라 붙어 떨어지지 않고 긴 밤이 지났다.

**美제19연대의 상황** : 이날 美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2개연대 규모의 敵이 晉州를 南, 西兩面으로 包圍網을 좁혀들어 戰勢는 惡化一路에 있었다.

이날 연대는 사단으로부터 補充받은 新兵 775명을 날이 저물기前에 소대까지 긴급히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는 잠시라도 補充兵力이 中間梯隊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을 만큼 전투부대에서는 渴症이 나있던 것이며, 고양이와 손이라도 빌려야 할만큼 상황이 緊迫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新兵들은 전투가 最絶頂일때 배치가 이루어 짐으로써 중대진지에 이르기前에 戰死傷及 失蹤者가 續出하여 도리어 既存명력에까지 恐怖분위기를 助成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柳樹里 및 平居洞의 戰鬪** : 美제19연대 제 2대대(장, Tomas M. McGrail 중령)는 內坪里

一柳樹里간을 扼守하면서 새벽부터 陣地를 補強하던 中 이날 08.00에 연대로부터 一隊의 敵이 同대대를 迂回하여 佳花里(晉州 西北쪽 8km)로 潛入하고 있다는 通報가 들어와 後方路가 遮斷될 것을 憂慮하고 있던 時에 △191(內坪里 南쪽 0.5km)앞에 나가 있던 G중대장 Barszcz대위로부터 1개 연대규모의 敵이 正谷里(柳樹里 西쪽 3km)로 接近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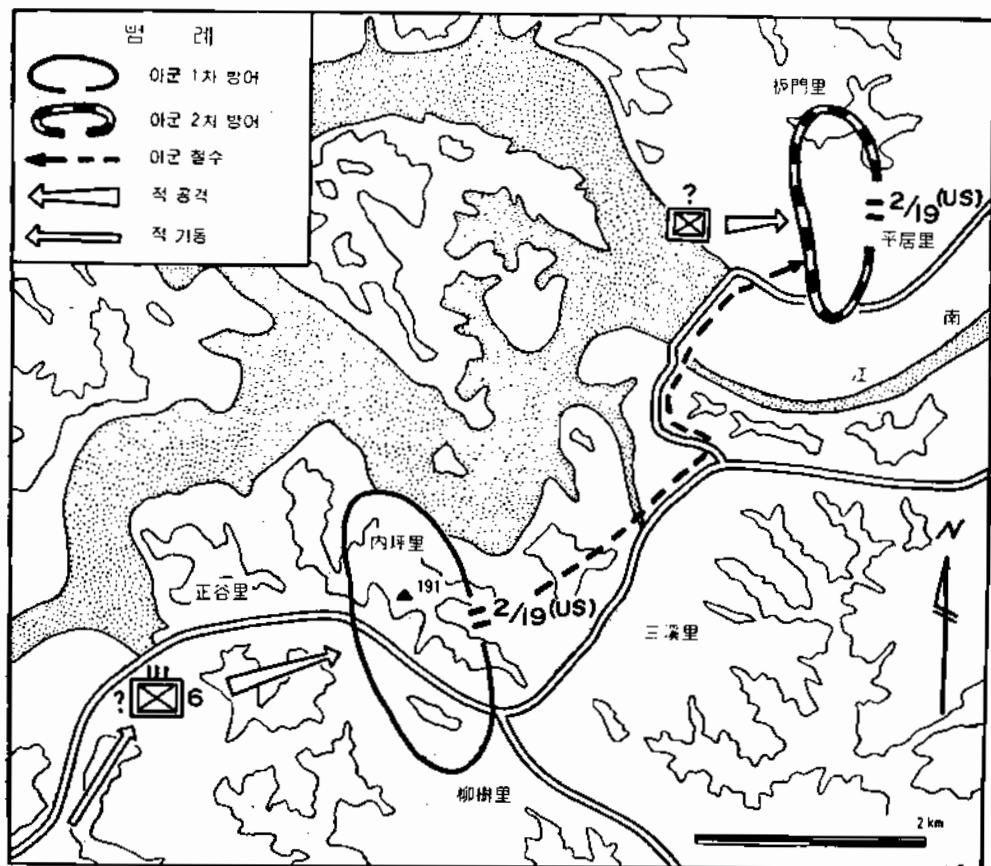
대대장 McGrail중령은 當面한 敵이 대대화기의 射距離밖에 있음을 알고 G중대장에게 該敵을 계속 監視하라고 명령하려는 刹那에 上空에는 友軍機의 編隊가 旋廻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戰術航空統制班으로 하여금 爆擊을 要請하였던 時 航空機로부터 『降雨로 말미암아 敵을 알아 볼 수가 없다.』라고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다.

切齒扼腕한 대대장은 惶急히 砲擊을 要請하기에 이르렀는데 10餘分뒤에 포병 대대에서는 砲彈이 없다는 通報가 날아 들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超緊張상태로 遊擊배세를 갖추고 있을때 연대장 Moore대령으로부터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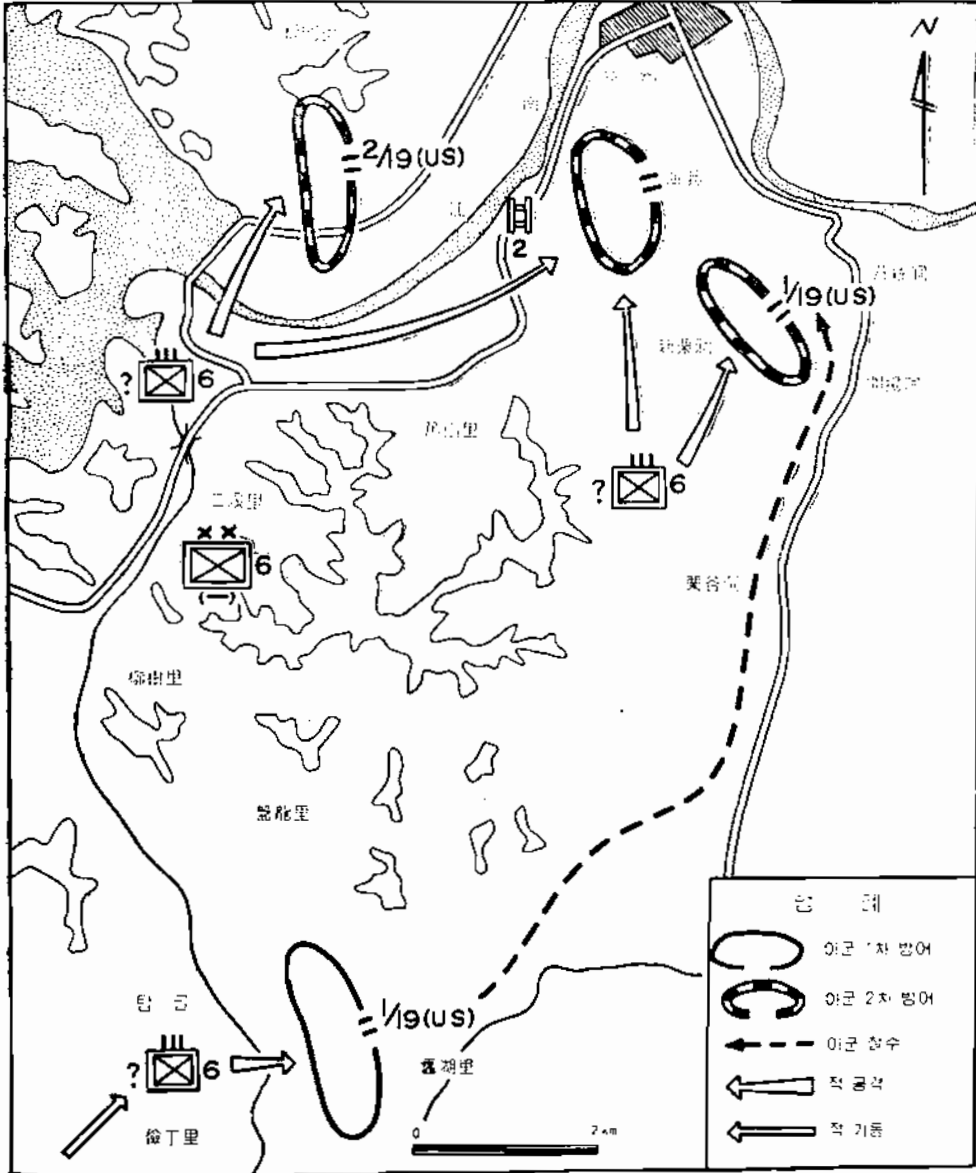
◇ 상황도 제77호 柳樹里 및 平居洞의 戰鬪(7.30~31)



대는 主力을 南江 北岸의 平居洞으로 뽑아 急編진지를 갖추고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敵과 接觸시키면서 逐次 離脫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대장 Moore대령은 山淸으로 이르는 道路가 막혔다는 諜報를 重視하고 西 및 南쪽으로 突出되어 있는 兩대대를 뒤로 물러서게하여 좀더 密度있는 晉州방어를 試圖하였던 것이다.

◇ 상황도 제78호 舊湖里 및 開揚洞의 戰鬪(7.30~31)



이措置에 따라 대대는 前進진지에 나가있던 G중대의 掩護밑에 主力은 撤收하여 板門里—平居洞간에 진지를 점령하고 뒤이어 同중대는 바싹 追擊하는 敵을 剔抉하고 저녁 늦게 本隊와 合勢하였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G중대의 뒤를 따라 붙은 敵은 一齊히 步砲協同으로 盲攻하여 다음날 02.00에 이르기까지 一進 一退를 거듭하는 熾烈한 激戰을 展開하는 사이에 通信은 斷絶되고 同대대는 孤立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대대內에는 敵의 戰車가 峯州에 侵入하였다는 風聞이 나돌아 더욱더 兵士들의 士氣는 萎縮하였다.

舊湖里 및 開揚洞의 戰鬪: 한편 美제19연대 제1대대(장, Robert L. Rhea중령)는 08.00부터 敵의 集中砲火를 받았는데 我제13포병대대가 즉각 對砲隊사격을 퍼부어 戰場의 熱氣는 한층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08.20에 1개 연대규모의 敵은 版에 박은듯이 공격준비사격이 延伸되면서 儉丁里—俗稱탑골간에 展開하여 波狀을 이르고 野地를 橫斷하여 달려 들었다.

대대의 勇성한 散兵線은 그들의 雨注하는 砲擊으로 埋沒하고, 여기에 壕마다는 빗물로 가득차 뒤범벅이 되었는데도 緒戰을 錦江防禦戰에서 겪은 바 있는 兵士들은 沈着하게 狂波를 潰滅하고 또 潰滅하였다.

그러나 敵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병력을 投入하여 계속적인 衝擊을 加하여 대대의 死傷者는 屢增하였다.

이 무렵에 연대장 Moore대령으로부터 『開揚洞—新粟里線으로 撤收하여 該線에서 敵을 阻止擊碎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하여 대대는 遲滯없이 달려붙는 敵에게 一擊을 加하고 그들과 離脫하여 秩序있게 郊外진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대가 馬山街道와 泗川을 蹙制할 수 있는 稜線에 布陣하였을 무렵에 韓國軍海兵隊(장, 金聖恩중령)는 同대대의 右제1선으로 布陣하였다.

敵은 대대의 진지점령을 妨害하려는 計策인듯이 盲砲擊으로 대대를 攪亂하고 있었으나 제13포병대대는 대대가 陣地로 進出할 때 몇발 사격하고는 沈默하였다.

砲彈이 바닥났던 것이다.

이때, 대대장 Rhea중령은 當面한 敵이 右제1선의 韓國海兵隊로 迂回하고 있음을 目擊하였으나 海兵隊가 陣前으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友軍간의 激突을 막기 위하여 사격을 中止한 채 3~4시간을 지나쳐 이르 말미암아 그들에게 時間을 許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대장 Rhea중령의 錯覺이었으며 海兵隊는 연대장으로부터 공격을 명령받은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부대의 現 戰力으로서는 방어가 限度였던 것이다.

뒤늦게 錯覺임을 알게된 同대대장은 대대의 全火力을 集中하여 그들을 陣前에서 擊碎하

는데 奏効하였다.

7월 31일 : 이날은 午前한때 비가 내리고 午後부터는 개였으나 低雲이 中天에 깔려 航空支援은 困難하였다.

敵은 晉州를 向하여 그들의 主力을 我的 西側으로, 그리고 一部の 兵力은 北쪽과 南쪽에서 三면으로 包圍網을 壓縮하여 옴으로써 이날 未明부터 激戰이 展開되었으나 我軍은 勢不利하여 晉州를 醜敵에게 넘겨 주기에 이른다.

이에 이르자 美제 24사단장 Church소장은 새로이 배속(7월 30일부터) 받은 美제 25사단 제 27연대(장, John H. Michaelis대령)를 鎭東里에 배치(概說 參照)하는 한편 晉州에서 撤收하는 병력을 群北에서 일단 收拾하여 急編진지를 띄기에 이른다.

金秉化소령의 敵華 : 閔부대장 閔機植대령은 전날 08.00에 一群(數未詳)의 敵이 佳花里(晉州 西北쪽 8km)에 潛入하였다는 通報를 美제 19연대장으로부터 받고 隸下隊에 명령하여 境界를 加一層 強化하는 한편 陣地 補強에 全力을 集注하고 있었다.

그러나 該敵으로 말미암아 山淸부근에서 遲延戰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美제 29연대 제 1대대(장, Wesley E. Wilson중령)의 撤收路가 遮斷直前に 있음을 直感하고 同부대장은 제 3연대장(대리) 李元翼중령에게 1개 중대를 抽出하여 3번道路(山淸—晉州간)를 開通하려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명령의 源泉은 美제 19연대장 Moore대령의 要求에서인지에 대한 與否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이 명령을 받은 同연대 제 2대대장 金秉化소령은 自身이 직접 指揮하기로 決心하고 이날 01.00에 趙在俊중위가 이끄는 1개 중대를 指揮하여 山淸을 向하여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同대대(병력은 1개 중대)는 深夜를 뚫고 接敵行軍으로 龍山里(佳花里 東쪽 1.5 km)에 이르렀으나 敵影이 없자 계속 西北進하여 丹城부근까지 進出하였으나 敵軍은 물론 友軍(제 29연대 제 1대대)의 상황도 알 수가 없었다.

대대장 金秉化소령은 여기에서 推斷하기를 『閔부대장의 命令이 佳花里로 侵透한 敵을 물리치고 通路를 開放하라고 하였음을 想起할 때 우리의 任務는 마쳤다고 보며 더 이상 五里霧中한 敵情밑에서의 躍進은 危險을 自招할 우려가 있다.』라고 다짐하고 歸路에 올랐다.

그는 佳花里 부근에서 出沒하고 있는 敵에 의하여 歸路가 遮斷될 것을 念慮하고 날이 밝기 前에 本隊로 돌아가기 위하여 急行軍으로 달려 06.00에 主陣地앞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대대장 金秉化소령은 服裝이 이상한 병사들이 徘徊하고 있음을 發見하고 先頭에 섰던 그는 『너이들은 어느 부대나?』라고 高喊을 지르자 그쪽에서 『경찰이다.』라고 應答하였다.

이때 뒤에 쳐져있던 부대대장 張泰明대위는 그들의 舉動을 수상히 여기고 중대장 趙在俊중위와 함께 도랑에 몸을 피하고 掩護태세를 갖춘채 그들을 注視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隱身할 생각도 않고 다시 『어디 경찰이나?』라고 되물자 그들은 『넌 누구냐?』라고 지절였다.

그는 『이놈들아 「라바울」(그가 太平洋戰爭에 Rabaul戰鬪에 參加한 까닭에 즐겨쓰던 別稱임)도 몰라보느냐? 대대장이란 말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마자 그들은 一齊사격을 퍼부어 대대장 金秉化소령은 行方不明(陸軍戰歿者名簿는 50년 7월 31일 河東부근 戰鬪에서 戰死로 錯誤 記錄됨)이 되고 대대는 分散된 상태에서 咸安으로 빠져 나가 그곳에서 本隊와 合勢하였다.

沙村里의 戰鬪: 이날 06.00에 1개 대대규모의 敵은 沙村里(晉州 西北쪽 2.5km)로 直衝하여 제 3연대(장, 대령 李元翼중령)의 主陣地를 掩護하였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主力인 제 2대대(장, 金秉化소령)가 特殊(連結)임무를 띠고 主抵抗線으로부터 빠져나간 뒤였던 까닭에 殘留隊의 戰力은 보잘 것 없는 정도 기 뿐이었다.

이에 겹쳐 左제 1선(板門里—平居洞간)으로 連繫하였던 美제 19연대 제 2대대(장, Tom M. McGrail 중령)가 1개 연대규모의 敵으로부터 猛擊을 받고 一進—退하는 角逐戰을 벌이다가 衆寡不敵으로 05.00에 主抵抗線이 무너짐으로써 마침내 閔機植대령은 敵과 離脫을 명령하여 宜寧으로 撤收하였다.

이보다 앞서 花開場戰鬪이래 晉州에서 再편성을 서두르던 李暎奎부대(兵力 100명未達)는 이날 04.00에 閔부대장으로부터 竹山—基洞간을 確保하라는 명령을 받고 躍出하였는데 이는 馬山으로 이르는 唯一한 後方路를 敵에 의하여 被奪될 것을 막기 위한 措置였던 것이다. 그러나, 同부대는 敵과 큰 接觸없이 防守하다가 晉州방어 부대가 撤收한 뒤를 이어 09.00에 宜寧으로 빠져 나갔다.

晉州의 撤收: 板門里—平居洞간을 扼守하던 美제 19연대 제 2대대(장, Tomas H. McGra 중령)는 1개 연대규모의 敵을 맞아 40餘명의 死傷者를 내면서도 밤새 角逐戰을 벌였으나 東天이 밝아오면서 그들은 戰車와 SU-76 自走砲를 俗稱 안골(平居洞 東쪽 2km)에 推進放列하고 대대의 側背를 縱射함으로써 더 이상의 支撐을 할 수 없게 된 대대장 McGrail중령은 G중대로 하여금 血路를 뚫게 하고 同중대의 掩護밑에 대대의 主力을 晉州로 빼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05.00시였다.

한편 該地區의 狀況을 注視하던 연대장 Moore대령은 晉州의 防禦가 이미 限界點에 이르렀음을 判斷하고 사단장 Church소장에게 切迫한 現상황을 보고하여 그의 撤收決心에 따라 06.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撤收命令을 隷下대대 및 配屬부대에게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命에 의거 現陣地로부터 晝間撤收하여 群北에 遲延陣地를 점령, 遲延戰을 실시하다가 命에 의하여 公세로 移轉하려 함.

② 제 1대대는 06.00에 武村里(晉州 東쪽 16km)로 轉進하여 遲延陣地를 점령, 敵의 東侵을 阻止 擊破하고 命에 의하여 群北으로 撤收하라.



- ③ 제 2대대는 06.00에 現位置(이때는 長在洞「晉州 東北쪽 2km」에서 兵力을 收拾중)로부터 宜寧으로 轉進하여 遲延陣地를 占領하라.
- ④ 제13포병대대(-A) 및 제 1야포대대 B포대는 제 1대대의 철수를 火力으로 掩護하고 06.20에 宜寧으로 轉進하라.
- ⑤ 閉부대(배속 李暎奎부대)는 長在里(晉州 東北쪽 4km)의 삼거리를 確保하여 撤收梯隊를 掩護하고 09.00에 宜寧으로 轉進하라.
- ⑥ 배속된 韓國海兵隊는 美제 1대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09.00에 群北으로 轉進하라.
- ⑦ 戰車隊는 연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轉進시간 및 轉進目標은 本官이 직접 後達한다.
- ⑧ 本官은 08.00까지 晉州에 在함.』

부대의 철수를 알아차린 邑民들은 갑자기 슬명이고 避難民은 道路를 메워 한때는 混雜을 일으켰으나 各隊는 隱密히 그리고 秩序있게 敵과 離脫하여 轉進目標(宜寧 및 群北)를 向하여 各各 移動하였다.

그러나 韓國海兵隊와 美戰車隊는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기 위하여 惡戰苦鬪를 겪어야 하였다.

**海兵隊의 撤收** : 望晉山을 中心으로 하여 防守하던 海兵隊(장, 金聖恩중령)는 이날 03.00부터 左제 1선의 美제 19연대 제 1대대(장, Robert L. Rhea중령)와 敵과 사이에 熾烈한 激戰을 치루고 있음을 알았으나 05.00가 되자 彼我的 銃擊은 똑 그치고 山野는 颯風一過後의 高요함과 같이 寂寞이 혼렷다.

이윽고 敵은 俗稱 안골(望晉山 西南쪽 1km)로 戰車 및 SU-76自走砲를 放列하고 1개 대대규모의 步兵과 合勢하여 衝擊과 사격을 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同隊는 全面防禦 態세를 홀으려뜨리지 않고 鐵路를 따라 晉州로 潛入하려는 敵을 掃射하였으나 射距離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7.30 경부터는 江 건너 新安洞쪽으로 敵이 行軍隊列을 짓고 晉州로 進入하고 있음을 目擊하였고 이 무렵에 晉州邑은 到處에서 火焰이 솟고 있었으나 銃聲은 들리지 않았다.

海兵隊長 金聖恩중령은 그제서야 我軍이 晉州를 拋棄하고 撤收하였음을 알아 차렸으나 그렇다고 하여 命命없이는 同高地로부터 離脫할 수가 없었다.

이 撤收명령의 傳達여부에 대하여는 뒤에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通信은 이미 杜絶되어 있었다.

마침내 海兵隊長 金聖恩중령은 撤收를 決心하고 09.30에 敵과 離脫하여 望晉山의 東麓에 우물거리는 敵을 一蹴하면서 群北으로 撤收하였다.

**美軍戰車隊의 脫出失敗** : 한편 3臺의 美軍戰車隊(장, Fowler중위)는 晉州驛부근에 위치하여 美제 19연대 제 1대대의 撤收를 火力支援하고 있던 중 그곳에 나타난 연대장 Moore대령으로부터 『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다 戰車를 後送할 수 없으면 破壞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Fowler중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戰車를 끌고 가기로 다짐하고 同대대가 撤收한 뒤에도 追擊하는 敵을 掃射하여 그들의 侵透를 蹂躪하였는데 이때 그도 왼팔에 貫通銃傷을 입었다.

그는 負傷한 왼팔을 압박繃帶로 걸머맨 채 先頭戰車에 塔乘하여 隊員들을 叱咤하면서 馬山을 向하여 疾走하다가 莊佐洞(開揚洞 東北쪽 1km)앞 橋梁에 이르렀을 때 同橋梁이 파괴되었음을 發見한 그는 『이 이상 戰車를 躍進시킬 수 없다.』라고 判斷하고 隊員들에게 戰車를 破壞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乘務員들이 下車하여 破壞를 준비하고 있을때 橋梁 밑에 潛伏하고 있던 數未詳의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고 Fowler중위는 陣歿하고 대부분의 병사들도 戰死 또는 俘虜가 되었다.

이 混亂속에서 Bryant E. W. Shraper 상사는 재빨리 後尾車에 뛰어 올라가 同車를 돌려 晉州橋로 疾走하여 막 同橋를 通過하려 할 때 數名의 敵이 앞을 가로 막으려 設쳤다.

Shraper상사는 곧 戰車를 停止시키고 물려드는 敵을 掃射한 다음에 發動을 걸었으나 過熱하여 作動이 안되었다. 이에 그는 戰車를 放棄하고 敵中을 突破하여 九死一生으로 馬山으로 脫出하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 라. 전투후의 概況

晉州에서의 攻防戰을 마치고 7월 31일을 前後하여 三三五五로 群北에 集結한 韓國軍의 각 부대의 실태는 連續된 離合集散과 戰鬪 및 現地에서 便法으로 調達補給할 수 밖에 없었던 不足한 食糧, 그리고 병력의 20%에도 未達한 小銃뿐만 장비 등으로 말미암아 이미 戰力으로 評價하기에는 너무도 凄慘하였다.

그러나 잠시도 猶豫할 수 없었던 陸軍本部에서는 조속히 이들 分散된 各부대를 單一 指揮官 밑에 統合하여 活氣를 되찾고 韓·美軍 聯合作戰으로 東侵하는 敵에 對備하기로 決定하고 李應俊소장을 招致하여 이 任務를 賦與한 뒤에 陸軍本部 作命 제92호(50.7.31 22.00)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軍은 馬山으로 侵入하는 敵을 現線에서 捕捉殲滅하려 함.

② 新編한 西部地區 戰鬪司令官은 아래 軍隊區分에 의한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 軍隊區分

#### 西部地區戰鬪司令部

司令官	육군소장	李	應	俊
參謀長	육군대령	張	斗	權
團부대 장	육군대령	閔	麟	植
吳부대 장	육군대령	吳	德	俊
海兵隊 장	해군중령	金	聖	恩
李부대 장	육군중령	李	暎	奎
金부대 장	육군중령	金	秉	俊

## 行政事項 省 略]

그러나 陣容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閔부대는 美제24사단 제19연대와 群北線에, 그리고 海兵隊는 美제25사단 제27연대와 鎭東里線에서 각각 協同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뒷부대, 李부대, 金부대는 後方 지역 경계에 臨하였다.

한편 美제24사단장 Church소장은 31일밤에 中里(馬山 西北쪽 5km)에서 同사단 隸下의 제19연대장 Moore대령과 同사단에 새로이 배속된 美제25사단 제27연대장 Michaelis대령을 招致하여 開放된 馬山街道로 侵攻하는 敵을 現線에서 邀擊 擊破하라고 嚴命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 閔부대장 閔 繼 植 대령

(1978. 4. 5 신당동 自宅에서, 예, 대장)

晉州에서부터 美軍과 協同作戰을 펴고 그들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陸軍本部의 명령은 恒常 늦어 명령보다도 敵이 먼저 들어 닦치곤 하여 그 명령은 實効성이 없었다.

閔부대의 임부는 敵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遲延戰을 하라는 것이 었었지 그들과 맞붙어 싸우라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戰鬪로 인한 병력의 손실은 사실상 무의미 하였다.

까닭은 反擊때를 위하여 兵力을 溫存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때의 通信은 一部 경찰서의 경비전화를 활용하였을 뿐이고 軍에서支給한 通信器材는 없었다.

## ◇ 蔡秉德소장의 隨行員 丁 來 赫 중령

(1978. 5. 4 이태원 自宅에서, 예, 중장)

어찌서 前 參謀總長이며 少將이었던 그가 겨우 1개대대 정도의 案內役을 떠맡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河東에 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여 그는 알고 있었는데도, 최고개 마투덕에 서(立) 있다가 그들의 최초의 사격으로 頭部를 貫通하고 陣歿하였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도 不注意한 탓이며 其 行動은 理解하기 어렵다.

勿論, 敗戰의 責任을 痛感하고 있었던 그로서는 죽어야 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推測도 되나, 어디 敗戰의 責任이 蔡秉德소장 그 한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의 性格이나 言動을 보아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怨痛한 일은 그가 나에게 晉州로 가서 쉬라고 하였을 때 가지 않고 내가 그의 옆에 있었다면 하고 後悔스럽다.

## ◇ 제30연대장 金 龍 周 중령

(1978. 6. 5 천농동 自宅에서, 예, 준장)

나는 蔡秉德소장의 戰死장면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나는 美軍부대의 左側능선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蔡秉德소장이 作戰會議를 한다는 連絡이 와서 최고개로 이르는 東쪽 道路로 내려갔더니, 蔡소장은 그의 Jeep車 bonnet 위에地圖를 펼치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蔡소장과 수행원으로 보이는 몇사람, 그리고 美軍대위 1명(姓名未詳)과 나 뿐이었다.

蔡소장이 한참 상황(內容을 기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을 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銃聲에 맞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 閔부대 제3연대 제2대대 부대대장

張 泰 明 소령

(1978. 5. 6 보현연합회에서, 예, 소장)

陸軍本部에서 경비병력을 差出하라고 하여 내가 1개대대(실병력: 1개중대)를 이끌고 大邱에 있던 陸軍本部를 경비하다가 南原으로 복귀하여 제2대대 부대대장이 되었다.

晉州에서 閔繼植대령으로부터 山淸부근으로 出擊하라는 명령을 받고 丹城부근까지 나갔다가 돌아가니 우리가 있던 陣地에 彼軍을 알수 없는 놈들이 우물우물 하고 있었다. 대대장 金秉化소령이 『누구나?』라고 외치고 몇 번 말이 오고 가더니 그들이 一齊사격을 퍼부어 그는 行方不明이

되고 대대는 分散상태에서 紈주역으로 晉州를 빠져 群北으로 갔다.

이때 陸士 10期 및 護國軍, 豫備士官學校出身 장교들이 小隊長으로 활약하였으며 新兵인 學生들은 대부분이 棍棒을 갖고 있었고 基幹장병만 小銃으로 장비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이 戰死하면 옷(軍服)을 바꾸어 입고 무기를 이어받아 쥐고 싸워야 하였다.

#### ◇ 제 5사단 제15연대 제 3대대장 金弼相 소령 (1978. 7. 5 여수 에치렌상사에서, 예, 소장)

우리 대대는 부연대장 李瑛奎중령이 지휘(연대장 金炳徵중령은 麗水에서 船便으로 李應俊소장과 함께 釜山으로 撤收)하였으며 花開場戰鬪가 끝나고 河東에 갔을 때는 100명 내외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었다.

대대는 河東南쪽의 無名高地에서 싸웠는데 美軍이 우리를 掩護하였다.

14.00쯤 되니까 美軍 2명이 만썸 바람으로 나와 이를 救出하려 하였는데 옆에 있던 경찰이 敵인줄 알고 사격하여 그들은 海岸으로 달아났다.

그 뒤에 美軍 2명을 救出하여 晉州에서 美軍에 인계하였다.

#### ◇ 海兵隊 제 7중대 廉 泰 福 중사 (1967. 5. 4 해병대사령부에서, 예, 대령)

晉州에서 美軍으로부터 BAR를 1개중대 3挺씩 그리고 SCR-300도 받았다.

중대는 望晉山에 배치하였는데 陸軍은 轟石樓, 우리의 左側엔 美軍이 있었으며 배치된 2日間은 큰 接觸이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11.00에 대대장 金聖恩중령이 중대장을 집합시켜 놓고 敵情을 설명하다가 迫擊砲彈이 떨어져 分散한 일이 있는데 이때부터 敵은 달라 붙기 시작하였다.

## § 戰 訓

### (1) 指揮官의 位置選定

戰場에서 指揮官이 서야할 位置에 대하여는 明文化된 것이 없으며 通常指揮에 便利하고 命令의

傳達이 容易할 뿐 아니라 그의 威嚴이 軍에 波及할 수 있는 곳을 考慮하여야 한다.

이번 蔡秉德소장의 경우 며칠 前까지만 하여도 參謀總長으로써 全軍을 指揮하던 그가 自己의 直率한 부대도 아닌 불과 1개 대대의 案內將校로 單身 推身하였다가 散華하였다는 사실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國防部長官 申性模로부터 『貴下는 韓國戰爭의 敗戰에 대한 責任이 있다. ...貴下는 先頭에 나서 敵을 擊退하여야 한다(당시 제 9사단장 李鍾贊대령 證言)』라는 書翰을 받고 깨끗하게 죽을 場所를 擇하였는지는 自身만이 아는 일이나 그의 陣歿로 말미암아 軍은 물론 敵에게 미친 影響은 至大하였던 것이다.

古代「에피크라테스」는 『經武裝隊가 손, 騎兵隊가 말, 軍主力이 몸, 그리고 將軍이 머리라면 將軍이 위험속에 달려들어 個人的인 勇氣를 보인다는 것은 다만 自己한 사람의 生命을 위태롭게 할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依支하는 全軍의 安危에 관한 문제가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 (2) 命令의 簡明性 缺如

閔부대(장, 閔繼植대령)에 대한 上級부대의 명령은 衆口難防이었던 까닭에 作戰(특히 指揮)에 混線을 빚게 하는 결과를 招來케 하였다. 同부대를 創設할 때 받은 任務(作命未保存)에 대하여 閔繼植대령은 述懐하기를 『敵과 接觸을 維持하면서 撤收하라는 것이기에 兵力의 損失은 無意味한 것이었다.』라고 하였거니와 參戰者들도 『湖南地區에서 募兵한 人員을 쪽아 主正面에서 損失된 兵力을 補充하는 것』이라고 證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晉州戰鬪를 보면 本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 同부대 隷下의 3개 연대장과 대부분의 兵力을 晉州를 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分散상태로 빠져 兵力의 補充역할도 輕겨웠던 것이다

이 까닭은 國防部나 陸軍本部 심지어는 美제 19연대에서까지 同부대로 하여금 絶對固守防禦 또는 공격명령을 連이어 重復下達함으로써 事實상 閔부대장은 後退移動戰, 攻防戰, 募兵後送 등 세가지의 任務를 한꺼번에 遂行하기에 이르므로써 어느 한가지도 集中(集中)할 수 없었던 것이다.

# 第15章

## 海軍의 活動

### 要 旨

1. 韓國海軍의 作戰
2. UN海軍의 作戰



## 第15章 海軍의 活動

## 要 旨

本章에는 7월 3일부터 30일까지의 海軍作戰을 韓國海軍과 UN海軍의 作戰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기간중 韓國海軍의 作戰을 大別하여 보면 東海岸에서 海軍陸戰隊의 活動, 西海岸봉쇄작전, 群山地區방어전, 木浦 및 麗水침수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東海岸戰況을 살펴보면 東海上에서 海上침투를 차단당한 敵들은 제 5사단을 주축으로 山脈을 따라 南下하였으며, 이에 加勢하여 普賢山—九岩山地區에서 준동하는 게릴라들이 慶州—浦項으로 침투하게 되자 浦項警備府에서는 基地근무 인원으로 陸戰隊를 편성하여 敵들을 격멸함은 물론 陸軍 제 3사단으로 하여금 유리한 作戰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西海岸에서는 PC701艦을 비롯한 YMS艦艇 4隻과 JMS 3隻 및 LST 801艦이 海上봉쇄전에 임하였는데 YMS 501과 502艦은 月尾島 近海를 警備하던 중 同島北方에 위치한 敵의 戰車 2輛과 砲擊戰을 벌여 戰車 1臺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群山警備府와 仁川警備府 隊員들은 濟州道에서 파견된 海兵隊의 高吉勳부대와 함께 舒川에서 敵제 6사단과 對戰하였으나 兵力과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木浦와 麗水로 이동하고 말았다.

光州를 점령한 敵제 6사단의 예하부대가 木浦로 침투하자 同港에 있던 505艦과 309艦은 이들에게 砲擊을 加하며 黑山島로 이동하였으며 27일에는 敵제 6사단이 順天을 거쳐 麗水로 南下하자 同港의 海軍艦艇은 湖南地區의 陸軍兵力和 기타 政府물자를 輸送하였다.

기간중 UN海軍은 Juneau艦을 旗艦으로한 美극동해군 艦艇과 제 7艦隊 航空母艦이 대기 참전하여 平壤, 海州, 元山, 平康, 咸興에 공습을 加하였으며 東海岸에 艦砲사격을 加하였다.

또한 英國극동해군 艦艇도 美海軍과 合同作戰에 들어갔는데 7월 6일부터는 敵제 5사단의 南進대열이 연결된 東海岸의 注文津, 江陵, 墨湖, 三陟, 蔚珍등지에 大的인 艦砲사격을 加하였다.

이러한 對地艦砲사격은 南進중이던 敵들에게 지대한 타격을 加하였던 바 18일 美제 1기갑사단의 浦項上陸을 용이하게 하였다.

東海岸 艦砲사격에 앞서 3,4양일간 航母 Valley Forge와 Triumph에서는 艦載機들을 出擊시켜 海州와 平壤을 강타하였으며, 이 出擊으로 平壤비행장과 鐵橋등을 파괴하였다.

또한 이들 艦載機들은 18일 元山, 平康, 咸興으로 出擊하여 공습을 加하였는데, 무엇보다도 元山정유소 폭격이 記錄할만한 것이었으며 同日 出擊으로 元山정유소는 完破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7艦隊 艦載機들은 원만한 空·地通信 設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惡 조건에서도 地上軍을 援助하기 위한 近接航空지원을 하여 一路南下하는 敵의 行렬과 敵陣을 찾아 爆擊을 加하였다.

海軍艦載機들의 이러한 戰線지원은 敵地上軍들의 南進속도를 늦추고 制空權을 확보함은 물론 我地上軍으로 하여금 釜山교두보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 1. 韓國海軍의 作戰(1950. 7. 3~7.30)

참조: 요 도 제 29 호  
상황도 제 79~82 호

## 가. 東海岸 상황

## (1)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육군제 3 사단	장 준장	李 俊 植	浦項地區陸戰隊	장 소령	姜 起 千
제 23 연대	장 중령	金 宗 元	YMS 506 艇	장 소령	許 德 和
해군 浦項警備府 사령관	중령	南 相 徽	YMS 516 艇	장 소령	張 志 洙
제 2 艇隊 사령관	중령	金 忠 男	YMS 304 艇	장 소령	閔 賢 植

## (2) 전투전의 개황

北傀 지상군들이 대거 南侵하자 海上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東海岸으로 게릴라부대의 上陸이 있었으나 我海軍의 早期探知로 海上과 海岸에서 모조리 격침하거나 나머지 一部를 격퇴하고 말았다. (제 1 권 6 장참조). 즉, 開戰당일 YMS 509 艇은 玉溪와 注文津 海岸에서 게릴라부대를 滿載한 輸送船團을 격퇴하였으며, 당시의 유일한 戰鬪艦이던 PC 701 艇은 600 名의 상륙요원을 싣고 南侵하는 輸送艦을 大韓海峽에서 격침하여 略戰을 장식하였다.

이와 더불어 6 월 28 일부터 美海軍함정 Juneau 艦이 韓國海域으로 출동함과 동시에 7 월에 접어들면서부터 東海 및 西海에는 UN 海軍함정이 본격적인 作戰態勢로 들어갔으며, 韓·美海軍함정의 철저한 海上경비 및 海岸포격으로 東海에서는 敵艦의 隻影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東海上에서 海上침투를 차단한 그들은 제 5 사단을 주축으로 太白산맥을 타고 南下하였다 그리하여 南侵 2 주일째 접어든 7 월 10 일에는 浦項北쪽 寧海—盈德일대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浦項警備府에서는 7 월 5 일 基地근무인원으로 中隊규모의 陸戰隊인 龍虎隊(장, 鄭昌龍중위)를 편성하고 9 일에는 鎭海에서 增員병력이 도착함에 따라 大隊규모의 姜虎隊(장, 姜起千소령)를 편성하였다가 20 일 龍虎隊를 姜虎隊로 統合增備하여 陸戰隊를 편성한 다음 陸軍 제 3 사단과 함께 南下하는 敵들을 방어하였으며 九岩山을 무대로 하고 慶州—浦項 근방으로 침투하는 敵게릴라들을 격멸하게 된다.

## (3) 전투경과의 개요

## (가) 九岩山부근 戰鬪

7 월 11 일 東海岸의 春陽방면에서는 게릴라부대 300 명이 蔚珍방면으로 이동중에 있었고 三陟南쪽 10 km 지점에서도 敵 제 5 사단 예하부대 300 명이 戰車부대와 함께 戰列을 정비하고 있었다.



한편 九岩山을 거점으로 출몰하던 게릴라부대의 一部는 同日 03.00 九岩山 南쪽 竹長面 甘谷里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는데, 이들은 慶州와 浦項방면으로 進出을 기도하면서 竹長面과 杞溪面의 各地에 출몰하여 婦女子와 糧穀, 農牛등을 掠奪하여 갔다.

이 게릴라부대는 普賢山을 주된 거점으로 하여 我軍과 對峙하여 오다가 北魏가 대거 南侵하여 오자 이에 加勢하여 후방교란에 熱을 올렸다.

浦項警備府에서는 이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17.00 龍虎隊(장, 鄭昌龍 중위)를 安康地區로 出動시켰다가 1개 중대로 추산하는 敵들이 永川郡 九龍山으로 南下하여 잠입한 것을 探知하고 12일 16.30 慶州를 지나 途有洞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1개 분대의 斥候隊를 파견하여 敵情을 관찰하였는데, 敵들은 인근 마을에서 노획하여온 가축소리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노출하고 말았다.

我軍 斥候隊는 深山에서 울려나오는 송아지 소리를 듣고 敵들이 숨어있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 本隊로 돌아왔다.

途有洞 本隊에서 공격계획을 세우고 밤을 세운 다음날인 13일 04.00 九龍山 中腹에 있는 敵陣에 일제히 사격을 加하였다.

아직 잠에 취해있던 그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分散逃走하였는데, 2시간에 걸친 추격으로 8名을 사살하고 30名の 포로를 잡는 戰果를 올렸다.

그리고 부상당한 듯한 敵 30名과 나머지 兵力은 清道방면으로 퇴각하였는데, 我陸戰隊는 이 戰鬪에서 1名の 부상자도 없이 13.00 浦項으로 귀대하였다.

14일에도 山岳을 타고 竹長방면으로 南下하는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竹長面 立岩洞으로 출동했던 陸戰隊는 敵을 추격하던중 15일 새벽에는 飛鶴山 中腹에 도착하여 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偵察隊員 3名을 침투시켜 100여명의 敵들이 잠복하고 있음을 探知하였다.

이때 浦項警備府에서는 제 3中隊(장, 朴承道소위)를 파견하여 음과 동시에 龍虎隊長 지휘하에 陣입되었는데 이날은 이미 날이 저물어 交戰없이 龍基國民學校로 同本部를 이동하였다.

다음날 06.00 1次로 1개 소대의 陸戰隊가 출동하였으나 敵들은 竹長 北쪽 山岳지대로 逃避하기 시작하므로 佳士里 방면으로 敵을 추격하였다.

山岳지대로 逃避한 敵들은 점차 兵力을 증가하여 500여명이 잠복중이었는데 17일 새벽 04.30 그들은 合德里 방향으로 下山하고 있었다. 한편 亭子里에서도 400여명의 敵들이 출현하였다는 情報가 들어왔다.

이 敵들은 山脈을 타고 南쪽으로 이동하면서 후방교란을 시도하려는 임무를 띄고 있었다.

合德里 高地일대와 亭子里에 集結한 敵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海軍 陸戰隊는 警察兵力 40名과 함께 포위작전을 전개하였다. 軍·警 合同부대는 前面과 左右의 3面으로부터 敵을

포위한 다음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17일 14.30부터 공격이 개시되었는데 제 1소대가 이미 구축해 놓은 重火器로 敵의 正面에 사격을 加하자 敵들은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敵들은 精銳부대가 아닌 雜兵인바 武器도 빈약하였으며 一部 포로들은 칼, 도끼등을 武器로 소지한 者도 있었다.

警察 1개 소대를 左右에 警戒배치한 다음 陸戰隊 제 1中隊의 3개 소대가 戒備를 따라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서 제 1중대의 1소대는 重火器로 敵의 右측 正面에 공격을 加하고 제 2소대는 敵의 左측 최고봉을 급습 점령하는 한편 敵前 최단거리인 500m 소고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제 2중대의 1소대는 左右에서 엄호를 받으며 敵陣正面을 공격하였으며 도주하는 敵들을 추격하였다.

7시간에 걸친 激戰으로 我陸戰隊는 21.30 敵의 最高陣地인 807高地(九岩山)을 점령하였던바 同高地 일대에는 敵들의 시체와 버리고간 捰사기구만이 남아 있었다.

#### (나) 盈德—浦項地區 戰鬪

浦項地區 海軍 陸戰隊가 九岩山 부근에서 戰鬪中일때 海上에서는 我海軍 艦艇과 UN海軍 艦艇이 東, 西, 南海의 制海權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地上戰은 如意치 못하였고, 東海岸에서 敵의 공격路線은 盈德을 經유하여 浦項으로 指向되었다.

이처럼 同地區의 戰況이 악화되자 浦項警備府 사령관은 龍虎隊와 姜起千소령이 지휘하는 姜虎隊를 통합하여 7월 20일 陸戰隊를 새로 편성하고 隊長에는 姜起千소령을 임명하였다.

이 陸戰隊는 제 1중대를 盈德地區의 제 3사단 23연대에 倂編하여 合同作戰을 遂行토록 하였으며, 제 3사단으로 하여금 유리한 작전을 전개하는데 기여하였다.

7월 20일 九岩山 戰鬪를 끝마친 陸戰隊는 玉山洞으로 출동하여 敵 1개 소대를 完全포위 격멸하였다. 이곳에서 玉山洞 人民위원회 위원장과 女性동맹 위원장을 生捕하여 興海로 빠져 나왔다. 한편 盈德에 침입한 敵들은 100여명의 住民들을 학살하고 多數의 家屋을 소각한 다음 昌浦로 侵入하였다.

海上에서는 제 2艇隊의 JMS 304, 306, YMS 506, 516艇이 北緯 36°~37°線間을 警備中에 있었고 美海軍艦艇들은 東海岸을 타고 南下하는 敵들에게 연일 艦砲사격을 加하였다.

20일 304艇과 506艇은 陸戰隊 제 2중대를 江口에 上陸시켰으며 제 2중대는 陸軍兵力과 함께 적 제 5사단을 공격하였다. 또한 7월 21일 20.00 長沙洞에 도착한 第 1中隊는 南亭 1km前方 地點에 약 200名의 敵들이 集結하여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를 공격할 態세를 갖추었다. 제 1소대는 前方으로 제 2, 제 3소대는 敵의 左측인 平地를 利用하여 各各 공격하기로 하고 戰鬪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때 敵들은 비가 내리는 밤을 利用하여 我軍이 대기하고 있던 長沙洞으로 접근하여 왔다.

敵들을 기다리고 있던 陸戰隊는 22일 새벽 03.00를 기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고 敵은 東大山方面으로 逃走하였다. 同日 12.30 逃走하였던 敵들은 다시 2개 소대 정도의 兵力으로 반격하여 왔으나 이를 탐지한 我軍은 警察부대와 함께 이들을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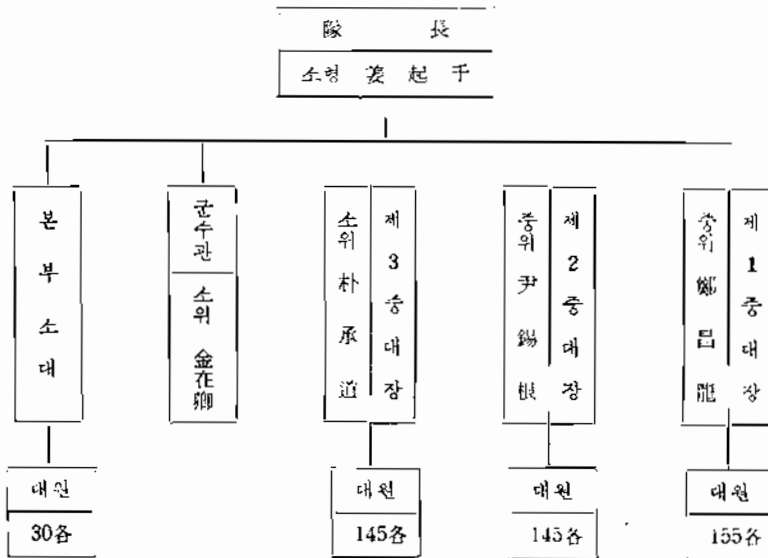
陸戰隊는 계속하여 東大山을 횡단하면서 敵들을 격멸하였는데, 이때 70여명의 敵은 晦洞으로 또 40여명의 敵은 松羅方面으로 逃走하였다.

이 戰鬪에서 陸戰隊는 23名の 敵을 사살하고 武器와 실탄등을 노획하였으나 我軍도 2名の 戰死者를 내었다.

그리고 九岩山地區戰鬪에서는 下記 5名이 一階級 특진의 功勳을 얻었다.

대위 鄭昌龍, 중위 朴承道, 三葛 朴聖煥, 三葛 宋世俊, 一水 俞明植(階級은 特進階級).

浦項 陸戰隊 편성 표(1950.7.20.)



나. 西海岸 상황

(1) 海岸封鎖作戰

(가)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제 1艇 隊 사령관 중령 柳海巨	JMS 302艇 장 소령 廉鳳生
PC 701艦 장 중령 崔龍男	JMS 307艇 장 소령 白雲企
YMS 501艇 장 소령 李珪淳	JMS 313艇 장 소령 李鍾徹
YMS 502艇 장 소령 盧明鎬	YMS 503艇 장 대위 李民錫
YMS 513艇 장 소령 朴敬哲	

## (나) 작전전의 개황

金浦비행장 부근에서 彼·我의 격전이 전개되고 敵의 YAK機가 水原비행장을 폭격하는 가운데 6월 28일 서울을 侵奪한 敵은 다시 漢江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 西海岸으로 침투한 北傀는 仁川상륙을 기도하면서 江華島에 兵力을 집결시키는 동시에 그 一部로 牙山灣으로 상륙을 기도하였다. 그들은 7월 3일 23.00에 戰車 6挺을 앞세운 다음 富平을 거쳐 仁川으로 侵入하였다.

이에 따라 제 1艇隊사령관은 同월 4일 08.00에 仁川港부근의 모든 發動船과 帆船을 群山방면으로 이동케 하였으며, 海軍本部에서는 당시의 유일한 戰艦인 PC 701艇을 仁川으로 回航케 하여 제 1艇隊를 지휘토록 하였다.

또한 제 1艇隊는 敵의 海上수송로를 차단하고 江華島南쪽 海域에 집결한 적전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海上으로 撤收하지 않고 仁川시가에 남아 있던 仁川警備府 요원과 基地 의무병 60명은 軍의관 吳元善 중위를 隊長으로 하여 市街戰을 전개하였으나 兵力의 부족으로 결국 海上과 陸路를 따라 群山으로 撤收하게 되었다.

## (다) 작전경과의 개요

7월 5일 09.15 PC 701艇을 旗艦으로 한 YMS 501, 502, 503, 513艇과 JMS 302, 307, 313艇 및 LST 801艇등 9척의 艦艇은 仁川의 小月尾島 西南 3Mile 海上에 집결하였는데 各艦艇長들은 LST 801艇上에 모여 海上封鎖를 爲하여 各艦艇의 담당 구역을 결정하였는데 이 封鎖作戰은 7월 15일까지 10일동안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기간중 YMS 513艇과 JMS 302艇은 주로 八尾島近海를 경비하면서 西海岸을 따라 南侵하는 敵을 阻止하고 YMS 501艇과 502艇은 江華島 南端에서 敵의 企圖를 制壓하였으며, PC 701艇과 JMS 313艇은 八尾島—江華島間을 경비하였다.

기간중의 主要임무는 漁船과 帆船 또는 낚은 Junk船으로 南下하는 北韓 피난민들을 검색하여 위장침투하는 적색분자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는데 PC 701艇의 단속선박은 62척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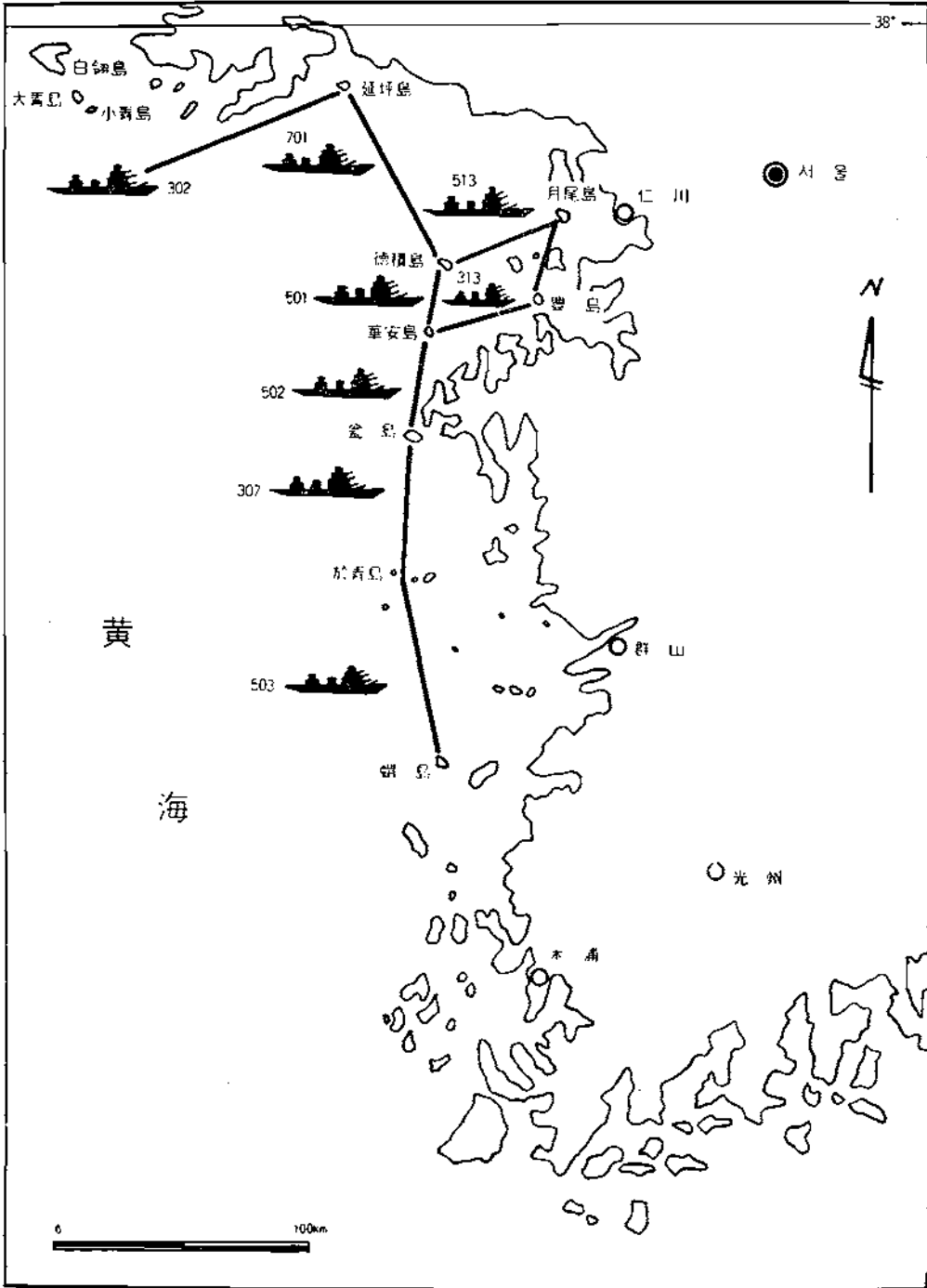
7월 5일 12.40 PC 701艇은 2Mile 海上에서 仁川市內를 向하여 探索 및 요란을 목적으로 艦砲射擊 6發을 加하였으나 이에 대한 何等의 반응이 없었으며, 市街地內에 潛侵한 敵의 動靜을 海上에서 파악하기란 決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701艇은 仁川市內에 侵入한 敵의 戰車부대와 江華島남단에 집결하고 있는 敵에 대한 空中공격을 海軍本部에 電文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實施를 보지 못하였다.

同日 14.00에 YMS 501艇과 502艇은 江華島의 海岸경비를 一旦 끝마치고 月尾島 北쪽을 通過중 502艇과 0.5Mile거리를 두고 뒤따라 航進하던 501艇이 敵의 戰車로부터 57mm砲의 狙擊을 받았다.

이 당시 502艇이 月尾島북방을 通過할 때에는 아무런 敵情이 없었으나 뒤따르던 501艇이 通過중에 갑자기 砲聲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는데 이때에는 승조원 全員이 戰艦매치로써 航海中이었기 때문에 즉각 응사할 수 있었다.

◇ 上韓도 제79호 西海岸封鎖作戰海域(7.5~15)



이 戰車는 月尾島중턱에서 먼저 사격을 시작한 것인데 YMS 501艇에서도 37mm 對戰車砲들 비롯하여 艦의 左右舷에 있는 20mm 및 Cal 50으로 집중사격으로 應酬하였다.

5분간 계속된 이 砲擊戰으로 YMS 501艇의 Mast와 기관실입구 Hatch Door에 각각 1발이 命中되었다.

外海에서 PC 701艦과 合勢한 YMS 501, 502艇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는데 그것은 木德島—善伊島—風島를 연결하는 海域의 경비였다.

同월 6일부터 海上은 連일 湧浪이 심하였으나 제 1艇隊의 海上봉쇄는 計劃대로 進行되었으며 海軍本部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격려 電文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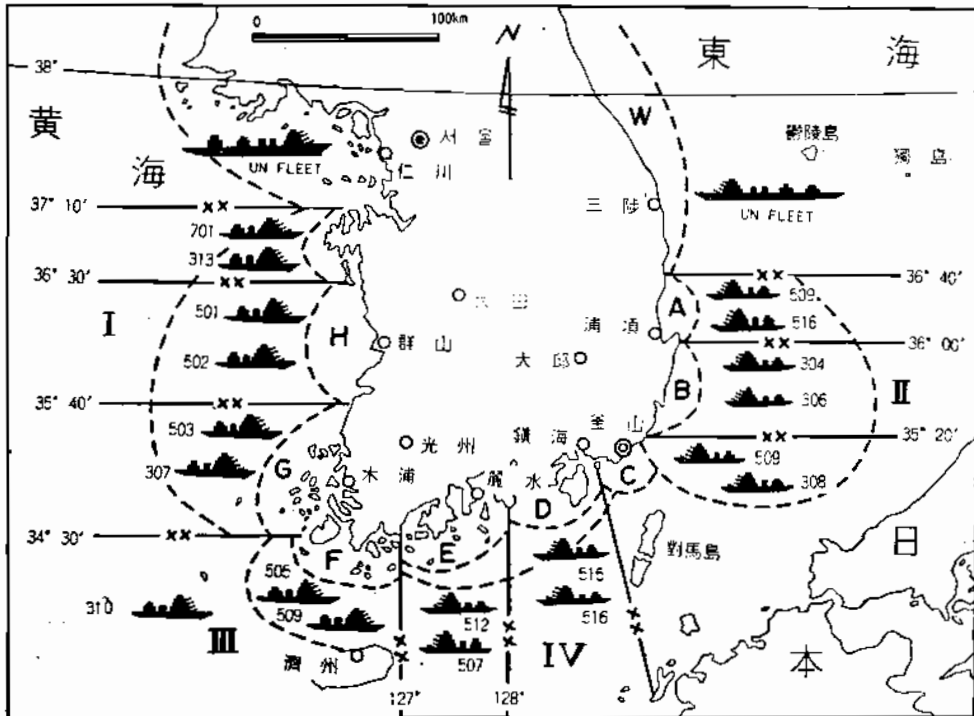
『① 불철주야 적과 파도와 싸우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② 비상운항으로 인한 손상 部分의 修理를 교대로 실시하라.』

이 作戰에 참가한 제 1艇隊 艦艇들의 보급은 주로 LST 801艦에서 담당하였으며 修理는 自體修理를 위주로 하였으나 長期間을 要하는 修理는 木浦 또는 鎮海에서 交代로 實施하였다.

12日 10.00에 PC 701艦은 海軍本部의 作命에 의하여 大川철교 및 인도교를 완전히 파괴

◇ 上항도 제80호 各艦艇 擔當海域(7.12)



하여 群山方面으로 침공하는 敵 제 6 사단의 一部를 阻止하였다.

이 作戰을 실시한 제 1 艇隊는 기간중 敵의 海上活動을 완전히 제압하여 1 件的 침투도 許容하지 아니하였다.

이 作戰이 계속중인 7월 6일 22.00에 海軍本部에서는 2,500명의 병력증가에 대한 건의서를 國무회의에 제출하고 海運公司의 선박을 海上作戰(수송, 상륙, 보급)에 强반운용하기 위하여 同社의 釜山지점장과 서울 本社의 간부들을 國防部에 출두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어서 8일에는 釜山の 제 2 부두에 港灣防衛사령부를 설치하고 釜山警備府의 제 2 艇隊가 造船廠을 同司令部에 移속케 하고 港灣防衛는 물론 韓·美海軍의 合同作戰을 위한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兼任토록 하였다.

또한 同日 14.00 鎮海통제부 사령관은 海軍의 작전지휘권을 美國으로부터 귀국한 總參謀長 孫元一에게 독에게 인계하였다.

그리고 9일에는 海兵隊의 증강을 위하여 鎮海에서 艦艇근무자를 제외한 陸上근무자 500명을 선발하여 海兵隊要員으로 편입시키고 이들에 對한 教育訓練을 海兵隊司令部(申鉉俊 대령)에게 一任하였다.

다음날인 10일부터는 UN海軍艦艇과 본격적인 合同作戰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大田의 國防部에는 海軍 連絡관을 駐在시키고 海軍本部의 位置는 釜山の 제 1 부두에 있는 港灣廳으로 移轉하였다.

#### (다) 作戰後의 개황

7월 10일 이후에는 UN해군함정이 韓國海域에서 본격적인 해상작전에 돌입하는 동시에 我海軍의 해상봉쇄작전으로 敵들은 東·西海路를 따라 대량침투를 試圖하지 못하였다.

同월 27일에는 海本作命 甲제 76호에 따라 本府警備府가 黑山島로 이동하여 海上이동기시로서 이 作戰에 참가한 제 1 艇隊와 제 3 艇隊의 보급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29일에는 제 1 艇隊소속인 YMS 501艇과 JMS 302, 307艇이 海本作命 甲제 77호에 의거 南海岸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鎮海統制府로 移속되어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西海岸에서는 주로 黃海道南쪽 해안이나 島嶼에 거주하고 있는 피난민들이 海路를 따라 南下하였는데, 이들의 선박에는 이따금 적색분자들도 위장침투하였으므로 我海軍의 검색으로 도합 30명을 색출하기에 이르렀다.

### (2) 群山地區의 전황

#### (가)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PC 701艇	장 중령 崔 龍 男	海 兵 隊 高부대장	
PC 702艇	장 중령 李 熙 晶		소령 高 吉 勳
PC 703艇	장 중령 李 成 浩	YMS 502艇	장 소령 盧 明 鎭
群山警備府사령관	소령 金 鍾 淇	YMS 513艇	장 소령 朴 敬 哲
仁川警備府參謀長	소령 鄭 旻 謨	JMS 310艇	장 소령 金 東 燮

JMS 313艇	장 소령 李 鍾 徽	LST 801艦	장 대위 金 玉 卿
YMS 503艇	장 대위 李 民 錫		

(나) 전투전의 개황

제 3차작전에 들어간 北僞는 各戰線에서 進攻을 계속하여, 7월 20일 현재 我軍의 遲延線은 盈德— 開慶—大田—全州—群山으로 연결되었다.

同월 11일 天安을 通過한 敵 제 6사단의 一部兵力이 禮山—大川을 거쳐 群山 方面으로 南下中이므로 群山警備府사령관 金鍾淇 少領은 群山市 비상대책위원회를 召集하고 白米 油類등 重要한 政府물자를 後送措置하는 한편 敵의 海岸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海上防衛隊員들을 증가하였으며 群山港內의 모든 선박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6일에는 敵戰車의 突破南侵을 阻止하기 위하여 群山—裡里間, 群山—江界 및 長項—大川間의 重要철교와 도로상의 교량에 폭발장치를 埋設하였다.

이와 함께 7일과 8일에는 陸軍 제 17연대 예하병력 47명과 仁川警備府兵力 48명을 市廳과 海洋大學에 수용하였는데, 다음날 群山警備府隊員과 仁川警備府隊員을 통합하여 陸戰隊를 편성하고 戰鬪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당시의 群山警備府는 群山 및 長項에 60명의 隊員과 빈약한 무장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민간선박 3척을 징발하여 경비정으로 使用하고 있었다. 戰況 惡化에 따라 12일부터 群山市내에 피난민들이 운집하기 시작하고 14일부터는 群山市民의 피난이 시작되었다.

한편 海上에서는 제 1艇隊소속의 YMS 502, 513艇과 제 3艇隊소속의 JMS 310, 313艇이 群山近海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西海岸을 경비중인 PC 701, 702艇도 同海域을 哨戒하였다.

이때, 大川을 접거한 敵은 122mm 野砲와 81mm 박격포등으로 중무장된 1개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계속 南下하여 舒川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群山警備府隊員들도 長項北쪽으로 진출하여 敵과 對峙중에 있었으며 濟州道에 주둔하는 1개대대의 海兵隊는 群山을 向하여 進出中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7월 11일 天安附近에 집결한 敵은 일부 兵力을 西海岸으로 迂回시켰는데, 이들은 2개 대대규모로 접전없이 大川을 經유하여 계속 南侵中에 있었다.

그리고 西海岸을 封鎖中인 제 1艇隊는 群山海域을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群山警備府에서는 14일 群山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LST 801艦에 政府米 13,000가마와 함께 群山市 各 官公署의 政府物資를 선적하였다.

15일, 敵은 溫陽—禮山—靑陽으로 침투하였는데 忠南警察에서는 서울경찰 및 기타 혼성경찰 2개 대대를 靑陽—大川間에 배치하였으나 결국 長項—群山으로 轉進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我海軍은 海本作命 甲제 58호에 의거하여 濟州道에 주둔중이던 海兵隊병력 290명을 群山으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海兵隊 사령관으로부터 作戰命令 제 1호를 하달받은 出動부대는 高吉勳소령의 지휘하에 7월 15일 13.00 海軍艦艇 FS(堤川號)便으로 同월 16일 03.00 群山에 入港하였다.

이들은 濟州道에서의 共匪擊滅에 專念하다가 群山으로 출동하여 최초로 本格的인 戰鬪에 任하게 된 것이다.



한편 舒川(長項北쪽 10km)에 진출하여 敵과 對峙中인 群山警備府와 仁川警備府의 陸戰隊는 鄭昞諱참모장을 指揮官으로 하여, 急編陣地를 구축하였다.

이곳에 陣地를 마련케 된 것은 群山港內에서 政府米와 重要물자를 적재한 LST 801艦을 事故없이 출항케 하는 동시에 海兵隊가 進出하기 전까지 威力搜索과 長項警備에 主된 目的을 指向한 것이다.

16일 06.00부터는 彼我間에 交戰을 시작하였는데, 兵力이나 武裝面에서 열세를免치 못한 陸戰隊는 17일 09.00에는 舒川南쪽 3km까지 撤收하였다.

122mm 野砲와 82mm 박격포등 重火器로 무장을 갖춘 敵의 主力부대가 대거침투를 계속하자 陸戰隊는 長項으로 또다시 撤收하기에 이르렀는 바, 그것은 敵들에 비하여 火力이 弱한점(重火器 3挺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九九式 小銃탄환을 1인당 1基數밖에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7일 12.30에 海兵隊는 舒川에서 南侵해오는 敵들을 공격코자 長項北쪽 4km까지 진출하였다.

제 3 중대를 예비대로 하고 제 1 중대(重火器중대) 및 제 2 중대를 공격부대로 한 海兵隊는 계속 침투를 지키고 대기하던중 敵들이 사정권 내에 들어서자 일제히 집중사격을 加하였다 그들은 海兵隊가 濼擊態勢로 있는 것을 예상치 못한듯 悠然히 大路를 따라 南下하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계속되는 行軍과 戰鬥로 지칠대로 지친 그들은 갑작스러운 집중공격으로 모두 분산되어 敗退하였다.

이때의 戰果는 뒤에 元山에서 압수한 人民軍 新聞에 死傷者가 300名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敵 제 6 사단의 一部가 相當수의 損失을 입었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당시 海兵隊가 携帶한 武器는 大部分이 九九式 小銃이었으며 重機關銃 2挺 輕機關銃 3挺 60mm 박격포 3門 뿐이었다.

舒川으로 분산되작한 敵은 砲擊을 加하면서 반격하였는데 7時間의 惡戰고투끝에 17.00부터 제 3 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 1 제 2 양중대가 대대본부와 함께 長項으로 撤退하여 群山부두에 있는 海洋大學으로 集結하였다.

長項에서 渡船을 利用하여 群山으로 이동한 我軍은 18일에 다시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13.00부터 陸戰隊 및 海兵隊가 錦江南端방어를 위하여 江 언덕에 布陣地를 占領하고 있었으나 19.00부터 野砲대대의 砲擊과 함께 敵 제 6 사단이 1개 연대병력으로 錦江을 渡河함에 따라 江을 사이에 두고 群山을 방어하려던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錦江하류를 渡河한 敵 제 6 사단 15연대는 論山—江景방면으로 侵入하여 群山南端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海兵隊 제 3 중대는 이들을 격퇴코자 裡里부근으로 轉進하여 陸軍 西海岸地區

전투사령관의 指揮下에 들어갔다. 한편 群山을 점령한 敵은 群山 東北쪽 10km까지 진출하여 포위 態勢를 取하는듯 하였다.

이와같은 敵情판단으로 19日 次期作戰에 對備하기 위하여 13.00부터 群山 비행장으로 집결한 我軍은 戰勢의 不利에 따라 즉시 海上撤收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一部 兵力으로 海上철수를 엄호케 하기 위하여 群山에서의 市街戰을 전개하였으며 主力은 22.00부터 LST 安東號에 옮기게 되었다. 한편 市街戰을 전개하던 海軍 陸戰隊와 海兵隊의 一部는 砲擊支援下에 侵透하는 衆敵과 激戰을 展開하던중 중과부적으로 이날 21.00부터 다시 철수키로 하였다.

群山을 점거한 敵들은 피난민을 乘船시킨 民間船舶에도 砲擊을 集中하였으나 1척의 損失도 없이 外海上으로 脫出하였으며, 我軍主力은 이날 22.30에 群山 앞 10mile 에 있는 古 群山島를 거쳐 一路 木浦港으로 指向하였다.

이날 海軍本部에서는 群山警備府 및 海兵隊와의 通信이 두절되자 同海域을 警備함해중이던 YMS 502, 503艇을 群山으로 급거 出動시켜 戰況을 조사보고토록 하였다.

한편 7월 18日 西海岸地區 전투사령관 指揮下에 들어간 海兵隊 제 3중대는 7월 20일에 裡里北쪽 1km에서 敵 1개 중대규모와 交戰끝에 16名을 사살하였으나 3개 중대병력의 敵이 增加된듯 하므로 결국 金堤—井邑—光州를 거쳐 21日 17.00에 木浦로 이동하였다. 또 한편 19日 群山에서 LST편으로 海上이동한 부대도 21日 08.00 木浦에 入港하였다.

7월 15일에 海軍本部에서는 群山政府米(白米 13,000가마, 벼 969가마)를 釜山으로 輸送하도록 指示하고 同日 YMS 513艇은 PC 701艦과 제 1艇隊의 旗艦을 交代한 다음, 忠南沿岸을 警備하던 중 通信機의 故障으로 修理次 木浦로 向하였다.

JMS 313艇은 기간중 外烟島를 中心으로 群山과 於靑島에 이르는 海岸警備에 任하였으며 7월 16日 YMS 503艇은 西海上에서 遭難한 B-29機를 구출하였다.

群山과 長項을 占據한 敵은 長項製鍊所에 砲陣을 치고 我海軍 艦艇의 活動을 방해하고 있었으나 제 1艇隊에하의 艦艇들은 於靑島 및 牙山을 中心으로 仁川에서 群山에 이르는 全海岸線을 封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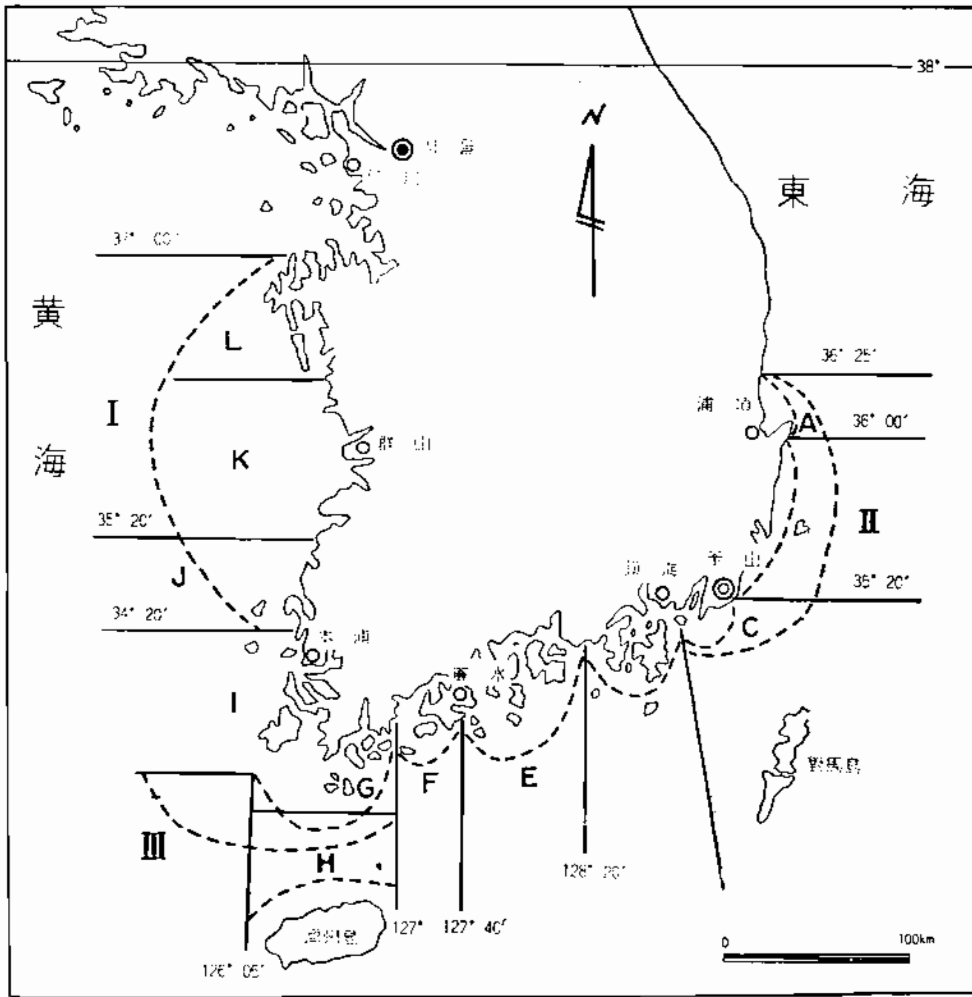
18日 18.00에는 새로이 도입된 PC 702, 703艇에 대하여 要旨다음과 같은 海本作命 甲제 63호가 下達되었다.

『중령 李熙鼎은 702, 703艇을 지휘하여 長項近海로 급거출동하여 我軍의 地上作戰을 엄호하라.』

당시의 海上상대는 近海船舶의 避航을 경고한 바 있으나, PC 702, 703艇은 惡天候를 무릅쓰고 航海를 계속하던 중 20日 20.00에 木浦近海에서 LST 安東號를 邂逅하였다.

21日 04.00 目的地 長項을 눈앞에 두고 PC 703艇은 開也島 南端에 接岸한 다음 敵情을 살폈는데 海上은 어둡고 視程이 制限되었으나 PC 703艇은 05.50부터 3'主砲의 砲門을 열

◇ 上覽도 제81호 海本作命 제75호에 의한 海軍의 경비海城(7.26)



었다. 이 때의 사거리는 7mile 이었는데, 水深을 측정하면서 5mile까지 接近하여 2時間에 걸쳐 艦砲사격을 계속한 다음, 海本作命에 의거하여 古群山島에서 702艦과 合勢하여 同日 21.00에 木浦港으로 歸着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我軍이 海路를 利用하여 木浦로 撤收하자 群山을 점령한 敵은 戰車 및 車輛을 앞세우고 海岸線을 따라 南侵하였으나 我海軍艦艇의 海上경비로 인하여 海岸活動이 困難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內陸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는데, 全州에 侵入한 敵은 光州와 南原으로 侵入하여 7월 말일경에는 麗水附近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木浦로 이동한 我軍은 麗水로 南侵하는 敵을 擊退코자 21일 18.00 麗水로 海上 이동하여 陸軍과 合勢기로 되었으며 濟州道에 있던 海兵隊도 當該地區의 防守를 위하여 출동하게 된다.

群山地區의 戰鬪내용은 本卷 제14장 1절에서 취급하였는 바 本項에서는 그 概略만을 一瞥하였음을 밝혀둔다.

## 다. 南海岸 상황

### (1) 木浦港의 戰況

#### (가)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木浦警備府 사령관 대령 鄭 兢 護	JMS 307艇	장 소령 白 雲 企
YMS 505艇 장 소령 韓 文 植	JMS 303艇	장 소령 申 永 徽
YMS 514艇 장 소령 朱 喆 奎	JMS 309艇	장 중위 金 南 教

#### (나) 전투전의 개황

木浦警備府의 제 3艇隊에는 도합 6척의 艦艇과 75명의 基地兵力이 있었는데 鎭海 統制府에서는 東海로 침투하는 敵들을 격퇴코자 제 3艇隊 소속艦艇 3척(505, 303, 309)을 6월 26일 鎭海로 回航시켰으나 PC701艇이 東海의 海戰에서 戰果를 올리자 이들 3척의 艦艇은 다시 木浦로 回航하게 되었다.

그뒤 이들 3척의 艦艇은 交代로 해상경비에 임하였는데 主로 法聖浦近海를 警備하면서 北으로부터 南下하는 미난선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同警備府에서는 7월 1일 16.00 YMS 514艇과 JMS 307艇便으로 李대봉령 夫妻와 李哲源 공보처장, 그리고 黃圭崑 비서 일행을 7월 2일 釜山까지 호송하였다.

同월 20일에는 海軍本部 作命 甲제67호에 의거하여 仁川警備府와 群山警備府를 木浦警備府 사령관이 통합 指揮하게 되었다.

LST 金泉號 및 蔚山號는 이날 木浦에 있는 政府米 80,000가마를 釜山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敵의 主力은 여전히 京釜線沿邊을 따라 南進中에 있었으며 大田부근에서 美제24사단이 苦戰하고 있는 가운데 長項 公州 부근에서 鎭江을 도하한 敵은 全州와 井邑에서 我軍과 交戰을 계속하면서 23일에는 光州에 侵入하였다. 한편 群山에 侵入한 敵 제 6사단의 一部는 木浦를 向하여 南侵하고 그 機甲부대는 順天을 向하여 突進하고 있었다.

光州를 喪失하였다는 정보에 接하자 木浦市民들은 인근 섬으로 피난하기 시작하였으며 木浦警備府에서는 兵器와 탄약의 追加補給을 요청하였으나 海軍 本部에서는 現在의 兵力과 裝備만으로써 嚴善을 다할 것을 要求하였으니 後方支援能力上으로 보아 不得已한 措置였을 것이다.

당시 木浦地區의 我軍 兵力이라고는 海軍과 少數의 警察兵力밖에 없었으며, 全南地區 연성관구사령부에서 파견된 1개소대 정도의 陸軍兵力이 있었을 뿐이었다.

#### (다) 전투경과의 개요

光州를 점령한 北傀의 一部가 木浦를 指向한다고 判斷한 警備府에서는 우선 白米와 油類 등 주요 政府物資와 軍需물자의 적재후송이 시급하였던 바, 23일 同 물자의 輸送을 완료하였다.

또한 같은날 敵의 戰車가 進入하지 못하도록 木浦市內 入口인 龍塘洞과 山亭洞間的 다리 2개를 파괴하였다.

18.00에는 海軍本部로부터 일단 海上으로 이동하여 다음 命令에 따르라는 연락이 있었으

므로 이에 따라 兵力은 LST丹陽號에 乘船케 하였으며 同艦에는 木浦市民의 피난민들도 乘船하였다.

당시의 木浦港에는 YMS 505艇과 JMS 309艇이 있었는데 18.30에 일단 1,500 Yds前方에 있는 高下島로 이동한 다음 投錨대기토록 하였다.

24일 06.00에 敵은 戰車 2臺를 선두로 市內에 침입하였는데 先發隊인 듯한 그 兵力은 1개중대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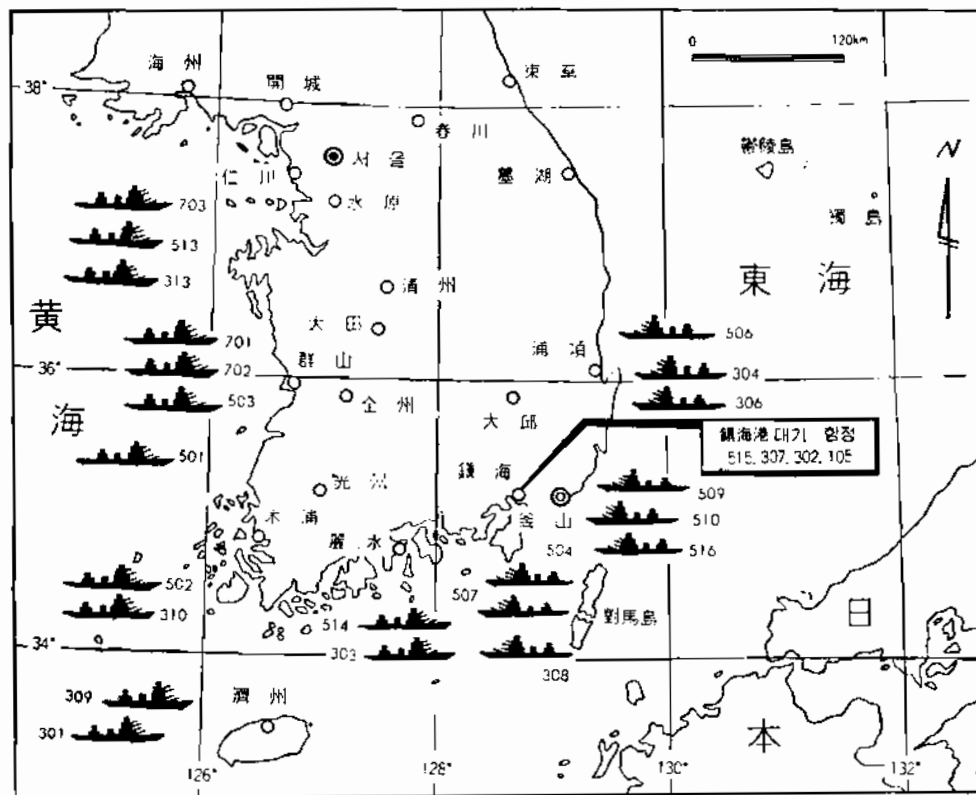
警備府에서는 이미 市內入口의 橋梁을 파괴하였으나 河川이 얕은 까닭으로 이들이 쉽사리 침입하였던 것이다.

한편 高下島에 投錨대기중이던 YMS 505艇에는 海軍 本部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電文 命令이 下達되었다.

『木浦警備府와 제 3 艇隊는 증원병력과 武器가 도착할 때까지 木浦港을 사수하라.』

이와 같은 命令을 받은 사령관은 다시 木浦港으로 入港하려고 결심하였으나 艦艇長들은 이에 극구 反對하였다.

◇ 상황도 제82호 各艦艇 경비상황(7.26)



陸上戰鬪能力이 미약한 少數의 海軍兵力으로서는 交戰能力이 없다는 것이 反對意見의 立論이었다.

그러나 사령관 鄭統謨대령은 24일 05.00에 YMS 505艇과 JMS 309艇을 직접 지휘하여 稅關부두 앞에 接岸케 하였으며 승조원 전원을 戰鬪배치케 한 다음 5名의 무장隊員을 市內로 상륙케 하였다.

07.00에 市內一角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고 市民들이 埠頭가에 나와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韓國銀行支店 부근에서 10名의 敵이 稅關부두를 向하여 急進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JMS 309艇이 20mm 重機로 사격을 가하자 그들도 建物사이를 掩蔽物로 하여 응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들의 兵力이 增加되고 509艇에서도 重機사격을 더욱 集中하였는데 많은 市民들 틈에 섞여있는 敵을 사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쏘아대는 小銃탄환은 我軍艦艇에 계속 命中하였으며 부두가에 집중되는 박격포탄은 점점 艦艇주위에 가까워졌다. 이에 따라 309艇은 먼저 稅關부두를 출항하였으며 505艇에서는 敵情관단을 위하여 상륙한 隊員 5명중 3명이 戰死하자 2名만을 乘艦시킨 다음 敵들에게 重機사격을 계속하면서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機雷제거 임무를 띤 掃海艇 YMS>

이때에 敵과의 거리는 不過 200m였으며 儒達山 중턱에서 集注하는 박격포탄은 艦艇주위에 작열하였다.

505艇은 출항직전 Mast의 신호등에 박격포탄 1발이 命中하여 2名の 隊員이 파편상을 입었으나 艦艇의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또한 505艇은 木浦港을 벗어날때 海岸線 가까이 近接하여 航海하였기 때문에 박격포탄을 피할 수 있었다.

#### (다) 전투후의 개황

24일 15.00을 期하여 木浦港에서 外海로 撤收한 警備府는 7월 26일 海本 作命 甲제67호에 의거 LST 丹陽號를 移動基地 사령부로 指定하고 근거지를 大黑山島로 定하였다.

그런 警備府는 제 1艇隊와 3艇隊의 보급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島嶼沿岸에서 出沒하는 赤色分子들을 색출하는 등 西南海의 警備를 계속하였다.

8월에 들어서는 UN海軍艦艇이 대거 참전함에 따라 移動基地 사령부를 95mile北쪽에 있는 於靑島로 옮겨 계속적인 海上警備에 臨하였는데 8월 下旬부터는 敵이 敷設한 機雷를 掃海하는 임무가 追加되었다.

### (2) 麗水 撤收戰

#### (가) 참가합정 및 주요 지휘관

陸軍	}	PC 701艇	장 중령 崔 龍 男
全南전성관구사령관 소장 李 應 俊		YMS 504艇	장 소령 李 昌 浩
海兵隊사령부참모장 중령 金 聖 恩		YMS 512艇	장 소령 梁 海 卿

#### (나) 전투전의 개황

長項一群山-裡坔등지에서 九九式 小銃으로 苦戰하다가 海路를 利用하여 木浦로 撤收한 海兵隊의 高吉勳 부대는 7월 1일에 麗水로 轉進한 다음 濟州道에서 進出한 海兵隊 1개 중대와 합세하였다.

이 중대는 海兵隊 참모장 金聖恩중령이 濟州道에 주둔하고 있던 兵力中에서 제 7 중대를 指揮하여 海軍艦艇 FS(堤川號)로 22일 06.00 濟州港을 떠나 同日 18.00에 麗水에 入港한 것이다.

여기에서 高吉勳부대의 3개 중대를 統合편성하여 金聖恩중령이 指揮하게 되었는데 그 兵力이 371名이었다.

또한 同部隊는 創設초기부터 待望하여 오던 M1小銃 및 박격포등이 FS 수송선(永登浦號)에 실려 麗水에 도착하게 되자 同장비로 武裝을 갖추었다.

이때까지 M1小銃에 對한 教育을 받지 못한 隊員들은 FS輸送船 甲板위에서 分解結合을 비롯하여 사격술에 對한 教育을 받았다.

同부대가 作戰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 海軍本部에서는 南原에 있는 陸軍의 團부대와 合同作戰에 임하라는 命을 下達하였다.

이에 따라 金部隊는 FS 永登浦號에 積載中인 兵器와 彈藥 기타 군수물자를 徹夜로 揚陸작업끝에 列車에 옮겨 싣고 23일 03.00에 麗水를 출발하여 같은날 10.20에 南原으로 進出하게 되었다.

한편 敵은 24일에 順天地區까지 進입하였는데 全南전성관구 사령관은 寶城-任實-順天地區에서 이들과 對戰하였으며 海兵隊의 金聖恩부대는 團부대와 함께 南原-咸陽방면에서 交戰中에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敵이 順天을 거쳐 麗水로 南侵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PC 701艦長 崔龍男중령은 YMS 504 512艇을 併合指揮하고 麗水부근의 海岸을 封鎖하여 出入港船隻의 검색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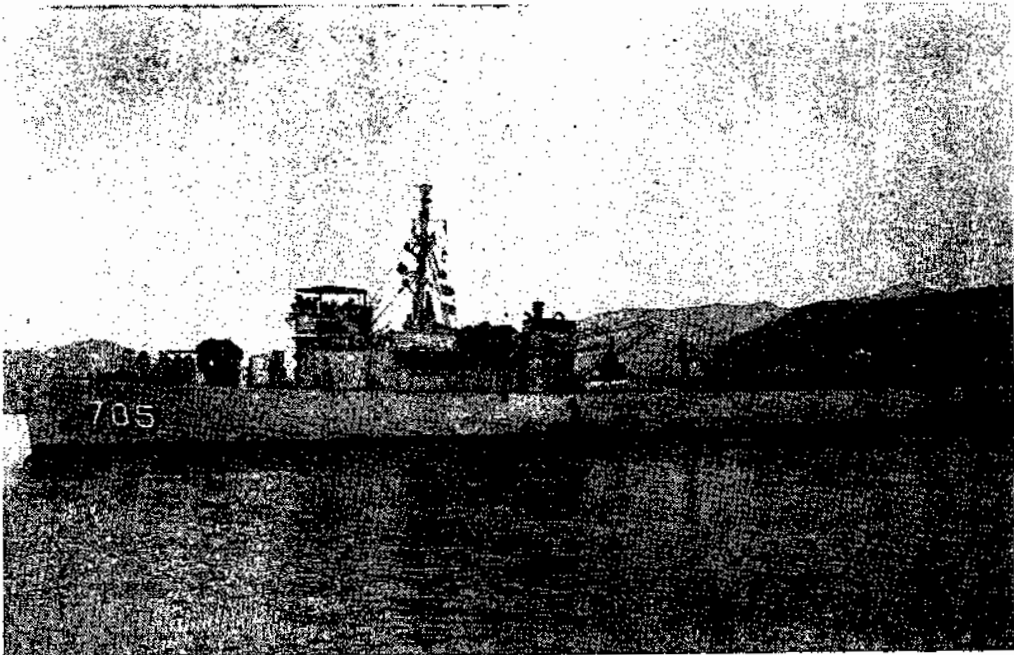
그리고 701艇은 順天과 南原에서 交戰중인 상황을 海軍本部와 國防部에 연락하는 通信중 介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YMS 504, 512艇은 大田地區에서 四散된 美제 24사단 소속은 의 兵力 400名을 수습하여 釜山까지 輸送하기도 하였다.

陸上의 戰勢가 漸次로 惡化되자 PC 701艦長 崔龍男중령은 海軍本部에 이러한 戰況을 보고하는 동시에 麗水로 撤收하는 我軍부대의 海上철수를 위하여 輸送艦艇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海軍 本部에서는 LST 烏致院號 및 安東號를 包含한 8 척의 輸送船을 파견하였다.

24일 順天까지 敵이 侵入하자 海軍은 13. 10에 LST에 政府물자를 적재하기 시작하였으며 麗水市民들도 이날 濟州道와 釜山으로 避難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市街는 空虛化하게 되었으며 LST에 政府물자를 적재할 때에도 人力동원에 支障이 많았던 까닭으로 장병 전원 이 동원되어 多量의 政府物資와 軍需物資를 晝夜작업 끝에 적재완료하였다.

그리고 海軍本部에서는 全南전성관구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陸軍 撤收用船隻 2척(FS 原州號 및 堤川號)을 추가로 麗水港에 回航시켰다



<당시의 전투함 PC>



27일 06.30에는 順天에서 我軍의 阻止線을 넘은 敵이 麗水 北港부두의 高地를 점령하였으며 그들의 先頭가 市內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PC 701艦은 政府米를 적재중에 있던 LST 忠州號를 적재완료와 동시에 곧 출항케 하는 한편 LST와 各輸送艦에 편승하는 부대의 엄호와 待機中인 船舶을 방어하기 위하여 07.00에 麗水 北港 2Mile海上에서 敵의 集結地에 3"艦砲사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全南면성관구 사령관은 同일 07.30에 車輛과 軍需品을 포함한 예하부대를 LST 汶山號에 편승완료케 한 다음 麗水를 출항하였다.

당시 麗水市에 침입한 敵의 武裝은 900名の 兵力과 122mm野砲 3門, 82mm 박격포 12門 重機 20挺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敵은 출항하는 LST 輸送船을 向하여 사격을 가하였으나 아무런 損失도 없었으며 PC 701艦은 全砲문을 열고 敵의 集結地에 사격을 集中하였다.

08.30에 全艦艇은 적의 사격원에서 벗어났는데 各艦艇의 輸送실적은 다음과 같다.

各艦艇別輸送실적

1950. 7. 24~28

수송함정	구분	수송물자	수송구간	수송일시	비고
LST 鳥致院號		국고금 5억원, 廣木 1萬捆, 白米 16,000가마, 군복 4,000점, 자동차 5台, 군인 가족 103名	麗水-釜山	24. 20. 00	
LST 安東號		陸軍 1,680名, 白米 2,380가마, 설탕 67ton, 車輛 17台, 實彈 2ton, 廣木 8,000捆, 油類 130D/M, 연초 2貨車	麗水-馬山	25. 15. 30	
FS 忠州號		벼 1,500가마, 보리 230가마, 김 360Box, 식용유 12D/M, 우유 10D/M, 경찰병력 11名	麗水-鎮海	27. 08. 00	
FS 驪州號		벼 2,000가마, 김 1,000	麗水-釜山	26. 21. 00	
FS 堤川號		廣木 30捆, 보리 50가마, 김 100Box, 휘발유 10D/M	麗水-釜山	27. 08. 00	
FS 原州號		陸軍 제15연대 병력 및 軍需물자	麗水-釜山	27. 08. 00	
FS 天光號		廣木 8貨車, 제15연대 병력	麗水-鎮海	27. 08. 00	
LST 汶山號		李應俊小將外 600名, 車輛 30台	麗水-鎮海	27. 08. 00	

(라) 전투후의 개황

海軍 輸送船을 利用하여 鎮海과 釜山으로 移動한 我軍은 그뒤 再編강화되어 湖南地區작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我海軍에서는 戰鬥능력이 마비된 麗水地區의 警察들로부터 小銃을 回收하여 鎮海의 海軍新兵訓練所로 보냈다.

輸送작전에 참가한 LST 艦艇들은 前方으로의 兵力수송을 비롯하여 軍需물자의 輸送에 力點을 두어

我軍 地上작전에 寄與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 麗水를 점거한 敵 제 6사단은 南海岸을 따라 東쪽으로 침공을 계속하여 7월 31일에는 河東—晉州에 이르렀으며, 美제 25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이곳의 방어에 들어갔다.

## § 參戰者의 證言

### ◇ YMS 501艇長 李 珪 淳 소령

(1978. 6. 27. 誓海俱樂部에서, 예, 준장)

仁川警備府가 撤收한 다음 우리 제 1艇隊艦艇들은 西海岸警備를 일층 강화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502艇과 함께 江華島近海의 警備를 끝마치고 仁川의 小月尾島 앞을 通過하려는데 갑자기 폭음이 울리면서 艦주위에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때 502艇은 우리보다 900 Yds 전방에서 航進中에 있었는데 該艇이 通過할 때까지는 아무런 정후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戰鬪배치 상태였으므로 곧장 응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쌍안경으로 살펴 본 즉, 小月尾島에 2~3臺의 戰車가 우리를 向하여 戰車砲 사격을 加하고 있었다.

501艇에서는 37mm 對戰車砲와 20mm, 그리고 Cal 50 등 重機로 집중사격을 加하였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砲擊이었지만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全隊員들이 침착한 태도로 戰鬪에 임하였으며, 501艇은 평균 Speed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砲擊戰을 벌인 것이다.

그들의 砲擊은 정확하지 못하였으며 501艇의 앞뒤에 Splash(물기둥)가 치솟아 오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쏘는 37mm 對戰車砲와 重機는 敵의 戰車에 命中하였던지 흙먼지와 연기가 일어났으며 1臺의 戰車는 사격을 멈추고 응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5분정도 전투가 계속되는 도중 우리 501艇은 Mast와 기관실入口 Hatch에 砲彈이 1발씩 命中하였으나 艦의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人命피해도 없었다.

外洋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701艇과 邂逅하였으며 被擊된 Mast와 기관실 入口는 自體修理를 하였다. 그리고 제반 보급은 LST 801艇에서 수령하였으며 西海岸 封鎖作戰中에 우리는 主로 蔚

島近海를 警備하면서 漶津 白翎島로부터 南下해 오는 피난민을 검색하였는데 이 때의 단속선박수는 20척으로 記憶하며, 대부분 불순분자가 아닌 自由를 찾아 越南하는 農漁民들이었다.

### ◇ 仁川警備府 참오장 鄭 昊 護 소령

(1965. 6. 28. 國防部軍需局長室에서, 예소장)

7월 9일에 나는 隊員들을 이끌고 長項에 상륙한 다음 舒川에 이르렀다.

이곳에 와보니 1,000명에 가까운 警察部隊가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들은 洪城—靑陽에서 大川을 거쳐 南下해 온 鐵道警察 및 서울地區 警察들이었는데 이들은 武器도 亡失한 채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여 戰鬪능력이 마비되었으며 我軍의 정규작전에 지장을 줄 것 같았으므로 長項에 있는 渡船을 利用하여 모두다 群山以南으로 撤收시켰다.

당시 群山地區의 兵力은 仁川에서 이동해온 仁川경비부대원과 群山基地 兵力을 합하여 200명정도였다고 생각한다.

13일부터는 舒川北쪽에 敵들이 사타나기 시작하여 우리 警備府隊員들과 對峙하게 되었다.

우리가 舒川까지 진출하였던 目的은 群山에서 政府물자를 적재하고 있는 我軍의 輸送船과 피난민을 사전에 보호한다는 것과 지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長項地區를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16일 08.00 群山에 도착한 海兵隊는 그날 13.00 長項으로 이동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海兵隊에게 時間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빨리 舒川으로 진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어찌된건지 그들은 소수의 정찰대를 먼저 보냈다가 損失을 보았던 것이다.

드디어 長項北쪽 4km에서 敵과 交戰한 우리는 武器와 兵力의 不足으로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는데, 敵들은 122mm 野砲로 集中砲擊을 加한 다음 일제히 공격하여왔기 때문에 박격포 數門밖에 없던 우리는 背進하지 않을 수 없었다.

海兵隊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敵에게 보다 많

은 타격을 주었을 터인데 時間의 이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長項에서 群山으로 撤收하고 말았다.

群山에서는 飛行場이 있는 海岸에 LST를 待機시켜 놓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輸送艦에 乘艦하였으며 나는 江華島에서 警備한 연락선에 피난민들과 家族들을 乘船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群山을 떠난 다음에 1개소대 정도의 수색대가 남아서 시가전을 벌인 것으로 기억한다.

◇ 木浦警備府 사령관 鄒 鏡 護 대령  
(1964. 11. 18. 水産開發公司 감사역실에서,  
에, 중장)

당시 木浦에는 地上軍이 없었고 海軍警備府 병력 뿐이었으므로 戰時的 治安유지가 힘들었다.

무기라고는 九九式 小銃과 Calbine 정도의 빈약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차에 걸쳐 상부에 武器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仁川이 敵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大田이 침략당하는 상황에서 빈약한 병력과 부장으로 木浦를 방어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7월 20일 群山에 있던 海軍병력이 합세하여 兵力은 약간 증가되었으나 保有中인 兵器는 형편 없는 실정이었으며 海軍 本部에서는 現在의 武裝과 兵力으로 最善을 다하라는 지시 뿐이었다.

마침내 光州가 敵의 手에 들어가자 全南地區의 陸軍兵力은 作戰上 撤收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며 光州에 集結한 병력이 戰車 7臺를 앞세우고 木浦를 向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敵의 戰車가 通過하지 못하도록 木浦市 入口에 있는 橋梁 2개를 파괴하였으나 戰車는 시냇물이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해 버렸다.

敵이 戰車를 앞세우고 木浦市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파악한 海軍本部에서는 무모한 戰鬥을 하지 말고 일단 海上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나는 LST에 兵力을 싣고 일단 高下島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敵들이 들어오기 前에 木浦政府米는 이미 鎭海와 釜山으로 輸送하였으며 10일전에 市民들에게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피난할 수 있는 機

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인근 섬으로 피난하였다.

또한 敵이 사용할만한 시설이나 政府물자도 모두 다 처분하였다.

다음날 아침 미명에 敵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特攻隊를 상륙시켜 싸울 작정으로 木浦港에 들어갔는데 오전식사를 끝마치자 敵의 박격포탄이 艦艇주위에 작살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艦橋에 있었는데 水兵 1명이 파편으로 쓰러졌다. 우리는 重機보 交戰을 계속하면서 外洋으로 移動하였는데 隊員中 7~8명이 부상했던 것 같다.

◇ YMS 505艇 航海長 申 學 連 상사  
(1965. 9. 7. 海軍本部 감찰부장실에서,  
에, 준위)

戰爭이 발발하자 우리는 주로 法聖浦近海를 경비하였는데 6척의 艦艇中에서 2~3척이 單隊를 편성하여 木浦港에서 交代로 警備出動을 하였다.

당시에는 北에서 南下하는 피난선 뿐만 아니라 仁川과 群山地區에서 海路를 따라 내려오는 피난민들도 많았는데 그중에는 戰爭이 난중도 모르고 고기잡이하러 나온 漁船도 있었다.

北에서 南下하여 오는 피난민을 검색할 때에는 우리의 艦艇을 계류한 다음 대원들이 무장을 갖추고 선박을 검색하였는데 피난민들 중에는 蘇製 권총을 휴대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조사를 해본 즉 赤色分子는 아니었으나 日帝時代에 軍·警에서 活動했거나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우리는 武器를 압수하여 警備府로 이관하였다.

이와같은 警備를 계속하던 중 7월 20일경에는 入港하라는 命令을 받고 木浦港에 들어온 즉, 다른 艦艇은 모두 出動을 나가고 309艇과 LST丹陽號가 稅關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두에서는 一部の 市民들이 大小型船을 利用하여 인근 섬으로 피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木浦警備府에서는 또 政府米와 主要政府物資를 鎭海와 釜山으로 輸送하였다.

市民들한테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 본 즉, 敵들은 光州를 점령하고 木浦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었다.

나는 水兵 한사람과 함께 부식을 구입하려고 부둣가에 나갔다가 警察署앞에 이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지어가지고 물러다니는 것이었다.

이유인 즉 山亭里쪽에 敵들이 나타나서 도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시 배로 돌아와 본 측, 總員이 戰鬪배치를 하였으며 우리는 일단 高下島까지 이동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사령관님은 艦艇長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木浦港에 入港하였는데 아침 식사 시간에 갑자기 銃소리가 울렸다.

나는 즉시 艦橋에 올라가 본 측 韓國銀行支店쪽에서 카키色 제복을 입은 敵들이 행진해 오고 있었다. 이튿날 우리 505艇과 309艇은 즉시 사격을 추가하기 시작하였으나 敵들이 建物사이와 市民들 틈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출항직전에 우리는 敵의 박격포탄을 맞았는데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나도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쓰러졌다.

잠시 뒤에 精神을 차려보니 주위에 무수한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는 가운데 우리 배는 木浦港을 벗어나고 있었다.

#### ◇ PC 701艇 副長 宋 錫 昊 소령

(1965. 7. 15. 艦隊副司令官室에서, 예, 준장)

701艇에 근무하면서 戰爭초창기에 가장 갑개부량했던 것은 역시 大韓海峽에서 敵의 大型輸送船을 격침시킨 것과 麗水撤收 지원이었다.

全南地區에서 作戰中인 我軍은 敵의 主力部隊가 대거 침투하여오자 麗水로 이동하였는데 敵들도 뒤따라 침투하였던 것이다. 이때 上部의 指示로 麗水港으로 집결한 LST는 主要 軍需物資와 我軍兵力을 乘船하였는데 一次로 政府米를 輸送하였다.

그리고 敵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麗水市民들도 피난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틀동안에 모두들 피난하여 麗水거리는 텅빈 空虛地帶가 되버린 것이다.

我軍이 LST에 乘船하고 있을때 우리는 敵들의 陣地에 艦砲사격을 추가하였는데 이에 맞서 그들도 박격포사격을 해왔으나 거리가 미치지 못하였다.

LST가 출항하는 도중에도 敵들은 일제히 사격을 하였으나 우리도 主砲와 重機로 지속적인 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분산시켰다.

敵의 박격포탄을 피하려고 우리는 最大 Speed를 유지하면서 ZigZag航海를 하였던바 1發의 命中彈도 없었으며 Full Speed로 航進하면서 Course를 바꾸어도 3'主砲는 180° 회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敵陣에 자유로운 砲擊을 할 수 있었다.

그때 LST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 ◇ YMS 512艇 操舵手 鄭 然 得 상사

(1966. 4. 9. 艦隊사령부에서)

麗水에서 우리는 美軍들을 釜山까지 輸送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美 제24사단 예하병력의 一部로서 주로 부상병들이 많았으며 그 兵力은 80名 정도였다.

확실한 날짜는 記憶할 수 없지만, 美軍들을 輸送할 때에는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부상병들이 배멀미로 많은 苦生을 하였다.

麗水撤收前에 우리는 麗水港의 稅關, 창고등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고 我軍부대가 철수할 때에는 敵陣에 砲擊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順天地區에서 麗水로 移動해온 警察부대는 부상자가 많고 戰鬪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武器를 인수하여 鎭海에 있는 海軍訓練所로 보낸 일이 있다.

## § 戰 訓

### (1) 機動力의 發揮에 대하여

戰爭이란 時間과 장소를 놓고 勝敗를 決定짓는 行爲라고도 할 수 있다.

群山과 長項을 방어하기 위하여 舒川에 進出대기중에 있던 海軍 警備府대원들은 7월 16일 群山上에 도착한 增員부대(海兵隊)가 즉각 舒川으로 出動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群山上에 도착한 同部隊는 당일엔 進출하지 않고 敵들이 이 舒川에 전지를 확보하고 있던 17일에야 出動함으로써 機先을 制扼하지 못하였다.

물론 上陸실시후의 부대정비와 현지의 적정정찰, 판단과정에서는 여유있는 시간이 필요하였겠

지만, 敵들이 증과부적으로, 급거 南下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군의 공격시간이 하루동안이나 지연된 것은 敵들에게 진지구축이라든가 공격속도에 유리한 여건을 부여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舒川에 進出 대기중이던 海軍隊員들은 地上戰鬪에 對한 教育訓練이 거의 없었던 海上戰鬪요원인 데다가 武裝 또한 빈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敵情정찰 임무만을 수행케 되었고 증원부대로써 群山에 도착한 海兵隊는 소수의 정찰대만을 보낸 다음에야 主力部隊를 투입한 까닭으로 기습과 先制의 利를 살리지 못한 消極的인 戰鬪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群山도착 당일날 夜間을 利用하여 舒川에 進出토록 하였더라면 南下하는 敵들에게 보다 많은 손실을 加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더욱이나 我軍이 群山에 上陸한 당시에 敵들은 舒川北쪽의 원거리에 위치하였던 바 我軍上陸부대가 先進先攻하였더라면 南下하는 敵들에게 보다 많은 損失을 加하였을 것이다.

上陸작전의 主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기습공격을 무시하고 현지 주둔부대와 同一한 立場에서 南下해오는 敵들과 對戰한 것은 敵들에 비하여 소수의 兵力을 갖춘 我軍에게 매우 不利한 戰鬪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海軍警備府 隊員들을 指揮했던 鄭吳謀 참모장은 時間의 급박성 때문에 누차 增員部隊의 급거 出動을 요청하였으나 同部隊는 다만 少數의 정찰대만을 보낸 까닭으로 敵들에게 我軍병력의 動向만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證言한다.

또한 增員부대의 上陸目的地를 長項이나 舒川 西쪽 海岸으로 하였으면 群山에서 長項까지 渡船으로 移動하여 出動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것이

다.

## (2) 兵力과 火力의 集中운동에 대하여

敵들이 戰車를 앞세우고 木浦에 到達할 당시 同港에는 海軍 輸送艦 1척과 警備艦艇 2척이 있었을 뿐이었다.

敵들과 對戰할만한 地上軍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同地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適所適時에 兵力과 火力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群山에서 木浦로 撤收한 海兵隊는 木浦에 敵이 들어오기 3일전에 이미 麗水로 移動하여 同港은 空白상태가 되고 말았으며 同港의 計 3 艇隊艦艇들도 거의 다 外洋으로 나가 海上整備에 任하고 있었으므로 火力이 集中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大田부근에서 敵들과 對峙하고 있던 我軍과 美第24사단 및 25사단도 그들의 遲延戰線을 大田—大邱—釜山으로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西南部에도 局地的인 橋頭堡를 마련하였더라면 敵들의 南進대열을 제압하는데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을 것이 아녘던가 판단된다.

이와같이 兵力과 火力이 분산된 원인은 指揮계통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와 전차가 부족했던 까닭이라고 보여진다.

勿論, 陸·海·空軍의 계반작전을 총지휘하는 統合기구가 본체도에 오르지 못하여 원만한 合同作戰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撤收였지만 指揮府에서 木浦地區를 中心으로 많은 戰力을 투입하였더라면 釜山과 같이 견고한 橋頭堡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2. UN 海軍의 作戰

참조: 상황도 제 83~85호

## 가. 단위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海軍참모총장	대장 Forrest P. Sherman	美 第7艦隊 사령관	중장 Arthur D. Struble
美 太平洋艦隊 사령관	대장 Arthur W. Radford	英 極東海軍 사령관	대장 Sir Patrick Brind
美 極東海軍 사령관	중장 C. Turner. Joy	英 極東艦隊 사령관	소장 W.G. Andrewes

## 나. 기간중의 활동 상황

## (1) 東海岸합포지원

美軍의 派韓결정과 더불어 최초로 韓國海域에 출동한 美海軍 함정은 輕巡洋艦인 Juneau (6,000 ton 艦長 대령 J.C. Sowell)이었다.

6월 28일부터 東海上에서 本格的인 海上作戰에 돌입한 同艦은 美極東해군 사령부의 機動戰隊 96.5(支援戰隊)의 旗艦이며 12개의 5"砲를 主砲로 갖추었는데 주로 東海岸을 따라 南下하는 敵지상군과 敵陣에 艦砲사격을 加함과 동시에 海上봉쇄 작전을 遂行하였다.

7월 4일 同艦은 英國驅逐艦 Back Swan과 함께 三陟, 注文津의 敵陣에 艦砲사격을 加하였는데, 7월 5일에는 Juneau艦이 英國巡洋艦 Jamaica와 東海岸 砲擊임무를 交代하고 油類보급차 日本의 Sasebo港으로 向하였다. 機動戰隊 96.5(支援戰隊)사령관 J.M. Higgins 소장은 旗艦 Juneau에 乘艦하여 東海岸 海上작전을 지휘하였는데, 무엇보다도 敵情 파악에 의한 精確한 艦砲사격을 重要視하였다.

이 날, BlackSwan艦도 注文津 앞 海上에서 海岸砲臺와 船舶, 그리고 橋梁과 6개의 油類 저장탱크에 砲擊을 加하였다.

다시 北緯 37°16' 海上으로 南航한 同艦은 海岸의 橋梁과 道路를 파괴하였다.

한편, Sasebo에 도착한 J.M. Higgins제독은 東海岸 艦砲사격과 韓國海軍에 對한 武器지원 및 재편성에 關한 會議에 참석하기 위하여 W.G. Andrewes소장(英國極東 艦隊사령관)과 함께 空路 Tokyo로 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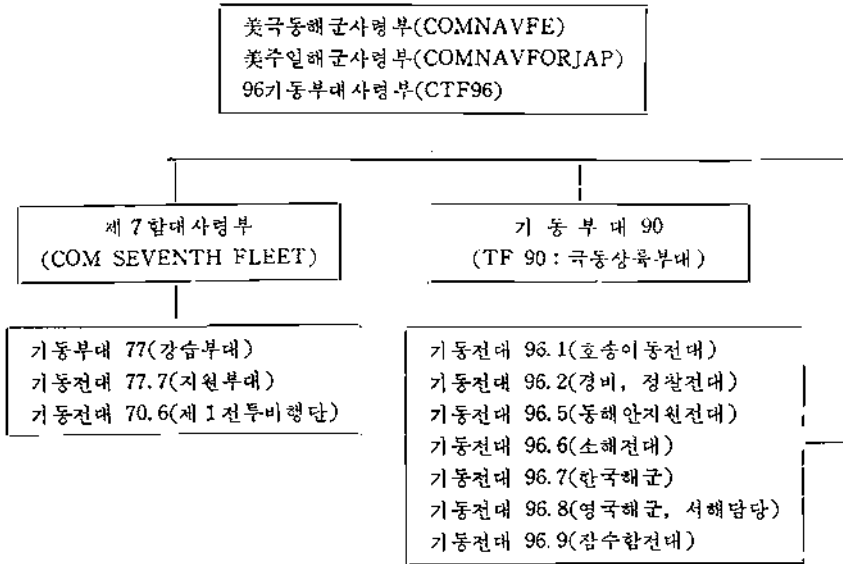
이 곳에서 美極東海軍사령관 C. Turner Joy계독과 장차의 海軍作戰계획 및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美海軍이 내세운 계획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東海岸에 대한 艦砲사격과 상륙작전
- ② 近接항공지원을 위한 機動艦隊 艦載機의 출격
- ③ 美海兵隊의 適期수송
- ④ 北韓內의 주요 軍事도시 공습

한편, 東海上에서 作戰中이던 英國해군함정 3척(Jamaica艦, Black Swan艦, Hart艦)은 美海軍함정과 合同作戰에 임하였는데, 7일에 驅逐艦 Hart는 蔚珍北쪽 海岸의 油類저장 탱크를 砲擊함과 동시에, 附近海岸에 위협사격을 가하였으며, 다시 襄陽附近으로 北上하여 海岸철도와 油類탱크에 艦砲사격을 가하였다.

Juneau艦이 Sasebo港에서 油類를 보급받고 있을 때 英國艦隊사령관 W.G. Andrewes계독은 巡洋艦 Belfast와 2척의 驅逐艦(Cossack, Consort)을 韓國해역에 출동시켜 海上봉쇄와 艦砲사격을 실시케 하였는데, 이는 極東海軍 사령부의 作戰命令 8-50에 의거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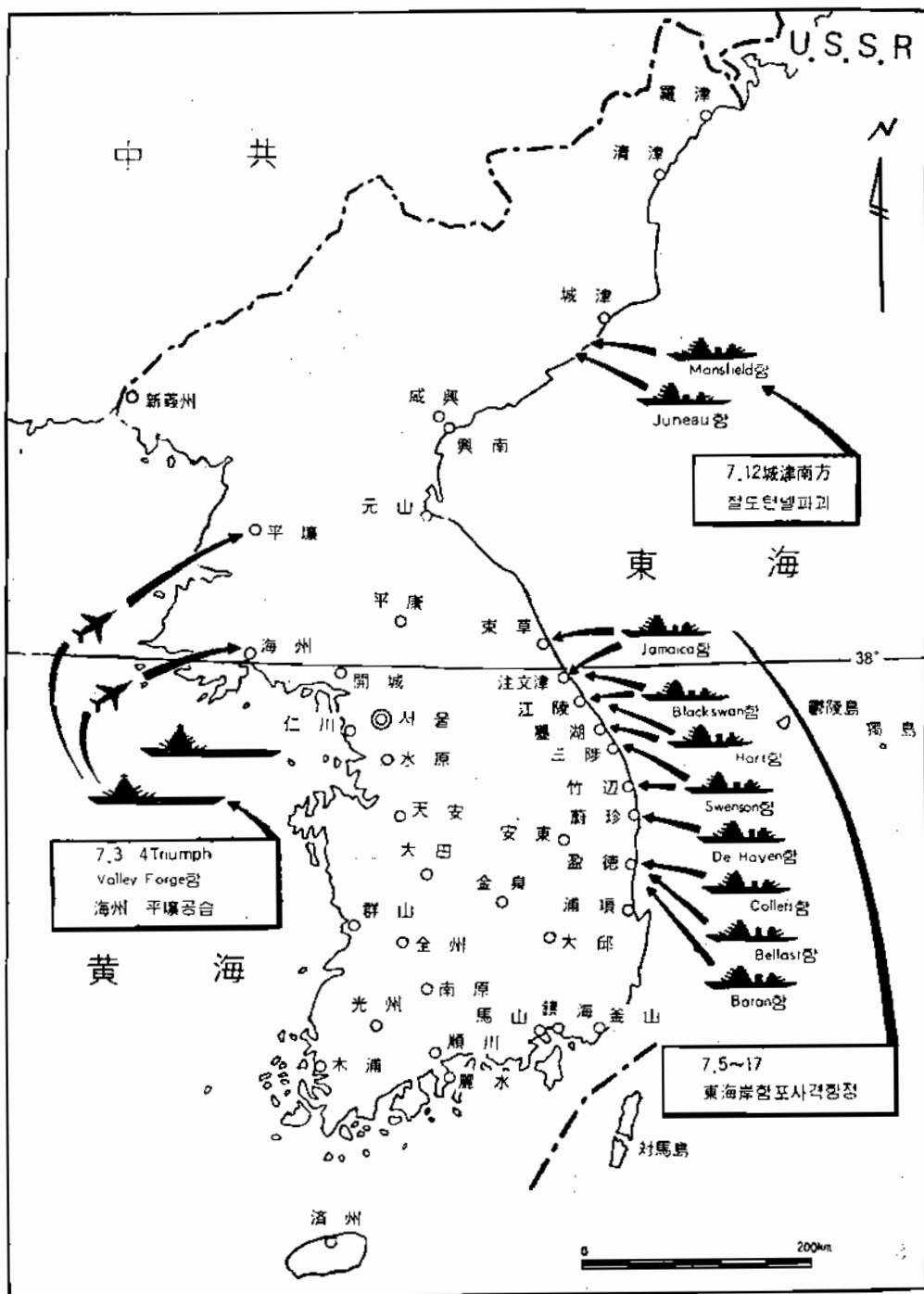
作命 8-50에 의거한 미국동해군 조직



이 作戰命令으로 韓國지원전대를 再編강화하였는데,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 5일 東海岸지원전대(TG 96.5)를 편성하여 海上작전을 遂行케 하였으며 英해군(TG 96.8)은 주로 西海上에서 作戰토록 하였다.

8일, 英巡洋艦 Jamaica는 Hart 및 Swenson과 북위 37°近海를 경비航海중 美極東 해군사령부의 命令으로 海岸의 수원지, 도로, 橋梁에 艦砲사격을 가하였는데, Jamaica艦은 海岸

◇ 上覽圖 第 83 號 東海岸함포 사격(7.5~17)





가까이 接近하다가 敵으로부터 75mm 海岸砲사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 피격으로 갑판水兵 4명이 戰死하고, 8명이 부상하였으나, 艦의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오히려 敵의 위치를 확인한 同艦은 원거리 海上으로 물러난 다음, 전자탐지장치(Electronic Director)에 의한 사격으로 海岸砲진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한편, Sasebo港에서 油類보급을 마친 Juneau艦은 다시 東海로 復歸하여 9일 오전에 浦項近海에서 Jamaica, Hart, Swenson 및 Mansfield의 各艦과 合勢하였다.

여기에서 Juneau艦은 極東海軍사령부의 作戰지시 및 情報서류를 各艦長들에게 전달하고, 釜山으로 向하였으며, Jamaica艦은 油類수급차 Sasebo港으로 向하였다.

한편, 東海岸에서는 敵 제5사단의 主力이 海岸線을 따라 南下하고 있었으며, 國軍 제3사단 23연대는 寧海부근에서 阻止陣地를 편성하고 있었다.

이 날, J.M. Higgins소장은 釜山에서 國軍 및 美제 8군대표와 作戰會議를 열고, 海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가운데, 東海岸에서는 무엇보다도 海軍艦艇들의 艦砲사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艦砲사격 지원절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다.

電子탐지기에 정확히 나타나는 海上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海岸정보 및 敵情報단에 의한 艦砲사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敵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情報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各艦艇에 敵의 위치와 이동상황을 無電으로 통보하여 줄 수 있는 항공함포 연락반(ANGLICO: Air and Naval Gunfire Company)을 파견하게 되었다.

10일 밤, 02.00~03.00에는 三陟港에 大規模 艦砲사격을 加하였다. 이처럼 敵後方の 補給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加하게 될 것이므로 極東海軍 사령부는 J.M. Higgins제독에게 가능한 더 北上하여 淸津~元山間의 海岸봉쇄는 물론, 鐵路線상의 Tunnel을 파괴하라고 命令하였다.

이같은 사령부의 命令에 따라 Juneau艦의 副長 William B. Porter중령은 장교 1명과 海兵 4명, 그리고 4명의 海軍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隊員을 차출하여, 폭파팀을 조직한 다음, 11일 20.00 Mansfield艦으로 파견하였다.

同艦에서 폭파계획을 자세히 하달받은 폭파팀은 23.30 2척의 WhaleBoat(短艇)에 옮겨타고 城津남방 10Mile의 목표지점으로 向하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들 9명의 폭파팀은 철저한 개인 武裝을 갖추고 있었으며, Mansfield도 목표 지점으로부터 1,000 Yds 이내까지 接近하였다.

무사히 목표지점에 도착한 폭파팀은 Tunnel을 向하여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였다.

이윽고 Tunnel入口에 도착한 그들은 열차와 Tunnel파괴의 2중효과를 노리고 60pound의 瞬發信管 폭탄을 장치하였다.

임무를 완료한 이들 폭파팀은 03.30, 母艦으로 돌아갔는데, 이들의 上陸침투는 美軍이 陸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는 UDT>

상을 통하여 38線을 越北공격한 최초의 것이었다.

독파순간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날, 北傀방송이 독파사실을 발표하였는데, 그들은 이 독파를 南韓先攻說의 선전자료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11일, 임무를 마치고 南航한 Mansfield와 Juneau艦을 12일 12.00에 Swenson艦과 합세한 다음, 37°—38°선間의 海域을 경비하였다.

한편, 北傀 제 5 사단이 寧海—盈德線까지 진출하게 되자, 국군 제 3 사단은 艦砲사격을 요청하였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13일에 DeHaven艦이 釜山에서 北航, 함류하였는데 美제 25사단의 포병장교 1명이 地上戰況에 관한 정보제공과 艦砲사격의 목표를 유도하기 위하여 Juneau艦으로 파견되었다.

이날 東海岸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視程이 몹시 불량하였으나, Juneau艦 및 DeHaven艦은 地上軍의 요청에 응하여 蔚珍과 墨湖의 敵陣, 三陟港의 油類 저장 탱크 등에 艦砲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사격은 주로 地上軍의 無線通報에 의하여 표적이 유도되었는데, 포격의 결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

驅逐艦의 5'主砲로 파괴하지 못한 道路 橋梁 등은 8'主砲로 파괴하였다.

14일에는 地上으로부터 더 이상의 사격요청이 없었으므로 해군에서는 敵이 東海岸을 따

라南下할 것을 포기하고 그進路를內陸쪽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11.20 Juneau艦은蔚珍남방近海를航進中 트럭의 Headlight를 발견하고砲擊을加하였는데 이 트럭행렬은北傀 제5사단의補統兵力과 군수물자의輸送車輛들이므로 판단되었다.

15일, DeHaven艦은英國巡洋艦과 함께 36°34'—36°52'의海岸(盈德부근)에 사격을加하였다. 이艦砲사격은陸軍정찰기와 Target情報를 교환하면서 실시하였는데, 정찰기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까닭으로 아무런誤差도 없이敵의 집결지와海岸포대에 총 645발의포탄을 집중하였다.

16일에도 Mansfield艦과 합류한 DeHaven艦은 36°30'—37°15'海域을 차단하고 Juneau艦과 함께海岸포대에 총 173발의砲擊을加하였다.

17일, Juneau艦은 연료보급차釜山으로向하였는데, 同艦에 탑승한 J.M. Higgins제독은韓國海軍代表와會議를 가졌다.

旗艦 Juneau를 떠난 뒤, Mansfield 및 DeHaven艦은도합 400발의艦砲사격을 계속하였는데, 특별한 목표물을 겨냥 것이 아니라敵陣으로看做되는山間을散發적으로 포격한 것이다.

이날,英巡洋艦 Belfast와驅逐艦 Cossack 역시 이 같은艦砲사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散發적인砲擊과地上軍과의 연락下에 실시한集中的인艦砲사격으로東海岸으로 침투하는敵의南進속도가크게停滯된 듯하였다.

또한 계속되는艦砲射擊으로北쪽으로 연결된敵의補給路和戰列이 차단 또는 파괴됨으로써美제1기병사단의浦項상륙작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盈德—江口線의遲延戰도 10餘일 동안이나可能하였던 것이다.

## (2) 浦項 상륙작전

6월 25일,駐日美海軍 제90機動부대(Task Force 90)사령관인 J.H. Doyle소장은 이하의上陸戰隊함정에美제25사단 35연대兵力을Yokosuka港에서 탑승시켜, Sagami灣의 Jigasaki海岸에서上陸訓練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美제8군에 대한上陸훈련은 5월부터 실시되고 있었으며,上陸作戰의 능력이크게 배양되어 가고 있었다.

이上陸訓練이戰爭期間中에 실시하였던浦項,仁川,元山등의上陸作戰에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7월 5일,日本の基地로부터 공수된美제24사단兵力은 단 700여명 뿐이었고地上戰況은我軍에게 불리하기만 하였다.

MacArthur원수는 당시의 불리한 상황을指摘하되『당면한 긴급문제는韓半島 전지역에서南進中인敵지상군의進路를 차단하는 것이다. T-34戰車の 지원을 받은敵지상군은 도

합 9개 사단으로 추정한다. 現在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加하여도 승리에 도취한 敵들의 기세를 꺾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MacArthur원수는 7월 6일에 J.H. Doyle소장과 그의 참모 7명을 東京으로 소집하여 제 1기갑사단으로 하여금 上陸돌격작전을 계획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仁川이나 群山에 대한 사단의 上陸作戰도 아울러 계획토록 하였다.

이 上陸作戰회의는 9일까지 계속되었는데 J.H. Doyle제독의 作戰계획담당관인 Noel 소령은 仁川을 上陸 목표지점으로 꼽고 있었다.

그러나, 大田지구의 戰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釜山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東海岸에서의 上陸作戰이 필요하였으며, J.H. Doyle제독은 浦項을 가능한 목표지역으로 제시하였다. 이 제의는 7월 10일에 MacArthur사령관의 승락을 얻었다.

浦項에는 사용가능한 飛行場과 上陸이 용이한 1,000Yds 이상의 海岸이 있었으며, 大邱를 거쳐 大田으로 이어진 鐵路도 사용가능함으로 上陸軍을 신속히 戰線으로 投入할 수 있었다

또한, 同港은 海軍함정의 東海岸 艦砲사격에 힘입어 아직 戰線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10일, 浦項이 上陸地로 결정되자 이날 LST로 浦項에 도착한 제 5공군 航空기술자들은 활주로를 확장 보수하기 시작하였다.

11일에는 上陸作戰에 필요한 海岸정보를 수집하려고 海軍장교 3명과 제 1기갑사단의 정보장교 2명이 浦項으로 空中정찰하였다.

이들은 海岸의 수심상태, 하역시설 및 浦項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7월 13일 Tokyo로 돌아갔다.

Tokyo灣을 출발한 先發 수송선단의 도착을 앞두고 14일부터 7척의 掃海艇(YMS)이 浦項 迎日灣의 掃海작업을 시작하였으며, LST와 LSU로 구성된 機動전대 90.3(인양전대)는 上陸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하고 韓國海域으로 向하였다.

15일에는 안전한 행정상륙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지막 정찰비행을 하였다.

이 정찰비행으로 浦項上陸은 無抵抗 행정상륙이 可能하리라고 확신되었다.

한편, 中部戰線에서 열세에 놓여있던 韓·美地上軍은 大田근교에 진지를 구축하였으나, 122mm 野砲와 T-34戰車의 지원을 받는 敵 4개 사단이 錦江을 渡河하여, 美제24사단을 공격하였으며 四方으로부터 大田을 四面포위할 氣勢를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戰況은 機動力을 갖춘 地上軍의 上陸을 더욱 촉구하였다.

그런데 제 1기갑사단을 짧은 시일내에 韓國戰線으로 投入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의 難點이 없지 않았다. 첫째, 上陸돌격함정(AKA)의 부족이었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軍需물자 수송기관(MSTS: Military Sea Transport Service)소속의 AKA함을 Yokosuka港으로 급거 回

## 浦項 상륙부대

기동부대 90 (공격부대 : Attack Force)	사령관, 소장, J.H. Doyle.
기동부대 91 (상륙부대 : Landing Force)	사령관, 소장, Hobart R. Gay
기동전대 90.1(전술항공전대 : Tactical Air Control Group)	사령관, 준장, E. Moore.
기동전대 90.2(수송전대 : Transport Group) AGC(상륙기함) 1척 APA(공격함) 1척 AKA(화물선) 3척	
기동전대 90.3(인양전대 : Tractor Group) USN LST 16척 ATP(에인선) 2척 ARS(구조선) 1척 LSU(상륙소주정) 6척	사령관, 대령, N.W. Sears.
기동전대 90.4(방어전대 : Protective Group) DD(구축함) 2척 AM(소해정) 1척 AMS(공격소해정) 6척	사령관, 소령, D.V. Shouldice.
기동전대 90.7(정찰전대 : Reconnaissance Group) APD(고속수송함) 1척 UDT 1개팀	사령관, 소령, J.R. Wilson.
기동전대 90.8(통제전대 : Control Group) APD(고속수송함) 1척 ATP(대양에인선) 1척	사령관, 소령, C.E. Allmon.
기동전대 90.9(해변단 : Beach Group) Beach Master Unit Detachment(양육지휘파전대) UDT Detachment(수중파괴대)	사령관, 소령, J.L. Lowentroun
기동전대 90.0(수송함전대 : Follow up Shipping Group) AP(수송함) 3척 LST 16척	사령관, 대령, D.J. Sweeney.
기동전대 96.5(합포지원전대 : Gunfire Support Group) CLAA(경순양함) 1척 DD(구축함) 4척	사령관, 소장, J.M. Higgins.

航시켜 上陸작전에 필요한 제반장비를 보수하였다.

이외에도 不足한 LST 6척과 AKA輸送艦 4척을 追加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上陸軍은 21척의 LST에 분승하고, 武器 및 장비도 AKA와 LST에 적재하였다.

제반 준비를 마친 浦項上陸부대는 15일에 Tokyo의 Yokosuka港을 출항하였다.

Tokyo灣을 출발한 浦項 상륙부대는 2次 大戰 당시 日本海軍의 戰艦 Yamato가 마지막으로 通過한 Bungo(豊後)海峽을 지나 韓國海域으로 들어섰다.

이 때, Philippines 북쪽 海上에서 北上 중인 태풍 Grace호는 아직 韓國 海域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艦隊가 浦項을 向하여 航進하는 동안 輸送艦에 打電되는 戰線상황은 浦項 북쪽인 盈德지구에서 치열한 戰鬪가 전개되고 있으며 韓國軍 제 3 사단은 美제 1 기갑사단이 上陸할 때까지 同地域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의 與否를 크게 의심케 하였다.

한편, 14일~17일 사이에 浦項近海와 港內의 掃海작업을 실시한 YMS는 機雷가 하나도 發見되지 않았음을 打電하였다.

18일 05.00 上陸艦隊는 드디어 浦項해역에 도착하였다. 戰線은 아직도 浦項북쪽에 머물고 있는 敵 제 5 사단은 12사단과 합세하여 공격을 強化하였다.

이날, 05.58, 마칩내 J.H. Doyle 제독은 上陸개시를 명령하였다.

이 命令과 함께 기병사단의 중장비가 먼저 揚陸되었으며, 07.15부터 上陸兵力이 上陸短艇(LCM)으로 海岸에 接陸하였다. 09.30부터는 軍需물자의 하역을 시작하였으며, 2,000대의 車輛類를 揚陸하였다.

이처럼 制란장비와 上陸兵力은 신속히 揚陸되었다. 한편, 18~19일의 上陸期間中에도 東海의 경비함정들은 浦項近海를 호위하였으며, 제77機動艦隊의 艦載機들은 元山, 興南, 平康등을 公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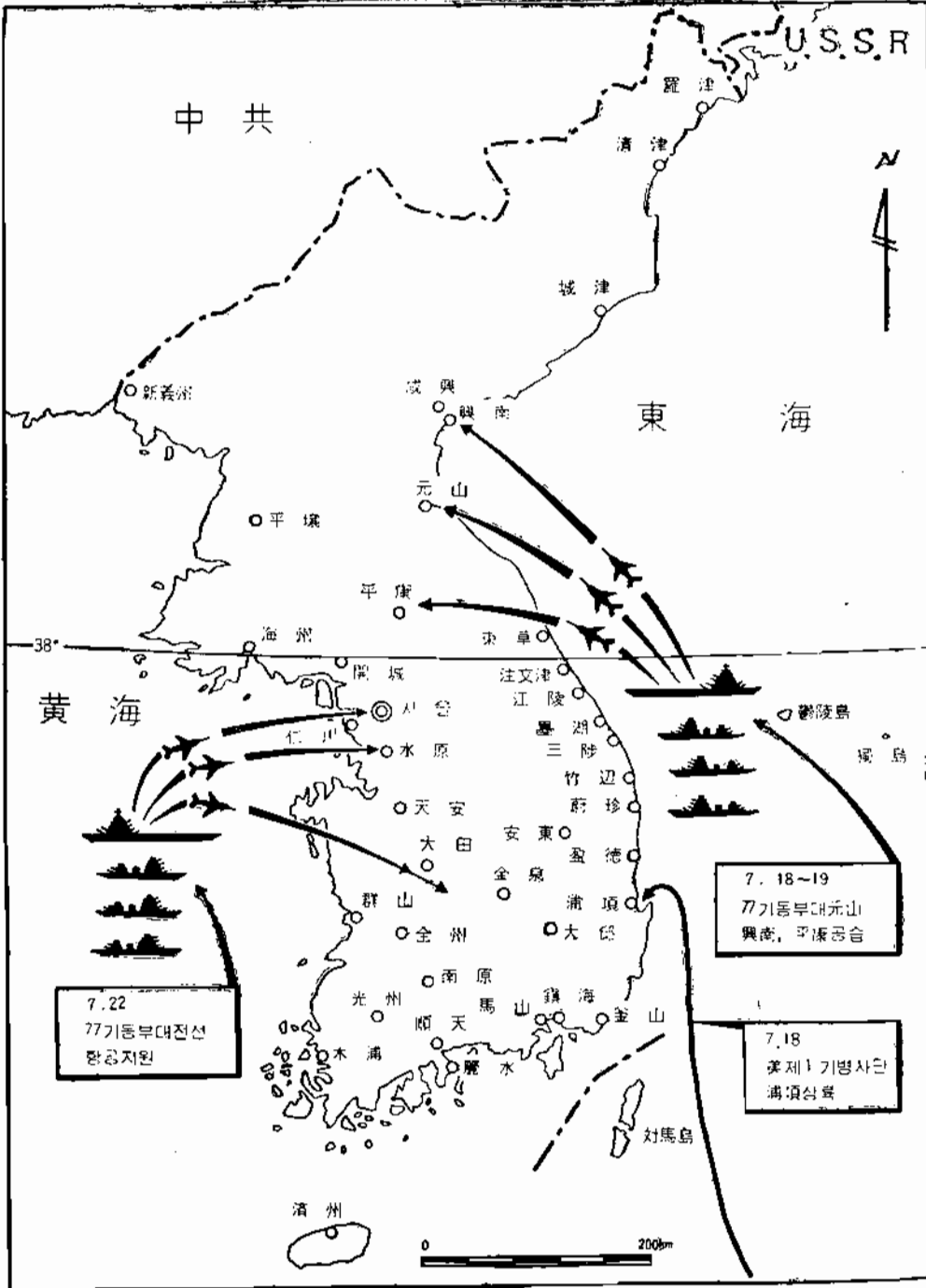
제 1 기갑사단이 浦項에 上陸하자, 美제 8 軍사령관 W.H. Walker 중장은 待機중인 輸送列車 및 車輛에 그들을 搭승시켰다.

19일, H. Gay 소장은 上陸軍의 作戰지휘권을 인수하였으며, 이날 18.00에는 一部 兵력을 海岸방어 작전에 投入하였다.



<浦項상륙작전에서 상륙군을 운반하는 LCM>

◇ 上陸道 제 84 호 浦項上陸 및 航母活動



上陸軍은 士氣가 왕성한 가운데, 戰線으로 계속 投入되었는데, 浦項상륙 4일만인 22일에는 永同지구에서 24사단과 방어임무를 交代하였다.

이날 迎日灣에는 시속 50Knots의 태풍 Grace호가 불어닥쳤는데 이로 인하여 21일날 도착하기로 한 MSTS소속의 輸送船團들은 23일에야 浦項에 도착하였다.

浦項상륙작전은 비교적 소규모의 上陸작전이었지만, 그 계획, 준비, 실시단계에 있어서 완전한 上陸작전의 표본이었으며, 단시일내에 완수한 기록적인 것이었다. C. Turner Joy계독은 『제 1기갑사단의 浦項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釜山주변을 敵의 수중에 넘겨주는 위험을 초래하였을 것이다』라고 述擧하였다.

### (3) 美제 7함대의 활동

#### (가) 平壤공습

地上의 戰況이 계속 불리한 가운데, 美제 7艦隊사령관 Arthur D. Struble계독은 Tokyo의 美極東軍사령부에서 MacArthur元帥 및 C.T. Joy계독과 會議를 거듭하였다.

이 會議에서 航空母艦 Valley Forge의 艦載機를 어느 場所에 가장 효과적으로 출격시킬 것인가를 토의하였다.

그 결과, 平壤이 선정되어 主된 目標은 비행장과 航空機이며, 2次的인 目標은 軍需물자를 輸送하고 있는 平壤驛구내와 그 인근의 橋梁이었다.

航母 Valley Forge를 주축으로 한 제77機動부대는 平壤을 目標로 西海를 北航하였는데, 同機動부대에는 英航母 Triumph가 이미 편입되어 있었다.

美·英연합함대는 상호 전술교리에 있어서 相反된 문제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만한 合同작전을 遂行할 수 있었다.

7월 3일, 海州南쪽 70Mile海上에 도착한 同艦隊는 제반 출격준비를 끝마치고 제 1차로 海州비행장을 공습목표로 정하였다.

05.45 Triumph航母에서 12대의 FireFlies機와 Rocket탄으로 무장한 9대의 SeaFires機가 離艦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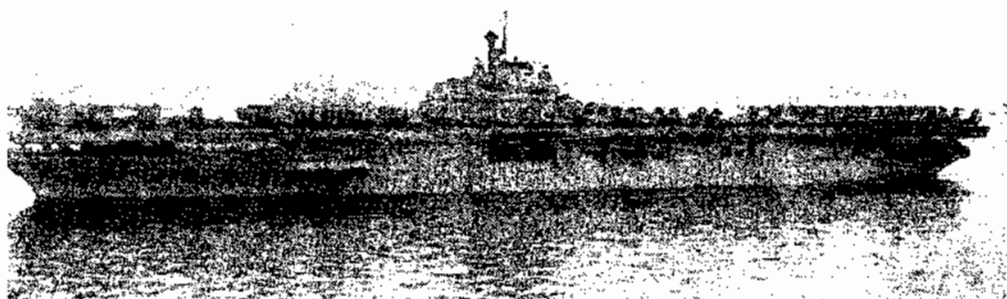
海州상공에 도착한 同艦載機들은 비행장 활주로와 격납고등을 파괴하고, 인근의 鐵路 및 橋梁을 Rocket탄으로 強打하였다.

이에 대하여, 敵은 對空火器로써 저항하였으나 艦載機는 全機가 아무런 손상없이 02.15에 母艦으로 귀착하였다.

한편 平壤공습 임무를 띤 Valley Forge航母에서는 06.00에 F4U(corsair)機 16대와 AD(skyraider)機 12대를 출격시켰는데, Corsair機들은 8발의 5"Rocket彈을 장착하였고, Skyraider機들은 500 Pound폭탄 2개와 100 Pound폭탄 6개를 적재하고 있었다.

이 Propeller機들이 출격하자, 20분후에 8대의 F9F-2(phanther) Jet機들이 뒤따라 출격





〈航母 Valley Forge호〉

하였는데 이는 美海軍에서 Jet機를 戰線에 突격케 한 最初의 記錄이었다.

이 Jet機들은 Propeller機들보다 20分늦게 출발하였으나 그들을 추월하여 平壤상공에 먼저 進入하였다.

平壤상공의 기상은 매우 양호하였다.

Jet機들은 平壤비행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폭격을 加하여 輸送機 1대와 航空機 2대를 파괴하였다. 이때, 敵의 YAK機 2대가 출현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E.W. Brown소위와 L. H. Plog중위는 이들을 추격하여 각기 1대씩을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平壤비행장의 격납고와 탄약고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을때 Propeller機들이 도착하였는데, Skyraider機 12대가 먼저 高速으로 接近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뒤이어 Corsair機편대가 Rocket탄을 발사하였다.

Skyraider機에서 投下하는 500 Pound폭탄은 비행장의 油類지장소와 3개의 격납고에 命中하고, 비행장 全體 시설물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또한, 활주로는 달의 분화구 처럼 구멍 두성이가 되어 버렸다. 敵의 對空火力은 거의 부정확하고 미약할 뿐이었다.

1차로 비행장공격 임무를 마친 艦載機조종사들은 航母로 귀환하여 점심식사 뒤에 다시 2次출격을 敢行하였는데, 오후 출격에서는 平壤驛주차장과 大同江의 鐵橋 또는 橋梁을 主要적으로 하였으며, 역시 폭탄과 Rocket탄으로 强打하였다.

또한 鐵路線上에 있는 機關車 20대를 파괴하였다.

다음 날도 Valley Forge의 艦載機들은 平壤상공으로 출격하여, 전날에 突破되지 않은 鐵橋에 500 Pound의 폭탄을 投下하였다. 이 空襲중에 大同江의 小艦艇들이 對空기총사격으로 저항하자 編隊는 즉각 Rocket탄으로 4척을 격침하였다.

이날 출격에서 Skyraider機 4대가 被彈하였으나 母艦에 무사히 귀환하였다.

그러나 그중의 Skyraider機 1대가 着艦時에 감속장치의 故障으로 艦首쪽에 있던 다른 航空機에 충돌하여 Skyraider機 1대와 Corsair機 2대가 파손되고 3대가 손상을 입는 不祥事가 發生하였다.

2일 동안의 출격에서 제 7艦隊 艦載機들은 地上에 있는 敵航空機 12대를 擊破하고, 2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공습 효과는 敵의 空軍力을 마비시킬만한 것이었고, 我軍이 制空權을 확보하는 데에 주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틀 동안의 공습에서 F9F-2 Jet機들을 출격시킨 것은 北韓공군에 多數의 Propeller 전무기를 공급하려고 하였던 蘇聯당국의 계획을 백지화시킨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제 7 활 대 의 편 성, 조 직

1950. 6. 25

기동부대 77 (강습부대 : Striking Force).....	사령관, 중장, A.D. Struble
기동전대 77.1(지원전대 : Support Group).....	사령관, 대령, E.L. Woodyard. Rochester (CA; 중순양함)..... 1척
기동전대 77.2(경계전대 : Screening Group) .....	사령관, 대령, C.W. Parker. 구축함분대 31 : Shelton, Eversole, Radford, Fletcher ..... 4척 구축함분대 32 : Maddox, Samuel, Moore, Brush, Taussing..... 4척
기동전대 77.4(항모전대 : Carrier Group).....	사령관, 소장, J.M. Hoskins. Valley Forge(CV : 항공모함)..... 1척
기동전대 70.6(함대항공단 : Fleet Airwing).....	사령관, 대령, E. Crant. VP28(정찰기), VP47(폭격기) .....18대
기동전대 70.7(Service Group) .....	사령관, 대령, J.R. Topper. Piedmont(호위구축함), Navasota(유류선)..... 2척 Karin(병동선), Mataco(에인선) ..... 2척
기동전대 70.9(잠수함전대 : Submarine Group) .....	사령관, 준장, F.W. Scanland. Segundo, Catfish, Cabezon, Remora..... 4척 Florikan(잠수함구조선) ..... 1척

(나) 元山정유소 폭격

平壤공습을 成攻裡에 마친 제 7艦隊는 10일부터 韓國戰爭을 지원하기 위한 本格的인 단계에 돌입하였다.

또한, 제 7艦隊 이하의 航空機들도 南太平洋 基地에서 韓半島에 가까운 基地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VP28機와 P4Y機를 주축으로 한 艦隊 제 1 전투비행단이 Guam島로부터 Okinawa基地로 이동하였다.

이들 航空機들은 주로 臺灣방위를 위한 정찰활동을 主任務로 하였다.

16일, 제 77機動부대는 極東海軍사령부 作戰명령 10~50으로 1次 浦項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東海로 航進하고 있었다.

同 作戰명령의 主眼은 北爆이었는데 Arthur D. Struble제독은 敵지상군이 浦項北쪽 40km 까지 南下하자 浦項 상륙지원을 命命하였던 것이다.

18일 04.00 航母 Valley Forge와 Triumph는 護衛艦과 함께 浦項 東北쪽 60Mile海上에 있었는데 浦項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航空정찰 및 對潛탐색전을 遂行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18일 06.00에 浦項상륙이 행정상륙으로 進行됨에 따라 J.H. Doyle제독은 H시간 바로 직전에 제 7 艦隊 艦載機들을 上陸지원 임무에서 解제하였으며, Arthur D. Struble제독은 그 즉시로 艦隊를 北上케 하였다.

이로써 제 77 機動艦隊는 浦項상륙을 隱호하는 제 1차적인 임무를 마치고, 제 2차 임무로서 37°이북과 동경 127°내의 北韓표적들을 公습하게 되었다.

이러한 作戰계획은 極東空軍 사령관인 Streate Meyer대장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艦隊가 北上하고 있을 때, 航母 Valley Forge는 北爆을 위한 戒備준비를 완료하였으며 公습표적은 元山정유소로 擇하였다.

18일 09.00에는 Panther機 9대가 元山港을 正찰하였는데, 元山市 東部の 굴곡된 海岸線에 작동중인 정유공장이 鮮明하게 나타났다.

정찰비행을 마친 다음, 17.00에 Valley Forge航母는 21대의 艦載機를 發進시켰는데

VA-55편대장 N.D. Hodson소령이 지휘하는 Skyraider機 11대는 자기 1,000 Pound폭탄 1개와 500 Pound폭탄 1개, 그리고 HVAR(고속항공 Rocket) 2개씩으로 무장하였으며 VF-53편대장 W.R. Pittman소령이 지휘하는 F4U(corsair)機 10대는 자기 Rocket탄 2개와 20mm 機關銃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航母를 떠난 이 21대의 艦載機들은 元山の 목표상공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Corsair機들이 Rocket탄을 발사하면서 左회전으로 上昇하자, 이어서 Skyraider機들이 急降下하면서 1,000 Pound의 폭탄을 投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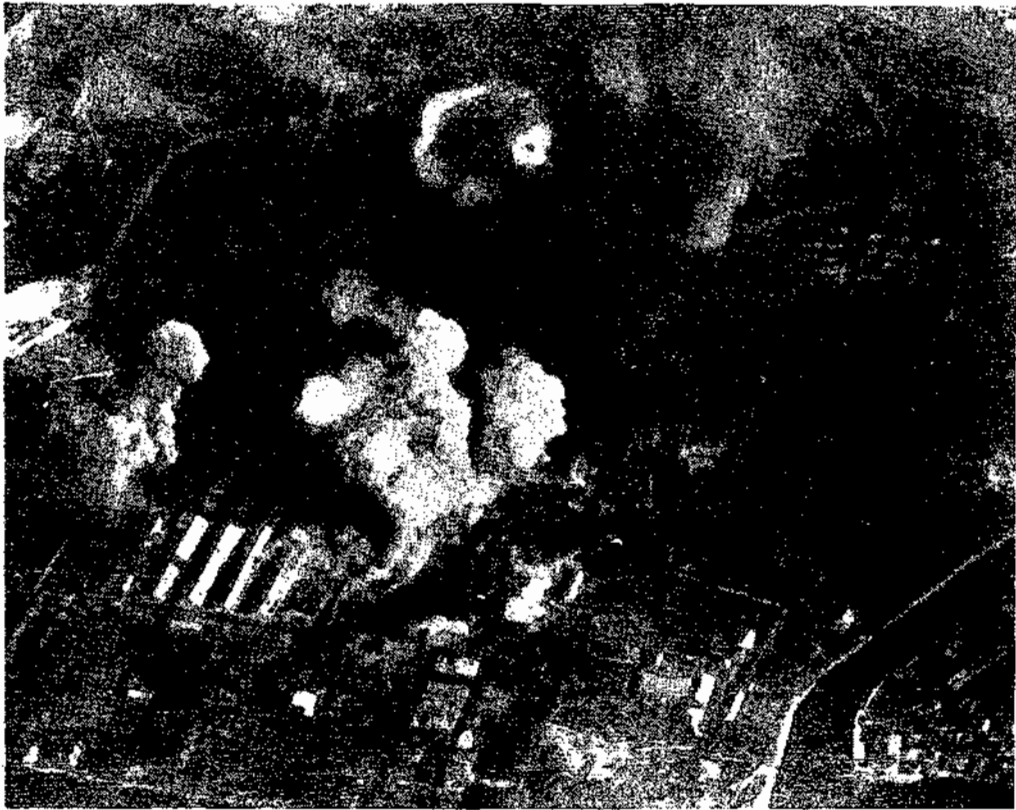
폭격기편대는 다시 정유공장 상공을 뒤덮듯이 비행간격을 유지하고 500 Pound의 폭탄을 投下하였다.

最初의 Rocket탄 공격을 받은 油類저장 탱크에서 솟아오르는 화염과 매연을 뚫고 다시 Corsair 機들이 機銃사격을 加하였다.

화염이 구름처럼 치솟는 가운데, 공장시설은 지속적인 폭발을 일으켰다.

元山폭격을 마친 Valley Forge의 艦載機群은 19일, 平康 및 咸興으로 출격하여, 비행장, 鐵路, 橋梁등을 파괴하였다.

이 출격에서 Corsair機 편대는 비행장 滑走路에 있는 20대의 航空機를 파괴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이날, 敵의 對空포화로 2대의 艦載機를 손실하였으나 조종사는 무사하였다.



<元山정유소에서 火焔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날, 17.00에는 咸興南쪽에서 疾走중인 貨物列車 4輛을 파괴하였는데, 이 열차에는 南쪽으로 수송하려는 군수물자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8, 19 양일간에 걸쳐 元山, 平康, 咸興출격에서 가장 기록적인 戰果를 거둔 것은 역시 元山精油所 폭격이었다.

VF-53전대장 Pittman소령은 『海岸전체가 불타고 있는 듯한 화염과 먼연은 우리가 3,000ft 고도를 유지하며 統母로 귀환할 때 60Mile 밖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정유공장은 4 일동안이나 불타고 있었으며 조종사들에게는 뚜렷한 航空목표가 되었다.

이 정유공장의 피해는 나중에 北進당시, 元山을 탈환하였을 때에 工場의 社長인 曷兼圭 씨에 의하여 정확히 밝혀졌다.

社長과 공장노동자 6명은 7월 18일의 海軍機 공습이전에 이미 2회의 폭격을 당하였을 때에는 단지 3개의 폭탄이 油類탱크에 命中하였을 뿐, 나머지는 인근들판에 떨어졌으므로 工場의 稼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였으나 海軍艦載機들의 공습은 공장내부 시설과 油類저장탱크를 포함한 전지역을 불길로 휩싸이게 하였으며, 폭격이후 워어진 철근과 부서진

벽돌투성이로 수라장이 된 공장은 전혀 가동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2,000 Ton의 油類가 화염으로 散化하였으며,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이 정유공장은 蘇聯과 北傀間의 경계협정으로 1947년부터 蘇聯人기술자와 감독자가 상주하여 왔으며, 연간 170만 바렐을 生産하는 最大의 공장이었으므로 戰略的인 표적이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戰略的인 표적은 空軍에서 담당하기로 Key West Agreement(3軍협정)은 明示하고 있었으나 空軍의 主된 임무인 近接항공지원도 제 7艦隊艦載機들이 遂行하였으며, 戰況의 緊迫性에 비추어 사실상으로는 누차에 걸쳐 Key West Agreement에 의거한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艦隊의 航空작전이 遂行되었다.

이 외에도 艦載機들은 西海岸과 東海岸에 출격하여 계속적인 戰線지원작전을 수행하였다  
(다) 艦載機들의 出擊

敵에 비하여 火力과 兵力이 劣勢한 地上軍에게는 무엇보다도 海・空軍의 航空지원이 重要하였다.

海軍艦艇의 東海岸에서의 艦砲支援과 艦載機들의 北爆은 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加하였다.

이같은 海軍 艦載機의 活動이 重要하게 부각되자, 7월 10일에 極東海軍 사령부에서는 Sandiago에 基地를 두고 있는 護送航母分隊를 極東으로 파견토록 조치하였으며, 同 分隊에 航空作戰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對潛水艦作戰인 Hunter Killer Operation과 航空作戰이 主任務인 同分隊는 近接航空지원과 對潛艦에 필요한 장교들을 美極東海軍 사령부에 파견하였으며 無線通信요원도 추가로 파견하였다.

Tokyo에 도착한 該分隊의 Rubble제독은 駐日美海軍 航空사령관으로서 作戰海域內의 全海軍航空機에 對한 軍需지원 임무와 日本으로 이동중인 2개 海兵 戰鬥機戰隊의 도착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서둘렀다.

한동안 地上戰線이 洛東江邊으로 壓縮됨에 따라 긴급항공지원 요청이 쇄노하게 되었다.

이러한 긴급(Emergency)전문은 MacArthur원수와 C. Turner. Joy제독 및 Arthur D. Struble 제독에게 打電 通報되었다. 仁川上陸까지의 2개월간, 제77機動부대는 主로 對地 艦砲사격과 戰線에 對한 航空지원작전을 大部分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近接항공 지원작전에 있어서는 海軍과 地上軍間의 作戰교리에 內在하고 있는 戰術上의 差異點으로 인하여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즉, 近接항공지원이란 地上軍과 戰鬥機가 敵陣에 관한 상황을 상호통보하면서 공격하는 空・地合同作戰인데 2次大戰에 海軍航空機와 海兵隊에 의하여 개발된 이 작전은 戰後에 空

軍과 陸軍에 의하여 개발된 戰術교리와 상당한 差異가 있었다.

22일, 航母 Valley Forge는 群山 西北쪽의 西海上으로 이동하였다. 同航母는 錦江을 사이에 두고 大田근방에서 對戰中인 美제24사단을 航空지원하는 임무와 北爆이라는 두가지 임무를 띄고 있었다.

이날, Skyraider機와 Corsair機들은 倭館, 金泉지구로 출격하여 近接航空지원을 하였으며, 서울과 議政府로 이어지는 敵의 補給路에 機銃사격을 加함과 同時에 水原근방의 集結地도 強打하였다.

23일, 木浦를 掠奪한 北傀 제6사단은 제4사단과 함께 進路를 東南쪽으로 돌려 釜山 주변으로 近迫하기 시작하였다.

敵은 주로 夜間에 이동하였는데, 이들은 山間지방을 이용하였으므로 警察부대들은 이를 단순한 Guerilla부대의 이동이라고 보고하였다.

西南部地區로 進出한 北傀 제4사단과 제6사단은 釜山에서 불과 80km밖에 안되는 線까지 진출하였으며 美제24사단과 25사단의 일부만이 이 正面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緊急상황에 비추어 제8軍 사령관인 W.H. Walker중장은 더욱 제7艦隊의 航空지원을 要請하였는데 東徑 127°-128°(三千浦-光州)内の 地上軍 戰況이 危急하다는 것과 海軍艦載機의 支援이 切實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戰線에는 海軍 艦載機를 精確하게 誘導할만한 연락장교(ANGLICO)가 거의 없었다.

空·地通信이 아직 본래도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近接항공지원에 필요한 彼我兵力의 배치상황을 지적하는 地圖사용에 있어서도 地上軍과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Arthur D. Struble제독도 艦載機의 성공적인 사용은 地上軍과의 양호한 通信유지에 의해서만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上陸기동전대에서 항공기통제(FAC)경험이 있는 空·地연락장교단(ANGLICO)을 파견토록 하였다.

24일, Sasebo港에서 油類보급중이던 航母 Valley Forge는 西南部戰況이 急迫하게 되자, 재무장을 빨리 서둘렀다. Tokyo의 美極東海軍 사령부는 기존 작전계획을 변경하고, 群山-全州-南原-光州로 출격하여 近接항공 지원작전을 실시하라는 命令을 打電하였다.

이 地域은 이미 北傀 제6사단에게 掠占당하고 있었다.

이날 밤, 西南部 戰線의 航空지원은 英航母 Triumph가 담당하였는데, 極東海軍사령부는 이 地域으로 이동중인 敵의 行軍대열과 주둔지에 公습을 加하라고 命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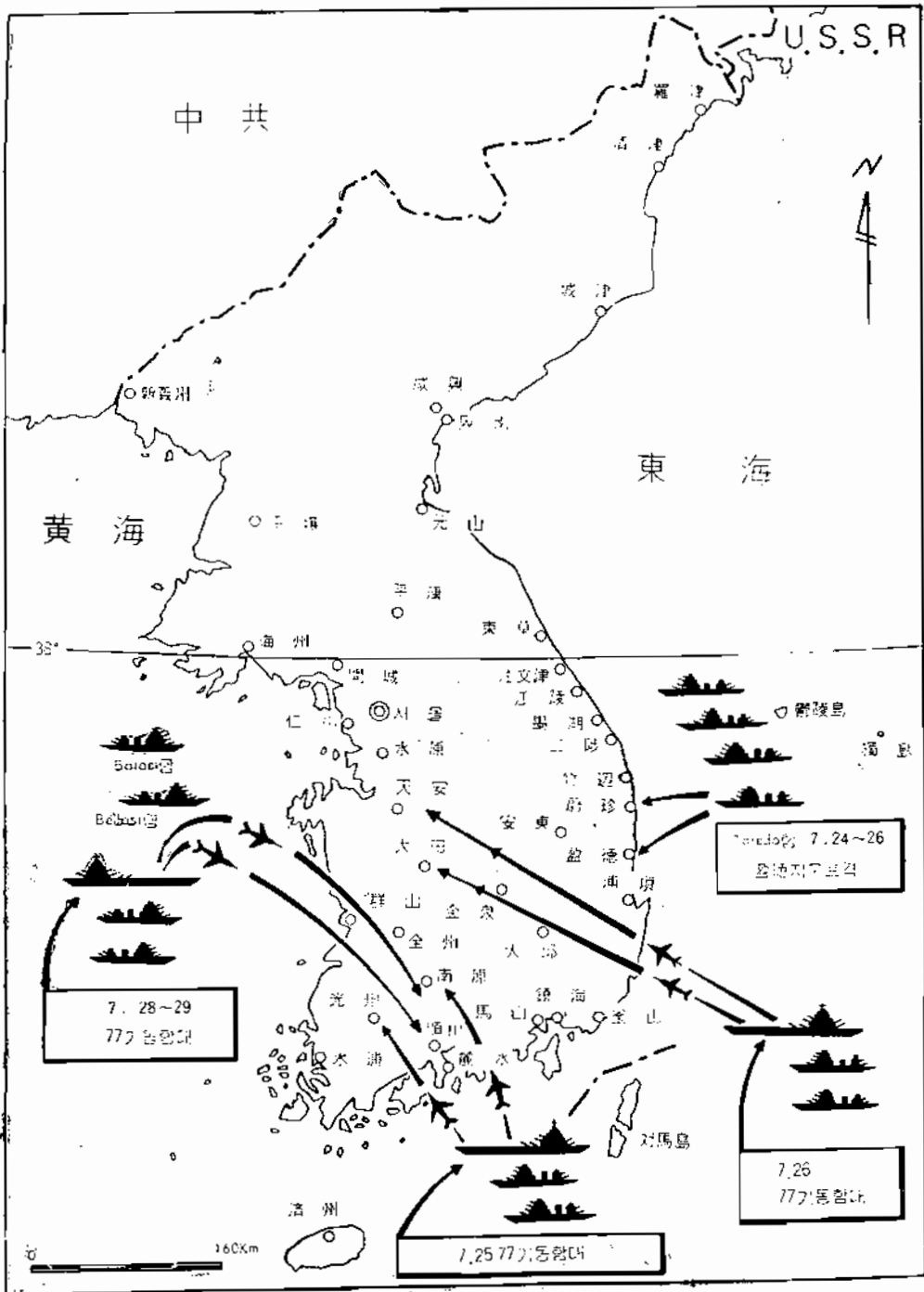
이에 따라, Triumph 航母는 西海上로 航進하고 Valley Forge는 南海岸으로 출동하였다.

25일 08.00 巨文島近海에 도착한 Valley Forge航母는 艦載機편대를 발진시켰다.

精確한 情報수집도 없이 近接항공지원에 나선 이 편대는 所期의 戰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JOC와 ANGLICO 및 艦載機조종사들 間에는 通信회로가 적은 까닭으로 자주 混信이 되

◇ 上항도 제 85 호 近接航空지원 狀況



고, 地上의 표적을 찾아 공격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適合한 作戰지도가 없었으며 通信근기도 유지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艦載機편대가 ANGLICO와 通信을 유지하며 목표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데, 日本基地에서는 Jet機들을 호출하여 공습에 임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조종사들은 ANGLICO와 장시간에 걸쳐 通信설정을 시도하다가 道路와 山間지역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을 찾아보는 실정이었다.

일부 조종사들은 이날 12.00에 和順—順天間의 道路를 따라 이동중인 北傀 제 6 사단 일부의 行軍대열과 車輛을 발견하고, 기총소사 및 폭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목표물을 찾지 못한 다른 조종사들은 航空母艦에 커린히기 前에 장착하였던 폭탄을 海上에 投下하여야만 하였다.

제 7 艦隊사령관 Arthur D. Struble제독은 이날의 출격을 다음과 같이 打電보고 하였다.

『금일 출격의 결과는 많은 표적을 찾지 못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단지 몇대의 牛馬車와 논에서 일하는 農夫들 이외에는 敵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체로 농촌풍경은 平和로운 모습일 뿐이었다. 트럭 4대를 기총소사 하였으나 연소하지 않았고, 다른 4대만이 파괴됐을 뿐이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공습이 오늘과 같은 條件下에 서라면 좋은 成果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地上軍과의 적절한 通信이 이루어져야만이 원만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思料함.』

26일에도 近接항공 지원작전에 출격한 조종사들은 별로 좋은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JOC에서 권고한대로 大邱 西北쪽으로 출격하여 北傀 제 2 사단 및 제 3 사단의 南進대열을 찾아나섰던 조종사들은 정확한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空·地合同作戰 절차에 따른 通信유지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몇 조종사들은 양호한 空·地通信에 의하여 敵의 위치를 發見하였는데, Corsair (F4U)機 10대는 永同상공에서 金泉으로 이동중인 車輛 5대를 발견, 공격하고 Skyraide 機 6대를 지휘한 Hodson소령은 車輛 2대를 공격하였다.

또한, Corsair機 6대를 지휘한 Barker소령은 金泉, 永同地區를 선회하던중, 車輛 2대를 공격하였으며, Skyraider機 4대를 인솔한 Ramsey소령은 트럭 1대를 파손하고, 敵이 숨어 있는 촌락을 공격하였다. 敵이 숨어 있는 金泉외곽의 玉山里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습에 分散走하는 敵 2개 중대규모를 인근 들판에서 포착하자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중 1개 중대규모를 사살하였다.

26일 밤부터는 東·西·南海岸의 氣象이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C. Turner. Joy제독은 美太平洋艦隊 사령관인 Sherman제독에게 초기 航母작전 경과를 다음과 같이 打電보고 하였다.



『MacArthur원수와 Walton H. Walker장군은 航空母艦의 艦載機의 海上봉쇄 및 戰線에 對한 近接항공지원 효과에 對하여 매우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海軍戰略의 觀點에서 보면 그 성과가 아주 미약할 따름이다.

地上軍에게 최소한의 海軍航空지원 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教育訓練이 필요하다.

空軍의 경우도 海軍艦載機와 동일한 隘路點을 지날 것이다.

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航空작전이 이루어지려면 近接항공 지원교리에 의거한 地·海·空 合同작전이 급선무이다.』

한편, Tokyo의 美極東軍 사령부는 航空機와 地上軍間에 가로놓인 通信문제를 해소하려는 方途를 연구중이었다.

C. Turner. Joy제독은 ANGLICO중대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배속시켰다.

이 부대는 陸上표적에 대한 海軍艦砲 및 航空機의 공격을 통제하는 특별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다.

航空母艦 Valley Forge에서도 완전한 ANGLICO를 편성하기 위하여 通信 기술요원을 파견하였다.

또한, 27일에 Struble제독은 JOC에 常駐할 海軍代表로 Gate소령을 파견하였다.

그는 JOC와 艦隊間에 직통 通信회로를 설정하고, JOC요원들에게 航空母艦의 능력 및 제한요소를 설명함과 동시에 地上軍과 海軍機 조종사들간에 가로놓인 作戰상의 문제점, 특히 표적의 위치산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地上軍의 航空통제장교(FAC)는 Grid座標로 표적의 위치를 구한 다음, 이를 다시 海軍조종사가 알 수 있는 緯도와 徑도로 환산하여, 艦載機에 통보하여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어려운 通信설정 및 유지문제에 부가하여, 이러한 過程을 거쳐야만 원만한 合同作戰을 遂行할 수 있었다.

또한, Gate소령은 我軍과 敵地上軍의 배치 및 이동상황을 수시로 艦隊에 알렸었다.

28일, 제77機動부대는 再出擊을 위하여 木浦 西北쪽의 西海上으로 이동하였다.

黑山島 近海에서 Valley Forge航空母艦은 Triumph와 합세하였는데, 이곳에서 Triumph는 Valley Forge에 이 海域에 對한 作戰임무를 인계하고, 韓國海域을 떠났다.

23일, 光州를 掠占한 北傀 제6사단은 29일에 順天을 거쳐 麗水로 南下하고 있었다. 이날, Valley Forge航空母艦의 艦載機편대는 順天·河東地區로 출격하여 麗水로 침투하려는 北傀 正規軍과 智異山의 Guerilla들에게 기총사격을 加하였다.

또한 이 출격에서 戰車와 트럭, 그리고 道路와 橋梁등을 파괴하였으며, Panther Jet機 8대는 洛東江邊의 敵陣에 Rocket砲와 기총소사를 加하였다.

이날, Skyraider機 5대는 Sasebo港에 정박중인 航空母艦 Boxer號로 귀환하여 機體를 修理하

였으며, 30일에는 航母 Triumph를 대신하여 航母 Philipinesea가 韓國海域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또한, 제 214, 제323 海兵航空隊(VMF)를 積載한 航母 Badoeing Strait가 日本 Kobe 港에 도착하였다. 이 航母는 Corsair機 70대와 관측기 8대, Helicopter 6대를 保有하였다.

그리고, 航母 Sicily는 27일에 Guam島의 Agana海軍航空基地에 제21對潛航空戰隊를 揚陸하고 日本海域에 도착하였는데, 31일 Kobe港에서 VMF 214의 地上부대 및 장비를 積載한 다음에 該港에서 Badoeing Strait航母와 합류하였다. 이날, 航母 Sicily는 極東海軍 사령부로부터 긴급 출동명령을 받았는데, DD-787(Keys)艦 및 DMS-34(Doyle)艦과 함께 출항하여 釜山 교두보 주변전선에 대한 近接航空지원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Kobe港을 출항하여 韓國海域에 도착한 同航母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近接항공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 § 研 究

기간중의 출격에서 임무를 마치고 航母로 귀환하던 艦載機가 추락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즉, Panther (F9F) Jet機 2대와 3대의 Corsair機가 海上에 추락하였으나 제 7艦隊 艦艇에 의하여 全員이 구조되었다.

어느 조종사는 艦隊로부터 80Mile 떨어진 海上에 추락하였으나 Triumph 航母에서 긴급 출동한 水陸兩用機에 의하여 구출되었다.

또한, 近接航空지원에 참가하였다가 大田근교에서 추락한 어느 조종사는 敵陣에 落下하였으나 陸軍의 Helicopter가 긴급 출동하여 그를 구출하는 劇적인 장면도 있었다.

그리고, Triumph 艦載機 1대가 西海上에 추락하였으나, 추락위치가 밝혀지지 않아 구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西海上을 비행중이던 B-29機가 鞍馬島 近海에서 표류중인 조종사를 발견 통보함으로써 驅逐艦 Batan號가 現場에 急航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期間중에 추락한 艦載機의 조종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全員이 구출되었다. 이같이 한사람의 兵力도 버리지 않고 人命을 중요시하는 美國의 Humanism(人道主義 精神)은 눈이 評價할 餘만하며 本받을 만한 것이라 하겠다.

## § 戰 訓

過去戰은 단지 陸戰과 海戰으로 獨立인관되어 온 戰爭이었으나, 現代戰은 近代科學 兵器의 발달과 高度의 Mechanism으로 地·海·空·合同作戰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러한 三軍의 合同作戰은 이미 第1次大戰에서부터 거론되었던바, 第2次大戰 이후부터 그중 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어 現在에 이르기까지 상호 戰術교리를<sup>2)</sup> 融合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韓國戰爭초기에는 地·海·空 및 UN軍과 韓國軍간에 圓만한 合同作戰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작전상에 惡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圓만한 合同作戰체제가 미비된 상태에서 我地上軍이 敵으로 오인되어 공습을 당하고 我海軍 艦艇이 美海軍으로부터 敵艦으로 오인되어 포격을 받는 불상사가 있었다.

또한 Australia 공군기는 平澤驛 상공에서 我軍의 보급물자와 탄약장비를 적재한 수송열차를 폭격하는 애석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는 UN軍과 我軍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부족하였던 결과였으며 이러한 不合理性을 만회하기 위하여서도 미래전에 대비한 韓·美·合同作戰의 빈번한 연습이 필요함을 부각시켜 준다.

# 第16章

## 空軍의 活動

### 要 旨

1. 韓國空軍의 作戰
2. UN空軍의 作戰



## 第16章 空軍의 活動

### 要 旨

初期에 陸軍은 敵의 優세한 戰力에 압도되어 撤收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6월 27일에는 서울이 失陷위기에 놓이게 되자 空軍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以南의 基地로 이동한바 비행단은 水原기지에 머물렀는데 T-6機는 大邱기지로 이동하고 L-型 항공기는 그대로 水原기지에 잔류하여 敵情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1일에 敵이 水原부근에까지 南侵하자 大邱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本部는 水原을 거쳐 大邱에 주둔하였으며 金浦지구에 주둔하던 부대들은 水原과 大邱를 거쳐 群山과 光州 그리고 大邱기지에 散駐하여 기지보수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次期작전을 도모하였다.

이와같이 空軍은 병력수송상의 難點으로 말미암아 全部隊가 同行하지 못하고 작부대별로 이동하였으므로 부대지휘의 確立화를 期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간중에는 혼란하여진 작부대의 整備에 힘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F-51전투기의 對地공격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즉, 본부는 大邱에 주둔하면서 이동하는 병력을 관리하여 原隊로 복귀시키는등 부대정비에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7월 13일에는 戰線의 南下로 발미암아 다시 大邱로 이동하여 비행단 작전을 위한 후방지원업무에 注力하였다.

또한 항공기지사령부를 비롯하여 金浦지구에 있던 부대들은 7월 3일 大邱기지에서 F-51 전투기가 출격을 단행함에 따라 그 本隊는 大邱에 집결하였는데 이달 8일에는 이의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勤務부대를 창설하였으며 19일에 다시 이를 後方司令部로 改稱하였다. 그리하여 각기 지 부대에 대한 지휘가 원활하게 수행되자 同司令部를 兼轄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本部에서 직접 관장하고, 通信隊와 氣象隊를 창설하여 비행단 작전에 대한 후방지원업무에 萬全을 期하였다.

한편 비행단은 7월 6일에 大邱기지에 T-6機 및 L-型 항공기로서 偵察비행대를 창설하여 陸軍작전에 一助하였다. 그리고 이달 3일에 開始한 F-51 전투기의 對地공격작전을 續行한바 美제 5공군의 협조아래 이달 初旬에는 始興—安養—水原間의 국도를 따라 南侵하는 敵을 공격하고 中旬에는 “Rocket”탄이 日本으로부터 도착함으로써 작전에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烏山—平澤—成歡을 비롯한 丹陽—忠州—開巒방면에 이르기까지 출격지역을 확대하였으며 下旬에는 論山—群山—光州일대와 榮州等地로 출격하여 그들의 戰力을 위약케 하였는데 期間中の 출격회수는 도합 22회에 達하였다.

그런데 7월 24일에는 美제 5공군의 前方梯隊의 모든 체제가 갖추어져 大邱기지에서 본격적인 출격작전을 전개하자 비행단은 27일에 鎭海기지로 이동하여 훈련과 출격작전을 병행하였다.

한편 美극동공군에서는 다른 共產국가가 韓國戰에 參戰할런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日本과 Philippines 및 自由中國의 空中방위를 위하여 예하 전술부대를 再編成하는 동시에 北進에 대한 공중공격을 效果의으로 단행하기 위하여 비행부대를 韓國에 가까운 Itazuke(板付)와 Ashiya(蘆屋)기지로 이동케 하였다.

그러나 “Jet” 전투기의 함속거리가 짧았으므로 韓國전선에 대한 공중지원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게 되자 大邱, 浦項, 水營의 3개기지를 확장하여 사용키로 결정한뒤 美제 5공군내에 제 1 전설사령부를 설치하여 이 工務를 관장케 하였다.

그뒤 大邱와 浦項기지에 4,300ft의 P.S.P 활주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자 7월 15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美제 5공군의 전술부대를 進출케 하여 작전을 전개토록하였는데 24일에는 大邱기지에 美제 5공군의 前方梯隊의 모든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본격적인 항공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 1. 韓國空軍의 作戰

참조 : 상황도 제 86호

### 가. 偵察飛行隊의 作戰(7.6~7.31)

####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정찰비행대 장 대위 吳 占 石 |

#### (2) 작전전의 개황

戰線이 점차 南으로 移動하자 L-型 항공기는 7월 1일에 水原기지에서 大田기지의 T-6機와 合勢한뒤 漢江을 渡河한 敵의 機動상황을 正찰하여 합동지휘소에 보고하는 한편 前後方間의 연락과 傳單 發포등의 임무를 續行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6일에는 大邱기지에서 的 비행단 작전을 위하여 T-6機 일부는 大邱기지로 이동하였으며 大田기지에서는 正찰비행대를 창설하였다.

#### (3) 작전경과의 개요

7월 3일에 F-51전투기 10臺가 大邱기지에서 출격을 단행하자 6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大田기지의 T-6機 가운데 6臺가 大邱기지로 이동하는 한편 大田기지에서는 조종사를 포함한 將兵 포함 100명과 T-6機 및 L-5機 各 2臺와 L-4機 3臺등 포함 7臺의 항공기로서 偵察비행대(장, 吳占石 대위)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部隊위치와 기동상황 및 彼我間의 전투상황등을 正찰하여 합동지휘소에 보고함으로써 陸·空軍작전에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正찰작전은 6월 28일 水原기지에서부터 개시된 것인데 7월 6일에 정식명령(空軍本部作命 제31호)에 의거 偵察비행대로 창설됨으로써 그 任務가 強化되었다.

이리하여 同비행대는 大田기지에서 忠州—陰城—鎭川—天安—溫陽—平澤—安養—始興일대의 敵情을 正찰하는 한편 後退하는 渦中에서 避難하거나 敵지배하에 있는 국민들을 鼓舞시키기 위한 傳單을 撒布하였으며 지휘관의 항공수송과 前後方間의 긴급연락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4일에는 敵이 天安을 지나 大田부근에까지 侵攻하므로 同비행대는 金泉으로 이동하여 國道를 滑走路로 代用하면서 從前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이날 T-6機 2臺는 金泉기지에서 的 離着陸이 곤란하므로 大邱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同비행대가 金泉으로 이동하기 이틀전인 12일에 朴在浩이동상사는 公州—小井里—溫陽일대의 도로정찰임무를 띠고 L-5機에 朴文琮일동중사와 同乘하여 이날 10.00에 大田기지를 이륙하였다. 그리하여 鳥致院을 지나 溫陽을 向하여 비행하다가 小井里 南쪽 10km

에 이르렀을때 산으로부터 작열하는 敵의 기관포탄에 被擊된바 砲彈은 機體를 관통하였으며 후방석의 朴文瑞중사가 負傷하였다. 이에 급히 선회하여 그들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난 朴在浩상사는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상비행이 곤란한 機體를 이끌고 大田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는데 機體는 크게 파손되었다.

이와같이 L-5機 1臺가 파손되어 同비행대는 L-4機 3臺와 L-5機 1臺로써 丹陽—陰城—淸州—鎭川—公州—大田—永同일대를 정찰하여 陸軍작전에 奇與하였다.

그뒤 26일에는 다시 義城으로 이동하여 東部전선일대를 비롯한 寧越—堤川—槐山 等地와 榮州—醴泉—聞慶일대에서 洛東江을 渡河하려는 敵情을 정찰하는 한편 大邱—新寧—盈德—安東間의 作戰연락 및 지휘관수송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4) 작전후의 개황

기간중 偵察飛行隊가 수행한 전단살포와 前後方間의 연락 및 정찰임무는 陸空軍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同 비행대는 비행단이 大邱기지에서 鎭海기지로 이동한 뒤에도 義城에서 8월 3일 까지 그 임무를 續行하다가 戰況의 변화에 따라 新寧—大邱—永川기지로 이동하면서 陸軍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敵은 20일에 大田을 점거한뒤 더욱 기세를 올려 侵攻한바 31일에는 金泉까지 南侵하여 彼我間



<大田기지에 무사히 착륙한 L-5機. 左側 첫번째가 朴在浩상사>

에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다.

期間中에 偵察비행대가 수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偵察 및 連絡

作戰基地名	偵察	連絡
大田	477회	51회
金泉	255회	25회
義城	59회	18회
計	791회	94회

傳單 撤布

撤布地域	回数	枚數
서울 일대	6회	1,130,000枚
戰線 일대	3회	612,000회
韓國各地	17회	669,000회
北傀 및 38°線일대	12회	2,233,000회
敵陣 및 韓國各地	7회	450,000회
計	45회	5,094,000회

### 나. F-51戰鬪機의 對地攻擊作戰(7.5~7.31)

####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총참모장 겸 비행단장 준장 金貞烈

총격조종사 중령 金英煥, 張盛煥, 金信

대위 朴熙東, 姜鎬倫

중위 丁永鎭, 李相垂, 張東出, 金成龍

#### (2) 작전전의 개황

1臺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한 채 敵機가 광분하는 모습을 오직 방관할 수 밖에 없었던 韓國공군은 美군중군총사령부와의 교섭끝에 F-51 전투기 10대를 양도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李根哲 대령이하 10명의 조종사는 日本으로 건너가 Itazake 기지에서 1주일간의 조종교육을 받은뒤 7월 2일에 同 전투기와 함께 大邱기지에 착륙하였다.

이때 敵은 漢江을 渡河한뒤 永登浦—始興—安養으로 계속 侵攻中에 있었으며 이에 따른 陸軍의 戰況이 급박하므로 조종사들은 3일에 F-51 전투기으로써 對地攻擊을 斷行하였다.

#### (3) 전투경과의 개요

7월 4일에 李根哲대령이 戰死하자 총참모장은 조종사들의 損傷을 방지하고 또 이들의 전투기량을 向上키 위하여 美조종사와의 合同출격을 협의하는 한편 F-51 전투기에 대한 조종사 양성을 계획하는 일면 戰況의 긴박성에 따라 출격을 續行케 하였다.

즉 이때 敵은 漢江을 渡河한뒤 곧 水原까지 육박하였으므로 비행단에서는 如興—安養—



水原間의 국도를 따라 侵攻하는 敵兵을 비롯하여 汶山—金浦일대의 兵力집결지를 강타하였다. 또한 中旬에는 烏山—平澤—成歡의 京釜線일대와 丹陽—忠州—開慶방면의 敵을 强打하였다. 그리고 20일 이후에는 “Rocket”彈의 入手로 출격에 활기를 띠면서 榮州일대를 비롯한 論山—群山—光州 等地로 출격하여 敵의 兵力과 戰車 및 車輛을 격파하고 탄약과 보급품등을 灰燼케 하여 陸軍작전에 呼應하였는데 이 기간중의 출격상황을 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일 : 李根哲대령의 戰歿을 보게 되자 敵愾心에 불탄 조종사들은 폭탄과 “Rocket”彈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날도 출격을 계속하였다. 08.30에 金英煥중령을 前대장으로한 4臺의 F-51 전투기는 大邱기지(K-2)를 이륙하여 鷺梁津—永登浦일대에서 트럭 2臺와 연료집적소 1개소를 불태웠다. 이어 13.30에 同 중령은 4臺의 전투기를 이끌고 西水庫 상공으로 출격하여 敵의 行렬을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진입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30名 규모를 殺傷하고 트럭 1臺를 全破하였다.

6일 : 前日 오후부터 氣象이 不順하여 전투기의 출격이 制限되자 敵은 水原을 지나 계속 南侵하는 한편 전선으로 보급품 및 兵力을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비행단에서는 10.00에 金信중령이 이끄는 4臺의 전투기가 水原으로 출격하여 병력집결지를 발견하는 즉시 일제히 진입하면서 기총소사로써 20名을 목살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또 13.50에 다시 水原으로 출격한 3臺의 F-51機는 金英煥중령의 지휘아래 탄약집적소를 강타하여 3개소를 불태우니 일대는 삼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이어 16.40에 姜鎬倫대위는 丁永鎭중위와 같이 水原으로 출격하여 兵力집결지에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30名을 殺傷하였다.

7일 : 이날은 氣象이 惡化되어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으므로 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戰況을 지켜보면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8일 : 이날도 惡天候가 계속되므로 對地공격을 중지하였는데 10.00에 金英煥중령은 張盛煥중령과 같이 敵情을 偵察코자 서울—金浦일대를 비행하다가 트럭행렬을 발견하는 즉시 기총사격을 加하여 1臺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오후에는 다시 비가 내리는등 氣象이 不順하여 출격을 중지하였다.

9일 : 이날 오전에는 前日과 같이 氣象이 고르지 못하므로 출격을 중지하다가 오후에 다시 회복되자 비행단에서는 출격을 단행한바 이날부터 급변하는 戰況에 따라 종래의 서울—水原間에서 더욱 나아가 汶山—利川일대까지 출격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13.30에 金英煥중령을 前대장으로한 4臺의 F-51 전투기가 汶山으로 출격하여 敵行軍隊列을 발견하는 즉시 급강하 하면서 기총소사를 加한 끝에 10名을 殺傷하였다. 또한 16.30에 同중령은 3臺의 전투기를 이끌고 다시 汶山—利川일대에 대한 공중공격을 집중하여 트럭 1臺를 불태우고 人員 5名을 살상하였다.

10일 : 敵은 南侵을 계속하여 이날 早朝에는 이미 天安을 지났으므로 비행단에서는 平澤—天安일대의 兵力집결지에 대한 공격을 단행키로 하였다. 이날 09.00에 平澤으로 출격한 3臺의 전투기는 金英煥중령의 지휘아래 兵力집결지를 강타한 끝에 25명을 살상하였다. 그 뒤 14.00에 다시 同중령은 金信중령과 같이 平澤—天安방면으로 출격하여 트럭 2臺를 파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11일 : 08.45에 金英煥중령의 선두지휘로 기지를 이륙한 3臺의 F-51 전투기는 烏山—烏致院間의 도로를 따라 南侵하는 敵의 隊列를 발견하는 즉시 기총사격을 가한 끝에 20명을 살상한뒤 다시 상승하여 공격태세를 갖춘다음 그 부근에 있는 탄약집적소에 화력을 집중하여 1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이날 13.30에 金信중령이 지휘하는 3臺의 F-51 전투기가 출격하여 烏山부근에서 트럭 2臺를 불태우는등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12~15일 : 계속되는 日氣의 不順으로 말미암아 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였는데 이때 日本으로부터 “Rocket”彈이 推進되어 이를 F-51 전투기에 장착하는등 다음 출격을 준비하였다.

16일 : 이날 오후부터 氣象이 회복되자 朴熙東대위는 “Rocket”彈을 장착한 4臺의 전투기



<F-51 전투기의 정비>

를 이끌고 14.00에 成歡으로 출격하여 敵兵 및 車輛행렬을 발견하는 즉시 편대장을 선두로 급강하 진입하면서 “Rocket”탄을 投下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트럭 5臺를 불태우고 30명을 폭살하였다. 이어 편대는 다시 그 부근에서 탄약집적소를 판단되는 목표를 강타한 바 폭음과 함께 3개소가 炎上되니 일대는 삼시간에 검붉은 화염으로 휩쌓였다.

17일 : 이날 오전에는 氣象이 고르지 못하여 출격을 중지하다가 구름이 걸히자 朴熙東대위는 14.00에 4臺의 F-51 전투기를 이끌고 忠州상공으로 출격하여 機動中인 敵의 隊列에 기총소사로서 15명을 살상한뒤 다시 공격편대를 갖추어 그 부근에 있는 연료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18일 : 당시에 敵은 이미 小白山脈을 넘어 一路 南으로 侵入하였는데 이날 08.35에 朴熙東대위는 3臺의 F-51機를 지휘하여 기지를 이륙한뒤 제 6사단이 交戰中인 忠州一聞慶일대에 공중공격을 加한 끝에 戰車 2臺와 트럭 1臺를 파괴하고 15명을 폭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한 丁永錫중위는 金成龍중위와 同途로 14.50에 丹陽一聞慶방면으로 출격하여 敵의 砲兵진지를 발견하는 즉시 “Rocket”탄을 投下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는 동시에 敵兵 10명을 살상하였다.

19~22일 : 4일간 계속된 日氣의 不順으로 말미암아 UN 및 韓國공군의 공중공격이 不振하자 敵은 이틈을 이용하여 보급품과 兵力을 戰線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비행단에서는 美軍이 격전을 벌이는 大田일대에 대한 對地공격을 단행키로 결정한뒤 機體를 정비하면서 氣象의 회복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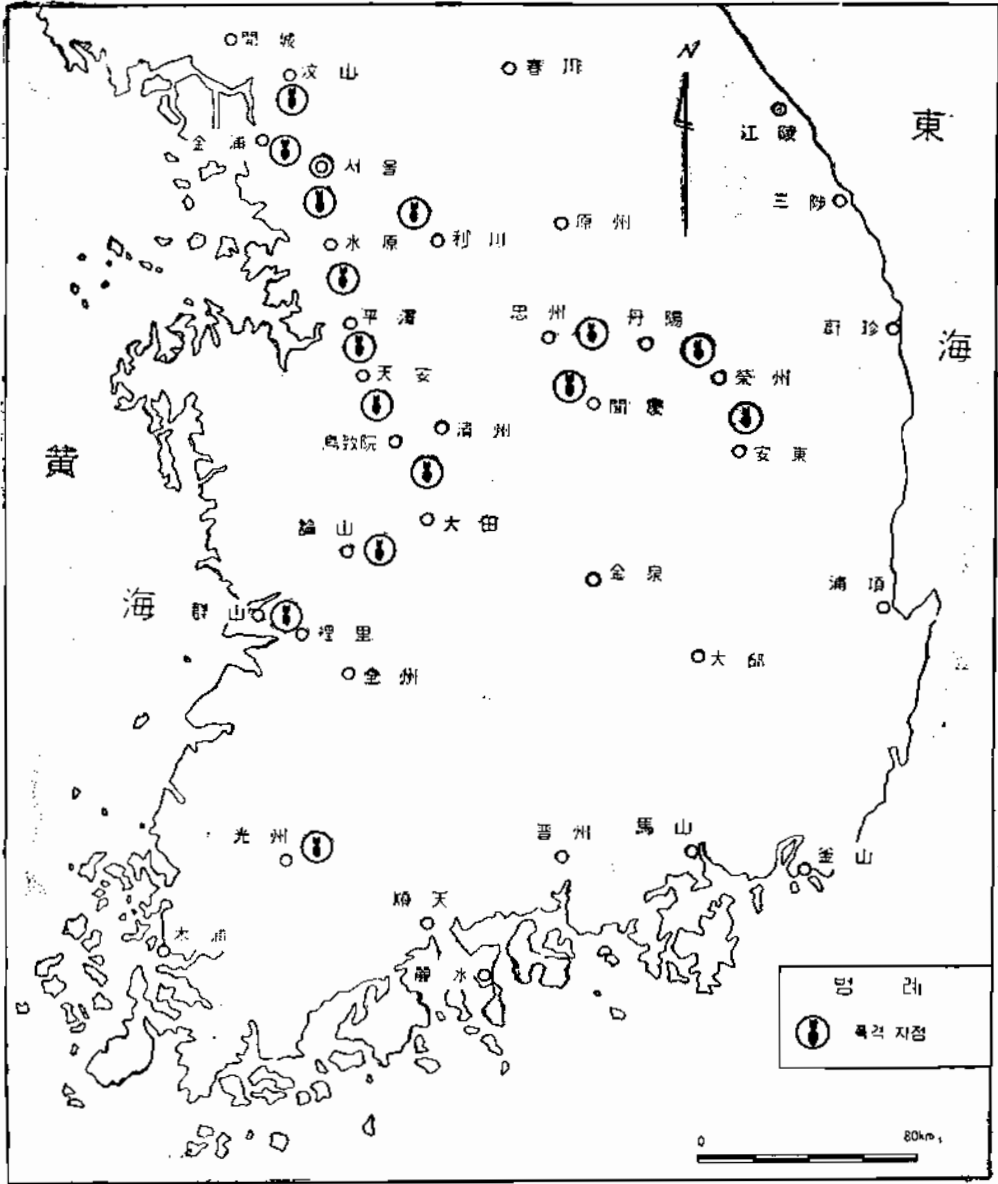
23일 : 이날 13.30에 姜鎬倫대위의 선두 지휘아래 기지를 이륙한 3臺의 F-51 전투기는 大田일대에서 兵力집적지로 판단되는 건물 3棟을 파괴하는 동시에 30명을 爆殺하였으며 다시 연료집적소를 강타하여 2個所를 불태웠다. 이어 丁永錫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3臺의 전투기는 16.30에 論山으로 출격하여 陸軍을 向하여 熱火를 타하는 敵의 砲兵진지를 발견하는 즉시 “Rocket”탄을 投下한 끝에 2個所를 흙더미로 만들었으며 다시 그 부근에서 보급품집적소에 火力를 집중하여 2個所를 불사르고 트럭 2臺를 화염에 휩쌓이게 하였다.

24일 : 09.00에 姜鎬倫대위는 3臺의 전투기를 지휘하여 기지를 이륙한뒤 榮州상공에 이르러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3개소를 불사르고 다시 상승하여 그 부근에서 그들의 兵舍로 판단되는 건물에 일제히 진입하면서 “Rocket”탄을 投下하고 기총사격을 加하니 2棟이 파괴되어 삼시간에 그 일대가 石片과 鐵片이 亂飛하는 수라장으로 변하여 30명 규모를 殺傷하였다.

25일 : 張東出중위는 이날 10.00에 4臺의 F-51 전투기를 이끌고 榮州로 출격하여 侵攻中인 敵의 行軍隊列에 기총소사를 加한 끝에 트럭 3臺를 불태우는 동시에 20명을 殺傷하였다.

26일 : 08.40에 金成龍중위는 李相垂중위와 같이 기지를 이륙하여 榮州일대에 대한 공중

◇ 상황도 제 86 호 F-51 戰鬥機의 對地攻擊作戰(7.5~31)



공격을 집중한 끝에 戰車 1臺와 트럭 2臺를 파괴하고 10名을 목살하였으며 砲兵진지 2개소를 覆滅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한 이들 2臺의 F-51 전투기는 이날 13.30에 群山-光州방면으로 출격하여 탄약집적소 3개소와 트럭 1臺를 불태웠다.

27일 : 24일에 美제 5 공군의 前方梯隊의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 大邱기지에서 본격적인 항공작전을 펼쳐자 비행단은 이날 鎭海기지로 이동하였다.

28~30일 : 이 3일간 비행단은 부대이동에 따른 정비업무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한편 鎭海기지의 부대시설이 양호하지 못하므로 金海기지를 왕래하면서 F-51 전투기에 대한 조종훈련 및 對地攻擊준비에 拍車를 加하였다.

(4) 작전후의 개황

기간중 비행단은 美제24사단이 분전하는 平澤—天安—大田의 京釜線일대를 비롯하여 盈德—榮州와 群山—光州일대까지 南侵한 敵을 강타하였다. 그러나 기간중에는 惡天候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단이 보유한 F-51 전투기가 불과 9架 뿐이므로 敵은 출격이 뜸한 夜暗이나 口氣가 不順한 틈을 이용하여 戰列을 정비하면서 南侵을 계속하여 8월 1일에는 洛東江을 중심으로한 방어선을 구축한 뒤 그들과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였다.

한편 7월 중순에 日本으로부터 “Rocket”탄이 推進補給되어 출격에 활기를 띠었던 비행단은 24일부터 美제5공군이 大邱기지에서 본격적인 항공작전을 전개함으로써 同基地를 美제5공군에 移讓한뒤 27일에 鎭海기지로 이동하여 美공군조종사들의 협조아래 F-51 전투기에 대한 조종훈련과 출격작전을 병행하였다.

기간중에 비행단이 전개한 출격작전의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총 합 戰 果

트	역	파 괴	21 架	탄 약 집 적 속	목 파	10個所
戰	車	〃	3 架	연 료 〃	〃	5 〃
砲 兵 陣 地		〃	6個所	보급물 〃	〃	5 〃
건	물	〃	5 棟	兵力	殺 傷	270名(추정)

다. 部隊의 再整備(7.5~7.31)

(1)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근무부대(후방사령부) 장 준장 崔 用 德  
현병대 장 중령 金 得 龍

(2) 再整備前의 概況

韓國공군은 戰況의 긴박도가 漸增하는 6월 27일 오후부터 서울以南의 基地로 이동을 開始한바 7월 4일 현재 本部는 大田에, 비행단의 主力은 大邱기지에, 그리고 그 일부인 T-6機 및 L-型 항공기는 大田기지에 각각 주둔하였다. 또한 金浦기지에 있던 부대들은 大田기지를 비롯하여 群山, 大邱, 光州기지등에 分散駐留하였다.

이와같이 空軍은 各部隊別로 이동하여 大田, 大邱의 兩기지를 비롯한 群山, 光州등의 여러기지에 駐屯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부대는 이동에 따른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本部를 중심으로 각부대는 自體정비에 注力하였다.

## (3) 再整備의 概況

空軍은 7월 초에 大田에서 部隊를 整備하여 점차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달 中旬에 다시 戰線이 南下하자 本部를 비롯한 各部隊의 本隊는 모두 大邱에 集結하였다. 그뒤 이들은 업무의 정상을 되찾은 뒤 群山과 金海 그리고 光州등의 기지에 兵力을 分配하여 次期작전에 對備하였으며 나아가서는 機構를 개편하여 예하부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면서 비행단 작전에 대한 후방지원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期間中の 活動상황을 각부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本部의 概況

本部는 大田여자중학교 構內에 주둔하면서 참모부장 朴範集대령의 지휘아래 각부대를 整備한바 그 部署別 活動概要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국: 落伍兵의 收容관리 및 再配置등
2. 정보국: 一線과 後方 各부대의 動向과악등
3. 작전국: 各부대의 위치선정과 정찰비행대의 新設등
4. 군수국: 主食을 비롯한 軍需物資의 調辨과 補給등
5. 재무감실: 資金의 受領과 送達등
6. 정훈감실: 新聞보도와 放送활동등
7. 헌병대: 巡察과 軍紀 및 風紀事犯의 團束등

本部의 이러한 활동으로 각부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는데 7일에 그 駐留位置를 美軍側에 移讓하고 大田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로 옮겼다. 그뒤 13일에는 戰鬪가 더욱 위급하게 되니 敵은 平澤—天安—烏致院을 지나 大田부근까지 南侵하므로 이날 本部 先發隊로서 兵力 85名(장교 20, 사병 65명)을 朴元錫소령 지휘아래 열차편으로 大邱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뒤이어 15일에 殘務처리를 끝마친 兵力 78명은 韓纘顯중령의 인솔로 淸州로 이동하여 大邱공업고등학교로 이동하였다가 18일에 美공병대가 이곳을 使用하겠다고 요청하므로 다시 大邱효성여자중학교로 옮겼다. 이때 大邱중학교로 이동한 先發隊병력이 이에 合勢하였으며 이로부터 本部는 그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뒤 27일에는 後方司令部를 解編하여 同사령부 예하부대를 本部直轄에 두는등 후방지원기구를 직접 지휘하였다.

## (나) 勤務部隊(後方司令部)의 概況

항공기지사령부를 비롯하여 金浦지구에 駐屯한 부대들은 金浦지구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同地區의 방위에 任하다가 戰勢의 不利로 6월 28일에 이동한바 水原을 거쳐 大田—群山—大邱—光州등의 각기지에 分散駐留하면서 기지보수 및 경비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뒤 7월 6일에는 金浦지구경비사령부를 해편하는 동시에 8일에는 大邱기지에 勤務부대(장, 崔用德준장)를 창설하여 지휘의 원활을 期한바 航空기지사령부와 사관학교 그리고

보급장과 헌병대 및 병원을 통할하였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의 기지파견대를 확장한바 大田과 群山 및 大邱 그리고 光州와 泗川 및 金海와 濟州의 7개기지를 관할하였다(도표 #1 참조).

이리하여 각부대에 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자 19일에는 근무부대를 後方司令部로 改稱하는 한편 예하 항공기지사령부를 解編하여 각기지부대를 統轄하였다. 동시에 士官학교를 暫定的으로 解編하여 生徒들을 각기지부대에서 근무토록 하였다. 또한 이날 群山기지파견대를 22일까지 泗川기지로, 光州기지파견대를 24일까지 金海기지로 각각 이동토록 措置하였다(도표 #2 참조).

이와같이 근무부대의 창설 및 機構개편등에 의하여 기지부대에 대한 지휘통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자 이날 27일에는 후방사령부를 解編하여 이의 모든 업무를 本部에서 관장하는 한편 補給廠을 해편하여 軍需局에 統合하고 通信隊와 氣象隊를 창설하였다(도표 #3 참조)

한편 헌병대(장, 金得龍중령)는 5일에 平澤에서 大田으로 이동한뒤 落伍兵을 收拾하여 기지를 경비하다가 本部의 移動과 함께 15일에 大邱로 이동하여 驛부근에 本隊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大邱와 金海 및 水營의 3개기지의 隊員을 파견하여 基地를 경비케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八公山 共匪격멸작전에 兵力을 投入하는등 그 임무범위를 擴充 수행하기도 하였다.

#### (4) 再整備彼の 概況

기간중 空軍은 本部가 中心이 되어 部隊를 再整備하는데 중점을 둔바 모든 부대의 本隊가 大邱에 집결하여 本然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機構를 개편하는등 기지부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뒤 비행단이 鎭海기지로 이동하여 훈련과 출격작전을 병행하자 鎭海와 金海기지로 병력을 파견하여 이의 후방지원에 任하도록 하였다.

한편 美제24사단이 參戰하여 平澤—天安—大田의 京釜국도沿邊을 따라 敵과 接戰을 벌이면서 逐次撤收한 끝에 8월 1일에는 洛東江線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 § 參戰者の 證言

##### ◇ 參戰모장 金貞烈준장

(1978. 8. 10 서울시中區東子洞에서, 예 중장)

내가 李根哲대령의 戰死보고를 받은 것은 7월 4일 오후 늦게 大田에 있을 때였다. 그리하여 이날은 그냥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大邱기지로 갔는데 9명의 조정사들이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행단장인 李根哲대

령이 戰死한데다가 戰況은 건박한데 가족들에 대한 소식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들을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출격하는 조종사 개개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출격을 계속케 하였으나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戰況이 위급한 이때에 전투기를 그냥 놀릴 수는 없는 일이므로 궁리끝에 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美제 5공군

으로부터 파견된 일행(9名)의 책임자인 Hess 소령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종사들이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조종술이 미숙하므로 그냥두면 損失만을 더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편대장관이라도 당신들이 탔으면 좋겠는데 上級에 연락을 취하여 알아보라.』라고 하였다. 이에 그는 대답하기를 『도와주기는 싶지만 태극기가 그려진 韓國공군의 전투기를 우리가 탄다는 것은 국제법상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부에서 허락한다면 타겠다.』라고 한뒤 그는 내가 말한 내용을 上部에 전의하였으나 첫날과 이튿날은 계속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로 하여금 계속 상신케 하였는데 3일째에 비로소 美제 5공군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편대장관 美조종사가 타도 좋다.』라고 하였다.

이때에는 보통 1회 출격에 3隻씩 편대를 형성하였는데 美조종사가 도합 4명이므로 이들이 편대장이 되고 우리 조종사 2명이 편대요원으로 출격하였다. 이렇게라도 출격케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래서 나는 F-51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조종사를 더 많이 양성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몇일 뒤에 美제 5공군사령관 Partridge소장이 戰勢를 검토하기 위하여 大邱기지에 왔다. 그런데 同소장은 1949년 X-mas 때 그의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帶同하고 사냥을 하기 위하여 濟州島에 왔었는데 이때 나와 申性模장관 그리고 Muccio 大使등이 이들 일행을 환영하기 위하여 濟州島에서 함께 지냈으며 서울에 올라와서 만찬을 나눈 일이 있으므로 나와 同소장은 서로 잘 아는 舊面의 사이였다.

그러하여 同소장이 大邱기지에 도착하였을때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美제 5공군이 大邱기지로 이동하여 작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그는 대답하기를 『이동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므로 나는 『만약 美제 5공군이 이동한다면 별다른 절차없이 大邱기지를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뒤 美제 5공군으로부터 전술부대의 일부를 大邱기지로 전출시키겠다는 연락이 있어서 나는 동기지를 비워주기로 결심한뒤 우리가 이동할 기지를 더듬어 보니 사용가능한 곳이 金海와 水營 그리고 鎭海와 泗川의 4개기지가 있었지만 이

가운데 F-51전투기가 離着陸하기에 가장 적합한 基地로 생각된 곳은 泗川기지였다. 왜냐하면 이 基地는 日本軍이 주둔할때에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비행단을 泗川기지로 이동키로 결정 한뒤 우선 姜構鎰중위를 책임자로한 선대대를 편성하여 휘발유와 식량등의 병참물품을 가지고 먼저 泗川기지로 떠나게 한뒤 7월 27일 오전에 나는 T-6機 6隻을 이끌고 泗川기지로 갔다. 즉 내가 먼저 가서 기지상황 및 戰況을 살펴본 연후에 비행단 병력을 이동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우리 비행단이 鎭海기지로 이동한 그날이 바로 蔡秉德소장이 戰死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27일 오전에 泗川기지에 도착한뒤 "Jeep" 車를 타고서 戰況을 파악하고 또 地上부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淸州郡廳으로 갔다가 丁來赫 소령을 만났는데 그는 나를 보더니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蔡장군께서 戰死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屍身을 여기에(郡廳)에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나는 弔意를 표한 일이 있었다. 이때 나는 丁來赫소령으로부터 이부근의 戰況이 매우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泗川기지로 갔는데 아닌게 아니라 美軍의 후퇴병력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泗川기지에 도착하는 즉시 全機를 始動케 하는 한편 姜構鎰중위에게 지시하기를 『이곳을 정리한뒤 鎭海기지로 오라』라고 한뒤 나는 T-6機 6隻을 이끌고 鎭海기지로 이동하여 大邱기지에 연락하기를 『비행단 병력은 鎭海기지로 이동하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鎭海기지를 선정하여 비행단이 이동하였으나 同基地는 부대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주로의 길이가 짧아서 F-51 전투기가 離着陸하기에는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이곳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金海기지를 아울러 사용키로 한바 同基地는 鎭海기지에 비하여 환주로는 양호하지만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宿食은 鎭海기지에서, 그리고 훈련 및 출격은 金海기지에서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비행단은 鎭海와 金海의 兩기지를 사용하면서 F-51 전투기 9臺가운데 3臺는 훈련 즉, 金斗萬, 田鳳熙, 尹應烈중위등의 T-6機를 조



중하던 조종사들을 F-51機로 전환시키기 위한 훈련에 사용하고 6浬로써 敵에 대한 對地攻撃을 계속 전개하였다.

◇ 정찰비행대장 吳占石대위

(1978. 9. 14 서울시 江南區 驛三洞 自宅에서, 에, 소장)

6월 28일부터 水原기지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L-型 항공기가 7월 1일에 大田기지로 이동하여 T-6機와 습격하자 이날 朴範集대령은 나에게 지시하기를 『지금부터의 정찰임부는 배가 맡아서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내가 직접 조종사들을 관장한바 합동지휘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조종사 개개인에게 어디 어디를 정찰하고 오라고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시 합동지휘소에 보고하였다.

그뒤 이달 6일에 정식명령에 의하여 정찰비행대가 창설되어 내가 隊長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T-6機 일부는 大田기지로 이동한바 병력현황은 조종사가 30명이요 기타요원이 70명으로 도합 100명이었으며 항공기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10~15정도 되지 않으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 비행대에 裴德仁중위라는 정비장교가 있어서 고장이나 파손된 비행기를 수리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大田기지에서 서울 일대물 비롯하여 金浦-水原-平澤等地的 敵情을 정찰하

었는데 이때의 敵은 漢江을 渡河한 뒤 南浸을 계속하므로 우리 조종사들은 高度를 3,000~4,000ft로 유지하면서 兵力집결지와 戰車부대의 이동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정찰하였다.

그런데 점차 戰勢가 不利하게 전개되므로 우리는 14일에 金泉으로 이동하여 國道를 滯走路로 사용하였는데 T-6機는 활주로 사정상 金泉에 착륙할 수 없으므로 大田기지로 이동하였으며 大田에 있던 합동지휘소도 大田로 옮겼으므로 金泉에는 陸軍의 前方지휘소가 開設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26일에 다시 義城으로 이동한 바 浬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있는 某국민학교 옆의 논밭을 택아 만든 곳을 기지로 사용하였으며 학교 교실을 兵舍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8월 3일까지 있다가 新寧-永川-大田로 이동하면서 정찰을 續行하였는데 기간중에 정찰의 실효를 거둔 것으로 기억되는 일이 하나 있다 즉, 일자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가 大田기지에 있을 때였다. 새벽에 陸軍으로부터 忠州일대를 정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나는 04.00에 L-5機로써 안개가 뿌옇게 낀 基地를 이륙하여 忠州 南쪽 4km에 이르고 보니 敵의 戰車 30~40량이 도로를 따라 機動中이었다. 이 道路는 忠州에서 閔慶을 거쳐 安東에 이르는 외길이었다. 이를 목격한 나는 기지에 귀환하는 즉시 합동지휘소에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에 따라 美공군의 B-29중폭격기 편대가 이 戰車행렬을 강타하여 大破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기뻐한 일이 있었다.

◇ 정찰비행대 출격조종사 朴在浩 상사

(1978. 9. 5 서울시 江南區 현대아파트에서, 에, 준장)

7월 12일 10.00에 기지를 이륙하여 高度를 낮게 유지한채 도로를 정찰하면서 溫陽을 向하여 비행하였다. 그런데 小井里 南쪽 10km에 이르렀을때 山으로부터 敵의 기관포탄이 작열하였다. 내가 미처 상승도 못한채 砲彈은 機體를 관통하였으며 후방석의 朴文琦중사가 부상하였다. 나는



<정찰비행대장 吳占石 대위>

급히 신뢰하여 그들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났으나 機體의 충격으로 발미압이 정상비행이 곤란하였다. 더우기 차중사가 부상하여 유혈이 낭자하므로 불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 “power”를 최대한으로 넣은 다음 機首를 烏致院 方面으로 돌렸는데 이곳에서는 彼我間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다시 錦江쪽으로 機首를 돌렸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은 이러한 상태의 機體를 가지고서는 大田기지까지 비행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웠으므로 도중에 불시착하더라도 이왕이면 我軍이 보는 지역에 착륙하여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大田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는데 이때의 엔진은 거의 멎은 상태였으며 機體를 점검하여 보니 砲彈은 후방석 바로 後面을 관통하여 커다란 구멍이 뚫렸는데 이때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날개가 커다란 “글라이더”를 타고 왔구나」라고 하였다.

#### ◇ 空軍본부 인사국장 韓鎭顯 中령

(1978.5.9 서울시 中區 茶洞에서, 예 대령)

7월 7일에 우리가 주둔하던 大田여자중학교를 美軍側에 양도하고 大田사범부속국민학교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時日이 경과할수록 戰線은 계속 南下하는 등 戰勢가 不利하였다. 그러자 朴範集 대령은 本部참모들과 상의하기를 『전황이 진박하니 우선 병력의 일부를 大邱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 뒤 13일에 先發隊 80명을 열차편으로 大邱로 이동케 하였으며 우리는 殘務처리를 하면서 戰況이 위급하면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트럭을 대기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15일이 되니까 戰勢가 더욱 위급하게 되므로 나는 나머지 병력 80명을 이끌고 大邱공업고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3~4일 있으니까 美공병대가 進出하여 이곳을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다시 大邱 효성여자중학교로 옮겼는데 이때 먼저 이동한 先發隊 병력이 우리와 合勢하였다.

그 뒤 우리는 후방기구를 장악하여 비행단 작전을 지원하였는데 9월末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있었다.

#### ◇ 憲兵隊 鄭榮煥 中위

(1978.5.11 서울대학교 출판소장실에서, 예 중령)

나는 7월 2일에 水原기지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 大田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병대의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나 뒤에 들은바에 의하면 隊長 金得龍 중령의 지휘 아래 平澤과 大田을 거쳐 大邱로 이동한 것 같다.

나는 大田에 있다가 이달 15일에 大邱驛앞에 있는 病院으로 옮겼는데 이때에는 다리의 상처가 거의 완쾌되어 조금씩 걸을 수 있었다. 내가 이곳으로 옮긴지 3일쯤 지났을까 우리 헌병대가 大邱驛 左側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가니까 金得龍 중령은 반가이 맞이하면서 지시하기를 『隊員 12명을 메리고 金海기지로 가서 기지를 경비하라 그리고 隊員들을 배치한 뒤 水營비행장으로 가서 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19일에 2 $\frac{3}{4}$ ton 트럭 1臺에 兵力과 軍需物資를 싣고 “Jeep”車 1臺을 타고 金海기지로 갔다. 同基地에 도착하여 주위를 살펴본 바 모든 시설이 양호하지는 않았으나 美수송기가 군수물자를 空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지경비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同基地의 외곽을 따라 隊員들을 배치한 뒤 나는 水營기지로 가서 사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활주로 끝에 조그마한 산이 있으므로 離着陸하기에 다소 불편하겠으나 바다쪽으로 離着陸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本隊에 보고하기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한 뒤 곧장 金海기지로 가서 경비업무를 관장하였다.

그 뒤 7월末이라고 기억되는데, 水營기지를 美수송기가 사용자 이외의 경비를 위하여 本隊로부터 隊員 7~8명이 同기지에 파견되었는데 이의 책임자로 내가 임명되어 나는 水營기지로 가서 隊員들을 지휘하였다.

그런데 내가 同基地의 경비업무 책임을 맡은지 몇일 지나지 않아 本隊로부터 다른 책임자가 파견되었으므로 이를 인계한 뒤 나는 金海기지로 가서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 氣象隊 金錫祐 대위

(1978. 5. 26 서울시 中區 東子洞에서, 예 대령)

우리는 金浦기지에 있던 항공기지 사령부내에 氣象班(장, 洪允範 소령)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戰爭이 勃發하자 水原을 거쳐 大田으로 이동하여 大田市公館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업무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15일에는 大邱기지 前方에 위치한 大邱측후소로 이동하여 비행단 작전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하였는데 27일에 空軍本部作命 제40호에 의거 제50기상대로 창설됨으로써 그 機構가 강화되었다. 즉, 이때의 氣象요원은 도합 50~60명이었고 初代 氣象隊長에는 洪允範 소령이 역임하다가 몇일 지나지 않아 내가 인수하였다. 그리하여 金海, 鎭海기지에 隊員을 파견하여 비행단 작전을 지원하였으며 本隊에서는 통신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各國 및 各基地에서 입수되는 기상정보를 종합분석하였다. 그뒤 우리는 9월末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이곳 大邱측후소에 계속 주둔하였다.

도표 #1

空軍의 編成要員 概況表(1950.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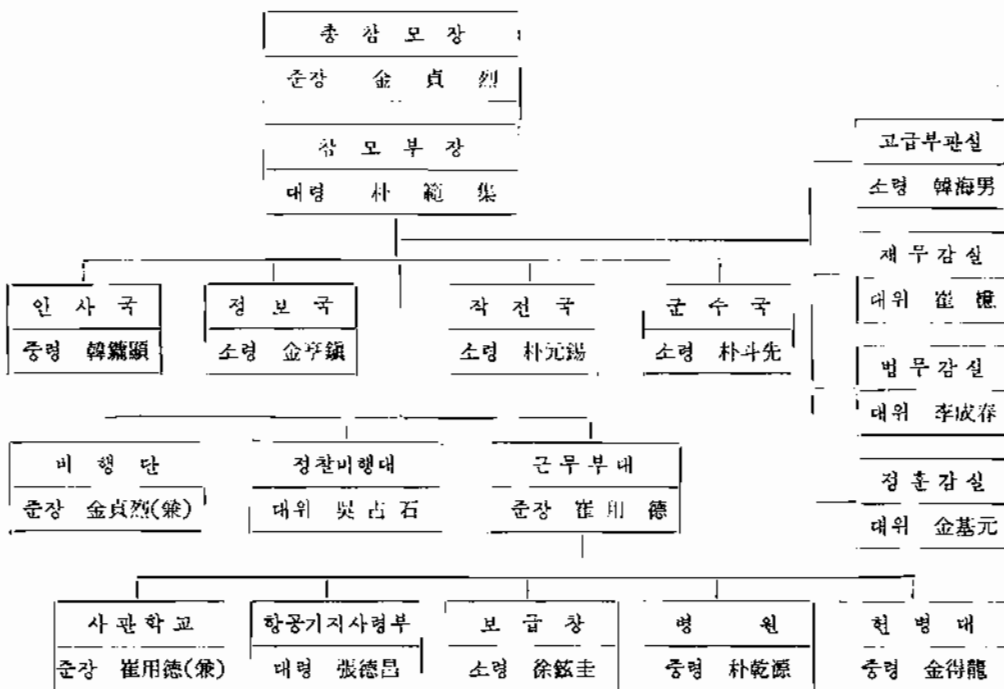


도표 #2

後方司令部의 編成要員概況表(195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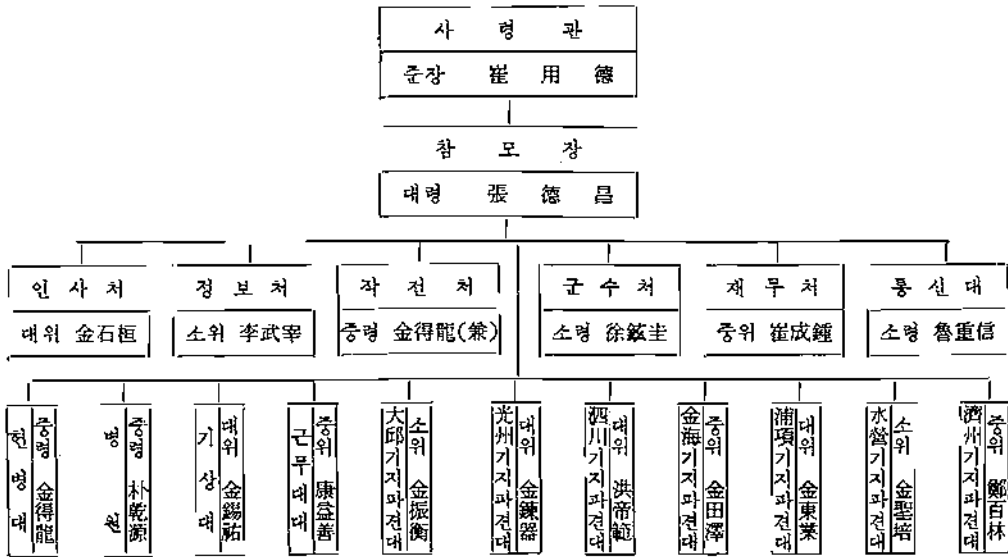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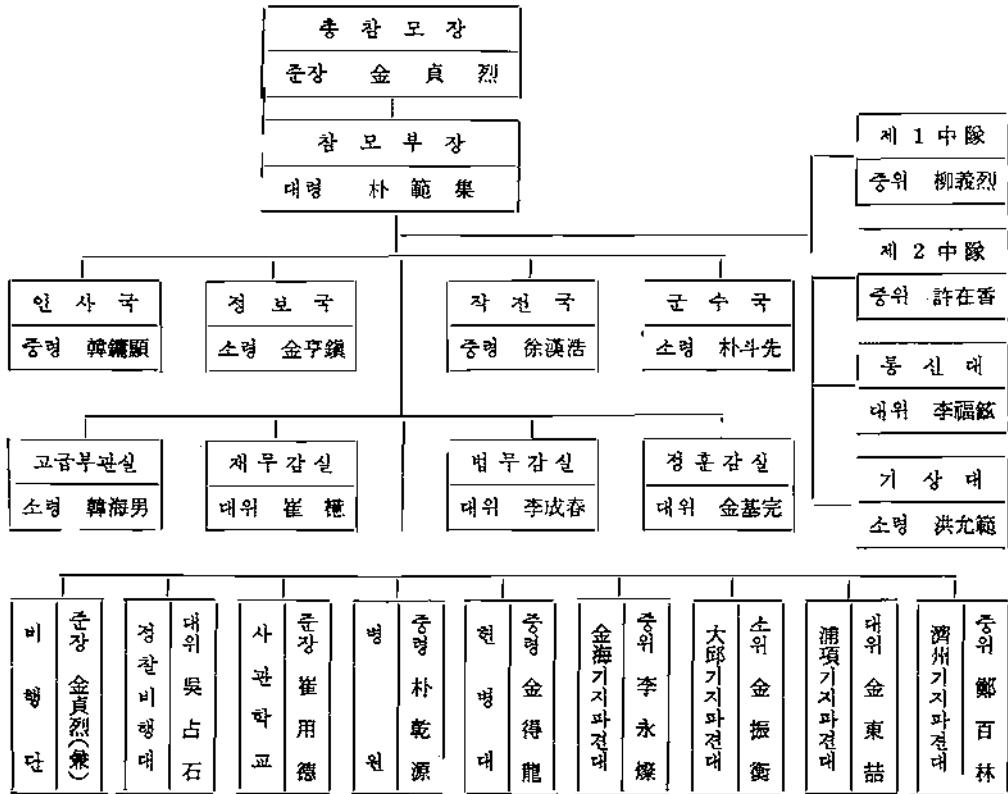


도표 # 3

空軍의 編成要員 概況表

1950.7.28 현재



## 2. UN空軍의 作戰

참조: 별책부도 제 30 호  
상 황 도 제87, 88호

## 가. 單位部隊 및 主要指揮官

美 극동공군 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제 5 공군 사령관 중장  
Earle E. Partridge  
美 13제공군 사령관 소장  
Howard M. Turner

美 제20공군 사령관 소장  
Alvan C. Kincaid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O'Donnell, Jr  
美 극동공군 군수사령관 준장  
John P. Doyle

## 나. 期間中의 활동상황

## (1) 航空作戰 지휘체제의 確立

韓國전쟁에 參戰한 美극동공군은 처음 며칠 동안에는 구체적인 공격계획도 없이 다만 空中방위단을 위하여 그 一部를 投入하였는데, 6월 29일 하루동안에 B-26폭격기 22대를 비롯한 B-29중폭격기 12대와 F-80전투기 70대와 F-82전투기 15대를 출격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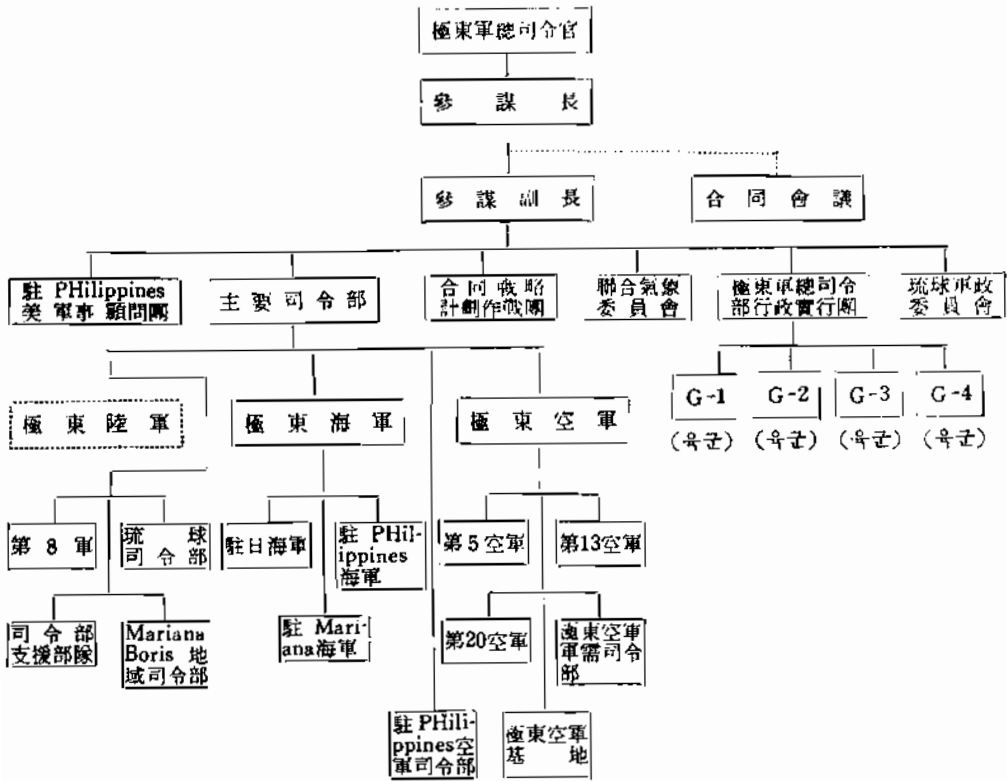
그러나 美지상군이 韓國전선에 투입됨과 동시에 이의 增員부대와 막대한 物資 및 항공기가 美國으로부터 搬入되었으므로 美극동공군은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基地에 各部隊를 배치할 必要가 생기게 되고 또한 美제 7 함대와 英國해군 및 해병대航空隊가 韓國戰線에 參戰케 됨에 따라 美극동공군과의 作戰上의 협조가 緊密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開戰初期에 美극동공군과 上級司令部인 美극동군총사령부와의 관계는 항공작전수행상 많은 問題點들을 안고 있었으나 점차 解消되어 갔다.

1950년 6월 初의 총사령부 지휘체제는 제 2차 세계대전중의 MacArthur사령부와 비슷하였으며 조금도 향상된 점이 없었다. 즉, 1946년 12월 14일 美합동참모본부에서는 極東軍에 統攝참모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총사령부에서는 1949년 8월 20일에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을 창설하였다. 同團은 陸軍 8名과 海軍 2名 및 空軍 2名の 將校團으로 구성되어 총사령부 예하 陸·海·空軍을 통합지휘하

는 문제에 관하여 극동군총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창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美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한 機構와 相異할 뿐만 아니라 統合원칙에도 위배되었다. 즉, 다음 편성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MacArthur元帥는 극동의 육·해·공군을 不均衡하게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육군의 將校들만을 총사령부의 參謀要員으로 編成하여 MacArthur元帥의 직접 지시를 수행토록 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政策은 이들 육군참모들이 협의,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육, 해, 공군을 대표하는 연합참모 역할을 하였다.

美極東軍 總司令部 編成表 (1949.10)



그런데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MacArthur元帥는 航空作戰에 관계되는 문제를 모두 美극동 공군사령관에게 일임하였으나 開戰當時에 총사령부 참모들이 생각하기를 「항공작전은 最高位참모부에서 지휘 및 運營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총사령부 참모 가운데 몇 명은 항공작전의 절차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에 공군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항공작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총사령부에서는 美극동공군에 대하여 무리한 항공작전임무를 부여하는 事例가 많았다.

또한 제 2차세계대전중에 MacArthur元帥가 西南太平洋戰區에서의 空軍力에 대한 지휘 통제문제는 간단하였다. 왜냐하면 美空軍에 예하에는 全海軍 항공대와 제 7함대 수색대만이 포함되었을 뿐 艦載機는 1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MacArthur元帥는 戰爭중에 특수임무를 위하여 몇번 艦載機를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美空軍의 작전지역밖이었으므로 美空軍과 艦隊間의 간단한 협조로 解決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 6월의 情勢는 제 2차세계대전과 그 樣相이 달랐는데 美空軍과 海軍 항공대는 모두 美空軍총사령부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항공작전은 각군 사령부에서 직접 지휘 및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作戰上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7월 4일에 美空軍의 B-29중폭격기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출격하였는데 지시받은 공격목표는 이미 海軍함재기가 파괴하였다는 것을 목표상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 그냥 귀환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차질의 원인은 항공작전의 중앙통제가 없는데에 연유한 것으로서 美空軍과 海軍의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공격목표를 선정하고 공격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美空軍사령관 Stratemeyer중장은 7월 8일에 地上기지의 海軍機와 항공모함의 艦載機가 韓國에서 作戰할때에 이를 美空軍사령관 統制下에 두게 할 것을 총사령부에 建議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에 대하여 총사령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조차 없으므로 10일에 다시 건의하기를 「海空작전과 機雷작전을 수행하는 海軍機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內에서의 地上목표를 공격할때에 限한다」라고 하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提示하였다.

『①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과 日本 및 韓國지역의 空中방위임무는 美空軍의 제 5공군사령관이 수행한다.

② 北傀의 補給路와 산업 및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경우에 이의 목표선정과 시간지정은 美空軍사령관이 지시한다.

③ 爆擊機의 호위임무는 美제 5공군사령관이 지시한다.

④ 항공모함이 작전지역내에 進入할 때에는 美空軍해군사령관이 동의할 때에 實施한다』라고 하였다.

美空軍사령관의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美空軍해군측에서 반대하자 다음날인 11일에 美空



<美空軍사령관 Stratemeyer중장>

동공군사령관 Stratemeyer중장과 미국동해군사령관 C. Turner Joy중장 및 총사령부 참모장 Edward M. Almond소장등이 모여 이를 검토한 끝에 同 參謀長의 折衷案에 미국동공군 및 해군사령관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보게되었다.

『미국동공군사령관은 미국동군총사령관이 지시한 作戰을 수행하기 위하여 全航空機를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海軍과 그밖에 地上기지의 모든 항공기가 포함되나 海軍정찰 및 對潛戰등의 海軍임무 지원작전은 제외한다. 그리고 미국동해군사령관은 미국동군총사령관이 지시한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를 지휘통제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협조사항을 追加하였다.

『① 공격목표의 選定과 우선순위의 결정은 총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수행한다.

② 韓國전선에서의 미국동공군과 해군작전은 미국동공군사령관이 지휘한다.

③ 사령관이 지시하는 임무가운데 上陸작전과 같은 것은 협동작전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Almond소장은 이달 14일에 총사령부 목표분석단을 편성한바 정보참모부에서 선임장교 1名을 團長으로 하고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에서 海, 空軍 각 1명, 그리고 작전참모부에서 1명등 도합 4名으로 구성하여 잠정적인 機構로 설치하였다.

同團의 機能은 『① 매일 매일의 전투상황에 적합한 海, 空軍의 항공력 사용에 관한 건의 ② 공격목표의 선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③ 空軍力 사용의 상호협조방안의 제시 ④ 공격결과에의 분석』이었으며 회의는 단장과 작전참모부의 요청에 의하여 매일 갖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회합은 이달 16일에 있었는데 이團의 책임한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키로 하였다. 즉,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동공군 작전참모 Jarred V. Crabb준장은 주장하기를 「총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各軍別로 敵後方に 있는 목표를 선정한다는 개념은 수락할 수 없다. 그리고 美 8군 및 제 5공군의 전방梯隊가 大邱에 進駐하고 있으므로 근접항공지원의 공격목표선정은 美제 8군사령관 Walton H. Walker중장과 美제 5공군사령관 Earle E. Partridge중장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목표분석단의 책임한계를 규정하는 起草文을 작성할 때에 이러한 Crabb준장의 의견과 더불어 “敵後方に 있는 목표선정은 미국동공군 목표선정위원회와 同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合議를 보았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목표분석단은 이날부터 그 機能을 발휘한바 同團에서 선정한 1,2級의 공격목표中 20%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美陸軍測地부대에서 제작한 地圖가 실제와 差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讀圖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본다면 設計上의 鐵道가 실제 운행되고 있는 鐵道로 表記되어 있는가 하면 破壞하여도 큰 효과가 없는 橋梁도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小河川을 큰 江으로 誤認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동공군사령관은 19일에 MacArthur元帥와 Almond소장이 會합한 자리에서 주장하기를 「목표선정에 있어서 意見의 不一致와 그릇된 選擇으로 말미암아 作戰에 많은 지장



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조직된 목표조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目標에 대한 문제는 이들 전문가들이 훌륭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회의석상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그뒤에 총사령부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자 美空軍공군사령관은 21일에 다시 총사령부내에 목표선정위원회(Target Selection Committee)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書翰을 MacArthur元帥에게 發送하였는데 同書翰에서 이르기를 「목표선정위원회는 총사령부 작전참모부장 Doyle O. Hickey소장과 총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보좌관 C.A. Willoughby 소장, 그리고 美空軍공군 부사령관 Otto P. Weyland소장과 美空軍해군사령관이 임명하는 美空軍해군대표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既往에 설치된 총사령부 및 美空軍공군의 목표선정부서를 계속 활동하도록 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목표선정위원회의 機能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MacArthur元帥는 22일에 총사령부내에 목표선정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함으로써 美空軍공군은 이를 통하여 확인된 많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美空軍공군사령관 Stratemeyer중장은 韓國전선에 대한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사령부 및 美空軍해군사령부와 협의끝에 항공기의 지휘 및 통제체제는 물론이고 목표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권한을 분명하게 확립하였다.

## (2) 美空軍공군의 部隊展開

美空軍공군의 指揮 및 統制權에 관한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韓國전선에 출격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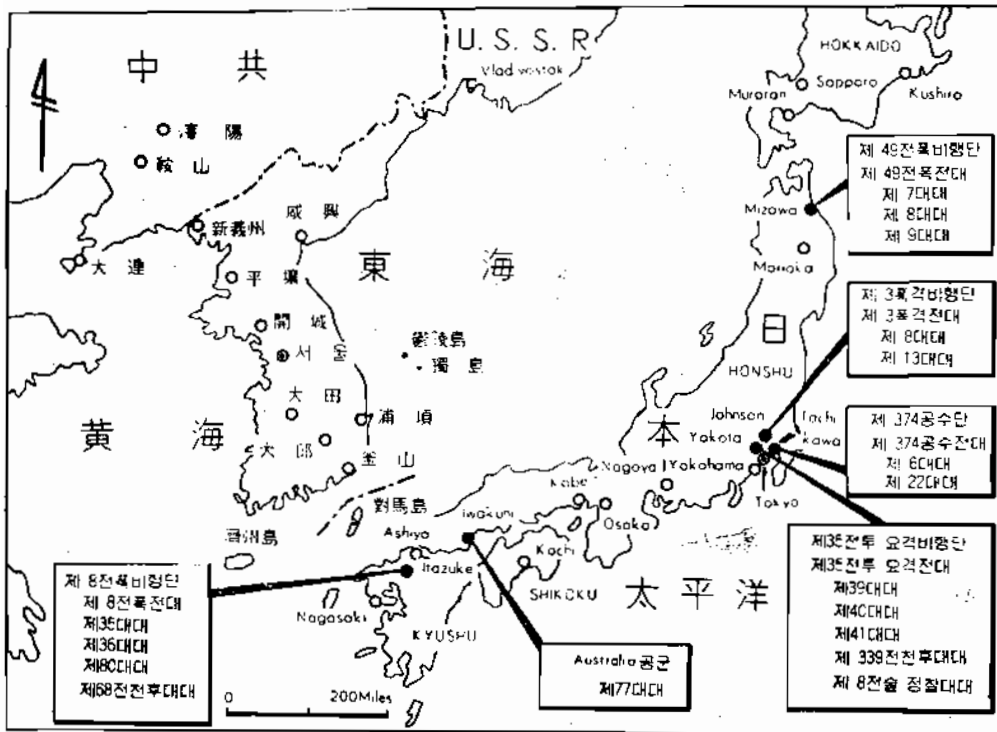
그런데 美空軍공군에서는 開戰初期의 1週日 동안은 다른 공산국가가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日本방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美空軍공군사령관 Stratemeyer중장은 예하 전술부대를 새로이 전개하여 韓國전선에 대한 출격작전과 日本의 공중방위임무를 병행하고자 하였는데 1950년 6월 현재 美空軍공군의 부대배치는 다음과 같다.

美空軍공군의 主力부대인 제 5 공군(사령관, Earle E. Partridge중장)은 Nagoya(名古屋)에 사령부를 두고 6개의 戰機대대와 5개의 遂擊대대 그리고 2개의 爆擊대대와 空輸대대를 보유하고 日本本土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美제 13공군(사령관, Howard M. Turner소장)은 PHilippines의 Luzon島에 있는 Clark 기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 18전폭비행단을 비롯한 예하 제 18전폭전대 및 제 12, 제 44, 제 67전폭대대 그리고 제 21공수대대와 제 6204 사진지도제작비행대대가 駐屯하여 PHilippines방위를 담당하였다.

제 20공군(사령관, Alvan C. Kincaid소장)은 Okinawa(沖繩)의 Kadena(嘉手納)기지에 사령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제 31사진정찰대대를 두었으며 또한 Naha(那覇)기지에 제 51요격비

◇ 상황도 제87호 美제 5 공군의 부대配置 (1950. 6)



행단을 주둔시키고 Guam島の Andelson기지에 제19폭격비행단을 두어 Okinawa 및 Mariana 지역의 방위임무를 담당하였다.

美空軍司令部는 제 5 공군의 전술부대중에서 F-80전투기 1개大隊과 F-82전투기 1개編隊를 Mizawa(三澤)와 Johnson 및 Itazuke(板付)의 3개기지에 殘留토록 지시하는 한편 제13공군의 제18전폭비행단에서 F-80전투기 1개大隊단을 日本으로 이동시켜 Tokyo 부근기지에 주둔케 하였으며 제13공군의 나머지 전술부대를 그대로 PHilippines에 주둔시켜 PHilippines과 自由中國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0공군의 제51요격비행단 예하 제 51요격전대를 Naha기지에 그대로 잔류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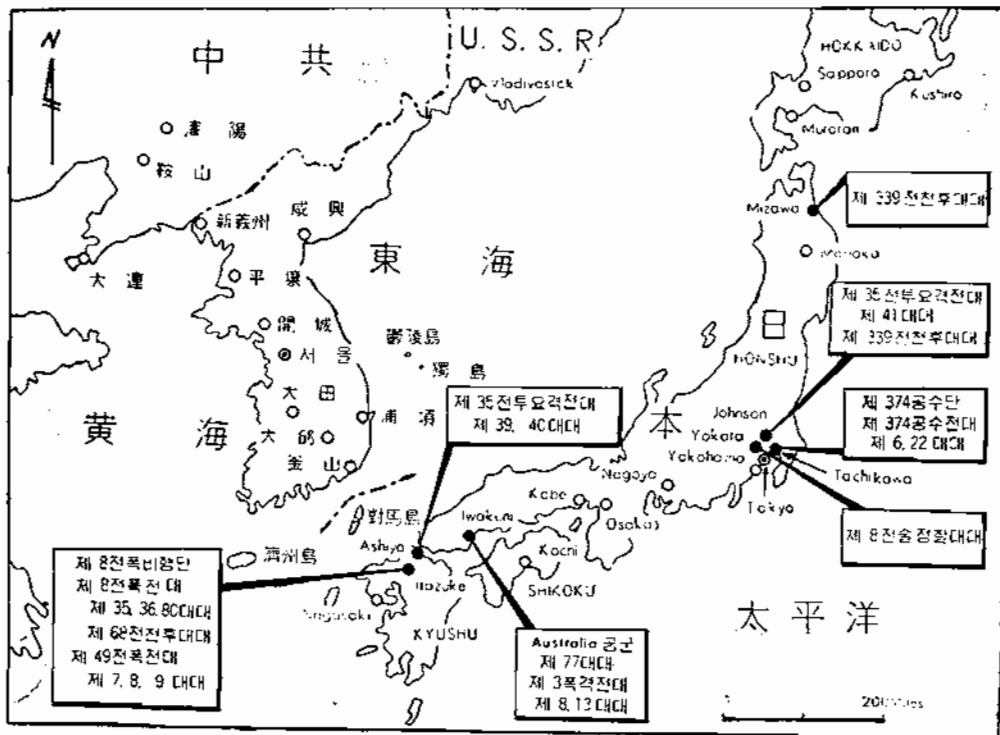
이와같은 부대배치는 비록 必要최소한의 戰力이었으나 美空軍의 韓國에서의 作戰을 위하여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美空軍司令部는 美제 5 공군司令部로 하여금 8個大隊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토록 하면서 日本과 PHilippines등의 방위부대와 교대시키는중 신속성 있게 작전케 하였다.

美空軍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공중방위력을 배치한뒤 韓國전선에서 항공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기지를 물색한바 水營비행장이 있기는 하지만 滑走路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Jet"전투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모든 전투기들

은 韓國과 가장 가까운 Kyushu의 Itazuke와 Ashiya(蘆屋)의 兩基地에서 출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日本의 각 기지에 주둔한 제 5 공군의 전술부대들을 이동케 한바 제 49전폭전대는 Mizawa기지에서부터 Itazuke기지로 이동하여 여기에 있던 제 8전폭비행단에 합세하였다. 또한 Yokota(橫田)기지의 제 35전투요격전대 가운데 제 41大隊은 John son기지로 옮기고 나머지는 모두 Ashiya기지로 진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John son기지에 있던 제 3 폭격전대는 Iwakuni(岩國)기지로 이동한바 여기에는 6월 29일 미국동공군에 파견된 Australia공군의 제 77大隊이 주둔하고 있었다. 한편 全天候전투대대들도 이러한 계획에 따라 주둔지를 옮겼는데 제 339대대는 Yokota로부터 Mizawa 및 John son기지로 이동하고 제 68대대는 Itazuke기지에 그대로 머물렀으며 제 20공군의 제 4대대는 7월 8일에 Itazuke에서 Naha기지로 복귀하였다.

이와같이 미국동공군에서는 Itazuke와 Ashiya기지를 중심으로 전술부대를 이동케 한바 이들 기지는 日本內에 있는 基地로서 韓國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으나 전투기들이 출격하여본 결과 한번 출격하면 韓國전선에서 불과 15~20분밖에 근접지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日氣가 不順할 경우에는 귀환하기조차 어려웠다. 이에 미국동공군사령관은美제 5 공군으로 하여금 韓國에서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서는 "Jet"전투기의

◇ 상황도 제 88호 美제 5 공군의 부대配置 (7.10)



항속거리를 연장하던지 아니면 韓國內의 基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한 끝에 우선 항속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항상 高空비행을 함으로써 연료를 절약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름밑에 있는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爆撃時에는 교대로 高空비행을 하여야 하므로 편대장과 僚機가 分離되는 事例가 많았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전투기에 표준연료통 이외에 2個의 보조연료통을 더 장치하여 출격케 하였으나 美공군군수사령부에서는 翼端과 爆彈의 거리가 제한되어 날개의 구조상 많은 무리를 加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美국동공군은 韓國전선에 대한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韓國內에 있는 비행장 즉, 擴張工事を 하면 사용이 가능한 水營(K-9), 大邱(K-2), 浦項(K-3)의 3개기지를 작전용 표준기지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한뒤 航空공병대와 韓國 및 日本의 건설업자를 동원하여 工事を 담당케 하였다. 이에따라 美국동공군에서는 7월 11일에 제 1 건설사령부를 창설하여 韓國軍 공병부대를 이에 배속하는 한편 美제 5 공군施設監으로 하여금 이를 지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美제 5 공군사령관 E.E. Partridge중장은 반대하기를 「제 5 공군 시설감에게 제 1 건설사령부를 맡기는 것은 本人에게 作戰과 工兵업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美국동공군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 5 공군사령관은 그의 施設監을 제 1 건설사령관으로 임명하고 擴張工事に 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美국동공군의 계획자들은 항속거리가 길뿐만 아니라 짧고 거친 활주로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F-51전투기(Mustang)를 확보하여 美제 5 공군으로 하여금 이로써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美국동공군사령관에게 제의하였다. 또한 Iwakuni기지에 F-51전투기大隊을 편성하자고 건의한바 Stratemeyer중장은 이를 승인한뒤 제13공군사령관에게 지시하기를 「제18전폭전대의 병력으로써 1개대대를 편성하여 日本으로 보내라」라고 하였는데 이 大隊을 “Dallas”大隊라고 稱하였으며 Johnson기지에서 F-51전투기로 무장하였다.

한편 美국동공군사령관 Stratemeyer중장은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군력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한뒤 6월 30일에 美空軍參謀總長에게 항공기의 보충을 요구하는 書翰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F-80C전투기 164臺, F-82전투기 21臺, B-26폭격기 22臺, B-29중폭격기 23臺, C-54수송기 21臺, F-51전투기 64臺, C-47수송기 15臺 등이었다. 同書翰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 가운데 F-51 및 F-82전투기는 항속거리가 길고 低空공격이 가능하여 韓國戰에 적합하다」라고 하였다.

이어 7월 1일에 Stratemeyer중장은 다시 美空軍參謀總長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1개 중폭격비행단, 2개 F-51전투기비행단, 2개 F-82전투기비행단, 1개 空輸비행단, 제 3 폭격비행단을 보충할 수 있는 2개 B-26폭격대대, 1개 RF-51정찰대대, 1개

RB-26야간사진제작대대, 1개 전술항공통제대대 등을 요구하였다.

이를 검토한 미공군참모총장 Hoyt S. Vandenberg대장은 회신하기를 「가능한 限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겠다」라고 한뒤 7월 3일에 美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22 및 제92중전폭전대의 극동파전을 허락 받았으나 同월 현재 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편의 “Jet”항공기는 2,500편인데 반하여 미국동공군의 요구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Vandenberg대장은 미공군의 物資담당참모인 K.B. Wolfe중장을 대표로한 장교단일행은 극동공군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4일 오후에 Tokyo에 도착하여 이튿날부터 미국동공군참모들과 협의한바 이들 장교단 가운데 작전분야대표자인 Frank F. Everest소장은 미국동공군에서 요구한 F-80전투기와 F-82전후전투기를 지원할 수 없는 미공군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美공군은 洲防衛軍의 764臺와 저장중인 794臺의 F-51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5臺는 洲방위부대로부터 즉시 차출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뒤 7일에 최종 회합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동공군참모들은 F-80전투기 6개大隊를 F-51전투기대대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F-82전후전투기를 작전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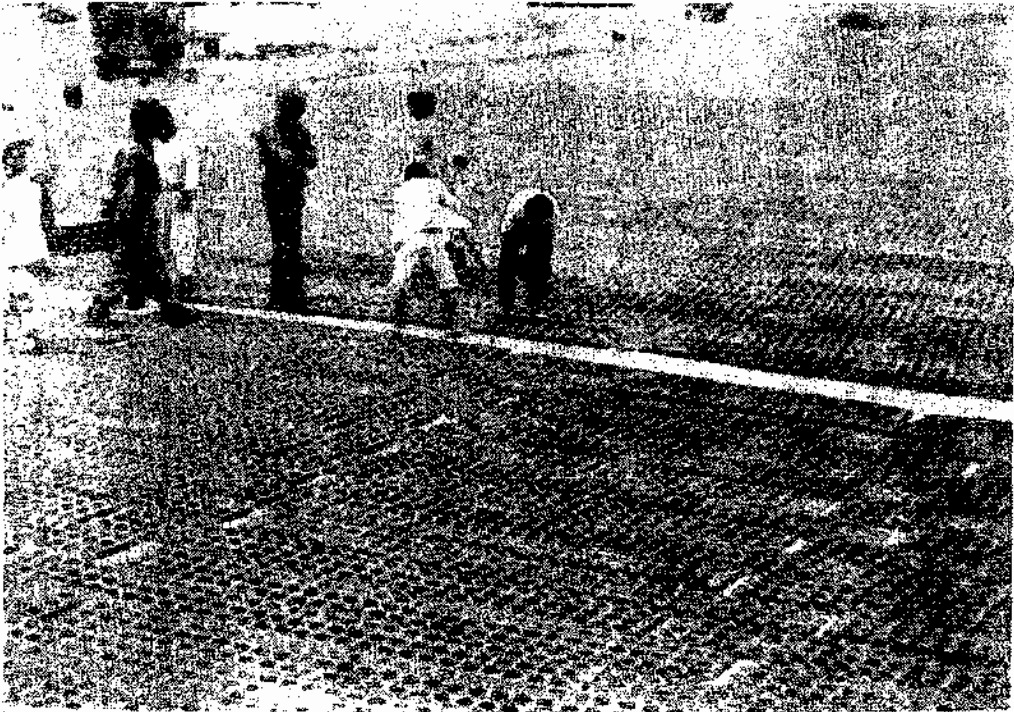
이와같이 미국동공군에서는 韓國전선에 대한 효과적인 공중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진개를 새로이 하고 또 이에 따른 韓國內의 기지확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나아가서는 F-80전투기를 韓國戰에 적합한 F-51전투기로 전환케 하는등 미공군 및 극동군총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예하 전술부대들로 하여금 최대의 공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3) 美제 5空軍의 韓國 이동

前述한 바와같이 미국동공군의 韓國內의 비행장 확장공사를 위임받은 제5공군사령관은 施設監을 제1건설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나 工兵기술참모진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실제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즉, 비행장에 관한 地質 및 排水검사와 건설자재의 획득여부를 상세히 調査하지 못하고 현지 踏査와 그밖의 情報만을 가지고 工事에 착수하였는데 작기지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水營기지 : 당초 戰鬪機가 離着陸할 수 있는 비행장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7월 3일에 現地를 踏査한 Williams Shoemaker중령이 報告하되 「滑走路가 약 10cm의 자갈위에 “콘크리트”로 살짝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많은 항공기의 離着陸으로 말미암아 地盤이 弱화되었다」라고 하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小型수송기 및 비상착륙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키로 결정한뒤 工事を 진행하였다.

浦項기지 : 시설은 水營기지에 비하여 다소 양호하였는데 제1건설사령관은 이날 10일에 美제802항공공병대대에 이 基地 확장공사를 맡긴바 13일에는 4,500ft의 P.S.P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路盤공사로 들어가 15일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날부터 戰鬪機의



<大邱기지의 P.S.P. 포장공사>

作戰을 開始하였다.

大邱기지 : 同월 2일에 韓國공군의 F-51전투기 10臺가 日本으로부터 도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제 1 건설사령관은 8일에 Okinawa에 있는 제822항공공병대대와 제919항공공병중대를 大邱기지로 이동시켜 공사를 담당케 하였다. 이에 따라 그 先發隊는 16일에 도착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그뒤 30일에 本隊가 모두 도착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 끝에 8월 7일에 4,300ft의 P.S.P.포장공사를 완료함으로써 戰術항공부대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美제 5 공군에서는 비행장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戰況의 긴박성에 따라 예하 전술항공부대를 韓國으로 이동케 하였다. 즉, 6월 27일에 Itazuke기지에서 제 8 전폭비행단 제36전폭대대의 일부병력과 韓國공군의 F-51전투기 10臺로써 "Bout-one"이라고 命名한 혼성부대를 편성한뒤 30일에 大邱기지로 이동케 하였으며 또한 이의 병참지원을 위하여 7월 6일에는 Saseho(佐世保)에서 제6002기지대대를 편성한뒤 大邱기지로 進出케 하였다. 그리고 美극동공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편성된 제13공군이 "Dallas" 大隊은 10일에 PHilippines의 Clark기지에서 日本의 John son기지로 이동하여 F-51전투기로 무장한뒤 大邱기지로 進出한바 15일부터 출격을 開始하였다. 이리하여 美제 5 공군에서는 이들 "Bout-one"과 "Dallas"의 2개부대를 통합하여 제51전투비행대대로 편성하였는데 이로부터 9일 뒤인 24

일에 美제 5 공군의 前方梯隊의 모든 체제가 갖추어짐으로써 이를 다시 駐韓 美제 5 공군으로 改稱하였다.

한편 美극동공군에서는 7월 11일에 美제 13공군 예하 제 18전폭비행단의 제 12 및 제 67전폭대대를 제 5 공군에 파견하여 韓國戰에 投入할 계획을 수립하고 美國에서 F-51전투기 145 썰을 적재한 항공모함 Boxer號가 日本에 도착하는 즉시 이로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7일에 F-51機가 도착하자 美극동공군사령관은 30일에 제 12 및 제 67전폭대대를 Clark 기지로부터 John son 기지로 이동케 하여 F-51전투기로 무장케 한 뒤 8월 3일까지 大邱기지로 진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4일에는 大邱기지에서 作戰中인 제 51전투비행대대를 本隊인 제 13공군의 제 12전폭대대로 복귀시키는 한편 제 6002기지대대를 同전투비행단으로 증편하여 제 13공군의 제 18전폭전대를 이에 예속시켰다.

한편 浦項기지의 경우, 7월 15일까지 제 802항공공병중대가 P.S.P.포장공사를 끝냈던 것인데, 이동중에 美제 5 공군에서는 10일에 Ashiya기지에서 제 35전투요격전대 예하 제 40전투요격대대를 F-51機로 무장케 하는 한편 14일에는 이의 병참지원을 위하여 제 6131 기지전대를 편성한 뒤 16일에 浦項기지로 進出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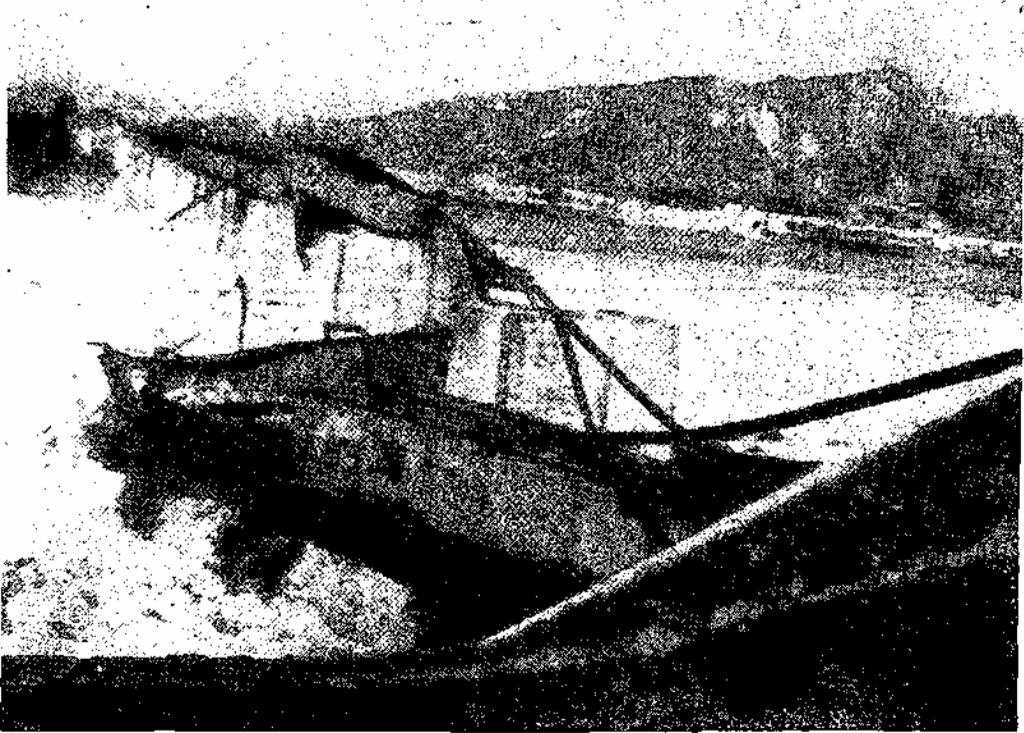
그 뒤 8월 초에는 제 35전투요격전대의 本隊와 예하 제 39전투요격대대를 浦項기지로 진출케 하는 등 제 5 공군에서는 전술부대를 증강시켰는데 이달 8일에는 제 6131기지전대를 同전투비행단으로 증편하였다.

이와같이 美제 5 공군은 극동공군사령부에 요청하여 제 13공군의 지원을 받는데 예하 진출 항공부대들을 大邱와 浦項기지로 진출시켜 출격을 단행하는 동안 이의 兵力과 裝備를 증강하여 제 6002와 제 6131의 兩전투비행단으로 기구를 증편하는 등 항공작전을 위한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 (4) 後方遮斷作戰

美지상군은 戰線으로 수송되는 敵의 증원兵力과 補給品 및 裝備를 공격하도록 美극동공군에 요청하였다. 이에 美극동공군사령관은 대답하기를 「주요 橋梁을 폭파하는 것이 美극동공군의 최고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예하 폭격전대에 지시하기를 「敵空軍의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으므로 指定된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B-29중폭격기들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 勃發이래로 1개월이 경과할때까지 극동공군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후방 차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효과적인 목적을 加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前述한바와 같이 공격목표의 선정과 공격지시에 있어서 지휘체계의 多元性和 목표선정기구가 미약한 데에 있었다. 더욱이 총사령부 참모들은 주장하기를 「모든 항공력을 근접지원작전에 집중하여야 하며 후방차단작전도 근접지원과 차별없는 戰線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



〈B-29중폭격기에 의하여 파괴된 鐵橋〉

면서 「목표선정은 총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7월 9일에美제24사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총사령부 참모들의 上記한 주장이 반영되어 MacArthur元帥는 美空軍의 平壤과 元山 및 서울操車場에 대한 폭격 계획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모든 B-29중폭격기를 惡戰苦鬪하는 美空軍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MacArthur元帥는 13일에 鎭江 방어선을 전고히 하기 위하여 美空軍의 B-29 및 B-26폭격기로 하여금 堤川—陰城—長湖院을 連하는 지역의 모든 交通요충지를 폭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9일에 총사령부로부터 美空軍에 下達된 공격목표록에 B-29중폭격기는 38°線과 戰線間의 主要시설과 補給線을 집중 폭격하도록 명시되었으므로 美空軍에서는 後방차단작전을 一旦 中止하고 戰線의 목표물만을 폭격함으로써 9일부터 24일까지 總計 58處의 橋梁을 파괴하였다.

이와같은 근접지원작전에 대한 結果분석에서 美空軍과 총사령부는 서로 相反되는 見解를 나타내었다. 즉, 前者는 주장하기를「총사령부가 지시한 근접지원작전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後방차단계획을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한데 반하여 後者 특히, 목표분석단장은 파괴된 교량을 표시한 地圖를 제시하면서「이 지도를 보면 이번 폭격이 敵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後방차단작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我



軍은 敵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 作戰이 전개된 기간중에 美空軍에서는 B-29중폭격기의 폭격활동에 대한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橋梁과 都市와 같은 固定목표에 대한 폭격결과 는 훌륭하였지만 地上관제에 의하여 지시되는 이동목표인 戰車와 車輛 및 兵力에 대한 공격효과는 未知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戰爆機로 戰場을 공격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특히 地上전황이 流動的인 경우에는 더욱 곤란하였다. 一例를 들어 본다면 7월 16일에 3대의 B-29중폭격기가 安東을 폭격하였는데 이 폭격으로 良民 22명이 爆死한 일이 있다. 근접지원작전에서 폭격기의 효과가 模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爆擊사령관 O'Donnell소장은 戰線의 技術적목표를 우선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매일 15대의 폭격기를 대기시켰으며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도합 130회에 걸쳐 출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同월 22일에 총사령부내에 목표선정위원회가 設置되자 美空軍에서는 그동안 전개된 폭격기 활동의 模糊한 點을 지적하면서 폭격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후방차단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에 총사령부 목표선정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가 진행되나 Hicky소장과 Willoughby소장은 주장하기를 「모든 B-29중폭격기는 韓美兩軍 8개師團이 敵軍 9개師團과 惡戰苦鬪하는 戰線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Weyland소장은 주장하기를 「地上전황이 위급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급한 상황은 開戰初부터 계속된 것이며 또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선정위원회는 敵의 후방지역을 강타하여 그들의 9개師團이 12개 혹은 13개사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함축성 있는 후방차단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Weyland소장은 지적하기를 「Walker장군이나 Partridge장군은 중폭격기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Hicky소장은 처음의 강경한태도를 완화하여 제의하기를 「2개의 B-29중폭격기 전대를 후방차단작전에 사용하고 1개전대는 근접지원작전을 계속토록 하자」라고 하였으며 Willoughby소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덧붙이기를 「B-29중폭격기의 후방차단계획은 38°線 以北지역에 중점을 두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모두 同意함으로써 회의는 순조롭게 끝나고 26일에 MacArthur元帥의 승인을 얻었다.

한편 同提案이 승인되기 8일전인 18일에 美空軍에서는 情報 및 作戰부서의 대표들로 구성된 목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27일까지 철도차단작전계획을 완성하였다. 同計劃은 北傀가 戰線으로 수송하는 兵力과 物資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敵의 後方으로부터 戰線에 이르는 輸送路를 차단하기 위하여 2個地點을 선정하였는데 그 첫째는 大同江철교와 平壤조차장이며 그 둘째는 咸興철교와 咸興 및 元山조차장이었는데 서울조차장과 漢江 및 兩水江철교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8월 2일에는 美空軍폭격사령부의 공격목표 우선순위표가 作成되었으며

3일에 38°線以南지역의 공격목표 우선순위를 美제 5 공군에 下達하고 협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극동海軍側에도 이 目標錄을 전달하였다. 이때에 폭격사령부와 제 5 공군 및 극동해군의 공격목표 우선순위를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폭격사령부 : 漢江철교를 포함한 漢江 以北지역
- ② 제 5 공군 : 敵이 夜間에 渡河할 때에 사용하는 浮橋를 비롯한 漢江以南의 目標物
- ③ 극동해군 : 東西해안에서 24km이내에 있는 橋梁

이와같이 총사령부 목표선정위원회와 미국동공군 목표제위위원회의 원활한 조치로써 폭격기들은 근접지원작전을 벗어나서 本然의 임무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기간중에 제 5 공군과 폭격사령부가 전개한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美제 5 공군의 活動상황

美제 5 공군은 각종 전투기와 B-26폭격기로써 敵地域에 있는 모든 목표를 공격하지는 못하였으나 漢江以南지역에서의 모든 이동목표에 대한 폭격은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美지상군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뒷날 美제 24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이 證言하기를 「戰爭初에 北德軍의 南侵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제 5 공군의 힘이며 만약 제 5 공군의 계속적인 공중공격이 없었다면 兵士들이 아무리 용감하였다 하더라도 數의으로 우세한 敵軍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戰爭初부터 제 5 공군의 戰爆機들은 주요교통로를 차단하는데 全力을 傾注하였으나 이들에게 부여할 구체적인 후방차단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폭기들은 道路上을 정찰비행하며 군사목표를 찾아서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제 5 공군의 전폭기들은 공격목표선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서울—平澤間의 道路上에서 車輛 197臺와 戰車 44臺를 파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특히 10일은 日氣가 不順한 까닭에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基地에서 待機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늦게 F-80전투기 1個編隊는 平澤상공을 비행하던중 구름사이로 길게 늘어진 戰車 및 車輛행렬을 발견하자 즉시 Itazuke기지에 연락한바 제 5 공군에서는 稼動할 수 있는 폭격기 및 전투기를 모두 출격케 하여 同目標를 강타한 끝에 전차 38臺와 차량 117臺 및 自走砲 7臺등을 파괴하고 그에 隨伴하는 兵力을 爆殺하였다. 이 兩次에 걸친 공격은 美제 5 공군이 韓國戰에서 이룩한 최대의 戰果이며 韓國전쟁에 一大轉機를 마련한 것이었다.

美제 5 공군의 이와같은 공중공격이 있는 뒤부터 敵은 위장 및 기만전술을 사용한다. 차량과 戰車는 나무밑이나 골짜기 혹은 家屋속에 숨겨 놓았다가 稼動할 때에는 풀을 쫓아 위장하였다. 또한 이미 파괴된 물건을 위조하여 전폭기로 하여금 공격케 함으로써 가치없는 목표물에 폭탄을 소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晝間에는 숨어 있다가 夜暗을 이용하여 行動하였으며 전투기에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散開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기를 向하여 손을

흔들어 友軍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곤란케 하는 술책까지 쓰기도 하였다.

#### (나) 폭격사령부의 활동상황

6월 30일 美空軍공군사령관의 항공기 증파요청을 검토한 美공군참모총장 Hoyt S. Vandenberg대장은 7월 3일에 美합동참모본부로부터 2개의 중폭격전대, 즉 제22 및 제92폭격전대를 극동공군에 임시 파견하여도 좋다는 승인과 함께 전략공군사령관 LeMay대장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美전략공군의 전략능력에 비추어 볼때 큰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었으나 Vandenberg대장은 「38° 線以北의 목표물을 파괴하여야할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므로 폭격전대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美空軍공군사령관에게 이르기 「本人은 어떤 특정 목표를 指稱하지는 않는다. 戰場에서의 進路작전은 敵後方に 있는 근거지를 폭격하지 않는 限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은 數學에서의 公式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Vandenberg대장으로부터 2개폭격전대의 파견을 통보받은 美空軍공군사령관 Stratemeyer중장은 이달 8일에 Yokota기지에 폭격사령부를 설치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美空軍참모총장 Vandenberg대장은 Emmett O'Donnell, Jr소장을 이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극동공군으로의 이동명령을 받은 제22 및 제92의 兩폭격전대는 5일부터 이동을 開始한바 7일까지 매일 B-29중폭격기 10臺로써 順次的으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제22戰隊는 California의 March기지를 출발한뒤 Hickam과 Kwajalin 및 Guam기지를 거쳐 沖繩의 Kadena기지로 進出하였다. 또 제92戰隊는 Washington의 Spokane기지를 떠나 제22전대와 같은 經路를 거쳐 Yokota기지로 移動하였는데 兩戰隊는 10일에 모든 이동을 完了하였다.

이와같이 2개폭격전대가 편입됨에 따라 美空軍공군은 본래의 제3, 제19의 兩爆擊전대를 포함하여 도합 4개폭격전대를 보유하게 되자 폭격사령부에서는 이들 폭격전대로 하여금 漢江以北의 주요시설 및 郡邑을 파괴토록 하였다. 특히 同사령부는 전쟁목적에 사용되는 公營목표를 폭격케 한다는 방침을 세운뒤 13일에는 제22 및 제92전대에 첫임무로써 主要驛의 操車場과 元山의 朝鮮정유공장을 폭격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최초의 임무가 끝나자 同사령부에서는 敵지상군의 南侵을 저지하기 위하여 中爆擊機전대를 근접지원작전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4개戰隊는 이달 24일까지 주로 근접지원을 수행하다가 그뒤 다시 2개戰隊만 본연의 폭격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2개폭격전대만으로는 敵의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美합동참모본부에서는 同사령부에 통보하기를 「38° 線以北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폭격을 단행하기 위하여 2개의 中爆擊機전대를 증파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MacArthur元帥가 同意한다면 合동참모본부에서 직접 목표지역의 공격지시를 내릴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MacArthur元帥가 동의하자 29일에 美합동참모본부는 전략공군사

령부에 제98, 제307의 兩폭격전대를 극동공군으로 임시파견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98전대는 8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Spokane基地로부터 Yokota基地로 進出하였으며 제307전대는 8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Florida의 Macdill基地를 떠나 Kadena기지로 移動하였다.

이와같이 美國동공군폭격사령부는 제3 제19, 제22, 제92, 제98, 제307의 6個폭격전대로써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목표선정은 총사령부 목표선정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선정된 목표는 제54偵察부대에서 寫眞化함으로써 폭격의 정확성을 期하였다.

한편 美國동공군폭격사령부에서는 6個폭격전대의 사용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제19전대는 “레이다”性能和 高空폭격능력이 不良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5個戰隊 가운데 3個戰隊는 北僞의 산업시설을 파괴케 하고 2個戰隊는 후방차단작전에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이와같이 극동공군폭격사령부는 폭격전대의 중과에 따라 元山—平壤—咸興—羅津등의 주요 鄙邑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과 橋梁 및 操車場등을 폭격하는 후방차단작전을 병행하였다. 여 출것을 요청하였다. 美제5 공군사령관은 이를 승인하여 9일에 2名の 조종사와 함께 4回線 고주파무전기가 장치된 L-5G機 2臺를 太陽으로 進出케 하였다. 이날 L-5機가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도착 즉시로 機上판제를 시도하였으나 電壓이 낮아 무전기의 성능이 양호하



〈B-29중폭격기의 元山폭격〉

## (5) 近接航空支援作戰

地上軍과 戰術공군의 空地협동작전은 그 中樞기관인 합동작전본부 즉, JOC(Joint Operations Center)에서 遂行하였다. 同本部內에는 육군장교로 구성된 空地작전반과 空軍장교로 구성된 전투작전반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상호 협조하면서 항공기를 출격케 하여 地上軍을 지원하였다.

美제 5 공군은 美제 24사단이 韓國戰에 投入되자 이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제 5 공군사령관은 大田에 JOC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뒤 7월 3일에 Itazuke기지에서 사령부의 장교 10명과 제 8 통신대대의 士兵 35명을 전투작전반 요원으로 차출하여 John R. Murphy중령을 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일행은 이달 5,6일의 兩日間에 걸쳐 兵力 및 장비를 大田으로 이동한뒤 美제 24사단사령부내에 JOC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陸軍內에 항공기 통제를 직접 담당하는 空地작전반요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Murphy중령은 전투작전반요원 가운데에서 우수한 공군장교를 뽑아 空地작전반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JOC와 함께 空地협동작전임무를 수행하는 機構는 전술항공통제본부 즉, TACC(Tactical Air Control Center)인바 이것은 通信기구로서 전술공군에 대한 항공기 관제와 경보활동을 그 主任務로 하였는데 전술공군사령관은 이를 통하여 모든 空中활동을 지휘 통제하였다. 즉 TACC의 임무에는 공중공격 뿐만 아니라 공중방어까지도 포함되며 JOC전투작전반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지휘통제하였다.

이와함께 空地협동작전임무를 現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전술항공통제반 즉, TACP(Tactical Air Control Parties)가 있는바 이것은 前方부대 근처에 설치되어 전술항공통제기구의 모든 전방부대를 지원하고 전방관측소로부터 공중공격을 관제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空地협동작전은 그 中樞기관인 JOC를 중심으로 항공기를 지휘통제하는 TACC와 목표를 지시하는 TACP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전개하는 것이었다.

美제 5 공군에서는 5일에 JOC요원을 大田으로 移動시킬때 4個의 전술항공통제반을 함께 이동케 한바 이때 大田에는 韓國軍에 대한 항공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620항공관제 및 경보대대의 파견대로부터 2個의 전술항공통제반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Murphy중령은 6개의 TACP를 운영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 통제반은 AN/ARC-1무전기를 적재한 “Jeep”차로써 항공기를 관제하였으나 그것이 너무 무겁고 파손되기 쉬우므로 韓國의 거친 道路上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Jet”전투기들도 항속거리가 짧았으므로 목표를 포착하기 위하여 목표지역상공에서 오랫동안 滯空할 수 없었다.

이와같이 근접지원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자 Murphy중령은 機上관제를 위하여 제 5 공군에 정찰과 관제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 5명과 작전장교 1명을 지원하

지 못하였으므로 2명의 조종사(James A. Bryant중위, Frank G. Mitchell중위)는 美 제24사단으로부터 L-17機를 빌려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주 훌륭하여 Murphy중령은 말하기를 “美제 5 공군 역사상 최고의 날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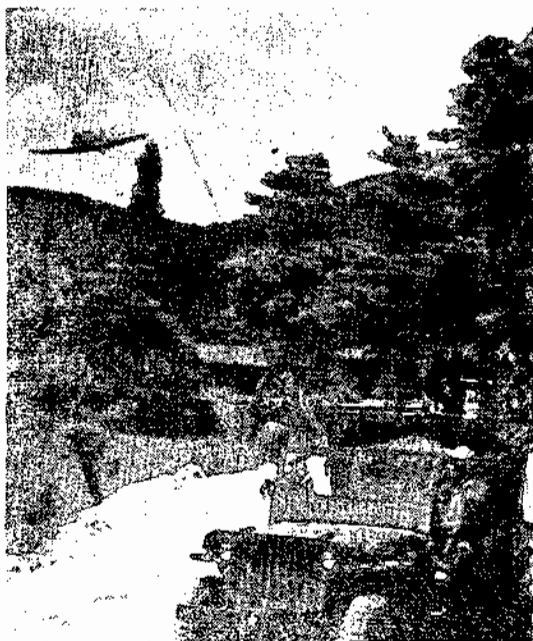
한편 L-5機가 機上관계용으로 적합하지 않자 10일에 제 5 공군으로부터 T-6機 1臺가 大田에 도착함으로써 이때부터 모든 機上관제를 실시하였다.

그뒤 13일에는 敵이 大田부근에까지 육박하였으므로 이들은 大邱기지로 이동하고 또한 16일에는 JOC의 主力이, 그리고 19일에는 그 殘留병력이 大田에서 大邱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14일에는 Itazuke基地에서 제6132전술항공통제대대가 편성된바 그뒤 同大隊은 제6132항공관제대대로 再

編成되어 大邱로 進出함으로써 본격적인 TACC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3일에 大邱로 이동한 機上관제사 및 T-6機는 그뒤 그 數가 증가되어 8월 1일에 제6147機上관제대대로 正式발족하였는데 제 5 공군에서는 同大隊의 호출부호를 “Mosquito”라고 함으로써 이 大隊을 『Mosquito大隊』라고 稱하였으며 機上관제사 및 그 항공기를 『Mosquitoes』라고 불렀다.

이와같이 JOC와 TACC 및 TACP등의 모든 전술통제기구가 大邱기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 5 공군에서는 근접지원작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토록 하였다. 즉, 韓國內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기는 TACC의 “Mellow”라는 호출부호를 부르면 同本部에서는 JOC의 지시에 따라 전투기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 “Mosquito” 및 전선지역에 있는 전술항공통제반과 접촉하는데 필요한 지시도 하였다. 그리하여 임무를 완수한 전투기들은 다시 大邱근처를 비행하면서 “Mellow”를 호출하고 착륙한 다음 戰果를 보고하면 전술항공통제본부에서는 목표지역을 다시 확인하여 그 戰果를 검토하였다.

地上軍이 惡戰苦鬪하고 있던 6, 7월에 美제 5 공군은 근접지원작전에 全力을 기울인바 도합 5,043회의 출격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美제 8 군사령관 Walton H. Walker중장은 8월 初에 말하기를 『美제 5 공군의 조종사들은 과거 10여일동안 평균 340회의 출격으로 美 지상군에게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美지상군에게 多大한 공헌을 하였으며 많은 步兵의 生命을 救出하였다』라고 하였다.



<“Mosquito”와 TACP “Jeep”車의 근접항공지원 작전>

## 第17章

# 國立警察의 活動

### 要 旨

1. 中部 및 東部警察의 活動
2. 西南部警察의 活動





## 第17章 國立警察의 活動

### 要 旨

本章은 軍의 遲延作戰에 따라 各戰線에서 國立警察이 奮戰한 狀況을 엮은 것인 바, 이의 內容을 中東部와 西部地域으로 大別하였다.

먼저 中東部地域에서 活動한 江原 및 慶北警察은 北傀의 遊擊部隊 侵透로 威脅에 當面케 된 太白山脈一帶에 重點을 두고 管下 戰鬪경찰대대를 投入하여 作戰을 벌이는 한편 東西 兩袖地域의 各署兵力으로 하여금 제 3, 제 8, 제 6사단의 作戰을 支援토록 하였다.

즉, 江原경찰의 2개대대는 7월 7일부터 我 제 8사단이 堤川—丹陽線에서 敵을 阻止하고 있을 동안 그 東北쪽의 上東—寧越線에서 다른 一團의 敵을 遊擊한 다음 10일에 道界에서 慶北경찰 基幹대대와 合勢하여 13일까지 春陽—奉化線을 堅守함으로써 三陟線을 遮斷코자 하는 敵의 企圖를 制扼하였다.

이와 같이 同사단의 東北쪽을 防護하면서 三陟와 旌岾 그리고 醴泉署부대로 하여금 所轄地域에서 軍의 作戰을 支援케 하였고, 東海岸의 蔚山署부대는 제 23연대와 協同하여 遲延戰을 展開한 다음, 13일에 益德附近으로 撤收하여 西側方의 敵의 侵透路를 遮斷하는 任務를 맡게 되었다. 이때 太白山脈의 敵情을 重視하고 있던 軍은 對遊擊作戰에 任하고 있던 제 25연대 제 1대대로 하여금 春陽地區의 同경찰대대를 統合管掌토록 하다가 14일에 英陽—靑松地域이 제 3사단 管轄로 變更됨에 따라 同경찰대대도 제 3사단의 統制下에 들어 갔다.

따라서 이날, 安東에서 再編성한 江原非常警備司令部 管下 6개대대중, 제 5대대는 機甲연대에 再배속되어 靑松附近의 戰鬪에 任하게 되었는데 이때 1개연대 규모의 敵이 奉化—英陽—靑松線으로 侵入하여 普賢山—九岩山の 在山共匪와 合勢하여 浦項—永川—義城의 我 後方 地域을 攪亂코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本格的으로 侵攻을 개시한 14일부터 警察 3개대대가 増強되어 同地域에 侵入한 敵을 遊擊하였고 慶州—永川署부대는 鐵原支隊와 合勢하여 後方으로 侵透를 企圖하는 敵을 擊碎함으로써 我軍의 洛東江 防禦線 形成을 有利하게 하였다.

이 作戰과 併行하여 中部의 忠州署부대는 제 2연대를, 그리고 春川에서 陰城으로 撤收한 春川署부대는 제 7연대를 各各 支援하였고, 戰線이 鳥嶺—梨花嶺—化寧場線으로 轉變한 19일부터는 開慶과 尙州署부대가 제 6사단과 美제 25사단의 作戰을 支援하면서 洛東江上流 地帶로 撤收하였다.

다음, 西南部地域의 京畿—서울—忠南北경찰은 美제 24사단의 遲延戰에 따라 錦江線防禦를 支援한 다음, 大田에서 兩分되어 主力은 京釜國道를 따라 撤收하고 일부 경찰만이 西部로 轉進하였는데 長項線 沿邊으로 撤收한 2개대대는 靑陽—大川—舒川附近에서 敵을 遊擊하면서 湖南地域으로 빠졌고, 論山—江原附近의 경찰부대는 18일에 그들 主力과 遭遇하여 18시간의 血戰 끝에 全員이 玉碎하였다.

이리하여 溢出하는 敵勢가 다시 道界를 넘어 裡里—群山線에 이르자 全南北경찰 3개대대가 合勢하여 이를 扼守코자 하였으나 力不足으로 21일에 全州—井邑線을 攔러나 다시 道界를 넘게 되었다. 따라서 南原에서 戰列을 整備한 全北경찰은 罔부대의 統制下에 咸陽과 求禮—河東—麗水線으로 撤收하였고 全南경찰은 寶城—長興線에 抵抗線을 形成하여 敵侵을 阻止하다가 일부는 洛東江線 內廓으로 撤收한 다음, 美軍의 統制下에 들어 갔고 主力은 莞島—珍島—靑山島—古今島동南海의 群小島嶼로 撤收하여 反擊作戰時까지 遊擊戰을 벌였다.

## 1. 中部 및 東部警察의 活動

가. 寧越—春陽地區 戰況 (1950년 7월 6일부터  
1950년 7월 13일까지)

###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江原道	非常警備司令部			洪川警察署	장	경감	金 聲 遠	
	사령관	경무관	尹 明 運	麟蹄警察署	장	경감	尹 龍 遠	
寧越地區	戰鬥司令部			江原警察제 5 대대장	총경	金 麟 鎬		
	사령관	총경	金 麟 鎬	寧越署 중대	장	경감	李 大 仁	
戰警	제 8 대대	장	경감	全 星 宇	長省署 중대	장	경감	洪 命 植
	제 1 중대	장	경위	金 海 洙	慶北 戰警제 11 중대			
	제 3 중대	장	경감	李 夏 永	慶北特警隊 基幹戰鬥대대			
	제 5 중대	장	경감	趙 英		장	경감	柳 佑 澤
戰警	제 9 대대				協同部隊 제 25 연대			
	제 3 중대	장	경위	金 芝 洙	제 1 대대	장	중령	林 益 淳
北傀	제 5 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北傀 제 766 부대	장	총좌	吳 振 宇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 (2) 寧越의 再奪還 계획

緒戰期부터 太白山脈을 中心으로 그 東西 兩軸 地帶에서 逐次撤收한 江原경찰은, 丹陽 附近에 이르러 兵力을 收拾코자 하였으나 大部分이 忠州—濟州方向으로 撤收하고 旌善—寧越의 兩署의 警察과 제 8, 제 9 대대만이 남게 되었으며 同非常경비사령부(장, 경무관 尹明運)도 原州—堤川—丹陽을 거쳐 7월 5일 06.00에 榮州로 옮겼다.

그러나 江原경찰 비상경비사령관 尹明運 경무관은 寧越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다시 이를 奪還키로 하고, 同地區사령관 金麟鎬 총경을 통하여 戰警제 8 대대 제 1 중대(장, 金海洙 경위)로 하여금 7일 06.00를 期하여, 寧越을 奪還토록 命令하였던바, 同중대장 金海洙 경위는 47명으로 決死隊를 編成하여 即時 上東(寧越 東쪽 21km)을 出發, 寧越을 向하여 急進하였다.

同중대는 機關銃 一정을 據置한 트럭 2대에 分乘하고 다음날 14.00에 松峴峙(上東 西쪽 5km)에 이르게 되었는데, 뜻밖에 이곳에서 敵兵을 滿載한 車輛과 正面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同중대는 즉시 下車하여 先制攻撃을 加하면서 敵陣前으로 突進하여 30m까지 接近한 다음, 中隊長 金海洙 경위의 號令에 따라 일제히 突擊하였다.

그러나 敵 또한 我軍의 必발치듯한 銃擊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應戰함으로써 及其世는 白兵戰이 展開되었으며 한적한 松峴峙는 倅아닌 血戰場으로 一變하였는데 이곳에서 中隊長 金海洙 경위가 戰死하였다.

이리하여 憤氣擡天한 中대원은 金海洙 경위의 뒤를 이은 石商益 경위의 指揮下에 더욱 奮戰하였으나 石商益 경위마저 敵彈에 맞아 쓰러지고 더우기 敵의 本隊로 보이는 後繼兵力이 中隊를 包圍함으로써 끝내 戰列이 瓦解되어 敵의 포위망을 各個突破하여 本隊로 복귀하였다.

結局, 이 戰鬪로 中隊는 中隊長 金海洙 경위를 비롯하여 24명을 잃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이 悲報에 接한 大隊長 全星宇 경감은 하루동안 部隊를 정비한 다음, 作戰參謀 金亨山 경위의 案內로 9일 01.00에 李夏永 경감이 지휘하는 제 3중대와 趙 英 경감이 指揮하는 제 5중대로 하여금 松峴峙에 急派하여 제 1중대가 입은 慘敗를 雪辱코자 하였다.

그러나 兩중대가 松峴峙에 이르기 前에 이미 敵은 13대의 트럭으로 礪山岷(上東 西쪽 6km)에서 西碧(春陽 西北쪽 8km)을 거쳐 春陽으로 南下하고 있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이들은 松峴峙進出을 단념하고 春陽으로 急轉, 제 3중대(장, 李夏永 경감)는 春陽川邊 東쪽에, 慶北戰警 제11중대는 同 西쪽 山岳地帶에 各各 配置되어 敵侵에 對備하였으며, 제 5중대(장, 趙 英 경감)는 春陽 한쪽의 道路邊에 配置되어 敵의 進路를 遮斷하였다.

04.00, 第5中隊가 敵의 先發隊로 보이는 2대의 트럭을 격파함으로써 交戰이 始作되었다.

그러나 이때 敵의 本隊가 慶北 戰警 제11중대 側後方으로 急速히 突入, 重火器분대에 集中射擊을 加하면서 계속 공격을 加하여 옴으로써 이들 제11중대는 물론 全 警察中隊가 春陽의 外廓陣地에서 물러섰는데 이 戰鬪에서 8명이 戰死하였다.

이와 같이 同경찰은 江原—慶北의 道界인 上東—春陽一帶에서 敵을 遲滯케 함으로써 春陽—竹嶺線의 제 8사단(장, 李正一 대령)의 側方을 보호하였고, 10일에는 제 8, 제 9의 兩戰警대대와 行政경찰을 統合한 다음, 새로이 戰列을 整備하여 戰鬪에 任하게 되었다.

非常경비사령관	경무관	尹	明	運
行政參謀	총 경	金	萬	鳳
作戰參謀	총 경	權	五	喆

情報參謀 金 元 職  
 通信參謀 張 秉 遠

部隊名	指揮官	編成內譯
제 1대대	총 경 李 炳 析	原州, 蔚珍 戰警 제 9대대 一部
제 2대대	총 경 曹 圭 洪	春川, 三陟, 江原警察, 戰警 제 9대대 一部
제 3대대	총 경 全 湖 人	旌善, 江陵, 平昌, 戰警 제 9대대 一部
제 5대대	총 경 金 麟 鎬	寧越, 長省, 戰警 제 8대대
제 6대대	총 경 金 斗 用	注文津, 麟蹄, 橫城
獨立大隊	경 장 金 聲 起	洪川, 戰警 제 9대대 一部

(3) 春陽附近的 戰鬪

6월 25일 臨院津에 上陸한 敵 제766부대는 英陽—靑松—春陽方面으로 分進하였는데, 27일 其 一部가 小川面 縣洞里(春陽 東쪽 8km)에 出現하였다.

이날 午後, 安東에서 乃城을 經유하여 春陽에 도착한 我 제25연대 제 1대대(장, 林益淳 中령)는 縣洞里에 敵이 出現하였다는 情報에 接하고 즉시 그곳으로 출동하여 △868(縣洞里 東南쪽 5km)쪽으로 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은 1개중대 규모가 또다시 才山面 縣洞(春陽 東南쪽 14km)으로 侵入하였다.

이에 전날 縣洞里에서 敵을 격퇴하고 春陽으로 復歸한 我軍 제25연대와 縣洞里 東쪽 高地一帶에서 陣地를 구축중이던 慶北警察 基幹戰鬪대대(장, 柳佑澤 中령, 420명)가 縣洞으로 急進하였다.

그러나 敵은 我軍이 攻擊할 것을 미리 探知하였음인지 그때까지 갖은 蠻行과 良民을 수 없이 살해하다가 我軍이 當到하자, △415(縣洞 西北쪽 1km)로 逃走하였다.

이에 我 軍警部隊는 △415 南麓에서 攻擊隊形으로 展開하여 박격포를 비롯 各種重火器의 支援과 함께 일제히 同 高地頂上을 향하여 進擊을 감행한 끝에 29일 未明, 마침내 同 高地를 점령하였으나 敵의 主力은 夜陰을 利用하여 △568(縣洞 東北쪽 2km)로 퇴각하고 나머지 병력은 淸涼山(△894, 縣洞 西南쪽 5km)으로 分散逃走하였다.

따라서 軍警部隊는 즉시 공격방향을 △569로 바꾸어 포위망을 편 다음, 一齊히 공격을 감행한 끝에 敵을 완전히 분산시켰는데 이때에 江原警察 제 5대대(장, 金麟鎬 中령)가 丹陽附近에서 逐次撤收하여 合流하게 됨으로써 戰力이 한층 더 補強되었다.

한편 敵 제 5사단(장, 소장 馬相喆)은 我 제 8사단(장, 李正一 中령)이 江陵에서 大關嶺—平昌—堤川—丹陽線으로 轉進한 뒤, 별다른 抵抗을 받지 않고 三陟을 점거하고 계속 東

海岸을 따라 急速히 南侵하였는데, 8일에는 그들 제766부대가 合勢, 1,300명규모의 兵力으로 一舉에 春陽을 侵奪코자 하였다.

敵은 강력한 砲兵支援下에 金井(西碧 北쪽 5km)쪽으로 主力部隊을 투입한 것으로 보였는데, 때마침 이곳에 配備중인 慶北警察隊가 金井嶺山 西北高地 一帶에서 이들을 阻止코자 하였다.

그러나 同警察隊가 戰力の 劣勢로 말미암아 阻止線을 確保치 못하고 물러서자 敵이 金井에서 西碧을 거쳐 春陽으로 直衝하게 됨으로써, 全 警察兵力이 이를 春陽 北쪽에서 決死 阻止코자 또다시 血戰을 벌였다. 그러나 이 역시 勢 不利하여 9일에 春陽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下午, 我제25연대 제1대대가 急遽 同지역에 進入하여 戰鬥을 벌이게 됨으로써 경찰대는 다시 戰列을 整備하여 同부대의 統合指揮下에 들어가 南下를 企圖하는 敵을 阻止하였다.

이 春陽附近의 戰鬥에서 敵은 UN空軍의 猛烈的 空中爆擊으로 隊伍가 흩어지고, 我軍警部隊의 執拗한 攻撃으로 그들 先頭 侵攻부대는 潰滅되고 말았으며, 사살 80명, 俘虜 15명, 차량과괴 6대를 비롯하여 많은 장비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뒤 江原警察 제5대대는 즉시 隸下 長省署중대(장, 洪命植 경감)를 春陽—長省通路의 東側 高地一帶에, 寧越署중대(장, 李大仁 경감)를 三街里(春陽 東南쪽 7km)와 △834(春陽 北쪽 5km)에 그리고 戰警 제8대대를 春陽—長省通路의 西쪽 고지일대에 各各 배치하고 敵의 재침에 대비토록 하였다.

12일에는 退却한 것으로 보였던 1,000명 규모의 敵이 縣洞驛(春陽 東쪽 9km)으로부터 稜線을 따라 三街里的 寧越署중대를 압박하여 왔으나, 이 또한 我제25연대 제1대대와 合同作戰으로 2시간 동안의 交전끝에 격퇴하였는데, 이 戰鬥에는 寧越署중대가 奮戰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 04.00, 1개연대규모의 敵이 또다시 石觀(春陽 東北쪽 5km)으로 侵襲하였으므로, 春陽—長省街道·兩側에 配備하고 있던 江原警察 제5대대가 이를 맞아 奮戰하였으나 敵勢에 밀려 同警察隊는 安東으로 철수케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春陽附近에서 전투에 任하고 있던 我제25연대 제1대대가 12일에 豊基附近에서 제8사단에 배속 轉換됨으로써 13일을 기하여 同경찰은 乃城으로 철수하였는데,

이 戰鬥에서 警察隊는 敵 28명을 사살하고 2명을 俘虜로 하였으며 탄약을 滿載한 貨物 自動車 1대 및 소총 30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나. 忠州—陰城—尙州地區 戰況 (1950년 7월 7일부터  
1950년 7월 20일까지)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6 사단	장 대령 金 鐘 五	旌善署	장 경감 崔 亨 植	北傀	제12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北傀	제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 2 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榮州署	장 경감 金 士 巖	제 1 사단	장 소장 崔 光			제48연대	장 중좌 金 致 九
제 7 연대	장 중령 林 富 澤	醴泉署	장 경감 南 宇 洛						
제 8 사단	장 대령 李 正 一	尙州署	장 경감 辛 尙 洙						
春川署	장 총경 曹 圭 洪	協同部隊							
忠州署	장 총경 金 大 璧	美제25사단	장 소장 William B. Kean						
三陟署	장 총경 金 斗 用	제24연대	장 대령 Horton V. White.						

(2) 忠州—陰城附近의 戰鬪

敵 제12사단(장, 소장 崔忠國)과 제15사단(장, 소장 朴成哲)은 6월 28일 我軍 제6사단(장, 金鐘五 대령)이 春川에서 물러서자 곧장 뒤를 따라 洪川—原州—長湖院을 거쳐 7월 4일 忠州—陰城線을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陰城地區에는 제6사단 제7연대(장, 林富澤 중령)와 春川署部隊(장, 曹圭洪 총경)가 阻止線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 제7연대 제1대대는 白也里(無極里 南쪽 3km)에, 제2대대는 △644(無極里 東쪽 5km)一帶에, 제3대대는 加葉山(△710, 陰城 北쪽 2km)北麓에 配備하고 있었으며 春川署部隊는 제3대대의 南쪽 加葉山에 布陣하고 있었다.

7일 敵 제15사단은 隷下 제48연대(장, 중좌 金致九)의 戰車와 騎馬隊를 앞세우고 陰城을 目標로 侵攻을 加하여 왔다.

이에 春川署部隊는 加葉山의 방어진지에서 我 제7연대의 진지를 迂回侵透코자 하는 敵을 견제하다가 다음날 제7연대와 함께 甫川으로 철수한 다음, 다시 鎭川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忠州附近에는 제6사단 제2연대(장, 咸炳善 대령)와 忠州署部隊(장, 金大璧 총경)가 相互 긴밀한 협조하에 敵을 阻止하고 있었는데 3일부터 敵의 포탄이 忠州市內에 落下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忠州署部隊는 3개소대로 편성하여 南漢江 沿岸의 新村(忠州 西北쪽 2km)부근과

達川江 東岸의 彈琴台(忠州 西쪽 3km)부근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던 바, 때마침 폭우로 강물이 급증하여 我軍의 재배치에 協力하였다.

5일, 敵 제12사단이 堤川을 경유하여 牧杏洞(忠州 北쪽 4km) 北쪽 南漢江 一帶에서 渡河를 기도하였으므로 我軍警部隊는 이 一帶의 豫想渡河地點을 모두 遮斷하고 敵의 渡河를 極力 저지함으로써 그들의 第1波를 阻止할 수 있었다. 그러나 餘他的 梯波가 9일 04.00를 前後하여 牧杏洞(忠州 北쪽 4km)부근의 渡船場에서 木船을 利用하여 渡河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我軍警部隊는 渡河侵攻한 敵과 牧杏洞—彈琴台線에서 激戰을 벌이다가 水安堡(忠州 南쪽 15km)附近으로 철수하였는데, 忠州를 占據한 敵은 我軍의 뒤를 공격하며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 (3) 竹嶺—尙州 부근의 戰鬪

江原警察은 제 8 사단(장, 李正一 대령)과 함께 丹陽을 거쳐 竹嶺(丹陽 東南쪽 2km)附近으로 撤收한 다음 이곳에서 또다시 敵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즉, 三陟署部隊(장, 金斗用 중령)와 旌善署部隊(장, 崔亨植 경감)는 7월 9일 蓮花峰(△1394, 竹嶺 東北쪽 7km)과 △1363(竹嶺 東北쪽 3km)를 連하는 線에서 무려 4km에 이르는 正面을 담당하여 敵侵에 對備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寧越方面에서 迂回南下한 敵 제 8 사단(장, 소장 吳白龍)의 一部兵力이 竹嶺을 향하여 東北쪽에서 侵攻하였고 丹陽으로부터 南進한 敵 제12사단(장, 소장 崔忠國)은 竹嶺 北쪽에서 侵攻하였다.

이에 三陟署部隊는 軍과 함께 3일간이나 격전을 거듭하면서 竹嶺附近을 堅守하다가 軍部隊와 함께 豊基부근으로 철수하였다.

14일, 竹嶺—蓮花峰을 占據한 敵은 豊基附近에 집결한 뒤 榮州를 目標로 계속 南侵을 기도함으로써 同경찰은 東村里(榮州 北쪽 5km)—安心洞(榮州 西北쪽 5km)—龍岩洞(榮州 西쪽 6km)線에서 防禦하고 있던 我 제 8 사단과 함께 수차례의 격전으로 이들을 격퇴하였다.

20일 밤, 竹嶺—蓮花峰線을 돌파한 敵은 豊基—浮石—順興線에서 榮州侵襲을 企圖하면서 同市街에까지 砲擊을 延伸하여 我軍의 後方을 攪亂하였다.

이에 我軍警部隊는 榮州 北쪽 2km까지 철수하여 저지선을 急編하고 끝까지 榮州를 固守하고자 3일동안의 血戰을 벌였으나 마침내 24일 未明 敵의 戰車隊가 我軍의 阻止線을 突貫하고 榮州邑內에 侵入함으로써, 我軍警部隊는 平恩(榮州 東南쪽 10km)附近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醴泉署부대(장, 南宇洛 경감)는 14일에 豊基附近에서 이곳으로 直衝한 것으로 보이는 300명의 騎馬兵을 先頭로 한 1개연대 규모의 敵과 遭遇하였다. 同署兵力은 醴泉 北쪽 1km에 急進하여 그들의 先頭 騎馬隊를 誘引하면서 肉薄戰을 벌이던中, 다음날 15.00에 이

곳으로 轉進한 美제24연대(장, Horton V. White대령)의 제3대대와 함께 戰鬥을 벌이다가 兵力收拾을 위하여 安東附近으로 撤收하였다. 이와 함께 義城郡 多仁(義城北西쪽 14km)附近에 集結한 醴泉署 管下 5개支署 兵力은, 다음날 醴泉으로 前進한 다음 美軍부대와 合勢하여 敵을 阻止하였고 21일에는 이곳으로 轉進한 수도사단의 제18연대와 함께 同地域을 奪還하였으나 24일에 2개연대 규모의 敵이 大舉 侵攻하함으로써 軍警부대는 다시 이곳을 물러서게 되었다.

이때 西側方의 聞慶附近에는 忠州—水安堡線으로 侵入한 敵 제1사단(장, 소장 崔 光)과 제13兩사단이 鳥嶺—梨花嶺線의 超越을 企圖하였으므로 彼我間에 치열한 攻防戰이 벌어졌는데, 聞慶署部隊는 이곳을 扼守중인 제6사단 및 UN軍과 긴밀한 협조하에 金谷洞(聞慶南쪽 4km)前方에서 戰線의 一隅를 담당하여 敵을 요격하다가 7월 26일부터 侵勢가 더욱 加重됨에 따라 衆寡不敵으로 8월 1일 新基洞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7월 16일 尙州를 目標로 敵 제15사단 先發隊 200명이 槐山郡 延豐面쪽에서 立岩里(化寧場 西北쪽 8km)附近으로 侵透한 다음, 이어서 그 主力으로 보이는 1,000명의 敵이 晝院里(尙州 西北쪽 4km)附近까지 侵入함으로써 尙州署부대(장, 辛尙洙 경감)는 美제24연대와 合勢하여 이들을 化東(尙州 西南쪽 9km)쪽으로 격퇴하였다.

그러나 일단 퇴각한 것으로 보였던 敵은 全戰線에 걸친 侵勢 激化와 때를 맞추어 尙州侵入을 꾀하면서 다시 接近하였는데, 이때 我 軍警은 UN海·空軍의 近接航空支援을 받으면서 連日이들을 猛打하였다.

이밖에도 同署부대는 20일에 愚山里(尙州 西北쪽 6km)附近에 來襲한 敵 150명을 攻擊하여 이를 四散시키고 咸昌附近에서도 敵을 격퇴하였다.

다. 蔚珍—靑松—普賢山地區 戰況 (1950년 7월 5일부터  
1950년 8월 5일까지)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3사단	장 대령 劉 升 烈		戰警제8대대 장 경감 全 星 宇
	장 준장 李 俊 植 (7월 10일부터)		제3중대 장 경감 李 夏 永
제23연대	장 중령 金 宗 元		江原警察제3대대장 총경 全 湖 人
기갑연대	장 대령 劉 興 守		江陵署중대 장 경감 張 相 烈
江原警察제5대대	장 총경 金 麟 鎭		旌善署중대 장 경감 崔 亨 植
寧越署중대	장 경감 李 大 仁		平昌署중대 장 경감 朴 東 憲
長省署중대	장 경감 洪 命 植		戰警제9대대제3중대장 경위 金 芝 洙



江原警察제 6 대대장	총경	金斗用	永川署	장	경감	高尚遠	
蔚珍署	장	경감	朴圭喆	慶州署	장	총경	李康學

敵 軍

北傀	제 5 사단	장	소장	馬相喆	제 549 부대	基幹
	제 766 부대	장	총좌	吳振宇		

(2) 蔚珍—平海附近的 戰鬪

敵侵의 飛報에 接한 蔚珍署長 朴圭喆 경감은 全署員을 1개중대로 편성하여 管内를 固守코자 하였는데, 開戰과 同時에 臨院津附近으로 상륙한 敵 제766부대(장, 총좌 吳振宇)와 제549부대가 太白山脈을 따라 南侵하자 偵察隊를 關門인 蔚珍에 潛入시켰다.

이리하여 蔚珍署中隊는 開戰初부터 到處에서 散發的인 交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敵을 격퇴함으로써 管内의 治安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敵 제 5 사단(장, 소장 馬相喆)의 1개대대가 溫洋里(蔚珍 北쪽 3km)附近에 上陸하여 蔚珍을 向하여 攻擊하였기에 부득이 이곳에서 물러서게 되었으나 때마침 我 제23연대가 6월 29일 13.00를 前後하여 치음동(蔚珍 南쪽 4km)에 도착함으로써 軍警部隊는 치음동—白玉山(蔚珍 南쪽 5km)線에서 戰列을 갖추고 敵을 遡擊케 되었다.

軍警合同부대는 제23연대장 金宗元 중령의 指揮下에 蔚珍을 탈환키 위하여 7월 1일 未明을 期하여 총공격을 加하여 일시 蔚珍을 奪還하였으나 이날 11.30, 蔚珍 北쪽 1km地點에서 砲兵을 同伴한 2개연대 규모의 敵이 我 제23연대 제 2 대대 진지(蔚珍 西쪽 2km)의 東南쪽으로 急襲하함으로써 我 軍警部隊는 24시간동안의 격전끝에 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UN空軍의 誤爆으로 말미암아 其 地域을 철수치 않을 수 없게 되어 2일 새벽 平海로 물러섰다.

한편, 이날 14.00 溫井(平海 西쪽 5km) 支署附近에 位置하고 있던 軍警部隊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을 맞아 交戰을 벌인 끝에 6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我 軍警의 決死的인 阻止로 侵攻이 如意치 못하자 3일에는 東海岸으로 指向한 敵 제 5 사단의 일부가 그들 제766부대 및 제549부대와 合勢하여 平海—溫井里線의 我 軍警部隊를 侵攻하였다.

즉, 이날 24.00에 600명 내외의 敵이 箕城面(平海 東北쪽 5km)쪽에서, 다른 敵 500명은 鶴谷里(平海 南쪽 3km)쪽에서, 그리고 또다른 敵 100명은 溫井里쪽에서 三面으로 同時에 侵攻함으로써 我 軍警部隊는 不時에 敵의 포위網속에 陷入케 되었으나, 이때 平海—溫井里線의 南大川 堤防에 堅固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我 軍警部隊가 寸步도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溫井里쪽의 敵을 攻擊하자 敵 또한 可用한 모든 火力을 我陣地에 퍼부었다. 이리하여

彼我間에 激戰이 벌어졌으나 결국 敵勢에 밀려 6일 08.00에 柄谷(寧海 北쪽 4km) 附近으로 철수하였다.

그 뒤 蔚珍署중대는 蔚珍奪還의 一念에 가득차 이날 午後부터 敵情을 탐지하기 위하여 七寶山(寧海 北쪽 10km)쪽으로 搜索隊를 派出하였으나 예마침 七寶山에 配置된 제23연대 獨立大隊로부터 敵으로 誤認되어 몇사람의 부상자를 내고 原隊로 복귀하였다.

이 밖에도 柄谷을 中心으로 몇차례의 搜索戰을 렸으나 별다른 接敵이 없는가운데 12일에는 平海와 寧海를 거쳐 盈德으로 철수함으로써 江原道 一圓은 完全이 敵의 掌中에 들어갔다.

### (3) 靑松 附近의 戰鬥

7월 19일 敵 제 5 사단(장, 소장 馬相詰)과 제766부대 一部가 合勢한 1개연대규모의 병력이 英陽을 侵奪한 뒤, 그 가운데 1개대대가 新村洞(靑松 北쪽 8km)을 거쳐 月外洞(靑松 東쪽 7km)과 梨田洞(靑松 南쪽 12km)에 出現하였다. 이때에 靑松에는 南下하는 敵에 對備하여 江原警察 제 3 대대의 2개중대가 布陣하고 있었는데, 20일 03.00, 同敵의 侵攻으로, 一迅 義城附近으로 철수하였다가, 이날 19.00를 期하여 반격을 감행, 다음날 새벽에 靑松을 奪還함으로써 敵은 土坪洞(靑松 南쪽 9km)方面으로 퇴각하였다.

22일 09.00, 月外洞으로부터 梨田洞附近에 集結한 敵은 地方暴徒들과 合勢하여 1,400명 규모의 兵力으로 松生洞을 경유, 점차 靑松을 압박하는 한편 14.00에는 其 先發隊 約 2개중대가 靑松에 侵入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기갑연대 裝甲車의 포격으로 敵은 梨田洞부근으로 도주하고 靑松을 계속 警察隊가 확보하게 되었다.

28일 06.00에는 靑松附近에 配備중인 我軍(機甲聯隊)과 警察隊가 梨田洞을 根據로 하여 靑松부근에 出沒하는 敵을 공격하여 다음날 05.00까지 이들을 普賢山方面으로 驅逐하였다.

한편 7월 14일 安東에서 再編한 江原道 경찰비상경비사령부 管下 6개대대가 제 3 사단(장, 李俊植 준장)에 배속되었다. 그 중 제 5 대대(장, 金麟鎬 총경) — 寧越署중대, 長省署중대, 戰警제 8 대대로 編成—는 19일, 사단 作命에 依하여 靑松을 中心으로 한 主補給路를 경비하다가 21일 機甲연대에 再配屬되어 대대 指揮所를 眞寶里(靑松 北쪽 8km)로 移動하고 隸下 長省중대(장, 洪命植 경감)를 化川洞(英陽 東쪽 8km)에, 寧越署중대(장, 李大仁 경감) 및 戰警제 8 대대를 臨東面(英陽 西北쪽 7km)에 각각 配置하여 英陽쪽에서 侵入하는 敵에 對備하였다.

그러나 敵이 險峻한 山岳을 利用, 迂回侵攻을 기도하므로 同 대대는 交戰을 회피하면서  $\Delta 477$ (英陽 南쪽 7km)로 撤收하였다가 敵이 다시 同 高地를 侵襲하자 이날 밤 夜陰을 利用하여  $\Delta 406$ ( $\Delta 477$  南쪽 6km, 眞寶里)로 다시 물러섰다.

따라서 江原警察 제 5 대대는  $\Delta 406$ 一帶의 陣地를 계속 固守하면서 수차례의 격전을 거듭

하였으나 24일 새벽 敵이 靑松 外廓線一帶에 散在한 兵力과 合勢하여 侵攻을 加함으로써 끝내 我 警察隊는 그들의 侵鋒을 꺾지 못하고 同 高地에서 石保面(靑松 東北쪽 9km)一帶의 英陽—盈德街道 北麓으로 철수하여 戰警 제 8대대 제 3중대(장, 李夏永 경감)를 院前(靑松 東北쪽 13km)에 配置, 盈德方面의 敵侵에 對備토록 하고 寧越 및 長城畝중대는 石保面一帶에서 英陽쪽의 敵을 警戒토록 하였다.

26일에는 △406를 占據한 1개연대규모의 敵이 江原警察 제 5대대의 제 1(寧越) 및 제 2(長省)중대 正面과 院前的 제 8대대 제 3중대 前方으로 接近하였다.

이에 同대대는 이날 11.00를 期하여 기습공격을 감행, 敵을 일단 저지하였으나 뜻밖에도 다음날 새벽 UN空軍의 誤爆으로 李春成 경위를 잃고 7대의 車輛을 비롯, 많은 補給品을 燒失하는 不祥事를 빚었다.

그러나 28일 07.00에 石保面 前方의 敵이 병력을 증강하여 경찰 제 5대대의 제 1 및 제 2중대 正面으로 侵攻하자 同 경찰대대는 제 3중대(장, 李夏永 경감)가 事전에 占領하고 있는 月田(靑松 北쪽 11km) 東北쪽 高地一帶로 誘引, 섬멸코자 하였다.

따라서 △406에 侵入한 敵은 30일 未明을 期하여 1개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261(靑松 北쪽 13km)와 月田洞 北麓의 我 軍警陣地를 再侵攻하였다.

이에 江原警察 제 5대대는 安東으로부터 來援한 機甲연대 裝甲車소대와 竝行攻擊을 加하여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였으나 마침내 8월 1일 戰警 제 8대대 右翼중대인 제 3중대가 제 1중대의 側後方으로 철수하자 敵은 同 대대陣地 右翼을 따라 背後를 위협하는 한편 正面 侵攻을 加하였다. 이에 따라 2일 17.00, 我 軍警은 衆寡不敵으로 △261高地에 배치중인 機甲연대 1개대대를 眞寶里로 철수케 하고 裝甲소대와 警察제 5대대는 月田里 附近으로 철수 各各 陣地를 구축하였으나, 이날 20.00에 敵이 月田洞—眞寶里(靑松 東北쪽 7km)線까지 侵入하여 綫을 따라 我 主抵抗線 前方에 近迫하였다.

이에 我 軍警部隊는 이날 21.00를 期하여 기갑연대는 飛鳳山(△671, 月田 南쪽 3km)과 △375(月田 西南쪽 5km)로 警察隊는 △605(月田 南쪽 6km)와 高현동(月田 南쪽 3km)으로 各各 철수하여 다시 敵侵에 對備하였다.

3일에도 敵은 侵勢를 멈추지 않고 그 主力部隊로 하여금 月田으로부터 眞寶里를 占領한 뒤 飛鳳山을 우회하여 我 軍警陣地를 攻擊토록 하는 한편, 또 다른 一團으로는 靑松을 目標로 侵攻케 하였다. 이에 △375—飛鳳山—高현동—△605線에서 戰列을 정비한 軍警部隊는 反擊으로 出血을 強要하였으나 敵은 이날 밤 一部兵力으로 我軍 阻止線을 突貫한 뒤 포위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我軍은 또다시 不時에 敵의 포위망에 陷入되었으나 西側方의 기갑연대와 寧越 畝중대의 決死的인 奮戰으로 겨우 退路를 開拓하여 安東郡 吉安面(靑松 西쪽 10km)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松江(靑松 北쪽 6km) 地域을 掌握한 敵은 飛鳳山附近에서 侵入중인 다른 병력과 合勢하여 마침내 5일에는 靑松을 占據하였는데, 그때까지 同地域에 위치하고 있던 我軍 警部隊는 모두 吉安面으로 철수하였다.

이 戰鬪에서 警察 제 5대대는 戰死 4명, 負傷 10명, 失蹤 4명의 손실을 보았으며 많은 장비와 보급품을 잃었다.

이날 午後, 吉安面 一圓으로 철수한 江原警察隊는 機甲연대와 함께 靑松을 奪還코자 進擊하였으나 도리어 敵이 九水洞(靑松 西쪽 11km)線에서 強力한 저지선을 형성하고 我軍 警部隊를 포위코자 하였다.

이에 我軍은 北西쪽에서 압력을 가하는 1개연대 규모의 敵을 먼저 警察部隊로 하여금 전제토록 하면서 機甲연대가 敵의 포위망을 돌파토록 하였으나 3시간 동안의 血戰끝에 逆包圍의 難境속에 빠짐으로써 끝내 軍警部隊는 많은 車輛과 補給品을 燒却한 뒤 各個分散하여 義城쪽으로 撤收하였다.

이 戰鬪에서 警察은 監察主任 黃虎岩 경위를 잃었으며 대대장 全星宇 경감 外 20명이 落伍되었다가 간신히 血路를 찾아 原隊에 복귀하였다.

그뒤 同警察隊는 慶州에서 兵力을 收拾整備한 다음, 洛東江線防禦의 一翼을 담당하였다

#### (4) 普賢山 附近的 戰鬪

東海岸을 따라 南侵中이던 敵제 5사단의 일부는 7월 9일에 蔚珍附近的 海岸으로 侵透한 그들 제766부대와 合勢하여 奉化—英陽—靑松線의 太白山脈을 타고 侵入한 뒤, 九岩山(△807, 靑松 南쪽 25km)과 普賢山附近에 根據를 둔 在山共匪들과 連繫를 企圖하였는데 그 兵力이 1,300명으로 推算되었다.

이들은 주로 靑松—永川—慶州—義城等地를 遊動하면서 我軍의 後方地域을 攪亂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한편 그들 本隊의 侵攻을 支援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普賢山을 포함한 東部戰線一帶를 담당하고 있던 제 3사단은 당초 일부병력으로 이 敵을 剔抉코자 하였으나 盈德地區 戰況이 더욱 緊迫하여 부득이 普賢山 부근의 作戰은 警察隊로 하여금 이를 담당토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江原경찰비상경비사령부 예하에 들어간 慶北警察隊의 一部는 各 地方警察隊와 協力하여 道坪(普賢山 北쪽 15km)과 永川 一帶에서 敵 유격대와 在山共匪들을 격멸중에 있었다.

즉 11일 20,00, 鐵警 永川支隊로부터 『古鏡面(普賢山 西南쪽 10km)一帶에서 敵 200명이 永川을 向하여 南下中』이라는 諜報를 入手한 永川署部隊(장, 高尚遠 경감)는 즉시 현지로 출동하여 鐵警永川支隊와 合勢, 이를 격퇴하고 13일 15.00에는 北安面(永川 東南쪽 10km)을 거쳐 新溪洞(慶州 西南쪽 15km)에 侵入한 80명의 敵을 慶州署部隊(장, 李康學 中경)가

文福山(△1014, 彦陽 西北쪽 20km)附近에서 포위, 3시간동안의 交戰 끝에 40명을 살상하고 많은 小銃과 1,000여발의 탄약을 노획하였다.

한편 14일, 安東에서 再編한 江原경찰비상경비사령부는 그중 제 3대대(장, 全湖人 총경)를 靑松 부근으로 轉進토록 하였는데, 대대는 다시 江陵署중대(장, 張相烈 경감)를 放光山(△518, 靑松 北쪽 2km)에, 旌善署중대(장, 崔亨植 경감)를 九山洞(普賢山 西北쪽 10km)에, 平昌署중대(장, 朴東憲 경감)를 松江(靑松 西北쪽 6km)에, 그리고 戰警 제 9대대 제 3중대(장, 金芝洙 경위)는 槐亭洞(靑松 東北쪽 7km)에 各各 배치하고 대대指揮所는 靑松에 두었다.

또한 江原警察 제 6대대(장, 金斗用 총경)는 지휘소를 九旨洞(杞溪 西北쪽 5km)에 두고 管内의 각 경찰支署兵力을 動員하여 亭子里(普賢山 東南쪽 12km)一帶에 主力을 배치하고 盈德쪽에서 南下하는 敵과, 普賢山—雲住山線에서 逃走하는 敵을 격멸코자 하였다.

14일 11.00, 江原警察제 3대대 旌善署중대가 防禦中인 道坪洞(普賢山 北쪽 13km)에 敵遊擊隊 200명이 出現하여 吉安川(洛東江 支流, 道坪洞 西쪽 5km)을 渡河하려고 하자 同警察중대는 즉시 吉安川 東岸에 猛烈한 射擊을 加하였다.

그러나 敵은 조금도 攻勢를 늦추지 않고 도리어 後續部隊 1,500명과 함께 各種重火器의 支援을 받으면서 三面에서 旌善署중대를 포위侵攻하였다.

이에 同警察중대는 3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간신히 敵의 포위망을 빠져나와 △564(道坪 北쪽 2km)로 철수하였다.

같은날 15.00, △564에서 부대를 정비한 旌善署중대는 道坪洞을 向하여 一齊히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亦是 寡兵이었기에 끝내 道坪洞을 탈환하지 못하고 16.00를 期하여 靑松으로 물러섰다.

靑松으로 철수한 旌善署중대는 15일 11.00, 平昌署중대와 戰警제 9대대 제 3중대의 增援을 받으면서 道坪洞 東南北쪽의 高地一帶로 進出한 뒤 側面攻撃을 加하여 1시간 동안의 치열한 交戰 끝에 敵을 月梅洞(道平洞 南쪽 6km) 부근으로 격퇴시키고 마침내 道坪洞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退却한 것으로 보이던 敵이 19.00를 前後하여 또다시 侵攻하여 왔다.

이에 江原警察 제 3대대는 각 중대(旌善, 平昌, 戰警 제 9대대 제 3중대) 별로 道坪洞을 철수하여 旌善署중대를 道坪 東北쪽 高地에, 平昌署중대와 戰警제 9대대 제 3중대를 道坪 西北쪽 高地一帶에 各各 配置하고 接近하여 오는 敵에 對하여 猛烈한 射擊과 反擊으로 맞섰으나 그들은 被害를 무릅쓰고 警察陣地를 向하여 繼續 肉迫함으로써 2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警察隊는 府南(道坪 東北쪽 4km)附近으로 철수하였다.

府南으로 물러선 江原警察 제 3대대는 18일, 搜索作戰中 敵 20명을 發見하고 이들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數分뒤에 또다른 敵 300명이 同警察隊의 後方을 차단하고 逆包圍함으로써

警察대대는 危機에 直面하였다.

그러나 同 대대는 2시간 동안의 果敢한 應戰으로 13.00에는 完全히 包圍網을 돌파하여 全 대대가 道坪洞쪽으로 反擊을 加하여 다시 이를 確保하였다.

그뒤 대대는 旌善營중대를 道坪洞에 卞昌營중대 및 戰警제 9 대대 제 3 중대를 松江과 槐亭에 다시 進出시켜 계속 敵侵에 對備토록 하였다.

24일 17.00, 警察제 3 대대의 旌善중대는 800명의 敵이 印支洞(道坪 西北쪽 1km)에 侵入 新谷嶺(새거재, 道坪 西南쪽 1km)으로부터 文居嶺(道坪 西南쪽 2km)에 이르는 線에서 陣地를 구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기습, 19.00를 前後하여 開日里(道坪洞 南쪽 4km) 方面으로 驅逐하였다.

25일, 道坪洞—九岩山 線의 山岳地帶를 遊動하던 敵 유격대 일부가 各개분산한 다음, 隣近 民家에 侵入하여 食糧을 약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入手한 江原 警察 제 3 대대 旌善중대는 즉시 이를 추격 분산시켰다.

27일 17.00에는 九岩山과 普賢山에서 徘徊하고 있던 敵 遊擊隊 1,500명이 내어支署(雲住山, 東北쪽 5km) 附近 高地를 侵襲코자 하였다.

이에 同 高地를 確保하고 있던 江原警察제 6 대대(장, 金斗用 中령)가 前哨戰을 계속하였으나 劣勢에 밀려 九旨洞(杞溪 西北쪽 5km)附近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1.00, 내어洞을 掌握한 敵이 普賢山쪽으로 移動함에 따라 警察 제 6 대대는 내어支署를 다시 占據하고 主力을 迎日郡 竹長面과 杞溪面의 境界線에 配置하여 다시 敵侵에 對備하였다.

30일 11.00, 文居洞(道坪洞 西南쪽 2km)에서 敵 500명이 縣洞支署를 侵襲하였다. 이에 道坪洞에서 防禦에 任하고 있던 旌善중대가 이를 기습하였는데, 敵은 唐慌하여 開日里(道坪 南쪽 4km)쪽으로 다시 退却하였다.

8월 5일 警察隊는 普賢山을 가운데 두고 九山洞—道坪洞—月梅洞—九岩山—雲住山—上松洞(普賢山 西南쪽 6km)—沙村洞(普賢山 西北쪽 7km)을 連하여 포위망을 형성하고 我 제 1 유격대(장, 鄭 震 소령)와 함께 最終的인 攻擊을 加하여 마침내 普賢山 頂上을 占領하였으며 浦項地區 海軍陸戰隊는 九岩山附近의 在山共匪들을 완전 소탕하고 △807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普賢山 부근의 제 1 차작전이 終了되었으나 이때까지도 同 山 주변에는 4,000명 내외의 殘敵이 蠢動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에 따라 忠南道 경찰비상경비사령관은 參謀長 白舜基 총경이 直接 掌握하고 있던 忠南局 直屬대대에서 100명을 차출하여 大田—永同間의 鐵道를 警備케 하고, 6일에는 同 대대의 다른 兵力 100명으로 하여금 沃川 및 大田의 外廓警備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또다른 兵力 100명을 新灘津附近에 配備하였다.

11일에는 戰況이 더욱 악화되어 錦江線이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警察은 治安命令 제79호를 下達하여 忠南地方에 집결한 병력으로 2개의 전투대대를 편성하고 錦江 西南部에 배치, 敵을 저지토록 하였다.

즉 忠南警察 300명과 서울경찰 200명(鍾路署 1개중대 포함)으로 제 1대대(장, 尹錫烈 총경)를 편성하여 靑陽에 配置하고, 京畿警察 300명과 混成兵力 200명으로 제 2대대(장 李晚欽 총경)를 編成하여 鴻山(扶餘 西南쪽 15km)에 配備하여 軍과 긴밀한 協調下에 靑陽—大川線으로 南侵하는 敵을 阻止擊滅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11일 09.00, 제 1대대장 尹錫烈 총경은 靑陽으로 轉進, 이곳에 大隊本部和 제 1중대를 位置케하고 제 2중대는 定山(靑陽 東쪽 15km)에 그리고 제 3중대는 大川에 各 各 배치하여 이 地域을 堅守코자 하였으나 溢出하는 敵侵으로 말미암아 禮山과 洪城이 그들의 掌中에 들어가게 되고, 同地域의 경찰兵力이 철수하게 됨으로써 洪城—大川間에는 空白狀態가 되고 말았다.

또한 제 1대대 本部가 位置하던 靑陽에도 憲兵 100명만 殘留하였을 뿐 國軍과 UN軍이 새로운 防禦線을 형성하기 위하여 錦江線으로 逐次 撤收하였으므로 同 대대는 孤立無援의 狀態에서 靑陽—大川間을 防守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12일 重武裝한 700명의 敵이 靑陽의 同 대대를 侵攻하였는데, 그들은 이곳을 一舉에 掌中에 넣고 西海岸을 따라 南進코자 하였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接한 忠南道警察非常警備司令部는 다음날 錦江線防禦 兵力中 新灘津에 配置된 병력을 제외한 200명으로 忠南局特警隊(장, 洪仁出 경감)를 急編하여 03.00에 急遽 靑陽으로 轉進케하여 戰警 제 1대대를 支援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뜻밖에 赴援軍을 맞게된 제 1대대는 士氣가 高揚되어 見敵必殺의 鬪魂으로 戰列를 다시 가다듬게 되었고, 이날 아침에는 후퇴하였던 洪城署(장, 朴憲教 경감)兵力이 復歸하여 合勢하였다.

다음날, 敵의 偵察隊인 듯한 一團이 靑陽附近에 진출하자, 그들의 本隊가 未久에 靑陽을 侵攻할 것으로 推斷한 同 警察隊는 靑陽北方에 대한 搜索活動을 강화하였는데, 이날 正午, 雲谷面(靑陽 北쪽 10km)一帶에 位置하고 있던 제 1대대 제 1중대 제 1소대가 『禮山方面에서 敵先發隊가 南下中』이라는 情報를 入手하고 對備하다가 雲谷支署員과 協同하여 近接하는 이들을 逆擊함으로써, 20명을 俘虜로 하였다.

또한 이때에 同 대대 제 1중대장은 또 다른 병력 80명을 帶同하고 敵情 수집차 山城里(靑



陽 西北쪽 7km)에 出陣하여 長谷面 竹田里(靑陽 西北쪽 10km)附近에 侵入한 敵 1개소대 병력과 치열한 交戰 끝에 俘虜 5명, 電話器 2대를 노획하고 地方共匪 2명을 사살하였다.

한편 戰警 제 2대대에 編入되었던 鐵警 天安支隊는 鐵警 長項支隊員 20명과 함께 大川 부근의 敵情을 수색하기 위하여 14일 大川으로 向하였는데, 이곳 南쪽 長峙附近에서 敵 5개중대와 격돌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敵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하고 全員 전사하였다.

이에 제 1대대장 尹錫烈 총경은 大川地區를 收復하고자 다음날 10.00에 제 1중대원 130명을 직접 지휘하여 大川으로 進擊하였다. 16.00에 同 중대는 強行軍으로 大川 東쪽 능선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食事中인 敵 一團을 捕捉하고 이를 포위 공격함으로써 不意에 기습공격을 받은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미처 應戰도 해보지 못하고 支離滅裂되었다.

이리하여 戰警 제 1중대는 이곳에서 敵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俘虜로 하는 한편 大川 人民委員長과 自衛隊 幹部等 地方共匪 40명을 사살하였으며 無電器 1대, 小銃 8정, 實彈 2상자 그리고 TNT 3상자를 鹵獲하는 많은 戰果를 올렸으나 곧 後續키로 된 제 2중대가 來到치 않아 計劃에 蹉跎을 빚게 됨으로써 敵의 역습을 감당치 못하고 靑陽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대대장과 함께 제 1중대가 靑陽의 大隊本部에 歸還하였을 때인 17일 02.00에는 이미 靑陽一帶마저 敵의 掌中에 들게 되었고, 靑陽警察署를 비롯 隣接 各警察署가 모두 後退한 뒤여서 同 警察隊도 부득이 礪山(江景, 東南쪽 13km)으로 撤收하였다.

이때 洪仁出 경감이 指揮하는 忠南局 直屬 特警隊는 이와 같은 戰勢의 退潮에 따라 舒川으로 轉進하여, 이보다 앞서 이곳에 集結한 公州—靑陽—保寧—洪城—唐津—瑞山 등의 忠南局 各署混成兵力 200명과 더불어 舒川 北쪽 高地一帶에서 阻止線을 펴고 있었는데, 群山地區 海軍警備府(사령관 金鍾琪 소령)의 作命에 依하여 庇仁(舒川 西北쪽 10km)附近에 侵襲中인 敵 1,500명을 阻止케 되었다.

이에 同 警察隊는 敢然히 敵의 背後에서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西側方을 挾擊하여 그들을 混亂케 한 다음, 數個梯隊로 나누어 봉격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寡兵으로 衆敵을 破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滅敵의 氣概는 드높았지만 敵勢가 너무도 頑強하여 결국 17일 07.00를 期하여 錦江을 건너, 群山으로 물러섰다.

19일 23.00, 同 特警隊는 다시 黃登(裡里 北쪽 7km)으로 轉進하여 이곳을 유린하고 一路 南下中인 1,000명의 敵과 遭遇하였는 바, 咫尺을 分揀할 수 없는 暗黑속에서 優勢한 敵의 火力이 集中되는 가운데에서도 5時間이나 奮戰하여 30명을 射殺함으로써 敵의 肝膽을 서늘케 하였다.

그러나 이때 그들의 機械化部隊가 同 敵에게 尙勢하여 奮戰中인 特警隊를 포위코자 하였다.

이에 敵前에서 陣頭指揮하던 洪仁出 경감은 「우리의 참된 使命을 이룩할 때는 왔다. 전

원 나를 따르라.』라는 號令과 함께 빗발치듯하는 敵의 彈雨를 헤치고 飛虎같이 敵陣에 뛰어 들자, 이를 본 全隊員은 士氣 衝天하여 일제히 隊長의 뒤를 따라 敵陣으로 돌격하였다.

그러나, 血戰 6시간 만인 20일 05.00, 마침내 59명의 隊員은 力盡하여 碧血로 黃登山野를 물들이고 壯烈한 最後를 마쳤다.

### (3) 江景—裡里附近의 戰鬥

警察은 軍의 作戰을 補助하기 위하여 錦江線 流域에 있는 永同—沃川—新灘津—大平—公州—江景—長項 等地的 小都市를 連하여 兵力을 分進, 敵을 阻止하였으나 그들 제 6사단의 一部로 보이는 兵力이 天安에서 長項線 沿邊으로 南下하여 舒川에 突入함으로써 먼저 長項과 群山이 危機에 直面하였다.

錦江 於口의 長項은 作戰上 要關으로서 이곳이 敵의 手中에 들어가면 近接한 群山도 威脅을 받게 되는 곳이었다.

17일, 群山警察署(장, 玄圭柄 총경)에서는 機先을 제압코자 署員 50명과 後退한 忠南警察隊를 動員하여 我 海兵 제 1대대(장, 高吉勳 소령)와 함께 長項에 布陣, 敵의 侵襲에 對 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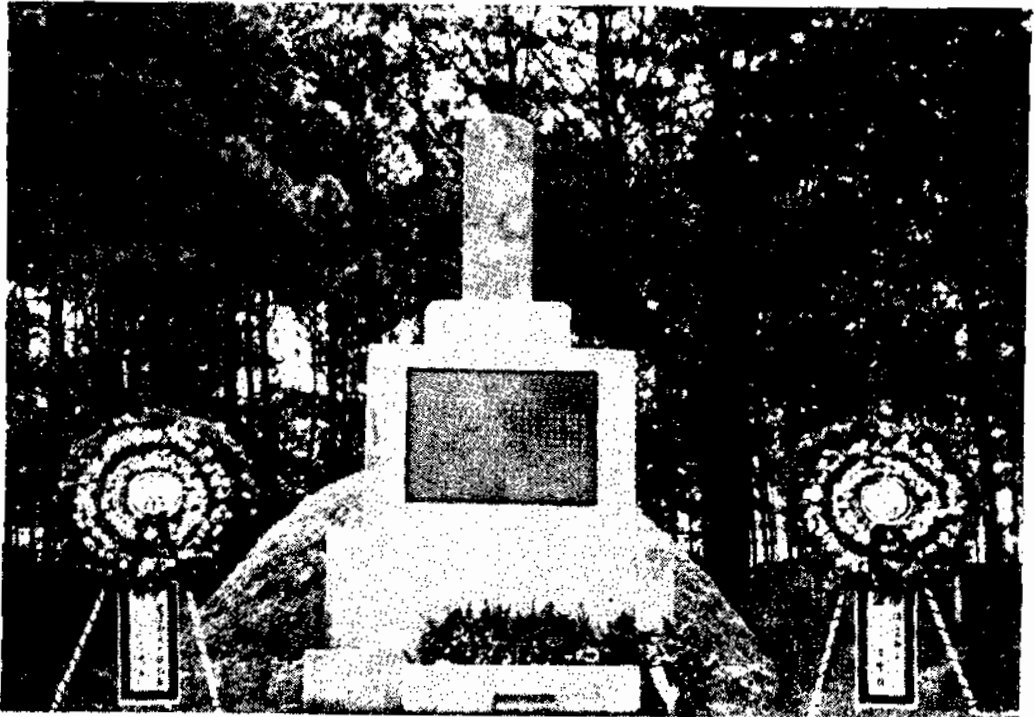
그러던 중 이날 10.00, 先遣部隊로 보이는 200명의 敵이 長項에 侵入하였다. 이에 軍警部隊는 이들을 기습하여 2시간동안의 격전끝에 敵을 격퇴하고, 사상 20명, 俘虜 3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날 下午에 後續한 그들 主力부대가 退却한 것으로 보인 兵力과 合勢하여 다시 侵攻하여 왔으므로 同경찰은 15.00까지 奮戰하다가 이곳을 물러나서 裡里附近으로 移動하였다.

江景署員의 奮戰과 玉碎: 한편 江景署長 鄭成鳳 경감을 비롯한 全署員은 『重武装한 北傀軍이 江景을 목표로 大舉 南侵中』이라는 情報에 따라 15일 10.00에 全州로 移動하여 捲土 重來를 꾀하면서 이날 밤을 豊南국민학교 校庭에서 지냈다. 다음날, 『江景에는 아직 敵의 主力이 當到하지 않았다.』라는 通報에 따라 鄭署長은 即時 江景에 復歸하기로 決心하고 7시간동안의 戰鬥訓練을 실시한 다음, 17.00에 自身이 앞장서서 署員을 이끌고 全州를 出發하여 5시간의 強行軍끝에 同邑內에 突入하였다.

連日 거듭된 野戰行動으로 全署員은 疲勞困憊하였지만 그래도 管內를 끝까지 死守하겠다는 굳은 決意에 차있었다. 邑內에 들어서자 마자 鄭成鳳署長의 嚴命에 따라 全署員은 재빨리 要地와 주변의 유리한 高地를 점령하고 머지않아 있을 敵侵을 豫期하면서 索敵에 任하였다.

그 결과, 邑內를 徘徊中이던 地方共匪 5명을 檢擧하고 17일 03.00에는 江景邑 城東橋에서 正體不明의 武装怪漢 10명을 붙잡아 그들의 身元을 확인하였던 바, 그들은 大韓遊擊隊



〈論山에 세워진 戰歿 경찰관 合同墓碑〉

員證을 提示하면서 『우리는 南侵傀儡軍에 抗戰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鄭署長은 이를 그대로 믿고 그들로 하여금 署員과 行動을 함께하도록 許容하였다.

그런데 後日에, 그들의 正體가 敵의 偽裝偵察隊임이 밝혀졌는데, 當時 鄭成鳳署長으로서 는 그들이 疑心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너무도 兵力이 아쉬운 艱박한 狀況이었기 때문에 我軍의 戰力에 보탬이 될까하여 경찰대와 함께 索敵活動에 任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推斷된다.

그러나 그들은 我軍의 作戰計劃 및 暗號사용법까지 熟知하고 있었다하니 敵이 我軍의 本陣 속에 위치할 格이 되고 말았다. 그뒤 이 偽裝偵察隊員들은 그들 主力부대와 內通하면서 경찰대의 連絡網을 끊고 虛偽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我軍으로 하여금 狀況을 誤判토록 하였다.

즉, 당시 論山 光石(論山 北쪽 5km)쪽에서 南下中인 1,000명의 敵主力部隊가 江景包圍를 企圖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其 數조차 數명에 불과하니 明日 총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警察隊를 그들의 포위망 속에 빠지게 하였다.

드디어 이날 14.00, 그들의 一團이 邑事務所 屋上에 은밀히 据置한 蘇製 重機關銃으로 邑內의 要所에 集中射擊을 加하자 미리 四周를 包圍하고 있던 敵은 이를 信號로 하여 일제히 侵攻을 개시하였다.

이때 비로소 敵의 弄奸에 속을 것을 깨닫게 된 鄭成鳳署長을 비롯한 全 署員은 本署周邊에 防禦陣地를 急編하고, 抗戰하였으나 事態는 이미 기울어지고 말았다.

血戰 18시간 끝에 彈藥마저 消盡되었고, 全署員은 退路를 찾코자 肉薄戰까지 감행하였으나 끝내 無爲로 돌아가고 18일 11.30에 鄭成鳳署長을 비롯하여 83명의 全署員이 敵의 火網속에서 壯烈하게 玉碎하였다.

敵은 18일 未明을 期하여 江景을 占據하고 이어서 2,000명 규모로 增強하여 龍安(江景西南쪽 5km)—望城里(江景 南쪽 4km)를 侵攻하였다.

이때 同地域에 配備中이던 全北警察 제 1 및 제 3대대 兵力 700명과 격돌하게 되었는데, 同 兩個大隊는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반격을 시도함으로써 惡戰苦鬪 15시간만에 이를 격퇴하고 다시 忠南경찰대와 合同하여 江景署를 奪還, 示威行列을 벌임으로써 警察健在를 誇示하기도 하였는데, 이 戰鬥에서 全北 및 忠南警察隊는 敵 35명을 射殺하고 많은 小銃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7월 19일, 論山方面으로 퇴각하였던 敵이 兵力을 다시 收拾, 1개사단 규모로 皇華(江景 東南쪽 8km)쪽으로 再侵하였는 바, 이곳의 全北 警察 제 1대대 兵力 350명이 이를 맞아 奮戰하였으나 끝내 衆寡不敵으로 이날 14.00, 江景—龍安線을 물러서고 말았다.

따라서 敵은 龍安에서 다시 裡里를 侵攻코자 함인듯 同경찰대를 追尾하다가 阻止線을 突貫하고 계속 南下하였는데, 그때마다 경찰의 遲延作戰으로 敵 또한 많은 出血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戰力損失에도 불구하고 執拗하게 侵攻을 계속하여 마침내 裡里에 肉迫하였다. 이리하여 同地域을 防守하고 있던 全北경찰대와 또다시 攻防戰이 展開되었는데 이때 同 경찰대는 建制를 維持하면서 果敢한 先制攻擊으로 敵의 市內侵入을 極力 阻止하였으나 끝내 敵의 優勢한 火力으로 이곳을 支撐하지 못하고 18.00를 前後하여 同 警察隊는 參禮(裡里 東쪽 13km)쪽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이때 裡里署長 李秉禧 中경은 管下 全 署員과 함께 同地를 決死固守할 것을 다짐하고 市街戰까지 展開하면서 力戰奮鬪하였으나 全北 경찰대가 參禮로 물러서게 됨으로써 同 경찰도 裡里를 물러나게 되었다.

19일 19.00에는 西海岸地區戰鬪司令官 申泰英 소장이 요청하였던 全南警察 1개대대가 도착하여 이곳에서 全北警察隊와 合勢하게 되었으며 落伍兵力 100명도 配屬되었다. 이리하여 戰力の 增強을 보게된 同 警察隊는 다시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不幸히도 UN空軍의 誤爆으로 말미암아, 22.00, 이곳 參禮를 철수하여 東山(參禮 南쪽 5km) 北쪽 稜線一帶에서 萬頃江을 끼고 다시 衝突케 되었다.

한편 美제 24사단의 要請에 의하여 新灘津의 鐵橋를 中心으로 錦江南岸堤防 一帶에 配置한 京畿道富平경찰대대(장, 金德淳 中경)는 13~17일 19.00까지의 期間에 敵의 偵察隊와

3 次에 걸친 交戰 끝에 이를 擊退하고, 陸本으로부터 派遣된 連絡將校 조용집 중위의 通報에 따라 19일 12.00에 永同을 向하여 撤收하였다.

永同에서 兵力을 收拾한 同경찰은 憲兵副사령관 李益興 대령과 京畿道 非常警備사령관 李夏榮 경무관의 指示에 따라 23일까지 秋風嶺地域의 防守에 任하다가 27일에 大邱로 撤收하여 次期作戰에 對備하였다.

이와 함께 萬頃平野의 “창이”地域에서 作戰中인 全北本部대대(장, 奇宇大 경감)는 敵의 侵勢에 밀려 21일 02.00에 全州로 撤收한 다음, 이곳을 固守코자하였으나 全北地區戒嚴司令部의 命令에 따라 南原으로 撤收하였는데, 다시 全北非常警備司令部 尹箕柄 경무관의 復歸命令에 따라 이날 13.00에 全州에 進出하여 警察局을 死守코자 하였다.

그러나 地方共匪와 合勢한 300명의 敵과 熾烈한 戰鬥을 벌이다가 22일 15.00에 南原으로 다시 撤收케 되었고, 이곳에서 閔部隊와 함께 雲峰—咸陽—淸州로 逐次撤收한 다음, 27일에 慶南 昌原附近에서 美제 24사단과 合同作戰으로 敵을 擊滅하고 29일에 馬山에 集結, 次期作戰에 대비하였다.

나. 西南地區 戰況 (1950년 7월 20일부터  
1950년 9월 15일까지)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5 사단	장 대령 李 炯 錫	}	務安경찰서	장 경감 崔 新 芳		北傀 제 4 사단	장 소장 李 權 武
全南道 非常警備司令部			康津경찰서	장 경감 趙 石 元		北傀 제 6 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사령관 경무관 金 應 權			靈岩경찰서	장 代理 경위 鄭 小 實			
長興경찰서	장 중경 沈 載 淳		珍島경찰서	장 代理 경감 許 休			
和順경찰서	장 경감 金 永 台		具書七部隊	장 경위 具 晝 七			
光山경찰서	장 경감 金 容 來		韓楨日遊擊대대	장 경감 韓 楨 日			
羅州경찰서	장 경감 金 焯 培						

(2) 寶城—長興 및 白雲山地區의 戰鬥

全南道 非常警備司令部(사령관, 金應權 경무관)는 敵이 錦江線을 侵攻하자 戒嚴司令部인 제 5 사단장 李炯錫 대령의 命令에 따라 管內 各경찰서에서 15명씩을 差出하여 戰鬥대대를 編成한 다음, 江景—裡里附近에 出戰한 全北경찰을 支援하는 한편 殘餘 各署員으로는 別途

의 戰鬥부대를 編成하여 全南北 道界에 배치하여 敵侵을 遂擊코자 하였다.

그러나 戰勢가 急轉하자, 全南道非常警備司令部는 7월 20일 司令部를 光州에서 寶城으로 移轉하고, 南部 各署에서 차출한 병력을 모두 原署에 復歸하여 管内守備에 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날, 長興署(장, 沈載淳 總경)를 비롯한 數個署 兵力으로 編成된 전투부대만은 寶城 北쪽에서 侵攻하는 敵을 격퇴케 하였다.

이때 有治面(長興 西北쪽 8km)에 配備된 長興署部隊는 全南道非常警備司令部의 前方指揮所로부터 有線通信에 依하여 作戰指示를 받고 있었는데, 23일 未明에는 通信이 杜絶되어 司令部의 動向은 물론 敵情을 把握할 수가 없었다.

이에 長興署長 沈載淳 總경은 敵이 寶城에 迫頭한 것으로 보고 于先 寶城附近의 敵情을 수집하고자 署員 50명을 帶同하고 寶城쪽으로 進出하였다.

그런데 意外로 그때까지 寶城에는 敵이 侵入하지 않았으며 街路는 인적이 없이 陰散하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沈載淳 總경은 즉시 驛에 달려 鐵道電話로 筏橋—順天—麗水 等の 各隊를 호출한 결과 順天鐵警隊만이 간신이 疏通할 수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沈署長은 『國軍이 麗水和 河東쪽으로 撤收中』이라는 悲觀의 情報를 入手하였다.

그러나 沈載淳 總경은 寶城警察署에 들어가 小銃 15정과 수류탄 80개를 수집하여 隊員들의 武裝을 강화하고 곧 兵력을 要地要線에 配置,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이는 地理的인 與件으로 보아 寶城을 지키는 것이 곧 長興을 安全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寶城—長興間의 有線網을 복구하고 있던 중 이날 저녁 和順으로부터 許休 總경이 지휘하는 重火器部隊와 和順—靈岩—光山—羅州—務安等の 各警察署兵力이 寶城에 集結하였다.

이들은 이곳에 도착하자, 즉시 『全南警察의 威信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寶城—長興線에서 기필코 敵을 격퇴시켜야 한다.』는 一戰不辭의 決意를 굳게 가다듬고 一旦 長興으로 轉進하여 長興—康津에 主抵抗線을 설치하고 寶城附近에는 前哨를 내보냄으로써 縱深을 깊게 하였다.

즉, 全南道警察은 이같은 管内死守의 決意에 따라 長興에 赴援한 康津, 羅州, 務安署 等の 兵力을 康津으로, 長興署의 一部兵力과 和順 및 靈岩署 兵力을 寶城으로 轉進 配置토록 하는가 하면 許休 部隊 80명은 珍島로, 光山署兵力 40명은 河東을 경유 釜山으로 移動토록 하였다.

24일, 마침내 敵이 寶城에 近迫하여 警察의 前哨部隊를 강압하였으므로 和順과 靈岩署部隊는 부득이 이곳을 철수하여 康津에 合勢하고 寶城에는 長興署兵力으로 편성한 搜索隊만을 殘置시켜 敵의 動態를 銳意 注視토록 하였는데, 다음날 敵의 大部隊는 기계화 부대와 함께

寶城을 侵攻하였다.

이에 康津署長 趙石元 경감이 長興—康津에 配置된 全南警察署部隊를 統合指揮하여 寶城의 長興署部隊가 수집한 情報에 따라 來侵하는 敵을 奇襲強打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26일 未明, 具書七 重火器部隊를 先頭로 250명의 康津 및 長興署部隊가 寶城으로 進出, 敵을 急襲하여 射殺 30명, 俘虜 1명, sidecar 2대를 비롯 소총 2정을 노획하는 戰果와 함께 敵의 先遣部隊 100명과 地方共匪를 四散시켰다.

이어 長興署部隊가 遊擊戰을 전개하면서 敵情을 수집하는 가운데 康津 및 羅州署部隊는 海南을 기습하여 地方共匪 5명을 사살하고 同地의 警察署를 奪還하였으며, 다음날인 28일 08.00에는 다시 康津 및 靈岩署部隊가 靈岩警察署를 奪還하고 地方共匪 數名을 사살하였다.

이와 같이 管内 一部地域을 수복하고 羅州方面의 敵情을 살피고 있던 중 敵의 大部隊(北傀軍 550명, 地方共匪 數10名)가 寶城 西南쪽과 木浦와 羅州쪽에서 長興—康津地域으로 侵攻하였다.

이에 警察署는 이러한 狀況을 非常警備總司令部(사령관 金泰善 理事官)에 報告하고 航空支援을 要請하였다.

31일, 具書七 경위의 重火器部隊와 康津과 靈岩 兩署兵力 200명이 靈岩쪽에서 侵攻해오는 敵을 격퇴하기 위하여 一大 激戰을 벌인 끝에 敵 30명을 射殺하는 戰果를 올렸으나 아쉽게도 友軍 航空機의 誤爆으로 말미암아 數名의 隊員을 잃고 끝내는 이 지역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한편 谷城署長 韓植日 경감이 지휘하는 이른바 韓植日 遊擊대대는 7월 29일 鵬錄里(谷城 東南쪽 15km)에서 敵 3개 중대를 奇襲하여 3시간동안의 交戰끝에 52명을 사살하고 5대의 sidecar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敵은 많은 被害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4.00에 1개대대의 增援兵力과 함께 反擊을 加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격렬한 公방전이 벌어졌는데, 警察隊는 地形上 유리한 牽斗山(△735, 求禮 西南쪽 12km)으로 撤收하여 다시 敵侵에 對備하였는 바, 드디어 8월 6일 未明, 敵 1개연대가 포위공격을 加하였다.

이에 同遊擊대대는 有利한 地形地物을 利用하여 敵을 誘引擊破하고 많은 被害를 주었으나 長時間의 激戰으로 因하여 同 대대에서도 40명의 戰死者를 냈다.

그리하여 韓植日 경감은 즉시 非常警備總司令部에게 戰鬪狀況의 報告와 함께 『今後의 無電通信 如何는 本 戰鬪의 勝敗를 決定할 것임, 同志들의 健闘를 祈願함.』이라는 悲壯한 최후의 無電을 보낸 뒤 살아남은 隊員을 이끌고 白雲山(△1218, 光陽 北쪽 15km)으로 遁入하여 遊擊戰을 展開하였다.

즉, 全隊員들은 最後의 勝利를 確信하고 敵의 보급로를 기습하여 前線으로 수송되는 敵

의 兵站物資에 많은 손실을 주는 동시에 敵의 집결지 혹은 據點을 교란하는 등 我軍의 총 반격시까지 白雲山을 根據地로 유격전을 계속하였다.

이상과 같이 戰況이 점점 惡化되자 康津—長興地區의 全南警察隊는 莞島를 비롯 南海地域으로 轉進하여 새로운 樣相의 地연전을 벌이게 되었다.

### (3) 西南島嶼地區 狀況

全南警察은 寶城—長興—康津線을 끝까지 確保코자 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마침내 西南海 島嶼地方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8월 1일 05.00, 康津署長 趙石元 경감의 뒤를 이어 長興署長 沈載淳 총경이 全南警察을 총 지휘하게 되었다.

새로이 西南 島嶼地方으로 철수한 全南警察을 이끌게 된 沈載淳 총경은 07.00에 莞島에서 各級 指揮官들을 召集하고 작전회의를 開催하였던 바 이 자리에서 各級 指揮官들은 莞島를 中心으로 附近島嶼를 決死固守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때 莞島에는 警察署長 金斗千 경감이하 200명의 警察兵力이 地方愛國青年團 100명과 함께 隣接 島嶼를 포함한 管內의 治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羅州—和順—靈岩—務安—康津署兵力이 合勢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沈載淳 총경은 莞島署部隊 300명, 羅州署部隊 270명, 和順署部隊 60명으로 莞島의 指揮部의 防備를 強化하고 一部兵力은 靑山島(莞島 東南쪽 20km)를 비롯 西南海의 各島嶼를 扼守코자 靑山島에 轉進, 配備토록 하였으며 靈光署部隊 40명과 務安署部隊 90명은 釜山으로 철수토록 한 뒤, 康津, 長興署部隊는 前과 같이 계속 敵情을 蒐集하도록 하였다.

3일 08.00, 康津署部隊 150명은 指揮部가 位置한 莞島의 威脅을 제거하고 馬良浦(康津 南쪽 20km)에 集結한 敵의 行動을 견제하기 위하여 古今島(莞島 東北쪽 20km)로 出陣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UN空軍機 3대가 靑山島 上空을 旋廻하다가 警察部隊를 敵으로 誤認하여 機銃掃射를 加함으로써 灣內의 全 船舶을 격침시켰는데, 이 중에는 莞島本部소속 5척과 古今島部隊所屬 1척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6척의 선박을 잃은 警察部隊는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속에서도 5일, 康津署部隊는 馬良에 敵前上陸을 敢行하여 敵 10명을 射殺한 반면에, 警察隊에서도 具書七 경위가 부상을 입고 隊員 3명이 戰死하였다.

그러나 7일에는 康津署部隊가 敵을 攪亂하기 위하여 다시 20명의 特攻隊를 康津灣에 上陸시켰다.

한편 沈載淳 경감이 直接 指揮하는 長興署部隊 180명은 蘆花島(莞島 西南쪽 12km)에 侵攻한 敵 50명을 擊滅코자 蘆花島를 비롯 所安島(蘆花島 東南쪽 4km)와 甫吉島(蘆花島 西南



쪽 2km)에 上陸하여 敵 10명을 사살하고 拉致된 良民 330명을 救出하였는데, 其中 50명을 靑山島에 疎開시켰으며 隊員 100명도 其 一帶의 島嶼에 배치하여 경비에 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共匪들은 蘆花島 附近의 여러 섬에서 50餘戶의 民家を 약탈하고 良民 30명을 打殺 또는 水葬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嶺行이 날로 극심하여 집에 따라 警察部隊도 海上기동력을 강화하여 間斷없는 유격전으로 敵을 膺懲하였다.

이어서 8월 07.00에는 長興署部隊에서 40명의 精銳隊員으로 海上特攻隊를 편성하여 金塘島(長興 東南쪽 32km) 부근에서 敵船 1척을 격침시켰으며, 10월 11.00에는 冠山支署(長興 南쪽 16km)에 기습상륙하여 敵 8명을 사살하고 良民 5명을 구출하였으며 쌍안경 1점을 노획하였다.

그뒤 15일에 同 경찰부대는 金塘島를 다시 기습하여 敵 5명을 사살하였으며, 18일에는 平日島(金塘島 南쪽 10km)에 敵 90명이 侵攻하여 支署員 5명을 사살하고 3명을 납치하였다는 情報을 入手하고 即時 莞島署部隊와 合同作戰을 벌여, 다음날 이 섬을 탈환하고 東쪽 島嶼周邊을 哨戒하여 敵의 侵攻을 粉碎하였다.

이렇게 敵의 계속적인 侵攻에도 불구하고 警察隊의 유격활동이 毅然하자 敵은 大部隊들이 方面에 投入, 珍島와 莞島를 비롯한 西南海岸의 島嶼를 制壓하고자, 莞島에서 2km 떨어진 小島에 火力據點을 마련하여 莞島 上陸을 기도하였다.

이에 莞島警察署 特警隊 30명이 機先을 制壓하기 위하여 그 附近의 小島를 기습, 敵 3명을 사살하고 重機關銃 1정을 노획함으로써 敵의 莞島上陸을 거부한 뒤 本隊로 돌아왔다.

한편 25일 06.00, 敵 1,000여명이 右水營으로부터 珍島를 包圍侵攻하였는 바, 이때 許休 珍島署長署理는 이 섬을 死守하기 위하여 全員 玉碎할 決意下에 果敢한 白兵戰으로 그들을 遂擊, 25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끝내 衆寡不敵으로 珍島를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敵은 珍島占據의 餘勢을 업고 莞島를 비롯한 周邊의 諸島嶼를 強占하려고 하였다.

이에 警察隊는 莞島의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指揮本부를 靑山島(莞島 東南쪽 17km)에서 莞島로 移轉하고 務安署部隊 80명을 麗水署 管內인 南面(麗水 南쪽 30km)에서 靑山島로 移轉케 한 다음 莞島에 배치하였으며 康津署部隊를 古今島(高興 西南쪽 15km)에, 和順署部隊를 新智島(莞島 東쪽 3km)에 各各 배치하였는가 하면 長興署部隊는 蘆花島에서 철수시켜 助藥島에 配備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珍島에서 撤收한 珍島署部隊 120명도 署長署理인 許休 경감의 지휘하에 靑山島로 轉進, 이 섬을 경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莞島를 비롯한 주변의 도서에는 妖雲이 急迫하게 되었던 바, 마침내 9월 18일 拂曉에 北傀軍 1,000명과 地方共匪 400명이 莞島에 상륙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月餘에 걸쳐 不眠不休의 격전으로 氣力이 극도로 衰盡한 警察隊였지만 또다시 死力を 다하여 3시간여에 걸쳐 과감히 應戰하였다.

그러나 결국 莞島署가 敵에게 侵奪됨에 따라, 同署 경비주임을 비롯 80명의 隊員만을 계속 잔유시켜 유격전을 벌이도록 하고 나머지 병력과 地方住民은 莞島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때 古新島의 康津署部隊와 薪智島의 和順署部隊도 敵의 侵攻으로 各各 該島를 撤收한 바, 長興署長 沈載淳 총경이 全兵力을 지휘하여 助藥島를 奇襲上陸한 끝에 그때까지 敵과 격전중이던 特攻隊 26명 全員을 구출하고 敵 85명을 사살하였는데 長興署에서도 查察主任 李俊吉 경위 이하 26명이 전사하였다.

9월 20일, 長興署部隊는 莞島署部隊와 협조하여 莞島 및 助藥島 주변에서 死境에 處한 落伍兵力을 구출하기 위하여 莞島上陸作戰을 감행, 미처 후퇴하지 못한 署員 86명 가운데 71명을 구원하고 全南警察部隊를 再編하여 莞島 및 助藥島의 탈환을 策謀하였으나 이 무렵 全戰線에 걸쳐 반격이 개시된 때인지라, 이곳의 敵도 全面退却함으로써 擊滅의 時宜를 잃고 말았다.

한편 南面島(麗水 南쪽 23km)를 防守하고 있던 靈岩署部隊는 9월 15일 05.00, 敵을 遂擊하여 100명을 사살하고 釜山으로 철수하였으며, 巨文島(高興 南쪽 40km) 支署 金主任은 25명의 警察을 訓練시켜 同島를 最後까지 堅守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興附近의 島嶼에서는 敵 52명을 사살하고 良民 73명을 救出하였다.

이와 같이 全南北의 各경찰부대는, 無防備한 湖南地域을 席捲하는 敵에 대하여 局地에서 抗戰의 뜻을 펴나갔을뿐, 實戰에서는 敵手가 될 수 없었으므로 周邊島嶼와 洛東江線으로 피눈물나는 撤收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軍과 함께 洛東江線 內廓으로 撤收한 일부 警察은 慶南경찰부대와 함께 美제 24, 제25사단의 統制下에 馬山—鎭東地區 作戰에 加擔하였고 前方에서 撤收한 江原—서울—京畿—忠南北의 各警察부대는 大邱에 集結하여 大邱防禦戰에 對備하였다.

# 附 錄

1. 陸本作名
2. 訓 令
3. UN決議 및 其他
4. 年 表
5. 戰歿者名單
6. 索 引



## 1. 陸本作命

## 부록 제 1 호

作戰命令 第20號

1950. 7. 5 10.00

1. 敵은 水原 및 安城 長湖院線에 進出하였음. 聯合軍은 着着 上陸中에 있으며 그 先鋒은 平澤 烏山에 集結中임.
2. 軍은 攻勢를 準備하는 동안 一部 兵團으로 烏山~安城 一帶의 要線 및 竹山~長湖院~堤川附近을 占領하여 再編을 完了하고 軍主力의 進出을 容易하게 하려함.
3. 가. 第1軍團(第17聯隊配屬)은 即時 發安場~烏山~安城線에서 敵의 南進을 阻止하며 平澤地域에서 部隊의 再編整理에 全力을 다하라.
  - 나. 제 6師團은 即時 竹山~長湖院線에 展開하여 利川으로부터 南下하여 淸州로 向하는 敵을 阻止하고 第1軍團과 策應하도록 戰鬥을 指揮하라.
  - 다. 第8師團은 即時 南漢江 北東地區에서 南進을 企圖하는 敵을 堤川附近에서 阻止 該地區에서 孤立을 覺悟하고 固守 防禦하라.
  - 라. 機甲聯隊는 即時 情報局長 指示에 依하여 行動하라. 平澤에 集結後 情報局長에게 即時 報告하라.
  - 아. 第17聯隊는 烏山 北쪽 指示된 線에 陣地를 構築하여 第1軍團의 中央警戒部隊가 되라.
  - 바. 工兵監은 第1軍團 防禦正面內의 主補給路의 補修를 實施하라.
4. 省 略
5. 가. 通信監은 優先 第1軍團內의 通信連絡 施設을 完成하라.
  - 나. 第1軍團司令部는 平澤에 設置하라.
  - 다. 各師團司令部의 位置를 報告하라.

## 부록 제 2 호

作戰命令 第23號

1950. 7. 6 17.00

1. 가. 敵은 烏山 西井里附近 및 利川 長湖院線에 進出하였음.
  - 나. 我第1軍團은 成歡地區에, 第6師團은 忠州, 第8師團은 堤川地區에 集結中임.
  - 다. 聯合軍은 平澤線에 進出하여 強力한 防禦를 實施中임.
2. 가. 軍은 主力을 移動하여 攻勢移轉을 實施하려함.
  - 나. 軍團 및 師團의 戰鬥地境을 下記와 같이 設定함.
    - ◎ 聯合軍~軍團  
東山里(天安郡 東面)~萬巒山~將軍峰~梧山里(安城郡 金光面)~湫坪里(安城郡 玉蓋面)~双嶺山(安城郡 占二面)~虎里(龍仁郡 滿谷面)~金魚里(龍仁郡 滿谷面)~東林里(廣州郡 慕貸面)~新村里(始興郡 大旺面)線上은 第1軍團에 屬함.
    - ◎ 第1軍團~第6師團

南溪山~興湖里西쪽의 水流 交叉點~岱屯里~泥田洞(原城郡 建登面)~金山(楊平郡 楊平面)~齊峰山 線上은 第6師團에 屬함.

3. 가. 第1軍團은 下記에 依하여 部隊를 今 日 24.00까지 移動하라.

移 動 部 隊	移 動 經 路	移 動 手 段	集 結 地
軍團司令部 및 直轄部隊	成歡—鳥致院—清州—漣潭里	鐵道輸送	漣潭里
A 師 團	成歡—笠場面—鎖川—梧倉里	自動車輸送(軍團現所有의 全車輛利用)	梧倉里
B 師 團	成歡—鳥致院—清州—漣潭里—陰城	鐵道輸送 및 漣潭里—陰城間은 自動車輸送	陰城
C 師 團	軍團司令部와 同一함	鐵道輸送	漣潭里附近會坪

나. 第17聯隊는 7. 6 12.00附로 第1軍團으로부터 配屬을 解除하고 即時 鳥致院에 이르러 軍豫備隊가 되라.

다. 第6師團은 新第1軍團 戰鬪地帶內에 있는 第19, 第7聯隊를 7.6 24.00까지 正面을 固守하여 第1軍團의 集結을 掩護하게 하며 此 師團地域에 移動하게 하라.

라. 第8師團은 1個聯隊로서 原州—堤川으로부터 西北方向으로 攻擊하라. 其他 部隊로서 現正面을 固守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하라.

마. 第6師團長과 第8師團長은 原州에 對한 攻擊開始 時間 및 攻擊開始線에 關하여 緊密히 連絡함과 同時에 其 結果를 報告하라.

4. 省 略

5. 가. 通信監은 即時 第1軍團 및 第6, 8師團과 陸本間에 通信連絡의 萬全을 期하라.

나. 各聯隊 및 獨立 行動中인 單位以上의 指揮所 設置를 即時 報告하라.

부록 제 3 호

作戰命令 第25號

1950. 7. 7 18.00

1. 가. 省 略

나. 西部戰線의 美軍部隊는 平澤(1010—1570), 安城(1025—1575)線에 攻擊進出中임.

다. 東部戰線의 第8師團은 堤川(1120—1592), 周浦里(1110—1592)線에 攻擊進出中임.

라. 明 7월 8일 06.00 까지 各各 該地區를 完全 占領 豫定임.

2. 軍은 美軍部隊의 攻擊에 呼應하여 一齊히 攻擊에 移轉하려함.

3. 가. 第6師團長은 即時 隸下 第7聯隊 및 第19聯隊로 하여금 長湖院里(1032—1590)의 敵을 攻擊, 該地區 占領確保와 同時에 隸下 第2聯隊로 하여금 松江里(1095—1585)의 敵을 捕捉 殲滅後 該地區를 占領 確保하라.

나. (1) 軍은 第17聯隊를 即時 第1軍團 首都師團에 配屬함.

(2) 第17聯隊長은 即時 鎖川(1040—1557)에 進出하여 首都師團長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다. (1) 第1軍團은 即時 竹山里(1040—1585)線에 進出하여 該地區를 占領 確保하는 同時에 第6師團 및 美軍部隊의 攻擊進出에 呼應하라.

(2) 配屬第17聯隊로 하여금 鎖川(1043—1557)地區를 確保하게 하라.

라. 行動開始前 및 目標地區 占領完了 即時 陸本에 報告하는 同時에 隣接部隊와 緊密히 連繫하라.

## 부록 제 4 호

作戰命令 第27號

1950. 7. 7 23. 00

1. 가. 敵은 主力을 長湖院里(1062—1589)~竹山里(1040—1585)線으로부터 鎭川(1044—1558)地點에 向하여 南進中임.
- 나. 我第1軍團 및 第6師團 一部兵力은 該敵에 對하여 猛攻擊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該地區에 進出시켜 該地區作戰에 協助시키려 함.
3. 가. 陸軍砲兵團長은 諫下 砲兵 1個中隊를 即時 淸州(1048—1530)~鎭川(1044—1558)地區에 進出시켜 該地區作戰에 協助시키라.
- 나. 獨立機甲聯隊長은 諫下 裝甲 1個中隊 및 徒步大隊를 即時 淸州 鎭川地區에 進出시켜 該地區作戰에 協助하게 하라.
- 다. 第1軍團長, 陸軍砲兵團長, 獨立機甲聯隊長 및 第6師團長은 該地區作戰에 關하여 緊密히 協助 하라.
4. 省 略
5. 各指揮官은 出動次 出發, 到着 및 攻擊開始 結果에 關하여 適時 有無線으로 報告하라.

## 부록 제 5 호

作戰命令 第30號

1950. 7. 9 03. 00

1. 敵은 我軍의 全面的인 攻擊移轉 및 我空軍의 後方遮斷 및 猛攻으로 混亂狀態에 陷入되어 大田地區 侵入에 主力의 進攻이 不可能하게 되자 便衣隊 및 遊擊隊를 潛入케 할 企圖를 가지고 있음.
2. 軍은 大田 中心 主要 各道路에 憲兵을 配置하여 特別警戒를 實施하므로써 大田地區 防禦에 萬全을 期하려 함.
3. 憲兵司令官은 下記에 依據 諫下 兵力을 配置함으로써 大田地區 警備에 徹底를 期하라.
  - 가. 配置日時: 1950. 7. 9 03. 00 부터 別命時까지
  - 나. 配置場所
    - (1) (ㄱ) 大田~烏致院 道路上
    - (ㄴ) 大田~淸州 道路上
    - (ㄷ) 大田~永同 道路上
    - (ㄹ) 大田~錦山 道路上
    - (ㄹ) 大田~鎭川 道路上
    - (ㄷ) 大田~儒城 道路上
  - (2) 上記 主要 幹線道路 6個所外 憲兵司令官이 警備에 主要性을 認定한 道路上에는 司令官이 適宜措置하라.
- 다. 配置區間: 大田市를 中心으로 郊外 各 2~3哩 地點 區間의 要地要部(市内警備는 從前과 同一하며 該特別警戒와 緊密한 連絡下에 實施하라).
- 라. 差出兵力
  - 晝間: 各要所 警備道路上에 憲兵 10名式 差出
  - 夜間: 各要所 警備道路上에 憲兵 50名式 差出
- 마. 警備上의 注意
  - (1) 便衣隊 및 敵遊擊隊의 侵入防止
  - (2) 主要 軍需物資의 搬入搬出의 監視와 取締團束
  - (3) 敵의 我軍 및 前哨部隊 侵入의 監視

(4) 敵은 國軍의 服裝 또는 警察官의 服裝을 着用하여 侵入할것이 豫測됨으로 이點에 特別 留意 할 것.

4. 省 略

5. 警備實施間 每日 6 回式 警備狀況報告를 提出하고 突發事件 發生 또는 發見時 迅速 正確하게 報告 하라.

부록 제 6 호

作戰命令 第41號

1950. 7. 13

1. 가. 敵은 烏致院~濟州, 延豊~丹陽線에서 壓迫을 加하고 있음.

나. 我第1軍團 및 各第1線師團 그리고 美軍은 此敵에 대하여 兵力의 集結을 기다려 強力한 遲延 戰을 展開하고 있음.

2. 가. 軍은 戰略의 見地에 依하여 X日 X時 陸軍本部 및 一部 後方部隊를 大邱 및 金泉에 移動하려 함.

나. 移動開始의 日時는 別命함.

3. 가. 諒下 各該當 各部隊長은 別紙移動計劃表에 依하여 兵力을 移動하라.

나. 大邱 및 金泉에 이르면 先發將校의 指示에 依하여 所定의 集結地에 部隊를 收容하여 爾後의 行 動을 準備하라.

4. 行政命令 參照

5. 가. 通信監은 直接 附與한 命에 依하여 通信網(有無線)을 架設하라.

나. 指揮所(陸軍本部)의 通信 金泉(1110—1470)

陸本作命 第41號 附錄

移動計劃表—建制順序

1. 第1砲兵團.....大邱
2. 對戰車砲兵隊團.....大邱
3. 兵器大隊.....大邱
4. 通信大隊.....大邱
5. 兵站團.....大邱
6. 陸軍本部.....大邱
  - 가. G-2, G-3, 通信監室.....金泉
  - 나. G-2, G-3, 通信監室을 除外한 各局監室.....大邱
7. 大田地區補給廠.....大邱
8. 第2陸軍病院.....大邱
9. 衛生材料廠.....大邱
10. 援護隊.....大邱
11. 新兵教育隊.....倭館
12. 永登浦學院.....大邱
13. 工兵團.....大邱
14. 施設管理團.....大邱
15. 野戰醫務團.....大邱
16. 軍樂學校.....大邱
17. 青年防衛隊顧問團.....大邱
18. 金部隊.....金泉



- 19. 李部隊.....大邱
- 20. 憲兵司令部 一部는 金泉, 一部는 大邱

부록 제 7 호

作戰命令 第42號

1950. 7. 12 24.00

軍隊區分

軍團 第2軍團長 大領 金白一  
參謀長 大領 姜英勳

第6師團

第8師團(第25聯隊 1個大隊編入)

地圖 大韓 1: 25000

1. 가. 日日情報 參照
  - 나. 美空軍과 我空軍은 美軍과 我軍의 作戰을 掩護하고 있다.
  - 다. 第1軍團과 美第24師團은 全兵力의 集結을 기다려 強力한 遲延戰을 展開하고 있다.
  - 라. 東海岸一帶는 美第25師團이 此方面에 侵入한 敵을 阻止하고 있다.
2. 가. 軍은 第1軍團 西側의 師團을 整齊하여 統一된 戰力으로 敵의 南下를 所要日間 阻止한다.
  - 나. 第1軍團과의 戰鬪地境線은 第1軍團과 第6師團 戰鬪地境線으로 한다. (作戰訓令 第7號 透明圖 參照)
3. 가. 第2軍團長은 頭書 軍隊區分에 記載된 部隊를 統合指揮하여 強力한 遲延戰을 實施하여 別命時에 最後抵抗線까지 達하여 此를 死守하라.
  - 나. 第6師團은 第2軍團 指揮下에 들어가라.
  - 다. 第8師團은 第25聯隊 1個大隊를 編入시켜 第2軍團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 라. 第25聯隊 第1大隊는 第8師團 指揮下에 들어가라.
4. 行政事項 後達함
5. 通信連絡은 從前과 同一함

부록 제 8 호

國本一般命令(陸) 第14號

1950. 7. 1

1. 1950. 7. 12. 00.01附로 第2軍團 司令部를 創設하여 步兵第6師團, 第8師團을 이에 編入한다.
2. 步兵第25聯隊 第1大隊를 1950. 7. 13. 00.00附로 步兵 第8師團에 改編入한다.

부록 제 9 호

作戰命令 第44號

1950. 7. 16 22.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脆弱되어 分散混亂狀態에 있으나 繼續 南侵을 企圖하고 있음.
  - 나. 我軍은 聯合軍과 緊密한 協同下에 猛反擊을 加하고 있음
2. 軍은 戰鬪地境線을 變更하여 次期作戰을 有利하게 指導하려 함.
3. 가. 關係 各軍團長 및 師團長은 別紙 附錄 第1透明圖와 如히 擔當戰鬪地境內에 防禦陣地를 占領하라.
  - 나. 各部隊長은 1950. 7. 17. 12.00까지 配備完了하고 即時 其現況을 報告하라.

다. 戰鬪地境線上은 左側部隊가 擔當하라.

---

부록 제9호

作戰命令 第47號

1950. 7. 16 24.00

1. 가. 敵主力의 一部는 閔慶에 侵入 繼續 南下를 企圖中임.  
나. 第6師團은 此敵에 대하여 猛烈한 反擊을 加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此戰鬪를 支援하려 함.
  3. 第1軍團長은 諫下 師團中 步兵第17聯隊를 明淸 06.00까지 咸昌에 到着시켜 第2軍團長은 前記兵力을 統合指揮하여 軍豫備隊로 使用하라.
  4. 省略
  5. 連絡 및 報告는 有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 

부록 제10호

作戰命令 第51號

1950. 7. 18 17.00

1. 가. 槐山에 集結한 敵은 我聯合空軍의 猛爆으로 分散脆弱되어 混亂狀態이나 繼續 南進을 企圖, 其 一部兵力은 2隊로 分進 南下中임.  
나. 第2軍團은 現在 咸昌에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시켜 南下하는 敵을 捕捉 攻擊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諫下 首都師團을 立石里(1088—1533)에 轉進시켜 槐山方面으로 敵을 壓迫 前進시켜라.  
나. 首都師團長은 諫下 部隊를 院坪里(1073—1525), 新月里(1076—1532) 經由 立石里(1088—1532)에 進出 當面의 敵을 攻擊 槐山方面으로 進出하라.  
다. 攻擊 前進에 있어서 特히 第6師團長과 連絡을 緊密하게 하라  
라. 師團 前進에 있어서는 梯團隊形으로 하라.
  4. 省略
  5. 出發時間 및 到着完了時間을 有線을 通하여 緊急히 報告하라.
- 

부록 제11호

作戰命令 第52號

1950. 7. 19 11.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脆弱混亂狀態이나 繼續 南侵을 企圖中임  
나. 我軍은 到處에서 猛烈한 反擊으로 強力한 遲延戰을 展開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 함.
3. 가. 第1新兵教育隊(倭館) 및 第5新兵教育隊(永同) 新兵을 第1軍團에 補充한다.  
나. 第1, 5新兵教育隊長은 諫下 新兵을 報恩 第1軍團에 補充하라.  
다. 第1軍團長은 所要 兵力을 第1, 5, 新兵教育隊長으로부터 補充을 받아 戰鬪力을 強化하라.  
라. 第1軍團長은 補充받은 兵力을 即時 陸本에 報告하라.
4. 가. 第1軍團長은 所要의 初度補給을 請求하라.  
나. 輸送은 第1軍團長이 擔當하라.  
다. 第1軍團長은 人員把握 即時로 報告하라.

5. 報告. 連絡은 有無線通信에 依하라.

부록 제12호

作戰命令 第53號

1950. 7. 19 12. 00

1. 省略
2. 軍은 現在 陸, 海, 空軍 및 警察에서 實施中인 無線鑑聽所 事務를 陸海空軍總司令部에 設置하여 其運營에 萬全을 期하러 함.
3. 가. 陸軍情報局長은 現在 實施中인 海軍, 空軍 및 警察의 各 無線鑑聽要員과 所要의 機材를 徵收하여 7월 19일 17.00限 大邱 現總司令部內 中央情報蒐集所에 設置하고 此를 統合指揮하라.  
나. 海軍, 空軍 및 警察은 無線鑑聽要員과 所要의 機材를 陸軍情報局長에게 差出하여 其 掌握下에 들어가라.
4. 無線鑑聽所 設置後 情報局長은 狀況報告를 提出하라.
5. 設置完了하면 有無線을 通하여 直時 報告하라.

부록 제13호

作戰命令 第54號

1950. 7. 19 16. 00

1. 省略
2. 軍은 諸行事に 對備코저 國防部에 軍樂隊를 配屬코저함.
3. 가. 首都師團 軍樂隊는 7月 20日 12.00까지 國防部 政訓局에 到着하여 政訓局長의 指揮에 들어가라.  
나. 首都師團長은 隸下 軍樂隊 要員 및 裝備를 7月 20日 12.00까지 國防部政訓局長에 配屬하고 其 結果를 陸本에 即時 報告하라.
4. 省略
5. 前과 同一함.

부록 제14호

作戰命令 第55號

1950. 7. 19 16. 00

1. 가. 敵은 我第2軍團 正面으로 猛烈한 南侵을 企圖하고 있음.  
나. 聯合軍의 一部는 今夜부터 第1軍團地區로 移動增援된다 함.
2. 軍은 一部 兵力을 移動시켜 聯合軍과의 協同作戰을 緊密하게 하려함.
3. 가. 第1軍團長은 別紙 第1에 依據하여 隸下 首都師團 및 野戰砲兵 1個中隊를 移動시켜 第2軍團長에게 配屬하는 同時에 第17聯隊를 統合指揮하여 化寧場地區로 南下하는 敵을 捕捉 殲滅하라.  
나. 第2軍團長은 前項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南下하는 敵을 殲滅하고 我聯合軍의 移動을 掩護하라.
4. 가. 移動後 補給擔當
  - (1) 首都師團司令部……安東 軍補給所
  - (2) 第8聯隊……安東 軍補給所
  - (3) 第18聯隊……安東 軍補給所
  - (4) 砲兵 1個中隊……安東 軍補給所

(5) 第 1 聯隊.....尙州 軍補給所

나. 輸送은 自隊가 擔當하라.

5. 가. 首都師團長은 移動間 傳令 및 有線으로서 第 1 軍團司令部와 第 2 軍團司令部 그리고 隸下 聯隊와 連絡하고 一切의 無線電波 發射를 禁하라.

나. 首都師團長은 移動完了後 直時 第 2 軍團司令部와 有線網을 構成하여 連絡하고 無線電波 發射禁止는 上級司令部의 此後 指示에 依하여, 또는 接敵時에 限하여 解除한다.

다. 第 2 軍團長은 首都師團 移動完了함과 同時에 新首都師團의 指揮所 位置를 直時 有線으로 報告하라.

라. 第 2 軍團司令部와 陸軍本部 間의 連絡은 從前과 같이 實施하라.

◎ 別紙 #1(作命第55號)

備考:

1. 首都師團은 第 2 軍團地境內에 駐屯間 第 2 軍團長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2. 第 17 聯隊는 第 1 軍團地境內에 駐屯間은 第 1 軍團長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別紙 #1(作命第55號)

部 隊 名	現 位 置	移 動 先 地	移 動 完 了 日 時	移 動 經 路	摘 要
首都師團司令部 및 第 8 聯隊	報 恩 (1070—1513)	安 康 (1169—1524)	7. 20. 08. 00	化寧場(1093—1508) 尙州(1114—1504) 折項, 佛里基場 醴泉(1143—1535)	安康(1169—1524) 北쪽 및 東西側 占領
第 18 聯隊	報 恩 (1270—1513)	醴 泉 (1143—1535)	7. 20. 12. 00	化寧場~尙州~折項 ~佛里基場~醴泉	醴泉(1143—1535) 北쪽 高地 占領
第 1 聯隊	報 恩 (1093—1508)	咸 昌 (1116—1524)	7. 20. 08. 00	化寧場~尙州~咸昌 (1116—1524)	店村~茅田里 線을 占領
第 17 聯隊	化 寧 場 (1093—1508)	化 寧 場 (1093—1508)	現在化寧場 地區에 在함		東飛嶺里(1092—1513) 地區를 占領하여 南下하는 敵에 對하여 警戒
第 1 軍團 砲兵 1 個中隊	報 恩 (1070—1513)	醴 泉 (1143—1535)	7. 20. 12. 00	主로 醴泉地區에 位置 首都師團 作戰에 協助하라.	

부 록 제 15 호

作戰命令 第 56 號

1950. 7. 19 20. 00

1. 省略
2. 軍은 一部 部隊를 解編하여 原隊復歸시키려 함.
3. 가. 陸本作命 第 40 號에 依하여 編成된 金秉俊部隊는 此를 解體하는 同時에 其要員은 各各 舊所屬 部隊에 即時 原隊復歸하라.  
나. 陸軍少領 金秉俊은 部隊解體와 아울러 其 結果를 陸本에 報告하라.
4. 가. 個人裝備 및 補給品은 携帶하라.  
나. 部隊裝備品은 兵站團에 返納하라.

- 다. 輸送은 鐵道를 利用하되 所要貨車를 大邱鐵道輸送官에게 申請하라.  
 라. 金部隊長은 部隊裝備品 返納後 狀況報告書를 提出하라.  
 마. 金部隊長은 復歸하는 原所屬隊別 人員統計를 人事局에 提出하라.

## 부록 제16호

作戰命令 第57號

1950. 7. 20 01. 10

1. 가. 敵情은 別紙 情報附錄 第3表 參照  
 나. 美軍 및 聯合軍은 全幅의으로 我軍을 支援하고 있음.  
 다. 我軍의 配置現況은 別紙 第4表 參照
2. 軍은 一部 部隊의 改編 및 配備를 變更 次期攻勢移轉의 準備를 하려함.
3. 가. 首都師團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安東(1169—1524)地區로 移動하여 將次 軍의 豫備隊가 된다.  
 나. 第17聯隊는 現位置에서 現任務를 完遂하면 安東(1169—1524)地區로 移動할 準備를 하라.  
 (1) 移動은 別命함.  
 (2) 安東(1169—1524)地區로 移動完了 即時 首都師團에 配屬함.  
 다. 第2師團은 下記에 의하여 解編함.  
 (1) 美第25師團이 到着하면 即時 任務를 交代함.  
 (2) 第5, 第20聯隊는 斗坪里(1067—1519)로 移動後 第1師團에 配屬함.  
 (3) 第16聯隊는 榮州(1158—1555)에 移動하여 第8師團에 配屬함.  
 (4) 第22聯隊는 大邱(1157—1440)에 移動後 第3師團에 配屬함.  
 (5) 第2師團司令部 및 直轄 各特別部隊는 大邱(1157—1440)에 移動後 陸本에 配屬함.  
 라. 第1師團(第5, 20聯隊 包含)은 美第25師團과 任務交代後 春湯(1186—1569)으로 移動하여 次期 攻勢移轉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마. 獨立機甲聯隊(現永同에 在함)은 大邱(1157—1440)에 移動하여 第3師團에 配屬함.  
 바. 第3師團(第22, 獨立機甲聯隊 및 第1, 第2獨立大隊, 永登浦學院 包含)은 現在 線에서 敵의 南侵을 徹底히 阻止하라.  
 사. 第6師團은 現任務를 繼續 遂行하는 同時에 攻擊移轉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아. 第8師團(第16聯隊 및 第25聯隊의 1個大隊 包含)은 現任務를 繼續 遂行하는 同時에 攻勢移轉 準備의 萬全을 期하라.  
 자. 第1軍團本部 및 直轄各部隊는 義城(1166—1497)으로 移動 第6, 第8師團을 統合指揮하여 攻勢移轉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차. 陸軍本部는 本命令의 完全 實行後 義城(1166—1497)으로 移動을 準備함.  
 카. 西海地區 戰鬪司令部는 美軍의 左側面의 警護 및 管下의 敵遊擊隊 殲滅戰을 繼續하라. 國立警察은 主로 補給線의 保護 및 警備를 實施하는 同時에 國內의 共匪 및 東海岸 敵遊擊隊 殲滅戰을 繼續함.
4. 別途 行政命令 下達함
5. 別紙 附錄 第1表 參照.  
 別紙 附錄 第1表(作命 第57號)  
 軍隊區分  
 1. 第1軍團 軍團長 少將 金弘壹  
 가. 第1師團 師團長 大領 白善燁

- (1) 第5聯隊
- (2) 第11聯隊
- (3) 第12聯隊
- (4) 第13聯隊
- (5) 第20聯隊
- 나. 第3師團 師團長 准將 李俊植
  - (1) 第22聯隊
  - (2) 第23聯隊
  - (3) 獨立機甲聯隊
  - (4) 獨立第1大隊
  - (5) 獨立第2大隊
  - (6) 永登浦學院
- 2. 第2軍團 軍團長 准將 劉載興
  - 가. 第6師團 師團長 大領 金鍾五
    - (1) 第2聯隊
    - (2) 第7聯隊
    - (3) 第19聯隊
  - 나. 第8師團 師團長 大領 李正一(成佳)
    - (1) 第10聯隊
    - (2) 第16聯隊
    - (3) 第21聯隊
    - (4) 第25聯隊의 1個大隊
- 3. 陸本直轄 軍豫備隊
  - 가. 首都師團 師團長 准將 金錫源
    - (1) 第1聯隊
    - (2) 第8聯隊
    - (3) 第18聯隊
    - (4) 第17聯隊
  - 나. 第1砲兵團
  - 다. 對談車砲兵團
  - 라. 陸軍通信大隊
  - 마. 陸軍工兵團
  - 바. 陸軍兵器大隊
  - 사. 陸軍兵站團
  - 아. 醫務大隊
  - 자. 陸軍援護隊
  - 차. 陸軍軍樂隊
  - 카. 各陸軍新兵教育隊
  - 타. 各陸軍病院
  - 파. 各地區補給廠
  - 하. 陸軍被服廠
  - 거. 陸軍衛生材料廠

너. 陸軍施設管理所

너. 陸軍療養院

부록 제17호

作戰命令 第58號

1950. 7. 20 17. 00

1. 西海岸을 南進하는 敵은 今 20日 裡里 및 全州에 侵入 繼續하여 南侵을 企圖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該敵의 南進을 阻止, 攻擊하려함.
3. 가. 陸軍少領 金秉俊은 隸下 兵力을 引率, 南原에 進出하여 西海岸地區 戰團司令官의 指揮下에 南下하는 敵을 요격섬멸 하라.  
나. 西海岸地區 戰團司令官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當面의 敵을 攻擊하라.
4. 가. 一切의 個人, 部隊裝備品을 携帶하라.  
나. 輸送은 自動車 輸送을 하되 所要車輛을 軍需局長에게 申請하라.
5. 移動完了 即時로 有無線을 利用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18호

作戰命令 第59號

1950. 7. 20 20. 00

1. 省略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함.
3. 가. 陸本施設管理所長은 將校 1名 士兵40名을 第1工兵團에 配屬하라.  
나. 第1工兵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하여 將校 4名 士兵 100名을 第2軍團長에게 配屬하라.
4. 省略
5. 配屬完了後 即時 有無線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19호

作戰命令 第60號

1950. 7. 20 21. 00

1. 省略
2. 軍은 一部 兵力을 原隊復歸시키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軍團編成時 派遣된 兵站團 少領 全逸在以下 將校 15名, 士兵 385名을 1950. 7. 21 24. 00까지 原隊復歸시키라.  
나. 兵站監은 上記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4. 省略
5. 連絡報告는 有無線을 利用하라.

부록 제20호

作戰命令 第61號

1950. 7. 20 23. 00

1. 가. 西海岸으로부터 南進하는 敵主力의 一部는 全州에 侵入 任實方面으로부터 南侵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陸軍의 小數兵力과 警察은 南下하는 敵을 逸擊交戰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시켜 南下하는 敵을 阻止 強力한 遲延戰을 展開하려함.
3. 가. 全南編成管區司令官은 隷下 兵力 500名을 南原에 急派 西海岸地區戰團司令官의 指揮를 받도록 하라.  
나. 慶南編成管區司令官은 步兵 完全 1個大隊를 編成하여 即時 南原에 急進시켜 西海岸地區 戰團司令官의 指揮를 받도록 하라.  
다. 西海岸地區 戰團司令官은 前記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南下하는 敵을 阻止 強力한 遲延戰을 展開 하라.
4. 가. 一切의 個人裝備品을 携行하라.  
나. 輸送은 自隊가 擔當하되 自動車輛을 利用하라.  
다. 編入後 西海戰團司令官은 後方報告를 提出하라.
5. 連絡報告는 有無線을 利用하라.

---

부록 제21호

作戰命令 第62號

1950. 7. 21 21. 15

1. 省略
2. 軍은 次期 作戰을 準備하기 爲한 再編 및 整備를 目的으로 一部 部隊를 轉進시키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別紙 透明圖의 線까지 1950. 7. 21夜暗을 利用하여 轉進하라.  
나. 第1軍團長은 轉進中 右側의 第6師團 및 左側의 美軍 第1機甲師團과 協助, 連絡을 積極取 하라.
4. 省略

---

부록 제22호

作戰命令 第64號

1950. 7. 23 13. 00

- i. 가. 豊基(1149—1560)地區로부터 分散南下한 敵의 主力은 榮州(1158—1555) 西南쪽으로 繼續南侵을 企圖中이며 榮州 西南쪽 豆田里의 我第10聯隊는 此敵에 包圍當하고 있음. 敵은 戰車 5臺, 砲 4門을 裝備하고 있음.  
나. 榮州 東北쪽은 友軍第21聯隊가 布陣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此敵을 擊滅하려 함
3. 가. 首都師團長은 隷下 第18聯隊로 하여금 即時 該地區의 敵을 殲滅하라.  
(1) 第18聯隊는 一部兵力을 殘置시키고 主力을 即時 泉香洞—長水—大村—寒村洞—南院 街道로 豊基地區에 突入하여 榮州(1156—1555)西北地區로부터 豊基地區로 逃走를 豫測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는 同時에 榮州, 豊基 街路를 東南進하는 敵을 其後方으로 부터 攻擊을 實施하라.  
(2) 首都師團長은 第18聯隊의 移動完了와 同時에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여 陸軍本部에 報告 하라.  
나. 第8師團長은 隷下 第10聯隊 및 第21聯隊로하여금 增援된 第18聯隊와 緊密한 協同作戰으로 徹底 敵을 殲滅케 하라.
4. 輸送은 自隊가 擔當하되 自動車輛을 利用하라.
5. 報告連絡은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 부록 제23호

作戰命令 第65號

1950. 7. 24 15. 00

1. 敵의 一部는 湖南地區로 南下 全羅南北道를 攪亂시킨後 慶尙道로 侵透할 企圖임.
2. 軍은 後續美軍部隊의 到來時까지 現在 位置를 確保하려 함.
3. 가. 陸軍少將 李應俊은 美軍 1個聯隊 到石時까지 隸下 陸軍部隊 및 海軍 警察을 統合指揮하여 順天—南原間 鶴口 西北쪽 國道上 5 km의 要點 및 鶴口 西쪽 樹裏峙 및 順天 南쪽 伊沙川과 國道間의 橋梁等 要點을 確保하라.
- 나. 陸軍大領 閔機植은 隸下 陸海軍 및 警察을 統合指揮하여 雲峰 西쪽要點 및 求禮北쪽 要點을 確保하라.
- 다. 兩部隊는 共히 對戰車 阻止를 爲하여 對戰車壕 및 橋梁 破壞, 其他 方策을 다하라.
4. 省略
5. 報告는 有無線을 通하여 隨時로 하라.

## 부록 제24호

作戰命令 第66號

1950. 7. 24 24. 00

1. 省略
2. 軍은 侵透한 敵을 殲滅하고 1950. 7. 25 05. 00를 期하여 攻勢移轉하려 함
3. 가. 尙州에 集結中인 第1師團은 1950. 7. 24 夜間을 利用하여 咸昌(1116—1523)에 前進하여 1950. 25 05. 00를 期하여 咸昌一帶의 敵을 掃蕩하고 一舉 開慶을 奪取占領하라.
- 나. 第6師團은 現位置를 固守하여 第1師團과 協同하여 開慶을 占領하라.
4. 行政事項은 後達함.
5. 有無線을 利用하여 連絡하라.

## 부록 제25호

戰命令 第67號

1950. 7. 24 21. 00

1. 省略
2. 軍은 1950. 7. 25을 期하여 攻勢에 移轉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隸下 第8師團 및 首岳師團을 統合指揮하여 1950. 7. 26 05. 00를 期하여 榮州를 攻擊占領한後 一舉 豊基를 占領하라.
- 나. 第2軍團長은 隸下 師團을 統合指揮하여 作命第66號에 依한 隸下 各師團의 任務를 繼續 遂行하라.
- 다. 第3師團長은 1950. 7. 25 05. 00를 期하여 盈德을 攻擊 占領한後 一舉 寧海를 占領하라. 各師團 再編은 戰間에 實施하라. 細部事項은 別途 指示함.
4. 行政命令 第8號 參照
5. 報告連絡은 有無線을 利用하라.

## 부록 제26호

作戰命令 第68號

1950. 7. 24 24. 00

1. 가. 情報附錄 第2表 參照.

나. 美軍 및 聯合軍 陸海空軍은 全面的으로 我軍을 支援하고 있음.

다. 我軍의 配置狀況은 附錄 第3表 參照

2. 軍은 侵透한 敵을 擊滅하고 攻擊移轉하려 함.

3. 가. 尙州에 集結中인 第1師團長은 隸下 第 11, 第 12, 第 13, 第 5, 第20聯隊를 咸昌에 前進시켜 1950. 7. 25 05. 00를 期하여 咸昌一帶의 敵을 掃蕩하고 一舉 閔慶을 攻擊 占領하라.

나. (1) 首都師團長은 隸下 第17聯隊를 醴泉(1143—1534)으로 移動시켜 醴泉方面으로 南侵을 企圖하는 敵을 阻止하라.

(2) 第1聯隊는 即時 安東에 移動하여 當面의 敵南侵을 阻止하라.

(3) 首都師團長은 隸下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攻擊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다. 第1軍團長은 首都師團을 統合指揮하라.

부록 제27호

作戰命令 第69號

1950. 7. 25 13. 00

1. 光州에 侵入한 約2個大隊의 敵은 羅州, 木浦로 向하고 其一部는 和順, 經由 筏橋로 向하고 있음. 昨24日 午前中 淳昌으로부터 南原에 侵入한 約1個大隊 以上の 敵의 一部는 求禮로, 또 一部는 雲峰으로 向하고 있음. 全州로부터 任實로 向하는 兵力不詳의 敵은 今日中 南原으로 侵入할것임.

2. 軍은 一部兵力을 急派하여 該敵을 擊破 光州를 確保하려함.

3. 陸軍大領 閔鐵植은 隸下部隊 및 吳德俊部隊를 統合指揮하여 咸陽으로부터 南原의 敵을 擊破하여 南原~谷城~光州에 前進 該地帶를 確保하라.

以下省略

부록 제28호

作戰命令 第70號

1950. 7. 25 16. 00

1. 가. 敵의 一部는 湖南地區로 南下 全南北道를 攪亂시킨後 慶尙道로 侵透할 企圖임.

나. 我軍은 該敵의 侵透를 阻止하여 目下 猛烈한 遲延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該地區의 敵을 阻止猛攻하여 徹底히 殲滅하려 함.

3. 가. 陸軍少將 蔡秉德은 李應俊部隊와 閔鐵植部隊를 統合指揮하여 此를 捕捉하여 殲滅하라.

부록 제29호

作戰命令 第71號

1950. 7. 25 19.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攻擊展開로 因하여 各地區에서 後退하고 있음.

나. 我軍은 猛攻을 加하여 熾烈한 攻擊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隸下 部隊에 對戰車砲를 補充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別紙 對戰車砲 補充計劃에 依하여 隸下部隊에 對戰車砲를 補充完了하라.

나. 陸軍對戰車砲兵團長은 別紙 對戰車砲 補充計劃表에 依하여 即時 各各 補充 完了하라.

다. 第 1, 第 2, 軍團長, 第3師團長 및 對戰車砲兵團長은 補充을 爲한 移動, 出發到着 그리고 補充完了時에는 其結果를 即時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連絡 및 報告는 有無線 또는 傳令으로 하라.

對戰車砲 補充計劃(別紙)

部隊名	現在數	所要數	不足數	補充可能數	補充後의 數
第1軍團司令部	10				10
首都師團	5	15	10	軍團에서 보충 10	15
第8師團	12	15	3		12
第2軍團司令部					
第1師團	4	15	11	陸本에서 6	10
第6師團	7	15	8	陸本에서 3	10
第3師團	6	10	4	陸本에서 4	10

備考

1. 第1軍團 隷下部隊의 對戰車砲는 現在 軍團本部 直屬 對戰砲部隊로서 充當할것.
2. 第2軍團 및 第3師團의 補充對砲는 陸本對砲團에서 編成 補充함.
3. 對戰車砲兵團에 殘留對砲 9門은 何時라도 出動할수 있게끔 出動準備를 完了하여 待機할 것.
4. 補充完了日은 1950. 7. 26 24.00

부록 제30호

作戰命令 第72號

1950. 7. 25 23.00

1. 河東方面에 南下한 敵은 約 1個大隊이며 裝甲車 若干이 南下하였음.
2. 軍은 該敵을 河東線에서 阻止하려 함.
3. 蔡秉德 少將은 既受領 任務를 完遂하는 同時에 隷下部隊를 指揮하여 河東에 至하여 河東 昆湯經由 泗川-固城(小路)街道方面으로 侵入하는 敵을 亦是 殲滅하라.
4. 裝甲車 攻擊으로 石油瓶(揮發油 充滿)을 製造使用하라.
5. 戰鬪指揮所 位置를 報告하라.

부록 제31호

作戰命令 第73號

1950. 7. 27 12.00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攻擊으로 因하여 前進 頓挫狀態에 있음.  
나. 我軍은 敵을 捕捉하여 熾烈한 攻擊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聯合軍과의 戰鬪地境線을 決定하려함.
3. 가. 聯合軍과의 戰鬪地境은 別紙附錄 第1表 透明圖를 參照하라.

戰鬪地境線

(1067-1540)~(1070-1535)~(1078-1530)  
 (1030-1528)~(1090-1525)~(1100-1520)  
 (1110-1517)~(1120-1516)~(1125-1515)  
 (1130-1512)~(1140-1503)~(1150-1496)  
 (1157-1493)~(1165-1495)~(1165-1480)  
 (1167-1470)~(1190-1450)을 連한 線

- 나. 第1軍團과 第2軍團의 戰鬪地境은 陸本訓令 第11號 別紙附錄 第2表(透明圖)의 首都師團과 第1師團의 戰鬪地境과 同一함.
- 다. 第1軍團과 第3師團의 戰鬪地境은 陸本訓令 第11號 別紙附錄 第2表(透明圖)의 第8師團과 第3師團과의 戰鬪地境과 同一함.
- 4. 變更없음
-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과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2호

作戰命令 第74號

1950. 7. 27 11. 00

- 1. 가. 別紙 陸本情報報告 參照

- 나. (1) 我陸軍은 今 7月 27日 05.00를 期하여 攻勢로 移轉함.
- (2) 第3師團은 烏浦洞—錦湖洞線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함.
- (3) 第1軍團은 金光里—平恩里—川本里線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하여 10.00 現在 月呼里—五加里—新川里—龍床里線까지(榮州 南쪽 10軒地點) 進出하였음.
- (4) 第2軍團은 安龍里—孔坪里—虎溪里—若泉里線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하여 08.00現在 外於里(開慶 前方 5軒)線까지 進出하였음.
- (5) 美軍은 我軍과 呼應하여 深川—隴岩里線으로부터 靑山里(報恩 東쪽 15軒)—沃川線까지 進出하였음.

- 2. 軍은 閔鐵植部隊로서 南原을 確保하려함.
- 3. 陸軍大領 閔鐵植은 諫下部隊를 指揮하여 雲峰—南原街道를 前進하여 南原을 占領 確保하라. 以上省略

부록 제33호

作戰命令 第75號

1950. 7. 27 12. 00

-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反擊으로 因하여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擊退하고 있음
- 2. 軍은 一部 對戰車砲兵을 移動하려 함.
- 3. 가. 對戰車砲兵團長은 諫下 對戰車砲 4門을 即時 浦項(1233—1462)으로 移動시켜 第3師團長으로부터 差出하는 對戰車砲兵力(人員)으로 對戰車砲中隊를 編成하여 第3師團長에게 配屬하라.
- 나. 第3師團長은 諫下 對戰車砲兵力(4門編成의 人員)을 浦項(1233—1462)에서 陸軍對戰車砲兵團長에게 差出하여 對戰車砲兵團長으로 하여금 對戰車砲中隊를 編成케 하고 配屬된 對戰車砲中隊를 統合指揮하라.
- 다. 對戰車砲中隊의 編成 責任은 對戰車砲兵團長에게 있으며 編成 및 配屬完了는 7月 28日 12.00까지로 한다.
- 4. 變更없음.
-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4호

作戰命令 第76號

1950. 7. 27 13. 00

-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擊滅하고 있음.
- 2. 軍은 一部兵力을 統合하여 湖南地區에 侵透한 敵을 阻止 殲滅하려 함.
- 3. 가. 閔繼植大領은 吳德俊部隊 및 管下 海兵隊, 警察隊를 統合指揮하여 全北地區(山淸, 居昌, 陝川 咸陽地區 包含)의 敵을 徹底히 殲滅하라.
- 나. 張斗權大領은 李映奎部隊 및 全南地區 管下 海兵隊, 警察隊를 統合指揮하여 全南地區 및 晉州 以東 慶南地區의 敵을 阻止殲滅하라.
- 4. 省略
-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5호

作戰命令 第78號

1950. 7. 27 23.00

-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反擊으로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 나. 我軍의 攻擊開始以來 各地區에서 敵을 殲滅 進擊하고 있음.
- 2. 軍은 攻擊移轉을 契機로 하여 一部 戰鬪地境을 變更하려 함.
- 3. 가. 戰鬪地境은 別紙附錄 第1表 透明圖를 參照하라.
- 나. 第1軍團 및 第3師團은 變更된 別紙 戰鬪地境에 依하여 隣接部隊과 相互 緊密한 連絡下에 攻擊 進出에 萬全을 期하라.
- 다. 第1軍團 및 第3師團 以外的 其他 部隊은 變更없음.
- 4. 省略
- 5. 連絡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6호

作戰命令 第76號

1950. 7. 28 12.00

- 1. 가. 西海岸地區로 侵入한 敵의 一部는 河東方面으로부터 晉州 馬山方面으로 侵透를 企圖하고 있음
- 나. 我軍 및 美軍은 泗川方面에서 該敵을 邀擊하고 있음(透明圖 參照)
- 2. 軍은 一部 兵力을 移動하여 該敵을 徹底히 殲滅하려 함.
- 3. 가. 第1軍團長은 隸下 首都師團 第17聯隊를 即時 馬山에 移動하라.
- 나. 第17聯隊長은 隸下 兵力을 即時 馬山에 移動시켜 侵入하는 敵을 徹底히 捕捉掃蕩하라.
- 다. 第17聯隊長 및 美軍先任顧問官은 在晉州 美軍部隊長과 連絡 協助하라.
- 라. 第17聯隊長은 部隊 出發時間 및 馬山 到着豫定時間을 報告하라.
- 마. 第17聯隊長은 部隊 到着後 即時 報告하라.
- 4. 가. 軍補給廠 및 支援擔當

補 給 所	位 置	支 援 擔 當	軍補給所選用部隊
晉州補給所	(1108--1355)	湖南地區 全部隊 및 陸軍指揮下에 作戰 中인 警察隊, 17R ※ 海兵隊는 馬山基地司令官에게 請求 할 것	變更없음

- 나. 後送 및 醫療; 變更없음
- 다. 輸送; 變更없음

라. 勤務; 變更없음

마. 第3補給品(燃料)은 返納된 空드랍罐과 交換 補給을 實施하라.

5. 가. 首都師團長은 第17聯隊의 現有通信機材 一切를 携行케 하라.

나. 移動開始로 부터 移動完了間 無線使用을 一切 禁한다.

다. 移動完了後는 即時 下記에 依하여 有無線通信을 實施하라.

(1) 無線

(가) 陸軍本部和 第1軍團間의 2所 1系通信을 第17聯隊를 加하여 3所 1系로 한다. 即,

陸軍本部 TOK	} 周波數-4430KC
第1軍團 TEF	
第17聯隊 PAK	

(나) 第17聯隊 管下用으로 下記와 같이 割當함으로 適實再割當 使用하라.

周波數-4180KC, 4300KC

呼出符號-NB1, MC2, LD3, KE4, JE5 CM8

(2) 有線

通信中樞線은 다음과 같다.

大邱○-玄風○-昌寧○-馬山○

라. 通信方法-常時通信

마. 交信開始-移動完了 即時 呼出하라.

바. 其他 詳細한 것은 最近 下達된 通信規定에 依하라.

부록 제37호

作戰命令 第81號

1950. 7. 29 10. 00

1. 가. 安義(1070-1408)에 侵入한 敵은 居昌(1090-1416)을 威脅하고 있으며 咸陽(1072-1395)에 侵入한 一部主力은 山淸(1087-1383)을 指向하여 繼續 侵入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軍은 美軍과 協同하여 該敵의 前進을 阻止 熾烈한 殲滅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該敵을 擊滅하러 함

3. 가. 閔毅植大領은 諒下 部隊를 指揮하여 山淸(1087-1383)~丹城(1095-1368)~三嘉(1112-1383)~陝川(1115-1402)를 經由하여 即時 居昌(1090-1416)에 移動後 當地의 美軍部隊와 緊密한 協同 作戰으로 該敵을 徹底히 殲滅하라.

나. 出發 및 到着時間을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38호

作戰命令 第82號

1950. 7. 29 10. 00

1. 가. 敵遊擊隊은 八公山 周邊에 侵透하여 後方攪亂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軍은 攻撃을 開始하여 敵을 捕捉中이며 八公山에는 我軍 求登浦學院 및 特攻隊가 配置되고 있음.

2. 軍은 兵力을 統合하여 該敵을 徹底히 殲滅하러 함.

3. 가. 治安局長은 警察 1個大隊을 八公山에 派遣하여 第3師團에 配屬시켜 八公山 山嶽 1192高地(11

- 67.5—1456)를 占領確保하라.
- 나. 靑年防衛團長은 靑年防衛隊 1個大隊을 普賢山(1194—1475)에 派遣하여 第3師團에 配屬 普賢山 1124高地를 占領確保하라.
- 다. 第3師團長은 警察 1個大隊과 靑防 1個大隊을 統合指揮하여 該地區를 占領 確保하고 敵을 徹底히 殲滅하라.
4. 給養에 關하여는 第3師團長이 擔當하며 作戰命令 第79號 第4項 行政事項을 參照하라.
5. 連絡 및 報告는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9호

作戰命令 第83號

1950.7.29 16.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因하여 前進이 頓挫狀態에 있음.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殲滅하고 進擊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러 함.
3. 가. 各師團長 및 倭館 第1新兵教育隊長, 慶山第5新兵教育隊長은 別表에 依하여 即時 隸下 新兵을 編入, 統合指揮하라.  
 나. 陸本作命 第52號에 依한 第1, 第5新兵教育隊의 第1軍團 編入은 此를 取消한다.
4. 가. 輸送은 鐵道를 利用하되 所要車輛은 軍需局에 申請하라.  
 나. 各師團長은 編入된 新兵의 名簿를 作成하여 報告하라.
5. 連絡 및 報告는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別表(陸本作命 第83號)

師團補充中隊 人員補充割當表

補充할 師團補充中隊名	題目	補充할 人員	人員差出部隊名	備 考
1軍團 首都師團 補充中隊		400	倭館 第1新兵教育隊	
1軍團 第8師團 補充中隊		400	"	
2軍團 第1師團 補充中隊		400	"	
2軍團 第6師團 補充中隊		400	"	
第2師團補充中隊		400	第1新兵教育隊(倭館) 第5新兵教育隊(慶山)	167名 233名
計		2,000		

부록 제40호

作戰命令 第84號

1950.7.29 17.00

- 가. 敵은 我軍의 攻勢移轉으로 因하여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나. 我軍은 攻勢移轉 以來 猛烈한 攻擊戰을 展開하여 敵을 擊滅하고 있음
2. 軍은 新兵教育隊를 靑年防衛隊에 編入시키려 함.
3. 가. 下記 各級指揮官은 隸下 新兵을 現在의 位置에서 靑年防衛隊에 引繼完了後 既成 將兵은 大邱 防衛司令部에 編入하라.

教育隊 所在地表

部隊區分	題 目	所 在 地	指 揮 官	
			階 級	姓 名
全北編成管區司令部		晉 州	准 將	李 亨 根
第 1 新兵教育隊		晉 州	中 領	朴 炫 洙
第 2 新兵教育隊		固 城	中 領	俞 海 濬
全南編成管區司令部		馬 山	少 將	李 應 俊
第 3 新兵教育隊		馬 山	中 領	李 白 雨
第 5 新兵教育隊		馬 山	中 領	金 炳 徽
第 8 新兵教育隊		釜 山	中 領	孫 熙 善
第 9 新兵教育隊		馬 山	中 領	李 祐 成
第 1 兵器大隊		釜 山	大 尉	金 鳳 柱

(1) 第 5 新兵教育隊長은 作命 第 83 號에 依한 人員以外的 殘餘人員을 編入시키라.

(2) 第 1 兵器大隊長은 釜山地區에서 編入補充된 新兵 200 名을 宥防隊에 編入하라.

나. 關係 各級指揮官은 編入 移動完了後 即時 其結果를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4. 現 各教育隊長은 青年防衛隊에 一切의 部隊裝備品을 引繼하고 引繼引受官의 共同作成의 報告書를 軍需局長에게 提出하라.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 41 호

作戰命令 第 85 號

1950. 7. 29 19. 00

1. 가. 慶南地區에 侵入한 敵은 繼續侵透를 企圖하고 其 一部主力은 居昌(1090—1416)을 向하여 我軍의 正面을 壓迫하고 있음.
- 나. 我軍은 美軍과 協同하여 該敵의 前進을 阻止 熾烈한 殲滅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增援하여 該地區의 敵을 徹底히 殲滅하려 함.
3. 가. 居昌(1090—1416)에 現任하는 閔鐵植 大領은 管下 軍警을 統合指揮하여 安義(1080—1409), 咸陽(1072—1395), 雲峰(1052—1086)線을, 南原(1038—1382)方面에 對하여 猛攻하여 即時 南原을 占領 確保하라.
- 나. 劉升烈 大領은 湖南地區로 부터 後退하여 釜山에 現在하는 全兵力(李映奎中領의 指揮)을 統合하여 即時 晉州地區에 進出케 하여 張斗權 大領 指揮下에 蓮坪(1098—1352), 荷泉(1074—1341), 順天(1048—1328), 求禮(1946—1357)地區線에 대하여 攻擊, 順天~求禮地區를 占領 確保하라.
4. 作戰命令 第 68 號 別紙 行政事項 및 作命 第 79 號 變更 第 1 을 參照하라.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 42 호

作戰命令 第 86 號

1950. 7. 29 21. 00

1. 省略



2. 軍은 一部兵力을 美第24師團에 配屬하려 함.
3. 가. 第17聯隊長은 即時 德岩里(1115—1415)에 到着後 美第24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美第24師團에서 德岩里(1115—1415)에 案內將校를 派遣할 것임.
4. 가. 輸送은 美第8軍에서 派遣한 自動車輻에 依하라.  
나. 德岩里 到着後 美軍에서 補給을 擔當할 것임.
5. 가. 通信樞線은 大邱~狹川街道임  
나. 德岩里 到着까지 有線使用을 禁한다.  
다. 通信規定을 適用하라.

## 부록 제43호

作戰命令 第87號

1950. 7. 30 12.00

1. 省略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함.
3. 가. 第7新兵教育隊長은 隸下 新兵 750名을 第2軍團에 補充한다.  
나. 第2軍團은 前記 新兵을 第6師團에 補充하라.  
다. 第6師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4. 가. 大邱軍補給所는 所要 補給品을 支給하라.  
나. 第7新兵教育隊長은 鐵道輸送을 實施할 것이며 所要車輛을 軍需局長에게 申請하라.
5. 報告 및 連絡은 有無線을 併用하라.

## 부록 제44호

作戰命令 第88號

1950. 7. 30 15.00

1. 別紙情報 附錄 參照
2. 軍은 一部兵力을 臨時 配屬하려함.
3. 가. 第1軍團長은 隸下, 首都師團 第18聯隊를 第2軍團長에 臨時 配屬하라.  
나. 第2軍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現第18聯隊 正面의 敵을 徹底히 攻擊 殲滅하라.  
다. 第18聯隊長은 現位置에서 南侵을 企圖하는 敵을 阻止 殲滅하라.
4. 省略
5. 第18聯隊는 保有한 有無線機材 一切를 第2軍團과 結系하여 그의 指示를 받으라.

## 부록 제45호

作戰命令 第88號

1950. 7. 30 18.00

1. 가. 敵第5師團의 主力은 盈德으로 南侵 繼續 南進을 企圖하였으나 我軍의 猛攻으로 敗走하고 其 主力의 一部를 兄弟峯, 九岩山, 普賢山等地로 分散 浸透하여 我後方 攪亂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제3師團은 該敵을 捕捉하여 猛攻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하려 한다.
3. 가. 第1砲兵團長은 隸下 75耗 曲射砲 2個中隊를 第3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3師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當面의 敵을 捕捉擊滅하라.  
다. 第1砲兵團長은 前記 兵力을 1950. 7. 31 12.00까지 浦項에 到着케하라.

4. 가. 第3師團長은 配屬된 砲兵에 대한 補給一切을 擔當하라.  
나. 配屬砲兵의 諸般 報告는 第3師團을 經由 補項補給所에 提出하라.
5. 第3師團과의 通信連絡 機材一切은 自隊에서 負擔하고 諸元一切은 第3師團長의 指示를 받으라.

부록 제46호

作戰命令 第89號

1950. 7. 31 09. 00

1. 가. 第1軍團 正面의 敵은 昨夜以來 安東 北쪽 約8軒 半程里~下台場線까지 進出하고 其一部는 安東~醴泉 道路上 新安洞(安東 西쪽 15軒), 水磚洞(醴泉 東南쪽 8軒)附近에 南下하여 我第1, 第2軍團連絡線 遮斷 및 第1軍團 左側 背後를 威脅 企圖하고 있음.  
나. 我首都師團 第1聯隊는 新安洞附近에서 第1, 第2軍團 中間地區에 進出한 敵과 接觸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1950. 7. 31 09. 00附로 隸下 首都師團 第18聯隊를 第2軍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2軍團長은 1950. 7. 31附로 前記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現第18聯隊 正面의 敵을 徹底히 攻擊殲滅하라.  
다. 第18聯隊長은 現位置에서 南侵을 企圖하는 敵을 阻止 殲滅하라.
4. 省略
5. 首都師團長은 第18聯隊로 하여금 同部 保有 通信機材 一切을 携行하고 此期間中 第2軍團長의 指示를 받도록 하라.

부록 제47호

作戰命令 第90號

1950. 7. 31 10. 00

1. 가. 閔慶, 龍岩方面에서 咸昌, 尙州, 方面으로 南下하는 敵의 一部는 院洞(1109-1532), 魚龍山(1115-1524)을 거쳐 咸昌(1115-1524)을 向하고 主力은 九味里(1110-1524)-柿岩(1109-1523)-柯亭里(1107-1521) 거쳐 尙州(1114-1504)로 向하고 있음. 槐山(1077-1552) 方面에서 立石洞을 거쳐 尙州로 向하든 敵第15師團 主力은 龍岩 附近에서 敵第13師團 主力과 合流된듯 함.  
나. 我軍은 該敵을 捕捉하여 猛烈한 攻擊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第2軍團에 兵力을 補充하려 함.
3. 가. 中央訓練所長은 別表에 依하여 隸下 兵力으로서 第2軍團에 兵力을 補充하라.  
나. 第2軍團長은 不足兵力을 別表에 依하여 中央訓練所長으로 부터 引受 補充하라.
4. 移動間의 給養은 中央訓練所長이 擔當하라.
5. 第2軍團長은 所要되는 通信機材를 陸軍本部에 申請하라.

別表(作命 第90號)

項目 移動安了日時	移動人員	移動先部隊 및 位 置	移動出發部隊 및 出發地	移送責任官	備 考
7. 31. 24. 00	500	第2軍團, 義城	中央訓練所, 大邱	中央訓練所長	
8. 1. 24. 00	500	"	"	"	
8. 2. 24. 00	500	"	"	"	
8. 3. 24. 00	500	"	"	"	

8. 4. 24.00	500	"	"	"	
8. 5. 24.00	500	"	"	"	
8. 6. 24.00	500	"	"	"	
8. 7. 24.00	500	"	"	"	
8. 8. 24.00	526	"	"	"	
合 計	4,526				

- 備考 1. 移動補充兵力(新兵)의 裝備補充은 中央訓練所長이 擔當함.  
 2. 移動 先地到着까지의 一切는 中央訓練所長에게 責任이 있음.  
 3. 中央訓練所長은 移動前까지 所要教育을 完了시켜 移動할 것임.

## 부록 제48호

作戰命令 第91號

1950. 7. 31

## 1. 가. 附錄(2) 情報

- 나. (1) 第1機甲師團, 一添附 作戰透明圖(附錄 3)에 表示된 線을 防禦하며 金泉(1111-1469)을 警戒한 것. 敵의 東南 移動을 阻止한것.  
 (2) 美第25師團一添附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을 防禦하며 敵의 東南移動을 制止하여 韓國軍과 緊密한 連絡을 取할것. 美軍第25師團 및 韓國軍(1個增援大隊만)의 主力移動을 掩護하여 준다.  
 (3) 美第24師團(-), (第29聯隊戰鬥部隊, 韓國軍第17聯隊 및 因部隊를 包含) 添附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을 防禦하며 敵의 東南移動을 制止한다.  
 (4) 美國軍제리部隊一盈德附近에 있는 韓國軍을 繼續하여 支援하고 盈德~浦項(1230-1460) 道路로 移動하는 敵을 制止한다.  
 (5) 聯合軍航空軍一繼續하여 戰略의 空中支援을 한다.  
 (6) 聯合軍海軍一繼續하여 海空支援을 한다.

## 2. 가. 韓國軍은 敵의 東南移動을 制止하면서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을 繼續 防禦한다.

## 나. 防禦線一附錄(3) 作戰透明圖

## 3. 가. 第1軍團

- (1) 偵察을 하고 1950. 7. 31과 8. 1간의 夜陰을 利用하여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上 選定陣地로 移動하라.  
 (2) 敵의 南下를 制止하라.  
 (3) 洛東江 以南의 新位置에 移動한 後에는 第18聯隊를 統合指揮하라.  
 (4) 新陣地에 到着하게 되면 1個聯隊의 豫備軍을 再編成하라.

## 나. 第2軍團

- (1) 偵察을 하고 1950. 7. 31과 8. 1시의 夜陰을 利用하여 作戰透明圖에 나타나있는 線上의 選定陣地에 移動하라.  
 (2) 敵의 南下를 制止하라.  
 (3) 新位置에 到着後 第18聯隊를(第1軍團) 原隊에 復歸시키라.  
 (4) 洛東江 南側에 到着後 第6師團을 豫備師團으로 再編成하라.

## 다. 第3師團 現作戰任務를 遂行하라.

- (1) 諸部隊는 積極的으로 偵察을 實施하여 敵情을 把握하라.
- (2) 割當區域以外的 諸移動은 該部隊本部에서 調整할것임.
- (3) 隣接部隊와 連絡을 緊密히 取할것.
- (4) 其他 移動은 此本部의 命令이 있어야함.

4. 가. 兵站 및 基地被支援部隊

(1) 義城(1160—1490)에는 第1 및 第2軍團本部和 特攻隊 首都師團, 第8師團 第1師團 機甲聯隊 軍直轄 特別部隊等이 있다.

X作戰部隊

第1彈藥中隊, 第3彈藥中隊(-), 兵站中隊, 野戰輕整備中隊(-), 第51通信大隊派遣隊, 工兵中隊(-), 醫務廠派遣中隊, 野戰倉庫小隊

(2) 浦項(1232—1461)에는 第3師團(-) 軍直轄特別部隊가 있다.

X作戰部隊 第3師團特別隊

(3) 大邱(1158—1430)에는 韓國軍本部和 軍直轄特別部隊가 있다.

X作戰部隊

第1兵器大隊, 其他廠中隊, 兵站廠中隊, 通信廠中隊

(4) 軍需兵站基地의 支援을 받고 있는 其他部隊

나. 後送\* 및 病院

(1) 首都病院—蔚山(1230—1400)

(2) 第1病院—馬山(1160—1350)

(3) 第2病院—大邱(1158—1430)

(4) 第3病院—亭州(1200—1400)

(5) 第5病院—釜山(1205—1350)

(6) 陸軍療養所—密陽(1174—1394)

다. 輸送

(1) 영기동(1140—1500)線 以後는 通行 危險.

(2) 道路

(가) 大邱 및 浦項間 道路는 兩便通行을 할 수 있다.

(나) 大邱, 義城間의 大移動時는 片側通行은 다음과 같다.

1. 1時間以上을 要하는 輸送은 南大邱 終末驛에나 北義城 終末驛에서는 하지 않을것.

2. 每哩 50臺以上の 車輛이 縱으로 密集하여서는 안됨.

3. 速度는 每時 15哩를 超過하지 말것.

4. 此本部에서는 移動을 徹底하게 調整할것.

(다) 各部隊는 兵站基地로부터 部隊의 軍需品集積所까지 輸送機關 供給을 責任진다.

(라) 工兵은 義城으로부터 第2軍團에 이르는 補給路를 干先 整備할것.

(마) 第2軍團은 咸昌(1115—1524)—尙州(1114—1504)—洛東江(1123—1497)—북송동(1134—1457)에 이르는 道路를 01.30까지 優先的으로 使用한다.

라. 勤務

(1) 兵器

(가) 中隊整備中隊, 義城(1160—1490)에 있는 第1, 第2軍團.

(나) 各師團으로부터 自動車整備中隊에 後送한 使用不可能한 兵器材料는 即時로 自動車整備中隊로부터 大邱重自動車整備中隊에 後送할것.

마. 第3種器材(揮發油)—交換時에는 空도량罐을 가지고 가야한다.

- 바. 兵器廠이 1950. 7. 31 01.00에 慶州에 設置하였음.  
 사. 兵器廠(第2種 및 第4種)—양천(1218—1437)에 1950. 8. 3 06.00에 設置한다.  
 5. 現作戰后號는 그대로 實施한다.  
 가. 通信軸—義城(1166—1497)~新寧(1176—1460)~大邱(1158—1439)  
 나. 電話 또는 傳令으로 直接 上級司令部(CP)에 繁速히 連絡傳達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 此作戰命令은 電話 또는 無線으로 傳하여서는 안되며 連絡將校가 持參하여함.

## ◎附錄 #1(作命 第91號)

## 軍隊區分

第1軍團 陸軍少將 金弘壹

第8師團 陸軍大領 李正一(成佳)

第10聯隊, 第16聯隊, 第21聯隊

首都師團 陸軍准將 金錫源

第1聯隊 第18聯隊(洛東江 安全 移動에 따름)

第2軍團 陸軍准將 劉載興

第1師團長 陸軍准將 白善擘

第11聯隊, 第12聯隊, 第13聯隊

第6師團長 陸軍大領 金鍾五

第2聯隊, 第7聯隊, 第19聯隊

## 軍直轄

第3師團 陸軍准將 李俊植

機甲聯隊, 第22聯隊, 第23聯隊

## ◎附錄 #2(陸本作命 第91號)

## 敵軍 情報要約

咸昌 西北方地帶에는 砲 및 戰車로 裝備한 約 2個師團이 有함.

此地帶에서의 敵線은 (1105—1515)近處로부터 (1114—1535)에 沿하는 線이다. 敵은 此地域에 걸쳐 72時間에 亘하여 強力한 攻擊을 加하여 왔다. 敵은 南進함으로서 我軍防禦를 破裂하고 美軍과 國軍間을 遮斷하려고 企圖한다. 敵은 其地域에 있어서 繼續하여 強力한 攻勢로 나오는것같이 보임.

醴泉北方地區(1140—1536)一帶로부터 安東地區(1174—1533)에 걸쳐 一帶에는 三個師團이 있음. 이것은 敵軍의 強力한 攻勢를 表示한. 敵은 醴泉을 防禦하는 國軍을 擱置하려는 充分한 戰鬥力을 保持하고 있으며 醴泉東쪽 및 秦州와 安東間道路西쪽에 있어서 強力한 戰鬥力을 準備함으로서 安東方面에 侵攻을 企圖中임.

敵兵 800名으로서 (1160—1535)近方 및 南쪽까지의 侵攻이 報告되었다.

敵은 洛東江 東쪽에 若干의 小部隊를 移動하였다. 全地域은 強烈한 迫擊砲射擊을 받았으며, 4~6台的 戰車가 (1147—1540), (1160—1545), (1173—1535)에 있음을 報告받았다.

敵軍은 只今 宮及한 全地域에 걸쳐 強力한 制壓戰을 繼續한 것으로 보임.

盈德地區—盈德市 防禦 敵兵力은 約 2個聯隊로 推測됨. 不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敵은 物, 人兩面으로 支援을 받고 있다고 함.

約 2,000名의 兵力이 盈德을 向하여 (1115—1515)近處北쪽 및 西北쪽 道路에서 移動하고 있다고 함. 敵은 盈德市에 대한 強力한 防禦를 繼續한 것으로 보임.

부록 제49호

作戰命令 第92號

1950. 7. 31 22. 00

1. 省略
  2. 軍은 西部地區 戰鬪部隊의 軍隊區分을 變更하러 함.
  3. 가. 陸軍少將 李應俊은 別表 軍隊區分에 依한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現在線으로부터 敵의 東進을 制止하며 侵入하는 敵을 捕捉殲滅하라.
  - 나. 西部地區 戰鬪司令官은 日報樣式에 依하여 諫下部隊의 兵力裝備 및 配置現況을 此命令 受領後 24時間內에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가. 指揮所 位置를 報告하라.
  - 나. 各種報告는 有無線으로 實施하되 暗號 및 陰語를 使用하라.
- 別表(作命 第92號)
- 軍隊區分
- 西部地區戰鬪司令官 陸軍少將 李應俊
- 參謀長 陸軍大領 張斗權
- 部隊長 閔(鏞植)部隊
- 吳(鎔俊)部隊
- 李(瑛)部隊
- 海兵隊
- 金(龍)部隊

부록 제50호

作戰命令 第93號

1950. 8. 1 12. 00

1. 가. 湖南地區로부터 南進하는 敵은 河東方面으로부터 晉州(1107—1356)에 侵透繼續 東進을 企圖하고 있음.
2. 軍은 防禦陣地를 構築 強化하러 함.
3. 가. 西部地區 戰鬪司令官은 馬山市 防禦에 萬全을 期하는 同時에 現在 構築된 豫備陣地를 洛東江線 까지 延長하여 牛山里(1155—1352), 三溪里(1148—1362), 漆原里(1151—1371)—德南里(1150—1380)을 連하는 線에 防禦陣地를 急速히 構築完了하라.
- 나. 防禦陣地 構築에 있어서 當地 美軍과 緊密히 協助하라.
- 다. 防禦陣地를 構築完了하면 即時 其 現況을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報告 및 連絡은 有無線을 併用하라.

## 2. 陸 本 訓 令

## 부록 제51호

作戰訓令 第3號

1950. 7. 5 11. 00

此後 作戰의 必要에 依하여 陸軍 總參謀長이 命令하는 外는 一切의 橋梁의 破壞를 嚴禁함.

## 부록 제52호

作戰訓令 第4號

1950. 7. 10

韓美合同作戰에 關하여

諫下 各部隊長은 韓美協同作戰에 關하여 下記 諸點에 格別한 留意를 要하니 各級 指揮官에게 徹底한 反省과 嚴格한 覺悟를 要求할 것임.

戰線에 參加하고 있는 美軍은 聯合國軍隊의 一員으로서 出動하고 있으며 人類共存의 大原則을 破壞할려는 傀儡軍의 無慈悲한 行爲를 阻止하는데 있음은 勿論이거니와 現實에 있어서 聯合軍은 我大韓民國 國土內에서 相當한 人員과 裝備의 損失을 보고 있음. 高貴한 生命의 犧牲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鬭爭은 무엇때문에 繼續하는 것인가는 想像할때마다 一意 感謝의 뜻 以外는 아무것도 存在하지 못할 것임.

上級指揮官들이 朦朧한 部隊掌握으로 말미암아 無意味한 後退가 續出되고 있으나 責任의 所在를 明白히 할 날에는 神聖한 任務를 冒瀆함에 不遇한 것임. 나의 流血을 迴避하며 他人의 鮮血을 山野에 뿌리려는 觀念을 一掃하라.

## &lt;記&gt;

1. 現下 接敵問題를 加一層 深刻하게 考慮하여 時間과 場所에는 一寸의 讓步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聯合國의 戰鬪準備 完了까지는 現位置를 死守할 것.
2. 釜山 大田間의 補給路 確保와 아울러 第1線에 撤出되어 있는 全補給品에는 特別한 警戒가 繼續됨 으로서 聯合軍의 戰鬪任務 遂行에 萬全을 期할 수 있도록 할 것.
3. 各指揮官은 健全한 戰術上의 原則問題를 確實히 把握하여 作戰에 萬全을 期할 것이며 특히 現今 實施中에 있는 遲延戰에 있어서 繼續的인 接의 行動은 戰術的 原則을 最高度로 發揮할 것. 過速히 陣地를 放棄한다는 것은 聯合軍에 대하여서도 더욱 末安한 事實임.
4. 全力을 傾注하여 現在 位置하고 있는 地域은 絕對保障하며 局部的인 後退, 自由로운 敵의 侵入, 便衣隊 遊擊隊의 侵入, 縱深道路의 遮斷等은 容恕할 수 없는 일이며 最後的인 抵抗이 必要함.
5. 戰鬪中의 段階的 改編에는 物心兩面으로 許多한 困難을 想起할 수 있으니 가장 實踐에 適合하도록 最善을 다하여 人員 및 裝備의 補充에 努力을 繼續할 것.

## 부록 제53호

作戰訓令 第5號

1950. 7. 11 11. 22

警察大隊 配置에 關한 件.

治安局長은 下記에 依據 諜下 警察兵力을 配置 聯合軍과 協同作戰을 遂行하라.

1. 配置兵力

가. 警察第 1 大隊

- 本部—靑陽—主力(981—1508)
- 定山—1 個中隊(995—1504)
- 大川—1 個中隊(960—1496)

나. 警察第 2 大隊

- 本部—鴻山—主力(976~1479)
- 熊川—1 個中隊(960~1483)
- 舒川—1 個中隊(969~1403)

2. 配置完了 日時—1950. 7. 12 10. 00

3. 가. 大川 및 37°線 以南 西海岸地區는 我海軍이 警備에 任하고 있음

나. 鳥致院, 公州, 江景, 諡山地區에는 聯合軍 및 我第17聯隊 一部, 騎兵大隊가 接敵, 交戰 警備 中임.

다. 警察大隊 前記 我海軍 陸軍 및 聯合軍과 緊密한 連絡을 實施하라.

4. 敵이 大川—靑陽을 突破하여 南下할때에는 百方手段을 傾注하여 道路 및 橋梁을 破壞 또는 障礙物을 構成하여 徹底히 抵抗케 하라.

5. 配置完了 報告 및 情況報告를 隨時 治安局 經由 報告하라.

부록 제54호

作戰訓令 第 6 號

1950. 7. 11

正確한 情報提供에 關한 件.

別紙 駐韓美司令官으로 부터의 訓令에 記錄된 바와 같이 各戰團部隊로 부터의 不正確한 情報 또는 時期를 놓친 情報의 提供, 그리고 變更된 狀況을 報告하지 않고 航空支援을 要請하여 不意의 錯誤를 惹起케 한 實例가 頻繁하였음.

陸軍本部로서는 有無線 通信網을 總動員하여 狀況의 把握과 迅速, 正確한 情報를 收集하여 航空支援에 提供하고자 萬般의 努力을 傾注하였음. 그러나 各部隊는 時期를 놓친 報告 또는 莫然한 報告를 하였으며 自進 正確하고 또 迅速한 報告를 함이 없었음. 이로 因하여 不幸을 齎來하여 왔음.

今後 各部隊長은 每日 4回以上 定期的인 報告를 提供하는 同時에 急變狀況이 있을때는 即刻 報告함에 留意할 것이며 恒常 通信網의 確保와 正確한 情報의 正確性을 銘記하여 航空支援의 圓滑과 共同作戰 遂行에 效果있게 하라.

別紙(作戰訓令 第 6 號)

作命 第 2 號 1950. 7. 11

韓國總參謀長 貴下

1. 韓國軍 野戰指揮官으로서 報告된 바와 같이 韓國部隊에 對한 空中支援에 있어서 外觀上의 錯誤를 보는 것은 我軍前線에 있어서의 不正確한 報告에 依據한다는 것이 믿어질만 하다.
2. 恒常 戰況報告라는 것은 我軍의 好轉狀態를 말하는 것이 普通이나 其 代價로서 即 不正確한 報告가 가져오는 것과 같은 不幸의 損害를 齎來한다는 것은 避할수 없는 事實이다.
3. 效果的인 戰略上의 對空支援을 할 수 있도록 全部隊長에게 我軍前戰 一帶에서 惹起되는 正確하고 또 定期的인 情報의 重要性을 銘記하여 주기를 要望함.

駐韓美陸軍 司令官 陸軍少將 William F. Dean



## 부록 제55호

作戰訓令 第7號

1950. 7. 20

1. 別紙 情報附錄 第1 및 附錄 作戰 透明圖 第2 參照
2. 軍은 第25聯隊(1950. 8. 8附 一號命令 第39號에 依하여 第3師團에 配屬)를 魯巷洞(1201—1465)과 杞溪(1217—1464)附近에 移動시켜 8月 8日~9日 夜間을 利用하여 永川(1191—1452) 및 浦項(1233—1462)으로 南下 移動하는 敵을 阻止하러 한다.
3. 가. 第25聯隊 第1大隊는 杞溪(1217—1464) 附近에 移動하여 防禦陣地를 占領 浦項方面(1233—1462)으로 移動하는 敵을 阻止하라.  
 나. 第25聯隊 第2大隊는 魯巷洞(1201—1465)에 移動하여 防禦陣地를 占領 永川方面(1191—1452)으로 移動하는 敵을 阻止하라.  
 다. 第25聯隊 第3大隊는 大邱(1157—1439)에 殘留하여 別命時에 杞溪(1217—1464) 附近으로 移動한 準備를 하라.  
 라. (1) 各隊는 1950. 8. 10 別命時에 東北 北쪽에 대하여 攻勢를 取한 準備를 하라.  
 (2) 第25聯隊는 軍指揮下에 둔다.
4. 가. 軍補給所 및 支援 擔當  
 (1) 浦項 軍補給所는 第25聯隊本部, 第1大隊 및 聯隊特別部隊를 支援한다.  
 (2) 永川 軍補給所는 第25聯隊 第2大隊 및 第3大隊를 支援한다.  
 나. 補給水準  
 (1) 初度支給  
 (가) 第1級補給品一部隊에 1日分  
 (나) 第3級補給品一部隊에 2日分  
 (다) 第5級補給品一部隊에 3日分  
 다. 輸送  
 (1) 各部隊는 軍補給所로 부터의 補給品 및 裝備品의 輸送을 擔當한다.  
 (2) 聯隊長은 補給品 受領에 充分한 車輛이 配當되었음으로 確認하라.  
 (3) 部隊輸送을 爲한 車輛(20臺는 美第8軍, 35臺는 陸軍本部)은 目的地에 到着後는 原所屬部隊로 復歸시켜야 한다.  
 라. 戰傷者는 慶州 第3陸軍病院에 後送하라.
5. 가. 大隊間의 連絡을 爲한 無線話元은 美顧問團 指揮網에 依한다.  
 나. 移動間에는 傍受만을 實施하고 電波發射는 禁한다. 新指揮所에 到着하여 비로소 送信을 開始한다.  
 다. 移動中에는 敵과 만나 交戰케 되거나 또는 上部에서 特別許可가 없는限 電波發射는 禁한다.

## 別紙 情報附錄 第1

1. 約 1個大隊, (1,500名)로 推算되는 敵은 立岩里(1206—1475)附近에 있으며 戰車 2臺와 種類 未詳인 砲 4門으로 構成되어 있다.
2. 敵은 若干의 遊擊隊와 遊擊戰의 訓練을 받은 獨立第766聯隊로서 構成된 것으로 認定된다.
3. 敵은 砲와 戰車를 保有함에 鑑하여 步兵에도 無電通信機關을 保有한다고 볼 수 있다. 砲兵은 駝馬砲兵이라고 認定되며 8臺의 車輛을 保有하고 있다는 報告에 按하였다.

## 부록 제56호

作戰訓令 第8號

1950. 7. 21

部隊改編에 關하여

作戰遂行上 必要에 따라 部隊改編을 斷行코져 陸本作命 第57號로 一部 部隊의 移動을 命令하였으나 部隊改編에 關한 細部를 指示하여 強力無缺한 戰團部隊로 改編, 次期 作戰遂行을 迅速하고 便利하게 하고져 하니 各級 指揮官은 銘心하여 其 實施에 萬全을 期할것.

<記>

1. 各師團長은 下記에 依하여 1950. 7. 24 零時까지 必히 改編完了하고 其 結果를 即時 陸本에 報告 할것.
2. 改編業務 進行은 特히 嚴密 迅速하게 實施하는 同時에 現責任 任務遂行의 中斷없기를 바람(別紙 參照)

別紙(作戰訓令 第8號)

軍團名	師團名	改編前部隊名	改編前兵力	改編後部隊名	改編後兵力
第1軍團	第1師團	師團司令部 및 直轄部隊	1,045	師團司令部 및 直轄	1,045
		第11聯隊 第5聯隊(2師團) 第12聯隊 第20聯隊(2師團) 第13聯隊 合計	1,124 1,129 1,427 897 2,038	第11聯隊 第12聯隊 第13聯隊	2,253 2,324 2,038
第3師團	第3師團	師團司令部 및 直轄部隊	1,310	師團司令部 및 直轄	1,310
		第23聯隊 第1獨立大隊 第2獨立大隊 第22聯隊(2師團) 獨立機甲聯隊 永登浦學院 合計	2,386 482 1,001 1,290 1,226 630	第23聯隊 第22聯隊 獨立機甲聯隊	2,386 2,773 1,856
陸軍本部 豫備隊	首部師團	師團司令部 및 直轄部隊	1,026	師團司令部 및 直轄	1,026
		第1聯隊 第8聯隊 第18聯隊 第17聯隊 合計	1,528 1,197 1,197 1,762	第1聯隊 第18聯隊 第17聯隊	1,528 2,394 1,762
第2軍團	第6師團	師團司令部 및 直轄部隊	1,959	師團司令部 및 直轄	1,959
		第2聯隊 第7聯隊 第19聯隊 合計	1,451 1,592 1,568	第2聯隊 第7聯隊 第19聯隊	1,451 1,592 1,568
第8師團	第8師團	師團司令部 및 直轄部隊	1,729	師團司令部 및 直轄	1,729
		第10聯隊 第25聯隊 1個大隊 第21聯隊 第16聯隊 合計	2,295 686 2,099 1,345	第10聯隊 第21聯隊 第16聯隊	2,295 2,785 1,345

부록 제57호  
 作戰訓令 第9號 1950.7.23 17.00  
 西海岸地區에 南下한 敵은 繼續 南下를 企圖하고 있음.  
 治安局長은 警察兵力 2個大隊를 今夜(7月 24日)中 順天에 集結完了할것.

부록 제58호  
 作戰訓令 第10號 1950.7.25 11.00  
 各都市 對空標識 實施에 關하여 治安局長은 南韓一帶에 警察隊가 駐屯하고 있는 重要 都市를 7月 25日 23.00까지 對空標識을 下記에 依據 完了하라.

- <記>
1. 重要都市라 함은 面事務所以上의 所在地 및 交通上 重要地를 말 함.
  2. 標識要領은 英語로 上空에서 認識할 수 있도록 該地名을 “제인트” 其他 染色으로서 著明하게 標識 할것.
  3. 標識은 큰 建物等의 屋上에 實施하되 數個所에 標識하라.
  4. 秘密保持에 留意하라.

부록 제59호  
 作戰訓令 第11號 1950.7.25 12.00

1. 敵情 省略
2. 全般的 狀況은 陸本作命 第57, 第66, 第67, 第68號에 依據하여 攻擊移轉하였음.
3. 軍은 攻擊移轉에 따르는 細部事項을 本訓令으로 示達함.
  - 가. 攻擊移轉 梯次 別紙 附錄第2號透明圖와 같다.
  - 나. 攻擊移轉을 爲한 部隊區分 別紙 附錄第1號 및 一般命令 第22號를 参照하라.
  - 다. 攻擊進出計劃은 別紙 附錄 第3號에 依하라.

別紙 附錄第1號(訓令第11號)  
 軍隊區分  
 聯1軍團 軍團長 陸軍少將 金弘奎  
   首都師團 師團長 陸軍准將 金錫源  
     第1聯隊, 第17聯隊, 第18聯隊, 配屬砲兵隊  
     第8師團 師團長 陸軍大領 李正一(成佳)  
     第10聯隊, 第16聯隊, 第21聯隊, 配屬砲兵隊  
 第2軍團 軍團長 陸軍准將 劉載興  
   第1師團 師團長 陸軍大領 白善樺  
     第11聯隊, 第12聯隊, 第13聯隊, 配屬砲兵隊  
   第6師團 師團長 陸軍大領 金鐘五  
     第2聯隊, 第7聯隊, 第19聯隊, 配屬砲兵隊

陸軍本部 直轄部隊  
 第3師團 師團長 陸軍准將 李俊植  
   第22聯隊, 第23聯隊, 獨立機甲聯隊  
 第1砲兵團, 對戰車砲兵團, 陸軍通信大隊 陸軍工兵團, 陸軍兵器大隊 陸軍兵站團, 野戰醫務團 陸軍援護隊, 陸軍軍樂隊 各陸軍新兵教育隊 各陸軍病院 各地區補給廠, 陸軍被服廠, 陸軍衛生材料廠, 陸軍施設管理所, 陸軍療養院, 野戰財務隊, 聯合軍連絡將校團 青防顧問團.

攻 擊 進 出 計 劃 表

第 1 期					
時 日	進 出 線	各 師 照 目 標			要求事項
X	店村(1118—1529)—榮州(1158—1556)—臨院津을 連하는 線	1 師	聞慶(1109—1544)	前	
		首 師	水鐵洞(1142.5—1563.5)		
		6 師	聞慶(1109—1544)	後	
		8 師	水鐵洞(1142.5—1563.5)		
3 師					
X 11	聞慶(1109—1544)—水鐵洞—梅院里(1219.—1615)을 連하는 線	1 師	延豐(1096—1547)	前	
		首 師	丹陽(1123.5—1568.5)		
		6 師	龍川(1095—1562)	後	
		8 師	丹陽(1123.5—1568.5)		
3 師					
X 12	延豐(1098—1547)—丹陽(1128.5—1568.5)—寧越(1143—1592.2)을 連하는 線	1 師	龍川(1495—1562)	前	
		首 師	清風(1114—1577)		
		6 師	忠州(1091—1572)	後	
		8 師	堤川(1118—1592)		
3 師					
X 13	龍川(1495—1562)—清風(1114—1577)—永德里(1139—1610)을 連하는 線	1 師	忠州(1092—1572)	前	
		首 師	堤川(1118—1592)		
		6 師	牧溪里(1068—1585)	後	
		8 師	鶴山里(1106—1599.5)		
3 師					
X 14	忠州(1901—1572)—堤川(1118—1592)—平昌(1135.5—1620.5)을 連하는 線	1 師	牧溪里(1086—1585)	前	
		首 師	鶴山里(2206—1599.5)		
		6 師	雨蟻峙里(1086.5—1603.5)	後	
		8 師	原州(1092—1617)		
3 師					
第 2 期					
Y 11	牧溪里(1086—1585)—鶴山里(1106—1599.5)—雲橋里(1124—1627)을 連하는 線	1 師	龍浦里(1074—1589)	前	
		首 師	門懸(1099—1609)		
		6 師	原州(1092—1617)	後	
		8 師	驪州(1062—1611)		
3 師					
Y 12	龍浦里(1074—1589)—雨蟻峙里(1086.5—1603.5)—門懸(1099—1609)—下安興里(1112.5—1626)을 連하는 線	1 師	梧杏里(1062—1589)	前	
		首 師	原州(1092—1617)		
		6 師	橫城(1095—1635)	後	
		8 師	栗村里(1056—1621)		
3 師					

時 日	進 出 線	各 師 團 日 標		要求事項
Y 13	梧杏里(1062—1589)— 原州(1092—1617)—橫 城(1095—1635)을 連 하는 線	1 師	大平里(1054—1599. 5)	前
		首 師	羅州(1062—1611)	方
		6 師	(1080—1640)	後
		8 師	楊平(1047—1634)	方
第 3 期				
Z 11	大平里(1054—1599. 5) —羅州(1062—1611)— (1080—1640)을 連하 는 線	1 師	利川(1043—1609)	前
		首 師	栗村里(1056—1621)	方
		6 師	龍水里(1030. 5—1642)	後
		8 師	兩水里(1030. 5—1641)	方
Z 12	利川(1043—1609)—東 村里(1056—1621)—龍 水里(1069—1642)을 連 하는 線	1 師	昆池岩里(1033—1617)	前
		首 師	楊平(1047—1634)	方
		6 師	春川(1070—1682)	後
		8 師	石中里(1005. 5—1647)	方
第 4 期				
D 11	京安里(1025—1625)— 楊平(1047—1630)—原 州里(1074—1673)을 連 하는 線	1 師	京安里(1025—1625)	前
		首 師	兩水里(1030. 5—1641)	方
		6 師		後
		8 師	議政府(1004—1665)	方
D 12	廣州(1012—1633)—兩 水里(1030. 5—1641)— 春川(1070—1682)을 連 하는 線	1 師	廣州(1012—1633)	前
		首 師	抱川(1021—1683)	方
		6 師		後
		8 師	東豆川(1005—1678)	方
摘 要				

## 부록 제60호

作戰訓令 第12號

1950. 7. 25 12. 00

強力한 攻擊移轉을 斷行함에 際하여 各指揮官은 下記 事項을 該下部隊 將兵에게 徹底히 周知시켜 古兵과 新兵의 統合指揮에 萬全을 期할것.

## &lt;記&gt;

1. 新兵에 對한 戰鬪間의 教育을 繼續 實施하라.
2. 命令없이 戰場離脫할 時의 即決處分權을 分隊長級以上에게 7月 26日 零時부터 附與한다.

附言: 第2項의 戰場離脫이라 함은 直屬上官이 命令한 地點에서 命令없이 後退함과 命令한 作戰行

動을 意識으로 不履行함을 말함.

부록 제61호

作戰訓令 第13號

1950. 7. 25 21. 00

對空標識에 關하여

軍은 明 26日 零時以後 大爆擊을 實施하려 함, 然而 各單位隊長은 下記 要領에 依據하여 對空標識에 萬全을 期할것.

<記>

1. 對空標識은 空中에서 明確히 認識할 수 있도록 白色 “케인트” 또는 布板等으로 著明하게 標示할 것.
2. 標識對線은 我地域內의 部隊 警察建物, 都市, 交通上要地, 鐵道 其他車輛, 必要한 部隊.
3. 本標識은 明 26日 03. 00까지 標識完了하라.
4. 가. 本訓令의 傳達을 爲하여서는 無線 또는 傳令을 利用하되 電話使用은 嚴禁함.  
나. 本訓令 實施를 爲하여서는 秘密保持에 留意할 것이며 一切 民間人의 使用을 嚴禁할것.

부록 제62호

作戰訓令 第14號

1950. 7. 26

各種 銃砲의 實彈亂射防止에 關한 件: 各戰線을 通하여 數日來 國軍 및 聯合軍 陸海空軍의 熾烈한 反擊으로 敵은 前進頓挫狀態에 陷入되고 있음 그러나 敵은 局部的으로는 繼續 熾烈한 攻勢로 南進을 企圖하고 있는바 各級指揮官은 加一層 猛烈한 反擊을 實施할 것임.

특히 戰鬪間에 있어서 目標을 正確하게 捕捉하지 않고 實重한 實彈을 亂射하는 傾向이 多有함 此는 平素의 教育不充分과 敵에 對한 恐怖心에서 生起되는 것이니 各級指揮官은 諫下將兵에 對하여 下記事項을 徹底히 教育시켜 早速한 時日內에 矯正시키는 同時에 爾後 如似한 事의 根絶을 期할것.

<記>

1. 戰鬪間이라 할지라도 隨時 適當한 時間을 捕捉하여 不斷히 射擊教育을 實施하는 同時에 兵器를 常時 愛護 尊重하는 習性을 涵養시킬것.
2. 各自가 所持하고 있는 銃砲는 勿論 其他 各種 銃砲의 有効射距離를 徹底히 教育시키는 同時 戰鬪間 如何한 境遇에 있어서도 指揮官의 射擊命令없이 實彈發射를 嚴禁할것.
3. 戰鬪熾烈하여 砲壓彈雨之間이라도 實彈射擊에 있어서는 正確한 照準과 必中の 信念을 가지고 實施케 할것.

부록 제63호

作戰訓令 第15號

1950. 7. 29

戰局은 一層 重大段階에 突入하고 彼我戰鬪가 熾烈하여짐과 아울러 傀儡首魁들은 最後發惡으로 갖은 奸計를 劃策하여 南韓 席捲의 野慾을 夢想하고 工作隊, 便衣隊等 避難民을 假裝하고 南侵하여 各處에 飄動하고 있음 또 近間 敵의 斯種 工作, 便衣隊等을 疊的으로 加益激増하는 한편 各種各樣의 手段方法으로 我方의 後方攪亂, 煽動等을 恣行하고 있음.

此는 前線後方을 莫論하고 寸度의 樂觀을 不許하는 事態임을 銘心하여야 할것임. 此際에 各級指揮官은 擔當地域內의 警戒을 加一層 嚴重히 實施케 하는 同時에 特別 戰鬪地域內를 通過하는 者는 如何

한 者를 不問하고 嚴密히 調査團束하여 敵의 便衣隊 浸透을 未然 防止하는데 積極努力하는 同時에 下記에 依한 調査資料를 提供하니 爾後 此件實施에 萬全을 期할것.

<記>

1. 敵은 大多數가 晝間에는 白衣를 着用함.
2. 洋服 또는 韓服上衣 2番단추 裏面에 赤絲로 단추를 固定시킴.
3. 體中(主로 服裝주머니)에 朝鮮銀行 發行 拾錢짜리를 所持하고 있음.

『上記 2, 3項에 해당되는 者는 武器를 携帶치 않어도 敵의 便衣隊 또는 工作隊에 相違없음』

---

부록 제64호

作戰訓令 第16號

1950. 7. 31 12. 00

作戰行動에 關한 指示

作戰에 關한 同內容의 諸般命令 및 指示 一切가 英文과 國文의 二流系로 下達이 되었을때에 相互異議한 點이 있을 場合에는 英文을 正本으로하여 行動할 것.

## 3. UN 決議 및 其他

## 가. UN 統合軍司令部 設置에 關한 決議文 1950. 7. 7 (S/1588號)

安全保障理事會는 北韓(傀儡)軍의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平和의 破壞를 造成한다는 것을 決議하였으며, UN 會員國은 此 武力攻擊을 擊退하고 이 地域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恢復하는데 必要한 援助를 大韓民國에 提供할 것을 建議하였으므로

1. UN 會員 各國政府 및 國民이 1950년 6月 25日과 27日字 決議에 따라서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衛하고 있는 大韓民國을 援助함으로써 이 地域에 國際平和와 安全을 恢復함에 迅速 強力한 支持를 歡迎하며
2. UN 會員 各國이 大韓民國에 對한 援助 提供을 UN에 傳達하여 贊同을 留意하고,
3. 前記 安全保障理事會의 모든 決議에 依據하여 軍事 및 其他의 援助를 提供하는 全會員國은 如斯한 軍事, 其他 援助를 美合衆國 主導下의 統合司令部로 하여금 効用하도록 建議하며,
4. 이러한 모든 軍隊의 司令官을 任命할 것을 美合衆國에게 要請하고
5. 北韓軍에 對한 作戰中에 있어서 參戰各國의 國旗와 함께 UN 旗를 任意로 使用할 權限을 統合司令部에 賦與하고
6. 美合衆國은 安全保障理事會에 對하여 統合司令部 指揮下에 行하여지는 作戰段階에 關하여 報告書를 提出할 것을 要請한다.

##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fied Command (S/1588) (July 7, 1950)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Having recommended tha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1. Welcomes the prompt and vigorous support which governments and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given to its Resolutions of 25 and 27 June 1950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in defending itself against armed attack and thus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2. Notes tha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ransmitted to the United Nations offers of assist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3. Recommends that all Members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other assistance pursuant to the aforesai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ake such forces and other assistance available to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4. Requests the United States to designate the commander of such forces;
5. Authorizes the unified command at its discretion to use the United Nations flag in the



course of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n forces concurrently with the flags of the various nations participating;

6. Requests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the Security Council with reports as appropriate on the course of action taken under the unified command.

나. 韓國 陸海空軍 指揮權 移讓에 關하여 李大統領과 MacArthur將軍 間에 交換된 公翰(國際聯合 文書 S/1627)

(1) UN美國代表 Austin氏가 事務總長에게 傳達한 公翰 1950.7.25

UN美國代表는 UN事務總長에게 敬意를 表하오며 아울러 大韓民國 李承晚大統領과 MacArthur將軍 間에 交換된 下記公翰에 關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注意를 喚起하도록 要請하는 바입니다.

(2) 李大統領이 MacArthur將軍에게 보낸 公翰 1950.7.15

大韓民國을 爲한 UN의 共同軍事努力에 있어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作戰中인 UN의 陸海空軍 모든部隊는 貴下의 統率下에 있으며 또한 貴下는 그 最高司令官으로 任命되어 있음에 鑑하여 本人은 現 作戰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一切의 指揮權을 移讓하게 된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如斯한 指揮權을 貴下가 直接行使하거나 貴下가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作戰하도록 任命한 其他 指揮官으로하여 금 代行케 할 수도 있습니다.

韓國軍은 貴下의 麾下에서 服務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한 것이며 또한 韓國國民과 政府도 高名하고 훌륭한 軍人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國土의 獨立과 保全에 對한 卑劣한 共產侵略을 對抗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UN의 모든 軍事權을 받고 있는 貴下의 全體的인 指揮를 받게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激動되는 바입니다.

貴下에게 深厚하고도 따뜻한 個人的인 敬意를 表합니다.

(3) 駐韓美國大使를 통하여 李大統領에게 보낸 MacArthur將軍의 回翰 1950.7.18

7月 15日 公翰에 의하여 李大統領이 取하신 措置에 대하여 本官의 謝意와 衷心으로 讚意를 그에게 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內에서 作戰中인 UN軍의 統率力은 반드시 增強될 것입니다. 勇敢無雙한 大韓民國軍을 本官 指揮下에 두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李大統領의 本官에 대한 過度한 個人的인 讚辭에 대한 謝意와 그에 대하여 本官이 가지고 있는 尊敬의 뜻도 아울러 傳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將來가 苦難하고 遼遠한지도 모르겠으나 終局的인 結果는 반드시 勝利한 것이므로 失望하지 마시도록 그에게 傳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tters Between President Syngman Rhee and General MacArthur(UN Doc.S/1627)**

**Note from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Mr. Austin) to the Secretary-General (July 25, 1950)**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presents his complements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has the honour to request that there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following exchange of letters between President Syngman Rhe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General Douglas MacArthur:

**Letter from President Rhee to General MacArthur (July 15, 1950)**

In view of the joint military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n which all military forces, land, sea, and air, of all the United Nations fighting in or near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your operational command, and in which you have been designated Supreme Commander of United Nations Forces, I am happy to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such command to be exercised either by you personally or by such military commander or commanders to whom you may delegate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s.

The Korean Army will be proud to serve under your command, and the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will be equally proud and encouraged to have the over-all direction of our combined combat effort in the hands of so famous and distinguished a soldier, who also in his person possesses the delegated military authority of all the United Nations who have joined together to resist the infamous Communist assault on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our beloved land. With continued highest and warmest feelings of personal regard.

Syngman Rhee

**Reply of General MacArthur to President Rhee through American Ambassador John J. Muccio in Korea (July 18, 1950)**

Please express to President Rhee my thanks and deepest appreciation for the action taken in his letter of 15 July. It cannot fail to increase the co-ordinated pow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operating in Korea. I am proud indeed to have the gallant Republic of Korea forces under my command. Tell him I am grateful for his generous references to me personally and how sincerely I reciprocate his sentiments of regard. Tell him also not to lose heart, that the way be long and hard, but ultimate result cannot fail to be victory.

MacArthur

## 다. 彼我의 兵力比較 (7.26~8.5)

我	軍	敵	軍
韓國軍		北 傀 軍	
CD	6,644명	제 1 사단	5,000명
1 D	7,601 "	제 2 사단	7,500 "
3 D	8,829 "	제 3 사단	6,000 "
6 D	5,727 "	제 4 사단	7,000 "
8 D	8,964 "	제 5 사단	6,000 "
1 C, 2 C 直轄	3,990 "	제 6 사단	3,600 "
陸本 및 直轄	14,901 "	제 7 사단 (豫備)	11,000 "
新兵訓練所	9,016 "	제 8 사단	8,000 "
後方사단 및 編成管區	20,299 "	제 9 사단 (豫備)	11,000 "
負傷 및 非戰鬪公傷	8,699 "	제 10사단 (豫備)	11,000 "
韓國軍兵力計	94,570명	제 12사단	6,000 "
U N 軍		제 13사단	9,500 "
ICAV	10,276명	제 15사단	5,000 "
2 D (제 9 연대 및 支援砲兵)	4,922 "	제 105機甲사단	4,000 "
24 D (제 5 전투단 및 제 29 연대 포함)	14,540 "	獨立機甲연대	2,000 "
25 D	12,073 "	제 766 부대	1,500 "
1 해병여단 (제 5 해병연대)	4,713명	제 16機甲여단 (豫備)	5,000 "
釜山軍需기지사	5,171 "	제 17機甲여단 (豫備)	5,000명
제 8 군사령부	2,933 "	제 24여단 (推算)	5,000 "
駐韓空軍基地	4,051 "	제 25여단 ( " )	5,000 "
駐韓美軍事顧問團	452 "	제 26여단 ( " )	5,000 "
其 他	107 "	제 27여단 ( " )	5,000 "
UN軍兵力 計	59,238 "	後方部隊	
我軍兵力總計	153,808명	제 31여단 (編成中)	
		제 32여단 ( " )	
		제 37여단 ( " )	
		前線司 및 2 개군단司, 기타	未詳
		敵軍兵力總計	134,100명

4. 年 表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 月 5 日	<p>○美砲兵 敵戰車隊와 交戰, 美軍과 敵軍과의 最初의 接觸이 午前 11時開始(西部戰線)</p> <p>○3日~5일에 걸친 美英聯合艦隊 艦載機 戰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平壤飛行場 格納庫 大破</li> <li>2. 大同江鐵橋에 銃爆擊</li> <li>3. 敵의 油送列車을 大破炎上</li> <li>4. 敵輸送車 攻擊</li> <li>5. 平壤北部 操車場의 Truck車輛炎上</li> <li>6. 鎭南浦를 爆擊 大火災 發生</li> </ol> <p>○美 韓國派遣司令官 William F. Dean 少將 前線陣地에 出動</p> <p>○中共軍 北上 頻繁(Reuter通信 香港)</p> <p>○舟山列島에서 台灣攻略 準備中の 中共軍 第20, 21 兩師團 突然 中國本土에 轉送(香港 Reuter 共同)</p> <p>○美軍事專門家 韓國戰局을 有利하게 展開하려면 約 6個師團 必要하다고 言明</p> <p>○美對中共 石油 禁輸 決定</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敵戰車隊는 美軍의 防禦線을 突破 못함</li> <li>3. 美軍은 計劃的後退</li> </ol> <p>○美軍 平澤南쪽 37°線附近에 新防禦線 設置—新防禦線은 東部の 德材里로부터 中部의 鎭川을 通하여 西쪽으로 延이 水原南쪽 約 60km의 平澤南쪽에 이르는 線</p> <p>○敵軍 平澤占領(午後 6時)</p> <p>○B29編隊, 北韓의 重要 鐵橋爆破 平壤 新安州等の 軍事施設 및 輸送路 爆擊, 敵飛行機의 出現 全無.</p> <p>○開戰以來 今日까지 美軍飛行機 總數 1,100台 出擊</p> <p>○敵軍 寧海 占領하고 繼續하여 東海 南進中</p> <p>○國會非常委員 選出. 外交 軍事等に 緊急措置</p> <p>○韓美聯合으로 海軍防衛司令部 釜山에 設置.</p> <p>○美 Truman大統領 韓國戰況의 好轉을 確信한다고 言明</p>
7 月 6 日	<p>○水原 南쪽 戰線의 敵戰車隊 美軍作戰에 依하여 그 進擊이 阻止</p> <p>○美軍 戰略的 後退(戰線 指揮官談)</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美軍은 戰略的으로 若干 後退, 水原 東쪽의 河口에 沿한 戰線은 依然 確保中</li> </ol>		<p>○美, 國聯軍組織 決議草案, 安保各國代表에 送付, 要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安保는 韓國援助를 取扱하는 總委員會를 設置할것.</li> <li>2. 安保는 美國에 UN軍最高指揮官을</li> </ol>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命令하도록 할것.</p> <p>3. 安保는 各國에 對하여 韓國戰線에서 싸우는 各軍隊를 UN旗 아래 統一할것.</p> <p>○美上院歲出委員會, 1951年度 對外軍事援助費 12億2,250萬弗의 支出을 可決.</p> <p>○西歐諸國, 軍事援助分配의 武器一部를 在韓美軍에게 輸送</p> <p>○B 29爆擊機隊 韓國 向發.</p> <p>○英國勞動黨, 韓國戰爭의 平和的 解決을 爲하여 美, 英, 蘇의 三巨頭會談을 提案</p> <p>○蘇, 英提案을 拒否.</p> <p>○蘇, 7月 4日附 美院書에 回答—安保決議는 非法이며 韓國海岸封鎖로 因한 蘇利益에 對한 모든 損害는 美國이져야 한다.</p>		<p>○Lie UN事務總長, UN美代表에 UN旗를 授與.</p> <p>○MacArthur元帥, 日本警察豫備隊 75,000名 創設 및 海上保安廳員 8,000名을 增員한 것을 許可.</p> <p>○美國, 徵用, 徵兵法 發動.</p> <p>○美, 韓國에 兵力增加, 豫備役 再召集을 決定.</p> <p>○MacArthur元帥, 全將兵에게 蘇聯, 中國領土에 越境말라고 警告</p> <p>○美, 中共에 石油輸出 禁止.</p>
7月7日	<p>○在韓美軍司令部 發表—國軍再編指揮官에 John H. Church准將을 任命.</p> <p>○Walton H. Walker將軍, 最初로 韓國視察, 前進指揮司令官 및 國軍司令官과 會談.</p> <p>○東海岸의 敵軍, 三陟 浦項으로부터 西南쪽에 進出, 一路南下態勢.</p> <p>○敵軍 忠州 占領.</p> <p>○B 26編隊, 38°線以南 여러地域에 出擊 平澤附近에서 敵密集部隊 및 敵戰車를 爆擊.</p> <p>○B 29編隊, 元山, 鎭南浦等 大軍事施設 爆擊.</p> <p>○MacArthur元帥를 UN軍總司令官에 任命(UN安保 決定)</p>	7月8日	<p>○UN安保決議에 依하여 Truman大統領 MacArthur元帥를 在韓UN軍總司令官에 任命.</p> <p>○美軍, 敵戰車隊의 猛擊으로 大田北쪽 約 5km의 交通要衝地인 天安에서 撤退</p> <p>○未明에 敵軍 天安에 侵入.</p> <p>○敵 2個師團 原州에 集結, 大田地區에서 南北 交通遮斷企圖하는 一大包圍網 形成이 主目的.</p> <p>○지난 3, 4日間, 敵東海岸에서 兵力集結, 戰車隊 先頭로 南下企圖.</p> <p>○美海軍, 海岸砲擊 繼續</p> <p>○美空軍, 各地區 繼續攻擊.</p> <p>○B 29編隊, 高城 與南間의 軍事施設 元山海軍基地, 與南室素工場 猛爆</p> <p>○敵果—敵戰車 17台 破壞.</p> <p>○陰城地區에서 敵 1個大隊를 殲滅.</p> <p>○北傀, 韓國占領地域에 土地改革令 公布(平壤放送)</p> <p>○韓援支持 48個國, Burma, Afganistan, Syria, 支持 宣言.</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9日	<p>○UN旗 使用은 韓國에 局限.</p> <p>○中共, 華北과 滿州에 增兵, 南方의 中共軍 北上移動(香港 8日 AFP)</p> <p>○美軍 高射砲隊 2個大隊 不日 極東에 派遣豫定.</p> <p>○西獨新聞報道一蘇, Rumania, Yugoslavia國境에 6個 師團 集結中(伯林 8日 UP)</p> <p>○英, 美의 英石油의 對中共輸出 禁止要請을 拒否.</p> <p>○蘇, UN事務總長 Lie氏를 美帝의 先導者라고 攻擊(莫府 8日 AP)</p> <p>○韓國에 있어서 美軍의 不利한 二大條件</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敵의 壓倒的인 數와 戰車 및 裝備가 優秀한 機甲部隊.</li> <li>2. 美軍의 補給이 不如意, 韓國의 特殊한 氣候와 地勢(韓國基地 8日發, London Times)</li> </ol> <p>○韓國戰線에서 現在까지의 美軍死傷者 10名(香港 9日, AP)</p> <p>○UN軍 戰團配置 完了</p> <p>○美軍機甲部隊, 天安周邊의 戰線에 進擊中, 一方 敵은 天安占領後 더욱 南進中</p> <p>○敵主力 大田을 指向, 天安을 占領한 敵, 約 100台의 戰車, 2個師團乃至 3個師團, 錦江을 向하여 前進中.</p> <p>○Walton H. Walker中將 昨日 前線 訪問後 敵軍의 指揮 및 戰團能力은 優秀하다고 言明.</p> <p>○極東空軍 100機以上 8日부터 敵 前後</p>	7月10日	<p>方 要地 施設 爆碎.</p> <p>○三陟南쪽 48km 周邊의 石油 Tank破壞, 38°線 直北의 襄陽 大火發生</p> <p>○現在 天安地區에서 彼我 激戰中.</p> <p>○陰城, 忠州地區에서 韓美兩軍, 壓倒的 優勢의 敵과 對峙.</p> <p>○第5空軍, 延 126機 出擊</p> <p>○盈德, 38°線間의 東쪽 沿岸, 數個 橋梁 完全爆碎.</p> <p>○敵軍, 鎭川 占領.</p> <p>○韓國 全域에 戒嚴令.</p> <p>○UN安保理事長 言明一美國의 韓國에 있어서의 任務는 警察行動.</p> <p>○印度, UN決定支持를 表明.</p> <p>○美, 對韓武器輸送 順調하게 進行</p> <p>○美陸軍省, 第6軍管下의 第2步兵師團 및 數個 援護大隊에 對하여 極東派遣 待機命令을 下達.</p> <p>○蘇, 韓國戰爭은 英, 美, 佛等의 計劃的侵略이라고 非難.</p>
		7月10日	<p>○全義에서 敵과 美軍對陣.</p> <p>○敵, 9日 밤 天安南쪽 19km의 全義通過, 天安 全義間에 敵戰車 多數와 密集部隊 南下中.</p> <p>○鎭川 再奪還</p> <p>○天安地區의 敵軍 第1師團, 美軍을 繼續壓迫.</p> <p>○忠州地區의 敵軍, 國軍과 對峙, 敵軍 陰城을 占領.</p> <p>○敵, 原州로부터 堤川에 進擊.</p> <p>○敵, 丹陽 侵入</p> <p>○美海軍 盈德의 敵軍事目標 砲擊</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월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海軍當局, 韓國封鎖作戰에 敵의 抵抗없다고 言明.</li> <li>○美空軍 300機, 韓國西部地域을 猛攻擊 全義—水原—忠州에 이르는 交通線 攻擊.</li> <li>○B 29, B 26編隊, 天安, 平澤, 水原地區의 敵軍事目標 爆擊.</li> <li>○美極東空軍司令部, 10日 2週間 戰果發表—15日間 1,570回 出擊.</li> <li>○今日까지의 敵損害, 戰車 65, Truck 190台</li> <li>○開戰以來 美軍의 被害, 戰死 27, 負傷者 94, 行方不明 245名.</li> <li>○UN事務總長 特使 Alfred Cashin大領 極東向發.</li> <li>○Collins美陸軍參謀總長, Vandenberg空軍參謀總長 訪日.</li> <li>○美徵兵局長 言明—美, 이미 2萬名에 動員令.</li> <li>○美 Truman大統領, 韓國을 主로한 世界問題를 討議코자, 11日 白雲館에서 民主, 共和兩黨 幹部會議 開催 豫定</li> <li>○美, 對戰車新武器, Bazooka砲 韓國에 發送.</li> <li>○佛, 極東海軍에게 韓國水域의 UN軍과 協力, 作戰에 從事하라고 命令.</li> <li>○UN軍, 烏致院, 公州地域 確保.</li> <li>○忠州 丹陽 奪還.</li> <li>○敵戰車, 殆半 擊破.</li> <li>○敵의 前線兵力 約16個師團 戰車 170台.</li> <li>○敵, 前線一部에서 後退.</li> <li>○極東空軍編隊, 水原—公州에 걸쳐 軍</li> </ul>	7월12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事目標에 命中彈, 延 150台 出擊.</li> <li>○濠洲空軍 大田北쪽 90km 長湖院 爆擊.</li> <li>○B 29編隊, 忠州北쪽, 原州, 鎭川等地를 爆擊.</li> <li>○B 26編隊, 烏致院, 鎭川을 攻擊</li> <li>○戰局好轉에 따라 E.C.A韓國使節團 一行不日內 歸韓 豫定.</li> <li>○MacArthur元帥, UN에 UN旗 要請.</li> <li>○UN事務總長, 世界平和 成就是 NN의 힘으로 하겠다고 言明.</li> <li>○英, 航空母艦 1隻, 韓國水域에 就役 次 新嘉坡港 出港.</li> <li>○佛極東艦隊, 美軍指揮下에 UN軍에 加擔.</li> <li>○美, 義勇軍志願者, 第2次世界大戰 以來 最高記錄</li> <li>○美上院軍事委員會, 太平洋同盟 結成을 上院에 提議.</li> <li>○太平洋艦隊司令官 Arthur W. Radford 提督, MacArthur元帥와 會談次 今日 Hawaii 出發</li> <li>○烏致院 前方 錦江橋 破壞.</li> <li>○敵軍, 洪城 占領</li> <li>○大田地區의 UN軍, 錦江南岸에서 戰略的後退.</li> <li>○UN軍爆擊機 約 50台, 約 500噸의 爆彈을 敵의 重要軍事目標에 投下, 이 爆擊은 西海岸의 美基地로부터 急行한 B 29編隊.</li> <li>○濠空軍 Mustang戰闘機, 後方 全作戰地域의 軍事目標을 爆擊—戰車 8台, Truck 1台, 野砲牽引車 1台를 擊破.</li> </ul>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13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B29, 2機 喪失되었다고 發表.</li> <li>○敵軍 平海 占領.</li> <li>○Acheson長官, Dulles顧問, 對日講和案 檢討中이라고 言明.</li> <li>○美, 電子兵器等 輸送中.</li> <li>○Canada艦隊 韓國水域에서 作戰次出發.</li> <li>○Acheson美國務長官, UN援韓決議案支 持國. 53個國으로 增加하였다고 言明.</li> <li>○和蘭驅逐艦 韓國水域을 向하여 出航中.</li> <li>○在韓 UN軍地上軍司令官에 Walton H. Walker中將 任命.</li> <li>○UN軍 各戰線에서 反擊—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敵侵攻阻止에 全力.</li> <li>2. 錦江南岸의 美軍 不撤退.</li> <li>3. UN軍 防禦線背後에서 敵 guerilla 部隊 活動.</li> <li>4. UN軍 增援部隊, 前線으로 急行中.</li> <li>5. 北部에 進出한 美軍前衛部隊, 2個의 道路上에서 南進하는 敵에 對하여 強硬히 抵抗, 戰車 8台를 先頭로 하는 敵軍 1,500名과 激戰中.</li> </ol> </li> <li>○敵軍, 清州 占領.</li> <li>○少數의 敵軍, 錦江을 渡河(14日 UP)</li> <li>○美, 濠空軍은 220回 出擊 敢行.</li> <li>○B29機 50台, 全韓國의 軍事施設에 爆彈 500頓 投下.</li> <li>○UN, 捕虜處殺에 對備하여 赤十字監 視班 設置.</li> <li>○對韓國 援助國 申請接受委員會를 美國에 設置.</li> <li>○UN旗 MacArthur司令部에 처음으로 掲揚</li> </ul>	7月14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太平洋艦隊司令官 Arthur W. Radford提督 日本着</li> <li>○Truman大統領, 國會에 對하여, 眞理의 戰鬪을 爲하여 8,900萬弗 要求.</li> <li>○Hawaii地上部隊에 待機命令.</li> <li>○敵軍을 指揮하는 蘇聯將校 200名, 서울에서 活動說(London 14 UP)</li> <li>○Walker司令官 前線視察.</li> <li>○敵第6師團 致命傷, 敵第1, 15, 5師團, 中部戰線 右側에서 南下.</li> <li>○公州附近에 布陣한 美第34聯隊, 正面戰線에서 戰鬪.</li> <li>○中部右翼戰線에서 敵第15, 5師團은 繼續南下, 現在 忠州東南쪽, 50km의 咸昌東쪽, 40km의 安東을 指向.</li> <li>○美海軍, 東海岸 松田里 軍事施設을 砲擊, 三陟, 蔚珍間의 施設도 砲擊.</li> <li>○美海軍은 主로 東海岸, 英海軍은 主로 西海岸을 擔當.</li> <li>○英艦 이미 韓國西海岸에서 作戰에 加擔, 仁川附近에서 敵沿岸을 砲擊.</li> <li>○UN軍, 敵軍과 20對 1의 露勢로써 勇戰.</li> <li>○我軍, 延豊을 奪還.</li> <li>○陸軍本部 大邱에 移動.</li> <li>○Lie事務總長, UN加入國에 對韓國地上部隊 派遣을 要請.</li> <li>○UN美代表, Yugoslavia가 侵略 當할 境遇에 UN은 Yugoslavia를 援助할 것 이라고 言明.</li> <li>○UN旗 傳達式 終了.</li> <li>○印度, 韓國問題解決을 爲하여 美, 英,</li> </ul>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 月 15 日	<p>○蘇 3 國에 新講究策을 提案要請</p> <p>○美, UN 通한 對蘇 交涉意思 全無, 但 敵軍의 即時停戰 및 38°線 撤收에만 受諾한 意圖.</p> <p>○美海兵隊 數千, 韓國 向發</p> <p>○兵力不明의 敵部隊, 早朝 大田東쪽 32 km 地點에서 錦江南岸의 橋頭堡를 確保 同方面에서 戰鬪繼續.</p> <p>○未明, 敵軍은 2 回에 걸쳐 美軍防禦線 東部方面에서 攻擊開始.</p> <p>○約 4,000 名의 敵軍 砲兵掩護下에 錦江을 夜間渡河 企圖</p> <p>○渡江企圖의 敵軍, 南岸에 到達되기 前에 擊退.</p> <p>○다른 敵一隊는 午前 8 時, 錦江戰線의 中央部에서 攻擊開始.</p> <p>○敵船 5 隻 渡江企圖하였으나 美軍의 反擊으로 失敗.</p> <p>○美軍服裝으로 假裝한 敵便衣隊, 美軍 陣地에 侵透.</p> <p>○在比律賓 美義勇軍飛行士는 美國義勇軍航空隊인 F 51 戰鬪機部隊에 配屬되어 今日 韓國에 出動.</p> <p>○內務長官, 白性郁氏 辭任, 後任長官에 趙炳玉氏 發令</p> <p>○美第 1 海兵師團 韓國에 增援次 美本土 出發.</p> <p>○英政府發表—英國은 韓國問題를 第一主義로 하기 때문에 中共政府를 UN에 加盟시키는 努力을 中止.</p> <p>○中蘇間에 秘密協定說(美對中政策研究會發表)</p>	7 月 16 日	<p>○蘇軍, Iran 國境에 集結(Istanbul 15 日 AFP)</p> <p>○美軍, 錦江防禦線 總崩壞, 不得已 新陣地에 後退.</p> <p>○國軍 第 21 聯隊, 午後 美防禦線의 醴泉 地域에서 美軍砲兵隊의 擁護下 數的으로 優秀한 敵에 對하여 攻擊.</p> <p>○盈德附近의 東海岸에서 敵海上, 地上 二重包圍作戰을 企圖하였으나 失敗.</p> <p>○敵軍 開慶 占領.</p> <p>○濠空軍, 錦江流域의 敵密集部隊를 攻擊</p> <p>○B 29 編隊 50 機以上, 서울操車場 爆擊.</p> <p>○美國防省 代辯人談—敵戰車 149 台破壞</p> <p>○政府, 大田에서 大邱로 移轉.</p> <p>○UN 旗, 在韓國 UN 司令官, Walker 中將에 傳達.</p> <p>○美, 對韓政策에 結論—最惡의 境遇에 는 韓國周邊에 再裝備.</p> <p>○蘇, 印度平和案에 回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ehru 首相의 平和提案을 歡迎.</li> <li>2. 蘇聯은 安保를 韓國問題 解決에 仲介로 하는데, 中共代表團 包含한 5 大國 參加가 絶對로 必要하다고 指摘한 點을 受諾한다.</li> <li>3. 問題의 急速, 또한 恒久的解決의 最後決定은 韓國民族 自身의 決定만이 可能하다는 點에서 蘇聯과 印度는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New Delhi 17 日 AFP)</li> </ol> <p>○美第 19, 34 兩步兵部隊, 新陣地에 後退完了.</p>
		7 月 17 日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敵包圍를 避하기 爲하여 美軍 大田拋棄後退.</p> <p>○敵先遣隊, 未明 大田附近에 出沒.</p> <p>○美軍, 大田飛行場 拋棄, 後方陣地 新設.</p> <p>○美第24師團 依然 大田에 進擊하는 敵을 阻止.</p> <p>○敵의 包圍下의 美第34, 19聯隊, 無事히 大田北쪽 및 西쪽의 新陣地에 布陣</p> <p>○敵軍一部 英陽에 侵入.</p> <p>○UN空軍, 延 230機以上 出擊.</p> <p>○敵의 Z機, 淸州方面 上空에 出現</p> <p>○敵軍, 錦江下流을 渡河, 江景, 論山에 侵入</p> <p>○美, Nehru印首相 提案에 對한 回答發送—</p> <p>1. 北韓軍 撤退가 先決問題.</p> <p>2. 中共 UN加入은 別問題.</p> <p>○英國政府, 印度首相 Nehru氏의 韓國問題解決에 關한 平和提案을 檢討</p> <p>○Gromyko蘇外務次官, 英國의 和平提案에 回答—平和解決에의 最善의 路은 中共이 參加한 安保理事會의 召集</p>		<p>華北沿岸間 水域에 出沒.</p> <p>2. UN海軍, 韓國東海岸의 地上軍事施設 砲擊.</p> <p>○美增援軍, 第1機甲師團, 東海岸 浦項 上陸에 成功, 目下 橋頭堡 構築.</p> <p>○UN海軍部隊, 東海岸 道路施設에 繼續 大打擊.</p> <p>○極東空軍, 濠洲空軍, 美英艦載機, 地上部隊에 呼應, 全域에 걸쳐 交通線, 敵密集部隊, 補給施設을 爆碎.</p> <p>○敵軍, 空軍活動 全無, 敵步兵部隊 및 戰車隊, 繼續 UN軍, 國軍陣地에 向하여 兵力增強.</p> <p>○國軍海兵隊의 戰果—敵射殺 160, 多發銃彈 14箱子, 99式 實彈 68箱子, 我軍 損害 重傷 2名, 輕傷 2名.</p> <p>○UN加盟國中 20個國代表, 韓國出兵에 關한 會談을 華府에서 開始, 會談參加國名—Argentina, 濠洲, Bolivia, 加奈陀, 佛, 諾威 和蘭, 新西蘭, Mexico, 英國, 美國等.</p> <p>○日共機關紙「赤旗」無期停刊.</p> <p>○美, 正式으로 韓國戰爭의 終熄을 爲한 印度의 提案 拒否.</p> <p>○美軍當局, 敵軍內에 蘇聯軍事顧問의 配置量 確認.</p> <p>○英外務省代辦人, 在極東 英國人所有의 石油 全部를 英軍使用 目的으로 徵發 하였음을 確認(中共에게 石油供給 中止)</p>
7月18日	<p>○敵의 進擊速度 急速弱화</p> <p>○敵第4, 5師團, 占領地域에 增援部隊 派遣.</p> <p>○大田附近, UN軍戰線에는 變化無.</p> <p>○美第16, 34聯隊의 斥候隊, 繼續敵陣地를 偵察, 敵은 我軍의 反擊으로 進出 不能.</p> <p>○美國防省 發表—</p> <p>1. 國籍不明의 潛水艦, 九州, 台灣,</p>	7月19日	<p>○敵軍 裡里占領.</p> <p>○UN海軍 繼續 東海岸 敵軍施設 砲擊</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 月 20 日	<p>○敵空軍 活動 若干活發化.</p> <p>○敵補給線, 軍需品集積所, 集結地道路線에 對한 UN空軍의 爆擊은 繼續, 今日 UN機 延 230台 出擊.</p> <p>○UN空軍, 敵의 各種飛行機 78台 擊破 空軍開戰以來 大戰果.</p> <p>○UN空軍의 戰果—戰車 21, Truck 143 各種車輛 12, 貨車 13, 建物 6棟 破碎.</p> <p>○開戰以來 18日까지 美軍의 損害—戰死 28名, 戰病死 3名, 重傷 114名, 輕傷 52名, 行方不明 65名.</p> <p>○敵軍一部 醴泉에 侵入.</p> <p>○敵軍 盈德을 占領</p> <p>○東飛嶺에서 敵 1個聯隊를 殲滅.</p> <p>○美第 1 海兵師團長에 Oliver P. Smith 少將被任.</p> <p>○美 Truman大統領, 議會에 韓國戰爭에 關한 特別敎書—侵略發生은 自由諸國民協力의 重要性을 一層強化.</p> <p>○美國은 Saigon에 東南亞細亞 最大의 外交機關을 設置할 計劃樹立, 이 機關은 150乃至 200名의 美國人官吏로 構成.</p> <p>○UN軍, 大田飛行場에서 新 Rocket砲로 敵戰車 7台 擊破.</p> <p>○敵軍 全州 占領.</p> <p>○UN空軍, 平壤, 元山, 連浦等地를 猛擊, UN海軍艦載機 敵軍事施設 猛爆.</p> <p>○B 29編隊 龍山操車場 爆碎.</p> <p>○서울—仁川間의 鐵道爆破, 交通遮斷, B 29編隊 同地區周邊의 大建物破壞 炎上.</p> <p>○MacArthur元帥 作戰展望에 對하여 聲</p>		<p>明發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韓國戰爭은 第 1 段階를 終了.</li> <li>2. 敵의 勝利할 機會 完全喪失.</li> <li>3. 韓國平和回復 및 主權確立할때까지 繼續駐屯 支援할것임.</li> </ol> <p>○新貨幣, 千圓券, 百圓券 發行</p> <p>○UN韓委 聲明發表—援助는 軍作戰에 隘重.</p> <p>○美, UN에 軍事力管理案 提出—</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各國은 各部門의 軍事力에 關하여 定期的으로 報告한다.</li> <li>2. UN에 提出한 各國의 報告를 調査하기 爲하여 UN에 現地調査를 行할 權限을 付與한다.</li> <li>3. 各國의 軍事工業을 監視한다.</li> </ol> <p>○比律賓, 義勇兵志願을 許可.</p> <p>○泰國, 韓國UN軍에게 原則적으로 派兵決定.</p> <p>○美國務省 對韓白告發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蘇聯은 「포츠담」宣言時, 또는 對日 宣戰佈告時에도 當然한 順序를  거쳐서 自由로운 韓國獨立政府를 樹立한  것을 誓約하였다.</li> <li>2. 南北韓國을 兩分하는 38°線은 日本 降服受諾에 混亂을 免除하자는 單純한 臨時的措置였을에도 不拘하고 蘇聯은 直時軍隊를 進駐케하여 獨斷의 으로 38°線을 恒久的 分割線으로 規定하였다.</li> <li>3. 1945年 12月 Moskva 3 相會議에서 全韓國領土를 統治하는 臨時民主政權 樹立援助를 賦與한것을 同意하였</li> </ol>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車部隊 勢力 6,000名을 粉碎.</p> <p>1. 美第25步兵師團 咸昌—尙州地區에서 敵戰車部隊의 攻擊을 粉碎.</p> <p>○敵軍, 光州 占領</p> <p>○敵軍, 群山—光州地區에서 더욱 南下.</p> <p>○東西兩海岸에서 UN海軍部隊는 嚴重한 哨戒繼續.</p> <p>○敵機甲部隊, 西南戰線 順川에 近迫.</p> <p>○B 29編隊 平壤 爆擊.</p> <p>○UN空軍, 延 165機 出擊, B 29編隊 大田附近의 工業施設 爆擊.</p> <p>○B 29編隊 忠州地區의 鐵道, 忠州西南쪽 16km의 英江里 및 公州의 道路, 橋梁을 爆擊.</p> <p>○第 5 空軍의 B 26輕爆擊機隊, 堤川地區 爆擊.</p> <p>○F 80, F 51編隊 平澤, 大田, 忠州, 槐山地區에 機銃掃射.</p> <p>○第 5 空軍 戰鬥機의 戰果—戰車 10台, Truck 27, 車輛 22, 貨車 37, 機關車 1, 倉庫 5棟等을 破壞.</p> <p>○敵軍, 汝山에 侵入.</p> <p>○丁一權 戒嚴司令官 佈告發表—民心騷亂케 하는 言語等 發覺時는 極刑에 處斷.</p> <p>○MacArthur元帥 UN安保에 韓國戰爭의 狀況報告</p> <p>○金門島와 中國本土와의 國府對中共의 砲擊戰 繼續.</p> <p>○Latin America 12個國, UN決議를 絶對 支持한다고 意思表明.</p>	<p>強.</p> <p>○美第 1 機甲師團, 全兵力을 投入하여 陣地 確保中.</p> <p>○永同地區 戰局重大化, 開戰以來 最大 最強의 攻擊.</p> <p>○美海軍, 韓國西海岸에 出動, 海岸一帶을 哨戒中.</p> <p>○敵軍, 木浦에 侵入.</p> <p>○B 29編隊, 公州地區 採車場을 爆擊.</p> <p>○公州, 利川, 平澤, 烏致院, 서울, 忠州, 橫城等地의 鐵道 및 公路上의 橋梁爆擊.</p> <p>○今日現在까지의 美軍의 損害—戰死 40 戰傷死者 7, 重傷 22, 輕傷 75, 行方不明 2, 882(美國防省 24日發表, 華府 25日 UP)</p> <p>○UN韓委議長, 自由守護를 爲하여 侵略排除에 共同鬪爭을 力說.</p> <p>○美艦隊 黃海에 出動哨戒中.</p> <p>○印度, 韓國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新 調停工作 開始.</p> <p>○美, 新年度(1950.7~1951) 軍事費는 400億弗.</p> <p>○美, 新 Rocket彈(125ton) 試射 結果는 嚴秘</p> <p>○中共軍 金門島에 侵入하여도 美는 不 介入.</p>	<p>7月25日</p> <p>○永同西北쪽 12km의 陣地 美第 1 機甲師 如前 確保中.</p> <p>○西海岸에서 自動火器와 戰車에 掩護된 敵第 4 師團 南下繼續.</p> <p>○西部, 中部戰線의 UN軍 優秀한 敵에</p>
7月24日	○敵軍, 大田, 群山, 光州地區에 兵力增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26日	<p>對하여 猛反擊, 陣地確保.</p> <p>○戰線出動中인 敵師團은 第3, 2, 15, 1, 3, 8, 7師團外 第5師團의 一部.</p> <p>○中部戰線의 美第1機甲師團 및 第25師團은 依然 敵戰車部隊의 壓力을 받음.</p> <p>○南部地區에서 國軍第6師團은 敵野砲, 機關銃 數挺을 鹵獲 多數의 敵兵을 殺傷. 盈德의 國軍部隊, 敵射殺 50名, 捕虜 75名의 戰果.</p> <p>○群山, 南原, 光州地區에서 敵第4師團의 進出은 依然繼續.</p> <p>○美英聯合艦隊의 艦載機, 早朝 光州地區의 敵前線 目標을 攻擊.</p> <p>○今夜 史上初有의 Z機 夜間作戰.</p> <p>○MacArthur元帥 安保에 韓國戰爭에 關한 最初의 報告提出—敵은 有利한 環境利用 機會喪失하였다.</p> <p>○UN軍總司令部, 東京에 正式으로 設院.</p> <p>○Turkey, 韓國의 UN軍을 後助하기 爲하여 派兵 決定.</p> <p>○38°線以北에 進攻論, 國際적으로 漸次 高潮. 美國 및 西歐列強側에서는 韓國 戰局의 主導力이 UN軍에게 掌握되면 UN은 綜合的見地에서 38°線以北에 進擊하여야 한다는 意見이 漸高.</p> <p>○英, 韓國에 地上軍 派遣을 決定</p> <p>○北大西洋條約國理事會 London에서 條約國 12個國 代表 出席下에 開催.</p> <p>○美第1機甲師團長 Hobart R. Gay少將, 6個師團만 있으면 서울奪還可能이라고 言明.</p>		<p>○蔡秉德少將, 河東地區 敵掃蕩 指揮.</p> <p>○永同戰線 別無變動.</p> <p>○敵軍, 南原에 侵入.</p> <p>○美第1機甲師團 永同, 榮州에서 撤退.</p> <p>○敵軍, 麗水를 占領.</p> <p>○美海兵隊, 釜山防禦를 擔當.</p> <p>○東海岸의 封鎖를 斷行하고 있는 UN 海軍部隊, 地上部隊에 呼應하여 盈德 地區 敵軍事施設을 砲擊</p> <p>○UN空軍艦載機, 中部戰線 諸地區를 統擊.</p> <p>○B29編隊, 서울의 漢江鐵橋, 開城地區 橋梁, 鐵原地區의 交通施設, 平壤, 沙里院地區의 敵軍事施設 爆擊</p> <p>○B29編隊 原州, 忠州北쪽 新場里 爆擊</p> <p>○26日 現在까지의 美軍損害—戰死 55, 重傷者 251, 戰傷死者 8, 輕傷者 78, 行方不明 3,368.</p> <p>○UN軍에 參加申請, 10個國에 到達.</p> <p>○UN事務總長 Lie氏 UN軍의 成功만이 第3次大戰 防止策이라고 言明</p> <p>○英極東艦隊 完全戰時態勢.</p> <p>○New Zealand首相, 砲兵部隊 韓國派兵 用意있다는 通告를 UN에 보냈다고 下院에서 言明.</p> <p>○美下院, 兵力制限制廢止案 可決.</p> <p>○Truman美大統領, 韓國의 軍備等 強化 爲하여 國會에 所得稅 50億弗 追加要求.</p> <p>○英政府, 目下, 韓國에 地上軍部隊를 派遣하기 爲하여 準備中이라고 發表.</p> <p>○Yugoslavia, 敵의 侵略制裁에 처음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 月 30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印, 野戰病院 派遣을 通告.</li> <li>○Alfred Cashin UN事務總長 特使, U N에 韓國戰鬪地區의 避難民은 約 100 萬名이라고 報告.</li> <li>○美海軍省, 40億弗의 飛行機生産을 指令.</li> <li>○晉州地區 防禦完全, UN軍 重戰車出 動.</li> <li>○國軍第2368部隊, 醴泉, 敵에 一大攻擊</li> <li>○國軍, 盈德地區 重要據點 占領.</li> <li>○敵은 正規兵, 警備隊, 不正規兵, 都合 24萬名.</li> <li>○美第1機師團, 金泉西南 13km의 知禮를 今夜奪還.</li> <li>○敵軍, 居昌 占領, 中央戰線 突破企圖</li> <li>○晉州에 敵軍肉迫.</li> <li>○B29編隊, 3次, 平壤, 元山, 咸興等 重要軍事工場</li> <li>○美本土에서 增援隊 韓國 某地點에 到着, 上陸</li> <li>○美第24師團長에 John H. Church少將 新任.</li> <li>○UN韓委, 全體公開會議 開催(大邱에 서)</li> <li>○中共, 厦門地區에 兵力15萬名 集結說</li> <li>○美, 在韓UN軍에게 協助하지 않는 國家에 對하여 Marshall案 援助中止를 決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敵軍, 晉州 占領.</li> <li>○居昌地區의 敵 漸次壓力加重, 攻勢를 取하고 있음.</li> <li>○現在戰線은 晉州의 西南, 咸陽의 西郊外, 居昌東쪽 11km, 金泉西쪽 6km, 咸昌의 西北 6km, 醴泉의 北쪽 1km, 로부터 盈德郊外에 이르고 있다.</li> <li>○敵軍, 陝川 占領.</li> <li>○西南兩戰線 反擊開始, 敵壓力 緩和.</li> <li>○美, 濠兩空軍 延 300台, 敵全地域 軍事施設 爆擊.</li> <li>○第5空軍의 B26, B29編隊, 敵補給線 遮斷에 全力攻擊.</li> <li>○第5空軍의 B29編隊, 南原, 黃澗, 麗水, 順天, 河東, 永同, 居昌, 知禮, 淸州, 醴泉, 安東, 光州等의 軍事施設 및 輸送路 攻擊.</li> <li>○美增援部隊, 第2步兵師團, 第1海兵師團, 第5戰鬪部隊, 韓國某地點에 上陸.</li> <li>○敵軍, 醴泉으로 再侵入.</li> <li>○UN韓委, 全體公開會議 開催中</li> <li>○MacArthur元帥, 台灣 向發(6月 27日 附, Truman大統領의 訓令에 依한 使命遂行이 目的)</li> <li>○MacArthur元帥, 蔣介石 總統과 會談 開始.</li> </ul>
7 月 31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軍防衛線 突破에 失敗한 敵軍, 主 攻勢를 中部로부터 西部 및 東部에 移</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安全保障 關係各省 再組織.</li> </ul>



## 5. 戰歿者名單

&lt;陸 軍&gt;

육군본부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중령	10346	黃基禾	육군본부	50. 7. 10		전사
"	10762	趙潤植	"	50. 7. 15	대전	순직
소령	10765	申榮均	"	50. 7. 7		전사
대위	11674	黃東玉	"	50. 7. 5		실종전사
"	12176	安泰雲	"	50. 7. 27		"
소령	12526	安英鎬	"	50. 8. 2	안동	전사
대위	13267	李光喆	"	50. 7. 16	우보	"
"	13426	全允極	"	50. 7. 26	안의	"
"	13435	李心憲	"	50. 7. 13		실종전사
"	60147	尹在奭	"	50. 7. 26	안양	전사
중장	10002	蔡乘德	경남전성관구사령부	50. 7. 27	하동	전사
소령	12996	文德順	호남전성관구사령부	50. 7. 25	순천	"
대령	10085	李昌一	제 1 군 단	50. 7. 12	진천	"
대위	12347	李炳旭	"	50. 7. 16		"
"	14812	辛在熙	헌병사령부	50. 8. 1		"
중령	10310	李基星	부평경비대대	50. 7. 13		"
"	14500	李相鶴	야전공병대대	50. 7. 22	영덕	"
"	13512	李永鎬	야전재부대	50. 7. 14		실종전사
중위	16228	朴鍾致	야전재무대	50. 7. 14		전사
소령	11660	李鍾洙	UN연락강교단	50. 8. 5		"
중령	10510	金乘化	보병학교	50. 7. 31		"
중위	16955	朴金川	보병학교	50. 7. 7	수원	"
소령	11267	李龍田	포병학교	50. 7. 5		"
중령	10279	趙龍一	병참학교	50. 7. 24		"
중위	16264	金昌俊	병참학교	50. 7. 30		"
소위	223519	崔炳玉	병기학교	50. 7. 5		"

1008 附 錄

수도사단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대 위	11903	金 晶 毅	수도사단사령부	50. 7. 28		전 사
소 명	13159	金 暎 男	"	50. 7. 29	풍 천	"
대 위	13572	玉 重 彬	"	7. 25		"
"	14020	申 基 成	"	50. 7. 16	괴 산	"
소 위	223545	崔 昌 勳	"	50. 7. 25		"
"	223593	李 弼 洙	"	50. 8. 4	의 성	"

제 1 사단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中 尉	14642	金 永 贊	제 1 사단사령부	50. 7. 5	수 원	전 사
"	16529	文 學 賢	"	50. 7. 9	진 안	"
"	17073	全 永 能	"	50. 7. 30		"
少 尉	223581	李 禹 淳	"	50. 7. 18	보 은	"

제 2 사단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대 위	11998	呂 運 祥	제 2 사단사령부	50. 8. 2	안 동	전 사
"	12126	張 志 蓮	"	7. 21	강 구	"

제 3 사단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대 위	12241	黃 河 奎	제 3 사단사령부	50. 7. 18	강 구	전 사
중 위	13663	李 成 基	"	50. 7. 30		"
"	16618	朴 仁 球	"	50. 7. 20		실종전사
"	16861	韓 直 洙	"	50. 7. 28		전 사
"	16781	吳 箕 錫	"	50. 7. 30		"
"	16911	朴 勝 一	"	50. 7. 23	강 구	"
"	16938	金 承 勳	"	50. 7. 29	영 덕	"
소 위	223527	鄭 海 龜	"	50. 7. 27	강 구	"

## 제 5 사단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대위	12510	李 義 奎	제 5 사단사령부	50. 7. 18		전사
중위	14753	韓 貴 鳳	"	50. 7. 5		실종전사
"	15483	金 明 洙	"	50. 7. 9	김 천	전사

## 제 6 사단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소령	10726	崔 炳 默	제 6 사단사령부	50. 7. 6		전사
중위	17351	張 完 根	"	50. 7. 29		"
"	200149	玄 寬 用	"	50. 7. 21	불사리	"
"	200150	田 駿 喜	"	50. 7. 26		"
소위	200156	鄭 明 安	"	50. 7. 19		실종전사
"	200165	李 漢 稷	"	50. 7. 23	용암리	전사
소위	223474	金 榮 默	"	50. 7. 13	문 경	"
"	223507	李 海 完	"	50. 7. 16	연 풍	"
"	223512	李 盛 夏	"	50. 7. 23		"
대위	60064	申 應 天	"	50. 7. 13		"

## 제 7 사단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소령	11596	崔 鐵	제 7 사단사령부	50. 7. 11		전사
중위	16160	金 正 熙	"	50. 7. 16	문 경	"
"	16717	李 成 熙	민 부 대	50. 7. 28	함 양	"

## 제 8 사단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소령	10817	辛 日 菩	제 8 사단사령부	50. 7. 26		전사
대위	11866	安 東 勳	"	50. 7. 10	단 양	"
중위	14163	金 仁 喆	"	50. 7. 12		"
"	14204	周 載 萬	"	50. 7. 8		"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대 위	14571	李 德 采	"	50. 7. 21		"
중 위	14750	金 昌 文	"	50. 7. 11	대 전	"
소 위	200046	林 柱 英	"	50. 7. 26	안 전	"
"	223593	李 弼 洙	"	50. 8. 4	의 성	"

기갑연내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중 령	10864	金 乘 元 (一名張哲夫)	기 갑 연 내	50. 8. 4		전 사
소 령	11297	金 俊 植	"	50. 8. 2		전 사
중 위	16210	金 寬 燮	"	50. 7. 11		전 사
대 위	13496	尹 善 炳	"	50. 8. 4	眞 寶	"

1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령	10939	許 敏 齋	제 1 연 대	50. 7. 10		전 사
중 위	14256	金 翼 奎	"	50. 7. 9		"
"	14371	金 元 敬	"	50. 7. 25	철 곡	"
"	14910	盧 衡 來	"	50. 7. 5	안 양	"
"	16195	韓 泳 春	"	50. 7. 5	명 택	실 종

2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령	11315	金 溶 河	제 2 연 대	50. 7. 24		전 사
"	12289	丁 世 鎮	"	50. 7. 24	문 경	"
대 위	14454	田 權 重	"	50. 7. 30	영 덕	"
중 위	15492	李 允 玉	"	50. 7. 11		"
"	15526	金 洙 觀	"	50. 7. 10	수 진 리	"
"	15521	朴 炳 武	"	50. 7. 10	유 곡	"
"	15556	成 鍾 赫	"	50. 7. 5	홍 천	"
"	15562	金 雄 權	"	50. 7. 15		"

3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중령	10436	金永植	제 3 연대	50. 8. 1		전사
대위	14899	玄吉秀	"	50. 7. 4	안양	"
중위	15879	金榮厚	"	50. 7. 5	용인	"
"	15926	金亨俊	"	50. 7. 6		"

5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중위	15535	柳在禎	제 5 연대	50. 8. 1		전사

7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대위	13929	尹斗彬	제 7 연대	50. 7. 26		전사
중위	14628	朴定烈	"	50. 7. 23	접촌	"
"	15874	金龍玉	"	50. 7. 10	음성	"
"	16098	崔學成	"	50. 7. 29	유곡	"
"	16132	金陽春	"	50. 7. 21	"	"
"	16227	梁炳一	"	50. 7. 24	"	실종
대위	13955	韓道善	"	50. 7. 31	"	전사

8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중령	10488	金俊平	제 8 연대	50. 7. 5		전사
대위	12137	崔晚植	"	50. 7. 30	강구	"
중위	14058	金容培	"	50. 7. 28		"
대위	14544	田在明	"	50. 7. 5		"

9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대령	10268	李哲源	제 9 연대	50. 7. 12		전사
중위	16235	閔璵河	"	50. 7. 14		"

## 10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중 위	14094	任 世	제 10 연 대	50. 7. 26	안 전	전 사
"	15963	高 德 南	"	50. 7. 27		"
"	15973	姜 田 德	"	50. 7. 26	단 양	"
"	16106	宋 柱 燮	"	50. 7. 8		실 종
"	16291	崔 德 鏞	"	50. 7. 6	단 양	전 사

## 11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령	10901	全 龍 駒	제 11 연 대	50. 7. 18	보 은	전 사
중 위	16028	申 彦 福	"	50. 7. 28	합 창	"
대 위	13654	鮮 于 查	"	50. 7. 10	제 2 육군병원	"

## 12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병	10525	申 飯 洪	제 12 연 대	50. 7. 28	문 경	전 사
중 병	10592	李 昌 永	"	50. 7. 15		"
소 병	11649	安 定 熙	"	50. 7. 7		"
대 위	12123	申 溶 珍	"	50. 7. 30	지 명 리	"
"	13781	鄭 基 八	"	50. 7. 28	문 경	"
중 위	14367	康 晁 燮	"	50. 7. 29	지 명 리	"

## 13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병	10662	朴 忠 治	제 13 연 대	50. 7. 10	수 원	전 사
"	11255	韓 淳 萬	"	50. 7. 17		"

## 15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대 위	11959	李 能 植	제 15 연 대	50. 7. 17		전 사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소령	13722	李泰鏞		50. 7. 27	합창	"
대위	13780	金熙堯		50. 7. 17		"
중위	14116	金春伊		50. 7. 24	하서	"
"	14400	朴贊基		50. 7. 12	머천	"
"	16242	李大鳳		50. 7. 11	중명	"
"	16723	趙哲鎬		50. 7. 26	순천	"

## 16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대위	12757	許鳳益	제 16 연대	50. 8. 2	안강	전사
"	13450	柳命圭	"	50. 7. 27	김천	"
중위	14050	李岐鍾	"	50. 8. 2		"
"	17310	申鉉泰	"	50. 7. 16		"
"	17360	李成備	"	50. 8. 2	안동	"

## 17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소령	10996	姜隱應	제 17 연대	50. 7. 19	예의동	전사
"	11000	李東浩	"	50. 7. 15	남일면	"
대위	13662	金祐永	"	50. 7. 22	화영	"
"	13802	李鍾建	"	50. 7. 27		"
"	13928	李泰一	"	50. 7. 20		"
"	14280	洪鍾完	"	50. 7. 19	예의동	"
중위	14281	韓瑞煥	"	50. 7. 20		실종전사
"	14376	金三萬	"	50. 7. 22	화영	"
"	14607	趙鍾植	"	50. 7. 10	진천	"
"	15931	吳成煥	"	50. 7. 19		"
"	16241	高漢熙	"	50. 7. 10	진천	전사
"	17372	金露	"	50. 8. 1		"
"	223488	孔大植	"	50. 7. 9		"

## 1014 附 錄

## 18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령	10980	羅 秉 緒	제 18 연 대	50. 7. 5	영 등 포	전 사
"	11091	金 光 海	"	50. 7. 5		"
대 위	12881	金 奎 漢	"	50. 7. 27	강 구	"
중 위	14395	朴 龍 濟	"	50. 7. 15	진 천	"
대 위	14942	金 翼 燮	"	50. 7. 26		"
중 위	15451	金 澤 松	"	50. 7. 9		"

## 19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대 위	13472	鮮 于 基	제 19 연 대	50. 7. 10		전 사
"	13775	朴 能 植	"	55. 7. 16		"
중 위	14623	金 龍 翰	"	50. 7. 14		"
"	15823	宋 基 鍾	"	50. 7. 22	문 경	"
"	15885	金 宋 奎	"	50. 8. 1	안 동	"

## 21R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소 령	10675	崔 善 聖	제 21 연 대	50. 7. 25		전 사
대 위	12053	黃 基 相	"	50. 7. 31	안 동	"
"	13425	李 健 洙	"	50. 7. 26		실종전사
"	13863	文 丙 周	"	50. 7. 29	영 주	전 사
"	13885	景 允 鎬	"	50. 7. 24	봉 화	"
중 위	14037	金 泳 高	"	50. 7. 25	공 주	"
대 위	14145	金 湧 吉	"	50. 7. 11	풍 기	"
"	14338	金 宇 烈	"	50. 7. 21		"
중 위	16021	崔 南 爽	"	50. 7. 16	영 주	"



## 22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중령	10209	朴南福	제 22 연대	50. 7. 5	수원	전사
대위	12198	朴永元	"	50. 7. 23		"
소령	12349	宋元榮	"	50. 7. 26		"
중위	14081	李子憲	"	50. 7. 29	영덕	"
"	14233	金永駿	"	50. 7. 18	"	"
"	15595	金永福	"	50. 7. 29	강구	"
"	15794	趙鳳濟	"(복합 1대대)	50. 7. 16	영덕	"
"	16728	沈勳燮	"	50. 7. 28	강구	"
"	16861	韓直洙	"	50. 7. 28	"	"
"	15477	崔竹河(夏)	"	50. 7. 29	강구	"
"	16800	金基澤	"	50. 8. 4	남성	"

## 23R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소령	10832	朴仁園	제 23 연대	50. 7. 14	영덕	전사
대위	12802	金相鉉	"	50. 7. 12	"	"
"	13417	吳基建	"	50. 7. 14	"	"
중위	14369	鄭鉉補	"	50. 7. 14	"	"
"	14410	劉在弘	"	50. 7. 14	"	"
"	14655	金基生	"	50. 7. 22	영덕	"
"대위	15373	李炳喆	"	50. 7. 9	"	"
"	15825	崔熙錫	"	50. 7. 10	영덕	"
"	15860	高發杓	"	50. 7. 17	옥산면	"

## 其他(소속 불명자)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준장	12443	安乘範		50. 7. 29	서울	자결
대위	13728	梁明奎		50. 7. 11		전사
중위	14798	金景濶		50. 7. 30		"
"	16747	金明坤		50. 7. 10		"

계 급	군 번	성 명	소 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 분
"	16748	田 熙 澤		50. 7. 10		"
소 위	16756	韓 洙 燮		50. 7. 13		"
중 위	16800	金 基 澤		50. 8. 4	남 성	"
"	16875	申 鉉 柱		50. 7. 10		"
"	16912	金 東 信		60. 7. 10		"
"	16914	韓 德 洙		50. 7. 10		"
"	16915	洪 性 俊		50. 7. 10		"
"	16918	韓 宗 瑞		50. 7. 10		"
"	16919	趙 慶 來		50. 7. 29		"
"	16924	李 光 徽		50. 7. 10		"
"	16929	金 炳 健		50. 7. 10		"
"	16936	張 泰 源		50. 7. 10		"
"	16947	朴 孝 均		50. 7. 10		"
"	16949	文 吉 鎬		50. 7. 10		"
"	16950	金 泰 敷		50. 7. 10		"
"	16951	林 鳳 均		50. 7. 10		"
"	16952	朴 仁 奎		50. 7. 10		"
"	16960	白 文 鴻		50. 7. 10		"
"	16965	金 益 龍		50. 7. 10		"
"	16967	鄭 義 哲		50. 7. 10		"
"	16968	金 添 宣		50. 7. 10		"
"	16970	金 銓 文		50. 7. 10		"
"	16971	金 炳 竜		50. 7. 11		"
"	17024	白 鶴 三		50. 7. 5		"
"	16715	張 孝 鍊		50. 7. 10		"
"	17130	李 景 坤		50. 7. 15		"
"	17132	吳 仁 德		50. 7. 15		"
"	17134	全 竜 舜		50. 7. 15		"
"	17139	金 在 英		50. 7. 15		"
"	17155	金 正 基		50. 7. 15		"
"	17157	趙 善 明		50. 7. 15		"
"	17198	金 末 生		50. 7. 10		"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중위	17203	周 聖 福		50. 7. 15		전사
"	17224	朴 慶 鎬		50. 7. 31		"
"	17228	尹 德 岩		50. 7. 16		"
"	17267	洪 性 春		50. 7. 16		"
"	17273	車 聖 奎		50. 7. 16		"
소위	172320	李 鍊 擊		50. 7. 16		"
중위	17338	金 宗 吾		50. 7. 16		"
"	17349	李 秉 圭		50. 7. 16		"
"	17365	李 鶴 錫		50. 7. 29	결촌	"
"	17371	朴 昌 天		50. 7. 25		"
소위	17648	林 柱 漢		50. 7. 27	안전	"
"	223631	李 鍾 元		50. 7. 28		"
"	226895	朴 權 榮		50. 7. 30	수원	전사
"	227045	崔 錫 翰		50. 8. 1	문산	"
중위	16715	張 孝 鍊		50. 7. 10		"

## &lt;해군&gt;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전사일자	전사장소	구분
兵曹長	8100887	朴 富 石	群山基地司令部	50. 7. 16	長項舒川	戰死
二曹	8104557	宋 寅 鎬	"	"	"	"
三曹	8111224	朴 萬 洙	墨湖警備府	50. 7. 21	"	"
三曹	8111250	徐 鎭 洙	浦項警備府	50. 7. 21	"	"
三曹	8112640	徐 吉 祚	"	50. 7. 21	"	"
一曹	8112933	池 永 洙	"	50. 7. 21	"	"
三曹	8112350	金 東 俊	"	50. 7. 21	"	"
一曹	8102052	柳 章 鉉	木浦警備府	50. 7. 23	木浦	"
三曹	8111260	金 基 龍	514艇	50. 7. 28	右水營	"
二曹	8103827	金 奇 煥	海本	50. 7. 8	素砂	"
兵	8104550	李 永 載	仁川病院	50. 7. 27	경키지구	"
三曹	811410	權 興 哲	統制府	50. 7. 29	晉州地方	"
三曹	8103741	崔 東 燮	海本	50. 7. 27	京畿地區	"
소위		崔 俊 周	해병대	50. 7. 19	群山	"

## 6. 索 引

## 人 名 索 引

(一)

姜起千 846, 848  
 康冕燮 719  
 姜文率 561  
 姜承鎬 396  
 姜信明 28  
 姜英勳 151  
 姜隱德 48, 56, 59, 444  
 姜益善 906  
 姜仁魯 755  
 姜俊基 354  
 姜泰敏 39, 560, 594, 144  
 姜鎬倫 894, 897  
 姜樺鎰 902  
 高吉勳 845, 853, 726, 941  
 高尚遠 934, 938  
 高永洙 781  
 高昌根 435, 452  
 孔炳旭 65  
 孔錫奎 421  
 郭聖範 433, 441, 818  
 具書七 947, 950  
 弓允喆 358  
 權東贊 142, 270, 443, 713  
 權保衡 718  
 權尙根 219  
 權寧吉 186  
 權五鳳 565  
 權五喆 929  
 權泰順 360  
 奇宇大 941, 947  
 吉典植 617, 618  
 金甲泰 597  
 金慶珍 589

金寬燮 100, 780  
 金光哲 197, 662  
 金光俠 14, 39, 110, 274, 560, 380  
 金教錫 41  
 金國柱 711  
 金基榮 426, 438, 451  
 金基元 905  
 金基周 439, 443  
 金吉峻 528  
 金南教 858  
 金大璧 204, 214, 932  
 金大植 720  
 金大燁 204  
 金惠模 597  
 金德俊 256, 271, 650  
 金德海 408  
 金道鎮 639, 656  
 金東斌 143, 697, 706, 713  
 金東石 437  
 金東燮 853  
 金東洙 639  
 金東業 906  
 金同曾 188, 339, 645  
 金東喆 906  
 金東鎬 219  
 金斗萬 903  
 金斗烈 255  
 金斗用 179, 930, 939  
 金斗逸 408, 681  
 金斗千 950  
 金得龍 899, 901, 904  
 金萬鳳 929  
 金萬益 36, 69, 458, 497  
 金明珪 175  
 金明益 250, 412, 674  
 金武亭 20, 112, 158, 234, 330, 422, 581, 606

金 默 158, 330, 639  
 金文殊 762  
 金白一 119, 252, 330, 424  
 金秉萬 387  
 金秉俊 840  
 金秉鍾 36, 458, 69, 497  
 金炳喆 706  
 金秉化 133, 726, 833  
 金秉鎬 744, 746  
 金炳徽 726, 754, 774, 781  
 金士殿 932  
 金三萬 442  
 金三曾 595  
 金相均 599  
 金相鉉 570, 577, 598  
 金錫祐 905  
 金錫源 106, 135, 274, 381, 422, 601  
 金石恒 906  
 金善鎰 211, 393  
 金 聖 217, 379, 394, 666  
 金聲起 930  
 金聖培 241, 409, 672, 906  
 金成彬 167, 184, 343  
 金成龍 894, 897  
 金聲遠 928  
 金聖恩 139, 771, 820, 840, 861  
 金聖放 783  
 金 召 422, 445, 713  
 金水生 570  
 金淳基 330, 348, 639  
 金 信 894, 896  
 金是鳳 399  
 金安一 667  
 金陽春 204, 399, 706, 715  
 金億淳 941, 946  
 金東器 906  
 金永根 229, 389  
 金永吉 947  
 金永錫 260  
 金永先 261  
 金榮澤 176  
 金永弼 401

金永恒 330, 639  
 金永桓 158  
 金英煥 894, 896  
 金玉鄉 854  
 金玉鉉 394  
 金完元 560, 567, 580  
 金容國 782  
 金龍起 204, 225, 379, 386  
 金龍紀 753  
 金湧吉 171  
 金容來 947  
 金容培 158, 234, 330, 379, 639  
 金龍培 391, 671  
 金龍周 726, 737, 825, 828  
 金鎔河 215, 420  
 金龍翰 402  
 金尤榮 600  
 金祐熙 398  
 金 郁 445  
 金旭篆 386  
 金 雄 69, 93, 14, 150, 458, 729  
 金元職 930  
 金源湧 941  
 金尤基 408  
 金應權 726, 764, 947  
 金應祚 305, 649  
 金益洙 183  
 金益淳 782  
 金益烈 252, 759  
 金寅文 214, 222, 394, 677  
 金麟鎬 606, 928, 934  
 金日成 30, 38, 661  
 金長根 204, 217, 389  
 金載圭 600  
 金在命 234, 267, 445, 706, 720  
 金在秀 348  
 金在玉 269, 272  
 金在鄉 849  
 金田澤 906  
 金點坤 142, 234, 255, 443, 717  
 金正燮 941  
 金貞烈 894, 901, 905

金珽雲 289  
 金鍾甲 650  
 金鍾琪 941, 943  
 金鍾祺 734, 853  
 金鍾洙 167, 267, 379, 671, 688  
 金鍾舜 561, 581  
 金鍾島 674  
 金鍾植 748, 783, 804  
 金鍾烈 426, 438  
 金鍾五 115, 145, 234, 379, 416, 540, 664,  
 774, 932  
 金鍾選 206  
 金鍾元 111, 846, 934  
 金鍾崙 48  
 金鍾浩 169  
 金周鳴 713  
 金俊錫 211  
 金芝洙 928, 934, 939  
 金振權 252  
 金振暉 234, 252, 422, 709  
 金振衡 906  
 金天零 65  
 金昌鳳 36, 69, 458  
 金昌龍 778  
 金 策 20  
 金 鈞 204, 330, 639  
 金哲壽 185  
 金忠九 42  
 金忠南 846  
 金致九 234, 422, 434, 932  
 金棹培 947  
 金澤洙 401  
 金泰善 949  
 金弼相 754, 773, 781  
 金韓德 379, 386, 671  
 金漢守 746, 758  
 金漢龍 648, 335  
 金漢柱 715, 288  
 金桓燮 408  
 金海洙 928, 929  
 金 憲 639  
 金顯基 726

金衡錄 720  
 金亨山 929  
 金亨胤 642  
 金亨銀 905  
 金煌穆 274, 639  
 金弘燮 674  
 金弘壹 22, 119, 139, 274, 422, 606, 661,  
 639, 92  
 金華峻 599  
 金厚進 820, 726  
 金熙龜 717  
 金熙濟 49, 57, 64, 428, 450  
 金熙雍 36, 47, 63, 142, 274, 424,  
 707, 806  
 金熙俊 36, 69, 458, 497, 785, 806

## (L)

羅一均 393  
 南白峰 394, 670, 211, 218  
 南相徽 846  
 南宇洛 932, 933  
 盧明鎬 853  
 盧載鉉 581

## (口)

馬相詰 423, 110, 606, 928, 930, 935, 936  
 560, 581  
 孟寶永 176, 346  
 明大植 570, 580, 598, 600  
 文龍琪 589, 591, 596  
 文容彩 39  
 文章煜 216  
 文正植 215  
 文正勳 816  
 文亨泰 447, 449, 271  
 閔巖植 135, 726, 728, 733, 735, 751, 771  
 775, 779, 785, 840, 941  
 閔文基 396  
 閔丙權 397, 406, 664, 379, 235, 116, 215  
 閔賢植 846

## (巳)

朴乾源 905  
 朴敬遠 318  
 朴敬哲 849, 853  
 朴官永 602  
 朴寬植 412  
 朴圭華 301  
 朴圭喆 935  
 朴基丙 143, 118, 707, 274, 311, 714, 717  
 朴基錫 581, 584  
 朴基成 39  
 朴魯圭 379, 204, 213  
 朴魯鳳 693  
 朴東憲 934, 939  
 朴斗先 905  
 朴武鎭 441  
 朴文琦 892, 904  
 朴範集 900, 903, 905  
 朴炳權 561  
 朴炳爽 340  
 朴三德 438, 444  
 朴成哲 110, 538, 234, 402, 445, 707, 422  
 朴成喆 932  
 朴聖煥 849  
 朴世春 780  
 朴淳權 567, 600  
 朴升圭 414  
 朴承道 847, 849  
 朴勝熙 36, 38, 69, 458, 497, 726, 806  
 朴勝日 762  
 朴 英 204, 330, 639  
 朴永璧 158, 173, 330  
 朴永元 570, 599  
 朴永謨 670, 707, 716  
 朴容實 610  
 朴龍雲 262  
 朴元錫 900, 905  
 朴翊均 95, 745, 734, 737, 742, 780  
 朴濟相 400  
 朴載烈 560, 564, 581

朴在浩 892, 904  
 朴正瑞 780  
 朴正采 413, 675  
 朴鍾秉 574, 579, 587, 601  
 朴鍾漢 444  
 朴柱根 402  
 朴昌錄 774, 775  
 朴昌樹 386  
 朴昌岩 647  
 朴哲遠 234, 260, 263, 268  
 朴致玉 158, 166, 330, 639  
 朴能植 399  
 朴憲教 941, 942  
 朴憲永 38  
 朴玄燮 390  
 朴炫洙 726, 733, 820  
 朴熙東 894, 897  
 房景源 672  
 方虎山 39, 105, 820, 726, 941, 777  
 裴德昌 903  
 裴東傑 726, 737, 749, 761, 796  
 裴尚錄 426, 450, 451  
 裴俊八 459  
 白睦旭 413  
 白基千 560, 570, 581, 587, 602  
 白南權 733  
 白南垣 711  
 白南洙 340  
 白善燁 204, 234, 251, 264, 379, 422, 706  
 720, 542, 36, 39  
 白性郁 29  
 白舜基 941, 942  
 白雲企 849, 858  
 白仁燁 36, 38, 40, 42, 47, 62, 438  
 賓德顯 49

## (人)

史 勢 158, 330, 639  
 徐慶澤 762  
 徐根錫 682  
 徐鳳教 172, 368

徐正雨 172  
 徐延學 379, 391, 677  
 徐鍾岳 39  
 徐仲錫 598  
 徐漢浩 906  
 徐懿圭 905  
 石商益 929  
 石柱岩 253  
 鮮手羅 424  
 孫官道 39, 761, 780  
 孫觀祚 408  
 孫瑞睦 593  
 孫炳俊 258  
 孫錫文 773  
 孫永乙 596  
 孫昌述 58, 812  
 宋廣保 679  
 宋大厚 220, 191  
 宋秉俊 595  
 宋錫昊 866  
 宋星三 646  
 宋世俊 849  
 宋浩錫 449  
 宋虎林 142, 36, 41  
 申尚洙 932  
 申性模 41, 707, 752, 902  
 申榮祚 216  
 申永徽 858  
 申英徽 748  
 申用寬 405  
 辛溶植 262  
 申翼熙 728  
 申正洙 592  
 申泰英 137, 726, 743, 728, 734, 49, 946  
 申學連 865  
 申茲俊 729, 853  
 申茲洪 706, 715, 267, 234, 422, 255  
 沈載淳 947, 948, 950  
 沈湖殷 243

(○)

安桂永 261, 717  
 安光榮 258, 234, 710, 712, 715, 722, 422  
 706  
 安東勳 164  
 安白成 36, 458  
 安秉健 446  
 安在徽 293  
 安濟徽 444, 48  
 安昌寬 757  
 安昌植 76, 81  
 安泰甲 313  
 安泰石 253  
 梁德柱 272  
 梁輔 197, 346  
 楊鳳植 256, 272, 720  
 梁三錫 255, 449  
 梁聖洙 262  
 梁成植 589  
 梁仲錫 239  
 梁海卿 861  
 魚容善 438, 451  
 嚴鳳林 425  
 陳鳳生 849  
 廉貞泰 581, 589, 596  
 吳基完 66  
 吳德俊 726, 719, 777, 779, 785, 840  
 吳明煥 162, 367  
 吳秉珍 435, 436, 451, 816  
 吳白龍 9, 28, 423, 158, 330, 933  
 吳允石 243, 674  
 吳允燮 158, 330, 639  
 吳益慶 36, 48, 59  
 吳占石 892, 903, 905  
 梁仲錫 381, 680  
 吳振宇 560, 581, 928, 935  
 吳衡根 220, 390  
 吳孝漢 190  
 元容德 728, 734, 736, 737, 741  
 禹炳玉 562



- 禹教鵬 168, 344  
 柳京洙 36, 52, 69, 458, 497  
 俞明植 849  
 柳炳浩 216  
 柳恒博 639  
 柳承源 241, 409  
 劉升烈 135, 560, 581, 934  
 劉永國 685  
 柳佑澤 928, 930  
 柳義烈 906  
 俞義源 639  
 劉在弘 571  
 劉載興 36, 120, 22, 439, 664, 675, 706, 708  
 柳致文 319, 437  
 柳昌薰 425, 434  
 俞學聖 163  
 柳海巨 849  
 俞海濤 39, 726, 733, 820  
 劉興守 93  
 尹箕炳 726, 736, 941  
 尹達熙 258  
 尹明運 581, 584, 928, 929  
 尹秉俊 589  
 尹福源 426, 430, 450  
 尹錫根 849  
 尹錫烈 941, 942, 737  
 尹錫庸 244, 405  
 尹承國 51, 64  
 尹龍遠 928  
 尹應烈 903  
 尹鍾漢 48, 59, 65  
 尹春根 142, 664, 639, 688, 274, 606  
 尹千奉 258  
 尹泰日 45  
 尹泰鉉 330  
 尹興植 278  
 殷碩杓 727, 762, 774  
 殷炯元 182, 653, 377  
 李權武 36, 38, 497, 498, 806, 478, 458, 459, 462, 777, 70, 93, 101, 941, 947, 109, 785, 820  
 李珪淳 849, 864  
 李珪鉉 718  
 李康學 934, 938  
 李寬洙 806, 293, 303, 36, 48, 49, 59, 813, 422, 424, 425, 428, 431  
 李桂順 689, 402  
 李慶鎔 191, 338  
 李圭玉 449  
 李發漢 56, 57  
 李根哲 894, 901  
 李根弘 811, 819  
 李今烈 260  
 李南浩 379, 247, 239, 234, 240, 388, 403, 671  
 李大植 589  
 李大鎔 250, 243, 674  
 李大仁 928, 931, 934, 936  
 李德彬 447  
 李斗瑛 706, 713, 714, 720  
 李晚魯 589, 591  
 李晚欽 941, 942  
 李萬浩 260, 234, 382  
 李明喆 571  
 李武權 726, 732  
 李武宰 906  
 李茂重 715, 717, 718, 706, 422, 261, 263, 255, 234, 267  
 李民錫 849, 854  
 李芳南 115  
 李百雨 768, 769, 726, 728  
 李範爽 728  
 李炳折 930  
 李秉禧 941, 946  
 李福鉉 906  
 李鳳出 743, 746, 761  
 李相國 822  
 李尙洙 934  
 李根垂 894, 898  
 李相雨 240, 412  
 李聲五 168, 336  
 李成春 905

## 1024 附 錄

- |     |   |     |  |
|-----|---|-----|--|
| 李成浩 | 853   | 李鍾泰 | 779  |
| 李召東 | 728   | 李鍾讓 | 369  |
| 李舜九 | 941   | 李柱興 | 677  |
| 李承晚 | 28, 41, 62, 19, 735   | 李俊吉 | 952  |
| 李承俊 | 706, 711, 715   | 李俊植 | 934, 936, 846, 119, 274, 39, 135,<br>581, 586, 92, 252, 234  |
| 李承紳 | 561   | 李鎮岩 | 401  |
| 李始榮 | 792, 783  | 李昌權 | 204, 380, 401, 406, 706                                      |
| 李榮沅 | 348   | 李昌範 | 762, 770, 781  |
| 李莢奎 | 771, 772, 773, 776, 777, 778, 779,<br>781, 726, 728, 754                                  | 李昌馥 | 75, 81   |
| 李英雨 | 601   | 李昌龍 | 592  |
| 李頌濟 | 592   | 李昌律 | 158, 177, 330  |
| 李英說 | 571   | 李昌浩 | 861  |
| 李永燦 | 906   | 李謙英 | 422, 434   |
| 李英鎭 | 458, 459, 462, 109, 36, 38, 497,<br>538, 99   | 李哲熙 | 260  |
| 李 龍 | 733   | 李春成 | 937  |
| 李龍九 | 162   | 李青松 | 39, 235  |
| 李佑彭 | 173   | 李春植 | 181, 339   |
| 李雲山 | 388, 664, 379, 204, 210   | 李致洙 | 597  |
| 李連燮 | 422, 249, 234   | 李致業 | 45   |
| 李元根 | 263   | 李泰榮 | 591  |
| 李允玉 | 219   | 李夏永 | 928, 929, 934, 937   |
| 李銀河 | 592   | 李學九 | 60   |
| 李乙善 | 422, 249, 234   | 李學來 | 158, 330, 539  |
| 李義明 | 688   | 李翰林 | 36, 39, 543, 252, 424, 119, 143,<br>473                      |
| 李應俊 | 726, 728, 738, 743, 750, 821, 840,<br>768, 769, 771, 772, 774, 775, 776,<br>777, 780, 781 | 李賢進 | 142, 733, 293  |
| 李益興 | 947   | 李亨根 | 728, 736, 738, 76, 768, 772, 775,<br>781, 782                |
| 李一洙 | 433, 440, 818, 568  | 李炯錫 | 726, 728, 947, 768, 778, 781, 782<br>135                     |
| 李在先 | 426   | 李亨柱 | 819  |
| 李濟旭 | 766   | 李弘根 | 58   |
| 李戴仁 | 258   | 李洪真 | 180, 371   |
| 李正一 | 929, 930, 932, 933, 382, 666, 158,<br>178, 111, 379, 423, 639, 330, 204,<br>560, 542      | 李 勳 | 684  |
| 李正豪 | 448   | 李喜權 | 707, 274   |
| 李鍾基 | 204, 228, 669, 215, 379   | 李熙鼎 | 853  |
| 李鍾武 | 497   | 印聖勳 | 241, 250, 672  |
| 李鍾贊 | 779, 780, 274, 135  | 任光燮 | 592  |
| 李鍾徹 | 849, 854  | 林富澤 | 115, 123, 213, 236, 234, 269, 379<br>423, 259, 238, 932, 664 |
|     |   | 林秀一 | 413  |

林二鍾 400  
 林益淳 330, 360, 639, 928, 930  
 林正采 379  
 任忠植 142, 646, 274, 606  
 林海民 726  
 林憲一 307

## (六)

張庚石 158, 639, 330  
 蔣介石 31  
 張根述 447, 713, 267, 256, 262, 422  
 張德昌 905  
 張東出 894, 898  
 張秉遠 930  
 張相烈 934, 939  
 張盛煥 894  
 張世弼 672  
 張松霄 568  
 張麟杰 581, 589  
 張正鉉 370  
 張增諫 601  
 張志洙 846  
 張昌國 115, 419  
 張昌述 810  
 張哲史 606  
 張書權 606  
 張泰明 728, 837  
 張泰煥 274, 302  
 田鳳熙 903  
 全星宇 928, 929, 934, 938  
 全泳敏 258  
 全宇 235  
 全禹榮 438, 806, 813  
 全義錫 442  
 全子烈 446, 449  
 全湖仁 930, 934, 939  
 鄭剛 232  
 鄭昞霖 853, 864  
 鄭統霖 858, 865  
 鄭國鍾 413  
 鄭圭漢 48, 58, 59, 63, 437, 444

鄭得萬 48, 811  
 鄭名煥 575  
 鄭祥萬 573  
 鄭成範 41  
 鄭成鳳 736, 941, 944, 945, 946  
 鄭世鎰 570  
 鄭小寶 947  
 鄭頌基 158, 639, 330  
 鄭昇和 274, 300, 606  
 鄭然得 866  
 鄭永三 405  
 鄭永洪 557, 706, 713, 720, 273, 256, 267, 422  
 鄭榮煥 904  
 鄭五敬 382  
 鄭龍權 598  
 鄭龍植 713, 256, 258  
 鄭龍海 219  
 鄭陸地 733  
 鄭寅皖 639, 330  
 鄭在甲 409, 241, 247  
 鄭點棒 712, 716  
 鄭 礎 940  
 鄭晉和 191  
 鄭昌龍 849  
 鄭致甲 592  
 鄭顯默 426  
 鄭顯燮 192  
 丁來赫 821, 822, 823, 902  
 丁範鎮 573  
 丁永鎰 894, 897  
 丁一權 117, 122, 41, 66, 383, 527, 707  
 趙慶 41  
 趙慶鶴 316, 451, 433, 436, 439, 806, 815, 818  
 曹圭英 186, 639, 330  
 曹圭洪 259, 930, 932  
 趙基伯 261, 717  
 趙南喆 754  
 趙達珍 669, 694  
 趙敦鐵 104, 780  
 趙文鍾 694

曹秉圭 882  
 趙炳玉 29  
 曹炳浩 591  
 趙奉來 711, 716  
 趙石元 947, 949, 950  
 趙成來 699, 706, 715, 717  
 趙成華 639, 646  
 趙始衝 138, 726, 766, 778  
 趙 英 928, 929  
 趙嘆九 425, 443  
 趙勇趙 401  
 原英趙 202  
 源 線 592  
 趙重錫 692  
 趙顯默 247  
 周甲福 591  
 朱汝俊 719  
 朱詰奎 858  
 池龍泰 564, 568  
 陳斗台 748

## (天)

車甲俊 713  
 蔡命新 335, 354  
 蔡秉德 115, 117, 137, 777, 780, 785, 820,  
 822, 826, 902  
 蔡珠龍 394, 211  
 崔甲中 650, 364  
 崔慶祿 445, 650, 267, 262, 234, 256, 271  
 崔 光 380, 664, 932, 934, 706, 261, 423,  
 204, 39, 538  
 崔根和 191  
 崔琪煥 396, 214, 222  
 崔大明 251, 271  
 崔德新 120, 650  
 崔冕湖 192  
 崔文縞 104  
 崔敏燮 639  
 崔致湖 780  
 崔柄默 379, 386  
 崔炳淳 422, 706, 710, 712, 713, 715, 234,

258, 258, 259, 263  
 崔錫洛 669, 708, 713  
 崔成鍾 906  
 崔秀昌 93  
 崔薪芳 947  
 崔 楹 905  
 崔泳龜 171, 346  
 崔永俊 219  
 崔榮喜 422, 443, 445, 446, 706, 709, 142  
 268, 267, 234, 258, 263, 712, 715  
 727  
 崔龍男 776, 562, 849, 853, 861  
 崔用德 899, 905  
 崔鑄鎮 113, 880, 664, 538, 423, 706, 707  
 崔龍熙 396  
 崔益榮 682  
 崔 仁 606  
 崔仁德 36, 38, 52, 69, 806, 497, 458  
 崔慎周 748  
 崔鍾烈 273  
 崔昌植 45  
 崔昌柱 196  
 崔哲柱 219  
 崔忠國 230, 380, 204, 330, 639, 110, 423,  
 932, 933  
 崔就聖 148, 167, 197  
 崔 赫 204, 330, 639  
 崔赫基 709, 271  
 崔 賢 110, 423, 261, 538, 462  
 崔亨植 932, 933, 934, 939  
 崔熙大 232, 393, 213  
 崔熙錫 571  
 秋亨燮 438

## (巳)

太炳烈 706  
 太鎬淑 196

## (吉)

河甲清 196  
 河炳來 158

- |     |   |     |                    |
|-----|---|-----|--------------------|
| 河相道 | 239   | 洪碩杓 | 780                |
| 河相卓 | 371   | 洪聖俊 | 563, 579           |
| 韓甲燮 | 440   | 洪淳鳳 | 762, 770, 774      |
| 韓景職 | 28  | 洪淳元 | 432                |
| 韓萬炯 | 226, 719  | 洪龍根 | 414                |
| 韓文植 | 674, 858  | 洪允範 | 905                |
| 韓相浩 | 567   | 洪仁出 | 737, 941, 942, 943 |
| 韓順華 | 255, 706, 715, 719                                  | 洪載希 | 717                |
| 韓龍顯 | 900, 904  | 洪正杓 | 256                |
| 韓日來 | 726   | 洪帝範 | 906                |
| 韓禎日 | 947, 949  | 洪泰岡 | 595                |
| 韓海男 | 905   | 黃基相 | 176, 337           |
| 韓 赫 | 49  | 黃斗淵 | 598                |
| 韓 興 | 48, 59, 432, 537                                    | 黃 明 | 581                |
| 咸炳善 | 204, 209, 231, 234, 379, 387, 664,<br>712, 715, 932 | 黃 石 | 204, 706, 715      |
| 許順五 | 644   | 黃元會 | 64                 |
| 許在香 | 906   | 黃義哲 | 685                |
| 許弼殷 | 47  | 黃二龍 | 718                |
| 許亨淳 | 560, 579, 587, 601                                  | 黃麟洽 | 368                |
| 許 煥 | 596   | 黃貞元 | 569, 597           |
| 許 休 | 947, 948, 951                                       | 黃宗九 | 401                |
| 玄圭柄 | 941, 944  | 黃弼周 | 392                |
| 玄學奉 | 380, 706  | 黃漢俊 | 592                |
| 洪命植 | 928, 931, 934, 936                                  | 黃憲親 | 437                |
|     |   | 黃虎岩 | 938                |

## (A)

Acheson, Dean G. 10, 17, 30  
 Adams, Raymond "Bodie" 55  
 Alkire, Charles R. 61, 91  
 Altmon, C.E. 875  
 Almond, Edward M. 67, 149  
 Anderson, Monroe 480  
 Andrews, W.G. 868, 869  
 Arawaka, Jack 485  
 Attlee, Clement R. 17  
 Austin, Warren R. 10, 127, 134  
 Ayres, Harold B. 50, 60, 69, 79, 121, 458,  
 464, 472, 497, 514

## (B)

Babb, Earl 95  
 Barr, David G. 12  
 Barszcz, Michael 487, 488, 491  
 Barter, Charles T. 468  
 Barth, George B. 36, 44, 45, 47, 48, 50,  
 60, 74, 83, 123, 556  
 Beauchamp, Charles E. 147, 492, 497, 505,  
 785, 806  
 Bernard, Carl F. 55, 61, 102  
 Bigart, Homer 95  
 Bixler, Ray 94  
 Brind, Patrick 868  
 Brown, E.W. 879  
 Byant, James A. 924  
 Buckley, John A. 543  
 Buttrey, Linton J. 491

## (C)

Chandler, Homer B. 487  
 Check, Gilbert J. 537, 546  
 Christenson, Jerry C. 90  
 Church, John H. 13, 14, 23, 36, 40, 42,

43, 44, 45, 62, 67, 135,  
 785, 806, 820,

Clainos, Peter D. 537, 551  
 Clarke, Arthur M. 76, 515  
 Clifford, John 537  
 Cole, George R. 537  
 Collier, William A. 19, 128  
 Collins, Lawton J. 18, 20, 127, 131  
 Collins, Roy F. 78  
 Connor, Ollie D. 50  
 Cook, John M. 482  
 Corley, John T. 537  
 Cox, O'Dern T. 102  
 Crabb, Jarred V. 910  
 Craig, Edward A. 148  
 Crant, E. 880  
 Crombez, Marcel B. 142, 537  
 Cutler, Elliott C. 478

## (D)

Dare, Robert E. 510  
 Dashmer, Richard W. 36, 49, 61  
 Dawson, Robert H. 87, 465  
 Dean, William F. 12, 14, 19, 36, 40, 43  
 44, 60, 90, 110, 121  
 236, 252, 423, 439, 458  
 461, 472, 473, 488, 489  
 493, 497, 792, 807  
 Doody, John J. 49  
 Doyle, James H. 26, 874, 875, 876  
 Doyle, John P. 907  
 Dressler, William E. 458, 465, 468  
 Driskell, Herman L. 76, 81  
 Dunham, Lelant R. 509  
 Dunn, John J. 78, 86

## (E)

Early, Charles C. 477  
 Emmerich, Rollinse S. 564, 583, 585, 593

Everest, Frank F. 915  
Eversole, Edwin A. 51

## (F)

Felhoelter, Herman G. 491  
Fielder, Wilson, Jr. 514  
Fenstermacher, Edgar R. 486, 489, 491, 493  
Field, Eugene J. 538  
Fisher, Henry G. 131, 414, 537

## (G)

Garvin, Crump 18  
Gay, Hobart R. 12, 131, 141, 424, 537,  
547, 820 875, 876,  
Giuraud, Reno J. 550

## (H)

Hackett, Alan 482  
Harris, William A. 550  
Harvey, Charles V.H. 552  
Haskins, James W.R. 491  
Hatfield, Raymond D. 502  
Heater, Leotis E. 89  
Hickey, Doyle O. 911, 919  
Herbert, Robert L. 511  
Hess, Dean E. 902  
Hicks, Joseph E. 467, 468  
Higgins, J.M. 868, 871, 875, 880  
Higgins, Marguerite 75  
Hitchner, Omar T. 537  
Hodson, N.D. 881, 886

## (J)

Jacques, Leon J., Jr. 102  
Jensen, Carl C. 69, 89, 95  
Johnson, Louis A. 31  
Joy, Charles Turner 12, 701, 869, 868,  
878, 886, 887, 910

## (K)

Kane, Robert W. 538, 549  
Kean, Willian B. 12, 92, 133, 141, 414,  
438, 449, 537, 556, 585,  
666, 932  
Keiser, Lawrence B. 148  
Kincaid, Alvan C. 12, 907, 910, 911  
Kristanoff, George W. 507

## (L)

Landrum, Eugene M. 19, 546  
Lantron, Newton W. 69, 91, 104, 458, 464,  
467, 497, 510  
Lauer, Lester 552  
Lie, Trigve 17, 18  
Logan, Edward O. 484, 485, 486, 488, 496  
Lovless, Jay B. 43, 60, 68, 83, 110  
Lowe, Jack E. 516  
Lowentrou, J.L. 875  
Lutes, Leroy 40

## (M)

MacArthur, Douglas 10, 12, 13, 15, 18,  
19, 23, 31, 41, 43,  
70, 127, 128, 133, 134,  
554, 735, 907, 918  
Mac lean, Allen D. 548, 583  
Maher, Thomas A. 480  
Malik Jacob A. 9, 29  
Martin, Floyd 54  
Martin, Robert R. 69, 83, 90, 124, 463, 465  
McGill, Henry T. 478, 480  
McGrail, Thomas M. 497, 458, 474, 476,  
487, 488, 489, 496,  
506, 515, 820, 831,  
833  
Meloy, Guy S., Jr. 62, 84, 458, 461, 463,  
474, 476, 481, 487, 820

Menoher, Pearson 84, 488  
 Michaelis, John H. "Mike" 142, 497, 551  
 125, 131  
 Mitchell, Harry D. 553  
 Montesclaros, Melicio 476, 487  
 Moore, E. 875  
 Moore, Ned D. 147, 785, 794, 800, 832,  
 833, 838  
 Mott, Harold W. 147, 807, 820, 823  
 Muccio, John J. 41, 46, 902  
 Murch, Gordon E. 497

## (N)

Nash, Robert E. 483, 487, 488  
 Nist, Cecil W. 142, 537, 551

## (O)

O'Donnel Emmett, Jr. 907, 919  
 Odle, Fred M. 470  
 Orr, Augustus B. 485  
 Osburn, Leroy 76, 79

## (P)

Palmer, Charles D. 532, 547, 556  
 Palmer, Raymond D. 142, 537, 549  
 Parker, C.W. 880  
 Partridge, Earle E. 12, 26, 902, 914  
 Payne, Charles E. 75, 60  
 Perry, Miller O. 36, 41, 43, 44, 50, 51,  
 52, 54, 55, 60, 458, 474,  
 482, 483,  
 Pittman, R.W. 881, 882  
 Plog, L.H. 879

## (R)

Radford, Arthur W. 868

Raible, Tony J. 147  
 Ray, Lawrence A. 470  
 Rhea, Robert L. 833  
 Ridley, Robert R. 78  
 Roush, J.N. 490, 491  
 Rowland, Richard A. 502

## (S)

Scanland, F.W. 880  
 Scott, Dwain L. 36, 50, 52, 55  
 Sears, N.W. 875  
 Seegars, Boon 86  
 Shadrick, Kenneth 75,  
 Shara, George F. 825, 827  
 Sherman, Forrest P. 868, 886  
 Shouldice, D.V. 875  
 Smith, Charles B. 13, 36, 40, 42, 43, 44,  
 45, 47, 48, 49, 50, 52,  
 54, 60, 62, 63, 67, 77,  
 102, 497,  
 Smith, David H. 55, 60, 69, 82, 465, 479  
 Smith, Jack E. 497  
 Smith, Lloyd D. 485  
 Smith, Oliver P. 132  
 Southerland, Lundel M. 470  
 Sowell, J.C. 868  
 Spaulding, Malcolm C. 514  
 Spear, Paul R. 101  
 Stahelski, Anthony F. 470, 471  
 Stalin, Josep V. 10, 30  
 Starling, Herman W. 472  
 Steele, William H. 483  
 Stephens, Richard W. 36, 38, 61, 69, 84,  
 89, 93, 124, 147,  
 459, 464, 473, 474,  
 479, 492, 498, 807  
 Stith, Archie L. 85, 467  
 Stratemeyer, George E. 12, 907, 909  
 Stratton, Charles W. 458, 474  
 Struble, Arthur D. 12, 25, 868, 878, 881,



883, 884, 886  
Sweeney, D.J. 875

## (T)

Teeter, Bernard G. 546  
Thomas, Charles 36, 49  
Topper, J.R. 880  
Truman, Harry S. 10, 11, 17, 31  
Tufts, Ben L. 43  
Turner, Howard M. 13, 907, 911

## (V)

Vandenberg, Hoyt S. 20, 131, 915, 921

## (W)

Wadlington, Robert L. 69, 87, 95, 124, 458,  
459, 463, 467, 472,  
478, 494  
Wagnebreth, Wallace A. 493

Walker, Walton H. 12, 18, 19, 21, 90, 124  
130, 439, 548, 583, 706  
787, 806, 876, 884, 887  
910, 918, 924

Watkins, Robert B. 516

Weston, Logan E. 543

Weyland, ottop. 911, 912

White, Horton, V. 41, 42, 62, 131, 422,  
438, 449, 537, 707, 932  
934

Wilson, Wasley C. 785, 795, 820

Wilkins, John L. 537

Willoughby, C.A. 911, 919

Wilson, J.R. 875

Winningstad, Olaf P. 832

Winstead, Otho T. 458, 474, 478, 481, 484  
485, 489, 498

Witty, Robert 84, 585

Wolfe, K.B. 915

Woods, Kenneth Y. 512

Woodyard, E.L. 880

Woolrige, John R. 542

Wright, W.H.S. 17

## 地名索引

(ㄱ)

可金里 210  
 佳洞 474, 478, 481, 482, 484, 828  
 可樂洞 176  
 가미실재 583  
 佳士里 847  
 佳水院 499  
 加葉山 244, 932  
 加午洞 523  
 加恩里 710  
 佳壯洞 267, 270  
 加川 808, 818  
 佳花里 834  
 葛谷里 447, 448, 449  
 葛錦里 579, 582  
 葛嶺 427, 434  
 葛馬洞 503  
 葛尾峯 377, 674, 688  
 葛榜里 431  
 葛山里 375  
 갈재 767, 778  
 葛田里 672  
 葛串里 47, 48, 49  
 葛坪里 385  
 甘谷里 847  
 감토峰 807  
 甲川 482, 492, 498  
 江景 27, 732, 734, 736, 854, 855, 927,  
 943, 944, 945, 947  
 江口 27, 150, 560, 581, 585, 595, 599,  
 873  
 江東里 640  
 江陵 14, 26, 110, 204, 560, 845, 930  
 康津 773, 948, 949, 950, 952

江華島 850, 864, 865  
 開揚洞 835, 836  
 開日里 940  
 開井里 743  
 開也島 856  
 客舍里 121, 738  
 各西里 389  
 巨南 815  
 巨里峙 423, 446  
 巨文島 884, 952  
 居昌 23, 147, 641, 726, 753, 766, 771,  
 777, 785, 783, 792, 806  
 建萊峰 212, 220  
 檢詳里 465, 467, 468, 493  
 儉安里 707  
 犬灘里 417  
 見鶴里 247  
 慶州 561, 845, 846, 847, 927, 938  
 卿村 210  
 鷄鳴山 208, 225, 228  
 鷄龍山 459  
 古群山島 857  
 古金島 950, 951, 927  
 古蘭洞 661  
 고래산 584  
 高露 753, 808  
 古阜 763  
 高山 734  
 古山城 572  
 古城里 566  
 古藪里 163  
 古音洞 171  
 高隱里 143, 314, 424, 432, 433, 473  
 高下島 859, 866  
 高顯洞 937  
 高興 952

- 高興半島 767, 770, 778  
 谷城 771, 773, 778, 849  
 昆池岩里 215  
 公州 19, 41, 91, 105, 458, 463, 465, 467  
 468, 469, 471, 472, 473, 474, 476,  
 478, 855, 892, 941, 943, 944, 948,  
 780  
 孔坪里 691  
 梁川 39  
 冠山 951  
 官元里 742  
 光山 948  
 光石 945  
 光陽 775, 778, 779, 949  
 廣井里 941  
 廣亨里 91  
 光亭里 426  
 光州 23, 136, 730, 732, 741, 727, 732,  
 765, 766, 767, 768, 770, 772, 776,  
 778, 780, 783, 784, 807, 845, 856,  
 857, 858, 865, 866, 884, 887, 891,  
 899, 901  
 廣川 773  
 槐木 778  
 槐山 142, 213, 380, 264, 423, 893  
 槐亭洞 939  
 槐花山 474, 478, 480, 485  
 校洞里 741  
 校峴洞 217  
 九曲川 463, 464, 465, 483, 487  
 九基里 267  
 求禮 27, 727, 732, 770, 771, 772, 773,  
 777, 779, 781, 927  
 具陵里 710  
 九萬里 162  
 九山洞 817, 939, 940  
 九水洞 938  
 九安里 264, 266  
 九岩山 26, 845, 846, 847, 848, 849, 927,  
 938, 940  
 九龍山 847  
 九二里 806  
 求智 815  
 九旨洞 939, 940  
 舊港里 835, 836  
 國士峰 142  
 國帥峰 312  
 國社峰 708  
 群山 26, 138, 727, 729, 732, 733, 739,  
 743, 744, 765, 783, 845, 850, 853,  
 854, 855, 856, 858, 861, 865, 866,  
 867, 884, 899, 901, 927, 943, 944  
 軍威 141, 807  
 軍浦 39  
 屈峙 270  
 錦江 70, 19, 423, 497, 729, 855, 858,  
 874, 884  
 金谷洞 934  
 金谷里 177, 447  
 金光里 641  
 金璫島 951  
 金陵洞 208, 212  
 錦山 154, 806  
 金良場 40, 110  
 金龍里 707  
 金井 931  
 錦川 739  
 錦湖洞 585, 587  
 勤彬里 806, 813  
 杞溪 23, 572, 939  
 杞溪里 847  
 基洞 216  
 箕城 935  
 箕城里 579  
 基陽里 579  
 基村里 173  
 岐灘里 211  
 吉谷里 579  
 吉洞 264  
 吉善里 265  
 吉安川 939  
 吉州 25  
 金堤 732, 744, 747, 765, 856  
 金泉 141, 423, 434, 433, 537, 553, 665

884, 886  
 金 浦 38, 779, 850, 891, 895, 900  
 金浦半島 727  
 金梅里 574

## (L)

羅城里 459, 477  
 羅 州 759, 948, 770  
 羅 津 922  
 羅 浦 736, 742  
 南 原 26, 136, 732, 771, 857, 884, 861,  
 927, 947  
 南面島 952  
 洛東里 721  
 洛 西 438  
 洛井里 721  
 南 江 24  
 南大川 562, 565, 578, 602, 935  
 南 山 223  
 南漢江 145, 206, 230  
 南湖洞 584  
 南湖里 399, 665  
 內 洞 258, 256  
 內 里 216  
 乃 城 360, 931  
 乃城川 377, 640  
 內苗洞 359  
 內坪里 833  
 內 浦 459  
 內 池 768  
 盧洞里 171  
 露梁津 38, 829, 895  
 老音里 564  
 蘆花島 950, 951  
 孫 田 927  
 論 山 462, 471, 496, 500, 729, 738, 855,  
 891, 927, 945  
 龍岩里 665, 688, 708  
 雷墟山 671

## (C)

茶 洞 904  
 多 仁 934  
 丹 城 795  
 丹 陽 26, 112, 160, 184, 216, 380, 727,  
 891, 927, 930  
 丹月洞 222  
 丹 村 650  
 達川江 206, 228  
 潭 陽 759, 768, 771, 778  
 唐 津 737, 943  
 唐 村 264  
 大關嶺 158, 560, 930  
 大交嶺山 221  
 大 邱 26, 39, 122, 136, 729, 766, 782,  
 817, 891, 914, 924, 952, 999  
 大德里 265  
 大同江 879  
 大林山 222  
 臺 灣 880  
 大召院 215, 239, 255, 261  
 大野里 814  
 大 田 14, 21, 23, 41, 44, 70, 77, 83, 99  
 140, 251, 254, 270, 472, 473, 474,  
 478, 479, 486, 487, 491, 492, 497,  
 547, 665, 727, 729, 741, 779, 781,  
 806, 853, 854, 862, 874, 884, 889,  
 891, 899, 922, 927, 941  
 大田里 210  
 大 川 739, 852, 854, 864, 927, 941  
 大灘洞 594  
 大 平 944  
 大平里 92, 143, 458, 474, 482, 485, 488,  
 498, 732  
 大鶴里 465  
 大峴里 688  
 大 和 204  
 大弘里 121  
 德彬里 808  
 德岩里 806, 818

德裕山 136, 777, 787  
 德泉里 161, 168  
 道溪村 644  
 道潭里 161  
 道東洞 815  
 兜率峯 196  
 道存 259, 269  
 道岩灣 773  
 桃園洞 370  
 途有洞 847  
 도정리 577  
 道坪洞 938, 939, 940  
 東京 864  
 東觀里 432, 434, 439, 443  
 東大山 849  
 同美里 15, 215, 238, 243, 240, 272  
 東良面 210  
 東幕里 709, 710, 712  
 東山里 946  
 東子洞 905  
 銅雀洞 38  
 東村洞 334, 644  
 東村里 933  
 斗滿里 474, 482, 483, 484, 486, 488  
 斗應山 228  
 豆田里 357

## (口)

馬九平里 478, 492, 496  
 馬達嶺 473, 479, 532  
 馬山 149, 555, 562, 776, 768, 779, 780,  
 781, 782, 863, 947, 952, 806,  
 麻城 418  
 馬松里 261, 264  
 馬水里 247  
 馬岩里 459, 487, 488  
 馬院里 398  
 磨造里 178  
 마지락개 220  
 馬良浦 950  
 麻浦 38

幕谷里 699, 707  
 萬頃江 749  
 萬年橋 493  
 滿月山 563  
 만죽거리 39  
 望城 736  
 望城里 946  
 望月峰 583  
 望日山 808, 812  
 望晉山 839  
 梅谷里 38  
 梅琴里 543  
 梅芳山 474, 492  
 梅浦里 166, 216  
 梅花里 579, 582  
 麥浦 459  
 麥峴 645  
 明礪山 807, 812  
 毛陶院 237  
 牧溪 210  
 목골재 583  
 木德島 852  
 木伐里 208, 217, 224, 229  
 木浦 26, 772, 786, 807, 845, 852, 853,  
 856, 857, 858, 859, 861, 865, 866,  
 867, 884, 887, 949  
 牧杏橋 208  
 牧杏洞 933  
 無極里 15, 216, 235, 242, 932  
 武陵洞 656  
 武陵里 672  
 霧安 948, 950  
 務安 951  
 茅田里 678  
 茂朱 23, 539, 779, 786  
 武村里 838  
 舞鶴山 741  
 墨洞 371  
 墨港 845, 872  
 文江里 223, 229,  
 文居嶺 940  
 聞慶 14, 22, 225, 380, 423, 462, 539,

## 1036 附 錄

	665, 707, 708, 729, 854, 891, 897, 904, 927, 934
文東里	939
文福山	895
汶 山	895
文山里	212, 219
文繡峰	380
文案山	283
文岩里	680
文 義	143, 424, 462, 473, 584
文化里	223
美谷里	89
彌勒洞	39
彌阿里	36, 136
徽 陽	85
米 院	142, 264, 268, 270, 382, 423, 445, 665, 707
美湖川	142, 304
密 陽	817

## (H)

朴達嶺	231
鉢山里	474, 476, 481, 483, 485
發安場	118
方魚津	562
坊築里	575
白谷川	281
白翎島	864
白巖山	563, 602
白也里	256
百祥寺	768
白玉山	935
白雲山	777, 778, 787, 949, 950
栢子田	544
白華山	380
백 골	54
버례沙場	218
버님바위골	584
筏 橋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81, 948
法聖浦	858, 865

柄 谷	936
炳谷洞	559, 602
屏岩里	235, 241, 255
寶 城	807, 861, 927, 948, 950
保 寧	737, 943
報 恩	21, 142, 270, 422, 445, 539, 595, 646, 730,
甫 川	256, 259, 381
普賢山	26, 240, 242, 257, 561, 845, 847, 927, 934, 936
鳳江里	447
鳳谷里	465, 467, 468, 471, 472, 493
奉斗山	949
鳳頭山	778
鳳方洞	209, 223
鳳岩里	483, 485, 767, 770, 778
鳳鳴山	409
奉日川	136
鳳中里	714, 720
奉 化	938
烽火山	142, 283, 298
鳳凰山	425, 432, 444, 448, 542
府 南	939
富 嶺	85
釜 峰	386
釜 山	18, 26, 40, 41, 44, 71, 138, 776, 778, 779, 780, 782, 853, 856, 858 862, 865, 866, 871, 872, 873, 874 878, 884, 888, 948, 950
浮 石	933
扶 餘	464, 465, 468, 469, 471, 741, 942
富雲嶺	699, 707
富 平	850
富興里	142, 418, 422
北上里	184
北下里	184
盆地里	391
佛甲山	772
佛井里	669
飛鳳山	937, 938
琵琶山	815
飛 龍	488

庇仁 737, 943  
飛鶴山 847

## (人)

社谷 672  
沙岩里 260  
泗川 901, 902  
沙村洞 940  
沙村里 838  
갓갓곶 594  
山法洞 331  
山城里 942  
山水洞 670  
山月里 743  
山際里 802, 809  
山淸 778  
山浦里 575  
三角地 36  
三溪洞 585, 594  
三亘里 651  
三橋里 464, 469, 470, 471, 472, 478, 493, 498  
三浪津 24, 555  
參禮 744, 745, 946  
三龍里 82, 89  
三丁里 525  
三陟 26, 602, 845, 846, 868, 871, 872, 927, 930, 933  
三千浦 775, 884  
三浦里 430  
三豐里 420  
三和洞 583, 595  
上光教里 39  
上槐里 666  
上錦湖 587  
上遠里 42, 425, 446  
上唐里 259, 262  
上東 927, 928, 929  
上里洞 646  
上里 498  
上所里 507

上松洞 940  
上龍里 546  
上宗 208  
尙州 22, 380, 422, 424, 426, 439, 447, 537, 554, 702, 707, 927, 932, 934  
上草里 387  
上村里 447  
上津里 162  
上采洞 661  
雙樹里 311  
雙耳里 270  
生川洞 343  
生峴洞 331  
西南府 884  
西碧 929, 931  
西水庫 895  
端山 737, 943  
西院里 934  
서울 20, 831, 853, 884, 918, 927  
西井里 40, 42, 44, 47, 70, 75  
舒川 737, 741, 845, 855, 864, 867, 927, 943  
西浦里 741  
石寶里 937  
石佛 742  
石三里 474  
石觀 931  
石葬谷 386  
仙古里 187  
仙味里 579, 582  
洗星洞 225, 228  
善伊 852  
雲云洞 229  
城內里 737  
聖堂里 741  
聖德里 474  
聖主山 405  
城底洞 572  
城底里 674  
城平川 496  
成歎 15, 42, 75, 85, 251, 891, 897  
小白山脈 20, 423, 446, 727, 729

素 砂 596  
 所安島 950  
 小岩里 714, 717  
 所耶橋 414  
 所餘里 240, 256  
 小井里 892, 904, 941  
 小鳥嶺 388  
 小香山 225, 228  
 俗離山 142  
 松 江 938, 939  
 松江里 210  
 松 蘿 847  
 松德里 388  
 松生洞 936  
 松子山 410  
 松亭里 267  
 松 川 550  
 松 峴 929  
 水山里 186  
 守山里 564, 574  
 水安堡 114, 152, 215, 224, 229, 270, 380,  
 640, 665, 933, 934  
 水 登 26, 891, 904, 915  
 水曳里 683  
 水 原 19, 20, 27, 38, 39, 40, 42, 44,  
 204, 781, 891, 900  
 水院橋 493  
 水晶峯 700  
 水清里 50, 52  
 水村里 91, 464  
 水回里 222, 229  
 宿星山 808, 813  
 龜 川 25  
 淳 昌 759, 768, 771, 773  
 順 天 26, 727, 728, 732,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7, 778, 781,  
 782, 807, 845, 858, 861, 862, 863,  
 866, 886, 887, 948  
 順 興 933  
 昇州郡 775  
 始 興 38, 781, 891  
 新 葛 40

新溪洞 938  
 新谷嶺 940  
 新官里 459, 467  
 新基洞 934  
 新基里 264, 267, 270, 445, 689  
 新機里 687  
 新沙里 38  
 新成里 742, 743  
 新 寧 893, 903  
 新院里 821  
 新月洞 641  
 新月里 774  
 神 林 158, 235  
 新林里 115  
 新智島 951, 952  
 沂 村 932, 936  
 新藤津 41, 459, 474, 942, 944  
 新泰仁 765, 766  
 新峴里 413, 675, 708  
 新興里 749  
 瑟吟山 162  
 十二里 815

(○)

牙山灣 850  
 雅 川 709, 710  
 雅川里 688  
 安 康 28, 778, 819, 847  
 安溪面 702  
 안고실 584  
 安 東 22, 143, 158, 438, 445, 450, 539  
 707, 893, 904  
 安林洞 216  
 案山里 474, 486, 487, 488, 492  
 安 城 13, 40, 42, 43, 44, 70, 82, 118,  
 205, 235, 380  
 安心洞 933  
 安心里 365  
 安 養 28, 204, 891  
 安 義 697  
 安 義 23, 766, 771, 777, 785, 806



鴨綠里 949  
 兩水里 39, 919  
 襄陽 869  
 陽井里 572  
 陽地村 373  
 嶺南 777, 783  
 盈德 14, 21, 141, 450, 560, 581, 846,  
 854, 872, 893, 927, 936  
 永德里 210  
 永同 142, 493, 501, 539, 550, 665, 727,  
 893, 942  
 永登浦 38, 39, 894  
 靈山 408  
 靈岩 772, 948, 949, 950  
 英陽 560, 602, 927, 936, 938  
 寧越 109, 179, 560, 927, 930, 936  
 迎日灣 874, 878  
 榮州 23, 27, 136, 200, 330, 423, 639  
 永川 158, 582, 778, 847, 894, 927, 938  
 寧海 564, 583, 600, 846, 871, 936  
 禮山 84, 93, 104, 727, 854, 941  
 禮安 642  
 曳舟里 713, 714, 720  
 醴泉 22, 145, 415, 342, 540, 640, 893,  
 933  
 魚龍山 145, 417, 665  
 於衣谷里 198  
 於青島 856, 861  
 如土 294  
 礪山 737, 741, 744, 471, 943  
 麗水 26, 136, 728, 767, 774, 807, 845,  
 852, 927, 951, 948  
 汝矣島 38  
 驪州 205, 209, 419, 775  
 驛三洞 903  
 連谷洞 640  
 連谷川 563  
 蓮潭 252  
 連山 500  
 蓮水洞 206  
 蓮灘里 284  
 延豊 139, 230, 382, 665

蓮花峰 933  
 穎江 22, 380, 415, 540, 665  
 靈光 950, 772  
 五街里 386  
 梧溪洞 353  
 烏山 15, 36, 40, 69, 461, 891, 896  
 烏山洞 644  
 梧山里 579  
 梧石里 217  
 烏舌洞 815  
 五十川 584, 586, 594  
 五龍洞 265, 267  
 梧元里 640  
 烏井山 145, 666, 707  
 梧倉里 277  
 梧泉里 699, 707  
 玉溪 846  
 玉果 778  
 玉山洞 739  
 玉女峰 405, 665  
 沃川 141, 479, 507, 727, 944  
 玉泉洞 641  
 溫陽 642, 892, 904, 935, 941  
 溫洋里 562, 602, 935  
 溫井 935  
 煙岩洞 335  
 瓮津 38, 864  
 瓮泉 639  
 莞島 927, 950, 952  
 完五洞 214  
 完州 744  
 旺陵里 419, 708, 710  
 王避川 562, 573, 578  
 倭館 24, 547, 555, 721, 884  
 外鳳洞 578  
 外佛井 684  
 外於里 707  
 外烟島 856  
 喪光里 389  
 欲知島 139, 770, 778, 782  
 龍谷 210, 719  
 龍橋里 212

- |     |                                      |       |  |
|-----|--------------------------------------|-------|--|
| 龍基  | 847                                  | 原州    | 209, 235, 928, 930                                 |
| 容基洞 | 815                                  | 月谷    | 815  |
| 龍臺  | 219                                  | 月梅洞   | 939, 940   |
| 龍岱里 | 772                                  | 月尾島   | 845, 850, 852                                      |
| 龍頭洞 | 213                                  | 月山里   | 775, 776   |
| 龍頭里 | 772, 773, 781                        | 月岩里   | 39   |
| 龍山洞 | 370                                  | 月外洞   | 936  |
| 龍山里 | 144, 261, 240, 256                   | 月田洞   | 937  |
| 龍秀川 | 480, 482, 483, 484, 485              | 月田里   | 937  |
| 龍安  | 734, 744, 945, 946                   | 月田三巨里 | 616  |
| 龍岸洞 | 933                                  | 月出山   | 772  |
| 龍洲里 | 408                                  | 月浦    | 595  |
| 龍仁  | 39, 73, 110                          | 月峴山   | 808, 812   |
| 龍川里 | 223, 228                             | 幽谷    | 21, 386, 418, 664, 668, 707                        |
| 龍嶽里 | 255                                  | 幽谷里   | 145  |
| 龍灘津 | 211, 219                             | 雜鳩    | 104  |
| 龍坪里 | 247                                  | 儒達山   | 861  |
| 龍浦里 | 210                                  | 柳等川   | 498  |
| 右谷洞 | 585, 592                             | 儒城    | 459, 474, 476, 482, 485, 487, 488, 491, 499        |
| 于基里 | 720                                  | 遊松里   | 219  |
| 牛山洞 | 815                                  | 柳田洞   | 340, 356   |
| 愚山里 | 934                                  | 有治    | 948  |
| 右水營 | 951                                  | 雜鶴    | 471  |
| 우실재 | 773                                  | 油峴    | 240, 256, 381                                      |
| 牛池里 | 696                                  | 은개    | 55, 49   |
| 雲谷  | 942                                  | 恩山    | 727  |
| 雲峰  | 131, 147, 733, 771, 791, 947         | 恩城    | 145, 380, 417, 664                                 |
| 雲山里 | 531, 661                             | 恩城川   | 673  |
| 雲住山 | 939, 940                             | 銀尺山   | 720  |
| 운터골 | 584                                  | 陰城    | 15, 19, 26, 158, 205, 234, 423, 582, 727, 892, 932 |
| 蔚島  | 864                                  | 陰陽里   | 807  |
| 蔚山  | 383                                  | 邑南里   | 564, 570   |
| 蔚山灣 | 562                                  | 鷹峰山   | 562  |
| 蔚珍  | 14, 26, 462, 600, 727, 729, 845, 930 | 義城    | 23, 439, 807, 894, 903, 936                        |
| 熊津  | 465, 467, 494                        | 義城郡   | 702  |
| 熊浦  | 734, 738, 742                        | 議政府   | 884  |
| 院德里 | 285                                  | 裡里    | 138, 745, 854, 861, 927, 943, 944, 946, 947        |
| 院洞  | 687                                  | 二萬峰   | 398  |
| 院北里 | 406                                  | 二松川洞  | 645  |
| 元山  | 26, 845, 855, 871, 880, 918          |       |  |
| 院前  | 937                                  |       |  |
| 院田  | 802, 830                             |       |  |

梨田洞 936, 612  
 利仁里 464, 472, 473  
 利川 15, 39, 44, 116, 205, 235, 729, 895.  
 梨花嶺 19, 22, 139, 380, 927, 934  
 益山 744  
 仁邱里 563  
 麟蹄 930, 27  
 印支洞 940  
 仁川 39, 727, 850, 864, 874  
 逸園洞 365  
 日月山 27, 136, 560, 582  
 任實 732, 771, 776, 779, 781, 861  
 臨院津 179, 560, 930, 935  
 臨津江 206, 380  
 立岩洞 847  
 笠浦 727

## (六)

芍藥山 707, 713  
 鵝泉里 49, 674  
 長溪里 777  
 將軍峯 341  
 長子洞 432, 436  
 長項 84, 138, 727, 730, 732, 737, 739,  
 743, 783, 854, 855, 856, 861, 864,  
 865, 866, 867, 941, 944  
 漳峴里 178  
 楊基里 744  
 長峙 943  
 長沙 601  
 長沙洞 584  
 長城 732, 759, 765, 766, 767, 768, 778,  
 781, 783  
 長省 930, 931, 936  
 長成峰 380  
 壯岩里 316, 665, 715  
 長水 459  
 長林里 174  
 莊佐洞 840  
 長在里 474, 480, 839  
 長湖院 44, 206, 234, 918, 932

長興 772, 773, 927, 948, 949, 950, 951,  
 952  
 楮石里 471  
 豬音里 669, 688  
 赤東里 375, 639  
 嶺石里 388, 418  
 赤城里 418  
 嶺抱山 223, 229, 386  
 全義 19, 26, 69, 89, 95, 459, 479  
 全州 14, 39, 136, 247, 383, 462, 471,  
 727, 728, 730, 729, 766, 771, 776,  
 777, 778, 779, 781, 782, 854, 857,  
 858, 884, 927, 944, 941,  
 旌善 928, 930, 933, 939  
 亭子洞 939  
 亭子里 847  
 正東津里 560  
 正明里 562  
 定山 942  
 丁用里 267  
 井邑 27, 138, 729, 732, 765, 782, 856,  
 858, 927, 750  
 正林洞 493, 505  
 店村 22, 114, 145, 380, 664, 688, 707,  
 堤川 44, 109, 158, 204, 235, 379, 540,  
 582, 893, 918, 927, 928, 930,  
 帝城 742  
 濟州 26, 729, 732, 901  
 早洞 217  
 鳥峰 665, 686, 707, 713, 715  
 鳥嶺 19, 139, 380, 927, 934  
 鳥嶺山 380  
 早遷津 218  
 助藥島 951, 952  
 鳥雲山 641  
 助憐里 641  
 助村洞 744  
 鳥致院 19, 69, 84, 92, 141, 259, 458, 459  
 463, 474, 584, 729, 730, 893, 896,  
 904, 941  
 足芝谷 258  
 宗民洞 217

主屹山 382  
 酒幕洞 709, 710  
 注文津 563, 846, 868, 930, 945  
 周榛里 398  
 舟川里 273  
 竹溪川 366  
 竹嶺 19, 139, 195, 331, 380, 929, 933  
 竹美 40, 44, 47  
 竹邊 560, 573  
 竹山 15, 44, 216, 123, 235  
 竹長 847  
 竹田洞 646  
 竹田里 942, 943  
 中達里 425, 426  
 中所里 714  
 中草里 387  
 中村 250  
 地境里 270  
 池谷里 405  
 芝制里 71  
 知禮 552  
 智異山 136, 561, 777, 778, 887  
 校利山 649  
 支坪里 709, 712  
 會坪 144, 207, 239, 251, 252, 383  
 飯峰 384  
 辰橋 825  
 嶺東 32, 952  
 嶺南橋 63, 414  
 眞寶 503, 937, 936  
 眞本里 216  
 珍窩里 158  
 珍島 927, 948, 951  
 晋州 23, 147, 733, 755, 769, 770, 773,  
 777, 778, 779, 780, 807, 820, 837,  
 838, 864, 902, 947,  
 嶺安 755  
 嶺川 16, 19, 21, 92, 121, 143, 205, 215,  
 274, 238, 381, 423, 729, 730, 892,  
 932,  
 嶺海 26, 846, 852, 853, 863, 865, 866,  
 891, 899, 901,

## (元)

車嶺山脈 19, 235  
 참나무정 211  
 倉洞 36, 228  
 倉洞里 208, 814  
 蒼水里 602  
 蒼龍寺 223  
 昌津里 366  
 天安 19, 26, 82, 727, 729, 730, 734,  
 854, 892, 896, 901, 941, 943, 944  
 青涼山 930  
 清道 847  
 青山島 773, 927, 950, 951  
 青松 27, 560, 606, 927, 930, 934, 936,  
 937, 938, 939,  
 青陽 27, 93, 370, 727, 730, 737, 422,  
 854, 864, 927, 930, 942  
 清州 21, 28, 39, 92, 126, 142, 274, 423,  
 424, 729, 433, 462, 473, 584, 893,  
 928  
 清津 871  
 清風 162, 187  
 清湖里 48, 49  
 秋風嶺 136, 380, 947  
 春陽 846, 927, 928, 929, 930, 931  
 春川 39, 205, 224, 235, 110, 391, 927,  
 930, 932  
 忠州 14, 26, 109, 204, 218, 235, 331,  
 379, 727, 891, 897, 904, 927, 928,  
 932, 933, 934  
 鷲峯山 349  
 치음동 574  
 漆琴洞 213, 218  
 七峰山 683  
 七槐里 71  
 七寶山 936

## (乙)

彈琴台 214, 220, 232, 933

炭 嶺 41, 47  
 太古山 210  
 太白山 136, 560  
 太夫洞 586, 594, 600  
 泰 仁 755  
 吐日里 567, 574  
 土坪洞 936  
 通高山 562  
 通伏川 80

## (五)

板 橋 38  
 八靈山 388  
 八尾島 850  
 平 康 26, 845, 876, 881, 882  
 平居洞 833  
 平 壤 26, 845, 878, 879, 918, 919, 922  
 坪溫里 437, 443, 445, 446, 541  
 平 恩 933  
 平田峙 405  
 平地里 430  
 平 昌 27, 204, 560, 930, 939, 940  
 平川里 386, 403  
 평 叫 13, 26, 38, 39, 40, 42, 43, 44, 70,  
 76, 95, 109, 121, 135, 236, 251, 459,  
 460, 500, 727, 738, 779, 781, 782,  
 889, 891, 896, 914, 935  
 平 海 135, 560, 579, 602, 935, 936  
 甫吉島 950  
 甫 川 932  
 浦 項 19, 26, 32, 84, 539, 561, 582, 845,  
 846, 847, 848, 871, 873, 874, 875,  
 880, 881, 891, 916, 927  
 疊 基 113, 136, 160, 330, 331, 376, 418,  
 423, 540, 640, 931, 933  
 疊德川 39, 40, 109, 144, 252  
 風 島 852  
 疊 山 649  
 叫 岫嶺 595

## (六)

下店里 259, 262, 267  
 河 東 146, 720, 733, 769, 770, 772, 773,  
 774, 777, 778, 779, 781, 807, 820,  
 864, 887, 927  
 下 沼 212  
 下院里 552  
 下者洞 588  
 下屹里 714  
 鶴谷里 602, 935  
 鶴 口 772, 774  
 漢 江 36, 73, 154, 781, 850  
 韓 山 465  
 寒泉里 208, 217, 225  
 咸 安 778, 838  
 咸 陽 147, 380, 727, 733, 771, 777, 780  
 785, 791, 861, 947  
 咸 悅 730, 736, 737  
 咸 昌 22, 139, 192, 415, 422, 426, 450,  
 540, 666, 688, 707, 709, 934  
 咸 興 845, 881, 882, 919  
 合江里 480  
 合德里 847  
 海 南 772, 949  
 海 州 26, 845, 878  
 杏亭里 210, 388, 459, 462, 810  
 顯洞里 930, 931  
 玄川里 162  
 玄 鳳 805, 808, 818  
 惠國寺 386  
 陝 川 24, 147, 801, 806, 815  
 兄 弟 582  
 湖 南 770, 776, 777, 778, 779, 783, 845  
 虎岩里 221  
 鴻 山 942  
 洪 城 84, 727, 737, 864, 942  
 洪 川 14, 27, 205, 215, 930, 932  
 花鬪場 602, 773  
 化 東 934  
 化寧場 22, 142, 271, 418, 422, 424, 429,  
 447, 807, 818, 927, 934  
 化 北 418  
 花山里 792, 999

## 1044 附 錄

化 西	418	黃 登	22, 732, 734, 737, 742, 744, 745
華水洞	585, 594		780, 943
和 順	759, 766, 768, 769, 770, 771, 886, 948, 950, 952	黃海島	853
化川洞	936	皇 華	946
貨泉里	386	會 寧	235
活人山	583, 594	橫 城	206, 239
黃 潤	21, 23, 142, 539, 555, 565, 665, 730	後川里	815, 819
黃 江	216, 807	厚浦里	602
黃溪山	391	黑山島	845, 853, 887
		黑石洞	38
		興 南	26, 876

## 審議人士芳名錄

部 署	職 責	階 級	姓 名	署 名
陸 軍	諮 問 委 員	前 參謀總長 陸軍大將	白 善 燁	백선열
海 軍	"	前 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장지수
空 軍	"	前國防部長官 前 參謀總長 空軍中將	金 貞 烈	김정렬
慶熙大學校	"	教 授 文學博士	金 成 植	김성식
서울大學校	"	大學院長 文學博士	韓 祐 勛	한우근
國 防 部	企 劃 局 長	陸軍少將	成 宗 鎬	성종호
合 參	第 三 局 長	陸軍少將	李 景 律	이경률
陸 本	軍史研究室長	陸軍准將	金 利 均	김리균
海 本	作戰參謀副長	海軍少將	鄭 元 民	정원민
空 本	作戰參謀副長	空軍少將	千 永 星	천영성

### 執筆陣

主 幹		李 昌 錄
編纂委員		甘 成 海
〃		金 源 寬(資料室長兼務)
〃		李 鍾 富
〃		姜 聲 湖
〃		朴 景 錫
〃		安 龍 鉉
〃		張 洪 泰
專門委員	陸軍中領	金 柏 植
〃	海軍大尉	高 永 喆
〃	空軍大尉	鄭 浩 永
編修委員		全 周 錫(資料擔當)
〃		安 英 五(製圖淨書)
委員會幹事	陸軍中領	金 興 奎



韓國戰爭史〈第2卷(改訂版)〉

---

1979年 5月 30日 印刷

1979年 6月 1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 編纂

發 行 國 防 部

印 刷 信 一 印 刷 社

---

(不許 無斷 複製)